

韓國戰爭史

第 9 卷

對陣末期

(1953. 1. 1~1953. 7.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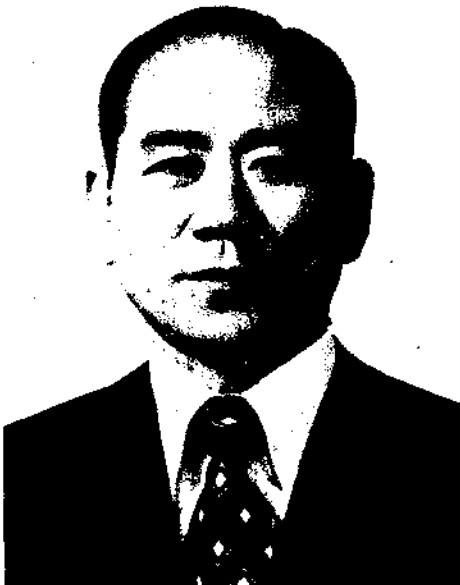
國 防 部



大統領 朴 正 熙



國防部長官 徐 鐘 喆



國防部次官 李 敏 雨



合同參謀會議 議長 陸軍大將 盧 載 鉉

各軍參謀總長



陸軍大將 李世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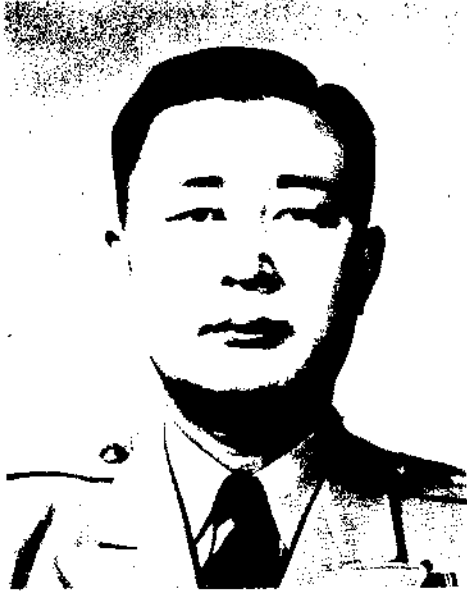


海軍大將 黃汀淵



空軍大將 周永福

當時의 各軍總參謀長 및
海兵隊 司令官



陸軍大將 白善煇



海軍少將 朴沃圭



空軍中將 崔用德



海兵少將 申鉉俊

當時의 美第8軍, 第7艦隊 및
第5空軍司令官



美 陸軍大將 Maxwell D. Taylor



美 海軍中將 Joseph J. Clark



美 空軍中將 Samuel E. Anderson

序 文

오늘날 世界各國은 平和를 指向하는 共同努力을 表面化하면서도 그 內實에서는 國力の 伸展과 軍事力の 擴充에 熾烈하게 競合하는 微妙한 樣相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우기 核時代의 共存模索과 現代戰의 物量對決도 局地激突만은 排除치 못한 昨今の 事例가 制限戰爭의 可能性을 증대시켜 好戰集團인 北傀는 南北對話를 外面한채로 戰爭挑發에만 狂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流動的인 世界情勢의 推移에 비추어 우리는 어떠한 侵略戰爭도 抑制할 수 있고 또한 激變하는 國際社會의 趨勢에 能動的으로 對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基礎로 하여 장차 國土統一을 이룩할 수 있는 礎石을 닦아야 할 것인바, 그 捷徑은 오직 國力을 바탕으로 한 自主國防체제의 完備에 있다고 確信하는 바입니다.

일찌기 우리 民族은 周邊情勢의 激動속에서도 슬기를 모아 國難을 克服하고 民族의 正統性을 굳건히 이어왔거니와, 이러한 歷史的인 敎訓은 오늘날 우리들의 使命을 啓示하는 바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우리 世代가 겪은 韓國戰爭을 돌이켜보며 그 形成與件과 繼起性을 究明하는 것은 큰 意義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趣旨에서 韓國戰爭史의 編纂事業을 推進하여 滿三年에 걸친 戰爭全過程을 차례로 엮은 끝에 今年에는 一九五三年度의 終局을 담은 第9卷을 펴 내게 되었습니다.

民族의 念願과는 달리 終戰아닌 停戰으로 매듭지어진 이 局面은 參戰 強大國들간의 政戰兩略이 엮힌 協商謀策이 곧 戰線으로 이어져 休戰을 겨냥한 限定된 攻防으로 一貫하였으며, 또한 四半世紀가 지난 오늘도 이 戰線에서 自由守護의 橋頭堡를 지키고 있는데 一隅에서 幻想的인 安保觀을 들어 兵力減縮을 容喙하고 있음을 볼때에 自力培養의 緊切함을 일깨워 주는 一局面이기도 한 것입니다.

數十萬 同胞의 血痕이 서린 이 證驗을 헛되이 스칠수가 없으므로 여기에 바로 우리의 姿勢를 가다듬어야 할 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編纂事業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十個星期이 흘러 今年으로 一旦 第一線編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해를 거듭할수록 사라져 가는 資料를 모아 보다 次元높은 水準으로 修撰키 위하여 第一, 第二卷의 改訂版과 UN軍 參戰史의 國文版을 마련토록 이미 指示한 바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後方戰史와 戰例集 등을 계속 刊行하여 더욱 補完할 方針인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冊이 널리 活用되어 總力安保체제를 推進하고 民族의 隆盛한 앞날을 期約하는데 一助가 되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그동안 本史를 編纂하는데 힘쓴 關係官의 勞苦를 致賀함과 아울러 殉國將兵의 冥福을 삼가 祈願하는 바입니다.

1976년 12월 20일

國防部長官 徐 鐘 喆

發 刊 辭

韓國戰爭이 休戰으로 끝난지 스물세해가 되는 今年에 그 休戰까지의 過程을 取扱한 本戰史 제9권을 여기 내어 놓게 되었습니다.

本卷은, 1953년 1월 1일부터 7월 27일 休戰이 되기까지의 對陣末期에 該當하는, 前年에 이어 東海岸의 南江 河口에서 西海岸의 臨津江口에 이르는 萬壑千峰이 連綴한 戰線에서의 마지막 血戰의 真相을 收錄하였으니, 이는 이른바 「終局의 章」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한 卷으로써 浮沈이 無常하였던 3년의 戰爭에 있어서 그 作戰編의 大要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本戰爭의 終局을 맞이하여, 이를 果然 어떻게 評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먼저 本卷의 上梓에 즈음한 所懷의 一端으로 삼고자 합니다.

韓國戰爭, 이는 분명 世界史에서는 自由民이 最初로 共產主義의 武力挑發을 坐視만하지 않는다는 斷乎한 蹶起를 誇示한 快舉로서 記錄될 것이며, 우리民族史에서는 舉族의인 滅共決意와 民族中興의 기를 올 다진 鬪爭으로서 길이 銘肝될 것입니다.

그러나, 國際政治 情勢의 推移와 時間의 흐름에 따라 自由民의 그 같은 共同步調는 날로 變形되거나 褪色되어 가고있는데 反하여, 우리의 反共意志는 더욱 鞏固하여지고 있는 對照的인 현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戰爭期間中에서 確認된 우리의 굳은 團結力이 곧 오늘날 繁榮의 터전을 마련케 한 것이라, 이로써 그동안 兵火에 잃은 그 모든 것을 補償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할 것인바, 決코 不安만 하지는 않은 우리의 將來를 여기서부터 期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冷徹히 透視컨대, 그간 여덟 卷의 戰史를 펴내면서 이 戰爭의 흐름을 綿密히 觀察한 바 있습니다만, 한 마디로 이 戰爭 그 自體는 실로 駭怪한 것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大抵, 戰爭을 遂行하는데 있어서 그 目的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는 斷然코 勝利를 爭取하는 것에 있다고 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여기에서의 戰鬪行爲는 그 같은 常軌에서 벗어나 勝利의 月桂冠보다는 休戰을 成立시키려는 「體面」을 더 重視하였던 所以에서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戰爭이 勃發한 最初 1년은 彼我 雙方이 勝負 意志를 貫徹코자 하였지만, 그 뒤의 2년 동안은 서로가 休戰을 모색키 위하여 2군치를 본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當事者인 우리 自身은 始終 休戰을 反對하는 立場을 堅持하였던 것이나, 이 戰

쑤을 主導한 UN軍側의 政治的인 態勢과 敵側의 軍事的인 策略이 뒤엎혀 서로 밀고 밀리는 錯雜한 局面 끝에 마침내는 우리 國民의 뜻과는 달리 一方의인 休戰으로 終末을 맺게 된것이니, 이렇게 된 까닭이 어디에 있으며 또 그 緣由가 무엇인지를 糾明하려고 애써 보았읍니다만, 卷을 펴낼 때마다 매양 느끼는 바로, 零星한 資料와 制約된 與件으로 말미암아 杜撰을 免할 길이 없다는 아쉬움이 뒤따릅니다.

어쨌든 本卷은 休戰調印을 앞두고 彼我間에 한치의 땅을 놓고 激突하는 戰況을 다룬 것으로서, 이 戰爭의 慘禍를 體驗치 못한 後進들에 이의 實相을 일깨워 주는 敎訓的인 側面과 더우기 戰鬥樣相이 洞窟化된 對陣戰이었다는 點에서 四半世紀가 지난 오늘날에도 戰例的인 次元에서 지니는 바 意義가 클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눈을 돌려, 前卷의 刊行辭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上司의 뜻을 받들어, 來年에 는 既刊된 제1, 제2권의 改訂作業에 着手하여 體裁의 劃一과 誤謬의 是正 및 內容의 補完을 期함으로써 開戰初期의 狀況을 보다 더 昭詳히 밝히고자 하거니와 이 期間은 前後方이 모두 激動하였던 탓으로 그에 대한 記錄으로 남겨진 것이 없는 까닭에 全幅的으로 參戰者의 證言에 期待할 뿐인데, 그런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參戰 諸位의 參與가 要望된다고 하겠읍니다.

누구도 아닌 우리 世代가 이 戰爭史를 集大成하여야 한다는 責任을 함께 느끼시고, 參戰 諸位의 積極的인 協助를 바라면서 發刊辭에 代합니다.

1976년 12월 20일

戰史編纂委員會

委員長 李 炯 錫

凡 例

1. 本卷의 編纂上에 기본이 되는 몇가지 방침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卷은 分量本位로 구분하고, 篇은 內容本位로 作戰期를 一括한다.
 - 나. 章은 作戰地域으로 구분하되, 既刊된 제8권에 이어 銜을 통한 일련번호를 넣는다.
 - 다. 節 以下는 戰鬪本位로 서술하되, 「공문서 분항표기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구별하여 표기한다.
 - 節——1. 2. 3. 4. 5.
 - 項——가. 나. 다. 라. 마.
 - 目——(1) (2) (3) (4) (5)
 - 款——(가) (나) (다) (라) (마)
2. 같은 卷 속에 두개 이상의 篇이 있을 때에는 卷頭에 「總說」을 넣되, 다만 한 篇만일 때는 이를 생략하며 篇과 첫 章 사이에는 「概說」을, 章과 節 사이에는 「要旨」을 넣는다.
3. 概說에서 취급한 사항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 가. 期間 中 敵側의 政治, 經濟, 社會, 軍事動向에 관한 大要.
 - 나. UN軍側의 軍事動向의 大要.
 - 다. 國內外 軍事動向의 大要.
 - 라. 敵軍側의 作戰構想.
 - 마. UN軍側의 作戰構想.
 - 바. 我軍(陸, 海, 空軍 및 海兵隊)의 作戰構想.
 - 사. 彼我政府 및 軍部의 주요한 人事異動과 그 動靜.
 - 아. 第3國의 動向에 관한 大要.
 - 자. 彼我兩軍의 編成, 裝備 등의 변천에 관한 事項.
 - 차. 戒嚴에 관한 事項 및 기타.
4. 要旨에서 취급한 事項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 가. 敵軍側 兵團(독립된 연대와 사단급 이상)의 작전계획과 그 행동의 大要.
 - 나. UN軍側 軍團의 작전계획과 그 행동의 大要.
 - 다. 我軍의 陸, 海, 空軍 및 海兵隊의 주요한 작전계획과 그 행동의 大要.
 - 라. 作戰上의 特異性(天候, 氣象 및 地形)포함
5. 別途로 發刊되는 「UN軍參戰史」 안에서 취급한 事項이라도 必要內容은 이를 本卷에서도 취급하기로 한다.
6. 순수하게 後方戰史에 屬하는 事項은 가급적으로 本文 안에서 취급하지 않고, 「後方戰史」에 실기로 한다.
7. 軍隊符號는 國軍의 現用符號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반드시 이에 따르지 않은 것도 있으니, 例를 들

韓國戰爭史 第9卷 目次

序文 國防部長官 徐 鐘 喆
 發刊辭 戰史編纂委員長 李 炯 錫
 凡 例

對 陣 末 期

概 說(11)

第58章 東部戰線의 戰況

要 旨(37)

1. 351高地부근 戰鬪(38)
2. 854高地 및 812高地 戰鬪.....(78)
3. 谷內北岫 無名高地 戰鬪(127)
 (一名, M1高地 戰鬪)
4. 1,090高地 戰鬪(157)
5. 鮮于高地 戰鬪.....(176)

第59章 中部戰線의 戰況

要 旨(213)

1. 689高地 戰鬪.....(214)
2. 883高地—973高地—949高地 戰鬪(242)
 (一名, 제 5 사단의 Missouri 線防禦戰)
3. 北進稜線의 戰鬪.....(275)
4. 529高地 戰鬪(310)
 (一名, 觀望山 戰鬪)

5. 281高地부근 戰鬪	(340)
(一名, 화살머리高地 戰鬪)	
6. 驕岩山부근 戰鬪	(369)
7. 白岩山부근 戰鬪	(417)
8. 汝文里부근 戰鬪	(454)
(一名, 金城川 부근 戰鬪)	
9. 金城東南地區 戰鬪	(478)
10. 金城西南地區 戰鬪	(521)
11. 金化地區의 防禦戰	(604)
12. 赤根山—三峴地區 反擊戰	(644)
13. 425高地 및 406高地 戰鬪	(677)

第60章 西部戰線의 戰況

要 旨	(701)
1. 해병대의 泗川江부근 奇襲戰	(702)
2. 250高地—199高地 戰鬪	(754)
(一名, Queen高地 및 朴高地 戰鬪)	
3. Betty高地 戰鬪	(798)
4. 美해병대의 高浪浦부근 戰鬪	(808)
(一名, Vegas高地 戰鬪)	

第61章 海軍의 活動

要 旨	(841)
1. 韓國海軍의 活動	(842)
2. UN海軍의 活動	(893)

第62章 空軍의 活動

要 旨	(913)
-----	---------

1. 제2차 近接航空지원作戰과 後方차단作戰.....(915)
2. 第10戰鬪飛行團의 創設과 近接航空지원 作戰.....(928)
3. 敵의 補給遮斷作戰.....(947)
4. 敵의 攻勢와 近接航空지원作戰(955)
5. 一·四半期の UN空軍의 活動.....(968)
6. 二·四半期の UN空軍의 活動.....(985)
7. 三·四半期の UN空軍의 活動.....(999)

第63章 國立警察의 活動

1. 一般狀況(1007)
2. 共匪擊滅狀況(1010)

附 錄

1. 作指·訓令(1023)
2. 年 表(1057)
3. 戰歿者 名單.....(1142)
4. 索 引(1167)

狀 況 圖 目 次

제 1 호	東部—中部(一部)의 彼我 戰線(3.31)	(17)
제 2 호	中部(一部)—西部의 彼我 戰線(3.31)	(20)
제 3 호	351高地 부근 地形圖	(42)
제 4 호	351高地 戰鬪其一(6.2)	(46)
제 5 호	351高地 戰鬪其二(6.3)	(52)
제 6 호	351高地 戰鬪其三(6.5)	(59)
제 7 호	351高地 戰鬪其四(6.15)	(64)
제 8 호	339高地 戰鬪 (7.17~18)	(72)
제 9 호	812高地 戰鬪其一	(91)
제 10 호	812高地 戰鬪其二	(103)
제 11 호	雙龍高地 부근 戰鬪(6.8~9)	(110)
제 12 호	雙龍高地 부근 戰鬪(7.16~17)	(121)
제 13 호	M1高地 戰鬪의 彼我配置(6.10現在)	(130)
제 14 호	제61연대 제2대대의 逆襲	(133)
제 15 호	제61연대 제1대대의 제1차反擊	(136)
제 16 호	제61연대 제1대대의 제2차反擊	(141)
제 17 호	제61연대 제3대대의 제1차反擊	(146)
제 18 호	제61연대 제3대대의 제2차反擊	(149)
제 19 호	제62연대의 兵力配置와 敵의 侵攻	(159)
제 20 호	제62연대 제1대대의 逆襲	(161)
제 21 호	제62연대 제3대대의 反擊	(170)
제 22 호	938高地 戰鬪(6.26~27)	(181)
제 23 호	938高地 제1차 逆襲(6.27)	(187)
제 24 호	938高地 제2차 逆襲(6.27)	(189)
제 25 호	938高地 제3차 逆襲(6.27)	(190)
제 26 호	제3연대의 逆襲	(194)
제 27 호	제8연대 제3대대의 逆襲(6.30)	(201)
제 28 호	제3연대 제3대대의 逆襲	(205)

제29호	689高地 戰鬪(4.2~3)	(218)
제30호	689高地 戰鬪(4.4)	(221)
제31호	689高地 戰鬪(第1次 逆襲)	(223)
제32호	689高地 戰鬪(第2次 逆襲)	(225)
제33호	689高地 戰鬪(第3次 逆襲)	(226)
제34호	689高地 戰鬪(第4次 逆襲)	(229)
제35호	689高地 戰鬪(第5次 逆襲)	(230)
제36호	689高地 戰鬪(第6次 逆襲)	(233)
제37호	689高地 戰鬪(第7次 逆襲)	(235)
제38호	689高地 戰鬪(第8次 逆襲)	(237)
제39호	戰鬪前 彼我의 配置 상황	(247)
제40호	中共 제181사단의 侵攻 상황	(250)
제41호	제9사단 地域의 地勢 및 高地 名稱	(278)
제42호	A高地의 敵情	(279)
제43호	제28연대의 逆襲(6.13. 07.30 현재)	(298)
제44호	529高地 戰鬪(제1차 逆襲)	(316)
제45호	529高地 戰鬪(제2차 逆襲)	(321)
제46호	529高地 戰鬪(제3차 逆襲)(其一)	(324)
제47호	529高地 戰鬪(제3차 逆襲)(其二)	(326)
제48호	529高地 戰鬪(제4차 逆襲)	(328)
제49호	529高地 戰鬪(제5차 逆襲)	(331)
제50호	529高地 戰鬪(제6차 逆襲)	(333)
제51호	529高地 戰鬪(제7차 逆襲)	(336)
제52호	제2사단지역의 彼我의 配置 狀況	(343)
제53호	제17연대 제3대대의 反擊	(348)
제54호	제17연대 제3대대의 再反擊	(355)
제55호	㉔진지 및 ㉔고지 奪取	(363)
제56호	轎岩山부근 戰鬪其一(7.10~12)	(383)
제57호	轎岩山부근 戰鬪其二(7.13~14)	(390)
제58호	제19연대의 戰鬪(7.13~14)	(404)
제59호	제9연대의 戰鬪(7.13~14)	(410)

제60호	作戰地域과 彼我의 配置狀況	(420)
제61호	敵의 제1차 侵攻	(424)
제62호	제1차 反擊目標	(438)
제63호	사단의 進擊 狀況	(445)
제64호	汝文里부근 戰鬪(敵의 侵攻)	(459)
제65호	汝文里부근 戰鬪(지연戰)	(462)
제66호	7월 13일의 사단 配置	(485)
제67호	別隅地區의 反擊戰(其一)	(506)
제68호	" (其二)	(509)
제69호	" (其三)	(512)
제70호	戰鬪後의 配置 狀況	(516)
제71호	首都사단지역 道路網圖	(524)
제72호	제1연대 진지 部分圖	(532)
제73호	제26연대 제3대대의 진지交代	(538)
제74호	제1연대 CP被襲 상황	(558)
제75호	기갑연대 제1대대의 阻止線확보	(574)
제76호	제26연대의 제1차 反擊상황	(581)
제77호	首都사단의 最初 부대配置 및 綜合상황도	(595)
제78호	사단 作命 제110호	(619)
제79호	제30연대의 逆襲	(627)
제80호	赤根山—三峴지구의 反擊戰(7.15~19)	(648)
제81호	後洞里부근 戰鬪(7.16~17)	(653)
제82호	602高地 戰鬪(7.15~18)	(655)
제83호	後洞里부근 戰鬪(425高地)(7.15~17)	(658)
제84호	602高地 戰鬪(7.19)	(670)
제85호	552高地 戰鬪(7.18~19)	(672)
제86호	425高地 전투 제1.2차 방어전	(683)
제87호	425高地 전투 제3차 방어전	(686)
제88호	406高地 전투(7.22)	(690)
제89호	" (7.24)	(693)
제90호	제3중대의 39高地 기습계획 및 실시	(706)

제 91 호	제55중대의 30高地 기습계획 및 실시	(710)
제 92 호	제11중대의 중서골 1차 기습계획 및 실시	(714)
제 93 호	제52중대의 西場里 기습계획 및 실시	(717)
제 94 호	제10중대의 58高地 기습계획 및 실시	(722)
제 95 호	제2중대의 39高地 기습계획 및 실시	(727)
제 96 호	제11중대의 중서골 2차 기습계획 및 실시	(731)
제 97 호	제1중대의 無名高地 기습계획 및 실시	(735)
제 98 호	제9중대의 西場里 기습계획 및 실시	(739)
제 99 호	제5중대의 39高地 기습계획 및 실시	(743)
제100호	敵의 최초 공격 상황(6.25)	(761)
제101호	Queen高地—朴高地의 砲火網	(766)
제102호	제12연대 제1대대의 공격상황(6.26)	(773)
제103호	제12연대 제2대대의 공격상황(6.27)	(778)
제104호	제11연대 제2, 제3대대의 공격 상황(6.29)	(789)
제105호	Betty 戰鬥(7.15)	(801)
제106호	Vegas 陣地	(812)
제107호	Reno 陣地	(815)
제108호	Carson 陣地	(817)
제109호	敵의 Nevada지역 공격 상황	(820)
제110호	Vegas高地 恢復 공격 상황	(834)
제111호	江橋洞 해안진지 破壞	(866)
제112호	PT編隊의 기습활동	(868)
제113호	艦艇 配置 상황	(873)
제114호	掃海區域 및 水路	(881)
제115호	UN海軍의 活動	(905)
제116호	제2차 近接航空지원 作戰과 後方遮斷作戰	(920)
제117호	사용곤란케 된 北韓의 주요 飛行場(7.27)	(1003)

對陣末期

概說

對 陣 末 期

概 說

참조: 별책부도 제 1호

상황도 제 1, 2호

本卷에서는 1953년 1월 1일부터 休戰이 成立된 同年 7월 27일까지 韓國戰爭의 終局面의 戰況을 網羅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은 UN이나 美當局이 休戰會談의 停滯에도 불구하고 戰線의 現況을 지키기에 노력한채로 이른바 「名譽로운 終戰」의 早速한 妥結만을 추구하다가 敵의 뜻대로의 堅陣을 容認하게되어 及其也는 主導權을 喪失하게되고 그들의 攻勢를 맞음으로써 對陣이 후 피로써 아로새긴 陣地의 一部에서 물러난 線에서 停戰케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局面을 보이고 있다.

1. 戰況의 概要: 지난 年末에, UN군사령관 Mark W. Clark 대장은 軍事的인 승리만이 休戰을 達成할 수 있을 것이라는 所信일에, 또한 美國의 次期行政府가 戰爭遂行을 위한 方策과 路線을 바꾸어 強攻策을 쓸 가능성에 對備하여 새로운 計劃을 마련하였다.

그 大要는 美陸軍參戰史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가 밝힌바와 같이 陸·海·空 3군合同에 의한 큰 규모인 3段階의 作戰을 通하여 元山—平壤선까지 進격한다는 것으로서 이에는 既存 20개 사단 以外에도 UN군 3개사단(步兵 및 空輸, 海兵 각 1개 사단), 韓國軍 2개사단, 自由中國군 2개사단, 野砲 12개대대, 對空砲 20개대대의 追加병력을 必要로 하는 擴戰計劃이었다.

그러나 이해 1월 20일에 제34代 美大統領으로 就任한 Dwight D. Eisenhower의 共和黨政府도 前任 Truman대통령이 取한 바 대로 敵과의 協商을 통하여 名分있는 休戰을 모색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러한 희망찬 意圖는 끝내 날개를 펴보지 못하고 死藏되고야 말았으니, 오직 膠着된 戰線의 打開과 戰爭의 終結은 板門店에서의 休戰天幕만이 문제해결의 可能한 길잡이가 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한 冬季中の 戰線은 彼我 모두가 固守陣地를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다만 探索과 소부대 戰鬪만이 反復되었으며, 또한 休戰會談은 포로들의 처리문제를 놓고 雙方이 自由送還과 強制送還으로 強硬히 맞서는 가운데 中斷된채로 어떠한 進전도 보이지 않고 있었다.

1月中旬에 8군 情報當局이 推計한 敵側の 兵力은 總 1, 120, 000명을 넘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들 東部戰線에는 北傀 3개군단 89,000명과 豫備로 2개군단 83,500명을, 그리고 中部 및 西部戰線에는 中共 7개군 276,000명과 豫備로 8개군 259,000명을 전개하고, 그들 後方에는 도합 412,500명(北傀 165,500명, 中共 247,000명)을 要衝에 配備하고 있는 것으로 推斷되었다. 그러나 我軍의 總勢는 2개사단의 豫備를 포함하여 20개사단과 그 支援부대 등 350,000명에 지나지 않았고 이러한 劣勢는 뒷날 Maxwell D. Taylor 대장(6월 10일 승진)이 「The Uncertain Trumpet」에서 지적한바 『海·空軍작전에 있어서는 상대할 敵이 없었으므로 100% 運用하지 못하였다.』라고 할만큼 絕對優位에 있던 海·空軍力으로써 겨우 均衡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共產側 대표 南日도 『당신네 地上軍이 現在 위치를 支撐하고 一時나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海·空力의 空中폭격 때문이요, 그것이 아니었다라면 당신네 地上軍은 오래전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으로 사라졌을 것이요.』(R. F. Futrell著 The United States Air Force)라고 할만큼 兵力의 優位를 자랑하고 毒舌을 퍼부었던 것이다.

Clark 대장은 1월末, 敵情에 관하여 『戰線에 배치된 北傀 1개군과 中共 3개군이 再整備를 完了하였고 餘他의 一線부대들도 充分한 예비兵力에 의하여 増援되고 있다.』라고 判斷하고 Van Fleet대장에게 『敵은 冬季中 서울까지 奪取하려는 공세 징후가 있다』라고 警告하였다. 勿論 이러한 共產군의 계반動態는 美國의 새 정부가 戰爭수행에 대한 方針을 바꾸어 攻勢로 移轉할지도 모른다는 推測때문에 이에 對應키 위한 防禦수단에 不週하다고 判斷할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Van Fleet 대장은 前揭 美陸軍參戰史가 밝힌바와 같이 『制限戰爭에서 참을 수 없는 慾求不滿에서도 敵에게 致命的인 타격을 加하려는 熱望을 버리지 않고 防禦戰만을 수행하는데 焦躁感을 나타내보였지만 泰然하게 시기를 기다리면서 8군을 効率的인 상태로 維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것이다.

Clark 대장은 이즈음 한편에 있어서 敵의 空軍力이 增強되는 趨勢에 留意하고 있었으므로 美 극동 공군사령관 Otto P. Wayland 중장에게 『그들의 空襲을 阻止할 수 있는 모든 防空態勢를 取하라』라고 命令하고 아울러 開城—平壤間의 通路에 대한 偵察을 강화토록 하였는데, 이러한 一連의 조치를 講究한 것은 그가 2月初에 JCS에 報告한바대로 『敵의 最近의 兵力과 保有航空機의 증가추세는 이미 我側의 弱點으로 暴露된바 있는 彈藥과 兵力의 부족, 그리고 豫備隊의 脆弱性등과 이에 附加하여 新政府의 政策變更으로 말미암아 UN군을 증강하여 공세를 取할런지 모른다는 의구심으로 그들이 先制공격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配慮가 앞섰던 까닭이라고 推理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同 대장은 制空權을 계속 維持하기 위하여 敵側의 空軍기지에 대한 爆擊의 再開와 함께 中立地帶라는 이유로 敵이 어떠한 惡用에도 安全이 보장되고 있는 開城지구에 대한 공격까지 건의한바 있으나, Washington 當局은 休戰會談에 좋지 못한 影響을 미칠것이

라는 이유로 당장 어떠한 공세도 不許한다는 態度를 분명히 하였다.

2월 11일에, Van Fleet 의 뒤를 이어 8군의 指揮權을 引受한 Maxwell D.Taylor 대장은 世界 제 2 차대전 當時 美제 101공수 사단을 指揮하여 France戰線에서 크게 활약한바 있었는데, 그는 겨울동안에 持續되는 戰線의 소감상태로 말미암아 자아낸 그릇된 偷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곧 麾下 軍단장들에게 要旨 다음과 같이 指示하였다.

『① 사단別 8주간의 부대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곧 실시하라.

② 砲兵들의 機動性을 함시 유지하라.

③ 露出된 陣地에 對한 掩蔽手段을 最大限으로 마련하라.』

이런 까닭으로 8군에서는 美제 1군단 지역에서의 奇襲戰의 증가와 더불어 점차 我軍戰線에도 活氣를 띄는가 싶었으나 2月中에 敏感한 反應을 보이기 시작하였던 共產側이 3월에 접어들자 制限된 규모이긴 하지만 前보다도 많은 부대를 그들 正面에 추진하고 攻勢를 펴므로써 緊張을 자아내게 되었다.

이들의 企圖는 4개월에 걸친 戰線의 膠着을 틈타 不斷히 蓄積할 수 있었던 戰力을 바탕으로 解氷期의 泥濘을 이용하여 此際에 例의 高地爭奪戰을 再舉하고 유리한 據點을 마련코자 하려는 것이 分明하였다.

그들은 3월 1일에, 1개 중대 규모로 臨津江 西南쪽—蛇尾川 사이의 防禦線을 接령한 美제 2사단 配屬 France대대를 공격한 것을 始初로 同월 26일까지 美제 1군단(장, Paul W. Kendall 중장) 正面에서 壓力을 加增하고 我軍側의 掌中에 있는 前進要地를 奪取코자 또 다시 劃策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一取一捨의 熾烈한 攻防戰이 再演되었는데, 同군단 右翼인 美제 7사단의 경우 제32연대는 敵襲으로 喪失한 不毛(Old Baldy)高地를 奪取키 위한 2일간의 逆襲戰에서 300명의 死傷者를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期間 전투에서 彼我사이에 서로 致命的인 打撃을 입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같은 損失을 自招하면서까지 戰鬪를 벌이려 하지 않았으므로 對陣線上的 커다란 樣相에는 아무런 異變이 없었으나 그 戰鬪의 過程을 통하여 나타난 명백한 사실은 그들이 人力資源을 아낌없이 消耗하려는데 反하여 我軍側은 Taylor 대장이 이달 30일에 直接 싸움터를 찾아 不毛高地에 대한 공격을 중지케 한것과 마찬가지로 人命의 존중이 戰術的인 目標보다도 優先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4월이 되자 奸策을 能事로 하는 敵側은 Stalin 死亡과 聯關된 板門店에서의 態도의 突變과 때를 같이 하여 차츰 그 醜錄을 감추었으므로 戰線은 다시 冬季의 상황으로 還元되고 1개 중대 규모를 넘지 않는 수색활동을 常套手段으로 하였다.

이와같은 敵情에 따라 當時의 8군은 『29개 사단이 我軍과 近接거리에서 對陣中이지만 當分間은 攻勢를 取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와 함께 我軍의 作戰 또한 月初

부터 시작된 傷病捕虜交換의 協商과 더불어 制約되기에 이르렀다.

Clark 대장은 同월 21일에, 北韓에 抑留中인 我軍側의 傷病포로가 11일 調印을 본바에 따라 送還되기 위하여 集結中일 것이라는데서 그들 身邊을 위하여서나 敵側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理由로 留保한바 있었던 空中공격을 再開할 것을 공군의 Weyland 중장에게 命令하고 이로써 休戰의 早期妥結을 敵側에 強要코자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네들은 地上에서 5월上半期에 중대~대대규모에 이르는 兵力으로 제한目標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고 有利한 地形의 先占을 꾀하였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5월 25일 UN側이 捕虜處理 기간에 있어서 最終提案이 있는 다음부터 더욱 熾盛하여졌다.

6월 2일에 Taylor 대장이 Clark대장에게 설명한바와 같이, 萬一 敵의 主攻이 美제1, 美제9兩개 군단 正面에 指向될때에는 漢灘江—臨津江선 北쪽의 陣地들이 방어 지역으로 選定되지 않은 點을 지적하여 脆弱視하였다는바, 그 이유를 밝히기를 共產군이 이 지역에서 가벼운 침투라도 피한다면 물러나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될때에는 失地를 아예 포기하던가, 큰 損失이 豫想되는 逆襲을 敢行하던가 兩者擇一하여야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敵侵에 대한 對應措置로 即時 兩개 군단장에게 예비대의 강화와 空中偵察의 倍加, 그리고 彈藥을 備蓄하도록 要求하였는데, 敵은 이러한 豫想과는 달리 同월 1~7일에 戰線 東側背에 대한 陽攻에 이어서 10일부터는 美제9군단(장, Reuben E. Jenkins 중장)右翼正面에 牽制공격을 隨伴하고 4개사단 규모를 美제10군단(장, Isac D. White 중장)과 제2군단(장, 丁一權 중장)의 虛隙部位와 제2군단 右翼인 제5사단 正面에 集中한 것이다.

이때에 제2군단은 右인접으로 제20사단(美제10군단 左翼)과 連繫하여 北漢江 北쪽—首都高地—指形稜線—金城 南쪽에 이르는 戰線에 제5—제8—제6의 3개사단을 전개하였으며 左인접으로 首都사단(美제9군단 右翼)이 있었다.

敵의 主攻이 指向된 제5사단은 이로 말미암아 14일까지 血戰을 거듭하게 되었으나 나중에는 通信과 側方兵站線의 유지가 困難한 탓으로 北漢江 南쪽으로 물러나 새로운 陣地를 占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날 急遽 戰線에 加入한 제7사단의 左翼과 左인접 제8사단의 右翼이 露出되기에 이르러 다음날 縱深 2.5km의 땅을 양보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그러나 Taylor 대장은 그들의 이러한 공세가 계속되자 13일에 교육을 위해 控置中인 제3사단의 예하 2개연대를 제2군단에 배속하고 제5사단을 扞援케 하였는데 이로써 我軍側은 敵攻勢의 弱化和 더불어 Missouri 線上的 戰線을 再整備하게 되었다.

그러나 敵은 이즈음 我後方에서 絶頂에 達하였던 休戰反對의 示威와 18일에 決行된 反共捕虜釋放으로 한때 韓·美관계가 硬化되기도 하였지만 7월初에 다시 緩化되어 드디어 雙方사이에 停戰을 위한 最終會談의 개최 氣運이 짙어지자 그들은 Clark대장도 後日 그 著書「From the Danube to the Yalu」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此際에 世界에 대하여 軍事의 인 승리를 저주었다고 誇示하기 위한 掉尾의 一戰을 시도한 것이다.

그런데 UN군의 態勢는 그 一端이 前揭한 Clark 대장의 報告에서 나타나 있는바,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韓國의 山岳戰은 步兵들을 기진맥진케 하였다. 우리는 充分한 兵力을 가진 일이 없는데 反하여 敵은 공격을 阻止할만한 充分한 人的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를 維持할 수 있었다. 航空機와 海軍의 航空母艦은 우리를 敗戰으로부터 救出할 수 있을지 모르나 戰鬪의 結果를 決定的으로 有利하게 이끌 機會를 갖지 못하였다. —— 戰爭의 決斷을 내리기 위하여서는 더한층 訓練된 軍隊와 보다 큰 海·空軍의 지원이 必要하였다. 이는 또한 莫大한 死傷者를 招來할 것이다. 鴨綠江 北쪽에다 安全地帶를 提供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든 戰術的 제한을 우리 스스로가 除去하지 않고서는 成功할 希望을 가지고 作戰을 수행할수는 없었다.』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我軍은 오직 守勢一邊倒의 防禦 領域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敵의 공격은 그들이 本格的으로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 探索활동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즉, 6월 24일에 中共 제70사단은 대대규모로 金化 北쪽 일대를 防守中인 제9사단 제29연대 (美제9군단 中央 右翼에 配備)의 전투전초陣地를 공격하다가 700명의 屍體를 遺棄하고 물러선다음 그 翌日에는 제1사단(美제1군단 中央 右翼)의 전투전초陣地를 中共 2개연대가 侵襲하였다.

그 뒤로는 며칠간의 間隔을 두었다가 엉뚱하게도 我軍側의 판단을 뒤엎고 7월 6일, 美제9군단 左翼에서 지난해 10월에 제9사단이 敢鬪한바 있는 鐵原 北쪽 白馬高地 東西일대를 固守하는 제2사단의 2개 前進據點과 同時에 그 左 인접인 美제7사단(美제1군단)의 1개의 전투전초陣地를 奇襲하였다. 이 兩개의 侵攻은 我軍이 이들 陣地가 지나는 戰術的인 중요성 때문에 끝까지 固守코자한 까닭에 激戰이 벌어졌으나 화살머리 高地는 堅守하고 △255 (Porkchop)는 11일에 美제7사단이 隨意撤收함으로써 敵手中에 맡기는바 되었다.

이리하여 當面の 中共은 13일에, 金城突出部 正面에 제60, 제67, 제68, 제24, 제23군 등 5개군을 投入하여 앞서의 공격에 이어서 제2군단의 예하인 제5, 제3, 제8, 제6의 4개 사단과 美제9군단 右翼인 首都, 제9 兩개사단등 都合 6개사단 正面에대하여 큰 규모로 攻勢를 取하였다.

7월 14일, 8군사령관 Taylor 대장은 戰勢가 이와같이 惡化되자 제2군단장과 美제9군단장에게 『迅速히 北漢江과 金城川 그리고 狙擊稜線의 基底에 設定한 Iceland線을 점령하라』라고 命令하였다. 이리하여 제5, 제3, 제8, 제6, 首都 등 5개사단은 이날 곧 새로운 방어선으로 轉進하게되고 防禦正面을 거이 直線으로 短縮하였으며, 또 그 한편에 있어서 同 대장은 增援策으로 제187공수전투단을 美제9군단에 配屬하고 美제2사단을 增援케하여 美제3사단과

右인접 제9사단의 일부 陣地를 인수케 한다음 제9사단으로 하여금 首都사단 左側背를 強化토록하였으며, 美제3사단을 首都사단 正面에 轉進케 하여 突破口를 彌縫토록 되었다. 또한 제2군단은 이날 손실이 많았던 제3사단을 예비로 控置하고 제11사단을 새로이 左翼으로 推進하여 戰線을 補強하였다.

이로써 7월 15일에 反擊체비를 갖추게 되자 다음날 同 대장은 前記한 兩군단장에게 『金城川 방어線을 奪還하라』라고 命令하였는데 이날 제2군단 隸下인 제5, 제8, 제11의 3개사단은 躍進을 거듭하여 19일에는 金城川 南쪽에 進出하고 後續한 제7, 제3, 제6의 3개사단도 이들과 連繫하여 敵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金城川 北岸을 頑守하려는 그들의 抵抗으로 말미암아 20일부터 더 이상의 進擊을 斷念하여야 하였는데, 敵은 6월 10일~7월 20일에 있었던 第2次 공세에서 多少나마 「勝利를 얻었다」는 逆宣傳의 資料를 얻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에 대한 代價는 推定 34,600명의 人命損失만이 뒤따랐다.

그뒤로 戰線은 다시 소규모의 탐색전만을 되풀이 하다가 27일에 成立된 休戰으로써 이날 22.00를 期하여 一切의 交戰을 중단하고 協定에 따라 雙方의 전초陣地에서 서로 물러나 여기를 非武裝지대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제 기간중의 戰況을 東部(제1, 美제10군단지역)와 中部(제2, 美제9군단지역) 그리고 西部(美제1군단지역)로 大別하여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東部戰線의 狀況—大體로 南江의 江口에서 그 南쪽 4km—Punchbowl 北線—北漢江의 上流 東岸에 이르는 彎曲形의 이 戰線은 연초의 제1군단隸下인 제5사단(장, 金鍾甲 소장)—제11사단(장, 林富澤 준장)이, 그리고 이와 連繫하여 美제10군단의 제12사단(장, 尹春根 준장)—美제40사단(장, Joseph P. Cleland 소장)—제7사단(장, 任忠植 준장)이 險難한 地形에 따라 방어선을 堅守하고 있었다.

그 中 제1군단(장, 李亨根 중장)은 1월 12일에 陸本直轄이었던 제15사단(장, 李貞錫 준장)을 轉入하여 곧 右翼전선을 引受케 한다음 제5사단을 豫備로 控置하고 3월 30일 제11사단 제13연대로 하여금 南江 西쪽 고지에 대한 2次に 걸친 기습전이 있었다.

그 뒤에 예비인 제5사단이 美제10군단으로 轉出(4.4)케 되자 다시 新編인 제21사단(장, 閔機植 준장)을 豫備로 삼았는데, 6월初에 軍단右翼인 제15사단이 △351를 掠取하려는 當面の 北僞 제7군단과 한차례 熾烈한 전투를 치르게 된다.

그 뒤 6월 15일에 軍단은 左翼에 배치된 제11사단을 8군의 措置로서 제2군단에 赴援케 하자 예비인 제21사단을 一線으로 推進하여 계속 防守하다가 休戰을 맞았다.

한편 美제10군단(장, Isac D. White 중장)은 2월 2일에 北僞제1군단 소속의 대대규모가 7,000말의 포격을 集中하면서 △812 (Punchbowl 東北 5km)로 侵襲하자 제12사단의 제37연대가 적전끝에 이를 擊退함과 아울러 敵遺棄屍體 100具를 확인한 바 있는데, 그 뒤로는

5월末까지 때때로 偵察隊가 접촉하는 소규모의 전투만이 반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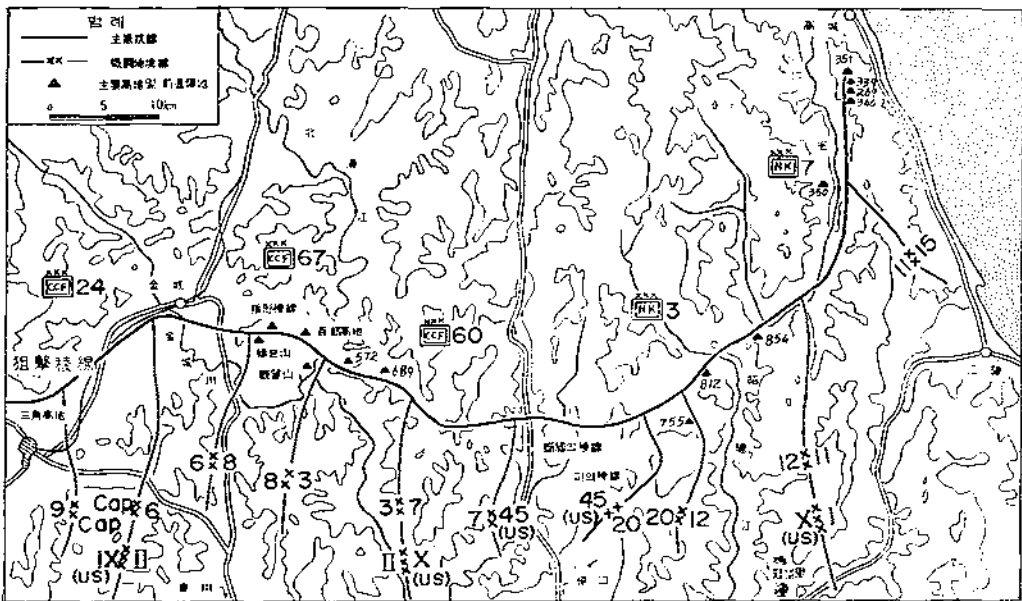
기간중 同군단은 예비인 美제45사단(장, David L. Ruffner 소장)을 戰線에 加入(1.29)시켜 美제40사단과 交代케하고 新編제20사단(장, 劉興守 준장)과 같이 2개사단을 예비로 하여 부대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나 3월中旬에 美제40사단의 配屬변경으로 陣地를 再編하여 美제45사단 正面을 제20사단과 같이 分擔케하다가 4월 19일 제40사단의 再配屬으로 제20사단 陣地를 이들에게 引受토록하고 27일에는 제20사단의 配屬을 해제하였다.

그리고 5월 11일에는 군단 左翼에 있는 제7사단(장, 金容培 준장)이 敎育을 위하여 移動하자 그 진지를 제20사단이 引受하였는데, 6월 1일에 敵은 제12사단의 전투전초陣地인 △812를 공격한 것을 始初로 하여 23일까지 계속 M1高地—△1090에 대한 공격을 加増함으로써 이를 防守하는 同사단의 제61연대가 苦戰끝에 M1高지를 敵手에 넘겨주고 그 후에 이를 奪還하려는 同연대의 逆襲은 8군의 지시로 말미암아 保留되었다.

이와같이 敵의 공세가 加熱하자 Taylor 대장은 제7사단을 急遽 同군단에 다시 配屬시켜 增援하였는데, 이에 군단장 White 중장은 左인접 제2군단의 제5사단(장, 崔泓熙 준장)과 接하여 同사단을 군단左翼 제一線에 赴援하였으나 敵의 強攻을 받은 제5사단의 갑작스러운 轉進으로 惹起된 危險으로 말미암아 한때 그 側方이 露出되는 困厄을 치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同군단은 敵이 攻擊부대를 再編하는 동안 戰線을 整備하고 各種砲火를 集中強打하여 敵侵을 분쇄하였다. 이 전투가 있던 다음 군단은 제7사단으로 하여금 잠시 제20사단 진지를 引受토록하였으나 7월 18일에 8군의 措置로 同사단이 제2군단으로 轉進함과 더불어 같이 하여 左翼을 美제45사단의 일부로써 強化한다음 제2군단作戰에 따른 牽制에 注力하였다.

◇ 상황도 제1호 東部와 中部(一部)의 彼我戰線(53. 3. 3현재)



中部戰線의 戰況—기간중 敵의 挑發이 尤甚하였던 이 戰線은 Christmas 高地 西쪽 4km—首都高地—轉岩山—狙擊稜線에 이르는 戰線의 突出部를 거쳐 이로부터 直線으로 西쪽 白馬高地—△281(화살머리高地)로 이어지는 제2, 美제9군단 지역이다.

제2군단(장, 丁一權 중장)은 1월초에 제7사단(美제10군단의 左翼)과 連繫하여 제3사단(장, 林善河 소장)—제8사단(장, 金益烈 준장)—제6사단(장, 白仁燁 소장)을 전개하고 左인접 美제9군단의 首都사단(美제9군단 配屬)과 接하여 防禦전지線을 편성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部署는 그 뒤에도 그대로였으나 4월 중순에 제1군단에서 轉入한 제5사단(장, 崔泓熙 준장)이 제3사단 진지를 引受함에 이르러 한차례 調整이 있던 다음 6월中旬부터는 敵情과 關聯된 增援조치로 상당한 變動을 보게 되었다.

즉, 6월 11일~13일에 敵侵으로 제3사단이 제5사단을 赴援하고 그 障地를 引受하게 되자 제5사단은 부대정비를 실시하고 21일에 軍단 最右翼의 일부를 擔當케 되었는데, 다시 戰勢가 악화되자 7월 14일에는 (8군 直轄) 제11사단이 이었던 左翼에 配陣하고, 이어서 18일에는 美제10군단으로부터 제7사단이 加勢되었으며 停戰 當時에는 제3, 제5兩사단이 부대교육을 위한 배속변경으로 제6, 제8, 제7, 제11의 4개 사단이 戰線을 담당하였다.

기간중 當面의 敵은 中共 제60군(장, 鞏杰)隸下의 일부사단과 中共제67군(장, 馬龍)을 配置하다가 6월初旬에 中共제68군(장, 邱蔚)을 다시 推進시켜 공세의 主軸을 삼았고 7월初에는 이 군의 轉進과 함께 中共제54군(장, 李化民)이 이에 대신하여 增援되었다.

1월末에 그들은 5,000발의 砲撃을 隨伴하면서 한차례 我側障地를 掠取코자하다가 失敗하게 되자 5월末까지 戰力의 培養에만 血眼이 된듯 아무런 挑發이 없었는데, 6월 8일에 板門店에서 難航을 거듭하던 捕虜교환문제가 妥結을 보자, 好機나 捕捉한듯이 3개사단 규모를 제5사단 正面에 投入하여 一連의 공세를 劃策하였다.

이리하여 6월 10일三更에 △883—△973—△949등을 침공한 敵으로 말미암아 끝내 이들 진지를 喪失하게 되자 사단은 다음날 增援된 제3사단의 제22연대와 合勢하여 主抵抗線을 強化하고 나서 예하 제35연대와 제22연대 兵力으로 喪失한 △883, △973을 奔還코자 逆襲을 敢行하였으나 失敗함으로써 다시 12일에는 예하 2개연대(제27, 제35연대)와 제22연대로써 공격을 再擧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은 奏効하지 못하여 드디어 主抵抗線(Missouri線)이 突破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敵의 侵攻은 더욱 擴大되고 또한 左인접 제8사단(장, 李明載 준장 : 5월 21일 附로 金益烈준장과 交代)의 제21연대를 노리고자 하므로 제8사단은 豫備隊인 제10연대로써 역습토록 하여 제5사단과의 彌縫을 策하였으나 이것 역시 劣勢를 挽回치 못하였다.

15일에 8군사령관 Taylor대장은 同군단장에게 『Iceland線을 점령하라』라는 要旨命令을 下達하였는데 이에 따라 제5, 제8 兩사단은 이날 赴援한 제3사단과 提携하여 北漢江—金城川 南岸에 障地를 점령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敵은 공세가 限界에 다다랐는지 敢히 我軍을 넘보지 못하고 防禦로 전환하였으므로 戰線은 다시 몇몇 전투밖에는 잠잠하였다.

그런데 敵은 7월 13일에 다시 攻勢로 移轉하여 左인접 美제9군단의 首都사단(장, 崔昌彦 准장), 제9사단(장, 李翰林 소장) 正面을 強壓하는 同時에 軍단 右翼인 제6사단(장, 白仁燁 소장) 正面에도 제199사단과 제200사단일부(中共제68군 예하)를, 그 右인접인 제8사단(장, 宋堯讚 소장 : 6월 16일附로 李明載准장과 交代) 正面과 제3사단(장, 林善河 소장) 正面에 각기 1개 사단규모를 投入하고 停戰線이 確定되기 以前에 戰勝하였다고 逆宣傳코자 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中央右一線을 堅守하던 제3사단은 다음날 또 다른 一團이 제5사단의 제35연대 陣지를 突破하고 迂回하여 後方을 遮斷하므로 主陣地로 부터 물러나게 되었는데, 14일에 軍단은 8군의 措置로 새로이 戰鬪에 가입하게 된 제11사단(장, 林富澤 准장)을 제6사단과 交代케 하여 16일을 期해 既述한바와 같이 다시 6개사단을 거느리고 Iceland線—Missouri線의 奪取를 위한 거센 逆襲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軍단의 이 逆襲은 到處에서 敵을 섬멸하고 19일에 Iceland線(北漢江—金城川)을 恢復할 수 있었으나 20일에 이르러 점차 增援된 敵의 頑強한 저항때문에 金城川 北岸에 進出하려던 當初의 意圖를 바꾸어 다만 그 南岸만을 扼守하다가 停戰을 맞이하였다.

또 美제9군단(장, Reuben E. Jenkins 中장)은 1월에 首都사단(장, 宋堯讚 소장)—제9사단(장, 金點坤 准장)—美제25사단(Turkey여단배속)(장, Samuel T. Williams 소장)—제2사단(장, 姜文率 소장)을 第一線에 美제3사단(Belgium, Thailand 대대배속)(장, George W. Smythe 소장)을 예비로 控置하고 있었으나 月末에 부대교대 계획의 一環으로 美제25, 美제3 兩개사단의 陣地 交代를 실시하였다.

그뒤에 同軍단은 5월 初에 美제25사단이 美제1해병사단陣지를 인수하기 위하여 美제1군단지역으로 轉進케 되자 이에 앞서 配屬된 美제2사단(장, James C. Fry 소장)을 예비로 하였는데, 6월 21일 敵攻勢의 징후에 따른 戰線강화책으로 美제2사단(Belgium, Thailand 대대배속)을 美제3사단과 제2사단 사이에 增援하고 7월 13일에는 8군 예비인 美제187공수 전투단을 제2사단에 配屬하여 美제3사단이 逆襲을 敢行하는 동안 제9사단의 일부陣지를 引繼케 하였는데, 27일의 부대 配備는 美제3—제9—美제2—제2의 4개사단이 前線을 담당하고 首都사단이 豫備로 있었다.

敵은 當面에, 年初 中共제24군(장, 皮定鈞)과 제23군(장, 林維先)을 전개하여 3월에 이르기까지 我軍이 실시한 都合 5,000회에 達하는 潛伏, 搜索, 偵察활동에도 불구하고 接觸은 不過 250회에 지나지 않은 守勢를 取하였는데, 이와같은 그들도 4월 5월에 점차로 그 觸手를 넓히다가 마침내 6월에는 제2군단 지역을 侵奪하려는 공세로 까지 발전 하였다.

이에 따라 軍단은 이 敵의 牽制공격에 當面하게 되어 同월 11일~20일 사이에 제9사단

은 中共 제24군에 하 제70, 제72 兩개사단의 공격을 받아 狙擊稜線—北進稜線상의 모든 戰鬪前哨진지(A.B.C.X.W.Y.Z.K高地)에서 紛戰끝에 擊破하고 말았다.

그런데 當面의 中共제23군은 7월 초에 이르러 軍단 左翼인 제2사단의 화살머리高地(△281)를 侵奪코자 하였는데, 이에 사단은 都合 4개대대로써 一次에 喪失한 同高地를 奪還하고 潰敵을 섬멸함으로써 推定 2,500명에 達하는 人命損失을 보게 하였으나 我軍 또한 死傷者 500명의 손실이 있었다.

이와같이 軍단正面에서 公세를 取한 中共은 7월 13일을 期해 또다른 攻勢를 전개한바, 中共제68군과 제24군이 5개사단규모의 兵力으로 首都사단과 그 左右 지역을 一齊히 侵襲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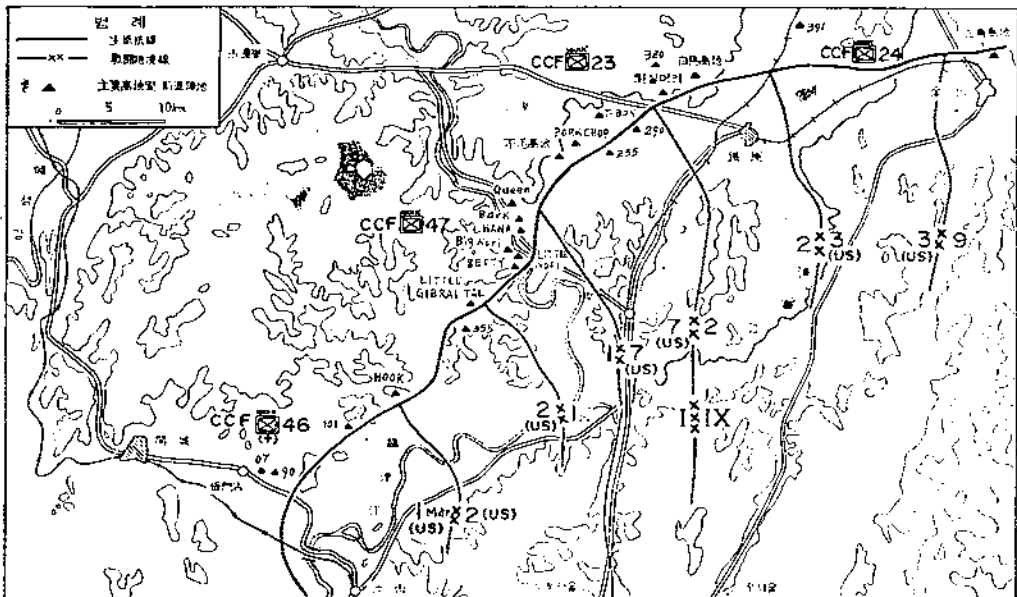
이 공세는 休戰會談에 따르는 停戰線을 가능하여 最終段階의 軍事上的 승리를 豪言하려는 底意였으나만큼 오래前부터 미리 計劃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前記한 화살머리 高地에 대한 공격은 이러한 계획을 糊塗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2군단 正面에 대한 侵攻과 때를 같이한 中共은 처음 首都사단 正面에 제68군에 하 제203사단을, 제9사단 正面에 제24군 에 하 제72사단을 각기 投入하여 一擧에 그 전투전초陣地를 유린하고 계속 增援으로 主陣地마저 突破코자 한 것이다.

이에 首都사단은 大兵力앞에 劣勢를 免할길이 없어 右인접 제2군단의 左翼과 連繫치 못하는 가운데 14일 南大川 東岸으로 물러나게 되었으며 左인접 제9사단도 또한 이들과의 戰線의 維持때문에 예비陣地로 물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戰勢가 惡化되자 軍단은 8군 措置에 따른 美제 187공수전투단의 增援을 얻어 제9사단의 戰鬪正面을 縮少한 다음 美제3사단을 右翼으로 轉進토록 하여 首都사단을 赴援

◇ 상황도 제2호 中部一部와 西部의 彼我戰線(53. 3. 31현재)



하고 15일에는 △373—△457—△459—雞雄山線에서 敵侵을 阻止하고 戰線을 恢復하였다.

西部戰線의 狀況—여기에는 화살머리高地(△281) 西쪽—驛谷川 南岸—蛇尾川 東쪽—高浪浦北쪽—臨津江 河口에 이르는 이른바 Missouri線의 左側일부와 Jamestown線에 配置된 美제1군단(장, Paul W. Kendall 중장 : 4월11일부터 Bruce C. Clarke 중장)正面의 戰況을 包括한 것이다.

期間中 軍단의 부대 配備는 1월初 右翼에 美제7사단(Netherlands, Colombia, Ethiopia 대대배속) (장, Wayne C. Smith 소장)을, 左翼에 美제1해병사단(해병제1전투단 배속) (장, Edwin A. Pollock 소장)을, 그리고 中央에 제1사단(장, 朴林恒 소장)과 英제1聯邦사단(장, M.M.A-R-West, C.B., D.S.O. 소장)을 전개하고 美제2사단(France, Thailand 대대배속) (장, James C. Fry 소장)을 예비로 控置하다가 월말에 실시한 부대 交代로 美제2사단으로 하여금 英제1聯邦사단의 任지를 引受케 하여 대신 英제1연방사단을 예비로 하였으며, 4월 초에는 다시 이 兩개사단이 그 任務를 서로 交代하였다.

그 다음 5월 초에는 美제9군단으로부터 轉入한 美제25사단(장, Samuel T. Williams 소장)이 美제1해병사단 任지를 引受하였으며, 또한 當時에 예비였던 美제2사단의 배속 變頭으로 그 자리를 메꾸어 美제1해병사단을 새로이 예비로 하여 부대교육에 精進토록 하였는데, 그 敎育이 完了되자 다시 7월 8일에는 美제1해병사단을 左翼에 전개하고 그 대신 陣地를 인제한 美제25사단을 停戰時까지 예비로 保有하였다.

한편 敵은 이 期間中에 年初 當面에 中共 제47군(장, 張天雲), 제46군(장, 蕭奎夫), 제65군(장, 蕭應棠)을 전개한 바 있었는데, 그 後 確認된 바는 4월 초에 실시한 부대 교대로 제1군(장, 劉轉運)을 제47군과 교대하여 그 자리에 전개하고 있었다.

1월 25일에 美제7사단은 Cark데장의 지시에 따라 步戰砲空의 協同으로 敵陣을 공격하는 一連의 試驗작전을 계획하였다.

「Smack」라고 命名한 이 작전은 空地 작전에 대한 効果的인 方案을 檢討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觀戰한 어느 한 記者가 『人命損失이 따르는 Show가 脚本에 의하여 演出되었다』라는 記事를 써 美國內에 物議를 이르게 美國會의 略式調査를 받은바 있으나 마침내 美陸軍省의 解明을 美議會가 받아드림으로써 일단 收拾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얻은 것이란 美陸軍參戰史의 所論과 같이 『火力 그 自體는 空中에서든 地上에서든 튼튼히 땅을 파고 들어 앉은 敵을 강화시키기에는 不充分하며 制限戰爭에서 防禦하는 側이 有利하다는것을 誇示해준 값비싼 敎訓이었다』라는 것이었다.

敵은 T-Bone 高地 東쪽 土窟속에서 分明히 我軍의 強力한 105mm, 155mm 砲擊과 空襲을 勸當하였고 地上軍의 공격을 頓挫케 할 수가 있었다.

1월~2월에 美제7사단 正面 Alligator Jaws—Eerie—不毛高地와 美제1해병사단 正面의 △90—△67등지에 限定되었던 소규모의 敵의 侵襲은 3월에 들어서 我軍이 실시한 奇襲戰의

増大와 함께 점차 全戰線에 확대되어 陣地에 대한 威脅을 增加하기 시작하였다.

當時에 軍단 右翼을 담당한 美제7사단은 3월 6일과 23일에 Porkchop(△255)---不毛高地가 當面の 中共 제47군 소속으로 밀어지는 대대규모의 敵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며 그 左인접 제1사단은 6일에 1개의 陣地가 중대규모의 敵으로부터 前後 2次に 걸친 공격을 받아 紛戰케 되었다. 또 그 左인접 美제2사단은 1일과 17일에 △355(Little Gibraltar), Hook高地에 대한 奇襲으로 격전이 전개되어 Hook高地를 扼守한 美제9연대는 사상자 100명을 낸끝에 400명을 壓殺하고 中共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그리고 軍단의 左翼인 美제1해병사단은 同월 18일과 22일에 배속된 韓제1해병전투단 및 그 예하 제1, 제5연대 陣地에 侵襲한 敵을 물리친다음 同월 26일에는 1개연대규모(中共 제40군 제120사단 소속으로 推斷)가 제5연대正面인 △157(Vegas)---△148(Reno)---(Carson)線을 掌握코자 45,000발의 砲擊을 隨伴하면서 대규모의 공격을 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사단은 27일~29일에 步兵 3개대대와 105mm砲 3개대대, 155mm砲 2개대대, 8"砲 2개 중대, 4.5" Rocket砲 1개 중대, 4.2" 박격포 2개 중대, 25LBS砲 1개 대대, 戰車 1개 중대 그리고 航空機를 동원하여 逆襲을 敢行하고 各種砲 161,000발의 砲擊과 폭탄 426Ton을 集中하여 推算 1,300명을 壓殺하고 Reno를 除外한 이들 高地를 되찾았다.

그런데 當面の 中共군은 休戰會談에서 UN側이 捕虜問題에 관하여 最終 妥協案을 提示하자 5월 28일~29일 兩日에 또 다시 이들 據點에 대한 공격을 再興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當時에 부대교대로 새로이 進入한 美제25사단配屬의 Turkey여단은 戰死 150명, 부상 245명의 損失을 입는 苦戰을하면서도 Berlin---Vegas---Elko---Carson 등 據點을 계속 확보하기에 노력하였으나 끝내는 失敗하게 되었다.

軍단 正面에서의 敵의 공격은 또 6월 25일에도 再開되어 6월 初 前線에 투입된 것으로 밀어지는 中共 제1군(장, 劉轉運) 제7사단 소속의 2개연대규모가 제1사단 正面의 據點인 朴高地---하나高地---△179 등 5개 陣地를 攻襲하기에 이르러 사단은 一時 이들 陣地를 敵에게 넘겨주는바 되어 곧 2차의 逆襲戰을 대대규모로 決行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同월 28일 증원된 敵부대가 Queen高地로 공격 방향을 바꾸어 진지線의 突破를 시도한 까닭으로 이 逆襲은 잠시 中斷케 되었는데 끝내 이를 奪取코자한 노력은 同월 29일 軍단장 命숨에 따라 끝내 中止하게 되었다.

敵의 공격은 7월에도 한차례 있었으니, 7월 6일에 美제9군단 左翼인 제2사단 正面의 화살머리 高地와 함께 當面の 中共 제23군 소속인듯한 대대규모가 △255(Porkchop)을 공격함으로써 彼我が 이 高地의 主人되기를 다투었으나 敵이 계속 兵力을 投入하고 累增된 損失도 아랑곳 없이 끝내 이를 掠取하려 하므로 美제7사단은 地利를 얻지 못한 탓으로 이 高地의 防守가 어렵다고 내다보고 스스로 철수함으로써 이를 敵手에 넘겨주는바 되었다.

海空軍의 狀況一期間中에 UN海·空군은 地上戰에서 8군이 敵과 對陣하고 持久케 된것

과는 달리 비록 豆滿江—鴨綠江 以南으로 한정된 空域과 海城이기는 하지만 계속 絶대 優位를 堅持하고 거이 一方的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1월 初의 敵 空軍의 趨勢는 北傀가 MIG—15기 121대를 포함하여 455대, 中共이 各種機 1,902대로서 每月 U.S.S.R로 부터 16대~50대의 MIG—15기를 각기 供給받는 것으로 推斷되었다. Clark대장은 月末에 敵이 다수의 公군기를 동원하여 兩侵이 可能할 것이라고 判斷하였는데, 美公군 參戰史인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가 밝힌바대로 『敵은 UN공군의 報復을 두려워한 나머지 制限된 命令下에 作戰하였기 때문에』에 소기간을 통하여 攻勢移轉하려는 徵候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國境 너머 安東—大同溝—大孤山—鳳凰城 등지에 基地를 둔 것으로 믿어지는 일부의 MIG—15기는 이른바 「MIG 回廊」으로 알려진 淸川江—熙川—水豐—新義州 上空에서 我空軍의 出擊機와 從前규모의 挑戰을 때때로 계속하였다.

1952년 12월에서 1953년 3월에 이르는 冬季中에 美극동공군의 作戰方針은 다음과 같았다.

- ① 共產軍에 壓力을 加한다.
- ② 休戰會談에 영향力을 준다.
- ③ 非常時에 대비한 他作戰의 能力을 保有한다.
- ④ UN군에 대한 敵의 爆擊을 阻止한다.
- ⑤ 直接지원을 包含한 地上軍에 대한 航空지원을 제공한다.
- ⑥ 敵의 軍需 및 通信수단을 妨害한다. 그러나 制空權의 계속 維持와 空軍의 지원이 必要할 때에는 언제라도 近接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優先키로 한다.

後方遮斷을 위한 典型的인 爆擊으로서는 1월 初旬~中旬에 美극동空軍에 하의 B—29, B—26 등이 參加하여 敢行한 新安州부근의 運送시설에 대한 都合 1,243회에 達하는 폭격이 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11일 동안이나 前線으로 推進하는 軍需物資를 鐵道를 이용하지 못하고 人力과 牛馬車 또는 貨物自動車에 依存하였다는 사실이 偵察의 결과로 判明되었다.

이어서 UN공군의 重·輕폭격기와 F—84, F—86 등 戰爆機들은 2월 18일과 19일의 兩日에 걸쳐 平壤近郊에 있는 軍의 施設物에 폭탄 541Ton을 投下하였으며, 또한 24대의 B—29 編隊는 이날 F—86의 掩護를 받아 水豐發電所를 또다시 강타하였다. 그리고 3월 5일에는 24대의 F—84 Thunder Jet기가 出擊하여 淸津부근에 있는 産業施設을, 그리고 17일에는 26대의 B—29가 新義州의 보급품 저장 창고와 工場 및 通信所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 遮斷 활동은 이 當時 8軍이 판단한것과 같이 『一線에 30일 乃至 35일 分の 兵站物資를 축적하고 있다』라고 한것으로 미루어 이는 冬季中에 敵의 戰線의 小康狀態에서 物資와 탄약의 消耗가 적었던 까닭도 있겠으나 美空軍參謀總長 Hoyt S. Vandenberg 대장이 指摘하듯이 空軍의 차단作戰이 地上戰鬪와 併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物資수송을

지연시켜 完全히 封鎖할 수 있으리라는 可能性을 期待할 수 없었던 것이다.

3月中 敵이 地上戰鬪를 增加하기 시작하자 空軍은 地上軍에 대한 近接 航空지원을 더욱 重視하게 되었다.

이 임무에는 이른바 「Cherokee」라는 方法이 適用되었는데, 이는 空軍要員을 地上군부대에 派遣되어 狀況에 따라 目標을 分類하고 出擊한 전폭기에 火力을 按配함으로써 空地 合同作戰을 더욱 圓滑히 遂行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美제5공군(사령관, Samuel E. Anderson중장)과 交代戰線으로부터 增加된 航空 지원要請에 直刻 副應하기 위하여 出擊을 서슴치 않았고 不毛高地(Old Baldy)의 경우 7일간에 戰爆機가 483회, 輕爆機가 87회, 重擊機가 11회의 出擊을 기록하여 都合 400Ton의 爆彈을 投下하였다.

4月中旬에 美극동공군사령관 Otto P. Weyland 중장은 楊市에 대한 夜間高空폭격을 企圖하였으므로 Clark대장도 이를 承認하였으나 이 지역을 통하여 我側傷病捕虜兵의 送還이 있다는 정보가 入手되고 또 共產側에게 새로운 逆宣傳의 口實을 주지 않기 위하여 그 實施를 10일간 연기하였다.

그리하여 同월 21일에 이르러 Clark 대장은 傷病捕虜兵으로 困한 制約이 없어지고 休戰 會談도 再開의 실마리를 찾게 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그의 조속한 妥結에 대한 전망이 透明하지 못하므로 Weyland 중장의 모든 制空계획을 승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UN공군은 5월 10일과 11일의 이틀사이에 水壘發電所와 楊市에 대한 폭격을 斷行하였으며, 同월 13일에서 22일사이에는 많은 糧穀이 U.S.S.R로 搬出되고 있다는 情報에 따라 한때 一時 保留되었던 水利灌溉用 貯水池에도 폭격目標을 附與하는 同時에 平壤 北쪽과 楚山등지에 있는 3개소의 貯水池 堤防에 대한 폭격을 斷行하였다.

이윽고 6월 10일에 敵의 攻勢가 제2군단 正面에 指向되자 공군기들은 戰線으로부터의 支援要請이 輻輳하였으므로 이에 卽應하여 9일동안에 포함 810회에 달하는 出擊을 기록함으로써 後方遮斷 폭격은 기간중 어느 程度 減少되는 趨勢를 보였는데 이것은 이른바 「7.13」攻勢동안에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이 期間中の 韓國空軍의 상황을 概觀한다면 그것은 2월 15일에 增編되어 5월중에 80대의 F-51 Mustang 전투기를 保有하게 된 제10전투비행단의 활동으로 集約될것인데, 이 항공기들은 1월에서 7월사이에 通川-安邊지역과 延安-海州-新幕-黃州등지에 散在하는 目標에 대하여 수시로 폭격을 斷行하고 後方 遮斷作戰의 重要한 一翼을 담당하였으며 또한 空地作戰에 있어서 제1, 제2 兩군단에 대한 엄호에 注力하기도 하였다

또 해군의 활동은 Bernard Brodie著 「A Guide to Naval Strategy」가 밝힌바 『해상力의 役割은 決定的인 요소였다. 그러나 美國이 地上戰鬪에서 勝利하기 위한 方法이나 決心을 갖고 있지 않는限 이 役割은 戰勝에 대한 要素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一瞥하면, 美제7함대(사령관, Joseph J. Clark 소장)소속 제95, 제77의 兩기동부대는 계속 東西海에서 敵해안을 封鎖하고 空軍과 같이 後方 차단을 위한 폭격과 地上軍에 대한 近接항공지원에 그 莫強한 戰力を 發揮하였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을 간추리면 1월 31일과 2월 9일 및 10일 兩日에 航母 Kearsarge號, Oriskany號, Philippine Sea號의 3隻의 海軍항공 모함의 함재기 들은 元山에 大규모 空襲을 실시하였으며 이 동안에 戰艦 Missouri號의 16"砲도 이에 加勢하였다. 그뒤에 계속하여 海역에 대한 空中監視를 강화하다가 3월 23일과 4월 21일의 兩일에는 威興, 淸津으로 出擊하여 後方施設을 強打하였다.

그리고 地上戰이 激化된 時期에는 浦項과 平澤에 기지를 둔 美해병 제1비행단 소속 전 폭기들과 같이 제8군의 近接지원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韓國해군의 기간中の 任務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 東·西兩海에 있어서의 島嶼경비와 掃海 그리고 수송선단 護送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해병대가 占有中인 東海의 麓島—洋島와 延坪島—白翎島—椒島—席島는 이 함정들의 경비下에 있었으며 元山近海와 鎮南浦近海에 대한 掃海는 계속 YMS—501~514의 獨舞臺가 되었다.

또 PF—61, 62, 63, 65號의 護送함정들은 日本 佐世保로 부터 元山近海까지 運航되는 美 수송선단을 보호하였다.

2. 休戰會談 : 前卷에서 言及한대로 제7차 UN總會에 까지 飛火된 捕虜 送還問題는 UN 側이 決議한 自由送還을 거부함으로써 何等의 進展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Clark대장은 지난 12월 13일에 Geneva 에서 開催한 國際赤十字 常任委員會에서 休戰에 앞서 傷病捕虜를 먼저 교환하도록 勸告하자는 決議案을 採擇한데 힘을 얻어 2월 22일에 北傀와 中共에 「傷病捕虜의 相互交換을 위한 필요한 協定」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敵側은 이에도 아무런 反應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3월 5일 Stalin의 急死와 함께 일어난 U.S.S.R內的 變革과 때를 같이 하여 同월 25일에 傷病捕虜交換이 遲延된 責任이 UN군側に 있다고 轉嫁하면서 『傷病捕虜의 交換뿐만이 아니라 休戰會談의 완전한 再開』를 提案하였다.

Clark 대장은 이 事實을 곧 JCS에 報告하고 이 提案에 同意한다는 公翰을 金日成과 彭德懷에게 발송하였다.

東京과 Washington 에서 共產軍側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동안 中共 首相 周恩來는 同월 30일에 長文의 聲明을 通하여 『中共과 北傀는 休戰協商을 再開토록 하기 위하여 모든 捕虜를 中立的인 機構로 이관하여 그들에게 送還받을 權利가 있다는 것을 실득하여 출수 있게 하는 計劃을 受諾하는데 合意를 보았다』라고 主張함으로써 중전까지 固執한 「捕虜들의 強制送還」에서 UN側이 提案한 「自由送還」에 原則적으로 同意하게 되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8일에 결렬된 休戰會談이 再開의 전망을 보이는 가운데 4월 6일에

이러려 雙方의 연락장교가 板門店에서 會合하였으며 여기에서 共產側은 UN側이 起草한 傷病捕虜 交換協定을 討議키로 하였다.

그뒤에 會談은 急進展을 보아 11일에는 이 問題에 있어서 合意에 到達하여 正式調印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의 骨子は 「所定기간내에 雙方의 傷病捕虜를 교환하되 UN側에서는 每日 500명씩 送還하고 共產側은 每日 100명씩을 送還한다」라는 것이었다.

同월 20일부터 시작된 이 送還에서 UN側은 5월 3일까지 순수한 人道的인 見地에서 6,670명(北傀 5,194명, 中共 1,030명, 民間人 446명)을 送還한데 反하여 共產側은 4월 26일까지 684명만을 送還하였으나 그나마도 이들은 모두 이미 洗腦를 받은 者들이고 傷病으로 調査確認한 人員數의 一部에 지나지 않았다.

어쨌든 傷病포로 問題가 이와 같이 妥結을 보는 가운데 4월 26일에는 休戰成立을 가로 막는 一般捕虜의 송환문제를 討議하기 위하여 會合하였다.

捕虜송환 문제에 관하여 UN側代表 William K. Harrison, Jr. 中장은 다음과 같은 要旨의 UN側案을 提示하였다.

『① 捕虜문제를 解決하기 위한 中立國으로서 Switzerland를 指定할 것.

② 實踐될 수 있다는 假定아래 직접 送還되지 않는 기타 捕虜의 처리는 中立國으로 移管할 것.

③ 60일간의 기간을 定하여 雙方捕虜가 그 態度를 決定할 수 있는 時間的인 餘裕를 주고 그 後에도 남아있기를 願하는 捕虜는 中立國에서 適切한 平和的인 措置를 取하도록 할 것.』

以上の 세가지 主張에 대하여 北傀代表 南日은 中立國으로 亞細亞의 一國을 指名하되 UN側이 送還不願포로라고 指稱하는 것은 不當하며 이들은 강제로 抑留되어 있으니 만큼 그 說得에는 60일은 不足하고 180일로 하여야 한다고 修正提案하였다.

南日의 이러한 提案을 要約하면 送還不願포로가 政治的인 亡命處를 얻기 위하여서는 休戰이 成立된 뒤 最少限 9개월의 拘留생활을 거쳐야 하고 그뒤에도 기약없는 政治會談에서 그들의 運命을 決定하는 동안 無限定하게 收容所안에서 기다리게 하자는 내용인데, 이렇게 될 경우 포로들은 오직 收容所內에서의 拘禁生活을 免하겠다는 한가지 이유만으로도 送還에 承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Harrison 대표는 즉시 이를 거부하였지만 南日이 5월 2일에 中立國으로 India, Pakistan, Indonesia 3개 國中에서 擇一하자고 提議한데 대하여 그는 앞서 共產側이 Switzerland를 反對한다면 會談이 再次 休會될 것이라고까지 固執한 立場을 讓步하고 Pakistan을 支持하였다. 그러나 共產側은 同월 7일에 要旨 다음과 같은 8개項을 提案하였다.

『① 休戰成立後 2개월내에 雙方 捕虜를 交換할 것.

② 直接送還되지 않은 雙方 捕虜의 歸國을 容易케 하기 위하여 中立國 送還委員會를

設置하되 中立國을 Poland, Czechoslovakia, Switzerland, Sweden, India의 5개 國으로 指定할 것.

- ③ 송환不願 포로는 中立國 委員會에 移管할 것.
- ④ 未送還 포로의 所屬 本國은 포로를 說得하기 위하여 대표를 派遣할 것.
- ⑤ 中立國 委員會는 포로送還을 촉진할 것.
- ⑥ 4개월間 說得後에도 송환을 不願하는 포로는 高位政治會議에서 해결케 할 것.
- ⑦ 모든 비용은 捕虜소속 本國에서 부담할 것.
- ⑧ 이 提案의 各項目을 全포로들에게 周知시킬 것.』

勿論 이 提案속에는 親共國家를 中立國에 包含시켜 3:2의 유리한 中立國송환委員會를 設置하자는것과 「說得」이라는 美名아래 송환을 拒否하는 포로들을 威脅하고 그래도 不足하다면 無期限 自由解放을 阻害하자는 底意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UN군側은 이들의 提案을 協商의 基礎的인 方案으로 받아들일 用意가 있음을 示唆하고 同월 13일 Harrison은 Washington의 訓令에 따라 大要 다음과 같은 代案을 提示하였다.

『① 5개국 中立國委員會를 認定하되 武裝은 India에만 容認할 것.

② 설득기간이 完了된 다음 北韓系포로는 韓國內에서 民間人으로서 釋放하고 中共포로는 中立國委員會에 移送하여 해결키로 할 것.

③ 中立國委員會의 運營은 拒否權이 없는 多數制로 할 것.』

이상은 Clark대장이 UN군側의 最終案이라고 言明하였으나 南日은 即席에서 『反共韓國人포로를 석방하려는 이 提案은 合意에 있어서 一步後退』라고 宣言하고 宥和態度에 便乘한 양보를 強要하기 위하여 例의 常套的인 長廣舌의 선전연설을 늘어 놓았고 3일뒤에도 이것을 반복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會談은 다시 難關에 逢着하였으며, 이를 注視하던 Whasington當局은 同월 23일에 Clark대장에게 그가 主張한 「休戰成立當日로 反共韓國人포로 全員을 民間人으로서 釋放하려는 計劃」을 뒤엎고 『強制송환 反對原則을 固守하되 韓國人의 未送還포로들도 中國人과 같이 中立國 송환委員會에 인계하도록』訓令하였다.

따라서 UN군側은 從前案을 撤回하고 다시 이른바 最終案을 作成하여 同월 25일에 共產側에 手交하였는데, 이 案의 內容이 韓國軍代表 崔德新 소장에게 알려진 것은 이 案이 敵側에 전달하기 不過 한시간前이었다. 왜냐하면 事전에 이 案이 休戰을 反對하는 韓國側에 알려 진다면 強硬하게 이 案을 反對할 것이라는 憂慮에서 內密히 한 것이라고 일단은 首肯이 가지만 如何튼 韓國의 장래와 3年餘의 戰爭을 해결코자하는 最終단계에서 戰線의 거의 大部分을 專擅하고 있으며 또 이땅의 主人으로서 血鬪하여 온 國軍代表를 立案과정에서 度外 視한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崔代表는 Harrison에게 強硬히 抗議하고

會談에 參席하기를 拒否하였다.

또 이와 같은 處事와 그 秘密提案內容을 알게된 政府와 國民은 이로부터 一致團結하여 屈辱的인 休戰案에 반대하고 그 示威에 拍車를 加함으로써 UN側은 敵보다도 韓國側의 不服을 어떻게 收拾하느냐가 큰 問題가 된 것이다.

當時 李承晚 大統領은 Clark대장의 解明에도 아랑곳없이 6월 6일에 韓國政府의 態度를 闡明하는 다음과 같은 要旨의 聲明을 발표하였다.

『첫째 : 中共을 韓國領土內에서 逐出할 것.

둘째 : 韓·美防衛同盟을 縮結하고 軍事및 經濟兩面으로 韓國을 援조할 것.

셋째 : 今後 韓國의 統一을 妨害하지 말 것.』

그러나 休戰會談은 이에 無關한듯 韓國側代表가 不參한 가운데 會談을 계속하다가 8일에 UN側案대로 雙方이 合意에 到達하고 이에 調印하였으니 그 內容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中立國送還委員會는 Sweden, Switzerland, Poland, Czechoslovakia, India의 5개국으로 構成하여 送還을 拒否하는 포로들을 韓國內에서 管理한다.

② 中立국가운데서 印度만이 業務수행에 필요한 軍隊를 派遣하고 기타의 4개국은 50명以內의 補助員을 派遣키로 한다.

③ 送還을 遂行하기 위하여서나 或은 阻止하기 위하여 포로를 脅迫한다던가 武力을 行使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歸國을 希望하는 포로들은 休戰이 成立된 뒤 60일 以內에 送還한다.

⑤ 포로의 소속국은 송환에 關한 諸事項을 說明하기 위하여 90일間 그 代表를 포로 天幕에 派遣할 수 있다. 但 代表數는 포로 1,000명에 대하여 7명을 超過할 수 없으며 總數는 적어도 5명이상으로 한다.

⑥ 포로 說得은 中立國委員會 各國으로 부터 각각 1명과 抑留側으로부터 1명의 代表者가 立會한 자리에서 施行키로 한다.

⑦ 中立國송환委員會에 移管되어 있는 동안 귀국키로 決定한 포로들은 委員會의 多數決로 그 決定의 是非를 判定한다음 送還시킨다.

⑧ 90일이 경과한 後에도 귀국을 拒否하는 포로들은 政治會議에 委託한다.

⑨ 政治會議가 30일間 討議한 後 그래도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은 이를 民間人으로 釋放한다. 그 後 포로가 希望한다면 中立國으로 갈수 있는 기회를 賦與하되 中立國으로 移動시키는 것은 30일以內에 完了한다.

⑩ 송환委員會 및 附屬기관은 多數決에 依하여 운영한다. 또한 이 委員會는 120日로써 解散한다.』

이 가운데서 韓國側이 納得할 수 없었던 것은 人道主義를 그토록 부르짖은 UN이, 戰爭·

중에는 국제協約을 遵守하기 위하여 萬不得已 拘留하고 있다하더라도 「왜 北韓으로 송환되기를 決死코 反對하는 포로들을 休戰 直時로 석방하지 않고 中立國에 넘겨야 하느냐」에 있었다.

그러므로 休戰을 阻止하려는 韓國民의 반대示威은 더욱 熾烈하게 전개되었으며, 이에 따라 UN側을 代辯하는 美側의 關心과 기우가 敵의 공세로 激化된 戰線못지 않게 큰바가 있었는데, 同월 18일에 이르러 34,000명中 27,000명의 「反共포로석방」이 李承晩大統領 獨斷命令으로 實現되었다.

이 문제는 後方戰史에서 詳述할 것이지만 Dwight D. Eisenhower 美大統領은 그 著書 『The White House Years Mandate For Change』에서 밝힌대로 『韓國은 UN군의 權限을 侵犯한 것이 아니냐』는 要旨의 書翰을 李大統領에게 보내 항의하는등 利害를 달리는 兩國間에는 한때 자못 미묘한 局面을 보였으며, 또한 北傀와 中共은 UN군과 韓國이 共謀하여 反共포로들을 석방하였다고 非難하고 신속히 全員을 再收容하라고 强要하였다.

그러나 INS 通信의 Howard Handleman記者는 이 問題에 관하여 『休戰前夜에 이처럼 劇的으로 UN군 司令部를 無視한 것은 UN군과 함께 일하고 있는 大韓民國이 北韓傀儡政府로서는 中共에 대하여 꿈도 꾸어 볼수 없는 행동의 自由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民族的 自主權의 이를 밑에서 取하여진 行動이다.』라는 正當한 韓國側 辯護의 筆鋒을 아끼지 않았다.

이와같이 反共포로 釋放에 寸 衝擊은 큰바 있었으나 이에 美國은 앞으로 共產側과 締結코자하는 休戰協定이 韓國側의 諒解없이 성취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새삼 認識하게 되어 同월 25일에 Walter S. Robertson 國務次官補를 Eisenhower 大統領의 特使이라는 資格으로 派韓하고 UN군이 達成하려는 노력에 協力할 것을 從憑하였다.

Robertson은 來韓하는 即時로 李大統領 및 政府要人들과의 頻繁한 會談을 통하여 『李大統領의 獨斷은 매우 無益한 일이며, 만약 事理에 맞는 태도를 取하기만 한다면 美國의 힘을 빌려주기를 保證』(The White House Years Mandate For Change, vol. 7) 하였는데 이로써 7월 12일 兩國間에는 休戰成立을 위한 合意에 到達하고 그 要旨 다음과 같은 共同聲明을 발표하였다.

『① 雙方은 韓美兩國間에 存在하는 깊은 友好精神을 强調하며 率直하고도 懇曲한 의견의 交換을 통하여 休戰協定과 포로交換 및 將來할 政治會談에 關聯되는 여러 難問題에 相互 이해를 깊게 하였다. 共產主義의 侵略이 시작된 以來로 兩國關係를 特別하게 만든 우리들의 共同目的을 위하여 休戰後에도 긴밀한 接觸을 계속하고 다시 이를 擴大시켜 나가기로 決意를 굳게 하였다.

② 捕虜문제에 관하여는 그 어느 捕虜라도 脅迫當하여서도 아니되고 어떤 期間을 經過한 後에라도 共產軍支配下로 송환되기를 원치 않는 모든 捕虜는 南韓에서 석방될 것이며

反共中國人포로에 대하여는 그들이 선택하는 目的地로 갈 수 있도록 석방된다는 決意를 再確認하였다.

③ 韓·美兩國은 相互防衛條約을 체결하는데 同意하고 交渉을 진행중이며 다시 政治·경제·防衛등의 問題에도 協力할 것을 討議하였다. 그리하여 廣範한 문제에 관하여 意見一致를 보았고 特別히 共同目的인 自由獨立과 統一된 韓國을 最短期間에 實現하기 위하여 相互協力할 것이라는 決意를 強調하였다.』

이리하여 李大統領이 休戰協定에 妨害하지 않기로 同意하게 되자 UN군사령관 Clark 대장은 敵側에게 韓國이 休戰을 지킬것을 保證하여 드디어 同월 27일 10.00에 이른바 「UN군總司令官을 一方으로 하고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 義勇군 司令官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韓國軍事停戰에 관한 協定」을 板門店에서 Harrison과 南日사이에 조인케 되었으며 이어서 Clark 대장과 金日成 및 彭德懷가 이에 署名함으로써 1951년 6월 23일 U.S. S. R의 Jakov Aleksandrovich Malik의 提案으로 發端이된 休戰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3. 國內外의 一般情勢 : 이해 劈頭에는 美國에서는 20年間の 民主黨 執政으로 부터 共和黨政府가 發足하였고 U.S.S.R에서는 Stalin이 死亡하고 그 後繼로 Malenkov가 登場하였다.

그리하여 美國에 있어서 Eisenhower行政府가 取한 對外 強硬 政策은 U.S.S.R의 새로운 執權層이 權座를 정비하는 동안에 더욱 두드러지게 내세운 이른바 平和攻勢로 점차 變貌되었다고 할 것이다.

1월 20일에 就任한 Eisenhower大統領은 그의 연설을 통하여 今後의 對外政策에 있어서 9개 原則을 適用할 것을 闡明하여 이르기를

- 『① 侵略을 방지하고 平和수립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條件을 強化한다.
- ② 侵略者에 대한 世界의 安全保障을 維持하기 위하여 如何한 宥和政策도 排除한다.
- ③ 모든 自由국가와 國民의 안전은 個人問題에 優先되어야 한다.
- ④ 美國이 지닌 政治·경제制度를 他國에 강요하지 않는다.
- ⑤ 自由國家內의 相互安全 保障을 위하여 援助한다.
- ⑥ 모든 自由國家에 대하여 安全보장과 복지를 이룩하는데 協力하는 同時에 可能한 資源限度內에서 自由防衛에 대한 充分하고도 正當한 負擔을 지도록 한다.
- ⑦ UN憲章의 範圍 안에서 自由國家 相互間의 地域的인 協리기구가 形成되는데 協力한다.
- ⑧ 各國은 自由와 平和를 유지하기 위하여 UN精神을 宣揚하고 UN를 効率的으로 育成한다.』라고 하였다.

이 當時 Asia지역에서는 韓國戰에 이어 印支전쟁이 계속되었고 Philippine과 Malaysia에서는 Hook등 共產反徒의 跳梁으로 病들어 갔으며 Iran에서는 5월 2일 Mossadegh首相이 主役이 되어 推進한 英國系石油會社의 國有接受 조치로 말미암아 波紋이 일고 있었다.

또 Suez 運河지대에서는 이곳 駐留英國軍이 Egypt 軍과 衝突하는 등 세계의 到處에서 紛爭이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Europe에서는 지난해 總규모 43개사단 1,250,000명의 歐洲防衛軍이 創設되기는 하였으나 France議會는 이를 認准하지 않았다.

따라서 美國의 새 行政府는 이러한 懸案問題에 直面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全面戰爭을 避하는 길은 오직 하나이며 그것은 現冷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2월2일 Eisenhower 大統領이 議會에 보낸 一般敎書中에서)라는 主張이 그 指標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간中에 美國의 對外활동을 대략 더듬어 살펴보면 2월 2일, 美제7艦隊의 臺灣해협에 대한 封鎖 措置를 解除하였으며 同월 18일에는 國務長官 John Foster Dulles가 初度記者會見에서 제3차 世界大戰을 방지하기 위한 布石으로 韓國 및 印支戰의 早期 妥結을 言明하였다.

또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에는 Dulles를 위시한 美政界高位層의 歐州各國巡訪이 있어서 歐洲防衛軍의 各國議會 認准을 促求하는 한편 石油資源을 둘러싼 運河지대의 利權과 安全에 關聯된 當事國間의 仲裁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리하여 Eisenhower大統領은 5월에 이르러 對外援助費를 增額하여 總 58억 2,800만 \$을 議會에 要求하고 歐洲지역 25억3,000만 \$, 극동지역 7억 \$, 中東지역 4억7,500만 \$을 配定할 것을 예정하였는데 이에는 對韓援助 7,500만 \$, 印支戰을 수행하는 France의 軍장비와 軍需資材費로 7억 \$이 包含되어 있었다.

또한 美國은 3월 5일 Staline死亡과 이에 따른 共產衛星國들의 動搖가 顯著하게 드러나게 되자 心理作戰을 위한 基金도 종전의 1억 \$에서 1억5,000만 \$로 늘었으니 6월 1일에 東 Berlin에서 暴動事態가 일어나고 점차 그 기세가 衛星국가 全般에 파급된 것도 이러한 積極姿勢에 基因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U.S.S.R은 지난 연말에 Staline이 美新政權의 예상되는 對소政策을 牽制하기 위한 불은 平和공세로 Eisenhower에게 『① 世界平和를 위하여 美國과 협력할 用意在 있으며 ② 美소戰爭은 避할 수 있을뿐 아니라 共存할 수 있고 ③ 韓國戰爭을 終結지우기 위한 새로운 外交交渉에 協力하며 ④ 美國이 희망한다면 美소兩巨頭會談開催에 찬성한다.』라고 한바 있었다.

그런데, 새해에 들어서 Staline이 스스로 提案한 이와 같은 美소頂上會談은 그가 3월 5일에 急死케 되어 自然流產되었으나 그 後任에 登壇한 新權力層도 이 路線을 踏襲하여 보다 熾烈하게 平和공세를 펴게 되었다.

U.S.S.R의 平和공세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5일까지 東 Berlin에서 開催된 世界平和評議會와 同年 10월 2일에 北京에서 있었던 太平洋—Asia지구 最初の 平和大會를 軸으로 하여 戰爭을 阻止하려는 것은 U.S.S.R이며 韓國戰爭의 平和的 解決을 바란다고 하였으며 同年

12월에는 다시 Vienna에서大會를 열어「韓國」「Indo china」「Malaysia 半島」의 戰爭終結을 決議함으로써 다시 또 붉은 책략을 偽裝하였던 것이다.

戰爭의 危機는 西方側의 Europe방위계획의 發展과 Malenkov의 執權등으로 多少 緩和된 感을 주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冷戰이 本質적으로 後退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6월 1일에 東 Berlin 反共人民蜂起에 이어 東歐衛星국가內에서 人民들의 累積된 不滿이 계속 爆發될 기세가 보이자 U.S.S.R 當局은 對內的인 책임이라하여 Stalin시대의 下手人인 Belia-派를 肅清하는 동시에 對外的으로는 一時 軟化되었다고 볼 수 있는 協調의 態度를 豹變하여 硬化되었기 때문이다.

共產陣營內의 內紛이 存續하는 限 U.S.S.R의 平和攻勢는 당분간 그대로 지속될 것이 예상되었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苦肉之策으로 對民撫摩策을 쓰지 않을 수 없어 一時나마 消費財 생산을 늘리기로 하는 政策의 轉換이 U.S.S.R를 비롯하여 그들 衛星국가에서 연달아 採擇되었으니 이 사실만은 共產主義 政治의 後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다음에 國內情勢를 概觀하면 이 기간은 大體로 議會內의 與黨이 表面上 세력을 확장케 됨으로 말미암아 政府와 議會가 그 안정 위에서 切迫한 休戰問題에 대처하게된 緊張期에 해당할 것이다.

지난해 8월에 實施된 大統領 선거 以後에 自由黨이 추진한 與黨勢力의 包攝工作은 그 成果를 거두어 갔으며, 그 反面에 野黨勢力의 凋落相은 현저하였다.

즉, 改憲案이 上程될 당시에는 議席 分布가 院外自由 52, 院內自由 52, 民國 38, 民友 23, 無所屬 18이던것이 이해 6월에는 自由黨이 103, 民國 29, 無所屬 20 純無所屬 31로 그 版圖가 크게 뒤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優勢를 차지하게된 自由黨이라 할지라도 急速成長과정에서 必須的이라고 할 수 있는 內實을 期하지 못하여 自中之亂을 免할 수 없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族胄系와 非族胄系사이의 內紛으로 變하여 政治面에 있어서 어두운 局面을 보이게 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20일에 召集된 제15回定期國會는 3次の 會期 延長을 보아 6월 1일에야 閉會하였는데, 이간에 國會는 1953年度 豫算의 통과뿐만이 아니라 許多한 案件을 처리하였다. 그 가운데서 國會法 改正案은 그 骨子가 國會內의 各分科委員長을 各分科委에서 選出하지 않고 本會議에서 선출한다는것과 國會豫算委員會를 新設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政府가 拒否態度를 보였음에도 國會는 이를 貫徹하여 1월 29일 선거를 실시하여 14개 分科中 與黨側이 3席을 野黨側이 11席이란 結果를 보였으며, 2월 15일에 실시된 圖에서 圖으로의 通貨改革措置에 國會는 이를 事後承認하는 同時에 당초의 預置金 支拂限度額을 緩和하여 15일 以前과 以後로 나누어 각각 10萬圓과 3萬圓으로 規定하였다.

또 새해 豫算案에 대하여서는 政府案을 수정한 430億圓에 달하는 龐大한 赤字豫算을 通過시켰는데 여기에는 外國원조의 補填策이 前提되었다.

한편 休戰문제를 둘러싼 國會의 활동에 있어서는 國民들의 앞장에서서 國土의 兩斷을 永續케 할 休戰에 反對하고 UN會員 各國에 대표를 파견하여 韓國民의 總意를 인식시킬 것과 아울러 景武臺와 汶山에도 代表를 보내 國民의 의사를 反映키로 하였다.

이어서 6월 3일에 召集된 제16回臨時國會는 休戰問題의 惡化에 따른 諸般 緊急問題와 參議院 選舉法案, 國寶海外 搬出法案의 再審등이 要講되는 가운데 開會를 보았으나 同月末에 이르도록 切迫한 休戰問題에만 沒頭케 됨으로써 기타案件의 처리에 대하여서는 전혀 이를 處決할 여유를 갖지 못하였다.

休戰會談은 이 사이에 捕虜交換協定이 調印을 본 以後 마지막 細則討議단계로 들어가는 急進展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我側의 關與를 否認하는 秘密會談이 거듭되기에 이르자 國民들의 憤怒는 마침내 舉族의인 休戰 決死반대운동으로 爆發하였다. 이에 國會는 6월 4일에 休戰對策委員會를 구성하고 休戰動向에 대한 제반 情세를 調査케 하고 政府의 對策등을 문의하도록 決議하는 한편 休戰會談의 韓國側 대표를 招請하여 그 進陟상황을 淸취한바 있었다.

다시 同월 9일에는 UN側의 새로운 提案을 기초로한 어떠한 會談에 대하여서도 이를 反對하고 政府가 提示한 5개 原則과 李承晩 大統領이 提案한 「韓美共同防衛協定」의 締結을 包含한 3개 條項이 채택되기 前에는 休戰協定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再申明하고 同월 15일에서 23일까지 休戰問題에 대한 歸鄉報告次 임시 休會하였다.

그 후에도 休戰會談이 계속 兩側에 의해 秘密회의로 進行되고 또 對美折衝이 兩國政府의 高位會談 形式으로 進行되기에 이르러 이에서 遊離된 國會는 자연 間接的인 역할밖에는 기대할 수 없는 立場에 處하게 되었다.

또 경제사정은 國家의 總需要와 供給의 不均衡으로 말미암아 惡化되었으며, 나라속 國內 경제는 外國援助에 의존하는 形편 그대로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基幹인 農村경제는 그동안 政府가 累次に 걸쳐 言約하였음에 不拘하고 農村開發과 再建사업등이 放任된 그대로였고 더구나 지난해의 旱魃로 因한 作物의 凶作이 겹쳤는데, 여기에 다시 一般物價에 대한 穀價조절의 未備와 高價의 營農生産費, 그리고 農村融資의 不振과 280여種目에 이르는 雜賦金등으로 慘酷狀을 加重하는 形편이었다. 이러한 실정은 立稻 및 立麥先賣라는 弊端까지 남게되어 世論을 沸騰케하고 國會內에서의 爭點으로까지 飛火된바 있는데, 이에 政府는 導入糧穀 및 肥料의 搬入促進과 立稻貸金 및 救護糧穀의 放出이란 緊急對策을 강구하게 되었으나 이미 全面化한 農村의 疲弊에 대하여서는 그 彌縫策으로서도 오히려 未洽하였으며 時期를 놓친 도입사업의 不振도 또한 國民들의 焦操感만을 부채질하였다.

또 商工業과 通貨部面에 있어서도 그 위험성은 決코 農村에 뒤떨어지지 않았으나 開戰後 계속 膨張된 Inflation의 큰 原因이 UN軍貸與金 放出에 있었음은 사실일 것이지만 2월

15일에 斷行된 通貨개혁의 조치와 一時的으로 해결을 보았던 UN군 貸與金에 대한 청산협정이후의 趨勢에 있어서도 物價와 通貨膨脹의 危險은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다시 外貨대여 및 援助物資 판매에 대한 圓貨回收策을 兼用하였으나 所期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金融과 外貨의 혜택을 독점한 一部産業面에는 畸形的인 活氣가 充溢되어 國內通貨를 吸收 축적하게 된 독점상인들이 획책하는 物價가 國民生活를 威脅하고 國內산업을 萎縮케 하였다.

이와같은 경제 危機를 增大하게 된 要素에는 勿論 戰爭遂行이라는 最高至上의 課業完遂를 위한 必然的인 現象이라고도 하겠으나 당시에 指摘한바로는 財政의 收支均衡을 잃은 政府가 消費物資에만 치중하는 外國援助를 土臺로 하여 目前의 小利에만 汲汲하였다는 消極的인 정책, 그리고 無계획성과 非能率性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 外國援助에 의한 難局의 打開策은 지난해 韓美兩國사이에 맺어진 協定에 따라 『경제부흥사업은 休戰이 된지 180일이 되는 날부터』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膠着상태의 長期化로 國民生活의 低下가 戰爭수행에 지장을 가져옴으로써, 當初의 方針을 바꾸게 되고, 지난해 8월부터 總額 7,000만 \$의 復興사업이 着手되어 6월에 滿了케 되어있었다. 그러나 이에는 消費物資도입이 적지 않은 比重을 차지하였으며 계획면의 제약과 不充分한 額面때문에 本格的인 再建사업의 전개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4. 綜合戰果 : 다음은 1950년 6월 25일 未明에 北傀의 南侵으로 시작된 韓國戰爭은 休戰의 成立으로 끝이 났거니와 그 間에 있어서 暴赫진 國軍의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1950. 6. 25~1953. 7. 27)

구분 \ 군별	陸 軍	海 軍	空 軍	海 兵 隊	計
射 殺	479,500	13,000	900	15,500	508,900
捕 虜	89,900	1,200		2,900	94,000
投 降	3,500	2,100		100	5,700

損 失

구분 \ 군별	陸 軍	海 軍	空 軍	海 兵 隊	計
戰 死	225,800	700	100	1,200	227,800
失 踪	43,200	100		200	43,500
戰 傷	710,000	500		6,600	717,100

第 58 章

東部戰線의 戰況

要 旨

1. 351高地 早己 戰鬪
2. 854高地 및 812高地 戰鬪
3. 谷內 北岑 無名高地 戰鬪
(一名, M1高地 戰鬪)
4. 1,090高地 戰鬪
5. 鮮于高地 戰鬪

第58章 東部戰線의 戰況

要 旨

本章에서는 南江河口의 △351에서 北漢江上流에 이르는 東部戰線을 담당한 제1군단과 美 제10군단의 戰況을 收錄하였다. 제1군단(장, 李亨樹 중장)은 새해로 접어 들면서도 제5사단을 右翼, 제11사단을 左翼으로 하여 北隄 제7군단과 對陣하고 Cat線의 主抵抗線을 堅守 하였는데 新編 제15사단이 1월 12일에 군단에 배속됨에 따라 2월 1일에는 戰線으로 進出し켜 右翼을 담당케 하고 제5사단을 예비로 轉換 하였으나 4월 13일에는 제2군단으로 배속이 변경되고 新編 제21사단이 배속되면서 군단예비가 되었다.

그런데 제11사단이 6월 15일附로 美 제9군단으로 배속이 변경 됨으로써 제21사단은 左翼을 담당하기에 이른다.

南江을 사이에 두고 敵의 主力과 對峙한 군단은 比較的 小康상태를 維持하고 다만 偵察戰과 潛伏을 強化 하였는데 6월 2일에는 1개대대 규모의 敵이 △351를 急襲하여 이를 奪取하였다.

이에 제15사단은 15일 까지에 걸쳐 無慮 10회나 逆襲을 敢行하여 血戰을 거듭 하였으나 이를 奪取하지 못한채 美 제8군의 指示로 中止하였는데 7월 17일에는 그 南쪽의 △339마저 喪失하였다.

한편 美 제10군단은 제12사단, 美 제40사단, 그리고 제7사단을 一線에 내세워 瑞和里溪谷—北漢江沿岸에 이르는 Minnesta線을 확보하여 北隄 제3군단 및 中共 제60군 一部와 對峙하고 美 제45사단을 예비로 控置하였다. 그런데 1월 29일에는 美 제45사단이 美 제40사단과 交代하고 2월 8일에 제20사단이 군단에 배속됨으로써 戰鬪地境線을 調整하여 그 中央右翼을 담당케 하

었다.

한편 美 제40사단은 3월 25일에 美 제9군단으로 배속이 변경 되었다가 4월 19일에 復歸와 동시에 제20사단과 交代하고 제20사단은 美 제8군예비가 되었으나 5월 11일에는 再배속과 동시에 제7사단의 作戰任務를 引受한 다음 군단에 배속되어 參謀訓練중인 再編 제3군단의 區處를 받기에 이른다.

제7사단은 美 제8군예비로 轉換되었으나 6월 10일부터 시작된 敵의 攻勢로 打擊을 받은 제5사단이 군단 戰鬪地境線의 변경으로 6월 15일附로 군단左翼이 되자 다음날에는 急遽 재배속과 동시에 이를 增援하여 露出된 西側方을 防護하면서 제5사단의 再編을 도왔다. 그런데 戰列을 가다듬은 제5사단이 6월 21일에 제2군단으로 復歸함에 따라 제7사단은 그 戰區를 引受하고 또 다시 左翼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所謂, 713, 攻勢로 제2군단의 戰況이 急迫하여지자 7월 18일에는 제2군단으로 배속이 변경되어 이를 赴援하기에 이르렀다.

期間中에 군단에서는 제12사단이 6월 2일에 △812를 喪失하자 7월 17일까지 北隄 제3군단과 △812를 圍繞하고 激戰을 벌였으나 成果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제20사단은 6월 10일부터 23일 까지에 걸쳐 M I高地와 △1,090에 대한 36회의 敵侵을 불리치고 이를 계속 확보하였다. 한편 제7사단은 6월 26일에 △938(鮮于高地)를 喪失하게 되자 7월 1일까지 5회에 걸쳐 逆襲을 敢行하여 激戰을 벌였으나 이를 恢復하지 못하고 제2군단으로 배속이 변경되었다.

1. 351高地부근 戰鬪

제 1 차戰 (1953년 6월 2일부터
// // 6일까지)

제 2 차戰 (1953년 6월 15일)

제 3 차戰 (1953년 7월 17일부터
// // 18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2호
상 황 도 제3~8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 1 차전>

제 1 군단	장 중장	李 桴 根	제 3 대대	장 소령	李 永 護
제 15사단	장 준장	李 貞 錫	수색중대	장 대위	金 銀 堯
제 38연대	장 대령	李 東 和	배속부대		
	장(대리) 중령	咸 晟 烈	제 50연대 제 1 대대	장 소령	權 保 衡
		(6. 4 부터)	제 2 대대	장 소령	玉 昌 鎬
제 1 대대	장 소령	金 鍾 九	제 3 대대	장 소령	柳 致 文
제 2 대대	장 소령	黃 炳 宇	수색중대	장 대위	文 五 三

<제 2 차전>

제 15사단	장 소장	白 仁 燁	제 3 대대	장 중령	李 弘 根
		(6. 13 부터)	배속부대		
제 39연대	장 대령	朴 仁 勇	제 38연대 제 5 중대	장 대위	李 哲
제 1 대대	장 소령	金 昌 烈	사단공병대대제 1 중대	장 대위	吳 洪 錫
제 2 대대	장 소령	吳 允 石			

<제 3 차전>

제 15사단	장 소장	崔 榮 喜			(6. 17 부터)
		(6. 26 부터)	제 1 대대	장 소령	張 翊 粹
제 38연대	장 대령	劉 載 成			(6. 15 부터)

제 2 대대 장 소령 金 鍾 九
(6. 15 부터)

제 3 대대 장 중령 安 宅 煥
(6. 6 부터)

수색중대 장 대위 金 銀 童

배속부대

사단수색중대 장 대위 李 甲 淳

지원부대

제26포병대대 장 소령 安 炳 善

제68포병대대 장 소령 金 昌 建

제99포병대대 장 중령 鮮 于 淳

제106중박격포중대장 대위 崔 順 基

제56전차중대 장 대위 李 根 華

美 제 7 함대

美 제 5 공군

인접부대

左隣接 제11사단 장 준장 林 富 澤

제21사단 장 준장 閔 畿 植
(6. 12 부터)

敵 軍

北傀제 7 군단 장 중장 李 榮 浩

제 3 사단 장 소장 吳 鎭 宇

제 7 연대 장 대좌 金 淳 國

제 8 연대 장 대좌 金 海 方

제 9 연대 장 대좌 姜 鳳 嬌

제 7 사단 장 소장 宋 德 萬

제51연대 장 대좌 金 海 晚

제53연대 장 대좌 崔 東 洙

제54연대 장 대좌 朴 夏 榮

나. 전투전의 개황

제15사단은 국방일반명령 (陸) 제206호로 1952년 11월 8일 襄陽郡 降峴面 前津里에서 창설되어, 初代 사단장에 李貞錫 준장이 就任하고, 그달 14일에는 陸本直轄부대로서 永川과 巨濟에서 포로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제38연대와 제39연대, 그리고 嶺南 및 湖南지구에서 공비토벌에 임하고 있던 제50연대가 同사단에 豫속되었다. 사단은 그해 12월10일—1953년 1월10일까지 4주간의 U.T.C교육을 마치고 이해 1월 12일부터 제1군단(장, 李亨根 중장)에 豫속되었으며, 同時에 杆城으로 이동, 군단교육계획에 따라 1월 15일—25일까지 10일간의 부대종합훈련과 경비를 완료하고 次期임무를 待命중 군단 작전명령 제170호(53.1.26)에 의거 제5사단이 수행하고 있던 東海岸地區 방어임무를 인수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사단장은 동일부로 작전명령 제3호를 하달하여 1월28일에는 제50연대를 제36연대와 교대 사단의 右一線에, 1월29일에는 제38연대를 제35연대와 교대 사단의 左一線에 各各 배치하고, 1월 30일에는 제39연대를 제27연대와 교대하여 사단 예비로 하여 山頂里(巨津 西北쪽 5km)에 控置하는 한편, 사단사령부를 高城郡 巨津面 大岱里(巨津 西南쪽 3km)에 開設하고 東海岸地區 防禦작전에 臨하였다.

敵軍의 상황 : 당시 判明된 당면의 적은 北傀 제7군단(장, 중장 李榮浩)에 하의 제3사단(장, 소장 吳鎭宇)과 제7사단(장, 소장 宋德萬)으로써, 제7군단은 元山지역에서의 해안방어임무를 1952년 12월 25일 제2군단에 인계하고 高城으로 南下하여 그 다음해인 1953년 1월 20일부터 제1군단의 뒤를 이어 東部전선에 투입되어 제3사단을 右翼으로하여 南江西岸의 山岳지대에, 제7사단을 左翼으로하여 그 東便의 丘陵地帶에 전개하고 제9사단(제1군단 예하)을 通川에 控置하여 豫備로 하고 我 제1군단과 대진케 되었다.

그들 제3사단은 1946년 10월에 창설되어 전쟁 初頭에 平康, 澗川경유 全谷에서 東豆川방면으로 침

40 東部戰線의 戰況

입한 部隊인 것으로 알려졌고, 제7사단은 1950년 5월 초에 元山에서 中共軍 韓人출신을 主軸으로 편성한 전투경력이 가장 많은 막강을 자랑하는 부대로서, 開城을 경유 서울방면으로 侵入한 경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7사단은 司令部를 溫井里에 두고 제53연대(장, 대좌 崔東株)를 一線에 投入하고 제54연대(장, 대좌 朴夏榮)를 高城—長箭간의 海岸을 방어케 하는 한편 제51연대(장, 대좌 金海晚)를 사단사령부 附近에 두어 豫備로 하였다. 또 제3사단은 사령부를 楡岾寺(高城 西쪽 15km)에 두고 제8연대(장, 대좌 金海方)를 右一線에, 제9연대(장, 대좌 姜鳳嬌)를 左一線으로 하고 제7연대(장, 대좌 金淳國)를 豫備로 確保하였는데 이들은 이地域에 投入된 以來 부단한 탐색과 거습으로 사단정면을 침범하였으나 그때마다 敗北를 거듭하였으며, 5월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사단과의 接觸을 회피하는 듯 하였다.

지난 4월 27일에 俘獲한 捕虜진술에 의하면 그들은 그간 손실한 兵力과 裝備를 보충하고 진지를 보강하는 한편 戰鬪 및 支援부대를 증강하면서 休戰會談의 成熟과 때를 같이하여 제53연대의 제2대대를 溫井里에 뽑아 △351 탈취를 위한 예행연습을 2개월간에 걸쳐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무렵 그들은 戰線에 병력과 부대를 증강하였으며 그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이 判明되었다.

部 隊 調 整 現 況

단위 : 대대

부 대		구 분		비 고	
		전 선	예 비	전 선	예 비
보 병	전선사령부 보충대대		3	1	2
	제3사단	4	5	5	4
	제 7 사단	3	6	4	5
	제 9 사단				9
	수색대대			1	
계		7	14	11	20
포 병	제 3 사단 포병연대	2		2	
	제 7 사단 포병연대	3		3	
	제 9 사단 포병연대		3		4
	계	5	3	5	4
증 원	제 7 군단직속 박격포여단				4
	제 7 군단직속 자주포대대				1
	제37사단 포병연대				4
	계				9
총 계		12	17	16	33

我軍의 상황 : 對戰初期인 51년도, 이곳 東部전선의 △351(高城 南쪽 7.5km) 및 月比山(高城 西南쪽 8km)은 北傀 제6군단 예하 제19사단의 占領下에 있었던 곳으로써, 그해 10월 首都사단 기갑연대(장, 李 龍 대령)가 이 地域을 奪取하여 月比山—△149—△185(高城 南쪽 6km)를 連하는 線까지 진출함으로써 失地恢復에 進一步의 발판을 굳혔다. (제7권 제1차 月比山 전투 참조)

그뒤, 이 사단이 그해 11월 16일 白野戰司令部 예하로 轉出함에 따라 그 左인접의 제11사단이 同日부로 이 지역을 인수하여 예비로 있던 제9연대로 하여금 防守계함으로써, 同사단은 무려 27km에 달하는 伸張된 防禦正面을 담당케 되었다. 그러나 虎視眈眈 機會를 노리고 있던 적의 침공을 받아 사

단은 진지를 인수한지 8일만에 月比山-△149-△185를 그들 수중에 돌려주고, 한때는 △351마저도 빼앗기는 困辱을 치루기도 하였으나 血戰의 연속끝에 再確保하여(제7권 月比山 제2차전 참조) 다음 해인 1952년 1월13일 수도사단으로부터 인수한 이곳을 제5사단에 인계하였으며, 제5사단 亦是 이 지역의 防衛에 있어 두차례(7월, 11월)의 主人이 뒤바뀌는 攻防의 격전을 연출한 바있었으나 끝내 固守에 성공하고(제8권 △351 전투 참조) 제15사단에 이어진 것이다.

사단장 李貞錫 준장은 제5사단에서 인수한 방어계획을 검토한 연후 이 지역의 방어임무를 成功的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東海岸(鱒湖 南端에서 東으로 500m)-△554(제11사단과의 制限點이며 △351 南쪽 11km)간의 16km에 달하는 방어경면을 兩分하여 外面縣(△351 南쪽 4km) 以東을 제50연대(장, 趙蘇英 대령)로, 水嶺(△351 南쪽 4km) 以南을 제38연대(장, 李東和 대령)로 하여 各畝 一線에 배치하고 제39연대(장, 朴仁勇 대령)를 山頂里와 松嶺里(高城 南쪽 13km)에 控衛하는 한편, 사단의 4개 포병대대는 松峴里와 明波里(巨津北쪽 11km)一帶에서 다음의 임무를 수행케 하였다.

제26포병대대(105mm) — 제50연대 직접지원

제67 " — 제38연대 "

제68 " — 일반지원

제99 " (155mm) — 일반지원

이와동시에 제106迫擊砲(4.2")중대(-)와 제56 전차중대(-)는 右一線연대를, 이들 나머지 1개소 대로서는 左一線연대를 支援토록 함으로써 사단右翼에 重點을 두었으며, 사단 工兵대대의 각 중대는 畝연대를 직접지원케하여 진지공사, 障礙物 設置 및 보강, 그리고 補給路의 擴張과 보수에 臨하게 하고, 通信중대로써는 모든 有線의 埋設과 有, 無線通信網을 檢討整備케 하였다.

한편으로는 軍단작전지시 제17호 및 사단작전지시 제18호에 의거 수색정찰, 감복 및 強襲으로 敵을 進軍으로 誘引하여 擊滅하는 등 100여회에 달하는 小戰鬥을 수행하여 항상 作戰의 主導權을 堅持하면서, 傳單撒布와 對敵방송을 통한 心理戰으로 投降을 勸誘케 하여 積極 수접에도 積極 않은 成果를 거두었다. 또한 부대교대계획을 樹立하여 豫備로 있던 제39연대를 4월11일부로 左一線에 전개하고 제38연대를 豫備로 한 바 있었는데, 그후 5월22일에는 사단의 右一線에서 전공을 세운 제50연대를 제38연대와 交代케하였다.

이와같이 戰線을 整齊한 사단은 계속적인 진지보강과 防衛 및 경계를 강화하고 예상되는 적의 공세를 사전에 粉碎코자 수색정찰과 감습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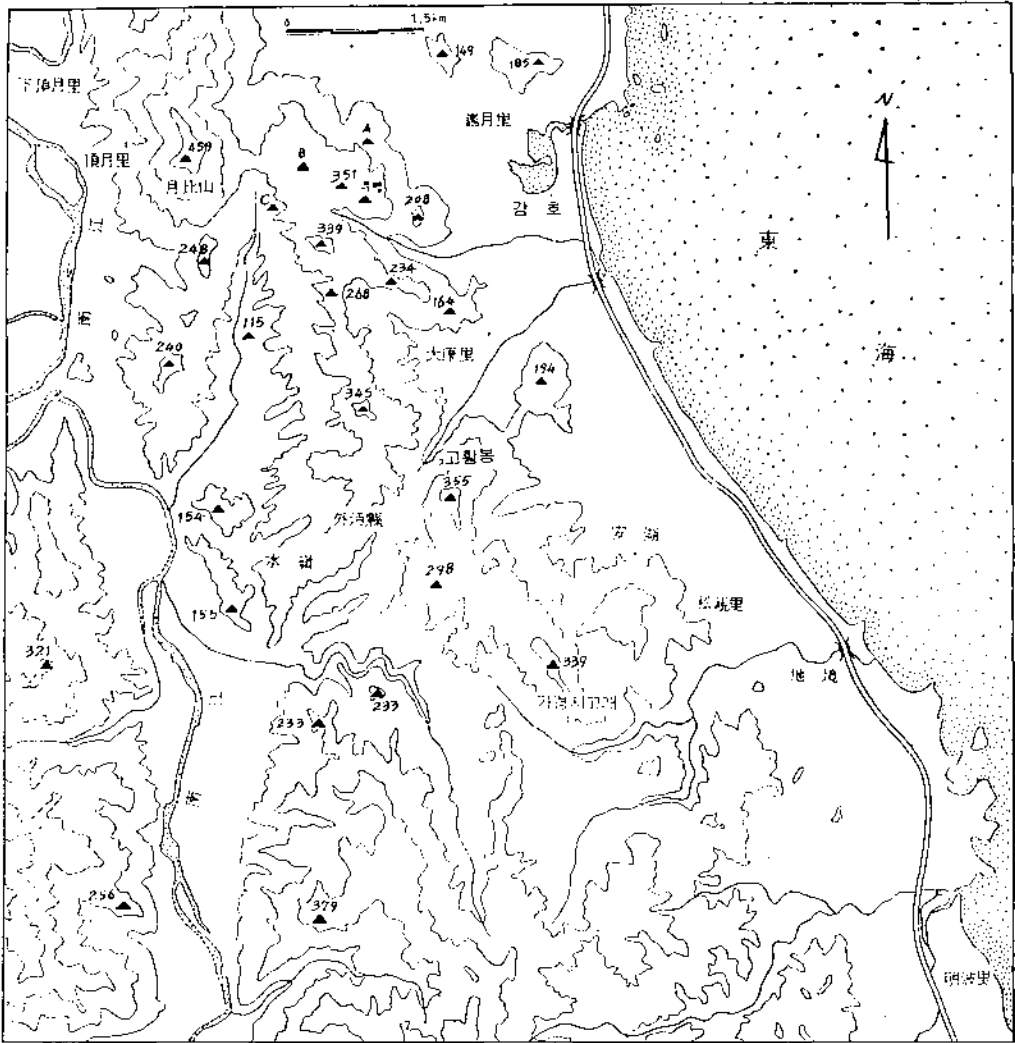
氣象: 당시 이 지역의 기상은 大體로 흐린 날씨에 때때로 비가 내리고 09.00까지는 짙은 안개로 觀測과 航空支援에 장애를 주었다. 초 여름인 이때의 평균 기온은 섭씨 15°-29°였으며 그때의 光明 諸元은 다음과 같았다.

월. 일	일출	일몰	월출	월몰
6. 1	05. 13	19. 48	23. 08	08. 10
5	05. 11	19. 50	00. 45	12. 53
15	05. 10	19. 55	08. 29	22. 44
7. 16	05. 23	19. 53	10. 08	22. 24
17	05. 24	19. 52	11. 05	22. 46
18	05. 24	19. 51	12. 30	23. 05

地形: 이곳은 南江을 境界로 東低西高를 이루고 特別 敵이 據領하고 있는 南江 西測方은 金剛山脈이 東西로 떨어져 700-1000m가 넘는 險峻한 連峰들로서 그들 방어에 天然의 堅壘가 되고 東海岸의 低地帶를 瞰制하는 利를 갖고 있는데 反하여, 我 地帶內에는 標高 300m 内外의 丘陵으로 이루어졌으며, 南江이 S字型을 이루어 彼我를 東西로 갈라놓아 機動空間이 狹小할 뿐만 아니라 主補給路인 7

번도路가 敵에게 露出되는 곳이 많다.

◇ 상황도 제 3 호 351高地 부근 地形圖



作戰地帶內에서 그들의 支配下에 있는 주요 지형으로서는 연대, 대대 OP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月比山(△351 西쪽 1.5km)이 標高 459m로서 이 地帶內에서는 最高峰을 이루고 있으며, △149-△185 (△351 東北쪽 1.2-1.5km)는 東海에 接하여 岩石으로 이루어져 있어 一名 돌산이라 불리웠고, 거기서 北方 6km 떨어진 곳에 高城이 있어 여기에 그들 후방 지원시설이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번 작전의 主戰場인 △351附近的 지형을 좀더 詳細히 살펴보면 同高地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無名高地가 있는데 그중 3개를 그들이 確保하고 있었다. 東北쪽에 있는 것을 A高地(△351-600m) 西北쪽의 것을 B高地(△351-300m) 西南쪽의 것을 C高地(△351-600m)라 불렀고, 東南쪽의 하나를 無名高地(△351-300m)라 하여 제38연대의 1개중대가 占領하고 있으며 △351로 通하는 唯一한 出入口이기도 하다. △351-A, B高地間은 緩漫하게 鞍部를 이루고 있는데 反하여 다른 二面은 急傾斜를 이루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351를 中心으로 四面에 靑쪽靑쪽 나온 모양이 닻(錨)과 같다하여 美軍은 이를

Anchor Hill이라 불렀다.

月比山에서 南으로 各各 1—2km 間隙을 두고 △240, △154 및 △155등이 南江 東側에서 그들의 前哨陣地를 이루고, 南江 西側에는 北에서 南으로 △226—△321—△256 및 △350에 連하여 그들의 主陣地가 형성되어있다.

한편 我 地帶內의 △351는 한국전선의 最北端에 있어 月比山으로부터 瞰制되고 主陣地로부터 孤立되는 脆弱點을 안고 있으나, 月比山 以東 高城에 이르는 그들의 主補給路를 비롯한 低地帶 一帶를 汗눈에 내리볼 수 있고, 萬一 그들이 이 高地를 확보하게 되면 我 主抵抗線(Cat Line)은 그 以南으로 撤收를 強要당하게 되며 따라서 杆城에 이르는 主補給路와 東海岸의 저지대에서 行動에 극히 制限을 받게되는 要衝인 것이다.

△351에서 東南으로 無名高地—△208(△351 東南쪽 1km)—감湖(高城 南쪽 7km)에 이르는 稜線이 東海로 뻗고, △351에서 南으로 △339—△268—△345—外面縣(△351 南쪽 4km)으로 이어지면서 逆U字 型으로 右一線연대의 外廓을 이루고, 東海岸의 △194(감湖 南쪽 2km)—고황봉(△351 東南쪽 3km—△355(고황봉 南쪽 600m)로 이어져 右一線 연대의 主抵抗線을 이루고, 그 南쪽으로 △298—△233—△402—△554 등으로 連結되는 線이 左一線연대의 主抵抗線을 形成한다.

그리고 西側 방어前線을 北流하는 南江은 水幅 30m, 水深 60—80cm이나 流速이 빨라 차량 및 機甲部隊의 활동에 制限을 주나 降雨로 인한 증수시를 제외하고는 徒步부대의 徒涉도 가능하였다.

地域內의 道路網은 東海岸을 連하여 南北으로 뻗은 7번도로가 있어 彼我의 主要기동로를 이루고 있고, 各 要地要部에는 界路와 산악을 개척하여 개설한 無名도로가 있어 보급수송에 이용되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제 1차전(6.2—6.6)

(가) 작전계획

5월 下旬에 접어 들면서 사단장 李貞錫 准장은 敵의 활발한 움직임을 미루어 이는 필시 사단전면에 이르는 은밀접근로의 개척과 장애물 除去를 위한것으로 판단하고 5월 27일 要旨 다음과 같은 口頭命을 하달함으로써 진지의 堅守와 侵襲하는 적을 殲滅할 것을 거듭 强調하였다.

- 『① 敵의 侵襲을 殲滅하고 責任지역을 固守하라.
- ② 防禦진지 및 各種시설물을 계속 보강하고 防護對策을 강구하라.
- ③ 火力計劃을 再檢討하여 各 부대간의 罅隙과 死角의 허점을 排除하라.
- ④ 敵의 活動狀況은 지체없이 報告하는 同時에 隣接部隊와 相互 협조하라』

제38연대장 李東和 대령은 不過 數日전에 인수한 이 지역 방어 任務의 重要性을 痛感하고 사단장의 명령사항을 各 대대장에게 하달하는 한편 警覺心을 높이는 自身의 의견도 밝히고, 곧 各 대대의 防備狀態를 확인하였다.

제3대대(장, 李永護 소령)는 연대의 右一線 부대로서 東海岸에서 △351사이의 방어 正면에 3개중대를 전개하였는데 배속된 연대수색중대(장, 金銀童 대위)를 東海岸(高

城南쪽 7km)－鹹湖 南端에, 제11중대(장, 金勇 대위)를 右제 1선으로 하여 △208에, 제10대중(장, 孔在鵬 대위)를 中央제 1선으로하여 無名高地에, 그리고 제9중대(장, 朴濟宣 대위)로 하여금 左 제 1선으로하여 △351에 배치하였으며, 81mm박격포는 △208 後斜面에 放列하고 機關銃 소대는 △208와 無名高地에서 대대를 一般支援케 하였다.

연대의 左一線을 담당한 제2대대(장, 黃炳宇 소령)는 建制順에 따라 제5중대(장, 李哲 대위)를 △339에, 제6중대(장, 李石峰 대위)를 △345에, 그리고 제7중대(장, 崔福壽 대위)로 △263를 포함한 外面縣에 配置하고, 81mm 迫擊砲는 △345 후사면에 掘置하여 대대를 일반지원케 하였으며 機關銃소대는 제 5, 제7중대에 各各 배속하였다.

이와같이 △351를 頂點으로 하여 東으로 제3대대를, 南으로 제2대대를 展開하여 主抵抗線前方에 前進陣地를 編成하고, 그 底邊에 該當하는 主抵抗線(Cat Line)에는 제1대대로 하여금 占領케 하였다. 그런데 제1대대(장, 金鍾九 소령)는 제1중대(장, 權寧俊 대위)를 右제 1線으로 하여 東海岸(高城 南쪽 8km)－△194(감호 南쪽 2km)에, 제2중대(장, 姜龍雲 대위)를 中央제 1線으로 하여 高嶺의 東北端(△351 東南쪽 3km)에, 그리고 제3중대(장, 朴永奉 대위)를 左제 1線으로하여 △355를 포함한 高嶺 南端에 各己 전개하여 左인접인 제39연대 제10중대와 連繫하면서 前方의 제2, 제3대대를 지원케 하였다.

특히 △351는 사단의 頭部에 해당하는 中樞的인 要衝인 까닭에 연대는 이 高地의 確保에 全力을 傾注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대대 및 연대간의 直通線을 포함한 6回線의 遺跡을 地下깊이 埋設하는 한편 2挺의 무전기(SCR/609)를 비치하여 通信의 圓滑을 도모하고, 대대를 지원하는 各 포병대대 및 4.2" 重迫擊砲중대에서 派遣된 觀察장교와 搜索 및 工兵의 各 1개소대를 배치하여 都合 2개중대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였다.

同 高地는 全面이 적에게 壓制되기 때문에 敵眼에 遮蔽된 채로 進入할 수 있도록 無名高地(제10중대진지) 左下端部에서 2m깊이의 連絡壕로서 연결되었고, △351의 8~9부 稜線을 따라 四周에 有蓋로된 交通壕와 散兵壕, 그리고 分隊단위로 休息을 취할 수 있도록 洞窟로된 대피호를 構築하고, 그 外部의 四周에는 7선으로 된 地雷형철조망과, 有刺철조망으로 엉켜놓았으며 철조망사이 사이는 所要의 對人 및 조명地雷를 埋設하였다.

한편 제39연대(장, 朴仁勇 대령)는 南江을 面하여[北에서 南으로 제3대대(장, 李弘根 중령), 제2대대(장, 吳允石 소령) 그리고 제1대대(장, 金炳善 중령) 順으로 1線에 配置하고, 제1 및 제2대대에서 各 1개 중대씩을 뽑아 연대 OP 지역에 배치 예비로 하는 동시에 南江 東側沿岸에 數개의 前哨진지를 마련하여, 南江을 건너는 적을 牽制케 하는 한편 偵察隊의 중간 基地로도 이를 利用하였다.

그리고 제50연대(장, 趙源英 대령)는 제3대대(장, 柳致文 소령)를 松峴에 두고 제10중대로 하여금 사단 主抵抗線 東側方의 海岸哨所 경비에 임하게 하고 제1대대(장, 權保衡 소령) 및 제2대대(장, 玉昌鎬 소령)를 연대 CP附近에 集結시켜 차기 임무수행을 위한 준비

태세 確立에 力點을 두었다.

또한 다른 지원부대도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각종 장비의 정비 및 보충, 기재와 탄약의 확보, 그리고 戰鬪口糧 (15일분)의 확보에 이르기까지 임전태세完備에 注力하였다.

(나) 작전실시

6월 2일 : 6월의 첫날도 지나고 앞으로 10여분이면 새날을 맞이하려는 무렵 △351 정상에서 갑자기 閃光이 번쩍이고 포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事例은 자주 있었으나 이날따라 그 포격이 熾盛하여 삼시간에 사단 主陣地帶에 번져갔으며 특히 △351에는 集中霰雨처럼 쏟아져 그 爆音은 天地를 震動하고, 飛散하는 石塊와 鐵片은 高地의 모습을 바꾸게 하였다. 그러나 子正을 넘으면서 포성도 멎고 森羅萬象이 다시 교묘속에 파묻히고 두텁게 깔린 구름의 틈새로 한줄기 달빛은 狂風이 휘몰아친 전선의 慘狀을 어루만지듯 비치고 있었다.

사단장은 遑問의 그들 행동과 異例的인 집중포격을 分析 검토하고 이는 必是 그들의 공격을 위한 준비사격으로 斷定하여 즉시 要旨 다음과같은 準備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소부대는 전투태세를 完備하고 한층 경계를 강화하라.

② 前方연대의 各種火器는 即刻사격태세를 갖추고 제68포병대대와 제99포병대대는 제26포병대대에 火力을 增援하라.

③ 제50연대는 何時라도 出動할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待機하라』

이날 北傀 제3사단의 예하부대로 믿어지는 一部 병력은 砲煙도 사라지지 않는 사단의 西側방어 정면인 제38연대 제2대대와 제39연대 前面를 掩襲하여 全面攻撃을 시도하는 듯이 보였으나 이는 △351침습을 企圖한 陽動作戰으로써, 사단을 釘着시키려는 술책이고 그들은 이곳을 堅守하는 步, 砲의 火力으로 격퇴된 이후 본 전투가 종료될 때까지 그들의 모습을 들어내지 않았다. 이로 미루워 그들은 全力을 △351 掠取에 集中한 것으로 보였다.

1. 제38연대 △351 失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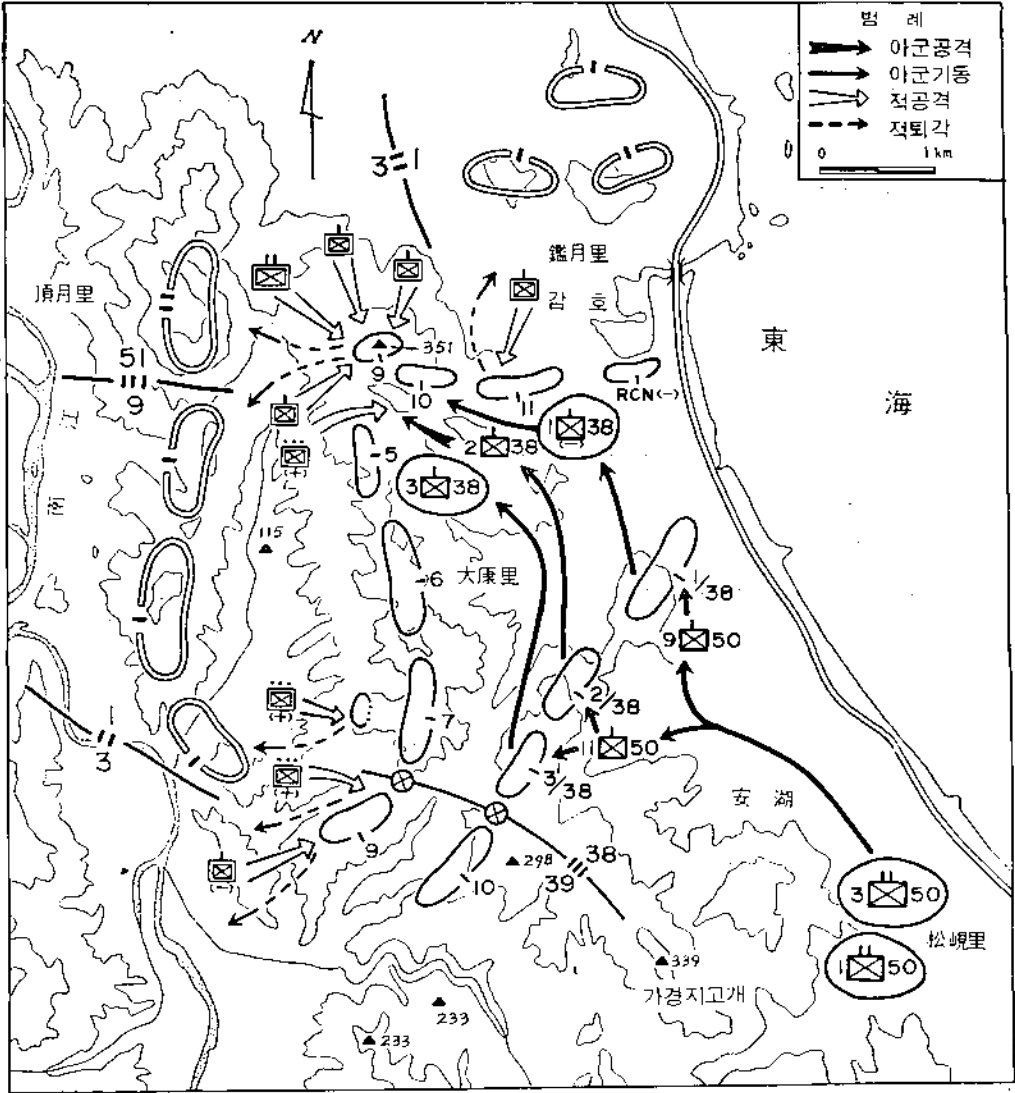
가) 제3대대의 紛戰

北傀 제3사단이 西側正面을 陽攻하는 사이 溫井里에서 △351 掠取을 위한 모의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제7사단은 그 예하 제53연대의 1개대대 병력으로 △351를 掩襲하였던 것이다.

이보다 앞서 敵포의 集中度가 가장 심한 제38연대 제3대대의 손실을 살펴보면 각 중대 모두 5~6명씩의 負傷者가 있었고, 交通호와 엄체호의 部分的인 과손을 입었으나 통신은 그대로 소통되었다. 이때 『△351의 周圍에 설치한 地雷가 대량 폭파되고 여러곳에서 철조망이 切斷된듯하다』는 제9중대장의 보고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재차 제9중대장의 음성들이 리면서 『적이 앞으로 올라온다. 군단 T.O.T를 때려달라』라고 하였는데, 이에 對句할 餘裕도 없이 전화는 끊겼다. 그러나 受話器를 타고 고막을 울리는 총성과 수류탄의 破裂소

리로 미루어 事態가 尋常치 않음을 直感한 教育官 孫晉述 中위는 곧 대대장에게 급보하니 이때가 01.30이었다.

◇ 상황도 제 4 호 351高地 전투 其一(53. 6. 2)



대대장은 즉각 중화기중대(장, 金振翼 대위)에 일터 제11중대를 제외한 대대의 전 曲射 火器와 기관총을 △351에 지향하여 집중사격케하고, 砲兵으로써는 陣內사격을 요청하는 한편 이미 出動한 대대의 強襲隊(장교 1명, 사병 29명)를 呼出하여 無名高地로 복귀토록 조처하였다.

한편 대대장의 보고를 받은 연대장 李東和 대령은 이에 대해 敵情도 확실치 않은데 다 연대 空面에 걸쳐 侵襲을 기도하는 적에 대처하여 예비대의 투입시기와 장소는 상황의

진전을 좀더 觀望한 후 決定키로하고 于先 포병사격으로 이를 制壓케 하였다.

이와같이 상황과약에 混迷를 하고 있는 지휘부와는 달리 이곳 △351의 상황은 急迫하였다. 어두움에 가리웠던 敵은 白晝를 彷彿케하는 조명탄의 불빛아래 露出되어 高地를 겹겹이 둘러싼 그들은 1개대대 규모로 推算되었는데 이들은 무너진 철조망과 地雷地帶를 헤치며 頂上을 향해 올라오는 것이었고, 이에 맞선 중대의 全員 또한 阻止에 渾身의 힘을 다하고 있었다. 이렇듯 위와 아래에서 수류탄과 小銃의 亂鬪가 계속되고 及其也는 수류탄 對峙에 가자 戰況이 急轉하였는데, 이때 救援의 砲擊이 始作되어 그들의 頭上을 두들기니 아우성과 悲鳴의 소리가 擾亂하고, 砲彈의 炸裂하는 소리 또한 熾盛을 더해갔다. 이에 중대장 朴대위는 前例에 따라, 중대원의 安全을 考慮하여 砲擊이 끝날때까지 一時 待避케하고 自身은 狀況보고차 02.00에 送受話器를 들었으나 反應이 없으므로 無電機에 의존할 도리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시간은 흘러 05.00에 쓰낙비처럼 쏟아지던 포격도, 奇聲도 들리지 않았으며 散兵壕의 總안이 희미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東天이 밝아지면서 풀한포기, 나무한그루 없는 △351의 山巒에는 敵의 屍體가 즐비하고 도처에 鮮血이 狼藉하여 激烈하였던 지난 밤의 慘狀을 보여 주었는데, 우선 確認된 遺棄시체만도 300餘具를 헤아렸다.

그러나 중대도 이 전투에서 11명이 전사하고 제2소대장을 포함한 사병 45명이 負傷하여 都合 56명의 손실을 보게되었다. 이윽고 중대는 제10중대 1개소대의 赴援으로 戰勢를 가다듬고 사상자와 부상 捕虜 7명을 즉시 후송하여 戰場정리를 마침으로써, 이 지역에는 다 平穩이 회복된 듯이 보였다. 그러나 이때에 少數의 驍敵은 이미 洞窟內에 潛入하여 포격을 避하고 있었다. 그 當時 제9중대 제3소대장인 朴海昌소위는 이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述懷하였다. 『그날 02:00부터 我軍의 砲擊이 始作되었는데, 이 高地에서는 敵이오면 陣內사격을 요청하고, 出入口만 모래포대로 堅固하게 틀어막고 대피하도록 되어있어, 이날도 散兵壕에 있던 우리는 대피호로 들어가 있었는데, 漸時後 漆黑같은 洞窟속에서는 異變이 일어났다. 只今까지 듣지 못했던 抑揚이 강한 以北말의 소근대는 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들려와 적이 침입하였음을 알아차리고 곳곳에서 暗中格鬪가 벌어졌다. 彼我的 識別과 方向 감각을 잡을 수 없었으니 장님 문고리 잡는 식으로 相對의 頭上을 만져보고 머리 카락이 잡히지 않으면 적으로 인정하여 치고 받고 하였는데, 날이 밝아지면서 그들은 交通호를 따라 제2선(9分線의 방어전지) 北端部로 빠져 달아나, 한구석에 集結한 것이었으나 暗黑과 짙은 안개로 이를 發見하지 못하고, 대대장에게는 異狀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날 洞窟내에서 1명을 俘獲하였는데 그는 忠淸道가 故鄉인 17세 소년으로써 1.4 후퇴때에 풀려가 강제의 용군이 되어 이곳까지 왔다는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北僞 제7사단

제53연대 제6중대의 소총병인데 이날 공격에 앞서 내가 소속한 제2대대는 溫井里에서 △351 공격을 위한 약 2개월간의 訓練을 마치고, 이곳에 돌아와 10일전부터 탐색전을 실시해 왔다』 그리고 이날 그의 중대는 『△351의 南쪽으로 돌아 交通호를 따라 比較的 저항없는 가운데 올라오던중, 별안간 머리 위에서 포탄이 작열하기 시작하여 포탄을 피해 交通호를 따라 올라오다 포격으로 무너진 출입구의 모래포대를 뜯어내고 들어왔는데 그때 20명 정도는 들어왔을 것이다』 라는 것이다.

△351에서 混戰을 이루고 있는 01.50에 제9중대에 대한 增援兵力의 遮斷을 劃策한것으로 보이는 2개 소대규모가 △351—△339간의 溪谷을 따라 潛入하여 제10중대의 左側方(△351 南麓)을 위협하는 까닭에, 대대장은 이 지역에 있는 제9, 제10 兩중대의 박격포반 요원들로서 이들을 阻止케하고 연대 예비대로 하여금 격퇴시킬 것을 건의하였던바, 02.00 姜龍雲대위가 指揮하는 제2중대가 急遽 索敵하였으나, 10挺의 砲殺體만을 보았을 뿐 그 行跡을 察지 못하고, 여기에서 제3대대장의 작전통제를 받아 △339의 東北端에 配置되었다.

이와 같은 시각에 砲兵의 支援을 받은 1개중대규모의 敵은 △208를 強襲하려 하였으나 여기를 堅守하던 제11중대가 이를 阻止하고 火網地帶에서 進出이 頓挫한 그들은 이곳을 벗어나려 發惡의인 射擊을 加하며 脫出을 圖謀하였는데 이들은 마침내 白晝를 彷彿케한 照明彈의 불빛아래 殆半이 擊殺되고 달아나는 者は 砲彈의 祭物이 되어 살아 남은 자가 幾 10名을 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날 이들이 유기한 屍體는 70을 헤아렸고, 중대의 손실은 戰死 10명, 負傷 38명이었다.

그런데 敵은 08.00를 기해 A. B 兩高地方에서 각종 砲火를 同伴한 각각 중대규모의 병력으로 △351에 再侵을 加하였으나 이에 對應한 제26, 제68, 제99의 3개 砲兵대대의 砲擊 그리고 90mm 戰車砲의 集中射擊으로 분쇄되었는데, 그들의 執拗한 공격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은채 09.45과 14.40에 C高地에서 各各 1개소대 규모의 兵力으로 △351 後斜面을 掩襲하기 시작하였다.

대대장은 여기를 堅守中인 제2중대로 하여금 두차례에 걸쳐 攻擊케하여 이들을 물리치고 제9중대와의 連繫를 유지하였다.

敵은 이와같이 數次의 侵襲에 失敗하자 15.30에는 直, 曲射火器로써 △351를 비롯하여 無名高地와 △339 一帶에 亂射를 加하여 △351를 高립化하는 한편 煙幕으로 視界를 遮障하면서, A高地方에서 增強된 1개소대로 공격하였다. 이들은 곧 △351의 北端에 간혀있던 지난밤의 潛入兵力과 合流하였으므로 보였는데, 이때에 아직도 제2선을 確保中이던 제9중대 제1소대와 激突하게 되어 들어두운 洞窟內에서 또한차례의 수류탄의 亂擲이 벌어져 제1선에 있는 중대장 호와도 連絡이 杜絶되었다. 이때에 중대장은 상황을 報告하기를 『16.00 현재 數未詳의 敵이 △351의 北端을 占據한것으로 보여지니 增援兵을 要請한다』라고 하였다.

이 報告에 따라 대대장은 16.40 再次 제10중대의 1개소대를 赴援케 하였으나 이들이 △351

와 無名高地間의 노출지점 通過時에 적 砲火로 殆半을 損失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뒤도 두차례씩이나 增援을 試圖하였으나 계속되는 砲火로 모두 阻止되고 말았다.

뒤 이어 제9중대장은 보고하기를 『18.00 현재 敵의 새로운 行動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高地北端의 敵은 40명가량 되며 삼과 꼬핑이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진지공사중인 것 같으며, 제2線에 있던 제1소대장 朴致遠 소위가 전사하고 거기에 있던 병력의 半數는 제1線으로 合勢하였으나 10여명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있다』라고 하였다.

나) 제2대대의 戰況: 대대장은 이날 00.20에 △263(△351 南쪽 3.5km) 전방에 나타난 1개소대규모의 적과 제7중대(장, 崔福수 대위)가 20분간의 交戰으로 물리친바 있고, 02.00에 △351-△339간에 침투한 敵정예 대비하여 제5중대(장, 李 哲대위)로 하여금 제10중대와 협조하여 격퇴케 하였다.

이리하여 그후 대대정면에서는 그들의 침공을 볼 수 없게 되었으나, △115-△154에서의 계속되는 총격으로 挑戰의 기세를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날이 밝으면서 그들은 60mm와 81mm박격포 火力으로 제압되고 이곳에서의 守衛를 되찾고 방어진지의 보강과 방비태세를 굳건히 하였다.

다) 제1대대 전진진지에 補強: 연대장은 처음에 연대 全面에서 적의 急襲이 있자 이에 대한 敵情 파악에 苦心하다가, 于先 제2, 제3兩대대간의 間隙을 제2중대로서 補填케 하여 제3대대장의 指揮下에 둔바 있거니와 時間이 흐름에 따라 그들의 기도를 看破하고, 제1대대를 轉用할 것과 松峴里에 있는 제50연대 제3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建議하여 사단장의 承認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1대대(장, 金鍾九 소령)는 06.00부터 CAT선을 撤收하여 08.00에 제3중대(장, 朴永奉 대위)를 △164(△234 東쪽 600m)의 東端部에 陣地를 構築케 하여 차후 작전에 對備케 하는 同時에 제11중대의 防禦縱深을 보강케 하였으며, 또한 제1중대(장, 權寧俊 대위)를 제3대대 OP가 있는 △208에 集結시켰는데, 연대작전진지에 따라 18.00에 2개소대를 제3대대에 배속하고 同時부로 無名高地로 이동시켜 제10중대장 孔在鵬 대위의 掌握下에 들게 하였다.

라) 제50연대 제3대대의 CAT線 占領: 제38연대장은 03.40에 사단장의 口頭命令에 의거 10.00부로 배속된 제50연대 제3대대(장, 柳致文 소령)를 제1대대가 強守하고 있던 CAT선으로 進出시켜 그 제9중대와 제11중대로 分割 占領케 하여 전방대대를 支援케 하는 하편 戰線投入에 對備케 하였다.

2. 隣接부대의 狀況

北傀제3사단 隸下로 믿어지는 1개중대 규모가 제39연대와의 戰鬪地境線을 따라 水嶺(外面縣 南쪽 200m) 方向으로 또 다른 한패가 제11사단과의 戰鬪地境線方向으로 各各 東進하여 제39연대의 左右側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때 水嶺쪽에서 侵攻한 敵은 00.10에 제9

중대(장, 朴長元 대위)를 一舉에 席捲하려고 중대正面으로 急迫하였으나 이에 對備하고 있던 중대장 차대위는 곧 실시된 最後阻止사격으로 이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한편 대대장에게 增援을 要請하였다.

대대장 李弘根 중령은 81mm박격 포로 탄막사격을 집중하여 이를 阻止하는 한편 彈藥作業소대를 主軸으로한 본부요원을 抽出하여 1개소대를 急編하여 01:00에 제9중대를 赴援케 하고 이어 연대에서 急派된 混成부대(장교 1명 사병 72명)도 01.10에 同 중대에 轉進케 하여 중대장의 장악하에 들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중대는 左, 右 兩側方에서 壓迫한 그들을 맞아 奪戰力鬪하였으나 01:00에 이르러 그들의 陣內侵入를 막지못해 마침내 右제 1 선인 제1소대는 그들과 肉迫對決케 되고 血雨가 霏霏하는 混戰의 極에 이르렀는데, 그때 마침 대대에서 赴援한 兵力이 加勢케 되었으므로 戰勢는 好轉되었으며 敵은 드디어 이를 支撐치 못하고 潰退하기 시작하였다.

그 뒤를 이어 急遽躍出한 연대의 赴援병력은 중대의 左제 1 선인 제3소대를 超越하여 突破口의 右肩部에서 突擊하고, 이를 牽制하던 제3소대가 挾攻을 加하여 擊退시킴으로써 02.30에 이 지역은 다시 평온을 되찾게 되었다.

그리고 01.10에 연대의 左側전투지경선을 侵犯한 증강된 1개소대 규모의 적은 제3중대(장, 李接翼 대위)의 堅守로 말미암아 계속을 따라 南江 건너편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한편 제50연대(장, 趙源英 대령)는 지난 5월 22일 豫備로 轉換한 以來 교육, 훈련을 하는 일방 정비에 임하고 있다가, 이날 사단장의 緊急命令으로 제3대대에 이어 제1대대를 제38연대에 배속함에 따라 本部와 제2대대만이 殘留하여 出動態勢를 갖추고 있었다.

3. 사단장의 조치

子正 以來의 적의 움직임을 銳意注視하고 있던 사단장은 그들의 攻擊目標가 △351임을 看破하고 이날 03.40에 제50연대의 제3대대를 제38연대에 緊急配屬措置하바 있거니와 그는 18.00에 △351 一角에 侵入한 敵을 驅逐하고 이를 再確保하기 위하여 要旨 다음과 같이 작전지시 제42호를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53년 6월 3일 03.20을 期하여 一部 兵力으로 △351를 奪取확보하려하다.

② 제38연대

- ㉑ 6월 3일 03.20을 期하여 △351를 佔領하라.
- ㉒ 6월 2일 20.00부로 제50연대의 1개대대를 통합지휘하라.

③ 제50연대

- ㉑ 6월 2일 20.00까지 예하 1개대대를 松峴里에 集結시키고 同時に 제38연대장 지휘하에 들게하라.

㉒ 연대(-2)도 의명 역습에 加擔할 수 있는 出動態勢를 갖추라

④ 協調지시

㉓ 부대이동간 보안에 유의하고 防光, 防諷대책을 강구하라.

㉔ 지원 및 피지원부대간에 긴밀하 협조를 유지하라.』

事態는 急轉直下하여 彼我 關心의 焦點이 △351에 集中되고 이로 因하여 이 地域의 暗雲은 더욱 짙어만 갔고 一大血戰을 豫想케 하였다.

6월 3일

1. 제38연대의 상황

이날 제38연대장은 전날 20.00부로 배속된 제50연대제1대대를 松峴里에서 大康里로 移動시켜, 관계 參謀들의 보좌를 받아 軍裝檢査, 탄약분배등 攻擊준비를 하게하는 가운데, 各種·화기의 탄약可用量과 補充兵 및 보급품의 추진상태를 確認하고, 사단의 關係참모와도 긴밀한 協調를 마친다음 要旨 다음과 같이 攻擊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下達하였다.

『① 연대는 6월3일 03.20를 기하여 △351를 奪取하고 이를 確保하려한다.

② 제50연대 제1대대는 6월3일 03.20를 기하여 △351를 탈취하라.

③ 제3대대는 현 방어진지를 계속 確保하고 제50연대 제1대대의 공격을 사적으로 지원하라.

④ 제2대대는 현 방어진지를 계속 확보하고 C高地의 적을 견제하여 제50연대 제1대대의 攻擊을 支援하라.

⑤ 제1대대는 현 위치에서 제3대대를 지원하면서 역습을 준비하라. 그 時機는 別命한다

⑥ 제50연대 제3대대는 CAT선을 계속 확보하라.

⑦ 기타부대는 현행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이무렵 △351의 頂上의 一角을 점령中인 敵은 陣地補強에 狂奔하는 듯 밤새 作業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는데 제9중대는 同高地의 8부능선을 확보하고 그들의 진출을 계속 阻止하고 있었다.

가) 제50연대의 제1대대의 △351 역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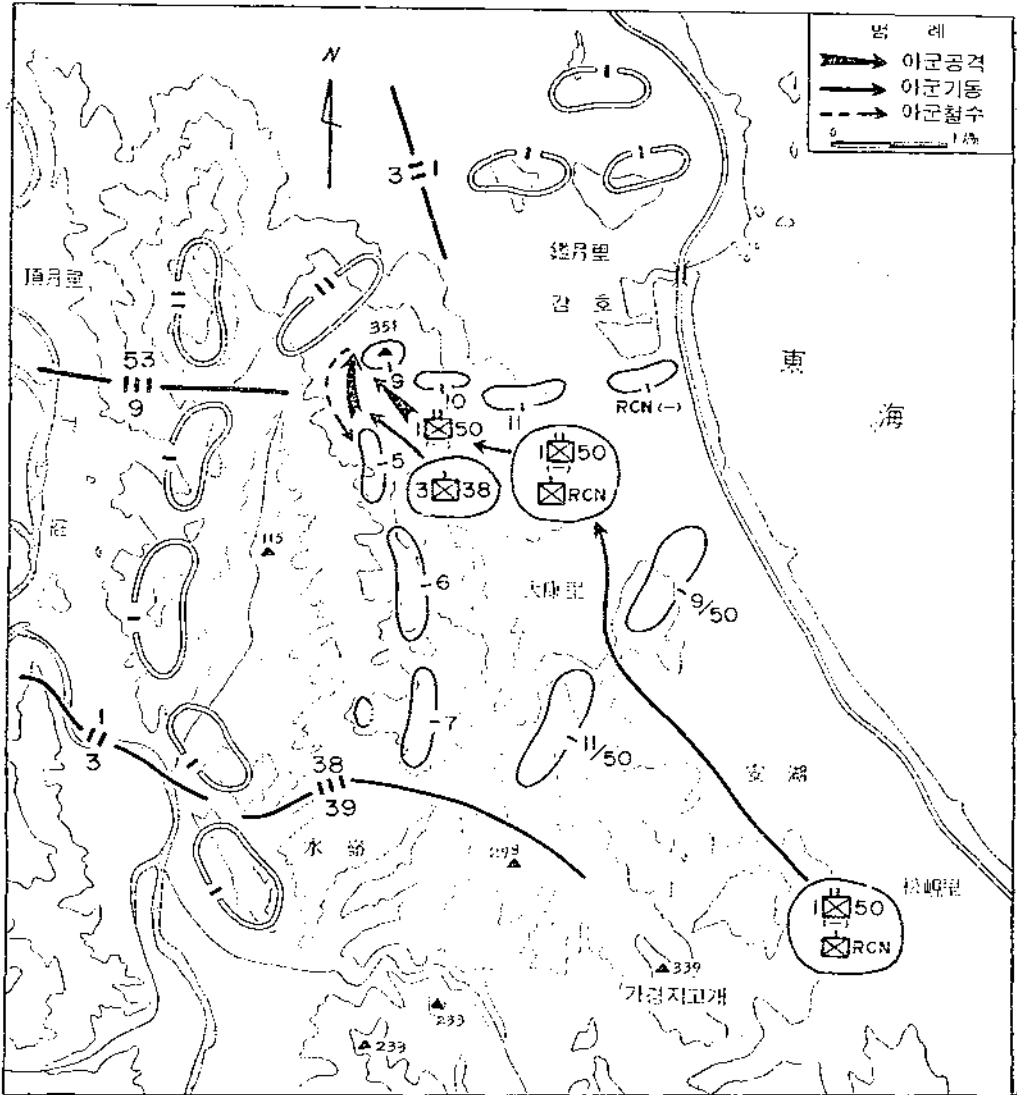
이날 03.20에 대대는 硝煙과 농무를 뚫고 L.D로 설정한 제10중대의 左下端部 接觸선을 초월 前進하였는데 이때의 대대의 機動은 계획한 바에 따라 제1중대(장, 全鍾培 대위)를 右제1선, 제2중대(장, 朴鍾煥 대위)를 左1계선으로하여 併進케하고 대대장은 제1중대와 같이 行動하였으며, 연대수색중대(장, 文五三 대위)는 기동공간이 狹小하기 때문에 최초로 △234(△208 南쪽 700m)稜線의 차폐된 곳에 疎散시켜 機動豫備로 하였다.

제1, 제2 兩중대는 △351로 向하는 連絡線을 따라 거의 間隙없는 縱隊 대형을 유지하며, 앞사람의 철모 뒤에 붙여진 야간標識탄을 보고 默默히 前進하였는데 △351와 A, B, C高地에 集中된 我軍의 砲擊은 그 射程을 延伸하여 月比山—△149—△185 一帶를 맹타함과 同時에, 8門의 90mm 戰車砲도 이에 加勢하여 敵直射砲의 據點으로 알려진 △149, —△185를 强打하였다.

이러는 사이 7부 稜線에 進出한 제1, 제2 兩중대는 이미 장애물지대로서의 價値를 喪失한 同高地의 中腹에서, 左, 右로 전개하여 8부稜線까지 아무 抵抗없이 進出할 수 있었으

며, 이 線에서 態勢를 갖추어 突擊開始를 알리는 赤色五星산호탄의 發光과 同時에 賊聲을 울리며 頂上을 向해 直衝하기 시작하였다.

◇ 상황도 제 5 호 351高地 전투 其二(53. 6. 3)



그런데 이때까지 귀족은듯 침묵을 지키고 있던 敵은 갑자기, 밤사이 強化한 것으로 보이는 有蓋壕에서 일제히 수류탄을 投擲하고 책코式 機關銃의 火口를 열어 亂射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 요란한 소리는 골짜기에 메아리쳤다. 10餘日전만 하더라도 이 高地의 主人公으로서 見敵必殺의 傳統과 不屈의 鬪志를 堅持하였던 제2중대는 敵火線을 迅速 破과하여 死角地帶를 따라 散兵壕에 접근하여 총검을 휘두르며 수류탄을 호내에 投入하고 그들의 抵抗을 둔화시킨 다음 一舉에 撲殺하기 위해 頂上을 넘어 北側의 出入口까지 봉쇄

하려 하였다. 그 刹那, 敵의 집중砲火가 쏟아지고 B高地 方向에서는 역습부대가 蟻附하여 밀어닥침으로써 高地의 頂上은 다시 彼我의 激突場으로 變하여 亂舞하는 검은 그림자처럼 엉키었다 떨어졌다 하며 紛戰케 되었는데, 이때 대대장은 이사이 그들의 새로운 一波가 밀려올을 發見하고 부대를 제9중대가 確保하고 있는 8부능선으로 철수시키기에 이르렀다고 하니 아마도 衆寡不敵인 탓으로 여겨진다.

이때가 06.50이었는데 대대의 제1次 공격은 善戰의 보람없이 無爲로 끝나고,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09.30에 실시할 再攻擊에 대비키로 하였다.

제1대대의 제2차 逆襲 : 이날아침부터 氣象의 돌변으로 제10전투 비행단의 근접 공중지원을 바랄 수 없게 되었으나 美제5空軍의 B-29重爆擊機는 09.00를 기해, 惡天候를 무릅쓰고 寶湖里(△149-△185附近)-高峰里(△351 北쪽 3km) 一帶를 強爆하여 그들 地上軍 活動을 萎縮시켰으며 美 제10군단에서 支援받은 2門의 8吋砲, 사단포병단장 李奇建 대령이 지휘하는 3개 105mm 砲兵대대와 155mm 砲兵대대, 그리고 4.2吋 重迫擊중대의 砲門은 △185-月比山 사이에 대하여 20분동안에 걸쳐 2,000餘발을 集中하였다. 이와 同時에 2개 戰車小隊의 90mm 戰車砲는 △351의 頂上部와 돌산 一帶의 點目標를 強打하니, 高城 原頭의 地盤이 흔들리고 砲煙과 黃塵은 하늘을 가리웠으며 적진은 뒤죽은듯 沈默하였다.

드디어 戰列을 갖춘 대대는 一次공격시의 隊形을 유지하며 09.30부터 哨煙으로 咫尺을 分擘키 어려운 稜線을 타고 9부선에 突入하였다. 그러나 이때 연기와 먼지가 가라앉기 始作한 산 봉우리에는 거뭇 거뭇 그들의 有蓋隊가 들어나면서 다시 機銃을 집중하고 各 壕에서는 手榴彈을 連投하였으며 C高地와 돌산으로부터는 여전히 적사포격을 집중하여 대대의 전진을 가로막는 까닭으로 대대는 많은 損失만을 입은 채로 元位置로 다시 되돌아가고 말았으니 심겁기 짝이 없는 一進一退가 되고 말았다. 대대는 두차례의 전투로 제1, 제2兩중대 모두가 1개소대 병력이 넘는 손실로 선임하사관을 임시 소대장으로 補任하는가하면 손실이 많은 分隊는 2개분대를 합쳐 1개분대로 調整하는등 20분간에 걸쳐 再編하였다.

제1대대의 제3차역습 : 이로써 대대는 3次的 공격을 再興하여 10.30에 砲聲이 울려 퍼지고 砲煙이 자욱한 △351의 頂上을 向해 躍出하여 9부稜線까지 진출하였는데 敵은 有蓋호내에서 수류탄을 굴리며 發狂的으로 또다시 기관총을 亂射하였다.

제1중대장은 이 機關銃을 制壓하기 위하여 1개분대의 特攻隊를 編成하여 右廻케 하고 射擊으로써 이들을 掩護하였으나 特攻隊는 接近中 그들이 던진 수류탄에 의해 瓦解되고 말았다.

이때 제26砲兵대대장 安炳善 소령은 無名高地에 나와 砲兵사격을 指揮하고 있다가 이 場面을 目擊하자 砲擊으로서는 그들을 制壓할 수 없음을 분하게 여기고 單身 몸을 날리어 △351로 向했으나 그는 몇발자국 못가서 跳彈으로 負傷끝에 救護所까지 後送되었다.

이와같은 상황아래 대대는 無名高地에 兵力을 集結시켜 부대를 急據 再編成하는 한편 △234의 수색중대를 그곳에 轉進케 하여 12.30에 대대와 合勢케 하고 13.00에 있을 제4차攻

響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군단장으로 부터 要旨 다음과 같은 訓令을 수령하였다.

『① 攻擊大隊長은 공격을 진두 지휘하라.

② 공격은 충분한 準備사격뒤에 實施할 것이며 他 兵科와 充分한 細部協調를 할 것. 必要하면 攻擊開始時間을 延期해도 可하다.

③ 공격中 전진하지 않는 者는 中隊長級 以上 指揮官의 即決處分을 許한다.』

이러한 군단장의 訓令에 接한 연대장은 대대의 공격개시 시간을 1시간30분동안 延장하는 同時에 艦砲連絡將校 및 火力支援 부대장들과도 긴밀히 協調한 다음 공격개시 1시간 전부터 艦載機와 艦砲, 그리고 砲兵順으로 敵陣을 철저히 制壓하도록 하였다.

그러는 사이 대대는 KSC(勞務要員)가 推進한 주먹밥으로 晝食을 마치자 수색중대를 主軸으로한 機動計劃을 調整하고 공격을 준비하였다.

제1대대의 제4차逆襲: 地軸을 흔드는 攻擊準備射擊이 끝나자 대대장은 正刻14.30에 공격개시 信號를 올리고 陣頭에 나서 △351를 向하여 躍進하니 分隊長급 이상의 지휘자도 各隊의 陣頭에서 그의 뒤를따랐다.

이윽고 대대는 8부稜線에 楔入 즉시로 제1중대를 右에, 제2중대를 左에, 그리고 수색중대를 中央으로하여 頂上을 向해 突進해 올라갔다. 砲擊으로 무참히 破壞된 적진은 流血이 狼藉하고 肉塊가 곳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殘敵들은 무너진 壕에 依支하여 最後 發惡으로 수류탄을 굴리며 多發銃을 亂射하는 것이었으나 各중대장들의 『突擊 앞으로』의 號令과 함께 敵陣을 蹂躪한 다음 마침내 山頂을 占領하고 진지를 急編하였다. 그러나 敵은 또한차례의 砲擊을 집중하였고 이로인하여 대대는 많은 死傷者와 後送者들로 混亂을 빚고 있었는데 이 무렵 B高地에서는 그들 역습부대가 물밀듯이 밀려닥쳤으며 대대는 戰鬥兵力이 80餘名에 不過하였음에도 不拘하고 마침내는 수류탄의 投擲과 銃劍이 亂舞하게 되었다. 그러나 大隊은 꼬리를 이어 밀려오는 그들 후속부대를 감당할 길 없어 一進二退을 거듭할 뿐 戰勢는 회복할 수 없는 窮地에 몰렸으며 △185-月比山에서의 側背射가 더욱 拒支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 高地의 確保를 위해 죽음도 不辭한 權少領이었으나 遲滯할수록 部下의 出血만을 強要할 뿐이라 判斷하고 比較的 損失이 적은 제2중대로써 掩護케하여 수색중대와 제1중대를 우선 철수시키고 제2중대는 제9중대의 掩護사격하에 18,50 △234로 隨意撤收하고 말았다.

나) 제38연대 제3중대의 △351 기습: 제1대대장 金鍾九소령은 제1, 제2兩중대를 제3대대에 배속하고, 잔여 제3중대(장, 朴永奎 대위)마저도 △164(△234의 東쪽 600m)에서 제11중대의 後方防護에 臨하고있음을 內心 不滿足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50연대 제1대대의 3차에 걸친 공격과 제10 제11兩중대의 各 1개소대로써 敢行한 △351에 대한기습이 모두 無爲로 돌아가고 지금 수행되고 있는 제4차 공격도 不利하게 展開되고 있음을 개탄하면서 決然 제3중대로 하여금 그들의 虛를 질터 奇襲을 決行할것을 연대장에게 建議하여

이를 承認받게 되었다.

따라서 중대는 △351의 頂上에서 제50연대의 제1대대가 血戰中인 15.40에 부대를 지휘하고 제9중대가 C高地를 牽制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同高地의 中腹인 8부稜線을 西로 迂廻한 다음 18.10에는 北斜面으로 突入하여 그들의 出入口를 封塞하는 同時에 逆으로 山頂을 向해 突進하여 제50연대 제1대대와 交戰中인 적을 挾攻하였다. 이에 厝惶한 그들은 窮鼠反噬로 發惡하다가 戰意를 이룬데 反하여 『突擊 앞으로』를 외치는 중대장 차대위의 號令에 중대원은 銃劍을 휘둘러 닥치는데로 무찌르고 또 무찔렀다. 이리하여 중대가 上峰에 이르렀을 때 月比山과 A高地에서 機關銃의 鐵丸이 비오듯 쏟아지고, B高地에서도 또 一波의 醜敵으로부터 挾攻을 當하게 되어 進退가 維谷이었는데 여기에서 躊躇할 수 없었던 중대는 一路南으로 血路를 찾아 가로막은 敵을 헤치고 무찌르며 各個躍進으로 제1대대의 뒤를 따랐다.

다) 제38연대 제9중대 351를 脫出: 한편 전날까지 수차례에 걸친 불을 뿜는 듯한 攻擊도 地勢의 不利와 衆寡不敵으로 目的을 達成하지 못하고, 이 무렵에 9중대만이 외로이 △351의 一角에 남아 밀려드는 敵을 支撐하고 있었는데, 19.00 중대장의 報告는 『頂上部를 占領한 敵이 중대쪽으로 땅굴을 파 들어오는 소리가 가까이 들려오고 있으며 彼我的 砲擊으로 小隊와의 連絡유지가 끊기고 있다』라고 하였다.

연대장은 △351의 頂上部에 적을 두고 있는 以上, 제9중대만을 그 高地의 8部稜線에 두어 들 필요성이 없음을 사단장에게 보고하는 同時에 作戰參謀 咸巖烈중령과 協調하여 2대의 戰車를 △339의 중턱까지 끌어올려 그들 銃眼에 猛打를 加하게 하고 19.30 중대에 撤收 命을 하달하였다.

이 철수명령을 받은 중대는 戰車의 掩護를 받으면서 建制를 유지하지 못한채 火器와 通信 裝備만을 휴대하여 分隊單位로 600m 南쪽인 △339의 東端으로 隨意철수하여 右로는 제11중대, 左로는 제5중대와 連繫를 맺고 이미 그곳에 進出했던 제2중대에 의해서 후방 방호를 받게 되었다. 이리하여 중대는 40여시간을 고개도 들지 못하고 大小便을 鐵帽에 받아내야 했던 惡臭풍기는 洞窟을 脫出하였으나 그 人員은 21.00 현재 1/3에 미달하는 48명이었다. 當時 敎育官이던 孫중위는 『그 뒤로도 落伍했던 兵士들이 계속 歸着하고 그 다음날 제50연대 제1대대가 同 高地를 攻擊時에도 90명이 돌아왔다. 어떤 兵士는 1週日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기도 하여 大部分이 復歸하였으나 兵士 11명은 그 生死가 不明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였다.

2. 支援部隊의 상황

사단의 각 포병부대가 전달과 이날 兩日間에 消耗한 彈藥은 105mm포병대대의 경우 1日 可用量인 720발을 數倍나 上回하는 것으로서 5개 砲兵부대의 消耗 현황은 다음과 같다.

高爆彈(H. E) — 23, 070발

煙幕彈(W. P) — 1, 357발

照明彈(ILL)—— 173발

時限彈(V. T彈포함)——6,300발

계 30,900발

이와같이 砲彈을 超過消耗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포병들이 지난달의 전선의 小康狀態를 이용하여 많은 量의 砲彈을 蓄積해 두었기 때문이었으나 當時 砲彈의 統制가 嚴格하였던 까닭에 이와같이 砲彈을 소모할 경우 155mm포탄을 습하여 41,000 여발의 在庫로서는 戰鬪가 계속될 경우 砲彈의 確保에도 큰 問題點으로 擡頭되었다.

그리고 사단의 有線網은 이미 戰鬪前에 埋設하였다고는 하나 繼續되는 포격으로 斷線되어 作戰에 支障을 招來하기도 하였고 無電器는 있으나 作戰狀況에 依대인 소부대지휘관들이 이의 活用을 못하여 적시상황관단을 못하였기 때문에 彈雨가 쏟아지는 戰場을 傳言이오 가는 例도 있었다.

이날 사단장은 제38연대 OP인 △355에 進出하여 작전을 督勵하고 있던 바 제38연대로 하여금 다음날 07.00를 期해 △351를 공격奪還하도록 嚴命하고 이 高地를 期必로 확보하고자 말겠다는 굳은 決意를 表明하면서, 관계참모에게는 火力支援과 병력보충 및 보급지원에 있어서 攻擊부대에 最優先을 돌것을 거듭 強調하였다.

6월 4일 : 제38연대장은 이날의 攻擊을 위해 제반 화력지원계획을 畫間과다름없이 樹立하였으므로 기습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적과 接觸이 이루어질 때까지 無支援下에 攻擊하기로 決心하고 配屬된 제50연대 제1대대의 공격준비 상태를 確認하였다.

전날 네차베에 걸친 激戰을 치른 제1대대는 연대수색중대를 포함하여 장교 5명, 사병 165명의 사상자를 내었으나, 전날밤 사이에 落伍兵士 33명과 輕傷者 26명을 復歸시키고 新兵 80명을 습한 139명을 充員하여 장교 12명 사병 468명으로 再編成하였는데 各隊의 兵力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제1중대 장교 5명, 사병 128명

제2중대 장교 5명, 사병 116명

연대수색중대 장교 2명, 사병 124명.

1. 제연50대 제1대대의 제5차공격

이날 대대는 07.00를 期해 제10중대의 左端部를 超越하여 짙은 안개속을 헤치며 夜間行動과 같이 步武도 靜肅하게 連絡壕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는데, 이때 발길에 채이고 밟히는 屍體로 因하여 겁에 질린 新兵들은 古兵들에게 떨어질세라 彈帶에 매달리다 싶어 하였으나 넘어지고 부딪치고 하여 前進는 遲遲하여 08.00에야 8부稜線까지 進出하였다. 이때 敵의 아무抵抗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직 이선까지는 그들이 潛入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 대대는 이곳에서 제1중대를 右로 제2중대를 左로, 수색중대를 中央으로 각각 展開하여 다시 9分稜線을 直衝하였다. 미리各隊에서 編成하였던 特攻隊는 수류탄의 安全핀을

배어들고 散兵壕로 肉迫해 들어가 一彈을 그들 壕內에 投發하자 잇달아 호마다에서 連發하였으며 着劍한兵士들이 뒤따라 突進하였는데, 이때 대대장은 이를 好機로 觀測將校로 하여금 즉시 計劃된 화력지원요청을 하게 하여 그들의 增援을 遮斷하게 하였다.

不意의 기습을 당한 敵들은 無差別사격을 加하는 한편 수류탄을 굴리기 始作하였으며 月比山과 △185, 그리고 周邊의 A, B, C高地에서도 銃砲의 사격이 雨注하였다.

이에 이르러 實戰을 경험하지 못한 新兵들이 우루루 물리니 이를 본 古兵들도 뒤를 따라 쏠살같이 내려닫기 始作하였는데 이는 瞬息間에 일어났던 일이라 先頭에 있던 小, 中隊長들도 束手無策이었다. 이리하여 대대는 8부稜線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이때가 攻擊開始後 1시간 30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한편 사단장은 연대 觀測所인 △355(△351 東南쪽 3.5km)에 나와 안개에 가리워 보이지 않는 △351를 睥睨하며 공격을 督勵하고 있던중 연대장으로부터 攻擊이 挫折되었다는 報告를 받고, 보다 果敢한 作戰을 펼치기 위해 作戰參謀로 있는 威戾烈 중령을 제38연대장 대리 任命하고 10.00부로 作戰指揮를 맡게 하였다.

前연대장 李東和 대령으로부터 指揮權을 引受한 威戾烈 중령은 이미 展開된 部隊에 새로운 命令을 내린다면 混雜만을 초래할 것을 豫想하고 前任연대장의 作戰觀念을 그대로 繼承키로 決心하고 艦砲, 艦載機의 支援를 받아 10.30에 제1대대로 하여금 제6차의 攻擊을 敢行케 하였으나 成功치 못한채 결국 20.30에 8부稜線에서 敵의 進出에 對備하게 되었다.

2. 제50연대 제2대대 및 연대직할대 主障地에 配置

또 이날 이미 出動態勢를 갖추고 있던 제50연대 제2대대와 연대직할대는 잇달은 사단장의 緊急命令에 따라 이날 18.00에 松峴里에 進入하였는데, 연대직할대는 사단에서 派出된 兵力49명(장교 1명, 사병 48명)을 包含. 제10중대로부터 海岸哨所 警戒임무를 引受하여 20.40부터 同임무를 遂行하였으며, 제2대대는 다시 安湖里(松峴里北쪽 2km)에 徒歩로 移動하고 21.00에 제50연대 제3대대와 그임무를 交代하여 제38연대장 지휘하에 들게 되었다.

3. 제50연대 제3대대의 轉進

한편 CAT선의 防禦임무를 제2대대에 任제한 제50연대 제3대대는 이날 21.30에 大康里(安湖里 西北쪽 2km)에서 海岸警備中이던 예하 제10중대를 統合하고 22.40 無名高地에서 攻擊을 準備하였다.

그런데 이날 左隣接인 제39연대는 00.30에 右側 전투地境線에 연한 제9중대 지역(△195)과 01.00 左側 戰鬪地境線의 제3중대 전초진지(△234)에 各各 1개소대 규모로 보이는 敵을 發見, 곧 砲擊으로 물리친 바 있었으나 그 後로는 平穩을 유지하였다.

6월 5일

1. 제38연대의 상황 : 전날 21.00부로 제50연대 제2대대를 배속받은 제38연대장 대리 威戾烈 중령은 攻擊의 氣勢를 유지하면서 敵이 防禦態勢를 미처 強化하기 前에 攻擊키로

決心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연대는 6월 5일 01.00를 期하여 △351를 攻擊하고 이를 確保하며한다.

② 제50연대 제3대대

㉑ 6월 5일 01.00을 期해 351를 奪還하라.

㉒ 6월 4일 21.00을 期하여 CAT선의 방어임무를 제50연대 제2대대에 인계하고 同時부로 제50연대 제1대대를 작전 통제하라.

③ 제50연대 제1대대는 6월 4일 21.00부로 제50연대 제3대대의 작전통제를 받으라.

④ 제50연대 제2대대는 6월 4일 21.00를 期해 CAT선의 방어임무를 인수하라.

⑤ 其他부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제50연대 제3대대의 공격을 사격으로 支援하라.

⑥ 協調지시

㉑ 기습을 달성하기 위해 無線사용을 禁한다.

㉒ 최초 무지원, 무조명으로 공격하고 접적이후부터는 요청에 의거 지원사격을 제공한다.

㉓ 방광, 방음장치와 야간위장을 철저히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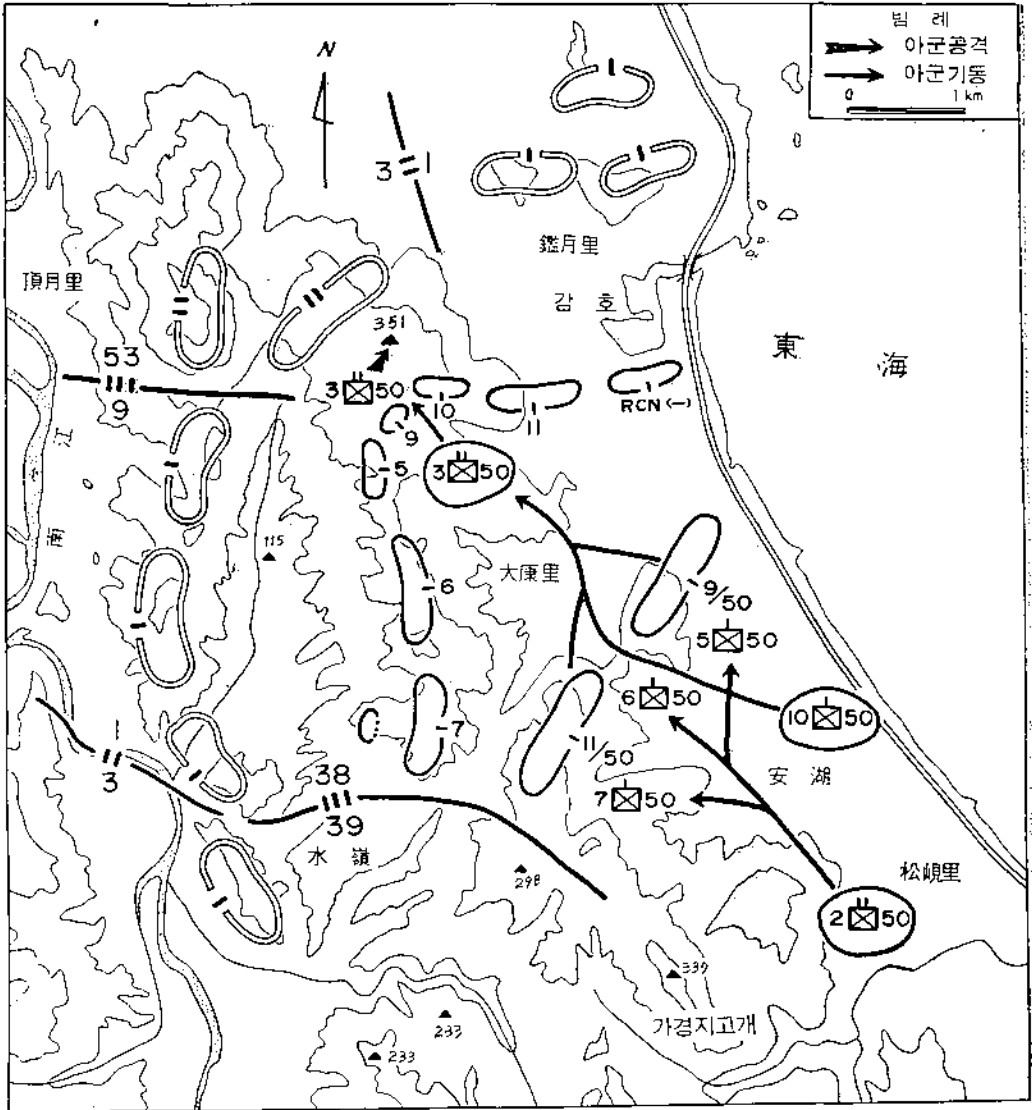
2. 제50연대 제3대대의 △351 攻擊

대대장 柳致文 소령은 豫定된 시간에 攻擊開始線인 제38연대의 接敵선을 通過하자 8부稜線에서 제1대대의 兵力과 合勢하고 이 선에서 突擊態勢를 갖춘후에, 제9중대(장, 鄭鳳梧 대위)와 제11중대(장, 李炳基 대위)를 △351의 東側으로 迂迴시키고, 제1대대의 1개소대를 제1중대소대장 朴明九소위 指揮下에 同高地의 西側 遮蔽된 곳에서 虛張聲勢로 敵의 注意를 그곳에 集中하도록 殘留시키고 제2중대(장, 朴鍾煥 대위)가 지휘하는 同대대의 殘餘兵力을 제10중대(장, 朴孝俊 중위)와 같이 正面에서 攻擊케하고 대대장 自身도 여기에서 指揮하였다.

이윽고 東側으로 迂迴한 제11중대는 右에, 제9중대는 左에 전개하였으며, 正面으로 躍進한 부대 역시 9부稜線에 進出하여 突擊信號를 待機하였는데, 이 무렵, 西側斜面에서는 제1대대 병력의 喊聲과 銃聲이, 그리고 이에 對항하는 敵의 銃聲과 수류탄이 炸裂하는 爆音이 서로 交叉하여 매아리치고 있었다.

이때의 好機를 捕捉한 대대는, 拋物線을 그리며 하늘높이 처사는 赤色五星신호탄을 신호로 一齊히 突進하여, 包圍網을 西—北便으로 넓혀가며, 수류탄을 連投하니 洞窟內에서는 悲鳴만이 들릴뿐 抵抗하는者없는 가운데 殘敵의 완전 殲滅도 寸刻에 두게 되었으나 이즈음 그들의 거센 砲火는 또다시 △351를 掩襲하기 시작하였다. 이 포격에서 特別히 제9중대와 제11兩중대는 △149—△185로부터 側背面을 強打當하여 해야될 수 없는 死傷者를 내고, 各 個躍進으로 無名高地로 또다시 철수하게 되었는데 이때 제9중대장 鄭鳳梧 대위는 全身이 피투성이가 되어 部下의 聲에 업혔으나 말한마디 못한채 部下들의 號哭속에서 숨을거두었으니 이때가 03.30이었다.

◇ 상황도 제 6 호 351高地 전투 其三(53. 6. 5)



또한 正面에서 突進한 제1대대의 殘餘兵力과 제10중대도 이와같은 敵포의 집중으로 많은 損失을 보았으나 地形을 잘 利用하고 그들의 彈雨를 避할 수 있던 까닭에 北斜面에 접어 틀게 되었는데 이때 B高地에서 몰려온 逆襲부대와 부딪치게 되어 2時間의 血戰을 거듭하게 되고 끝내 力不足이란 理由로 이들도 無名高地까지 또다시 撤收하고 말았다.

이날 사로잡은 俘虜의 陳述에 따르면 『作戰初日에 △351를 侵襲한 제53연대 제2대대는 滅亡之境에 이르러 그를 代身하여 제3사단 제9연대의 1개대대로 하여금 다시 奪取케 하였으나 그들도 殆半이 沒殺되어, 지난 3日밤 제53연대 제3대대를 △351에 그리고 제7사단의 예비인 제51연대의 2개대대를 B高地에 推進시켰는데 전날과 이날 國防軍의 空襲과 砲擊

으로 莫大한 被害를 입었다』라는 것이다.

대대는 이 공격에서 짙은 먹구름이 깔린데다 東南風이 세차게 불었던 관계로 近接航空 支援과 艦砲支援을 받을 수 없었는데 사단포병은 連日晝夜를 가리지 않는 射擊으로 이미 50,000餘發을 消耗한 뒤여서 砲彈을 統制하고 있던 실정인 까닭에 前처럼 充分한 量의 支援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狀況 속에서 대대는 제1대대의 殘餘兵力을 糾合하여 13.00를 期해 再次 攻擊하였으나 敵의 熾盛한 砲火로 因하여 8부稜線에서 挫折되고 말았으며, 그후도 두차례 攻擊을 試圖하다가 결국 실패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로써 대대는 19.20에 제38연대 제10중대 전지의 左側(△351의 南麓)으로 退하여 그들의 進出만을 阻止하는데 汲汲하였다.

이때 제1대대장 보고에 따르면 제1, 제3兩대대(연대수색중대포함)의 總可用兵力은 60명 이라고 하였다.

3. 사단장의 조치

이와같은 作戰의 樣相을 銳意注視하고있던 사단장은 그간의 血戰으로 疲弊한 부대들로 作戰을 續持 함은 兵力의 손실만을 自招할 뿐이며 成功의 可能性이 稀薄할 것으로 判斷하고 現接觸線에서 敵을 牽制하는 한편 再興을 圖謀하기로하고 軍단장의 승인을 받아 要旨 다음과 같은 口頭命令을 하달하였다.

『① 제50연대

- ㉑ 6월 6일 05.00을 기해 2개 대대를 현 접촉선에서 제38연대와 교대하고 원대에 복귀하라.
- ㉒ CAT선의 1개대대는 별명이 있을때까지 제38연대장의 작전통제하에 두라.
- ㉓ 해안초소의 연대본부병력을 동시부로 철수하고 軍단사령부 경계임무를 수행하고있는 중대로서 해안초소 경계임무를 인수케하라.

② 제38연대

- ㉑ 6월 6일 05.00를 기해 제50연대 제 1, 제3대대의 전지를 인수하라.
- ㉒ 제50연대 제2대대를 별명이 있을때까지 작전통제하라.
- ③ 기타부대 : 현행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 ④ 협조지시
 - ㉑ 현 방어진지를 정비보강하라.
 - ㉒ 병력충원과 장비보충 및 정비를 신속히 하라.
 - ㉓ 도로 및 시설보수를 철저히 하라.

6월 6일 : 지난 4—5 兩日간의 연대작전을 指導한 軍단장 李亨根 中將은 이날 사단을 떠나기에 앞서, 제21사단의 1개연대를 사단에 배속하여 不遠間 △351의 再奪還作戰이 있을 것을 示唆하고 사단은 이에 대한 對備策을 講究하라고 強調하였다.

이날 제38연대는 05.00를 期해 제50연대의 제1,3대대가 確保하고 있던 △351 南麓을 제9중대(장, 朴濟宣 대위)로 하여금 引受케 하고, 제1대대를 △339에서 △234-△164간에 展開하여 제3대대를 近接支援케 하는 한편 배속된 제50연대 제2대대를 계속 CAT선에 두고 再起를 圖謀하였다.

따라서 제50연대 제1, 제3대대는 이날 確保中인 地域을 05.00에 제38연대에 引繼하고 많은 戰友가 亡한 △351을 뒤로하여 一旦 安湖里에서 兵力의 收拾과 隊伍를 整頓하고 제3대대는 07.45에 제1대대는 08.40에 各各 車輛에 分乘하여 山頂里의 集結地로 向하였다.

(2) 제2차전(6.15)

(가) 작전계획

사단장은 6월6일 軍단 작전명령(제177호)으로 사단에 배속된 제21사단 제63연대(장, 韓順華 대령)을 사단의 左1선 正面에 대한 방어임무를 附與하는 同時에 이곳을 堅守하던 제39연대(一)를 地境(松峴里 東쪽 1km)附近에 集結시켜, △351攻撃을 위한 豫行演習을 實施케 한 다음 6월 8일 翌日 다음과 같은 作戰계획 제10호를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D일 H시 地域內를 공격하여 主陣地를 恢復하고, 계속 A. B高地 및 C高地의 敵陣을 攻撃하려함.

② 제39연대

배속: 사단 重迫撃砲중대

사단 工兵 1개중대

제38연대 1개중대

㉞ 주진지를 恢復하고 계속 목표A, B를 攻撃하라.

㉟ 목표占領과 同時에 陣地를 強化하라.

③ 제38연대

배속: 제21사단 重迫撃砲중대

㉞ 현 진지를 계속 방어하라.

㉟ 사격으로서 공격을 지원하라.

④ 제50연대

㉞ 현 收復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부대訓練을 실시하라.

㉟ 외명 역습을 敢行하라.

⑤ 제63연대

배속: 제39연대 1개대대

㉞ 현 진지방어를 續行하라

㉟ 사격으로서 공격을 支援하라.

⑥ 사단 포병단

- ㉑ 제68대대 : 제39연대 직접지원
- ㉒ 제26대대 :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제68대대를 화력지원하라.
- ㉓ 제67대대 : 제63연대 직접지원
- ㉔ 제99대대 : 일반지원

⑦ 협조지시

- ㉑ 부대상호간에 협조를 緊密히 하라.
- ㉒ 작전계획 및 부대이동을 비밀리에 行하도록 全努力을 傾注하라.
- ㉓ D일 H시는 후달한다.

⑧ 지원부대

- ㉑ 미 제5공군
- ㉒ 미 제7함대
- ㉓ 제2전차대대(一)
- ㉔ 군단포병(제97, 제635대대)
- ㉕ 제106工兵대대(제1101야전공병단)
- ⑨ 인접부대 : 제11사단(6.12부 제21사단과 교대)』

이에 따라 사단의 전부대와 배속 및 지원부대들은 6월 12일을 期해 집결지로 이동완료하여 關係部隊와 協調하고 공격준비에 專念하였다.

그간 제39연대는 2개대대를 地境에 集結시켜 8일—12일까지 5일간에 걸친 예행연습을 完了하고 作전계획의 檢討와 부대 整備를 실시하면서 攻擊準備에 바쁜 時間을 보였으며 6월 6일 18.00부로 배속된 제21사단의 제63연대는 그 指揮所를 明波里에 두고, 제39연대로부터 引受한 방어진지를 右一線에 제39연대의 제3대대로, 左一線에 제1대대(장, 鄭庸喆 소령)로, 그리고 中央에 제2대대(장, 金東根 소령)로, 各各 展開하고 제3대대(장, 金春植 소령)을 豫備로 하여 △243(교황봉 南쪽 3km)에 控置하고 계속地域防守에 全力하면서 공격부대를 사격으로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

사단의 左隣接에는 軍단 예비로 있던 제21사단이 12일부로 제11사단과 교대하고 사단과 새로이 連繫하여 제1軍단의 左翼에 전개되고 있었다.

한편, 그間 初代사단장으로 赴任하여 △351전투를 指揮하던 李貞錫 中장이 6월 13일부로 陸軍本部로 轉出되고, 白仁燁 소장이 美 指揮參謀大學 渡美次 待機하다가 軍단장의 要請에 의거 同日부로 제2代 사단장으로 就任하였다.

사단장은 赴任과 同時에 軍단장이 決定한 D일을 하루연기받아 15일로 決定하고, 이번 작전을 마무리짓기 위한 諸般計劃을 檢討한 다음 제39연대의 攻擊準備狀態를 確認하였는데 이때의 연대 計劃은要旨 다음과 같다.

『① 제1대대는 △351를 奪取하고 계속 B高地를 攻擊할 準備를 하라.

② 제2대대는 A高地를 奪取確保하고 의명 제1대대의 B高地 攻擊을 사격으로 支援하라.

③ 제38연대 제5중대는 C高地를 탈취 確保하라.

④ 공병 제1중대는 최초 △208에 있다가 제2대대를 後行 近接支援하라』

위와같은 Briefing을 聽取한 사단장은 제63연대에 配屬한 제3대대를 연대의 豫備로 確保하도록하고, CAT선의 제50연대 제2대대를 여기에 배치케하여 사단작전계획제10호(53.6.8)의 일부내용을 修正하고 공병중대의 1部는 炸藥방사기조를 編成하여 攻擊하는 중대에 編入케하였으며, 小隊長級以上の 指揮官에게는 부대 象徴인 黃色마후라를 등에 매고 부대의 先頭에서도록 하였다. 特히 연대의 建의사항은 攻擊開始를 夜間 또는 黎明공격을 할 수 있도록 調整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사단장도 이에 同意하고, 군단장에게 공격시간의 調整과 火焰放射器 8臺의 支援를 建議하였다.

이에 對하여 군단장은 夜間에 공격을한다면 航空 및 繼砲支援이 困難하기 때문에 晝間 공격으로 바꾸어 실시도록 하고 火焰放射器는 注文津의 공병補給所에서 供給토록 조치하였으며 아울러 3개대대에는 美 顧問官을 1명씩 배치토록하여 航空 및 繼砲支援에 對한 諮問을 하게 하였다.

한편 이무렵에 △351를 手中에 넣은 北傀 제7군단은 入手한 情報에 따르면 그間 병력과 장비의 충원으로 低下된 士氣를 恢復하고 夜暗을 利用하여 障地工事와 補給品輸送에 狂奔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그들은 사단의 反擊에 대비하는 一方 계속 南侵을 劃策하였던 것으로 推斷되었다.

(나) 작전실시

6월 15일 : 이날 H시가 10.00로 定해짐에 따라 美 제7艦隊사령관 J.J. Clark중장 麾下의 제77 및 제95 機動部隊는 곧 東海로 出動하여 전날에 이어 攻擊開始 30분전까지 月比山을 포함한 高城一圓에 大規模의 出擊과 포격을 加하였으며, 美 제5공군의 B-29 重爆擊機도 이에 加勢하여 이 地域一帶를 焦土化한데 이어 各種 支援砲兵과 戰車는 △351에 근접된 敵陣을 猛打하였으니 순식간에 △351를 포함한 一帶지역은 硝煙과 飛散하는 黃塵으로 휩싸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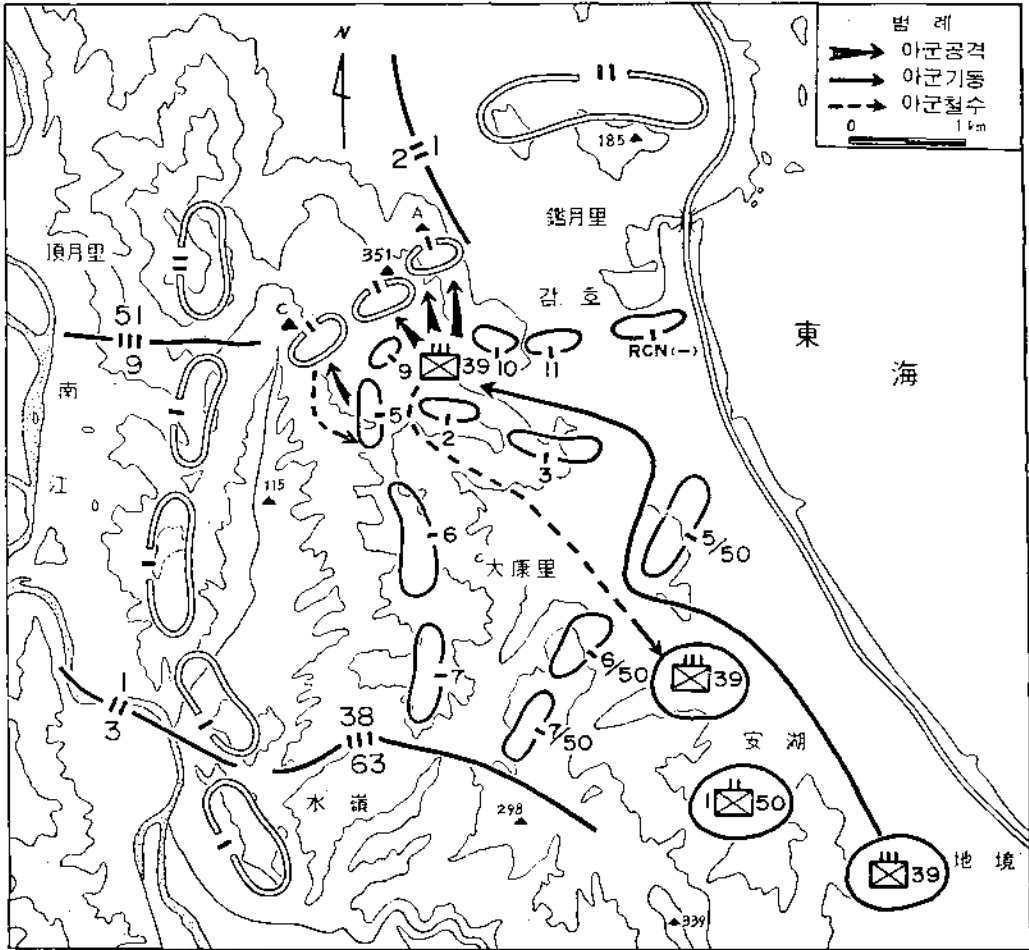
연대는 이사이 火焰放射器 8臺로서 8개 特火點攻擊組를 편성하여 제1, 제2 兩대대에 各 4개組씩 配정하고, 제1대대는 무명高地의 後端部에서 제2대대는 △208의 後端部를 최종 攻擊待機地點으로 하여, 이곳에서 彈藥, 爆藥, 燒夷燃料 등의 分配와 各個人의 不必要한 소지품 등을 回收함으로써 最終的인 攻擊準備를 完了하였다.

1. 제39연대의 △351 공격

가) 제1대대의 血戰 : 이날 10.00에 L.D를 막차고 目標를 向해 躍進한 제1대대(장, 金

昌烈 소령)는 제2중대(장, 金鍾洛 대위)를 右, 제1중대(장, 沈宣勉 대위)를 左로하고, 제3중대(장, 李揆翼 대위)는 최초 대대 觀測所가 있는 無名高地에 散開시켜 공격부대를 支援케하고 상황의 進展에 따라 轉用키로 하였다.

◇ 상황도 제 7 호 351高地 전투 其四(53. 6. 15)



공격부대들이 L.D를 超越한지 30餘分이 경과하면서, 只今까지 죽은 듯이 보였던 敵은 月比山과 A, B高地 그리고 △149—△185에서 機關銃과 直射砲가 아직도 견재하고 있음을 誇示라도 하듯 요란하게 發射하기 시작하였다.

이때의 대대장 金昌烈 소령은 연대作戰主任장교로서 임무를 成功的으로 수행하다가 연대가 攻擊임무를 맡게 되면서 대대장으로 拔擢된 霸氣있는 장교였는데, 攻擊이 開始된지 40分이 지나도록 그 先鋒의 進出상황을 알지 못하다가 TS-10 (野戰電話器)을 通하여 進出狀況을 비로소 確認하였으나 『계속 進出하고 있다』는 중대장의 報告가 있을 뿐 공격을 시작한지 1時間이 지나도 亦是 중대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대대장은

작전, 정보장교 및 顧問官을 帶同하고 無名高地를 下山하여 △351로 通하는 連絡壕에 이르렀는데, 當時 거기에는 兵士들이 碇 차있어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태이었다. 대대장의 一行은 이들을 헤치고 올라가니 호내는 負傷을 입어 내려오는 兵士들로 더욱 混雜을 이루었으며 가까스로 先頭部位에 당도하니 5부稜線쯤 되는 連絡壕의 한구석에 제2중대장이 서서 兵士들을 하나하나 밀다싶이하여 進出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突進한 兵士들은 앞을 가로막는 屍體와 砲擊으로 매워진 壕를 누벼 突貫하다가 그들이 굴리는 수류탄이나 집중 銃擊으로 釘着되고, 때문에 이러한 공격을 再擧하는 등의 戰況으로 惡循環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에 激憤한 대대장은 拳銃을 빼어들고 중대장을 叱咤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에 놀란 중대장과 소대장들은 彈雨를 헤치고 陣頭에 나서 躍進하였으며 이에 兵士들도 그뒤를 따라 突進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連絡壕가 疎通되자 대대장은 副대대장을 無名高地의 下端部에 位置케 하여 死傷者의 後送과 戰鬪兵力의 離脫을 防止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急迫하여 先鋒에 나선 제2중대장과 소대장들이 차례로 負傷을 입어 後續하던 兵士들에 부축되어 철수하기에 이르렀으며 또한 指揮者를 잃은 兵士들은 新兵들이라 겁에 질려 호내로 물러들었다.

이에 대대장은 이들을 制止하여 連絡壕內에 集結시키고 中, 上士들로서 臨時 소대장을 任命하는 한편 계급의 先後도 가리지 못한채 分隊長을 部署하여 建制를 유지케 하고 情報官으로 하여금 이를 指揮토록 하여 大대의 豫備로 轉換케 하였으며 無名高地에 殘留시킨 제3중대를 進出케 하여 右側에서 攻撃케 하였다. 그리고 敵의 抵抗이 頑強하여 單獨突破가 어렵음을 판단한 그는 곧 제3대대의 赴援을 연대장에게 建議하였다.

이와같이 一連의 措置를 取하고난 대대장은 이미 죽음을 覺悟하였음인지 忽然 陣頭에 나서 突進하였는데 옆에 있던 顧問官은 無謀하다고 이를 挽留하다가 隨行을 斷念하고 無名高地로 철수하였다.

이무렵 無名高地에서 연대장을 代身하여 作戰을 指揮하고 있던 부연대장 安濟徽 중령은 그곳에서 戰況을 살피던 사단장에게 大대의 戰況을 報告하고 11.30부로 제3대대장에게 命하여 即刻 제1대대를 赴援케 하였다.

그로부터 세時間이 지난 뒤인 14.40에 參謀總長 白善雄 대장은 顧問團長 M. B. Rogers 소장을 帶同, 軍단장 李亨根 중장의 案內를 받아 作戰地域인 △339에 着來하여 △351 作戰을 觀戰하면서 作戰부대를 激勵하였다. 그런데도 作戰부대의 進出線은 15.00가 되도록 如前히 觀測되지 않았다. 이에 焦燥하기 이를때 없었던 사단장은 無電機로 直接 대대장들을 呼出하여 現進出線을 對空布板으로 명시하도록 지시하고, 소대장급 以上 指揮官은 부대의 先頭에 서서 目標을 신속히 탈취하도록 嚴命하였다. 그리고 옆에있던 砲兵團長 李奇建 대령에게는 攻撃부대와 긴밀하게 連絡을 유지하여 그 先頭와 100m 間隙을 두고 砲사격을 계속하도록 指示하는 한편, 艦砲連絡將校에게도 艦載機로서 地上軍에 對한 近接支援

을 계속하도록 當付하기도 하였는데 이로 因하여 砲兵의 落伍彈 및 航空機의 誤爆 등으로 제3중대 선임장교를 비롯하여 적지않은 損失을 招來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艦載機와 砲兵의 支援사격이 계속되었음에도 不拘하고 攻擊은 如前히 膠着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니 그 까닭은 △351의 敵陣이 完全히 要塞化되어 있는데다, 月比山을 비롯한 △149—△185를 充分히 制壓하지 못하여 △351의 前後, 左右側方에 대한 계속적인 威脅사격에 基因하는 것이었다.

또한 △351의 山嶺에는 그간의 戰鬥로 쌓인 屍體의 腐敗로 惡臭은 形容할 수 없는 情形이고 거기다 彼我的 砲擊으로 屍體는 散散조각이나 발에 밟히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였으며 30—40cm씩 빠져 들어가는 흙과 돌가루 때문에 한발작 올라서면 2—3발자국씩 미끄러지는 急傾斜였다. 그야말로 惡戰苦鬪 그것이었는데 兵士들의 小銃은 大部分이 銃으로서의 機能을 喪失한지 이미 오래이었다.

대대는 이러한 惡條件下에서도 이를 克服하고 포탄으로 생긴 웅덩이를 遮蔽物로 利用하면서 한발한발 前進만이 있을 뿐이었는데, 사단장의 督促이 烈火같았으며 대대를 赴援케된 제3대대는 15.00가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더 참을 수 없었던 대대장은 下士官 7명으로한 特攻隊와 2개特火點 공격조를 急編하고 이들을 先頭로 總突進하여 8부稜線의 交通線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대대장은 通信兵으로 하여금 黃, 赤의 대공포관을 「T」字形으로 표시케하고 이 상황을 사단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예비대의 急派도 아울러 促求하였는데 이때가 15.50이었다.

16.00에 이르러 尙병력으로 △351 하단부에 당도하게 된 제3대대장 李弘根중령은 곧 병력의 운용을 妥協하기 위하여 8부稜線까지 올라갔다. 여기에서 제1대대장 金昌烈 소령은 概略的인 적정과 상황을 설명하고 『현재 적의 모든 注意와 火力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으니 그들의 不意를 질러 西側으로 돌아 前斜面을 치고, B高地로 부터의 역습에 대비하도록』 협조를 求하여 兩者는 이에 合意를 보아, 기동로에 대해서 검토하다가 적 포탄의 落下로 말미암아 李중령은 귀에 裂傷을 입고 후송되고 말았다. 일이 이렇게 되고보니 제3대대는 그 자리에서 웅거성리고 있을 뿐이고 제1대대 또한 그선에서 固着된 채 사후대책을 講究하고 있었는데 20.00에 사단장의 撤收命을 수령하게 되었다.

최종 목표를 눈앞에 두고 철수명령을 받은 대대장은 각 중대에 철수명령을 하달하고 아직 後送하지 못하채 交通線에 수용중인 死傷者 7명을 于先 후송케한 다음 殘餘兵力을 수습, 22.00에 집결지인 高嶺봉 東端(大康里—安湖里 중간지점)에서 부대를 정비하였다. 이날 전투에서 대대는 적 遺棄屍體 270具를 확인하였으며 金錫權 소위외에 57명의 전사자와 233명의 부상자(장교10, 사병 223)를 내는 손실을 보았으니 집결된 인원은 不過 348명으로써, 중대장은 오직 重火器중대장 1명뿐이었다.

나) 제2대대의 전황: 대대장 吳允石 소령이 지휘하는 제2대대는 이날 10.00에 LD를 박

차고 지정된 목표 A高地를 탈취하기 위하여 제6중대(장, 權五圭 대위)를 右에, 제7중대(장 崔鳳來 대위)를 左에, 제5중대(장, 崔光林 대위)를 中央으로하여 A高地를 向해 躍進하였다. 이리하여 20분후에는 그 高地의 오르막길에 이르는 窪地선에 도달하였으며, 거기에서 목표까지는 300m거리에 不過하였는데, 이때부터 △149—△185에서 強力한 사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대대는 踴躍없이 대대장을 陣頭로하여 果敢하게 그곳을 통과하는데 성공한 다음 4부稜線에서 一但隊伍를 정비하였다. 왜냐하면 대대는 제6, 제7중대장이 부상으로 후송되고 제6중대의 柳英烈 소위가 戰死하였을뿐만 아니라 제7중대는 3개소대장 全員이 부상하고 병력은 1개소대에 지나지 않았으며, 제6중대는 소대장 1명이 남아 50餘명의 병력을 指揮하여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많은 損失을 보게된 까닭은 적의 砲火도 熾盛하였지만 근접지원하던 艦載機의 誤爆에 의하 손실도 적지않았다

14. 00에 대대장은 즉시 이와같은 상황을 연대장에게 보고하고 △208에서 화력으로 공격을 지원하던 제7중대의 李鍾國 소위를 呼出하고 중대의 잔여병력을 수습하여 지휘하게 하는 한편 이들을 제5중대장 崔光林 대위의 指揮下에 들게하고 공병1중대(一)도 吸收하여 15.00에 다시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때에 대대의 전진을 방해하는 A高地의 기관총을 파괴하기 위하여 57mm무반동총과 輕機關銃을 이에 集注하려 하였으나 파손 또는 흠에 더럽혀져 사용 不能이었고, 工兵으로 편성한 4개의 특화집 공격조마저도 그 行方이 不明이었다.

勿論 소총수의 소총은 대부분이 사용할 수 없었던 까닭에 부상병들이 소지했던 수류탄을 회수, 各自 10—15발씩 탄대와 배낭대에 매어 달게하고 全員이 착검하여 지형지물과 彈痕으로 생긴 웅덩이를 이용하면서 8부稜線까지 突貫하였는데 이때 무너진 호에 의지한 敵은 기관총과 多發銃을 亂射하면서 완강하게 항거하였다. 이를본 工兵중대장 吳洪錫대위는 이 등상사 元昌禧를 대장으로한 特攻隊를 조직, 敵의 기관총을 沈黙시키고 『돌격앞으로』를 소리높이 외쳤다.

이에 따라 兵士들은 一齊히 총검을 휘둘르며 적진에 돌입하였는데 그들 교통호에는 屍體로 차있었고 殘敵들의 대부분은 重傷者들이었으며 發惡하던 기관총사수는 쇠줄로 허리가 묶인채 쓰러져 있었다.

이로써 대대는 무려 9시간의 惡戰苦鬪끝에 A高地를 탈취, 17.40에 대대장 吳允石 소령은 勝戰을 報告하고 아울러 병력보충 및 수류탄의 보급, 그리고 소총의 교체도 건의하였다.

그리고 우선 재편성으로 경계구역을 割當하고 진내에 버려진 90餘의 적시체도 假埋葬하여 그들의 夜습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敵은 19.30에 포격을 다시 集中하고 이와 同時에 1개대대 규모로 역습을 시도하였으니 戰勢는 또 逆轉되었다. 이때 대대의 병력은 256명을 해야했으나 그대부분의 소총은 활용할 수 없었고 수류탄도 枯竭상태인지라 이에

對敵할 計策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指揮者를 잃고 피와 땀으로 얼룩진 병사들은 몹시 지쳐있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대대장은 대대를 無名高地 後端으로 隨意撤收하여 거기서 兵力을 수습한 다음, 다시 제1대대 집결지의 左側 500m 떨어진 곳에 集결시켰는데, 전사 39명(장교 1, 사병 38) 부상 147명(장교 7 사병 140)의 손실을 보았다.

다) 제38연대 제2대대의 戰況: 李 哲 대위가 지휘하는 제5중대는 10.00에 현 배치선을 넘어 14.00에는 C高地의 東쪽 7分능선에까지 도달하였으나 敵의 頑強한 저항으로 一時공격이 頓挫되어 一進一退를 거듭하고 있었는데 이를 觀測한 사단장은 △345의 제2대대장 黃炳宇 소령을 有線으로 호출하여 『대대장 자신이 直接나가 지휘하라』고 嚴命하였다.

이에 따라 15.40에 대대장은 手下에 34명을 거느리고 제5중대의 激戰地에 당도하여 이들을 統合하고, 부대를 突擊組와 掩護組로 兩分하여 빗발치는 彈雨를 누비며 區間躍進으로 8부능선까지 진출하였다. 마침내 대대는 대대장의 『돌격앞으로』를 외치는 大號一聲에 고무되어 突進하려는 瞬間대대장 黃炳宇 소령이 狙擊彈으로 C高地의 攻取를 目睫에 두고 陣沒케 되었으니 그때가 16.50이었다.

이를 지켜볼 겨를도 없었던 제5중대장은 위생병 2명을 포함한 사병 4명으로 대대장의 屍身을 즉시 後送케 하고 모처럼 突擊에 活力索를 불러 일으킨 대대장의 遺志를 받들러 계속 『돌격앞으로』를 외치며 前進하고 뒤를따른 兵士들도 破竹之勢로 앞을 다루며 적진을 直衝하였다. 이리하여 高地의 정상에는 寸土를 다루는 肉迫戰이 전개되고 血雨가 霏霏하였는데, 이때 一發의 凶彈이 중대장 李 哲 대위를 쓰러뜨림으로서 兩 指揮官을 잃은 중대원들은 다시 8부능선으로 물리는 바 되었으며, 더구나 그들의 追擊을 받게 되어 各個分散된채 △339로 復歸하고 21:00까지 철수하는 兵力을 계속 수용하게 되었다.

2. 隣接부대 및 지원부대의 戰況

이날 제38연대(제5중대제외)와 제63연대는 현 진지를 固守하며 사격으로써 지원하는데 始終하였으며 제50연대는 사단장의 口頭명령에 따라 제1대대를 出動시켜 17.15에 安湖里에 集결시키고 차기 임무를 待命케 하였다.

한편 美제7함대 사령관 J. J. Clark 중장은 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6월초에 군단장 李亨根 중장과 會晤을 갖고 6월 6일부터 휘하의 제77 및 제95 機動부대에 대하여 東部전선의 지상군에게 최대한의 支援을 提供하라고 命하였다.

이에 따라 제77기동부대의 Philippine Sea호, Prinston호, Boxer호, Lake Champlain호 등 4隻의 艦母를 發進한 艦載機들은 14-15兩日에 걸쳐 △351 周邊一帶의 적진에 총 100여 회의 出擊으로 1,000Ton에 달하는 爆彈을 投下하여 延장 3,000m의 監壕와 포병진지 15개소, 박격포진지 15, 직사포진지 9, 그리고 적의 兵營시설 73棟과 기타 보급품 集積所를 大破 또는 半破하는 외에도 지상군에게 근접지원을 提供하였으며 제95기동부대의 戰艦 New Jersey호와 St. Paul호는 맹렬한 포격을 가하여 교룡호 610m 엄체호 및 동굴 66개소를 완파

또는 大破시키고 13개의 砲와 기타 시설물들을 파괴하여 16" 艦砲의 위력을 誇示하였다.

또한 이날 공격에서 사단 포병부대의 活躍이 대단하였는데 李奇建 대령이 지휘하는 4개 포병대대 및 4.2吋重迫擊砲중대는 지난 제1차전에서 100,000餘발의 高爆彈을 소모하였기 때문에 재고량은 겨우 20,000발에 不過하였으며 可用보급량은 당시 대대당 1日 720발로 통제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포병단장은 이번 작전이 長期化될 경우 지속적인 포병지원이 困難하게 될것임을 勘索하여 束草의 군단 탄약보급소와 美 제10군단의 冠堡里 탄약보급소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砲彈확보를 위해 東奔西走하였는데 원거리인 이들 보급소에서 제한된 車輛으로 운반하는데도 많은 隘路사항이 수반되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작전당일 유감없는 충분한 포병의 사격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다.

4. 사단장의 조치 : 사단장 白仁燁 소장은 하루의 작전을 종결시키고 부대를 철수시켰는데, 다음날 美 제8군사령관 및 제7참대사령관이 사단을 방문하여 어제의 작전이 대 성공이었음을 극구 칭찬하면서 작전을 속개할 것을 慫慂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사단규모의 작전을 전개한다면 모로되 지금까지와 같이 소규모작전으로서는 시간의 浪費와 兵力의 소모만 초래한다』고 力說하고, 『또한 휴전협정이 成熟된 이마당에 △351에 執着할 것이 아니라 현 방어진을 堅守하는 것이 上策』이라고 自身の 見解를 開陳하였다.

따라서 UN군 사령부는 곧 △351 탈환을 위한 공격을 中止케하고 白仁燁 소장은 金城지구의 작전임무를 떠고 17일부로 제6사단장으로 전보되었다.

(3) 제3차전(7.17~18)

(가) 작전계획

6월 17일부로 제3대 사단장으로 赴任한 吳德俊 소장은 배속된 제63연대가 18일 06.00부로 원대복귀 措置됨과 同時에 제50연대들이 자리에 배치하고 同日부로 제39연대를 山頂里에 控置하였으며 아울러 제38연대의 부대 配置도 調整하여 北側面을 強化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그간의 전투 損失로 인한 병력충원과 一部지휘관의 交替를 단행하여 部隊를 一新케하고, △339를 主軸으로 방어진지를 補強하면서 部隊整備에 專念하다가 6월25일부로 美 指揮參謀大學 留學을 위해 離任하였다.

同日부로 뒤를 이은 崔榮嘉 소장도 계속 병력충원과 장비 보충 및 진지의 強化에 全力을 傾注하고 6월29일에는 제50연대를 豫備로하는 동시에 제39연대를 左一선에 배치하고 사단 수색중대도 大康里에 추진하여 右一선 방어正面의 보강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6월 17일부로 제38연대장으로 赴任한 劉載成 대령은, 제3대대(장, 安宅煥 중령)를 右一선으로 하여 東海岸에서 △351의 南麓까지 제2대대(장, 金鍾九 소령)를 左一선으로 하여 △345의 右端에서 外面縣까지에, 그리고 제1대대(장, 張翊樺 소령)는 제3대대와

併行하여 △339—△234—△164에 전개하여 北側正面의 방어중심을 強化하는 同時에 주로 △339에 重點을 두어, △351의 敵을 견제케 하였다.

한편 △351을 手中에 넣은 北傀제7사단은 이무렵 에 하 제53연대를 예비로 돌리고 제51연대를 이곳에 投入하여 同高地와 그 周邊의 A, B, C高地에 1개대대 兵力으로 강화하고 그 主峰인 △351에 대대 觀測所를 설치하여 陣地의 강화에 寧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7월 中旬에 들면서, 砲射擊이 격화되어 하루에도 10餘名의 死傷者를 내게 되었다.

(나) 작전실시

7월 17일 : △351의 基盤을 굳인 北傀는 이날 零時를 期해 사단 全面에 걸쳐 포격을 가하였으며 特히 제38연대 地域에는 50분간에 1,500餘발이 集中되어 그간 陣地보수공사를 하였다고는하나 계속된 降雨과 주간에는 그들의 觀測射擊으로 공사의 進陟이 未洽하였던 터이므로 交通壕가 埋沒되고 有蓋壕가 崩壞되었는데 이에 氣勝하게된 그들은 到處에서 奇襲侵攻을 恣行하였으나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339에 두고있는것으로 보였다.

1. 제38연대의 전황

이날 연대장은 前例없는 포격이 야습을 위한 그들의 常套的인 手段일 것이라 判斷하고 各大隊長에게 警戒強化를 下令하여 出現하는 敵에 對하여는 陣前에서 저지격멸하고 진지를 固守하도록 嚴命하는 한편 제26砲兵대대장에게는 對砲兵戰으로 擊退케 하였다.

이로써 戰線은 彼我的 포격으로 震動하고 白蠟를 방불케한 照明彈이 계속 꼬리틀어었는데 00.15에 수색중대장 金銀童대위로 부터 『1개중대 規模의 敵과 交戰中』이라는報告에 이어 00.40에는 △339에서 그리고 00.50에는 제2대대 前面에 各各 1개중대 규모의 敵이 나타났다는 報告가 연달았다. 그리고 01.00에는 제1, 제3대대간의 有線이 杜絶되고 01.45에는 사단과의 통신마저 단절되었으며, 無線마저도 混信때문에 不通이어서 오직 포병대대의 사격지휘망에 의존하여 부대유지가 이루어졌다.

各 大隊와의 有線이 杜絶된지 20분만에 제38연대와 제39연대간의 虛隙을 따라 侵透한것으로 보이는 1개소대 규모가 聯隊觀測所 附近에서 騷動을 일으켰으나 副연대장 이 指揮하는 直轄隊에 의해서 擊退되었고, 한때 杜絶되었던 대대간의 通信은 02.30에 復舊되었으며 사단과는 사단 통신중대요원에 의해서 그보다 1시간 늦게 恢復되었다.

가) 제1대대 △339死守 : 이때 △339에 觀測所를 設置하고 작전을 지휘하고 있던 제1대대장 張翊祥 소령은 00.40 제3중대장 朴永泰 대위로부터 『현재 중대는 1개중대 규모의 적을 맞아 交戰중인데 C高地 方向에서도 1개중대 규모의 병력이 △339를 向해오고 있다』는 報告에 接하자 直刻 81mm 迫擊砲와 105mm, 155mm 野砲로서 制壓케 하여 01.50에 그들을 격퇴하였으나, 이 무렵 또다른 增強된 1개 대대의 兵力이 同高地의 西側 中腹에 밀착하여 △351와 C高地로부터 支援사격을 받으며 接近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중대는 全火力을 集中하고 수류탄을 연속 던져 이들을 막았으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敵은 屍體를 넘

고 또 넘어 交通호선까지 肉迫하여 熾烈한 混戰이 전개되었는데 03.00에 이르러 그들은 200餘의 屍體를 遺棄하고 西側溪谷을 따라 潰走하고 말았다.

여기에서 대대는 敵兵 1名을 俘獲하여 이들이 北傀제3사단 제9연대의 예하이었음을 確認할 수 있었으나 제3중대장 朴永奉 대위가 負傷하여 후송되는 외에도 전사 14(장교 2, 사병 12)명, 부상 26명(장교 1, 사병 25)의 손실이 있었는데 그 大部分이 제3중대 병력임이 확인되었다.

나) 제2대대의 전황 : 00.50에 제6중대—제7중대間의 戰鬪地境線을 따라 侵入한 數未詳의 적이 $\Delta 345$ 를 目的으로 한듯 제6중대(장, 李石奎 대위)正面으로 接近하였는데 照明下에 露出된 이들은 1개중대 규모임이 밝혀졌다. 중대장은 배속된 機關銃 小隊와 중대의 全火器를 이들에게 集中하고 이때 같은 觀測所를 使用하고 있는 제8중대장 許忠 대위는 81mm 迫擊砲로 火集點을 構成하여 그들의 殆半을 擊滅하였다. 그러나 그중 一部는 8부稜線까지 潛入하여 중대의 左側方을 威脅함으로써 제1소대 地域에서는 銃擊이 끝이지 않았는데 중대장은 中央의 제2소대를 이곳에 轉向하여 挾擊케 함으로써 03.30에는 完全히 적을 擊退시키고 1명을 俘獲하였으며 80餘의 遺棄屍體를 확인하였다.

이무렵 左隣接의 제7중대(장, 高炳善 대위)도 약 1개소대의 적을 發見 20분간의 交戰으로 이들을 물리치게 되었다.

다) 제3대대의 전황 : 또한 砲擊이 끝난 00.15에 연대의 北側으로 뻗은 7번도로를 따라 侵透하였던 敵은 甘湖 東側에 설치한 두터운 장애물地帶에 빠진 끝에 이곳을 堅守하고 있던 수색중대(장, 金銀童 대위)의 사격을 받아 01.15에 $\Delta 185$ 方向으로 潰退하였는데 이들은 03.00에 再侵을 試圖하였으므로 제26砲兵大隊은 이를 捕捉하여 砲擊을 集中하고 支離滅裂케 하였다.

그리고 01.30에 $\Delta 208$ —無名高地 사이로 潛入한 2個小隊규모의 敵은 제9중대(장, 嚴斗永 대위)와 제10중대(장, 孔載鵬 대위)의 挾擊으로 擊退되고 말았다.

2. 隣接부대의 상황

제39연대도 左, 右側方에서 各各 1개중대 규모로 보이는 敵으로 부터 急襲을 받았으나 이곳을 堅守하고 있던 제9중대와 제5중대가 이를 阻止하고, 제67포대병대대의 砲擊으로 擊滅시켰는데 右側으로 侵入한 그들 一部는 제38연대 觀測所가 있는 $\Delta 355$ 方向으로 退却한 것으로 보였다.

3. 사단장의 조치

이날 사단장 崔榮禧 소장은 麻次津里(明波里 南쪽 2km)의 사단 前方 指揮所에서 作戰을 指揮하다가 狀況의 急變함에 대비하여 豫備隊의 投入을 決心하고 02.10松峴里에 있는 제50연대의 제2대대를 CAT 선으로 移動케 하는 한편 殘餘兵力도 出動態勢를 갖추게 하였으며 有線網의 신속한 復舊와 이의 保全策을 講究하도록 指示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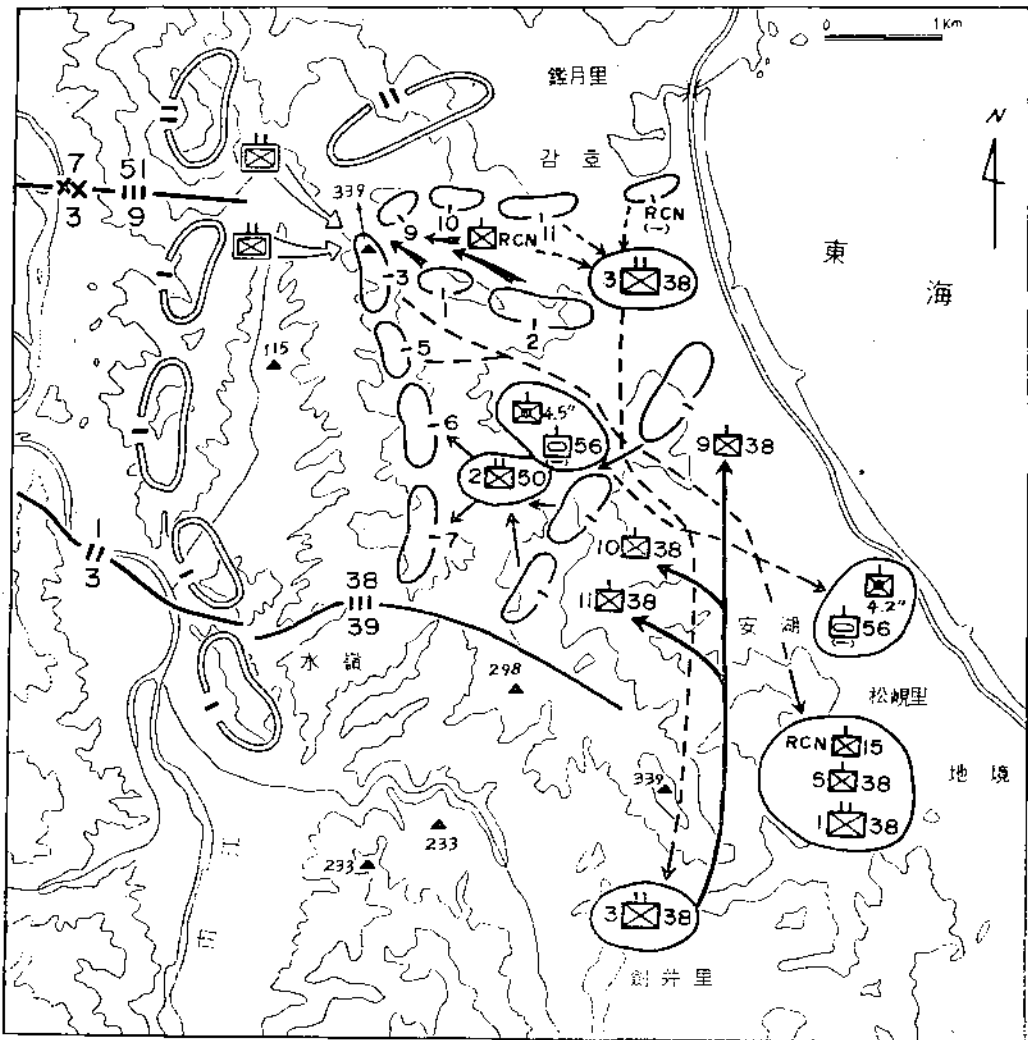
7월 18일 : 北傀제3사단은 이날 子正을 期해 夜襲을 試圖하였으나 甚大한 被害를 입고 04.00후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23.40부터 다시 小規模의 병력으로 △339를 포함한 제38 연대의 西側防禦정면 一帶에 對하여 偵察활동을 전개하여 재침의 徵候를 露모하였다.

1. 제38연대의 상황

제38연대장 劉載成 대령은 이러한 敵의 움직임으로 보아 그들의 夜襲을 豫見하고 各대대에 고도의 경계태세를 堅持하도록 嚴命한 바 있거니와 敵은 이미 △339를 포함한 연대의 西側방어진지에 2개대대兵力으로 掩襲하기 시작하였다.

가) 제1대대 △339喪失 : 敵은 이날 偵察隊로 판단되는 한패의 뒤를 이어 1개대대 규모의 兵力이 △339를 一擊에 奪取하려는 氣勢이었는데 反하여, 이를 堅守하고 있는 제3중대

◇ 상황도 제 8 호 339高地 전투(53. 7. 17-18)



의 陣地는 너무 脆弱하였다.

대대장은 이 狀況을 연대장에게 報告하는 同時에 00.30에 제1중대의 2개소대를 △339에 증강配置케 하고 △234의 제2중대(장, 姜龍雲 대위)도 出動에 대비케 하였다. 彼我的 砲擊은 熾盛을 더해 진지의 前後에서 炸裂하는 가운데 그들의 一部는 01.00에 제1중대의 제1소대가 맡고 있는 交通壕(C高地 맞은편)로 侵入하여 陣中은 突風이 일어난 듯 肉彈의 亂戰이 벌어졌다. 이 渦中에서 제3중대장 朴永奎 대위의 負傷으로 指揮가 困難하자 戰勢는 급전하게 되었다.

대대장은 即刻 제1중대의 잔류兵力을 △339에 投入하여 제1중대장 金在學대위로 하여금 統合指揮케 하고, 제2중대로서는 逆襲을 감행케 하였는데, 同 中隊는 01.55에 제3중대를 超越하여 頂上部로부터 突破口의 敵에게 사격을 집중하며 돌진해 나가던 중 C高地에서 亂射하는 機關銃과 月比山 方向에서 날아드는 122mm포와 82mm 迫擊砲의 集中포격을 받게 되어 進擊이 頓挫되었다. 따라서 同중대는 地勢의 利를 찾아 同高地의 後斜面의 9부稜線에서 隊伍를 一旦 정비하였는데, 이때 交戰中이던 제1, 제3중대도 뒤를 따라 隨意撤收하여 背斜面에서 急編陣地를 편성하기에 이르렀다.

02.40에 狀況報告를 받은 연대장은 제1대대장에게 即時陣地를 回復하도록 命令하고 사단장에게는 역습부대의 緊急派出과 사단의 全砲兵을 △339前面에 集中시켜줄것을 건의하였다.

연대장의 嚴命을 받은 제1대대장은 3개중대장을 대대 觀測所로 呼出하여 여하한 일이 있어도 △339만은 確保하여야 함을 強調하고 陣內에 侵入한 敵을 驅逐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右에 제1중대, 左에 제2중대, 그리고 中央에 제3중대(장, 대위 鄭중위)를 전개하고, 03.25에 지원 砲擊이 올려퍼지는 가운데 一齊히 突進하여 드디어 03.40에 原狀을 恢復하게 되고, 敵은 分散潰退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숨 돌릴 겨를도 없이 C高地로부터 1개대대규모의 급습을 받아 제1중대의 제2소대 陣地가 崩壞되고 陣內가 다시금 혼잡하게 되었다. 이에 隣接의 제3중대장 대위 鄭중위는 1개소대를 指揮하고 제1중대 지역으로 移動하여 交戰中 그들이 던진 수류탄의 破片傷으로 04.15에 후송되고, 그 잔류兵力은 제1중대장의 指揮下에 一進一退하면서 수류탄의 亂投를 벌였으나 C高地로부터 繼續되는 機關銃의 사격에 制壓되어 死傷者는 累增一路에 있었다. 이러한 까닭에 중대장은 部隊를 지휘 背斜面의 8부稜線으로 隨意撤收하여 陣地를 急編케 하고 그들의 進出을 저지하는데 專力하고, 대대 觀測所도 △234로 移動하였는데 이때가 05.50이었다.

나) 사단 수색중대의 역습 : 한편 大康里에 集結中이던 사단 수색중대(장, 李甲淳 대위)는 03.10에 △339에 대한 역습명령을 수령하고, 06.30는 제1대대의 支援을 받아 △339의 北側肩部에 까지 진출하였으나 頂上部를 차지한 敵은 짙은 안개속에서도 各種 小火器를 無差別 亂射를 加하므로 中隊의 進退이 頓挫되었다.

이로 인하여 중대는 一時 地形地物을 利用하여 대피하였으나, 안개가 걷히면서 제1대대

74 東部戰線의 戰況

와 合勢하여 各 中隊의 3.5"砲와 소총의 榴彈發射기로써 前進을 방해하는 頂上部의 機關銃座를 破壞토록하고 中隊는 北側에서, 제1, 제3 兩中隊는 東側에서 各기 頂上을 向해 突進하였다. 잠시후 적의 機關銃座가 검은 연기와 함께 空中으로 分散되자 이에 힘을 입은 中隊원은 앞을 다투어 躍進하여 頂上을 占據하였으나, C高地-月比山에서의 熾烈한 총격으로 3개中隊는 8부稜線으로 돌아가 兵力을 收拾하였는데 그 總兵力은 장교 11명, 사병 76명이었다.

대대장은 이들을 수색中隊장의 掌握下에 12.10를 期해 再次 攻擊케 하였으나 力不足으로 9부稜線상에서 各個分散되어 수색中隊는 △234로 제1, 제3兩中隊는 同高地의 南端部를 堅守하고 있는 제2中隊 地域으로 吸收되었는데 敵은 14.50에 頂上部까지 進出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50연대 제2대대 △345 배치: 전날 제50연대 예하 제2대대가 제38연대에 배속되어 CAT선을 확보하고 있거니와, 이날 제38연대의 戰勢惡化로 山頂里에 控置되었던 제3대대가 08.20에 安湖里에 轉進케되고, 잇달아 제1대대가 13:00에 明波里에 進入하여 △339의 逆襲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그후 제2대대는 別命으로 19.00에 CAT선의 防禦임무를 제1대대에게 인계하고 △345의 제38연대 제2대대(제6, 제7中隊) 지역을 補強하고 △339를 占領한 敵의 진출을 阻止하였다.

2. 사단장의 조치

이날 사단장은 △339의 確保를 위해, 제50연대의 3개대대를 전진시킨바 있으나, △351를 失陷당한 以上 이의 확보가 無價値하고, 小規模 作戰으로 이를 奪還한다는 것은 困難한 문제만을 招來할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또한 當時의 情勢로 보아 休戰協定이 確定段階에 접어 들었던 베인지라 美 第8군사령부가 그들을 자극하지 않는 것을 바랐고, 設함이 들 高地를 確保하더라도 오직 東海岸地域만이 北으로 突出하여 이의 防備에 脆弱性만 招來하게 되고 뿐만아니라 休戰이 成立되면 非武裝地帶化하게 된다는 것을 理由로 들어 이 지역에서의 擴戰의 積極反對해오던 터이라, 그는 마침내 △339의 拋棄를 決心하고 軍단장 의 승인을 받아 제38연대의 西側방어지역을 除外한 제1, 3兩대대와 그리고 CAT선 前方의 4.2"重迫擊砲中隊(一) 및 戰車中隊(一)도 撤收를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제38연대의 제3대대는 19.55에 劍井里(明波里 西쪽 3km)에 撤收하였다가 다음날 09.30에 CAT선을 占領하고, 제5中隊와 사단수색中隊는 20.30에, 그리고 제38연대 제1대대는 24.00에 各各 撤收하여 松峴里에 集結하였으며 이에 앞서 4.2"重迫擊砲中隊(一)와 戰車中隊(一)도 安湖里附近으로 이동하였다.

라. 전투후의 개황

이상과 같이 사단은 6月初에서 7月中旬에 이르기까지 月餘에 걸쳐 北側 第7軍단 예하의 제3, 제7 兩個사단을 맞아, △351와 △339의 爭奪을 위하여 치열한 血戰을 거듭하였으나 전투經驗이 日積

한데다 地勢의인 不利와 當時休戰協定이라는 制約 때문에 過감한 作戰을 전개치 못하고, 끝내는 兩高地를 敵手中에 넘겨준채 休戰協定이 체결되고 戰鬪는 終結되었다. 그後 사단은 7.29 Kansas Line 으로 移動하여 새로운 防禦陣地를 構築하고 지난날의 값진 戰鬪을 거울 삼아 教育, 訓練 및 整備에 邁進하면서, 언제 있을지 모를 北僞의 兩役挑發에 對備하였다.

綜合戰果 및 損失
戰 果

구 분	부대명	제38연대	제39연대	제50연대	계
射	殺	529	107		636
捕	虜	13	1		14
推 定 殺	傷	801	385		1,186
多	發	銃	20	3	23
L	M	G	1		1
B	A	R	6		6
S	M	G	3	1	4
對 車	戰 輜	車 破	砲 壞	1	1
R.	R.			15	15
高 直	射 砲	파 괴	파 괴	1	1
	射 砲			12	12

損 失

구 분	부대명	제38연대	제39연대	제50연대	포병단	공병대대	수색중대	계
戰 死	장 교	9	3	3				15
	사 병	211	150	102				463
負 傷	장 교	21	22	12	1	1	2	59
	사 병	550	456	260	15	27	46	1,354
失 踪	장 교							
	사 병	14						14
計	장 교	30	25	15	1	1	2	74
	사 병	775	606	362	15	27	46	1,831

§ 參戰者의 證言

◇ 제39연대 제1대대장 金昌烈 소령
(1966년 5월18일 戰鬪編委에서, 중령)

후전 1개월전인 6.15 연대의 左一선 대대로서 △351를 공격하였는데, 이에 앞서 제38연대, 제50연대가 이 高地의 탈환을 위해 공격하였으나 모두 失敗로 돌아간 뒤이었다. 이 高地는 月比

山에서 瞰制되고 A, B, C高地가 300-700m 거리를 두고 三面에 있으며 東海岸의 所謂 돌산이라 불리우는 △149 및 △185가 △351의 東側과 南側을 아무 遮障없이 觀測할 수 있는 東北方 1, 2

00—1,500m 거리에 있었다. 그리고 △351는 제 50연대가 보충하고 있을 당시 부터 사단工兵 중대가 들어가 二重으로 洞窟을 完全 요새화하였기 때문에 爆擊이나 포격에도 능히 견디어 낼 수 있는 堅固한 진지이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같이 四面이 적에의해서 瞰制 또는 觀測 당하기 때문에 壘間에는 한발작도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同高地에의 진입은 無名高地의 下端部에서 깊이 2m가 넘는 연락호가 있어서 이길만이 利用되었다.

敵은 대대가 攻襲하기 10餘日전에 이 高地를 確保하고 더욱 堅固하게 진지를 補強하여 地盤을 굳히면서 새로이 砲射擊基點을 調整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地勢의인 불리를 안고 연대는 類似한 지형을 선전 이곳에서 4일간의 豫行演習을 실시해왔는데 공격일정이 15일 10.00로 確定 通보되었다. 이에 대하여 연대장을 비롯하여 3개대대장은 檢討를 하고 熟議를 하였으나 지난번 제38, 제50연대가 攻襲했을때 보다 상황은 不利한데 壘間공격을 한다는 것은 無謀한 손실만 초래한다는 理由를 들어 夜間공격 또는 黎明공격을 하도록 建議하였다. 사단장 李貞錫 准장은 뜻을 꾀보지도 못하고 13일부로 陸本으로 전속되고 후임으로 白仁燁소장이 부임하여 이 문제를 군단장에까지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美軍團에서 『航空, 艦砲 그리고 戰車1개 대대 軍단포병 2개대대를 動員하여 敵陣을 완전 제압하여출터이니 步兵은 목표지역에 올라가 高地를 確保하기만 하면 된다』하여 결국 壘間공격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리하여 14—15 兩日간에 그야말로 敵陣을 無人之境으로 만들었으나 직접적으로 공격을 위협하는 月比山—△149—△185—△351를 포함한 주변 高地에서의 사격은 전투초부터 중도시까지 여전하였고, 사단장이나 군단장의 지휘방침이 소대장급이상 지휘관은 自己部隊의 선두에서서 지휘하도록 되어있어 전투초에 이들 지휘관들을 많이 손실하여 建制를 유지하지 못한데서 더욱 苦戰하였다.

내가 여기서 느낀것은 敵을 過少評價해서 모든 計劃이 이루어졌다는 문제와 기동공간이 협소하여 한꺼번에 대대의 力盡을 발휘하지 못하

고 倏차적으로 병력을 운용하였던 것, 중, 소대장의 조기손실등은 앞으로의 전투에 있어서도 再考되어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목표를 완전 占領하지 못하였던 또하나의 理由를 든다면 대대가 초전에 많은 兵力을 損失하고 11.00에 예비대의 投入을 건의하였으나 예비대인 제3대대장 李弘根 中령은 16, 00에야 △351의 下端部에 도달하였다. 대대장 李中령은 8分능선까지 올라와 나와같이 병력투입 方向과 기동로에 관해서 토의중이었는데, 이때 적포탄의 파편으로 李中령이 귀에 부상을 입어 후송되고 따라서 제3대대는 공격을 못하였고, 이때 대대는 1개중대 미달의 병력으로, 頑強히 버티고 있던 적을 殲滅하고 8分능선을 占領하였는데 激甚했던 戰鬪로 兵士들이 氣盡脈盡되어 있었던 때였으므로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20.00 사단장의 명에 의거 철수를 하게 되었다. 집결지에 내려와 병력을 정돈해보니 중대장은 중화기중대장 1명뿐이었고 참모총장 白善燁대장이 미 고문단장을 대동 작전지역에 來臨하였다가 16.00가 지나 歸任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

◇제15사단장 吳德俊소장

(1966년 12월 8일 戰編委에서, 예 소장)

나는 △351공격의 제2차전이 끝난 6, 17부로 제 3대 사단장으로 부임했다가 美 指揮參謀大學 유학을 위해 6월25일부로 사단을 떠났기 때문에 작전을 해보지 못했으나 當時의 지휘관들의 작전 개념이 寸上도 벗어나는 않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無條件 確保만을 강요했고 이로 인하여 많은 병력의 損耗을 招來한 것으로 안다. 作戰은 공격하는 것만이 成功하는 것이 아니니까 때로는 後退도 할줄아는 融通性있는 지휘를 할 수 있는 貫蘇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군대가 戰鬪經驗이 不足하고 主動的인 작전을 못했다는데 커다란 缺點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 제39연대 제7중대 화기소대장 李鍾國소위

(1967년 10월 17일 戰編委에서, 중령)

제7중대 화기대소장으로 △208에서 60mm박격포로 중대의 공격을 지원을 하고있었는데 목표까지는 1,200m에 不過한데 900m地點까지는 무

난히 잘 갔었으나 雙眼鏡으로 보니 적의 포격으로 진흙이 분화되고 거기서부터 많은 손실을 보게되었다. 조금 있으니 제6중대장이 負傷으로 후송되고 뒤이어 중대장 崔鳳來대위도 후송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때 艦載機가 近接 지원하고 있었는데 공격하는 대대 전방에다 Napalm탄을 잘못 投下하여 여기서 先任장교도 부상하였다. 순식간에 중대의 기능이 타파되어 대대장 吳九石소령의 명을 받아 내가 중대를 지휘하게 되었는데 그때 잔여병력은 1개 소대병력 밖에 없었다. 이 부대를 지휘하여 목표 A高地的 교통호에 뛰어 들어가니 최중에 허리가 묶인 敵의 기관총 사수가 기관총 옆에 쏠어져 있고 교통호내는 시체로 수라장을 이루고 있었다. 대대

는 재편성을 하며 敵시체를 치우고 있었는데 19, 30에 적의 대규모 역습을 받아 그때 나도 적포탄에 맞아 후송되어 墨湖의 제5후송병원으로 옮겨졌다. 상처를 보니 右側다리가 骨折되고 打撲傷을 입었는데 소대원을 생각하니 病床에 오래 누워 있을 수 없어 5일후 병원장의 만류에도 不拘하고 병원을 떠났다. 원장은 『이런 勇敢한 소대장이 있느냐』 하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증대에 복귀하여 보니 그날밤에 다시 A高地를 敵에게 넘겨주었으며, 그로부터 얼마후 喬嶺峰으로 이동 방어임무를 수행중이었는데 그때 逮捕된 포로의 陳述에 따르면 敵도 그날 1개 대대 병력이 攻擊을 하다 우리 砲에 殲滅되어 한때 無人地帶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 戰 訓

이 전투를 통해 同一부대가 2日간에 同一高地를 6次나 一奪一失하였다는 것은 果然 그렇게 해야만 하는 理由가 무엇이며 또 거기에서 얻는 效果가 무엇이었던가를 反省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제50연대 제1대대는 6월 3일에 4차 그리고 그 翌日에 2차 都合 6차의 역습을 敢行하였는데 그때마다 失敗하였다 역습은, 決定的인 시기에 敵이 재편성이나 병력증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敵보다는 우세한 병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미 時機적으로 늦었고 兵力은 많았다고 하나 地形으로 보아 同時に 대대의 力量을 集中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攻擊하는 부대가 대대 또는 그 이상의 兵力이었다하더라도 敵의 立場에서 보면 소수의 병력만을 상대하게 되기 때문에 우세한 병력으로 果敢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이는 작전을 계획한 사람이나 이를 지휘했던 指揮官들이 實際地形을 세밀히 연구검토치 않고 圖上으로서

만 決定지워졌던 談話라고 하여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역습에 失敗하면 이미 그곳에는 敵의 大兵力이 投入된 것으로 判斷하고 보다 有利한 지형으로 적을 誘기하여 反應을 試圖했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6월 2일—6월 5일까지 4일간에 제38연대가 전사 119명 부상 265명, 실종 11명으로써 395명의 손실을 보았고 제50연대가 전사 103명 부상 272명으로써 375명을 손실하여 都合 770명의 사상자를 내게하였다는 것은 작전에 실패한 지역에 계속역습을 감행케한 代價일 것이다. 勿論 我軍에 손실이 클 때에는 적에게도 致命的인 打擊을 가하였을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으나 문제는 성공을 했느냐 못했느냐에 있으며 士氣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큰것이니 역습에 실패한 부대로써 다시 반복시킨다는 것은 再考를 要할 것이다.

2. 854高地 및 812高地 戰鬪

제 1 차戰 (1953년 6월 1일부터
" " " 9일까지)

제 2 차戰 (1953년 6월 16일부터
" " " 17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3 호
상 황 도 제 9 ~12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제 1 차전>

		我	軍
美 제 10군단	장 중장 Isac D. White		대령 張 虎 崗 (5.5附)
제 12사단	장 준장 尹 春 根		제 2대대 장 중령 韓 完 洙
제 37연대	장 대령 金 在 命		제 3대대 장 소령 李 康 煥
제 1대대	장 중령 朴 定 仁		사단수색중대 장 대위 曹 榮 煥
제 2대대	장 소령 李 鍾 潤		사단포병단 장 대령 李 喜 權
	중령 金 白 泳 (2. 12附)		제 65포병대대 장 소령 朴 鳳 煥
제 3대대	장 중령 金 熙 濬		제 66포병대대 장 중령 宋 龍 成
	소령 朴 完 植 (4. 20附)		제 95포병대대 장 소령 全 安 民
제 51연대	장 대령 全 富 一		사단중포중대 장 대위 嚴 今 世
	대령 金 憲 (4. 26附)		사단공병대대 장 소령 金 熙 采
제 3대대	장 소령 金 白 泳		배속부대
	소령 金 漢 龍 (2. 12附)		제 7사단제 3연대제 3대대장 중령 朴 圭 華
제 52연대	장 대령 金 安 一		지원부대
			美 제 143포병대대
			美 제 145포병대대
			美 제 196포병대대
			美 제 780포병중대
			美 제 140전차대대(一)

		敵 軍		
北傀 제3군단	장 증장	柳 京 洙		
제1사단	장 소장	鄭 範		
제2연대	장 중좌	朴 魯 吾		
제3연대	장 대좌	金 敬 模		
제14연대	장 대좌	高 基 煥		

제45사단	장 소장	池 炳 學
제89연대	장 대좌	金 吉 元
제90연대	장 대좌	崔 周 元
제91연대	장 대좌	金 虎 寧
포병연대	장 대좌	宋 昌 寧

〈제 2 차전〉

		我 軍		
제12사단	장 준장	尹 春 根		
제52연대	장 대령	張 虎 崗		
제1대대	장 소령	鄭 順 基		
제1중대	장 대위	韓 昇 源		
제2중대	장 대위	金 用 環		
제3중대	장 중위	林 順 洙		
제4중대	장 대위	金 己 坤		
제3대대	장 소령	申 榮 祚		
제9중대	장 대위	朴 勝 熙		
제10중대	장 대위	曹 永 哲		
연대수색중대	장 대위	柳 範 烈		
배속부대				
제37연대 제3대대	장 중령	朴 柱 興		

지원부대			
사단포병단	장 대령	李 喜 權	
제65포병대대	장 소령	朴 鳳 煥	
제66포병대대	장 중령	宋 龍 成	
제79포병대대	장 중령	林 相 朝	
제95포병대대	장 소령	全 安 民	
중포중대	장 대위	嚴 숙 世	
美 제143포병대대			
美 제196포병대대			
美 제154포병대대 B중대			
美 제780포병대대 C중대			
美 제140전차대대(一)			

		敵 軍		
北傀 제3군단	장 준장	柳 京 洙		
제1사단	장 소장	鄭 範		
제2, 제3, 제14연대		基幹		

제45사단	장 소장	池 炳 學
제89, 제90, 제91연대		基幹

나. 전투전의 개황

제12사단(장, 尹春根 준장)은 1952년 11월 8일에 國軍 20개사단 增補案을 基調로 한 2개사단의 增編이 現實化됨에 따라, 國本 一般命令 제207호에 의거, 新編 제53, 제55, 제56 補充교육 연대의 暫定배속으로 江原道 襄陽에서 創設되었다.

사단은 처음 CP를 襄陽군 降峴면 前律里에 두고 軍編制에 따른 直轄부대 創設에 이어 UTC教育을 받았는데, 同年 12월 8일에는 육본 作指 제262호에 의거한 사단作命 제1호(52.12.3)로 제53, 제55, 제56 補充교육연대의 배속을 解除한 다음 사단본부 및 그 直轄대가 抱川郡 可味座로 移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美 제9군단(장, Reuben E. Jenkins 중장)에 배속과 동시에 육본 一般命令 제5호에 따라서 이미 充分한 전투經驗을 쌓은 제37, 제51, 제52연대를 12월 15일附로 隸屬하게 되었다.

그뒤에 2週間에 實施 補給教育을 하던 차단은 作命 제5호(52.12.22, '08.00)에 따라 同월 26일 '01附로 美 제9군단으로부터 美 제10군단(장, Isaac D. White 중장)으로 배속이 轉移되었으며, 동시에 同

80 東部戰線의 戰況

월 28일에는 麟蹄郡 坪村으로 移動完了하고 30일 05.00에는 美 第45사단(장, David L. Ruffner 소장)의 作戰任務를 引受하여 軍團 右翼으로서 右로는 第11사단(장, 林富澤 준장); 左로는 美 第40사단과 連繫를 維持한채 Minnesota線상의 防禦任務를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사단이 담당하기에 이른 戰鬪地域은 中東部戰線의 要衝인 Punchbowl 東北 쪽의 肩部에 해당하며 또한 麟蹄에 이르는 敵의 主要接近路인 瑞和里 溪谷을 掩扼하고 있어서, 萬一에 敵이 全面攻勢로 移轉한다면 그 銳鋒이 指向될 것으로 判斷되는 要域이라 할 것이다. 이 全域은 700m~1000m의 峻嶽이 連立한데다가 樹林이 盛夏를 맞아 몹시 茂盛한 탓으로 觀測과 射界가 不良하였으며, 더구나 主抵抗線 一帶는 全般적으로 敵線으로부터 瞰制되는 不利함을 免치 못하였으나, 前述한 바와 같은 戰術的 價値로 미루어 보아 期必로 固守하여야 하였는데, 여기에 있어서 △854-△812는 主抵抗線상의 兩肩部인 동시에 要衝이었다.

그중에서도 △854는 南江 및 昭陽江의 한 分水嶺으로 敵과는 三峙嶺 北쪽 東西로 貫通하는 道路를 사이에 두고 對峙하였는데, 그 일대 地形이 橫隔室을 이루었으므로 防禦에 有利하였다.

그러나 그 南쪽은 稜線이 縱隔을 이루어 防禦縱深을 이루는 利點은 있다 할 것이나 敵이 侵襲時에는 도리어 좋은 機動路를 提供하게 되어 그들의 빠른 侵攻이 예상되었으며 이렇게 될 경우에 이를 要扼하기 위해서는 不得已 徹尾洞 東쪽의 △722-△924-△1031를 連한 線까지의 撤退가 避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편 △812는 看霧峯의 東南쪽으로 뻗은 한 稜線상의 連峯인데 그 北쪽에는 昭陽江이 天然의 障壁을 이루고, 또 그 稜線이 東쪽으로 뻗어 橫隔室을 이룸으로써 防禦에 有利하였다.

그러나 敵이 看霧峯-△1052-△752 一帶를 掌握하고 그 東南쪽 稜線에 據點을 形成함으로써 地利를 活用치 못하고 北쪽과 西北쪽 그리고 西南쪽의 敵과 對峙하게 되어 挾擊의 威脅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812를 中心으로한 主陣地 一帶는 東쪽에 昭陽江, 南쪽에 城內川이 흐름으로써 背水の 陣을 이루었다.

地境內의 道路는 瑞和里 溪谷에 沿한 第453번 작전路가 中央部를 縱斷하고 2.4m~4.8m 幅의 山間路가 縱橫으로 뻗어, 險峻한 山嶽地帶로써는 比較적으로 良好한 機動路를 提供하여 制限되기는 하지만 主抵抗線까지 戰車의 推進이 可能할 것이다.

그러나 急峻한 高地上에 配備된 각 中隊까지의 補給은 기동路의 制限때문에 사단에 배속된 勞務團 第121연대의 支援에 依存하여야만 하였다.

敵軍의 狀況: 사단이 戰線을 引受한 때의 當面의 敵은, 北傀 第3軍團 隸下 第15사단으로 推斷되었으나, 1월 19일에 同軍團 隸下 第45사단(장, 소장 池炳學)과 陣地를 交代한듯 하였는데 그 뒤 4월 28일~5월 12일 사이에 그들 軍團 예비인 第1사단(장, 소장 鄭 範)에 據點을 引繼하고 東砂洞里로 移動한 다음 軍團예비로 있으면서 부대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北傀 第1사단은 第2연대(장, 중좌 朴魯晉)를 右一線에, 第3연대(장, 대좌 金敬模)를 中央一線에, 그리고 第14연대(장, 대좌 高基煥)을 左一線으로 하여 △752-△1052-△812 西北쪽 稜線-直谷-강들(俗稱)-오가덕(俗稱)-송어덕(俗稱)에 이르는 一帶에 5개대대를 배치하고, 4개대대를 예비로 控置하는 가운데 右로는 北傀 第15사단과 左로는 北傀 第7軍團 隸下의 第3사단과 連綴하고 사단主力과 對峙하였다.

한편 東쪽의 北傀 第3사단 第17연대는 그 第2대대가 △791-下炭里를 連한 一帶에 據點을 形成하고 사단의 右一線연대와 對陣하였다.

그런데 北傀 第1사단은 戰線에 投入된 以來로 陣地補強 공사에 着手하는 한편, 소대 규모의 偵察戰을 계속하고 遊擊隊를 後方으로 은밀하게 侵透시켜 前後方을 攪亂코자 劃策하였다. 이때 我軍이 敵情에 關하여 判斷하기를 當面의 北傀가 損失이 크지 않은 第45사단을 戰線에 投入한지 不過 3個月

만에 갓잡시켜 예비로 轉換한 點으로 미루어 보아 萬若에 敵이 攻勢로 移轉하려고 한다면 그 戰鬪力이 높지 評價되지 못하고 地形에 익숙치 못한 北傀 제1사단 보다는, 歩兵近衛 사단으로서의 稱號를 얻기 위하여 狂奔하면서 부대 整備와 공격 目標의 類似地形에서 戰鬪훈련중이라는 그들 제45사단을 공격부대로 起用할 것으로 推斷하였다.

따라서 北傀 제1사단은 이러한 觀點아래 계속 據點防禦에 力點을 둘 것으로 보였는데, 그 兵力은 9,730명으로 推算되었고 그밖에 155mm 野砲가 12門, 122mm野砲가 9門, 120mm 迫擊砲 60門, 82mm 迫擊砲 84門, 61mm 迫擊砲 96門 등의 支援를 받고 있는 것으로 推測되었다.

특히 敵은 休戰會談을 契機로 戰線이 오랜 동안 膠着되기에 이르자, 다른 地域과 다름없이 洞窟窟를 主軸으로 堅固한 防禦線과 火力據點을 構築하였고 甚之於是 砲兵陣地마저 洞窟化함으로써 我軍의 空中 공격과 對砲兵사격으로서도 이를 破砕키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我軍의 狀況: 사단은 지난해 12월 30일에 예하 제51연대(장, 全富一 대령)를 右一線에, 그리고 제37연대(장, 金在命 대령)를 左一線으로 전개하여 美 제45사단(장, David L. Ruffner 소장)의 戰線을 引受하고 Minnesota線을 要扼하기에 이르자, 곧 실시된 軍단砲兵 및 美 제5空軍의 掩護下에 계속 陣地를 補強하면서 威力搜索과 潛伏을 強化하여 그들의 계속적인 挑發을 粉砕하고 나아가서는 敵의 攻勢에 對備하였다.

그런데 當面の 敵은 사단이 陣地를 引受하고 地形과 敵備에 익숙치도 못한 1월 12일 三巔에 제51연대 제2대대(장, 朴哲遠 소령)가 확보한 △854를 奇襲하므로써 한때 混戰을 이루었으나 이를 拒守코자 한 대대의 近接戰으로 많이엄아 2시간 뒤에는 이에서 潰退되는바 되었다.

이와 같이 그들이 드디어 馬脚을 드러내기에 이르자 사단장 尹春根 준장은 곧 作命 제5호를 下達하여 1월 24일 01.30에 제51연대 제1대대(장, 金根培 중령)가 확보하는 △591-△829를 連한 일대지역을 사단에비였던 제52연대 主力으로 防守케 하고 그대신 제51연대의 담당 正面을 좁혀 △854에 대한 防禦대세를 더욱 굳히게 하였는데 그 까닭은 2월 8일이 北傀軍의 創設기념일임으로 이를 前後하여 그들의 攻勢가 豫測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사단의 右一線을담당하기에 이른 제52연대(장, 金安一 대령)는 제2대대(장, 韓淳濬 중령)만을 계속 사단에비로서 瑞和里에 控置케 하고 연대CP를 南쪽 溪谷으로 推遷開設한 다음, 제1대대(장, 鄭順基 소령)로 하여금 △591-△829를 連한 主陣地의 방어를 담당케 하고, 제3대대(장, 李康煥 소령)를 △924-△751-△878의 예비陣地를 占領케 하여 縱深을 유지하였는데, 연대장 金安一 대령이 5월 5일 부命수으로 離任케됨에 따라 張虎崗 대령이 제2대 연대장으로 就任케 되었다.

한편 右一線지역을 제52연대에 引繼한 제51연대(장, 全富一 대령)는 사단 中央一線으로서 제3대대(장, 金白泳 소령)를 右 제1선에, 제1대대(장, 朴哲遠 소령)를 左 제1선에, 그리고 제1대대(장, 金根培 중령)를 연대에비로 각기 部署하고 △854를 中心으로한 三峙嶺一帶의 主陣地를 확보하였다.

그런데 연대는 그간의 人事이동으로 2월 12일에 제2대대장 朴哲遠 소령이 洪淳濬 소령으로, 제3대대장 金白泳 소령이 金漢龍 소령으로 각각 交替된데 이어 4월 19일에는 제1대대장 金根培 중령이 李基完 소령과 交替되었으며, 4월 26일에는 연대장 全富一 대령마저 陸軍大學에 入校하게 되어 金憲대령이 그 後任에 就任함으로써 연대는 3개 대대장과 연대장이 交替된 것이다.

또한 左一線인 제37연대(장, 金在命 대령)는 제3대대(장, 金熙濬 중령)를 右 제一線에, 제2대대(장, 李鐘潤 소령)를 左 제一線에, 제1대대(장, 朴定仁 중령)를 예비로 控置하여 昭陽江 西岸-△812-△758 城內川北岸에 이르는 一帶에 主陣地를 확보하였는데, 2월 2일에 이어 2월 27일에 △812와 그 東쪽 後線상의 無名高地에 2개 중대 규모로써 侵襲하였으나 協調된 火力支援과 近接戰으로 이를 즉각 擊退한 바 있었다.

그後 연대도 2월 12일에 제2대대장 李鐘潤 소령이 更迭되어 그 後任이 金白泳 소령이 就任하였으며 4월 下旬에는 제3대대장 金熙濬 중령이 交替되고 朴完植 소령이 赴任하였다.

82 東部戰線의 戰況

한편 사단은 現戰線에 投入된 以來로 軍단 支援포병과 美 제40사단 砲兵의 支援에 依存하였는데 1월 17일에 제8야전 포병단(장, 鄭鳳旭 중령)이 사단에 배속됨으로써 火力支援이 正常軌道에 올라섰는데, 國本一般명령 제77호(53.4.1, 24.00)에 의거하여 제65포병대대(장, 全安民 소령)를 그 隸下에 배속하면서 사단 砲兵團으로 改編을 보게 되었다.

이리하여 사단 포병단(장, 李喜權 대령)은 제65포병대대(장, 朴鳳煥 소령)를 高城峙에 布陣케 하여 右一線인 제52연대를 直接支援케 하고, 軍단支援 포병인 美 제143포병 대대를 蘆田坪진지에서 中央一線인 제51연대를 直接 支援토록 하였으며 제66포병대대(장, 宋龍成 중령)는 西希口附近 진지에서 左一線인 제37연대를 直接支援케 한 다음 제95포병대대와 軍단의 支援포병으로는 사단을 一般支援토록 하였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第1次戰 (6월 1일~9일)

(가) 작전계획

사단은 지난해 12월 30일 05.00에 美 제45사단 제279, 제179兩연대의 陣地를 인수한 以來로 美 제10군단의 右翼사단으로써 中東部戰線의 要衝인 punchbowl의 東肩部에 해당하는 $\triangle 854$ - $\triangle 812$ 를 中心으로 한 Minnesota線防禦를 계속 담당하기에 이르렀는데 사단장 尹春根 준장은 休戰會談의 妥結을 基調로 한 軍의 作戰概念에 따라서 現戰線의 防禦에 力點을 두고 要衝인 $\triangle 854$ - $\triangle 812$ 一帶를 高수카로 결심하였다.

때문에 그는 作命 제4호(52.12.30)를 하달하여 사단공병 2개 중대를 一線연대에 배속케 하여 主要據點에 洞窟壕와 障礙物을 築造케 하여 陣地를 補強하는 한편, 前進陣地와 局部地 境界부대를 강화하여 포병과 空軍의 密接한 협조아래 威力搜索을 積極 敢行하고 地形과 敵情에 익숙케 하면서 계속 侵襲을 피하는 敵의 搜索偵察隊를 先制破砕코자 하였다.

특히 軍단으로부터 入手한 情報에 따라서 파괴 및 攪亂工作의 特殊훈련을 받은 遊擊隊의 潛侵을 阻止하고 이를 捕捉擊滅코자 사단 예비인 제52연대와 사단 直轄隊로 하여금 後方지역에 있어서의 潛伏과 搜索 또한 強化토록 조치하였다. 그런데 敵이 1월 12일에 $\triangle 854$ 를 奇襲하여 교전케 되자 제51연대의 戰鬪正面이 너무 넓은 것을 勘索하고 作命 제5호로서 사단 예비인 제52연대 主力으로 하여금 제51연대 제1대대의 防禦正面을 引受케 하여 $\triangle 854$ 에 대한 防禦태세를 더욱 강화토록 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主抵抗線에 5개대대를 전개하고 예비진지에 3개대대를, 예비로써 1개대대를 保有하여 Minnesota線 防禦에 對處하게 되었다.

그런데 2월 2일에 이어 2월 27일에 2개중대 규모가 $\triangle 812$ 호 侵襲하여 暫時나마 混戰을 거듭하기에 이르자, 사단장 尹春根 준장은 防禦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敵의 계속적인 探索 공격을 事前에 粉碎코로 하는 한편 未久에 있을 것으로 推測되는 全面공세를 擊碎코자 要旨 다음과 같은 作指 제50호(53.5.29)를 하달하였다.

- 『① 사단은 Minnesota線을 계속防禦하면서 敵을 陣前에서 捕捉擊滅하려 한다.
- ② 제52연대는
- ㉠ 1개대대로써 主抵抗線을 확보하고 1개대대는 예비로 하여 機動防禦에 臨하라.
 - ㉡ 제2대대는 사단예비로써의 現任務를 계속 遂行하라.
- ③ 제51연대는
- ㉠ 2개대대로써 主抵抗線을 계속 확보하라.
 - ㉡ 예비대를 △854後斜面으로 進出시켜 △854에 대한 防禦縱深을 유지하고 緊急支援 隊세를 갖추라.
- ④ 제37연대는
- ㉠ 5월 31일 24.00를 期하여 城內川兩岸의 一部戰鬪지역을 美 제40사단에 引계하라.
 - ㉡ 2개대대로써 主抵抗線을 계속 확보하라.
 - ㉢ 예비대대를 △812附近으로 進出시켜 緊急지원 隊세를 갖추라.
- ⑤ 사단 포병단은
- ㉠ 제65포병대대로써 제52연대를 직접지원케 하라.
 - ㉡ 美 제143포병대대로써 제51연대를 직접지원케 하라.
 - ㉢ 제66포병대대로써 제37연대를 직접지원케 하라.
 - ㉣ 제95포병대대 및 軍團支援포병은 사단을 一般支援한다. 但, 火力의 優先權은 제37연대에 賦與한다.
 - ⑥ 공병대대장은 제51, 제37 兩연대에 계속 1개중대씩을 배속하라.
 - ⑦ 美 제140전차대대 C중대가 鬮窟에서 제51연대를, 그 B중대가 西布口에서 제37연대를 각각 직접 지원할 것이다.
 - ⑧ 요정에 따라서 美 5공군의 근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⑨ 協助指示
- ㉠ 前進陣地 및 局地境界를 강화하라.
 - ㉡ 각 연대 예비대는 每日밤 3개조의 야간수색대를 推進하고, 一線중대는 3개조 以上의 潛伏組를 배치하라.
 - ㉢ 敵의 수색정찰대를 先制공격하고 敵陣을 攪亂하면서 俘虜獲得에 注力하라.
 - ㉣ 陣地線 前後左右에 對空標識를 실시하라.
- ⑩ 通信은 現行 SOI 에 의거한다.
- ⑪ 사단 CP는 坪村에 位置한다.』

(나) 작전 실시

6월 1일 : 먹구름이 낮게 낀 이날 戰線은 대체로 平穩한채 彼我的 間歇的인 攪亂사격만이

84 東部戰線의 戰況

寂寥을 때때로 깨었는데, 16.00에 이르자 敵은 200門으로 推算되는 야포와 박격포 그리고 小口徑直射砲의 砲門을 一齊히 열어 사단 全正面에 걸쳐 포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사단장 尹春根 준장은 敵의 공격이 곧 시작될 것으로 판단하고 砲兵制壓 사격과 各 연대의 전투태세 突入을 緊急 명령하는 한편, 18.00에는 作指 제53호를 하달하고 사단에비 대의 출동준비와 아울러 사단공병 2개중대를 主輔으로 한 사단直轄隊로써 1개대대의 臨時 예비대를 急編토록 하였다.

이에 즉각 포문을 연 軍단支援 포병과 사단포병단(제65, 제66, 제95포병대대)의 對포병 사격은 熾烈하였는데 敵은 이에도 不拘하고 砲擊을 21.50까지 계속하여 △854-△812陣前에 設置한 鐵條網과 地雷地帶가 파괴되고 有線網이 絶斷되고 많은 掩體壕와 交通壕가 崩壞되었다.

그런데 21.50에 이르러 그 砲擊은 一齊히 延伸되면서 이미 迂回한 것으로 보여지는 北 隗 제45사단 제89연대隸下 1개대대 규모가 △812 東쪽 稜線의 北斜面을 타고 一齊히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1. △854의 戰況

제51연대(장, 金 應 대령)는 제3대대(장, 金漢龍 소령)를 右 제1선으로 하여 △854 一 帶를 확보하였는데, 이날 16.00부터 사단 全正面에 걸친 敵의 포격이 21.50부터는 그 主 砲가 △854로 集中되어 22.40까지 50분간에 3,800발의 各種砲彈을 퍼부었다.

이에 연대장 金 應 대령은 敵이 △812에 대한 공격에 뒤이어 △854로도 공격을 지향코 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直接支援중인 美 제143포병대대에 즉각 차단사격을 요청하는 한편, 左右一線대대에 대하여 現戰線의 고수를 嚴命하면서 예비인 제1대대(장, 李基完 소령)에 出動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그런데 22.40에 이르자, 敵은 포격을 延伸하는 즉시로 北 隗 제45사단 제91연대 隸下로 推定되는 1개대대 규모로써 一齊히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대낮처럼 밝힌 航空照明下에 정확하게 유도된 遮斷사격은 三峙嶺계곡 一 帶를 불길로 뒤덮음으로써 敵의 衝勢는 주춤하는듯 하였으나 C-46機의 航空照明이 그쳐 어둠이 또다시 깔리기 시작하자 三峙嶺 西北斜面으로 一齊히 올라 붙었다.

그리하여 적사포가 제3대대 正面으로 계속 집중되는 가운데 1개중대 규모가 △854 西南 쪽 稜線으로, 1개중대 규모가 東北쪽 稜線으로 侵襲하여 左右隣接대대의 지원과 增援을 牽制하면서 제3대대를 兩翼으로 包圍코자 企圖하였으려, 1개중대규모는 △854 正面으로 달려 들었다. 이때에 제3대대(장, 金漢龍 소령)는 제10중대(장, 金貫中 대위)를 右제1선에 제11중대(장, 李貳錫 중위)를 中央제1선에 제9중대(장, 裴文壽 대위)를 左제1선에 各기 部署하고 決戰태세를 갖추었는데, 드디어 敵이 200m距離內로 近迫하기에 이르자 全火력으로 이를 強打하였다.

때문에 敵線은 一時에 混亂이 이는듯 하였으나 信號彈이 縱橫으로 亂舞하는 것으로 미루어 잠시 隊伍를 갖추는듯 하다가 다시 猝突인 공격을 再興하여 陣前에 殺到하기 시작하였다. 대대는 이를 一舉에 격퇴코자 즉시 轉換된 포병의 彈幕사격과 同時에 最後阻止사격으로 화망을 폈는데 이때 左右一線인 제9, 제10兩중대는 橫隔室을 이룬 有利한 地形條件을 活用하고 左右隣接대대의 側射火力의 支援으로 陣前 50m에서 마침내 敵의 侵攻을 阻止하여 그들에게 큰 打撃을 加하였음에도 主攻으로 보이는 1개중대 규모가 제11중대 左제1선인 제3소대 正面으로 계속 威勢를 보여 그 銳鋒을 집중한채 侵襲을 阻止하지 않았다.

이에 소대는 소대장 尹己重 중위의 指揮밑에 手榴탄을 一齊히 던지면서 紛戰을 거듭하였으나 그 一角이 무너져 2개분대 규모의 敵이 陣內로 突入하는 狀이 되었다. 이에 소대는 尹己重 중위의 大號一聲으로 一齊히 散兵線에서 躍出하여 白刃을 휘둘러 敵과 血鬪를 벌였다. 그러나 소대는 계속되는 敵의 波狀 공격 때문에 戰勢는 刻一刻으로 不利하여 그의 突破口가 擴大되고 점차 敵의 포위망 속에 빠져들게 되어 드디어 △854頂上부근으로 물러서기 시작하였다.

이때에 제11중대의 左제1선이 突破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대대장 金漢龍 소령은 중대에 突破口擴大를 極力 阻止토록 勸勵하는 한편 예비인 연대 수색중대장에게 1개 소대로써 즉각 逆襲토록 명령하였다. 수색중대는 이때에 △854 東南쪽 稜線에 集結 待機하던中이었으므로 命命수령 즉시 제1소대를 23.50에 一齊히 躍進케 하였는데 소대는 △854 左側方으로 突進하면서 敵의 側背를 手榴탄으로 強襲하고 敵線이 攪亂되는 刹那에 楔入하여 左衝右突의 血鬪을 벌였으며 이때에 一트 물러섰던 제11중대 제3소대도 이에 加勢함으로써 敵은 潰滅상대에 빠진채 撤退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陣地를 恢復하고 포병의 掩護下에 박격포와 기관총의 집중사격으로 再侵을 企圖하는 敵을 격쇄하였다.

이날 전투에서 대대는 遺棄展體 41具를 확인하고 推定殺傷 106명, 輕機 1정, 多發銃 2정, 기관단총 2정을 鹵獲하는 戰果를 올렸으며 反面에 戰死 22명, 戰傷 44명, 失蹤 4명의 損失이 있었다.

2. △812附近的 激戰

제37연대장 金在命 대령은 敵이 공격을 시작하여 제3대대(장, 朴完植 소령)와 교전케되자 要旨 다음과 같은 緊急명령을 하달하였다.

- ① 敵은 1개 대대규모로써 △812東쪽 稜線으로 공격중이다.
- ② 연대는 이敵을 陣前에서 阻止擊滅하려 한다.
- ③ 제3대대는 如何한 어려움도 克服하고 現主抵抗線을 확보하라.
- ④ 제2대대는 警戒태세를 強化하고 제3대대에 대한 側方지원태세를 갖추라.
- ⑤ 제1대대는 증원과 逆襲태세를 갖추라.

86. 東部戰線의 戰況

- ⑥: 美 제140전차대대 B중대는 계속 연대를 직접지원한다.
- ⑦: 제66포병대대는 연대를 직접지원하고 제95포병대대 및 군단支撥포병은 一般支撥한다.
- ⑧: 연대 OP는 △755에 位置한다.』

가) 제3대대의 戰況

이때 제3대대(장, 朴完植 소령)는 제9중대(장, 全昇彬 대위)를 右제1선에 제10중대(장, 尹吉炳 대위)를 中央제1선에 配備하여 △812東쪽 稜線上의 主障地를 專擔케 하고 제11중대(장, 張炳淸 대위)는 左 제1선으로써 △812主峯一帶를 확보케 하여 전투태세를 갖추었는데, 砲擊의 伸延과 동시에 昭陽江을 따라 이미 迂回한 狀으로 보이는 1개대대 규모가 北斜面으로 올라 붙으면서 一齊히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卒자 誘導된 제66포병대대(장, 宋龍成 중령)의 105mm 야포는 昭陽江邊에 設定한 火力帶를 강타하고 漸次로 射程을 줄여 北斜面의 계곡과 稜線을 불길로 뒤덮으니 그 砲聲의 炸裂音은 山野를 震動하고 그 閃光은 짙게 구름진 밤 하늘을 붉게 물드렸다.

그러나 無慈悲한 督戰의 銃부리에 狂亂한듯 2개 중대 규모가 제10중대 兩翼으로 侵攻하고 1개중대 규모가 突出된 正面으로 殺到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이들은 포위와 돌파를 企圖하는듯 하였다.

이에 제10중대(장, 尹吉炳 대위)는 A高地에 前哨障地를 경험한 제3소대를 卒자 撤收케 하여 예비로 控置하는 한편, 제1소대를 右제1선에, 제2소대를 左 제1선에 部署하고 決戰태세를 갖추었는데 1개 대대 규모가 中대 正面으로 衝鋒을 集中하기에 이르자, 곧 轉換된 포병의 彈幕사격下에 全회력을 집중 하였다. 이리하여 A高地의 봉우리를 넘어선 그들은 곧 그 자취를 감추었으나 이때 敵線에서는 信號彈이 하늘높이 솟았으며 이를 信號로 한듯 昭陽江北岸一帶로부터 直사포사격이 집중되자 이에 掩護된 1개 중대규모의 敵이 陣前으로 달려들었으며, 同時에 特攻隊로 보이는 또다른 一團의 敵이 수류탄을 올려 던지면서 散兵線으로 侵襲하였다. 이때 중대는 거의 6시간동안에 걸쳐 집중된 포화로 파괴된 散兵線의 一角에 遮蔽한채로 奮戰을 거듭하던 병사들은 수류탄을 마주 던지고 白兵을 휘둘렀으므로 無名高地(뒷날의 雙龍高地)一帶는 순식간에 熱火의 激突場으로 化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後續하는 敵이 계속 侵襲함에 이르러 戰勢가 몹시 위태로워졌으며 이로써 陣地의 失陷도 頃刻에 다다른듯 하였는데 이때 (23.30) 上空에 出擊한 美 空軍의 C-46輸送機 1臺가 照明彈을 계속 投下하여 △854-△812附近一帶를 대낮처럼 밝히게되자 이에 鼓舞되어 戰意를 새롭게한 병사들은 左衝右突하면서 敵을 무찔러 突進함으로써 戰勢는 一瞬에 逆轉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好機로 예비인 제3소대 마저 白兵의 格鬪에 加勢하기에 이르니 敵은 15具의 屍體를 遺棄한 채로 潰散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이 陣前에서 포리를 감추기에 서슴치 않았던 敵은 22.50에 C-46機가 上空에서 사

라지고 照明彈이 하나 들썩 消滅하기 시작하여 漆黑같은 어둠이 다시 四方을 掩襲하기에 이르자 다시 1개중대 규모로써 제51연대(장, 金 應 대령)가 확보한 △854로 공세를 집중하는 가운데 포격을 同伴하여 2개중대 규모로써 중대正面에 말려 들기 시작하였다. 이에 중대는 제3소대를 中央 제1선으로 投入하고 중대장을 중심으로 舍化력의 집중끝에 敵을 陣前 50m에 抑留한 다음 사격전을 벌였는데 이로써 敵은 01:00에 더 이상 支撐하지 못하고 望風退走하고 말았다.

이와같이 敵은 제10중대 正面으로 공세를 再開하여 支援火力과 注意力을 이곳으로 誘導하는 한편, 제51연대 正面의 △854를 目標로 陽攻하여 我軍의 상황판단을 誤導케 하면서 △812로 1,000發의 포격을 집중하여, 순식간에 陣地를 攪亂하는 가운데 增強된 1개 중대 규모는 狹少하고 險峻한 西北쪽 稜線을 타고 제11중대(장, 張炳淸 대위) 正面을 急襲하였다.

중대는 그 先頭의 一團이 陣前으로 近迫하여서야 비로소 그 奇襲을 알아 차리고 彈霰사격을 요청하면서 美 전차 3輛의 近接支援下에 最後阻止사격을 加하였다.

敵勢는 주춤하는 듯 하였으나 이때 △1052 一帶로부터 支援 가능한 舍化력을 集中하더니 그 先鋒은 主峰의 散兵線으로 밀어닥쳤다.

主峰을 확보한 제2, 제3 兩소대는 陣頭에서 怒號하는 중대장의 명령下에 手榴탄을 一齊히 投擲하는 즉시로 壕에서 떨어져 일어나, 때리고 찌르는 白兵의 死鬪를 벌이기에 이르니, 頂上附近은 순식간에 飛散하는 鮮血로 붉게 물드렸다. 계속된 포격과 전차砲支援으로 敵의 後續은 遮斷된 듯 하였으나, 이미 陣前으로 밀려든 1개중대 규모가 계속 陣內로 달려드니 중대(一)는 中央이 突破된 채 包圍網 속에 陷入되고 一部의 병력은 分散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중대장 張炳淸 대위는 現상황에서는 損失만이 累增 될 뿐으로 敵을 驅逐하기에는 이미 時機를 놓쳤다고 판단한 다음, 陣內 사격으로 一舉에 격퇴키로 決心하고 洞窟壕로의 進入을 號令하였다.

이리하여 韓萬鎭 중위가 지휘하는 제2소대가 先頭에서 銃劍으로 血路를 뚫고 중대장이 지휘하는 제3소대가 手榴탄으로 敵의 追擊을 阻止하는 가운데 洞窟壕로 進入하는 즉시로 出入口를 閉塞하고, 제1소대를 待避케 하는 한편 陣內사격을 緊急히 요청하였다.

이때 제1소대는 美 戰車 3輛과의 協同으로 △812東北쪽 봉우리를 확보하고 敵의 牽制공격을 陣前에서 擊退하다가 主力이 洞窟壕로 進入하고 陣內사격을 요청하기에 이르자 이들도 掩體壕로 急히 待避하였다.

나) 逆襲준비

제1대대(장, 朴定仁 중령)는 이날 연례 예비로서 제3중대(장, 夫永玉 대위)가 △755에, 제1중대(장, 安淸護 중위)가 △812 東南쪽 稜線의 下端에, 그리고 제2중대(장, 李英烈 대위)가 城內洞 北쪽 無各高地에 각각 예비陣地를 확보하고 縱深을 維持하면서 待命하고 있었

다. 그런데 연대장 金在命 대령은 敵이 제10중대에 대한 強襲에 이어 또 △812主峰을 확보한 제11중대 正面을 急襲하기에 이르자 遲滯없이 대대에 逆襲준비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제3중대는 제1중대 陣地로 急遽進出하여 合勢한 다음 增員과 逆襲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6월 2일 : 이날 제37연대는 前半夜에 奇襲한 敵이 △812主峰을 威脅하기에 이르자 제1대대로써 逆襲을 감행케 하여 敵을 一舉에 驅逐하고 陣地를 恢復하였는데 02.40에 敵은 또다시 △812로 急襲한 다음 그 後方을 차단하면서 공세를 계속한 결과 마침내는 防禦線이 무너지면서 頂上은 敵의 掌握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에 연대장 金在命 대령은 연대 수색중대를 急進시켜 突破口의 基部를 막게 하는 한편 제1대대로써 또다시 逆襲케 하였으나 그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이때 사단장 尹春根 준장은 △812에서 血戰을 거듭하기에 이르자 제37연대 OP로 나가서 直接 作戰指導에 나서 逆襲을 奮勵하는 한편 사단 수색중대(장, 曹榮煥 대위)와 사단예비인 제52연대 제2대대(장, 韓完溍 중령)의 一部 병력을 제37연대에 배속 조치하여 戰力을 強化토록 하였다.

특히 이날 美 제10군장 White 중장은 사단을 방문하고 전투를 直接 觀戰하는 한편 사단장으로부터 작전상의 隘路點을 聽取하고 各級지휘관을 일일이 接洽하였다.

1. △854附近의 狀況

제51연대(장, 金 憲 대령)의 제3대대(장, 金漢龍 소령)는 이날 前半夜에 1개대대 규모가 陣內까지 侵攻함으로써 이를 逆襲으로 驅逐하고 陣地를 恢復하였는데 陣內에서 潰散한 敵은 02.20에 이르기까지 세차케나 중대규모로써 계속 침공을 企圖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그때마다 誘導된 砲兵의 遮斷사격과 이에 對備한 潛伏組의 不時 공격이 奏效하여 이를 격퇴함으로써 02.20 現在로 연대 正面에서는 敵이 자취를 감춘듯 하였다. 이에 제3대대장 金漢龍 소령은 敵情을 探索하고 전과를 확대코자 決心하고 제12중대(장, 朴瑛宣 대위)에서 장교 1명과 사병 11명, 그리고 제9중대(장, 姜文壽 대위)에서 장교 1명과 사병 14명을 差출케한 다음 2개組의 夜間搜索組를 급편토록 하고 三峙嶺계곡 附近까지 수색케 하였는데 이들은 敵과 접촉하지 못하고 다만 散在한 敵의 屍體만을 확인한 채로 主陣地로 復歸하였다.

2. 812의 戰況

제37연대장 金在命 대령은 제11중대(장, 張炳淸 대위)가 侵襲한 敵으로 말미암아 洞窟巖에서 苦戰케되자 그 요청에 따라 陣內사격을 △812主峰으로 集中케 하는 한편 제1대대에 逆襲을 명령하였다.

가) 제1대대의 제1차 逆襲

이에 따라 △812 東南쪽 稜線에 集結 대기중이던 제1대대(장, 朴定仁 중령)는 00.10에 제3중대(장, 夫永玉 대위)를 右제1선에 제1중대(장, 安晴謨 중위)를 左제1선으로 하여 東쪽

및 東南쪽 稜線을 따라 △812를 목표로 一齊히 躍進하였다.

그간에 敵은 계속된 軍단의 지원포병과 제95 포병대대(장, 全安民 소령)의 對砲兵사격에도 不拘하고 그들은 砲擊을 △812 東斜面 一帶로 集中하였으나 목표탈취의 決意를 굳게 다진 대대는 이에 屈함이 없이 대대장 朴定仁 중령의 陣頭지휘 아래 躍進을 거듭하여 一路 頂上으로 돌진하였다.

右제1선인 제3중대는 이때 東쪽 9部稜線에서 潛伏하였던 것으로 믿어지는 1개 소대 규모의 敵으로부터 挑戰을 받았으나 그 先鋒으로서 一擊에 이를 覆滅하고 이어서 제11중대 제1소대의 掩護下에 東北쪽 봉우리로 進入하는 즉시로 △812主峰을 목표로 敵線으로 殺到하였다.

한편 제1중대는 東南쪽 9部稜線으로 진격할 무렵, 主峰을 占據한 1개 중대 규모의 저항에 부닥쳐 3개소대를 一線으로 散開한채 사격전을 벌였다. 그러나 미처 據點을 占據치 못하여 VT彈의 洗禮를 받아 潰滅상태에 빠진 敵은 제3중대가 돌진하면서 挾擊하기에 이르자 화력이 갈광 질광 分散되기 시작하였다. 이 好機를 捕捉한 중대는 一齊히 躍進하여 突貫하면서 제3중대에 호응하여 수류탄을 퍼붓고 左衝右突의 血戰을 벌였다.

이때 洞窟에서 躍出한 제11중대의 主力마저 白兵의 血戰에 가세하기에 이르니 窮地에 몰린 敵은 信號彈을 계속 올려 포격을 誘導하면서 南쪽 溪谷으로 潰散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01.00에 △812主峰의 陣地를 恢復하고 제11중대를 도와 陣地를 보강하면서 防禦태세에 突入하였는데, 대대는 이때 상황의 浮動 때문에 연대 예비대를 恒時 保有코자 한 연대장의 명령으로 01.25에는 제11중대에 陣地를 인계하고 예비陣地로 물러서게 되었다.

이때 城內洞 北쪽의 예비陣地를 확보중이던 제2중대(장, 李英烈 대위)는 急進한 제2대대(장, 金白泳 중령)의 예비인 제7중대(장, 金鍾吳 대위)에 陣地를 引繼하고 主力과 合勢코자 △812東南쪽 稜線으로 진출하였다.

나) △812의 喪失

제3대대장 朴完植 소령은 제1대대가 예비陣地로 물러서자 제11중대(장, 張炳洵 대위)를 督勵하여 △812頂上의 陣地를 再編케 하고 01.30부터 또다시 出擊하기 시작한 C-46 機의 航空照明下에 계속 固守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그런데, 02.40에 이르자 그들은 또다시 포격을 집중하여 陣地線을 또 한 차례 攪亂하고 이와 동시에 1개 중대 규모가 西南쪽 溪谷으로 迂回하면서 그 主力이 左 제1선 소대의 側方으로 銳鋒을 집중한 다음, 그 一部는 後方을 急襲하여 洞窟를 一舉에 占據하고 말았다. 이에 중대는 즉각 據點防禦에 들어가 포병의 掩護사격下에 화력을 집중하고 수류탄을 계속 던져, 敵을 一舉에 驅逐함으로써 앞서의 汚辱을 씻고자 奮戰하였다.

그런데 이때 敵은 △1052로부터 支援가능한 全 直射화기를 集中한듯 狂風을 휘몰아치며

니 2개 중대 규모의 새로운 敵이 西北쪽 稜線으로부터 急襲하였다.

병사들은 生死를 이미 超越한 채 銃列이 별장제 달도록 기관총을 쓰고, 安全교리쇄를 물어뜯는 이가 부러지도록 수류탄을 던지면서 紛戰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狂瀾과 같이 밀어닥치는 一波가 中央을 돌파함으로써 彼我는 肉片이 飛散하는 白兵의 血戰을 벌였으나, 後續하는 敵이 계속 陣內로 侵襲하게 되어 또다시 포위 속에 빠져 들게 되고 一部の 병사들은 하는 수 없이 흐트러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중대장 張炳浩 대위는 제1소대가 美 전차와의 協同下에 계속 확보중인 東北쪽 봉우리에 據點을 마련하는 즉시로 後圖를 策하기로 하고 중대主力을 離脫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제1소대와 美 전차의 掩護下에 血路를 뚫어 東北쪽 봉우리에서 合勢한 다음 陣前으로 밀려드는 敵을 물리치고자 奮戰을 거듭하였으나 먼동이 틀 무렵 美 전차가 火焰에 휩싸이면서 화력이 鈍化하기에 이르러 正面이 돌파되고 防禦線이 무너져 흩어지기 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중대는 5부稜線에서 散兵을 收拾하고 재편에 착수하였는데 보고에 接한 軍단 에서는 8"砲의 砲擊을 集中하여 戰車를 파괴케 되었으니 그 遺體들은 오늘날까지도 休戰線에서 볼수 있어 이날의 激戰相을 말하여 주고 있다.

중대는 이 戰鬪에서 遺棄屍體확인 25具, 俘虜 2명, 多發銃 4정과 수류탄 200발을 鹵獲 하는 戰果를 올리고 戰死 38명에 戰傷 75명의 損失을 보았다.

다) 제1대대의 제2차 逆襲

제1대대(장, 朴定仁 중령)는 이날 △812로 逆襲하여 敵을 一旦 驅逐한 다음 東南쪽 稜線 下端으로 물러서 예비陣地를 확보하였는데, △812主峰을 또다시 奪取한 敵의 一部가 계속 侵襲의 氣勢를 보이자 즉각 突破口의 尖端에 화력을 퍼부어 이를 阻止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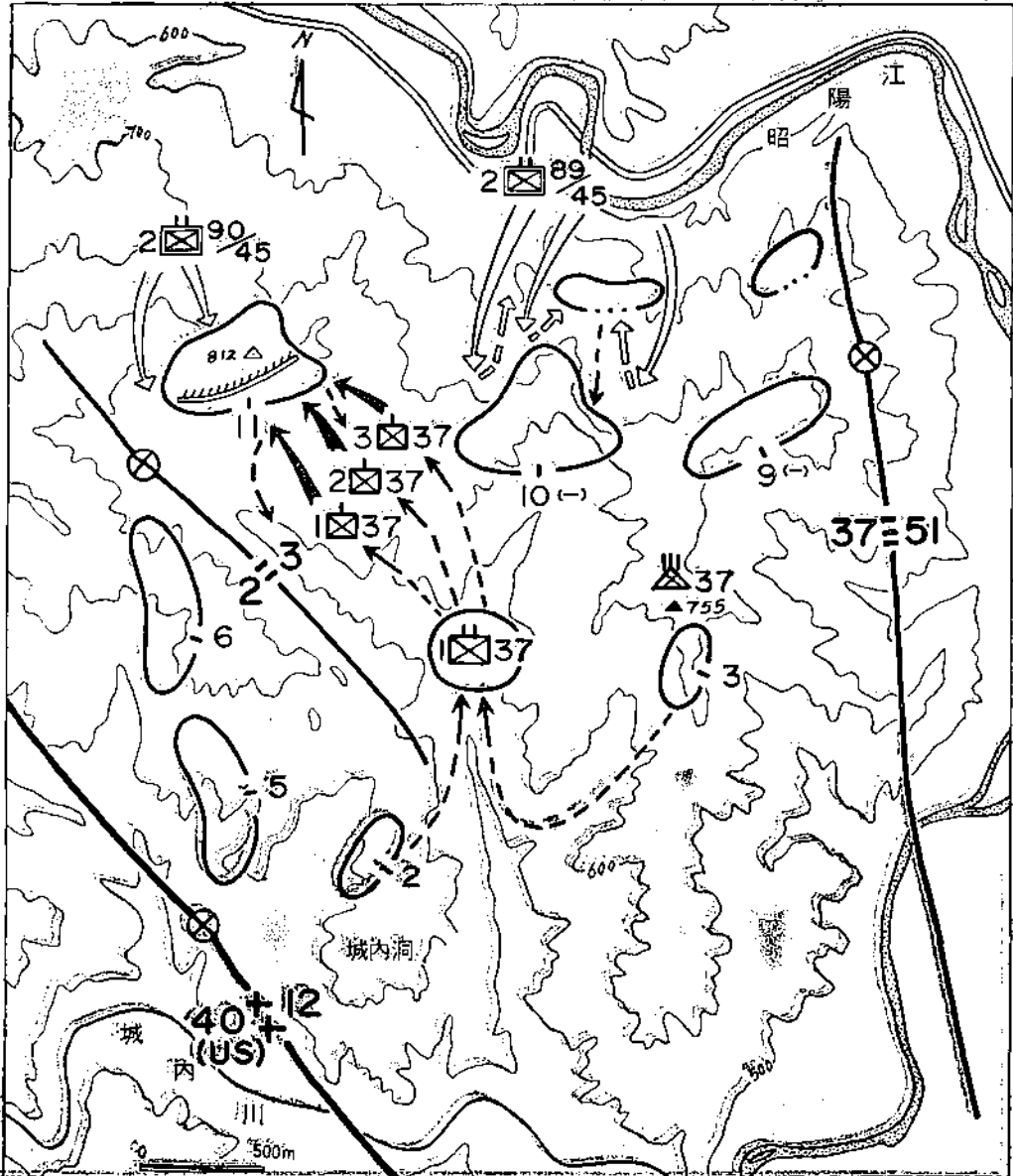
그런데 敵의 공세徵候가 逆襲을 牽制키 위한 陽攻으로 判斷한 연대장 金在命대령은 『貴대대는 즉각 逆襲을 감행하여 △812를 期必코 奪取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는 뒤이어 進出한 연대수색중대에 阻止陣地를 引繼한 다음, 제66, 제95 兩 포병대대의 공격준비사격의 延伸에 觸接하여 05.30에 5부稜線上의 공격개시선에서 一齊히 躍進하였다.

이때 제3중대(장, 夫永玉 대위)는 대대 右제1선으로서 東쪽 稜線으로, 제1중대(장, 安淸謨 중위)는 左제1선으로서 東南쪽 稜線上의 공격軸線을 따라 각각 突進하고, 제2중대(장, 李英烈 대위)는 예비로 공격一線을 後續하였는데 敵은 밤새껏 계속된 軍단 支援포병의 對砲兵사격과 뒤이어 出擊한 戰爆機 5개編隊의 對地공격을 받았으나 이들 공격이 땅속에 있는 그들을 撲滅하기에는 未洽하였던지 계속 △812 東斜面 一帶로 포격을 집중하여 대대의 進擊을 가로 막고자 頑強히 저항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또다시 陣頭에 나선 대대장의 號令下에 彈幕地帶를 돌파하고, 06.00에는

◇ 상황도 제 9호 812高地 戰鬪 其一



9부稜線으로 진입하는 즉시 敵線으로 一齊히 돌입하여 喊聲도 무명차게 돌격을 감행하였다. 이때 敵은 陣內사격을 彷彿케 하는 無差別포격을 퍼붓고 이와 함께 △1052 東南쪽 稜線 一帶에서 마저 적지포와 기관총을 集中하여 側背를 威脅함으로써 一進一退의 紛戰을 거듭하치에 이르렀으나 敵 陣地를 보지 못하고 死傷者가 續出하기에 이르자 하는수 없이 稜線을 離脫하고 8부稜線에서 散兵을 收拾하였다.

이윽고 대대장 朴定仁 중령은 연대장에게 좀더 실효성있는 포병의 制壓사격을 要請하는

하편 제1중대(장, 安清談 중위)로서 側方화력을 制壓케 하는가운데 제2중대(장, 李英烈 대위)를 左側1선으로 起用하여 공격을 재흥키로 하였다.

T-6 Mosquito機의 航空偵察에 뒤이어 出擊한 2개 편대의 戰爆機는 △1052—△812의 敵陣을 強打하고 軍단 지원포병과 사단 포병단의 全砲兵이 一齊히 砲門을 열어 制압 사격과 同時에 △1052—△812 一帶로 집중포격을 퍼부우니 산이 당장에 무너져 내릴 듯한 轟轟 속에 개미새끼 한마리도 살아남지 못할 듯한 壯觀을 이루었다.

이에 戰意를 새롭게한 대대는 08.00에 제2대대의 掩護下에 제1중대의 2개소대를 先鋒으로 하여 △812 南쪽 溪谷을 횡단하고 △1052 東南쪽 稜線상의 화력거점을 먼저 粉碎코자 一齊히 躍進하였다. 이리하여 제1중대(一)는 △1052 東南쪽 稜線으로 直衝하여 기관총을 沈黙시키는 등 稜線에서 계속 敵의 側方화력을 牽制하기 시작하였으나 主力은 9부稜線으로 近迫하였을 무렵, 如前한 집중포격과 雨雹처럼 쏟아져 내리는 방망이 수류탄 그리고 기관총의 火망에 휩싸이면서 19.00까지 一進一退의 激戰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 때 연대장 金在命 대령은 대대의 공격에서 死傷者가 累增하기에 이르자 더 이상의 繼戰이 利롭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제2대대(장, 金白泳 중령)의 一部로써 夜襲을 敢行키로 決心한 다음 곧 대대의 撤收를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는 포병과 박격포의 掩護사격 아래 8부稜線으로 離脫하여 急編陣地를 佔領한채 재편성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날 대대는 遺棄屍體확인 30具, 捕虜 1명, 推定殺傷 70명의 戰果를 거두고 戰死 26명, 戰傷 72명의 損失을 보았다.



(△812로 逆襲하는 勇士들)

라) 增 援

사단장 尹春根 준장은 연대 예비인 제1대대가 逆襲을 감행하게 되어 연대가 예비대를 保有치 못하게 되는 것을 勘案하고 즉시 사단예비인 제52연대 제2대대(장, 韓完洙 중령)의 일부와 사단 수색중대(장, 曹榮煥 대위)를 抽出하여 연대에 배속토록 긴급조치 하였다.

이에 따라 赴援케된 사단 수색중대는 10.10에 大谷里에서 기동하여 12.10에 △755附近으로 진출과 동시에 연대에 배속된 다음 예비陣地를 확보하였다.

또한 제52연대 제5중대(장, 崔基善 대위)는 이 조치에 따라 17.00에 盧田坪의 예비陣地를 떠나 다음날 00.20에 城內洞北쪽 無名高地로 진출과 동시에 연대에 배속되고 夜襲隊로써 △812附近으로 進出한 제2대대 예비인 제7중대(장, 金鎮昊 대위)의 陣地를 확보하였다.

3. 航空支援

이날 사단장 尹春根 준장의 항공지원 요청에 따라 즉각 出擊한 T-6 Mosquito偵察機의 精密偵察에 뒤이어 近間에 보기드문 공중지원이 이루어졌다.

즉 晝間에는 美 제5空軍의 F-84, F86 戰爆機 및 美 제7艦隊 소속의 E-9F, AU, AD機 등 延 106臺가 21회에 걸쳐 △1052—△812 一帶를 강타하고 夜間에는 B-26輕爆擊機 1臺가 9회에 걸쳐서 出擊, △1052를 猛爆하였다.

이에 헤아리게 된 전과는 兵員 待避壕 43個所, 自動火器 陣地 12個所, 박격포陣地 10個所, 掩體壕 14個所, 交通壕 1, 200m, 彈藥庫 12個所 그리고 76mm 직사포陣地 4個所를 각각 파괴한 것으로 推定하게 되었다.

6월 3일 : 제37연대는 이날 제2대대(장, 金白泳 중령)의 夜襲에 이어 배속중인 사단수색중대(장, 曹榮煥 대위)로써 超越공격케 하였으나 敵의 집중포화와 側方火力으로 그 成果를 거두지 못한채 損失만이 累增하였다.

이에 연대장 金在命 대령은 敵火를 制壓한 다음에 逆襲을 재흥키로 하고 現陣地線의 固守를 명령하는 한편, 포병의 制壓사격과 航空支援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砲門을 연 군단의 全支援포병과 사단 포병단(장, 李喜權 대령)의 對포병사격에 뒤이어 B-26爆擊機 2개 編隊가 △1052—看霧峯—巫山 一帶의 敵陣과 야포 및 박격포陣地를 강타하였다.

그런데 이날밤 연대장은 1개 대대규모의 敵이 △812로 增援되는 景후를 보이기에 이브자 이를 새로운 공세기도로 판단하고 제1대대로 하여금 東쪽 稜線에서 東南쪽 稜線에 이르는 一帶에 強力한 前哨陣地를 확보케 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敵情을 보고 받은 사단장 尹春根 준장은 사단예비인 제52연대 제2대대(一)를 △755로 急進시켜 연대를 증원토록 하였으며 군단에 계속적인 항공지원을 요청하였다.

1. 제2대대의 夜襲

제2대대장 金白泳 중령은 『賈대대는 △812 夜襲을 위한 1개 중대를 抽出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대대에 비인 제7중대(장, 金鎭昊 대위)에 그 임무를 賦與하였다. 이에 따라 중대는 철날 18.30에 城內洞 北쪽의 예비陣地에서 출발하여 19.50에 △812 東南쪽 稜線으로 진출한 다음 공격을 준비하였다.

B-26 輕擊機 1臺가 두차례에 걸쳐 △1052 一帶를 강타하고 포병의 파괴사격이 △812로 계속되는 가운데 중대는 2基數의 實彈과 5발의 수류탄 그리고 2日分의 비상식량을 支給하였는데 이들은 연대에서 選拔된 특공대로써의 矜持를 간직한채 『△812를 期於코 발취한다』는 決意를 새롭게 다지며 00.01에 연대장의 激勵을 받으면서 勇躍 出陣하였다.

중대는 金甲成 소위가 지휘하는 제1소대를 先鋒으로 잡아 △812 東南쪽 稜線으로 隱密하게 진격하였으며 이들이 敵線 100m 前方에 다달았을 무렵 敵의 潛伏組와 激突하면서 交戰이 벌어졌다.

이에 突擊組인 제1소대는 소대장을 先頭로 돌진하면서 수류탄을 퍼부어 1개 분대 규모를 覆滅하였다. 그러나 奇襲을 비로소 눈치챈 그들은 박격포사격을 集中하면서 左右側方으로부터 기관총이 화망을 펴므로써 進擊이 停滯하였다.

중대장 金鎭昊 대위는 제1소대와 後續하는 제3소대(장, 文明彬 중위)를 즉각 左右側方으로 迂回시켜 화기陣地를 격파하는 즉시로 挾擊토록 하고 제2소대는 自身の 陣頭지휘下에 直衝하였다.

敵은 중대의 果敢한 三面공격에 唐慌하듯 즉각 유도된 야포의 無差別 포격 아래 기관총사격은 더욱 熾烈하고 수류탄은 雨霰처럼 쏟아져 내림으로써, 제3, 제2 兩소대는 一進一退의 紛戰을 거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때 左側方으로 迂回하여 彈着點을 빚어낸 제1소대는 소대장을 先頭로 △812 南쪽 稜線으로 올라붙어 躍進을 거듭하여 敵線으로 밀어닥쳐 수류탄을 퍼붓고 近迫戰을 벌였다. 이리하여 敵線의 一角을 突貫한 소대는 白兵의 格鬪로 敵을 계속 무찔러 나가고 3명의 特攻組는 火力據點을 強襲하니 周邊의 땅이 들쭉하는 轟音과 함께 검은 煙氣를 뿜어내면서 기관총은 맥없이 沈默하고 말았다.

이에 더욱더 戰意를 드높인 병사들은 左衝右突하여 1개소대 규모를 一擊에 격멸하고 부근一帶를 발취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西側方에 크게 威脅받은 敵은 즉각 △1052 東南쪽 稜線으로부터 火力를 집중하고 그 掩護아래 2개 소대 규모가 陣前으로 출격함이 發見되었다. 이에 소대는 소대장을 中心으로 生死를 超越한채 奮戰하였으나 이때 소대장 金甲成 소위가 負傷하고 쓰러지면서 敵勢에 밀려 물러 서기에 이르렀는데 소대는 遺棄屍體 20具를 확인하고 기관총 2정을 鹵獲하는 전과를 거두었으므로 金소위에게는 철날 銀星忠武공훈장이 授與되었다.

이와같이 混戰을 거듭하는 가운데 사단 수색중대(장, 曹榮煥 대위)가 05.00를 期하여 超越공격을 斷行하기에 이르자 중대는 △812 南쪽 稜線으로 迂回하여 제1소대와 合勢하고 공

적을 제거하였으나 漸次로 熾烈하여지는 포격과 側方화력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08.00에는 接觸線을 離脫, 제1대대 左側方에 陣地를 점령하여 재편성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22.00에 제1대대의 陣地를 재편성함에 따라 城內洞 北쪽의 예비陣地로 돌아와 대대 예비대로서의 任務를 계속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2. 사단 수색중대의 공격

사단 수색중대(장, 裴榮煥 대위)는 전날 12.10에 △755附近으로 진출하여 제37연대에 배속과 동시에 예비陣地를 확보하였는데, 연대장 金在命 대령은 이날 00.01에 감행된 제7중대의 夜襲이 敵의 潛伏組와 부닥쳐 激戰을 거듭하게 되자 강력한 衝擊으로써 頂上을 一擧에 奪取키로 하고 수색중대에서 超越공격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중대는 03.30에 △755에서 행동을 개시하여 제1대대의 陣地를 거쳐 彈雨속을 뚫고 躍進끝에 05.00에는 제7중대를 超越하여 正面으로 直衝하였다.

敵은 이때 또다시 포격을 집중하였으나 중대는 無數히 파여진 彈痕을 따라 一進 또 一進하고 또 제1대대의 57mm 및 75mm 無反動銃의 掩護사격의 도움을 받아 一擧에 敵線을 突貫하는 즉시로 육박전을 벌였다.

이리하여 敵線의 一角을 격파한 중대는 그 一部가 白兵戰을 계속하여 散兵線의 敵을 驅逐하는 一方, 그 主力은 頂上으로 계속 돌진하였는데 이때 敵은 洞窟鑿의 3개 出入口에 据置한 6정의 重기관총으로 一齊히 亂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중대는 急編한 3개의 특공조를 선두로, 수류탄을 퍼부우면서 直衝하였으나 急傾斜를 이루고 露出된 지형에서 기관총과 수류탄의 화망에 휩싸이는 바 되어 寸進尺退의 難戰을 벌였다.

그런데 이때에 2개소대 규모의 敵이 출격하여 退路를 차단하고 包圍코자 함으로 중대는 즉각 誘導된 迫擊砲와 無反動銃의 熾烈한 掩護사격 밑에 遮蔽點으로 물러서 出擊하는 敵에 火力을 集中하면서 突擊再起의 호기를 捕捉코자 하였다.

한편 西側方으로 迂回한 제7중대의 공격 또한 進展을 보지 못하기에 이르자 08.00에 下達된 연대장의 명령으로 砲兵의 掩護사격과 煙幕遮張下에 제1대대 陣地線으로 물러섰다가 22.00에는 △755로 轉進, 예비陣地를 확보하고 재편성에 착수하였다.

3. 敵의 增援과 제1대대의 再配置

제1대대(장, 朴定仁 중령)는 △812東南쪽 7部稜線에 急編陣地를 점령하고 제7중대와 사단 수색중대의 공격을 지원하였는데 그 進展을 보지 못하고 물러서기에 이르자 全화력을 集中하여 △812의 敵과 사격전을 벌였다.

그런데 21.20에 이르러 1개대대규모의 새로운 一群이 △812로 增援되는 徵候를 보이기 에 이르자 연대장 金在命 대령은 이를 敵의 공격企圖로 判斷하고 즉시 대대에 再배치를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제11중대(장, 張炳淸 대위)에 阻止陣地를 引繼한 다음, △812 東

쪽에서 東南쪽 稜線에 이르는 一帶에 제1중대(장, 安晴護 중위)를 右제1선에, 제2중대(장 李英烈 대위)를 中央제1선에 연대수색중대(배속)를 左제1선으로 部署하고 前陣地를 확보하였으며, 제3중대(장, 夫永玉 대위)를 예비로하여 東南쪽 稜線下端에 控置하였다.

4. 사단예비대의 進出

한편 사단장 尹春根 준장은 敵이 △812로 증원하여 據點을 보강하면서 새로운 공세의 징후마저 보이게 되자 사단예비인 제52연대 제2대대(一)를 急進시켜 제37연대를 增援토록 하였다. 이에따라 대대는 이날 22.40에 瑞和里에서 이동하기 시작하여 다음날 02.00에 △755로 진출과 동시에 제37연대에 배속 즉시로 예비陣地를 확보한채 逆襲태세를 갖추었다.

사단장은 사단 예비대가 一線으로 進出하자 사단作指 제53호(6.1, 18.00)에 의거하여 이미 暫定 편성된 임시예비대로 하여금 瑞和里 一帶의 예비陣地를 확보케 하여 사단 예비로써의 任務를 담당토록 하였다.

6월 4일 : 이날 사단장 尹春根 준장은 軍단 作指 제367호로써 軍단예비인 제7사단 제3연대 제3대대(장, 朴圭華 중령)가 사단을 赴援하기에 이르자, 즉시 作命 제12호를 하달하여 이들에게 다음날 05.00에 사단 右一線인 제52연대(장, 張虎崗 대령)의 主陣地를 引受토록 하고, 그 제52연대로 하여금 △812에 대한 逆襲을 감행케 하기로 한 다음, 後進하는 作戰계획 제9호를 시달하였다.

이때 제37연대(장, 金在命 대령)는 延 80臺의 항공지원과 砲兵사격으로 敵線을 强打하는 가운데 陣地를 보강하였다.

한편 제52연대(장, 張虎崗 대령)는 이날 사단作命 제12호에 의거하여 예비인 제3대대(장 李康煥 소령)를 이날 16.00에 제37연대 예비陣地인 △601(西希口 西北쪽 1.7km)로 進出케 하였으며, 또 主抵抗線을 담당한 제1대대(장, 鄭順基 소령)는 20.00부터 陣地로 진입한 제3연대 제3대대(장, 朴圭華 중령)에 陣地를 인계하기 시작하였다.

1. 제37연대의 戰備強化

이날 晝夜間에 걸쳐 延 80臺의 B-26輕爆機, F-84 戰爆機 및 E-9F와 AD艦載機 편대가 敵線을 强打하고, 軍단支援포병과 사단포병이 敵을 制御하였다.

제37연대 제1대대(장, 朴定仁 중령)는 이날 東쪽에서 東南쪽 稜線一帶에 걸쳐 계속 前哨陣地를 확보하고 敵을 牽制하였으며, 제3대대(장, 朴完植 소령)는 充員된 新兵과 대대본부 要員 및 중화기중대의 一部병력을 抽出하여 損失이 큰 제10, 제11 兩중대를 재편케 한 다음, 공병 2개소대의 지원하에 障礙物지대와 主陣地에 대한 補強공사에 着手하였다.

한편 左제1선인 제2대대(장, 金白泳 중령)는 敵이 △812로 增援하여 새로운 攻勢를 企圖하려는 徵候가 顯著하므로 예비인 제7중대의 1개소대를 右제1선인 제6중대(장, 尹權衡 대위)에 增援토록 하고, 제7중대主力은 夜間에 △812南쪽 溪谷으로 推進潛伏케 하여 奇襲에 대비하였다.

또한 연대는 이날 宋明에 사단예비인 제52연대 제2대대(-)가 △755로 진출함에 따라 제 편중이던 사단 수색중대(장, 曹榮煥 대위)를 제3대대 OP附近으로 進出시켜 防禦의 縱深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03.10에 증원된 사단 공병대대 제1중대를 城內洞 北쪽의 無名高地로 진출시켜 제7중대와 제52연대 제5중대와 더불어 예비陣地를 확보케 한 다음 제1대대 예비인 제3중대(장, 夫永玉 대위)를 10.30에 城內洞東쪽으로 이동케 하여 溪谷線을 차단토록 하였다. 이와같이 연대가 城內洞附近의 예비陣地 확보에 注力한 措置는, △812一帶에 대한 防禦力이 강화됨에 따라 敵의 새로운 공세가 △1052東南쪽 稜線으로 指向되어 제2대대 正面을 突破하였을 때, △812一帶의 主力이 그 後方의 차단으로 要衝인 城內洞一帶의 확보가 힘들 것으로 分析하였기 때문이다.

2. 逆襲計劃의 하달

사단장 尹春根 준장은 제7사단 제3연대(장, 柳重秀 대령)의 一部병력이 사단에 배속되어 右一線 연대의 陣地를 인수하고 제52연대(장, 張虎崗 대령)가 사단 예비로써 戰列을 가다듬기에 이르자 △812頂上에 대하여 步戰砲空의 協同下에 逆襲을 敢行하여 一擧에 이를 탈취키로 결심하고 12.00에 작전계획 제9호를 하달 하였으니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D日H時를 期하여 △812를 탈환하려 한다.

② 제52연대는

- ㉠ 1개대대로서 逆襲을 감행한다.
- ㉡ 1개대대는 後續하면서 兩側方을 幷護한다.
- ㉢ 突破口를 阻止 중인 제37연대와 緊密한 협조를 유지한다.

③ 제37연대는

- ㉠ 現陣地를 固守하라.
- ㉡ 제52연대를 活潑지원하라.
- ㉢ 逆襲間 △812에 대한 照明을 담당하라.

④ 제51연대 및 제3연대는 現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⑤ 砲兵團은

- ㉠ 제66포병대대가 H-00.30을 期하여 제52연대를 직접지원한다.
- ㉡ 제95포병대대 및 軍團支援포병은 제52연대를 一般支援한다.
- ㉢ △812照明에 대하여 제52연대와 협조를 유지한다.
- ㉣ H-00.20부터 공격준비사격을 實施한다.

⑥ 美 제140전차대대 B중대는 逆襲間 제52연대를 직접지원하며 그 一部の 戰車는 逆襲에 참가한다.

⑦ 공병대대는 逆襲間 1개중대를 제52연대에 배속한다.

⑧ 항공지원은

㉞ D-1에 6個편대가 1시간間隔으로 出擊, 812 一帶에 HE 彈 및 Napalm 彈을 投下하며 4개편대는 2시간間隔으로 △1052의 火器陣地에 擾亂爆擊을 실시한다.

㉟ H-4에 5臺의 B-26輕폭격기는 △1052 一帶의 重火器陣地를 폭격한다.

㊱ H+1부터 1시간 間隔으로 5個편대가 出擊하여 活動중인 重火器陣地를 制壓한다.

㊲ Mosquito 偵察機는 常時 △812 상공에 滯空하여 폭격을 유도한다.

㊳ 通信은 現行 SOI에 의거한다.

㊴ CP는 계속 坪村에 위치한다.』

6월 5일 : 사단은 전날에 하달된 作命 제12호에 의거하여 戰列을 정비하고, 이어서 작전 계획 제9호에 따라 △812에 대한 逆襲을 준비 하였다. 그런데 51年 12月 以來로 休戰會談에서 論難을 거듭하고 會談의 膠着과 決裂의 要因이 되어온 捕虜交換 문제가 4월에 있던 傷病捕虜 교환의 실현을 契機로 급진전하여 捕虜交換 協定の 調印을 目睫에 두기에 이르자, 美 제8軍은 共產側을 刺戟치 않겠다는 의도와 死傷者의 累增을 방지한다는 表面上의 理由를 내세워, 사단 正面의 △812에 대한 逆襲을 연기토록 強硬함으로써 軍단장 White 中장은 作指 제369호를 하달하여 逆襲을 留保하고 現전線을 固守토록 하였다.

이에 사단장 尹春根 中장은 切齒扼腕한 바 있으나 作指 제56호(6.5, 18.00)를 하달하여 空中공격과 포격으로 敵의 出血을 계속 강요하고 다만 逆襲據點과 接近路를 계속 확보키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出擊한 延 25臺의 폭격기가 △1052-△812 一帶의 敵陣地를 強打하고 砲兵이 파괴사격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敵은 도리어 △812 東쪽 稜線 一帶도 奪取코자 22.30부터 砲擊을 集中하더니 1개대대규모가 無名高地(後日의 雙龍高地)를 확보한 제37연대 제3대대(장, 朴完植 소령) 正面으로 衝鋒을 지향한채 또다시 侵攻을 恣行하였다.

제37연대 제3대대는 제1대대(장, 朴定仁 中령)의 支援下에 突破口 확장을 阻止하는 한편 △812 東쪽 稜線의 防禦태세를 강화하였다.

그런데 敵은 我軍의 航空폭격과 先制포격으로 하루 종일 숨을 죽였으나 22.30부터 대대 全正面에 걸쳐 砲擊을 퍼붓더니 22.50에는 中央 제1선인 제10중대(장, 尹吉炳 대위) 正面으로 사격을 集中하여 순식간에 狂風을 휘몰아 치는 가운데 1개소대 규모가 右側 제1선인 제9중대(장, 全昇彬 대위) 正面을 急襲하여 前哨陣地를 확보한 제1소대와 熾烈한 交戰을 벌였다.

그들은 23.00에 이르러 砲擊을 一齊히 延伸하면서 2개 소대 규모가 또 제11중대(장, 張炳濤 대위) 正面으로 索制공격을 가하는 一方 北魏 제45사단 제90연대 隸下로 推定되는 또 다른 1개대대 규모가 제10중대 正面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제10중대(장, 尹吉炳 대위)는 증원된 제2중대 제2소대를 右 제1선에 제3소대를 中央 제1선에 제1소대를 左 제1선에 전개하여 無名高地(後日의 雙龍高地)의 主陣地를 확보한 다음 제2소대는 A高地의 前哨陣地를 점령케 하고 사단 수색중대의 2개분대는 예비로

控置한채 포병의 熾烈한 차단사격 아래 결전태세를 갖추었다.

敵은 이때에 先鋒인듯한 1개 중대 규모로 교전을 回避한채 A高地를 迂回하여 主陣地 正面으로 急襲하고, 1개 중대 규모로는 제 9 중대와 隙으로 侵襲하여 화력의 分散을 피하는 한편 또 다른 1개 중대 규모로 西側方으로 優勢를 뻗쳐 제 1대대의 지원을 차단코차 하였으니 그들은 常套的인 포위와 돌파의 兩面作戰을 劃策하는듯 하였다.

이에 중대는 81mm 및 60mm 迫擊砲의 熾烈한 近接支援下에 全火力을 動員하여 三面으로 밀어닥치는 敵을 一擧에 擊碎코차 하였는데 이때 前哨陣地를 계속 확보한 제 2소대로 말미암아 砲兵의 彈幕사격이 크게 制限됨을 틈타 優勢를 늦추지 않은채 계속 밀려 들었으며 23. 30에는 1개소대 규모의 敵이 제 3, 제 1 兩소대間隙으로 侵透하였다.

이에 중대장 尹吉炳 대위는 박격포의 照明彈을 계속 發射케 하여 陣地주위를 밝힌 다음 OP要員과 예비대를 陣頭지휘하여 돌파구로 突進하고 수류탄을 집중 투척하였는데 이에 制壓된 敵은 곧 潰退를 서슴치 않았으므로 중대는 好機를 놓칠세라 一擧에 이들을 격멸하고 陣地를 恢復하였다.

이때 대대장 朴完植 소령은 예비대로 保有하지 못하여 아무런 對應措置도 取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제 10 중대의 陣地고수를 奮勵하고 제 9, 제 11 兩 중대에 側方支援을 強化토록 하는 한편 연대장에게 增援과 航空照明을 緊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戰況의 推移를 銳意 注視하던 연대장 金在命 대령은 제 10 중대 正面에 대한 공세가 △812 東쪽 殘線을 目標로한 敵의 主攻일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敵의 一次공세에 있어서 이와같은 戰況下에서 △812로 奇襲하였던 先例를 勘案하여 △812 正面과 제 2 대대 正面에 대한 防禦태세를 더욱 강화토록 하고, △755에 集結 대기중인 제 52 연대 제 2 대대(장, 韓完洙 중령)에 逆襲준비를 갖추도록 명령하였으며 항공지원과 砲兵制壓사격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00. 30부터 出擊하기 시작한 美 空軍의 C-46輸送機는 144發의 照明彈을 계속 投下하여 대낮처럼 陣前을 밝혔고, 2臺의 B-26 폭격기는 △1052—△812 一帶와 昭陽江邊의 接近路를 강타하여 곧 敵火를 制壓하고 敵의 증원을 차단하기 시작하였다.

6월 6일 : 대낮처럼 밝힌 航空照明과 B-26輕폭격기에 의한 夜間폭격 그리고 포병의 熾烈한 對砲兵사격과 遮斷사격에도 不拘하고 敵은 如前히 야포와 박격포를 集中하여 增援과 逆襲을 遮斷하는 가운데 無名高地 一帶를 확보한 제 37 연대 제 3 대대 正面으로 衝勢를 集中하여 執拗하게 포위와 돌파를 試圖하였다.

이에 대대는 밤새껏 血鬪를 거듭하여 이를 破碎코차 하였으나 04. 00에는 無名高地(後日의 雙龍高地)가 敵의 掌中으로 넘어가기에 이르렀다.

이에 연대장 金在命 대령은 제 3 대대에 左右 제 1 선 중대로써 突破口 확장을 極力阻止토록 嚴命하는 한편 제 52 연대 제 2 대대에 恢復공격을 명령하였다.

1. 無名高地의 喪失

제3대대(장, 朴完植 소령)의 中央제1선으로 無名高地를 확보한 제10중대(장, 尹吉炳 대위)는 前半夜부터 거듭되는 敵의 波狀공세를 맞아 격전을 벌였는데, 이때 陣頭에서 總號하던 중대장은 陣地의 固守를 奮勵하면서 예비대를 敵의 화력이 집중되는 中央 제1선인 제3소대에 急據 증원케 하여 一旦 敵을 陣前에서 阻止하였다.

그런데 이때 敵線에서 靑色신호탄 3발과 赤色신호탄 2발이 하늘 높이 솟자, 기다렸다는 듯이 △812와 昭陽江北岸에서 직사포로 突擊지원사격을 퍼붓는 가운데 증강된 1개중대 규모의 敵이 正面에서 밀어닥쳤다.

제3소대는 예비대의 增援下에 4정의 기관총을 主軸으로한 全화력의 強襲에 뒤이어 수류탄을 一齊히 퍼붓고 近迫하는 敵은 銃劍과 개머리板으로 격멸하는 紛戰을 거듭하였으나, 00.30에는 그 一角이 무너지면서 一部の 무리가 또다시 陣內로 侵襲하였다.

이때 소대는 소대장의 大號一聲에 塹壕에서 一齊히 躍出하여 달려 나가면서 찌르고 쏘는 懷絶한 肉迫戰을 벌이니 山頂은 순식간에 血戰場으로 化하고 喊聲과 悲鳴만이 昭陽江邊에 크게 메아리쳤다.

그러나 敵은 우세한 병력으로 突破口를 漸次로 확대하고 그 先鋒이 중대 OP 앞 交通線까지 侵透하기에 이르렀으니 전황을 보고중이던 중대장은 중대부관과 砲兵관측 장교를 포함한 OP要員을 지휘하여 수류탄을 던져 爆殺하는 즉시로 敵의 무리속으로 뛰어들어 兵士들을 激勵하면서 左衝右突하는 勇戰을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敵勢에 밀려 頂上부근으로 漸次 물러서기에 이르자 중대장은 頂上만큼은 고수키로하고 제3소대에 OP를 中心으로 據點防禦에 突入토록 號令하였다.

이리하여 소대는 橢圓形陣地를 점령하는 즉시로 最後阻止 사격으로 火網을 퍼면서 수류탄을 계속 던지고 近迫하는 敵을 刺殺하는 血鬪를 거듭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右 제1선인 제2중대 제2소대는 제9중대의 熾烈한 支援사격 아래 敵을 陣前에서 阻止하고 화력을 퍼부어 決定的인 타격을 주었는데 제3소대 陣地로 侵透한 敵이 西側背를 威脅함으로써 이들도 급히 正面을 좁혀 狹擊하는 敵을 맞아 血戰을 벌였다.

그런데 이때 昭陽江北岸으로부터 직사포와 기관총 사격이 또 한차례 集中되어 陣地를 攪亂하더니 陣前에서 阻止되어 사격전으로 命脈만을 維持하던 敵이 一齊히 밀어닥침으로써 混戰亂鬪의 紛戰을 벌였으나 전력이 限界에 다달아 03.50에는 제9중대의 掩護下에 그 陣地線으로 물러서기에 이르렀다.

한편 左 제1선인 제1소대는 敵의 계속되는 포격으로 무너지진 塹壕의 一角에 차폐한제 11중대와의 連繫를 遮斷하고 後方으로 侵透코자 企圖하는 1개 중대 규모의 敵을 맞아 2정의 기관총과 2정의 57mm 無反動銃 그리고 2門의 3.5" rocket砲의 支援下에 敵을 陣前에서 阻止하고 사격전을 벌였다. 그런데 右隣接인 제3소대 陣地로 侵襲한 敵의 一部가 東側背를 威脅함으로써 據點防禦에 돌입하여 三面으로 밀려드는 敵과 奮戰을 거듭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一角이 무너지면서 一團의 敵이 陣內로 侵襲하자 소대장은 2발의 수류탄을 계속 던지면서 『突擊 앞으로!』를 絶叫하였다. 이에 즉각 躍進한 예비분대는 敵中으로 殺到하면서 白兵의 血鬪를 벌여 이를 破碎하고 陣地를 恢復하였으나 敵의 계속적인 侵攻으로 尙소대는 白兵格鬪의 회오리 속에 말려들고 말았다.

이리하여 소대는 血肉이 飛散하고 砂塵을 鮮血로 붉게 물드리는 死鬪를 거듭하였으나 먼동이 틀 무렵에는 敵勢에 밀려 西南쪽 溪谷으로 離脫하기에 이르렀다.

이때까지도 一進一退의 紛戰을 거듭하여 據點을 고수하던 제3소대는 實彈과 수류탄이 거의 바닥이 나고 死傷者가 續出하여 火力이 鈍化하기에 이르자 敵의 主力은 三面으로 포위한 채 一齊히 밀어닥쳤다.

소대는 陣頭에서 怒號하는 中대장 尹吉炳 대위를 中心으로 生死는 이미 超越한채 마지막 火力을 퍼부었으나 狂波에 밀려 陣地線이 무너졌다.

이때 『突擊앞으로!』를 외치며 敢然히 달려나가는 中대장의 勇姿에 크게 힘입은 병사들은 血雨가 霏霏한 白兵의 死鬪를 벌였으나 겹겹이 둘러 쌓인 포위망 속에 빠져들어 이미 突破는 어려웠다.

이에 中대장은 살아남은 兵士들을 이끌고 OP壕로 進入하는 즉시 入口를 封鎖하고 無電으로 陣內사격과 동시에 逆襲을 要請하였다.

대대장 朴完植 소령은 『지금 逆襲中이니 敢鬪토록』 奮勵하면서 砲兵의 VT彈에 의한 TO·T 사격을 緊急요청하였다.

砲門을 연 제66보병대대(장, 安龍成 중령)는 無名高地 頂上을 中心으로 VT彈을 퍼부음으로써 露出된 敵線에서는 阿鼻叫喚의 修羅場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미 中대는 自力으로 恢復공격을 감행할 전력을 喪失하고 있었다.

이에 대대장 朴完植 소령은 左右 제1선중대에 突破口 확대를 極力阻止토록 大號하였다.

이에 따라 右一線인 제9중대(장, 全昇彬 대위)와 左一線인 제11중대(장, 張炳淸 대위)는 포병과 박격포의 熾烈한 遮斷사격아래 火力을 集中하여 敵의 계속적인 侵襲을 阻止하고 제52연대 제2대대(장, 韓完洙 중령)의 逆襲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A高地의 前進陣地를 계속 확보중인 제2소대는 據點을 고수한채로 敵의 계속적인 牽制공격을 近接戰으로 물리쳤는데, 敵이 主陣地의 一帶를 탈취하기에 이르자 소대는, 赴援의 길이 없는 孤立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같은 소대진지를 눈위의 흑처럼 여긴 敵은 10.00에 1개 中대규모로써 三面을 포위한채로 一齊히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소대는 즉각 砲門을 연 迫擊砲의 掩護사격 아래 火力의 集中으로 이를 물리치고자 하였으나 敵의 執拗한 波狀 공세와 實彈不足으로 10.30에는 포병의 엄호사격과 煙幕의 遮張下에 銃劍으로 血路를 開拓하면서 제9중대의 陣地線으로 물러서기에 이르렀다.

이 전투에서 중대는 遺棄屍體 확인 51具, 俘虜 2명 推定殺傷 91명의 전과를 거두고 戰死 37명 戰傷 87명 失蹤 29명의 損失을 보았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OP壕에서 敵의 投降強要를 拒否하던 중대장 尹吉炳 대위와의 無電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2. 제52연대 제2대대의 제1차 逆襲

제52연대 제2대대(장, 韓完洙 중령)는 4일 未明에 △755로 進出하여 제37연대에 배속되었는데, 이날 제10중대가 확보한 無名高地(後日의 雙龍高地)에서 混戰을 거듭하기에 이르자 연대장 金在命 대령의 명령에 따라 逆襲태세를 갖추었다.

즉 대대는 主力이 제9중대 陣地線의 後方으로 진출하고 城內洞 北쪽의 無名高地를 확보 중인 제5중대(장, 崔基善 대위)를 無名高地(後日의 雙龍高地) 西南쪽 溪谷으로 急遽진출시켜 逆襲 태세를 갖추었는데, 敵의 遮斷사격과 제10중대의 戰況이 混迷中이어서 戰機를 捕捉코자 待機하였다. 그런데 04.00에 이르러 연대장은 敵의 포화가 밤새 계속된 空中공격과 對포병사격이 黎明과 더불어 奏効하여 漸次 잦아들고, 無名高地의 喪失을 확인하기에 이르자 『賣대대는 곧 無名高地를 탈취하고 제10중대의 殘留병력을 救出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는 제6, 제7 兩중대를 右제1선, 제5중대를 左제1선으로 部署한 다음 04.10에 제37연대, 제9, 제11 兩중대 陣地線 兩端에 설정한 공격개시선을 一齊히 突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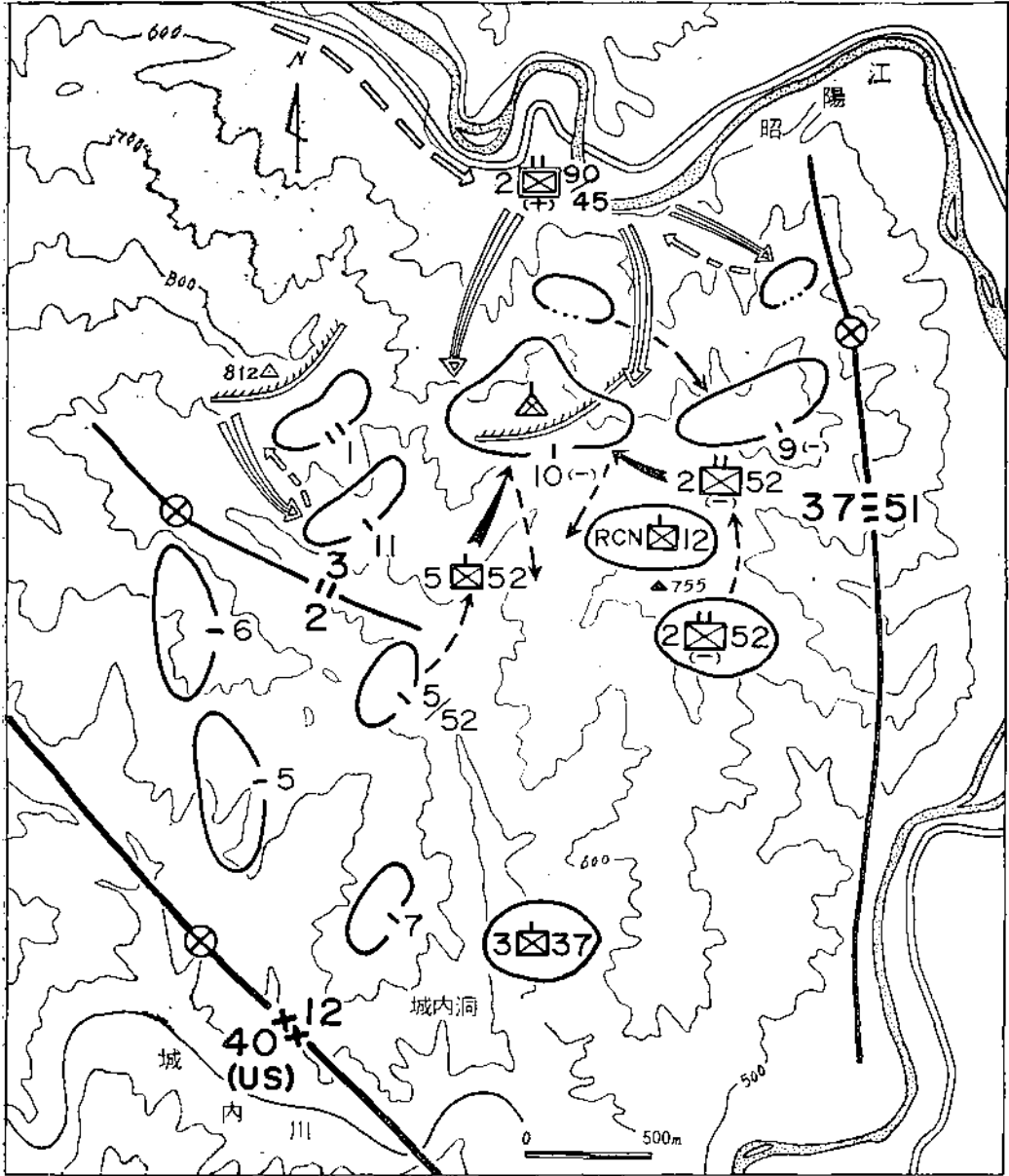
이리하여 대대는 硝煙이 자욱한 東南쪽과 西南쪽 稜線을 따라 커다란 抵抗없이 50m 距離를 突進하였으나 이때 비로소 逆襲을 눈치챈 그들은 發惡의인 포격을 퍼붓고 또 無名高地一帶를 掌握한 1개대대 규모가 20정도로 推算되는 기관총을 亂射함에 이르러 대대의 공격이 停滯되었다. 그러나 대대는 즉각 지향된 57mm와 75mm 無反動銃의 熾烈한 掩護사격과 迫擊砲火의 強襲으로 敵線이 攪亂되는 刹那에 躍進을 거듭하여 05.40에는 敵線 50m 前方까지 突入하였으며 여기에서 또 漸次로 熾烈의 度를 더하는 突擊지원사격 아래 兩翼을 突貫코자 一齊히 躍進하였다.

그러나 敵은 가파른 地形條件을 利用하여 一時에 數百發의 수류탄을 굴러 떨어뜨림으로써 死傷者는 續出하고 또한 突擊線이 混亂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때 특히 공격의 進展에 따라 側背가 露出된 左제1선인 제5중대(장, 崔基善 대위)는 △812로부터 直射砲와 기관총사격을 받아 공격이 頓挫되면서 死傷者가 續出하였다. 이에 대대장 韓完洙 중령은 즉각 △812에 대한 制壓사격을 요청하는 一方, 중대를 南쪽 溪谷에서 再編케 하고 제6중대(장, 尹夏榮 대위)를 左제1선으로 제7중대(장, 金甲元 대위)를 中央제1선으로 각각 轉換케한 다음 急遽 增援된 제37연대 제10중대를 右제1선으로 내세워 迫擊砲와 無反動銃 그리고 支援된 戰車 1개소대의 掩護사격을 받아가며 三面으로 一齊히 공격을 再興하였다.

이로써 제37연대 제10중대(一)는 계속 OP壕 속에서 抗戰을 계속하며 早速히 救出을 바라는 중대장 以下 29명의 戰友를 期必코 救出코자 決意를 굳게 다지고 준병사들은 앞을 다

◇ 상황도 제10호 812高地戰鬪 其二



투어 東南쪽 稜線을 따라 밀어타치고 제 7 중대는 가파른 벼랑을 타고 敵의 虛를 찔렀으며 제 6 중대는 제 5 중대의 掩護下에 西南쪽 稜線을 따라 돌진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다시 敵線 50m 前方으로 近迫하는 즉시로 銃榴彈을 一齊히 發射하면서 敵線으로 달려들었다. 이때 敵은 또다시 無差別 포격과 기관총을 亂射함으로써 一進一退의 紛戰을 전개하였으나 彈幕을 뚫지 못하고 遮蔽點으로 몰려서 사격전을 벌이면서 好機를 捕捉코자 하였다.

그런데 18.00에 이르러 연대 OP까지 直接나온 사단장 尹春根 준장의 督勵에 따라 야포가 一齊히 咆哮하는 가운데 躍進하여 22.50까지 6차례의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如前한 敵의 抵抗으로 進展을 보지 못하고 戰力이 限界에 다달아 24.00에는 제10중대(一)만을 突破口底邊에 殘置한채 △755로 撤收하여 재편하게 되었다.

이날 捕虜로 한 敵兵의 陳述에 의하여 제10중대를 공격한 北傀 제45사단 제90연대 제2대대는 중대의 勇戰과 계속된 포격으로 決定的인 타격을 받고 北傀 제1사단 제3연대의 예비인 제3대대와 交代하였다는 것이다.

6월 7일 : 이날 사단장 尹春根 준장은 지난 1일부터 두차례에 걸쳐 거듭된 敵의 공세로 말미암아 △812을 喪失한데 이어 그 東쪽 稜線上의 無名高地마저 빼앗기기에 이르자 제52연대(장, 張虎崗 대령)로 하여금 中央 左一線을 담당케 하여 防禦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지휘의 統一을 期하여 效率인 逆襲을 감행키로 하고 作指 제57호를 하달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戰鬪地境線의 一部를 변경하고 제52연대를 第一線에 配置하여 防禦 및 逆襲태세를 강화하려 한다.

② 제37연대는

- ㉠ 제3대대의 戰鬪地域의 一部를 6. 7. 20. 00까지 제52연대에 인계하라.
- ㉡ △812 正面으로부터 城內川에 이르는 線을 계속 防禦하라.
- ㉢ 제52연대 제2대대의 배속을 7일 20.00에 解除하고 原隊에 복귀케 하라.

③ 제52연대는

- ㉠ 제2대대가 原隊복귀한다.
 - ㉡ 1개대대로서 7일 20.00까지 제37연대 제3대대(一)의 陣地를 인수하라.
 - ㉢ 1개대대로서 無名高地를 탈취하라.
 - ㉣ 제1대대는 사단예비의 任務를 계속하라.
- ④ 제3연대(一) 및 제51연대는 現任務를 계속 遂行하라.
- ⑤ 戰鬪地境線의 변경은 6. 7. 20. 00附로 有效하다.
- ⑥ 交代間 通信保安에 留意하라.
- ⑦ 사단 CP는 계속 坪村에 位置한다.』

1. 제37연대장 金在命 대령은 이날 사단作指 제57호로 戰鬪地境線이 변경되자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전투지경선의 변경에 따라 一部병력을 再배치하려 한다.

② 제3대대는 7일 20.00를 期하여 △812 東쪽稜線上의 主陣地를 제52연대에, △812前面의 主陣地를 제1대대에 각각 인계하라.

③ 제1대대는 7일 20.00를 期하여 제3대대의 一部陣地를 인수하고 再배치하라.

- ④ 제2대대는 現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 ⑤ 제52연대 제2대대는 6.7. 12.00附로 배속이 解除된다.
- ⑥ 交代間 通信保安에 유의하라.
- ⑦ 연대 CP는 瑞和峯에 위치한다.』

가) 제3대대의 戰況

제3대대장 朴完植 소령은 逆襲의 진전을 보지 못한 제52연대 제2대대가 전날밤 24.00에 撤收하기에 이르자, 이날 제10중대(一)로 하여금 突破口를 閉塞케 하였는데 敵은 02.00에 때 마침 雷轟霹靂을 치며 퍼붓기 시작한 빗속을 뚫고 연대 수색중대 正面으로 1개소대 규모가 侵襲하여 陣地線을 攪亂하고 지원화력을 유도하더니, 02.30에는 1개소대를 先頭로 한 1개 중대규모로 제10중대의 左 제1선인 제2소대 正面을 강타코자 하였다.

이에 중대는 즉각 迫擊砲의 集中사격을, 지향하는 동시에 수류탄과 銃劍으로 격쇄하는 熾烈한 紛戰을 계속하였으나 끝내 밀리는 바 되어 하는 수 없이 正面을 좁혀 密集防禦 태세를 取하고 白兵의 格鬪를 거듭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대대장 朴完植 소령은 戰勢不利함을 판단하고 연대장에게 增援을 요청하였다.

急報에 接한 연대장 金在命 대령은 곧 배속중인 제52연대 제2대대장 韓完洙 중령에게 1개 중대를 抽出 제3대대를 赴援하여 이 무리를 一擧에 물리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52연대 제7중대(장, 金甲元 대위)는 곧 無名高地 南쪽 溪谷으로 突進하고 敵의 側背를 強襲하였는데 이에 당황한 敵은 05.30에 더 이상 支撐치 못하고 敗走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無難히 阻止陣地를 恢復한 제52연대 제7중대는 즉시 제10중대의 左側에 急編陣地를 設령하고 敵의 계속적인 攻撃에 對備하다가 前述한 연대장의 명령이 하달됨으로써 대대와 함께 陣地를 交代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대대장 朴完植 소령은 OP壕에 갇힌 제10중대장 尹吉炳 대위외 28명의 部下들의 生死를 확인치 못하고 그대로 放任한채 陣地를 물러설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들을 꼭 救出한 然後에야 진지를 交代하리라 다짐하였다.

그리하여 17.00에 제10중대에서 自願한 兵士로 1개소대의 특공대를 編成하고 『期必코 戰友들을 救出하라』고 要望한 다음, 제9중대 OP에서 直接 지켜보면서 이들을 激勵하는 가운데 東南쪽 稜線을 따라 출동케 하였다.

대대의 全 박격포가 △812로 砲撃을 集中하여 敵을 欺瞞하는 가운데 戰意 등등한 特攻隊는 어둠을 뚫고 無名高地의 OP壕를 目標로 隱密히 進격하였다.

이리하여 特攻隊는 目標 40m前方까지 敵에 發見됨이 없이 近迫할 수 있었으나 그 다음부터 敵線에 부딪쳐 彼我사이에는 銃擊戰이 전개되었다.

이에 特攻隊는 金一斗 소위의 指揮 아래 一齊히 수류탄을 던져 敵을 기습하고 銃劍을

뒤돌아 敵中으로 뛰어난 다음 1개 분대 규모의 敵을 一擧에 覆滅하였는데 이때 奇襲을 눈치챈 一團의 敵이 기관총과 多發銃사격을 집중하고 수류탄을 집중 投擲함으로써 세차레나 돌격을 거듭하다가 끝내 성공치 못한 채 24.00에는 제9중대 陣地線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 朴完植 소령은 斷腸의 感을 禁할길 없어 연대장에게 『이제는 제52연대 제3대대가 交代次 陣地에 進入하였으니 내 部下를 내 손으로 救出할 수 있도록 逆襲을 許諾해 줄것』을 建議하였다. 그런데 연대장 金在命 대령은 작전임무가 이미 20.00附로 제52연대에 引繼된 以上 逆襲을 敢行하는 것은 작전상 混亂을 가져올 뿐이라고 말하고 이를 挽留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21.45에 이미 進入완료한 제52연대 제3대대(장, 李康煥 소령)에게 제9, 제10 兩중대의 作戰任務를 引繼하고 다음날 01.00에는 悲憤의 눈물을 뿌리며 撤收하기 시작하여 城內川 南岸의 △601에 예비陣地를 占領하고 재편성에 착수하였다.

나) 제1대대의 再配置

제1대대(장, 朴定仁 중령)는 연대에바라보여 연대 수색중대를 統合지휘하여 前哨陣地를 확보하고 △812의 敵을 牽制하였는데, 이날 戰鬪地境線이 변경되어 제3대대가 主陣地를 제52연대에 引接함에 따라, 대대도 △812前面의 제11중대(장, 張炳淸 대위) 陣地를 인수하기에 이르렀다.

즉 제1중대(장, 安晴謨 중위)를 右 제1선, 제2중대(장, 李英烈 대위)를 中央 제1선, 연대수색중대를 左 제1선으로 部署하고 연대 右一線으로써 △812前面의 主陣地를 확보하였으며, 제3중대(장, 夫永玉 대위)는 예비로 控置하는 一方 △812 頂上奪取을 위한 恢復공격의 戰機를 捕捉코자 하였다.

다) 제2대대(장, 金白泳 중령)는 이날 연대 左 제1선으로써 제6중대(장, 尹權衡 대위)를 右 제1선으로 제5중대(장, 李康斗 대위)를 左 제1선으로 하고 제7중대(장, 金鍾昊 대위)를 예비로 하여 △812南쪽 溪谷線으로부터 城內川에 흐르는 △1052東南쪽 稜線上에서 主陣地를 계속 확보하였다.

2. 제52연대의 進出

제52연대(장, 張虎崗 대령)는 사단作命 제12호에 의거하여 5일 〇5.00附로 사단右一線으로서의 작전임무를 사단에 委속된 제7사단 제3연대 제3대대(장, 朴圭華 중령)에 引繼하고 연대 CP를 加田里에 開設하는 한편 제1대대(장, 鄭順基 소령)를 사단예비로 전환하였으며 제3대대(장, 李康煥 소령)를 △601로 進出시켜 제37연대의 예비陣地를 점령케 하였다. 한편 사단예비인 제2대대(장, 韓完洙 중령)는 4일 未明에 △755로 進出하여 사단 작전계획 제9호에 의거한 逆襲준비에 착수하였으나 이 計劃이 留保되어 계속 대기하였는데, 전날 제37연대 제10중대가 主陣地를 喪失하게 되자 無名高地로 逆襲을 감행한바 있었다.

그런데 이날 사단作指 제57호로 제37연대 제3대대의 主陣地를 인수하고 無名高地에 대한 逆襲을 준비하게 되었다.

가) 제3대대(장, 李康煥 소령)는 이날 사단作指 제57호에 의거한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17.00에 △601를 출발하여 21.40에는 제11중대(장, 曹永哲 대위)를 右 제1선, 제10중대(장, 柳範烈 대위)를 中央 제1선, 제9중대(장, 朴勝熙 대위)를 左 제1선으로 部署하고 제37연대 제9, 제10 兩중대의 主障地를 引受하였다.

나) 제2대대(장, 韓完洙 중령)는 전날 無名高地로 逆襲을 감행하였으나 그 진전을 보지 못하고 △755 附近에서 재편에 착수하였는데, 이날 未明의 敵襲으로 제37연대 제10중대가 또다시 苦戰케 되자 제7중대(장, 金甲元 대위)로써 이를 驅逐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이날 연대가 中央 左一線으로 主抵抗線을 담당하고 대대가 제37연대로부터 배속이 해제됨에 따라서 제7중대를 原障地로 복귀케 한 다음, 다음날의 逆襲을 준비하였다.

6월 8일 : 山野를 길게 덮은 안개로 視野가 크게 制限되어 黎明攻襲으로 계획되었던 逆襲이 延期되었는데, 12.30에 이르러 안개가 걸리기 시작하자 제52연대장 張處崗 대령은 計劃대로 逆襲을 감행키로 하고 명령을 하달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연대는 8일 14.00를 期하여 無名高地를 공격하여 이를 占領하려 한다.

- ② 제2대대는 目標 I (無名高地) II (△A)를 탈취하라.
- ③ 제3대대는 攻擊間 제2대대를 火力支援하라.
- ④ 제1대대는 사단 예비로서의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라.
- ⑤ 美 제140전차대대 B중대가 직접지원한다.
- ⑥ 공격간 要請에 따라 空중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⑦ OP는 △755에 位置한다.』

1. 無名高地(雙龍高地)의 奪還

이와 같은 명령을 받은 제2대대장 韓完洙 중령은 다음과 같은 服索을 세웠다.

『① 제5중대를 主攻, 제6중대를 助攻으로 삼아 東南쪽과 南쪽稜線으로부터 挾擊한다.

② 제7중대는 예비로써 主攻중대를 後續다가 目標 I 奪取와 동시에 目標 II로 超越공격한다.』

13.50부터 一齊히 포문을 연 사단포병단과 군단 지원포병의 공격준비사격이 無名高地一帶를 火焰과 硝焰으로 뒤덮는 가운데 공격待機 地點으로 進出한 대대는, 14.00에 砲兵의 火力延伸에 觸接하여 제3대대障地線의 LD를 一齊히 躍進하였다.

右 제1선인 제6중대(장, 尹夏榮 대위)는 제3대대의 掩護사격 아래 別다른 저항없이 躍進을 계속 하였으나 左 제1선인 제5중대(장, 崔基善 대위)는 100m를 돌진하였을 무렵, △812로부터 직사포와 기관총 사격이 側背를 威脅하더니 뒤이어 迫擊砲사격이 집중됨으로써 공격線은 一時에 홀어지기에 이르렀다.

이에 중대장 崔基善 대위는 중대를 東斜面으로 離脫케 하는 한편 制壓사격을 요청하였다.

즉각 포문을 연 소포병과 박격포가 △812 一帶를 強打함으로써 敵火가 순식간에 沈黙하기에 이르자 중대는 一齊躍進으로 敵線으로 殺到하였다.

그러나 한때 我軍의 熾烈한 공격준비 사격 때문에 제대로의 저항을 하지 못한듯한 敵은 이때부터 奮戰에 전디지 못하였음인지 기관총의 十字火力아래 傾斜가 급한 지형조건을 利用하여 수류탄을 퍼부었다.

중대는 또다시 돌격선이 풀어지면서 死傷者가 續出하였으나 즉각 지향된 戰車砲의 지원과 先頭에서 號令하는 중대장의 진두지휘아래 急進으로 수류탄의 炸裂地帶를 벗어나는 즉시로 短兵急衝하였다. 敵은 또 한 차례 火網을 퍼 突擊線을 攪亂하였으나 兵士들은 이에 屈하지 않고 一路 敵線으로 밀어 닦았는데, 이때 8"砲와 155mm 野砲의 對砲兵사격이 奏效하였음인지 敵火가 주춤하는 刹那에 楔入하면서 치고 찌르는 屠戮의 血戰을 벌이고 뒤이어 4개의 특공조가 화력거점으로 돌진끝에 수류탄을 계속 銃眼으로 집어 던져 及其也 기관총을 沈黙시켰다.

이에 敵은 1개중대 규모로써 逆襲하였으나 이때 東南쪽 稜線으로부터 突進하는 제6중대와 後續한 제7중대가 合勢하여 死鬪를 벌이기에 이르니 敵은 潰滅상태에 빠져 그들 軍官들이 拳銃을 뽑아 휘두르는 奮戰도 아랑곳 하지 않고 望風敗走하기 시작하였는데, 데미는 이 好機를 타고 一氣에 無名高地(目標)를 탈취하였으니 이때가 15.50이었다.

이로부터 이 高地를 부르기를 제52연대의 別稱인 雙龍의 이름을 따라 雙龍高地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제5중대장 崔基善 대위는 제37연대 제10중대장을 비롯한 一部の 장병들이 끝까지 固守하던 OP壕로 달려갔는데 이壕는 被覆部分이 破壞된채로 중대장 尹吉炳 대위만이 屍體로 누워 있고 다른 장병들의 行方은 杳然하였으나 壕속 壁面에 철모로 판듯한 橫穴孔이 여기저기 있는 것으로 보아 장병들의 최후까지의 勇戰相을 如實히 말하여 주고 있었다.

그런데 이 狀況에 대하여 當時의 제37연대 제3대대장 朴完植 소령은 뒷날 다음과 같이 述懐하고 있다.

『나는 休戰後에 捕虜交換으로 送還된 當時의 제10중대부관을 만났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OP壕로 진입한 중대장과 부관 그리고 FO를 비롯한 20餘名の 장병들은 敵의 抗降強要를 끝까지 拒否하고 抵抗을 계속하자 敵은 入口를 爆破하고壕의 被覆部分을 뜯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장병들은 철모로 壁面에 새로운 구멍을 파고 被覆部分을 뜯는 敵에 사격을 계속하였으나 敵의 수류탄 投擲으로 많은 負傷者가 생겼다. 이 때 중대장 尹吉炳 대위는 捕虜가 되는 恥辱을 참을 수 없다고 말하고 敵이 侵入하는 瞬間까지 抵抗을 계속하다가 最後의 一發으로써 自身の 가슴을 쏘고 壯烈하게 戰死하였다고 한다. 그 때 尹吉炳 대위에게는 2~3歲의 딸이 있었던 것으로 記憶한다.』라고 하였다.

슬프도다. 皇天은 어찌하여 이 勇士들에게 血路를 열어주지 아니하였는고!

한편 대대장 韓完洙 중령은 雙龍高地를 奪取하자 제 5, 제 6 兩중대로 하여금 急編陣地를 占領케 하고 逆襲에 對備하는 한편, 제7중대(장, 金甲元 대위)에게 다시 目標Ⅱ(△A)에 대한 공격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 7중대(장, 金甲元 대위)는 즉각 포문을 연 砲兵의 支援사격아래 東北쪽 400m 距離에 있는 A高地를 目標로 一齊히 躍進하였다.

同一 標高上的 이 稜線은 이미 彼我的 포격으로 焦土化되고 利用할 隱蔽物조차 없기 때문에 중대는 煙幕의 遮障으로 突進하였는데, 이때 雙龍高地에서 敗退한 敵은 昭陽江 南岸의 이 A高地를 橋頭堡로 삼아 我主抵抗線을 계속 壓迫코자 하였음인지 砲擊을 集中하여 頑強하게 저항하였다. 이에 중대는 81mm와 60mm박격포 그리고 75mm 無反動銃의 掩護아래 突進하면서 火力의 集中으로 이 劫火를 制壓코자 하였으나 增援된 1개중대 규모가 突然히 彈幕사격과 기관총의 交叉사격으로 火網을 縈으로써 중대의 공격이 停滯하게 되었다.

이에 중대장 金甲元 대위는 곧 포병의 制壓사격을 要請하는 한편 제2소대로 하여금 계속 直衝케하고 제1, 제3 兩소대를 左右側方으로 迂回케하였다. 중대는 사격을 轉換한 제 66포병대대(장, 宋龍成 중령)의 105mm 野砲가 昭陽江北岸과 △812 一帶를 強打하고 또한 軍단의 支援포병인 8"砲와 155mm 野砲의 對포병 사격으로 敵火가 숨을 죽이는 刹那에 敵線 40m 앞까지 急進하여 중대장을 先頭로 突擊을 敢行하였다. 그런데 이 순간 密集된 敵의 據點에서 一時에 數十發의 수류탄을 퍼부음으로써 一進一退의 紛戰을 벌였으나 그 進展을 보지 못하고 잠시 수류탄의 投擲거리를 벗어나 사격전을 벌이면서 다시 楔入의 好機를 捕捉키로 하였다.

한편 雙龍高地에서 捕虜가 되어 연대로 押送된 北僞 소위 某의 陳述에 의하면 50餘명의 무리가 東北쪽 溪谷의 洞窟巖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대장 張虎崗 대령은 이들을 사로잡도록 命命함으로써 대대장은 제6중대의 2개소대로 하여금 즉시 入口를 閉塞케하고 이들에게 說得과 威脅사격으로 投降을 勸告 하였으나 頑強하게 抵抗하자 17.50에는 지원 公병소대로 하여금 TNT로 洞窟을 폭파하여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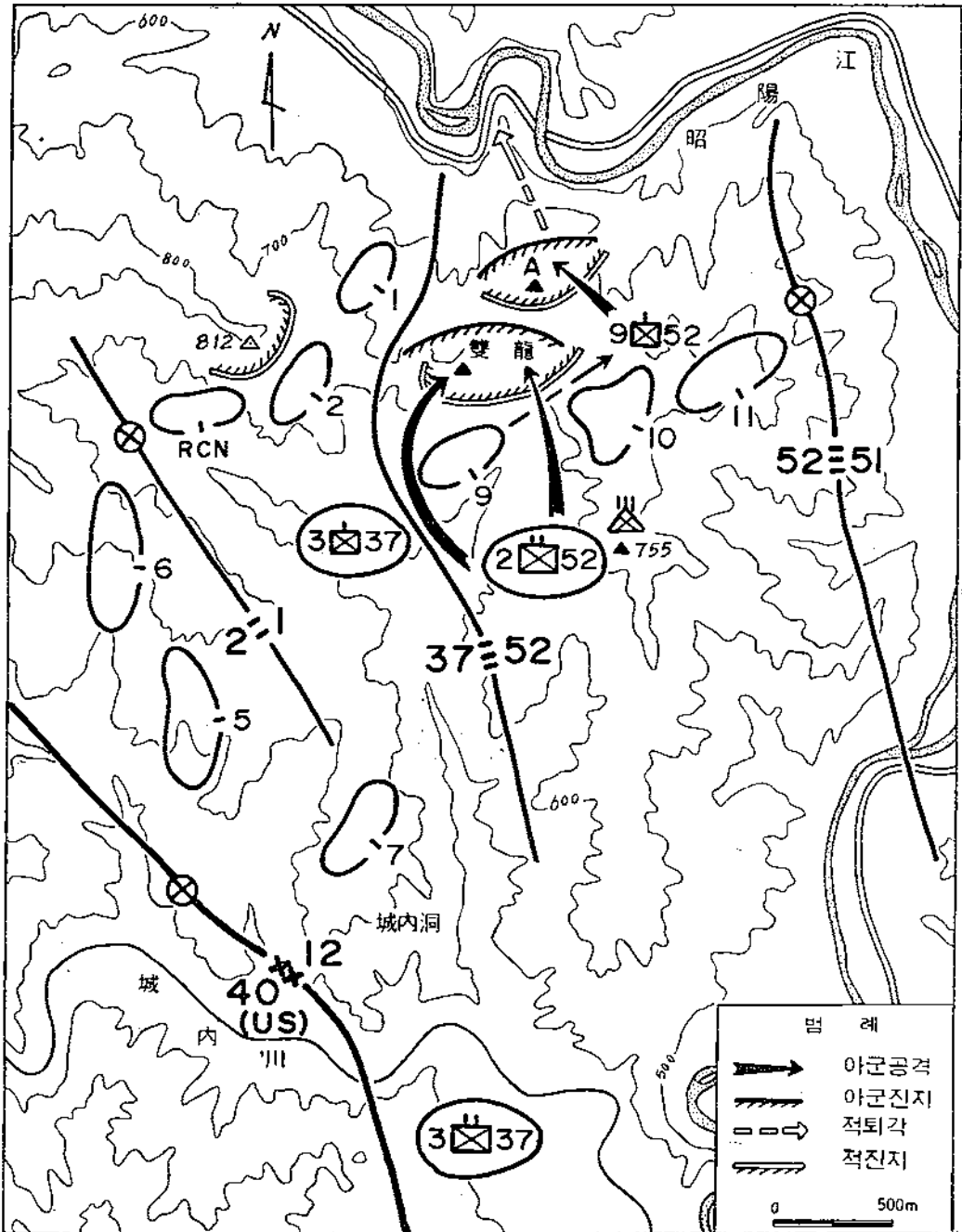
이날 전투에서 대대는 119具의 遺棄屍體를 확인하고 4명을 捕虜로 하였으며 重기관총 3정과 輕기관총 8정 그리고 多發銃 15정과 소총 10정을 鹵獲하는 전과를 거두었으며 반면에 戰死 47명에 戰傷 223명의 損失이 있었다.

6월 9일 : 이날 제52연대(장, 張虎崗 대령)는 제2대대(장, 韓完洙 중령)로써 A高地에 대한 공격을 再擧케 하였으나 그 進涉을 보지 못하자 主力을 △755로 轉進케 한 다음, 主抵抗線을 확보한 제 3대대(장, 李康煥 소령)로 하여금 이를 공격케 하여 A高地를 奪取하는데 成功 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戰線進出 3日 만에 △812 東쪽 稜線上的 主陣地를 완전히 恢復하기에 이르렀다.

1. 제2대대의 상황

제2대대(장, 韓完洙 중령)는 제5, 제6 兩중대가 계속 雙龍高地를 확보하고, 제7중대(장,

◇ 상왕도 제11호 雙龍高地부근 戰鬪(6.8~9)



金甲元 대위)가 A高地的 敵과 近接한채로 사격전을 벌이면서 急衝의 好機를 捕捉코자 하였
다. 그런데 04.10에 도리어 1개소대 규모가 증대를 奇襲함으로 近接戰으로 이를 격퇴하는

즉시 一齊히 躍進하여 敵을 追擊하면서 A高地로 急衝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頑強한 저항과 집중포격으로 進展을 보지 못하고 一進一退의 激戰을 거듭하였는데 死傷者가 續出하기에 이르자 다시 煙幕遮障下에 接觸線을 離脫하여 雙龍高地로 도라갔다. 그런데 이때 제3대대로 하여금 A高地의 敵을 剔抉키로 한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대대는 전날에 交戰이 크지 않은 제6중대(장, 尹夏榮 대위)를 殘廢하고 12.00에는 △755로 撤收하여 연대 예비가 되었다.

2. 제3대대의 A高地 奪還

제3대대(장, 李康煥 소령)는 7일 21.45에 제37연대 제3대대의 陣地를 인수하고 △812 東쪽 稜線一帶를 확보하여 雙龍高地를 강점한 敵과 對峙한채 제2대대의 逆襲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이날 제2대대의 主力이 △755로 撤收하기에 이르자 대대장 李康煥소령은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一部병력으로 A高地를 剔抉한 다음 前哨陣地로 확보키로 하고 배속된 제6중대로 하여금 계속 雙龍高地를 확보케 하는 가운데 제9중대(장, 朴勝熙 대위)에 A高地 탈취를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9중대장 朴勝熙 대위는 제3소대를 공격 제1선으로 하고, 제1소대는 이를 後續토록 한 다음, 공격준비사격이 延伸되는 15.00를 期하여 제6중대의 陣地線을 통과하면서 一齊히 躍進하였다. 이때 北倭 제1사단 제3연대 제3대대 隸下로 추정되는 증강된 1개 중대규모의 敵은 맛잇한 稜線上의 공격軸線을 阻制하는 유리한 지형에서 야포와 120mm 追擊砲의 彈幕을 이루는 가운데 4정의 기관총으로 화망을 쏘며, 중대의 突進을 阻止코자 하였다. 중대는 흰 縋帶를 감아라던 왼손을 계속 흔들며 陣頭지휘 하는 중대장에 뒤질세라 躍進에 躍進을 거듭하여 火焰속을 뛰어 넘었는데 陣前 40m에 이르자 敵은 例의 수류탄 雨霽을 퍼부음으로써 死傷者가 續出하고 攻勢가 頓挫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중대장 朴 대위는 이곳에서의 停滯는 全滅이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고 後續하는 제1소대를 西側方으로 迂回케 하는 한편, 그 自身은 제3소대를 指揮하고 正面에서 돌격하였다.

敵은 發惡的으로 全火力을 亂射하였으나 兩面에서 殺到하는 중대의 威勢에 마침내 壓倒되어 그들 화력이 分散되고 기관총은 特攻組의 肉彈공격으로 沈黙하고 말았다. 이 好機를 捕捉한 중대는 敵線을 突貫하는 즉시로 屠戮을 벌리니 督戰에 견디지 못한 그들은 한때나마 저항을 피하였으나 戰意가 이미 衝天한 중대앞에 敵手가 되지 못하고 潰散하기 시작하였으니 이때가 17.50이었다.

이리하여 중대(一)는 砲兵과 박격포의 계속적인 制壓사격 아래 부근一帶를 搜索하여 전과를 확대하고 19.20에는 前哨陣地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날의 戰鬪에서 중대(一)는 遺棄屍體 10具를 확인하고 推定殺傷 37명, 重기관총 1정, 輕기관총 3정, 多發銃 3정을 鹵獲하는 戰果를 거두었으며 戰死 4명, 戰傷 43명의 損失을 보았다.

(2) 第2次戰 (53년 7월 16일~17일)

가. 작전 계획

제52연대(장, 張虎崗 대령)는 사단 作指 제57호(6.7.12.00)에 의거하여 6월 7일 20.00附로 제37연대의 一部陣地를 인수하고, 사단 中央 左一線으로 진출하여 다음날에는 그 예비인 제2대대(장, 韓完洙 중령)로써 雙龍高地로 逆襲하고, 이를 탈취한바 있다.

그런데 연대는 사단 作命 제13호(6.12.12.00)에 의거하여 제37연대(장, 金在命 대령)의 主陣地를 또다시 인수케됨에 따라 연대장 張虎崗 대령은 要旨 다음과 같은 作命 제15호를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6월 14일 12.00를 期하여 左隣接인 제37연대의 陣地를 인수하려 하다.

② 제3대대는 右제1선으로써의 現任務를 계속 遂行하다. 但 연대수색중대가 배속되는 즉시로 제37연대 제1대대陣地를 인수할 준비를 갖추다.

③ 제2대대는 6월 13일 03.00를 期하여 제37연대 제2대대 陣地를 인수하라.

④ 사단예비인 제1대대는 6월 12일 24.00에 제37연대 제3대대의 陣地를 인수하는 즉시로 연대에 복귀한다.

⑤ 연대 수색중대는 6월 13일 03.00附로 제37연대 제9중대와 任務를 交代하는 즉시로 제3연대로 부터 배속이 解除된다. 但 복귀하는 즉시로 제3대대에 배속한다.

⑥ 제37연대 제1대대는 6월 12일 12.00附로 연대에 배속된다. 但 現임무를 계속 수행하되 14일 13.00를 期하여 제3대대에 陣地를 인계하고 原隊로 복귀하라.

⑦ 제66포병대대는 연대를 직접지원하고 제95포병대대 및 군단 支援포병은 一般支援할것이다. 但 火力의 優先權은 연대에 있다.

⑧ 사단 重砲중대의 1개소대가 연대를 직접지원한다.

⑨ 美 제140전차대대의 B중대가 연대를 지원한다.

⑩ 要請에 따라서 美 空軍의 항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⑪ 交代間, 無電沈黙을 嚴守하라.

⑫ 연대 CP는 加田里에, OP는 △755에 位置한다.』

이리하여 연대는 제3대대(장, 申榮祚 소령)를 右제1선, 제2대대(장, 韓完洙 중령)를 左제1선, 제1대대(장, 鄭順基 소령)를 예비로 部署하고 사단左一線으로써 昭陽江西岸—雙龍高地—△812前面—△758—城內川 北岸에 이르는 戰鬪地域을 담당하여 陣地를 補強하는 한편 熾烈한 砲兵支援下에 夜間수색과 潛伏을 強化하여 捕虜獲得에 注力하면서 △812에 대한 逆襲대세를 갖추었다.

그런데 7월로 접어들면서부터 前後方에서 敵의 활발한 움직임이 航空偵察로 확인되기에

이르자 이를 공세징후로 판단하고 연대장 張虎崗 대령은 오랜 동안 사단 및 연대 예비로 있던 제1대대를 一線으로 進出시켜 雙龍高地와 △812 正面에 대한 防禦태세를 強化시키기로 決心하고 7월 5일 05.00附로 제3대대의 陣地를 인수토록 명령하였다.

이로써 제1대대(장, 鄭順基 소령)는 배속된 연대 수색중대로 右 제 1선에, 제1중대(장, 林順洙 중위)를 中央 右 제1선에, 제1중대(장, 韓昇源 대위)를 中央 左 제 1선에 전개하여 △812 東쪽 稜線상의 雙龍高地를 비롯한 主陣地帶를 점령케 하고, 제2중대(장, 金用環 대위)를 左 제1선으로 하여 △812前斜面을 확보케 하였다.

이때 연대 예비로 전환된 제3대대(장, 申榮祚 소령)는 主力을 △755附近에, 제10중대(장, 曹永喆 대위)를 雙龍高地 南쪽 稜線下麓에 각각 배비하여 예비陣地를 확보케 하고 防禦縱深을 유지하였다.

이 무렵 연대에 작전임무를 인계한 제37연대(장, 金在命 대령)는 사단예비로 轉換되었다가 右 제1선을 담당한 제3연대 제3대대(장, 朴垂華 중령)가 배속 解除됨에 따라 그 主力은 6월 16일 03.00附로 그 陣地를 인수하였으며 그 제1대대는 사단 예비로써 瑞和里에서 待機 中에 있었다.

한편 제79포병대대(장, 林相朝 중령)가 陸本作指 제339호에 따라 6월 14일부로 사단포병단(장, 李壽權 대령)에 隸屬케 됨에 따라 美 제143포병대대의 작전임무를 인수케 하여 제51연대(장, 金 憲 대령)를 직접지원케 하였으며, 또 제66포병대대가 右一線 연대를, 제65포병대대가 左一線인 제52연대를 각각 직접지원케 하였는데 이에 따라 제95포병대대를 비롯한 軍단 支援포병은 사단을 일반지원토록 하였다.

이 무렵 當面の 敵은 第 1次戰에서와 같이 北傀 제1사단으로서 그 제 2연대(장, 중좌 朴魯晉)를 右一線에, 제3연대(장, 대좌 金敬模)를 中央 一線에, 제14연대(장, 대좌 高基煥)를 左一線으로 하여 사단과 對峙하고 北傀 제 3군단 直轄 제31砲兵연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推斷되었다.

이들은 我군의 航空支援이 제 2군단(장, 丁一權 중장) 正面으로 集中되자 陣地의 補強工事に 전념하면서 侵攻준비에 狂奔한 것으로 보였는데 이때의 敵情에 관하여 捕虜가 된 北傀 軍官 某가 陳述하기를 『군단예비인 제45사단 제91연대 主力과 제1사단 제14연대 제 2대대 그리고 제2연대 제3대대가 侵攻부대로 選拔되어 巫山附近에서 實戰을 彷彿케 하는 맹혼 陣중에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 陳述은 敵의 徵候와 그동안 收集된 諜報로 미루어보아 是認되었으므로 그 공격목표가 △854—雙龍高地일 것으로 判斷되었다.

나. 작전 실시

7월 16일 : 美 제5空軍의 근접지원이 격전을 전개중인 제2군단(장, 丁一權 중장) 正面으로 집중됨을 틈타 1週日前부터 執拗하게 계속된 敵의 파괴사격은 이날도 사단 全正面에 걸쳐

熾盛을 부렸는데 22.30부터 제52연대(장, 張虎崗 대령) 正面에 10분간에 무려 5,000發로 推算되는 야포, 박격포 그리고 小口經 直射砲彈을 集注하였다. 이 포격으로 말미암아 障礙物지대가 파괴되고, 交通線와 散兵壕의 殆半이 무너졌으며 有線網은 여러곳이 斷絶되었는데 포격이 延伸되면서 △812 附近의 敵線에서는 靑色信號彈 3發이 하늘높이 솟았다.

이를 공격信號로 看破한 연대장은 즉시 제압사격을 요청하였으므로 이때를 期해 咆哮하기 시작한 제65포병대대(장, 朴鳳煥 소령)의 105mm 야포와 重박격포중대(장, 嚴今世 대위) 제1소대의 4.2"박격포는 △812 一帶와 雙龍高地 北쪽의 昭陽江邊에 탄막을 펴기 시작하고 제95포병대대(장, 全安民 소령)와 軍단 支援포병은 敵陣을 계속 强打함으로써 그 砲聲은 山野를 震動하고 火焰과 閃光은 밤하늘을 붉게 물드렸다. 그러나 2개 중대규모의 敵은 △812 東北쪽 稜線으로 潛入하여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어서 雙龍高地 東北쪽 稜線과 北쪽 稜線으로 侵襲하기 시작하였음이 제1대대로부터 急報되었다.

이에 연대장 張虎崗 대령은 敵의 主攻이 제1대대 正面으로 지향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一舉에 捕捉하여 격멸키로 한 要旨 다음과 같은 緊急명령을 하달하였다.

- 『① 敵은 증강된 1개 대대규모로써 제1대대 正面으로 공격중이다.
 ② 연대는 이 敵을 陣前에서 捕捉하여 격멸하려 한다.
 ③ 제1대대는 現陣地線을 固守하라.
 ④ 제2대대는 경계를 強化하고 제1대대에 火力支援하라.
 ⑤ 제3대대는 增援과 逆襲태세를 갖추라.
 ⑥ 연대 OP는 △755에 位置한다.』

1. 제1대대의 상황

제1대대장 鄭順基 소령은 포격의 延伸과 동시에 敵의 侵襲으로 戰機가 到來하자 포병의 遮斷사격을 즉각 誘導하여 敵線을 强襲하는 一方, 박격포의 照明彈을 계속적으로 하늘높이 쏘아 올리면서 『각 중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現陣地를 固守하라』고 大號하였다.

제1중대(장, 韓昇源 대위)는 雙龍高地에서 △812에 이르는 稜線上에 主陣地를 확보하였는데 공격준비 사격에 뒤이어 敵線에서 靑色信號彈이 오름을 發見하자 중대장은 敵의 공격이 雙龍高地 北斜面과 西쪽으로 良好한 接近路를 掩扼한 중대 正面으로 지향될 것으로 판단한 다음 각 소대장을 無電으로 불러 『潛伏組를 즉각 撤收시키고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號令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제2소대를 右 제1선에, 제1소대를 中央 제1선에, 제3소대를 左 제1선에 각각 部署하여 무너진 塹壕의 一角에서 決戰태세를 갖추었는데 10분이 경과한 22.50에 드디어 2개 중대규모가 △812 東北쪽 稜線을 따라 侵襲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하늘높이 솟아 오르는 迫擊砲의 照明으로 誘導된 105mm와 重박격포의 遮斷사격은 △812 北斜面과 雙龍高地의 北斜面 一帶를 불길로 뒤덮었으나 敵은 △812로부터 직사포와

기관총사격을 퍼붓는 가운데 左 제1선인 제3소대 正面으로 衝勢를 집중하였다.

이에 중대는 즉각 전환된 포병의 彈幕사격아래 最後阻止사격을 敢行하여 擊碎코자 하였는데, 23.00에 이르러 그 先鋒으로 보여지는 1개소대 규모의 敵이 제3소대 正面을 急襲함으로써 소대는 수류탄의 集中投擲으로 一擊에 물리치고 사격을 集中하여 드디어 決定的인 打撃을 주었다. 그러나 이때에 迂回한 2개소대 규모가 西側方으로 侵攻하여, 다시 밀려들었다.

이리하여 正面과 西側方으로부터 挾撃을 받기에 이른 소대는 대대와 제2대대 박격포의 집중지원과 소대장 吳基東 소위의 지휘하에 소화력을 집중하고 수류탄의 連續投擲으로 공격의 一波를 破碎하는 血戰을 벌였으나 화력의 分散을 免치 못하여 △812로부터의 側射로 打撃을 받은 西側方의 陣地一角이 무너지면서 2개소대규모의 敵이 陣內에 侵襲하였다.

이에 소대장 吳소위는 앞서 달려나가면서 Car M-2를 連射하고 『突擊 앞으로』를 絶叫하였다. 兵士들은 이순간 소대장에 뒤질세라 앞을 다투어 壕에서 躍出하는 즉시 敵中으로 뛰어들어, 格鬪를 벌리기에 이르렀으니 이때가 23.20이었다.

이에 앞서 중대장 韓昇源 대위는 敵의 侵勢가 제3소대 正面으로 계속 集中되자 제1, 제2兩소대에서 抽出한 2개분대로 지원대를 急編하고 중대부관 申福伊 중위의 指揮下에 제3소대를 증원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대는 彈雨 속을 뚫고 急進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그들이 陣內로 侵襲하여 混戰中이었으므로 제3소대의 陣地一角으로 突入하면서 正面으로 계속 밀어닥치는 敵主力에 화력을 퍼부어 이를 阻止하는 一方, 紛戰하는 제3소대의 後方을 掩護하였다. 이때 제3소대는 치고 쪼르는 死鬪를 거듭하였으나 계속 陣內로 侵襲한 1개중대 규모의 敵으로 말미암아 危機가 急迫하기에 이르렀으므로 急進한 지원대의 掩護下에 直路를 開拓하고 물러서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대장 鄭順基 소령은 대대에 배속된 제10중대(장, 曹永喆 대위)를 雙龍高地 南쪽 稜線으로 急進시켜 遮斷陣地를 점령케하는 한편, 제1중대의 正面을 좀허 據點防禦하되 제10중대와 連繫를 維持하고 계속적인 侵襲을 차단하여 격멸토록 명령하였다.

이로써 제1중대는 OP가 位置한 雙龍高地의 主峯을 中心으로 密集防禦태세를 갖추고 西쪽 稜線과 西北쪽으로부터 계속 侵襲하면서 突破口를 擴張코자 하는 敵과 또다시 激突하였다. 이때에 제3중대(장, 林順洙 중위)의 제3소대는 A高地에 前哨陣地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敵은 제1중대 正面에 대한 공격에 뒤이어 東北쪽 稜線으로 1개중대 규모를, 그리고 A高地 北쪽 稜線으로 1개소대 규모를 또 東側方으로 1개소대 규모를 각각 投入하여 三面으로 소대를 包圍하면서 侵攻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소대는 橢圓形陣地를 점령하고 즉각 誘導된 포병의 遮斷사격과 迫撃砲의 近接支援下에 기관총 3정을 主軸으로 한 소화력으로 그들을 陣地에서 격퇴코자 하였다.

그러나 兵力面에서 우세한 敵은 昭陽江 北岸 一帶로부터의 적사포의 지원을 받아 포위망

을 壓縮하면서 陣前으로 밀려 들었으므로 소대장 金多木 소위는 병사들의 어깨를 일일이 두들기며 『우리들의 무덤이 바로 여기다. 우리 모두 죽음을 甞悟하고 여기를 攻守하자』고 격려하였다.

마음의 平穩을 되찾은 병사들의 박격포의 照明彈이 하늘 높이 솟아 敵影이 露出되자 照準사격으로 一發一殺의 여유마저 보이며 奮戰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소대의 緊迫한 상황을 勘案하게 된 중대장 林順洙 중위는 左 제1선인 제2소대 一部를 北쪽 봉우리로 急進시켜 화력을 지원토록 함으로써 더욱 戰意를 높이게 된 소대는 화망을 뚫고 近迫하는 敵에게 수류탄을 퍼부어 一舉에 격쇄하고 銃劍으로 刺殺하는 勇戰도 벌였다.

이리하여 소대는 堅守不動의 태세를 固守하면서 5배의 敵이 거듭하는 波狀공격을 그때마다 擊退하고 子正을 맞기에 이르렀다.

제2중대(장, 金用環 대위)는 대대 左 제1선으로써 제1중대와 連繫을 維持하고 △812東쪽으로부터 東南쪽 稜線에 걸친 主陣地를 확보 하였는데, 23.20에 제1중대의 左側方이 突破되기에 이르자 敵은 △812로부터 기관총과 직사포사격을 집중하는 가운데 2개중대 규모로써 東쪽 稜線을 타고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중대는 右側方이 露出된 不利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나 매마침 出擊한 B-26輕폭격기가 △812一帶를 強打하여 이를 制壓하고 또 雙龍高地의 南쪽 稜線에 遮斷陣地를 점령한 제10중대가 側方을 화력으로 掩護하기에 이르자 소화력으로 陣前에서 捕捉 擊滅코자 必死의 激戰을 벌였다.

그러나 敵은 제1중대 陣地를 突破한 一部가 右側方으로 挾擊하는 가운데 衝勢를 右 제1선인 제2소대 正面으로 집중함으로써 소대는 苦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중대장 金用環 대위는 예비인 제3소대를 增援케 하는 한편 포병의 彈幕사격을 요청하였다.

이리하여 즉각 轉換된 野砲와 4.2"迫擊砲의 十字砲火가 순식간에 敵을 火焰속으로 휘말아 버렸으나 彈幕地帶를 벗어난 一團이 執拗하게도 陣前으로 殺到함으로써 중대(一)는 중대장 金대위의 大號一聲에 唾手發奮하여 最後 阻止사격으로 화망을 퍼고 수류탄을 連投하면서 一進一退의 血戰을 벌리기에 이르렀다.

한편 제10중대(장, 曹永喆 대위)는 雙龍高地 南쪽 稜線下端에 예비陣地를 점령하고 △812 正面에 대한 지원태세를 갖추었으나 제1중대의 左 제1선인 제3소대 陣地가 突破되기에 이르자 연대장의 緊急명령으로 雙龍高地 南쪽 稜線으로 急進하는 즉시 據點防禦에 돌입한 제1중대와 連繫을 유지하고 突破口를 擴張코자 侵襲을 거듭하는 一隊에 화력을 집중하여 이를 阻止하였다. 그런데 이때 △812 前斜面을 담당한 제2중대가 右側方이 露出된채 挾擊을 받아 苦戰하기에 이르자 기관총 사격으로 該 중대의 右側背를 掩護하였다.

2. 제3대대의 상황

제3대대(장, 申榮祚 소령)는 이날 연대 예비대로써 제9중대(장, 朴勝熙 대위)를 △755

에 제11중대(장, 柳範烈 대위)를 그 西南쪽 稜線에 그리고 제10중대(장, 曹永喆 대위)가 雙龍高地 南쪽 稜線의 下麓에 각각 배치하여 제1대대의 防禦縱深을 유지하고 增援과 逆襲 태세를 갖추었다.

그런데 이날 23.20에 제1중대의 一部陣地가 돌파되기에 이르자 『貴대대는 제10중대로 하여금 雙龍高地 南쪽 稜線으로 急進시켜 제1대대에 배속하라』는 연대장의 緊急명령에 따라서 대대장 申榮祚 소령은 즉시 제10중대에 진출을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彈雨속을 뚫고 南쪽 稜線으로 進擊하는 즉시로 제1대대에 배속되어 突破口 擴大를 阻止하기에 이르렀다.

7월 17일 : 제1대대(장, 鄭順基 소령)는 陣地一角으로 侵入한 敵을 驅逐코자 奮戰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雙龍高地가 또다시 喪失되고 敵의 優勢가 점차 擴大되는 가운데 제3중대마저 據點防禦로 轉換되기에 이른 急迫한 상황속에서 全대대는 一進一退의 苦戰을 벌리게 되었는데 이때를 期해 사단砲兵의 TOT사격이 奏効하여 대대는 突破口 擴大를 阻止하는데 성공케 되었다. 이에 사단장 尹春根 준장은 雙龍高地 一帶를 強占한 一團이 이곳을 基點으로 새로운 攻勢를 企圖할 것으로 判斷하고 제37연대(장, 金在命 대령)의 1개대대를 急進시켜 연대에 배속하여 赴援토록 조치하였다.

이리하여 연대는 제37연대 제3대대로 하여금 昭陽江邊의 ㉔高地—△755—㉕高地—㉖高地에 이르는 제2 防禦線을 占領케 하였으며, 제3대대(장, 申榮祚 소령)의 一部로써는 雙龍高地에 대한 逆襲을 敢行케 하였으나 그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1. 제1대대장 鄭順基 소령은 이날 現陣地線의 固守를 大號하면서 각 중대의 奮鬪를 督勵하였다. 그러나 敵의 優勢는 漸次로 擴大되어 全正面에 걸쳐 一進一退의 防攻戰을 벌리기에 이르렀다.

즉 제1중대(장, 韓昇源 대위)는 前半夜에, 左 제1선인 제3소대의 陣地가 突破되자 正面을 據히 雙龍高地에서 據點防禦로 轉換하고 急進한 제10중대와 連繫을 유지한채로 敵을 徹 速阻止하여 이를 격퇴코자 하였다.

그런데 敵은 00.30에 박격포와 직사포의 포격을 집중하면서 隊伍를 가다듬는듯 하더니 1개중대 규모가 제10중대와 制限點으로 밀려들어 중대의 增援과 退路를 遮斷하고 또 다른 1개중대 규모는 西쪽 稜線으로부터 侵攻하기 시작하였다.

危機를 맞은 중대는 陣頭에서 怒號 叱咤하는 중대장의 大號一聲에 힘입어 舍死力을 집중하고 이를 陣前에서 격멸코자 하였으나 敵의 先頭는 이에도 狗得됨이 없이 방망이 수류탄을 던지면서 陣內로 突入하므로 중대는 예비인 제3소대로 하여금 白兵으로 이를 驅逐코자 하였는데 이때 제10중대와의 間隙으로 侵襲한듯한 敵의 一部마저 陣內에 楔入하여 突破口가 漸次로 擴大되면서 全중대는 死鬪의 최오리 속에 말려들고 말았다.

이리하여 中대는 左衝右突의 混戰을 벌렸으나 사상자가 속출하여 전력의 限界에 다달음

으로써 00.50에는 제3중대의 掩護下에 그 東南쪽 山麓으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 激戰의 渦中에서도 중대는 遺棄屍體 18具를 확인하고 推定殺傷 60명, 捕虜 2명의 전과를 거두고 戰死 32명, 戰傷 73명의 損失을 보았다.

제3중대(장, 林順洙 중위)의 제3소대는 이날 5倍兵力의 敵을 近接戰으로 물리치고 A高地를 계속 확보하였다. 그런데 A高地의 奪取를 縮念한 듯한 敵은 2개소대 규모로 牽制하면서 1개중대 규모로 A高地의 左右 兩側方으로 迂回하여 主抵抗線으로 밀려들었다.

이에 ㉠高地를 점령하고 제3소대를 화력지원중인 제2소대 主力은 全火力으로 이를 陣前에서 阻止하고 박격포사격을 유도하여 큰 타격을 주었으나 이때 雙龍高地의 제1중대가 混戰을 거듭하기에 이르자 後方遮斷을 우려한 중대장은 곧 소대의 主陣地복귀를 命命하였다

이에 따라 소대는 00.50에 ㉡高地로 물러나 제1중대(장, 韓昇源 대위)의 撤收를 掩護하였는데 雙龍高地를 奪取한 敵은 그 侵勢를 더하여 소대의 西側方으로 계속 侵襲하고 正面의 敵 또한 陣地線으로 밀어닥쳤다. 이에 소대는 즉각 誘導된 박격포의 掩護사격 아래 一齊사격과 수류탄의 効用으로 이를 격퇴코자 紛戰하였으나 원래 地形이 不利하여 이를 固守하기가 어려웠다.

이때 戰況의 推移를 銳意注視하던 대대장 鄭順基 소령은 즉시 중대장에게 據點防禦를 명령하기에 이르렀으며 중대장은 소대를 또다시 철수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01.20에 이르러 右隣接인 연대 수색중대와 連繫를 유지하고 ㉠高地에 據點을 확보한채로 △812 東쪽 稜線一帶를 席捲코자 하는 敵의 계속적인 衝勢를 맞아 격전을 벌였다. 그런데 이때(01.30)에 上空에 出擊한 C-46機가 照明彈을 계속 投下하게 되어 戰意를 새롭게 한 중대는 사격을 集中하여 敵을 陣前에서 阻止한채 수류탄을 퍼부어 그 一波를 격퇴하였는데 01.40에 사단포병이 이미 喪失한 雙龍高地—㉠高地—㉡高地 一帶에 VT 彈에 의한 効力射를 퍼붓기 시작함으로써 敵은 마침내 溪谷으로 望風敗走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侵襲하는 무리들을 물리치고 西側方과 北斜面으로 集中되는 81mm 박격포의 계속적인 遮斷사격 아래 ㉠高地固守의 決意를 굳게 다지었다.

한편 A高地의 前進陣地를 堅守한 제3소대는 계속적인 敵襲을 물리쳤는데 그들이 雙龍高地一帶를 強占하기에 이르자 2개소대 규모를 增援하여 또다시 三面으로 포위 공격하였다.

소대는 無電機마저 파괴된 孤立된 상황 아래 銃劔과 수류탄으로 近迫하는 敵을 거듭 물리쳤으나 06.30에는 그 전력이 限界에 다달아 敵이 陣內로 侵襲하기에 이르므로 格鬪 끝에 포위망을 돌파하고 ㉠高地의 主力과 合勢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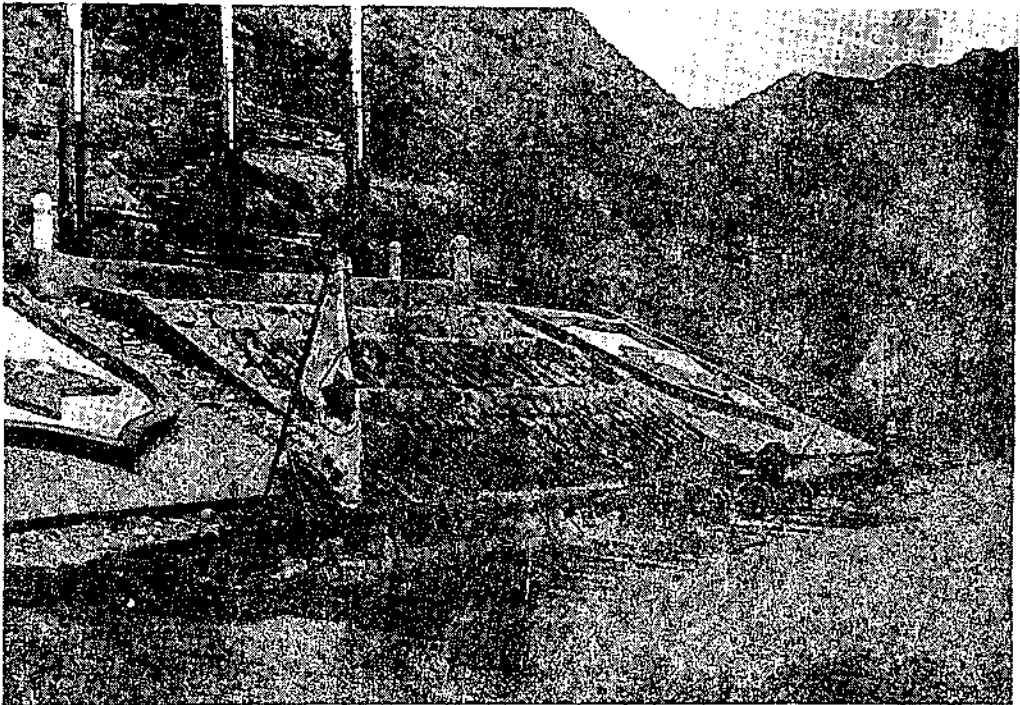
이날 전투에서 중대는 이 遺棄屍體 26具를 확인하고 아울러 推定殺傷 57명의 戰果를 거두었으며 그 反面에 戰死 15명, 戰傷 63명의 損失을 보았다.

제2중대(장, 金用環 대위)는 △812 前斜面上의 主陣地를 확보 한채로 正面으로 밀려드는 2개중대 규모와 제1중대 陣地를 탈취한 敵의 挾擊을 받았으나 제10중대의 掩護下에 近接

戰을 벌여 一炬 이를 격퇴하였다. 그런데 00.50에 雙龍高地를 탈취한 敵이 東北쪽으로 侵襲한 무리들과 合勢하기에 이르자 舍대대 正面을 一舉에 席捲코자 제3중대의 西側方과 제10중대의 正面, 그리고 중대의 右側方으로 侵攻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그때까지 隱伏中이던 △812의 敵은 기관총과 적사포를 陣內에 집중하기에 이르니, 狂風이 전내를 휘몰아 치기에 이르렀다.

이에 중대장 金用驥 대위는 포병의 彈幕사격과 敵火에 대한 制壓사격을 緊急 요청하는 한편 모든 自動火器의 最抵表尺 사격을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炸裂하는 포탄이 뒤덮는 가운데 4정의 기관총을 主軸으로한 모든 火器가 불을 뿜기 시작하였으며 01.40에 雙龍高地 一帯에 대한 VT 彈의 TOT 사격에 이어 중대 正面으로도 포병의 効力射가 집중되니 그들은 支撐하지 못하고 北쪽의 稜線넘어로 潰退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중대는 이날 地勢의 不利를 무릅쓰고 1개대대 규모의 侵勢를 물리치고 陣地를 固守한 殊勲중대가 되었다.

제10중대(장, 曹永喆 대위)는 前半夜에 제1중대의 一部陣地를 喪失하게 되자 雙龍高地南



〈函獲한 兵器들〉

쪽 稜線으로 急進하여 제1중대와 連繫하고 火力을 집중하여 계속적인 敵侵을 阻止하면서 △812 前斜面에 있는 제2중대의 側方도 아울러 엄호하였다. 그런데 00.30에 제1중대 正面에 대한 공격과 때를 같이한 1개중대 규모의 제1중대와의 間隙으로 밀어닥치므로 제1, 제3 兩소대는 一齊히 수류탄을 던지면서 邀擊하여 肉迫戰을 벌인 끝에 陣內侵透를 阻止하였

다. 그러나 00.50에 제 1 중대가 主抵抗線에서 물러서고 雙龍高地가 그들의 掌中으로 넘어가자 또다시 중대 正面으로 밀어닥쳤다.

이에 중대는 제 65포병대대(장, 朴鳳煥 소령)와 제 3대대 81mm 박격포의 집중지원下에 一進一退의 격전을 벌였는데 01.40에 雙龍高地 一帶에 소사단 砲兵의 効力射가 감행되기에 이르자 이를 一擊에 격퇴하고 陣地를 固守한 채 포병의 계속적인 掩護사격下에 雙龍高地의 敵과 사격전을 벌였다.

연대 수색중대는 제 1대대에 배속된 以來로 右제 1선으로써 昭陽江邊의 ㉔高地에 主陣地를 ㉕高地에 前哨陣地를 각각 확보하였는데, 前半夜부터 계속된 散發的인 牽制공격을 물리치고 제 3중대와 連繫를 유지한채 主陣地를 계속 확보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01.40에는 敵의 攻勢를 一擊에 擊退하고 연대 수색 중대가 右제 1선으로써 高地를 제 3중대(장, 林順洙 중위)가 中央右제 1선으로써 高地를 각각 점령하여 △812 東쪽 稜線上의 東端을 계속 확보하고, 제 10중대(장, 曹永喆 대위)가 中央 左제 1선으로써 雙龍高地 南쪽稜線을 확보하여 突破口를 彌縫하였으며 제 2중대(장, 金用環 대위)는 左제 1선으로 △821前斜面을 확보하여 포병의 熾烈한 掩護사격 아래 突破口의 확장을 阻止하였다.

2. 제 37연대의 增援

포병의 集中포격과 제 1대대(장, 鄭順基 소령)의 奮戰으로 突破口의 擴大를 妨害하고 △812 東쪽 稜線의 東端과 同高地 前斜面을 계속 확보하였으나, 增強된 1개대대 규모가 雙龍高地 一帶를 占領하기에 이르자 사단장 尹春根 준장은 必是 이곳을 攻勢基點으로 삼고 계속적인 공격이 恣行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비하여 강력한 예비陣地를 확보키로 한 다음 作指 제 66호로써 제 37연대(장, 金在命 대령)의 예비대대를 急進시켜 제 52연대에 배속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 37연대 제 3대대(장, 朴柱興 중령)가 04.30에 西希口에 進出하자, 연대장 張虎崗대령은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現防禦線을 固守하면서 예비陣地를 확보하여 敵의 공세를 격쇄하려 한다.

② 제 1대대는 如何한 難關도 克服하고 現陣地를 고수하라.

③ 제 3대대는 현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1개 중대로써 雙龍高地에 逆襲을 敢行할 준비를 갖추라.

④ 제 2대대는 境界를 強化하고 현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⑤ 제 37연대 제 3대대는 17日 06.00를 期하여 右로는 제 3중대, 左로는 제 5중대와 連繫를 유지하고 예비陣地를 확보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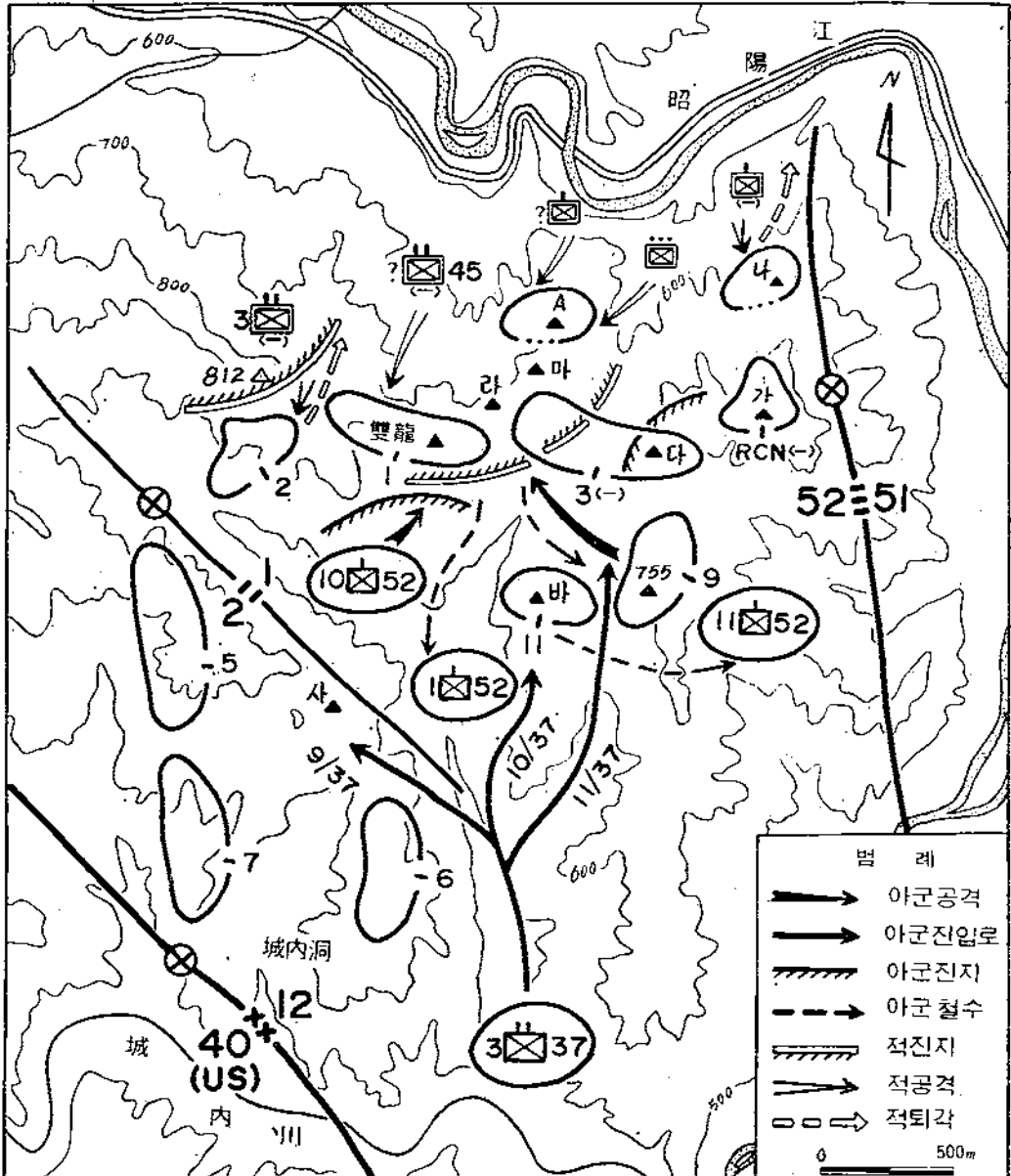
⑥ 協調指示

㉔ 현진지는 別命이 없는限 이를 고수하라.

㉕ 포격에 對備하여 掩體擦를 보강하라.

㉖ 각 중대陣地의 前後左右에 對空標識를 實施하라.

◇ 상황도 제12호 雙龍高地 附近戰鬪(7.16-17)



⑦ 연대 OP는 △755에 位置한다.』

이에 따라 西希口에서 休息할 사이도 없이 進出한 제37연대 제3대대는 06.00에 제11중대(장, 張炳清 대위)를 右제1선에 제10중대(장, 韓廣年 대위)를 中央제1선에, 제9중대(장, 全昇彬 대위)를 左제1선으로 部署하고 右로는 제3중대 陣地의 直後方으로부터, 左로는 제5중대 陣地에 이르는 사이인 △755-㉠高地-㉡고지에 예비陣地를 확보하여 第2線을 防禦키로 하였다.

3. 제3대대의 逆襲

제3대대(一)는 계속 연대 예비로써 △755와 바高地附近의 예비陣地를 확보하고 제1대대의 主陣地가 突破되었을 때의 이의 阻止와 逆襲據點을 확보 하였는데, 06.00에 제37연대제3대대가 進出하여 제2선 防禦陣地를 殲滅하기에 이르자 대대장 申榮祚 소령은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제9중대로 하여금 逆襲을 준비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9중대(장, 朴勝熙 대위)는 연대 수색중대가 확보한 ㉞高地南쪽 稜線으로 진출하여 공격을 준비하였으며, 제11중대(장, 柳範烈 대위)는 △755附近에서 대기하였다. 이때에 彼我間에는 熾烈한 포격전이 應酬되었는데 全사단포병과 軍단지원포병의 對포병사격에도 不拘하고 그들의 포격이 계속 되자 연대장 張虎崗 대령은 사단에 대하여 航空支援을 요청하였다. 이리하여 10.00부터 出擊한 延 18臺의 戰爆機가 12.40까지 5회에 걸쳐 敵의 야포陣地와 雙龍高地 一帶의 敵線을 강타하였으며, 뒤이어 시작된 사단 포병의 공격준비사격이 20분간에 걸쳐 雙龍高地—㉞高地—A高地—△812一帶를 불길로 뒤덮어 개미 한 마리도 살아 남지 못할듯한 壯觀을 이루었다.

포격의 延伸에 應接한 제9중대(장, 朴勝熙 대위)는 제1, 제2 兩소대를 左右공격 제1선으로 하고 제3소대를 예비로 삼아 제3중대 陣地線의 LD를 一齊히 躍進하였다. 그 熾烈한 폭격과 포격에 아직도 命脈을 유지한듯한 敵은 野砲와 迫擊砲를 퍼부우면서 기관총의 十字 火力으로 중대의 進軍을 阻止코자 계속 發惡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彈雨속을 뚫고 돌진하여 西쪽 稜線上의 前進據點으로 밀어닥치면서 수류탄을 퍼부어 1개소대 규모를 격쇄하고 계속 急衝하였으나 14.00에 狹少한 稜線에 다달았을 때에는 敵의 側方火力에 脛쟁이는 바 되어 우선 遮蔽點으로 물러서게 되었다.

이에 중대장 朴勝熙 대위는 敵火를 制壓하고 좀더 效果的인 煙幕遮障下에 공격을 再舉키로 하고 포격을 요청하는 한편, 後續하는 제3소대를 正面으로 直衝케 하는 가운데 제1소대가 北斜面으로 제2소대가 南斜面으로 각각 迂回하여 三面으로 포위키로 腹案을 세웠다.

이윽고 포격을 재개한 야포와 박격포가 敵線을 砂塵과 爆煙으로 휘말아 버리고 잔잔한 바람속에 煙幕이 敵陣을 에워쌓자 중대는 怒號하는 중대장을 先頭로 一齊히 躍進하였다.

이때 熾烈한 포격과 視界의 遮障으로 別다른 抵抗을 보이지 못하던 敵은 중대가 ㉞高지를 三面으로 포위하고 50m距離로 近迫하자 또다시 陣內사격을 彷彿케하는 無差別 포격을 集中하면서 기관총을 亂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發奮한 중대장 朴勝熙 대위는 이곳에서의 停滯는 다만 全滅이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고 앞서 달려나가면서 『突擊앞으로!』를 외쳤고 이에 勇氣百倍한 兵士들은 앞을 다투어 敵線으로 殺到하였다. 그러나 敵은 이에 全火力을 집중하고 수류탄을 계속 投擲하면서 頑強하게 저항하였으며 雪上加霜으로 側方火力이 중대의 側背를 크게 威脅함에 衝勢는 흩어지고 死傷者가 續出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중대는 즉각 誘導된 迫擊砲의 掩護사격 아래 또다시 遮蔽點으로 물러선 다음 21.00

까지 9회에 걸쳐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그때마다 如前한 敵의 저항으로 그 進陟을 보지 못하였다. 이때 연대 OP로 나와 直接作戰지휘에 나선 사단장의 지도에 따른 대대장의 명령으로 중대는 進出線에서 離脫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彼我間에는 一旦 交戰이 中斷되고 또다시 포격전만을 벌리기에 이르니, 그 閃光과 火焰으로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는데, 無心한 天空에는 별빛만이 반짝이고 있었다.

바. 전투후의 개황

△812頂上에 이어 그 東쪽인 雙龍高地마저 掠奪한 敵은 主抵抗線上の 要衝이자 右肩部인 △854도 奪取요자 하듯이 熾烈한 砲擊을 제51연대(장, 金窓 대령) 正面으로 퍼붓더니 7.18, 01.00부터는 増強된 1개대대 규모로써 該高地 一帶를 확보한 제51연대 제3대대(장, 金漢龍 소령) 正面으로 攻勢를 集中하여 그 一部로써 陣內까지 侵襲하였으나, 空中공격과 砲兵支援 그리고 제3대대의 近接戰으로 致命的인 打撃을 입은채 03.50에는 擊退되고 말았다. 그런데 그들은 날로 熾烈하여지는 空中 및 砲兵支援으로 全面공세를 試圖하지 못하기에 이르자, 軍단에비인 北德 제45사단의 一部兵力을 投入하여 소대 및 중대규모로써 探索과 奇襲을 互用하기 시작하였는데 7월 19일부터 同월 27일까지 無慮 77회나 侵襲하였으며 특히 25일 하루에 17회나 侵襲한 바 있으나, 그때마다 我軍의 協調된 火力과 推進潛伏組에 捕捉되어 擊退되었다.

한편 사단은 軍단 作指 제422호에 의거하여 7월 18일 12.00에 美 제10군단에서 參謀訓練중인 再編 제3군단(장, 姜文奉중장)에 배속이 변경되었으나, 軍단이 戰鬪地域을 專擅하지 않은 관계로 美 제10군단의 右翼사단으로써 Minnesota線上的 主陣地를 계속 확보하면서 潛伏과 威力搜索을 強化하여 계속적인 敵侵을 擊破하고 雙龍高地와 △812頂上을 恢復키 위한 戰鬪를 捕捉요자 하였다. 그러나 끝내 戰鬪가 무르익지 못하여 恢復攻撃을 斷行하지 못한채 休戰이 臨迫하자 27일 21.00부터 保有彈藥이 다 하도록 集中砲擊과 아울러 全火器의 速射로써 敵線을 強打함으로써 가슴 깊이 맺어진 鬱憤을 풀기로 하였다. 그런데 27일 22.00 正刻을 期해 彼我間의 銃砲火가 一時에 終熄되자 山間에는 人生無常의 靜寂만이 스며들었다.

將兵들은 北녘하늘을 노려보면서 손뼉 묻은 소총을 어루만지며 悲憤의 눈물을 뿌렸으니, 이는 失地를 恢復하지 못한채 칼을 거두어야 하는 大韓男兒의 소리없는 痛哭이었으리라.

이에 사단장 尹春根 준장은 作命 제17호로써 이미 示達된바 있는 作戰계획 제10호를 發効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塹壕線에서 물러서기 시작한 사단은 다음날 10.00에는 제37연대(장, 金在命 대령)를 右一線에 제52연대(장, 張虎崗 대령)를 左一線에 그리고 제51연대(장, 金窓 대령)를 사단에비로 部署하고 △924-△891-△695-松嶺坪-蘆甲坪-西希口-△692를 連한 一帶에 새로운 陣地를 占領하기 시작하였다.

兩次的 戰鬪를 通하여 사단이 거둔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구분	부대별	제 37 연 대	제 51 연 대	제 52 연 대	계
射	殺	150	41	177	368
推	定 殺 傷	203	106	215	524
捕	虜	4		6	10

鹵 獲

H	M	G	3		4	7
L	M	G	8	1	11	20
多	發	銃	8	13	20	41
기	관	단	총	2	8	16
소		총	11		10	21

損 失

구분	부대별	제 37 연 대	제 51 연 대	제 52 연 대	계
戰	死	182	22	119	323
戰	傷	313	44	406	763
失	踪	29	4	5	38

參戰者의 證言

◇ 제37연대 제3대대장 朴完植 소령

(1976. 4. 23 參參 J-3次長室에서, 준장)

나는 제37연대 제1대대 부대대장으로 있다가 53년 4月下旬에 제3대대장으로 罷任하였다.

就任後 約 1個月間은 別다른 상황이 없이 小康 상태를 維持하였으나 5월 下旬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敵의 散發的인 擾亂사격이 계속되었는데 이것이 基點사격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6월 1일에 연대장 金在命 대령으로부터 『군단으로부터의 通報에 의하면 敵의 無電 聽取 결과 △812正面으로 敵의 공격이 있을 것 같다』는 電話가 왔으나 이 通話가 채 끝나기도 전에 敵의 砲擊이 시작되었는데 연대 및 사단 CP까지도 敵의 砲擊圈內에 들었다고 한다.

나는 즉각 각 중대장을 無電으로 불러 戰鬪태세에 突入할 것을 명령하고 계속接觸 與否를 확인 하였는데 砲擊만이 계속될 뿐으로 別다른 상황이 없었다.

그런데 銃聲이 울리고 제10중대로부터 敵의 공격이 시작되었음이 보고되었다.

나는 예측한대로 敵이 接近하기 좋은 제10중대 正面으로 主攻을 指向한 것으로 判斷하고 戰鬪指揮에 나섰다. 이에 △812로 推進된 美 戰車兵으로부터 그들 系統의 보고網에 의하면 『△812로도 敵이 侵襲하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우리 제11중대로부터는 아무런 報告가 없었다. 나는 어찌된 일이라고 無電으로 확인하였더니 처음에는 異常이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銃聲이 울

리면서 敵이 새까맣게 물려온다는 것이었다.

나는 즉각 연대에 군단 火力計劃「Lexingtong」에 의거한 火力群에 대한 遮斷 射擊을 要請하였으나 연대 S-3는 무슨 錯覺을 하였는지 그런지 확이 없다고 우기는 까닭으로 適時에 火力支援를 얻지 못하였다.

제10중대는 陣內까지 侵襲한 敵을 驅退하고 陣地를 固守하였으나 제11중대는 그들의 奇襲으로 血戰을 거듭한 보람없이 다음날 未明에는 △812 頂上을 喪失하고 말았는데 그 要因은 경계의 疎忽에 있었다고 본다.

이에 연대 예비인 제1대대가 즉각 逆襲하였으나 이미 據點을 굳인 敵의 頑強한 抵抗으로 그 逆襲을 보지 못하였으며 뒤이은 제7중대와 사단 수색중대의 恢復공격 또한 成果를 거두지 못하였다.

대대는 突破口擴大를 阻止하는 一方 東쪽稜線上의 主陣地를 계속 확보하였는데 6월 5일에 敵은 또다시 제10중대 正面을 目標로 공격하여 왔다. 이에 중대는 力戰奮鬪하였으나 陣地線이 突破되면서 兵力이 分散되고, 중대장은 一部の 兵力을 指揮하여 OP壕로 進入, 끝까지 高地를 固守코자 하였으며 6日 새벽에는 마침내 高地가 敵의 手中에 넘어가고 말았다.

OP壕속에서 계속 奮戰하는 제10중대장의 絶叫에 따라 즉각 陣內사격이 敢行되고 연대에 배속중인 제52연대 제2대대가 逆襲하였으나 敵의

熾烈한 砲擊과 頑強한 抵抗으로 進軍을 보지 못하였다.

이때까지도 尹 吉炳 대위와의 無難이 交信되었는데 그들의 投降強要를 끝까지 拒否하자 그들은 OP壕의 掩蔽部分을 맡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었다. 나는 斷腸의 感을 禁할 筈이 없었다.

이리하여 6월 7일에 나는 제10중대에서 自願하는 兵士들로써 1개소대의 特攻隊를 編成하고 연대장의 挽留를 뿌리치고 장병들을 救出코자夜襲에 나섰으나 敵線에 부딪치면서 激戰이 벌어져 여러차례 거듭한 突襲도 보람없이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이날 밤 제52연대 제3대대에 陣地를 引繼하고 연대예비가 되어 城內川 南岸으로 撤收하여 再編하기에 이르렀으나 지금도 陣內사격과 逆襲을 要請하던 당시의 尹吉炳 대위의 絶叫이 귀에 생생이 울리는것만 같다.

다음날 제52연대가 逆襲하고 보니 다른 兵士들은 敵에 捕虜가 된듯, 이미 자취가 없고 尹대위만이 屍體로 壕속에 누어 있었다.

뒷날 제10중대부관으로 있다가 그때 捕虜가되어 休戰後에 送還된 將校를 만났더니 尹 대위는 끝까지 投降을 拒否하다가 敵이 被覆部位를 뜯고 侵入하자 最後의 一彈으로 自決하였다는 것이었다. 尹 대위에게는 그때 2~3歳の 딸이 있었던것으로 記憶한다.

◇ 제37연대 제1대대장 朴定仁 중령 (1965년 12월 8일 國防大學院에서, 준장)

나는 渡美留學을 마치고 濟州島 訓練所에서 작전과장으로 있다가 제37연대 제1대대장으로 赴任하였다.

이때 제37연대는 제2사단에 배속되어 狙擊綫에서 戰鬪中에 있었는데 52年末에 제12사단으로 隸屬되면서 瑞和里로 移動하여 美제45사단의 陣地를 引受하고 美 제10군단의 右翼사단으로써 Minnesota綫의 防禦를 담당하였다.

이때 제37연대는 사단 左一線으로써 昭陽江西岸에서 城內川北岸에 이르는 △812東쪽 稜線一, △812-△1052東南쪽 稜線一帶에 主陣地를 확보하였다.

53년 6월 1일에 敵의 攻勢가 시작될때 제1대대는 연대예비로써 1개중대는 연대 OP가位置한

△755에, 1개중대는 △812 東南쪽 稜線下麓에, 또 나머지 1개중대는 城北洞 北쪽의 無名高地를 각각 확보하고 있었다.

그런데 敵이 熾烈한 砲擊을 퍼붓더니 뒷날의 雙龍高地를 확보한 중대로 공세를 集中한데 이어 △812의 제11중대를 奇襲하여 중대는 混亂에 빠져 苦戰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나는 △755의 중대를 △812東南쪽으로急進시켜 增援과 逆襲태세를 갖추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에 이르자 연대장 金在命 대령은 즉각 逆襲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서 제1대대(一)는 나의 陣頭指揮下에 逆襲을 敢行하여 敵을 一擧에 驅逐하고 제11중대의 陣地를 回復하였으나 浮動하는 戰況에對處하여 예비대를 集中運用토록 하라는 사단장의 指導에 따른 연대장의 명령으로 제11중대에 陣地를 또다시 引繼하고 예비陣地로 물러섰다.

그런데 03.00에 또다시 侵襲한 敵의 集中공세로 △812頂上의 防禦線이 무너지면서 제11중대는 撤收하고 말았다.

이에 우리대대는 城內洞에서 急進한 중대까지 습격케 하여 즉각 逆襲을 敢行하여 20.00까지 激戰을 벌였으나 그 進軍을 보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812의 突破口를 封鎖하였으나 敵이 增援되고 새로운 攻勢의 徵候를 또다시 보이기에 이르자 東쪽 稜線上에 強力한 前遊陣地를 확보하고 敵의 攻勢企圖를 牽制하였다.

그런데 6월 7일에 제3대대가 제52연대에 陣地를 引繼하게 됨에 따라 우리 대대도 제11중대의 陣地를 引受하고 연대 右一線이 되어 △812前斜面을 담당하였다가 제52연대에 陣地를 引繼하기에 이르렀다.

이무렵 나는 負傷하고 崔鍾南 소령에게 指揮權을 引繼하였다.

◇ 제52연대 제1대대 제2중대장 金用環 대위 (1965년 8월 14일 제9사단 인사참모실에서, 중령)

제1대대는 사단예비로써 瑞和里에 있다가 연대가 제37대대의 陣地를 引受함에 따라 6월中旬에 △601로 進出하여 제37연대 제3대대의 陣地를 引受하고 연대 예비가 되었다.

그런데 敵의 攻勢徵候가 짙어지자 7월 初旬에

는 제3대대의 陣地를 引受하고 연대 右一線으로 投入되었다.

이러하여 대대는 右一線에 배속된 연대수색중대, 中央右側一線에 제3중대, 中央左側一線에 제1중대, 그리고 내가 지휘하던 제2중대가 左側一線으로써 昭陽江西岸에서 △812 7部後線에 이르는 一帶에 主陣地를 확보하였다.

陣地引受後 約10日間은 彼我間에 熾烈한 砲擊戰만이 계속되고, 분대~소대규모의 搜索偵察戰을 強化하였는데 7월 16일 23.00부터 1개연대규모의 敵은 제1대대 正面으로 主攻을 指向한채 侵攻하기 시작하였다.

最初 공격이 集中된 제1중대 正面이 突破되자

§ 戰 訓

(1) 예비대의 運用에 대하여

第1次戰에 있어서, 제37연대 제3대대의 境遇, 3개중대를 一線配置 하여 예비대를 保有하지 못함으로써 대대장은 상황의 進展에 따른 何等의 對應措置를 取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敵의 侵攻받은 중대는 그 전투의 成敗를 오직 自力으로써만 가름하여야 함으로써 作戰이 不在하는 戰況으로 始終하였다.

一線중대는 모름지기 生死를 超越한채 如何한 逆境에도 克服하고 陣地를 固守하는 것이 本分이요 基本任務이다. 그러나 대대, 연대의 上級부대가 存在하는 以上 상황의 進展에 策應하여 適時에 增援하고 反擊하고 뒤이어 逆襲이 取行되는 有機的인 作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要컨대 제37연대는 예비대의 集中運用이라는 戰術原則에 너무 執着하여 一線대대장의 裁量權을 制限한것 같다.

이때의 狀況으로 미루어 본다면 연대는 마땅히 敵의 攻勢가 集中되는 제3대대에 1개중대 또는 그 以上の 예비대를 保有케 하여 대대장이 融通性있는 作戰을 遂行케 하였어야 할 것이다.

(2) 逆襲에 대하여

第2次戰에 있어서 제52연대는 7월 17일 00.50에 雙龍高地를 喪失하게 되고 01.40에는 계속적인 侵襲을 擊退하였으나 逆襲은 13.00에 1개중

대 제2중대의 右側方이 露出되었는데 이때 2개중대 규모의 새로운 敵이 △812로부터 우리중대 正面으로 공격하기 시작하고 제1중대 陣地를 奪取한 敵이 側方으로 挾擊하였다.

이처럼 중대 右 側1선인 제2소대 正面으로 衝勢가 集中되어 危機를 맞기에 이르자 나는 예비인 제3소대를 즉각 增援케 하여 砲兵의 彈幕사격 下에 陣前에서 一旦 阻止하여 激戰을 벌였다.

그런데 다음날 02.00에 適時適切한 砲兵의 T OT 사격이 敵線을 強打함으로써 敵은 潰散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우리 중대는 △812의 前斜面을 계속 확보하는 이날의 殊勲중대가 되었다.

대로써 敢行하였다.

逆襲은 모름지기 敵이 據點을 形成하거나 增援한 時間的인 餘裕을 주지 않고 陣地를 恢復할 수 있는 규모의 부대로써 強襲하여야 할 것인데 無慮 12시간이 經過한 다음에야 1개대대 규모의 敵에 대하여 1개중대로써 逆襲하였다는 것은 그 時機를 逸失하고 消極的인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陣地恢復의 企圖가 果然 있었는지 疑心스러운 것이다.

(3) 部隊交代에 關하여

第1次戰에 있어서 △812頂上의 喪失한 제11중대와 雙龍高地에서 奮戰하고도 이를 빼앗긴 제10중대는 그 뒤에도 계속 一線을 담당하였다.

勿論 예비대를 保有하지 못하고 廣正面을 담당한 대대로써는 不可避한 措置로 보아야 할 것이나 打撃을 받은 중대는 즉각 交代시켜 充分한 休息과 給養 그리고 充員으로써 士氣를 振作시킨 다음에 再投入하는 配慮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先例는 金鍾五 소장이 指揮하는 제9사단의 白馬高地戰鬪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將兵들은 한결같이 戰鬪力 恢復의 源泉이 바로 여가에 있었다고 證言하고 있는 것이다.

3. 谷內北峯 無名高地 戰鬪 (1953년 6월 10일부터 " " " 23일까지) (一名, MI高地 戰鬪)

참조 : 별책부도 제 4 호

상황도제 13~18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20사단	장 준장	宋 錫 夏	제16포병대대 장 중령 崔 鎭 植
제61연대	장 대령	金 仁 哲	제56포병대대 장 중령 李 德 基
제1대대	장 중령	趙 在 俊	제57포병대대 장 중령 方 庸 源
제2대대	장 소령	崔 昌 昱	제93포병대대 장 중령 金 在 澤
제3대대	장 소령	李 秉 晉	隣接部隊
제20사단포병단	장 중령	李 孝 成	右隣接
제69포병대대	장 중령	李 基 榮	美제45사단 장 준장 Philip D. Ginder
제70포병대대	장 소령	夫 久 亨	隣接左
지원부대			제62연대 장 대령 洪 淳 龍
제7사단포병단	장 대령	姜 官 龍	
		敵	軍
中共 제60군 제33사단	장	주안 중 (段 鍾 鐵)	제97, 제98, 基幹

나. 전투 전의 개황

제20사단은 國一命(육) 제10호 및 陸教指 제18호에 의거 1953년 1월 1일 제57, 제58, 제59연대로써 제1교육여단을 잠정적으로 편성하여 汀原道 襄陽郡 降峴面 前進里에 CP를 設置하고 1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UTC 教育에 參加하였다.

그리고 同日附로 國一命(육) 제12호에 의거하여 예하 제57, 제58, 제59연대를 각각 제60, 제61, 제62연대로 改稱하였으며 그 後 2월 9일에 同 부대는 國一命(육) 제39호로써 제1교육여단 해체와 동시에 제20사단으로 創設되어 육본작전부대가 되었다.

사단은 UTC 教育을 마친 다음 육본작전지시 제286호(53. 2. 8)로 美 제10군단에 배속되어 麟蹄 縣里로 이동하였다.

그 뒤에 美 제10군단 예비로서 FTC 教育에 들어갔으며 군단 작전지시 제323호(3. 11)에 의거하여

제60연대를 한국 제7사단에, 제62연대를 美 제45사단에 배속하였다가 사단 작전지시 제12호로 원래 복귀조치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창설된지 3개월만에 처음으로 楊口地區 戰線에 投入되었으며 4월 13일부터 14일(2일간)까지 $\triangle 930$ 戰鬪에 參加하였는데, 이 戰鬪에서 제61연대는 敵98명을 射殺하고 多發銃11挺, 기관총 4정을 노획하는 戰果를 올리기도 하였다.

5월 15일에 美 제10군단 작전지시 제52호에 의거 제7사단으로부터 1090高地附近의 戰線을 引受케 된 사단은 美 제45사단과 인접한 右一線에 제60연대를 그리고 左一線에 제5사단 제27연대와 인접하여 제62연대를 각각 배치하고 제61연대를 예비로 하였다가 5월 25일에 제60연대와 제61연대를 교대시켜 방수에 임하였다.

5월 27일에는 初代 사단장 劉興守 준장이 전출되고 제2대 사단장으로 宋錫夏준장이 부임하면서부터 現 방어선을 확보하고 강차 예상되는 大規模作戰에 대비하였다.

한편 5월 11일, 제10야전포병단이 國一命(육) 제115호로써 사단에 隸屬, 제20사단 포병단으로 改칭되어 초대 단장에 李孝成중령이 임명되므로써 그 火力支援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사단이 맡은 이 楊口地區의 北쪽 $\triangle 1,090$ 附近 일대는 中東部戰線에서 高地帶群을 이룬 곳으로서 文登里 西쪽 魚隱山(標高 1,277)과 그 南쪽 $\triangle 1,218$ - $\triangle 1,090$ 등 小山脈을 形成하여 그 일대는 標高 900~1,000m를 넘는 高地들로 險峻한 山勢를 이루고 있다.

더구나 $\triangle 1,090$ 는 이곳에서 最北尖端에 있는 전투전초진지이며 그 東쪽으로 M1 稜線이 뻗어 있고 그 西쪽 4km에 있는 $\triangle 938$ 는 敵이 占據하고 있는 $\triangle 973$ - $\triangle 903$ 에서 我側의 $\triangle 1,220$ 와 白石山을 連하는 稜線상의 主峰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주저항선 直後方까지는 文登里 南쪽에 連하는 主補給路가 있고 전투전초진지에 이르는 通路는 敵에게 露出되어 主로 小徑과 交通線을 利用하는 까닭으로 車輛이 通行할 수 없어 補給에는 支障이 뒤따르는 곳이기도 하다.

사단 當面の 敵은 中共軍 제60군 제33사단의 제97, 제98, 제99연대로서 魚隱山을 主軸으로 $\triangle 890$ - $1,030$ - $1,218$ - $\triangle 918$ - $\triangle 903$ 의 主峰과 그를 連하는 능선상에 주저항선을 펴고 있었다.

중공군 제33사단은 53년 1월에 元山地區에 駐留하다가 5월 19일 現 전선에 투입되어 제60군에 배속과 동시에 제179사단과 交代하여 魚隱山을 中心으로 東西 兩쪽에 제98, 제99연대를 배치하고 제97연대는 예비로 魚隱山 後斜面에 控置한 것으로 推斷되었다.

그런데 이 사단의 素質은 3년 이상이 40%, 6년에서부터 8년까지가 20%를 차지하는 古兵들이긴 하지만 직접 一線에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我側 制控權에 따르는 爆擊과 火力의 優越性에 대하여 地上砲火를 強化하는 것으로써 이를 補綴한듯 하였다.

期間中 初일부터 戰鬪終了時까지 하루도 快晴한 날씨가 없어 山麓에는 連日低雲과 濃霧가 덮여 觀測 및 機動에 支障이 있었다.

本戰鬪名을 陸軍戰史나 當時 戰鬪詳報에는 M1(에무 완) 高地 戰鬪라고 하였으나 여기에서는 谷內 北쪽 無名高地(北쪽 3km) 戰鬪라고 하였으니 그 까닭은 現行軍事地圖(1:25,000~1:50,000)에 M1 高地로 表記되지 않은 無名高地이기애 地名을 따라서 讀解를 쉽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이 高地에서 가장 가까운 谷內(楊口部方山面)의 地名을 붙여 그 北쪽 無名高地戰鬪라고 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사단은 군단작지 제352호에 의거하여 사단작명 제4호(5.11.12.00)로써 △1,090 附近戰線을 引受하게 된 것인데 이때의 命令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군단작지 제352호에 의거 제7사단과 진지 및 임무를 교대하려 한다.

② 제60연대는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제7사단 제3연대진지를 인수하라.

③ 제62연대는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제7사단 제5연대진지를 인수하라.

④ 제61연대는 5월 14일까지 楊口縣里에 移動集結하여 사단 예비가 되라.』

이와 같이 각연대를 部署한 사단(장 劉興守 준장)은 군단작지로 배속받게 된 제7사단 포병단(장, 姜官龍 대령)으로 하여금 火力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던 바 그 大要에 이르기

『① 제16포병대대는 제60연대를 직접지원 한다.

② 제57포병대대는 제62연대를 직접지원 한다.

③ 제56, 제93포병대대는 사단을 일반지원 한다.』

한편 사단 포병단(장, 李孝成 중령)은 創設된지 日淺한 탓으로 계속 훈련에 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단 공병대대는 제7사단 공병대대와 협조하여 5월 16일부터 陣地間의 보급품 수송용 Cable 및 道路를 管理케 하였으며 道路整備 人員의 훈련교육도 제7사단 공병대대에서 받게 하여 人員과 補給현황을 매일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제7사단의 陣地 및 任務를 인수받은 사단은 제60연대를 右一線으로 제62연대를 左一線으로 삼아 주저항선 및 전투전초진지를 確保하고 제61연대를 예비로 控置하였는데

5월 22일에는 사단작지 제19호로써 一線 각연대에 공병 1個중대씩 배속시켜 陣地와 道路 補修에도 注力하였다.

또 사단은 5월 24, 25 兩일에도 작진지시 제24호와 제26호를 下達하여 주저항선의 一部 兵力을 交代케 하였으니 그 要旨는 아래와 같다.

『① 사단은 주저항선 上의 一部兵力을 交代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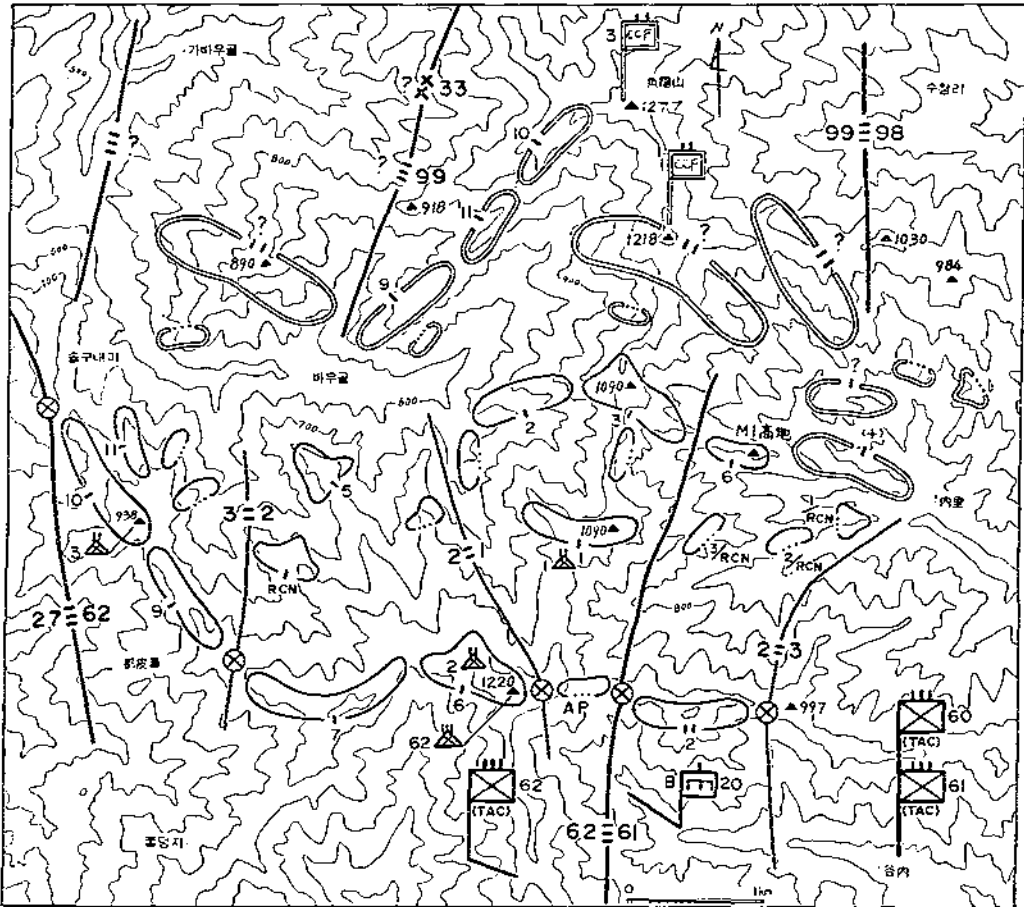
② 제61연대는 제60연대의 주저항선진지를 5월 24일 18.00부터 5월 25일 04.00까지 인수하라.

③ 제60연대는 주저항선 진지를 제61연대에 인계후 楊口縣里에 移動하여 사단예비가 되라.

④ 工兵대대는 작지 제19호로 제60연대에 배속시킨 공병 1個중대의 배속을 해제하고

제61연대에 배속하라.』

◇ 상황도 제13호 M1高地 戰鬪 彼我配置(6. 10 現在)



이로써 右一線 陣地와 兵力을 交代한 사단은 전진진지의 強化와 砲兵觀測所를 構築하는 등 防守態勢를 더욱 공고히 하였는데, 이때 사단 右一線을 담당한 제61연대(장, 金仁哲 대령)는 右제一線에 제3대대, 左제一線에 제2대대를 전개하고 전진진지인 M1高地에는 제2대대에서 1個중대를 抽出 배치케 하는 동시에 연대수색중대를 同대대에 배속시켜 이곳의 경계를 強化케 하였다.

그런데 魚隱山을 主軸으로 △1,218—△984—△918 일대를 占取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되는 中共 제33사단은 6월 10일 夜暗을 타서 1個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谷內北쪽 無名高地(一名 M1高地)에 攻撃을 加하였으며 14일에는 △1,090와 △938에 增強된 1개대대 규모의 兵力으로 侵攻함으로써 向後 14일간에 걸쳐 熾烈한 激戰이 벌어지게 되었다.

(3) 작전실시

6월 10일 : 이날은 未明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低雲이 山麓까지 뒤덮였으나 사단은 새로이 $\Delta 1,090$ 附近의 前線을 담당한 뒤로 이날까지 接戰이 없었던 탓으로 여느때와 같이 小康狀態에서 방수에 임하고 있었는데, 이날 어두워질 무렵부터 敵砲彈의 集中度數가 잦아지더니 20.00에 이르러 전투전초진지인 谷内北쪽 無名高地 일대에서 戰端이 벌어지게 되었다.

1. 제2대대의 防禦戰

이날 谷内北쪽 無名高地(一名 M1高地 以下 M1高地라 稱함)의 警戒에 임하고 있던 제2대대 제6중대(장, 朴載淳 대위)는 敵의 砲擊이 漸次 熾烈해지자 必是 侵攻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전 중대원에게 전투에 돌입할 준비를 갖추게 하면서 一戰을 覺悟하고 각 소대에 진지 固守를 굳게 다짐하는 한편 戰鬪準備를 再確認하였다.

21.30에는 敵砲擊이 점점 苛烈化하여 南 $\Delta 1,090$ 東쪽 능선상의 연대 수색중대와와 有線이 끊기게 되었으며 이어 감시후에는 谷内北쪽 無名高地(一名 M1高地) 전방에서 敵의 信號彈이 연달아 치솟더니 이를 신호로 1개 중대 규모의 병력이 東쪽 左제 1선 제3소대와 중앙제 1선 제1소대 진지에 侵攻하여 수류탄을 집중하였다.

그런데 이무렵 또 敵의 一波가 東쪽 제2소대 正面에도 殺到하여 제1소대에 侵攻하던 兵力과 合勢하고 진전까지 육박하였다.

이렇게 後續兵力까지 합친 急襲을 받게 된 제2소대는 血鬪를 거듭하면서 진지를 固守하려고 陣内에서 短兵接戰으로 格鬪까지 하였지만 그들의 盲目的인 強襲에 밀려 “나”高地(M1高地의 主峰)를 넘겨주고 제1소대진지로 물러서 隊伍를 가다듬고 該소대와 合勢하여 敵의 侵入을 저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하여 대대(-1) 규모의 병력과 激戰을 치르는 사이에 중대는 백려 손실도 적지 않았지만 有無線이 모두 두절된 탓으로 急迫한 戰況을 대대에 보고할 길이 없어 孤立狀態에서 제1, 제3 兩소대 진지를 堅守하기에 안간힘을 다하였다.

2. 사단 수색중대의 增援

제2대대(장, 崔昌昱 소령)는 제6중대와와 有無線이 두절됨으로써 正確한 戰況을 把握할 수 없었으나 M1高地의 戰勢가 急迫하여졌다는 것은 이로 미루어 推斷하였을 것이며 이의 打開를 爲하여서는 縱深으로 配置한 연대수색중대를 뽑아 該高地의 제6중대를 赴援토록 하여 敵을 擊退할 服索도 있은듯 하나 萬一 M1高地 일대가 完全히 敵手中에 들어가 “1” “2”高地(M1高地 右側高地)쪽에서 虛隙을 틈타 주저항선을 威脅할 可能性을 勘案한듯, 연대수색중대를 끝내 뽑지 않고 現진지에서 敵을 阻止擊滅할 전투준비를 갖추게 하는 한편 연대에 急迫한 戰況을 報告하여 增援병력을 要請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M1高地의 戰勢가 極히 不利하다는 急報에 接한 연대장 金仁哲 대령은 사단장의

決心을 얻어 사단수색중대를 배속 받음으로써 이를 제2대대에 배속하여 병력을 增援하였다.

이에 따라 제2대대는 배속받은 사단수색중대를 주저항선에 23.00까지 推進시켜 제5중대 진지를 인수케 하고, 제5중대를 뽑아 M1高地에 急進시켜 高地를 奪還토록 하였다.

6월 11일

1. 제2대대의 逆襲

전날밤 “나”高地를 奪取한 敵은 그 餘勢로 이날 子正에는 該高地 西쪽 제6중대 제1소대 陣地에 殺到하였다.

그리하여 火力을 集中하고 수류탄을 던지며 전내로 육박하자 제1, 제2 兩소대는 이와 激突하여 血鬪를 벌이게 되었다.

비록 夜間戰鬪에 能熟하다는 敵이긴 하였지만 火力據點에서 鐵火를 쏘는 LMG의 威壓과 제1, 제2 兩소대원들의 激突에 부딪친 그들은 銳氣가 격인듯 “나”高地로 潰走하고 말았다.

한편 전날밤 23.00에 주저항선 진지를 사단수색중대에 인계하고 그 後斜面에 集結하여 戰鬪준비를 갖춘 제5중대는 제62연대와의 戰鬪地境線을 따라 前進하였는데, 夜暗으로 咫尺을 분간키 어려운데다가 降雨로 峽路의 歩行이 힘들어 2.5km밖에 안되는 距離를 무려 다섯 時間이나 걸려 제6중대 제1소대의 東쪽 後斜面에 도착한 때는 04.40이었다.

이곳에서 반격준비를 갖춘 중대는 06.00에 LD(제6중대 제1소대진지線)를 躍進하여 攻擊에 나섰다.

“나”高地의 前斜面은 傾斜가 가파르고 險峻하지만 死角을 이루어 敵의 直射火力을 避할 수 있는 利點이 있는 反面 東쪽과 西쪽능선은 경사가 비교적 심하지 않아 前進하기는 쉬우나 敵의 直射火器와 直面하여 행동에 제약을 받는 不利點을 內包하고 있으므로 중대장은 전자를 택하여 正面을 直衝격파기로 決心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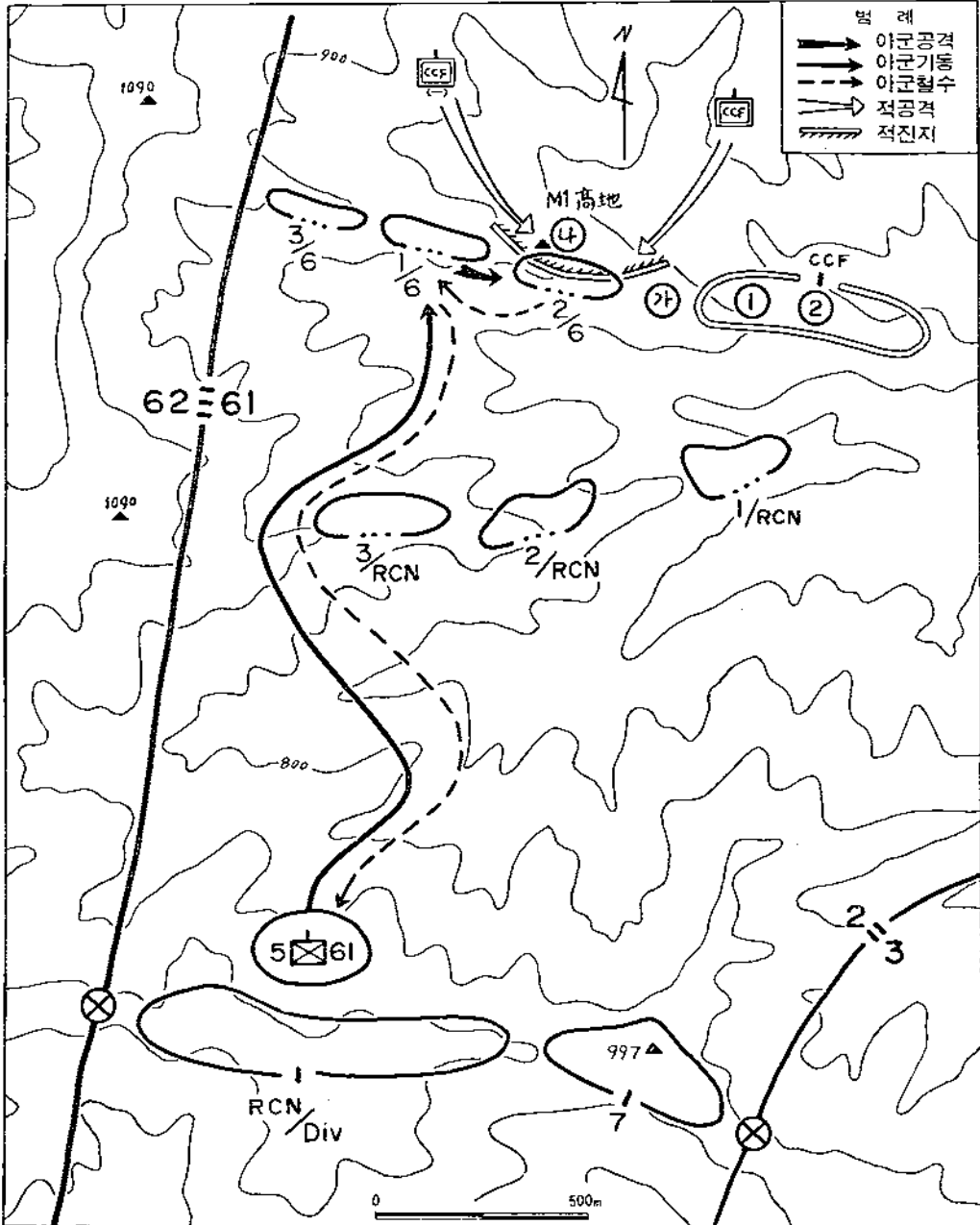
그런데 LD 앞 溪谷은 降雨로 急流가 소용돌이치고 있어 비록 깊지는 않다 하더라도 무려 다섯시간이나 雨中에서 山間峽路를 헤치며 이곳에 이른 중대로서는 또 하나의 難關에 逢着하게 되었다.

그 위에 雪上加霜으로 攻擊의 氣味를 그들은 미리 看破하였음인지 이 계곡 일대에 직사 화력의 彈幕지대를 이루어 火力을 集注하였다.

그야말로 進退維谷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제1소대 선임하사관 吳永煥 중사가 先頭로 뛰어나와 『놈들의 포화에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다들 내 뒤를 따르라』고 고함을 지르며 砲火의 간극을 누비고 突擊路를 뚫어 계곡을 단숨에 넘어갔다.

이에 突破口를 얻은 중대원들은 서로 앞질러서 계곡을 뛰어넘어 “나”高地 前斜面에 進出하였지만 적지않은 병력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 상황도 제14호 제2대대의 逆襲



그러하여 이곳에서 공격준비를 다시 가다듬은 중대는 가파른 사면을 치달려 8部능선에서 敵陣을 직충돌파코자 하였으나 敵兵들이 능선위에서 방망이 수류탄을 마구던지고 石塊를 굴려 중대의 進出을 완강히 저지하고 나섰다.

이와 같이 중대는 絶壁에서 또 하나의 벽에 부딪치게 되어 力戰苦鬪끝에 突擊線에 이른

보람도 없이 死角을 이룬 5부능선으로 물러서 “나”高地 일대에 砲擊을 퍼붓게 하였다.

이날 10.30에 중대는 각종 지원포가 砲擊하는 가운데 또 다시 攻擊에 나섰다.

低雲이 戰線을 뒤덮은 흐린 날씨이긴 하지만 敵으로부터 砲制되어 LD 앞 계곡에는 그들의 砲火가 또 다시 集注하여 一次攻擊時를 방불케 하였다.

그러나 포복약진하여 이 난관을 헤치며 “나”高地 南斜面에 進出한 중대는 이곳에서도 兵力損失을 보게 된 탓으로 戰鬥力의 殆半을 이미 喪失한 셈이었지만 계속 돌진하여 전진으로 육박하였는데 지원포격의 延伸이 시작될 무렵부터는 땅굴속에 숨었던 그들이 前斜面에 뛰어나와 수류탄을 집중하며 완강히 항거함으로써 一次攻擊時와 같은 狀態에 머무르게 되어 결국은 再興한 逆襲도 無爲로 끝나고 말았다.

이리하여 중대는 $\Delta 1,090$ 東南쪽 後斜面으로 되돌아서서 敵의 진출을 저지하면서 이곳을 確保하기에 이르렀다.

2. 연대장의 措置

대대 OP에서 戰況을 注視하면서 직접 지휘하던 제61연대장 金仁哲 대령은 점차로 戰勢가 不振할 뿐만 아니라 敵이 後續兵力을 계속 投入하여 攻擊을 늦추지 않을 것으로 推斷하였다.

이렇게 判斷한 연대장은 兵力損失이 적지 않은 현 제2대대로서는 M1高地의 奪還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예비인 제1대대(장, 趙左俊 중령)로써 一舉에 奪還키로 決心하여 다음과 같은 要旨의 작지 제17호(11.22.00)를 下達하였다.

『① 연대는 M1高地를 奪還하며 한다.

② 제1대대는 제2대대의 전초전지를 아래에 의거 奪取하라.

㉠ 공격목표 “나”高地(M1高地 主峰)

“2”高地(“나”高地 東쪽 600m地點)

㉡ 공격개시선은 제2대대 제5중대의 진지선이고 공격개시 시간은 5월 12일 03.00이다.

③ 제2대대의 공격중대는 제1대대가 M1高地 奪取와 동시 대대 OP 후사면에서 側面에 입하라.』

이와 같은 연대 작전지시를 받은 제1대대장 趙在俊 중령은 全대대 병력을 $\Delta 1,220$ 의 後斜面에 집결시켜 기동준비를 갖추게 하면서 攻擊計劃을 하나하나 세워나갔다.

6월 12일 : 이날도 비는 계속되어 때때로 그쳤다 내리곤 하였으나 좀처럼 개일것 같지 않았는데 高原地帶인 M1高地 일대에는 低雲이 뒤덮여 視野를 가렸으며 彼我が 퍼붓는 砲擊이 絶無없이 계속되어 그 震動하는 砲聲만이 山野溪谷에 메아리쳐 熾烈한 激戰場임을 새삼 실감케 하였다.

1. 제1대대 제1차 反擊

제1대대(장, 趙在俊 중령)는 전날 연대작지에 依據하여 M1高地의 奪還任務를 받게 되었으므로 출발에 앞서 그에 따른 공격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제3중대는 目標 “나”高地(M1高地의 主峰)를 공격 탈취케 하고 제2중대는 目標 “2”高地(나高地 東쪽 600m 지점)를 攻擊占領케 하였으며 제1중대는 예비로 南 △1,090東쪽 연대수색중대 제1소대 진지에 控置키로 하고,

둘째, 공격개시선은 제2대대 제5중대가 확보하고 있는 현 진지선으로 하여 03.00에 各各 LD를 출발케 하였으며,

셋째, 중화기중대의 박격포진지를 제1대대 OP 後斜面에 마련하고 동시에 大隊 OP도 연대수색중대 제3소대가 있는 無名高地에 推進키로 하였다.

넷째, 有線架設은 敵砲火를 피하여 南 △1,090 東北능선의 背斜面을 따라 配線케 하고 100m~200m 間隔으로 通信兵을 배치하여 責任補修로써 通信網을 確保케 하였다.

이와 같이 攻擊計劃을 세운 제1대대는 전날 18.30시에 △1,220를 發進하여 夜暗을 利用 계속 前進하였으나 밤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한 降雨로 말미암아 대대 집결지인 수색중대 제3소대 後斜面에 도착하기까지는 5時間半이나 걸려 이날 00.10에야 비로소 이르게 되었다.

대대장 趙在俊중령은 제2, 제3 兩중대로 하여금 이곳에서 攻擊준비를 갖춘 다음 02.30까지 各各 공격개시 선으로 進入케 하였다.

이날 제2중대(장, 朴昌根 대위)는 대대집결지에서 LD로 向發코자 할 무렵 비는 더욱 줄기차게 내리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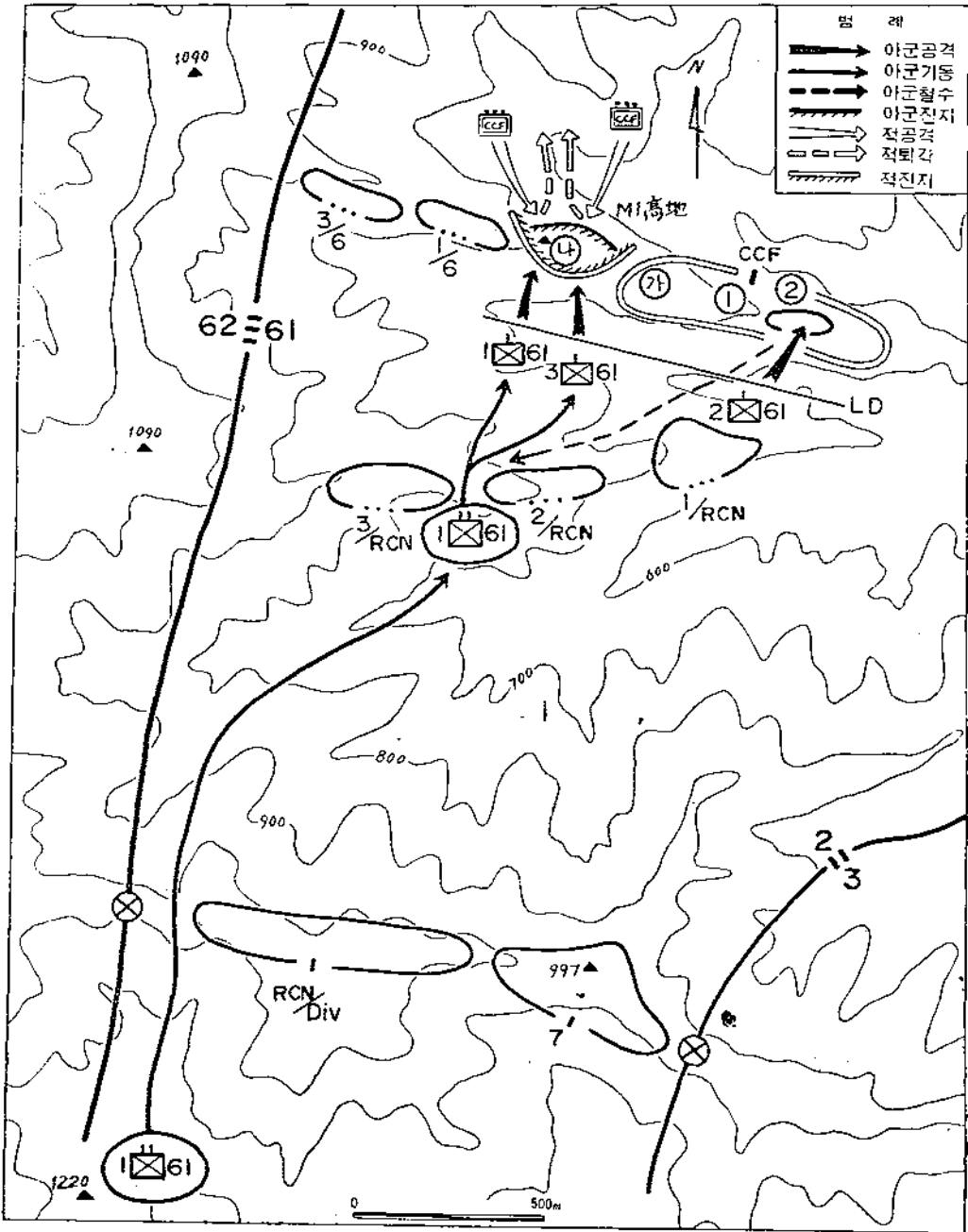
그리하여 중대장 朴昌根 대위는 전중대원이 所持하고 있는 M1소총을 回收하여 한곳에 保管케 하고 가벼운 칼빙銃만 휴대케 하는 한편 전중대원에게 수류탄을 20개씩 질머지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그가 後에 證言하기를 『M1소총은 降雨時에는 自動이 잘 안들어 效能이 없으며 또한 무겁기만 하여 行動을 敏捷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敵의 直射火器와 直面하고 있는 LD 앞 계곡이 暴雨로 말미암아 急流를 이루고 있을 것으로 보아 이의 徒涉도 아울러 勘索한 措置였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공격준비를 갖춘 중대는 驟雨속을 헤치고 LD로 向發하였으며, 02.30에 到着하여 03.00에 攻擊개시선을 躍出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敵의 直射火器와 直面한 LD 앞 계곡을 突破하여 目標 “2”高地의 後斜面까지 進出하였는데 여기서부터는 수류탄을 질머진채 포복약진으로 “2”高地의 8부능선에 진입하여 돌격준비를 갖춘 다음 일제히 수류탄을 집중폭파시키며 돌격을 결행하여 진내로 쳐들어갔다.

이때 “2”高地에는 1個소대 규모로 추산되는 敵兵들이 항거하였으나 一舉에 敵陣을 擊破

◇ 상황도 제15호 제1대대의 제1차 反擊



하러는 중대의 短兵 接戰에 더 버티지 못하고 障地를 버린채로 “가”高地(“나”高地 東쪽200 m)쪽으로 潰走하였다.

이리하여 04.00에 目標高地를 占領한 중대는 敵의 侵入路에 수류탄을 쌓아 놓고 伏兵을 시켜 逆襲에 대비하였으며 계속 동 고지를 確保하고 있었다.

한편 제3중대(장, 韓五源 대위)도 퍼붓는 暴雨 속을 헤치고 03.00에 공격개시선을 출발하여 躍進中 문제의 LD 앞 계곡에서 집중포격을 받아 적지 않은 병력손실을 보게 되었는데 困境에 빠지기도 하였지만 이를 곧 수습하여 “나”高地 南斜面에 이르게 되었다.

이곳에서 중대는 계속 進擊하여 突擊線에 進出하였는데 이무렵 敵은 稜線에 나타나 방망이 수류탄을 집중하며 완강히 저항할 뿐만 아니라 頂上의 火力據點에서는 LMG가 銃口를 열고 마구 쏘아대는 까닭으로 중대는 돌격을 決行치 못하고 그 자리에서 苦戰을 겪게 되었다.

이때 중대장 韓五源 대위가 敵彈에 맞아 重傷을 입고 쓰러졌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던 제1소대 제1분대장 韓龍澤 일병은 격분을 참지 못하여 중대 先頭로 달려나와 單身 敵陣으로 突進하여 수류탄을 一瞬에 集中爆破시켜 그 一角을 격파시켰다.

이 刹那, 중대 주력은 敵陣으로 肉迫하여 찢르고 찢리는 慘劇이 演出되었는데 중대 선두에서 銃劍을 휘두르던 韓龍澤 일병은 『이 중공 오랑캐 놈들이 내 총검을 받으라』하고 고함치면서 닥치는대로 무절했다.

이와 같이 중대의 氣勢가 衝天하자 것처럼 猪突의으로 항거하던 적병들도 07.00부터 陣地를 버리고 潰走하기 시작하자 중대는 계속 추격하여 戰果를 擴大하였으며 이때 韓龍澤 一兵은 7명을 사살하고 塹壕속에 숨어 항거하는 敵兵과 單身으로 格鬪하여 2명을 사로잡는 戰功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는 이 戰鬪에서 세운 戰功으로 後日 銀星花郎勳章을 받은 바 있으며 중대는 LMG 2정, SMG 5정 多發銃 3정을 노획하였고 그들이 캐 거두지 못한 遺棄屍體도 53구에 다다랐다.

이리하여 “나”高地를 奪取한 중대는 진지를 보강하면서 역습에 대비하여 四周방어에 들어갔는데, 13.00에 1個중대 규모의 병력이 砲擊支援下에 진전에 殺到하여 火力을 퍼부으며 수류탄을 집중하였다.

이에 중대는 그를 저지하면서 진내에서 血戰을 거듭하였으나 끝내 固守하지 못하고 同高地를 敵手에 도로 넘겨주었으며 西麓으로 물러서 그 곳을 確保하게 되었다.

이렇게 제3중대가 目標 “나”高地를 奪取하였다가 逆襲에 밀려나자 제1대대장 趙在俊 중령은 제3중대는 현진지에서 再編하는 即時로 逆襲을 준비케 하였으며 한편 目標 “2”高地를 占領하고, 確保중인 제2중대도 작전상 “2”高地에서 철수시켜 대대 OP 東쪽 無名高地에 예비로 控置케 하는 同時에 예비인 제1중대를 攻擊隊로 轉換시켜 제3중대 陣地로 急進케 하여 目標 “나”高地를 奪還토록 하였다.

6월 13일

1. 제1대대의 제2차 反擊

이날 02.00 제3중대 진지에 진출한 제1중대는 攻擊준비를 갖춘 다음 제3중대의 지원사격을 받으면서 03.00부터 攻擊을 개시하여 “나”高地로 쳐들어갔다.

그리하여 突擊線에 進出한 중대는 수류탄을 집중하며 敵陣을 肉迫하였는데 그들의 집요한 항거에 부딪쳐 一進一退의 激戰을 벌이게 되었다.

이때 先鋒에선 제1소대장 田養項 소위가 賊聲을 외치며 突擊을 決行하자 뒤따르던 중대 주력이 一時에 肉迫하여 白兵戰을 벌이니 그들은 더 항거하지 못하고 37구의 遺棄屍體를 남긴채 “가”高地 쪽으로 潰走함으로써 04.30에 同高地를 奪取하였으나 敵은 “가”高地에서 增援兵力을 얻어 되돌아 東側背로 急襲하여 陣內로 突入하였다.

이때 제1중대는 急編陣地에서 戰備를 끝낼 사이도 없이 그 肉迫에 對應하여 短兵으로 接戰하였으나, 猪突의으로 밀어닥치는 敵勢를 勸當치 못하여 04.50에 同高地를 敵手에 넘겨주고 그 後斜面으로 물러서 재편과 동시에 역습준비를 갖추어 나갔다.

이리하여 제1중대는 美 제10군단 및 사단의 각종 지원포가 “나”高地 頂上을 強打하는 가운데 09.40에 攻擊을 再興하여 敵陣으로 突進하였으며, 10.10에 突擊을 決行하여 또 다시 동 高地를 奪取하였다.

그런데 중대가 急編陣地에서 隊伍를 整備하려는 瞬間 北斜面에 埋伏해 있던 敵 1個중대 규모가 一時에 수류탄을 集中시키며 다시 밀려들었으니, 高地를 奪取한지 10分도 못되어 또 다시 急襲을 받게 된 중대로서는 숨돌릴 틈도 없었다.

그리하여 陣內에서는 서로가 한데 얽혀 混戰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때 白兵戰을 지휘하던 제1중대장 姜 대위가 重傷을 입게 됨으로써 중대는 高地를 더 지탱치 못하고 敵手에 넘겨주었으며 西쪽 능선 下端으로 물러서게 되었다.

2. 제2대대 特攻隊 投入

戰勢가 不振狀態에서 점차 不利해지자 연대장 金仁哲 대령은 제2대대에 特攻隊의 編成을 指示하여 “나”高地를 攻擊케 하였던 바 제2대대(장, 崔昌昱 소령)는 △1,090 東南쪽의 前哨陣地를 確保하고 있는 제5중대에 特攻隊를 편성케 하였다.

이에 따라 抽出된 特攻隊(1/8)는 10.30부터 “나”高地 西側背에서 攻擊을 시작하여 8部 능선까지 진출하였으나 이곳에서 敵의 火網에 부딪쳤으며 더구나 敵制되는 가운데서는 突擊을 決行할 길이 없었다.

敵의 火力據點을 부수려고 여러 차례나 突擊코자 하였지만 끝내 그들 火網을 뚫지 못한 特攻隊의 공격은 결국 無爲로 끝나고 말았다.

3. 제1대대의 제3차 反擊

이처럼 제1대대장 趙左俊 중령은 제1, 제3, 兩 중대의 공격이 모두 敵의 逆襲에 밀려나

자 이번에는 예비인 제2중대를 투입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때의 狀況을 제1대대장 趙在俊 중령은 다음과 같이 證言에서 밝혔다.

『제3중대와 제1중대가 몇번씩 目標 “나”高地를 奪還하였으나 계속 確保하지 못하고 도로 빼앗기니 정말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奪取하면 계속 確保할 決心으로 나도 頂上까지 올라가기로 하였다.

제3, 제1 兩중대의 중대장과 소대장이 거의 戰死 혹은 戰傷을 입었는데 아마 1명의 소대장만이 남아있던 것으로 記憶된다.

그리고 제3, 제1중대의 殘餘兵力이래야 모두 합쳐 50~60명이었으니 그때 비참했던 狀況은 지금도 기억이 새롭다.

그래서 나도 제2중대와 生死를 같이 할 覺悟로 LD에 나갔는데 이곳에서 敵陣을 바라보았더니 敵은 頂上에서 옷통을 벗고 活氣에 차 있는듯 하였으며 우리 兵士들은 士氣가 죽어 있었다.

제2중대장 朴昌根 대위를 불러 頂上의 敵兵을 狙擊케 하였던 바 두놈을 命中시켰다.

그 바람에 頂上의 중공놈들은 濛속으로 숨어버렸고 우리 兵士들은 꺾 士氣가 좋아졌다.

내게 무슨 神通力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대장과 같이 싸운다는데서 兵士들은 마음 튼튼히 여겼을 것이다.

나는 이때라고 믿고 攻擊을 命令하였다.』

이때 제2중대는 대대 OP 東쪽 無名高地에 集結하여 目標 “2”高地 戰鬪에서의 戰塵을 씻으며 靑경 “나”高地를 攻擊하게 되리라고 믿고 戰備를 갖추고 있었으나 損失兵力의 補充은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나”高地의 공격을 명령받게 된 제2중대장 朴昌根 대위는 중대(1/60)를 이끌고 14.00에 LD를 占領하였는데 이곳에는 대대장과 제1, 제3 兩 중대의 殘餘兵力(1/50)도 집결되어 있었다.

이리하여 제1대대는 14.30에 LD를 躍進하여 攻擊에 나섰는데 제2중대는 東쪽을 迂回하고 제1, 제3, 兩中隊의 殘餘兵力은 西쪽을 迂回攻擊하였다.

連日 그쳤다 내렸던 하던 비는 개이기 시작하여 공격제대의 행동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러나 敵砲擊은 더욱 燃盛하여 LD 앞 계곡에서 直射火器에 直面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곳을 突破하던 제2중대장 朴昌根 대위가 오른 팔에 파편 상을 입었지만 붓대로 동여맨채 雨注하는 敵砲火를 무릅쓰고 “나”高地 南斜面에 진출하였다.

이곳에서부터는 사각을 이루어 突擊線까지는 前進이 비교적 容易하였으나 突擊개시선인 50m 前方에서는 그들이 가파른 능선 아래로 수류탄을 굴리며, 石塊가 紛飛하여 突擊을 斷念하고 일단 死角지점인 5部능선으로 물러서 頂上에 支援砲擊을 퍼붓게 하였다.

그리하여 “나”高地 頂上 일대에 支援砲火가 炸裂하기 무려 30여분, 대대는 이사이를 타

서 8部능선까지 진출한 다음 射程延伸과 더불어 돌격을 결행하였다.

그들은 自動小銃을 휘두르며 수류탄을 던져 집요하게 항거하였으나 제3중대의 激突에 밀려 陣地 一角을 突破當하자 15.30에 陣地를 버리고 潰退하고 말았으며 西쪽을 迂回하여 挾攻하던 제1, 제3 兩 중대의 殘餘兵力도 계속 敵을 追擊하여 戰果를 擴大하였는데 敵은 遺棄屍體 37구를 남겼으며 추격하여 13명을 사살하고 LMG 1정, 자동소총 3정 多發銃 3정을 노획하였다.

4. 사단장의 措置

한편 이와 같이 몇 차례씩 主人을 바꿔가며 M1高地에서 激戰이 되풀이되자, 사단장 宋錫夏 준장은 작전지시 제38호(13.17.00)를 아래와 같은 要旨로 下達하여 兵力을 增強키로 하였다.

『① 제60연대장은 13일 17.00부로 수색중대를 제61연대에 배속하라.

② 제61연대장은 배속되는 제60연대 수색중대와 주저항선의 사단수색중대의 임무를 교대시켜 M1高地에 대한 攻擊兵力을 增強하라.』

이에 따라 제61연대(장, 金仁哲 대령)는 17.30까지 제60연대수색중대를 주저항선의 사단 수색중대 진지에 推進하고 사단수색중대를 제5중대의 전초진지에 轉進케 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수색중대는 19.00부터 진지를 제60연대 수색중대에 인계하고 대대 OP가 있는 無名高地 西쪽 斜面을 경유, 이곳에서 2個소대는 제62연대와외 전투지경선을 넘어 △1,090 東南쪽 後斜面을 通하여 제5중대 진지와 併設한 左側진지를 占領하고 1個소대는 제1대대 OP 앞 능선에 배치하여 兵力을 增強하였다.

6월 14일

1. 제1대대의 攻防戰

전날 “나”高地를 奪還한 제1대대(장, 趙在俊 중령)는 陣地를 補強하면서 夜暗을 타고 豫想되는 敵의 逆襲에 對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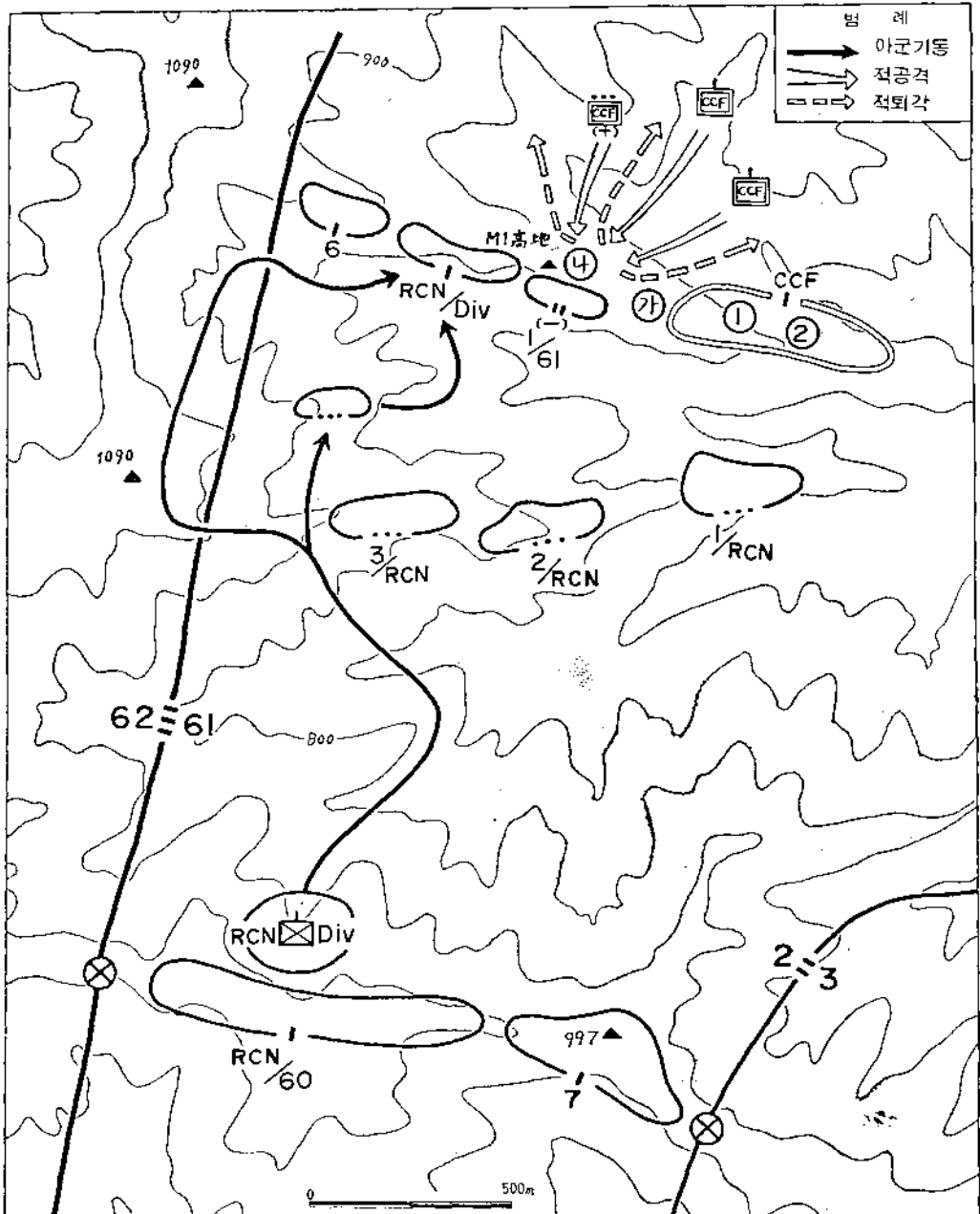
果然, 01.00에 중대 규모로 推算되는 一派가 熾烈한 砲擊과 함께 攻擊을 取함으로써 “나”高地에서는 대낮을 방불케 하는 火力戰이 벌어졌으며, 한때 陣內까지 突入한 그들과 白兵戰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血鬪끝에 이를 擊退하였으며 03.00에 그들은 “가”高地쪽으로 潰走하였다.

이렇게 또 한 차례의 激戰을 치르게 된 대대는 戰鬥力을 제정비하여 再侵에 對應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2個중대 규모로 推算되는 敵이 三派로 나누어 東西 그리고 中央으로 浸襲하였다.

이때 대대를 指揮하던 趙在俊 중령은 敵의 進入路에 兵力을 集中하여 據點방어로 그 浸透를 阻止하려고 奮戰을 거듭하였으나 少數兵力인 대다가 수류탄마저 消耗되고 보니 高地를 더 이상 支撐할 길이 없었다.

주검으로 高地의 堅守를 스스로 다짐한 대대장이었지만 다시 逆襲의 機會를 노리고 일 단 철수키로 決心하여 07.00에 同高地를 敵手에 넘겨주고 後斜面으로 물러나 兵力을 수습 再編中, 07.40에 사단수색중대(-)가 赴援하여 대대와 合勢하게 되자 敵에게 時間的 여유를 주지 않고 恢復攻擊을 敢行하였다.

◇ 상황도 제16호 1대대의 제2차 反擊



이리하여 각종지원포가 敵陣을 強打하는 가운데 대대는 사단수색중대(-)와 함께 8部綫에 진출하여 射程延伸과 더불어 突擊을 執行하였다.

이때 “나”高地를 奪取한 그들은 擦속에 숨어 있다가 猝地에 急襲을 받게 되자 별로 抗拒하지도 못하고 蹙蹙이 潰走하고 말았다.

대대는 이와 같이 奇襲으로 08.00에 “나”高地를 다시 恢復하여, 일부 파괴된 진지를 보강하면서 경계에 더욱 주력하였다.

그리고 대대 OP 앞쪽에 있는 無名高地에서 待機중인 사단수색중대 1個소대도 M1高地에 推進하였다.

그런데 潰走한 敵은 後續이 如意치 않았던지 또는 夜間攻擊을 試圖하려는 속셈이었는데 야일 수는 없었으나 이날 밤이 깊도록 아무 徵候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한나절 잠잠하던 M1高地는 밤이 깊어지면서부터 砲火가 다시 날아들기 시작하더니 23.30에는 集中砲擊을 加하면서 1개 중대 규모가 들이닥침으로써 또 한 차례의 激戰을 벌이게 되었다.

이리하여 제1대대는 사단수색중대와 合勢하여 陣內로 肉迫하는 그들을 저지하였으나 敵勢에 밀려 또 다시 高地를 넘겨주고 그 西쪽 능선 下端으로 24.00에 물러서게 되었다.

4. 사단장의 措置

敵의 攻勢가 사단 全戰線에 擴大되어 右一線 제61연대의 M1高地에서부터 左一線 제62연대의 △1,090, 그리고 그 左端 △938에까지 번지게 되자 사단장 宋錫夏 준장은 예비인 제60연대를 주저항선에 투입키로 決心하여 要旨 아래와 같은 사단작지 제39호(14. 12.00)를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계속 現任務를 遂行하며 侵襲한 敵을 擊滅키 爲하여 아래와 같이 一部陣地 및 兵力을 交代配置하려 한다.

㉞ 제60연대장

① 1個중대를 6월 14일 15.00까지 제61연대 左제一線 진지 後方に 移動시켜 제61연대에 배속하라.

② 1개 대대로써 6월 15일 02.00까지 제61연대 右제一線 진지를 교대 인수하라.

但, 주저항선진지는 주간에 전로진지는 야간에 交代하라.

㉟ 제61연대장

① 제60연대에서 배속되는 1個중대를 통합지휘하라.

② 제60연대에서 配屬된 수색중대 및 1個중대로써 左一線 陣地를 交代하고 주저항선의 대대와 現攻擊大隊와 作戰任務를 交代시켜 M1高地에 侵襲한 敵을 擊退하라.

㉓ M1高地를 占領하는 即時 사단수색중대의 배속을 해제한다.

㉔ 右側 一線 진지를 6월 15일 02.00까지 제60연대에 인계교대하라.

㉕ 제62연대는 계속 현임무를 수행하며 △1,090 및 △938에 侵透한 敵을 擊滅하라.

㉖ 사단수색중대는 M1高地 占領과 동시에 제61연대의 배속을 해제하고 제62연대에 배속한다.』

以上과 같은 사단작전지시를 받은 제61연대는 제2대대 주진지를 배속된 제60연대 수색중대 및 제5중대에 인계하고 제2대대를 뽑아 제1대대가 遂行中인 현임무를 인수케 하였으며 제1대대는 임무인계후 谷内里에 이동 재편케 하여 연대 예비로 控置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도 주진지를 제60연대에 인계하는 동시에 1個중대는 左一線 主陣地 後方에서 待機케 하였다.

또한 제60연대(장, 蔡命新 대령)도 사단작지에 따라 제2대대 제5중대를 제61연대에 배속하는 동시에 제3대대로 하여금 제61연대 右側 一線 주진지를 인수케 하였다.

한편 제61연대 제2대대는 연대작지 제19호에 따라 주진지를 19.00까지 제60연대 수색중대 및 제5중대에 인계하고, 제7중대는 진지인계와 동시에 M1高地에 推進케 하여 제1대대의 진지를 占領케 하였으며 제3대대도 주진지를 제60연대 제3대대에 인계한 다음 제9중대는 △1,090 南斜面에 位置한 제2대대 제6중대 진지에 추진케 하는 한편 제10, 제11 兩중대는 △997(주저향선 後方)의 西麓에 集結시켰다.

그리고 연대장 지시에 따라 제10, 제11 兩중대에서 將校 2명 士兵 33명을 抽出하여 特攻隊를 編成하는 즉시로 23.00까지 제1대대 OP에 急進시켰다.

6월 15일

1. 제3대대 特攻隊의 奇襲

전날밤 늦게 제1대대 OP에 進出한 제3대대 特攻隊(2/33)는 02.30에 “나”高地 南쪽 능선에서 적진을 急襲하였다.

그런데 高地를 占據한 敵은 진지를 보장하고 火力據點까지 갖추어 十字火力을 퍼서 亂射하였으며 더구나 頂上에서 방망이 수류탄을 집중투하함으로 特攻隊는 8部능선에서 몇 차례의 奇襲을 試圖하였으나 無爲로 끝나 膠着狀態에 머무르게 되었다.

2. 제1대대의 제4차 反擊

제3대대 特攻隊의 奇襲도 敵의 火網을 뚫지 못하고 頓挫狀態에 머물렀을 무렵 제2대대 제7중대가 진지를 인수키 爲하여 제1대대의 現 진지에 이르렀다.

이때 제1대대장 趙在俊 중령은 “나”高地를 奪取한 다음 M1高地에서 임무를 교대할 決心을 굳혀 제7중대와 合勢하여 同高地를 공격키로 하였다.

이러하여 공격준비를 갖춘 제1대대와 제7중대는 제3대대 特攻隊(2/33)가 頓挫狀態에서 對峙하고 있는 그 虛隙을 찢러 敵陣西側背로 主力을 휘몰아쳤다.

이와 같이 西側背를 強打當한 敵은 비로소 動搖하기 시작하더니 더 버티지 못하고 四分 潰退하였으며 그를 追擊하여 戰果를 擴大하였는데 이때 그들은 43具의 遺棄屍體를 남겼으며 多發銃 5정 LMG 2정 自動小銃 3정을 노획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이렇듯 04.00에 激陣을 奪取함으로써 대대는 또 한 차례의 奮鬪을 하게 되었으며 임무 교대에 앞서 그 最後를 裝飾하게 되었지만 滿 4일간 9회에 걸쳐 攻擊하고 8회에 걸친 復 攻을 받은 끝에 여섯번이나 主人이 되기도 한 이 高地를 연대작지 제19호(14.17.00)에 의 거하여 05.30부터 M1高地 頂上에서 그 임무를 제2대대에 인계하기 시작하였다.

3. 제2대대의 제1차 逆襲

M1高地를 제1대대로부터 다시 인수받은 제2대대(장, 崔昌昱 소령)는 제7중대로 하여 금 계속 방수케 하였으며 陣地補強과 아울러 一部兵力으로 땅굴을 파면서 敵의 逆襲에 대비하였다.

그런데 이날 未明 “나”高地에서 打擊을 받은 그들은 병력보충이 如意치 않았던지 어두워질 때까지 아무 徵候도 보이지 않아 戰線은 一時 交綏狀態를 이루었다.

그러나 중대는 그들이 必是 夜間攻擊을 試圖하리라고 믿고 警戒組를 더욱 강화하면서 이에 대비한 전투준비를 갖추어 나갔는데 밤이 이윽히 깊어지자 포격을 集中하며 22.00에는 중대규모가 東쪽 능선을 타고 밀려들었다.

이때 중대는 그의 侵入路를 火力으로 遮斷하였고 수류탄을 집중하였으나 중대는 그들의 육박에 밀려 진지를 상실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23.00에 일단 南麓으로 물러서 反擊준비를 갖춘 중대는 各種支援砲擊과 함께 23.30에 反擊에 나섰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진지보강과 戰備를 갖추 餘裕를 주지 않고 一擧에 그 虛를 찢러 擊破하려는 기도였다.

이처럼 敵은 一部 破壞된 진지를 보수하다가 중대의 一擊으로 그 正面을 突破 당하자 周章狼狽한 끝에 陣地를 버리고 “가”高地 쪽으로 潰走하고 말았으니 이때가 23.50이었다.

6월 16일

1. 제2대대의 제2차 逆襲

전날 “나”高地를 빼앗기고 “가”高地쪽으로 潰走한 敵은 後續部隊과 合勢하여 이날 00.10에 “나”高地 正面을 急襲함으로써 제7중대는 또 한 차례의 激戰을 치르게 되었다.

중대는 전날 夜間攻擊으로 同高地를 奪取하였지만 네번이나 血戰을 겪는 사이에 兵力의 損失도 적지 않은데다가 疲勞에 지쳐 있었다.

중대는 陣內로 밀려드는 敵을 阻止하려고 火力을 集中하며 수류탄을 投擲하여 力戰苦鬪를 거듭하였으나 밀려드는 敵勢를 막지 못하여 00.40에 또 다시 高地를 넘겨주고 그 西麓에서 兵力을 수습하게 되었다.

대대(장, 崔昌昱 소령)는 제7중대가 “나”高地를 버리게 되자 이미 배속되어 04.30까지

제6중대 진지로 急進한 사단수색중대(-)로써 중대와 合勢하여 同高地를 奪還케 하는 한편 주저항선상의 제5중대를 뽑아 대대 OP 隣쪽 無名高地에 03.40까지 推進시켜 병력을 증강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04.30에 사단수색중대와 제7중대가 合勢하여 05.00부터 逆襲을 再開하였다.

美 제10군단 포병 및 사단포병의 지원사격이 “나”高地 일대를 強打하는 가운데 敵陣을 向해 突進한 攻撃梯隊는 敵의 直射火力의 間隙을 누비며 돌격선에 진출하자, 射程의 延申과 더불어 突擊을 決行함으로써 高地頂上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血鬪가 演出되었다.

이때 高地의 敵은 방향이 수류탄을 던지며 多發銃을 亂射하여 緊要하게 저항하여 한때 苦戰을 겪었지만 결국 白兵으로 06.00에 同高地를 奪還하고 四周방어에 들어갔으며 일부 병력으로 진지를 보수하였다.

2. 제3대대의 진지인수

連日 계속하여 몇 차례씩 主人을 바꿔가며 激戰을 벌인 M1高地에서는 前夜 夜襲에 이은 한 차례의 爭奪戰이 있었을 뿐 敵은 潰退한 다음 이날이 저물도록 侵攻이 없었다.

21.50에 數未詳의 敵의 一團이 “2”高地쪽에서 “나”高地쪽으로 이동하다가 我軍의 砲擊으로 分散退却하였다.

이에 연대장, 金仁哲 대령은 敵이 兵力을 增強 投入할 것으로 내다보고 連日 激戰을 치르면서 적지 않은 戰鬪力을 喪失한데다가 疲勞까지 疊친 제2대대를 뽑아 예비로 재편케 하고 제3대대에 대하여 M1高地에서의 새로운 임무를 부여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3대대장 李秉晉 소령은 제9중대를 20.00까지 “나”高地에 轉進시켜 진지를 인수케 하였으며 제7중대는 22.30부터 동 高地를 인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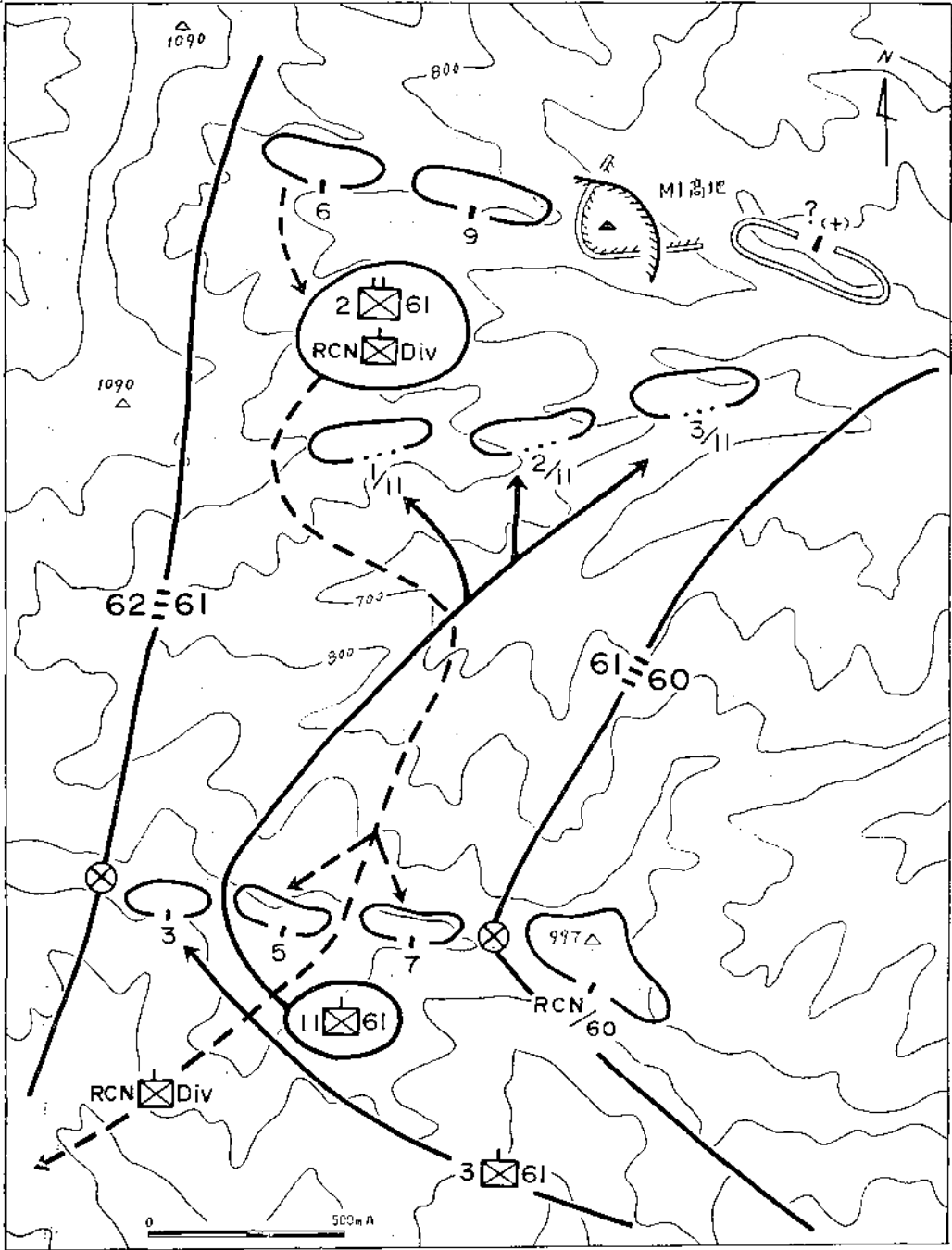
6월 17일, 18일

제61연대는 만 1주일간 13회의 攻擊을 敢行하여 아홉번이나 M1高地를 奪取하여 그 主人이 되기도 하였지만, 反面 敵은 11회의 逆襲을 試圖하였으니 其間 同高地가 24번이나 激戰場으로 化하여 彼我的 屍體와 鮮血로 물드는 慘狀을 빚어왔는데 敵으로서는 1개연대 以上の 兵力을 消耗하여 그 補充에 汲汲하였을 것이지만 美航空機와 美 제10군단 및 사단포병이 후방보급로를 계속 強打하여 遮斷함으로써 兵力補充은 勿論이고 補給까지 如意치 못하여 極히 困境에 빠진듯, 이날도 前일에 이어 交綏狀態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러나 休戰會談이 무르익어 감을 奇貨로 休戰線의 擴張을 企及하려는 野慾을 버리지 않는 限 그들은 계속 攻勢를 취할 것으로 내다본 연대장 金仁哲 대령은 M1高地의 방수태세를 더욱 固執히 다져나갔다.

그리하여 M1高地에서의 作戰任務는 이미 前夜 제3대대가 제2대대로부터 인수한 바 있거니와 이날 12.00에 제2대대 중화기 중대의 81mm 박격포진지도 제3대대 OP 後斜面에 推進케 하여 동대대를 직접지원토록 하였다.

◇ 상황도 제17호 제9대대의 제1차 反擊



한편 제2대대(장, 崔昌문 소령)는 제5, 제7, 兩 중대의 진지를 15. 20까지 제3대대에 인
제하고 연대 左一線인 江內里쪽 주저항선에 배치하였다. 또한 사단수색중대도 사단착지

제39호(14. 12. 00)에 의거하여 제61연대에서 제62연대로 배속이 변경됨으로써 현진지를 제3대대에 인계한 다음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다음 날인 18일 02.40에 1개 중대(-) 규모가 제62연대와의 地境線을 틈타 제6중대의 左側一線 전초진지에 侵襲하였다.

그리하여 한때 진내로 육박하려는 그들과 激突하여 熾烈한 血戰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중대는 果敢한 短兵接戰으로 04. 30에 이를 擊退하였다.

이와 같이 한 차례의 逆襲을 試圖한 다음 이날이 저물도록 侵攻이 없었으며 山頂을 울리는 彼我的 砲擊만이 실새 없이 계속되었을 뿐이다.

한편 제6중대도 진지를 16. 00에 제9중대에 인계하고 제5중대의 左側一線 주저항선진지에 轉進함으로써 제2대대는 M1高地에서 完전 철수하여 주저항선에 배치하게 되었다.

6월 19일 : 이날은 드디어 만 2일간의 小康을 깨고 敵의 一波가 M1高地에 侵襲하였으니 敵으로서의 어느 程度의 兵力보충과 戰備를 갖춘 것으로 推斷되었다.

한편 사단의 左一線인 제62연대는 그 一部陣地(△938地域)를 사단작지 제43호로써 16일에 이미 제7사단 제8연대에 인계하였고 이날은 사단작명 제6호로 現진지도 제7사단 제5연대에 인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62연대는 △1,090의 작전임무도 동연대에 인계한 다음, 이날부로 楊口 芳山里에 이동하게 됨으로써 사단은 尙後 M1高地 일원만을 전담하게 되었다.

이날 01. 00에 1개소대로 추산되는 敵의 一波가 熾盛한 지원포격을 수반하고 “나”高지를 侵襲하였으나 여기를 지키던 제9중대는 20분만에 이를 격퇴하고 말았는데 02. 40에 그들은 또 다시 1개소대 규모로 침공하여 火力을 집중하였다.

이때에 頂上은 철쭉 같은 어두움에 쌓였으나 중대는 力戰으로 또 다시 이를 격퇴하였지만 “가”高地쪽으로 潰退하던 敵은 後續兵力을 增強한듯 이번에는 東西 兩面에서 挾擊하면서 陣內로 육박하였다.

이렇게 연이은 강습을 받게 된 중대는 集中포화로 負傷者가 續出한 끝에 이를 막아내지 못하고 03. 30에 西麓으로 물러나 대대에 급박한 상황을 보고하는 동시에 增援을 긴급요청하고 포격을 집중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각종지원포화가 該高地 頂上에 集中하는 가운데 04. 20부터 反擊에 나선 중대는 8部능선까지 突進하여 射程의 延伸과 더불어 일제히 突入하여 高地를 奪取하였으니 이때가 04. 20이었다.

이무렵 增援된 제11중대 제2소대가 合勢하여 四周방어 진지를 보장하였다.

이렇게 세차레나 연이어 역습을 反復한 그들은 高地를 한 때 奪取하였다가 “가”高地쪽으로 敗走한 다음 增援兵力의 到來만을 기다린 탓인지 날이 저물도록 잠잠하더니 밤이 깊어지면서부터 포격을 再開하여 21. 00부터 그 數조차 알 수 없는 一波가, 다시 “나”高地로 侵襲하였다.

중대는 그 侵入路를 遮斷하여 수류탄을 집중하면서 이를 막았는데 이때에 西側方에서 또 그들의 一波가, 그리고 연이어 東側背에서도 1개중대 규모가 밀어닥쳤다.

이와 같이 時間이 갈수록 敵勢가 증강되어 三面에서 包圍壓縮하여 死生을 決斷코자 發惡하니 頂上에서는 亂鬪相을 演出하게 되었다.

이 渦中에서도 중대와 제11중대 제2소대는 이곳을 堅守하려고 血鬪를 거듭하여 적지 않은 死傷者를 보게 되었으나 중대는 견디지 못하고 22.00에 高地를 敵手에 넘겨주고 西麓을 向하여 물러서게 되었다.

이렇게 戰況이 不利하게 진전되자 대대장 李秉晉 소령은 제9중대로 하여금 현진지를 확보케 하면서 대대 OP 後斜面에 공치한 제11중대 제3소대를 急進시켜 반격준비를 갖추게 하였고 한편 제10중대가 제62연대 배속으로부터 해제되었으므로 이를 대대 OP 東쪽 능선에 18.00까지 轉進시켜 예비로 공치하였다.

6월 20일 : 이날도 비교적 快晴한 날씨어서 航空支援이 더욱 活發하였다.

1. 제3대대의 제2차 反擊

전날밤 “나”高地 西麓으로 물러선 제9중대는 이날 02.30에 제11중대 제3소대의 赴援을 받아 03.00부터 反擊에 나섰는데 중대는 제11중대 제3소대와 함께 西쪽 능선을 타고 쳐들어갔다.

이때에 高地를 奪取한 敵은 時間여유를 얻어 火力據點까지 이미 補強하고 山頂에서 LMG와 BAR을 亂射하면서 저항할 뿐만 아니라 계속 포격을 집중하므로 7部능선에서 頓挫狀態에 빠지게 되자 제11중대 제3소대로 하여금 火力支援을 계속케 하는 동시에 중대장은 주력을 이끌고 死傷을 이룬 正面의 가파른 능선쪽으로 迂回하여 敵前 30m까지 突進하였다.

이곳에서 중대는 수류탄을 집중하여 일제히 敵陣에 楔入하여 白兵을 휘둘렀는데 이때에 敵은 더 以上 버티지 못하고 05.40에 陣地를 버리고 潰走하였으며 敵屍 27구를 確認하였으며 BAR 5정을 노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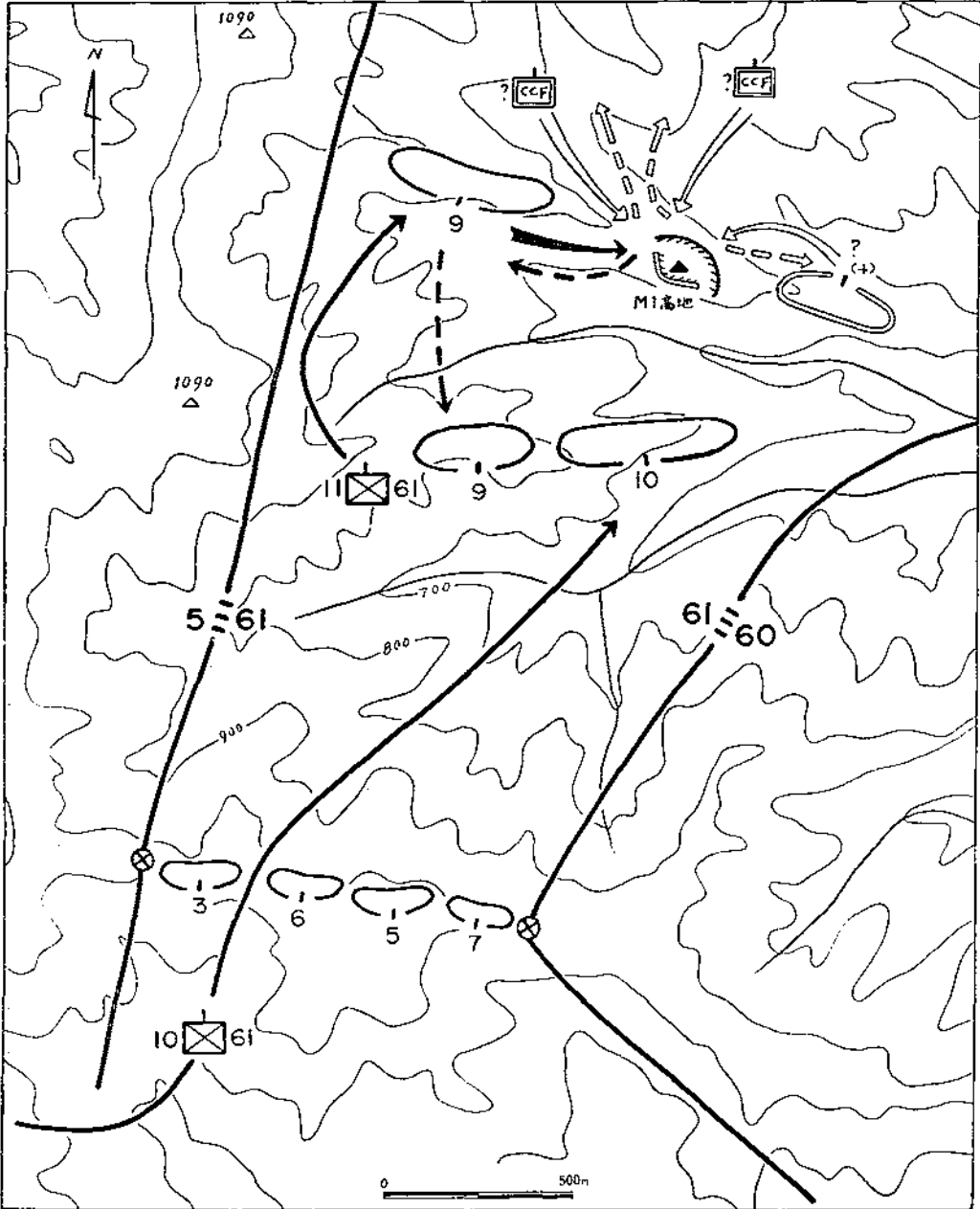
그런데 이무렵 “가”高地쪽으로 敗退한 敵은 그 곳에서 兵力을 增強한 듯 06.50에 또 다시 역습하였으나 곧 이를 擊退하였는데, 그 뒤에 도사리고 있던 중대 규모가 이번에는 東쪽 진전에 殺到하여 火力을 집중하자 중대는 苦戰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때 그들은 奮戰이 끝난 탓인지 미처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지도 못하고 손에 든채 디리닥쳤으나 중대 및 제11중대 제3소대는 진전에서 이를 끝내 막아내었다.

이때 參戰者의 證言에 따르면 陣前에 敵의 屍體가 쌓이고 쌓여 발 디딜 곳도 없을 程度이었다고 하니 그들은 人命을 無視하는 強襲을 자행하였으며, 이 戰鬪 樣相이 얼마나 苛酷하였던가를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力戰苦鬪 속에서 끝내 敵을 물리치고 “나”高地를 계속 確保하게 된 대대장 李秉晉 소령은 제9중대가 7회에 걸친 激戰을 치르면서 戰鬥力의 殆半을 喪失하게 되었으

◇ 상황도 제18호 제3대대의 제2차 反擊



므로 07.30에 이를 뽑아 대대 OP 後斜面에서 再編케 하는 동시에 여기서 待機中이던 제 11중대 제1소대를 08.30까지 “나”高地에 進入시켜 제11중대만으로써 固守토록 하였다.

그리고 대대 OP 東쪽 능선에 예비로 공치한 제10중대도 언제든지 支援할 수 있도록 措 置하였다.

이즈음 敵도 여러 차례의 병력보충을 피한듯 하나 美 제10군단 및 사단포병의 遮斷射擊으로 分散된 듯 한데 그중에서도 19.50에는 1개중대 以上으로 推算되는 兵力이 △1,218쪽에서 △1,090쪽 東쪽 능선을 타고 “가”高地쪽으로 移動하다가 砲火로 粉碎되기도 하였다.

2. 사단장의 措置

M1高地에서 激戰의 噴火口가 爆發한지 만10일을 경과하는 사이에 제61연대는 逐次的으로 隸下 3個대대를 모두 投入하여 도합 16회의 공격으로 11번 同高地를 占領하였으며 敵도 17회의 역습으로 11번이나 同高地를 奪取하였으니 結局 同高地의 奪取戰은 하루에 2,3次를 치른 셈이요, 主人도 번갈아가며 바꾼 셈이 된다.

이렇게 전초진지에 지나지 않는 이름 없는 M1高地를 사이에 놓고 그 爭奪戰이 熾烈化하게 된 緣由로서는 敵이 7월 攻勢에 앞서 반드시 이 高地를 奪取함으로써만이 이를 발판으로 삼아 主抵抗線을 攻略할 수 있고 休戰線 擴張을 피하려는 術策도 達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되었다.

그러므로 사단장 宋錫夏 준장도 敵의 이러한 腹案을 看破하고 이 高地를 끝까지 堅守할 決心을 굳히고, 또한 當時 美 제10군단장 Isaac D. White 중장도 同高地의 固守를 위한 決意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사단은 제61연대가 10일간의 血戰을 치르면서도 現在까지 이를 確保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의 戰鬪力을 喪失하였으며 또 敵의 攻勢도 끈질기게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아래와 같이 사단작명 제6호(20.18.00)를 下達하여 제60연대를 交代시켜 이곳에 投入키로 하였으니 그 要旨은 다음과 같다.

- 『① 사단은 계속 M1高地를 確保하기 위하여 一部兵力으로서 主抵抗線의 一部陣地를 交代하려 한다.
- ② 美 제5空軍 및 美 제10군단 砲兵은 要請에 따라 계속 지원한다.
- ③ 제60연대는 그 陣地를 제61연대와 相互 引受引繼하되 6월 21일 20.00부터 22일 24.00까지 인수를 完了하라.
- ④ 제61연대는 21일 06.00부터 2個 中대병력으로 제60연대 陣地를 인수하는 동시에 현주 저항선을 22일 24.00까지 제60연대에 인계하고 23일 18.00까지 谷內里에 移動集結하라.
- ⑤ 제62연대는 현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 ⑥ 포병단은 제60연대 및 제61연대를 각 1개대대로 직접지원케 하고 殘餘대대는 계속 현임무를 수행케 하라.
- ⑦ 공병대대는 21일 12.00부로 1개중대를 제60연대에 배속하라.
- ⑧ 通信은 現行 SOI에 의거한다.
- ⑨ 사단장은 前方지휘소에 位置한다.』

이와 같은 사단작명에 따라 제61연대장 金仁哲 대령은 谷內里에서 再編中인 제1대대(장,

趙在俊 중령)로써 제60연대 진지를 인수케 하였으며 제60연대장 蔡命新 대령은 제1대대로 하여금 제61연대의 주진지 및 전투전초진지(M1 高地)를 22일 日沒後에 인수케 하였다.

6월 21일 : 이날은 비교적 晴明한 날씨가었는데 전날 세번이나 몰려든 敵의 狂波를 막아낸 제11중대는 徹夜하면서 警戒中 이날 子正부터 敵砲火가 또 다시 咆哮하기 시작하여 03.00에는 “나”高地 일대를 強打하더니 잠시 뒤에 1개 중대 규모가 東側 능선에서 侵襲하였다.

그런데 이때는 중대가 集中砲擊을 받아 分散 直前에서 兵力을 수습한 바로 直後라 대대 OP와의 有無線까지 杜絶되었으므로 孤立된 狀態에서 苦戰力鬪로 이를 저지하였으나 진내로 육박하는 敵勢를 막아내지 못하고 일단 西麓으로 물러서게 되었으니 同數兵力의 奇襲으로 밀리는 醜態를 免치 못하였다.

이루렵 대대장 李東晉 소령은 危急한 중대의 戰況에 接하자 대대 OP 東쪽 능선에서 대기중인 제10중대의 1개소대를 急進시켰다.

그리하여 05.20에 제10중대 제3소대가 동 고지의 西麓에 이르자 중대는 이와 合勢하여 反擊을 再開하였다.

그러나 7部능선에서 敵의 火網에 부딪쳐 頓挫상태에 빠지고 말았는데 이와 같이 戰勢가 不振하여 교착되기에 이르자 대대는 또 제10중대에서 1개소대를 더 赴援케 하였던 바 제10중대장은 제2소대를 06.30에 急據 進出시켰다.

이리하여 제11중대는 제10중대에서 제2소대가 增援된 07.50에 反擊을 再興하여 “나”高地 正面을 直衝한 끝에 同高地를 손에 넣게 되었다.

그런데 “가”高地쪽으로 潰退한 敵이 後續한 1개 중대 규모의 增援兵力과 合流하여 逆襲함으로써 이곳은 또 한 차례의 血戰場으로 化하여 頂上에서는 서로가 얽혀 混戰亂鬪가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數의으로 多少 優勢한 그들은 決死的으로 陣地의 一角을 突破하였다.

이에 중대는 일단 同高地를 敵手에 다시 넘겨주고 그 中腹으로 물러나 흩어진 兵力을 수습하면서 頂上을 尙해 支援砲擊을 要求하였다.

그리하여 砲火가 炸裂하는 가운데 10.30부터 또 다시 攻撃에 나섰다.

이때 제11중대장은 중대의 殘餘兵力(60명)과 제10중대의 兩 소대(50명)을 統合指揮하여 東쪽 능선을 迂回, 8部능선까지 突進하였으며 射程의 延伸과 때를 같이하여 일제히 돌격을 決行하였다.

그런데 敵은 射程의 延伸이 시작되면 前斜面으로 튀어나와 緊요하게 저항하였으며 좀처럼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리하여 頂上에서는 12.40부터 13.20까지 무려 40분간이나 一進一退의 混戰을 벌이게 되었으니 그때의 戰況을 대대장 李東晉 소령은 證言에서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頂上은 彼我的 屍體로 뒤덮였고 砲火로 焦土化된 땅바닥은 流血이 狼藉하여 鮮血로 붉게 물들어있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凄絶한 血戰끝에 “나”高地를 다시 恢復하였지만 이날, 03.00부터 10여시간 사이에 세번이나 主人을 바꿔가면서 激戰을 치른 탓으로 兵力의 損失도 적지 않은데다 前날밤을 徹夜하면서 給食과 休息도 取하지 못하였으므로 極度로 疲勞에 지쳐 있었다.

『萬一 이런 때에 능들이 다시 역습만 하였다면 총 한방 쏘아보지 못하고 물살 當하였을 것이며 피로 찾은 高地를 그대로 빼앗겼을 것이다』라고 대대장 李東晉 소령은 證言에서 當時를 回顧하였다.

그러나 이무렵 그들도 “가”高地 쪽으로 潰滅狀態에서 敗走한 跡이었던지 밤이 깊도록 역습 한번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腥風과 血雨가 스쳐간 激戰場에는 10餘時間이 지나도록 銃聲이 멎어, 한나절 彼我 對峙하고만 있었는데 夜間攻擊을 能事로 하는 그들은 23.30부터 砲火를 集中하기 시작하였으며 10분 뒤에는 “가”高地쪽에서 曳光彈이 치솟아 하늘을 수 놓더니 이를 信號로 1個 中隊 규모가 東쪽 능선을 타고 侵襲하였다.

그러나 中隊는 侵入路에 自動火力을 퍼부으면서 手榴彈을 連投하여 그들을 分散潰走케 하고 말았다.

6월 22일 : 이날로써 13일째를 맞이하는 M1高地에서의 戰鬪도 前日의 熾烈한 爭奪戰으로 그 最後의 고비를 넘긴 듯, 敵으로서는 其間 近 2個연대 兵力을 喪失하고 兵力補充을 꾀하였을 것이나 連日 흐리던 날씨가 快晴하여짐에 따라 航空支援이 活潑해지고 砲兵群의 遮斷射擊으로 말미암아 이날도 그들의 侵攻은 없었으며 다만 △1,090의 東北쪽을 通하여 1개 中隊로 推算되는 兵力이 “가”高地쪽으로 移動하다가 砲擊으로 粉碎된 事實이 判明되었다.

한편 사단작명 제6호(6.20 18.00)에 따라 前날 제60연대 제1대대는 그 전지를 제61연대 제1대대에 인계하고 21.00에 △977 後斜面에서 主陣地의 인수준비를 갖추었는데, 이날 08.30에 제61연대 제2대대로부터 인수하였다.

그리고 이 여기를 固守하던 제61연대 제2대대와 수색중대는 陣地인계와 동시에 谷內里에 移動하였으며 연대수색중대는 이날 16.00부로 제1대대에 배속되었다.

이 무렵 敵 1개소대규모가 “나”高地를 侵襲하였으나 砲擊을 받아 分散潰走하고 말았는데 이러한 가운데 제60연대 제1대대 제1중대가 “나”高地에 도착하였으며 다음 날 03.00에 該高地에서 그 임무를 인수하였다.

그리고 제61연대는 該地域의 作戰指揮權을 제60연대에 移讓함으로써 14일간 熾烈을 極하던 이 激戰場을 떠나게 되었다.

그동안 연대로서는 隸下 3個대대를 모조리 투입하여 18회에 걸친 피스톤式 攻擊으로 16

번이나 高地를 奪取하였다가 22회에 達하는 敵의 逆襲을 받아 16번 빼앗기고 말았던 M1 高地에 있어서의 戰鬪도 이로써 그 終幕을 내리게 되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제61연대는 사단작명 제6호(6.20. 18.00)로써 제60연대에 該高地를 引繼하고 제61연대는 楊口 深浦里로 移動하였으며 제62연대는 △1,090 및 △938를 제7사단 제8연대와 제5연대에 인계하고 楊口 芳山里에 移動하여 敎育訓練에 들어갔다.

한편 6월 23일부터 M1高地 일원을 防수하게 된 제60연대는 이곳에 제1대대(장, 韓萬炯 중령)를 배치하였는데 이날부터 7월 3일까지 사이에 敵은 소대 또는 중대 규모로써 계속 侵襲하였으나 그때마다 이를 擊退하고 其間 敵屍 144具를 確認하였으며 推定殺傷 264명과 2명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SMG 10정을 노획하는 한편 戰死 107명 負傷 136명의 損失을 보았다.

이와 같이 사단은 該戰線에서 계속 싸우다가 7월 4일 사단작지 제54호로써 美 제45사단에 진지를 인계하고 楊口 竹谷里에 移動하여 部隊整備 중, 美 제 10군단 작지 제7호에 依據하여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麟蹄 天桃에서 美 제40사단과 punch bowl부근 진지를 인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61연대는 楊口 玄安에 이동하여 美 40사단의 右一線 제223연대와 진지를 交代인수하고 제62연대는 楊口 靈山村에 이동하여 左一線 제124연대의 진지를 인수하였으며 제60연대는 楊口 郡 亥安面 靈川里에 예비로 控置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새로운 戰線을 맡은 사단은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加七峰地區에서 北傀軍 제15사단 제48연대의 侵攻을 받아 한때 激戰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이곳을 防수하던 제62연대(장, 李丙起 중령)의 제1대대(장, 崔熙大 중령)와 제2대대(장, 洪載翊 중령)의 奮戰으로 이를 끝까지 固守하였다.

그 뒤에 사단은 7월 24일부로 美 제10군단에서 배속해제와 동시에 韓國軍 제3군단에 배속되었으며 7월 27일 휴전협정을 보게 되었다.

當面の 敵 중공 제33사단은 제20사단과의 이곳 戰鬪에서 決定的인 打撃을 받아 2個연대 이상의 兵力을 喪失하였음에도 不拘하고 休戰이 成立될 때까지 계속 侵攻을 피하였으나 번번이 鎗탄 타격을 받고 敗退되었다.

이 戰鬪期間에서 얻은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종 별	부 대 별	제 1 대 대	제 2 대 대	제 3 대 대	수 색 중 대	계
射 擊	殺 傷	129명	510명	293명	48명	980명
推 定 殺 傷 (戰 鬪 詳 報)		312 "	346 "	399 "	98 "	1,156 "
插 關 銃	虜 獲	3 "	1 "	3 "		7 "
機 關 銃		3정	3정	4정		10정
機 關 短 銃		19 "	6 "	11 "		36 "
多 發 銃		4 "	6 "	5 "		15 "
手 榴 彈		36발	80발	56발		172발

損 失

종 별	부 대 별	제 1 대 대	제 2 대 대	제 3 대 대	기 타	계
戰 死		54명	31명	3/37명	1/14명	4/136명
戰 傷		11/264 "	10/190 "	8/213 "	2/104 "	31/771 "
失 踪		26 "	35 "	16 "	4 "	81 "

§ 參戰者의 證言

제20사단장 宋 錫 夏 준장

(1976. 5. 29 自宅에서, 예 소장)

당시 中共軍은 魚隱山을 據點으로 하여 이와 連하는 △1,090—M1高地—△1,220를 奪取할 目的으로 侵攻하였다.

그리하여 中공 제33사단의 주력이 사단전면에 걸쳐 攻勢를 取하였으며 火力도 相當하였다.

이 戰鬪에서 勝利한 것은 先鋒사단에게 基幹要員 以外에는 新兵들이었지만 特히 대대장과 中대장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지 別다른 作戰은 없었다.

다만 내가 砲兵教育을 받은 탓으로 제7사단의 포병단까지 배속받은 隸下 6個포병대대를 직접 지휘하여 이로써 敵을 制壓하였다.

期間中 連日 雲天이어서 航空支援이 거의 없었으므로 美 제10군단 포병지원까지 要請하여 砲로써 敵을 制壓하고 步兵으로 最終攻鬪을 敢行케 하였는데 여러가지 애로가 있었다.

첫째 降雨과 曇天으로 TOT 射擊에 있어서의 觀測이 容易치 않았고 둘째로 砲彈供給問題였다.

勞務者들로 砲彈을 運搬케 하면 敵砲火만 날아와도 逃亡하였다. 그리하여 兵士들과 混合하여 운반하였는데 애로가 적지 않았고 한편으로 美軍側에서 砲彈供給에 있어 지나친 統制였다.

甚至於 美8軍 當局에서 砲彈을 많이 消費한다 하여 내 去就問題까지 들고 나왔으나 우리 사단이 加七峰쪽으로 간 다음 鮮于高地(△938)를 奪았길 然後야야 비로소 砲彈을 많이 消費해도 끝까지 固守하여 잘 싸웠다고 戰功을 알아 주었다.

이 戰鬪에서 내가 眞實히 느낀 것은 아무리 新兵들이라 해도 各級指揮官들이 堅忍不拔의 軍은 信念으로 陣頭에서 싸우면 반드시 勝利할 수 있다는 點이다. 그 좋은 例가 그 當時 제61연대

제1대대장 趙在俊 中령은 不過 80여명의 大대殘餘兵力을 이끌고 직접 M1高地를 奪還하였다. 그때 趙 中령이 負傷을 입어 사단 軍醫官을 내보냈으나 軍醫官을 돌려보내고 負傷입은 몸으로 高地까지 올라갔다.

이러한 백절불굴의 참된 軍人精神만이 勝利의 榮光을 안겨줄 수 있다.

◇ 제61연대장 金仁植 大령

(1976. 3. 3 聖友俱樂部, 예 준장)

당시 中공군은 번번이 1개대대 병력으로 공격하여 왔지만 我軍의 砲擊으로 半以上이 죽고 中대병력이 突擊하여 왔다.

언제나 數的으로는 優勢한 敵이었으므로 그때마다 苦戰을 겪었다. 제1대대의 경우는 不過 2個소대의 殘餘兵力을 大대장이 직접지휘하여 M1高地를 공격탈환하였으니 數的으로 劣勢이면서도 오직 敢鬪精神으로 敵을 물아냈다.

이 戰鬪에서 가장 어려웠던 問題는 增員兵力이었다. 機動空間이 狹窄한 곳이기때문에 中대 以上の 兵力을 投入하기엔 困難하였지만 當時 그 以上の 兵力을 投入할 餘裕도 없었다.

敵의 侵攻으로 驚戚하면 中대가 깨어지면 即時 增援兵力을 投入해야 하였는데, 예비隊는 距離로 보아 時間이 所要되므로 敵으로 하여금 陣地를 補強할 時間의 餘裕만 주게 되므로 가까운 主 저항선의 兵力을 投入하고 예비대를 이곳에 配屬하려고 하였지만 當時 美顧問官들이 主抵抗線의 兵力을 뽑지 못하게 하여 애로가 있었다.

앞으로 先導전진지에 있어서의 增援兵力 使用問題는 研究課題로 考慮되어야 할 줄 안다.

◇ 제61연대 제1대대장 趙在俊 중령
(1976. 3. 16 전사편찬위원회에서, 副소장)

그 당시 우리 대대는 예비대로로 △1,220 後斜面에서 訓練中이었는데 반드시 M1高地에 投入될 것으로 豫想하고 그와 비슷한 地形을 擇하여 그 頂上에 費品을 걸어 놓고 小隊別로 내기를 시켰던 바 나중에 실전에서 큰 効果를 보았다.

그리고 指揮通信의 維持를 爲하여 능선 背斜面을 이어 架設케 하고 50m—100m에 1명의 通信兵을 配置하여 切斷時에 責任지고 補修케 하여 成果를 보았다.

악마 우리 대대만 하여도 M1高地는 여섯번인가 빼앗았지만 곧 도로 被奪되었으니 이는 중대장들이 高地 頂上에 있지 않은 原因이 크다. 그래서 직접 중대와 같이 M1高地에 올라갔는데 그 후에는 빼앗기지 않고 제2대대에 임무를 인계하였다.

내게 무슨 神通力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대장이 高地에 있다는 안도감과 믿음이 士氣를 높여 주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戰鬪에서 敵砲火가 熾盛스러워 보급이 如意치 않았으며 特別히 給食이 제대로 안되었다.

내가 高地에 올라가는데 兵士들이 땅을 파기에 땅굴을 파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배가 굶어서 힘부리를 깨고 있었다. KSC(勞務者)에 의한 보급은 完全히 失敗하였으니 이들은 砲彈만 떨어지면 내던지고 도망갔다.

아무리 勇敢한 兵士들이라 하더라도 배가 굶어서는 못 싸운다.

§ 戰 鬪

◇ 新兵과 그에 따르는 問題點

當 사단은 新編사단으로서 처음 이 戰鬪에 參加한 탓으로 基幹要員을 除外하고서는 全員이 戰鬪經驗이 없는 新兵들로 構成되었다.

新兵들도 當時 一定期間의 訓練過程을 通하였지만 參戰者들의 證言을 綜合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問題點들이 이 戰鬪에서 如實히 밝혀지고 있다.

戰鬪中の 補給問題는 더욱 研究되어야 할 줄 믿는다.

◇ 제61연대 제2중대장 朴昌根 대위 (1976. 3. 22일 전사편찬위원회에서, 예 대위) 全州 酒糟會社 經理課長

계속 降雨로 攻撃이 더욱 힘들었다. M1高地에 대한 攻堅命을 받았는데 비는 억수로 쏟아지고 공격개시선 앞에 있는 계곡에는 흙탕물이 소용돌이쳤다.

그래서 M1소총은 回收하고 수류탄 20발을 그 대신 질머지게 하였다.

다들 경험했을 줄 알지만 M1소총은 비를 맞으면 自動이 잘 안되고 桶中에는 큰 짐이 된다. 그래서 이런 指圖를 取하였는데 攻撃에 성공하여 高地를 占領하였을 때는 꼭 잘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戰鬪에서 소대장들은 거의 戰死傷하였기에 先任下士官들이 소대장 대리를 하였는데 不幸中 多幸이라고나 할런지 이들은 歷戰의 古兵들이어서 오히려 新兵들을 잘 다루고 要領 있게 잘 싸웠다.

그리하여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先任下士官들이 잘 싸워 高地를 奪取하였다.

한번은 夜間攻撃을 하였는데 敵砲火가 날아오니 다 離脫하여 결국 失敗하였다. 訓練되지 않은 新兵을 가지고 夜間攻撃을 한다는 것은 無謀한 일이다.

앞으로 이런 點은 留意하여야 하겠다.

셋째, 夜間戰鬪에 있어서는 그 戰鬪力을 거의 發揮하지 못하였다.

당시 제1대대 제1중대장 朴昌根 대위의 證言을 引用하면, 『한번은 夜間攻撃을 하는데 敵砲火가 날아오니 뿔뿔이 도망가고 없었다.

그리고 또 한번은 夜間에 敵이 侵襲하여 陣前에 殺到하는데 싸 죽임 생각은 하지 않고 은폐물을 찾아 隱身하고 있기가 일수다』라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訓練 안된 新兵으로서는 夜間戰
闘가 어렵다는 것을 實證하고 있다.

특히, 失蹤者數이다.

本戰鬪期間中 81명의 失蹤者가 있었다.

그 當時 落伍者 收容線이 그어졌었고 이에

○ 研 究 ○

(1) 高地의 名稱問題

陸軍戰史나 사단약사에 本戰鬪의 名稱을 M1
(에무 완) 高地戰鬪로 하였으니 이는 그 當時
無名高地의 모양이 M1소총과 恰似하다 하여 命
名한 것으로 參戰者의 證言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本戰鬪名을 여기에서는 谷內北쪽 無名
高地戰鬪라고 하였으며 一名 M1高地戰鬪라고
押入하였다.

그 까닭은 本戰鬪에 參戰한 人들은 M1高地戰
鬪라 하여도 어느 곳인지 알겠지만 其他 많은
讀者나 다음 世代에서는 地名을 붙이는 것이 더
解得하기 쉬운 것으로 믿어 이와 같이 하였다.

(2) 個人記錄 및 指揮官의 名單問題

제20사단은 新編사단으로 처음 이 戰鬪에 投
入된 탓인지 戰史에 關한 記錄이 없으며 文書
保全所에도 個人記錄 및 人事命令綴이 保管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여기서 中隊長級以下の 名單은 大部
分 大隊長과의 面談에서 얻은 것이니 或은 記憶
의 잘못으로 誤記가 있을 수 있기에 밝혀 둔다

따르는 統制도 嚴格히 있었으리라고 보지만 高
地爭奪戰에서 이와 같이 엄청난 數字의 失蹤者가
있었다는 것은 默過할 수 없는 重要한 問題라고
할 것이다.

더구나 個人의 戰功記錄이 없어 그를 여기에
밝히지 못함을 遺憾으로 여기며 제61연대 제3대
대의 경우는 中隊長들의 名單을 알길 없어 가장
많이 싸운 中隊長들의 이름을 밝히지 못함을 못
내 아쉬워 할 뿐이다.

(3) 中대의 建制呼稱 問題

戰鬪詳報를 비롯한 各種資料에 의하면 重火器
중대인 제8중대가 제1선을 담당하고, 逆襲을 激
行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를 糾明한 결과 제20사단 隸下의 각 연대는
輕裝備연대로 創設된 關係로 重火器중대를 제4,
제8, 제12중대로 呼稱하지 않고 제1, 제2, 제3,
重火器중대로 呼稱함으로써 제2대대의 제7중대
까지는 4字만 回避한 탓으로 변동이 없었으나
제3대대의 소총중대인 제9중대를 제8중대로 제
10중대를 제9중대로, 그리고 제11중대를 제10중
대로 呼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讀者의 混亂을 避하고 統一을 期하기
위하여 陸軍編制上의 建制에 따라 이를 訂正 記
錄하였다.

4. 1,090高地 戰鬪 (1953년 6월 14일부터
" " 18일까지)참조: 발제부도 제 5호
상 황 도 제 19~21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20사단	장	준장 宋錫夏	제16포병대대 장 중령 崔鎭植
제62연대	장	대령 洪淳龍	제56포병대대 장 중령 李德基
제1대대	장	중령 崔熙大	제57포병대대 장 중령 方庸源
제2대대	장	중령 洪載翊	제93포병대대 장 중령 金在澤
제3대대	장	중령 金允煥	隣接部隊
제20사단포병단	장	중령 李孝成	右隣接
제69포병대대	장	중령 李基榮	제61연대 장 대령 金仁哲
제70포병대대	장	소령 犬久亨	左隣接
지원부대			제5사단제27연대 장 대령 崔英圭
제7사단포방단	장	대령 姜官龍	
		敵	軍
中共 제60군 제33사단	장	두안 쩡 테 (段鍾鐵)	제99연대 장 基幹

나. 전투 전의 개황

제20사단은 新編사단으로서 1953년 2월 9일 江原道 襄陽郡 降峴面 前蓮里에서 創設과 동시에 美제 10군단에 配屬되어 예비로서 FTC教育을 마친 다음 5월 15일 軍단 작전지시 제52호에 의거 楊口 縣里에 移動하여 제7사단으로부터 1,090高地 부근의 戰線을 引受하였다. 이 狀況은 前節(谷内北쪽 無名高地 戰鬪, 一名 M1高地)에서 詳述한 바 있거니와 該戰線을 引受한 사단은 제61연대를 美제 45사단과 人접한右 一線에, 그리고 제62연대를 左一線으로 삼아 제5사단 제27연대와 人접 배치하였으며, 제60연대는 楊口 縣里에 예비로 控置한 가운데 防禦線을 폈다.

그런데 사단이 맡은 이 楊口地區의 北쪽 △1,090附近 일대는 海拔 1,000m를 超過하는 險峻한 山岳地帶로서 文登里 西쪽 魚隱山(△1,277)과 그 南쪽(1km) △1,218~△1,090등, 小山脈을 형성하고 있

으며 그중 最高峰들은 敵의 掌握下에 들어가 我軍은 그 戰線下에서 불리한 지형을 窺이하고 있으며, △1,090는 敵의 主陣地인 △1,218에서 南쪽 1km地點에 位置한데다가 그들의 前哨의 據點인 Christmas 高地로부터 東南쪽으로 뻗은 M1능선과 西쪽으로 이어져 있다.

그리고 손에 잡힐듯이 北쪽으로 바라다 보이는 俗稱 돌바위高地(Christmas高地 南端)에는 敵의 頑強한 前哨陣地가 있었다.

그러므로 제7사단이 該戰線을 담당하였을 때에도 여러차례의 敵襲을 받았으나 잘 이를 扼守한 것이다.

當面の 敵은 당 사단이 이곳을 인수한 다음 休戰이 漸次 부르익어지자 西北쪽으로부터 △1,090—△1,220를 계속 掌握할 意圖로써 正面에 中共 제60군 중에서 가장 精銳部隊로 알려진 제33사단을 새로이 投入하였는데 이로써 계속 侵攻을 피할 것으로 推斷한 美軍10단장 Isaac D. White 중장은 제7사단 포병단을 該사단에 配屬하여 그 火力을 增強시켜 新편사단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를 감당할 것으로 判斷하고 △1,090를 堅守케 하기에 이르렀다.

期間中 初日부터 戰鬪終了時까지 하루도 快晴한 날씨가 없어 高原地帶인 이곳 山麓에는 連日 低雲과 濃霧가 덮여 觀察 및 機動에 지장이 甚大하였으며 交通은 大概가 800m~900m를 넘는 高地 中腹, 또는 溪谷으로 겨우 발디딜만한 峽路를 通하여 前哨陣地까지 이르렀는데 이 峽路도 敵에게 露出된 상태이어서 補給運搬은 主로 夜間을 利用하지 않으면 아니되어 원활치 못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 계획

사단작명 제4호(前節參照)에 의거 사단의 左一線을 담당하게 된 제62연대는 右側에 전개된 제61연대와 連繫하여 △1,090로부터, 左側으로는 제5사단 제27연대와와 地境線까지를 주저항선으로 하였는데, 그 右側一線에는 제1대대를 배치하고 中央一線에는 제2대대를, 그리고 左側一線에는 제3대대를 전개하여 △938를 主로 방수케 하였으며 연대 CP를 △1,020로 推進하였다.

그러나 연대의 右側一線 最尖端에 位置한 △1,090는 敵이 攻守의 主軸으로 삼고 있는 魚隱山과는 不過 2km 內外에 있고 그들의 주진지인 △1,218와는 1km地點에 있으며 그 전투전초陣地인 Christmas 高地와는 300m~400m 距離밖에 안되는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 주저항선상에서 右一線 제61연대의 M1高地와 함께 最北尖端에 있는 要衝이다.

그러므로 敵은 該高地를 奪取하여 이를 발판으로 主抵抗線의 侵犯을 피하려 하였으며 더구나 △1,218에서 △1,220의 主峰까지를 장악하기 위하여 그 中間地點에 位置한 △1,090를 먼저 占據하려고 노리고 있는 것으로 추단되었다.

그리하여 연대는 제1대대로 하여금 이곳을 전담경계케 하였던 바 대대는 제3중대를 △1,090의 主峰에 배치하고 제2중대를 그 西쪽 능선에 배치하였으며 또한 제1중대를 該高地 南쪽(300m)에 예비로 控置한 가운데 방수태세를 갖추었다.

그리고 左側一線 제3대대는 △938에 제10중대를 배치하고 제11중대는 그 隣쪽능선에 이와 併行시켜 배치하였으며, 제9중대는 同高地 南쪽 都皮幕 일대에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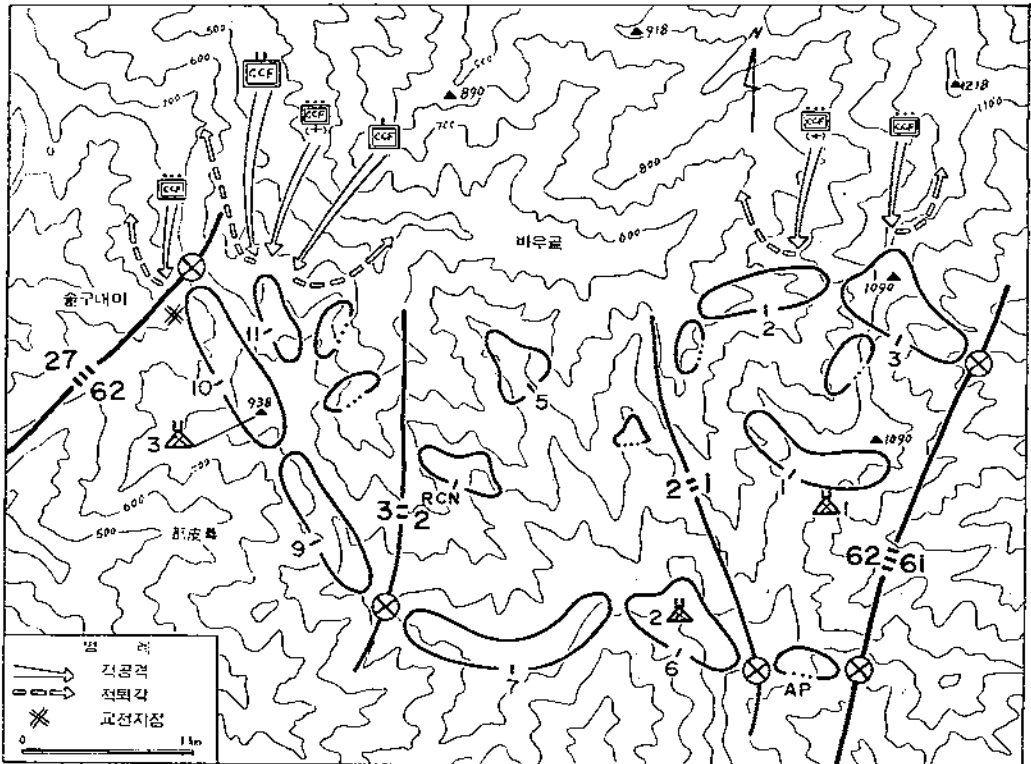
이와같이 방수태세를 갖춘 연대는 제57포병대대의 직접지원을 받는 한편 사단포병의 일반지원과 군단포병도 要請時 언제든지 支援을 받을수 있어 그 火力에 있어서도 態勢를 完備하였으며 5월 22일부로 사단 공병대대에서 1個중대를 배속받아 陣地補強에 注力함으로써 연대는 攻守에 있어 甚히 戰備를 공고히 하였는데, 敵은 6월 14일 暗夜를 利用하여 △1,090 및 都皮幕에 2個중대규모의 병력으로 침공함으로써 연대는 向後 18일까지 熾烈한 激戰을 벌이게 되었다.

(2) 작전 실시

6월 14일 : 이날은 흐린 날씨에 低雲이 山麓에 감돌았으며 戰雲도 점차 짙어지기 시작하여 사단 全戰線에서 격전을 치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단 右一線인 제61연대에서 M1高地의 爭奪戰(前節參照)이 벌어져 4일을 경과하였는데도 날로 熾烈化하기만 하였으며 敵의 활동도 이에따라 漸次的으로 활발하였으니 △1,218부근의 △1,090 및 M1高地쪽으로 敵兵力은 日沒時까지 계속 이동한 것으로 추단

◇상황도 제19호 제62연대의 兵力配置와 敵의 侵攻



되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면서부터 제62연대의 右一線 前進陣地인 △1,090에 熾烈한 砲擊을 수반한, 2個중대 규모가 侵襲하여 血戰을 벌였으며 연이어 동연대 左一線인 都皮幕北쪽 일대에도 數未詳의 敵이 侵攻하여 一時에 噴火口를 터트리게 되었다.

동연대 右一線 제1대대(장 崔熙大 중령)는 이날도 여느때와 다름없이 제3중대(장 朴九鉉 대위)를 △1,090에 배치하여 2個소대가 그 主峰에, 1個소대가 該高地 後斜面에 예비로써 控置케 하였으며, 또 제2중대(장 金弼秀 중위)를 同高地 西쪽 능선에 배치하여 夜間警戒을 強化하고 제1중대(장 禹相沃 대위)를 南 △1,090에 예비로 控置한 가운데 一戰을 覺悟하고 있었는데 21.30에 제2중대 경계조로부터 『2個중대로 추산되는 敵이 前方에 출현하여 △1,090 西쪽으로 侵入중이다』라는 急報를 接하게 되었다.

이 急報에 이어 10분 뒤에는 제3중대와 제2중대 전역에 걸쳐 각종포화가 집중되어 △1,090 일대는 삼시간에 火焰이 치솟고 砲煙으로 휩싸이게 되었다.

敵은 이 侵攻에 있어서 特히 強力한 砲支援을 수반한 탓으로 제3, 제2 兩 중대는 大대 OP와의 有線이 단절되고 陣지의 파괴와 더불어 적지않은 병력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에 대대는 긴급히 지원포격을 요청하는 한편 제3, 제2 兩중대로 하여금 陣지를 固守케 하였는데, 敵은 이때 제2중대 陣지에 물려들어 手榴탄을 집중투척하며 陣내로 육박하였으므로 苦戰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戰勢가 急迫하여지자 중대장 金弼秀 중위는 緊急히 陣內射擊을 요청하고 陣중대원을 땅굴속으로 대피시키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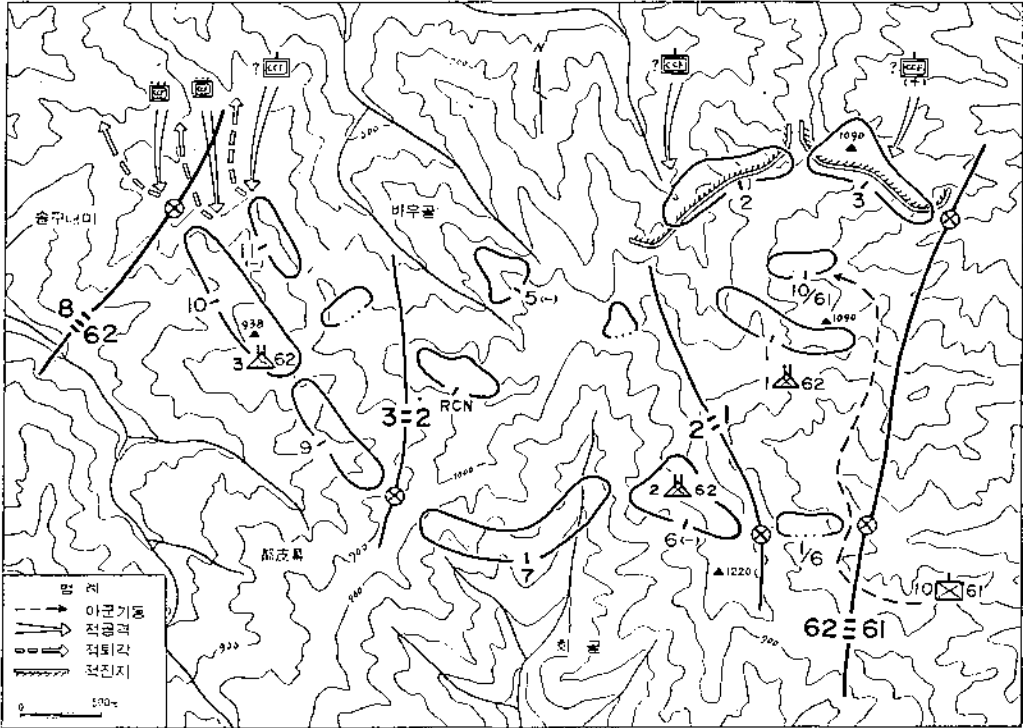
이리하여 陣내로 육박하던 敵은 VT신관에 의한 집중사격을 받아 23.10에 退却하였으나 중대가 待避壕에서 뛰쳐나와 隊伍를 정비하려는 순간 敵은 後續兵力과 합세하여 또다시 陣내로 물려들었다.

이에 중대는 제차 陣내사격을 緊急히 요청해야 하는 危急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再次 陣내사격도 奏效하였으나 끈질긴 그들은 陣내사격이 시작되면 退却하였다가 끝나면 다시 밀려들어 제2중대는 力戰苦鬪의 連續이었으나 결국 3차에 걸친 侵襲과 敵砲火로 말미암아 殆半의 戰鬥力을 消耗한채 중대左계一線인 제3소대 陣지를 빼앗기고 중대는 右계一線 제1소대 陣지와 중대 OP가 있는 제2소대 陣지를 固守하면서 역습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6월 15일 : 전날밤 제2중대의 일부 陣지를 敵手에 넘겨주게 된 제1대대는 제2중대로 하여금 逆襲준비를 갖추게 하여 未明에 失地를 탈환토록 하였으며 03.30에는 예비인 제1중대 제1소대를 제3중대 예비소대 陣지에 推進케 하여 △1,090의 兵力을 증강하였다.

한편 대대로부터 빼앗긴 제3소대 陣지를 奪取하라는 命을 받은 제2중대(장 金弼秀 중위)는 제1소대로 西쪽을 迂迴하여 그 側背에서, 그리고 제2, 제3 兩소대는 중대장 金弼秀 중

◇ 삼황도 제20호 제1대대의 逆襲



위가 직접 지휘하여 정면을 直衝擊破키로 하고 04.50에 逆襲에 나서기로 하였다.

이렇게 逆襲계획을 세운 제2중대는 04.50에 勇躍 공격개시선을 출발하여 敵陣으로 다가갔다. 이때 정면을 直衝하던 중대의 주력은 砲煙彈雨를 헤치며 一步又一步 포복전진하여 100m地點까지 前進하였을 무렵, 敵의 集中砲擊을 받아 한때 分散狀態에 빠지고 말았다.

이에 중대는 兵力을 수습하여 일단 死角地帶인 5部능선으로 물러서 다시 반격준비를 갖춘 다음 각종지원포가 敵陣을 強打하는 09.00에 正面을 直衝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도 돌격선에 이르러 射程延伸과 때를 같이하여 敵陣을 突貫코자 하였으나 교묘하게 은신하였던 그들은 일시에 前斜面으로 튀어나와 自動小銃과 多發銃을 휘두르며 頑強히 抗拒하고 방망이 수류탄을 마구던져 중대로 하여금 돌격의 틈을 주지 않았다.

이와같이 또 다시 彈幕에 부딪친 중대는 5部稜線으로 물러서 戰備를 갖추고 제3차 역습을 斷行키로 하였는데, 제3소대와 화기소대는 이곳에서 火力을 集中하여 正面으로 直衝케 하고 제1, 제2 兩 소대는 중대장 金중위가 이끌고 東쪽을 迂回하여 側背에서 擊破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東쪽 側背로 突進한 중대 주력은 雨注하는 敵의 火力을 무릅쓰고 30m 前方까지 포복近迫하여 突擊을 決行하였다.

이때에 敵은 正面에서 제3소대와 火器소대를 맞아 銃擊戰을 벌이다가 東側背에서 덮치는 중대주력에 밀려 潰走하고 말았으며 중대는 遺棄屍體 23구를 확인하였다.

이리하여 失地를 恢復한 中隊는 제3소대로 하여금 이곳을 담당경계케 하고 기타 병력은 原位置로 돌아가 방어에 임하게 되었다.

한편 大隊(장 崔熙大 中령)는 제2중대로 빼앗긴 일부진지를 회복하였으나 3회에 걸친 敵의 侵攻과 세번이나 逆襲을 하면서 兵力損失이 컸을 뿐만 아니라 敵의 企圖가 △1,090를 奪取하는데 있으므로 이의 攻略을 爲하여 제2중대 진지를 先取하려고 侵攻을 계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예비로 控置한 제1중대(장 禹相沃 大위)를 이곳에 배치하였으며 제2중대를 뽑아 예비로서 再編케 하였다.

그리하여 大隊장 崔熙大 中령은 아래와 같은 要旨의 緊急命令을 下達하였다.

- 『① 敵은 △1,090를 奪取할 目的으로 계속 공격을 加하고 있으며 同高地 左一線 제2중대를 威脅하고 있다.
- ② 大隊은 陣地를 계속 固守하면서 侵攻하는 敵을 陣前에서 擊滅하려 한다.
- ③ 제1중대는 6월 15일 17.00까지 제2중대의 진지를 인수하라.
- ④ 제2중대는 6월 15일 17.00까지 陣地를 제1중대에 인계하고 大隊예비로써 南△1,090(1Km 相距에 南北으로 △1,090가 있으므로 이를 區別키 爲하여 南쪽 △1,090에는 南字를 添加하였음)에 集結하여 再編하라.
- ⑤ 제3중대는 △1,090를 中心으로 전투태세를 강화하라.
- ⑥ 戰鬪間 제57포병대대가 직접지원할 것이며 軍단 및 師단포병은 요청에 의거 支援한다.
- ⑦ 협조지시
- ㉠ 大隊의 모든 火力은 △1,090에 集中支援하라.
- ㉡ 各중대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라.
- ㉢ 상황진전을 신속히 보고하라.
- ⑧ 大隊OP는 계속 南△1,090에 位置한다.』

이에 따라 제1중대는 17.00에 제2중대 진지를 인수하였으며, 제2중대는 진지 인계 후 南△1,090 南斜面에 移動集結하여 再編하였다. 그리고 제3중대는 예비로 두었던 제3소대를 △1,090에 轉進시켜 夜間侵攻에 對備한 전투태세를 굳건히 하였다.

그런데 이날 日沒時까지 別다른 徵兆를 보이지 않던 敵은 어두움이 질을 무렵부터 △1,090 一帶에 砲擊을 加하기 시작하더니 22.00에는 火力을 集中하면서 2個중대 규모가 △1,090 正面과 그 左側一線 제2중대 陣地에 侵襲함으로써 또 한차례의 激戰을 벌이게 되었다.

이때 제3중대에는 그들의 夜間侵攻에 對備한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던 하였지만 集中砲擊이 워낙 심하여 거의 分散狀態에서 負傷者가 續出하여 그 후송에 兵力을 뺏기고 보니, 흩어진 兵力을 수습하였을 때에는 소대병력에 不過하였다.

이런 상황속에서 22.00에 陣前에 殺到한 증강된 1個중대 규모와 激突하여 勇戰

奮鬪하였는데 그들은 이때 後續한 2個소대 규모와 습勢하여 陣內로 육박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거세게 물러드는 敵을 맞아 陣內에서 短兵接戰을 벌였으나 결국 敵勢를 감당치 못하여 陣地의 一角은 喪失하고 말았다.

이렇게 戰況이 危急하여져자 중대장 朴九鉉 대위는 긴급히 陣內射陣을 要請하고 굴속으로 待避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敵은 陣內射擊이 시작되면 일단 退却하였다가 射擊이 中止되면 다시 陣內로 殺到하여 중대는 중내 敵勢에 밀려 同高地를 넘겨주고 23.50에 그 南麓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한편 △1,090를 奪取한 그들은 여세를 몰아 左側一線 제1중대 陣地로 계속 침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火力을 集中하여 陣前으로 殺到한 그들을 阻止하며 한때 激甚한 混戰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力戰끝에 이를 擊退하였다.

6월 16일

1. 제1대대의 攻擊戰

전날 夜間攻擊으로 △1,090를 手中에 넣은 敵은 그 여세로 同高地 左一線 제1중대(장 禹相沃 대위) 陣地까지 奪取하려고 계속 공격을 加하여 한때 陣內에까지 밀려들었으나 奮戰力鬪끝에 그들을 몰아내고 계속 이를 固守하였다.

한편 이때 대대장 崔熙大 중령은 △1,090를 奪還하려고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사단장지 제42호로서 제61연대 제10중대가 대대에 배속되자 이를 03.00까지 대대 OP에 推進하여 예비로 控置하고 주저항선에 있던 대대 탄약작업소대도 제12중대 陣地에 轉進시켜 兵力을 增強한 다음 제3중대로 하여금 △1,090를 奪還토록 하였다.

이에따라 제3중대(장 朴九鉉 대위)는 이날 04.00에 제1, 제2 兩소대로써 火力을 지원케 하고 제3소대로써 逆襲을 감행케 하였다.

그런데 敵은 時間의 여유를 얻어 진지를 보강하고 병력을 증강한 듯 완강히 저항하였으며 더구나 火力據點에서의 LMG의 亂射로 말미암아 제3소대는 突擊線에 이르지도 못하고 끝내 되돌아서고 말았다.

이와같이 중대의 攻擊이 無爲로 끝났을 때 그들은 도리어 제1중대진지를 急襲하여 진전으로 殺到하였다.

제1중대장 禹相沃 대위는 火力을 集中하여 진전에서 저지하려고 奮戰하였으나 제3중대의 공격을 물리친 그 여세로 진내로 육박하는 敵勢에 밀려 중내 진지를 넘겨주고 06.30에 그 南麓으로 물러서게 되었다.

이리하여 제1중대진지까지 빼앗긴 제1대대에 대하여 사단장과 연대장은 一擧에 △1,090를 奪還하라고 命令하였다.

이에 대대는 제1중대로 하여금 現地點을 固守하면서 火力을 지원케 하고 제3중대로써

△1,090에 對한 反擊을 再開토록 하였으며 대대장 崔熙大 중령도 LD에 나가 공격을 지휘키로 하였다.

드디어 공격개시 시간인 13.30이 되자 제3중대(장 朴九鉉 대위)는 각종 지원포화가 △1,090 일대에 炸裂하는 가운데 공격개시선(△1,090南쪽 300m)을 躍進하였는데 LD를 넘어선 중대는 瞰制되는 앞 계곡에서 敵의 直射火力에 直面하여, 한때 頓挫狀態에 빠졌으나 이를 무릅쓰고 砲火의 間隙을 누비며 突進하여 南쪽斜面에 進入하였다. 이곳에서 중대는 정면으로 直衝하여 8部稜線까지 突破한 다음 射程의 延伸과 더불어 돌격을 斷行코자 하였으나 이즈음 숨었던 敵兵들이 일시에 능선위에 튀어나와 수류탄을 집중투하하고 石塊가 紛飛할 뿐만 아니라 自動小銃과 기관총을 亂射하여 집요하게 저항하므로 중대는 일단 5部능선으로 물러서 砲擊을 요청하였다.

이리하여 16.00부터 30분간 VT신판에 의한 砲擊이 계속되는 06.30에 다시 공격에 나섰으니 이로써 거듭 세번이나 반격을 敢行케 된 중대장 朴九鉉 대위는 기어이 동고지를 奪取할 決心을 굳히고 敵彈이 雨注하는 斜陽의 능선을 포박약진하여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 돌격선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번에도 敵은 먼저와 같은 手法으로 如前히 항거하였지만 포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그들로서는 白兵을 휘몰아 激突하는 중대 주력에 밀리기 시작하였으며 중앙진지의 一角까지 무너지자 더 견디지 못하고 遺棄屍體 68구를 남긴채 △1,218쪽으로 潰退하였는데 계속 追擊한 중대는 敵 1명을 사로잡았다.

이와같이 4時間에 걸친 공격끝에 17.40에 동 高地를 恢復한 중대는 곧 四周방어에 들어갔는데 21.30부터 또 다시 敵의 포격이 苛烈化하더니 22.00에는 1개 중대로 추산되는 一波가 △1,090 東側方에서 侵攻하고 연이어 數곳을 헤아릴 수 없는 또 다른 一波가 이번에는 西側方에 殺到하여 수류탄을 집중하며 진내로 육박하였다.

이와같이 兩側方에서 侵入하는 敵을 맞아 중대는 火力을 集中하였으나 이 敵勢를 막지 못하고 23.00에 동 高地 南麓으로 물러서게 되었다.

2. 사단장의 措置

이무렵의 左隣接 제5사단의 狀況을 살펴보면 概要 다음과 같다.

6월 初旬부터 敵의 攻勢는 東部에서 한국군 제2군단과 美제10군단 西側方으로 轉換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중부전선의 右翼 제2군단의 제5, 제6, 제8사단과 그리고 이와 右側으로 隣接한 당 제20사단에 대하여 중공군 3個軍(제60, 제67, 제68군)의 兵力을 投入하였으며 精銳 제33사단을 제60군에 배속시켰다.

이로써 敵은 6월 10일 제5사단을 침범하여 △882~△973를 奪取하고, 該사단은 反擊하여 보았으나 한때 △973를 奪取하는데 그쳤으며 結局은 同高地의 南쪽 1km까지 撤收하

고 달았다.

이와같이 敵은 西北쪽으로부터 △1,220로 通하는 主稜線上에 位置한 △973-△882-△1,220를 계속 장악할 意圖로 있었음을 간파한 美제10군단장 Isaac D. White 중장은 軍단작전지시 제385로써 急速 8군 예비에서 軍단 예비로 轉換한 제7사단을 제20사단 左側方에 移動키로 하였으니, 이는 제5사단 前面에 對한 敵의 重壓을 除어주고 제20사단의 左一線인 제62연대의 일부진지를 인수시켜 제62연대로 하여금 △1,090를 전달토록 하려는 腹案인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게 된다.

이리하여 제20사단은 軍단작지에 따라 작지 제43호(6.16.10.00)를 下達하여 제62연대의 左一線진지(△938: 一名 鮮于高地)를 제7사단에 인계케 하였으니 그 要點은 아래와 같다.

- 『① 사단은 軍단작지 제385호에 의거하여 제62연대 主 저항선의 一部를 제7사단에 인계하고 左側地境線을 變更한다.
- ② 제62연대는 6월 16일 17.00까지 左一線 主陣地(제3대대 主진지)를 제7사단 제8연대에 인계하고 동 대대로써 △1,090에 侵入한 敵을 擊滅하여 同高地를 奪還하라.
- ③ 제7사단 제8연대는 6월 16일 17.00까지 第62연대 左一線 主진지를 인수할 것이다.
- ④ 사단 포병단은 6월 16일 17.00부로 제7사단 중박격포 중대의 배속을 해제하고 原隊 復歸케 하라. 以下省略』

이와같은 軍단작지에 따라 제62연대(장 洪淳龍 대령)는 左제一線 제3대대 진지를 제7사단 제8연대 제2대대에 인계하게 되었다.

6월 17일: 全日 該연대는 軍단작명 제43호에 依據하여 左제一線 제3대대의 陣地(△938 일대)를 제7사단에 인계하였거니와 이곳에서 동대대는 14일부터 敵의 侵襲을 받아 △938 를 한때 敵手에 넘겨주었다가 16일 恢復攻撃을 단행하여 탈환하였는데 이날 제8연대에 인계하고 △1,090의 攻撃임무를 받음으로써 該연대는 △1,090일대의 戰線만을 전달하게 되었다.

한편 제1대대는 全日 敵의 夜間攻撃을 막아내지 못하여 △1,090를 잃고 그 兩麓으로 물러섰는데 但 2일간의 戰鬪를 치르는 사이에 戰鬪力을 거의 消耗한 탓으로 반격을 加하지 못하고 제3대대와 임무를 교대한 다음 대대 OP 東쪽능선 後斜面에 集結하였으며 배속된 제61연대 제9중대는 제1대대 OP 앞 능선에 예비로 控置하였다.

1. 제3대대의 攻撃

제3대대(장 金允煥 중령)는 軍단작전지시에 따라 全日 17.00에 제8연대 제2대대에 진지를 인계하고, 제9중대는 인계即時 제1대대 OP로 向發하였으며, 한편 제10, 제11 兩중대는 제26연대 OP가 位置한 △1,220를 經由, 이곳에서 再編을 마치고 역시 제1대대 OP가 있는 南△1,090로 進入토록 하는 同時에 大隊OP도 제1대대 OP로 추진 하였다.

그리고 전날 21.30에 제1대대OP에 도착한 제9중대에서 제1소대를 제3중대의 現陣地에 23.00까지 推進하여 진지를 교대하고 제9중대(-)는 24.00까지 △1,090 南쪽 400m에서 敵의 侵透를 저지키로 하였다.

이와같이 전날밤 敵의 夜間侵攻에 對備하면서 제3대대는 攻擊준비를 갖추었는데 그 計劃을 살펴보면, 제9중대는 右隣接 제61연대와외의 地境線을 우회하여 東側方에서 공격케 하고, 제11중대는 △1,090 西側方을 우회하여 그 側背에서 挾攻케 하였으며 제10중대는 예비로써 南△1,090에 控置키로 하였다.

그리고 중화기중대의 박격포도 南 △1,090 東쪽능선 후사면에 配置하고 공격개시선은 現제9중대(-)의 配置線으로 하여 04.00에 공격개시토록하였다.

이날도 전날에 이어 低雲이 山麓까지 덮였으며 濃霧마저 깔려 한치의 앞을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가운데 제9중대는 名種支援砲火가 △1,090 일대에 炸裂하는 04.00에 공격개시선을 박차고 東側方을 迂回躍進하였는데, LD 앞 계곡에서 敵의 直射火力에 걸려 한때 困境에 놓이기도 하였으나 이를 突破하고 05.00에 目標 △1,090의 8부능선까지 進出하여 여기에서 돌격준비를 갖추자 白兵을 휘몰아 直衝하였다.

이때 頂上의 敵은 기관총과 自動소총을 亂射하면서 집요하게 저항할 뿐만 아니라 방망이 수류탄을 集中投下하여 달라붙음으로써 頂上에서는 彼我が 한때 얽힌 混戰血戰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렇듯 그들의 거센 抗拒속에서도 중대는 10여분 동안이나 凄絶하게 短兵接戰하면서 寸土尺地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 西쪽능선 위에서 怒號大喝하는 賊聲이 山頂을 震動하며 一陣暴風이 쳐들어 敵陣을 蒸騰混亂케 하였으니 이는 西側方을 迂回한 제11중대가 그곳까지 突進하여 西쪽 敵陣을 破碎한 것이었다.

이렇게 제11중대가 挾攻으로 敵陣의 一角을 突破하자 것처럼 끈질기게 달라붙던 敵도 唐惶하기 시작한 듯 四散分潰하게 되었다.

한편 이렇듯 西쪽능선에서 挾攻에 成功한 제11중대도 이날 04.00에 LD를 出發하여 西쪽능선을 迂回하였는데 이곳은 공격개시선과 이어진 능선이어서 進出이 容易한 듯 하였으나 △1,218에서 퍼붓는 砲火와 △1,090頂上에서 亂射하는 LMG 때문에 여간 힘들지 않았다.

그리하여 능선 南쪽 背斜面을 타고 前進하였지만 進出이 如意치 못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가파른 언덕을 기어올라 한걸음 한걸음 敵陣으로 接近하였다.

이렇듯 중대가 안간힘을 다하여 8部능선까지 進出하였을 무렵부터는 敵의 火力據點에 直面하여 마구쏘아대는 기관총의 集中射擊을 받게 되어 釘着되고 말았다.

그런데 아무런 東쪽을 迂回한 제9중대가 東側方에서 격진에 楔入하여 白兵을 휘몰아치니 頂上의 火力據點에서 그쪽으로 方向을 轉換하는 틈을 타서 중대는 西쪽線으로 돌진하여 西側背를 찢러 敵陣을 덮치고 말았다.

이와같이 西側背에서 挾擊을 敢行하자 것처럼 氣勢를 올리며 제9중대와 白兵戰을 벌이던 그들도 그만 動搖의 氣色이 짙어졌고 이때를 기하여 제9, 제11 兩중대는 敵陣을 격파하고 同高地를 奪取하였으며 敵은 惶怯히 潰散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1,090는 제9, 제11 兩중대의 力戰으로 05.30에 奪取하게 되었는데 이때 미처 거두지 못한 敵屍體만도 94구를 確認함으로써 開戰 以來 最大의 戰果를 거두기도 하였다.

2. 敵의 逆襲

拂曉攻擊으로 △1,090를 奪回한 제3대대(장 金允煥 중령)는 제9, 제11 兩중대가 急編陣地에서 整備한 다음 제9중대로 하여금 同高地를 경계케 하고 제11중대로써 △1,090 北쪽(150m地點)에 있는 無名高地를 攻擊케 하였다.

이에 따라 제11중대는 제9중대의 火力支援을 받으면서 △1,090를 奪取한 그 餘勢로 攻擊에 나섰다.

이리하여 중대는 07.30에 無名高地를 指向하여 銳鋒을 들렸는데 이때 無名高地에는 1個 소대로 推算되는 兵力으로 지키고 있었으나 별로 抵抗도 없이 △1,218쪽으로 潰退함으로써 중대는 08.40에 同高地를 手中에 넣게 되었다.

이렇게 無名高地까지 占領하게 된 대대는 제11중대로써 계속 該高地를 확보케 하고 제9중대로 하여금 △1,090를 堅守토록 하였는데 이날 正午부터 △1,218—△918 일대에서 敵砲火가 대대OP와 △1,090 일대에 集中하기 시작하였다.

대대장 金允煥 중령은 未久에 敵의 회복공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12.30에 제11중대를 無名高地에서 △1,090로 移動시켜 同高地의 警戒에 더욱 置重하였다.

그런데 13.30부터는 砲擊이 加一層 苛烈化하기 시작하더니 이어 1個대대로 추산되는 兵力이 △1,090 中央과 東西쪽에 三波로 나뉘어 殺到하였다.

제9, 제11 兩중대는 그 侵入路에 火力을 集中하더 이를 저지하려고 百方手段을 다하였다.

그러나 敵의 집중砲擊으로 有無線이 完全杜絶되어, 支援砲의 유도가 어려운데다가 霽上加霜으로 累增하는 負傷者의 後送에 적지않은 兵力을 빼앗기고 보니 實際戰鬪 兵力은 2個 소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敢鬪精神까지 低下되었으므로 三面에서 挾攻하는 敵勢를 막아내지 못하여 重圍에 빠져 戰機의 一轉으로 危局에 直面하게 되자 제9, 제11 兩중대는 血路를 뚫고 그 南麓으로 撤收하여 떨어진 兵力을 수습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제9, 제11 兩중대가 △1,090를 14.00에 敵手에 넘겨주고 隨意 철수하였다는 懸

報에 接한 大隊장 金允煥 中령은 예비로 控置한 第10중대를 急遽 赴援케 하여 그곳을 確保하면서 第9, 第11 兩중대와 合勢하여 反擊케 하였지만 第10중대가 進入하기도 전에 그들은 餘勢를 몰아 砲擊을 集中하면서 2個중대 규모로써 이곳까지 攻擊을 加하였다.

그리하여 第9, 第11 兩중대는 또 한차례의 血戰을 再開하였으나, 敵勢를 감당치 못하고 16.00에 다시 大隊OP 前方稜線(南△1,090 北쪽 400m 地點)까지 撤退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敵의 攻擊에 계속 밀려 南△1,090 前方능선까지 撤退한 第3대대는 急編陣地에서 反擊을 서두르게 되었다.

그리고 16.30에는 第10중대를 이곳에 推進하여 夜間侵攻에 대비하게 되었다.

한편 이즈음 그들도 夜暗을 利用하여 계속 兵力을 投入한 것으로 偵察組에 의하여 報告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18.30에는 △1,090 東쪽능선에 1個중대 규모가 增強되고, 그 西쪽능선에도 1個중대로 추산되는 병력이 增援된 것으로 探知되었으며 22.50에는 △1,090 西南쪽 200m地點에도 1개중대규모가 南下中임을 偵察하고 砲擊을 加하기도 하였다.

3. 第62연대장의 措置

戰勢가 점차 不利하여 第3대대가 계속 밀리게 되자, 第62연대장 洪淳龍 대령은 軍단 및 사단포병으로 하여금 △1,090와 그 前後方 일대를 強打하도록 緊急要請하는 한편 작지 제 15호(口頭命令後 書面下達 17.20.00)를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연대는 △1,090에 侵透한 敵을 擊滅하고 同高地를 奪還하려 한다.

② 제57포병대대는 戰鬥間 연대를 직접지원할 것이다.

③ 美제5空軍 및 軍단포병과 사단포병은 要請時 수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대대는 17일 24.00부로 배속되는 제61연대 제10중대를 통합지휘하여 下記에 依據 △1,090를 奪還하라.

㉠ 攻擊目標 A-△1,090 南쪽 無名高地(150m지점)

B-△1,090

C-△1,090北쪽 無名高地(200m地點)

㉡ 攻擊開始線은 現陣地線이고 공격개시 時間은 18일 03.30시이다.

⑤ 제1대대

㉠ 제3대대의 左側一線 陣지를 12일 02.00까지 占領하고 제3대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 제61연대 제10중대의 배속을 17일 24.00부로 해제한다.

⑥ 제2대대는 현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⑦ 제61연대 제10중대는 17일 24.00부로 제1대대의 배속해제와 동시에 제3대대에 배속한다.

⑧ 通信은 現행 SOI에 의거한다.

⑨ 연대지휘소는 계속 △1,220에 位置한다.』

이와같은 연대작지에 의거하여 제3대대는 제61연대 제10중대를 배속받아 兵力을 增強하고 18일 未明부터의 攻撃을 爲한 計劃을 세워나갔다.

그리고 제1대대도 대대OP 後斜面에 集結하고 있다가 이 작지에 따라 제3대대 左側一線 전진지로 轉入하기 위하여 23.30에 行동을 개시하였다.

6월 18일 : 전날 밤늦게 緊急히 要請한 軍단 및 사단의 各種支援砲擊은 22.30부터 △1,090와 이에 이르는 補給路를 계속 遮斷하고 한때 VT 新관에 依한 砲擊도 併行하여 敵을 制壓하였다.

한편 이무렵 敵도 △1,218부근에서 실새없이 砲擊을 加하여 我軍의 行동을 鈍化시키려고 하였다.

이렇듯 對砲擊戰이 계속 전개되는 사이에 제3대대는 연대작전지시에 의거하여 徹夜하면서 다음과 같이 △1,090에 대한 攻撃計劃을 세웠다.

- ① 제9중대는 이날 03.30에 現陣地線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目標A를 奪取한다.
- ② 제10중대는 제9중대가 目標A를 奪取한 다음 이날 06.00에 現진지선에서 출발하여 目標A에 進出即時 이곳을 공격개시선으로 하여 目標B를 奪取한 다음 계속 目標C를 공격하여 占領한다.
- ③ 제11중대는 現陣地에서 제9중대 제10 兩중대의 공격을 지원하다가 제10중대를 超越 攻撃하여 目標를 奪還한다.
- ④ 제61연대에서 배속받은 제10중대는 대대예비로 제11중대 左側一線에 이날 03.00까지 轉進하여 공격중대를 火力로 지원한다.
- ⑤ 중화기중대의 81mm 迫撃砲는 제1대대의 中화기중대 迫撃砲陣地에서 이들과 같이 대대OP 後斜面에서 支援한다.

이러한 공격계획을 세운 제3대대장 金允煥 중령은 배속된 제10중대를 03.00까지 제11중대 左側一線陣地에 進入시키고 제9, 제10 兩중대의 공격준비를 確靚하면서 △1,090의 奪回를 다짐하였다.

드디어 03.30가 되자 제9중대는 現진지선에서 夜暗을 헤치며 北쪽능선을 타고 目標A를 指向하여 進撃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目標A는 △1,090에서 西南쪽으로 뻗은 稜線에 있는 작은 無名高地로서 不過 150m 안팎에 位置하여 △1,090頂上에서 直射火力을 마음대로 퍼부을 수 있는 瞰制된 곳이다.

그리고 이 無名高地가 敵手중에 있는 限은 이를 奪取하지 않고서는 △1,090를 占領할 수 없는 그 攻撃路上에 놓여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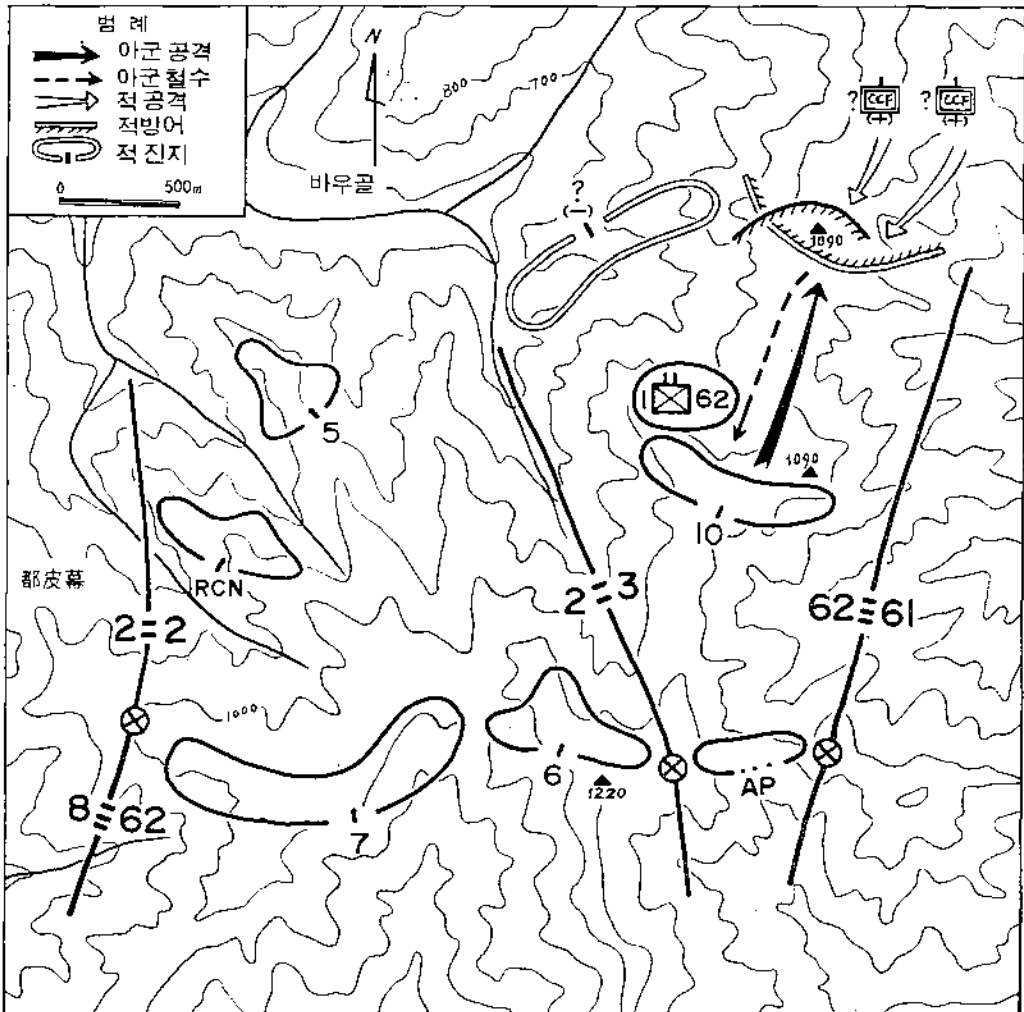
그러므로 敵은 이러한 點을 모두 勘案한 듯, 이곳에 兵力을 增強하고 兩側方에서 기관총으로 역습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그러나 중대는 이러한 그들의 企圖를 미리 看破하지 못하고 暗夜를 헤치면서 한걸음 한 걸음 다가서 敵前 30m까지 接近하여 一擧에 突貫하려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는데, 敵은 이때를 노려 兩側方에서 기관총의 鐵火를 쏘어대기 시작하고 수류탄을 집중 投擲하였다.

이러한 敵의 집중화력으로 말미암아 중대는 分散狀態에서 死傷者의 續出을 보게 되었다. 그위에 중대장 마저 重傷을 입게 되었으므로 중대는 切齒扼腕의 恨을 품은 채 05.00에 일단 南麓으로 물러서 흩어진 兵力을 수습하였는데 戰鬪兵力은 1個소대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目標A의 恢復攻擊을 決行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와같이 제9중대의 目標A에 對한 攻擊이 無爲로 끝남으로써 대대장 金允煥 중령은 제10중대로 하여금 目標 B, C를 攻擊케 하려던 當初의 계획을 變更하여 제10중대로써 目標 A를 攻擊케 하고 이를 奪取한 다음 계속하여 目標 B와 C도 공격케 하였으며 07.00에 공

◇ 상황도 제21호 제3대대의 反擊



격을 再開키로 하였다.

그리고 제9중대는 火力으로 제10중대의 공격을 지원토록 하였다.

이즈음 제10중대장 崔斗洵 중위는 공격준비를 갖추고 戰況을 지켜보면서 제9중대가 目標A를 奪回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대대장 金允煥 중령으로부터 『제9중대의 공격이 失敗로 끝났으니 目標A부터 공격하라』는 命令을 받게 되었다.

이에 제10중대는 현진지선에서 07.00부터 目標A의 西쪽능선을 迂回하여 그 背斜面을 타고 攻擊에 나섰다.

이미 東天에 해가 솟아 敵의 瞰制로부터 避하려고 그 뒤 背斜面을 타고 進擊하였지만 敵의 砲火와, 頂上에서 쏘아대는 기관총의 亂射는 마치 빗발치듯 하였다.

이러한 狀況 속에서도 중대는 포복약진으로 一步 또 一步 前進하여 09.00에는 死傷을 이룬 6部稜線까지 進出하였으나 頂上의 火力據點에서 鐵火를 뿜어대는 기관총을 排除하지 않고서는 突擊線에 接近한다 하더라도 제9중대의 공격과 같은 前轍을 면치 못할 것으로 判斷한 중대장 崔斗洵 중위는 特攻隊를 急編하여 그 힘으로 이를 排除키로 決心하였다.

그러하여 『저 기관총을 격파할 勇士는 앞으로 나오라』하고 號令하였다.

이때에 제1소대의 宋甲成 상병이 앞으로 선뜻 나서자 뒤따라 10餘명이 서로 다투어 뛰어 나왔다.

중대장은 그중에서 宋甲成 상병을 組長으로 한 5名の 特攻隊員을 抽出한 다음 支援砲擊으로 煙幕彈을 퍼부어 敵陣을 遮障하는 가운데 目標A 後側背로 特攻組를 潛入케 하여 기관총 據點을 覆滅코자 하였다.

이와같이 特攻組를 挺進시킨 다음 중대장은 중대 主力을 직접 이끌고 가파른 능선에 달라붙어 煙幕이 자욱히 뒤덮인 敵陣을 向하여 한걸음 한걸음 다가갔는데 10.10에 비로소 들머리에 이르러 射程延伸을 要請하게 되었다.

바로 이때에 後側背에 潛入한 特攻組는 이 機會를 기다리다가 이를 信號로 火力據點에 突入하여 먼저 수류탄 공격을 퍼부은 다음 화염방사기로 據點을 擊破하고 말았다.

이때에 宋甲成 상병은 칼빈 M2를 휘둘러 저항하는 敵兵 7명을 射殺하고 1명을 사로잡았는데, 이 功으로 그는 一階級特進과 同時에 美銀星勳章을 받게 되었다.

한편 중대장 崔斗洵 중위는 焦燥한 마음으로 특공조의 動靜을 살피고 있었는데 爆音과 烈焰으로 火力據點을 擊破하자 그 瞬間에 白兵을 휘몰아 敵陣에 突入하니 唐慌 하기 시작한 敵은 더 以上 버티지 못하고 유기시체 39구를 남긴채 △1,090쪽으로 潰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하여 目標A를 奪取한 중대는 그 餘勢를 몰아 계속 敵에 跟隨한 결과 潰兵들이 △1,090에서 방황하는 순간 同高地를 急襲 함으로써 目標B까지 一擧에 奪取하고 말았다.

이때가 바로 10.50이었는데 얻은 戰果로서는 遺棄屍體 48具를 確認하고 LMG 1정 SMG 3정을 노획하였다.

이와같이 目標B까지 恢復한 제10중대는 急編陣地에서 四周방어에 들어가 目標C를 계속 攻擊할 준비를 갖추었으며 15.00에 제1소대로 하여금 該目標를 攻擊케 하였다.

그런데 이 目標는 △1,218를 主陣地로 하는 敵의 前哨陣地로서 主陣地의 1km 南쪽에 있는 無名高地이며 一名 Christmas 高地의 南端이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곳을 據點으로 하여 △1,090를 侵攻하였을 것인즉 1個소대兵力으로 攻擊한다는 것은 一見 無謀한 것으로 여겨지나 機動空間이 극히 狹窄한 點을 勘案한 것으로 推察되기도 하였다.

여하튼 당시 이 目標C까지 공격하여 敵을 制壓하려는데 그 意圖가 있는 듯 싶다.

그리하여 제10중대 제1소대는 15.50에 攻擊에 나서 正面을 直衝하였는데 目標C에 接近할수록 敵의 直射火力이 進路를 遮斷하여 盲射를 퍼부었으며 더구나 無名高地(Christmas 高地)에서 亂射하는 LMG의 射界에 露出되어, 소대는 目標C의 100m 前方에서 교착되자 16.30에 중대장 崔斗洵 중위는 소대를 △1,090로 撤收시키고 말았다.

제3대대장 金允煥 중령은 제10중대 目標C를 占領하지 못하였지만 △1,090까지 奪還하였으므로 同高地를 堅守토록 하고 夜間侵透에 對備토록 하였다.

이와 同時에 제11중대를 △1,090로 推進케 하였는데 18.00에 동중대가 目標A地點을 通過中 左側方에서 나타난 數未詳의 敵과 衝突하여 한때 激戰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力戰 끝에 이를 擊退하고 21.00에 △1,090에 進出한 다음 제10중대와 合勢하게 되었다.

한편 제9중대를 再編하여 그 南麓에 배치하고 예비로 공치한 제61연대 제10중대도 戰鬥態勢를 갖추게 하여 夜暗을 利用한 敵의 侵攻에 對應토록 하였다.

이로써 제3대대는 同高地를 確保하게 되었는데 사단작명 제5호(6.18. 18.00)로 사단 左一線 제62연대 진지를 제7사단 제5연대에 인계하게 됨으로써 6월 14일부터 激戰을 벌여 온 1,090高地도 인계하게 되어 本戰鬪도 동연대로서는 이날로 그 終幕을 내리게 되었다.

다. 전투 후의 개황

제62연대는 △1,090의 爭奪戰을 벌이다가 6월 18일 제3대대가 동고지를 奪回하자 兵力을 增強하고 陣地를 補強하면서 방수태세를 더욱 堅固히하였는데 이날 사단작명 제5호(6.18. 18.00)에 의거하여 該高地와 주진지를 제7사단 제5연대에 인계하였으니 그 要點은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6월 18일부터 19일 06.00까지 제62연대 주진지 및 전투전초진지를 제7사단에 인계 교대 하려 한다.

② 戰鬪地境線변경은 제62연대 區域의 責任 移讓과 同時에 決定한다.

③ 제62연대

㉞ 6월 18일부터 19일 06.00까지의 夜間에 주진지 및 전투전초진지를 제7사단 제5연대에 인계 완료하라.

㉟ 交代와 同時에 제61연대 1個중대와 사단공병 1個중대의 배속을 해제한다.

㊱ 各중대에서 1名의 將校와 各小隊 先任下士官은 제5연대의 진지인수를 協調하기 爲하여 19일 18.00까지 殘留한다.

㊲ 交代와 同時에 楊口 芳山里에 移動하여 整備 및 教育訓練에 任하라.

④ 제61연대

제62연대에 배속시켰던 1個중대를 6월 19일 06.00부로 원대복귀한다.

⑤ 工兵大隊

제62연대에 배속시켰던 공병1개중대를 6월 19일 12.00부로 원대복귀한다. (以下省略)』

이에따라 該연대는 6월 19일 06.00까지 진지를 제7사단 제5연대에 인계한 다음 楊口 芳山里에 移動하여 整備 및 教育訓練에 들어갔으며 제61연대 1개중대와 사단공병 1개중대도 각각 원대복귀하였다.

그리고 6월 27일에는 육특감 제172호로써 初代연대장 洪淳龍 대령이 轉出되고 李再起 중령이 2代연대장으로 轉任하였다.

한편 軍단작지 제7호에 의거하여 7월 9일부터 15일까지 제20사단은 현진지를 美제45사단에 인계하고 麟蹄郡 天桃에 移動하여 美제40사단의 진지를 인수하게 됨으로써 該연대는 楊口 蜀山村으로 移動하여 美제40사단의 左一線 第124연대의 진지를 인수하였는데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加七峰地區에서 北傀 第15사단 第48연대의 侵攻을 받아 한때 激戰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이곳을 방수하던 同연대 第1대대(장 崔熙大 중령)와 第2대대(장 洪載翊중령)의 奮戰으로 이를 물리치고 이곳을 끝까지 固守하였다.

그뒤에 該사단은 7월 24일부로 美제10군단에서 배속해제와 동시에 韓國軍제3군단에 배속되었으며 7월 27일 休戰協定을 보게 되었다.

當面の 敵 中共 第33사단은 本戰鬪에서 2個대대 이상의 兵力을 喪失한 것으로 推斷되었으며 그 兵力補充이 如意치 못한 듯 제7사단이 인수한 △938일대를 제60군 제179사단에 인계한 것으로 이 戰鬪 알려졌으며 休戰成立時까지 △1,090를 계속 侵攻하였으나 번번이 심한 타격을 받고 散退되었다.

에서 얻은 戰果와 損失은 아래와 같다.

戰 果

종 별	대대별	계		
		제 1 대 대	제 3 대 대	계
射 殺		113명	502명	615명
推 定 殺 傷 (戰鬪詳報)		84 "	270 "	354 "
機 關 銃		3정	1정	4정
機 關 短 銃		16 "	5 "	21 "
手 榴 彈		100발		100발

損 失

종 별	부대별	계			
		제 1 대 대	제 3 대 대	기 타	계
戰 死		21명	19명	13명	53명
戰 傷		161명	119명	46명	326명
失 踪		96명	51명		147명

§ 參戰者의 證言

◇ 제62연대장 洪淳龍 대령

(1953. 6. 23 城北區 東小門洞 自宅에서, 豫대령)

신원사단으로 이 戰鬪에 처음 투입되었다. 이 전투에서 速成訓練을 받은 新兵으로 山岳戰과 夜間戰鬪에 能熟한 중공군을 끝내 물리친 것은 오직 美제 10군단의 火力支援이 圓滑하여 1,090 高地를 支撐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일대는 海拔 1,000m를 넘는 高原地帶로서 6월에도 솜옷을 입어야 밤을 새울 수 있는 특이한 氣象이었다. 그런데 上部에서는 戰鬪가 벌어졌는데도 冬服을 返納하라고 극성이었다. 이런 點은 規定에 앞서 實情에 맞도록 措置되어야 했다.

우리들의 給食이래야 주로 밥과 국이었는데 砲火가 날아오는데 高地까지 운반이 될리가 없다. 밥한끼 제대로 못먹고 士兵들은 죽음으로써 이곳을 지켰다.

제일 어려웠던 問題는 負傷者 後送이었다. 참나무가 꼭차있는 비탈진 좁은 산길에 2,3명이 부축을 해도 어려웠으니 이를 口實삼아 離脫한 數가 더 많았다. 失蹤者가 많은 原因의 하나가 여기에도 있을 것이다.

◇ 제62연대 제1대장 崔熙大 중령

(1976. 5. 19 東子洞 7期生會에서, 예 중령)

그날밤 $\Delta 1,090$ 에 敵 2個중대 병력이 쳐들어왔다.

각각한 포격을 加하면서 陣前으로 물러온 敵과 熾烈한 激戰을 벌이던 제3중대는 거의 兵力을 喪失하고 중대장 朴九鉞 대위만이 10餘名의 士兵을 이끌고 大隊OP에 나타났다.

이때 중대장은 部下를 다 잃었으니 죽여 달라고 悲痛한 表情으로 머리를 숙였다. 나는 대대의 行政要員까지 모조리 뽑아 朴大尉에게 주고 $\Delta 1,090$ 高地에 가서 죽으라고 하였는데 잘싸워 동고지를 奪取하였지만 도로 빼앗겼다.

結局 제3대대 兵力을 投入하여 동고지를 奪還한 다음 제7사단 제5연대에 인계하였다.

高地를 빼앗긴 대대장으로 할말이없다.

다만 參考로 當時 1명의 戰死者가 나면 6~7명의 負傷者가 났으며 이 負傷者數의 2倍~3倍의 兵力이 負傷者와 같이 離脫되었다.

이런 點은 前轍을 밟지 않도록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 제57포병대대장 方膺源 중령

(1976. 9. 28 龍山區 漢江路 自宅에서)

1090 高地 戰鬪는 Christmas 高地 戰鬪라고 불렀다.

勿論 그 當時 Christmas 高地라고 指稱한 高地는 $\Delta 1,090$ 北쪽에 있는 작은 돌산 이었는데 이미 敵手中에 넘어갔으나 그 一帶의 戰鬪는 통털어 Christmas 高地 戰鬪로 불은 것으로 記憶한다.

이 高地는 이 地域에서 攻守에 要衝을 이루고 있어 一年동안이나 이 高地 爭奪戰이 계속되었다.

제7사단이 이 地域을 擔當하였을 때도 우리대대가 직접지원하였는데 주로 彼我의 砲擊戰이 熾烈을 極한 다음 步兵이 쳐들어가, 빼앗고 또 빼앗기는 樣相을 되풀이 하였다.

그 當時 中共軍의 砲兵도 相當하여 우리 砲陣地까지도 砲擊을 集中하여 적지않은 損失을 입기도 하였다.

1953年 5月 中旬頃 제20사단에 이 地域을 인계하고 제7사단이 예비로 빼졌지만 포병단은 제20사단에 배속되었고 우리 대대는 亦是 $\Delta 1,090$ 一帶의 地形에 익숙한 탓으로 이곳을 擔當지원하였다.

특히 어려웠던 일은 砲彈供給이었다. 주로 勞務者들이 運搬하였는데 敵砲彈만 떨어지면 불뿔이 도망가고 없어 大隊長은 거의 砲彈運搬에 神經을 썩여 하는 隘路를 던치 못하였다.

§ 戰 訓

(1) 砲兵火力的 協調 문제

本戰鬪期間中 사단포병과 美제 10군단 포병이 火力을 지원하였으며 더구나 제7사단 포병단이 배속되어 4개대대가 支援하였고 제57포병대대는 該연대를 직접 지원하였다.

연대장의 證言에서도 『美제 10군단 포병지원이 圓滑하였다』고 하였으니 이 以外에도 6개대대의 莫強한 포병火力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16일 제3중대로 逆襲을 敢行케 하였으나 歩砲協同이 恣意치 못하여 失敗하였으며 오히려 左隊一線 제1중대 진지만 빼앗긴 結果를 가져왔음은 理解할 수 없다.

그리고 제3중대의 이날 재차 反擊에서도 무려 4時間이나 걸려 △1,090를 奪回하였다가 곧 빼

앗기고 말았으니 歩砲協同에 無關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2) 失蹤者의 문제

本戰鬪에서 戰死 53명에 失蹤者 147명이 當時 戰鬪詳報에 集計되었다.

不過 4일간의 高地爭奪戰에서 戰死者數의 3배에 達하며 1個중대의 兵力에 該當하는 失蹤者를 내게 하였으니 當時 嚴然히 落伍者 收容線이 그어졌고 이에 嚴格한 統制가 이루어졌을 터인데 이와같이 엄청난 失蹤者를 내게 된 것은 理解할 수 없다. 이 問題는 더욱 研究되어야 할 줄 믿는다.

§ 研 究

(1) 高地의 名稱 문제

本戰鬪名을 陸軍戰史와 사단戰史, 戰鬪詳報에 是 Christmas高地戰鬪(一名 1,090高地)라고 하였는데 그 當時 돌바위高地라고 불리운 Christmas高地는 이미 敵手中에 있었다.

參戰者의 證言을 綜合하면 1,090高地와 모두 連結된 高地들이기에 便宜上 Christmas高地라고 稱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여기에서는 1,090高地戰鬪라고 하였으니 이는 實際로 軍事地圖上에 表記된 1,090高地의 爭奪戰이었기 때문이다.

(2) 戰死者의 統計數字 문제

陸軍戰史나 師團略史, 그리고 戰鬪詳報의 戰死傷者數가 다 다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當時 戰鬪詳報에 依하였음

을 밝혀둔다.

(3) 個人記錄 및 各級指揮官 名單 문제

당 사단은 創設과 同時에 처음으로 戰鬪에 參加한 탓으로 戰史에 關한 記錄이 未備되어 있으며, 文書保全所에도 個人記錄 및 人事命令級이 保管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여기에 中隊長級以下의 名單은 大隊長과의 面談에서 얻은 것이니 記憶의 잘못으로 誤記가 있을수 있기에 이 點을 밝혀 둔다.

더구나 個人戰功記錄이 없어 그를 여기에 실지 못함을 遺憾으로 여기며 제3대대장 金允煥 중령이 死亡하여 面談치 못하였으므로 가장 많이 싸운 中隊長들의 이름을 밝히지 못함을 못내 아쉬워한다.

5. 鮮于高地 戰鬪 (1953년 6월 25일부터 // 7월 1일까지)

참조: 별책부도 제 6 호
상황도제 22~28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미 제10군단	장	중장 Issac D. White		대위	李 圭 植 (6. 26부터)
제7사단	장	소장 金 容 培	제3대대	장	소령 孔 行 根
제3연대	장	대령 柳 重 秀	사단 포병단	장	대령 姜 官 龍
제1대대	장	소령 羅 巖 日	제56포병대대	장	중령 李 德 基
제2대대	장	소령 張 用 南	제57포병대대	장	중령 方 庸 源
제3대대	장	중령 朴 圭 華	제93포병대대	장	중령 金 在 澤
제5연대	장	대령 孫 昌 奎	배속부대		
제1대대	장	중령 柳 洪 植	제69포병대대	장	중령 李 基 榮
제2대대	장	중령 林 東 燮	인접부대		
제3대대	장	중령 李 甲 榮	右인접		
제8연대	장	대령 李 秉 衡	제20사단	장	준장 宋 錫 夏
제1대대	장	중령 朴 一	左인접		
제2대대	장	소령 鮮于 容 敵	제 5 사단	장	소장 朴 炳 禮
중공 제60군	장	韋 杰	제179사단	장	吳 識 洪

나. 전투전의 개황

제7사단(장, 任忠植 준장)은 1952년 10월 6일부터 동월 14일까지 中共 제68군(장, 邱蔚) 이하의 제20사단(장, 蕭魁)과 △1,090고지 부근에서 크게 싸운다음 美제10군단 작전명령 제97호(52. 11. 12부)에 의거 52년 11월 15일에 美제25사단(장, Samuel T. William 소장)에게 주저항선(Minnesota線)의 방어임무를 인계하고 美제10군단 예비로서 楊口부근에서 부대정비에 임하다가 1953년 2월 1일, 美제10군단 작전명령 제5호(53. 1. 30부)에 의거 다시 美제25사단과 임무를 교대하였다.

2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사단장 任忠植 준장은 육본으로 전임되고 그 후임에 육본인사국장이던 金容培 준장이 제9대 사단장으로 赴任하였다.

그後 사단은 戰線의 彼我對陣狀態가 維持되는 가운데 美제10군단 작전지시 제352호에 의거 주저항선의 방어임무를 新編 제20사단에 인계하고 國단예비로서 이하 제3연대를 楊口 縣里에, 그리고 主力을 楊口 九岩里부근에 集結시켜 부대정비와 戰技鍊磨에 들어갔는데 6월에 들어서 이른바 中共의 6월攻勢로 말미암아 사단의 左隣接 제5사단이 △949—△883를 연하는 Minnesota線의 추진지를 喪失함에 따라 이와 連繫한 同제20사단이 6월 15일밤에 1개중대 규모의 敵에 의하여 △938를 喪失케 되었다. 이에 同제20사단은 그 이튿날 黎明에 實施한 역습으로 7시간만에 이를 뒤찾기는 하였으나 左隣接 제5사단의 戰線調整관계로 左一線에서는 현 주저항선의 4km후방에 부대를 西配置케 됨으로써 △938가 하나의 突出部를 形成케 되어 그 西側方에 대한 補塡을 要하게 되었다.

따라서 軍단장 Isaac D. White중장은 이와같은 상황아래 그 防守 강화책에 필요한 部隊소요의 增加(從前까지는 1개대대를 배치)와 계속 加緊된 敵의 壓力을 勘案하여 6월 16일에 예비인 제7사단으로 하여금 제20사단의 左一線 전투지역을 인수케 하여 전선을 強化하였는데 이 조치에 따라 사단은 다시 △938 정면의 전선을 담당하는 軍단左翼으로서 전선에 나서게 되었다.

敵軍의 狀況 : 당시 제7사단 당면의 中共 제60군(장, 鞏杰)은 黃海道 谷山에서 부대개편을 마치고 52년 10월 하순에 제68군(장, 邱蔚)의 전선을 인수하여 東으로는 文登里 溪谷을 地境 삼아 北傀 제3군단과, 그리고 西로는 北濱江을 境界로 한 듯 제67군(장, 馬龍)과의 連繫를 維持하는 가운데 隸下 제181사단을 그 右翼에 제179사단을 그 左翼에 각각 配置하여 主抵抗線을 담당케 하고 제180사단을 그들 전선 후방(위치미상)에 控置하여 美제10군단과 對陣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53년 5월 중순에 이르러 제60군에 새로이 배속된 제33사단이 제179사단과 交代함으로써 同제179사단은 그들 軍 예비로 轉換된 듯 하였다.

그뒤 6월에 들어서서 제60군은 我제5사단지역의 △949—△883을 침공하여 이를 殲滅하자 日宇 宗諒에 그들 예비인 제179사단(一)으로써 제33사단지역을 나누어 새로이 그들 右翼이 되게 한 것으로 推斷되었다.

때문에 사단은 이로부터 이 中共 제179사단과 대결케 된 것인데, 이 무렵의 사단정보판단에 의하면 同제179사단의 前線병력은 6,600명 內外이나 그밖에 이들을 지원하는 軍예비가 15,400명으로 推算되었으며, 이들의 支援火力로서는 제60군 직轄의 122mm 야포 2개대대(24문)를 포함한 76mm야포 6개대대(72문)와 120mm박격포 3개대대(36문)의 支援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또 최신항공사진보고에 따르면 그들 후방으로부터 峯洞(△938 北쪽 8km)에 이르는 도로상에 一日 평균 50여대의 보급추진차량과 戰車의 機動이 捕捉되기도 하였다.

我軍의 狀況 : 사단은 美제10군단의 작전지시에 따라 53년 6월 16일부터 동월 19일까지 제3연대를 계속 軍단의 작전통제하에 楊口 縣里에서 待機케 하고 주력을 楊口 九岩里에서 一線으로 推進하는 한편 사단전방 CP를 楊口郡 下勞山(白石山 東麓)에 開設하여 제20사단의 左一線(제62연대)을 인수하

여 이를 2개연대의 책임지역으로 分割調整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제5연대(장, 孫昌奎 대령)를 右一線 (△1220—△938 東麓)에, 제8연대(장, 李秉衡 대령)를 左一線(△938—노루골)에 배치하고 사단예비가 없음을 감안하여 제8연대에서 제1대대를 뽑아 都皮幕 南東 1km에 있는 연대간의 制限點부근에 控置한 가운데 右는 제20사단, 左는 제5사단과 連繫하여 주저항선(Minnesota線)방어를 위한 防守態勢를 갖추었다. 이에 右一線인 제5연대(장, 孫昌奎 대령)는 제2대대로 하여금 Minnesota線상에 있는 △1,220를 基軸으로한 主據點을 續成하고 △1,220 前方 1.2km지역에 橫隔을 이룬 △1,090에 제3대대를 배치하여 魚隱山(△1,277)에서 △1,090에 이르는 敵의 접근로를 扼守케 하고 △1,220 左側前方의 △869에는 제1대대를 전개하여 △869 東側方을 防護하는 同時에 岩洞(일명 : 바우굴)으로부터 △869에 이르는 접근로를 방어토록 함으로써 △1,220의 主障地 前方에는 2개대대를 배치한 셈이 되었다.

한편 左一線인 제8연대(장, 李秉衡 대령)는 △938를 중심으로 2개대대로서 主據點을 편성하여 通先谷—△938로의 敵侵入를 막는데 力點을 두게 하였다.

사단의 지원포병은 포병단 편제외에 제20사단 제62연대를 직접지원하던 제20사단 제69포병대대(105mm : 18문)가 동월 18일 17.00부로 배속되었으므로 사단은 105mm곡사포 54문과 155mm곡사포 18문의 火力을 확보케 되었다. 이에 사단은 제57포병대대로서 右一線 제5연대를, 제56포병대대로서 左一線 제8연대를 각각 직접지원토록 하고 제69포병대대와 제93포병대대(155mm곡사포)로써 사단울 일간지원토록 하였는데 이들이 점령한 포진지는 다음과 같다.

제56포병대대 : 六德谷, 灰谷

제53포병대대 : 白石山 北東麓

제69포병대대 : 長財洞 일대

제93포병대대 : 白石山 東麓

또한 사단의 대전차방어와 火力增援을 위하여 군단의 제245전차대대에서 1개중대(一)가 지원되었으나 機動的 制限으로 都皮幕 後方稜線에 急造障地를 構築하여 火力支撥에만 專用케 하였다.

한편 사단공병이 지역내의 주보급로와 △1,220—△938간을 잇는 稜線후사면 도로를 보수함으로써 △938까지 차량으로 추진보급이 가능하였다.

이밖에 戰鬪에 영향을 미친 사항으로 △938는 去般 제20사단이 防禦時 1개대대의 병력(△938 主嶺 지역은 1개중대 배치)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배치하였던 탓으로 草木의 茂盛期에 접어들면서도 이의 射界淸掃를 充分히 못함으로서 稜線上과 岩石地帶를 除外하고는 사람의 키를 넘는 草木이 울창하였다.

이런 가운데 사단은 通先谷과 岩洞부근의 아군 전진진지에 몇 차례의 侵襲을 피한 敵을 擊退하면서 閑戰態勢를 맞아 非常警戒態勢에 들어가 장차 닥쳐올 敵攻撃에 對備하였다.

氣象은 장마철의 고온 다습한 날씨에 흐리고 비가오는 날이 많아 관측과 항공지원에 制限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사단이 6월 19일 05.00부로 제20사단(장, 宋錫夏 준장) 左一線전투지역(제62연대)을 인수하자 사단장 金容培 소장(53.6진급)은 當面の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기를, 『敵은 休戰이 되면 非武裝地帶가 形成된다는 것을 勸案하여 戰術的인 要衝을 事前確保하기 위

하여 必是 발악적인 最後공세를 取할 것이 예상된다.

敵이 공격한다면 그 目標은 지난번 제5사단이 喪失한 △949와 △883等과 橫的인 連繫를 짓는 △938를 奪할 公算이 甚다』라고 내다보고 同日 17.00부로 작전지시 제238호로서 左一線인 제8연대에 이르되 『사단공병대대와 협조하여 전방경계의 강화는 勿論 장마로 말미암아 무너진 진지를 時急히 보강토록 하라.』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20일 17.00에는 敵의 공격에 대비한 작전지시 제239호를 하달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현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938 및 △1,220에대한 敵의 공격에 대비하여 逆襲을 준비하러 한다.

② 제5연대는 △1,220의 戰勢가 危急할 때 依命 제8연대 제1대대(사단예비)를 지휘하여 逆襲할 준비를 하라.

③ 제8연대는 △938의 戰勢가 危急할 때 依命 제1대대(사단예비)를 지휘하여 逆襲할 준비를 하라.

④ 중박격포(4.2")중대

㉑ 사단일반지원을 계속하라.

㉒ 依命 逆襲부대를 직접지원하라.

⑤ 사단포병단

경포 2개대대로 兩개 연대를 직접지원하고 경포 1개대대와 중포 1개대대로 사단을 일반 지원하라.』

이에 따라 제8연대장 李秉衡 대령은 연대 右一線으로서 △938(主峰포함)一同高地의 東麓에 배치된 제2대대(장, 鮮于容 소령)와, 左一線인 △938 西側 9分稜線一同高地 西麓에 배치된 제3대대로하여금 진지공사에 입하게 하는 한편 사단예비로 있는 예하 제1대대로써 △938에 대한 逆襲을 준비케 하였다.

이러하여 주지향선부대는 6월 20일부터 진지공사에 全力을 경주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各 예상근로에 대한 火力計劃을 補充케 하였는데, 特히 通先谷의 敵陣地와 至近距離에 있는 △938(제2대대)의 接近路上에는 연대의 편제 火器에 追加하여 사단포병의 탄막과 火集中點을 增加設置하였다.

그러나 陣地工事を 주야로 강행하면서도 長霖으로 말미암아 1日 계획량을 충족할 수 없는 데다가 때때로 비가 그칠때에는 敵의 觀測으로 계속 進行이 어려워 일부 火器壕와 陣前의 障礙物 強度는 滿足할만 한 것이 못되었다.

이러한 기미를 엿보았음인지 6월 26일 夜間에 △938의 地殼을 뒤흔들어 地貌를 바꿀만한 集中砲火를 同伴한 敵襲이 始作된 것이다.

(2) 작전실시

6월 26일 : 非常警戒가 全戰線에 실시되고 있는 이날 새벽 동이 트기전에 岩洞(바우골) 부근에서 제8연대 陣地를 探索하려는 듯 한 分隊規模의 敵兵을 該연대수색중대가 擊退한 바 있었는데 사단은 다른날 보다 한층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薄暮무렵까지 陣地工事を 繼續하였다. 當面の 敵砲兵은 이같은 사단의 工事を 妨害코자 終日토록 主抵抗線 일대에 散發的인 擾亂射擊을 加하였는데 日沒과 더불어 砲聲이 차차 사라지더니 21. 15이되자 突然 △938 일대에 砲火를 集中하였으며 이로부터 30분 뒤에는 高地 西北쪽 下麓의 茂盛한 雜草를 헤치면서 朦朧한 月光속에서 3개대대로 推算되는 敵이 山腹을 기어 올랐다.

이에 제8연대장 李秉衡대령은 中共軍의 集中砲火가 △938 일대에 炸裂하기 始作하자 그들의 攻擊이 同高地로 指向된 것으로 判斷하고 各分隊를 非常態勢에 突入케 하는 同時에 直接支援 砲兵인 第56砲兵대대(장, 李德基 중령)로 하여금 이를 制壓토록 하였다.

그러나 敵의 集中砲火는 이러한 制壓射擊에도 不拘하고 더욱 熾烈의 度を 加하더니 21. 30에는 該연대의 前方지휘소 겸 관측소가 있는 都皮幕 東南쪽의 稜線 일대와 大谷-六德谷-灰谷(△938 東南쪽 5km)等地에 散開된 사단포병진지, 그리고 白石山 東麓의 사단전방지휘소 부근까지 미쳤다.

이때 제8연대 前方지휘소에 設置된 通信網이 砲擊으로 杜絶되었는데 연대는 지휘소 및 시설의 일부를 400m전방의 稜線 後斜面까지 야밤에 긴급소산키로 措置하였다.

1. 938高地의 喪失

가) 제2대대의 상황

제2대대(장, 鮮于 容 소령)가 연대로부터 『비상태세로 돌입하라』라는 緊急命令을 받았을 때에는 敵砲擊의 熾烈度가 여느 때와 다름을 보고 이미 각중대로 하여금 전투준비를 갖추게 한 뒤였다.

敵砲의 集中精度는 晝間보다도 正確하였는데 이는 擾亂射擊인 듯 한 晝間砲擊이 곧 基點 記錄사격이었음을 意味하는 것이었다. 敵의 砲火는 交通壕와 散兵壕等 主 저항선의 各중대 陣地를 少시간에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有蓋壕에 덮은 억새지붕도 烏有化되었다.

이렇듯 敵砲火가 兇惡없이 集中됨에 따라 제6중대 前면에 敷設한 地雷와 二重輪型 鐵條網도 급기야 破壞되고 말았다.

當時 대대의 障壁設置는 該중대 陣地의 일부만이 짧은 工事期間에 設置가 완료되었을 뿐이었다.

이때의 대대는 연대방어지역의 要衝인 △938의 主峰을 擁圍하면서 제7중대를 예비로서 그 後斜面 陣地에 配置하여 방어 縱深을 維持케 하고 제5중대를 右第一線으로 하여 △938 前面에서 北으로 急傾斜로 내려뻗은 2개의 稜線岐點에 配置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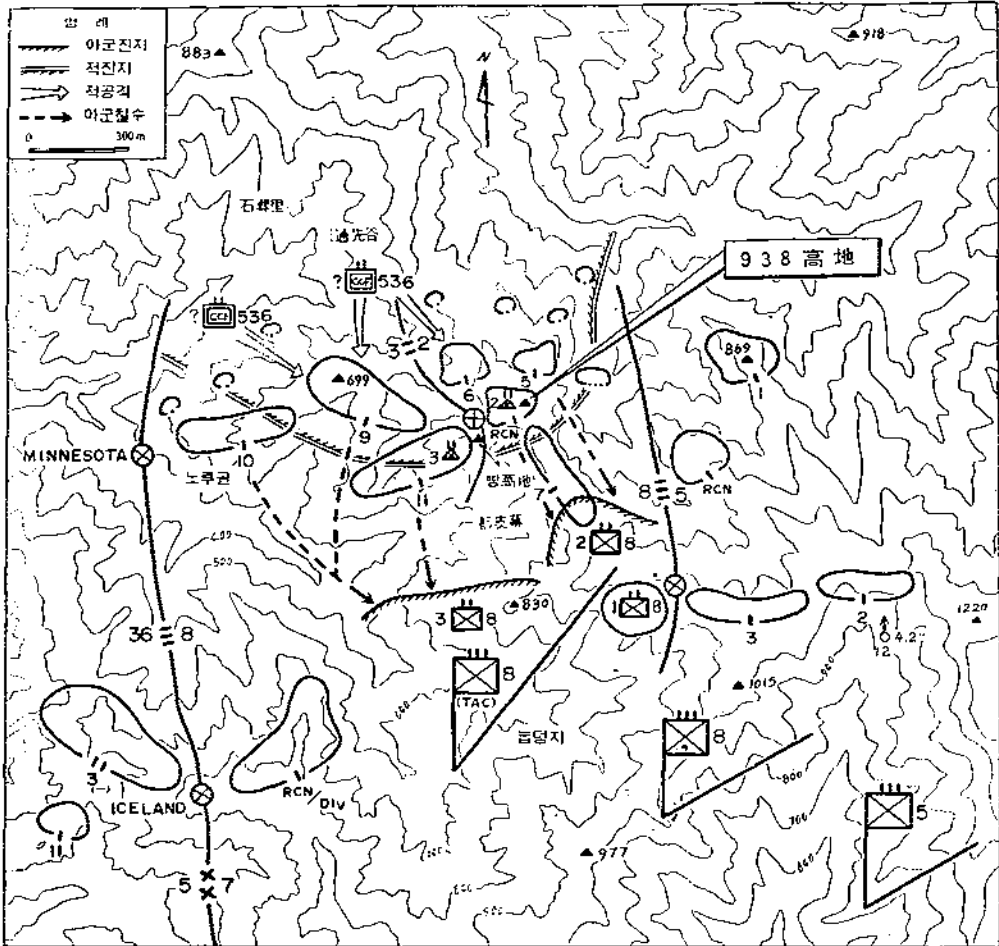
이 地域은 地形이 險峻하여 部分的으로 奇岩으로 덮혀 있는데다가 東側方은 甚한 傾斜와 斷崖를 이룬곳이 많아 山谷이나 稜線으로부터의 接近試圖는 容易치 않을뿐 아니라 中대의 陣地에서 前方 및 左右側方을 統制할 수 있는 곳이었다.

左第一線 제6중대 地域은 左에 제9중대와 隣接하여 △938 前面에서 敵側 通先谷 쪽으로 變은 6부 稜線이었는데 그 東側面은 가파른 편이나 △938 頂上에서 北麓까지는 小路가 있고 錯雜하지만 稜線이 比較的 平坦하므로 大대장은 이곳을 敵의 接近路로 豫想하고 防禦 力을 集中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大대는 接敵하기 前에 이미 陣地와 障礙物지대가 파괴되고 또 이로부터 얼마 후에는 大대의 全有線網마저 杜絶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大대장 鮮于 容 소령은 즉각 大대지휘망(SCR 609무전기)으로써 前方상황을 確認 하기 위하여 各중대를 호출하였으나 原因을 알수 없는 混線만이 거듭되자 大대의 통신병

상황도 제 22 호 938高地戰鬪(6.26—27)



력을 動員하여 有線網 復舊에 全力을 기울이는 한편 대대에 차출된 각중대의 傳令을 즉각 중대로 되돌려 보내어 상황을 긴급보고케 하였다.

21.45에 敵은 集中砲火에 뒤이어 增強된 1개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제6중대의 正面과 西側方에서 一齊히 소총사격을 加하면서 陣前으로 殺到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이 무리를 陣前에서 擊滅하기 위하여 곧 連發기로 하여금 M-7榴彈발 사기가 裝置된 M1소총으로 最後阻止射擊 信號인 赤色5星불꽃신호탄을 밤하늘 높이 연속2발을 쏘아 올리게 하니 이에 중대의 전 화력이 불을 대하면서 事前에 計劃된 最後阻止線에 集中되었다.

이때 대대관측소에서 前方을 凝視하던 대대장 鮮于容 소령은 突然 대대의 左前方一角에서 오른 赤色신호탄을 目擊하자 必是 제6중대의 最後阻止射擊일 것으로 판단하고 즉시 관측소 내에 있던 증화기중대장에게 最後阻止사격을 명령하였다.

이에 △938 후사면에 散開한 81mm박격포가 제6중대 전면에 計劃된 彈幕사격을 퍼붓게 되고, 砲兵 無線網으로 연대에 요청된 4.2"박격포 사격이 뒤이어 加勢하게 되어 △938一帶의 山谷에는 轟음이 震動하고 爆焰이 冲天하였다.

그들은 이에 怯疑逡巡하여 잠시 그 衝勢가 주춤한 듯 하였으나 그들의 砲擊이 侵攻部隊의 後尾로 轉換하여 이른바 督戰射擊을 始作한 탓인지 곧 喊聲인지 悲鳴인지 알수 없는 怪聲을 連發하여 逃避口라도 찾듯이 앞으로 밀고 해치며 배를 지어 陣前에 몰려들었다.

이에 중대는 制限된 시간의 最後阻止사격에 이어 계속적인 迫擊砲의 效力사격과 自動火器의 集中으로서 迎擊하니 機關銃이 發하는 點射의 快適音에 拍子를 맞추어 쓰러지듯 瞬間에 그 무리의 屍體가 陣前 鐵條網주위에 累積하였는데 이때가 그들이 侵攻한지 不過 20분도 채못된 22.00였다.

그러나 一波에 이어 또 다른 一波가 뒤따르는 式의 끈질긴 侵勢를 거듭함에 衆寡不敵의 중대는 最後阻止사격의 一時的인 奏效만을 거두었을 뿐 陣內에 밀어닥친 무리를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에 중대는 手榴彈 投擲과 함께 壕에서 一齊히 躍出하여 夜陰속에서 증머리와 鐵帽없는 人影에서 敵을 찾아 찌르고 쏘는 白兵戰에 突入케 되었다.

한편 이런상황에서도 어둠을 틈타 중대의 후방으로 侵透한 듯 한 무리가 이때에 대대관측소 부근으로 迂回하여 多發銃을 휘두르면서 이 周圍에 配置된 연대 搜索中隊를 急襲하니 여기에 또 하나의 兇惡한 格鬪가 벌어지는 가운데 대대는 그들에게 結果적으로 包圍가 된체 混戰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무렵인 22.30에 대대장 鮮于容 소령은 通信의 不通으로 상황과악이 어떻게 되고 또 이때 관측소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確認코자 暫時 밖을 다녀와서는 觀測所內의 全員에게 我我의 상황과 危急을 알리는 同時에 『모든 機密문서와 地圖를 즉각 破棄하라』고 指示한다음

45구경 권총만을 所持한 채 단신 紛戰의 소용돌이 속에 뛰어 들었다.

이리하여 관측소밖 陣地의 一角에서 대대장은 左前方에서 밀려나는 제6중대원에게 『撤收하지마라, 現戰線을 그대로 지키라!』라고 怒號하면서 隊伍를 가다듬으니 장병들은 대대장이 健在함과 진두지휘의 勇姿를 보았음인지 한때 저하되었던 士氣가 鼓舞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대장 鮮于 소령의 이러한 偉容이 敵에게 露出이된 탓인지 集中投擲된 手榴彈에 의하여 여기 $\triangle 938$ 山頂에서 마침내 護國의 神으로 壯烈하게 散華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얼마뒤인 23. 20에 敵의 또 한차례의 集中砲火와 增援兵力의 投入으로 더 이상 支撐을 못하고 때마침 不利한 狀況으로 말미암아 右 第一線에서 撤收를 開始한 제5중대가 $\triangle 938$ 南斜面으로 血路를 뚫은데 이어 중대가 分散된체 그뒤를 따라 撤收하게 되었다.

이때가 23. 30으로 아직도 $\triangle 938$ 一帶의 山谷에는 피비린내와 硝煙이 가득하였다.

이리하여 연대로부터 임시 대대장으로 급파된 정보주임 李圭植대위 指揮下에 대대는 27일 01. 00에 都皮嶽 南쪽 500m附近에서 兵力을收拾한 뒤 東으로는 $\triangle 938$ 에 이르는 稜線道路로부터 西로는 $\triangle 830$ 간(Iceland線)에서 急編陣地를 編成하여 그들의 계속적인 侵入을 阻止하게 되었다.

나) 제3대대의 상황

敵砲擊이 始作된 21. 15이 지나 연대로부터 非常下達을 接하였을때, 제3대대(장. 孔行根 소령)의 각중대는 이미 야간배치를 완료한 뒤였다.

즉, 주간 산병호의 1인 배치를 2인으로, 경계초소의 單哨를 複哨로, 그리고 야간 청음소의 설치등의 병력배치 以外에 前哨陣地의 補給을 爲하여 通常 敵 觀測을 避하여 日沒後에 推進하였던 터이라 이날도 敵의 晝間砲擊이 끝나자 곧 補給推進을 중대별로 마친 것이다.

右第一線 제9중대는 그 전초진지에 1개분대를, 左第一線 제10중대는 2개분대를 2개 전초진지에 배치하였는데 이들 각진지는 敵지역으로부터 陣內에 이르는 稜線의 要部に 設置되어 있었다.

대대의 방어편성은 $\triangle 938$ 西側의 9부稜線에서 西麓까지 2개중대를 전방에 배치하고 대대 예비인 제11중대를 右第一線 제9중대의 右側背에 배치함으로써 대대의 東側方 즉, 제2대대의 西側方은 2개중대의 縱深으로 補強한 셈이었다.

따라서 제3대대의 방어력이 維持되는 限 西側方으로부터의 $\triangle 938$ 侵攻은 어려우며 假使 侵攻한다 손쳐더라도 $\triangle 938$ 의 主峰確保만으로도 敵을 敵制下에 둔채 作戰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反對로 그 右側의 제2대대가 $\triangle 938$ 의 主峰을 確保치 못할때에는 該대대가 敵에 의하여 孤立 또는 被包圍의 威脅마저 받게 되는 位置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었다.

대대장 孔行根 소령은 연대로부터 非常警報에 接한 즉시로 각 중대장에게 有線으로 戰鬪態勢에 즉각 突入할 것을 指示한 다음 敵砲火의 集中상황을 確認하였는데, 제11중대를 끌

으로 有線通話가 끝날 무렵에는 砲火가 炸裂하는 轟音에 受話器마저 뒤흔들리게 되었다.

이윽고 21.30에는 제11중대와 有線回路를 남긴채 대대의 全有線網이 杜絶됨으로써 대대는 狀況把握을 SCR-609무전기에 依存하게 되었으며 그나마 混信으로 圓滑한 交信이 어렵었다.

21.50 이 지나서 대대장 孔行根 소령은 제9중대장 河成培 중위로부터 『右隣接 제6중대 지역에서 敵과 交戰中이며, 赤色불꽃信號彈이 夜空에 올랐다.』는 要旨의 報告를 받고 이를 즉각 각중대에 傳播하는 同時 제11중대(장, 金容換 대위)에 중대의 東側方과 대대 OP周邊의 警戒상태를 點檢케 하고 계속 急變하는 狀況을 注視하였다.

이로부터 얼마후 照明彈의 光芒속에 敵影을 發見한 제9중대로부터의 2차보고가 있었는데 내용인즉 1개대대 규모의 敵이 石藏谷(通先谷 北西쪽 600m)에서 중대 西側方으로 침공하고 있다는 危急을 傳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즉각 대대 81mm迫擊砲로서 遮斷사격을 加하였으나 그들은 어느덧 該중대 제3소대가 占據한 △699 西側背로 부터 各種砲火의 集中과 더불어 사격을 加하면서 陣前에 窺到하였는데, 이에 중대장 河成培 중위는 이를 중대最後阻止사격으로 擊退코저 하였으나 중대의 前面이 아닌 關係로 火力의 集中이 어려우므로 即刻 火器 소대의 火力을 △699 西斜面으로 集中케 하는 한편 제3소대 左側方에 配置된 重火器중대의 경기관총 2挺으로 阻止射擊을 加하는 同時 중대 西側方에 對한 近接제한사격을 대대에 要請하였다.

이에 대대는 事前에 計劃된 81mm迫擊砲의 火集中點에 即刻의인 砲擊을 實施하는 한편 左第一線 제10중대로 하여금 제9중대의 西側方을 掩護케 하였다.

砲擊과 自動火器의 火網이 펼쳐지자 그들의 衝勢가 잠시 수그러졌으나 오래되지않아 後續하던 새로운 攻波가 投入된 듯 陣前에 다시 蟻集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衆寡不敵의 血戰을 거듭하다가 終局에는 △699로부터 밀려나게 되었다.

이때 또 한편의 敵이 대대 東側方을 急襲하였는데, 이들은 右인접 제2대대 側背로 侵透한 무리들인 듯 △938 西側을 따라 제11중대지역을 휩쓸고 대대 OP 咫尺之間에서 사격을 加하므로 한때 대대는 危局을 느끼게 되어 指揮機能이 마비 되기도하였으나 곧 제11중대가 急遽擊退시킴으로써 OP의 機能을 어느 정도 恢復하였다.

여기에 대대는 前面과 側背의 兩面挾擊을 받음으로서 死傷者가 續出하여 銳氣를 잃게 되었을 뿐 아니라 敵의 企圖가 包圍로 擴大됨에 따라 夜間 隨意撤收키로 하였다.

이때가 그들이 侵攻한지 1시간 15분이 지난 23.30였다.

이로부터 15분이 經過한 23.45에 그들의 主力이 대대 OP右邊에 있는 無名봉우리(一名; 땃고지)를 奪取하였으며, 대대는 都皮幕 南쪽에 橫隔을 이룬 Iceland線의 △830에 再配置되어 제2대대와 더불어 그들 隴鋒을 阻止하게 되었다.

다) 연대장의 조치

左右一線대대의 熾烈한 紛戰이 尋常치 않았음을 보게된 연대장 李乘衡 대령은 美제 10군단의 作戰統制下에 있는 제3연대가 사단에 복귀시까지 사단작전통제를 받고 있는 隸下제1대대(장, 朴一 중령)의 適機使用을 爲하여, 敵의 侵攻이 始作된 即後에 사단作戰參謀 白雲龍 중령을 통하여 사단장의 사용승인을 받은지라 逆襲을 爲한 準備措置로서 제1대대를 22. 30에 사단중앙지역으로부터 都皮幕 附近(△938 南쪽 1km)으로 移動命令을 下達하고 이어 제1대대장 朴一중령이 건의한 역습계획의 內容인부를 修正하여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연대는 6월 27일 02. 30에 攻撃을 開始하여 △938를 탈환하려 한다.

② 제1대대

㉔ 6월 27일 02. 30에 攻撃, △938를 奪取하고 지역내의 敵을 격멸하라.

㉕ 依命 原陣地를 제2대대에 引繼할 準備를 갖추라.

③ 제2대대

㉔ 제1대대의 超越攻撃을 支援하라.

㉕ 依命 原陣地를 제1대대로부터 引受방어할 準備를 갖추라.

④ 협조지시

㉔ 火力의 優先은 역습부대에 있다.

㉕ 攻撃準備射擊은 H-15부터 실시한다.

한편 이와같은 연대로부터 역습명령을 받은 제1대대장, 朴一 중령은 즉각 各중대장을 대대장 Bunker로 召集하여 △938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어 既定計劃을 일부補完한 대대의 명령을 하달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대대는 6월 27일 02. 30에 제2대대를 초월공격하여, 목표 △938를 탈취하고 지역내에 侵透한 敵을 격멸하려 한다.

② 제1중대는 대대의 右一線으로 △938 主峰을 탈취하라.

③ 제2중대는 대대의 左一線으로 △938 西側 『뺨』고지를 탈취하라.

④ 제3중대는 대대에비로서 依命 제1중대를 후속하라.

⑤ 협조지시

㉔ 공격준비사격 : H-15

㉕ 공격개시전까지 무선침묵

이리하여 대대는 各중대별로 軍裝의 最終점검을 완료하고 23. 20에 都皮幕부근의 공격待機지점으로 前進하였다.

6월 27일 : 한차례의 激戰을 치른 제8연대는 이날 逆襲준비를 하나하나 다지는 가운데 決行段階에 들어갔다.

연대장 李秉衡대령의 着想은 △938를 奪取한 그들이 增援부대의 投入으로 急編진지에서 四周방어力을 強化하기 前에 이를 破碎키로하되 비록 역습부대의 규모가 적더라도 適機의 捕捉은 逸機의 연대 규모이상의 攻擊力과도 比等할 수 있다는 較量아래 初動先制의 逆襲을 敢行키로 決心한 것이다.

1. 1차역습(제8연대제1대대)

제1대대(장, 朴一 중령)는 都皮幕 附近의 공격 待機지점에서 01.00에 行動을 開始하여 豫定된 時間內에 제2대대의 急編방어진지 前緣에 부대를 展開하여 사단포병의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02.30에 一齊히 LD를 躍進하였는데, 이 무렵부터 敵은 我軍의 砲擊이 逆습임을 判別하였음인지 대대의 前進路上에 砲擊을 集中 하기 始作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砲火가 △938에 이르는 稜線道路와 接近이 용이한 부근 일대에 集中하였으므로 比較的 기동공간이 좁았던 제1중대는 躍進距離에 비하여 많은 死傷者를 내게되었다.

이에 중대장 金漢俊대위는 즉각 각소대장에게 『被彈 地帶를 迂回하라』라고 大號하면서 自身은 左第一線 제1소대와 行動을 같이하여 능선 西斜面으로 躍進하고 右第一線 제2소대는 능선 東斜面을 따라 機動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제1소대가 LD로부터 300m前方의 稜線鞍部 ㉠까지 進出하였을때, 제2소대와의 連絡이 끊어지면서 東斜面쪽에서 둔한 爆音과 함께 총성이 들리게 되었는데, 이에 중대장 金 대위는 즉각 제3소대로 하여금 제2소대의 躍進을 掩護토록 하는 한편 제2소대의 進出이 늦어짐으로써 제1소대와의 間隙을 메꾸게 하였다.

이때 능선東斜面을 躍進하던 제2소대는 前半夜까지 我제7중대가 占據하였던 陣地地帶를 通過하여 마지막 몇개 남지않은 有蓋壕사이를 지나려하였을때 이壕에 潛伏한 敵兵으로부터 不意의 手榴彈 攻擊에 부딪치게 되어 角逐戰을 展開하던 참이었다.

이로 인하여 제2소대가 제1소대보다 늦게 鞍部에 到着케 되었는데 그 즉시로 중대는 이 鞍部 ㉠에서 △938에 오르는 稜線을 따라 목표 정상 탈취의 本攻을 하려하자 이때 左第一線 제1소대(장, 金彰顯 소위)가 頭上 6부稜線의 壕로부터 數없이 쏟아지는 手榴彈 攻擊에 마주치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그들의 直射火器가 △938 西側方에 출현함과 同時에 소대의 左側方을 威脅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兩面에서 挾擊을 받게된 소대는 瞬息間에 적지 않은 死傷者를 내게되어 공격이 한때 頓挫되고 말았는데, 이에 소대장 金 소위는 여기 이 좁은 稜線에서 우물쭈물함은 오직 죽음을 自招할뿐, 前進만이 損失을 줄이는것 이라고 判斷하고 소대원에게 『소대장을 따르라.』라고 외치면서 소대先頭에서 挺身突進하니 소대는 소대장 등에 조아멘 夜暗에도 신명한 紅色 對空布板을 쫓아 急進하여 壕內의 敵兵을 屠戮하고 그 餘勢를 몰아 일거에 8부 능선까지 突進하였다.

그러나 이때 8부능선 바위(後E바위의 모양이 碑石처럼 생겼다하여 碑石高地라고 이름붙

암)특에 潛伏한 敵兵이 自動火器의 瞰射로 앞을 가로막으니 소대는 또 한번의 壁에 부딪치게 되었는데, 이에 소대장 金彰顯 소위가 左腕上部에 貫通傷을 입으면서도 自動火器를 制壓코자 소대 집중사격을 퍼부었으나 制壓을 못한채로 다만 岩石에 튀기어지는 跳彈(曳光彈)이 새벽 하늘에 繡를 놓을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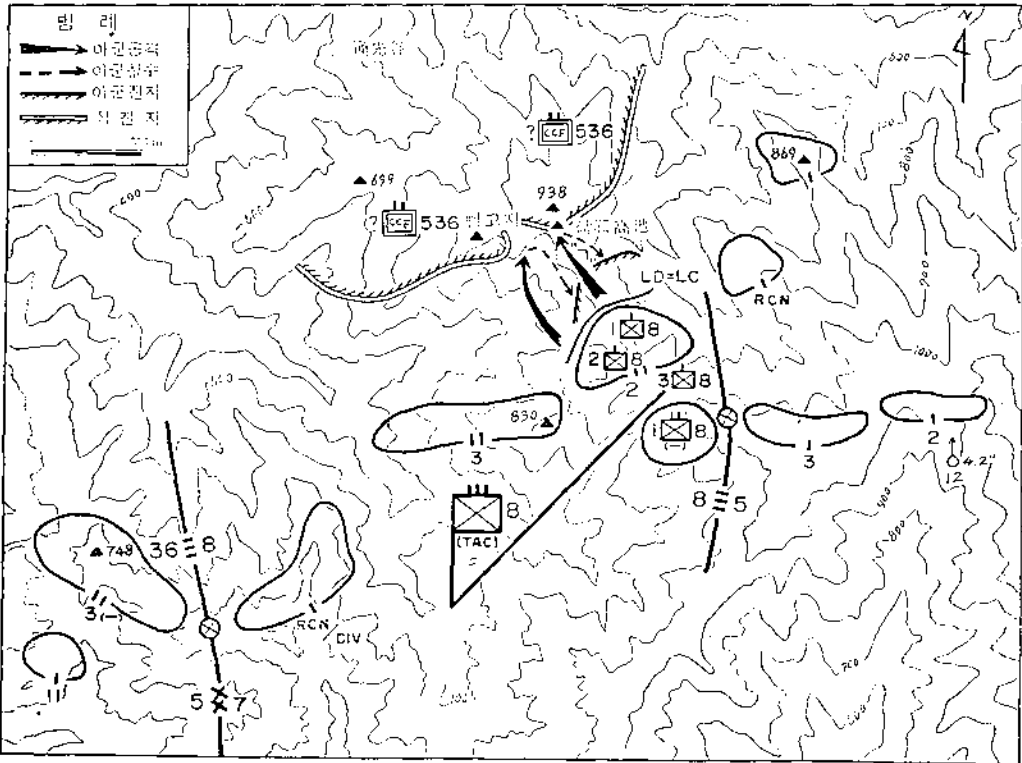
이에 중대장 金漢俊 대위는 제1소대로서 敵을 계속 견제케 하고 제2소대로 하여금 東側方에서 이를 挾擊케 함으로써 거어코 그들을 곧 潰散시키고 말았는데 이에 중대장은 出血過多로 氣盡한 제1소대장 金소위를 곧 후송시키고 소대선임하사관으로써 소대장을 대리케 하였다.

이리하여 9부능선에 오르게된 중대는 射擊할 틈도 없이 敵과 激突하게 되어 치고 받고 찌르는 肉迫戰을 치르게 되었다.

한편 대대의 左第一線 제2중대(장, 姜翼模 대위)는 都皮幕 左端을 돌아 △938 西側능선(甕高地) 南麓쪽으로 進出하였는데, 이 方向의 前進路는 앞과 左右의 三面이 高地에 둘러싸인 峻峻한 山路이긴 하나 一坦 그곳을 지나면 短距離에서 目標에 直衝할 수 있는 利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서 무엇보다 夜間의 企圖秘匿이 앞서야하는 곳이었다.

이날 중대는 야간 은밀행동이 奏効한 탓인지 敵도 이 方向으로의 攻撃을 察知하지 못한

◇ 상황도 제 23 호 938高地 제1차역습(6. 27)



듯 △938 南쪽 斜面을 躡進할때까지 때때로 山谷에 떨어지는 誤着彈의 轟音이 中대의 企圖를 감싸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中대가 8부능선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서 200m距離의 塹高地로부터 敵의 正面射擊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中대장 姜翼模 대위는 目標直前에서 疎散하더라도 소총 유효사정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즉각 突擊을 命令하였는데, 이 命令一下에 中대가 喊聲과 함께 일거에 塹高地에 突進하게 되니 곧 手榴彈의 爆發에 뒤이어 여기저기에서 白兵의 亂鬪가 벌어지게 되었다.

이렇듯 △938 主峰과 塹高地 一帶에서 激亂의 時間이 흐르게 되었으나 새벽동이 틀무렵에 敵은 兵力을 增援하므로써 兩中대는 彼我의 識別이 가려지는 가운데 차차 守勢에 물리게 되었다.

이에 兩中대는 05.30에 大대 OP上空에 撤收신호인 2發의 赤色불꽃신호탄이 피어 오르는 것을 보고 撤收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大대는 各中대를 一旦 △938 南麓의 鞍部까지 撤收시킨뒤 再編成 하게 되었다.

2. 2차역습(제8연대 제10중대)

제1대대의 역습이 좌절되자 연대장 李秉衡 대령은 都皮幕 南쪽의 △830에 配置된 제3대대의 일부로써 再攻擊기로 決心하였다.

그리하여 제10중대(장, 李世彦 중위)가 새로이 逆襲임무를 맡게 되어 全員小銃과 개인당 10發의 手榴彈을 휴대하고 사단砲兵의 集中砲火가 △938 一帶를 強打하는 가운데 13.30을 기하여 제1중대를 超越前進하였다.

이들이 제1중대의 공격때와 같이 例의 8부능선에 進出하였을 때 碑石高地로부터 自動火器射擊과 그 틈틈에서 굴리는 手榴彈에 逢着하여 苦戰停滯하게 되었다.

이 碑石高地는 △938에 이르는 능선道路를 直下에 瞰制할 수 있는 곳으로 敵도 이를 中요視한듯 여기에 直射火器를 配置하여 我軍의 역습에 對備하는 것이었다.

이에 中대장 李世彦 중위는 各개인 간격을 충분히 維持케 하는 한편 左右一線으로 하여금 東西 兩側方에서 이를 挾擊하도록 號令하였다.

中대장의 이런 措置는 中隊員 各개인마다 10發式의 수류탄을 携帶하고 있으므로 敵彈 1發에 의한 連鎖被害를 防止하기 위함과 岩石陣地(碑石高地)의 敵兵이 不可 半個분대 규모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敵을 固着시키는 틈을 利用하여 背後를 挾擊키로 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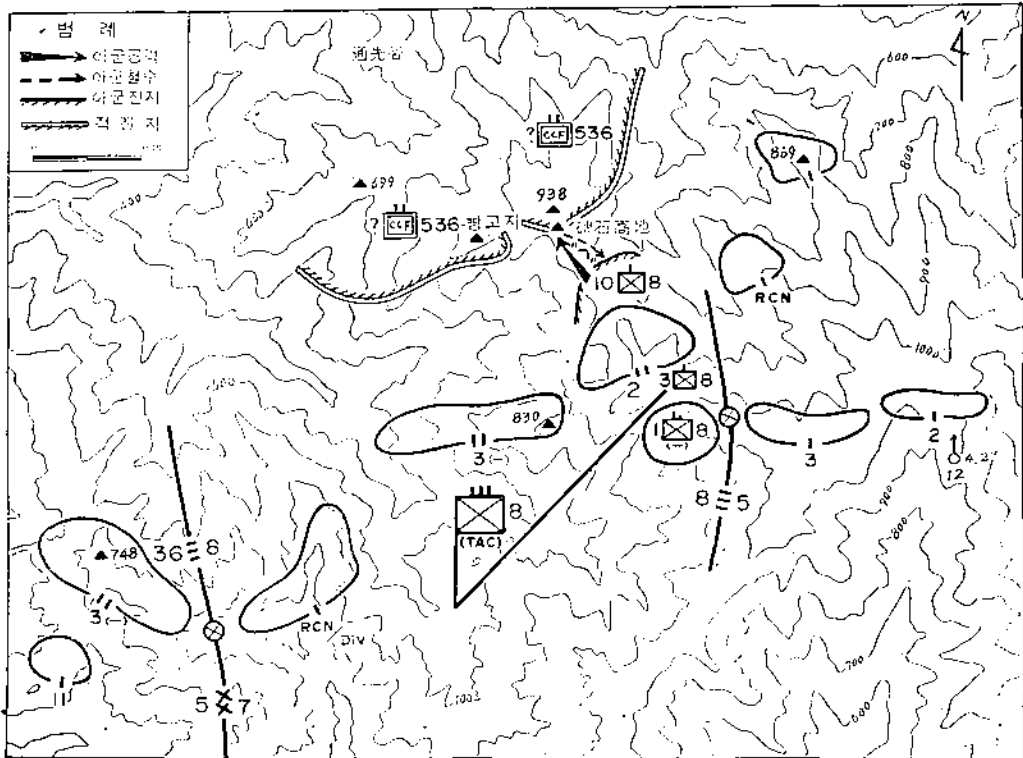
中대장의 이런 胸算이 的中하여 얼마後 碑石高地의 敵을 鏖殺하고 일거에 9부능선까지 進出하는 즉시로 一齊히 수류탄을 던지면서 攻迫을 加하니 그들은 이내 急編陣地에서 躍出하여 手榴彈으로 中대를 迎擊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鐵塊가 彼我의 頭上을 나는 樣相은 마치 石戰을 聯想케 하였는데 이러한 가운데 彼我が 지냈던 手榴彈도 바닥이 난듯 하여 어느쪽이 先制인지도 모를 格鬪가 到處에서 벌어졌다.

한편 我軍이 갑작스러운 晝間攻擊에 미쳐 砲擊을 加하지 못한듯한 敵의 砲火가 이무렵 부터 集中하기 始作하더니 곧 陣內射擊으로 轉換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中隊의 衡勞가 僻이게 되었다.

이리하여 敵에게 많은 殺傷을 加한 中隊 亦是 損失이 적지 않았으므로 敵砲火를 避하여 △938 南麓으로 隨意撤收하게 되었다.

◇ 상황도 제 24 호 938高地 제2차역습(6.27)



3. 3차역습(제8연대 제3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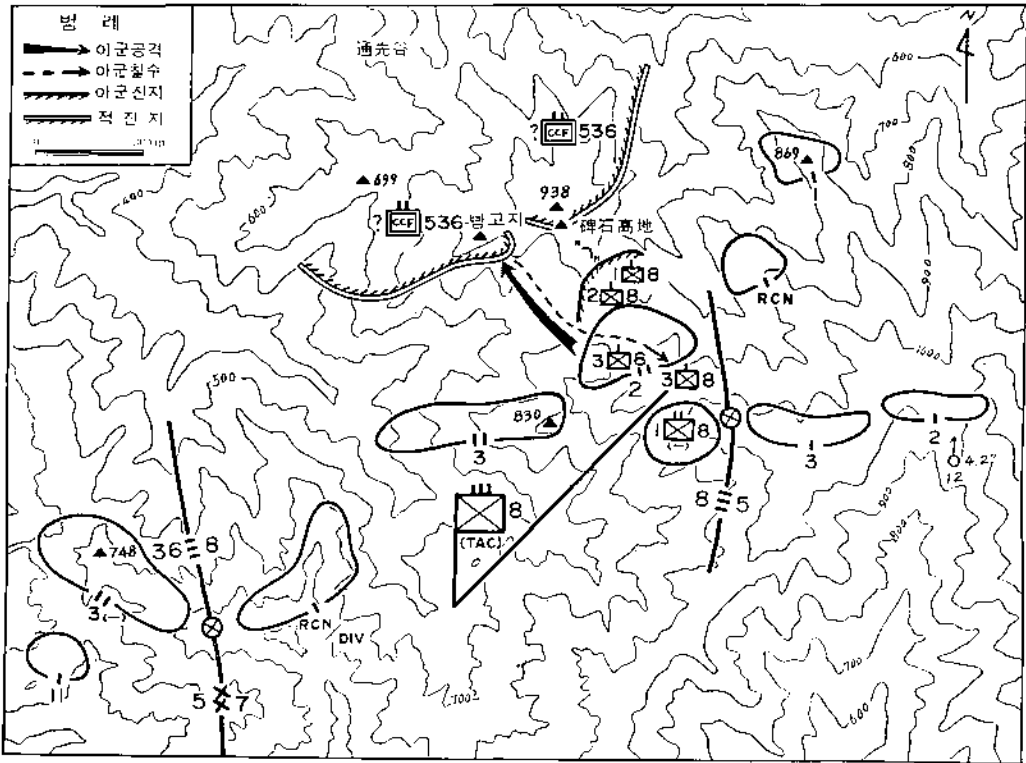
연대장 李秉衡 대령은 제1대대와 제10중대의 역습마저 成功을 거두지 못하자 △938 南麓에서 急編防禦中인 제1대대에비인 제3중대로 하여금 또 한번 攻擊을 再開토록 命令하였다.

이에 따라 제3중대는 各種砲의 支援사격하에 이날 15.00를 期하여 △938 西側 嶺高地를 攻擊하였는데, △938 西側능선의 南麓까지 進出하였을 무렵부터 그들의 砲火와 嶺高地로부터의 自動火器사격에 直面하게 되었다.

이에 中隊는 利用할 수 있는 遮蔽物을 찾아 火網을 避하는 한편 계속약전을 試圖하였으

나 7부능선을 넘지 못하고 進出이 頓挫되고 말았다. 이때 그들은 하루에도 몇차례 敢行되는 연대의 衝擊에 대하여 事前에 대비한듯 △938 主峰에서 西側 嶺高地간에 병력을 증가시키고 그전면에 火線을 強化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중대는 一進一退의 苦戰을 또免치 못하여 적지않은 死傷者를 낸뒤 18.00에 연대장의 命으로 原位置로 撤收하였다.

◇ 상황도 제 25 호 938高地 제3차역습(6.27)



4. 敵의 야습격퇴

이날 18.00 제8연대의 역습부대가 撤收한 다음 彼我的 擾亂射擊이 散發的으로 있었으나 日沒後로부터 주간 激戰을 잇은듯 한때 小康狀態에 들어갔는데, 23.05에 1개 중대 규모의 敵이 Iceland線을 急編防禦中인 제8연대 제2대대의 右第一線 제5중대지역으로 侵攻을 企圖하였다.

그들은 都皮幕의 능선 東斜面으로 은밀히 侵襲하려다가 제5중대陣前 150m地點에 配置된 潛伏분대에게 발견되어 즉각 사격을 받음으로써 순식간에 사격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에 중대는 迅來히 분대를 撤收시키는 한편 중대의 全火力을 集中하면서 陣前에서 이를 迎擊하자 敵은 곧 衝勢가 瓦解된듯 하였으나 그런데도 그들은 잠시後에 다시 侵攻을 恣行하였다. 이에 이르러 중대는 勿論 △938에서의 血鬪를 雪償코자 불을 탄한 대대의 全火力이 이에 집중케 되므로써 마침내 그들은 많은 屍體를 남긴채 潰退하고야 말았으니

이때가 그들이 侵攻을 개시한지 2시간반이 지난 28.01.30이었다.

5. 제3연대의 복귀

사단장은 전날밤 △925에 대한 역습과 사단의 방어력 補強을 위하여 제3연대의 복귀를 군단에게 建議한바 있는데, 이날 08.00부로 제3연대의 작전통제를 解除한다는 통보에 接하게 되어 同연대는 다시 사단지휘하에 돌아오게 되었다.

이리하여 楊口 縣里로부터 전방으로 急遽赴援케된 연대는 제5연대主陣地 後方(△1,220 南西 1.3km) 도로西邊에 연대 CP를 12.30에 開設하는 동시에 사단지시에 따라 예하 제3대대를 사단 주저항선 中央 直後方에서 南西로 斜線으로 연한 사단의 차후阻止陣地인 △1,090-△977-△1,065間에 右로부터 제10, 9, 11중대순으로 전개하여 사단의 방어중심을 增加하는 한편 17.30에는 제1대대를 연대 CP부근에, 그리고 18.00에는 제2대대를 仙儀巖(白石山 南西 3.2km)부근에 집중토록하여 次後命을 待機케 하였다.

6. 사단장의 조치

사단장 金容培소장은 제8연대가 역습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군단의 作戰統制로부터 復歸하게된 제3연대를 前述한바와같이 전개토록 하였는데 이날의 역습이 모두 成功치 못하자 사단에비대에 의한 차후역습 계획을 검토하게 되었다.

이무렵인 23.05에 1개 중대규모의 敵이 阻止線(Iceland線)에서 急編防禦中인 제8연대 右一線을 侵攻함으로써 제3연대의 早期전투 가입문제를 다음과 같이 참모들과 熟議케 되었는데, 첫째 현저지진지에서 제8연대의 正常的인 방어를 위하여 전지편성에 所要되는 最少限의 시간.

둘째, 현재 交戰中인 제8연대의 증원문제와 유사시에 대응할 추가소요부대를 제8연대 直後方에 推進하는데 대한 必要性 與否.

셋째, 제8연대와 2연대의 交代時機等

위와같은 諸問題를 檢討한 結果, 사단은 제8연대의 방어중심을 增加하고, 차후 역습에 기여할 수 있는 제3연대의 推進配置가 現狀하에서 융통성이 있는 方策이라는 結論을 얻게 되었다.

이리하여 사단장은 子正을기하여 要旨 다음과 같은 命을 제3연대장에게 하달하였다.

『제3연대장은 즉시 예하대대를 阻止線(Iceland線)에서 방어중인 제8연대 直後방으로 推進하여 차후명령을 대기하라.』

이리하여 제3연대의 예하대대는 이날 後半夜인 28일 00.50를 기하여 전방으로 急進하게 되었다.

6월 28일 : 전날밤 23.05에 제8연대 제2대대 前面에 侵攻한 1개 중대 규모의 敵을 이날 01.30에 陣前에서 擊退함으로써 戰線은 平穩을 찾게 되었다.

한편 제3연대의 제1 및 제2兩대대는 이로부터 2시간 반이 지난 04.15~04.30에 제8연대

의 급전방어진지 후방으로 推進하였으나 사단은 그간의 상황변동으로 △938의 역습을 29일 05.00에 決行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의 준비와 企圖秘匿을 爲하여 接觸線 부근에서의 부대의 密集을 避하고져 日出前에 대대를 攻撃待機를 위한 新集結地로 疎散케 하였던바 07.00에는 集結을 完了하게 되었다.

그리고 都皮幕 後方에서 部隊整備를 마친 제8연대 제1대대는 전날 사단의 口頭命令으로 제3연대 제3대대가 배치된 Iceland線 후방의 阻止障地를 인수하기 위해 07.00부터 行동을 개시하여 10.30부터는 阻止障地에서 相互 合同勤務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經過를 거쳐 사단은 29일 12.00에 제3연대 전방지휘소에서 사단장 金容培소장이 主宰하는 作戰會議를 開催하였는데, 이회의에서 情報參謀 韓武協중령은 먼저 전날 08.00 제8연대에서 獲得한 俘虜의 訊問結果를 土鏢로한 情報狀況을 報告하기를 『捕虜의 所屬은 中共 제60군 隸下의 제179사단 제536연대로 確認이 되었으며, 이들은 我제8연대를 공격하기 위하여 지난 6.25의 밤에 行동을 개시, 現戰線에 投入되었고, 현재 △938에 1개대대와 △938 西쪽지역에 1개대대가 배치되어 진지보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며 배치된 2개대대의 병력은 800명정도이며 이밖에 연대의 예비대가 △938 直後方に 있는것으로 믿어진다. 增援可能한 부대로서는 제179사단 제537연대와 제180사단의 3개연대가 제60군의 예비로서 戰線後方に 控置되어 있다』라고 하였으며, 이어서 작전참모 白雲龍중령은 『이번 역습에는 軍단포병의 TOT射擊과 美제245전차대대의 1개중대(-)가 사단을 지원하게되며 항공지원은 요청에 의하여 美제5공군에서 담당하게 된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사단장은 즉석에서 사단 작전명령제129호를 要旨 다음과 같이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6월 29일 05.00에 1개 연대(-)로써 △938에 대한 역습을 감행하여 이를 奪還하려 한다.

② 제3연대

㉑ 2개대대로써 제5연대 및 제8연대를 초월, △938를 탈취하라.

㉒ 1개대대는 攻撃開始와 동시 방어중인 저지진지를 제8연대에 인계케 하고 △1,015 (△1,220 西쪽 1km)부근에 집결시켜 연대의 예비로써 공치하라.

③ 제5연대

㉑ 현임무를 계속수행하라.

㉒ 제3연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④ 제8연대

㉑ 현임무를 계속수행하라.

㉒ 제3연대의 공격을 지원하고 제5연대 및 사단수색중대와 접촉을 유지하라.

㉓ 제3연대의 공격개시와 동시 同연대가 확보중인 저지진지를 인수하라.

⑤ 사단수색중대

사단 西側方(남덕지 西쪽 1.5km)에서 측방경계 및 제5사단과의 접촉을 유지하라.

⑥ 중박격포(4.2")중대

제3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⑦ 사단포병단

경포 3개 대대로 제3, 제5, 제8연대를 직접지원하고 중포로서 사단을 일반지원하라.

⑧ 공병대대

증강된 1개소대로써 제3연대를 직접지원하라.

⑨ 협조지시

㉠ 화력지원 우선권은 역습부대에 있다.

㉡ 공격준비사격 : H-20분

㉢ 공격개시전 기도비악에 유의하라.

⑩ 지휘소는 변동없이 白石山 東麓에 위치한다.』

以上の 命令을 受領한 제3연대장 柳重秀대령은 사단작전회의가 끝난 그자리에서 대대장 및 연대참모와 더불어 △938 회복을 위한 연대의 공격계획을 검토하였는데 여기서 LD의 선정문제가 討議의 焦點이 되었다.

즉 LD를 現接觸線으로하느냐 前方으로 推進하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我軍 支配下에 있는 線까지 推進하되 攻撃開始이전에 부대를 誘導展開한다는 意見을 같이하게 될바 完成된 그 計劃의 概要는 다음과 같다.

『① 제2대대는 공격右一線으로서 都皮幕 右端을 거쳐 목표 △938 右半部를 탈취한다.

② 제1대대는 공격左一線으로서 都皮幕 左端을 거쳐 목표 △938 左半部를 탈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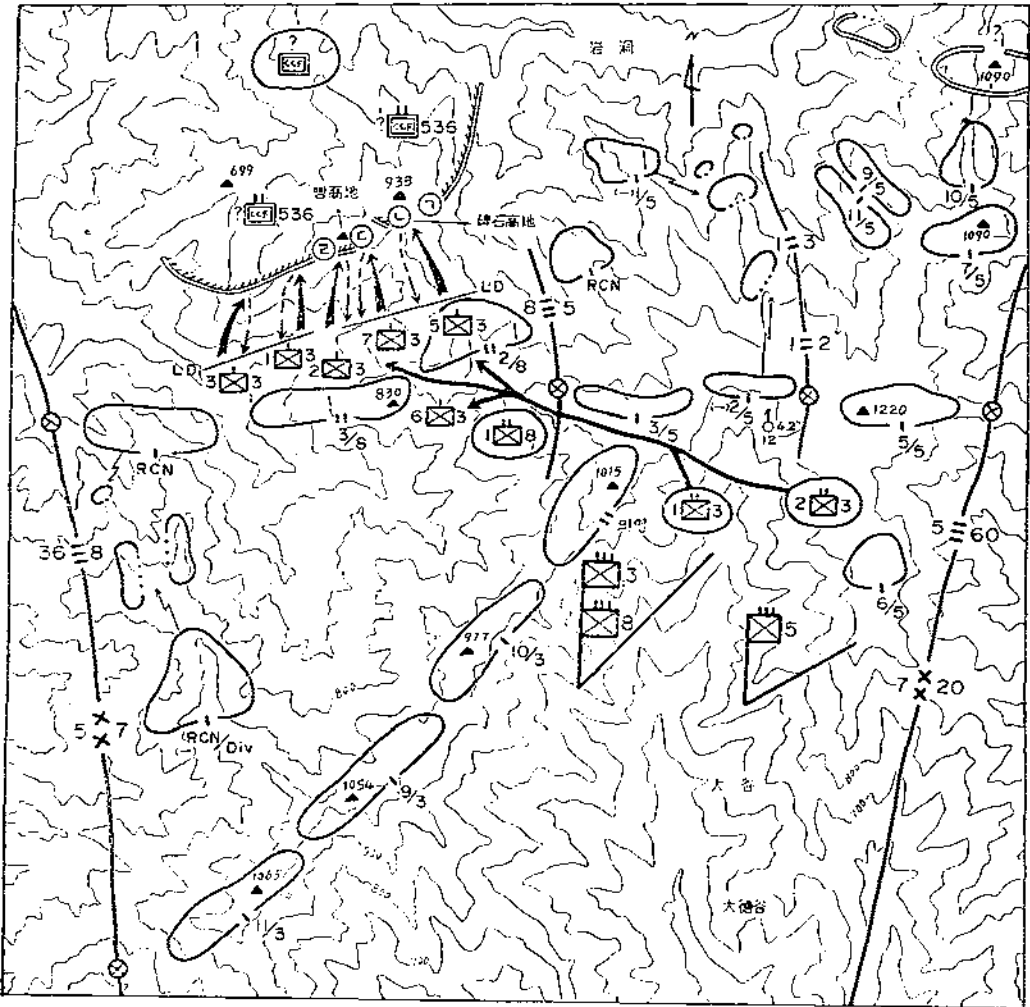
③ 제3대대는 공격개시와 동시에 현 阻止진지를 제8연대 제1대대에 인계하고 △1,015 (△1,220 西쪽 1 km)에 집결하여 예비가 된다.』

6월 29일 : 전날부터 부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938에 대한 黎明공격을 위하여 이날 01.00에 제3연대 제2대대가 집결지에서 행동을 개시하고 이어 그 제1대대가 01.30에 집결지를 떠나 예정대로 제8연대의 접촉선 전방의 LD에 展開하였다.

이로부터 10분뒤인 04.40에 연대는 군단포병산하의 포병 8개 대대가 퍼붓는 TOT사격과 함께 새로이 연대를 직접지원케 된 제69포병대대의 20분간의 공격준비사격이 시작되자 東西 兩面에서 연이어 오른 黃色信號彈에 맞추어 제1 및 제2 兩대대는 一齊히 LD를 뛰어 넘었다.

한편 연대의 지휘부는 전날밤에 정보, 작전반으로 構成하여 제8연대의 관측소를 겸한 전방지휘소 부근에 推進하여 攻擊을 지휘하였는데 이날의 역습을 위하여 전날 要請하였던 航空支援이 雨天으로 取消되었다는 通報를 사단으로부터 接하게 되었다.

◇ 상황도 제 26 호 제3연대의 역습



이에 연대장 柳重秀 대령은 작전반으로 하여금 비가 그치는데로 緊急航空지원을 再要請케 하되 그 목표를 △938에 局限치 말고 그 후방의 敵砲陣地와 豫備隊에 優先을 두도록 強調하였다.

1. 제2대대의 상황

연대의 右一線으로 攻擊하게 된 제2대대(장, 張用南 소령)는 都皮幕으로부터 △938에 이르는 稜線 機動路를 包含한 東側에 제5중대를 展開하여 右第一線으로 삼고, 제7중대를 左第一線으로서 그 西側에 展開하였다.

그리고 제6중대를 大대 豫備로써 의명 제7중대를 後繼토록하는 2개 중대 併進隊形으로 目標 △938 右半部에 銳鋒을 指向케 하였는데, 敵은 이미 我軍砲擊으로 攻擊을 豫測한듯 이 무렵부터 大대의 機動路에 砲擊을 集中하였다.

이에 제5중대는 제1소대를 右에, 제2소대를 左로하여 都皮幕 稜線 東斜面과 道路周邊에 散開하고 제3소대를 중대의 後方中央에서 제2소대를 뒤따르도록 하여 전진하였으나 중대는 LD通過時부터 機動路上에 集中되는 敵砲火를 헤치게 되었다.

이에 중대장은 敵砲擊의 집중密度가 稜線도로邊 보다 稜線의 東斜面쪽이 稀薄한 것을 看破하고 먼저 제2소대로써 區間躍進으로 LD를 橫斷케 하여 稜線 東斜面으로 指向케 한 다음 이어 제1소대로 하여금 그 뒤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彈幕지대를 迂回케 하였다.

이렇게하여 敵砲火를 避하여 躍進한 중대는 능선과 능선東斜面間을 蟹行하듯 左右前方으로 나가게 되었으나 적지않은 死傷者를 내게되어 날이밝자 窪隆地와 樹木을 遮蔽物로 삼고 겨우 LD로부터 300餘m가 떨어진 능선敵部까지 進出하게 되었다.

이어 중대가 敵部를 벗어나 다시 위로뻗은 능선을 躍進하기 始作하니 위로부터의 敵의 熾烈한 阻止射擊이 퍼부어 졌다.

즉, △938 右端부근 ㉠에서 自動火器가 중대의 右側方을 掃射함과 때를 같이하여 또하나의 自動火器가 △938 正面의 9부稜線에서 중대의 전진을 막았고, 뿐만아니라 △938에 2개 중대 규모의 兵力을 증원하고 一齊射擊을 집중하였다.

이렇듯 敵의 갑작스러운 增援으로 敵火에 휩싸이게된 중대는 死傷者의 續出과 아울러 繼續進出이 膠着되었으므로 우선 중대를 威脅하는 自動火器부터 制壓코자 各火器소대장을 무전기로 불러 57mm無反動銃班으로 하여금 이를 沈默케 하도록 命命하였다.

그러나 雨霧로 인하여 標的을 發見치 못하였는지 강한 閃光과 함께 擾亂스러운 銃聲만 들렸을뿐 그 자동화기는 一순간 除去되지 않았다.

한편 제8연대의 右端능선에 急造한 美 戰車隊에서도 2대의 戰車가 天明과 더불어 砲門을 열어 集中사격을 加하였으나 비와 안개로 말미암아 이도 역시 實効를 거두지 못하는듯 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目標 300m 前方에서 攻擊을 개시한지 2시간만에 屯좌되어 뒤에있는 능선敵部에서 再編成을 하게 되었다.

한편 대대의 左一線 제7중대는 都皮幕 左端으로부터 △938에 이르는 道路 左右邊에 散開하여 공격初부터 敵砲火로 困하여 능선에생긴 彈痕과 岩石, 그리고 樹木을 遮蔽物로 利用하여 躍進 하였는데, 중대가 LD로부터 200餘m를 지났을 무렵, 갑자기 중대正面의 ㉡에서 그들의 直射火器의 奇襲사격을 받게 되었다.

이에 중대장은 各 소대를 現 進出線에서 疎散케 하는 同時에 이를 近距離에서 擊破코자 各소대장에게 『輕기관총과 自動小銃엄호下에 區間약진하여 近距離에서 이를 擊破하라.』고 號命하였다.

이런 사이에도 敵의 砲火는 晝새없이 炸裂하고 小銃彈은 雨注하였다.

각소대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一進 또 一進하였는데, 소대의 輕機關銃은 사격으로 붙게

달아올라 銃身을 雨水로 冷却을 시켜가면서 掩護사격을 계속하였다.

이리하여 중대가 目標 200m 前方에 이르렀을 때에 중대장은 공격隊形을 縱隊로 變形하여 右第一線 제2소대를 先端에 내세우고 左第一線 제1소대를 後續토록 하였는데 이와같은 조치를 取하게 된 까닭은 目標 前面의 機動路가 漸次 좁아짐으로써 橫隊에 의한 損失을 減少시키며 또 混亂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 △938 西端능선 ㉔에서 左隣接 제1대대쪽으로 射擊을 加하던 敵의 側方火器가 중대의 左側腹部에 方向을 돌리면서 집중하기 시작하더니 거의 同時에 敵砲火가 중대의 進出線 先端을 連하여 一齊히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제2소대가 그들의 火線直下에 들어갔음을 알고 즉각 뒤로 철수토록하여 彈幕地帶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그리고 左側方火器 ㉔를 제1소대로 하여금 集中射擊으로 制壓케 하고 한편 正面의 自動火器 ㉔를 제2소대로서 요격을 내게 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여기서 적지않은 사상자를 내게 되어 더이상 敵의 火力圈內에 머물러 持久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때문에 07.00가 지난 부렵에 중대는 그들과 300m떨어진 距離에서 遮蔽物을 利用하여 急編防禦에 들어가게 되었다.

중대의 이러한 전투상황을 지켜본 대대장 張用南소령은 제5중대의 進出이 좌절되자 곧 대대예비인 제6중대로 하여금 제5중대를 초월공격 시킬것을 決心하고 07.50에 이를 決行하는 한편 제7중대에게 『제6중대의 초월공격간 該중대의 西側方을 防護하라.』라고 하였다

이에 제6중대는 제5중대가 재편성을 실시하는 동안 砲兵의 支援사격을 받으며 勇躍 超越突進하였는데 이들은 100m도 못나가서 그들의 砲火가 頭上에서 炸裂함에 이르러 左第一線인 제2소대는 그자리에서 소산하고, 右第一線인 제1소대는 東斜面에 避하여 계속 迂回躍進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때 △938 南斜面에서 東으로 가로지른 도로北쪽에서 그들이 直射火網이 중대의 前面과 側面을 가로막았다.

이런 사이에도 그들의 砲火는 점차 치열해지기만 하므로 중대는 순식간에 협소한 正面에서 敵火에 휩싸여 敵의 監視下에 撤收마저 어렵게 되었다.

이리하여 중대는 공격개시 40분만에 頓挫되어 적지않은 사상자를 낸채 철수하여 제5중대 西側 斜面의 窪陸地를 利用하여 재편성에 들어가게 되었다.

2 제1대대의 상황

한편 이때 제1대대(장, 羅燦日 소령)가 目標에 이르는 攻擊方向은 都皮驛에서 西쪽으로 500m 및 800m距離의 北邊에 있는 2개의 능선下麓에서 이를따라 北東으로 7부능선에 올라 다시 2개의 능선이 合치는 岐點에서 東으로 方向을 바꾸어 △938 左半部에 이르게 되는 經路인데, 대대는 이 2개 능선가운데 右側능선에 제1중대를, 左側능선에 제3중대를 展開

하고 제2중대를 都皮幕 南쪽 500m 附近에 控置하여 상황에 따라 제1중대를 뒤따르게 하였다.

대대는 공격초부터 이 능선一帶에 集中되는 敵의 砲火를 헤치면서 躍進하게 되었는데, 제3중대는 比較的 능선이 緩傾斜를 이루어 躍進이 힘겹지 않았으나 제1중대는 稜線이 가파르고 部分的으로 絶壁을 이룬곳이 많아서 중대를 縱隊로 進出을 피하여야만 되었다.

天明과 더불어 6부능선에 도달한 중대는 左側능선을 따라 躍進한 제3중대와 여기서 뒤늦게나마 併進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200m전방의 8부능선 突出部쪽에서 敵의 自動火器가 제1중대 정면을 橫射로 砲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즉각 最先端에 進出한 제1소대로 하여금 이를 제압토록 集中射擊을 퍼부게하는 同時에 그 후방의 제2소대를 左第一線으로 抽出散開케 하여 이에 가담케 하니 彼我가 瞬息間에 치열한 射擊戰으로 突入하게 되었다.

이때 6부능선에서 攻擊方向을 東으로 轉換한 제3중대가 여기에 火力을 集中하는 한편 일부병력을 뽑아 그들의 側背를 치기 위하여 중대 左側方으로 迂回하려다가 능선 橫斷時에 露出이될듯 이를 發見한 그들은 곧 이곳과 중대정면에 直射火網을 交叉시키는 同時에 各種砲火를 集中하였다.

이렇게 兩個중대가 敵火로 말미암아 困境에 빠지자 이를 관측소에서 始終 지켜본 연대장 柳重秀대령은 연대의 전반적인 전투상황을 分析하기를 右一線 제2대대는 예비대마저 投入한채 공격이 돈좌 되고, 左一線 제1대대는 6부稜線에서 그 역시 固着狀態에 있으므로 여기에 戰機打開을 爲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함이 緊要하다고 決心하였다. 이리하여 여기에 의견을 물어 마련한 方策은 이러하였다.

즉 현진출선에 있는 제1대대 및 제2대대로 하여금 敵을 兩面에서 계속 견제케 하고 새로운 병력으로 敵의 中央部에 一擊을 加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연대장은 즉각 제1대대장으로 하여금 대대에비인 제2중대를 제3중대 東側方에 投入하여 새로운 대대의 右第一線중대로서 敵의 중앙부를 치게 하였다.

그리하여 07.30에 行動을 개시한 제2중대는 都皮幕 左端의 도로를 따라 右隣接 제7중대의 西側方에 急遽 展開하고 2개소대 併進으로 그들의 中央部를 중대의 全火力을 集中하여 공격을 개시하니 이때가 08.30으로 아직도 장마비가 계속내리고 있을때였다.

중대는 사격과 기동을 연결하면서 단숨에 100餘m를 躍進하였는데 그들도 이에 당황한듯 곧 自動火器를 돌려가면서 사격을 집중하는 한편 그동안 兩側面에 增援이 된듯한 한개가 또 중대정면에 물리면서 射擊을 集中하였다.

이에 중대는 左右 兩個소대의 輕機關銃으로 이에 交叉射擊을 퍼부우면서 左第一線 제1소대를 약진시키고 협소한 정면에서의 중대의 과도한 露出을 막기 위하여 右第一線 제2소대

를 제1소대 뒷면으로 전환시켜 攻擊隊形을 整備하였다.

이때 敵前 100m까지 약진한 제1소대가 갑자기 敵砲火의 탄막에 들게 되었다. 이에 즉각 소대는 엄계물을 찾아 待避하였으나 계속되는 포격에 支撐할 수 없게 되어 急히 砲擊圈 밖으로 뛰쳐나오고 말았다.

이에 중대장은 제2소대의 투입을 보류한채 탄막사적의 끝남을 기다리다가 좀처럼 그치는 氣色이 없자 중대장은 각소대를 뒤로뽑아 다시 공격개시선 부근에서 散開함으로써 敵과 對峙狀態에 들어가게 되었다.

한편 제1 및 제3 兩중대는 敵砲擊이 누그러짐을 利用하여 09.30에 제3중대의 掩護下에 제1중대가 攻擊을 재개하여 敵陣左端의 自動火器 진전까지 약진하여 手榴彈戰을 벌였으나 곧 彼我를 가리지 않은 그들의 陣內사적으로 말미암아 중대는 하는 수 없이 砲火를 避하여 다시 7부능선에서 제3중대와 더불어 진지를 급편하고 敵과 對峙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제3연대는 역습을 개시한지 5시간만에 전부대가 現進出線에서 急編防禦에 들어가 次後 命을 기다리게 되었다.

3. 사단장의 조치

이날 사단장 金容培 소장은 제3연대의 전방지휘소에서 雨中에 敢行된 該연대의 역습상황을 注視하다가 역습이 成功치 못한 要因을 다음과 같이 分析하였다.

첫째 : 航空支援 및 敵 砲兵位置에 관한 情報不足으로 敵포화를 制御치 못함으로써 자유로운 砲지원을 할수 있게 하였다는 點.

둘째 : 攻擊대대의 雨中 機動으로 因한 신속성의 缺如.

셋째 : 雨霧로인한 觀測의 不良.

以上 분석된 3개사항에 대한 補完策을 強調한 뒤 20.00에 다음날의 역습을 위한 要點 다음과 같은 사단 작전명령 제130호를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1개연대(-)로 6월 30일 03.00를 기하여 공격을 再開 △938을 탈취하려 한다.

② 제8연대는 현진지를 6월 30일 01.00까지 제3연대에 인계하고 03.00를 기하여 목표 A, B, C를 탈취하라.

③ 제3연대는 6월 29일 日沒과 同時 제8연대 진지로 이동, 방어에 임하고 화력으로써 제8연대 공격을 지원하라.

④ 제5연대는 현임무를 계속수행하되 제8연대의 攻擊을 火力으로 支援하라.

⑤ 사단수색중대는 현임무를 계속수행하라.

⑥ 중포중대는 6월 29일 20.00부로 제8연대를 직접지원하라.

⑦ 사단포병은 변동없이 직접 및 일반지원을 계속하라.

⑧ 사단예비대 : 제3연대 제3대대.

⑨ 기타사항 : 생략]

이에 따라 역습에 參加하였던 제3연대 제1 및 제2 兩대대는 20.00에 撤收를 完了하고 Ice Land線의 제8연대 방어진지를 인수하기 위하여 行動을 開始하는 한편 제8연대(-)는 역습을 위한 最終準備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무렵, 종일토록 내리던 비는 그치고 무거운 구름만이 하늘을 덮고 있었다.

6월 30일 : 이날 敢行될 역습(4차역습)에 대한 연대장 李秉衡대령의 作戰腹案은 사단의 作戰命書에 따라 제3대대로써 6월 30일 01.00까지 현진지를 제3연대 제1대대에 인계한 다음 03.00를 기하여 목표 A, B를 공격케 하고 제2대대로써 6월 30일 05.00까지 현진지를 제3연대 제2대대에 인계한 다음 제3대대를 초월공격하여 목표 C를 공격토록 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연대가 실시한 3회의 역습때마다 敵의 砲擊도 그럭저럭이니와 이보다도 △938 南斜面에 있는 그들의 前進陣地(一名 : 碑石高地)의 自動火器를 特攻隊로 하여금 奇襲, 破催하여 역습부대의 機動을 阻害하는 要因을 미리 없애버리는데에 主眼을 두었다.

1. 碑石高地의 奪取(제2대대 특공대)

제2대대는 지난 26일밤 △938에서 撤收한 직후에 당시 연대 정보주임인 李圭植대위는 대대장을 대리하여 대대의 戰列을 가다듬게된 바 그는 무엇보다 먼저 士氣를 鼓舞하여 침체된 戰意를 높이는 것이 急先務라고 判斷하고 全大隊員을 集合시켜 이르기를 『우리는 △938에서 많은 戰友와 함께 대대장까지 잃으면서도 殘命을 保存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戰友가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대대장의 屍身조차 찾지 못하고 있으니 무슨 面目으로 他대대와 어깨를 같이 할 수 있겠는가?』고 激勵어린 叱咤를 함으로써 대대원의 戰意를 鼓吹한 다음 1개소대(3개분대)규모로 특공대를 편성하여 直接 指揮下에 奇襲에 나서기로 하였다.

出發前에 李대위는 『우리는 決死코 碑石高地를 占領하여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저녁식사와 함께 대대 酒保에서 推進해온 花郎위스키로 다같이 입술을 적신다음 彈藥은 개인당 1基數, 手榴彈 3發, 그리고 머리에는 鐵帽대신에 手巾으로 흰머리를 두르게 하고 02.00에 제2대대前面으로부터 隱密히 敵陣으로 潛入하였다.

이와같이 역습부대보다 한발 앞서나간 특공대는 △938에이르는 稜線 兩斜面에 散開하여 鞍部가 있는 碑石高地 200m전방까지 은밀히 進出한 뒤 여기서 碑石高地를 兩面에서 挾擊하기 爲하여 제1분대로써 東側方으로, 제2분대로써 西側方으로 迂回케 한다음 제3분대로써 中央에서 이를支援케 하였는데 이러한 特攻組의 奇襲方法은 東西 어느쪽이든 敵을 誘引하면 反對쪽에서 치려는 이른바 聲東擊西를 피하자는 것이었다.

특공대의 이러한 計策은 的中하여 잠시후 東側分隊가 50m內외의 距離에서 敵에게 露出되어 이들의 射擊을 받게되자 같은 距離內에 있던 西側 第2분대가 躍出하여 一齊히 수류탄을 投擲하니 連續의으로 發하는 爆音과 함께 射擊은 一瞬에 멈추어지고 바위틈에 남은

敵兵 5名이 모두 그자리에 뒹굴었다.

이리하여 奇襲 30분만에 碑石高地를 掌握하게 된 특공대는 5~6명만을 殘留시켜 警戒토록하고 때마침 400m後方の LD에 散開하기 시작한 제10중대 지역으로 통과하여 제2대대로 復歸하였다.

2. △938 탈취(제8연대 제3대대)

전날 연대로부터 命을 받은 대대장 孔行根 소령은 Iceland線의 진지에 돌아오는 즉시 각종대장을 소집하여 대대의 機動計劃을 熟議하였는데 그 結果는 다음과 같다.

『① 제11중대는 右第一線으로서 △938 南쪽 稜線鞍部를 거쳐 東側方으로 迂回하여 敵을 側背에서 공격한다.

② 제10중대는 中央에서 △938의 敵을 正面에서 抑制하고 제11중대의 側背攻撃과 同時에 正面攻撃을 加한다.

③ 제9중대는 左一線으로서 △938 西側稜線(一名: 塹高地)를 攻撃한다.

④ 各중대별로 1개소대(25명) 規模의 特攻組를 編成하여 개인당 수류탄 10發式, 鐵帽대신에 머리에 手巾머리를 두르게 하여 各중대의 先鋒으로 한다.』

특공조의 軍裝은 例의 제2대대 특공대와 恰似하였다.

01.00에 제3연대 제1대대(장, 羅烈日 소령)에게 現陣地를 引繼한 대대는 夜暗에 都皮幕附近의 攻撃 待機地點을 거쳐 02.40에 LD에 散開하였다.

사단포병의 攻撃準備射擊에 이어 03.00에 LD를 橫斷한 대대는 신속한 機動으로 능선鞍部に 이르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대대의 前進路上에 敵砲火가 集中하기 始作하였다.

이는 사단포병의 攻撃準備사격이 잠시나마 敵砲兵을 慥伏케 한 것으로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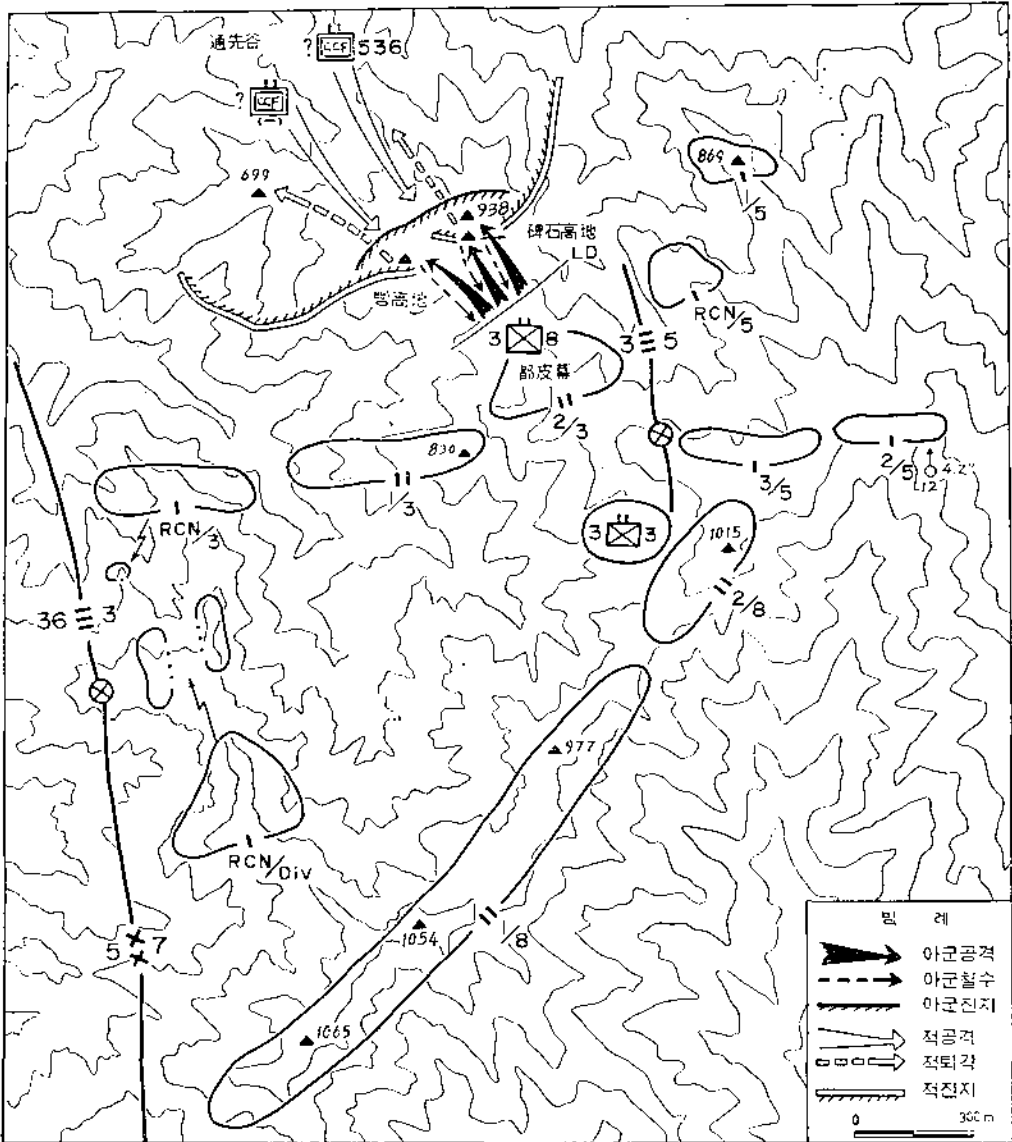
잠시뒤부터 敵砲火가 集中되는 가운데 대대는 左右一線 中대를 疎散시킬듯 東西方向으로 各各 計劃된 경로를 躍進케 하였는데 이때 例의 碑石高地로부터의 사격은 받지 않았으나 제11중대가 그 附近도로를 橫斷하려하자 △938 主峰쪽으로부터 그들의 側方火器가 기다렸다는듯이 中대左側方을 掩襲함으로써 通路를 건너던 제1소대는 미처 避하지 못하여 적지 않은 사상자를 내게 되었다.

이에 중대장 金容煥대위는 중대의 進出을 위해서는 이를 擊破시켜야만 된다고 判斷하여 各중대 特攻組로 하여금 西側으로 迂回하여 急襲케 하는 한편 敵의 側方火器가 發하는 曳光彈이 그 아래의 道路面과 하나의 死角이 形成되고 있음을 發見하고 제1소대의 殘餘병력과 제2소대를 匍匐으로서 그아래로 橫斷케 하였다.

그러나 제2소대에 이어 제3소대를 같은 要領으로 橫斷시키려하자 이무렵부터 正常을 되찾은듯한 敵砲火가 그들의 陣地 周圍와 道路北端을 連하는 線을 強打함으로써 제3소대는 道路를 사이에 두고 火網을 避하여 얼마간 뒤로 물러서게 되었다.

이런사이에 道路를 넘어 △938 東側方으로 迂回한 제1 및 제2 兩소대는 砲火의 틈사이로

◇ 상황도 제 27 호 제 8연대의 역습



雜草를 헤치면서 東斜面을 기어올라 9부능선에 이르렀을때 射擊延伸을 爲한 녹색 신호탄 1發을 南空에 쏘아 올리는 同時에 一齊히 手榴彈 投擲과 함께 그들의 側背에 突進하였다.

이에 唐擔한 무리들이 陣地에서 躍出함과 同時에 肉迫戰을 強要하였는데 때마침 △938 南斜面에서 頂上에 오른 제10중대가 여기에 습勢함으로써 약삭빠른者는 야음을 틈타 逃走하였으나 대개는 東西를 가리지못한채 支離滅裂되어 잡히는데로 도륙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04.15에 曳光彈 5發의 占領信號와 함께 喪失한지 4일만에 △938 主峰을 되찾게 되었다. 한편 △938 西側稜線을 攻撃한 제9중대는 이보다 앞서 04.00에 目標 B(峯高地)를

占領하였다.

3. 뽕 고지에서의 철수(제8연대 제9중대)

△938 西側 뽕高地를 占領한 제9중대(장, 河成培 중위)는 攻擊時에 半減된 兵力을 調整하여 各소대를 再編成하면서 四周警戒로서 敵의 逆襲에 對備하였는데, 04.30에 該중대 西北쪽 700m距離의 △699로부터 敵의 豫備隊로 推想되는 2개중대규모가 強力한 砲火를 뽕高地一帶에 集中시키는 가운데 稜線을 타고 올랐다.

이때 중대는 兵力도 不足하거나와 彈藥은 개인이 携帶한 若干의 小銃彈뿐으로 무엇보다도 그 補給이 切實히 要求되는 실정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彈藥의 推進에는 最少限 1時間以上이 所要될 것으로 判斷되어 중대는 急迫한 상황에서 이것만을 기다릴수도 없는 處地였다

이때 중대장은 05.00에 있을 제2대대의 攻擊時까지라도 該高地의 防守를 支撐코자 대대에 支援射擊을 要請하는 한편 중대의 戰意鼓吹를 위하여 『잠시후 제2대대가 우리를 도와 공격한다. 그때까지 탄약을 단 1발이라도 아껴 여기를 固守하여야한다.』라고 외치면서 敵이 가깝게 接近할 때까지 사격을 制限하였다.

중대의 危機가 刻一刻으로 닥쳐오는 가운데 다시 한번 不退轉의 決意를 굳게한 중대원들은 때마침 曙天과 더불어 視野에 들어오는 近距離의 敵影을 向하여 一齊射擊을 加하니 그들의 衝勢가 一瞬 주춤하면서 곧 隊形을 縱隊에서 散開隊形으로 轉換하였는데 이때 연대의 4.2" 迫擊砲가 그들의 砲火를 물리치듯 그들頭上에 集中하기 시작하였다.

05.00에 제2대대의 攻擊이 開始되자 이에 중대장은 『제2대대가 攻擊을 開始하였다.』고 외치니 순식간에 전중대원에게 傳播되면서 沈滯된 戰意가 高潮되어 陣前에 蟻集하는 무리를 照準射擊으로 쓰러뜨리는 여유를 보였으나 중대의 持久力은 限度에 達한듯 5분, 10분씩 經過할수록 死傷者는 늘고 탄약은 떨어지만 갔다.

여기에 執拗한 敵의 衝勢는 급기야 뽕高地의 北쪽과西쪽 兩面에서 手榴彈 投擲과 함께 陣內까지 밀어닥치게 되었다. 이에 중대도 一齊히 壕에서 躍出하여 一尺의 帶劍을 휘두르며 나가니 순식간에 여기저기서 格鬪가 벌어져 파비린내나는 激亂이 일게되었는데 이때 중대장 河成培중위가 이 渦中에서 敵彈을 맞아 壯烈히 戰死하게 되므로써 중대는 衆寡不敵으로 제2대대의 增援이 미치지 못한 가운데 뽕高地아래로 수의 철수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05.15에 △ 938西側의 뽕高地를 確保한지 1시간 15분만에 再次 敵手에 넘기는 바 되었다.

4. △933 역습중지(제8연대 제2대대)

제3대대가 △938의 目標 A 및 B를 점령한데 이어 제2대대가 目標 C를 奪取하기 爲하여 현진지를 제3연대 제2대대에 인계하고 05.00에 都皮幕의 LD를 넘어 一路능선을 連하여 機動하였는데 대대가 例의 능선鞍部를 지났을무렵, 갑자기 碑石高地로부터의 自動火器

사격에 直面하게 되었다.

前述한바와 같이 이 碑石高地는 該대대의 특공대가 02.30에 確保한 것으로서 03.00에 實施한 제3대대의 逆襲을 크게 도운바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2시간 정도가 지나 이곳으로부터 射擊을 받게 되니 제2대대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까닭은 당시의 狀況을 確認할 길이 없으므로 把握할 수는 없으나 推理컨대 이 碑石高地의 規模와 技術적 重要性을 勘察할 때 最少限 夜間配置에는 1개 분대程度의 兵力이 必要하였던 것으로 推斷되는바 제2대대 특공대가 奇襲時에는 그곳 敵兵力의 殆半이 交代制로 그부근에서 隱身潛伏하였거나 혹은 其他의 理由로 陣地에 없었다가 我軍의 衝勢가 뜰해진 사이에 대대의 警戒兵을 물리친 것으로 推斷되기도 하였다.

形勢가 어찌되었던 간에 제2대대는 이 碑石高地로부터의 射擊뿐만 아니라 더우기 △938 西側 塹高地의 제9중대가 分散됨으로써 塹高地를 占領한 2개 중대規模의 敵이 各種火力으로 제2대대의 進出을 가로막는 까닭에 都皮幕의 능선鞍部에서 進出이 阻止되고 말았다. 한편 연대는 △938 主峰측의 제10 및 제11兩중대로부터 무전으로 병력과 탄약에 대한 긴급要請이 있었으나 당시 △938 前面의 碑石高地와 西側 塹高地로부터의 발악적인 집중사격으로 말미암아 △938 主峰까지도 이미 그들 手中에 빠져, 이러한 要請은 敵이 我軍無電樣로써 我軍을 誘引하기위한 수작인 것으로 疑心이가는바되어 그 眞僞를 判斷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이 상황파악이 至難한 가운데 제2대대는 07.30에 現進出線에서 兵力을 撤收시키고 다시 逆襲再開을 準備케 하였다.

한편 이와같이 △938에 대한 早期보급이 이루어지지않은 가운데 △938 西側 塹高地를 占領하여 氣勢를 올린 敵은 08.00에 團隊號 未詳의 1개대대 규모로써 △938 北斜面을 따라 主峰으로 殺到하였다. 그런데 공격시 이미 병력의 殆半을 잃은 제10 및 제11중대가 射擊에 이어 白兵으로 對決케 되었으나 戰勢는 不利하게만 전개되었다.

이에 제11중대가 다시 한번 무전으로 보고하기를 『지금 敵과 肉迫戰을 벌이고 있다. 병력과 탄약은 어떻게 되었는가? 계속 支撐은 어렵다.』고 하였다.

연대는 이에 대하여 응답하기를 『현재 碑石高地에서 계속 我軍陣地에 사격을 加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敵軍이 아닌가? 我軍이라면 煙幕을 遮障할테이니 即時撤收를 하라.』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잠시뒤에 △938 南斜面과 都皮幕一帶에 105m 曲射砲와 4.2" 迫擊砲의 煙幕遮障이 시작되었으므로 제10중대와 제11중대가 곧 煙幕속을 헤치면서 都皮幕 後方으로 빠져나오게 되었으니 이때가 10.00쯤되었을 무렵이었다.

이로부터 30분이 지난 다음, 그동안 攻擊再開을 準備하던 제2대대가 다시 攻擊을 開始하였는데 이날 아침보다 더한 敵의 頑強한 抵抗을 받게되어 頓挫됨으로써 마침내 軍단장

Whit중장의 命令에 따라 攻擊을 中止케 되었다. 그리하여 대대는 11.40에 사단主抵抗線 中央直後方에 있는 △1,090(연대 제한점 南쪽 1km)의 사단의 阻止障地에 配置되고 제3대대는 撤收後 13.00에 제3연대 제1대대진지 후방에 集結하여 該障地 引受를 準備하게 되었다.

5. 사단장의 조치

이날 제8연대의 역습이 다시 無爲로 돌아가게된 主因은 豫備隊의 適時使用을 하지 못한 점도 있으나 보다 重要視하여야 할것은 美제 10군단과 제2군단간의 방어先端의 不均衡에도 문제가 따른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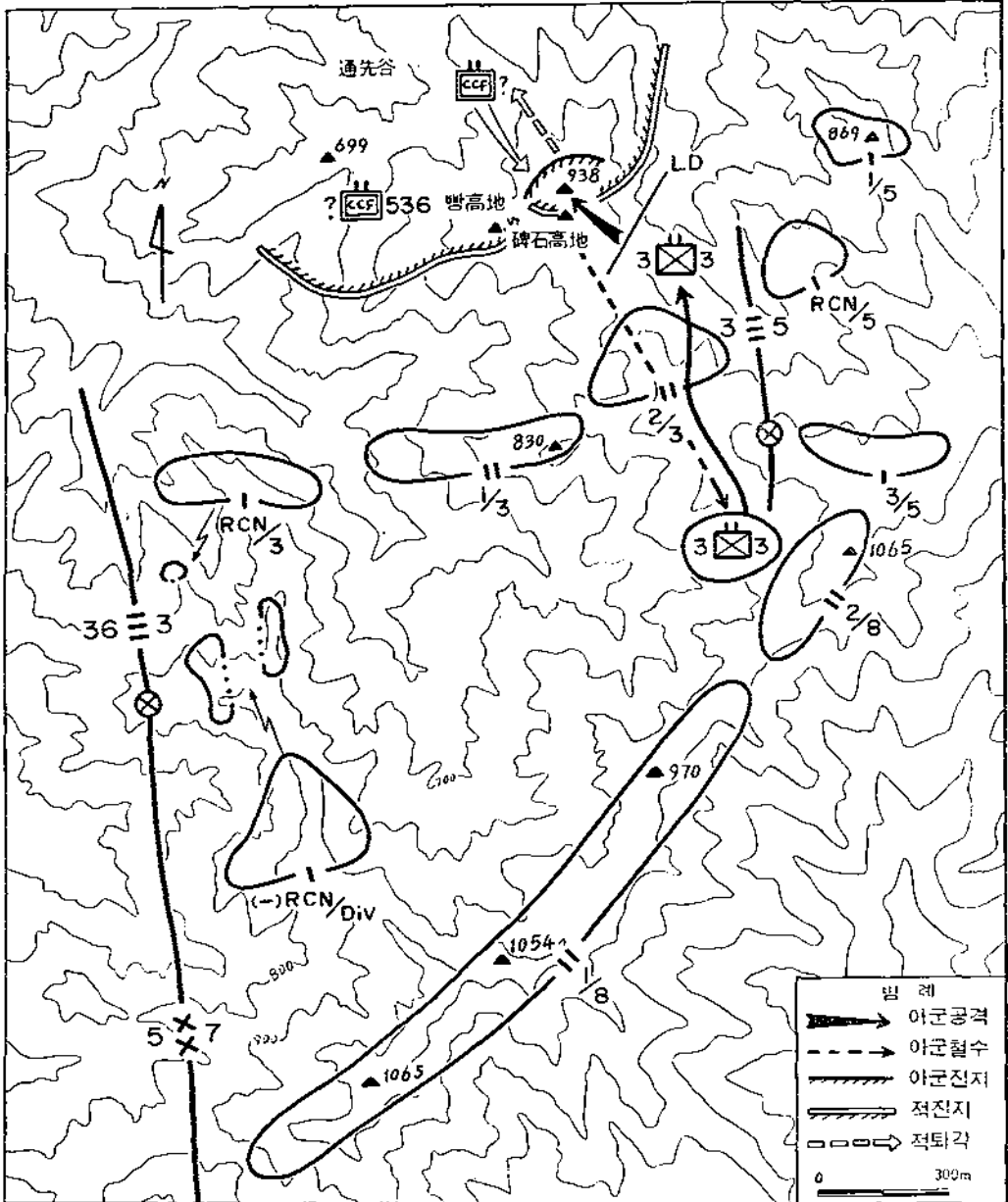
즉, 사단의 左隣接인 제5사단이 Minnesota線의 주저항선인 △949-△883에서 철수한 뒤 예하제36연대를 현 제3연대 主障地(Iceland線)左後方에 있는 △748를 主據點으로하여 西側으로 北漢江 東岸까지 2.5km間에 配置하고 제35연대를 北漢江 西岸을 따라 北으로 後洞(△938 西쪽 6km)까지의 河川線에 配置한 까닭으로 美제 10군단 西側方(제7사단)에는 U字形의 防禦線이 形成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의 右邊을 防護하게된 사단은 제3연대의 주진지후방에 阻止障地까지 編成하여 제8연대로서 補強한 것이나 이凹部로 인한 側方露出의 脆弱性을 안고 있는 관계상 豫備隊의 過用으로 防禦力의 弱化를 憂慮한 나머지 이날 제8연대 제2대대의 역습도 도중에서 軍단장이 中止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사단장 金容培 소장은 이러한 觀點에서 볼때 相對的으로 △938 西側方이 露出된 하나의 突出部를 形成하고 있는 셈이나 최소한 Iceland線의 防禦障地와 그 후방의 阻止障地補強에 必要한 시간을 얻고 나아가서 次後 反擊作戰時의 발판으로서 △938를 기필코 奪取코자 다시 제3연대 제3대대로 하여금 역습시킬것을 決心하고 사단작전명령 제131호를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은 다음과 같다.

- 『① 사단은 제3연대(--)로써 7월 1일 02.30에 △938를 奪回하려 한다.
- ② 제3연대는 일부병력으로써 7월 1일 02.30을 기하여 목표 △938를 탈취하라.
- ③ 제5연대는 현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 ④ 제8연대는 현임무를 계속수행하되 依命 현 제3연대의 진지를 檢閲할 準備를 하라.
- ⑤ 중박적포중대는 6월 30일 18.00부로 제8연대를 직접지원하라.

7월 1일 : 전날 사단으로부터 逆襲命令을받은 제3연대장 柳重秀 대령은 제3대대의 공격進展에 따라 超越공격을 위하여 제1대대로 하여금 이에대한 準備를 갖추도록 하는한편 제3대대를 공격 1선에 내세웠는데 同대대의 攻擊機動路를 지금까지 많은 역습부대가 擲한바 있는 都皮幕의 능선을 避하여 △938 東側方에서 該高地 主峰에 이르는 도로와 도로南쪽의 능선을 따라 北西方向으로 공격하는 새로운 軸線을 선정하여 공격準備 사격없이 이날 02.30를 期하여 無照明 無支援공격을 敢行케 하였다.

◇ 상황도 제 28 호 제3연대 제3대대의 역습



이에 따라 제3대대(장, 朴圭華 중령)는 제10중대를 右第一線으로하여 도로兩邊에, 제11 중대를 左第一線으로하여 道路 南쪽 능선에 각각展開하고 제9중대는 대대예비로서 都皮幕의 능선西斜面에서 제11중대의 左側方을 掩護케 하여 02.30에 공격을 개시하였는데 제10 중대의 機動路는 새로운 經路인 狹으로 地形도 險峻하거니와 雜多한 草木이 우거져 이를 헤치면서 躍進케 되어 意外의 시간을 虛費케는 되었으나 반대로 敵의 近距離까지는 중대

의 企圖가 隱蔽되는 利點을 얻을수 있었다. 03. 25 제 11중대가 도로 南쪽의 능선을 오르는 도중 중대의 先鋒이 例의 碑石高地를 東側方에서 接近하려들자 이에 配置된 敵에게 發見되어 一齊射擊을 받게되었는데 때마침 제 11중대의 左側方 掩護를 爲하여 都皮幕능선의 鞍部까지 進出한 제 9중대가 碑石高地 西側에서 數未詳의 敵을 구축하고 제 11중대를 掩護한 바 挾擊을 받게된 이들은 잠시후에 潰滅되고 말았다.

이에 대대장 朴奎華 中령은 이때에 衝擊을 과감하게 加해야만된다고 判斷하고 제 11중대로 하여금 突進케 하려 하였으나 이때 同중대는 아직도 일부소대가 능선에 오르지 못하였으므로 즉각 제 9중대로서 △938 正面을 直衝트록하는 한편 제 11중대는 都皮幕능선의 東斜面에서 제 9중대의 左側方을 掩護케 하는 同時에 依命 제 9중대를 후속케 하였다.

그러나 이무렵부터 敵은 碑石高地 南方一帶에 砲火를 集中함과 때를 같이하여 西側 甕高地로부터 제 11중대에다가 直射火器사격을 加하기 始作함으로써 중대는 부근의 溪谷과 窪隆地를 利用하여 疎散하였으나 敵砲擊이 漸次로 熾烈化함에 따라 砲擊圈을 벗어나 얼마간을 불려서게 되었다.

한편 제 10중대는 이때 東側方으로부터 9부능선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들의 哨兵에게 露出이될 듯 몇발의 소총사격을 받게되자 이에 중대장 梁在慶 대위는 『寸刻의 遲滯는 勝機를 놓친다』라고 判斷하고 즉각 曳光彈 2發의 突擊신호와 함께 突擊命令을 내리자 이에 마추어 전중대가 射擊과 더불어 喊聲을 울리며 그들 側方을 掩襲하니 이에 놀란듯한 무리들이 射擊에 이어 手榴彈투척으로 抵抗하였으나 때마침 제 9중대가 그들 正面으로 뛰어들게 됨으로써 곧 淒絶한 肉迫戰이 展開된 끝에 敵을 潰滅시키고 말았다.

이리하여 04. 30에 다시 △938 主峰을 되찾고 紅色對空布板을 頂上에 깔게 되었다.

그러나 숨돌릴사이도없이 그들은 1개대대로 추산되는 병력으로 △938 主峰一帶에 포격을 集中하면서 역습을 시작하였는데 이에 대대는 몇차례의 陣內射擊까지 要請하면서 前後 세 시간에 걸친 激戰끝에 續出한 死傷者와 彈藥의 不足으로 08. 00에 煙幕 遮障下에 撤收를 開始하여 09. 00에 原 集結地에 復歸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사단은 그간 여러차례의 역습에도 성공을 보지못한채 軍단의 지시에 따라 차 후작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라. 전투후의 개황

사단은 7월 1일 제 3연대의 역습부대(제 3대대)가 철수한뒤 軍단 작전지시(사단작지 제 245호 : 53. 7. 1. 16. 00부)에 의거하여 이날 17. 00부로 右一線 제 5연대를 美제 45사단에 한때 배속시켜 同연대의 전투지역을 同사단에 하의 제 180연대에 인계하는 同時에 사단전방 CP를 楊口 芳山(白石山 東麓)에서 楊口 天尾里로 移設하고, 사단左一線인 제 3연대가 배치된 주진지를 2개지역으로 分割하여 그 右側에 제 3연대 제 1대대, 그 左側에 美제 180연대에게 진지를 인계후 사단에 복귀한 제 5연대 제 2대대로써

調整配置하여 從前의 1개연대방어지역만을 사단이 專斷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저지후방 △1,090—△977—△1,065를 연한 차후저지선에 배치된 제8연대와 鄒皮幕부근에서 집결한 제3연대 제2대대를 新集結地인 楊口 鶴島里(학새골)로 이동케 하여 차후병령을 待機케 하였다.

그리하여 제8연대가 배치되었던 저지선을 3개대대진지로 편성하여 右로부터 제3연대 제3대대, 제5연대 제1 및 제3兩대대순으로 재배치하여 주저항선과 더불어 7월 3일부터 一齊히 진지공사에 임하였는데, 이때부터 이 저지선을 Hog Switch線이라 呼稱하게 되었다.

이무렵 入手된 정보에 따르면 中共제60군은 이해 3월중순에 入韓한 中공제21군과 교대하여 후방으로 이동하고 사단정면에는 제21군에하의 제61사단이 새로히 배치된 것으로 推斷되는 가운데 전선은 소강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리하여 敵과 커다란 접촉없이 진지를 보완하다가 군단 작전지시(사단작전 제247호 : 7. 14. 16. 00부)에 의거하여 7월 15일부로 Hog Switch線의 진지를 美제5독립연대에 인계하고 제3연대 제3대대는 그저지진지 直後方에, 제5연대(-)를 六德谷(鄒皮幕 南東쪽 4,6km)에 각각 집결시켜 사단에비대의 임무를 수행케하는 한편 사단의 주 CP를 楊口 縣里로부터 鶴島里(학새골)에 移動하였다.

그리고 2日이 지난 7월 17일에는 군단 작전지시에 의거하여 사단의 주저항선 방어임무를 다시 제5독립연대에 인계하게되어 사단은 全주력부대를 楊口 南쪽 3~5km지역일대에 集結케 하여 차후작전을 위한 사단작전 제132호(7. 17. 24. 00)로 제2군단지역으로의 이동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이전투에서의 종합전과 및 손실은 다음과 같다.

綜合戰果 및 損失

戰 果 (步兵第7師團 938高地 戰鬪詳報에 依據)

區 分	部隊別	第 3 聯 隊	第 8 聯 隊	計
確 認	射 殺	315	232	547
推 定	殺 傷	1,027	747	1,774
捕	虜	—	2	2

損 失

장교/사병

區 分	部隊別	第 3 聯 隊	聯 8 第 隊	計
戰	死	5/104	3/67	8/171
戰	傷	17/381	22/566	39/947
失	踪	—	2/180	2/180

§ 參戰者의 證言

◇ 제8연대 정보주임 李圭植 대위

(1976. 7. 3 제3관구사령부에서, 准將)

나는 당시 제8연대의 정보주임으로 있으면서 이 전투를 겪게되었는데 6월 26일 後半夜에 제2대대가 △938에서 철수한뒤 제2대대장이던 鮮于

容소령의 戰死가 確認되어 후임대대장이 보충될 시까지 연대장 명에 의하여 대대장의 職務代行을 맡게 되었다.

나는 一頁 철수한 병력을 收拾한 다음 대대들 再編成하고 1개소대 규모의 特攻隊를 編成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다른 여습부대의 선頭에서 △938에 대한 공격을 하였으나 成功은 하지 못하였다.

그후에 알게된 일이지만 鮮于 容소령은 당당시의 상황으로서는 充分히 撤收도 可能하였는데 워낙 責任觀念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周圍의 勸誘에도 不拘하고 陣地의 固守를 固執하여 대대 OP내의 機密을 破棄한 다음 單身 陣頭指揮에 나섰다가 아깝게 戰死하였다.

이 전투에서뿐만 아니라 당시 연대장이 항상 강조하신 것은 신속과 정확한 報告였었는데도 이 전투에서는 砲擊으로 인하여 有線은 杜絶되 었다지만 無線報告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 제8연대 제12중대장 廉 淑彬 대위

(1976. 8. 18, 大韓紡織會社에서, 예 大領)

제8연대가 배치된 △938는 地形이 險峻하고 그 周圍에는 雜草木이 茂盛하여 陣地工事時에도 重火器의 射界淸掃에 많은 고충을 겪었다.

6월 26일밤 敵이 공격한지 얼마되지않아 포위가 된 것으로 미루어 그들은 공격병력에 이미 이 수풀속에 일부병력을 전달밤에 침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주간에는 아군관측을 받게되는데다가 陣地工事에 임하고 있었으므로 감히 浸透를 할수 있었겠느냐 하는것과 또 한가지는 그들과 아군主陣地와의 機動거리가 최소한 5~600m쯤 되므로 더욱 그렇게 될수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 당시 중화기의 사격지원도 전방중대의 요청으로 危急하게 실시되었음으로 이에대한 지원 효과는 알수가 없이나 如間間에 그날의 敵은 먼저 제2대대쪽으로 공격을 시작하여 나중에△938 西側稜線을 따라 제3대대의 예비대인 제11중대 東側背로 침투한듯 대대 OP를 기습하려다가 격퇴되었다.

그리고 철수시 중대의 어떤 兵士는 夜陰에 발을 헛디뎠서 낭떨어지로 구르다가 나무덩굴에 걸린 것을 구하기도하였는데 야간철수인 탓인지 질서있는 철수는 못되었다.

6월 30일에 실시한 제3대대의 역습시는 목표가 81mm박격포의 사정거리내에 있었으므로 중화기중대는 LD후방에서 사격을 지원하였는데

대대가 철수시는 연막사격을 실시하였다.

◇ 제8연대 제1중대 제1소대장 金津顯 소위

(1976. 6. 28, 제3군지사 경리참모실에서, 中領)

제8연대 제1대대가 △938에 대한 역습을 실시한 것은 6월 27일였었는데 공격간 敵의 手榴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제1중대의 機動路가 △938 頂上에 이르는 道路 주변을 따랐기 때문에 그 전날까지의 제7중대의 진지지역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몇개되지 않는 有蓋壕에 그들이 잠복하였다가 중대의 진진을 수류탄으로 막는 것이었다.

이때문에 제2소대의 진출이 늦어졌고, 또 6부稜線에서도 이러한 敵의 抵抗을 받기도 하였으나 즉가 突進하여 이들을 없애버렸으나 9부稜線의 碑石高地에서 敵彈을 左腕上部에 맞았는데 제2소대가 東側方에서 협력을 加하여 이들을 潰散시켰다. 이때에 본인은 중대장의 지시로 후송이 되었다.

◇ 제8연대 제11중대 제2소대장 金楊根 중위

(1976. 6. 23, 大宇電子工業會社에서, 예 中領)

당시 전부대는 진지공사에 熱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날(6.26)의 敵砲擊이 얼마나 熾烈하였든지 나는 소대장壕에서 夕食조차 할 수가 없었다 敵砲擊이 시작되자 중대장 金容煥대위로부터 戰鬪준비와 아울러 警戒強化에대한 指示가 있어 나는 그 즉시로 인접소대 상황을 알아보려고 T-S10野戰用(電話機)를 들었으나 그 사이에 두절이된듯 雜音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연락병을 직접 보내려고 하다가 그만두고 于先과 분대장에게 전투준비를 傳達하게 하였다.

이 砲擊으로 소대장壕의 出入口부근에 떨어진 포탄으로 出入口 문대산에 걸었던 雨衣가 폭풍에 찢어지기도 하였다.

이때에 호밖으로나와 분대의 교통호를보니 공사도 完全치도 못하였으나 直擊彈을 맞은곳은 말이나니었다.

얼마뒤에 어떤 有蓋壕위에 머리에 봉대를한 兵士를 發見하였는데 이를 잡고보는 중공군이였다. 그후에 알게되었지만 이때는 벌써 그들의 일부가 △938쪽으로부터 중대지역까지 침투한 것이었다.

이들은 그 즉시로 擊退되었으나 이것때문에 心理적으로 한때 소대원들이 마음의 동요를 한것 같았다.

그후 중대장의 명령으로 그후방저지선으로 철수하였는데, 그곳은 진지편성이 되지않고 있었다.

6월 30일에 실시한 제3대대의 역습시는 내대장 孔行根 소령의 命令으로 중대가 철모대신에 榴霰탄을 머리에 두르고 개인당 手榴彈 10發씩을

휴대하였다.

敵砲擊하에 04.00에 LD를 通過하였는데 敵의 側方사격으로 8부稜線에서 많은 死傷者가 생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苦戰끝에 高地를 佔領하자마자 나는 가슴에 敵彈을 맞았는데 戰友들의 도움으로 應急處置에 成功하여 살았지만 그후의 煙霧속을 헤치면서 철수한 것만이 記憶에 남는다.

§ 戰 訓

(1) 敵侵襲에 對한 阻止策

이 전투에서 敵攻撃이 시작되어 불과 15분만에 △938가 포위를 당하게 되고 이로부터 30분후에는 陣內戰으로 擴大가 된것은 敵奇襲의 하나의 戰例를 남겼다고 할 것이다.

敵진지로부터 直線 1km거리에 있는 △938의 主봉側背까지 포위를 당하게 된것은 아군의 경계나 부대배치에도 問題가 있었던 것으로 보나 이보다도 △938에 이르는 接近路주위에 茂盛한 잡초목을 그들이 차폐물로서 利用하여 △938 側背까지 침투하였다고보는 점이다.

錯雜한 地形에서 限定된 병력으로 방어배치론 한다는것도 어려운 일인데다가 더욱이 그주위의 우거진 수풀을 包容하였음으로 兵力節約을 위하여 主力의 6부稜線배치보다 뒷쪽으로 縮小배치 하는것과 火器의 射界淸掃시에 敵의 예상접근로 주위의 雜木을 잘라서 장애물로서 逆利用하는등의 方策도 講究한 수 있었다고 보는바 恒常敵은 공격전에 我軍후방에 침투한다는 사실은 中共軍

만이 아니라 오늘날 北隴군전체에 있는 輕步兵部隊의 基本任務임을 다시 한번 알아야 할 것이다.

(2) 兵力의 集中時機

集中은 恒常 突破를 可能케 하였다는 것은 歷史가 가르치는 것이거니와 이 전투에서 본 공격의 集中時機가 不適切함으로서 역습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連續的인 역습은 敵의 衡勢를 꺾기 위하여는 効果的인 方法이나 增援 또는 超越공격부대의 投入時機는 正常的인 공격계시시간 이상으로 重要視되는바 6월 30일의 역습시 제8연대 제3대대가 목표 A 및 B를 탈취후 05.00를 기하여 제2대대가 제3대대의 退出線인 嶺高地에서 목표 C를 초월공격케 되어 있었으나 제2대대가 05.00에 部隊의 LD를 通過함으로써 목표 A 및 B까지의 機動所要時間만큼의 空間이 생겼을뿐만 아니라 攻撃이 中途에서 中止되어 제2대대를 增援조차 못하였음은 하나의 實例라고 할 것이다.

§ 研 究

(1) 鮮于高地의 呼稱

본절에서 △938 戰鬪를 鮮于고지 戰鬪라고 한 것은 당시 同高地의 방이 대대장이던 鮮于容 소령이 이 전투에서 장렬한 전사를 함으로써 그후로부터 누구의 입으로부터인지는 알수가 없으나 同사단장병들간에 오고가는 말에 △938전투를

鮮于고지 전투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에 同사단에서도 鮮于容 소령의 勇敢하고 崇高한 軍人精神을 길이 後世에 남기고자하여 師團史에 鮮于고지 전투로 記錄되어 있는바 본전투명 또한 이를 따랐다.

(2) 標高의 差異

△938(CT:016 414)에 대한 1968년 2월에 陸軍測地部隊에서 編纂한 1:25,000地圖에는 標高가 表記되지않고 있으며 또한 同部隊에서 1971년 7월에 製作한 1:50,000地圖에는 地方標高⁹ 31m로 되어 있음을 감안할때 當時(1953년도)에 사용한 製作年度미상의 地圖標高가 未確認標高인 938m를 通用한 것으로 推斷되는바 標高에 多少간의 差異가 있더라도 모든 記錄이 △938로 되어 있음으로 본절에서는 便宜上 △938로 記述하였다.

(3) 證言과 考證資料의 差異

(가) 1953년 6월 26일 제8연대 제2대대장 鮮于容 소령의 戰死直後 大대장대리로서 大대를 지휘하고 또한 同대대의 特攻隊를 編成하여 역습에 直接指揮한바 있는 李圭植대위(現 준장)의 證言에서는 同特攻隊의 역습은 △938에서 철수한 다음 날인 6월 27일에 실시하였으나 成功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되어있음에 反하여 1953년 7월(日字 未詳)에 작성된 제7사단 戰鬪詳報에는 『제2대대 特攻隊가 同년 6월 30일에 碑石高地(△938 9分稜線)를 占領하여 제8연대 제3대대의 역습에 寄與하였다.』라고 記錄되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차이는 그간 25년이상의 오랜歲月이 흐름으로서 證言에서도 不足한점도 있을 것으로 보고 本節에서는 다음 考證資料에 根據를 두고 叙述하였음을 밝혀둔다.

1. 제7사단 戰鬪詳報(1953.7 작성)
2. 군사 제37집(육군본부1959.12.20발행)
3. 칠성약사(제7사단:1970.5.30발행)

(나) 1953년 6월 30일에 제8연대 제3대대가 △938 恢復을 위하여 실시한 공격개시 시간이 당시 역습부대를 直接 指揮한 제3대대장 孔行根 소령과 공격 제1선에서 參戰한바 있는 제11중대 제2소대장 金錫根 중위의 證言에 의하면 그날의 공격개시 시간은 04.00이며, 大대가 LD를 通過하여 얼마되지 않아 동이 뜨기 시작하였다(證言에서는 省略함)고 술회 하였으나 당시의 戰鬪詳報와 사단의 작전명령 등을 再檢證한바 제8연대 제3대대의 공격이 03.00에 감행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실사 당시의 상황변동으로 예정보다 1시간이 늦은 04.00에 실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인한 부대의 행동이나 戰況上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던 점과 또한 證言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위(가)항의 考證資料에 근거를 두고 叙述하였다.

第 59 章

中部戰線의 戰況

要 旨

1. 689高地 戰鬪
2. 883高地—973高地—949高地 戰鬪
(一名, 제5사단의 Missouri線 防禦戰)
3. 北進稜線의 防禦戰
4. 529高地 戰鬪
(一名, 觀望山 戰鬪)
5. 281高地 戰鬪
(一名, 화살머리高地 戰鬪)
6. 驕岩山부근 戰鬪
7. 白岩山부근 戰鬪
8. 汝文里부근 戰鬪
(一名, 金城川부근 戰鬪)
9. 金城東南地區 戰鬪
10. 金城西南地區 戰鬪
11. 金化地區의 防禦戰
12. 赤根山—三峴地區 反擊戰
13. 425高地 및 406高地 戰鬪

第59章 中部戰線の 戰況

要 旨

이 章에는 北漢江東岸의 通先谷으로 부터 鐵原에 이르는 中部戰線の 戰況을 收錄하였다.

이 地域은 太白山脈의 中腹에서 갈라진 한 支脈으로서 東으로 부터 西로 白岩山—赤根山—大成山의 峻嶺이 橫隔함을 이루고 이를 감싸듯 北漢江과 漢灘江이 兩쪽에서 南北으로 흐르고 있다.

地帶內에는 激戰地였던 首都高地 및 指型稜線은 물론 金化—平康—鐵原을 잇는 이른바 『鐵의 三角地』가 여기에 있을 뿐더러 北俄가 休戰前에 占取하려고 탐내는 華川貯水池가 또한 이곳에 있으므로 彼我間에는 寸步도 讓步할 수 없는 要域이었다.

期間中 該戰線の 戰況을 一瞥하면 3月까지는 비교적 小規模의 探索戰이 오갔으나 4월에 접어들면서 부터 北漢江 東岸에서는 △689와 △949의 爭奪戰이 있었고 西岸에서는 △529戰鬪와 首都 및 指型稜線에서의 피비린내나는 攻防戰이 展開되었다.

△689戰鬪에서는 제 3 사단이 中共 제60군의 侵攻을 맞아 이를 물리치는데 奏效하였으나 6월에 있었던 中共 제67군의 侵攻때에는 제 8 사단의 前哨陣地인 首都高地와 指型稜線을 그들에게 내 놓게 되었고 또한 제 5 사단은 中共 제60군에 의하여 △949一圓의 主抵抗線이 무너져 荊柄洞에 이르는 線까지 撤收함으로써 軍團의 右側方이 露出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이하여 그들은 侵攻한 발판이 될 △529, 首都高地 및 指型稜線, 그리고 △949를 手中에 넣게 되고 때마침 休戰成立의 기미가 엿보이자 韓國軍主力의 殲滅과 野慾이었던 華川貯水池를 奪取하기 위하여 제 2 군단 正面인 金城川 北岸으로 繼續 兵力을 集中함으로써 中部戰線은 다시 硬直하고 一觸即發의 緊張이 흐르더니 급기야 7月 13日에는 開戰以來 처음으로 組織的인 大攻勢를 취하였다.

이른바 그들의 7.13攻勢가 開始되었는데 이때

敵의 總侵攻兵力은 5個軍(第24, 第54, 第60, 第67, 第68軍)이며 그들의 企圖는 突出되어 있는 金城川 北岸의 제 2군단의 主力(제3, 제5, 제8, 제6사단)과 이와 連繫하고 있는 金城南方의 首都 및 제 9사단을 兩側으로 挾擊한 다음 唯一한 同軍團의 兵站線인 17번道路를 制壓함으로써 華川貯水池를 奪取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이들의 大攻勢에 부딪친 제3 및 제6 兩사단은 金城川北岸의 汝文里와 轎轎山의 要域이 突破되어 白岩山—注坡嶺線으로 逐次撤收하여 軍團의 豫備로서 第2線을 確保하기에 이르렀고 또한 제5 및 제8 兩사단도 稜線接近路를 따라 白岩山으로 直衝한 그들의 銳鋒을 巧妙히 回避하면서 이들의 兩側方으로 衝擊을 加하여 出血을 強要하고 該戰線の 瞰制高地群인 白岩山 一圓에서 일단 敵을 阻止하는데 成功하였다.

뿐만 아니라 군단 左翼으로 連繫하고 있던 首都 및 제9 兩사단도 主抵抗線이 崩壞됨으로써 注坡里—槓峴里線으로 撤收하여 阻止陣地를 編成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이 狀況이 急轉直下로 緊迫하게 되자 제 11사단을 注坡里로 招致하여 撤收를 掩護하는 한편 各 사단이 現線(白岩山—注坡里—槓峴里間)에서 부대정비가 끝나자 뒤에 扞援한 제7사단과 더불어 戰線을 整齊하고 7月 15日 0500를 期하여 總反擊戰을 실시하였다.

敵은 我 空軍에 의해 補給集積所가 破壞消盡되어 補給이 杜絶상태에 빠졌는가 하면 때마침 金城川의 洪水로 말미암아 砲兵을 推進하지 못하여 步兵單獨戰鬪를 하야했는데도 제 2군단이 反擊戰으로 猛追擊하였을 때에는 一部兵力만이 徒涉이 可能的한 上流로 迂回하여 潰走하였을 뿐 殆半의 兵力은 軍團에 捕捉 殲滅됨으로써 目標의 中間에도 이르지 못한채 그들의 企圖는 徹底히 粉碎되고 7月 18日에는 金城川南岸을 恢復하여 休戰을 맞이하게 된다.

1. 689高地 戰鬪 (1953년 4월 2일부터 // // 12일까지)

참조: 별책부도 제 7호
상황도제 29~38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 3사단	장 준장 林 善 河	제 9 중대	장 대위 朴 在 善
제 18연대	장 대령 朴 敬 遠	제 10 중대	장 대위 金 基 泰
제 1 대대	장 중령 孫 榮 鎭	제 11 중대	장 대위 金 昌 林
제 1 중대	장 대위 金 益 洙	제 12 중대	장 대위 金 南 漢
제 2 중대	장 대위 成 光 洙	연대수색중대	장 대위 金 善 康
제 3 중대	장 대위 李 昊 鍾	제 22 연대	장 대령 張 炯 淳
제 4 중대	장 대위 朴 永 來	제 23 연대	장 대령 朴 微
제 2 대대	장 중령 朴 勝 文	제 2 대대(대리)장 대위 姜 興 中	
	중령 李 恩 植 (4.3부터)	지원부대	
제 5 중대	장 대위 姜 禧 錫	제 11 포병단	장 대령 金 聖
	대위 金 漢 成 (4.3부터)	제 11 포병대대	장 중령 洪 鍾 哲 중령 徐 楨 鎡 (4.10부터)
제 6 중대	장 대위 李 永 基	제 71 포병대대	장 중령 金 容 奭
	대위 韓 判 中 (4.3부터)	제 72 포병대대	장 중령 유 기 석
제 7 중대	장 대위 金 正 申	인접부대	
제 8 중대	장 대위 申 興 雨 (4.3부터)	右인접부대	
제 3 대대	장 중령 金 仁 杰	제 8 사단	장 준장 金 益 烈
		左인접부대	
		제 6 사단장	소장 白 仁 燁

敵 軍

中共제 60군(군단)	장	제 181사(사단)	장 張 壽 敬
제 180사(사단)	장 鄭 基 貴	제 542, 제 543연대	基 幹
제 538, 제 540연대	基 幹		

나. 전투전의 개황

사단은 1952년 10월 2일부터 5일만에 걸쳐 벌어진 △748(一名, 피의高地)와 △572(一名, 독수리 高地)의 兩진투분 마치고 계속 現 主抵抗線을 강화하면서 제2군단 作指 제8호(53. 2. 7. 12. 00附)에 의거 左인접 제8사단과 전투지경선 조정계획에 따라 사단 左측의 돌출부(北漢江 中流의 彎曲部)와 北漢江유역의 통제책임을 제8사단에 인계하고 百川屯—△973—△949—△739—無名高地(△546 北쪽 1km)線에서 당면한 中共 제60군 이하 제181사단과 對峙하고 있었다.

이동안 彼我는 休戰會談의 진전으로 全戰線이 小康狀態를 보인 가운데 소규모의 探索戰만이 있었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敵은 1월 6일에 △973를, 1월 10일에 水任面地區를 그리고 2월 13일에 △689를 자기 侵襲하는등 積極한 침투를 시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단은 이를 진전에서 물리치는 한편 3월 26일에는 제18연대 이하 1개 소대가 逐岩洞(속칭 기바우골)의 敵의 침투거점을 기습하여 射殺 6명에 捕虜 3명을 추가하는 戰果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런 가운데 사단은 각연대를 逐次로 黃峽洞에 집결시켜 2차에 걸쳐 휴식과 전투훈련을 실시하면서 준비를 再정비하였다.

3월 下旬에 전어들면서부터 敵은 UN군의 春季攻勢가 있을 것으로 推察(2월 11일 Taylor 中將이 새로이 美제8군사령관으로 부임한 이후 我군의 수색진이 활발하여짐에 따라 어떤 攻勢가 있을 것으로 分析한 듯)하였음인지 從前의 소규모적인 探索戰을 지양하고 我的 前進陣地를 사전에 破砕한 다음 有利한 거점을 奪取하기 위하여 중대규모의 奇襲戰으로 그들은 醜鋒의 擴大를 試圖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사단은 점차 當面한 敵과의 接觸이 잦아지게 되었으며 이들을 剷絶하고 戰線의 安全을 圖謀하게 되었다.

敵軍의 상황: 中共 제60군은 黃海道 谷山에서 부대개편을 마치고 52년 10월 22일에 제68군의 전투정면 을인수받아 隸下 全사단을 文登聖—北漢江(△572)간에 東에서 西로 제179, 제180, 제181의 3개 사단을 배치하고 있었다.

이때 入手된 簡報에 따르면 사단정면에는 그중 제181사단과 제180사단일부를 展隔하고 있었는데 제181사단은 右一線에 제543연대를 △679—△572 一帶에 主據點을 形成하여 我 제22연대와 對峙하고 左一線에는 제542연대를 △674—松亭里間に 배치하여 我 제18연대의 제1, 제2 兩개 대대와 正面하였으며 殘餘 제541연대는 사단에비대로 俗稱 수주정에 집결한 事實이 확인되었다.

또한 中共 제180사단 이하 제538연대는 제181사단에 인접(左)하여 △689 一帶의 橫隔綫線을 據點 삼아 我 18연대 제3대대 正面과 對陣하고 있었다.

當面한 敵의 企圖는 我的 主抵抗線을 이루고 있는 △973—△949의 前緣인 △689와 M1高地를 탈취하기 위한 것이 分明하였으며 그들은 1개월전부터 △689 北쪽(400m)과 M1高地(500m) 西北쪽 山麓에 洞窟化한 據點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이를 감추기 위하여 계획적인 探索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推斷되었다.

當時 敵陣을 分析한 陸本 定期情報報告 제80호와 포로진술에 의한 敵陣地 構築상태를 살펴보면 主抵抗線의 前斜面에는 2線내지 3線으로 1m내지 1m70cm 길이로 交通線를 파놓고 2m 내지 5m마다 有蓋 散兵壕와 監視壕를 설치하였는가 하면 그 後斜面에는 個人待避壕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뿐만아니

라 據點을 이루는 高地中腹에는 10명내지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四通八達의 放射線式 洞窟을 만들어 砲擊이 있을때마다 人命은 물론 보급품까지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포병진지를 비롯한 공용화기 진지는 모두가 통나무로 五重, 六重으로 겹겹이 쌓고 그 위에 다 1.5m이상의 흙을 다져 덮었기 때문에 105mm 野砲彈에 대하여서도 能히 支撐하리만큼 堅固한 것을 마련하였다.

中共 제181사단과 제180 兩사단을 지원하는 火力에 대하여는 精確한 情報가 없었으나 이 戰鬪期間中 11,870발을 砲擊(이에 比하여 我砲擊은 14,248발)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단들이 부대개편후 5개월간에 我軍과 큰 전투가 없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編制上의 火力을 强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었다.

我軍의 상황 : 사단은 52년 4월 5일에 戰線을 引受한 이후 제2군단 右翼을 담당하면서 CP를 緋竹峯에 設置하고 제18연대를 右一線에 제22연대를 左一線에 배치하는 한편 제23연대를 예비로 黃柄洞에 控置하여 교육에 임하고 있었다.

이 戰鬪에서의 主力부대인 제18연대(장, 朴敬遠 대령)는 CP를 黃柄洞에 開設하고 東에서 제1, 제2, 제3대대를 展開하여 通先谷—△973—△882에 이르는 線을 防수하였는데 특히 主抵抗線의 主峰인 △973에 이르는 V型後線接近路인 △590(敵이 占據中)와 △689 南쪽에는 제2대대의 제5 및 제7 兩중대를 배치하였다. 또한 제22연대는 CP를 黃柄洞 西北쪽 2km에 두고 右一線에 제1대대를, 左一線에 제3대대를 배치하여 △949—△739—無名高地(△549 北쪽 1km)사이의 主抵抗線을 堅守하면서 △748(敵이 占據中)至 近距離까지 前進陣地를 推進하고 있었다.

敵이 奪取하려는 듯한 △689는 실제 높이가 △500m(研究(1)參照)로서 敵의 침투據點인 △590와 △620(△689 北쪽 1.2Km)보다 낮기 때문에 同高地에 있는 我側의 動靜이 날날이 暴露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689에서 北쪽으로 뻗어내린 稜線은 緩斜를 이루고 있어 敵의 공격에는 유리한 반면에 南쪽의 後斜面은 깎아세운 듯한 急斜面을 이루어 我的 공격이나 보급추진에는 불리한 地形이었다.

戰鬪間의 火力支援은 제11포병대대와 제3중박격포중대 그리고 제52전차중대에서 戰車 3대가 직접



△ 973中腹에 가설한 補給추진 및 환자후송에 一翼을 담당하였던 cable car

지원하고 이외에도 제71 및 제72포병대대가 일반지원과 화력증원을 제공하였으며 要滿에 의하여 美 제5공군의 航空지원을 수시로 받을 수 있었다.

보급지원은 戰初만하여도 미개발된 山間僻地의 細路로 말미암아 北漢江의 水路船便을 이용하였으나 4월4일부터는 제901舟楫중대가 사단에 배속(제2군단 作指제12호) 되어 荊柄洞 西北쪽 2.5km에 조립교를 設置한 까닭으로 戰鬪中盤에는 戰車가 北漢江을 渡江하여 △805까지 올라갈 수 있고 △973의 8부稜線에는 cable car를 가설하였으니 보급의 추진과 환자후송 등에 有利하였다.

기간중의 氣象은 평균 2°(야간)~20°(주간)정도로 대체로 淸明한 날씨에 항공지원이 가능하였으나 夜間에는 陰2月 下旬이므로 漆黑과 같은 暗夜가 계속되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사단장 林善河 준장은 捕虜의 진술과 航空偵察에 의하여 敵의 침공 企圖와 洞窟陣地 구축 상태에 대한 情報를 入手하고 이를 擊碎하기 위하여 3월 21일에 제22연대(장, 張桐淳 대령)로 하여금 M1高地 西北쪽에 있는 敵의 據點을 一舉에 破壞하는데 成功한 바 있었다.

그러나, △689 北쪽의 洞窟은 너무나 巧妙히 掘鑿하였기 때문에 搜索隊나 偵察隊에 의하여도 찾아내거나 알아내지 못하는 實情이었다.

이리하여 사단장은 敵에 洞窟據點을 我 前進陣地 바로 앞에 마련할 것이라는 情報에 따라 이체까지의 경험(敵의 慣習的인 戰術의 하나로서 이후 7월 13일에 있었던 敵의 大攻勢를 수도사단 G-2 崔壽根 중령은 攻勢강후로 판단하고 사전 대비책을 강구한 바 있음)으로 보아 이를 攻撃의 徵候임에 틀림없다고 推斷하고 3월 20일 要旨 다음과 같은 命命을 하달 하였다.

『① 사단은 現 主陣地를 強化하면서 前進陣地를 固守하려 함.

② 제18연대는 △689를 洞窟陣地로 보강하고 同高地 北쪽에 있는 敵 洞窟據點을 搜索 破壞하라.

③ 제22연대는 M1高지를 洞窟化하고 敵의 側方威脅을 別抉하라.

④ 각연대는 통신선의 보호를 위하여 地下埋設과 空中架設로서 敵砲火下에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

사단장 林善河 준장은 空戰線에 걸친 敵의 動向으로 보아 大攻勢는 없을 것이라고 判斷하여 예비인 제23연대에게는 부대정비에만 專念토록 하였다.

(2) 작전실시

4월 2일

敵의 1次侵攻: 저녁노을이 西山에 기울 무렵인 18.55부터 戰線의 적막을 깨고 敵의 各種砲火가 △689에 雨注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同高地를 固守하던 제7중대 제1소대장 文沅植 소위는 평일에 볼 수 없었던 熾烈한 砲擊을 심상치 않게 생각하고 尙소대를 전투배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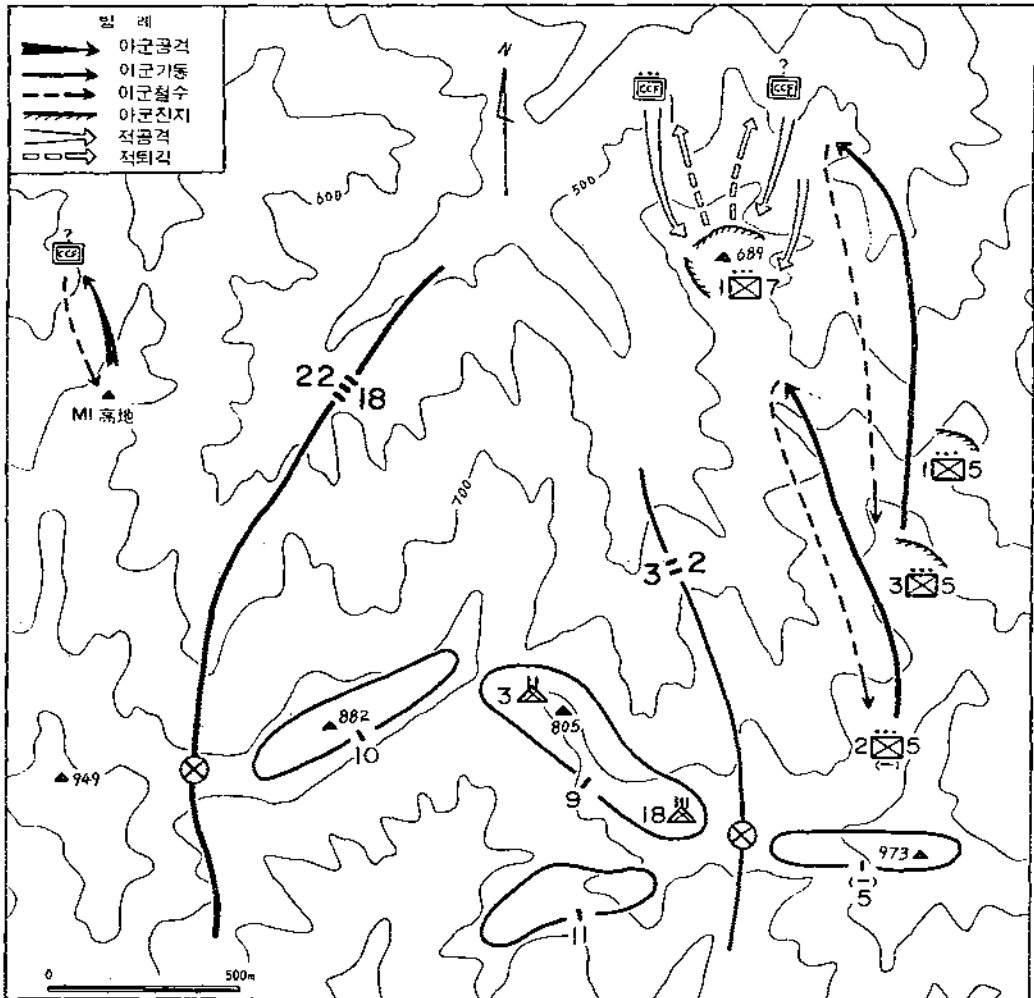
한편 다시 한번 각 병사들의 散兵據를 찾아가 射擊구역을 확인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固守하라고 독려하였다.

이윽고 19.00에 敵은 制壓砲擊이 延伸되는 듯 하더니 敵兵 1개 소대규모가 怪聲을 지르면서 背방향에서 제1소대 진지에 殺到하였다.

그러나 歷戰의 功을 쌓은 제1소대원들은 계속 철목을 지키면서 소대장의 사격명령만을 기다렸다.

소대장 文沅植 소위는 散兵據에서 敵의 접근을 기다리다가 陣前에서 산개하는 듯 하자 비로소 사격명령을 내렸다. 손에 땀을 쥐고 이태를 기다리던 소대원은 일제히 사격을 실시하니 最後阻止射擊에 걸린 敵들은 몹시 당황한 듯 悲鳴과 아우성을 치며 退却함으로써 敵의 一波는 阻止된 듯 하였다.

◇ 상황도 제29호 689高地 戰鬪(4.2~3)



그런데 이때 右側제곡을 따라 접근한 듯한 또 다른 一團이 소대의 背後에서 聲과리를 치면서 沒濲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힘을 얻은 앞서의 敵도 이에 加勢하여 다시 反轉하고 소대를 兩面에서 挾攻하기 시작하였다.

소대장은 소대가 四面楚歌의 危急상태에 놓이자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사격만으로는 격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즉각 陣內사격을 要請한후 洞窟陣地로 全병력을 긴급히 대피케 하였다.

이러한 急報에 接한 연대장 朴敬遠 대령은 대대 OP로 달려와 상황을 注視하였는데 소대장의 進내사격 요청이 있자 可用한 全火力을 △689頂上에 퍼붓게 하니 이때 地內洞窟入口를 찾으려 右往 左往하던 敵들은 이 鐵鎚에 魂飛魄散하여 많은 屍體를 버린채 19.30 北쪽으로 潰退하고 말았다.

4월 3일

敵의 2次侵攻: 이날 제2대대장 朴勝文 중령은 陣前에 敵이 開設한 洞窟據點을 覆滅하기로 決心하고 제5중대장 姜禧錫 대위에게 『日出前까지 搜索하여 爆破하라』고 命令하였다.

이리하여 중대장은 03.00에 제2소대를 출동시켰으나 漆黑과 같은 暗夜와 울창한 森林 때문에 洞窟은 물론 敵影도 찾지 못한 채 되돌아갔다.

바로 이때 하늘이 무너질 듯한 霹靂이 戰線을 휩쓸며 曉天을 메운 200발에 이르는 敵의 砲彈이 △659에 쏟아지더니 敵 1개소대가 北쪽 稜線을 타고 陣地를 侵襲하기 시작하였다.

同高地를 堅守하던 제7중대(장, 金正甲 대위) 제1소대는 갑작스레 달라붙은 敵으로 말미암아 彼我는 銃擊戰에서 手榴彈戰으로 바뀌는 血鬪를 거듭하면서도 交沓植 소위의 陣前指揮와 소대원의 敢鬪戰 그리고 300발의 砲兵支援의 도움으로 一瞬 敵의 銳鋒을 꺾기는 하였으나 驕敵의 무리는 유리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8부능선에 달라붙어 屢차 새로운 병력을 증원 받으면서 再공격을 꾀하려는 기미가 確연하였다.

이와같이 彼我が 指呼之間에서 激突하는 상태에 놓이자 연대장 朴敬遠 대령은 제2대대장 朴勝文 중령에게 號令하되 當面한 敵에게 여유를 주지 말고 지체없이 殲滅하라』고 大號하였다.

대대장은 이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待機시켜 놓았던 歷戰의 제5중대소속 15명을 急遽 赴援케 하였는데, 07.50에 主抵抗線(△973 東北 300m)을 躍進한 이들 特攻隊가 △689에 이르는 稜線右側을 經由하여 △973-△689 사이에 진출하였을 때 敵의 熾烈한 遮斷砲擊으로 말미암아 그 前進은 극히 遲滯하게 되었다.

이때 文소위는 特攻隊가 곧 지원될 것이라는 通報에도 不拘하고 軍인으로써 남의 힘을 빌린다는 것이 명예롭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이 당도하기 前에 1개분대를 指揮하며 突擊을 敢行 삼시간에 두명을 사살하고, 또 한쪽의 敵에게 銃身으로 후려갈기려는 刹那에 날아온 敵의 手榴彈을 맞고 쓰러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左胸部와 左足破片傷이었으므로 다시 일어나 2명을 또 쓰러뜨리면서 竊進하니 敵은 마침내 退却의 기색이 엿보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때를 놓칠세라 我軍의 野砲, 迫擊砲의 効力射擊이 집중되어 敵은 09.50부터 潰散하기 시작하였다.

文沅植 소위 이하 전소대원은 同高地를 寸步도 물러서지 않음으로써 後日 文소위에게는 이 전투의 공로가 인정되어 花郎武功勳章이 授與되었다.

朴勝文 중령의 散華: 제2대대장 朴勝文 중령은 이 전투를 대대 OP에서 지휘하던중 敵의 直擊彈으로 같이 있던 부대대장, S-2, S-3, 중화기중대장, 포병연락장교, 그리고 중박격포관측장교와 함께 현장에서 戰死하였다.

이에따라 연대장은 이 慘事직전에 전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同 OP로 急派한 연대 S-3 李恩植 중령에게 즉시 대대를 지휘하도록 命命하였다.

4월 4일

1. 전날 새로 제2대대장으로 任命된 李恩植 중령은 부대를 파악할 여유도 없이 이날 공격이 最善의 방어라고 다짐하면서 中共이 慣用하는 夜戰에 先制하여 一擊을 加하고 그들의 侵透據點인 洞窟을 索出하는대로 覆滅기로 決意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즉시 威力搜索隊는 1개 소대규모로하여 兩隊를 急瀾케 하였는데 제7중대 제3소대의 제1대는 02.05부터 △689에 이르는 稜線을 따라 左側 溪谷으로 진출하다가 △748 부근에서 同高地를 向하여 南下하던 敵 1개소대와 부딪쳐 5분동안 사격전 끝에 이를 격퇴하였다.

또한 제2중대 제2소대의 제2대는 03.00부터 △689 右側稜線으로 躍進하여 同高地斜面을 探索하였으나 洞窟과 敵兵을 발견하지 못한채 원대로 되돌아갔다.

한편 연대장 朴敬遠 대령은 이렇듯 地上探索이 所期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焦心한 나머지 사단에 航空偵察을 要請한 바 있었는데 이날 要請으로 緊急出擊한 偵察機의 航空사진에 의하여 마침내 △689 바로 밑에 2개중대가 수용할 수 있는 洞窟이 있음을 探知하게 되었다.

이와같이하여 사단으로부터 手交된 航空사진과 洞窟의 位置를 알게 되자 연대장은 지체 없이 이 洞窟에 대한 破壞計劃을 要旨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① 攻擊 日時—14. 30

② 攻擊梯隊區分

破壞組—제9중대 제1소대

支援組—제9중대 제2소대

③ 火力支援

砲兵과 연대全火力이 協力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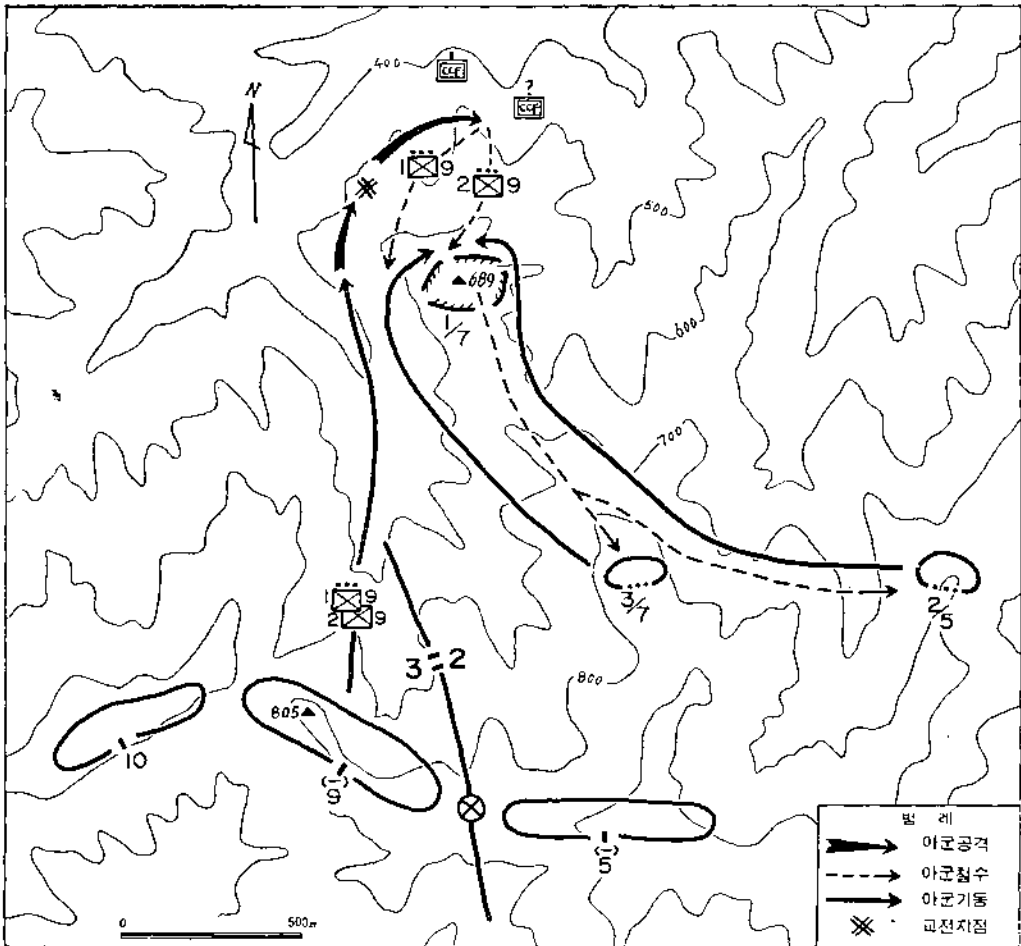
航空支援은 要請에 의하여 실시한다.』

2. 이리하여 제3대대장 金仁杰 중령의 破壞組는 14.30부터 主抵抗線을 떠나고 뒤따라 支援組도 目標를 향하여 後續하였다. 또한 이와 맥을 같이하여 上空에 나타난 폭격기는 叢坪과 수음일대의 敵砲陣地로 豫想되는 곳을 폭격하여 息屏케 하는 가운데 사단砲兵이 一齊히 砲門을 열고 敵을 強打하였다.

圖上으로보면 目的地까지 불과 1,500m에 지나지 않으나 兩제대의 전진속도는 우거진 森林과 숲을 헤치고 또한 敵의 境界망을 피하여 迂回하여 躍進하는 兩제대의 전진속도는 遲遲하였으니 출발 3시간만인 17.30에 겨우 西北麓에 進入할 수가 있었다.

이때 破壞組는 2개 分대규모로 판단되는 敵과 激突하였는데 곧 이를 支援組에게 一任하고 계속 前進을 재촉하였다. 이들이 10분쯤 더 東進하였을 때, 組長 金彰炫 소위는 敵 1개 中대규모가 200m 전방에 집결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여기서의 交戰은 우리의 막중한 임무에 비추어 位置를 스스로 暴露하여 不利하다고 판단하고 砲擊으로 이를 粉碎케 한 다음 다시 전진중 $\Delta 689$ 北쪽 400m에 있는 洞窟據點을 드디어 찾아 내는데 成功하였다.

◇ 상황도 제30호 689高地 戰鬪(4. 4)



이리하여 破壤組는 숨을 죽이면서 洞窟로 접근한 다음 敵兵 2명을 단숨에 사살하고 준비한 TNT로 洞窟을 완전히 폭파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撤收하려는 瞬間 爆破音을 듣고 달려든 敵 1개 소대규모가 사격을 集中함으로써 後繼하던 支援隊가 재빨리 散開하여 몰려드는 이들을 阻止하고 破壤組를 幷護함으로써 破壤組는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철수할 수가 있었다.

한편 支援組는 敵을 潰滅한 다음 △689의 증원을 명령받고 19.40에 제7중대 제1소대와 合勢하여 同高地의 戰力을 배가하게 되었다.

4월 5일

1. 敵의 3次侵攻 : 이날 00.40에 최전방의 감복조로부터 『敵出現』 보고를 받은 文沅植 소위는 즉시 소대원을 격려하고 전날 소대와 合勢한 제9중대 제2소대를 통합하여 전투태세를 갖추었는데 소수의 敵은 그대로 물러나고 말았다.

現地에서 應急治療한 文소위는 어제까지의 小康을 깨고 敵이 나타난 것은 필연코 그들의 強襲의 徵兆라고 推斷하고 소소대원을 전투위치에 전개케한 다음 중대장 金正甲 대위에게 『敵은 攻撃할 징후가 보이며 우리는 이를 격퇴할 완벽한 전투태세를 갖추었으니 다만 火力支援만을 바랄뿐입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文소위이하 전대원의 건투를 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지원은 문제없다』고 應酬하였다.

그런데 03.00에 이르러 敵은 砲火를 高地頂上에 炸裂케 하더니 2개 소대규모가 蹶과리를 치면서 三面으로 侵襲하였다.

文沅植 소위는 소대를 지휘하여 陣前에서 邀擊하여 擊破又擊破 하였으나 그들은 屍山을 헤치면서 人海의 狂波를 멈추려하지 않았다.

당시 소대는 보급로가 露出되어 많은 勞務者가 死傷하고 하루 두끼의 식량보급마저 如意치 못한데다 4일동안 一面戰鬪, 一面工事로 버티어낸 그들이었다. 그리하여 集中된 火力의 幷護아래 측차공격을 시도하는 波狀공격으로 소대의 兵力損失 또한 累增되었으며 03.35에 이르러서는 通信마저 中絶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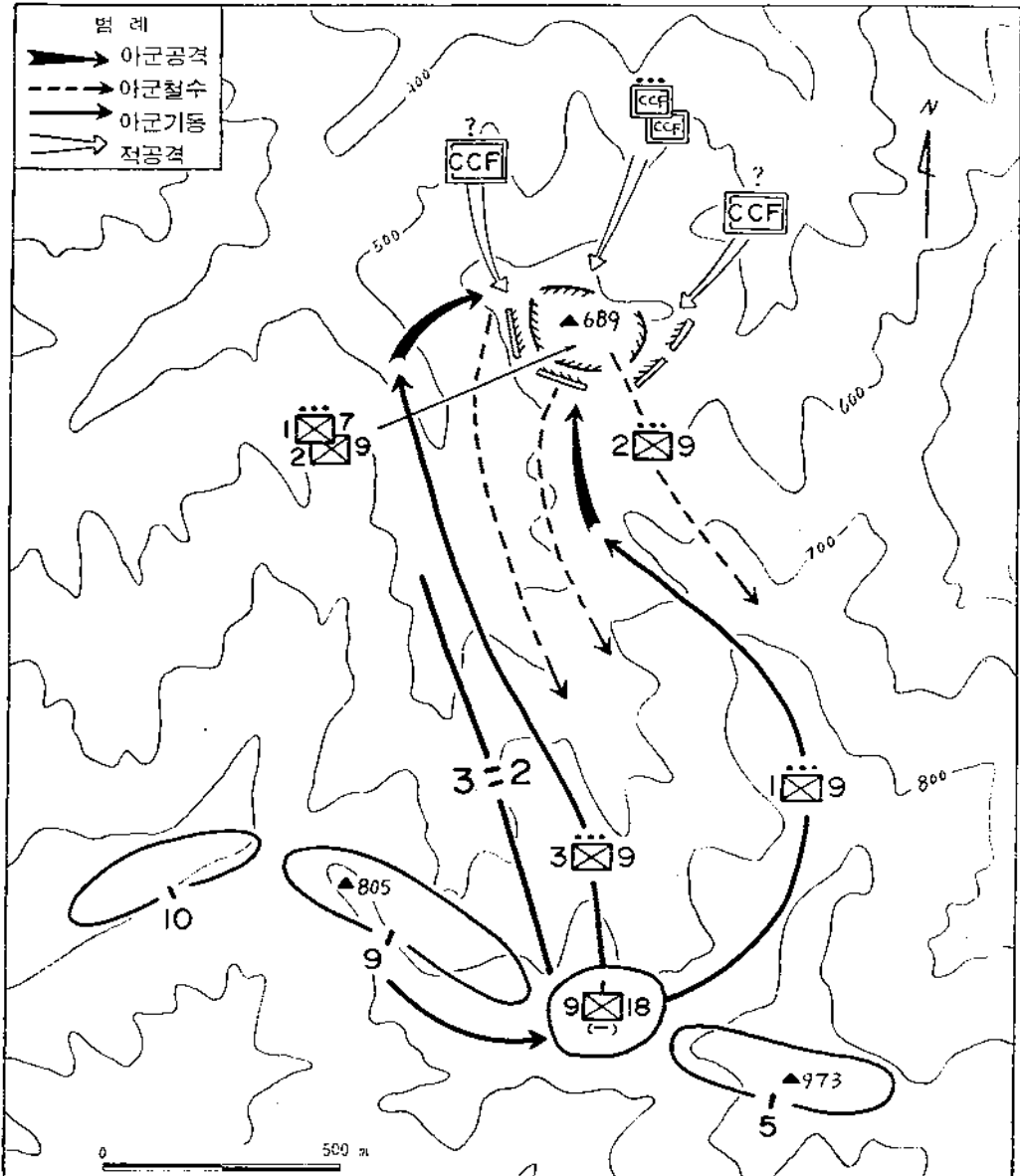
이에 이르자 文소위는 最後를 각오하고 自隊의 힘만으로 끝까지 버티기로 決心한 다음 增援한 제9중대 제2소대장에게는 撤收를 要求하였으나 죽음을 目前에 둔 그의 決意는 悲壯하고도 高貴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死地에 戰友를 남겨놓고 撤收하는 제7중대 소대원들은 戰力을 재정비하고 전우들을 救出하겠다고 다짐하는 듯 하였다. (研究(2)參照)

2. 第1次 出擊

※ 註 : 이 攻擊은 제7중대 제1소대가 △689 洞窟內에 들어있기 때문에 逆襲이라고하거 困難하나 頂上은 敵이 이미 占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03.35에는 중대와도 通信이 杜絶된 데다가 敵이 奪取한지 무려 11시간 뒤인 14.00에 비로소 攻擊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出擊이라 하였다.

상황에 접한 연대장 朴敬遠 대령은 洞窟속에 갇힌 殘留부대의 救出과 △689를 공격중인 敵을 섬멸하기 위하여 제9중대(一)를 逆襲부대로 選定하고 攻擊의 目標을 중심으로 南, 西 兩쪽에서 同時에 出擊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9중대(一)將兵들이 準備를 서두르는 사이에 중대장 朴在善 대위는 분대장급이상을 소집하여 地形의 說明과 機動要領을 說示하였는데 14.00부터 제1소대를 右一線, 제3소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主抵抗線(△805—△973간)을 박차고 躍進하였다.

◇ 상황도 제31호 689高地 戰鬪(第1次出擊)



그중 제3소대는 溪谷을 따라 進出하여 △689 西쪽(300m)에 이르렀을 때 2개 소대규모와 조우하니, 射擊戰을 展開한 끝에 一進一退를 거듭하였으나 이때 △689에서 증원된 듯한 敵 1개 소대규모가 소대의 右側으로 迂回接近하려 하였다.

이러한 計策을 알아차린 소대장은 즉시 1개분대를 유리한 地形에 배치하여 이를 阻止케 함으로써 彼我는 다시 對峙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제1소대는 △689 정면으로 躍進하다가 19.15에 高地前斜面에서 據點을 占領중인 2개 소대규모와 激戰을 벌인 끝에 白兵戰 속에서 孤戰奮鬪하다가 事不如意하여 50m 뒤로 물러서서 陣地를 점령하고 應戰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交戰케되자 敵은 그간에 병력을 증원하고 砲擊과 小火器射擊을 集中하므로 중대는 苦戰을 免할 수가 없었다. 결국 出擊梯隊는 2:1의 열세속에서 끝내 敵線을 뚫지 못하고 對戰하다가 19.35부터 대대장 命에 의하여 主抵抗線으로 隨意撤收하게 되었다.

이날의 전과는 敵殺傷 35명으로 推定되되 중대의 損失은 推計 611발에 달하는 砲擊의 集中으로 戰死 23명, 負傷 14명이었다.

4월 6일 : 전날 제1차出擊을 지켜보던 연대장 朴敬遠 대령은 이날 期必코 이 驍敵을 擊破하고야 말겠다는 決心아래 다음과 같은 出擊計劃을 下達하였다.

『① 연대는 4월 7일 06.00를 기하여 目標 △689를 奪取하려함.

② 제2중대(一)와 수색중대(一)는 현접축선(△689 南쪽 400m)을 LD로 하여 目標를 탈취하라.

③ 제1중대(一)는 △689 西쪽으로 부터 攻擊하여 目標를 탈취하라.

④ 제11중대(一)는 兩중대간의 뒤에서 火力으로 幷호하라.』

이 외에도 사단장 林善河 준장은 별도 명령으로 全砲口를 目標에 指向케 하고 공격부대장의 要請이 있을 때는 어느 때, 어디든지 砲擊할 태세를 갖추게 함으로써 砲兵들은 발사 명령만을 대기하게 되었다.

4월 7일

1. **第2次出擊** : 이날의 前半夜의 日氣는 南西風이 弱하게 불고 氣溫은 1.7도를 기록하였으나 그믐달 (陰曆 2. 25, 月出02.30)마저 구름이 끼어 주위는 더물을 뿌린듯 캄캄하였으나 夜間 부대기동이나 공격에는 안정마춤이었다.

05.40부터 出擊梯隊는 拂曉의 새벽공기를 뚫고 我砲兵의 一齊 制壓射擊동안 陣容을 가다듬고 主抵抗線에서 躍出하였다. 이리하여 06.00에 線을 넘어선 各隊는 射擊과 機動을 연결하면서 敵前까지 突進할 수가 있었다. 奇襲을 당한 敵들은 이때 비로소 戰列을 정비하였음인지 미친듯이 亂射를 거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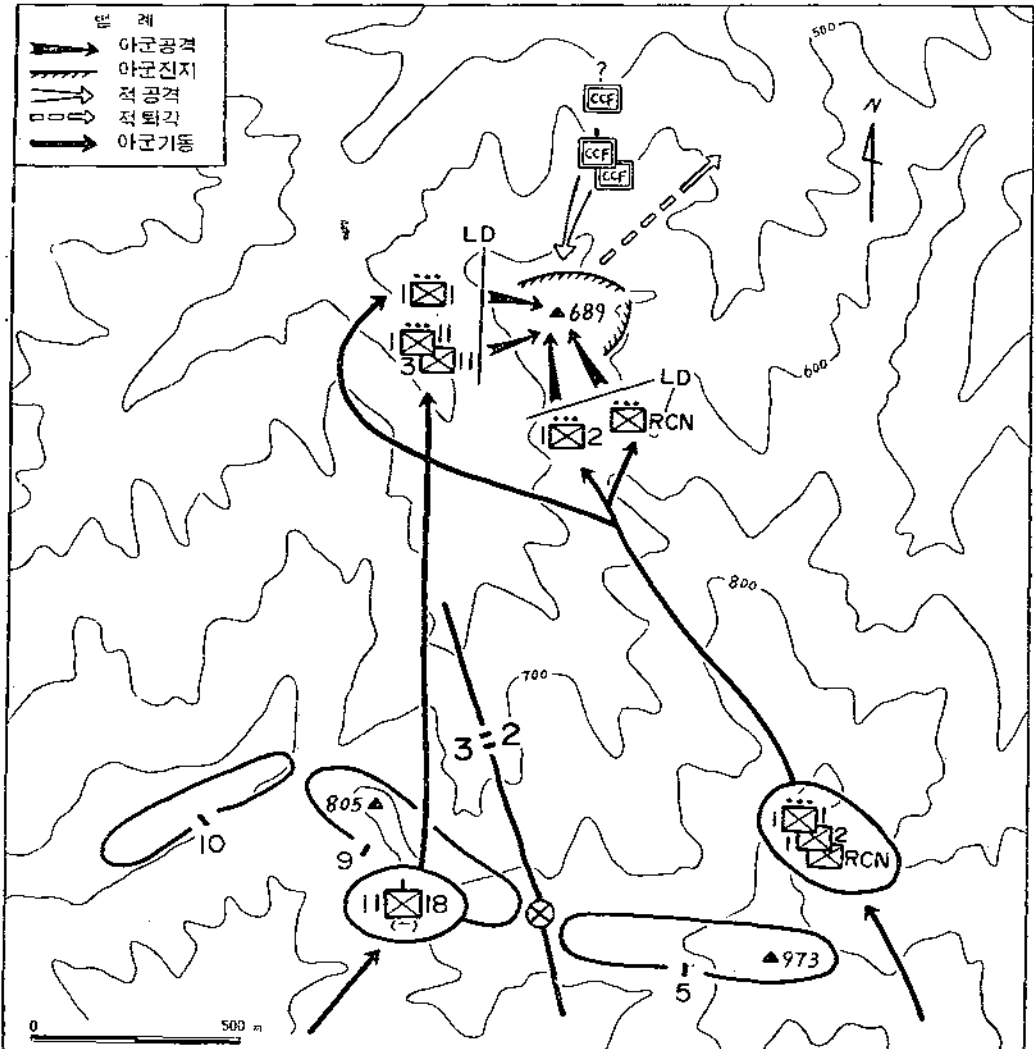
이러한 狀況속에 出擊대는 한때 敵의 최후 저지사격권내에 들어 충격력이 鈍化되기도 하였으나 적시에 지원한 砲兵의 火力지원과 敵의 右側方을 공격하는 제1중대(一)와의 협동

으로 그들의 虛隙을 들어내고 당황하는 사이에 一擧에 敵前 LD까지 蕪進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彼我는 수류탄과 肉搏으로 格鬪가 이곳 저곳에서 벌어졌으며 敵은 드디어 무릎을 꿇고 07.32 潰滅하고 말았으니 이는 실로 △689의 失陷 52시간 뒤의 奪還이었다.

그러나 敵은 재편성할 틈을 주지 않으려고 各種砲火의 支援사격下에 2개 중대규모가 침공을 시도하였다. 이때 同高地의 모든 築城物은 敵이 퇴각하기 前에 이미 破壞한 듯 하였고 그나마의 交通호도 彼我的 포격으로 거의 塞워졌기 때문에 완전히 露出된 상태에서 交戰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각대는 서로 協同하고 최후저지탄막사격에 힘입어 그들의 波狀 공격을 물리치고 또 물리쳤으나 武器대신 屍體의 장벽을 만들어 싸우고자 하는 人海전술로 말미암아 同高地 남쪽 400m로 隨意철수하여 병력을 수습하는 한편 逆襲의 기회를

◇ 상황도 제32호 689高地 戰鬪(第2次出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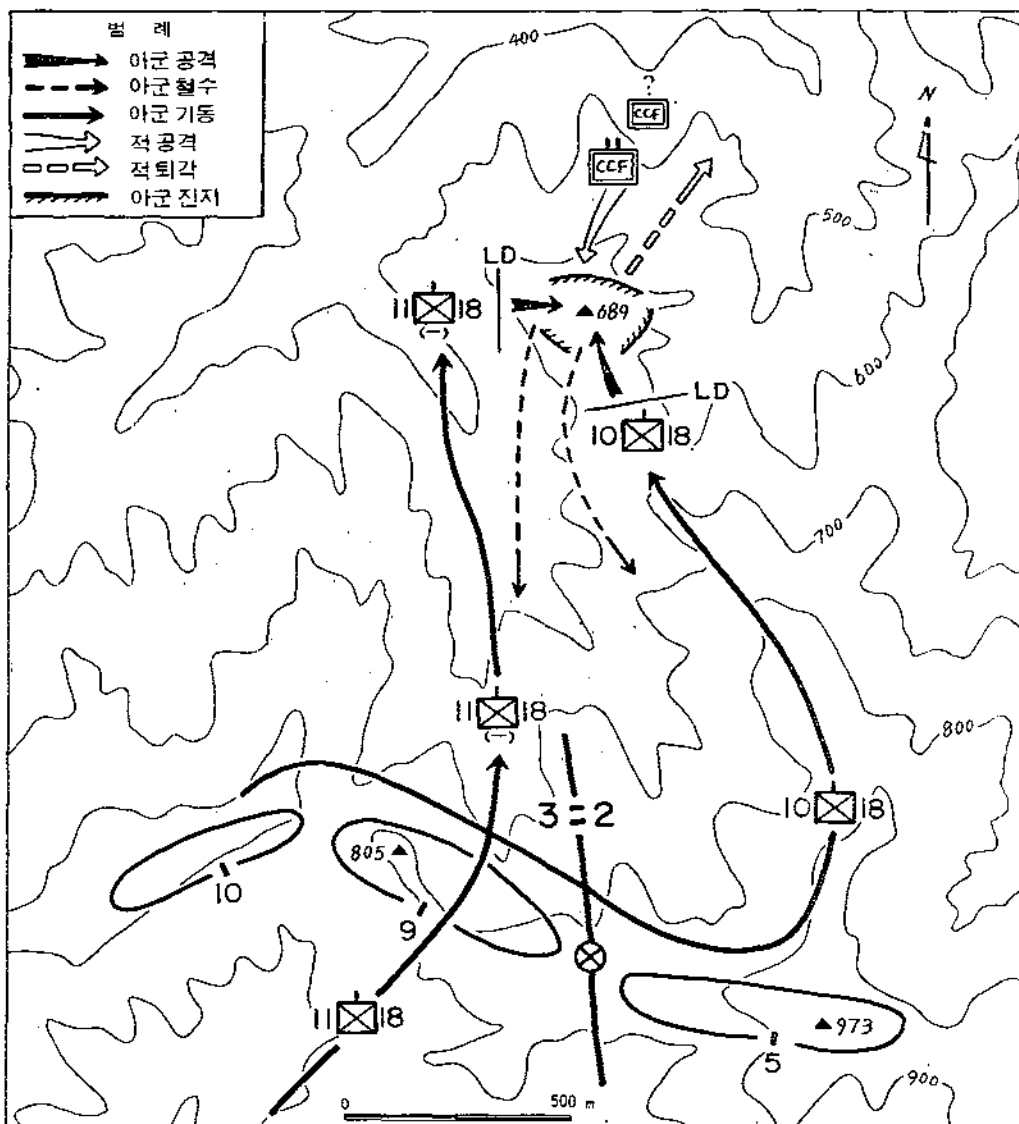
기다리면서 對峙하기에 이르렀다.

2. 第3次出擊 : 상황의 推移를 주시하던 연대장 朴敬遠 대령은 10.00에 이미 제11중대 殘餘병력인(제2소대와 화기소대)를 중대主力과 합류토록 하고 아울러 새로이 제10중대를 정면으로 急速出動시켰으므로 各隊는 目標 至近 거리에 진출하고 있었다.

즉, 연대장은 이 상황속에서 이미 완전한 제3대대의 전체부대로써 出擊을 재개하기로 決心한 것이다.

한편 사단장은 연대의 이 제3차 出擊에 앞서 △689를 철저히 破壞하기로 決心하고 航空 지원을 要請하였으므로 12.00에 F-84機 28대가 1,000pound의 napalm彈 48개를 투하

◇ 상황도 제33호 689高地 戰鬪(第3次出擊)



하고 이어서 제11포병단 예하 3개 포병대대가 불을 뿜었다. 이리하여 13.10부터 제3대대는 대대장 金仁杰 중령의 직접지휘아래 各各 LD線을 통과하여 一齊히 敵陣으로 돌진하였다.

이때에 敵의 火力은 我軍의 爆擊에 이은 砲擊으로 砲陣地가 崩壞된 듯 하였으나 그들은 遮斷砲擊으로 도리어 대대의 銳鋒을 꺾으려는 듯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대대는 敵의 彈幕을 뚫고 步一步 돌진하여 敵前에 육박하는 즉시 紛戰亂擊끝에 敵陣에 挺身突入하여 刺殺과 打殺로 무찌르니 敵은 하는 수 없이 潰退하고 말았는데 이때가 15.00였다

目標 △689를 점령한 제3대대장 金仁杰 중령은 埋設된 것으로 보이는 제7중대 제1 및 제3소대 도합 4개 분대를 구출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으나 洞窟入口를 찾지 못하자 이를 中止하고 逆襲에 대비한 陣地를 構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689 頂上은 彼我의 砲火로 地面의 土塊가 微粉化하여 越尺깊이의 먼지로 뒤덮힌바다 地盤이 岩石인 까닭에 濼를 판다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이터는 동안 16.40에 敵 1개 대대규모가 또다시 來侵하게 되니 협소한 지역에 彼我는 도합 2개 대대병력이 뒤엉킨 가운데 血戰을 再演하게 되었다.

대대장은 陣頭에서 장병들을 叱咤激勵하면서 敵의 波狀侵襲을 四進五退하고야 말았는데 그 때마다 증원된 새로운 병력을 投入하는 反擊으로 損失만을 더하기에 이르자 부득이 피에 젖은 高地를 도로 내어주고 手兵을 수습하면서 본래의 LD를 다시 점령하고 再攻擊의 기회를 엿보게 되었다.

이때 연대장 朴敬遠 대령은 대대장을 無電으로 불러 대대 全將兵의 敢鬪를 치하하면서 『다음에 또 귀대대에게 戰功을 세울 기회를 줄터이니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격려함으로써 대대는 20.00부터 主抵抗線으로 하는 수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이날 制空權을 完全히 掌握한 我軍側에서 도합 3,800發의 砲彈을 消耗하였는데 敵은 그 래도 1/3이상인 1,240發의 各種砲彈을 集中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은 我軍의 損失이 戰死者 8명, 負傷者 49명에 達하였는데 推定된 戰果는 殺傷 92명을 記錄하였다.

4월 8일

1. 一般狀況 : 陸本定期情報報告(제88호)에 의하면 全전선이 小股상대였으나 唯獨 △689 砲방전만이 熾烈相을 거듭하였으니 이로써 미루어 보더라도 그들이 기필코 여기를 탈취하고야 말겠다는 執念을 能히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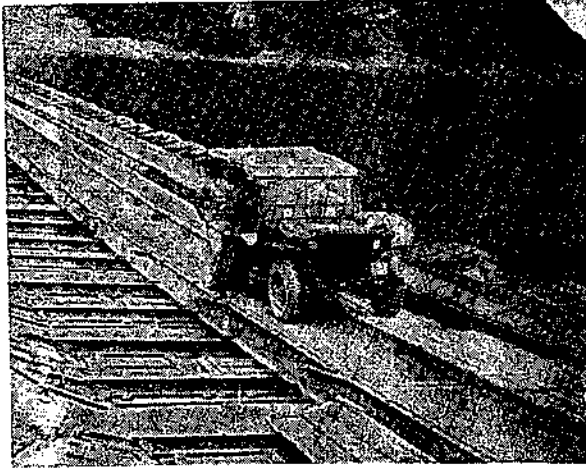
4月 中旬인데도 가끔 春雪이 紛飛하다가 03.00부터 清明하여지고 視界가 양호하였다.

전투전의 △689 일대는 森林이 울창하였으나 激戰이 거듭된 이 마당에는 射界를 淸掃한 듯이 一面赤地로 地貌를 뒤바꾸고 있었다.

이날 사단장의 口頭命令으로 연대에 배속된 제52전차중대 제1소대의 M-24型 전차대는 제2군단 作指 제12호(4.4부)로 사단에 배속된 제901舟橋중대가 黃柄洞 西北쪽 2km 渡河點에 가설한 重門橋의 組立橋를 通過하여 △805에 布陣한 다음 出擊부대를 直接지원하였다.

2. 第4次出擊 : 제3대대장 金仁杰 중령은 再出擊이 下命되자 대대의 名譽를 걸고 必取不
退를 다짐하고 攻擊計劃을 세웠는데 그 內容은 目標인 △689 西쪽에 제10중대를, 目標 南쪽
에 제9중대를 各各 展開하였다.

또한 배속된 연대 수색중대의 제3소대는 제9중대의 右側方을 엄호하다가 언제든지 同중
대를 支援할 수 있도록 措置하였
다



〈黃柄洞西北쪽2.5km에 設置된 조립교는
제3사단의 生命線이었다〉

이에 앞서 사단장 林善河 준장은
제3대대가 躍進한뒤 主抗抵線上의
空間을 배주기 위하여 口頭命令으로
부대교육중인 제23연대 제2대대(一)
(장, 姜興中 대위)를 4월 7일 12.40
부로 제18연대에 配屬케하였다.

이날 08.00부터 제3대대는 주저항
선에서 △973 左側鞍部의 협조점(본
래의 제2 및 제3대대간)을 통과, 一
齊히 LD를 향하여 躍進하였는데 이

때에 사단에서 要請한 美空軍 F-84機 連56대로서 敵砲兵陣地와 공격목표 一帶에 1,000
pound의 napalm彈 112發을 投下하니 山野는 송두리채 뒤집히는 듯이 震動하였다. 여기
에 이어서 사단과 연대의 砲兵의 主力과 戰車砲가 砲門을 열었는데 이때에 △590 綫에서
敵의 側射火器가 간간이 제9중대의 機動을 威脅하였으나 戰車砲로 이를 屏息케 하였으니
步戰砲協同의 極致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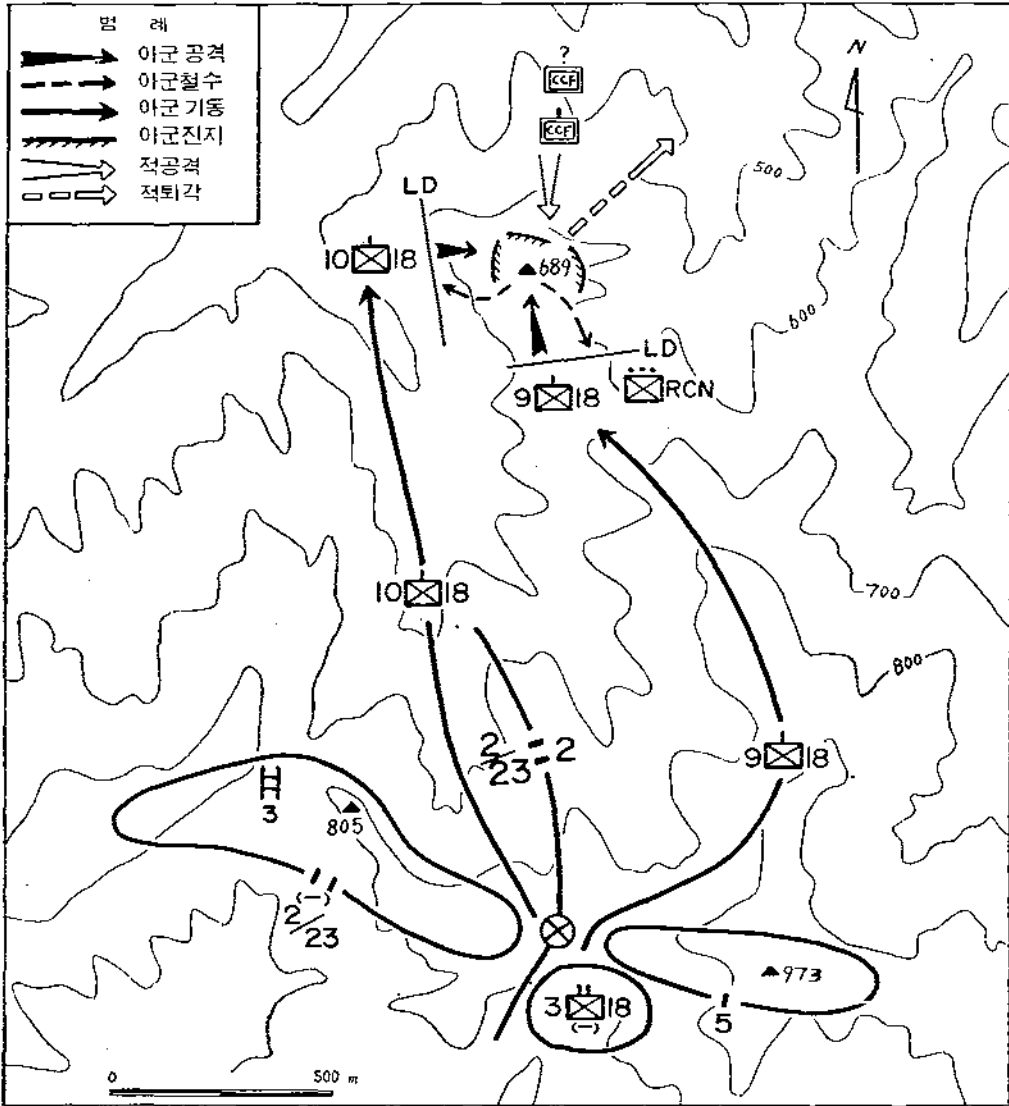
10.30에 LD를 통과한 제10중대(장, 金基泰 대위)와 제9중대(장, 朴在善 대위)는 一氣呵
成으로 突進하는데 彼我的 交叉하는 砲火는 地軸을 뒤흔들고 硝煙은 尺寸을 분간하기 어려
운 가운데 一步 一步 目標에 接近하였다. LD通過 20분 뒤에 2개 소대규모의 敵과 熾烈
을 극한 射擊戰이 전개되다가 마침내 手榴彈투척거리까지 肉迫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돌연, 突進중인 제7중대의 腹部에 대하여 敵의 前進據點인 △590로부터 중기관
총이 側射를 加하기 시작함으로써 한때 前進이 지체되기도 하였으나 戰車砲로써 特火點을
破壞하여 躍進速度를 다시 恢復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자 猛威를 떨치던 驕敵도 13.00부터는 惝속으로 潛入하여 散發的인 사격만을
반복하게 되니 이러한 絶好의 戰機를 포착한 제10중대(장, 金基泰 대위)가 바로 이때를 타
고 突擊할 것을 決心하고 陣頭에 서서 奮進하자 제9중대(장, 朴在善 대위)도 이에 呼應하
여 突擊을 敢行한 結果 13.05부터 敵은 戰傷者를 遺棄한 채로 退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目標의 奪還도 삼시간이요, 敵은 새로운 1개 중대를 支援받고 砲火力에 誘導되는

◇ 상황도 제34호 689高地 戰鬪(第4次出擊)



反擊波를 계속 몰아대니 遮蔽物 하나 없는 頂上에서 더이상 지탱할 수가 없다고 判斷한 대대장 金仁杰 중령은 13.20에 각 공격중대를 LD로 撤收할 것을 命命하기에 이르렀다.

3. 第5次出擊 : 연대장 朴敬遠 대령은 제3대대장 金仁杰 중령으로부터 兩次에 걸친 戰勢의 不振을 雪辱한 然後에 黃泉戰友의 瞑目을 빌 수 있게 하여 달라는 간곡한 具申을 받아 이를 快諾하고 재공격을 命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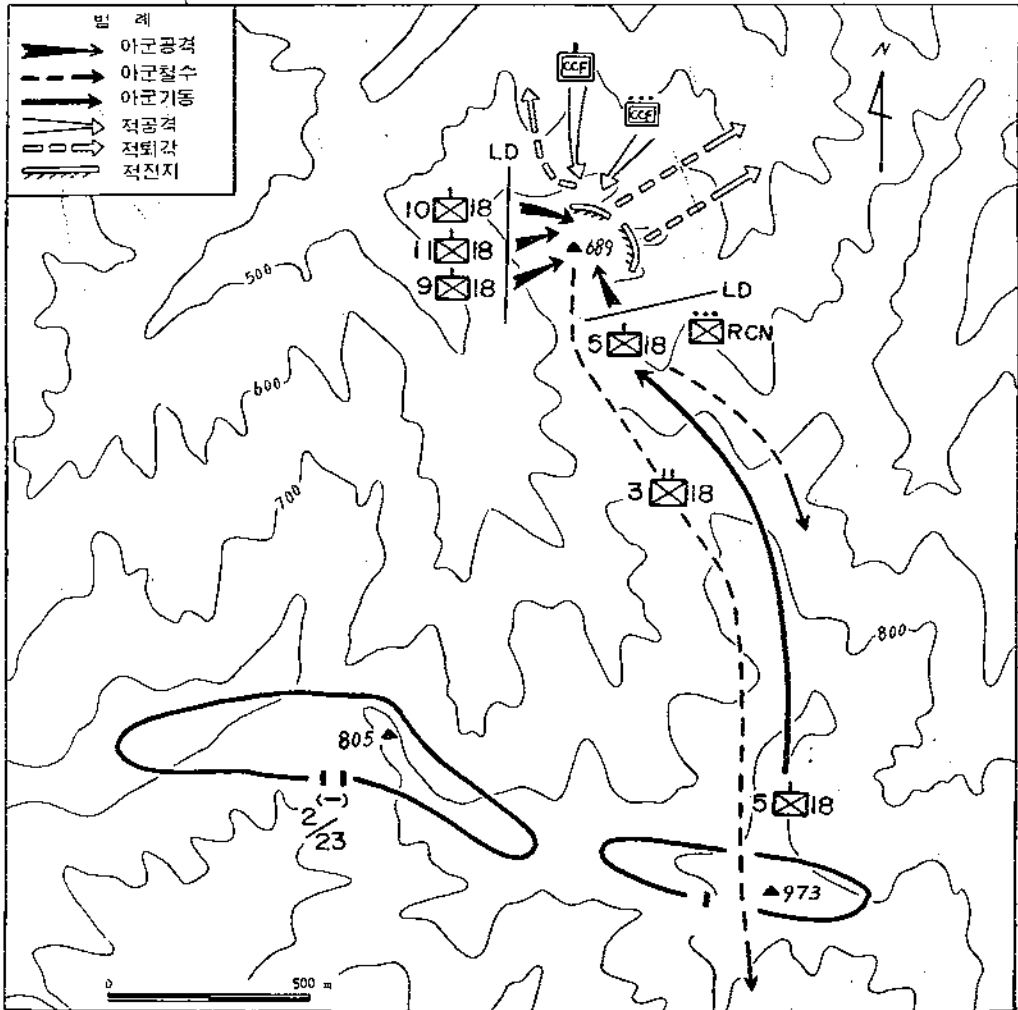
이와함께 연대장은 目標에 대하여 3개 중대로써 併進공격토록 指導하는 한편 사단장 林善河 준장은 대대장의 決意에 同感하고 사단교육대에서 소대장교육을 받고 있던 中上士 24명을 뽑아 공격대대를 증원케하는 등 전사단이 이 一戰必取를 聲援하였다.

이리하여 대대장은 새삼 驍敵剿滅을 다짐하면서 前線을 다시 밟지 않으려는 연대장의 作戰구상에 따라 中央에 제11중대 右一線에 제9중대, 左一線에 제10중대를 展開하는 한편 배속된 연대수색중대 1개소대를 稜線(제4차逆襲시 제9중대 LD)에 배치하여 △689의 左側方을 엄호케하는 동시에 特別히 敵의 迂回를 阻止토록 措置하였다.

創軍以來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勇猛性이 敵에게까지 알려져 「白骨部隊」의 稱號를 얻은 이 연대의 勇士들은 이날 17.20에 LD를 넘어 躍出하였는데 이로부터 25분 뒤에는 벌써 交戰상태에 돌입하였으나 이때 사단 및 연대의 각종 砲兵火力은 敵壘에 土砂를 휘몰아 올리고 頂山에 硝煙이 뒤덮었다.

18.00부터 手榴彈이 석로 亂飛되는 가운데 제10중대의 일부가 山頂의 一角에 돌입하니 이로부터 凄慘한 格鬪가 熱을 吐하기 시작하였다.

◇ 上 황도 제35호 689高地 戰鬪(第5次出擊)



대대장은 戰機가 바야흐로 무르익어가자 右一線의 제9중대와 중앙의 제11중대에게도 突擊할 것을 叱咤하자 兩중대가 일제히 喊聲을 지르면서 突擊을 敢行하여 盲人失杖격으로 左衝右突하는 敵을 銃검으로 닥치는대로 屠戮하고 마침내 頂上을 席捲하고 말았다.

이날의 一戰에서 殺傷推定 160명의 戰果와 戰死 11명 負傷 73명의 損失을 보았다.

4월 9일

1. 敵의 4次侵攻 : △689를 掌中에 넣게된 제3대대는 즉각 陣地를 구축하면서 하루 밤을 지냈는데 이사이에도 대대장은 敵의 反擊이 必至할 것으로 내다보고 山麓까지 警戒分哨를 내려보내는 등 철저한 태세로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날 09.00에 敵은 反擊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는지 소수병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警戒分哨의 보고가 있더니 11.50에는 1개 소대규모가 △689 東北쪽 400m에서 南侵中임을 確認하고 이를 警戒分哨가 砲兵의 遮斷射擊을 유도하여 潰散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연대장은 제3대대가 4월 5일이래 力戰奮闘하여 疲勞에 지쳐있을 뿐만 아니라 陣地構築도 어느정도 진척하였으며 더욱이 협소한 지역에 1개 대대가 密集방어하는 不合理性을 認定하였음인지 17.30에 제2대대 제5중대(장, 金漢成 대위)로 하여금 現임무를 인계토록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兩대는 18.15부터 방어임무를 交代하고 있었는데 敵 1개 소대규모가 1,000여발의 砲擊을 集中하면서 奇襲을 試圖하므로 대대장은 즉각 교대를 중지하고 교대부대인 제5중대를 통합 지휘하여 20분간의 熾烈한 交戦끝에 高地前後에서 이 敵을 擊退한 다음 순조로이 교대를 마치고 대대는 20.10에 主抵抗線으로 복귀하였다.

2. 제5중대의 血鬪(敵의 5次侵攻) : △689를 인수하자마자 緒戰을 裝飾한 제5중대장 金漢成 대위는 『전투에 이기고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는 한치의 땅이라도 더 깊이 파야한다』라고 독려하면서 그 자신도 직접 삽과 괘이를 들었다. 이미 제3대대가 壕를 구축하였다고는 하나 겨우 遮蔽할 수 있는 強度이고 交通호도 半身을 숨길 수 있을 정도이므로 중대는 소수의 警戒병만을 제외하고 전원이 作業에 從事하였다.

그런데 19.00 정각이 되자 綠色 및 赤色신호탄이 輝煌하게 오르더니 夜襲의 前奏인 양 敵의 砲擊이 시작되면서 轟音이 △689 頂上에 요란하였다.

중대장은 이것이 곧 敵의 再侵임을 直感하고 全員을 戰鬪위치로 불게한 다음 직접 前線을 俯瞰하니 薄暮를 利用한 1개 중대규모의 敵이 奇襲을 試圖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중대장은 곧 砲火力을 유도하여 이 敵을 彈幕내에 몰아넣고 強打한 결과 그들의 侵攻速度를 지체시킬 수 있었으나 이 狂波를 阻止할 수는 없었다.

이에 중대장은 敵을 最後阻止射擊圈내까지 접근시켜 놓고 연대화기로써 격멸기로 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敵砲彈의 亂舞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苛烈化하게 되니 強度가

弱한 據는 순식간에 崩壞되고 말았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중대는 중대장 金漢成 대위의 叱咤격려아래 一旦 敵을 물리쳤으나 熾盛한 砲兵火力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병력을 수습하여 高地의 頂上部位를 비워놓고 彼我 모두 9부稜線에서 對峙하게 되니 主人없는 頂上에는 手榴彈만 서로 交叉하고 있었다.

이날(4.8.18.00—4.9 05.30)의 전투는 火力戰을 주로 한 것이었는데 연대의 3,020발에 비하여 敵은 4,280발의 優勢한 火力을 퍼부었던 것이다.

구분	戰 果	구분	損 失
射 殺	17	戰 死	20
推定射殺	24	負 傷	142
負 傷	157		※제3대대 손실포함
捕 虜	2		

4월 10일

1. 第6次出擊 : 제2대대장 李恩植 중령은 많은 損失을 보게된 제5중대를 증원하기 위하여



이날 04.40에 主抵抗線에 배치되어 있던 제6중대에서 1개소대를 抽出하여 급파하는 동시에 黎明을 期해 다시 攻擊할 것을 명령하였다.

증원대를 얻은 제5중대장은 05.00에 LD(△689 南쪽 400m)이자 현 접촉선에서 부대를 展開하고 躍進하였다. 이때에 사단砲兵은 敵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중대장의 요청으로 射程을 延伸하였는 바 이렇게되자 지금까지의 砲擊으로 움추린듯 하던 2개 소대규모의 敵이 據박으로 뛰어나오므로써 彼我的 肉迫이 眼前에 놓이게 되었다. 중대장 金漢成 대위는 虛蹟을 노리던 중 敵의 右側과 中央 사이의 사격이 완만함을 발견하자 현재의 정면 공격을 중대선임장교에게 一任하고 자신은 제2소대를 이끌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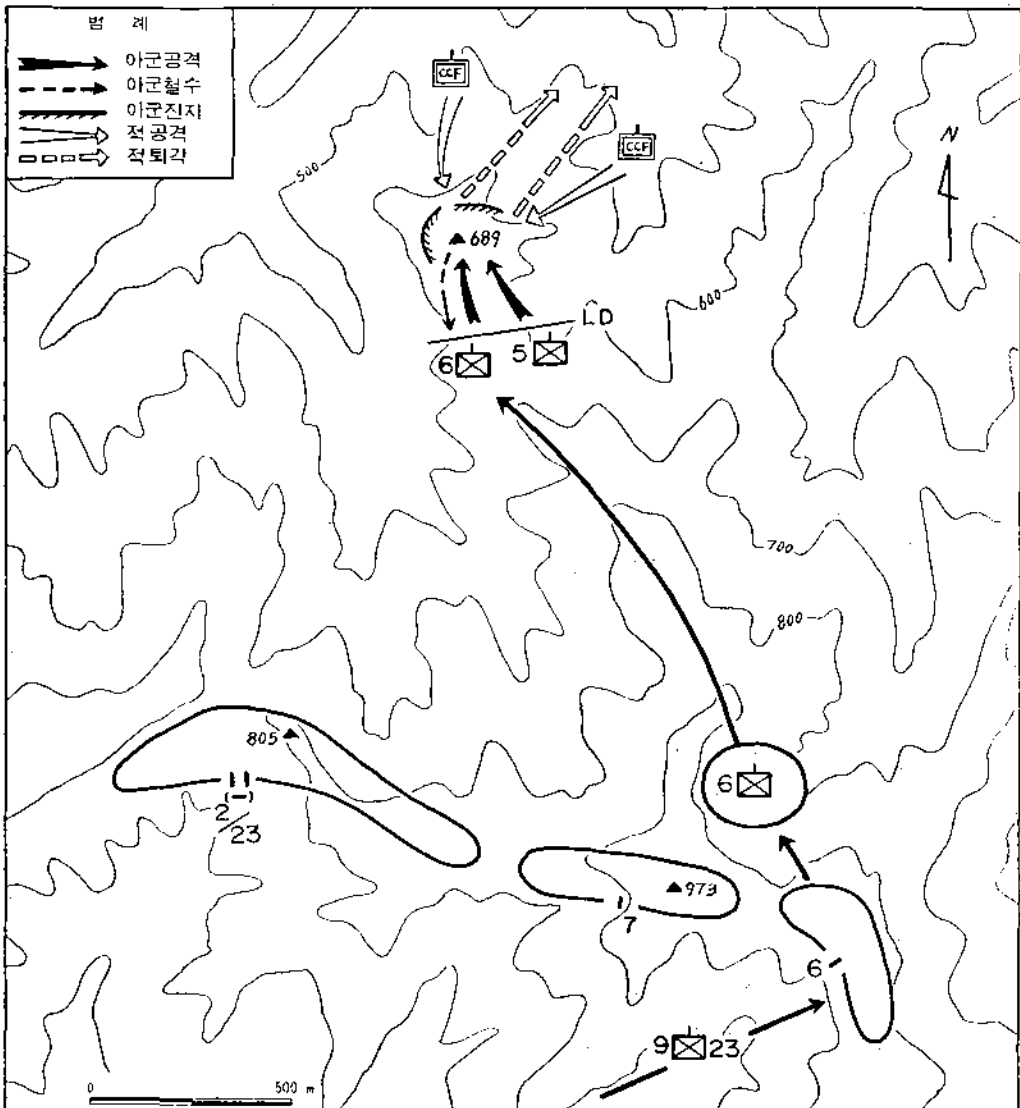
<出戰勇士의 壯途를 新願하는 연대軍牧과 勇士들>

한편 중대선임장교는 急射로써 敵의 주의력을 牽制하는 동안 중대장은 함성을 지르면서 敵線을 뚫고 突進하였다. 돌연 右側背로 부터 기습을 당한 敵은 戰列이 흩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때를 놓칠세라 正面을 突破한 중대 주력과 合勢하여 銃擊과 개머리판으로 屠戮하니 이때가 05.30 東天에 曙光이 밝기 시작하였다.

敵의 遺棄屍體는 17具 推定射殺 24, 推定負傷 57명이고 중대의 損失은 戰死 12명과 負傷 80명을 보았으니 이는 중대병력(제6중대 1개소대포함)의 40%를 상회하는 것이었다.

2. 敵의 6次侵攻 : 主抵抗線에서 방어임무를 수행하던 제6중대(一)는 연대作指 제53호(4.10부)에 의거하여 現陣地를 제23연대 제9중대에 인계하고 12.45에 제5중대의 진지인

◇ 상황도 제36호 689高地 戰鬪(第6次出擊)



△689를 인수하였다. 이리하여 제6중대장 韓判中 대위는 제1소대를 山頂과 前斜面에, 제3소대를 그 右一線에 그리고 제2소대를 그 左一線에 각각 배치한 다음 진지를 강화하면서 3개의 수색조를 北쪽 山麓 一帶에 推進하였으나 接敵은 없었다.

이때에 제5중대는 △689 南쪽 400m 鞍部에서 제6중대의 측방엄호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山野에 어둠이 덮히자 20.15에 各색의 신호탄이 꼬리를 달고 번갈아 오르더니 敵의 集中砲火가 集中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夜暗속에 企圖를 비약하면서 2개 중대규모가 東北兩隊로 區分하여 高地를 合擊하는 形勢를 보였는데 중대장 韓判中 대위는 제5중대의 사격지원과 連繫하여 東쪽으로부터의 迂回기동을 阻止하였는데 該敵은 北쪽과 合流하였는지 그 方向에서의 충격력이 점차로 증가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각소대는 자신의 防禦區域을 堅守하면서 狂波를 불리쳐 敵의 初動을 粉碎하였으나 도합 1,100발에 達하는 敵砲火는 高地頂上을 불바다로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戰況이 불리하게 된 것을 느끼게 된 중대장은 後圖를 策하기로 決心하고 20.50 제5중대 地域으로 隨意撤收하였다.

한편 대대장 李恩植 중령은 상황이 이에 이르자 狹少한 지역에 2개 중대가 詰結하는 不便을 勘案한 탓인지 제5중대를 主抵抗線으로 복귀시켰다.

4월 11일

1. 第7次出擊 : △689의 쟁탈전이 날이 갈수록 熾烈化하자 연대장 朴敬遠 대령은 歷戰의 古參들이 60%이며 어떤 분대는 BAR사수까지 尙사급인 연대수색중대를 投入하기로 決心하였다.

이리하여 01.00에 중대장 金善康 대위로부터 進擊命을 받은 중대원들은 『이제야 이리떼들을 무찌를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서 모든 준비를 서두르니 그 氣概가 벌써 하늘을 찌르고 敵을 삼킨 듯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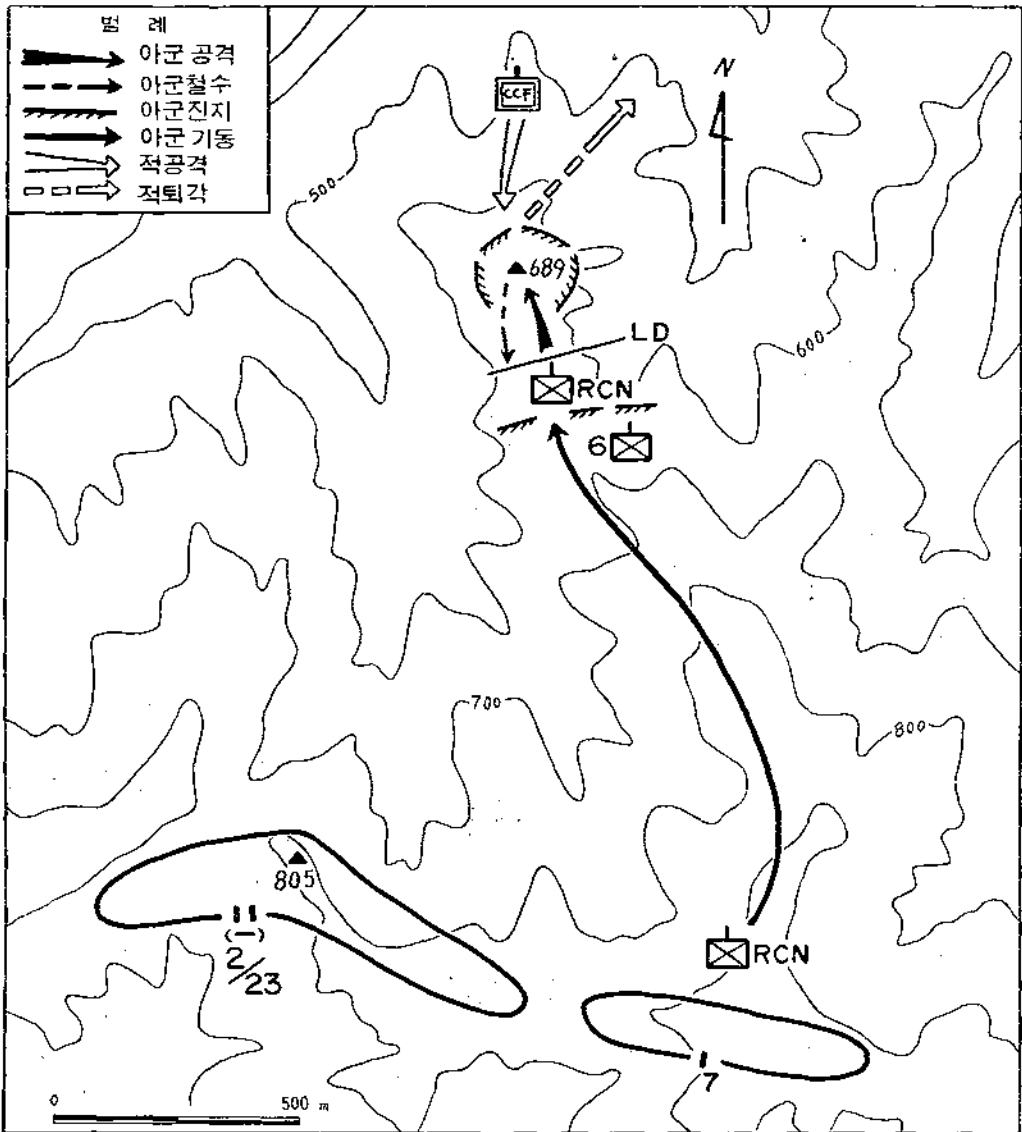
중대는 02.20에 달빛도 없는 深夜의 어둠(月出 04.13)을 뚫고 氣勢도 등등하게 △689 南쪽 鞍部에서 敵과 對峙中인 제6중대를 超越하여 敵陣을 향해 肉迫하였다.

이들이 敵前 70m에 이르렀을때 비로소 敵은 중대의 強襲을 探知하였음인지 大小口徑의 全火力을 集中한 最後阻止射擊으로 중대의 前進를 阻止하려는 듯 하였다.

그러나 중대에도 중대장과 행동을 같이하는 觀測장교팀에 의한 步戰砲의 三者協同한 砲擊을 照明彈 아래 正確한 肉眼觀測으로 強打하였다.

이때를 놓칠세라 中隊長은 突擊 앞으로를 絶叫하면서 陣頭에서 突進하니 全중대원이 그의 뒤를 따르라고 高喊을 지르며 一擊에 火線을 突破하자 彼我는 凄慘無比한 白兵戰을 展開하였으며 怒聲과 罵聲 그리고 叫號와 悲鳴의 소리가 그치지 않더니 마침내 敵은 勢窮力盡하였음인지 06.15부터 潰退하기 시작하였다.

◇ 상황도 제37호 689高地 戰鬪(第7次出擊)



이 戰鬪를 지휘한 金善康 대위는 그 功이 인정되어 후일 銀星花郎勳章(陸本一般命令 제 30호 54.2.5부)을 받았다.

2. 敵의 7次侵攻 : 敵은 △689가 중대의 掌中에 들어가자마자 1개 중대의 병력을 풀어 反擊을 시도하였다. 즉, 그들은 我軍에게 單 한삽이라도 흠을 팔 사이를 주지 않고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卽奪하고야 말려는 心事인 듯 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強襲方式을 알게된 중대장은 高地탈환과 동시에 兇殘방어에 心血을 다하

였으나 壕를 充分히 構築할 時間의 餘裕는 없었다. 戰場에 있어서 『잃었던 空間은 되찾을 수 있어도 잃었던 時間은 되찾을 수 없다』는 金言을 이때와 같이 뼈저리게 느낀 때는 없었다고 中대장은 후일에 回顧하고 있다.

이와같이 狀況이 突變하여 敵의 步砲射擊이 雨注하게 되니 完全히 露出된 상대아래에서 는 다만 損失을 累増할 뿐이었다.

이리하여 中대장은 부하들의 피의 代價로 되찾았던 同高地를 06.25에 또한번 敵手에 넘겨주게 되고 말았다.

3. 師團長の 作戰指導 : 사단장 林善河 소장은 불탄돌에 물방울 떨어뜨리는 格으로 兵力을 逐次 投入하여서는 目標를 完全히 奪還하기 困難할 뿐 아니라 다만, 병력의 손실만을 초래 할 것으로 판단하고 奪還도 중요하지만 奪還한 陣지를 固守할 수 있는 方策을 取하기로 決心을 굳힌 다음 要旨 아래와 같은 命令을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目標 △689를 奪取한 다음 곧 陣지를 강화하면서 이를 확보하려한다.

② 제18연대(제23연대, 제1대대배속)는 △689를 탈취하라.

③ 제23연대는 1개 대대를 제18연대에 배속하라』

4. 第8次 出擊 : 이날(11일)의 日氣는 (陸本定期情報報告 53年 제102호) 淸명한 날씨가 나 南西風이 強하게 불고 氣溫은 平均 2°C, 日出, 06.02 日沒 19.03 月出, 04.13 月沒 16.07였으며 그믐달(陰 2.28)인데다 밤에는 구름이 끼어 視野는 膝黑과 같았다. 때문에 攻者에게는 바람을 등지고도 싸우게 될 適한 風向과 氣溫이었다. 또한 다음날(12일)도 이와 비슷한 日氣를 豫報하였으니 航空支援이 수월하다고 판단되었다.

12.10에 出擊을 위한 序幕은 F-84 7개 편대에 의하여 敵 砲陣地에 napalm彈(1,000po und 50발)의 洗禮를 퍼붓는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이어서 사단의 步戰砲合同에 의한 移動掩護와 破壞射擊이 加하여 지면서 제5중대(장, 金漢成 대위)가 先發로 主攻部隊인 듯 欺瞞하면서 13.50 △689 東南쪽(400m) 溪谷으로 進出하였다. 이에 敵도 遮斷射擊으로 중대의 陣진을 가로막으려 하게 되니 彼我的 불꽃튀는 火力對決이 벌어진 가운데에도 戰列을 흐트러뜨림이 없이 躍進하여 目的地에서 散開하여 出擊부대의 翼側掩護태세를 갖추었다.

한편 出擊本隊는 제1대대장 孫榮鎭 중령의 統合지휘하에 17.20에 主抵抗線을 發進, 각 LD로 分進한 다음 同線뒤에서 잠시 戰列을 재정비하였다. 이로써 21.40에 LD를 통과한 제1 및 제3 兩중대는 奪還目標인 △689를 향하여 外郭에서 合擊態勢로 壓縮하면서 前進하였다

이때 稜線鞍部(△689 南쪽 400m)에서 제1중대의 LD通過를 推護하던 제6중대와 연대 수색중대는 연대장의 지시로 主抵抗線으로 撤收하였다.

4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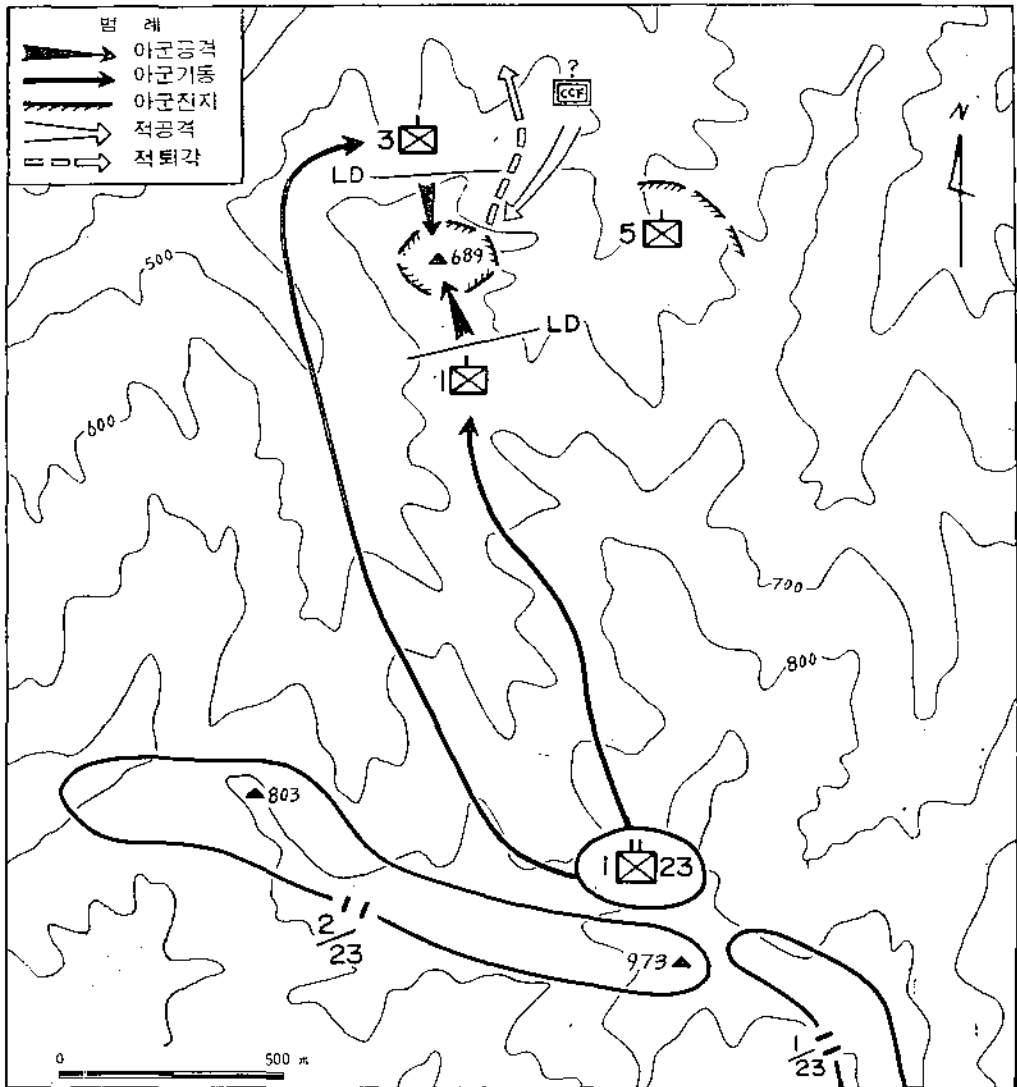
1. △689 完全奪還 : 00.48에 제1중대(장, 金益洙 대위)가 正面(南쪽)으로 躍進하여 敵前

70m까지 접근하자 이때 비로소 敵은 我의 夜間공격임을 알아차렸는지 熾烈한 砲擊과 함께 小火器射擊이 集中되었다.

중대장은 敵의 亂射를 피하기 위하여 공격을 잠시라도 停滯한다는 것은 愚策이라고 판단하고 砲擊의 延伸을 要請하자마자 敵의 火網을 뚫고 全중대가 突貫해 나갔다.

塹를 잘파기로 이름난 오랑케도 岩石에는 별도리가 없었던지 崩壞된 壕에 의지하고 있다가 我軍을 迎擊하였으므로 삼시간에 彼我間에는 白兵戰이 展開되었다. 그러나 我의 爆擊과 砲擊에 지쳤던지 銃氣에 찬 中대의 交刃數合에 四散하고 말았으니 제1중대는 00.55에

◇ 상황도 제38호 689高地 戰圖(第8次出擊)



쉽게 目標(△689)를 占領할 수 있었다.

그런데 目標(△689)를 右旋回하여 北쪽에서 挾攻하기로 된 제3중대(장, 李昊鍾 대위)는 기동거리도 멀(遠)거니와 캄캄한 森林속의 山路를 헤쳐나가야 했기 때문에 LD를 通過했을 때는 극도로 疲勞에 지쳐 있었다.

여기에 극성을 부리는 敵의 砲擊에 겹쳐 제1중대의 強打를 받은 일부의 敵이 이곳에 加勢하였음인지 當面한 敵의 小火器射擊은 시간이 갈수록 그 火力이 熾烈하기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때 敵은 중대의 強襲으로 束手無策으로 뺏긴 高地를 再탈취하기 위하여 새로운 병력을 증원하여 그 醜鋒을 제1중대와 제3중대의 間隙으로 指向하였다.

各중대는 當面한 敵과 激戰으로 一波 또 一波 溪谷으로 물리쳤으나 頂上에 있던 제1중대는 완전히 露出된 상태였으므로 그 惡戰苦鬪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다.

戰勢의 推移를 지켜보던 대대장은 제3중대가 當面한 敵이 劣勢함을 窺破하자 동중대에 게 突貫공격을 명령하였다.

중대장은 執拗하기 뱀과 같은 驕敵의 동태를 노려보다가 射擊이 잠시 뜸한 사이에 全중대가 一氣에 火線을 突破하고 달라붙는 敵을 물을 가르듯 左右로 격파하면서 突破하니 이때 정상에서 激戰中이던 제1중대도 일부가 이에 呼應하듯 收心環을 조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앞에선 銃劍으로 뒤에선 개머리판으로 뒤통수를 후려갈기니 敵은 破滅의인 타격을 받고 말았으며 이로서 △689는 제18연대의 手中으로 完全히 돌아가게 되었다.

이때를 기다리던 연대장 朴敬遠 대령은 지원된 공병 1개소대와 노무자를 急遽 동원하여 鐵條網과 地雷 등 장벽설치에 필요한 일체를 急送하여 洞窟障地를 構築하고 감히 敵이 來侵할 企圖를 포기하도록 이를 強化하였다.

이번 戰鬪에서 올린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戰 果	구 분	損 失
射 殺	45	戰 死	3
推定射殺	52	負 傷	23
傷 害	63		
捕 虜	1		

다. 전투후의 개황

11일간에 걸친 攻防끝에 제18연대가 △689를 奪還하므로써 敵의 前進據點確保의 企圖를 拒否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同高地를 얼마나 食내었던가는 기간중 類例가 보거드문 8차에 걸친 侵攻도 그러하거니와 砲兵火力의 집중정도를 보아도 미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즉 制空權이 我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敵의 日日消耗彈數가 我의 1.8倍를 上廻하고 있었으니 그들의 執拗하였던 發惡相은 극에 달하였던 것이다.

사단은 4월 19일 제5사단과 障地를 交代하였는데 그후에도 2차에 걸쳐 1개 중대규모로써 奪取를 試

圖하였으나 이때에는 이미 그들의 反擊에 充分한 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들은 殺線의 前端까지도 進擊하지 못한채 물러나는 形便이었다.

사단이 當面한 敵은 中共 제60군(既述)으로서 계속 現戰線(文登里—△572)을 扼守하면서 休戰까지 板門店의 일찌름이나 싸움터의 進退에서 그들의 발판을 다지기 위한 方便으로 有利한 據點을 占有코자 可能한 攻勢로 企圖하는 것으로 推定되었으니 실제로 6월부터 全戰線에서 攻勢를 취하였던 것이다.

이제 그 證左로서는 休戰協定의 前奏라고도 할 수 있는 傷兵交換調印이 4월11일에 체결됨으로써 休戰은 既定事實이 되었다는 점과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侵韓以來로 元山海岸에서 방어 임무를 맡았던 中共 제33사단을 그들의 편성개념상의 價例를 깨고 제60군에 추가하여 左一線 제179사단과 교체시켜 戰線을 強化하는 한편 제179사단을 뒤로 뽑아 전투훈련에 充當케 하는 등의 事實이 確認되었으니 時限爆彈에 불이 당길 날이 가까워 있음을 모든 徵候에서 推斷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18연대가 戰鬪를 치르는 동안 제22연대는 左一線에서 前方에 대한 威力搜索과 側方을 掩護하고 제23연대는 예비대로써 부대정비에 임하다가 뒤에 右一線인 제18연대의 일부지역을 담당케 하였다. 그뒤에 사단은 제2군단 作指제14호(53.4.9)에 따라 現主抵抗線의 방어임무를 제5사단에 인계하고 4월 17일 다음과 같이 각연대를 집결하여 부대정비와 교육에 임하게 하는 동시에 제2군단 배속으로 부대 해제되어 美 제8군 예비대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但 보급지원과 교육은 감독상 제2군단에 배속)

被交代部隊	交代部隊	被交代部隊集結地
제3사단사령부	제5사단사령부	용 신
제18연대	제27연대	下 芝 里
제22연대	제36연대	東 芝 里
제23연대	제35연대	四 方 巨 里

한편 부대정비중 사단내 주요인사는 제22연대장 張弼淳 대령이 陸特印 제105호 追加4(4월26일부)로 陸軍大學으로 轉出하고 後任에는 蔡命新대령이 赴任하였다.

(戰鬪詳報綜合)

구 분	戰 果	구 분	損 害
射 殺	146	戰 死	78
推定射殺	307	戰 負	223
推定傷害	2,850		
捕 虜	2		

§ 參戰者의 證言

◇ 제18연대장 朴敬遠 대령
(1976.4.7 豐田호텔에서, 豫 少將)

나는 이 戰鬪가 가장 記憶에 남는다. 將校中 半이상이 大在이상의 學歷을 가져 致養있고 無理없는 指揮를 하였고 兵士들은 古參들이었기 때문에 在職동안 한件의 事故도 없었으며 微笑를 띠우며 出戰하는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때 나는 敵이 後斜面에 洞窟을 파고 있었기 때문에 迫擊砲를 많이 活用하였다. 또한 陣內의

敵은 일부의 병력으로 陣前에 끌어내게 하여 側方에서 強打하던가 正面의 敵을 固着시키고 迂回하는 戰法을 썼다.

攻擊前에 目標와 類似한 地域에서 한두번 逆襲연습을 시켰으며 出戰할 때에는 本人과 軍牧이 武運을 祈願하는 예배를 보아 士氣를 올렸는데 信仰의 힘을 빌리기도 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死地에서 돌아온 병사들에게 고기 한 칼 못준 것이 죄스럽게 생각한다.

◇ 제18연대 제1중대장 金益洙 대위

(1976. 4. 8 東大門區驛에서, 現產業係長)

中隊 T/O가 196명인데 공격시는 85명(2계소대) 뿐이었다. 왜냐하면 본부요원, 화기소대, 기동불능한 부상자 및 환자를 제외하고 보니까 그렇다.

제3중대와 挾攻하기로 하였는데 이 중대가 敵에게 阻止되어 單獨攻擊하였다. 이때 제3소대장은 오병철 상사가 훌륭하게 지휘하였는데 평소 하사관교육에서 소대장 훈련을 시킨 보람이 있었다.

占領후의 據구측은 崑石이 많아 9부稜線에 據

를 봤는데 半은 洞窟이고 半은 露出되어 여기에는 40cm가량 九木을 쌓고 그 위에 흙으로 다졌다.

敵은 아편을 먹여 공격시킨다고 들었는데 얼음이 취한 사람모양 뿔뿔고 시간이 흐르면 白紙장갑이 死色이 되는 것을 보았다.

1주간 據생활을 하였는데 추진하는 보급은 양호하였다. (즉 고기, 담배, 설탕이 충분하였다. 이 陳述은 연대장 朴敬遠 대령과 차이가 있으나 완전점령후는 제1중대만이 방어임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 戰 訓

(1) 攻擊築城의 必要性

重要한 占領陣地는 地雷, 携帶用 鐵條網, 砂囊 등으로서 強化하는 한편 敵兵各自은 携帶상과 十字鐵 등으로 一面 射擊하면서 一面 壕를 파는 動作을 習性化시켜야 할 것이다. 이때에 夜暗과 煙幕 등을 利用하여 敵火의 威力을 輕減토록 할 것이며 한번 占領한 地步는 尺寸이라도 讓步하지 않는다는 精神教育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敵의 砲火가 熾烈하다 하여 固守할 陣地를 버리고 隨意後退하는 軍隊에 또 무엇을 期待할 수 있겠는가?

(2) 人命의 尊貴

一步一壕를 파면서 끈기있게 敵陣을 向하여 抗道作戰마저 사양치 않는 者가 眞正한 勇士라고 한다면, 敵中에 孤立된 友軍을 救出하는데 心血을 아끼지 않는 者가 眞正한 指揮官이라는 것이다. 勇士가 生命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여 指揮官된 者마저도 그 勇士의 生命을 輕視한다면 그 指揮官 밑에서 또다시 새로운 勇士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一高地의 奪取에 攻防戰을 여러번 反復하였다고 하여서만으로 決斷코 團軍의 勢威를 높일 수 없음을 어이하라, 人間은 萬物의 靈長이요 天地之間 萬物之中에 人命이 最貴라고도 하였다.

입을 벌리면 「肉彈」이라는 放言을 서슴치 않고 命을 아끼는 「死守」라는 畧說마저 濫發하

는 傾向은 戰爭哲學上의 後進性을 免할 수 없을 것이다. 血肉이 어찌 彈丸代用이 될 수 있으며 「死守」하라고 命을 살 權利는 神明以前에는 아무도 敢히 가질 수 없는 것이다.

「死守」를 命을 살 것이 아니라 死守하지 않도록 兵力과 裝備 그리고 食糧과 食水를 補給할 義務를 먼저 지켜야 한다는 趣旨이다. 「死守」가 아니라 「完守」가 最終目的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본다면 「人海戰術」이란 眞正한 用兵術이 아니라 妖術의 變種일 수 밖에 없다. 戰爭에 臨한 人命은 29年의 光陰이 必要하지만 戰爭物資는 大量生産이 可能하며 더구나 救國一念에 湧킨 精神의 所有者는 尊貴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所以이다.

(3) 逆襲시기문제

이번 戰鬪에서 연대는 高地 被奪後 평균6시간 후에 逆襲을 하였음에 반하여 敵은 1시간이내에 침습하였다.

때문에 我側에 상황이 불리하여지면 支援내지 예비병력을 최단시간내에 투입하여 敵에게 방어편성할 여유를 주지않고 신속히 탈환함이 我의 손실을 최소로 감소시키고 동시에 공격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4) 建制유지문제

연대의 逆襲부대운용에 있어서 제2 및 제4차

역습부대는 建制를 무시한 混成편성된 부대로서 지휘의 혼란을 가져왔다.

즉 敵의 상황이 아닌 이상은 많은 병력보다

§ 研 究

(1) △689의 實際높이에 對한 문제

軍用地圖上에는 689m의 高地로 되어 있으나 제3사단 『戰鬪記錄』特輯(53. 12. 1발행) 151頁에 『…△689는 실제 높이가 500m에 불과하여 사실 誤稱되었으며 敵이 占取하고 있는 △590나 △662 보다 알다』라고 記錄하였고 당시의 제2대대 S-3 姜禧錫 대위와 제1중대장 金益洙 대위(攻擊중대장)도 이와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同高地의 位置의인 條件이 이와같이 낮게 보이지 않았는가 물어진다.

즉, 첫째 我主抵抗線에서 멀리(1,500m)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三面이 敵에 둘러싸여 있어 孤立感에서 心理的으로 낮게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점과

둘째, 周邊高地(△748, △662, △590)가 連繫으로 이어 있는데다 △689 바로 北쪽(500m)山麓에 道路가 東西로 橫斷하고 있으며 또한 同高地 前斜面이 급경사를 이루어 屹立한 狀態로 보이는점.

셋째, 연대장(朴敬遠 대령)도 證言에서 그런것은 확실하지 않다 라고 함을 볼 때 兩측의 兪見은 있으나 現在 그곳은 北傀지역이기 때문에 확인 할 바 없으며 앞으로 확인하는 데로 밝히기로 하되 이戰鬪에서는 △689로 表記하고 作戰時에는 500m를 기준하였다.

(2) 제7중대 제1소대의 全滅여부 문제

(가) 소대의 埋沒: 제2군단 정훈제5호(53. 4. 30) 1頁에 의하면 『…속담 최초부대인 제18연대 제7중대 제1소대가 전멸된 주요원인도 지형상의 약점에 기인한 바 크며…』, 『戰鬪經過』 3頁에는 『…△689 배치부대인 제7중대 제1소대는 진지를 고수하여 그후 판명된 바에 의하면 대부분 洞窟진지내에서 전멸되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오히려 견계를 유지하고 지휘의 통계를 갖길 수 있는 唯一부대의 운용이 바람직한 병력운용이 될것이다.

(나) 文沅植소위의 撤收일시: 文소위는 4월 8일 無星花郎勳章이 추천되었고 姜禧錫 대위(당시 제2대대 S-3)는 證言에서 『撤收後 1週되던 날』(註: 4. 12경으로 간주) 文소위가 공격부대를 지휘하여 同高地에 올라가 4명을 救出하고…』라고 하는 것을 보아 文소위의 撤收日字는 4. 8일 이전이며 5~6명을 이끌고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埋沒한 병력은 상황이 위급하여 연락이 안되었는지, 嶽入口가 이미 막혀서 인지는 몰라도 文소위와 간격을 두고 救出된 것은 사실이다.

(다) 일부인원의 救出過程: 埋沒된 인원은 4개분대라고 하나 진상상자와 이미 탈출한 인원(6명)을 제외한다면 20명내외로 간주된다.

姜禧錫 대위와 제9중대 金彰炫 소위는 『…逆襲에 성공하고 嶽入口를 通信線때문에 찾았는데 우리다 나오라』고 소리쳤으나 「너희들은 오랑캐에게 잡혀서 이용당하고 있다」면서 不應하였는데 앞칸(間)에 있던 8명(2중4명은 노무자)은 M1총소리로보아 我軍임에 틀림없다고 생사를 걸고 나왔다(그안에서도 M1총소리를 듣고 我軍이니 나가자고 하는 측과 나가면 쏠겠다는 측과 의견이 분분하였다고 한다)기타인원은 「오랑캐에게 포로가 될 바에는 自決하겠다」고 頑強히 거부하므로 說得에 실패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으나 그들의 氣慨로 보아 몸이 성한 병사는 敵과 1:1로 格鬪끝에 壯烈하게 戰死하였을 것이고 부상자는 自決하였을 것이 틀림없다.

(라) 救出日字(8명): 姜禧錫대위는 1주후(註: 12일경), 연대장은 3, 4일후(註: 7, 8일경)로 증언하고 있으며 金彰炫 소위는 『내가 올라가서 救出하였으며… 먹지 못하여 皮膚이 相接하였더라』고 高調한 것으로 보아 제9중대(註: 金소위는 중대의 소대장임)가 4월 8일에 2차에 걸쳐 同高地를 奪還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이애가 아닌가 추측된다.

2. 883高地—973高地—949高地 戰鬪

(一名, 제5사단의 Missouri線 防禦戰)

(1953년 6월 10일부터
// // 14일까지)

참조: 별책부도 제 8 호
상 황 도 제39, 40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2군단	장	중장 丁 一 權	제1대대 장 중령 權 寧 讚
제5사단	장	준장 崔 泓 熙	제2대대 장 중령 李 炳 勳
제27연대	장	대령 崔 英 圭	제3대대 장 중령 孫 炳 用
제1대대	장	중령 崔 奎 瑄	제5重砲中隊
제2대대	장	중령 尹 泌 鏞	제3戰車中隊 2個小隊
제3대대	장	중령 車 圭 憲	제901船橋中隊
제35연대	장	대령 朴 昌 源	支援部隊
제1대대	장	소령 李 明 根	제11포병단 장 대령 金 聖
제2대대	장	소령 鄭 仁 淳	제11포병대대 장 중령 徐 楨 鏞
제3대대	장	중령 孫 介 同	제71포병대대 장 소령 金 容 今
제36연대	장	대령 高 光 道	제72포병대대 장 대위 吳 昌 德
제1대대	장	소령 朴 泰 松	美제461重迫擊砲대대
제2대대	장	중령 李 在 田	美제88, 제176, 제987포병대대
제3대대	장	소령 朴 龍 鶴	隣接部隊
수색중대	장	대위 金 鍾 仁	右隣接
工兵대대	장	소령 吳 成 龍	제20사단 제62연대 장 대령 洪 淳 龍
配屬部隊			左隣接
제22연대	장	대령 崔 炳 淳	제8사단 제21연대 장 중령 成 正 模

		敵 軍	
中共		(제 541, 제 542, 제 543연대 基幹)	
제60군	장 韋 杰	제68군	장 邱 蔚
제180사단	장 官 峻 亭	제203사단	장 楊 棟 樑
(제 538, 제 539, 제 540연대 基幹)		(제 609연대 基幹)	
제181사단	장 王 誠 漢		

나. 전투 전의 개황

本戰鬪는 休戰協定이 調印되기 7週 前인 1953년 6월 中旬에, 韋杰이 지휘하는 中共 제60군이 金剛川 南쪽의 松亭 부근에서 3개사단의 兵力을 일으켜 제2군단(장, 丁一權 中將)의 右翼으로 侵攻함으로써 惹起되는데, 이때에 군단의 右翼을 擔當한 제5사단(장, 崔泓熙 中將)이 (△883—△973—△949—三角峰 南쪽 500m線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Missouri線에서 이와 對決하여 5晝夜에 걸친 攻防血鬪를 벌이게 되는 것이다.

이 作戰地域을 좀 더 仔細히 살펴보면, 北漢江 上流와 金城川이 合流되는 三角 突出部를 基點으로 하여 그 以東으로 뻗어오른 峻脈이 魚隱山 西南쪽의 通先谷에 잇닿는 10km에 亘한 山岳地帶인데, 本是 人跡이 稀少한 險地로 灌木과 叢林이 育어진데다 700~900m 内外의 高峰이 서로 높이를 다투듯 치솟고, 깊은 溪谷과 잘남같은 稜線이 잇대어 橫的連結이 至難한 地帶이다. 뿐만아니라 機動路가 殆無하여 모두 樹林間의 狹路로 이어짐으로써 補給도 Cable Car에 依하여 推進하는 形편이며 車輛의 機動路도 北漢江 東岸에 沿한 單一路 뿐이다.

따라서 兵力과 火力 運用上의 制限條件이 많았는데, 期間中에는 降雨와 濃霧까지 겹쳐 敵情判斷이나 航空支援도 如意치 못하였다.

그렇지만 이 地域은 魚隱山 南쪽의 都皮幕까지 進出한 美제 10군단(장, Isac D.White 中將)의 左翼과 金城川 北쪽으로 突出한 제2군단의 戰線을 連繫하는 重要한 部位를 占하고 있었다.

敵軍의 狀況: 이러한 重要性에 비추어, 제5사단이 主力으로써 이 地域을 맡아 防守하던바, 中共 제60군이 6월 10일을 期하여 侵攻하였는데, 처음에는 제181사단(장, 王誠漢)을 投入하여 主抵抗線의 右半部를 圖謀코자 하더니, 14일에 다시 제180사단(장, 官峻亭)과 제203사단(장, 楊棟樑)을 增強함으로써, 都合 24,200명의 兵力을 動員하였으며, 여기에 砲兵 제21연대와 團隊號 未詳의 1個포병연대가 이를 支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戰鬪後에 밝혀진 統計에 따르면, 이들은 공격간에 82mm박격포 112문과 61mm박격포 126문에 無反動銃 89정 및 Rocket포 63문 등의 歩兵火力에 依한 支援도 同時에 받았다고 한다.

이같은 兵力과 火力으로써 군단의 右翼을 突破코자企圖한 이들은, 戰鬪直前까지 머쳐로 魚隱山 南쪽 1.5km—松亭—△572(漁雲里東北쪽 1km)간의 Missouri線 北쪽에 主力을 배치하고, 연대규모의 병력을 사단의 陣前 500~1,000m거리인 五峰稜線(△973東北쪽 1.5km)—△689—△748線으로 推進하여 사단과 對陣하고 있었는데, 4월末부터 6월 初까지는 주로 前哨線에서만 挑發하더니, 이번에는 主抵抗線까지 犯하였던 것이다.

즉, 사단이 제3사단(장, 林善洙 소장)으로부터 진지를 引受한 直後인 4월 24일에 △689에서 最初로 交戰케 된것을 筆頭로, 5월 14일에는 北漢江 東岸의 三角峰에서, 同월 15일에는 다시 △689와 五峰稜線에서 27일에는 △949北쪽의 血蓮稜線에서, 그리고 6월 3일에는 역시 △949 北쪽의 「斗京峰」(註: 제35연대 제11중대장 張斗京 대위의 勇戰을 새겨 命名한 無名高地)에서 各各 대결케 되는 등, 잇

달아 前哨陣地의 爭奪로 이어오다가 마침내 6월 10일을 期하여 주저항선으로 侵攻한 것이다.

따라서 彼我間에 많은 兵力損失을 본 상태에서 本戰鬪에 임하게 되거니와, 이들은 이번 作戰을 준비키 위하여 5월 中旬에 제33사단을 配屬받고 또한 제68군(장, 邱蔚)隸下의 제203사단을 增援받을 뿐만 아니라 6월 초에 제181사단을 뒤로 뽑아 공격준비를 하였다고 하니, 이들은 벌써 한달 전부터 이 전투를 計劃한 것으로 推測된다.

그러나, 四川省 出身인 新兵이 50%나 되고 無學者가 30%를 넘었다고 하니, 마지막 공격단계에서 병사들에게 毒酒를 먹여 突擊케 한點까지 걸들여 미루어본다면, 戰意가 弱하여 奮戰의 策책을 취두른 듯 하니, 이와는 달리 補給은 比較的 充足한 듯하였다.

我軍의 狀況: 한편 제5사단은 軍단 작전지시 제14호(53.4.9附)에 依據하여, 4월 15일 08.00를 期해 제3사단의 진지를 引受하면서부터 이 地域을 맡게 되었다.

當時에 제3사단은 4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 동안에 걸친 △689戰鬪(一名, Texas高地전투)에서 상당한 兵力損失을 보고 있었으므로, 부대를 整備키 위하여 軍단에서 當사단으로 하여금 이 地域을 引受토록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사단은 진지를 引受하는 즉시로, 崔英圭 대령이 지휘하는 제27연대를 右一線으로 하여 △883—△973—△949東쪽 500m간의 主抵抗線上 東半部에, 高光道대령이 지휘하는 제36연대는 左一線으로 △949—△739—三角峰 南쪽 500m線으로 이어지는 그 西半部에 각각 展開하는 한편 제35연대(장, 朴昌源 대령)는 北漢江 西쪽의 長財洞부근에 예비로 控置한 가운데, 隨地工事に 着手하여 主陣地의 補強은 勿論이요, 제3사단이 激戰을 치른바 있는 △689를 비롯한 五峰綫과 斗峯峰 등 前哨陣地도 더욱 強化하였다.

그런데 前述한바와같이 敵의 小規模공격이 如前히 계속되어 50餘日간의 衝突을 보게 됨으로써, 이 戰鬪 당시에는 實兵力 10,094명 가운데 新兵이 36%나 되었으며, 이 新兵은 各訓練所에서 16週間의 교육을 마치고 轉入한 병사들이었다.

그렇지만 裝備은 編制上의 100%水準을 維持하고 補給이 充足하였으며, 여기에 제11포병단(장, 金聖 대령) 隸下의 제11포병대대(장, 徐楨巖 중령)를 비롯한 제71대대(장, 金容숙 소령)와 제72대대(장, 吳昌德 대위) 그리고 제5重砲中隊와 제3戰車중대가 支援함으로써 火力面에서는 아무런 遜色이 없었다.

더구나 古兵들은, 52년 7월부터 53년 3월末까지 東部戰線에 있을 때에 △351와 外沔里 부근에서 對陣戰을 體驗한 바 있고 또한 4월 5일에 中部戰線으로 나오면서 一時 美제10군단에 配屬되어 一週間의 山岳訓練까지 마친 다음 同월 9일附로 다시 當軍단에 配屬됨과 더불어 이 地域으로 나왔던 것이니, 山岳戰鬪도 能히 堪當할수 있는 병사들이었다.

이같은 상황 아래 本戰鬪에 임하게 되는데, 初戰에 제27연대의 주저항선이 무너지자 軍단에서 제3사단 隸下의 제22연대(장, 崔炳濤 대령)를 增派하고 또한 13일에 美제461重砲대대를 增強함으로써 結局 사단은 4개연대의 兵力과 3개포병대대 및 1개重砲대대의 火力로 中共제60군과 對決케 되었으며, 여기에 美제88, 제176, 제987포대병대의 隨時支援 火力이 뒤따르고 要請에 따라 美제5空軍의 空中支援도 可能하였다.

그밖에도 軍단의 제901船橋中隊가 北漢江 西岸에서 사단을 지원하고 戰鬪間에는 右隣接인 제20사단(장, 宋錫夏 준장)과 左隣接인 제8사단(장, 宋堯讓 소장)의 砲兵들도 支援砲擊을 아끼지 않았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사단은 美제10군단에 配屬된 뒤로 山岳訓練에 注力하던바, 4월 9일附로 다시 제2군단으

로 配屬이 변경되면서, 군단장 丁一權 중장으로부터 『제5사단은 4월 15일 08.00를 期하여 제3사단의 現任務를 引受하라』는 命令(군단 작전지시 제78호)이 下達되었다.

이에 사단장 金鍾甲 소장은 즉시 隸下의 主要指揮官과 參謀들을 帶同하고 細竹堡에 位置한 제3사단의 指揮所로 찾아가, 군단의 右翼을 맡고있는 同사단의 現況을 聽取한 다음, 이어서 다시 一線 作戰地域의 偵察까지 마치고 돌아와 이 地域에 대한 防守對策을 熟議한 끝에 大要 아래와 같은 指導方案을 마련하였다(사단 作戰計劃 제6호로써 文書命令은 12일에 下達됨)

- 『① 사단은 15일 08.00附로 제3사단의 任務를 引受하여 責任地域을 방어하려 한다.
- ② 陣地引受와 同時에 제27, 제36 양연대를 左右一線으로 하고 제35연대를 예비로 한다
- ③ 同時附로 사단에 配屬된 제11포병단은 2개대대로써 一線聯隊를 直接支援케 하고 1개 대대는 一般支援토록 한다.
- ④ 제5重砲중대는 一線聯隊에 各1개소대씩 分割 배속하여 直接支援토록 한다.
- ⑤ 제3戰車중대는 現位置에서 任務를 계속케 한다.
- ⑥ 진지를 引受하는 즉시로 工事를 推進하되, 一線연대에 工兵 1個중대와 勞務團(KSC) 1개중대를 各各 配屬한다.
- ⑦ 火力計劃과 逆襲計劃 및 撤收計劃은 제3사단의 基本計劃을 그대로 引受하되, 將次 檢討하여 이를 補完키로 한다.
- ⑧ 障礙物 設置要圖를 비롯한 工事要圖와 通信網圖 및 道路網圖등 既存施設現況을 그대로 引受하되 그 未備點을 즉시 補強토록 한다.
- ⑨ 陣地交代는 夜間에 侵透하는 方式으로 실시한다.
- ⑩ 道路使用의 優先權을 一線部隊에 賦與한다』

以上과 같이 基本方針을 세운 사단은 제3사단과 協調하여 交代期間을 15일 08.00부터 19일 04.00까지 사이에 실시키로 결정한 다음, 12일 12.00附로 사단작전명령 제78호로써 아래와 같은 要旨의 交代命令을 下達하였다.

- 『① 사단은 15일 08.00부터 19일 04.00까지, 제3사단의 作戰地域을 引受하여 通先谷—△883—△973—△949—△739—△548北쪽 1km간의 Missouri線을 防禦하려 한다.
- ② 제27연대는 15일 08.00부터 18일 04.00까지 제18연대의 진지를 引受하여 通先谷—△883—△949東쪽 500m간의 右一線을 防守하라.
- ③ 제36연대는 15일 08.00부터 18일 04.00까지, 제22연대의 진지를 引受하여 △949東쪽 500m—△739—△548北쪽 1km간의 左一線을 防守하라.
- ④ 제35연대는 16일 04.00까지 제23연대와 任務를 交代하여 機動待機상태에서 小部隊 訓練을 실시하라.
- ⑤ 제11포병단은 2개대대로써 제27, 제36양연대를 各各 直接支援케 하고 1개대대는 사

· 단을 一般支援토록 準備하라.

⑥ 제5重砲중대는 15일 17.00까지 제3사단 重砲중대의 位置로 移動하되, 제27, 제36양연대에 1개소대씩 分割配屬하라.

⑦ 제3戰車중대는 現位置에서 任務를 繼續하라.

⑧ 工兵대대는 14일 12.00까지 제27, 제36양연대에 1개 중대씩 配屬하고, 移動後에 제901船橋中隊와 協調하여 北漢江 渡河點을 確保하라.

⑨ 사단 直轄隊는 參謀長의 지시에 따라 行政命令 제4호로써 指示된 場所로 移動하되, 最前線部隊의 支援에 置重하라.

⑩ 其他事項은 行政命令에 準하라.

① 사단 指揮所는 後洞에 位置하되, 16일 01.00 以後에는 細竹堡로 移動할 豫定이다』
이같이하여 진지를 引受한 사단은 軍단의 方針에 따라 現 責任地域의 固守概念아래, 第一線의 前哨陣地까지 有蓋化하고 通信線을 地下에 埋設하는가 하면 轉石—黃柄洞—舊堡간의 作戰道路를 補修하는등, 防備태세를 더욱 굳히게 되었는데, 5월 1일附로 사단장 金鍾甲소장이 美指揮參謀대학 入校次 離任하고 그 後任으로 崔泓熙준장이 赴任하였다.

그러나 新任 사단장도 基本方針에는 變함이 없이 계속하여 陣地強化에 注力하던바, 4월 末부터 시작된 敵의 陣前 挑發이 6월末에 이르러서는 激甚하여지자, 사단은 예비인 제35연대의 1個대대를 제36연대에 배속시켜 主抵抗線 左端의 一部地域(三角峰을 포함한 1km의 방어正面)을 擔當케 하는한편 五峰稜線을 비롯한 斗京峰과 必勝稜線(△739 西北쪽1km) 등 前哨진지를 더욱 強化하였다.

그리고 軍단에서도 작전지시 제27호로써 제3사단의 1個대대를 사단 戰術地域內的 △629南쪽에 位置케하여 軍단장의 承認下에 使用토록 措置하였다.

이때에도 如前히 사단의 基本概念은 現陣地의 固守로 一貫하던바, 6월 10일을 期하여中共 제60군의 主力이 侵攻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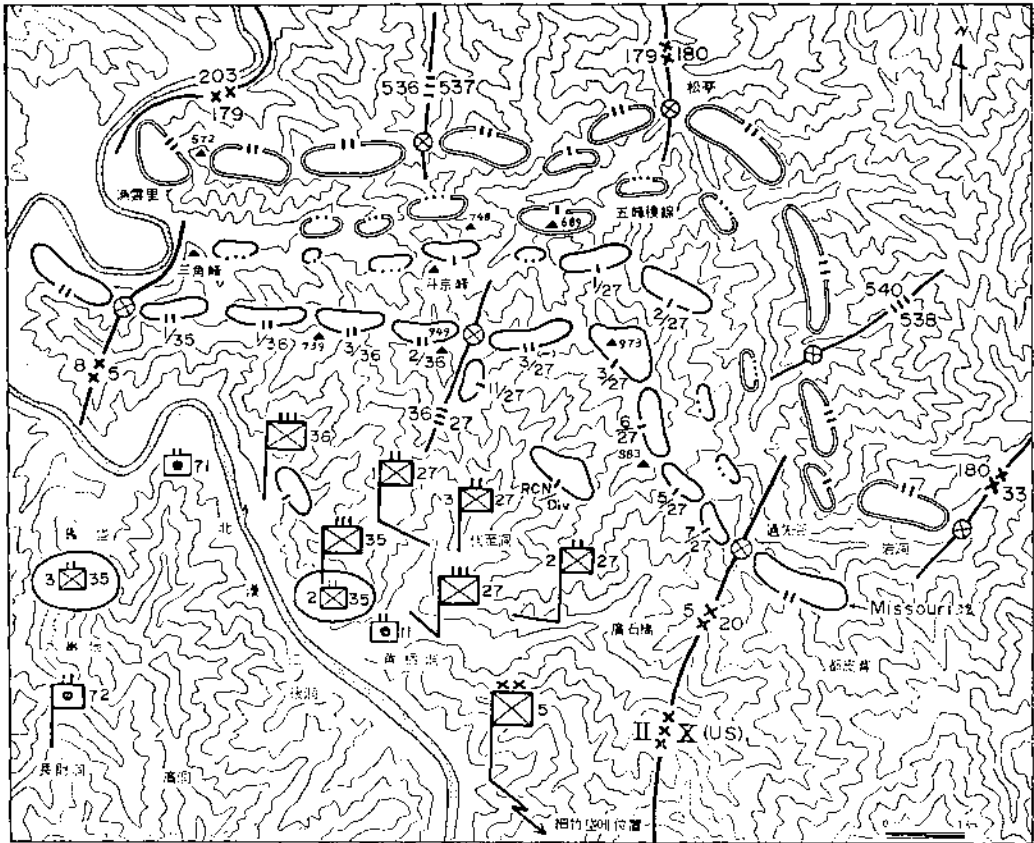
(2) 작전실시

6월 10일 : 제5사단(장, 崔泓熙 준장)은 이날도 어스때와 다를없이 日暮가 가까워지면서 一線의 제27, 제36양연대로 하여금 局地警戒組를 埋伏케하여 夜間경계태세로 들어갔는데, 當面の 中共 제60군(장, 韋杰)은 夕陽부터 散發的인 砲擊으로 戰線을 攪亂하더니, 日沒과 함께 2개연대 규모의 병력으로써 中·東部戰線에서 狂波를 일으켜 사단의 東側 방어정면으로 그 衝鋒을 指向하였다 .

1. 中共 제181사단의 侵襲

戰鬪中에 捕獲한 捕虜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 先攻部隊는 王誠漢이 지휘하는 제181사단 所屬으로서, 이날 下午에 松亭부근에 集結하여 待機하다가 날이 저물면서 五峰稜線의 東

◇ 상황도 제39호 戰前前 彼我의 配置상황



西 兩側方으로 分離, 突入하였다고 하는데, 그 侵襲樣相을 보면, 먼저 左一線인 제36연대(장, 高光道 대령)지역의 $\Delta 949$ 北麓으로 중대규모의 兵力을 投入하여 例의 高地爭奪戰을 再開한듯, 牽制하던니, 20.00를 前後하여 突然 10,000여발의 포격과 더불어 사단의 右一線인 제27연대(장, 崔英奎 대령) 正面으로 攻勢力을 集中코 그 前哨陣地선으로 밀려들기 시작하였다.

이때에 同연대는 尹泌鏞중령이 지휘하는 제2대대를 通先谷- $\Delta 883$ 北쪽 1km線에 右第一線으로, 車圭憲중령이 지휘하는 제3대대는 $\Delta 973$ 西쪽 500m- $\Delta 949$ 東쪽 500m간에 左第一線으로 각각 배치하는 한편, 제1대대(장, 崔奎瑄 중령)는 그 中央의 $\Delta 973$ 主峰에 1개 중대를 배치하고 다른 2개 중대를 前哨線으로 推進케하여 3개대대를 모두 一線에 展開하고 있었는데, 19.50에 $\Delta 973$ 東北쪽 溪谷의 제2중대 潛伏哨所에서 중대규모의 敵이 五峰稜線 東側으로 接近한다는 보고를 筆頭로, 제1중대가 맡고 있는 제1聽音哨所인 $\Delta 689$ (一名, Texas高地) 西側계곡에서 接敵信號가 오르고 곧 이어 그 東南쪽 500m의 제2청음초소에서 大대규모가 殺到한다는 急報가 逕至하는 등, 主로 $\Delta 973$ 北쪽의 前哨線에서 敵出現의 보고

가 잇달았다.

이에 연대장 崔英圭대령은 配屬中인 제5重砲중대의 제1소대로 하여금 五峰稜線과 △689一帶의 敵侵線서 砲火를 集中토록 지시하는 한편 각대대장을 電話로 불러 더욱 嚴히 警戒토록 強調하면서 敵의 動向을 注視하던바, 前哨陣地에서 1시간 20분 동안의 交戰이 계속되다가 21. 15에 제1대대장으로부터 報告되기를 『尹柱普대위가 지휘하는 제1중대가 五峰稜線 東南쪽의 無名高地에서 대대규모와 激突끝에 마침내 分散케 되었으니, 당장 陣內射擊이 火急하고, 또한 제1중대(장, 朴海寬 중위)도 △689 南쪽에서 병력을 收拾하여 지금 撤收하고 있는데 그 뒤를 따라 2개대대 규모가 △973로 殺到한다』는 憤報였다.

여기에서 留意할 점은, 당시의 前哨陣地는 通常的인 방어전에서 警戒部隊와는 달리 主抵抗線의 一部로서 固守키로 계획된 까닭에 이의 突破는 곧 第一線의 붕괴를 뜻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연대에서는 敵의 大規模 공격이 있을 것으로 豫見하고 一戰을 決할 態를 갖추고 있던바, 이로부터 砲擊이 激增하여 △973를 넘어 △883와 △949등, 주저항선 一帶에 寸步를 許容치 않을듯이 連爆하니 이로 말미암은 通信杜絕 사태의 續出로, 대대간의 側方線은 勿論이요 제3, 제6, 제10 3개 중대의 地下에 埋設한 幹線까지 끊어져 混亂을 惹起케 되었다.

이와같은 報告를 받은 사단에서는 즉각 제11포병단(장, 金聖 대령)으로 하여금 全火力을 여기에 集中토록 하는 한편, 예비인 제35연대(장, 朴昌源 대령)의 1個중대를 △973로 急派케 하였던 바, 제11포병대대(장, 徐楨巒 중령)를 비롯한 제71대대(장, 金容숙 소령)와 제72대대(장, 吳昌德 대위)는 군단의 제187포병대대와 合勢하여 VT彈으로 敵의 密集地帶에 殺傷砲擊을 加하였는데, 제35연대에서 抽出된 수색중대(장, 安昌元 대위)는 △949南쪽에서 △973로 躍進하다가 포격으로 말미암아 그 南쪽 1.2km의 溪谷에서 22.40까지 머물게 되었다.

이때에 제27연대는 예비대가 없이 全兵力을 一線에 배치한 만큼 사단의 예비로써 對處해야할 實情이었는데, 同예비인 제35연대의 主力은 險路로 6~8km나 떨어진 水洞里 부근과 北漢江 西쪽의 蘆壟부근에 分散待機하고 있는 까닭에 增援부대의 適時赴援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같은 狀況 아래 敵은 時時刻刻으로 밀려들어 21.40에는 마침내 主抵抗線에서 激突케 되었으니, △973의 主峰을 扼守한 제3중대(장, 趙容直 중위)가 五峰稜線으로 侵襲한 대대규모와 熱戰을 펴는가 하면, 그 左右 兩側方에서 분산병력을 1수습한 제1, 제2 양중대가 擊鬪끝에 그 西南쪽 稜線으로 再轉케 되는등, 연대 中央部의 제1대대가 危局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로부터 50여분이 지난 23.30에 다시 주저항선의 右端인 △883(石葬洞北쪽1km) 부근으로 2개대대규모가 侵攻하였으니, 이들은 이미 前哨陣地에서 交戰이 시작된 21.00부

터 松亭—邊岩洞을 거쳐서 通先谷 北쪽의 三叉路 부근까지 潛入한 然後에, △973의 侵襲과 때를 같이하여 右第一線 진지마저 併攻突破코자 企圖한 것으로 分析되는바, 이로 말미암아 이 지역을 擔當한 제27연대 제2대대(장, 尹泌鏞 중령)의 陣前에서도 狂波가 일어, △883 南쪽 稜線의 제5중대(장, 金仁奎 대위)와 그 北쪽 稜線의 제6중대(장, 朴昌憲 대위)가 각각 증강된 대대규모와 對決케 됨으로써, 이제 제27연대는 거의 全地域에서 激突을 보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이들 제181사단은 제27연대 지역의 공격과 竝行하여 左隣接인 제36연대 陣前으로 또다시 2개 중대규모의 병력을 投入하여 散發的으로 亂擊하였으니, 그 場所가 바로 兩聯隊간의 接境地帶인 △949 北麓인 것으로 보아, 隣接의 兵力과 火力을 抑留코자 하는 것으로 여겨지거니와, 이같은 挑發은 間歇的으로 반복되어, 21.40에 同연대의 제10중대(장, 金淳哲 대위)가 한차례 驛退한데 이어, 22.20에 그 西쪽의 제9중대(장, 鄭昌鎬 대위) 陣前에서 시작된 交戰이 이시간 현재 계속되고 있었다.

이와 아울러 彼我的 砲擊도 高潮에 달하여 閃光과 鐵火가 地空을 메우니, △949 東쪽의 山腹이 온통 불바다로 변하고 말았다.

2 973高地 및 883高地의 失陷

이상과같이 熾烈한 交戰이 거듭되는 사이에 敵은 계속 병력을 投入하여 사단규모로 增強된 反面에, 제27연대는 전혀 增援을 얻지 못한채로 6km에 달하는 방어 正面을 홀로 지키려하니, 시간이 경과할수록 漸次 不利하여 저만갔으며, 여기에 險峻한 山岳으로 말미암은 機動性의 制限과 수류탄의 欠乏등이 겹쳐 惡戰苦鬪를 치르게 되었다.

이리하여 끝내 △973의 主峰을 지키던 제3중대의 진지가 무너져 23.20부터 제1대대가 渦中에 휩쓸리게 되자 연대장 崔英圭 대령은 左第一線을 맡고있는 제3대대장 車圭憲 중령을 電話로 불러 △949 東南쪽에 配備中인 제11중대(장, 全炳烈 중위)를 △973 西쪽 800m의 無名稜線으로 急進시켜 東面陣地를 急編토록 명령하는 한편 부연대장 李南周 중령에게 제1대대를 수습토록 지시하고 또한 배속중인 4.2" 박격포소대와 △805 南쪽 稜線에서 지원하던 제3戰車중대 소속의 전차 3대를 伏至洞 溪谷으로 급히 보내 제1대대의 撤收를 掩護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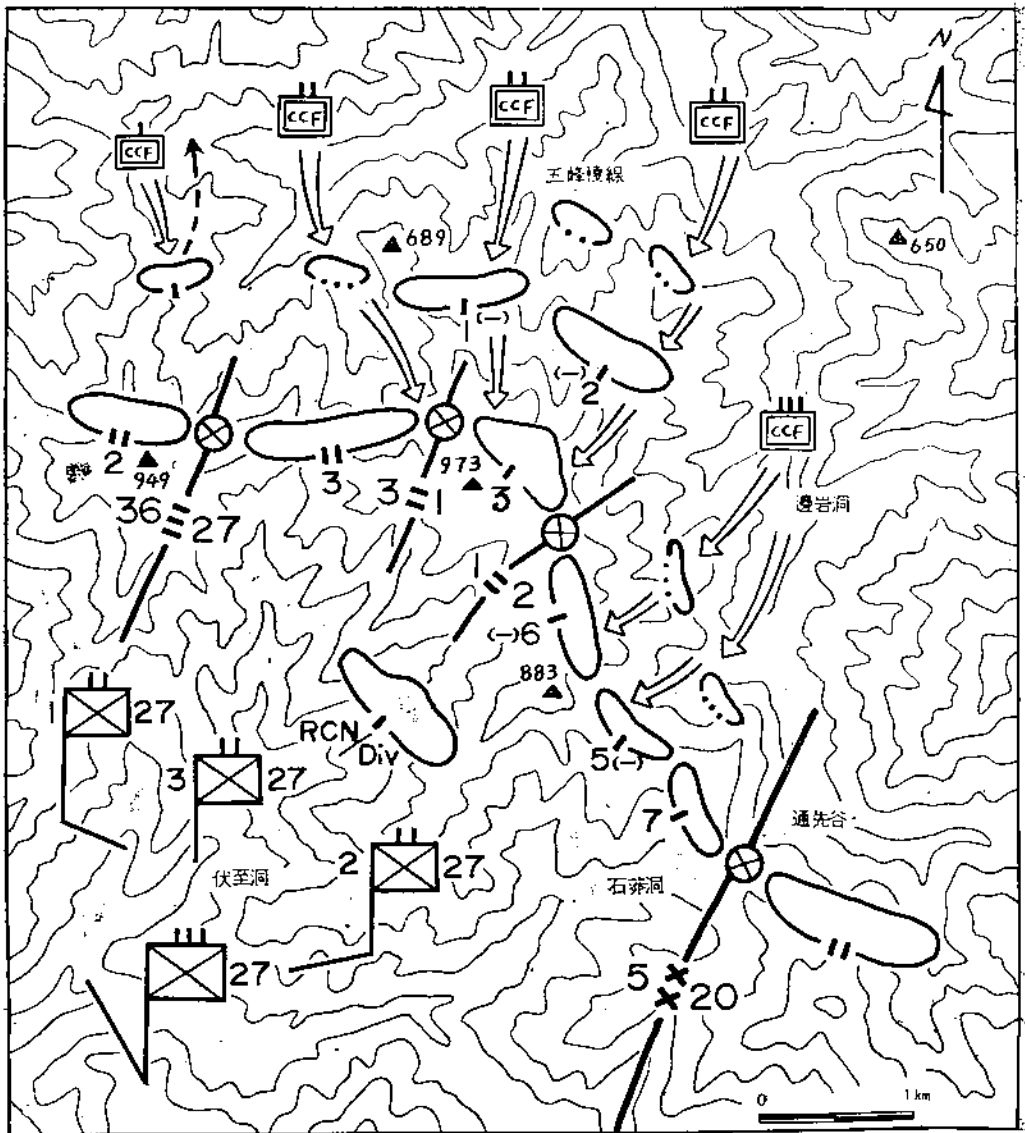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제11중대가 該無名稜線에 당도하기도 전인 23.30에 △973가 이미 敵手에 떨어져, 저들의 直射火力이 南쪽 稜線으로 指向하자, 연대장은 다시 砲兵의 制壓射擊을 요청하는 한편 연대本部要員으로 1개 전투중대를 急編케 하여 1개소대는 △615 (△973 西南쪽 1.2km)에 배치하고 다른 2개소대는 그 東南쪽으로 躍進시켜 伏至洞 계곡으로 통하는 捷路를 점령케 하는가하면 黃栢洞에서 待機中인 搜索中隊(장교 1명과 사병 37명)를 △949 東側으로 急派하여 제36연대와의 接境地帶를 補強케 하는 등, 이를 阻止키에

渾身の 힘을 기우렸다.

그리하여 제11중대가 該無名고지를 점령한 23.50을 前後하여, 대체로 △973西南쪽 1kmr. 内外의 線에서 제1, 제3양대대와 수색대 및 本部中隊토써 제2의 防守陣을 마련케 되었다.

이와같이 △973에서 紛戰이 展開되는 동안, 東側의 제2대대는 △883를 扼守코, 그 先攻一波를 무찔러 특히 제5중대(장, 金仁奎 대위)陣前에서 한차례 鐵槌를 加하는 등 主로 수류탄에 의한 陣前擊滅로 맞서오던바, 23.40을 前後하여 突然 同高地 西側의 제6중대 진지 側後方으로 一團의 敵이 나타나 背後를 強襲함으로써 同中隊의 방어진이 어이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 상황도 제40호 中共 제181사단의 침공상황



이는 △973를 점령한 敵의 一部가 △883로 連하는 稜線을 따라 侵襲한 것으로 推測되거니와, 이로 말미암아 右第一線의 防守陣도 瓦解되어 마침내 △883마저 敵의 手중에 넘어가고 말았으니, 子正이 지날 무렵에는 제6중대가 同高地 西쪽 1km의 無名稜線에, 제5중대는 그 南쪽의 石葬洞 부근에서 각각 병력을 수습하고 있었으며, 다만 제7중대(장, 尹大榮 대위)는 아직도 通先谷—石葬洞간의 右端진지를 固守하므로, 廣石橋로 통하는 要路를 막았다.

이상과같이 연대는 前半夜에 △973와 △883를 잃고, 分散兵力의 수습과 아울러 제2방어선을 구축코자 心血을 기울이고 있을때에, 左隣接인 제36연대는 △949北쪽의 敵을 擊退한 以後로 특기할 만한 戰況이 없이 現陣地를 堅守하였으며, 右隣接인 제62연대(장, 洪淳龍 대령)지역도 平穩하였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敵은 집중적인 공격으로 제27연대 지역을 劫掠하여 北漢江 東쪽의 突出部를 맡고 있는 제5사단의 撤退를 強要코자 함이 分明하였다.

6월 11일 : 이날은 月齡 3으로 片月마저 없는데다 이른 새벽부터 가랑비가 내리니, 漆黑 같은 夜暗이 大地를 덮어 咫尺을 분별키 어려운 가운데 제27연대는 分散兵力의 糾습과 逆襲준비에 心血을 기울였다.

즉, 右第一線인 제2대대는 △883에서 물러선 뒤로 제2阻止線을 急編하는 한편 부대대장 高永哲 대위로 하여금 우선 수습된 2개소대 병력을 이끌고 △883의 西斜面으로 나아가 敵情을 探索케 하고 또한 右端의 제7중대에서 1개소대를 抽出하여 通先谷 北쪽에서 接觸을 유지케 하였으며, 左第一線에서도 제3대대가 △949 東北쪽에 배치된 제9중대를 1km쯤 後方으로 뽑아 제1대대의 撤收에 따른 虛隙을 메꾸어 병력을 再調整 배치하는 동시에 제11중대의 一部의 병력으로 △973를 넘어선 敵의 動靜을 살폈다.

이리하여 01.00現在까지 把握된 敵의 배치상황을 보면, △883부근과, △973에 各各 2개대대, 그리고 그 中央의 兩高地로 連하는 稜線에 1,000여명이 도사림으로써 都合 6개대대로 推算되는 一群이 몇시간 전까지 연대에서 장악하였던 陣地線 바로 南쪽에서 一打 공격을 멈추고 再編하는듯 하였다.

1. 제27연대의 逆襲

이상과같이 연대에서 戰列을 整備하고 있을 무렵에, 사단장 崔泓熙 준장은 정보참모 河范壽 중령과 작전참모 車文錫 소령을 대동하고 제35연대의 CP인 水洞里(黃柄洞西北쪽500m)로 나와, 이보다 먼저 당도한 부사단장 韓信대령을 비롯한 각 연대장들과 함께 戰況을 검토한 끝에 사단의 예비로써 逆襲키로 決意하고 01.00附로 要旨 다음과 같은 口頭命令을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現戰線을 固守하는 동시에 一部의 병력으로 △883와 △973를 奪還하려 한다..

② 제27연대는 최단시간내에 병력을 수습하여 △883를 奪取하라.

01.00附로 사단수색중대와 제35연대 수색중대를 배속한다.

③ 제35연대는 2개대대로써 △973를 奪取하라.

01.00附로 1개대대를 제36연대에 배속하고 수색중대는 제27연대에 배속하라.

④ 제36연대는 01.00附로 제35연대의 1개대대를 統帥하여 現陣地를 堅守하라.

⑤ 제11포병단은 △883—△973 一帶에 破壞射擊을 續行하되, 逆襲부대와 緊密한 協調를 유지하라.

⑥ 其他부대는 現任務를 계속 遂行하라』

이 명령은 곧 예비인 제35연대(一)와 제27연대의 收拾된 병력으로써 逆襲키로 한것인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으니, 첫째로 第一線 上의 危急함에 비추어 예비인 제35연대의 主力은 6~8km나 떨어진 後方에 位置하는 만큼 適時投入에 時間을 要할 것이고, 둘째로, 제27연대는 反擊에 앞서 當장 分散병력의 수습과 제2선의 防備가 더 급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제35연대장 朴昌源 대령이 水洞里에 위치한 제2대대(장, 鄭仁淳 소령)와 北漢江西쪽의 舊堡부근에 있는 제3대대(장, 孫介岡 중령)을 01.30에 出動시켰으나 그 先頭가 △973西南쪽의 공격대기선에 당도한 것이 03.10이었으며, 主力이 伏至洞 北쪽에 集結하고 보니 07.00에 이르러, 결국 이날 拂曉의 逆襲은 제27연대 단독으로 실시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더구나 제27연대도 △973 西쪽에서 02.00부터 再演된 敵의 續攻으로 말미암아 左第一線의 防備가 火急하여 △883의 공격은 제2대대로 하여금 실시케 하니, 이제 겨우 병력을 수습한 同대대는 아직 戰列整備마저 未洽한 寡兵으로써 2개대대규모가 도사린 △883를 목표로 逆襲을 散行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때에 同대대는 부대대장 高永哲대위가 지휘하는 2개소대와 제7중대의 1개소대가 △883의 兩側方에서 接敵中인 것을 비롯하여, 제5중대의 증강된 1개소대(장교 2명, 사병 50명)와 제6중대의 1개소대(장교 1명, 사병 37명) 및 제7중대의 2개소대 그리고 配屬된 제2중대의 2개소대(장교 2명, 사병 72명)와 수색중대 등, 都合 3개중대규모의 병력이 있었으나 그중 제7중대는 右端陣地를 固守하고 있는만큼 실질적인 可用兵力은 2개중대에 不過한 실정이었다.

이같은 狀況하에 萬難을 무릅쓰고 反擊에 나선 대대는 이윽고 02.30을 期하여 4.2" 박격포소대의 掩護下에 △883를 목표로 밀고 올라갔는데, 그 初頭에는 敵의 큰 저항이 없이 속속 약진하여 03.40에 南쪽과 西쪽의 兩斜面에서 각각 8部稜線으로 突入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증강된 대대규모의 頑強한 저항에 부딪혀 더 이상 進展을 보지 못하고 切열한 交戦이 거듭되는 사이에 어느덧 날이 밝고 말았다.

이로부터 대대는 새로히 意氣를 돌아, 제11포병단의 誘導된 砲擊支援과 黃柄洞부근으로

轉進한 戰車소대의 直接支援 아래 力攻을 加한 끝에 제5중대의 先鋒이 敵陣 40m 직전방으로 突入하여 手榴탄 血鬪를 벌이는데 제6중대가 特攻組로써 西側의 突出綫에서 불을 쬐는 火力據點을 破砕하는등, 挺身力鬪를 다하였으나 끝내 火力의 防壁을 뚫지 못하고 指呼之間에서 停滯되던 바 10.00를 期하여 연대에서 공격중지명령이 하달됨으로써 대대는 여기에서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通先谷—△883 西쪽 200m의 線에 진지를 急編하여 防守태세를 갖추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같은 연대의 措置는 軍단에서 急派한 제22연대가 이날 아침에 赴援케 됨에 따라 사단에서 새로운 작전을 계획함으로써 취하여 졌던 것이니, 이 시간 現在 同연대의 先頭가 黃柄洞에 다다랐다.

이상과 같이 제2대대가 공격하는 동안 左第一線인 제3대대(장, 車圭憲 중령)는 △973 西쪽에서 侵攻한 大대규모와 一戰을 벌였는데, 특히 △805에서 交戰이 치열하여 이곳을 擔當한 제11중대가 한때 混淆를 빚은바 있었으나, 제9중대(장, 車東一 대위)와의 協力으로 이를 擊退하고 △805—△949간의 主抵抗線을 固守하였다.

결국 연대는 이날 새벽의 제1차逆襲에서 △883를 奪還치는 못하였으나, 兩端의 既設陣地를 포함한 제2阻止線만은 간신히 이를 確保한 셈이었다.

2. 제22연대의 增派

한편 軍단장 丁一權 중장은 이상과 같이 右翼의 제5사단이 危局에 處하자, 이날 새벽 03.00附로 軍단의 예비인 제3사단(장, 林善河 소장)에서 제22연대(장, 崔炳淳 대령)를 뽑아 제5사단에 配屬시키고 동시에 사단장 崔泓熙 준장에게 『제22연대를 統合指揮하여 當面의 敵을 驅逐한고 △883—△973간의 原陣地를 恢復하라』는 要旨의 口頭命을 하달하였다(文書命은 軍단작전지시 제31호로서 後達됨).

이와 아울러 그는 또한 萬一의 경우에 對備키 위하여 제1103野工團(장, 梁宗益 대령)으로 하여금 舊堡 東北쪽의 北漢江 西岸에서 그 東岸의 100번 道路와 連한는 鐵板橋를 敷設토록 하고 黃柄洞—後洞間に 一梁의 徒步橋를 增設케 하였다.

이에 따라 제22연대는 長財洞에서 急遽 第一線으로 向發하였는데, 06.00에 수색중대가 後洞에서 黃柄洞으로 渡河한 것을 先頭로, 08.20에 제3대대, 09.00에는 제1대대 그리고 09.30에는 제2대대가 續續渡江하여, 09.50에 연대의 主力이 黃柄洞 부근에서 전투태세를 갖추었으며, 제1103야공단에서는 제502舟橋中隊로 하여금 鐵板橋를 敷設케 하였던 바, 05.00에 착수하여 17시간만인 이날밤 20.00에 168Feet의 M₂철판교를 完成하였다.

이렇듯 제22연대가 配屬되자, 이를 契機로 사단에서는 새로운 작전을 計劃하였으니, 즉: 徹夜激戰을 치른 제27연대로 하여금 △883의 공격을 一扈 중지하고 제2선으로 물러서도록 措置하는 한편, 이날 새벽에 伏至洞 北쪽 溪谷에 집결하여 待機中인 제35연대(제1대대缺)

의 黃柄洞에 集結中인 제22연대로써 △973와 △883를 奪還키로 決心한 것이다.

이리하여 제35연대(一)는 이미 下達된 명령에 따라 現地에서 곧 △973를 공격케 하고 제22연대는 제27연대 제2대대의 攻擊任務를 引受하여 △883를 奪取토록 하니, 이제 사단은 2개연대의 병력으로 제2단계 恢復作戰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3 제22연대의 883高地 攻擊

前述한 바와 같이 제22연대의 主力이 黃柄洞에 당도한 것은 09.30이었다.

이때에 △883에서는 아직도 제27연대의 제2대대가 血鬪를 벌이고 있었는데, 同高地一帶에는 2개대대 규모의 敵이 버티고있는 실정이었다.

이같은 상황아래 공격명령을 받은 제22연대장 崔炳淳대령은 于先 伏至洞 東쪽 溪谷으로 先進한 수색중대로 하여금 제27연대 제2대대의 戰線을 引受하여 敵의 動靜을 窺視토록 한 然後에 각 대대에 任務를 부여하였는데, 權寧讚 중령이 지휘하는 제1대대는 右第一線에서 廣石橋—石葬洞을 거쳐 同高地의 南斜面을 直衝케 하고 孫炳用 중령이 지휘하는 제3대대는 左第一線에서 그 西斜面으로 突入토록 한는 동시에 제2대대(장, 李炳勳 중령)는 伏至洞 東北쪽 溪谷으로 後續하여 別途命令을 待機토록 部署한 다음 10.00를 期하여 一齊히 躍進토록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11.00에 主力으로써 제27연대 제2대대의 進지를 超越한 연대는 △883에서 西南쪽으로 떨어진 無名稜線을 사이에 끼고 그 東西 兩側方에서 一齊히 突進하던바, 目標를 1km쯤 남겨놓고 敵의 彈幕地帶에 부딪쳐 一瞬의 混戰을 빚은바 있었으나 이를 신속히 통과한 다음 躍進과 匍匐으로 이은 끝에, 13.00에 그 100m 直前方으로 突入하였는데, 여기에서 다시 증강된 대대규모의 棒狀수류탄과 기관총 交叉射擊의 저항에 막혀 치열한 火力對決을 보게되었다.

이로부터 進展없는 交戰이 2시간 30분동안이나 계속되다가, 王虎대위가 지휘하는 제3대대가 東端의 火力據點을 破碎한 15.30을 전후하여 제1대대가 主力으로써 突擊을 敢行한였으나 30分 동안에 걸친 血鬪도 보람없이 原位置로 물러서고 말았으며, 左第一線인 제3대대도 끝내 突擊線을 넘지 못하고 現地에 釘着된채로 死傷者만이 늘어갔다.

이러는 사이에 어느덧 19.00가 되어 사단에서 공격중지 명령이 하달되자, 연대는 한걸음 더 뒤로 물러서서 敵陣의 150m內外의 거리를 두고 防守태세를 취하였는데, 제1대대는 △883의 東南쪽에, 제3대대는 그 西쪽에, 그리고 제2대대는 그 西北쪽의 無名稜線에서 각각 進지를 急編하였으며, 17.00附로 연대에 배속된 제27연대의 제2대대는 如前히 通先谷 부근의 東端進지를 固守한 가운데 이와 戰線을 連繫하였다.

4 제35연대의 973高地 攻擊

한편 제35연대(장, 朴昌源 대령)는 △973를 공격케 되었는데, 現在 제1대대는 제36연대

에 配屬中인 만큼 제2, 제3양대대만으로써 이를 強襲키로하되, 鄭仁淳 소령이 지휘하는 제2대대는 右第一線에서 伏至洞 溪谷을 따라 그 東南斜面을 直衝케 하고 孫介同 중령이 지휘하는 제3대대는 左第一線에서 제27연대 제3대대의 진지를 超越하는 즉시로 그 西斜面에 突入케 하여 兩側方에서 挾攻토록 조치하였다.

그리하여 07.30에 LD(대체로 $\Delta 973$ 西南쪽 1.6km內외의 無名稜線에 連하여 設定됨)를 躍出한 兩大隊은 雨注하는 砲火를 뚫고 突進한 끝에 먼저 제3대대가 $\Delta 805$ 를 넘어 목포인 $\Delta 973$ 의 西北稜線으로 突入하던바, $\Delta 805$ 를 떠난지 100m도 채 못되어 증강된 중대규모가 亂射하는 소화기 火力과 左右側方에서 불을 토하는 기관총 交叉 射擊 그리고 60mm박격포의 彈幕사격까지 配合된 集中火力에 부딪혀 여기에서 激突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이미 $\Delta 973$ 를 장악한 敵이 사단의 反擊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그 捷路인 이 부근에 兵力과 火力을 重點配置한것으로 추측되거니와, 이로 말미암아 11.00가 넘도록 熾烈한 교전이 반복되다가 火網을 뚫고 포복진진한 제10, 제11양중대가 手榴彈 投擲거리로 육박하여 11.20에 突擊을 감행하였는데 여기에서 다시 수류탄 저항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하고 $\Delta 805$ 로 물러서고 말았다.

이에 대대장 孫介同중령은 제9중대(장, 金龍賢 대위)를 增派하여 13.00附로 再攻擊케 하였던바, 이도 또한 魔의 突出稜線에서 停滯된 채로 火力對決만이 거듭되었다.

이러는 사이에 伏至洞 계곡으로 躍進한 제2대대(장, 鄭仁淳 소령)는 $\Delta 973$ 의 直南方으로 突入하여 14.20부터 수류탄 공격을 加하였는데, 意外에도 그 主峰에는 2개소대 규모가 몇군데의 據點에서 寡兵으로 抗拒하는지라 李芳洙대위가 지휘하는 제7중대가 先頭에서 喊聲도 드높이 陣內로 뛰어들어 一擊에 이를 무찌른 끝에 1명의 俘虜를 사로잡고 12具의 遊棄屍體를 확인함과 아울러 15.40에 이 高地를 奪還하였다.

이리하여 여기에서 사로잡은 捕虜를 訊問하여 본 결과, 이 者는 中共 제181사단 이하의 제543연대 제2대대 所屬으로서, 29세인 常王安이라 하는데, 그 所屬部隊의 主力이 전날밤에 侵襲한 제541연대의 陣地를 引受케 됨에 따라 이날 새벽에 一線에 나와 여기에 배치되었다고 하며, 이들은 장차 $\Delta 805$ 를 圖謀코자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하였다.

그야 어떻든 대대에서는 主力으로써 진지를 構築하는 한편 제6중대(장, 禹台命 대위)의 1개소대를 抽出하여 아직도 西北쪽 稜線에서 제3대대의 進路를 막고있는 頑敵을 挾攻토록 하였던바, 同중대의 제1소대가 西北쪽으로 向發한 16.00부터 敵의 砲火가 集注하여 마치 山腹을 무너뜨릴듯이 連爆하니, 追擊小隊의 발길이 막히고 死傷者가 續出하여 진지구축이 더디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2시간이 흐르자 마침내 敵은 증강된 대대규모로써 逆攻侵襲하였으니, 아직 진지를 築지 못한채 이와 대결케된 대대는 18.00부터 50분동안에 걸친 激突을보 이다가 끝내 防守陣이 무너져 100m쯤 뒤로 물러서서 새로운 阻止陣地를 占領하기에 이르

렀다.

그런데 이와 때를 거의 같이 하여 사단장으로부터 『작 연대는 19.00附로 공격을 중지하고 夜間配備토록하라』는 要旨의 口頭命令이 하달됨으로써 연대는 여기에서 이날의 공격을 일단 멈추어 제3대대를 △805로 反轉시킨 다음, 제2, 제3양대대로써 △973南쪽 100m—△805선에 진지를 急編하는 한편 17.00附로 연대에 配屬된 제27연대의 제3대대로 하여금 그 西側에서 戰線을 連繫케 하여 경계태세로 들어갔다.

5 제27연대의 任務轉換

이상과같이 제22, 제35양연대가 공격하는 동안, 제27연대(장, 崔英奎 대령)는 主抵抗線의 左右양측방에 배치되어 있는 제2, 제3양대대의 一部병력을 現地에 남긴채로 그 中央地帶에서 廣石橋—伏至洞—△949南쪽 2km의 線에 收容陣地線을 設定코, 전날밤 以後의 分散된 兵력을 수습하여 본 결과 14.00現在까지 掌握된 兵력은 다음과 같았다.

즉, 제1대대가 장교 13명에 사병이 246명, 제2대대의 제6중대가 40명, 그리고 제3대대의 제9, 제11양중대 混合兵力이 장교 2명에 사병 133명, 수색중대가 장교 2명에 사병 63명으로서 都合 499명이었으며, 後送된 負傷者가 장교 5명과 사병 221명이었다.

결국 연대는 兩端據點을 固守하고있는 제2대대의 제5, 제7양중대와 제3대대의 제10중대를 除外한 可用兵力이 3개 중대규모 밖에 안되는 형편이었다.

이에 연대에서는 15.30부터 제1대대의 收拾된 兵력을 再編하여 伏至洞 부근의 中央地帶에 縱深陣地를 編成하는 한편, 제2, 제3양대대의 收拾兵力을 각각 本隊로 復歸시켜 主力과 合勢케 하였던바, 17.00附로 사단에서 연대의 任務를 轉換하여 『中央의 縱深陣地만을 專擔하고 前記 兩大隊를 現地の 공격부대에 分割配屬시키라』는 要旨命令이 하달됨으로써 同時附로 제2대대는 제22연대에, 제3대대는 제35연대에 각각 指揮權을 넘겨주고 제1대대와 搜索中隊단으로 제2防守陣을 편성케 되었다.

이리하여 崔奎鎭중령이 지휘하는 제1대대가 그 任務를 맡아 伏至洞을 中心으로 그 東北쪽 稜線에 제2중대, 西北쪽 稜線에 제3중대를 각각 배치하는 한편 제1중대는 伏至洞 부근이 예비로 待機시킨 가운데 진지를 구축하던바, 20.45에 2개소대 규모가 突然 제2중대 陣前에 나타나 挑發하자 이를 驅逐한 다음 예정된 진지작업을 마쳤다.

그런데 이들 挑發分子들은, △973 南쪽의 無名稜線에 布陣한 一部로서, 사단의 動靜을 探索키 위하여 第一線으로 推進된 搜索隊인 것으로 推測되었다.

6월 12일 : 전날 공격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사단은, 再攻擊 준비로 바쁜 하루밤을 보내고 이날 拂曉에 다시 奪還作戰을 續行키로 하였으니, △883와 △973가 敵中에 있는 限△949를 비롯한 北漢江 東쪽의 突出戰線에 脆弱部가 생겨 現 Missouri線의 防守가 危殆할 뿐만 아니라 軍단 右翼의 主抵抗線을 再調整해야 하는 문제까지 야기되는 만큼, 사단으로

시는 여하한 損失을 치르더라도 기필코 이를 恢復키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하여 補給의 未盡과 機動의 制限 그리고 이를째 계속된 가림비로 말미암은 許多한 문제점등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강력히 推進하여 전날과 다른없이 제22연대는 △883를, 제35연대는 △973를 각각 탈취키로 다짐하였다.

1. 제22연대의 제2차 攻擊

제22연대(장, 崔炳淳 대령)는 이날도 계속하여 △883를 공격케 되었는데, 전날 제1, 제3 兩대대로써 이를 集中的으로 攻擊하였으나 地形上의 不利와 頑強한 抵抗으로 말미암아 뜻을 이루지 못하였던 前轍을 밟지않고자, 이날은 제1대대(장, 權寧讚 중령)로 하여금 石鼻洞 北쪽에서 그 主峰에 도사린 敵을 抑留토록하는 한편 제3대대(장, 孫炳用 중령)와 伏至洞 東北쪽에 待機中인 제2대대(장, 李炳轍 중령)로써 그 背後를 強襲하여 敵陣을 兩斷함으로써 이를 一擊에 奪取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제11포병단(장, 金聖 대령)에서 砲擊을 延作한 C4.00에 一齊히 躍出한 연대는 △883 北쪽 稜線으로 主攻을 指向코 근접에 근접을 거듭하여 C4.50에 그 西北쪽 700m의 狹路를 넘어선 다음 該無名稜線으로 突進하던 바, △883와 △973의 中央地帶에 布陣한 增장된 大隊규모가 盲射의 불길을 휘두르며 進路를 막자, 左第一線인 제2대대가 이를 달아 正面공격을 加하고 그 동안에 中央第一線인 제3대대는 東南쪽으로 突出하면서 △883의 西側으로 突入하였다.

이로부터 연대는 모든 힘을 集中하여 力攻을 加한 끝에 제3대대가 同高地 西側에서 30m 거리까지 육박하여 2개중대 규모의 敵陣에 手榴彈 공격을 加하던 바, 突然 左第一線에서 混亂이 야기되어 C7.40부터 제2대대 병사들이 어지럽게 溪谷을 뛰어 내리기 시작하였다.

이는 △973南쪽에서 出擊으로 移行한 2個대대 규모의 敵이 伏至洞 계곡으로 侵襲하여 제2대대를 挾攻함으로써 戰列이 瓦解되었던 것이니, 이로부터 戰況은 急轉하여 08.30에는 同대대의 主力이 1.5km이상 밀리는가 하면 제3대대마저 逆包圍속에 빠져 退路가 막히고 말았다.

이에 연대장은 제1대대장 權寧讚중령에게 『1개중대를 △883西南쪽으로 急進시켜 小路부근에 掩護陣地를 점령토록 지시하는 한편 제2, 제3 兩대대를 이날 아침의 攻擊待機地點으로 撤收토록 조치하였던바, 제3대대는 40분동안의 格鬪끝에 包圍圈을 뚫고 그 西쪽 1km의 無名稜線으로 反轉하여 C9.30부터 병력을 수습케 되었으나, 제2대대는 크게 分散되어 伏至洞과 廣石橋 北쪽의 道路부근까지 병력이 흩어지게 되었으니, 이날 아침 연대의 공격은 어이없이 挫折되어 오히려 分散병력을 수습해야 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

이러한 가운데에도 배속중인 제27연대 제2대대단은 東端의 陣지를 固守하여 09.00에 通

先谷 부근으로 侵攻한 中대 규모를 擊退함으로써 이같은 掩護 아래 前記 兩 대대는 병력을 겨우 수습하여 10.10 現在 대체로 陣地線을 確保케 되었다.

2 제35연대의 제2차 攻擊

한편 제 35연대(장, 朴昌源대령)는 두번째로 $\triangle 973$ 을 공격케 되었는데, 現在 연대의 主力이 바로 岡高地 西南쪽의 無名稜線 부근에 位置하는데 비하여 배속중인 제27연대의 제3대대는 멀리 $\triangle 949$ 東쪽에서 제36연대와 連繫한 既設陣地를 扼守하고 있는 까닭에 陣地와 距離를 따름없이 제2, 제3兩대대로써 이를 挾攻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04.00에 拂曉機動을 시작한 연대는 嶮谷과 叢林을 헤쳐 進躍을 거듭한 끝에 제2대대가 먼저 右第一線에서 06.30에 그 中腹을 넘어선 다음 連爆하는 砲火를 뚫고 步一步로 前進하여 그 8部稜線으로 육박하던바, 2개대대 규모가 側射과 斜射 그리고 수류탄 등의 불길울 휘둘러 07.40부터 여기에서 激突을 보게 되었다.

이때에 제6중대장 禹台命대위는 東側의 死角地帶로 병력을 유도하여 08.20에 突擊을 감행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원위치로 물러서고 말았으며, 朴俊用중위가 지휘하는 제5중대도 血路를 뚫고 그 中央部에서 50m直前方으로 突入하여 挺身攻擊을 가하였으나 끝내 이를 突破하지 못하고 小隊長 1명을 포함한 13명의 部下를 잃고 말았다.

이같은 血鬪가 거듭되고 있는동안, 左第一線인 제3대대는 金龍賢대위가 지휘하는 제9중대를 先頭로 하여 $\triangle 973$ 의 西北稜線으로 밀고 올라갔는데, 여기에서도 증강된 대대규모의 頑強한 저항에 부딪쳐 陣地의 對峙線에서 停滯케 되었으니, 연대의 全般의인 戰況은 새로운 後續策이 뒤 따르지 않는 限 이를 打開키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무렵 中共 제181사단은 이를 看破한듯, $\triangle 883$ 와 $\triangle 973$ 의 中央地帶로 2개대대 규모의 兵力을 投入하여 제22, 제35연대간의 虛隙을 뚫고 그 背後를 急襲케 하는 동시에 $\triangle 973$ 의 主力을 들어 攻勢로 移轉하였으니, 突然 상황이 急變하여 연대의 兩大隊가 오히려 敵中에 逆包圍되는 상태에 이르렀고 말았다.

이로 말미암아 제2대대가 크게 分散되어 南쪽溪谷으로 뛰어 내리니 그뒤를 追擊한 一部の 무리가 伏至洞 부근에까지 이르렀으며, 左第一線인 제3대대도 $\triangle 805$ 로 急히 反轉하였으나 逆攻에 밀려 混亂속에 빠지게 되었다.

이때가 09.10으로, 이로부터 견잡을 수 없이 戰況이 기울자 연대장 朴昌源 대령은 嚴命을 내려 兩대대로 하여금 伏至洞 北쪽 1.5km- $\triangle 805$ 線에서 이들 醜虜를 阻止토록 號令하는 동시에 연대수색중대와 配屬中인 제27연대 제3대대의 1개중대를 $\triangle 805$ 南쪽으로 急進시켜 東面陣地를 急編케 하고 分散兵力을 收拾케 되었다.

이리하여 10.30에야 겨우 陣地線에서 隊伍를 가다듬게 되었는데, 아직도 中대 규모의 무리가 東側後方의 伏至洞 계곡을 橫行하자 제27연대의 제1대대와 協同으로 이를 단

숨에 覆滅하고 말았다.

이렇게 되고보니, 이날 연대의 공격은 실로 어이없는 一戰이 되고 말았으며, 敵을 攻撃하되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敎訓을 남긴 一局面이기도 하였다.

3 사단장의 決心

이상과 같이 제22, 제35兩연대가 이날 공격에 나섰으나 오히려 逆攻에 밀려 紛戰이 거듭되고 있을 무렵인 09.30에 美제8군 사령관 Taylor 대장(6월 10일 附로 大將昇進)과 군단장 丁一權 중장이 關係參謀를 帶同하고 사단의 임시 指揮本部인 水洞里로 來訪하였다.

이 자리에서 Taylor 대장은 戰況을 聽取한 다음 사단장 崔泓熙 준장에게 現狀況下에서의 사단장의 腹案을 물었는데, 그는 즉석에서 期必코 原陣地를 回復하겠다는 決意를 表明함과 아울러 火力增援을 요청하였다.

이 말을 들은 Taylor 대장은 한동안 熟考하는듯 하더니, 『그럼 잘해보라』는 激勵와 함께 군단장 丁一權 중장에게 4.2"박격포 1개대대를 지원하여 주도록 지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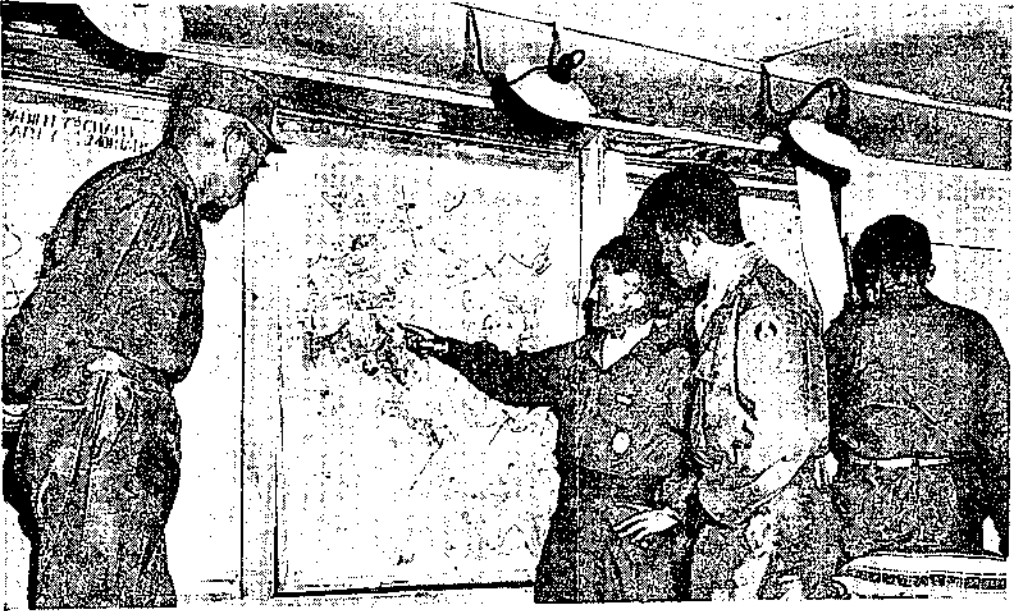
이로부터 사단은 再攻撃 준비에 着手하여 제22, 제35兩연대로 하여금 다시 공격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사단 敎育隊를 戰鬪대대로 임시 편성하여 黃柄洞으로 急遽 推進하고 제3戰車중대와 제5重砲중대의 火力을 再調整 배치하였으며, 또한 군단장의 지시에 따라 13.40부터 增援된 美제461重砲대대를 北漢江 東岸에 放列시켜 一般支援토록 하는등, 이제 總兵力과 火力을 들어 決戰에 임할 태세를 갖추었다.

그러나 第一線의 樣相은 舊態依然을 찢지 못하여 特히 △973를 공격하다 물러선 제35연대는 당장 병력수습이 더 急한 情形이었으니, 同연대의 제2대대는 아직도 半以上の 병력이 分散상태에 있고, 제3대대는 現兵力으로서 △805를 지키기에 дох겨운 실정이었다.

그뿐 아니라 彈藥補給도 뒤따르지 못하여 수류탄이 不足한데다 携帶한 小銃彈도 빗물에 젖은 흙투성이가 되어 不發이 잦아 8發 一東에 5~6발밖에 쓰지 못하는 정도였다.

이같은 狀況아래 13.30을 期하여 再攻撃을 실시하라는 명령을 받은 兩연대장은 곧 그준비에 착수하여, 右一線인 제22연대는 사단의 方畵대로 推進하였으나, 제35연대는 前述한 바와같은 實情으로 말미암아 그 施行이 遲延되었다.

즉, 제35연대장 朴昌源대령은 現 收拾兵力으로서는 再공격키 어려운 것으로 判斷한 나머지 △949東쪽에 있는 제27연대의 제3대대와 △805의 제3대대를 交代시켜 이 配屬대대를 主攻으로 삼아 再舉키로 腹案을 세우고 사단장에게 그 時間餘裕를 달라고 建議하여 承認을 얻은 다음 이 兩대대를 먼저 交代시켰는데, 12.00부터 시작된 진지교대가 17.00에야 끝나 보니, 사실상 연대의 이날 두번째 공격은 그 準備만으로 그쳤으며 이에 따라 이날 下午에는 제22연대 단독으로 △883를 공격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戰況을 검토하는 사단장 崔泓熙 准장〉

4 제22연대의 제3차 攻擊

제22연대(장, 崔炳淳대령)는 이윽고 13.30을 期하여 세번째로 $\Delta 883$ 를 공격케 되었는데 各大隊가 모두 150명 이상의 兵力損失을 본데다 特히 제2대대(장, 李炳轍 중령)는 이날 아침 紛戰中에 過半數의 兵力을 잃어 아직 隊伍를 가다듬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同제2대대로 하여금 現陣地에 남아 残余 兵력을 收拾하면서 敵의 逆襲에 對備케 하고, 제1, 제3兩대대로써 挺進攻擊을 敢行키로하였다.

이리하여 兩대대에서 各各 挺進突擊隊를 편성하는 즉시로 攻擊信號를 올렸는데, 權寧謨 중령이 지휘하는 제1대대는 $\Delta 883$ 의 南斜面으로 指向하고 孫炳用 중령이 지휘하는 제3대대는 그 西斜面으로 攻圍하여 砲火를 쏘고 躍進에 躍進을 거듭한 끝에 14.10에 그 8部稜線으로 突入하였다.

여기에서 特攻隊가 先頭에 나서, 金錫鎭 대위가 이끄는 제1중대가 一齊히 手榴彈을 뽑아 들고 敵陣에 뛰어들자 뒤를 이어 王虎대위가 『突擊앞으로!』를 외쳤으며, 이와 때를 거의 같이하여 西斜面의 제10중대(장, 李在信대위)와 제11중대(장, 朴允八 대위)도 呼應攻擊에 나서는등, 양대대의 主力이 身命을 걸고 挺身力攻을 加하였다.

그러나 敵의 수류탄 저항이 頑強하여 쉽게 뜻을 이루지 못하고 死傷者만 續出케 되었으며, 攻者보다도 防者의 數가 더 많으니 이 싸움은 勝算을 期待하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斷念하지 않고 양대대는 再攻擊을 준비하던바, 14.40에 突然 西北쪽 溪谷에서 500餘名이 나타나 제3대대를 逆包圍하려 하였다.

이로부터 戰況은 새로운 樣相으로 접어들어, 제1대대가 △883의 敵을 抑留하고 제3대대는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와 대결케 되었는데, 15. 10에 연대장으로부터 撤收命令이 下達되었다.

이는 사단장의 공격중지 명령에 依據한 措置였거니와, 이에 따라 兩대대는 서서히 轉進케 되었는데, 제11포병단의 砲火가 西北쪽 溪谷의 敵이 密集한 地帶에 効力射를 퍼부었다.

이때에 사단장 崔泓熙准장은 現局面의 打開策을 摸索한 끝에 左一線인 제36연대를 뽑아서 恢復作戰을 續行키로 腹案을 세우고, 이 地域을 제27연대로 하여금 引受케 할 豫定으로, 兩연대장에게 그 準備命令을 下達하였다.

이것은 곧 現在의 力不足을 認定하여 제22, 제35兩연대로 하여금 제2阻止線을 지키게 한 가운데 제36연대로써 超越攻撃을 實施할 方針이었으니, 이제 사단은 4개연대를 모두△883와 △973의 奪還作戰에 사용케된 셈이었다.

6월 13일 : 이날은 예정대로 제27, 제36兩연대가 사단의 方針에 따라 이른 새벽부터 陣地를 交代하기 시작하였다.

1 제27연대의 左一線陣地 引受

제27연대(장, 崔英圭 대령)는 사단의 左一線 陣지를 引受코자 새벽 04. 00부터 機動하여 대체로 06. 00까지 黃柄洞 부근에 集結하였는데, 이에 앞서 각대대에 下達한 陣지교대명령의 概要를 보면, 車圭憲 중령이 지휘하는 제3대대를 右一線으로 進出시켜 △949부근의 제36연대 제3대대 陣지를 引受케하고 崔圭植 중령이 지휘하는 제1대대는 中央第一線으로 나가, 同연대 제2대대와 交代케하는 동시에 제2대대(장, 尹泌鏞 중령)는 左第一線에서 同연대 제1대대의 陣지를 引受케하여, 개3대대로써 △949—三角峰 南쪽 500m간의 4km에 達하는 戰鬪正面을 방어키로 하였다.

따라서 연대는 豫備가 없이 全兵力을 第一線에 展開케된 셈인데, 現在 可用兵力이 1,500여명밖에 안되는 실정에 비추어 볼때 據點防禦를 실시하지 않는 限 사실상 예비를 保有키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같은 難題를 안고 左一線 地域으로 진출한 각대대는 13. 40에 제2대대가 三角峰과 必勝峰을 포함한 △629 西北쪽의 陣지를 引受한것을 先頭로, 14. 00에는 제1대대가 그리고 14. 20에는 제3대대가 각각 責任地域으로 進入하여 陣지편성에 着手하였는데, 그동안에 敵은 散發的인 砲擊으로 이를 방해코자 하였으나 큰 損失없이 대체로 16. 00까지 兵力과 火力을 配置한 다음 固守태세로 들어갔다.

여기에서 留意할 點은, 地勢가 峻峻하여 甚한 機動的 制限을 받게된 문제인데, 특히 제3대대는 △949東쪽에서 그 西쪽으로 移動하는데 있어 깊은 溪谷과 칼날같은 稜線이 가로막힌데다 敵의 瞰制下에서 움직이려하니 後方으로 크게 迂回하여 무려 8시간이나 所要되었던

것이며 이것은 곧 本作戰地域의 特性을 말하여 주기도 하였다.

어떻든 그뒤로 연대는 搜索中隊를 陣前에 推進시켜 敵情을 探索하였으나 特記할만한 상황이 없이 날이 지물어 夜間경계태세로 들어갔다.

3 제36연대의 攻擊準備

한편 제36연대(장, 高光道대령)는 陣地를 引繼한 뒤로 主力을 黃柄洞부근으로 뽑아 다음 作戰에 對備코자 전투태세를 갖추었는데, 이미 사단에서 明日 拂曉에 △883와 △973를 同時攻擊키로 計劃한 바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각 대대에 그 準備命令을 하달하여 目標地域 後方으로 展開시켰다.

즉 朴龍鶴소령이 지휘하는 제3대대는 廣石橋로 나아가 待機하다가 別途命令에 依하여右一線에서 △883를 탈취키로 하고, 李在田 중령이 지휘하는 제2대대는 左一線에서 △973를 奪還토록 하는 동시에 제1대대(장, 朴泰松 소령)는 △949 南쪽에 控置키로 豫定하여 각 대대로 하여금 日沒과 더불어 集結地로 移動케 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제3대대는 廣石橋로, 제2대대는 伏至洞으로 그리고 제1대대는 伏至洞 北쪽 溪谷으로 각각 進出하였는데, 이에 따라 연대 OP도 △629에서 水洞里 뒷산으로 자리를 옮겨 戰鬪展開에 따른 指揮體制를 갖추었으며, 美제461重砲대대의 1개중대도 黃柄洞 東쪽으로 前進하여 支援태세를 갖추었다.

그런데 이때에 當面의 敵은 전날 두차례에 걸친 激戰이 끝난 뒤로, 계속 沈默을 지키더니, 이날 18.00를 넘어서면서 2개중대 규모의 兵力을 △883 南쪽의 제22연대 正面으로 投入하여 散發的으로 挑發하자 同연대의 제2대대가 一擊을 加하여 이를 물리치고 달았는데, 특히 河昌均 대위가 지휘하는 제7중대가 追擊하여 2명의 俘虜를 사로잡아 訊問하여 본 결과 이들은 제181사단 隸下의 제542연대 所屬이라고 하니 이로 미루어 본다면 이들 제181사단은 지금까지 確認된 제541연대와 제543연대 그리고 제542연대 등, 全兵力을 △883—△973간의 이 좁은 지역으로 投入하여 발악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22.00를 前後하여 또한차례 이번에는 대대규모가 연대의 제1대대 지역인 伏至洞 北쪽에서 挑發하자 1시간 동안의 交戰끝에 擊退하였는데, 그 뒤로는 特別한 敵情이없이 警戒態勢를 취한 가운데 다음전투를 준비하였다.

6월 14일 : 사단은 이날 제36연대로써 黎明攻擊을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當面의 中共제 181사단은 이를 미리 窺察한듯, 이보다 먼저 새벽 02.00에 先制攻擊에 나섬으로써 예기치 않은 시간에 △883부근에서 먼저 激突을 보게 되었다.

1 敵의 先攻

深夜를 도와 사단의 東側方에서 兵力을 이르킨 敵은 △883南쪽으로 그 衝鋒을 指向코,

제22연대의 中央部를 突破코자 함으로써 이곳을 擔當한 제3대대 地域에서 不時에 激突케 되었는데, 이들은 初頭에 대대규모의 兵力으로 그 中央第一線인 제11중대(장, 朴允八 대위)의 진지를 集中的으로 공격함에 따라, 交戰 30분만에 同중대가 混戰에 빠져 白兵對決을 벌이고 있던바, 02.40에 다시 300여명이 그 西側의 제9중대(장, 金中煥대위) 陣前으로 밀려들기 시작하였다.

이에 연대에서는 同대대로 하여금 現陣地를 固守토록 嚴命하는 동시에 可用한 모든 火力을 여기에 集中케하여 敵線에 鐵火를 퍼부었는데, 이와 배를 같이하여 제11포병단(장, 金 鏞 대령)에서도 一齊히 砲門을 열어 이를 強打하니 이들은 불바다로 변해버린 이 無名稜線 一帶에서 1시간 30여분 동안을 헤메다가 03.00를 前後하여 △883쪽으로 退却하고 말았다.

그뒤로 이들은 한동안 沈默을 지키다가 04.10에 다시 대대규모의 병력을 들어 이번에는 그北쪽의 제2대대 地域으로 侵犯하였으니, 제7중대(장, 河昌均 대위)의 陣前에서 04.20부터 手榴彈對決을 벌이는가 하면 바로 그 西側의 제5중대(장, 崔得健대위)도 중대규모와 어울려 格鬪를 벌이고 또한 交戰이 시작된지 40분이 지난 05.00부터는 그 東쪽의 제9중대지역에서도 血鬪가 再演되는등, 연대의 中央地域에서 連續的인 攻防대결이 反復되었다.

이리하여 硝煙에 덮인 山麓에서 1시간 20여분동안의 激戰이 거듭되다가 敵이 後續兵力을 投入한 06.30을 전후하여 끝내 제2대대의 防守陣이 무너져, 제5, 제7兩중대가 伏至洞 東北쪽 稜線으로 물러서게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그 西端의 제6중대(장, 吉胤郁 대위)가 敵中에서 홀로 全面防禦태세를 취한가운데 苦戰을 치르게 되었다.

그러나 天明과 더불어 砲兵의 効力射에 의한 強力한 火力지원을 받은 연대는 側後方으로 侵襲한 敵을 強打하여 그 進出을 阻止함과 아울러 左端의 제6중대를 撤收시켜 本隊와 合勢케 하고, 또한 제1, 제3兩대대의 戰線을 再調整하여 10.30現在, 대체로 △883南쪽1km—同高地西쪽 1.3km—伏至洞 東北쪽 稜線으로 連하는 線에서 一旦 隊伍를 整備케 되었는데, 이때에 敵은 지난 전투에서와는 달리 △883쪽으로 물러서지 않고 바로 陣前 100~150m 北쪽에서 대결태세를 취함으로써 이제 연대는 △883를 완전히 내놓고 그 南쪽에서 이와 對陣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이날 拂曉의 一戰에서 연대는 亂戰을 치르면서도 敵에게 甚한 打撃을 加함과 아울러 67具의 遺棄展體를 확인하고 기관총 1정을 비롯한 각종小銃 11정을 鹵獲하는등서 4명의 捕虜를 사로 잡았는데, 그중 분대장격인 劉福振(22세)이란 者의 陳述에 따르면 自身은 제181사단 隸下의 제543연대 제3대대 所屬으로 이날 새벽에 공격명령을 받고一線에 나왔다고 하는바, 지금 새로 增援부대가 당도하여 공격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날 아침 08.15에 사단의 左一線인 제27연대 地域에서도 同연대의 제9중

대(장, 車東一 대위)가 搜索中에 1명의 포로를 잡았는데, 이者は 29歲인 許信車라는 士兵으로 제203사단 예하의 제609연대 所屬이라고 하니, 이 團隊號는 지금까지 確認되지 않은 새로운 것으로, 제68군의 隸下部隊임이 判明되었거니와, 이로 미루어 본다면 敵은 장차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는 것으로 推測되었다.

2. 사단의 作戰轉換

이렇듯 第一線의 狀況이 突變함에 따라 各級指揮官이나 參謀들은 한결같이 공격보다도 現陣地의 防守가 더욱 時急하다고 意見을 모았으며, 연대장들은 사단장에게 이를 建議하기에 이르렀다.

當時의 副師團長 韓信 대령은 後日 證言에서 밝하기를 『이날 밤에 敵의 攻勢가 있으리라는 것은 거의 確實했으며, 戰鬪經驗을 갖인 지휘관이면 누구나 그 攻擊方向이 어디로 指向하리라는 것까지 짐작할 수 있는 狀況이었다』고 述懐한 바 있는데, 제27연대장 崔英圭 대령도 『敵의 攻擊이 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며 이에 反하여 우리는 많은 병력損失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信念으로써 싸울 決意을 굳하고 있었다』고 回顧하기도 하였다. 어떻든 이와 같이 狀況이 새로운 局面으로 접어들자 사단장 崔泓熙 준장은 攻擊計劃을 一旦 留保하여 後圖를 策하기로 결정짓는 동시에 現戰線을 固守키로 하였다.

즉, 제22, 제35, 제27 3개연대로 하여금 現主陣地를 固守토록 하는 한편 제35연대를 그 直後方의 제2선으로 推進하여 縱深陣地를 編成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35연대는 主力을 제2선으로 推進하여, 제3대대(장, 朴龍鶴 소령)를 廣石橋—伏至洞 東쪽 1km의 線에, 제2대대(장, 李在田 중령)는 伏至洞 左右 兩側方의 無名稜線에 각각 배치하는 한편 제1대대(장, 朴泰松 소령)는 △949 南쪽에서 제2대대 진지와 連繫한 東面陣地를 편성케 하였으며, 그동안 一線 3개연대는 진지를 補修하여 防守態勢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3. 中共 제60군의 總力攻勢

敵의 攻勢徵候가 加重됨에 따라 사단에서는 진지를 계속 補強하면서 그 動靜을 注視하던바 이날 晝間에는 特記할 만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더니, 日暮가 가까워지면서 내리기 시작한 가랑비와 더불어 이윽고 18.00에 그 先頭가 나타났다. 즉, 通先谷 北쪽에서 사단의 東側方을 威力搜索하던 제22연대의 수색중대(장, 金應烈 대위)로 부터 敵出現 보고가 들어왔는데, 지금 邊岩洞부근에 나타난 2개대대규모의 醜虜가 △833로 뛰어오고르 있으며 그 뒤를 이은 또다른 一群이 通先谷쪽으로 直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사단에서는 즉각 非常에 突入하여 對決태세를 취하는 한편 제11포병단(장, 金鎧 대령)의 野砲를 비롯한 美제416重砲대대와 射程이 미치는 歩兵砲까지 合勢하여 이 一帯에集

中擊을 가하던바, 18.20부터 다시 各聯隊에서 接敵報告가 잇달아 逕至하여, 19.30까지 速報된 그 侵攻狀況을 종합하여 보면, △883 北麓의 2개대대를 先頭로 △973北쪽에 1,500여 명과, △949 北麓에 1,000여명, 그리고 그 西쪽의 △739北斜面에 2개대대 규모와 左端의 三角高地 부근에 연대규모 등 都合 11개대대의 兵力이 사단의 全地域에서 狂波처럼 밀려 들었다.

그뿐 아니라 이로부터 敵의 砲擊이 山腹을 메워 彼我的 集中砲火가 곧 地殼을 무너뜨릴 것만 같았는데, 그 射擊方向이나 同時集中 密度로 보아 적어도 2개이상의 團級砲兵이 지원하는 것으로 推斷되었다.

戰鬪後에 綜合分析에서 밝혀진 바이지만 이때에 敵은 제60군이 主軸이 되어 제68군 隸下的 제609연대를 增援받아 3개사단의 병력으로써 本戰鬪에 임하였다고 하니, 아마 中共 제60군(장, 韋杰)은 이 一戰에 總力을 기울여 勝敗를 賭한 것이 分明하였다.

따라서 이로부터 中東部戰線에 血雨가 霏霏하는가운데 無名稜線과 險山幽谷에서 激戰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3 제22연대의 戰況

이때에 제22연대(장, 崔炳淳대령)는 사단의 右一線을 맡아, 대체로 石葬洞—△883西南쪽 1.3km—伏至洞 東北쪽의 無名稜線으로 連하는 3.5km의 防禦正面에 3개대대를 배치하여 固守태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18.20에 右第一線인 제1대대(장, 權寧讚 중령) 地域으로 2개대대 규모가 侵襲한 것을 先頭로, 그 西쪽의 제3대대(장, 孫炳用 중령) 陣前으로 2개대대 규모 그리고 西端의 제2대대(장, 李炳轍 중령)지역으로 1개대대규모 등 都合 5개대대규모의 胡虜가 거의 때를 같이하여 陣前으로 殺到하였다.

그런데 연대는 지난 11일 03.00附로 當사단에 配屬된 以來 3일동안에 걸쳐서 △883에서 激戰을 치르는 동안 500여명의 兵力損失을 본데다 이날 拂曉에 또 한차례 苦戰을 치른 상태에서 이 衆敵과 맞서게 되니 오직 精神力으로 버티어 이를 擊退키로 다짐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19.00에 제6중대(장, 吉鳳郁 대위)가 △973 南쪽 稜線에서 밀려드는 先鋒을 擊破하고, 19.40에는 제10중대(장, 李在信 대위)가 △883를 넘어선 第一波를 破摧하는등, 初戰에 그 氣勢를 꺾은바 있었으나, 例의 波狀侵攻으로 말미암아 20.00를 넘어서면서부터 戰勢가 크게 기울러, 中央第一線인 제3대대가 混戰속에 빠지고, 20.30에는 제1대대 지역에서 陣内の 白兵對決로 化하는가 하면 左端의 제2대대와는 交信이 끊어지고 말았다.

이로부터 연대의 全地域에서 混亂이 惹起되어 견잡울수 없이 狂波에 휩쓸리고 말았으니 22.30에는 제1대대의 陣지가 무너져 廣石橋부근으로 밀리는가 하면, 그 一部の 兵力이 隣接인 제62연대(장, 洪淳龍 대령)지역으로 分散케 되고 또한 22.50에는 끝까지 버티고 있던 제3대대 陣지마저 崩壞되어, 이제 연대는 사실상 戰線을 잃고 말았다.

이 무렵 사단에서는 全般적인 戰況을 검토한 끝에 現戰線을 固守키 어려운 것으로 내다 보고, 主力을 北漢江 西岸으로 뽑아 Iceland線(△748—後洞—北漢江 西岸—△462—金城川으로 連하는線)에서 整備키로 결정하여 다음날 00.50附로 각 연대에 撤收命令을 下達하였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제2선의 제36연대로 하여금 急遽 北漢江 東岸으로 轉進하는 즉시, 橋頭堡를 確保하여 主力의 철수를 掩護토록 하였다.

그러나 연대에서 이 命令에 接하여 集結地인 廣洞—水串地線(北漢江 西쪽 2km)으로 轉進코자 할 무렵에는 兵力이 四散되어 中隊 또는 小隊別로 各個 分散케된데다 敵의 先頭가 伏至洞을 넘어섰으니, 이같은 渦中에서 收拾에 힘쓰던 제1대대장 權寧讚 중령이 戰死하고 무작정 강물에 뛰어든 一部の 兵士가 激流에 휩쓸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苦戰中에도 心血을 기울여 병력을 수습한 연대는 다음날 04.00에 還財谷으로 集結하여 사단에서 指示한 廣洞—△780—水串地간의 진지를 점령케 되었는데, 여기에서 隊伍를 整備함과 아울러 사단에 配屬된 以後의 戰果와 損失을 확인하여 보니, 敵 射殺 472명에 俘虜 8명을 捕獲하기도 하였으나 연대에서도 장교 7명을 포함한 109명이 戰死하고 장교 19명과 사병 372명이 戰傷을 입었으며 사병 68명이 失蹤된 형편이었다.

5 제35연대의 戰況

제35연대(장, 朴昌源 대령)는 사단責任地域의 心臟部라고 할 수 있는 △949를 포함한 中央一線을 맡아 배속중인 사단 搜索中隊를 제22연대와의 接境地帶인 伏至洞 西北쪽 稜線에 배치하고 그에 連하여 △805—△949東쪽 500m간의 中央第一線에 제3대대를, 그리고 △949에는 제1대대를 각각 배치하는 한편, 그동안 激戰을 치른바 있는 제2대대는 그 直後方에 豫備로 控置한 가운데, 對峙태세를 취하고 있던바, 21.20에 △949北麓으로 1,500여명이 侵襲하면서 부터 鏖戰이 시작되었다.

本是 이高地는 本作戰 地域의 中心部에 있는 主峰으로서 四周의 여러山峯을 瞰制하고 細徑이 모두 여기에 연결되어 彼我間에 이를 重視하여 왔는데, 그간에 敵은 이를 항상 눈위의 혹으로 여기면서도 地勢가 險峻하고 障地가 堅固하여 감히 挑戰하지 못하던니, 이날은 새로히 增援된 것으로 알려진 中共 제180사단의 主力을 投入하여 이를 掠取코자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鏖戰부터 激突을 보여, 同高地 西斜面의 제2중대(장, 朱秀雄 대위)가 2개대대 규모와 熾烈한 手榴彈의 應酬을 벌이게 되었는데, 紛戰이 시작된지 20분만에 다시 增強된대대규모가 이에 加勢하여 점차로 累卵의 危機에 빠지게 되었으며, 22.30에 또 다시 2개대대규모가 그 東側의 제1중대(장, 金燦辰 대위)陣前으로 侵攻하여 集中的으로 이 高地를 劫

掠코자 함으로써 兩中隊는 亂戰鬪를 치르게 되었다.

이같은 混戰이 1시간 10분동안이나 계속되다가 23.40을 前後하여 끝내 兩중대의 진지가 무너져 醜虜가 $\Delta 949$ 를 넘어서게 되었으니, 이를 收拾코자 힘쓰던 제3중대장 朱秀雄 대위가 여기에서 戰傷을 입고, 高地를 뛰어내린 병사들이 어둠속에 分散케 되었으며, 이로부터 狂波에 휘말려 子正이 가까울 무렵에는 敵의 先頭가 同高地 南쪽800m의 無名稜線까지 占領하기에 이르렀다.

이때에 제3대대(장, 孫介同 중령)는 $\Delta 805$ 에서 22.00에 敵의 先鋒을 한차례 擊退한 뒤로 계속하여 진지를 固守하고 있던바, 이상과 같이 左第一線진지가 崩壞되어 危局에 빠지자 主力으로써 反轉코자 하였는데 雪上加霜으로 右隣接인 제22연대의 主抵抗線마저 무너져 敵의 重圍속에 떨어지고 말았으니, 이를 突破코자 先頭에나선 제9중대장 金龍賢 대위가 戰死하고 兵力이 크게 홀어지게 되었으며, 또한 이를 掩護하던 제2대대의 제5중대도 敵中에 말려 중대장 朴俊用 중위가 奮戰中에 散華하였다.

이렇듯 苦戰을 치르고 있을 무렵에 사단장으로부터 『연대는 15일 00.50을 期하여 轉石으로 撤收하되, 現地에 當到하는 즉시로 Polar線($\Delta 1065$ 西쪽 1km—轉石西쪽의 北漢江東岸)을 점령하고 次後作戰에 對備하라』는 要旨의 口頭命令이 下達되었다.

이리하여 힘써 兵力을 收拾한 연대는 다음날 01.00부터 撤收하기 시작하여 04.00에 黃柄洞을 거쳐서 07.00에 轉石에 當도하는 즉시로, 제2대대를 $\Delta 1,065$ (轉石東쪽 3km)부근에 제1대대는 $\Delta 748$ (廣石橋南쪽 1.8km)로 각각 推進 配屬하는 한편 제3대대는 甘雨里로 뽑아 再編토록 하였다.

6 제27연대 의戰況

한편 제27연대(장, 崔英圭 대령)는 左一線진지를 引受한뒤로, $\Delta 949$ 西쪽 500m—三角峰南쪽 500m간의 3.7km에 達하는 방어正面에 3개대대를 모두 展開하여 防守태세를 취하고 있던바, 21.30에 右第一線인 제3대대(장, 車奎憲 중령)지역에서 먼저 交戰이 시작되었다.

이들 先攻部隊는 $\Delta 949$ 로 侵攻한 무리와 같은 所屬인 제180사단 隸下의 一部兵力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初頭에 대대규모로써 제10중대(장, 陳基範 중위)진지를 突破코자하다가 痛擊을 받게 되자, 21.50에 다시 2개대대규모의 병력을 投入하여 集中 공격에 나섬으로써, 22.00를 넘어서면서부터 제3대대의 거의 全地域에서 激突케 되었다.

그런데 이와 때를 거의 같이하여 다시 左第一線인 제2대대(장, 尹泌鎰 중령)陣前으로 연대규모가 侵攻하였으니, 이들은 제203사단에 하의 제609연대인 것으로 알려졌거니와, 그 兵力도 大規模인데다 攻擊手法 마저 殘惡하여 아무리 무절려도 盲射의 불길을 휘두르며 自軍의 屍體를 덮고 陣前으로 밀려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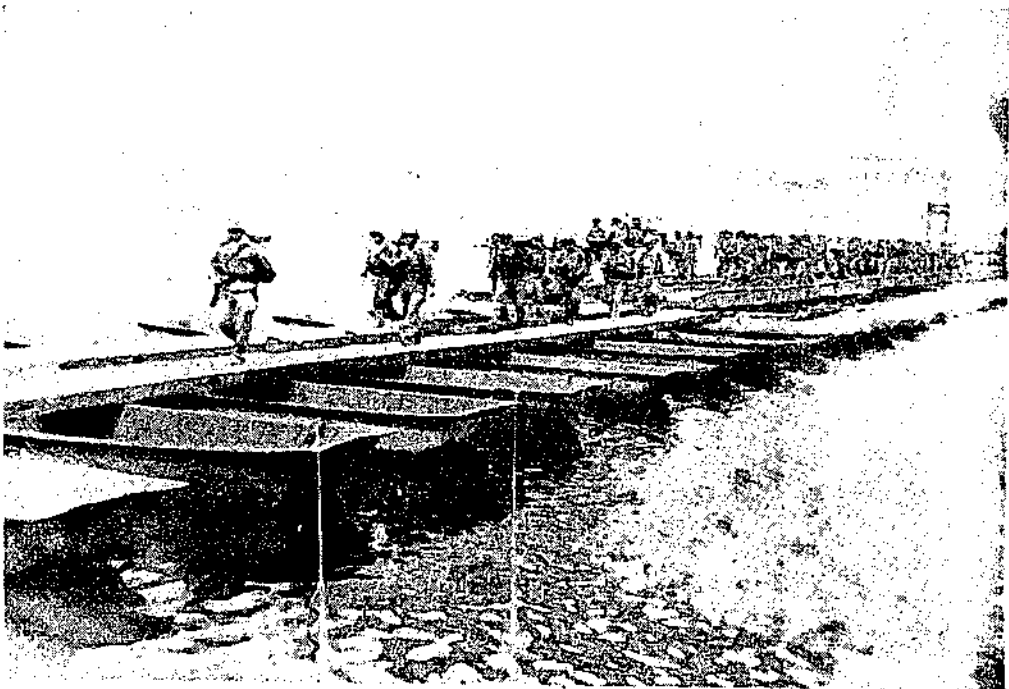
戰鬪後에 밝혀진 바이지만, 이때에 敵은 미리 毒酒를 마시고 朦朧한 상태에서 高地를 기

어울랐다고 하니 屠戮의 效果를 높이기도 하였으나 寡衆의 對決은 곧 陣內의 混戰으로 化하여, 金仁奎 대위가 지휘하는 제5중대와 尹大榮 대위가 지휘하는 제7중대가 渾身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不拘하고 交戰 40분만에 진지가 무너져 一大混亂을 惹起케 되었다.

이로부터 戰況이 急轉하여 제2대대의 分散兵力이 △548 南쪽으로 밀리게 되자, 연대장은 中央의 제1대대(장, 崔奎植 중령)를 現配置線으로부터 1km南쪽의 △629로 뽑아 水洞里로 通하는 要線을 遮斷케 하는 한편 西側方에서 撤收하는 병력을 掩護토록 하였던바, 23.30을 넘어 서면서 突然 右第一線인 제3대대의 兵力이 △629東側 溪谷으로 뛰어내리기 시작하였다.

이는 △949西側의 主抵抗線이 崩壞됨에 따라 右第一線마저 狂波에 휩쓸리고 말았던 것이니, 이제 연대는 주저항선의 防守보다도 제2선의 配置가 時急하여, 힘써 兵力을 모아 △629를 中心으로 阻止線을 構築키에 心血을 기울였는데, 이때에 사단장으로부터 『귀연대는 北漢江 西岸으로 渡河하여 後洞-△462간의 Iceland線을 占領하라』는 要旨의 口頭命令이 하달되었다.

그러나 연대에서 이 命令을 接하였을때에는 敵의 先頭가 △629西쪽의 100번 道路부근까지 侵襲한데다 分散兵이 水洞里로 밀리고 있는 까닭에 연대장은 斷案을 내려, 아직도 敵中에 있는 제2대대로 하여금 北漢江 西쪽의 舊壘로 撤收케 하고, 제1, 제3兩대대는 甘雨里로 集結케 하였으니, 이는 敵前渡河가 至難할것으로 判斷한 나머지 兩대대를 一旦 後方으



<北漢江의 徒步橋를 건너는 將兵>

로 뽑아 迂回, 轉進키로한 조치였거니와, 이에 따라 제2대대는 現地에서 바로 北漢江을 건너 다음날 03. 10에 舊堡에 當到하는 즉시 江西岸에 진지를 마련하였으며, 제1, 제3兩대대는 甘雨里로 集結한다음 04. 30에 다시 사단 指揮所가 位置한 細竹堡로 移動하였다.

그런데 이무렵 軍단장의 지시에 따라 제3사단의 제18연대가 北漢江 西岸의 진지를 占領키 위하여 出動하고 있었으므로 사단에서는 計劃의 一部를 修正케 되었으며 연대도 結局 現地에서 사단의 예비로 그 任務가 變更되기에 이르렀다.

7. 사단장의 措置

이상과 같이 主抵抗線의 3개연대가 모두 激戰中에 있을때에 사단에서는 可能的 모든 火力으로써 이를 支援하면서 戰況의 推移를 注視하던바, 23. 00를 前後하여 到處에서 戰線이 무너져 무려9개의 突破口가 생기는가 하면 左端의 제27연대 제2대대가 敵中에 包圍되고 또한 一部의 敵이 伏至洞 계곡으로 밀려들기 시작하였다.

이에 사단장 崔泓熙 准장은 急命을 내려 △629 南쪽에 設置運用하던 633Feet의 Cable car를 爆破토록 하는 동시에 제36연대(장, 高光道 대령)로 하여금 現陣地를 固守함과 아울러 1개중대를 △629 南쪽으로 急派하여 掩護진지를 점령케 하고, 또한 工兵대대장 吳成龍 소령에게 別途命命에 依하여 北漢江에 敷設되어 있는 橋梁을 폭파할수 있도록 準備하라고 지시하는등, 危局을 打開코자 奔忙하였으나, 戰勢는 時時刻刻으로 기우러 子正이 가까울 무렵에는 絀잡을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 말았다.

바로 이에에 軍단장 丁一權 中장도 一線의 戰況을 檢討한 끝에 現狀況으로서는 軍단 右翼의 Missouri線을 防守키 어려운 것으로 斷案짓고, 제5사단으로 하여금 一旦 부대를 Iceland線으로 뽑아 △748—後洞—北漢江 西岸—△462간의 新陣地를 占領하라는 口頭命命을 下達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장은 15일 00. 01附로 要旨 다음과 같은 撤收命命을 하달하였다.

(사단作命 제80호로서 文書命命은 後達됨)

- 『① 사단은 15일 00. 50을 期하여 現Missouri線에서 Iceland線으로 撤收하는 즉시, △748—後洞—北漢江 西岸—△462간에 新陣地를 編成하려 한다.
- ② 제27연대는 北漢江 西岸으로 撤收하여 後洞—△462간의 Iceland線을 占領, 방어하라. 左隣接인 제8사단과 △462에서 接觸을 유지하라.
- ③ 제35연대는 現地에서 撤收하여 轉石에 集結하는 즉시로 Polar線(△1, 065西쪽 .1km—轉石 西쪽의 北漢江 東岸)을 占領하라.
- ④ 제36연대는 △748—△319간의 Iceland線으로 轉進하여 主力의 撤收를 掩護하는 동시에 右隣接인 제62연대 진지에 連繫한 防禦陣地를 構築하라.
- ⑤ 제22연대는 北漢江 西岸으로 河渡하여 廣洞—△780—水串地간을 점령, 방어하라.

- ⑥ 工兵대대는 각연대에 分割配屬中인 各中隊를 被配屬부대와 同途撤收케 하고, 別途指示에 依하여 橋梁및 道路를 爆破할수 있도록 준비하라.
- ⑦ 제5重砲중대는 轉石으로 移動하여 제36연대를 支援하라.
- ⑧ 제3戰車中隊는 主力의 撤收를 掩護한다음 轉石으로 이동하여 제36연대를 支援하라.
- ⑨ 通信中隊는 新陣地를 점령하는 즉시로 有線의 疏通이 可能케 하라.
- ⑩ 사단指揮所는 細竹垵에 위치한다」

이상과같이 명령을 하달한 사단장은 主力의 撤收에 따라 다음날 새벽 02.00附로 舊垵北쪽의 徒步橋와 黃柄洞-後洞간의 道보교를 각각 폭파케 하였는데, 같은 시간에 軍단의 第1103野工團(장, 梁宗益대령)에서도 舊垵 東北쪽의 鐵板橋를 폭파하였으며, 이어서 03.00에 M₁A₁門橋와 M₂短艇 門橋를 爆破하였다.

그리고 制限된 單一 機動路로 말미암아 미처 철수치 못한 一部の 重裝備를 폭파케 되었는데, 03.00를 넘어서면서 敵이 黃柄洞부근까지 侵襲하자 美제461重砲대대는 거의 全裝備를 現地에서 破壞하고 兵力만 撤收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混亂속에서도 사단은 힘써 병력을 收拾하여 續續 轉進한끝에 다음날 03.30에 제36연대가 △748北쪽 500m-△319南쪽 300m간에 陣지를 急編한 것을 先頭로 07.00까지 全兵力이 Iceland線을 占領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軍단에서 제3사단을 右翼으로 推進하여 北漢江 西쪽의 Iceland線을 擔當케 함으로써, 이 地域을 同사단에 引繼함과 아울러 15일 08.00附로 제22연대를 原隊로 復歸시키고, 사단은 江 東쪽의 戰鬪正面面을 맡아 제36연대로 하여금 이를 擔當케 하였다.

이로서 사단은 本戰鬪를 一坦 매듭짓고 冤讐의 恢復作戰을 기약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이 戰鬪의 終結과 더불어 美제8군사령관 Taylor대장은 中東部 戰線을 補強하였다. 즉, 제8군의 예비단 제3사단을 6월 15일附로 제2군단에 復歸시키고 동시에, 제2, 美제10兩軍단으로 하여금 이 地域을 強化케 하였는데, 제2군단장 丁一掃중장은 同日附로 제3사단을 北漢江 西岸으로 推進하여 Iceland線을 占領, 防禦케 하고, 美제10군단장 White중장은 軍단의 예비인 제7사단(장, 金容培 소장)을 左翼으로 推進하여 新編사단인 제20사단의 陣지를 15일부터 18일까지 사이에 交代, 引受케 하였다.

이로써 Missouri線 崩壞 以後의 戰線을 再調整케 되었는데, 現在 제5사단의 제36연대(장, 高光道대령)가 擔當하고 있는 △748-轉石 西北쪽 1.8km간의 陣지를 中心으로, 東側에는 제7사단의 제8연대, 그 西側에는 제3사단의 제18연대가 併列하여 Iceland線上에 新陣地를 構築하기에 이르렀다.

이때에 當面의 中共제60군단(장, 韋杰)은 北漢江 東岸에 이르러 一坦 拔營을 멈추고 戰列을 整備하는듯 하더니, 18일을 前後하여 膝海滿이 지휘하는 제21군과 陣지를 交代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以後에는 제21군과 對陣케 되거니와, 이들은 隸下에 제61, 제62, 제63의 3개사단을 거느려, 이 陣지를 引受한 뒤로, 제62, 제63兩사단으로써 廣石橋-黃柄洞-加羅峙-金城川江口로 連한

Iceland線 北쪽에 진지를 編成하여 防守태세를 취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것은, 이들이 爾後로 特記할만한 挑發이 없던 點과 또한 16일부터 시작된 제7사단의 △938戰鬪 당시에도 제60군 隸下의 제179사단이 攻擊에 나섰던 點, 그리고 20여일 뒤에 展開된 「7.13攻勢」때에도 現陣地만을 固守하였던 點등으로 미루어 볼때, 이들의 任務은 現陣地의 確保에 있었던 것으로 分析된다. 結局 이들은 現地에서 休戰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한편 제5사단(장. 崔泓熙준장)은 戰鬪가 끝난 직후에 Iceland線에서 隊伍를 整備하던바, 16일 04.00附로 軍단에서 『美제10군단에 作戰上 配屬한다』는 작전명령 제1호가 下達되었다.

이는 北漢江 東쪽의 一部地域을 擔當한 가운데 부대를 整備케됨으로써 劃一性을 期하기 위하여 暫定的으로 취한 措置였거니와, 이에따라 사단은 제36연대로 하여금 現陣地를 堅守케하는 한편 제3戰車中대를 同時附로 제3사단에 넘겨주고 진지를 引繼한 제27, 제35양연대를 細竹垆—甘雨里線으로 뽑았다.

여기에서 Helicopter便으로 推送된 250,000 Pound의 軍需物資를 補給받아 不足裝備를 充當하고 人員을 補充하여 于先整備를 마친 然後에, 다시 26일 14.00附로 下達한 軍단作命 제2호로써 제2군단에 復歸하여 이로부터 小部隊 訓練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때에 제36연대 만은 現地에 남겨 여기에 사단수색중대와 工兵 1개중대 그리고 戰車小隊를 統合한 이른바 「韓信戰鬪부대」라고 하는 特殊任務부대(Tesk farce)를 편성하여 부사단장 韓信 대령의 指揮下에 北漢江 東쪽의 責任地域을 防守케 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부대를 整備한 사단은 6월末에 접어들면서 敵의 攻勢徵候가 加重되자 軍단의 計劃에 따라 26일 14.00附로 제3사단 제18연대의 진지를 引受하고, 「韓信戰鬪부대」를 다시 統合하여 軍단의 右翼을 맡아 第一線에 나서게 된다.

本戰鬪 期間中の 綜合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綜合戰果 및 損失

구분 부대	戰 果						損 失		
	射 殺	捕 虜	推 定 射 殺	鹵 獲			戰 死	負 傷	失 踪
				迫 擊 砲	小 銃	手 榴 彈			
제27연대	1997	6	942	1	3	12			
제35연대	1647	4	942		3	9			
제36연대	961	2	333						
제22연대	472	8	2,766	1	16	19			
計	4,677	20	4,983	2	22	40	24/ 812	36/1,583	17/ 697

※ 推定射殺은 戰鬪詳報 所載로 參考삼아 記錄한다.

§ 參戰者의 證言

◇ 副師團長 韓 信 대령

(1976년 8월 5일 亞細亞自動車株式會社, 社長室에서, 여대장)

△949戰鬪를 理解하려면 먼저 그 地形과 狀況을 알아야 한다.

△949와 △973등, 이 一帶의 地勢는 險峻하기 이를데 없는데다 機動路가 殆無하여, 非戰鬪 상황아래서도 箕柄洞에서 여기까지 올라 가려면 몇시간씩 걸리는 形편이며, 溪谷과 溪谷 사이에

서는 바로 稜線을 넘지 못하는 險地이다.

그리고 이 전투 直前까지 우리는 50餘日동안의 前哨陣地 爭奪戰을 벌여 상당한 병력 損失을 보고 있었으며, 補充된 新兵들은 바로 一線에投入된 까닭에 砲소리만 들어도 萎縮되어 戰鬥力을 期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中共 제60군과 對峙케 되었는데, 이들은 人力의 制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打擊을 가해도 波狀의으로 밀려들었으며, 심지어 마지막 단계에서는 병사들에게 毒酒를 먹여 고지를 기어 오르게 함으로써 끝내 主抵抗線이 무너지게 되었다. 아마 兵力比率이 5對 1은 넘었을 것이다.

처음에 △883와 △973가 敵手中에 떨어지자 제35연대와 제3사단에서 增援된 제22연대가 逆襲에 나섰는데, 2일 동안의 力攻을 가했지만 失敗하였으며, 나중에는 이 兩聯隊마저 많은 兵力 損失을 보아 제2阻止線을 지키기도 힘들게 되었다.

이때에 美제8군사령관 Taylor대장이 水洞里에 위치한 前方CP로 찾아왔다. 그래서 나나 연대장들은, 『一旦 現陣地를 固守하며 兵力과 火力을 增援받아 奪還作戰을 展開토록』 建議하기를 希望했는데, 사단장이 單獨으로 逆襲을 強行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Taylor 대장은 약간 懷疑하는 듯 하였으며, 우리도 모두 놀랐다. 이때는 이미 상황이 기울러 있었던 것이다. 만일 여기에서 現陣地의 固守一순으로 나갔다면 그렇게 쉽사리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뒤에 사단 顧問官 Powers 대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지만, 당시에 8군사령관은 크게 期待하지 않으면서도 사단장의 다짐에 同意하였다고 하니, 指揮官의 決心이란 그렇게 重要な 것이며 正確한 狀況判斷과 信念있는 推進力의 重大한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을 것이다.

撤收過程에서 渡河裝備가 없어 또한차례 困難을 겪었으며, 특히 通先谷부근의 東側方이 틀리면 退路가 遮斷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工兵 1개 중대를 增派하여 이곳을 堅守케 하였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單一 機動路를 따라 重裝備를 다 뺏으려 하니, 큰 混亂이 惹起되었으

며쳐 撤收치 못한 一部의 장비를 破壞하였는데 美제461重砲대대는 거의 全裝備를 自手로 爆破하더라시피 하였다.

이 전투가 끝난 직후에 金鍾甲소장이 다시 사단장으로 赴任하여 부패를 收拾한 다음 白岩山 戰鬪에서 功을 세웠다.

◇제27연대 제1대대장 崔奎璋 중령

(1966. 5월 6일 육군본부에서, 대령)

이 전투가 시작되기 10일前부터 敵의 砲擊이 漸強하더니, 전투 當日에는 數萬발이 집중하는 데, 특히 우리연대 地域이 激烈하였다.

이로 미루어보아 敵의 공격이 있을 것으로 짐작은 했지만, 막상 우리대대 正面으로 2개연대 병력이 밀려드는 것을 보니, 大規模의 功勞라는 것을 直感할수 있었다.

이때에 우리대대는 연대의 中央第一線에서 △973를 비롯한 五峰稜線의 左右兩側方에 兵力을 배치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前哨陣地의 爭奪戰을 反復한데다 이같은 集中砲擊으로 말미암아 戰鬥力이 半減된 상태에서 이와 대결케 되었다.

따라서 처음부터 惡戰苦鬪를 거듭하며 2개 중대장을 잃고, 대대의 搜索隊長이 戰死하는가 하면 負傷者가 續出하여 실로 어려운 전투를 치렀다.

이러한 渦中에서 血鬪를 벌이다가 끝내 主抵抗線이 무너지 △973를 喪失케 되자 제35연대가 赴援하여 이와 協同으로 逆襲케 되었는데, 三晝夜에 걸친 力攻을 가했으나 성공치 못하고 同연대 마저 過半數의 兵力 損失을 입고 말았다

이무렵 사단에서 다시 左一線인 제36연대를 뽑아 奪還作戰을 續行한다고, 그 陣地를 引受하라 하기에, △629北쪽으로 移動케 되었는데, 이때에는 사실상 주저항선의 증가 敵手中에 넘어간 상태였다.

그뒤로 新陣地에서 또 한차례 激戰을 치르다가 한 밤중에 撤收命을 받았는데, 兵力을 뺏으려 하니 退路가 막혀, 100번 道路에는 胡敵이 우글거리고 北漢江은 다리가 끊겨져 갈길이 없었다. 그뿐아니라 到處에서 裝備를 爆破하는 爆音과 火焰이 치솟아 兵士들의 心理를 더욱 萎縮시키고 敵이 곧 뒤를 쫓는것만 같아 이때부터 강

물에 뛰어들기 시작하였다.

어떤 병사는 고무침대를 이용하고 또 맨손으로 헤엄치기도 하였는데, 나도 헤엄쳐서 나오는途中에 痙攣이 일어나 死境을 넘긴바 있으며 여기에서 20餘명의 부하를 잃는 아픔을 또 한번 겪었다.

이 전투의 全過程을 도리켜 볼 때에 逆襲도 좋지만 防禦나 撤收의 重함을 느꼈으며, 어떤면에서는 秩序있는 撤收戰이 더욱 힘들다는 것을 感受하였다.

◇제35연대 제2대대 제6중대장 禹台命 대위 (1966년 5월 11일 육군본부에서, 中領)

우리 연대는 처음에 豫備로 있다가 逆襲段階에서 一線에 나갔는데, 어쩌나 砲擊이 甚한지 발붙일 곳이 없었다. 내가 體驗한 전투 가운데 제일 격심한 砲火中에서 싸운 전투이다.

공격에 앞서 分隊級 以上을 집합시켜 목표를 指示하고 期必코 奪還하자고 다짐했지만, △973의 7部稜線에 올라서기만 하면 交叉火網에 부딪혀 밀려내려오는데, 여기에 敵의 逆襲이 번번히 뒤따르니, 時間이 경과할수록 不利하여 止만갔다.

이러한 전투를 2~3일동안 반복하는 사이에 제1소대장 朴少尉가 戰死하고 중대원의 士氣力을 잃게되었다.

더구나 夜暗만 되면 敵이 꼭 強襲을 하는데, 그것도 하루밤에 몇차례씩 거듭되어,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日夜로 血鬪를 벌였던 것이다.

특히 우리대대는 제일 險峻한 △973南쪽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側方이 露리지만 하면, 逆回 圍상태에 빠지기가 일수였는데, 한번은 이 回圍網을 뚫고 나오다가 제5중대장 朴俊甲중위가 전사하고 대대의 全兵力이 混亂속에서 빠져 크게 分散된 일이 있었다.

그리고 날씨가 흐려, 비가 오거나 아니면 山腹에 濃霧가 깔려 敵情을 파악하기 힘들었으며 이러한 가운데 敵이 後方에서 불쑥 나타나면 分散되기 마련이었다.

末端 指揮官인 나로서는 速斷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서둘러 逆襲을 하는 것보다 狀況을 正確히 파악하여 充分한 對策을 세우고 恢復作戰

을 展開했더라면 하는 未練이 남는다.

撤收命수를 받고 北漢江 東岸에 당도하니, 橋梁이 이미 破壞되어 버려 江물에 뛰어드는 병사가 많았으며, 이때에는 秩序를 잡기가 힘들었다. 그뒤로 우리는 甘雨里에서 부대를 再編하였다.

◇제35연대 搜索中隊 小隊長 鄭海榮 소위 (1966년 10월 18일, 제5군단에서, 少領)

나는 52년 8월에 任官하여 제5사단에 轉入된 뒤로 여기에서 제일 큰 전투를 치렀다.

도리켜 보면 지금도 前哨陣地의 爭奪戰을 벌일때의 일이 생생한데, 罅間에도 壕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고개만 내밀면 彼我間에 射擊을 집중하던 點과 砲擊이 甚하여 地雷地帶로 까지 뛰어 들었던 點 그리고 指呼之間에서 生과 死를 가름 하였던 점이나, 한치의 땅도 빼앗기지 말자고 하던 일들이 새삼스레 떠오른다.

당시에 工兵들은 歩兵이이상로 고생하였다. 陣地를 補修하다가 砲擊에 犧牲되는 事例가 許多하였으며, 兇한 歩兵과 똑같이 싸웠다.

이 전투 당시에는 비가 계속 내리 많은 制限을 받았는데, 야간에는 偽裝이 벗겨진 鐵帽에 빛물이 反射되면 곧 총탄이 집중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전투중에 通信이 混雜하여 砲擊과 雜音으로 알아 들을수가 없었으며, 아무리 砲擊을요청해도 通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아예 斷念하고 수류탄과 小火器로 싸웠는데, 敵의 數ჯ가어찌 많은지 감당하기가 힘들었다.

撤收할때에 伏至洞 골짜기로 내려오는데 이미 敵이 먼저 侵襲하여 退路를 막고자 하였지만 이것은 一部兵力밖에 되지않아 가볍게 물러치고나올수가 있었다. 그러나 도처에서 장비를 파괴하는 爆音이 震動하여 큰 混亂을 빚었으며 北漢江 다리가 끊어진 것은 心理的으로 衝擊을 주었다.

撤收計劃上에 統制所간의 通信문제는 地下에 埋設해서라도 必히 確保토록 強調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師團 工兵大隊 S-3 張和鎭 중위

(1966년 5월 13일 육군본부에서, 少領)

우리대대는 每日 鐵條網과 地雷地帶의 設置維持에 힘쓰며 歩兵과 똑같이 行動하였는데, 나중

에는 사단의 兵力이 不足하니가 第一線에 나서게 되었다.

그래서 敵中에 包圍된 제35연대의 2개소대를 救出한바 있으며, 表대위가 지휘하는 중대는 通先谷부근의 東側方을 막아 撤收戰에 功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큰 任務 가운데 하나는, 撤收段階에서 橋梁과 船隻 및 道路 등을 폭파하는 것으로서 그 細部指針으로 1번에서 5번까지는 사단 工兵이, 9번에서 20번까지는 軍단 工兵이 各 爆

破키로 計劃되어 있었는데, 15일 02.00가 되자 軍단 工兵部에서 徒步橋를 破壞하지 않았다고 軍法會議에 回附한다는 嚴命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때에는 有線이 杜絶되어 把握할 길이 없었으므로 내가 直接 現地에 가보려고 나섰는데, 途中에 撤收將兵들을 통하여 이미 다리가 끊겼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는 兵力이 散在하여 撤收과정에서는 配屬된 연대의 主力과 同一行動을 취하게 하였으며 나중에 細竹堡로 集結하여 부대를 整備하였다.

§ 戰 訓

◇ 橋梁爆破의 時機

本戰鬪의 作戰地域은 北漢江 上流가 西南쪽으로 圍繞한데다 單一 機動路가 그 江岸에 沿하여 背水地勢를 이루고 있는 까닭에 撤收計劃上 橋梁爆破에 관한 문제는 곧 生命線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실제 撤收過程에서 時間的으로 볼때에 決定的인 時機가 못되는 듯 하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點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撤收命令은 00.50에 사단에서 下達하여 놓고 그 1시간 10분後인 02.00에 舊堡北쪽의 徒步橋를 비롯한 鐵板橋와 黃柄洞—後洞간의 徒步橋까지 모조리 爆破하는가 하면, 03.00에는 M₁A₁門橋와 M₂短艇까지 破砕하였으니, 아직 3~6km前方에 있는 兵力의 撤收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둘째로, 03.00現在 一部の 敵이 伏至洞 溪谷을 넘어섰다고 하나, 아직 그 主力은 3~4km北쪽에 있는데 重裝備마저도 撤收치 않고 폭파한 것은 不可하다.

셋째로, 設使 一部の 敵이 水洞里부근까지 侵入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은 淸沙리 江을 건너지 못할 것이며, 제36연대가 아직 健全한데 그 掩護策이 없었다.

네째로, 橋梁을 폭파한 後에도 2개연대병력이 江以東에 있는데, 後續兵力의 渡江對策이 全無하다. 最大限으로 人命을 救하고자 하는 努力이 不足하며, 폭파만이 能事라는 생각은 다음 전투를 그르칠 憂慮가 있다.

다섯째, 誇張된 報告가 上級部隊의 判斷을 흐리게 하여 速斷을 내린다면, 그 被害는 곧 報告 부대에 돌아간다.

以上으로 미루어 볼때에 橋頭堡를 確保하려는 노력이 모자라고 時機的으로 適切하지 못한 듯하거나, 한걸음 더 나아가 지난 戰例를 도리켜 보면, 戰爭初期에 北德의 一部 戰車가 入城하였다고 漢江大橋를 폭파한 刻苦의 教訓이 있는 反面에 興南撤收戰에서는 끝까지 橋頭堡를 확보하여 1개 軍단의 兵力과 裝備뿐만 아니라 難民까지 救出하지 않았던가?

撤收戰은 進擊戰에 못지않게 重要한 것이며, 이것은 掩護部隊의 活用과 狀況에 適應한 最大限의 時間獲得이 그 要諦라 할 것이니, 여기에서 橋梁爆破의 時機는 더욱 重視되어야 할 것이다.

3. 北進稜線의 防禦戰 (1953년 6월 11일부터 // // 14일까지)

참조: 발책부도 제 9 호

상황도 제 41~43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美 제 9 군단	장 중장	Reuben E. Jenkins	제 51포병대대 장 소령 朴 泰 鉉
제 9 사단	장 소장	李 翰 林	제 52포병대대 장 중령 李 天 秀
제 28연대	장 대령	尹 泰 階	제 89포병대대 장 중령 崔 南 守
제 1 대대	장 중령	朴 榮 徵	사단重砲중대
제 2 대대	장 중령	崔 昌 龍	제 53戰車중대
제 3 대대	장 중령	鄭 春 泰	지원부대
제 29연대	장 대령	文 重 燮	제 9, 제 10, 제 38, 제 75, 제 92, 제 213, 제 555, 제 674, 제 955포병대대
제 1 대대	장 중령	李 大 哲	美제 2 Rocket중대
제 2 대대	장 중령	金 麗 林	美제 60, 제 82AAA포대
제 3 대대	장 중령	朴 元 寬	美제 64전차중대(一)
제 30연대	장 대령	趙 淵 表	美제 86照明중대
제 1 대대	장 중령	金 永 先	美제 5 공군
제 2 대대	장 중령	金 寅 文	인접부대
제 3 대대	장 소령	高 炳 暉	右인접 수도사단 장 준장 崔 昌 彦
사단포병단	장 준장	姜 泰 敏	左인접 美제 3사단 장 소장
제 30포병대대	장 중령	權 五 明	Eugean W. Riddings
		敵	軍
中 共 제 24군	장	饒 守 坤	주요장비 : 75mm無反動銃 24문
제 70사단			76mm 直射砲 24문
제 208, 제 209, 제 210연대		基 幹	60mm 迫擊砲 162문
제 72사단	장	康 林	82mm 迫擊砲 168문
제 214, 제 215, 제 216연대		基 幹	57mm 直射砲 96문
제 74사단	장	肖 逸 進	105mm 野 砲 24문

127mm 野 砲	72문		LMG	363장
145mm 野 砲	24문		HMG	252장

나. 전투전의 개황

本戰鬪는 1953년 7월 27일의 休戰成立을 巨變에 놓고, 敵이 最後發惡의으로 全戰線에 걸쳐 시도한 全面攻勢中, 金化地區에 대한 中共 제24군의 集中攻撃을 狙擊, 三角高地, 北進의 3개 稜線에서 遊擊破摧하면서 中部戰線의 一域에서의 主抵抗線을 整齊한 地域防禦戰이다.

期間中의 戰況을 一瞥컨대, 1953년 1월以降, 中共 제24군은 사단正面에 대한 攻撃을 준비하면서 小規模의 探索戰을 반복하더니, 제70사단 基幹으로서 6.11~6.14間에 北進稜線을 掠占하려 하였으며 7.12~7.20間에는 右인접 수도사단의 主抵抗線을 突破한 除勢를 몰아 金化攻路를 企圖한 것인데, 그 戰況의 推移를 二分하여 北進稜線防禦戰 및 金化防禦戰으로 묶어, 前者를 먼저 本章에서 叙述키로 한다.

사단은 1952년 10월(6일~15일), 捷絶을 極한 △395(一名, 白馬高地)戰鬪에서 中共 제38군의 攻撃을 擊摧하여, 『鐵의 三角地』의 이 要衝을 끝내 固守함으로써 韓國軍의 戰鬪威力과 滅共必勝의 氣概를 드높인 바 있었는데, 同년 10.26.06.00부 美제9군단 作指로 美제3사단(장, George W.Smythe 소장)에 擔當지역을 인계하고, 巔倉里的 제5FTC에서 군단예비가 되어, 부대整備 및 교육訓練에 임하다가 同年 11월 23일에는 다시 軍단作命 제33호로 『狙擊稜線의 勇者』인 제2사단(장, 姜文奉 소장)의 戰線을 引受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11월 23일~11월 25일間에 제2사단이 美제3사단의 擔當戰線을 引受하여 轉進한 뒤를 이어, 金化地區의 防者로서 軍단CP團 沙谷里(金化郡 濟宮面)에 開設하고, 제29연대를 11월 23일에 金化郡 龍岩里로, 제28연대를 24일에 金化郡 甘原里로 각각 轉進시켜 제2사단 제31, 제32. 兩연대의 陣地를 인수케 하는 한편, 이 兩연대를 同日附로 統合指揮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사단은 1952년 12월上旬 현재, 제30연대를 右一線으로, 제28연대를 中央一線으로, 제29연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Missouri線 灰右介一上甘嶺間의 主抵抗線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軍단作命 제93호(52.12.7. 08.00부)로 戰鬪地域線이 변경됨에 따라, 軍단배속중인 제31, 제37 兩연대가 主陣地를 수도사단(장, 宋崇讓 소장)에 인계하고 原隊復歸하므로써 狙擊稜線—三角高地群—탈골開豁地에 亘한 7km의 방어정면을 擔當하였다.

그런데, 12월 16일에 左인접 美제25사단(장, Samuel T. Williams 소장)과의 戰鬪地域線이 다시 조정됨에 따라 作命 제96호(52.12.12.09.00부)로 美제14연대의 일부 陣地를 인수하고, 21일에는 作命 제97호로 左右一線의 戰鬪地域線을 再調整함으로써 방어태세를 굳히었다.

한편, 期間중에 當面한 中共 제12군은 지난번 狙擊稜線전투에서 演退한 제15군의 뒤를 이어, 52.11初에 現戰線에 투입되었는데, 12월 한 달 동안에 軍단 主抵抗線 全般의 各 前進陣地에 延 105회 에 達하는 分隊 또는 小隊兵力의 探索攻撃을 집요하게 반복하였다.

韓國戰爭의 막바지를 劃하는 이 期間중의 敵情을 一瞥컨대, 敵은 休戰協商이 이루어지기 前에 一峰이라도 더 많은 高地를 掠取함으로써 軍事分界線劃定에 有利한 陣勢를 차리고자 大攻勢를 기도하고 있었으며, 全戰線에 걸쳐, 韓國軍의 防禦正面으로 그 主攻이 集中될 것으로 推斷되었다.

이에 사단은 『鐵의 三角地』의 底邊右一角을 지키는 狙擊稜線 및 三角高地群과 北進稜線의 固守를 다짐하면서, 主抵抗線의 兵力配置를 비롯하여 主陣地의 강화와 逆襲部隊의 運用, 그리고 豫備陣地強化등 防禦計劃을 면밀히 갖추어, 豫想되는 敵의 大攻勢에 대비하였는데, 軍단장 李翰林 소장은 다음과 같은 作指 제144호(53.4.1.부)로서 軍단 全將兵의 精神結束과 戰意鼓舞를 促求하였다.

『사단은 현재 板門店에서 再開中인 休戰會談의 揣測에 대하여 區區한 憶測을 내림으로써 將兵의

心的動搖와 戰力弱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各級 指揮官은 隸下將兵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임무수행에 萬遺憾없기를 期하라.

가. 精神訓話를 수시로 실시하여, 확고한 信念으로 각기 임무를 격극 수행케 하라.

나. 搜索偵察 및 陣地補強을 철저히 실시하여 敵의 攻勢企圖를 未然에 破摧하라.

다. 休戰會談과 併行한 實戰 重點의 教育訓練으로 戰鬪力培養에 철저히 하라.

라. 寸暇를 善用하여 戰鬪經驗을 검토함으로써 長·短點에 대한 機會教育을 不斷히 실시하라.

마. 主抵抗線部隊는 夜間搜索을 強力히 실시하여 敵의 攻勢企圖를 未然에 破악하라.

地勢 및 地形: 그런데 前任사단장 金點那 中將(2. 14까지)은 이보다 앞서, 사단 防禦正面의 複雜多岐한 地勢를 감안하여, 此後의 作命 및 作指를 下達함에 있어서, 統一된 地點名稱을 隸下 全部隊에 熟知시키고자 作指 제115호(53. 1. 8부)를 下達한바 있는데(狀況圖 제41호 參照), 그 地勢와 地形을 概觀하면 다음과 같다.

즉, 사단의 방어경면인 金化 北側地區 內에 碧臨하듯 聳立해 있는 五聖山(△1,062)이 中部戰線에 있어서의 敵의 最大전략基地인 平康을 비롯한 主抵抗線을 據固하면서 天然의 要害를 이루고 있는데, 이 高峰을 基點으로 하여 東南쪽으로 狙擊綫이, 正南쪽으로는 三角高地群이, 그리고 西南쪽으로는 北進綫이 뻗어내려, 平均海拔 600m이상의 수많은 瞰制高地를 形成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金化 防守의 要關인 狙擊綫은 五聖山줄기의 關門이기도 하며, 사단이 확보중인 △A, △B(돌바위高地), △C등의 前進陣地는 錯雜한 起伏을 이루는 連峰과 地形으로 因하여, 不過 30~50m밖에 안되는 至近距離를 두고 敵의 前哨陣地와 對峙하고 있다.

또한 中央綫인 三角高地群의 主峰 △598는 上甘嶺과 下甘嶺을 南北으로 佇立시킨 岿岩斷崖의 峻峰이며, 狙擊綫과의 사이에는 急傾斜의 깊은 狹谷을 이루고 있는데, 그 東쪽으로 내리떨은 綫線下端에 △W, △V, △X등의 前進陣地가 확보되어 있다.

사단 主抵抗線으로부터 500~1,000m 前方에 있는 이 모든 前進陣地는 敵의 瞰制下에 間斷없이 直射火器의 위협을 받게되므로 洞窟式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參戰將兵들로 하여금 “땅굴血戰”이었노라고 慨嘆케 한 緣由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本戰鬪의 主戰場이 되는 北進綫은 五聖山에서 △700—△900를 거쳐, 그 落脉線에 △K를 매듭짓고 있는데, 東쪽과 西南쪽으로 閉路地를 瞰制하고 있으므로 彼我間에 前進陣地를 추진시켜 확보치 않을 수 없는 地形上의 價値를 지니고 있다.

이로써 概觀컨대, 사단의 방어경면의 地勢 및 地形은 敵에게 瞰制와 山岳機動의 有利點을 안겨주는 反面에, 我軍에게는 防禦上의 여러 不利點을 쫓지 못하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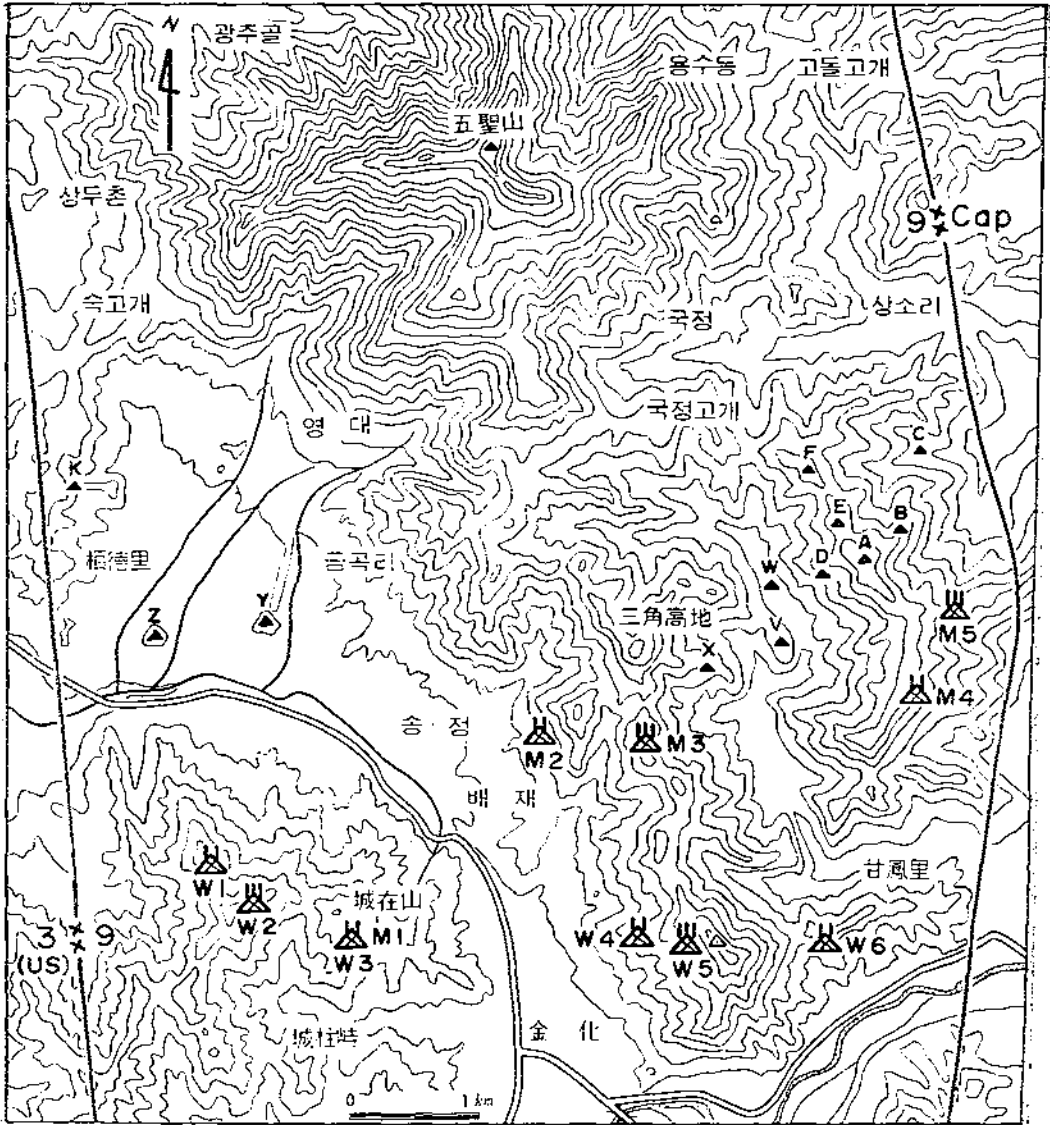
期間中 日出 및 日沒의 平均시간은 5.11~19.30이며, 매일같이 가랑미 내리는 不連續線으로 因하여, 機動과 照明 및 航空近接支援에 많은 支障을 쫓지 못하였다.

敵軍의 狀況: 사단正面의 中共 제24군은 1952년 8월에 中共本土의 浙江省을 출발, 10월에 新義州地區로 越境侵韓하여, 平壤~元山地區를 거쳐, 1953년 1월에 平康地區로 轉進하였는데, 2월 4일에는 제15군의 담당지역을 引受함으로써 美 제9군단의 수도사단—제3사단—美 제3사단과 接觸하고 있음이 2월 26일부로 是認되었다.

이로써 中共 제24군(장, 饒守坤)은 4월 16일 현재, 軍CP를 平康에 설치하고, 예하 제71사단을 栗木洞(鐵原 北쪽 13km)—지갈리(五聖山 西쪽 7.5km)間에, 제72사단을 지갈리—亭子洞(△574)間에 각각 내세우고, 제74사단을 예비(位置不詳)로 控置하였음이 判明되었는데, 이들에게 진지를 인계한 제15군은 戰線에서 離脫하여 縣里地區를 거쳐, 新高山地區로 이동한 것으로 判斷되었다.

그런데 4월 25일에 左인것 제67군과의 戰鬪地境線을 변경함과 동시에 軍의 담당지역을 栗木洞—於德里間으로 縮소하여, 제74사단을 栗木洞—△325(지갈리)間에, 제71사단과 교체한 제70사단을 △325—△683(영대리)間에, 제72사단을 △684—△717(於德里)間에, 각각 배치하였음이 다시 是認되었다.

◇ 상황도 제41호 地勢 및 高地名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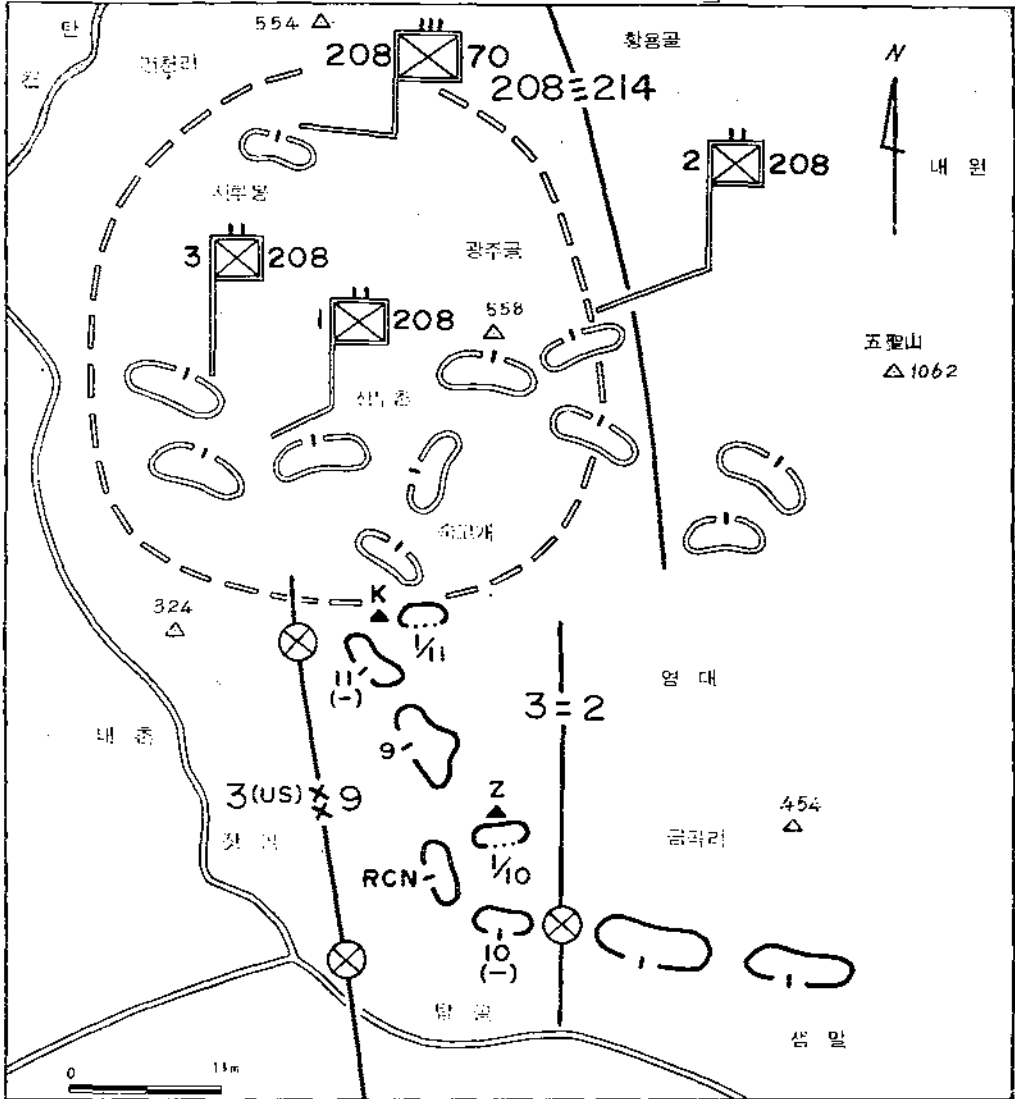
이와같은 中共 제24군의 動向을 보건대, 제70, 제72 兩사단의 主力으로서 사단正面의 3개 稜線을 손에 넣고, 休戰前에 金化地區를 制壓하려는 企圖임이 뚜렷하므로, 사단은 全正面에 걸쳐 搜索偵察 및 觀測을 強化하면서, 敵情把握에 正確性을 期하고 있었으며, 사단作命 제103호 情報附錄 제8호 ('53. 5. 9부)로 특히 제30연대의 방어정면인 北進稜線 北쪽 A地區의 敵情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ㄱ. 俗稱 속고개를 중심으로 하는 A地區(상황도 제42호 參照)에는 제72사단 제216연대와 교체한 제70사단 제208연대가 배치되어 있다.

ㄴ. 제208연대는 연대CP를 사루봉에 설치하고, △419에 제1대대를, △540에 제2대대를 각각 내세웠는데, 연대基幹의 推定兵力은 2,659명이다.

ㄷ. A地區의 敵火力은 4개 野砲陣地와 1개 直射砲陣地, 그리고 7개 迫擊砲陣地와 13개 自動火器陣地로 편성되었는데, 그 位置는 다음과 같다.

◇ 上항도 제42호 A地區의 敵情



- △300에 1개 박격포陣地,
- △540에 1개 직사포陣地, 1개 박격포陣地, 2개 자동화기陣地,
- △760에 1개 야포陣地, 1개 자동화기陣地,
- △558에 3개 박격포陣地, 3개 자동화기陣地,
- △사루봉—자치산間에 3개 야포陣地, 2개 박격포陣地, 4개 자동화기陣地,
- △400에 1개 자동화기陣地, △419에 3개 자동화기陣地,

한편, 제70사단의 左인접인 제72사단은 사단CP를 상수한(俗稱)에 설치, 右一線에 제214연대를, 左一線에 제216연대를 각각 내세우고, 제215연대를 예비로 長谷里에 控置하였는데, 五聖山(△1,062)에 연대CP를 설치한 제214연대는 該山에서 南으로 떨어진 △880—△720—上甘嶺—金谷里稜線上에 3개대대를 縱深깊게 배치하였다.

그리고, 狙擊稜線 △C-△B-△A 線의 至近距離까지 前進陣地를 推進한 제216연대의 右一線은 陣地마다 깊이 1.5m이상의 交通壕와 높이 1.4m, 너비 1m의 洞窟式 集結壕 및 掩體壕를 堅固히 구축하여, 我軍의 砲·爆擊을 감당할 정도의 強度를 갖추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제24군은 休戰協商으로 因한 長期間의 交綏狀態를 이용하여 攻戰時의 彈藥備蓄에 충분한 對備를 갖추고 있는데, △K에서 획득한 捕虜의 陳述로 그 補給現況의 一面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㉑. 日日補給……日 3食의 主副食이 충분하여 朝食은 죽, 晝·夕食은 雜穀 8割에 白麵 2割인데, 副食으로는 牛·豚肉, 鷄卵粉, 콩나물, 落花生등이다.

㉒. 被服……1년分을 미리 支給받았는데, 綿製內衣 上·下 2着, 반즈2着, 夏服 2着, 그 외에는 襪 때로 支給된다.

㉓. 彈藥……多發銃 240發, 小銃 80發, 輕機 600發 등 戰鬪時의 彈藥支給이 충분하다.

裝備 또한 績成基準을 充足하고 있는데, 제70사단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이 推定되었다. (別表 1. 參照).

<別表 1. 中共 제70사단의 裝備編成表>

部隊單位	裝 備													
	拳銃	小銃	多發銃	輕機	重機	60 미리 迫擊砲	82 미리 迫擊砲	120 미리 迫擊砲	76 미리 無反動銃	75 미리 直射砲	37 미리 高射擊	로켓 砲	57 미리 對戰車砲	自 動 銃
分 隊		4	7	1										
小 隊	1	3	35	3										
中 隊	12	12	128	18	6	2	2					2		9
大 隊	63	452		31	12	6	6					6		27
聯 隊	363	2,106	405	62	42	23	24				3	18		87
師 團	1,526	7,337	1,542	190	154	81	84	12	12	12	12	54	48	254

이와 같은 裝備의 補充과 補給品의 充足은 3월以來로 활발해진 輸送활동으로도 是認되었는데, 航空偵察로 확인한 中共 제24군의 補給路 및 輸送手段은 다음과 같다.

즉, 中部戰線의 補給基地인 平康까지 鐵路를 이용하여, 平康—상소리(俗稱, 上甘嶺 西北쪽 2km) 間은 車輛으로 輸送하고, 그 前方인 主抵抗線과 前進陣地까지는 徒步 및 牛馬의 夜間輸送에 依存하고 있다.

특히 我軍의 間斷없는 砲·爆擊으로 항상 큰 威脅을 겪지 못한듯 하므로, 이 人力 및 牛馬에 依한 夜間輸送을 唯一한 補給推進의 手段으로 이용하고 있다.

中共 제24군은 이와같이 戰鬪力을 갖추면서, 次期攻勢를 피하고 있었는데, 그 兵員의 대부분은 多年間의 對日戰爭과 國共內戰에서 戰鬪經驗이 많은 國府軍出身이고, 中共에 服從心이 강한 共產黨員이 基幹을 이루면서, 특히 山岳戰과 遊擊戰에 능한 戰鬪力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 士氣 또한 높은 便이라고 할 것이며, 攻戰時에는 夜間攻擊을 爲主로 하여, 制限目標에 대한 縱深깊은 攻擊準備射擊과 더불어 波狀의으로 兵力을 投入하여 手榴彈投擲距離까지 접근하면, 每人當 8~9개씩 所持한 棒狀手榴彈을 일제히 집중하는 戰法을 潤用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我軍의 阻止射擊이 熾烈하면 後退信號와 함께 煙幕彈을 뿌리면서 물러났다가 再次 火力支援下에 側面突破를 피하게 되는 것이 공통된 그 戰法이다.

我軍의 狀況: 白馬高地戰捷의 榮譽도 드높이, 史舍里의 제5FTC에서 戰塵을 일으키면서 部隊戰力을 가다듬고 있던 사단은 1952년 11월 23일附 美제9군단 作命 제33호로 現戰線을 제2사단으로부터 引受하자, 防守計劃과 陣地補強 및 補給充足을 期하고 있었는데, 本戰鬪에 이르기까지의 사단 作戰命令

및 作戰指示를 順次로 요약하면서 그 經緯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ㄱ. 作命제99호(53.1.15부)……(右一線 연대의 交替) 예비인 제30연대로 하여금 右一線 제29연대의 陣地를 引受케 하고, 제29연대主力(一)을 豊谷里에 集結시켰다.

ㄴ. 作指 제118호(53.1.13부) 및 제120호(53.1.21부)……(交通壕, 有線網의 補強) 主抵抗線과 前進陣地의 砲擊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交通壕를 蛇形으로 改修補強하는 한편, 全有線網을 交通壕지하 30cm의 깊이로 埋設하였다.

ㄷ. 作指제122호(53.1.22부)……(豫備陣地 構築) 사단예비인 제29연대로 하여금 △500(金化 東南쪽 2.2km) 및 城柱峙(金化 西쪽 2.8km)에 豫備陣地를 構築케 하였다.

ㄹ. 作指제126호(53.2.23부) 및 제127호(53.2.26부)……(捕虜획득을 위한 奇襲) 主抵抗線部隊로 하여금 捕虜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搜索隊출동을 強化케 하는 한편, 左一線 제28연대의 증강된 搜索1개 소대로서 △300(北進綫線 △K의 東쪽 1.3km)를 奇襲하였다.

ㅁ. 作命제100호(53.3.4부)……(左一線 연대의 交替) 作命 제99호로 사단예비대가 되어 豊谷里에 集結중인 제29연대로 하여금 左一線 제28연대의 陣地를 引受케 하고, 제28연대主力(一)을 豊谷里로 集結케 하였다.

ㅂ. 作指제132호(53.3.10부)……(各級指揮官의 陣地點檢 強化) 主抵抗線 및 前進陣地의 防禦編成을 週期的으로 점검키 위하여 소대장은 日 5회이상, 중대장은 日 3회이상, 대대장은 日 1회이상, 연대장은 수시로 巡察토록 하였다.

ㅅ. 主要指揮官의 人事異動……53.2.14부로 사단장 金点坤 준장이 陸軍本部 人事局長으로 轉補되고 休戰會談韓國側代表인 李翰林 소장이 제10대 사단장으로 就任하였으며, 3.15부로 제29연대장 黃明 중령이 步兵學校로 轉補되고, 제2사단 情報參謀인 文重燮 중령(同日附로 대령 進級)이 제29연대대장으로 就任하였다.

ㅇ. 作命제101호(53.3.19부)……(右一線연대의 交替) 作命 제100호로 사단예비가 되어 豊谷里에 集結하고있던 제28연대로 하여금, 右一線 제30연대의 陣地를 引受케 하고, 제30연대主力(一)을 豊谷里에 集結케 하였다.

ㅈ. 作指제140호(53.3.30부)……(Wyoming線의 補強) 사단예비인 제30연대로 하여금, 1개 대대씩 輪番制로 늦점-풍암리-원당말-△344(豊谷里)-△336(와수리)-구변동間 Wyoming線의 陣地補強 및 陣地增築을 실시케 하였다.

ㅊ. 作指제142호(53.4.12부)……(前方補給路의 補修) 各 연대의 車輛輸送計劃을 再調整하는 동시에 大대補給所-主抵抗線間의 補給路를 4.20까지 補修확보케 하였다.

ㅋ. 作命제102호(53.4.29부)……(左一線연대의 交替) 作命 제101호로 사단예비대가 되어 豊谷里에 集結하고 있던 제30연대로 하여금, 左一線 제29연대의 陣地를 引受케 하고, 제29연대主力(一)을 豊谷里로 集結시켰다.

ㄷ. 作命 제103호(53.5.7부)……(北進綫線 引受) 左인접 美제3사단의 作戰區域인 北進綫線을 美제9군단 作指 제7호로 5.12.05.00까지 引受하게 되어 이로써 左一線 제30연대로 하여금 北進綫線의 방어임무를 美제7연대로부터 引受하는 동시에, 同연대의 右一線 區域인 上甘嶺(一名, Jane Russell 高地)-△598(一名, 三角高地)間의 방어임무를 右一線 제28연대에 부여하였다.

ㄹ. 作命 제104호(53.3.15.08.00附)……(右一線연대의 交替) 作命 제102호로 主抵抗線 左一線을 제30연대에 인계하고 사단예비가 되어, 主力을 豊谷里에 集結하고 있던 제29연대로 하여금, 右一線의 담당지역을 引受케 하고, 제28연대를 사단예비로 하여 그 主力을 역시 豊谷里에 集結케 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1953년 6월 10일 현재, △460-△538-下甘嶺-△510(三角高地 東南쪽 1.2km)間의 右一線에 제29연대를, △520-방어다리(俗稱)-塔谷里-稻德里(北進綫線 △K의 西南쪽)間의 左一線에 제30연대를 各各 배치하고, 제28연대를 사단예비로 그 主力을 豊谷里에 控置한 가운데 本戰鬪를

遂行케 되었다.

따라서 제29연대(장, 文重燮 대령)는 연대CP를 甘鳳里에 설치함과 동시에 右一線인 狽擊稜線에 제2대대(장, 金麗林 중령)를, 下甘嶺을 중심으로 하는 左一線에 제3대대(장, 朴元寬 중령)를 각각 내세우고, 제1대대(장, 李大哲 중령)를 연대예비로 峇谷里에 控置하였으며, 제30연대(장, 趙淵表 대령)는 연대CP를 生昌里에 설치하고 △598(一名, 三角高地)의 방어正面인 右一線에 제1대대(장, 金永先 중령)를 梨峯—방야다리(俗稱)간의 中央一線에 제2대대(장, 金寅文 중령)를, 塔谷里—北進稜線간의 左一線에 제3대대(장, 高炳星 소령)를 각각 내세웠는데, 이 左一線의 예비로 제28연대 제3대대가 塔谷里 南쪽 1.4km의 近北面에 控置되었다.

그 동안, 사단은 白馬高地 戰鬪에서 입은 兵力損失을 新兵으로 補充하여 教育訓練하였으며, 특히 歷戰의 경험을 싸울된 基幹兵力을 母體로 하여 稜線의 王者로서의 常勝不敗를 다짐하고 있었다.

사단의 主補給路는 權川으로 通하는 제6번 道路 및 史倉里 經由 서울로 通하는 3A101번 道路이며, 主抵抗線後方까지의 일부 道路를 제외하고는 補給路가 대체로 良好하나, 前進陣地까지의 推進補給은 敵의 瞰制下에 주로 徒步輸送에 依存하였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가) 작전계획

休戰會談의 妥結에 앞서 사단正面의 中共 제24군이 막바지의 攻勢를 取하리라는 豫測 아래 사단장 李翰林 소장은 警戒強化 및 陣地補強등 單반의 遊擊態勢를 갖추었는데, 그 作戰概念의 主眼點은 現主抵抗線確保와 最大限의 出血強要에 두고 있었다. 즉, 사단作指 제141호(4.3.13.00부)로써 『敵이 攻擊하면, 사단은 각 연대에 사격목표와 시간을 20분전에 통고하고 VT射擊을 실시할 것이므로 각 부대는 VT射擊에 대비하는 陣地構築에 유감없도록 하라』고 要求하는 동시에 『主抵抗線연대는 敵侵을 前進陣地에서 牽制할 것이며, 全前進陣地는 어떠한 상황을 막론하고, 사단장의 명령에 의해서만 철수할 수 있다』는 作指 제143호(4.18.08.00附)를 하달하여, 그 不退轉의 防守決意를 麾下 各級지휘관에게 천명하였다.

그런데 中共 제24군은 狽擊稜線과 三角高地, 그리고 北進稜線등 地形의으로 유리한 接近路를 이용하여, 2개 분대규모 또는 1개 소대규모로써 빈번히 威力搜索을 피하더니, 5월 16일~5월 19일에는 제72사단 제214연대로 믿어지는 延 3개 대대(一) 兵力으로써 △A, △B등 狽擊稜線全域에 걸쳐 力攻하였으나, 사단은 鎧袖一觸의 鐵火를 집중하여, 各 前進陣地의 前緣조차도 허용치 않았다.

이와같이 두드러지게 활발해지는 敵의 攻擊企圖에 비추어, 北進稜線 正面 A地區에 제70사단 제208연대가 새로 배치되어 있는 사실을 重視한 사단장 李翰林 소장은 敵의 主攻이 北進稜線으로 집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제103호(53.5.7附) 砲兵附錄으로 同地區의 豫상되는 集結地와 進路에 火集點을 구성함과 동시에 일부 부대를 제30연대에 배속시켜 사단

左一線의 방어力을 증강하였다.

즉, 사단을 一般支援중인 제9重박격포중대 제3戰砲隊를 5월 26일 10.00附로 제30연대를 直接支援케 하고(作指 제153호), 제29연대 배속중인 사단 수색중대도 5월 28일 04.00부로 제30연대로 배속변경하였으며(作指 제154호), 6월 9일에는 作指 제157호로써 제28연대의 1개 중대를 栢德里(△K 南쪽 600m)로 이동시켜 제30연대에 배속케 하였다.

그리고, 主陣地 및 豫備陣地의 긴급보강을 위해, 要旨 다음과 같은 作指제152호(5.25附)를 하달하였다.

『① 제30연대는 5.26부로 제28연대의 2개 중대를 지원받아 연대 主陣地 및 예비陣地를 긴급 補修강화하라.

② 全陣地에 障礙物, 鐵條網, 地雷, 警報장치등을 철저히 설치하라.』

이와같이 사단 左一線인 北進後線방어에 대한 긴급조치를 취하는 한편, 사단장 李翰林 소장은 사단 全般의 支援火力을 作命 제104호(5.15.08.00附)로 再整齊하였는데, 6월 7일 현재의 그 配陣 및 支援任務는 다음과 같다.

(ㄱ) 사단포병단……沙谷리에 CP 설치.

(ㄴ) 제30포병대대……城柱谷리에 CP를 설치하고, 제51포병대대 增援 및 사단 一般 支援.

(ㄷ) 제51포병대대……豐谷리에 CP를 설치하고, 제29연대 直接支援.

(ㄹ) 제52포병대대……城柱谷리에 CP를 설치하고 제30연대 直接支援.

(ㄹ) 제89포병대대……加南리에 CP를 설치하고, 사단 一般支援.

(ㅂ) 제53戰車중대……늑짐(俗稱)에 CP를 설치하고, 제3소대로써 제29연대를, 제1 및 제2 兩소대로써 제30연대를 各各 直接支援.

(ㅅ) 제9重박격포중대……광삼(俗稱)에 CP를 설치하고, 제3소대로써 제29연대를, 제1 및 제2 兩소대로써 제30연대를 各各 直接支援.

(나) 작전실시

6월 11일 : 이날 현재, 제29연대(장, 文重燮 대령)의 右一線인 제2대대(장, 金麗林 중령)는 대대배속중인 연대수색중대(장, 李敏瑋 대위)를 主抵抗線에 배치하고, 前進陣地 B高地(△500)에 제7중대(장, 李鍾國 대위)를, A高地(△580)에 제5중대(장, 金秀鳳 대위)를 각각 추진하였다. 또 左一線인 제3대대(장, 朴元寬 중령)는 대대배속중인 제3중대(장, 李在文 대위)와 제11(중, 李龍祚 대위) 및 제10(장, 朴志明 대위) 兩중대를 主抵抗線에 전개하고, 前進陣地인 V, W의 兩高地에 제9중대(장, 徐慶善 대위)를 X高地(△380)에 제10중대. 제1소대(장, 尹珪燮 소위)를 각각 추진하고 있었다.

한편, 제30연대(장, 趙淵表 대령)의 左一線인 제3대대(장, 高炳暉 소령)는 대대배속중인 연대수색중대(장, 金榮福 중위)를 비롯하여 제10(장, 南乃鉉 대위), 제9(장, 韓炳燮 대위)



<狙擊稜線の 돌바위 高地>

제11(장, 辛武出 대위)의 4개 중대로서 主抵抗線을 占領하였는데, 대대 右제1선의 前進陣地인 Z高地(野地의 獨立峰)에는 제10중대의 제2소대(장, 李龍伯 소위)를 추진하고, 北進稜線の 前進陣地인 K高地(△380)에는 제11중대의 제2소대장 張錫楮 소위가 지휘하는 1개 분대(+)가 이를 占領하고 있었다.

때마침 6월 중순의 不連續線이 全戰線의 險巖 連峰을 뒤덮고, 連사흘째의 가랑비가 雲霧를 이루는 가운데, 이날도 日沒(17.51)과 더불어 夜陰이 짙어지기 시작하자, 사단 主抵抗線全域에는 夜間警戒의 삼엄한 긴장감이 여느때와 다름없이 감돌았다.

지난 1주일동안의 敵情을 종합분석한 결과, 사단正面의 中共 제70사단이 이날 밤안으로 北進稜線을 攻擊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단장 李翰林 소장은 情報參謀 金鼎德 중령과 作戰參謀 金景沃 중령을 帶同하고, 日沒가까운 무렵에 제30연대OP(W2, △520)에 나와 있었는데 이는 사단 左一線正面의 塔谷里 闊豁地와 北進稜線을 관측하기에 적합한 이 W2 OP에서 사단장 自身이 직접 指揮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中共 제24군은 이날 22.00~23.50에 延7개 소대로 B高地, A高地, X高地, Z高地등 4개 前進稜線를 攻擊하였을 뿐, 北進稜線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徵候도 보이지 않았다.

1. X高地(△380)의 戰況

三角高地(△598)줄기의 이 X高地는 下甘嶺 主抵抗線의 西北쪽 800m에 있으며 右인접 連峰인 V高地 및 W고地和 더불어 敵의 接近路를 가로막는 要部인데, 제29연대 제10중대의 제1소대(+)가 연대作指 제293호로 6월 6일부터 이를 占領하고 있었다.

소대는 增強받은 1개 분대를 前斜面 7부稜線에 잠복케 하고, 主力 3개 분대를 9부稜線에 배치하였는데, 이날 22.00에 數未詳의 敵이 迫擊砲 支援下에 攻擊하기 시작하였다.

배마침, 가랑비 뿌리는 夜暗은 漆黑처럼 짙어, 敵勢를 파악할 수가 없으므로 소대장 尹珪燮 소위는 潛伏組長 全平昌 下士에게 『敵 兵力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평소에 강조해온대로 『아무리 캄캄해도 분대장만 칩착하면, 분대원은 겁먹지 않는다. 놈들을 충분히 끌어당겨 手榴彈으로 박살내라! 소대장은 先頭에서 싸울 것이다!』라고 분대장들을 격려하였다.

그리고, 敵兵力이 1개 소대규모로 推定되자, 중대장 朴志明 대위에게 상황을 보고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朴元寬 중령은 X高地의 東北쪽에 있는 V高地 및 W高地도 攻擊받게 되리라고 예측하였으나, 敵은 이 2개 前進陣地를 동시에 攻擊하지 않고, 먼저 X高地를 直衝하여 主抵抗線과의 사이에 가로 놓인 稜線을 차단함으로써 제3대대 방어正面의 이 3개 前進陣地를 저절로 孤立시킬 攻擊企圖인 것으로 보였다.

그러므로, 대대장은 X高地 後斜面의 接近路에 대한 遮斷砲火의 집중을 긴급 요청하는 동시에, 제11중대(장, 李龍祚 대위)에 1개 소대의 逆襲部隊를 待機케 하고, 대대 作業(탄약)소대를 출동시켰다.

잠시 뒤에, 이 陣前 後斜面일대에 遮斷砲火가 炸裂하는 가운데, 제1소대장 尹珪燮 소위는 地雷地帶에서 照明地雷가 터지는 순간을 苦待하고 있었다. 陣前 25m~30m線에 埋設한 照明地雷로써 手榴彈 투척거리를 가름하려는 것이었다. 夜間防禦에 있어서는 소대의 小火器보다도 手榴彈의 効用이 더 크다고 믿고 있는 尹珪燮 소위는 평소부터 소대원들에게 강조하기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敵도 보지 못하는 것이 夜間戰鬥의 특성이다. 놈들이 照明地雷線까지 다가오는 것을 대담하게 기다렸다가 소대전원이 일제히 手榴彈을 던지면, 아무리 우세한 敵도 주춤하기 마련이다. 이 순간에 火力을 집중하면서, 手榴彈벼락으로 박살내야 한다』고 하였으니, 그 膽大한 資質의 一端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陣前擊擄를 다짐하는 소대는 決定的인 순간을 苦待하고 있었는데, 22.20에 照明地雷의 光茫이 피어오르자 소대장 尹珪燮 소위의 一喝下에 일제히 手榴彈을 던지기 시작하였다.

이 不意의 一擊을 피할 길 없는 敵은 무수히 亂飛하는 鐵片속에서 萎懼 40분만에 陣前의 一隅조차도 敢히 犯하지 못하고 물러서고 말았다.

2. Z 高地의 戰況

이날 子正가까운 무렵, 사단 左一線 제30연대의 Z高地(△200) 前進陣地에도 中共 제70사단 제208연대 소속으로 推定되는 1개 소대(+)가 그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 高地는 塔谷里의 主抵抗線 北쪽 600m에 솟은 野地孤峰인데 北進稜線 東쪽의 闊豁地를 병마개 모양으로 制扼하는 前進陣地로서, 제10중대(장, 南乃鉉 대위)의 제2소대(장, 愼

昌源 소위)가 추진되어 있었다.

비스듬히 길게 누워있는 全長 400m 안팎의 山勢를 감안하여, 東北端을 중점으로 소대 主力을 배치한 소대장 慎昌源 소위는 이 前進陣地를 맡게 된 소대의 임무가 重大함을 切感하고 있었는데, 이날 23.15~23.55에 敵 1개 소대(+)가 攻擊하기 시작하자, 照明 光란 下의 障礙物地帶까지 敵步를 誘引하여 일제히 소대火線을 集注하였다.

이때, 北進稜線 △360(△K 南쪽 300m)에 대대 OP를 추진한 제3대대장 高炳星 소령은 이 時刻에 Z高地의 前進陣地를 直衝하려는 敵의 攻擊企圖를 분석하되, 이는 夜間攻擊으로서 塔谷里—北進稜線의 開豁地의 補給路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推斷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제10중대 및 연대수색중대(배속)의 각 1개 소대를 支援部隊로 긴급 待機케 하였다.

한편, 제30연대장 趙淵表 대령은 제2대대(장, 金寅文 중령)의 1개 소대를 逆襲部隊로 急編케 하였는데, Y高地를 거쳐 Z高地 北쪽에 있는 敵의 接近路를 側方에서 擾亂함으로써 捕虜를 사로잡는 것이 그 主目的이었다.

3. A高地(△580)의 戰況

제29연대 제2대대(장, 金麗林 중령)의 前進陣地인 A高地를 (△580)攻擊하기 시작한 敵은 中共 제72사단 제216연대 소속으로 推定되었다.

이 A高地는 △520—△538—매봉(△540)—△534의 連峰을 잇는 狙擊稜線 主脈중에서 매봉 北쪽 400m에 聳立한 峻峰인데, 東北쪽으로 B高地 및 C高지를 待立시킨, 防禦의 要關으로서 제29연대 제5중대(장, 金秀鳳 대위)가 배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200m의 거리로 相距한 北쪽 連峰(△540)에 中共 제216연대로 보이는 1개 중대가 배치되고, 이 敵陣과의 사이에는 평평한 稜線이 잇달아 있으므로, 특히 夜間防禦에 철저를 期해야만 하였다.

중대장 金秀鳳 대위는 이 稜線正面에 機關銃班을 增強한 제2소대(장, 鄭永煥 소위)를 내세우고, 그 東쪽의 B高地에 面한 斜面에 제1소대(장, 金守模 소위)를, 그리고 매봉에 이르는 南쪽 稜線의 西斜面에 제3소대(장, 梁點釗 소위)를 각각 배치하였으며, 火器소대(장, 金順濤 중위)의 迫擊砲班을 제1소대 陣地의 後斜面에 위치케 하였다.

敵은 X高地 및 Z高지를 攻擊하는 동안에도 이 A高地에 砲擊을 가하더니 23.30에 제1소대 및 제3소대 正面으로 推定 1개소대가 攻擊하기 시작하였다.

중대 主陣地의 兩側面을 동시에 攻擊받게 되자, 중대장은 迫擊砲班에게 제3소대 正面을 機關銃班에게 제1소대 正面을 각각 엄호케 하였으나, 敵의 挾壓하는 氣勢가 더욱 強해지는 가운데 交戰이 치열하였다.

이때, 제2대대장 金麗林 중령은 23.50 현재의 高地戰況으로 미루어 敵의 增援兵力이 後續할 것이라고 예측하여, 연대장 文重燮 대령에게 △534 方向의 接近路上에 대한 遮斷射擊을 集中하도록 긴급요청하였는데, 연대장 역시 동일한 예측下에 鳳尾(下甘嶺 南麓)에 控衛

하였던 제1대대(장, 李大哲 중령)의 1개 중대를 긴급출동시키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제1대대장 李大哲 중령은 제1중대(장, 金錫具 대위)를 別命이 있을때까지 待機케 하였다.

한편, 사단장 李翰林 소장은 이 時刻에 W2(제30연대 OP)에 위치하여, 自身の 作戰概念에 대한 所信을 굳게 간직하고 있었다.

즉, 中共 제24군의 主攻은 北進稜線으로 집중될 것이며, 4개 前進陣地에 대한 이 시간 현재의 攻擊은 그 主攻에 앞선 陽攻으로 推斷되었다.

4. B高地(△500)의 戰況

A高地의 東쪽 緩斜面에서 標高 500m의 突出部位를 이루고 있는 B高地는 C高地—A高地의 中間에서 狙擊稜線 主脈의 東側面을 瞰制하는데 제29연대 제7중대(장, 李鍾國 대위)가 배치되어 있었다.

사단 主抵抗線의 右一線을 前進防守하는 이 C高地—B高地—A高地線은 700m의 방어 正面에 걸쳐, 中共 제72사단 제216연대의 右一線 前進陣地와 對峙하며, 陣地에 따라서는 50m의 至近距離에서 小銃狙擊이 可能하기 때문에 隘間行動은 極히 제한받고 있었다.

따라서 陣地마다 橫穴洞窟 또는 交通壕를 깊게 뚫어, 有蓋特火點을 연결시켜 방어정면에 긴밀히 협조된 火網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一名 岩石峰(또는 돌바위 高地)인 이 B高地에 배치된 제7중대는 山巒가 岩石으로 뒤덮인 까닭에 築城工事의 어려움을 특히 겪어야만 하였다.

중대장 李鍾國 대위는 이날 23.30부터 左인접 A高地에서 交戰이 시작되자, 左一線 제3소대장 崔泰德 소위에게 即刻的인 火力支援을 命命하였다.

그런데, 敵은 A高地 攻擊後 20분만인 23.50에 제3소대 정면도 1개 소대로 攻擊하기 시작하였다.



<제29연대 砂板앞의 연대장 文重燮 대령(오른쪽)>

이 1개소대의 攻擊은 제3소대의 A高地에 대한 側射支援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중대장은 火器소대(장, 金昊俊 중위)의 機關銃班을 左一線에 긴급 증강시켜, 제5중대 제1소대정면으로 肉迫중인 敵 攻擊 제1선에 曳光彈의 火箭을 집중케 하였다.

6월 12일 : 가랑비 뿌리는 가운데, 交戰 첫날의 子正을 넘긴 4개 ! 前進陣地의 戰鬪는 이날 ! 00.30에 敵의 強勢로 因하여 더욱 치열하여졌는데 제29연대(장, 文重燮 대령)은 사단

作命 제104호(53.5.15.08.00附)로 배속받은 제28연대 81mm 박격포 1개 소대로써 X高地의 제10중대 제1소대를 엄호케 하고, 연대를 直接支援중인 제51포병대대 및 제9重박격포 중대의 B高地—A高地에 대한 집중지원을 요청하였다.

한편, 사단장 李翰林 소장은 當面の 中共 제24군이 北進稜線을 공격할 것을 自信있게 판단하고 敵의 侵攻이 있기 前에 사단 全面에 걸친 敵의 壓力을 早速히 배제키로 결심하던 차에 이날 01.00 현재 제29연대장의 지원요청에 接하자 즉시 사단 포병단(장, 姜泰敏 준장)으로 하여금, B高地—A高地—X高地에 이르는 1km 正面의 예정된 火集點에 遮斷 및 阻止射擊을 집중케 하였다.

1. B高地의 戰況

이 날 10.20에, 제3소대장 崔泰德 소위는 敵의 攻擊 제1선이 陣前 30m까지 접근중인 것을 照明彈으로 확인하자, 지체없이 手榴彈을 集中 投擲케 하였다. 이로써 敵의 攻擊 제1선을 20분만에 擊退한 소대는 숨들릴 사이도 없이, 火器소대장 金昊俊 중위가 직접지휘하는 機關銃班과 더불어, 左인접 A高地의 陣前으로 射向을 바꾸어 제5중대를 側射支援하였다.

그러나, 제7중대 陣前에서 일단 물러났던 敵은 03.30에 照明彈의 光芒을 피하려는 意圖인지 이번에는 煙幕彈 支援를 받으면서 再次 제3소대 陣前으로 侵襲하기 시작하였다.

이보다 앞서, 제7중대장 李鍾國 대위는 제3소대 방어정면의 火力을 增強키 위하여, 右제1선 제2소대(장, 宋寅吉 소위) 및 中央제1선 제1소대(장, 李完宰 소위)에서 각 1개 분대씩을 抽出하여 제3소대장 崔泰德 소위의 指揮下에 들게 하는 동시에, 12명의 수류탄 投擲組를 急編함으로써 手榴彈의 集中을 効用케 하였다.

이 手榴彈의 集中投擲은 지원화력과 더불어 크게 奏効하였는데, 그 무수한 鐵片이 紛飛하는 가운데 敵은 遺棄屍體 26具를 거두지도 못하고 03.30에 倉皇히 물러나고 말았다.

2. A高地의 增援

이날 01.00에 A高地를 攻擊中인 敵의 2개소대규모는 더욱 增強되는 氣勢를 보이고 있었다.

때마침 일제히 砲門을 연 사단포병단의 支援火力이 高地 前面일대에서 殷殷하게 炸裂하는 가운데, 제2대대장 金麗林 중령은 연대수색중대(배속)의 1개 소대 및 대대 作業소대로써 A高地의 제5중대를 긴급 증원키로 하였다.

또한, 제29연대장 支重燮 대령의 명령으로 제1중대를 출동待機케한 바 있는 제1대대장 李大哲 중령도 이날 01.45에 긴급출동을 명령하였으므로, 제1중대는 중대장 金錫具 대위의 指揮下에 鳳尾를 떠나 出陣하였다.

이 제1중대는 제5중대의 임무를 인수하여 A高地를 防守하게 되는데, 狙擊稜線의 東南쪽 移動路를 急遽北上하여, 03.10에 待機地點인 대봉에 도착하는 즉시로 제1소대(장, 李元濟 소위)를 앞세워 進出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연대수색중대 제3소대 및 제2대대 作業소대도 01.40에 대대 主抵抗線에서 출발

하여 03.15에 제5중대 제3소대의 陣地에 當到하였다.

가) 敵 2개 소대의 猪突攻擊 : 이처럼 제5중대에 대한 增援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A高地의 戰鬪는 더욱 加熱되었다. 즉, 제1중대가 매봉에서 進出하는 時刻에 제5중대 제3소대 正面의 敵은 1개 소대를 더 增強하여 猪突의으로 攻擊하기 시작하였다.

이 제3소대의 正面은 地形的으로 제9중대(장, 徐慶善 대위)가 占據한 Y高地 및 W高地의 東北쪽이기때문에 제29연대장 文重燮 대령은 즉각, 제3대대장 朴元寬 중령에게 명령하여 제9중대의 火力일부로서 側射支援토록 하였다.

때마침, 가랑비가 멎어, 照明 效果가 회복된 밤하늘에는 照明彈이 렬새없이 솟아오르고, 제3소대의 陣前에서는 手榴彈이 亂飛하였는데, 소대장 梁點劄 소위는 各분대를 督勵하면서 增援部隊와 더불어 奮戰 1시간만에 이 敵을 擊退하였다.

나) 제8중대 제3소대장의 戰鬪指揮 : 그런데, A高地의 戰鬪는 이날 04.00를 고비로 더욱 치열해졌다. 즉, 敵 2개소대규모가 제2소대 正面으로 直突을 꾀하려는 氣勢를 보였다.

이 攻擊은 소대정면의 평퍼짐한 稜線을 단숨에 突破하여 山峰을 차지하려는 企圖인 것으로 판단되기때문에 제2소대장 鄭永煥 소위는 2개 潛伏組를 즉각 철수시키는 동시에 稜線上의 接近路에 대한 火力의 急襲을 要請하였다.

이 支援要請은 대대로서도 이미 예정한 바임으로 제2대대장 金麗林 중령은 지체없이 제8중대(장, 張師福 대위)의 81mm迫擊砲를 집중케 하였는데, 연대作命 제52호로 葛谷里에서 대대를 一般支援중이던 제3소대(장, 金忠男 중위)는 일제히 射向을 바꾸어, 제5중대 正面의 稜線上에 포탄을 集注하였다.

이 때, 소대장 金忠男 중위는 砲運用을 先任下士官에게 一任하고, 自身이 직접 彈着을 관측코자, 제5중대 OP의 觀測所로 馳驅하였다. 이는 精確한 砲彈의 集中으로써 敵勢를 일거에 擊摧코자 하는 指揮責任의 發露였으니, 때마침 夜深한 嶺上에 細雨低雲이 자욱한 가운데서도 一發인들 空彈으로 허비치 않겠다는 그 鬪志는 마침내 4門의 81mm迫擊砲를 的確히 誘導하여, 제5중대 제2소대 陣地에 대한 2개 소대규모의 逆襲을 阻止하는데 크게 貢獻하였다.

다) 제5, 제1 兩중대의 任務交代 : 이처럼, 支援火力을 집중하면서 敵 4개 소대규모의 挾擊을 破摧하는 동안, 방어主力인 제5중대의 兵力損失도 적지않으므로 이날 05.00현재, 鳳尾로부터 急驅 支援한 제1중대에 陣地를 인계하고, 14.00에 葛谷里의 集結地로 歸着하였다.

또한, 연대수색중대 제3소대 및 제2대대 作業소대도 매봉으로 歸着하여, B高地—A高地의 防禦 從深을 強化하였다.

3. X高地의 戰況

防守의 初一擊에서 手榴彈을 집중使用하여 40분만에 1개소대를 물리친 제10중대 제1소대는 敵의 再攻擊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이날 00.40에 다시 1개소대의 敵이 攻擊하기 시

작하자, 역시 同一한 手法로 陣前까지 충분히 誘引한 다음에 手榴彈을 집중하였다.

이 때에는 이미 대대 作業소대가 增強되어 있었으나, 제10중대장 朴志明 대위는 高地 西北쪽의 上甘嶺(一名, Jane Russell高地)으로부터 그들의 後續部隊가 增援할지도 모른다고 판단하고, 이에 逆襲待機중인 제2소대(장, 金英澈 소위)의 긴급출동을 명령하였다.

그런데, 01.30에도 敵은 增援되지 않으므로 3개소대의 火力을 집중하여 鎧袖一觸의 鐵槌를 加하였을 뿐만 아니라, 潰走하는 一群을 제1소대로 하여금 追擊케 한 끝에 遺棄屍體 18具를 확인하는 戰果를 거두고, 제2소대로서 高地를 말도록 하였다.

이로써 제1소대는 陣地를 제2소대에 인계한 다음, 04.30에 主抵抗線의 中대主陣地로 철수하였다.

4. Z高地의 戰況

제30연대 제3대대장 高炳星 소령이 판단한 바와 같이 敵이 Z高地를 이날 밤안으로 奪取하려는 듯이 01.10에 1개 중대를 增援하더니 04.30에는 2개 소대규모를 더욱 增強할 뿐만 아니라, 北進綫 北쪽의 A地區로부터의 支援射擊도 強化되었다.

이처럼 戰況이 急迫해짐에 따라, 대대장의 긴급조치는 適時適切한 火力集中의 効를 발휘하였다.

즉, 제3대대장 高炳星 소령은 敵 1개 소대규모의 攻擊이 시작되자, 그 增援部隊가 後續될 것으로 판단하고, 제10중대 및 연대수색중대(배속)의 각 1개 소대를 긴급 增援키로 결심하였다.

가) 白兵遊擊 : 이에 수색중대의 제2소대(장, 李武幸 소위)를 배속받은 제10중대장 南乃鉉 대위는 Z高地로 중대OP를 추진시켜 背水一戰으로써 固守키로 결심하고, 高地北端의 右제1선에 제2소대를, 中央제1선에 제3소대(장, 張錫彌 소위)를, 左제1선에 수색중대 제2소대를 각각 배치함으로써, 敵의 攻擊이 增強되기 前에 이미 3개 소대로 增編된 遊擊 陣勢를 갖출 수 있었다.

그러나, 敵은 이 孤立된 突峰에 砲火를 집중하면서 增強된 1개 중대규모로 高地北端을 계속 攻擊하더니, 02.00에 2개 突破口를 뚫고 氣勝스럽게 陣內로 殺到하였다.

이 危機를 맞은 제2소대장 愼昌源 소위는 중대장에게 보고하되, 『소대원과 더불어 죽음으로써 敵을 물리칠 것입니다!』라는 한 마디를 남기고, 手榴彈과 銃劍을 뽑아들어 『나를 따르라!』고 陣頭에서 怒號하니, 全소대원은 하나같이 奮起하여 白兵으로써 遊擊하였다.

나) 潰走하는 敵을 側方衝擊 : 그런데 이보다 앞선 00.30에 제7중대 主陣地를 출발한 제2소대장 金昌洙 소위 以下 19명의 소대원은 Y高地를 거쳐, 02.00 현재 Z高地 北쪽 300m의 窪地部位에 잠복하고 있었는데, 그 30분 뒤에 Z高地에서 潰走하던 무리가 接近하자, 不意의 側方衝擊을 加하여 捕虜 5명을 잡았다.

이 捕虜를 즉시, 사단장 李翰林 소장이 나와있는 연대OP로 後送하여 訊問하니 中共 계

208연대 제2대대 소속으로 판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단장이 推斷한 바와 같이 北進稜線 북쪽 A地區의 中共 제70사단主力이 大攻勢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확인하게 되었다.

5. K高地의 戰況

제30연대 左一線인 北進稜線の 唯一한 前進陣地가 된 K高地는 中共 제70사단 제208연대의 前哨據點인 △400와 같은 稜線上에서 400m를 相距하여 敵의 接近路를 殲制하고 있었는데, 이 정면을 담당한 제11중대장 辛武出 대위는 제1소대(장, 趙宗鎬 소위)를 同高地에 배치하고 있었다.

사단장 李翰林 소장이 自身の 판단을 굳게 自信하면서 逆襲計劃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이날 22.30부터 雷聲치는듯한 敵의 砲火가 K高地를 비롯한 제11중대 主陣地일대에 집중되더니, 그 15분뒤에는 2개 소대규모가 K高地 東斜面을 攻撃하기 시작하였다.

예정된 彈幕地帶 : 이 때, 제30연대장 趙淵表 대령은 제3대대장 高炳星 소령과 함께 대대 OP(△K 南쪽 300m의 連峰)에 位置하고 있었는데, 사단장의 作戰概念에 따라 제11중대의 防衛를 擔부하되, 別命이 有할 때에는 즉시 撤收하여 兵力을 保全하라는 點을 강조하였다.

즉, 敵은 반드시 大兵力으로써 北進稜線을 占據하려 할 것이라는 推斷下에 K高地를 포함한 北進稜線の 主抵抗線前面 一帶에 彈幕地帶를 설정하고 敵에게 最大限의 損失을 강요하면서 兵力의 集中을 伸縮性있게 運用하려는 것이었다.

제1소대장 趙宗鎬 소위는 照明彈의 閃光下에 陣地를 뒤덮는 砲火속으로 敵勢의 浮動을 파악하면서 10분마다 중대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子正무렵, 敵勢가 忽然히 2개 중대규모로 增強된 것으로 推定되므로, 즉시 예정된 철수계획대로 各 分대를 逐次로 主抵抗線까지 歸着시키면서 중대장에게 긴급 보고하였다.

6월 13일 : 전날 子正무렵, 제30연대장 趙淵表 대령의 K高地의 戰況을 보고받은 사단장 李翰林 소장은 會心の 自信感을 더욱 새롭게 하였다.

왜냐하면, 所期의 火力計劃으로 敵 1개 대대규모의 增援을 지체없이 捕捉하였기 때문이었다.

1. K高地의 戰況

그러나, 敵은 심한 損失에도 불구하고 增員兵力을 계속 投入하여, 이날 00.15에 제11중대 陣地일부를 뚫고, △365(제3대대 OP)까지 침투하였다.

가) 제3대대장의 措置 : 제11중대장 辛武出대위는 이 危機를 극복코자, 즉시 중대 左제1선의 제2소대(장, 張錫楅소위)로 하여금 側方으로부터 逆襲케 하는 동시에, 제1 및 제3소대(장, 斐鳳雲 소위)를 긴급 수습하면서 全중대의 奮戰을 鼓舞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高炳星 소령은 이 戰況의 急變을 逆用키로 하였으니 즉, 제9중대(장, 韓炳燮 대위)의 左제1선인 제1소대(장, 文弘國 소위) 및 대대OP 要員으로써 敵의 侵襲을 끌어들이는 동시에, 그 延伸된 攻撃軸을 遮斷키 위하여, 제28연대 제1중대(배속)으로써 側方에서 逆襲케 하였다.

나) 제28연대 제1중대의 逆襲 : 이에, 제28연대 제1중대(장, 金斗植 대위)는 攻擊開始線인 제9중대 접촉선(대대 OP 南쪽 150m의 連峰)을 출발하여 00.40에 逆襲을 發起하였다.

이 逆襲의 一擊은 敵의 意表를 찌른듯 하여, 중대는 가벼운 抵抗을 받았을뿐, 一氣呵成의 側方衝擊으로써, 제3대대 OP附近의 敵 攻擊제1선을 擊退하였다.



<作戰을 세우고 있는 제28연대의 제3대대지휘본부>

그러나, 그 20분後에 그들은 새로운 1개 중대규모로써 제9중대 OP까지도 포함한 正面을 다시 攻擊하기 시작하므로 대대OP를 둘러싼 近接紛戰이 또 벌어졌는데, 이 때에 제28연대 제1중대의 제1소대장 吳濟敏 소위는 全소대원들에게 『白馬!』 『北進!』을 相互連呼케 하였다.

이는 暗夜속의 紛戰에서 彼我를 識別키 위한 것인데, 소대원들은 이 暗口號를 외치는 동안, 白馬高地의 戰捷을 想起하고, 이 北進稜線을 지켜내자는 決意를 새롭게 하면서 白兵 遊擊 10분만에 대대OP부근의 敵勢를 쓸어 버렸다. 그러나 後繼 兵力을 계속 投入하는 그들의 壓力은 여전히 加重될 뿐이었다.

다) 사단장의 措置 : 이 危急한 戰況을 제3대대 OP에서 接하게 된 제30연대장 趙淵表 대령은 제3대대의 左제1선을 제9중대의 주진지로 하고, 敵勢가 이미 연대규모로 增強되었음

을 사단장에게 보고하였다.

이 보고로 사단장 李翰林 소장은 사단에비를 04.00에 우선 投入키로 결심하고, 그 보다 앞선 02.00附로 作指 제158호를 下達하여, 제28연대 제1대대 및 제53전차중대 1개 소대를 제30연대에 배속시키는 동시에, 제28연대장 尹泰晔 대령으로 하여금, 逆襲計劃 제45호 3案 A2(53.5.23.17.00부)의 敢行을 준비케 하였다.

이 逆襲計劃은 北進稜線을 제28연대에 맡겨, 연대兵力으로써 一舉에 逆襲케 하는 兵力集中運用을 그 大要로 하는데, 美제9군단장 Reuben E. Jenkins중장은 이計劃에 적지않은 危惧心を 품고 있었다.

즉, 군단으로서도 豫備兵力이 달리고 있는 터에, 제9사단에비 主力의 一舉投入이 萬의 하나라도 실패한다면 防禦縱深의 維持가 어려워지리라는 豫見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단장 李翰林 소장은 自身の 所信을 굽히지 않고 『北進稜線에 대한 敵의 大攻勢는 사단正面의 地勢與件이나 這間의 敵情判斷에 비추어, 中共 제70사단의 主力으로서 取해질 것이 分明함으로, 逆襲初擊에 연대규모가 아니고서는 성공할 可望性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한 끝에 마침내 該군단장의 同意를 얻었던 것이다.

이 逆襲計劃의 成敗與否는 곧 사단主抵抗線에 甚大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제28연대장 尹泰晔 대령은 事前準備를 갖추어, 命을 받들어 待機하고 있던 차에, 이날 04.00를 期하여 실시하라는 사단作命 제105호가 下達되자 豐谷里의 제2대대를 車輛機動으로 즉각, 近北而(北進稜線 南쪽 2km)에 移動케 하였는데, 이 사단作命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北進稜線의 主抵抗線을 확보하려 한다.

② 제28연대(배속: 제56수색중대)

㉠. 연대는 53.6.13.04.00부로 逆襲을 감행하여 主抵抗線을 확보하라.

㉡. 6월 13일 05.30附로 제53전차중대의 1개 소대와 제30연대 제3대대를 통합지휘하라.

㉢. 목표점령과 동시에 1개 대대로써 방어하라.

③ 제29연대는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라.

④ 제30연대

㉣.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라.

㉤. 배속중인 제28연대 제1대대를 原隊復歸케 하라.

⑤ 제53전차중대는 제30연대 배속중인 1개소대를 제28연대에 배속변경 하라.』

라) 寸土를 다투는 血戰: 이와같이, 사단에비인 제28연대의 機動集結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北進稜線의 戰況은 02.00를 고비로 血戰에 突入하고 있었다.

즉, 제11중대 2제1선인 제2소대(장, 張錫樞 소위)만이 美 제3사단 제7연대 F중대와 的 制限點을 固守하는 가운데, 제30연대 제3대대는 제11중대 主力과 제28연대 제1중대(배속)

로써 逆襲하였으나, 우세한 兵力으로 이미 유리한 地形을 占據한 敵火가 완강하므로 主抵抗線의 恢復이 용이치 않았다.

특히 제28연대 제1중대는 00.40에 意表를 찌른 側方 衝擊으로써 일단 逆襲에 성공하였으나 △365(제30연대 제3대대OP)를 다시 잃게 되자, 東南斜面의 急編陣地에서 攻擊隊形을 가다듬어 再次逆襲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攻擊제1선에 나선 제1소대는 소대장 吳濟敏 소위의 陣頭指揮下에 제2분대장 車炳甲 이등중사, 분대원 金長春 일병, 車容性 일병이 特攻組를 自願하여, 敵 重機陣地를 手榴彈으로 破摧함으로써 血路의 一角을 打開하였는데, 소대장 吳濟敏 소위는 그 보람도 없이 右肩部 및 左大腿骨에 貫通重傷을 입고 말았다.

한편, 제11중대 좌제1선의 제2소대는 제1분대장 吳海水 하사를 비롯한 소대소원의 힘으로 主陣地를 계속 堅守함으로써, 北進綫의 主抵抗線의 一邊을 지탱하고 있었다.

이에 제30연대장 趙淵表 대령은 사단作指 제158호로 배속받은 제28연대 제1대대(一) 및 제53전차중대 제1소대가 02.50에 赴援하게 되자, 제11중대 主力을 移轉시켜 제2소대의 主陣地를 增強함으로써 側方掩護의 火線을 굳게 다지고자 하였다.

이로써 제11중대는 雨注하는 砲火를 무릅쓰고 火線을 整齊하기가 바쁘게 △380(중대OP)를 奪取中인 敵에게 側射를 加하였는데, 이 亂鬪에서 始終一貫하여 陣頭指揮하던 제2소대장 張錫楨 소위가 手榴彈의 破片으로 壯烈하게 散華하고, 火器소대장 金光洙 소위 또한 迫擊砲彈으로 左腕을 크게 다치면서도 機關銃班을 계속 奮勵하더니, 流血이 狼藉한 가운데 마침내는 氣盡하여 長嘯하였으니 可謂 鎭國의 一巨巖이라 할 것이다.

마) 제28연대 제1대대의 逆襲 : 사단作指 제158호로 제30연대에 배속된 제28연대 제1대대(一)는 01.40에 集結地인 近北面에서 2.5km의 開豁된 道路를 따라 急히 北上하였다. 제30연대장 趙淵表 대령은 이 2개 중대를 逆襲의 主動으로 投入하여, 제11중대 OP를 비롯한 主抵抗線을 一舉에 恢復키로 결심하였는데, K高地-△380(제11중대OP)-△365(제3대대OP)사이의 稜線을 장악중인 頑敵은 地利를 타고 兵力을 계속 증강하면서 北進綫의 南端線까지 進出할 氣勢가 뚜렷하므로, 이 逆襲은 一刻을 다투어 敢行되어야만 하였다.

이에 제28연대 제1대대장 朴榮徵 중령은 LD에 進出즉시로 제2 및 제3 兩중대를 모두 攻擊제1선에 내세워 逆襲을 發起하였다.

이로써 兩중대는 서로 連繫하면서 제1목표인 △365(제3대대OP)를 向하여 直進하였는데 8部稜線에서 迫擊砲와 自動火器의 彈幕에 부딪쳐, 그 進出이 不振하게 되었다.

특히, 右제1선의 제2중대(장, 金容完 중위)는 처음부터 自動火器의 十字火力에 부딪쳐 兵力損失이 적지 않으므로, 特火點을 우선 覆滅치 않고서는 損失의 累增만을 쫓지 못할 상황下에 놓여지게 되었다.

중대 좌제1선에서 陣頭指揮하는 제3소대장 朴元燦 소위가 特攻으로써 이 危機를 打開하리

라 決心하자 곧 特攻組를 急編하였다.

이리하여 제2분대장 趙學權 이등중사 이하 4명의 特攻組는 삼근 2발의 수류탄과 銃劍만을 몸에 지닌채로, 陣前 30m의 火網을 一氣에 突貫하여, 全員이 戰傷을 입는 육박끝에 重機陣地 1개를 爆碎하였다.

이로써 突擊路上의 隘을 切開한 中隊는 제3소대를 先鋒으로 敵中으로 殺到하여 산병호 안에서 肉彈으로써 마침내는 △365를 탈환하고야 말았다.

한편, 中隊 左側 1선의 제3중대(장, 李乘澤 대위)는 제2중대의 突貫과 함께 躍進하여, 제2목표인 △380(제30연대 제11중대OP)를 向하여 줄기차게 躍出하였다.

이무렵, 제30연대 제3대대는 제11중대로써 主抵抗線上的 左一隅를 계속 固守하면서, 제28연대 제1대대(一)의 逆襲을 側方에서 掩護하고 있었는데, 中隊長 高煙屋 소령이 右肩에 破片傷을 입어 流血이 狼藉한 가운데서도 계속 指揮하다가 마침내는 氣盡失神하여 후송되고, 連隊 作戰主任인 李應龍 소령이 그 뒤를 이어서 指揮하게 되었다.

또한 제12중대장 李海舟 대위는 始終 一貫하여 박격포陣地에서 지휘하다가 腹部貫通으로 戰死하니, 中隊 作戰將校인 李鍾浩 대위가 中隊 指揮를 잇게 되었다.

이처럼, 指揮官이 壯烈히 陣歿하는 激戰속에서도 제30연대 제3대대 主力의 戰意는 더욱 冲天하여, 不退轉의 敢鬪를 계속하였는데, 특히 제12중대 제2소대장 田英周 소위는 機關銃班을 臨機로 指揮하면서 一挺의 損失도 없이 自動火力을 발휘하였다.

바) 제28연대 主力의 機動集結 : 제30연대 제3대대(一)의 掩護下에 逆襲중인 제28연대 제1대대가 主抵抗線을 恢復코자 步步進進마다 鮮血을 뿌리는 동안, 사단 作命 제105호로 豊谷里集結地를 출발한 제28연대 제2대대(장, 崔昌龍 중령)는 急遽 機動하여, 近北面으로 집결완료하니, 그 時刻은 제28연대 제2중대가 △385(제30연대 제3대대OP)를 탈환한 03.00 무렵이었다.

本是, 사단장 李翰林 소장은 사단예비 主力의 臨機集中은 車輛機動力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所信下에 사단의 全可動車輛을 豊谷里에 集결시켜 제28연대의 신속한 기동을 期하고 있었다.

즉, 사단正面의 地勢를 보건대, 三指形으로 突出된 五聖山줄기의 狙擊稜線과 三角高地群 그리고 北進稜線을 橫結하는 主抵抗線에서 敵襲을 即刻 擊攘하기 위해서는 사단예비의 迅速한 集中을 機動力으로써 保障하여야 한다는 見解에 따르는 첫 措置였던 것이다.

이로써 제28연대 제2대대는 近北面 集結地에서 다시 徒歩로 移動하여 北進稜線 南端에 도달하자 제7중대(장, 裋相泰 대위)를 右側 1선에, 제6중대(장, 金雲璣 대위)를 中央 1선에, 제5중대(장, 金仁玉 대위)를 左側 1선에 각각 展開하여 攻擊開始線으로 向하였다. 그런데 사단장은 이 逆襲의 勢威를 補強코자 作指 제159호(05.00附)를 要旨 다음과 같이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예비연대의 殘餘兵力을 새로운 集結地로 이동시켜, 增強되는 敵의 壓力을 打破하려 한다.

② 제28연대장은 6월 13일 14.00까지 1개대대를 近北面에 이동하여 緊接케 하라.』

사) 支援火力의 集中運用 : 사단장은 이와같이 사단에비의 全兵力을 北進稜線에 使用하는 동시에 支援火力의 優先權을 이 逆襲正面에 부여키로 하고 이날 04.00에 각 포병대대의 支援任務를 다음과 같이 변경키로 하였다.

ㄱ) 제30포병대대(장, 權五明 중령)……城柱谷里에 계속 布陣하여, 제28연대를 直接支援.

ㄴ) 제51포병대대(장, 朴泰鉉 소령)……豊谷里에 계속 布陣하여 제29연대를 直接支援.

ㄷ) 제52포병대대(장, 李天秀 중령)……城柱谷里에 계속 布陣하여 제30연대를 直接支援

ㄹ) 제89포병대대(장, 崔南守 중령)……近南面 加南里에 계속 布陣하여, 사단 一般支援을 계속하되, 제28연대 逆襲支援에 火力優先權을 附與.

한편, 美 제9군단은 제213, 제555, 제674, 제955의 各 포병대대로 하여금, A地區일대에 擾亂射擊을 集中케 하였으며, 제9重박격포중대의 제1, 제2, 兩소대 및 제53전차중대(장, 李聖寬 대위)의 제1, 제4 兩소대는 △317(塔谷里 南쪽) 西麓에 布陣하여, 逆襲支援을 계속하였다.

아) 제28연대主力의 逆襲 : 支援砲火가 咆哮하는 가운데 04.00에 LD를 통과한 제28연대 제2대대는 제2중대가 탈환중인 △365를 초월하여, 제3중대의 進出線 兩側으로 合勢하였다.

즉, 대대장 崔昌龍 중령은 제6 및 제7 兩중대로써 東斜面을 壓縮하면서 제3중대를 側方에서 掩護케 하고, 제1중대로써 西斜面을 急衝케 하였는데, 1개 소대규모와 格鬪 20분만에 이를 一蹴하면서 줄기차게 進出하였다.

그런데, 제5중대의 逆襲正面에는 △365에서 물러난 敵의 攻擊제1선이 이미 火線을 急編하였을 뿐만 아니라, 砲火의 集中이 甚하므로 中대장 金仁玉 대위는 이 彈幕地帶를 短兵急衝으로 突破할 決心밑에 各소대의 急進을 號令하다가 身邊에서 炸裂하는 迫擊砲彈으로 胸部에 重傷을 입었으며, 右제1선 제1소대장 安峽榮 소위와 左제1선 제3소대장 韓相淳 소위도 각각 下腹部貫通傷을 입고 말았다.

이와같이 指揮官 3명을 동시에 잃게된 제5중대의 士氣를 憂感한 대대장 崔昌龍 중령은 대대 情報官인 韓二京 소위를 急喚케 하였다. 韓二京 소위는 제2 및 제3소대의 掩護下에 右제1선의 제1소대를 직접 지휘하며, 敵의 自動火力이 가장 甚한 이 正面에 血路를 貫徹함으로써 中대의 危機를 打開하려고 陣頭에서 突進하였다. 이로써 全員一丸이 되어 殺到한 中대는 △380 西斜面의 8부稜線을 탈환하여 제1대대 主力의 南斜面에 대한 逆襲을 側方로부터 支援하게 되었다.

한편, △380의 東南斜面으로 展開한 제 6, 제7 兩중대는 서로 連繫下에 進出線을 밀어 올리며 제53전차중대 및 제9重박격포중대의 掩護를 받고 있었으나, △400쪽에서 집중하는 曲射火力의 精確한 彈着때문에 左인접 제1대대 主力의 進出線과 併行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05.30에 이르러 이 難澁한 상황下에서 敵火의 凋勢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제2대대장 崔昌龍중령은 제29연대장 尹泰暎 대령에게 航空近接支援을 요청하였다.

먼동이 트기 시작한 무렵이었으나, 전날부터 激戰터의 上空에는 不連續線이 低張을 넘으므로 空軍機의 出擊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20분後에 出擊한 F-80機 1개 편대가 △400 背斜面을 Napalm彈과 機銃掃射로 強打하였다.

이 一擊이 奏效하였음인지 曲射火器의 落彈이 현저히 줄어들어는 好機를 놓치지 않고 제 6, 제7 兩중대는 일제히 突進을 再起하였다.

그 最先鋒에 서서 제6중대 제3소대를 陣頭指揮하던 소대장 金東鉉 소위가 8부稜線의 敵陣을 남겨놓고 堆土地點에서 突入을 號令하려는 刹那에 左胸部의 貫通으로 散華하니 참으로 曉天에 빛나는 流星의 모습 그것이었다.

자) 主抵抗線의 恢復確保 : 이 무렵, 제28연대 제3중대는 △380南斜面의 9部稜線 一角을 破摧하고, 거듭 肉迫하고 있는 중이며, △365를 제1중대에 인계한 제2중대는 後續하면서 增援을 서두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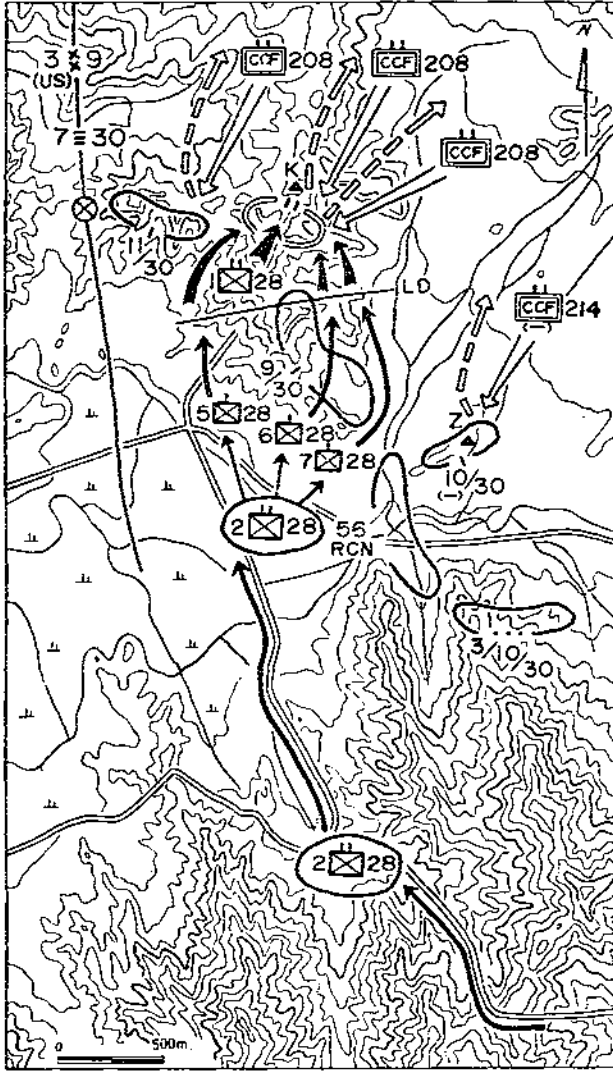
그러나, 激甚한 阻止砲火로 因하여, 戰果를 확대치 못하게 된 제3중대는 이미 확보한 散兵壕속에서 手榴彈을 投擲하며, 제2중대의 增援을 苦待하고 있었는데, 이 때에 敵과의 거리는 不過 15~20m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제1소대장 張大澤 소위는 몇 번이고 이 至近距離를 단숨에 뛰어넘어, 敵陣으로 突入코자 베투었으나, 그때마다의 소대원의 損失을 감안하여 추저하다가 마침내는 特攻을 自願한 3명을 직접 이끌고 跳躍數步만에 鮮血을 뿌리니 이 壯烈한 最後를 目睹한 各분대장은 자기분대원을 敍하며 白兵을 휘몰아치게 되었다.

攻撃제1선에서 이처럼 血雨가 霏霏하게 됨에 따라 대대는 刻一刻으로 緊迫化하는 危急을 克服하게 되었다.

즉, 敵勢의 累増과 彈藥의 不見이 점차로 甚해지면서 제3, 제2 兩중대의 兵力損失 또한 不尠하므로 제1대대장 朴榮徵 중령은 연대장에게 07.00 현재의 戰況을 보고하면서 『現況을 打開하여 逆襲成功을 期하기 위하여는 대대장以下 대대主力의 最後突擊이 남아 있을뿐임. 全支援火力의 集中을 要望함』이라는 決意로 매듭짓고, 麾下 全分대장級이상이 陣頭에서 挺進케하니, 대대 左1선에 急遽 合勢한 제2중대 제1소대장 金炳國 소위를 비롯한 各소대장은 물론, 全分대장 모두가 一時에 怒號하면서 突貫하였다.

이 무렵부터 제2대대의 側方에서의 支援火力이 熾烈化되는 가운데, 제1대대(一)는 李秉澤 대위가 陣頭指揮하는 제3중대를 先陣으로 하여 敵陣으로 殺到, 手榴彈과 개머리板 및

◇ 상황도 제43호 제28연대의 逆襲(6.13.07.30현재)



銃劍을 휘둘러 血鬪 20분만에 △ 380(제30연대 제11중대OP)를 탈환 하고야 말았다. (상황도 제43호 참조).

이로써 제28연대 主力은 07.30 현재, 사단 主抵抗線의 左제1선을 완전히 恢復하였는데, 이 逆襲에 있어서 始終一貫으로 陣頭에서 指揮한 소대장 2명의 戰功概要를 追錄하면 다음과 같다.

(7) 제4중대 제2소대장 金文鎬 중위……제1대대 主力을 掩護함에 있어서, 隨時로 有利한 射界를 擇하여 機關銃을 推進함으로써, 適時適切한 自動火力を 運用하였다.

(L) 제2중대 제1소대장 公祥彦 소위……△380의 敵陣을 目睫에 두고, 集中火力으로 因하여 中대의 進出이 釘着되자, 인접 3소대의 掩護를 要請함과 동시에 3소대(장, 金燐植; 이등중사)의 特攻組 4명을 직접인솔하여 敵陣의 特火點을 破摧함으로써 中대 突擊路의 一角을 切開하였다.

차) 사단 作命 제106호 : 그러나, K

高地가 아직도 敵의 掌中에 남아있는 限 逆襲의 銳鋒을 거둘 수 없는 사단장 李翰林 소장은 이날 12.00附로 사단 作命 제106호를 要旨 다음과 같이 下達하여 제28연대로 하여금 K高地를 목표로 계속 逆襲케 하였다.

『① 사단은 일부부대를 再編함과 동시에 제30연대 左一線인 北進稜線을 제28연대에 附與하여 逆襲을 계속 敢行하려 한다.

② 新戰鬪地境線은 6월 13일附로 發効한다.

③ 제28연대(배속부대 : 美 제64전차대대 1개 소대, 제30연대 제9중대, 제53전차중대 1개 소대, 工兵 1개중대)

㉑ 1개 대대로 하여금 主抵抗線을 방어케 하라.

㉒ 1개대대를 近北面에 殘留시켜, 사단命숨이 有할時에만 出동케 할 연대에비로 待機케 하라.

㉓ 6월 13일 18.00까지 1개대대를 豊谷里로 移動再編하여 사단에비로 待機케 하라.

㉔ 6월 13일 14.00附로 제30연대 제3대대(一), 제58수색중대를 原隊復歸케 하라.

㉕ 6월 13일 14.00附로 新戰鬪地境線을 引受함과 동시에 제30연대 2개 중대를 통합 지휘하라.

④ 제29연대는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라.

⑤ 제30연대

㉖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되, 제11중대의 방어정면을 6월 13일 14.00附로 제28연대에 인계하라.

㉗ 제28연대 배속중인 2개 중대를 原隊復歸와 동시에 近北面에 集結 再編케 하여, 사단命숨이 有할 時에만 出동케 할 연대에비로 待機케 하라.

⑥ 포병단, 제9重박격포중대, 제53전차중대, 사단수색중대는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라.』

이로써 제28연대장 尹泰皓 대령은 연대作命 제70호로 각대대에 任務를 附與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연대는 北進稜線 主抵抗線을 引受함과 아울러 前進陣地 K高地를 奪還하러 한다.

② 제1대대는 △380主陣地를 제2대대에 인계하고, 6월 13일 15.00까지 豊谷里에 移動完了하라.

③ 제2대대는 제30연대 제9중대를 통합하여 北進稜線의 主抵抗線을 防禦하라.

④ 제3대대는 集結地인 近北面에서 戰力을 整齊하여 別命이 有할 時에는 即刻 出動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

한편, 제30연대의 제11, 제12 兩중대는 近北面으로 移動하여, 部隊를 整備하게 되었는데, Z高地의 제10중대(一)는 이날 04.30에 敵 1개 중대(一)규모의 攻撃을 砲兵支援下에 擊退한 이후, 점차 小康을 이루는 가운데 陣地補修등 防禦力을 補強하고 있었다.

2. A高地의 戰況

사단 右一線 前進陣地의 要扼인 A高地를 비롯하여, B高地와 W高地, 그리고 X高地의 敵勢도 04.30을 前後하여 萎縮하기 시작하였다.

이 一連의 戰況을 分析컨대, K高地에 대한 力攻이 막바지를 이룬 이날 拂曉무렵에 支援火力을 北進稜線에 集中한 火力按配의 영향도 있겠으나, 제29연대 이하 各중대의 堅壘 앞에 累屍만을 쌓게 되는 猪突性이 일단 衰退한 것으로도 看做되었다.

그러나, 同稜線 △380(제30연대 제11중대 OP)를 奪取한 01.15무렵부터 3시간에 걸친 그들의 氣勝은 자못 극성하였으며, 특히 高地에 대하여는 2개 중대로 挾擊까지 하려는 듯 하였다

전날 05.00에 제5중대와 交替한 제1중대(장, 金錫具 대위)는 陣地를 引受한지 10餘시간 동안에 疲乏어린 努力으로 塹壕를 補強하였는데, 右제1선 제2소대(장, 張鉅淳 소위)와 左제1선 제3소대(장, 李鉉鎬 소위)의 兩 정면에 대한 照明彈의 集束 끝에 各1개 중대 규모가 蟄集하자 이에 대한 火力을 일제히 發揮하였다.

더군다나, 중대장 金錫具 대위가 各소대장으로 하여금 設置케 한 24개의 Napalm筒이 要所에서 폭발한 탓으로 그들의 接近路가 熔鑠爐로 돌변하는 가운데, 그들의 攻擊제1波가 狼狽한 나머지 10분만에 遺棄屍體 56具를 남기고 물러나고 말았다.

이 初動의 一擊으로 더욱 士氣를 드높인 중대는 油性殘焰속으로 哭鬼嗷嗷한 山巒에 射線을 다시 가다듬어, 敵의 攻擊제2波를 기다렸는데, 03.50에 煙幕射擊과 더불어, 中央제1선 제1소대(장, 李元濟 소위)까지도 포함한 중대 全정면에 1개 대대 규모로써 猪突을 반복한 까닭에 다만 陣前에서 屠戮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3. W高地의 戰況

한편, 上甘嶺(一名 Jane Russell高地)의 敵陣突端에 가장 近接된 高地의 제9중대 제1소대(장, 李相均 소위)는 제12중대 제2소대(장, 趙宗鎬 소위)의 自動火力下에 전날 子正무렵 02.00부터 敵 2개 소대규모를 斥攘하고 있었는데, 이날부터 同高地의 南쪽斜面으로 부터 1개 중대규모가 파괴되기 시작하자 V高地(W高地 東南쪽 300m)에 있는 제9중대의 主力이 鏖殺의 불을 吐하게 되었다.

그런데, 중대장 徐慶善 대위는 이러한 側面攻擊을 미리 짐작하고, 제2소대(장, 李光質 소위)와 제3소대(장, 朱慶魯 소위)의 各 1개 분대씩을 뽑아 6部稜線에 潛伏케 하였던바, 그들의 攻擊軸을 向하여 不意에 擾亂하니, 咫尺도 분간키 어려운 夜暗속으로 中共語의 叫苦가 꼬리를 무는 가운데, 挾擊의 奏効를 볼수 있었다.

이로써 2개 중대규모를 04.00까지 모두 擊退하였으나, 이 戰鬪중에 支援機關銃班을 指揮하던 제12중대 제2소대장 趙宗鎬 소위가 頸部貫通으로 壯烈한 最後를 마쳤으니 가장 陣頭에서 獻命하였으니만큼 死而後已로 죽어서도 餘恨이 없었을 것이다.

6월 14일: 이날 零時현재의 사단 全정면상황을 概觀컨데, 左一線에 있는 北進稜線의 前進陣地인 K高地가 비록 敵手中에 殘置되긴 하였으나 右一線에 있는 狙擊稜線과 三角高地群의 C高地—B高地—A高地—V高地—W高地—X高지를 잇는 前進陣地線은 한치의 讓步도 없이 堅持하였을 뿐만 아니라, 敵에게 損失을 強要함으로써 사단장의 作戰概念이 戰果面에 反映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11일이래의 戰況推移를 概觀컨데, 中共 제24군은 右一線인 제13사단의 主力으로써 北進稜線을 一擊에 占奪하려던 主攻의 挫折로 13일 拂曉부터 攻守의 轉換을 倣한듯 하다가 再起를 준비하려는*것인지, 晝間에는 交綏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더니, 22.00에 W高地와 X高地에 各 1개 중대규모로써 攻擊을 加하는 한편, 北進稜線의 主抵抗線에 1개 대대규모

를 새로 投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단장 李翰林 소장은 火力計劃을 從前대로 推進하면서 제28연대장 尹泰階 대령에게 K高地의 奪還을 嚴命함과 아울러, 狙擊稜線과 三角高地群에 대한 그들의 攻擊企圖를 銳意注視한 결과 그 主攻이 여전히 北進稜線으로 指向될 것으로 判決하면서 防禦 제4일을 맞이하였다.

1. K高地의 戰況

제28연대 제2대대장 崔昌龍 중령은 北進稜線の 主抵抗線을 引受하는 同時에 백속반은 제30연대 제9중대를 原陣地에 계속 배치하여 右제1선을 防守케 하고, 제7중대를 中央제1선 △380에, 제6중대를 左제1선에 각각 配備하였으며, 제5중대를 德대에 비로 栢德里 南緣에 控置한 가운데 逆襲再起를 支援키로 하였다.

가) 제28연대장의 措置 : 한편, 제28연대장 尹泰階 대령은 直射火力의 增強을 위하여 제53전차중대 제1소대(백속)를 △317 西쪽의 閑豁地로 推進케 하고, 연대를 直接支援중인 美 제64전차중대 1개 소대를 峇谷里 閑豁地로 移動配陣토록 긴급요청하였다.

이러한 擊攘之勢로써 北進稜線에 대하여 中共 제70사단은 20분간의 攻擊準備射擊과 더불어 1개 德대(+)로써 攻擊節波를 投入하기 시작하였다.

즉, 전날 22.50에 △400 上空의 漆夜抵雲속으로 赤色信號彈 2발이 솟아 오르더니, 벌안간에 遠雷치는 砲聲과 함께 제2대대 主陣地一帶에 各種 砲彈이 轟注하기 시작하며, 제7, 제6 兩중대 正面에 胡笛과 擊鎗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뿐만 아니라 제30연대 제9중대(백속)의 主陣地 正面에도 中共語의 喧騒가 爆音에 和하여 벌려 들었다.

이와같이 그들의 攻擊再興이 시작되자, 사단장 李翰林 소장은 △400를 비롯한 北進稜線의 앞쪽 一帶에 있는 火力急襲點에 砲火를 곧 指向케 하였는데, 제28연대장 尹泰階 대령은 예정된 作戰計劃대로, 主抵抗線의 各중대로 하여금 陣前에서 擊滅토록 嚴命하는 동시에 近北里에 控置한 제3대대 제10중대(장, 李永朝)로 하여금 逆襲을 위하여 긴급출동케 하였다.

나) 主抵抗線 3개중대의 戰況 : K고지를 奪還하기 위하여 △380를 중심으로 한 主抵抗線의 堅守가 무엇보다도 喫緊하게된 이 時點에 있어서, 제30연대 제9중대와 제7, 제6 兩중대는 敵의 어떠한 攻擊이라도 이를 陣前에서 擊退하리라는 決意도 새롭게, 子正을 갖넘긴 夜半三更의 山隅를 지켜보고 있었다. 雲雨가 低迷하는 虛空을 가르면서, 실새없이 솟아오르는 照明彈으로 推定된 敵勢는 右제1선(제30연대 제9중대 主陣地)에 1개 중대규모가, 中央제1선(제7중대 主陣地)에 2개 중대규모가, 左제1선(제6중대 主陣地)에 1개 중대규모가 각각 攻擊準備射擊에 觸接하는 거의 同時刻에 일제히 猛突하기 시작하였다.

△365의 德대OP에 위치한 제2대대장 崔昌龍 중령은 各 중대의 報告에 接함과 동시에 △380로 攻擊主軸을 楔入하려는 그들의 企圖를 看破하고 支援火力의 優先權을 제7중대 正面에 부여토록 요청하는 한편, 德대에비인 제5중대를 逆襲을 위하여 待機토록 긴급조치하였다

또한, 연대장 命令으로 02.00에 近北面의 集結地를 출발한 제10중대는 2.5km의 主補給路를 疾驅하여 △360(제30연대 제9중대OP) 後斜面까지 北上하였는데, 그 동안에 主抵抗線의 3개 중대는 敵勢를 陣前 30m까지 끌어당겨, 協調된 火網과 手榴彈의 投擲으로써 死屍累冪한 出血을 餘地없이 強要하였는데, 특히 각 중대장들은 모두가 自隊의 榮譽를 다투듯이 難兄難弟의 鬪魂을 보이기도 하였다.

즉, 右제1선 제30연대 제9중대장 韓炳燮 대위는 제1소대장 文弘國 소위가 負傷당하자 소대 陣地로 挺身하여 射線을 긴급수습하였고, 中央제1선 제7중대장 裴相泰 대위는 제2소대(장, 白成基 소위)의 一角이 危急해지자, 중대敎育係 鄭榮謀 이등중사와 傳令 南守燮 하사 그리고 金榮綠 일병을 挺身急赴케 하였으며, 左제1선 제6중대장 金雲巖 대위도 敵彈을 自動火力의 射向을 지시함으로써 제2소대(장, 林正植 소위)와 제1소대(장, 具然哲 소위)의 間隙을 突破하려는 侵敵의 尖端部를 擊摧하였다.

그러나 中央제1선 △380를 直衝하려는 그들의 攻擊主軸은 屍丘를 이루는 損失에도 不拘하고 1개 중대(+)로 推算되는 增援兵力을 投入함으로써 제7중대 主陣地 3개所에서는 04.00에 白兵으로 格鬪하는 死鬪가 벌어지기에 이르렀다.

이에 중대장 裴相泰 대위는 『중대는 全滅을 賭하고 現主陣地에서 寸步라도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一念으로 제1소대장 崔在赫 소위와 제2소대장 白成基 소위, 그리고 제3소대장 韓光洙 소위의 奮戰을 檄하는 한편, 대대장 崔昌龍 중령에게 報告하되 『刻一刻으로 增強하는 敵勢로 因하여 一部陣內戰을 敢行중이오나 中隊는 最後의 一兵에 이르기까지 現主陣地를 決死固守하려함. 然이나 끝내 勢不利하여 중대OP까지 침범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陣內射擊을 집중하여 주기 바람』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戰況報告에 接한 대대장 崔昌龍 중령은 대대예비인 제5중대의 1개소대를 急速 增援케 하고, 연대장에게 연대예비의 逆襲가담을 建議하였다.

다) 제56수색중대의 逆襲: 이 무렵, 제28연대장 尹泰皓 대령도 제56수색중대와 제10중대에 대하여 逆襲을 命令할 적절한 時刻을 검토하고 있었다.

즉, 北進稜線을 굳게 지키는 가운데, 敵主力의 側方에 대하여 逆襲하므로써 擾亂과 遮斷의 두가지 効用을 노리고 있었는데, 제2대대장의 建議에 接하자 즉각 제56수색중대에 逆襲을 下命하고 제10중대를 後續待機케 하였다. 이로써 제56수색중대는 曉暗속에 雨露가 축축한 山嶺을 밟으면서 栢德里 東쪽 台地로 일단 轉進하여 △380-K高地사이의 硝煙이 자욱한 稜線을 向해 直突하였다.

중대장 金東元 중위는 이 一擊의 成敗가 곧 主抵抗線의 堅守 如何와 K高地의 奪還 與否에 直결되는 것임을 少중대원에게 강조하고, 제1소대(장, 韓永雨 소위)와 제3소대(장, 申仁均 소위)를 左右제1선으로 併進케 하고, 제2소대(장, 趙成寬 소위)를 後續케 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主抵抗線 右제1선을 攻擊중인 1개 중대규모의 敵 後尾를 攪亂하면서



〈敵陣前의 手榴彈投擲 距離로 포복 육박하는 特攻隊員들〉

逆襲의 全威力을 發揮하여 나갔다.

그런데, 右제1선의 제1소대는 7부稜線上의 疏林에서 自動火力에 부딪쳐 그 進出이 수월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대장 韓永雨 소위는 K高地로부터 완전히 瞰制당하는 不利한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여 掩護射擊을 긴급요청하였다.

그러나, 右前方 80m의 岩窟를 교묘히 이용한 敵의 特火點은 迫擊砲彈의 集中炸裂에서도 여전히 吐焰을 멈추지 않으므로 左제1선과의 連繫 또한 難澁하게 되었다.

이 射彈의 飛散界를 突破하려면 決死特攻으로 當該特火點을 覆摧하는 수 밖에 없다고 뜻을 굳힌 소대장 韓永雨 소위는 제1분대장 朴弘燮 이동중사에게 特攻組를 急編케 하였는데 이 때에 小銃手 李光雨 일병이 敢然히 自願하면서 외치기를 『소대의 危急을 救하는데 내 한몸의 목숨이 무엇 그리 重할손가!』라고 땅을 차고 뛰어나가니 전소대원이 그의 單獨突貫을 한사코 掩護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李光雨 일병은 躍進과 포복으로 마침내는 死線 80m 를 突破하여 두 개의 手榴彈을 連投함으로써 이 特火點을 爆碎하는데 成功하였으니 可謂 一當百의 勇夫라 할 것이다.

라) 逆襲의 成功과 K高地의 奪還 : 제56수색중대의 逆襲은 主抵抗線의 戰況을 起死回生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28연대 主力으로 하여금, 受動的 主陣地를 박차고 K高地奪還을 위한 恢復攻擊으로 移轉케 하는 契機를 마련하였다.

즉, 李光雨 일병의 單獨肉迫으로 血路를 뚫게된 제56수색중대의 逆襲제1선이 05.30에 일제히 突貫하기 시작하자 제7중대도 △380의 主陣地 3개소의 陣內白兵戰에서 敵의 攻擊제1선을 剋滅한 餘勢를 몰아, 擊攘의 戰果를 확대하는 중이었다.

이 戰機의 一轉을 看破한 제2대대장 崔昌龍 중령은 一氣呵成으로 K高地까지 奪還할 決意下에 제7중대(+)와 제5중대(-)의 追加投入을 연대에 建議하였다.

이에 제28연대장 尹泰晤 대령도 勿失好機의 逆襲을 단행키로 결심하고, K高地-△400稜線에 遮斷火力의 急襲點을 置重토록 사단에 요청하는 동시에 要旨 다음과 같은 口頭命令

을 즉각 下達하였다.

『① 연대는 潰散하기 시작한 敵에 跟隨하여, 戰果를 확대하는 동시에 K高地를 一舉에 奪還하려 함.

② 제2대대장은 K高地를 奪還하라. 또 제10중대를 통합지휘하여 △380主陣地를 인수케 하라.

③ 제56수색중대장은 現進出線에서 제2대대의 逆襲을 支援하되, K高地를 목표로 계속 併進하라.』

이 命令을 下達하기에 앞서 연대장은 제2대대의 兵力使用에 대한 自己의 腹案으로 제7중대와 第5중대를 投入할 것을 提示한 바 있었는데 그 까닭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事項을 考慮한 것이었다.

첫째, 제2대대 예비인 제5중대(-) 또는 연대예비인 제10중대로 하여금, 제7중대 主陣地線을 超越出擊케 함이 옳을 것이다, 제7중대장 襄相泰 대위가 05.30 현재의 戰況을 보고 하되, 『我중대는 一丸이 되어, 敵을 追擊殘滅함과 동시에 K高地 奪還의 先陣을 熱望함』이라는 戰意로 계속 追擊한다면, 100m거리의 △380-K高地稜線을 一氣突破하리라는 確信이 있었다.

둘째, 戰機一轉의 効用을 감안하여, 예비兵力의 起用은 時間的으로 好機를 逸失케 되는 우려가 앞섰다.

셋째, 敵에게 潰散兵力을 수습할 시간여유를 주지않고, 颯風一陣의 猛攻으로 戰果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5중대(-)를 제7중대에 後繼케 하였다.

연대장의 이러한 판단은 乘機奏捷의 基因이 되어 望風敗走하는 敵을 追躡한 제2대대의 主力은 跳澗直擊으로 K高地를 完全히 奪還하고 勝利의 喊聲을 울리니 그 時刻이 07.30이었다.

이로써 제28연대는 逆襲 2일만에 그 作戰任務를 수행하였는데, 本防禦戰에서 集計된 사단의 戰果 및 損失은 다음과 같다.

◇ 戰 果

時日	區分	射 殺	捕 虜	計 計	
6.11		37	1		38
6.12		1,230	8		1,238
6.13		549	4		553
6.14		276	5		281
計		2,092	18		21.00

◇ 損 失

部隊	區分	戰 死		負 傷		失 踪	
		將校	士兵	將校	士兵	將校	士兵
28 R		2	63	2	110		
29 R		2	99	8	245		2
30 R		1	99	1	129		2
計		5	261	11	484		4

라. 전투후의 개황

제28연대장 尹泰皓 대령은 逆襲성공의 捷報에 接하자, 연대예비인 제3대대로써 北進綫의 主抵抗線을 固히기로 하여 연대作命 제72호(53.6.14.08.00附)를 要旨 다음과 같이 下達하였다.

『① 제3대대장은 대대主力을 推進하여, 12.00까지 제2대대의 主陣地를 인수하라.

② 제2대대장은 14.00까지 近北面 集結地에 연대예비로 집결하여 別命을 待機하라.』

이로써 제3대대장 鄭春泰 중령은 이날 08.00에 近北面 集結地에 待機중인 예하主力을 즉각 출동시켜, △360 後斜面에 이미 推進되어 있는 제10중대와 더불어 北進綫의 主陣地를 인수케 하였는데, 제10중대(장, 李永朝 대위)를 右側1선에, 제9중대(장, 申鉉慶 중위)를 中央제1선의 △380에, 제11중대(장, 金時中 중위)를 左側2선에 각각 배치한 陣容으로써 敵의 再攻擊에 대비케 되었다.

한편, 제2대대장 崔昌龍 중령은 K高地의 前進陣地를 비롯한 각 중대의 主陣地를 逐次로 인계하고, 중대별로 近北面 集結地로 집결하였다.

그런데, 中共제70사단은 14일 낮동안에 潰散된 兵力을 수습하기에 餘念이 없었던지, 그로부터 15시간만인 22.00에 △400의 夜空에 赤色信號彈 3발을 쏘아올리는 동시에 2개 중대로써 K高地를 다시 攻擊하였다.

그러나, 寸步不退轉의 決意로 固執히 이 陣地를 맡은 제9중대의 제1소대(장, 金煥明 소위)는 稠密한 火力支援下에 血鬪 50분간, 陣頭에서 散華한 소대장 金煥明 소위를 뒤따라 一意決死의 勇戰끝에 제 56수색중대의 增援과 더불어, 그들의 戰意를 粉碎하고 말았다.



<사단장 李翰林 소장으로부터 勳章을 받은 戰功將兵들>

이로써 堅陣을 더욱 다지게 된 제28연대 제3대대는 15일 丁夜에 또다시 敵 2개중대 규모의 攻擊을 물리쳐 北進綫線防守를 搖地不動케 하였다.

또한, 사단 右一線인 제29연대도 B高地와 A高地 그리고 W高地와 X高地 및 V高地등 狙擊綫線과 三角高地群의 各 前進陣地를 間歇的으로 奪取코자하는 1개소대(+) 또는 1개중대 규모를 鎧楯一觸으로 물리침으로써 “常勝白馬”의 威感를 크게 떨치었다.

이에 사단장 李翰林 소장은 6월 18일을 擇하여, 제28연대의 朴榮徵 중령(제1대대장)과 崔昌龍 중령(제2대대장) 그리고 鄭春泰 중령(제3대대장)과 趙學權 이등중사(제2중대 斥候組長)에 이어 韓弘植 이등중사(제1중대 先任下士官대리)와 李光雨 일병(제56수색중대 小銃手)등을 비롯한 各연대의 戰功者를 표창함과 아울러, 사단 全將兵에 檄하되 『사단正面的 中共 제24군은 休戰成立을 앞두고 主抵抗線 全面에 最後發惡의 大攻勢를 取할 것이 分明히 豫상됨으로, 이 一戰奏捷에서 체험한 戰訓을 積을삼아 더욱 擊攘撲滅의 防守態勢를 갖추기에 분발노력하라.』는 要旨를 下達하여 戮力臨戰케 하였다.

뿐만아니라, 대대장級 이상의 各연대 指揮官 및 사단 全參謀를 소집하여 本戰鬪의 顛末에 대한 講評會議를 개최한 席上에서 사단장 自身の 敵情判斷을 皮력하여 『中共 제24군이 다음에 取할 攻勢는 金化를 直衝하는 企圖로 狙擊綫線에 主攻을 指向할 것인즉, 主抵抗線연대는 加一層 前進陣地固守에 萬全을 期하라』고 강조하였으며, 6월 25일 17.00까지 상황緊急時에 連代別로 運用할 非常出動部隊를 連대 本部要員으로 急編하라는 要旨의 사단作指 제167호(6. 22. 20. 00附)와 各연대에 戰車 1개 소대를 배속시켜 主抵抗線의 直射火力을 強化케 하는 사단作指 제166호(6. 21. 20. 00附)를 下達하였다.

이와 아울러, 狙擊綫線의 防禦縱深을 固히기 위하여 사단作指 제168호(6. 23. 08. 00부)로써 제29연대 배속兵力을 增強케 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제28연대

- ㉞ 6월 24일 06. 40~6. 24. 08. 30까지 제1대대를 △538로 이동하여 제29연대에 배속케 하라.
- ㉟ 제2대대를 豊谷里로 進결시키라.

② 제29연대

- ㉞ 6월 24일 03. 00附로 제58수색중대(一)를 통합지휘하라.
- ㉟ 同월 同일附로 제28연대 제1대대 및 戰車 1개 소대를 통합지휘하라.

③ 제30연대

- ㉞ 6월 24일 03. 00附로 제58수색중대(一)를 제29연대에 배속케 하라.
- ㉟ 6월 24일 08. 00부터 別命이 有할 時까지 배속중인 士兵 2개 중대(一)의 1개 소대로써 該間에 對한 제29연대를 支援케 하라.』

이로써 豊谷里에 사단예비로 대기중인 제28연대 제1대대는 狙擊綫線의 主峰 △538 北쪽 0.5km의 稜線에 배치되어 사단 右一線의 縱深을 固였으며, 北進綫線奪還의 主役이던 제2대대는 近北面集結地로부터 豊谷里로 이동하여 사단예비로 대기케 되었다.

또한 제30연대의 제58수색중대는 사단左一線인 塔谷里의 原陣地에 1개 소대를 殘置하고, 殿尾로 主力을 이동함으로써 제29연대의 예비로 대기케 되었다.

§ 參戰者의 證言

◇ 제9사단장 李翰林 소장

(1976. 4. 15 自宅에서, 예 증장)

당시, 休戰會談 韓國側代表였던 나는 남달리 共産側의 막바지 大攻勢가 臨迫해 있음을 豫感하고 있었다. 예나하면, 休戰會談의 가장 큰 難關이라하고 할 수 있었던 軍事分界線 策定에 있

어서 有利한 戰線을 확보하려는 共産側의 底意가 瀝瀝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제9사단을 맡으면서 심각하게 熟考하여야 할 두 가지의 問題點이 있었다.

그 하나는 白馬高地戰鬪에서 兵力損失이 不尠하여 新兵補充으로 兵員數를 채운 사단을 어떻

게 이끌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단正面的 地形地勢가 防禦에 不利하다는 점이었는데, 敵이 어떤 綫으로 主攻을 置置할 것인지, 이 정확한 상황판단에 적지않은 苦心을 기울였던 옛 기억이 새와진다.

또한 前者의 경우, 증대兵員의 殆半을 新兵으로 補充하였다고는 하지만, 亦是 傳統과 矜持가 굳은 사단답게 古參基幹이 앞장서기 때문에 나의 念慮는 한낱 부질없는 杞憂에 지나지 않았다.

戰鬪後, 당시의 李承晚대통령, 美제8군사령관 Maxwell D. Taylor대장, 美제9군단장 Reuben E. Jenkins중장이 來師한 자리에서 勳章을 수여한 新兵 몇 사람이 있었는데(註·제28연대의 李光雨일병의 경우), 그들이 新兵답지 않게 용감히 싸울 수 있었던 것도 오로지 部隊의 傳統과 古參基幹들의 垂範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一戰은 나 自身, 놀라지 않을 수 없을만큼 會心突捷으로 部隊의 榮譽를 크게 떨친 防禦戰이었다.

하나의 靈感이랄까, 상황판단이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었고, 작전계획이 그렇게 들어맞을 수가 없었다. 예하 各부대가 잘 싸워준 덕분도 있지만, 지휘관의 判斷力과 決意의 尺度가 戰鬪의 勝敗를 가름하는 중요한 要素가 되는 것임을 切感하였다.

中共제24군은 五聖山에서 뻗어내린 세갈레 分脈을 타고 매일같이 攻擊하였는데, 大攻勢를 취한다면 北進綫에 主攻을 置置할 可能性이 가장 많아 보였다.

왜냐하면, 塔谷里的 開豁地에 突出한 이 綫을 장악하면 美제3사단의 右翼을 威脅할뿐 아니라, 金化 西側地區로 크게 進出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狙擊綫 및 三角高地群의 險峻한 接近路에 비해, 연대규모의 攻擊部隊를 一時에 投入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수색정찰보고와 捕虜訊問에서 추려낸 敵情을 분석한 결과, 北進綫의 北쪽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6월중순에 大攻勢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이 확신으로 사단 火力과 美제9군단의 火力을 집중키로 하고, 사단예비로 豐谷里에 控置해 두었던 제28연대의 主力을 一擧投入키로 決心하였

다. 그런데 美제9군단장 Reuben E. Jenkins중장이 總機로 來師하여 크게 걱정하기를 『지금군단의 예비兵力이 부족하여, 군단 主抵抗綫의 一角이라도 무너지면 縱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지경인데, 貴師의 유일한 예비主力을 이 左一角에 注入하다가 萬의 하나라도 挫折되면 무엇으로 美제3사단과의 間隙을 막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나는 사단예비主力으로써 逆襲치 않을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소상히 설명하여 끝내는 그의 同意를 얻을 수 있었다.

① 這問의 敵情판단에 의해, 北進綫에 대한 中共 제24군의 主攻은 中共제70사단의 主力으로써 取해질 것임이 틀림없다.

② 이 主攻은 北進綫의 南端에서 塔谷里 開豁地까지를 制限삼아 短時日內에 占掠하려할 것이다.

③ 北進綫에 대한 主攻과 동시에 사단 右一綫의 前進陣地에 陽攻을 꾀할 것이나, 그 壓力은 가벼울 것이다.

④ 이와 같이 推斷되는 中共 제24군의 作戰企圖를 早期에 擊碎하기 위하여는 연대兵力규모의 逆襲으로써 北進綫主抵抗綫을 早速히 恢復하고 堅守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비主力의 集中運用만이 사단主抵抗綫을 堅守할 수 있다는 確信으로 이 作戰概念을 밀고 나갔다.

그리고 兵力의 集中運用은 迅速適期의 機動力을 바탕으로야 할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全車輛을 제28연대의 集結地에 待機케 하여, 그 機動을 支援하였다.

◇ 사단砲兵團 작전장교 李龜榮 중위

(1966. 5. 17 陸本에서, 중령)

사단장의 火力計劃은 철두철미하였다. 즉 北進綫의 K高地 바로 北쪽에 있는 △400을 철지희 배리라는 것이었다. 團本部에서는 이 △400을 비롯한 北進綫上的 接近路 및 集結地에 대한 稠密한 火集點을 設定하여, 大量殺傷을 목적으로 하는 VT信管과 瞬發信管을 集中的으로 사용하였는데, 砲彈의 補給은 제한없이 充足하였다. 白馬高地에서도 신나게 때렸지만, 여기서도

그에 못지않게 砲彈을 피부어, 戰鬥 첫밤만 해도 무려 88,000발이나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門數도美제9군단의 支援을 합쳐 151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나중에 알았지만 K高地의 步兵部隊가 확인한 敵屍가 하루밤 戰鬥에서 1,700具나 되었다고 한다.

◇ 제28연대장 尹泰皓 대령
(1976. 6. 4 韓國肥料株式會社 社長室에서,
에 중장)

연대主力을 이끌고, 鹽谷里 集結地를 떠날 때 내 가슴속에는 乾坤一擲이라는 悲壯한 感懷가 덩어리질 뿐이었다. 사단장 역시 이 逆襲에 武運을 걸고 심심 당부하기를, 기어코 逆襲一擊으로써 敵 主取를 쳐부수지 않는限, 그 增援兵力을 계속 감당하기가 至難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 戰 訓

사단은 이로써 中共 제24군의 主取를 제28연대主力의 適時逆襲으로써 破摧하고 北進稜線의 主抵抗線을 확보하였는데, 이 一戰은 白馬高地 戰捷과 더불어 “白馬部隊”로서의 戰鬥力과 關魂을 높이 評價받아 마땅하리라.

이에 本戰鬥에서 얻은 바 戰訓을 다음과 같이 抄錄코자 한다.

(1) 的確한 敵情판단

사단 全正面에 걸친 敵情을 정확히 판단함으로써 北進稜線에 主取를 치중하리라는 敵의 作戰企圖를 銳利하게 看破하였다.

(2) 周到綿密한 逆襲計劃

周到綿密한 逆襲計劃으로써 사단의 예비主力을 適期에 집중투입하였음은 本戰鬥의 基本的인 勝因이었다.

(3) 防禦陣地의 補修강화

군단作指 제7호(53. 5. 12. 05. 00)로 北進稜線의 방어임무를 引受한 다음, 陣地를 不斷히 補修強化함과 동시에 工事의 進度를 檢閱確認하는

그러므로 機動과 火力, 그리고 補給등 모든 支援이 重點의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연대의 逆襲이 遂行되었던 것이다.

나는 사단장이 위치한 △317(塔谷里開豁地너머로 北進稜線을 眺望하는 尖端高地)에서 200m. 밑으로 처진 近北面의 溪谷에 연대 指揮所를 설치하고, 수시로 戰況을 보고하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차질도 없이 作戰을 遂行할 수 있었던 要因을 두가지로 보고있다.

그 하나는 사단장의 精確한 敵情判斷에 따르는 決心이 的中하였던 것이며, 다른 하나는 연대 摩下의 各級指揮官전원일 하나같이 陣頭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당시, 作戰에 제한을 받지않고, 逆襲成功에 이은 出擊을 계속하였더라면 敵의 前進據點인 △400까지도 무난히 점령할 수 있었으리만큼, 將兵들의 士氣는 冲天해 있었다.

꾸준한 노력으로써, 敵砲火를 能히 減내할 수 있는 強度로 갖추어 陣內戰을 効用하였다.

(4) 豫備陣地의 강화

逆襲計劃과 더불어, 예비陣地를 強化함으로써 主陣地를 돌파당하는 경우에도 事前에 미리 對備함으로써 主抵抗線固守의 心的인 安定을 얻게 하였다.

(5) 牽制作戰의 効用

北進稜線방어에 있어서 제30연대 제9, 제11兩 중대는 主陣地를 돌파당하였으나 後退하지 않고 侵透하는 敵을 挾擊하는 牽制任務를 強行함으로써 突破口의 擴大를 未然에 방지하면서 逆襲梯隊의 攻擊前進를 容易케 하였다.

(6) 効果的인 陣內사격

敵 大兵力을 陣內로 誘引하여 VT彈射擊으로써 前進陣地를 掩護하였다. 이는 防禦陣地의 補修強化와 아울러 敵의 波狀攻擊을 擊摧하는데 큰 效果를 期待할 수가 있었다.

(7) 迅速한豫備隊의運用

사단은 예비兵力の迅速한投入을 위하여, 戰鬪前 1개월의 시간여유를善用하여 出動豫行演習을 실시하는 한편으로는 全可動車輛을 대기시켜, 緊急機動을 容易케 하였다.

(8) 敢闘精神과 陣頭指揮

「白馬」의 드높은 矜持와 必勝의 信念으로 軍

§ 研究

(1) 「北進後線」의名稱

本名稱은 逆襲成功의 凱歌도 드높이 戰場整理와 陣地補修를 실시하여, 敵의 兩攻擊에 대비하고 있는 將兵들의 戰意를 高揚하기 위하여, 사단作指 제162호(6. 18. 08. 00)로 命名된 것이었으나, 本章의 序頭부터 이名稱을 사용한 것은 叙述上의 便宜를 위한 까닭이다.

사단장 李翰林 소장의 證言에 따르면 이名稱을 붙이면서 『命命만 내리면 北進의 발판으로 삼자!』고 하였다고 한다.

(2) 叙述體系의分類

前進陣地인 各高地別로 戰況의 推移를 日時에 따라 叙述하였는데, 이는 部隊別로 叙述하기 보다는 本戰鬪의 特性을 簡明化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中共 제24군은 제70사단으로써 北進後線에 主攻을 指向하고, 제72사단으로써 사단右一線을 鷓攻케 하였는데, 거의 同時刻에 사단 全正面에

게 勇進 將兵은 不退轉의 敢闘精神으로 肉彈固守의 陣内戰을 서슴치 않았는데, 各級指揮官은 激甚한 敵陣속에서도 陣頭指揮로써 部隊를 强안하여 戰況의 激變에 臨機로 對處하였다.

특히 제30연대제3대대장 高炳堯 소령이 대대主陣地를 喪失하였음에도 不尙하고, 끝까지 대대 OP에 殘留하여 白兵戰을 陣頭指揮하다가 左肩部에 戰傷을 입은 勇戰은 그 代表的인 事例라고 할 것이다.

시 이루어진 이 防禦戰의 樣相은 사단規模를 띠우면서도 亦是 北進後線의 主抵抗線 및 前進陣地인 K高地를 恢復確保하는 逆襲段階를 主들로 하고 있다.

(3) 本戰鬪의名稱

史料를 종합정리하는 처음 단계에 있어서는 1953. 6. 11~7. 20까지의 期間을 하나의 戰鬪로 網羅하면 「金化地區 防禦戰」의 題下에 本戰鬪를 「제1차戰」으로 취급하려 하였으나, 2項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主旨에 따라 「北進後線防禦戰」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이른바 「7. 13攻勢」로 알려진 戰鬪後에 사단이 狙擊後線에서 철수한 것은 敗戰때문이 아니라, 右인접 수도사단의 갑작스러운 崩壞로 因한 戰線의 調整과 金化地區防禦의 豫備陣地를 固히기 위한 作戰上의 隨意撤收로 보는바이니, 這間의 복잡한 戰況을 本章과 前後相關시키기 보다는 「金化地區 防禦戰」의 題下에 別章으로 叙述함이 可하리라고 史料된다.

4. 529高地 戰鬪 (1953년 6월 25일부터 // 7월 3일까지) (一名, 觀望山 戰鬪)

참조 : 별책부도 제 10 호
상 황 도 제44~51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敵 軍	
제2군단	장 증장	丁 一 權		사단수색중대장	대위	薛 俊 喆	
제3사단	장 소장	林 善 河		공병대대	창 중령	韓 珖 洙	
제18연대	장 대령	朴 敬 遠		진차중대	장 대위	李 性 宰	
제22연대	장 대령	崔 炳 淳		배속부대			
// (직무대행)	대령	張 好 珍		제11포병단	장 대령	金 聖	
		(6. 28부터)		제11포병대대	장 중령	徐 楨 鏞	
제1대대	장 소령	李 在 信		제71포병대대	장 소령	金 容 今	
제2대대	장 중령	權 益 檢		제72포병대대	장 소령	吳 昌 德	
제3대대장(대리)대위		林 判 吉		인접부대			
제23연대	장 대령	朴 徹		右인접부대			
제1대대	장 중령	金 載 龍		제5사단	장 준장	崔 泓 熙	
제2대대장(대리)대위		姜 興 中		左인접부대			
제3대대	장 소령	金 慶 哲		제8사단	장 소장	宋 堯 讚	
		敵 軍					
中共 제67군	장	馬 龍		제199, 제200, 제201사단	基幹		

나. 전투전의 개황

사단은 이해 4월 2일부터 10일간에 걸쳐 △689攻防戰에서 聲威를 떨친 다음 제2군단 作指 제14호-1. (53. 4. 9)에 의거 主抵抗線(△883-△973-△949-△548간)의 방어임무를 제5사단에 인계하고 4월 20일부터 제8군에 배속(補給支援과 教育監督은 계속 제2군단 책임)되어 華川一團에서 부대정비와 교 육 훈련에 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무렵 敵은 休戰會談이 成立될 展望이 짙어지자 보다 有利한 地

밭을 手中에 넣으려는 듯 侵透병력을 漸進시키거나 6月初에 이르러 51年 以來 最大의 병력규모로 공세를 軍단 右翼 제5사단에 指向함으로써 드디어 긴장이 高潮되었다. 이로 말미암은 전투狀況에 대하여는 別節 883高地, 973高地, 949高地 戰鬪에서 詳述하겠거니와 여기서는 사단이 主抵抗線에 投入하지 된 經緯와 本戰鬪(△529)가 일어나게 된 原因의 概要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즈음 敵은 我軍이 占領한 38°線 以北의 要衝地를 뺏기 위하여 血眼이 된 듯 하였는데 特別히 그들은 挑發以前에 北佛의 經濟에 至大한 影響을 주었던 華川 저수지를 奪取하기 위하여 同地域의 瞰制高地群인 △883—△973—△949線의 橫隔稜線(제5사단 主抵抗線)과 北漢江 西岸에 돌출한 △663(제8사단 前進陣地)를 占據하여 北漢江 東西兩域과 連繫를 이룬 다음, 100번 道路(登大臺—華川間)의 起點을 획득하고 餘勢를 몰아 西侵하여 제2 軍단의 唯一한 兵站線인 17번 道路(昌道里—華川間)를 坊城谷 附近에서 遮斷하고 軍단主力을 擊破한 후에 最終목표인 華川으로 侵攻할 것으로 推斷되었다.

이와 같은 근거는 陸本定期情報報告(53年)에서 밝힌바 있으며, 이해 6월 13일 漁雲里附近에서 포로가 된 中共 제68군 제203사단 제609연대 所屬 軍官(陸本에서 姓名을 밝히지 않음)의 陳述에서도 이를 뒷받침하였다. 뿐만 아니라 5월 말에는 侵韓 中共軍 內에서 戰鬪力을 認定받고 있는 中共 제68군이 제67군과 제60군간의 間隙으로 投入될 徵候가 入手됨으로써 더욱 굳어졌던 것인데, 該敵은 豫測한대로 北漢江東岸을 侵犯하여 제5사단의 作戰地域을 突破, 그 戰鋒이 蕪柄洞에 이르고 西岸에서는 △663를 占據하기에 이르렀다.

제2군단장 丁一權총장은 地域內의 情勢가 점점 惡化되자 陸本에 건의하여 美 제8군의 예비였던 당사단 隸下 제22연대를 派속받아 軍단作指 제31호(6월 11일 03.00부)로 제5사단에 再배속하여 同사단장 崔泓熙준장 指揮 밑에서 北漢江 東岸戰鬪에 增援(△949高地 附近戰鬪經過 참조)하였으나 戰勢를 挽回치 못하고 Keeland線(金城川 南쪽)까지 敵의 戰鋒이 이르게 되었다.

軍단은 곧 Missouri線(突破된 △883—△973—△949)의 恢復을 위하여 2次에 걸친 反擊을 實施하였으나 끝내 失敗하고 말았으며 이로 말미암아 軍단 右側方이 露出되기에 이르러 위협이 增大하자 急遽사단을 美 제8군으로부터 派속받아 軍단作命 제1호(53.6.15, 08.00부)로 右翼 제5사단과, 中央 제8사단간의 一部 作戰地域을 擔當케 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7週間の 경비와 訓練을 끝으로 주저항선에 配屬되었다.

敵軍의 狀況: 사단이 當面한 中共 제67군은 51년 11월 以來 淮陽부근에서 補給路 경비를 擔當하다가 首部高地와 指形稜線전투에서 我 首部사단으로부터 潰滅的인 打撃을 받고 물러난 中共 제12군과 52년 10월 22일 現戰線을 교체한 다음 左翼의 中共 제60군과 北漢江을 사이에 두고 東西로 나누어 陣地를 占領하고 있는 것으로 判明되었다.

이때 入手된 情報에 따르면 中共 제67군은 CP를 淮陽부근에 두고 隸下 3개사단을 漁德里(金城西쪽 7km)—金城—北漢江 東岸의 漁雲里線에 西로부터 東으로 제199, 제200 그리고 제201사단 順으로 배치하고 있었으며 실제 사단 정면에는 中共 제201사단이 CP를 金鶴洞에 두고 右一線에는 제601연대가 中芳坪—雙龍洞線에, 그리고 左一線에는 제602연대가 雙龍洞—△663—상녕골線에 主據點을 삼아 제23연대(장, 朴 徹)와 對峙하고 있었고, 제603연대는 예비로써 龍鶴山 北麓 부근에 控置한 것으로 推斷되었다. 또한 당시에 中共 제60군 隸下 제180사단은 北漢江上流의 突出部인 △548로부터 △973—都皮幕에 이르는 線을 侵奪하여 사단 예하 제18연대(장, 朴敬遠대령)와 제5사단(장, 崔泓熙 준장)과 對峙하고 있었다.

中共 제201사단과 제180사단을 支援하는 火力로서는 兩사단 포병연대의 75mm 20문, 76mm 10문, 그리고 제21 및 제40 兩 독립포병연대(軍直轄)의 76mm 10문, 105mm 30문等 砲 80문의 大小口徑砲가 支援하는 것으로 判明되었고 또 戰鬪間 T-34 戰車 8대가 出現하였음에 비추어 軍直轄 제1기갑연대가 이들을 直接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推測되었다.

한편 그들의 兵力 수준은 1개 사단 평균 10,000명으로써 古兵 60%, 新兵 40%의 比率이며 幹部級은

거의가 八路軍과 國府軍 出身의 戰鬪經驗이 풍부한 것으로 分析되었다.

航空정찰과 捕虜의 陳述을 종합하여 본 그들의 補給實態는 20日間의 備蓄量을 이미 確保한 것으로 推測되었으며 계속 夜間을 이용하여 前方으로 推進하고 있는 것으로 推斷할 때 이러한 사정은 앞으로 더욱 好轉될 것이 豫상되었다. 또한 정찰한 바에 의하면 그들 진지構築 상태는 1개소대를 수용할 수 있는 地下洞窟로 강화되어 있고 이를 連結하는 地下通路가 放射線式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地上連絡線도 적격탄을 능히 막을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었다.

我軍의 狀況 : 사단은 6월 15일 俗稱 배돌바우—汶文里北쪽 700m의 無名高地에 이르는 作戰지역으로 進入하자 제18연대를 右一線으로 삼아 제5사단(제27연대)의 일부 방어 지역이었던 배돌바우—舊堡里北쪽 600m간을, 그리고 제23연대를 이와 連繫하여 左一線을 形成하여 제8사단(제16연대)의 일부 作戰지역인 汶文里 北쪽까지 連하는 線을 防守케 되었으며, 앞서 제5사단에 배속되었던 제22연대를 동일부(6.15)로 배속을 해제되고 이와 동시에 사단에바로서 廣大谷에 集結케하여 부대 정비에 임하게 하였다. 이때의 지원력원은 제11 및 제72兩 포병대대가 直接지원하였고 美 제176 및 제88兩 포병대대가 일반지원하였으며, 또 배속된 戰車 2개 소대가 거의 險峻한 山岳地帶임에도 주저함선까지 進入하여 敵의 直射火力을 制壓키로 하였다.

한편 工兵은 이미 軍단直轄인 제1103 야전공병단에 의하여 사단 主補給路인 100번 道路(登大里—華川間)와 103번 道路(舊堡里—長財里間), 그리고 17번 道路(昌道里—華川間)를 경비하고 있었으며 사단 公병대대는 2개 중대를 主抵抗線上의 각 연대에 배속하여 연대와 協同으로 동굴진지를 構築하고 있었다.

그러나 本戰場이 될 $\triangle 529$ 는 花崗岩이 뒤덮혀 作業이 遲遲不振하던 중에 激戰이 전개되었다. 이 $\triangle 529$ 는 北漢江上流에서 갈라져 西南으로 흐르는 金城川과의 分岐點에 있는 독립高地로서 敵의 主陣地인 $\triangle 663$ 와 $\triangle 548$ 로부터 瞰制되었으며 主峰에서 北쪽으로 뻗은 緩線은 緩漫한 반면 前斜面은 崚嶒한 壁을 이루어 공격에 不利한 地形이었다.

期間中 氣象은 05.00~07.00까지는 濃霧가 끼여 長距離觀測이 困難하였으나 季節의인 雨季임에도 3日(6.26, 6.29, 7.3일)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개인날이 많아 항공지원이 용이하였다. 뿐만 아니라 月明期(陰 5.16~5.24)였기 때문에 夜間에도 40m內外가 觀測되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敵은 6월 10일부터 대규모의 공세를 퍼 軍단右翼의 제5사단 주저항선을 돌파하는데 成功하였으나 이때 예비였던 사단이 北漢江 西岸을 占領 즉시 戰線을 정비하여 그들의 銳鋒을 阻止하기에 이르자 한동안 戰線은 小康상태를 유지하다가 다시 6월 25일이 되자 豫測(華川占據)한대로 그 醜鋒을 $\triangle 529$ 로 指向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사단은 軍단作指 제40호(53.6.19)에 의거 「피대신 땀을 흘리자」는 軍단장의 훈령에 따라 有蓋壕진지를 增築(軍단全體 300개 이상을 洞窟 陣地化하였음)하는 한편 사단主補給路인 長財—舊堡里간의 4km에 이르는 險峻한 도로를 새로이 開拓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主陣地를 強化하면서 敵의 動向을 注視하던 4사단장 林善河 소장은 近間에 이르러 敵과의 接觸이 增加하였을 뿐만아니라 당면한 그들의 主거점 一帶에서 병력이동이 活潑하다는 항공정찰보고에 接하여 敵情이 尋常치 않음을 알게 되었다. 더구나 그는 中共 將

·68군이 南進하여 中共 제60군과 제67군 사이로 投入되어 前線을 增強하였음이 시인(陸本定期情報報告 53年 제673호)되기에 이르자 그들의 공세가 불원간에 있을 것으로 判斷되고 예하 지휘관들에게 昨속의 敵情과 함께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現주저항線을 계속 固守하려함.

② 제18 및 제23연대는 現陣地를 強化하되 인접부대와의 連繫를 固히 유지하고 敵의 夜間侵透에 대비하라.

③ 제22연대(豫備)는 항시 출동할 태세를 갖추라.

④ 제11포병단은 피지원부대의 사격지원요구에 速히 應答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

이리하여 사단은 固守태세를 再점검하면서 그들이 어느때 어느곳에서 侵透하여도 이를 擊退할 수 있는 태세를 가다듬었으며 이와 함께 全砲口도 裝填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또 사단병력도 모은 支援의 迅速을 기하기 위하여 華川으로 부터 東幕洞으로 推進하였다.

(2) 작전실시

6월 25일

1. 敵의 △529 侵入: 敵은 6.25南侵 세돌을 맞이한 이날 22.40에 쏟아지는 소낙비를 틈타 各種砲火를 △529 一圓에 雨注하기 시작하였으므로 高地頂上은 砲彈雨와 暴雨의 帳幕으로 一瞬 周邊으로부터 孤立된듯 하였다.

이날 사단은 參謀總長 白善燁 대장의 訓令으로 『6.25를 기한 敵의 挑發에 대비하라.』라는 非常警戒령에 의하여 戰鬪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때였다.

22.50에 그들의 砲射擊이 점점 熾烈化하는 가운데 1개 대대규모의 敵은 제23연대 제2대대(장, 姜興中 대위)의 前進陣地인 B高地(研究欄 참조)를 防守하는 제6중대(장, 方斗欽 대위) 제2소대 정면으로, 또한 一隊은 제7중대의 제1소대와 제2소대 진지의 中復을 차단하려는 태세로 侵透하고, 또 一隊은 제6중대 西北쪽 400m의 溪谷을 따라 제5중대(장, 申榮坤 대위)의 前進陣地를 위협하였다.

이때 제2대대장 姜興中 대위는 즉시 前方에 設置하였던 모든 障碍物을 撤收케 하여 各소대 據點별로 사주방어 태세를 갖추도록 명령하였는데 이 조치가 끝나자마자 각 중대는 당면한 敵들과 激戰이 전개되었다. 이때 急報에 接한 제11포병단을 비롯한 각 지원포병은 一齊히 砲門을 열고 彈幕射擊으로 그들을 陣前에서 粉碎하게 되니 戰場은 점점 熱度가 더해갔다.

사단장 林善河 소장은 그들의 侵攻 様相으로 미루어 △529를 奪取하려는 기도임이 明白해지자 急遽예비인 제22연대(장, 崔炳淳 대령)에 出動準備를 命令하여 待機케 하였다.

당시 B高地를 固守하고 있던 제6중대 제2소대는 1개 대대규모의 敵을 맞이하여 洞窟진

지에서 이들의 南進을 遲延시키고 있었는데, 그중 一군이 東쪽으로 迂迴하여 同소대의 후방을 遮斷하려 하자 대대장 姜興中 대위는 이로 말미암아 最尖端의 前哨陣地를 固守中인 제 6중대 1개소대와 제7중대 2개소대의 連絡路가 斷絶될 것을 우려하고 同陣地에서 물러날 것을 命命하여 23.40에 각 소대를 주저항선上의 中대主力에 收容하였다.

2. 사단장의 作戰指導: 그들은 攻擊軸線이 점차 △529로 指向되자 사단장 林善河 소장은 이를 防禦하느니 보다 攻擊으로 移轉하여 敵을 擊破하기로 결심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作戰 命命을 下達하였다.

『① 제22연대장은 ㉔ 1개대대를 龍湖洞으로 迂迴시켜 敵의 側背를 强打하고 B高地를 奪取하라. ㉕ 또한 1개대대를 제23연대에 배속하라. ㉖ 그리고 1개대대를 △507에 배치하여 豫備陣地를 確保 強化하라.』

② 제23연대장은 배속받은 1개대대를 통합지휘하여 主抵抗線을 強化하라.』

즉 이번 作戰의 重點은 敵을 正面에서 牽制하자는 일방 그들의 側背를 찔러 섬멸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어서 命命을 수령한 제22연대장 崔炳淳 대령은 즉시 中대장급 이상을 招致한 作戰會議를 열어 敵의 기도와 지형을 분석하고 각대를 部署하였는데, 이에 따라 23.50에 遠距離를 迂迴하여야 할 제3대대(장, 林判吉 대위)는 먼저 深夜의 霪雨를 뚫고 龍湖洞을 向하여 躍進하게 되었다.

6월 26일

한편 01.00에 제23연대에 배속된 제22연대 제 2대대(장, 權益檢 중령)와 △507의 예비陣地를 占領하도록 命命받은 同연대 제1대대(장, 李在信 소령)는 연대장 崔炳淳 대령과 각 참모들의 無言의 激勵속에 露宿地였던 廣大谷을 出發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이들 兩대대將兵들은 5日前에 있었던 北漢江 東岸戰鬪에서 돌아와 다시 戰場터로 달렸으나 疲勞의 기색은 엿보이지 않았다.

이동안에도 敵의 銳鋒은 사단의 彈幕地帶를 뚫고 陣前 100m의 至近距離까지 接近하였다. 이 때를 위하여 沈默을 지키고 敵을 유인한 제23연대 제2대대장 姜興中 대위는 최후지 志사격을 號令, 대대의 全火力을 集中하니 氣高萬丈하던 그들의 怪聲은 비명으로 突變하면서 狂波는 逆潮를 단란듯 멈칫하였다. 人間을 草介視하는 奮戰밑에 몰아세운 그들의 一군은 A高地로 攻 銳鋒을 돌려 稜線鞍部(△529-△A간)를 奪取하려고 衝擊을 加하였다.

이때는 이미 대대의 통신이 杜絶되었을 뿐만 아니라 連絡線마저 포격으로 完全히 崩壞되어 각중대는 사실상 孤立상태에서 殘存 兵力을 糾合하여 血戰을 거듭하고 있었다.

대대장 姜興中 대위는 奮進 叱咤하며 反擊 또 反擊으로 肉彈突貫을 敢行하여 狂波를 물리치곤 하였으나, 四退五進하는 驕敵앞에 指揮기능마저 마비되어 分散直前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戰況이 극도로 不利하게 展開되자 대대장은 後圖를 策하기로 하고 04.20에 일단 兵力을 收拾, 敵線을 이탈하여 △529 南쪽 8부稜線으로 물러나 매마침 이곳에 진출한 제22

연대 제2대대(장, 權益檢 중령)와 連繫하고 敵과 대치하였다.

이날 전투에서 470명의 殺傷을 주었으나 대대도 제 6 중대장 方斗欽 대위 이하 장교 3명과 사병 45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1. 제1차 逆襲(제22연대 제2대대)

가) 사단장 결심의 일부變更 : 사단장 林善河 소장은 제22연대 제2대대가 △529로 登破 중에 同頂上이 被奪되고 이를 固守중이던 제23연대 제2대대(장, 姜興中 대위)가 分散상태에 놓였다는 報告를 접하자 제23연대에 배속하러던 명령을 變更하고 제22연대장 지휘필에 △529를 逆襲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제22연대장 崔炳淳 대령은 기동중인 각 대대장에게 이 취지를 하달하여 명령계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한편 △529의 8부稜線에서 展開를 마친 제2대대장 權益檢 중령은 敵의 再편성간에 強襲하기로 決心하고 즉각 제6중대(장, 吉鳳郁 대위)로 하여금 東南쪽에서 △529로 제7중대(장, 吳琨燮 대위)를 西쪽에서 同高地로 자기 공격케 하여 그들을 挾擊토록 한 다음 이즈음 強行軍으로 登大里北쪽 5km에 이른 제5중대(장, 崔得健 대위)를 戰況에 따라 赴援키로하고 우선 예비로 하였으며 증화기 중대(장, 李根學 대위)는 △507에서 火力支撥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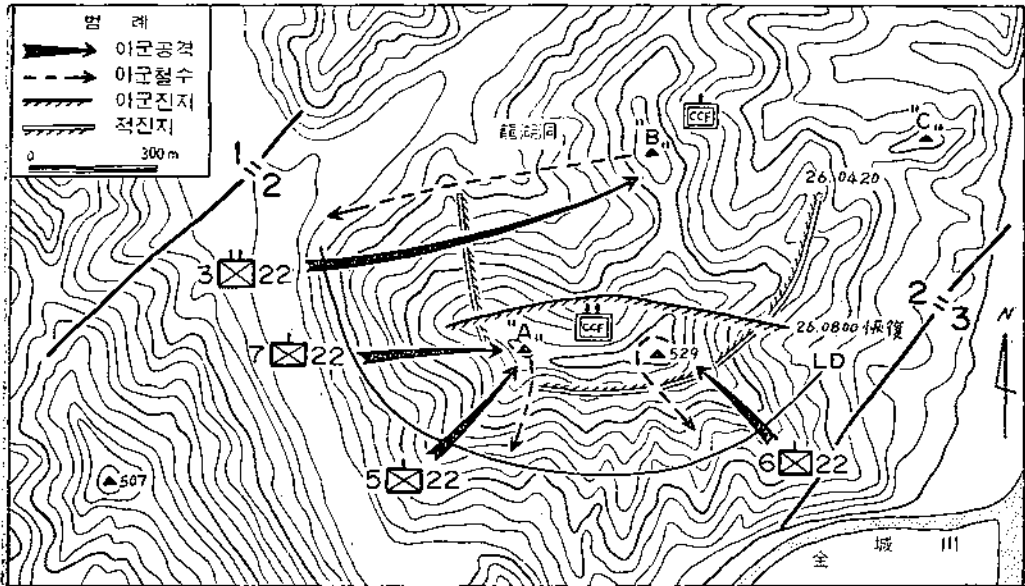
부슬비가 내리는 이날 04.30에 LD를 躍出한 兩중대는 60°에 가까운 가파른 경사와 바위 틈을 헤치면서 一步一步 前進하였는데, 이때를 맞추어 협조된 사단 全砲兵과 2개의 美野砲대대는 一齊히 불을 吐하여 高地頂上을 猛打함으로써 대대의 진격을 엄호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敵前 100m에 이르렀을 무렵부터는 敵의 熾烈한 砲火로 말미암아 左一線 제7중대(장, 吳琨燮 대위)는 頓挫寸前에 놓이게 되었다.

대대장 權益檢 중령은 이에 控置하였던 제5중대(장, 崔得健 대위)가 前線에 來着하자 즉시 제7중대 右側으로 楔入케 하여 이들과 合勢케 하였는데 이에 힘을 얻은 중대의 衝勢는 다시 恢復되고 이로 말미암아 兩중대는 一擧에 敵前 50m로 突進할 수가 있었다.

이때 A高地의 敵은 火線까지 중대를 誘引하려 하였는지 일체의 사격을 中止하고 있었는데 兩중대가 至近距離에 肉迫하자 소화기사격과 手榴彈을 퍼부어 이들의 前進를 頑強히 阻止하려 하였다. 이에 제7중대장 吳琨燮 대위는 岩石을 방패로 單身 20m까지 接近하여 敵 甬을 살피던중 대마침 彼我를 가름할 수 없는 照明彈 一發이 高地上空에서 터지고 敵陣의 洞요가 白日下에 露出되어 그들이 虛隙이 드러났으므로 突擊을 號令하고 肉彈 돌진하면서 앞에 걸려든 敵 4명을 手榴彈으로 爆殺, 숨들릴 사이도 없이 敵陣에 뛰어들어 右往左往하는 敵兵을 鏖殺해 나갔다. 뿐만아니라 제5중대(장, 崔得健 대위)도 遲參은 하였으나 이때를 기하여 제7중대의 白刃에 몰려 潰走하려는 敵을 捕捉하고 挾攻하기에 이르니 A高地 頂上은 瞬息間에 血肉이 飛散하는 格鬪場으로 돌변하게 되었다.

마침내 敵은 제7중대장 吳琨燮 대위의 奇智와 機先을 制한 기습이 奏效하여 06.00에 屍屍를 남긴채 北쪽으로 潰散하고 말았다.

◇ 상황도 제 44호 529高地 戰鬪(제 1차 逆襲)



한편 $\Delta 529$ 東南쪽으로 進出中인 제6중대(장, 吉鳳郁 대위)는 頂上으로 接近할수록 傾斜가 심하여 躍進을 가로막고 있는데다가 빗발치는 敵의 수류탄投擲으로 死傷者가 續出하여 寸步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와같이 膠着되어 彼我が 수류탄으로 對峙하고 있을때 제7, 제5 兩중대가 A高地를 奪取하자 이때까지 火力을 分割 支援하던 사단 全포병과 제18, 제23 兩연대의 전화력이 이곳에 集中하여 强打하게 되니 그들의 火力은 이에 屏息된듯 점점 弱화되었다. 이때를 놓치지 않으려는 중대장 吉鳳郁 대위는 곧 「나를 따르라」고 웨치고 高地頂上으로 楔入하였는데, 이미 勢窮力盡한 敵은 이에 對抗하지 못하고 四方으로 潰散하였으며 高地周邊 도처에는 그들의 遺棄屍體 300餘具가 즐비하게 널려져 있었다.

이리하여 대대는 08.00에 同高地가 被奪된지 3시간 40분만에 주저항선을 恢復하고 곧 부대를 再編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敵은 我軍 공격시에 事後策을 강구한듯 事前에 侵透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1개 대대규모가 $\Delta 529$ 東北쪽 稜線 100m의 至近距離에서 또다시 砲支援下에 侵攻하였다.

이때 $\Delta 529$ 를 確保중인 제6중대(장, 吉鳳郁 대위)는 陣地를 急編할 여유도 없었거니와 彼我砲擊으로 말미암아 모든 連絡線가 崩壞된데다가 그나마 洞窟진지는 그들이 退却하면서 대부분 破壞하였기 때문에 隱蔽할 곳이란 全無하였으므로 完全히 露出된 상태에서 8,000발에 달하는 敵의 각종 砲擊을 支撐하기에 단지 地形地物에만 의지하여 應戰케 되니 극도의 守勢를 窺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이같은 악조건 밑에서도 중대장 吉鳳郁 대위는 最後 阻止射擊을 敢行하면서 포격을 誘導하여 계속된 狂波를 粉碎하고 있었으나 咫尺間에 밀려든 敵에게 대한 砲兵射擊의 효과는 「無」에 가까웠고 死傷者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累增하였

다. 이 狀況을 대대장 權益檢 중령에게 보고하였던 바 대대장은 A高地에서도 이와같은 狀況 밑에서 악전고투하고 있음을 直視하고 敵과의 接觸을 中斷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그는 08.10에 主力을 각 頂上에서 8부稜線으로 물러서게한 다음 그동안 대대를 火力으로 支援하던 제23연대 제2대대(장, 姜興中 대위)와 다시 合勢하여 陣地를 急編, 그들과 對峙하게 되었다.

나) 제22연대 제3대대의 迂回

△529로 侵透하는 敵의 側方을 粉碎하기 위하여 龍湖洞으로 迂回중이던 제3대대(장, 林判吉 대위)는 그들의 阻止射擊을 뚫고 03.50에 A高地 西麓을 통과, 溪谷을 따라 東進하여 右側 △529에서의 激戰중인 彼我의 銃聲을 들으면서 一路 목표 B高地로 躍進하고 있었다. 그런데 東天에 태양이 높이 솟아 오르면서 대대의 행동이 敵으로부터 露出되고 進出을 阻止하려는 9,000발에 달하는 그들의 攪亂射擊이 集中하여 一時 제9중대(장, 李景來 중위)와 제10중대(장, 朴英極 대위)는 分散危機에 處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收拾하고 前進를 續開하였다.

이러한 渦中속을 뚫은 대대장 林判吉 대위는 07.50에 △B高地 西쪽 400m 溪谷에서 제9중대(장, 朴英極 대위)를 右一線에, 제10중대(장, 李景來 중위)를 左一線에 산개하여 躍出하였으며, 제11중대(장, 朴允八 대위)는 主力과 300m 距離에서 後續中에 있었다. 敵도 당시에 同高地가 我軍의 掌中으로 들어가면 △529 一圓의 後方이 차단될 것을 우려하였음인지 全砲口를 돌려 必死的인 盲砲擊을 加하였을 뿐만 아니라 B高지를 扼守하기 위하여 一隊의 병력을 增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대대는 敵彈아래 7시간 동안이나 急進한뒤 火線에 이르자마자 休息을 취할 사이도 없이 攻擊을 開始하게 되었으나 疲勞困憊 끝에 8부稜線에서 그들의 猛射에 부딪쳐 躍進이 드디어 頓挫되고만 것이다.

이에 대대장 林判吉 대위는 즉각 重火器중대에서 2개소대를 전투병력으로 抽出하여 이들을 증원하는 한편 後續하던 제11중대(장, 朴允八 대위)를 最右一線으로 돌려 B高地 南쪽에서 直衝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그들과 至近距離에서 森林과 岩石을 차폐물로서 잠시 部署를 정비하고 生氣를 되찾은 다음 09.20에 反擊을 再開할 수 있었다.

그런데 頂上에 이를수록 岩石이 聳立한 50~60°의 急傾斜를 登破하여 一步又一步 약진한 끝에 敵前에 이르자 敵은 一齊히 阻止射擊으로 맞섰으나 이때에 的確한 사단의 砲兵射擊이 頂上을 制壓하였다. 戰機가 到來하였음을 直感한 대대장 林判吉 대위는 즉시 前中대장에게 突貫을 命命하였는데 陣前까지 肉迫하였던 각 중대가 三面으로 突入하기에 이르니 敵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지 自陣까지도 희생시키는 中共特有的 무차별 포격을 實施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彼我是 砲火의 雨注下에서 亂戰亂擊의 肉彈戰이 벌어졌으나 이미 繼戰意識을 상실한 그들은 곧 瓦解되기 시작하였다.

反擊 15분만에 B高지를 手中에 넣은 대대장 林判吉 대위는 敵의 역습에 대비하면서 戰場을 整理하니 그들의 遺棄屍體는 165具를 헤아렸으며 대대도 17명의 戰死者와 107명의 負

傷者를 확인하는 損失이 있었다.

그런데, 연대장 崔炳淳 대령이 당초 B高地를 奪取하려던 意圖는 제 2대대(장, 權益煥 중령)의 △529奪取를 위한 敵의 병력과 화력을 分散시키려는 것이 첫째요, 다음은 同高地를 奪回하였을 때 退却하는 그들을 側面에서 強打하려는 것이 그 둘째였으나 狀況이 逆轉하여 09.35 B高地를 제3대대가 占領하였을 때에는 이미 △529가 敵의 手中에 들어간 뒤였기 때문에 도리어 敵中에 孤立되었을 뿐만아니라 逆包圍될 危險마저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판단한 연대장 崔炳淳 대령이 11.00에 철수를 命命함에 따라 대대는 殘存 동굴陣地를 爆破하고 크들과의 接敵을 끊고 1시간 뒤에 攻擊待機지점이었던 △507 西北 800m에 집결하여 부대를 정비하면서 다음 出動에 대비하였다.

2. 제2차 逆襲(제22 및 제23연대)

가) 軍단장의 戰鬪正面調整 : 軍단장 丁一權 중장은 敵의 企圖를 粉碎함은 물론이려니와 △529의 戰術上價値를 重要視하여 이를 기필코 奪還해야 겠다는 決心을 굳히고 사단으로 하여금 이에 全力을 集中케 하기 위하여 제2軍단 作命 제3호(53.6.26)로 作戰地域을 다음과 같이 整備하였는데 要旨에 이르기를

『① 軍단은 6월 26일 11.00부로 제5사단 일부병력으로써 제3사단 일부 정면을 담당케 하고 계속 현임무를 수행하려 함.

② 제3사단은 6월 26일 11.00부로 현 제18연대 전투지역의 방어 임무를 제5사단에 인계하라.』

이상과 같이 命命한 그는 作指 제45호를 同일부로 下達하고 『6월 26일 18.00부로 제8사단과 제3사단과의 接合점 및 전투지경선의 일부를 변경함』이라 하였다.

이리하여 사단 右一線 제18연대 방어진역을 제5사단에 인계하고 左一線이었던 제23연대 제1대대 작전지역을 제8사단에 인계함으로써 사단은 縮少된 전투정면에서 △529 奪取에만 專念하게 되었다.

사단장 林善河 소장은 이에 戰線을 정비하면서 寸刻을 지체할 수 없는 當面の 목표 奪取를 위하여 作戰命命을 要旨 다음과 같이 下達하였다.

『① 제23연대(一)는 주력으로 △529를 奪取하여 主抵抗線을 회복하라.

② 제22연대는 제23연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③ 제11포병단은 全포병으로 공격연대를 화력 지원하라.

④ 전투간 요청에 의하여 航空지원할 것임.』

이 命命에 따라 제22 및 제23 兩 연대장은 사단작전회의 석상에서 攻擊軸線과 攻擊間에 있어서의 協同事項을 協議한 다음 연대별로 下記와 같은 逆襲計劃을 세웠다.

즉 제23연대장 朴徹 대령은 A 高地를 中間目標로, 그리고 △529를 最終目標로 하여

LD를 A高地 西쪽 300m에 두고 右一線에는 제2대대를, 그리고 左一線에는 제1대대가 前進攻擊토록 部署하고 전투손실이 심한 제2대대에게는 제3대대 제10중대와 연대 수색중대를 배속하여 전투력을 보강하였다.

한편 제22연대장 崔炳淳 대령은 제2대대로 하여금 △529 南쪽 300m에서 이를 直衝토록 하고 제3대대에게는 연대수색중대를 배속하여 제23연대(一)와 제22연대 사이를 後繼케 하여 火力支援하되 進路의 推移에 따라 증원 또는 超越공격하도록 部署하였다.

이날의 日氣는 快晴하고 南西風이 强하여 攻者에 유리하였으며 氣溫은 20°, 日沒(1958)과 함께 滿月(月齡 17)이 19.35에 떠오르기 때문에 夜間行動에는 다시없는 날씨였다.

16.00를 기하여 露宿地를 出發한 各대대는 LD를 向하여 躍出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 하여 航空機는 豫想되는 敵의 砲陣地와 △529 一圓에 대하여 Napalm彈을 퍼부으니 黑煙이 濛濛하였으며, 이어서 地軸을 뒤흔드는 砲兵의 移動掩護와 破壞사격을 加하니 敵의 모든 火力이 屏息한듯 하였다. 그러나 잠시후부터는 그들도 遮斷射擊으로 맞섬으로써 彼我的 對砲兵射擊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苛烈化하였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各대대의 躍進은 순조로웠으므로 이들은 정각 17.00에 예정대로 LD를 通過할 수가 있었다.

나) 제23연대(一)의 主峰奪取 : 이보다 앞서 16.00에 左인접 제8사단(장, 宋堯讚 소장)에게 戰鬪正面을 인계한 제1대대(장, 金載龍 중령)와 初戰에서 狂波의 侵襲으로 말미암아 △529에서 물러나 12시간 동안에 부대를 재정비하고 연대수색중대(장, 金澤龍 대위)를 배속받아 銳氣를 되찾은 제2대대(장, 姜興中 대위)는 LD에서 左(제1대대), 右(제2대대)로 展開하여 A高地를 兩側으로 挾攻하는 態세로 競進하듯 진출하였다.

이때 이들 躍進을 防護하기 위하여 포병은 煙幕彈으로 遮障하였으나 6,000 발에 달하는 熾盛한 그들의 彈幕射擊은 的確하여 大대의 進출을 極力 妨害하였다. 제1대대장 金載龍 중령은 이로 말미암아 正面으로의 躍進이 遲遲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彈幕地帶를 벗어나기 위하여 大대를 A高地 南北쪽으로 轉換하고 緩慢한 포탄밀을 뚫고 突進 又 돌진하여 敵前100m에 이르렀고 이때를 기해 그들의 最後阻止 射擊에 부딪쳤으나 이 附近은 岩石이 무수히 亂立한 곳이어서 그들 直射火器의 威力는 無力하였다.

이때 △507에 CP를 推進하여 狀況을 지켜보던 연대장 朴徹 대령은 兩대대장에게 곧 航空支援이 있을 것임을 알리고 제1대대장 金載龍 중령에게는 側方 機動으로 因한 B高地로부터의 側攻을 警戒하도록 注意를 환기시켰다.

이 指示가 끝나자마자 2개편대의 航空機가 A高地와 △529를 猛爆하니 이들의 동굴陣地에서는 爆發이 연발하고 火焰이 휘감았으므로 거점內에서의 그들 火力은 이에 制壓된듯 弱化되었다. 이에 이르자 兩대대장은 약속이나 한듯 突貫을 號令하였다. 그러나 제3중대장 權天植 대위는 이때에는 이미 突擊을 敢行하여 A高地의 敵을 蹂躪하면서 △529로 向한 稜線으로 올라가 계속 突進하고 있었다.

연대장 朴徹 대령은 A高地를 奪回하자 地面이 狹少한 岡高地에 2개 대대병력이 잠시라도 停滯할 경우 敵砲火에 脆弱性を 노출할 것은 물론이러니와 쇠(鐵)는 달았을 때에 두들겨야 한다는 格으로 즉각 제2대대장 姜興中 대위에게 제3중대를 통합지휘케 하여 △529에 대한 공격을 再開토록하고 제1대대(一)(장, 金載龍 중령)는 同공격을 A高地에서 엄호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A高地 奪取에 先鋒이었던 제3중대(장, 權天植 대위)는 一部 무질서하게 退走하는 敵을 追擊하고 稜線을 兩側으로 接近하여 △529 100m까지 肉迫하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그들의 集中砲擊과 小火器의 縱射가 심하여 躍進이 鈍化되었으며 이에 急遽 後續한 제2대대장 姜興中 대위는 그들 진지의 強度와 特火點이 심상치 않음을 목격하고 火焰放射組를 差出하는 한편 포격을 誘導하여 一齊히 特火點을 목표로 공격하였다. 이로써 기승을 떨던 特火點을 撲殺하니 敵은 手榴彈만으로 發惡하였다.

중대장 權天植 대위는 이때를 놓치지 않으려 突貫號令을 쫓으며 先鋒에서 一氣呵成으로 肉彈突入하였다. 이와 같이하여 頂上 一角에서 角逐戰이 벌어지고 있을때 제2대대(장, 姜興中 대위)도 喊聲을 지르며 중대를 赴援케 되었으므로 狹少한 頂上에는 2개 대대의 병력이 蟻集케되니 驕敵은 交刃數合에 屍體 200餘具를 버린채 北쪽 稜線과 계곡으로 潰退하고 말았다.

대대장 姜興中 대위는 곧 砲兵의 엄호사격아래 진지再編成에 着手하였으니 이때가 20.30으로 西天에 해는 기울고 저녁노을이 觀望山을 붉게 물드리고 있었으며 高地를 스치는 바람이 熱氣찬 장병들의 마음을 식혀주는듯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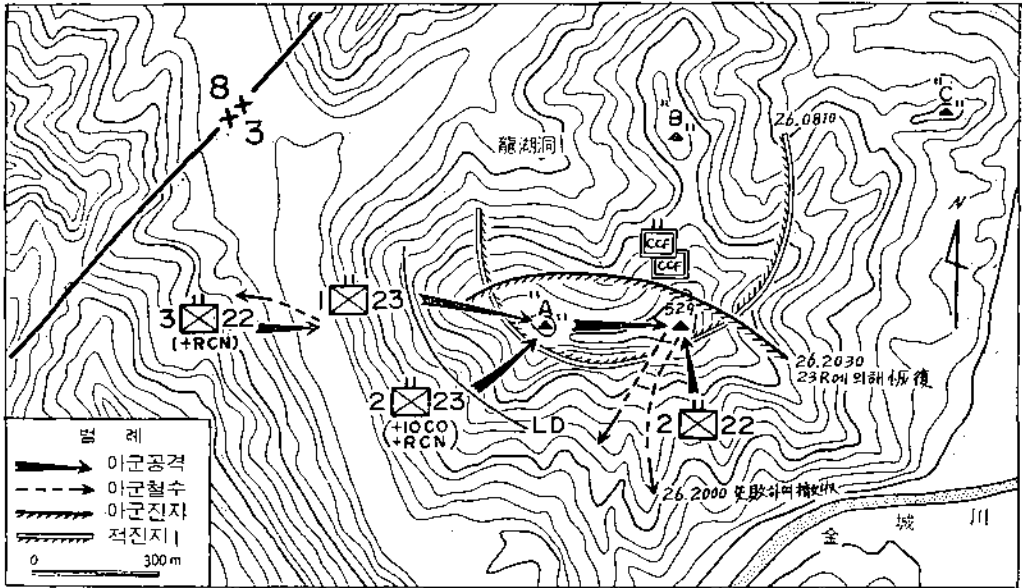
다) 제22연대 제2대대의 攻擊 : 이 逆襲에서 제22연대 제2대대(장, 權益檢 중령)는 △529 南쪽에서 直衝하여 敵을 牽制시켜 제23연대(一)의 攻擊에 기여하고 제3대대(장, 林判吉 대위)는 A高地 공격부대에 後續하여 豫備의 임무를 맡은바 있거니와, 여기에서는 제23연대(一)의 공격이 순조로와 예비대(제22연대 제3대대)까지 투입하지 않고도 △529를 占領하였기 때문에 惡戰苦鬪하던 제2대대(장, 權益檢 중령)의 狀況만을 취급키로 한다.

중대대는 16.00에 공격 대기지점인 登大里를 出發, 強行軍으로 △529 南쪽 山麓에 이르렀을 때부터 그들의 敵制아래 移動하게 되는 불리한 상태였던 관계로 進軍을 阻止하려는 그들의 攪亂사격으로 말미암아 行軍 途中부터 苦戰을 면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제1차 逆襲에서 現地 地形을 熟知하고 있던 제6중대(장, 吉鳳郁 대위)의 先導로 地形 地物을 이용하여 병력의 손실없이 17.00 同高地 南쪽 300m(LD)를 通過, 60°의 急傾斜를 躍進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山을 덮은 무수한 岩石은 중대별 독립戰鬪를 불가피하게 하였는데 이와같은 分散 상태를 敵은 感知하였음인지 陣外로까지 나와 手榴彈을 亂投하였으므로 그들 포탄과 手榴彈은 岩石에 튕겨 破片은 細片이 飛散하여 死傷者가 累增하였다. 이에 그들은 好機를 捕捉한듯이 奇聲을 울리며 反擊波를 내몰아 세웠으므로 대대는 寸步도 발을 옮길 수가 없는

◇ 상황도 제45호 529高地 戰鬪(제2차逆襲)



進退兩難의 岐路에서 苦戰하게 되었다. 이에 겹쳐 通信網이 杜絶된데다 거름 差出한 連絡兵마저 그 行方이 杳然한 狀況에 빠졌는데 3시간동안의 惡전고투도 無爲로 돌아가자 대대장 權益檢 중령은 일단 敵과의 離脫을 결심하고 分散된 兵력을 收拾하여 20.00에 (△529占領 30分前) △529南麓으로 隨意철수함으로써 이번 同高地의 奪取에는 제23연대가 樹勳케 되었다.

라) 사단장의 措置

이날 사단장 林河善 소장은 제23연대(一)(장, 朴徹 대령)에 의하여 △529를 奪取할 展望이 밝아오자 同高地 奪取후 新銳로 交替하여 陣地를 補強하는 한편, 力戰力鬪한 同연대를 뒤로 뽑아 休息을 겸한 정비를 실시키로 決心하고 다음과 같은 要旨의 豫備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제18연대는 現임부(登大里 一圓에서 예비陣地편성)를 계속 수행하면서 일부 兵력으로 제23연대의 主抵抗線(金城川 南岸)을 인수할 準備을 하라.

② 제22연대는 △529 一帶의 방어임무를 제23연대로부터 인수할 準備을 하라.

③ 사단수색중대는 즉각 제22연대의 지휘하에 들어가라.』

이에 따라 제22연대장, 崔炳淳 대령은 前次의 逆襲攻擊에서 고투하면서도 失敗하였으나, 地形에 익숙할뿐만 아니라 雪罅에 붙타있는 제2대대(장, 權益檢 중령)가 △529를, 그리고 제1대대(장, 李在信 소령)가 A高地를 各各 인수하도록 하는 한편 作戰地域의 重要性과 兵力損失을 감안하여 제1대대에서 제2중대와 사단에서 배속받은 수색중대를 제2대대에 배속하여 증강하고 언제든지 전투에 加入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한편 제23연대장 朴徹 대령은 사단右一線의 主抵抗線을 防守中이던 제3대대(장, 金慶哲

소령)가 제18연대(장, 朴敬遠 대령)에게 진지 인제가 끝나면 이들을 登大里에 集結시켜 有事時에 對備키로 하였다.

6월 27일

敵의 529高地 再侵: 전날 20.30에 △529를 掌中에 넣게된 제2대대장 姜興中 대위는 곧 頂上을 奪取할때까지 7시간에 걸친 行軍과 戰鬥에서 疲勞에 지친 병사들을 叱咤激勵하면서 連대에서 지원한 행정요원과 KSC를 동원하여 推進된 철조망과 대인지뢰를 北쪽 稜線과 溪谷에 설치배설하고 埋沒된 連絡壕와 破壞된 진지의 보수作業을 強行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敵의 逆襲이 必是할 것으로 推斷하고 △529에서 兩갈래로 뻗은 東北쪽 200m 稜線에 배속된 제3중대(장, 權天植 대위)를, 그리고 北쪽 稜線에는 제5중대(장, 申榮坤 대위)를 각각 전개하여 前哨陣地로 삼고 要所 要所에는 경계조를 潛伏시켜 물살틈 없는 경계태세를 갖추는 등 대대장이하 전원이 流汗으로 뒤범벅이된 채 糞을 타고 마대를 쌓았다. 그런데 24.00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장마비가 그칠줄 몰라 有無蓋蔽 모두 滿水가 되니 工事は 도중에서 中止되고 排水가 더 바빴다.

이윽고 01.00에 9,000발에 달하는 敵의 集中砲火가 地軸을 흔들며 炸裂하게 되어 滿水가 된 진지內는 흙탕물로 誰何를 식별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미 敵의 來襲을 覺悟한 바 있는 대대장 姜興中 대위는 『이같은 惡條件下에서의 고투는 彼我마찬가지다』라고 마음을 굳히고 각 중대장에게 臨戰態勢를 갖추도록 再強調하였다. 15분뒤 東北쪽 稜線에서 前哨陣地를 固守하고 있던 제3중대장 權天植 대위로부터 2개 중대 규모의 敵과 交戰中이라는 報告에 接하였는데 이 통신이 그치자마자 轟音과 暴雨를 틈타 溪谷으로 接近한 一群이 바로 눈앞에 출현하자 一瞬에 서로 手榴彈 投擲하였으므로 高地頂上은 修羅場化하였다.

狀況이 危急을 다룰때 대대장 姜興中 대위는 제3중대(장, 權天植 대위)의 연막로차단을 直感하고 그들에게 接觸을 斷絶케하여 主力에 吸收한 후 全力으로 擊碎 또 擊碎하였다.

敵의 砲擊은 점점 熾烈化하였으나, 대대는 未完成된 壕가 거의 埋沒됨으로써 완전히 露出된 標的과 같은 不利한 條件 밑에서 奮戰케되니 死傷者만 續出하였다.

대대장 姜興中 대위는 잃었던 땅(空間)은 다시 찾을수 있어도 잃었던 시간(여기서는 人命)을 되찾을 수 없으면서 피흘려 占領한 同高地 頂上을 물러나 9부稜線에서 岩石을 방패 삼아 그들과 對峙하기에 이르렀는데 敵도 이 시각부터 퍼붓는 사단포병의 猛포격으로 말미암아 頂上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北쪽 9부稜線에 달라붙게 됨으로써 上頂은 잠시 主人없는 상태에 놓여있게 되었다.

3. 제3차 逆襲(제22연대)

가) 命令의 一部變更과 제22연대의 出擊: △529가 不利한 상황속에 膠着되자 사단장 林善河 준장은 이때의 敵을 2개 대대규모로 推斷하고 증강된 1개 대대로는 同高地 南쪽에서 △529를 直衝토록 하고 한편 증강된 1개 대대로는 A高地를 발판으로 하여 側方에서 공격

하기로 決心하고 전날의 準備命수를 要旨 다음과 같이 一部수정하게 되었다.

『① 제23연대는 現接觸線(△529 9부稜線)과 A高地를 계속 確保하다가 제22연대에 임무를 인계하라.

② 제22연대(사단수색중대 배속)는 △529를 奪回하고 일부 병력으로 제23연대의 작전지역(A高地)을 인수하라.』

即 사단장은 獨, 佛軍教範에서 攻擊軍은 防禦軍보다 3 내지 4 배수의 병력이 요한다는 것보다 敵則能戰之——彼我비슷 할 때는 싸울만 하다——란 古代 中國의 用兵論을 擇하였던 것이니 어떤 면에서 보면 사단의 戰鬥力을 自信하였던 것이다.

각 연대는 이미 出擊態勢를 갖춘 뒤였으므로 受命과 同時에 行動에 옮길 수 있었다.

03.00에 제22연대장 崔炳淳 대령은 제2대대(장, 權益檢 중령)를 目標 △529로 直攻시키고 제1대대(장, 李在信 소령)는 A高地를 固守중인 제23연대 제1대대(장, 金載龍 중령)를 超越 躍進토록하는 한편 제3대대(장, 林判吉 대위)는 △529 西南下麓에서 예비로 있다가 兩 대대의 狀況에 따라 赴援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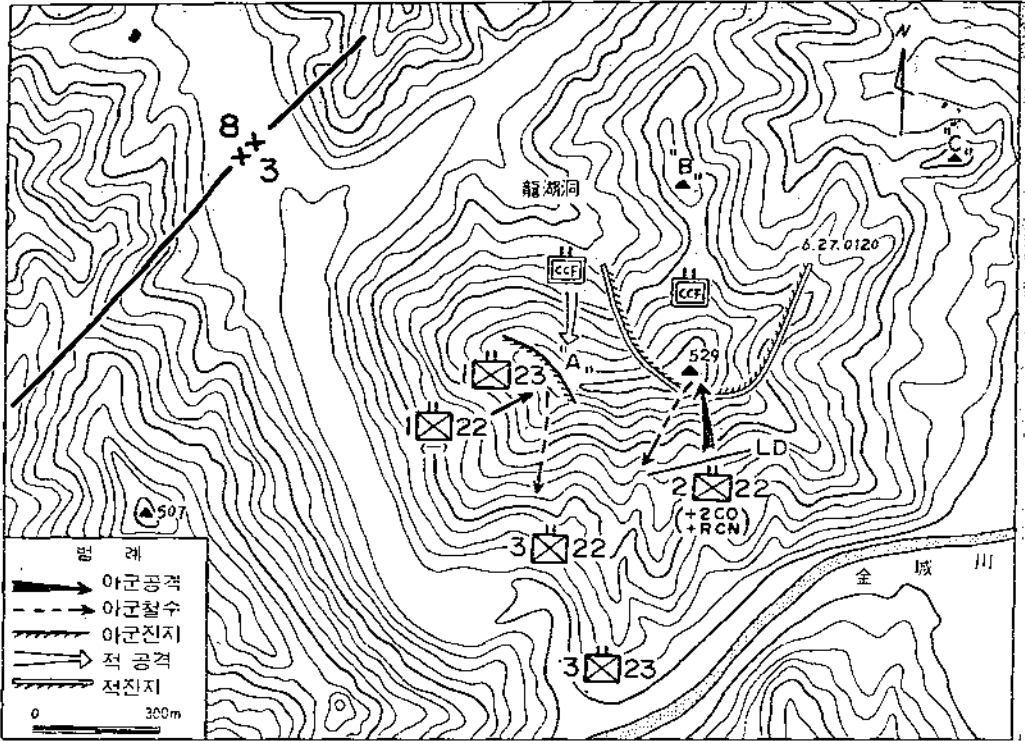
나) 제2대대의 逆襲: 대대(장, 權益檢 중령)는 기습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사격도 없이 夜間 隱密행동으로 무수한 奇岩과 절벽과 같은 急傾斜를 登破하여 04.00에 △529 南쪽 200m에서 병력을 전개하여 계속 進擊하였다. 그러나 자갈길을 마차가 소리없이 갈 수 없으므로 대대가 岩石지대를 躍進하는 동안에 미끄러지고 돌이 굴렀으므로 敵은 이들이 敵前에 接近하였을 때 대대의 행동을 感知한듯 一齊히 포격과 小火器 射擊을 亂射하기 시작하였다.

대대장 權益檢 중령은 부대 행동이 이미 暴露되었음을 斷定하고 곧 砲兵의 支援射擊을 要請한 다음 돌진을 號令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공격을 中斷하였던 탓으로 많은 損失을 내었던 前敵을 밟지 않기 위하여 衝擊을 멈춤이 없이 壓縮하였다. 그러나 50m로 접근하였을 때 彼我的 砲擊이 緩和됨에도 바로 머리 위에서 投擲하는듯한 手榴彈의 破裂이 激烈을 극하여 攻擊은 다시 鈍化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A高地를 固守하던 제23연대 제1대대(장, 金載龍 중령)는 當面한 一群을 剔抉하고 側射로서 엄호에 임하였으나 急造한 壕內에서 執拗하게 대항하는 그들에게 決定打를 加할 수 없었으며 더구나 밀려났던 一群이 再侵襲하므로 該敵과의 격전이 또한 벌어지게 되었다. 이즈음 A高地의 防禦임무를 인수하고 아울러 △529를 挾攻하기 위하여 躍進중인 제22연대 제1대대(一)(장, 李在信 소령)도 A高地 南쪽 9부稜線에서 그들 砲火의 집중으로 進出이 遲遲 不振하였다.

그러던중에 A高地에서 一進一退를 거듭하던 제23연대 제1대대(장, 金載龍 중령)마저 損失의 累積으로 하는 수 없이 痛憤을 참고 該高地에서 물러났으므로 이들 兩대대는 9부稜線에서 連繫하여 再攻擊의 기회를 기다리게 되었다.

◇ 상황도 제46호 529高地 戰鬪(제3차逆襲)其一



다) 제23연대 제3대대의 急派 : 한편 제23연대장 朴徹 대령은 이날 제22연대(-)에게 現 임무를 인계하자 사단장(林善河 소장)의 명령에 따라 제1 및 제2대대를 隨意 철수시켜 08.00에 A高地 下麓에 集結시키려는 한편 이에 앞서 04.00에 제18연대(장, 朴敬遠 대령)에게 主抵抗線을 인계한 제3대대(장, 金慶哲 중령)를 A高地로 急派하였다. 同대대는 金城川 上流의 彎曲部를 強行軍으로 가로질러 07.00에는 A高地 中腹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들의 진출상황을 報告받은 사단장 林善河 소장은 困憊한 敵을 遲滯없이 擊碎하기 위하여 各연대장에게 08.00를 기하여 제22연대는 △529를, 제23연대는 A高지를 協동 攻擊하여 奪取하라』고 命命하였다.

이와함께 全砲兵이 아침 공기를 뚫고 一齊히 攻擊準備射擊을 兩高地에 집중하니 敵壘에 命中하여 掩蓋를 飛散시키고 土砂를 말아올려 山頂은 硝煙과 塵煙에 휩싸여서 보이지 않았다. 이에 敵은 唐慌한듯 하였으나 射擊으로 兩연대의 前進를 分散시키려 發惡하였다.

△529 南쪽 9부稜線에서 공격再開의 命命을 受領한 제22연대 제2대대장 權益檢 중령은 七轉八起의 굳은 意志로 彈力性있는 反擊을 시작하여 일로 敵前 50m까지 突貫 肉迫하였다.

같은 攻擊軸線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교훈에도 불구하고 이곳 地形은 그같은 기동의 融通性을 許諾치 않았으므로 결국 대대는 또 다시 되풀이되는 手榴彈의 投擲으로 混戰이 發

어졌다. 그런데 이때 A高地에서 격전중인 제23연대 제3대대(장, 金慶哲 소령)쪽에서 賊群이 울려 퍼지면서 格鬪直前に 놓이자 當面한 △529의 敵은 同高地가 아군에 의하여 被奪된 것으로 錯覺하였는지 手榴彈 投擲과 銃擊의 속도를 激減하고 燈臺의 빛이 보였는데, 이에 반하여 제2대대 장병들의 血氣는 갑자기 充滿하여졌다. (사실은 A高地의 상황은 膠着되어 있었음) 이를 看破한 대대장 權益檢 중령은 『A高地는 제23연대에 의하여 占領되었다. 우리는 이 高地를 奪回하여야 하며 그 機會는 지금 이때다』라고 號令하자 대대 장병은 함성을 울려 전우의 屍體를 넘고 頂上에 突貫 楔入하여 奮進하니 범의 탈을 쓰려던 그들은 고양이로 變하여 支離滅裂상태로 潰散함으로써 10.00에 同高地는 제22연대 제2대대(장, 權益檢 중령)에 의하여 奪回되었다.

苦楚萬狀 끝에 目標占領에 成功한 대대장은 이 機會에 그들의 反擊발판으로 推測되는 據點을 撲滅하기 위하여 兩쪽 稜線(東北과 眞北) 中腹까지 1개소대씩을 急編 抽出하여 추격시키는 한편 苦鬪중인 A高地에 대하여 全火力을 集中, 測射로써 엄호하였다. 이에 힘입은 제23연대 제3대대장 金慶哲 소령은 A高地에 대한 正面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제9중대(장, 朴官永 대위)를 後斜面으로 迂回시켜 그들의 背後를 찌르도록 하였다.

後斜面은 傾斜가 緩慢하여 接近이 용이하나 該高地로 부터의 直射火器와 砲火로부터 露出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를 充分히 알고 있는 중대장 朴官永 대위는 迂回산개하자마자 즉시 달려들어 그들의 背後를 強打하였다. 敵은 예기치 않았던 背後로부터 중대가 急作스런 雷聲과 같은 함성과 함께 肉彈 穿貫하자 兵力이나 火器를 전환할 사이가 없이 四方으로 潰散하였다. 중대의 奇襲으로 A高地를 奪回하자 중대장 朴官永 대위는 즉각 追擊에 나서 △529의 제22연대 제2대대(장, 權益檢 중령)와 交叉射擊으로 潰走하는 그들을 打盡하며 戰果를 擴大하여 確認屍體 119具를 헤아릴 수 있었으나 退却하는 敵을 엄호하려는 듯 一隊이 몰려들었으므로 제9중대(장, 朴官永 대위)가 餘勢를 몰아 이를 一蹴하고 北쪽稜線 200m에 急編防禦陣地를 편성하고 前哨陣地를 구축하였다.

△529 一圓에 대한 爭奪戰이 兩 연대의 善戰善鬪로 일단락되자 사단장 林善河 소장은 敵襲에 對備하고 部隊의 建制를 維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였다.

즉, 사단右一線을 防守하던 제18연대 제3대대의 작전지역을 제23연대 제1대대에 인계토록 하여 該地域을 제23연대의 담당으로하고 제18연대 제3대대는 원위치(계속 사단예비)로 복귀시켰다. 이리하여 다시 第一線은 제22 및 제23 兩연대가, 第二線은 제18연대가 사단예비를 맡게 되었다.

한편 제22연대장 崔炳淳 대령은 △529 奪取에 有功한 제2대대(장, 權益檢 중령)를 증강하기 위하여 A高地 南麓에 있던 제3중대(장, 金樂順 대위)를 赴援케 하고 南麓에 集結한 연대수색중대(장, 高根榮 대위)를 △529의 南麓으로 移動케 함으로써 各 중대는 13.00부터 行動을 開始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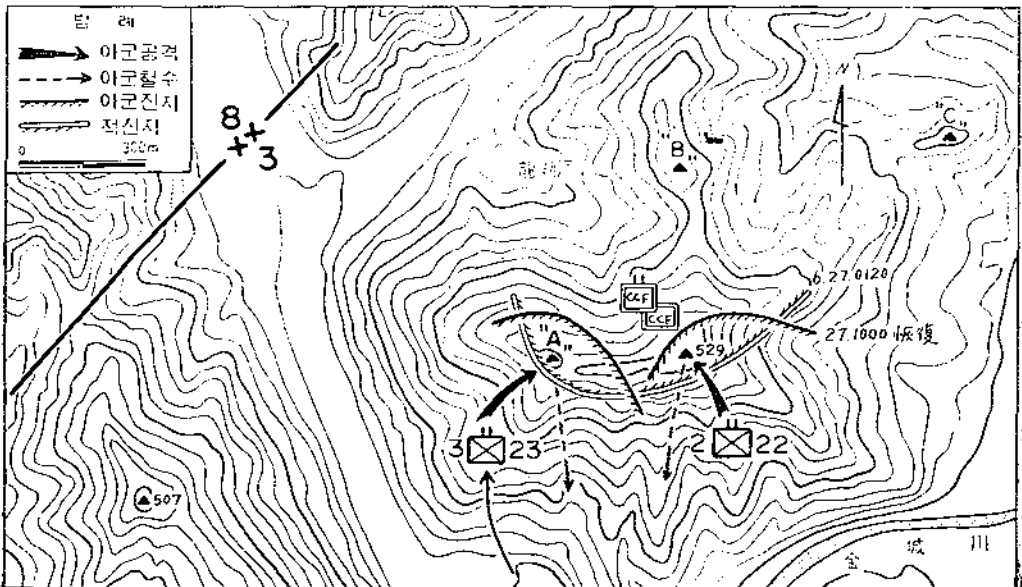
15.30에 이르러 1개 중대규모의 敵이 隱密한 行動으로 龍湖洞 溪谷을 따라 제9중대 正面에 出現하였으므로 중대는 至近距離까지 接近토록 지켜보다가 陣前 50m에 이르렀을때 하나 하나 조준하여 방아쇠를 당기는 여유를 갖고 射擊하다가 일제히 手榴彈을 퍼부어 이들의 醜鋒을 阻止 격멸하였다. 그러나 一部の 殘敵은 岩石을 방패삼아 執拗하게 應戰하자 중대장 朴官永 대위는 日沒前에 이를 구축하기로 다짐하고 躍出을 號令하였다. 이에 중대는 地形 地物을 이용하여 掩護射擊에 步步 壓縮하고 咫尺之間에서 突擊을 敢行하려는 刹那에 대대장 金慶哲 소령으로부터 『2개 중대규모가 귀중대 右側으로 接近中』이라는 通報를 받아, 즉시 중대를 散兵壕로 복귀시켰는데 이로부터 彼我的 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2개 중대로 推算되는 병력은 $\Delta 529$ 에 포격을 가하면서 東北쪽 稜線으로 侵透함으로써 同高地一圓은 霎時間에 亂麻와 같이 헝클어져 激戰이 전개되었다.

제22연대장 崔炳淳 대령은 이같은 狀況을 豫測하고 배속된 연대수색중대(장, 高根榮 대위)를 $\Delta 529$ 의 제2대대(장, 權益檢 중령)를 遲滯없이 增援하도록 命令하였다. 그런데 20.40에 새로운 2개 대대규모의 敵이 B高地兩側으로 分進하여 南下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夜間攻擊을 試圖할 것으로 推斷되었다. 이렇게 판단한 대대장 權益檢 중령은 즉시 포격을 요청하여 蟻集한 敵群을 粉碎하고 있었는데 이 때 敵의 포격도 9,000발에 達하는 猛烈한 것이어서 彼我的 포병射擊은 互角을 이루었으며 이사이 그들의 銳鋒은 $\Delta 529$ 北쪽 150m의 至近距離까지 接近하였으니 이때가 22.00이었다.

6월 28일

3시간에 걸친 有効한 步砲協同作戰으로 狂波를 陣前에서 擊破하여 그들을 일단 격퇴하였

◇ 상황도 제47호 529高地 戰跡(제3차逆襲)其二



올때 사단장 林善河 소장은 侵攻병력의 규모나 火力지원의 치열도로 보아 틀림없이 日出前에 再襲할 것이라고 推斷하고 사단의 화력지원과 경계조의 推進, 그리고 陣地 補修 강화를 命令하고 아울러 兩연대간에 緊密한 連繫가 이룩되도록 強調하였다.

이날의 氣溫은 13°C, 南西風이 強하게 불었으며 아침부터 부슬비가 내며 航空支援은 困難하였다.

敵은 드디어 이날 05.20에 東天에 해가 솟아오르자마자(日出 05.15) 상투적인 공격준비사격을 雨注하더니 1群은 A高地로 또다른 1群은 △529로 侵入한 것이다. 敵의 기도를 豫測하고 待機態勢를 갖추고 있던 兩대대는 陣前 100m에 近接하였을 때부터 일제히 最後 阻止射擊을 퍼부어 交戰 數分만에 敵勢를 一舉에 무찔렀는데 이에 잠시 戰線은 間歇의인 砲擊만 交叉될뿐 沈黙이 흘렀다. 그러나 그동안에 그들은 1개 대대병력을 主攻方向으로 보이는 △529로 增援하고 侵攻을 再試圖하였다. 이리하여 △529一圓의 戰況은 시시각각으로 危急하여져 갔으나 同高地를 固守中인 제 2대대(장, 權益檢 중령)는 降雨로 말미암아 壕內가 물바다가 되고 壕의 구실을 상실하였으므로 오로지 지형지물을 방패삼아 決死의 鬪魂을 발휘하고 驕敵을 擊破 또 擊破하였다.

바로 이때 연대 OP인 △507에서 狀況을 살피던 연대장 崔炳淳 대령은 다시 이高地가 敵手中에 들어가는는 안되겠다고 決心하고 곧 作戰주임 安三炫 소령을 帶同하고 현지로 달렸다. 그는 이미 豫測한 바이지만 比할 수 없는 慘狀 밑에서도 奮然히 血戰을 거듭하고 있는 麾下장병들의 모습을 보고 感淚를 금치 못하여 그들을 激勵하니 장병들의 士氣는 백배하였다. 그런데 잠시후 연대장(崔炳淳 대령)은 갑자기 쓰러지면서 『最後까지 固守하라』고 외마디를 남겼는데 이때 敵彈의 破편이 그의 목을 貫通하였던 것이다.(動脈이 절단되어 後送되었으나 完治됨) 이에 대대장 權益檢 중령은 『연대장의 怨讐를 갚자』고 叱咤號令하고 그들을 무찔렀으나 敵은 四退五進하는 衝擊을 加하였으므로 兩대대는 彼我를 분간할 수 없는 極限상황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때에 연대장대리로 연대를 지휘케된 부사단장 張好珍 대령은 敵과의 離脫을 命令하여 06.20에 兩대대는 兵力을 수습하여 同高地 南麓에 各各 集結하였다.

4. 제4차 逆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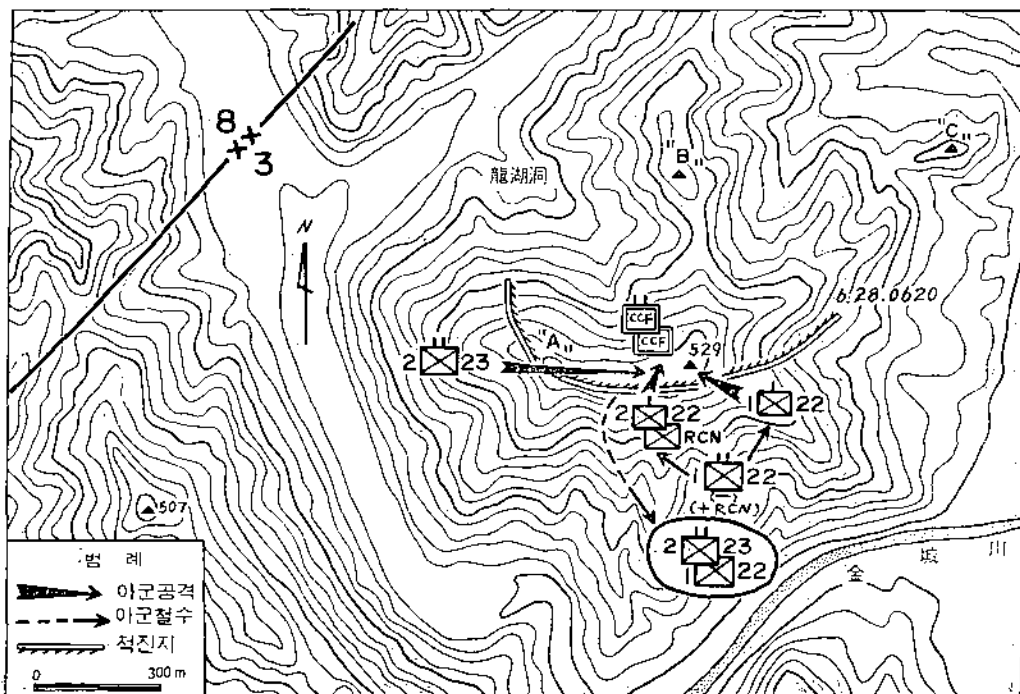
제22연대장 張好珍대령은 이에 切齒扼腕하고 期必코 △529를 奪回키로 결심하고 사단장 林善河 소장에게 이를 강력히 건의하였던 바 그는 이를 승인함과 동시에 제23연대에서 1개 대대를 연대에 배속해 주면서 激勵하였다.

연대장대리인 張好珍 대령은 A高地 兩西麓에서 부대정비중이던 제1대대(一)를 逆襲主攻대대로 기용하는 다음과 같은 作戰計劃을 세워 下達하였다.

① 제1대대(一)는 연대수색중대를 배속받아 △529를 탈취하라.

② 배속된 제23연대 제2대대(一)(同연대 수색중대 증강)는 A高地를 탈취하고 주공대대

◇ 상황도 제48호 529高地 戰鬪(제4차逆襲)



를 엄호하라』하였다.

이에 제1대대장 李在信 소령은 연대에 申告차 來訪한 제23연대 제2대대장 姜興中 대위에게 자신의 공격계획을 설명하기를 제1중대(장, 金順萬 대위)로 하여금 機動空間이 狹少한 同高地 東南쪽에서 敵을 牽制케 하고 제3중대와 연대 수색중대로써 A高地와 △529간의 鞍部 밑 100m로부터 그들의 側方으로 공격키로 하였다고 밝히고 그와는 공격간 側方 掩護와 火力支援을 協調하였다. (참고 : 제22연대 제2중대는 제4차 역습까지 제2대대에 배속)

이리하여 14.40에 兩대대는 집결지를 출발하여 LD로 向하였는데 이때 비는 멈추었으나 30°의 후덥지근한 酷暑는 병사들을 괴롭혔으며 바람은 北風으로 變하여 공격에 불리하였다. 기동을 秘匿하기 위하여 煙幕遮障을 실시한 가운데 16.00에 LD를 通過하였으며 全砲兵은 이때부터 砲門을 열어 △529의 頂上을 猛打하였다.

더욱이 이날부터 새로히 사단에 배속된 美 제461중박격포대대 제2중대가 直接 支援하여 화력을 增強하였다. △529 東南쪽에서 약진중인 제1중대(장, 金順萬 대위)는 LD를 통과하자마자 2개 중대규모의 敵과 사격전이 벌어졌으며 대대主力 또한 그들 1群과 熾烈한 交戰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대대장 李在信 소령은 대대의 進出이 그들의 邀擊으로 進出이 遲遲하고 뿐만아니라 A高地로부터 右側方이 露出되어 猛烈을 극한 側射로 말미암아 混戰케 되었음을 直感하고 제23연대 제2대대(장, 姜興中 대위)의 赴援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연대의 左一線을 담

당하고 A高地를 공격중이던 제23연대 제2대대(장, 姜興中 대위)(배속)는 一驛으로 同高地를 剔抉하고 △529로 通하는 鞍部 稜線을 따라 突進하였다.

그동안 제1대대(장, 李在信 소령)는 2차에 걸쳐 挾攻을 加하여 壓迫하였으나 완강한 그들의 最後저지사격에 부딪쳐 現진출선마저 確保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一進一退하고 있었는데 雨注하는 砲彈雨를 뚫고 躍進한 제23연대 제2대대(장, 姜興中 대위)와 連繫하였을 때의 兩대대는 그야말로 戰鬪力이 極限상황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兩대대는 躍進이 滯留함으로써 惹起되는 兵力의 損失과 士氣를 고려하고 잠시 부대를 再정비한 다음 곧 協同공격을 재개하였다. 증원부대의 加勢로 銳氣를 되찾은 兩대대는 激烈無比한 砲火속에서도 3차에 걸쳐 直衝突進하였는데 執拗한 敵들은 그때마다 急造한 壕內에서 一齊射擊과 수류탄의 亂投로 대대의 躍進을 阻止하였다.

연대장은 現상황밑에서는 △529의 奪取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고 곧 이들에게 공격 중지를 명령하였으며 이로부터 兩대대는 21.00에 逐次撤收戰을 실시하여 同高地 南麓에 集結하였다.

한편 이날 16.40에 △507南麓에서 부대를 정비중이던 제22연대 제3대대는 사단 右一線인 金城川 南岸을 방어중이던 제23연대 제3대대의 作戰地域을 引受받아 A高地 西麓으로 移動하였다.

6월 29일

5. 제5차 逆襲(제23연대)

가) 제23연대(一)의 主峰奪取: 사단장 林善河 소장은 이날 전제부대에 의한 拂曉공격으로 △529를 占領키로 決心하였는데 그 까닭은 狀況이 그친 다음 5시간밖에 안되며 또한 降雨로 말미암아 아직 敵陣地가 脆弱할 것이며 또한 실사 彈幕사격과 저지사격이 熾盛하다 할지라도 拂曉공격은 最少限의 損失로 목표를 奪取할 수 있다고 判斷하였기 때문이다.

더우기 그는 전날에 제23연대 제2대대(장, 姜興中 대위)가 晝間기동에서 戰場에서의 戰鬪損失과 比肩할 수 있는 人命의 損失을 본 쓰라린 敎訓에서였다. 이리하여 本作戰을 위하여 그는 이미 제23연대를 起用할 것을 구상하고 同연대 제3대대(장, 金慶哲 소령)를 右一線 主抵抗線에서 뽑아 △529 南麓으로 轉進(前述)케 하였으며 제18연대 제3대대로 하여금 사단 右一線을 占領케 하여 左隣接 제8사단과의 間隙을 強化[지금까지는 該地域에 3개 중대(제23연대 제5중대)를 배치] 하면서 공격대대의 병력충당을 기하였었다.

제23연대장 朴徹 대령은 사단장으로부터 공격명령을 수령하자 곧 拂曉공격을 위한 命을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연대는 04.00를 기하여 △529一圓을 奪還하려 함.

② 제1대대는 △529를 奪回하라.

③ 제3대대는 A高地를 奪回하라.

- ④ 제2대대는 1개 중대(제5중대)를 抽出하여 제3대대의 左側方을 엄호하라.
- ⑤ 攻擊間 사단의 狙포병(미군포함)은 연대를 직접지원 할것임.
- ⑥ 연대 OP는 $\Delta 507$ 東南쪽 800m에 位置함.』

이로써 02.30을 전후하여 각대는 滿月の 달빛(月齡 20) 아래 LD로 각각 약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5중대(장, 申榮坤 대위)만은 제18연대와와 進지교대로 이 때문에 A高地 西北쪽으로 迂回 기동하여야 했기 때문에 부대행동이 露出되어 연대의 공격기도가 綻露될 것을 우려하고 別命에 의하여 行動토록 하였다.

이날은 개였으나 전날에 내린 비로 말미암아 산골짜마다 범람하여 急流가 小路를 삼켜 버렸는데 이에 사단공병대대장 韓琰洙 중령이 陣頭指揮 하여 밧줄에 몸을매고 進로를 開拓하는 苦心慘膽한 作業때문에 연대의 移動은 순조로히 進行할 수 있었다.

이윽고 04.00 정각에 연대는 공격준비 사격이 끝나고 對砲兵 射擊으로 轉換함과 때를 같이하여 一齊히 LD를 通過하였다. 각대가 계속 隱密한 행동으로 進出中 제1대대(장, 金載龍 중령)가 $\Delta 529$ 南쪽 100m에 이르렀을 때, 東天에 해가 솟아(日出 05.14) 이로 말미암아 대대의 공격을 觀測하게 된 敵은 狂的인 사격을 集中하였으며, 同시각에 左一線 A高地로 躍進하던 제3대대(장, 金慶哲 소령)는 9부稜線에서 一進一退의 手榴彈이 亂舞하는 육박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敵은 그동안에 兩高地의 前斜面에 철조망과 地雷地帶를 急造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進출은 매우 곤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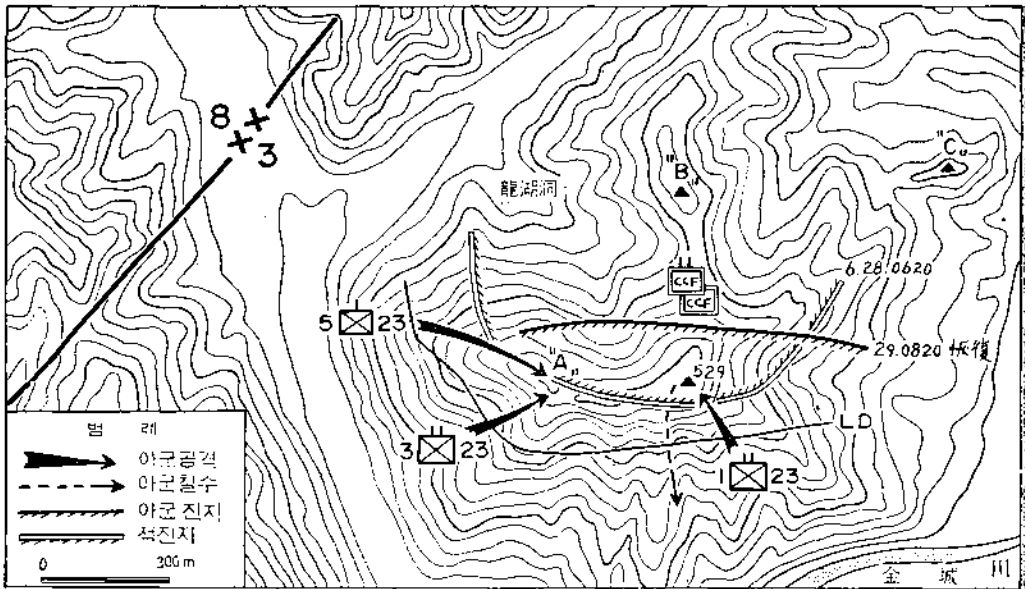
이와 같은 狀況에 接한 연대장 朴徹 대령은 그들의 側背로 奇襲하기로 하고 교전과 동시에 主抵抗線상의 橫的 連絡線을 따라 東쪽(目標 A高地)으로 移動중인 제2대대 제5중대(장, 申榮坤 대위)에게 同高地 西北쪽으로 急行軍할 것을 命令하니 同중대는 急遽 제3대대 最左一線으로 迂回한 다음 이로부터 그들 側背를 直衝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豫期치 않았던 곳으로부터 기습을 받게된 敵은 瞬間에 動搖의 氣色이 確然하였다.

이와같은 情況을 捕捉한 제3대대장 金慶哲 소령은 支撥된 工兵으로 철조망을 切斷케 하고 한편 地雷를 除去케 하였는데 이로써 通路가 열리자 突貫을 號令하니 대대는 彈雨를 뚫고 騎虎之勢로 高地一角에 楔入하게 되어 이로부터 亂戰 亂擊의 格鬪戰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때 $\Delta 529$ 를 공격하던 제1대대(장, 金載龍 중령)도 一氣呵成으로 突擊을 敢行하여 頂上에 오르니 燦然히 떠오르는 햇빛아래 兩頂上에서 마치 龍虎相搏의 白兵戰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들도 最後의 發惡으로 對抗하였으나 이미 窮地에 빠졌음을 알았는지 兩高地에 100餘具의 屍體를 버린채 무질서하게 北方으로 潰走하였다. 이리하여 연대(一)는 공격개시 4시간 20분만인 08.20에 $\Delta 529$ 와 A高地를 同時에 手中에 넣고 사단공병대대장 韓琰洙 중령이 지휘하는 공병 2개 중대와 연대가 協同하여 철조망 架設과 地雷埋設, 그리고 進지構築에 全力을 다하였다. 그러나 이를 阻止하려는 그들의 砲射擊과 07.00부터 내린 降雨로 말미암아 作業의 進도는 牛步와 같이 遲遲하였다. 그런데 09.00부터 점점 敵의 공격이 苛烈하여

◇ 상황도 제49호 529高地 戰鬪(제5차逆襲)



지면서 高地一帶는 아연 緊張이 高潮되었으며 또 妖氣마저 감돌게 되었다.

敵의 砲擊이 집중되는 동안 그나마 作業하였던 모든 工事는 파괴되었는데 09.30이 되자 2개 대대로 推算하는 一隊이 東北稜線을 따라 △529를 向하여 侵攻하였다. 뿐만 아니라 또한 陽攻인 듯한 1群은 同高地 嶺北쪽 稜線으로 侵襲하고 陣前(主峰) 100m에 쇄도하였다.

제1대대장 金載龍 중령은 사단포병의 유도로서 한때는 그들의 銳鋒을 阻止하기도 하여 많은 敵을 殺傷하였으나 東北部쪽으로 侵入하던 1群이 東쪽으로 迂回하여 斷崖의 地隙과 岩石을 利用하여 頂上의 側背로 侵透하고 三面에서 포위한 다음 압박을 加한 것이다.

이로써 後方路마저 위협을 받게된 대대장 金載龍 중령은 즉시 事態의 危急을 연대장 朴徹 대령에게 보고하였는데 그는 逐次 增大하는 損失과 次後 反擊을 위하여 高地에서 離脫할 것을 命令하였다. 이에 따라 동대대는 A高地를 固守中인 제3대대(장, 金慶哲 소령)의 掩護아래 △529 南쪽 9부稜線으로 물러나 그들과 對峙하면서 다음 공격에 대비하게 되었다. 당시 연대장 朴徹대령은 危急할때 活用하려고 연대본부요원을 위주로 편성한 特殊부대와 A高地를 赴援하였던 제23연대 제5중대를 제3대대장 金慶哲 소령이 통합指揮케 하여 現接觸線에서 18.00를 기하여 △529에 대한 역습을 재기하기로 계획을 추진하였다.

나)사단장의 措置 : 그러나 사단장 林善河 소장은 불단불에 물방울 떨어뜨리는 식의 逐次 병력의 投入과 正攻法으로는 情勢를 挽回할 수 없음을 판단하고 각 연대장과 다음 작전을 熟議하였는데 이에서 얻은 結論의 主要骨子는 「① 1개연대 전병력을 投入하고 ② 敵의 圭連路를 遮斷한다」 特히 ②項에 대한 基礎는 이번 제5차 逆襲에서 規模는 작으나 제5중대(장, 申榮坤 대위)가 A高地 側背로 우회하여 直衝함으로써 作戰에 큰 성과를 주었던 사

실을 높이 평가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사단장 林善河 소장은 作戰準備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첫째 : 18.00부터의 △529에 대한 공격재개계획을 중지한 다음 제23연대 제3대대는 30일 07.30까지 △507 西北下麓에 集結하고, 둘째 : △529에서 敵과 峙對중인 제23연대 제1대대는 19.00에 敵과 離脫하여 A高地 南麓으로 轉進하며, 셋째 : A高地 南麓에서 부대교육 중인 제23연대 제2대대는 30일 09.00에 제3대대 南쪽 200m에 集結하며, 넷째 : △507 稜線을 防守中인 제18연대 제3대대는 그 임무를 17.00부로 제22연대 제1대대에 引계하고 廣大谷에 集結한다. 즉 제23연대로 하여금 △529 一圓에 대한 연습에 專念케하는 한편 제22연대는 사단의 右一線을 그리고 제18연대는 계속 사단에비로 廣大谷에 공치기로 하였으며, 이로써 全연대는 19.00를 전후하여 행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6월 30일

제6차 逆襲(제23연대)

제23연대의 兩翼包圍 : 연대장 朴徹 대령은 이날 要旨 다음과 같은 逆襲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제1대대는 △529 右側으로 迂回하여 目標 C高地를 奪取하라.

② 제3대대는 龍湖洞 溪谷으로 돌화作戰을 實施하여 △529一圓의 敵의 주연락로를 차단하고 目標 C高地의 제1대대와 連繫하라.

③ 제1 및 제3 兩대대는 C高地 頂頂과 동시에 命에 의거 △529를 공격할 準備를 하라.

④ 제2대대는 兩대대가 迂回攻撃時 △529 一圓의(A高地 포함)의 敵을 固着 견제하되 依命 奪取하라.』

먼저 △529의 主敵을 殲滅한다면 附隨의으로 A高地가 破滅될 것은 明若觀火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윽고 17.00부터 全砲火가 猛打를 加하는 가운데 敵을 牽制하고 迂回를 欺瞞키로 한 제2대대(장, 姜興中 대위)가 先發하여 兩高地간의 馬背와 같은 稜線 南쪽 200m로부터 공격을 개시하여 第6次 逆襲의 幕을 올렸다.

이동안 敵을 兩翼包圍코자한 兩대대는 19.00에 제1대대(장, 金載龍 중령)가 △529 東쪽 400m에, 그리고 龍湖洞으로 迂回한 제3대대(장, 金慶哲 소령)가 同高地 西北麓 500m에 進出하여 各各 展開하였다. 이때 敵은 正面으로 약진하는 제2대대(장, 姜興中 대위)의 欺瞞作戰에 걸려 모든 火力을 이곳으로 集中하다가 突然 左右側方으로부터 奇襲的인 攻擊을 받게 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음인지 暗中摸索으로 砲擊은 연대의 接近 예상로이면 아무 곳이나 亂射하는등 混亂상태에 빠져들고 있음이 確然하였다. 이 때를 看過하지 않으려는 正面의 제2대대장 姜興中 대위는 叱咤 激勵하여 鞍部(△A-△527간) 南쪽 50m까지 돌진하고 該稜線을 扼守하고 있던 2개 중대의 敵과 擊破하여 死鬪에 이은 死鬪를 連續하면서 敵을 견제하는 동안 제3대대(장, 金慶哲 소령)는 頑強한 大網을 헤치고 그들의 背斜面으로 突進하여 △529 西北쪽 200m까지 肉迫하였으며 東쪽의 제1대대(장, 金載龍 중령)도 輕微한 집중을

유지하면서 C高地의 近距離까지 접근하였다. 이로부터 漆黒과 같은 夜間전투로 突入하여 연대의 躍進은 容易하였으나 이때 敵은 我軍에 의해 포위된 것으로 認定하고 陣내사격을 要請한듯 彼我를 分辨치 못하는 盲砲擊과 同時에 各據點에서 亂射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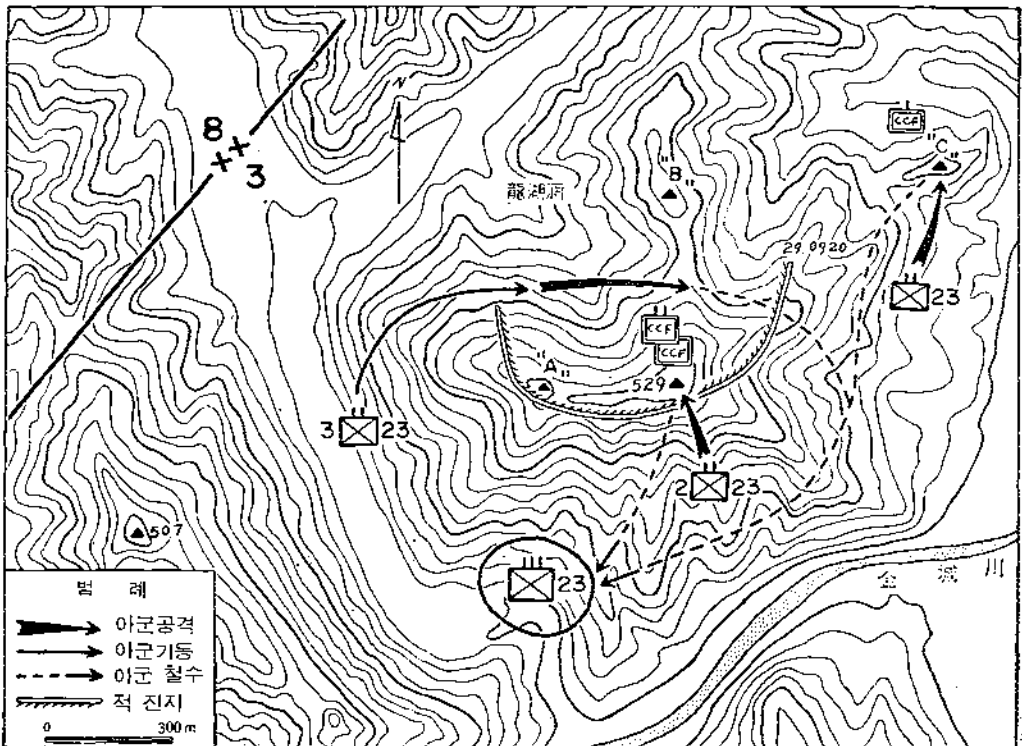
제1대대장 金職龍 소령은 이미 敵이 混亂상태에 빠졌음이 틀림없다고 推斷하고 21.30에 목표 C高地에 대한 突貫을 호령하여 마침내 連絡路 유지를 위하여 同高地를 扼守하고 있던 1개 중대규모의 敵을 一瞬에 蹂躪하고 이를 奪取하였다.

한편 그들의 背斜面으로 突進중인 제3대대(장, 金慶哲 소령)는 이때 그들의 盲目的인 T.O.T 射擊網에 휩쓸려 많은 死傷者가 發生하였으며 더구나 A高地와 △529 그리고 北쪽의 B高地 등 三面에서 마치 三角形의 頂點에 集中하듯 그들 小火器의 斜射와 側斜의 交叉로 말미암아 阻止寸前에 놓이기도 하였으나 대대장 金慶哲 소령의 陣頭지휘와 各 중대장의 火力유도로 곧 병력을 수습하여 공격을 再興하고 敵前 100m 까지 楔入하여 당초 연대가 主抵抗線을 攻擊할 때 파놓은 散兵壕에 차례 전개하는데 성공하고 이제 그들을 三面에서 포위한채 射擊戰을 벌이고 있었다.

7월 1일

제23연대의 逆襲挫折 : 巧妙한 연대의 包圍作戰에 魂이 빠진듯한 그들은 00.20부터 포위

◇ 상황도 제50호 529高地 戰鬪(제6차逆襲)



網 外廓으로부터 소대 규모의 突破를 2,3차에 걸쳐 試圖하였으나 이를 陣前에서 擊碎함으로써 熱戰은 잠시 小康상태가 흘렀다. 그런데 연대도 이즈음 彈藥의 不足을 가져와 戰死 傷한 戰友의 彈帶를 바꿔차야 하는가 하면 敵屍에서 銃과 彈藥을 거두어 사용했으나 이마저 消盡한데다가 疲困憊한 現時點에서는 더 이상 포위망壓縮은 困難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도 兩대대장은 東天에 해가 쏘기 전에 目標를 奪取하기로 決心하고 陣容을 가다듬고 있었는데 04.30이 되자 그들은 이제까지의 小康상태를 깨뜨리고 무려 7,000발의 포격을 퍼부었으며 이를 破摧하기 위한 포격의 誘導와 포위망內의 敵脫出을 阻止하기 위하여 경제조를 펴고 있는 사이에 東天이 불어오면서 1개 대대규모의 敵이 C高地 東北稜線으로 侵攻하고 이로 말미암아 同高地를 固守中인 제 1대대(장, 金載龍 중령)와 紛戰亂鬪가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疲勞에 지친 대대이지만 1:1에서 有利한 監視高地를 確保하고 있는 이상은 그들도 山 中腹에서 대대의 正確한 照準사격에 의하여 阻止된 끝에 潰退하고 말았다.

그로부터 40분뒤, 그들은 차단 孤立되어 있는 △529 一圓의 병력을 救出하기 위한듯 3개 대대규모로 B高地 北쪽에서 分進하여 氣勢도 騰騰하게 南侵하였다. C高地에서 이를 發見한 제 1대대장 金載龍 중령은 즉각 포지션을 받아 대대의 81mm 迫擊砲와 협동으로 長蛇를 強打하였으나 가혹한 奮戰때문인지 곧 兵力을 糾合하여 다시 南으로 南으로 侵透하였다. 이때 마침 사단에서 要請한 2개편대의 航空機가 새벽공기를 뚫고 출격하여 1개 群式 담당한듯 기총掃射로 무질터나가기 그들은 한쪽에서는 쏘어지고 또 한쪽에서는 右往左往하여 完全히 混亂에 빠져있음을 目擊할 수 있었다.

그러나 靛靛한 그들의 銳峰은 鈍化되지 않았으므로 彼我는 헝클어진채 手榴彈을 交叉하는 陣內近接戰이 兩대대의 到處에서 벌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부대가 그들에게 逆포위된채 각대별로 孤立하여 角逐戰이 전개되자 연대장 朴徹 대령은 戰勢불리함을 判斷하고 전 대대에 敵과의 接觸을 中斷하고 離脫할 것을 命令하였다. 이 命令은 연대와 대대간에 疎通된 마지막 通信이었던 까닭에 이와함께 대대간의 橫的통신마저 두절되어 각대대는 독립적인 철수작전을 펴야만 하였다.

이리하여 兩대대는 각개로 독립하여 포지션 射擊下에 逐次로 지연작전을 거듭하면서 그들의 火網을 突破하고 13.00에 A高地 南麓에 집결을 完了하였다.

7월 2일

제 23연대장 朴徹 대령은 이번 逆襲에서 그들을 撲滅一步前으로 몰아 넣고도 失敗하게 된 것은 첫째로 夜間戰鬪에서 兩대대에 同一目標를 賦與하였다는 점, 둘째로 分進 合擊點에서 兵力의 集中에 失敗한 것, 셋째로 兵力의 過用이 그 主因이었음을 分析하였다. 그러므로 이의 成功要素는 精到한 훈련은 當場에 기대할 수 없으나 獨立전투 指揮의 능력과 統制方策 그리고 編成과 計劃의 單純性에 있다는 結論을 얻고, 兵力의 過多運用을 피하고 한 부

대에 幷目標를 賦與하되 奇襲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作戰命命을 下達하였다.

- 『① 연대는 04.00를 기하여 공격을 개시하고 目標 △529, B高地, C高地를 奪取하려함
- ② 제1대대는 △529를 奪回하라.
- ③ 제3대대는 C高地를 奪取하고 依命 B高地를 奪取하라.
- ④ 제2대대는 現임무를 계속 수행하라(後述).
- ⑤ 砲兵지원射擊은 LD通過 10분전부터 실시한다.
- ⑥ LD는 다음과 같다.

제1대대 : △529 南쪽 300m 제3대대 : △C 南쪽 300m』

즉, 이 계획은 전번 逆襲때 正面공격으로 많은 死傷者를 낸 바 있는 제2대대(장, 姜興中 대위)(7.1. 13.00, 사단 右一線 주저항선에 대한 作戰地域을 제22연대 제3대대로부터 引受)를 攻撃대대에서 除外하고 1개대대는 △529 正面에서 敵을 견제하고 또한 1개대대로 하여금 그들의 背後를 遮斷하여 日出(05.16) 前에 戰鬪를 終結하려는 것이다.

7월 3일

7. 제7차 逆襲(제23연대 및 제3대대)

가) 제23연대(一)의 一翼包圍: 이날 氣溫은 18°, 가랑비가 계속 내려 視界가 不良하고 下弦(陰 5.24)달 인데도 戰場주위는 漆黑과 같았으나 행동은 자유스러워 대대가 LD에 전개할때까지 敵으로부터 沮害되지 않고 약진할 수 있었다.

03.50에 사단 傘포병(美支援포병 포함)은 불을 마하여 目標一帶의 敵陣을 격파하는 가운데 2日間의 休息으로 銳氣를 되찾은 제1, 제3 兩대대는 一齊히 LD를 躍出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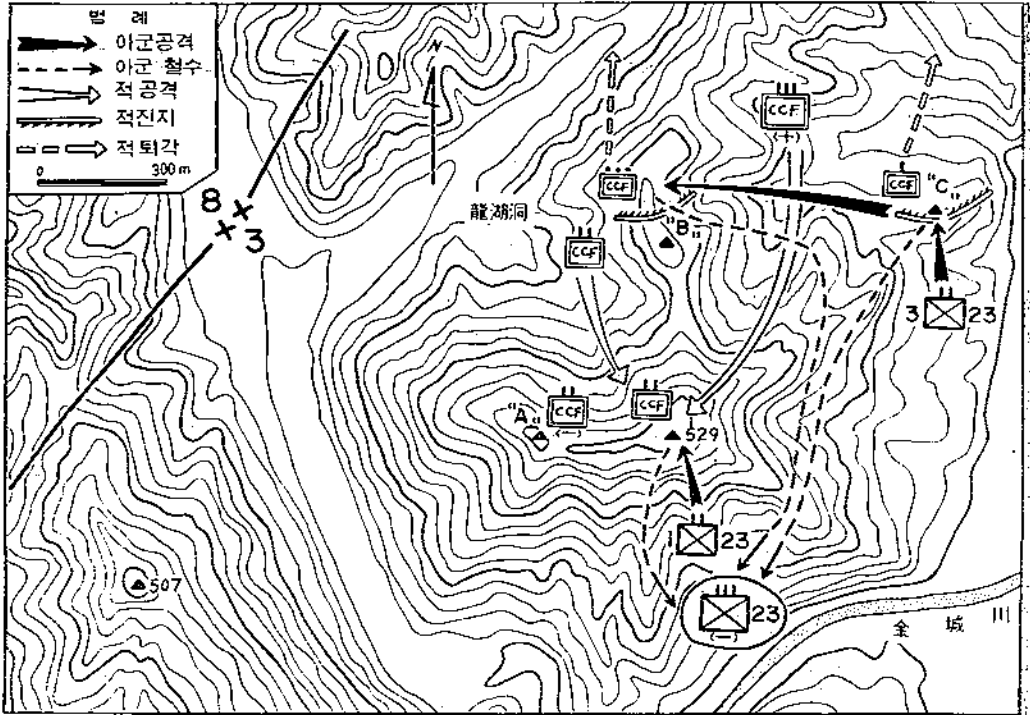
C高地의 敵은 가랑비와 砲彈의 炸裂音에 遮斷되어 제3대대(장, 金慶哲 소령)의 공격方向을 探知하지 못한듯 盲目 포격의 彈着點이 焦點을 못잡고 대대의 周邊을 맴돌고 있었으나 이들이 敵前 40m로 肉迫하자 그들은 陣內射擊과 함께 壕內에서 수류탄과 小火器사격으로 必死의 抗戰으로 대대의 楔入을 阻止코자 하였다.

敵과의 咫尺之間에서 進退兩難에 처하게된 제3대대장 金慶哲소령은 제11중대를 頂上 北쪽으로 침투시켜 이들이 散開가 끝나자 突擊을 號令하여 04.50에 同高地를 襲격으로 瞬間에 奪回하였다.

연대장 朴徹 대령은 △529 正面으로 攻撃중인 제1대대(장, 金載龍 중령)의 약진이 遲遲不振하던차에 제3대대장 金慶哲중령으로부터 「C高地 奪取」의 勝戰報告가 들어오자 그들의 後方退路를 完全히 차단하여 △529의 敵으로 하여금 降伏야하면 殲滅을 擧하도록 강요하기 위하여 즉각 B高地도 奪取할 것을 命令함과 동시에 一部の 兵力으로 C高地를 확보할것을 指示하였다.

대대장 金慶哲 소령은 이에 즉시 제11중대로 하여금 同高地를 防守케 하고 제9 및 제10

상황도. 제51호. 529高地·戰鬪(제7차逆襲)



兩중대로 하여금 B高地를 공격케 하였다. 그런데 該高地에는 主거점과의 連絡路에 불과 하여서인지 그들은 이곳에 1개 소대규모의 병력으로 이를 占據하고 있었는데 日出(05.16)과 同時에 強襲한 兩중대의 기습이 奏效하여 05.30에 이 高地를 奪取함으로써 △529에 이르는 通路는 完全히 閉鎖되고 말았던 것이다.

△529 周邊이 연대의 掌中에 들어가자 그들의 繼戰의식은 이미 땅에 떨어진듯 사격의 熱度가 점점 식어갔다. 뿐만아니라 누가 妙案을 案出하였는지는 모르나 B高地와 C高地上 峰에서 太極旗를 흔들며 喊聲을 지르자 主峰에 있던 敵들은 東요의 빛이 歷然히 나타났다. 이때 △529를 直衝중이던 제1대대 장병들은 山너머에서 일어난 快事에 대하여 主峰에 가리워 아는바 없었으나 연대장 朴徹대령으로부터 『B高地와 C高지를 탈취하고 頂上에 太極旗가 휘날리고 있으니 費대대도 돌진을 敢行하라』는 命令을 받고 이미 戰機가 부르익었음을 直感하고 突貫으로 移行하려던 대대장 金載龍 중령은 『敵은 제3대대의 戰友들에 의하여 退路가 完全히 遮斷되었다. 우리의 目標은 다만 이 觀望山(通常 △529를 이렇게 불렀음) 뿐이다』라고 외치며 突進 또 突進하여 同高地 左側 稜線에 楔入하였다. 그러나 三面 포위를 當하면서도 砲兵의 지원을 받으면서 물러서지 않고 마치 물린 쥐가 고양이를 물러 하듯이 對抗하였다.

나) 敵의 侵攻과 撤收: 이와같이 B高地와 C高지를 剔抉하고도 主峰에 대한 진출이 釘着

원채 밀고 밀리는 激戰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09.00가 되자 그들의 포격이 점차 活潑하여지더니 1群이 B高地와 C高地간의 溪谷으로 侵透하고 있었다. 이를 發見한 제 3대대장 金慶哲 소령은 즉시 兩側高地에서의 交叉사격과 砲擊으로 이를 潰散시켰는데 그후 또 다시 龍湖洞에 1群이 出現하였으나 사단의 彈幕射擊으로 말미암아 分散 潰走하였으니 당황한 그들의 一面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도 逐次的인 兵力投入으로서는 △529 一圓에 包圍된 병력을 救援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였는지 12.30에 B高地에서 數를 헤아릴 수 없는 一群이 東北쪽 溪谷에서 分進하여 南下하고 있음을 發見하였다. 이에 제 3대대장 金慶哲 소령은 砲擊의 誘導로 猛打를 加하였으나 狂波는 潮水와 같이 밀려들어 마침내 2개대대로 추산되는 主力이 C高地의 至近距離까지 도달하고 그 1波는 B高地를 점령중인 兩중대의 接觸도 않은채 左로 迂回하여 南下하고 있었다. 또한 1波는 龍湖洞의 溪谷을 가로질러 一路 A高地로 向한듯 直進하고 있었는데 이 시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말미암아 視界가 점점 나빠지면서 언제, 어디로 그들의 醜鋒에 躡싸일지 豫測키 곤란하였다.

이에 이른 大대장 金慶哲 소령은 그들의 侵攻병력의 규모(4개대대로 추산)나 侵攻方向이 尋常치 않음을 判斷하고 逆包圍 상태의 逆境에 놓이게 될것을 直感하고 먼저 B高地의 主力을 C高地에서 固守중인 제11중대의 엄호아래 同高地에서 물러서게 하여 △529 東쪽 200m로 轉進시키는 한편 兩중대의 掩護밑에 제11중대도 C高地에서 離脫케 하였는데 대대는 이와같은 逐次撤退로 곧 △529 南쪽 200m에서 공격이 頓挫된채 그들과 對峙하고 있던 제1대대(장, 金載龍 중령)와 連繫를 이루고 다음 공격을 위한 阻止障地를 편성하였다. 이즈음 연대장 朴徹 대령은 끊어오르는 痛憐을 참고 日氣가 快晴하기를 기다려 空地협동작戰으로 強襲을 再開하고자 匕首를 갈았으나 그 機會는 다시 오지 않았다. 이리하여 9日間에 걸친 피비린내나는 이 血戰은 霧은 내렸으며 이후 얼마안가 그들의 大規模의인 이룬바 7.13: 攻勢와 休戰에 묶여 그들의 손에 종내 넘어가고 말았다.

라. 전투후의 개황

사단은 全전선이 小康狀態에 놓인 가운데 9일간에 걸쳐 敵과 一進一退의 彈力的인 攻防戰을 반복하였으나 無爲로 돌아가고 일단 △529 一圓에서 물러난뒤 제22연대(장, 朴徹 대령)를 金城川南岸에서 사단의 右一線을 防守케 하고, 제22연대(장, 崔澤元 대령)로써 同川의 左側을 固守케 하여 現線에서 그들과 間斷없는 소규모의 탐색전을 벌이면서 공격再開를 위한 부대정비와 障地構築에 정진하였다.

이때 中共 제67군 隸下 2개사단은 當사단과의 血戰에서 40%에 推算되는 殺傷者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華川貯水池에 이르는 關門인 100番道路(登大里—華川間)의 瞰制거점인 △529를 手中에 넣게 되자 北漢山 東域을 깊숙히 侵透한 左翼의 中共 제68군과 같이 戰力を 整備한듯 航空偵察에 의하면 同高地一圓을 中心으로 하여 兵力 및 보급품을 推進하고 그리고 砲兵據點을 推進하는 등 日益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陸本定期情報告 제193호(53.7.12)에도 당시의 이와같은 敵情을 確認하고 있는 바와같이 美 제8軍도 그들의 大攻勢가 臨迫하였음을 警告함으로써 妖霧은 또다시 中東部 戰線을 뒤덮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사단은 군단作擧 제59호 (53. 7. 12부)에 대하여 右翼 제5사단(장, 崔泓熙 준장)에게 右一線 제23연대(장, 朴徹 대령)의 작전구역을 인계하는 한편 左翼 제8사단(장, 宋堯讚 소장)의 전투구역 一部(제21연대 主抵抗線)를 인수받음으로써 右는 登大里 東北 1km의 金城川으로부터 左는 汝文里 北쪽에 2km에 이르기까지 4km의 比較的 狹少한 작전지역을 防守케 됨으로써 사실상 敵이 노리는 關門의 關門인 登大里(華川에 이르는 入口) 부근을 再擔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사단의 戰鬥地境線이 整齊되면서 제23연대(장, 朴徹 대령)는 右一線부대가 되어 연대 CP를 登大里에 두고 金城川 左岸으로부터 汝文里까지의 △507 一圍을, 그리고 제22연대(장, 崔澤元 대령)는 左一線부대로서 연대 CP를 廣大里에 두고 汝文里-△485-汝文里 北쪽 2km의 無名高地에 이르는 線을 主陣地로 삼아 前哨陣地를 龍湖洞에서 西北으로 열린 小路一帶까지 추진하였으며 또한 제18연대(장, 朴敬遠 대령)는 예비로써 外城洞에서 계속 부대정비에 임하게 되었다.

綜合戰果 및 損失

戰 果

(步兵 第3師團 戰鬥記錄 53年版 資料)

區 分	部 隊 別	제 22 연 대	제 23 연 대	계
確 認 射 殺		1,129	1,827	2,956
捕 推 定 殺 傷		669	1,306	1,975
			6	6

損 失

區 分	部 隊 別	제 18 연 대	제 22 연 대	제 23 연 대	사 단 직 할 대	계
戰 死		11	163	247	7	428
戰 傷		71	168	1,038	71	1,348

§ 參戰者의 證言

◇ 제22연대장 崔炳淳 大領

(1976. 7. 26 釜山에서, 豫 大領)

연대는 제5사단에 배속(1953. 6. 11~1953. 6. 15 간)되어 △949戰團에서 1개대대 이상의 兵力 손실을 내고 △529 戰團에 逆襲부대로 起用되었는데 계속되는 치열한 전투로 말미암아 士氣는 다소 低下되었어도 痛痛하게 싸웠다. 그러나 그때 사단의 모든 業務는 허술하였다.

한가지 例를들면 △529 南麓에 긴 橋梁(군단에서 架設)이 敵 砲彈에 의하여 砲壞되었는데도 이 불 隸下隊에 通報치 않아 내가 夜間에 轆車로 그곳을 通過하다가 물에 빠져 同乘하였던 S-2와 S-3, 그리고 無電兵이 戰死하고 나만 살았는데 모든 일이 이러하였다. 내가 △529頂上에서 負傷하고 後送되었는데, 연대 OP를 대대 OP까지

내어보낸다는 것은 作戰上 부득이 한 境遇 있을 수도 있으나 當時의 狀況으로 볼때 1개중대도 散開하기 힘든곳에 연대 OP를 設置한다는 것은 問題點이 있다고 본다.

◇ 제22연대 수색중대장 高根榮 대위

(1976. 7. 31 首都軍團 城東區支團에서, 大領)

제5사단에 배속(1953. 6. 12~1953. 6. 15간)되어 △949 戰團에서 半數의 兵力損失을 보고 戰團에 參加하였는데 兵士들은 지쳐 있었다.

同高地 頂上은 岩石地帶로 據를 판다는 것은 彼我간에 있을 수 없었고 敵은 1개 중대규모를 散開시키고 2개 대대규모는 通常 背斜面에 布陣

하고 있었다. 前斜面도 8부稜線은 그들의 砲彈을 避할 수 있었으며 敵의 砲擊은 우리의 砲擊과 맞먹었다.

§ 戰 訓

(1) 包圍作戰의 指導

이번 攻擊의 機動形態는 正面攻擊과 包圍였다. 正面攻擊에 있어서는 目標 $\Delta 529$ 에 이르는 軌線上的 地形의인 不利한 條件도 있겠으나 이를 4回 實施하여 두번이나 失敗하였다. 그러나 包圍攻擊은 敵의 側方을 強打하여 그들에게 恐怖心을 준 반면 我에게는 攻擊的인 優越感을 갖게 하여 4回 모두 成功하였다.

이와같이 包圍網 形成에는 成功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壓縮하는 힘의 劣勢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들에게 逆包圍되는 쓰라린 結果를 가져왔다.

때문에 包圍부대는 優勢한 戰鬥力——여기서는 衝擊力——과 機動力을 가져야 하며 正確한 協調와 時間調整이 要求되며 이러한 要求가 具備되지 않으면 各個 擊破될 우려가 있다.

(2) 夜間戰鬥에 있어서의 連繫問題

제6차 逆襲에 제23연대 제1대대와 同연대 제3대대가 C高地 一團에서 連繫하여 最終占領目標인 $\Delta 529$ 를 攻擊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連繫直前に 失敗하였다. 夜間에 敵中에서 連繫을 試圖한 것은 마치 夜間戰鬥에 2개부대에 同一 占領 目標을 부여함과 같이 友軍간의 마찰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注意해야 한다. 제7차 逆襲에

§ 研 究

(1) $\Delta 529$ 標高의 差異와 別稱

同高地(CT 906457)에 對하여 1:25,000 地圖上(육군측지부 71.7 발행)에는 $\Delta 519$ 로 되어 있으나 1:50,000(육군측지부 71.11 발행)는 $\Delta 529$ 로 表記되어 있다. 그러나 1:25,000는 基準點이 조선총독부로 된 반면 1:25,000는 71년도로 表記하고 있음을 보아 後者が 가장 최근에 측정한 것으로 미루어 $\Delta 529$ 가 正確하다고 본다. 또한 同高地를 一名 觀望山이라고 通稱하고 있는

通信은 杜絶되는 일이 드물었는데 敵의 T.O.T 射擊 때는 有線斷絶이 가끔 있었다.

서 主峰奪取에는 失敗하였으나 敵의 背後로 迂回한 제23연대 제3대대는 獨立戰鬥을 遂行하여 自由로운 行動으로 "C" 및 "B"高地를 奪取함으로써 兵力의 節約과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었다.

(3) 逆襲時機問題

逆襲의 실시는 瘡이 身體에 퍼지기 前에 抽出하여 治療의 效果를 얻을과 같이 敵의 突破口가 擴大되기 前에 이를 恢復하여야 하며 일단 突破口가 形成되면 敵이 據點을 굳히기 前에 實施해야 할 것이다. 期間中 敵은 平均 7시간내에 侵襲하였으며 짧을 때에는 10분 이내에 侵襲하였다. 이에 비하여 我軍은 被奪後 恢復까지 平均 26시간이나 所要되고 가장 빠른 때가 4시간이나 걸렸다.

이로 미루어 볼때 그들은 被奪될 것이라고 判斷하면 즉각 逆襲부대를 投入 시킨데 반하여 我軍은 敵侵襲後에 비로소 逆襲부대를 發動함으로써 더 많은 損失을 招來케 하였다고 본다. 때문에 目標奪取 直後에는 百編成에 우선하여 敵의 逆襲 발판이 될 據點을 索出하여 拔本함이 緊要하다.

에 參戰者들은 이 山來를 모르고 있음을 보아 地域 住民間에 古來로부터 傳해 내려온 固有名稱으로 보인다.

(2) A高地, B高地, C高地 呼稱

本戰鬥의 主戰場이 된 A, B, C高地는 $\Delta 529$ 를 둘러싼 主要한 高地群으로써 期間中에는 모두 無名高地로 通稱되고 있었으나 讀者로 하여금 錯誤를 배제하기 위하여 便宜上 부여한 呼稱이다.

5. 281高地 부근 戰鬪

(一名, 화살머리高地 戰鬪)

제 1 차戰(1953년 6월 29일부터 // // 30일까지)

제 2 차戰(1953년 7월 6일부터 // // 11일까지)

4

참조 : 별책부도 제 11 호
상 황 도 제 52~55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美 제9군단장	중장	Reuben E. Jenkins	제 63 포병대대장 소령 朴 弘 成
제2사단	장	준장 金 雄 洙	제 101 포병대대장 소령 金 炳 翼
제 17 연대	장	대령 金 弼 相	제 2 重迫擊砲중대
제 3 대대	장	소령 金 璟 植	사단 工兵大隊 제 2 중대
제 31 연대	장	대령 趙 成 來	配屬部隊
제 1 대대	장	중령 高 日 燮	제 72 戰車大隊 1 個中隊
제 2 대대	장	중령 閔 應 植	제 82 高射砲대대 C 中隊
제 3 대대	장	중령 金 相 義	美 제 86 探照燈중대 제 3 소대
제 32 연대	장	대령 姜 弘 模	其他支援部隊
제 2 대대	장	소령 宋 淳 根	美 제 12, 제 15, 제 37, 제 674 포병대대
		소령 安 翼 燮	美 제 5 空軍의 隨時支援
		(7.1부터)	隣接部隊
搜索중대	장	대위 殷 胤 基	右隣接
사단포병단	장	대령 朴 秉 柱	美 제 2 사단장 소장 Double E. Barriger
제 18 포병대대장	소령	崔 鶴 麟	左隣接
제 62 포병대대장	대위	金 學 甫	美 제 7 사단 제 32 연대장
			대령 Stanley N. Lonning

敵 軍

中共 제23군	장 鍾國楚	} (제217, 제218, 제219연대 基幹)
제73사단	장 梁竹吉	

나. 전투 전의 개황

本戰鬪는 休戰調印을 앞두고 寸土를 다투던 時期인 1953년 여름철에 金雄洙준장이 지휘하는 제2사단이 白馬高地 西쪽 3km의 △281 부근에서 中共 제73사단(장, 梁竹吉)의 段攻을 擊退한 防禦戰이다.

그 位置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江原道 鐵原郡 乃文面 篤嶽里 부근으로서, 鐵原郡에서 西北쪽으로 13km 쯤 올라 가노라면 羊腸과도 같이 굽어드는 驛谷川을 안고 그 北岸에 突出한 하나의 丘陵이 있는데 그 地形이 마치 矢頭와 같다고 하여 「화살머리(Arrow Head)」 또는 「화살머리高地」라고 불리우거나, 바로 이 高地(△281)가 된다.

여기에 戰鬪이 인것은 1953년 6월 中旬으로, 이 무렵에는 敵이 全戰線에서 積極策을 취하여 지난해의 激戰地였던 岬의高地와 首都高地 및 地形稜線 그리고 狙擊稜線 등 도처에서 다시 挑發하기 시작한 時期였다. 이같은 敵의 策謀는 2년 동안이나 끌어오던 休戰會談이 捕虜交換 문제가 妥結됨을 그리로하여 調印될 展望이 짙어지자, 接觸線상의 要峯을 確保코자 하는데 基因하였으니, 鐵原平野에서는 白馬高地(△395)를 併呑할 企圖아래 戰端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리하여 저음에는 6월 12일 밤에 中共 제69사단 隸下의 제205연대가 2個 중대규모의 兵力으로 白馬高地를 直衝하였으나 鐵瓮城壁을 이룬 障地와 計劃된 火力에 依하여 一撃에 무너진 바 되자, 이번에는 제73사단의 主力이 △281로 衝鋒을 指向하여 그 西側背를 圖謀코자 함으로써 本戰鬪가 惹起케 되었으니, 서로 讓步할 수 없는 形勢아래 激突을 보게된 것이다.

敵軍의 狀況: 當面の 中共 제73사단은 제23군(장, 鍾國楚) 所屬으로 1952년 8월에 安東에서 鴨綠江을 건너 다음 元山을 거쳐 53년 1월에 平康 西쪽 17km인 金谷里에 進擊하였다고 하는 바, 그뒤로 同年 3월에 제69사단과 함께 제38군(장, 梁興福)의 戰鬪地域을 引受하여 一線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以後에 사단에서 入手한 諜報分析에 따르면, 이들은 제23군의 西翼을 맡아 사단 正面의, 대체로 曉星洞—遠雲洞—銀房洞—梧桐里를 連하는 線上에 主力을 배치하고 一部の 兵力을 山明洞—△384—△279線까지 推進하여 사단의 主抵抗線과는 1~2km의 거리를 두고 障地를 編成한듯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봄철에는 땅굴을 파기에 餘念이 없는 듯 하더니, 4월 中旬 以後부터 搜索活動을 強化하여 사단의 수색대와 不時遭遇하는 事例가 잦아졌고, 6월에 접어들면서 부터는 雨期를 이용하여 陣前에까지 넘나들면서 사단의 配置狀況을 探索하는듯 하였으니, 이는 將次 공격의 好機會를 노리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兵力과 裝備의 규모는 戰線에 最初로 加擔한 만큼 編制上的 水準을 維持할 것으로 判斷되며 支援火力은 戰鬪間에 一日 평균 7,000~8,000발의 砲擊이 있던 것으로 보아 團級 以上이 지원한 것으로 推測된다.

我軍의 狀況: 한편 사단은 52년 12월 29일附로 美 제9군단(장, Reuben E. Jenkins중장)의 작전지시 제11호에 依據하여 美 제3사단(장, George W. Smythe소장)의 戰鬪地域을 引受하면서 부터 군단의 左翼인 이 지역에서 防禦에 任하게 되었다.

당시에 사단은 趙成來대령이 지휘하는 제31연대를 中江里—下眞明洞간의 右一線으로, 姜弘模대령이 지휘하는 제32연대는 白馬高地가 포함된 下眞明洞—△281간의 左一線으로 각각 展開하는 한편 제17연

대(장, 金壽相대령)는 讚書堂里 부근에 예비로 控置하여, 右隣接인 美 제2사단(장, Double E. Barriger 소장) 및 左隣接인 美 제7사단(장, Arthur G. Trudeau 소장)과 戰線을 連繫한 가운데 10km의 戰鬪正面을 맡아 방어태세를 취하였다. 이때에 사단은 美 제3사단의 砲兵團을 배속받아 直接支援부대로 保有하고, 제64戰車대대를 비롯한 제82高射砲대대 C 중대와 美 제86探照燈 중대의 제3소대를 現位置에서 각각 배속받았다.

그뒤로 53년 1월 10일에 사단에 配屬中인 제3사단 포병단이 原隊로 復歸하고 제7포병단(장, 朴秉柱대령)이 사단에 隸屬되어 제18포병대대(장, 崔鶴麟소령)를 비롯한 제62대대(장, 金學南대위)와 제63대대(장, 朴弘成 소령) 그리고 155mm 砲를 裝備한 제101대대(장, 金炳翼 소령)가 一團으로, 名實 共に 사단포병단으로 發足함과 아울러 直接支援케 되었다.

이상과 같이 兵力과 火力을 配置한 사단은 以後 큰 변동이 없이 오직 陣地補強과 教育訓練에 精力하여, 解氷과 더불어 2월 末부터 작전지시 제93호 및 제101호로서 Wyoming 線을 포함한 現 Missouri 線上의 진지를 강화하고 小部隊훈련과 逆襲訓練을 실시하였으며(작전지시 제98호) 一線진지를 洞窟化하였다. 다만 그간의 변동사항은 部隊를 整備키 위하여 3월 1일에 작전명령 제118호로서 左翼의 제32연대를 제17연대와 交代시켰다가 同年 5월 9일에 다시 제32연대로 하여금 同地域을 擔當케 한 것 뿐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本 戰鬪에 임하게 되는데, 전투 당시 사단의 兵力과 장비는 대체로 編制上의 95% 水準을 유지하되 一線 小銃中隊만은 100%를 上廻하였으며 支援火力로 基本火力 以外에 軍단의 美 제12포병대대를 비롯한 제15, 제37, 제674 포병대대가 一般支援하고 美 제5空軍의 隨時支援도 可能하였다. 그리고 一線대대에 까지 推進하는 補給이 充足하고 比較的 士氣가 높은 편이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제1차 ㉠—㉢陣地 攻防戰(6. 29~30)

(가) 작전계획

사단은 1952년 12월 23일 23.00附로 다음과 같은 要旨의 作戰命令 제117호를 下達하였다.

『① 사단(美 제3사단 砲兵團, 제64戰車大隊, 제86 探照燈中隊 제3소대 配屬)은 29일 06.00附로 美 제3사단의 作戰地域을 引受하여 軍단 작전지시 제11호에 따른 任務를 遂行하려한다.

② 제31연대(제2重砲중대 제2소대 配屬)는 28일과 29일 사이에 美 제65연대의 陣地를 引受하여 中江里—下眞明洞간의 右一線을 방어하라.

③ 제32연대(제2重砲중대(一) 配屬)는 同日시에 美 제7연대의 陣地를 引受하여 下眞明洞—△281간의 左一線을 방어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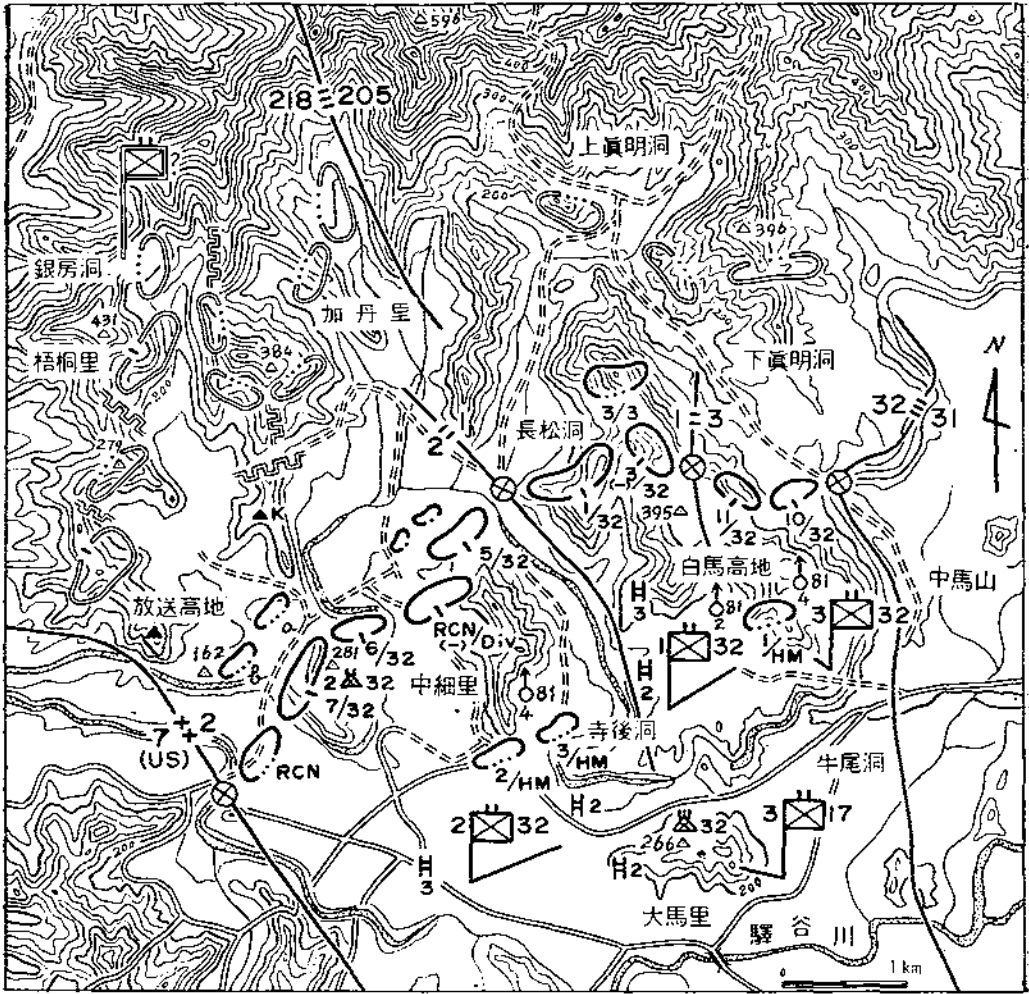
④ 美 제3사단 砲兵團은 現位置에서 任務를 계속하라.

⑤ 제64戰車대대는 現位置에서 任務를 계속하라.

⑥ 제17연대는 主力을 讚書堂里 부근으로 移動하여 사단의 豫備에 任하라. 以下省略』

이상 本命令은 사단이 狙擊稜線 戰鬪를 치른 다음, 史倉里에서 軍단의 예비로 있다가 다시 軍단의 左翼을 맡아 一線防禦에 나서게 되는 最初의 것으로서, 當時에 計劃된 사단의 作戰概念을 一瞥하면 다음과 같다.

◇ 상황도 제52호 戰鬪前 彼我의 配置狀況



첫째 : 제31, 제32 兩연대를 左·右 一線으로 하여 中江里(鐵原 北쪽 13 km)에서 △281(鐵原西北쪽 14 km)에 이르는 地區에 配置하고 제17연대는 예비로서 鐵原 西北쪽 4km의 諺西堂里 부근에 待機케 하였으며,

둘째 : 사단에 配屬된 美 제3사단 砲兵團을 各砲隊단위로 配列케 하여 一線 兩연대를 직접 지원케하고 제7砲兵團은 一般支援키로 하는 동시에 제2重砲중대는 分割配屬시켰으며,

셋째, 제64戰車대대는 中上洞 부근에 機動豫備로 保有하되, 그중 一部를 白馬高地 西쪽 要地에 배치하였으며,

네째, 工兵 2個中隊를 一線연대에 配屬支援하고 探照燈소대를 大馬里 兩쪽에 位置시켜, 사단의 全地域을 照射토록 하는 등, 固守防禦에 徹하는 方針아래 兵力과 火力을 運用키로 한 것이다.

이같은 사단의 基本概念은 당시에 군단의 方針이 『現戰線의 固守와 威力搜索』에만 限定함으로써 취하여진 조치였거니와 以後 本戰鬪에 임할 때까지 이 基本方針에는 변동없이 一部の 部隊만을 交代한 가운데 現戰線의 堅守策으로 一貫하여 오직 戰力을 強化하였다.

그러나 이에 反하여 當面의 中共 제73사단은 攻擊의 好機만을 엿보는듯 하였으니 4월 中旬부터 부쩍 늘어난 搜索活動과 綜合된 諜報分析에 依하여서도 能히 推察할 수 있지만 特別히 이무렵 敵側에서는 中部戰線에서 攻勢를 취하여 제2군단(장, 丁一權 중장)의 右翼인 제5사단의 主抵抗線(△949와 △973로 連하는 Missouri 線)을 突破한 다음 華川 北쪽의 北漢江 上流와 金城川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Iceland線까지 侵入하는가 하면 지난해의 激戰地에서 再擧를 試圖하는 등, 主로 國軍의 擔當正面만을 골라 要地直衝을 피하던 時期였으므로 白馬高地를 비롯한 鐵原平野의 要線에까지 그 銳鋒을 指向하리라는 것은 一線 指揮官들의 共通되는 見解로 보였다.

이러한 狀況아래 사단은 敵의 動靜을 隨時로 探索하던바, 6월 初부터 밀어닥친 霖雨로 말미암아 한달 가까이 豪雨中의 搜索을 反復하다가 6월 末에 이르러 비로소 장마가 건히게 되자 擔當 全域의 敵情을 파악코자 主抵抗線上의 제31, 제32 兩연대로 하여금 『敵情探索에 主眼한 威力搜索』을 실시토록 지시하였다.

이에따라 제32연대장 姜弘模 대령은 곧 이에 着手하여 그 方法과 時機등을 검토한 끝에 現在 연대의 擔當正面 가운데 敵의 出沒이 가장 심한 左一線지역에서 제2대대로 하여금 敵의 前進據點을 奇襲케 하여 捕虜를 잡아 敵情을 파악할 腹案을 세우고 이날 10.00附로 要旨 아래와 같은 口頭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연대는 捕虜를 獲得하기 위하여 一部の 兵力으로서 放送高地(△281 西北쪽 1.5km)를 奇襲하려 한다.

② 제2대대는 1個소대를 초과하지 않는 兵力으로 放送高地를 奇襲하되 哨兵刺殺을 獎用하고 죽지 않는 者를 捕獲하는 方針에 徹하라. LD 통과 시간은 19.00이며, 목표를 占領한 다음 1시간 以內에 別命없이 原位置로 復歸케 하라.

③ 제1대대는 長松洞부근의 現陣地를 堅守하는 가운데 加丹里 부근을 搜索하라.

④ 제2重砲중대(一)는 제2대대를 直接支援할 態勢로 待機하라.

⑤ 제3대대는 現任務를 계속하라.

⑤ 연대장은 18.00以後부터 △266에 위치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명령을 받은 제2대대장 宋淳根 소령은 現在 右第一線인 제6중대에서 奇襲隊를 選拔케하여 薄暮와 더불어 攻擊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나) 작전실시

6월 29일 : 오랫동안의 장마가 개여 盛夏의 快晴을 보인 이날, 中部戰線의 要域을 담당

한 사단은 雨期 以後의 戰線整備에 注力하는 한편 隸下의 각 연대로 하여금 當面의 敵情을 搜索케 하였으니, 사단의 左一線인 제32연대(장, 姜弘模 대령)에서는 鄭東萬대위가 지휘하는 제6중대가 그 任務를 맡아 放送高地를 목표로 奇襲키로 하였다.

1. 放送高地의 奇襲

이 放送高地란 △279(白馬高地 西쪽 5 km)에서 200m 內외의 等高線을 따라 東南쪽으로 뻗어 내리다가 野地에 이르면서 突出한 無名高地로서, 敵의 放送班이 隨時로 나타나 詭辯과 險談을 지꺼리는 까닭에 放送高地라는 別稱으로 불리워지거니와, 연대의 前哨陣地와는 小流를 사이에 두고 800m 거리에서 對陣한 가장 가까운 敵의 據點이다.

따라서 이 可視距離內의 敵陣을 공격키 위하여서는 地形에 익숙한 兵士가 요망되므로, 오래전부터 연대의 前哨陣地를 맡고 있는 제6중대로 하여금 이 任務를 專擔가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 중대는 제1소대를 대대 主抵抗線 前方의 2個 前哨陣地 가운데 右側陣地인 ㉔진지에 配置하고, 제3소대는 △281 北麓에서 주저항선의 一部를 맡게 하였으며, 제2소대는 예비로서 대대 OP를 整備하고 있는 까닭에, 중대장은 제2소대에서 古兵 15명을 選拔케 하여 直接 소대장 李秀明 소위의 지휘아래 奇襲組를 편성케 하고 제1, 제3 兩소대에서는 각각 分隊規模의 支援組를 抽出케하여 18.00까지 △281 北斜面에 集結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都合 37명이 指定된 場所에 集結하자, 중대장은 『철저한 기도秘匿과 민첩한 행동으로 奇襲의 目的을 達成토록 하라』고 거듭 強調한 다음 日暮와 더불어 行動케 하였으니, 18.45에 集結地를 躍출한 소대는 三個班으로 나누어, 中央의 奇襲組는 李소위의 지휘아래 △162(△281 西쪽 1km)를 넘는 즉사로 目標의 正面으로 直衝하고, 右側 支援組 9명은 ㉔진지를 西쪽으로 迂回하여 同高地의 200m 東側에서 이를 지원하였으며, 左側 支援組 12명은 바로 그 南쪽 後線에서 威脅射擊을 加하였다. 그런데 千萬意外로 曠野에 監視兵이 隱現하던 이 高地에는 敵의 隻影도 없고 四方에 흩어진 散兵塚와 崩壞된 3個의 有無蓋壕가 어둠 속에 잠겼으며 다만 30m 가량 무너진 交通壕는 數많은 足跡만이 錯雜하였다. 뿐만아니라 이로부터 1시간 동안이나 그 一帶를 搜索中에도 특별한 接敵狀況이 없었는데 이와같은 報告를 받은 대대장 宋淳根 소령은 즉각 奇襲組를 철수토록 명령함으로써, 23.00를 期하여 急遽 反轉케 되었으니 이날은 陰曆 5월 19일로 아직 月色이 稀微하여 歸路를 더듬는데 시간이 길었다.

2. 中共 제218연대의 逆襲

放送高地의 奇襲組가 歸路에 오른 뒤로 대대에서는 第一線의 境界를 더욱 굳게하고 있던바, 突然 ㉔진지(대대 주저항선 前方의 左側 前哨陣地) 西北쪽의 제3聽音哨所에서 중대 규모의 敵이 開豁地를 넘어 接近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곧 이어서 제6중대의 제1소대가 맡고 있는 ㉔진지에서도 陣前 300m 北쪽에 增強된 소대규모가 出現하였다는 보고가 잇달았다. 이 時刻는 대체로 23.05에서 23.15 사이로 奇襲組가 轉進復歸하기 시작한 直後

이며, 또한 그 出現場所가 對陣하고 있는 中央線을 넘어 섰으니, 이들은 放送高地를 搜索할 때부터 이미 侵入한 것으로 推測되거니와, 이로 말미암아 撤收兵力과의 衝突은 피할 길이 없게 되었다.

그런데 敵은 오히려 奇襲組의 退路를 遮斷하는데 그치지 않고 바로 ㉔—㉕ 兩陣지의 陣前으로 육박하였으니, 그들의 中대 OP인 것으로 알려진 △384(△281 北쪽 2.6km)에서 靑色 信號彈 2발이 오른 23.30에는 砲擊을 집중하면서 밀려 들었다. 더구나 이때부터 시작된 敵의 砲擊은 ㉔—㉕ 兩陣地 뿐만 아니라 △281의 주저항선에 까지 미쳐 一時에 1,000餘발이나 집중됨으로써 前方 兩陣地와의 有線이 모두 끊어지고 硝煙에 쌓인 대대의 主 陣地에서도 混線을 빚게 되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사단 砲兵團에서는 아직 砲門을 열지 않았는데 그 理由는 대대에서 撤收兵力을 考慮하여 火力支援 要請 與否문제를 놓고 주저하다 報告가 지연됨으로써 연대나 사단에서는 아직도 精確한 狀況을 파악하지 못한데 緣因한 것으로 보였으며, 이러한 사이에 兩陣地의 危急을 招來하게 되었다.

3. 제2대대의 洞窟作戰

以上과 같이 戰況이 急轉하다가 다음날 00.15에야 사단에서 狀況報告를 받게 되었으니, 이제 晚時之歎을 禁할 길이 없으나 비로소 사단 砲兵團(장, 朴秉柱 대령)에서 一齊히 砲門을 열어 火集點 Yellow ㉔—㉕에 대한 同時 砲擊을 퍼부었다.

그런데 이 火集點은 바로 ㉔—㉕ 兩陣地의 陣內에 選定된 것으로서, 當初에 사단에서는 敵이 자주 侵攻하는 이 兩陣地를 洞窟化하여 陣內戰이 전개되면 主力을 待避시킨 다음 VT 信管에 의한 Flash Fire 로써 殲殺키로 계획된 것인데, 이때에는 無線마저 끊어져 動靜을 파악할 길이 없으므로 이미 待避한 것으로 보고 陣內射擊을 실시한 것이다.

이로부터 集中砲火가 兩陣地를 메우니, 그 火力이 四方으로 200餘m에 미치고 軍단의 對 砲兵射擊은 敵의 주저항선을 넘었으며 이와 併行하여 제2重砲중대의 2個소대에서 800여 발의 砲擊을 加하는 등 새벽 02.00에 이르기까지 梧桐里 溪谷을 劫火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交通이 되지 않아 精確한 狀況을 把握하지 못하자 연대장 姜弘模 대령은 直接 口頭命숨으로 제2대대에서 將校 1명이 지휘하는 士兵 27명과 연대 수색중대에서 將校 1명 士兵 20명을 각각 抽出케하여 威力搜索隊를 編成하여 敵情을 探索케 하였던바 射程의 延伸과 더불어 第一線으로 進出한 수색대로부터 04.30에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에 따르면 ㉔진지에서는 제6중대의 제1소대(장, 李鍾元 소위)가 아직도 陣地를 固守하는 가운데 砲擊以後의 敗敵을 剔抉하고 있다는 것이며, ㉕진지는 이미 敵手에 넘어가서 TNT 로 洞窟을 폭파하는 듯한 爆音이 連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敵은 새로운 병력을 投入하여 ㉖高地(△281 北쪽 1.5km) 부근에서 增強된 소대 규모가 接近할 뿐만 아니라 그 西쪽의 閑豁地에서도 數未詳의 一團이 개울을 따라 侵襲中이라는 것이다. 이에 연대에서는 즉각 砲火를 誘導하여 이 赴援兵力을 阻止하는 한편 이,

미 喪失한 듯한 ⑥진지의 奪還을 策하기에 이르렀다.

6월 30일

1. 제17연대 제3대대의 反擊

사단장 金雄洙 준장은 제32연대의 OP 인 △266(大馬里 西北쪽高地)에서 이상과 같은 戰況을 始終 지켜 보다가 이날 아침에 ⑥진지의 喪失을 확인하자 이의 奪還策을 검토한 끝에 사단의 豫備隊를 使用키로 결정하고 09.00附로 要旨 다음과 같은 口頭命令을 하달하였다. (사단作戰指示 제111호로서 文書命令 後達)

『① 사단은 30일 11.30을 期하여 ⑥진지를 奪還하려 한다.

② 제32연대는 제17연대의 1個대대를 統合指揮하여 ⑥진지를 奪取하라.

③ 제17연대는 30일 10.00附로 1個대대를 제32연대에 配屬시키라.』

사단장이 이와같이 措置한 것은 現在 제32연대의 主力이 모두 主抵抗線에 배치됨을 勘案하여 敵에게 시간여유를 주지 않고 集結된 兵力으로써 一擊에 擊破하려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각 該當부대는 즉각 步砲協同에 의한 反擊을 準備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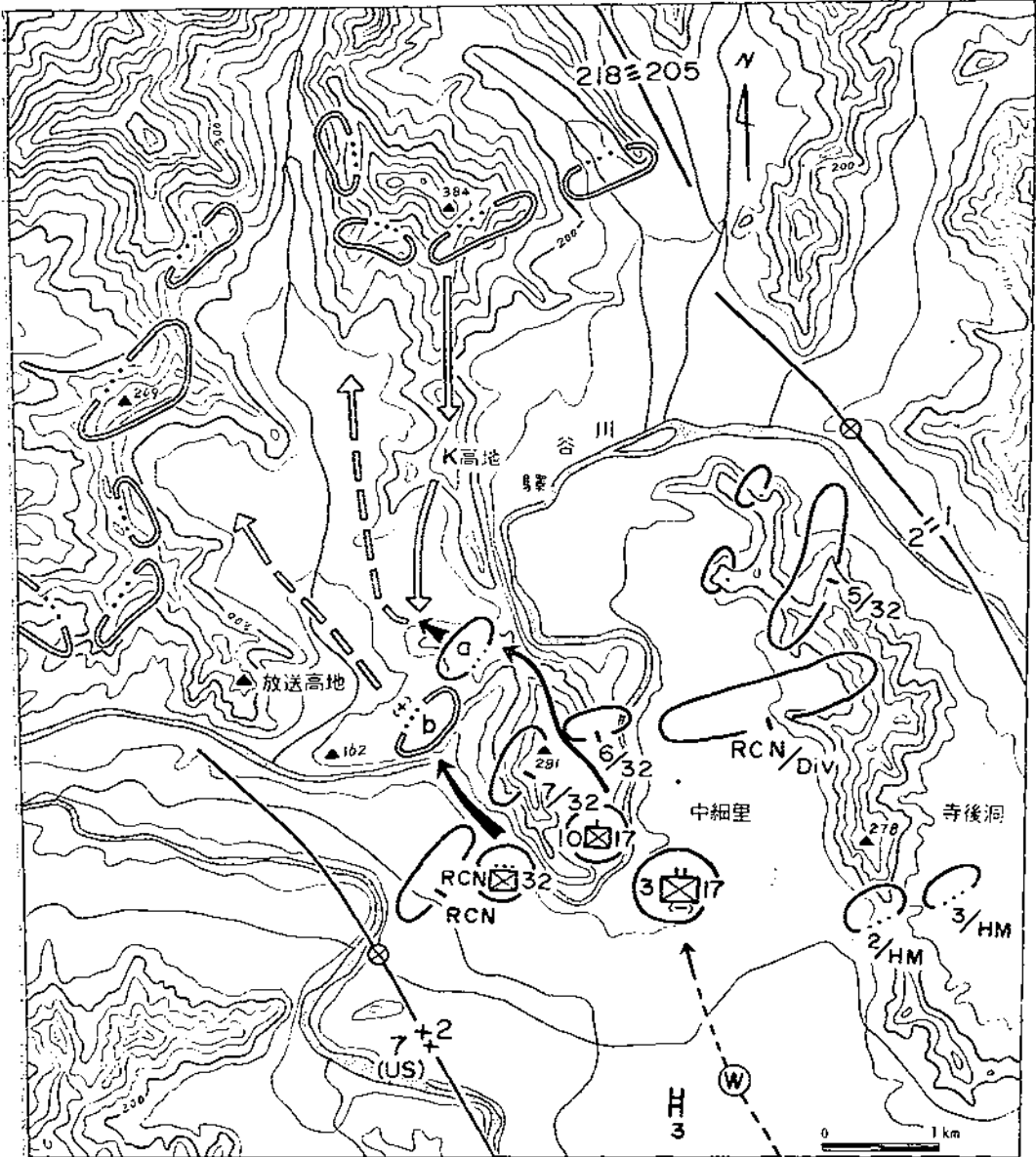
이리하여 大馬里 부근에 待機하던 제17연대의 제3대대(장, 金璟植 소령)가 增援부대로 選拔되어 제10중대를 先頭로 △281로 向發하니, 이와 때를 같이하여 포병 제18대대(장, 崔鶴麟 소령)를 비롯한 제2重迫擊砲중대 등 직접지원 부대들도 一時에 照準鏡을 敵陣으로 指向하게 되었다.

이때에 제32연대장 姜弘模대령은 1個대대가 配屬됨을 契機로 하여 効率的인 공격방안을 熟議한 끝에 配屬대대의 先遣인 제10중대에 연대 수색중대의 1個소대를 增強하여 東西 兩側方에서 挾攻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前記 제10중대(장, 姜政鎭 대위)는 10.10에 △281에 進出하는 즉시로 分隊長級 이장이 同高地의 頂上部에서 500m 前方의 ④⑥ 兩陣地를 일일히 살려 機動路 선정을 겸한 地形偵察을 실시하였으며, 연대 搜索中隊에서는 徐秉道소위가 지휘하는 제2소대가 逆襲隊로 선발되어 驛谷川을 건너 △281 西斜面에서 同時에 突進態勢를 갖추었다. 이리는 사이에 어느덧 11.10이 되자 사단 砲兵團(장, 朴秉柱 대령)에서 一齊히 砲門을 열어 15분간에 걸친 공격준비사격으로 ⑥진지 뿐만 아니라 그 後方の ⑧高地와 放送高地 一帶에 까지 徹甲洗禮를 加하였으며 그 最終 5분 동안에는 煙幕彈으로 煙幕遮障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제10중대의 2個小隊와 수색중대의 제2소대가 11.30을 期하여 東西로 分進突入하니 그 威勢는 可히 攻必取의 銳氣로 가득찬 듯 하였다.

가) 右一線을 擔當한 제10중대(一)는 △281 北쪽의 200 等高線을 따라 먼저 ②진지로 突入하였는데, 여기에서 그간에 孤立奮鬪하던 제6중대의 제1소대(장, 李鍾元 소위)와 合勢한 다음 곧 방어태형의 同小隊 진지를 틀어 攻勢로 移轉하니, 아직도 陣前에서 발악하던 소대규모가 一擊에 홀어져 潰走하는지라 이를 쫓아 13.30까지 追擊한 끝에 遺棄屍體 12구를

◇ 상황도 제53호 제17연대 제3대대의 反擊



남기게하고 3명을 사로잡음과 아울러 ㉔진지 西北端의 抗敵을 완전히 覆滅하고 말았다.

이렇듯 初戰에 聲威를 더한 중대는 그 餘勢를 몰아 다시 ㉔진지의 東側으로 突入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증강된 소대규모가 既設洞窟을 이용하여 頑強히 저항할 뿐만 아니라 進出先端에 砲火가 集中하여 苦戰을 치르게 되었다.

그러나 중대는 이같은 火網을 뚫고 步一步 陣前으로 육박하여 火力據點과 洞窟을 폭파하는데 心血을 기울이고 있던바, 15.00를 前後하여 시작된 수색중대 제2소대의 西側部 공

격이 급進展을 보이게 되자 이와 協同으로 挺進突擊끝에 드디어 15.15에 ㉑진지를 奪還하였다. 그런데 이 高地를 占領하고 보니, 山麓에 흩어진 敵屍가 그 말약상을 말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洞窟搜索과정에서 확인된—제 2대대 將兵 22명이 生埋葬 되어있는—慘狀은 전날 洞窟作戰에서 失敗한 뼈아픈 교훈을 남겨주었다.

나) 한편 左一線에서 進擊한 搜索중대 제2소대는 △281 西斜面의 집결지에서 躍出하여 ㉑진지의 西側背를 공격하던바, 初頭에는 放送高地 바로 北쪽의 突出部에서 나타난 기관총 側射火力과 敵의 彈幕地帶에 부딪혀 8부稜線까지 오르기를 몇차례 거듭하면서도 좀처럼 突破口를 찾지 못하였으며, 특히 8부稜線에 오를때 마다 그 直前方의 火力據點에서 亂射하는 自動火力의 集中으로 말미암아 死傷者가 續出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4.00를 넘기게 되자 소대장 徐秉道소위는 더이상 이 상태로 遲滯할 수 없음을 切感한 나머지 제1분대장 裒智男 二等中士를 불러, 『나의 뒤를 따르라』고 굳게 다짐한 다음 양손에 手榴彈을 뿜아들고 敵陣으로 突入하여 단숨에 이 據點을 爆破하니 이에 힘입은 병사들이 賊聲을 높이면서 一齊히 돌격을 감행하였는데 여기에서 遺棄屍體 4具를 確認하였다.

이때가 14.40으로 이로부터 戰勢는 크게 진전을 보여 頂上을 목표로 불밀듯이 밀고 올라갔으며, 이같은 제2소대의 突擊이 제10중대의 목표탈취를 可能케 하였던 것이다.

徐秉道소위는 이 戰功으로 전투 후에 銀星花郎 勳章을 받은바 있거니와, 소대장의 決意에 찬 垂範이 곧 이날 전투의 成敗를 가름하는 關鍵이 되었다 할 것이다.

다) 이상과 같이 ㉑진지를 奪還한 연대는 戰線整備에 착수하여 ㉒진지에는 제 6중대의 제2소대(장, 李秀明 소위)를 새로이 配置하고 ㉑진지는 수색중대로 하여금 방어케 하는 동시에 14.50에 當到한 제17연대 제3대대의 主力(제9중대 : 장교 5명 사병 147명, 제12중대 : 장교 4명 사병 119명, 본부중대 : 장교 4명 사병 36명)은 中細里(△281 東쪽 800m)부근에 대기토록 하였으며 또한 제17연대 제1대대에서 增援된 81mm 박격포 4門은 △281 南쪽에서 지원태세를 갖추게 하는등, 대체로 19.00까지 調整을 마친다음 경계태세로 들어갔다.

2. 敵의 再侵 擊破

一陣狂風이 지난 뒤로, 腥血이 물든 山野에 어둠이 덮여지자, ㉒ ㉑ 兩陣地에서는 陣前 200~500m에 局地 境界조를 내 보내고, 探照燈소대에서 照明燈을 밝히는 등 夜間경계 태세를 強化하였는데, 日暮가 지난지 2시간이 채 넘기도 전에 ㉑진지 東北쪽의 제1聽音哨所에서 敵에 대한 第一報를 하게 되었다. 즉, 21.50에 ㉑高地 부근에 나타난 數未詳의 敵이 방금 그 南쪽 稜線을 따라 南下中이며 다른 一隊는 西쪽 稜線에서 개울쪽으로 移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사단 砲兵團(장, 朴秉柱 대령)에서는 이 부근의 豫想侵路에 선정한 火力阻止線에 일제히 砲門을 돌려 同時 集中打를 加하고 있던바, 이번에는 개울 부근의 제 2聽音哨所에서도 接敵보고가 있었으며, 이어서 ㉑진지 東쪽의 驛谷川 언덕에서도 두차례나 TNT가 폭발

하는 듯한 爆音이 있었다.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그들은 探索만이 아니라 직접 侵攻을 再興한 것이 分明하며, 그 目標은 전날 공격에서 失敗한 ④진지를 노리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가) 이렇듯 戰雲이 감도는 가운데 제6중대의 제2소대(장, 李秀明 소위)는 ④진지 四周에서 對決태세를 갖추고 있던 바, 23.00를 넘어서면서 그 先攻一波가 밀어닥쳤는데, 이들은 2個소대 규모로서 同陣地의 中央을 돌파코자 하였다. 이에 소대는 照明支援아래 可用한 모든 火力을 총발휘하여 이를 強打하고 또한 60mm 박격포의 鐵火가 그 덜미를 치니 이 火網속에서 40餘分 동안을 헤메다가 子正이 가까워지면서 이들은 兵力을 거두어 撤退하기 시작하였다.

이 好機를 놓칠세라 연대에서는 4.2"重迫擊砲를 비롯한 81mm 박격포 등 步兵砲들이 一齊히 불을 뿜어 覆滅키로 하였는데, 이러한 가운데에도 그들은 오히려 물러서지 않고 새로이 중대규모의 增援을 얻은듯, 증강되어 이번에는 同陣地의 西端을 目標로 집중적이고도 波狀的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一波又一波의 執拗한 공격이 2시간 동안이나 계속됨으로써 다음날 03.00에는 마침내 陣內에서의 肉迫對決로 化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제6중대의 將兵들은 이제 洞窟戰法을 쓰지 않고 扼守不動의 決意에 응쳐 渾身의 力鬪를 다한 끝에 危局에 빠진 진지를 다시 회복한 다음 03.30에는 前半夜의 原陣地를 모두 掌握하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喪氣된 듯한 敵은 散發的으로 抵抗을 試圖하다가 새벽 04.10을 前後하면서부터 戰線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은 報告에 接한 사단에서는 그 退路에 彈幕을 쏘워 撲滅하였거니와, 다음날 아침에 出動한 偵察隊가 이 부근에서 潰棄屍體 32具를 確認하였으니 아마도 그들은 收拾의 景況도 없이 潰走한 듯 하였다.

나) 한편 ①진지에서는 ④진지의 激突이 高調에 달함에 따라 더욱 堅守不動하고 있었으나 밤이 깊도록 隻影이 보이지 않자,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1個분대의 搜索隊를 편성하여 放送高地 東쪽으로 進出し켜 敵의 動靜을 탐색케 하였다. 이리하여 同 搜索隊가 陣前 300m 西北쪽의 개울가에 다다른 23.40에 數未詳의 敵과 부딪혀 小流를 사이에 두고 一戰을 벌이게 되었는데, 저들은 ②⑤ 兩陣地의 中央地帶로 突入코자 두차례나 徒涉을 꾀하다가 水葬 崩변만을 맛본채로 물러서고 말았다.

그 뒤로 ①진지에서는 다음날 01.45에 수색대를 철수시킨 다음 계속하여 臨戰태세를 취하고 있었으나 以後에는 더 이상의 挑發을 斷念한 듯한 가운데 오히려 ④진지 西端에 侵襲한 敵이 鐵火의 선물만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쪽은 比隣相救의 善心까지 쓸 수 있는 여유를 보였던 것이다.

다) 이상과 같이 ②⑤ 兩陣地에서 敵의 再侵을 擊退함으로써 雨期 이후에 시작된 中共 제73사단(장, 梁竹吉)이 要域을 併呑하려는 試圖는 사라지게 되고 戰線은 다시금 고요의

一瞬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다만 彼我間에 다시 살릴 수 없는 많은 死傷者를 보게된 채로 제1차戰을 매듭짓고 말았는데 이 一戰에서의 綜合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綜合戰果 및 損失

將校 / 士兵

戰		果	損		失
射	殺	192명	戰	死	1 / 31명
推	定 殺 傷	200명		傷	
捕	虜	3명		負	
函 獲	自 動 小 銃	1정	失	踪	3명
	多 發 銃	16정			

(2) 제2차 ㉔-㉕陣地 攻防戰(7.6~11)

(가) 작전계획

△281에서 敵을 擊退한 뒤로, 사단은 7월 2일 12.00를 期하여 作戰指示 제112호로서 제32연대에 配屬中인 제17연대의 제3대대를 原隊로 復歸시켜 大馬里 부근에 예비로 控置하는 한편 ㉔-㉕ 兩陣地를 포함한 화살머리高地 부근의 前哨陣地를 다시 제32연대로 하여금 擔當케하여 最初의 상태대로 戰線을 다시 整備하였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제1차戰에서의 教訓을 되새겨 洞窟戰을 止揚하고, 보다 積極的인 方策으로 強力한 진지를 構築케 하는 동시에 工兵 1個중대를 지원하여 障礙物을 設置하는가 하면 損失된 兵力과 裝備를 補充하는 등 戰力을 強化키로 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敵은 從來 그들의 主陣地인 曉星洞-遼雲洞-梧桐里를 連하는 線上에서 潰散兵員을 수습한 다음 西쪽의 第一線 진지를 強化하는듯 하였으니, 믿을만한 諜者의 提報에 따르면, 지난 전투에서 損傷이 컸던 제218연대의 제1대대를 예비로 돌리고 張和順이 지휘하는 제3대대를 投入하여 △431-△279(梧桐里부근)線에 배치하였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航空偵察 보고에 의하면 3일 夕陽에 銀房洞 北쪽 溪谷에서 1,000여명의 무리가 集結하고 있음을 確認하였다는 것이며, 또한 金谷과 梧桐里간의 山路에 從來와는 달리 頻繁한 차량운행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으로 미루어 볼때 敵은 兵力을 증강하여 새로운 공격을 企圖하는 것으로 推測되거니와 戰後에 밝혀진 綜合報告에서 제2차戰에 加擔한 敵의 延兵力이 연대규모에 다르며, 그 重要장비가 105mm 44문을 비롯하여 82mm 42문과 60mm 14문 등으로 推計된 것도 모두 이 무렵에 再配置하거나 移動集結한 것으로 여겨진다.

어떻든 이처럼 敵이 功勢를 取하려는 徵候가 뚜렷하여지자, 사단에서는 그 衝鋒이 亦是 左一線으로 指向할 것으로 내다보고 10일 前부터 검토하던 作戰計劃 제48호(6월 26일부)에 依한 戰線의 再調整을 단행키로 하였으니, 7월 5일 12.00를 期하여 下達한 작전명령 제

120호가 바로 本作戰計劃의 發効命令으로서 그 概要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現在 제32연대(장, 姜弘模대령)가 맡고 있는 사단의 左一線地域을 兩分하여 그 大部分에 該當하는 白馬高地-△278 北쪽 1.5km의 線을 同연대로 하여금 堅守케 하고 左端의 △281一帶는 예비대에서 1個대대를 뽑아 專擔시키기로 한것인데, 이에 앞서 사단은 現豫備인 제17연대(장, 金弼相대령)를 右一線의 제31연대(장, 趙成來 대령)와 交代시킨 다음 同 제31연대에서 1個대대를 抽出하여 △281로 推進할 計劃아래 部隊交代를 先行키로 하였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 右一線의 陣地交代를 6일밤 21.00부터 7일 아침 06.00사이에 실시키로 하되 萬一의 경우에 對備하여 1個 예비대대만은 7일 21.00부터 24.00사이에 交代토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명령을 下達한 5일부터 다시 날씨가 흐리기 시작하여 이날밤에는 東南風을 동반한 驟雨가 줄기차게 쏟아져서 평상시에 40cm를 넘지 않던 驛谷川의 깊이가 6일 15.00에는 80cm로 急増하였을 뿐만아니라 視界가 흐려 敵情을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陣地交代 시간이 다가오자, 마치 이를 探知라도 한듯이 23.00를 期하여 敵이 侵攻함으로써 예비대대의 交代만은 一旦 保留한채로 敵과 激突하기에 이르렀다.

(나) 작전실시

7월 6일 : 中共 제218연대의 제3차 侵襲

이날은 흐린 날씨에 陰歷 5월 27일로 月影마저 없는데, 날이 저물자 곧 黑夜가 山野에 차고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사단(장, 金雄洙 준장)은 豫定대로 部隊交代를 실시하여, 제17연대(제 3대대欠)의 主力이 제31연대(장, 趙成來 대령)의 陣地를 引受코자 外村里로 向發하고, 그동안에 제32연대(장, 姜弘模 대령)는 白馬高地를 비롯한 △278-△281線에서 사단의 左一線을 지키고 있었는데 특히 지난 激戰地였던 △281一帶는 安翼燮소령이 지휘하는 제2대대가 맡아 제 6, 제 7 兩중대로써 ㉑-㉒兩陣地를 포함한 前哨線을 確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밤 22.50에 ㉑진지 東北쪽의 제6중대 聽音哨所에서 『㉒高地 부근에 중대규모의 敵이 江岸을 따라 南進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니, 그 兵力規模나 侵入樣相으로 보아 前哨線에 대한 夜襲을 꾀하는 것으로 推斷되었다. 이에 대대에서는 同 警戒組로 하여금 接觸을 유지하면서 철수토록 하는 한편 연대에 狀況報告와 아울러 砲擊을 요청하였던 바 敵의 侵攻速度가 빨라 사단 砲兵團에서 砲擊을 시작한 23.00에 이르러서는 그 先頭가 이미 ㉑진지 東端까지 육박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23.15에는 同陣地 西斜面으로 중대규모로써 侵攻하였다.

뿐만아니라 이 무렵에는 ㉑진지의 西斜面으로도 중대규모가 侵襲하였으니, 이 兩陣地를 攻圍한 敵의 병력은 대대규모 以上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比하여 ㉑-㉒兩진지의 配置兵力은 각각 1個소대 규모로, 이같은 衆兵을 막아 싸우게 됨으로써 緒戰에서부터 이미 激突을보여 30餘分 동안에 걸친 手류탄의 應酬를 反復하다가 子正에 이르러서는 陣內에서

의 混亂로 激化하였으며 及其邊는 ㉔진지와의 交通마저 끊어지고 말았다.

이와같은 戰況報告에 接한 연대장 姜弘模대령은 제2대대로 하여금 『△281의 主抵抗線을 堅守하라』고 嗾叱하는 동시에 연대搜索중대를 ㉔진지로 趕接케 하였으니, 이로써 股亂基에 위가 지휘하는 同 중대는 다음날 01.10에 △281를 넘어 急速 戰火에 쌓인 第一線으로 躍進하게 되었다. 그러나 戰勢는 急轉하여 수색중대의 主力이 ㉔진지의 東南麓에 進入한 03.50에는 이미 兩진지가 敵中에 들어갔을뿐 아니라 이로부터 防衛態勢를 취한듯한 敵이 增援中隊마저 一氣에 불리치려는 듯 하였다.

이런가운데 중대는 단독으로 ㉔진지를 奪還코자 하였으나 이제 이미 防守가 뒤바뀐지라 該陣地는 점점 굳어져 一擊으로 뺏기에는 힘겹기만 하였다.

7월 7일 : 제17연대 제3대대의 再反擊

既述한 바와 같은 戰況을 報告받은 사단장 金雄洙준장은 敵情의 強硬度에 비추어 적어도 이를 逆襲키 위하여서는 1個대대 兵력을 使用하여야 할것으로 내다보고, 現在 사단의 예비로서 部隊交代次 待機中인 제17연대의 제3대대를 轉用하여, 이날 01.00附로 同 대대를 제32연대에 配屬시켜(사단 作戰指示 제113호로서 文書命書은 7일 09.00에 하달함) 兩陣地의 急速한 奪還을 命令하였다.

이로써 同 제3대대(장, 金璟植 소령)는 지난 제1차戰에 이어 두번째로 제32연대에 배속과 동시에 反擊의 先鋒을 맡게 되었거니와, 命令을 받은 즉시로 現 集結地인 大馬里를 박차고 △281 東南쪽 800m의 中細里에 進出하였으니, 이때가 04.20이었다.

여기에서 대대장은 一旦 멀추어 敵情을 파악한 다음 要點 아래와 같은 攻擊命令을 하달하였다.

『㉑ 대대는 黎明攻擊으로 ㉔㉕兩 진지를 奪還하려 한다.

② 제9중대는 △281를 東쪽으로 迂回하여 ㉔진지를 奪取하라.

③ 제11중대는 제32연대 제7중대의 陣地를 超越하여 ㉕진지를 奪取하라.

④ LD(△281의 現 主抵抗線) 通過시간은 05.00이다. 以下 省略』

이리하여 대대의 主力이 제9, 제11중대의 順으로 驛谷川을 건너 敵陣으로 肉迫하고 있을 때에, 사단砲兵團에서도 遮斷射擊으로부터 공격준비 사격으로 轉換하여 進攻중대의 銳氣를 더욱 높였다.

가) 右一線인 제9중대(장, 金福燾 대위)는 05.00에 △281 東쪽에서 LD를 넘어선 다음 ㉔진지의 東南쪽 稜線으로 突入하였는데, 陣前 250m의 溪谷에서 이날 새벽부터 奮鬪中인 搜索중대와 相接하게 되어 여기에서 兩중대의 연결로 06.30부터 一齊히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敵의 저항은 豫想보다도 強力하여 同陣地의 8部稜線에서 亂射 亂擊하는 集中火力으로 갈마암아 좀처럼 進展을 보지 못하고 一進一退를 反復하게 되었으니, 07.45부터 09.50사이의 決行한 두차례의 突擊도 끝내 그 實効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이리는 사이에 敵

은 다시 增援兵力을 投入하여 △384(㉔진지 北쪽 2km)에서 ㉓高地를 넘어선 2個소대 규모가 11.00를 前後하여 ㉔진지로 合流할 뿐만 아니라 攻擊線에 砲火가 集中하여 戰況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갔다. 이렇듯 頑強한 저항을 보이자 대대장 金瓊植소령은 대대의 예비인 제10중대(장, 姜政鎭 대위)로 하여금 突進케 하니, 이에 중대는 14.40에 △281를 떠나 一路 西北進하여 단숨에 同진지의 西斜面에 이르러 제6중대와 合勢하는 즉시로 15.00부터 再攻擊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도 또한 8部稜線을 넘지 못한채로 血戰만을 演出하다가 날이 저물었으며, 마침내 21.30에 이르러서는 또다시 敵勢가 대대규모로 增強됨으로써 停滯를 보게 되었으니, 右一線의 공격은 사실상 아무런 進展을 보지 못한 셈이었다.

나) 한편 左一線의 제11중대(장, 金炳東 대위)는 驛谷川의 北岸을 따라 ㉕진지를 목표로 進擊하였는데, 07.00에 同陣地의 200m 前方에 이르자 ㉔진지로 通하는 小路부근에서 제1제2 兩소대를 左右 第一線으로 전개하여 즉시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07.45에 그중 腹을 넘어선 중대는 主力으로써 一齊히 突擊을 감행하였던바, 陣前까지 기어 오를때 마다 敵의 最後阻止의 熾烈한 火網에 부딪쳐 死傷者가 繼出하고 隊列이 흩어져 收拾하기 어려운 混戰相을 빚게 되었다. 더구나 이 진지는 突擊線 부근에 掩蔽할만한 地物이 없는 까닭으로, 露出된 山頂에서 集中強打를 받게되니 突擊要員들의 士氣가 떨어져 一擊으로 速決을 보지 않는限 潰滅의 위기를 벗어날 길이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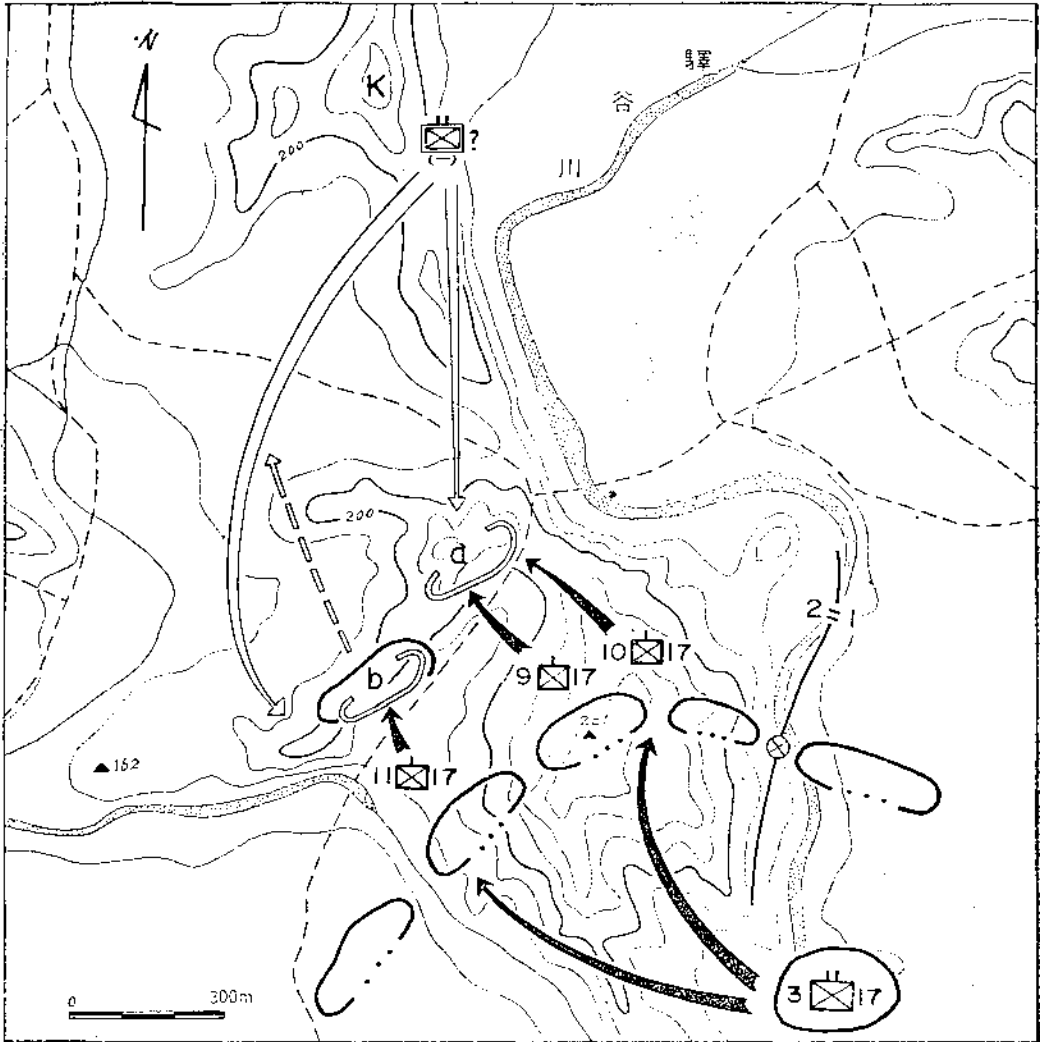
이같은 狀況을 看破한 중대장 金炳東대위는 이 困厄을 打開코자 全力突進을 決意한 나머지, 제2소대장 金亨皓소위에게 同진지의 正面에서 火力으로써 制壓케 하는 동시에 제1소대장 朴在玉 소위에게는 左側의 △162쪽으로 迂回하여 側面으로 突破口를 헤치게 하고 또한 그 自身도 권총을 빼어들고(당시에는 중, 소대장들도 所定の 編制裝備에 없는 권총을 휴대한듯 함) 陣頭에 나섰다.

이로부터 제2소대장 金亨皓소위는 李世遠중사 등 2명의 分대장을 불러 각각 突擊目標을 지정하였는데, 그중 右側目標은 敵의 洞窟로 연결된 機關銃 火力據點으로서 當面の 隘의인 障壁이기 때문에 『분대장이 직접 先頭에서 목파한 다음 洞窟을 파괴하라』고 怒號하였으며 또한 突入의 時機는 소대장의 腕手信號에 따르라 하고 支援組를 제외한 모든 소대원들은 手榴탄을 빼어들고 다음 號令을 기다리라고 외쳤다.

이같이 措置한 다음 金소위는 12.10을 期하여 自身이 直接 陣頭에서 『나를 따르라』고 고함치면서 目前의 火力據點을 향하여 손살같이 薙進하여 敵의 火網을 뚫고 突入한 다음 手榴탄을 連投하였거니와, 兵士들도 그 뒤를 이어 突進한 결과 以後 肉薄血戰이 20餘分 동안에 걸쳐 전개되었다. 이러한 사이에 어느덧 제1소대도 西側으로 突入하여 兩面에서 挾攻한 끝에 드디어 12.50에 ㉕진지를 奪還하였다.

그런데 이 一戰에서 金亨皓소위는 單獨으로 火力據點을 爆破하여 6명을 쓰러뜨리고 機

◇ 상황도 제54호 제17연대 제3대대의 再反擊



關統 1정을 노획하였거니와 그 뒤에 중대의 綜合戰果를 확인하여 보니 遺棄屍體가 43具에 捕虜가 2명이었다. 이 戰功으로 金소위는 銀星花郎을, 그리고 제 1 소대장 朴在玉 소위는 無 異花郎훈장을 받았으며 중대도 사단장의 단체表彰을 받았다.

다) 이상과 같이 제11중대가 ①진지를 奪還한 이날 下午에도 ④진지에서는 제9, 제10兩 중대가 力攻을 加하였으나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夜間攻襲으로 移行하여 밤이 깊도록 交戰이 계속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사단 砲兵團에서도 時時刻刻으로 증강되는 敵의 增援을 粉碎키 위하여 徹夜로 砲擊을 加하였는데 특히 제18포병대대의 觀測將校인 姜春興 소위는 觀測兵인 文會相 二等中士와 通信兵인 崔東燮 하사 및 丁圭台 하사 등을 이끌고 最前方의 진지 頂上에까지 나아가 砲火를 誘導하였다.

이렇듯 夜間攻擊이 거듭되다가 다음날 새벽에 交戰이 中止된 뒤로 제31연대의 제2대대가 進出하자 攻擊任務를 引繼하고, 08.00附로 제32연대의 配屬으로부터 解除되어 本隊와 合勢하였다. 이로써 제17연대의 제3대대는 두차례에 걸친 激戰의 記錄을 남기고 사단의 右一線으로 轉進케 되었다.

7월 8일

1. 제31연대 제2대대의 增援

이상과 같이 ③진지에서 徹夜로 交戰이 계속되자 사단에서는 攻擊力을 더욱 增強키로 결정하고 이날 새벽 03.00를 期하여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 作戰命令 제121호를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제32연대의 一部區域을 예비대로 하여금 담당케 하여 急速히 ②진지를 奪還하러 한다.

② 제31연대는 제32연대 제2대대의 진지를 引受하여 ③진지를 奪還하라. 8일 08.00附로 下記중대를 統合指揮하라.

㉔ 제32연대의 제7중대 ㉕ 사단 搜索중대 ㉖ 工兵 제2중대 ㉗ 제2重砲중대

③ 제32연대는 제2대대의 작전지역을 제31연대에 引繼하라.

8일 08.00附로 제17연대의 제3대대를 原隊로 復歸시키고 △281를 占領중인 제7중대를 제31연대에 配屬하라.

④ 前2項에 따르는 引繼引受의 始終時限을 7월 8일 08.00부터 17.00까지로 豫定한다.』

以上の 명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단장 金雄洙 준장은 사단의 예비인 제31연대로 하여금 사단의 激戰場이 된 西쪽 地域을 引受케 하되, △281에서 主抵抗線을 달고 있는 제32연대의 제7중대만은 現位置에서 同연대에 配屬시켜 ③진지를 奪還키로 하였으니, 이것은 사실상 1個대대를 增派하여 攻擊力을 더욱 強化한 바와 다름이 없었으며 이로부터 제31연대가 當初의 計劃대로 이 作戰地域을 擔當하게 되었다.

2. ③陣地の 奪還

이상과 같은 사단장의 方策에 따라 이번에는 제31연대의 제2대대(장, 閔應植 중령)가 새로히 戰鬪地域을 引受케 되었는데, 대대장은 拂曉를 利用하여 목표를 탈취한 然後에 이 戰線을 인수키로 하였다. 즉, 배속된 제32연대의 제7중대로 하여금 △281를 中心으로한 主抵抗線을 專擔케하는 한편 대대의 제6, 제7 兩중대로써 ③진지를 攻擊키로 하였으며 그 時間을 새벽 04.00로 豫定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③진지에서는 02.30을 前後하여 接戰이 中止되고 중대 규모의 敵이 蟠踞하는 樣相을 보였으며 ③진지에서는 제11중대가 同陣地의 西北쪽에서 侵犯한 2個소대 규모를 격파한 다음 계속 固守태세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공격이 시작되어, 金鎭淳 대위가 지휘하는 제6중대는 右一線에서 ③진지의 東側으로 進擊하고 朴相周 대위

가 지휘하는 제7중대는 ⑤진지쪽으로迂回하여 그 西側으로 突進하였는데, 拂曉를 타고 急襲하는 效果는 높아서 06.00 現在로 兩中隊는 각각 敵陣前 15m 까지 육박하자 一齊히 擲兵突入하였다. 그러나 敵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指呼之間에 서로 一擲 또 一擲의 手榴彈 던지기 내기를 20餘分 동안이나 계속하다가, 左 第一線인 제7중대가 先鋒으로 쳐들어가 勝勢로의 轉機를 마련케 되었다. 즉 中隊는 제2소대가 主軸이 되어 陣地의 左端部를 力攻하던 바, 두차례에 걸친 突擊도 보람없이 그 8부稜線에서 釘着된채로 死傷者가 續出하게 되자 소대장 金洙翊 소위는 직접 突擊의 先鋒으로 나서 敵陣깊이 돌입하여 불뿔은 火力據點을 爆破함으로써, 이와 때를 같이하여 主力이 또한 敵陣에 뛰어들어 총검을 휘둘렀다.

이로부터 敵陣에는 混亂이 일어나고 四分五裂의 亂鬪劇이 演出되었으며 이 好機를 捕捉한 兩중대는 餘勢를 몰아 一顧一盼의 여유를 주지 않고 몰아치니 二盞夜에 걸쳐서 그토록 저항하던 中共 제218연대의 頑陣도 단숨에 무너져 07.00가 채 되기도 전에 이를 완전히 점령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 戰鬪에서 殊勲을 세운 제7중대의 제2소대장 金洙翊 소위는 陣地 奪還을 보지 못하고 流彈으로 頭部관통상을 입어 靑春의 몸으로 冥의 客이 되었으니 戰友 上下들의 마음인들 어찌 아프지 않았으랴만 곧 作命 제121호에 따른 陣地인수에 착수하였다. 이리하여 ④진지는 제7중대가 그리고 ①진지는 제6중대가 각각 擔當한 가운데 대체로 10.30까지 激戰의 마당에서 再整備를 끝마쳤다.

3. 敵의 제4차 侵襲

이상과 같이 이날 早朝에 目標를 奪還한 제31연대의 제2대대(장, 閔應植 중령)는 戰線의 整備를 마친 다음 계속하여 陣地를 補強하던 바, 當面의 中共 제218연대의 제3대대가 力不及으로 물러서게 되자 晝間에는 沈默을 지키더니 日暮가 가까워 지면서 다시 그 馬脚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즉, ④진지 東北쪽에 배치된 聽音哨의 보고에 의하면 그들의 중대 규모가 19.35에 ⑥高地를 넘어서 南쪽 稜線을 따라 接近中이라는 것이며, 또한 이부럽에 放送高地에서도 數未詳의 한대가 ⑤진지 쪽으로 물러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사단에서는 즉각 砲門을 열어 그 密集지대에 集中포격을 加하였으나, 이들은 계속 밀려 들어 21.20에 이르러서는 ⑥진지 北端에서 소대규모가 衝鋒을 드러내다가 하면, 交戰이 시작되니 15분이 지난 21.35에는 ④진지 東北쪽에서도 증강된 소대규모가 侵攻하였다.

이리하여 兩陣地에서 前後 50餘分 동안에 걸친 熾烈한 交戰이 전개되었는데 22.20 이 가까워지자 突然 ④진지 東北쪽의 敵이 交戰을 중지하고 물러가는 듯 하더니, 새로이 增援된 중대규모와 合流하여 이번에는 同陣地의 西北稜線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⑥진지 東쪽의 소대규모도 공격방향을 돌려 同一地點으로 指向한 集中돌파를 企圖하였다. 이로부터 攻防의 激突은 그 絶頂에 달하여 ④진지의 西端에서 深夜의 血鬪가 再演되었으며, 激增한 敵의 포격으로 말미암아 子正에 이르러서는 有無線이 모두 杜絶되

고 銃砲의 閃光이 밤하늘을 메워 戰勢의 推移如何는 미리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7월 9일

1. 제5중대의 增援

有無線이 모두 끊어져 ③진지의 戰況을 把握하지 못한 가운데 01.00가 되자 이번에는 ④진지 西端의 △162부근에서 중대규모가 侵攻한다는 報告에 接하게 되고 그 뒤를이어 ④진지 頂上에서 敵의 信號彈 2발이 치솟았다. 이리하여 제2대대장 閔應植 중령은 이 驕敵의 擊滅策을 모색하던 바,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重火器중대장 河相道 대위는 『④진지가 敵手に 넘어간듯 하니 陣內射擊을 실시할 것을 건의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윽고 斷案을 내린 대대장은 ④진지에 대한 진내사격을 요청하는 한편 제5중대장 金宇政 대위를 電話로 불러 『1個소대를 ④진지로 급히 보내 제6중대를 지원토록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제5중대는 △281 西麓에서 驛谷川에 이르는 閑豁地에 제1, 제3 兩소대를 전개하여(以前에는 연대 搜索中隊가 擔當하였음) 主抵抗線의 一部를 맡고 있는 터이므로 예비인 제2소대를 뽑아 제6중대를 지원토록 措置하였다.

이에따라 同소대는 △281에서 急遽 躍進하여 01.50에 ④진지에 進入하는 즉시로 奮戰中인 제6중대의 西端 一角을 맡아 增援케 되었는데, 이때에 사단砲兵團(장, 朴秉柱 대령)에서도 砲擊을 시작하여 軍단포병과 함께 ④진지 一圓에 VT 신포에 의한 陣內 사격을 가하니 300m²內外의 同진지는 온통 불바다로 化하여 그 부근뿐만 아니라 △281의 OP에까지 熱火의 閃光이 輝煌하였다.

이렇듯 微物이라도 살아 남기 어려울 정도로 灼烈의 せん사를 아끼지 않는 동안 ④진지에서도 不退轉의 力鬪을 다하고 있던바, 敵은 03.30을 前後하여 공격의 執念을 버린듯, 마침내 戰線을 離脫하기 시작함으로써 점차로 兩陣地에서의 砲聲이 멈추어 갔다. 그러나 아직도 ④진지와는 交信이 되지 않아 그 真相을 파악할 길이 없었다.

2. 제31연대 제1대대의 出動

이루렵 연대장 趙成來대령은 ④진지가 이미 敵의 掌中에 떨어졌을 것으로 判斷하고 이를 逆襲기로 하였으니, 이번에는 高日燮중령이 지휘하는 제1대대로써 拂曉를 期하여 역습토록 할것을 決心하고 이에 따르는 口頭명령을 직접 下達하였다.

이리하여 제1대대의 제2중대(장, 李在斗 대위)가 先鋒으로 選拔되자 05.00를 期하여 蹣跚一番으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그 劈頭에는 進擊度가 빨라 30분이 채 못되어 同陣地의 8部稜線까지 突入하였으나 이미 ④진지를 掌握한 敵의 저항은 豫想보다도 頑強하여 頂上의 문턱에서 血戰을 벌이게 되었다.

특히 同중대는 여기에서 제2, 제3 兩소대로써 두차례나 突擊을 감행하는등, 1시간 동안에 걸친 力攻을 가하였으나 死傷者만 더할뿐, 좀처럼 그 進展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날이 밝아오자 대대장 高日燮 중령은 06.00를 期하여 同중대로 하여금 一旦 공격을 中止하고 △281

로 撤收케 하였다. 이와같이 공격 中途에서 隨意撤退케 한 것은 拂曉를 期한 突擊의 實效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연대장의 方畵에 依하여 高爆火力으로써 破壞射擊을 集中한 다음 晝間攻擊을 強行코자 하는 조치였거니와, 그 再攻擊의 發起시간을 10.30으로 豫定하여 이번에는 ㉑진지에 增援된 제5중대의 제2소대를 加勢케하여 새로운 一衝을 決行키로 한 것이다.

이리하여 이윽고 10.00가 되자 155mm까지 動員된 集中砲火가 무려 30분 동안에 걸쳐서 ㉑진지 一帶를 強打한 뒤를 이어 豫定시간에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李在斗 대위가 지휘하는 제2중대는 Δ 281에서 同진지의 東側으로 躍進하고 제5중대의 제2소대는 그 西側으로 突入하여 煙幕으로 遮障된 목표의 兩面에서 怒濤와 같이 쳐올라가게 하였다. 그런데 이때부터 敵陣에서도 포격이 激增하여 攻防의 戰線은 勿論이려니와 Δ 281까지 포성과 哨煙으로 뒤덮였으며 前記 兩중대가 습勢하여 그 8部稜線까지 突入한 11.50에는 分別없는 砲火가 彈幕을 씌울뿐 아니라 各種 小火器와 수류탄이 亂飛하는 등 敵의 발악은 그 極에 달하여 40분 동안의 挺身突擊에도 不拘하고 끝내 이를 奪還치 못한채로 그 中腹에서 다시 膠着하고 말았다.

이에 대대장 高日燮 중령은 攻擊力을 더욱 증강키로 결심하고 제1중대(장, 李光燾 대위)로 하여금 同高地의 中央部位로 突入케 하였으니, Δ 281에서 躍進한 該중대가 血戰의 渦중에 끼여들게 된 13.30에는 이날의 공격이 그 凌絶相의 最高調를 보이게 되었다.

이와같이 敵의 저항이 頑強을 極하여 3個 중대의 集中공격이 16.00를 넘어 日暮가 가까운 17.30까지 무려 5시간 동안이나 強行 되었건만 彈雨속에 血戰만이 거듭되었다.

이렇듯 날이 저물자, 晝間の 遮斷砲擊으로 擊攻이 阻止된 것으로 판단한 敵은 증원병력을 投入하여 18.50에 ㉑고지 부근에서 중대규모가 나타나는가 하면 19.40에는 放送高地 부근에서도 역시 중대규모가 出沒無常하니 形勢는 점차로 不利하여져만 갔다.

이리하여 연대장은 21.00附로 이날의 공격을 中斷토록 命命함으로써 대대장은 제1, 제2 兩중대를 Δ 281로 隨意撤收케 하는 동시에 配屬中인 제5중대의 제2소대를 ㉑진지로 復歸시키고 말았으니 火力의 支援없이는 能히 夜戰을 敢當하지 못하는 軍사의 脆弱性을 보여 주는 一場面이라 할 것이다.

3. 中共 제218연대의 ㉑진지에 대한 견해 :

이상과 같이 제1대대의 主力이 Δ 281 兩麓으로 集結하여 다음 反擊을 준비할 무렵인 22.00에 突然 ㉑진지에서 중대규모의 敵과 激戰이 벌어졌다는 報信이 들어왔다. 이때에 同陣地에서는 제6중대로부터 防禦任務을 인수한 제5중대의 2個소대 병력이 防守태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放送高地 부근에서 侵入한 것으로 推測되는 중대규모가 대대의 撤收에 跟隨함으로써 이 陣地를 공짜로 삼켜버리고자 挑發하는듯 하였다.

이리하여 중대(一)는 主로 手榴彈에 의한 陣前擊滅을 노려서 2시간 동안에 걸쳐 應酬하

던 바, 이들은 다음날 01.50을 期하여 썰물같이 물러 서는듯 하더니, 실제로는 02.40에 △ 162 北麓에서 不時에 밀물같이 밀려들어 奇襲을 꾀하였다. 그러나 이도 또한 중대의 最後 阻止火網속에서 1시간 동안이나 發惡하다가 遺棄屍體만을 남긴채로 03.40을 前後하면서 부터 詭計도 虛無하게 撤退하고 말았다.

7월 10일

1. 제31연대의 제3차 공격

이날 새벽에 ③진지에서 詭計를 꾀하던 敵이 물러나게 되자 연대장은 이를 好機로 삼아 다시 ②진지를 奪取키로 決意하였으니, 이번에는 金相義 중령이 지휘하는 제 3대대에서 1個중대를 뽑아 拂曉攻擊키로 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3個대대가 모두 戰線에 加擔하여 세 번째로 ③진지를 공격케된 셈이거니와 이같은 兵力의 逐次 使用의 理由는 主抵抗線에서의 방어임무 過程에서 制限된 兵力의 投入이 不可避한데 그 主因이 있는 것으로 分析된다.

어떻든 이 명령에 따라 제 3대대에서 제 11중대(장, 金仁培 대위)가 攻擊隊로 選拔되어 04.00를 期하여 ③진지로 銳鋒을 指向하였는데, 이날 새벽은 가랑비가 섞인 東南風이 세차고 咫尺을 구분키 어려운 夜暗이 덮였으나 이를 헤친 끝에 04.20에 主力이 同陣地의 南麓에 進出하여 곧 제 2, 제 3 兩소대를 左右로 전개하고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奇襲效果를 높인 중대는 初頭의 急進展을 보여 단숨에 8부稜線까지 육박하였으나 전날과 다름없이 여기에서 다시 敵의 火網으로 苦戰케 되었으니, 이 魔의 8部稜線은 急傾斜로 俯瞰되고 掩護할곳 없는 露出部位를 形成함으로써 攻者를 당황케 하는 까닭으로 1시간 半동안에 걸친 力攻에도 불구하고 이 困厄地를 벗어나지 못한채로 死傷者만을 累加하게 되었으며 날이 밝으면서 그 下端에서 兵力을 수습하였을 때에는 過반수의 損失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중대는 헛사리 물러서지 않고 대대장의 怒號에 따라 晝間攻擊으로 계속 移行키로 하여 08.40에 收拾된 兵力으로 再攻擊을 決行하였으니 將兵 모두가 挺身돌격을 다짐하였거니와 그 가운데에도 특히 제 2소대장 陳燦昊소위는 突擊隊의 先頭에서 彈雨를 헤치고 敵陣으로 突入하여 有蓋壕 1個를 폭파함과 아울러 덤벼드는 敵 2명을 단숨에 쓰러뜨렸으며 그 뒤를 따르던 분대장 宋善有 二等중사는 TNT로 洞窟을 爆破하는가 하면 孫亮陸 일등병은 手榴彈을 뽑아들고 死線을 뛰어 넘는등, 突擊에 이은 突擊으로 接連되었다.

이러한 血鬪가 거듭 反復되었으나 끝내 이를 탈환치 못하고 이날도 日沒이 가까워졌으니, 피로 물든 山麓에는 屍體와 밥덩이가 흩어져 그 激突相을 말하여 주었다.

이리하여 20.55에 중대가 撤收命을 받았을 때에는 대부분의 兵士들이 死傷하고 耐戰 병력은 11명에 지나지 않았다.

2. 사단장의 措置

사단장 金雄洙 준장은 제 11중대의 철수에 따른 새로운 方策을 熟議 끝에 보다 더욱 有効하게 強襲키로 決意하고 이날밤 22.00附로 要旨 다음과 같은 口頭命을 하달하였다.

『① 제31연대는 최소 2個중대의 新銳병력으로 明 11일 02.00부터 공격을 再開하여 ④진지를 탈취하라.

② 제32연대는 최소 2個중대의 新銳병력으로 明 11일 01.00부터 ⑧高地를 先占한 다음 敵의 後續手段을 遮斷하라.

③ 포병단장은 1個 포병대대로써 제31연대의 공격을 直接支援케 하라.』

이같은 사단장의 直接조치는 狹少한 機動공간에 逐次로 병력을 投入하던 從來의 方式을 止揚하고 敵의 策源地인 ⑧高地에 대한 遮斷攻撃을 配合한 一舉攻撃策을 취한 點이 새롭거니와 그 공격시간도 敵이 恒用하는 深夜三更을 택하여 虛를 찌르고자 하는 것이 特異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연대는 즉각 전투태세로 돌입하여 공격준비에 착수하였다.

가) 제31연대(장, 趙成來 대령)는 제2대대(장, 閔應植 중령)로 하여금 現在 確保中인 ⑤진지를 堅守케 한 가운데 제3대대를 攻擊隊로 選定하여 늦어도 공격개시 1시간 前까지 △281北麓에 集結토록 하는 동시에 隸下隊에 이미 配定한 火藥방사기를 건우어 이 攻擊隊에 一括 支給하여 洞窟 공격간에 活用토록 하였으며, 또한 携帶 가능한 충분한 彈藥을 보급하고 제63포병대대장 朴弘成 소령과 火力을 協調하는 등, 一舉攻略을 劃策하였다.

나) 한편 敵陣 後方에 대한 遮斷攻撃 임무를 맡은 제32연대(장, 姜弘模 대령)는 연대 搜索中隊와 제2대대의 1個 中隊를 攻擊隊로 選拔하였으며, 李南圭 중위가 지휘하는 수색중대(중대장 殷胤基 대위의 負傷으로 先任將校인 李中위가 代理勤務中임)는 △281 東쪽에서 驛谷川 西岸을 따라 ⑧高地의 南쪽으로 進擊케 하고 제2대대에서 選拔된 제6중대(장, 鄭東萬 대위)는 제32연대의 擔當지역인 바로 ⑧高地 東쪽에서 驛谷川을 건너 側方에서 攻擊토록 하였다. 그런데 수색중대의 進路는 敵이 掌握하고 있는 ④진지를 東쪽에서 迂回케 되는만큼 기도秘匿과 豫상展開線까지의 거리를 勘案하여 이날밤 22.30에 先發토록 하였으며 제6중대는 渡江준비에 專心하도록 하였다.

7월 11일 : 드디어 이날 01.00가 되자 사단 砲兵團에서는 攪亂射擊으로부터 攻擊準備射擊으로 轉換하여 ④진지를 비롯한 敵陣 全域을 制壓하는 가운데 제31, 제32 兩연대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1. 제31연대 제3대대의 ④陣地奪還

이날의 主攻任務를 맡은 제31연대의 제9, 제10 兩중대는 대대장 金相義 중령의 大號一下에 따라 01.30부터 △281에서 ④진지를 目標로 躍進하였는데 金錫潤 대위가 지휘하는 제10중대는 右第一線에서 同陣地의 東側을 공격키로 하고, 金淸會 대위가 지휘하는 제9중대는 ④진지 쪽으로 迂回하여 그 西側을 공격키로 豫定한 가운데 一舉爭取의 銳氣를 휘몰았다.

이때에 大隊本部에서는 作戰將校 安三榮 대위가 連日連夜의 激務에도 불구하고 이 一戰에 기대를 걸어 前方의 狀況을 파악하고 있던바, 먼저 左第一線인 제9중대에서 02.10에 接敵하였다는 報告에 接하였는데 ④陣地 西斜面의 敵이 2個소대 규모로 판단되며 방금 交鋒

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잇달아 接하게 된 제10중대의 報告에서도 2個소대 규모의 敵陣을 목표로 攻擊을 시작하였는데 敵의 砲擊이 尤甚하고, 直射火器를 포함한 重火器의 鐵火가 亂舞하여 進攻度가 如意치 않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攻防의 對決은 밤하늘을 매운 銃砲의 火焰 속에 1시간 半동안이나 계속되다가, 제9중대의 先鋒이 火焰을 放射하면서 魔의 8部稜線을 넘어선 03.35을 契機로 하여 戰勢를 反轉케 되었으니 이 때부터 主導權을 잡은 兩중대는 敵에게 숨들릴 여유를 주지 않고 一齊히 突擊을 감행하여 射殺에 이은 打殺과 刺殺로써 銃劍을 휘둘러 04.40에 ②진지를 掌中에 넣게 되니 快哉의 소리를 죽여가면서도 霸氣만은 더욱 滿滿하였다.

여기에서 兩중대는 곧 敵의 逆襲에 對備하는 한편 제9중대의 제2소대로 하여금 附近에서 방황하는 敵을 剔抉케 하였던 바, 06.00까지 그 一圓을 완전히 搜索한 다음 이날의 戰果를 확인하여 보니 敵의 遺棄屍體가 97具에 捕虜 1명, 그리고 機關銃 4정을 비롯한 自動火器 2정과 各種小銃 9정 및 수류탄 1,700餘발을 鹵獲하였는데 특히 이 屍體中에는 洞窟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무리가 過半數를 헤아렸다.

그뒤로 대대는 이날 盜間에 ②⑤ 兩陣地를 포함한 제2대대의 作戰地域을 모두 引受하여 ②진지에는 제10중대의 1個소대를, 그리고 ⑤진지에는 제9중대의 1個소대를 각각 配置케 하는 동시에 主力으로써 △281에 連하는 주저항선을 堅守케 한 가운데 戰線을 再整備 強化하였다.

2. 제32연대의 ④高地 攻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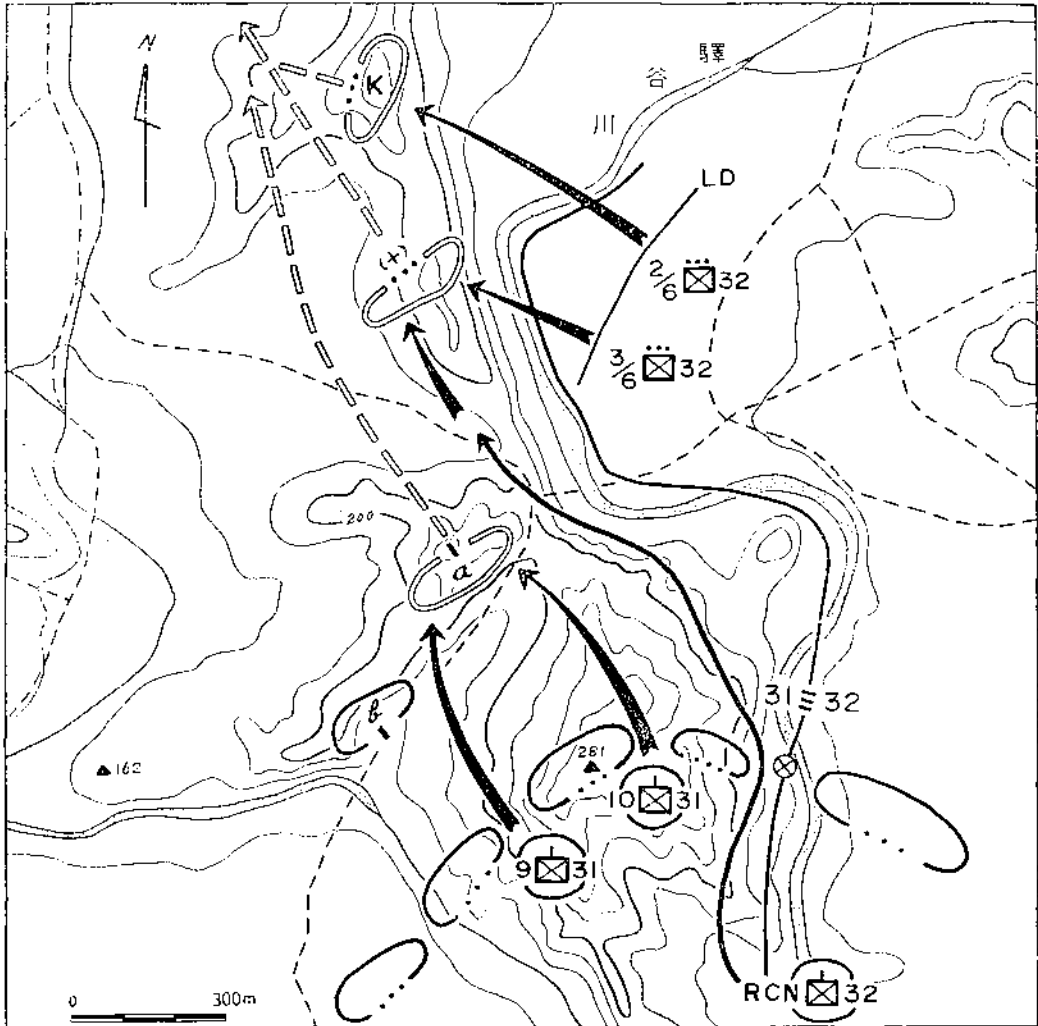
제32연대(장, 姜弘模 대령)는 敵陣後方の ④高地를 목표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전날밤 22.30부터 躍進한 搜索중대는 이날 새벽에 벌써 同高地의 南端에 突出하였으며 제6중대는 23.00부터 主力으로써 江을 건너 00.45에 그 東쪽에 當到하자 예정시간에 一齊히 夜暗을 헤쳤다.

가) 右第一線인 제6중대(장, 鄭東萬 대위)는 ④高地 東쪽의 河川 彎曲部의 上下流에서 제2, 제3 兩소대를 分進시켜 敵前渡江을 시작하였는데, 上流의 제2소대는 敵의 저항이 없이 徒涉케 되었으나 下流의 제3소대는 增強된 본대규모의 저항을 받아 20餘分 동안의 交戰 끝에 이를 擊退한 다음 조금 늦게 江을 건너 ④高地 東南쪽 稜線을 向하여 突入하였다.

따라서 중대는 渡江過程에서 企圖가 이미 暴露됨으로써 敵火가 여기에 集中하여 初頭부터 苦戰케 되었으니 제2소대의 東斜面 直衝과 제3소대의 迂回突入을 피하던 중대의 당초 計劃이 뜻과 같지 못한 탓으로 새벽 03.00가 넘도록 그 中腹에서 수류탄으로서의 대결만이 반복되었다.

더구나 同高地의 東側은 急傾斜이거나 斷崖絶壁으로 이어져 制限된 進路에 좀처럼 突破口를 뚫지 못하던바, 03.20을 前後하여 搜索중대의 先鋒이 ④高地 南쪽 400m의 突出된 稜

◇ 상황도 제55호 ㉔진지 및 ㉕高地의 奪取



線을 장악하게 되자 이때부터 敵陣은 動搖하기 시작하여 이를 契機로 突擊을 감행한 兩소대는 30餘分 동안의 肉薄血鬪 끝에 소대규모의 頑敵을 驅逐하고 03.50에 드디어 ㉕高地를 掌裡에 넣게 되었다.

이로부터 중대는 搜索중대와 合勢하여 南北으로 내리 뺀 700여m의 ㉕高地 부근을 掃討케 되었으니 이제 敵은 主戰場인 ㉔진지로 增援키는 커녕 射程內에 露出된 그들의 主抵抗線을 지키기에 급급하였으며 이로써 聲勢를 높인 兩 중대는 逆襲에 對備하면서 一部兵力으로 威力搜索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㉔진지에서도 04.40을 前後하여 제31연대가 목표를 奪取함으로써 이날 戰鬪를 勝戰으로 매듭짓고 戰線을 再整備케 되었으니, 중대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른 대대장의 지시에 의하여 05.30에 兵力을 걸우어 다시 驛谷川을 건너서 白馬高地(△395)西쪽의

寺後洞으로 轉進집결하여 戰塵을 씻었다.

나) 한편 搜索중대(장, 代理 李南圭중위)는 夜暗을 돌아 ㉔진지를 東쪽으로 迂回한 다음 ㉕高地의 直南方에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前述한 바와같이 그 南쪽의 無名稜線에서 소대 규모의 頑強한 抵抗에 부딪쳐 激突케 되었으니, 아마도 이들은 여기에 火力을 重點的으로 配置한듯, 交叉되는 最低表尺사격이 날카로웠다. 이에 중대장은 敵火를 制壓하는데 主眼하여 제2소대(장, 徐秉道 소위)로 하여금 이를 破碎케 하였던 바 陣前 20m 전방에까지 육박하여 수류탄을 連投하였으나 끝내 爆破하지 못하고 물러서게 되자, 이번에는 중대장 李南圭중위가 率先陣頭에 나서서 제3소대장 權寧翰 소위에게 『特攻隊를 지휘하여 西斜面의 特火點을 粉碎하라』고 號令하는 한편 主力의 突擊을 叱咤激勵하였다.

이로부터 衝擊의 巨波가 200m 内外의 稜線을 에워싸고 들이치니 敵火가 하나, 들쭉 沈黙케 되었거니와 이러한 渦中에서 중대장 李南圭 중위는 敵의 포탄破片으로 重傷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중대장은 自身の 몸을 돌보지 않고 『黃中士! 저 洞窟을 爆破하라』고 거듭 絶叫하자 이에 感奮한 분대장이 煙煙속으로 突入하는 등의 紛戰끝에 敵의 火力據點 3個所를 完破하고 洞窟 2個所를 폭파한 外에도 遺棄屍體 15具를 確認하는등 刮目할만한 戰果를 거둬와 아울러 이 稜線의 主人公이 되었다.

이것이 사실상 이날의 ㉕高地에 대한 決戰으로 以後에는 거의 一方的인 공격으로서 제6중대와 함께 그 主峰을 탈취하였다. 그 뒤로 중대는 역시 05.30에 하달된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日出과 더불어 兵力을 收拾하여 △281 東쪽의 中細里부근으로 轉進집결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지난 6월 29일 以前の 確保陣地 全域을 완전히 奪還함과 동시에 白馬高地를 비롯한 責任 戰術地域의 防備대세를 새롭게 하였으나, 中部戰線의 要域을 突破코자 담비던 中共 제218연대의 企圖가 여지없이 挫折되고 말았으며, 그들의 切齒扼腕을 能히 헤아릴수 있을 것이다.

제2차戰에서의 綜合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果 및 損失

將校/士兵

部 隊	區 分	戰 果					損 失		
		射 殺	捕 虜	鹵 獲			戰 死	負 傷	失 踪
				機關銃	各種小銃	手榴彈			
제 17 연 대		170명	3명	1정	24정		1/33명	4/172명	
제 31 연 대		874 "	3 "	2 "	70 "	4,630발	4/90 "	14/417 "	/12명
제 32 연 대		168 "	1 "		1 "		2/49 "	6/148 "	/4 "
其 他 部 隊		14 "					/1 "	/10 "	
計		1,226명	7명	3정	95정	4,630발	7/173명	24/747명	/16명

라. 전투 후의 개황

9일 동안에 2,500餘명에 達하는 敵의 死傷者를 단 이 戰鬪는 11일을 고비로 하여 交綏狀態로 접어들어 戰線은 다시 戰前의 接觸線에서 머물고 對陣一線에서는 偵察 내지는 威力搜索만으로 一貫하는 様相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小戩이 2週餘를 지속되다가 同月 27일에 이르러서 2年間이나 끌어오던 休戰協定이 調印케 됨으로써 이날 22.00을 期하여 全戰線에서 一切의 전투행위를 中止케 되었으니, 사실상 本戰鬪는 3年間의 韓國戰爭에서의 掉尾一戰일뿐만 아니라 제2사단의 最後勝戰이 되었다.

따라서 以後에는 特記할만한 對峙없이 停戰케 되거니와, 이같은 戰後의 動向을 좀더 仔細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敵의 動向: 사단 정면의 中共 제73사단(장, 梁竹吉)은 화살머리高地(△281) 부근에서 痛擊을 받고 불려선 뒤로는 守勢一邊倒로 轉換한듯, 대체로 上眞明洞—曉星山 南쪽 1.5 km—銀房洞—梧桐里를 連하는 山기슭에 그 主力를 配置한 가운데 15일까지 沈黙을 지키다가 16일부터 搜索隊를 내보내어 23일까지 여덟차례나 본대 또는 소대規模의 兵力으로 사단의 動靜을 探索하는듯 하더니 24일 이후에는 이다저 보이지 않았다. 그 期間中에는 사단의 제17, 제31兩연대의 搜索隊와 때때로 遭遇하였으나 27일 22.00附로 休戰協定 第二條의 停火規制가 發効케 됨에 이르러서는 鐵原 溪谷에도 銃聲이 멈추어 지게 되었다. 以後의 諜報分析에 따르면, 이 제73사단은 同年 11월初에 現 擔當區域을 제69사단(장, 호친에이)에 引繼하고 安峽(漣川 西北쪽 32 km)으로 移動하여 제23군(장, 鍾國楚)의 예비로 있다가 54년 4월에 다시 이 地域으로 投入되었다고 하는 바, 이때부터는 中共軍 總司令部의 直屬으로서 56년까지 中部戰線에서 活動한 것으로 알려졌다.

我軍의 狀況: 한편 사단은 이 戰鬪가 끝난 直後에 戰線을 재정리 하여, 楡井里—中馬山間의 右翼에는 제17연대(장, 金兩相대령)를, 白馬高地를 포함한 驛谷川 부근의 左翼에는 제32연대(장, 姜弘模대령)를 각각 配置하는 한편 제31연대(장, 趙成來대령)를 예비로 돌려 白馬高地 南쪽의 大馬里부근에 控置하고 그중 제3대대(장, 金相濂 중령)를 뽑아 激戰地인 화살머리高地를 담당케 하였다.

뿐만 아니라 11일 12.00附로 작전지시 제116호를 하달하여 제17연대의 1個중대를 同 제3대대에 배속시켜 西端의 陣地를 더욱 補強토록 하였다. 그뒤로 戰雲이 걸리자 7월 21일 24.00를 期하여 이번에는 제17연대의 제1개대를 제32연대에 배속함과 동시에 同연대로 하여금 지금까지 特殊地域으로 구분하던 화살머리高地 一帶의 陣지를 引受케 하였으니 이제 제32연대는 名實相符하게 사단 左翼의 全域을 擔當케 된 것이다.

또한 이날은 同연대의 제5대 연대장 姜弘模 대령이 中央功績審査委員으로 離任하고 그 後任으로 제2대 연대장을 지낸바 있는 趙在英 대령이 새로 赴任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陣容을 새롭게 한 사단은 계속하여 戰力을 強化하던바 休戰協定이 締結되자 28일 06.00까지 現 主抵抗線을 2km 直後方の 葦松洞—下馬山—寺後山—中土洞 北쪽 1km의 線으로 옮겨서 제17, 제31 兩연대를 一線에 展開한 가운데 새로운 주저항선을 구축키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러다가 同年 9월 15일附로 現 擔當區域을 美 제40사단에 引繼하고 軍단 指揮所 부근의 心甕里(場岩 東南쪽 2km) 一帶로 主力를 移動集結하여 軍단에 비로서 部隊整備와 教育訓練에 들어갔다.

§ 參戰者의 證言

〈〉 제32연대 제2대대장 安翼鏗 소령
(1965. 12. 10 국방대학원에서, 대령)

나는 休戰直前의 마지막 戰鬪에서 대대장을 지냈다.

그 場所가 「화살머리 高地」라고 하여 바로 白馬高地 左側에 있는 △281인데 이것은 하나의 前哨陣地이었지만 白馬高地를 지키는 關門이나 다름이 없었다. 만일 여기가 뚫려서 △281가 무너지면 白馬高地의 撤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금 특히 기억나는 것은 洞窟作戰으로, 歩砲協同이 잘 안되어 처음 戰鬪에서 1個 小隊가 慘變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이것은 指揮官들의 책임이다. 狀況把握이 안되어 계획된 작전에 蹉跌이 난것이다.

이 當時의 戰線에서는 흔히 洞窟作戰을 썼는데, 그것은 狹少한 지역에 엄청난 砲擊이 加하여 짐으로써 洞窟化하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기때문이었지만, 이 一戰이 있는 뒤로는 洞窟을 待避壕로만 이용하고 陣地防禦를 실시하였다.

이 전투가 本格的으로 시작된것은 前哨陣地를 상실한 뒤로 이를 奪還기위한 反擊戰이 있으면서 부터인데 제32연대가 主抵抗線을 방어하고 제17연대와 제31연대가 反擊함으로써 사실상 사단의 主力이 戰線에 加擔하였으며 결국 제31연대의 제3대대가 目標을 탈환하였다.

지금도 鐵原平野에서의 戰術的인 部隊運用을 검토할 때에는 이 전투와 白馬高地 戰鬪를 참작하는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전투가 끝난 뒤로 休戰이 되었다.

◇ 제31연대 제3대대장 金相義 소령 (1967. 9. 6 제37사단에서, 중령)

우리 대대는 제32연대와 제17연대의 뒤를이어 일곱번재로 出擊하였다. 그러니까 都合 7個대대의 兵力이 이 좁은지역에서 바꾸어 가면서 防禦하거나 逆襲部隊로서 激突케 되었던 것이다.

그때에 우리의 任務은 ③진지를 奪還하려는 것이었는데, 사실상 이 지역은 1個중대 병력으로 充分하였기 때문에 먼저 제11중대를 공격시켰다.

그런데 막상 공격을 시작하여 보니 다른 대대에서와 마찬가지로 8部 稜線에서 停滯되어 兵士들이 그 中腹에 엮드려 있다가 手榴彈으로 犧牲되는 者만 늘어갔다.

이리하여 無電으로 突擊하라고 嚴命하였던 바 어찌나 砲擊이 甚한지 중대병력이 거의 다 負傷을 입고 중대장은 精神이 昏迷하여져 버렸다.

이때에 사단장 金雄洙준장이 나를 불렀다. 이 분은 내가 陸士에서 區隊長으로 勤務한 때에 生徒隊長으로 모셨기 때문에 個人的으로도 알고있는 처지였는데, 사단장은 『반드시 目標을 따야 한다. 사단에서 가능한 모든것을 지원할 터이니 必要한것이 있으면 要請하라』고 激勵와 함께 嚴한 지시를 내렸다.

그래서 火焰放射器와 TNT를 特配받아 가지고 그 다음날 2個중대 병력으로 奮戰 끝에 목표를 奪取하였다.

이 전투에서 내가 느낀 것은 屍體 처리문제인데, 밥덩이와 屍體가 덩구는 稜線에 敵彈이 떨어지면 兵士들의 士氣가 저하되어 싸우기도 前에 戰意를 잃어버렸다.

勿論 混亂한 戰場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처럼 同一地域에서 長期戰이 전개될 경우에는 가능한 限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안다.

◇ 제32연대 作戰主任 邊日賢 대위 (1967. 5. 30, 육군본부에서, 대령)

이 戰鬪는 최초로 捕虜를 잡기 위하여 奇襲戰으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休戰與否를 놓고 說往說來하여 敵의 공격이 있으리라는 風聞이 돌고 있었으므로 敵情을 파악하려고 奇襲攻擊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무렵에 敵은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으니 逆襲인지? 아니면 同時攻擊인지는 알수 없으나 鄭大尉가 지휘하는 제6중대의 前哨陣地로 侵入하였다.

따라서 我軍이 敵線 後方에 놓이게 되어 砲擊이 어려워져서 우리 威力 搜索隊를 살릴 것이냐? 犧牲되더라도 敵을 때릴 것이냐는 문제로 苦心하다가 砲擊의 適期를 놓치고 말았다.

이로 말미암아 ⑥진지가 敵中에 버려지고 苦戰을 치르게 되었다. 그러나 곧 제17연대의 제3대대가 赴援하여 진지를 奪還하였는데 특히 V T 彈의 効果는 至大하여 밤새도록 두들긴 다음 아침에 확인하여 보니 敵屍가 稜線에 하얗게 널려있었다.

우리는 이 전투에서 洞窟作戰을 계획하였는데 歩砲協同이 잘 안되어 實効를 건우지 못하였다.

이 작전은 積極性이 없고 많은 危險이 뒤따랐으므로 以後에는 중지하였다.

한 가지 特異한 것은, 初戰에 敵은 두 차례나 Speaker를 通하여 部隊機動을 誘導한 일이 있었다. 처음에 우리는 그 虛實을 의심하였으나 實際 指示한 곳으로 侵攻하는 것을 보고는 놀랐다.

그런 手法는 처음 두차례뿐, 以後에는 쓰지 않았다.

제1차전에서 이렇게 敵을 물리친 뒤로 한 5일 쯤 지난 다음 다시 敵이 侵入하였을 때 나는 대대 OP에서 눈에 負傷을 입고 戰地를 떠났는데 제31연대와 交代하여 그 陣地를 確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 제31연대 제8중대장 河相道 대위 (1966. 3. 24, 육군본부에서, 중령)

우리 제2대대가 戰場에 加擔한 것은 제17, 제32 兩연대에서 2個대대 병력이 거의 戰鬪力을 상실한 때였다.

敵側에서도 勿論 莫大한 損傷을 입었지만 이들은 그것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侵攻함으로써 連日連夜 戰鬪가 계속되었다.

특히 지금도 記憶에 생생한 것은 제5중대장 金宇政대위의 勇戰相인데 그는 직접 第一線으로 뛰어 다니면서 부하들에게 行動으로 戰鬪를 불러 하르킨 사람이다. 언젠가 敵이 陣內에까지 侵入하였을 때 그의 射擊要請을 받고 대대장에게 陣內射擊을 建議하였던바, 대대장은 아직 우리 兵力이 있으니 할수없다고 하여 保留하다가 無電이 끊어진 뒤로 陣內射擊을 한일이 있는데 軍단砲까지 動員된 VT射擊은 실로 壯觀이었다.

20Feet 上空이 불덩이로 확 깔려 250~300m나 떠러진 △281에서도 얼굴이 확확 달아오르고 據안에까지 熱이 올랐다. 당시에는 彼我間에 이와 같이 작은 高地하나를 놓고도 무진장한 火力을

動員하였다. 그렇지만 勝敗의 關鍵은 역시 步兵의 精神力에 달려있었다. 1個 분대만 굳게 陣地를 지키고 있어도 敵은 쉽사리 달려들지 못했다 이렇게 一進一退를 反復하다가 結局 敵이 손을 들고 물러섰는데 이들은 아마 1個연대 병력은 잃었을 것이다.

지금은 非武裝地帶에 들어있지만 鐵原 溪谷에 사는 白馬高地와 함께 손꼽히는 激戰地이다.

◇ 제31연대 제10중대 제3소대장 馬周一 소위 (1966. 10. 17, 제5군단에서, 소령)

우리 중대가 戰鬪에 加擔한 것은 이 전투의 마지막 날인 7월 11일이었다.

以前에 우리는 사단의 右一線에서 방어하고 있다가 다른 연대에서 十餘次나 攻防戰을 치른 뒤로 戰地에 뛰어 들었다.

攻擊當日에 나는 중대의 左第一線을 맡아 LD까지는 案內兵의 引導를 받은 다음 새벽에 ③진지의 西散部로 밀고 올라갔는데, 그 中腹을 넘어서면서 부터 敵의 抵抗이 심하여 지자 兵士들이 進擊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리 「突擊 앞으로」를 외쳐도 올라가지 않기에 일일이 呼名하여 目標를 指示하면서 「제1분대장 저 洞窟로 뛰어라」고 嚴命하니까 손살같이 뛰었으며 分隊員들이 그 뒤를 따랐다.

戰爭心理란 勢의 基調위에 瞬發的이라는 것을 實感했다.

이렇게 해서 목표를 탈취한 다음 日出과 더불어 洞窟을 추색하였는데 살아남은 者는 며칠을 굶었는지 餓死之境이었으며 땅굴에서만 살아서 憔悴하기 그지 없었다.

이 전투가 끝날 무렵에 나는 무릎에 貫通傷을 입었는데 나중에 중대장 金錫潤대위가 올라와서 보고 예비소대와 交代시켜주기에 임무를 인계한 다음 사단으로 後送되어 治療하였다.

§ 戰 訓

(1) 狀況報告의 重要性

本戰鬪에서 最初로 敵이 侵攻한 6월 29일밤에 狀況報告가 遲延되어 연대에서나 사단에서는 진

혁 內容을 모르는 가운데 진지가 敵中에 떨어져서 局面이 나온다.

그 까닭은 대대의 威力搜索隊가 敵線 後方에 놓이게 됨으로써 이를 救出하려고 망서리다가 砲擊의 適期를 놓치게 되고 다름나 狀況報告마저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로 말미암아 一發의 砲擊도 加하지 못하고 ⑥진지가 무너졌을 뿐 아니라 通竄의 機會를 놓쳤으며 及其處는 1個소대 병력이 慘變을 당하고 말았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敵彈이 1,000여 발이나 쏟아지는데도 報告만을 기다리는 上級部隊의 態度도 옳다고 할수 없지만 증대나 대대에서 任意대로 判斷하여 報告를 지연시킨 것은 看過할 수 없는 過謬이다.

무릇 成敗를 責任진 戰鬪團級 以上の 지휘자일 지라도 自身の 指揮措置와 함께 戰況報告를 하여야 마땅하거늘 하물며 一線 책임자가 輕率한 판단을 내려 分秒를 다루는 보고를 지연 시킨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이것은 結果的으로 上部部隊의 綜合分析을 그르치고 만다. 따라서 戰鬪와 直結되는 사항은 그 大小와 性格如何를 莫論하고 신속정확하게 보고되어야 하며 後續措置가 뒤따라야 한다.

戰況의 報告는 勝戰의 詳報 보다도 危局에 있어서의 狀況의 推移에 대한 報告가 더욱 重要하고 重視되어야 할 것이다.

(2) 洞窟作戰上的 문제점

當時에 사단에서는 △281前方의 ④-⑥兩陣地를 洞窟化해놓고 砲擊이 심하거나 敵이 陣內에 까지 浸襲하면 一巨 待避시킨다음 VT彈에 의한 轟擊을 加하기로 計劃한 바 있으나 너무 어이없이 두너지고 말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있는듯 하다.

첫째 : 陣地構築上的 問題

(가) 過去에 敵이 파놓은 洞窟을 그대로 利用함으로써 그 位置와 構造를 敵側에서 窺知한듯 하다. (제31연대 제8중대장 河相道대위의 證言에서)

(나) 洞窟內部가 直線으로 구축되어 融通性이 없고 隣接동굴과의 有蓋連絡壕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指揮 및 待避手段이 微弱하였다.

(다) 銃眼의 數가 부족하여 火力 발취가 困難

하고 入口의 對手擲彈대비척이 강구되지 않았다
(라) 待避後의 交通手段 즉, 有線의 매설이나 無線 Antenna를 設置하지 않다 戰況의 把握이 어려웠다.

둘째 : 作戰上的 問題

(가) 適時에 步砲協同이 잘되지 않았다.

(나) 洞窟을 意識하여 積極性이 없이 突戰이 시각되자 바로 待避한듯하다.

(다) 砲擊直後에 偵察반을 실시하고 早期의 逆襲을 決行하지 않았다.

(3) 特殊考案의 必須性

突擊直前に 敵의 手擲彈洗禮로 撤退하고 달거나 또는 一旦 突入에 成功한 다음 敵의 砲火의 熾盛을 理由로 隨意撤收을 식은죽 먹듯이 하는 習性을 가진 步兵은 步兵으로서의 가장 必要한 條件에서 逸脫되는 粗獷한 군인이라 指摘하여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兵士自身만의 過誤라기 보다는 上級者의 作戰 指導의 拙劣을 먼저 指摘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1. 攻擊築城을 重視하여야 한다——반드시 作業器材를 携帶케하여 射擊以前에는 즉시 散兵壕로 掘開하는 것을 習性化 할것. 一面作業, 一面射擊을 連繫하면서 一步一步 敵陣에 肉迫하여 한번 占領한 땅은 尺寸이라도 물러서지 말것을 要望 義務化할 것. 臨陣無退가 空念佛이 되어서야 어찌 精銳兵士를 바랄수 있겠는가?

2. 夜間과 黎明 또는拂曉을 利用하는 戰法에 慣熟하여야 한다——敵은 夜暗을 活用하는데 我軍側은 夜暗만되면 砲兵支援이 中絶된다는 핑계로 서슴치 않고 물러서는 것은 恥辱으로 생각하지 아니 한대서야 當당한 武裝兵士가 1個의 夜盜群만도 못하지 아니하겠는가? 夜間만 되면 活動을 中止하고 停止警戒에만 置置하는 군사라면 決斷코 強軍의 範疇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3. 새로운 戰鬪方式을 開發하여야 한다——本戰鬪에서 最後勝利를 爭取한 原因의 가장 큰 것은 火焰放射器와 TNT등의 活用이 突勸한데 있다고 본다.

千遍一律인 피스톤作戰으로 一收一拾의 反復만으로서 激戰을 치렀다고 自負한다면 이는可笑로운 것이 될 뿐이다.

6. 驕岩山부근 戰鬪 (1953년 7월 10일부터 // // 14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12 호
상 황 도 제 56~59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2군단	장	중장 丁 一 權	사단 수색중대 장 대위 黃 元 燮
제6사단	장	소장 白 仁 燁	제27포병대대 장 대위 梁 贊 鉉
		준장 金 點 坤	배속부대
제2연대	장	대령 高 白 圭	제11사단 제9연대 장 대령 金 永 夏
제1대대	장	중령 金 世 曠	제1대대 장 중령 元 容 五
제2대대	장	중량 金 斗 逸	제2대대 장 중령 李 春 培
제3대대	장	중령 梁 炳 煥	제3대대 장 중령 崔 圭 鉉
제7연대	장	대령 韓 官 興	제20포병단 장 대령 李 春 景
제1대대	장	중령 閔 邦 穆	제76포병대대 장 소령 韓 漁 水
제2대대	장	소령 蘇 炳 烈	제77포병대대 장 소령 姜 岐 祥
제3대대	장	중령 南 白 奉	제96포병대대 장 중령 朴 榮 濟
제19연대	장	대령 金 漢 柱	美 제300白走砲兵대대
제1대대	장	중령 陸 璋 均	美 제461重砲대대 C중대
제2대대	장	중령 鄭 在 甲	제2전차중대 장 소령 李 源 福
		소령 金 潤 煜	隣接부대
		(7. 14부터)	右隣接 제8사단 장 소장 宋 翹 讚
제3대대	장	중령 柳 承 源	左隣接 수도사단 장 준장 崔 昌 彦
		敵	軍
中共 제67군	장	馬 襲	제200사단 장 李 靜
제199사단	장	齊 武	제598, 제599, 제600연대 基幹
제595, 제596, 제597연대		基幹	

나. 전투 전의 개황

本節은 제6사단(장, 白仁燁 소장)이 敵의 이른바 7.13攻勢에 앞서 策動한 陽攻을 맞아 前哨陣地에서 一進一退의 紛戰을 거듭하다가 本攻勢로 Missouri線上의 驕岩山一帶로부터 注坡嶺—赤根山에 이르는 Wyoming線으로 물러서기까지의 激戰狀況을 收錄한 것이다.

我軍의 狀況: 사단은 52년 3월 28일에 現戰線으로 進出하여 美 제40사단의 作戰任務를 引受한 以來로 △575와 金城東南쪽의 A高地 및 B高地에서 悽絶한 爭奪戰을 벌여 常勝사단으로서의 聲譽를 높인바 있다(韓國戰爭史 제8권 제53章 제3, 제4節 參照).

새해로 접어 들면서도 사단은 제7연대(장, 韓官興 대령)를 右一線, 제19연대(장, 許亨淳 대령)를 左一線으로, 그리고 제2연대(장, 高白圭 대령)를 예비로 하여 右로는 제8사단(장, 金益烈 준장), 左로는 수도사단(장, 宋堯讓 소장)과 連繫를 維持하고 軍단左翼으로써 金城突出部の 要域을 계속 담당하였다.

그런데 사단은 膠着상태에 빠진 休戰會談의 妥結을 위한 美國側의 政戰兩路를 基調로 한 作戰概念에 따라서 攻擊보다는 防禦에 力點을 둔채 Missouri線을 확보하고, 夜間潛伏과 威力搜索을 強化하여 戰鬪情報 수집을 위한 捕虜獲得에 注力하는 一方 前哨陣地와 主陣地를 補強하여 敵侵에 대비하면서 士氣의 振作과 地形의 熟達 그리고 부대의 再整備을 위하여 定期的으로 부대교대를 實施하였다.

즉 2월 6일에는 作命 제16호(53. 2. 3)로써 예비인 제2연대로 하여금 제7연대와 交代케 하여 右一線을 담당케 하고 제7연대를 예비로 轉換하였다가 4월 1일에는 左一翼인 제19연대의 陣地를 引受케 하였으며, 5월 17일에는 예비가 된 제19연대가 右一線인 제2연대의 作戰任務를 引受케 하고 제2연대를 사단예비로 控置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6월 10일부터 軍단右翼인 제5사단(장, 崔泓熙 준장)正面에 指向된 敵의 攻勢가 제8사단正面으로도 波及되어 激戰을 거듭하기에 이르자, 軍단 作指 제33호에 의거하여 제2연대의 2개대대는 6.13.12.00附로 제8사단에 배속되어 계속적인 侵襲을 阻止하며 陣地를 恢復한 다음 6월 16일에 復歸한 바 있다.

이처럼 攻勢로 轉換한 敵이 軍단 右翼과 中央으로 그 攻勢를 集中하여 그 一部陣地를 Missouri線으로부터 Iceland線으로 물러서게 하고 本格的인 大攻勢준비에 狂奔하는 徵候를 계속 보이기 에 이르자, 사단은 作指 제66호(6.15.18.00)로써 각연대에 公병 1개중대씩을 배속하여 主陣地 및 前哨陣地의 洞窟과 掩蔽 그리고 交通線을 補強하고 射界를 消掃하며 障礙物地帶를 強化하였는데, 이 作業은 7월 7일까지 계속되었다.

한편 제10포병단(장, 李孝誠 중령)은 52년 12월 16일 以來로 사단을 支援하였는데, 4월 20일에는 제15포병단(장, 金東洙 대령)과 交棒되고 6월 29일에는 제20포병단(장, 李春景 대령)이 새로이 배속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하여 該포병단은 제27, 제76, 제77포병대대와 제96포병대대(장, 朴榮濟 중령)를 統合指揮하여 美 제5포병단(장, Richard W. Mayo 대령)과의 協調下에 사단을 支援하기에 이르렀다.

53년 5월 9일 以來로 指揮權을 부사단장 金龍岡 대령에 인계하고 渡美留學次 符機中이던 白仁燁 소장은 제15사단(장, 李貞錫 준장)이 △351를 喪失하고 逆襲의 進展을 보지 못하자 6월 13일 附로 제15사단장으로 赴任하여 作戰을 奮勵하였으나 큰 成果를 거두지 못한채 陸本人事電 제2696호에 의거하여 6월 18일附로 제6사단장으로 復歸하였다.

또한 7월 5일附로 사단장으로 發身된 金點坤 준장은 6월 29일에 사단에 赴任하였으나 敵의 攻勢徵候가 濃厚한 情勢를 勘考한 軍단장 丁一權 중장의 要請에 따라서 交棒을 留保한채 白仁燁 소장이 계속 指揮하여 7.13攻勢를 맞기에 이른다.

사단이 담당한 正面의 兵要地誌에 대하여서는 이미 △575戰鬪에서 記述한 바 있으나 多少의 調整이

이루어진 戰鬪地境內의 主要接近路는 大要 다음과 같이 判斷되었다.

- ① 長淵里—栗砂里에서 鶴岩山에 이르는 稜線
- ② 栢里洞—長淵里에서 鶴岩에 이르는 作戰路와 開豁地
- ③ 古直木里—栢里洞에서 淵巨里—佳鶴里로 이르는 稜線
- ④ 慶波里에서 △418—俗稱 치마고개로 이르는 作戰路와 開豁地

그런데 위의 ② 및 ④의 接近路는 敵이 制空權을 掌握하고 우세한 砲兵火力을 保有할때만이 機械化 부대를 앞세운 大量侵襲이 可能하기 때문에 現況으로서는 實効性이 적은 것으로 보여지고 ① 및 ③이 威脅을 주는 接近路로 判斷되었다.

따라서 사단은 高地—△394—마高地—△407—△418—△424에 前哨陣地를 編成하고 火集點과 彈窟을 稠密하게 부여하여 前進陣地도 主陣地와 같이 固守키로 하였는데 이처럼 사단이 前哨陣地에 力點을 두게 된 것은 敵의 衝勢를 遮斷하는데 그 目的도 있었지만 金城川과 그 支流가 主陣地帶의 後方을 遮斷함으로써 主抵抗線의 直後方에 有利한 예비陣地를 保有하지 못한탓으로 萬一의 境遇에 MLR이 부너질때에는 金城川 南岸으로의 撤收가 不可避하기 때문에 主抵抗線의 확보를 위하여서는 예비陣地보다도 前哨陣地에 依存하여야 하는 地形條件의 制限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당시 茂盛期에 걸쳐, 장마에 접어들므로써 朝夕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 觀測과 射擊가 不良하고 계속적인 降雨로 말미암아 航空支援에 많은 制限을 받게 되었는데 期限中의 氣象은 大要 다음과 같다.

日 字	7월 10일	7월 11일	7월 12일	7월 13일	7월 14일
陰 曆	5월 30일	6월 1일	6월 2일	6월 3일	6월 4일
日 氣	小雨뒤호립	호립뒤雨	호립뒤雨	호립뒤雨	호립뒤雨
日 出	05.18	05.19	05.20	05.21	05.22
日 沒	19.56	19.55	19.54	19.53	19.52
月 出	04.02	05.04	06.07	07.10	08.11
月 沒	19.27	20.09	20.44	21.13	21.39

敵軍의 狀況：當面한 中共 제67軍(장, 馬 興)은 52년 10월 中旬에 제12軍과 交代한 以來로 제199사단(장, 齊 武)을 右翼, 제200사단(장, 李 靜)을 中央, 제201사단(장, 馬 輝)을 左翼으로 하여 軍團 中央左翼인 제8사단(장, 金益烈 준장)과 左翼인 제6사단(장, 白仁燁 소장) 그리고 美 제9군단 右翼인 수도사단(장, 宋堯讚 소장)과 各々 對峙하였는데 6월末에는 그 右翼인 제199사단을 中共 第54軍隸下의 제135사단(새로 投入된듯함)이 交代하여 引受하고 사단正面의 華大峰附近으로 移動한 다음 공격 준비에 着手한 것으로 推斷되었다.

사단正面의 제200사단은 當初에 제598연대를 右一線 제599연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聖山(△533)—玉女峰—△562—長淵里—△672를 連한 一帶에 主據點을 形成한 다음 探索戰을 계속하여 왔는데 제199사단의 移動과 때를 같이하여 제598연대로써 主據點을 專擔케 하고 제599연대도 예비로 轉換한 것으로 비추어 보아 제599, 제600 兩연대는 제199사단과 더불어 공격준비에 着手한 것으로 보였다.

이처럼 中共 제67軍主力이 實質의으로 사단과 對峙케 됨으로써 그 砲兵主力 또한 사단正面으로 指向케 될 것으로 보였는데 그 火力은 제199, 제200 兩개사단砲를 비롯하여 軍포병연대 그리고 제40, 제41, 제406독립포병연대砲를 合하여 105mm砲가 36門, 76mm砲가 36門, 75mm砲가 72門, 合計 144門으로 判斷되었다.

그리고 병력은 兩개 사단을 合하여 18,200명, 其他 장비는 T/E의 80%이며, 補給 및 士氣가 比較的 良好하여 좋은 戰鬪力을 保有한 것으로 評價되었다.

이루렵, 보급품의 輸送車輻과 牛馬車가 빈번히 南下하고 砲兵의 前方推進이 航空偵察로 觀測되었

으며 中共 제20兵團의 예비인 제54軍이 戰線으로 投入되는 徵候로 더루어 보아 不遠한 時日內에 大攻勢를 劃策하는 것으로 判斷하였는데, 이와 같은 情報分析은 投降한 中共 제135사단 偵察參謀(一說, 外勤參謀)의 陳述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

萬若에 敵이 攻勢로 轉換한다면 金城突出部를 形成한 제2군단 正面으로 그 攻勢를 集中하되 左右의 兩肩部를 이룬 제3사단(장, 赫善河 소장)과 美 제9군단 右翼인 수도사단에 그 主攻을, 군단 兵站線의 根幹을 이루는 제17번 作戰道路를 掩扼한 제6사단 正面으로 助攻을, 그리고 제5사단(장, 朴炳權 소장) 正面으로는 牽制공격을 각각 試圖할 것으로 判斷되었다.

이러할때 사단 正面에서는 華大峰에 集結중인 제199사단이 主力으로써 要衝인 轆岩山으로 侵攻하고 제200사단은 사단全域에 걸쳐 侵襲할 것으로 推斷되었다.

이 당시 군단에서는 當面한 敵의 企圖를 白岩山—沱坡嶺—赤嶺山을 連하는 要線으로 侵襲한 다음 金城突出部를 消滅하는 동시에 可能하면 華川까지 奪取하여 戰前의 戰略基地를 확보코자하는 것으로 判斷하고 있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敵의 攻勢徵候가 나날이 길어지고 군단으로부터 예측되는 大攻勢에 대한 對備策이 강조됨에 따라 사단장 白仁燁 소장은 主抵抗線上의 要衝인 轆岩山の 防禦태세를 強化키로 하고 作命 제23호(53.7.9, 18.00)를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敵의 攻勢가 不遠한 時日內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사단은 一部병력을 主抵抗線에 증강하여 戰鬪前哨陣地 및 主陣地를 강화하여 이 敵의 攻勢를 阻止擊滅하려 한다.

③ 제19연대는

㉔ 右一線으로서 轆岩山—泗川里에 이르는 主抵抗線과 加高地—△394—마高地—△407—一帶의 戰鬪前哨陣地를 확보하라.

㉕ 7.9.19.00를 期하여 제2연대의 1개대대를 統台指揮하라.

㉖ 轆岩山에 대한 防禦力を 強化하라.

④ 제7연대는 左一線으로서 泗川里—灰古介에 이르는 主抵抗線과 △418—後川里—△424—一帶의 戰鬪前哨陣地를 확보하라.

⑤ 제2연대는

㉔ 7.9.19.00附로 1개대대를 제19연대에 배속하라.

㉕ 主力은 蘆洞里에 集結하여 側後方境界를 強化하고 출동태세를 갖추라.

⑥ 제20포병단은

㉔ 美 제5포병단과 緊密한 火力協調를 이루라.

㉕ 각 연대를 105mm포병대대 1개대대씩으로 直接支援케 하고, 155mm포병은 사단을 一般支援하라.

- ㉠ 火力의 우선권은 제19연대에 賦與한다.
- ㉡ 제2전차중대는 2개소대가 제19연대를 1개소대가 제7연대를 각각 直接支援케 하라.
- ㉢ 제6중박격포중대는 2개소대로써 제19연대를 1개소대로서는 제7연대를 각각 지원케 하라.
- ㉣ 공병대대는 早速한 時日內에 梨南里南쪽 金城川支流의 架橋工事を 완료하고 主補給路와 金城川의 橋梁 및 架橋의 확보에 注力하라.
- ㉤ 協調指示
- ㉥ 戰鬪前哨陣地도 別命이 없는限 主陣地와 같이 固守한다.
- ㉦ 洞窟을 利用하여 陣內사격을 적절히 活用하라.
- ㉧ 戰鬪前哨陣地에는 敵의 觀測을 避하여 對空標識를 하라.
- ㉨ 通信은 現行 SOI에 의거하되 如何한 境遇에도 維持보통하라.
- ㉩ 사단 CP는 厓里室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제19연대(장, 金漢柱 대령)는 배속된 제2연대 제3대대(장, 梁炳煥 중령)를 左제1선으로 하여 高地(佳鶴里 北쪽)의 主陣地와 △407의 前哨陣地를 7.10.03.00附로 引受케 하고 이곳을 담당하였던, 제1대대(장, 陸璋均 중령)를 鞍岩山의 西北쪽 稜線으로 進入시켜 △442의 主陣地를 담당케 함으로써 右제1선인 제3대대(장, 柳承源 중령)의 防禦正面을 좁혀 鞍岩山防禦力을 強化보통 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鄭在甲 중령)를 中央 左제1선으로 하여 鷄岩一帶에 主陣地를, △394—마高地上에 戰鬪前哨陣地를 각각 占領케 하여 曷道里로부터 敵域을 從斷하여 MLR에 이르는 作戰道路와 開豁地를 制壓케 하여 배속된 戰車소대의 掩護下에 敵의 기계화부대의 侵襲에 對備케 하였다.

새로이 左제1선을 담당하기에 이른 제2연대의 제3대대는 古直木里—梧里洞으로부터 主陣地로 이르는 良好한 접근로를 차단케 함으로써 예상되는 敵侵에 萬全의 태세를 갖추었다. 한편 사단 左一線인 제7연대(장, 韓官興 대령)는 제1대대(장, 閔邦穆 중령)를 右 제1선으로하여 金城川 東西兩岸의 泗川里 北쪽 稜線과 △374北쪽 稜線에 主陣地를, △418에 戰鬪前哨陣地를 設령케 하였는데, 그 左翼은 滿水의 金城川이 障礙物이 되어 防守에 有利하였으나 右翼은 軍단계획에 따라서 A高地—B高地의 戰鬪前哨陣地를 撤收하여 敵이 이를 占據 함으로써 攻擊基點을 提供케 되어 戰鬪前哨陣地가 恒常 威脅을 받았다.

제2대대(장, 蘇炳烈 소령)는 左 제1선으로서 烽火洞—灰古介에 이르는 一帶에 主陣地를 後川里—△424一帶에 戰鬪前哨陣地를 각각 확보하였는데, 金城川이 西北쪽으로부터 東南쪽으로 흘러 陣前에 障礙物을 形成함으로써 北쪽으로부터의 威脅은 輕減되었으나 수도사단(장, 崔昌彦 준장)과의 間隙에 接近路를 保有함으로써 連繫維持에 格別히 留意케 하는 한편 예비인 제3대대(장, 南白奉 중령)를 烽火山과 河古介北쪽 稜線에 예비陣地를 확보케 하

여 제2대대에 대한 근접지원대세와 側方掩護를 담당케 하였다.

한편 사단에비인 제2연대(장, 高白圭 대령)는 제3대대를 제19연대에 배속하고 그 主力은 蘆洞里에서 출동태세를 갖춘채 側後方에 대한 경계를 담당하고 있었다.

(2) 작전 실시

7월 10일 : (敵의 陽攻) 이날 07.00부터 시작된 敵의 砲擊이 하루종일 사단 全域을 뒤덮더니 21.30부터는 드디어 제19연대 正面으로 공격을 開始 하였다.

1. 제19연대의 상황

敵의 熾烈한 砲擊을 공세정후로 판단한 연대장 金漢柱 대령의 要請으로 포병의 制壓사격과 遮斷사격이 이에 맞서, 예상 접근로상의 稜線과 溪谷을 불길로 뒤덮고 炸裂하는 砲彈의 閃光은 안개가 질게 끼고 부슬비 내리는 밤하늘을 붉게 물 드렸으며 野砲와 迫擊砲의 照明彈은 絢爛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21.30에 이르자 △394에 戰鬪前哨陣地를 확보한 제7중대 제3소대장 申德雨 상사로부터 1개 중대 규모의 敵이 中芳坪 南쪽의 開豁地를 橫斷하면서 공격을 開始하였음이 急報되었다.

즉각 연대 OP에서 作戰會議를 主宰한 연대장 金漢柱 대령은 敵의 常套的인 手法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연대를 攪亂키 위한 陽攻에 不過할 것이며 攻勢를 시작하였다면 그 主攻은 必是 轎岩山으로 지향할 것으로 結論을 내리고 要旨 다음과 같은 緊急명령을 下達하였다.

『① 敵은 드디어 1개 중대 규모로써 △394 正面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② 이는 陽攻이며 主攻은 轎岩山 正面으로 지향될 것으로 判斷된다.

③ 제3대대는 즉각 전투태세를 完備하고 예측되는 敵侵에 대비하여 高地의 前哨陣地를 확보하라.

④ 제1대대는 現임무를 계속 遂行하면서 제3대대에 대한 지원태세를 갖추라.

⑤ 제2대대는 전투태세에 突入하는 同時에 △394에 대한 지원태세를 갖추라.

⑥ 제2연대 제3대대는 경계태세를 強化하고 現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가) 高地의 戰況

제3대대(장, 柳承源 중령)는 제10중대(장, 金榮珣 대위)를 右 제1선, 제11중대(장, 黃昌淳 대위)를 左 제1선으로 하여 轎岩山의 主陣地를 확보하고, 배속된 제1중대 제1소대로 增強된 제9중대(장, 張奎鳳 대위)가 高地에 戰鬪前哨陣地를 확보하였으며, 제1중대(-)는 예비로써 轎岩山 西南쪽 稜線에 控置하였다.

그런데 이날 아침부터 敵의 포격이 대대 正面으로 集中되어 많은 交通壕와 塹壕가 파괴되고 有線網이 斷絶되자 敵侵을 예상하여 전투태세를 갖추었는데, 예상한대로 △394에 대한 공격에 뒤이어 21.50부터 1개 중대 규모의 敵이 高地로 侵襲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은 戰況보고에 接한 대대장 柳承源 중령은 敵이 드디어 그 馬脚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제9중대의 勇戰을 無電으로 督勵하는 한편 砲兵의 遮斷사격을 誘導케 하였으며, 81mm迫擊砲의 照明彈으로 敵의 後續을 牽制하고 사격효과를 증대토록 하였다.

이때 제9중대는 제2소대를 右 제1선, 제3소대를 中央 제1선, 제1중대 제1소대를 左 제1선으로 하여 高地를 중심으로 西北쪽으로부터 東南쪽으로 뻗은 稜線上에 前哨陣地를 확보하고, 제1소대로 하여금 東北쪽으로 뻗은 稜線上의 高地에 境界 陣地를 占領케 하여 戰鬥態세를 完備하였는데 포격간에 東쪽溪谷으로 미리 潛侵한 것으로 보이는 1개중대 규모가 21.50에는 稜線으로 올라 붙으면서 제2소대 正面으로 그 衝力을 集中하였다.

중대는 즉각 誘導된 포병의 遮斷사격下에서 照明彈의 光芒속에서 浮上하는 醜敵을 捕捉하여 一齊히 火力을 集中하니, 猶突의으로 殺到하던 그 先頭의 銳鋒이 주춤하는 듯 하였으나 때마침 中芳坪에서 불을 탄하기 시작한 그들의 적사포와 기관총의 집중지원에 침입은 듯이 또다시 달려 들기 시작하였다.

중대장 張奎鳳 대위는 그들이 계속 右 제1선으로 衝勢를 集中하는 것으로 보아 제2소대를 突破하고 포위를 기도하는 것으로 보고 제3소대와 제1중대 제1소대의 예비분대를 抽出하여 急遽增援케 하는 한편 彈幕사격을 요청하였다.

제2소대 正面으로는 陣內사격을 防佛케 하는 彈幕사격과 全火力이 集中되기에 이르니 敵은 瞬息間에 十字砲火속에 휘말려 버려 그 衝力이 꺾이면서 물러나기 시작하였으나 이때 (23.20)敵線으로 부터 支援 가능한 全화력이 高地로 集注하는 가운데 1개 대대규모의 새로운 무리가 東北稜線과 中芳坪으로부터 침공하기 시작하였다.

대대장 柳承源 중령의 緊急要請으로 砲門을 연 제96포병대대(장, 朴榮濟 중령)와 美 제 300自走砲대대의 155mm砲는 一齊히 敵線을 強襲하기에 이르니 天地가 震動하는 듯한 轟썩과 더불어 순식간에 稜線과 溪谷 그리고 開豁地를 불길로 뒤덮어 버리었다.

그러나 人命을 輕視하는 그들은 督戰의 信號彈을 亂射하는 가운데 그 煉獄과 같은 火網을 벗어나면서, 계속 밀려 들기에 이르자, 앞서 陣前에 釘着되었던 敵은 氣勢를 되찾은 듯 방망이 수류탄을 던지면서 陣前으로 달려 들었다.

예비대의 增援으로 이미 橢圓型陣地를 확보한 소대는 陣頭에서 怒號하는 소대장 禹榮賢 소위를 中心으로 渾然一體가 되어 무너진 塹壕의 一角에 遮蔽한채 수류탄을 마주던지면서 全화력의 連射로써 이를 격퇴코자 奮戰하였다.

그런데 이때 東北쪽 稜線으로 推進한 적사포와 기관총을 集中하여 陣內를 또한차례 攪亂하더니 그 特攻隊로 보이는 一團이 陣內를 目標로 덤벼들었다.

이에 兵士들은 一齊히 躍出하면서 수류탄을 던지고 敵中으로 달려들어 白兵의 格鬪를 벌이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後續하는 그들 先鋒主力이 陣前으로 近迫함으로서 突破口 擴大의 危機가 頃刻에 다달았다. 그러나 이때 소대장이 陣頭指揮하는 特攻組가 달려 나가면서 CAR M-2의 連射에 이어 火陷을 放射하니 그 先頭一波는 순식간에 자취를 감



〈殺到하는 敵의 무리에 火力을 集中하는 兵士들〉

추어 버리고 그뒤를 따르던 主力도 唐慌하는 빛이 瀼瀼하였다.

이 好機를 捕捉한 소대는 『나를 따르라』는 소대장 禹榮賢 소위의 大號一聲으로 陣前出擊하면서 수류탄을 投擲하고 사격을 집중한 다음 突擊을 敢行하기에 이르니 더 以上 支撐하지 못한 敵은 望風敗走하기 시작하였으나 포격에 휘말려 潰滅하고 말았다.

이때 東北쪽 稜線과 中芳坪으로부터 侵襲하기 시작한 主力은 火網을 벗어나면서 1개 중대 규모로서 경제陣地를 占領中인 제1소대 正面으로 또 2개 중대 규모는 左 제1선인 제1중대 제1소대 正面으로 各各 달려들었다.

중대장 張奎鳳 대위는 제1소대를 즉각 撤收하도록 하는 한편 正面을 遞縮하여 高地를 中心으로 據點防禦로 移行하면서 彈幕사격을 요청하였다.

제1소대의 陣內進入과 동시에 퍼붓기 시작한 砲擊은 敵線을 強打하고 全火力의 最後阻止사격은 照明下에 계속 浮上하는 敵影을 쓸어 버리니 物置의 優勢만을 믿고 달려들던 그들은 唐慌한듯이 霎時間에 흩어지면서 散發的인 사격으로 그 命脈을 維持하는듯 하였는데 이때 敵線에서는 支援火力을 要請하고 奮戰하는듯한 信號彈이 前後左右로 飛翔하고 있었으니 그 潰滅도 시간문제라 보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初戰에서 優勢한 敵을 제압한채로 子正을 맞기에 이르렀다.

이날의 戰鬪에서 중대는 敵屍 87구를 확인하고 戰死 12명 戰傷 26명의 損失을 보았다.

나) △394의 戰況

제2대대(장, 鄭在甲 중령)는 연대의 中央 左一線으로써 제7중대(장, 趙弘濟 대위)를 右

제1선, 제6중대(장, 車鳳竹 대위)를 左 제1선으로 하여 鷄岩一帶의 主陣地를 확보하고, 제7중대 제3소대와 제5중대(장, 崔德明 대위)로 하여금 △394—마高地에 戰鬪前哨陣地를 확보케 하였다.

그런데 이날 아침부터 熾烈한 포격이 集注하기에 이르자 이를 敵의 공세징후로 보고 전 투태세를 갖추었는데, 21.30에 이르자 1개 중대규모가 中芳坪 南쪽의 開豁地를 황단하면서 △394의 제7중대 제3소대 正面으로 공격을 開始하였다.

소대장 申德雨 상사는 北쪽 濼地線까지 推進하였던 潛伏組를 즉각 撤收시키고 砲兵의 遮斷사격과 照明支援을 요청하였다.

中共 제200사단 제599연대 隸下로 推定되는 1개 중대규모는 1개 소대가 先鋒으로서 正面으로 急迫하는 가운데 2개 소대규모는 左右 兩側方으로 迂回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突破와 포위의 兩面作戰을 企圖하는듯 그 氣勢가 자못 騰騰하였으나 즉각 指向된 포병의 차단사격으로 火陷에 휩싸이고, 照明彈의 閃光으로 그들의 企貌가 드러나기에 이르자 그 隊伍가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好機를 看破한 소대장은 포병지원을 要講하면서 一齊사격개시를 號令하였다.

2정의 기관총과 2문의 3.5"rocket砲, 그리고 1정의 57mm 無反動銃을 主軸으로 一齊에 불을 吐하니 十字砲火속에 휘말려 버린 敵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듯 하였다.

그러나 敵線에서 靑色과 赤色信號彈이 亂舞하는 가운데 支援火力을 소대陣地로 誘導하고 새로운 增援으로 병력을 收拾한듯한 그들은 火망을 벗어나면서 北쪽 稜線으로 올라 불었다.

소대장 申德雨 상사는 左 제1선인 제3분대 陣地로 달려 나가 兵士들을 일일이 격려하면서 最低表尺사격을 號令하는 한편 陣前에 埋設한 地雷를 계속 爆發시켰다.

그러나 敵은 中芳坪으로부터 지원가능한 모든 火力을 집중하면서 狂波처럼 밀려 들어 그 先頭는 陣內로 肉薄하였다.

이에 제3분대는 一齊히 떨어져 일어나 수류탄의 集中投擲으로 주춤하는 刹那에 敵中으로 달려 들면서 白兵戰을 강요하였으나 계속 밀려드는 敵勢에 밀려 突破口의 擴大에 따라 頂上으로 물러서기에 이르렀는데 現況으로서는 敵을 격멸키 어려운 것으로 본 申상사는 掩壕로의 進入을 號令한 다음 陣內사격을 요청하였다.

이윽고 VT彈이 하늘을 덮으며 炸烈하기 시작하니 노출된 地形에서 이를 堪當하지 못한 胡虜의 무리는 순식간에 修羅場을 이루더니 潰退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陣前에서는 49具의 殞棄屍體를 확인하였다.

한편 대대장 鄭在甲 중령은 △394에서 初戰을 맞이하자 곧 제7중대 OP로 나아가 直接 戰鬪指揮에 나섰는데 소대가 掩壕로 進入하자 陣內사격을 直接 통제하는 한편 鷄岩北쪽 稜線一帶에 잠복중인 대대 수색대를 △394로 급거증원케 하고, 제6중대의 1개소대로 하여금

대대 수색대의 任務를 引受케 하였다.

2. 사단장의 措置

사단장 白仁燁 소장은 제19연대正面의 高地—△394의 戰鬪前哨陣地에서 激戰을 전개하게 되자 緊急히 作戰會議를 主宰하고 狀況을 分析 檢討한 결과 敵의 攻勢가 사단正面과 右隣接인 제8사단의 一部에만 止항되고 그 攻勢규모로 미루어 보아 豫측한 敵의 所謂 大攻勢는 아니고 그 企圖秘匿을 위한 陽攻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5개 연대규모의 공격부대와 強力한 포병화력을 隨伴하는 것으로 推定되는 敵은 그 先鋒으로써 우선 要衝인 轎岩山을 奪取하고 次期攻勢를 有利하게 展開코자 攻勢를 사단正面으로 集中할 可能性이 없지도 않은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轎岩山과 一次의인 紛戰의 對象으로 豫상되는 高地의 前哨陣地를 補強키로 하고 作指 제78호를 下달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敵은 사단正面으로 공격중이다.

② 이는 敵의 陽攻牽制策으로 판단하나 그 敵勢로 미루어 보아 轎岩山에 대한 集中 공격의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

③ 사단은 一部兵力을 增援하여 轎岩山 및 高地의 防禦態勢를 더욱 강화하려 한다.

④ 제19연대는 7. 11. 12. 00附로 轎岩山으로 進出하는 제2연대의 1개대대를 통합지휘하고 상황의 進展에 따라 高地의 前哨陣地를 強化하라.

⑤ 제2연대는 7. 11. 12. 00附로 1개대대를 제19연대에 배속하고 殘餘兵力으로 出動태세를 강추라.

⑥ 제7연대는 경계태세를 강화하면서 현임무를 계속수행하라.』

7월 11일 : (陽攻 第2日)

이날 1개 연대규모로 확대한 敵의 공세가 高地로 집중되어 한때 危局에 直面하였으나 砲兵의 집중지원과 제19연대 제3대대의 奮戰으로 08.00에는 이를 擊退하였다.

그러나 사단장 白仁燁 소장은 사단규모의 공격으로까지 擴大할 可能性을 示唆하는 軍단의 정보판단과 그칠줄 모르는 포격, 그리고 頻繁한 부대이동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의 공세가 漸次 擴大할 것으로 判斷하고 예비인 제2연대의 殘餘병력마저 轎岩山으로 進出시켜 제19연대에 배속하였다가 제2연대로 하여금 主抵抗線의 一部를 담당케 하여 防禦태세를 強化키로 決心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作指 제79호를 下달하였다.

『① 敵의 공세는 擴大一路에 있다.

② 사단은 이에 대비하여 轎岩山防禦力을 강화하여 한다.

③ 제19연대는

㉠ 7월 11일 21.00附로 제2연대의 1개대대를 統合指揮하라.

㉡ 담당 戰鬪正面의 一部를 제2연대에 인계할 준비를 갖추라.

但 그時機는 別名한다.

④ 제2연대는

㉞ 1개대대를 7월 11일 21.00附로 제19대대에 배속하라.

㉟ 제19연대의 戰鬪正面의 一部를 引受할 準備를 갖추라.

但 그時機는 別名한다.

⑤ 제7연대는 威力수색과 潛伏을 강화하여 敵의 공격을 早期에 捕捉, 격멸하라.』

그런데 상황의 急轉과 一部의 戰鬪正面引受를 前提로한 措置라고는 하지만 이로써 연대를 연대에 배속하는 戰術上의 矛盾을 露呈한 것은 玉의 티라 하겠다. (研究欄參照)

1. 제19연대의 상황

연대(장, 金漢柱 대령)는 1개 연대규모로 증강된 敵의 공격을 제3대대의 奮戰과 포병의 支援으로 一旦 이를 擊退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적으로 공세徵候를 보이기에 이르자 사단장의 지도에 따라 배속된 제2연대 제1대대(장, 金世啟 중령)로 하여금 轎岩山의 主陣地를 담당케 하고, 제3대대 主刀을 高地로 進出시켜 前哨陣地를 補強케 하였으며 사단 作指 제79호에 의거하여 進出하는 제2연대 제2대대(장, 金斗逸 중령)를 예비대로서 轎岩山 西南쪽 稜線에 控置하였다.

가) 高地의 戰況

제9중대(장, 張奎鳳 대위)는 포병의 有機的인 支援下에 漸次로 확대하는 敵의 공격을 陣前에서 阻止하고 火力을 集中하여 결정적인 打撃을 주기 시작하였다.

이에 厝愾한 敵은 00.40에 釘着한 敵線 直後方에 督戰의 砲撃을 加하는 一方 增強된 1개 대대규모의 새로운 兵力이 東北쪽 稜線과 中芳坪으로부터 또다시 侵襲하기에 이르니 그 衝勢가 거의 瓦解되었던 陣前의 敵은 銳氣를 되찾은듯 隊伍를 갖추더니 포병화력의 分散을 틈타 狂波처럼 달려들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2개 대대규모의 공세를 맞기에 이른 중대는 動搖의 빛이 감돌았으나 『우리 모두가 이곳에 뼈를 묻기로 하고 끝까지 싸우자』라는 중대장 張奎鳳 대위의 悲壯한 一言에 따라, 마음의 平穩을 되찾고 때마침 緊急支援된 美 제80포병대대의 2개 探照燈班이 대낮과 같이 陣前을 밝히고, 포병의 TOT사격이 敵線을 強襲하는 가운데 銃列이 벌겍게 달고 安全핀을 풀어 들는 이가 부러져 피가 나도록 수류탄을 集中投擲하면서 이 醜敵을 擊退코자 奮戰하였다.

그러나 彈幕地帶의 火망을 벗어난 한패가 방망이 수류탄을 集中投擲하여 그 南北쪽 稜線을 확보한 제3소대 陣地를 돌파하면서 陣內로 侵透하였다.

이에 소대는 李晉永 소위를 先頭로 奮然히 달려 나가면서 敵中으로 突入하여 찌르고 때려 血肉이 飛散하고 진흙구덩이를 鮮血로 붉게 물드리는 白兵의 格鬪를 벌였는데 이때 중대부관 辛榮奎 중위가 지휘하는 예비대가 明滅하는 閃光과 彈雨속을 뚫고 兇히 加勢하니

守勢에 몰린 그들은 潰滅상태에 빠진채 陣內에서 물러서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때 加莫洞溪谷으로 迂回한 2개 중대규모가 西側背를 向하여 急襲하기 시작함으로써 拔擲되기에 이른 소대는 예비대의 증원하에 또다시 근접전을 거듭하였으나 漸次로 高地로 물러서기에 이르렀다.

이에 氣勢를 올린 敵은 三面으로 포위한채 그들 特有의 猪突의인 波狀공격을 시작하였으며 그 主力도 또한 희망을 벗어나면서 陣前으로 近追하였다.

중대장 張奎鳳 대위는 現況으로서는 高地를 固守키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掩壕와 洞窟로의 進入을 號令하면서 陣內사격을 緊急히 요청하였다.

이윽고 제96포병대대(장, 朴榮濟 중령)와 美 제300自走砲兵대대의 155mm砲가 VT彈으로 高地一帶를 制壓하기에 이르니 이제는 高地를 奪取한 것으로 錯覺하고 怪聲으로 連呼하면서 蟻集하던 中共은 앞을 다투어 潰散하기 시작하고 後續하던 主力 또한 望風敗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중대는 사격 延伸을 요청하는 즉시로 躍出하여 陣內를 벗어나지 못한 敵을 擄挾하고 제3, 제2 兩소대가 陣地를 恢復코자 東南쪽 稜線과 西北쪽의 세갈래稜線으로 突進하였다

그러나 兩쪽稜線을 強占한 敵이 기관총사격을 집중하면서 頑強하게 저항함으로 60mm 迫擊砲와 3.5"rocket砲의 支援下에 突擊을 거듭하였으나 이를 탈취하지 못하고 高地를 中心으로 據點을 확보한채로 熾烈한 사격전을 벌였다.

이때 OP에서 戰況의 推移를 注視하던 대대장 柳承源 중령은 敵이 戰鬪前哨陣地의 兩側을 遮斷한채 공격基點을 마련하고 서로 對峙하기에 이르자 연대장의 承認을 얻어 예비인 제1중대(-)를 急進시켜 제11중대(장, 黃昌淳 대위)의 陣地를 引受케 하는 同時에 제11중대는 즉각 躍出하여 陣地를 恢復하는 즉시로 제9중대를 增援토록 措置하였다.

이에 따라 제11중대는 제1중대(-)에 轎岩山の 左 제1선陣地를 인계하고 02.30부터 躍出하였다.

제77포병대대(장, 姜岐祥 소령)의 掩護사격아래 北쪽 稜線을 따라 躍進한 중대는 그 北端에 이르렀을 무렵, 高地 東南쪽 稜線을 占據한 敵으로부터 熾烈한 사격을 받았으나 集中사격에 뒤이어 一齊히 돌격을 敢行하여 1개 소대규모를 擊破하고 04.30에 이를 奪取한 다음, 제9중대를 超越하면서 세갈래稜線으로 突進하였다.

2개 소대규모로 推定되는 敵은 즉각 指向된 迫擊砲의 掩護下에 기관총사격을 집중하면서 頑強하게 저항하였으나 제9중대의 熾烈한 掩護사격下에 怒濤처럼 밀어 닦쳐, 수류탄을 퍼붓고 주춤하는 刹那에 敵線을 突貫하여 白兵戰을 벌였다.

敵 또한 督戰에 견디지 못하였음인지 銃劍과 수류탄으로 執拗하게 저항하였으나 後續하는 火焰放射器組가 火焰을 퍼부우니 더 以上 支撐하지 못한 그들은 高地로 潰走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중대가 戰鬪前哨陣地를 恢復하고 제9중대와 連繫를 維持한채로 세갈래 稜線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제10중대(장, 金榮珣 대위)는 배속된 제1중대와 더불어 계속 驕岩山의 主陣地를 확보하였는데 제2연대 제1대대의 先發隊가 陣地로 진입하기에 이르자 이에 陣地를 引繼하고 11.20에는 煙幕이 짙게 遮障된 北쪽 稜線을 따라 高地로 進出, 대대主力과 合勢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대는 14.00부터 一齊히 砲門을 연 사단砲兵의 掩護사격과 煙幕遮障아래 제10중대를 右제1선, 제11중대를 中央제1선, 제9중대를 左제1선으로 하여 前哨陣地를 강화하고 固守태세를 갖추었다.

이때 彼我間에는 熾烈한 砲擊戰이 벌어져 硝煙과 火焰이 부슬비 내리는 山野를 뒤덮었다.

이무렵 제1중대(장, 李在燁 대위)는 제11중대의 陣地를 인수 확보하였는데 제2연대 제1대대(장, 金世敏 중령)가 驕岩山으로 進出하기에 이르자 그 제3중대(장, 洪在應 대위)에 陣地를 引繼하고 제9중대에서 復歸한 제1소대와 合勢한 다음 17.00에는 西南쪽 稜線으로 移動하여 原隊에비가 되었다.

나) 제2연대 제1대대의 增援

제1대대(장, 金世敏 중령)는 사단예비로서 蘆洞里附近에서 待機하였는데, 敵의 공격이 高地로 集中되어 제19연대 제3대대가 激戰을 벌이기에 이르자 연대장의 명령(사단 作指 제78호에 의거)으로 이날 10.10에 제1중대(장, 李德弼 대위)를 선발대로 삼아 集結地에서 機動, 11.20의 驕岩山으로 進入하면서 제19연대에 배속과 동시에 그 제3대대(장, 柳承源 중령)의 主陣地를 引受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頂上에 OP를 開設하고 제1중대로 하여금 頂上附近에 橢圓型陣地를, 제2중대(장, 吳政植 대위)는 그 外廓 右제1선을, 제3중대(장, 洪在應 대위)는 그 外廓 左제1선을 각각 담당케 하여 固守태세를 갖추었다.

2. 제2연대의 前線進出

제2연대(장, 高白奎 대령)는 사단예비로서 蘆洞里에서 출동태세를 갖추고 側後方경계를 담당하였는데 사단 作命 제23호에 의거하여 제3대대(장, 梁炳煥 중령)를 7월 9일 19.00附로 제19연대에 배속하여 그 左제1선을 담당케 한바 있는데, 驕岩山正面에 대한 敵의 공격이 漸次로 擴大됨에 따라 사단 作指 제78호로 제1대대를 이날 12.00에 제19연대에 배속하여 要衝인 驕岩山의 主陣地를 확보케 하였다.

그런데 敵이 攻勢擴大의 徵候를 또다시 보이기 시작하자 下達된 作指 제79호에 따라서 殘餘 제2대대(장, 金斗逸 중령)마저도 21.30에 驕岩山으로 진출시켜 제19연대에 배속하고, 그 指揮部는 다음날 未明을 期하여 제19연대의 一部戰鬪正面을 인수코자 그 준비에 着手하였다.

7월 12일 : (陽攻 第3日)

1. 제2연대의 Missouri線 進入

이날 사단장 白仁燁 소장은 作命 제24호로써 제2연대로 하여금 轎岩山地區를 제19연대로부터 引受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연대장 高白圭 대령은 作命 제21호를 하달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연대는 轎岩山地區를 防禦하며 한다.

② 제1, 제2 兩대대는 7월 12일 05.00附로, 제3대대는 21.00附로 각각, 제19연대로부터 배속이 해제되어 原隊로 復歸한다.

③ 제1대대는 轎岩山의 主陣地를 계속 확보하라.

④ 제2대대는 제19연대 제3대대로부터 前哨陣地를 引受할 준를를 갖추라. (但 그 時機는 別命한다)

⑤ 제3대대는 7월 12일 21.00附로 제19연대 제1대대의 主陣地를 인수하라.

⑥ 제19연대 제3대대는 7월 12일 05.00附로 배속과 동시에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라.

⑦ 제76포병대대가 연대를 직접지원하고 제96포병대대 및 莢 제300白走砲兵대대가 一般支援한다. 但 火力의 優先權은 연대에 있다.

⑧ 交代間 通信保安에 留意하라.

⑨ 연대 OP는 △602에 위치한다.』

제1대대(장, 金世啟 중령)는 전날 12.00에 轎岩山으로 進出과 동시에 제19연대에 배속되어 제2중대(장, 吳政植 대위)를 右제1선 제1중대(장, 李德弼대위)를 中央제1선, 제3중대(장, 洪在應 대위)를 左제1선으로 하여 同연대 제3대대의 主陣地를 인수하고 固守태세를 갖추었다.

그런데 이날 05.00附로 현위치에서 原隊指揮下에 복귀하기에 이르자 진출한 공병 1개중대의 支援下에 파괴된 交通線와 陣地를 補修하고 障礙物工事에 착수하였다.

한편 夜間에는 北쪽과 西北쪽 稜線으로 潛伏組를 推進하여 敵의 潛侵에 대비하는 一方 左隣接인 제3대대의 陣地진입을 掩護하였다.

제3대대(장, 梁炳煥 중령)는 사단 作命 제23호에 의거하여 7월 9일 19.00附로 제19연대에 배속되어 同연대 제1대대의 陣地를 인수하고 左 제1선대대로서 佳鶴里北쪽의 主陣地와 △407의 戰鬪前哨陣地를 확보하였는데, 이날 연대 作命 제21호에 따라 21.00附로 原隊 復歸하기에 이르렀다.

즉, 대대예비인 제11중대(장, 申相棋 대위)는 16.30에 佳鶴里를 출발하여 20.00에 제19연대 제1대대의 左제1선인 제3중대陣地를 引受하고 제9중대(장, 林錫淳 대위)는 19.20에 제19연대 제1중대에 陣地를 引繼하고 21.30에는 제19연대 제2중대 陣地를 引受하여 右제1선이 되었다.

또한 △407에 戰鬪前哨陣地를 확보한 제10중대(장, 宋奇善 대위)는 23.50에 제19연대 제2중대에 陣地를 引繼하고 다음날 01.00에 轆岩山西南쪽 稜線으로 進出하여 대대에바가 되었다.

이로써 대대는 陣地를 交代完了하고 연대 左 제1선으로써 轆岩山西北쪽 稜線上的 △442一帶에 主陣地를 확보하여 轆岩山방어의 一翼을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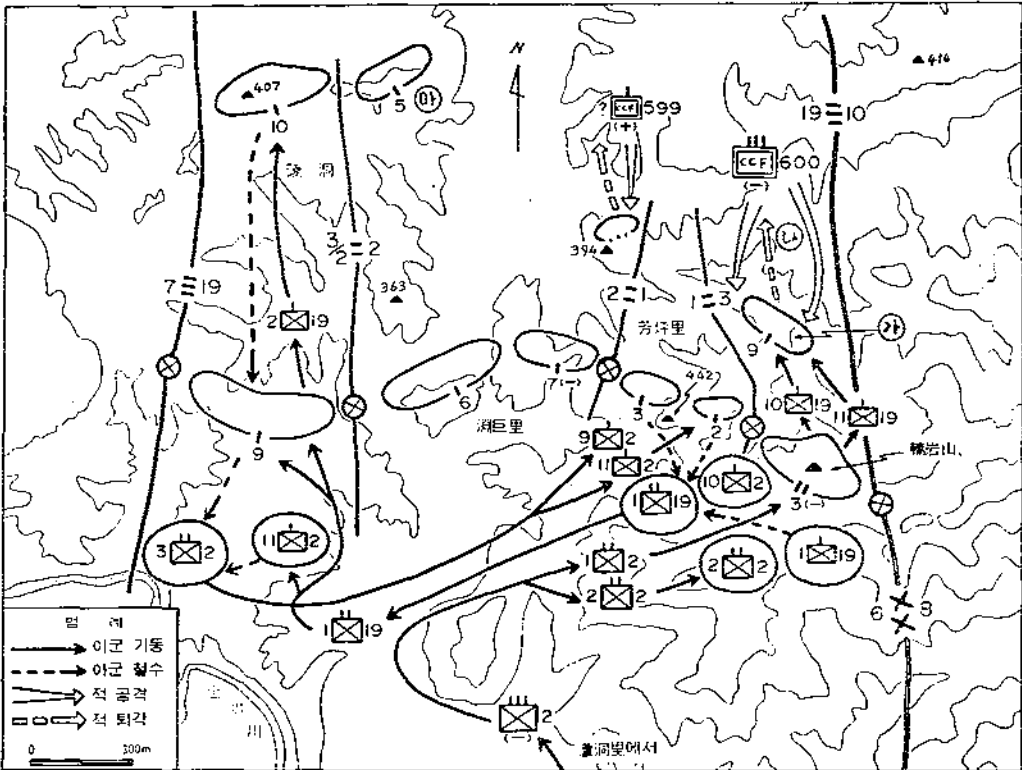
제2대대(장, 金斗逸 중령)는 전날 21.30에 轆岩山西南쪽 稜線에 進出하여 제19연대에 배속과 동시에 同연대의 예비가 되었다가, 이날 05.00附로 현위치에서 원대지휘하에 복귀하였다.

그런데 연대가 鷄岩以東의 轆岩山一帶의 防禦任務를 담당하기에 이르자 연대장 高白圭 대령은 敵이 가高地공격의 策源地로 삼는 加莫洞一帶의 高地를 地形의 不利에도 不拘하고 계속 확보한다면 가高地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가高地一帶와 더불어 이곳에서도 戰鬪前哨陣地를 확보토록 명령 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장, 金斗逸 중령은 제5중대(장, 金鍾堯 대위)로 하여금 제19연대 제3대대가 확보한 가高地를 인수케 하고 제7중대(장, 安昌振 대위)에는 加莫洞으로 進擊하여 戰鬪前哨陣地를 확보토록 하였다.

이러하여 제5중대는 21.00에 砲兵의 掩護사격하에 轆岩山을 출발하였는데, 23.30에 중

◇ 상황도 제56호 轆岩山 부근 戰鬪 其一(7.10~12)



대는 매 아침 侵襲하는 敵을 맞아 격전이 벌어진 高地로 돌진하면서 增援하여 일단은 胡虜를 격퇴하였으나 그들의 挑戰이 계속 되었으므로 陣地를 인수하지 못하고 제19연대 제3대대와 協同하여 高地를 확보하였다.

한편 제7중대는 21.00에 예비 陣地를 출발하여 23.20에는 淵巨里附近으로 진출하였으나 이때 高地에서 또다시 激戰이 벌어지기에 이르자 대대장의 명령으로 進擊을 멈추고 集結待機 하였다.

이때 제6중대(장, 金教洙 대위)는 轆岩山西南쪽 稜線에서 待機中에 있었다.

한편 제19연대 제3대대(장, 柳承源 중령)는 전날 14.00에 主力이 高地로 진출하여 戰鬪前哨陣地를 강화하였는데, 이날 05.00附近 戰鬪地境線이 변경됨에 따라 담당 戰鬪正面을 제2연대에 인계하고 現位置에서 19연대에 배속되어 계속 戰鬪前哨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대대는 전날의 部署를 維持하고 彼我間에 砲擊戰이 계속되는 가운데 交綫상태에 들어갔는데, 이때 대대장 柳承源 중령은 東北쪽 稜線상의 나高地一帶를 탈취하여 敵의 威脅을 排除하고 경계 陣地를 확보키로 한 다음 이를 제9중대(장, 張奎鳳 대위)에 實行토록 명령하였다.

이로써 중대는 10.00에 81mm 및 60mm迫擊砲가 나高地一帶로 集中하는 가운데 제1소대를 돌격소대로 삼아 陣地線에서 一齊히 躍進하였다.

敵線에서는 1개 소대규모가 기관총과 多發銃사격으로 執拗하게 저항하였으나 57mm無反動銃이 敵火를 제압하는 즉시로 돌격을 敢行하여 一擧에 擊破하고 10.50에는 이를 탈취하였다.

이때 중대는 나高地에 2개 분대를, 그 西南쪽 稜線상에 1개 분대를 각각 殘置하여 경계 陣地를 확보케 하였다.

그런데 21.40부터 砲擊이 漸次로 熾盛하여져 高地一帶에 狂風을 휘몰아치더니, 22.10에는 砲擊間에 미리 東쪽의 溪谷과 西쪽의 灌地線을 따라 侵襲한 것으로 보이는 1개 대대규모가 高地正面과 東北쪽 稜線으로 밀려 들었고 뒤이어 2개 중대규모는 加莫洞西南쪽 稜線을 따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대대는 즉각 指向된 砲兵의 彈幕사격下에 全火力을 集中하여 그들을 十字砲火속에 몰아넣고 强打하기 시작하니 그 主力은 衝力이 줄어지는듯 하였으나 無慈悲한 奮戰下에 火綫을 벗어난 一團의 무리는 세갈래 稜線에 陣地를 확보한 제9중대正面과 그 西側方으로 달려 돌면서 手榴탄의 集中投擲에 이어 多發銃의 連發사격으로 제1소대의 散兵團一角을 돌파하고 陣內로 밀려 들었다.

이에 소대는 突破口를 閉塞하면서 主力의 後續을 차단하는 한편 소대장 趙炳基 소위가 지휘하는 예비분대가 突進하면서 手榴탄을 퍼붓고 白兵의 格鬪를 벌이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제11중대의 예비인 제1소대가 急進 가세하자 醜敵은 순식간에 剔抉되고 말았으며 後

續하던 主力은 陣內사격을 彷彿케 하는 집중포격으로 더 以上 支撐치 못하고 東北쪽 稜線과 中芳坪으로 潰退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때 나高地와 西南쪽 稜線에서 경계陣地를 확보하였던 제9중대 1개소대는 撤收할 겨를도없이 孤立된 情況下에서 수류탄과 銃劍으로 血戰을 거듭하였으나 겹겹히 들러친 포위망을 헤치지 못하고 全員이 壯烈하게 玉碎하고 말았다.

이날 대대는 陣內外에서 敵屍 156具를 확인하였으나 57명이 戰死하고 78명이 戰傷을 입는 損失을 보았다.

2. 제19연대의 一部陣地交代

제19연대(장, 金漢柱 대령)는 이날 사단 作命 제24호에 의거하여 05.00부터 21.00까지에 걸쳐 驪岩山—鷄岩에 이르는 제3, 제1 兩대대의 戰鬪正面을 제2연대에 引繼하고 제3대대(장, 柳承源 중령)를 現位置에서 同연대에 배속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사단 中央—線으로써 제2대대(장, 鄭在甲 중령)를 右제1선, 제1대대(장, 陸璋均 중령)를 左제1선으로 하여 鷄岩—泗川里에 이르는 戰鬪正面을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즉 제2대대는 전루지경선의 변경에 따라 연대 右제1선대대가 되어 淵巨里北쪽의 鷄岩一帶에 主陣地를, △394—마高地에 戰鬪前哨陣地를 각각 확보하고 左右 隣接대대의 陣地交代를 掩護하였다.

그런데 22.30에 1개 소대규모의 敵이 마高地로 潛侵하였으나 北쪽 滙地線까지 推進潛伏중이던 제5중대 제1소대에 捕捉되어 15분간에 걸친 사격전끝에 梧里洞으로 潰走하였다.

이때 제1대대는 △442—帶의 戰鬪正面을 21.00附로 제2연대 제3대대(장, 梁炳煥 중령)에 引繼하고 연대 左제1선으로써 제3중대(장, 金基鍊 중위)가 佳鶴里北쪽의 바高地에 主陣地를, 제2중대(장, 權東銖 대위)가 △407에 前進陣地를 각각 占領하였으며 제1중대(장, 李在燁 대위)는 예비로써 佳鶴里에 控置하였다.

3. 美 제8군의 措置

7월 10일 밤부터 계속된 敵의 공격이 兇勃하게 驪岩山正面의 戰鬪前哨陣地인 가高地로 集中되고 熾盛한 砲擊이 軍단 全正面을 덮기에 이르자 이것을 敵의 뚜렷한 攻勢의 企圖로 본 美 제8군은 中共 제67군 主力과 對峙하는 사단의 防禦태세를 強化하는 一方 좀 더 有機的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措置하였다.

① 美 제8군에 비인 제11사단의 1개연대를 제2군단에 배속한다.

② 同연대로 하여금 7.14.06.00까지 제6사단 左—線연대의 金城川 以西의 戰鬪正面을 引受케 하고 7.15.06.00附로 제2군단과 美 제9군단의 戰鬪地境線을 九龍里—灰古介—月峰山線으로부터 金城—星後里—開野里—後洞線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該연대의 작전지휘권을 美 제9군단 右翼인 수도사단에 移讓한다.

③ 제6사단의 담당正面을 金城川以東—驪岩山으로 좁히고 被交代부대를 예비대로 轉用

포록 하여 防禦태세를 강화케 한다.

이에 따라 제11사단 제9연대(장, 金永夏 대령)가 7월 12일 06.00附로 군단에 배속되기에 이르자 군단장 丁一權 중장은 作命 제4호로써 該연대를 7월 13일 06.00附로 사단에 배속하기에 이르렀다.

7월 13일 : (攻勢 移轉)

이날 사단장 白仁燁 소장은 군단 作命 제4호에 의거하여 제11사단 제9연대(장, 金永夏 대령)가 進出하자 美 제8군 및 군단의 작전계획에 따라 要旨 다음과 같은 作命 제25호를 하달하였다.

- 『① 사단은 左一線연대의 一部戰鬪正面을 배속된 제11사단 제9연대에 引繼하고 예비대를 보유하여 次期作戰에 대비하려 한다.
- ② 7월 15일 06.00附로 美 제9군단과의 戰鬪地境線은 金城—星後里—開野里—後洞線으로 변경된다.
- ③ 제7연대는
- ㉠ 左제1선대대의 戰鬪正面 및 예비대대의 作戰任務를 7월 14일 06.00附로 제9연대에 引繼하라.
- ㉡ 右제1선대대의 戰鬪正面은 계속 담당하라.
- ㉢ 交代完了한 2개대대는 7월 14일 10.00까지 竹垆里에 集結하여 次後 명령을 待機하라.
- ④ 제2, 제19 兩연대는 현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 ⑤ 제9연대는
- ㉠ 7월 13일 06.00附로 사단 지휘하에 든다.
- ㉡ 7월 14일 06.00까지 제7연대의 左제1선대대 및 예비대대의 作戰任務를 引受하라.
- ㉢ 제11사단 重砲중대는 7월 14일 06.00附로 美 제461重砲대대 C중대의 任務를 引受하라.』

그런데 21.30부터 시작된 熾烈한 포격에 뒤이어 22.00를 前後하여 개시된 敵의 攻勢가 제5사단(장, 金鍾甲 소장)을 除外한 全軍단正面으로 擴大하고 23.00에는 이미 左隣接인 수도사단(장, 崔昌彦 준장)의 進出이 漸次로 惡化하기에 이르자 側方露出을 憂慮한 사단장은 西側背를 防護하면서 左一線을 보강코자 제9연대에 즉각적인 陣地 진입을 명령하였다.

1. 제2연대의 상황

이날 제2연대(장, 高白圭 대령)는 배속중인 제19연대 제3대대(장, 柳承源 중령)의 작전 임무를 인수하고 제2대대(장, 金斗逸 중령)로 하여금 加高地—加莫洞으로 戰鬪前哨陣地를 擴大케 하였다.

그러나 가高地공격을 위한 基點을 喪失한 敵은 加莫洞을 확보한 제7중대(장, 安昌振 대위)를 계속 強壓함으로써 18.10에는 商山里로 물러섰으며, 제2대대主力은 가高地를 중심으로 戰鬪前哨陣地를 再編하였다.

그런데 21.30부터 계속된 敵의 포격은 연대 全正面에 波及하고 22.00부터 가高地를 비롯하여 主抵抗線까지 공격을 지향하게 되었으나 다만 가高地를 제외한 다른 正面에 대한 공격은 探索戰인듯 그 규모가 微弱하였으나 子正무렵부터 漸次로 強力化하는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가) 제2대대의 상황

대대장 金斗逸 중령은 가高地의 제19연대 제3대대가 陣內로 侵襲한 敵을 일단 擊退하자 계획대로 가高地—加莫洞으로 戰鬪前哨陣地를 推進키로 하고 제6, 제7 兩중대에 이를 담당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6중대(장, 金致洙 대위)는 01.40에 驕岩山을 출발, 03.10에 가高地를 진출하였으며, 제7중대(장, 安昌振 대위)는 02.00에 淵巨里를 출발하여 03.00에는 散發的인 저항을 피하는 2개 분대규모의 敵을 一舉에 擊滅하고 加莫洞으로 진격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제6, 제7 兩중대로 하여금 東北쪽의 稜線에서 挑戰을 계속하는 一部の 敵을 剔抉케 하고 05.00에는 제19연대 제3대대로부터 戰鬪前哨陣地를 引受하여 제5중대(장, 金鍾珪 대위)를 가高地에, 제6중대를 세갈래稜線에, 그리고 제7중대를 加莫洞에 각각 전개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散開基點으로 삼고 있던 加莫洞의 稜線一帶를 확보하자 이를 눈위의 혹처럼 여긴 敵은 07.10부터 砲火力을 여기에 집중하더니 煙幕遮障下에 中芳坪南쪽의 開豁地를 窺見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제7중대는 즉각 誘導된 포병의 掩護사격과 제6중대의 側方支援下에 화력을 집중하여 꼬리에 꼬리를 무는 波狀공격을 그때마다 물리쳤으나 17.50에는 1개 대대규모로 증강된 그들의 포위망속에 陷入하기에 이르렀다. 掩護마저 마련할 겨를도 없이 危機를 맞은 중대는 陣內사격의 支援도 받지 못한채 苦戰하였는데, 이때 큰 損失을 우려한 연대장의 決斷으로 대대장은 중대에 離脫을 명령하였다.

중대는 제6중대의 엄호하에 세갈래稜線으로 물러서서 主力과 合勢코자 紛戰하였으나 이를 遮斷코자 壓迫하는 敵勢에 밀려 18.10에는 수류탄과 銃劍으로 血路를 開拓하면서 南쪽으로 離脫, 21.00에 商山里에서 再編成에 着手하였다.

한편 加莫洞을 強占한 1개 대대규모의 敵이 세갈래稜線을 확보한 제6중대와 熾烈한 사격전을 벌이면서 그 一部가 공격을 계속하자 地形的조건으로 加莫洞을 掌握치 않는 限, 세갈래稜線을 계속 확보키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대대장 金斗逸 중령은 戰鬪前哨陣地의 再編成을 명령 하였다.

이리하여 제6중대(장, 金敎洙 대위)는 포병의 집중엄호하에 高地로 逐次 물러서고 제5중대는 그 東南쪽 稜線上의 戰鬪前哨陣地를 확보하였다.

이때 중대를 追尾한 1개중대가 박격포의 支援下에 陣前으로 迫近하였으나 즉각 지향된 포병의 彈幕사격으로 그 衝勢가 互解된채 潰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대대장은 그들의 공격基點을 분쇄코자 加莫洞에 TOT사격을 요청하였다.

이윽고 地軸을 뒤흔드는 爆音과 함께 수백발의 砲彈이 一時에 炸裂하기에 이르니 밋밋한 稜線에서 불벼락을 맞게된 그들은 潰滅상태에 빠짐으로써 대대는 側方威脅을 一掃 排除하게 되었다.

그런데 21.30에 이르자 熾烈한 포격이 高地一帶로 集中하더니 22.20에는 砲擊間에 東北쪽 稜線을 타고 急進한 것으로 보이는 1개 대대규모가 제6중대正面으로 急襲하였다.

중대는 즉각 轉換된 포병의 彈幕사격아래 陣頭에서 怒號하는 중대장 金敎洙 대위를 中心으로 一進一退의 紛戰을 거듭하였으나 계속 달려드는 敵勢에 밀려 頂上附近으로 물러서기 시작하였다.

現況에서는 敵을 驅逐키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중대장은 待避를 號令하면서 陣內사격을 緊急히 요청하였다.

제96포병대대(장, 朴榮濟 중령)와 美 제300白走砲兵대대가 사격을 指向하기에 이르니 敵은 鐵火속에 밀리는 바 되어 一時에 退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때에 1개대대규모의 새로운 무리가 또 다시 東北쪽 稜線으로 올라붙고 2개 중대규모가 加莫洞으로 侵襲하여 西側方으로 侵攻하기 시작하였음이 照明彈의 光芒속에 捕捉되었으므로 즉각 유도된 포병의 遮斷사격이 兩쪽 稜線一帶를 強打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중대는 陣地를 恢復하는 즉시로 제5중대와 협동하여 決戰태세를 갖추었다.

나) 제1대대의 상황

제1대대(장, 金世暉 중령)는 전날의 部署를 계속 維持하고 要衝인 轎岩山을 확보하였는데, 이날도 계속된 敵의 공격을 제19연대 제3대대와 交代한 제2대대(장, 金斗逸 중령)主力이 高地에서 力戰奮鬪끝에 이를 阻止함으로써 小康상태를 維持하였다.

그런데 21.30부터 熾盛한 砲擊이 계속되어 大部分의 散兵壕와 交通壕가 파괴되고 有線網이 杜絶되자 이를 그들의 공격준비 사격으로 判斷한 대대장의 명령으로 즉각 戰鬪태세에 突入하였는데, 22.30에 加莫洞溪谷으로 迂回한 것으로 보여지는 2개 중대규모가 西北쪽 稜線에 潛伏한 제3중대 제1소대에 捕捉되어 熾烈한 사격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數的으로 우세한 그들이 소대를 포위하자 중대장 洪在應 대위는 이를 陣前에서 擊滅키로 하고 該敵과의 접촉을 維持하면서 離脫토록 號令하였다.

이때 소대는 迫擊砲의 掩護下에 물러서기 시작하였는데, 그들은 侵勢를 늦추지 않은채 소대를 急迫하였다.

중대는 때마침 附近一帶를 밝히는 照明支援 아래 一齊히 사격을 집중하면서 포병의 彈幕 사격을 要請하였다.

순식간에 火網에 휩싸인 그들은 그 先頭로부터 차츰 자취를 감추었으나 二波, 三波가 또 火網을 뚫고 侵襲을 계속하여 23.30에는 陣前 30m까지 近迫하면서, 수류탄을 集中投擲하고 제2소대의 正面을 돌파코자 하였다.

이에 중대는 수류탄을 마주던져 敵線에 混亂이 이는 刹那에 陣前으로 出擊하면서 左衝右突의 白兵戰을 벌이기에 이르니 敵은 그 衝勢가 꺾이면서 陣前에서 물러서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子正무렵에는 右隣接인 제8사단地域으로 迂回한 敵이 驍岩山北쪽 稜線으로 올라 붙으면서 侵襲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대장 金世敞 중령은 砲兵의 TOT사격을 요청하는 한편 頂上을 확보한 제1중대의 1개소대를 抽出하여 제2, 제3 兩중대의 間隙으로 진출시켜 正面을 補強하였다.

다) 제3대대의 상황

제3대대(장, 梁炳煥 중령)는 전날 제19연대 제1대대의 陣地를 인수하여 제11중대(장, 申相祺 대위)를 右제1선, 제9중대(장, 林錫淳 대위)를 左제1선으로 하여 △442—帶에 主陣地를 확보하고 제1대대와 連繫를 維持하였으며, 제10중대(장, 宋奇藩 대위)는 예비로서 驍岩山 西南쪽 稜線에 控置하였다.

23.00에는 芳坪里에 推進한 제9중대 제2소대가 加奕洞계곡으로 潛侵하는 2개 소대규모의 敵을 捕捉하고 81mm迫擊砲를 支援下에 15분간에 걸쳐 사격전을 벌인 끝에 이를 격퇴 하였다.

그런데 23.50에는 제19연대의 △394를 突破한 1개 중대규모가 芳坪里西쪽으로 迂回하여 △442西北쪽 稜線으로 올라 붙으면서 主陣地를 奇襲하였으나 즉각 指向된 野砲와 迫擊砲의 集中支援下에 火力를 집중하고 수류탄을 퍼부어 이를 擊退하였다.

라) 제19연대 제3대대(配屬)의 상황

제3대대(장, 柳承源 중령)는 전날 05.00에 담당 戰鬪正面을 제2연대에 引繼함과 동시에 同연대에 배속되어 高地의 戰鬪前哨陣地를 계속 확보하여, 거듭되는 敵의 侵襲을 격퇴 하였는데, 이날 05.00에는 제2연대 제2대대(장, 金斗逸 중령)에 前哨陣地를 引繼한 다음 商山里로 集結하였다.

그런데 사단예비를 保有하지 못한 脆弱點을 考慮한 사단장의 명령으로 21.00에는 現位置에서 제2연대로부터 배속解除와 동시에 사단예비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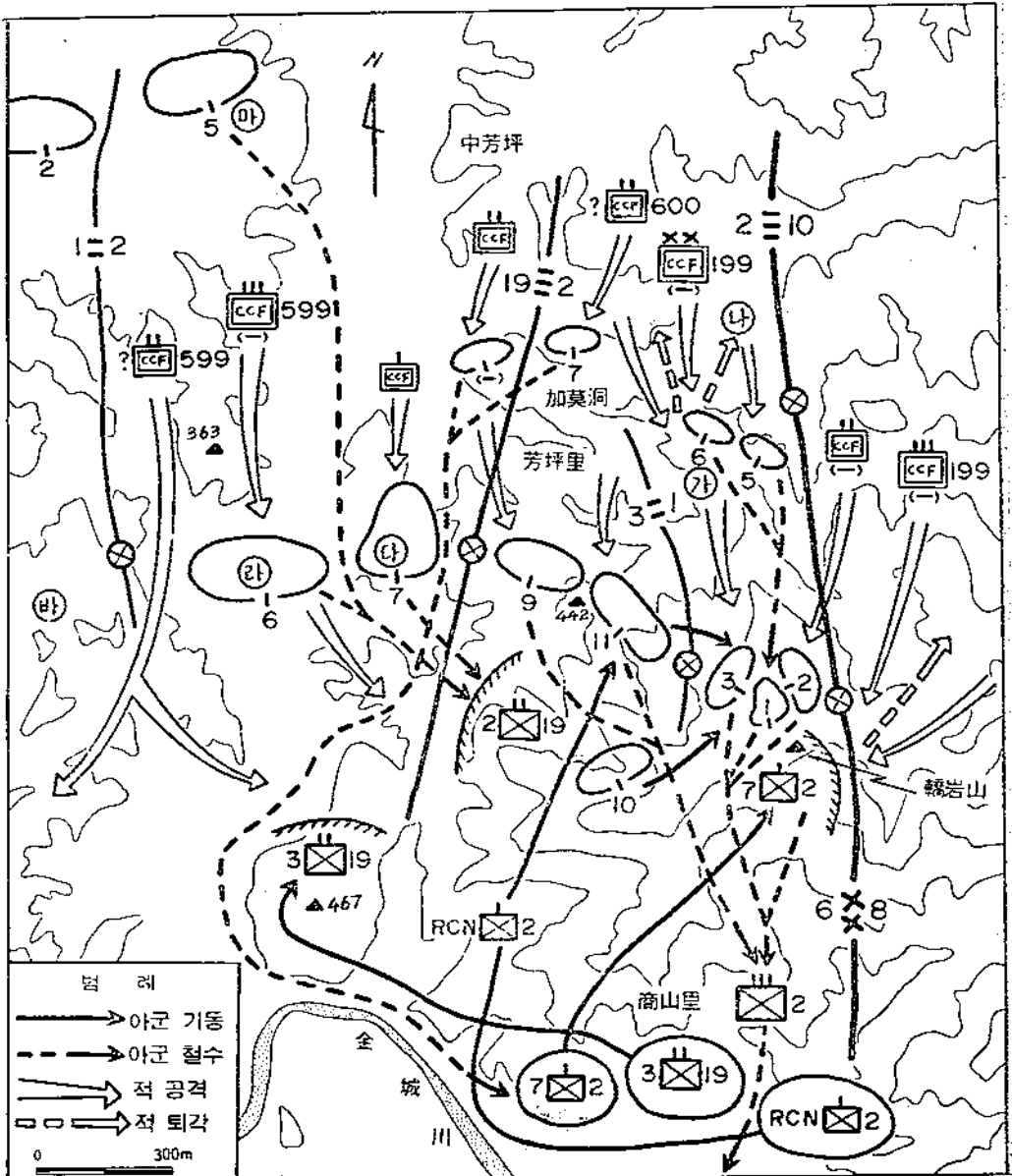
2. 제19연대의 상황

제19연대(장, 金漢柱 대령)正面에서는 21.30부터 集中砲擊이 陣地一帶를 뒤덮고 狂風을 휘몰아 치기에 이르자 연대장은 예측되는 公세가 드디어 恣行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포병

의 遮斷사격과 照明支援을 요청하는 한편 각대대는 즉각 戰鬥태세에 돌입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2대대(장, 鄭在甲 중령)는 전날에 이어 제7중대(장, 趙弘濟 대위)를 右제1선, 제6중대(장, 車鳳竹 대위)를 左제1선으로 하여 鷄岩一帶의 主陣地를 확보하고 제7중대의 1개소대와 대대 수색대로써 △394에 제5중대(장, 崔德明 대위)로써 마高地에, 각각 前哨陣地를 확보케 하여 戰鬥태세를 갖추었다. 그런데 22.20에 이르자 砲擊間에 미리 潛侵한 것으로 보여지는 1개 소대규모가 제5중대의 東側方을 목표로 急襲하였다.

◇ 上항도 제57호 鷄岩山 부근 戰鬪其二(7.13~14)



중대는 즉각 指向된 60mm迫擊砲의 照明下에 敵影을 捕捉하는 즉시로 사격을 集中하여 이를 격퇴하였으나 이때 △364(梧里洞 南쪽)로부터 기관총과 直射砲를 퍼부어 陣地를 攪亂하더니 急進한 1개 중대규모가 北쪽 稜線으로 올라 붙으면서 陣前으로 殺到하였다.

그러나 제7포병대대(장, 姜岐祥 소령)가 즉각 梧里洞一帶의 敵火를 제압하는 一方 VT彈으로 彈幕사격을 퍼붓는 가운데 全火力으로 最後阻止사격을 敢行하자 火網에 휩싸인 그들은 더 以上 支撐하지 못하고 青色 信號彈으로 掩護사격을 誘導하면서 △364로 潰走하고 말았다.

한편 △394에 戰鬪前哨陣地를 확보한 제7중대 제3소대와 대대 수색대는 22.30부터 侵攻하기 시작한 1개 중대규모를 포병의 掩護사격下에 近接戰을 벌려 一旦 격퇴하였으나 계속 增強되는 波狀공격에 밀려 陣內사격의 보람도 없이 23.20부터 離脫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제1대대(장, 陸璋均 중령)는 제3중대(장, 金基鍊 중위)를 佳鶴里北쪽의 바高地에 主陣地를, 제2중대(장, 權東銖 대위)를 △407에 戰鬪前哨陣地를 각각 占領케 하였으며 제1중대(장, 李在燁 대위)는 대대예비로서 佳鶴里에 控置하고 戰鬪태세에 突入하였다.

그런데 戰鬪正面이 狹少하고 포병의 遮斷사격이 奏効하였음인지 別다른 侵襲을 받지 않은채 子正을 맞이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제3대대(장, 柳承源 중령)는 이날 05.00附로 高地의 戰鬪前哨陣地에서 撤收하여 21.00에는 사단예비가 되어 商山里에서 집결중에 있었다.

3. 제7연대의 상황

제7연대장 韓官興 대령은 사단 作命 제25호에 의거하여, 左제1선을 담당한 제2대대(장, 蘇炳烈 소령)와 예비인 제3대대(장, 南白奉 중령)로 하여금 제11사단 제9연대(장, 金永夏 대령)에 그 陣地를 인계할 준비에 着手케 하였으나 이미 敵의 포격이 集中돼 그들의 공격이 곧 있을 것으로 判斷한 결과 交代준비를 중지케 하는 동시에 그자리에서 戰鬪태세에 突入토록 號令하였다.

가) 제1대대의 상황

제1대대(장, 閔邦穆 중령)는 제3중대(장, 金永泰 대위)를 右제1선에 제1중대(장, 金昌傑 대위)를 左제1선에 내세우고 金城川 東岸인 泗川里와 西岸인 △374北쪽 稜線一帶에 主陣地를 확보하고 제2중대(장, 朴寬珣 대위)를 △418로 推進하여 戰鬪前哨陣地를 占領케 하였는데, 대대正面의 左半部는 滿水期에 접어든 金城川이 天然의 障礙物이 되어 防守의 利를 주었으나 右半部의 俗稱 치마고개一帶의 西北쪽으로 뻗은 네갈래의 稜線과 △418一帶는 敵의 良好한 接近路가 될 脆弱性을 안고 있었다.

이에 대대장 閔邦穆 중령은 제2, 제3 兩중대에서 5개의 境界組를 抽出케 하여 境界를 강화하였는데 金城東南쪽 一帶의 閑豁地에 대한 차단사격이 奏効하였음인지 敵侵을 받지 않은채 子正을 맞이하기에 이르렀다.

나) 제2대대의 상황

제2대대(장, 蘇炳烈 소령)는 배속된 제11중대(장, 金成涉 대위)를 右제1선에 제7중대(장, 文元植 대위)를 中央제1선에 그리고 제5중대(장, 崔相重 대위)를 左제1선으로 하여 烽火洞에서 △475에 이르는 一帶에 主陣地를 확보하고 제6중대(장, 李日來 중위)를 後川리에 제5중대 제2소대를 △424에 대대 수색대를 아高地에 각각 推進하여 戰鬪前哨陣地를 점령케 하여 金城西南쪽의 開豁地를 廠制토록 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06.00附로 제9연대에 陣地를 인계하게 됨에 따라 병사들은 그 준비에 着手하고 있었는데, 21.30에 敵의 포격이 집중하자 대대장의 緊急 명령으로 즉각 戰鬪태세에 突入하였다.

이윽고 左隣接인 수도사단 제1연대(장, 崔世寅 대령)正面에서 밤空氣를 짙는듯한 砲銃聲이 일어나고 曳光彈이 밤하늘을 수 놓으면서 激戰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듯 하였는데, 이때 1개 중대규모의 敵이 아高地를 확보한 대대 수색대正面을 急襲하였다.

이에 대대장 蘇炳烈 소령은 즉각 81mm迫擊砲의 照明彈을 발사케 하면서 제27포병대대(장, 梁贊鉉 대위)와 重迫擊砲의 遮斷사격을 要請하고 수색대의 敵鬪를 奮勵하였다.

그리하여 즉각 指向된 砲擊이 아高地一帶를 불길로 뒤덮으니 敵勢는 주춤하는듯 하였으나 奮戰의 信號彈이 前後左右로 날리기 시작하자 그들은 迂回하면서 退路를 遮斷하고 그 一部는 正面으로 달려 들었다.

수색대는 正面을 좁혀 頂上附近에 據點을 확보한 다음 2사격을 집중하는 一方 수류탄을 集中投擲하면서 奮戰하였으나 그들은 포위망을 계속 壓縮함으로써 壕도 제대로 마련치 못한 불리한 지형에서 危機를 맞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戰況의 推移를 注視하던 대대장은 즉각 離脫하여 △424의 제5중대 제2소대와 合勢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수색대는 수류탄의 集中投擲에 이어 銃劍으로 달려드는 胡虜를 擊殺하면서 血路를 뚫고 △424로 물러섰다.

敵은 계속 수색대를 追尾하여 △424를 三面으로 포위한채로 달려들기 시작하였으며 새로운 1개 중대규모는 西北쪽의 開豁地를 橫斷하면서 侵攻하기 시작하였으나 戰鬪前哨陣地에서의 撤收는 擊의 侵入을 誘導하는 격이 되고만 것이다. 이때에 수색대의 離脫을 掩護하는 제5중대 제2소대는 △424頂上附近에 橢圓型陣地를 占領하고 3정의 기관총과 2문의 3.5" rocket砲를 主軸으로 한 全火力을 集中하는 一方 수류탄과 銃劍으로 紛戰을 거듭하였다.

한편 야포와 중박격포가 彈幕사격으로 轉換되기에 이르니 敵線은 순식간에 火焰과 硝煙속으로 휘말려 버려 그 衡勢가 一時나마 풀어지는듯 하였으나 開豁地를 橫斷한 敵이 이에 加勢하자 銳氣를 되찾는듯 火망을 헤치면서 방망이 수류탄의 爆陷과 같이 殺到하였다.

소대와 대대 수색대는 速射와 수류탄으로 이에 抵抗하였으나 그들은 侵勢를 늦추지 않은채 陣地의 一角을 돌파하였다.

이에 소대장 宋錫基 소위는 이 敵을 一擊코자 陣內사격을 緊急히 요청하면서 洞窟로의 待避를 號令하였다. 이리하여 즉각 指向된 砲兵VI彈의 陣內사격으로 露出된 地形에서 決定的인 打擊을 받은 그들은 마침내 潰散하였으나 이때 또다시 2개 중대규모가 九龍里南쪽 開豁地를 踰越하면서 近迫하고 있었다.

이때 陣前에는 이미 120具의 敵屍가 널려있었는데 이무렵 수도사단 제1연대의 主抵抗線이 부너지면서 Iceland線으로 물러서기에 이르자 제27포병대대와 제96포병대대의 B포대 그리고 美 제461重砲대대의 C중대는 九龍里에서 灰古介에 이르는 溪谷一帶를 불길로 뒤덮었으나 主抵抗線上에서는 그대로 戰勢를 유지하면서 子正을 맞이하기에 이르렀다.

다) 제3대대의 상황

제3대대(장, 南白奉 중령)는 연대예비로서 제11중대(장, 金成涉 대위)를 제2대대에 배속하고 제10중대(장, 金潤生 대위)를 烽火山(△477)에 제9중대(장, 金星珍 대위)를 △475에 각각 配備하여 제2대대에 대한 近接支援태세를 갖추었다.

그런데 左隣接인 수도사단 제1연대의 主抵抗線이 돌파되고 子正부렵에는 Iceland線으로 물러서기 시작하여 西側方이 露出되기에 이르자 緊急히 示달된 연대장의 명령으로 제9, 제10 兩중대는 △475西斜面으로 急進하여 이곳을 점령하고 熾烈한 砲兵支援下에 溪谷을 制壓하면서 西側背를 엄호하게 되었다.

4. 제11사단 제9연대의 戰線進入

제9연대(장, 金永夏 대령)는 原川里(華川)로부터 斗石洞으로 進出과 동시에 사단에 배속되었는데, 사단 作命 제25호에 의거하여 10.00에는 梨南里로 躍進한 다음 제7연대의 左 제1선대대와 예비대대의 陣地를 다음날 06.00附로 인수코자 그 준비에 着手하였다.

그런데 22.00부터 敵의 主攻이 지향된 수도사단의 右一線인 제1연대의 主抵抗線이 두너지기 시작하여 側方露出의 威脅을 받게되자 사단장 白仁燦 소장은 연대 主力으로써 側方을 防護하고 1개대대는 主陣地로 진입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연대장 金永夏 대령은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 『① 연대는 7월 14일 06.00附로 제6사단 제7연대의 戰鬪正面의 一部를 담당하려 한다.
- ② 제2대대는 제7연대 제3대대의 主陣地와 戰鬪前哨陣地를 인수하라.
- ③ 제3대대는 제7연대 제3대대의 陣地를 引受하고 主陣地의 側後方을 掩護하라.
- ④ 제1대대는 先發隊로서 河古介一帶를 점령하고 主力의 進出을 掩護하면서 西側方을 防護하라.
- ⑤ 제27포병대대 및 제11사단 重砲중대가 연대를 직접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대는 23.00에 제1대대(장, 元容五 중령)를 先發隊로 하여 雨注하는 포탄속

을 뚫고 進出하기 시작하였다.

7월 14일 : (Missouri線의 撤收와 Wyoming線進入)

1. 사단장의 措置

이날 수도사단(장, 崔昌彦 준장)과 제3사단(장, 林善河 소장)이 그 主抵抗線에서 撤收함으로써 東西兩側方이 露出되고 제8, 제6 兩사단에 대한 敵의 侵襲가 漸次로 加重하기에 이르자 군단장 丁一權 중장은 金城川南岸에서 敵을 阻止하다가 반격태세를 갖추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서 사단장 白仁燁 소장은 이미 제9연대(장, 金永夏 대령)에 작전임무를 인계한 제7연대 主力과 제9연대의 一部兵力으로 金城川南岸의 △371—△476—△729—△547—斗石洞—下榛峴을 連하는 Iceland線에 阻止障地를 확보케 하는 가운데 主力을 Missouri線에서 逐次로 撤收시켜 반격태세를 갖추기로 하고 06.30에 作命 제27호를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敵은 제3사단 및 수도사단正面을 돌파하고 있다.

② 군단은 現 Missouri線에서 撤收한 다음, 새로운 阻止障地를 점령하면서 反擊을 敢行하려 한다.

③ 사단은 군단方針에 따라 새로운 阻止障地를 占領하면서 好機를 捕捉하여 반격하려 한다.

④ 제2연대는

㉞ 7월 14일 15.00을 期하여 Missouri線에서 撤收를 개시하고, 19.00까지 注坡里에 집결한 다음 反擊태세를 갖추라.

㉟ 연대계획에 의거 現接觸線에서 逐次的으로 撤收하여 제1집결지인 蘆洞里에서 再編하는 즉시로 제2집결지인 注坡里로 이동하라.

㊱ 撤收경로는 商山里—陵洞—瑞雲里—蘆洞里—楸洞—注坡里에 이르는 제17번 作戰道路이다.

⑤ 제19연대는

㉞ 7월 14일 15.30을 期하여 Missouri線에서 撤收를 개시하여 19.30까지 注坡里로 이동하는 즉시로 反擊태세를 갖추라.

㉟ 연대계획에 의거 逐次的인 撤收를 斷行하여 蘆洞里에서 再編하고 注坡里로 移動하라.

㊱ 撤收경로는 △467(淵巨里南쪽 1.3km)南쪽에서 金城川을 渡河, 竹洞—瑞雲里—蘆洞里—楸洞—注坡里에 이르는 제17번 作戰道路이다.

⑥ 제7연대는

㉞ 7월 14일 15.30에 主抵抗線을 담당한 대대를 撤收케 하여 蘆洞里에 集결시키라.

- ④ 撤收경로는 佳鶴里 西南쪽에서 金城川을 渡河한 다음 梨船洞—蘆洞里를 連하는 線이다.
- ⑤ 제9연대에 作戰任務를 引繼한 主力은 7월 14일 15.00까지 △371—△476—△629—△729—△547를 連한 線에 阻止陣地를 占領하고 사단主力의 撤收를 掩護하라.
- ⑦ 제9연대는 7월 14일 15.00를 期하여 主抵抗線에서 병력을 撤收시키되 一部兵力으로 15.00까지 △547—斗石洞—下榛峴에 이르는 阻止陣地를 占領케하라.
- ⑧ 제20포병단장은 7월 14일 15.00부터 自隊제퇴에 의거 逐次撤收하면서 主力의 撤收를 엄호하되 18.00까지 注坡里에 放列完了하라.
- ⑨ 사단 공병대대는
- ① 7월 14일 15.00까지 陵洞—△371(竹洞西 南쪽)—瑞靈里에 각각 1개 중대를 配置하여 제17번 作戰路를 확보하면서 사단 主力의 撤收를 掩護하라.
- ② 1개 중대로써 각 연대의 渡河點을 확보케하여 撤收를 지원하고 撤收完了즉시로 橋梁을 파괴하되 그 時機의 決定은 대대장이 專決한다.
- ⑩ 헌병중대는 7월 14일 15.00까지 각연대의 渡河點을 비롯하여 竹洞의 交叉路 및 사단 集結地 進入路에 交通統制所를 設置하여 撤收부대를 誘導하고 交通을 統制하라.
- ⑪ 協調指示
- ① 각연대는 일부로써 측차 接敵을 유지하면서 敵을 欺瞞하고 그 跟隨를 遲延시키라
- ② 相互支援에 힘쓰라.
- ③ 余는 蘆洞里—注坡里—道路上에 位置하여 全의事項을 統制하되 사단 CP는 7월 14일 17.00以後 四方巨里에 開設한다.
- ④ 通信은 現行 SOI에 의거한다.』

그런데 사단中央—線인 제19연대(장, 金漢柱 대령)의 主抵抗線一部가 07.30에 突破되기에 이르자 사단장은 사단에비로 확보한 同연대의 제3대대(장, 柳承源 중령)를 急進시켜 이를 閉塞케 하는 한편 사단 수색중대(장, 黃元燮 대위)를 高山里로 急遽進出케 하여 轆岩山南側을 掩護하면서 渡河點을 확보토록 하였다.

그러나 수도사단의 계속적인 撤收로 露出된 西側方에 대한 威脅이 증대하는 가운데 突破口가 漸次로 擴大되고 右隣接인 제8사단장과의 間隙으로 侵攻한 敵이 轆岩山을 包圍하면서 後方遮斷을 劃策하기에 이르자, 11.00에는 앞서 하달한 作命 제27호의 일부를 수정하여 앞당겨 施行토록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사단主力은 阻止부대가 미처 陣地를 점령하기도 前에 撤收를 開始하여 蘆洞里에서 제7연대의 掩護下에 병력을 收拾하고 16.50에는 注坡里에 집결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示達된 軍단제퇴(作指 제64호로 後達)에 의거하여 사단장은 Wyoming線上에 阻止陣地를 占領키로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作命 제29호를 下달하였다.

『① 사단은 Wyoming線陣地를 占領하고 7월 15일 18.00를 期하여 제11사단에 작전임무를 인계하려 한다.

② 제2연대는 右一線으로써 注坡嶺—長鼓峰—△683에 이르는 阻止陣地를 점령 확보하라.

③ 제19연대는 左一線으로써 △683—赤根山—△926에 이르는 陣地를 점령하라.

④ 제7연대는 現阻止陣地에서 撤收하여 楸洞一帶에 새로운 阻止陣地를 점령하고 제17번道路를 확보하라.

⑤ 제9연대는 榛峴里一帶에 阻止陣地를 占領하여 敵侵을 阻止하라.

但 原隊復歸는 別命한다.

⑤ 제20포병단은 撤退間의 幟호에 任하라.』

2. 제2연대의 상황

제2연대(장, 高白圭, 대령)는 中共 제199사단(장, 齊武)主力의 공격을 받았으나 포병의 集中支援과 高地에 戰鬥前哨陣地를 확보한 제2대대(-)의 捷絶한 勇戰으로 이를 遲延시켰다.

그러나 이날 未明에 右隣接한 제8사단 제10연대(장, 李寬植, 대령)의 △765一帶의 主抵抗線이 무너지면서 그 間隙으로 侵襲한 병력과 高地一部를 突破한 兵力으로 말미암아 격전하게 되었는데 이때 사단 中央一線인 제19연대의 主抵抗線마저 무너지므로써 10.50에는 포위망속에 陷入된채 苦戰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陣況의 推移를 注視하던 연대장은 퇴로의 차단과 混亂을 우려하고 연대의 撤收를 緊急히 建議한 결과 사단장 白仁燁 소장은 作命 제27호의 15.00를 11.00로 앞당겨 施行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急迫한 戰況으로 미루어 보아 제3대대의 幟호하에 제1대대로부터 撤收시켜 그 南쪽의 △602를 확보하는 즉시로 제3대대를 收容키로 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緊急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제7연대의 幟호하에 11.20을 期하여 現接觸線에서 撤收, 蘆洞里에서 兵力을 收拾하고 注坡里로 이동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11.20에 接觸線을 離脫하여 △602를 점령하는 즉시로 제3대대를 收容하라.

③ 제2대대(-)는 제1대대를 後繼하라.

④ 제3대대는 제1대대의 撤收를 幟호하고, 제1대대가 △602를 확보하는 즉시로 撤收하여 金城川을 건너 陵洞을 확보하고 연대主力의 渡河를 幟호하라.

⑤ 協調指示

㉑ 金城川渡河時까지 각대대는 緊密한 協調를 維持하면서 逐次 撤收하라.

㉒ 撤收路는 商山里—陵洞—瑞雲里—蘆洞里—注坡里이다.

㉓ 金城川渡河後의 撤收優先順位는 제3, 제2, 제1대대로 예정한다.

⑥ 연대 CP는 15.00附로 注坡里에 개설한다.

⑦ 通信은 現行 SOI에 의거한다.』

이리하여 연대는 제1대대(장, 金世暎 중령)가 先頭에서 血路를 開拓하여 △602를 확보하는 즉시로 철수를 엄호하자 遲延戰을 벌리던 제3대대가 撤收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연대는 商山里를 확보한 사단 수색중대(장, 黃元燮 대위)의 掩護下에 蕨洞里로 集結하여 兵力을 收拾하고 16.30에 사단 集結地인 注坡里로 移動하였다.

그런데 이때 군단계획에 의거하여 示達된 사단 作命 제29호에 따라, 22.30에는 또다시 行動을 開始하여 다음날 02.30에 사단 右一線으로서 제1대대를 右제1선, 제3대대(장, 梁炳煥 중령)를 左제1선으로 하여 注坡嶺—長鼓峰—△683에 이르는 Wyoming線上의 阻止陣地를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가) 高地의 戰況

제2대대(장, 金斗逸 중령)는 제5중대(장, 金鍾珪 대위)가 高地東南쪽 稜線에, 제6중대(장, 金敎洙 대위)가 高地에 각각 戰鬪前哨陣地를 확보하고 子正부림부터 계속된 中共 제199사단(장, 齊武)主力의 波狀공격을 맞아, 彈幕사격과 陣內사격을 거듭하는 포병의 有機的인 集中掩護와 探照燈班의 지원하에, 一進一退의 血戰을 거듭하였다.

제5중대는 陣頭에서 怒號하는 중대장 金鍾珪대위를 중심으로 據點을 확보한채 거듭되는 敵의 포위공격을 격퇴하였는데, 04.00에는 SCR-609무전기가 포격으로 파괴되기에 이르자 孤立된 상황아래서 死鬪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06.00에 이르자 敵은 또한차례 포격을 집중하는 가운데 1개 대대규모를 先鋒으로 하여 밀어 닦았다.

중대는 3정의 기관총과 3門의 3.5"rocket砲를 主軸으로 한 全火力을 集中하였으나 胡敵은 피리와 팽파리를 불고 두들기며 火網을 뚫고 계속 殺到함으로 수류탄의 集中投擲으로 이를 阻止코자 하였다. 그러나 이때 1人當 100발씩이나 支給되었던 수류탄이 거의 떨어져 그 威勢가 줄어들자 陣地一角이 무너지면서 또다시 血肉이 飛散하고 鮮血이 山頂을 붉게 물드리는 白兵의 格鬪를 벌였는데 전황은 좀처럼 好轉되지 않았으며 도리어 惡化되지만 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掩蔽로의 待避를 號令하면서 陣內사격을 요청하는 信號彈을 계속 發射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포병사격은 즉각 轉換되지 못함으로써 陣內로 밀어 닦힌 敵은 破壤筒으로 掩蔽를 파괴 하기 시작하였다.

危機를 맞은 중대는 즉각 壕에서 躍出하여 左衝右突의 死鬪를 전개하였으나 계속 밀려드는 敵에게 겹겹이 포위 되면서 死傷者가 續出하였다.

이에 중대장 金鍾珪 대위는 이미 戰況을 挽回키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離脫를 號令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06.30에 高龍辰 소위가 지휘하는 화기소대를 先頭로 銃劍과 개머리板으로 찌르고 치고 때리며 血路를 開拓하면서 제1대대陣地로 撤收하였는데, 이때 뒤따른 병사는 20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때 제6중대는 진흙구덩이가 되어버린 塹壕의 一角에 의지한 채 陣頭에서 怒號하는 중대장 金敎洙 대위를 중심으로 한명어리로 뭉쳐, 子正무렵부터 무려 6회에 걸친 敵의 侵襲을 悽絶한 육박전과 陣內사격으로 물리치고 06.00부터 또다시 시작된 그들 特有的 盲目的인 波狀공격을 맞아 死鬪를 거듭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5중대의 陣地가 蹂躪되기에 이르자 敵線에서 靑色 信號彈이 계속 오르더니 一擧에 蹂躪코자 함인지 증강된 2개 대대규모가 三面으로 표위한채 몰려 들기 시작하였다.

이를 最後의 결정적인 攻勢로 判斷한 중대장 金敎洙 대위는 戰況을 緊急보고하는 한편 全砲兵의 TOT사격을 要講하는 즉시로 散兵壕를 찾아 이제는 그 數가 半으로 줄어든 병사들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격려하였다. 이때 나이 어린 병사들은 웃음을 지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 눈에는 이슬이 반짝였다.

이윽고 轉換된 砲兵의 TOT사격이 敵線을 一時에 強襲하기에 이르니 산이 당장에 무너져 내리는듯 한 轟音속에 火焰과 硝煙으로 뒤덮이고 破片과 岩塊가 飛散하는 가운데 砂塵이 비오듯 하였으나 胡虜들은 二波 三波를 계속 投入하여 煉獄과도 같은 화망속을 벗어나면서 陣前으로 달려 들었다. 陣頭에 선 중대장 金敎洙 대위의 大號一擧에 병사들은 이제는 얼마 남지도 않은 수류탄을 集中投擲하는 즉시로 뛰쳐 일어나면서 近迫하는 敵과 肉迫戰을 벌이기에 이르렀으나 中央이 돌파되면서 狂破는 밀려들기만 하였다.

이때 陣內사격의 威力으로 奪取에 번번이 失敗한 그들은 그 一部가 洞窟로의 進入을 차단하면서 破壞筒으로 掩壕를 파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危急한 상황을 克服할 수 있는 방법은 陣內사격이 있을뿐이라고 判斷한 중대장은 洞窟로의 突進을 號令하면서 SCR-609무전기로 『敵은 掩壕를 파괴하고 있음, 全砲兵의 無差別砲擊을 바랍』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交信이 끝나는 瞬間에 무전기는 계속 집중된 그들 포화에 散散조각이 났으며 이로 말미암아 有無線이 完全히 杜絶되기에 이르렀다.

전황이 極限상황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한 대대장 金斗逸 중령은 全砲兵의 陣內사격을 緊急히 요청하는 한편 무전기를 붙들고 『金대위! 金대위!』하고 絶叫하였으나 아무런 應答이 없었다.

즉각 轉換된 제96포병대대(장, 朴榮濟 중령)와 美 제300自走砲兵대대의 陣內사격이 高地를 強襲한 다음 계속 VT彈으로 射程을 延伸하면서 制壓사격을 집중하기에 이르니 차츰 그 威勢를 잃은 銃聲이 間歇적으로 울리기 시작하였으나 08.00에는 이마져 잦아들면서

조용 하여졌다.

通信의 杜絶로 중대의 전투상황을 헤아릴 길이 없었으나 當時의 大隊長 金斗逸 中령은 이때의 전황에 관하여 뒷날 다음과 같이 述懐하였다.

『며칠 뒤에 高地에서 脫出한 5~6명의 병사가 主力과 合勢하였는데, 이들의 말에 의하면 無電이 杜絶되어 完全孤立된 상황아래 놓이게 된 중대는 敵을 擊破하면서 洞窟로 進入하는데 一瞬 성공하였으나 그 特攻組로 보이는 一團이 비오듯 쏟아지는 砲火속에서도 掩護와 洞窟을 폭파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이곳에서 앉아 죽을수는 없다. 나가 싸우자!」라는 중대장의 號令一下에 중대는 중대장을 先頭로 파괴된 入口를 헤치고 달려 나가면서 수류탄과 銳劍으로 死鬪를 거듭하였으나 중대장 金致洙 대위가 壯烈하게 戰死하기에 이르자 戰列이 흩어지면서 死傷者가 續出하여 不過 10여명만이 남게 되었다.

이제는 全滅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 이들은 수류탄을 集中投擲하는 즉시로 南쪽溪谷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脫出하였는데 5~6명만이 主力과 合勢하였다.』

이처럼 轎岩山방어에 決定的인 役割을 한 故 金致洙대위에게는 뒷날 大極武功勳章이 追叙되었다.

한편 제7중(장, 安昌振 대위)은 敵의 攻勢가 시작되자 명령에 따라서 轎岩山으로 進出, 제1대대에 배속되었는데 右隣接인 제8사단 제10연대(장, 李寬植 대령)의 △765가 突破되



〈炸裂하는 砲擊으로 茂盛하던 나무도 裸木이 되었다〉

어 胡虜가 그 西南쪽 稜線으로 侵襲하기에 이르자 東南쪽 稜線上에 陣地를 築設하고 東側 背를 掩護하였다.

그런데 제1대대가 포위망속에 陷入되어 苦戰타가 撤收하기에 이르자 이를 後繼하여 蘆洞里를 거쳐 16.20에는 注坡里로 이동하여 대대의 殘餘병력과 合勢하였다.

그런데 연대가 Wyoming線陣地로 진입함에 따라 다음날 05.00에는 馬峴里附近으로 이동하여 연대예비가 되었다.

나) 제1대대의 상황

제1대대(장, 金世暎 중령)는 前半夜에 제3중대(장, 洪在應 대위) 正面으로 侵襲한 敵을 擊退하고 堅守不動의 태세를 갖추었는데, 子正무렵에 1개 대대규모가 驕岩山北쪽 稜線으로 올라붙으면서 侵襲하기 시작하였으나 사단 砲兵의 TOT사격이 敵線을 強襲하기에 이르자 00.10에는 衝勢가 흩어지면서 제8사단正面의 $\Delta 549$ 附近으로 敗走하였다.

그런데 이때 그 先鋒으로서 東쪽 溪谷을 따라 潛侵한 2개 중대규모는 東北쪽 稜線으로 올라 붙으면서 右제1선인 제2중대(장, 吳政植 대위) 正面을 急襲하였다.

이에 중대는 즉각 指向된 探照燈班의 照明下에 빛속에 浮上하는 敵影을 捕捉코 一齊히 사격을 집중하고 뒤이은 81mm 迫擊砲의 彈幕사격아래 一擧에 이를 격멸코자 하였으나 그 突擊隊로 보이는 1개 소대규모는 火傷을 입고 陣前으로 急迫하면서 多發銃사격에 이은 手榴彈의 集中投擲으로 제2소대 正面을 돌파하고 陣內로 侵襲하였다.

그러나 急進한 제1중대 제1소대의 增援下에 중대장 吳政植 대위가 陣頭지휘하는 예비소대가 合勢하여 突進하면서 이를 一擧에 剔抉하고 陣地를 恢復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계속되는 砲兵의 遮斷사격과 照明支援下에 戰鬪태세를 強化하였는데, 02.30에 이르러 右隣接인 제8사단 제10연대 正面의 $\Delta 765$ 를 突破한 1개 대대규모의 敵이 그 西南쪽 稜線으로 侵襲하기 시작하자 대대장 金世暎 중령은 배속된 제7중대(장, 安昌振 대위)를 東南쪽 稜線으로 急進시켜 東側背를 엄호케 하고 砲兵支援下에 全火力을 集中하여 狹少한 稜線에서 이를 抑留하는 즉시로 熾烈한 사격전을 벌였는데 04.30에 제10연대가 逆襲을 감행하기에 이르자 그들은 北쪽으로 潰散하고 달았다.

08.00에 제5중대의 戰鬪前哨陣地를 蹂躪한 敵이 北쪽 稜線을 타고 侵襲하고 $\Delta 765$ 西北쪽 稜線으로 迂回한 1개 대대규모는 溪谷을 橫斷하면서 東北쪽 稜線으로 올라붙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대는 즉각 轉換된 砲兵의 TOT사격과 驕岩山으로 進出한 제10, 제11 兩중대의 增援下에 密集防禦태세에 移行하면서 全火力을 集中하였다.

敵線은 瞬息間에 十字砲火의 최오리속에 휘말려 그 衝勢가 흩어지면서 敗色이 宛然하였으나 이때 督戰의 砲擊이 敵線後方으로 落下하기 시작하고 靑色과 赤色信號彈이 前後左右로 亂舞하기에 이르자 隊伍를 收拾하는듯 하더니 狂氣서린 포격을 집중하는 가운데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그들 特有의 猪突의인 侵襲을 계속하여 대대를 三面으로 포위하기 시작하였다.

대대는 陣內사격을 彷彿케 하는 포병의 彈幕사격아래 最後阻止사격을 감행하는 一方 近迫하는 무리를 수류탄으로 擊殺하는 一進一退의 亂戰紛擊을 거듭하였는데, 10.30에는 사단 中央一線인 제19연대의 一部 主抵抗線을 돌파하고 迂回한 敵이 습격을 西側背를 狹擊하고 뒤이어 제8사단과의 間線으로 侵襲한 2개 대대규모가 東側背를 威脅하였다.

이처럼 대대가 포위망속에 陷入하여 惡戰苦鬪를 계속하기에 이르자 陣況의 推移를 注視하던 연대장 高白圭 대령은 사단장의 應諾을 얻는 즉시로 11.20을 期하여 離脫토록 緊急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11.20에 제3대대(-)가 掩護하는 가운데 제2중대가 先頭에서 수류탄과 銃劍으로 포위망을 헤치는 즉시로 離脫하기 시작하여 △602를 占領, 後續하는 제2대대(-)와 제3대대를 收容한 다음, 商山으로 急進한 사단 수색중대(장, 黃元燮 대위)의 幟호하에 그 南쪽 橋梁을 通하여 金城川을 건너 12.50에는 蘆洞里에서 兵力을 收拾하는 즉시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16.00에는 사단 集結地인 注坡里에 到達하였다.

그런데 이때 示達된 사단 作命 제29호에 의거한 연대장의 명령으로 22.30에 또다시 行動을 開始하여 다음날 01.50에는 연대 右제1선으로서 注坡嶺—長坡峯에 이르는 Wyoming 線上의 陣地를 佔領하기에 이르렀다.

다) 제3대대의 상황

제3대대(장, 梁炳煥 중령)는 전날의 部署를 유지하고 決戰태세를 갖추었는데 高地를 奪取하지 못한 敵이 제8사단 正面으로 迂回하여 轎岩山으로 侵襲, 제1대대가 激戰을 벌이기에 이르자, 연대장 高白圭 대령의 緊急명령으로 예비인 제10중대(장, 宋奇善 대위)를 02.30에 增援次 轎岩山으로 進出시킨데 뒤이어 右제1선인 제11중대(장, 申相棋 대위)도 06.00에 竹洞에서 急히 進出한 연대 수색중대(장, 朴和春 대위)에 陣地를 인계하는 즉시로 轎岩山으로 진출케 하여 제1대대에 배속하였다.

08.00에 加莫洞—△394帶를 掌握한 2개 중대규모가 煙幕遮障下에 南쪽 溪谷을 橫斷하면서 侵襲하자 芳坪里南쪽 稜線에 戰鬪前哨陣地를 확보한 제9중대 제2소대와 연대 수색중대 제1소대는 砲兵과 迫擊砲의 幟호하에 사격을 集中하여 이를 阻止코자 하였으나 거센 衝力에 밀려 물러서기 시작하고 이를 追擊한 그들은 △442 西北쪽 稜線으로 올라붙으면서 陣前으로 殺到하였다.

이에 대대는 즉각 轉換된 美 제300自走砲兵대대의 집중지원하에 最後阻止사격을 감행하여 이들을 砲망속에서 强打하여, 그 衝勢를 陣前에서 一旦 阻止하였으나 이때 左隣接인 제19연대 제2대대의 陣地를 돌파한 무리가 淵巨里로 侵襲하면서 西側背로 狹擊하기에 이르자 대대장 梁炳煥 중령의 大號로 △442頂上에 橢圓型陣地를 編成하고 漸次로 熾盛하여지는 砲兵支援下에 一進一退의 紛戰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이때 연대장의 撤收명령이 시달되기에 이르자 대대장은 이미 轎岩山으로 진출하

여 제1대대에 배속중인 제10, 제11 兩중대로 하여금 제1대대의 撤收를 掩護케 하는 한편 △442의 대대(-)는 自身の 陣頭指揮下에 敵의 追擊을 뿌리치면서 驕岩山을 목표로 물러서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全力이 合勢한 대대는 포병의 집중엄호하에 全火力을 퍼부어 遲延戰을 계속하였는데 이때 제1대대가 △602를 점령하기에 이르자 이의 엄호하에 제10중대(장, 宋奇善 대위)를 先頭로 하여 敵中을 突破하기 시작하였다.

商山里에서 一旦병력을 收拾한 대대는 제1대대와 사단 수색중대(장, 黃元燮 대위)의 계속적인 掩護下에 金城川을 渡河, 陵洞에서 연대 主力의 渡河를 엄호한 다음 12.40에는 蘆洞里에서 隊伍를 갖추고 行動을 開始하여 16.30에는 사단 集結地인 注坡里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이때 下達된 연대장의 명령으로 Wyoming線에 阻止障地를 占領코자 22.00에 注坡里를 出發하여 다음날 02.30에는 연대 左제1선으로서 제11중대(장, 申相棋 대위)를 右제1선, 제9중대(장, 林錫淳 대위)를 中央 제1선, 그리고 제10중대(장, 宋奇善 대위)를 左제1선으로 하여 長敦峰—△683에 이르는 稜線一帶에 阻止障地를 점령하였다.

3. 제19연대의 상황

제19연대장 金漢柱대령은 제2대대(장, 鄭在甲 중령)의 主抵抗線이 돌파되기에 이르자 사단예비로부터 急遽復歸하는 제3대대(장, 柳承源 중령)를 △467(淵巨里 南쪽)로 急進시켜 阻止障地를 점령케 하여 突破口擴大를 阻止케 하는 한편 제2대대를 收容케 하였다.

그는 뒤이어 收拾된 제2대대를 淵巨里 東南쪽의 驕岩山支脈으로 急進시켜 該山의 西側背를 掩護케 하였으나 漸次로 확대하는 敵의 侵襲으로 戰況이 惡化一路를 치달기에 이르자 제3대대를 殘置하여 掩護케 하는 가운데 逐次로 撤收토록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연대는 13.00에 蘆洞里에서 兵力을 收拾하고 16.50에는 注坡里에 集結, 再編成에 着手하였는데 사단作命 제29호에 의거하여 다음날 未明에는 사단 左一線으로서 △683—赤根山—△926에 이르는 Wyoming線上에 阻止障地를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가) 제2대대의 상황

제2대대는 연대 右 제1선으로서 전날의 部署를 유지한채 鷄岩附近의 主障地와 마高地에 戰鬪前哨障地를 확보하였는데, 00.10에 이르자 1개 대대규모가 야포와 박격포를 集注하면서 古直木里로부터 마高地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제5중대(장, 崔德明 대위)는 즉각 砲門을 연 제77포병대대의 차단사격아래 全火力을 一時에 집중하니 화망에 휩싸인 敵은 暫時 주춤하는 듯 하였으나 奮戰에 견디지 못하였음인지 衝勢를 늦추지 않은채 밀려 들고 그 先頭는 △407에 戰鬪前哨障地를 확보한 제2중대(장, 權東銖 대위)와의 間隙을 一舉에 突破하면서 예비障地의 제3소대를 急襲하였다.

前後方에서 挾擊되기에 이른 중대는 正面을 遞縮하는 즉시로 四周防禦진지를 점령하고 치열한 彈幕사격아래 근접전을 거듭하여 醜敵을 一旦 陣前에서 驅逐하였다.

그런데 02.00에 이르자 △364와 그 西쪽의 敵線一帶에서 직사포와 기관총사격을 마高地—△407로 집중하는 가운데 새로운 1개 대대규모를 增援하여 그 先鋒과 合勢케 하는 즉시로 제5, 제2 兩중대 正面을 목표로 공격을 再開하였다.

즉각 誘導된 野砲와 迫擊砲의 咆哮속에 이를 격퇴코자 奮戰하였으나 猪突의인 侵襲을 계속하는 그들은 北쪽 稜線으로 올라 붙으면서 陣前으로 밀어 닦쳤고 그 先鋒은 수류탄과 多發銃사격을 집중하여 제2소대 陣地를 突破하였다.

이에 중대는 白兵의 格鬪를 벌였으나 차츰 敵勢에 밀려 頂上附近으로 물러서 據點을 확보한채 混戰亂鬪속의 苦戰을 免치 못하였다.

중대장 崔德明 대위는 現況에서는 陣内사격에 의존할 뿐이라고 판단하고 SCR—609로 陣内사격을 緊急히 要請하는 一方 掩壕호의 進入을 馳令하였는데 이때 兇彈이 胸部를 貫通함으로써 23세의 젊은 나이로 護國의 神으로 散華하였다.

이윽고 鐵雨가 高地一帶를 뒤덮으니 醜敵은 混亂을 이루며 潰走하였으나 그 특공대로 보이는 一團은 破壞筒으로 掩壕窟을 파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중대장을 代理한 先任장교 金英來 중위는 포격의 延伸을 要請하는 즉시로 앞서 달려 나가면서 『突擊앞으로』를 絶叫하였다.

병사들은 앞을 다루어 躍出하여 매마침 上空에 피어 오르는 照明彈의 光芒속에 돌진하면서 肉迫戰을 벌였으나 계속 侵襲하는 敵勢에 밀려 04.00에는 分散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중대는 陵洞一帶에 阻止陣地를 점령한 연대 수색중대(장, 崔鏞淳 중위)의 收容下에 병력을 收拾하고 뒤쫓은 敵을 阻止, 격멸코자 紛戰하였으나 또다시 밀리는 바 되어 急進한 제1중대(장, 李在燁 대위)의 엄호하에 陵洞 東南쪽 溪谷으로 離脫하시 기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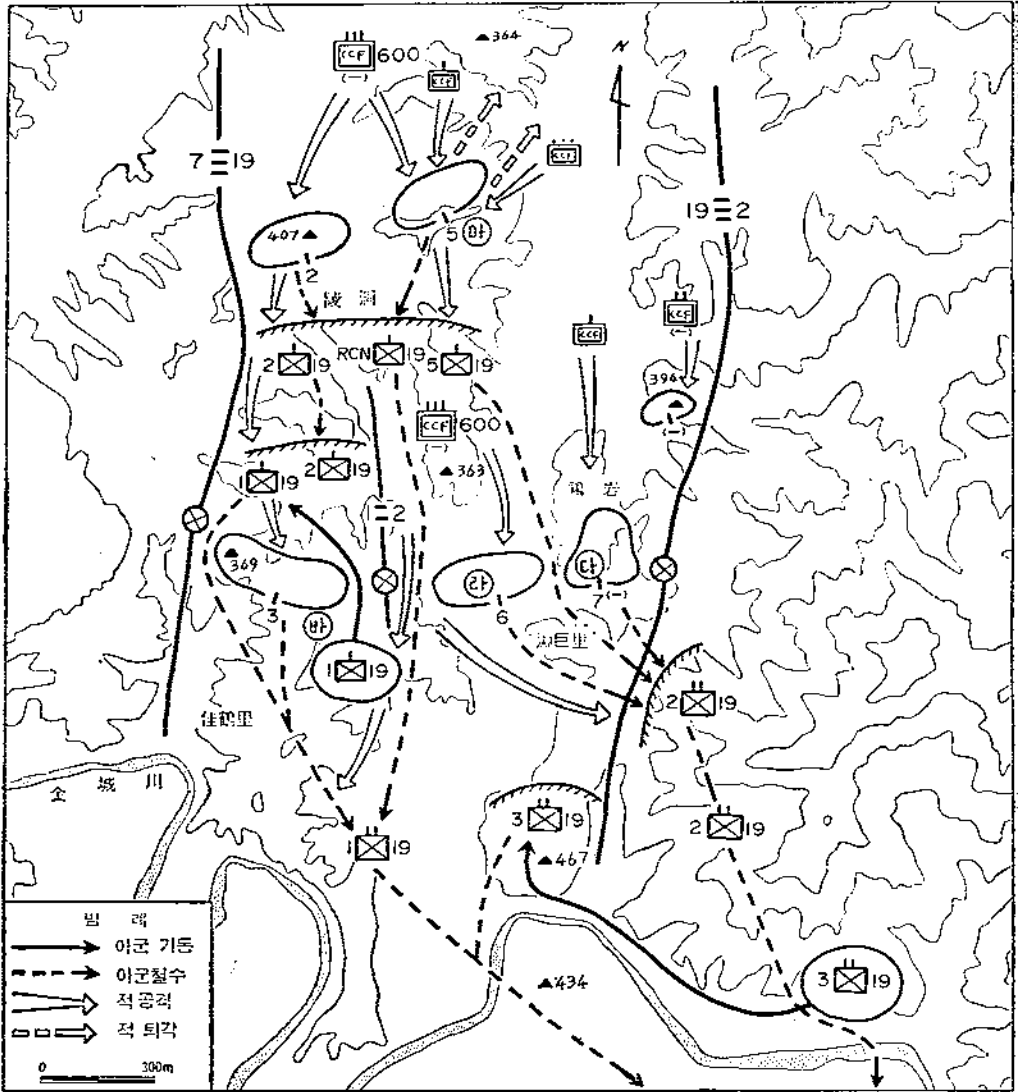
그런데 05.50에 이르자 마高지를 突破하고 계속 南下한 1개 대대규모는 △363(嶺岩西北쪽 0.5km)로 侵襲하여 金城川支流를 사이에 두고 제6중대(장, 車鳳竹 중위)로 一齊히 사격을 集中하는 가운데 後續한 증강된 1개 대대규모가 河川線을 따라 左隣接인 제1대대(장, 陸璋均 중령)와의 間隙으로 侵勢를 集中하였다.

이에 제6중대는 제3중대와 協동하여 제77, 제96 兩포병대대의 集中掩護下에 全火力을 指向하여 強襲하였으나 그들은 희망을 품고 계속 밀려 들어 07.30에는 5개 중대규모가 主抵抗線後方인 淵巨里와 佳鶴里中間의 高地一帶를 強占, 제1, 제2 兩대대後方을 威脅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前後方에서 挾擊을 받기에 이른 제6중대는 正面을 좁혀 四周防禦로 轉移하였는데 敵은 치열한 포격을 집중하고 煙幕을 遮障하는 가운데 金城川支流를 一齊히 徙涉하면서 三面으로 侵襲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중대는 陣内사격을 彷彿케 하는 포병의 彈幕사격아래 全火力이 最後阻止사격으로 희망을 뒀으나 2개 대대규모의 胡虜는 侵勢를 늦추지 않은채 陣前으로 殺到함으로써 수류

◇ 상황도 제58호 제19연대의 戰圖(7.13—14)



탄의 集中投擲에 이어 白兵의 格鬪를 서슴치 않았는데도 08.20에는 敵勢에 밀려 主陣地를 喪失한 채 分散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右제1선인 제7중대(장, 趙弘濟 대위)는 鷄岩北쪽 稜線을 따라 공격하는 1개 중대규모의 敵과 熾烈한 사격戰을 받았는데 제6중대陣地를 蹂躪한 醜敵이 挾擊하기에 이르자 제5, 제6兩중대의 一部병력의 증원아래 據點을 확보하고 死鬪를 계속하였으나 力不及하여 分散되면서 離脫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陣頭에서 지휘하던 대대장 鄭在甲 중령이 부상하였으나 流血이 狼藉한채 지휘를 계속하므로써 逆境에 處한 병사들의 戰意를 크게 북돋게 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淵巨里 南쪽 △467로 急進한 제3대대(장, 柳承源 중령)의 掩護下에 병

력을收拾하고 淵巨里 東南쪽으로 뻗은 轆岩山의 稜線上에 阻止陣地를 점령하여 그들의 迂回를 차단코자 하였으나 지속적인 侵襲으로 10.30에는 또다시 물러서기 시작하여 商山里—瑞雲里를 거쳐 蘆洞里에서 主力과 合勢한 다음 16.40에는 注坡里로 이동하였다. 이때 大隊장 鄭在甲 중령은 後送되고 金潤燮 소령이 大隊를 지휘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연대가 사단 左一線으로서 Wyoming線陣地를 점령하게됨에 따라 21.40에는 行動을 開始, 다음날 03.30에는 연대 中央一線으로서 △799(大谷里東北쪽)—赤根山에 阻止陣地를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나) 제1대대의 상황

제1대대(장, 陸璋均 중령)는 敵의 砲火가 集中하는 가운데 마高地의 主陣地와 △407의 戰鬪前哨陣地를 확보하여 沈戰태세를 갖추었다.

그런데 제5중대와 連繫를 維持하고 △407에 戰鬪前哨陣地를 확보하였던 제2중대(장, 權東銖 대위)가 子正무렵부터 계속된 2개 大隊규모의 공격을 받아 제5중대와 협동하여 一進一退의 紛戰을 거듭하였으나 04.00에 제5중대의 崩壞와 隊를 같이 하여 그들의 侵襲에 밀려 물러서기에 이르자 大隊장은 예비인 제1중대(장, 李在燦 대위)를 急進시켜 이를 收容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1, 제2 兩중대는 04.40에 陵洞 兩쪽에 東西로 길게 뻗은 稜線에 急編陣地를 占領하는 즉시로 誘導된 제77포병대대와 81mm迫擊砲의 集中支援下에 1개 大隊규모의 侵襲을 一時에 阻止하였다.

그런데 馬高地—△407一帶의 戰鬪前哨陣地를 돌파하고 제2대대正面의 △363로 侵襲한 敵이 主抵抗線을 확보한 제3중대(장, 金基鍊 중위)의 右側方을 강타하는 가운데 이를 後續하는 증강된 1개 大隊가 제2대대와의 間隙을 뚫고 陣地後方으로 侵襲하였다.

前後方에서 挾擊되기에 이를 제3중대는 즉각 △369頂上을 中心으로 四周防禦에 轉移하여 砲兵의 彈幕사격 아래 全화력을 집중, 이를 阻止코자 奮戰하였다.

戰況이 이에 이르자 1, 제2 兩중대의 退路가 차단되고 混亂에 빠질것을 우려한 大隊장 陸璋均 중령은 즉각 主抵抗線으로 離脫토록 號令하였다.

이리하여 兩중대는 이미 後方을 遮斷한 敵을 수류탄과 銃劍으로 擊滅하면서 血路를 開拓하여 主陣地로 진입하는 즉시로 密集防禦태세를 갖추고 VT彈으로 彈幕사격을 계속하는 美 제300自走砲兵대대의 集中支援下에 紛戰을 계속하였으나 2개 大隊규모가 三面으로 殺到하는 威脅이 加重되기에 이르자 11.00에는 연대장의 명령으로 △467 一帶를 확보한 제3대대(장, 柳承源 중령)의 掩護下에 포위망을 헤치고 離脫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九峴里를 거쳐 △467 南쪽에서 金城川을 渡河한 大隊는 蘆洞里에서 兵力을 收容한 다음 16.30에는 注坡里에 集結하였는데, 사단 作命 제29호에 따라서 Wyoming線陣地를 점령하게되자 22.00에는 또다시 이동하기 시작하여 다음날 03.00에는 연대 右제1선으

로서 △683—△799에 이르는 阻止障地를 점령하고 右로는 제2연대 제3대대(장, 梁炳煥 중령), 左로는 제2대대(장, 金潤燾 소령)와 連繫를 유지하였다.

다) 제3대대의 상황

제3대대(장, 柳承源 중령)는 전날 21.00에 商山里에서 제2연대로부터 배속해제와 동시에 사단에비로써 轆岩山後方을 엄호하고 金城川의 渡河點을 확보하였는데 이날 07.30에 이르러 연대의 中央이 突破되어 陣地가 惡化하자 사단장의 緊急명령으로 原隊復歸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연대장 金漢柱 대령의 명령으로 △467(淵巨里 南쪽)로 急進하여 阻止障地를 占領하는 측으로 야포와 박격포의 集中支援下에 全火力을 集中하여 醜敵의 계속적인 侵襲을 阻止하고 突破口의 基部를 閉塞하는 一方 主力의 撤收를 掩護하였다. 그런데 11.40에 全부대가 主抵抗線에서 물러서기에 이르자, 이미 退路를 遮斷한 敵中을 銃劍과 手榴탄으로 해치고 離脫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그 南쪽에서 金城川을 渡河한 대대는 △434—瑞雲里를 거쳐 蘆洞里에서 兵力을 收拾한 다음 16.50에는 注坡里로 이동하였는데, 새로운 軍단계획에 따른 명령으로 21.50에 또다시 移動하기 시작하여 다음날 未明에는 연대 左제1선으로서 赤根山—△926에 이르는 Wyoming線上에 阻止障地를 점령하였다.

4. 제7연대의 상황

제7연대(장, 韓官興 대령)는 子正무렵에 左隣接이었던 수도사단 제1연대의 主抵抗線이 崩壞되어 Iceland線으로 물러서자 예비인 제3대대 主力을 △475 西斜面으로 急進시켜 西側背를 엄호케 하였는데, 06.00에는 사단 作命 제25호에 의거하여 交代次 進入한 제9연대(장, 金永夏 대령)에 左제1선대대와 예비대대의 陣地를 引繼하고 該연대 제1대대의 掩護下에 竹堡里로 移動하였다.

이때 시달된 사단 作命 제27호에 의거하여 연대 主力(제2, 제3 兩대대)은 즉각 行動을 개시하여 13.30에는 金城川 南岸의 △371—△476—△629—△725—△547를 連하는 Iceland線에 阻止障地를 점령하고 敵의 金城川 渡河를 阻止하면서 사단 主力의 再編을 掩護하였는데 이때 主抵抗線에서 撤收한 제1대대(장, 閔邦穆 중령)는 13.10에 蘆洞里로 轉進하여 연대에비로서 그 北쪽의 △522를 점령하였다.

그런데 사단계획에 의거하여 斗石洞—下榛峴을 連한 線에 阻止障地를 占領한 제9연대 제1대대(장, 元容五 중령)가 계속적인 敵의 強壓으로 물러선바 이어, 그 侵襲이 연대의 西側背를 威脅함으로 瑞雲里—△522—梨船洞으로 물러서면서 正面을 肅혀 阻止障地를 再編하였으나 사단 作命 제29호에 의거, 21.00에는 楸洞附近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阻止障地를 점령하고 제17번 幹線道路를 엄호하기에 이르렀다.

가) 제1대대의 상황

제1대대(장, 閔邦穆 중령)는 전날에 이어 제3, 제1 兩중대로써 金城川의 東西兩岸에 있

는 △395—△374에 主陣地를, 그리고 제2중대(장, 朴寬珣 대위)로써 △418에 戰鬪前哨陣地를, 각각 확보케 하여 敵侵에 대비하였다.

그런데 제2중대는 子正부림부터 集中砲擊에 뒤이어 1개 대대규모의 波狀공격을 맞아 砲兵의 支援下에 紛戰을 계속하였는데, 04.00에는 右隣接인 제19연대의 戰鬪前哨陣地를 突破한 醜敵이 △407東南쪽 稜線으로 侵襲하여 서로 合流함으로써 즉각 저항된 陣內사격의 보람없이 分散되면서 主陣地로 後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제3중대(장, 金永泰 대위)는 이를 收容하는 즉시로 제2중대를 追尾하여 달려드는 1개 대대규모에 全火力을 퍼부어 陣前에서 阻止하고 砲兵의 彈幕사격을 緊急히 요청하였다.

즉각 저항된 제27, 제96 兩포병대대의 집중포화가 △418西南쪽 稜線一帶를 火焰으로 뒤덮으며 強襲하기에 이르니 敵의 衝勢가 흩어지면서 △418를 目標로 潰走하였다.

이에 대대는 계속되는 砲兵의 遮斷사격아래 熾烈한 사격戰을 벌였는데, 09.00에 이르러 제19연대 正面의 陵洞一帶로 南下한 敵이 煙幕을 遮障하면서 東側方으로 侵襲하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418에 抑留되었던 敵 또한 正面으로 殺到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대(-)는 漸次로 熾烈하여지는 砲兵의 掩護사격아래 正面을 좁혀 △395頂上 附近에 陣地를 占領하는 즉시로 全화력을 集中하여 陣前에서 격멸코자 하였다.

이때 요란한 砲聲과 함께 敵線은 火焰과 硝煙속에 휘말려 허우적거리는데 하였으나 奮戰에 견디지 못한듯한 그들은 火網을 벗어나면서 陣前으로 계속 몰려들었다.

대대는 怒號하는 대대장 閔邦穆 중령의 陣頭指揮아래 手榴탄의 集中投擲에 이어 躍出하면서 白刃을 휘둘러 格鬪를 벌였으나 그들의 포위망속에 陷入되어 苦戰하기에 이르자 10.20에는 제3중대가 先頭에서 血路를 헤치게 되었다.

이때 △374에 主陣地를 확보한 左제1선인 제1중대(장, 金昌傑 대위)는 前面과 東側方을 金城川으로 圍繞됨으로서 敵侵을 받지 않은채 主力을 화력지원하고 撤收를 掩護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하여 佳鶴里 西南쪽에서 金城川을 渡河한 대대는 梨船洞을 거쳐 13.10에 蘆洞里로 撤收하여 연대에비가 되었다.

나) 제2대대의 상황

제2대대(장, 蘇炳烈 소령)는 전날의 部署를 유지한채 主陣地와 戰鬪前哨陣地를 확보하였는데, 陣前을 가로지른 金城川으로 말미암아 正面에서의 敵侵은 받지않았으나 子正 부림부터 侵勢를 확대한 △424에서는 戰況이 激化一路를 치달고 있었다.

즉, 제5중대 제2소대와 대대 수색대는 △424 頂上附近에 據點을 확보하면서부터 漸次로 증원되어 1개 대대규모로 擴大한 攻勢를 맞아 제2소대장 宋錫基 소위의 統合指揮下에 근접전을 거듭하였다.

그런데 02.00에 이르러서는 그 一角이 돌파되었으나 즉각적인 陣內사격의 저항으로 아

를 恢復하고 胡敵을 擊殺하기로 하였는데 대대가 제9연대 제2대대(장, 李春培 중령)와 陣地를 交代하게 됨에 따라 03.30에는 △424 東南쪽 綫으로 急進한 연대 수색중대 1개소대의 掩護下에 主陣地로 撤收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이를 뒤따른 1개 중대규모가 제5중대(장, 崔相重 대위)正面으로 밀어닥쳤으나 陣地 交代次 이미 進入한 제9연대 제2대대의 增援밑에 이를 陣前에서 阻止하였다.

敵은 後續한 主力과 合流하는 즉시로 侵攻을 재개하였으나 이때 指向된 TOT사격으로 05.20에는 北쪽으로 潰散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06.00에 陣地를 인계완료한 대대는 竹垆里를 目標로 隨意 撤收하기 시작하였다.

다) 제3대대의 상황

제3대대(장, 南白奉 중령)는 子正부령에 左隣接인 수도사단 제1연대의 主抵抗線이 돌파되면서 Iceland線으로 물러서자 연대장의 緊急명령으로 △475 西斜面으로 急進하여 阻止陣地를 占領하고 九龍里—灰古介에 이르는 溪谷을 제압하면서 露出된 西側背를 掩護하였다.

그런데 02.30에 이르러 2개 중대규모가 溪谷안으로 潛侵하므로 즉각 誘導된 야포와 박격포의 支援下에 사격을 集中하여 이를 擊退하였다.

그리하여 04.20에 이르러 제9연대 제3대대(장, 崔圭鉉 중령)가 交代次로 進入하자 이와 協同하면서 계속적인 侵襲을 阻止다가 06.00에는 作戰任務를 모두 引繼하고 제2대대를 掩護하면서 연대 集結地인 竹垆里를 目標로 물러서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左隣接인 제1연대가 또다시 Iceland線이 무너져 撤收함으로써 側方에 대한 威脅이 漸次로 增大하게 되었다.

라) 阻止陣地の 占領

연대主力인 제2, 제3 兩대대는 제9연대(장, 金永夏 대령)에 主陣地와 예비陣地를 인계하고 07.20에는 연대CP가 位置한 竹垆里 附近에 集結하였는데, 이때 시달된 사단 作命 제27호에 의거하여 金城川 南岸에 阻止陣地를 占領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斗石洞 溪谷을 따라 蘆洞里로 진출한 연대(-)는 13.30에 제3대대(장, 南白奉 중령)를 右제1선, 제2대대(장, 蘇炳烈 소령)를 左제1선으로 하여 △371—△476—△629—△725—△547를 連하는 一帶에 阻止陣地를 設령하였으며, 主抵抗線을 떠나서 後續하는 제1대대(장, 閔邦穆 중령)를 예비로써 △522(蘆洞里北쪽)에 控置하였다.

이때 제9연대 제1대대(장, 元容五 중령)가 斗石洞—下榛峴을 連한 一帶에 阻止陣地를 占領함으로써 연대는 이와 連繫하여 敵의 金城川 渡河를 妨害하면서 사단主力의 재편을 掩護하였다.

그런데 제9연대 제1대대가 敵의 強壓으로 逐次로 물러서기 시작하고, 그 侵勢가 漸次로 擴大하여 左제1선인 제2대대를 前後兩面으로 威脅하기에 이르자 연대는 17.00에 瑞雲里—△522—梨船洞을 連한 線으로 물러서 正面을 좁히고 계속적인 敵의 侵襲을 阻止하였다.

그러나 군단 中央右翼인 제3사단과 中央左翼인 제8사단 正面에 대한 侵勢가 漸次로 증대하여 阻止障地에서 물러서기에 이르자 主要작전로인 제17번 道路에 대한 威脅을 排除키로 한 軍단계획에 따른 사단장의 명령으로 19.30에는 楸洞을 목표로 移動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21.00에는 제3대대를 △461(楸洞 北쪽)에 제1대대를 楸洞西쪽의 無名高地一帶에 각각 道路를 沿하여 阻止障地를 점령케하고 제2대대는 예비로써 注坡里에 控置하였다.

5. 제9연대의 상황

제9연대(장, 金永夏 대령)는 06.00附로 제2대대(장, 李春培 중령)로 하여금 제7연대(장, 韓官興 대령)의 左제1선 戰鬪正面을 인수하는 一方 主力은 側後方에 阻止障地를 占領하여 露出된 西側背를 掩護케 하였다.

그러나 正面에 대한 侵勢가 漸次로 확대하고 後方으로 浸透한 敵이 퇴로를 遮斷하면서 後方을 威脅하게 되자 11.00부터 主抵抗線에서 離脫하기 시작하여 제1대대(장, 元容五 중령)의 掩護下에 포위망을 해치고 杜木附近으로 撤收하였다.

이때 제1대대는 侵攻을 계속하는 敵과 熾烈한 交戰끝에 이를 阻止하고 제6사단 作命 제27호에 의거한 阻止障地를 占領하였으나 正面과 西側背로부터의 強襲으로 逐次로 물러서 △633에 阻止障地를 占領하였다.

그런데 수도사단 地域으로부터 迂回한 中共 제204사단 隸下 1개 연대규모가 계속 연대正面을 威脅하게 되자 연대장 金永夏 대령은 사단 作命 제29호에 의거하여 수도사단과의 連繫를 維持하고 侵襲을 계속하는 敵을 阻止擊滅코자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敵은 계속 侵襲中에 있다.

② 연대는 障地를 強化하여 敵을 阻止擊滅하러 한다.

③ 제3대대는 △633를 목표로 진격하는 즉시로 제1대대의 障地를 인수하라.

④ 제1대대는 제3대대에 障地를 引繼하는 즉시로 △633—榛峴里間에 障地를 확보하라.

⑤ 제2대대는 △663—△735에 이르는 예비障地를 확보하고 主力에 대한 지원태세를 갖 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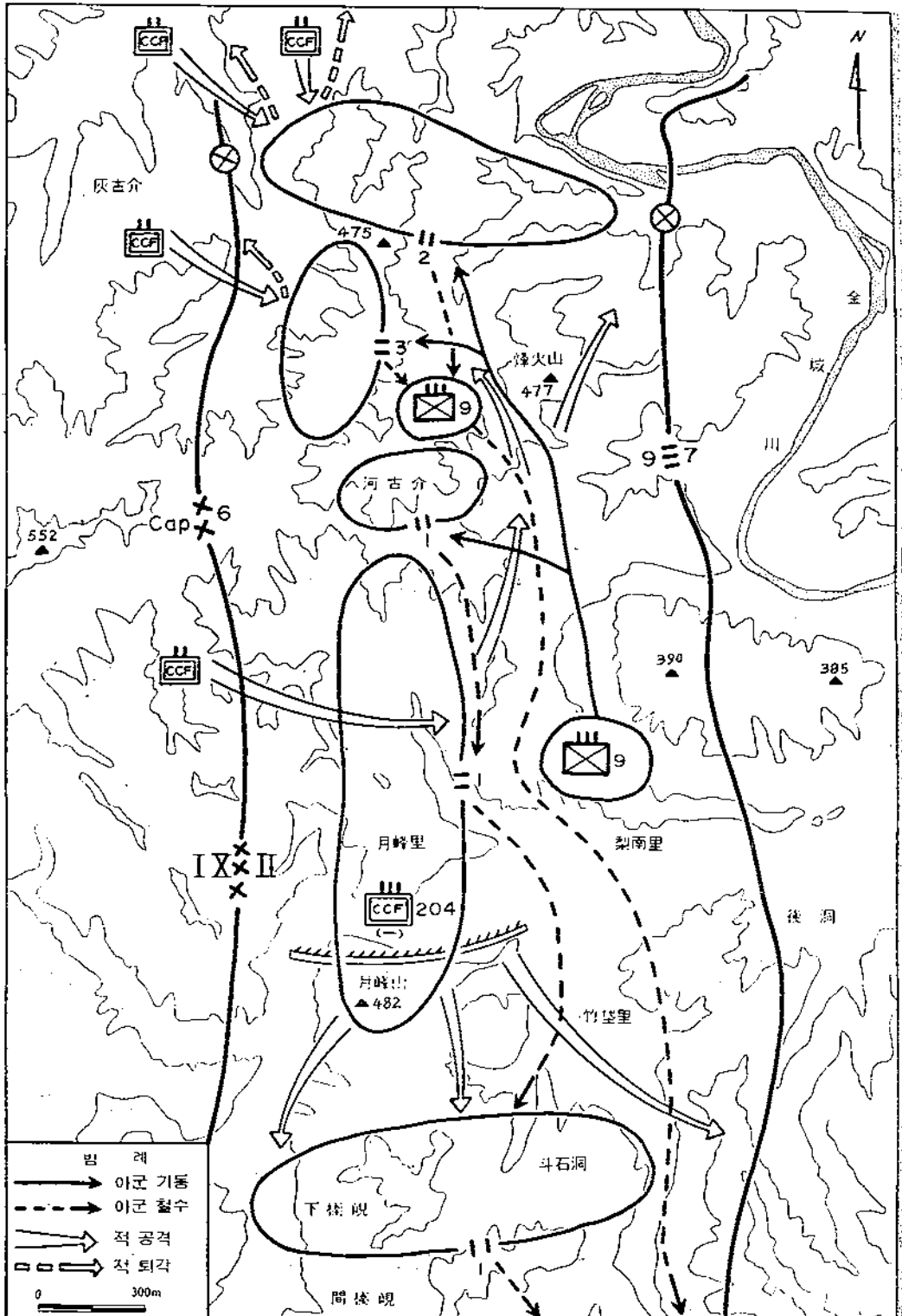
가) 제2대대의 상황

제2대대(장, 李春培 중령)는 03.00에 제7연대 제2대대(장, 蘇炳烈 소령)의 障地로 진입하는 즉시로 同대대를 增援하여 侵襲하는 1개 대대규모의 敵과 激戰을 벌여 05.20에는 이를 격퇴하였다.

06.00에는 該 대대의 主障地를 引受하고 계속 확보하였는데, Iceland線으로부터 물러선 수도사단 제1연대 正面에서 迂回한 1개 대대규모의 새로운 무리가 또다시 侵襲하기 시작하자 즉각 포문을 연 제27포병대대와 제11重砲중대의 集中支援下에 이를 阻止코자 奮戰하였다.

그런데 11.00이에 이르러 그들의 侵勢가 1개 연대규모로 확대한 데이어, 수도사단 地域으

상황도 제59호 제9연대의 戰鬪(7.13-14)



로부터 侵襲한 병력이 後方을 차단하기 시작하고, 右隣接인 제7연대 제1대대(장, 閔邦穆 중령)마저 撤收하여 右側方이 露出하게 되자 緊急히 전달된 연대장의 명령으로 主抵抗線에서 물러서 제3, 제1 兩대대의 掩護下에 河古介에 집결하였다.

그런데 이미 谷垆里—天谷을 連한 一帶로 侵襲한 敵이 退路를 遮斷코자 하였으나 先鋒에 나선 제7중대가 突進하면서 近接戰으로 물리쳐 進路를 開拓함으로써 梨南里—竹垆里—斗石洞을 거쳐 21.00에는 杜木附近으로 後退하였으나 이때 下達된 연대장의 명령으로 23.00에는 △663—△735에 이르는 一帶에 예비陣地를 점령하였다.

나) 제3대대의 상황

제3대대(장, 崔圭鉉 중령)는 제7연대 제3대대(장, 南白奉 중령)의 陣地를 인수코자 03.00에 烽火山으로 進出하는 즉시로 潛侵하는 2개중대 규모의 敵을 捕捉하여 熾烈한 交戰을 벌여 이를 擊退하였다.

이리하여 04.20에는 제10중대(장, 金善吉 대위)를 烽火山에 殘置한 다음 제9, 제11 兩중대를 △475 西斜面으로 進出케 하여 제7연대 제3대대를 支援하고 수도사단과의 間隙으로 侵襲하는 敵을 擊退하면서 西側方을 防護하였다.

그런데, 06.00에 이르러 제7연대 제3대대가 陣地를 引繼하기 시작하자 1개대대 규모의 敵이 灰古介一帶를 强占하고 포병지원아래 사격을 集中하더니 一齊히 侵攻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대는 즉각 誘導된 야포와 박격포의 彈幕사격아래 最後阻止사격을 敢行하여 道路線에서 이를 阻止하자 支撐치 못한 그들은 潰散하고 말았다.

이때 대대장 崔圭鉉 중령은 陣頭에서 지휘다가 負傷하였으나 後送을 拒否한채 계속지휘하였다.

08.00에 이르러 제1대대(장, 元容五 중령)의 河古介—月峰山(△482)에 이르는 阻止陣地를 突破한 2개 중대 규모가 河古介附近의 제2대대 CP를 奇襲하고 後方을 威脅하자 대대장은 제10중대를 출동시켜 이를 邀擊케 한 다음 △475 頂上을 확보케 하여 主力과 連繫를 維지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主抵抗線의 側後方을 防護하면서 제2대대를 지원하였는데, 該대대가 撤收함에 따라 이를 掩護하면서 後續하여 12.30에는 河古介로 집결하였다.

수도사단 地域으로부터 迂回하는 敵의 威脅으로 연대主力이 撤收를 계속함에 따라 대대는 제9중대(장, 李春植 대위)를 殘置하고 제10중대(장, 金善吉 대위)로써 挑戰하는 醜敵을 격멸하면서 물러서 21.20에는 杜木附近에 집결하였다.

그런데 이때 示達된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21.40에 행동을 개시하여 24.00에는 제1대대로부터 △633의 陣地를 引受하고 美 제3사단 포병의 掩護사격과 照明支援下에 侵攻을 계속하는 敵을 맞아 交戰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다) 제1대대의 상황

제1대대(장, 元容五 중령)는 01.00에 河古介로 進出하여 主力의 陣地進入을 掩護한 다음 阻止陣地를 점령하고 西側背를 防護하였는데, 06.00에 이르러 수도사단의 Iceland線이 또다시 무너져 물러서기 시작하자 緊急히 示達된 제6사단 作命 제26호에 의거하여 河古介-月峰山에 이르는 阻止陣地를 編成하는 즉시로 衝力을 東쪽으로 돌려 迂回코자 하는 敵과 熾烈한 交戰을 벌였다.

그런데 主力이 撤收하기에 이르자 月峰山을 점령하고 이를 掩護한 다음, 14.00에는 제6사단 作命 제27호에 의거한 연대장의 명령으로 斗石洞-下榛峴에 阻止陣地를 占領하였으나 이미 月峰山으로 南下한 2개 대대규모가 砲火의 掩護下에 正面으로 殺到함으로 제11重砲중대의 지원아래 激戰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나 漸次로 擴大하는 侵勢에 밀려 16.00에는 美 제3사단 砲兵의 掩護下에 接敵을 維持하면서 逐次로 撤收하여 21.40에는 △633에 陣地를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제3대대가 進出하게 되어 이에 陣地를 인계하고 대대는 연대 左제1선으로서 △633-榛峴里에 이르는 一帶에 陣地를 점령하여 수도사단 제1연대와 連繫를 유지하고 敵侵에 대비하였다.

라. 전투후의 개황

Missouri線으로부터 撤收한 사단은 7월 15일 未明을 期하여 제2연대(장, 高白圭 대령)를 右一線, 제19연대(장, 金漢柱 대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注坡嶺-長鼓峰-△683-△799-赤根山-△926에 이르는 Wyoming線에 阻止陣地를 占領하고 제7연대(장, 韓官興 대령)로 하여금 楸洞附近을 확보케 하여 主要作戰路인 제17번道路를 防護하였다.

사단은 軍단 作命 제6호에 의거하여 제7연대를 同월 15일 08.00附로 제8사단(장, 宋堯諤 소장)에 배속한데 이어 18.00에는 注坡里-赤根洞으로 進出した 제11사단(장, 林富澤 준장)에 反擊任務와 제20포병단(장, 李春晷 대령)을 인계하는 동시에 제9연대를 原隊復歸케 하고, 軍단 作指 제64호에 의거하여 軍단에비로서 Wyoming線 陣地를 계속 확보하였다.

다음날에는 軍단 作指 제65호에 의거하여 제7연대는 제5사단(장, 張都暎 소장)으로 배속이 변경되어 白岩山戰鬪에 參加하고, 사단主力은 軍단 作命 제7호에 의거하여 同사단의 작전임무를 인수코자 17일 14.00에 堂巨里로 移動하는 한편 CP를 四方巨里로부터 名勝洞으로 推進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集結地에서 反擊準備에 着手하는 한편 作命 제31호(7'17.22.00)를 示達하여 제5사단의 進擊線을 超越공격키로 하고 그 준비에 着手하였다.

그런데 제5사단이 18일 밤에 △462一帶만을 除外한 軍단의 進出지적선인 北漢江 西岸-金城川 南岸에 이르는 一帶로 進擊함에 따라 다음날 12.00에 제2연대를 右一線, 제19연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後洞-蘆莖-陽地村-汝乃谷에 이르는 Iceland線上의 陣地를 제27, 제35 兩연대로부터 引受하고, 제19연대 一部가 △462로 공격을 敢行하는 가운데 原隊로 復歸한 제7연대를 예비로 控置하여 Missouri線으로의 進擊태세를 갖추었다.

그러나 Iceland線을 固守키로 한 美 제8군의 작전계획에 따라서 殘敵을 剔抉하면서 金城川을 사이

에 두고 敵과 對峙한채 포격전단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同월 21일 05.00에는 제7연대가 제36연대(장, 高光道 대령)로 부터 北漢江東岸의 △748—轉石에 이르는 陣地를 인수함으로써 사단은 軍단 右翼이 되었는데, 다음날 04.00에 제7사단(장, 金容培 소장)이 軍단 中央左翼으로 진출함에 따라 左隣接인 제8사단과의 戰鬪地境線이 변경케 되어, 左—線인 제19연대는 그 左隣接인 제8사단 제16연대(장, 安秉連 대령)와 右隣接인 제2연대에 각각 그 戰鬪正面을 인계하고 사단예비가 되어 水上里에 집결하였다.

이윽하여 사단은 제7연대를 右—線, 제2연대를 左—線으로 하여 北漢江 東西兩岸에 主陣地를 확보하면서 제15포병단(제11, 제71 兩포병대대)의 支援下에 夜間潜伏과 威力수색을 強化하여 敵侵에 대비하는 가운데 休戰을 맞기에 이르렀다.

한편 中共 제68, 제54, 제67, 제60의 4個軍으로 所謂 7.13攻勢를 恣行하여 Missouri線과 Iceland線을 蹂躪하고 南浸을 거듭한 敵은 攻勢 3일제인 15일에는 白岩山—黑雲土嶺—後洞里—三峴—間榛嶺에 이르는 一帯까지 侵襲하였다.

그러나 7월 16일 未明을 期하여 軍단이 제5사단을 右翼, 제8사단을 中央, 제11사단을 左翼으로 하여 總反擊戰을 敢行하기에 이르자 初期에는 南侵線에 據點을 확보하고 執拗하게 저항을 試圖하였으나 金城川의 橋梁이 파괴되고 그동안 날씨 關係로 威勢를 발휘하지 못하던 航空支援으로써 敵의 後繼兵력과 補給支援을 遮斷하기에 이르자 7월 19일 11.00에는 제5, 제8 兩사단正面에서는 殲滅상태에 빠진채 金城川 北岸으로 敗走하였다.

한편 金城川 西岸으로 迂回하여 수도사단 地域으로부터 補給과 後繼가 가능하였던 제11사단正面의 敵은 瑞甌里—△522—梨船洞—△729—△547—斗石洞一帶에 堅固한 據點을 형성한채 抵抗을 계속함으로써 제11사단을 비롯하여 7월 21일에 軍단 中央左翼으로 진격한 제7사단과 熾烈한 攻防戰을 계속하면서 休戰을 맞기에 이르렀다.

期間中에 있어서의 사단의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부대별	戰 果			損 失			
	射 殺	推定殺傷	捕 虜	戰 死	戰 傷	失 踪	
제 2 연 대	3,500	1,900	12	339	296	119	
제 7 연 대	861	1,500	12	93	449	70	
제 19 연 대	2,407	2,020	18	256	341	209	
제 9 연 대	150	170	—	12	28	—	
計	6,918	5,590	42	760	1,114	398	

§ 參戰者의 證言

◇ 제6사단 제2연대 제2대대장 金斗逸 중령 (1976년 8월 11일 戰鬪編委에서, 예 증령)

우리 연대는 사단예비로서 蘆洞里에 集結待機하였는데 7월 10월일부터 제19연대가 확보한 驕岩山의 關門과도 같은 戰鬪前哨陣地인 高地에 대하여 敵이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 공세가 漸次로 擴大하여 가자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서 연대

는 驕岩山으로 進出하게 되었다.

이때 제3대대는 이미 제19연대에 배속되어 그 左계1선을 맡고 있었는데, 제1대대는 배속과 동시에 同연대 제3대대의 驕岩山陣地를 인수 확보하였으며 내가 지휘하는 제2대대는 그 西南쪽 稜線을 확보하여 同연대의 예비가 되었다.

그런데 全연대가 제19연대에 배속된 矛盾을 是正하고 強力한 防禦陣地를 확보키로 한 사단

장 白仁燁소장은 所謂 7.13攻勢전날 05.00附近 제19연대의 제3, 제1兩대대의 戰鬪正面 즉 驛岩山一帶를 제2연대가 담당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서 우리 연대의 제1, 제3대대가 主陣地를 담당하게 되고 제2대대는 제19연대 제3대대가 연대에 배속된채 계속 확보중인 高地를 인수케 되었다.

이리하여 제5중대로 하여금 7월 13일 05.00附近 高地의 戰鬪前哨陣地를 인수케하고 제6, 제7兩중대로써 高地東北쪽 稜線과 加莫洞一帶의 敵을 剔抉케하여 戰鬪前哨陣地를 확대하였다.

그런데 高地공격을 위하여 侵襲하는 敵의 散開基點이 되어온 加莫洞을 확보하기에 이르자 唐僥한듯한 敵은 공격을 거듭하여, 이를 확보하였던 제7중대는 敵勢에 말려 물러서고 제5, 제6兩중대는 戰鬪前哨陣地를 再編하여 高地一帶를 확보하였다.

13일저녁부터 加莫洞을 占據한 敵과 高地東北쪽 稜線으로 侵襲한 2개 대대규모의 공격을 받기 시작한 제5, 제6兩중대는 有機的인 砲兵掩護와 照明支援에 이를 우선 擊退하였으나 22.00부터 所謂 대공세가 시작되면서부터는 1개 연대 규모로 增加한 敵의 계속적인 波狀공세를 받기에 이르렀다.

兩중대는 彈幕사격과 陣內사격이 거듭되는 砲兵掩護下에 凄絶한 近接戰을 敢行하여 여섯차례에 걸친 敵侵을 擊退하였는데 제5중대는 무전기가 故障나 信號彈으로 要請한 陣內사격이 제때에 지향되지 못하여 다음날 06.30에 陣地가 무너지면서 중대장 金鍾珪 대위를 비롯한 20餘名만이 脫出하고 08.00까지 高地를 固守한 제6중대는 중대장 金敦洙 대위 以下 全將校가 戰死하고 5~6명의 병사만이 살아서 탈출하는데 成功하였다.

제6중대가 玉碎하는 瞬間의 情狀에 관하여서는 無電이 杜絶되어 알길이 없었으나 며칠 뒤 主力과 合勢한 生存병사의 말에 따르면 陣內사격이 계속되는데도 不拘하고 敵의 特攻隊로 보이는 一團이 破壞筒으로 掩體據를 파괴하기 시작함으로써 壕에서 躍出하여 중대장을 先頭로 突進하면서 凄絶한 白兵의 格鬪를 벌였는데 이때

경첩이 둘러싼 敵을 물리치지 못하고 거의 全員이 戰死하였다고 한다.

이때 살아 남은 10餘名은 남은 수류탄으로 一角을 突破하면서 南쪽계곡으로 굴러 떨어져 2~3일後에야 主力과 合勢하였는데 그수가 5~6명에 지나지 못하였다.

이 戰功으로 제6중대장 故 金敦洙 대위에게는 軍人의 最高榮譽인 太極武功勳章이 追叙되었다.

이 戰鬪에서 포병의 지원이 눈부셨는데 砲身이 過熱한 탓인지 落伍彈이 많이 發生하여 我軍의 損失이 多少있었던 것으로 記憶한다.

◇ 제2연대 제5중대장 金鍾珪 대위 (1966년 8월 3일 제6사단에서, 중령)

나는 제2연대 제5중대장으로서 7.13공세가 벌어지는 그날에 제19연대 제3대대로부터 驛岩山北쪽의 戰鬪前哨陣地인 高地를 引受하였는데 뒤이어 제6, 제7兩중대가 進擊하여 附近一帶의 敵을 剔抉하고 高地—加莫洞에 이르는 一帶에 前進陣地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加莫洞을 확보하였던 제7중대는 敵의 즉각적인 逆襲으로 商山里로 물러서고 제6중대가 高地에 우리중대는 그 東南쪽 稜線에 각각 戰鬪前哨陣地를 再編하였는데 20.00부터 우리중대 正面으로 1개 대대규모의 敵이 공격하였으나 果敢한 近接戰과 適時適切한 포병지원으로 이를 無難히 擊退하였다.

그런데 21.30부터 敵은 熾烈을 極한 포격을 集中하는 가운데 1개 연대규모로써 波狀공격을 거듭함으로써 제6중대와의 連繫가 斷絶된채 포위망속에 빠져들었으나 彈幕사격과 陣內사격을 계속하는 砲兵掩護下에 새벽까지 陣地를 固守하였다.

그러나 04.00에는 무전기마저 파괴되어 完全 孤立된 상황아래서 激戰을 거듭하였는데 06.00에는 2개 대대규모의 敵이 一時에 怒濤처럼 밀려들기 시작하였다.

기관총 1정당 20箱子의 實彈과 1人當 100발씩 支給하였던 수류탄이 거의 떨어져 火力이 鈍化하기에 이르자 곳곳이 붕괴면서 白兵戰이 벌어지게 되었다.

나는 陣內사격에 依存할뿐이라고 판단하고 當

號彈을 계속 발사하였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砲擊이 즉각 轉換되지 못함으로써 陣內로 侵襲한 敵은 破壞筒으로 掩護態를 파괴하기 시작하였다.

絶對絶命의 상황에 이른 나는 돌격을 명령하였다.

병사들은 悽絶한 肉迫戰을 벌이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特別히 제3소대 선임하사관인 鄭상사는 참으로 勇敢하게 잘 싸웠다.

그러나 死傷者가 續出하고 이미 戰勢를 挽回키 어려운 것으로 判斷한 나는 離脫을 명령하였다.

06.30에 高소위가 지휘하는 화기소대가 先頭에서 銃劍으로 血路를 開拓하면서 撤收하였는데 이때 뒤 따른 병사는 不過 20명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責任을 痛感하고 自殺하고자 하였으나 늙으신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高소위를 비롯한 중대원들이 달려 들어 銃을 쏘는 바람에 죽지를 못하였다.

◇ 제19연대 제2대대 정보장교 趙德濟 중위 (1966년 8월 18일 제15사단 제39연대에서 소령)

나는 7.13攻襲때 대대 정보장교로서 驕岩附近의 대대 OP에서 상황근무를 하였는데 戰鬪前哨陣地를 확보한 제5중대는 7월 13일 밤부터 1개 대대규모의 敵의 포위공격을 받아 彈幕사격과 陣內사격을 거들하는 砲兵의 緊密한 協調下에 激戰을 벌였으나 03.00에 중대장 崔德明 대위가 戰死하고 04.00에는 分散되어 後退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를 뒤쫓은 敵은 05.00에 △363로 南

§ 戰 訓

戰鬪前哨陣地에 關하여

金城川의 主流 및 支流로 後方이 차단되어 良好한 예비陣地나 補助陣地를 保有하지 못하고, 兼하여 驕岩山을 除外한 主陣地의 地形上의 脆弱性으로 비추어 보아 戰鬪前哨陣地를 強化코기를 固守하면서 敵侵을 阻止擊滅키로 한 작전

下하여 제6중대와 그 左隣接인 제3중대를 強襲하는 가운데 後續한 1개 대대규모가 河川線을 따라 間隙으로 侵襲하여 淵巨里와 佳鶴里 中間의 高地를 奪取하고 제1, 제2 兩대대의 後方을 威脅하였다.

이에 제6중대는 淵巨里西北쪽 高地頂上에 四周防禦陣地를 編成하고 砲兵의 集中支援下에 激戰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敵이 三面을 포위한채 金城川支流를 徒涉하면서 衝勢를 集中함으로 紛戰의 보람없이 主陣地를 喪失하고 分散되었다.

이리하여 대대는 마지막 堡壘인 驕岩北쪽 高地의 제7중대 主陣地를 中心으로 密集防禦하면서 決戰태세를 갖추었으나 力不及하여 漸次增強되는 敵勢를 막아내지 못하고 물러서기 시작하였다.

이때 陣頭에서 지휘하던 대대장 鄭在甲중령이 負傷하고 밤새껏 계속된 사격으로 砲身이 벌겍게 단 81mm迫擊砲를 가지고 나올수가 없어서 砲身을 꾸부러버리고 나오기도 하였다.

대대는 淵巨里 南쪽 高地로 急進한 제3대대의 掩護下에 兵力을 收拾하였는데 이때 나는 제5중대장 代理로 任命되었으나 병력은 不過 30명이었다.

그뒤 대대는 驕岩山 西쪽 後線으로 물러서 急進陣地를 占領하고 그들의 迂回를 阻止코가 하였으나 또다시 敵勢에 밀려 蓋洞里를 거쳐 沈坡里에 集結하였다가 赤振山에 阻止陣地를 占領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落伍兵이 계속 收拾되어 내가 맡은 중대는 병력이 70명으로 불어났다.

계획 自體는 妥當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實際로 각 戰鬪前哨陣地에서는 敵侵을 맞아 激戰을 벌여 이를 阻止하거나 큰 打擊을 주어 그 侵襲을 遲延시키는데 成功하였으며 特別히 제2연대 제2대대같은 境遇는 玉碎를 서슴치 않고 高地를 固守하여 敵主力의 侵襲을 阻止하여 驕岩山防禦에 크게 이바하였다.

그러나 상황이 展開된 以來, 제19연대 제1대대가 예비대를 急進시켜 戰鬪前哨陣地에서 離脫하는 병력을 收容한 以外에 增援, 交代, 收容等 何等의 措置를 取하지 못하고 砲兵支撥에만 依存한채 奮戰을 督勵하였을 뿐이다.

勿論 예비대를 保有하지 못한 各연대에서는 別다른 措置를 取할수는 없었지만 敵의 大攻勢로 判明되고, 그 優勢가 戰鬪前哨陣地에서 阻止擊滅키 어려울 것으로 判斷되었다면 撤收케 하여 損失을 減少시키고 主陣地防禦를 強化토록 하여 이곳에서 決戰을 強要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제2연대에 있어서는 高高地를 확보한 제2대대(-)가 寡少한 병력으로 主攻을 맞아 血戰死鬪를 거듭하였는데 轆岩山防禦에 執着한 나머지 제3대대의 2개중대와 제2대대의 1개중대를 增援하였을지언정 高高地에 대한 何等의 增援對策을 講究하지 않은채 死守를 強要한 것은 現代戰術의 概念으로 미루어 再考의 餘地가 있다고 본다.

情報判斷에 대하여

美 제8군 사령관 Taylor대장은 7월 10일부터 시작된 轆岩山正面에 대한 敵의 優勢가 漸次로 擴大할 徵候를 보기에 이르자 金城川으로 側後方이 遮斷된 戰鬪正面을 담당하고 예비대를 保有하지 못한 사단의 現況을 勘案하여 제11사단의 1개연대를 사단에 배속케 하여 左一線연대의 一部 戰鬪正面을 引受케 하고, 美 제9군단과의 戰鬪地境線을 7월 15일 06.00附로 變更케 하여 該연대를 제9군단 右翼인 수도사단에 배속키로 하였다.

그런데 이 措置는 사단으로서 3km에 걸친 戰鬪正面이 縮少될 뿐만이 아니라 金城川西岸에 遊離되어 補給支撥을 비롯한 作戰上의 어려움은 가져다 주던 戰鬪正面을 引繼케 됨으로써 防禦上의 充實을 期할 수 있고, 被交代부대를 사단 예비로 轉用할 수 있어서 一石二鳥의 效果를 거둘 수 있는 適切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適時適切한 作戰判斷에 의한 措置가 敵이 이미 攻勢를 取하기 시작한 7월 14일 06.00에야 施行되기 시작하여 時宜를 逸失함

으로써 그 實効를 거두지 못한 것은 敵의 所謂 大攻勢를 예측하면서도 그 時機를 判斷키 못한 情報判斷의 缺陷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연대를 연대에 배속하는 問題에 대하여

사단장 白仁燁 소장은 作指 제23호로 제2연대의 1개대대를 7월 9일附로 제19연대에 배속한데 이어 作指 제78호 및 제79호로써 제2연대 隸下의 全대대를 逐次로 該연대에 배속하였다.

戰況의 急轉으로 因한 對應措置로서 제19연대의 一部 전투정면을 引受케 하기위한 交代節次上의 方便이었을 것으로 思料하기는 하나 如何間에 連대를 연대에 배속하는 結果를 招來하여 韓國軍사단을 美軍사단에 배속하던 誤謬의 前敵을 踏襲하였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措置는 指揮의 統一을 期할 수 있는 長點이 있는 것으로 判斷키 쉬우나 연대장이 6개대대를 指揮한다는 것은 그 能力의 限界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作戰의 混亂은 勿論 배속부대 將兵들의 士氣를 沮喪하여 그 效果의 減退를 避하기 어려울 것이다.

萬不得已하여 이와 같이 되었을 境遇에는 그 배속부대에 대한 指揮는 副指揮官에게 委任되어야 할 것이다.

河川에 沿한 陣地의 分割에 대하여

제7연대 제1대대는 金城川을 사이에 두고 그 東西 兩岸에 陣地를 分割編成하여 兵力을 배치함으로써 集中의 原則에 어긋나는 戰術上의 矛盾을 露呈하였다.

이 結果로 東岸에 陣地를 占領한 主力은 敵의 侵攻을 맞아 激戰을 벌였으나 西岸에 遊離된 1개중대는 火力으로써 이를 側方支撥하였을 뿐 달리 寄與하지 못하여 有機的인 作戰을 遂行할 수 없었다.

이러한 戰術上의 矛盾은 戰鬪地境線을 區劃하는 연대에서 事전에 調整되었어야 하고 地形上 不得已할 때는 연대수석중대등을 배속하여 戰術的인 價値가 적은 西岸陣地를 담당케 함으로써 제1대대는 東岸에서 統合運用케 했어야 마땅하였을 것으로 본다.

7. 白岩山부근 戰鬪 (1953년 7월 14일부터 // // 18일까지)

참조: 별책부도 제 13호

상 황 도 제 60~63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 2 군단	장	중장 丁 一 權	제 1 대대 장 중령 閔 邦 穆
제 5 사단	장	소장 金 鍾 甲	제 2 대대 장 소령 蘇 炳 烈
		소장 張 都 暎	제 3 대대 장 중령 南 白 奉
		(7, 16부터)	제 3 戰車中隊 1個小隊
제 27 연대	장	대령 崔 英 圭	제 3 重砲中隊
제 1 대대	장	중령 崔 奎 璵	제 901 船橋中隊
제 2 대대	장	중령 尹 泌 鏞	支援部隊
제 3 대대	장	중령 車 圭 憲	제 15 포병단 장 대령 金 東 洙
제 35 연대	장	대령 朴 昌 源	제 61 포병대대 장 중령 金 水 山
제 1 대대	장	소령 趙 誠 七	제 71 포병대대 장 소령 金 容 勳
제 2 대대	장	소령 鄭 仁 淳	제 78 포병대대 장 소령 金 元 基
제 3 대대	장	중령 孫 鎭 坤	美 제 987, 제 98, 제 176 포병대대
제 36 연대	장	대령 高 光 道	隣接部隊
제 1 대대	장	소령 朴 泰 松	右隣接
제 2 대대	장	중령 李 在 田	제 7 사단 제 5 연대 장 대령 孫 昌 奎
제 3 대대	장	중령 朴 英 極	左隣接
사단 工兵大隊	장	소령 吳 成 龍	제 3 사단 제 23 연대 장 대령 朴 徹
配屬部隊			
제 7 연대	장	대령 韓 官 興	

敵 軍

中共		제181사단	장 王 誠 漢
제60군	장 章 杰	(제541, 제542, 제543연대 基幹)	
제180사단	장 官 峻 亭	제179사단	장 吳 仕 宏
(제538, 제539, 제540연대 基幹)		(1個연대)	

나. 전투 전의 개황

本戰鬪는 休戰協定이 調印되기 2週日전인 1953년 7월 中旬에 이른바 「7.13攻勢」라고 하는 敵의 마지막 공격이 감행되었을 때에 華川 北쪽의 白岩山(△1,179) 부근에서 張都曠 소장이 지휘하는 제5사단이 中共 제60군의 主力을 大破하여 金城川 北쪽으로 驅逐한 전투이다.

이 「7.13攻勢」에 대하여는 그 政治의 背景과 作戰 段階別경과 등을 이미 概說에서 詳述한 바 있거니와 당시에 敵은 陳正湘이 지휘하는 中共 제20兵團이 主軸이 되어 제21병단(장, 陳賚) 隸下의 제60군을 增援받아 金城地區에서 제2군단(장, 丁一權 중장)과 美 第9군단(장, Reuben E. Jenkins 중장) 右翼의 방어정면을 뚫고 華川쪽으로 侵攻하였는데, 이들은 恒用手法인 山岳機動으로 17번도로의 東西 兩側方에서 白岩山과 赤根山쪽으로 衝鋒을 集中함으로써 제2군단의 右翼을 擔當한 제5사단이 白岩山 부근에서 東側으로 侵攻한 제60군과 激突케된 것이다. (참조: 상황도 61 호—제2군단의 배치상황과 敵의 侵攻)

따라서 始終 標高 700m 이상의 峻峻한 山岳地帶에서 對決케 되는데 戰鬪 초기인 13~15일 사이에는 降雨까지 겹쳐 視界가 不良한 雨中에서 敵侵을 받았으며, 16일以後에 軍에서 攻勢로 移轉하였을 때에는 日氣가 晴明하여 航空 및 砲兵의 協調된 지원아래 이를 무절리 失地를 恢復하였던 것이다.

특히 당시에는 同年 6월 8일에 捕虜交換協定이 타결됨을 契機로 하여 休戰調印의 展望이 멀어지자 軍에서는 敵의 動靜을 注視하던 바, 이들은 지난 해부터 爭奪戰을 펴오던 首都高地와 指形稜線 및 △949 등 주로 中東部戰線의 前進陣地에서 高地爭奪의 制限攻撃을 再開한 듯 하더니 7월 6일에 鐵原溪谷의 이른바 「화살머리 高地」로 1개사단 병력을 投入하여 여기에 注意를 集中시켜 놓고 7월 13일을 期하여 休戰을 留念한 最終攻勢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中部戰線에서 지난해 10월以後 10個月만에 一大攻防戰을 展開케 되었거니와, 當사단은 北漢江과 金城川에 沿한 斜形陣容의 방어진지를 편성한 까닭에 13일 初動에는 敵勢가 미치지 않았으나 14일 새벽에 제3사단의 防禦陣을 突破한 中共 제60군이 金城川을 건너면서 부터 이와 對決케 된 것이다.

敵軍의 狀況: 中共 제60군은 章杰이 지휘하여 52년 10월 末에 제68군(장, 邱蔚)의 작전지역을 引受하면서 부터 中東部戰線에 나온 것으로 알려진 부대이다.

이들은 隸下의 제179, 제180, 제181, 3個步兵사단과 제21포병단으로써 대체로 魚隱山—松亭—△674—△679—佐佩里線의 진지를 引受한 以來로 現地에서 겨울을 보내고 53년 4월까지 特記할만한 活動이 없이 守勢를 취하다가 5월 下旬에 접어들면서 挑發하기 시작하더니, 지난 6월 10일에 군단 右翼의 Missouri線(通先谷—△884—△973—△949—加羅峙 北쪽2km)으로 侵攻하여 當사단과 한차례 雌雄을 겨룬 바 있었다.

이때에 北漢江 東쪽의 △884—△973—△949등 山岳地帶에서 4일 동안의 血鬪를 벌여 彼我間에 큰

損傷을 보게 되었거니와, 그 結果 사단은 Iceland線(대체로 北漢江과 金城川으로 連하는 線)으로 한 結·을 물러서게 되고 이들은 제21군(장, 滕海漭)과 交代하였다고 하는데, 그 뒤에 이들 제60군은 다시 成川 부근으로 撤收하였다고 僞裝되었으나 其實은 本戰鬪을 준비키 위하여 金城부근에서 戰鬪을 整備한 것으로 戰鬪後에 判明되었다.

따라서 이 전투당시에 사단과 直接對陣한 부대는 제21군으로 이들은 廣石橋—黃柄洞—加羅峙—金城川江口로 連한 北漢江 東岸과 金城川 北岸에서 期間中에 계속진지를 固守하고, 실제 공격은 제60군이 이를 超越하여 金城川 부근으로 侵襲하였는데 이들은 지난 전투의 損失로 말미암아 補充된 新兵이 55%나 되었다고 하니 그 精練度는 대단치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렇지만 전투 初半에는 Missouri線을 一部 占領한 餘勢를 몰아 자못 氣勢로웠으니, 제1단계로 제180사단(장, 官鞍亭) 이하의 제538연대와 제540연대 그리고 제181사단(장, 王藏漢) 소속의 제543연대 등 都合 6,737명의 兵力과 82mm 박격포 42문에 60mm 84문 그리고 기관총 132정, Rocket포 42문 등의 裝備로 侵攻하였을 때에는 一日 平均 1,500여발의 砲擊支隊까지 받으면서 主抵抗線을 掠取하였다.

그러나 後半에는 守勢에 몰려 제539연대와 제542연대 그리고 제181사단의 直屬偵察隊까지 動員하였다고 하니, 結局 이들은 2個사단의 병력과 장비를 投入한 셈이다.

특히 本戰鬪에서 敵은 4日分의 野戰食糧 즉, 白米 40%에 高粱 50%, 小麥 10%의 主食과 통조림 鷄卵粉 등의 副食을 휴대하였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補給이 後續되지 못하여 戰意를 크게 꺾었다고 한다.

我軍의 狀況 : 한편 사단은 지난 6월 15일에 Iceland線으로 撤收하여 軍단 右翼의 擯當地域을 제3사단(장, 林善河 소장)에 引繼하고 16일 04.00附로 突 제10군단(장, Isac D. White 중장)에 配屬되어 부대정비에 들어갔다.

그것은 사단의 主力이 北漢江 東쪽의 轉石—甘雨里 부근에 集結케 됨으로써 整備期間동안 一時 백속된 것이거니와, 여기에서 사단은 지난 전투에 損失이 가장 컸던 제36연대(장, 高光道 대령)를 前方 부대로 배치한 가운데 H—19형 Helicopter 12台中로 推進된 250,000 Pound의 物資와 裝備를 補給받고 人員을 充員하는등 힘써 戰備를 갖추었다.

그 뒤로 同月 21일 18.00를 期하여 다시 제2군단으로 復歸하였는데, 이때에 軍단장 丁一權 中將의 명령에 따라, 副師團長 韓信 대령의 指揮下에 제36연대와 사단 수색중대 및 工兵 1개중대 그리고 戰車小隊를 統合한 이른바 「韓信戰鬪部隊」라고 하는 特殊任務 부대(Task force)를 편성하여 北漢江 東쪽의 軍단地域—△748와 轉石 北쪽 1.8km의 北漢江東岸으로 이어지는 2.5km의 戰鬪正面—을 專擔하여 戰鬪케 하고 主力을 華川부근으로 뺏아 教育훈련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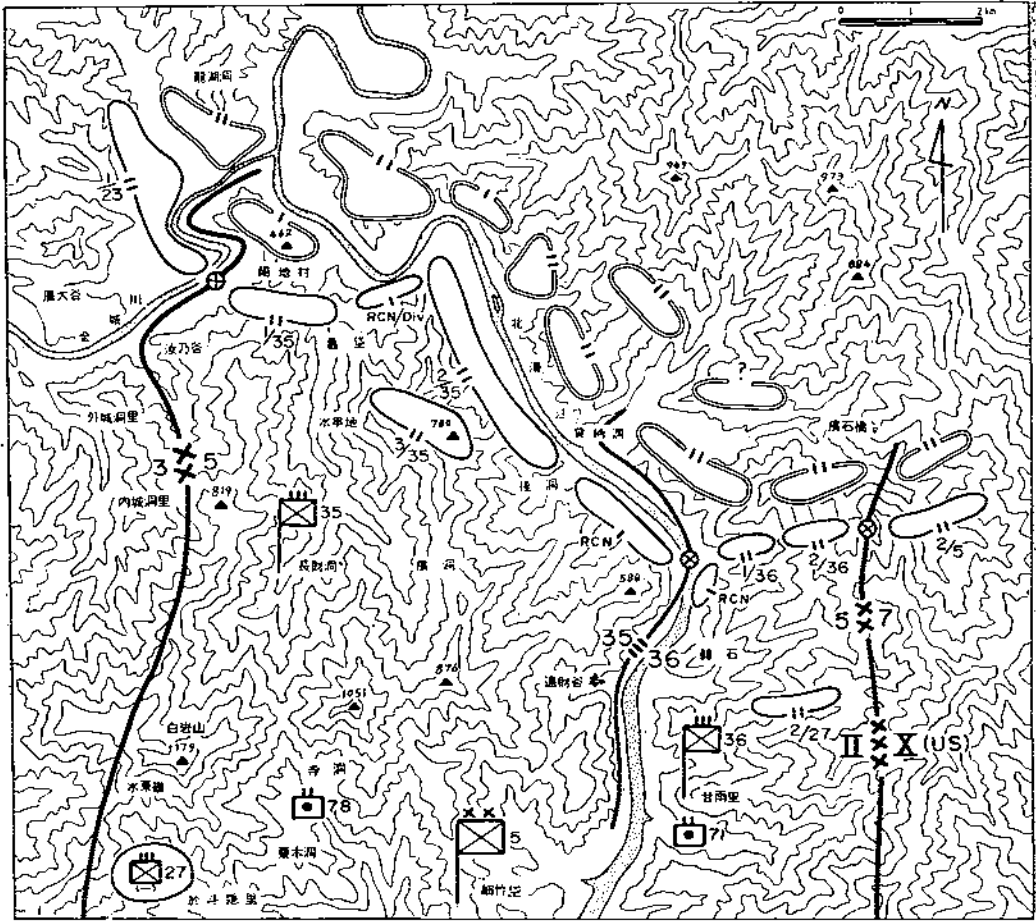
이것은 34,000여명의 新兵을 補充한데다 특히 中少尉級장교의 過半數가 初等軍事班과정을 履修하고 將 轉入된 까닭에 小部隊訓練을 중점적으로 실시코자 함이었는데, 前述한 바와 같이 敵의 攻勢徵候가 加重되자 軍단의 計劃에 따라 26일 14.00附로 제3사단의 一部地域을 引受하여 다시 一線에 서게 되었다.

즉, 제35연대(장, 朴昌源 대령)로써 제3사단 제18연대(장, 朴敬遠 대령)의 後洞—舊袋間 진지를 引受하고 또한 韓信戰鬪부대를 解體하여 제36연대를 現地에 배치한 채로 다시 統合하는 한편 제27연대(장, 崔英圭 대령)를 예비로 하여 軍단의 右翼을 맡게 된 것이다.

이로써 사단은 △748—後洞—舊袋—陽地村간의 Iceland線에서 本戰鬪에 임하게 되는 바 당시 사단의 日報兵力은 將교 535명에 사병 11,080이명이었으며 編制上的 基本裝備는 95% 水準을 確保하였다.

그런데 本전투가 시작될지 3일만인 16일 12.00附로 제6사단(장, 白仁燮 소장)의 제7연대(장, 韓官興 대령)가 작전상 백속되었으니, 當 연대의 장교110명과 사병 2,865명까지 습한다면 都合 14,590명

◇ 상황도 제60호 作戰地域과 彼我的 配置現況



의 將兵이 參戰한 勢이다.

그 밖에도 제15포병단(장, 金東洙 대령)을 비롯한 제3戰車中隊의 1個小隊와 제5重迫擊砲中隊 및 照明小隊등이 支援하고 美 제5空軍의 隨時지원이 可能하였다.

그리고 給糧과 彈藥은 여러가지 制限條件이 많았으나 期間中 始終 止장없이 補給하였다.

戰鬪當時의 右隣接은 제7사단의 제5연대(장, 孫昌奎 대령)가 △748 東쪽에서 제36연대와 戰線을 連繫하고 左隣接은 제9사단의 제23연대(장, 朴 徹 대령)와 陽地村에서 接觸을 維持하였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6월 末에 접어 들면서 敵의 攻勢徵候가 현저하게 加增되자 軍단장 丁一權 中장은 軍단각 전명령 제3호(53.6.26일 附)로서 戰線을 再整備하였다.

즉, 軍단의 右翼에서 14km에 達하는 廣正面을 맡고있는 제3사단의 責任區域을 縮小하여 그 東半部를 제5사단으로 하여금 擔當케 하고, 進지를 引繼한 제3사단은 그 左隣接인 제

8사단의 一部陣地를 引受케 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東端의 韓信전투부대를 同時附로 해체하여 그 母體이던 제36연대를 제5사단에 復歸시키면서 이 地域까지 包含한 軍단의 右翼을 當사단으로 하여금 擔當防禦케 하였다.

뿐만아니라 軍단의 野戰工兵인 제1103공병단의 一部兵力을 제8사단에 지원하여 首都高地와 指形稜線을 喪失한 以後의 不備한 陣지를 築城케 하고 사단 工兵으로써 白岩山 東쪽의 舊堡—長財洞간 103번 도로를 補修케 하는가 하면 一線의 貯彈量을 충분히 確保케 하는 등 現戰線의 固守方針아래 戰備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은 6월 26일을 期하여 다시 軍단의 右翼을 맡아 一線에 서게 되었거니와 이에 입하여 部署한 各연대의 任務와 兵力配置線을 明示한 사단 작전명령 제84호(6.26.14.00附)에 要旨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軍단 작전명령 제3호에 依據하여 제3사단의 一部戰線을 引受하고 韓信 전투부대를 統合하여 一線방어에 任하려 한다.

② 제35연대

㉠ 연대는 6월 27일 05.00를 期하여 제3사단 제18연대의 後洞—舊堡간 陣지를 引受하는 즉시로 左一線을 擔當방어하라.

㉡ 26일 15.00附로 제36연대에 配屬中인 81mm 박격포 4門을 統合 지휘하라.

③ 제36연대

㉠ 연대는 26일 15.00附로 △748—轉石 北쪽 1.8km의 現位置에서 사단에 復歸하여 右一線을 방어하라.

㉡ 同時附로 配屬中인 제35연대의 81mm 박격포소대를 배속 解除한다.

④ 제27연대

㉠ 연대는 堂巨里로 移動하여 別途命令이 있을 때까지 待機하라.

㉡ 26일 18.00限, 隸下 1개 중대로써 제3사단 제22연대의 제2중대가 맡고 있는 軍단 指揮所 警備任務를 引受케 하라.

⑤ 韓信전투부대는 26일 15.00附로 解體와 동시에 사단 指揮下에 복귀하라.

⑥ 工兵대대는 1개 중대로써 제35연대를 直接支援케 하라.

⑦ 其他部隊는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라.

⑧ 사단 指揮所는 26일 15.00以後부터 細竹堡(堂巨里 東쪽 3km)에 위치할 예정이다.』

이로부터 사단은 一線에 나와, 北漢江 東쪽의 제36연대(장, 高光道 대령)를 右一線으로 그 西쪽의 제35연대(장, 朴昌源 대령)를 左一線으로, 그리고 제27연대(장, 崔英圭 대령)를 예비로 한 방어태세를 取하였는데, 軍단의 方針에 따라 現戰線의 固守에 重點을 두고 陣지를 補強하였다.

그런데 軍단에서 7월 10일附로 다시 명령을 하달하여, 白岩山을 포함한 제3사단의 右端

地域 一部를 當사단으로 하여금 擔當토록 調整하는 한편 사단의 제27연대를 軍단 예비로서 於斗隱洞(華川 北쪽 16km)에 集結토록 하고 또한 사단의 火力을 增強시키는 등, 右翼地域의 一部戰線을 조정함으로써 사단은 7월 10일 24.00附로 다음과 같은 要旨의 작전명령 제85호를 下達하여 兵力과 火力의 配置를 再調整하였다.

『① 사단은 軍단作命에 依據하여 一部の 戰鬪地境을 再調整하는 동시에 제27연대(-)를 於斗隱洞으로 移動하려 한다.

② 제27연대

㉔ 연대(1개대대缺)는 7월 11일 02.00를 期하여 水上里에 集結하는 즉시로 於斗隱洞으로 移動하라.

㉕ 移動後 別途命命이 있을 때까지 부대정비와 교육에 任하라.

㉖ 殘留 1개대대(1개대대+搜索中隊)는 7월 11일 08.00附로 제36연대에 배속하라.

㉗ 配屬中인 工兵小隊는 現位置에서 殘留대대를 지원케하라.

③ 제35연대는 7월 12일 02.00까지 隸下 1개대대로써 제3사단 제23연대 제2대대(+2)의 陣地를 引受하여 現戰線에 連한 방어진지를 編成하라.

④ 제36연대는 제27연대의 1개대대를 統合指揮하여 現任務를 계속하라.

⑤ 제15砲兵團은 2개대대를 分割하여 제35, 제36양연대를 1개대대씩 각각 直接支援케 하고 1개대대는 사단을 一般支援토록 준비케하라.

⑥ 其他부대는 現任務를 계속 遂行하라.

⑦ 사단 前方指揮所는 細竹堡에 위치한다.

11일 17.00에 사단 後方補給所를 祐長洞(華川 東쪽 11km)으로 推進할 예정이다.』

이상과 같은 命命을 받은 각연대는 臆跌없이 所任을 遂行케 되었거니와, 특히 제15포병단(장, 金東洙 대령)의 砲兵附錄에 의한 配置狀況을 보면, 金容수소령이 지휘하는 제71포병대대를 甘雨里로 推進하여 제36연대를 直接支援케 하고 金元基소령이 지휘하는 제78대대를 水上里 寺洞부근에 放列케하여 제35연대를 직접 지원케 하였으며, 제61포병대대(장, 金水山 중령)로써 사단을 一般支援키로 하였다.

이렇듯 戰列을 整備한 사단은 如前히 現前線의 固守態勢를 취한 가운데 진지를 보강하던바, 13일 밤에 中共 集團軍이 攻勢를 취함으로써 本戰鬪를 惹起케 되었다.

(2) 작전실시

7월 14일 : 전날 夕陽에 血戰을 물고 온 이른바 「7.13攻勢」라고 하는 敵의 마지막 突風이 中部전선에서 戰端을 일으켜, 바로 사단의 左隣接인 제3사단(장, 林善河소장) 예하의 제22연대(장, 崔澤元 대령) 정면으로 中共 제179사단(장, 吳仕宏)이 衝鋒을 드리대는가하면 金城 西南쪽에서는 제135사단(장, 韋統泰)이 제6사단(장, 白仁燁 소장)의 제7연대(장, 韓官興

대령) 지역으로 觸手를 指向하고, 또한 金化 東쪽에서는 首都사단의 右一線인 제1연대(장 崔世寅 대령) 정면으로 역시 中共 제68군 예하의 제203사단(장, 楊棟樑)이 침공하는 등, 대체로 21.30을 前後하여 金城川에서 金化에 이르는 거의 全地域에서 激突을 보게 되었다.

이때에 사단(장, 金鍾甲 소장)은 제2군단(장, 丁一權 중장)의 右翼으로, Iceland선(當面에는 △748-後洞-舊堡-汝乃谷으로 이어지는 線)에서 北漢江과 金城川 南岸의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西쪽에서 이같은 戰火가 치솟게 되자 즉각 비상에 돌입하여 전투태세를 갖추는 한편 砲兵의 攪亂射擊으로 이를 牽制하면서 특히 西側方의 예상敵侵勢를 注視하던바, 가랑비와 더불어 밤이 깊어갈뿐, 子正이 넘도록 敵의 隻影을 보이지 않더니 이날 00.45에 이르러 左一線인 제35연대(장, 朴昌源 대령)정면에서 그 覆面을 드러 내었다.

1. 中共 제180사단의 侵攻

전투간에 捕虜들의 진술을 통하여 밝혀진 바에 따르면 연대 정면으로 侵攻한 敵은 中共 제60군(장, 韋杰)예하의 제180사단 소속으로서, 官峻亭이 지휘하여 龍湖洞 계곡에서 △324(陽地村 北쪽 1.5km)로 金城川을 건넌다음 江岸道路를 따라 潛入하였다고 하는데, 연대의 局地警戒초소에서 約定된 신호탄 3발로 敵侵信號를 올릴때만 하여도 2개중대규모이던 것이 時刻을 다투듯 急增하여 01.00에 이르러서는 增強된 대대규모로서 연대 左端의 제3중대(장, 李春錫 대위) 陣前에 밀려드는가 하면 또 다른 2개 중대규모가 그 東쪽의 제2중대(장, 朱秀雄 대위) 정면으로 殺到하는 등, 接敵보고가 잇달았다.

그뿐만아니라 이로부터 敵의 砲擊이 激增하여 이 부근에 集中되었는데 특히 左隣接사단과의 接境地帶인 陽地村 부근에 그 密度가 尤甚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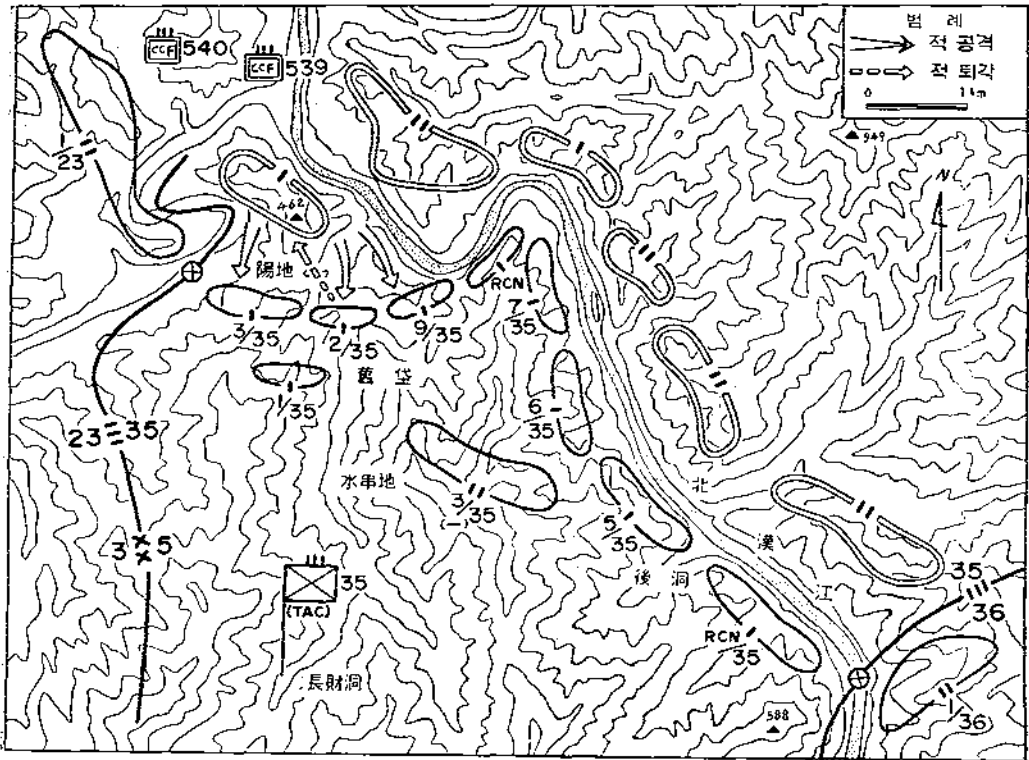
이같은 侵攻樣相과 砲擊 등으로 미루어 볼 때에 이들은 제5, 제3 兩사단간의 地境을 뚫고 장차 白岩山(△1,179)으로 侵入코자 劃策하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제35연대의 제1대대(장, 趙誠七 소령)가 맡아 제2, 제3 兩중대를 左右一線으로 하여 그중 左端의 제3중대로 하여금 제3사단의 제23연대와 진지를 連繫케 하고 제1중대는 그 直後方의 △689에 예비로 控置한 가운데 방어태세를 취한 곳으로서 2,000m 內외의 전투정면이었으니 결코 過重한 것은 아니었으나 연대규모가 여기에 집중공격을 加함으로써 彼我의 激突은 처음부터 불을 뿜게 되었다.

이와같은 報告에 接한 사단에서는 배속중인 제15포병단(장, 金東洙 대령)으로하여금 攪亂射擊으로부터 즉각 遮斷射擊으로 전환케 하여 제61포병대대(장, 金水山 중령)를 비롯한 제71대대(장, 金容숙 소령)와 제78대대(장, 金元基 소령)가 一齊히 砲門을 여기에 돌리고 또한 군단의 美 제176포병대대까지 合勢하여 集中射擊을 加하니, 天空을 메운 閃光과 地殼을 뚫을 것 같은 鐵火가 可히 山腹을 무너뜨릴것만 같았다.

이러한 砲擊에도 不拘하고 02.00가 되자 彈幕地帶를 넘어선 대대규모가 제3중대 陣前으로 殺到하여 어느덧 수류탄대결을 보게되었으며, 거의 같은 시각에 제2중대 정면에서도 陣

◇ 상황도 제61호 敵의 제1차侵攻



前 150m直 前方에 埋設한 지뢰지대 부근으로 侵襲한 2개중대 규모가 爆殺을 무릅쓰고 一 步 一 步 육박하였다. 이로부터 敵은 砲擊을 延伸한듯, 主抵抗線을 넘어 연대 지휘소가 위 치한 長財洞 부근까지 砲火가 미쳤으니, 이 一帶에 집중된 彈數가 2,600여발을 헤아렸으며, 이로 말미암아 제1대대와는 『增強된 대대규모가 다시 金城川을 건너고 있다』는 보고를 마 지막으로 有線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 뒤로 한동안 상황보고가 杜絶되다가 砲聲과 雜音에 얽힌 無線交信이 疏通되어 그 보 고에 따르면 03.00 현재 제3중대는 진지를 固守한 가운데 血鬪를 계속하고 있으며, 제2중 대 정면의 敵은 점차로 戰線을 이탈하고 있다 하였다.

2. 제3대대(-)의 增派

이상과 같이 敵의 狂波가 左一線으로 집중하자 연대장 朴昌源 대령은 예비인 제3대대의 一 部兵力을 增派키로 결심하고 同대대장 孫鎭坤중령에게 『1個中隊를 舊堡부근으로 추진하 여 機動대세로 待機하라』는 구두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때가 03.10으로, 현재 同대대는 激戰場에서 東南쪽으로 3.5km의 거리인 △780 부근에서 제10, 제11 兩중대로써 제2선진지를 점령하고 제9중대(장, 金龍賢 대위)는 一線에 배치되어 제1, 제2 兩대대간의 配置線 間隙을 補綴케한 실정이었으므로 대대장은 제2선에서 1個中隊

를 抽出키로 결정하여, 제10중대장 徐武松 중위에게 『중대는 즉시 蘆袋 南쪽 溪谷으로 집결하여 다음 명령을 待機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同중대는 △780—△740간의 配置兵力을 뽑아 徒步移動으로 水串地를 西南쪽으로 迂回한 다음 지시된 장소에 당도하고보니 04.30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무렵 제1대대 정면의 敵은 한때 제3중대의 陣內에 까지 侵襲하여 一部の 陣地를 却奪하기도 하였으나, 集中砲擊으로 말미암아 後續支援을 얻지 못한채 차츰 △462부근으로 물러서고 있었으므로, 연대에서는 그 動向을 파악키 위하여 제10중대로 하여금 現集結地인 103번도로 西쪽에서 阻止陣地를 設置하도록 조치하였다.

그 뒤로 日出과 더불어 該敵이 現地에서 潛伏상태로 들어가자 연대장은 다시 제3대대의 제11중대(장, 張斗京 대위)를 蘆袋쪽으로 推進케 하여 저지진지를 設置한 가운데 언제라도 躍出할 수 있는 機動態勢를 갖추게 하였다.

3. 사단장의 措置

한편 사단장 金鍾甲 소장은 交戰初부터 隣接사단의 狀況을 포함한 전반적인 戰況을 검토하던 바 敵의 攻擊方向이 軍단 右翼에서는 白岩山 지역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看破코, 그 對應策을 講究하였다. 즉, 이날 아침 06.00에 軍단장의 承認을 얻어 於斗隱洞에 待機中인 제27연대(제2대대缺)를 白岩山 西쪽의 俗稱 파수골 부근으로 躍進케 하는 동시에 제36연대에 配屬中인 搜索中隊를 배속 解除하여 急遽 白岩山 東側으로 移動토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崔英圭 대령이 지휘하는 제27연대(一)는 08.20에 벌써 「파수골」에 당도하여 대별로 散開한 가운데 전투태세를 갖추었으며, 수색중대 14.30에 北漢江 東岸의 甘雨里에서 江을 건너 徒步移動 끝에 21.30에 白岩山으로 뛰어올라 그 東北稜線에 急編陣地를 마련하였다.

또한 사단장은 北漢江 以東의 右一線을 맡고 있는 제36연대장 高光道 대령에게, 江 東쪽의 사단責任地域을 專擔하여 東側方을 掩護토록 지시하는 동시에 同연대에서 1個대대를 뽑아 甘雨里에 예비로 待機시키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연대는 前進陣地에 나가있는 제5중대를 △748로 復歸케 하여 제3대대의 陣地를 인수토록 하는 한편 朴永極 중령이 지휘하는 제3대대를 甘雨里로 轉進케 하였다.

이렇듯 交戰線과 5~7km 떨어진 後方에서 戰術機動이 계속되는 동안 제15포병단의 砲火는 끊임없이 敵線을 強打하여 △462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4. 敵의 再侵

이상과 같이 戰線을 再調整하고 있을 무렵인 이날 16.00에 中共 제180사단의 主力이 두 번째로 侵攻하였으니, 이번에는 연대 규모의 병력으로 △462에서 陽地村으로 迂回하여 제1차공격에서 苦戰을 치른바 있는 제3중대의 陣地를 휩쓸고자 波狀攻擊을 감행하였다.

이들은 機動間에 陽地村 부근의 彈幕地帶에서 무수한 損傷을 입었으나 屍體를 埋고넣어

波一波가 陣前으로 殺到하여 15.40에는 중대의 陣內에서 一大 混戰을 벌이게 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一群이 汝乃谷을 따라 대대의 西側背를 攻圍함으로써 중대는 점차로 敵中에 孤立케 되고 이때부터 左隣接사단과의 연락마저도 끊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左隣接인 제23연대(장, 朴徹 대령)는 이날 11.00부터 龍湖洞 西쪽에서 血鬪를 거듭한 끝에 이 時刻에는 廣大谷(別隅 東北쪽 3km)으로 轉進하고 있었던 것이니, 그 뒤를 追躡한 것으로 推測되는 中共 제180사단은 機動의 自由를 얻은 나머지 主力으로써 金城川을 건너 兩사단의 接際部位를 突破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참조: 제2군단 作戰詳報 p. 2: 77).

이렇듯 戰況이 急轉하자 연대에서는 舊壘 南쪽에 待機中인 제3대대(一)를 제1대대 진지 直後方으로 약진케 하여 △819부근에서 阻止障地를 急編케 하는 동시에 제1대대의 主力을 長財洞으로 撤收토록 조치하였다.

이와 아울러 연대장은 砲兵의 掩護射擊을 요청하고, 右一線인 제2대대로 하여금 水串地-△780線의 敵侵 예상지역으로 방어정면을 바꾸어 西向障地를 점령케 하는 등 제2의 阻止線을 형성하는데 온힘을 기우렸다.

이에 따라 각대대는 時刻을 다투어 제2선으로 속속 轉進케 된 바, 舊壘 南쪽에서 躍出한 제3대대(장, 孫鎭坤 중령)는 城洞고개를 넘어 △819에 당도하는 즉시로 제10중대를 內城洞里 부근에, 제11중대는 그 右側의 △879北麓에 18.00까지 각각 配置하였으며, 16.45에 江岸障地에서 약진한 제2대대(장, 鄭仁淳 소령)는 △780을 中心으로 그 東쪽에 제6중대 그리고 그 西側に 제5중대를 각각 19.00까지 展開配備하였다.

그동안에 제1대대(장, 趙誠七 소령)는 포병의 掩護아래 一止一擊으로 敵을 牽制하면서 서서히 병력을 뽑아 21.20에 제2배치선의 2km 後方인 長財洞으로 集結하였는데, 이번 전투에서 대대는 側背가 暴露되어 作戰上 철수케 됨으로써 兵力과 裝備面에서의 損失이 비교적 輕微하였다.

그런데 제1대대의 轉進과 때를 같이하여 跟隨한 敵이 이번에는 증강된 大隊규모로써 舊壘 南쪽으로 侵攻하였으니 이 목을 지키던 제2대대의 제6중대(장, 禹台命 대위)와 어울려 19.35부터 水串地 北쪽 계곡에서 격돌케 되었다.

이리하여 1시간동안에 걸친 對決結果 敵은 屠戮의 慘狀만을 남긴채로 물러서고 말았는데 특히 東側에서 扞援한 제7중대(장, 李芳洙 대위)가 逆攻으로 그 腹背를 찌르자 20.30을 前後하여 103번 道路 西쪽으로 退避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敵의 再侵을 물리치는 동안 사단에서는 情報參謀 金俊敎 중령이 綜合한 敵情을 분석한 끝에, 지금 前方의 敵勢가 사단 규모인 것으로 結論짓고, 비록 水串地-△819간의 急編障地에서 一巨 阻止하였으나 必然코 새로운 공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이에 對備키 위하여 長財洞-白岩山線을 重點的으로 補強케 하였다. 즉, 제27연대의 主力을 白岩山

北麓에 배치토록 하는 동시에 同연대의 수색중대를 그 西쪽의 新屯地로 推進하여 西側方을 掩護케 하고 또한 사단 搜索中隊를 22.00附로 제35연대에 配屬시켜 長財洞 西쪽 稜線을 擔當하여 補綴케 하는가하면 同연대의 제2, 제3 兩대대가 連繫한 水串地부근의 진지를 自隊 兵力으로 더욱 強化케 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 사단장 韓信 대령은 직접 長財洞까지 나아가 兵力의 收拾과 配置狀況 등을 督察하였는데, 특히 一部の 新兵들이 當황하여 秩序를 잃을 때 마다 大號로써 수습, 조정 한 끝에 이날 밤 23.00까지 弧形防禦陣을 形成케 되었거니와 그 陣容을 보면 대체로 제35연대 제2대대가 △780부근에, 同제1대대와 수색중대는 長財洞부근에, 제27연대 제3대대는 白岩山 東側에, 그리고 제1대대와 搜索中隊는 그 西側에서 각각 진지를 急編하여 對決態勢를 취하였다.

그 뒤로 敵은 이날 밤에 間歇的인 공격을 계속하여 長財洞의 東北쪽 稜線에서 제35연대의 제3대대가 5個 中隊규모와 對決하는가 하면 그 西쪽의 △819부근에서 사단 수색중대가 數未詳의 敵을 擊退하는 등, 밤이 깊도록 水串地-△819간의 中央部에서 紛戰이 거듭되었다.

7월 15일 : 전날 밤에 제35연대의 제3대대가 △819부근에서 徹夜交戰 끝에 이날 04.00를 前後하여 長財洞 北쪽의 103번 도로 부근으로 물러서게되자 제2선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즉, 敵은 蘆垆와 長財洞간 103번 道路 西側을 장악하여 白岩山으로 直進키 위한 발판을 굳힌 反面에 사단의 弧形防禦線은 그 戰鬪正面이 延伸될 뿐만 아니라 險한 高地帶에서 四周방어태세를 취하게 되니 도처에 脆弱性이 드러나 有機的인 戰線維持가 어려워졌다.

이러한 難題를 안은 가운데 이제 제35연대와 제27연대가 103번도로를 사이에 두고 그 東西에서 각각 진지를 強化하고 있던 바, 이날 早朝에 陣前 500-1,000m 까지 侵襲한 敵은 上午에 一巨 공격을 멈추고 사단의 動靜을 探索하는 듯 하더니, 14.00에 이르러 다시 狂波를 일으켰다.

1. 敵의 제3차 侵攻

먼저 그 先鋒인 2個 대대규모가 水串地 西쪽의 제35연대 제3대대 정면으로 侵攻하여 激突케 되었는데, 交戰이 시작된지 10분쯤 지나자 그 東쪽의 △741로 다시 2個 대대규모가 同연대 제2대대의 진지를 窺視하는가 하면 또 다른 2個 대대규모가 白岩山으로 直向하여 제27연대의 제3대대를 攻圍하는 등, 이제 中共 제180사단은 主力으로써 總力攻勢를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兩연대의 거의 全地域에서 一大狂風이 일어나 砲煙彈雨속에 雌雄을 決하게 되었는데 2시간 동안의 交鬪 끝에 接敵以來로 連日連鬪를 거듭한 제35연대의 제3대대 진지가 무너져 長財洞으로 밀리게되자, 戰勢는 急轉하여 △780를 擔當한 同연대의 제2대대가 東

北쪽에 孤立케 되고 西쪽에서는 제27연대 제3대대의 東側背가 暴露되어 그들의 先頭가 103번 道路를 뚫어 들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이로부터 弧形防守陣이 凋落됨에 따른 亂脈과 砲擊으로 말미암은 混紛이 겹쳐 시간이 경과할수록 戰況은 점점 더 不利하여져만 갔다.

이에 제35연대장 朴昌源 대령은 103번도로 東側의 要域을 確保키 위하여 東北쪽의 제2대대로 하여금 廣洞(長財洞 東쪽 2km)으로 急遽 轉進케 하는 한편 渦中에 놓인 제3대대의 收拾에 힘쓰던 바, 바로 이무렵 사단장 金鍾甲 소장으로부터 要旨 다음과 같은 口頭命令이 하달되었다. (사단 作戰命令 제88호로서 文書命令 後達)

『① 사단은 Polar선(△876—△1051—白岩山)에서 當面의 敵을 阻止 擊滅하려 한다.

② 제27연대는 15일 18.00를 期하여 사용 可能한 모든 兵力으로써 白岩山을 占領防禦하라.

最短時間內에 東側에서는 103번도로에서 제35연대와, 西側에서는 △1,118(白岩山 西쪽 1.8km)에서 左隣接인 제3사단과 各々 戰線을 連繫하라.

③ 제35연대는 15일 18.00를 期하여 現在 掌握한 兵力으로써 △588—△876—△1,051간을 방어하라.

사단수색중대를 統合指揮하라.

④ 제36연대는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라.

⑤ 각 연대는 陣地 占領과 동시에 강력한 警戒部隊를 運用하라.』

이 명령에 明示된 Polar線은 대체로 △1,051와 白岩山이 이어지는 當面의 第一高峰에 沿하는 선으로서, 南쪽과 北쪽을 眼下에 俯瞰할 수 있는 敵制地域일 뿐 아니라 右—線인 제36연대와도 橫的 연결이 可能한 지역이었으니, 사단은 이 要線을 期必코 확보키로 한 듯 하거니와 만일 이곳을 막지 못한다면 사실상 堂巨里 南쪽으로 물러서야 하는 형세였던 것이다.

이같은 상황아래 각연대는 激浪을 헤쳐 續續 담당지역으로 약진하였으니, 즉 제35연대는 수색중대를 東端의 △588에 배치하고 그에 連하여 제2대대를 △876(白岩山 東쪽 4km)에 배치하는가 하면 長財洞 南쪽에서 收拾한 제1, 제3 兩대대를 △1,051에 展開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配屬中인 사단 수색중대로 하여금 當地域의 動脈과도 같은 103번 本道(長財洞—寺洞—堂巨里)를 專擔케 하는 등, 대체로 19.00부터 20.00사이에 戰鬪展開를 마쳤다. 그 동안에 左—線인 제27연대도 제1대대와 수색중대를 白岩山 北麓에 전개하는 한편 東北쪽 3km 전방의 제3대대를 白岩山 東側으로 轉進, 集結케 하였던 바 同대대는 대대장 車圭憲 중령의 지휘아래 且戰且退로 敵의 侵攻을 牽制하면서 서서히 兵力을 뿔아 21.00에 그 東南麓에 集結하였다. 그리고 이무렵 同연대의 제2대대(장, 尹泌鏞 중령)는 제36연대의 배속에서 解除되어 19.00에 巨七添으로 北漢江을 건너다음 一路 本隊로 向하여 疾馳하고 있

었다.

2. 敵의 제4차 侵攻

이상과 같이 사단에서 Polar線上的 진지를 補強키에 心血을 기울이고 있을 무렵인 이날 밤 20.10에 敵은 연대규모의 병력으로 長財洞 一帶를 휩쓴다음 餘勢를 몰아 $\Delta 1,051$ 로 밀어 닦쳤으니, 여기에서 진지를 構築하던 제35연대의 제3대대가 싸움다운 싸움도 치르지 못한채 相衝一決로 무너져 寺洞(俗稱 水上里절골)부근으로 再轉케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白岩山 東南麓의 제27연대 제3대대도 栗洞(俗稱 밤나무골)으로 한걸음 물러서게 되었다.

이 어이없는 싸움은 勢의 結果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니, 아직도 兩연대가 Polar線上的 대부분의 진지를 掌握하고 있던데 一旦 그 中央部가 分裂되자 敵의 主力이 潮水와도 같이 밀려들어 1시간이 채 넘기도전에 그 先頭가 寺洞부근에 나타났으며, 이로부터 兩연대의 防禦陣이 흔들려 점차로 混亂속에 빠져 들었다.

여기에 雪上加霜으로 彼我를 가릴 수 없는 砲火가 이 一帶에 集中 함으로써 各 梯隊間的 通信杜絶사태가 續出하고 어둠속에 指揮體系가 마비되어 溪谷을 내려오는 병사들이 敵인지 我軍인지 구분키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그런데 이때에 左隣接인 제3사단 정면에서도 黑雲土嶺을 넘어선 中共 제179사단이 白岩山 西쪽의 俗稱 『백암골』 부근으로 侵攻하여 激突끝에 $\Delta 1,057$ —山陽里간의 Wyoming線으로 철수케 되었거니와, 이로 미루어보면 사실상 白岩山은 敵중에 包圍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렇듯 危局을 맞이하자 사단장 金鍾甲 소장은 一旦 부대를 Wyoming선(當面에는 細竹 堂一堂巨里— $\Delta 1,057$ 를 連하는 선)으로 뽑아 戰列을 가다듬은 다음 攻勢를 再興키로 결심하고 21.30을 期하여 要旨 아래와같은 口頭命令을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Wyoming線에서 부대를 整備한 다음 戰勢를 期必코 挽回하려한다.

② 제27연대는 1個대대를 $\Delta 478$ (小高飛雲里 西北쪽 1.2km)로 急派하여 제35연대의 撤收를 掩護케 하는 동시에 主力으로써 高屯谷—水東嶺간의 左一線을 방어하라.

15일 21.30附로 사단에 配屬中인 戰車小隊(5臺)를 통합지휘하라.

③ 제35연대는 短時間內에 병력을 收拾하여 堂巨里— $\Delta 782$ (堂巨里 西北쪽 2km)간의 Wyoming선을 占領하라.

$\Delta 876$ (白岩山 東쪽 4km)를 確保中인 1個대대를 別途命令이 있을때까지 現地에서 全面防禦케 하라.

④ 제36연대는 現任務를 계속 遂行하되, 甘雨里에 待機中인 예비대로써 北漢江 東岸에 방어진지를 編成하라.

⑤ 사단의 收容線은 小高飛雲里—水上里—栗木洞—高屯谷이다.

각연대는 落伍兵 收拾에 최선을 다하라.』

이 명령은 작전참모 車文錫 소령이 透明圖上에 上述의 要旨을 옮겨 이에 따른 兩연대간의 전투지경선을 劃定한 다음 곧 각연대에 傳令을 急派하여 下達하였는데, 이에 接한 제 27연대장 崔英圭 대령은 제 36연대의 配屬으로부터 復歸中인 제 2대대로 하여금 △478를 中心으로 한 掩護陣地를 점령케 하는 동시에 제 1, 제 3 兩대대의 主力을 白岩山 南쪽으로 뽑아 高屯谷부근에서 진지를 急編하였으며, 제 35연대장 朴昌源 대령은 △876의 제 2대대로 하여금 △1,051m까지 侵襲한 敵을 그 東側에서 全面防禦태세로 牽制케 하는 한편 힘써 分散兵力을 수습하여 Wyoming線上의 진지를 구축키에 盡力하였다.

그리고 제 36연대장 高光道 대령은 甘雨里에 待機中인 제 3대대를 轉石 西北쪽 1.2km—甘雨里간의 江岸地域에 배치하는 한편 수색중대로서 그 北쪽의 △748에 連한 斜形陣地를 점령케 하고 또한 제 2대대(一)는 △748 南쪽에 縱深配置하는등 사단 主力의 撤收에 따른 西側方의 脆弱點을 補強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단 正面의 要域인 白岩山과 △1,051가 허무하게 敵中에 떨어져고 말았는데 이들은 여기에서 一旦 공격을 멈춘듯 그뒤로 차츰 接觸이 끊어지고 제 15포병단의 補修 妨害射擊만이 밤이 깊도록 불을 쬐었다.

7월 16일 : 前日 下午에 白岩山과 黑雲吐嶺이 敵手中에 떨어져자 軍단장 丁一權 中장은 隸 下의 各 사단에 『이 以上의 撤退를 容認하지 않는다』는 嚴命과 아울러 現接觸線에서의 反擊을 준비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앞서 그는 一部の 戰鬪地境線을 調整하여 金城川 부근에서 激戰을 치른바 있는 第 3사단(장, 林善河 소장)을 예비로 뽑고 當該地域을 第 8사단(장, 宋堯讚 소장)으로 하여금 擔當케 하는 동시에 軍단에 새로이 隸屬된 第 11사단(장, 林富澤 中장)을 左翼으로 推進하여 15일 05.00附로 第 6사단의 진지를 引受케 한 바 있었으니 이제 軍단은 右翼의 第 5사단, 中央의 第 8사단, 그리고 左翼의 第 11사단 등, 都合 3個사단으로써 Wyoming線에서 反擊態勢를 갖추기에 이르렀다.

이때에 4사단은 當面한 Wyoming線인 甘雨里—高飛雲里—堂巨里—△1,057(堂巨里 西쪽 5km)부근에서 부대를 수습함과 아울러 恢復作戰을 計劃하던 中, 軍上부의 조치에 의하여 突然사단장이 바뀌게 되었다. 즉 4사단장 金鍾甲소장이 在任한채로, 새로이 張都暎 소장이 『이 부대를 지휘하여 失地를 恢復하라』는 명령을 받고 赴任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文書命숨이 없이 口頭上으로 취하여진 暫定措置로서 (戰鬪後에도 行政措置는 취하여지지 않았음) 以後 本戰鬪가 끝날때까지 실질적으로 張都暎 소장이 指揮權을 행사케 되 거니와, 당시에 그는 1년간의 美指揮參謀대학(Command and Staff Collage) 과정을 履修한後 歸國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戰地로 부임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破格的인 4사단장으로서 在職하던 지난 51년 8월 末에 바로 이 白岩山부근에서 中共 第 80사단(장, 林風淸)의 主力을 大破하여 金城川 北쪽으로 潰退케한 點

등을 감안한 應急의 奇策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과연 恢復作戰을 계획하는 이 時點에서 指揮官의 交替가 妥當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는 再考를 要하는 一場面이기도 하다.

그야 어떻든 이에따라 張都陝 소장이 이날부터 反擊作戰을 지휘케 되었는데 그는 戰況을 파악한 다음 우선 전장병에게 『以後로는 一步의 撤退도 容恕치 않겠다』는 嚴命을 내리고 現在사단의 可用兵力과 장비를 확인하는가 하면 軍단에 本人이 과거에 지휘한바 있는 제6사단에서 1個연대를 지원토록 요청하는 등(당시에 제6사단은 反擊段階에서 軍단 예비로 Wyoming선 방어에 임함) 강력히 밀고 나갔다.

그런데 이날 03.00 현재 사단의 配置상황을 보면 北漢江 東쪽에는 제36연대(장, 高光道 대령)가 Iceland線上의 진지(△748—轉石—甘雨里)를 그대로 堅守하는 가운데 特記할만한 敵情이 없이 東側方을 掩護하고 江西쪽의 激突地域에서는 제35연대(一)가 細竹袋—小高飛雲里—堂巨里간의 Wyoming선에, 그리고 제27연대는 白岩山 南쪽의 高屯谷 부근에서, 각각 反擊을 준비하였으며 다만 제35연대의 제2대대는 敵陣 東北쪽의 △876에서 全面防禦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이같은 狀況아래 攻擊方案을 摸索하던 사단장은 제1단계로 白岩山과 △1,051를 奪還하는데 主眼하여 一部의 병력으로써 이 부근의 4個의 目標을 탈취키로 결정한 다음 要點 아래와 같은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現戰線을 堅守하면서 一部의 兵力으로 다음 目標 ①—②—③—④를 奪還하려 한다.

①—白岩山

②—白岩山 東北쪽의 △1,070

③—△1,051

④—△1,051의 西北쪽 突出綫

② 제27연대는 16일 06.00를 期하여 1個대대 병력으로써 目標 ①—②를 奪取하라.

③ 제35연대는 16일 06.00를 期하여 1個대대 병력으로써 目標 ③—④를 奪取하라.

④ 제36연대는 現任務를 계속 遂行하라.』

1. 제35연대의 戰況

反擊隊列의 右一線을 맡은 제35연대(장, 朴昌源 대령)는 △1,051(一名, 小白岩山)와 그 西北쪽의 突出綫에 沿하여 선정된 ③—④目標을 공격케 되었는데 現在의 병력배치상황으로 보아 연대의 主力이 目標에서 6km 떨어진 小高飛雲里 부근에 位置한 反面에 제2대대는 그 東쪽 1.5km의 △876에서 敵의 江岸進出을 牽制하고 있었으므로 이날의 공격임무를 同대대에 부여하여 ③—④의 順으로 西進強襲케 하였다.

이에따라 제2대대(장, 鄭仁淳 소령)는 △876의 四周 방어진을 풀어, 제6, 제7 兩중대를 左右第一線으로 하고 제5중대는 예비로서 現地에 待機시킨 가운데 먼저 ③(△1,051)을 目標

로 出擊하였다.

그런데 本是 이 고지는 그 南斜面이 險谷과 急傾斜로 이어지는 反面에 바로 대대의 進路인 東側은 거의 對等한 等高線으로 펼쳐진 까닭에 그 處를 뚫고 側方으로 突入하여 08. 10現在 兩중대가 敵의 특별한 저항없이 一躍 그 中腹으로 육박하였다.

여기에서 대대는 突擊線에 展開하는 즉시로 賊聲도 드높이 敵陣에 뛰어드니 不意에 急襲을 받은 增強된 중대규모가 周章狼狽하여 四散하는지라 一擊에 이를 무절러 1명을 俘獲하고 12具의 遺棄屍體를 확인할 뿐만아니라 小銃 4정 등을 鹵獲함과 아울러 11.50에 이 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런데 이를 掌中에 넣은지 30餘分이 지난 12.30에 敵은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逆襲을 감행하여 그 北麓에 侵襲함으로써 대대는 ④목표의 공격을 一擧 중지하고 이를 擊滅코자 全火力을 집중하였다.

이로부터 攻守가 뒤바뀐 새로운 대결을 벌이게 되었는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敵의 수효가 漸增하여 四周에서 兩중대를 크게 포위할 뿐만아니라 14.30에는 제5중대가 맡고 있는 東側의 △876까지 呑取코자 또다른 數未詳의 一群이 廣洞쪽에서 밀려 들었다.

이상과같은 報告를 받은 연대장 朴昌源 대령은 제2대대의 任務를 轉換하여 『귀대대는 別途명령이 있을 때까지 △876와 △1,051를 固守하라』고 지시하는 동시에 趙誠七 소령이 지휘하는 제1대대로 하여금 『配屬中인 사단수색대까지 統合지휘하여 ④목표를 奪取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날 연대의 공격에는 문제점이 있었다. 즉, 1개대대 병력으로 목표를 탈취하라는 사단의 명령에 따라 陣前의 衆敵을 圖謀하지 않은 채로 제2대대 單獨으로 側方에서 穿攻케 함으로써 스스로 1개대대를 敵의 重圍속에 던진 결과가 되고 말았으며, 이를 支援코자 할 때에는 이미 時間이 늦었던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제2대대는 敵中에서 孤立奮鬪케 되었으니, 제5중대는 지금까지 확보하고 있던 △876에서 40분동안의 血鬪끝에 分散상태에 이르고 △1,051의 대대 主力도 蟻集攻圍하는 激浪속에 苦戰을 치르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뒤늦게 ④목표로 向發한 제1대대도 水上里 溪谷에 들어서면서 그 東쪽의 △596에서 抵抗하는 중대규모와 부딪쳐 正面 대결케 됨으로써 進出이 더디어, 여기에서 交戰이 시작된지 40여분이 지난 15.30 現在에도 이를 격파하지 못하고 △1,051 南쪽 3km에 머물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戰況의 推移를 銳意注視하던 사단장은 16.00를 期하여 『제35연대는 즉시 공격을 중지하고 제2대대를 포함한 연대의 全兵力을 水上里 부근으로 集結하여 다음 전투에 對備하라』는 要旨의 口頭命令을 하달하였다.

사단의 이같은 조치는 當面한 연대의 混戰을 收拾함과 아울러 明日의 攻襲을 준비키 위

한 事前措置인 것으로 分析되는 바, 이날 12.00附로 제6사단(장, 白仁燦 소장)의 제7연대(장, 韓官興 대령)가 配屬된 직후부터 陣中會議를 거듭한 끝에 Wyoming線上의 각 연대병력을 水上里—栗木洞—高屯谷—水東嶺 부근으로 推進토록 한 點만 보더라도 能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연대는 공격보다도 제2대대의 수습이 급하게 되어 同대대로 하여금 △1,051에서 寺洞으로 通하는 小路를 따라 水上里로 轉進케 하는 한편 제1대대(一)를 寺洞 南쪽으로 急派하여 이를 掩護케 하였던 바, 豺狼의 무리를 헤친 百獸의 王과도 같이 敵中을 뚫고 南進한 兩대대는 19.00를 前後하여 水上里에 당도하였으며, 그 동안에 堂巨里에 위치한 제3대대도 小高飛雲里로 올라와 이 一帶에서 연대의 主力이 驚天動地의 一戰을 決하게 되었다.

2. 제27연대의 戰況

한편 제27연대(장, 崔英圭 대령)는 이날 左一線에서 白岩山 부근의 목표 ①—②를 공격케 되었는데, 그 任務를 전날 제36연대에서 復歸한 제2대대(장, 尹必鏞 중령)에 부여하여 ①~②의 順으로 東進攻擊케 하였다.

이에따라 同대대는 白岩山 南쪽 2km의 高屯谷에서 出擊態勢를 갖추었는데 전날 復歸中에 水上里 부근의 △478에서 제35연대의 撤收를 掩護한 바 있었으나 아직 敵과의 直接衝突이 없었던 까닭에 人員과 裝備面에서 편제상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士氣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初動의 銳氣를 當面の 第一峰인 ①(白岩山)을 먼저 攻略할 決心으로 제5 제6 兩중대를 左右第一線으로 하여 단숨에 水東嶺을 넘어선 다음 10.00를 前後하여 主力으로써 그 直南方으로 突入하였다.

그런데 이 山은 8부稜線으로부터 그 頂上까지 奇岩怪石으로 UNG쳐서 거의 通路가 없이 斷崖와 絶壁으로 이어진 까닭에 심한 機動의 制限을 받는데다 2개 중대 규모로 推算되는 敵이 岩壁에 의지하여 縱射의 불길을 휘두르고 또한 棒狀手榴彈을 連投하니 좀처럼 이를 打開치 못한채로 어느덧 12.00가 넘었다.

이러는 사이에 敵의 砲火가 集中하여 進展없이 死傷者가 續出케 되자 대대장은 13.00를 期하여 兩중대를 水東嶺 부근으로 隨意撤收케 하였다.

그 뒤로 대대는 戰列을 다시 가다듬은 다음 14.30을 期하여 再攻擊을 단행하였는데 이번에는 尹大榮 대위가 지휘하는 제7중대를 先鋒으로 하여 2個의 特攻組로써 西側方의 單一通路를 따라 집중적으로 突破케 하는 동시에 可用한 모든 火力으로 이를 엄호케 하였던 바, 15.10에 左端의 機關銃 特火點을 破碎함과 아울러 1명의 俘虜를 捕獲하는 등 그 一角을 奪取하자 一齊히 挺進突擊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敵의 抵抗도 만만치 않아 左端의 特攻組가 逆襲에 밀려 水東嶺쪽으로 反轉케 되고

直前方의 主力도 死角地帶를 넘지 못한채 突擊前의 상태로 되돌고 말았다.

이같은 激戰이 反復되고 있을 무렵에 突然 연대에서 공격 中止命令이 하달되었으니 이는 前述 한바와 같은 사단의 方針에 따른 措置였거니와 이로부터 대대는 서서히 兵力을 뽑아 指示된 장소인 水東嶺부근에서 四周방어태세를 취한 가운데 다음 전투를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그 동안에 연대에서는 車主窟 중령이 지휘하는 제3대대를 16.30부터 高屯谷으로 推進하여 제2대대와 함께 다음 戰鬪에 對備케하고 수색중대를 栗木洞 北쪽에 배치하여 側方警戒에 임하도록 하였다.

3. 사단의 再攻擊 準備

以上과 같이 兩연대의 공격이 一進一退를 보이고 있는 동안 사단에서는 제7연대(장, 韓官興 대령)가 配屬됨을 契機로하여 새로운 反擊準備에 着手하였다. 즉, 이날 16.00를 期하여 第一線의 공격을 一旦 중지케하는 한편 사단의 主力을 水上里—栗木洞—高屯谷—水東嶺 부근의 攻擊待機線상으로 推進하고 또한 攻擊間에 確認된 敵情을 分析하는 등, 밤이 늦도록 熟議를 거듭한 끝에 우선 Polar線상의 5個지역을 攻略기로 결정하여 23.00附로 要旨 아래와 같은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17일 05.00를 期하여 다음목표 ㉠—㉡—㉢—㉣—㉤를 奪還한 然後에 계속戰果를 擴大하여 金城川까지 進擊하러 한다.

목표 ㉠—白岩山 北쪽 2.3km의 無名高地

㉡—白岩山 東北쪽 2km의 無名高地

㉢—△1,051

㉣—△876

㉤—還財谷 南쪽의 無名高地

② 제27연대는 목표 ㉡를 奪取한 다음 長財洞으로 進擊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③ 제35연대(수색중대배속)는 ㉢—㉣—㉤를 奪取한 다음 廣洞으로 進出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④ 제7연대는 ㉠를 奪取한 다음 別途命令을 待機토록 하라.

⑤ 제36연대는 現任務를 계속 遂行하라.

⑥ 제15포병단은 사단을 一般支援하되 火力의 優先權을 제7연대에 두라.

⑦ 제5重迫擊砲중대는 제27, 제35양연대에 1개소대씩 分割配屬하고 중대本部는 제36연대지역에 위치하라.

⑧ 공격준비사격은 04.30부터 30분간 실시하라. 火力統制線은 △596—寺洞—水東嶺 北쪽 1km線이다.

⑨ 공격개시後 사단장은 堂巨里에 위치할 예정이다』

이 명령으로 미루어 보건대 사단은 드디어 主力으로써 一次 反擊戰을 展開키로 하였거니와 특히 白岩山을 圖謀함에 있어서는 正面直衝을 避하고 그 側後方으로 迂回공격하여 一網打盡키로 하였으며 사단의 예비대가 없이 제36연대로써 東側을 掩護케한 가운데 全力을 攻勢爲主로 編成하였던 것이다.

·7월 17일 : 이윽고 反擊巨鼓를 울린 사단은 이날 05.00를 期하여 제27, 제35, 제7연대 등 3개연대로써 一齊히 攻勢로 移轉하니, 30분 前부터 Polar線상의 敵陣을 強打하던 제15포병단(장, 金東沐 대령)의 射程이 延伸되고, 撤退過程에서 士氣가 沮喪되었던 一部の 병사들이 驕虎의 氣勢를 보였다 .

특히 이날은 날씨도 晴明하여 아침 한때 濃霧가 山谷을 매운바 있었으나 日出과 더불어 셋은듯이 사라지고 敵의 砲擊만이 一定한 표적없이 集中되는 가운데 각 연대는 지시된 목표를 指向코 焰煙속의 叢林을 헤쳐 나갔다.

1. 제35연대의 反擊狀況

右一線에서 ㉠-㉡-㉢ 3個目標을 공격케 된 제35연대(장, 朴昌源[대령)는 配屬中인 사단 수색중대로 하여금 東端의 ㉡목표를, 제1대대로써 그 西쪽의 ㉢를, 그리고 제3대대로써 最西쪽의 ㉠를 각각 공격케하고 전날 △1,051에서 激戰을 치른바 있는 제2대대를 예비로서 後續케 하되, 특히 ㉠인 △1,051의 공격을 重視하여 그 直南方으로 兵力運用의 重點을 둔 가운데 각대대 단위로 各個擊破케하였다.

가) ㉡목표의 奪取

㉡는 사단 正面의 5個 選定目標 가운데 제일 東쪽에 있는 北漢江 西岸의 無名高地이다.

따라서 東쪽으로는 江을 끼고 西쪽에는 溪谷이 흘러, 制限된 地形條件으로 말미암아 比較的 敵情이 輕微할 것으로 豫見되는 까닭에 연대에서는 사단 수색중대로 하여금 專擔 공격케 하였던 것이다.

이때에 중대는 ㉡에서 5km 南쪽의 高飛雲里(堂巨里 東쪽 1.8km)에 있었는데 이같은 명령을 받게 되자 공격준비사격이 시작된 04.30에 拂曉속의 機動을 시작하여 예정시간인 05.00에 水上里에서 공격 隊列에 加擔하였다.

이리하여 東北쪽으로 向發한 중대(장, 孫錫振 대위)는 敵의 警戒視線이 江岸道路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의 西南쪽으로 突入코자 山間小路를 따라 巨七添 西쪽으로 躍進하던바 10.50에 그 先頭가 △613 南麓에 당도하자 數未詳의 敵이 突然 그 左右稜線에서 自動小銃의 側射火力으로 불길을 내뿜었다.

이에 중대는 곧 제1, 제3 양소대를 左右로 展開하여 먼저 △613를 공격케되었는데 그 中腹에서 增強된 소대규모가 頑強히 버틸므로써 아직 ㉡까지는 2km를 남겨놓은 中途에서 2시간 30여분동안의 交戰을 벌이게 되었다.

이러다가 13.30에 左第一線인 제3소대가 敵의 火力擔點을 破摧함과 때를 같이하여 手榴

彈突擊을 加한 끝에 7具의 遺棄屍體를 확인함과 아울러 이 高地를 佔領하였다.

이렇듯 躍進基地를 確保한 中대는 餘勢를 몰아 다시 ㉔를 直指하였는데 이번에는 △613를 先占한 제3소대를 예비로 돌리고 제1, 제2 양소대를 앞세워 그 兩側方에서 挾攻케 하였던바, 여기에서도 역시 소대규모가 一時 抵抗한 바 있었으나 이들은 곧 混亂에 빠져 潰走하기에 정신이 없었으므로 이를 覆滅한 끝에 17.00를 전후하여 還財谷 南쪽의 江岸要域을 모두 掌握하게 되었다.

이로써 ㉔와 江岸道路까지 掌中에 넣은 中대는 四周防禦진지를 急編하는 한편 江 東쪽의 제36연대 제3대대와 呼應하여 警戒태세를 갖추기에 이르렀다.

나) 제1대대의 ㉔목표攻擊

목표 ㉔인 △876는 △1,051와 함께 연대 정면의 二大峰으로서 전날(16일) 아침까지 연대의 제2대대가 이 고지에서 全面방어 태세로 敵의 東側方 進出을 牽制하던 據點이었는데 전날 下午에 敵이 △1,051를 넘어 그 南쪽의 △702까지 侵襲함으로써 이와 對決한 同대대가 이 고지를 내놓고 水山리로 물러서게 되었거니와 이에 따라 敵은 同高地는 勿論이요, 그 南쪽의 △702와 △596까지 3km에 沿하는 叢林地帶를 누비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연대에서는 이를 공격함에 있어 먼저 △596를 奪取한 다음 △702△—876의 軸線으로 逐次進擊토록 計劃하여 그 任務를 趙誠七 소령이 지휘하는 제1대대에 부여하였던 것이다.

이때에 同대대는 △596 南쪽 1km의 水上里 부근에 待機中인 상태에서 이 명령을 받고, 바로 北쪽의 이 高地를 先破키 위한 方案을 검토한 끝에 제1, 제3 兩중대로써 공격개시와 동시에 그 南斜面으로 突入하여 直衝擊破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06.50에 先頭인 제3중대(장, 李春烈 대위)의 2개소대가 同高地의 200m直前方向으로 육박하자 中대규모의 敵이 一時에 抗拒하여, 東側稜線의 突角部에서 기관총 側射火力이 불을 뿜는 가하면 박격포를 포함한 各種 小口徑의 火力이 進出正面에 亂飛하고 또한 07.10부터 左側의 제1중대가 手榴彈 대결을 벌이는 등, 熾烈한 격돌을 보게되었다.

이러한 交戰이 1시간 30분 동안이나 거듭되어도 좀처럼 突擊線을 넘지못하자 대대장은 예비인 제2중대를 사용키로 결심하고 同중대장 朱秀雄 대위에게 『△596의 東側으로 迂回하여 그 右肩部를 強襲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81mm박격포의 全火力을 小路에 接한 東側部位에 集中토록 조치하였다.

이같은 명령을 받은 제2중대장은 水上里 부근의 兵力을 이르게 急遽 第一線으로 躍進케 되었는데, 특히 當中隊는 지난 14일 以來 지금까지 제일 先鋒에서 激戰을 거듭하는 동안 상당한 병력손실을 보게된 까닭에 各小隊간의 兵力水準의 均衡을 유지키 어려운 실정이었으므로 中대의 全兵力을 小銃小隊를 母體로 한 3個 공격조로 再編하여 그중 제3조는 中대 장자신이 直接指揮하고 제1조는 金松南 중위, 제2조는 白虎乙 중위에게 各各지휘케하여 우-

거진 灌木帶를 거쳐서 약진에 이은 약진으로 澈陣 깊숙히 迂回突入하였다.

그리하여 09.20에 △596 東北쪽 溪谷으로 들어선 중대는 곧 그 東北斜面으로 뛰어올라 中隊長組가 單一小路에 接하는 목을 지킨 가운데 제1, 제2 양조가 그 左右에서 同時에 側背를 急襲하니 소대규모가 이를 막고자 한동안 저항하다가 여유를 주지 않는 一陣突風에 휘말려 정신없이 潰散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轉機를 捕捉한 중대는 喊聲 드높이 陣內로 突入하여 이를 覆滅할 뿐만아니라 同高地 南斜面의 敵의 뒤통수를 쳐서 부찌른 끝에 11.00에 △596를 점령케 되었는데 이 一戰에서 중대 單獨戰果만도 確認된 遺棄屍體가 45具에 俘虜 7명을 얻고 그밖에도 機關銃 2정을 비롯한 각종 소총23정등을 노획하였다.

이렇듯 防備의 虛를 찔러 第一峰을 탈취한 대대는 제2중대를 여기에 남겨 待機케 하고 제 1, 3 兩중대를 超越시켜 12.30에 다시 그 北쪽의 △702를 목표로 縱戰의 信號를 올렸다

그런데 △596에서 圖生한 一部の 醜敵들이 △702 直南方 500m의 無名高地에서 그들의 增援병력과 合勢하여 대대의 進路를 막고자 함으로써 여기에서 또 一擊을 加하게 되었으니 이들은 督戰隊의 銃부리 앞에 釘着되었음인지 쉽사리 물러서지 않고 盲射의 불길을 휘둘러, 進出이 遲遲하게 되었다.

그러나 14.00부터 16.00까지 2시간동안에 걸친 渾沌 끝에 이들은 死傷者만을 더한채로 戰線을 離脫함으로써 16.25에 이 無名高地를 手襲에 掌握케 되었거니와 특히 이 공격에서는 李春瓚 대위가 지휘하는 제3중대가 先鋒突入으로 2명의 捕虜를 사로잡고 15具의 유기시체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제3중대에 配屬된 중화기중대의 機關銃소대도 이와 併進하여 掩護射擊에 이은 突擊射擊으로 직접 제1선의 공격에 加擔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하여 無名高地의 主人이 된 대대는 17.00를 期하여 다시 △702를 목표로 3차 공격에 나섰는데 대대의 主力이 그 南쪽 300m지점에 이른 17.40에 돌연 연대에서 공격중지 명령이 하달되었으니 이는 이미 日暮가 가까워 이날안으로 ⑩를 奪取키 어려울 것으로 낙다보고 地形條件이 防禦에 有利한 現地에서 하루밤을 徹夜케한 듯 하거니와 이에따라 奔馬之勢의 대대도 하는 수없이 進出線에서 四周방어태세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대대는 ⑩를 남겨놓고 공격을 멈추게 되었으나 그 南쪽의 主要高地를 모두 장악하여 前進地基를 확보케 되었으며 直前方의 △702도 사실상 手中에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었다.

다) 제3대대의 ⑩목표攻擊

목표 ⑩는 연대 正面에서 제일 높은 △1,051(小白岩山)를 포함한 그 一帶로서 주위의 大小群峰을 眼下에 굽어볼 뿐만아니라 高地帶의 細徑이 모두 여기에 연결되는 要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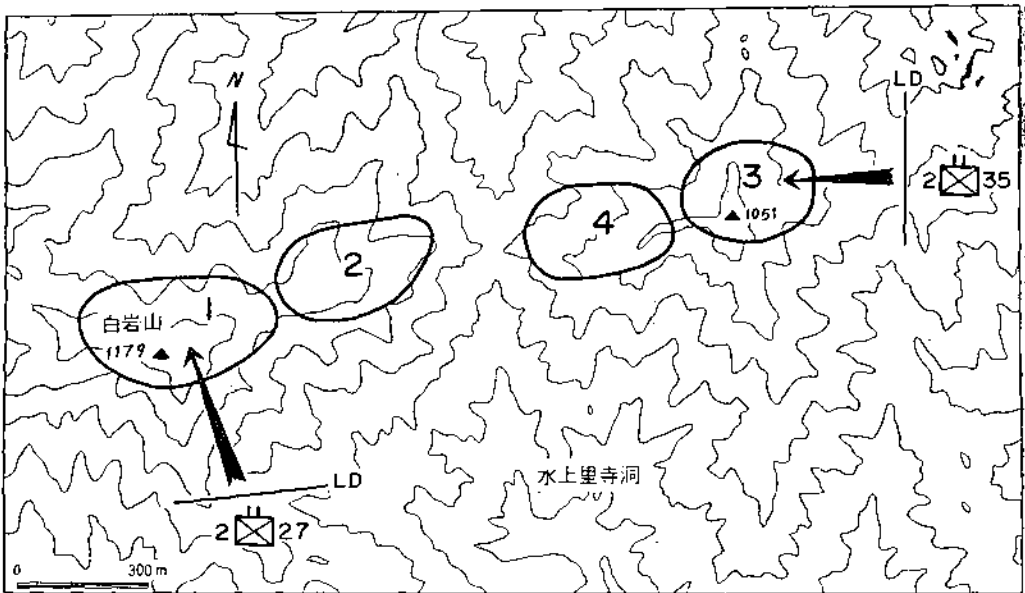
사단 情報參謀 金俊哉 중령의 通報에 따르면 敵의 연대 OP가 여기에 위치한 듯 하다고 하며 배치병력도 대대규모로 推算되고 또한 그 南쪽의 寺洞 부근에도 중대규모의 병력이 散

在한 것으로 判斷한다고 하니, 現陣地로부터 4km에 達하는 이 목표의 공격은 사실상 야
 날 연대작전의 中軸이 되는 셈이었다.

이에 연대에서는 最初공격임무를 孫鍾坤 중령이 지휘하는 제3대대로 하여금 擔當케 하되
 예비인 제2대대(장, 鄭仁淳 소령)를 바로 後繼토록 하여 敵情에 따른 對應策을 취하기로 하
 였다.

이같은 연대의 方針에 따라 ㉔를 공격케 된 제3대대는 먼저 寺洞 北쪽의 無名高地를 中
 間目標을 選定하여 이를 先取한 다음 ㉔의 西南쪽에서 進擊할 예정으로 제10, 제11 兩중
 대를 左右第一線으로 하여 寺洞쪽으로 밀고 올라갔다.

◇ 상황도 제62호 제1차 反擊目標



그런데 바로 이 攻擊軸線 西側의 白岩山이 아직 敵中에 있어 側方의 威脅이 뒤따르는
 까닭에 예비인 제9중대에서 1개소대를 뽑아 長財洞—上里上의 103번 道路를 따라 威力搜
 索으로 併進하면서 西側方을 掩護케 하고 主力은 狹路를 通하여 寺洞으로 躍進하였다.

이리하여 先頭인 제10중대(장, 徐武松 중위)가 寺洞 溪谷으로 들어서자, 該 無名高地 南
 麓에서 증강된 소대규모가 進路를 막아 한차베의 衝突을 보게 되었는데 이들은 아예 敵手
 가 되지 못하여 중대단독으로 一擊에 무찔러 蹴破하고 달았다.

이로써 곧 이어 中間目標을 점령케 되었는데 豫想과는 달리 이 부근의 敵情은 輕微하여
 더 이상 抵抗이 없었으므로 이제 ㉔를 指向코, 제10, 제11 兩중대의 一線任務를 그대로 繼
 續케 하여 10.10부터 一路 東北進하였다.

그런데 寺洞에서 ㉔의 西斜面에 沿하는 一帶가 敵의 彈幕地帶인지 이로부터 敵火가 攻擊
 線 一圓에 集中하여 한치의 공간도 허용치 않을 듯이 連爆하니 이로 말미암아 隊列이 紛야

저 死角地帶로 待避현상이 일어났으며 이 火力帶를 迅速히 通過코자하나 뒤엎힌 가시덤불 속에 山허리로 이어지는 急傾斜의 連壁으로 統制와 指揮가 용이치못하여 여기에서 1시간 이상을 머물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 孫鎮坤 중령은 兩중대장을 無繩으로 불러 跳躍進出을 大號하는 한편 예비인 제6중대의 2個소대를 寺洞 東쪽에서 ㉔의 直南方으로 直衝토록 조치하였던 바, 힘써 병력을 수습한 兩중대는 彈雨를 뚫고 약진과 포복으로 이은 끝에 13.30에 △1,051의 8부稜線으로 육박하였으며 右側의 제9중대(一)도 ㉔南쪽 500m線에서 14.00 부터 이와 合勢케 되었다.

이렇듯 兩面에서 連軸한 대대는 南쪽에 있는 제9중대(一)의 掩護아래 西側의 兩중대가 수류탄을 뽑아들고 一齊히 突擊을 감행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대대규모가 地形의 利를 取한 진지에 依支하여 頑強히 버팀으로써 이를 突破하지 못하였으며 그뒤로 세차레나 力攻을 거듭하였지만 끝내 이를 奪取하지 못한채로 날이 저물고 말았다.

이리하여 日沒과 더불어 下達된 연대의 공격중지 명령에 따라 대대는 現地에서 한걸음 물러서서, 제9중대는 南쪽 稜線에 제11중대는 西南쪽, 그리고 제10중대는 西쪽 稜線에 각각 진지를 急編하여 指呼之間의 敵陣을 凝視하며 警戒태세로 들어갔다.

한편 이날 제3대대를 後續하던 제2대대(장, 鄭仁淳 소령)는 연대의 主力이 中間目標을 넘어선 직후에 寺洞 東쪽으로 進出하여 待機하다가, ㉔—㉕의 直南方에서 一線 兩대대가 警戒태세로 들어가자 그 中央地帶에 노출케된 虛隙을 補強키 위하여 제5, 제6 兩중대으로써 △596—寺洞간을 連綴하는 據點을 確保하였다.

이상과 같이 연대는 이날 비록 ㉔—㉕를 아직 掌中에 넣지 못하였으나 東端의 ㉕를 비롯하여 △596와 寺洞 北쪽의 無名高地등 Polar線 南쪽의 要扼點을 모두 장악하여 장차 進擊의 발판을 굳히게 되었다.

2. 제27연대의 反擊狀況

中央一線인 제27연대(장, 崔英圭 대령)의 이날 攻擊目標은 사단 作戰命令上에서의 ㉑이다. 이 목표는 白岩山(△179) 東北쪽 2km의 無名高地로서, 敵陣 깊이 長財洞부근에 選定되었던 것이니 아직 白岩山이 敵中에 있는 現狀況 아래서, 이같이 목표를 선정한 사단의 措置는 전날 白岩山을 공격하였으나 峻嶮한 岩壁과 그에 依支한 敵의 저항에 부딪쳐 豫想外의 兵力損失을 본 바 있으므로 이 不利한 地形條件아래 正面攻擊을 계속하느니 보다는 迂回로써 當연대로 하여금 그 東南쪽의 ㉑를 공격케하고 左一線인 제7연대로 하여금 그 直後方의 ㉒를 圖謀케하여 敵의 撤退를 強要하려는 心算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연대는 ㉑를 공격케 되었거니와 연대의 立場에서는 당장 目前의 白岩山도 奪取해야 하는 만큼 이 好機를 이용하여 併行攻擊키로 결심한 연대장은 車圭憲 중령이 지휘하는 제3대대로 하여금 杏嶺(俗稱살구령)을 넘어 ㉑를 攻取케 하되, 전날 白岩山에서 一戰을 치른바 있는 제2대대(장, 尹泌鏞 중령)로써 白岩山을 다시 打擊케하고 제1대대(장, 崔

奎道 중령)는 杏嶺쪽으로 後續시켜 상황에 따라 對處키로 하였다.

가) 제3대대의 B목표 攻擊

이날 03.30을 期하여 ㉔를 指向한 제3대대는 集結地인 栗木洞(白岩山 東南쪽 2km)을 떠나기에 앞서, 대대장의 口頭命令으로 杏嶺을 占領할 때까지 제10, 제11 兩중대가 左右第一線을 擔當하고 제9중대는 예비로써 寺洞 西쪽의 道路부근에 待機키로 한 가운데 拂曉를 利用하여 機動을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曉暗을 해쳐 栗木洞 北쪽의 嶮路를 넘은 대대는 07.10에 先頭인 제11중대가 寺洞 西쪽의 103번 本道부근에 當到하자 그 左右稜線에 埋伏한 소대규모의 敵이 盲射의 불길을 휘둘렀다.

이에 중대장 全炳烈 대위는 즉각 제2, 제3 兩소대를 左右側方으로 散開시켜 이를 공격케 하였던 바, 10여분 동안의 交戰 끝에 2명의 捕虜를 사로잡음과 아울러 一擊에 이를 覆滅하고 말았다.

여기에서 氣力을 높인 중대는 계속 선두에서 躍進의 驟步를 더하여 이번에는 杏嶺을 목표로 밀고 올라갔는데, 여기에서는 중대규모가 道路 兩便의 嶮崖를 끼고 발악할 뿐만 아니라 그 西쪽의 $\Delta 1,070$ 에서도 중대규모가 同時에 火力을 集中하여 14.50부터 激突케 되었다.

이때에 제1소대장 高景晚 소위가 소대원을 奮勵하여 제일 先頭에서 火網을 뚫고 敵陣 東側의 虛隙으로 육박 突入하니, 그 뒤를 이어 제3소대장 金正浩 중위가 내달아 突進에 이은 突擊으로 集中破摧를 가하였다.

그러나 關門을 지키고자 한 敵의 저항도 頑強하여 勝敗를 가름할 수 없는 紛糾가 反復될 즈음에, 제10중대(장, 姜允植 중위)가 東側에서 強雨를 뚫고 突入하여 舍勢하고, 또한 後續한 제9중대(장, 車東一 대위)가 $\Delta 1,070$ 로 挺進하여 狹攻하는가 하면 103번 本道를 따라 窺進하는 2營의 戰車가 불을 뿜는 등 步戰協同 공격을 가하니 당황한 敵은 무질서하게 戰線을 離脫하기 시작하였다.

이 好機를 놓칠새라 中央의 제11중대가 一齊突擊으로 杏嶺을 攻取하였으며 이로부터 戰況은 急進展을 보여 左側의 제9중대도 併進공격 끝에 $\Delta 1,070$ 를 奪取하였다.

이때가 16.20으로, 이 一擊에서 敵은 99구의 屍體를 遺棄한 채로 정신없이 長財洞쪽으로 分散潰走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頑陣을 破碎한 대대는 氣勢를 돋아 다시 ㉔를 목표로 躍進하였는데 이번에는 제9, 제10 兩중대를 左右第一線으로 하여 東北進하던 바, 목표까지 1km를 남겨놓은 矢形稜線부근에 이르렀을 때 연대에서 공격중지명령이 하달되었다.

이는 사단장의 지시에 따른 措置였거니와 대대는 여기에서 할수 없이 발길을 멈추어 日沒과 함께 四周防禦태세로 진지를 점령한 다음 敵의 逆襲에 對備하면서 明日의 戰鬪를 준비하였다.

이로써 대대는 비록 ㉔를 아직 掌中の 玉으로 놓지 못하였으나 擔當地域의 奇峰을 장악하여 北쪽의 萬峯을 眼下에 굽어보게 되었으며 또한 現位置가 白岩山の 東쪽 1.3km의 後層部에 해당하였으니 사단의 이날 작전에 크게 寄與한 바 되었다.

나) 제2대대의 白岩山奪取

한편 白岩山을 공격케 된 제2대대(장, 尹泌鏞 중령)는 전날 그 8부稜線에서 苦戰을 치른 바 있는 까닭에 이날은 제5, 제6兩중대로써 左右側方에서 挾攻할 예정으로 水東嶺 부근에서 東西로 나누어 分進하였다.

그리하여 左第一線인 제5중대가 목표 西南쪽 1km의 小路에 접어들자, 西北쪽으로 700m쯤 떨어진 西側에서 敵인지 我軍인지 구별할 수 없는 一隊이 北쪽으로 移動하는지라 雙眼鏡으로 확인하여 보았으나 不確實하여 중대장 林志沃 대위는 一旦 중대를 정지시킨 다음 斥候兵을 내보내어 이를 확인케 하였더니 제7연대의 제2대대가 白岩山 西北쪽으로 躍進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는 목표 ㉔로 指向한 사단 左一線의 進擊隊列이었거니와 이러한 사이에 대대는 進出이 지연되어 09.40에야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地勢의 不利함은 側方도 또한 大同小異하여 交戰 初부터 苦戰을 치르게 되었으니, 集注하는 砲火와 기관총 亂射 그리고 棒狀手榴彈 등의 불길속에 機動의 制限을 받아 死傷者가 續出하여 西側의 제5중대는 小隊長 두사람이 負傷으로 後送되고 많은 병사들이 戰傷을 입었으며 같은 현상은 제6중대의 경우도 비슷하여 渾身의 力攻을 加함에도 불구하고 14.00가 지나도록 突擊線을 넘지 못한채로 血鬪가 계속되었다.

이에 대대장 尹泌鏞 중령은 14.20에 兩中隊를 隨意撤收케 하여 中食과 夕食을 겸한 野戰食事를 마친 다음 各 중대로 하여금 挺身突擊隊를 편성케 하여 16.00에 再攻擊을 단행하였다.

이로부터 可用한 全火力을 西側稜線으로 指向코, 突擊隊의 各個躍進에 의한 破碎를 피하던바, 敵은 사단主力이 背後를 遮斷하는 威脅속에 떨어진 나머지 撤退하기 시작하자 이를 捕捉한 대대는 敵陣으로 뛰어들어 雪窟의 총검을 휘두른 끝에 80여명의 遺棄屍體를 확인함과 아울러 19.00에 靈峰을 除外한 거의 全域을 占領하게 되었다.

그런데 頂上의 岩窟속에 도사린 一部가 아직도 機關銃을 亂射하여 진지 점령을 妨害하자 제5중대가 이를 공격하다가 날이 어두어짐에 따라 一旦 留保하였는데 다음날 06.00에 美제5空軍의 F-81 戰爆機 2대가 日出과 더불어 空中폭격으로 이를 粉碎하고 말았다.

이로써 연대는 本作戰地域의 第一峰을 手中에 넣어 旗幟를 높이 올렸다.

3. 제7연대의 反擊狀況

左一線인 제7연대(장, 韓官興 대령)는 ㉔를 공격케 되었는데, 이 목표는 白岩山 北쪽 2.3km의 無名高地로서, 左隣接인 제8사단(장, 宋堯讚 소장) 정면의 黑雲吐嶺(△851)과 함께 군단의 右翼에서 雙眼을 이룬 要地로서, 만일 이 두高地를 장악한다면 金城川까지

단숨에 進擊이 可能한 곳이었다.

따라서 사단은 이 高地를 목표로 과감한 迂回를 企圖하여 白岩山을 無血占領키로 하였거니와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뒤따랐다.

첫째로 現在 연대의 主力이 白岩山 西南쪽 2km의 新屯地부근에 駐紮되어 있는만큼 ④로 進擊하려면 白岩山 西側으로 돌아 먼저 △1, 118(白岩山 西北쪽 1.5km)를 奪取하여야 하는데 이 高地에는 數未詳의 敵이 蟠踞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먼저 驅逐하여야 하고

둘째는 攻勢로 移轉한 제5, 제8 兩사단의 主力이 아직 △1, 051—白岩山—東幕洞線을 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單獨으로 敵陣後方에 뛰어들려면 그 掩護策이 講究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當연대는 反擊隊列의 一員으로 이 전투에 加擔할 때에 軍단장 丁一權 中將으로부터 『제5, 제8 兩사단의 接境地帶에서 白岩山을 中心으로 한 敵陣中央部로 穿貫 突破하여 兩사단의 反擊戰線에 活氣를 注入토록 하라』는 要旨의 訓令을 받은 바 있었으니 六角靑星의 名譽를 걸고 이 重任을 完遂키로 다짐하였던 것이다.

특히 연대는 지난 13일 以來로 軍단의 左右兩翼에서 激戰이 거듭되는 동안 그 中央地帶에서 兵力을 能히 活用하여 戰鬪力의 保存이 尙全하고 本隊인 제6사단(장, 白仁燁 소장)을 떠나 15일 08.00附로 제8사단에 配屬되어서도 反擊의 轉機를 마련케한 바 있으며 또한 전날(16일) 當사단에 配屬이 변경된 뒤로부터 第一線에 나와 進擊의 戰備를 갖춘바 있으니 將兵 모두의 戰意가 드높았다.

이같은 상황아래 ④로 進擊키된 연대는 우선 그 中間目標인 △1, 118을 탈취키위하여 이날 05.00에 戰術機動을 시작하였는데 主力의 進出에 앞서 제2대대의 제6중대(장, 李日來 중위)를 白岩山 西쪽으로 先行시켜 그 西側의 三叉路 부근을 搜索한 다음 掩護陣地를 점령케 하였다.

이리하여 同중대가 05.40에 三叉路 直南方으로 突入하자 路邊에 潛伏하고 있던 중대규모와 不時에 激突케 되었으며 이로부터 박격포와 野砲 등 300발의 敵彈이 쏟아져 掩護陣地의 점령이 지연되었다.

이에 연대장 韓官興 대령은 제2대대장 蘇炳烈 소령에게 대대의 主力으로써 이를 擊破한 다음 白岩山 西側에서 攻勢的 掩護를 실시토록 지시하는 동시에 제1, 제3 兩대대로써 06.00를 期하여 △1, 118를 목표로 西進攻擊을 단행하였다.

그리하여 三叉路로 向發한 제2대대는 09.50에 現地에 당도하는 즉시로 文元植 대위가 지휘하는 제7중대와 金俊澤 중위가 지휘하는 제5중대가 合勢하여 30분동안에 걸친 挾攻 끝에 제6중대 정면의 敵을 覆滅한 다음 白岩山과 △1, 118의 中央地帶로 躍出하여 그들 相互間의 呼應을 차단하였으며 이같은 엄호아래 제1, 제3 兩대대는 12.20에 △1, 118로 突入하여 2개 중대규모의 抗敵을 쳐부셔 올라갔다.

그런데 敵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십사리 물러서지 않고 手榴彈의 連投로 맞서는가 하면 13.10부터 陣內射擊을 퍼부어 混戰이 거듭되다가 제3대대(장, 南白奎 중령)의 先鋒이 內城洞里로 通하는 西쪽 溪谷으로 突入한 14.00를 前後하여 그 西側背의 強襲에 밀린 敵은 정신없이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好機를 捕捉한 兩대대는 顧盼의 여유를 주지않고 15.10까지 이를 追躡力攻한 끝에 △1,118를 비롯한 그 左右의 兩稜線을 모두 掌中에 넣게 되었다. 특히 이 전투에서 제10중대는 霪雨를 뚫고 先頭에서 敵陣을 突貫하여 목표탈취의 元勳을 세운바 있거니와 이과정에서 중대장 金潤生대위는 負傷을 무릅쓰고 『突擊앞으로!』를 連呼하면서 敵陣을 휩쓸기도 하였다.

이렇듯 中間目標을 탈취한 연대는 16.30을 期하여 이윽고 ㉠을 공격케 되었는데 이번에는 제1대대(장, 閔邦穆 중령)로써 先鋒을 삼고, 白岩山 西側에 있는 제2대대의 1개 중대를 이와 呼應케하여 東北稜線을 따라 밀고 올라갔다.

이리하여 대대의 主力이 特記할만한 敵의 저항없이 一路躍進한 끝에 白岩山 北쪽 1.5km의 △962 부근에 다다라, 제2대대에서 併進한 제7중대(장, 文元植 대위)와 合勢케된 20.10에 사단에서 공격중지 명령이 하달되었다.

사단의 이같은 조치는 연대 홀로 敵陣깊이 突出한데다 日暮가 가까워 집에 따라 취하여진 姑息策으로 推測되거니와 이에 따라연대는 여기에서 이날의 공격을 멈추어 △962-△1,118線에 沿한 진지를 固守하여 방어태세로 들어갔다.

4. 사단장의 措置

以上과 같이 사단의 이날 反擊은 크게 그 進陟을 보여 各연대 모두가 3~4km씩 進出하는가 하면 특히 제7연대는 敵陣을 突破分斷하여 그 撤退를 強要하는 등, 一次轉機를 마련케되자 이제 사단에서는 失地를 恢復키 위한 進擊方案을 熟議한 끝에, 이날 공격에서 一部 目標탈취의 未盡함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北漢江과 金城川 南岸의 要地를 새로운 목표로 選定하여 과감한 進擊戰을 展開키로 結論짓고 이날밤 22.00附로 要旨 다음과 같은 공격명령을 下達하였다.

『㉠ 사단은 18일 05.00를 期하여 다음 목표 ㉡-㉢-㉣-㉤-㉥-㉦-㉧를 奪還한 然後에 Iceland線까지 進出하려 한다.

목표 ㉡-△595(外城洞里 東쪽高地)

㉢-△819北쪽 1km의 無名高地

㉣-741(水串地 東쪽)

㉤-舊砦 東쪽 無名高地

㉥-△780

㉦-廣洞 北쪽 無名高地

- ② 제35연대는 ㉑—㉒를 奪取한 다음 後洞 舊堡間의 北漢江 西岸으로 進擊하라.
- ③ 제27연대는 ㉑—㉒를 奪取한 다음 舊堡 北쪽으로 1개대대의 戰鬪偵察隊를 진출시켜 江岸까지 搜索케하라.
- ④ 제7연대는 ㉑—㉒를 탈취한 다음 金城川으로 進擊하라.
- ⑤ 제11포병단은 사단을 一般支援하되, 射擊의 優先을 제35연대의 正面에 두라.
- ⑥ 제36연대는 계속 現 任務를 遂行하라.
- ⑦ Polar線上的 중간목표 ㉑—㉒—㉓—㉔를 탈취한 直後부터 各聯隊간의 戰鬪地境線을 다음과 같이 調整한다.

제35, 제27연대간 小白岩(△1,051)—廣洞 西쪽 500m—△780 西쪽 300m—그 東北쪽의 北漢江 西岸

제27, 제7연대간 白岩山—長財洞 西쪽 1km—水串地—舊堡 西쪽 200m—그 北쪽의 北漢江 西岸.

- ⑧ 각 연대는 목표를 탈취하면 즉시 陣地를 構築하고 擔當正面의 敵情을 報告하라.』

이 進擊命令은 失地恢復에 主眼한 사단의 一舉攻路策으로서 각 연대마다 4~7km北쪽의 目標를 탈취토록 部署한 것이었으니 現 時點에서 一見 無理한 感이 없지 않으나 당시에 敵은 이미 勢盡力窮하여 새로운 增援이 없는 限 再起키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勘案한 速戰即決의 方策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연대는 아직도 敵手中에 있는 Polar線上的 목표 탈취는 勿論이요, 새로운 進擊을 앞두고 그 準備에 餘念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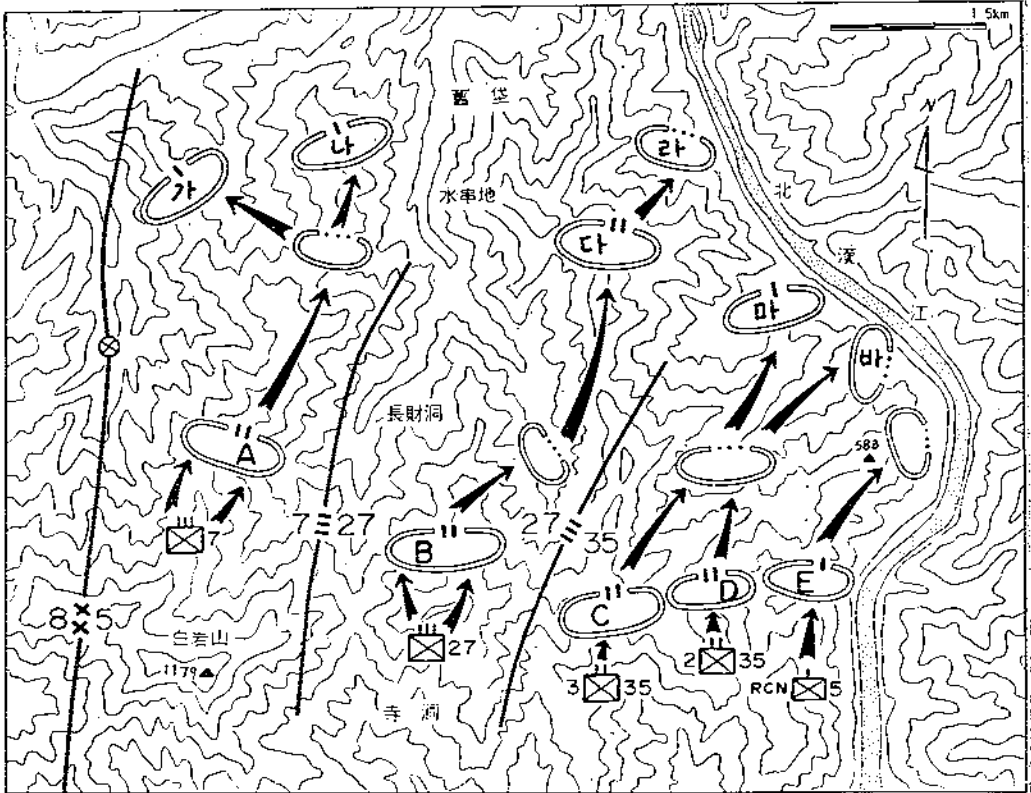
이때에 사단의 左隣接인 제8사단도 그 先鋒인 제21연대(장, 成正模 대령)가 19.00에 黑雲吐嶺 西쪽의 △682를 점령한 다음 併進態勢를 갖추고 있었다.

7월 18일 : 反擊을 시작한지 3일째되는 이날, 사단 正面에는 中共 제180사단(장, 卞峻亭) 隸下의 제538연대와 제540연대 그리고 제181사단(장, 王誠漢)소속의 제543연대와 사단直屬偵察隊 등 都合 5,000餘名으로 推算되는 混成兵力이 아직도 江岸의 橋頭堡진지를 점령한 가운데 增援部隊의 來着만을 苦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戰勢는 이미 기울어 사단의 衝鋒앞에 헤어날 수 없게 되었으니, 4日分의 食糧을 携帶하였다던 敵兵들은 태반이 5~6食을 缺食한 끝에 饑餓線上을 헤매고 있다하며 士氣가 극도로 떨어져 戰線 離脫兵이 續出한다고 하는 바, 여기에 添加하여 前方으로 推進된 제15포병단(장, 金東洙 대령)의 近接支援과 美 제5空軍의 空中支援까지 合勢한 協調된 火力이 空地를 누빔으로써 이들의 저항은 오직 奮戰의 총부리 앞에 버티고 있는 실정으로 보였다.

이같은 상황아래 사단은 전날에 이어 제35, 제27, 제7의 3개연대로써 進擊의 大號令을 내렸다.

◇ 상황도 제63호 사단의 進擊狀況



1. 제35연대의 進擊狀況

제35연대(장, 朴昌源 대령)는 이날 목표㉑-㉒를 공격케 되었는데, 現在 연대의 進出線으로부터 목표까지는 6km의 거리인데다 전날 공격하던 直前方의 ㉑-㉒가 아직 敵支配下에 있는 까닭으로 연대에서는 이를 併奪한 다음 敵情에 따라 濼後의 공격방향을 결정키로 예정하고 먼저 ㉑-㉒를 되찾기로 작정하였다.

그 部署로서 전날 예비이던 제2대대(장, 鄭仁淳 소령)를 右第一線으로 躍進케하여 제1대대를 超越하는 즉시로 ㉑를 奪還케 하고, ㉒는 전날과 다름없이 제3대대(장, 孫鍾坤 중령)로 하여금 直衝擊破케 하였다.

그리하여 東側으로 躍進한 제2대대는 단숨에 △702를 踏破한 다음 ㉑인 △976로 突入하던바 증강된 소대규모가 同高地의 兩稜線에서 自動火器를 亂射하여 저항하자 一氣突貫으로 이를 覆滅하고 뒤 이어 그 一帶에서 彷徨하는 一群까지 剔抉한 끝에 11.20에 이 고지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그런데 左一線인 제3대대는 07.50에 ㉑인 △1,051로 쳐올라가 특히 제11중대의 挺進으로 2個 소대규모를 단숨에 撲滅함과 아울러 9명의 俘虜를 잡아 押送한 바 있었으나, 뒤미처 곧 0.20에 중대규모의 敵襲으로 激戰이 계속되었다.

이에 연대장 차昌源 대령은 搜索中隊를 ㉔로 增派하여 제3대대와 함께 이 역습의 무리를 물리치도록 하는 한편, ㉓를 奪取한 제2대대는 예비인 제1대대에 現 占領地를 引繼하고 계속 前進하여 목표 ㉒를 탈취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10.00에 ㉓를 인제한 제2대대는 다시 이날의 공격목표인 ㉑(△780)를 指向코 怒濤와 같이 밀고 올라갔는데, 先頭인 제5중대(장, 白虎乙 중위)가 廣洞부근의 △833에 이르렀을 무렵에 소대규모가 進路를 막자 이를 一蹴한 다음 躍進에 躍進을 거듭하여 15.10 △780에는 700m 南쪽의 質峴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렇듯 無人之境을 휩쓸듯이 急進展을 보이자 연대장은 제2대대장 鄭仁淳 소령을 無電으로 불러 『㉑ 공격에 併行하여 1개중대로써 ㉒를 공격케 하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當面の 敵勢가 輕微한 것으로 보아 그들이 撤退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한 나머지 이를 一網打盡키 위한 措置였거니와 이에 따라 대대는 제5중대로 하여금 東쪽으로 進路를 바꾸어 ㉒를 탈취케 하고 제6, 제7, 兩중대로써 ㉑를 공격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東西로 分進한 兩攻擊隊는 서로 앞을 다투어 突賊한 끝에 右第一線인 제5중대가 17.50에 ㉑(△501)에 穿入하여 소대규모를 盛殺하는가 하면 左第一線인 제6, 제7 兩중대도 18.00에 △780 一帶에서 增強된 소대규모를 一擊에 무찔러 ㉑를 점령하는등 지시된 兩目標을 모두 奪還한 다음 각각 搜索隊를 江岸까지 진출시켜 擔當地域을 모두 踏索케 하면서 방어진지를 構築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연대는 擔當正面의 全域을 掌中에 넣게되었거니와 이날 11.30까지 ㉔(1,051)에서 進出이 遲延되던 제3대대도 小白岩山부근의 頑敵을 驅逐한 다음 이 무렵에는 廣洞으로 後續하여 待機하였으며, △876의 제1대대도 廣洞 東쪽으로 나아가 磨石—後洞간의 연대右一線진지를 점령코자 日暮와 함께 東北쪽으로 進出하였으니 그 勢威가 마치 鎧袖—觸格이었다.

2. 제27연대의 進擊狀況

제27연대(장, 崔英圭 대령)는 이날 舊堡부근의 목표 ㉑—㉒를 攻略케되었으나 現在 그 主力이 南쪽으로 6km 떨어진 白岩山 부근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전날 공격하던 ㉓도 아직 手中에 넣지 못한 탓으로 于先 ㉓를 先占한 다음 長財洞—水串地—蕪堡의 軸線을 따라 進擊기로 하였다.

그리고 攻擊隊의 編成을 보면, 전날 白岩山을 奪取한 제2대대(장, 尹泌鏞 중령)을 現地에 남겨 △1,070—白岩山 간의 既占陣地를 堅守케하는 한편 제1, 제3 兩대대로써 進擊기로 하되 제3대대를 先峰으로 삼아 ㉓를 先攻케 하고 제1대대는 ㉓를 탈취한 직후부터 103번 道路 東側으로부터 加擔케하여 逐次로 ㉑—㉒를 攻略키로 하였다.

이같이 部署한 연대는 이날 05.00를 期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黎明을 돌아 白岩山 東쪽으로 急進한 제3대대(장, 車圭憲 중령)가 07.20에 ㉓로 突入하여 소대규모를 一擊에 무

찌르자, 이로부터 제1대대(장, 崔奎瑄 중령)가 加擔하여 103번도로 東側에서 長財洞을 指向코 疾風같이 내달았다.

그리하여 09.40부터 先頭가 된 제1대대가 ㉔를 목표로 直進하던 바, 長財洞 東南쪽 △662에서 突然 중대규모가 나타나 側射火力으로 進路를 막고자 함으로써 대대는 거기에서 연대장의 지시에 따라 北東쪽으로 그 衝鋒을 돌려 먼저 이를 打撃키로 하였다.

그런데 이 高地는 小白岩山에 沿한 北쪽 突出部로서 아직 제35연대가 小白岩山을 攻陷치 못한 까닭에 이 叢林地帶에 도사린 殘存의 무리가 發惡의으로 最後의 一戰을 試코자하여 11.00가 넘도록 手榴彈대결이 거듭되다가 朴海寬 대위가 지휘하는 제1중대가 그 中央部를 突破한 11.20을 期하여 이를 擊退한 다음 廣洞 西쪽으로 밀고 올라갔다.

이러는 사이에 연대에서는 명령을 修正하여 제3대대로 하여금 ㉔를 공격케 하였으니, 다시 第一線에 나선 同 대대는 10.20에 제1대대의 攻擊線을 超越하여 별다른 抵抗이 없는 가운데 長財洞을 넘어선 다음 약진에 약진을 거듭한 끝에 16.30에 ㉔인 △741의 直南方으로 突襲하였다.

그런데 同高地 中腹의 散兵壕에서 數未詳의 무리가 一齊히 抗拒하자 姜允植 중위가 지휘하는 제10중대가 그 東側으로 急廻轉하여 水串地에서 △780로 通하는 狹路에 沿한 包圍網을 形成코 이를 압축 공격한 끝에 捕虜 2명을 사로 잡고 遺棄屍體 16具를 確認하는 등의 큰 戰果와 아울러 ㉔를 점령하고 말았다.

이때에 제1대대도 △780 西쪽까지 進出하여 연대의 主力과 合勢케 되었으니, 이제 ㉔ 東北쪽 1.3km의 ㉕는 手中에 넣으나 다름이 없게 되었거니와 특히 同目標는 北漢江 西岸에 接하여 背水地勢를 이룬 만큼 스스로 敵이 머물곳이 되지 못하였다.

이에 연대에서는 搜索中隊와 제1대대에서 抽出한 제3중대로 하여금 이를 공격케 하였던 바, 李張永 대위가 지휘하는 同중대가 先頭에서 急襲하고 보니 10여명의 敵鬮가 進退維谷에 빠져 彷徨하고 있는 지라 이를 그대로 俘獲押送한 다음 곧 陣地를 構築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동안 搜索中隊는 江岸으로 進出하여 蘆塗 北쪽까지 擔當지역을 모두 踏破하면서 索敵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이날 작전을 終結짓고 要地를 택하여 陣地를 編成한 다음 21.30부터 警戒태세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3. 제7연대의 進擊狀況

제7연대(장, 韓官興 대령)는 이날 목표㉑—㉒를 공격케 되었는데, 전날의 표목였던 ㉓를 先取해야 하는만큼, 전날 夕陽에 그 直前方까지 進出한 제1대대에 수색중대를 配屬시켜 이를 先攻케하고 그 동안에 제2, 제3 兩대대를 그 南쪽 1.2km의 △962 부근으로 推進하여 待機시켰다가 제1대대가 ㉓를 탈취하면 즉시 主力으로써 이를 超越하여 本攻에 移行키로 하

였다.

이에 따라 先鋒에 나선 제1대대(장, 閔邦穆, 중령)는 이날 05.00를 期하여 ㉔를 목표로 拂曉공격을 시작하였는데, 배속된 연대수색중대(장, 趙龍燮 대위)를 內城洞里的 溪谷으로 先行시켜 西쪽으로 通하는 敵의 退路를 遮斷케 하는 한편 제2, 제3 兩중대로써 그 中央部를 突破케 하였던 바, 09.30에 이르러 수색중대가 커다란 저항없이 그 西쪽 稜線을 장악하게 되자 이에 呼應하여 제2중대(장, 朴寬哲 대위)가 突擊을 감행한 끝에 2개소대 규모를 一擊에 芻蕘하여 覆滅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대대의 主力이 10.50에 그 頂上의 橫隔稜線을 占領하니 北쪽의 大小群岳이 고개를 숙인듯 眼下에 들어나고 東北쪽으로 펼쳐진 北漢江流가 溶溶히 흘러 慶賀하는듯 하였다.

이렇듯 躍進基地를 確保한 연대는 이제 本攻으로 移行하여 12.20에 제2, 제3 兩대대로써 그 北쪽 1.5km의 △819를 無血占領한 다음 여기에서 대대별로 分進케 되었으니 右第一線인 제2대대(장, 蘇炳烈 소령)는 ㉕를, 그리고 左第一線인 제3대대(장, 南白奉 중령)는 ㉖를 각각 各個擊破키로 하였다.

그런데 이로부터 敵은 砲擊을 加重하여 그들의 潰退를 威嚇하는듯 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사단의 제일 先頭에선 兩大隊가 一時나마 躊躇하게 되었다.

그러나 千仞 谿流에 巨岩이 구르는 듯한 氣勢로 彈幕地帶를 橫斷한 兩대대는 跟隨와 強攻의 互用 끝에 제2대대가 먼저 17.20에 ㉕에 突擊하여 2개소대 규모를 一擊에 무찌르는 가하면 그 뒤를 이어 17.40에 제3대대가 ㉖인 △595에서 소대 규모를 撲滅하는 등 擔當地域內의 목표를 모두 席捲케 되었다.

그 뒤로 연대는 제1대대와 연대 OP를 △819로 推進하는 한편 제2, 제3 兩대대로써 陣地作業에 着手케 하고 또한 一部の 兵력을 金城川부근으로 進出시켜 威力搜索을 併行하면서 防禦態勢로 移行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연대는 金城川 南岸의 要域을 모두 確保하여 本戰鬪를 勝利로 이끄는 本然의 責務를 다하게 되었거니와 지난 16일 12.00附로 當사단에 配屬된 以來 이날까지의 綜合戰果를 확인하여 보니, 捕虜 16명을 비롯하여 確認된 敵의 遺棄屍體가 861具였으며 그밖에도 기관총 7정과 各種小鋼 36정에 野砲彈과 수류탄 1,600여발이었다.

이상과 같이 사단은 3개연대가 齊頭併例로 Iceland線까지 進出하여 前날의 喪失된 要地를 모두 恢復케 되었거니와 이때에 左隣接인 제8사단도 黑雲吐嶺을 넘어 廣大谷—新村—坊城谷—後洞 北쪽 1km線에서 當사단과 戰線을 連繫하고 또한 東쪽의 제36연대도 사단 主力의 進出과 함께 併進하여 이날 19.00에 △748—轉石 北쪽 1.8km간의 그 前날의 陣地를 모두 確保케 되었으니, 이것이 사실상 지금의 休戰線이 되고 말았으며 本戰鬪의 終結과 더불어 戰線도 점차 對陣狀態로 접어들게 되었다. 借問하노니 是役也에 戰意高昂者 누구

였으며 勢窮力盡者 그 뒤였는가? 空地震敵者 어느쪽이었으며 望風退散者 어느 使이었는가? 그리고 또 日格以下の 休戰으로 스스로 懼伏하였던 지난날을 讀史氏는 銘記할지로다.

라. 전투 후의 개황

本戰鬪가 終了된 18일 現在 軍단의 中央인 제8사단(장, 宋堯讚 소장)과 左翼인 제11사단(장, 林富澤 준장)은 아직도 別隅一三峴同一樣 靑星一北쪽 1km의 線에서 中共 제67군(장, 馬龍)과 어울려 큰 進退 없이 高地爭奪戰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當사단 지역에서는 天然障壁인 北漢江과 金城川을 사이에 두고 彼我間에 威力搜索만으로 守勢를 取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軍단의 現戰線固守方針에 따라 사단에서 追擊을 멈춤으로써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사단은 18일 밤부터 戰線의 整備와 아울러 進지작업에 着手하였는데 이때에 當面의 中共 제60군(장, 韋杰)은 地勢의 利를 얻어 우선 危急을 避한다음 潰散兵力의 收拾과 江岸진지의 防備에 餘念이 없는듯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當부근 自體의 부대정비에 注力할 것으로 여겨지거니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에 걸쳐서 當사단 正面에서 4,300여명, 그리고 제8사단 地域에서 6,400여명, 總計 10,700여명의 戰死者를 내는등, 大部分의 兵力을 喪失한 나머지 金城川을 건넌 直後에 3個師團을 거느린 1個軍의 戰鬪正面을 6km로 縮小하여 △462(舊堡 西北쪽 1.5km)一登大谷一△462(廣大谷 東南쪽)一細峴里 부근에서 防守陣을 急編하고 있다고 하니 可히 그 致命傷을 짐작할만하다.

그리고 그 以東의 제21군(장, 張하이징)도 廣石橋一黃柄洞一△629로 이어지는 北漢江 東岸에서 如何 前哨 守勢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로 이들 제60군은 △462부근에서 20일과 23일에 한차례씩 威力搜索으로 陣前挑發이 있는 以外에는 特記한만한 活動이 없이 固守一邊到로 지내다가 7월末에 이 지역을 李化民이 지휘하는 제54군에 引繼하고 新溪地區로 移動하였다고 하는데, 그 後에 이들은 다시 戰線에 서지 않고 未詳 時日에 新義州를 거쳐 歸國한 것으로 54년 5월에 判明되었다.

한편 사단은 이 전투가 끝난 뒤로 陣地補修방안을 검토하던 바, 바로 18일밤에 軍단에서 『現任務를 제6사단에 引繼하고 華川 부근으로 集結하여 부대를 整備하라』는 要旨의 명령이 하달되었다. (文書 命書는 7월 20일 15.00에 後達됨) 이에 따라 사단에서는 작전명령 제89호로써 다음과 같은 要旨의 交代 命書를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軍단作命 제7호에 依據하여 現任務를 제6사단에 引繼하고 華川부근으로 移動하여 部隊를 整備하러 한다.

② 제27연대

㉞ 연대는 7월19일 12.00를 期하여 現任務를 제6사단 제19연대에 引繼하고 堂巨里로 集結하라.

㉟ 19일 08.30附로 支援工兵 및 제5重砲中隊의 1개소대를 原隊로 復歸시키라.

㊱ 堂巨里에 集結後, 別途命書에 따라 新長洞으로 移動하여 부대 警備와 教育에 임하라.

③ 제35연대

㉞ 연대는 7월19일 12.00附로 現任務를 제6사단 제2연대에 引繼하고 全連里(華川 東北쪽 5km)로 集結하여 整備와 教育을 실시하라.

㉟ 19일 08.30附로 支援工兵 및 제5重砲中隊의 1개소대를 原隊로 復歸시키라.

④ 제36연대

㉞ 연대는 7월20일 22.00까지 現任務를 제7연대에 引繼하고 龍湖洞(華川 東南쪽 7km)으로 集結하여 教育에 임하라.

㉟ 20일 21.00附로 配屬中인 工兵小隊 및 제5중포중대를 配屬解除한다.

450 白岩山부근 戰鬪

- ⑤ 제7연대는 20일 22.00附近 제36연대의 陣地를 引受함과 同時에 原隊로 復歸하라.
- ⑥ 제15砲兵團은 現位置에서 任務를 계속하라.
- ⑦ 工兵大隊은 各연대에 配屬中인 兵力을 統合하여 20일 24.00까지 名勝洞(華川 東北쪽 6km)으로 集結하라.
- ⑧ 사단 指揮所는 名勝洞에 位置할 것이다

이로써 사단은 本作戰地域을 제6사단(장, 白仁燁 소장)에 引繼하고 華川부근으로 集結하여 2週間の 간단한 整備를 마친다음 다시 春川 北쪽의 古呑里로 移動하여 部隊教育에 들어갔다.

그동안에 人事異動이 이루어져 8월10日附近 張都陝 소장이 離任하고 지금까지 文藝生命上으로만 사단장으로 되어있던 朴炳權 소장이 指揮權을 引受하였으며 10월 17日에는 제36연대장 高光道 대령이 제 2군단 人事參謀로 轉出하고 金東赫 대령이 제6연대장으로 赴任하였다. 그리고 9월19日附近 제22포병 團(장, 崔 植 대령)이 사단에 隸屬되어 제195, 제196, 제205대대로써 4사단砲兵으로 發足하였다.

以上과 같이 古呑里에서 4個月 동안의 教育을 마친 다음 그해 11월25日에 共匪擊滅차 南原으로 移動하여 12월 11日부터 54년 2월 11日까지 이른바 『朴戰司의 討伐作戰』을 전개케 된다.

本戰鬪期間중의 綜合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綜合 戰果 및 損失

구분 부대	戰 果						損 失			
	射 殺	推定射殺	捕 虜	鹵 獲			戰 死	負 傷	失 踪	
				機 關 銃	迫 擊 砲	各 種 小 銃				
제27연대	637	695	11	3		24	1/52	10/302	/86	
제35연대	423	530	20	14	1	44	3/39	19/368	7/198	
제 7연대	861	544	16	7	2	36	3/90	17/432	/70	
기 타	13	7	4			4	/21	2/52		
計	1,934명	1,776명	51명	24정	3문	108정	2,101발	7/202	48/1,154	7/354

§ 參戰者의 證言

◇ 副師團長 韓 信 대령

(1976. 7. 15, 亞細亞 自動車株式會社 社長 실에서, 예 대장)

나는 步兵學校에서 戰術學課長을 마친 다음 제 5사단에 가서 參謀長을 거쳐, 副師團長으로 在職 하면서 本戰鬪를 치렀다.

이 전투를 알아 보려면 먼저 당시 사단의 實 情을 살펴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 전투 直前인 53년 6월中旬까지 우리사단은 北漢江 東쪽의 △949부근에서 Missouri線 防禦任務를 수행하였는데, 이때에 그 前線인 △689—必勝峯線—斗京峰—三角高地등 主로 前哨線上에서 50여일 동안의 高地爭奪戰을 벌여 상당한 兵力 損失을 보았으며, 또한 Missouri線 방어전에서 많은 병력을 잃어 이 전투 당시에는

補充된 新兵이 대부분인 까닭에 部隊整備를 要하는 시기였다.

그리고 사단장의 人事異動이 너무 많았다. 5월 월에 金鍾甲 소장이 지휘하다가 6월에는 崔泓熙 준장이, 그리고 9월末에 다시 金鍾甲 소장이 再任 되었으며, 戰鬪中에 張都陝 소장이 赴任하였다.

結局, 金鍾甲 소장이 Missouri선 방어전 以後 어지러운 부대를 어느정도 바로잡아 本戰鬪에 임하게 된것은 多幸한 일이었으나 整備期間이 一週日밖에 안되어 너무 짧았고 빈번한 지휘관의 交替로 많미않아 完전한 기틀을 잡지 못하였다.

이 一週間の 整備期間 동안 나는 軍단장의 명령에 따라 特殊任務部隊(필자 주: 韓信戰鬪부대) 를 지휘하여 北漢江 東쪽의 一部地域을 맡은바 있었는데, 이때에 敵이 한차례 △748로 侵入하여 이를 擊退한 뒤로 6월末에 解體命令을 받고

原隊로 復歸하여 바로 本戰鬪에 임하게 되었다. 職責上 부사단장은 사단장을 補佐하고 연대장들을 도와주는 것이 當然한 일인데 굳이 「Task force」를 편성하라고 하여 제36연대와 工兵대대 수색중대, 戰車小隊등을 統合指揮하였던 일이 생 각난다.

이같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제5사 단은 잘싸웠다.

初半의 撤收過程에서 제15포병단의 掩護下에 秩序있게 逐次로 轉進한 것이나 渦中에서도 별 세 병력을 收拾하여 損失이 적었던 점 그리고 適 時에 攻勢로 移轉하여 敵의 中樞勢力을 깨뜨린 점과 砲活動 등을 손잡을 만하다.

反擊段階에서 내가 戰車를 몰고 寺洞골짜기로 올라갔을때 敵의 氣盡한 樣相을 보고 成功이 確 信을 얻었다.

만일 저들이 신속히 金城川 南쪽으로 野砲와 充分한 補給을 推進하였다면 전투는 달라졌을 것 이다.

지휘관은 狀況判斷을 잘해야 한다.

이 전투의 成功要因의 하나는 正確한 敵情判斷 과 果敢한 推進力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전투가 끝난 뒤로 休戰이 되자 우리는 共 匪討伐次 南原으로 내려갔다

◇ 제15포병단장 金東洙 대령

(1976년 6.9, 星友會館에서, 예 준장)

우리 砲兵團은 1952년 末에 全南 光山에서 創 設하여 교육을 마친 다음 53년 4월에 戰線으로 나왔다.

最初에 金城 부근으로 이동하여 제6사단을 지 원하였는데 同年 6월 末에 군단의 計劃에 따라 다시 堂巨里로 이동하여 『7.13攻防戰』 당시에는 제5사단을 지원하였다.

本戰鬪에서는 初戰에 敵의 砲擊이 極甚하여 主로 對砲兵射擊에 치중하다가 金城川 南岸의 主抵抗線이 무너질 무렵에는 VT彈으로 陣內射 擊을 퍼부어 侵襲先鋒에 큰 損傷을 加하였다. 그 뒤로 우리가 白岩山 南쪽으로 撤收하였을 때에는 敵側에서도 砲兵의 後繼이 如意치 않았 는지 점차 砲擊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우리는 新設砲兵인 관계로 隘路가 많 았다.

砲를 放列하는데도 일일히 確認하여야 하는 선 정이었고 通信 疏通이 안될때가 許多하였으며 長財洞 고개를 넘을 때에는 무려 3시간이나 걸 린 일이 있다.

그러나 將兵들의 鬪志만은 대단하여 제3사단 이 철수한 뒤에 放置된 砲彈을 폭발하려고 敵陣 가까지 自願進出한 일이 있으며 특히 제61대대 장 金水山 중령은 老練하여 適時支援의 名指揮官 이었다.

당시에는 美제5포병단의 區處를 받았는데 砲 彈統制가 심하여 어떤 때는 砲彈을 備蓄코자 敵 情을 과장보고 하기도 하였으며 한발이라도 効 率的으로 사용키에 힘썼다.

美軍 포병들은 대체로 17번 道路 沿邊에 위치 하였는데, 상황이 아무리 급하여도 움직이지 않고 現地에서 射程이 닿는때까지만 지원하였으나 우리는 嶺한 山골짜기까지 砲車를 끌고 들어가 步兵을 近接支援하였다.

지금도 記憶에 생생한 것은 당시에 張都峽 소 장이 砲兵團長의 立會下에 일일히 觀望장교의 배 치를 지시하고 또 이를 確認까지 하면서 지원케 한 사실인데 이는 長短點이 있기는 하나 步兵 지 휘관으로서 砲兵活用을 그만큼 잘한 사람도 석 많지 않을 것이다.

이 戰鬪가 끝난 뒤에 제6사단이 이 지역을 받 아게 되자 우리는 8월 6일附로 제6사단에 隸屬 되어 사단포병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제27연대 제7중대장 尹大榮 대위

(1965. 4. 20 육군본부에서, 中領)

우리대대(제2대대)는 당시에 제36연대에 配屬 되어 있다가, 戰鬪가 시작되던 2일째 되는날 白 岩山에서 參戰하였다.

처음에 水上里를 거쳐서 栗木洞으로 올라가니 까 撤收兵力이 내려오는데, 華川까지 달리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날밤에 오히려 反擊命令이 내려오기 를 『明日 黎明을 期하여 白岩山을 목표로 공격 하라』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제일 먼저 反擊에 나섰는데, 白岩山 은 稜線이 칼날같이 機動路가 殆無한 까닭에, 1個小隊이상을 同時에 進出 시킬수가 없어서 一

列縱隊로 躍進케 하였더니 푸른 偽裝을 하고 바위 틈에 었드린 敵이 방망이 수류탄을 휘둘러 번번이 失敗하였으며, 이러 한가운데도 後續兵力의 支援이 어려워 처음에는 苦戰을 치렀다.

그러나 그 다음날 左側에서 제6사단의 제7연대가 白岩山 西北쪽으로 進出하면서 부터 敵의 抵抗이 현저히 줄어들어 이와 協同으로 목표를 탈취하고 보니 얼마되지 않은 병력이 이미 死境에 이르러 물을 달라고 哀願하는 형편이었다.

이 공격과정에서 砲擊支援의 效果가 대단하여 거의 砲殺하다 시피 하였다.

그 뒤로 追擊단계에서는 敵陣이 산산히 부서져 1個分隊가 소대규모의 散兵을 부쩍르는 경우가 許多하였으며 이러한 氣勢로 一躍 金城에 까지 進出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攻擊間에 勞務團의 도움이 컸다. 산골짜기까지 飲食과 彈藥을 날라다 주고 負傷兵을 운반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때는 第一線에까지 幫통을 걸머지고 왔다.

하루에 두 끼를 먹으면서도 잘싸운 전투이다 白岩山을 탈취하였을 때 사단장이 戰車를 타고 살구령(杏嶺)까지 올라왔다는 消息을 듣고 歡聲을 올린 기억이 난다.

◇ 제27연대 제5중대 金仁泰 중위
(1966. 3. 25 육군본부에서, 中領)

§ 研究

(1) 사단의 指揮權 問題

本戰鬪期間중에 부대를 지휘한 사단장이 새사탑인 것으로 記錄되어 있다.

첫째, 육군본부에 所藏된 作戰命令綴에 依據하면,

戰鬪初期의 14일과 15일에는 金鍾甲소장이 부대를 지휘하여 사단 작전명령 제85호와 제89호를 下達하였는데 同제85호의 行政附錄은 朴炳權 소장 名義로 하달되었으며, 또한 16일以後의 反擊過程에서는 張都陝 소장 名義로 작전명령 제88호와 제89호 및 要略命令 등을 口頭로 直達하였

우리 중대는 北漢江 東쪽에 있다가 사단의 主抵抗線이 무너진 뒤로 參戰케 되었는데, 復歸途中에 제35연대의 撤收兵力을 보니 뒤범벅이 되어 敵인지 我軍인지 區分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어떻게 빨리 收拾을 하였는지 그 다음날부터 反擊作戰을 시작하였는데 이때에 우리 중대는 林志澤대위의 指揮下에 白岩山을 공격케 되었다.

첫날 공격에서는 險峻한 岩壁 아래서 건잡을 수 없이 떨어지는 砲彈과 방망이 手榴彈의 抵抗을 받아 많은 병력손실을 보았다.

제1소대장이 다리에 貫通傷을 입어 後送되고 前任下士가 代理하였으며 제3소대장도 負傷을 입은채로 싸웠다.

그렇지만 끝내 첫날은 목표를 탈취하지 못했다.

그 다음날도 계속하여 白岩山을 공격하는 아침에 올라가면서 보니 左側에 2個中隊 규모의 兵力이 白岩山 西쪽으로 移動하고 있었다. 그래서 중대에서 斥候兵을 내보내어 확인하여 본 결과 제6사단의 제7연대가 併行攻擊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勇氣를 더 얻어 白岩山으로 突入하였던 바 이날도 頑強히 저항하여 終日도록 激突을 보이다가 夕陽에 목표를 탈취하여 本戰鬪를 勝戰으로 매듭지었다.

는데 이를 追後에 文書化 한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둘째, 人事命令綴에 依據하면,

金鍾甲 소장이 52년 8월 1일附로 제9대사단장으로 轉任하여 53년 5월3일까지 在任하다가 同年 4월4일附로 崔泓熙준장과 交代하였는데 引繼한지 1個月만인 6월 15일에 다시 제11대사단장으로 再就任하여 6월 28일까지 在職하였으며, 朴炳權 소장은 그 뒤를 이어 6월 29일附로 부임하여 本戰鬪기간은 勿論, 終戰後의 共匪討伐까지 마친 다음 54년 3월 7일에 韓信 준장에게 引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가하면 張都陝 소장의 在職記錄은 期間중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

結局 人事命令上으로는 本戰鬪를 始終 朴炳權

소장이 지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셈이다.

이상과같이 錯綜된 內容을 정리키 위하여 陸軍史와 제2군단 作戰詳報 및 제5사단의 部隊歷史 그리고 個人記錄과 指揮官 職位表, 面談 등을 통하여 確認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은 經緯를 밝히게 되었다.

① 제5사단의 Missouri線 방어전이 끝난 6월 15일附로 金鍾甲 소장이 사단장으로 再任命되어 在職中, 美指揮參謀대학入校명령을 받고 6월 29일附로 朴炳權소장과 交代케 되었는데 突然 제 8군사령관 Taylor대장으로부터 出國前까지 당분간 前後任 사단장이 合同勤務하라는 口頭命을 받았다.

② 이에 따라 兩사단장이 每事를 相議하여 처리하던 바, 本戰鬪에 임하게 되자 前任인 金鍾甲 소장이 作戰을 지도하고, 명령상의 사단장인 朴炳權소장은 이를 扶助하는 立場에 서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작전명령 제85호의 本文에는 金鍾甲소장으로, 同 行政附錄에는 朴炳權소장 名義로 下達되는 怪狀한 현상이 빚어졌다.

③ 이같은 과정에서 主抵抗線이 무너지자, 軍上部에서 兩사단장에게 責任을 붙여 명령상의 하등 조치도 없이 제2선으로 물러서도록하고 張都曠소장으로 하여금 부대를 지휘케 함으로써 15일부터 실질적으로 張都曠소장이 指揮權을 行使케 되었다.

이때 張都曠소장은 美指揮參謀대학과정을 履修하고 歸國하여 待機하다가 突然 口頭命을 받고 赴任하였던 것이다.

④ 以後로 本戰鬪가 끝나게 되자 同年 8월 2일附로 朴炳權소장이 指揮權을 引受하고, 金鍾甲소장은 渡美教育次 8월 3일에 떠났다.

따라서 本戰鬪는 文書命을과는 관계없이 前半을 金鍾甲 소장이, 後半은 張都曠 소장이 각각 지휘케 된 것이다.

以上の 經緯를 一瞥할 때에 실로 안타까움을 禁할 길이 없다.

두사람의 良將보다 한사람의 愚將이 낫다는 軍統帥의 原理는 勝敗에 결정되거늘 이같은 混線으로 戰鬪初戰을 그르친 處事나 指揮權을 넘겨 주지도 않고 命上의 사단장인 後任者의 責任을 물어 물러서도록한 措置는 首肯키 어려운 일

이다.

이러한 亂脈을 龜鑑삼아 指揮와 責任의 限界를 分明히 하여야 한다는 教訓을 남긴 一局面이 기도하다.

(2) ④高地의 戰術의 重要性

本戰鬪의 反擊段階에서 목표 ④로 選定한 白岩山 北쪽 2.5km의 無名高地와 그에 沿한 △819는 戰術的側面에서 軍단 右翼의 要衝地인 듯하다.

이 高地가 敵手中에 들었을 때에는 白岩山 방어전이 스스로 무너졌고 이를 掌握하게 되면 金城川以南의 全域을 席捲하였던 것이니 다음과 같은 戰例를 통하여 이를 立證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1951년 8월 末에 Kansas線을 넘어선 제 6사단이 張都曠 준장의 指揮아래 白岩山으로 進擊하였는데 初戰에 中共 제81사단(장, 林風濤)의 主陣을 깨뜨리고 그 巔峰을 습사리 奪取하였으나 바로 이 ④高地 부근에서 頑強한 抵抗에 부딪쳐 3일 동안의 血鬪를 벌이다가, 9월 1일에 大原대령이 지휘하는 제2연대가 이를 攻取함으로써 金城川까지 一擧에 躍進케 되었던 것이며,

둘째로 그 1個月 後인 9월 末에 中共 제199사단(장, 齊武)이 白岩山을 奪取코자 3個연대병력으로 侵攻하였을 때에 金城川南岸의 방어전이 무너졌으나 이 고지부근에서 역시 제6사단의 제 연19대(장, 林益淳 대령)가 그 主力을 大破하여 擊退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本戰鬪에서도 反擊過程에서 제7연대(장, 韓官興 대령)가 白岩山 西側으로 敵陣을 穿貫突破하여 이를 탈취함으로써 사실상 軍단 右翼의 戰勢를 크게 進展케 하였으며 當日로서 4km 北쪽의 金城川까지 進擊케 된 것이다.

이로 미루어볼 때에 ④高地는 純술적인 要地인 듯 하거니와 本은 白岩山은 岩石으로 崩쳐진 巨峰인데다 그 周圍가 灌木과 叢林으로 우거진 未踏地域으로 險峻하기 이룰데 없으며 따라서 防禦에 適地가 되지 못한 까닭에 언제나 ④高地와 白岩山 西쪽의 黑雲岫嶺을 强악한 嶺가 이 地域의 主人이 되었던 것으로 推斷된다.

8. 汝文里부근 戰鬪 (1953년 7월 13일부터 // // 15일까지)

(一名, 金城川부근 戰鬪)

참조: 별책부도 제 14 호.
상 황 도 제 64, 65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 2 군단	장	중장	丁 一 權	제 2 대대	장대리대위 姜 興 中
제 3 사단	장	소장	林 善 河	제 3 대대	장 중령 金 慶 哲
제 18 연대	장	대령	朴 敬 遠	수색중대	장 중위 金 澤 龍
제 1 대대	장	중령	金 鍾 敏	공병대대	장 중령 韓 珖 洙
제 2 대대	장	중령	李 恩 植	전차중대	장 대위 具 福 書
〃	대리	대위	池 善 福	중포중대	장 대위 金 祐 植
			(7. 13부터)	배속부대.	
제 3 대대	장	중령	金 仁 杰	제 11 포병단	장 대령 金 聖
수색중대	장	중위	黃 武 勳	제 11 포병대대	장 중령 徐 楨 鏞
제 22 연대	장	대령	崔 澤 元	제 72 포병대대	장 소령 吳 昌 德
제 1 대대	장	중령	李 在 信	인접부대	
제 2 대대	장	중령	權 益 檢	右인접부대	
제 3 대대	장	대리 대위	林 判 吉	제 5 사단	장 소장 金 鍾 甲
수색중대	장	대위	高 根 榮	左인접부대	
제 23 연대	장	대령	朴 徹	제 8 사단	장 소장 宋 堯 讚
제 1 대대	장	중령	金 敍 龍		
			敵 軍		
中共제 60 군	장		韋 杰	제 179, 제 180, 제 181 사단	基幹

나. 전투전의 개황

53년 7월 3일, △529(一名 觀望山)戰鬪에서 일단 물러선 제 3 사단은, 同高地의 外廓을 둘러싸듯 金城川北岸인 △462로부터 △507에 이르는 線을 主陣地로 삼고 陣地補強에 注力하면서 부대를 정비하

던중 軍단作指제59호(53.7.12)에 의거 하여 右翼 제5사단(장, 金鍾甲 소장)에게 右一線인 제23연대(장, 朴徹 대령)의 戰鬪區域을 인계하는 한편 左翼인 제8사단(장, 宋堯讚 소장)의 一部 地域을 引受함으로써 金城川 沿邊(登大里東北 1km)으로부터 汝文里 北쪽 2km에 이르는 比較的 狹小한(4km)正面을 擔當하게 되었다.

이처럼, 敵은 100번 道路(登大里—華川間)의 關門에 聳立한 △529를 取함으로써 北漢江東岸의 제21군과 連繫가 이룩되자 그들이 企圖하였던 華川貯水池를 占據하기 위한 準備에 狂奔한듯하였다.

(敵의 企圖인 所謂 7.13攻勢의 背景과 作戰段階別經過는 概說과 要旨參照)

陸本情報判斷에 의한 그들의 攻勢徵候를 一瞥하면 △529戰鬪가 한창인 6월 25일부터 7월 5일간에 濃霧가 뒤덮여 我軍의 航空偵察이 困難한 새벽 05.00부터 10.00사이에 降雨를 이용하여 科湖洞에 이르는 道路를 延長하는가 하면 7월 3일에는, 2개연대로 推算되는 兵力을, 그리고, 同월 7일부터 12일 사이에는 補給品을 滿載한 62대의 車輛이 사단正面으로 南下하였음을 발견하였을 뿐만아니라, 航空偵察에 의하여 砲兵陣地가 急激히 進방으로 推進되고 있음은 물론 13일에는 T-34 戰車4대가 龍湖洞 北쪽 溪谷에서 確認되었다.

이들은 攻勢移轉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었는지, 9일부터는 侵攻路를 探知하기 위한듯 사단主抵抗線 一帶에 걸쳐 探索戰을 累增하더니 12일에는 諸元記錄射擊으로 보이는 煙幕彈射擊(중포중대 관측장교 趙益齊 소위증언)을 要地要部에 加하기에 이르므로써 戰線은 一觸即發의 緊張이 감돌고 있었다.

敵軍의 狀況: 사단이 當面한 中共제60군은, 北漢江 東域을 손에 넣고, 제67군은 同江의 西域一圓에 蟻居中인것으로 判明되었으나, 그후 그들은 侵攻의 主力으로 제60군을 割當한듯 7월초에 이르자 同군은 主據點을 제21군에 인계하고, 北漢江西岸에 密接하였던 제201사단(제67군에하)의 戰鬪地域(△690~北漢江邊線)안에 展開하여 本攻勢의 主役을 擔當하는 것이 確認되었다.

이는, 제60군 제181사단 제504연대의 文化指導員이었던 楊開基가 同군 제180사단이 앞으로 있을 攻勢에 投入되기 위하여 俗稱 천리부근에서 부대를 정비중에 있었다고 함으로써 제60군이 사단전면으로 投入되었음이 反證되었다.

中共제60군의 軍歷을 훑어보면, 51년 3월20일에 侵韓하여 同년 5월30일 華川戰鬪에서 美제1해병사단의 強打로 12,000명의 死傷者와 4,000명의 俘虜를 내면서 金化부근으로 潰走하여 再編成한 然後에 다음해 9월 北漢江上流의 東域으로부터 文登里에 이르는 線에 投入되어 △689爭奪戰(53.4.2~12)에서 사단과 激突하였으나 奪取企圖를 이루지 못하고 戰戰 兢兢하다가, 제68군과 合流한다음 攻勢에 발판이 될 曠制高地群인 △949戰鬪(53.6.13~15)(別節 △949戰鬪參照)에서 제5사단(장, 金鍾甲 소장)을 밀어부치고, 黃柄洞까지 侵襲하였다가 前述한 바와같이 사단정면으로 轉換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同군은 當사단과 두번째 激戰을 맞이하게 되는 宿緣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다음의 中共제50군은 山西省에서 戰鬪經驗이 많았던 八路軍出身으로 編成하였을 때와는 달리 侵韓後 新兵이 50%나 차지하고 있어, 戰鬪力은 낮게 評價되고 있었으며, 兵力은 30,000명(T,O의 90%)으로 推算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所謂 7.13侵攻을 앞두고 華川戰鬪의 舊怨을 갚자는 口號밑에 俗稱, 천리부근에 集結하여 強訓과 休息을 취함으로써 沈滯된 銳氣를 점차로 되찾고 있다는 것이며, 補給은 15日間의 備蓄品을 確保하고 攻勢初日에 1人當 4日分(白米 40%, 高粱 50%, 小麥 10%)의 食糧을 携帶시켰으나 1일차인 16일부터는 補給路가 白岩山까지 伸張됨으로써 그들의 輸送手段인 牛馬車(1개사단 평균 100대보유)를 驅使하였으며, 이마저 美제5공군의 B-29에 의하여 補給集積所가 覆滅됨으로써 推進 補給이 中絶되어 一日一食이 困難하였다는 捕虜들의 陳述이다.

同군을 支援하는 砲兵은, 軍直轄 제21 및 제40독립포병연대를 비롯하여 예하 3개사단을 지원하는 포병대대를 합하여 都合 8개대대로서 口徑별로는 75mm 40문, 76mm 10문, 105mm 26문, 122mm 10문이 있으며, 이외에도 사단에는 편성화기인 120mm박격포 12문, 82mm 42문, 60mm 57문을 비롯하

여 57mm 무반동총, 3.5인치 로켓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었다.

我軍의 狀況: 제3사단은 金城川을 사이에 두고 右翼에 제5사단이 陽地村으로부터 △748(黃柄洞東南쪽 2km)간에 있었고, 그리고, 左翼에 제8사단이 △612(東南)쪽 0.5km—△765에 이르는 線에 主防禦陣地를 形成하고 있었다.

이때, 사단 CP는 東幕洞에 있었으며, 右一線에는 제23연대(장, 朴徽 대령)가 CP를 登大里에 두고 △507一圓을, 左一線에는 제22연대(장, 崔澤元 대령)가 CP를 韓室里에 두어서 △485와 △535北쪽 1.5km에 이르는 線을 各各 防守하고 있었다.

한편, 제18연대(장, 朴敬遠 대령)는 사단의 예비로써 연대본부와 연대주력(제2 및 제3대대基幹)은 廣大谷부근에서 계속 부대정비中이었고, 제1대대(장, 金鍾敏 중령)는 △551一圓을 主陣地로 하고 제2선(阻止陣地)을 強化하고 있었다.

兵力은 T/O에 95.5%를 確保하고 있었으나, 年初부터 △689와 △529의 兩戰鬪를 치루는 동안에 戰鬪經驗이 생소한 新兵이 35%나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16週間的 교육을 마쳤던 兵士들이므로 古兵들의 敎導로 不足한 訓練을 短時日內에 補完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近2년간에 걸친 陣地戰과 戰線의 膠着상태, 그리고, 制限된 攻擊으로 말미암아, 士氣에 影響을 주었을 것이다.

支援火力으로서의 제11포병단(장, 金 璽 대령)이하의 1개포병대대가 직접지원하고 新編한 제61참사 등포대 1개반이 배속(군단 作指 제57호 53.7.10부)되어 戰場監視에 임하고, 또한, 3전차중대(-)도 輕준한 山岳路를 따라 遲延作戰을 掩護하는데 一翼을 擔當하였다.

사단공병대대(장, 韓洸洸 중령)는 새로히 整齊된 陣地工事に 拍車를 加하면서 戰車進入路(제23연대 地域중점)를 開拓하는 한편 軍團에서는 예하 제108공병대대로 하여금 白岩上洞에서 栗木谷으로 가로 지른 廢路를 擴張하는데 重裝備를 動員하여 800m의 駁嶺을 鑿고 10km에 亘한 工事を 12일만에 完 成함으로써 후일 反擊戰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本戰鬪의 主戰場이 되었던 金城川南岸으로부터 注拔嶺—白岩山을 連하는 地帶는 海拔 500~1,000m 에 이르고 山岳이 聳立하고 北漢江과 金城川을 連繫하듯 東西로 가로지른 橫隔後線(白岩山—注拔嶺)은 南北으로 分水嶺을 이뤄 急傾斜와 狹少한 溪谷이 즐비하다.

때문에, 同綫의 戰術的價値는 金城川以北은 물론이거니와, 南으로는 華川 이르기까지 敵制가 됨으로써 그들에게 該後線群을 넘겨줄 경우에는 3개사단의 兵站 및 作戰上 主要 動脈인 17번幹線과 103 번도로(北漢江 東岸을 南北으로 잇는線), 그리고 華川에서 北漢江上流에 이르는 船舶補給路가 遮斷 되며, 또한 軍단이 橫的連繫를 위하여 새로이 開通한 注拔里—栗木谷간의 通路를 使用하지 못하게 되니 同綫은 彼我間에 양보할 수 없는 要衝地이다.

氣象은, 夏季季節風의 影響을 받아 日中에는 무더우나, 濕氣를 띄고 있으며 계속되는 降雨과 朝夕으로 뒤덮히는 濃霧로 말미암아 視界는 40m 안팎에 불과하였다.

이와같은 氣象條件으로, 航空支援은 물론 小路나 新設道路가 泥濘化하고 山路가 遮斷되어 부대기 등에 제한을 주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敵은 7월 3일 △529를 奪取하자 戰線을 정리하려는듯 5일까지는 사단정면을 비롯하여 兩

翼사단에도 그들의 動向이 靜의傾向을 보였으나 6日以後부터는 소대규모의 探索이 活潑化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9日부터는 雨中과 濃霧를 이용하여 보급품과 장비, 그리고 병력을 계속 前方으로 推進하고 10日과 11日 兩日사이에는 左翼의 제6사단 정면에 1개연대규모가 侵襲하여 激戰중이라고 통보되므로서 情況의 急變을 豫測케 하였다.

이때 情報參謀 金鳳起 중령은 이러한 敵의 활동(7.6~7.12간)을 검토하던바 그들의 挑發이 총 27건에 達하였는데 그中, 80%에 해당하는 21건이 右一線인 제23연대정면이고 나머지 6건이 左一線인 제22연대地域이라는 사실과, 그들의 探索병력이 분대급으로부터 소대급으로 漸增하고 있음을 分析보고하였는데, 사단장 林善河 소장은, 近者에 그들의 猜突의 인 움직임을 尋常치 않게 注視하던 참이었기때문에 이 報告에 接하자 그들의 攻勢가 임박한 것으로 推斷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準備命令을 下達하였다.

『當面한 敵은 近間에 이르러 兵力과 裝備를 계속 前方으로 移動시키고 있을뿐 아니라 제23연대 戰鬪地域에 대한 探索이 急增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이들의 侵攻은 切迫한 것으로 推斷되며 敵의 主攻은 該연대 정면으로 指向할 것으로 判斷된다.

때문에, 사단은 방어중점을 右一線인 제23연대에 두고 敵을 陣前에서 粉碎하려 한다.

① 제23연대는 敵의 主攻方向으로 豫測되는 100번道路를 制壓하기 위하여 對戰車防禦計劃을 추진하고, 철저한 夜間경계를 실시하는 한편 敵의 早期瓦解를 위해 △529南麓의 前進陣地를 強化하라.

火力の 優先權은 제23연대에 둔다.

② 제22연대는 現陣地를 補強하고 隣接부대와 의 긴밀한 連繫를 유지하되 共用火器는 命숨에의하여 右一線인 제23연대를 支援할 태세를 갖추라.

③ 제18연대는 阻止陣地를 구축하는 한편 逆襲計劃“가”案(제23연대정면)에 의한 출동태세를 갖추라.

④ 제11포병단은 사격의 우선권을 제23연대에 둔다.

⑤ 제16탐조중포대(1개반)는 제23연대 지역에서 夜間전장감시에 임하라.

⑥ 전차중대(一)는 제23연대지역에서 對戰車방어에 임하라.

⑦ 공병대대는 제23연대에 2개 중대를 直接지원하여 진지구축과 戰車進入路를 개설하는 한편 敵 機械化부대의 侵攻을 擊破할 障礙物을 설치하라.

또한 1개 중대는 제22연대를 直接지원하여 진지구축과 敵의 接近을 방해할 障礙物을 설치하라.

⑧ 통신중대는 軍단에서 지원된 1개 유선가설조를 통합지휘하여 有線을 가설하라. 또한 새로이 보급된 AN/PRC-1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라.

(2) 작전실시

7월 13일(敵의 侵攻開始)

이날 21.00 夜暗과 降雨을 뚫고 敵의 砲彈이 사단의 主陣地인 △507와 △485一圓에 雨注하여 炸裂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사단情報判斷으로서는 當面한 中共제60군 이하 포병의 砲門數가 86문으로 推算하고 있었는데, 後日 포로진술에 의하면 2개군의 포병을 集中하여 砲擊을 하였다고 하였으니 그 熾烈함이란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砲擊으로 말미암아 사단예비인 제18연대 제2대대장 李恩植 중령이 重傷을 입고 후송되었으며 동대대OP와 연대OP간의 거리가 불과 200m였는데 有無線이 斷切되기도 하였다.

제11포병대장 金 聖 대령은 즉각 對砲兵射擊으로 全火力을 集中하였다.

한편 사단장 林善河 소장은 그들의 侵攻기도가 瀰然하여지자 각급지휘관에게 戰鬥態勢를 각층과 同時に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再強調하였다.

1. 제23연대의 상황

21.40에 그들의 綠色信號彈 3발이 龍湖洞 골짜기에서 솟아 오르면서 全火力이 예비진지인 △445로 延伸하는듯하더니 同골짜기 入口에 潛伏組로 나간 제3중대(一)로부터 1개소대 규모의 敵과 교전중에 있다는 보고에 接하자 포병은 일제히 彈幕射擊으로 이들을 猛打하기 시작하였다.

연대장 朴 徹 대령은 그들의 侵攻方向이 연대에 指向된 것으로 推斷하고 전방에 설치한 모든 潛伏組를 原隊에 복귀시키는 한편 △507西南麓에 예비로 控置한 제2대대(장, 姜興中 대위)와 연대수색중대(장, 金澤龍 대위)로 하여금 左제一線인 제1대대(장, 金載龍 중령)의 後斜面으로 躍進시켜 有事時에 대처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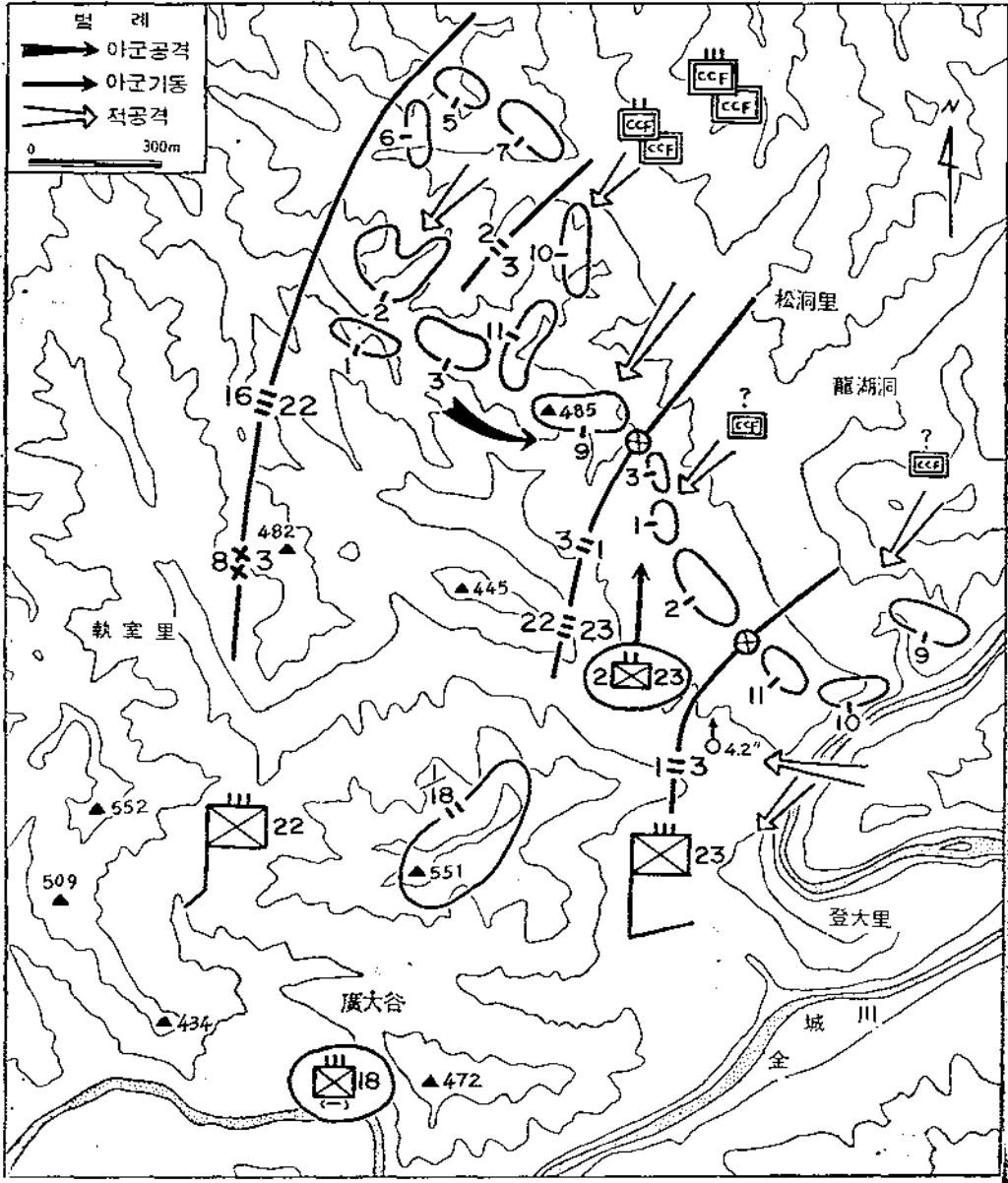
이로부터 10분이 경과한 21.50에, 연대의 最左一線인 제3중대는 그들의 一群과 熾烈한 射擊을 交換하였는데, 그들은 중대의 火網을 뚫지 못하고 潰走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들은 22.20에 제1대대의 楔型據點에 그들特有的의 無차별砲擊을 집중하면서 再侵襲하기 시작하였다. (사단은 이 侵攻을 左一線 제22연대에 대한 牽制공격으로 判斷하였음)

이에이른 연대장 朴 徹 대령은 이같은 상황을 豫測하고 제2대대(장, 姜興中 대위)를 急遽지원하였는데, 이조치는 氣勝스럽던 敵을 陣前에서 阻止擊破하는데 奏效하였다.

이와같이 연대의 左제1선 에서 彼我が 험크러진 가운데 血戰을 거듭하고있을 때에 金城川을 따라 侵透한 것으로 推斷되는 數未詳의 敵이 △507南麓에서 支援射擊하던 제3重박격포중대(장, 金祐植 대위)와 연대CP를 각각 기습함으로써 混亂상태에 빠졌으며 同중대는 이로말미암아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상황도 제64호 汝文里부근 戰鬪(敵의 侵攻)



2. 제22연대의 상황

이날 21.40에 제9중대 정면인 松洞里 北쪽의 潛伏組로부터 接敵의 信號彈이 오르자마자 2개대대규모가 松洞里 앞 小路를 橫斷하여 연대主抵抗線의 中央으로 來侵하기 시작하고 이어서 主力인 듯한 1개연대규모가 이에 後續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연대(장, 崔澤元 대령)는 最後阻止射擊으로 그들의 波狀攻擊을 즉차로 물리치고 있었으나, 敵은 1:2의 優勢한 병력의 連續波로서 侵攻함으로써 이 火網은 순간에 허물

어지고, 22. 10부터는 咫尺之間에서 彼我が 불을 밝는 手榴彈의 投擲戰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때 제10중대는 연대의 中央突出部에서 有蓋壕를 방패삼아 善防하였으나, 6배에 달하는 그들에게 密閉된 極限상황에서 亂戰紛擊을 벌이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에 이르자 중대장 權寧極 대위는 陣內사격을 要請하여 T. O. T사격으로 蝟集한 敵群을 쓰러버려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였다.

연대장 崔澤元 대령은 潮水와 같이 밀려드는 敵勢로 미루어보아 主陣地의 支撐이 어려울 것으로 判斷하고, △535에서 阻止陣地를 扼守하고 있던 제1대대(장, 李在信 중령)에게 反擊준비를 命令하였다.

그런데, 제10중대의 火網과 T. O. T사격에 부딪쳐 分散되었던 그들은 屍體를 遺棄한채 北麓으로 潰走하였는데, 다시 병력을 增強하여 제3대대(장, 林判吉 대위)의 右側方인 제9중대로 銳鋒을 돌려 기어오르기 시작함으로써 兩중대는 一齊히 十字 火力을 퍼부어 이들의 侵透를 阻止하고 있었다.

그러나 一波를 潰滅하면 또 二波가, 그리고 三波, 四波를 몰아세워 怒濤처럼 밀려들자 이를 注視하던 연대장은 이미 出擊준비를 갖춘 제1대대(一)(장, 李在信 중령)를 이곳에 急派하면서 兩중대장에게 激勵과 더불어 增援병력이 赴援중에 있음을 通報하여 士氣를 북돋아 주었는데, 이를 끝으로 연대와 제3대대간의 有無線通信은 敵의 포격에 의하여 杜絶되고 말았다.

바로 이즈음 敵陣 깊숙한 △663(座首洞 南쪽 1.5km)에서 靑色信號彈 3발이 밤하늘에 치솟음과 때를 같이하여 제2및 제3대대의 間隙으로 侵滲한것으로 보여지는 2개 중대규모가 突然 阻止陣地를 扼守(主力은 出擊)하고 있던 제2중대 正面에 나타나 彼我間에는 血肉이 飛散하는 肉彈戰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들의 다른 一群은 [稜線상의 無名高地(△485西北쪽 0.5km)에 설치한 제1대대(장, 金鍾敏 중령)OP를 기습하여 分散시키고 主抵抗線의 一角을 侵襲케 되니 彼我는 混戰상태에서 角逐戰이 到處에서 벌어졌으며, 이로 因하여 연대와 제1대대간의 有無線통신이 杜絶되고 말았다.

이러한 가운데 23. 10 龍湖洞부근에서 靑色信號彈이 오르자 또다시 1개 연대규모가 제2및 제3 兩대대의 北麓前線에서 展開하여 狂波를 이루고 侵攻을 再開하였다.

제11포단병(장, 金聖 대령)의 兩포병대대는 灼熱하는 砲身에 물을 부어가며 阻止射擊으로 연대를 지원하였는데, 그들은 惡辣한 瞥戰과 夜暗, 그리고 暴雨를 充分利用하여 一群 또 一群이 각개로 獨立하여 侵攻하고 壕간의 連絡路를 遮斷하기에 이르므로서 各隊의 上下는 물론 橫의 連絡마저 遮斷된 채 孤立奮戰하였으며 23. 50에 급기야는 연대의 右제1선인 제3대대(장, 林判吉 대위)가 崩壞直前に 놓였을 뿐만아니라 赴援中에 있던 제1대대(一)도 主陣地一角으로 侵透한 敵으로부터 기습을 받고 分散되고 말았다.

3. 사단장의 措置(제18연대 出擊準備)

急變하는 戰勢의 推移를 注視하던 사단장 林善河 소장은, 敵의 攻勢가 軍단 全域에 걸

컷을 뿐만아니라 사단이 當面한 그들의 主攻方向이 제22연대에 指向하고 있음을 判斷하기에 이르자 廣大谷에 控置하였던 제18연대(장, 朴敬遠 대령)를 該戰域으로 投入하기로 決心하고, 22.00에 出動態勢를 갖추도록 命令함으로써 연대 將兵들은 3개월간에 걸친 예비대 위치에서 一線으로 殺到코자 反擊준비를 서둘렀다.

7월 14일(遲延戰)

1. 제23연대의 主陣地堅守

이날 1.10에 연대장 朴徹 대령은 연대보급집적소와 제3중박적 포대를 습격한 소수 侵透병력을 擊滅코자 연대본부 行政要員으로 急編한 1개소대로 하여금 이를 驅逐하기는하였으나 戰果가 부실하자 이들의 再侵攻을 防止하기 위하여 △507로 赴援하였던 제2대대(장, 姜興中 대위)에서 1개 중대(제7중대)를 抽出하여 연대 後방경계에 임하도록 하는 한편 대대主力은 다시 右側1선에서 激戰中인 제3대대(장, 金慶哲 중령)로 急히 參加시킴으로써 協同공격으로 1개 중대규모의 敵을 一舉에 무찔렀다.

그러나, 그들은 右側(제22연대)에서는 稜線의 一角을 占據하였는데 左側(제23연대)에서는 膠着상태에 빠져 공격마다 失敗하자 병력을 증원하여 再攻擊을 企圖한듯 02.40, 盲砲擊을 加하면서 一群은 제1중대로 또한 一群은 前進陣地인 제9중대를 迂回하여 제10중대로 怪聲과 怪과리를 치면서 殺到하였다.

이때를 위하여 沈默을지키던 제3대대장 金慶哲 중령은 그들이 東西相應한 挾擊지대(제9중대와 제10중대와의 사이)에 陷入하자 最後阻止射擊의 신호탄을 올림으로써 前進陣地에 突出하여 있던 제9중대도 射擊方向을 反對로 轉換하여 이에 合勢하게 되니 兩중대의 猛射는 그들로하여금 一步도 움직일 수 없는 進退兩難에 빠뜨려 놓았다.

뿐만아니라 때마침 제10중대 左側으로 推進하였던 제1전차소대가 敵의 退路를 遮斷하듯이 兩중대사이의 溪谷小路로 進入하여 縱橫無盡으로 射擊을 퍼부으니 鳥合之卒이된 敵群은 火網을 피하려고 左衝右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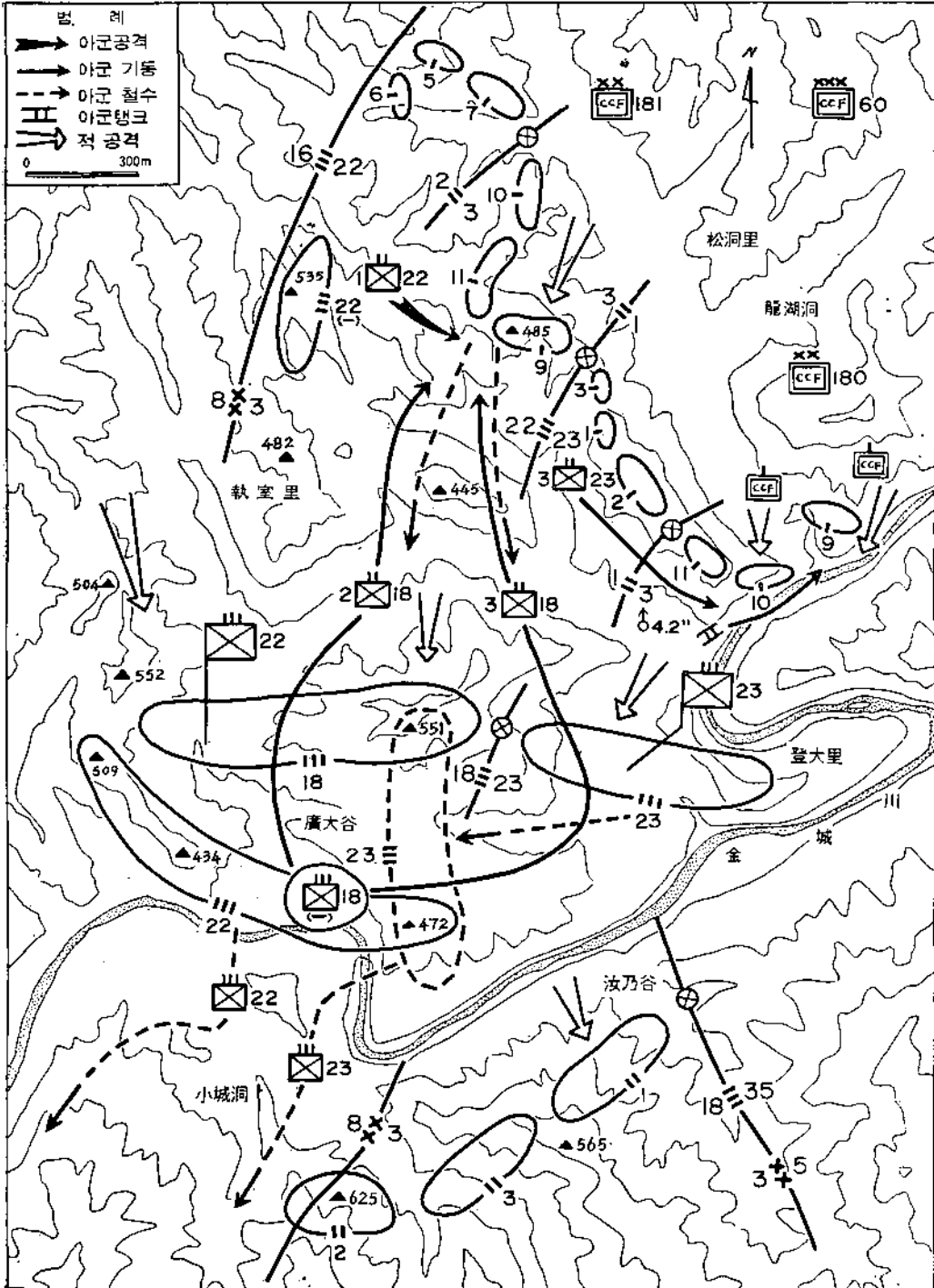
이를 捕捉한 대대장 金慶哲 중령은 이에 앞서 사단化學參謀 孫鍾洙 대위가 考案하여 山中復의 要地, 要部에 設置하고 또한 제9및 제10중대에 秘藏하였던 手製 napalm彈(휘발油和 칙크나油를 混合한것으로 導爆장치에 의거 爆破)을 山麓으로 放投하니 火焰은 山野를 뒤덮고 醜敵들은 불(火)맞은 불나방처럼 떨어져 나갔으며, 山腹과 溪谷은 그들의 怪聲과 悲鳴으로 가득차 마치 生地獄을 방불케 하였다.

05.05, 東天에 해가 솟자 硝煙은 山野를 덮고 山頂에는 불탄 敵屍의 惡臭가 오늘의 凄慘無比한 戰場의 血戰을 말하여 주고 있다.

2. 제22연대의 崩壞

01.10, 左一線인 제22연대(장, 崔澤元 대령)는 △485一圓을 扼守하던 제3대대(장, 林判

◇ 上 황도 제65호 汝文里 부근 戰鬪(지연戰)



吉 대위)가 무너져 그들과 離脫하여 무질서하게 대대CP(△445東南쪽 0.5km)로 집결하고
 同대대를 支援하기위하여 稜線을 따라 △485로 赴援하던 제1대대(一) (장, 李在信 중령)도
 대대OP(△535東北쪽 0.5km)가 기습을 받고 지휘기능이 마비된데다 移動간에 무질서하게
 撤收하는 제3대대병력과 混合되어 混亂을 일으킴으로써 戰鬪力도 發揮하지 못한채 分散상
 태에서 대대 CP(△507南쪽 0.5km)로 철수하고 있었다.

이러한 渦中에서도 제2대대(장, 權益檢 중령)는 突出한 主陣地를 頑強히 固守하면서 02.40
 와 04.10, 2차에 걸쳐 각각 1개 중대규모의 敵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나 그때마다 唯一한
 觀測將校용 통신으로 砲擊을 誘導하여 대대火力과 步砲協同으로 그들을 물리치곤 하였다.

사단장 林善河 소장은 敵과 離脫하여 集結中에 있는 제22연대(一)(장, 崔澤元 대령)를
 巡視하여 장병들의 勞苦를 憐勞하는 한편 중대장급이상 지휘관에게 다음과 같은 要旨로
 督勵하였다.

『① 右一線 제23연대는 主抵抗線을 確保하고 있고 贊연대 左제1선의 제2대대도 現陣地
 를 固守하고 있으며,

② 제18연대가 △485에 대한 逆襲을 위하여 이동중에 있다.

③ 이제 우리는 일시나마 그들에게 主抵抗線이 突破되기는 하였으나 伸張된 그들의 側
 背에 匕首를 꽂을 때가 바로 切迫하였다』라고 한다. 연대장 崔澤元 대령에게는, 寸刻을
 猶豫치 말고 兵力을 收拾하여 △535(제8사단과의 전투지경선)를 占領하여 제2대대와 連繫
 를 維持하도록 命命함으로써 이 逆境을 好機로 轉換시키려 하였다.

即, 그의 作戰指導를 一瞥하면, 敵을 大網에 걸린 고기로 보고 東에서는 제23연대(장,
 朴 徹 대령)로서 그리고 西에서는 제22연대(장, 崔澤元 대령)로써, 그들의 露出된 側方을
 挾擊으로 強打케 하고, 그러면서 제18연대(장, 朴敬遠 대령)로 하여금 侵透한 尖端을 直衝
 하려는 것이다.

이리하여 연대(一)는 정비할 사이도 없이 05.20에 現地로 躍出하여 제1대대(장, 李在信
 중령)는 △535를 中心으로 南北으로 連하는 稜線을 占領하고, 제3대대(장, 林判吉 대위)는
 이와 連繫하여 南쪽 1km에 이르는 線을 確保하였다.

수색중대(장, 高根榮 대위)는 一隊를 △445에 두고 一隊는 龍湖洞으로부터 兩연대간의
 戰鬪지경선으로 침투가 예상되는 小路를 警戒토록하였다.

이러므로써 05.40현재 사단과 연대간은 물론 연대와 대대간의 無線을 再確保하였다.

그동안에도 그들은 눈위에 흑과같은 제2대대(장, 權益檢 중령)를 떼어내지 않고서는 侵
 透병력의 側背가 威脅을 받게 될것을 우려하였음인지 2차(05.40, 06.50)에 連하여 緊요하
 게 壓力을 加하려하였으나 1개 중대규모에 불과한 그들은 대대의 前線에도 미치지 못한채
 潰滅되곤 하였다.

한편 △535一圓에 布陣한 연대(一)는 轎岩山으로 侵攻한 敵에 의하여 撤收하는 左翼제8

사단 제16연대의 撤收를 掩護하였으나 07.00에 이르러서는 左右인접부대와 서로 斷絶된 상태에서 孤立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惡條件을 그들이 看取하였는지 07.15부터 1개대대규모가 砲擊을 집중하고 제7중대를 掩襲하였으며, 또 그들의 遊擊隊로 보이는 一군은 執室里南쪽 1km에서 연대 주보급소를 위협하기에 이르자 사단장 林善河 소장은 그들에게 遮斷 直前に 놓인 연대(一)에게 撤收를 命令함으로써 同연대는 逐次 遲延戰을 실시하면서 08.00에 △509—△434—△472로 連하는 稜線에 右로부터 左로 제 3및 제1대대順으로 급편 방어 진지를 편성하였다.

이때의 제2대대 撤收문제에 대하여 當時의 연대장 崔澤元 대령은 후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535에 進入하고도 2시간 밖에 障地를 支撐하지 못하였는데 主力이 철수하면서 連絡장교를 보내어 撤收를 命令하였으나, 이 命令은 끝내 대대장에게 傳達이 안된 것으로 記憶하며 連絡장교도 이 任務를 수행중 戰死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同대대는 敵中突破(後述)하여 主力과 合勢하는데 성공하였다』라고 하였다.

3. 제18연대의 逆襲

사단장 林善河 소장으로 부터 逆襲命令을 받은 제18연대(一)(장, 朴敬遠 대령)은 逆襲計劃 “가”案(演習時 4개案(가, 나, 다, 라)를 발전시켰는데 “가”案은 △485에 대한 逆襲공격 임)을 發動하여 00.20에 제3대대(장, 金仁杰 중령)는 基地로부터 △551 東쪽으로 나갔고, 제2대대(장, 金光哲 중령)는, 同고지 西쪽으로 分進중, 02.20 제3대대의 전위인 제9중대(장, 朴在善 대위)는 △551 東麓(登大里西쪽 0.7km)에 이르렀을 때, 兩側稜線을 先取中인 一군의 敵과 40분간에 걸친 熾烈한 交戰을 벌였는데, 상황이 여의치않자 대대장, 金仁杰 중령은 후속하던 제10중대(장, 金基泰 대위)를 加勢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頑強한 抵抗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前進이 遲滯하기에 이르자, 연대장 朴敬遠대령은, 그들의 企圖가 金城川을 따라 西侵하여 사단主力의 補給路를 遮斷 할 것을 憂慮하고 때마침 사단과의 通信이 故障으로 杜絶상태에 있었으므로 獨斷으로 이를 阻止하기로 決心하고 제9중대로 하여금 當面한 敵을 牽制케 하는 한편, 主力은 △551를 固守中인 제1대대(장, 金鍾敏 중령)와 連繫하여 金城川北岸을 防守하기 위하여 轉進하려 하였다.

그런데 연대는 마침 疎通된 無電으로 사단장 林善河 소장에게 이같은 措置를 보고하였던 바, 中間에 나타난 소수의 敵과 交戰을 피하고 계속 △485를 奪取하라고 嚴命하였으니, 主目標가 入手되면 副隨的인 중간의 敵은 스스로 해결될 것이며 적은 것에 執着하다가 큰 것을 놓치는 愚를 막으려 한듯하였다.

이리하여, 제3대대(장, 金仁杰 중령)는, 상부의 의도를 察知하고 제9중대의 交戰을 서서히 中斷시키면서 主力은 該敵을 迂迴하여 躍進을 재촉하였다.

그러나, 前進路上的의 적정이 五里霧中인데다가, 暴雨속의 夜間前進이 不振하였으며, 이에 겹쳐 간간히 부딪치는 소수의 敵을 驅逐하면서 進出하였으니 그 速度가 牛步와도 같았다.

이러한 가운데 07.00에 대대는 汝文里에 이르고, 또한 제2대대(장, 金光哲 중령)도 그들과 接觸없이 汝文里西北쪽 0.5km로 進出하였는데, 이동중에 제22연대의 落伍兵과 混雜되어 일부병력의 손실을 보았을뿐 아니라 병력수습에 混亂을 惹起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兩대대가 △485의 南麓에 展開하였을때에는 그들의 砲擊과 이미 同高地를 占取하고 있던 2개대대규모와 서로 부딪침으로써 이들의 火網속으로 뛰어든 셈이 되었다.

그럼에도 연대는, △689전투(4.12)이후 이날에 이르기까지 예비로서 100%의 병력보충과 부대정비 그리고, 충분한 休憩을 취한데다 BAR사수까지도 上士가 담당하는 歷戰의 古參들이 모임으로써 당시의 지휘관들은 사병 한명과 20명의 괴뢰군과를 바꾸지 않겠다는 기백에 찬 부대였으니, 兩대대는 雨中行軍의 피로도 잊은채 目標 △485를 挾擊하는 形勢로 一步一步 突進해나갔다.

그런데 이때 그들의 一群이 阻止陣地를 扼守하고있는 △551의 제1대대(장, 金鍾敏 중령)를 侵襲하여 彼我が 接觸格鬪하고 있었고, 또한 主力으로 推斷되는 大群은 공격중인 연대(一)의 補給路를 遮斷하려는듯 △485東쪽을 돌아 南下하고 있음을 同高地 中復에서 捕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연대장 朴徹遠 대령은 이미 △485에 대한 逆襲이 무의미하게 되었을뿐아니라 연대(一)가 被포위直前に 놓였음을 直感하고 사단장 林善河소장의 승인하에 突破를 결심하고 10.00에 梯次的인 撤收와 突貫을 互用하면서 큰 被害없이 基地까지 물러서게 되었다.

4. 사단장의措置

강력한 砲兵支援을 받는 1개사단규모의 敵으로부터 左一線[제22연대(一)]이 무너지고 이를 恢復하려던 제18연대마저 逆襲에 失敗하였을뿐만 아니라, 右一線의 제23연대도 그들의 加壓하는 壓力과 同연대 左側方에 생긴 突破口의 虛隙으로 潮水와 같이 侵襲함으로써 側背에 대한 危機가 時時刻刻으로 急迫하게 되자 사단장 林善河 소장은 深思熟考끝에 陣容을 재정비하기로 決心하고 作指제60호(53.7.14부)로 다음과 같은 要旨의 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일부 主抵抗總병력을 交代시키려함

② 제18연대는 左一線 제22연대의 右一線 방어임무를 인수하여 △551—圓으로부터 無名고지(△509 北쪽 0.5km)에 이르는 線을 占領確保하라

제22연대 제2대대와 交代시키는 別명한다.

③ 제22연대는, 계속 제2방어선(△509—△434—△472간)을 確保하고 側方경계에 입하라

④ 제23연대는 現陣地로부터 逐次 撤收하여 제18연대와 連繫하여 登大里에 이르는 線을 占領하고 右側方경계에 입하라.

⑤ 제11포병단은 각연대의 진지 進入간 火力支援하고 11.00까지 注坡里(東北쪽 1km)의 新陣地로 轉換하라.』

이리하여, 각대는 戰車와 砲兵의 掩護밑에 右一線에는 제23연대(장, 朴徹 대령)가 그리

고 左一線에는 제18연대(장, 朴敬遠 대령)가 각각 담당하였고 제22연대(장, 崔澤元 대령)는 阻止陣地를 占領함으로써 사단은 金城川北岸의 最後據點에서 背水の 陣을 치게 되었다.

그러나 壕를 파거나 그들의 侵襲을 阻止하기 위한 障礙物설치등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 다만 人海와 같은 大群에 대하여 自體의 火力과 肉彈만으로 이들을 擊碎하려는 鬪魂뿐이었다. 사단장 林善河 소장은 각연대를 巡視하면서 現陣地가 어떠한 代價로 支拂하더라도 固守하여야 한다고 強調하는 한편, 제18연대(장, 朴敬遠 대령)에게는 左側方으로 侵透하여 △504를 위협하고 있는 敵을 擊滅하라고 命命하였다.

가) 제18연대의 反擊과 陣地撤收: 연대장 朴敬遠 대령은 제3대대(장, 金仁杰 중령)로 하여금 △504로 침투하는 敵을 격쇄토록 하였는데, 同대대가 目標(△504)를 향하여 躍出中 08.40에 同고지의 稜線을 따라 1개대대규모가 長蛇와 같이 縱隊로 南下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09.00에 機先을 制하여 陣地轉換을 알둔 砲兵의 集中砲擊과 더불어 大대의 全火力을 集中하기에 이르니 그들은 四散하고 말았다.

대대장 金仁杰 중령은, 戰機가 무르익었음을 看破하고 戰果를 擴大하기 위하여 追擊하였는데, 이들을 後續하던 것으로 推斷되는 한패가 迂回侵透하여 옴으로써 追擊이 中斷되었으며 따라서 이들과 對峙한 가운데 射擊戰만을 交換하게 되었다.

이즈음, 대대 主力을 후속하던 제10중대(장, 金基泰 대위)도 △509를 東쪽으로부터 急襲하려는 그들의 一群과 激突하여 血戰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로서 대대는, 一瞬에 亂戰亂擊의 混戰을 展開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연대장 朴敬遠 대령은 사단에 要請하여 매마침 飛來한 F-81 2개편대를 誘導하여 機銃掃射와 Napalm彈을 퍼부었으며 그 뒤를 이어 大대의 全火力을 集中強打하기 시작하니 울창한 山野는 갑자기 火焰과 黑煙으로 휩싸였고, 氣勝을 떨던 그들은 마침내 연대의 空地協同에 휘말려 戰場에는 무수한 燒屍體를 남긴채 亂麻와 같이 헝클어져 潰退하였다.

그러나 支離滅裂된 該敵이 자취를 감춘듯 하더니 09.30에 戰勢를 다시 갖춘듯 一團은 △551(제1대대 布陣)로 醜鋒을 돌리고, 主力(2개대대규모)은 兩대대의 間隙으로 侵攻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제1대대(장, 金鍾敏 중령)는 제1중대(장, 金益洙 대위)를 △551主峰에서 西側으로 하고, 이와 連繫하여 左側으로 제2중대(장, 成光洙 대위)와 제3중대(장, 李昊鍾 대위) 順으로 散開하고 있었고 한편 배속된 사단수색중대(장, 薛俊喆 대위)는 △551西北下麓(0.7km)으로 進出하여 敵을 遮障하고 있었다.

또한 제2대대(장, 金光哲 중령)와 연대수색중대(黃武勳 중위)는 지난 逆襲에서 제22연대의 分散된 병력과 混雜되어 그 일부의 병력이 이에 휩쓸려 損失을 본데다 撤收간 많은 落伍者를 넘으로써 △472北麓에 集結하였을때에는 大대戰鬪力 70%를 保有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연대는 그들의 狂波를 막아 진지를 拒支하고 있었으나 右一線인 제

23연대(장, 朴徹 대령)가 증강된 2개 연대규모의 侵攻을 감당할 길이 없어 一步 一步 물러서고 있는데다 또한 一群이 同연대의 右側方을 뚫고 金城川江邊을 따라 背後로 侵透하기 시작하였으니 全般戰勢가 惡化하기에 이르렀다.

나) 橋頭堡에서의 血戰 : 이에 앞서 사단장 林善河 소장은, 右翼 제5사단과 戰鬪地境線을 整齊하여 사단의 作戰區域을 縮少한바 있거니와 제23연대(장, 朴徹 대령)가 離脫直前の 威脅에 直面하기에 이르자 阻止障地(△509-472간)를 防守하고 있던 제22연대(一)(장, 崔擇元 대령)를 南岸으로 撤收시키는 한편 逐次撤收하고 있는 제23연대(장, 朴徹 대령)로 하여금 그들과 離脫케 하여 △551-△472간을 占領케 하여 제18연대(장, 朴敬遠 대령)와 連繫를 이뤄 右側方으로 侵襲하는 敵을 阻止하기로 決心함으로써 사단(一)은 金城川 北岸에 橋頭堡的인 陣容을 다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23연대장 朴徹 대령은 제1대대(장, 金載龍 중령)로 하여금 △551로부터 △472(東쪽 100m)간을 扼守케 하여 제18연대와 連繫를 이뤄 溪谷으로 接近하는 敵을 邀擊토록 하고 제3대대(장, 金慶哲 중령)는 △472主峰을 포함하여 金城川 江邊路로의 接近을 擊碎토록 하였다. 그리고 제2대대(장, 姜興中 대위)를 예비로 하여 廣大谷 北쪽 稜線에 阻止障地를 占領토록 하였는데, 陣容을 갖추었을 때는 11. 20이었다.

사단은 새로운 障地에서 四周防禦를 편성하고 그들을 迎擊하였으나, 中共 제60군은 사단의 橋頭堡據點을 目標로 세方面으로부터 揆擊하기에 이르니, 그 大勢앞에 더이상의 防守는 犧牲者만을 累增케 할 따름이었다.

5. 사단의 戰線整備

同時刻에 一刻을 다투는 상황은 비단 當사단에 局限 된것이 아니라 軍단全域에 걸쳐 波及됨으로써 金城川 北岸에서의 撤收는 불가피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軍단은 戰線을 整齊하기 위하여 軍단 作戰命令 제5호(3. 7. 1411. 30부)를 발령하여 同江 南岸을 防禦[이 計劃은 美제8군사령관(Taylor 대장)의 強調線이었으며 事前諒解가 되었음]키로 하였으니 이에 따라 사단은 作指 제61호(53. 7. 14부)로써 다음과 같은 要旨의 命令을 下達하였다.

『사단은 7월 14일 12. 00부로 新主抵抗線을 占領確保 하려함.

- ① 제18연대는, 汝乃谷을 중심으로하여 新障地를 占領 確保하라.
- ② 제23연대는 제2방어선의 右一線에서 無名高地(△689南쪽 0. 4km)를 固守하며 사단 예비로써 待機하라.
- ③ 제22연대는 제2방어선의 左一線에서 △529를 確保하며 사단예비에 임하라.

이 計劃에 의거하여 제23연대(장, 朴徹 대령)는 제18연대(장, 朴敬遠 대령)가 △551-圓에서 掩護하는 가운데 小城洞 木橋로 渡江하여 南岸으로 撤收하였으나 여기에 集結하여 再編成하려는 무렵에 敵의 集中砲火를 비롯하여 細峴里쪽으로부터 直射火器와 迫擊砲의

사격이 집중되어 兵力이 分散되어 겨우 名色만의 연대建制를 유지한채 각대대별로 철수하게 되었다.

가) 제18연대의 新陣地確保 : 연대(장, 朴敬遠 대령)는 △472를 中心으로 東과 北쪽(△551)을, 그리고 제2대대(장, 金光哲 중령)로 하여금 그 南쪽을 防守하는 四周방어태세에서 陣容을 收縮少하고 제23연대(장, 朴徹 대령)의 철수를 엄호하는데 姿効하였으나, 執拗하게 追尾하는 그들의 挾擊으로 포위망이 壓縮되자 13.00, 撤收를 기만하기 위하여 연대의 全火力으로 그들의 銳鋒을 强打한다음 제3, 제1, 제2대대順으로 撤收 함으로써 사단은 제22연대 제2대대(장, 權益檢 중령)를 除外하고 13.20 南岸으로 撤收를 完了하였다.

渡江한 연대는 14.30에 新陣地로 進入하고 다음과 같이 部署하였다.

즉, 연대OP는 △625에 두고 右一線에는 제1대대(장, 金鍾敏 중령)로 하여금 汝乃谷부근에, 제3대대(장, 金仁杰 중령)는 이와 連繫하여 △565北쪽 下麓에서 東西로, 그리고 제2대대(장, 金光哲 중령)는 △625一帶에 배치하여 그들이 小城洞으로부터의 溪谷接近을 擊碎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연대는 쏟아지는 빗속에서 夕食을 마친다음 各己의 責任區域으로 돌아갔는데 이때, 연대의 뒤를 따라 徒涉(14.20小城橋는 사단공병대대에 의하여 爆破된)한것으로 推斷되는 大群이 두갈래로 分進하여 一群은 汝乃谷으로 侵入하여 제1대대(장, 金鍾敏 중령)와 交戰이 벌어졌고, 제2대대(장, 金光哲 중령)는 小城洞溪谷으로 侵透하여 △625左側으로 迂回하는 敵과 交叉射擊으로 이들을 粉碎하고 있었다.

연대장 朴敬遠 대령은 각대대장에게

『우리는 衆寡不敵으로 이곳까지 이르렀으나 그간 우리는 그들에게 莫甚한 打擊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세한 航空力으로 伸張된 그들의 補給路를 猛打함으로써 불된 驕敵의 戰意를 剝奪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임무는 敵을 山岳으로 誘引하여 膠着케 하고 擊滅하는데 있는바 各隊는 有利한 現陣地를 必勝의 信念으로 固守하라』고 嚴命하고 不退轉의 決意를 다짐하였다.

나) 敵中突破(제22연대 제2대대) : 이날 08.00에 연대(一)가 철수한 뒤(그전에도 連結이 失敗하였음은 前述)에 제2대대는 敵中에 孤立되어 있었다.

이러한 逆境속에서도 대대장 權益檢 중령은, 侵襲하는 敵을 陣頭指揮하여 四周防禦를 흐트러트림이 없이 孤戰奮鬪하였으나 時間이 흐름에 따라 銃砲聲이 점점 南쪽으로 멀어지자 연대(一)가 金城川부근으로 철수한 것으로 추단하고 계속 現陣地를 固守할 것이냐, 아니면 敵中을 突破하여 本隊에 合勢할 것이냐에 대하여 深思熟考끝에 後者를 택하기로 決心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確固한 撤收命숨이 없는 現時點에서는 本隊와의 連結이 이루어질 때 까지 陣地를 固守해야 하겠으나 本隊와의 通信이 杜絶(有線은 23.00, 無線은 23.45)된데다 携帶한 彈藥

이 1人當 15,6發정도로 彼我軍의 屍體에서 收集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食糧또한 대대 보급소가 23.40에 기습당하여 潤湯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戰死傷者가 累增하는 現상황 밑에서 時間을 끌면서 救援隊를 기대하기 곤란한것으로 判斷하였다.

이에 대대장 權益檢 중령은 곧 各중대장에게 敵中突破에 대하여 이르기를『大隊는 全力으로 敵의 包圍網을 突破하고 南쪽을 向하여 轉進하려한다. 突破路는 高地를 連하는 稜線을 따를 것이며 無名고지(△606東北쪽 0.6km)에 이르기까지는 제7, 제5 및 제6중대順으로 接戰중에 있는 中대로부터 逐次撤收를 실시하고 該高地부터는 逆順으로 △606(商山里 東쪽 1km)－△585－△439－細峴里를 거쳐 그들의 戰線을 突破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突破의 欺瞞을 위하여 一齊사격을 퍼부어 그들의 銳鋒을 牽制한 다음 戰傷者를 먼저 제7중대(장, 姜相彦 대위)와 같이 先發시킨다음 計劃에 따라 鎧袖一觸으로 그들을 뿌리치고 陣地를 빠져나갔으니 이때가 14.45이었다.

대대장 權益檢 중령은, 제1目標地 있던 無名高地에 이르자 突破部署를 재정비한 다음 一氣에 △606를 占領하였다.

그러나 前進路上的 敵情이 五里霧中이었으므로 그 狀況을 파악코자 대대장은 搜索組를 급편하여 該高地 下麓으로 내려보내 竹洞부근까지 搜索토록하고 다음 目標인 △439에서 대대 主力과 合勢하도록 하였다.

16.50에 搜索組는 本隊를 떠나 은밀히 竹洞부락에 近接하였으나 北上中이던 1개중대 규모의 敵으로부터 猛擊을 받고 分散되어 △439에서 主力과 合勢하였는데, 所期의 目的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대대장 權益檢 중령은 그들이 追擊할 것으로 推斷하고 同高地와 溪谷을 사이에 두고 東南쪽 △600에 있는 △414로 이동하였는데, 이들이 追擊하는 기색이 없음을 確認하자 日沒前에 眼下에 보이는 細峴里 앞 橋梁으로 渡江하기 위하여 18.30에 同橋梁에 接近하였는데 敵影이 없자 悠悠히 渡江하여 17번 道路를 따라 南進함으로써 20.00東幕洞에서 연대 主力과 合勢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期間에 대대가 確認한 진과는 殺傷者만 헤아려 715명에 달하고 幽獲한 武器는 척코 機關銃 11挺, 多發銃88挺, SMG 42挺이었는데 武器는 모두 現地에서 埋沒또는 破壞하였다 반면에 대대도 戰死 29명, 負傷 30명의 損失을 내었다. 후일 대대장 權益檢 중령은 이 一戰이 높이 評價되어 無星乙支勳章을 받았다.

6. 사단(主力)(一)의 隨意撤收

제18연대(장, 차敬遠 대령)는 新陣地에 進入하였으나 제22 및 제23연대는 分散상태에 있음으로써 作指 제61호(53.7.14)에 의한 阻止陣地占領은 끝내 이루지 못하고 17번道路로 소대 및 中대별로 東幕洞으로 撤收하여 이곳에서 일단 兵력을 수습하게 되니, 이때의 상황을 제11포병대대 戰鬪詳報가 밝히기를『歩兵부대의 分散撤收로 말미암아 FO와의 通信이 杜絶

되었으며 대대는 20.00까지 FO배치에 힘을 썼으나 할수가 없었다』라고 記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그 당시의 混亂相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날 22.00에 東幕洞에서 병력수습이 一段落됨을 確認하자, 사단CP는 四方巨里로 이동하였으며 자연대별 撤收經路는 다음과 같다.

가) 제22연대의 狀況 : 연대(一)는 小城橋를 渡江하여 새로이 부여(作指제61호)받은 新陣地를 점령하기 위하여 小城洞으로 이동하던중 數未詳의 敵으로부터 기습을 받고 分散되어 일부는 山麓으로 내려가, 대부분의 병력은 17번도로를 따라 南下하였는데, 19.00에 東幕洞에 設置한 落伍者收容所에서는 三三五五로 흩어진 병력을 수습하였으며, 20.00에는 敵中을 突破한 제2대대(장, 榴盆檢 중령)도 主力과 合勢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의 장병들은 계속된 戰鬪과, 보급의 不振, 그리고 撤退로 인한 心理的인 打撃으로 사기는 저하되어 있었다.

연대장 崔澤元 대령은 隸下 各급지휘관 및 참모들과 함께 사단에서 추진한 보급과 장비로써 단시간내에 재정비함으로써 잃었던 士氣는 젊음과 鬪志로 克服하여 점차 補強할 수 있었다.

이 동안에도 그들은 계속 南侵하고 있었는데, 시간을 猶豫할 수 없었던 사단장 林善河 소장은 현재 수습된 병력으로 △666—723간의 固守에 臨하라는 口頭命을 下達하니 이에 따라 연대는 지체없이 21.00부터 勇躍守地로 向하게 되었다.

나) 제23연대의 狀況 : 연대(장, 朴 徹 대령)는 金城川 南岸에서 그들의 기습적인 砲撃을 받고 分散되었으나, 이를 再收拾하였을 때에는 이미 戰力이 바닥이나 전제마저 유지하기가 困難하였다.

연대장은 △625西北麓에서 再編을 마치자 阻止陣地를 占領하기 위하여 제1대대(장, 金 載龍 중령)를 먼저 出發시키려 하였는데, 이때 外城洞쪽으로부터 侵入한것으로 보이는 1개 중대규모의 기습을 받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연대의 躍進을 攪亂하려는 砲撃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分散되는 危機에 놓였다.

연대장은 사단과의 連絡이 杜絶된데다 彼我상황도 杳然하려니와 補給과 彈藥이 渴潤된 現戰鬪力으로서 目標(陣地占領)에 直進한다는 것은 火藥을 질머지고 불에 뛰어드는 格이 될 것이라고 判斷하기에 이르자 사단과 連繫한 후에 再起하기로 決心하고 각대대장에게 다음과 같은 悲壯한 命을 下達하였다.

- 『① 연대는 東幕洞을 目標로 轉進하려함
 ② 제1대대는 左側1선으로서 △851를 거쳐 直進하라.
 ③ 제3대대는 中央軸線을 따라 △682를 經由하여 直進하라.
 ④ 제2대대는 右側1선에서 △596를 거쳐 轉進하라.
 ⑤ 수색중대는 현 위치에서 연대의 철수를 엄호하라』

13.30부터 小城洞을 始發點으로한 연대는 一齊히 轉進을 하기 시작하여 제1대대(장, 金載龍 중령)는 17.30에 △682를 거쳐 20.00에 東幕洞에, 그리고 제3대대(장, 金慶哲 중령)는 19.30에 東幕洞에 각각 집결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姜興中 대위)는 別隔로 迂回하여 17번 도로를 따라 南進하였는데, 道路를 메우고 撤收하는 3개 사단의 車輛과 人波로 말미암아 東幕洞에 到着하였을 때에는 23.00였다.

各대대는 轉進하는 동안 敵과의 接觸은 없었으므로 途中에 散在하여 있는 落伍兵수집에 盡力하게 되었다.

다) 제23연대 수색중대의 奇襲 : 연대의 철수를 엄호하던 수색중대(장, 金澤龍 대위)는 이때 철수하는 연대의 뒤를 따라 廣大谷앞의 江을 徒涉(小城橋는 14.20爆破)하는것을 發見하였는데, 중대장 金대위는 半途에서 逆擊할 決心을 굳히고 대원들을 此岸에 散開시키고 숨을죽여 대기하고 있었다.

이윽고 敵의 主力이 蟻集하여 渡江하고 그의 一群이 此岸에 발을 드러 놓으려하자마자 이때를 기하여 중대는 一齊히 불을 뿜으니, 一瞬 江물은 붉게 물들고 70餘具의 溺死體는 濁流에 휘말렸으며, 살아남은 者는 魂飛魄散하여 對岸으로 潰走함으로써 잠시 전투는 小康상태에 들어갔다.

중대장 金대위는 이제까지의 守勢에서 처음으로 그들의 面上를 후리쳐 이와같이 凱歌를 울리자, 이 餘勢를 몰아 北岸으로 逆徒涉하여 破摧하기로 다짐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江上流에서 사단공병대대에 의하여 爆破된 교량의 木片과 엉켜 浮動하는 그들의 屍體속으로 뛰어들어 北岸으로 向하였으니 이 欺瞞에 그들은 注意를 돌리려 하지 않았다.

北岸으로 潛行한 중대장 金대위는 大號一聲으로 『突擊!』을 웨치며 突貫하니 全중대원은 喊聲을 지르며 이에 뒤따랐다.

이곳 저곳에 群集하여 부대를 정비하던 그들은 중대의 奇襲에 일이 빠진듯 右往左往하였으며 이사이에 中央으로 楔入하여 亂射로써 무찌르니 驕敵들은 50具의 屍體를 遺棄한채 四方 八方으로 潰散하였다.

奇拔한 奇襲戰으로 그들의 肝膽을 서늘하게 一擊을 加하여 虛勢를 꺾어버린 중대는 撤收路를 變更하고 北岸을 西進하여 細峴里앞에서 金城川을 건너 17.00에 △599에서 새로운 陣地를 占據하고 경계에 임하였으니 이 消息이 撤收一路에 있던 사단장병에 傳播되자 한때 沈滯하였던 士氣에 衝擊을 주어 與奮의 도가니로 몰아 넣기도 하였다.

라) 제11포병단의 狀況 : 제11포병대대(장, 徐楨鏞 중령) 및 제72포병대대(장, 吳昌德 중령)는 俗稱 새말 東쪽 0.6km에서 사단을 직접 지원하였는데 主抵抗線의 戰勢가 불리하자 09.00에 兩대대는 楸洞(東南 1km)으로 11.00까지 移動하여 계속 사단을 直接支援하였다.

이때의 砲彈支援은 그들의 이른바 7.13攻勢 이전에는 戰鬪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1개대대에 1일 200발로 美 제5포병단에서 統制하고있어, 상황이不急할 때에는 이를 豫置하였다가 危急한 상황에 한하여 活用하고 있었는데, 7월 13일이후부터는 무제한 支給됨으로써 砲兵支援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많은 문제점을 안겨 주었다.

당시 제11포병대대 彈藥장교였던 趙誠學 소위는 『그들의 공세와 동시에 얼마안가 貯彈量이 涸竭되었는데, 1개대대의 彈藥輸送車輛은 20~30대(1대당 150발. 최대차량동원수 30대를 4,500발)뿐으로 華川에 있던 美 제5포병단에서 수령하여 대대로 歸隊할 때에는 南下하는 車輛과 人波로 장애가 되었으며, 夜間에는 微光燈에 의존케됨으로 運行速度는 遲遲하였고 晝夜運行으로 運轉兵의 過勞로 事故가 連發하였다』라고 回顧하였다.

7월 15일

1. 作戰指導의 修正

군단은 사단이 그들의 攻勢에 直面한 것을 認知하자 金城川 南岸에 새로이 占領키로 된 主陣地가 廣正面이므로 軍단作指제62호(53.7.14. 12.00부)로써 軍단 예비였던 제5사단 제27연대(一)(位置: 於斗陰里)로 하여금 同사단의 左一線인 제35연대 제1대대와 新陣地로 進入한 제18연대와의 間隙으로 投入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미 이때에는 제5사단(장, 金鍾甲 소장)도 混戰중에 있었으므로 위의 命은 口頭命에 의하여 同日 14.00부로 수정(뒤에 軍단作命 제6호 53.7.15. 10.30부로 確認됨) 되었으니 즉 제27연대는 움직이지 않게되고 그 作戰區域에는 제18연대와 連繫하여 右翼에 제5사단 제35연대 제1대대가 계속 固守하게 되었다.

가) 제18연대의 狀況: 金城川 南岸의 新陣地를 占領한 연대는 主抵抗線을 間斷없이 衝擊하여 오는 敵에 대하여 豫備兵力이 없었으므로 主陣地의 兵力을 抽出하여 東防西擊하였는데, 쏟아지는 暴雨와 深夜를 틈탄 敵들의 強襲으로 亂戰을 展開하고 있었다.

이같은 渦中에서도 그들에게 致命打를 加하여 狂波를 擊碎하였으나 三波, 四波의 새로운 병력을 投入하여 壓迫하므로써 부득이 축차적인 遲延戰으로 △568—△678—△819(小路 左側)까지 물러나 血戰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1개대대로 推算되는 병력이 右一線의 제1대대(장, 金鍾敏 중령)(△678—△819간)로 醜鋒을 集中하고 中央突破를 피하였다.

대대는 該敵과 40분간에 걸쳐 陣前의 寸土를 놓고 手榴彈이 亂舞하고 彈雨가 交叉하는 紛戰亂鬪를 반복하면서 頑強하게 阻止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中央突破가 失敗한듯하자 一群을 △819의 左側小路를 따라 연대의 側背로 侵透시켜 背後의 攪亂을 企圖하였다.

연대장 朴敬遠대령은 增援병력을 기대할 수도 없거니와(이時刻에 제22 및 제23연대는 白岩山부근으로 이동하고 있었음)연대가 包圍될 것을 우려하고 이 상황을 사단장에게 보고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에앞서 軍단으로부터 앞으로의 反擊作戰을 위하여 軍단예비가 될것

이라는 內示를 받은바 있던 참이라 사단장은 연대장 朴敬遠 대령에게 右翼의 제5사단과의 協調밑에 敵과 接觸을 維持하면서 白岩山으로 撤收하도록 命令하였다.

이리하여 연대장은 대대별로 連繫를 이룬 遲延戰으로 그들에게 최대한의 損失을 強要하면서 05.30에 白岩山에 이르러 이곳을 이미 占領한 제23연대와 連繫하고 즉각 急編방어에 임하였다.

나) 제22연대의 狀況 : 지난 14일 21.00에 신진지인 △666—△723간에 雨中을 뚫고 進入한 연대는 새로운 補給과 裝備로 銳氣를 되찾고 진지占領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중 06.00에 東天에 해가 솟자 2개대대규모가 앞쪽의 △851(△723北쪽 2km)로부터 稜線을 타고 마치 연대를 東幕洞溪谷으로 밀어 넣으려는듯한 氣勢로 侵攻하였다. 연대는 該敵을 맞아 地形의 利를 살려 遊擊함으로써 彼我狀況이 瞬息間에 修羅場化하였다.

一進一退의 攻防戰은 불을 뿜었으나 現地 偵察도 없이 夜間에 編成한 臨時變通의 火網이 나만치 실제 地形과 맞지않을 뿐더러 防禦편성란지 불과 1,2시간만에 交戰상태에 突入하기에 이르렀으니 兵士間의 射擊區域도 채 알지도 못하였거니와 소대장의 얼굴조차 生疎함으로써 30분간의 熾烈한 激戰끝에 勢不利하여 06.30에 敵과 離脫하여 (於斗隱里 現陣地에서 南쪽6km)에 集結하고 再起를 노렸다.

다) 제23연대의 狀況 : 연대(장, 朴徹 대령)는 사단장의 口頭命令으로 새로운 白岩山의 阻止陣地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난 14일 21.00에 集結地인 東幕洞을 躍出하였는데, 병력수습 관제로 제2대대(장, 대령姜興中 대위)는 24.00에 本隊를 뒤따랐다.

이리하여 연대는 白岩山을 中心으로하여 06.00에 제1대대(장, 金載龍 중령)가 △962로부터 西南 1km에 이르는 稜線에, 右제1선에는 遲參한 제2대대(장, 姜興中 대위)가 08.00에 白岩山의 東北쪽 2km로 進入하여 103번도로(舊堡里—栗木洞간)를 左右側 稜線에서 扼守하였다.

또한 제3대대(장, 金慶哲 중령)도 06.00에 白岩山主峰에 陣地를 占領함으로써 연대는 白岩山을 四周防禦태세로써 據點防禦에 임하였는데, 08.30 急流와 같이 쏟아지는 그들의 氣勢에 밀려 激戰 30분만에 연대는 또다시 그들과 離脫하여 제1및 제2대대는 白岩洞으로 撤收하고 제3대대는 高屯里(白岩山南쪽 2km)에서 병력을 수습하고 있었다.

한편 연대의 撤收를 掩護하다가 △596을 占領하고 있는 연대수색중대(장, 金澤龍 대위)는 이미 그들의 大群이 該高地를 迂回하여 南쪽 깊숙히 侵攻하였음을 알고 그들의 渦中을 直衝突貫하여 14.20.00에 注坡里에 集結하였는데, 戰鬪을 될 사이도 없이 연대의 先鋒이 되어 다시 白岩山 左側峰인 △1118을 占領하면서 主力의 後退를 掩護하다가 本隊가 이곳을 通過하자마자 연대CP경계를 위하여 08.30에 四方巨里로 撤收하였다.

라) 제11포병단의 狀況 : 06.00에 戰勢가 점점 不利하게되어 戰線이 注坡嶺과 白岩山으로 壓縮되기에 이르자 사단장은 제11포병단장 金聖대령에게 예하포병대대를 四方巨里로 陣地

轉換을 命命하였다.

이리하여 06.00부터 移動을 준비하였는데 바로 이즈음 楸洞에 架設되었던 浮橋가 계속되는 降雨때문에 流失되었으니 火炮가 건너갈 수 있는 곳은 △449西麓의 냇가를 따라 있는 山路를 거쳐야 注披里에서 南北으로 通하는 17번 幹線도로에 이를 수 있는데, 地面이 堅固치 못한 山路를 補修하는데 3시간이 所要되었으며, 또한 注披里앞 냇가에서는 兩개대대의 火炮36문을 건너는데에는 배속되었던 戰車 6대가 動員되어 牽引하여야 하는 苦難을 겪었다.

뿐만아니라 山路를 補修할때에는 數未詳의 敵이 移動하려고 集結한 대대를 기습하여 一時는 混戰하였으나 이러한 脆弱點을 事前에 補強하기 위하여 下士 級이상으로 편성한 特攻隊가 砲兵부대로서는 보기드문 白兵戰을 強행하여 射殺 32명의 戰果를 올리는 반면에 兩대대도 戰死 3명 負傷 8명의 손실을 보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惡戰苦鬪끝에도 兩대대는 四方巨里로 砲兵陣地를 轉換하는데 一門의 損失도 없이 轉換하여 다음 戰鬪에 支障이 없도록 하였다.

當時의 狀況을 제11포병단 通譯장교였던 金完柱 중위는 이렇게 證言하였다.

『鬪의 高문이었던 美軍 中領(姓名未詳)이 火炮를 破壞하여야 한다』고 團長에게 勸하였으나 團長 金聖 대령은 一言之下에 이를 拒否하면서 貴國은 火炮를 생산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銃한자루도 생산할 수 없으니 죽는限이 있더라도 拷殺해야 하오』라고 하였으니 후일 그 美中領은 韓國軍은 生命도 重視하지만 장비는 더욱 重要視한다고 述懐하였다는 것이다.

2. 제2방어선 形成 : 敵은 이른바 그들의 7.13攻勢도 3日次에 이르자 森林은 병력을 삼킨다는 古言과 같이 峻險한 山岳에 병력을 撒布하는 愚를 범하게 되는데 그들의 補給集積所에 대한 B-29의 全天候爆擊으로 因한 補給의 杜絶, 그리고 洪水를 이룬 金城川의 天然的인 장애물로 말미암아 同江以南에는 한門의 砲도 推進할 수가 없었으니, 그들 捕虜들의 陳述대로 白岩山一帶에 侵攻한 分子들은 一日 一食도 할 수 없는 戰鬪力의 限界點에도 달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軍단은 一面으로는 遲延戰을 피하면서 한편으로는 反擊準備를 進行시키고 있었는데 점차 戰機가 무르익자 華川부근에 있던 제11사단(장, 林富澤 中장)을 招致하여 제6사단(장, 白仁燁 소장)의 作戰區域으로 進入시키는 한편 楊口에 있던 제7사단(장, 金容培 소장)을 美제10軍단(장, Issac, D. White 中장)으로부터 배속받아 下蘆谷으로 躍出し켰으며 이와함께 當사단을 軍단 作命 제6호(53.7.15. 1200부)로 軍단에비로하여 제2선에서 防禦하도록 措置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장은 作指 제64호(53.7.15. 1500부)로 다음과 같은 요지의 命命을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軍단 예비가 되어 제2방어선을 확보하려 함.

② 제18연대는, △996—無名高地(△989西北쪽 05.km)간을, 12.00까지 確保하라

③ 제22연대는 △895—△534—△645간을 12.00까지 確保하라.

④ 제23연대는, △758—△913—△859간을 18.00까지 確保하라.』

이로써 사단은 이제까지 當面하였던 戰鬪正面을 同日同時附近 右翼의 제5사단(장, 金鍾甲 소장)과 左翼의 제8사단(장, 宋堯讚 소장)에 각각 인계하기에 이름으로써 사실상 戰鬪行爲는 이로써 終了하게 되었다.

綜合戰果 및 損失

戰 果 (步兵제3사단戰鬪記錄53年版資料)

區分	隊別	제18연대	제22연대	제23연대	계
射 捕	殺 虜	200 (추정 800)	1,150 (추정 1,000)	1,000 (추정 600)	2,350 (추정 3,500)
		5	4	4	13

損 失

區分	隊別	제18연대	제22연대	제23연대	기 타	계
戰	死	16	39	71	8	135
負	傷	86	189	105	42	352
失	踪	150	287	199		636

라. 전투후의 개황

사단은 中共 제60군의 공세로 말미암아 9km에 이르는 地域으로 물러났으나 熾烈을 극한 山岳戰鬪에도 불구하고 擡援부대도 없이 3일간이나 孤戰奮鬪하면서 그들에게 5,000명에 달하는 병력의 損失을 내게하였던 것이다.

이와반면에, 사단도 15%에 이르는 死傷者(失踪者포함)가 있었을뿐만 아니라 장비에도 큰 損失을 입었던 것이다.

7월 15일 19.00를 전후하여 예하 각 연대는 현 集結地(제18연대는 俗稱 수상리, 제22연대는 於斗隱里, 제23연대는 高屯谷)를 각각 출발하여 다음날 03.00에 제2방어선인 阻止陣地(作指제64호에의한)를 占領하였는데, 그部署는 다음과 같았다.

즉, 사단CP를 俗稱, 아래비끼네(四方巨里北쪽 2km)에 두고, 제18연대(장, 朴敬遠 대령)는 △996를 中心으로 하여 右에 제1대대(장, 金鍾敏 중령) 中央(△996主峯)에 제3대대(장, 金仁杰 중령) 그리고 左제1선에 제2대대(장, 金光植 중령)를 배치하여 白岩山에서 西南으로 뻗어내린 主嶺을 扼守케 하였다.

그 뒤에는 제23연대(장, 朴徹 대령)가 右一線을 形成하였는데 제2대대(장, 姜興中 대위)는 △758—△1,048간을, 그리고 제3대대는 이와 連繫하여 △859에 이르는 線을 防守하고, 제1대대(장, 金載龍 중령)는 예비로써 △1,035에 布陣함으로써 연대는 그들의 溪谷接近을 拒否하면서 右側方을 警戒하였다.

한편, 제22연대(장, 崔澤元 대령)는 위 연대와 連繫하여 右제1선에는 제1대대(장, 李在信 중령)로 하

여금 △895—無各高地간을, 그리고 左제1선으로 제2대대(장, 權益煥 중령)가 이로부터 △645에 이르는 稜線을 確保케하여 注坡嶺과 17번主補給路를 防護케 하였다.

또한 제3대대(장, 林判吉 대위)는 於斗隱里에 예비로 控置하였다.

이런으로써 각연대가 新陣地에 進入하자 사단에서는 공병1개소대씩을 각연대에 지원하여 전지구축에 주력하면서 부대정비에 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軍단作命제8호(53. 7. 19부. 晝실제는 16일 11.00이동)에 의거 제11포병단예하 제72포병대대(장, 吳昌德 중령)는 사단으로부터 배속이 해제되어 反擊제대인 제7사단(장, 金容培 소장)을 지원하게 되었다.

그후 사단장 林善河 소장은 제18연대가 突出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이번 전투에서 예비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作指제68호(53. 7. 17. 17.00부)로 戰鬪損失이 가장 심한 제23연대(장, 朴徹 대령)를 外土沃里로 빼어 사단에비로 공치하는 한편 그 區域에는 제18연대로 하여금 引受토록 하였다.

이날 14.00에는 美군8사령관 Taylor 대장이 사단CP(俗稱, 아래비끼네)를 訪問하였으며 사단은 高대장의 口頭命令으로 제2군단(장, 丁一權 중장)으로부터 美제8군예비로 배속이 변경되면서 사단 行軍命令제5호(53. 7. 23부)에 의하여 倉村(華)川西北쪽 5km)으로 이동하는 한편 전투후의 장비상태를 검토하기 위해 육본장비검열반을 招致하는등 부대정비와 훈련에 임하다가 7월 27일 休戰을 맞이하게 되었다.

§ 參戰者의 證言

◇ 제22연대장 崔澤元 大領

(1976. 10. 5 總務處次官室에서, 豫 少將)

本戰鬪가 끝난 1개월후 사단에서 대대장급 이상인 모여 이번 戰鬪에 대한 失敗原因을 각대별로 發表하였는데 여기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는데, 15가지를 발표하였으나 記憶에 남는것은 5가지뿐이며 後進들이 이를 참고로 하여주었으면 多幸으로 알겠다.

그러나 當時 사단장이나 기타 지휘관들이 發表한 사항을 記憶하고 있지 못함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① 戰線이 突出되어 있을 때는 側方의 補強이 緊要하다.

7.13攻勢 直前의 제2군단은 金城川北方으로 突出하고 있는데 그들의 攻勢가 臨迫하였음을 判斷하고 있었는데도 사단은 7.12에 陣地를 轉換함으로써 생소한 地形과 戰鬪준비가 未備된 가운데 싸우게 되었고 여기에 그들은 主力을 侵透시켰던 것이다. 즉 戰鬪後에 分析하여보니 그들은 허리部分인 수도사단과 當사단으로 主攻을 삼았음은 戰術의 原則이라고 본다.

② 指揮官들이 同一 稜線上에서 指揮하였다. 즉, 거이 한 稜線上에 연대, 대대, 중대의 OP

를 설치하는 예가 많았는데 一時에 손실을 고려하여 梯次別 戰鬪의 指揮와 事態收拾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融通性을 갖기 위하여 戰鬪形態와 地形에 따라 適應할 수 있는 位置에 指揮所를 設置해야 하겠다.

③ 指揮官(者)은 確認이 重要하다.

地圖上에는 4線, 5線으로 障礙物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表示되어 있는데, 실제 現場에 가보면 4, 5線을 한꺼번에 穿쳐 單線으로 설치했는가하면 능선과 계곡등 그들의 接近豫想路를 고려치않고 一直線으로 쳤는데 이것은 설치할때부터 直接 監督하여 射擊과 連結하여 相互調節을 이르게 하여 側射나 斜射로서 더욱 많은 殺傷을 強要할 수 있으며 直射는 効果가 減少되는 것이다.

④ 部隊交代는 適期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제22연대는, △949戰鬪때(53. 6. 12)제5사단에 배속된 것을 비롯하여 △529戰鬪(53. 6. 25~7. 3), 그리고 이번 戰鬪에서 主役을 담당한 것을 榮譽롭게 알고 있으나 단 하루도 부대정비할 기회가 없음으로써 장비들은 지쳐있었다. 이에

반하여 제18연대는 5월이후 계속 예비로써 控置하였던 것이다.

⑤ 實戰指揮官은 時間이 生命이다.

戰鬪가 벌어지면 연대장이하의 指揮官(者)은 分秒를 아끼며 指揮에 沒頭하게 되는데 上部에서는 5분에 한번꼴로 戰況을 물어 오는가 하면

§ 戰 訓

(1) 逆襲時機問題

사단의 예비였던 제18연대는 平素에 4개의 逆襲案을 가지고 演習하였는데 이번의 경우는 逆襲의 時機에 있어서 深夜를 擇하였다는데에 問題가 있다.

즉, 14일 00.20 漆黒과 같은 雨中을 뚫고 敵情도 五里霧中한 가운데 盲人失杖格으로 躍進한 연대는 02.20에는 主抵抗線뒤에서 그들과 激突하였고 04.30에는 제22연대의 一部 崩壞된 병력과 混雜이 되어 연대의 一部병력이 이에 휩쓸려 分散되었으나 이 渦中을 헤치고 07.00 逆襲을 위하여 突開하였을 때에는 이미 精神面에 큰 打撃을 입었으며 이는 곧 戰鬪力低下에 直結됨으로써 끝내 逆襲이 挫折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當時 左翼의 제8사단장이었던 宋堯讚소장(예 中將)과 부사단장 李龍대령(예, 少將)은 『夜間의 逆襲도 때에 따라서는 있을수 있으나 이같은 混亂을 막기 위하여서는 夜間에는 阻止陣地를 堅持하였다가 未明이라든가 闇闇에 힘이 反담직하며 이번 그들의 攻勢에서 수도사단 제1기갑연대(장, 陸根深 대령)가 증원부대이었으나 제18연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많은 教訓을 남겼다』고 하였다.

(2) 渡河點兩岸의 警戒對策

小城洞木橋는 彼我的 生命線이나 다름바 없었는데 兩岸을 防護하는데 失敗함으로써 제22및 제23 兩연대가 渡江後 그들의 砲擊과 小數병력에 의한 기습으로 阻止陣地를 占領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戰果마저 確認하려는데는 歷然失色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이는 삼가해야 할것으로 안다.

結論으로 이번 戰鬪에서 연대장병들은 훌륭하게 싸웠으나 끝내는 失敗하였다. 이 責任은 本人에게 있다.

分散되고 말았다.

이때 포병은 楸洞으로 陣地轉換하여 射擊態勢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混亂상태에 빠짐으로써 7.14.22.00까지 散發的인 砲支援에 그쳤으니 歩兵이 制壓치 못할 때에는 즉각 砲兵으로 制壓해야 하는 歩砲協同作戰에 蹉跎을 가져왔던 것이다.

(3) 連絡杜絶時的 對策講究

戰鬪初日 敵의 15,000발에 달하는 砲擊으로 사단과의 通信이 杜絶되는 事態가 빚어졌다.

이같은 事例는 비단 當사단에 局限된 일이 아니고 激戰중에 發生하는 共通된 隘路점이며 이로말미암아 指揮가 마비되는가 하면 下級부대의 專斷이 橫行하기도 하였다.

有無線통신은 기계이기 때문에 故障이나 破壞됨을 前提로 한 對策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戰鬪實施에 기본이 되는 戰鬪用語(例 공격, 陣地고수, 사격, 철수, 돌격, 사격중지, 방향제시 등등)를 晝夜間 및 氣候조건에 따라 活用할 수 있는 連絡信號가 平素訓練때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習得시킴으로써 戰鬪를 원활히統制할 수 가 있다.

이번 戰鬪에 參戰한 소대장급이상 연대장에 이르기까지 15명의 면담결과에는 有無線이 杜絶되어 側方부대의 動態를 살펴 행동하였다』라고 하였다.

9. 金城東南地區 戰鬪 (1953년 7월 13일부터 " " " 18일까지)

참조 : 별책부드 제15, 16호
상 황 도 제66~70호

- 제 1 단계 戰鬪 : 指形稜線의 防禦戰
(7월 13일 22.00~14일 11.30)
- 제 2 단계 戰鬪 : 金城川의 撤收戰
(7월 14일 11.30~15일 19.00)
- 제 3 단계 戰鬪 : 別隅地區의 反擊戰
(7월 15일 19.00~18일 08.00)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2군단	장	중장 丁 一 權		사단수색중대 장	중위 洪 鍾 憲 (7월 13일까지)
제8사단	장	소장 宋 堯 讚		사단공병대대 장	중령 具 明 會
제10연대	장	대령 李 寬 植		배속부대	
제1대대	장	소령 金 學 東		제12포병단 장	대령 李 白 雨
제2대대	장	소령 崔 泰 守		제50포병대대 장	중령 金 龍 雲
제3대대	장	중령 金 二 洙		제73포병대대 장	소령 元 彩 珪
제16연대	장	대령 安 秉 健		제75포병대대 장	소령 李 允 範
제1대대	장	중령 吳 衡 根		제100포병대대장	중령 金 魯 鎭
제2대대	장	중령 李 秀 春		제1戰車중대 장	대위 王 南 洙
제3대대	장	중령 朴 斗 成		제3戰車중대 장	대위 具 王 緒
제21연대	장	대령 成 正 模		지원부대	
제1대대	장	중령 宋 濟 根		美제5포병단	
제2대대	장	중령 金 燦 麟		美제12포병단	
제3대대	장	중령 金 鳳 標		美461제重박격포대대 A중대	
		(7월 19일까지)		美제5공군	
		소령 文 武 相		인접부대	
제8重砲중대	장	대위 李 啓 亨			

右인접 : 제3사단 장 소장 林善河
 左인접 : 제6사단 장 소장 白仁燁

제11사단 장 준장 林富澤
 (7월 15일부터)

		敵 軍	
中共 제20兵團	장 楊 武 威	제601, 제602, 제603연대	基幹
제67軍	장 馬 龍	제54軍	장 李 化 民
제199사단	장 李 水 清	제135사단	장 耿 志 剛
제595, 제596, 제597연대	基幹	제60軍	장 韋 杰
제200사단	장 李 靜	제180사단	장 官 峻 亭
제598, 제599, 제600연대	基幹	제181사단	장 王 誠 漢
제201사단	장 馬 輝		

나. 전투전의 개황

1953년 7월 13일~20에 金城 東南쪽 10km의 別隅地區를 중심으로 하는 너비 3km, 길이 11km의 戰鬪地域에서 3단계에 걸친 一連의 作戰을 수행한 제8사단은 △362(別隅 東쪽 3km)~△400(別隅 西쪽 1km)의 現軍事分界線을 확보함으로써 掉尾의 一戰을 장식하였다.

즉, 제2군단의 中央左翼이 되어, 이른바 「7.13攻勢」에 당면하였던 사단은 主抵抗線의 진면에 대한 中共 제67군 主力의 壓力을 排除하면서, 7월 13일 22.00~14일 11.00에 △690(指形稜線의 一峰)의 主抵抗線을 防守하였으나, 14일 11.00~15일 19.00에 左右 兩인접 사단의 撤收로 因하여, 金城川南城으로 戰線整理하로 15일 19.00~18일 08.00에 別隅地區의 새로운 固守線(一名, Wyoming線)을 奪還하기 위한 反擊을 감행하였다.

이 別隅地區는 제2군단 地域의 主補給路인 제17번 道路(金城川邊의 北上路)와 제100번 道路(金城川 支流를 沿하여 北瀋江邊으로 東走)가 交叉하는 要地로서, 여기를 담당한 사단의 임무는 제2군단의 戰勢를 가름하는 軸蕊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사단은 本戰鬪에 앞서, 1952년 10월 25일에 수도사단의 主抵抗線을 인수한 뒤에 여러 차례의 大小戰鬪를 치른 바 있는데, 這間의 戰況을 瞥見하기 위하여 각 격투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가) 621高地의 奇襲戰 : 1952년 11월 28일 01.00~07.30에 제16연대의 제9중대(장, 李海石대위)로써 中共 제201사단의 제603연대가 前哨陣地를 내세운 △621(首都高地의 西쪽)의 방어능력을 探索하고 捕虜를 획득하기 위하여, 奇襲케 하였으나, 敵火力에 阻止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나) 271高地의 防禦戰 : 1953년 1월 7일 23.50~8일 04.05에 제16연대 제3중대(장, 李文夏대위)의 제1소대(장, 梁昌照소위)가 潛伏한 △271(首都高地의 東南쪽)에 中共 제201사단 제602연대의 增強된 1개 중대규모가 急襲하였으나, 白兵格鬪와 適時增援으로써 高地를 固守하였다

(다) 首都高地의 防禦戰 : 1953년의 年初에 首都高地의 前哨陣地인 271△를 打診하였던 中共 제201사단은 1월 1일 23.30~12일 02.05에 제603연대의 2개 대대규모로써 首都高地의 主陣地를 攻撃하였으나 제16연대의 제7중대(장, 金福基 대위) 및 제11중대(장, 劉璠華 대위)는 긴밀한 火力協調와 支援火力으로 陣前에서 이를 擊退하였다.

(라) 271高地 및 돌바위高地의 攻防戰 : 1월 중순의 首都高地戰鬪에서 一敗塗地한 中共 제201사단은 그 뒤에 小兵力으로써 △663(首都高地의 連峰)를 비롯한 각 前哨陣地를 探索하더니, 5월 13일 21.50~18일 24.00에 제602연대의 主力으로 돌바위高地(首都高地 西쪽의 1.4km)를 牽制함과 동시에 △271를 攻撃하였다.

이 攻擊은 사단 右一線인 제21연대의 主抵抗線의 兩端에 집중된 것이었는데, 사단으로서는 △271를 상실하면, 漁養里附近의 北漢江 彎曲部로 부터의 側方接近路를 열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단에 비인 제10연대의 일부 兵力으로 逆襲하였다.

그러나, 敵의 兵力의 增強과 火力의 集中으로 因하여, △271를 끝내 固守하지 못하였다.

(마) 首都高地 및 指形稜線의 攻防戰: 漁養里—△271의 渡河點을 장악한 敵은 △663—首都高地의 防禦縱深을 側方으로 위협하면서, 사단의 각 前哨陣地에 대한 攻擊을 점차 強化하여, 5월 27일 21.40~6월 4일 00.20와 6월 12일 22.00~6월 21일 20.40의 두 차례에 걸쳐, 제201사단의 主力과 제67군의 예비로써 首都高地—指形稜線의 방어정면에 波狀의인 攻擊을 가하였다.

敵은 이 攻擊에 있어서 首都高지를 비롯한 제21연대의 主抵抗線에 主攻을 指向하고, 日平均 1,000발을 上廻하는 砲擊을 集中하였다.

이로 因하여 사단은 6월 22일 18.00 現在, △553—首都高地의 방어중심을 상실하고, 松實里의 溪谷을 制扼하는 線까지 방어정면을 수습하였는데, 이 때를 基點으로 하여, 本戰團에 臨하기에 앞선 彼我의 상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敵軍의 狀況: 이른바 「7.13攻勢」의 主役으로 제2군단(장, 丁一權중장) 정면에 나타난 中共 제20兵團(장, 楊武威) 이하의 제54군(장, 李化民), 제67군(장, 馬龍), 제68군(장, 邱蔚)과, 그리고 제3兵團(장, 陳庸) 이하의 제60군(장, 孫杰) 중에서도 제67군의 제199사단(장, 李水濤)과 제201사단(장, 馬輝)의 主力을 비롯하여 제60군의 제181사단(장, 王誠漢) 및 제54군의 제135사단(장, 耿志剛)의 일부가 本戰團에 직접 참가 하였다.

그런데, 제67군은 1952년 10월 22일, 我軍의 秋季攻勢(一名, Nomad 逆襲戰)가 한창일 무렵에 於德里(金城 西쪽의 9km)—秦谷里(北漢江上流의 東岸)의 戰鬥地域을 제12군(장, 曾紹山)으로부터 引受한 뒤에, 軍 CP를 계속 淮陽에 두고, 軍右翼인 於德里—星山(金城 西쪽의 2km)에 제199사단을 星山(△533)—長淵里(金城 東쪽 km)를 軍 中央으로 하여 제200사단을, 軍 左翼인 長淵里—秦谷里에 제201사단을 각각 배치하고 있었는데, 1953년 6월末에 제54군의 제135사단에 戰鬥地域을 인계한 제199사단을 軍예비로 控置함으로써 제201사단과 더불어 사단정면을 主攻케 할 계획인 것으로 推定되었다.

한편, 제67군의 左인접인 제60군은 6월末 현재, 제179사단(장, 吳仕宏)으로써 北漢江上流일대의 主抵抗線을 담당케 하고, 제180사단(장, 官峻亨) 및 제181사단(장, 王誠漢)을 軍예비로 北漢江上流의 西域에 駐紮시키고 있었다.

이로써 제67군의 主力과 제60군의 일부가 攻勢移轉의 차비를 갖추면서 金城川을 沿하는 金城의 東南쪽 要域을 노리게 되었는데, 中共의 이와 같은 動態는 장차 戰線의 流動交叉가 激甚할 攻防戰의 樣相을 이미 孕胎하고 있는듯 하였다.

그 兵力은 제199사단이 10,200명, 제201사단이 9,500명, 제181사단이 6,000명이며, 支援砲兵은 都合 12개 대대로서 野砲 116문, 追擊砲 270문의 火力이 동원될 것으로 各自 推算되었다.

또한 兵員의 資質은 제181 및 제201의 兩사단 모두가 侵韓이후의 長期間에 걸친 戰鬥로말미암아 兵力소모가 심하였으므로 新兵補充이 많았으나, 제199사단만은 基幹의 50~60%를 古兵으로 확보하고 있었다.

我軍의 狀況: 首都高地의 稜線을 讓畔한 사단은 6월 22일에 松實里—△612—△690線에서 正面 4km와 縱深 1~2km의 密集된 陣壘를 急編하였다.

이 때, 右인접인 제3사단(장, 林善河 소장)은 △359(舊堡里의 北쪽)—△529(龍湖洞의 南쪽)線에서 中共 제60군의 일부와 맞서 있으며, 左인접인 제6사단(장, 白仁燁 소장)은 轆岩山(△770)—可鶴里—△463(烽火山的 西北쪽)線에서 中共 제67군의 일부(제200사단)와 對峙하고 있었다.

그런데, 左右인접의 兩 사단에 비해 寬距離 4km의 협소한 방어정면을 담당하게된 까닭은, 美제 8군의 예비로 華川에 駐紮중인 제3사단이 6월 15일附로 제2군단에 편입됨과 동시에, 제5사단(장, 朴炳權

소장)의 戰鬪地域의 左一線인 白岩山 東北쪽의 北漢江邊을 밀게 됨으로써, 사단은 首都高地 철수이후의 방어경면을 좁히게 된 것이었다.

이로써 사단은 松寶里의 溪谷과 汝文里의 $\Delta 500$ 에서 右인접인 제3사단과 협조하고, $\Delta 690$ 西쪽 稜線의 細徑을 놓고 左인접인 제6사단과 連繫하는 가운데, 제16연대(장, 安秉健 대령)를 右一線에, 제10연대(장, 李寬植 대령)를 左一線에, 제21연대(장, 成正模 대령)를 豫備陣地에 각각 배치함으로써 本戰鬪를 치루게 되었다.

따라서 제16연대는 연대 CP를 緬峴里(別隅 東北쪽 1km)에 두고, 右제1선에 제2대대(장, 李秀春 중령)를, 左제1선의 $\Delta 612$ 에 제3대대(장, 李仁成 중령)를, 그리고 $\Delta 612$ 의 北斜面에 제1대대(장, 吳衡榘 중령)를 각각 내세웠으며, 제10연대는 연대 CP를 西婆里(別隅 北쪽 1.2km)에 두고 右제1선에 제3대대(장, 金二洙 중령)를, 左제1선에 제1대대(장, 金學東 소령)를 각각 내세우는 한편 제2대대(장, 崔泰守 소령)를 연대에비로 $\Delta 585$ (主抵抗線에서 2.4km)에 控置하였다.

그리고 松寶里—蔞山里의 橫隔溪澗을 사이에 두고, 主抵抗線을 뒷받침하는 一連의 稜線(平均標高 500~600m)에는 제21연대가 豫備陣地를 急構하여, 右제1선에 제1대대(장, 宋濟根 중령)를, 左제1선에 제3대대(장, 金鳳樓 중령)를 각각 내세우고, 연대 CP가 위치한 廣大谷에 연대에비인 제2대대(장, 金燦堯 중령)를 控置하였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本戰鬪는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大別하게 된다.

제1단계 : 指形稜線의 防禦戰(7월 13일 22.00~14일 11.30)으로 中共 제199 및 제201 兩사단의 攻擊을 $\Delta 620$ — $\Delta 690$ 線에서 阻止하였다.

제2단계 : 別隅地區의 撤收戰(7월 14일 11.30~15일 19.00)으로 사단의 防禦線을 金城川 南域의 Wyoming線 南쪽까지 수습하였는데, 이는 左右인접인 제3 및 제6 兩사단의 主抵抗線 철수로 因하여 不得已하였던 제2군단의 戰線整齊의 一環이었다. 사단은 이 단계에서 正面에 대한 敵의 重壓을 견제하고, 左右側背에 대한 衝擊을 排除하면서 反擊의 基線을 形成하였다.

제3단계 : 別隅地區의 反擊戰(7월 15일 19.00~18일 08.00)에서 軍團攻擊의 先鋒이 되어 金城川邊을 恢復함으로써 오늘의 休戰軍事分界線을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세 단계는 本戰鬪의 骨幹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각 段階別 作戰에 準하여 전투경과의 개요를 펴나가기로 한다.

제1단계 : 指形稜線의 防禦戰(7월 13일 22.00~14일 11.30)

7월 12일 현재, 사단이 확보하고 있는 指形稜線상의 방어 제1선은 $\Delta 690$ — $\Delta 765$ ($\Delta 690$ 西쪽의 1.2km)의 稜線인데, $\Delta 765$ 와 轎岩山($\Delta 770$) 間의 細徑을 끼고, 左인접인 제6사단(장, 白仁燾 소장)의 제2연대(장, 高白圭 대령)와 협조하고 있었다.

(1) 작전계획

사단장 宋堯讚 소장은 首都高地를 상실하게 된 6월 21일까지의 戰況에 비추어 가까운

時日內에 敵의 大攻勢가 있을 것으로 推斷하고, 主抵抗線 및 豫備陣地를 強化하는 사단作指 제206호(53.6.29.11.00附)를 하달하였는데, 그 要旨에 이르기를

『① 각 연대는 6월 30일~7월 2일에 築城工事を 完了하라.

② 工事의 優先順位는 個人壕 및 火器掩體의 構築, 射界의 清掃, 照明 및 個人地雷의 埋設, 鐵條網의 地下敷設의 順이다.』

라고 하였으며, 이 作指의 修正指示 제7호로써 다시 工事期日을 7월 13일까지 연장하되, 5단계로 나누어 築城工事의 철저를 期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군단은 이때의 敵情을 分析하여 그 作戰企圖를 다음과 같이 推斷하였다.

敵의 作戰企圖: 이른바 「7.13攻勢」로써 제2군단 정면에 5개 군을 一時에 投入한 中共 제20兵團 및 제3兵團(一部)의 作戰企圖는 한 마디로, 金城에 肉迫해 있는 中部戰線의 突出部를 休戰發効 이전에 깎아 내리자는 것이었는데, 제1단계로써 舊垆里—別隅—三峴里—新村에 걸친, 一連의 橫隔室까지 進出하고, 이 進出線을 근거로 하여 白岩山—赤根山의 敵制高地群을 占有하려는 것이 제2단계의 목표로 보여졌다.

이 推斷의 근거는 休戰妥結에 관련된 攻路面과 戰弱地域의 地勢面에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누게 된다.

즉, UN側의 「一括妥結案」으로써 急進展을 보기 시작한 休戰協商이 이제는 調印만 남기게 되었으므로, 時間的으로 「短期決戰」이 不可避하였던 것이 하나이며, 둘째로는 北漢江上流—南大川間의 이 橫隔室은 橫流하는 金城川支流과 수많은 縱隔溪澗이 交叉되는 地勢를 이루기 때문에 攻防의 恰 단계를 매듭짓는 線이었다.

또한 白岩山—赤根山의 線은 華川貯水池로 南流하는 北漢江의 西域이자, 華川의 北쪽 19km에서 제17번 道路를 포함하는 作戰要域을 敵制하고 있으므로, 攻者에게는 垂涎의 標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제1단계의 進出이 容易하고 시간과 戰況의 與件이 許한다면, 제2단계의 목표로서 이 線을 指向하리라는 것은 能히 推斷케 되는 사실이었다.

사단의 作戰概念: 사단장 宋堯讚 소장은 首都高地 및 △663의 敵制線을 비록 상실하였으나, 6월 22일에 整齊한 現主抵抗線에서 阻止擊滅하리라는 決意를 굳게 하고, 사단作指 제206호로써 이미 하달하였던 築城工事의 完工을 서둘렀다. 이 때의 사단 主抵抗線은 △612—△690—△765(轎岩山 東쪽의 1km)을 基軸으로 하였다.

△612는 東쪽으로 松實里의 溪谷넘어 △663 및 首都高地와 마주 보며, △690는 指形線의 西半部를 누르고 있는 要衝이며 △765는 轎岩山과 併立하여 南으로 金城川邊을 굽어 보는 敵制點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 基軸線을 固守하리라는 防禦概念으로 右一線인 △612를 중심삼아 제16연대(장, 安秉健 대령)를, 左一線인 △690—△765에 제10연대(장, 李寬植 대령)를 각

각 내세우고, 사단예비인 제21연대(장, 成正模 대령)를 △606(△765의 南쪽 1.8km) 중심
으로 控置하여 防禦縱深을 갖추었다.

사단의 이와 같은 配陣너비를 圖上距離로 따지면, 主抵抗線이 3km이고, 阻止陣地가
2km에 不過한데, 이는 7월 1일과 10일의 두 차례에 걸친 사단 戰鬪地境線의 修正으로 調
整된 방어 정면이었다.

즉, 군단은 別隅地區를 목표로 하는 中共 제67군의 主攻이 指形稜線—△606△504—△
414—의 稜線으로 치중되리라 推斷하고, 사단으로 하여금 이 豫想接近路를 重點的으로 방
어케 하기 위하여, 軍단作指 제49호(6월 30일附)로 左인접 제6사단과의 戰鬪地境線을 軍
단 作指 제50호(7월 2일附)로는 右인접 제3사단과의 戰鬪地境線을 각각 變更시켰던 것이
다.

이에, 사단장 宋堯讚 소장은 사단作指 제209호 修正指示 제1호(7월 1일 20.00附)로서
제10연대로 하여금 제6사단 제19연대의 △720(轎岩山 東쪽의 600m)를 인수케 하고, 사단
作指 제210호(7월 10일 20.00附)로서 △612의 東端을 제3사단 제22연대에 인계함과 아울
러 제16연대의 1개 대대를 △640(△612 南쪽의 1km)에 接결시켰다.

이로써 사단은 4개 대대로써 縱深깊은 阻止陣地를 急編하였다.

(2) 작전실시

그런데 7월 10일에 中共 제200사단의 2개 대대규모가 사단의 左一線에 인접한 轎岩山
(△770)을 主攻함과 동시에 △765의 前哨陣地를 2개 중대규모로 공격하였다.

이 前哨陣地는 제10연대의 主抵抗線인 △765의 頂上에서 뻗어나간 稜線의 前線이자, 敵
의 前哨陣地와 마주보는 觸角인데, 權東敬대위의 제1중대는 適時의 火力支援下에 敵 2개
중대규모를 陣前에서 擊退하였다.

그러나 제6사단의 右一線인 제19연대(장, 金漢柱 대령)를 공격하기 시작한 敵은 11일과
12일의 이틀간에도 轎岩山을 목표로 공격을 계속하였으니, 金城川을 圍繞한 제2군단의 전
면에 걸쳐 危急을 암하는 戰雲이 소용돌이 치게 되었다.

7월 13일(22.00~24.00) : 며칠사이 戰線일대를 뒤엎고 있는 비구름은 이날도 아침부터
가랑비를 뿌렸다. 主抵抗線과 前哨陣地의 각부대는 視界가 不良한 가운데, 敵情판측에 적
지 않은 苦楚를 겪었다.

사단장 宋堯讚 소장은 각 연대장에게 경계의 철저를 강조함과 아울러 이날로 끝나는 5
단계의 築城工事의 성과를 다시 확인케 하였다.

이날 현재, 사단의 編制는 장교 561명과 사병 11,224명으로써 充足되었으며, 105mm의
3개 포병대대, 155mm의 1개 포병대대, 4.2 1개 迫박격포중대, 戰車 2개 중대의 火力을
보유하였는데 그 布陣을 概觀하면 다음과 같다.

제50포병대대(장, 金龍雲 중령)…別隅에 3개 포대를 배치하여 제10연대를 直接支援.

제73포병대대(장, 元彩珪 소령)…別隅에 3개 포대를 배치하여 제16연대를 直接支援.

제75포병대대(장, 李允範 소령)…細雲里에 3개 포대를 배치하여 사단을 一般支援하되 제10연대 정면에 火力을 優先.

제100포병대대(장, 金魯鎭 중령)…橋洞(別隅의 南쪽 2.3km)에 3개 포대를 배치하여 사단을 一般支援.

제8重박격포중대(장, 李啓亨 대위)…각 연대에 1개 소대씩 배속케 하되, 제21연대에 배속한 1개 소대로써 제 10연대정면을 增援.

제1戰車중대(장, 王南洙 대위)…1개 소대를 廣大谷—敎室里의 機動路上에 배치하여 제 10연대를 엄호.

제3戰車중대(장, 具玉緒 대위)…2개 소대를 高山里에 배치하여, 主抵抗線을 一般支援하되 제10연대 정면에 火力을 優先.

한편, 사단을 一般支援하는 火力으로 美제5포병단의 각 1개 대대와 美제461重박격포대대의 A중대가 砲列을 整齊하고 있었다.

또한, 사단은 7월 1일과 10일의 두 차례에 걸친 戰鬪地境線조정으로 首都高地—△663—松寶里溪谷의 右一線정면을 제3사단에 인계하고, 驕岩山의 東쪽 稜線의 일부(△720)를 제 6사단으로부터 인수한 가운데 각 연대의 방어정면을 다음과 같이 附與하였다.

즉, 右一線인 제16연대(장, 安秉健 대령)로 하여금, 俗稱, 여호고개(△747)로부터의 接近路를 △612의 保有로써 制扼케 하고, 左一線인 제10연대(장, 李寬植 대령)로 하여금, △690—△765—△720의 稜線을 防守케 하였다.

△690는 指形稜線의 西端을 지키는 要部이며, △765 및 △720는 驕岩山과 더불어 金城川의 高山里 巒山部를 擁固하는 마지막 防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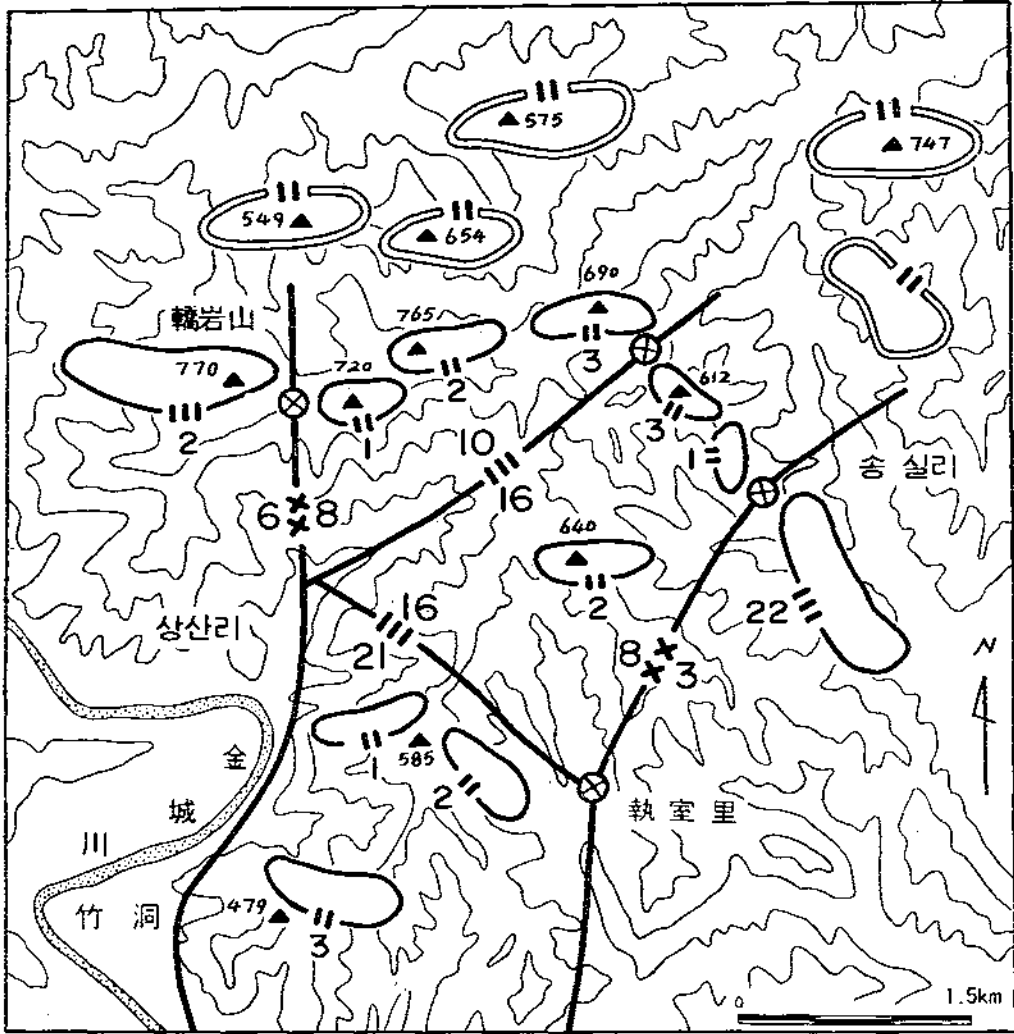
때문에, 제16연대장 安秉健 대령은 제1대대(장, 吳衡根 중령) 및 제3대대(장, 朴斗成 중령)를 제1선에 내세우고, 그 1.2km後方인 △640에 연대예비인 제2대대(장, 李秀眷 중령)를 控置하였는데, 이 阻止障地는 그 西쪽 800m에 솟아있는 △606와 더불어, 사단 主抵抗線을 強力히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한편, 사단에비인 제21연대(장, 成正模 대령)는 사단장의 防禦作戰概念으로 △585에 제 2대대(장, 金燦燾 중령)와 제1대대(장, 宋濟根 중령)를 △479에 제3대대(장, 金鳳椅 중령)를 각각 配備함으로써 너비 2km의 정면에 縱深깊은 阻止障地를 편성하였다(상황도 제66호 參照)

中共 제201사단의 攻擊 : 이날 22.00 사단의 主抵抗線일대에 敵의 각종 砲火가 집중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中共 제67군예하 제201사단(장, 馬輝)의 攻擊準備射擊이었다.

제2군단의 戰鬪詳報(1953년 5월 1일~7월 27일)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攻擊準備射擊은

상황도 제66호 7월 13일의 사단배치



이른바 「7.13攻勢」의 序幕의 일부였다. 또한 攻勢始初에 있어서의 敵의 兵力은 5개 사단 규모로 推算되었는데, 그 중의 1개 사단규모가 제8사단의 정면을 攻擊하였다.

즉, 北漢江上流의 東西兩域에 걸친 軍단 右翼의 제5, 제3 兩사단 정면에 2개 사단, (中共 제60군의 제179, 제180사단), 金城川邊의 제17번 道路를 끼고있는 軍단 中央의 제8사단 정면에 1개 사단(中共 제67군의 제201사단), 軍단의 左翼인 제6사단 정면에 2개 사단(中共 제67군의 제179, 제200사단)이 22,00를 前後한 거의 같은 時刻에 攻擊準備射擊과 더불어 제1波를 투입하였다.

제16연대의 戰況 : 사단 정면에 걸친 敵의 火力은 野砲 116門과 박격포 207門으로 推算되고 있었는데, 이 火力이 집중하기 시작하자 사단의 全火力도 일제히 咆哮하여 敵線과

豫想接近路를 强打하였다.

사단의 右一線인 제16연대는 △612의 正斜面이 攻者의 接近에 有利한 緩傾斜일 뿐만 아니라, 1.8km北쪽의 △747로부터 壓制당하고 있는 點을 감안하여 敵의 步兵部隊를 松賓溪谷線에서 阻止擊滅하리라는 方針으로 2개 中대를 내세워 3개 前哨陣地를 占領하고 있었다.

즉, 연대의 右제1선인 제1대대(장, 吳衡根 中령)의 제1중대(장, 金成出 대위)와 左 제1선인 제3대대(장, 朴斗成 中령)의 제9중대(장, 李海石 대위)가 豫想接近路를 制扼하는 要部를 占하고 있었는데, 彼我의 砲聲이 殷殷한 22.2C에 4列 橫隊로 溪澗을 넘어서는 1개대대 규모의 敵影이 照明彈의 光芒下에 뚜렷이 관측되었다.

溪澗은 이 며칠 동안의 降雨로 增水되었기 때문에 敵은 徒涉에 곤란을 겪는듯 하면서도 그 수많은 兵力으로 驕氣롭게 접근하였다.

제1 및 제9 兩중대는 勿失好機의 火箭을 집중하여 初一擊으로써 最先頭의 橫一列을 撲 殺했다. 그리고, 제1 및 제3 兩대대의 火器중대도 火力을 集注하여 敵의 後續兵力을 破摧 하니, 연대는 이날 子正을 넘길 때까지 戰鬪前哨陣地를 확보하는 가운데, 1km의 방어 정면에 걸쳐 片甲인들 溪頭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였다.

제10연대의 戰況 : 사단 左一線인 제10연대의 各 前哨陣地는 敵의 攻擊準備射擊이 延伸되기도 前에 이미 大兵力의 壓力을 받기 시작하였으니 兵力消耗을 介意치 않는듯한 中共 特有의 怪異戰法 때문이었다.

즉, 攻擊準備射擊으로 防者를 惴惴케 하면서 步兵主力을 彈着點까지 腐接케 하는 物墨戰法인데, 연대의 右 제1선인 △690와 左 제1선인 △765의 戰鬪前哨陣地에 대한 地利를 타고, 砲彈이 炸裂하는 陣前으로 3개 中대를 선두로 한 1개 연대규모가 一時에 밀어닥친 것이었다.

△690는 1952년 10월 以來, 攻防이 거듭되었던 指形稜線의 南端에 聳立하여 防禦基線을 劃하고 있으나 그 北쪽으로 이어져 있는 평퍼짐한 稜마루의 줄기가 敵의 接近을 容易케 하는 不利點을 안고 있었다.

그러므로 高地頂上에 중대 OP를 설치한 제10중대(장, 權責成 대위)는 제1소대(장, 全 澄洙 소위)를 戰鬪前哨陣地에 내세우고, 제2소대(장, 金演俊 소위)와 제3소대(장, 李貞植 소위)를 主陣地에 배치하고, 있었는데, 이 정면으로 敵의 主攻이 밀어닥친 것으로 推斷한 제3대대장 金二洙 中령은 稜마루의 5개 所에 火集點의 설정을 요청해 놓고 있었다.

한편, △765는 그 西쪽에 連立해 있는 △720와 더불어 驕岩山의 連峰이면서 완만한 斜面을 놓고, 敵의 前哨인 △650 및 △549와 마주 對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는 역시 增水된 溪澗이 西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兩峰은 모두 착잡한 細徑의 交錯로 敵의 接近을 容易하게 포착할 수가 없

으므로, 연대장 李寬植 대령은 △765를 中央 제1선인 제2대대(장, 崔泰守 소령)에 주고, △720를 연대 左 제1선인 제1대대(장, 金學稟 소령)에 부여하고 있었다.

이로써 제2대대는 △690 西쪽의 너비 1.2km의 방어정면을 담당하여, 제5중대(장, 申容奎 중위)를 右제1선에, 제7중대(장, 鄭廷源 대위)를 중앙 제1선에 제6중대(장, 朴宗相 대위)를 左제1선인 △765에 각각 내세웠으며, 제1대대는 △720의 頂上部位에 제2중대(장, 姜信瓚 대위)와 제3중대(장, 金善默 중위)를 배치하고 그 北쪽의 突出稜線에 제1중대(장, 權東敬 대위)를 내세워 戰鬪前哨陣地를 확보한 가운데, 지난 10일의 擊攘一戰 이후의 敵情에 대비하였다.

이 때, 左인접인 제6사단 제2연대(제19연대와 12일 05.00附로 교대)는 10일부터 激戰을 치루면서 轆岩山을 固守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이 날, 攻擊準備射擊에 蔚接하여 제10연대의 정면을 攻擊하기 시작한 中共 1개 연대규모는 △690로 主攻을 指向하는듯 하여, 攻擊 제1선인 2개 중대규모에 뒤이어, 2개 대대규모로 보이는 兵力이 照明彈으로 밝아진 狙擊稜線의 稜마루를 南下하고 있었다.

△690의 제10중대 OP에 위치하여 이를 관측하는 FO는 제50포병대대의 直接支援과 제75포병대대의 火力優先을 誘導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8重박격포중대의 1개 소대도 즉각 砲門을 열어 接近路일대를 急襲하였으니, 그 轟音과 閃光으로 狙擊稜線의 山巔가 뒤질히는듯 하였다.

이 屠戮의 火箭이 炸裂하는 稜마루를 背景으로 하여, 제10중대의 戰鬪前哨陣地인 제1소대의 陣前에서는 手榴彈이 紛飛하는 近接戰에 이어, 여러 곳에서 肉迫格鬪가 벌어지고 있었다.

소대장 全濬洙 소위는 鮮血이 狼藉한 重傷에도 屈하지 않고, 陣頭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너무나 隔差가 심한 兵力의 劣勢때문에 散兵壕의 2개 所를 突破당하였는데, 23.00에 중대장 權贊成 대위의 철수명령이 下達되었다.

한편, 이 時刻에 연대의 左一線인 △765와 △720를 攻擊중인 敵兵도 刻一刻으로 增強되고 있었다.

특히 兩峰의 北쪽 中間으로 突出해 있는 稜線에 戰鬪前哨陣地를 占하고 있던 제1중대는 1개 중대규모의 攻擊 제1波를 물리치기도 前에 2개 중대규모의 挾攻을 받게 되었다.

중대장 權東敬대위는 稜線北端의 射界가 良好함으로 火器소대(장, 金祥斗 소위)의 火力을 配定하여 제1소대(장, 尹在夏 소위)를 支援케 하고 있었는데, 東斜面의 제3소대(장, 朴熙鍾 소위)가 危急해지자, 機關銃 1개 班을 急遽 移轉케 하였다.

이 正面에는 細徑을 사이에 두고, 直距離 700m의 北쪽에 敵陣 △650가 마주 보이는데, 攻擊 제1선을 幷호하는 直射火力이 치열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2 및 제1 兩대대의 主力은 火器중대의 自動火力으로써 對應하는 한편, 突出稜線의 左右 兩側面으로 蟻集하는 敵의 散兵에게 步兵火力을 집중하였다.

그런데 兩대대의 主力은 지난 번의 5단계 築城工事때에 主陣地前面의 豫想接近路에 現地 調達한 急製 Napalm筒을 埋設 또는 架設해 놓고 있었다.

敵의 攻擊準備射擊으로 그 殆半을 잃긴 하였으나, 남아있는 個數만으로도 여러 곳에 油性의 火海를 퍼뜨릴 수가 있었다. 한꺼번에 퍼지는 火焰과 함께 유리조각과 鐵片이 四散하여 그 때마다 수많은 敵兵이 쓸어지곤 하였다.

각종 火力이 쇠가루를 뿌리는 가운데, 연대 主抵抗線의 前面에는 屍身이 累累하였다. 그런데도 敵의 人海波狀은 첩첩히 이어지고만 있었다.

中正이 가까운 時刻에 연대장 李寬植 대령은 각 대대의 戰況을 종합하여, 敵의 攻擊企圖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첫째, 연대 정면에 대한 敵의 主攻은 △69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狙擊稜線의 稜마루가 大兵力의 集中投入이 可能な 接路近이기 때문에 兵力의 後續을 執念할 것이며,

둘째, △690를 占하면 그 瞰制의 利點을 이용하여, 연대의 中央에 楔形突破口를 확대함과 동시에 연대의 右一線인 △612의 反斜面을 차단할 것이며,

셋째, △765 및 △720의 兩峰에 집중되는 攻擊은 左인접인 제2연대(제6사단)의 主陣地인 轎岩山에 대한 助功으로 看做되기는 하나, 이 역시 사단 左一線의 危局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사단장의 時急한 조치를 건의하였다.

제10연대장이 건의한 조치란, 사단의 예비병력에서 1개 대대를 연대의 主抵抗線에 增援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3개 대대를 共히 제1선에 내세우고 있는 연대장으로서로는 不得已한 건의가 아닐 수 없었다(參戰者의 證言欄 참조).

사단장의 措置: 그러나, 사단장 宋堯讚 소장은 이 때에 사단 主力의 철수에 관하여 軍단과 협의하고 있는 중이었다. 左右 兩인접 사단의 戰況을 고려치 않을 수 없는, 사단장으로서의 苦衷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이 날 24.00현재의 제2군단 전면의 戰況은 刻一刻으로 危局에 직면해 가고 있었으니 22.00 以後 2시간에 걸친 陣前迎擊에도 불구하고, 敵의 增援兵力이 後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단은 右인접인 제3사단의 △180가 中共 제180 사단의 主攻으로 돌파당하면, 右側背를 一舉에 衝擊받게 될 것이고, 左인접인 제6사단의 轎岩山이 中共 제199사단의 主攻을 끝내 물리치지 못하면, △765—△720의 反射面을 포위당하게 될 것인즉, 만일의 경우를 假定하여 사단 主力의 철수계획을 구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사단장의 이와같은 상황판단에 대하여 제2군단장 丁一權 중장은 美제8군사령관 Maxwell D. Taylor 대장이 強調하는 線固守의 概念에 立脚하여 同意를 표명하였다.

즉, 增強一路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敵의 攻擊을 사단 單位의 地域防禦로 邀擊하기 보다는 兵力을 溫存케 하면서 遲延作戰을 爲主로 하는 機動防禦로써 Iceland線을 反擊基線

으로 굳히기 위해서는 適時의 撤收가 不可避하였던 것이다.

이에 사단장 宋堯讚 소장은 이날 24.00에 사단의 철수에 관한 要旨命令을 각 연대에 下達하였는데, 14일의 10.50附로 다시 文書로 확인된 사단作命 제180호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 『① 軍단은 Iceland 線에서 敵을 阻止하고 反擊으로 移轉할 것이다.
- ② 사단은 軍단命令으로 遲延作戰을 續行하면서 Iceland線의 일부를 占領하려 한다.
- ③ 제10연대
- ㉠ 14일 13.00에 現主抵抗線에서 철수하라.
- ㉡ 同日 17.00까지 제17번 道路를 經由하여 白岩谷으로 集結하라.
- ④ 제16연대
- ㉠ 14일 14.30에 現主抵抗線에서 철수하라.
- ㉡ 연대에비로써 △640 및 △606에서 제10연대의 철수를 엄호케하라.
- ㉢ 同日 18.00까지 靛室里를 經由하여 △596로 集結하라.
- ⑤ 제21연대
- ㉠ 現阻止陣地에서 제16연대의 철수를 엄호하라.
- ㉡ 14일 18.00까지 細峴里를 經由하여 橋洞으로 集結하라.
- ⑥ 사단수색중대는 14일 18.00까지 △428에 集結하여 사단정보참모의 지시를 받으라.
- ⑦ 제8重박격포중대
- ㉠ 14일 11.30에 現陣地를 철수하라.
- ㉡ 479의 南斜面에서 제10 및 제21 兩연대의 철수를 엄호하라.
- ㉢ 同日 15.00까지 △461의 正斜面에 集結하여 제16연대를 直接支援하라.
- ⑧ 工兵대대
- ㉠ 14일 11.00에 각 1개 소대를 각 연대에 배속케 하라.
- ㉡ 철수부대가 통과하는 즉시로 道路要部와 橋梁을 파괴하라.
- ㉢ 敵의 接近路上의 要部에 地雷를 埋設하라.
- ⑨ 協調指示
- ㉠ 각 연대는 統制線을 통과하는 즉시로 배속부대를 原隊복귀시키라.
- ㉡ 각 연대는 金城川 北쪽에서 最大限의 遲延戰을 실시하고, 砲 및 裝備의 機動을 엄호 하라.
- ㉢ 철수時에는 最大限의 彈藥을 휴대하되, 剩餘의 彈藥은 철수前에 射耗토록하라.
- ㉣ 철수時에 휴대하기 어려운 裝備 및 費材는 將校以上の 指示에 따라 埋沒 또는 파괴 등 適宜措置토록 하라.
- ㉤ 각 연대는 掩護線에서 最大限의 出血을 強要하라.

㉒ 철수間의 通信을 유지하라.

㉓ 集結地까지 철수를 끝내는 즉시로 彈藥 및 食糧을 點檢하고, 兵力상황을 보고하라.

㉔ 統制線은 廣大谷-竹洞間의 金城川邊으로 한다.

㉕ 사단의 前方指揮所는 注坡嶺에 後方指揮所는 酒幕巨里에 각각 在한다.』

7월 14일(00.30~11.00) : 전날의 子正을 前後하여 사단 主抵抗線은 敵의 繼續的인 兵力 增強으로 因하여 더욱 緊迫하여졌다.

즉, 제16, 제10 兩연대는 戰鬪前哨陣地의 兵力을 主陣地로 收容하지 않을 수 없는 가운데, 이날 00.30에 새로운 1개 연대규모의 中共巨波를 迎擊하게 되었다.

제16연대의 戰況 : 제16연대장 安秉健 대령은 △612의 제3대대 OP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사단장의 要旨命令이 下達됨에 따라 두 가지의 觀點에서 연대의 戰況을 憂慮하였다(參戰者의 證言 참조).

첫째, 主抵抗線에서 철수하게 될 이날 14.30까지 敵을 阻止할 수 있겠는가?

둘째, 연대의 예비인 제2대대로써 제10연대의 철수를 충분히 幷護할 수 있겠는가?

이 두가지의 觀點으로 01.00 현재의 戰況을 보전대, 단호한 結論을 서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러하여, 연대장 安秉健 대령은 01.30附로 각 대대에 要旨命令을 다음과 같이 下達하였다.

『① 연대는 사단命令으로 現主抵抗線을 14일 14.30까지 固守하려 한다.

② 제1대대

㉒ 05.00까지 戰鬪前哨陣地의 兵力을 收容하여 主陣地의 火線을 強化하라.

㉓ 14.30에 現主陣地를 철수하되, 1개 중대(+)를 제2대대에 배속케 하라.

③ 제2대대

㉒ 13.00에 철수하는 제10연대를 幷護하라.

㉓ 제1대대의 1개 중대(+)를 배속받아 제3대대의 철수를 幷護하라.

④ 제3대대

㉒ 06.00까지 戰鬪前哨進陣地의 兵力을 收容하여 主陣地의 火力을 強化하라.

㉓ 15.00에 現主陣地를 철수하라.

⑤ 각 대대는 18.00까지 △596로 集結하라.

⑥ 각 대대는 철수기간중 제21연대의 幷護를 받을 것이다.

⑦ 연대의 前方指揮所는 15.30부터 제2대대 OP에 位置할 것이다.』

이 要旨命令은 有線으로 下達되었는데 각종 砲彈이 끊임없이 炸裂하는 가운데서 연대 OP와 각 대대 OP와의 交通을 유지키 위하여 연대의 通信隊는 수많은 死境을 克服해야만 하였다.

특히, 架設將校인 洪台祚 소위는 隊員 10명을 인솔하고 彈雨裡에 東奔西走하였으나 有線은 자주 切斷되었다. 방금 連結하고, 돌아서기도 바쁘게 迫擊砲의 直擊彈으로 끊어지는 수가 한 두번이 아니며 때로는 直射火力을 뚫고 나가기도 하였다. 通信兵은 차츰 줄어들어 5명만 남았을 때 洪台祚 소위는 W-110線의 Wire筒을 어깨에 메고 제1대대의 OP로 향하였는데 또 한 차례의 集中砲火속에서 연대와와 有線이 切斷된 것이었다. 先頭에서 와이어를 풀어가던 洪台祚 소위는 △612西斜面的 8부稜線에서 迫擊砲의 至近彈으로 右側大腿部에 重傷을 입고 말았다. 그러나 鮮血이 狼藉한 下半身을 이끌고 계속 와이어를 풀어가던 그는 마침내, 막심한 出血로 인하여 陣沒하였는데,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通信兵들에게 △612의 頂上을 가리키며 이르되, 『연대의 生命線을 부탁한다!』라고 하였으니, 이 壯烈한 죽음은 곧 연대의 鬪魂을 象徵하는 것이었다.

通信將校의 죽음이 이처럼 壯烈할진대 戰鬥을 主任務로 하는 步兵의 勇戰이야말로 不聞可知的 사실이 아닐 수 없었다.

제1대대의 戰鬥前哨陣地에서 初一擊으로 敵의 攻擊제一波를 屠戮하였던 제1중대(장, 金成出 대위)는 3시간이 넘는 激戰을 치루면서도 陣前의 一角인들 讓畔하지 않았다. 몇 곱이 되건, 밀려오면 屍山을 쌓올리곤 하는 중대의 火箭은 支援火力과 더불어 熾盛하기만 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金泰烈일 등중사를 組長으로 하는 潛伏組는 70m 앞쪽의 溪澗線에 埋設하였던 Napalm筒 3개를 폭발시키면서, 小銃射擊을 加하다 보니, 중대의 主陣地로 복귀할 기회를 놓치게 되자, 組長이하 全員이 一丸이 되어, 敵의 側方을 匕首처럼 후비면서 本隊로 복귀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朴斗成 중령)의 戰鬥前哨陣地를 固守중인 제9중대(장, 李海石 대위는 제2소대(장, 姜濟憲 소위)를 右제1선에, 제1소대(장, 孫其勳 소위)를 中央제1선에 제3소대(장, 金昌均 소위)를 左제1선에 각각 내세우고, 火器소대(장, 鄭鎮範 소위)의 火力을 中央제1선으로 優先시키고 있었는데, 이날 01.30에 左제1선으로 加重되는 敵의 壓力을 받게 되었다.

즉, 左인접인 제10연대의 제10중대가 전날 23.00에 △690의 頂上에서 일단 불리 났다가 이날 01.00에 逆襲으로 奪還하였으나, 30분이 지난 뒤에 다시 喪失케 되자, 이 正面의 敵勢가 △612를 向하여 溢出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연대의 左一線이 敵의 主攻으로 더욱 危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 연대장 安秉鍵 대령은 연대에비인 제2대대의 일부 兵力으로써 즉각 제3대대의 主陣地를 增援코자 하였으나, 사단의 撤收계획에 비추어, 제10연대의 철수를 엄호케 될 제2대대의 임무가 莫重할 것이므로, 이 예비兵力의 投入을 決心할 수가 없었다(參戰者의 證言 참조).

이로써 연대 主抵抗線의 主力은 兵力增援을 바랄 수 없는 상황下에서 철수 時限인 14.30까지 각 戰鬥前哨陣地를 固守하면서 敵을 阻止해야만 하였다.

제10연대의 戰況 : 전날의 子正무렵에 사단의 예비兵力을 增援받고자 하였으나 24.00에 사단장의 撤收계획에 관한 要旨命令을 받게 된 연대장 李寬植 대령은 撤收時限인 13.00까지 現主抵抗線을 固守하기 위하여서는 △690 및 △765의 두 據點을 堅持하여야만 한다는 決意로 『寸退尺進의 逆襲으로써 決戰防禦를 貫徹하라!』고 각 대대장을 檄하면서, 支援火力을 △690로 優先토루 요청하였다.

△690의 頂上部位를 상실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전날 23.30에 제3대대장 金二洙 중령은 제10중대의 兵力損失을 감안하여, 중대의 兵力을 △660(△690의 西南쪽 50m의 連峰)로 일단 수습케 하였는데, 이는 敵의 攻擊主力을 火力으로써 奇襲하면서, 대대의 主力으로 逆襲을 감행하려는, 一時的인 철수였던 것이다.

또한, △690와 △660는 평퍼짐한 稜마루로 이어져 있고, 接近하기가 容易함으로, 제10중대를 追尾하는 敵의 攻擊제1선이 驕氣롭게도 楔入을 피한다면 挾擊의 鐵鎚를 내리칠 目算까지도 서있었다.

대대의 主陣地를 乾坤一擲에 내걸고 敵의 人海波狀을 擊摧하려는 苦肉之計가 아닐 수 없었다.

여기에는 제10중대의 適時 撤收와 逆襲의 好機를 포착하는 機敏한 상황판단이 앞서야만 하였다.

그러므로 대대장 金二洙 중령은 23.30에 제10중대를 철수케 함과 동시에 제9 및 제11兩중대로 하여금, 제10중대를 壓호하면서 그 火力의 일부를 △690-△660의 稜마루로 指向케 하였다.

이 苦肉之計는 的中하였다. 1개 중대규모의 敵이 제10중대를 追跡하면서 稜마루로 물러들자 突破口를 일거에 확대하려는 氣勢가 부뚝하였으니 이날 00.30이 조금 지난 무렵이었다.

△690의 頂上을 비롯한 正斜面일대에 遮斷砲擊이 집중되는 가운데, 稜마루의 여러 곳에서는 挾擊의 白兵戰이 벌어졌다. 射擊과 擊鬪으로써 敵을 포착한 대대는 餘勢를 멈추지 않고, 제9 및 제11兩중대의 일부 兵力으로써 逆襲으로 移轉하였으니 勝機를 포착한 跳躍이었다.

그 先陣에서 血路를 뚫고 나간 제11중대의 제1소대는 소대장 崔龍翰 소위의 陣頭指揮下에 △690頂上의 東쪽을 直衝하였으며, 西쪽의 斜面에서 제9중대의 先陣을 맡은 제3소대장 李寬植 소위는 左肩部에 貫通傷을 입었으면서도 屈하지 않고, 소대의 突貫을 지휘하였다.

이리하여, 제3대대의 主力이 △690의 頂上을 되찾고, 陣地를 急編한 것이 이날 01.00를 갓 넘긴 무렵이었는데, 이 時刻에 연대 左一線인 제2대대의 일부와 제1대대도 △765-△720의 防守를 위하여, 血戰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兩峰의 正面으로 突出해 있는 戰鬪前哨陣地가 이 防守一戰의 關鍵

이었다.

왜냐 하면, 이 陣地를 確保하는 限에 있어서는 兩峰의 前面에 強力한 最後阻止線을 유지할 수가 있고, 이 陣地에서 물러나면 敵에게 容易한 接近路를 열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戰鬪前哨陣地의 제1중대는 전날 22.00부터의 3시간에 걸친 死鬪로 因하여 수많은 死傷者를 내면서도 寸步인들 물러설 수가 없었다.

중대장 權東敬대위를 비롯하여, 제1소대장 尹在夏 소위와, 제3소대장 朴熙鍾 소위의 두 사람은 모두 鮮血이 狼藉한 戰傷을 입었으면서도 陣頭를 떠나지 않았다. 이제는 決死無退의 鬪魂만이 중대전원의 戰鬪力을 받쳐주고 있었다.

물론 엄호사격과 支援火力이 협조된 가운데, 중대의 危機를 여러 차례 물리치기는 하였으나, 밀물처럼 새로운 增援兵力을 투입하는 中共의 重壓속에서 3시간의 防守임무를 수행한 제1중대의 勇戰은 可謂 一夫當關의 그것이라고할 수 있었다.

연대장 李寬植 대령은 이 戰鬪前哨陣地를 增強키 위하여, 제1대대 또는 제2대대의 1개 중대를 내세우려 하긴 하였으나, 몇 가지의 難點 때문에 兵力增強을 保留하는 수밖에 없었다.

즉, 中央제1선인 제2대대의 경우는 $\Delta 765$ 의 東側面에 대한 敵의 壓力이 $\Delta 690$ 의 危機로 因하여 커지고 있으며 左1계선인 제1대대의 경우는 左인접인 轎岩山(제6사단의 제2연대)에 대한 敵의 攻勢가 더욱 熾盛해짐에 對備하여 $\Delta 720$ 를 主陣地로 하는 이 西側面에서 兵力을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Delta 765$ 및 $\Delta 720$ 의 反射面이 가파른 傾斜를 이루고 있으므로 연대의 예비陣地를 急縮할 수가 없다는 點에서도 兩峰을 중심으로 하는 主陣地에서의 決戰防禦가 不可避하였다.

이러한 여러 點을 考慮한 연대장은 이날 01.30에 前哨陣地를 철수키로 決心하고, 支援火力의 集中을 요청하였다.

突出稜線을 軸으로 하는 兩峰前面의 接近路에 鐵火를 퍼부어 敵의 優勢한 兵力을 破摧 하려는 것이었다.

사단장의 措置 : 이날 01.00를 前後하여, 점차 危急해지는 主抵抗線의 戰況에 비추어, 사단장 宋堯讚 소장은 제1선 兩연대장의 조치를 追認하고, 사단의 火力計劃에 의한 適時 支援을 命命하였다.

그러나, 軍단의 新防禦線概念에 따르는 사단의 철수를 이미 계획하고 있는 사단장으로서서는 사단의 예비인 제21연대의 일부 兵力으로써 主抵抗線의 增援을 考慮하기 보다는 각 연대의 철수 時限을 앞당기는 것이 時急한 當面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사실, 이 날 07.30~09.30의 2시간 동안에 軍단에서 提報된 左右 兩인접 사단의 戰況은

다음과 같았다.

즉, 右인접인 제3사단의 제22연대는 제3 및 제1 兩대대의 主抵抗線을 突破當하여, △485 西南麓의 溪間을 阻止線으로 하는 新防禦陣地를 執室里 東쪽의 稜線에 急編중이며, 左인접인 제6사단의 제2연대는 轎峯山 主陣地를 左제1선으로부터 突破당할 危機에 直面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단에 대한 直接的인 위협은 아니로되, 軍단의 右翼인 제5사단은 金城川南岸의 主抵抗線一角을 喪失寸前에 있는 중이며, 제3사단의 右一線인 제23연대도 登大里로 主陣地를 整理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軍단의 左인접인 美제9軍단의 右翼인 首都사단이 前날의 夜半부터 이날의 未明까지 사이에 全面的으로 主抵抗線을 喪失함으로써 제6사단의 西側面이 露出하게 되므로 軍단장 丁一權중장은 軍단作命 제5호로써 각 사단으로 하여금, 新防禦線을 急編토록 하였는데, 그 命令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제6사단

- ㉗. 7월 14일 14.00까지 新主抵抗線을 占領하라.
- ㉘. 7월 7~15일 18.00附로 제11사단에게 現任務를 承接하라.

② 제11사단

- ㉗. 7월 15일 18.00附로 제6사단의 방어지역을 인수하라.
- ㉘. 機動은 제17번 道路를 이용하라.

③ 제8사단

- ㉗. 7월 14일 15.00까지 新主抵抗線을 占領하라.
- ㉘. 機動間에 제17번 道路를 확보하라.

④ 제3사단은 7월 14일 14.00까지 新主抵抗線을 占領하라.

⑤ 제5사단은 現任務를 續行하라.

⑥ 제5포병단은 7월 14일 16.00까지 新主抵抗線에 대한 火力計劃을 再編하라.

⑦ 각 사단은 CP의 位置를 선정된 뒤에 즉시 보고하라.』

이 軍단作命 제5호의 要旨에 비추어 보전대, 사단은 左右 兩인접 사단의 철수와 병행하여 機動하되, 제17번 道路를 엄호하여야 하는 點에서 사단장 宋堯讚 소장은 두가지의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첫째, 각 연대의 現主抵抗線에서의 철수時限을 앞당겨야 하고, 둘째로는 부사단장인 李龍대령을 제21연대의 前方指揮所로 急轉케 하였다.

즉, 부사단장으로 하여금 △479에 위치한 제21연대의 前方指揮所에서 각 연대의 철수 機動을 統制케 함과 동시에 竹洞 南쪽의 제17번 道路에 대한 엄호任務를 지휘케 하려 함이었다.

이리하여 이날 11.00에 사단作命 제180호로 命命한 각 연대의 철수時限을 要旨 다음과 같이 口頭로 修正下達하였다.

- 『① 사단은 軍단命命으로 新主抵抗線의 占領을 7월 14일 15.00까지 完了하려한다.
- ② 제10연대는 14일 11.30에 現主抵抗線에서 철수하라.
- ③ 제16연대는 14일 12.00에 現主抵抗線에서 철수하라.
- ④ 제21연대는 14일 12.00부터 부사단장의 지휘를 받으라.
- ⑤ 사단수색중대는 14일 15.00까지 △428에 集結하라.
- ⑥ 제8重박격포중대는 14일 09.00에 現陣地를 철수하여 엄호임무를 수행하라.
- ⑦ 工兵대대는 14일 10.00에 각 1개 소대를 각 연대에 배속케 하라.』

제2단계 : 別隅地區의 撤收戰(7월 14일 11.30~15일 19.00)

사단장 宋堯讚 소장이 軍단作命 제5호로 사단 主力의 現主抗線에서의 철수 時限을 7월 14일 11.30으로 앞당기게 한 사단作命 제180호의 修正命命을 下達한 것은 既述한바와 같다.

當時 이 時限을 고비로 하여 제16, 제10 兩연대의 제1선 主力은 이미 철수를 考慮치 않을 수 없는 限界에 到達하고 있었다.

즉, 右一線인 제16연대의 제1, 제3대대는 正面과 左右側方으로 부터의 敵의 壓力이 더욱 加重되는 가운데서 兵力의 增援이 시급하였으며, 左一線인 제10연대는 △690—△765—△720 線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었다.

(1) 작전계획

敵의 作戰企圖 : 7월 14일 11.00 現在의 戰況에 비추어, 敵의 作戰企圖를 分析컨대, 그 목적하는 바를 能히 헤아릴 수 있었다.

1개 사단으로써 계속부단한 壓力을 사단정면에 置重함과 동시에 제3사단의 左一線을 突破한 攻擊軸線으로써 사단의 右翼을 包圍케 하고, 제6사단의 右一線인 轎岩山의 南쪽 稜線을 直衝하는 餘勢를 一舉에 내몰아서 商山里의 제17번 道路로 이르는 金城川의 渡河口를 장악하려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따라서 사단의 主力을 兩側面으로 包圍壓縮함으로써 別隅地區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阻止陣地를 마비케 하려는 作戰企圖인 것으로 推斷되었다.

사단의 作戰概念 : 敵의 企圖를 이와 같이 判斷한 사단장 宋堯讚 소장은 要旨 다음과 같은 概念으로써 本철수작전을 수행키로 결심하였다.

첫 째, 反擊에 대비키 위하여 兵力을 最大限으로 溫存케 한다.

둘 째, 執室里—商山里線과 △504—△479線에서 敵에게 打撃을 加한다.

세째, 엄호兵力으로써 제17번 道路를 차단케 한다.

네째, 철수부대의 統制線 통과後의 新防禦線은 別隔地區의 固守를 主眼으로 한다.

이러한 方針은 이미 사단作命 제180호로써 각 연대에 천명된 바이지만, 7월 13일 22.00 이후의 戰況이 恢復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예비 兵力을 主抵抗線에 투입하지 못하였던 까닭도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제16연대 예비의 엄호下에 제10연대를 철수케 하고, 사단예비인 제21연대로써 제16연대의 철수를 엄호케 하면서, 敵의 追躡을 破摧키 위하여서는 統制線을 통과할 때까지 撤收間의 緊密한 連繫와 統制가 考慮되어야만 하였다.

(2) 작전실시

7월 14일(11.30~24.00) : 主抵抗線의 稜脉과 溪澗에 細雨が 내리는 가운데, 제16 및 제10兩연대는 사단作命 제180호의 修正命令으로 철수를 시작하였다.

부사단장의 措置 : 사단장의 命令으로 이 철수作戰을 統制케 된 부사단장 李龍대령은 제21연대의 前方指揮所(△479)로 急赴하여, 각 연대의 철수절차와 經路를 지시하였는데, 그 概要를 추리면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① 대대單位로 梯次철수하라.

② 제16연대는 右인접인 汝文里로부터의 側方衝擊을 견제키 위하여 1개 대대로써 △640의 東側을 防守한다음 執室里—細峴里의 經路를 이용하여 철수하라.

③ 제10연대는 △640—△585—△479의 經路와 제17번 道路를 이용하여 철수하라.

④ 제21연대는 엄호가 끝나는 즉시로 △479—細峴里의 經路를 이용하여 철수하라.

⑤ 重裝備의 철수를 優先하라.』

제16연대의 戰況 : 이날 11.00 현재 사단의 右인접인 제3사단은 登大里—汝文里의 主抵抗線에서 점차 主力을 수용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左제1선인 제22연대의 제2대대(장, 權益檢 중령)만은 主陣地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 主陣地는 제16연대의 主抵抗線과 同一한 稜線으로 이어진 東端이며, 그 東側과 南側을 두 갈래의 金城川支流가 둘러싸고 있으므로 防者에게는 有利한 地勢이었다.

그러므로 제16연대장 安秉繼 대령은 제22연대 제2대대의 協調下에 제1대대를 우선 철수키로 決心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연대作命을 口頭로 下達하였다.

『① 제1대대

㉞ 7월 14일 12.00에 現主抵抗線을 철수하라.

㉟ 同日 11.30附로 1개 중대를 제3대대에 배속케 하라.

㊱ 主力으로써 제2대대와 협조하여 제3대대의 철수를 엄호하되, 適時에 隨意 철수하라.

㉑ 主力의 철수에 앞서 제22연대 제2대대의 진밀히 협조하라.

② 제3대대

㉒ 7월 14일 11.30에 제1대대의 1개 중대를 통합지휘하고 제10연대 제3대대의 철수를 엄호하라.

㉓ 同日 12.30에 現主抵抗線을 철수하라.

㉔ 現主抵抗線을 철수함과 동시에 제1대대의 1개 중대를 원대복귀케하라.

③ 제2대대

㉕ 現陣地에서 제10연대 主力의 철수를 엄호하라.

㉖ 現陣地의 철수時機는 13.00以後에 適宜選擇하라.

④ 각 대대는 靛室里—細峴里를 經由하라.

⑤ 각 대대는 7월 14일 15.00까지 △596로 集結하라.

⑥ 연대의 前方指揮所는 7월 14일 15.00부터 제2대대의 본부와 행동을 같이할 것이다.』

이에 연대의 右側1선인 제1대대장 吳衡根 중령은 제22연대의 제2대대와 협조를 이루는 가운데, 대대의 左側1선인 제3중대(장, 池珉九 대위)를 11.30附로 제3대대에 배속케 하고 제1중대(장, 金成出 대위) 및 제2중대(장, 金達六 대위)를 20분 간격으로 12.00부터 主陣地를 離脫케 하였다.

이 때, 대대장 吳衡根 중령은 제2중대의 본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有線으로 제3중대(장, 池珉九 대위)에게 이르기를 『捨身殉義의 任務完遂를 期待하며, 貴중대의 武運을 祈願한다』라고 하였으니 일부 兵員을 남겨놓고, 主陣地를 버리게 되는 指揮官의 心懷가 斷腸의 아픔으로 가득했음을 엿보게 된다.

제1 및 제2 兩중대는 急驅하여 △645의 東쪽 稜線에 도달하는 즉시로 연대의 右側方에 대한 엄호陣地를 急編하였다. 그 時刻은 12.30무렵이었는데, 이 때에는 이미 敵의 觸手が 汝文里의 一角을 넘어서고 있는 중이었다.

즉, 제3사단 제22연대의 主抵抗線을 突破한 敵의 尖端으로 보이는 1개 중대규모가 연대의 右側方을 衝擊할 氣勢로 進出하고 있었다.

△645의 稜線을 따라 東南쪽으로 터있는 細徑에서 警戒에 任하고 있던 연대의 수색중대(장, 尹錫憲 대위)가 즉각 邀擊하였는데, 제2소대장 代理인 崔徽壽 이동상사는 선임하사 安福順 일등중사 및 향도 林鍾澤 일등중사와 더불어 소대를 이끌고 敵中으로 파고들어 逆攻의 銳鋒을 휘둘렀다.

그런데 이에 앞선 11.20에 제3사단 제22연대는 제2대대를 主抵抗線에 殘置하고, 主力으로써 廣大谷에 阻止陣地를 急編하고 있었으므로, 汝文里 以西의 사단의 右側面은 거의 露出된 상황下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제16연대의 수색중대가 初一擊으로써 擊摧한 1개 중대규모의 敵은 靛室里를 비

못한 사단의 右側面에 壓力을 加하기 시작한 敵勢의 일부로 推斷되었다.

한편, 제3대대(장, 朴斗成 중령)는 戰鬪前哨陣地의 제9중대(장, 李海石 대위)를 主陣地로 收容하고, △612를 固守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11.30에 左인접인 제10연대(장, 李寬植 대령)의 제3대대(장, 金二深 중령)가 △690에서 철수케 됨에 따라 제9중대로 하여금 左 제1선의 細徑을 制扼케 하였다.

여기는 △612의 南麓으로 빠져나가는 주요한 撤收路이자, 敵의 進出이 예상되는 길목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제9중대의 엄호임무는 철수의 첫 단계를 判가름하는 關鍵이 아닐 수 없었으므로 중대장 李海石 대위는 중대의 戰力을 가다듬기 위하여 먼저 戰傷者를 後送조치한 다음『戰友들의 死活이 걸린 이 엄호임무를 우리들의 죽음으로써 完遂하자!』라고 檄하면서 중대원과 더불어 決死의 작오를 다짐하였다.

이 때, 중대의 殘存兵員을 각 소대별로 보면, 제1소대(장, 孫其勳 소위)가 21명, 제2소대(장, 姜濟愨 소위)가 22명, 제3소대(장, 金昌均 소위)가 22명, 火器소대(장, 鄭鎭範 소위)가 23명이었으니, 전날 22.00부터의 戰鬪를 겪는 동안에 이처럼 兵力損失을 입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중대는 火器중대(장, 盧秉奎 대위)의 優先支援下에 엄호하다가 대대의 철수 時限인 12.30에 先發하여 鞞室里를 經由하는 철수路를 따라 後退하였다.

그 뒤를 이어, 제1대대의 제3중대가 主陣地를 떠나 原隊로 복귀하였으며, 제10중대(장, 李容範 중위) 및 제11중대(장, 劉琦華 대위)의 順으로 主力을 빼낸 대대는 集結地인 △596를 向하여 철수의 隊列을 이어갔다.

이와 같이 主抵抗線에서 撤收함에 따라 이제까지 연대예비이던 제2대대(장, 李秀春 중령)가 연대의 任務를 이어 받게 되었다.

대대는 △645의 主峰에 제7중대(장, 金福基 대위)를 놓고, 右제1선에 제5중대(장, 朴載燦 중위)를 左제1선에 제6중대(장, 鄭道益 대위)를 각각 내세우고 있었는데, 제1대대의 主力이 主抵抗線을 철수하여, 대대의 右側方에서 잠시나마 側方掩護를 맡게 되자, 대대장 李秀春중령은 火器중대(장, 金玉成 대위)의 火力을 左제1선으로 優先시킴과 동시에 제6중대로 하여금 제10연대 主力의 철수를 엄호케 하였다. 이에 중대장 鄭道益 대위는 尹燦先 소위의 제1소대 및 朴炳璫 소위의 제2소대와 더불어, 火器소대(장, 朴成圭 소위)의 機關銃班을 主陣地 西端의 細徑을 制扼하는 突出部로 急驅케 하였다.

이 細徑은 △765의 反斜面을 흘러내려 商山里의 제17번 道路로 빠져나가는 길목인데, 제10연대의 제2대대 主力이 통과할 철수路임으로, 敵의 追尾兵力도 또한 이 길을 擇하리라는 것은 能히 예상되는 일이었다.

이날 12.00를 갓 넘은 한 낮엔데도, 細雨低雲으로 溪谷은 더욱 沈沈하였다.

제1소대의 선임하사인 李尙熙 이동중사는 自願하여 제1본대의 AR를 직접 取扱케 되었는데 射手인 梁聖煥 하사에 이르기를 『이 자리를 우리들의 共同무덤으로 삼고, 銃열이 달아 녹을 때까지 놈들을 끌어 버리자』라고 하면서 不退轉의 決意를 서로 다짐하였다.

이리하여, 제6중대를 비롯한 각 중대는 △645의 前斜面과 西쪽의 側斜面에 걸쳐, 敵의 進出을 阻止한 다음, △585線에서 제21연대(장, 成正模 대령) 主力의 엄호를 받으면서 철수하였으니, 대대장 李秀春 중령이 撰한 隨意철수의 時刻은 13.20이었다.

제10연대의 戰況: 時時刻刻으로 더욱 氣勝해지는 中共 제201사단 및 제199사단 일부의 壓力을 排除하면서 主抵抗線을 철수하게 된 연대는 철수時限인 11.30이 가까와질수록 苛烈한 戰況을 이겨내야만 하였다.

더군다나, 左인접인 驕岩山의 제2연대 主力이 中共 제199사단의 主攻을 끝내 물러치지 못함으로써 생겨난 間隙으로 因하여, 左側方을 크게 露出당하게 되었으므로 左제1선인 △720를 固守치 않고서는 연대의 主力을 제대로 철수시킬 수가 없었다.

따라서 연대장 李寬植 대령은 철수에 따르는 戰力の 按配를 考慮하여, 要旨 다음과 같은 口頭命令으로써 각 대대의 철수時限을 下達하였다.

『① 연대는 사단命令으로 철수時限을 11.30으로 앞당기려 한다.

② 제1대대

㉠ △720를 堅持하여 제2대대의 철수를 엄호하다.

㉡ 12.00에 現主抵抗線을 철수하다.

③ 제2대대는 11.45에 現主抵抗線을 철수하다.

④ 제3대대는 11.30에 現主抵抗線을 철수하다.

⑤ 각 대대는 商山里를 經由하여 제17번 道路를 이용하라.

⑥ 각 대대는 統制線까지 제16 및 제21연대의 엄호를 받게 될 豫定이다.

⑦ 연대의 前方指揮所는 제2대대 본부와 行動을 같이 할 것이다.』

이로써 연대는 11.30에 右제1선인 제3대대를 먼저 철수시키고, 中央 제1선인 제2대대, 左제1선인 제1대대의 順으로 철수케 하였는데, 제17번 道路에 이르기까지의 통과지점을 商山里로 정한 것은 두 가지의 이유때문이며, 이는 사단장의 命令으로 철수作戰을 지휘케 된 부사단장인 李龍 대령이 口頭로 긴급지시한 철수經路이기도 하였다.

그 이유의 첫째는 제17번 道路를 이용하는 철수梯隊를 편성함에 앞서, 제10연대로서는 이 商山里가 最適인 것이며, 둘째는 이 철수作戰이 敗退가 아닌 이상, 아무리 敵의 追擊을 당한다 할지라도, 쳐부시면서 물러나겠다는 指揮官의 意圖가 숨어 있는 것이었다. 이 意圖는 兵員 각자의 가슴에도 反映되어 각 대대는 철수路의 여러 길목을 지켜주는 제16연대의 각 부대와 만날 때마다, 서로의 武運과 健闘를 당부하면서 整然한 隊列로 主抵抗線 南麓의 細徑을 빠져 나갔다.

그 중에서도 제2중대의 제3소대는 소대장 대리인 李仁孝 특무상사와 제1분대장인 李鍾南 이등중사를 중심으로 하여, 중대의 後尾를 맡고 있었는데, 네번이나 敵의 尖兵을 박살내어 시간의 여유를 얻었으며, 新兵인 李熙周 일병은 戰鬪경험이 不足함에도 불구하고 몇번이고 單身으로 되돌아 서며 小銃사격을 加하다가 마침내는 鮮血을 뿌리고 말았다.

또한, 제3대대 火器중대의 분대장인 金容讚 이등중사는 始終一貫하여 2점의 機關銃으로 철수로의 要部를 감당함으로써 부대의 安全을 뒷받침하였다.

이와 같이, 연대는 인접연대의 幟호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체의 幟호를 철저히 갖추는 가운데, 商山里를 거쳐 제17번 道路 南으로 後退하였다.

제21연대의 戰況 : 사단의 예비가 되어, △585를 중심으로 한 阻止障地를 편성하고 있는 연대의 임무는 사단의 命運을 결정짓는 것이었다.

이 阻止線에서 敵의 強壓을 破碎하지 못하면, 사단의 主力은 金城川을 渡河하기도 前에 철수梯隊를 교란당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연대장 成正模 대령은 사단作命 제180호의 修正命을 下達받음과 동시에, △606(△585의 北쪽 800m)의 稜線에서 제1차의 迎擊으로써 敵의 先鋒을 打撃하기 위하여 1개 대대를 추진키로 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연대作命을 口頭로 下達하였다.

『① 연대는 사단命으로 現障地에서 主抵抗線 部隊의 철수를 幟호와 동시에 敵에게 最大限의 出血을 強要하려 한다.

② 제1대대

㉑ 대대의 主力(一)으로써 △585의 東側斜面에 火線을 急編하라.

㉒ 1개 중대로써 商山里의 接近路를 要扼케 하라.

③ 제2대대

㉑ 대대의 主力을 △606의 北側斜面으로 推進시켜 火線을 急編하라.

㉒ 철수부대가 統制線을 통과하는 즉시로 철수의 適時를 擇하여 △504에서 제3대대의 일부와 合勢하라.

④ 제3대대

㉑ 대대의 主力으로써 △504—△479에 火線을 擴大하라.

㉒ 제1 및 제2 兩대대의 철수를 幟호하라.

⑤ 각 대대는 철수時에 細峴里를 經由하여 제17번 道路를 이용하라.

⑥ 각 대대는 13.30 이후에 철수의 適時를 擇하되 연대의 別命에 의하여 행동하라.

⑦ 연대의 前方指揮所는 13.00부터 제3대대 본부와 行動을 같이할 것이다.』

이어서 대대는 대대자체의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機動的 부담이 될 戰傷者들을 一括後退한 다음에 反擊의 陣容을 急編하였으니, 각 대대장이 취한 지휘조치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제2대대장 金燦燾 중령은 △585의 主陣地를 제1대대에 인계하는 즉시로 대대主力을 △606로 急驅시켜, 右제1선에 제1중대(장, 羅帛讚 대위)를, 中央 제1선에 제3중대(장, 郭永敦 대위)를, 左제1선에 제2중대(장, 朴長年 대위)를 각각 配備하고, 火器중대(장, 鄭雲福 대위)의 火力을 △645의 背斜面으로 優先케 하였는데, △606의 稜線은 △645의 稜線과 마주 併立해 있을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두 줄기의 細徑을 끼고 있으므로, 제16연대 主力과 제10연대 일부의 철수에 跟隨하는 敵이 이 일대의 地勢에 비추어, 不可避하게 合流할 것으로 推斷되었다.

제1대대장 宋濟根 중령은 제5중대(장, 白文午 중위) 및 제6중대(장, 朴正秀 중위)로 하여금, △585의 東側斜面을 인수케 하는 한편, 제7중대(장, 韓昌鳳 중위)로 하여금, 原陣地에서 火線을 넓히도록 하였다.

제2대대의 配陣은 제1대대를 뒷받침하는 연대의 제2선으로 볼 수 있는데 △585의 東斜面은 靛室里쪽을 瞰制하는 要部이며, 제7중대의 正面에는 商山里의 金城川 渡河點을 비롯하여 제17번 道路의 進入口를 制扼하는 利點이 있었다.

제3대대장 金鳳樓 중령은 △504에 제9중대(장, 金永俊 대위)를 急派하고, △479의 北쪽 稜線에 제10중대(장, 郭永敦 대위)를, 西쪽 稜線에 제11중대(장, 金虎鐵 대위)를 각각 배치 하였다. 제9중대가 달은 △504는 靛室里에서 細峴里로 흐르는 一連의 稜脈에 聳立하여 東側方에 대한 要部를 이루고 있으며, 제10중대의 陣地는 △585에서 南走하는 接近路의 길목이다. 그리고 제11중대는 金城川의 彎曲部를 西쪽으로 굽어 보면서, 제1대대의 左제1선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제21연대는 反擊의 火線을 三線으로 편성하고 敵의 進出을 破摧키로 하였는데, 이날 13.00 현재, 사단의 左右인접인 제3 및 제6 兩사단은 廣大谷—蘆洞里的 線까지 戰線을 수습하고 있는 중이면서도 軍단의 命令으로 사단의 左右側方을 엄호하고 있기 때문에, 제21연대는 靛室里—△504의 右側에서 제3사단의 제22연대 主力과 협조하는 한편, △479의 西邊에서 제6사단에 배속중인 제9연대(제11사단)와 협조하게 되었다. 이 제9연대는 이날 06.00附로 제6사단에 배속되어 제7연대의 임무를 인수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左右 兩側面의 戰況이 流動하는 가운데, 예견했던 그대로 제2대대의 정면인 △645의 背斜面에 敵 3개 대대규모가 나타났으니 그 時刻은 제16 및 제10연대의 主力이 철수한 뒤인 12.40무렵이었다.

뿐만 아니라, 제1대대의 左제1선인 제7중대의 正面으로도 1개 중대규모가 접근하였는데 이 敵은 商山里의 金城川 渡河點을 一擧에 저르려는 듯이 氣勢가 자못 거세었으므로 중대는 중대장 韓昌鳳중위의 命令一下에 火力을 집중하였다.

한편, △585의 東쪽인 靛室里 正面에서는 제3사단의 제22연대 主力을 追躡하는 2개 대대규모가 廣大谷으로 이르는 接近路를 向하여 進出을 強行하려는 氣勢를 보이므로 각 대대는

사단의 支援火力과 아울러 阻止火網을 그 頭上에 集注하였다.

사단장의 措置 : 사단장 宋堯讚 소장은 사단의 阻止線에 敵의 進出이 增強되고 있다는 부사단장 李龍 대령의 報告에 接하자, 『最大限의 出血을 強要하되, 제21연대의 兵力을 保全하는 데에 主眼을 두어, 철수의 適時를 선택하라.』고 口頭로 命令하였다.

이는 이날 13.20에 軍단의 提報로 확인된 軍단 全面的 戰況에 비추어, △585의 線에서 제21연대 主力을 早速히 철수케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 右一線이던 제16연대의 主力은 이미 敎室里쪽의 統制線을 넘어, △504를 지나고 있는 중이며, 左一線이던 제10연대의 主力도 商山里의 渡河點을 거쳐 제17번 道路를 南下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단장으로서의 제16, 제21兩연대가 主流를 이루게 될 細峴里 北쪽의 撤收路를 엄호키 위하여 제12포병단(장, 李白雨 대령)으로 하여금 각 포병대대의 隊列을 긴급히 이동케 하였다.

이에 細雲里에서 사단을 一般支援中이던 제50 포병대대(장, 金龍雲 중령)는 橋洞으로 이동하고 제75포병대대(장, 李允範 소령)는 A포대(장, 姜熙東 소위)를 비롯한 全포대를 橋洞의 南쪽으로, 제100 포병대대(장, 金魯鎭 중령)는 後洞에, 제8 重박격포중대(장, 李啓亨 대위)는 △461(橋洞의 北쪽 600m)의 西麓에 각각 放列을 펴고 火門을 열었다.

이 砲火의 엄호로 別隅地區를 거쳐 金城川을 渡河한 각 연대는 철수 時限인 15.00를 前後하여 集結地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戰況은 다시 急變하여 사단의 右側方이 또 한 차례의 危局을 맞게 되었으니, 제3사단을 跟隨하여 進出中인 1개 사단규모가 內城洞里와 黑雲吐嶺을 거쳐 白岩山(△1,179) — △1,118(白岩山 西쪽의 1km) 線으로 近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단으로서의 白岩谷의 澗洞을 앞세운 △915—△895—注坡嶺線에서 新防禦線을 急編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7월 15일(01.00~19.00) : 한편, 軍단장도 白岩山—赤根山線이 危局에 부딪치게 되자, 각 사단의 戰鬥地域을 再編하여 Wyoming線에서의 反擊을 決心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날 12.00附로 접수된 軍단作命 제6호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第8사단正面을 攻撃하고 있는 中共 제60군 제181사단을 中央으로 하여, 그 右翼인 사단左側面을 제54군 제135사단이, 左翼인 사단 右側面을 제60군 제180사단이 각각 담당하여, 注坡嶺—四方巨里로 壓縮의 求心點을 두고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② 제5사단은 7월 15일 10.30附로 제3사단의 右翼일부를 인수하라.

③ 제8사단

④ 7월 15일 10.30附로 제3사단의 左翼일부를 인수하라.

⑤ 同日 08.30附로 제6사단의 제7연대를 통합지휘하라.

㉔ 早速히 主抵抗線을 占領確保하라.

③ 제3사단은 7월 15일 附로 戰鬪地域을 제5사단 및 제8사단에 引계하고 軍단예비가 되
라.

④ 제11사단은 7월 15일 18.00까지 主抵抗線을 占領確保하라.

⑤ 제6사단은 7월 15일 08.00附로 제7연대를 제8사단에 배속시키라.』

사단장의 措置 : 이에 사단장 宋堯讚소장은 『Wyoming線이야말로 我사단의 命運을 決하
는 最後의 一線임을 명심하고 渾身奮戰하라!』고 예하 全부대에 檄하면서 要旨 다음과 같
은 사단作命 제181호를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軍단命令으로 Wyoming線에서 驕敵을 擊滅하려한다.

② 제10연대

㉔ 7월 15일 10.00까지 △895—注坡嶺을 占領 확보하라.

㉕ 同日 08.00附로 我사단에 배속되는 제7연대와 △895에서 協調하라.

③ 제16연대

㉔ 7월 15일 10.00까지 1개 대대로써 제7연대의 陣地를 인수하라.

㉕ 2개 대대는 別命이 有할 時까지 現集結地에 殘留케 하라.

④ 제21연대는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라.

⑤ 제7연대

㉔ 7월 15일 10.00까지 △915—△895를 占領確保하라.

㉕ 同日 12.00에 제16연대에 陣地를 引계하라.

⑥ 제8重박격포중대

㉔ 2개 소대로써 제10연대를 直接지원하라.

㉕ 1개 소대로써 제21연대를 直接지원하라.

⑦ 제12포병단

㉔ 7월 15일 10.00까지 四方巨里로 이동하라.

㉕ 各 1개 포병대대로써 各 연대를 直接支援하라.

㉖ 1개 포병대대로써 사단을 一般支援하되, 제10연대의 正면에 火力을 優先케 하
라.』

各연대의 配置狀況 : 軍단命令으로 제3사단의 左翼일부를 인수케 된 사단은 이날 08.00
附로 배속받은 제6사단 제7연대(장, 韓官興 대령)를 急驅시켜 △915—△895의 稜線을 확
보케 하였다.

이에 四方巨里의 集結地를 출발한 연대는 6km의 機動路를 1시간만에 走破하여 陣地를
인수하였으나, 제16연대의 제1대대에 12.00附로 陣地를 引계하고, 다시 제5사단으로 배속
이 변경됨과 동시에 白岩山奪取의 反擊任務를 수행하게 되었다. 연대의 이 反擊移轉은 軍

단의 追加命숨에 의한 긴급조치인데, 이로써 사단은 제16연대의 1개 대대를 右一線으로 하여 右인접인 제5사단과 △915에서 協調하기에 이르렀다.

제16연대는 金城川 南域에서의 제1 集結地이던 △596에서 14km를 長驅하여 下馬山洞에 再集結하고 部隊整備에 餘念이 없었는데, 사단作命 제181호로 사단의 右一線인 Wyoming 線의 일부를 1개 대대로써 인수하게 되자, 연대장 安秉健 대령은 제1대대(장, 吳衡根 중령)를 急赴케 하였다. 제1대대는 交代時限인 12.00보다 20분 빠르게 陣地에 도달하여, 白岩山南쪽의 障壁이 될 이 2.2km 길이의 稜線을 제7연대로부터 引受하였다.

제10연대는 金城川을 渡河하여 白岩洞에서 부대를 정비할 사이도 없이 △181에 主力을 배치하고 있었는데, 사단作命 제3호가 下達되자 연대장 李寬植대령은 제3대대(장, 金二洙 중령)를 右제1선으로 하여 △895에서 Wyoming 線을 連結케 하고, 제1대대(장, 金學秉 중령)를 左제1선으로 하여 △645와 注坡嶺을 담당케 하였다. 그리고 예비 兵力의 迅速한 使用을 위하여 제2대대(장, 崔泰守 소령)를 △620(注坡嶺의 東南쪽 1.3km)의 背斜面에서 집결待機케 하였다.

제21연대는 遼東地區를 철수한 뒤에 제17번 道路를 橋洞(別隅의 南쪽 3.3km)에서 要扼하며 黑雲吐嶺(△851)과 맞선 橫隔稜線(△700—△541)의 主陣地에 제2대대(장, 金溱聲 중령)를 右제1선으로 제1대대(장, 宋濟根 중령)를 左제1선으로 각각 내세우고 제1대대(장, 金鳳樓 중령)를 白岩谷에 연대예비로 控置하고 있었다.

한편, 제12 포병단장 李白雨 대령은 예하의 각대대를 四方巨里부근에 集結케 하고 다음과 같이 支援임무를 부여하였다.

제50 포병대대…제16연대를 直接支援.

제73 포병대대…제21연대를 直接支援.

제75 포병대대…제10연대를 直接支援.

제100포병대대…사단을 一般支援하되, 제10연대 正面에 火力을 優先

또한 제8 重박격포중대장 李啓亨 대위는 俗稱 옷비끼네에 중대본부를 설치하고, 제1 및 제3 兩소대를 俗稱 가실릿골으로 추진시켜 제10연대를 直接支援케 하고, 제2소대를 △428(注坡嶺의 北쪽 2km) 부근으로 내세워 제21연대를 直接支援케 하였다.

사단은 이와같이 제10연대의 正面으로 支援火力을 置重한 가운데, 金城川南域에서의 不退轉의 防禦線을 編成하고 中共 제60군의 主力과 제54군의 일부가 時時刻刻으로 加하는 重壓을 擊攘하는 한편 兵員의 銳氣와 戰列을 가다듬은 다음에 反擊으로 移轉하였다.

제3단계 : 別隅地區의 反擊戰(7월 15일 19.00~18일 08.00)

7월 14일 11.30에 指形稜線의 南緣을 비롯한 主抵抗線에서 철수하기 시작한지 滿 19시간만에 反擊의 銳鋒을 휘두르게 된 사단은 圖上距離로 3km의 너비와 17km의 거리에 巨한 失地를 恢復코자 Wyoming線을 박차고 나갔다.

그동안 戰線일대의 中天을 低迷하던 雨雲도 차차 건히기 시작하여 待望해 맞지 않았던 空軍의 近接支援도 이제는 可能하게 되었으니 사단의 前進路에는 殲滅的인 打擊과 疾風처럼 몰아붙이는 席捲만이 本作戰의 眞價를 代辯하는 것이어야만 하였다.

돌이켜 보건데, 軍단으로서의 當初부터 現防禦線인 Wyoming線까지의 철수를 계획했던 바 비록 全面的인 철수過程에서 일부正面의 喪失이 危局을 가져오기는 하였으나 全般的으로는 當初의 계획대로 成功한 철수作戰이라 봄이 妥當할 것이다.

왜냐 하면, Wyoming線의 障壁에 부딪친 敵의 進出이 鈍化되고 弱화하기 시작한 兆朕이 역력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周到綿密한 계획과 統制로써 梯次的으로 철수한 사단은 兵員과 裝備를 温存하였으므로 充分한 反擊戰力으로써 本作戰을 수행하게 되었다.

7월 15일(19.00~24.00) : 軍단作命 제6호로 戰鬪地域을 交代한 제3사단은 이날 15.00에 俗稱 웃비끼네(四方巨里의 北쪽 1.7km)에 集結하여 軍단예비가 되었으며, 제5사단(장, 張都暎 소장)은 左一線인 제27연대(장, 崔英奎 대령)로써 새로운 右인접을 이루었다.

한편, 제6사단은 제11사단에 戰鬪地域을 인계하고, Wyoming線의 일부를 찾아 하였으며, 제11사단은 右一線인 제13연대(장, 朴應奎 대령)로써 새로운 左인접을 이루었다.

사단장의 措置 : 이와 같이 反擊戰力을 정비한 軍단은 이날 19.00를 期하여 攻擊으로 移轉하였는데, 軍단장 丁一權 중장은 別隅를 포함한 그 東쪽 5km에 巨한 金城川南岸을 제8사단의 목표로 부여하였다.

이에 사단장 宋龜讚소장은 이날 15.00에 麾下 全將兵에게 『捲土重來의 反擊으로써 敵을 捕捉殲滅함과 동시에 우리의 失地를 恢復하자』라고 檄하면서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作命 제182호를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7월 15일 19.00를 期하여 攻擊으로 移轉하려 한다.

② 제21연대는 黑雲吐嶺과 461高地를 奪取하라.

③ 제10연대

㉠ 2개 대대로써 제21연대의 陣地를 인수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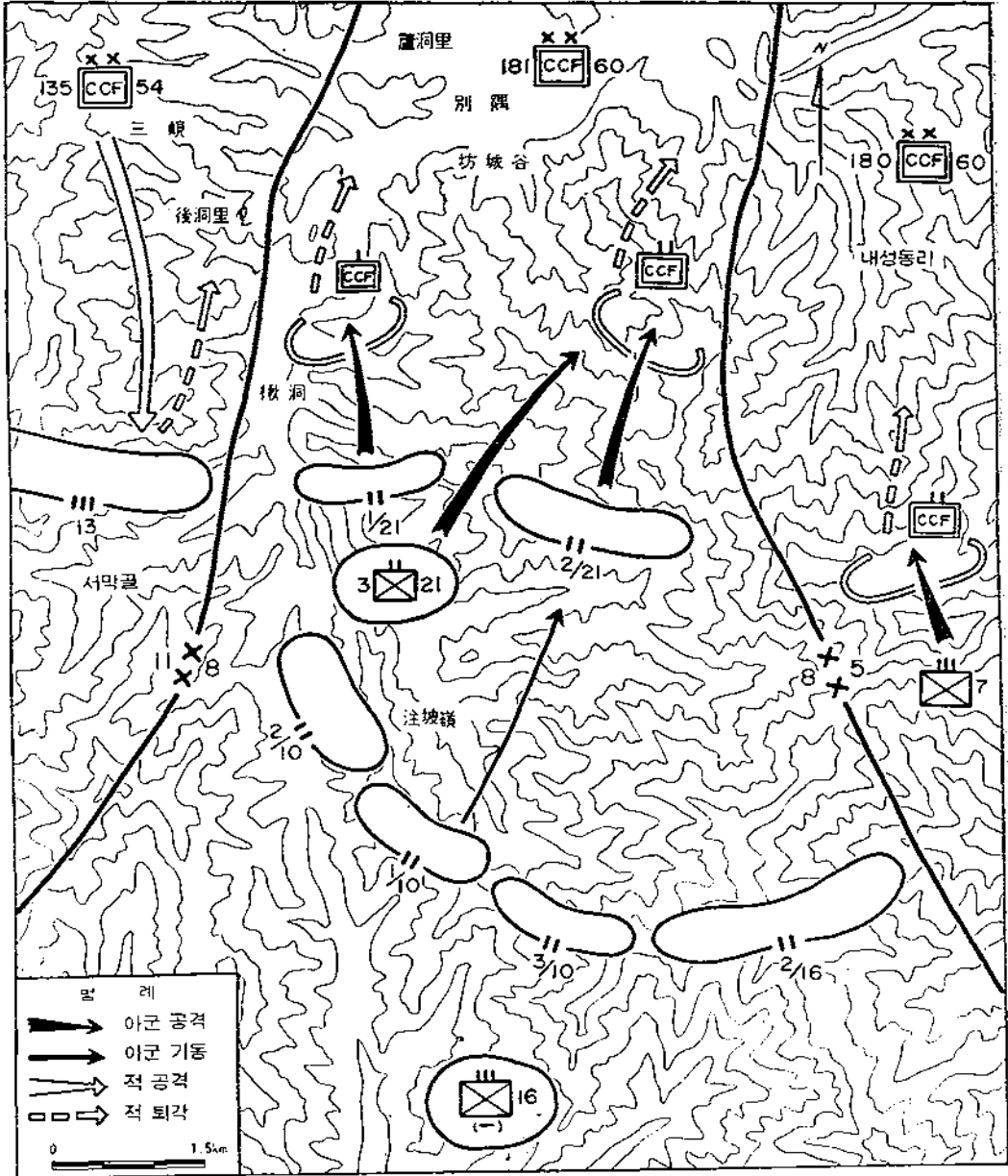
㉡ 1개 대대로써 Wyoming線의 左翼을 계속 방어하라.

④ 제16연대는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라.

⑤ 제12포병단은 사단을 一般支援중인 火力으로써 제21연대의 直接支援을 強化하라.

⑥ 其他部隊는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라.』

상황도 제67호 別隔地區의 反擊戰 (其一)



제21연대의 戰況 : 反擊의 先鋒으로 나서게된 제21연대는 攻擊開始時間인 19.00까지의 4 시간 동안에 敵情을 수색한 결과, 右제1선의 목표인 黑雲吐嶺(△851)에 1개 大隊 규모가 있고, 左제1선의 목표인 △461에는 1개 中隊 규모가 추진되어 있는 것으로 推斷하였다.

이에, 연대장 成正模 대령은 要旨 다음과 같은 연대作命으로써 각 대대의 임무를 부여하였다.

- 『① 연대는 黑雲吐嶺 및 461高地를 奪取하며 한다.
 ② 제3대대는 黑雲吐嶺을 奪取하라.
 ③ 제1대대는 461高地를 奪取하라.
 ④ 제2대대는 제3대대를 支援하며, 목표의 南側面을 衝擊하라.』

연대장의 意圖는 2개 대대로서 黑雲吐嶺을 主攻하고 1개 대대로서 橋洞北쪽의 △461를 助攻하려는 것이었다.

18.30에 支援砲火가 目標線上에 炸裂하는 가운데, 예비 集結地인 東幕谷을 출발한 제3대대(장, 金鳳棲 중령)는 黑雲吐嶺의 西側面으로 進出하였다.

急編陣地에서 抵抗하는 敵 1개 중대규모를 一蹴한 대대는 22.00에 西쪽 稜線의 一角을 占領하고 頂上을 指呼之間에 두게 되었다.

한편, 제2대대는 제10연대의 제1대대(장, 金學東 소령)에 陣地를 인계하고, 高地의 正南쪽을 衝擊하기 시작하였는데 대대장 金濼聲 중령은 제6중대(장, 朴正秀 중위)로써 제3대대를 支援케 하고, 제5중대(장, 白文午 중위) 및 제7중대(장, 韓昌鳳 중위)로써 攻擊제1선에 내세웠으나 敵의 火力으로 因하여 攻擊開始線을 통과할 때부터 難濫한 前進을 거듭하였다.

이 正面은 緩斜面이기 때문에 登攀은 容易하나, 曲射火力이 집중된 탓인지 兩중대는 무수한 追擊砲彈을 받았다.

제5중대의 陣頭에서 下半身に 破片傷을 입은 중대장 白文午 중위는 瀕死의 重傷에도 不拘하고 계속 지휘하다가 마침내는 失神하고 말았다.

火器중대(장, 金榮徹 대위)의 제2소대장 嚴載虎 소위는 2개 機關銃班을 직접지휘하여 兩중대를 掩护하다가 역시 破片傷을 입어 流血이 狼藉한 가운데서도 屈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血路를 開拓하면서 步一步 肉迫한 대대는 23.00에 8부稜線을 占領하여, 遮蔽 陣地를 急編하면서 跳盪의 機會를 노리게 되었다.

한편, 연대의 左제1선에서 제10연대의 제2대대(장, 崔泰守 소령)에 陣地를 인계하고 △461를 목표로 攻擊開始線을 通過한 제1대대(장, 宋濟根 중령)는 제2중대(장, 朴長年 대위) 및 제3중대(장, 郭永敦 중위)를 攻擊 제1선에 내세워 鎧袖一觸의 氣勢로 20.30에 목표를 占領하였다.

제10연대의 戰況 : 제10연대는 제21연대의 反擊發起와 더불어 △541의 東西로 橫隔을 이루고 있는 陣地를 引受하여, 反擊의 뒷받침을 하게 되었는데, 연대장 李寬植 대령은 제3대대(장, 金二洙 중령)로 하여금 Wyoming線의 主陣地에 殘留케 하고, 제1대대(장, 金學東 소령)로 하여금 제21연대 제2대대의 陣地를 인수케 하였으며, 제2대대(장, 崔泰守 소령)로 하여금, 제21연대 제1대대의 陣地를 인수케 하였다.

이에, 이날 17.30에 行動을 개시한 兩대대는 白岩谷의 機動路를 北上하여 각각 障地를 인수함과 동시에 防壁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이와같이 제21연대의 主障地에 제10연대의 主力을 前進배치케한 것은 앞으로의 反擊基線을 확보함과 동시에 豫想되는 敵의 逆攻에 대한 對備인 것이었다.

7월 16일 : 사단의 反擊제2일인 이날의 戰線은 攻防이 얽힌 가운데 流動的인 樣相을 띠었다.

즉, 예상대로 敵은 여러 곳에서 逆攻의 醜鋒을 내밀어, 사단의 反擊을 積極的으로 阻止하려는 氣勢를 나타내므로 사단은 反擊과 迎擊을 連擊하면서 △570(黑雲吐嶺의 北쪽 2km) —坊城洞線까지 進一步하였다.

사단장의 措置 : 사단장 宋堯謨 소장은 전날 19.00부터의 戰況이 순조롭게 進展되고 있음에 비추어 反擊이 期必코 成功되리라는 自信을 더욱 굳혀 攻擊을 強化키로 決心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作命 제183호(7월 16일 12.00附)를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反擊威勢를 強化하려 한다.

② 제16연대

㉠ 主力으로써 △760를 占領하라.

㉡ 7월 16일 13.00에 工兵 1개 소대와 제1戰車중대의 2개 소대를 統合指揮하라.

③ 제21연대

㉠ 主力으로써 △625 및 △596를 奪取하라.

㉡ 7월 16일 13.00에 工兵 1개 소대와 제1 및 제3 兩戰車중대의 각 1개소대를 統合指揮하라.

④ 제10연대는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라.

⑤ 제461重박격포대대의 제4중대는 7월 16일 13.00부터 제16연대를 直接支援하라.

⑥ 제1戰車중대

㉠ 7월 16일 13.00에 1개 소대를 제16연대에 배속시키라.

㉡ 同日時附로 1개 소대를 제21연대에 배속시키라.

⑦ 제3戰車중대는 7월 16일 13.00에 1개 소대를 제21연대에 배속시키라.

⑧ 사단 工兵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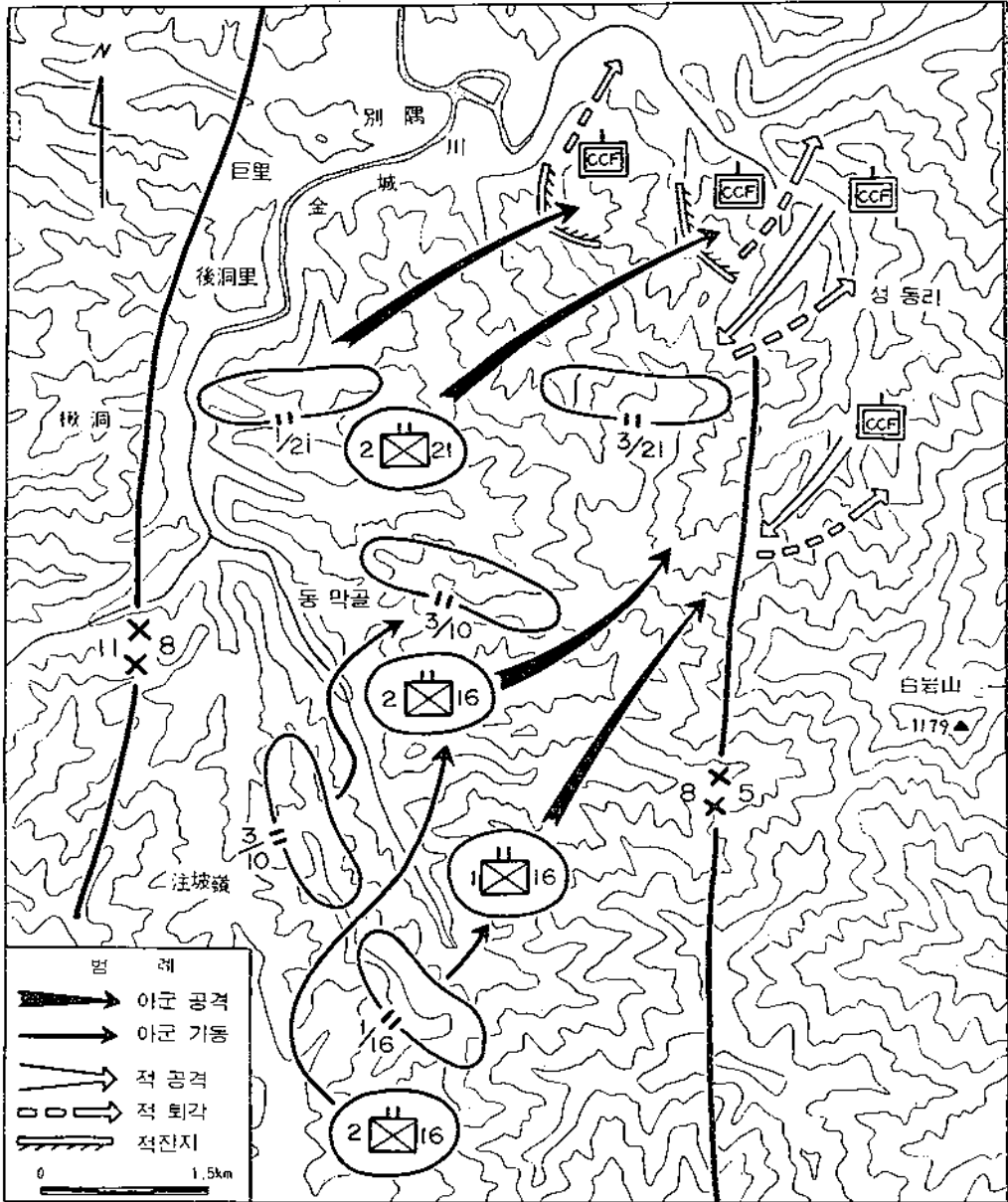
㉠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라.

㉡ 7월 16일 13.00에 각 1개 소대를 각 연대에 배속시키라.』

이 사단作命의 要旨를 보건대, 白岩山—△1118까지 進出한 敵이 사단의 右側面을 衝擊할 것으로 예상되는 戰況의 착잡한 流動에 대비하여, 제16연대의 主力으로써 △760의 要部를 先制하려는 것이며, 別隅를 向한 사단正面에 있어서는 제21연대의 前進線을 이 一帶의 嚴制高地인 黑雲吐嶺 넘어로 超越시킴으로써 敵에게 逆攻의 발판을 許하지 않으려는 積極的

인 反擊企圖임이 分明하였다.

상항도 제68호 別隅地區의 反擊戰 (其二)



제16연대의 戰況 : 연대장 安秉健 대령은 연대 OP를 △625(白岩谷의 東쪽 1.4km)로 추진시킴과 동시에 제1대대(장, 吳衡根 중령)를 右제1선에, 제3대대(장, 朴斗成 중령)를 左

제1선에 각각 내세우고, 제2대대(장, 李秀春 중령)를 예비로 白岩谷(注坡嶺의 東北쪽 2km)에 집결시켰다.

이에, 제1대대는 Wyoming線의 主陣地를 떠나, 攻擊목표인 △760의 正南쪽으로 進出하였다.

左제1선인 제3대대는 연대의 集結地에서 △760의 西南쪽으로 銳鋒을 휘두르게 되었는데 이미 △1118—△760의 有利한 瞰制線에 陣地를 急編하고 있는 敵의 抵抗은 自動火力이 軸을 이루어 頑強하였다.

때문에 兩대대의 攻擊제1선은 목표의 7부稜線과 8부稜線에서 一進一退의 近接戰을 거듭한 끝에 이날 23.00에 일단 攻擊을 멈추고, 다음 날인 17일의 黎明을 期하여 決戰을 再起키로 하였다.

제21연대의 戰況 : 전날 23.00에 黑雲吐嶺의 8부稜線에서 일단 遮蔽陣地를 急編하였던 제2대대의 主力은 射擊戰으로써 一夜를 보내고, 이날 05.00를 期하여 다시 攻擊하기 시작하였다. 黎明이 山頂을 浮刻시키는 가운데 精確한 支撥火力이 炸裂하는 敵陣을 向하여 一意突貫한 제5 및 제6 兩중대는 血路를 뚫고 마침내 高地頂上의 主陣地를 유린하였으니 그 刻時은 06.00이었다.

朝光이 눈부신 이 時刻에 제3대대도 西斜面으로 一舉에 跳躍하여, 제9중대(장, 金永俊 대위)로 하여금, 敗敵을 跟隨케 하니, 중대의 最先鋒인 제1소대(장, 車正煥 소위)는 숨들릴 사이도 없이 急進한 끝에 屍身 32具를 확인하고 俘虜 3명을 사로잡는 戰果를 거두었다.

이로써 연대는 黑雲吐嶺의 有利한 瞰制線을 확보하고 사단작命 제183호의 임무를 수행케 되었는데, 연대장 成正模 대령은 제3대대로써 黑雲吐嶺을 固守케 하고, 제1 및 제2 兩대대를 계속 前進케 하였다.

黑雲吐嶺에 1개 대대를 殘留시킨 까닭은 反擊이 進展됨에 따라 연대의 側線이 延伸되기 때문에 이 黑雲吐嶺의 瞰制線에서 掩護하려는 것이었다.

사실, 제1 및 제2 兩대대가 목표를 攻擊하는 동안에 延 1개 대대규모의 敵이 이 側面으로 楔入하려는 逆攻을 企圖하였는데, 제3대대는 제9 및 제10兩중대를 防禦 제1선으로 하여 이 敵을 네차페에 걸쳐 擊退하였다.

한편, 연대의 右제1선이 되어, △625를 向한 제2대대(장, 金燦聲 중령)는 제6중대(장, 朴正秀 중위)를 先鋒으로 하여 突進을 거듭하였다.

제6중대는 전날의 黑雲吐嶺 攻擊時에 제3대대를 火力支撥하였는데, 이날은 대대의 血路를 제1선에서 打開해 나갔다. 중대의 先陣이 된 제1소대는 소대장 河東培 소위의 怒號下에 全員一丸이 되어 火線을 뚫었는데, 특히 9부稜線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自動火器의 特火點을 擊破할 때에는 5人組의 特攻隊가 肉迫하였다. 이 特攻隊를 직접지휘하던 河東培 소위는 右耳後部에 破片傷을 입어 鮮血을 뿌렸다.

또한, 제2소대장 대리인 姜永春 상사는 頂上으로 통하는 交通線에 뛰어들자 M1소총을 亂射하면서 突貫한 끝에 射殺 6명의 個人戰果를 올렸으며, 李鍾五 일등중사가 지휘하는 제3소대의 선임하사인 劉永寬 하사는 手榴彈과 白刃擊鬪로써 血路의 一角을 穿貫하였다.

이와같이 一氣呵成의 直衝을 敢行한 대대는 이날 19.00에 △625를 奪取하고 제5, 제7 兩중대로써 敵의 逆襲에 대비하는 前斜面陣地를 急編케 하여 金城川을 1.5km의 前方에 바라보는 線에서 銳氣를 가다듬었다.

한편, 연대의 左제1선인 제1대대의 공격목표는 제2대대의 進出을 後面에서 받쳐주는 要關이기 때문에 戰車 2개 소대의 集中支援을 받으면서 急進展하였다.

즉, 제1대대의 攻擊목표인 △596는 黑雲吐嶺과 △461의 사이에 縱隔稜線을 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대의 反擊前進을 遮障하는 分水嶺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제1대대의 攻擊을 早速히 성공시키지 못하면, 제2대대의 前進이 後面으로부터 위협받게 되리라고 판단한 연대장 成正模 대령은 이날 13.00에 배속받은 戰車 2개 소대로 하여금, 제1대대를 支援케 하였다.

이에 제1戰車중대(장, 王南洙 대위)의 제2소대(장, 金泰龍 소위)와 제3戰車중대(장, 具玉緒 대위)의 제1소대(장, 黃圭鎭 소위)는 橋洞을 지나 △461의 南麓을 迂廻한 다음 △596를 800~900m의 東北쪽으로 바라보는 路面에서 일제히 砲門을 열었다.

이 8門의 直射火力의 支援下에 攻擊을 發起한 제1대대는 제2중대(장, 朴長年 대위) 및 제3중대(장, 郭永敦 대위)를 攻擊 제1선으로 내세워, 高地의 西斜面을 直突한 끝에 敵의 主陣地를 유린하였으니, 그 時刻은 薄暮의 그들이 山마루를 덮어가는 무렵이었다.

이로써 연대는 이날 20.00에 △625—△596線에서 反擊 제2일의 進出線을 굳히고 緊張의 一夜를 새웠으나 敵은 5회에 걸쳐 1개 소대 또는 1개 중대규모는 逆襲을 거듭하였을뿐, 『7.13攻勢』의 威力은 이미 衰殘되어 버린 感이 짙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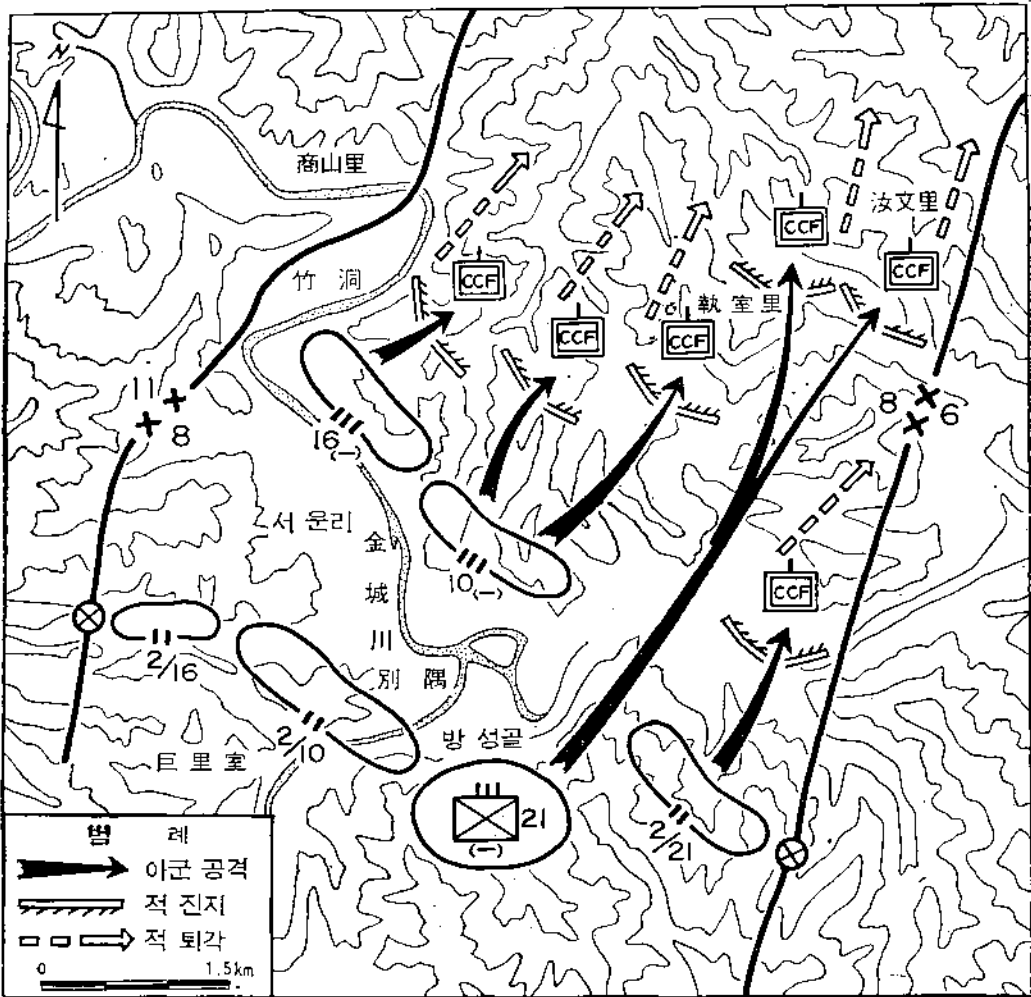
7월 17일 : 反擊 제3일인 이날, 사단의 進出은 騎虎之勢로 展開되었다.

즉, 각 연대의 快進擊은 물론이러니와, 美제5空軍 및 韓國空軍의 延 15개 編隊가 敵의 退路를 掩擊하고 美제5 및 제12 兩포병단의 砲門이 일제히 咆哮하는등 反擊作戰은 金城川 邊으로 壓縮되면서 驚天動地의 殘滅戰을 演出하였다.

이날 06.00 현재의 軍단의 進出線을 一瞥컨대, 사단의 右인접인 제5사단은 舊堡里—外城洞里線에서 進擊의 발판을 굳히고 있으며, 左인접인 제11사단은 秋洞—△793(赤根山)의 北쪽 1.2km)線에서 三峴地區를 바라보고 있었으므로 軍단은 反擊을 發起한지 3일만에 金城川을 目睫에 둔 셈이었다.

또한, 中共 제20兵團의 抵抗力이 이미 衰退하여, 그 阻止線을 金城川의 北岸으로 移設할 것이라고 판단한 軍단장 丁一權중장은 軍단作命 제7호로써 각 사단에 命命하되 『潰走하는 敵을 追跡하여 殘滅的인 打擊을 加함과 동시에 金城川을 초월攻擊하라』고 하였으니,

상황도 제69호 別隅地區의 反擊戰 (其三)



이제 제5, 제8, 제11의 3개 사단은 舊堡里—外城洞里—△625—△596—秋洞—△793線에서 일제히 雪嶺의 干戈를 휘두르게 되었다.

사단장의 措置 : 이에 사단장 宋堯讚 소장은 사단作命 제184호로서 각 연대의 임무를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 『① 사단은 敵을 驅逐하면서 金城川 넘어 對岸으로 肉迫하려 한다.
- ② 제10연대는 7월 17일 20.00까지 목표 (다) (라)를 奪取하라.
- ③ 제16연대는 同日時附로 목표 (마)를 奪取하라.
- ④ 제21연대는 同日時附로 목표(가)(나)를 奪取하라.』

여기에 각 연대別로 부여된 공격목표는 金城川을 2~2.5km에 위치한 連峰인데, 제21연대의 攻擊목표인 (가)(나)는 靛室里의 東쪽에 連立하여 汝文里를 制하는 要部이며, 제10

연대의 攻擊목표인 (다)(라)는 鞞室里的 西南쪽에서 別隔地區를 擁固하는 要關이고, 제16 연대의 攻擊목표인 △479는 竹洞의 계17번 道路를 嚴制하는 要所이다.

한편, 軍단의 요청으로 사단을 支援하게 된 美제5 및 제12포병단은 다음과 같이 火力을 配定하였다.

제12포병단의 제73대대……제10연대를 直接支援.

제12포병단의 제75대대……제16연대를 直接支援.

제12포병단의 제50대대……제21연대를 直接支援.

美제5포병단의 제100대대……사단을 一般支援.

美제5포병단의 제987대대……군단을 一般支援.

제21연대의 戰況 : 사단의 右一線이 되어, 목표 (가) (나)를 奪取하게 된 연대는 이날 05.00에 제1 및 제3 兩대대로서 主攻을 發起케 하고, 제2대대로서 △362(金城川의 바로 兩岸)까지 進出케 하였다.

이 △362는 金城川을 사이에 두고, △472와 맞서 있으므로 연대主力이 渡河하는 동안에 掩護하기에 最適의 要部이었다. 그러므로 제2대대장 金燦聲 중령은 제5 및 제6 兩중대를 先進케 하여, 1개 소대규모의 抵抗을 가볍게 一蹴하면서 同高地의 2개 連峰에 火線을 急編하였다.

黑雲吐嶺에서 敵의 逆攻을 阻止해온 제3대대(장, 金鳳棲 중령)는 右인접인 제35연대(장 朴昌源 대령)가 제5사단의 左一線이 되어 進出線을 北上시켰기 때문에 敵의 側方衝擊을 우려할 필요없이 主攻의 右제1선이 되었다.

또한 △596에서 進出하기 시작한 主攻의 左제1선인 제1대대도 廣大谷의 金城川邊을 向하였다.

그런데, 兩대대의 進路에는 △570가 巒立하여 있으므로 敵의 抵抗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개 중대가 殘存할 뿐, 兩대대는 枯葉을 휘몰아치는 一陣의 疾風처럼, 敗敵을 跟隨하면서 廣大谷의 金城川邊을 초월하였다.

그러나, 近接航空支援과 火力支援의 집중에 危懼하였음인지 그들의 저항이 兩대대의 猛進은 막아내지 못하였으나 목표 (가)(나)의 背斜面을 橫流하는 溪間에 도달하였을 때, 그들의 曲射火力에 부딪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自動小火器의 두터운 十字火網 때문에 兩대대는 釘着된 進出線에서 近接航空支援을 긴급 요청하였다.

그로부터 25분이 지난 16.00에 美제5공군소속의 F-86 2개 편대가 機銃掃射와 Napalm 彈을 加하는 동안, 攻擊 제1선의 4개 중대가 急驅 突進하였는데 목표 (나)의 7부稜線에서 제3대대장 金鳳棲중령이 右大腿部에 貫通傷을 입고 부대대장인 林世奎 대위에게 대대지휘를 인계하였으며, 제11중대의 선임장교인 蔡成律 중위는 火器중대(장, 李元桂 대위)의 機關

銃소대를 직접지휘하다가 부상하였다.

또한 제10중대의 제3소대장인 蘇日錫 소위는 對空布板을 업고 先進하던 제2분대장 孫相鎬 일등중사가 重傷으로 쓰러지자, 自身の 등에 對空布板을 메는 刹那에 迫擊砲의 至近彈으로 左腕을 잃고 失神하였다.

한편, 제1대대의 彈藥소대장인 黃榮濟 소위는 2개 분대를 직접지휘하여 火器중대와 함께 前進하고 있었는데, 迫擊砲彈으로 流血이 狼藉한 가운데 陣歿하였으며, 제3중대(장, 郭永敦 중위)의 제1소대장인 崔仁浩 소위는 3명의 特攻組를 이끌고 特火點으로 肉迫하다가 右手에 手榴彈을 굳게 쥔채 壯烈한 最後를 마쳤다.

연대의 主力은 이와 같이 高貴한 犧牲을 치루면서 血路를 打開하여, 19.30에 목표(가)(나)의 頂上으로 殺到하였다.

제10연대의 戰況: 15일에 제21연대의 主陣地이던 △541의 稜線을 인수하고, Wyoming 線의 前壁을 굳히고 있던 제10연대는 이날 04.00부터 機動하여 제3대대(장, 金二洙 중령)을 坊城洞에 控置하고 제1대대(장, 金學東 소령)와 제2대대(장, 崔泰守 소령)로서 목표(다)(라)를 奪取케 하였다.

연대는 金城川邊인 坊城洞에서 攻擊隊形을 갖출 때까지 敵兵의 직접 抵抗을 전혀 받지 않았으나 다만 間歇的으로 砲彈이 紛飛할 뿐이었다. 전 날에 제21연대의 제1대대가 △596를 奪取한 뒤에, 敵은 이미 夜陰을 타고, 金城川의 北岸으로 철수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別隔地區를 손쉽게 恢復한 연대는 工兵部隊의 支援으로 3개所의 渡河點을 초월함과 동시에 목표(다)를 向하는 제1대대를 右제1선으로, 목표(라)를 겨냥하는 제2대대를 左제1선으로 각각 展開하였다.

목표에 이르기까지의 前進路에 △414의 一峰이 있으나, 예상외로 1개 중대규모의 輕微한 銃擊을 받았을 뿐, 그 北쪽으로 縱隔을 이룬 接近路를 세차게 進擊하였다.

그러나, 목표(다)(라)는 각기 △604 및 △625의 雙峰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背斜面의 火網이 甚密히 협조될 地形이었다. 果然, 敵의 抵抗은 頑強하였으며 △414에서 V字型으로 갈라진 두 줄기의 接近路는 순식간에 濛濛한 硝煙으로 뒤덮히고 말았다.

兩대대는 無수히 紛飛하는 鐵塊속을 꿰뚫고, 一意 前進하였다. 매마침 戰場의 上空에 銀翼을 번쩍이면서 敵의 散兵壕를 猛打하는 公軍 2개 編隊의 近接支援을 받는 가운데, 攻擊제1선은 步一步 血路를 밝아 나갔다.

특히 목표(라)를 향한 제2대대는 急傾斜를 이룬 7부稜線에서 不勵한 희생을 치루었는데 제5중대(장, 申容華 중위)의 제3소대장인 朴泰峰 소위가 소대의 突進을 叱號하다가 陣頭에서 散華하였으며, 제7중대장인 鄭珪源 대위가 下腹部에 重傷을 입어 선임장교인 金德淳 중위에게 지휘를 인계하고, 제3소대장인 李勝兆 소위가 BAR의 목표를 지시하던 次에 直擊彈의 破片으로 鮮血을 뿌리고 말았다.

또한, 제6중대(장, 朴宗相 대위)의 선임장교인 尹鳳元 중위는 火器소대를 직접지휘하여 特火點을 제압하다가 右肩部에 致命傷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대대장 崔泰守 소령마저 박격포의 至近彈으로 重傷을 입었으므로 부대대장인 尹根世 대위가 지휘를 이어 받았다.

이러한 損失이 거듭되는 가운데서도 대대의 제1선은 突進을 거듭하였는데, 제7중대 제3소대의 火焰放射器射手인 金元述 상병은 소대장 李勝兆 소위의 壯烈한 最後모습을 목격하자 『소대장님의 원수는 내가 갚겠다』하고 외치면서, 自動火器의 掩體壕에 單身으로 肉迫하여 焦熱의 火焰을 퍼부었다.

한편, 목표(마)를 攻擊하는 제1대대도 대대장 金學東 소령이 破片傷을 입고 제3중대(장, 金炫國 대위)의 제1소대장인 張基夔 소위가 陣歿하는 가운데 敵의 最後阻止射擊을 뚫고 나갔다.

이와같이 연대의 攻擊主力이 2개 목표를 놓고 血戰을 거듭하는 동안, 支援砲擊은 물론, 近接航空支援이 熾盛하여, 頑強히 抵抗하던 1개 대대규모의 敵도 마침내는 潰散하고 말았으니 그 時刻은 이날 20.00를 갓넘긴 무렵이었다.

제16연대의 戰況: 연대는 전날의 23.00에 △760의 8부稜線에서 攻擊을 일단 멈추고, 이날 拂曉와 더불어 頂上을 奪取하려고 干戈를 가다듬고 있었는데, 右인접인 제5사단의 反擊이 奏効하여 白岩山—△1, 118線의 敵이 潰退하였으므로, 이날 05.00에 無血로 高地를 장악한 다음, 사단作命 제184호로 機動하기 시작하였다.

別隅地區의 以南은 이미 恢復되어 있으므로 연대는 平穩裡에 巨里窟의 金城川을 渡河하여 網峴里에 集結한 다음 목표(마)에 대한 攻擊隊形을 갖추었다.

이 △479는 특히 竹洞의 제17번 道路를 制扼하는 要部임으로, 敵으로서도 頑強히 抵抗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1개 중대규모의 輕微한 火線에 부딪쳤을 뿐, 攻擊제1선인 제2대대(장, 李秀春 중령)와 제3대대(장, 朴斗成 중령)의 主力은 可謂 一氣呵成으로 이날 19.00에 高地의 頂上을 찾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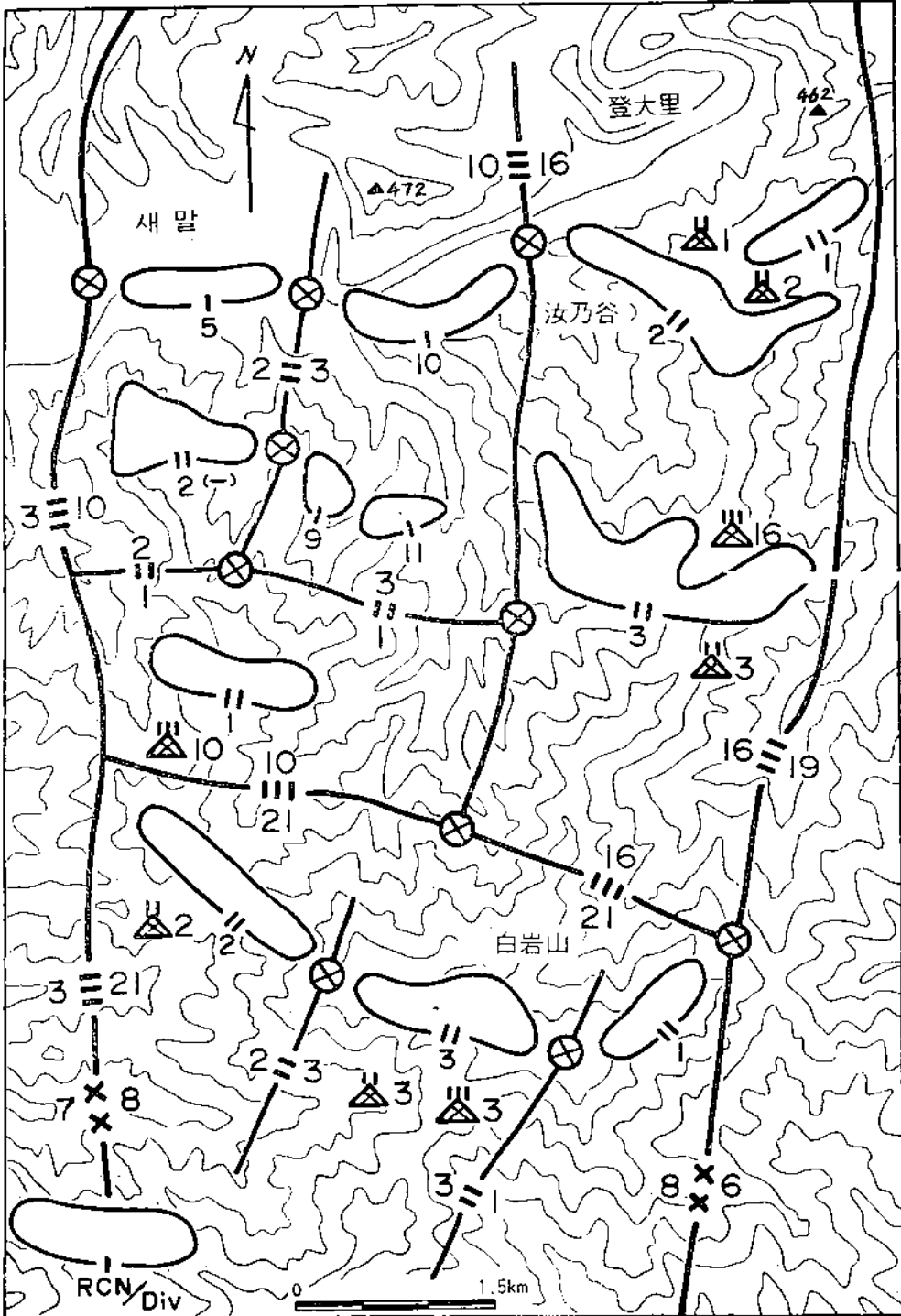
이와같이 破竹之勢로 金城川을 초월한 사단은 18일 08.00 현재 轅室里—竹洞線에서 進出線을 확보하고 敵의 逆攻에 대비하였는데, 돌이켜 보면, 7월 13일 20.00 以前에 확보하였던 松實里—指形稜線—△720의 主抵抗線까지 4km나 남겨놓고는 있으나 撤收時에 겪어야만 하였던 온갖 困辱과 痛憤의 一端이나마 이 反擊의 痛快한 一戰으로써 雪冤할 수 있었던 것은 제8사단이 남긴 마지막 戰鬪의 보람이라 할 것이다.

라. 전투후의 개황

그러나, 사단은 이 進出線에서 다시 물러나야만 하였다.

왜냐하면, 군단의 主抵抗線이 現軍事分界線인 金城川南岸으로 確定되었 기 때문이었다.

상황도 제70호 戰鬪後の 配置狀況



각 연대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되돌아섰는데, 군단은 각 사단의 배치롤 크게 바꾸어 休戰에 臨하게 되었다.

즉, 19일 12.00附로 군단左翼인 제5사단을 군단에비로 移轉케 함과 동시에 제6사단으로서 제5사단의 戰鬪地域을 인수케 하고 20일 04.00附로 제7사단(장, 金容培 소장)을 군단左翼인 제11사단의 右인 점으로 增強시켰다.

이로써 군단은 제5, 제8, 제7, 제11의 4개 사단으로써 休戰直前의 主抵抗線을 굳혔는데, 제8사단은 제6사단의 左翼 일부를 인수함과 동시에 제7사단에 사단의 左一線일부를 인계하게 되었다.

이에 사단장 宋堯讚 소장은 사단命令 제185호(7월 20일 12.00附)로서 각연대의 防守임무를 부여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군단命令으로서 戰鬪地域線의 일부를 變更하고 主抵抗線을 방어하려 한다.

② 제10연대

㉞ 사단의 左一線이 되어, 7월 21일 04.00까지 左제1선의 일부를 제7사단 제3연대에 인계하라.

㉟ 同日 19.00까지 제16연대의 左제1선의 일부를 인수하라.

③ 제16연대

㉞ 사단의 右一線이 되어, 7월 21일 19.00까지 左제1선의 일부를 제10연대에 인계하라.

㉟ 同日 04.00까지 제6사단 제19연대의 左제1선의 일부를 인수하라.

④ 제21연대

㉞ 사단에비가 되어, 7월 21일 04.00까지 左제1선의 일부를 제7사단 제3연대에 인계하라.

㉟ 同日 19.00까지 제6사단 제19연대의 左제1선의 일부를 인수하라.』

이로써 각 연대는 金城川을 넘어오는 즉시로 각기 戰鬪地域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연대별로 그 배치상황을 概觀하면 다음과 같다.

제16연대……사단의 右一線이 된 연대는 OP를 △819에 설치하고, 舊堡里—汝乃谷間의 主抵抗線의 右제1선에 제1대대를, 左제1선에 제2대대를 내세웠으며, 長財—△819—外城洞里的 綫에 제3대대를 연대에비로 控置하였다.

제10연대……사단의 左一線이 된 연대는 OP를 黑雲吐嶺(△851)에 설치하고 汝乃谷—坊城谷間의 主抵抗線에 제3대대를 右제1선으로, 제2대대를 左제1선으로 각각 내세우었으며 黑雲吐嶺에 제1대대를 연대에비로 控置시켰다.

제21연대……사단에비가 된 연대는 首洞嶺에 OP를 설치하고 白岩山과 △1,118에 대대間의 協調點을 설정하여 右제1선에 제1대대를, 中央제1선에 제3대대를, 左제1선에 제2대대를 각각 배치함으로써 예비陣地를 編成하였다.

嗚呼痛哉라, 祖國의 疆域을 삼키려던 붉은 侵略의 무리들을 쳐부수기 위하여 수많은 목숨과 限量없는 鮮血을 뿌리면서 싸워야만 하였던 3년간의 血戰이 어찌하여 이 金城川의 南岸에서 매듭지어졌던가!

이름뿐인 休戰의 風霜이 이미 4半世紀를 넘긴 오늘 金城川도 말없는恨을 歷史에 呼訴하며 제8사단의 戰歷을 그리워 하리라!

§. 參戰者의 證言

◇ 제8사단장 宋堯讚 소장

(1964. 11. 27 自宅에서, 예 증장)

美陸軍大學으로 留學머나기 直前에 美제8군 사령관인 Taylor 대장의 호출로 다시 前線에 나가게 됐는데, 제8사단을 맡고 보니 참으로 어려운 고비라는 것을 直感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당시, 高級指揮官이면 누구나 中共軍의 大攻勢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는 있었지만 休戰 協商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드는 무렵에 이처럼 熾烈한 大攻勢를 제2군단의 정면에만 집중하리라고는 미처 알지 못했다.

中共軍이 <7.13 攻勢>로 노린 것은 한 마디로 全域의 바로 턱밑까지 올려내민 제2군단의 主抵抗線을 꺾아 내리면서 白岩山—赤根山線까

지 進出한 다음에 그 餘勢를 몰아, 華川까지를 攻略하려는 것이 아니었던가 본다.

내가 지휘했던 제8사단이 잘 싸웠다가 보다는 사단 相互間에 서로 협조해서 撤收線조정이라든지 反擊의 步調같은 것이 左右로 잘 連繫되었고 美제8군의 積極的인 火力支援등으로 白岩山—赤根山線의 北쪽인 金城川邊에서 현재의 軍事分界線을 굳히게 되었던 것이다.

이 決戰은 내가 指揮官으로 있으면서 가장 어렵게 치른 戰鬪였다.

왜냐 하면 첫째로는 彼我間의 兵力이 6대 1이 나 되는 格差때문에 始終 그 壓倒的인 人海戰術과 싸워야 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인접 사단이 물러나면, 제8사단도 물러나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로는 金城川이 있기 때문이었는데 이 自然障壁物은 오히려 反擊時에 我軍에게 有利한 要件으로 變했다.

7월 15일에 反擊하기 시작하여 金城川을 초월하기까지 거의 無人之境으로 進擊할 수 있었던 것도 이 金城川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즉, 中共 제20兵團의 主力은 이미 金城川을 넘어올 때에 頹勢를 꺾지 못한데다가 反擊時에 我軍의 砲支援과 航空支援이 너무나 熾烈했기 때문에 사전에 金城川넘어로 그 主戰部隊를 철수 시켰기 때문이다.

이 때에 中共軍이 金城南域을 固執하여 決戰을 試圖했다면, 我軍은 아마 韓國戰爭 最大의 屠戮戰을 敢行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제16연대장 安秉健 대령

(1976. 11. 12 韓永工業株式會社에서,

예 대령)

참으로 어려운 고비였다. 主抵抗線이 언제 깨질지도 모르는 危急한 상황인데도 예비兵力을 投入할 수 없는 指揮官의 괴롭고 애타는 心情은 經驗없이 實感할 수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예비兵力이 있어면서도 使用할 수가 없을 때엔 應下指揮官들의 不信까지도 받기 쉬운 것인데, 7월 13일과 14일의 이틀간에 걸친 나의 處境가 바로 그것이었다. 사단장의 命令으로는 제10연대의 主力을 兪호해야 하고, 대대장의 요청으로는 즉각 내보내야 하는 이 고비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다.

즉, 사단全體를 생각하여, 예비인 제2대대를 예비陣地에 固着시켜, 제10연대主力의 철수를 兪호하고, 梯次的인 사단의 철수계획에 차질을 가져와서는 안된다는 決心이었다.

多幸히도 나의 이러한 決心을 제1, 제3兩대대장이 잘 이해하여 조금도 차질없는 철수作戰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後의 作戰도 순조로울 수가 있었던 것이다.

◇ 제10연대장 李寬植 대령

(1976. 11. 8 自宅에서, 예 대령)

연대의 主抵抗線은 急斜面을 등에 업은데다가 주요한 3개 봉을 담당했기 때문에 3개 대대를 모두 방어제1선에 내세울 수 밖에 없었다. 참으로 힘겨운 防禦戰이었다. 그러나, 연대將兵들은 한말자국이라도 물러서면 낭패러지로 구를 수밖에 없다해서 決死的인 戰鬪를 치루면서 陣地를 固守하였다.

연대장인 나로서는 部下들의 목숨을 한 사람이라도 더 救해주고 싶은 心情으로, 그리고 時時刻刻으로 增強되는 中共軍의 壓力을 한치라도 더 불리치기 위해, 사단장의 苦衷을 짐작하면서도 예비兵力의 增援을 요청했던 것인데 사단은 나를 激勵하면서 全般的인 戰況이 철수를 면치 못하게 했으니,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것이었다.

◇ 제21연대장 成正模 대령

(1976. 11. 9 自宅에서 예 대령)

우리 연대는 別隅地區의 反擊時에 始終 先鋒이 되었는데, 생각하면 이 戰鬪에서 우리 연대는 興味로운 임무를 담당했었다. 遼東地區를 철수할 때에는 제10, 제16兩연대의 철수를 兪호하면서 사단의 後尾가 되어 金城川을 넘어왔는데, 反擊할 때에는 맨 先頭에서 金城川을 넘어갔었고, 다시 넘어와서 休戰線 때까지의 主抵抗線을 占領할 때에는 다시 사단의 예비가 되어, 뒤로 처지게 됐으니, 縱橫無盡으로 戰鬪한 셈이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戰場心理란 妙한 것이어서 철수할 때에는 金城川이 크게 障壁가 되더니 反擊할 때에는 金城川아! 저세게 물러다오 하고 중얼대기도 했다. 왜냐하면 氣靈脈盡한 中共軍의 大兵力을 한 놈이라도 더 때려잡자는 心

算이 앞서기 때문이었다.

사실, 우리가 反擊을 시작했을 때, 中共軍은 그 主力을 밤사이에 빼버린 것이 틀림 없었다.

§ 戰 訓

사단의 戰鬪詳報 및 參戰者의 證言과 戰鬪經過의 概要를 종합하여 本戰鬪의 戰訓을 抽出한 때, 한마디로 잘 싸운 撤收作戰이라 해도 適言은 아닐 것이다. 大抵, 大兵力의 철수는 흔히 지휘계통의 마비, 戰線離脫, 規制없는 潰走, 裝備의 亡失, 戰場心理의 虛脫, 敗北意識의 支亂 등으로 철수에 이은 反擊移轉이 挫折되기 쉬운 것인데 사단은 本戰鬪에서 始終一貫하여 反擊을 계획한 철수作戰을 行함으로써 모든 惡條件과 逆境을 成功으로 克服하였다. 이에 곡증과 피로 얻은 戰訓 몇가지를 抄錄코자 한다.

(1) 周到綿密한 철수계획

사단장 宋登讚 소장의 證言에도 실려진 바와 같이, 사단은 周到綿密한 철수계획으로써 각 연대의 철수梯隊를 整然하게 유지하였다.

부사단장 李龍 대령이 사단에 버인 제21연대의 OP로 急進하여, 직접지휘한 것도 이 때문이었는데, 각 연대別로 철수間의 일부를 規制함으로써 部隊의 無秩序한 分散과 兵員의 無斷離脫을 豫防한 것이 本作戰의 成功要因의 하나가 되었다.

(2) 適切한 兵力運用

本戰鬪의 始初에 있어서 사단의 예비이던 제21연대를 反擊時의 先鋒으로 내세운 兵力運用이 適切하였다. 왜냐하면 反擊을 前提로 하는 撤收作戰이었기 때문에 兵員을 溫存하는 의미에서 제21연대를 철수後에도 사단에 버리로 控置하였다가 反擊의 主力으로 내세운 것이었다.

§ 研 究

(1) 中共 제67군예하 각 연대장의 名單

本戰鬪의 敵主戰部隊인 제67군예하의 각 연대장 名單을 수집한 바, 다음과 같이 밝혀졌으나 그 대부분이 흠으로만 表記되어 있으므로, 本文의 敵軍序列에는 이를 省略하였다.

제595연대장 張小良, 제596연대장 두후칭
제597연대장 초 차, 제598연대장 조연평

이들은 아마 金城川을 강벽삼아 그 北岸에서 막아보자는 계획이었을 것이다.

(3) 機敏한 敵情判斷

反擊을 發起함에 있어, 敵의 縱深이 伸張되고 兵員의 損失을 막심하게 입고 있는 敵의 戰鬪能力을 機敏하게 판단하여 아무 주저없이 사단의 主力을 일제히 投入한 指揮官의 決心이 時宜를 얻어 破竹之勢의 達擊을 可能케 하였던 것이다.

(4) 反擊時의 側面掩護

攻擊時에는 全兵力을 攻堅梯隊에 集中部署한 이 定石이었으나 豫想되는 敵의 側方 威脅으로부터 保護하기 위하여 本戰鬪의 反擊단계에 있어서 黑雲吐嶺의 北쪽으로 進出線을 延伸하면서 △760일대에 제16연대를 배치하여 敵의 側方衝擊을 排除케 한 指揮措置는 後顧之念을 덜게 한 것이었다.

(5) 指揮官의 毅然한 指揮姿勢

(사단 戰鬪詳報의 原文引用)

『특히 사단장은 박격포탄이 炸裂하고, 敵의 尖兵이 침투하는 地域에서도 不動의 陣頭姿勢를 보였고, 부사단장은 철수의 惡호부대를 지휘하면서도 敵의 包圍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연대장級이하의 各급 지휘관도 직접 手擲彈戰을 서슴치 않은 近接戰에서 언제나 陣頭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 句節은 사단의 戰鬪詳報에 收錄된 戰訓을 要約한 것인데, 我引水格이라고 보아 넘기기 보다는 本戰鬪가 始終整然한 指揮下에 遂行된 點으로 미루어 어느 程度의 事實을 傳하는 것이라 보아도 無妨할 것이다.

제599연대장 張봉취, 제600연대장 張聖世
제601연대장 梁신린, 제602연대장 만리포
제603연대장 수 훈

(2) 本戰鬪名에 관하여

本戰鬪名을 「金城東南地區의 戰鬪」로 붙인 이유를 밝혀 둔다.

되나 하면, 이 戰鬪名은 어느 일면에서는誇張된 感이 없지 않다.

즉, 제2군단의 전투지역에 해당되는 이 地域名을 1개 사단에만 붙이는 것은 以小易大의 誤謬를 犯케 될지 모르겠으나, 金城이라는 戰略要地를 意識하면서 本戰鬪를 詳考컨대, 제17번 道路의 要域인 別隔地區의 防者였다는 點에서 크게 반축할지는 않을 것이라고 思料된다.

또한, 該期間중에 이른바 「7.13攻勢」로 因하여 戰線을 조정하였던 제2군단이하의 각 사단의 戰鬪名에서 「金城地名」이 引用되지 않았기 때문에 本戰鬪名에서나마 이 戰略要地를 對象으로 하는 것이 無妨하리라 생각된다.

즉, 該期間중에 각 사단이 수행한 戰鬪名(本卷에 收錄)은 제5사단이 白岩山附近戰鬪, 제3사단이 汝文里附近戰鬪, 제6사단이 轎岩山地區戰鬪, 제11사단이 注坡嶺附近戰鬪(一名, 三峴地區戰鬪) 등인데 本戰鬪地域의 地理的인 印象을 강조하는 뜻에서 「金城東南地區」라고 밝힌 것이다.

(3) 期間中の 氣象이 미친 影響

제2군단의 戰鬪詳報에 記錄된 바로는 期間中の 氣象을 我軍의 地上爆擊과 近接航空支援에 막대한 제한을 주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즉, 7월이면 夏期季節風이 濕氣찬 熱帶性氣流를 동반함으로써 曇天이 계속되고 비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로 이 期間中에는 長時間에 걸친 降雨로 因하여 觀測 제한이 적지 않았으며, 때로는 1哩~3哩경도로 줄어드는 수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특히 山岳路의 徒步行軍과 보급추진도 곤란을 겪어야만 했는데 이 難點은 敵에게도 돌아가는 영향이었다.

그리고, 金城川 및 溪澗의 増水는 彼我的 機動에 커다란 障害가 되었다.

(4) 戰鬪地域內的 重要한 地形이 미친 影響

사단의 戰鬪地域을 중심으로 제2군단의 戰鬪地域內的 重要한 地形을 摘要컨대, 我軍으로서 는 △690—轎岩山을 連하는 稜線, △867—白岩山을 連하는 稜線, 赤根山, 그리고 北漢江과 金城川을 들수가 있고, 敵으로서는 △663—△747를 連하는 稜線, △903—△973—△949를 連하는 稜線, △1,065—△1,219—魚隱山을 連하는 稜線

등을 들게 되는데, 그 모두가 彼我間에 觀測과 防禦의 利點을 안겨준 것이었다.

특히, 사단의 主抵抗線이던 △663—△690—轎岩山(제6사단의 右側1선)의 稜線은 防者에 利로운 橫隔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火力計劃으로 線防禦를 完結함으로써 敵에게 甚大한 出血을 強要할 수도 있었는데, 左右인접의 감작스러운 철수로 因하여, 이 天然의 防壁을 버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다.

(5) 別隔地區의 作戰에 미치는 重要性

本文에서 言及한바 있지만, 本戰鬪에서 彼我間에 攻防의 結末은 別隔地區를 중심으로한 現軍事分界線으로 歸着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 地域에서의 要衝인 別隔地區를 休戰線의 복판으로 남겨 놓은 것으로 干戈를 거둔 것이었다.

別隔地區는 作戰上으로 重要한 두 갈래의 接近路가 合流하는 求心點이며, 金城에서 華川으로 이르는 제17번 道路上的 關門이다.

즉, 金城에서 南下하는 線, 北漢江邊의 △529에서 西走하는 線이 交叉되어 注坡嶺과 四方巨里로 南行하는 幹線의 한 매듭이었다.

(6) 제7연대의 배속변경

제5사단의 제7연대가 軍단作命 제6호(52.7.15 12.00附)로 사단에 배속된 것은 不過 4시간에 지나지 않았다.

白岩山—赤根山線에서 反擊으로 移轉할 무렵에 겪었던 部隊運用이 얼마나 緊迫性的의 忒우고 있었던가를 窺知할 수 있는 好例의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제7연대가 白岩山을 攻擊하기 위하여 다시 제5사단으로 배속이 변경된 사실은 是認되나 이 攻擊任務를 下達한 作命上에 若干의 혼동이 빚어지고 있다.

즉, 제8사단의 사단作命에서도 이 任務가 부여되었고, 제5사단의 사단作命에도 同一한 任務가 부여되었다. 軍단의 作命으로 취해진 조치임에는 틀림없으나, 白岩山이 제5사단의 戰鬪地域內에 있는 이상, 제8사단장이 白岩山을 奪取하라는 攻擊命을 내렸다면 統帥의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8사단의 사단作命에 기록된 이 부분을 本文에서 削除하였다.

10. 金城 西南側地區 戰鬪(1953년 7월 13일 부터 // // 15일 까지)

(一名, 首都사단의 Missouri線 撤收戰)

참조 : 별책부도 제17, 18호

상 황 도 제71~77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美 제9군단 장	중장	Reuben E. Jenkins	대리 중위 黃 明 根 (7. 14부터)
首都사단	장 준장	崔 昌 彦 (4. 25부터)	제1기갑연대 장 대령 陸 根 洙 (7. 14戰死)
제1연대	장 대령	崔 世 寅 (4. 26부터)	대리 중령 元 商 鎬 (7. 14부터)
제1대대	장 중령	李 鍾 綠	제1대대 장 중령 尹 興 禎 (1. 5부터)
제2대대	장 중령	金 榮 吉	제2대대 장 중령 朴 基 濬
제3대대	장 중령	朴 贊 兢	제3대대 장 소령 李 俊 和 (4. 6부터) · (7. 14戰死)
연대(제21)수색중대	장	대위 李 鍾 甲	대리 대위 李 萬 浩 (7. 14부터)
제26연대	장 대령	殷 碩 杓 (4. 26부터)	연대(제20)수색 중대 장 대위 吳 順 九
제1대대	장 소령	韓 敏 錫 (5. 10부터)	사단수색중대 장 대위 崔 周 鳳
제2대대	장 중령	韓 錦 昌 (4. 6부터)	사단포병단 장 대령 李 鎰 鍊
제3대대	장 중령	林 完 植 (5. 12부터) · (7. 14戰死)	제10포병대대 장 중령 金 千 根 (7. 14戰死)
	대리 대위	李 用 鎰 (7. 14부터)	중령 金 永 三 (7. 16부터)
연대(제53)수색중대	장	대위 曺 漢 吉 (7. 14戰死)	제60포병대대 장 중령 申 鶴 進
			제61포병대대 장 중령 金 水 山

제92포병대대 장 중령 康 大 廈
(155mm曲射砲)
사단重砲(제107重박격포)중대 장
대위 尹 永 旼
사단공병대대 장 중령 崔 憲 熙
배속부대
제59전차중대 장 대위 金 玉 培
지원부대
美 제3사단 제15연대(Greece대대배속)
美 제555포병대대
美 제674포병대대

美 제937포병(155mm)대대(一)
美 제955포병(155mm)대대
美 제424포병(8")대대 1개 포대
美 제82포병대대 探照燈 중대 1개반
인접부대
右인접; 제6사단장 소장 白 仁 燁
제11사단장 준장 林 富 澤
(7.15 제6사단과 교대)
左인접; 제9사단장 준장 李 翰 林
병력 및 장비; T/O 및 T/E 充足

敵 軍

中共 제68군(군단) 장 邱 蔚
제202(사단) 장 陳 坊 仁
제604, 제605, 제606단(연대) 基幹
제203사 장 楊 棟 樑
제607, 제608, 제609단 基幹
제204사 장 曹 玉 清
제610, 제611, 제612단 基幹
제24군 장 饒 守 坤

제72사 장 康 林
제214, 제215, 제216단 基幹
제74사 장 肅 選 進
제220, 제221, 제222단 基幹
제54군 장 李 化 民
제135사 장 韋 統 泰
제403, 제404, 제405단 基幹

나. 전투전의 개황

首都사단(장, 崔昌彦 준장)은 지난해 8월~10월 사이에 제2군단(장, 劉載興 중장)의 中隊으로서, 「首都高地」와 「指形稜線」에서 武名을 다시 한번 떨치고, 年末에 美 제9군단(장, Reuben E. Jenkins 중장)의 右翼이 되어, 金城 西南쪽인 九龍里—下所里의 戰線으로 轉進하였음은 前卷에서 既述하였거니와, 사단이 이제 이 金城 西南側 地區의 전선에서 中共軍과 局地的 爭奪戰을 벌이다가 7월 13일에 이른바 敵의 「7.13 攻勢」에서 中共 제68군(장, 邱蔚)의 집중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間榛峴—芳洞線으로 물러나, 7월 27일에 休戰을 맞게 되는데, 本節에서는 이 「7.13 攻勢」에서 사단이 主抵抗線인 Missouri 線에서 오늘날의 休戰線까지 물러나는 撤收 過程을 取扱하였다.

따라서, 이는 戰爭 기간중 사단의 最後의 決戰이 되는 것이며, 그야말로 猛虎가 豺狼의 大群을 만나 衆寡不敵으로 苦戰한 局面이라 할 것인바, 大抵 理必然이요, 事必至라 하였으니 敵의 攻勢가 休戰을 앞둔 彼我攻防의 作戰概念에서 빚어진 必然의 理致로 본다면 이같은 사단의 立場은 大勢의 推移에 따른 必至의 事實로 보아야 할 것이다.

敵의 狀況: 사단은 당초 當面의 戰線에서 中共 제67군(장, 馬龍)과 對陣케 된 것인데, 이 제67군은 지난해 11월 초에 「首都고지」 및 「指形稜線」의 戰場에서 사단과 爭奪이 잦았던 그들 제12군(장 僧紹山)과 交代하여 이 전선에 나선 것으로 判明된 것이었다.

이 가운데 제199사단이 사단의 右一線 정면을 주로 담당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는데, 同사단은 제595, 제596, 제597의 3개연대중 2개 연대를 일선에 내세우고, 1개 연대를 예비로 삼았던 것인바, 사단의 右翼인 제6사단(장, 白仁燁 소장)의 左一線 정면에는 그들 左翼인 제200사단이, 그리고 사단의 左一線 연대 正面에는 그들 右翼인 제24군의 제72사단 1개 연대가 담당중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7.13 攻勢」가 있기 전까지, 사단의 敵情判斷으로서는 同 제199사단이 제597연대를 예비로 하고, 제595연대의 제596연대로써 사단의 右一線 정면에, 그리고 그 西쪽으로 제72사단의 제216연대가 사단의 左一線 정면에 各各 배치된 것으로 보았던 것이며, 이때 洗浦里 南쪽에 새로이 推進된 제54군(장, 李化民)의 일부가 이 제67군을 지원 가능 하다고 豫想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7.13 攻勢」가 시작된 뒤에 敵의 捕虜陳述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것이지만——6월 末에 敵은 이미 攻勢를 위하여 全般的인 戰列再編을 斷行한 것이었으니, 사단 正面에서는 제67군이 모두 제2군단의 正面으로 돌려지고, 제68군이 새로이 登場케 된 것이었다.

이 제68군은 1951년 10월에 「斷腸의 絞線」 西쪽 魚隱山 정면을 北傀 제5군단과 交代하여 支撐하던중 1953년 3월에 洗浦里에 예비로 빠져, 蘇聯式 장비로 武裝을 바꾸고 훈련을 강화하여 그 面貌를 一新한 다음, 이해 6월 중순에 그간 제2군단과의 爭奪에서 損失이 많았던 제60군과 제67군의 戰線一部를 담당함으로써 北漢江 東西岸을 맡고 있다가, 6월 말에 西쪽으로 轉進하여 사단 正面에 이른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제67군은 東쪽으로 그 담당 정면을 좁혀 北漢江 西岸의 轆岩山 정면에 집중케 된 것인듯 하였는데 이때 同 제68군의 지원부대로 注目된 제54군(제150, 제134, 제135사단)의 제8군 戰鬪序列上 부대 경력은 대개 어려하였다.

이는 廣東 駐留의 제44, 제45 兩군이 통합 개편된 것으로서, 제44군의 主力은 中共本土 해군 陸戰隊로 전환되고, 그 일부인 제130사단이 제45군의 제133, 제134, 제135사단 가운데 제134, 제135 兩사단과 함께 제54군으로 개편을 본 것인데, 이때 同 제45군의 제133사단은 이미 제46군을 따라 먼저 1951년 8월에 이 戰爭에 參加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同 제54군은 이해 1월 중순에 廣東을 떠나 列車便으로 鴨綠江을 건너 平北 鐵山에 접절한 다음, 4개월여 후방진지 공사에 從事 하다가 6월에 新高山으로 移動하여, 6월 末에 다시 金城 西쪽으로 推進된 것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攻勢를 위한 布石의 一環으로 敵의 全般的인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當面의 제68군은 제202사단을 예비로 하고 사단의 右一線에 제203사단(장, 楊棟樑)과 제204사단(장, 曹玉滿)을 공격 主力으로 전개 하였으며, 그 東쪽의 제6사단 左一線 정면에는 이미 제54군의 일부가 投入되어 隊伍를 같이 할 준비를 갖추었는데, 사단의 左一線 정면에서는 제24군의 제72사단이 그대로 인듯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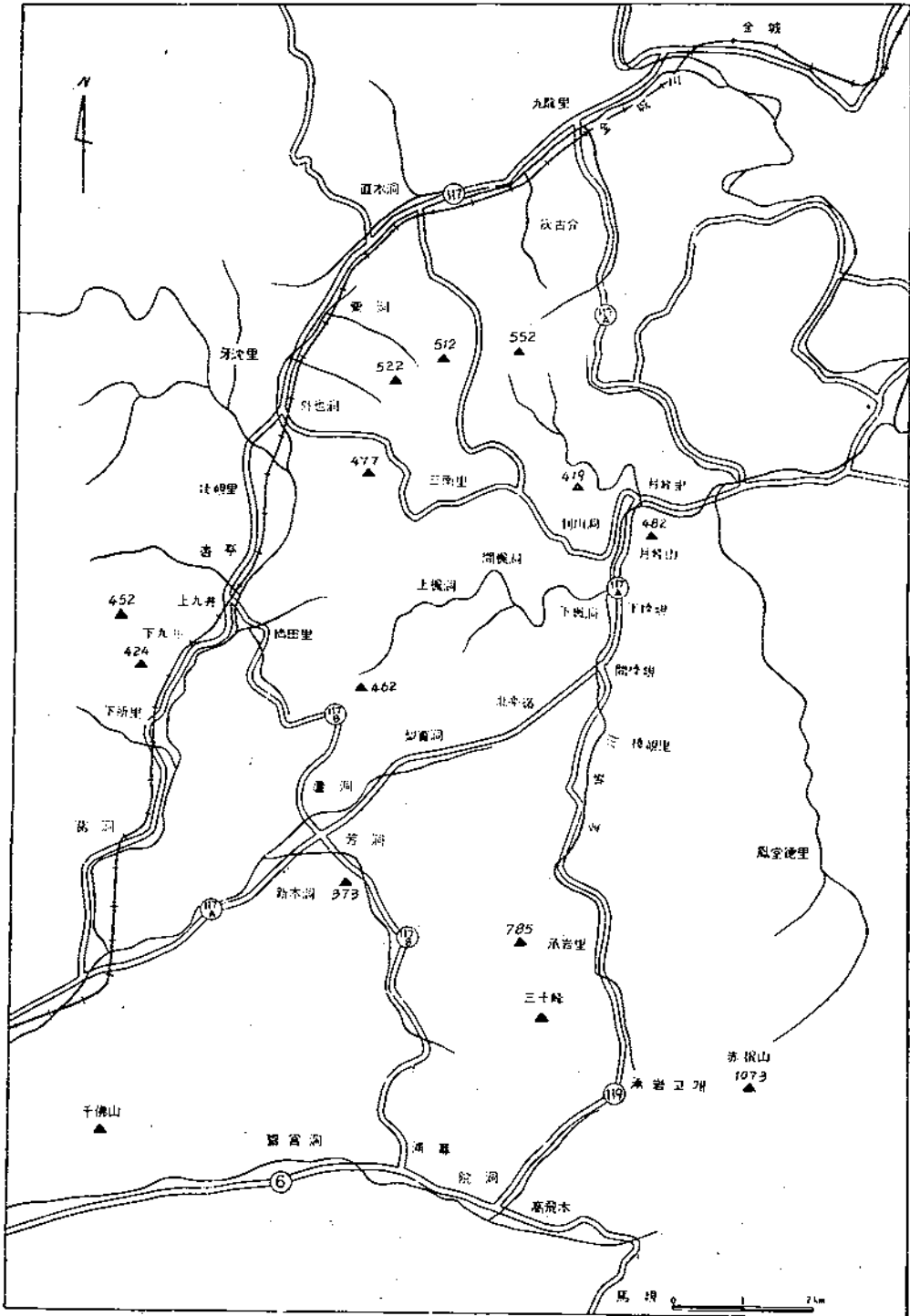
따라서 이제 사단은 新參으로서 綏氣에 차 있을 제54군 일부의 支援下에, 再編으로 그 또한 氣勢가 드높을 제68군과 全面으로 雌雄을 決하게 될 셈이었다.

我軍의 狀況 : 사단은 지난해 10월 末에 美 제1군단의 예비로 轉換되었다가 12월에 제9사단(장, 金點坤 준장)의 전지 일부를 인수함으로써 새로이 美 제9군단의 右翼이 되었는데, 金城—金化로 西南向한 金剛線 電線과 이에 平行하는 117번 도로를 사이에 두고, 그 南쪽의 右一線(九龍里—佳峴里)에 제26연대를, 左一線(佳峴里—下所里)에 제1연대를 各各 部署하고 기갑연대를 浦幕(속칭 보토목; 齋宮洞 東쪽 1.5km)에 控置하였다.

이때 사단의 CP는 齋宮洞에, 제1연대의 CP는 芳洞(齋宮洞 北쪽 4.5km) 東南쪽 1km에, 그리고 제26연대의 CP는 利川洞(芳洞 東北쪽 5km)에 各各 두었는데, 예비인 기갑연대 CP는 그 主力과 함께 浦幕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사단은 「首都고지」 전투때에 사단을 지원한 바 있는 제6야전포병단(제60, 제61포병대대)을 배속 하였다가 사단포병인 제10포병대대와 배속 제92포병대대(155mm)를 통합하여 사단포병단으로서 지휘케 되었는데, 이로써 사단은 제59전차중대를 배속하는 가운데 獨自로 105mm 3개 대대와 155mm

◇ 上 황도 제71호 首都사단 지역 道路網圖



1개 대대의 완전전성인 포병을 運用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또 군단에서 美 제674포병대대와 제937포병(155mm)대대(一) 및 제955포병(155mm)대대 그리고 제424포병(8")대대 1개 포대의 화력이 지원됨으로써 이제 사단은 105mm 3개 대대, 155mm 3개대대 그리고 8" 1개포대 및 M-36 전차 1개 중대를 活用하게 되어, 그 어느때 보다도 강력한火力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포병의 機動에 따르는 道路網을 살펴보면, 金化에서 南大川을 따라 東北上하여 金城에 이르는 117번 도로와, 이 117번 도로상의 望所(金化 東北쪽 3km)에서 서서히 東北으로 뻗어, 北亭嶺(所望 東北쪽 7km)을 넘어 間榛峴(北亭嶺 東쪽 1.2km) 삼거리에서 다시 北으로 곧장 올라 九龍里에서 117번 도로와 맞부딪치는 117번 A道路가 있으며, 그리고 金化에서 齋宮洞을 거쳐 華川으로 東南 向하는 6번 도로가 있는 바, 이 3개의 도로가 사단지역을 縱橫으로 區劃하고 있었다.

즉, 117번 도로는 主抵抗線을, 117번 A道路와 6번 도로는 主補給路를 各各 제공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橫軸인 6번 도로와 117번 A도로 사이에는 東으로 院洞(齋宮洞 東쪽 2.5km)에서 間榛峴 삼거리에 이르는 119번 도로와 그리고 浦幕에서 芳洞을 거쳐, 117번 도로의 上九井(佳峴里 南쪽 1.3km)으로 향하는 117번 B道가 縱軸을 이루고 있었는데, 119번도로는 間榛峴에서 113번 A도로와 이어지는 바, 이 院洞-間榛峴-九龍里의 도로가 사단의 右接境線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間榛峴-月峰里(間榛峴 北쪽 2.2km)間的 117번 A道路에 沿하여 포대를 집중적으로 放列케 됨으로써 機動에 제한을 받는 취약점을 안게 되었다.

이와 같은 狀況下에 다시 한번 前線을 一瞥하면, 右一線에서는 直木洞(九龍里 西南쪽 3km)에서 東北으로 흘러 金城 南쪽의 金城川에 合流되는 그 支流와 栗洞(直木洞 西南쪽 1.8km)에서 西南으로 흘러 佳峴里 부근에 이르러 南大川의 本流와 合流되는 갈래가 弧形의 계곡을 이루고 있는데, 이 계곡을 따라 117번 도로와 金剛線 電鐵이 놓여 있고, 그 兩岸에는 350~450m의 稜線이 마주 보고 있어, 이 稜線에서 彼我が 對陣한 형세였다. 그리고 左一線에서는 佳峴里에서 계속 西南向하여 金化에 이르는 南大川 西岸의 高地群에 — 西쪽으로 「狙擊稜線」과 連한 — 진지를 점령한 셈이라, 이 南大川으로 달미암아 背水의 陣을 친 입장이었다.

따라서 사단은 防禦의 重點을 항상 左一線 正면에 두었는데, 可能的 포화력으로써 이를 補強하였던 것이다.

이런 까닭에서인지 期間中 이 左一線에 대한 敵의 爭奪企圖는 그리 대수롭지 않았던 반면, 오히려 右一線에서 몇차례 間歇的인 敵의 공격이 있었는데, 4월과 5월에 「번개고지」(栗洞 東南쪽 500m 표고 430m 정도)와 「새빛고지」(直木洞 南쪽 1km, 표고 470m 정도)에서 대대 乃至 연대 규모의 敵이 이를 攻奪코자 하다가 出血만 보게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右一線에서는 대체로 敵의 爭奪의 焦點이 直木洞-栗洞正面 — 그 中央一線 대대정면 — 으로 集約 되었는데, 그 右一線 대대 정면은 彼我的 接境線인 117번도로 兩側의 稜線은 傾斜가 완하고 계곡이 깊은 탓으로 攻者의 敵前接近이 서로 어려웠던 것이며, 또 左一線 대대 정면에는 佳峴里 부근의 南大川 合流點 일대의 개활지가 서로의 陣前에 넓게 깔려 있어 그 또한 踏躓가 容易치 않았던 것이다. 다만 이 直木洞과 栗洞 정면에서만이 金城川과 南大川 支流의 分水嶺으로써 左右의 稜線이 완만한 뿐 아니라 계곡이 깊지 않아 攻擊路를 쉽게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니, 이런 側面에서 敵의 공격이 이 正面에 집중되는 것은 理所當然한 것이었다.

따라서 右一線 연대에서는 이 中央 정면에 대한 敵의 집중공격에 特段의 配慮를 要하게 되었는데, 이동안 사단의 지휘체계에 적지 않는 變動이 있었다.

즉, 4월 25일에 사단장 宋堯讚 소장이 陸本으로 轉出되고 渡美留學(步校)後 귀국한 崔昌彦 대령이 준장으로 進級과 同時 사단장 職을 繼承케 되었으며, 부사단장에는 5월 5일에 林益淳 대령을 새로이 赴任하였다. 또한 제1연대장 朴春植 대령도 4월 26일에 陸軍大學에 入校하고, 그 후일에 사단

참모장인 崔世寅 대령이 補任 되었으며, 제26연대에서도 연대장 鄭 燾 대령이 1월 5일에 陸本으로 전출되고, 1월 8일에 金泰圭 대령이 그 뒤를 이었다가 4월 26일에 다시 崔世寅 대령의 후임으로 참모장에 轉補되고, 前 제17연대장인 殷碩約 대령이 새로이 연대장이 된 것이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사단이 최초 이 戰線을 담당하였을 당시, 사단장 宋堯讚 소장의 부대운용에 대한 基本方針(作命 제165호, 52. 12. 6. 07.00부)의 概念은 대체로 이러하였다.

『① 사단은 2개 연대를 左右일선으로, 1개 연대를 예비로 하여 Missouri線을 防禦한다.

② 右一線 연대는 九龍里—佳峴里에 이르는 117번 道路 南쪽 진지를 담당하되, 3개 대대 一線併列로 한다.

예비연대에서 1개 대대를 배속하여 그 예비로 삼는다. 단, 이 예비대의 사용에는 사단장의 承認을 要한다.

③ 左一線 연대는 南大川 西岸의 진지를 담당하되 2개 대대를 제1선에, 그리고 1개 대대는 예비로 확보한다.

사단 수색중대를 배속하여 南大川 東岸에 제2선 진지의 확보를 要한다.

④ 예비연대는 1개 대대를 右一線 연대에 배속한다.

1개 대대는 항상 사단예비로 연대지휘소 부근에서 待機한다.

1개 대대는 공병대대와 KSC의 協力을 얻어 MSR 補修 및 후방진지공사를 專擧케 한다.

⑤ 포병단은 輕砲(105mm) 각 1개 대대로써 左右一線 연대를 직접 지원한다.

殘餘대대는 사단의 一般支援에 任한다.

⑥ 공병대대는 각 1개 중대로써 左右一線 연대를 지원한다.

⑦ 전차중대는 2개 소대로써 左一線을, 1개 소대로써 右一線을 지원하되, 1개 소대는 항상 예비로 확보함을 要한다.

⑧ 重砲(4.2"박격포)중대는 1개 소대로써 右一線을, 2개 소대로써 左一線을 직접 지원한다.

⑨ 各 연대의 임무는 2개월마다 循環交代 한다.』

이에 따라, 사단은 이해 1월 19일(作命 제166호; 1.17. 09.00부)에 먼저 右一線인 제26연대와 예비인 기갑연대의 임무를 서로 바꾸게 한 다음, 이어 3월 17일(作命 제167호; 3. 7. 15.00부)에는 左一線인 제1연대와 예비인 제26연대를 交代케 하였다.

4월 26일에 宋堯讚 소장의 뒤를 이어 사단을 지휘케 된 崔昌彦 준장도 당초의 이 概念을 堅持하여, 5월 17일(作命 제168호; 5.10. 12.00부)에 다시 右一線인 기갑연대를 예비

로 뽑아 돌리고, 예비인 제1연대를 새로이 右一線으로 充用하였다.

이에 제1연대(장, 崔世寅 대령)는 지휘소를 利川洞에 開設하고 배속된 기갑연대 제3대대(장, 李俊和 소령)를 예비로 확보하는 가운데, 제2대대(장, 金榮吉 중령)를 右一線으로 삼아 九龍里 南쪽의 117번 A도로를 基線으로하여 西쪽으로 △467(直木洞 東南쪽 1km) 까지를, 제1대대(장, 李鍾緣 중령)를 中央一線으로 삼아 「셋별고지」와 「번개고지」 일대를, 그리고 제3대대(장, 朴贊兢 중령)를 左一線으로 삼아 外也洞(栗洞 西南쪽 1km) - 佳峴里 間을 각각 담당케 하였다.

이때 各 대대의 지휘소와 OP는 예비진지線인 Iceland線에 두었는데 제2대대는 △552(直木洞 東南쪽 2.5km)에, 제1대대는 △512(△552 西쪽 1.1km)에, 그리고 제3대대는 △477(△512 西南쪽 2km)에 두었다. 연대는 또 예비인 기갑연대 제3대대로 하여금 中央一線인 제1대대의 OP(△512) 南麓에서 대기케 하되, 그 가운데 제10중대를 뽑아서 右一線인 제2대대에 배속조치 함으로써 同 대대의 예비로 활용케 하였으며, 연대 수색중대를 同대대 OP(△552) 南麓으로 推進하여 연대에비로 대기케 하였다.

이 무렵 사단의 左一線인 제26연대(장, 殷碩杓 대령)에서는 제1대대(장, 韓敏錫 소령)에 연대 수색중대를 배속시켜 이를 右一線으로 삼아, 佳峴里 西쪽 △347에서 △452(△347 西南쪽 2km) 까지를 담당케 하고, 제3대대(장, 林完植 중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그 南쪽 葛洞(△452 南쪽 3km) 까지를 맡게 하는데, 제1대대의 OP는 △452 東北쪽 500m의 「象牙峰」에, 그리고 제3대대의 OP는 下所里 부근에 位置하였다. 이때 제2대대(장, 韓錦昌 중령)는 예비로서 사단 수색중대를 배속하여 主力은 南大川 西岸 下九井 부근으로 추진하고 제7중대로써 사단 수색중대와 함께 南大川 東岸에 제2선을 확보케 하였는데 그 OP는 △453(△477 南쪽 2km)에 위치하였다.

한편 예비인 기갑연대(一)(장, 陸根洙 대령)는 제1대대(장, 尹興禎 중령)로써 MSR 整備와 후방진지 공사를 실시토록 하는 가운데 제2대대(장, 朴基淳 중령)를 浦幕의 연대 부근에 控置하여 訓練에 任하게 하였다.

이런 陣容으로 6월에 들어서자, 右翼인 제2군단(장, 丁一權 중장) 정면에서는 그 중순부터 한차례 敵의 공세로 攻防의 熱度를 더하여 갔으나, 사단 정면에는 下旬까지 커다란 激戰없이 戰線을 그대로 확보하였다. 따라서 사단은 이 동안에 예비대대와 KSC로써 117번 A도로 南쪽에 예비진지를 併設하였는데, 同월 28일에는 제8군 命令에 따라 사단포병단에서 제61포병대대를 뽑아 제2군단 지원의 美 제5포병단에 배속 함으로써 同군단 정면에 火力을 지원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자, 7월에 들어서면서 作戰會談이 거의 妥結의 단계로까지 成熟하여지는 것과 함께 敵의 공세 徵候가 현저하게 나타나, 군단 G-2나 군 情報當路者는 金城 正面에 대한 敵의 橫的인 병력이동과 縱的인 보급추진 그리고 急増되는 포병火力 등의 動向分析과 아울러

러 國內의 休戰反對에 대한 政治的 反應을 多角度로 검토한 결과, 國軍이 전담하고 있는 金城突出部에 대한 一連의 공세가 있으리라는 것이 推測 이상의 것으로 確實性이 있다고 받아들였는데, 다만 그 時期와 兵力規模의 판단에 焦心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情勢를 照鑑한 사단은 7월 5일부터 撤收計劃에 따른 主要道路와 교량 파괴에 대한 준비 工事を 실시하여, 이를 이달 末까지 끝내기로 하는 한편, 同日(5일) 15.00에 作命 제169호를 下達하여 左一線인 제26연대와 예비인 기갑연대의 임무를 交代토록 命令 하였는데, 이는 5월에 이어 正常的인 교대계획에 따른 것이지만, 다만 敵의 攻勢를 勘案하여 交代日時만은 결정짓지 않은 것으로서, 그 日時는 대체로 15일 前後로 잡았다.

그리고 사단은 이 동안에도 우선 左一線 正面에 대한 防禦力을 증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6일 17.00에 作指 제130호로써 예비인 기갑연대의 수색중대를 同日 20.00부로 제26연대에 배치 조치하여, 사단 수색중대와 함께 南大川 東岸에 配陣케 함으로써 그곳의 同연대병력(제7중대)을 南大川 西岸으로 推進하여 縱深의 強化를 도모하였다.

그러던 同월 11일 午後, 左一線인 제26연대 제1대대의 主陣地인 「象牙峰」 北麓下端에 個人壕를 파고 隱蔽중인 敵 일단을 同대대 수색대가 捕捉코 이를 急襲하여 5명을 俘獲하였는데, G-2 崔壽根 중령이 이를 訊問한 결과 다음의 內容을 밝혀 내었다.

『이와 같이 自動火器를 裝備한 敵의 偽裝된 分隊壕는 현재 사단의 主 主저합선 앞 下麓에 은밀히 構築중이며, 이는 將次의 攻勢에 대한 그 준비태세의 일환으로서 여기서 敵 포병의 공격준비 사격과 함께 頂上으로의 突擊을 개시케 되는 것인 바, 이들은 突擊隊로 선발된 要員이다. 또한 이들은 5일 전인 7일에 이 진지에 投入되어, 공격명령만을 기다리는 중이며 대체로 진지 投入後의 一週日째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였으니, 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공격개시일은 13일 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즉시 軍단을 거쳐 제8군 G-2에 急報 되었는데, 이를 勘考하였음인지 제8군은 그 이튿날인 12일에 제9군단의 예비로 확보중인 제11사단(장, 林富澤 준장)을 同日 12.00부로 제2군단(장, 丁一權 중장)에 배속 조치하여 이로 하여금 同군단의 前線 일부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그 正面의 防禦密度를 증강케 하였다.

이에 同군단에서는 이 제11사단을 그 左翼으로 活用키로 하고, 同사단의 일부로 하여금 제6사단장의 지휘아래 同사단의 左一線 연대와 交代케 함으로써 그 左一線 연대를 同사단의 예비로 전환토록 하여, 14일 06.00까지 제11사단의 제9연대(장, 金永夏 대령)로 하여금 제6사단 제7연대(장, 韓官興 대령)의 전선을 引受토록 명령하는 한편 제61포병대대를 12일 13.00부로 首都사단으로 原復토록 하였다.

그런데 다시 13일에 제8군은 전날의 조치를 修正하여, 제2군단에서 계획한대로 제11사단 제9연대가 제6사단 左一線인 제7연대의 진지를 인수하는 즉시로 同제11사단을 제9군단

의 右翼으로 轉用키로 하는 一方, 수도사단의 右一線진지 일부를 함께 맡게 하여 獨自의 戰線을 담당케 하기로 하였으니, 이는 必是 敵의 공세가 集中的으로 指向될 제2군단의 左肩部가 되는 수도사단의 能力에 比하여 그 防禦正面이 넓다고 판단한 措置인 듯 하다.

그리하여 제8군은 다시 이르기를 『제11사단 제9연대는 예정대로 제6사단 제7연대의 진지를 인수토록 하되, 同사단 主力은 계속 제9군단장의 作戰指揮를 받으라. 同진지 교대완료와 同時에 同 제9연대지역은 제9군단의 전투지역에 포함된다. 제9군단장은 제9연대의 戰線 引受가 끝나는 즉시 수도사단의 진지 일부를 제11사단에 인계토록하라. 수도사단 진지의 인계일시는 군단장이 결정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 제8군의 이 조치를 分析하여 보면, 제9군단의 담당정면을 東으로 金城까지 擴開하는 대신, 제11사단을 同戰線에 充用하여 제6사단과 수도사단의 戰線 일부를 담당케 한 것이다, 이는 제6사단과 首都사단의 방어 정면을 縮小하여 縱深을 강화 함으로써 金城 정면의 방어에 注力키로 한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8군의 戰線調整에 副應하여, 군단장 Jenkins 중장은 제11사단 제9연대가 제6사단 제7연대의 진지를 인수 하는대로 수도사단의 右一線진지 일부(제2대대진지)를 同사단에 인계키로 하고 우선 要點 다음과 같은 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首都사단은 제9연대의 진지 인수가 끝나는 7.15. 06.00부로 이를 統合 지휘하라.

사단의 現 左一線대대(제26연대 제3대대) 진지를 7.14. 04.00까지 제9사단에 인계하라.

② 제9사단은 7.14. 04.00부로 수도사단 左一線진지 일부를 인수하라.

사단의 現 左一線연대(제30연대) 진지를 7.14. 02.00까지 美 제187空輸연대전투단에 인계하라.

③ 美 제3사단은 現 전선을 7.14. 02.00까지 제9, 제23兩연대(現 군단예비)에 인계하고 군단예비가 되라.

④ 美 제2사단은 7.14. 02.00부로 제9, 제23연대를 統合 지휘하라.』

이리하여 사단은 군단이 이와같이 사단의 左右正面 일부를 縮小조치 함으로써 방어력 증강에 加一手함에 따라, 이제 右一線인 제1연대에서는 將次 그 右一線 대대지역을 제11사단에 인계하고 1개 대대를 예비로 확보할 수 있는 保障을 받게 되었으며, 左一線인 제26연대는 13일 밤중으로 1개 대대에 대한 예비로의 轉用이 可能하게 되었다.

이 동안인 12일 밤에 사단사령부에서는 作戰회의를 召集하여, 이와 같은 左右一線 정면의 縮小계획에 따른 實行준비와 더불어 攻勢임박에 對處하여 應戰태세를 再點檢 하였는데 예비대의 非常待機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全兵力으로 하여금 3일분 비상식량을 휴대케 하고 탄약을 主陣地線으로 추진하는 등 見敵必滅의 決意를 가다듬은 것이다.

그리고는 이어 13일 17.00에 作指 제132호를 下達 함으로써 군단 명령대로 제26연대 左一線 대대인 제3대대의 진지를 제9사단 제28연대(장, 尹泰暎 대령)에 인계토록 하였는데,

이때 제26연대는 同 제28연대와의 事前協調를 거쳐 이날 19.00까지 交代를 완료키로 하고 交代가 끝나는 즉시로 연대 主抵抗線인 제1대대 진지를 兩分하여 同 제3대대로써 그 東半部를 나누어 맡도록 하였다.

(2) 작전실시

(가) 敵의 攻勢(7.13. 21.00~24.00)

7월 13일 : 이날 終日, 짙은 구름이 낮게 깔려 盛夏의 暴陽을 시샘하는 가운데 사단은 戰線整理에 奔忙하였다.

午後에 군단으로부터 右隣接 제6사단의 左一線인 제7연대의 戰線을 인수하는 한편 사단의 左一線인 제26연대의 戰線 일부를 左隣接 제9사단에 인계토록 하는 명령을 同時에 受領하였던 것이다. 이에 사단장 崔昌彦 준장은 連日 사단의 後方 보급로와 左右一線 연대의 CP일대를 攪亂하던 敵의 砲火가 이날따라 더욱 熾盛 하였으나, 이를 무릅쓰고 이날 밤중으로 예정된 제26연대의 陣地 인계를 준비케 하고, 月峰里(利川洞 東北쪽 1.5km)에 位置한 제6사단 제7연대(장, 韓官興 대령)의 CP를 訪問하여 將次 사단에 配屬 예정인 제11사단 제9연대(장, 金永夏 대령)와의 同戰線 交代계획을 聽取한 다음, 전날에 제2군단으로부터 사단에 復歸하여 梨實洞 부근으로 집결중인 제61포병대대로 하여금 사단포병단장 李鎰鍊 대령 指揮下에 제9연대의 戰線인수 즉시 同 연대를 직접 지원할 準備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61포병대대(장, 金水山 중령)는 月峰里로 推進되고, 제26연대 제3대대(장, 林完植 중령)는 제9사단의 제28연대 제3대대(장, 鄭春泰 중령)와의 協調下에 진지교대 준비에 들어 갔는데, 날이 저물면서 敵 砲火力이 문득 低調하게 됨으로써, 暴風前夜의 高요가 戰線을 掩襲하였다.

그러다가 해가 넘어가고 21.00가 되니, 突然 敵의 砲門이 다시 열려 사단의 全 戰線에 일제히 烈火를 쏘기 시작 하였는데, 敵砲의 종류나 門數는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였으며, 마치 雷霆이 天空을 쪼개고 霹靂이 地軸을 뒤흔드는 듯한 威勢를 보였다.

이로써 이른바 敵의 「7.13 攻勢」라는 것이 그 幕을 올리게 된 것이다.

1. 제1연대의 狀況

사단의 右一線을 맡은 제1연대(장, 崔世寅 대령)는 이와 같은 敵의 砲擊과 함께 공격 主力이 指向된 듯 1개 사단 규모의 同時攻撃으로 말미암아 終夜토록 凄慘을 極하는 血鬪를 展開하게 되었다.

가) 제2대대의 初戰

砲聲이 비를 몰아 온듯, 敵의 공격이 시작되자 細雨가 山腹을 적셨는데, 빗발과 함께 쏟아진 敵의 砲火가 연대의 右一線인 제2대대(장, 金永吉 중령)의 主陣地線인 Missouri線

과 각 대대 OP가 있는 Iceland線을 火焰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

한시간 가까이 敵의 砲火가 猛威를 떨치더니, 21.40을 前後하여 爆焰의 閃光속에 모습을 들어낸 1개 대대 규모의 中共兵이 대대의 左 側1선인 제7중대(장, 金萬基 대위)의 左側正面, 중대 본부가 있는 △467쪽으로 117번 道路와 金剛線 鐵道를 함께 가로 건너 陣地의 北麓에 蟻附 함으로써 드디어 接戰이 시작되었다.

이어 22.00를 넘어서면서 右 側1선인 제5중대(장, 金鍾潤 대위) 정면에도, 九龍里쪽으로부터 117번도로 沿邊의 개활지를 건너 南向한, 1개대대 규모가 灰古介를 목표로 侵攻하였는데, 이들은 九龍里 부근에 나타난 戰車 2대의 직접 지원아래 猪突의인 공격을 敢行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陣前으로 肉迫한 敵과 더불어 수류탄을 주고 받는 激戰을 벌이게 된다. 22.30에는 다시 2개대대 규모가 增強되어, 연대 右隣接 제7연대의와의 間隙을 突破, 중대의 右側背로 달려 들었다.

이 무렵, 左側1선인 제7중대의 右側 正面에도 敵 1개중대 규모가 그들 공격에 加勢함으로써 이 중대 또한 風前燈火의 위급에 처하게 되었다.

기갑연대 제10중대의 投入 : 한편 이와 같이 敵의 공격이 시작되자, 대대장 金榮吉 중령은 △552의 대대 OP에서 대대 CP요원에게 非常態勢 돌입을 명령하여 彈藥과 보급품을 OP지역으로 추진토록 하는 한편, 敵侵을 연대장에게 보고한 다음 연대장의 承認을 받아, 대대에 배속되어 제7중대 南쪽 500m에 예비진지를 점령중인 기갑연대 제10중대(장, 李柱堧 대위)로써 22.20에 左側1선(제7중대)을 扞援토록 措置하였다.

그리하여 同 제10중대가 北쪽으로 뻗은 稜線을 따라 雨中の 蹊徑을 踏破끝에 22.40을 前後하여 제7중대의 主陣地인 △467의 南麓에 이르렀는데, 이때 이미 대대 左隣接인 제1대대(장, 李鍾綠 중령)와의 地隙인 계곡으로 파고든 1개대대 규모의 敵이 △467의 西南쪽 斜面으로 迂回하여 同 高地를 포위한 形勢여서, 이들 敵과 不期에 激突케 되었다.

여기서 진출을 阻止당한 기갑연대 제10중대는 高地頂上의 제7중대와 連繫하기 위하여 몇 차례나 敵線돌파를 試圖 하였으나, 彼我의 砲火가 山腹을 갈라 놓은데다 그곳의 敵勢가 頑強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稜線을 따라 한걸음 물러나 急編 방어 태세로 轉換하였다.

그러나 이어 敵이 △467 南쪽으로 공격을 계속한 까닭으로 중대는 陣地편성도 하기전에 敵과 맞닥드려 紛戰케 되었는데, 끝내 力不及으로 이를 감당치 못하고 23.00를 넘긴 다음에는 본래의 중대진지로 撤收 하였다가, 子正이 가까울 무렵에는 다시 계곡을 건너 △552(대대 OP) 北麓에 새로운 阻止線을 急編하였다.

제1선진지의 瓦解 : 이와 같이 기갑연대 제10중대가 대대 左側1선인 제7중대를 扞援도중에 △467 南麓에서 血鬪를 벌이게 된 것으로 미루어 보면, 敵은 일부 병력으로써 대대의 左側 地境線을 뚫어, 제7중대의 後方을 遮斷토록 함으로써 同 중대의 退路를 봉쇄함과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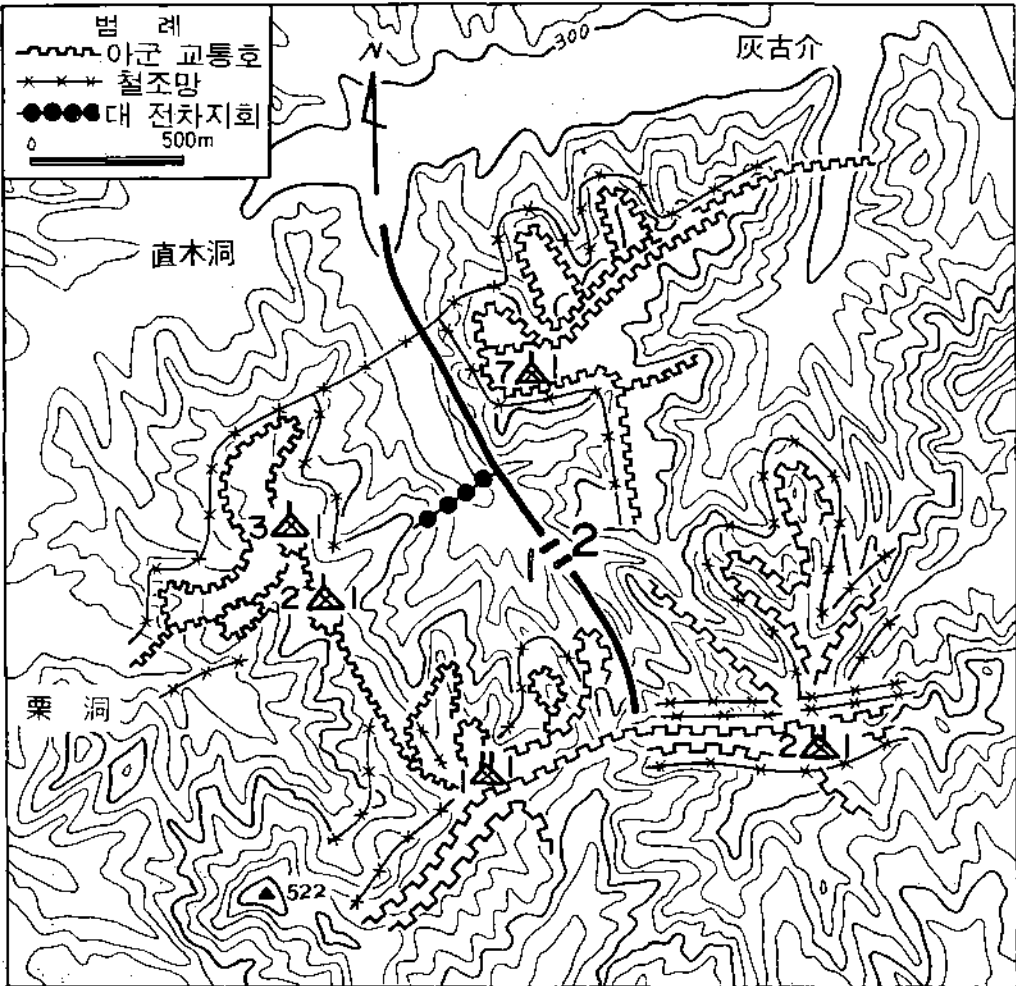
올려 대대의 增援을 막게 하면서, 主力으로써 중대 正面에 壓力을 加하여 중대진지를 송두리채 席捲하려 한 것으로 推斷되었다.

이때 대대의 各 중대 진지는 소대별로 據點式 洞窟 진지화 된 것으로서 중대원 모두가 壕의 入口를 閉鎖하고 陣內에서 決死로 버티니, 前後로 密閉된 地下壕에 갇힌 局面이지만 敵이 십사리 이 중대진지를 깨뜨리지 못하다가, 기갑연대의 제10중대가 △467 南쪽에 이르렀을 무렵에 비로소 진지의 地上部만을 蹂躪하게 된 것인듯 하였다.

한편, 대대의 右제1선인 제5중대 正面에서도 23.30을 前後하여 敵이 기어코 중대진지를 휩쓸어 넘고 그 南쪽의 제2선인 제6중대(장, 李應龍 대위)의 陣前으로 楔鋒을 指向하게 됨으로써 그곳 제6중대와 激戰을 벌이게 되었다.

이리하여 子正 무렵에는 대대와 제1선중대 사이의 通信이 모두 杜絶되어 제5, 제7 兩중

◇ 상황도 제72호 제1연대 진지 部分圖



대의 상황은 五里霧中인채로 제2선인 제6중대와 기갑연대 제10중대 線에서 火線의 飛火를 보게 되었다.

나) 제1대대의 血戰

사단이 이 戰線을 引受한 뒤로, 敵과 爭奪이 잦았던 「갯별고지」(直木洞 南쪽 1km)와 「번개고지」(栗洞 東南쪽 500m; 「갯별고지」西南쪽 1.1km)의 正面을 맡은 제1대대(장, 李鍾綠 중령)의 戰況 역시 苦鬪의 再演 그것이었다.

22.00가 지나서 대대의 右제1선인 제3중대(장, 尹畢孝 대위)의 主陣地인 「갯별고지」— $\triangle 473$ 軸線으로 2개대대 규모가 $\triangle 365$ (栗洞 北쪽 300m)— $\triangle 359$ (直木洞 西北쪽 500m)線에서 直木洞 계곡을 건너 공격을 시작 하였는데, 그 敵勢가 마치 激한 怒濤와 같이 22.30에는 $\triangle 473$ 의 頂上 부근까지 밀려 들었다.

제2중대의 出擊: 이와 같은 敵의 공격이 시작되는 즉시 대대장 李鍾綠 중령은 제3중대의 $\triangle 473$ 南쪽 300m에 있는 예비진지에서 待機중인 제2중대(장, 趙柄奎 대위)를 급히 뽑아 제3중대 진지로 推進하는 一方, 대대의 兵力縱深이 없음을 補綴코자 연대에 병력증원을 要請하였다.

이에 제2중대는 22.10에 진지를 박차고 $\triangle 473$ 를 목표로 躍出하여 그곳 山頂을 손에 넣은듯 氣勢를 올리는 敵前으로 무절러 나아 갔는데, 이때 右隣接 제7중대와 의 地境線을 따라 侵襲한 敵의 일부가 $\triangle 473$ 의 東南쪽으로 감돌아 중대의 進路를 막고 나선 까닭으로, 이들과 激突한 끝에 勢不利로 22.40에는 原陣地로 反轉한 다음 여기에 차단진지를 急編하여 대대 OP($\triangle 512$)쪽으로 指向되는 敵의 銳鋒을 꺾기로 하였다.

이러는 동안인 23.00에 右제1선인 제3중대(장, 尹畢孝 대위) 정면에는 다시 1개대대 규모의 敵이 增強되어, 제1선의 塹壕 속에 중대원을 남겨둔채 그 地上을 席捲하게 되고 말았으며, 左제1선인 제1중대(장, 金春煥 대위)의 正面에도 증강된 1개대대 규모의 敵이 同중대의 진지를 에워싸고 새로운 공격을 加한 까닭으로 여기서도 紛戰이 激化되기에 이르렀다.

기갑연대 제3대대(一)의 Iceland線 推進: 한편, 敵의 포격이 시작 되면서 攻波가 대대 정면에 밀어 닥치자, 연대장 崔世寅 대령은 敵의 主攻이 必是 연대 中央인 제1대대 정면으로 指向될 것으로 판단하고 대대장 李鍾綠 중령의 요청에 따라 21.50에 $\triangle 512$ 西南麓에 예비로 확보중인 기갑연대의 제3대대(一)로 하여금 同대대를 지원토록 措置하였다.

이리하여 下楓洞의 대대 CP에서 제1대대로의 赴援 명령을 받은 기갑연대 제3대대장 李俊和 소령은 즉시 $\triangle 512$ 의 제1대대장과 協調한 결과, 대대 OP가 있는 Iceland線($\triangle 512$ — $\triangle 522$)을 強化하여 이 線에서 敵의 侵襲을 破摧키로 決心하고, 대대 陣地에 있는 제9, 제11 兩 중대장을 有線으로 불러 이르기를 『제9중대는 제1대대 OP($\triangle 512$)로 나아가 제1대대장의 작전지휘를 받으라. 제11중대는 $\triangle 522$ ($\triangle 512$ 西南쪽 800m)로 急進하여 예비진

지를 확보하라. 나는 今後 제1대대의 OP에 위치할 예정이다.』라고 한 다음, 迅히 제1대대 OP로 달렸다.

그런데 戰鬪詳報의 記錄에 의하면, 22.20을 前後하여 제11중대(장, 李德永 대위)는 예정대로 △522線에 阻止障地를 急編하여 敵侵에 對處 하였다고 하였으나, 제9중대(장, 李德和 중위)의 行跡에 대하여서는 밝혀진 바가 없어 同 중대의 活躍相을 헤아리기 어려운 데, 당시 제9중대장 李德和 중위는 뒷날 이때의 情況을 述懷하되, 『나는 대대장의 명령을 받은 즉시 TS-10으로 각 소대장을 呼出하여 제1대대 OP로의 進出을 명령하였다. 출발 순서는 제2소대를 先頭로 제3, 제1소대 順으로 하되 烽火소대는 別命이 있을 때까지 現진지에 殘留하여 진지와 보급품을 警戒토록 하였다. 그러나 막상 機動이 시작되자, 敵의 砲火가 OP까지의 山腹에 熱湯을 부어 놓은듯 기승을 부렸고, 또 OP와는 通信이 杜絶되어 그곳의 狀況조차 알수 없게 됨으로써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直感하게 되었는데 각 소대장들의 動態도 심히 畏怯스러운 눈치였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직접 연락병과 함께 先頭에서 漆黑 같은 暗夜의 雨中을 헤치며 포탄이 炸裂하는 山腹을 타고 목표 OP로 나아갔는데 7部 稜線쯤에 이르렀을까, 先頭에 있던 내가 연락병과 함께 砲彈에 負傷을 입고 말았다. 나는 腹部에 破片을 맞고 연락병은 다리를 다쳤다. 나는 위생병을 불러 止血을 하게 하면서, 중대의 機動을 계속토록 호령 하였는데 잠시 後에 선임하사관인 高順鳳 이동상사로 부터 「제2소대장 負傷, 제3소대장 負傷, 제1소대장 戰死」라는 報告가 連하여 들어왔다. 중대의 戰列이 완전히 무너지고만 셈이었다. 그러자 선임장교인 金明煥 중위가 後尾의 제1소대 병력 일부와 함께 도착하였다. 선임장교와 對策을 協議하는 중, 중대의 炊事班長이 死色이 되어 달려 오더니 後方이 이미 中共軍에 포위되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事態가 결정적으로 기울어졌다고 판단하고 곧 선임장교에게 命命 하기를 「각 소대의 잔여병력을 수습하여, 선임장교가 統指揮하라. 敵의 포위망의 한 곳을 突破하여 撤收하되, 최종집결지는 선임장교의 상황판단에 따라 決定하라. 곧 我軍의 反擊이 있을 것이니, 나는 그때까지 이곳에 남아 있겠다!」고 하였는데, 선임장교가 같이 철수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병력을 수습한 바 통털어 80명 정도였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 선임장교로 하여금 敵의 포위망 돌파를 지휘토록 하고, 나는 병사들의 부축을 받아 대대 CP가 있는 下楓洞 쪽으로 1km 정도를 길을 따라 南下 하였는데, 길 양편의 稜線 위에서 中共 騎馬兵이 橫行하면서 우리를 보고 사격을 加하였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앞선 중대병력과 離脱되어, 그대 부터는 나 혼자서 부상당한 배를 옮겨주고 糞탕 속을 기다시피 하면서 下楓洞을 거쳐 下榛峴쪽으로 나왔는데, 낮에는 아무데서나 잠을 자고 밤에만 걸었다. 여름철에 비를 맞았더니 상처가 이내 끓기 시작하였다. 撤收 도중 두번이나 敵에게 발각되어 포로신세가 될 뻔 하였으나, 상처가 끓어 썩는 것을 보더니 모두가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리하여 3일만에 承岩고개의 美 제3사단 지역으로 넘어 왔는데, 그곳에서는 또 美軍에게 中

共兵으로 誤認되어 銃撃을 받아 발을 다치기도 하였다.』라고 한바 있으니, 이로써 이날 밤의 제1선에 대한 全般的인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거니와, 또한 당시 제9중대는 赴援 도중에 敵의 砲火로 말미암아 戰列이 무너져, 그 赴援企圖가 無爲로 끝나고 말았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기갑연대 제9중대가 △512를 目隄에 두고, 敵의 砲火에 戰列을 난도질 당하고 있을 무렵 前線의 상황은 急轉直下로 惡化되어 23.20에는 제2중대(장, 趙柄奎 대위) 전지마저 敵手에 들어가고, 제1중대(장, 全春燾 대위) 역시 그 정면에 두텁게 둘러친 사단포병의 彈幕을 기어 넘은 敵의 波狀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 진지도 거어도 狂波에 휩쓸리는 바 되고 말았다.

다) 제3대대의 拒守

연대의 左—線인 제3대대(장, 朴贊兢 중령)는 南大川 支流가 얹혀 栗洞과 牙沈里(栗洞 西쪽 2km) 쪽으로의 分岐點을 이룬 阨隘地를 앞에 두고 있던 터이라, 이로 말미암아 敵의 陣前接近이 곤란 하였던 탓인지 대대정면 역시 敵의 砲火는 猛威를 떨쳤으나 侵攻 기미를 보이지 않다가, 22.20이 지난 뒤에야 대대의 右제1선인 제9중대(장, 金守明 대위) 정면에 敵 1개대대 규모가 △350(牙沈里 東南쪽 500m) 부근으로부터 外也洞(栗洞 西南쪽 1km)의 계곡을 건너 東쪽으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에 중대는 60mm 박격포등 중대화력을 집중하여 이들을 격퇴하였는데, 이어 그 15분 뒤인 22.35에 대대의 中央 제1선인 제10중대(장, 朴壽鳳 대위) 정면에 다시 1개중대 규모의 敵이 南大川 分岐點 부근의 개활지를 건너려하였으나 이도 砲兵火力으로 모두 撲滅하였다.

이와 같이 敵의 제1波를 다만 砲火로써 격퇴한 다음, 23.30이 되자 다시 敵의 제2波가 들어 닦쳤는데, 이번에는 제9중대 정면에 1개중대 규모, 제10중대 정면에 1개중대 규모, 그리고 대대 左제1선인 제11중대(장, 張斗燾 대위) 정면에 2개소대 규모로 각각 推算되는 敵이 일제히 달려 들었다. 그러나 이도 개활지일대에 매설된 地雷地帶에서 그 殆半을 잃게 되었는데 하면 陣前에 이르러서는 또 그 頭上에 加하여진 砲火로 다시 致命的인 打擊을 입게 된 나머지 子正을 넘기지 못한채 모두 격퇴되고 말았다.

따라서 이 正面에서는 다른 곳과 달리 地形의 利를 占有한 대대원이 砲兵火力의 援助를 받아 진지固守의 決意를 드높임으로써 敵이 쉽사리 대대진지를 넘어 볼수 없는 局面이 되었다.

라) 연대장의 措置

한편, 연대장 崔世寅 대령은 이날밤 利川洞의 연대 CP에서 연대 정면의 戰況의 推移를 銳意 注視한 결과, 敵侵의 樣相이 前例와는 달리 全面 攻撃임을 판단하고, S—2 羣鶴松 대위 및 S—3 金炯旭 소령과 더불어 敵情判斷과 작전지휘에 任하였는데, 특히 通信網의

확보에 注力하면서 탄약과 보급품의 前線推進에 百方の 수단을 다하였으나, 敵의 砲火가 刻一刻으로 苛烈性을 더하여 연대지휘소와 補給路를 强打한 까닭으로 交通과 通信網이 杜絶되고 連絡兵이 서로 길을 잃는바 되어 子正이 가까워 지면서는 前線狀況이 曖昧한체로 上通下達의 지휘체제에 混線이 無常하였다.

이에 앞서, 연대장은 敵의 공격이 시작된 즉시로 敵의 主攻이 必是 中央의 제1대대 정면으로 指向 될 것이라 揣度하고, 연대에 배속중인 기갑연대 제3대대(一)로써 同 대대를 지원토록 하는 한편, 사단에 兵力增援을 요청하면서 前線을 확보코자 하였으나, 이미 覆水가 된 事態는 惡化一路를 치달기만 하였다.

그리하여 23.30에 연대 正面에 사단에비(기갑연대 1개대대)를 投入키로 한 사단장의 決心에 따라, 이 예비대로써 다시 中央一線을 補強키로 作定하고, 연대의 마지막 예비인 수색중대(장, 李鍾甲 대위) 마저 뽑아 右一線인 제2대대로 增援키로 하였다.

2. 제26연대의 狀況

이날 사단의 左一線인 제26연대(장, 殷頌杓 대령)도 제1연대와 마찬가지로 敵의 砲火와 때를 지어 달려든 地上兵力의 力攻으로 말미암아 血雨가 霏霏하는 局面이 演出되었다.

가) 제1대대의 初戰

연대 左一線인 제3대대 戰線이 제9사단에 引繼됨으로써 연대의 제1선이 된 제1대대(장, 韓敏錫 소령)는 21.10을 前後하여, 例의 熾盛한 敵의 포격이 시작되면서 2개분대 규모로 推算되는 兵力이 朱子洞(牙沈里 西南쪽 3km) 계곡을 건너 南向중인 것을 대대 左 제1선인 제1중대(장, 盧明奎 대위)의 경계소대가 砲火의 閃光 속에서 버로소 捕捉함으로써, 「象牙峰」의 대대 OP에서 『敵出現』의 急報를 接하게 되었다.

이어 그 10여분 뒤에는 대대 OP가 위치한 중앙 左제1선의 제3중대(장, 林虎成 대위)의 主陣地(「象牙峰」) 北麓에 1개중대(一) 규모가 나타나 이를 攻奪코자 하였다.

대대는 이에 지원포병과 대대의 火力을 集中하여 이를 制壓하는 同時에 全 중대의 決戰태세를 다시 한번 點檢하였는데, 대대 正面에서 敵의 主陣地인 忠顯山(△533; 朱子洞 東北쪽 1km) 東南쪽 500m에 있는 無名高地(표고 450m 정도)의 上空에 曳光彈 2발이 치솟더니, 다시 20여분이 흐른 뒤에는 左제1선인 제1중대 정면의 敵이 1개중대 규모로 增強된 듯 하였다.

이어 22.20에 가까워지자, 대대의 右제1선인 제2중대(장, 金賢德 대위)의 主陣地(「死守峰」; 표고 400m 정도) 北麓에 1개대대 규모가 공격을 시작하고, 그 西쪽 대대의 中央 右 제1선인 수색중대(장, 聃漢吉 대위)의 진지(△408) 정면에 역시 대대(一)규모, 그리고 中央左제1선의 제3중대(「象牙峰」) 정면에도 어느새 대대 규모로 증강된 敵이 陣前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이리하여 대대는 연대규모에 達하는 敵과 一戰을 決하게 될 바, 그들의 공격이 시작된

지 오래지 않아 대대의 有線이 모두 杜絶된데다 無線마저 難應상태인지라 대대와 중대사이기는 물론, 각 중대 間의 인접상황 조차 헤아릴 수 없는 形便이 되고 말았는데, 이 동안에 그들은 步一步로 8부 稜線까지 肉迫함으로써 각 중대와 수류탄을 亂投하는 紛戰을 벌이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23.00를 넘겨 子正 무렵에 이르러서는 이 紛戰이 더욱 激化되어, 마침내 敵의 攻波가 대대의 主抵抗線 陣지를 넘어서게 되고 말았는데, 그 形勢 역시 激流가 堤防을 넘치는 격이었다.

나) 제3대대의 陣地交代

이날 낮까지 연대의 左一線을 담당하였던 제3대대(장, 林植植 중령)는 17.00부 사단 作指 제132호에 따른 연대 作命 제45호에 의거, 18.00에 대대 陣지를 제9사단 제28연대(장, 尹泰皓 대령)의 제3대대에 인계하고 19.00에 중대별로 現 陣지를 출발하여 제1대대 陣지 일부를 인수차 下所里—上九井으로 轉進하였다.

즉, 제9중대(장, 尹義穆 대위)는 제28연대의 제10중대에, 제10중대(장, 宋奇出 대위)는 同연대 제11중대에, 그리고 제11중대(장, 尹昌和 대위)는 同연대 제9중대에 각각 陣지를 인계한 바, 이때 대대장 林植植 중령은 將次 대대의 右제1선이 될 제2중대(「死守峰」) 陣지를 제11중대로써, 左제1선이 될 연대수색중대의 陣지를 제10중대로써 인수토록 하고, 제1중대를 예비로 확보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제11, 제10 兩중대는 각각 제2중대(장, 金資德 대위)와 연대수색중대(장, 曹漢吉 대위)의 陣지로 向發하였는데 제9중대는 이날·밤동안 그 主力으로써 現 陣지에서 제1중대(장, 盧明奎 대위)의 陣지 左側을 補強케 하면서 1개소대만 뽑아 제2중대의 예비소대 陣지로 推進하여 임시 제11중대의 예비로 삼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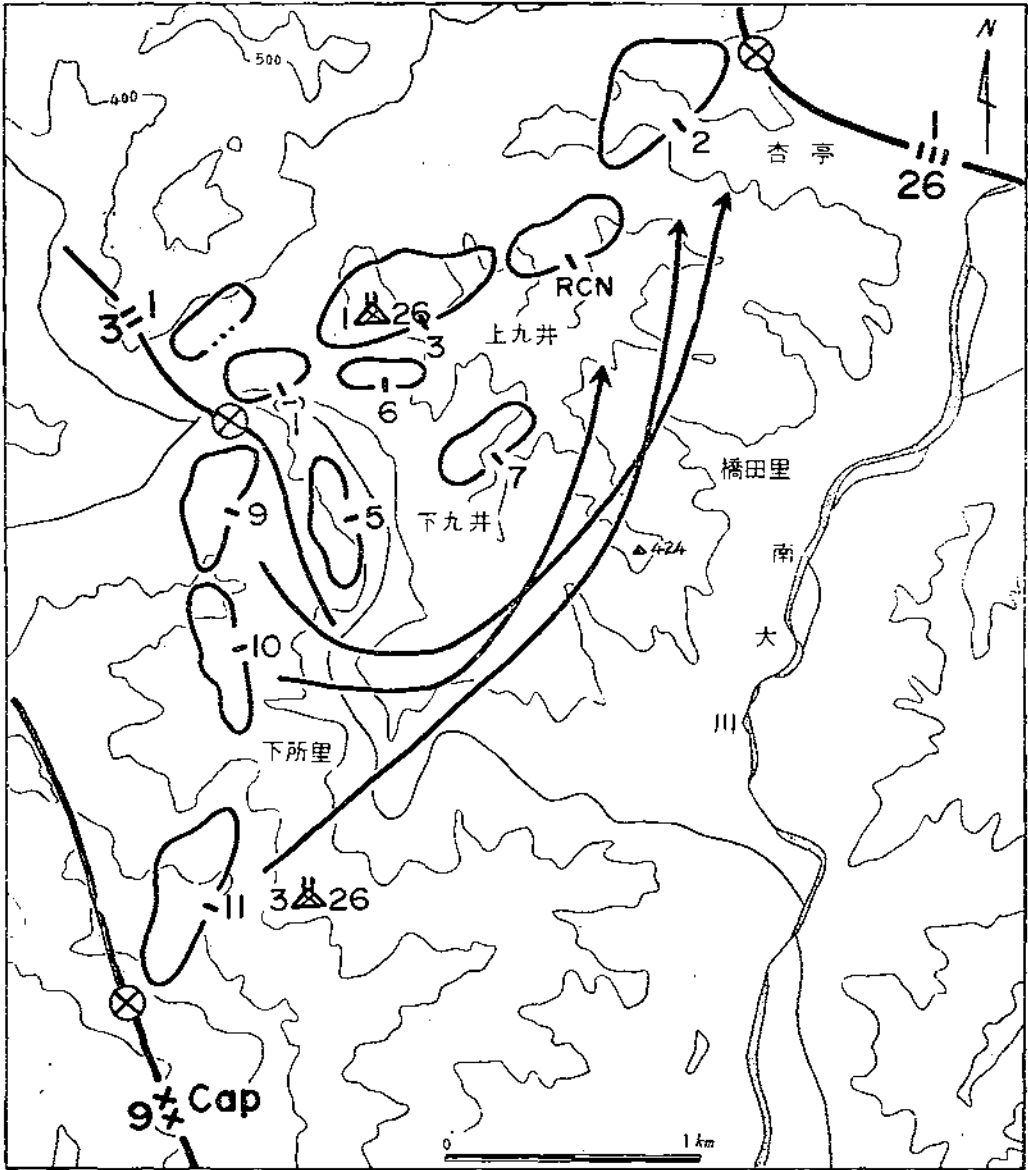
이와같이 하여 대대는 연대의 左一線에서 右一線으로 機動하는 중에 敵의 攻勢를 맞아 砲火의 洗禮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제11중대는 제2중대 陣지 南쪽의 柵亭에 이르러, 또 제10중대는 연대수색중대 陣지(△408) 南麓에서 敵의 포화를 피하기 위하여 塚를 빨리 마련케 되었는데, 제11중대와 隊伍를 같이 한 제9중대의 1개소대는 22.50에 제2중대의 예비소대 陣지에 進出하자 敵의 集中砲擊을 받는 厄運을 만나게 되었다.

이 결과, 제11, 제10 兩 중대는 陣지 인수를 뒤로 미루고 각각 제2중대와 연대수색중대를 增援케 되었으나, 이미 敵의 猛烈한 砲火로 말미암아 제1선 陣지까지 나가지도 못한채, 그 南麓의 山腹에서 遮斷 陣지를 急編하고 突進의 機를 노리게 되었으니 彼呼 장군이면 我呼 명군하려는 妖雲이 짙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23.00를 지나서부터 有無線이 모두 끊어진 가운데 제1선 陣지를 휩쓸어 넘은 敵의 強壓으로 前線의 제1대대원 보다 한걸음 먼저 南大川을 건너 물러서는 바 되고

◇ 상황도 제73호 제26연대 제3대대의 진지교대



말았으나 敵砲火의 縱射威力이 強大하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다) 제2대대의 逆襲

제2대대(장, 韓錦昌 중령)는 당초 연대의 예비로 사단수색중대와 기갑연대 수색중대를 통합 지휘하여 南大川의 東岸에 제2선(Iceland 線) 진지를 확보 중이었는데, 제5중대(장, 具南晝 대위)는 제1중대 진지 西쪽 △424 일대의 南北으로 뻗은 稜線에 예비진지를 마련하여 제1선의 방어 縱深을 강화하고, 제6중대(장, 金東潤 대위)는 제1대대의 OP(「象牙峰」)

南麓에서 지원태세로 待機 중이며 제7중대(장, 金命冕 대위)는 △424 東南쪽 南大川의 西岸인 下九井 일대에 機動 예비대로 控置 중이었다.

대대는 敵의 砲擊이 시작되고, 이어 全面攻勢의 企圖가 들어난 22.00에 全 중대로 하여금 逆襲을 위한 出擊 태세를 갖추도록 한바, 제1선의 진지가 敵에 蹂躪되는 22.35에 연대장으로 부터 제1대대 진지로의 逆襲命令이 下達되었다.

이에 대대장 韓錦昌 중령은 제7중대로 하여금 제3중대(제1대대 OP) 진지로, 제5중대로써 제1중대 진지로 역습토록 하였는데, 이때 제6중대는 敵의 공격과 同時에 그 波瀾에 휩쓸려 들게 되었으며 제1대대의 OP를 목표로 나아간 제7중대는 敵 포병의 차단사격이 이루어 놓은 火網을 헤치기에 一進一止로 遲遲不進을 쫓지 못하고, 제5중대 역시 敵 砲火의 妨害로 제1중대의 南쪽 稜線에서 釘着되어 子正까지 아무런 進展이 없었다.

한편, 대대에 배속중인 사단수색중대(장, 崔周鳳 대위)는 18.00에 6개조의 수색대를 黃京俊 소위의 指揮下에 佳峴里 일대의 제2중대 진지 東쪽 개활지에 急進케하여 敵情을 探索토록 하고 主力을 계속 杏亭 東쪽 南大川 右岸의 稜線에 제2선 진지를 확보 중이었다.

敵의 공격이 시작되어 21.40에 이르러서는 수색대와의 연락도 끊어지고 아울러 대대와의 通信이 杜絶 되었으나 계속 진지를 固守 하였는데, 그 西南쪽의 △302 일대에 진지를 점령한 기갑연대의 수색중대(장, 吳顯九 대위)도 이와 類似한 狀況 속에서 鐵火의 試練을 겪고 있었다.

라) 연대장의 措置

당초 연대장 殷碩杓 대령의 腹案은 연대 西正面의 축소에 따라 제3대대를 轉用하여 제1대대의 진지를 나누어 맡게 함으로써 담당 정면의 防禦力을 증강하는 한편 병력의 縱深을 보다 강화키로 하고 그에 따르는 진지교대를 이날 22.00까지 끝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3대대가 제1대대의 진지를 인수하기 전에 敵의 狂波가 들어 닥치매, 제3대대로 하여금 즉시 진지교대를 중지케 하고 當面の 제1선을 增援토록 조치한 다음, 23.00에 예비인 제2대대에 명령하여 제1대대의 主陣地를 救援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1대대의 戰線에 연대의 主力을 모두 投入하여 戰列 수습에 나섰으나, 밤이 깊어지면서 비가 더욱 세차게 내리는 가운데 前線이나 增援 부대의 상황을 알수 없는 混迷를 거듭하게 되었다.

3. 사단포병단의 狀況

사단포병단(장, 李鎭鍊 대령)은, 21.15에 사단의 左右一線을 직접 지원중인 제10포병대와 제60포병대대로 부터 敵侵의 報告를 接하는 즉시로, FO의 要求에 따라 일반지원 포병으로 火力을 增援토록 하는 한편, 美 제555, 제674의 兩 포병대대의 105mm 곡사포와 제937(-) 및 제955 포병대대의 155mm 곡사포, 그리고 제424포병대대의 8"1개 포대와 함께 左인접 제9사단의 제30포병대대와 제89포병대대(155mm)의 火力支援을 協調하였다.

그리고 제64ASP(탄약보급소)에 砲彈의 긴급지원을 요청 하였는데, 이날 18.00 현재 포병단 예하 각 포병대대의 포탄 보유수는, 제10포병대대에 105mm탄 6,476발과 제60포병대대에 105mm탄 6,205발, 그리고 제61포병대대에 105mm탄 7,300발과 제92포병대대에 155mm탄 4,160발로서, 이 포탄은 子正前에 이미 거의 射耗하는바 되었으니 眞實로「鐵과 血」의 消耗競爭 바로 그것이었다.

제10포병대대(장, 金千根 중령): 대대는 月峰里—利川洞 사이의 117번 A道路邊에 縱으로 제1포대(장, 徐榮植 대위), 제2포대(장, 李永馥 대위), 제3포대(장, 白文善 대위)의 順으로 진지를 점령하여 사단의 右—線인 제1연대(장, 崔世寅 대령)를 직접 지원중이었는데, 敵의 공격이 시작되자 포화가 月峰里 일대에 集中하여 보급로의 차단을 꾀하는 듯하였다. 그리고 제1연대 CP 부근에 위치한 대대의 FDC와 포진지에 1,000 여발의 敵포탄이 炸裂하여 진지가 온통 砲火 속에 감겨들게 되었다.

제60포병대대(장, 申鶴進 중령): 대대는 FDC를 제26연대(장, 殷碩杓 대령)의 CP 부근에 두고 제2포대(장, 丁庸日 대위)를 芳洞(三巨里)에, 제1포대(장, 宋錫煥 중위)와 제3포대(장, 李昌基 대위)를 新木洞(芳洞 西南쪽 1km) 부근에 配置하여 同연대를 직접 지원하였는데, 23.00가 지나서는 제1선 진지의 FO와 有線이 杜絶되어 無線만으로 사격 지원을 계속하였다.

제61포병대대(장, 金水山 중령): 한편, 전날 17.30부로 제2군단 지원의 美 제5포병단(장, Richard W. Mayo 대령)을 火力增援 중 다시 사단포병단으로 復歸한 대대는, 이날 16.00에 梨賓洞의 집결지를 출발하여 17.00에 月峰里 부근으로 前進한 다음 竹垆里(月峰里 東쪽 1.5km)—月峰里 사이의 도로를 따라 橫으로 제1포대(장, 金禧洙 대위), 제2포대(장, 朴演鎭 대위), 제3포대(장, 金光麟 대위)의 順으로 砲陣을 放列하여 제6사단의 제7연대(장, 韓官興 대령)와 交代 예정인 제11사단의 제9연대(장, 金永夏 대령)를 직접 지원할 태세를 갖추었는데, 상황이 突變하여 現진지에서 제1연대를 지원하게 되었다.

제92포병대대(장, 康大慶 중령): 사단의 一般支援의 임무를 띤 대대는 主力인 제1포대(장, 金慶植 대위)와 제3포대(장, 金容求 대위)를 間諺峴—北亭嶺 사이에 두고 제2포대(장, 金重善 대위)를 멀리 間楓洞(間捧峴 西北쪽 2.2km)까지 挺進시켜 사단 FSCC의 사격 指示와 FO의 要求에 따라 사단의 左右—線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子正이 가까와지면서 主抵抗線의 일부가 무너짐으로써 間楓洞의 제2포대가 危急을 맞게 되었으나, 同 포대가 前方의 FO와는 물론 대대외도 通信이 杜絶되어 대대로의 상황 보거나 새로운 명령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니, 梨賓洞 부근의 대대본부와 제2포대 間에는 6回線을 地下 60cm 깊이로 埋設하고 그 가운데 1回線은 彈筒을 연결하여 保護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모두 敵의 砲火에 切斷되고 말았으며 無線마저 不通이었던 것이다.

이에 포대의 지휘소대 通信兵이 有線回路에 대한 區間檢査를 실시한 바, 6回線 가운데 1회선이 交換器 부근에서 斷線된 것을 補線한 다음, 有線班長인 李禹善 일등중사가 補線兵인 金鍾聲 일등병과 함께 DR-4 有線 1束을 메고 交換器로부터 戰砲隊 본부까지 새로이 連線을 試圖함으로써 비로소 대대와 有線의 疏通을 보게 되었다. 이리하여 대대장 康大尉 중령으로부터 철수 명령을 받아, 포대가 즉시 철수를 단행하여 立石里(梨實洞 西南쪽 800m) 부근의 예비진지로 집결하였다.

4. 전차중대의 狀況

제59전차중대(장, 金玉培 대위)는 제5소대(장, 李駿鎬 중위)를 院洞 부근의 중대본부에 예비로 控置한 가운데, 제1, 제3의 2개 소대로써 제1연대를, 제2소대로써 제26연대를 지원 중이었는데, 각 소대별로 소대장반(M-36 3대)과 선임하사관반(M-36 2대)의 2개 班으로 나누어 각기 지원 正面을 분담하였다.

제3소대(제1연대 배속) : 소대는 제1연대의 右一線인 제2대대와 中央一線인 제1대대를 지원하였다.

소대장 安載慶 소위가 지휘하는 소대장반은 제2대대 OP(△552) 東쪽 稜線에 戰車隊를 마련하여 사단의 右側 地境線과 제5, 제7 兩중대의 전투지경선 사이의 地隙을 火力로 補填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선임하사관반은 제1대대의 OP(△512) 西쪽 △522 부근에서 同대대 정면에 대한 직접지원에 임하였다.

敵의 공격이 시작되자, 소대는 主抵抗線에 HE彈으로 戰車砲 지원사격을 실시 하였는데, 子正이 가까워 지면서는 我軍포병의 陣內射擊 등으로 砲火가 亂舞한 까닭으로 전차포의 위력을 발휘치 못하고 壕속에 待避하여 子正을 넘기게 되었다.

제1소대(제1연대 배속) : 소대는 제1연대의 左一線인 제3대대의 정면을 지원 하였는데, 소대장반은 同대대 OP(△477) 南쪽 稜線에 전차호를 構築하여 제26연대와 전투지경선 일대의 개활지에 대한 火力集中에 重點을 두었으며, 선임하사관반은 대대 OP 東北쪽 稜線에서 同대대의 右제1선 정면을 지원한 바, 子正까지는 同대대와 함께 陣地를 支撐하였다.

제2소대(제26연대 배속) : 소대는 당초 소대장반을 제1대대의 主陣地에, 선임하사관반을 제3대대의 진지에 각각 배치하여 當面の 主抵抗線에 대한 火力支援에 임하던 차, 이날 저녁 제3대대 지원의 선임하사관반이 △424 西쪽의 無名高地에서 미처 陣地變換도 하기 전에 敵의 攻襲을 받게 되어, 峰上에 炸裂하는 砲火의 破片을 뒤집어 쓰게 되었다.

그러하여 제1대대의 OP 곁에 배치된 소대장반 戰車 1대가 敵의 포탄에 軌道가 破損되어 運行不能의 상태에 빠져 굽기야는 火焰에 휩싸이게 되고 말았다. 이에 소대장반의 나머지 2대의 戰車는 △424쪽으로 撤收하여, 子正 무렵에 △424 일대에 까지 浸透한 敵의 一群을 기관총으로 制壓하면서 南大川을 건너 橋田里로 물러섰다.

5. 사단장의 措置

사단장 崔昌彥 준장은 肅宮洞의 지휘소에서, 敵의 攻勢가 사단의 左右一線에 同時に 들이 닦았다는 埃鼓를 듣자, 곧 예비연대장인 제1기갑연대장 陸根洙 대령을 지휘소로 불러 제1線增援에 대한 준비 태세를 확인한 다음, G-2 崔壽根 중령과 G-3 朴正瑞 중령(제1연대 부연대장에서, 7월7일에 金聖煥 중령과 交代)등 參謀陣과 더불어 前線의 戰況을 綿密히 검토한 바, 시간이 흐를수록 事態는 심각한 양상으로 急轉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초 사단장은 左右一線에서의 戰況 보고를 綜合하여 分析한 바, 敵의 공격 主力이 左一線인 제26연대(장, 殷碩杓 대령) 정면의 橋田里-芳洞里를 突破하여 사단의 主補給路인 117번 A道の 차단을 노릴 것이라고 보았으나, 右一線인 제1연대의 中央正面에 그들의 主攻이 集中된 듯 하다는 同연대장 崔世寅 대령의 보고와 당시에 사단포병과 美 지원포병의 대부분이 月峰里-間椽峴 사이에 집결되어 있다는 事實을 勘考한 결과, 敵의 主力이 直木洞-利川洞-間椽峴의 軸線으로 指向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에 사단장은 제1연대 정면에 예비대를 사용키로 斷案을 내리고, 23.35에 作指 제133호로써 기갑연대장에게 命令 하기를 『기갑연대의 1개대대를 今夜 23.40을 期하여 利川洞 부근으로 出動시켜 제1연대를 지원케 하라.』고 하는 한편, 나머지 1개 대대는 제26연대를 지원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제1연대와의 有線이 거의 杜絶된 상태에 이르러, 사단통신중대(장, 崔得奎 대위)에서 확보한 Voice C.W의 無線網에 依支하는 형편이라 同연대 정면에 대한 정확한 상황판단이 곤란하므로 이 예비대 投入措置의 一環으로 부사단장 林益淳 대령을 同연대 CP로 急派함으로써 예비대의 逆襲方案의 採擇 문제를 現地에서 調整토록 하였다.

한편, 사단장으로부터 赴援 명령을 받은 기갑연대장 陸根洙 대령은 浦幕(보토막)의 연대 CP 부근에 控置중인 제2대대(장, 朴基淳 중령)를 직접 지휘하여 제1연대를 增援키로 하고, 松洞 부근에서 예비진지 공사중에 있는 제1대대(장, 尹興禎 중령)에 제26연대로의 投入을 待機토록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제2대대는 곧 연대 CP의 練兵場에 집결하여 機動준비에 들어 갔는데, 연대장은 이 緊急出動에 앞서 同대대원에게 이르기를 『血雨는 이미 遙岑을 휩쓸었고, 腥風은 近巒에 이르렀다. 이 醜虜를 擊破치 못하면 나의 生還이 있을 수 없다. 傳統에 빛나는 나의 연대, 사랑하는 나의 대대의 豺貅들은 나의 뒤를 따르라!』라고 하는 悲壯한 決意에 불타면서, 雨中을 무릅쓰쳐 연대의 S-2인 南基忠 대위와 S-3인 金潤鏞 소령을 帶同하고 먼저 제1연대의 CP를 目標로 急히 發進하였으니 이것이 이 世上에서 마지막 남긴 그의 出陣 모습이었다.

(나) 主抵抗線의 撤收(7.14. 01.00~07.00)

7월 14일 : 이날 사단은 巨戰巨退로 117번 A道の 線으로 물러나 戰線을 整備 하였는데, 그 동안에 前線에서 中共 제72사단과, 제74사단 그리고 제203사단과 제204사단 및 제135사단 등 各기 사단소속이 다른 10여명의 敵兵을 補獲한 바 있어, 이들을 審問하여 그 隙述을 종합한 결과, 전날 밤 以來 사단 전면에 대한 공격에 敵 5개 사단이 加擔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中共 제68군(장, 邱 蔚)의 主力이 사단의 右一線의 攻取를 任擔한 듯 하고, 제24군(장, 饒守坤)의 일부가 左一線을 맡았으며, 제54군(장, 李化民)의 일부가 제68군의 공격에 合勢한 듯 하였다.

따라서, 이로써 이 攻擊에 任擔 當面의 敵의 企圖나 兵力의 規模가 대체적으로 밝혀진 셈인데, 그들의 作戰構想에 대한 輪廓을 헤아려 보면 대개 이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1연대 정면에서는 제68군의 제202사단(장, 陳坊仁)을 예비로 삼아, 제203사단(장, 楊棟樑)을 제1선에 내세워 이로 하여금 연대의 中央正面(제1대대 지역)을 집중 돌파토록 하고, 제204사단(장, 曹玉滿)을 제6사단과의 間隙을 따라 後續케 하여 연대의 右側方으로 壓力을 加함으로써 月峰里一間嶺峴 사이의 砲兵火力을 剝奪키로 한 듯 하며, 제26연대 정면에서는 「狙擊殺線」 일대에 대한 공격임무를 맡은 제24군이 제72사단(장, 康林)의 일부로써 同연대 제1대대 정면을 집중 공격케 하여, 芳洞里 부근의 117번 A道 차단을 노린 듯 하였는데, 이에 는 그들의 군 예비인 제74사단(장, 肅選進)의 일부가 增援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6사단의 左一線 正面으로 指向 되었다는 제54군의 제135사단(장, 韋統泰)의 일부가 사단 戰線에서 合流된 것으로 미루어 보면, 그들은 미리 明確한 目標을 부여치 않은 正面突貫 작전을 驅使한 것으로도 分析 되었다.

1. 제1연대의 狀況

전날 子正을 前後하여 苛烈性을 띠기 시작한 제1연대(장, 崔世寅 대령)의 戰況은 이날 새벽에 들어서서 한층 더 激化되어, 마침내 絶望을 수 없는 상태로 빠져 들고 말았다.

가) 제2대대의 Iceland線 崩潰

전날 子正을 고비로 敵이 대대의 제1선인 제5, 제7 兩중대의 진지를 넘어서게 된 뒤로 제6중대(장, 李應龍 대위)는 제5중대의 南쪽 예비진지에서, 그리고 제7중대를 赴援 도중 急流에 휩쓸린 바 된 기갑연대 제10중대(장, 李柱學 대위)는 제7중대의 南쪽(△552 西北麓)에서 各各 敵의 攻波를 다시 맞이 하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 金榮吉 중령은 전날 23.30부로 연대장의 措置에 따라 대대에 배속된 연대 수색 중대를 집결지(△552 西南麓)에서 뽑아 △552 頂上의 대대 OP 北麓으로 推進시켜,

Iceland線에 방어진지를 急繼케 하고, 제1선에서 苦鬪에 빠진 대대 主力을 收容하려 하였다. 그러나 02.00에 이르러 1개연대 규모의 敵이 연대의 右接境線을 타고 狂瀾과 같이 밀려들어 그 가운데 1개대대 규모로써 제5중대(장, 金鍾潤 대위)와 제6중대의 사이를 東西로 가로질러 南北으로 分斷함으로써 제5중대에 대한 포위 태세를 한층 強化하는 한편, 다른 1개대대 규모로써 東北쪽으로 부터 제6중대에 대한 공격력을 증강한 까닭으로 이제 제6중대 마저 激浪을 타고 나부키는 一葉孤舟의 身勢가 되었다.

이때 또한 대대의 左側 제1대대(장, 李鍾綠 중령)와의 罅隙으로 파고 든 敵이 어느새 1개 연대 규모로 불어나, 그 일부가 기갑연대 제10중대의 진지를 휩쓸고 Iceland線의 대대 OP(△552)를 목표로 그 衝鋒을 겨냥하는 듯 하므로 대대장은 同 제10중대를 △552의 정상 부근으로 수용하여 대대 OP 要員과 더불어 OP를 防禦케 함으로써 該線에 대한 固守의 決意를 다시 한번 가다듬었다.

대대지휘소의 撤收: 그러나 事勢는 時刻를 다투어 惡化되다가 03.00에 이르러 제1대대와의 地境線인 直木洞-利川洞 道路를 따라 侵襲한 敵의 일부가 △552 정상에 있는 대대 OP의 背後를 들이치게 되었다.

이 무렵 雪上加雪으로 이미 月峰里 일대에 放列된 지원포병은 撤收를 시작한 다음 이어서 포병 지원마저 얻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1선의 제5, 제7 兩중대의 狀況이 渺然한 바 그 진지가 이미 敵手에 들어간 것으로 推斷 되었으며 제2선의 제6중대와 연대 수색중대(장, 李鍾甲 대위) 또한 包圍 속에서 惡戰苦鬪 중인 것으로 판단 되었다.

그리하여, 04.00에는 연대와의 通信마저 모두 杜絶되어, 새로운 支援마저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대대장은 부대를 수습하여 後圖를 策하기로 決斷을 내리고, 05.00에 마침내 대대의 全 無電을 열어 각 중대에 제1집결지(間接峴)로 철수를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撤收命令조차도 이미 時宜을 잃은 다음이라서 각 중대는 姑捨하고 대대지휘부의 철수조차 容易치 않게 되었으니, 前門拒虎에 後門迎狼인 격인지라 대대장은 작전장교 申喆鉉 중위와 정보장교 高正明 중위 등과 함께 기갑연대 제10중대의 일부와 본부병력을 陣頭 지휘하여 포위망을 突破코자 試圖 하였으나, 그것이 수월치는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 대대의 후방CP(연대 CP 北쪽 1.2km)에서 CP 要員을 이끌고 彈雨속에 탄약을 OP로 推進중이던 대대 군수장교 韓命守 중위가 △552의 南麓을 거슬러 올라 8부稜線에 이르렀는데, 敵 1개소대 규모가 그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

이에 韓중위는 곧 탄약반병을 전투 隊形으로 散開시켜 20여분 동안 이에 應戰하다가, 그를 先頭로 하여 敵中으로 突擊을 敢行하여 그 頂上의 OP까지 당도함으로써 敵의 포위망 一角에 龜裂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자 이 好機를 捕捉한 OP 兵力이 全力을 다하여 突破口를 擴大한 결과, 마침내 포위망을 벗어났는데 이에 따라 韓중위는 탄약추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비록 이루지는 못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대대지휘소 要員의 撤收路를 開拓한 셈이 되었다.

제6중대의 撤收 : 03.00가 되면서, 가깝연대 제10중대(장, 李柱學 대위)의 진지를 휩쓸어 넘은 敵의 일부(1개대대 규모)의 銳鋒이 연대수색 중대와 제6중대 쪽으로 指向됨으로써 제6중대(장, 李應龍 대위)는 前後左右로 1개 연대 규모의 敵의 重圍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중대는 중대장의 진두 지휘아래 선임장교 林光鉉 중위와 제1소대장 金顯杓 소위 등 소대원의 血戰으로 05.00까지 진지를 지켜 내었는데, 오직 수류탄과 白兵의 힘으로 버티는 前後 8시간에 걸친 火焰 속의 格鬪이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수류탄과 탄약이 바닥을 보이게 됨으로써 더 이상 支撐할 餘力이 없게 되었을 즈음; 대대장의 無電命숨에 따라 제1집결지인 間榛峴으로 철수케 되었는데, 이번에도 중대장이 先頭에서 活路를 打開하여 九死 중에서 一生을 구하였으니, 이 과정에서 소대장인 王然旭 소위가 失蹤(戰死로 確認)하는 등 중대원의 損失이 적지 않았으나, 중대의 建制는 끝까지 유지 되었다.

연대 수색중대의 敵中突破 : 한편 수색중대(장, 李鍾甲 대위)는 이날 01.00를 前後하여 △552의 西南麓에서 △552로 推進되었다가 다시 그 北쪽 400m에 있는 無名高地(표고 500m 정도) 일대에 제2, 제3, 제1소대의 順으로 진지를 急縮하여 대대 OP 방어의 一役을 맡았는데, 03.00에 이르러 그 西쪽의 기갑연대 제10중대 진지를 휩쓴 敵이 중대 정면으로 밀려 들었다.

이때 중대의 東北쪽 제6중대의 方向으로 진지를 점령한 제2소대는 同 중대의 진지 西쪽 一角을 공격하다가 그 衝鋒을 急旋回한 敵 일부의 강력한 압력을 받게 되어, 그 敵과 더불어 수류탄 爆焰을 어지러이 交換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侵襲이 자못 세차 곧 한걸음에 소대전지를 뛰어 넘을 듯한 기세를 보였다.

이에 소대장 柳湧奎 소위는 壕 속에서 뛰어나가 『두려워 말고, 各者의 위치를 固守하라!』고 외치면서, 수류탄 2발을 敵中에 投擲한 다음 1개 분대를 지휘하여 敵陣 속으로 오히려 突擊하여, M2 Car을 亂射하는 阿修羅의 勇姿를 보였다. 이를 본 소대원은 저마다 士氣가 올라 모두 壕를 박차고 달려나가 혹은 銃劍으로, 혹은 수류탄으로 보이는데로 屠戮 함으로써 先制의 一擊을 加하고 말았다.

그러자 敵勢가 주춤하여, 한동안 四面에서 나팔과 피리 소리만 요란하더니, 敵이 소대전면으로의 攻奪企圖를 斷念한 듯 소대의 左側面으로 迂回하는 기색을 보였다. 이리하여 소대전면에서 잠시 小康을 보게 되었는데, 이 틈을 타서 분대 규모가 또다시 포복으로 陣前에 肉迫하는 것을 소대원이 놓치지 않고 小火器의 사격을 집중하여 격멸한 바, 그들은 다시 피리소리를 앞세워 左右側方에서 중대 규모로 공격을 再開함으로써 또 한번 소대전면에서 수류탄의 亂投相을 보게 되었다.

이러는 동안, 대대장으로 부터 중대의 철수 명령이 下達되었는데, 제2소대의 頑守로써

이때까지 主力을 溫存할 수 있었던 中대로서는 이때까지도 敵과의 紛戰을 切實히 전개중인 同소대의 철수가 一難中의 一難事로 浮刻 되었다.

이에 中대장 李鍾甲 대위는 제1소대를 대대 OP쪽으로 한걸음 먼저 올려 보내어 中대의 撤收路를 확보케 한 다음, 제3소대를 제2소대 쪽으로 進出시켜 側方支援으로써 同소대의 철수를 掩護토록 한 결과, 오래지 않아 제2소대가 當面の 敵線에서 離脫하여 中대 主力에 合勢케 되었다.

中대장은 △552 정상에서 月峰里로 이르는 계곡道를 철수路로 定하고, 먼저 △552 頂上을 넘어서기로 하였는데, 이때 △552 정상의 대대 지휘소가 이미 철수한 뒤라 敵이 그곳을 據點으로 확보 하였다는 信號인지 嘽파리 소리를 울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中대장은, 이제 날이 밝아 계곡은 敵에 嚴制될 것이므로, △552의 정상을 突破치 않고는 달리 方途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 自身이 中대를 직접 지휘하여 이 高地突破를 決行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제1소대를 高地 頂上의 東쪽으로 迂回케 하여 側方을 지원케 하는 가운데 제2, 제3 兩개 소대로서 정상 대대 OP를 목표로 一齊히 돌격케 한 결과, 中대(一) 규모의 敵 저항을 一蹴하고 마침내 정상에 올라서게 되었다. 中대는 이에 곧 3개 소대로 하여금, 제1소대가 先頭에서 길을 열면 [제2소대가] 이를 超越하고, 제3소대는 敵의 追擊을 막게 하는, 突破와 掩護 그리고 阻止의 임무를 각각 번갈아 交代로 遂行케 하면서 1개 소대씩 逐次로 철수하여 예정된 進路를 따라 06.30에 제1집결지에 集結하였다.

이리하여, 間條峴 부근의 제1 집결지에 집결한 대대의 兵力을 점검한 결과 모두 280명이 수습되었는데, 당초 대대의 贊병력 712명과 배속중대(연대 수색중대 및 기갑연대 제10중대)의 그것을 都合하면 1,000명을 헤아리던 것이 이 一夜의 血戰에서 700여명을 損失한 셈이 되었다. 계곡마다 血流요, 峰巒마다 屍丘인 이 激戰에 吾人은 머리숙여 肅然하지 않을 수 없다.

敵中에 남겨진 대대의 제1선 陣地는 비록 文字 그대로 難破船의 殘骸와도 같았을 것이지만, 陣地 속의 將兵들의 固守意志는 끝내 꺾이지 않았던 것이니, 부대대장 金壽元 대위가 負傷을 입고, 제5중대장 金鍾潤 대위와 同중대 소대장 崔重午 소위, 그리고 제7중대장 金萬基 대위와 소대장 金壽夏 소위 및 金濟烈 소위등이 陣歿하는 가운데 中대원의 대부분이 진지의 무너진 壕속에 스스로 뼈를 묻고야 말았던 것이다.

나) 제1대대의 退散

대대지휘소의 喪失: 전날 밤, 제1대대의 OP(△512)에 대한 기갑연대 제9중대(장, 李德和 중위)의 赴援企圖가 無爲로 돌아가자, 대대장 李鍾綠 중령은 본부요원 30여명으로 自體경계 태세를 가다듬게 되었으나 대대의 右제1선에서는 제3중대(장, 尹畢孝 대위)와 제2중대(장, 趙柄奎 대위)의 縱深을 차례로 돌파한 1개대대 규모가 △512 정상을 목표로 그

餘勢를 몰아 닦쳤고, 또 Iceland 線上의 그 左側에서는 기갑연대의 제11중대(장, 李德永 대위)가 급편진지를 마련한 △522로 역시 左제1선의 제1중대(장, 全春煥 대위)의 진지를 휩쓸어 넘은 2개대대 규모의 敵이 들어 닦친 까닭으로 03.00를 지나자 이 OP(Iceland線) 지역으로의 飛火를 보게 되었다.

이리하여 대대는 OP 지역의 2개 중대에도 未遑하는 混成 병력으로써 4개 대대에 가까운 4倍 以上の 敵을 맞아 싸우게 되었는데, 이때 이미 敵의 다른 갈래는 直木洞-利川洞의 道路를 따라 후방 CP쪽으로 指向되고 있던 터이라, 一切의 支援이 杜絶된 가운데 不退轉의 鬪魂 하나만으로 진지를 支撐할 뿐이었다.

이렇듯 대대장과 OP요원 30여명의 渾身力鬪로 敵이 십사리 △512의 정상에 올라서지 못 하였으나 1시간 가까이 진지를 拒守하여 04.00가 지나게 되니, 마침내 OP 병력의 실탄과 수류탄이 바닥나게 되고 말았다.

이에 대대는 白兵의 對決으로써 全滅을 賭하기로 決心하고, 壕속에서 銃劍을 곧추어 잡고 敵이 壕內에 突入하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들은 대대의 이와같은 虛實을 看破한 듯 OP 지역의 各 壕속에 수류탄과 TNT 그리고 破壞筒들을 投入함으로써 굵기야 破壞筒 한 발이 대대의 지휘壕를 파괴하고 말았다.

이 순간, 대대장 李鍾線 중령은 무너진 壕의 掩蓋材에 치어 그 자리에서 失神하게 되고 壕內에 같이 있던 기갑연대 제3대대장 李俊和 소령이 戰死 하였는데, 연대의 最後 阻止線인 Iceland線 방어에 破局을 告한 轟然一發의 이 爆聲으로 멎어진 어떤 無名勇士의 腕時計의 時針은 04.50을 가르키고 있었다.

05.00에 이르러 OP의 나머지 병력과 제2중대 및 기갑연대 제11중대의 일부는 敵의 포위망을 個別 突破하여 榛峴里 쪽으로 撤退하였다.

그런데 대대장 李鍾線 중령은 이날 낮에 壕속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어, 선임하사관 金周安 이등상사와 대대의 75mm 무반동총 射手인 千寧麗 일등중사 등과 함께 허물어진 壕속을 헤치고 나와, 저녁에 △512 南麓에 落伍중인 美軍 관측장교 2명과 대대원 70여명을 수습하여 夜暗을 틈타 敵陣을 突破함으로써 그 이튿날 15일 03.20에 下榛峴으로 復歸하였는데, 이 동안의 行跡은 筆舌을 絶하는 坎塹 그것이었다고 하거니와 이날 현재로 제2선인 제2중대(장, 趙柄奎 대위)의 일부만이 수습되었을 뿐, 앞서의 제2대대(장, 金榮吉 중령)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장병이 진지 속에서 戰歿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左右 제1선 제1중대장 全春煥 대위와 제3중대장 尹畢孝 대위는 戰死하였으며, 부대대장 南炳喆 대위를 비롯하여 제1중대의 소대장 吳允濟 소위와 제2중대의 소대장 高在勉 소위, 그리고 제3중대의 소대장 韓相浩 소위 등이 失蹤된 것이니, 대대의 建制마저 混迷하게 된 것이다.

중박격포 소대의 玉碎 : 사단의 右一線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대에 배속중인 사단 重砲중

대(장, 尹永旼 대위)의 제1소대는 제1대대의 OP(△512) 南쪽 계곡(기갑연대 제9중대의 집결지)에 4.2"重박격포 3문을 放列하여, 연대의 右一線인 제2대대의 제7중대 OP(△467)와 中央一線인 제1대대의 제3중대 OP(△473) 및 左一線인 제3대대의 제9중대 OP(△489)에 3개 處의 관측소를 설치하고, 각각의 관측장교 要求에 따라 사격을 지원하였는데, 이날 02.00가 채 못되어 소대의 砲진지에 敵의 小火器 사격이 加하여졌다.

이는 제2대대와 제1대대의 地隙인 直木洞-利川洞 계곡을 타고 潛入한 듯한 敵의 일단이 不意에 소대진지를 急襲한 것인데, 소대장 朴再鎭 중위는 곧 경계조를 편성하여 砲진의 四周에 배치함으로써 敵侵에 대비하면서 OP의 사격 要求에 따라 박격포 지원을 계속토록 하였다.

그러다가 敵이 砲진지 부근으로 더욱 肉迫하여 치열한 小火器 射擊戰이 전개 되기에 이르러, FO와의 有線이 杜絶되고 無線도 難聽하게 되어, 前線에 대한 砲兵火力 지원이 如意치 못하게 되매, 소대장은 즉각 陣地를 포위한 敵을 自力으로 격퇴하는데 注力키로 하고, 全 소대원으로 하여금 自體방어 태세로 轉換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소대장의 陣頭 지휘아래 全 소대원이 渾然一體가 되어, 진지까지 近接한 醜敵과 血戰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나 前線의 FO와도, 그리고 後方의 지휘부(중대본부)와도 通信이 두절되어 상황이 杳然한 가운데 시간이 흐를수록 진지를 포위한 敵勢가 陸續 增強되어, 소대원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砲를 遺棄치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소대장 朴再鎭 중위는 斷乎히 『우리의 任務가 이 砲와 더불어 있을진대, 砲를 여기에 두고 어디로 갈까 보나! 여기서 이 砲와 함께 죽음을 같이 하리라.』는 決意를 굳히고, 砲를 파괴한 다음 左衝右突로 白刃을 휘둘러 敵을 무찔렀으나 결국은 소대진지가 敵手에 蹂躪되고 말았는 바, 나중에 이 敵中에서 脫出한 兵士가 불과 5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며, 소대장을 위시한 소대원 全員이 3문의 박격포와 더불어 壯烈한 최후를 그곳에서 맞이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제1선에서 敵과 싸우고 있을 즈음에 대대 OP의 後方に 위치한 이 박격포 소대도 敵의 포위공격을 받게 되었으니, 이로써 당시의 狀況의 一端을 미루어 볼수 있거니와, 敵은 主抵抗線에 대한 공격과 同時에 後方으로 侵透하여 前線의 壓力과 後方의 攪亂을 互用한 것으로 推斷된다.

다) 제3대대의 陣地撤收

연대의 左一線인 제3대대(장, 朴贊兢 중령)는 전날 子正前에 대대 정면의 狂風-陣을 砲火로써 제압함으로써 依然히 진지를 固守하였는데 이날 새벽에 들어서자, 左제1선의 개활지로 숨어든 증강된 중대 규모의 敵이 제11중대(장, 張斗煥 대위)의 西南쪽으로 迂回하여 제26연대와 地境線 突破를 꾀하는 듯 하므로 01.30에 同중대 진지에 陣內射擊을



〈당시의 陣地 內部〉

1km)의 대대 후방 CP로부터 느닷없이 飛報되기를 『目下 대대 CP가 敵의 攻襲을 받는 중』이라고 하였는데, 그 규모는 알수 없으나 攻波는: CP의 東과 西, 그리고 南쪽의 三方向으로 들이 닦쳤다는 것이다.

이에 대대장은 대대의 左右一線의 地隙을 뚫어 Iceland 線을 돌파한 敵의 일부가 溢出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상황이 急轉하였음을 깨달아 즉시 각 중대장에게 命令하기를 『當面한 상황은 錯雜하다. 각 중대는 動搖치 말고 現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此後에 만약 대대장과 通信이 杜絶되면, 각 중대장의 판단에 따라 處置하라. 나는 제10중대와 같이 行動 할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S-2로 하여금 OP 要員을 지휘하여 연대를 철수토록 하고, 대대장은 대대의 지휘를 계속하기 위하여 그 正面에 있는 제10중대(장, 朴壽鳳 대위)의 OP로 대대지휘소를 移轉키로 하였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에 대하여 대대장 朴贊兢 중령이 披瀝하되, 『그러하여 나는 S-3

한차례 실시하여 그 敵을 격멸하였다.

대대장의 措置: 그런데 이 무렵, 左右 인접 대대와는 通信이 杜絶된채 서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실정이었는데, 右인접인 제1대대와 연대間的 無線交信이 청취된 바에 의하면, 兩대대 정면의 일부가 이미 突破된 듯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대장 朴贊兢 중령은 右제1선인 제9중대(장, 金守明 대위)로 하여금 側方 경계를 강화하여 제1대대로 부터의 迂回 공격에 對備토록 하고, 대대 수색대를 대대 OP(△477) 東北쪽 稜線에 배치하여 OP의 側後方 경계에 加一手 하였다.

그러나 04.00가 못미쳐 연대와의 通信마저 끊어지고, 이어 04.30에는 三南里(△477 東南쪽

延化春 중위와 無電兵을 帶同하고 제10중대 OP(대대 OP 西北쪽 250m 정도)로 가기 위하여 OP 앞에 있는 계곡으로 내려 섰는데, 그곳에는 同중대의 60mm 박격포 진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곳의 상황을 살펴 본 다음 다시 同중대 OP로 올라 갈려는 찰나에 등뒤인 대대 OP 부근에서 敵의 自動火器의 사격이 加하여 지더니, 눈앞의 제10중대 OP와 치열한 사격전이 벌어졌다. 벌써 그 사이에 대대 OP가 敵의 手中에 들어 간 것이었다. 나는 決定的인 순간이 닥쳤다고 直感하고, 無線으로 각 중대장에게 各個 突破를 명령하여, 집결지를 제26연대의 CP로 指定하였다. 그리고 나는 제10중대 OP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 同중대의 화기소대 요원을 직접 지휘하여 單獨으로 血路를 찾게 되었는데 그때가 05.00 前後였다.』라고 하는바, 여기서 대대도 제1선의 진지를 拋棄하게 되고 만 것이다.

이동안, 대대 CP에서는 부대대장 金元贊 대위가 S-1 柳允周 중위와 더불어 CP 병력을 지휘하여 따로 敵의 포위망으로 부터 脫出한 것이다.

제10, 제11중대의 撤收 : 한편, 전날밤에 敵의 제1波를 물리친 뒤로, 대대정면의 제1선 중대는 더는 敵의 공격을 받지 않았던 까닭으로, 날이 밝자 陣前에서 신음하는 敵의 負傷兵을 거두는 등 오히려 氣焰을 吐하기도 하였으나 등 뒤쪽으로부터 敵의 強襲을 받게 되어서는 이도 그 陣地에서 철수치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하여, 대대 OP쪽에서 背面 공격을 받은 中央 제1선의 제10중대에서는 중대장 朴壽風 대위가 부상을 입은 가운데 左제1선인 제11중대장 張斗煥 대위가 兩중대를 통합 지휘하여 現 陣容대로의 소대별 梯次로 진지의 前斜面에 橫으로 연결된 交通路를 따라 銃부리를 東南쪽으로 돌려 敵과 싸우면서 西南向으로 빠져 나갔다.

07.00가 지나서 杏亭 東쪽의 제26연대와의 地境線 일대에 이르러, 隊伍를 다시 수습케 되었는데, 여기서 兩중대는 南大川의 東岸을 따라 橋田里 쪽으로 철수키로 方針을 정하고 부근의 敵情을 살핀바, 佳峴里 쪽에서 곧장 河川을 건너 듯한 敵의 일부가 南大川 東岸의 稜線——본시 사단 수색중대 진지——을 占據 중이었다.

이 兩중대는 1개 소대를 抽出하여, 중대가 마치 그 進路를 上楓洞 쪽으로 잡아 △453 (△477 南쪽 2km)—△462(△453 南쪽 1.2km)의 稜線으로 東南向하는 듯이, 그 敵의 右端部를 陽攻케 함으로써 敵의 注意力을 견제토록 하는 가운데, 主力은 그 左端部로 南大川의 東岸을 따라 계속 西南向하여 제26연대의 CP로 발길을 재촉하였다.

제9중대의 撤收 : 대대의 右 제1선인 제9중대(장, 金守明 대위)는 右인접 제1대대의 진지가 突破 됨으로 말미암아 側方 위협을 받게 되자, 03.30에 제2, 제3 兩個 소대를 제1대대와의 地境線쪽에 轉換配置하여 중대의 正面 보다는 오히려 側方 경계에 注力 중, 05.00에 대대장의 命令에 따라 진지를 철수하게 되었다.

이에 중대장 金守明 대위는 제2, 제3 兩소대가 본래의 陣地를 떠나 別途로 임무를 수행 중이어서 소대 間의 橫軸線의 원활한 유지가 어려운 까닭으로 전반적인 중대의 장악이

困難할 것으로 판단한 결과, 제1소대와 火器소대 및 중대 OP 병력을 一束하여 이를 중대장이 직접 지휘키로 하고, 제2, 제3 兩소대는 제3소대장 尹成龍 소위로 하여금 통합 지휘토록 하는 지휘체제를 갖춘다음, 自身이 먼저 제1 및 火器의 兩 소대로써 敵의 포위망을 헤치는데 이어 제2, 제3 소대가 그 뒤를 따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중대장은 우선 제1소대와 火器소대를 OP 부근에 집결토록 하고, 제1분대로써 後方의 交通線에 배치하여 제1陣의 철수를 掩護케 하였는데, 05.40에 제1소대와 火器소대가 OP에 집결하였다.

이와 같이 중대가 撤收編組를 짜는 동안인 05.50에 중대 OP를 向하여 敵 1개소대 규모가 後方 交通線을 따라 侵襲하였는데, 그 곳에서 待機중이던 掩護 분대가 먼저 나타난 敵의 斥候 2명을 射殺하자 곧 交通線을 누비는 交戰이 벌어졌다. 이 동안, 중대는 제1소대, 중대 OP, 火器소대의 順으로 앞서의 제10, 제11 兩 중대의 經路를 밟아 撤收를 시작하였다.

길은 안개 속에 企圖를 秘匿하여, 先頭의 제1소대(장, 金高明 소위)가 이끄는대로 西南 向하여 07.20에 제10중대의 陣地에 이르니, 대대 OP(△477)에서 西쪽으로 뻗은 稜線을 차단한 敵 1개소대 규모가 火力을 집중하여 중대의 進路를 가로 막았다.

이에 중대는 이 敵線을 正面으로 突破키로 하고, 火器소대와 OP 要員을 西쪽 斜面으로 迂回토록 한 다음, 제1소대로 하여금 稜線 돌파를 決行케 한 바 同 소대가 소대장 金高明 소위의 陣頭 지휘로 30여분 동안 激戰을 벌인 끝에 07.50에 마침내 敵을 격파하고 稜線을 넘어서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敵의 遺棄屍體 14具를 확인하고 多發銃 4정을 幽獲하는 戰果를 거두기도 하였다.

한편, 제2陣인 제2, 제3 兩소대는 제3소대장 尹成龍 소위가 先頭에서 소대 嚮導 徐鎮碩 일등중사와 더불어 일면 血路를 열고 일면 敵의 추적을 막는 가운데 落伍없이 제1陣의 뒤를 따랐다.

그리하여 제11중대의 陣地에 이른 중대는, 여기서 제10, 제11 중대와는 달리, 제26연대와의 地境線을 따라 東南으로 △453—△462로 指向하였는데, 到處에서 潛伏隊와 激突하고, 곳곳에서 狙擊兵을 만났으나 그 때마다 중대장이 陣頭에서 이를 打開하였다.

라) 연대 CP의 被襲

이렇듯, 前線의 대대가 Iceland 線의 방어에 死力을 다하고 있을 무렵, 利川洞의 연대에서는 뜻하지 않은 破綻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사단 計策의 根源이 여기에서 결단이 나고 만 것이다.

CP 正面의 연대 中央一線인 제1대대(장, 李鍾綠 중령)의 CP(△512)가 四面楚歌에 들게 된 03.30에, 연대장 崔世寅 대령은 未久에 이 敵勢가 畢境 연대 CP로 들어닥칠 것으로 판단하고 연대의 경비소대(장, 許 瑛 소위)를 除外한 本部 중대와 勤務 중대의 병력을

모두 非常 動員하여 直木里—利川洞의 本道上 △398 南쪽(CP 西北쪽 1km)의 三南里와의 삼거리에 있는 교량을 要扼케 하는] 한편, 赴援중인 기갑연대의 來着을 재촉하여 이로써 CP 방어에 充用키로 하였다.

그러나 이때 이미 제2대대의 OP(△552)와 제1대대의 OP(△512) 사이에 虛隙을 돌파한 2개대대 규모의 敵이 그 20분 뒤인 03.50에는 그 先鋒 2개 중대 규모가 本部, 勤務의 兩 중대의 阻止線을 뛰어 넘고, △443(△552 南쪽 1km)—△419(△443 東南쪽 1.2km)의 本道 東쪽 綫을 따라 기갑연대의 赴援 보다도 한걸음 먼저 CP로 肉迫하였는데, 그 중의 일부가 利川洞 마을 西南쪽 기슭(本道 西南쪽 200m)에 위치한 연대 CP의 正面出入口를 차단하는 가운데 後續한 다른 일부가 CP의 西北과 西南의 兩面을 포위 하였다.

이리하여 04.00를 前後하여 CP의 境界병력과 敵이 격전을 展開하기에 이르렀는데, 正面出入口에서 衛兵이 쓰러지는가 하면 輸送部에서 車輛이 炎上되고 彈藥庫가 폭염에 燒 사이는 등 猝地에 CP가 온통 修羅場으로 突變하였다.

이어 앞뜰에 亂入한 敵의 多發銃聲이 한층 드높은 가운데 狀況室 要원들이 그곳에까지 뛰어든 敵兵과 誰何를 가릴틈 없는 銃擊戰을 벌이면서 機密文書를 燒却하는 등, 일면 戰鬪, 일면 非常持出에 임하였으나 30여명의 CP 병력으로서로는 대대 규모에 달하는 敵을 감당할 도리가 없었다.

이에 연대장은 間諜峴을 집결지로 하는 各個 撤收의 命을 내리게 되었으나 이것마저 때가 늦어, 南쪽으로 CP의 外廓에는 敵의 臼擲彈의 火光이 霧中을 밝히고 있었으며 敵의 일부는 이미 △382(CP 東南쪽 800m)에 까지 이르러 利川洞—間諜峴 도로를 차단한 상태였다.

이런 情況 속에서, 사단에서 急派된 부사단장 林益淳 대령을 비롯하여 연대장 崔世寅 대령과 부연대장 金聖煥 중령 및 S-3 金炯旭 소령 등 지휘부 要원이 CP 脫出을 감행케 된 바, 通信장교 鄭在基 대위가 交換臺로 달려가 交換兵이 敵彈에 쓰러지는 渦中에서 손수 交換臺를 파괴한 뒤 自身이 SCR-609 無電機 1대를 메고 연대장을 뒤따르게 되었으니 이로써 연대의 各級 지휘망 通信이 모두 斷絶되어 前線의 대대는 命을 受領할 길이 없게 되고, 後方의 사단은 報告를 接收할 方途가 없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CP의 南쪽 山腹으로 亂舞하는 敵의 砲火 속을 거슬러 오르는 연대 CP 要원은 東西를 莫辨할 霧中에서 부사단장 林益淳 대령이 失蹤되는 가운데 나머지 人員은 千辛萬苦로 雨中血路를 헤치고, 이날 낮에 間諜峴의 阻止線으로 復歸하였다.

2. 제26연대의 狀況

이날 새벽, 사단의 左—線인 제26연대(장, 殷碩杓 대령)의 激戰相은 전날 밤의 그것 보다도 한층 苛烈되어, 마침내는 117번道の 南쪽으로 물러서는 바 되고 말았다.

가) 제1대대의 陣地喪失

전날 子正이 지나면서, 我軍 포병의 陣內 사격으로 제1대대(장, 韓敏錫 소령)의 진지에 VT彈이 퍼부어 졌으나, 敵이 損失을 돌보지 않은 波狀攻擊을 반복함으로써 形勢가 더욱 惡化되었다. 그리하여 제2대대(장, 韓錦昌 중령)의 逆襲마저 如意치 못하여 背水의 陣을 친채 孤立無援의 상태에서, 敵이 그들의 屍體를 밟아 步一步로 대대 진지의 高地 정상에 올라서는 바 되고 말았다.

제2중대의 撤收 : 03.00를 前後, 대대의 右제1선에서 「死守峰」을 固守중인 제2중대(장, 金賢德 대위)는 그 北쪽의 △449에서 돌이 닳친 敵과 제1연대와의 接境線 개활지로 파고 들어 南大川을 타고 高地의 南쪽으로 迂回한 敵의 兩面공격을 받아, 중대장 金賢德 대위가 머리와 목 부분에 破片傷을 입어 온 몸에 鮮血이 淋漓한 가운데 鏖戰을 거듭 하였으나, 날이 밝은 다음에는 선임장교 崔碩弼 중위가 挺身打開한 血路를 따라 撤收케 되었는데, 이 동안에 소대장인 尹昌憲 소위가 戰死하는 등 병력의 損失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危急 속에 든 「死守峰」에 配置되어 이 중대를 支援 중이던 火器중대(장, 李得魯 대위)의 重機 제1소대는 敵의 密集突進에 대하여 기관총의 殺傷威力을 발휘함으로써 當面の 敵을 拒支하던 중 어느 사이에 陣地가 포위태세에 빠져, 소대원이 기관총을 부여 잡고 있는데 敵兵이 그 彈倉을 나꾸어 채는등 混戰亂鬪가 벌어졌다. 이에 소대장 文泰舜 중위는 射手가 戰死한 重機 제1據로 달려가 그 重機를 據밖으로 끌어 내어, 壕를 에워싸고 달려드는 敵을 向하여 熱鐵로써 制壓한 다음 敵勢가 멎치는 틈을 타서 소대원을 수습하여 철수하는 침착성을 보였는데, 중대가 衆寡不敵의 상태에서조차 날이 밝기까지 그 陣地를 支撐한 것은 이런 勇士가 있어서이리라.

연대수색중대의 奮戰 : 대대의 中央右제1선인 수색중대(장, 曹漢吉 대위)는 당시에 제3소대를 右側에 있는 제2중대에 배속하여 「死守峰」 東쪽 △347에서 연대의 右接境線을 경계토록 하고, 제1, 제2의 兩개 소대만으로써 중대의 主抵抗線 진지를 맡고 있던 중, 그 正面에서 1개대대 규모의 敵侵을 맞이하게 되었다. 중대는 渾身の 힘을 다 하였으나, 03.00에 이르러 모든 通信이 杜絶된데다가 敵이 陣地를 前後와 左右에서 포위하게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중대를 陣頭 지휘하던 중대장 曹漢吉 대위가 戰死한 가운데 선임장교인 黃明根 중위의 지휘아래 계속 陣地를 拒守한 바, 03.40이 되어서는 陣地掩壕 위에 騎乘한 敵을 壕속에서 버티고 있던 중대원이 서로 슬레잡기와 같은 一戰을 벌이기에 이르렀는데, 陣內的 중대원이 掩壕의 入口를 遮閉하고 그 속에서 限死코 抵抗하자, 陣地의 主人公이 설사리 가름되지 않았다. 이에 중대장 대리 黃明根 중위가 외치기를 『各者의 위치를 固守하라! 곧 我軍의 反擊이 있을 것이다.』라고 중대원을 奮勵하던 차에 敵의 砲火가 잠시 멎었는데, 이때 난데없이 여기 거기서 『진지 안으로 敵이 突入하였다. 모두 撤收하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黃 중위는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 壕 밖으로 뛰쳐나가 『중대를 철수하라고 하는 놈이 웬 놈이냐!』라는 大喝一聲과 함께 어둠 속에서 「撤收」를 連呼하는 者를 Car의 單發로 사살하고 자세히 보니 다발총을 든 敵兵이 分明한지라, 敵이 우리말을 익힌 兵士로 하여금 「撤收」를 외치게 함으로써 중대원을 壕밖으로 끌어 내리는 奸策을 쓴 것이라 판단하고 중대원에게 호령하기를 『철수하라고 외치는 놈은 中共軍이니 모조리 射殺하라!』고 한 다음, 陣內를 橫行하는 敵을 닥치는대로 屠戮하였다.

그러나 이때 敵兵의 말과 같이 대대 主陣地가 모두 敵手에 들어간 것이 사실이었으므로 중대는 곧 병력을 수습하여 제2소대(장, 許判石 소위)를 先頭로 삼아 敵中을 突破하여 活路를 개척케 하는 가운데, 진지에서 隨意撤收하여 南쪽으로 南大川을 건너 橋田里에 집결하였다. 당초 장교 4명에 사병 154명이었던 중대는 이 동안에 戰死 5명과 負傷 29명 그리고 失蹤 44명으로 모두 78명의 損失을 보았음이 밝혀진 반면, 俘虜 1명과 小銃 15정을 얻는 戰果를 확인 하였는데 그밖에 陣地에 遺棄된 敵의 屍體가 130여구에 달할 것으로 推算되었다.

대대장의 OP 離脫: 한편, 대대의 中央左제1선으로서 대대 OP 정면을 담당중인 제3중대(장, 林虎成 대위) 역시 子正을 지나면서 불과 150m를 離隔한 대대 지휘소와 通信이 杜絶된 가운데 03.00 부터는 紛戰相이 高潮되어, 결국 敵의 跳梁을 抑壓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때 左제1선인 제1중대(장, 盧明奎 대위)의 黃信周 소위가 지휘하는 제2소대가 主陣地 앞에 마련한 警戒진지에 대하여 敵은 該陣地를 그대로 남겨 둔채, 左右 계곡으로 迂回하여 그 後方인 중대의 主陣地에 먼저 들이치게 되었다. 이런 까닭으로 삼시간에 중대의 主陣地가 崩壞되어 제3중대 보다도 한결음 먼저 대대장에게 『지금 小官이 있는 壕위에서 敵이 無電機의 안테나를 除去하는 중입니다』라는 急迫한 보고가 있는 뒤, 더 이상 헤아려 볼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 뒷날 밝혀진 바에 의하면, 同중대의 제2소대(장, 黃信周 소위)는 중대의 主陣地가 무너지기에 따라 敵의 重圍에 빠졌으나 소대장 이하 全 소대원이 壕에서 脫出하지 않고 抵抗을 계속하자, 敵이 破壞筒으로써 壕를 하나 하나 격파한 탓으로 소대원이 모두 壕속에서 玉碎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玉碎精神은 花郎道에 緣由하는 것으로서 舊日本軍이 硫黃島나 Okinawa 섬에서 그들만의 專有物인 듯이 보여준 精神에 比하여 조금도 遜色이 없는 高貴한 것이었다.

이와같이 하여 제1선중대의 진지를 突破한 敵이 04.00에는 대대 OP를 들러싸고 壕속에 수류탄을 投入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대장 韓敏錫 소령은 S-3 朴昌道 중위등 OP 요원과 함께 壕의 銃眼과 入口를 閉鎖한 다음 그 속에서 我軍의 反擊을 기다리기로 作定 하였는데, 敵이 壕의 入口로 執拗하게 수류탄을 投擲한 결과, 끝내 그 중의 2발이 壕내에서 폭발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안에 같이 있던 대대 火器중대장 李得禧 대위가 重傷을 입은 끝에 殞命하고 美軍 관측장교등 OP 要員들이 모두 부상하게 되었는데, 대대장과 S-3만이 危局에서 모면되었다. 이런 가운데 날이 밝았으나 我軍의 砲聲이 점차 멀어지기만 하므로 대대장은 마침내 나머지 OP 要員에게 非常脫出을 명령하였다. 이에 該要員들은 壕의 入口 밖으로 휴대한 全 수류탄을 投擲하고 火力을 집중한 다음, 대대장의 呼名에 따라 한 사람씩 차례로 壕밖으로 뛰어나가, 下所里 쪽으로 南大川 西岸을 따라 分散 철수하였는데 그 인원이 10여명이었다.

한편, 대대 OP의 危急이 下九井의 대대 CP에 通報되자, S-1 李鎭根 중위는 각 중대의 人事係를 불러 모아 後方지휘소에 대한 非常持出에 任하였는데, 이때 부대대장 金永燮 대위가 나머지 CP 요원을 이끌고 OP로 달려 오르다가 OP를 넘어선 敵으로부터 不意에 다발총 세례를 받아 壯烈히 戰死 하기도 하였으니, OP에서 亂擊中인 그 무렵 燎原의 불길은 이미 南大川邊을 휩쓸었던 것이다.

나) 제2, 제3 兩대대의 逆襲

전날 밤의 연대장 措置에 따라, 제2대대(장, 韓錦昌 중령)는 제1대대 진지를 目標로 逆襲에 나섰으나, 원시 巨峯에 不過한지라 여찌 能히 決堤十里의 奔瀉를 막아낼 수 있으랴.

主力의 頓挫 : 제1대대의 OP(제3중대의 陣地)쪽으로부터의 逆襲命令에 따라 南大川 西岸의 집결지에서 踴躍하여 北으로 山腹을 타고 오른 제7중대(장, 金命晁 대위)는 그 途中에서 敵의 砲火로 말미암아 02.00가 지난 뒤로는 進路를 찾기에 급급하게 되었다. 한편 제1중대의 진지로 나아간 제5중대(장, 具南晝 대위) 역시 전날 子正부터 몇 차례의 역습을 敢行하였으나 중대장 具南晝 대위가 부상을 입는 등 병력 손실만 보게 되어 01.00에 이르러서는 중대병력이 1개소대 규모로 줄어 들고 말았다. 그러나 그 兵力마저 敵의 포위속에 들게 되어 선임장교 金金守 중위의 지휘아래 南大川 南岸으로 물러서게 되었다. 이로써 이 兩個 중대의 逆襲 결과는 다만 損失만을 累증케 하는 가운데 無爲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또 한편, 제6중대(장, 金東潤 대위)는 제1대대의 主抵抗線에서의 接戰이 시작되자, 곧 일부로써 제1중대를 增援케 하고, 主力으로써 제3중대의 後據로 나섰으나 중대장 金東潤 대위가 戰死하는 例의 苦戰相에 빠지게 되어, 제3중대의 진지가 무너짐과 同時에 중대도 제각기 退路를 찾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때 선임장교로서 중대의 指揮를 代行하게 된 金日永 중위는 陣前의 接近路上에 배치한 輕機의 効用에 主眼을 두고, 직접 輕機를 지휘하던 中 중대의 철수가 不可避하게 되자, 먼저 火器소대(장, 대리 林鍾得 일등상사)의 철수를 명령한 다음, 그가 손수 輕機 1정으로써 중대의 철수를 掩護하였다. 그리하여 金중위는 陣前 50m에 二列縱隊로 접근중인 1개중대 규모의 敵을 맞아 輕機를 휘둘러 單身 100여명을 殺傷하면서 중대원의 철수

를 재촉하다가, 끝내는 輕機陣地를 左右로 돌려 산 敵의 손에 사로 잡히는 危局에 다다랐는데, 이때 陣內射擊으로 我軍의 砲火가 그 주위에서 集中하는 것을 好機로 삼아 據에서 脫出하여, 敵中을 뚫고 3일 뒤에 비로소 中대로 復歸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제3소대장 金容默 소위도 敵의 포위망을 헤치다가 砲彈에 부상을 입게 되어 일단의 敵에 捕虜가 되었으나 다른 砲彈으로 敵兵이 쓰러지자 수류탄으로 나머지 敵을 爆殺하고 그곳을 벗어나, 부상을 다리를 이끌고 2일만에 歸隊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中대는 그동안 林鍾得 일동상사가 지휘하는 火器소대만이 이날 아침에 철수하였을 뿐으로서 中대 主力은 모두 四散되고 만 셈인데, 이 一戰에서의 戰果는 일일이 헤아릴 수 없으나, 그 損失은 이 中대만으로도 戰死 19(장교 1, 사병 18)명에 負傷 88(장교 3, 사병 85)명 그리고 失蹤 29명으로 확인 되었으니, 다른 中대의 그것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제1선상의 제1대대에 못지 않게 苦戰을 치르게 된 대대는 06.00에 橋田里에서 우선 병력을 수습한 바, 온전한 兵士가 100여명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제3대대(장, 林完植 중령) 역시 전날밤에 陣地交代차 기동중에 敵의 포화로 말미암아 四散된 戰列을 끝내 수습치 못한채, 橋田里 부근으로 집결하였는데 그 樣相은 제2대대의 그것과 類似한 것이었다.

제2선의 撤收: 南大川 東岸에서 제1연대와와 間隙을 制壓 중이던 사단 수색중대(장, 崔周鳳 대위)는 전날 밤부터 제2대대(장, 韓錦昌 중령)와 通信이 끊어진 가운데 홀로 진지를 확보하였는데, 전날 黃京俊 소위가 이끄는 수색대는 佳峴里 일대에서 夜暗과 濃霧 속을 더듬어 敵情을 探索하다가, 突然 1개소대 규모의 敵과 衝突하여 5분여의 射擊戰 끝에 敵의 遺棄시체 4구를 확인하고 2명을 사로 잡았다. 이어서 이날 새벽에 제1연대와와 接境線 개활지를 메우고 들이닥친 攻波로 말미암아 敵과의 接觸을 유지하면서 本陣으로 철수케 되었다.

이에 中대는 中대의 60mm 박격포와 제2대대에서 지원된 75mm 무반동총 2정 및 重, 輕機로써 제1연대 제3대대(장, 朴贊兢 중령)의 左제1선인 제11중대의 正면을 火力로 支援하면서 同수색대의 철수를 掩護하여 이를 收容한 다음, 決戰 태세를 가다듬은 바 04.30에 접어들어 날이 밝아지기 시작할 때, 中대 正면의 黎明속에 敵 2개중대 규모가 進襲하는 것이 보였다. 中대는 즉시 확보된 諸元에 따라 上九井 東쪽 제1연대 제11중대 진지 南쪽의 개활지에 設定한 탄막지대에 박격포와 기관총 등 中대의 全 火力을 집중하여 06.00까지 이 敵을 支離滅裂케 하고, 다시 敵兵——中共제203사단 직할 정찰대 소속으로 밝혀진——4명을 捕虜로 하였다. 이 一戰에서 中대의 火力에 제압되어 右往左往 하다가 견디지 못한 그들의 일부는 中대 OP(△453 北쪽 500m)가 있는 계곡쪽으로 退遁 하였으나, 이도 뒤쫓은 박격포탄의 세례에 모두 격멸되고 말았다.

이와같이 중대는 孤立 상태에서도 能히 진지를 지켜 내었는데, 07.00가 되자 제1연대의 제3대대 정면에서 上楓洞 쪽으로 南向한 敵 1개대대 규모가 중대 OP쪽을 먼저 공격하게 되어, 그곳을 지키던 제3소대(장, 鄭海昭 중위)와 격전을 다시 벌이게 되었다. 이에 중대장 崔周鳳 대위는 나머지 소대를 揚谷(橋田里 東南쪽 1.5km)으로 철수토록 명령하고, 제3소대를 직접 陣頭 지휘하면서 물러나, △462(揚谷 北쪽 1km) 부근에서 중대 主力과 合勢한 다음 07.40에 揚谷으로 집결하였다.

한편, 橋田里 西쪽의 △302 부근에 제2선 진지를 확보중인 제2대대 배속의 기갑연대 수색중대(장, 吳順九 대위)도 06.00부터 前線의 撤退에 힘써서 蘆洞(橋田里 南쪽 1.5km)으로 물러서게 되었다.

중박격포중대(-)의 陣地移動: 또한 △302 東쪽의 橋田里 계곡에 重박격포 진지를 점령 중이던 사단 重砲중대(장, 尹永畋 대위)의 主力인 제2, 제3 兩소대(4.2" 8분)는 제1대대의 각 중대 OP에 위치한 관측장교의 사격 要求에 따라 砲사격을 지원하다가 敵侵의 氣勢가 南大川 가까이에 이르자 砲진지를 蘆洞으로 옮겨 火力지원을 계속 하였다. 06.00부터 南大川 東岸의 제2선 陣地마저 무너짐에 따라 다시 砲진지를 중대본부가 있는 芳洞(蘆洞 東南쪽 1km) 부근으로 철수 시켰다가 사단장의 命令에 따라 중대본부를 齋宮洞 西쪽으로 移動하고, 砲진지는 제26연대의 CP로 옮겨 연대정면에 대한 直接지원을 계속 하였는데, 이 兩소대의 관측장교와 통신병은 대부분 제1대대의 중대원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되고 砲진지만이 撤收케 된 것인 바, 중대는 이날 아침까지 모두 56명의 兵力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3. 제1기갑 연대의 狀況

그러면, 전날밤에 제1연대를 赴援次로 出動한 제1기갑연대(장, 陸根洙 대령)는 어찌 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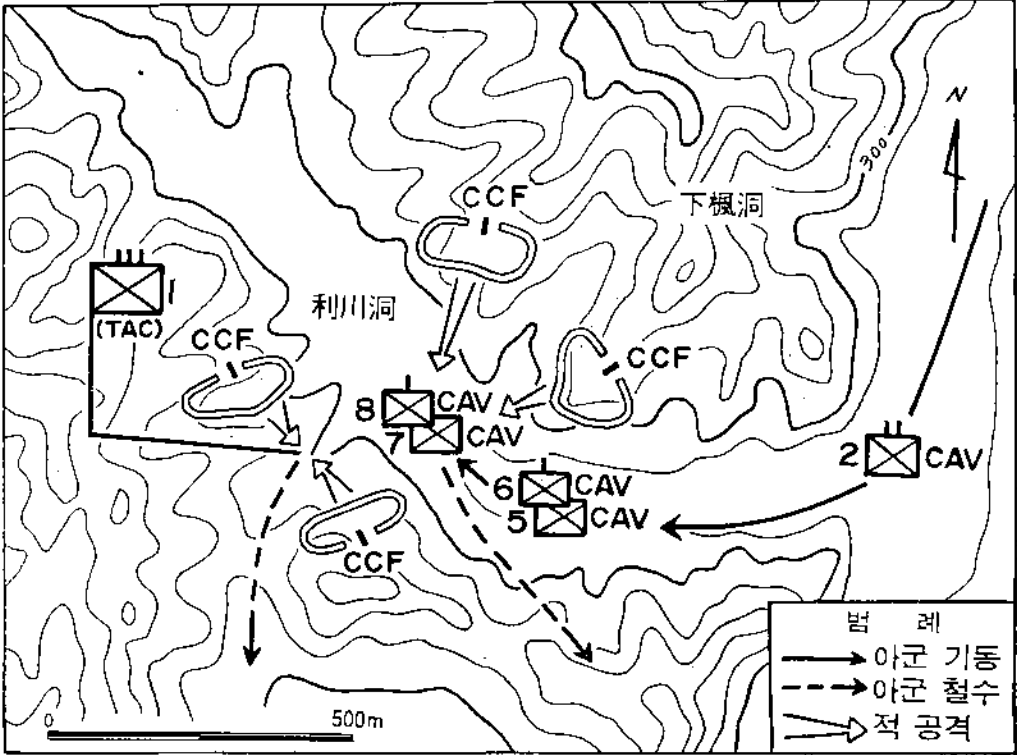
가) 제2대대의 赴援失敗

연대는 전날밤 23.35에 사단장 崔昌彦 준장으로부터 사단 예비대로서 제1연대의 正面에 대한 逆襲命令이 下達되자, 이날 00.30에 연대 제2대대(장, 朴基淳 중령)를 浦幕의 연대 지휘소에 집결토록 한 다음, 사단에서 支援된 車輛 22대로써 00.50에 연대지휘소를 發進하여 利川洞 西北쪽의 제1연대 제2대대의 CP를 목표로 機動하였다.

逆襲方向에 대한 異見: 그런데 이에 앞서 利川洞의 제1연대 CP로 달려간 연대장 陸根洙 대령은 그곳에서 제1연대장 崔世寅 대령 및 그 參謀陣과 더불어 敵情 판단과 예비대 投入方向을 協議케 된바, 兩연대장의 深刻한 異見對立을 보게 되었다.

즉, 예비대장인 기갑연대장 陸根洙 대령은 敵情 판단과 예비대로서의 能力發揮를 勘考한 결과 胸算하기를 『敵의 공격 主力이 제1연대의 中央인 제1대대의 正面에 指向된 듯한 바, 이 敵의 銳氣로 보아 正面對決로는 勝算이 서지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敵의 銳

◇ 상황도 제74호 제1연대 CP 피습 상황



鋒을 피하여 그 側背를 찌르는 것이 効果的 일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연대의 제2대대로써 Iceland 線을 따라 △552(제1연대 제2대대 OP)－△512(同 제1대대 OP)의 軸線으로 東에서 西로 敵의 側方을 공격케 하기로 方針을 定한 것이며, 제1연대장 崔世寅 대령은 戰況의 緊急性에 비추어 『현재 當面한 急先務는 연대 CP 正面의 제1대대 戰線을 수습하는 것이다. 그런 故로 예비대로써 마땅히 同대대 正面의 敵勢를 阻止함으로써 堅忍持久하여 날이 밝기를 기다린 다음, 別途의 方策을 강구함이 妥當할 것이다.』라고 主張하여, 敵勢에 대한 正面擊退案을 내세운 것이다.

이리하여 이 두개의 逆襲方案이 서로 相衝을 빚는 가운데, 제2대대는 당초의 집결지인 利川洞－直木洞의 本道上的 제1연대 제2대대 CP와는 달리 기갑연대장의 腹案을 좇아 △552로의 投入을 豫定하여 月峰里쪽으로 向進중 이었으니, 이로써 刻一刻으로 破局을 催促케 하였다. 大抵 『두 사람의 良將이 한 사람의 愚將만 못하다』라고 하였음은 正녕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급기야 사단 CP로부터 急着한 부사단장 林益淳 대령의 調整으로 제1연대장의 方案을 따르기로 決定을 보게 되었으나, 이때가 03.00에 가까울 무렵으로서 同 제2대대는 單一 기동로인 117번 道路上에서 철수중인 일부 砲兵과 엇갈려 雨中에 機動의 制約을 받아가던

서 月峰리에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대대는 그곳에서 行首를 되돌려 利川洞으로 指向케 된바, 당초 제5, 제6, 제7, 제8중대의 順이던 機動隊列이 逆順으로 變換되어 제8중대를 先頭로 利川洞에 집결케 되었는데, 先頭인 제8중대(장, 林成奎 대위)가 利川洞 마을의 本道에 當到한 것은 03.30 前後였다.

이에 연대장은 이미 제1연대의 본부, 근무의 兩個중대 병력을 阻止線 급편에 投入할 정도로 狀況이 急轉된 까닭으로 대대의 逆襲시기를 놓쳤다고 판단하고, 제1연대 CP 正面에서 방어를 유리한 地形一同연대의 본부중대와 근무중대가 扼守중인 橋梁 좌우의 稜線一에 阻止障地를 점령하여 그 線에서 敵을 막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연대장이 대대를 直接 지휘기로 하고, 제1연대의 CP로부터 利川洞 마을로 달려나가 그곳에 먼저 도착한 제8, 제7 兩중대를 일단 集結토록하여 火器지지 점령을 위한 地形정찰에 임하게 하고, 대대장과 함께 기동중인 제5, 제6 兩중대의 追及을 재촉하였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리오, 이때 이미 利川洞 東北쪽의 高地와 稜線일대의 山腹에 敵의 齒牙가 도사리고 있었을 줄이야.

연대장의 戰死 : 제8중대의 일부가 도로정찰에 나서고 제7중대(장, 姜上燮 대위)가 이제 막 도착하여 그 兵力이 車輛에서 下車하는 刹那, 利川洞 마을의 東北쪽 稜線일대에 待機중인 敵 일단으로부터의 急射擊으로 말미암아, 夜暗인네다 敵情不明의 상태에서 伏撃을 당한 셈이 되어, 걸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말았으니, 이때에 제1연대의 CP가 敵의 포위 공격을 받은 바로 그 時刻이었다.

이에 연대장 陸根洙 대령이 敵의 不意의 火力急襲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제7중대의 隊列 속으로 뛰어 들어, 霰雨와 같이 쏟아지는 鐵火를 헤치며, 흩어지는 제7, 제8 兩중대의 隊伍를 손수 수습하는 一方, 제2대대장 朴基淳 중령으로 하여금 後繼중인 제5, 제6 兩중대를 지휘하여 그 敵을 막도록 하고, 일단의 병력을 이끌고 敵의 火網에서 벗어나던 중, 아홉사 敵彈이 그의 가슴을 貫通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陸根洙 대령, 그는 1923년 2월 2일 忠淸南道 大德郡 康面 新村里 출신으로 1947년 1월 10일에 陸士三期(1947. 4. 19 任官)로 軍門에 投身하여, 6년 6개월의 腥塵을 누빈 끝에, 지난해 10월 14일에 「指形稜線」의 戰場에서 제1기갑연대장으로 補任된지 만 9개월이 되는 이날, 31세의 最後를 利川洞에서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에 제7중대의 57mm 무반동총 탄약수인 徐成讚 일동병등 火器소대원 3명이 연대장의 遺骸를 수습하여 사단으로 運樞타가 途中에 그 運樞兵마저 모두 죽고 다치는바 되어 끝내 그는 운구병과 함께 下樞洞 부근의 이름 없는 산골에 묻히게 되고 말았다고 하거니와 뒷날 그는 准將으로 進級과 함께 金星乙支勳章이 追敍되었다.

한편, 이와같은 洞中에서 제7중대는 중대장 姜上燮 대위가 失蹤되고 소대장 全員이 死傷하였다. 뒤미처 당도한 대대장 朴基淳 중령은 S-2인 徐成三 중위로 하여금 제7중대장

을 代理케 하는 가운데 이를 제5, 제6 兩중대와 더불어 04.00에 제1연대 CP의 南쪽 △382 쪽으로 撤收시켰다가 05.00에 다시 東쪽으로 下榛峴의 河谷道를 건너, 제5, 제6 兩중대로써 △462(北)(△382 東南쪽 1.3km)의 西斜面 400 稜線에, 그리고 제7, 제8 兩중대로써 그 北쪽의 △482(月峰山:△462 北쪽 1.2km)의 西斜面 400 稜線에 각각 진지를 占領케 하였다. 그리하여 대대는 下榛峴 일대의 117번 A道 일대를 制扼하여 後續병력의 철수를 掩護 하다가 다시 逐次로 그곳에서 물러나 08.00에 榛峴里 東쪽의 △462(南)[△462(北) 南쪽 1.3km]에 새로운 진지를 점령함으로써 西北으로 117番 A道와 西南으로 119番道를 制壓 하면서 사단의 右側方 境界에 一役을 맡게 되었다.

따라서 新銳의 驍騎로서 奮心의 一戰을 企圖한 예비대마저도 이렇듯 흩어지고 말았으니, 사단으로서는 참으로 不運의 連續이라 아니 할수 없었다.

나) 제1대대의 出動

한편 제1대대(장, 尹興禎 중령)는, 제26연대 後方의 117번 A道 南쪽에서 Wyoming 線의 진지공사를 하다가, 이날 새벽까지 出動태세로 現地에서 待機중이던 바, 제2대대의 제1연대 赴援에 이어, 02.00에 사단장으로 부터 『대대는 제59전차중대 1개소대(제5소대)를 통합 지휘하여, 제26연대를 支援하라.』는 긴급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이것이 사단이 編制水準으로 溫存한 마지막 예비였다. 따라서 사단은 이로써, 전날밤 敵의 攻勢가 시작된지 5시간이 못 되어, 그 可用한 全力을 第一線에 投入키로 한 셈이었다.

이리하여 대대는 곧 松洞(汾洞 西南쪽 2.2km) 부근의 집결지에서 發進준비에 들어 갔는데, 이때 院洞(齋宮洞 東쪽 2km) 부근에 控置중인 戰車소대와의 協調가 如意치 않아 04.00에야 蘆洞을 목표로 집결지를 出發케 되었다.

이 무렵 사단장이 제1연대 정면의 심상치 않은 狀況의 急轉을 看破하게 되어, 04.10에 作指 제134호로써 03.20부로 대대와 同 전차소대를 제1연대에 배속 조치하고, 參謀長 金泰圭 대령을 다시 急派하여 앞서 대대에 下達한 제26연대 지원 명령을 修正케 함으로써 대대로 하여금 間榛峴 西쪽(117번 A道 北쪽)에 橫隔을 이룬 一連의 稜線을 확보하여 그곳에 阻止線을 急編토록 하였다. 이와같이 대대의 支援 重點을 제26연대로부터 제1연대로 轉換케 한 것은, 敵이 만약 月峰里-間榛峴 間的 117번 A道를 차단 한다면 제1연대의 退路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사단의 防禦線을 117번 A道 南쪽으로 물러야 한다고 판단한 까닭에서 일 것이다.

이리하여 대대장 尹興禎 중령이 04.40에 蘆洞에 當到하자 곧 제26연대장 殷碩杓 대령과 병력 사용을 協議하던 중, 이 修正된 命書에 따라 대대를 다시 117번 A道로 뺏아내려 東北으로 北亭嶺을 넘어 間榛峴으로 急進케 하였다.

06.10에 대대가 間榛峴의 三巨리에 이르러 대대장이 당면한 상황을 분석한 바, 제1연대의 撤收병력의 일부가 그곳에 집결되고 있는데, 이를 接躡한 敵도 이미 대대의 목표인

—사단장이 阻止線 급편을 指定한—△434(間榛峴 삼거리 西北쪽 700m) 부근의 稜線에 까지 다다른 듯이 보였다.

이때 대대는 제1연대에 배속중이나, 同연대 지휘부 機能의 混雜으로 말미암아 대대장의 獨斷에 따라 행동할 수 밖에 없었는데, 사단장의 企圖를 貫徹키로 다짐한 대대장 尹興禎 중령은 대대지휘소를 그곳(間榛峴 삼거리)에 開設한 다음, 要旨 다음과 같은 命命을 下達하였다.

- 『① 대대 當面의 主抵抗線은 이미 突破되어, 敵이 △462(北)—△434線까지 進出한 것으로 판단된다.
- ② 목표선의 敵情은 不明이나, 대대는 △434—△495(△434 西쪽 2km)의 稜線을 확보하려 한다.
- ③ 제1중대는 無名高地 ㉠(△434 東北쪽 800m : 표고 410m 정도)—△434를 확보하여 제1연대의 퇴로를 確保토록 하라.
- ④ 제2중대는 無名高地 ㉢(△434 西南쪽 600m : 표고 450m 정도)—㉡(㉢高地 西南쪽 500m : 표고 510m 정도)를 확보하라.
- ⑤ 제3중대는 無名高地 ㉠(㉡ 西쪽 400m : 표고 450m 정도)—△495(㉠ 西南쪽 700m)를 확보하라.
- ⑥ 대대 수색대는 戰車소대를 掩護하여, 제1연대 CP 부근의 敵情을 수집하라.
- ⑦ 전차소대는 대대 수색대의 掩護아래 月峰山(△482) 西南쪽 利川洞 於口로 挺進하여 下榛峴—月峰里 사이의 도로(117A)를 機動防禦하는 同時, 當面의 敵의 粉碎하라.
- ⑧ 공격개시시간은 06.50이며, 공격개시선은 下榛峴—北亭嶺間의 117A道이다.
- ⑨ 대대지휘소는 공격 진전에 따라 △434로 推進할 예정이다.』

이리하여 07.00를 前後하여 대대가 사단의 反擊에 있어서 擊鼓의 第一聲을 울리게 되었으니, 날은 맑았으며 山峰에는 嵐氣가 짙어지고 山谷에는 峽雨가 더욱 세차, 그야말로 盲人이 失杖한채 急流를 건너는 격이었다.

4. 사단포병의 狀況

사단포병단(장, 李鎭鍊 대령)은 02.30부터 軍단에서 긴급 지원된 車輛 35대로 제64탄약 보급소의 포탄을 각 대대로 推進하였으나, 通常의 片道所要 시간으로 2시간 30분 乃至 3시간이면 足하던 것이 이날 따라 惡天候와 夜暗이 겹쳐 5시간 以上이나 遲延케 되어, 07.00가 지나셔야 포탄이 砲隊에 補給되었는데, 이때는 이미 砲隊가 原陣地에서 撤收한 뒤인 까닭으로 적지 않는 混雜을 빚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03.00가 지나면서 제1연대의 CP에 位置한 제10포병대대의 FDC가 敵의 직접 위협에 말려 들게 되자, 단장 李鎭鍊 대령은 각 대대로 하여금 예비진지로 철수토록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제10포병대대(장, 金千根 중령) : 대대는 02.00 까지도 砲手が 敵의 포화에 쓰러지는 증에서도 사격 지원을 계속하였으나, 03.00를 넘어서자 제1연대의 中央 正面을 돌파한 敵이 △512에서 東南向한 稜線을 따라, △419(月峰里 포진지의 800m 西쪽) 부근까지 이르러 放列 진지를 위협하는 一方, 03.30이 지나서는 제1연대의 CP와 함께 대대 CP를 공격하게 되었다.

이에 FDC에서 사격을 지휘중이던 대대장 金千根 중령은 CP에 진내사격을 命令하여 我軍의 VT彈과 敵의 白磷彈이 CP 일대를 뒤덮는 가운데 FDC 要員과 통신병을 지휘하여 포위망을 突破키로 하였다.

그러나 敵이 FDC에 까지 侵入하여 이곳 저곳에서 피리와 나팔을 불어대며 多發銃을 亂射하므로 이에 대대장이 撤收組의 선두에서 쓰러진 병사의 Car을 들고 敵兵과 銃擊戰을 벌이다가 마침내 轟탄을 맞아 壯烈히 散華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대대 CP 要員이 各個로 活路를 찾는 동안, 月峰里 부근의 砲진지마저 공격을 받게 되어 04.00가 못미처 砲진지 역시 철수를 시작케 되었다. 그리하여 대대의 各砲隊는 月峰里—間榛峴 사이의 117번 A道를 따라 내린 다음, 間榛峴의 삼거리에서 公塲南으로 119번 道를 經유하여 05.45에 院洞 부근에 止結하여 진지를 再編하고 下楓洞과 月峰里 일대에 대한 사격을 계속 하였다.

제61포병대대(장, 金水山 중령) : 대대는 01.30이 지나자, 右隣接인 제6사단의 제7연대 정면에서 一進一退를 반복하는 突擊의 喊聲이 들리면서 前方의 FO로 부터 『제1연대의 正面이 突破되었다.』는 報告에 接하게 되어, 同연대의 제1대대(장, 李鍾綠 중령)에 대한 陣內사격을 실시하였다.

02.30이 되어 FO와는 물론 FSCC와도 有無線이 모두 杜絶된 狀으로, 제1연대에 대한 포격지원을 일시 中止하고 제6사단의 제27포병대대의 通信網을 이용하여 射向束을 變換한 다음 同 사단의 제7연대 정면을 지원하는 등 左顧右眄하다가 03.00를 넘겨 대대에서 FO 3명을 뽑아 제1연대 CP로 急派하였다. 그리하여 3명의 FO가 $\frac{1}{4}$ ton A-1 車輛(제1포대장 Jeep)으로 利川洞으로 向하는 도중 敵에 被襲되어 同車輛의 機關部에 損傷을 입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 FO는 同車輛을 둘러싼 一단의 中共兵과 格鬪를 벌인 끝에 물러치고 다시 대대로 復歸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대대는 利川洞 부근의 情況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무렵인 04.00를 前後하여 主抵抗線에서 撤收한 제1연대의 일부와 제7연대의 일부 병력이 砲陣地의 부근으로 止結되면서 敵의 砲彈이 집중되었다.

이에 대대장 金水山 중령은 장교 1명과 사병 20명으로 警戒조를 急編하여, 月峰里 삼거리쪽의 道路를 확보토록 함으로써 敵의 砲陣地 공격을 阻止케 하는 한편, 보유차량으로 主要 장비와 器材를 먼저 東쪽의 제6사단 지역으로 뽑아 竹垆里—鳳堂德里(榛峴里 東南쪽 3km)쪽으로 철수케 하고, 나머지 砲彈 100여발로써 月峰里—間榛峴 사이의 도로상의 美

제555포병대대의 철수를 엄호한 다음, 主力을 鳳堂德里 쪽으로 뽑았다.

제92포병대대(장, 康大廈 중령) : 대대는 間樞洞까지 挺進한 제2포대가 전날밤 李禹普 일 등중사의 노력으로 01.00에 立石里 부근의 예비진지로 轉進케 되었거니와, 北亭嶺 東北 쪽의 117번 A 道上에서 사격지원을 계속하던 제1, 제3 兩포대中 제3포대에서는 01.30에 砲身이 파열하여 砲手 1명이 死亡하고 5명이 부상을 입는 가운데에서도 사격을 그치지 않았다.

04.00가 되어, 敵이 利川洞의 제1연대 CP線을 넘어서게 되매, 대대는 119번 도로를 따라 高飛木(院洞 東쪽 1.5km)의 예비진지로 철수케 된바, 承岩고개(間樞峴 南쪽 6km) 西南쪽 1km에서 砲車 2대가 전복되었는데, 당시 대대에서 保有중이던 4ton Wrecker로는 牽引되지 않아 사단 공병대대의 bulldozer를 動員하여, 때마침 撤收중이던 美 제955포병대대의 6ton Wrecker의 協力으로 이를 救하여 군단의 美 제17병기중대에 入庫조치 하고, 나머지 砲로써 高飛木에서 사격 임무를 계속 하였다.

제60포병대대(장, 申鶴進 중령) : 제26연대를 직접 지원중이던 대대는 이날 아침 까지도 陣地의 變動없이 新木洞 일대에서 지원을 계속 하였으나, 敵이 점차 117번 A道 가까이로 接近하게 되자, 08.00부터 예비진지로 이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대는 10.10에 齋宮洞 부근의 예비진지에 砲門을 放列케 되었는데, 剛上譜元 만으로 사격지원에 任하게 된 탓으로 濃霧로 肉眼觀測이 至難할 뿐만 아니라 FO의 손실이 겹쳐 지원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形편이었으니, 이는 美 지원포병대대를 비롯한 각 대대 모두가 大同小異한 實情이었다.

이날 포병단에서 입은 병력 손실은 戰死 18(장교5, 사병 13)명과 負傷 40(장교1, 사병 39명) 그리고 失蹤 72(장교 13, 사병 59)명으로, 무엇 보다는 제1선의 FO 要員을 모두 잃은 것이 큰 打擊이었을 것이다.

5. 전차중대의 狀況

이와같이 前線의 退潮 속에서 主抵抗線에 대한 火力支援의 一役을 담당중인 제59전차중대(장, 金玉培 대위)는 전날 子正을 넘긴 뒤로 我軍의 진내 사격으로 말미암아 步戰間에 밀접한 협조를 얻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은 戰車의 獨自行動 만으로써 退路를 찾게 되었다.

제3소대(제1연대 제2, 제1대대 支援) : 제2대대 OP(△552) 부근에서 同대대 정면을 지원중인 소대장반(M-36 3대)은 01.00에 대대 제1선에서 敵의 侵蝕이 加速化 되자, 일제히 戰車砲의 熱焰을 吐하다가 02.30에 敵이 戰車壕 부근에서 近迫하면서 이에 아울러 我軍포병의 진내사격이 加하여 짐으로써 그 南麓으로 한 걸음 물러나 Cal 50 지원사격을 계속하였다. 04.00를 지나, 同대대가 철수케 됨에 따라 이를 掩護하면서 05.00에 月峰里에 이르니, 그곳을 먼저 占據中인 敵의 一團이 撤收隊를 向하여 화력을 퍼부었다.

이에 소대장 安載慶 소위 지휘 아래 3대의 戰車는 堅甲의 突破威力을 발휘하여 제2대대의 退路를 뚫은 다음, 계속 竹垆里쪽의 제6사단 地域으로 東進하였다. 그 途中에 戰車 2대가 機關故障을 일으키게 되므로 그 戰車兵을 모두 소대장 戰車에 옮겨 실어, 이날 밤에야 소대장 戰車 1대만이 中대 본부로 復歸케 되었다.

한편 제1대대 정면을 지원중이던 소대의 선임하사관반(M-36 2대)은 敵이 △522 정면을 돌파하게 되자, 上南里 쪽으로 물러서던 중에 彼我的 식별을 할수 없는 砲兵火力으로 모두가 路上에 擱坐되고 말았다. 이에 塔乘兵 9명도 戰車를 포기하고 맨몸으로 敵中을 脫出하여 08.00에 제26연대의 CP로 집결하였다.

제1소대(제1연대 제3대대 支援) : 소대는 01.00가 지나자 彼我的 포화가 점차 거세어져서 戰車擦속에 일시 待避케 되었는데, 03.50에는 소대장반과 선임하사관반 사이의 無電이 끊어져 兩個班의 情況을 서로가 알수 없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대대 OP(△477) 부근에 위치한 소대장반(M-36 3대)은 그 東南麓에서 連發되는 敵의 다발총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에 소대장은 戰車 1대로 하여금 間楓洞(OP 東南쪽 2km)쪽을 偵察케 한바, 그곳에서 報告 되기를 『敵이 橫行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뒤이어 同전차가 敵의 對戰車 공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대장은 04.40에 나머지 2대를 지휘하여 間楓洞으로 急進 함으로써 敵의 포위망 속에서 左衝右突 중인 그 戰車를 救出한 다음, 05.00에 間榛峴으로 撤退하였는데, 그곳에서 中대의 제5소대와 △462(北) 西麓에 阻止전지를 점령하던 기갑연대 제2대대의 掩護아래 北亭嶺으로 돌아 제26연대의 CP에 집결케 되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燃料와 彈藥을 보급 받은 然後에 芳洞 부근으로 나아가 同연대 主力의 철수를 幷護하다가 10.30에 中대 본부에 복귀케 되었는데, 이 동안에 선임하사관반(M-36 2대)도 포화속을 헤치고 中대로 복귀하였다.



<敵中에서 怒號하는 戰車>

제2소대(제26연대 지원) : 전날 밤에 이미 南大川을 건너 橋田里로 물러선 소대장반(M-36 2대)는 그곳에서 南大川 西岸의 제1대대 진지에서 신호탄을 울리면서 피리를 불어대는 敵을 向하여 高爆彈 사격을 加하다가 04.30에 蘆洞을 거쳐 芳洞 부근으로 集結하여 제1소대의 소대반장과 合勢케 되었다.

한편 △424 西쪽의 선임하사관반은 소대장반과의 通信이 두절된 채 01.00에 下所里로 물러나, △424와 그 西쪽의 戰車진지 일대에 全火力을 집중하다가 02.00에 南大川을 따라 西南向하여 望所 부근에서 제9사단으로부터 燃料와 탄약을 補充한 다음, 06.00에 下所里로 다시 나아가 南大川邊에서 敵의 集結을 妨害하는 등 한나절 동안 제9사단장병과 함께 奮戰하다가 再次 望所로 反轉하여, 오후에 中대 본부로 復歸하였다.

제5소대(기갑연대 제1대대 支援) : 중대 예비로 남아 있다가 기갑연대 제1대대를 支援次 出動한 소대는 05.00에 同대대 보다 한걸음 먼저 間榛峴으로 竄進하여, 同대대장 尹興禎 中령의 명령에 따라 소대장 李駿鎬 중위 지휘下에 戰車 모두를 下榛峴 부근으로 추진한 다음, 117번 A道 東쪽의 月峰山과 그 西쪽에 있는 △419 일대에 대한 高爆彈 사격으로 敵의 진지편성을 妨害하는 한편, 道路上에서 機動防禦하면서 철수 병력을 掩護하였다. 07.00에는 선임하사관반 戰車 2대를 間榛峴쪽으로 다시 뽑아 내려, 北亭嶺 부근에서 淹滯 중인 美 제424보병대대의 8"砲 4門에 대한 철수를 지원하였는데, 이때 同砲隊는 砲車의 故障으로 遺棄상태에 있었던 바, 사단공병대대(장, 崔憲熙 中령)의 bulldozer가 이를 牽引중이었던 것이다.

6. 항공지원 狀況

사단 前線에 敵의 攻勢가 들이 닥치는 즉시, 사단 G-3의 航空장교 金允錫 대위의 迅速한 항공지원 요청에 따라, 23.00 사이에 美 제5공군의 B-26 10機를 비롯한 각종 戰爆機 31機가 出擊하여 사단 정면의 敵接近路와 예상 집결지를 强打하였으나, 그 성과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날 01.00 부터는 天候가 더욱 惡化되어 B-26 輕爆擊機만이 夜空을 진등케 하였다. 그 역시 勞而無功의 實情인듯 한 가운데 이날 낮중에는 아예 항공지원을 기대치 못하였는데, 다만 사단포병단의 飛行隊(장, 金國錄 대위)에서 李大洛, 林炳喆 중위와 李吉相 소위등이 조종하는 偵察機(L-19)만이 山嶽라도 하듯, 낮게 깔린 密雲 속을 누비면서 敵情을 提報할 따름이었다.

(다) 阻止線의 確保(7.14. 08.00~24.00)

1. 사단장의 措置

한편, 이날 새벽 04.00를 前後하여 제1연대 CP의 喪失을 고비로 右一線 정면에 결정적인 破綻이 야기된 것을 看破한, 사단장 崔昌彦 中장은 기갑연대 제1대대에 우선 間榛峴-北亭嶺 間의 117번 A道 확보 임무를 부여하고, 參謀長 金泰圭 대령으로 하여금 同 대

대의 임무 수행을 調整토록 하였다.

그리고 사단 헌병대(장, 李光善 중령)를 긴급 동원하여 右一線의 119번 道에 있는 承岩里 부근에 落伍兵 수용소를 설치케 하는 한편, 사단장은 全 參謀陣을 帶同하여 敵의 砲彈이 거침없이 날라드는 左一線 제26연대의 CP로 달려 가, 당면의 敵을 阻止토록 奮勵하면서 그곳의 羸兵 수습에 나섰다.

그리하여 08.00 무렵에야 사단 前線의 全貌가 대체로 들어나게 되었는데, 그 시간 현재로 右一線에서는 부사단장과 제1연대장 그리고 기갑연대장이 失蹤 상태에 있고, 제1연대의 제1대대장과 기갑연대의 제3대대장의 生死를 알수 없는 형편인 바, 제1연대의 主力은 속속 間榛峴 부근으로 集結중에 있으며, 철수치 못한 병력은 대부분 제1선 전지의 壕속에 그대로 남아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또한 左一線인 제26연대 역시 제1선의 제1대대장의 行方을 알수 없는데 主力의 일부가 △302-△462線을 따라 연대 CP를 목표로 步步抵抗하면서 물러서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사단장은 08.10에 作指 제135호를 下達하여, 08.20을 期하여 間榛峴 東南쪽의 △462(南) 부근에 집결중인 기갑연대 제2대대를 제1연대로 하여금 통합 지휘토록 하고, 사단 下士官 교육대의 戰術班 피교육자 159명과 그 基幹요원을 교육대장 張箕春 중령 지휘下에 임시 대대로 編成하여 이를 北亭嶺 南쪽 稜線으로 推進하되, 이도 제1연대에 배속 조치하였다.

이리하여 右一線 正面에 대하여서는 제1연대장의 책임 아래 指揮의 一元化를 期함으로써 부대 운영의 신속성을 부여하였는데, 同연대장의 復歸時까지 參謀長인 金泰圭 대령으로 잠정 지휘토록 非常措置하였다.

군단장의 措置 : 이 동안인 06.00에 군단장 Jenkins 중장이 急遽 사단을 방문하여 군단 右翼의 이와같은 焦眉의 事態에 대한 수습 方案을 模索케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사단장은 군단장에게 그간의 상황을 보고하되, 『明確한 敵情은 알수 없으나, 대체로 1개군(군단) 규모로 판단되는 中共軍이 昨夜 21.00를 前後하여 사단 全正面에 대하여 일제히 攻勢를 敢行하였다. 右一線 연대와는 通信杜絶로 이 시간 현재 부사단장과 제1, 제1기갑 兩연대장의 行方조차 묘연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단의 主抵抗線은 이미 무너진 것이 分明하나, 尙속도 많은 병력이 제1선의 壘壕속에서 전지를 支撐中인 것으로 確信된다.』는 要旨로써 主抵抗線의 瓦解實態와 지휘계통의 混迷現象을 솔직히 具陳하고, 『117번 A道線에서 조속히 戰列을 整備하여, 反擊을 斷行함으로써 期必로 이 失地를 恢復하고자 말겠다』는 切齒扼腕의 決意를 闡明한 다음, 現時點에서 사단의 可能한 方策을 다음과 같이 闡明하였다.

『제1단계 : 間榛峴-松洞 사이의 117번 A道 南쪽에 沿한 一連의 高地群에 急編防禦線을 확보한다.

제2단계 : 이 急編防禦線을 軸線으로 反擊을 斷行하되 道路 北쪽의 △434—△404線에 새로운 主抵抗線을 占領한다.

제3단계 : 이 새로운 主抵抗線에서 攻勢로 移轉하여 舊陣地線을 奪回한다.』

이와 아울러 사단장은 군단장에 建議 하기를, 『현재 긴급한 支援이 要求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砲兵이다. 既存의 美 지원포병은 대부분의 FO를 喪失한 狀으로 能力의 發揮가 不充分 할 것이다. 따라서 測測機能이 完備된 포병의 支援을 要한다. 그 다음은 兵力이다. 사단은 可用한 全兵力을 이미 戰線에 投入하였으므로 兵力配備의 縱深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단의 병력을 수습 하기까지 急編防禦線의 확보가 緊要하다.』고 前提하고, 結論적으로 『1개 연대만 支援되면, 그로써 제1단계의 급편방어선을 確保케 함으로써 後據를 保障케 하고, 이로써 사단은 戰力을 수습하여 제2단계 措置로의 移行이 容易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의 所信을 披瀝하였다.

이에 군단장은 이와같은 사단장의 建議를 全幅적으로 받아 들이고, 군단 中央의 美 제3사단장 George W. Smythe 소장을 불러 『사단포병과 1개연대로써 首都사단을 支援하되, 今 12.00까지 117번 A道 南쪽의 同사단 전투지역에 대한 방어책임을 引受하라.』고 命令하였는데, 이때 同사단은 7월 12일의 군단장의 措置에 따라 담당중인 군단 중앙의 戰鬪地域을 이날 02.00부로 軍단예비인 美 제2사단 主力(제9, 제38연대)에 引계하고, 土城 里(鐵原 東쪽 10km) 부근에 軍단예비로 집결중이었다.

이와같이 하여, 군단 右翼 正面으로의 防禦重點의 轉換에 策應케 된 美 제3사단은 군단장의 現地 指導아래 그 예비되었던 제15연대(Greece 대대 배속)로써 사단포병인 美 제9, 제10, 제39 및 제58포병대대와 더불어 首都사단을 支援케 되어, 이들 新銳의 兵力이 金化—齋宮洞의 6번 도로를 따라 急히 달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인 10.00에 제8군사령관 Maxwell D. Taylor 대장이 前線視察차 空路로 사단 CP에 急着한 바, 사단정면에 대한 戰況의 進展內容과 事後的 經過를 聽取한 다음, 사단장에게 말하기를 『此際에 있어서 當面한 急先務는 이 117번 A道を 확보하는 것이다. 首都사단은 如何한 일이 있더라도 該道路를 확보하라.』고 嚴命하는 한편, 군단장에게는 『117번 A道の 확보에 따르는 可能한 方策을 講究하라』고 거듭 促求하였다.

그러면, 군사령관이 이렇듯 사단으로 하여금 117번 A道を 확보토록 強調한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사단의 能力으로 보아 실제로 失地恢復이 疑問視 되기도 하거니와, 敵의 攻勢가 軍단정면에만 局限된 것이 아니라 이른바 「金城突出部」에 대한 全面的인 것임을 勘考하고,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大局인 分析에 따른 듯 하다.

첫째, 현재 軍단의 右翼에서 06.00 以後에야 驕岩山 정면의 主抵抗線에서 물러난 제6사단이 이날 낮 중으로 그 제2방어선을 대체로 梨船谷(月峰山 東南쪽 4km)—月峰山線의 金

城川 南岸에 編成코자 하고 있는 바, 間接峴 일대의 要衝을 同 제2군단의 戰線整理上 기필코 堅守되어야 할 左肩部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며, 둘째 敵이 사단 정면의 117번 A道를 넘어서게 되면, 반드시 三千峰(△815, 高飛木 北쪽 3km)線을 占奪하려 할 것이니, 이로써 金化—齋宮洞(6번 도로)의 戰線 橫軸이 無力化될 뿐만 아니라, 我軍의 防禦 陣地上 大成山線으로의 撤收가 뒤따르게 될 것으로 내다 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117번 A道の 確保는 제2군단 左側方의 掩護를 위하여 不可缺이며, 군단 右翼의 安全을 위하여 不可失이라고 판단 하였을 것이다.

사단장의 反擊命令 : 어쨌든, 사단장은 117번 A道를 확보키 위하여서도 早速히 제2단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기갑연대 제1대대의 北亭嶺 北쪽 稜線의 掌握을 눈여겨 보면서, 이에 一貫하여 11.00에 作命 제170호로써 12.00까지 △434—△398(下所里 東南쪽 1.5km, 南大川 東岸)에 이르는 117번 A道 北岸稜線을 모두 占領키로 하였다.

그러나, 右一線에서 기갑연대 제1대대가 그 歩武에 好調를 보이기는 하되, 제1연대장 崔世寅 대령을 비롯한 연대지휘부 요원들이 正午를 지나서야 復歸되었는가 하면, 左一線역시 제26연대의 제1대대장 韓敏錫 소령이 13.00를 넘은 뒤에 歸還하는 등 병력 수습과 지휘체제의 整備가 如意치 못하여 이를 實行에 옮기지 못하게 되었다.



<당시의 지휘관들 : 右로부터 제1연대장 崔世寅 대령, 제26연대장 嚴漢杓 대령, 美 제9군단장 Jenkins 중장, 左로 사단장 崔昌彦 중장 >

이에 군단장은 사단의 戰力에 비하여 공격 목표의 正面이 過廣한 것으로 보고, 사단지원의 美 제15연대(장, Russell F. Akers, Jr. 대령)가 間榛峴에서 松洞에 이르는 117번 A 道の 南쪽 稜線에 진지를——그 제3대대를 예비로, 제1, Greece, 제2대대의 順으로——점령한 17.00를 期하여 사단의 左正面을 축소하여 攻擊密度를 증강토록 조치하였다.

즉, 당초 松洞—光三리의 南大川 東岸을 따라 北上하던 左接境線을 新木洞—橋田里—佳峴里로 變更함으로써 사단 左正面이 2km 정도 축소된 것인데, 이와 아울러 군단장은 사단의 새로운 主抵抗線을 下榛峴—下所里線으로 推進하여 제9사단과의 戰線을 整齊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사단장은 이 새로운 主抵抗線의 점령을 目的으로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으니 이것이 15.30부 作命 제171호인 바,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敵情：情報附錄 參照

② 사단은 △434—△395에 새로운 主抵抗線을 점령하여, 當面の 敵 攻勢를 一舉에 破摧 하려 한다.

㉑ 제1연대와 제26연대 間的 地境線을 7.14. 17.00부로 △785(三千峰 北쪽 1.2km)—△364(北亭嶺 西쪽 1km)—三南里線으로 변경한다.

㉒ 공격개시선은 117번 A道이다.

㉓ 공격개시 시간은 7.14. 18.00이다.

③ 제1연대(기갑연대 제1, 제2, 제3대대, 사단 下敎隊, 제59전차중대 배속)는 △434—無名高地 ㉔에 主抵抗線을 점령하라.

④ 제26연대(사단 수색중대, 기갑연대 수색중대, 사단 重砲중대 배속)는 △495—△395를 奪還하라.

⑤ 사단포병단은 支援 포병과의 協調下에 左右一線 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砲兵附錄 參照

⑥ 공병대대는 現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⑦ 各隊는 落出者 收容에 노력하라.

行政附錄 參照(省略)

⑧ 통신중대는 一線 부대의 通信手段의 확보를 期하라.

通信附錄 參照』

『情報附錄

① 敵情概要

7.13. 21.00를 期하여 사단 正面을 공격한 敵은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제1연대 정면의 敵은 中共 68군의 제203사단과 제204사단으로 그 공격 主力은 3개 연대 규모, 제26연대 정면은 제24군의 제72사단과 제74사단의 일부이며 공격 主力은 1개

연대(+) 규모로 각각 推算한다. 그리고 예비는 제68군의 제202사단과 제54군의 團隊號 未詳의 1개 사단으로 판단한다.

② 敵의 攻擊 目標

敵은 제1단계로 사단의 MLR(Missouri 線)을 突破한 다음, 제2단계로 117번 A道 南쪽의 △735(承岩里 東쪽 1.2km)-△785線을 占領함으로써 6번道線으로 進出하려는 것으로 判斷하며, 제1단계의 공격을 성공한 敵은 계속 △785線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③ 敵의 兵力配置 현황

제1연대 正面을 突破한 제203사단의 일부는 그 先發隊가 사단의 右一線에서 間楓洞 일대에 進出하고, 그 主力은 △512 부근에서 再編中인 듯 하다. 제26연대 正面에서는 제72사단의 일부가 △462-△404 일대에 이르렀는데 그 主力은 朱子洞 부근에서 整備中인 것으로 판단된다.

④ 諜報基本要素

㉑ 敵의 117A道 南쪽으로의 공격 與否

그 공격시기와 방향, 부대의 團隊號 및 병력 규모는?

㉒ 現 進出線에서는 防禦與否

그 방어조직과 병력 규모 및 단대호는?

㉓ 예비대의 動向

제68 및 제54군의 殘餘부대의 단대호 및 병력 규모와 投入 方向은?

㉔ 支援부대의 進出與否

砲兵의 團隊號 및 砲種 및 門數는?

⑤ 偵察 및 觀測

各隊는 다음 事項을 速報하라.

㉑ 담당 정면의 敵情變動의 有無

㉒ 敵의 特火點 位置 및 그 防禦施設

㉓ 機甲부대의 出現 사항.

『砲兵附錄』

① 제10포병대대는 既陣地를 變換하여 7.14. 05.00까지 院洞 東쪽 5km에 新진지를 築령하여 계속 제1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中央線 A : 6,280

B : 6,280

C : 6,280

② 제60포병대대는 7.14. 08.50까지 齋宮洞 부근으로 진지를 이동하여 계속 제26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中央線 A : 6, 260

B : 6, 300

C : 6, 300

- ③ 제61포병대대는 7. 14. 13.00까지 馬峴(高飛木 東南쪽 1km) 南쪽 2km에 新진지를 점령하여 사단 一般支援에 임하라.

中央線 A : 6, 300

B : 6, 200

C : 6, 300

- ④ 제92포병대대는 7. 14. 07.00까지 高飛木 부근에 진지를 새로이 점령하여 사단 一般支援에 임하라.

中央線 A : 5, 900

B : 6, 180

C : 6, 180

- ⑤ 각 대대는 FO 및 LO 각 1개조로서 공격 부대를 支援하라.

- ⑥ 포단 S-4는 각 대대의 탄약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車輛을 확보하여, 탄약수송에 만전을 期하라.』

『通信附錄

① 指揮所 位置

사단사령부—齋宮洞(變動 없음)

제1연대—承岩里

제26연대—芳洞 東南쪽 1km(變動 없음)

기갑연대—浦幕(變動 없음)

② 通信軸線

齋宮洞에서 각 연대지휘소 間

③ 有線事項

㉑ 通信중대

- ㉑ 현 사용 幹線과 예비線의 확보에 注力하라.
- ㉒ 前方 지휘소의 推進에 따른 有線延長에 차질 없도록 하라.
- ㉓ 부대 撤收時에 收去 困難한 有線은 完全히 破壞하라.

㉒ 공격부대 및 支援부대

- ㉑ 各隊間的 側方通信網은 SOP에 의거 규정대로 構成하라.
- ㉒ 隣接부대 間的 通信은 左側부대가 2회선 以上을 主로 地下에 埋設하라.

㉔ 火器지원부대와 被지원부대 間의 有線은 支援 부대에서 2회선 이상을 架設하라.

㉕ 사단 軸線 및 예비선의 無斷使用을 禁한다. 使用時는 通信部長의 承認을 要한다.

④ 無線事項

㉖ 無線交信은 現行 SOI를 準用하라.

㉗ 部隊移動間의 電波發射를 一切 禁한다.

㉘ 無線은 有線使用이 困難할 때에 限하여 使用하되, 戰術陰語를 活用하라.

㉙ 側方通信網은 左側 部대가 交信諸元을 부여하라.

⑤ 通信補給 및 整備

㉚ 前方 보급소는 齋宮洞에 위치하며, 後方 보급소는 多木里(史倉里 北쪽 12km)와 場岩에 위치한다.

㉛ 不必要한 通信器材는 後方 보급소에 返納하라.

㉜ 通信 消耗器材는 常時 5일 分을 확보하라.

⑥ 其他는 現행 SOI, SOP의 依據하라.

通信部長은 사단사령부에 위치한다.』

2. 제1연대의 狀況

가) 기갑연대 제1대대의 阻止線 확보

한편, 이날 早曉에 雨中을 東奔西走 하다가 間榛峴에서 젖은 소매를 걷어 부치고 △434-△495 稜線의 奪回에 睡手한 기갑연대의 제1대대(장, 尹興禎 중령)는 배속 받은 戰車소대(제5소대; M-36 5대)와 대대 수색대를 月峰山 부근으로 進出케 하여 그 西쪽의 利川洞 제1연대 CP 일대의 敵情收集과 아울러 間榛峴-月峰里 間의 木道上的 地隙을 補綴케 하는 가운데, 06.50 예정된 時刻에 躍出 신호를 높이 올렸다.

제1중대의 目標掌握: 대대의 공격 右側 1선인 제1중대(장, 吉逢春 대위)는 △434를 제1 목표포로, 그 東北쪽으로 꺾어져 300m에 있는 無名高地 ㉔(표고 410m 정도)를 제2 목표포로, 그리고 無名高地 ㉕(㉔ 北쪽 200m; 표고 380m 정도)를 최종목표로 삼아, 2개 소대로써 먼저 공격케 하였다.

즉, 제2소대를 △434에서 東쪽으로 下榛峴에 이룬 一連의 稜線[無名高地 ㉔(△434 東쪽 400m)-㉕(㉔ 西쪽 200m)]을 따라 西쪽으로 제1 목표인 同 △434를 直衝케 하고, 제1소대를 △434 東南麓에 展開토록 하여 목표의 東南쪽을 急襲케 하였는데 兩個소대가 無名高地 ㉕에서 合勢하여 일거에 △434를 席捲토록 한 것이다.

이에 제3소대가 예비로서 뒤따르는 가운데 제2, 제1의 兩소대가 물에 잠긴 石澗 속으로 달리고 山麓의 泥濘을 기어 오르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08.30에는 이때 敵의 一團이 下楓洞 쪽에 있는 계곡을 건너 南으로 이 稜線을 치달아 오를 것으로 推斷되었지만은 該敵 보다도 한 걸음 먼저 제1목표인 △434를 手中에 넣게 되었다.

이에 연대를 임시 지휘 중이던 참모장 金泰圭 대령이 중대가 이렇듯 接敵없이 목표의 一角을 掌中에 넣게 되자, 곧 이곳에서 西南쪽으로 이어지는 稜線의 無名高地 ㉔(△434 西南쪽 600m; 표고 450m 정도) 일대에 下敎隊의 일부를 推進토록 하여 이를 확보케 함으로써 중대의 제2목표 공격을 聲援하였다.

그리하여 北亭嶺 南쪽의 △492 부근에서 待機중이던 下敎隊(장, 張箕春 중령)의 일부가 ㉔ 부근으로 달려가 그곳에 진지를 畵編케 하였는데, 이 동안에 중대는 △434에 제3소대와 火器소대를 配置하고 제1, 제2 兩소대로써 제2목표인 無名高地 ㉓로 나아간 바, 이제막 그곳에 當到한 듯한 2개소대 규모의 中共兵과 맞닥뜨려 서로 高地의 占領을 다투게 되었다.

그러나 중대(一)가 機先을 制하여 그 敵을 먼저 내려침으로써 09.30을 前後하여 제2목표인 ㉓마저 占領하게 되었는데, 敵은 중대의 楔鋒을 당치 못하고 그 北쪽의 ㉒쪽으로 潰走하고 말았다.

이에 중대는 그곳에 壕를 과시 障地工事を 서둘러 끝낸 다음 10.30에 敵이 占領中인 마지막 목표인 ㉒高地를 指向하여 劍尖을 겨누고 다시 일어섰다.

제1소대장 元容穆 소위를 先頭로 北쪽으로 稜線을 단숨에 달려 그곳의 敵前에 이르니, 그들은 어느새 配置하였는지 Czecho式 機關銃과 自動火器로써 頑強히 抵抗하였는데, 이때 ㉒의 東北쪽 道路를 건너 月峰山에서 지원하는 듯한 敵의 直射砲가 加勢하여 중대의 前進를 가로 막는데다가, 이번에는 西南쪽의 제2중대의 공격 목표인 △424(㉑ 北쪽 500m)에서 敵의 自動火器가 側射로써 중대의 背面을 威脅하였다.

이에 대대장 尹興禎 중령은 戰車 소대로 하여금 月峰山의 敵火力을 制壓케 하고, 제2중대의 공격에 拍車를 加하도록 함으로써 △424의 側方機能을 牽制케 하였으나, 敵의 抵抗이 만만치 않아 ㉒공격에서는 시원한 成果를 얻지 못 하였으므로 하는 수 없이 중대를 ㉑고지로 되 물려서 그곳에 진지를 強化하여 防守 태세로 轉換기로 하였다.

제2대대의 障地占領 : 이때 中央 제1선인 제2중대(장, 閔龍基 대위)는 無名高地 ㉒(北亭嶺 北쪽 300m; 표고 430m 정도)를 제1목표로, 그 西北쪽 400m의 無名高地 ㉑(표고 510m 정도)를 제2 목표로, 그리고 無名高地 ㉓(㉑ 北쪽 400m; 표고 510m 정도)를 제3 목표로, 그 東北쪽 △424를 최종 목표로 각각 豫定하고, 北亭嶺을 LD로 삼아 3개소대를 併進케 하여 목표의 逐次 공격에 나섰다.

그리하여 중대는 稜線과 계곡을 덮은 霧中을 踏破하여 제1목표인 ㉒고지와 제2목표인 ㉑고지를 敵接없이 한 달음에 뛰어 넘고, 선두에 선 중대장을 跟隨하여 一路 제3목표인 ㉓고지로 向하였던 바, 09.00에 그곳의 敵 1개중대 규모와 더불어 한 차례의 雨中混鬪로써 雌雄을 決하게 되었다.

이에 중대장 閔龍基 대위는 陣頭에서 白刃를 뽑아 들고 白兵을 몰아 疾風迅雷로 敵陣을 두들려 들어가니, 그 氣勢에 눌렸음인지 중대장의 『돌격 앞으로!』라는 大號 한번에 烏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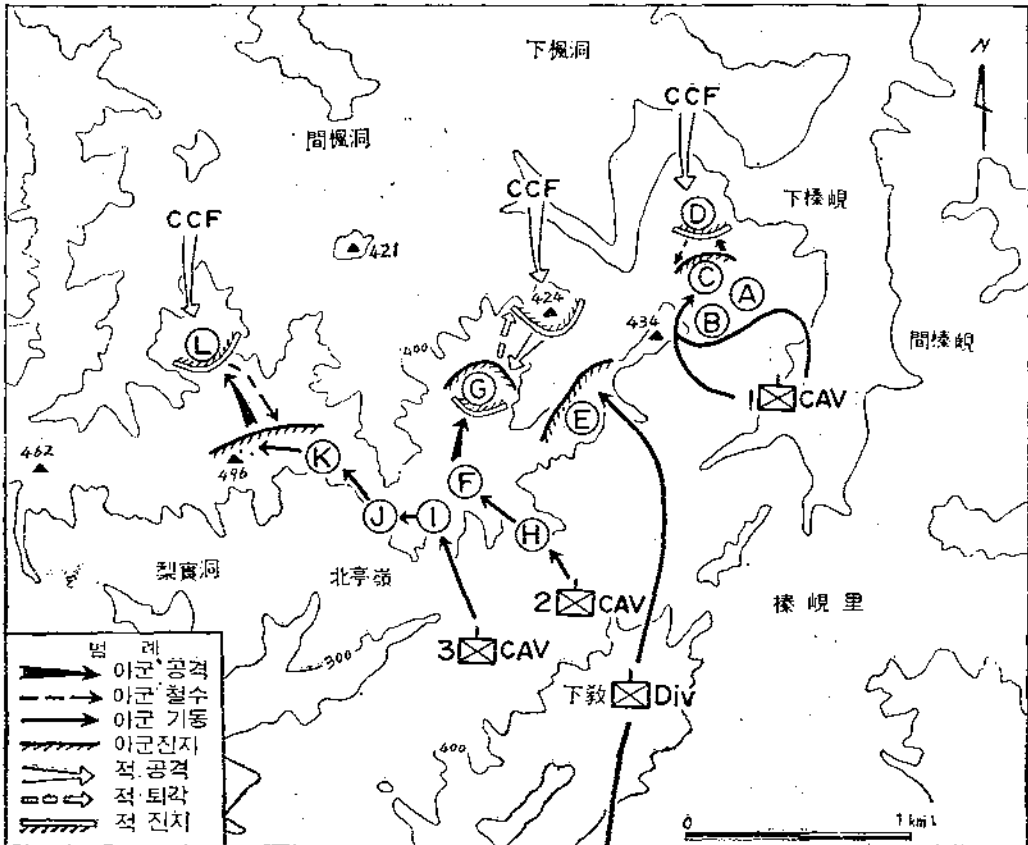
之卒로 化한 敵이 모두 등을 돌려 뿔뿔히 달아나, 그야말로 望風敗走로 그 北쪽 山麓으로 遁入하고 말았는데, 계곡의 안개 깊은 곳에서 督戰의 怒聲인양 쟁과리와 피리소리만 요란하였다.

이와같이 銳氣로써 敵을 一蹴하고 목표 ㉔고지의 頂上에 올라 서게 된 바, 그 東北쪽 稜線을 따라 내려 뻗은 모서리에 峭壁를 이룬 최종목표 △424에서 敵이 그 사이에 火力據點까지 마련하여 掩蔽된 濠속에서 自動火力을 集中하므로 곧 그곳에서 築壘作業에 들어 가 진지를 急編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陣地工事を 하는 一方으로 各者 휴대한 非常食糧으로 비로소 朝食을 삼았는데, 방금 潰散하였던 敵이 그 北쪽의 계곡에서 督戰隊의 銃부리에 떠밀린듯이 ㉔고지의 西北쪽 山腹을 타고 攀登한 다음, 1개 소대 규모로 다시 陣前에 나타났다.

이에 중대장은 장차 彈藥의 보급이 如意치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중대원에게 號令하기를 『一發必中을 期하라. 決斷코 명령없이 射擊치 말라.』고 射擊을 統制함으로써 敵이 陣前 가까이에 接近키를 기다리다가, 수류탄 投擲거리 內에 이르렀을 때에 일제히 喊聲을 올리면서 사격을 개시한 결과 小銃과 수류탄이 奏効하여 一擊에 그 敵을 殲殺하고 말았다.

◇ 상황도 제75호 기갑연대 제1대대의 저지선 확보



제3중대의 陣地 遞縮 : 또한 공격 左제1선인 제3중대(장, 金正九 대위)는 北亭嶺 西쪽의 117번 A道를 LD로 北쪽으로 稜線을 거슬러 올라 無名高地 ㉠(㉡ 西南쪽 400m; 표고 450m 정도)－㉢(㉣ 西北쪽 400m; 표고 470m 정도)－△495(㉤ 西쪽 300m)－㉥(㉦ 北쪽 500m; 표고 470m 정도)로 공격을 시작한 바, ㉠－㉢의 稜線을 西北으로 逐次 돌파하여 接敵없이 08.40에 △495까지 손에 넣었다.

이에 중대는 主力으로써 △495에 진지를 急編케 하고, 일부를 뽑아 최종목표인 無名高地 ㉥을 점령토록 한 바, 그곳을 한발 먼저 장악한 2개 소대 규모의 敵으로부터 頑強한 抵抗을 받아 一進一退를 서로 겨루다가 △495로 물러나, ㉤－△495에서 防禦 태세로 들어 가게 되었다.

한편 이와같이 대대의 공격제1선이 各속의 목표 占領에 好調를 보이고 있을 무렵인 09.30에 대대장은 대대지휘소를 제1중대의 △434로 추진하고, 우선 ㉧고지의 同중대와의 有線 連絡을 확보하였다.

대대장은 이와 동시에 漸增될 敵의 壓力을 미리 豫測하여 現進出線인 無名高地 ㉣－㉥－㉦線에서 各 중대의 進격을 制限하는 한편, 제1, 제2 兩중대 사이의 虛隙에 대하여 下 敎隊의 일부 병력으로써 △434－㉦고지의 稜線上에 진지를 整備하여 방어태세를 굳히도록 하였다.

그런데 中央의 제2중대(장, 閔龍基 대위)가 ㉧고지에서 敵 1개소대 규모를 擊滅중인 그 時刻인 10.00를 前後하여 △424－㉧고지의 稜線 東쪽 계곡－제1중대의 △434－㉥와의 峽谷－으로 潛入한 敵 50여명이 ㉥부근의 下敎隊 진지를 뚫고 ㉥의 頂上으로 기어 올라, 稜線이 震動하도록 響과리를 어지러이 울리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敵이 일부로써 제2중대의 注意力을 ㉥에서 견제하는 동안에 ㉥쪽을 突破하여 防禦線의 龜裂을 作爲케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 대대 左隣接인 제26연대 正面의 虛弱에 따르는 側方威脅과 敵의 常套의인 地隙潛透의 手法에 對備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現在의 據點防禦를 止揚키로 決心한 대대장은 즉시 ㉤－△495間的 제3중대(장, 金正九 대위)의 진지를 遞縮케 하여, 그 主力으로 하여금 ㉦－㉠ 사이에 새로운 陣地를 占領케 함으로써 ㉣－△434－㉥－㉦－㉠의 稜線에 一貫된 戰線을 形成토록 하고, 그 일부를 뽑아 ㉨의 南쪽 北亭嶺 고개를 확보토록 하는 한편, 間櫟峴－芳洞間的 117번 A道の 車輛과 병력의 通行을 統制토록 참모장에게 要請하였다. 一 대대장의 이와같은 措置는 대대의 陣地가 健在한데에도 不拘하고 敵의 일부가 果敢하게 ㉥로 파고 들어, 虛張聲勢로 대대의 主陣地를 擾亂함으로써 心理的인 效果를 노리는 同時에 北亭嶺의 要衝을 위협하여 補給路를 차단하는 등 사단의 제2선 整備를 妨害하려 한다고 내다본 까닭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대대는 下楓洞 부근에 있는 진차소에서 2대를 다시 間櫟峴의 삼거리로 뽑아 내려, 그 敵을 ㉥에 釘着케 하는 가운데 下敎隊로 하여금 제1중대(장, 吉逢春 대위)와의

協調下에 이를 破碎케 한 바, 11.00에 朴鳳規 중위가 지휘하는 同下敎隊의 1개 소대가 北亭嶺에서 ㉔頂上을 直衝함으로써 다시 占領케 되었는데, 그곳에서 소대는 敵의 遺棄屍體 28具를 확인 하였다.

나) 부대 收拾과 急編防禦線의 確保

한편, 기갑연대의 제1대대가 이와같이 △434—△495 線에서 썰기를 박아 孤軍奮鬪로 연대 正面의 敵侵을 阻止하는 동안, 다른 대대는 終日 부대재편과 아울러 117번 A道 南쪽에 새로운 防禦線을 急編하여, 이 戰線에 耀兵한 美 제15연대의 방어 縱深을 強化하였다.

기갑연대 제1대대 阻止線 撤收: 그런데 117번 A道 北쪽에서 기갑연대 제1대대(장, 尹興禎 중령)가 敵보다 한 걸음 앞질러 阻止진지를 점령하여 當面の 敵을 抑留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도 또한 대대 정면의 △421(㉔고지 西北쪽 800m)—△382(㉔고지 東北쪽 800m 下榛峴 西쪽)를 連하는 高地群에 2개대대 규모로써 속속 진지를 占領중인 것으로 판단 되었다.

그리하여 正午를 前後하여 敵 2개 중대 규모가 逐次로 ㉔고지로 제곡을 건너 올라 불어 ㉔의 제1중대(장, 吉逢春 대위)를 공격 하였는데, 제2중대(장, 閔龍基 대위)의 ㉔고지 正面에서도 같은 규모의 敵이 공격을 併行하였다.

이에 兩중대는 대대 全火力의 支援下에 그 防備에 一毫의 虛點이 없이 陣地를 決死固守코자 한 바, 이 意志가 奏効하여 熾烈한 交戰 끝에 12.50을 前後로 각각의 陣地에서 그 敵을 격퇴하였는데 그 戰果는 헤아리지 못 하였으나 俘虜 1명을 얻었다. 이리하여 當面の 敵은 대대진지를 헐사리 꺾수 없을 것으로 판단 하였음인지, ㉔—△424線에 물러나, 그곳의 陣地를 강화하면서 공격 再開의 기회를 노리는 듯 하였다.

그러다가 15.30이 되니, 月峰山 부근에 立脚地를 굳힌 듯한 2개대대 규모의 敵이 下榛峴—間榛峴 東쪽으로 楔鋒을 延伸하여, 드디어 △462(北)마저 손에 넣고, 여기에 直射砲 진지를 점령한 다음, 그 西쪽의 제1중대 진지를 強打하면서 間榛峴—北亭嶺間的 117번 A도를 威脅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대는 下榛峴 부근의 戰車소대와 대대 수색대를 間榛峴으로 뽑아 내려, △462(北)의 敵 直射火器에 대한 死角을 찾아 戰車를 分散 배치하여 그곳 삼거리의 扼守에 注力케 하는 한편, 敵의 이같은 妨害로 말미암아 대대의 補給이 杜絶된 가운데에서도 陣地固守에 대한 決意를 더욱 가다듬었는데, 17.00가 되니 ㉔고지로 부터 2개중대 규모가 제1중대의 ㉔고지를 目標로 공격을 再開하였다. 그리고 이와 때를 같이 하여, △462(北)에서 間榛峴의 道路邊으로 파고든 2개소대 규모가 對戰車 공격을 敢行함으로써 이를 掩護하던 대대 수색대와 激突을 보게 되었다.

이리하여 제1중대는 117번 A道 南쪽에 진지(急編防禦線)를 점령 중인 美 제15연대 제1대대(장, Aveiy 소령)가 火力支援으로써 △462(北)의 敵을 牽制하는 가운데 19.40까지 當面の 敵과 격전을 벌여 다시 俘虜 4명을 追加하면서 진지를 지켜 내었으나, 날이 저문

데다 間榛峴쪽으로 敵의 側方壓力이 더욱 加重되어 間榛峴—北亭嶺間的 117번 A道를 따라 楔入하려는 氣勢를 보이게 되므로 사단의 措置에 따라 中대를 모두 117번 A道 南쪽으로 隨意撤收토록 한 다음 美 제15연대의 제1대대 진지인 無名高地 ㉔(△462(南) 西쪽 1km; 표고 410m 정도)(117번 A道와 119번道の 分岐點을 形成케 하는 稜線의 尖端部) 부근에 配備하여, 戰車소대와 함께 이날 밤 敵의 間榛峴—北亭嶺 突破企圖를 막기로 하였다.

기갑연대 제2, 제3대대의 收拾: 한편, 이 동안에 제2선의 整備와 부대 수습에 拍車를 加하게 된 제1연대와 기갑연대는 참모장의 統制下에 各各 部署에 따라 戰列을 再編 하였다.

그리하여 기갑연대의 제1대대는 前述한 바와 같이 △434—△495線의 확보에 初志를 一貫키로 하고 下教隊로써 그 공격을 지원케 하였으며, △462(南) 부근에 제일 먼저 集結하여 부대 整備를 대강 끝낸 기갑연대의 제2대대로써 間榛峴 삼거리의 要扼인 ㉕교지 일대를 확보케 함으로써 美 제15연대의 來襲時까지 제1대대의 後據를 保障케 하였다.

이에 陸根洙 대령의 戰死로 기갑연대장을 代理하게 된 同 부연대장 元商鎬 중령은 연대의 前方 지휘소를 承岩里로 定하고, 제1연대 제1대대를 赴援 도중에 대대장 李俊和 소령이 戰死하는 등 致命的인 타격을 입은 바 있는 제3대대 병력을 수습하여 제2대대장 朴基淳 중령이 이를 통합 지휘토록 하는 한편, 同제3대대의 副대대장 李萬濬 대위로 하여금 尙속까지 계속 復歸중인 同대대 병력을 收集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2대대는 수습되는 제3대대의 병력을 통합하여 ㉕일대의 진지를 終日토록 확보하였는데, 午後 늦게 赴援된 美 제15연대의 제1대대와 合同으로 117번 A道와 119번道を 制扼하면서 연대 병력의 수습과 보급 추진에 助力하다가 20.00를 前後하여 그 北쪽의 阻止線에서 물러난 제1대대에 진지를 인계하고, 西南쪽으로 稜線을 따라 △492(㉖ 西南쪽 800m) 부근으로 轉進하여 下教隊와 함께 北亭嶺 南쪽 진지를 확보 하였다.

제1연대 제1, 제2대대의 收拾: 이때 또한 午後에 제1연대장 崔世寅 대령이 그 參謀陣과 함께 戰線에 復歸함으로써 연대 지휘소를 承岩里에 새로이 開設하는 가운데 연대의 戰列 收拾에 임하게 되었다.

먼저, 이날 05.00를 前後하여 Iceland線 △512의 대대 지휘소에 敵의 破壞筒이 날라든 것을 信號하여 文字 그대로의 風飛霞散의 境地에 이르고 만 제1대대는 대대장 李鍾錄 중령 이하 대대 참모들의 生死를 알수 없는 채, 直木洞에서 利川洞으로 指向된 敵의 火力急襲地帶를 넘어선 일부 병력이 間榛峴으로 모여 들기 시작 하였는데 그 발길이 20.00가 지나도록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前線의 제5, 제7 兩중대 병력을 대부분 진지의 據속에 남겨둔채 철수한 제2대대(장, 金榮吉 중령)는 07.00에 제1 집결지인 間榛峴에서 다시 08.00에 제2 집결지로 떠나 承岩里의 연대 CP에 集結한 다음, 일부 수습된 제1대대 병력을 통합하여 부대를 整備

하였다. 18.00에 119번 도로를 따라 ㉓-△492의 急編防禦線으로 나아가, 기갑연대 제1대대와 同제2대대의 사이에 配置되자, 美 제15연대의 제1대대 장병과 함께 徹夜로 戰列을 가다듬으면서 陣地를 補強하였다.

이때, 당초 대대와 戰列을 같이 하기도 한 연대수색중대(장, 李鍾甲 대위)는 06.30에 제1집결지 間榛峴에서 集結하였다가 07.00부터 다시 承岩里로 南向하여 整備를 끝낸 14.00에 제2대대에서 配屬 해제와 同時에 間榛峴으로 나아가 삼거리일대에 陣地를 築設하여 119번 도로를 확보 하였는데, 날이 저물면서는 承岩里의 연대 CP를 警戒하였다.

제3대대의 復歸: 前線陣地에서 敵의 背面 공격으로 말미암아 Missouri線 진지를 타고 西南向한 제3대대(장, 朴贊堯 중령)는 대대장이 이끈 일부병력과 主力이 서로 合勢치 못한 가운데 제26연대의 CP를 목표로 撤收중, 제10, 제11 兩중대는 10.00에 蘆洞을 거쳐 12.00에 목적지에 集結하였다. 한편 佳峴里 東쪽에서 앞서의 제10, 제11 兩중대와 進路를 달리던 제9중대는 10.00에 △454에 이르러 Rocket 砲 등 重裝備를 갖춘 1개소대 규모의 敵과 衝突하였다. 이에 同중대는 突破戰으로써 그 敵을 격파하고 제10, 제11 兩중대 보다 조금 늦은 13.30에 역시 제26연대의 CP에 당도하였는데, 그 곳에서 Rocket砲 1문을 幽獲하고 敵 遺棄시체 4구를 확인하는 戰果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제26연대의 CP에서 부대대장 金元贊 대위의 지휘아래 集結된 병력으로 各 중대를 再編케 되는데, 이때 대대장이 一團의 火器중대 兵력을 이끌고 上九井一下所里의 經路를 따라 제9사단지역으로 迂回하여, 14.00에 齋宮洞에 있는 사단 CP에 당도함으로써 대대主力은 다시 117번 B道를 따라 사단 CP에 集結케 되었다. 이어 대대는 6번 道路를 거쳐 연대지역으로 急進하여 다시 119번 道路로 承岩里의 연대 CP에 이르렀는데, 이 대대의 旗幟가 整然한 그대로여서 큰 損傷을 입지 않은 것이 연대로서는 不幸中の 多幸이었을 것이다.

이에 연대는 18.30에 이를 다시 사단 前線인 117번 A道 南쪽의 稜線으로 推進하여 下教隊의 西쪽 △532(△492 西南쪽 500m) 부근에 配備하였는데, 이로써 연대는 當面한 戰線에서 主力의 結束을 보게 되었는데, 전날 Missouri線(主抵抗線)에 敵의 攻勢가 取하여진 뒤로 거의 24시간만에 一貫된 지휘체제가 이루어진 셈이었다.

한편, ㉓고지 부근의 下教隊의 일부는 기갑연대 제1대대의 ㉓로의 撤收와 함께 △492 부근의 下教隊本陣으로 收容 되었으며, 間榛峴 부근의 戰車소대는 밤이 깊도록 삼거리 일대를 지키다가 23.00가 지나서야 承岩里의 연대 CP로 反轉하였는데, 終日 敵砲火 속에서 馳驅한터인지라 CP 도착과 同時에 戰車 2대의 軌道가 저절로 끊어지고 말았으니, 이들의 勇戰相을 미루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제26연대의 狀況

가) 부대의 再編

이날 낮동안 제26연대(장, 殷碩杓 대령)는 사단의 右一線에서 기갑연대의 제1대대가 홀로 阻止線을 支撐하는 동안, 로병의 集中支援으로 그 담당 正面인 △462-△404線을 火力遮斷하는 가운데 연대 CP에서 부대를 재편하였다. 즉, 제1선이었던 제1대대(장, 韓敏錫 소령)는 이날 아침 敵의 狂波가 南大川 西岸을 모두 휩쓴 뒤, 대대장이 「象牙峰」의 대대 지휘소를 非常脫出하는 등 戰列에 紛糾를 보인 가운데 橋田里-蘆洞으로 撤收한 바, 대대 S-1 李鎭根 중위의 수습으로 11.00에 연대 CP 부근에 집결케 되었는데, 이 동안에 下所里쪽으로 敵中을 單身 통과한 대대장은 “갈골”(下所里 南쪽 1.5km) 부근에서 제9사단을 支援중인 戰車隊의 구원을 받아 14.00에 연대 CP로 復歸하였다.

한편, 제1대대를 赴援 도중에 狂濤에 휩쓸리게 된 제2대대(장, 韓錦昌 중령)는 06.00에 橋田里에서 兵力 100명을 수습 하였으나, 이어 敵이 南大川을 건너 들이닥치므로 그곳의 기갑연대 수색중대(장, 吳順九 대위) 및 제3대대(장, 林完植 중령)의 철수병력과 함께 △462-△395線으로 逐次로 물러나 阻止 진지를 急編하였다. 그러나 乘勝한 敵이 銳氣를 몰아 △462를 強襲한 까닭으로 그곳에서 다시 물러나 11.00에 연대 CP 부근에 또한 집결 하였는데, 여기서 병력을 點檢한 결과 제2대대는 317(將校 16, 士兵 301)명이었으며, 제3대대는 모두 431(將校 15, 士兵 416)명이었다. 이리하여 연대 主力은 17.00까지 부대를 整備케 되었는데, 이때 또한, 08.00를 前後하여 楊谷 부근에서 제3대대와 함께 철수한 사단수색중대(장, 崔周鳳 대위)는 12.00에 齋宮洞의 사단사령부에 집결한 바, 그 병력은 115(將校 3, 士兵 112)명이었다. 이에 同중대는 이를 다시 4개 소대로 再編하여 제26연대장 指揮下에 同연대 CP-芳洞間의 117번 B道の 左扇部인 △373 부근에 진지를 占領함으로써, 이날밤 芳洞 삼거리 일대의 敵情收集과 아울러 연대 左側方 경계에 任하였다.

나) 새로운 主抵抗線 공격 제1차

이와같이 연대의 主力이 CP 부근에서 整備하고 있는 동안, 11.00의 사단 作命 제70호에 이어 15.30에 그 제71호가 下達됨으로써 △495-△462-△395의 奪還 임무가 새로 부여 되었다.

이에 연대는 17.00까지 수습된 병력 1,000여명으로써 目標線의 攻略에 나서기로 하였는데, 이를 目的로 하는 17.40부 연대 作命 제46호의 要點는 다음과 같다.

『① 연대는 사단 命令에 따라 △495-462-△395線에 새로운 主抵抗線을 占領하러 한다.

② 제1대대는 공격 中央一線으로서 목표 “B”(△462 일대)를 탈취하라.

③ 제2대대는 공격 左一線으로서 목표 “C”(△395 일대)를 탈취하라. 攻擊間 특히 西側方의 경계를 要한다.

④ 제3대대는 공격 右一線이 되어 목표 “A”(△495 일대)를 탈취하라. 攻擊間 東側와 기갑연대 제1대대와 긴밀한 協調를 유지하라.

⑤ 사단수색중대 및 기갑연대의 수색중대는 △373 부근에서 공격대대를 火力支援하라.

⑥ 연대 수색중대는 연대지휘소 경계에 임하라.

⑦ 攻撃間 제60포병대대가 연대를 직접 지원할 것이며, 要請에 따라 美 제3사단 포병단의 火力增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⑧ 各 대대는 H-1까지 공격 待機線에 展開하라.

공격대기선 : 제1대대—無名高地 ㉑(梨實洞 南쪽 1km; 표고 490m 정도) 부근의 Greece 대대 陣地線

제2대대—△495(南) (㉑西南쪽 600m) 부근의 美 제15연대 제2대대의 陣地線

제3대대—無名高地 ㉒(㉑ 東北쪽 600m; 표고 410m 정도) 부근의 Greece 대대 陣地線

⑨ 공격개시 시간은 今夜 20.00이며, 공격개시선은 梨實洞—芳洞間의 117번 A道이다.

⑩ 지휘소 위치는 變動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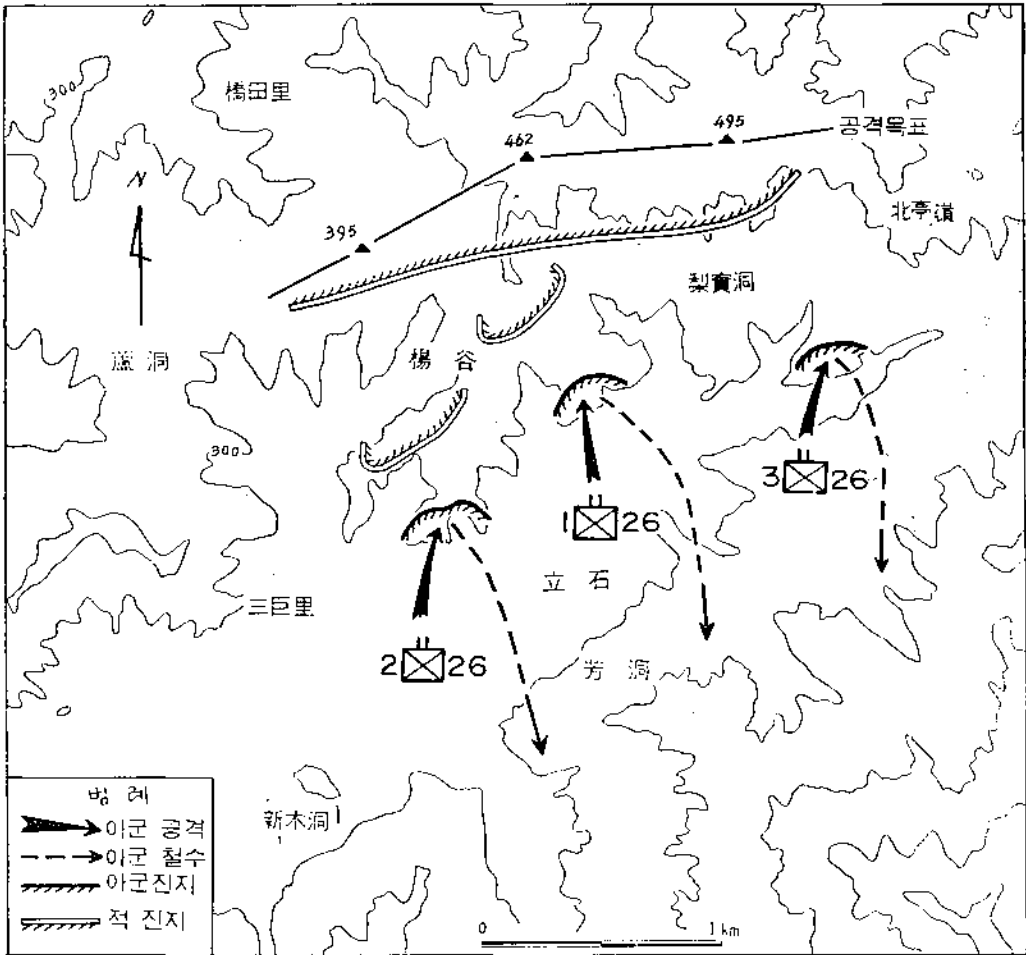
이리하여 연대는 제3, 제1, 제2대대의 順으로 117번 A道の 南쪽에 추진하여 공격 陣容을 가다듬게 되었는데, 이날 午後부터 美 제15연대의 배속 Greece 대대(장, Georgios Koumanakos 중령)와 同연대의 제2대대(장, J.K. Singlaub 중령)가 연대 正面의 급전방어전지 構築에 投入되어 陣地工事 중에 있어, 이들 부대와와의 協調관계를 勘索하여 연대 장 殷碩杓 대령이 공격개시 시간을 당초 사단에서 指定한 時刻(18.00) 보다 2시간이나 늦게 잡았던 것이나, 실제의 공격 시작은 이보다 더 遲延되었다.

즉, 右一線인 제3대대(장, 林完植 중령)는 17.40에 예정대로 연대 CP 부근의 집결지를 출발하였으나 20.00가 넘어서야 공격대기선인 ㉒고지에 當到케 되어, 21.00에야 공격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대대는 梨實洞 도로의 南쪽 △368(㉒ 西南쪽 500m)를 거쳐 그 北岸의 △364(△368 北쪽 500m)—△495의 軸線을 따라 공격키로 하고, 제10중대(장, 宋奇出 대위)를 先頭로, 제9중대(장, 尹義穆 대위)와 제11중대(장, 尹昌和 대위)를 左右로 併列하여, 먼저 제10중대로 하여금 △368를 확보케 함으로써 이의 掩護下에 제9, 제11兩중대로써 △364를 攻奪케 하였다.

그리하여 제9, 제11兩중대가 △364를 手中에 넣기는 하였으나, 敵의 砲火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364에서 그대로 拒止키로 하였다.

이때에 中央一線인 제1대대(장, 韓敏錫 소령) 역시 20.45에야 ㉑고지의 北麓으로 나아가, 제3중대(장, 林虎成 대위)를 右제1선으로 삼고, 제1중대와 제2중대를 통합하여 제1중대장 盧明奎 대위의 지휘아래 左제1선으로 삼아, 21.00에 △306(㉑ 西北쪽 800m, 117번 A道 南岸)을 거쳐 공격을 시작하였다. 대대는 △306를 발판으로 그 北岸의 △335(△306 西北쪽 600m)—△462로 공격 하기로 하였으나, 이도 敵의 砲火가 117번 A道에 沿하여 南北으로 가로 막아 놓은 火壁을 뚫는 동안 一進一止한 탓으로, 23.00에야 △335를 攻取케 되었다. 그리하여 대대도 그곳에서 더 以上 나아가지 못하고 散兵壕를 急造하게 되었다.

◇ 상황도 제76호 제26연대의 제1차 반격 상황



한편, 左一線인 제2대대(장, 韓錦昌 중령)는 △495 西麓에서 제5중대(장, 대령 金金守 중위)를 中央의 先頭に 내세우고, 그 제2선에 제6, 제7 兩중대를 展開하여 芳洞으로 나아가 그 北岸의 無名高地(△306 西쪽 800m; 표고 310m 정도)－△341(⊗ 北쪽 400m)－△395線으로 공격키로 하였으나, 이 역시 敵 砲火의 妨害로 23.00가 되도록 ⊗고지 부근에서 淹滯되는 遲遲不進을 免치 못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再編 부대의 夜間攻駁으로 目標을 탈취하는 것도 어려운 노릇이거니와 右一線에서 이미 그 南쪽의 急竊 방어선으로 물러난 時點에서 一貫性 없는 現 점유진지를 계속 확보 한다는 것은 그로 말미암은 損失이 利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사단장의 承認을 얻어 공격대대를 子正을 期하여 모두 본래의 공격대기선으로 되물렸다.

이리하여 결과적으로 아침에 左一線의 제26연대가 △462線의 阻止障地에서 물러날 무렵, 右一線에서 기갑연대 제1대대가 △434線으로 나아 갔고, 밤에는 右一線에서 철수할

때에 左一線에서는 오히려 공격을 取하였던 것이라, 이 같은 左右의 逆調現象을 빚은 끝에 중내에는 모두가 물러서는 바 되고 말았으나, 이날 右翼인 제2군단에서는 白岩山—赤根山線의 Wyoming 線까지 철수 하였음을 비추어 볼때, 左右一線의 낮과 밤이 엇갈리는 이 두 차례의 공격이 117번 A道에서 敵을 拒支할 수 있었던 要因이었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무릇, 進退와 攻防이 반드시 一致하는 것은 아닐 것이니, 敵의 攻勢延伸의 企圖를 先制로 牽制하는 효과를 보아 한번 나아감에 시간을 얻고, 한번 물러섬에 땅을 굳힌 것이라 할 것이다.

(라) 反擊(7. 15. 01.00~24.00)

7월 15일 : 敵의 攻勢 3일째인 이날, 사단은 全力으로써 전날의 反擊을 再興 하였는데, 이것이 이 戰線에서의 사단 制勝의 우렁찬 咆哮였던 바, 사단으로서는 일찌기 겪지 못하였던 榮辱無常의 한 局面이기도 하였다.

1. 反擊計劃의 再檢討

전날 子正을 前後로 사단의 左右一線이 117번 A道 兩쪽의 急編防禦線으로 反轉하여 그곳의 美 第15연대(장, Russell F. Akers, Jr. 대령)와 더불어 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동안, 사단장 崔昌彦 준장은 齋宮洞의 사단지휘소에서 徹夜로 작전회의 등을 管掌하여 새로운 主抵抗線의 확보에 대한 方案을 再檢討 하였다.

그러하여, 前날에 얻은바 戰鬪情報를 土曜로 分析한 G-2의 情報概略에 의하면, 『사단 當面の 敵 공격 主力인 中共 제203사단(장, 楊棟樑)이 尙속도 사단 정면에서 對峙 중인데 그 담당 지역은 대체로 現 사단의 담당정면과 匹敵하는, 月峰里—間榛峴 間的 117번 A道에서 佳峴里—橋田里—蘆洞線 사이로서 그 예하 제607연대를 右一線으로 삼아 △395—495間的 제26연대 정면에, 제609연대를 左一線으로 삼아 ㉔코지—△434 間的 제1연대 정면에 各各 배치하고, 제608연대를 예비로써 上楓洞 부근에 控置한 듯 하다. 當初 同제203사단을 左右에서 掩扼하여 사단의 主抵抗線 돌파에 加擔한 제72사단(장, 康 林)과 제204사단(장, 曹玉淸) 가운데 제72사단의 제215연대가 제607연대의 西쪽에 連繫하여 제9사단(장, 李翰林 소장)의 右一線 정면인 △404(橋田里 南쪽 700m) 부근에, 그리고 제204사단의 제610연대가 間榛峴—月峰里 道路를 사이에 두고 제609연대와 隣接하여 제6사단(장, 白仁樺 소장) 左一線의 △462(北)—△633(△462 東南쪽 2.2km) 稜線을 따라 南向중인 것으로 보이며, 그들 군 예비인 제202사단(장, 陳坊仁)과 제204사단의 1개 연대 그리고 제54군의 團隊號 未詳인 1개 연대가 △552—△512線에 詰結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當面한 敵 제203사단은 OPL을 間榛峴—芳洞間的 117번 A道에 두고 있는 듯 하며, 그들은 사단의 主抵抗線을 돌파할 때 입은바 打撃이 적지 않은 것으로 믿어지나 예비병력의 數와

集中的인 火力支援 등으로 미루어 보아 아직도 相當한 攻擊力量을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推斷된다. 그러나 前날의 動態로 推斷컨대 我軍의 Missouri 線上에서 埋伏중인 일부와 撤收路를 打開중인 일부의 遊動 병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後顧의 念慮가 없지 않을 점을 勘案한다면, 그들이 攻勢再興의 준비를 충분히 갖추었다고는 볼수 없을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434—△395 線上에서 次期 공격을 위한 부대제편과 戰列整備 중일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은 敵情을 놓고 사단장은, 兵力이 비록 劣勢이지만 1對 1의 對決이니만큼, 事若不成이면 死不還 하리라는 決意만 가진다면 能히 敵線을 分斷하고 所期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自信을 가다듬게 되었다.

이에 사단은 그 공격 方針을 대체로 前날의 作命 제171호의 概念에 따르기로 하되, 全力을 一時에 投入한다는 것과 步戰砲空의 立體的인 協同을 土臺로 하여 支援火力의 效果를 最大限으로 擧揚할 것이라는 見解를 강조하고, 事전에 周到綿密한 火力協調 체제를 樹立키로 하였다. 따라서 이날의 공격에서는 彼我의 火力戰으로 一貫될 公算이 크다는 豫想下에 원활한 砲兵支援과 航空支援이 隨伴되어야 할 것이므로 氣象이 好轉되는 시간만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낮부터 高層雲으로 日氣가 맑아 진다는 豫報에 따라 12.30을 공격개시 시간으로 다시 잡았다.

그러하여 사단은 左右一線 연대로 하여금 前날의 목표에 대한 공격을 再開토록 하되, 左一線인 제26연대 正面의 地形條件—目標線 까지의 거리—을 勘案하고 同연대로써 12.00까지 117번 A道 北岸 △364—△335—△341의 敵陣 前緣을 먼저 薙取케 함으로써 공격 발판을 확보토록 하여, 左右一線의 공격 步調를 맞추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공격 제개에 대한 준비가 대강 마무리된 것이 08.00 前後였는데, 이때 軍단장 Jenkins 중장이 美 제3사단장 Smythe 소장과 함께 사단지휘소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교대 계획을 內示하였다.

『수도사단은 今日 12.00까지 美 제3사단에 戰線을 인계하고, 一東 부근에 집중하여 軍 団예비가 되라. 사단포병은 同時附로 제2사단(장, 金雄洙 中將)에 배속하여 同사단을 지원토록 한다.』

이에 사단장은 初志를 貫徹코자, 軍단장에게 다시 建議하기를 『사단은 前날의 晝夜二戰에서 敵의 銳氣를 꺾어, 117번 A道線에 이를 拊留 함으로써 그 攻勢에 세기를 박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사단은 이제 △434—△395線을 확보하여야 할 차례라고 보는 바, 時期的으로 그 線을 점유중인 敵의 防禦組織이 강화되기 전에 이를 粉碎하여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現在의 彼我의 形勢로 미루어 사단이 能히 敵을 격파할 수 있을 것을 確信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단은 攻勢的 防禦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敵陣에서 脫出중인 사단장병을 能히 救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戰友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義務이며, 喪失된 舊陣地를 恢復하는 것은 우리의 任務이다. 사단이 지금까지 입은 바 그 傷痕이 決코

적은 것은 아니로되, 아직도 數千의 將士가 健在하니만큼 여기서 죽기를 맹세코 이제 一戰을 決하러 하거니와 그 뒤로도 계속 當戰線에 남아 奮心의 一戰으로 奮憤코자 한다. 일컬어 「猛虎는 비록 다쳐도 叢林을 떠나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 衷情을 헤아리기 바란다.』라고 決意의 一端을 吐露하였다.

이에 軍단장은 深思하고 沈考한 끝에 이를 首肯하면서도 『首都사단 將兵 모두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에 좃을 것이로되 捲土重來로 後日을 期約하는 것도 必要한 것이며, 何必 이 戰線만이 決戰의 곳이겠는가. 우선 英氣를 培養하여야 할 때라고 본다. 그러니 12.00부로 現戰鬪地境內의 모든 防禦 責任을 美 제3사단에 인계하고, 계획대로 目標線 공격을 再興하라.』고 斷案을 내리고, 다음과 같이 敷演하였다.

『首都사단은 目標를 확보하는 즉시로 美 제3사단에 인계하고 前線에서 撤收하여 同 美 제3사단장의 作戰統制를 받아 齋宮洞 부근에서 時急히 부대를 再編한 다음, 後命을 기다리라.』

2. 제1연대의 새로운 主抵抗線의 확보

사단의 右一線인 제1연대는 전날 기갑연대의 제1대대가 확보 중이던 阻止線이 이날 연대의 공격목표이자 새로운 主抵抗線으로 된 셈인데, 연대를 다시 지휘하여 08.00부터 공격 준비에 들어간 연대의 공격계획은 대체로 이러하였다.

- 『① 기갑연대 제1대대는 공격 右一線으로써 목표 “가”(△434—㉠—㉡일대)를 탈취한다.
- ② 기갑연대 제2대대는 제3대대를 통합 지휘하여 공격 中央一線으로써 목표 “나”(無名高地 ㉢—㉣—△424 일대)를 탈취한다.
- ③ 제1연대 제3대대는 공격 左一線으로써 목표 “다”(無名高地 ㉤—㉥일대)를 탈취한다.
- ④ 제1연대 제2대대는 제1대대를 통합 지휘하여 기갑연대 제1대대가 목표 “가”를 확보하면, 間榛峴 일대로 進出하여 △462(北) 부근의 敵을 全제함으로써 연대의 東側背를 掩護한다.
- ⑤ 전차중대는 間榛峴 부근에서 敵의 側方火力을 견제하여, 右一線 대대를 重點的으로 지원한다.
- ⑥ 下級隊는 現境地에서 공격 1선을 火力 支援한다.
- ⑦ 공격개시 30분 전에 포병의 공격준비 사격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연대는 間榛峴의 東西의 要衝이 이미 敵의 手에 들게 되어, 사단의 右側背가 暴露 되었으므로 연대의 새로운 MSR인 119번도에 敵이 出沒할 것을 미리 對衛하여, 間榛峴의 삼거리 확보에 特段의 配慮를 要하게 된 결과 배속된 戰車의 活用度를 높이고자 故障전차를 전날 밤중으로 同 中대본부에서 修理케 함으로써 04.00부터 우선 그 3대를 뽑아 承岩里에 있는 연대 CP에서 間榛峴 사이의 119번도를 확보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연대는 이 本道 사용을 保障케 하는 가운데 支援火器의 諸元을 修正하고 通

信網을 整備하며, 공격대대에 대한 彈藥補給을 새로이 하여 10.00까지 공격준비를 마무리 지은 다음, 117번 A道를 LD로하여 예정된 12.30에 공격을 시작하였다.

가) 기갑연대 제1대대의 목표 “가” 공격

연대의 右一線이 된 기갑연대 제1대대(장, 尹興禎 중령)는 전날 아침 제1중대 공격목표를 다시 대대의 공격목표 “가”로 부여 받은 셈이었다.

이에 대대는 목표를 細分하여, 제1중대로써 右제1선으로 삼아 無名高地 ㉔를, 제2중대를 中央 제1선으로 삼아 無名高地 ㉕를, 그리고 제3중대를 左제1선으로 삼아 △434를 各佔탈취토록 하였는데, 제2, 제3 兩중대는 ㉕와 △434를 확보한 다음 이어 ㉔로 공격 軸線을 延伸함으로써 전날의 진지를 모두 恢復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대대는 12.00부터 제10포병대대의 공격준비 사격으로 목표고지의 敵 火力을 擱伏케 하는 동안 ㉔-△434를 목표로 美 제15연대의 급편 진지를 躍出하여 北쪽 下麓으로 山腹을 타고 LD로 나아가, 12.30에 일제히 北亭嶺에서 東北으로 흐르는 金城川 支流의 澗谿를 건넜는데, 이때 까지도 날씨는 개이지 않아 구름이 낮게 깔린 그대로였다.

敵은 한밤 사이에 ㉕와 △434로의 接近路上의 要線에 自動火器의 火力據點을 急造한 듯 數挺의 輕機로써 대대의 접근을 妨害하는 것이었다. 이와 아울러 △462(北)일대에서도 重機가 두 곳에서 烈火를 뿜어 대대의 右側方을 위협 하였으며 月峰山에서는 75mm 直射砲



<急編陣地 속에서>

가 間榛峴 삼거리 일대를 亂打하고 大小의 曲射砲가 北亭嶺 부근의 117번 A道에 沿하여 강력한 彈幕을 形成함으로써 자못 頑強한 저항을 보였다.

대대는 敵포병의 탄막을 뚫고 목표 高地의 下麓에 이르러 중대별로 散開하여 死角을 찾아 포복과 각개약진을 互用하면서 步一步로 進擊하였다.

그리하여 右제1선인 제5중대(장, 吉逢春 대위)는 間榛峴 삼거리로 중대와 併行突進한 전차중대가 제5소대장 戰車에 지휘소를 설치한 중대장 金玉培 대위의 陣頭지휘 아래 東側方 △462(北) 일대의 敵 自動火力의 據點을 撲滅함으로써 가까이는 側方支援 화력을 견제하고, 멀리는 月峰山의 直射砲 진지를 찾아 假借없이 鐵槌를 加하여 그 火力을 屏息케 하는 가운데 목표에 대한 直衝과 急襲을 반복하여 13.30을 前後하여 ㉔고지쪽의 제2중대(장, 閔龍基 대위)와 나란히 목표인 ㉔고지를 점령하였다.

제3중대의 聲東擊西 : 이때 左제1선으로써 △434를 공격케 된 제3중대(장, 金正九 대위)는 間榛峴에서 西北으로 △434 南쪽에 이르는 계곡으로 깊숙히 파고든 다음, 제2소대(장, 金忠實 소위)를 南쪽 正面에 내세워 北쪽으로 목표 △434의 頂上에 衝擊을 加하게 하고, 제1소대(장, 孫鍾奎 소위)를 西쪽의 다른 稜線으로 迂回토록 하여 목표의 西側背를 挾擊토록 하였는데, 제3소대는 支援소대로 삼아 중대장이 이를 직접 지휘하여 상황에 따라 즉응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左側으로 迂回한 제1소대는 霧中에 企圖를 감추게 하여 때를 보아 奇襲의으로 들이 치도록 하고, 正面의 제2소대만이 목표를 공격하는 양 陽攻을 策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注意力을 전제케 하였다. 그리고 제2소대가, 이때 117번 A道를 따라 北亭嶺까지 進出한 전차중대 일부의 支援아래, 虛張聲勢로 공격 위력을 발휘하여 敵前으로 달려 들어가니, 高地의 敵이 防禦力을 소대 정면으로 集中하여 陣前 出擊하는 豪氣마저 보였다.

이에 西側面의 제1소대가 이를 놓칠세라, 포복으로 敵前 40여m에 까지 肉迫하여 敵이 陣前出擊하는 그 虛를 질러 西側背를 急襲, 『突擊!』의 함성도 드높이 敵陣으로 穿貫突入하였다. 그리하여 敵의 戰列을 混淆케 한 다음, 南쪽 正面에서 白兵을 굽히 몰아닥친 제2소대와 함께 左右挾擊으로써 抵抗하는 敵을 딱치는대로 屠戮하니, 마침내 敵이 더 견디어 내지 못하고 ㉔쪽으로 散亂潰走하고 말았는데, 이때가 대체로 14.00前後였다. 여기서 중대는 곧 진지제편에 들어가, 敵의 逆襲에 대비하는 一方 戰場을 정리한 바, 그곳에서 대충 40여구의 敵屍가 遺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제2, 제3 兩중대가 각기 ㉔와 △434에서 ㉔로 몰아치기로 하고, 隊伍를 整備 하였는데, 이와같은 대대의 企圖를 看破 하였음인지 그 뒤 20여분에 敵포병의 집중 지원아래, ㉔로 몰려갔던 敵이 △434를 向하여 먼저 공격을 시작한 까닭으로 제3중대가 陣前에서 이를 맞아 싸우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間榛峴 東쪽 117번 A道の 건너에서 敵勢가 심상치 않아—제6사단과 제11

사단의 交代 虛隙을 노린듯—절차 119번 道路를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대장 尹興禎 중령은 보급추진이 如意치 못할 것을 勸察하여 대대의 병력손실과 탄약의 射耗를 제한키로 決心하고 現占진지만을 固守토록 조치 하였는데, 이동안 제3중대는 △434에서 방어태세로 전환하여 敵의 공격을 두 차례나 격퇴 함으로써 敵屍 50여구를 遺棄케 하였다.

나) 기갑연대 제2대대의 목표 “나” 공격

한편 中央—線인 기갑연대 제2대대(장, 朴基淳 중령)는 목표 “나”(전날 제2중대의 공격 목표였던 ㉠—㉡—△424)를 공격함에 있어, 통합지휘중인 제3대대(장, 대위 李萬浩 대위)를 △492 부근에 예비로 控置하고, 제6중대(장, 鄭一洙 대위)를 선두돌격대로 삼아 進路를 개척케 하면서 그 2선에 제5, 제7 兩중대를 併列하여 魚鱗鶴翼의 형세로써 12.30에 北亭嶺 고개마루에서 北쪽 稜線을 따라 敵의 砲火속을 돌파하였다. 그러나 이 正面 역시 砲火가 예와 같이 熾盛을 보여 暴雨를 쏟아 놓는듯 하였다. 대대는 ㉢—㉣로 공격 방향을 잡아 중간 목표인 ㉠을 확보한 다음, 여기를 발판으로 ㉡까지 나아가 그곳의 敵을 芟除키로 하였던 바, 13.30을 전후하여 銳氣로써 ㉠을 奪取키는 하였으나, 그곳의 敵이 決코 만만치 않게 抵抗한 까닭으로 先頭에서 敵陣속에 뛰어 들었던 제6중대장 鄭一洙 대위가 負傷을 입고 소대장 모두가 死傷되는 터인지라, ㉠을 눈앞에 겨냥해 보면서도 더는 나아가지 못하고, 後續한 제5, 제7중대로써 陣地를 재편케 되었다.

그리하여 대대도 ㉢線에서 진격을 멈추고 ㉡쪽으로 진지를 擴張하여 △434의 제1대대와 連繫하는 방어진지를 急編하였는데, 여기서 대대는 敵 2개중대 규모의 逆襲을 받아 前後 5시간이나 血鬪를 계속케 되었다.

다) 제1연대 제3대대의 목표 “다” 공격

공격 左—線이자 실제 제1연대의 主力이기도 한 제3대대(장, 朴贊兢 중령)는 전날 기갑연대 제3중대의 목표였던 ㉠—㉢ 稜線(목표 “다”)을 指向하여 北亭嶺 西南쪽 117번 A道の LD를 예정대로 돌파 하였다.

그리하여 대대는 13.00를 前後하여 ㉠—㉠의 稜線 南麓에 제10중대(장, 趙炳潤 대위)를 右제1선으로, 제11중대(장, 張斗煥 대위)를 中央 제1선으로, 그리고 제9중대(장, 金守明 대위)를 左제1선으로 展開하여, ㉠—㉠을 중간 목표로 먼저 점령한 다음, 곧 西北進하여 ㉢를 아울러 掌中에 넣기로 하였는데, 13.30에 ㉠—㉠의 南쪽 8부 稜線에 이르러 各各 1개 중대 규모로 推算되는 敵이 굴러내린 수류탄의 集中投入을 받게 되어, 損失이 激增하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 朴贊兢 중령이 敵 포화를 무릅쓰고 117번 A道を 건너 뛰어 敵線으로 달려가 대대의 奮迅突破를 號令한 바, 3개 중대원이 모두 수류탄을 마주 던지면서 敵陣으로 밀고 들어 가 白兵의 亂鬪를 벌인 끝에 그 敵을 殲戮하고, 공격개시 2시간만인 14.40에 중간 목표인 ㉠—㉠의 稜線을 席捲하였다.

그러나 대대 역시 예비병력 없이 全力을 投入한 셈이라, 敵이 만약 逆襲으로 移行할 경우 現占진지나마 지켜내기가 힘겨운 立場인 까닭에 ㉔로의 공격을 留保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그곳에서 진지를 再編하여 우선 東쪽의 기갑연대 제2대대와 連繫를 圖謀하면서 방어태세로 轉換하였다.

한편, 연대의 제1대대 병력을 임시 통합지휘중인 제2대대(장, 金榮吉 중령)는 13.00에 기갑연대 제1대대의 $\Delta 434$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間榛峴 부근으로 進出하여 同대대가 목표 “가”를 확보한 뒤에는 ㉔를 인수함으로써 그곳의 방어력을 증강하여 道路 건너 東쪽 $\Delta 462$ (北) 일대의 敵의 행동을 전제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연대는 14.00를 前後하여 기갑연대를 포함한 全力을 모두 $\Delta 434$ -㉔線에 投入하여 이 線의 확보에 專念케 되었다.

3. 제26연대의 새로운 主抵抗線 공격 제2차

梨賓洞 南쪽의 Greece대대와 美 제15연대 제2대대 진지에서 날을 밝힌 제26연대(장, 殷碩杓 대령)는 이날 06.00부터 대대별로 戰備를 갖춘 다음, 08.20부 作命 제47호로서 공격 개시 시간을 08.50으로 잡아 전날의 공격을 再舉키로 하였는데, 이번에는 연대에 배속중인 사단수색중대와 기갑연대를 공격에 參加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연대는 사단수색중대와 기갑연대 수색중대를 제2대대장이, 그리고 연대수색중대를 제1대대장이 各各 통합지휘케 함으로써 연대의 全力을 投入하여 當面の 敵에 대하여 決戰을 強要키로 하였다.

가) 제3대대의 목표 “A” 공격

이날도 계속 공격 右-線을 맡게 된 제3대대(장, 林光植 중령)는 전날 子正 以後로 이날 새벽까지 $\Delta 363$ 東南쪽의 Greece 대대(장, Georgios Koumanakos 중령) 진지(㉔부근)에서 徹夜警戒한 다음 06.00부터 공격준비차 부대를 정비한 바, 08.00 현재로 可用 병력은 장교 9명에 사병 170명으로서 실제로 공격에 참가 할 수 있는 병력은 대대를 통털어 1개 중대 규모에 지나지 않는 셈이었다.

이런 情況속에서, 대대는 08.50에 現 진지에서 $\Delta 363$ 로 나아가 그곳에 대대지휘소를 設置하는 가운데 공격主力은 LD인 117번 A道를 건너 뛰어, 전날의 공격경로를 다시 밟아 10.00 前後로 $\Delta 364$ 에 前進陣地를 점령하였다.

이어 여기를 발판으로 삼아 대대를 展開하되, 제11중대(장, 尹昌和 대위)를 右側1선으로, 제9중대(장, 尹發穆 대위)를 中央제1선으로 하여 ㉑($\Delta 364$ 西北쪽 300m, 標高 390m 정도)-㉒(㉑ 北쪽 500m, 標高 450m 정도)의 稜線을 따라 併進하여 목표인 $\Delta 495$ 를 左右로 나누어 맡게 하고, 제10중대(장, 宋奇出 대위)를 左側1선으로써 $\Delta 495$ 西쪽의 ㉓($\Delta 495$ 西南쪽 200m, 標高 470m 정도)을 공격토록 목표를 부여 하였는데, 이때 제10중대의 進路는 ㉓(㉑ 西南쪽 300m, 標高 370m 정도)-㉓의 稜線으로 指向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364를 基點으로 제11, 제9 兩중대는 ㉠—㉡으로, 제10중대는 ㉢—㉣로 向하여, 砲火속을 누비며 躍進을 거듭한 결과, ㉠에서 가벼운 抵抗을 一蹴하고 北쪽으로 稜線을 밟아오른 제11, 제9 兩중대는 11.30부터 ㉢에 버티고 선 數交를 알수 없는 敵 일단의 防壁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때 또 그 東北側面의 ㉤부근의 敵 側方火力이 제11중대의 東側腰部를 위협한 까닭으로 兩중대의 進路打斷가 수월치 않아, 여기서 苦戰을 거듭하는 동안에 正午를 넘기게 되었는데, 12.30부터 東쪽의 제1연대 제3대대(장, 朴贊兢 중령)가 ㉠—㉡線으로 공격을 시작함으로써 ㉤일대의 敵火가 ㉠正面向으로 轉換되는 틈을 타서 兩중대가 호흡을 맞추어 외친 『突擊!』의 喊聲 한번으로 마침내 ㉢의 敵을 制壓하고 高地를 손에 넣게 되었다.

이리하여 목표 △495로 한걸음 다가서기는 하였으나, 그곳에는 2개중대 규모로 推算되는 敵이 이미 전지를 점령중인 것으로 판단 되었는데, 그 동안에 掩體巖까지 마련한 듯 그 陣容이 險固하여, 이를 치기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兩중대는 목표의 8부 稜線에서 一進一止로 다시 1시간 이상 紫光電火속에서 버티었으나 시원한 進展을 보지 못 하였는데, 이때 左側1선으로써 ㉢—㉣로 나아간 제10중대(장, 宋奇出 대위)는 14.50에 소대 규모의 敵을 물리치고 목표인 ㉣을 手中에 넣게 되었다.

대대장의 戰死: 이에 대대는 ㉢쪽의 제11, 제9 兩중대의 공격에 拍車를 加하도록 재촉한 바, 兩個중대 모두 各各 목표의 敵과 수류탄을 주고 받는 상태로 진전되어, 공격선두의 일부가 敵의 陣內로 突入하여 短兵接戰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자 곧 △495의 兩중대 정면의 敵陣에 병력이 증강된듯 하고, ㉣의 제10중대 진지로 1개중대 규모의 敵이 逆襲을 敢行하는 등 敵이 陣地固守에 強靱한 決意를 보인 까닭으로 血戰만 激化되었을 뿐 쉽사리 勝負가 나지 않았다.

이러는 동안인 15.30, 빗발치는 敵의 砲火속에서 交通斷인 △363의 대대지휘소에서 一面 제1선 중대의 接戰상황을 살피면서 一面 火器중대(장, 崔炳勳 중위)의 火力支援을 직접 지휘하던 대대장 林完植 중령이 敵의 박격포탄으로 壯烈하게 散華하였다.

이에 부대대장 李用鎭 대위가 지휘소로 달려가 그곳의 S-3 劉庚泰 중위의 補佐를 받아 전투지휘를 계속 하였으나 戰況은 急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날이 저물어 지면서 제11, 제9 兩중대가 山腹의 8부 稜線에서 各自의 攻擊據를 急造하면서 頂上의 敵과 對峙케 되었으며, 제10중대는 ㉣을 다시 내어 놓고 그 兩麓으로 한 걸음 물러나는 惡鬪를 치르게 되었다.

나) 제1대대의 목표 "B" 공격

한편, 中央一線인 제1대대(장, 韓敏錫 소령) 역시 전날 밤 △335를 확보 하다가 이날 01.00를 前後하여 △306 南쪽 ㉦ 부근의 Greece 대대 진지로 隨意撤收하여, 06.00부터 다

시 공격 再開를 준비한 다음, 목표 “B”〔㉠(△462 東쪽 300m, 표고 470m 정도)―△462〕를 向하여 전날의 공격을 反復케 되었다.

이때 대대는 공격방향을 둘로 나누어, 제3중대(장, 林虎成 대위)를 右제선1으로 삼아 梨賓洞을 거쳐 ㉠(㉡ 西쪽 200m, 표고 490m 정도)―㉢(㉣ 西北쪽 300m)로 西北進 하게 하고, 제1, 제2 兩중대를 統合하여 混成 중대로 편성하여 제1중대장 盧明奎 대위 지휘 아래 左제1선으로 삼아 △335―△462線으로 공격케 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08.50에 공격을 再開하였는데, 二隊로 나누어 ㉢부근 진지에서 뛰어나가 발이랑과 논두렁을 누비면서, 敵의 各種 포탄이 쏟아져 불바다로 化한 듯한 梨賓洞 일대의 개활지를 踏破함으로써 10.10을 전후하여 右제1선은 梨賓洞에, 그리고 左제1선은 △335에 各各 進出하였다.

이에 대대장 韓敏錫 소령은 대대지휘소를 △306(△335 東南쪽 600m)로 推進하고, 통합 지휘중인 연대수색중대(장, 대리 黃明根 중위)를 연대 CP로부터 ㉢부근으로 뽑아 올려 예비로 待機케 하였다.

右제1선의 제3중대는 梨賓洞 계곡으로 질러 들어 가, ㉢의 南쪽 山腹에 올라붙은 다음 곧 그곳에서 北으로 稜線을 따라 ㉢으로 銳鋒을 指向하여, 東쪽에서 제3대대의 右제1선이 ㉣의 敵陣을 켰 그 무렵인 12.30에 역시 ㉢의 敵을 무찌르고 목표인 ㉢으로 餘勢를 몰아 갔는데, 戰況의 好調를 보여 그 1시간 뒤에는 ㉢ 東南쪽 正面의 突擊線에 육박케 되었다.

이때 左제1선에서도 盧明奎 대위가 先頭에서 진로를 개척하는 가운데 △395에서 北쪽으로 목표인 △462로 直衝한 끝에 13.30에는 △462 頂上 南쪽의 돌격선에서 돌격지원 사격을 요청하는 信號彈을 올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 부근에 배치되어 대대의 공격을 支援中인 無反動銃과 Rocket砲 및 Cal 50 등의 直射火力을 ㉢과 △462 頂上에 集中하여 한동안 敵의 덜미를 누른 다음, 이에 得意하여 13.40에는 左右一線의 공격중대가 일제히 敵陣의 罅隙으로 突入함으로써 1개중대 규모의 敵을 그 北쪽 계곡과 稜線의 기슭으로 驅逐하고, 14.00에 기어코 兩목표의 頂上에서 主客을 同時에 바꾸어 놓고야 말았다.

이에 대대는 제3중대로써 ㉢일대를, 제1, 제2의 混成중대로써 △462를 각각 확보케 하여 방어태세로 轉換, 敵의 逆襲에 對備케 되었다.

다) 제2대대의 목표 “C” 공격

연대의 공격 左一線인 제2대대(장, 韓錦昌 중령)는 07.00부터 △373 일대에서 연대의 西側方을 경계중인 사단수색중대(장, 崔周鳳 대위)와 기갑연대 수색중대(장, 吳順九 대위)를 통합지휘하여 08.50에 목표 “C”(전날의 목표 △349 일대)로 공격을 재개케 된 바, 이때 대대장은 제7중대(장, 金命晁 대위)를 右제1선으로 삼아 △349를, 제5중대(장, 대리 金金守 중위)를 左제1선으로 삼아 그 西쪽 ㉤(△349 西쪽 300m, 표고 390m 정도)를 各各

접령케 하고, 제6중대로써 兩 1선 중대를 後續케 하여 목표 奪取와 동시에 제5중대의 西側 方 경계에 任하도록 하는 한편, 사단수색 중대와 기갑연대 수색중대는 △341(△395 東南 쪽 800m)－㉔(△341 西南쪽 400m, 표고 330m 정도)에 예비로 확보하여 상황에 應응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대대지휘소를 新木洞의 △326(△373 西쪽 600m)로 推進하는 가운데 공격主 力은 芳洞 일대의 개활지를 건넜는데, 先頭에 있던 右제1선의 제7중대는 10.00를 前後하여 ㉔(△341 南쪽 400m, 표고 330m 정도)－△341를 단숨에 뛰어 넘고, 30분 뒤에 ㉕(△341 西北쪽 400m, 표고 350m 정도)에 이르러 소대규모의 敵과 激突케 됨으로써 銃砲聲이 요란하게 되었다. 이때 左제1선인 제5중대도 117번 B道를 따라 蘆洞으로 파고 들어 역시 10.30 前後로 중간 목표인 ㉖(㉕ 西北쪽 700m, 표고 350m 정도)에서 敵 1개소대 규모와 격전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 ㉕－㉖線의 경계진지에서 敵의 抵抗이 頑強하여 11.00가 지나도록 제7, 제5 兩중대 모두가 그 線을 넘지 못하고, 南麓에서 停滯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대장 韓錦昌 중령은 △373의 사단수색중대와 기갑연대 수색중대를 △341－㉔으로 추진하여 右제1선의 공격력을 增強토록 하여 제7중대의 ㉕線 돌파를 재촉하고, 대대지휘소 부근에 待機중인 제6중대를 ㉖쪽으로 急進토록 措置하여 左제1선을 補強하였다.

그리하여 사단수색중대(장, 崔周鳳 대위)와 기갑연대 수색중대(장, 吳順九 대위)는 11.30에 △341에서 隊伍를 가다듬은 다음 楊谷계곡을 가로 질러 ㉕에 이르자, 그곳 제7중대(장, 金命冕 대위)의 攻擊聲을 도와 正午에 못미처 ㉕을 占領케 되었다. 이에 대대는 다시 사단수색중대를 공격 右제1선으로 參加토록 하여 목표 △395의 東쪽 稜線 일부를 掌握케 하고, 제7중대를 中央제1선으로 삼아 목표 △395 정상을 계속 공격케 함으로써 목표를 둘로 나누어 맡게 하는 한편, 기갑연대 수색중대는 ㉕에 예비로서 대기케 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이 右제1선이 된 사단수색중대는 제3소대를 右側, 제2소대를 中央, 그리고 제1소대를 左側에 散開하여 14.00에 목표 △395의 東麓에 配陣된 敵의 돌격선까지 肉迫하였는데, 이 동안에 敵의 砲火로 말미암아 20여명의 死傷者가 續出하였으나 이를 무릅쓰고, 소대장 鄭海昭 소위와 黃京俊 중위 등이 捨身敢鬪로 타개한 돌격로를 따라 돌격을 감행함으로써 14.50에 △395 頂上쪽의 제7중대와 함께 1개 중대 규모의 敵을 그 곳에서 몰아내고 목표 稜線에서 占領의 歡呼聲을 드높이게 되었다.

한편 당초 대대의 공격 左제1선인 제5중대(장, 대위 金金守 중위)는 ㉖線에서 午前中 敵陣돌파에 焦心하다가 제6중대의 支援를 받게 됨으로써 心機一轉하여 正午를 前後하여 ㉖를 손에 넣게 되었다. 이에 제5중대는 제6중대를 그곳에 남겨둔채 중대만으로써 목표 ㉖에 대한 공격을 계속케 되었는데 제1소대를 右側, 제3소대를 中央, 그리고 제2소대를 左側으로 내세워 중대장 金金守 중위의 진두지휘 아래 敵線으로 直衝과 急襲을 반복한 결과, 제2소대장 魯以雄 소위를 先頭로, 手榴彈의 爆發에 이은 白兵의 賊聲으로 목표 敵의

戰意를 制壓하고 15.00를 前後하여 이것마저 손에 넣게 되었다.

이리하여 목표 “C”를 모두 奪回한 대대는 곧 진지개편에 들어 갔는데, 사단 수색중대로써 계속 △395 東쪽 稜線을 확보케 하고, ㉔의 기갑연대 수색중대를 뽑아 올려 △395 頂上을 맡게 하였다. 그리고 △395의 제7중대를 西쪽으로 뽑아 돌려 제5중대가 점령한 ㉕을 引受토록 함으로써 목표의 東西稜線에 一貫된 진지를 急繩하는 한편, 제5중대로써 대대 西쪽 제9사단 제30연대와와 地隙인 ㉖(㉕ 西쪽 200m, 표고 350m 정도) 일대를 새로이 확보케 하여 西側方 방어에 注力케 하였는데, 제6중대는 ㉕부근에 예비로 控置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연대는 右一線인 제3대대(장, 대리 李用鎭 대위)가 苦戰하면서도 목표의 8부 稜線을 支撐하는 가운데 16.00를 前後하여 全般적으로 所期한 목적을 달성하여 各畧 방어태세로 들어 갔으니, 이제부터 이 正面에서는 攻守의 方向이 逆轉되어 敵의 공격을 기다리게 된 것이다.

4. 陣地交代

이와같이, 13일 밤에 敵의 攻勢가 있는 뒤로, 全 戰線에서 사단이 그 反擊의 第一歩를 내어디단 이날 11.00에, 前線의 堂堂한 武步와는 달리 사단지휘소에서는 軍단장의 戰線交代 방침에 따라 要點 다음과 같은 作命 제172호를 下達하게 되었다.

『① 사단은 軍단 命令에 따라, 7. 15. 12.00부로 美 제3사단에 配屬과 同時에 現陣地를 同사단에 引계하려 한다.

② 제1연대는 7. 16. 01.00까지 全 主力을 承岩里의 연대 CP 부근으로 集結한 다음, 同日 16.00까지 “가래골리”(齋宮洞 東南쪽 1km) 부근으로 移動하여 부대를 整備하라.

同日 15.00부로 기갑연대(3개대대)의 배속을 해제한다.

同日 14.30부로 하사관교육대의 배속을 해제한다.

同日 15.00부로 공병 1개 중대의 배속을 해제한다.

③ 제26연대는 7. 16. 01.00까지 全 主力을 연대CP 부근으로 集結시킨 다음, 同日 16.00까지 “이둔지”(齋宮洞 西쪽 1.7km) 부근으로 移動하여 부대 정비에 任하라.

同日 15.00부로 사단수색중대와 기갑연대 수색중대의 배속을 해제한다.

同日 15.00부로 重砲중대와 공병 1개 소대의 배속을 해제한다.

④ 제1기갑연대는 7. 16. 15.00부로 수색중대를 통합지휘하여 同日 16.00까지 “가래골리” 부근에 集結하여 부대를 정비하라.

⑤ 사단포병단(缺 제10포병대대)은 7. 15. 16.30부로 제2사단장의 작전지휘를 받으라. 제10포병대대는 제9사단에 배속 조치하라.

⑥ 공병대대는 7. 16. 15.00까지 제1, 제26연대에 배속중인 병력을 통합지휘하여 現 임무를 계속하라.

⑦ 사단수색중대는 7. 16. 15.00부로 사단 직할로 復歸하여 同日 16.00까지 “이둔지” 부

근에 집결하라.

⑧ 重砲중대는 7.16. 15.00부로 사단직할로 復歸하여 同日 16.00까지 “가래골리” 부근에 집결하라.

⑨ 美 제86탐조중대 1개반은 7.15. 12.00 부로 美 제3사단장의 작전지휘를 받는다.

⑩ 通信軸線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연대; 齋宮洞—承岩里

제26연대; 齋宮洞—△404(現 연대 CP 南쪽 1km)

기갑연대; 齋宮洞—“가래골리”

⑪ 사단지휘소는 계속 齋宮洞에 位置한다.』

이리하여 사단은 前線의 공격과 併行으로 12.00부로 美 제3사단(장, George W. Smythe 소장)에 任務를 인계하게 되었는데, 同사단의 CP를 冠岩洞(齋宮洞 西쪽 1.5km) 부근에 開設하는 가운데 제26연대의 CP를 引受키로 한 美 제15연대(장, Russell F. Akers, Jr. 대령)의 제1대대(장, Aveiy 소령)가 제1연대지역 모두를 引受하여 同연대의 右一線이 되고, 同연대에 配屬중인 Greece 대대(장, Georgios Koumanakos 중령)가 ㉞—㉟일대의 제26연대 제3, 제1의 兩대대 진지를 인수함으로써 中央一線이 되었다. 그리고 同연대의 제2대대(장, J. K. Singlaub 소령)는 제26연대의 제2대대와 사단수색중대 진지를 인수하여 左一線이 되어 現地에서 各各 陣容을 가다듬게 된 바, 이때 同연대의 제3대대(장, L. W. Shropshire 중령)는 제26연대 CP 부근에 예비로 控置되었다.

그러나, 이 동안에 苦戰力鬪로 △434—△395를 奪還하여 새로운 主抵抗線을 점령한 사단의 左右一線은 끈질기게 들어 닦친 敵의 逆襲으로 말미암아 紛戰속에서 7月 夕陽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사단만으로서는 이 戰線을 계속 확보할 方途가 서지 않는데다가 美 제3사단 역시 이를 인수키 위하여 따로이 轉用할 병력이 없었던 까닭으로 사단장병의 碧血로 되찾은 이 새로운 主抵抗線은 끝내 인계치 못한 채, 다시 敵에게 내어 주고 예정된 集結地로 물러나게 되고 말았다. 傳統에 빛나는 사단 將兵들의 悲痛한 感懷에 涙라서 눈물 삼키지 아니하라.

가) 제1연대의 撤收

이날 14.00를 前後하여 제1연대의 全力으로 새로운 主抵抗線을 확보하게 되자, 이어 敵의 逆襲이 시작 되었는데, △434와 ㉞쪽으로 各各 1개 대대 규모가 波狀的으로 달려 들었다.

이에 기갑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 및 제1연대의 제3대대가 限死코 이를 阻止 하였으나, 兵力의 損失이 累增되고 彈藥補給이 如意치 않아 逆境중에서 17.00가 되니, 間榛岷 東쪽의 敵이 △462(南)으로까지 侵襲하여 119번 道를 차단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날이 저물면서 당면의 敵勢는 더욱 증가되는데 연대의 병력과 彈藥은 줄어들기만 하여, 19.00가 지나자 더 이상 支撐할 餘力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사단장은 19.20에 사단作命 제172호에 따른 연대의 철수를 명령하여, 병력수습을 圖謀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21.20부터 右一線인 기갑연대 제1대대(장, 尹興禎 중령)가 同제2대대의 엄호 아래 먼저 △434 부근의 진지에서 철수하였으며, 이어 中央一線인 제2대대(장, 朴基淳 중령)가 제1연대 제3대대의 엄호下에 21.10에 진지를 물러났다. 그리고 左一線인 同제3대대(장, 朴贊兢 중령)는 子正이 지나서야 美 제15연대 제1대대 진지로 집결케 되었는데 이들은 各各 밤을 도와 移動을 계속하여 그 이튿날인 16일 05.00를 前後하여 承岩里的 연대 CP에 집결하였다.

나) 제26연대의 撤收

제26연대 역시 16.00를 前後하여 목표를 확보하고 진지를 재편하였으나, 敵의 反射的인 역습으로 말미암아 날이 저물도록 紛戰과 亂鬪를 계속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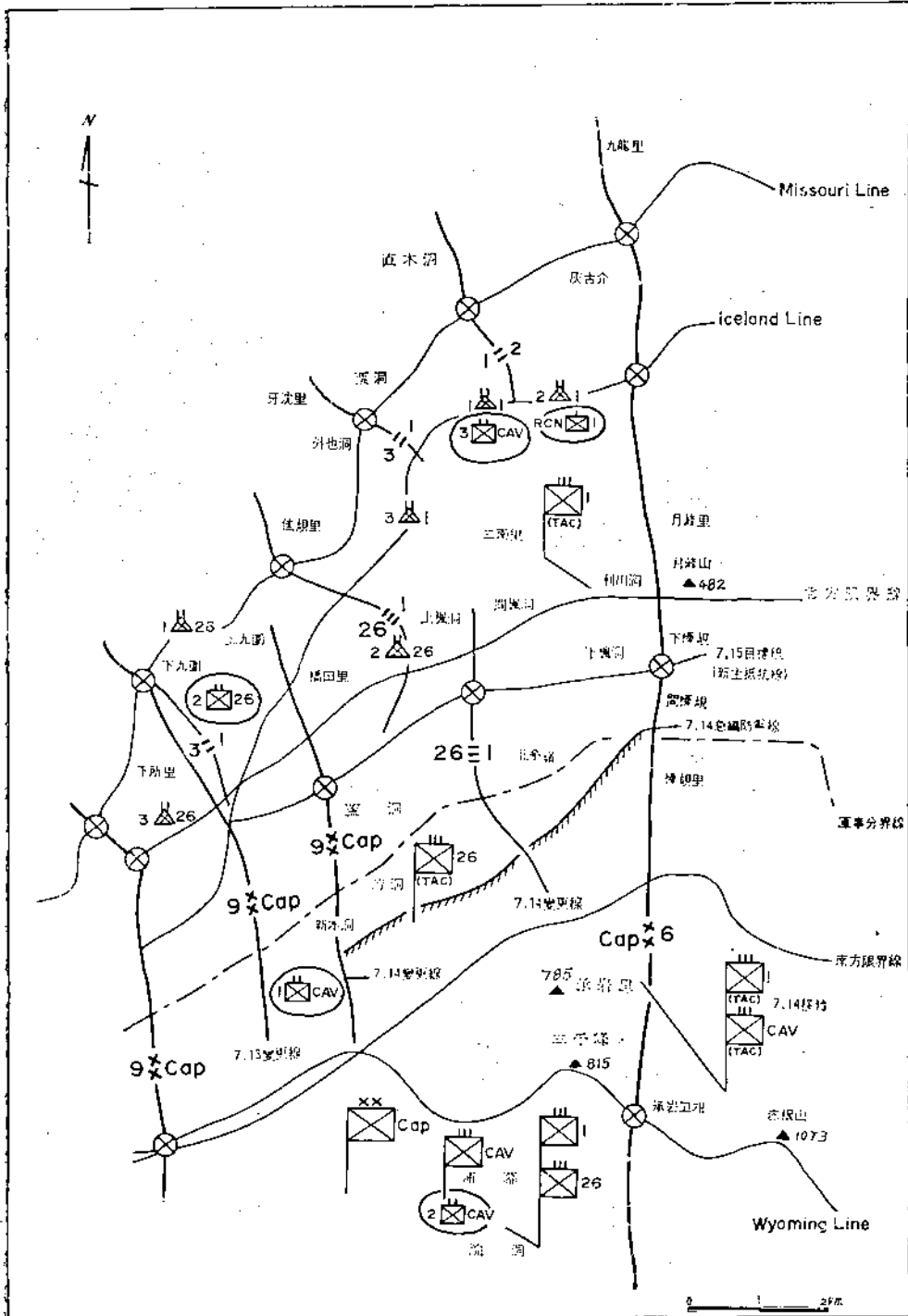
그 左一線인 제2대대(장, 韓錦昌 중령) 진지에서 16.45에 사단수색중대와 기갑연대 수색중대의 接觸部로 敵 1개중대 규모가 집중 공격을 加한 탓으로 사단수색중대의 제2소대장의 戰死를 비롯하여 同중대의 死傷者가 激增한 끝에 진지의 일부가 돌파되고, 19.00에는 同중대의 진지가 모두 무너지고 말았다.

이에 대대는 ㉔부근에 예비로 대기중인 제6중대를 급히 뽑아 사단수색중대의 정면을 閉塞케 하고, △341에서 수습한 일부로써 芳洞 삼거리—蘆洞 사이의 道路를 확보케 하는 가운데 殘餘人員으로 탄약을 緊急히 운반토록 조치하였다.

이 무렵, 中央一線인 제1대대(장, 韓敏錫 소령)에서도 ㉕—△452에 집중된 敵 1개대대 규모의 甚한 壓力을 감당할 수 없어 이 兩고지를 모두 내어 놓게 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연대正面 역시 限定된 병력으로 20.00까지 戰列 수습에 百方으로 노력 하였으나, 끝내 形勢를 挽回치 못한 채, 20.40부터 사단 撤收命書에 따라 接敵을 유지하면서 隨意 撤收하여 23.00에 연대 CP로 집결하게 되었다.

이로써 滿二晝夜 계속된 사간의 戰鬪에 終止符를 찍게 되었거니와, 本來 사단이 目途한 새로운 主抵抗線으로의 戰線의 推進이 無爲로 돌아가고, 結果적으로 이 線을 이날 하루 더 확보하여 敵을 拒支하는 동안 美 제15연대의 陣地를 굳히게 한 役割로 끝나고 말았는데, 어찌하여 終日의 血戰이 이렇듯 보람없이 되고 말았는가? 알수는 없으며, 당시 美 제3사단이 軍단의 예비입부를 함께 遂行하여야만 되었던 까닭으로, 이 正面에 可用兵力을 1개 연대로 制限하는 實情이었던만큼 그 兵力으로써 사단정면인 현 戰線(당초 急編 방어선)을 防禦한다는 것도 힘겨운 노릇인 것으로 판단 되었으므로, 새로운 主抵抗線으로의 進一步로 拋棄하고 방어에 有利한—117번 A道에 沿한, 개활지라는 天然의 障礙地物이 가로놓여 彼我的 戰線의 區劃이 명확한—地形을 택하여 現戰線을 固守키로 方針을 바꾸기에 이른 것으로 믿어진다.

◇ 상황도 제77호 首都사단의 최초 부대 배치 및 증합상황도



라. 전투후의 개황

이리하여 사단은 13일에 Missouri線에서 敵의 攻勢를 맞이한지 滿 48시간만에, 右一線에서는 8km, 左一線에서는 5km의 地幅을 敵에 내어준채, 齋宮洞 부근으로 물러나게 되었거니와 美 제3사단(장, George W. Smythe 소장)은 그 제15연대로써 117번 A道路 南쪽을 沿한 ㉔-△373의 당초 急編防禦線을 主抵抗線으로 삼아, 계속 中共 제203사단(장, 楊棟樑)과 對峙하였다.

그러나 倂我 습사리 117번 A道路를 넘지 못하고, 여기를 OPL로 하는 探索戰으로 一貫케 되었는데, 7월 25일을 前後하여 當面の 中共 제20병단(장, 陳正湘)은 그들의 戰線을 새로이 調整한 듯 하였다.

즉, 今次 公세의 主力이었던 그들 兵團의 제68군(장 邱蔚)과 제67군(장, 馬龍)을 戰線後方에 예비로 뽑아 들린 것인데, 제68군은 당초 병단예비인 제54군(장, 李化民)에, 그리고 제67군은 그 일부로 제54군에, 다른 일부를 병단 右翼인 제60군(장, 韋杰)에 각각 인계한 것으로 判明되었다.

그리하여, 韓國戰爭에 參加한 以來 처음으로 金城正面의 戰線에 本格的으로 登場하게 된 제54군은 西로 南大川(峽亭—牙沈里線)을 地境으로 하여 제24군(장, 饒守坤)과, 東으로 金城川(別隅—芳坪里線)을 사이에 두고 제60군과 각각 連繫하는 戰線을 담당케 된 듯 하였는데, 제134사단을 예비로 하는 가운데 제130사단을 그들 右翼으로 삼아 橋田里—間榛峴의 中전 수도사단 正面에, 그리고 제135사단을 左翼으로 삼아 間榛峴—別隅間的 第11사단 正面에 各各 展開한 것으로 判明되었다.

따라서 사단 當面の 第130사단은 第203사단과 交代하여 사단 CP를 灰古介 부근에 두고, 제388, 제389의 兩연대를 一線에 내세우는 한편 제390연대를 예비로 확보중인 것으로 보였는바, 이같은 敵의 戰線交代로 미루어 본다면 그들 제68군은 Missouri線 突破에 따른 損失이 결코 적지 않았음을 推斷할 수 있었다.

한편, 이 동안에 齋宮洞 부근의 “가래골리”와 “이둔지”일대에서 部隊整備에 拍車를 加한 사단은 14일 以後 18일까지 3,000여명의 새로운 兵力을 收拾하게 되었다. 連日連夜, 三三五五로 敵陣을 躡고 復歸하는 將兵의 발걸음이 줄을 이었던 것인데, 重衝을 입은 위생병이 M1 소총을 굳게 잡고 있는가 하면, 迫擊砲身을 등에 지고 5일만에 敵中을 헤쳐난 先임하사관도 있고 또 機關銃頭를 어깨에 베고 3일만에 歸還한 소대장도 있었으니, 그 逆境 중에서도 장병 모두가 裝備를 遺棄치 않아 사단의 眞面目을 다시 한번 보여 주기도 하였다.

이때인 17일에 사단의 戰列點檢차 軍단장이 CP를 訪問함에 즈음하여, 사단장이 戰線復歸를 건의한 결과, 이같은 堅甲利兵의 모습을 보고 軍단장 Jenkins 중장은 『貴사단의 傳統을 이번 전투에서 다시 한번 確認하였다.』라고 驚歎하고, 美 제3사단장 Smythe 소장에게 수도사단으로 하여금 戰線에 參加토록 措置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사단은 7.19. 15.00부 사단作命 第173호로써 7.20. 19.00부로 美 제3사단의 第15연대 戰線의 일부를 引受하게 되었는데, 同사단은 Greece 대대와 第15연대 第2대대의 진지를 사단에 인계토록 하고, Greece 대대를 右一線으로 뽑아 들려 同연대 第1대대와 交代토록 戰線調整을 斷行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당초 第26연대 지역을 다시 引受하여 기갑연대와 第26연대로써 이를 맡도록 하되, 각각 1개 대대를 第1선에 내세우고 陣地의 縱深을 깊게 하였다.

따라서 이제 이 ㉔-△373의 戰線은 Greece대대(장, Georgios Koumanakos 중령)와 기갑연대 第1대대(장, 尹興禎 중령) 그리고 第26연대 第2대대(장, 韓鎰昌 중령)로써 면모를 一新케 되었는때 21일에는 第8군사령관 Taylor 대장이, 23일에는 李承晚 대통령과 葛弘基 공보처장이 사단을 방문하여 그 간의 勞苦를 致便한 바 있었다.

사단은 22일에 陸特(甲) 제201호에 의거 陸本 兵務次監인 車甲俊 대령이 기갑연대장으로 補任되는 가운데, 117번 A道路 北岸의 前進要衝인 △364-△335-△341를 장악키 위하여 一連의 공격을 시작케 된 바, 左右一線의 증대들이 117번 A道路를 번갈아 넘나들면서 一取一失의 爭奪을 반복하다가, 26일 아침에 右一線인 기갑연대는 △364의 南쪽 △363를, 左一線인 제26연대는 △335의 南쪽 △306를 확보한 중에 交綏狀態로 들어가, 그 이튿날인 27일 22.00에 休戰成立으로 마침내 이 117번 A道路에 서의 火力의 終熄을 보게 되었다.

따라서 사단 當面에서는 間橋岬-芳洞 사이의 117번 A道路가 彼我의 接觸線이었던 까닭으로, 이 道路가 곧 兩軍의 軍事分界線으로 劃定되어, 여기서 서로 南北으로 2km를 退陣케 됨으로써 사단은 △785(三千峰 北쪽 1.3km)-△637(三千峰 西쪽 2.5km)線으로, 敵은 橋田里-利川洞線으로 물러서게 된 것이다.

이에 사단은 28일 02.00부로 美 제3사단에서 配屬 해제와 同時に 同戰線을 다시 同사단에 인계하고 長岩里의 軍단 CP 부근에 進駐하여 補給정비와 아울러 軍단에비 임무를 수행케 되어, 제15경비대대와 제35, 제36포로 경비대대의 교육을 담당케 되었다. 그러다가 이해 9월 17일 06.00부로 軍단에비 임무를 제2사단(장, 金雄洙 中將)에 인계하고, 사단포병단을 통합지휘하여 다시 齋宮洞으로 躍進함으로써 △785-△585(冠岩里 西北쪽 1.5km)의 戰線을-8월 6일에 美 제3사단과 交代한 美 제40사단으로 부터 인수하여-또 한번 맡게 된다. 그러나 이제는 鐵柵이 그 앞을 가로 막게 되었으니, 또 어찌 猛虎의 咆嘯이 이 山河를 울리게 되랴.

이 戰團(7.13~7.16)에서 사단이 거둔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部隊別	射 殺	殺傷推定	捕虜	獲					
				다발총	채코식기	SMG	45mm 무반동총	LMG	소 총
제 1 연대	870	3,200	6	9				1	
제26연대	887	1,500	1	6		1		1	
기갑연대	270	1,500	3	9	2	1	1		1
계	2,027	6,200	10	24	2	2	1	2	1

損 失

장교/사병

部隊別	戰死	負傷	失踪	亡 失											
				Car	M1	SMG	BAR	LMG	HMG	Cal 50	3.5 R	57 RR	75 RR	60 M	81 M
제 1 연대	9/739	11/181	27/421	479	1,067	69	62	40	5	11	17	14	6	19	11
제26연대	6/88	27/439	9/488	283	920	9	57	32	8	9	23	8	2	8	
기갑연대	2/33	12/399	16/343	161	473	13	31	18	3		7	2	2	4	
포 병 단	5/12	/40	13/59	68	42	86		1							
기 타	2/10	4/74	5/37	209	38	5	3			3	10				
계	24/882	54/1,063	70/1,348	1,034	2,535	182	153	91	16	23	57	24	10	31	11

§ 參戰者의 證言

◇ 수도사단장 崔昌彥 准將

(1976. 4. 29, 城南市 東昭電子 工業
(株)에서, 豫 中將)

7월 13일, 이날 나는 제11사단 제9연대가 제6사단의 제7연대 진지를 인수하는 즉시 내指揮下에 들게되어 있으므로 오후에 제7연대 CP로 가서 兩연대의 交代 상황을 살펴 본 다음, 齋宮洞의 CP로 돌아와 막 저녁 食事を 끝냈는데, 敵포탄이 서너발 CP에 떨어졌다. 그래서 급히 狀況室로 달려 갔더니, 左右一線 연대로부터 상황이 보고 되었다. 敵의 全面攻擊이라는 것이었다. 밤 23.00쯤 제1연대의 戰線이 互解되었다고 보고를 해서, 예비대(기갑연대 제3대대)를 사용하라고 했더니, 이미 제1대대 정면에投入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기갑연대장 陸根洙 대령에게 사단예비대로서의 投入를 준비케 하였는데, 그때까지도 左右一線이 서로 自己 정면에 增援을 요청 하였으므로 그 方向을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3.30에 제1연대장으로 부터 急報가 날라 들었는데 敵이 깊숙히 들어 왔다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제26연대 정면은 그전대로 健在하다고 판단되어, 나는 사단예비를 제1연대 정면에 投入키로 결심하였다. 나는 곧 기갑연대장에게 『제1연대를 지원하되, 역습방향은 現地에서 제1연대장과 협의하라』고 명령하였다. 잠시 後에 기갑연대장이 제1연대 CP에 도착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이때 문제가 생긴 것이다. — 兩연대장의 역습방안이 相衝되었던 것이다.

당시 제1연대의 中央 정면인 제1대대 지역에 敵의 主攻이 指向된 것으로 판단 되었는데, 이를 예상하여 사단은 이미 그에 대한 역습방안을 3가지로 마련해 두고 있었다. 즉, 제1안은 東쪽의 右一線 대대 쪽으로 迂回하여 東側背를 쳐르는 것이고, 제2안은 中央一線대대의 南쪽 정면에서 바로 탁아서는 것이며, 제3안은 西쪽의 左一線대대쪽으로 돌아 西側方을 挾擊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1연대장은 제2안대로 요구한 것이고, 역습當事者인 기갑연대장은 제1안을 채택

키로 주장한 것이다. 이때 나는 通信소통이 如 意치 않아 CP의 상황실 상황판만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워, 副사단장 林益淳 대령을 急派하여 『現地에서 역습방향을 調整하여 조치하라』고 임무를 부여 하였는데, 副사단장이 제1연대 CP에 도착 하였다는 보고만 받았을 뿐, 그 뒤로 통신이 모두 끊어져 상황불명의 상태로 되고 말았다.

날이 밝으니, 군단장이 CP에 도착 하였다. 그래서 나는 당시에 사단이 처한 입장을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솔직히 報告하고, 포병과 병력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군단장은 그 즉시에서 내 電話로 美 제3사단장을 呼出하더니 내 建議대로 施行토록 조치 하였는데, 오후에 美 제15연대가 달려와, 戰線 후방을 막아 주었다. 그래서 나는 병력을 수습해서 反擊을 감행하였다. 그 반격에서 그리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으나, 前方에서 질수중인 병력 收容에 한몫을 기여했다고 생각 하는데, 군단장이 나중에 군단예비로 빠지라고 하였다. 나는 이에 극구 반대 하였더니, 군단장이 사단을 戰線에 그대로 남겨두어서, 休戰時까지 그 곳에서 전투를 계속 하였다. 休戰이 되고 나니, 별로 한 것도 없는 나에게 太極勳章이 授與 되었는데, 「一將功成에 萬骨枯」라는 옛말이 문득 생각 나 가슴이 쓰라렸다.

그리고 제8군사령관 Taylor 대장이 나에게 SilverStar를 달아 주면서 『당신은 너무 솔직해서 탈이오.』라고 하던 것이 생각 나는데, 事由 인즉 7월 14일에 그가 직접 金城 정면을 돌아 본 바, 당시의 戰況을 솔직하게 보고한 것은 수도사단장 뿐이더라는 것이었다.

나는 지금도 당시에 내 立場을 솔직하게上司에게 보고 함으로써 신속히 적절한 對應措置를 취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無責任한 것일지 모르겠으나, 戰爭은 死生之地요 存亡之道라고 하지 않았는가? 自己한 사람의 능력만을 過信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 제26연대 제1대대장 韓敏錫 소령

(1976. 3. 18, 陸本 教育參謀部에서,
少將)

나는 당시 대대지휘소를 제1선중대 진지에 두고 있었는데, 7월 13일 바로 며칠전에 내 OP 前方下麓에서 捕虜 몇명을 얻었다. 그런데 그 포로들이 陳述하기를 곧 攻勢가 취해질 것인데, 그때 내 OP를 목표로 공격할 예정이었다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7월 13일 밤에 敵의 공격이 말뚝과 같이 들어 닥쳤는데, 그들이 앞세운 포격이 얼마나 치열 했는가 하면, 그때 지휘소의 壕속에서 내가 느끼기를 다만 굉장한 雷聲이 울리고 있다고 생각 하였을 정도였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든 통신이 두절된 채, 나는 그만 壕속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때 壕内에는 나와 S-3 朴昌道 중위, 그리고 제4중대장 李得錫 대위 그리고 美軍 관측장교 2명, 기타 지휘소 要員 10여명이 함께 있었는데, 敵이 壕밖을 둘러싸게 되자, 나는 壕의 銃眼을 모두 막아 버렸다. 敵이 壕속에 집요하게 수류탄을 집어 넣을려고 한 나머지 그 중에 2발이 거어로 壕속에 날라 들어 李得錫 대위가 重傷을 입는 등 몇명의 사상자를 내었으나, 요행이도 나와 S-3 등은 無事하였다. 또 얼마를 지났는지 바같이 잠잠한듯 하였으므로 壕를 脫出하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脫出兵力을 모아 놓고 이르기를 『壕밖에 나가면 움직이는 物體에 대해서 가차없이 火方이 집중될 것이다. 그러므로 彼我 어느편에 서이든 狙擊이나 집중사격을 받지 않으려면 砲擊이 시작되는 틈을 이용하여 뛰어야 한다』고 戰術敎理를 逆으로 活用토록 하였다. 그리고는 1명씩 내가 직접 呼名을 해서 내 보내는데, 美軍 관측장교는 砲火가 하도 심하니까 「Jeneva 協定」云云 하면서 脫出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 兵力만을 모두 壕밖으로 내 보낸 다음, 맨 마지막으로 내가 壕속에서 뛰어 나오니, 당시 대대지휘소는 교통 보다 조금 높은 곳에 位置하여 높지 않은 사다리로 오르내렸는데, 사다리를 밟기전에 바로 交通壕 바닥이 밟히는 것이었다. — 交通壕에 屍體가 메워져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 그만 내가 S-3인 朴昌道 중위

를 呼名하는 것을 깜박 잊어버린채 나오고 말았는데, 차중위는 대대장이 自己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너는 여기서 埋骨하라』고 알아 들었던지 곧 뒤따라 나오지 않고 있다가 그 이튿날에야 敵陣쪽으로 나아가 제9사단 쪽으로 돌아나오게 된 일도 있었다.

여기서 내가 느낀 것은, 우리의 제1선진지를 공격 받을 때에, 대대와 연대 CP 등이 같은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보다 세심한 대비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제1기갑연대 제1대대장 尹興顯 중령

(1965. 8. 16일, 제25사단 제71연대에서, 大領)

7월 13일, 이날 아침에 연대장이 서울에 休暇를 갔다가 歸隊 하였는데, 당시 우리는 언제나 완전무장을 한 채 24시간 待機 상태에 있었다. 내가 지휘한 기갑연대 제1대대는 당시 제26연대 후방에 예비로서 진지 공사중에 있었다.

이날 밤, 敵의 포격이 시작되어, 공격이 시작되었구나 하고 생각 하였는데, 밤이 깊어 갔으나 사단에서 별다른 명령이 없었다. 그 이튿날 새벽 04.00쯤인가 사단 작전참모 朴正瑞 중령이 戰車 1개 소대를 보내 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誘導兵을 내보냈더니, 잠시 후에 또 연락이 왔는데, 戰車를 받았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情報官과 作戰官을 보내어 戰車를 유도해 오라고 했는데, 그러는 중에 다시 작전참모가 電話로 제26연대로 出動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26연대 지역으로 들어가, 蘆洞 가까이 이르니, 사단에서 傳令이 달려와 대대를 다시 뽑으라는 것이었다. 나는 영문도 모른채 대대를 117번 A도로로 뽑아 내려 間接砲쪽으로 돌아 나갔는데, 그곳에 도착하니 참모장 金泰圭 대령이 『제1연대 CP가 被襲되었다』고 하였다. 그 前方의 稜線에 방어 진지를 占領하여 敵을 阻止 하였는데, 사단에서 남은 병력이라고는 우리대대 뿐이어서, 사단의 戰總整備에 큰 역할을 담당한 셈이었다.

그런데 지금도 理解가 잘 안되는 것은, 왜 우리대대를 14일 아침까지 활용치 않고 내버려 두었느냐 하는 것이다. 비록 1개 대대이지만 활용

如何에 따라 당시의 戰況 수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反對로 오히려 보다 더 일찍이 병력만 없애는 결과물 초래 하였을런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 제1연대 제6중대장 李應龍 대위

(1976. 6. 1, 監査院에서, 豫 中領)

당초 우리 중대는 제2대대의 右제1선 진지를 담당하고 있다가 「7. 13 공세」 작전에 제5중대와 交代하여 대대 예비가 되었다.

당시에 敵의 포화가 어떻게나 威力의인지, 그들의 포격이 시작되면 그 포탄이 우리 진지에 떨어지기 전에 敵陣의 後線 뒤에서 노을처럼 별 같게 火光이 衝天하여 당장에 敵의 포격이 시작되었음을 看破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敵陣의 뒤에서 불꽃이 피어나면 벌써, 오늘날 어느 정면에 집중될 것이냐 하는 것을 占치는 것이었는데, 그날 밤에는 우리 左側의 제1대대 정면에 먼저 집중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었을 뿐, 뒤미처 포화가 우리대대 진지에도 소낙비와 같이 퍼부어졌다. 그리고는 中共軍에게 陣地가 前後左右로 둘러 싸이고 말았는데, 우리 진지보다 먼저 대대 OP쪽에서 敵의 신호탄이 올랐다. 나는 아침이 다 되어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는 가운데 병력을 東쪽으로 117번 A道路를 건너 제6사단 진지로 올라 붙었는데, 그곳에 이르니 意外로 조용하여 그곳 兵士들이 태평스럽게도 아침 食事を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래서 내 正面만 터진 것으로 구나 하고, 60여명의 중대원을 지휘하여 後方으로 빠져 나갔는데, 어딘가 砲陣地가 있었던 곳에 이르러 보니, 포대가 모두 철수한 뒤라 텅 비어 있었는데, 敵의 포탄이 억수로 쏟아졌다. 그제야 나는 일이 크게 벌어졌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 발길을 재촉해서 南向 한쪽, 美 제3사단 병력이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당시 우리는 「首都고지」와 「指形능선」전투 때에 彼我의 TOT 사격에 대한 위력을 익히 경험한 바 있어, 대대진지를 堅固한 有蓋진지로 하여 出入口만 틀어 막으면 그대로 동굴이나 다름 없었는데, 敵이 壕위에 기어 올라 鐵鎗을 박아 破壞함으로써 제1선 중대원 거의가 壕속에 埋葬되고 말았다고 들었다.

◇ 제26연대 제2대대 S-2 林七鉉 중위

(1976. 3. 22, 서울市廳 예비군대대에서, 豫 少領)

우리 대대는 당시 예비였는데, 7월 13일 밤에 제1대대가 터져,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역습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역습은 커녕, 14일 날이 밝아오니 대대지휘소와 각 중대간의 통신이 모두 杜絶 된데다가 南大川 東岸의 제2선도 瓦解直前に 이르렀다.

그래서 각 중대의 철수를 명령해야겠는데, 도무지 SCR-609로서는 感이 잡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S-3인 金靈仁 중위가 한번만 더 불러 보자고 하여 無響을 얻었더니, 뜻밖에도 제6중대 선임장교 金日永 중위가 나왔다. 『실탄을 보급해 달라』고 하였다. S-3가 『병력을 수습하여 철수하라.』고 하였더니, 잠시 뒤에 同중대 火器소대가 철수하는 것이 보였으나, 어찌된 셈인지 金日永 중위는 끝내 철수하지 않았다. 그는 退路를 차단당하여 3일만에, 敵前으로 나아가 제9사단 쪽으로 돌아 나왔다고 하였는데 婦女子들이 動員되어 수레를 끌고 敵의 보급 추진을 하고 있는 光景을 목격 했다고도 하였다.

당시에 81mm 박격포탄 사용량이 制限되어, 1日 기준량 81mm 박격포 1분당 3발로 限定되었는데, 우리는 그전에 이 射耗量을 蓄積하여 상당한 량을 備蓄 하였던 것이나, 그날밤 모두가 바닥나고 말았다.

내가 이 전투에서 느낀 것은, 그때 우리는 四周防禦 개념에 따라, 진지 후방에도 交通호를 構築하여 陣地化한 까닭으로 敵이 제1선을 돌파하는 즉시 이 후방진지를 占領하여 우리에게 대한 공격을 늦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敵의 진지 再編을 도와 준 셈인데, 반대로 우리는 새로운 지역에서 진지공사를 하면서 싸워야 하는 不利가 겹쳤다. 이것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면, 또 한가지는 通信手段의 未備였다. 당시 우리는 全的으로 有無線에만 依存하였던바, 有線은 상황이 붙었다 하면 두절되기가 일쑤요, 無線은 妨害電波로 말미암아 있으나 마나한 실정이었던 것이다. 특히 소대—중대 간의 SCR-536은 전투가 벌어져 要緊한 때가 되면

으레히 「不通」이 되는데, 기가막힐 노릇이었다. 그러나 火力支援의 협조가 잘 되겠는가? 지휘 체계가 바로 서겠는가? 別途의 신호규정의 필요

요성이 절감 되었다. 반드시 통신의 예비수단과 보조수단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戰 訓

(1) 예비대의 활용에 대하여

本戰鬪에서 가장 크게 指摘되어야 할 것의 하나가 예비대의 活用 문제라고 본다.

무릇 예비대란 지휘관 掌中の 寶刀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사용함에는 신속하고 決斷性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決定的인 時期를 捕捉하여 결정적인 方向을 택함으로써 拔劍一閃이면 必殺하고야마는 神通力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는 이와같이 되지 못 하였으니, 여기에는 指揮官의 決斷성과 지휘의 劃一性에 대한 盤蹙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사단예비인 기갑연대 제2대대의 赴援을 13일 23.30에 命命한 바, 子正이 지난뒤에 접경지를 출발케 됨으로써 03.00가 지나서야 제1연대의 CP에 當到한 것이다. 그리고 同연대의 제1대대는 14일 04.00 까지도 실제로 예비대로서의 機能을 발휘치 못하였다.

따라서 제2대대는 집결지에서 事前에 117번 A道路線까지 推進하여 실제의 機動시간을 단축시켰어야 하였으며, 제1대대도 보다 일찌기 이것이 활용 되었어야 하였을 것이다. 예비대의 集中的인 운영을 期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둘째, 역습 方案의 채택에 대한 措置에 있어서 決斷性이 缺如되었다는 것이다. 師團長의 直轄使用이라면 明白한 指揮가 必要하고 어떤 제1連隊長의 指揮를 받게 한다면 一任하여 그 自由裁量에 맡겨야 할 것인데 直轄을 前提로 하면서 우선 예비대를 出動시킨 다음에 다시 副사단장을 現地에 急派하여 「역습방안을 조정」케 하였다는 것은 兩者擇一에 逡巡性을 보였다는 嘆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대한 明確한 決心을 보이던가, 不然이면 同예비대를 主戰部隊에 配屬 조치하여 제1연대장의 指揮責任 아래 그 임무를 수행케 하였어야 할 것이다.

세째, 支援부대장과 被지원부대장의 意見이 반드시 一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되, 어느 쪽이든 효과적인 쪽으로 신속히 決心하는 것이 難局打開에 대한 道理일 것이다. 逆襲方案을 앞에 놓고 瞻前顧後만을 하다가 귀중한 시간을 虛費케 되어, 제1, 기갑 兩연대장의 異見 가운데 어느 한 쪽도 實行하여 보지 못한채로 破局을 自招하는 결과만 빚고 말았다.

이 경우, 支援부대는 被지원부대의 要請에 副應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데, 기갑연대장이 自己腹案에 대한 貫徹만을 주장한 것은 再考의 餘地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미 敵人이된 분인 탓으로 詳論치 않기로 한다.

다만 당초에 제1연대장의 投入方向을 떠랐다면, 그 예비대(기갑연대 제2대대)가 月峰里까지 갔다가 되 돌아오는 시간, 적어도 30분은 절약 되었을 것이며, 그 시간의 여유만 있었더라도 제1연대 CP의 그 같은 潰亂이나 同대대의 瓦解는 피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2) 연대지휘소의 被襲에 대하여

또 이 戰鬪는 敵의 攻勢 그 自體 보다는, 利川洞에 位置하였던 제1연대의 지휘소가 被襲됨으로써 결정적인 破綻이 惹起케 된 것으로 보여진다.

지휘소는 神經체통의 中樞部와 같은 것이라, 戰鬪間에는 이것이 溫存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서 는 이것이 그렇지 못하였다.

이 戰爭을 通하여 敵, 특히 中共軍은 攻勢가 있을 때마다 我軍의 지휘소 襲撃을 慣用的 戰法으로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으니, 예전대 1951년의 「5월 공세」 당시 美 제9군단(장, Edward M. Almond 중장)의 右翼인 제7사단(장, 金炯一 중장)에서도 너무나 사단의 그것과 흡사한 場面이 演出되었던 것이다. 즉, 그해 5월 16일 저녁,

陰陽里 부근의 昭陽江線(Missouri線)에 제5, 제8兩연대로써 主抵抗線을 점령하고 있던 同사단의 正面에 中共軍이 공세를 취하였는데, 子正이 지나기 전에 右一線인 제5연대(장, 趙成華 대령)의 CP(所峙里)가 被襲됨으로써 左右一線의 戰列이 一時에 瓦解되고, 예비인 제3연대(장, 鄭震 대령)마저 손을 써 보지 못한채 3일만에 下珍富里線까지 撤退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로써 당시 同사단은 그 右翼인 제3군단(장, 劉載興 소장)의 左側背를 폭로케 되어, 同군단의 退路를 잃게 한 탓으로 이른 바 「縣里被圍」를 낳게 하였다는 指彈을 不뻗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나중에 同사단을 赴援하여 그 戰線을 收拾한 부대가 또한 美 제3사단(장, Robert H. Soule 소장)의 先遣隊인 제15연대(장, Dennis M. Moore 대령)였다는 點에서(第六卷 參照) 或者是 偶然的 一致라고 말할런지 모르나

§ 研究

(1) 記錄補完 문제 : 이 戰鬪는 사단 규모의 그것이나, 전투의 성격상 戰況이 單調롭기도 하거나와 남아 있는 記錄이 빈약하기 짝이 없는데, 아마도 사단이 이 金城戰線에서 匪救의 勝捷을 남기지 못하게 된 탓인 듯 하다.

따라서 이 전투는 수도사단의 마지막 戰鬪인 만큼 可能的 한 당시 參戰者의 記錄을 소상히 남기고자 個人記錄과 證言으로 그 흐름을 追跡하였는데, 本文中의 個人 行跡은 이러한 개인기록과 증언에 의하 것임을 밝혀둔다.

(2) 日日戰果문제 : 本文中에서 日日戰果를 더욱 明白하게 밝혀 적지 못하였는데, 실제로 밤중에, 그것도 撤收과정에서 戰果 확인이란 극히 難澁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밝혀진 것인지는 알수 없으며, 戰鬪詳報의 中환전과 난에는 射殺과 敵의 推定射殺과 負傷者數가 區分되어 明記되어 있는 바, 이것은 통털어 推定殺傷으로 잡았다.

또한 사단의 損失 가운데, 亡失品目은 소총부대의 火器만을 취급 하였으며, 기타 通信, 工兵, 兵器, 兵站등의 그것은 일일이 여기에 밝혀 실지 못하였다.

敵은 같은 條件下에 同一한 手法을 반복 하였을 따름이며, 이제 사단은 또 제7사단의 覆轍을 그대로 밟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敵의 공세에 있어서, 前線의 突破 보다도 後方의 攪亂에 대한 充分的 對備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당시에 제1연대 CP는 赴援차 來着한 예비대를 咫尺에 두고도, 서로 離合의 妙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各個 分散되고 말았다는 것은 縱的인 指揮網도 그렇거나와 橫的인 協調線에도 虛點이 있었다는 端的인 實例로 보아 勿論할 듯 하다.

결단코, 연대 CP 병력과 同대대는 協力하여 一戰을 도모함으로써 그 곳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야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때까지 前線에서 苦戰血鬪中인 1선대대는 어디에 依支하여 싸움을 계속 할 것인가?

(3) 戰死와 失蹤문제 : 당시 사단의 戰死者의 대부분이 人事記錄上에는 失蹤으로 처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컨대, 기갑연대장 陸根株 대령에 대하여서도 戰鬪詳報에서 失蹤으로 記錄하였는가 하면, 아직 그를 失蹤된 것을 證인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이다. 戰死 하였다는 명확한 物證이 없었던 까닭에 그리 된 것으로 생각되나, 그 뒤에 또 復歸되지 않고, 또 休戰後의 포로 交換에서도 歸還되지 않았다면 戰死로 봄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므로 本文中에서 이를 모두 戰死로 취급 하였는데, 綜合戰果란의 실종자는 그 뒤에 복귀한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본다.

(4) 高地名의 記錄문제 : 本文中의 高地 명칭으로서 ㉠, ㉡, ㉢...㉦, ㉧, ㉨...등과 15일의 공격 목표인 “가” “나” “다” 및 “A” “B” “C”는 모두 敘述의 편의상 表記한 記號임을 밝혀둔다. 그 標高는 現 25,000 : I 군사지도상에 明示된 等高線(20m 간격)의 中間數値를 적용하였다.

(5) 道路의 名稱문제 : 또 本文中에서 取扱한 道路 번호는 당시 사용한 것으로서 지금의 것과는 差異가 있다.

現用 군사지도상에는 117번 道路는 43번(2급

國道)으로, 또 117번 A道路는 4301번(地方道)으로, 그리고 6번 道路는 5번(1급 國道)으로表記되어 있다. 그러나 119번 도로와 117번 B도로는 명칭이나 등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6) 사단의 功過문제 : 사단의 이 전투에 있어서의 功過에 대하여는 그是非가 많은 듯하다. 예컨대 Missouri線에서 右翼군단의 兩側背를 폭로케 하였다는 점이 云譯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中共軍人志」(黃震遐 編, 1968. 12. 香港當代歷史研究所 刊)에 의하면 中共 제20병단(장, 陳正淵)이 3개군(제60, 제67, 제68군)과 火砲 1,000門을 動員하여 步砲協同의 現代戰을 최후로 試圖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그 엄청난 兵力과 火力에 壓倒되지 아니 한 我軍戰線이 없었다는 점으로 볼때, 이의 책임이 사단 혼자만의 것만으로 돌려질 것은 아닐 것으로 본다.

당시의 「陸本定期情報報告」에서도 捕虜의 진술을 引用하여, 수도사단 정면에 1개군 규모가 공격 하였다고 하였으며, 사단에서 集計한 敵포탄의 彈着數를 헤아려 보면, 13일과 14일 새벽에 걸쳐 93,000발(제1연대 정면 27,000발, 제26연대 정면 66,000발), 14일 중에 42,000발(제1연대 정면 13,000발, 제26연대 정면 39,000발), 그리고 15일에 左右一線 통털어 12,000발, 都合 150,000발을 上廻한다고 하였다.

이런 가운데, 사단이 117번 A道路線에서 15일에 我軍戰線에서 가장 먼저 反擊의 大陣鼓를 울린 것이었으니, 제2군단은 17일에야 白岩山線에서 攻勢移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전투에서의 사단의 功過는 大局的인 見地에서, 1954. 9. 25부(陸本 一般命令 제302호)로 사단장 崔昌彦 准장에게 수여된 無罪太極勳章으로 가름될 수 있으려니와 이 보다 앞서 있었던 제9군단장의 要旨 다음과 같은 부대표장 諫翰으로 더욱 명백히 가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首都사단장 귀하

1. 本官은 貴사단이 7월 13일부터 同月 28일에 이르기까지 金城地區 전투에서 새운 功績에 대하여 本官 개인의 이름으로 표창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2. 7월 13일, 貴사단의 前方 5개 대대는 完全

編制인 中共 4개 사단의 공격을 받아 苦戰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비대가 前方부대를 援擧코자 하였으나, 이것마저 敵에 포위되어 被襲되는 局面에 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비병력으로 117번 A道 北쪽에 阻止진지를 점령케 함으로써, 7월 14일 早朝에 敵의 主力을 阻止하는데 성공한 것이며, 이로써 사단은 군단의 右翼과 한국군 제2군단 左側背를 施護하는 一身兩役으로 제8군의 戰線의 安全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3. 貴사단 장병은 數的으로 優勢한 敵에 孤立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과 탄약이 다할 때까지 血戰을 계속하다가, 最後의 순간에 主陣地를 離脫하여, 敵이 橫行하는 4km에 달하는 지역을 突破, 敵의 背後를 찌르며 脫出해 나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戰鬪는 敵을 混亂케 하여 그 前進를 지연시킴으로써 軍단 및 한국군 제2군단의 當면한 敵공세를 阻止 하는데 필요한 軍예비대를 運用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하였습니다.

4. 그러므로 이 전투는 貴사단장병들의 투철한 책임감과 國家에 대한 忠誠心의 참 모습을 보인 것이며, 또 왕성한 공격정신을 발로한 것으로서, 16일 부터 부대를 整備한 바 14일에 수습된 병력이 1,500명이었으나 18일에는 5,000명으로 증가 되기도 하였으니, 이것으로 이 모든 것을 實證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월 17일에 사단이 다시 전투지역에 대한 책임을 맡겨 주도록 要求 하였으므로 本官은 이를 허락하여 美 제3사단의 進軍 일부를 담당케 한 바, 7월 27일 22.00까지 成功的으로 當面한 戰線을 防禦 하였습니다.

5. 貴사단이 軍사경험이 日淺하고,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한 新兵으로써 끝까지 金城地區를 지켜낸 功績이야말로 높이 評價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으로 사단장병은 모두가 猛虎임을 의심한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6. 期間中 사단의 非常한 處置에 대하여, 本官은 軍단장으로서 뜨거운 感銘을 받아, 衷心으로 謝辭를 표하는 바입니다.

1953년 7월 30일

제9군단장 육군중장 Reuben E. Jenkins

11. 金化地區의 防禦戰(1953년 7월 13일부터 // // 16일까지)

참조: 변책부도 제 19호
상황도 제 78, 79,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美제9군단	장 중장 Reuben E. Jenkins		중령 金仁濩 (7.15부터)
제9사단	장 소장 李翰林	제89포병대대	장 중령 邊洙瑁
제28연대	장 대령 尹泰皓	사단重砲중대	
제1대대	장 중령 朴榮徽	제53戰車중대	
제2대대	장 중령 崔昌龍	지원부대	
제3대대	장 중령 鄭春泰	제 9, 제 10, 제 38, 제 75, 제 92의 각포	
제29연대	장 대령 文重燮	병대대	
제1대대	장 중령 李大哲	美제 213, 제 555, 제 674, 제 955의 각포병	
제2대대	장 중령 金麗林	대대	
제3대대	장 중령 朴元寬	美제 60, 제 82의 각AAA포대	
제30연대	장 대령 趙淵表	美제 64戰車중대	
제1대대	장 중령 金永先	美제 86照明중대	
제2대대	장 중령 黃碩奎	美제 5空軍	
제3대대	장 소령 李應龍	인접부대	
사단포병단	장 준장 姜泰敏	右인접 수도사단	장 준장 崔昌彦
제30포병대대	장 중령 權五明	左인접 美제3사단	장 소장 George W. Smythe
제51포병대대	장 소령 崔赫寅		
제52포병대대	장 중령 李天秀		
	敵		
中共제 24군	장 饒守坤	제 214, 제 215, 제 216연대	基幹
제 70사단		제 74사단	장 肖选進
제 72사단	장 康林		

나. 전투전의 개황

1953년 6월 14일에 사단 主抵抗線의 左一線인 北進綫을 攻擊한 中共 제24군 제70사단의 基幹을 제28연대의 逆襲으로써 물리친 제9사단은 戰塵을 씻을 겨를도 없이, 防禦戰力을 補強하면서 敵의 兩攻擊에 對備하였다.

이무렵, 休戰協商의 終幕이 가까워짐에 따라, 全戰線에 걸쳐 敵의 막바지의 總攻勢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사단으로서는 狙擊綫 및 三角高地群에 대한 中共 제24군의 主攻을 경계하였다.

이 兩綫은 『北進綫의 防禦戰』(本卷 제59章 참조)에서 詳述한 바와 같이 五聖山의 2大南脉으로서 그 險峻한 堅壁이 連接한 地勢로 因하여 彼我의 攻防이 難澁한 主戰場이었다.

그러나, 敵이 金化를 攻略하려면 반드시 强악해야할 要地要部이며, 사단으로서는 金化地區를 防禦하기 위하여, 必守를 다짐하는 要隘이기 때문에 作戰上으로 攻防의 相衝이 不可避한 상황下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판단이 的中되어, 中共 제24군은 6월 24일~28일에 제209, 제214, 제216의 3개연대로써 A高地를 비롯한 各 前進陣地를 攻擊하였다.

그러나, 사단은 이 攻擊을 사전에 豫見하여, 火力計劃을 비롯한 遊擊준비의 萬全을 期하였기 때문에 4일간의 戰鬪를 有利하게 치루어, 全 前進陣地를 堅守함으로써 다시 한번 사단의 戰鬪力을 誇示하였다.

이 攻擊에서 많은 兵力損失만을 입고 潰退한 中共 제24군은 그 뒤에 분대 또는 소대규모의 探索을 반복할 뿐, 攻擊의 企圖을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

그러나, 7월 中旬으로 접어들면서부터, 右인접인 수도사단의 방어진면이 突破됨에 따라, 美제9군단의 作命으로 狙擊綫의 東쪽인 南大川을 넘어 主戰場을 이전하게 되었다.

이 主戰場은 南大川의 東쪽 川邊에 沿하여 東南으로 길게 뻗어내린 突出綫인데, △453-△428-△404-△433의 主脉이 綫의 南端에서 △346의 雙峰으로 대동지으면서, 狙擊綫을 側衝하고, 金化地區의 最終防壁인 千佛山줄기에 바짝 肉迫하는 地勢를 이루고 있다.

그와 동시에 芳洞-新木洞-松洞의 橫隔開豁地와 南大川의 川邊인 下所里-光三里-葛谷의 縱隔開豁地를 兩側으로 職制하기 때문에 作戰上의 要域이 아닐 수 없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本戰鬪는 前記한 要域을 固守하기 위한 移動과 逆襲으로 始終하는데, 사단이 迎擊한 敵은 中共 제24군 제72사단의 主力이었다.

이 中共 제72사단은 本是, 「7.13攻勢」로 알려진 中共 5개 군의 主役은 아니로되, 觀望山(△529, 제2군단 제3사단의 정면)-鶴岩山(△770, 제2군단 제6사단의 정면)-△552(美 제9군단 수도사단의 정면)間의 主攻에 隨伴하여, 南大川 東쪽의 突出綫으로 助攻한 集中兵力이기 때문에, 美 제9군단장 Reuben E. Jenkins 중장은 제9사단에 이 방어진면을 부여하고, 수도사단의 全面撤收에 따르는 金化地區의 危局을 수습케 한 것이다.

(1) 작전계획

美 제9군단장은 사단 兩翼의 戰鬪地境線을 변경하여, 左一線인 제30연대의 主抵抗線을 美

제3사단(장, George W. Smythe 소장)에 부여하고, 수도사단 제26연대(장, 殷碩杓 대령)의 主抵抗線 일부를 사단에 부여함으로써, 金化地區 南大川邊의 戰線을 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에 사단장 李翰林 소장은 要旨 다음과 같이 사단作命 제108호(53.7.12.24.00附)를 下達하여, 應急態勢를 갖추었다.

『① 사단은 7월 13일 08.00~14일 04.00에 右인접인 수도사단 제26연대의 방어정면 일부를 인수하고, 現主抵抗線을 계속 방어하려 한다.

② 제28연대

- ㉠ 7월 13일 21.00~14일 04.00에 1개 대대로써 제26연대의 左一線을 인수하라.
- ㉡ 1개 대대를 연대예비로 葛谷里에 控置하라.
- ㉢ 7월 14일 12.00附로 제30연대의 수색중대를 통합지휘하라.

③ 제29연대

- ㉠ 7월 13일 08.00~14일 04.00에 X高地—M3高地를 美 제187空輸전투단에 인계하라.
- ㉡ 연대예비를 1개대대(+)로 보유하여 방어縱深을 충분히 갖추라.

④ 제30연대

- ㉠ 7월 13일 08.00~14일 04.00에 現 방어정면을 美 제3사단에 인계하라.
- ㉡ 1개 대대를 葛谷里에, 2개 대대를 豊谷里에 集結시켜, 사단예비로 控置하라.
- ㉢ 7월 14일 04.00까지 戰車 및 工兵의 각 1개 소대와 90mm 對戰車砲소대를 原復케 하라.
- ㉣ 7월 14일 12.00까지 연대의 수색중대를 제28연대에 배속케 하라.
- ㉤ 移動時에는 城柱峙—金化邑—豊谷里의 幹線道路를 主로 이용하라.

⑤ 사단포병단

- ㉠ 7월 14일 04.00에 각 포병대대의 지원임무를 변경하라.
- ㉡ 1개 포병대대로써 제28연대를 직접지원하라.
- ㉢ 1개 포병대대로써 제29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 ㉣ 1개 포병대대로써 사단을 일반지원하라.

⑥ 사단重박격포중대

- ㉠ 7월 13일 08.00~21.00에 現陣地를 美 제187空輸전투단에 인계하고, 제30연대를 직접지원중인 1개소대로써 美 제38重박격포중대의 1개소대의 陣地를 인수케 하라.
- ㉡ 7월 14일 04.00부터 각 1개소대로써 제28, 제29 兩연대를 직접지원케 하고, 1개소대로써 사단을 일반지원케 하라.

⑦ 제53戰車중대는 7월 14일 04.00부터 別命이 有할時까지 1개소대로써 美 제187空輸

전투단을 지원하라.』

(2) 작전실시

7월 13일 : 敵의 大攻勢를 예상하는 가운데서 主抵抗線部隊를 조정하게 된 사단장 李翰林 소장은 각 연대로 하여금 이날 日沒前까지 陣地를 교대케 하기 위하여 사단作命 제108호의 실시時限을 『7. 13. 19.00까지로 수정한다』라고 口頭로 명령함으로써 晝間行動을 強行케 하였다.

이에 대하여, 美 제9군단장 Reuben E. Jenkins 중장은 作戰企圖가 폭로될 우려가 있으므로 夜間교대를 실시토록 容許하였으나, 사단장은 이 晝間교대를 強行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大別하여 설명하였다.

『첫째로 休戰成立이 임박함에 따라 敵이 大攻勢를 취하리라는 것을 명백히 예측하고 있는 時期인 만큼 한시 바빠 陣地를 교대시켜 防守태세를 굳혀야 한다.

둘째로 사단에서 分析한 敵情에 비추어 이날(13일) 밤안에 敵이 攻擊하기 시작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日沒後에 陣地를 교체케 한다면, 이 인수인계의 절차도중에 준비없이 攻擊을 받는 失機의 愚를 自招할지도 모른다.』

즉, 사단정면의 中共 제24군의 막바지 攻擊이 있을 것으로 確實視되고 있는 이 긴박한 時機에 行動을 秘匿하기 위하여 시간을 늦춘다면 陣地를 교체하는 도중에 虛點을 질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주장이었으므로 美 제9군단장도 이 주장을 수긍하는 수 밖에 없었다.

이로써 사단은 晝間交替를 서둘러, 이날 18.00~19.00사이에, 제30연대의 主抵抗線을 美 제3사단 예하의 제187空輸전투단(장, William C. Westmoreland 준장)에 인계함과 아울러, 右측인접 수도사단의 제26연대 主抵抗線의 左一線을 제28연대로 하여금 인수케 하였는데, 陣地교체를 마치고 20.00까지 陣容을 急編한 각 연대의 배치상황은 대략 다음과 같다.

(가) 제28연대……前方지휘소를 葛谷里에 설치하여, 右一線에 제3대대를, 左一線에 제2대대를 각각 내세우고, 제1대대를 연대예비로 葛谷里에 控置하였다.

(나) 제29연대……前方지휘소를 甘鳳里의 △W6에 설치하여, 右一線에 제3대대를, 左一線에 제2대대를 각각 내세우고, 제1대대를 연대예비로 鳳尾里에 控置하였다.

(다) 제30연대……美 제3사단에 主抵抗線을 인계한 연대는 사단예비가 되어, 車輛機動으로 豊谷里에 이동하였는데, CP를 豊谷里에 설치하여, 제1대대를 葛谷里에 집결케 하고, 主力 2개 대대를 豊谷里에 집결케 하였다.

한편, 사단포병단도 제30포병대대의 이동원로의 時限을 18.00까지로 앞당겨, 松洞에 A포대와 B포대를, 新木洞에 C포대를 각각 집결케 하였다.

그리고 사단重박격포중대도 14.00까지 城在산의 陣地를 美 제187空輸전투단에 인계하고, 제1소대로 하여금 18.00까지 鳳尾里의 美 제38重박격포중대(-2)의 陣地를 인수하여 제29연대를 직접지원케 하였다.

이처럼 日沒前에 모든 陣地교체를 強行완료한 사단은 主抵抗線과 前哨陣地의 掩體壕 및 交通壕를 補修하고, 障礙物을 增設하는등, 寸刻을 다투어 陣地를 強化하였다.

이 긴급작업은 日沒로 因하여 짧은 시간에 실시되었으므로 충분하지는 못하였으나, 새로운 配陣과 더불어 陣地作業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小銃手에 이르기까지의 全將兵에게 戰鬪前의 마음의 餘裕를 안겨줄 수 있었다.

이날의 날씨는 때마침 장마철에 접어들고 있었으므로 아침부터 때때로 가랑비가 뿌려지더니 20.00 무렵부터는 차차로 빗발이 굵어지고, 마침내는 큰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이 시각에 사단장 李翰林 소장은 정보참모 金鼎德 중령과 작전참모 金景沃 중령을 대동하고 鷄雄山의 전방지휘소에 나와 있었는데, 日沒前에 陣地교체를 強行케 함으로써 이 豪雨를 피할 수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모든 면에 걸쳐 作戰成功의 素因이 될 것이라고 굳게 自信할 수 있었다.

1. 제28연대의 상황

지난 6월 24일에 사단작문 제107호(6.24. 17.00附)로 사단 右一線인 △538와 狙擊稜線의 3개 前哨陣地(△A, △B, △C)를 제29연대로부터 인수하여, 右一線연대가 된 제28연대(장, 尹泰皓 대령)는 이날 또다시 수도사단 제26연대의 主抵抗線일부를 사단작문 제108호로 인수하게 되었다.

이에 연대장 尹泰皓 대령은 豊谷里에 사단예비로 대기중이던 제3대대(장, 鄭春泰 중령)를 원대복귀와 동시에 급거 機動시켜, 이날 18.00까지 제26연대(장, 殷碩杓 대령) 제3대대(장, 林完植 중령)의 主陣地를 인수케 하였는데, 제3대대장 鄭春泰 중령은 右제1선인 △400(△424 西쪽 500m)에 제11중대(장, 金時中 대위)를, 左제1선인 △410(下所里의 南大川邊 平地를 瞰制)에 제9중대(장, 申鉉慶 대위)를 각각 배치하고, 제10중대(장, 李永朝 대위)를 대대예비로 葛谷里에서 待機케 하였다. 그리고 대대의 前哨陣地인 △C에는 배속받은 연대 수색중대(장, 金東元 대위)를 내세워 陽地村—上所里間의 豫想接近路를 掩扼케 하였다.

한편, 연대 左一線인 제2대대(장, 崔昌龍 중령)는 狙擊稜線上의 주요 前哨陣地인 △B와 △A를 계속 담당하게 되었는데, 대대장 崔昌龍 중령은 배속받은 사단수색중대(장, 裒國鍾 대위)를 幅 600m의 主抵抗線에 배치하고, △B에 제7중대(장, 裒相泰 대위)를, △A에 제5중대(장, 李永煥 대위)를 각각 내세웠으며, 제6중대(장, 金雲璣 대위)를 대대예비로 主抵抗線의 前斜面에 대기케 하였다.

그리고 연대장 尹泰皓 대령은 연대정면의 縱深을 굳히기 위하여, 제28연대의 제1대대(장, 朴榮徽 중령)와 배속받은 제30연대의 수색중대(장, 金榮國 중위)를 연대예비로 하여, 葛谷里에 집결대기케 하였다.

가) 제11중대의 戰況 : 이날 晝間行動을 強行하여 18.00에 제26연대 제10중대의 主陣地를 인수한 중대는 △400의 南쪽 9부稜線에 중대본부를 설치하고, 上所里의 豫想接近路를

敵制하는 北쪽 9部稜線에 제1소대(장, 金壽完 소위) 및 제2소대(장, 朴憲奎 소위)를 陽地村의 폭넓은 溪谷을 掩扼하는 西쪽 突角部位에 제3소대(장, 安泰鎬 소위)를, 중대본부 남쪽의 緩斜面에 火器소대(장, 崔泰德 소위)의 박격포반을 각각 배치한 가운데, 日沒(19.54)까지의 짧은 시간안에 陣地作業을 서둘러, 특히 北斜面을 지원케 될 기관총반의 掩體壕를 急造하는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作業행동은 敵의 관측에 노출되어 砲擊을 심하게 받을 것으로 작오하였던 것이나, 敵彈은 간간히 落下할 뿐, 陣地作業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다.

비구름이 낮게 덮혀 있으므로 日沒後의 薄暮는 이내 어두워지고, 중대의 主陣地주변에는 濕濕한 夜氣가 음산하기만 하였다.

중대장 金時中 대위는 각 소대의 陣地工事を 점검하면서 소대장과 분대장들을 집합시켜 陣地인수의 時限을 알당겨, 晝間行動을 強行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단장의 作戰概念을 부연설명하면서, 『이제부터 겪어야 할 전투는 과거의 어느 전투보다도 중요한 뜻을 지니는 것이니만큼, 죽기를 맹세하여 이 主陣地에서 休戰을 맞이하자!』고 檄하였는데, 이는 休戰에 관한 막연한 소문때문에 중대원들의 士氣와 戰意가 沮喪되지 않기를 원하는 제1선지휘관으로서의 간곡한 당부였다.

그런데 22.00가 지나서 빛발이 점점 굵어지는 가운데 중대의 北쪽 하늘에서 遠雷와 같은 육중한 砲聲이 울리면서 敵의 攻擊準備射擊으로 推斷되는 집중 포격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15분 뒤에는 敵陣 △560(上所里 건너편의 敵制高地)의 夜空에 青色신호탄 1발과 赤色신호탄 7발이 솟아 올랐는데, 이 一連의 신호탄은 이날의 이 시각에 中共 4개군이 中東部戰線에서 이른바 “7.13攻勢”를 개시하는 첫신호의 일부였던 것이다.

중대장 金時中 대위는 敵의 포격상황을 대대장 鄭春泰 중령에게 SCR-609로 보고하면서, 上所里의 豫想接近路에 대한 照明支援을 요청하였다.

이 요청은 敵의 攻擊兵力과 접근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대대장은 葛谷里에 배치한 제12중대(장, 朴洪基 대위)로 하여금 照明彈을, 즉각 발사케 하였는데, 밝아진 △460의 北쪽 斜面과 上所里의 接近路上에는 이미 3개중대규모로 推算되는 兵力이 攻擊準備射擊의 延伸에 虜接하여 접근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에 중대의 右제1선인 제1소대장 金壽完 소위는 敵의 攻擊제1선이 이미 障礙物地帶의 前方 50m까지 접근해 있음을 확인하고, 배속받은 機關銃班을 비롯한 소대의 火力을 집중하였다.

그런데 제2 및 제3 兩소대의 정면은 火急한 상황에 당면해 있었다. 2개 중대규모로 추산되는 兵力이 攻擊準備射擊이 加해지는 동시에 上所里의 接近路로 進出하여 射擊延伸과 동시에 我軍의 陣前으로 일제히 殺到하는 戰法을 썼기 때문에, 照明下에 이 敵勢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이미 最後阻止線을 넘어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危急한 상황에 당면한 兩소대는 즉각 急射擊과 手榴彈으로써 敵의 攻擊제1선을 破摧하러하였으나, 兩소대 모두가 陣內로 과고드는 그 일부병력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제2소대장 朴憲圭 소위와 제3소대장 安泰鎬 소위는 자기 소대陣地의 破裂口를 회복코자 白兵陣頭에 나섰는데, 이때에 제3소대의 제2분대장 朴三突 하사는 분대정면으로 몰려드는 敵兵속으로 뛰어들어 M1소총을 휘두르니 분대전원도 뒤따라 肉彈一九이 되어 散兵壕를 박차고 뛰어나갔다.

이렇듯, 중대主陣地의 前面에 걸쳐 우세한 敵勢를 맞이한 중대장 金時中 대위는 대대장에게 彈幕射擊을 긴급요청함과 동시에 중대본부요원을 인솔하여 제2소대 陣地로 急驅하였다.

나) 제3대대장의 措置 : 한편, 제3대대장 鄭眷泰 중령은 제11중대장의 報告에 이르되 『중대정면의 敵은 3개 중대규모로 추산된다』는 敵情에 비추어 葛谷里에 控置한 제10중대(장, 李永朝대위)를 즉각 增撥키로 하고, 연대수색중대(배속)의 1개소대로써 제11중대를 側方支援케 하였는데, 중대정면에도 公正부림부터 1개 중대규모의 敵이 접근하면서 小火器의 射擊을 加하였다.

그리고, 제9중대(장, 申鉉慶 대위)의 방어정면인 下所里는 제11중대의 主陣地가 돌파당할 경우에 狙擊稜線의 東側方을 防守하는 要部가 되기때문에 照明支援下에 敵의 접근을 早期發見키 위하여 下麓일대에 埋伏組를 강화토록 하였는데, 사단의 戰鬪詳報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이때의 照明支援은 延 3대의 C47輸送機가 출동하여 174발의 照明彈을 투하함으로써 下所里—上所里間의 低雲夜空을 대낮처럼 밝혔다고 한다.

다) 연대장의 조치 : 제11중대의 危急한 상황보고와 함께 彈幕射擊의 긴급요청에 접한 연대장 尹泰階 대령은 陣內白兵戰이 進行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건대, 중대陣前에 彈幕射擊을 집중한다면 我軍의 손실도 있게될 것이므로 敵의 增援兵力을 겨냥하는 遮斷射擊만으로써 上所里의 接近路를 強打키로 하고, 葛谷里에 控置한 제1대대(장, 朴榮徵 중령)로 하여금, 1개 중대로써 △309(葛谷里의 北쪽)에 예비진지를 急編케 하였다.

연대장의 이 조치는 연대의 主抵抗線에 대한 敵의 攻擊企圖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즉, 狙擊稜線의 前哨陣地인 △B와 △A는 공격하지 않고, 右인접인 수도사단의 主抵抗線과 접속되는 △400에 攻擊을 치중는 것으로 보아, 이는 연대의 右—線인 제3대대 정면을 밀어내림으로써 光三里—葛谷里線에서 突破口를 확대하려는 것이 분명하였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제11중대의 主陣地를 固守케함과 동시에 下所里—陽地村間의 閑豁地를 瞰制하는 제9중대의 主陣地를 強化케함은 장차 狙擊稜線을 堅守하여 金化地區를 방어하는때에 喫緊之事가 아닐수 없었다.

2. 제29연대의 상황

사단의 左—線인 제30연대가 主抵抗線을 美 제3사단에 인계하고, 사단예비로 이전함에

따라 이날부터 사단 左一線이 된 제29연대(장, 文重燮 대령)는 사단作命 제108호로 ΔX — $\Delta M3$ 間的 제5중대(장, 金秀鳳 대위)의 主陣地를 이날 17.00까지 인계함으로써 ΔV 와 ΔW 의 前進陣地를 앞세운 연대 主抵抗線을 맡게 되었다.

이 정면은 敵陣인 上甘嶺(一名, Jane Russell高地)으로 부터 ΔW — ΔV —下甘嶺—鳳尾里를 거쳐, 光三里—甘鳳里線에서 我軍의 主補給路인 제43道路를 위협하게 되는 예상. 접근로이기 때문에, 狙擊稜線과 더불어 金化地區의 防禦에 必須不可缺한 要關이었다.

가) 연대장의 措置: 따라서 연대장 文重燮 대령은 主抵抗線上의 $\Delta 520$ ($\Delta 538$ 의 西南쪽 600m의 連峰)에 대대 嚴閉地境線의 制限點을 定하여, 右一線에 제3대대(장, 朴元寬 중령)를 左一線에 제2대대(장, 金麗林 중령)를 각각 내세우고, 제1대대(장, 李大植 중령)를 연대 예비로 甘鳳里에 控置하였다.

이와 아울러, ΔV 및 ΔW 의 두 前進陣地를 강화키 위하여, 主抵抗線 대대로 하여금, 각기 重화기중대의 2개 기관총소대를 增設케 하고, 배속받은 戰車 1개 소대를 下甘嶺 北쪽 400m의 ΔV 의 南麓까지 前進시켜 긴급지원에 대비케 하였다.

그리고 3개 重火器중대의 박격포반과 사단 重박격포중대의 1개 소대(배속)를 主抵抗線의 南斜面에 布陣케 하여 두 前哨陣地의 前斜面일대에 火集點을 密集케 하였다.

나) 제6중대의 戰況: 이와같이 연대의 支援火力을 배정한 가운데, 연대 右一線인 제3대대는 ΔV 의 前進陣地에 제9중대(장, 徐慶善 대위)를 내세우고, 主抵抗線에 제11중대(장, 李



<57mm 무반동총반의 勇戰>

龍祚 대위)를 배치하였는데, ΔV 의 東쪽으로 마주보는 獨立峰($\Delta 380$)에 該중대의 제1소대(장, 李相均 소위)를 進진시켜, 제9중대를 側方支援케 하였다.

그리고, 제10중대(장, 朴志明 대위)를 대대예비로 $\Delta 400$ (主抵抗線의 南쪽 500m)稜線에 控置하여 방어정면의 縱深을 갖추었다.

한편, 연대 左一線인 제2대대(장, 金麗林 중령)는 前哨陣地인 ΔW 에

제6중대(장, 李大煥 대위)를 下甘嶺의 主陣地에 제7중대(장, 李鍾國 대위)를 각각 배치하고 제5중대(장, 金秀鳳 대위)를 鳳尾里에 대대예비로 控置하였다.

그런데 ΔV 와 ΔW 는 下甘嶺—上甘嶺間的 小徑을 사이에 두고, 300m의 거리로 마주보는 連峰이기 때문에, 제9중대와 제6중대는 긴밀히 협조된 火力計劃으로 敵襲에 대비하였다.

제9중대장 徐慶善 대위는 배속받은 2개 기관총소대중 제1기관총소대(장, 黃龍植 소위)를 主陣地 중앙에, 제2기관총소대(장, 金明浩 소위)를 火器소대(장, 金振常 중위)와 함께 高地 西쪽의 小徑을 瞰制하는 主陣地左端의 鞍部에 각각 배치하고, 제2소대(장, 李光箕 소위)와 제1소대(장, 李相均 소위)로써 高地東쪽의 小路를 瞰制하는 主陣地의 제1선을 담당케 하였다.

그리고 제3소대(장, 朱慶魯 소위)를 左제1선에 배치하여 제6중대와 협조케 하였는데, 이날 22.00가 지나서 사단右一線의 戰況이 치열해지는 무렵에 敵의 각종 포탄이 5분간 집중되더니, 그 延伸과 더불어 2개 중대규모의 敵이 중대의 主陣地全面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陣前의 여러곳에서 照明地雷가 터져, 敵影을 浮刻시키는 가운데 敵情을 파악한 중대장 徐慶善 대위는 지원사격을 요청하는 동시에 제6중대의 側方支援도 요청하였는데, 이때의 敵의 攻擊軸線은 그 右側面을 완전히 露出시키고 있었다.

그러므로 제6중대(장, 李大煥 대위)의 側方火力이 奏効하여, 순식간에 敵의 隊勢를 요란하고야 말았다. 이 무렵에는 이미 연대의 照明支援下에 支援砲擊이 炸裂하기 시작하므로 敵은 周章狼狽한 끝에 潰走하려는 氣色이 뚜렷하였다.

이 好機를 看破한 제3소대장 朱慶魯 소위는 李鍾萬 이등중사가 이끄는 제2분대를 즉각 躍出시켜, 手榴彈으로써 陣前의 敵을 殲戮케 하고, 소대선임하사관 李璟秀 일등중사가 이끄는 제1분대로 하여금, 殘敵을 追躡케 하니, 제2 및 제1 兩소대 정면의 敵도 攻擊을 중단하고 일제히 물러나고 말았다.

3. 사단장의 조치

제28 및 제29 兩연대의 進황보고에 접한 사단장 李翰林 소장은 제28연대에 대한 戰車支援을 強化키로 하여,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作指 제180호(7.13.24.00附)를 하달하였다.

『① 제28연대는 7월 14일 04.00에 戰車 1개 소대를 통합지휘하라.

② 제29연대는 7월 14일 01.00부터 戰車 2대로써 제28연대를 지원하라.

③ 제53戰車중대는 美 제187空輸전투단을 지원중인 1개 소대를 7월 14일 04.00附로 原復시켜 제28연대에 배속케 하라.』

이 조치는 敵의 攻擊企圖를 분석컨대, 제28연대의 정면을 계속 攻擊할 것으로 判斷하여 취해진 것이었다.

즉, 右인접인 수도사단의 主抵抗線을 一舉에 돌파한 中共 제68군의 3개사단은 優勢한 兵力으로 攻擊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며, 그 左翼의 일부兵力으로써 사단의 右一線을 攻擊할 것이 明白해진 것이다.

이 攻擊의 銳爪를 光三里一下所里線에서 阻止하지 못한다면 △404—△433—△346의 稜脈으로 파고드는 壓力을 받게 되어, 狙擊稜線을 저절로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뿐더

러, 金化의 마지막 要關인 千佛山(△585)줄기의 예비진지마저도 直接的인 위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상황은 이 右一線방향으로부터 危急을 감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단장 李翰林 소장은 이날 子正이 지나면서 제30연대정면의 戰況이 한층 凶烈해지는 것을 지켜보며, 사단예비인 제30연대(장, 趙淵表 대령)의 비상대기를 口頭로 명령하고, 사단포병단(장, 姜泰敏 준장)으로 하여금, 이 右一線에 火力優先權을 부여하리라고 결심하였다.

7월 14일: 右一線의 戰況이 急迫해지는 가운데 晝夜一連의 防守血戰이 반복되었는데, 제28연대가 획득한 敵 遺棄屍體속의 文書와 제29연대가 얻은 俘虜 2명의 陳述을 종합한 결과, 전날부터 사단을 攻擊하고 있는 敵은 中共 제24군에하 제72사단의 基幹임이 밝혀졌다.

이날은 拂曉부터 비구름의 일부가 걸히면서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였으므로 航空支援을 지장없이 받을 수가 있었다.

1. 제28연대의 상황(其一)

전날 22.00무렵부터 제11중대의 主陣地를 攻擊중인 3개 중대 규모의 敵은 계속 增援兵力을 後繼시키면서 그 氣勢를 조금도 늦추지 않았다. 그리고 △C의 연대수색중대를 攻擊중인 1개 중대 규모의 敵도 집요하게 小火器의 射擊을 加하면서 접근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01.00까지도 狙擊後線의 本脈인 △B-△A의 前哨陣地에 대하여는 攻擊하려는 企圖을 전혀보이지 않았다.

가) 연대장의 敵情判斷: 연대정면 의이와 같은 敵情을 분석한 연대장 尹泰階 대령은 敵의 攻擊企圖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첫째, 中共 제72사단의 基幹은 제68군의 右翼이 되어, 光三里-葛谷里線까지의 進出을 관찰하려 할 것이다.

둘째, 이 進出으로써 狙擊後線을 東側方으로부터 壓迫하여, △B 및 △A의 前哨陣地는 철수하지 않을 수 없게 強要당할 것이다.

즉, 狙擊後線의 要關인 兩前哨陣地를 정면으로 攻擊하기 보다는 수도사단의 主抵抗線을 突破하여 進出중인 제68군의 主軸에 힘입어 側方包圍를 企圖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 右一線에 대한 예비兵力을 集中的으로 運用키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이날 拂曉무렵에 右인접인 수도사단 제26연대의 戰況을 알고자하였으나, 연대장 殷碩杓 대령과의 通話가 中絶되었으므로 사단에 문의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단사령부도 사단장 崔昌彦 준장을 비롯한 參謀要員들과의 通話를 연결짓지 못하고, 수도사단의 戰況을 다만 추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 때, 수도사단은 主抵抗線이 돌파되어 철수를 거듭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中共 제68군主力의 進出이 급작스럽기 때문에 제26연대를 비롯한 각 연대는 거의 수습하지 못할 정도의 혼란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나) 제3대대의 戰況 : 전날 22.00무렵에 제11중대의 主陣地인 △400를 攻擊하기 시작한 敵의 兵力이 3개 중대규모로 추산됨과 동시에 대대의 명령으로 제11중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葛谷里의 集結地를 출발한 제10중대는 이날 00.20무렵에 △400의 東側西面에 陣地를 急編하였는데, 20분이 채 되기도 전에 △424쪽으로 부터 2개 중대규모로 보이는 敵이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424는 右인접인 수도사단 제26연대의 左一線의 主陣地이며, △400의 東쪽 500m에 마주 보이는 豎峰이다.

제10중대장 李永朝 대위는 右인접 부대의 主陣地가 이미 무너진 것으로 判斷하였다.

즉, 그는 △424의 西쪽 斜面을 내려오고 있는 敵의 兵力이 2개 중대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제26연대가 그 主峰을 상실하고 철수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戰場의 夜空에는 我軍의 照明支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대장은 이 戰況의 急變을 대대에 보고함과 동시에 陣前을 포함한 △424의 西斜面과 南斜面일대에 대한 制壓射擊을 요청하였다.

이 보고에 接한 제3대대장 鄭春泰 중령은 敵에게 막심한 打撃을 加할 수 있는 好機라고 판단하여, 제10중대의 陣前과 △424의 西斜面일대에 대한 사단 支援兵力의 急襲을 건의하고, 연대에비의 일부 增援을 요청하였다.

제10, 제11의 兩중대로서는 敵의 重壓을 排除하여 △400을 固守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推斷하였기 때문이다.

이날 01.00무렵에 △400을 3개 정면에서 攻擊중인 敵의 兵力은 5개 중대규모이며, △424-△400의 稜線을 장악함으로써 下所里-陽地村의 開豁地까지 強力히 推進하려는 氣勢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제28연대장 尹泰皓 대령은 葛谷里에서 待機중인 제1대대(一)(장, 朴榮徵 중령)로 하여금 1개 중대를 下所里 北쪽에 있는 300稜線의 東斜面으로 急赴케 하였다.

이로서 제1대대장 朴榮徵 중령은 제1중대(장, 金斗植 대위)를 긴급출동케 하였는데, 그 時刻는 01.00무렵이며, 이때에 제11중대와 제10중대는 새로운 戰況에 當面하고 있었다.

즉, 제10중대의 左제1선인 제3소대(장, 鄭在鶴 소위)의 제2분대(장, 徐廷基 하사)陣地를 2개 소대규모로써 돌파한 敵의 攻擊제1선은 交通線를 따라, 제11중대의 右제1선인 제2소대의 陣內로 침투한 것이다.

한 동안의 豪雨로 因하여 交通線와 散兵壕에는 무릎까지 빗물이 차 있었는데, 이 빗물이 순식간에 血海를 이루는 白兵格鬪가 전개되었다.

이 紛戰중에서 제10중대 제3소대의 제2분대원인 六尺巨軀의 李乘奎 일병은 두자루의 銃劍을 縱橫無盡으로 휘두르면서 그 天賦의 怪力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더마침, 兩중대의 前面일대에 사단와 支援火力이 集中炸裂하여 敵의 後續兵力을 차단하는 가운데, 兩중대는 陣內血戰으로써 主陣地를 회복하였다.

이로써 急遽北上한 제1중대가 습격한 이날 03.00무렵 대대는 敵側에 面한 △400의 3개斜面의 9부稜線을 堅守하였는데, 그 後에 대대의 戰況은 또다시 새로운 樣相으로 急變하였다.

다) 敵의 楔形進出 : 즉, 수도사단이 이날 拂曉에 組織的인 阻止力을 상실하여, △495—△462—△395—△404間의 예비진지마저 포기하게 되자, 敵은 主攻의 일부로서 △433—△346의 稜線으로 大舉進出하기 시작하였다.

이 稜線은 狙擊稜線의 東側方을 直破하는 地勢를 이루어 新村—光三里間의 主補給路를 南北으로 兩斷하면서, 金化防守의 最後阻止線인 千拂山출기에 肉迫하는 楔形接近路를 形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楔形進出은 사단의 主抵抗線을 크게 威脅할 뿐만 아니라, 美 제9군단의 右翼을 全面的으로 밀어내는 突破口가 되기때문에 軍단장 Reuben E. Jenkins중장은 사단으로 하여금 逆襲케 하고, 美 제3사단(장, George W. Smythe소장)으로 하여금 수도사단의 戰鬪地域을 인수케 하여, 敵의 進出을 △421—△495—△404線에서 擊擄하기로 決心하였다.

이로써 사단의 左인접인 美 제3사단은 이날 02.00에 軍단의 作命으로 戰鬪地域을 美 제2사단(장, W.L. Barriger소장)에게 인계하고, 車輛機動으로 수도사단의 後方地域으로 집결하였는데, 이 集결이 완료한 時刻은 08.00무렵이었다.

2. 사단장의 조치(其一)

이에 사단장 李翰林 소장은 사단作命 제109호(7월 14일 10.00附)로 사단예비인 제30연대로써 逆襲키로 하였는데 그 要點은 다음과 같다.

『① 敵은 7월 14일 未明에 右인접 수도사단의 主抵抗線을 突破하고 계속 進出中임.

② 사단은 軍단作命으로 此敵의 일부를 逆襲으로써 擊滅하려 한다.

③ 제28연대는 연대예비의 主力으로서 △309를 占領확보하라.

④ 제29연대

㉑ 2개 대대를 사단예비로 葛谷里에 控置하라.

㉒ 연대수색중대를 △500에 集결시키라.

⑤ 제30연대

㉑ 1개 대대로써 △300을 점령확보케 함과 동시에, 1개 대대로써 △404를 奪取하라.

㉒ 戰車 3개 소대를 통합지휘하라.

⑥ 사단포병단

㉑ 1개 대대로써 제30연대의 逆襲을 直接支援하라.

- ④ 제89포병대대로써 제52포병대대를 增援하라.
- ⑤ 제30포병대대를 鞏谷里 南쪽으로 이동시켜, 사단을 一般支援하라.
- ⑦ 사단 重박격포중대는 1개 소대로써 제30연대의 逆襲을 直接支援하라.
- ⑧ 제53戰車중대는 1개 소대를 제30연대에 배속하라.』

이로써 사단은 狙擊稜線을 防守함과 동시에, 수도사단의 철수로 인하여 상실한 군단 右翼의 일부를 逆襲으로써 恢復해야 하는 作戰을 同時에 수행하게 되었다.

3. 제30연대의 상황

연대장 趙淵表 대령은 사단 作命 제 109호로 제2대대를 逆襲에 투입케 하고, 제3대대로써 豫備陣地를 점령확 보케 하는 긴급조치를 취하였다.

右인접인 수도사단이 指揮體系를 거의 상실하고, 철수를 거듭하고 있는 이날 拂曉이후의 戰況에 비추어, 연대의 이와 같은 긴급출동은 寸刻을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각 대대는 10.00정각에 행동을 개시하였는데, 13.00무렵에 敵의 進出이 더욱 急해졌으므로 사단장은 이 정면에 대한 방어중심을 굳히기 위하여 제28연대에 배속되어 別命을 대기중인 제30연대의 제1대대와 수색중대를 原復케 하였다.

가) 제2대대의 作戰任務 變更: 그런데 △404를 찾아한 敵의 進出은 예상보다 더 빠르며, 따라서 대대의 逆襲은 △433에서 挫折되었다.



즉, 제2대대장 黃碩奎 중령은 대대集

〈逆襲에 앞선 單獨武裝의 點檢〉

結地인 葛谷里로부터 光三里—△393—△404의 斜面을 急驅하여, △433에서 攻撃隊形으로 散開하려고 하였는데, 그 北斜面일대에는 이미 2개 소대규모를 先鋒으로 하는 2개 중대 규모의 敵이 進出하고 있었다.

그 시각은 12.30무렵이었다. 대대가 急遽登攀한 이 斜面이 急傾斜임에 비추어 결코 오래 걸린 시간이 아닐데도, 이처럼 逆襲목표의 前面에서 2개 중대규모의 敵과 마주치게 되니

대대장으로서의 失機의 痛恨을 禁치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대主力이 進出한 이 △433의 일대에 敵의 砲彈이 集中하였다.

이에 대대장 黃碩奎 중령은 상황의 急變을 연대장에게 보고하면서 △404를 포함한 △433의 北側面일대에 支援火力의 急襲을 요청하고, 제1선인 제5중대(장, 金聖淳 대위)와 제7중대(장, 郭孝斌 대위)로 하여금 火線을 急編케하였다.

이때, 대대장은 이러한 긴급조치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作戰命 令을 遵守하여 △404에 대한 逆襲을 發起하면 막대한 兵力損失을 내게될 뿐만 아니라, 實 事 逆襲에 성공하더라도 △404을 固守하기가 힘들것이므로 △433에서 敵의 攻襲을 일단 阻 止하는 防禦方式으로 전환함이 타당하리라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黃碩奎 중령은 상황보고와 아울러, 逆襲을 감행하기보다는 △433에서 상황의 急 變에 따르는 防 守로 이 轉 換하 겠 다는 決 心을 연 대 장 에 게 건 의 하 였 다. 이 건 의 에 접 한 연 대 장 尹 泰 皓 대 령 은 대 대 장 의 건 의 를 首 肯 하 여 사 단 장 에 게 다 시 건 의 하 였 던 바, 사 단 장 李 翰 林 소 장 도 그 판 단 을 인 정 하 여 △433에서 의 阻 止 에 任 하 라 고 命 令 하 였 다.

이로써 대대는 △433의 主峰에 左제1선인 제7중대를, 그 東쪽의 2개 連峰에 제6중대(장 柳啓榮 대위)와 제5중대를 일제히 내세우는 背水陣을 急編하고, 遊擊의 火箭을 加하였다.

그런데, 16.30무렵에 대대정면으로 접근하는 敵은 1개 대대(+)규모로 추산되고, △404 쪽에서 後續하는 兵力이 觀望되었다.

배마침 上空에 출동한 韓國空軍의 F-51機 2개 編隊가 Nepalm彈과 機 銃 掃 射 를 加 하 고 사 단 支 援 火 力 이 그 接 近 路 一 대 를 強 打 하 였 도 불 구 하 고, 이 처 럼 많 은 戰 力 을 集 中 하 는 그 들 의 作 戰 企 圖 를 明 白 히 판 단 할 수 있 었 다.

즉, △404-△433-△346을 連하는 突出된 稜線을 席捲함으로써, 狙擊稜線을 東側方에서 直衝하고 千佛山줄기를 적 接 위 협 하 려 는 것 이 분 명 하 였 다.

나) 제3대대의 예비진지占領: 한편, 13.20에 突出稜線의 南端(△300)으로 이동완료하여 別命을 대기하고 있던 제3대대(장, 李應龍 소령)는 제2대대가 △433에서 敵을 迎擊하기 시작할 무렵에 三 巨 里-△346(가)-△346(나)를 連하는, 突出稜線의 南緣에 豫備陣地를 設 定 하 라 는 연 대 命 令 으 로, 右 側 1 線 인 三 巨 里 의 北 쪽 高 地 에 제10중대(장, 崔錫崇 대위)를, 中 央 側 1 線 인 △346(가)에 제11중대(장, 林甲錫 대위)를, 左 側 1 線 인 △346(나)에 제9중대(장, 韓炳燮 대위)를 각각 배 치 하 였 다.

그런데 이 豫備陣地의 急編은 17.40무렵에 끝났는데, 그 뒤 20분 이 지 난 18.00에 제9중 대 의 正 面 에 敵 2 개 소 대 규 모 가 나 타 나 고, 19.50무렵에는 제10중대 의 正 面 으 로 1 개 중 대 규 모 가 接 近 하 기 시 작 하 였 다.

그들의 先進部隊로 看 做 되 는 兵 力 은 砲 火 의 支 援 도 받 지 않 았 으 므 로, 제9 및 제10兩 중 대 는 가 볍 게 擊 退 하 기 하 였 으 나, 이 報 告 에 接 한 연 대 장 趙 淵 表 대 령 은 敵 의 主 攻 主 力 이

예상보다도 빠른 速度로 進出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대의 主力을 三巨里-△346(가)間에 置重하라고 命令하였다.

이때, 사단의 支援火力도 이 정면의 接近路上에 집중되고 있었는데, 대대장 李應龍 소령은 연대 命을 수렴함과 동시에, 제9중대를 △346(가)로 急進케 하여 突出稜線의 東南側方을 強化하였다. 이 防禦縱深의 置重은 適切한 판단에 의한 긴급조치로 보였다.

왜냐하면, 子正무렵에 2개 중대규모를 앞세운 敵의 主力이 △433의 東쪽 稜線을 넘어 進出하고 있음이 照明下에 관측되었기 때문이다.

다) 제1대대의 예비진지 占領 : 제28연대에 배속되어 △317(俗線 논고개)에서 別命을 기다리고 있던 제1대대(장, 金永先 중령) 및 연대수색중대(장, 金榮國 대위)는 이날 原復과 더불어, 16.00에 행동을 개시하여, △300(△346(가)의 北쪽 200m) --△346(나)間에 예비진지를 確保하였다.

즉, 수색중대가 △317의 평퍼짐한 山嶺일대를 제1대대가 그 西쪽의 細徑을 포함한 △346(나)의 嶺上일대를 각각 점령하였는데, 同대대장 金永先 중령은 대대OP를 △300(△346(나)의 南쪽 500m)에 두고, 제1중대(장, 郭仁培 대위)를 右제1선에, 제2중대(장, 張貞培 대위)를 中央제1선에, 제3중대(장, 文昌鐸 대위)를 左제1선에 각각 배치하였다. 그리고, 火器중대(장, 河吉龍 대위)의 2개 迫擊砲소대를 △300의 南斜面에 두어, 제2중대 정면의 小徑을 비롯한 예상접근로를 차단케 하고, 제1및 제3 兩중대에 1개 機關銃소대씩을 배속케 하였다.

이러한 配陣이 끝난 時刻은 18.30무렵인데, 그 30분뒤에는 1개 중대(一)규모가 수색중대 정면을 攻擊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보다 1시간을 앞선 時刻에 2개 소대규모의 兵力이 △346(나)를 攻擊하다가 제9중대의 一擊으로 退散하고, 19.50무렵에는 1개 중대규모가 제10중대의 急編陣地를 攻擊하는등, 그들의 攻擊이 不斷함에 비추어, 수도사단의 방어정면이 全面的으로 무너지고 있음이 明白한 사실로 看做되었다.

4. 사단장의 조치(其二)

사실 美 제9군단장 Reuben E. Jenkins 중장은 수도사단의 戰況이 時時刻刻으로 急迫化하고 있음을 是認하고, 敵의 攻勢를 제43번 道路에 沿하는 橫隔線에서 阻止키로 결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수도사단의 左一線의 일부를 제9사단에 부여하여 中共 제68군의 右翼에 대한 逆襲과 迎擊을 併行하는 새로운 防禦線을 三巨里-甘鳳里間에 設定키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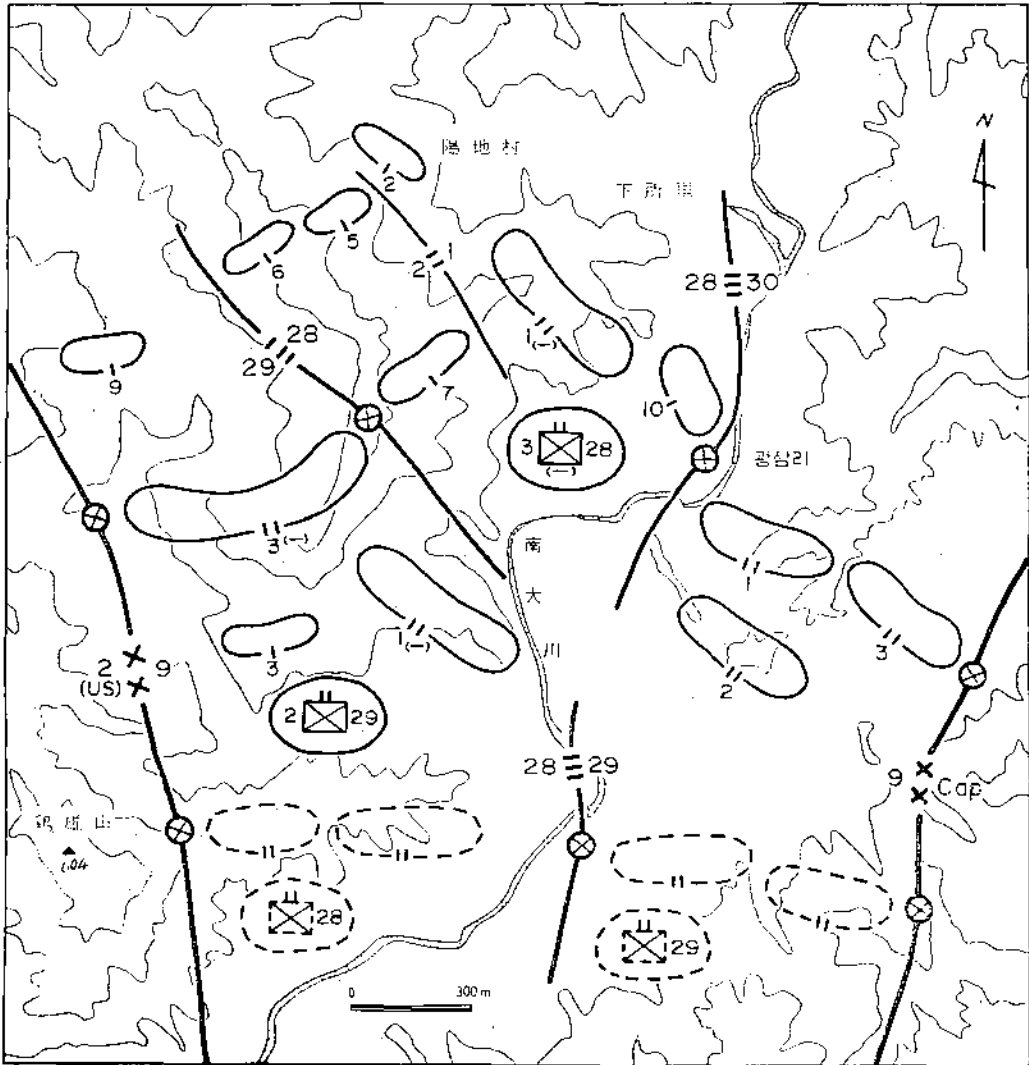
이날 19.00현재, 수도사단의 戰況을 一瞥컨대, 그 主力은 北亭嶺-芳洞-新木洞間의 제43번 道路에 沿하는 橫隔線까지 踰수하여, 美 제3사단의 增援下에 反擊을 준비중이며, 左인접인 美 제2사단(장, W. L. Barriger 소장)은 主抵抗線을 계속 확보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단의 제28 및 제29 兩연대도 敵의 壓力을 排除하면서 主抵抗線을 계속 확보하

고 있는 중이었다.

이에 사단장 李翰林 소장은 군단의 作命으로 右一線의 戰鬥地境線을 변경하여, 戰鬥地域을 확대함에 따르는, 새로운 固守線을 마련키 위하여, 각 연대로 하여금, 逐次的으로 철수케 하는 사단 作命 제110호(7월 14일 20.00附)를 要旨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

◇ 상황도 제78호 사단 作命 제110호



『① 사단은 군단의 명령으로 戰鬥地境線의 일부를 변경함과 아울러, 現主抵抗線으로부터 隨意철수하여, 新防禦線을 逐次的으로 점령 확보하려 한다.

② 철수 및 진지점령의 時限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㉞ 철수개시……7월 14일 20.00

㉠ 진지점령완료……7월 15일 01.00

③ 제28연대

- ㉡ 1개 대대를 甘鳳里 W6高地에서 새로운 陣地를 占領케 하라.
- ㉢ 1개 대대를 望所里의 無名高地에서 새로운 陣地를 占領케 하라.
- ㉣ 1개 대대를 W6高地의 南側斜面에 연대예비로 集結케 하라.
- ㉤ 사단수색중대를 原復케 하라.

④ 제29연대

- ㉥ 예비의 2개 대대로써 △400(△538의 南쪽) 및 △420(下甘領의 南쪽)을 각각 占領하여, 前哨陣地 및 主抵抗線部隊의 隨意철수를 엄호케 하라.
- ㉦ 제28연대의 1개 대대가 望所里의 無名高地에 移動을 완료하면, △400에서 일부 兵力을 差出하여, 新村里의 △318을 占領케 하라.
- ㉧ 前哨陣地 및 主抵抗線의 각 부대를 △459에서 새로운 陣地를 占領케 하라.
- ㉨ 前哨陣地 및 主抵抗線의 각 부대가 移動을 완료하는 즉시로 △538의 殘餘兵力 및 下甘領의 1개 대대를 △457의 南側斜面으로 集結시켜, 예비로 控置케 하라.

⑤ 제30연대

- ㉩ 現防禦線에서 敵의 進出을 계속 阻止하라.
- ㉪ 別命이 有할 때에는 1개 대대씩 豐谷里로 逐次集結하여 사단예비가 되라.

⑥ 사단포병단은 別紙砲兵附錄에 따라 火力運用하라.

- ㉫ 사단을 一般支援중인 각 지원포병대대는 現任務를 계속 수행할 것임.
- ㉬ 제30포병대대를 陽地里로 이동시켜, 제29연대의 隨意철수를 직접 엄호케 하라.
- ㉭ 제51포병대대로써 現位置에서 제28연대의 隨意철수를 직접 엄호케 하라.
- ㉮ 제52포병대대로써 現位置에서 제30연대를 直接支援케 하라.
- ㉯ 제89포병대대로써 現位置에서 사단을 一般支援케 하되, 別命이 有할 때에는 火力의 優先權을 제28, 제29연대에 대한 엄호에 부여토록 준비하라.

⑦ 사단 重박격포중대는 望所里에 CP를 설치하여, 각 1개 소대로써 제28 및 제29 兩연대를 각각 直接支援하고, 1개 소대로써 사단을 一般支援하라.

⑧ 제53戰車중대는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라.

⑨ 사단수색중대는 望所里로 集結하여 사단의 정면에 대한 수색에 任하라.

⑩ 사단工兵대대는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라.

⑪ 협조지시

- ㉰ 前哨陣地의 收容을 優先措置하라.
- ㉱ 各部隊 이동間에는 隊伍掌握과 接敵境界를 유지하라.

- ㉔ 이동間의 通信을 유지하되, 無電사용을 禁한다.
- ㉕ 新防禦陣地를 占領하는 즉시로 陣地補強을 爲한 긴급작업을 실시하라.
- ㉖ 각 연대는 制限點에서의 협조를 유지하라.』

이 사단作命 제110호는 本戰鬪뿐만 아니라 韓國戰等에 있어서의 最終的인 사단作命이었는데, 參戰證言에 따르면 命令權者인 사단장을 비롯하여, 命令受領者인 각 연대장이하 중대장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지휘관들은 斷腸의 遺恨을 남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右인접인 수도사단의 全面전수에 따라 사단의 右翼이 露出되고 있는 이 긴급상황下에서 新防禦線을 急編기 위하여 철수作戰을 실시함은 不可避한 일이며, 狙擊稜線과 三角高地群의 險陣을 微動도 없이 지켜왔던 지난 날의 惡戰苦鬪를 돌이켜 보면, 아무리 命令에 의한 隨意철수일지라도 붉은 寇賊에게 피 한 방울의 代價도 없이, 그저 내어주게 되는 것이 痛憤스러웠던 것이다.

却說하고, 사단장 李翰林 소장은 이 作命 제110호를 하달함에 앞서, 作命 제109호(10.00附)로 제30연대의 1개대대로 하여금, △404를 목표로 감행케한 逆襲이 敵의 急速한 進出로 변경되자, 이에 對應하는 조치의 하나로써 戰車의 火力을 再調整하는 사단作指 제181호(7월 14일 14.00附)를 要旨 다음과 같이 下達하였다.

- 『① 사단은 각 연대를 支援중인 각 戰車소대의 일부배속을 변경하여, 主抵抗線에 대한 支援火力을 增強하려 한다.
- ② 제28연대는 배속중인 戰車 2개 소대중 1개 소대를 7월 14일附로 原復케 하고, 同日 17.00附로 戰車 1개 소대를 제30연대로부터 인수하라.
- ③ 제29연대는 7월 14일附로 戰車 1개 소대를 제30연대로부터 인수하는 同時, 제28연대를 지원중인 戰車 2대를 原復케 하라.
- ④ 제30연대는 7월 14일 17.00附로 제28 및 제29 兩연대에 戰車 각 1개 소대를 인계하고, 同日 11.30附로 美 제64戰車대대 C 중대를 통합지휘하라.
- ⑤ 제53戰車중대는 同日 10.00附로 제28연대로부터 戰車 1개소대를 인수하여 통합지휘하라.』

이와 같이, 제30연대에 배속시켰던 戰車 2개소대를 現主抵抗線연대인 제28 및 제29 兩연대에 배속변경케 한 조치는 앞으로 不可避하게 될 撤收作戰의 幟호를 考慮하여 취해진 것이었다.

5. 제29연대의 상황

이와 같이, 사단의 右翼전면에 걸친 新防禦線의 確保가 時急하게 됨에 따라, 연대는 사단作命 제109호로 제2대대(장, 金麗林 중령)와 제1대대(장, 李大哲 중령)로써 葛谷里에 사단예비로 集결케 하였다.

이로써 제3대대(장, 朴元寬 중령)는 △538—下甘嶺의 主抵抗線과 △V 및 △W의 前哨陣



〈五聖山の 遠景과 폐허가 되어버린 金化의 一部〉

地를 담당하고, 철수기간중의 防守를 굳게 하였는데, 敵의 攻撃은 비록 큰 兵力이 아닐지라도 間歇的으로 집요하였다.

這間의 전투상황을 要約하면, 전날의 22.30무렵에 ΔV 를 攻擊하는 1개 中대(+)규모를 鎧袖一觸으로 물리쳤으며, 이날 00.40와 01.30의 두 차례에 걸쳐 각 2개 소대규모를, 03.30무렵에는 1개소대를, 제2대대가 사단에비로 이전한 後인 11.00에는 火力支援下에 攻擊하는 1개 中대규모를 그 때마다 모조리 擊退하였다.

가) 제9중대장의 戰死 : 그런데, 제3대대장 朴元寬 中령은 이 날 06.30에 제9중대의 임무를 제10중대로 하여금 인수케 하기로 하였는데, ΔV 에서 이 任務交代가 進行되고 있는 동안에, 敵의 砲火가 갑자기 집중되더니, 中대 指揮所에 敵의 迫擊砲彈 3발이 集中炸裂하여 매마침 地形과 敵情을 설명하던 제9중대장 徐慶善대위가 散華하고, 제10중대장 朴志烈 대위가 左肩에 破片傷을 입었다.

이 急報에 接한 大대장 朴元寬中령은 中대장 2명을 一時에 損失한 사실도 큰 일이지만, 陣地交代중에 敵의 攻撃을 받게 되었음을 重視하여 大대 作戰將校 黃麟圭대위를 대동하고, 急히 달려갔다. 이 때, V 高地의 東麓을 감도는 山길에는 2대의 鐵車가 進出하여 있었는데, 大대장은 그중의 1대를 붙여, $\Delta V - \Delta W$ 間의 山길로 前進하면서, 陣地를 인계한 後에 철수중인 제9중대를 엄호케 하고, 黃麟圭대위로 하여금 제10중대를 지휘케 하였다.

나) 각급지휘관들의 痛憤: 이 遊擊一戰을 고비로 이 날 하루 종일, 연대정면에는 輕微한 接敵이 있을 뿐이었는데, 日沒後에 연대장을 비롯한 연대의 각급 지휘관들은 斷腸의 痛憤을 느끼게 되었다.

왜냐 하면, 사단作命 제110호로 主陣地와 前哨陣地를 버리고, 新防禦線까지 철수해야만 하기 때문이었다.

這間의 사정은 文獻上에 전혀 記錄되어 있지 않으나, 參戰證言에 따르면, 특히 主抵抗線과 前哨陣地에 배치된 중대의 경우는 중대장뿐만 아니라, 소중대원들 까지도 高地에서 내려오기를 한결같이 반대하였던 것이니 剿敵의 氣概가 이를 容納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參戰者의 證言 및 研究關 參照).

다) 각대대의 新防禦線 점령: 그러나, 연대장 文重燮 대령은 이 隨意철수의 時急性을 각 대대장에게 力說하고, 作命遂行의 時限을 엄수케 하여, 新防禦線을 점령토록 慫慂하였다.

즉, 제1차로 제1 및 제2 兩 대대로써 $\triangle 400$ ($\triangle 538$ 의 南쪽 600m) - $\triangle 420$ (下甘嶺의 南쪽 500m)를 확보하여, 제3대대의 主抵抗線철수를 엄호케 하였다.

이로써, 제3대대는 이날 20.00에 철수하기 시작하여, 子正무렵까지 新防禦陣地를 점령하였는데, 그 상황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제11중대(장, 李龍祚 대위)……前哨陣地($\triangle V$ 의 東쪽)에 내세웠던 제3소대(장, 張鎭東 소위)를 중대主力과 습勢시킨 다음, 중대는 21.00에 主抵抗線($\triangle 538$ 의 東南쪽 500m間의 稜線)에서 $\triangle 318$ (新村里의 突出高地)로 철수하여, 제1소대(장, 李相均 소위) 및 제2소대(장, 金毅鉉 소위)로써 主陣地를 急編케 하였다.

㉡ 제10중대(장, 黃麟圭 대위)…… $\triangle V$ 의 前哨陣地에서 $\triangle 459$ (光三里)의 北斜面으로 철수하여, 제2소대(장, 金英徹 소위) 및 제3소대(장, 李世淵 소위)로써 主陣地를 急編케 하고 제1소대(장, 尹珏燮 소위)를 예비로 控置하였다.

㉢ 제9중대(장, 李龍祚 대위)……제11 및 제10중대가 철수한 다음에 예비집결지를 출발하여, $\triangle 397$ ($\triangle 459$ 의 西쪽)로 집결함과 동시에, 제2소대(장, 李光質 소위) 및 제3소대(장, 朱慶魯 소위)로써 主陣地를 急編케 하였다.

㉣ 수색중대(장, 李敏瑋 대위)……사단作命 제109호로 $\triangle 500$ ($\triangle 459$ 의 東쪽)에 집결하였던 중대는, 다시 $\triangle 355$ (陽地里) 이동하여, 新防禦線의 전면에 걸친 수색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제3대대가 主抵抗線에서 철수하는 동안, $\triangle 400$ 에서 엄호임무를 맡고 있던 제1대대(장, 李大哲 중령)는 대대主力을 $\triangle 457$ ($\triangle 459$ 의 東쪽)에 집결시켰는데, 제3중대(장, 李在文 대위)를 $\triangle 442$ - $\triangle 457$ 의 右제1선에, 제2중대(장, 崔鉉階 대위)를 $\triangle 457$ 西쪽의 左제1선에 각각 배치케 하고, 제1중대(장, 金錫昞 대위)를 陽地里에 대대예비로 控置하였다.

그리고, 제2대대(장, 金麗林 중령)도 鳳尾里에서 陽地里로 철수하여, $\triangle 355$ 에 사단에비

를 집결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新防禦線을 急編하여야 하는 15일 01.00까지의 時限內에 배치를 完了하였는데, 千佛山(△585)의 北斜面일대를 占有하는 이 新防禦線이 곧 美 제9군단이 계획한 Wyoming線의 일부였다.

6. 제28연대의 상황(其二)

제28연대의 각 중대도 또한, 굳게 지키고 있는 主陣地를 놓아 두고, 敵에게 등을 돌려야 하는 痛憤을 삼키면서, 이날 20.00부터 철수하기 시작하였는데, 연대의 철수는 제29연대보다도 더 刻迫한 상황속에서 진행되었다.

왜냐 하면, △400에 時時刻刻으로 加重되는 敵의 壓力을 排除하면서 掩護의 철저를 期하여야 하기 때문이었다. 연대장 尹泰皓 대령은 그 하나의 조치로써 下所里—陽地里일대의 撤收路에 대한 照明支援을 계속 요청하고, 사단作指 제181호(7월 14일 14.00附)로 增援받은 戰車火力으로써 敵의 迫躡을 下所里의 開豁地에서 抑制키로 하였다.

가) 제3대대의 撤收: 철수명령을 수령한 제3대대장 鄭春泰 중령은 제10중대(장, 李永朝 대위)의 掩護下에 제11중대(장, 金時中 대위)를 下所里의 △320까지 우선 철수케 하고, 前進陣地인 C高地의 주색중대(장, 金東元 대위)를 제9중대(장, 申鉉慶 대위)의 엄호로 철수케 하는 作戰概念으로 각 중대의 철수를 명령하였다.

한편, 제53戰車중대의 제4소대는 제28연대로 배속이 변경된과 동시에 下所里까지의 機動路를 急驅北上하여, △400의 南斜面을 向하여 掩護의 砲門을 열었으며, 이미 △420稜線(下所里의 南쪽)에 配陣되어 있는 제3소대도 照明이 밝은 陽地里일대를 目標로 砲擊하였다.

그런데, 사단의 戰況詳報에 記錄된 바로는 13일~14일에 소모한 彈量은 712發이며, 戰鬪가 高潮되는 15일에는 2,700發이 소모되었다고 한다. 이 統計는 제53戰車중대의 總합 消耗量이긴 하지만, 數量으로 보아, 熾烈한 射擊을 연상케 하는 이러한 戰車火力의 엄호下에 대대의 각 중대는 철수와 엄호를 相互連繫하면서 新防禦線으로 進入하였는데, 15일 01.00에 제9, 제10, 제11 각 중대는 甘鳳里의 W6高地를 중심으로 豫備陣地를 急編하였으며, 주색중대는 鷄雄山(△604)의 南斜面으로 집결하였다.

이 철수과정에 있어서 제11중대는 敵의 執拗한 迫躡을 뿌리쳐야 하는 苦戰을 겪었는데, 제2소대장 朴憲圭 소위와 제3소대장 安泰鎬 소위가 戰傷을 입었으며, 중대의 後尾인 제1소대(장, 金壽完 소위)의 철수까지를 확인하던 중대장 金時中 대위가 連絡兵 1명과 함께 行方不明이 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戰傷입은 두 소대장을 다음 날인 15일에 後送케 하고, 그 後任으로는 제3소대장에 李相徹 소위를 제2소대장에 陳景俊 소위를, 그리고 失蹤한 중대장의 後任으로는 安學烈 대위를 21일附로 각각 任命하였는데, 金時中 대위는 下所里의 小丘稜에서 敵 1개

분대에 포위되어 格鬪끝에 右側大腿部의 刺傷으로 俘虜되었음이 休戰後의 捕虜交換에서 밝혀졌다.

나) 제1 및 제2 兩대대의 撤收 : 제2대대의 前哨陣地인 B高地와 A高地에서 指呼之間에 敵과 맞서, 洞窟陣地의 千辛萬苦를 겪어온 제7중대(장, 裴相泰 대위)와 제5중대(장, 李永煥 대위)는 철수명령을 순순히 받아 들이지 않았다. 抗命은 아니로되, 일단 철수하여 또다시 高地를 점령해야 한다면, 수많은 兵力을 損失해야 할 것인즉, 연대가 이 정면에서 완전히 벗어날때까지 高地를 지키고 있겠다는 것이 그의 主張의 根據이며, 또 하나는 『지난 수개월 동안, 끔찍없이 지켜온 이 險塞을 허망하게 넘겨줄 수 없다.』는 不退轉의 決意가 이를 뒷받침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대장 崔昌龍 중령은 右인접 수도사단의 全面撤收에 따르는 新防禦線의 急編이 焦眉의 喫緊之事項을 有線으로 실득하되 『賢중대의 그 冲天하는 戰意를 新防禦線에서 유감없이 폭발시켜 주기를 당부한다.』고 하면서 痛憤을 共感해 마지않았다.

이와 같은 曲折을 남기고 제7중대, 제5중대의 順으로 兩 前哨陣地를 포기한 대대는 제6중대(장, 金雲翬 대위)의 掩護下에 主抵抗線의 사단수색중대(장, 裴國鍾 대위)를 철수와 동시에 原復케 하고, 대대主力을 壘所里의 無名高地로 집결케 하였다.

한편, 下所里에 主力을 집결시킨 제1대대(장, 朴榮徵 중령)는 제3대대의 철수를 확인한 다음 각 중대별로 徒步로 移動하여 甘鳳里의 W6高地 南斜面으로 집결하였다.

이로써 제28연대는 이날의 子正을 前後하여 橫隔溪谷을 사이에 놓고, 狙擊稜線의 출기를 制扼하는 鷄雄山의 東쪽 稜線을 占領하기에 이르렀으며, 장차 제30연대가 △346(가) - △346(나)의 突出稜線이 危殆로울 경우에, △457稜線에서 新防禦線을 急編한 제29연대와 相互連繫하는 一戰을 不辭하게 될 것이었다.

7월 15일 : 이날 01.00를 時限으로 하여, 제28 및 제29의 兩연대를 △457 - W6高地間의 新防禦線에 배치한 사단은 이제, 제30연대의 現主抵抗線을 제1선으로 함으로써 中共 제24군의 主攻을 擊攘케 되었는데, 休戰直前의 最後의 激戰이었던 15일 ~ 16일 兩日間에 걸친 사단의 戰況은 逆襲에 이은 逆襲으로 始終하였다.

1. 제30연대의 상황

연대는 전날의 子正무렵부터 增強된 敵의 大兵力을 迎擊하게 되었다. 즉, 1개 연대규모의 敵 後續部隊가 △404의 南斜面을 一時에 넘어오는 것을 照明下에 확인하자, 즉각 支援火力의 集中을 요청하였는데, 그들의 各種砲火도 연대의 主抵抗線 일대에 집중하였다.

이로써 突出稜線은 잠시동안, 彼我的 砲彈이 炸裂하는 가운데, 攻守血戰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되었다.

이 때, 연대는 右一線에 제3대대(장, 李應龍 소령)를 左一線에 제1대대(장, 金永先 중령)를 각각 내세우고, 제2대대(장, 黃碩奎 중령)를 연대에비로 控置하고 있었는데, 그 主抵抗

線은 △433에서 1.3km를 물러선, △346(가)－△346(나)線이며, 그 前方 500m의 稜線腰部에 前哨陣地를 推進시키고 있었다.

가) 연대장의 措置 : 연대의 主抵抗線을 이와 같이 後退시킴에 앞서, 연대장 趙淵表 대령은 사단장의 決心을 얻어 제2대대의 隨意撤收를 명령한 바 있는데, 이는 제2대대의 兵力을 溫存키 위한 適時의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즉, 전날에 △404를 逆襲하려던 것에 敵의 進出이 예상보다 빨랐기 때문에, △433에서 拒守하게 되었던 제2대대가 陣地工事を 채 마치기도 前에 敵의 攻擧를 받아, 兵力損失이 累增될 우려가 앞섰으므로 隨意撤收케 하여, 장차의 逆襲兵力으로서 집결시킨 것이었다.

그런데, 연대로서는 △346(가)－△346(나)의 現主抵抗線을 固守하여, 三巨里－光三里間의 稜線의 腰部를 회복키 위하여서는 △433을 확보함이 先決要諦이기 때문에, 이날 11.00를 期하여 2개 대대로써 逆襲키로 하여 이 뜻을 사단에 建議하였다.

이 建議에 接한 사단장 李翰林 소장은 自身이 판단한 敵情에 비추어, 이러한 時機에 2개 대대를 逆襲에 投入함은 그 成功을 아직 確信할 수 없으므로 別命할 때까지 保留하되 逆襲 준비를 갖추어 待機하라고 口頭로 命令하였다.

事實上, 이 때의 敵情은 多分히 流動的이었다.

첫째로는 敵의 進出이 緩急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突出稜線에 대한 攻擧兵力을 계속 增強할 것인지의 與否가 模糊하였다.

둘째로는 이 正面에 있어서의 攻擧를 防禦로 전환시켜, 사단의 側方逆襲을 견제함으로써, 수도사단의 正面에 대한 主攻을 掩護케 하려는 것인지도 모르는 兆朕이 엿보이기도 하였다.

이 두 가지의 假定을 놓고, 사단의 對應策을 講究함에 있어, 前者의 경우는 △346(가) △346(나)의 前進防禦線을 固守하는 것이 急先務이며, 後者の 경우는 敵이 △433線에 陣地를 強化하기 前에 逆襲을 敢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사단장 李翰林 소장은 兩者擇一보다도 攻守의 兩面作戰을 併行키로 決心하고 이날 17.00附로 要旨 다음과 같이 사단作指 제182호를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新防禦線(Wyoming Line)을 早速히 補強하여 次期作戰에 대비하려 한다.

② 제28, 제29 兩연대는 특히 陣地의 補強에 注力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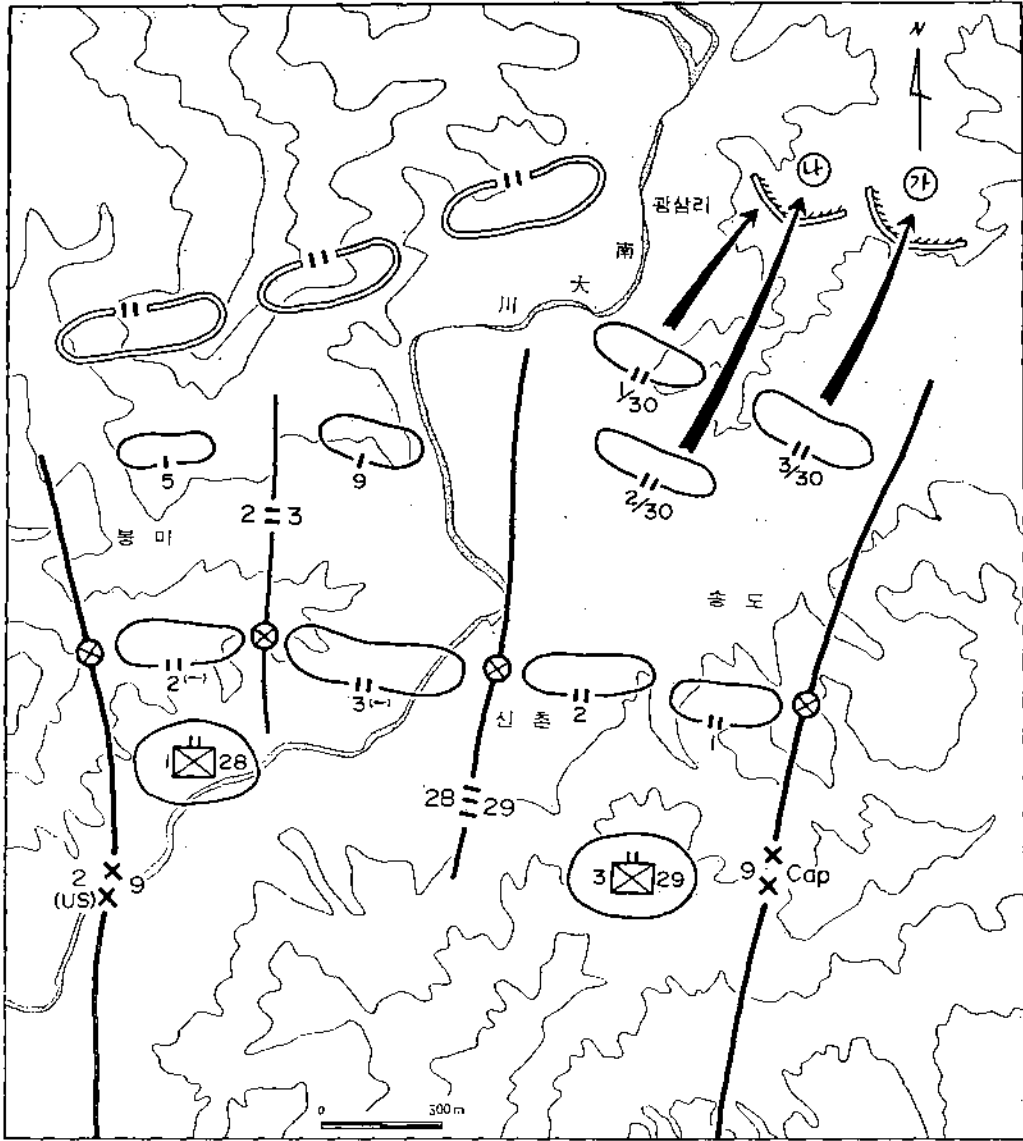
③ 제30연대는 現主陣地를 계속 防禦하되 直接所要되는 兵力을 少數精銳化하라.』

나) 연대主力의 逆襲 : 이처럼 사단作指 제182호로써 제30연대로 하여금 逆襲에 대비케한 사단장 李翰林 소장은 이날 薄暮를 이용하여 2개 대대를 동시에 投入키로 결심하고,

『제30연대는 2개 대대로써 △433을 奪取하라.』는 口頭命令을 下達하였다.

이에 연대장 趙淵表 대령은 제2대대를 主攻으로, 제3대대를 助攻으로 하여 목표를 부여하는 연대作命을 要旨 다음과 같이 下達하였다.

◇ 상황도 제79호 제30연대의 逆襲



- ① 『제1대대는 現主陣地를 계속 방어하라.
- ② 제2대대는 △393-△433을 奪取하라.
- ③ 제3대대는 △433의 東쪽의 2개 連峰을 奪取하라.』

그리고 攻擊開始時間을 20.20으로 定하였는데, 日曆에 依하면 이날의 日沒時間은 19.53 이므로 兩 대대가 행동하기 시작한 무렵에는 戰場일대에 짙은 땅거미가 이미 저가고 있었다.

연대의 主攻이 된 제2대대는 攻擊제1선에 2개 중대를, 대대예비에 1개 중대를 각각 部署하고, OP를 △346(나)의 北쪽 100m의 松林속으로 推進하였다.

즉, 제5중대(장, 金聖淳 대위)를 右제1선으로 하여 목표인 △433을, 제7중대(장, 郭孝斌 대위)를 左제1선으로 하여 △393을 각각 占領케 하고, 제6중대(장, 柳啓榮 대위)를 제5중대에 後續케 하였으며, 重火器중대(장, 河榮德 대위)의 迫擊砲소대를 △346(나)의 東斜面의 谷間에 위치시켜 제5중대의 攻擊正面에 火力을 優先토록 하였다. 그리고, 제5 및 제7중대에 1개 機關銃소대를 각각 배속케 함으로써 22.20에 LD를 통과하였다.

한편, 助攻을 맡은 제3대대는 主攻목표인 △433의 東쪽 稜線에서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는 側射火力을 견제하면서 2개의 連峰을 奪取하게 되었는데, 대대장 李應龍 소령은 右제1선에 제11중대(장, 林甲錫 대위)를 左제1선에 제9중대(장, 韓炳燮 대위)를 각각 내세우고, 제10중대(장, 崔錫宗 대위)를 대대예비로 제11중대에 後續케 하였다.

그리고, 重火器중대(장, 李鍾鎬 대위)의 迫擊砲소대(장, 李鍾德 소위)를 △346(가)의 西斜面을 占據케 하고, 제1선 중대에 각 1개 機關銃소대를 배속토록 하였다.

이와같이 逆襲隊形을 갖춘 연대主力 2개 대대의 作戰成敗는 장차 사단의 新防禦線에 대한 敵의 壓力을 排除함에 重大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사단장 李翰林 소장은 美 제9군단의 支援火力의 協調를 요청하고, 사단의 可用全火力을 이 正面에 集中케 하였다.

(7) 제11중대의 戰況 : 右제1선인 제11중대의 主力은 稜線의 東麓으로 進出한 다음 목표인 無名高地의 南斜面에서 일제히 散開하였다.

이 無名高地(△420)는 助攻目標이기는 하지만, 제2대대의 主攻目標인 △433의 東쪽의 2개 連峰중의 東端에 위치하여 北으로는 蘆洞(△404로 이르는 接近路), 東으로는 芳洞과 三巨里의 開豁地를 瞰制하기 때문에, 중대가 LD를 통과할 때에는, 이미 敵의 完강한 前進陣地가 急編되어 있었다.

중대장 林甲錫 대위는 敵의 小火器射擊이 熾烈함에 비추어, 7부稜線부터는 1개 소대씩을 교대로 突進케 하였다.

이는 前進路가 가파르기 때문에 중대의 主力을 한꺼번에 突進케 하면, 兵力損失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는데, 각소대는 엄호와 突進을 반복하면서 10~20m씩 前進하였다.

그 중에서도 중대의 右제1선인 제2소대장 裒鳳雲 소위는 手榴彈의 投擲距離까지 接近하자 일거에 血路의 一角을 打開키로 決心하고, LD를 통과하기 前에 이미 陣성해 두었던 2개의 特攻組를 投入키로 하였다.

그 1개 組는 李鎮永, 趙智鎬의 두 일병이었는데, 이들은 新兵이면서도 豪膽敏捷하게 肉迫하여, 敵散兵壕의 左端을 直衝함으로써 소대의 突貫을 용이케 하였다.

이와같이하여 敵陣突入에 성공한 제2소대장은 信號彈 2발을 夜空에 쏘아 올리고, 陣內

의 白兵格鬪를 확대해 나갔다.

이에 중대장은 중대主力을 일제히 突進케 하여 목표를 점령하고, 攻擊間중대를 後續엄호하던 제10중대와 合同하는 즉시로, 제9중대의 攻擊을 엄호하기 시작하였다.

(L) 제9중대의 戰況 : 제11중대가 목표를 점령한 時刻은, 제2소대의 信號彈이 23.20에 올랐던 것에 비추어, 이날 子正에 가까운 무렵으로 보게 되는데, 이 때에 제9중대는 敵의 迫擊砲의 彈幕으로 말미암아, 8부稜線을 초월치 못하고 있었다.

중대장 崔錫崇 대위는 그 落彈景況으로 미루어보아 敵의 迫擊砲陣地가 △433의 背斜面에 있을 것으로 推斷하고, 이에대한 制壓射擊을 요청하였는데도, 중대의 攻擊正面에는 敵의 61mm 砲彈이 여전히 集中炸裂하고, 小火器의 火網이 稠密하였다.

그러나, 제11중대가 목표를 奪取하면서부터는 그들의 集中火力이 徐徐히 弱화됨에 따라 중대는 釘着되었던 攻擊 제1선을 發起시켰는데, 主力의 先進을 맡은 제3소대장 尹完善 소위는 소대의 嚮導인 金奎煥 이등중사와 더불어 陣頭에서 突進하였다.

이로써 제3대대는 助攻목표인 2개 連峰을 奪取하여, 敵의 逆襲에 對備하였는데, 그 時刻은 15일의 01.20무렵이었다.

(C) 제5중대의 戰況 : 主攻목표인 △433을 향하여 LD를 통과한 중대는 露出된 稜線을 피하여, 제9중대의 前進路에 隣接된 南斜面으로 展開하였는데, 역시 61mm 迫擊砲의 집중사격을 입어, 초반부터 苦戰을 겪게 되었다.

중대장 金聖淳 대위는 목표를 점령하기에 앞서, 그 南쪽 150m에 聳立한 無名峰(△440)을 먼저 奪取키로 결심하고, 여기를 제2소대(장, 金容吉 소위)의 목표로 부여하였는데, 이 攻擊正面에는 小火器의 火力으로 미루어 1개 중대규모의 敵이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推斷되었다.

때문에, 중대의 攻擊제1선인 제2, 제3의 兩소대는 手榴彈의 投擲距離에 도달하기 前에, 머리위로 수없이 굴러 떨어지는 棒狀手榴彈의 爆焰을 헤쳐야만 하였다.

이 斜面은 小徑을 끼고 있는 谷間에 面하고 있으므로, 閫中에 炸裂하는 迫擊砲彈과 手榴彈의 轟音이 萬籟와 같이 매아리치는 가운데, 중대장 金聖淳 대위는 중대主力의 釘着상태를 打開키 위하여, 제2소대에 後續중인 제1소대로 하여금, 稜線으로 躍出케 하였다.

이는 兵力의 損失을 무릅쓰고서라도 목표의 右側面을 一舉에 急衝함으로써 敵의 火線을 분산케 하려는 臨機의 一策이었는데, 敵의 意表를 찌른 셈인지, 제1소대는 소대장 金鍾植 소위의 陣頭指揮下에 一陣의 突風과도 같이 휩쓸어 無名峰을 奪取하기까지, 戰死 3명과 負傷 5명의 損失만을 보았다.

이로써 중대主力은 苦戰중이던 목표의 南斜面을 일제히 박차고, 9부稜線을 超越하고 突貫하니, 그 時刻은 제3대대 主力이 助攻목표를 점령한지 20분이 지난 무렵이었다.

(G) 제6중대의 戰況 : 夜間의 掩護任務가 어려움을 諒察한 중대장 柳啓榮 대위는 제5중대

와의 連繫를 不斷키 위하여, 2人組의 連絡班을 각 소대別로 2개 班씩 保有토록 하는 한편, 崔七鎭 소위의 제3소대로 하여금, △433에 이르는 稜線으로 徐徐히 前進케 하였다.

이는 제5중대 主攻정면의 敵의 火力을 誘引하여 牽制하려는 것인데 소대는 曳光彈으로 夜空을 繙弄으면서 敵의 2개 埋伏陣地를 유린하고, 제5중대의 左側背를 幷護하였다.

그리고, 敵의 彈幕으로 因하여 제5중대가 釘着되자 중대장 柳啓榮 대위는 제2소대(장, 崔永順 소위)를 제3소대로 增援케 하여, 稜線으로의 側攻을 強化하였는데, 제5중대의 제1소대가 稜線으로 躍出함과 때를 같이하여, 一氣呵成의 突貫으로 無名峰의 敵陣에 殺到하였다.

(口) 제7중대의 戰況 : 중대는 △393을 奪取한 다음에 △433에서 제5 및 제6중대와 合勢하게 되었는데, 敵의 前哨陣地인 △393에는 1개 중대 규모가 火點을 急編하고 있었다.

또한, 光三里(△393의 西南쪽)에 布陣한 1개 美 進차소대(사단作指 제181호로 제30연대에 배속된 美 제64전차대대의 C 중대 소속)의 직접幷護를 받는 靚點이 따르기 때문에, 중대는 LD를 통과한 다음, 50분도 안되는 동안에 同高地를 奪取하였다.

그러나, 중대가 隊伍를 수습할 사이도 없이 敵의 重火力이 集中하기 시작하여 10분간이나 계속되는 동안, 적지않은 兵力을 損失하였는데, 중대장 郭孝斌 대위도 破片傷을 입어, 중대지휘를 제1소대장 金昌洙 소위가 臨時代行하게 되었다.

이로써 제30연대는 이날 24.00현재, 主攻 및 助攻 목표를 확보하였는데, 戰鬥詳報에 기록된 바로는 이 逆襲一戰의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 戰果……射殺 203명(확인 103명)

◇ 損失……戰死 6명, 戰傷 27,

2. 제29 및 제28 兩연대의 상황

이날, 제29 및 제28 兩연대는 接敵없는 가운데, 新防禦線(Wyoming 線)을 補強하면서 일부 부대의 陣地移動을 실시하였다.

이로 미루어, 사단의 방어정면은 敵의 主攻에서 벗어나, 그 助攻의 일부를 遊擊하게 되었음이 분명하였다.

즉, 제2군단과 수도사단의 主抵抗線을 全面突破한 中共 3개 군(제60, 제67, 제68군)은 그 主攻을 金城川 南쪽의 白岩山—赤根山線으로 指向하고 제24군의 左翼일부로서 金化進出을 노리고 있음이 뚜렷한 運轉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사단장 李翰林 소장은 狙擊稜線을 經유하는 敵의 大攻勢가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제30연대의 現防禦線을 사단의 前哨防禦線으로 堅守하는 한편, 제29 및 제28연대가 急編중인 新防禦線을 主抵抗線으로 하여 金化防禦를 關鍵키로 決心하였다.

가) 제29연대의 兵力動員 : 千佛山에 OP를 설치한 연대장 文重燮 대령은 右一線인 제1대대의 主陣地를 增強키 위하여, △355(陽地里)에 대대예비로 控置중인 제1중대를 제1선에 내

세우게 하고, 연대에비인 제2대대의 1개 중대로써 △580(△442의 南쪽 1km)에 陣地를 急編케 하였다. 이는 수도사단의 左翼인 芳洞 및 新木洞으로 부터의 敵의 침투를 포착하기 위한 조치인데, △580는 東北쪽으로 폭넓은 溪谷線을 瞰制하는 要關이었다.

한편, 近南面에 接결하여, 千佛山의 北麓일대에 結陣 수색임무를 수행중이던 연대수색 중대는 이날 19.00에 光三리로 이동하여, 연대 主抵抗線의 正面인 橫隔阻豁地를 수색경계 하게 되었다.

나) 제28연대의 兵力移動: 연대는 이날, 사단의 命令으로 新防禦線(一名, Wyoming線) 北쪽일대의 敵情을 強力히 탐색하는 한편, 狙擊稜線의 南緣일대에 前哨陣地를 점령하는, 일부병력의 이동을 실시하였다.

즉, 鷄雄山(△604)의 南斜面에 연대에비로 接결해 있는 제1대대로 하여금, 그 主力으로서 △538—下甘嶺의 敵情을 탐색케 하였다.

이에, 대대장 朴榮徵 중령은 OP를 甘鳳里의 W6高地로 추진하여, 제3, 제2 兩중대를 鳳尾里 北쪽으로 투입하였는데, 兩중대는 共히 15.40까지도 아무런 接敵없이 前主抵抗線(一名, Missouri線)까지 探索하여, △538 및 下甘嶺을 4시간동안 장악하였는데도, 敵의 攻擊 徵候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 探索報告에 接한 사단장 李翰林 소장은 狙擊稜線의 方向으로는 敵의 大攻勢가 없을 것이라고 豫見한 敵情判斷에 더욱 自信을 굳히면서, 22.00에 原位置로 복귀케 하라는 命令을 내렸다.

한편, 제2대대는 연대의 命令으로 제5중대(장, 李永煥 대위)를 鳳尾里東쪽의 突出稜線(△400)에 내세워, 葛谷里南쪽의 阻豁地를 瞰制하는 前哨陣地를 점령케 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는 新防禦線의 主陣地를 補強하면서, 제9중대(장, 申鉉慶 대위)로써 葛谷里까지 敵情을 探索케 하여, 연대 主抵抗線의 東側面에 대한 警戒을 강화하였는데, 중대는 3시간에 結陣 行動間에 있어서 전혀 接敵하지 않고 17.00에 原位置로 復歸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中共 제24군은 그 左翼의 제72사단으로써 제68군의 主攻을 支援하되, 제30연대의 정면인 △404—△433의 稜線에 助攻의 主軸을 치중하면서, 이 突出稜線의 南緣까지 進出할 企圖이 더욱 分明해졌다.

그러므로 사단장 李翰林 소장은 사단의 全支援火力을 이 방어정면으로 집중하기로 결심하여, 23.00에 사단포병단으로 하여금 火力計劃의 일부를 변경케하는 口頭命令을 하달하였다.

7월 16일: 지난 13일 이래, 全面撤收를 거듭한 수도사단은 이날 현재, 전투지역을 美 제3사단에 인계하고 齋宮洞에 接결하여 兵力을 수습하게 되었다. 이로써 사단의 右인접 新防禦線은 美 제3사단이 담당하게 된 芳洞—新木洞線이며, 제30연대가 지탱하고 있는 突出稜線은 美 제9군단 右翼의 全面崩壞를 끝까지 받쳐주는 支柱로서의 主眼성을 더욱 지니게 되

었다.

1. 사단장의 조치

이에 사단장 李翰林 소장은 突出稜線의 제30연대 방어정면에 사단의 방어主力을 집중키로 결심하고 一連의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 要旨을 抄錄하던 다음과 같다.

가) 作指 제183호(08.00附)……사단敎育隊로부터 원대복귀하는 105mm無反動銃의 신속한 배치를 각 연대에 지시하고, 工兵대대로 하여금 新木洞, 葛谷里, 鳳尾里등 3개처에 對戰車地雷를 埋設하고 橋梁을 파괴토록 하였다.

나) 作指 제184호(09.00附)……사단作戰例規 제1호(3.12附, 研究欄참조)에 의거하여 “非常”을 선포하고, 각 單位隊로 하여금 最少限의 基幹要員을 除外한 全兵力으로 非常出動部隊를 急編케 하였다.

다) 作指 제185호(10.00附)……90mm 對戰車砲소대로 하여금, 제30포병대대의 陣地를 경비케 하였다.

라) 作指 제186호(12.00附)……제53戰車중대(제3戰車대대 제1중대로 改編)로 하여금 院堂里(豐谷里的 南쪽)에 CP를 설치하고, 現任務를 계속케 하였다.

마) 作指 제187호(13.00附)……사단作戰例規 제2 및 제3호(3월 12일附)로 사단 CP를 前後方으로 구분운용하되, 17일 17.00까지 一般參謀, 通信, 憲兵, 輸送을 제외한 參謀部를 後方CP로 이동케 하였다.

바) 作指 제188호(15.00附)……이날 21.00까지 제30포병대대를 院堂里로, 제89포병대대를 臥水里附近에 각각 이동시켜, 現任務를 계속 수행케 하였다.

2. 제30연대의 상황

전날 24.00에 △433 및 △393를 奪取하고, 敵의 역습에 대비하였던 연대主力은 이날 03.30에 시작된 20분간의 집중포격으로 急編陣地에서 일단 철수하고, 再逆襲을 피하게 되었다.

연대장 趙淵表 대령은 제2 및 제3 兩대대장에게 敵彈으로 因한 兵力損失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한, 각 대대자체의 조치를 긴급지시하고, 蘆洞(△433의 正斜面)일대에 대한 照明 및 遮斷支援을 사단에 요청하였다.

이로써 右一線인 제3대대는 △433의 東쪽 2개 連峰의 背斜面에서, 左一線인 제2대대는 △433 및 △393의 背斜面에서 각각 主力을 수습하여 三巨里—光三里間의 稜線腰部까지 철수하였다.

(가) 연대搜索중대의 戰況 : 7월 14일에 사단 作命으로 제28연대 배속에서 해제되어 原隊 復歸와 동시에, 南大川을 끼고 葛谷里를 北쪽으로 瞰制하는 △317에 배치된 연대수백 중대는 제1, 제2 兩소대를 高地北麓의 灌地線에 추진하고 제3소대를 前斜面의 9부稜線에 배치하고 있었는데, 이날 17.00에 敵 1개 소대규모가 葛谷里의 開豁地에 나타나더니, 5분도 채



〈제1선 散兵壕의 勇士들〉

안되는 짧은 시간에 2개 중대규모로急増하였다.

제1 및 제2 兩소대가 배치된 濶地線의 바로 앞을 南流하는 南大川은 며칠 동안의 降雨로 增水하였으나, 徒涉이 可能한 水深이었다.

중대장 金鎭國 대위는 砲擊의 急襲을 요청하고, 중대의 火力으로는 敵이 徒涉하기 시작할 때에 一擊으로 撲滅키로 하였는데, 敵의 掩護射擊이 熾盛하므로, 제2소대 정면의 徒涉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이 急報에 接한 연대장 趙淵表 대령은 연대이비인 제1대대로 하여금 2개 중대로써 △317와 △346 (나)를 增援케 하고, 제3 및 제2

대대에 現主陣地를 어떠한 상황下에서도 기필코 堅守하라는 口頭命을 하달하였다.

왜냐 하면, 敵의 作戰企圖가 너무나 明白하였으니, 日沒까지에는 아직도 2시간 이상이나 남아있는 時刻에, 遮蔽物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南大川의 川邊開豁地에 2개 중대규모를 投入한 것은, 연대의 防禦線을 側方에서 擾亂함과 동시에 稜線腰部를 大兵力으로 밀어내려는 企圖로 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나) 敵 2개연대의 攻擊 : 연대장의 이와같은 敵情판단은 日沒을 前後한 時刻부터 如實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제3대대의 방어정면에 2개 대대, 제2대대의 방어정면인 △393背斜面에 1개 대대규모의 敵이 先進하고, △404 南쪽의 蘆洞一帶에 1개 연대규모로 추산되는 兵力이 南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관측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1개 대대규모의 敵의 縱隊가 下所里 南쪽에서 南大川을 徒涉하고 있는 중이며, 이를 遏阻할 意圖인지 川邊의 道路上에 戰車 4대가 출현하여, 제2대대 主陣地에 砲擊을 加하였다.

이와 같이, 2개 연대규모의 兵力이 제30연대의 主抵抗線 全面에 重壓을 加하기 시작하였다는 急報은 즉각, 사단과 美 제9군단에 접수되어, 군단의 支援火力까지도 동원된 遮斷射擊을 集中함과 동시에, 韓國空軍의 F51機 2개 편대와 美 제5空軍소속의 戰爆機 3개 편대가 긴급출동하여, 對地攻擊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敵의 砲擊도 이에 뒤질세라 연대의 主抵抗線일대에 각종포탄이 3시간동안이나 집중되었는데, 사단의 戰鬪詳報에는 이 때의 落彈數가 6,500發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단장 李翰林 소장은 即刻的인 兵力增援을 考慮하기도 하였으나, 右인접인 美 제3사단의 상황에 비추어 보매, 突出稜線을 이 이상 유지하려면 막심한 兵力損失을 前提로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美 제9군단장 Reuben E. Jenkins 중장에게 건의하여, 제30연대를 철수하기로 결심하였다.

즉, 이 무렵에 美 제3사단은 新防禦線(一名, Wyoming線)에 主力을 배치하여, 제43번 道路의 橫隔線에서 殲滅的인 迎擊을 期하고 있었으며, 中共 제68軍은 제43번 道路에 面한 稜線全面으로 進出하여 그 餘力을 突出稜線으로 注入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또한, 美 제9군단은 美 제8군의 基本概念에 의거하여, 新防禦線에서 敵을 最後的으로 阻止하리라는 防守計劃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장 李翰林 소장의 決心은 時機的으로 이에 합치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다) 연대의 撤收: 이와같은 상황 밑에서 연대는 20.20부터 隨意철수하기 시작하였는데, 19.00附로 下達된 사단作指 제189호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제30연대를 豐谷里附近으로 隨意철수시키려 한다.

② 제30연대는 敵을 極力 阻止하고, 最大限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1개 대대씩 철수하여 7월 16일까지 豐谷里에 集結한 然後에 사단예비가 되라.』

이에, 연대장 趙淵表 대령은 撤收時限인 23.00 까지의 4시간을 3단계로 나누어, 隨時로 命令을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각 대대는 1개 중대씩 現陣地에서 隨意철수토록 하라.

② 제2대대는 20.00까지 철수하라.

③ 제3대대는 제2대대의 철수를 幷호하고, 21.00까지 철수하라.

④ 제1대대 및 수색중대 제3대대의 移動을 幷호하고, 22.00까지 철수하라.

⑤ 각 대대는 新村—近南面의 道路를 거쳐 豐谷里로 集結하라.』

즉, △346(나)의 제2대대를 제1차로 하여, △346(가)의 제3대대, △340—△317의 제1대대 및 수색중대의 順으로 逐次로 철수케 하였다.

이로써 연대의 각 대대는 차례로 突出稜線을 離脫하여, 7km의 徒涉移動으로 豐谷里에 集結하였는데, 殘留接敵分遣隊인 수색중대가 最終的으로 도착한 시간은 17일 02.50이었다.』

이 철수는 곧 狙擊稜線의 喪失과 더불어 突出稜線을 敵手中에 두고 온 痛恨의 喪失이 아닐 수 없었다.

敵의 重要한 追擊을 뿌리치면서 되돌아서야만 하였던 將兵들의 胸中에는 머지않아 期必코 되찾고야 말겠다는 굳은 決意가 맺혀 있었을 것인데도, 그 10일 후에 調印이 發効된 休戰協定으로 因하여 反擊의 機會를 끝내 갖지 못한채, 그로부터 오늘날까지 23년의 歲月

단이 흘러가 버렸다.

때문에 本戰鬪의 名稱을 『狙擊綫의 撤收戰』이라 함은 喪失의 뜻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붓끝마져 抵抗할 듯 하므로 『金化地區의 防禦戰』이라 稱하여 本戰鬪의 참된 뜻을 길이
 計錄해 둔다.

期間中の 戰果 및 損失은 사단의 戰鬪詳報에 準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하였다.

◇ 戰 果			◇ 損 失	
구분	연대	射 殺	捕 虜	
	제 28연대	296명	5명	戰 死 157명
	제 29연대	189명	1명	戰 傷 593명
	제 30연대	329명	14명	失 踪 13명

(※ 推定射殺 778명은 포함치 않음)

(※ 戰傷者중의 半인 261명 이 16일의 제30연대의 損失임)

다. 전투후의 개황

本戰鬪는 비록 隨意撤收로 끝났지만, 韓國戰爭 3년간의 掉尾를 장식하는 이 一戰에서 사단은 그 常
 勝傳統의 榮耀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堂堂히 싸워, 悠悠히 새로운 固守線을 占領확보함으로써,
 10일 후의 休戰成立까지의 殘餘期間을 搖之不動하게 마련하였다.

제2군단의 全面에 대한 敵의 이른바 「7.13攻勢」도 16일을 고비로 하여 一敗活갯게 되고 19일 11.00
 가지를 時限으로 하여 我軍의 反擊이 敢行되는데, 사단의 경우는 이미 확보한 새로운 固守線을 補強
 하면서 戰力의 整備에 專念하였다.

즉, 사단作指 제193호(7월 17일 08.00附)로써 新村里에 左右一線 兩연대의 制限點을 변경설치하고,
 △442까지의 千佛山 東北綫線을 右一線으로 하여 제29연대를, 新村里-鷄雄山을 左一線으로 하여 제
 28연대를 각각 내세우고, 제30연대를 사단에비로 控置하되, 그 1개 대대로써 新村里와 望所里의 開
 豁地를 瞰制하는 千佛山 西北綫線에 急繩陣地를 점령케하였다.

그런데, 右一線의 地境線을 △442에 둔 까닭은 美 제9군단의 作指(CITE A5-238)로 右인접인 美
 제3사단과의 制限點이 여기에 定해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사단은 △442-內谷里線에서 右인접인 美 제3사단과 連繫하고, 鷄雄山을 縱斷하는 線에서
 左인접인 美 제2사단과 協調를 이루면서 休戰을 맞이하였는데, 17일 이후에 있어서의 사단의 조치를
 作指로써 종합키로 한다.

(가) 主抵抗線後方の 補給路 新設……사단作指 제195호(17일 18.00附)로써 千佛山 東北綫線을 南
 北으로 直結하는 補給路를 內谷里-松洞間에 開設하고, △598과 △457까지의 推進補給路 및 千佛山
 西北綫線을 세로 지르는 補給路를 富岩里-新村間에 關通하였다.

(나) 戰術障礙物의 設置……사단作指 제196호(17일 24.00附)로써 新村의 開豁地에 10線的 鐵條網
 을, 南大川에는 水中障礙物을 각각 설치하였다.

(다) 前哨陣地의 補強……사단作指 제197호(18일 20.00附)로써 제30연대의 1개 대대를 제29연대에
 배속시켜, 그 主抵抗線의 前線일대에 4개 前哨陣地를 補強케 하였다.

(라) 鷄雄山(△604)의 引受준비……美 제187空輸연대전투단의 要請時에 鷄雄山(△604)의 主陣地를
 引受키 위하여, 사단作指 제198호(19일 18.30附)로써 제28연대에 事前의 地形偵察을 실시케하였다.

(마) 戰車射擊壕 및 待避壕의 時急工事……사단作指 제199호(19일 20.00附)로써 제28 및 제29의 兩
 연대에 凹凸型 戰車射擊壕와 待避壕를 最短時日內에 工事토록 하였다.

(바) 無反動銃陣地의 強化……松洞과 躑尾里의 閉路地를 制禦키 爲하여, 사단作指 제201호(20, 12.00附)로 제29연대로 하여금 △318에, 제28연대로 하여금 望所里 및 甘鳳里綫線上에 각 3개乃至 4개의 105mm M26 無反動銃陣地를 強化토록 하였다.

(사) 戰車배속의 變更……사단作指 제202호(21일08.00附)로써 제29 및 제28 兩연대에 배속중인 4개 戰車소대를 原復케 하고, 각 연대에 戰車 6대씩을 배속케 하면서 나머지의 戰車는 警備토록 하였다.

(아) 破壞射擊의 強化……사단作指 제203호로써 제89포병대대를 阿紗里(豊谷里의 西쪽)로 이동시켜, 사단정면 前에 걸친 破壞射擊을 不斷히 실시토록 하였다.

이와 같이, 須臾의 餘安도 없이 新防禦綫의 對備態勢를 補強하고 있었는데, 사단 將兵의 所願과는 달리, 板門店의 休戰協商은 최종단계로 치달고 있었으니, 7월 27일의 10.00를 期하여, 調印이 이루어져 3년간에 걸친 砲戰이 멈추면서, 우리 民族에게 痛憤의 休戰線만 남게 되었다.

이 恨스러운 고미를 넘기면서, 사단은 休戰條約을 遵守하는 節次를 不得已 밟아야 하였고, 사단장 李翰林 소장은 麾下將兵의 胸中을 헤아리면서도 軍의 命脉인 「軍令如山」을 새삼 強調하여야 하는, 쓰라린 苦衷을 겪어야만 하였다.



〈激戰後 제9사단을 視察하는 李承晩대통령(左로부터 李대통령, Taylor대장, 孫元-국방장관 Jenkins중장, 李翰林사단장)〉

즉, 27일 01.00附의 사단作指 제206호로써 一切의 陣地工事를 中斷케 하고 다음과 같은 作指로써 戰鬪行爲를 中止하되, 警戒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自重을 期하라는 命命을 下達하였던 것이다

◇ 사단作指 제207호(27일 14.30附)의 要旨

『① 사단은 陸本電文 및 軍團電文(CITE A7, 324 QNAT)으로 調印後의 各己行動을 아래와 같이 聲明한다.

② 全單位部隊는 隸下將兵에게 1953년 7월 27일 10.00에 休戰調印이 완료되었음을 周知시킴과 아울러, 休戰의 眞意를 철저히 說論하라.

③ 7월 27일 22.00부터 一切의 戰鬥行爲(射擊, 搜索)가 中止되니, 休戰條約이 違反되는 行動을 未然에 防止하라.』

◇ 사단作指 제208호(27일 17.00時)의 要旨

『① 작 연대 및 지원부대는 7월 27일 22.00 以前에 砲陣地에서 철수하지 말라.

② 全部隊는 7월 30일 17.00까지 砲陣地를 철수하여 非武裝南方限界線에 位置하라.

③ 撤收間에는 敵의 奇襲을 最大限으로 警戒할 것이며, 人집부대와외의 連繫를 철저히 유지하라.

④ 敵의 攻襲이 없는限, 7월 27일 21.45부터 一切의 射擊을 中止하라.

⑤ 全火器는 戰術狀況外에는 반드시 침묵을 유지하라.』

嗚呼라! 이제는 가마귀조차도 옛동지를 잃었으니, 저 너머에 두고온 못 孤魂들의 애타는 부르짖음을 누구라서 달랠 수 있겠는가.

護國의 鮮血을 아낌없이 뿌리고 또 뿌리면서 寸步인들 물러선줄 몰랐던 狙擊殺線을 「民族의 意思를 無視한 作爲」 때문에 내놓아야만 하였던 將兵의 憤淚는 4半世紀가 지난 오늘에도 아직 마르지 않았을 것이다.

§ 參戰者의 證言

◇ 제30연대 제1대대 부대대장 金晶植 대위
(1965. 11. 18, 合同參謀本部에서, 중령)

右인접 수도사단이 하룻 밤 사이에 갑자기 무너지던 날, 敵의 砲火가 연대CP에까지 집중되더니, 수습할 사이도 없이 主抵抗線 깊숙히 侵襲당하고 말았다. 수도사단의 정면을 즐고 넘어온 敵이 우리 연대의 後方까지 넘보게 된 셈이었다.

그 후, 1주일 동안이나 逆襲을 반복하여 主抵抗線을 회복하였는데, 休戰이 되는 순간까지도 치열한 交戰이 벌어지더니, 그 시간이 되자 뒤죽은 듯이 天地四方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때마침 OP에 있던 나는 擧약으로 걸어나가 敵陣을 바라보았던마, 中共軍들도 擧약으로 돌려나와 우리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나는 가슴속으로 퍼져나는 虛無感을 禁치못하면서 戰爭이란 어떤 일이 있어도 勝利해 놓고 봐야 한다는 느낌이 간절했다.

◇ 제30연대 제9중대장 韓炳奎 대위
(1966. 7. 14, 第1軍司에서, 소령)

狙擊殺線戰鬪의 특징을 한 마디로 줄이면, 동굴戰이라고 말할 수 있다.

彼我間에 이마를 맞던 정도로 近接距離를 두고 對峙해 있었기때문에 攻襲梯隊의 前進를 보장하는 것은 오직 동굴뿐이었다. 그래서 때로는 위아래로 엇갈리는 동굴을 파다가 白兵戰이 벌

어지는 수도 있었는데, 낮에는 直射火器의 狙擊 때문에 동굴밖으로 나가질 못하고 밤이 되서야 주먹밥을 보급받고 행동하는 형편이었다.

이같이 계약받은 상황으로 인해, 결국은 忍耐力과 體력의 겨누기로 勝敗가 판가름나는 형편이었다.

◇ 제29연대 제3중대 제1소대장 金承弼 소위
(1966. 1. 24, 首都營備司令部에서, 소령)

우리 소대는 狙擊殺線 △B에 배치되어 있었다. 東쪽에 △C가 있고, 西쪽에 △A가 있었는데, 서로 마주보는 直距離는 300m정도였다.

53년 6월중순으로 기어하는데, 새벽 5시경 중대장이 TS-10 無電機로 명령하기를, 지금 △A가 무너졌는데, 나가서 지원하라는 것이었다.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새벽이었다. △B와 △A 사이에는 溪谷이 있었다. 이 溪谷에는 敵砲彈이 쉴 사이없이 떨어지고 일제나 위험한 곳이었다. 이때만 해도 敵의 砲彈으로 나의 連絡兵과 士兵 2명이 戰死하는 損失을 입었다. △A에는 제1소대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우리 소대가 도착한 직후에 戰死하였으므로, 내가 제1소대까지도 저위하면서 36분동안 高地를 탈환확보하였으나, 中共軍의 大兵力이 다시 八海戰術로 공격하는 것을 끝내 막아내지는 못했다.

이 戰鬪에서 中共軍 3명을 生捕하였으나, 난

폭하게 반항함으로 무사히 護送할 수가 없었다.

◇ 제28연대 제2중대 제3소대장 朴元燾 소위
(1967. 9. 5, 제51사단에서, 소령)

우리는 그 高地를 “돌바위” 高地라고 불렀는데 文字 그대로 岩石으로 덮힌 이 △B에 배치되어 있었다.

敵은 매일 2, 3회씩 集中砲火와 더불어 人海攻擊을 해왔다. 중대의 右側1선인 우리 제3소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砲擊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2개의 BAR 有蓋障地와 3개의 散兵壕만이 남게 되어 苦戰을 쫓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2개의 BAR의 射界를 相互交叉케 해놓고, 小隊員들의 士氣를 鼓舞하면서 밤을 기다렸다. 敵은 夜間攻擊을 더 심하게 꾀했기 때문이었다. 日字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6월 下旬이라고 생각된다. 중대의 방어정면 前線에 걸쳐, 中共軍의 人海攻擊이 다시 시작되었다. 2경의 BAR은 교차된 射界에 敵의 人波를 포착하여 맹렬히 불을 댕하고 있었는데 김호일 일병의 BAR이 갑자기 고장을 일으켰다. 갈퀴가 파손된 것이었다. 小隊長인 나는 아찔해질 수밖에 없었다. 障地를 지켜주는 BAR의 고장은 絶望의 인 打擊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김호일 일병은 조금도 당황하질 않았다. 전날 戰鬪때에 인접소대의 파괴된 BAR에서 쓸만한 部分品을 떼어 보관해 두었으므로, 노력의 공을 재빨리 떼내어 갈퀴를 바꿔 끼었다.

이 有蓋障地전면으로 물려들던 中共軍에게는 背天의 벼락과 같았을 것이다.

시간은 불과 5분가량이지만, 猛射擊을 가하던 BAR이 고장났거나 파손됐을 것으로 마음놓고 있던 敵兵을 향해 다시 불을 댕하게 되었으니, 百發百中으로 敵兵을 무수히 쓸어버리고 말았다.

이 경험으로 나는 큰 敎訓을 얻었다. 즉, 自動火器의 射手는 언제나 豫備部分品을 휴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제29연대 제9중대 副官 孫孝辰 중위
(1965. 4. 16 陸軍大學에서, 중령)

우리 중대가 제2사단 제1선 중대로부터 上甘嶺(一名, Jane Russell 高地)南쪽의 W 高地를 인

수했을 때에는 정편없이 不利한 상황이었다. 有利한 高地를 정당한 敵에게 완전히 戰鬪당하고 夜間이 아니면 얼씬도 못했다.

말하자면, 戰鬪의 主導權을 敵에게 빼앗기고 있는 셈인데, 어느 날 밤 1개 중대의 攻擊을 동굴戰으로 물리치던 중, 제9중대장 李龍祥 대위가 불장려간 일도 있었다.

이 戰鬪에서 敵은 小銃끝에 푸렛슈라이트를 장치하여 동굴속을 비치기도 했는데,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당황했었다.

그런데 제9중대장 李龍祥 대위는 끌려가다가 我軍 支援砲의 요란사격에 일제히 흩어지는 敵 監視의 눈을 피해 무사히 되돌아 왔었다.

休戰직전까지 여기를 지키고 있다가, 首都사단이 무너진 탓으로 金化부근의 障地에서 作業하는 도중에 休戰이 되었다.

◇ 제29연대 제6중대장 李大煥 대위
(1967. 10. 18, 제11사단에서, 소령)

休戰을 9일 앞둔 7월 18일에 제29연대 제6중대장이 되어, 狙擊後線의 △W를 맡았는데 이것은 24시간 교대의 主抵抗線배치였다.

그런데 밤사이에 右인접 수도사단의 主抵抗線이 무너지므로써 狙擊後線이 側面威脅을 크게 받아, 主力의 철수를 엄호하면서 망소(俗稱)까지 후퇴하였다. 敵의 砲彈이 집중되고,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날이 저물었다. 敵情을 정확히 파악할 도리가 없었으므로 대대장(金龍林 중령)의 명령을 받아 搜索組를 前方에 차출했으나, 날이 새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彼我間의 所在가 不明한데다 戰況이 混迷했으므로 길을 잃고, 美軍의 4.2인치 重迫擊砲部隊가 있는 곳으로 가 있는것을 다음날에야 알 수 있었다.

狙擊後線에서 일단 물러난 사단은 △457-1 甘原里(鶴雄山 東쪽)間的 線에서 阻止障地를 整備하여 反擊키로 하였는데, 우리 중대는 사단의 一般前哨(GOP)를 확보하라는 명령으로 主抵抗線 너머의 300後線을 無難히 점령하여 5일간 확보하고 있다가 休戰을 맞이하였다. 그런데, 아무리 休戰이라지만 애써 찾이한 障地를 허망하게 내놓게 되니,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 獲線을 확보하고 있는 동안, 사단장 李翰林 장군이 시찰하고 돌아간 일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중대를 치하하고, 나에게는 임시계급인 대위의 계급장을 탈아줄 때에는 큰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다.

休戰과 관련시켜 꼭 남겨두고 싶은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그때, 누구 한 사람도 共產侵略軍이 休戰協定을 그대로 遵守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休戰으로 砲聲은 일단 멈추기는 하였으나, 언제 또 다시 沓沓해 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었다.

그래서 金化邑 바로 北쪽에 솟아있는 千佛山(△585)에 防禦陣地를 急編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休戰이라는 생각보다도 언제 또 새로운 戰鬪가 터질지 모르니, 바로 눈앞을 지나가는 休戰線의 南方限界線과 非武裝地帶內의 地形을 戰術的으로 감안하면서 튼튼하게 築城工事を 실시해 놓았던 일이 저금도 生々하게 기억되고 있다.

◇ 제28연대수색중대 無電兵 權支煥 하사
(1966. 4. 4 제30사단에서, 상사)

나는 제56수색중대 제1소대의 無電兵이었는데 돌바위高地에 배치되어 있을 때, 無電呼出번호는 우리 소대가 460이고, 중대OP는 260이었다. 陰曆 4월 7일이 나의 生日이라 잊혀지지 않는 데, 이날 밤에 中共軍의 큰 攻擊이 있었다. 彼我의 砲擊이 激烈하여 有線이 모두 두절된 상태임으로 나의 無電만이 유일한 通信수단으로 남았으므로, 소대陣地가 완전히 포위당했다고 보고하니, 陣內射擊을 곧 실시할터이니 모두 壕안에 숨어 있으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陣內射擊처럼 겁나는 것은 없을 것 같았다. 방금이라도 壕가 무너질 것만 같고, 我軍砲에 맞아 죽을 것만 같았다.

나는 안테나가 망가질 때에 대비하여 철사줄로 보조안테나를 여러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陣內射擊의 충격으로 안테나가 상하니, 보조안테나로 썼던바 지장없이 연락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敵이 도망쳤는데, 陣內射擊이 계속되므로 소대장 지시로 射擊中止를 요청하였고, 照明彈도 요청한 일이 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어떤 作戰이 고간에 통신수단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될 장비인데, 한번은 友軍機가 출격하여 機銃掃射를 퍼붓는 것이었다.

이 때, 우리 소대에는 4명뿐인 사람이 소대장, 나, 그리고 두명, 합쳐서 4명뿐이었는데, 갑작스런 機銃掃射를 피하면서 중대OP에 연락했더니, 빨리 對空布板을 내어 깔라는 것이었다. 이 무렵, 陣地交代兵力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밤에 陣地를 내어주고, 중대 主抵抗線으로 나왔으나 제 발로 步行한 殘存兵力이 4명뿐이라는 激戰을 치루었다. 負傷者는 勞務者들이 데리고 나왔다.

중대 OP에는 연대장 尹泰皓 대령까지 나와서 우리 4명을 치하하고, 위로해 주었다. 그러나 나는 이 때, 戰死한 戰友들이게 말할 수 없는 罪戾感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냐 하면, 치하받고 위로받아야 할 功勞者는 이 戰死者들인데, 그 戰死者들은 이름 모르게 죽었고, 나만 살아서 호강하는가 하는 느낌을 禁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 제53전차중대 제1소대장 李亨吉 소위
(1967. 7. 21 機甲學校에서, 소령)

7월 27일의 休戰當日까지 7개월 동안, 우리소대는 주로 △538을 비롯한 下甘嶽의 獲線에 배치하여, A高地, B高地, C高地등 狙擊線을 방어를 支援하였다.

하루 평균, 200발의 砲彈을 준비하여, APC彈 및 WP彈을 섞어가며, 敵의 동굴진지를 直擊하였다. 사격거리는 보통 1,000m정도였으므로 高度의 命中率을 誇示하면서 戰車砲의 威力를 유감없이 발휘하였으며,

나중에 右인접 수도사단의 主抵抗線이 무너졌을 때에는 狙擊線東南쪽 開鎗地에 위치하여 사단 逆襲部隊를 支援하였다.

◇ 제28연대 제3중대장 李秉澤 대위
(1966. 5. 5 陸本에서, 대령)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은 彼我間에 치열한 砲擊을 집중하면서 그 험악한 山줄기를 지켜내려 했다는 점이다.

제2사단의 제1선 중대로부터 인수한 陣地가 바로 B高地였는데, 敵은 攻擊에 앞서 반드시 15분~20분간의 攻擊準備射擊을 加하였다. 그런데, 이 攻擊準備射擊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攻擊 제1선이 대개 4列縱隊를 짓고 前進해 왔다. 그러니까, 自己네 砲彈에 맞아 攻擊部隊가 희생되는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마구 猛突하는, 그야말로 무자비한 攻擊戰法이었다.

그리고 한번은 참으로 희한한 것을 본 일이 있다. 61mm迫擊砲를 한 놈이 등에 업고, 다른 한 놈이 그 뒤를 따르면서 때때로 角度를 재더니, 射擊하는 것이었다. 中共軍들이란 이처럼 엉뚱한 戰法을 쓰는 놈들인데, 密集해 올 때에도 시끄럽게 떠들고 허죽거리는 놈들도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攻擊間의 恐怖心을 없애기 위해서 술을 먹여 내운다는 것이며, 攻擊準備射擊과 동시에 突擊시키는 것도 물러서면 몰살한다는 恫戰의 뜻이라는 것이었다.

◇ 제29연대 제7중대 제1소대 분대장朴喜敬 이등중사 (1966. 4. 16 南豊旅館에서)

B高地의 中央제1선에서 C高지를 바라보는 正面을 맡고 있었는데, 소대장 李完率 소위가 말하기를, 우리 소대가 지키고 있는 이 高地를 빼앗기면, 左인접 A高지를 지킬 수가 없고, A高지를 빼앗기면 제2대대가 지키고 있는 狙擊稜線에서 물러나야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29연대의 主抵抗線이 풀려 제9사단은 議政府까지 後退하게 되는 것이니 우리 소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를 固守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도 분대원들에게 이점을 강조하면서 勇戰하기를 굳게 다짐했으나, 솔직히 말해서 그 때 우리는 모두 죽었구나 하는 諦念을 禁치 못했다.

불가루가 발목을 덮고, 敵의 直射砲나 曲射砲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四方天地가 먼지로 자욱해지는 형편이니, 飲料水나 주먹밥을 입에 넣으면, 사정없이 보래를 씹어야만 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장비는 手榴彈뿐이었다. M1소총은 물론 휴대하였으나 전투가 벌어지면 별로 소용이 없고, 역시 기어오는 놈들의 머리위로 手榴彈을 까서 살짝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효과 있었다.

밤이면 때봉쪽에서 我軍의 探照燈이 敵陣을

照射해 주고, 照明彈이 실재없이 터지기 때문에 夜間일지라도 큰 지장은 없었지만, 中共놈들도 한번 攻擊하기 시작하면, 새까맣게 물러들면서 我軍의 照明을 逆利用하기 때문에 사정없이 砲擊당하는 것이 일수였다.

나팔소리, 피리소리, 팽과리소리등 요란하게 울리면서 밀려오는 그 人海戰術은 정말 기가 찼었다. 我軍 砲擊에 부더기로 쓰러져도 문제삼지 않았다.

소총은 느리쇠뚱치가 자주 걸리곤 하였다. 불가루가 짝 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手榴彈만으로 싸우게 되는데, 놈들중에도 용감한 쫓가 있는지, 우리 手榴彈을 폭발 직전에 되던지는 바람에 더러는 피해를 입곤 하였다.

彼我間에 수많은 戰傷者가 續出한 激戰이었다. 우리 소대도 크게 損失을 보았고, 내가 지휘하는 제1분대 역시 나중에는 2명만이 성했을 뿐이었다.

분대장인 나는 戰傷입은 분대원까지도 鼓舞하면서 중대가 陣地를 교대할 때까지 48시간동안을 눈 한번 붙여보지 못하고, 분대 陣地를 끝끝내 지켜 내었다. 교대하여 高地에서 내려가니 대대장, 연대장, 그리고 사단장까지도 잘 싸웠다고 칭찬하면서, 심지어는 軍神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忠武勳章을 내 가슴에 달아 주었다.

◇ 제28연대 제3중대장 李昌燾 대위

(1967. 9. 6. 제37사단에서, 소령)

중대를 이끌고 A高地와 B高地間의 稜線을 점령했을 때의 일이었다. 이 稜線에 새 陣地를 구축하는 것이 중대의 임무였다. B高地—A高地의 거리는 300m이고, 敵火力이 집중되는 곳이었다. 게다가 岩石이 많은 地帶이므로, 3개 陣地를 구축하는데도 크게 고생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때때로 60mm迫擊砲彈이 가까운 거리에서 아주 정확하게 떨어지곤 했다. 알고보니 稜線後斜面에 敵의 迫擊砲陣地가 있고, 前方高地에서 우리를 觀察하여 射擊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대에 制壓射擊을 요청할까 하기도 하였는데, 조금이라도 誤差가 생기면 우리가 당할 것 같은 地形이라 射擊요청을 단념하고, 觀察兵을 내세워, 敵이 射擊하는 순간에 신호해서 迫擊砲彈을

피라곤 하였다. 이 무렵, 제3소대장 南相台소위가 애석하게도 戰死했었다. 그리고, 이 陣地構築을 마칠 때까지 증대원 60여명이 死傷하였는데, 증대장인 내가 敵의 砲擊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크게 후회하고 있다.

즉, 敵의 砲擊이 시작되면, 어느 方向에서 어떤 砲彈이 어떻게 집중되는가를 재빨리 파악하여 대처해야 한다는 敎訓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 제28연대 제12중대 先任將校 李良雨 소위 (1966. 4. 28 陸本人人事參謀部에서, 소령)

이른바 7.13戰鬪 당시, 우리 제12중대는 B高地와 C高地를 지원하고 있었다. 右인접은 首都사단 제26연대인데, 그 主抵抗線 2제1선을 우리 사단이 인수한 날이 7월 13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대대 右側方과 正面의 상황이 突變하여, C高地—B高地 稜線에서도 中共軍의 信號彈이 솟아오르고, 葛谷里 北쪽 高地에서도 銃聲이 요란해지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砲擊으로 有線이 모두 두절되어, 인접부대와와의 연락이 不可能해졌으므로 포위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었다.

그에서 C高地—B高地 稜線에 추진해 있는 李貞烈 소위의 機關銃班이 걱정이었는데, 後方의 砲陣地까지 철수해 보니, 증대장을 비롯한 소수 兵力만이 집결해있을 뿐이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李貞烈소위는 敵彈에 닿아 무너지는 바람에 죽을뻔 했는데, 요행히도 支柱가 받혀주는 空間덕분으로, 我軍이 逆襲을 해 올라가기까지 3일간, 敵中에서 九死一生했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속으로 鶴雄山까지 일단 철수할 때의 교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 제30포병대대 作戰將校 全珠植중위 (1966. 3. 3 陸本砲兵課에서, 중령)

V高地의 前進陣地를 支援함에 있어서 敵의 出血을 強要하라는 사단장 李翰林 소장의 作戰概念에 따라, 처음부터 VT彈으로 陣內射擊을 加하기로 하였다. 대대 S—3에서 觀測將校와 觀測兵 그리고 無電兵의 3명을 高地의 증대OP에 올려보내어, 彈着을 誘導케 하였는데, 이 陣內射擊이 시작되기 前에 步兵部隊은 완전히 壕속

에 숨어 있게 되었다. 中共軍은 대개 한밤중에 攻擊하였으므로, 밤새도록 砲擊하고나서 아침에 보면, 陣地주변에는 수많은 遺棄屍體가 흩어져 있곤 하였다. 이 出血作戰은 狙擊稜線의 큰 특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 제30연대 제1대대장 金永先 중령 (1966. 1. 20 國防大學院教學部長室에서, 대령)

땅굴을 파지 않고서는 밤낮으로 狙擊당할만큼 敵과의 거리는 아주 가까웠다. 그러므로 前哨陣地에 대한 보급이 밤에만 이루어지고, 밤이라해도 끊임없이 砲彈이 떨어짐으로 交通線을 파악만하였다. 그러므로 대대장으로서의 戰鬪要員을 아끼는 뜻에서 勞務者를 동원했는데, 이 作業도중에 많은 勞務者가 敵彈에 희생되었던 것을 오래오래 죄스럼기만 여겨진다.

그러나, 勞務者들이 夜間作業을 거듭하여 파놓은 이 交通線덕분으로 보급추진이나 兵力보충이 순조로웠다.

그리고, 돌바위 高地戰鬪때에도 이 동굴作戰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高地 윗쪽에 敵이 있고, 우리는 中腹斜面에 굴을 파고 있었는데, 굴을 파지 않고서는 一步인들 攻擊할 수 없었으므로, 敵陣前까지 굴을 파올려, 集中砲擊으로 敵陣을 때린다음에 일제히 突擊하는 戰法을 써서 B高地를 占領했던 것이다.

◇ 사단 通信中隊 有線小隊長 劉漢鍾 중위 (1966. 2. 29 軍需學校에서, 대령)

狙擊稜線에 대한 敵의 攻擊은 5개 接近路를 통해 반복되었는데, 我軍陣地를 瞰制하는 有利的地形을 잡고 있었으므로 그 集中砲火가 文字 그대로 치열했었다. 그래서 我軍은 兵士마다 個人壕를 파고 交通線로 연결해 있었는데, 敵彈이 집중되면 壕속에 숨어 있다가, 접근하는 敵에게 手榴彈을 퍼붓곤 하였다. 大小便도 이 個人壕에서 처리해야 했는데 밤이되면 삼으로 퍼내는 형편이었다.

이때 KSC 1개 대대가 推進補給을 맡고 있었는데, 1개 소대가 30명분의 탄약과 식량을 메고 오다가는 敵砲火로 인해, 대로는 몰살당하는 일도 있었다.

우리 通信隊는 SCR-536 無電機를 쓰고 있었는데, 砲彈때문에 電波가 잘 통하지 않았으므로 通信兵이 電話線을 메고 100m씩 연결해 나가는 수 밖에 없었다. 이 作業은 砲彈속에서 이루어

졌는데, 戰死하면 다음에 대기한 通信兵이 뛰어나가 作業을 계속하는 리레이식이었다. 그야말로 特攻隊 못지 않은 決死的인 作業이었다.

§ 戰 訓

(1) 指揮官의 確信과 이의 實踐

本文에서도 論及하였는데, 7월 13일에 企圖森見을 작오하고서도 晝間庫地交代를 단행하여 突出綫에 대한 中共 제72사단 主力의 集中攻撃을 不利한 戰況에도 불구하고, 끝내 阻止할 수 있었던 作戰成功은 사단장의 敵情판단의 的中과 이에 따르는 確信, 그리고 勿失好機의 果敢한 지휘조치에 힘입은 바 컸으나, 指揮官은 모름지기, 敵情을 바릇한 모든 상황판단에 있어서 勝機를 포착하는 靈敏性과 自信力을 堅持하여야함을 窺察할 수 있다.

비록, 제2군단 및 수도사단의 全面撤收로 인한 新防禦線(一名, Wyoming線)의 作戰概念으로 제30연대를 突出綫에서 철수시킴으로써 本戰鬪가 끝나기는 하지만, 이를 敗退의 一戰으로 볼 수 없고, 作戰上의 必要에 따르는 兵力運用의 一策으로 봄이 妥當할 것이다.

(2) 火力의 集中運用

戰勢의 決定的인 段階에 있어서의 「火力의 集

中發揮」는 勝機를 포착함에 必須不可缺한 要因이거와, 사단장을 비롯한 제30연대의 각 대대장級이상의 指揮官들은 이 原則을 適時에 활용하였다.

특히, 사단정명에 대한 敵의 作戰企圖를 推斷함에 있어서, 狙擊綫으로는 攻擊하지 않은 것으로 判斷하여, 사단支援火力을 제30연대의 경면으로 집중케하였던 15일의 조치는 本戰鬪의 白眉一場이 아닐 수 없다.

(3) 整然한 撤收作戰

사단은 新防禦線으로의 撤收를 아무 혼란없이 실시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要因이 종합되어 이 整然한 撤收作戰이 可能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 ① 인접부대와의 긴밀한 협조 및 連繫
- ② 각 중대장들의 완전한 중대 파악.
- ③ 撤收目的의 徹底한 周知.
- ④ 敗戰意識이 尠혀 없는 旺盛한 士氣.
- ⑤ 충분한 火力掩護.
- ⑥ 사단作命의 適切周到한 下達.

§ 研 究

(1) 高地名에 대하여

光三里 南쪽의 突出綫에 2개의 △346가 있는데, 本戰鬪의 主戰場이 되는 이 綫上에서의 部隊상황을 叙述함에 있어서 混同을 피하기 위하여, 東쪽의 △346를 (가)로 하고, 西쪽의 다른 一峰을 (나)로 하였다.

(2) 標高의 擇一

CT 711-419의 高地에 관하여, 사단의 戰鬪詳報에는 432.8m로 記혀 있고, 地圖上에서는 433m로 표기되어 있는데, 叙述上의 편의를 고려하여 後者로써 高地의 標高를 통일시켰다.

(3) 作戰命命의 變更에 관한 想定

7월 14일의 상황에 있어서, 제30연대 제2대대에 대한 逆襲命命을 대대장의 建議로 防禦給命으로 변경한 叙述의 부분은 筆者의 想定에 의한 것이었다.

즉, 사단의 戰鬪詳報에는 대대장의 建議, 연대장의 承認, 사단장의 命命 변경등에 관한 記錄은 없으나, 제2대대가 △433(북쪽인 △404의 南쪽 800m)까지 아무런 接觸없이 進出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의 상황은 각 中대別의 철수로만 記錄되었으니, 이는 逆襲挫折과 敵의 攻擊으로 인한 상황의 急變을 뜻하는 것으로 看做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대장으로서의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自意대로 逆襲을 포기하거나 防禦 및 撤收作戰을 취하였을 理는 없고, 반드시 연대장을 거쳐 사단장의 결심을 얻었을 것이 至當하다.

그리고, 始終一貫하여 不退轉의 戰意와 整然한 作戰遂行으로써 本戰鬪를 치루었던 제9사단이었음에 비추어, 조금도 주저없이 이러한 想定을 自備하게 된다.

(4) 사단작命 제110호에 대한 각급 지휘관들의 反應

7월 14일 20.00시로 하달된 사단작命 제110호는 한 마디로, 現主抵抗線을 포기하고, 美 제9군단이 지정한 新防禦線(一名, Wyoming線)으로 철수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參戰證書를 종합정리하면서 느껴진 것은 이 작命의 命令權者인 사단장은 물론, 각 중대장에 이르기까지, 이 무조건철수에 대하여 痛恨을 느꼈으며, 일부 중대장은 抗命에 가까운 拒否反應까지 보였던 사실이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大別되는데, 첫째로는 『많은 損失을 甘受하면서 끄떡없이 지켜온 狙擊稜線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내려가기는 쉬우나, 올라오기 힘든 이 險陣을 또다시 따라는 命令이 앞으로 또 내려진다면 수많은 부하들을 잃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하는 것이었다.

本戰鬪의 特性에 비추어, 이러한 지휘관들의 戰場心理를 看過할 수가 없기때문에, 敘述의 變形을 의식하면서도 本文에 挿入치 않을 수 없었다.

왜냐 하면, 休戰이 가까와짐에 따라 將兵들의 士氣가 低下되고 戰意가 상실된 탓으로, 이 막바지에서 주요한 高地를 많이 잃은 것이 아니었더냐 하는 世間的 억측을 씻어야 하기 때문이다.

軍令如山이라, 하는 수 없이 主戰場을 버리고 철수하는 각 중대는 한결같이 痛憤의 눈물을 뿌리면서 下山하였으니, 오늘 날 軍事分界線의 北쪽에 남겨져 있는 이 高地들을 되찾아, 앞서가신 譏團의 英魂을 달래며, 기쁨의 歡呼聲을 울릴 날이 그 언제 돌아올 것인가!

(5) 7월 15일의 제28聯隊의 상황에 관하여

本稿敘述에 있어서 奇異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

왜냐 하면, 이 하룻동안에 接觸상황을 認知할 만한 資料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가장 信憑할 만한 사단의 機關詳報에도 대대 單位의 부대이동을 기록하면서도 接觸상황이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詳考컨대, 中共 제24군이 그 左翼인 제72사단으로써 金化攻略을 企圖하였다면, 제9사단의 방어戰力을 分散시키기 위하여서도 狙擊 및 三角高地群에 대한 助攻이 있을 筈 하고, 더군다나 그 전날에 제28 및 제29 兩면터가 이 主抵抗線에서 철수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無血進出이 可能했을 것임에도, 이와같이 放棄해 두었던 敵의 意圖가 奈邊에 있었던가를 자신있게 推理할 수가 없다. 굳이 推理한다면, 제2군단 전면에 대한 3개 군의 主攻이 當初 계획했던 進出制限線까지 성공할 전망이 컸음으로, 이 狙擊稜線에서의 我軍의 철수가 저절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兵力을 소모시킬 필요가 없다는 打算에서 나온 放棄가 아니었던가? 이 推理가 조금이라도 타당하다면, 수많은 英靈이 감드신 저 狙擊稜線, 三角高地群의 險陣을 비워 놓았던 7월 14일의 철수가 可惜하기 그지없다.

(6) 사단의 作戰例規 제1호

사단장 李翰林 소장은 7월 16일에 作指 제184호로 後方兵力을 非常出動部隊로 急編케 하기 위하여, 3월 12일부로 하달한 바 있는 作戰例規 제1호를 적용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가) 總則……非常은 “準非常”과 “非常”의 二種으로 구분한다.

(나) 方針……非常突入 및 解除의 宣布는 사단이 上部로부터 “非常”의 전달을 받았을 時, 또는 상황下에 사단장이 通時를 택하여 실시한다.

(다) 實施要領……主抵抗線 부대는 前方에 대하여 強力한 搜索정찰을 실시하여 敵의 攻勢企圖을 未然에 分쇄하고, 敵精수색을 增強한다.

(以下省略)

12. 赤根山—三峴地區 反擊戰 (1953년 7월 15일부터 // // 19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20호
상 황 도 제80~85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 2 군단	장	중장 丁 一 權	제 20연대 장 대령 柳 原 植
제 11사단	장	준장 林 富 澤	제 1 대대 장 중령 金 同 王
제 9 연대	장	대령 金 永 夏	제 2 대대 장 중령 金 明 益
제 1 대대	장	중령 元 容 五	제 3 대대 장 중령 禹 泰 華
제 2 대대	장	중령 李 春 倍	소령 李 仁 洙
제 3 대대	장	중령 崔 圭 鉉	(7.16부터)
		소령 李 憲 洙	연대수색중대 장 대위 金 俐 均
		(7.15부터)	제 55전차중대 장 소령 趙 七 晷
연대수색중대	장	대위 姜 泰 元	지원부대
제 13연대	장	대령 朴 應 奎	제 20포병단 장 대령 李 春 景
제 1 대대	장	중령 白 景 奭	제 27포병대대 장 대위 梁 贊 鉉
		소령 劉 東 烈	제 76포병대대 장 소령 韓 漁 水
		(7.17부터)	제 77포병대대 장 소령 姜 岐 祥
제 2 대대	장	중령 吳 新 春	제 96포병대대 장 중령 朴 榮 濟
제 3 대대	장	중령 金 裕 鎮	인접부대
연대수색중대	장	대위 金 仁 哲	右隣接 제 8사단 장 준장 宋 堯 讚
		대위 安 昶 範	左隣接 美제 3사단 장 소장 George W. Smythe
		(7.16부터)	

敵 軍

中共 제67군	장 馬 龍	제204사단	장 印 玉 清
제199사단	장 繡 武	제610, 제611, 제612연대	基幹
제595, 제596, 제597연대	基幹	제54군	장 丁 勝
제200사단	장 李 靜	제135사단	장 韋 統 泰
제598, 제599, 제600연대	基幹	제403, 제404, 제405연대	基幹
제68군	장 陳 方 仁		

나. 전투 전의 개황

사단은 제1군단 작명제178호(7.12부)에 의거 1953년 6월12일에 江原道 高城郡 杆城 乾鳳嶺 일대의 방어진지를 제21사단에 인계하고 제1군단에서 美八軍 예비로 배속변경되었는데 該사단은 사단작명제 94호(6.14부)로써 사단사명부를 華川 原川里에 개설했으며 제9연대는 小鶴峰 일대의 진지를 제21사단 제65연대에 인계하고 華川 上西面 山陽里 地域으로, 제20연대는 乾鳳嶺 일대의 진지를 제21사단 제66연대에 인계한 다음 杆城 魚村里에서 華川 東芝化附近으로, 사단 예비인 제13연대는 杆城 八岫里에서 華川 下蘆谷으로 各各 移動하여 美八軍直轄로써 6월17일부터 8주간의 教育訓練에 임하였다.

7월 14일에 사단은 제2군단 작명 제5호(7.14.12.00)로써 제2군단에 배속과 同時に 注坡嶺 및 赤根山 일대의 신 주저항선을 占領하고 軍團의 철수를 掩護하였다.

그리하여 군단의 예하 각사단이 예정된 撤收線까지 집결하여 再編과 아울러 逆襲준비를 갖추는 사이에 신주저항선에서 敵을 阻止하여 그 後方補給路를 遮斷하고 反擊함으로써 軍團 右翼을 밀고 白岩山까지 侵入한 敵을 孤立狀態에 몰아 넣었으며 또한 我軍 제8사단의 역습을 容易하게 하였다.

이 當時 사단은 사단작명 제98호(7.14부)로써 제13연대를 華川 下蘆谷에서 注坡嶺에 推進시켜 새로운 주저항선을 占領케 하여 右一線으로 삼았으며, 제20연대는 華川 東芝化에서 華川 赤根洞으로 移動시켜 예비로 控置하였다.

한편 제9연대는 이에 앞서 제2군단 작명제4호(7.12부)에 의거 華川 上西面 山陽里에서 金城 泉洞(샘골)으로 移動시켜 제6사단에 배속하여 제6사단 제7연대 진지를 인수키로 하였는데 該연대는 7월 13일 제7연대 진지에 이르러 임무를 인수하기도 전에 敵과 衝突하여 激戰을 벌인바 있으나, 제7연대와 奮勇하여 이를 물리치고 14일 未明을 期하여 烽火洞 475高地일대의 진지를 제7연대로부터 引受하였다. 그러나 戰況에 따라 이날밤 杜木洞부근으로 撤收하여 △633 일대를 占領하고 敵을 阻止하다가 이날 사단이 제6사단의 작전임무를 인수함으로써 該연대도 原隊復歸하였으며 視陣地線에서 사단의 左一線이 되었다.

이와같이 제6사단과 임무를 교대한 사단은 7월 15일 未明부터 反擊을 開始하였는데, 이때 제6사단은 Wyoming線까지 撤收하였으며 右隣接 제8사단은 白岩山부근까지 물러나 이곳에서 역습준비를 갖추는 중이었다.

그리고 左隣接 首都사단은 榛縣里線까지 이미 後退하여 7월 14일 이 線에서 역습하여 問榛縣 일대를 恢復하였으나 15일 美제3사단이 首都사단의 임무를 교대 인수하였다.

當時 사단은 이 反擊에서 △602와 金城川 彎曲部를 連하는 線까지 占領하여 白岩山 正面으로 侵入한 敵의 보급로를 완전 차단하여 고립시켰으나, △602 北쪽 729高地는 아직도 敵의 手에 있어 瞰制를 받고 있었으며, 休戰이 成立될 때까지 이 線에서 계속 熾烈한 高地爭奪戰은 벌어져 敵을 阻止擊

減하게 된다.

그러나 本節에서는 사단이 이線까지 反擊하여 占領하는 戰鬪를 주로 다루었으며 이 線에서 △602와 △552의 爭奪戰이 되풀이되는 것은 戰鬪後의 概況에서 略述하기로 하였다.

本戰鬪期間中 사단은 美제3空軍 및 軍단포병의 支援外에 韓國軍 제55戰車중대와 美제461중박격포대대의 지원도 함께 받았다.

當面の 敵은 거의 決定的인 단계에 이른 休戰會談을 有利하게 終結시키기 爲하여 現戰線에서 壓倒的인 攻勢를取하여 突出部를 이루고 있는 軍團의 形勢를 傾覆코자 하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그리하여 中共 3個軍(제60군, 제67군, 제68군)에하 사단의 主力과 支援砲 2個大隊에 자주砲를 위시하여 各種砲 98門을 수반하고 7월13일 日沒時를 期하여 攻勢를 取함으로써 제2군단 예하사단의 一線부대들은 주저항선진지에서 撤收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단이 注坡嶺 및 赤根山 일대의 새로운 線을 占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사단이 反擊을 開始할 때의 當面の 敵은 軍단 正面의 넓은 戰線으로 侵入하여 驕岩山과 赤根山 北方地帶의 占領에 集中投入하였던 上記의 敵들과 새로 投入된 제54군의 제135사단과 제68군의 제204사단도 이에 合勢한 것으로 推斷되었다.

이들은 韓國戰 參戰以來 그 戰鬪力이 비교적 강한 부대들이었지만 이번 攻勢에서 그 侵蝕速度에 適應할만 한 後方支援이 뒤따르지 못하여 補給狀態가 극히 不良한 것으로 알려졌으니 이는 我軍側의 制空權掌握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리하여 該사단이 金城川 變曲部에서 그들의 後方路를 차단하였을 때에는 戰鬪力이 거의 마비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602—△552線에서 더 北進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豫想되나 當時는 我軍의 戰力으로 보아 이 戰線에서 膠着되는 사이에 敵은 時間的으로 餘裕을 얻어 補給과 戰鬪力을 恢復하여 逆襲을 試圖함으로써 向後 사단은 이 不利한 방어선상에서 休戰이 이루어질 때까지 苦戰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本戰鬪地域의 東部에는 金城川이 南쪽으로부터 東北쪽으로 흐르고 이와 併行하여 注坡嶺의 支脈이 南北으로 뻗어 이地域 일대는 海拔 500m—600m의 능선과 깊은 溪谷들이 急傾斜를 이루어 機動과 補給輸送이 어려운 지대이다.

한편 △602와 △552는 彼我의 砲火로 거의 焦土化되어 攻擊時에 利用할만 한 地形 地物이 稀少한 데다가 敵의 △729와 單一線상에 놓여 瞰制되는 탓으로 攻擊에 더욱 不利하였다.

期間中 7월13일부터 20일까지는 連日 흐린 날씨로 비가 계속되었으며 짙은 안개가 山麓까지 덮여 接敵行動에 困難을 가져왔으며 地形判斷과 觀測이 어려워 歩砲協同作戰에 미치는 影響 또한 컸으며 同時에 航空支援도 如意치 못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사단은 美八軍 直轄로 華川地區에서 1953년 6월14일부터 8週間の 教育訓練을 받고 있었는데 7월12일에 제2군단 작명 제4호에 依據 軍단에 배속되었으니 그 作命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軍단은 7월12일 12.00부로 美八軍命令에 依據하여 제11사단을 統合指揮하여 現任무를 수행하려 한다.

② 제11사단

㉔ 제11사단은 현 훈련임무를 계속하라.

㉕ 예하 1개연대(사단중포중대 및 공병 1개중대 포함)를 7월 14일 06.00부로 제6사단에 배속하라.

㉖ 군단 逆襲計劃에 의한 逆襲을 준비하라.』

이에 따라 사단은 제9연대 및 사단중포중대와 공병 1개중대를 제6사단에 배속하는 한편 군단 역습계획에 의한 준비로서 작명 제97호(7. 14. 11. 00)를 하달하였는데 그 요점은 아래와 같다.

『㉑ 사단은 군단 역습에 加擔을 準備하려 한다』

㉒ 제13연대는 7월 14일 24.00까지 △425에서부터 △547사이(△729 및 노동리 일대)에 대한 偵察을 完結하라.

㉓ 제20연대

㉔ 7월 14일 24.00까지 △729에서부터 下縣里사이에 대한 偵察을 完結하라.

㉕ 1개중대로써 7월 14일 24.00까지 馬縣 및 三天峰 일대에 대한 機動수색을 완료하라.』

이와 같이 사단은 군단 역습계획에 即應키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는데, 이날 군단작명 제5호(7. 14. 11. 30)를 받음으로써 이른바 敵의 7. 13 攻勢로 말미암아 군단 예하 각 사단이 천주저항선에서 撤收하여 Wyoming線에 이르는 사이에 제6사단의 撤收를 幷護하고(右隣接 제8사단을 밀고 白岩山까지 侵入) 敵의 後方補給路와 退路를 遮斷하면서 신주저항선을 占領케 되었으니, 이 作命의 要點은 다음과 같다.

『㉑ 軍團은 7월 14일 11. 30부로 제11사단을 統合指揮하여 신주저항선을 占領, 現任務를 수행하려 한다.

㉒ 제6사단(제9연대 배속)장.

㉓ 7월 15일 18.00부로 현임무를 제11사단에 인계하고 Wyoming線을 占領하라.

㉔ 제9연대의 배속을 동시부로 해제한다.

㉕ 제11사단장

㉖ 7월 15일 18.00부로 제6사단 방어진역을 인수하라.

㉗ 제6사단에 배속되었던 제9연대를 統合指揮하라.

㉘ 17번—6번 道路를 主로 利用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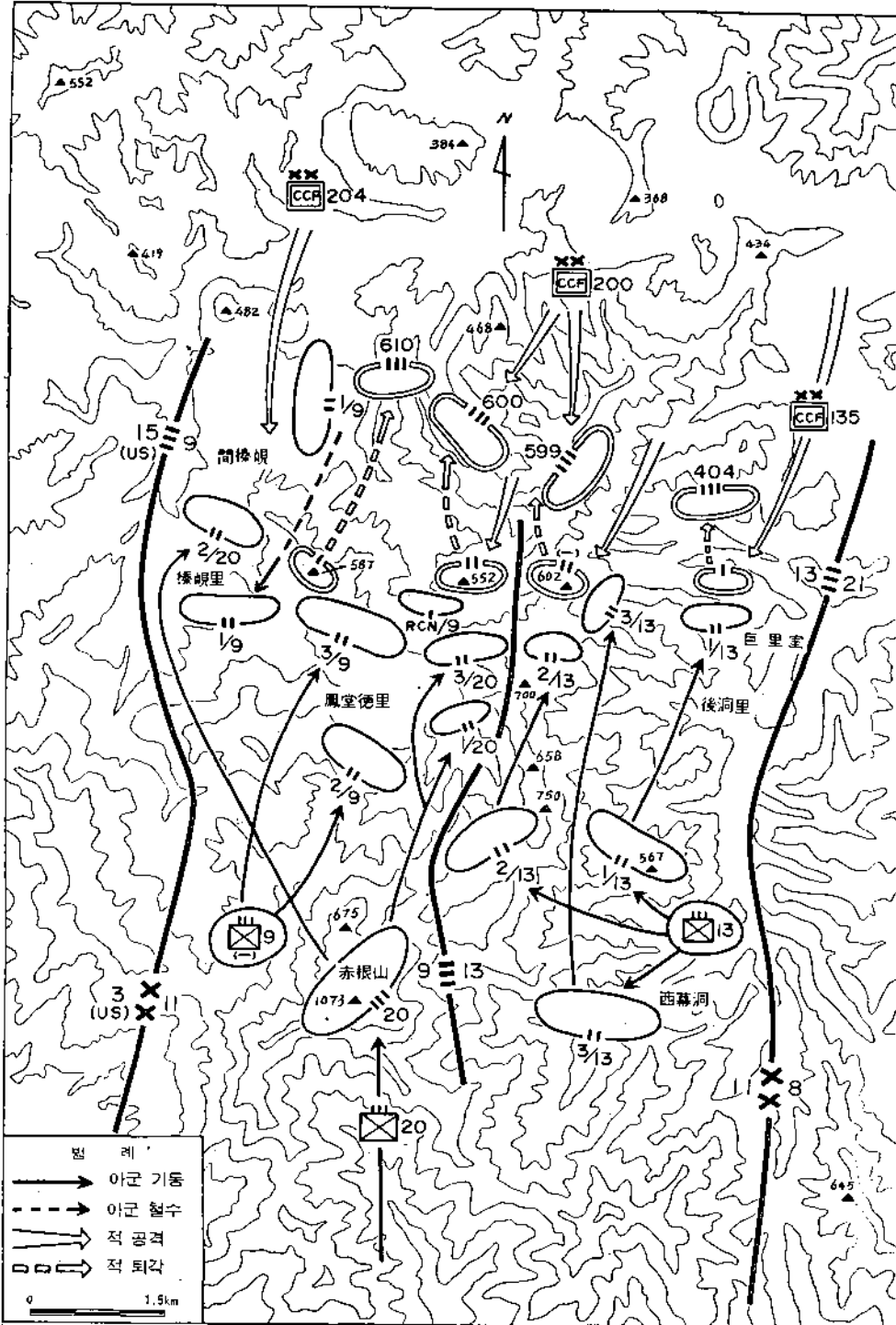
위와 같은 군단작명에 의거 사단은 작명 제98호(7. 14. 15. 00)로써 제3사단 방어진역을 인수 받아 신주저항선을 占領키로 하였으니 이 作命의 要點은 다음과 같다.

『㉑ 사단은 제6사단 방어진역을 인수하고 군단 작명에 의거 신주저항선을 攻擊, 占領하려 한다.

㉒ 美제5空軍 및 군단포병은 요청에 의하여 사단을 지원할 것이다.

㉓ 제13연대장

◇상황도 제80호 赤根山--三峴地區 反擊戰(7. 15-19)



- ㉓ 7월 15일 04.00까지 注坡里에 移動 即時 신주저항선 A의 右一線을 占領하라
- ㉔ D일 H시를 기하여 신주저항선 B(△425에서 △602에 이르는 線)를 攻擊占領하라
- ④ 제9연대장
- ㉕ 연대는 7월 15일 18.00부로 原隊復歸와 同時에 赤根山 北쪽 杜木洞 일대의 신주저항선 A의 左一線을 占領하라
- ㉖ D일 H시를 기하여 신주저항선 B(△552에서 △462를 連結하는 線)를 攻擊占領하라
- ⑤ 제20연대는 7월 15일 05.00까지 華川 赤根洞에 移動集結하여 사단 예비가 되라
- ⑥ D일 H시는 7월 15일 18.00이다.
- ⑦ 通信은 現行 SOI에 의거하라.
- ⑧ 사단 前方指揮所는 華川 上西面 山陽里에 位置한다.」

이에 따라 제13연대는 7월 14일 20.00에 高城 八幡里에서 車輛으로 機動하여 15일 04.00에 華川 注坡里에 進入하여 05.00에는 제1대대를 △750에서 △567 사이에, 제2대대를 △750에서 △797 西北쪽 500m線에 各各 진지를 占領케 하였으며 제3대대를 杖鼓峰 西麓 일대에 推進하였다.

그런데 제9연대는 軍단작명 제4호로써 제6사단에 배속되어 13일 15.00에 元南 泉洞(생골)에 移動한 다음 제7연대 진지에 推進하였으나, 敵연대는 진지를 인수하기 前에 敵과 衝突하여 한때 激戰을 벌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7연대와 合勢하여 敵을 擊退하고 다음 날인 14일 06.00에 烽火洞 일대의 제7연대진지를 인수하였지만 左隣接 首都사단과의 地境線으로 侵入한 中共 제204사단에 포위되었다가 이를 突破하고 이날 14.30에 제1대대로써 △633를 占領, 陣地的 철수를 엄호케 하여 15.30에는 杜木洞 南쪽에 撤收, 兵力을 整備한 다음 21.00에 제3대대를 △633 東쪽에 전개하고 제2대대는 동고지 西쪽에서 榛縣里까지 전개시켜 左隣接 수도사단과 연결하였다. 그리고 同연대는 제2대대를 △663에 推進하여 예비로 控置한 가운데 左隣接 首都 사단과의 地境線으로 侵入하는 敵을 側方에서 阻止케 하여 제6사단의 撤收를 掩護하였다.

이리하여 該연대는 사단이 15일 05.00에 신주저항선 A를 占領하기에 앞서 이 地域에서 敵을 阻止하면서 原隊復歸되어 사단의 左一線이 되었다.

이렇게 사단이 신주저항선 A를 占領하고 反擊 준비를 갖추고 있을 무렵 軍단은 작명 제6호(7.15.12.00)를 要旨 아래와 같이 下達하여 戰車와 砲兵을 배속하였다.

『① 軍단은 軍隊區分을 一部 變更하여 작명 제5호로써 指定된 신주저항선을 早速히 占領 방어하려 한다.

② 제11사단장

- ㉑ 7월 15일 18.00까지 신주저항선을 占領 確保하라
- ㉒ 7월 15일 18.00부로 제1戰車대대로부터 1개 중대를 배속받으라.
- ㉓ 7월 15일 18.00부로 美제5포병단으로부터 제20포병단을 지원받으라.
- ㉔ 제6사단으로부터 砲兵 FO를 早速히 인수하라.

③ 제1戰車대대장은 戰車 1개 중대를 7월 15일 18.00부로 제11사단에 배속하라

④ 美제5포병단은 제20포병단으로 하여금 7월 15일 18.00부터 제11사단을 지원케 하라.

이로써 사단은 支援火力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외에도 軍단포병과 美제461중박격포대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사단포병단(장, 洪昌杓 대령)은 사단이 6월 14일 乾鳳山 일대의 陣地를 제21사단에 인계하고 美八軍 예비로 敎育訓練에 임할시에 제1군단 작명 제178호(6.12)에 의거 제21사단에 배속되었다가 7.13攻勢때에는 2개대대가 美제5포병단에 배속되어 사단이 本戰鬪를 치를 동안에는 제3사단과 제8사단을 各各 지원하였다

사단은 이와같이 신주저항선에서 反擊준비를 갖추고 敵을 阻止하면서 反擊에 나섰다.

(2) 작전실시

7월 15일 : 이날 사단은 제13연대로써 05.00에 신주저항선 A의 右一線을 占領케 하였으며 제9연대로 14일 밤부터 이線의 左一線을 占領하고 左隣接 首都사단을 밀고 내려온 敵을 側方에서 阻止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軍단작명 제5호(14.11.30)에는 이날 18.00에 제6사단과 임무를 交代토록 되었지만 該사단은 이날 拂曉에 이미 撤收하여 注坡嶺에서 赤根山에 이르는 Wyoming線을 占領한 다음인 까닭으로 實際로 사단은 이때부터 제6사단의 現戰線을 인수받는 셈이 되었다.

이무렵 左隣接인 首都사단은 榛縣里 後方까지 撤收하였다가 逆襲에 나서 間榛縣 일대를 恢復하였으며, 이날 12.00를 期하여 美제3사단과 임무를 交代하였다.

이에 사단장 林富澤준장은 反擊에 앞서 支援火力을 增援하기 爲하여 美顧問官을 帶同하고 美제3사단(장, George W. Smythe 소장)을 尋訪하고 左一線 제9연대에 對한 砲兵支援을 要請한 결과 그 受諾을 얻게 되어 사단중박격포중대를 작지 제106호(7.15.12.00)로써 제13연대에 배속하여 直接支援토록 하였다.

그리고 제20포병단(장, 李春景 대령) 이하 각대대를 注坡嶺 및 杖鼓峰 일대에 布陣케 하였으며, 美제461중박격포대대가 이곳에 推進되어 동대대의 連絡將校도 사단 CP와 행동을 같이 하게 되었다.

2. 제13연대의 상황

이와같이 사단에서 支援火力에 對하여 綿密한 計劃과 그 布陣에 神經을 쓰고 있는 사이

에 제13연대는 제1대대로써 右側一線을 삼아 注坡里 西北쪽 △567에서 △750 間에 展開하여 이 線에서 攻擊을 開始, 楸洞 左側方 無名高地의 敵을 擊滅하고 이 일대를 占領한 다음, 계속 전격하여 △425線까지 占領케 하였으며, 제3대대를 中央제一線으로 하여 西幕洞 北쪽 능선에 展開하여 △425 西쪽 1km地點에 있는 無名高地와 그 일대를 占領케 하였다.

그리고 제2대대로 左側一線을 삼아 △750에서 △793 間을 占領하고 계속 △658를 奪取한 다음 要衝인 △602를 攻擊奪取토록 하였다.

그런데 연대가 이와같이 攻擊계획을 세워 각 대대로 하여금 공격준비를 갖추게 할 무렵인 10.00에 敵1개 중대 규모가 楸洞쪽에서 縱隊形으로 양양한 氣勢로 제1대대 正面에 出現하였다. 대대는 이들이 너무도 騰騰하므로 必是 제6사단이 撤收하는 것으로 알고 現戰線에는 敵情이 없는 것으로 誤判하였는데 이때 我軍偵察 Helicopter 1대가 上空을 누비며 飛行하는 것을 본 敵이 일제히 對空射擊을 加하기 시작하여 結局 Helicopter는 被彈으로 대대 OP附近에 추락하고 말았다.

대대장 白景奭 중령은 비로소 敵임을 確認하자 이들이 接近할 때까지 일제 射擊을 못하게 하고 대대에서 信號彈을 쏘면 일제히 射擊하여 殲滅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敵이 近接하기만 노리고 있었는데, 이 當時 그들은 我軍兵力이 注坡嶺 以南으로 모두 撤收한 줄만 알고 있던듯 여전히 縱隊形으로 제1중대(장, 金永敦 대위) 正面으로 侵透하였다.

중대는 超緊張속에서 사격신호만을 기다렸는데, 敵이 7-8m앞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연막탄 1발이 치솟아 射擊을 알리자, 중대 噴火口에서 熱火를 吐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때 敵은 무방비상태로 悠悠히 南下하다가 集中射擊으로 屠戮되었으며, 確認한 屍體가 87구에 達하고 그들의 裝備를 모조리 노획하여 初戰에 뚜껑한 戰果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 當時를 回想하여 제1중대장 金永敦 대위는 證言하기를 『참 통쾌한 一戰이었다. 한놈도 놓치지 않았는데 그중 2명을 사로잡아 심문하였더니 我軍이 이미 撤收하여 없는 곳인 줄 알고 注坡嶺 일대의 偵察을 目的으로 出動中이었다고 하였다.

이때 屍體를 確認하면서 發見한 事實인데 水桶에는 「위스키」가 가득 차 있었고 「파이프」 겸용의 피리를 全員이 所持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敵은 이 攻勢에 全力量을 傾注하였던 것으로 推斷된다.

이와 같이 敵의 偵察中隊를 殲滅하고 敵情을 探索한 연대는 左側一線 제2대대로 하여금 三峴 일대에 據點을 두고 侵襲을 피하는 敵을 攻擊케 하였던 바, 제2대대(장, 吳新禧 중령)는 이날 16.00에 제6중대를 △750 北쪽 下端에 推進하여 攻擊을 개시케 하였다.

이리하여 중대(장, 李正榮 대위)는 △658 西南 下端을 通過하여 19.00에 750m앞까지 進出하였을 무렵 △700에서 2個소대로 추산되는 兵力이 중대의 進路를 阻止하며 攻擊을 加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60mm 박격포로 이를 制壓하여 一蹴하고 계속 進擊하여 19.30에는 △700의 7部능선까지 突進하였는데, 이곳에서 集中砲擊으로 頓挫狀態에 빠지게 된 중대는 일단 同高地의 5部능선으로 물러서 戰列을 다시 整備하고 高地頂上에 砲擊을 퍼붓게 한 다음 20.00에 다시 攻堅에 나서 8部능선까지 突破한 다음 白兵을 휘몰아 頂上을 突貫擊破하여 20.30에 이 高地를 奪取하고 餘勢를 몰아 계속 進擊, 그 200m 北쪽 無名高地까지 掌中에 넣었다.

이와 같이 △700 일대를 掌握케 된 대대(장, 吳新春 중령)는 제6중대(장, 李正榮 대위)로 하여금 敵의 逆襲에 對備케 하고 제5, 제7 兩중대를 無名高地 능선에 推進하여 夜間侵襲에 對備하면서 △602에 對한 攻堅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2. 제9연대의 상황

한편 제6사단에 배속되어 제7연대 진지를 인수한 제9연대(장, 金永夏 대령)는 전날 戰況에 따라 撤收하기 시작하였는데, 제1대대(장, 元容五 중령)를 14일 14.30에 △633를 占領케 하고 제2, 제3 兩대대의 撤收를 掩護케 하면서 側方의 敵을 阻止하여 제6사단의 撤收도 아울러 掩護하였다.

이리하여 제2, 제3 兩대대를 15.30 杜木洞 南쪽에 撤收시킨 연대는 21.00에 제3대대(장, 李憲洙 소령)를 △633와 그 東쪽에 전개하고 제1대대(장, 元容五 중령)를 同高地西麓에서 榛峴里까지 展開시켜 左隣接 首都사단과 연결시켰다.

그리고 제2대대(장, 李春培 중령)는 △663에 推進하여 예비로 配置하였다.

이와 같이 現진지선을 確保하고 敵을 阻止하던 연대는 이날 16.00에 부사단장 李昌禎 대령이 연대 CP에 당도하여 비로소 軍단작명 제5호(7.14.11.30)에 따른 原隊復歸 命을 받게 되었으니, 이때까지 연대(장, 金永夏 대령)는 만 1일간(제7연대진지 인수후 現진지선확보시까지)은 제9사단이 Wyoming線으로 撤收한 다음이라 오직 연대장 金永夏대령의 獨斷指揮로 包圍網을 뚫고 敵을 阻止하면서 이 線을 確保하였다.

이리하여 原隊復歸된 연대는 사단의 左一線이 되어 이線에서 계속 敵을 阻止하며 방어 진지를 구축하였다.

7월 16일 : 이날을 期하여 軍團은 Wyoming線에서 일제히 砲門을 열어 反擊에 나섰다.

그러나 該사단은 이보다 하루 앞서 15일부터 反擊에 나서 右一線 제13연대는 楸洞에서 後洞里 附近까지 進擊하였으며 그 銳鋒을 돌려 △425와 △602를 攻堅하였다.

그리고 左一線 제9연대는 △633에서 榛縣里까지 掌握한 가운데 左側方의 敵을 阻止하며 계속 攻堅을 느추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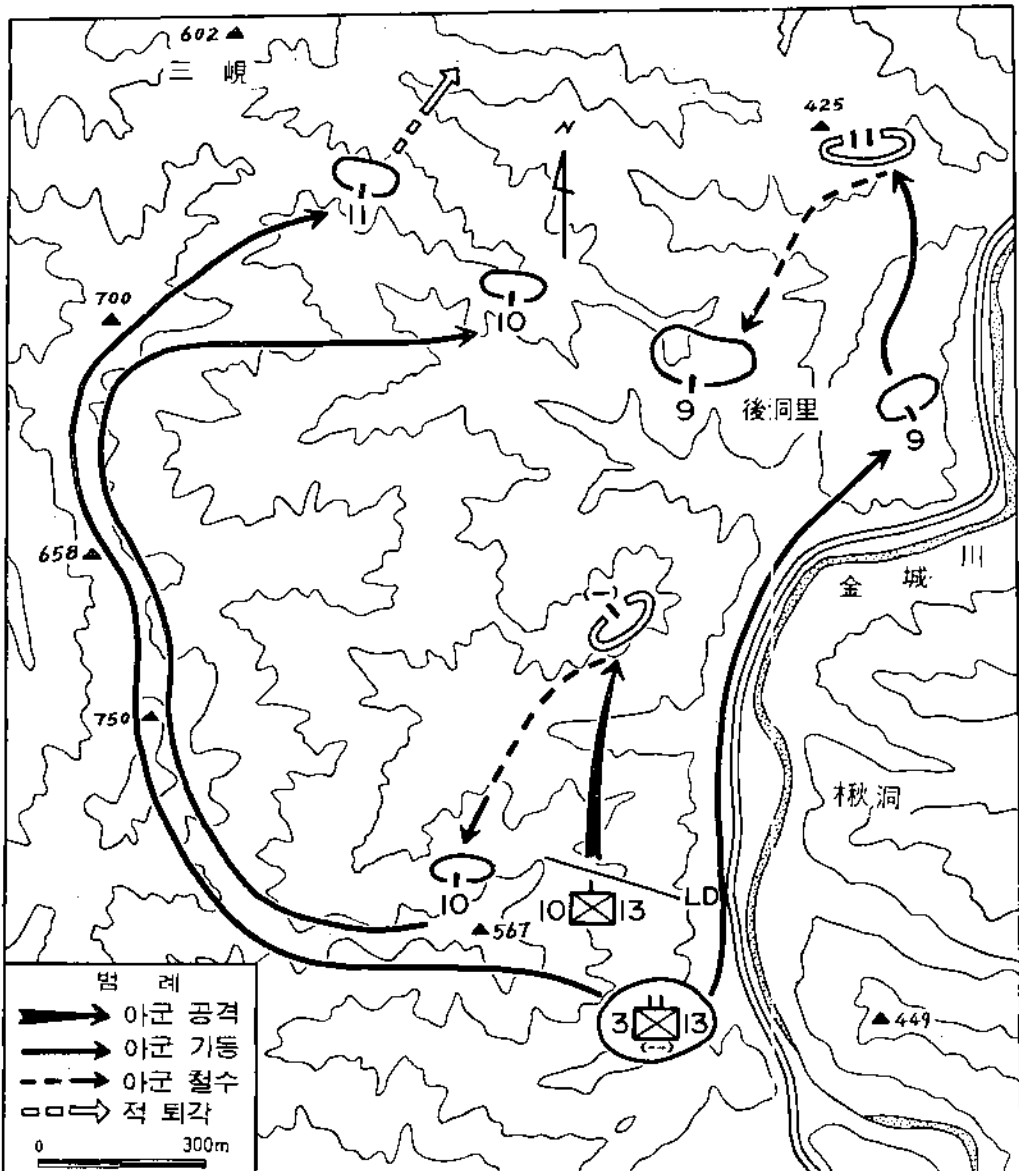
1. 제13연대의 전황 : 이날 제13연대(장, 朴應奎 대령)는 제2대대로 하여금 前日에 이어 계속 攻堅케 하여 △602를 奪取토록 하였으며 제3대대로서는 △602 東쪽(1km) 無名高地를 攻堅케 하여 연대 全正面에서 불꽃 튀기는 激戰이 벌어지게 되었다.

가) 제3대대의 攻擊

제3대대장 金裕鎮 중령은 이날 06.00를 期하여 一時에 反擊의 砲門을 열었는데 右側一線인 제9중대장, 鄭遇祥 중위는 東幕洞 西쪽 金城川 沿岸을 따라 진격하여 09.30에는 後洞里 東南쪽 金城川 西岸 彎曲部까지 右로부터 제1, 제2, 제3소대 順으로 산개한 다음 여기까지 進出한 戰車砲로 前方(200m) 無名高地를 制壓하고 제1소대로 하여금 제2, 제3 兩소대의 支援를 받으면서 攻堅케 하여 10.00에 同高地를 占領하였다.

그리고 제10중대(장, 李東植 대위)는 06.00에 LD(△567 北端)를 躍出하고 目標 △475를

◇ 상황도 제81호 後洞里부근 戰鬪(7. 16. 17)



向하여 進出하다가 10.00에 同高地 南端에서 敵砲의 集中射擊을 받았는데 이때에 2個소대 규모의 敵이 進路를 가로 막았으므로 激突하여 치열한 血戰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나 中대는 集中砲火로 말미암아 10.50에 △567 北쪽 능선에 물러서게 되었으며, 다시 戰列을 整備하고 攻擊을 再開하였으나 계속 集中되는 敵砲火를 뚫지 못하여 原位置로 撤收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中대의 攻擊이 挫折되자 大대장 金裕鎭 中령은 △475의 攻擊을 留保하고 제9중대가 後洞里까지 進出하여 確保하고 있으므로 中대로써 △475 西側方을 멀리 迂回시켜 제9중대가 占領하고 있는 현진지 西쪽 1km 地點에 있는 無名高地(△475 北쪽 1.3km)를 奪取케 하여 △475의 敵을 孤立시켜 覆滅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攻擊方向을 轉換한 中대는 18.00에 △567의 北쪽 능선에서 출발 迂回하여 △658의 下端(제2대대 確保地域)을 經由, 그 東北쪽으로 進出하였는데, 21.50에 目標 無名高地를 奪取하고 中대를 산개하여 적을 阻止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中대가 △475 北쪽 無名高地를 占領함으로써 大대장의 計劃이 的中하여 △475의 敵은 退路가 遮斷되고 말았는데, 이날밤 敵은 夜暗을 利用하여 金城川을 넘어 潰走하려다가 이곳에 埋伏된 연대 수색중대(장, 金仁哲 대위)에 依하여 鑿滅되고 말았다.

한편 제11중대(장, 孫東陸 대위)도 06.00에 LD(△567 西麓)을 출발하여 10.30에는 △658의 東側方에 進出하였으며, 15.00 △602 東南쪽(500m) 目標 無名高地 앞 50m까지 接近하였다. 이때 동高地에는 增強된 1개소대 규모가 自動火力을 集中하고 手榴탄을 連投하여 頑強히 抵抗하였으나 中대는 이를 무릎쓰고 突擊을 決行하여 15.30에 白兵戰으로 이를 奪取하였는데 敵은 이 一戰에서 18구의 遺棄屍體를 남기고 △602쪽으로 潰退하였다.

이리하여 大대는 이날 예정선까지 反擊하여 敵을 물리치고 방어진지를 구축하면서 攻擊준비를 갖추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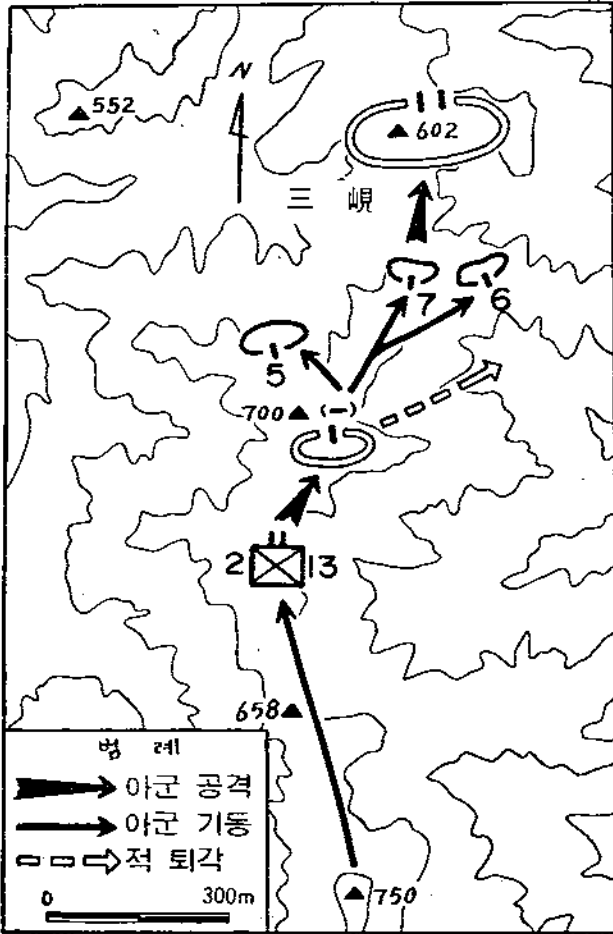
나) 제2대대의 攻擊

大대는 전날밤 제6중대로써 △602 南쪽 △700를 奪取하고 제5, 제7兩중대를 이곳에 推進시켜 공격준비를 갖추게 하여 이날 未明 兩중대로써 要衝인 △602를 攻擊키로 하였으나 敵의 遮斷射擊이 熾盛하여 兩중대의 進出이 늦어져 이미 東녁이 흰히 밝아 왔다.

그런데 該高地는 敵이 主軸으로 삼고 있는 △729와 不過 2km의 안팎인 單一路上에 놓여 廠制된 高地이어서 敵은 마음대로 直射火器를 驅使할 수 있으므로 白晝에 攻擊한다는 것은 兵力損失만 招來하는 結果라고 判斷한 大대장 吳新春 中령은 연대장 承認을 얻어 夜間攻擊을 決心하였다.

그리하여 밤이 깊어지자 大대는 支援砲兵으로 하여금 同高地 일대를 強打케 하고 그 後方補給路를 遮斷케 하면서 제7중대로써 攻擊梯隊를 삼아 제5중대의 支援下에 23.00부터 攻擊을 개시하였다.

◇ 상황도 제82호 602高地戰期(7.15-18)



이에 따라 제 7중대(장, 黃龍澤 대위)는 제 1소대를 右側一線으로 하여 東쪽을 迂回攻擊키 하고 제 2소대를 左側一線으로 하여 西쪽을 迂回挾攻토록 하였으며, 제 3소대를 예비로 控衛한 가운데 23.00 L D(△700 北端)를 躍進하여 夜哨를 타고 계속 進擊, 17일 00.30에 東쪽을 迂回한 제 1소대가 70m 앞까지 近迫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 1소대가 敵의 側方 火力據點에서 퍼붓는 交叉火網에 부딪쳐 膠着狀態에서 銃擊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무렵, 敵은 西쪽을 迂回한 제 2소대의 挾攻을 받게 되어 한때 動搖의 氣色을 보이는 듯 하였으므로 일제히 突擊을 決行하였는데 그들은 방망이 수류탄을 집중투척하고 自動小銃과 多發銃을 휘두르며 頑強히 抵抗함으로 중대는 이 火力에 밀려 南麓으로 물러서 兵力을 수습하면서 攻擊을

再興코자 그 준비를 서둘렀다.

2. 제9연대의 戰況

이날 연대는 09.00까지 제 3대대를 鳳堂德里(現軍事地圖에 「방동덕리」로 記載되었으나 이는 誤記임을 밝혀둠)에서 △633線에, 제 1대대를 △633 北端에서 間榛峴까지 전개하여 방어선을 펴고, 제 2대대를 △663에서 △735에 전개하여 從深으로 二重버치, 敵의 侵透에 對應키로 하였다.

그런데 △633와 △462사이에 튀어나온 △587에는 1개중대로 추산되는 敵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연대장 金永夏 대령은 제 3대대로 하여금 동高地의 敵을 擊滅키 하였던바, 대대장 李憲洙 소령은 이날 14.00를 期하여 제 11중대로써 이를 攻擊奮取케 하였다.

이에 따라 제 11중대(장, 文仁澤 중위)는 14.30에 △633 西麓에서 攻擊을 개시하여 8部능

선까지 突入하였는데 이때부터 敵은 自動火器를 亂射하며 방망이수류탄을 마구던져 中대의 突擊을 頑強히 저지하고 나섰다.

이때 中대는 敵과 激突하여 30分間이나 血戰을 거듭한 끝에 敵陣에 楔入하여 短兵接戰으로 동고지를 奪取하였는데, 敵은 28구의 遺棄屍體를 남기고 潰走하였다.

이와 같이 △587의 敵을 擊滅하고 이를 掌中에 넣은 연대는 이날 17.50에 연대수색중대(장, 姜泰元 대위)를 △462 西側方에 推進시켜 左隣接 美제3사단 제15연대 A중대와 接觸을 유지케 하면서 현방어진지를 補強하여 敵의 逆襲에 對應하였다.

7월 17일: 전날 反擊에서 사단의 右一線 제13연대는 後洞里 일대와 三峴(△602南쪽) 地域을 掌握하였으나 △602 攻擊에서 이를 奪取하지 못하고 그 南麓에 물러서 再攻擊을 준비중에 있으며, 左一線 제9연대는 △633에서 間榛峴까지 確保하고 있어 軍단작명에 따른 신주 저항선의 B線을 占領한 셈이었으나 다만 제13연대 左側北端 △602 일대와 제9연대 右側東北쪽 △552는 奪取하지 못하였다.

이에 사단장 林富澤 준장은 이날로써 이 두 高地도 기어이 奪取할 決心을 굳혀 제13연대로 하여금 △602를 前日에 이어 계속 攻略토록 하는 한편 제9연대는 △633 西側方(軍단작명으로 首都사단과 地境線을 變更키로 하였으나 敵의 急襲으로 變更치 못한 地域임)△462를 占領하여 左인접 美제3사단과 연결토록 하고 △552에 對한 攻擊계획을 세우게 하였다.

이날의 隣接사단 상황을 살펴보면, 右인접 제8사단은 전날 逆襲에서 金城川 越便(東岸) 楸洞附近까지 進擊하였으며 左인접 美제3사단은 間榛峴까지 確保하여 左一線의 제9연대와 併行으로 防守에 임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右인접 제8사단은 사단보다 1.5km 뒤떨어진 線에서 攻擊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13연대의 戰況

이날 연대는 前日에 이어 계속 反擊에 나섰다, 右제一線 제1대대로 하여금 巨里室과 金城川 彎曲部 西岸에 接한 △406까지를 奪取케 하고 中央제一線 제3대대로서는 △425를 略取케 하였으며 左제一線 제2대대는 계속 △602를 奪取케 하였다.

가) 제1대대의 攻擊

대대장 白景奭 중령은 △567에서 △750間을 占領하고 연대 예비로서 제3대대의 攻擊을 지원하다가 이날 연대 命令에 따라 巨里室과 △406를 攻擊케 되었다.

그리하여 이날 04.50에 △567 南麓에 각 중대를 集結시켜 공격준비를 갖춘 다음 06.00에는 後洞里까지 推進하여 제1중대로써 右제一線을 삼아 巨里室 東北쪽 金城川 西岸 일대와 그와 連한 △406를 攻擊케 하고 제3중대를 左제一線으로 하여 巨里室과 그 東쪽 100m 無名高地를 奪取토록 하였으며, 제2중대를 後洞里 東쪽 無名高地에 예비로 공치한 가운데 06.00에 현진지선에서 攻擊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대대 OP는 제2중대 진지에 두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1중대(장, 金永敦 대위)는 戰車 1개소대를 앞세우고 06.00에 金城川 沿岸을 따라 勇躍 進出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金城川 沿岸은 歩兵과 戰車가 協同하여 機動하기는 容易한 地形이지만 어느 곳에서나 瞰制할 수 있는 低地帶이어서 敵의 直射火力에 直面할 뿐만 아니라 戰勢가 不利할 때에는 退路가 遮斷될 危險性이 있는 攻擊路이다.

이에 對하여 當時 제1중대장 金永敦 대위는 그 證言에서 『이러한 危險을 무릅쓰고 金城川 沿岸을 攻擊路로 擇하기 보다는 後洞里 東北쪽 능선의 背斜面을 타고 攻擊하는 것이 企圖秘匿에 있어서나 敵의 直射火力을 피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後者를 택하기로 주장 하였지만 戰車와의 協동공격이 안된다는 理由로 전자를 택하도록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였다.

중대가 巨里室의 東北쪽에 있는 金城川 彎曲部에 이르렀을 무렵 敵은 △406와 △425에서 일제히 砲門을 열어 集中砲擊을 퍼붓고 이와 동시에 1개 중대 규모가 西側方 능선에서 기관총을 亂射하며 後尾를 奇襲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一轉危局으로 進退維谷에 빠지고 말았는데 이때 중대장 金永敦 대위의 기민한 조치로써 戰車의 엄호를 받으면서 西北쪽 능선에 치달려 危險을 면하였으나 戰車소대는 直射砲火로 破損되었으며 그 중 2臺가 이 溝中에서 빠져 나왔으나 使用不能케 되었다.

이와같이 敵의 集中砲擊과 逆襲으로 攻擊이 挫折된 중대는 命命에 따라 撤收하기 시작하였으나 敵의 遮斷射擊에 依하여 困境에 빠졌다가 간신히 원위치까지 철수하게 되었다.

이에 대대는 동중대로 하여금 戰備를 새로이 갖추게 하여, 夜間 공격을 再舉기로 하였는데, 이즈음 △425를 공격한 제3대대가 敵勢에 밀려 1km 뒤로 물러서게 되자 연대장 朴應奎 대령은 △406의 공격을 留保시키고 재1대대로써 △425를 奪取토록 하였다.

이와 같이 연대장의 口頭命命에 따라 攻擊目標을 轉換하여 △425를 指向하게 된 제1대대장 劉東烈 소령(白景奭 중령은 △406의 공격 실패로 부대대장인 劉少領이 直接指揮함)은 제1중대로써 공격제대로 삼아 18.00에 공격을 敢行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1중대(장, 金永敦 대위)는 △425 일대에 砲火가 炸裂하는 가운데 △18.00에 LD(현진지線)를 躍進하였으며 제1, 제2 兩소대는 後洞里 北쪽 능선의 東西 兩斜面을 타고 正面으로 直衝케 하고 제3소대는 예비로 후속케 하다가 兩소대의 공격이 挫折되면 이를 超越키로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正面을 直衝한 제1, 제2 兩소대가 目標 △425의 8部 능선에 進出하여 突擊을 決行코자 할 무렵 敵은 側方 火器를 亂射할 뿐만 아니라 自動소총과 多發銃을 휘두르며 방망이 수류탄을 집중투척하여 완강히 저항함으로써 兩소대는 突擊을 決行치 못하고 치

◇ 상황도 제83호 後洞里 附近戰鬪(425高地) (7. 15-17)

열한 화력전단을 벌이게 되자 중대장 金永敦 대위는 후속하여 超越공격키로 한 제3소대를 이끌고 西側方을 迂回하여 側背 깊숙이 潛入한 다음 賊聲을 울리면서 楔入, 敵陣 一角을 突貫하니 그처럼 끈질기게 저항하던 그들도 그만 動搖의 氣色이 一역역하였다.

이에 兩소대도 이때를 노칠세라 銃劍을 뽑아들고 白兵을 휘몰아 直衝하여 敵陣을 덮치니 그들은 더 버티지 못하고 遺棄屍體 27구를 남긴채 潰退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20.00에 該高地를 탈취한 중대는 兵力을 정비하면서 四周방어하였는데, 子正이 가까워질 무렵부터 砲擊을 集中하기 시작한 敵은 波狀의으로 逆襲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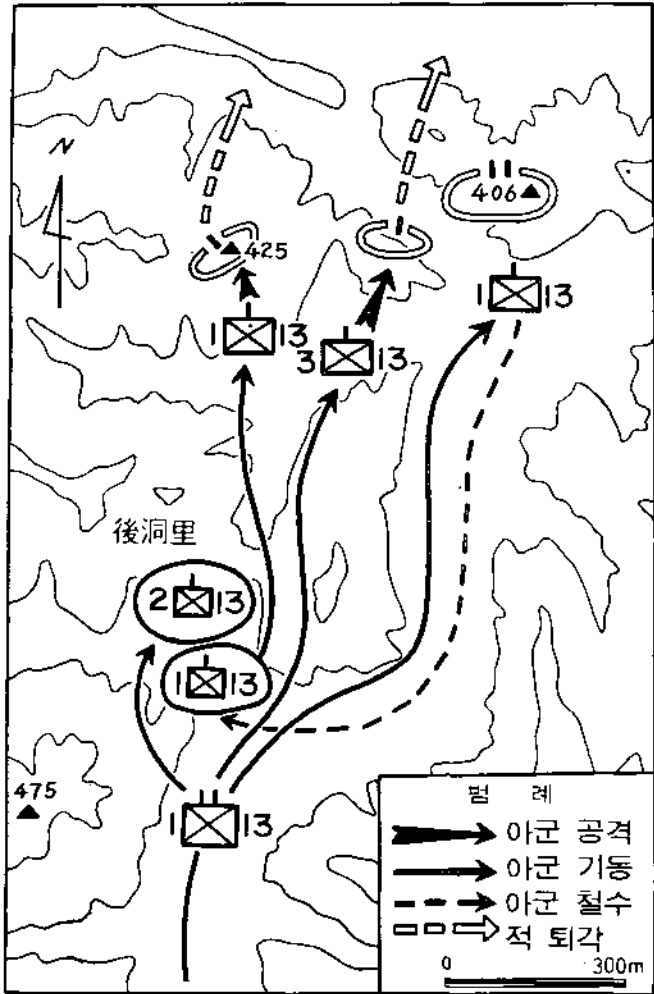
중대장은 敵砲火가 集注할 때부터 前斜面의 兵力을 後斜面으로 옮겨 反斜面방어모써 이를 잘 막아냈다.

중대장 金永敦 대위는 이때를 回想하되 『反斜面방어는 처음 시도하였는데 成功하였다. 놈들이 砲擊을 集中하고 여러 차례나 波狀의으로 突擊하였지만 우리는 끝내 이를 물리쳤다. 卽 敵砲火의 射程이 延伸될 때면 前중대원이 능선상에 뛰어 올라 수류탄과 自動火器로써 놈들을 격멸하였다.

우리 중대는 이 高地에서만 2일간 방어하다가 제7사단 제8연대에 전지를 인계하였지만 그 사이에 數次에 걸친 逆襲을 이 反斜面방어로 모두 擊退하였다. 이때 交通線은 온통 敵의 屍體로 매워버렸으니 그야말로 凄絶한 血戰의 연속극이었다』라고 證言에서 밝힌 바 있다.

한편 제3중대(장, 吳相仁 대위)도 이날 07.00에 LD(大隊 OP앞 능선下端)를 출발하여 後洞里 北쪽 능선을 타고 巨里室 東北쪽(500m) 無名高地의 공격에 나섰다.

이리하여 중대는 13.00에 巨里室까지 接敵 없이 進出하여 目標 高地 앞 200m에 이르렀을



무렵부터 敵砲火가 치열하여 더 以上 前進할 수 없었다. 이에 중대장은 지원포를 유도하여 強行케 하고 15.00에 제1소대를 西쪽을 迂回케 하여 側背에서 挾攻케 하고 제2, 제3 兩소대를 직접 지휘하여 正面을 直衝하였다.

이리하여 중대주력은 雨飛하는 敵砲火를 무릅쓰고 7部능선까지 突進하였는데, 敵은 側方 火力據點에서 기관총을 쏘아대며 집요하게 저항하여 돌격의 틈을 주지 않아 교착상태에 머물러 銃擊만을 되풀이하였다. 이때 西쪽을 迂回한 제1소대가 側背에서 火力를 集中하며 突入하게 되자 이때를 捕捉한 중대장 吳相仁 대위는 『突擊! 突擊!』을 외치며 主力을 휘몰아 穿貫突入하니 敵은 그 氣勢에 놀란듯 周章狼狽하여 遺棄屍體 23구를 남긴채 潰走하고 말았으며 중대는 多發銃을 비롯한 각종 소총 17정을 노획하는 전과도 올렸다.

이리하여 20.30에 중대는 고지를 탈취하고 흩어진 병력을 정비하면서 사주방어에 돌입하였는데, 22.00에는 後洞里 北쪽 능선까지 後繼한 제2중대(장, 申長燮 대위)가 그 임무를 인수받아 該高地 北쪽 200m 無名高地까지 占領하여 戰果를 더욱 擴大하였으며 중대는 그 뒤로 後洞里로 轉進하여 대대의 예비가 되었다.

이와 같이 △425 일대를 掌握케 된 대대는 방어진지를 補強하면서 역습에 대비하였다. 이날 戰鬪에서 대대가 얻은 戰果와 損失은 아래와 같다.

戰			果	損		失
射		發	629명	戰	死	1/13명
捕		獲	3명	戰	傷	2/121명
L	M	G	12정	失	踪	11명
기	관	단	총			
多	發	銃	47정			

나) 제3대대의 △425攻擊

제3대대(장, 金裕鎭 중령)는 전날 △425 西南쪽 700m 無名高地를 탈취하고 여기에서 공격준비를 갖춘 다음 이날 06.00를 기하여 제9중대로써 △425를 탈취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9중대(장, 鄭遇祥 중위)는 06.00부터 공격을 개시하여 07.30에는 동고지 앞 100m까지 近迫하였으나 敵의 戰車砲와 直射火力에 부딪쳐 한때 分散狀態에 빠졌다가 이를 수습하여 11.50에 支援砲擊을 가하면서 攻擊을 再開하였다. 그러나 또 다시 敵의 火力에 부딪쳤는데 이때 1개 중대 규모가 오히려 역습을 敢行하여 激突함으로써 血戰을 치르게 되었다.

그러하여 △425 중턱에서 서로 얽혀 白兵戰까지 演出하였지만 時間이 갈수록 敵勢가 增強되는데다가 山頂에서 쏘아대는 火力을 감당하지 못하여 17.50에는 後洞里 西北쪽 200m線으로 물러서게 되었다.

다) 연대장의 措置

시종 전황을 지켜 보던 연대장 朴應奎 대령은 右側一線인 제1대대가 △406 공격에서 失敗하자 현지에서 대대장 白景奭 중령을 解任하고 부대대장 劉東烈 소령으로 하여금 대대를 指揮토록 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가 3회에 걸친 공격에서 △425를 奪取하지 못하고 戰鬥力만을 喪失하게 되자 제1대대의 공격방향을 轉換시켜 이날 18.00을 期하여 △425를 공격토록 緊急 口頭命 令을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연대장의 措置는, 이 무렵 右안접 제8사단 제21연대가 黑雲吐嶺을 掌握못한 채 이 地域에서 激戰中이었으므로 地境線에 인접한 △406의 공격을 留保하였다가 제21연대의 戰勢推移에 따라 攻擊할 腹案을 세워 우선 △425를 탈취하여 要衝인 △602에 對한 제2대대의 攻擊을 容易하게 하려는 企圖로써 取해진 것으로 보여진다.

여하간 연대장의 이러한 措置로써 이날 제2대대는 夜間공격에서 △602를 奪取하는데 成功하였다.

한편 연대는 사단작지 제109호(7.17.17.00)에 따라 사단수색중대를 배속받았다.

라) 제2대대의 △602攻擊

전날 대대는 제7중대로 하여금 △602를 공격케 하였던 바 同중대가 7部능선까지 進擊하여 子正까지 血戰을 거듭하다가 화력에 밀려 南麓으로 물러서게 되었으므로 該고지에 지원포격을 집중케 하고 同중대로써 이날 02.50에 攻擊을 再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7중대(장, 黃龍澤 대위)는 △602 南麓에서 공격준비를 갖춘 다음 지원포화가 該고지 정상에 炸裂하는 가운데 02.50부터 攻擊을 再興하여 8部능선까지 단숨에 치달렸다 이때 敵은 수류탄을 連投하고 自動소총과 多發銃을 휘두르며 중대의 공격로를 차단코자 안간힘을 썼으나 중대는 이를 박차고 지원砲의 射程 延伸과 더불어 白兵을 휘몰아 敵陣을 擊破한 다음 04.00에 該高地를 奪取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전날부터의 공격에서 지친 병력을 거두어 急竊陣地에서 사주방어에 들어갔는데, 이때 潰退하던 敵은 後續兵力을 얻어 砲擊을 加하면서 다시 陣前에 殺到하여 火力을 集注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60mm 박격포로 侵入路를 遮斷하면서, 自動火力을 퍼부어 近接을 阻止하고 나서자 敵은 突擊도 시도하지 못한채 △729를 向하여 潰走하고 말았다.

한편 대대는 △602를 奪取하자 △700 西쪽 능선에서 대기중인 제5중대(장, 金吉常 대위)를 △602 西麓에 急進시켜 該高地 北쪽 A高地(北쪽 150m), B高地(北쪽 250m), C高地(西北쪽 250m)를 奪取토록 하였다.

그리고 제6중대로써 12.00까지 제7중대의 임무를 인수케 하고 제7중대는 인계후 대대 OP 東쪽 능선에 轉進시켜 예비로 공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5중대는 11.30까지 △602 西麓에 集結하여 攻擊준비를 갖추고 제1, 제3 兩소대로 目標 A, B高地를 공격케 하고 제2소대로 目標 C를 탈취케 하여 12.00 에 제6중대의 火力支援을 받으면서 攻擊을 개시하였는데, 제1, 제3 兩소대는 14.20에 A高地 50m 앞까지 進擊하였으나 이곳에서 集中砲擊을 받아 通信이 斷切되었으며 兩소대를 진두지휘하던 중대장 金吉常 대위가 左腕에 貫通傷을 입었으나 중대장은 이를 무릅쓰고 突擊을 斷行하여 A高지를 奪取하자 그 餘勢를 몰아 16.00에 B高地까지 奪取하였다.

그리고 제2소대도 C高지를 占領함으로써 중대는 目標 A, B, C高지를 모두 掌中에 넣게 되었으며 전과로는 敵2명을 사로잡고 37명의 敵屍를 確認하였다.

그런데 이날 17.30에 增強된 1개대대로 推算되는 一隊이 △729에서 山下中이라는 潛伏組의 急報가 있는 뒤부터 敵의 各種砲火가 集中하기 시작하더니 22.00에는 무려 3,000餘발에 달하는 敵砲擊이 △602와 대대 OP 일대를 震動하였다.

이렇듯 砲擊을 集中한 그들은 22.30에 夜暗을 利用하여 △602와 그 北쪽 A, B, C高地 正面에 殺到하여 三面에서 包圍網을 좁혀 壓縮하였다.

이 急報에 接한 대대장 吳新春 중령은 A, B, C高地에서 제5중대를 撤收시켜 제6중대와 合勢하여 △602를 堅守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602에는 또 다른 敵의 한패가 東側背에서 侵襲하여 合勢하므로 제6중대는 제5중대가 이르기 전에 該高지를 敵手에 넘겨주고 말았다.

이렇게 戰局이 急轉되어 제5중대는 敵의 重圍에서 그 活路마저 突破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중대장 金吉常 대위의 左腕 貫通傷이 덧나 重態에 빠져 중대를 指揮할 氣力을 잃고 말았다.

이때 제1소대장 鄭相英 소위가 중대장 앞에 다가가 『중대장님! 敵勢가 날로 增強되어 分秒를 다투는 危局입니다. 이대로 包圍網 속에서 배죽음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어서 勇斷을 내려주십시오?』하고 중대장의 最後 決심을 다구쳤다.

중대장 金 대위는 간신이 입을 열어 『중대를 鄭 소위에게 맡긴다. 포위망을 뚫고 살아가 거던 대대장님께 중대장은 最後까지 싸우다 죽었다고 전해다오!』이 한마디 말을 남긴채 심한 出血로 殞命하고 말았으니 重圍속에서 猝地에 중대장과 幽冥을 달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悲憤 속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던 鄭相英 소위는 즉각 중대 先任下士官에게 特攻隊 5명을 抽出케 하였다.

그리하여 선임하사관을 組長으로 한 特공대가 西南쪽 包圍網을 擊破한 氣勢로 火力를 集中하는 사이 鄭소위는 중대를 이끌고 東南쪽 包圍網을 突破하고 活路를 열기 시작하였는데, 마침 제7중대(장, 黃龍澤 대위)가 該高地 南端에서 중대의 退路를 掩護해 주어 중대는 이 重圍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危局을 突破하고 △602 南端 200m에 撤收한 대대는 흩어진 兵力을 수습하며

계속 南下를 企圖하는 敵을 阻止하게 되었다.

이 戰鬪에서 대대는 射殺 120명, 捕虜 2명, LMG 2정, 多發銃 30정, 自動소총 3정을 노획하는 戰果를 거둔 反面에 戰死 5/53명, 負傷 9/197명, 失踪 9명의 損失을 보았다

2. 제9연대의 戰況

이날 연대장 金永夏대령은 현전선을 維持하면서 △462 일대의 敵을 擊滅하였는데, 이에 앞서 07.00에 △663 西北쪽에서 1개대대로 推算되는 一團이 逆襲하여 일대 激戰을 치르게 되었다.

이때 연대는 美제3사단 砲兵의 支援과 제20포병단(장, 李春景 대령)지원을 받아 侵入路를 遮斷케 하면서 제1대대 및 제2대대의 중화기 중대의 火力을 集中시켜 陣前에서 이를 粉碎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敵이 兵力을 增強하여 역습을 시도하자 사단(장, 林富深 준장)은 작지 제108호(서면 하달 17.10.00)로써 예비인 제20연대 예하 1개대대를 抽出하여 제9연대에 배속, 兵力을 增強시켰다.

이와 같은 사단장의 措置에 따라 제20연대 제2대대를 배속받게 된 제9연대는 동대대를 10.00까지 △689 南麓에 推進시켜 △462일대를 占領케 하여 그곳에 侵透한 敵을 擊滅케 하였던 바, 제2대대는 이날 10.20에 △689 南麓에 轉進하여 戰備를 가다듬은 다음 12.00 이곳을 떠나 △517 東側方을 經由하여 △462 南端에 각중대를 진입시키고 敵情을 探索하였는데, 이때 △462에는 1개소대 규모에 지나지 않는 소수병력이 警戒에 임하고 있음을 探知하게 되었다.

이에 대대는 一擊에 이를 覆滅하고 13.00에 右로부터 제6, 제5, 제7중대 順으로 전개하여 방어에 임하였으며, 대대 OP는 △587에 開設하였다.

그리고 중화기중대의 陣地도 登高地 後斜面에 推進시키고 제7중대로써 △462 東쪽200m 無名高地를 奪取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7중대(장, 梁在汜 대위)는 14.30에 目標 無名高地를 攻擊하여 이렇다 할 敵의 저항도 없이 이를 占領하고 사수방어하였다.

한편 대대는 이날 17.00에 제5중대로 하여금 △462 東北쪽 △471를 攻擊케 하였는데 該高地도 별로 接戰없이 掌握케 되었다.

이로써 연대는 예정된 주저항선을 確保케 되었으나 △552 공격은 決行치 못하였으니, 그 까닭은 登高지가 要衝을 이루고 있는데다가 敵의 據點인 △729에서 砲制되어 그 攻擊이 容易하지 않은 難點과 敵 包圍網을 突破하고 이 線까지 撤退하면서 血戰을 치른 戰痕을 씻지 못한데도 緣由가 있는듯 하다.

그러나 이날 연대는 제차 △552 공격을 지시받자 左隣接인 美제3사단과 接觸을 유지하면서 敵의 側方侵透를 阻止케 한 연대수색중대로 하여금 該高地를 공격케 하여 그 戰備를 갖추게 하였다.

7월 18일 : 사단은 전날 反擊에서 金城川 彎曲部를 완전 장악하게 됨으로써 신주저항선의 B線까지를 確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右側은 金城川 西岸에 連한 △425를 掌中에 넣었고 左側은 美제3사단과 接한 △462線까지 確保함으로써 右인접 제8사단을 밀고 白岩山까지 南下한 敵의 後方補給路와 그 退路를 遮斷하여 孤立시켜 同사단의 역습을 容易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乘勝長驅로 신주저항선을 모두 恢復한 사단은 그 餘勢를 몰아 當面의 敵을 계속 밀고 올라가 그를 격파함으로써 再編成의 餘裕를 주지 않으려 하였으나 軍團作命에 따라 이 線을 維持確保하게 되었으므로 敵으로 하여금 마침내 兵力補充과 後方補給을 얻어 再整備의 기회를 주게 되었으며 따라서 向後 休戰이 成立될 때까지 이 不利한 地形의 방어 線上에서 苦戰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1. 제13연대의 戰況

연대는 전날 △425를 탈취하고 △602를 掌中에 넣었으나 敵이 夜暗을 틈타 역습을 試圖함으로써 徹夜 激戰을 치르게 되었는데, 右側一線 제1대대는 △425에 波狀的으로 逆襲을 試圖한 敵을 反斜面 방어로 그때마다 擊退하였다.

이날 未明에도 그들의 一波가 強力한 砲擊을 隨伴하고 陣前까지 殺戮하여 수류탄을 연투하며 진내로 육박하였으나 제1중대(장, 金永敦 대위)의 奮戰으로 이를 격퇴하였다.

이와 같이 敵의 침투를 분쇄한 연대는 이날 08.30에 제1대대 OP를 △406西南쪽 無名高地에 推進케 하고 △425에서 東北쪽 500m線에 각중대를 전개시켜 방어진지를 구축토록 하였다.

한편 중앙 제一線인 제3대대는 대대 OP를 △425 西쪽 500m 無名高地에 推進케 하고 巨里室에서 西側方 1.5km線에서 방어를 임하게 하였다.



〈제13연대 제1대대 OP에서 戰況을 聽取하는 사단장 및 參謀들〉

그런데 左側一線인 제2대대는 전날 夜間攻擊으로 △602를 탈취하였으나, 이날 子正부터 增強된 1個대대 규모가 역습하여 血戰을 거듭하면서 이를 저지코자 하였지만 끝내 막아 내지 못하고 이날 02.30에 該高地를 敵手中에 넘겨 주고 그 南麓으로 물러서 억습준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대대는 16일부터 2일간 이高地를 공격하여 血戰을 거듭한 결과 적지 않은 兵力의 損失을 본데다가 이날 子正부터 增強된 대대규모와 血鬪를 치르게 되어 그 戰鬥力을 거의 消耗하였으며 더구나 敵이 兵力을 增強하여 該高地를 占有하고 있는 限은 동대대로서는 그 奪取가 어렵다고 내다본 연대장 朴應奎 대령은 反擊을 留保시키고 현전지線에서 敵을 저지케 하고 사단에 增援을 要請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사단장 林富澤 준장은 이날도 각연대 CP를 巡訪하면서 戰勢를 銳意檢討하다가 제 13연대로부터 △602를 빼앗겼다는 急報에 이어 增援을 要請받자 緊急 사단작지 제112호를 口頭下達하였으니,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7월 D일 H시를 期하여 △602를 奪還하려 한다.

② 제13연대장

㉑ 7월18일 12.00부로 제20연대 1개대대를 통합 지휘하라.

㉒ 7월 D일 H시를 期하여 △602를 奪取하라.

③ 제20연대장은 7월18일 12.00부로 예하 1개대대를 13연대에 배속하라.

④ D일 H시는 7월18일 16.00이다.』

이와 같은 사단작지에 의거하여 제20연대 제3대대를 배속받은 제13연대장 朴應奎 대령은 동대대를 이날 15.00까지 △602 南쪽 500m 無名高地에 推進케 하여 16.00를 期하여 恢復 攻擊을 斷行케 하였다.

이에 따라 제3대대(장, 李仁洙 소령)는 이날 15.00에 無名高地(△602 南쪽)南斜面에 轉進하여 공격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살펴보면 제9중대는 이 無名高地 北麓에서 直衝케 하고 제10중대는 西麓에서 西北쪽을 迂回하여 側背에서 挾攻케 하였으며, 제11중대와 중화기중대로는 이곳에서 이들을 直接支援토록 하였다.

그리고 대대 OP는 현 無名高地에 開設하고 16.00부터 공격을 개시기로 決心하였다.

이와 같이 공격계획을 세운 대대장 李仁洙 소령은 15.50까지 각 중대를 部署한 곳으로 推進시켜 공격준비를 갖추게 하는 한편 支援砲로 하여금 △602 일대를 強打케 하였다.

드디어 △16.00에 공격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이 오르자 제9, 제10 兩중대는 공격준비사격이 山野溪谷을 진동하는 가운데 LD를 박차고 一躍 공격에 나서 19.00에는 8部능선까지 進出하여 突擊을 決行코자 하였는데, 射程이 延伸될 무렵부터 後斜面에 숨었던 敵兵들이 능선위에 튀어나와 방망이수류탄을 연투하고 側方 火力據點에서 기관총을 마구쏘아대며 집요하게 저항함으로 兩중대는 돌격을 決行하지 못하고 일단 死角을 이룬 6部능선으로 물

러서 砲擊을 요청한 다음 19.30에 공격을 再起하여 50m 앞까지 肉迫하여 正面과 側背에서 突擊을 다시 決行하였다.

그런데 敵은 이번에도 고지 前斜面으로 튀어나와 저항코자 하였지만 砲擊으로 입은 손해가 큰듯 兩중대가 白兵을 휘몰아 敵陣을 덮치자 敵은 그 氣勢에 놀려 混淆하기 시작하더니 20.30에 四散潰走하였다.

이리하여 兩중대는 2차 공격에서 該高地를 奪回하고 東西로 나눠 四周방어로서 역습에 대비하였다.

그런데 이무렵 潰走하던 敵은 後續兵力과 合勢한듯 21.30에 砲擊을 集注하며 1대(一) 규모가 正面과 東西 兩側으로 殺到하여 방망이 수류탄을 마구던지며 自動소총과 多發銃을 앞세우고 陣內로 肉迫하였다.

兩중대는 60mm 迫擊砲로 이들의 侵入路를 遮斷코자 하였으나 砲彈은 벌써 射盡하였으며 機關銃도 使用不能케 되었다.

그러므로 兩중대는 수류탄과 自動소총으로 이를 阻止하며 血鬪를 거듭하였지만 三面에서 蟻集하는 敵勢를 막아내지 못하고 奪取한지 不過 2시간도 못되는 23.30에 該高地를 도로 敵手에 넘겨주고 그 南麓으로 물러서게 되었다.

2. 사단장의 措置

이날 右隣接인 제8사단은 黑雲吐嶺(△851)을 奪取하고 계속 攻擊中이며, 左隣接 美제3사단도 예정線을 確保하고 방어진지를 구축중이었다.

該사단 역시 주저항선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1.5km 北쪽에 敵이 主軸으로 삼고 있는 △729가 있어서 威脅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사단장 林富澤 준장은 이와 單一路上에 있는 △602를 掌握함으로써 서로 對峙하여 牽制하려 하였는데, 敵도 이 意中을 看破한듯 이날 夜間에 역습을 기도하고 이를 侵奪하였다.

이 急報에 接한 사단장은 激怒하여 연대장을 詰責하고 23.40에 작거 제113호를 緊急 口頭命令으로 下達하여 △602의 恢復攻擊을 예비로 두었던 제20연대에 專擔토록 하였는데, 그 要旨는 아래와 같다.

『① 제20연대장

㉞ 7월 19일 03.00까지 殘餘 隸下 1개대대를 三峴에 移動시켜 △602에 對한 增援 및 역습을 擔當하라.

㉟ 7월 19일 03.00부로 제13연대에 배속된 1개대대를 統合指揮하여 該高地를 占領하라

㊱ 동시부로 사단중포중대를 統合指揮하라.

㊲ 7월 19일 03.00까지 연대CP를 前方으로 移動 開設하라

② 제13연대장

㉞ 7월 19일 03.00부로 △602의 작전임무를 제20연대에 任せ하라.

④ 7월 19일 06.00부로 제20연대 1개대대 및 사단중포중대의 배속을 해제한다』

以上과 같은 사단 작전지시를 받은 제20연대(장, 柳原植 대령)는 제1대대를 현지에서 出動시켜 19일 03.00까지 三峴(△602 南端)으로 轉進케 하고 연대 CP도 이날밤부터 이동을 개시하였다.

3. 제9연대의 戰況

이날 01.30에 △587 및 △663 西北쪽에서 대대규모의 敵의 一隊이 侵襲하여 한때 激戰을 벌였으나, 美제3사단 砲兵과 제20포병단의 支援을 받아 敵의 侵入路를 阻止하면서 제2대대(장, 李春倍 중령)와 제3대대(장, 李憲洙 소령)의 奮戰으로 擊退하였다.

한편 연대수색중대는 이날 08.00에 △518에 轉進하여 △552를 공격키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

그런데 이 △552는 北으로 2km 距離에 敵이 主軸으로 삼고 있는 △729가 있고 西쪽은 開豁地로서 金城川에 이어지는 작은 河川이 東南쪽에서부터 西北으로 흐르고 있으며 正東으로 1km 相距에 △602가 있어, 該高地와 더불어 사단 正面에서 雙鬚을 이룬 要衝이었다.

그 능선은 四面이 모두 急傾斜를 이루어 곳에 따라서는 天涯絶壁을 이루고 있어 峻峻하기 이를데 없는 곳이다.

그러므로 山中復에서부터는 死角을 이루어 直射火力을 避할 수 있지만 8부능선에서부터는 빨리 내려다보며 수류탄과 소화기를 마음대로 集中할 수 있어서 방어에는 利로우나 공격하기에는 매우 어려웠다.

중대장 姜泰元 대위는 이러한 地形의 不利를 勘案하여 제1소대는 東쪽을, 제3소대는 西쪽을 迂回케 하여 東西 兩側背에서 挾攻토록 하고 제2소대는 正面을 直衝토록 하였다.

이와 같이 兵力을 散開하여 공격계획을 세운데 對하여 該연대 S-3 金允基 대위는 그 證言에서 『첫째 頂上의 敵火力을 分散弱화시키고, 둘째로 支援砲擊으로 後方 補給路를 遮斷시켜 孤立시킨 다음 擊破하려는 企圖이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18.00부터는 攪亂射擊과 後方路를 遮斷하는 支援砲擊이 시작되었으며 航空支援도 活潑하여 세 차례나 그 일대를 猛爆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20.00正刻 공격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이 치솟자, 중대는 일제히 LD(△518 北端)를 躍出하여 前方 溪谷을 단숨에 뛰어넘어 躍進에 躍進을 거듭하여 21.30에는 該高地의 南端까지 進出하였다.

이무렵 敵은 중대의 공격로를 遮斷하였으나 彈着의 間隙을 누리며 가파른 능선을 기어 올라 22.30에는 8부능선까지 突入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런데 이때부터 敵은 능선위에 튀어나와 수류탄과 石塊를 굴리고 기관총을 亂射하며 頑強히 저항하였으므로 正面을 直衝한 제2소대와 東西 兩側方을 迂回한 제1, 제3 兩소대도 突擊을 決行하지 못하고 頓挫상태에서 苦戰을 겪게 되었다.

이때 中央제一線에서 제2소대를 지휘하던 중대장 姜泰元 대위는 이러한 狀況下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不利하다고 判斷하여 各소대를 逐次的으로 100m 뒤로 물리면서 銃擊을 계속 하였다.

이렇듯 불을 뿜는 火力戰이 무려 1시간이나 連續되었는데도 敵의 火力은 더욱 熾盛하여 만지고 중대가 保有한 彈藥은 줄어들어 중대는 撤退하는 길 밖에 없는 危局에 물리게 되자 중대장은 戰機의 一轉을 摸索하는 斷案을 내렸으니 제2소대에서 特攻隊 7명을 抽出하여 제3소대의 지원을 받으며 後側背에 潛入시켜 激突케 하고 그 瞬間, 敵의 虛隙을 찢러 擊破하려는 計策이었다.

이리하여 선발된 特攻組는 포복약진 끝에 後側背에 潛入하여 수류탄을 投擲하며 M2 Car을 猛射하니 敵은 중대가 後側背에서 突擊하는 줄 알고 一時에 그 쪽으로 몰렸다. 중대장은 이때를 捕捉하여 突擊信號를 울리고 『突擊! 突擊!』하고 號令하니 이에 鼓舞된 各소대가 白兵을 휘몰아 敵陣에 突入하였다.

이로써 頂上은 삼시간에 阿鼻叫喚의 亂鬪場으로 化하여 彼我が 얽힌 血鬪가 벌어졌으며 그야말로 生死를 가름하는 最後의 一瞬이어서 서로가 찢르고 찢리는 凄絶한 慘狀을 露示하였고 銃劍이 부딪칠 때마다 閃光만이 칙흙 같은 暗夜를 헤치고 흘러나와 熾烈한 激戰場임을 새삼 알리는 듯 하였다.

이렇듯 慘劇의 渦中속에서도 수색중대원들은 鬪魂을 불태워 끝내 敵을 撲滅하고 23.50에 該高地 頂上을 強占하였다.

이 戰鬪에서 중대는 敵의 遺棄屍體 58구를 確認하고 多發銃을 비롯한 각종 소총 39정, 과 LMG 2정, 自動소총 5정을 노획하는 戰果를 거둔 反面, 戰死 3명, 負傷 58명, 失蹤 9명의 損失을 보았다.

7월 19일 : 사단은 이날 주저항선상에서 가장 要衝을 이루고 있는 △602와 △552에서 熾烈한 爭奪戰을 反復하다가 이를 모두 掌中에 넣었거니와 이무렵 제8사단은 黑雲吐嶺을 奪取하고 後洞里 東側方에서 擊戰을 계속하였으나 그 當面の 敵勢는 날로 增強—途인 것으로 推斷되었다.

軍團長 丁一權 중장은 如斯한 兩사단의 狀況과, 시간적으로 餘裕를 얻은 敵이 後方보급을 얻어 兵力을 增援하고 向後 더욱 壓力을 加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작명 제8호(7.19.16.00)로써 軍단 예비인 제7사단(장, 金容培 소장)을 이戰線에 投入시켜 제11사단의 右一線의 一部주진지와 제8사단 左一線 一部진지를 인수케 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軍단은 防禦配備의 一部를 變更하려 한다 .

② 제11사단장은 7월 20일 04.00까지 사단방어지역 右翼一部를 제7사단에 인계하라.

③ 제8사단장은 7월21일 04.00까지 사단방어지역 左翼一部를 제7사단에 인계하라

④ 제7사단장은 7월20일 04.00까지 제11사단의 방어지역 右翼—음과 21일 04.00까지 제



<제11사단이 反擊戰에서 函獲한 敵의 武器들>

8사단의 방어지역 左翼一部를 인수하라.』

以上과 같은 軍단作命에 依據 사단은 작명 제100호(19. 23. 00)로써 右一線 제13연대진지를 제7사단에 인계하였는데 그 要點은 아래와 같다.

『① 사단은 軍단작명 제8호에 의거 제13연대의 작전임무를 제7사단에 인계하러 한다.

② 제13연대장

㉑ 7월 20일 04. 00까지 주진지를 제7사단 제8연대에 인계하라.

㉒ 교대완료후 西幕洞에 집결하여 사단 예비가 되라.

㉓ 7월19일 06. 00부로 예하 1개대대를 제20연대에 배속하라.

㉔ 7월20일 08. 00부로 사단수색중대의 배속을 해제한다.

③ 제20연대장

㉑ 연대는 현담당지역을 早速히 占領 確保하라.

㉒ 제13연대에서 7월19일 06. 00부로 배속되는 1개대대를 統合指揮하라

④ 제9연대장은 현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⑤ 사단수색중대는 7월20일 08. 00부로 제13연대로부터 배속을 해제, 사단지휘하에 복귀

하라

⑥ 협조지시

- ㉠ 部隊 이동간 기도秘匿 및 경계를 徹底히 하라.
- ㉡ 特히 이동간 부대표식을 被覆하라(鐵帽, 車輛, 腕章等).
- ㉢ 使用中인 有線網 일체를 被교대부대에 인계하라

⑦ 通信은 現行 SOI에 의거한다.

⑧ 사단 전방지휘소는 변동없다.』

1. 제13연대의 狀況

이날 연대장 朴應奎 대령은 배속중인 제20연대 제3대대로써 △602의 恢復攻擊을 斷行케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동대대를 그 南麓으로 撤退시켜 攻擊을 再起코자 하였는데 사단 작지 제113호에 의거하여 이날 04.00에 該高地의 作戰임무를 제20연대에 인계하였으며 제20연대 제3대대도 동시부로 원대복귀시켰다.

이리하여 연대는 △425에서 △602 右端까지의 지역을 방어하면서 역습에 대비하다가 20.00에 △425 正面에 2個중대로 추산되는 敵의 역습을 받아 한때 有線까지 杜絶되는 激戰을 벌이다가 제1대대(장, 劉東烈 소령)의 奮戰으로 이를 擊退하였다.

이와 같이 연대는 현방어진지를 堅守하는 한편 사단작명 제100호(19.23.00)에 의거하여 임무를 제7사단 제8연대에 인계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2. 제20연대의 △602의 恢復攻擊

이날 제20연대(장, 柳原植 대령)는사단작지 제113호에 의거하여 04.00에 제1대대(장, 金同玉 중령)를 △700(△602 南쪽 1km) 後斜面에 推進시켰다가 계속 △602 南端 500m까지 進入시켜 공격준비를 갖추게 하였으며 한편으로 연대 전방지휘소를 △658에 移動開設하였다.

그리고 △700 後斜面에 布陣한 사단 중박격포중대를 현지에서 배속받아 支援火力을 增強하고, 이날 04.00부로 원대복귀된 제3대대의 △602 狀況을 把握하였는데, 이무렵 同대대는 OP를 △700에 두고 01.00부터 △602의 恢復공격을 再舉하여 7部능선까지 進出하였으나 敵勢에 밀려 그 南麓 200m에서 흩어진 兵力을 수습하고 있었다.

한편 제13연대 제2대대도 △700에 대대 OP를 두고 그 東北쪽으로 전개하여 △602공격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該高地에는 대대 규모(一)가 역습에 대비하고 있었으며 그 北쪽 200m 無名高地에도 그들 1개중대 규모의 後續兵力이 있는 것으로 推斷되었다.

이와 같은 狀況을 綿密히 檢討한 연대장은 제1대대로 하여금 △602 南麓에서 역습준비중인 제3대대와 合勢하여 一擊에 登高지를 奪還하라고 命令하였다.

이에따라 제1대대장 金同玉 중령은 제1, 제3 兩중대를 제3대대 右側에 散開시킨 다음 제1중대로써 공격제대를 삼고 제3중대는 후속하다가 제1중대의 공격이 挫折되면 超越攻擊케 하는 한편 제2중대를 이곳에 예비로 公치키로 하였다.

◇상황도 제84호 602高地戰鬪(7. 19)

그런데 제3대대는 여러 차례의 激戰을 치르면서 장교 2명, 사병 40명이 戰死하고 장교 7명과 사병 242명이 戰傷을 입는데다가 이의 後送에 兵力을 빼앗기고 보니 現存兵力은 1個중대에 不過하였으나 그도 疲勞에 지쳐 있어 戰鬪力이 低減된 實情이었으므로 西側方 200m에서 지원토록 하였다.

한편 연대는 제20포병단(장, 李春景 대령)과 美제461중박격포대대의 支援을 받아 △602 일대를 集中射擊케 하고 △700에 布陣한 중박격포중대도 이곳을 強打케 하면서 아울러 航空支援도 要請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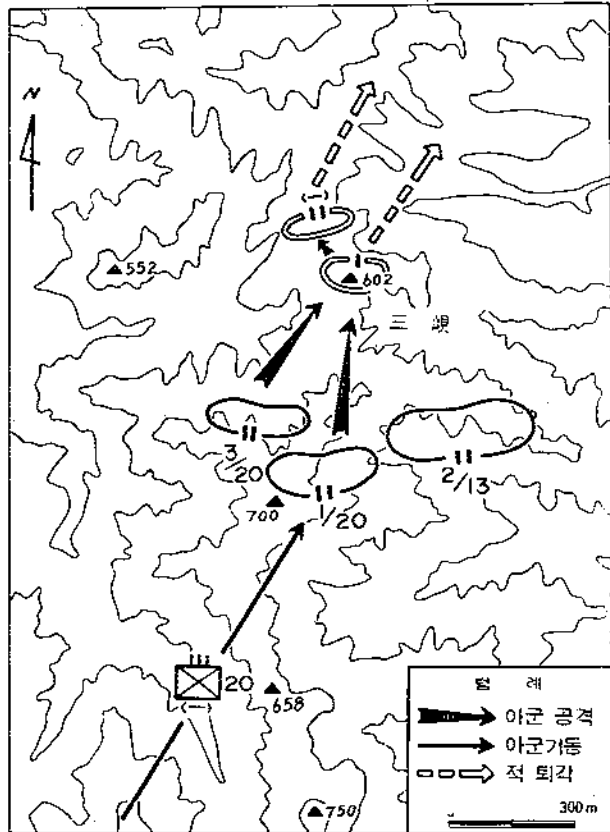
이리하여 各種砲火가 △602 頂上에 炸裂하여 砲煙으로 遮障한 가운데 12.00까지 LD에 進入한 제1중대(장, 崔淑煥 대위)는 공격준비를 갖추고 12.30에 躍進하여 正面을 直衝하여 一步又一歩 敵陣으로 다가섰다.

그런데 중대가 100m 앞까지 進出하였을 무렵부터 側方火力이 중대의 進路를 阻止하며 頑強히 저항하였다.

이에 중대는 그 火網에 밀려 일단 7部능선으로 물러섰다가 13.40에 공격을 再擧하였으나 이번에도 그들의 火網을 뚫지 못하여 死角을 이룬 6部 능선으로 다시 물러서 近接航空支援을 要請하였다.

이렇듯 제1중대의 2次공격이 無爲로 끝나자 대대장 金同玉 중령은 超越공격키로 한 제3중대를 제1중대와 合勢케 하여 항공지원에 이어 突擊을 決行하라고 命命하였는데, 이때 該高地의 戰況을 지켜보던 연대장 柳原植 대령은 西側方에서 火力을 支援하는 제3대대도 제1대대와 매를 같이 하여 西側方에서 突擊하라고 嚴命을 내렸다.

이날은 快晴한 날씨가라 航空지원에 安성마춤이어서, 美제5空軍의 F-51編隊가 번갈아 가며 敵後方을 爆擊하였는데, 近接지원을 要請한지 30분만에 이들 편대는 세 차례나 △602 頂



上을 누비며 爆擊과 機銃掃射를 퍼부었다.

이러한 가운데 14.50에 제1대대의 제1, 제3 兩중대는 正面과 東側方에서 그리고 제3대대의 殘餘兵力은 西側方에서 突進하여 15.20에 兩대대는 일제히 白兵을 휘몰아 三面에서 敵陣으로 楔入하니 敵은 이에 놀려 動搖의 氣色을 보이더니 그만 四散分潰하여 A高地쪽으로 敗退하였다.

이리하여 兩대대는 15.40에 該高地를 恢復하였는데, 제3대대는 兵力을 정비하고 四周방어에 들어갔으며 제1대대의 제1, 제3 兩중대는 潰走하는 敵을 跟隨하여 A高地(△602 北쪽 200m)와 B高地(△602 西北쪽 250m)를 一擊으로 壘中에 넣었다.

이와 같이 △602를 奪還한 연대는 그뒤 진지를 보강하고 該地域의 방수에 임하였는데 이 戰鬪에서 얻은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부대별		제1대대	제3대대	계
종	별			
射	殺	71명	70명	141명
殺	傷(推定)	105명	305명	410명
L	M G	5정	1정	6정
多	發 銃	15정	11정	26정
自	動 小 銃	3정	4정	7정

損 失

부대별		제1대대	제3대대	계
종	별			
戰	死	23명	2/40명	2/63명
戰	傷	4/159명	7/242명	11/410명
失	踪	19명	10명	2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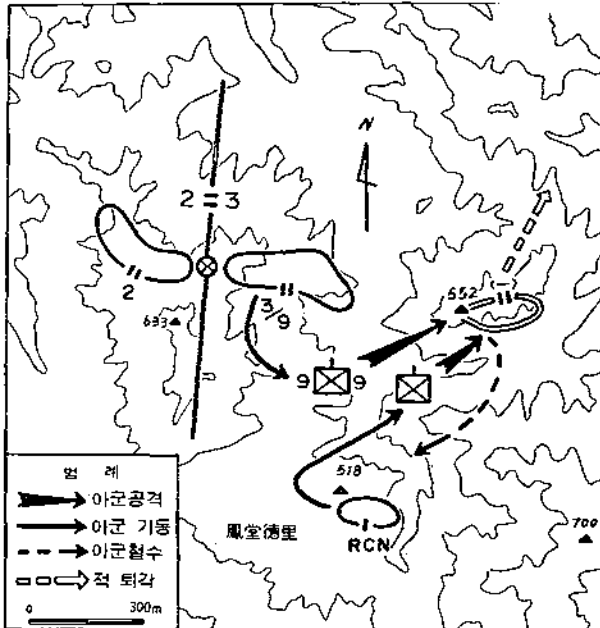
3. 제9연대의 △552 恢復攻擊

이날 02.30부터 △552 일대에 敵砲火가 集注하기 시작하여 04.00까지의 사이에 落下된 3,000餘發의 各種 砲彈으로 深夜의 △552는 온통 火焰으로 휩싸이고 砲煙이 자욱히 뒤덮혀 方向마저 헤아릴 수 없었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486 東北方向과 △552 西北쪽에서 增強된 2個 中대 규모가 逆襲으로 나와 陣前에 殺到하였다.

연대수색중대장 姜泰元 대위는 敵砲擊이 시작할 때부터 이미 역습을 받을 것을 覺悟하였으나 通信이 杜絶되어 增援을 얻지 못하고 70여명의 中대병력으로 同高地 反斜面에서 砲擊을 避하면서 對應하였는데 敵 砲火의 延伸이 시작되자 능선위에 뛰어올라 수류탄을 연부하며 개미떼처럼 밀려오는 敵을 阻止코자 하였지만 그들은 앞 兵丁이 죽으면 그 뒷 兵丁이 그 屍體를 넘고 頂上으로 기어 올랐다.

이에 중대는 火力을 集中하여 그들을 阻止코자 하였으나 지난 激戰에서 탄약을 거의 消耗한 탓으로 彈藥供給이 이에

◇ 상황도 제85호 552高地戰鬪



따르지 못하였으니 이는 準備의 不充分함을 보이는 것이었다.

중대장 姜泰元 대위는 피로써 빼앗은 高地이었건만 一戰을 決하여보지도 못하고 切齒扼腕의 恨을 품은채 敵手에 도로 넘겨 주고 중대를 이끌고 그 南麓으로 물러섰으니 매우 싱거운 一戰이라 할 것이다.

이리하여 중대는 南麓에서 07.00에 탄약供給을 겨우 받아 逆襲을 再舉하고 8部능선까지 直衝하여 돌격을 決行코자 하였으나 高地를 奪取한 敵은 진지를

보강하고 大대 규모의 兵力으로 頑強히 抗拒함으로 07.30에 또 다시 물러서 △518로 撤收하고 말았으니 訓練未到의 兵이란 評을 免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552의 戰勢가 不利하여 수색중대를 철수시킨 연대장 金永夏 대령은 이날 07.00에 △587 일대를 占領中인 제3대대의 一部兵力을 뽑아 該高地를 奪取할 決心을 세워 『제3대 대장은 一部 兵力으로써 이날 10.00를 期하여 △552를 奪取하라』는 要領의 口頭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3대대장 李憲洙 소령은 제9중대(장, 李春植 대위)를 △587에서 뽑아 09.30까지 △552 西側方 △486 南端에 轉進시켜 공격키로 하였다.

중대는 공격명령을 받고 △486에서 공격준비를 갖춘 다음 各種砲가 △552 頂上을 強打하는 10.00에 躍進하여 西側方을 迂回, 側背 깊숙히 壓縮하였다.

그런데 중대가 70m 앞까지 進出하였을 무렵 兩側方에서 기관총구를 열고 鐵火를 뿜어 줌으로써 중대는 釘着하고 말았다.

이때 중대장 李春植 대위는 중대를 左右 능선에 산개시키고 砲兵火力을 기관총진지에 유도하여 擊破케 하였다.

그러나 砲擊이 加하여질 무렵 敵은 교묘하게 기관총 위치를 옮겨 계속 亂射함으로 중대는 寸步도 前進할 수 없어 依然 교착 상태에서 苦戰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렇듯 壓制下에서 기관총 사격이 계속되는 限 突擊을 決行할 수 없다고 判斷한 중대장은 제1소대에서 特攻隊 5명을 抽出하여 煙幕으로 遮障하고 後側背에 潛入시켜 擊破기로 決心하였다.

이리하여 11.30에 金玉岡 下土가 이끄는 特攻組가 煙幕을 타고 潛入하여 기관총진지에 수류탄을 집중투척하며 火焰放射器의 熱焰을 뿜어 이를 爆破하는 瞬間을 捕捉한 중대장은 突擊 號수를 외치며 중대 主力을 휘몰아 敵陣에 楔入하는 즉시로 短兵으로 激突하니 敵은 더 버티지 못하고 潰退함으로써 24.50에 該高地를 奪回하였으니 可謂 訓練精到한 軍사의 眞面目을 보여주었다. 이 戰鬪에서 중대는 120명의 遺棄시체를 確認하였으며 捕虜 6명과 HMG 1정, LMG 4정, 多發銃 22정, 자동소총 2정, 3.5吋 로켓砲 1門 61mm 박격포 1문을 노획하는 戰果를 거둔 反面 戰死 9명, 戰傷 67명, 失蹤 5명의 損失을 보았다.

4. 사단은 7월 15일부터 赤根山 및 注坡里에서 反擊을 개시하여 이날로써 三峴地區까지를 掌握하게 되지만 向後 休戰이 成立될 때까지 이 三峴地域에서 △602 및 △552 爭奪戰이 反復된다.

그러나 이 狀況은 전투전의 개황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전투 후의 개황에서 略述키로 하고 本戰鬪의 終幕을 여기에서 내리기로 한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사단은 軍단작명 제8호(7.19.16.00)에 의거 軍단작명 제100호로써 右一線 제13연대의 주진지를 7월 20일 04.00부로 제7사단 제8연대에 인계키로 하였으나 이날 03.00에 △425 正面에 敵1개대대(一)규모가 逆襲하여 한때 激戰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나 該연대는 제1대대(장, 劉東烈 소령)의 奮戰으로 04.50에 이를 擊退하고 06.40에 제8연대에 진지를 인계한 다음 西幕洞에 移動하여 사단의 예비가 되었다.

이로써 사단은 제20연대로 右一線을 삼아 △602일대를 擔當케 하고 제9연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美 제3사단과의 戰鬪地境線에 接한 △462線까지 擔當하게 되었다.

그런데 20일 02.50에 增強된 대대규모의 敵이 強力한 砲擊을 隨伴하고 △302에 역습을 시도함으로

써 제20연대는 제1, 제3 兩대대로써 이를 저지격퇴코자 하였지만 끝내 固守하지 못하고 04.00에 그南 쪽으로 물러서고 말았다.

한편 左一線 제6연대는 △552에 이날 03.50부터 적 1개대대 규모가 陣前에 殺到하여 砲擊을 集中하며 肉迫하자 한때 陣內에서 白兵戰까지 벌이다가 戰勢가 不利하여지자 이곳에서 제3대대를 그西麓으로 撤收시켰다.

이와 같이 一朝에 △602와 △552를 빼앗긴 사단은 西麓洞에 예비로 控置한 제13연대(一)를 다시 投入키로 하고 작명 제101호(20.12.00)를 하달하여 이 兩個高地를 奪還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제13연대(장, 朴應奎 대령)는 22일 18.00에 西麓洞을 出發하여 다음 날인 23일 04.00에 제1대대(장, 劉東烈 소령)는 目標 △602를 제3대대(장, 金裕鎭 중령)는 目標 △552를 攻擊하여 奪回키로 하였다.

제1, 제3 兩대대는 이날 黎明公경에서 각각 目標을 한때 奪取하였으나 敵의 逆襲을 막아내지 못하고 또 다시 敵手에 도로 넘겨준채 400m 뒤로 撤收하여 이 線을 堅守하면서 數次의 逆襲을 企圖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사단은 이와 같이 이 兩高地의 恢復攻擊을 反復하였으나 증내 이를 奪還하지 못한채 兪주저항선상에서 波狀의으로 侵攻을 試圖하는 敵을 擊退하였다.

이렇듯 7월 15일부터 사단은 赤根山 및 注坡里에서 三峴地域까지 反擊하고 軍단이 設定한 新주저항선을 掌握하여 그 防衛에 注力하다가 7월 27일 제20연대장 柳原植 대령이 轉出하고 사단 참모장 趙誠華 대령이 後任 연대장으로 轉任하였으며 이날로써 休戰協定이 締結되어 사단은 작명 제102로서 非武裝 南方限界線以南陣地(楸洞 西側方 金城川 西岸에서부터 杜木洞 北쪽 △735에 이르는 線)를 占領하고 방어에 임하게 되었다.

當面의 敵은 △602와 △552를 奪取하고 계속 侵攻을 試圖하였으나 이 兩個高地線에 머물렀으며 敵도 2個연대 以上の 兵力과 많은 裝備를 잃은 것으로 推斷되었다.

綜合戰果 및 損失

戰 果					損 失							
부대별		제 9 연대	제 13 연대	제 20 연대	계	부대별		제 9 연대	제 13 연대	제 20 연대	계	
구분						구분						
射 捕	殺 傷	913	1,332	879	3,124	戰 死	98	156	113	367		
		9	18	8	35		戰 傷	479	739	504	1,722	
砲 火	H M G		1	3	4	失 踪		67	61	59	187	
	L M G	5	23	17	45		장 비 亡 失	L M G	3	1	1	5
	P P S H	97	128	65	280	B A R			14	12	9	35
	S M G	7	12	7	26							
	3.5" 로켓포	2	3	1	6							
60mm 迫擊砲	3	4	2	7								

§ 參戰者의 證言

◇ 제11사단장 林高澤 준장
(1973.9.3 韓肥監事室에서, 소장)

7.13攻勢때 제11사단장으로 제6사단 작전지역

을 인수받아 反擊을 개시하였다.

이 當時 敵 4개사단이 제6사단 정면을 쳐들어와 제6사단은 赤根山과 注坡嶺 뒤에 撤收하였다.

제2군단 作命에 따라 이 注坡嶺에서부터 反

擊作戰을 敢行하였으나 이 線에서 敵과 激突하여 一週間の 激戰을 치르면서 休戰을 맞았다.

지금도 記憶에 새로운 것은 △602의 戰鬪다.

이 高地는 當面の 敵이 主軸으로 삼고 있는 △729와 2km 相距에 있어 職制를 받고 있지만 주저항선상에서 最高峰을 이룬 要衝이어서 기어 이 確保하여 敵의 △729를 牽制해야 하는데 敵이 이 高地에 注力하여 逐次的으로 연대 以上の 兵力을 投入하여 방어를 임하였으므로 그 奪取에 많은 兵力을 消耗하게 되었다.

2次 逆襲 때는 1개연대 兵力을 모조리 투입하여 奪取하였으나 도로 빼앗겼으며 이때 제13연대 제2대대장 吳新春중령이 壯烈하게 戰死했다. 이 戰鬪에서 우리 사단이 三峴地區를 確保하고 敵의 後方補給路를 遮斷함으로써 右隣接 제8사단을 밀고 白岩山까지 南下한 敵을 容易하게 밀어 역습에 成功하여 현 休戰線까지 恢復하였다. 回顧하면 當時사단의 全將兵들의 戰功을 다시금 기리며 戰歿한 將兵들의 英靈을 追慕할 뿐이다.

특히 남기고 싶은 것은 그 어려운 逆襲 속에서 將兵들이 奮勇한 精神武裝을 갖추었기 때문에 反擊에 勝利를 거두었다고 믿는다.

다음으로 逆襲時에 있어서 奮勇에 있듯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實際戰鬪에서는 敵砲火가 날아만 와도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구나 인접부대의 協調나 軍需支援은 勝利를 左右하는 問題인만큼 앞으로 留意하여 주기바란다.

◇ 제11사단 제9연대장 金承夏 대령

(1976. 9. 27 해태공업주식회사 고문실에서, 예 준장)

7월13일 군단작명에 의거하여 제6사단에 배속되어 烽火洞지역에서 제7연대와 임무를 교대키로 되었는데 진지를 인수하기 전에 首都사단 側方을 밀고온 敵과 激突하여 激戰을 벌였다.

그런데 제6사단은 이미 撤收하였고 우리 연대만 敵의 包圍網에 갇혀 危機에 直面하였다.

戰鬪中에 他사단에 배속된 苦衷을 뼈저리게 實感하면서 活路를 열어 杜木洞 北쪽 △633에 연대를 撤收시켰으며 다음 날 원대복귀되어 이 線을 維持하면서 △552를 奪取하였다.

그러나 이 高地 爭奪戰은 계속되어 많은 兵力을 消耗하였으나 休戰直前に 敵手에 넘겨주었는

데 現在도 休戰線에 놓여있다.

韓國戰爭 때 줄곧 싸움터에서 生命을 이어왔지만 이 戰鬪는 내 生涯에서 가장 貴하고 잊기 못할 追憶이다.

단 하루반 동안 敵中에서 오직 全將兵이 연대를 맡고 包圍網을 뚫고 나온 奇蹟 같은 그當時를 回顧하면 天祐神助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四方에서 敵의 피리소리가 毛背이 송연하게 들터오고 밤은 깊어만 가는데 사단도 友軍도 連絡이 단되어 어디까지 撤收하였는지, 그런 狀況속에서 몇 배의 敵의 包圍에서 빠져나온 것은 當時 大대장 以下の 全將兵들이 뽄뽄 뭉쳐서 같이 죽겠다는 굳은 決意에 基因한다고 믿고 있다.

여기서 얻은 唯一한 教訓은 한사람을 中心으로 一糸不亂하게 뭉치면 갈 수 있는 길이 트인 다라는 哲理이다.

◇ 제11사단 제20연대장 柳原植 대령

(1973. 9. 23 協和實業 會長室에서, 예 준장)

7.13 攻撃 때 연대는 赤根山에 集結하여 사단 예비가 되었는데 제2대대는 제9연대에 제3대대는 제13연대에 각각 배속시켰다.

그런데 △602를 빼앗긴 사단장은 나더러 제13연대 제2대대까지 統습시켜하여 奪回하라고 指示를 내렸다.

이때 제1대대장 金尙玉중령의 奮戰으로 該高地를 奪還하였지만 제13연대 제2대대장 吳新春중령이 戰死하고 제3대대는 敵의 역습을 막아내지 못하고 대대를 이끌고 부단이탈하였다.

이 高地에서 赤根山까지는 10리 남짓 한데 이 10리溪谷에는 戰傷者를 後送하는 隊列이 끝에서 끝까지 이어져 長蛇陣을 이루었으니 이 戰鬪가 얼마나 치열하였던가를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 제20연대 제1대대장 金尙玉 중령

(1976. 9. 23 新進원스工業株式會社社長室에서, 예 중령)

사단 예비로 있다가 제13연대에 배속된 제3대대가 △602를 奪取하였다가 被奪당한 후 우리대대가 공격하게 되었다.

그때 △700에 大隊 OP를 두었는데 제3대대 OP가 左側에 제13연대 제2대대가 右側, 우리대

내가 中央에 있었다.

그리하여 3개대대가 이곳에 있었지만 左右兩대대는 말이 대대치 1개 중대 병력도 못되었다.

△602는 敵에게 有利한 高地이어서 我側에서 砲로 強打하고 공격해야 하는데 休戰협정이 무르익어 갈때라 砲彈供給이 잘 안되었고 航空支援도 敵의 눈치만 보는듯 하였다.

3個대대 중화거중대의 火力만으로 공격하다시피 되었으니 敵의 莫強한 火力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네번째 공격에서 겨우 肉彈으로 동고지를 奪回하고 12시간이나 固守하였으니 제일 오래 確保하고 있는 셈이지만 敵의 역습에 밀려 그 南쪽 200m에 철수하여 방어하였다.

이 當時 대부분 新兵들이었는데 彈藥 1基數를 携帶시켜 공격에 내보내면 敵의 砲彈만 날아와도 탄약과 소총까지 버리고 알몸으로된 士兵들이 許多하였다.

이번 新兵을 이끌고 夜間攻擊까지 하였으니 중대장이나 소대장들이 싸우고 士兵은 구경군 같았다.

이 戰鬪에서 3개대대장중에 1개대대장은 戰死하고 2個대대장이 戰傷을 입었으니 敵砲擊이 얼마나 甚하였던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제13연대 제1대대 제1중대장 金永敦대위

§ 戰 訓

(1) 步砲協同

제20포병단의 隸下4개대대와 美제3사단 砲兵 및 美제461重迫擊砲대대의 支援을 받을 수 있는 與件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步砲協同作戰計劃의 未備로 敵의 火力을 最大限으로 制壓하지 못하였으며 攻擊中 支援射擊도 時間과 砲火誘導 및 觀測이 正確치 못하여 △602 및 △552의 공격에 있어서는 많은 兵力을 投入하고도 奪取에 成功하지 못하였다.

(1976. 7. 9 육본군수참모부에서, 대령)

7월 14일 未明에 注波里까지 車輓으로 왔다. 그곳에 제1대대가 전개하여 敵情을 살피고 있었는데 敵1개중대 兵力이 유유히 縱隊로 南下하고 있었다.

그때가 10.00경이었다 결국 우리중대가 이를 殲滅하였지만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7.13攻勢에서 敵은 無人地境으로 밀고 내려왔다.

연대가 제6사단 지역에서 反擊을 개시하여 金城川西岸 일대를 공격하여 쳐들어갈 때 나는 제1중대장으로 戰車 5승을 앞세우고 金城川沿岸을 따라 공격하다가 屈曲部에서 奇襲을 받아 戰車 5승가 모조리 破損되고 중대는 간신히 그곳을 빠져 나왔다.

이 戰鬪의 失敗로 大隊長이 解職되었다

중대는 그곳에서 철수하여 △425를 공격奪取하고 이곳에서 만 2일간 방어하다가 제7사단 제8연대에 인계하고 예비가 되었으며 △602 회복 공격에서 이를 탈취하였으나 도로 빼앗기고 말았다. 특히 남기고 싶은 것은 △425를 奪取한 다음 敵의 치열한 포격 속에서도 反斜面방어로 만 2일간 固守할 수 있었던 點이다.

나로서는 처음 試圖한 反斜面방어이었지만 심한 포격 속에서도 이로써 능히 적을 막을 수 있다는 자신을 얻었다.

(2) 地形 및 敵情把握

本戰鬪는 새로운 地域에 投入되는 날부터 攻擊에 임한 탓도 있겠지만 敵情과 反擊地形을 把握치 못하여 敵으로부터 逆襲을 받아 오히려 損失을 보았다. 그 좋은 예는 제13연대 제1대대의 △406 공격時에 敵情이나 地形을 攻擊前(2일간여유가 있었음)에 把握하지 못하여 큰 損失을 입게 되는데 이런 點은 앞으로도 留意를 要할 것이다.

13. 425高地 및 406高地 戰鬪(1953년 7월 20일 부터 // // 24일 까지)

참 조 : 별책부도제 21 호
상 황 도제 86~89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我 軍	
제7사단	장 소장 金 容 培	제1대대	장 중령 朴 一
제3연대	장 대령 柳 重 秀	제3대대	장 중령 孔 行 根
제1대대	장 소령 羅 燾 日	지원부대	
제2대대	장 소령 張 用 南	제11포병단	장 대령 朴 璫 遊
제3대대	장 중령 朴 圭 華	제20포병대대	장 소령 金 潤 文
제5연대	장 대령 孫 昌 奎	제72포병대대	장 대위 吳 昌 植
제1대대	장 중령 柳 洪 植	제88포병대대	장 중령 白 泰 夏
제2대대	장 중령 林 東 燮	인접부대	
제3대대	장 중령 李 甲 榮	제8사단	장 소장 宋 堯 讚
제8연대	장 대령 李 秉 衡	제11사단	장 준장 林 富 澤

敵 軍

중공제54군 장 李 化 民 | 제135사단 基幹

나. 전투전의 개황

제7사단(장, 金容培 소장)은 53년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楊口北方에 있는 △938에서 6일간의 전투를 치른 다음 53년 7월 15일부로 美 제10군단의 左翼사단 임무를 美제45사단에 인계한 然後에 美 제8군의 작전지시에 의거 동년 7월 17일부로 제2군단(장, 丁一權 중장)으로 配屬이 變更되었다. 이로써 사단은 포병단을 楊口에 殘置시켜 美 제10군단 翼下의 전방부대에 대하여 계속 火力支援토록 하는 同時에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사단의 나머지 主力을 楊口로부터 華川 下蘆谷에 移動集結하고 軍단의 새로운 예비가 되었다.

이무렵의 軍단은 7월 13일~14일의 兩日間に 中共軍 5개 사단규모의 공격을 받아 7월 14일 24.00를

기하여 Missouri線(指形稜線~橋岩山을 連한 金城川 北方의 防禦線)으로부터 10km 후방의 Whyoming線(白岩山~注坡嶺 등의 高地群을 잇는 계획된 次後방어선)까지 遲延戰을 실시하다가 7월 15일에 該線에 도착한 그날밤을 利用하여 斷行한 攻勢移轉에서 奏効를 보았다. 그리하여 7월 19일 11.00 現在 敵을 金城川 北方으로 擊退시키고 同 河川南岸에 連한 線에 따라 새로운 방어선을 편성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撤退한 敵은 金城川쪽에서 △472(廣大洞)~△414~△439(細峴里) △522(蘆洞里)~△729(梨船洞 西側 1km)~△419(豆間洞)을 連하는 東西線에 急橋진지를 편성하여 진지강화에 全力을 기울이는 한편 再攻擊을 試圖하려는 새로운 徵候를 보였다.

이런 까닭으로 軍단장은 前線에 대한 戰力을 強化키 위하여 작전명령 제8호(53.7.19.16.00)를 下達하여 예비인 제7사단으로써 軍단左翼인 제11사단 右一線의 일부를 7월 20일 04.00부로 인수 방어케 하고 이어서 軍단中央인 제8사단 左一線의 일부를 인수 방어케 함으로써 사단은 軍단의 中央左翼으로서 다시 戰線에 나서게 되었다.

이에 사단은 지역내의 中央을 南北으로 흐르는 金城川을 連대間의 戰鬪지경선으로 定하여 交代된날에 제8연대(장, 李秉衡 대령)로 하여금 金城川 西側方의 제11사단 진지부터 인수케 하여 사단의 左一線(巨里窟~三峴 東側間)의 방어임무를 수행케 하고 그 다음날에 제3연대로서 金城川 東側方의 제8사단 진지를 인수케 하여 사단의 右一線(재말(俗稱)~巨里窟 東側 金城川(包含)間)을 방어토록 하는 同時 제5연대를 사단에 비로서 그 이하의 1개 대대를 右一線(제3연대) 주진지 후방 예비진지에 배치하고 主力을 楸洞부근에 控置케 하였다.

한편 軍단命令으로 사단을 지원하게 된 제11포병단(장 朴瓊濼 대령)은 예하 제20포병대대(105mm 곡사)로써 제8연대를, 제72포병대대(105mm 곡사)로써, 제3연대를 각각 직접 지원케 하고, 제88포병대대(155mm 곡사)로써 사단을 일반지원토록 지원편성을 갖추었고 이 무렵까지 제11포병단에 대한 火力增援임무를 수행하던 美 제176포병대대(105mm 곡사)가 그 임무를 계속 수행케 되었다.

또한 7월 20일부로 사단에 배속된 제1전차대대 제1중대에서 각각 전차2개 소대를 同日부로 左右一線연대에 再배속하여 대전차방어임부와 主진지에 대한 화력지원임무를 수행케 하였다.

사단正面의 敵은 中共 제54군(장, 李化民) 이하의 제135사단과 제60군(장, 韋杰) 이하의 제180사단의 일부로 判名되고 그 兵力은 7,900명 内外로서 이들은 편제 砲兵의 支援을 받는 것으로 보였다.

제135사단은 △119(豆間洞)~金城川 三角洲 東岸의 △439(細峴里 北西 1km) 間에서 右一線에 단대 호 이상의 연대를, 중앙에 제405연대를, 左一線에 제404연대를 각각 배치하여 金城川 突出部 중앙 部位에 대한 방어에 力點을 두면서 我 제8연대와 제3연대의 일부와 對峙하였으며, 또한 제180사단 이하의 제538연대의 일부가 그 東側方에서 我 제3연대 右一線인 제3대대와 對應하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이 무렵, 정보판단에 의하면 敵은 連日 계속되는 我軍의 反擊으로 士氣가 저하 되고 보급은 主로 야간에 실시되는 관계로 主食은 白米와 高粱을 混合한 1日 2食이라는 것이며 이밖에 개인 비상식량 3日分을 휴대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休戰會談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감안하여 現진지의 固守와, 同時에 金城川 北岸에 있는 別隔地域을 確保하여 我 주저항선에 대한 壓力을 加함으로써 金城 방어에 대한 威脅을 없애고자 마지막 發惡을 꾀할 것으로 判斷되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425高地 戰鬪(7.20~7.22)

(가) 작전계획

제8연대장 李秉衡 대령은 사단작전명령제133호(53.7.19.16.00부)로써 사단 左一線에 대

한 새로운 임무를 수령하자 이날 17.00에 下蘆谷의 연대 CP에서 예하 작금 지휘관을召集한 作戰會議에서 要旨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下達하였다.

『① 연대는 7월 19일 18.00부터 20일 04.00까지 제11사단 제13연대의 진지를 인수하여 巨里室~三峴 東端間을 점령방어 하려함.

② 제1대대

7월 19일 18.00부터 20일 04.00까지 제13연대의 일부진지를 인수하여 巨里室~主진지 중앙의 무명高地 西側間을 점령방어하다.

③ 제3대대

㉔ 7월 19일 18.00부터 20일 04.00까지 제13연대의 일부진지를 인수하여 主진지 중앙의 무명高地~三峴 東端間을 점령방어하다.

㉕ 7월 19일 08.00부로 제2대대의 1개 중대를 작전상 통합지휘하여 연대 西側方을 防護하라.

④ 제2대대

㉖ 7월 19일 18.00부로 1개 중대를 제3대대장의 작전상 통합지휘를 받게하라.

㉗ 7월 20일 06.00까지 대대(一)는 後洞里부근에 移動집결하여 연대의 예비대가 되라.

⑤ 전차 제1중대 제1소대

연대통제하에 17번도로에 우선을 두고 대전차방어를 실시하라.

⑥ 전차 제1중대 제2소대

後洞里 부근에서 연대의 예비대가 되라.

⑦ 연대수색중대

연대의 東側方을 경계하라.』

(나) 작전실시

7월 20일 : 전날 18.00, 下蘆谷의 연대 集結地에서 행동을 개시한 제8연대는 먼저 CP를 17번도로에서 西蘆谷쪽으로 들어가는 幹線도로변에 推進하는 한편 연대의 主力을 主抵抗線후방 後洞里까지 一旦 前進시킨뒤 企圖秘匿을 위하여 23.00에 제1대대를 右一線 제3대대를 左一線으로 삼아 진지에 進入시켜 이날 子正부터 제13연대와 相互合同 근무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指揮權의 인계인수 시간인 04.00가 채 못되어 蘆洞里쪽으로부터 2개 중대규모의 中共軍이 主陣地전방의 小川을 건너 제1대대 중앙에 있는 △425에 대하여 침공을 꾀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제13연대 제1대대(장, 劉東烈 소령)의 요청으로 兩부대가 협동하여 한시간 반만에 이를 진전에서 擊退하고, 또한 제3대대에서도 04.40에 涇溪谷에 출현한 1개 소대를 50분만에 砲擊을 加하여 分散시키는 등의 紛戰으로 豫定보다 3시간이 늦은 06.50에야 제13연대(장, 朴應奎 대령)로부터 該地域의 작전지휘권을 인수하게 되

었다.

한편 연대에비인 제2대대는 이보다 1시간이 빠른 05.50에 主陣地 후방 無名高地(推算標高 450m) 南麓(後洞里 北西 500m)쪽에 集結하였고 연대수색중대는 제1대대 右一線인 제2중대 直後方 무명고지에 배치하여 金城川을 沿한 연대의 東側方 경계와 主陣地 후방 개활지에 대한 경계임무를 수행케 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사단지역내의 中央을 北에서 南으로 흐르는 金城川 以西지역에 대한 방어를 擔當하게 되었는데, 연대의 방어지역은 地形의 海拔標高 400m 內외의 小高地群으로서 東西로 橫隔을 이루고 있어 陣地編成에는 容易한 편이었으나 實相은 平地의 海拔標高가 300m 內外였으므로 주진지의 편성은 100m 程度의 野山에 不過한데다가 편성된 진지는 모두가 반격시에 급조된 까닭으로 겨우 몇자씩의 땅을 파서 개인散兵壕로 삼았고, 火器진지 등은 麻袋나 개인용 의낭에 흙을 담아 敵방향을 가려놓을 정도로 粗雜하였을뿐 아니라 기타 유개호나 交通호와 같은 것은 全無한 상태였으므로 무엇보다 진지의 보강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한가지 괄목할만한 사실은 이러한 진지의 상태에서도 이날 새벽에 侵攻을 피한 敵을 막아낸 것이니 歩兵도 善戰을 하였거니와 砲兵의 역할도 이에 못지않게 컸다고 할 수 있었다.

이에 연대장 李秉衡 대령은 『當面한 연대의 急先務는 먼저 진지를 보완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이날 早朝부터 薄暮무렵까지 주저항선 대대별로 각종화기를 진지에 拒置한채 주진지 보완에 全力을 傾注하였는데, 이렇게 공사를 하는 동안에도 몇차례의 挑戰을 일삼는 驍敵을 무찌르는 가운데 이날 오전에는 1명의 捕虜를 얻었다.

이 捕虜의 訊問結果 밝혀진 바로는 소속이 中共 제135사단 예하의 제405연대이며 이들은 梨船洞 東쪽 高地일대에서 진지공사를 하는한편 후방으로부터의 탄약운반을 위하여 병력이 동원되고 있다는것 뿐이었으나 이 포로를 얻음으로써 연대의 士氣와 戰意를 鼓吹시키는 心理的인 成果는 자못 컸었다. 이날의 공사가 몇 차례의 接戰으로 짧은시간에 실시되었음에 反하여 많은 進展을 보게되어 비록 交通호나 유개호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였어도 산병호나 화기호에는 砂囊을 쌓아올렸고 이밖에 露天으로 된 중대나 대대 OP에는 敵彈을 避할 수 있도록 적은 洞窟이나마 갖추게 되었다.

제1차 防禦戰

이날 제1대대(장, 朴一 중령)는 몇차례 紛戰을 치루면서도 終日토록 強行된 工事의 結果로 日沒무렵에는 制법 形態를 갖춘 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방어의 初夜를 맞는다는 緊張感 때문인지 22.00가 되어도 主抵抗線 대대는 休息을 하지도 못하면서 언제 있을지도 모를 敵襲에 대비하여 야간부대 배치와 화력계획을 檢討하고 아침에 消耗된 不足彈藥의 推進을 연대에 囑촉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 時刻에 突然 蘆洞里 北쪽 敵陣 하늘에 閃光이 계속 구름에 비친듯 하더니 곧 날카로운 金屬음과 함께 敵포화가 대대 主진지 일대에 集中되기 시작하였다.

夜襲의 前奏曲과도 같은 敵포화는 갈수록 熾烈化하더니 構築한지 얼마 아니된 일부 진지를 순식간에 붕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포격이 연신되면서는 主진지 후방 後洞里的 東西邊에 있는 무명고지일대와 楸洞 北方 $\Delta 475$ 전사면까지도 砲擊圈에 들어가게 되어 얼마후에는 제1대대 OP와 예하중대간의 有線網이 두절 되기에 이르고 그 부근에 集結되었던 대대에비인 제3중대는 일부병력을 대대 OP가 있는 무명고지 후사면에 긴급소산까지 하였다.

敵은 이렇듯 30분간에 걸쳐 각종 포탄을 퍼부은데 이어 夜暗을 利用하여 1개 중대규모가 蘆洞里 南쪽 ㉠高地와 ㉡高地간의 鞍部를 거쳐 $\Delta 425$ 北麓 左一線(제1중대가 占據)을 타기 始作하고 같은 時刻에 또한 2개 중대규모로 추산되는 한패가 ㉢高地-㉣高地간의 도로를 따라 右一線 제2중대의 무명고지 前方에 출현하여 該중대의 左제1선소대와 제1중대($\Delta 425$) 東側간에 衝鋒을 指向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대는 즉각 전투태세에 돌입하였는데, 이때의 대대 배치상황은 대대 중앙에 있는 $\Delta 425$ 東側 8부稜線을 境界로하여 左右一線 중대의 책임지역을 분할하였는데, 이에 右一線인 제2중대는 同高地 東側 8부稜線에서 北쪽으로 뻗은 小稜線에 제2소대를, 이 小稜線과 東으로 連繫한 무명고지에 제1소대를, 그리고 제2소대 直後背에 제3소대를 各各 전개하고 있었으며, 한편 左一線 제1중대는 $\Delta 425$ (主峰包含)에 제1소대를, 同高地 전방 100m 거리의 突出고지(一名, 뺑고지)에 제3소대를, 그리고 $\Delta 425$ 西側 무명고지(推算標高 450m) 右半部에 제2소대를 전개하여 敵을 迎擊하게 되었다.

대대장 차 一 중령은 유선망의 두절에 따라 즉시 무선망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유선을 緊急修理토록 하는 한편 중화기중대장으로 하여금 즉각 $\Delta 425$ 上空에 81mm 조명탄을 쏘아 올리게 하니 이에 侵攻한 우리들은 조명탄의 光芒속에 잠시 摺伏不動으로 企圖를 隱蔽라도 한듯 하였으나 계속 陣前을 비치는 絢爛한 조명탄에 어찌할 수 없었던지 곧 一齊攻撃의 신호인 듯한 綠色신호탄 1발을 올린데 이어 突出고지 전방 200m 거리에서 소총사격을 集中하면서 제3소대 陣前에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또 한편의 2개 중대규모는 突出고지 東側方에서 1개 중대씩 갈라지면서 그중 한 부리는 제2중대 左제1선쪽에 또 한부리는 突出 고지 東麓을 따라 $\Delta 425$ 로 直衝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Delta 425$ 를 중심으로 한 三面에서의 侵攻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대장 차 一 중령은 대대의 전 화력을 $\Delta 425$ 전면에 指向케 하고 이어서 직접지원 포병인 제20포병대대 관측장교로 하여금 즉각적인 遮斷射擊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사단을 火力증원하기 위하여 전날밤부터 美 제176포병대대로부터 파견된 美軍 연락장교에게 제20포병대대에서 이미 계획된바 있는 포병화력지원계획상의 사격제원을 제시하여 지원사격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대대장의 조치는 이무렵의 休戰會談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이를 極力 반대하는 한국군측 보다는 美軍의 탄약보급율이 比較的 원활하였으므로 이에 대대장은 보다많은 美軍의 火力지원을 얻고자한 까닭에서 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突出고지 前方과 △425 東側으로 蟻集한 敵의 頭上에다 各種 砲彈의 集中과 함께 兩개중대의 直射火器가 一齊히 불을 뿜으니 잠시후 이들의 隊伍가 陣前에서 흩어지면 衝勢가 弱화된듯 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突出 고지쪽의 한무리가 제1중대 제3소대 陣前 50m거리에 육박하였을 때였고 또 한 무리는 △425 東側方에서 我軍砲火와 兩개중대의 交叉火力으로 이들의 侵攻이 頓挫상태에 빠져들었을 때였다.

이러한 急變되는 상황하에서 突出고지에 危機를 보게된 제1중대장 金漢俊 대위는 즉각 OP내에 있던 화기소대장으로 하여금 60mm 포화를 突出고지 陣前에 集中시켜 그들의 후속 부대를 遮斷토록 指示한 뒤 突出고지의 제3소대장을 無電機로 불러 『중대는 계속 포격 중에 있다. 소대는 오직 사력을 다하여 陣前의 敵단을 阻止하라』고 격려한데 이어 左一線 제2소대장에게 突出고지의 西側方을, 그리고 제1소대장에게는 突出고지의 東側方에 대한 掩護射擊을 하도록 命令하였다.

이렇듯 중대의 可用한 全火力을 突出고지에 指向케 함으로써 제3소대 陣前에 肉迫하려던 무리는 한때 소대와와 手榴彈 交換까지 하였으나 점차 衝勢가 약해지면서 突出고지 아래로 崩壞되고 말았다.

이무렵 제2중대 陣前의 또 한무리는 다시 隊伍를 收拾하여 執拗하게도 또 한차례 陣前으로 더욱 파고들려고 하였으나 間斷없는 砲擊으로 再次分散되었다가 때마침 그들의 撤收 신호인듯한 赤色 신호탄에 이어 여기저기 陣前到處에 많은 屍具를 버려둔채 退潮와도 같이 敗走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1시간 반에 걸친 1차방어전을 치른 대대는 이날 子正무렵에 추진된 탄약을 각 중대별로 재분배하는 가운데 다시 戰線에 平穩을 되찾게 되었다.

이 一戰에서의 대대의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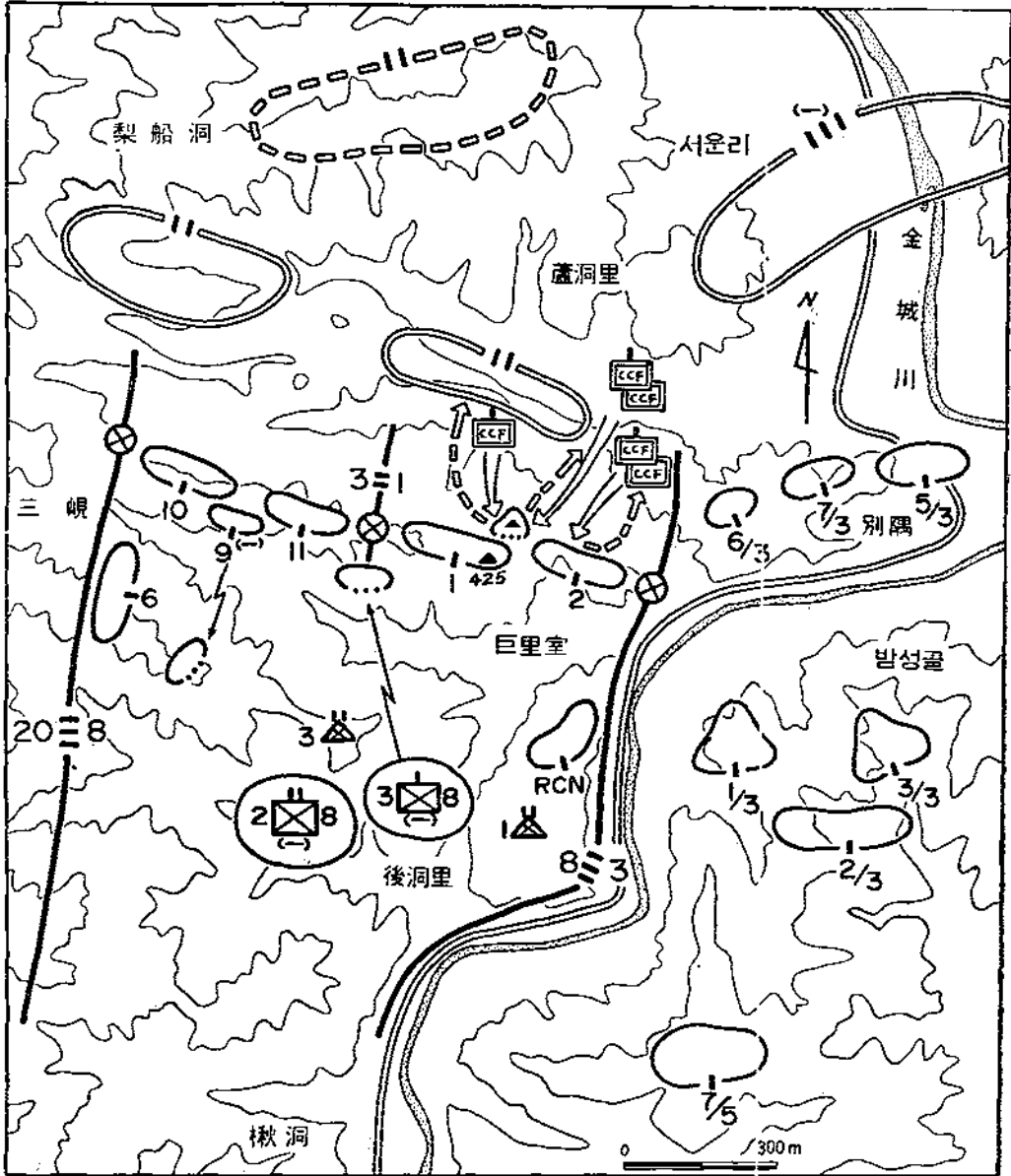
戰 果			損 失	
捕 虜	1명	戰 死	8(0/8)명	
射 殺	80명	負 傷	37(3/34)명	
鹵獲多發銃	1정			

7월 21일 : 前半夜에 한차례의 격전을 치른 제1대대는 懸然한 분위기속에서 事後 정리에 奔忙하고 있었는데, 敵이 追却한지 2시간여만에 다시 △425 一圓에 대하여 砲擊과 더불어 醜鋒을 指向함으로써 熾烈無比한 激突이 再演케 되었다.

제2차 防禦戰

02. 15에 夜氣를 震動케한 敵의 첫 砲彈이 △425에 灼烈하자 즉각 제1대대 예하의 각 중

상황도 제86호 425高地 戰鬪(제1, 제2차 방어)



대는 각개 진지에 部署하여 이를 避하였는데, 그들은 前半夜때와 같이 $\Delta 425$ 를 中心으로 그 일대에 砲擊을 加한데 이어 15분이 지난 02.30에 例의 ㉠-㉡高地의 南麓 도로변에 2개 중대규모의 무리가 蟻集하였다.

이에 대대장 박 一 중령이 중화기중대장으로 하여금 제1 및 제2중대 전면에 즉각 81mm 조명탄을 지원사격토록 指示하자 곧 白夜를 이루게된 陣前에는 敵의 한波가 제2중대 正面에, 또 한波는 제2중대 左一線과 제1중대의 $\Delta 425$ 前方 突出고지의 東側간에 散開하여 진

전에 殺到함과 때를 같이하여 그들 攻擊梯波 후방의 ㉠高地 兩端으로부터 我 제2중대와 突出고지 前斜面에 自動火器로서 집중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대대는 각 중대로별로 즉각 소직사화력을 진전에 집중케 하고, 각종 砲火를 이들 頭上에 集中시키는 同時에 ㉠高地의 自動火器를 摺伏케 하니 곧 이들의 衝勢가 弱해지면서 일부隊伍가 흩어지기도 하였으나 이들 역시 일차 공격에서 체험한 바가 있는지라 잠시후 隊伍를 수습하면서 前半夜의 공격시와 똑같은 예의 綠色신호탄 1발을 올림과 함께 我軍포격의 간격을 이용하여 진전 100m 거리까지 肉迫하였다.

이들 본 제2중대장 姜翼模 대위는 미리 준비된 최후 저지사격 신호인 赤色5星불꽃신호탄 2발을 연속 야공에 쏘아 올렸는데,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중대의 全火力이 一時에 交叉사격을 펼쳤으므로 赤火의 網狀現象이 중대의 陣前을 덮고 말았으니 마치 짓는개의 입을 막은 듯 하였다. 이리하여 氣勝스럽던 무리들은 화염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斷末魔의 凄絶한 悲鳴과 함께 어떤자는 쓰러진 屍身에 틀어박고, 또 어떤자는 땅에 구르면서 달아나기도 하였다.

이에 戰意를 잃은듯 곧 高地아래로 支離滅裂하였는데, 바로 이무렵에 左一線 제1중대의 突出高地 東側으로부터 △425에 침투를 꾀하던 또하나의 무리가 공교롭게도 제1중대와 제2중대의 전투지경선間에 기어 들었으므로 이에 兩개중대의 側方에 배치된 兵力이 同時에 接戰케 되었으나 阻止火力이 제2중대보다 약하였던 탓인지 이들의 일부가 火網을 뚫고서 △425의 主陣地 50m 전방까지 밀어닥쳐, 突出高地와의 遮斷을 企圖한듯 덤벼 들었다.

즉, 제2중대쪽은 이들과 다른 중대 전편의 敵을 阻止키 위하여 최후저지射擊을 實施함으로써 前述한 바와 같은 奏效를 견우었으나 제1중대는 제2중대의 戰鬪正面과는 달리 △425 전방에 突出고지 窪地線의 總延長 거리 500m로 인하여 중대의 火力均配가 제2중대보다 相對적으로 微弱하였던 까닭으로 그들은 僥倖히 화력이 약한 쪽으로 밀려나다가 여기에 亂鋒을 指向하려 들었던 것으로 보였다.

이에 제1중대장 金漢俊 대위는 突出高地의 安危가 곧 △425와 直結되는 것이라고 判斷하여 즉각 左一線 제2소대의 화력을 突出高地 南斜面下端에 指向케 하여 突出高地 背後로부터의 접근을 즉방에서 저지케 하고, 突出高地의 제3소대로 하여금 △425高地로부터 突出高地에 이르는 통로를 수류탄으로 차단케 하는 한편 이들이 東斜面으로부터 오르지 못하도록 右一線 제2소대의 全火力과 중대의 60mm 박격포, 그리고 중대의 右側方에 배치된 중화기중대의 輕機關銃班(2挺)의 自動火器로서 여기에 集中火力을 퍼붓게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제2중대와 더불어 펼쳐진 交叉火網에 추츨하다가 최후의 발악인듯 방망이 手榴彈을 던지면서 一瞬 陣內에 뛰어들려는 氣勢마저 엿보였다. 그들의 수류탄투척은 低地에서 高地로 던지는 탓인지 던지는 것의 거리가 斜面 또는 그들 梯隊속에 굴러 터지는 데다가 三面의 直射火網과 頭上砲火로 인하여 陣前은 순식간에 阿鼻叫喚의 屠戮場으로 化

하고 말았다. 이로부터 얼마후 그들은 到處에 屍體를 남긴채 四分五裂되어 潰退하였는데 이 때가 04.00로 拂曉가 임박한 새벽 하늘에는 아직도 타다남은 조명탄이 이들의 殘影을 쫓는듯 흐린 餘光을 남겼다.

한편 제1대대가 격전을 치루는 동안 左인접 제3대대(장, 孔行根 중령)는 前半夜부터 대대의 左右側方과 전면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면서 △425상황에 신경을 곤두세웠으나 敵과의 접촉없이 이날밤을 지새웠으며, 또한 연대장 李乘衡 대령은 △425의 전투상황을 銳意주시하는 가운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즉각적인 역습이 가능토록 예비인 제2대대로 하여금 출동준비를 갖추게 한채 天明을 맞게 되었다.

後半夜의 이 전투에서의 대대의 戰果 및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損 失	
捕 虜	射 殺	鹵 獲					戰 死	負 傷
		60mm 迫擊砲	척 코식 機 關 銃	重 機 關 銃	多 發 銃	小 銃		
5	250	4	9	1	35	2	0/5	0/13

7월 22일 : 제1대대가 전방에 대한 야간경계를 전날밤보다 더한층 강화하면서 敵襲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00.30이 지나서 右인접인 제3연대 제2대대가 前進진지에서 敵과 交戰 상황에 들어갔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 朴 一 중령은 이를 즉각 각 중대장에게 傳播하는 동시에 戰鬪준비태세를 再 강조하였는데 이로부터 數分이 경과한 00.40에 右一線 제2중대장으로 부터 1개 중대규모가 진전에 나타났다는 보고에 이어 제1중대장으로부터도 2개 중대규모가 △425西側方과 突出 고지간의 窪地線에 展開하였다는 긴급보고를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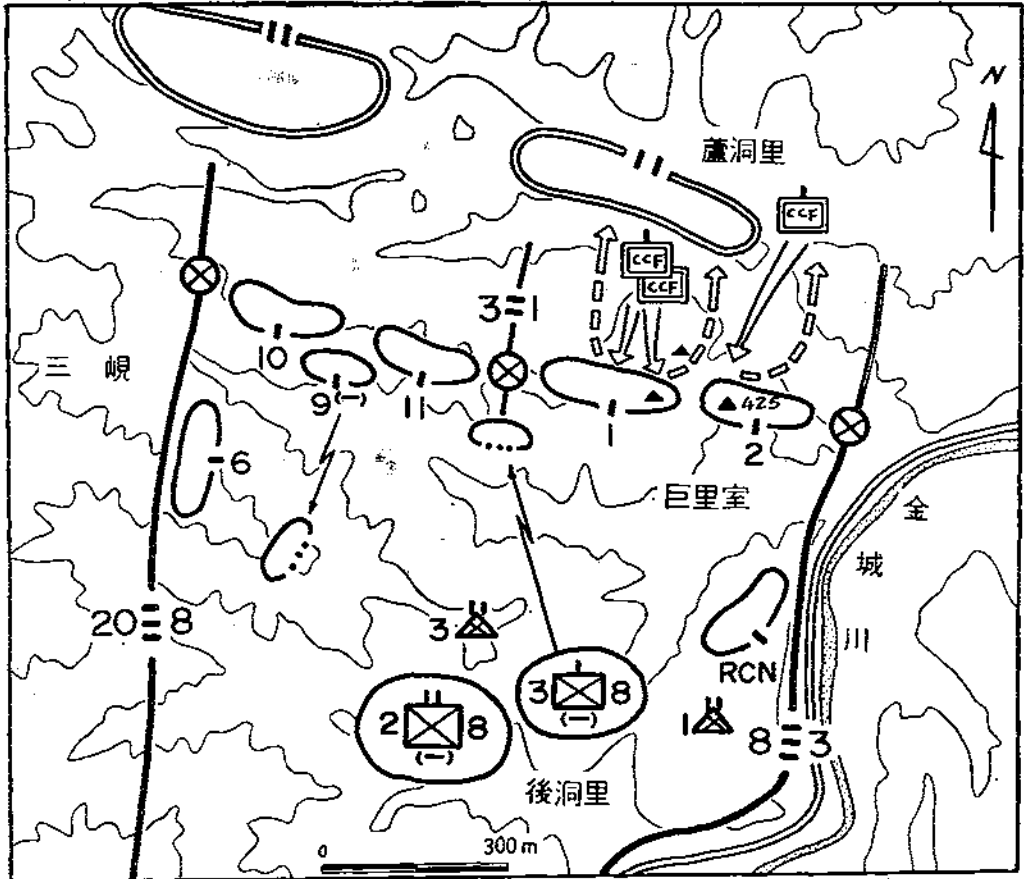
제3차 防禦戰

이리하여 대대는 일시에 3개 중대의 무리를 迎擊케 되었는데, 이에 대대장은 먼저 중화기중대장으로 하여금 前夜와 같이 조명탄을 대대 前面에 올리게 하고 제 1, 제2 兩중대장에게 『敵이 탄막지대에 들어오는 즉시 중대별로 最後阻止사격을 실시하되 이보다 먼저 포병화력을 중대 전면에 集中케 하라』고 命令하였다.

이에 따라 각중대 OP에 배치된 포병관측장교가 즉각 집중포화를 誘導하였는데,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곧 彼我的 사격전이 벌어졌으며 이 무렵부터 지금까지 잠자던 敵포화가 主陣地 일대에 떨어지면서 점차 熾烈해지더니 온 陣地가 硝煙에 휩싸였을뿐 아니라 直擊彈에 맞은 어떤 陣壁은 砂囊이 爆風과 함께 飛翔하고 이에 담겨 있던 沙土는 세차게 八方에 흩어져 一瞬 눈을 가리게 하는 同時에 그 轟音 또한 귀를 멀게 하였다.

이렇듯 포격이 苛烈해지더니 어느덧 彼我的 對砲兵戰으로 들어간듯한 延伸사격으로 變환듯 하였는데, 이 때에 陣前의 무리들은 擊聲소리도 擾亂하게 斜面으로 波狀져 오르기 시작하였다.

◇ 상황도 제87호 425高地戰鬪(제3차방어)



이에 兩중대는 약속이나 하듯 거의 동시에 例의 赤色5星 불꽃신호탄으로 最後阻止사격을 알리자 이에 맞추어 중대의 60mm 박격포와 대대 81mm 박격포가 연달아 포문을 여는 동시에 전대대의 直射화기가 이에 뒤질세라 一齊히 불을 댕하니 一時에 陣野가 菱形曳火의 亂舞場으로 化하였다.

한편 대대장 박 一 중령은 전날밤에 2개 중대규모를 동시에 격퇴한 바 있으나 現 상황과 같이 目前에 3개 중대의 敵을 대하게 되자 이들의 企圖가 새삼 尋常치 않음을 느껴 必是 △425에 衝勢를 指向하기에 앞서 먼저 突出高地의 奪取를 必할것이라고 判斷하였다. 그는 이의 對策으로 突出高地 前面에 대한 추가적인 火力의 지원과 有事時 突出高地로부터 병력의 철수와 동시에 여기에 T.O.T사격을 가하여 侵透한 敵을 殲滅키로 決心하여 이를 00.50에 指揮系統을 通하여 急히 要請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대장의 요청은 연대장 李秉衡 대령이 즉각 받아들임으로써 곧 제11野戰포병단에 긴급 요청 되어 지원케 되었는데, 이 까닭은 當時 제7사단 포병단이 楊口지역에서 美 제10군단의 火力지원 任務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제2군단에 배속된후 休戰時까지

제11野戰포병단(제3사단포병단의 前身)이 사단 FSCC의 役割을 하고 있었던 때문이다.

한편 이무렵 最後阻止사격中인 兩중대의 陣地에서는 敵이 각종 포화와 직사화망에 휩싸 인채 제2중대쪽의 무리가 진진 100m에서 隊伍가 흩어지고 제1중대쪽은 突出高地 西側方 과 그 전사면에서 공격이 돈좌된듯 보였으나 其實은 突出地點쪽에 붙은 무리가 이때 진지 와의 수류탄투척거리에 肉追하였을 때였다.

그러자 때마침 突出高地 전사면에는 제11포병단이 지원한것으로 보이는 포화가 集中하 게 되어 미처 突出高地에 오르지 못한 일부 후속한 무리가 斜面 아래로 나가 떨어지게 되 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미 頂上에 오른 일부 무리들은 후속부대와 遮斷되어 뒤늦게 앞 은 防者요, 뒤는 砲火라 進退兩難에 處하였음을 깨달은 듯이 이의 突破口를 찾듯 수류탄투 척과 함께 陣內에 亂入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치고, 박고, 찌르는 피비린네 나는 격투가 凄絶하게 展開되었는데, 02.50에는 한때 交叉火網에 돈좌되었던 突出高地 西側方의 무리가 다시고개를 들고 동시에 그들 후방으 로부터 새로이 增援된 듯한 2개 소대규모와 함께 突出高地頂上에 올라 이에 뛰어들게 되었다.

위와같이 상황이 急變하게 되자 중대장 金漢俊 대위는 제3소대의 계속支撐이 損失만을 더할것이라 判斷하여 즉각 撤收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突出高地로부터의 唯一한 撤收路인 후방 通路를 제2소대로 하여금 掩護케 하였다.

이로부터 10분뒤 제3소대가 철수할 때를 같이하여 T.O.T사격을 요청하자 天地가 震動하 는 擾亂한 轟音이 突出高地에 대하여 加해졌는데, 이에 侵入한 무리는 遠南의 容鬼로 化 한듯 자욱한 硝煙속에 움직이는 者가 없었다.

이로부터 1시간 간담없이 퍼부은 集中포화 틈에서 兩중대지역의 무리들은 陣前도처에 분산되었다가 04.50에 梯隊를 수습하여 再興하려 들었으나 대대의 집중화력에 좌절되어 05.30이 지나 天明과 더불어 潰退하였는데 이에 제1중대는 突出高地로부터 철수한 제3소 대로 하여금 追擊케 하여 06.00에 該高地를 再確保하였다.

한편 이보다 앞서 대대장은 이 高地의 역습을 위하여 이미 出動태세를 갖춘 제3중대로 하여금 06.00에 戰果擴大를 위하여 追擊케 하였다.

이리하여 5시간에 걸친 격전끝에 敵을 完全히 물리쳤는데 대대의 左 flank인 제3대대 지 역은 밤새 경계강화에 專念하는 가운데 전날과 다른바 없는 小康상태가 維持되었고 右인 第3연대 전진전진지에서는 제2대대가 2개 중대규모의 中共軍과 치열한 交戰끝에 이보다 앞선 05.10에 이들을 蘆洞里 쪽으로 격퇴하였다.

이날 제1대대의 戰果 및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擧 失								
捕虜	歸順	射殺	鹵 獲										
			60mm 迫擊砲	직 코식 機關銃	重機 關銃	機關砲	3.5" 로켓 砲	多發銃	小銃	無電機			
15	1	140	3	13	2	1	4	47	2	1	戰死	負傷	失踪
											1/6	1/32	0/3

(2) 406高地 戰鬪(7.21~7.24)

(가) 작전계획

사단작전명령 제133호(53.7.19.16.00부)로써 사단의 右一線 방어임무를 담당케 된 제3연대장 柳重秀 대령은 이날 18.00에 개최한 연대 작전회의에서 要點 다음과 같은 연대 방어 명령을 下達하였다.

『① 연대는 7월 20일 17.00부터 21일 04.00까지 제8사단 제10연대의 일부진지를 인수하여 새말~巨里室 東端(金城川포함)間을 점령방어 하려함.

② 제1대대

7월 20일 17.00부터 21일 04.00까지 제10연대의 일부진지를 인수하여 새말西端~발성谷 東側間을 점령방어하라.

③ 제3대대

7월 20일 17.00부터 21일 04.00까지 제10연대의 일부진지를 인수하여 발성谷~巨里室 東端間을 점령방어하라.

④ 제2대대

7월 20일 17.00부터 21일 04.00까지 제21연대가 確保中인 別隅~△406間을 인수하여 前進진지를 점령하라.

⑤ 전차 제1중대 제3소대

7월 20일 17.00부로 제1대대에 배속

⑥ 전차 제1중대 제4소대

7월 20일 17.00부로 제3대대에 배속

⑦ 연대수색중대

△541(東幕谷 北東 1km)를 점령하여 연대 후방지역을 경계하라.』

以上の 방어명령을 보전대 연대는 主진지방어를 2개대대로서 담당케 하고 1개 대대로서 전날 제8사단 제21연대가 金城川 北岸지역에대한 河川공격끝에 탈환하게된 別隅~△406間에 前進진지를 편성토록 함으로써

첫째 : 金城川 北方의 개활지와 17번도로를 統制할 수 있으며,

둘째 : 主진지 전방의 金城川 三角州(突出部)에 대한 防護가 容易하며

셋째 : 敵과 主진지에서의 早期展開를 抑制하여 急造로된 진지의 보강을 기할 수 있다는 데 重點을 둔 것으로 보였다.

여하간 위와 같은 命을 수령한 각부대는 다음날인 20일 17.00부터 行동을 개시하여 主진지 후방까지 前進한 다음 이날밤 21.30을 기하여 진지에 進入하여 제8사단의 부대와 合同근무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 작전실시

7월 21일 : 이날 04.00부로 제8사단으로부터 指揮權을 인수한 제3연대는 편성된 진지에 대한 보안을 위하여 早期부터 각 대대별로 工事에 着手하여 蕪幕무렵까지 敵의 挑發을 받음이 없이 工事를 마쳤는데 연대장 柳重秀 대령은 지난밤 제8연대가 진지교대 직후에 敵營을 겪은바가 있는 터인지라 必是 연대前面에도 밤사이에 그들의 侵攻이 있을것으로 내다보고 이날 日沒과 더불어 각 대대별로 경계강화와 아울러 各 應戰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하는 한편 前進진지의 제2대대장에게 다음과 같은 要旨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 『① 연대는 敵의 侵攻을 豫期한다. 竄대대는 항상 이에 대비하고 前方경계를 강화하라.
 ② 接敵시까지 무전기의 침묵을 지키라.
 ③ 敵情은 수집 즉시 보고하라.』

위와같은 명령을 받은 대대장 張用南 소령은 대대 前方지역에 대한 敵情탐색을 위하여 대대 중앙에 배치된 제7중대로 하여금 1개 분대규모의 搜索정찰대를 派遣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7중대의 정찰대가 이날밤 21.00부터 중대의 전면과 左-線 제6중대 전면을 거쳐 ②高地 東麓과 제6중대의 西側方간을 돌아서 제6중대의 西側背로 나갔을때 여기서 不意에 敵의 분대규모 정찰대와 遭遇하게 되었다.

이에 정찰대는 이들과 10여분의 사격전 끝에 격퇴시켜 1명의 포로를 얻는 동시 현장 수색결과 多發銃 2정, 책코식 소총 2정을 노획하여 23.30에 진지로 복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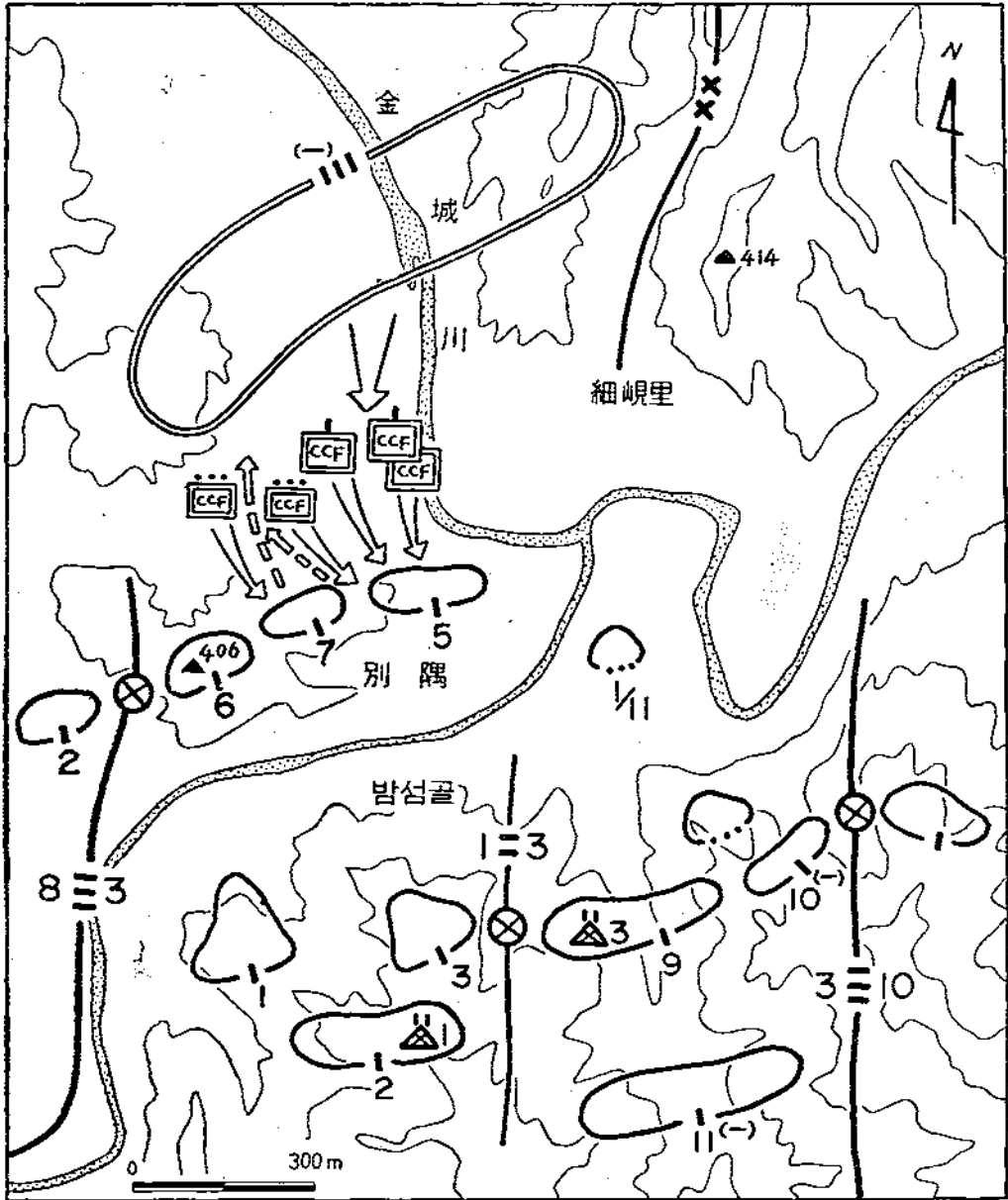
이로써 연대는 새로운 지역에서 적은 戰果나마 첫 凱歌를 울리게 되었으나 연대장은 이보다 敵의 정찰대가 主진지 前方지역에 出沒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重視하여 다시한번 前부대에게 경계를 강조하였다.

7월 22일 : 前半夜에 제2대대가 1명의 捕虜를 獲得하였으나 既知의 敵團隊號만을 再確認할 수 있었을뿐 그로부터 별다른 諜報를 얻지못하여 그들의 企圖를 알 수가 없었는데 交代當夜에 一戰을 치룬 제8연대의 경우가 있고, 또 공격징후라고 볼 수 있는 그들의 정찰활동을 重視하여 前進진지 前方의 각 요소마다 대대의 觸角과도 같은 잠복초와 극지경계초를 설치하는 등 可用한 수단을 다하여 敵의 早期警報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00.30에 敵후방 서운堡(蘆洞里 北東 1km)쪽으로부터 金城川 西岸의 17번 도로를 따라 나타 난듯한 1개 소대규모가 대대 右-線 제5중대의 前方道路邊에서 潛伏中임을 제5중대의 잠복초가 發見함으로써-중대는 이들과 치열한 사격전을 벌여 50분만에 擊退시켰는데, 이로부터 10분 뒤에는 1개 중대규모로 증가된 敵이 前과 같은 場所에서 다시 제5중대 陣地에 侵攻을 꾀하였으므로 이에 중대는 各 대대에 支援사격을 要請하여 30분만에 이를 擊退시키게 되었다.

이렇듯 敵은 我진진지에 대한 強度라도 試驗하듯 두번에 걸쳐 도발한 끝에 敗退하였음에도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횡수를 거듭할 때마다 그 규모를 增加시키더니 03.30에는

◇ 상황도 제88호 406高地 戰鬪(7.22)



2개 중대 규모로써 제5중대 前面에 再侵하기 始作하였다.

그런데, 敵이 세번에 걸쳐서까지 執拗하게 제5중대쪽에 侵攻을 指向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當時의 狀況을 確認할 길이 없으므로 그 眞僞를 밝힐 수는 없으나 地形과 彼我的 배치 狀況을 考察할 때 다음에 列擧한 該중대의 立地條件이 攻者에게 하나의 戰術的 脆弱性으로 비쳐진 것으로 풀이되기도 하였다.

즉 제5중대의 진지는 서운리로부터 我 후방지역에 이르는 國道가 該 중대진지의 중앙지대를 貫通한 다음 진지의 直後背에서 대대 후방지역을 감싸면서 東에서 西로 橫斷하고 있음으로써,

① 攻者에게 主陣地까지 直衝할 수 있는 良好한 機動路를 提供할 뿐만 아니라 中央突破로서 陣地의 分斷을 꾀하게 할 수 있다.

② 中央突破후에는 대대陣地를 迂回 또는 包圍를 꾀함에 容易하다는 점,

그리고 金城川 東岸에 배치된 그들 側方부대로 하여금 攻者의 東側方을 보호, 또는 掩護가 가능하다는 점 등 그들 나름대로의 利點을 打算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전술한 바와 같은 素因으로 인하여 3회제의 挑發을 보게된 대대는 이에 즉각적으로 迎擊할 명령을 내렸는데, 이무렵 제5중대의 可用火力으로서는 중대의 編制화기인 60mm 박격포 3문과, 57mm 무반동총 2정, 소대의 3.5" 로켓砲 3문, 肩着式 輕機關銃 3정의 공용화기의예도 대대전면에 직사화망 구성을 위하여 중화기중대로부터 배속된 三脚式 輕機關銃 2정이 該중대장지휘하에 있고 亦是 같은 任務를 띠고 左인접 제7중대에 배속된 輕機關銃 2정이 제7중대의 東側方에 배치되고 있어 何時라도 제5중대 전면에 指向할 수 있으므로 都合 7정의 輕機關銃이 있는 셈이며 이밖에 該지역의 대전차방어를 위하여 배치된 75mm 무반동총과 81mm 박격포의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사단의 지원화력이 아니라도 相當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81mm 조명탄의 사격으로 陣前에 그 片貌를 들어낸 이들은 1개중대로서 도로 東側邊의 제1소대 진지와 西側邊의 제2소대 진지 前斜面을 기어올랐고, 나머지 1개중대는 國道邊 즉 金城川 西岸의 窪地에 散開하여 掩護사격을 加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제5중대장의 號令一下에 중대의 전화력이 여기에 집중하는 한편 제7중대의 東側方 화망이 그뒤 쪽의 다른 한 무리가 加하는 掩護사격을 견제하듯 불을 뿜으면서 이들의 후속을 아울러 차단케 함과 同時에 대대 81mm 박격포까지 砲門을 열게되자 氣驕스법던 이들의 衝勢가 곧 주춤하면서 멀쳐진 중대의 직사화망 아래쪽에서 彷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지금까지 뒤쪽에서 掩護하던 무리가 突然 고개를 들면서 앞서 나간 무리의 뒤를 따를듯 側方화망에 쓰러진 무리의 屍體를 넘고, 넘어서 다시 兩邊 진지에 殺到하였다.

이리하여 陣前은 삼시간에 밀려드는 자와 밀고나가는 자로서 混亂하게 되었는데 이에 중대는 이 好機를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 사격과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렇듯 2개 중대규모가 좁은 正面에서 瓦解되자 나머지 일부 무리들이 차차 아래쪽 도로변에 몰리는 꼴이 되었는데 이에 중대장은 비록 이들의 규모가 적고 지휘자가 없는 烏合之衆이라 할지라도 逃避口를 찾아 도로를 沿하여 중대背後에 빠진다면 收拾키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것임을 直感하여 즉각 중대 후면에 배치된 제3소대로 하여금 이를 掩擊케 하니 이들은 곧 소대의 집중사격과 수류탄 공세에 질겁을 하여 고갯길 아래로 支離滅裂하

고 말았다.

이리하여 侵攻한 이 부리를 05. 10에 大部分을 물리치게 되었는데, 이로부터 30분이 지난 05. 40에는 여기에서 潰走하였던 부리인듯한 1개 소대규모가 제7중대 전면으로 侵攻하였으므로 이에 該중대는 一齊사격을 加하여 격퇴시켰음에도 執拗하게도 이들은 500m 北方의 그들 前哨진지인듯한 無名高地(蘆洞里 東側方) 南쪽에 물러앉아 散發的인 사격을 加하다가 08. 10에야 겨우 그 모습을 감추었다.

이리하여 前進진지의 첫밤을 전후 4회에걸친 敵의 격퇴로 지새웠는데 이 전투에서 대대는 敵에게 30% 以上の 損失을 주게 되었다.

7월 23일 : 전날 낮부터 이날 日沒時까지 제3연대 前面에서는 때아닌 小康상태가 계속되었는데 이 까닭은 당면의 敵이 전날 새벽, 前進진지에서의 敗退로 즉각적인 再도발이 不可한데서 基因된 것이라고 풀이되기도 하였는데 제2대대는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 이날 蕪蕪무렵까지 진지를 보완하면서 밤을 맞았다.

그리하여 22. 10에 이르러 前進진지 左一線에 있는 △406(제6중대 占據)에 1개 소대규모의 敵이 侵攻을 꾀하였다.

이에 제6중대가 30분만에 격퇴하고 말았는데, 전진진지 △406에 그들이 나타난 것은 처음 있었던 일이므로 이를 重視한 대대장은 그전날 제5중대의 例와 같이 이들이 增強된 병력으로 또다시 侵攻할 것이라고 豫測하고 경계강화를 위한 要旨 다음과 같은 命을 하였다.

『① 제5중대장은 전방의 17번 도로와 東側方의 金城川 西岸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라.

② 제6중대장은 左인접 제8연대 제2중대간의 도로와 ㉠高地에 대하여 경계를 강화하라.

③ 제7중대장은 중대 전면에 대하여 경계를 강화하라.』

이리하여 각 중대는 경계초소를 증가하면서 이날 子正을 넘기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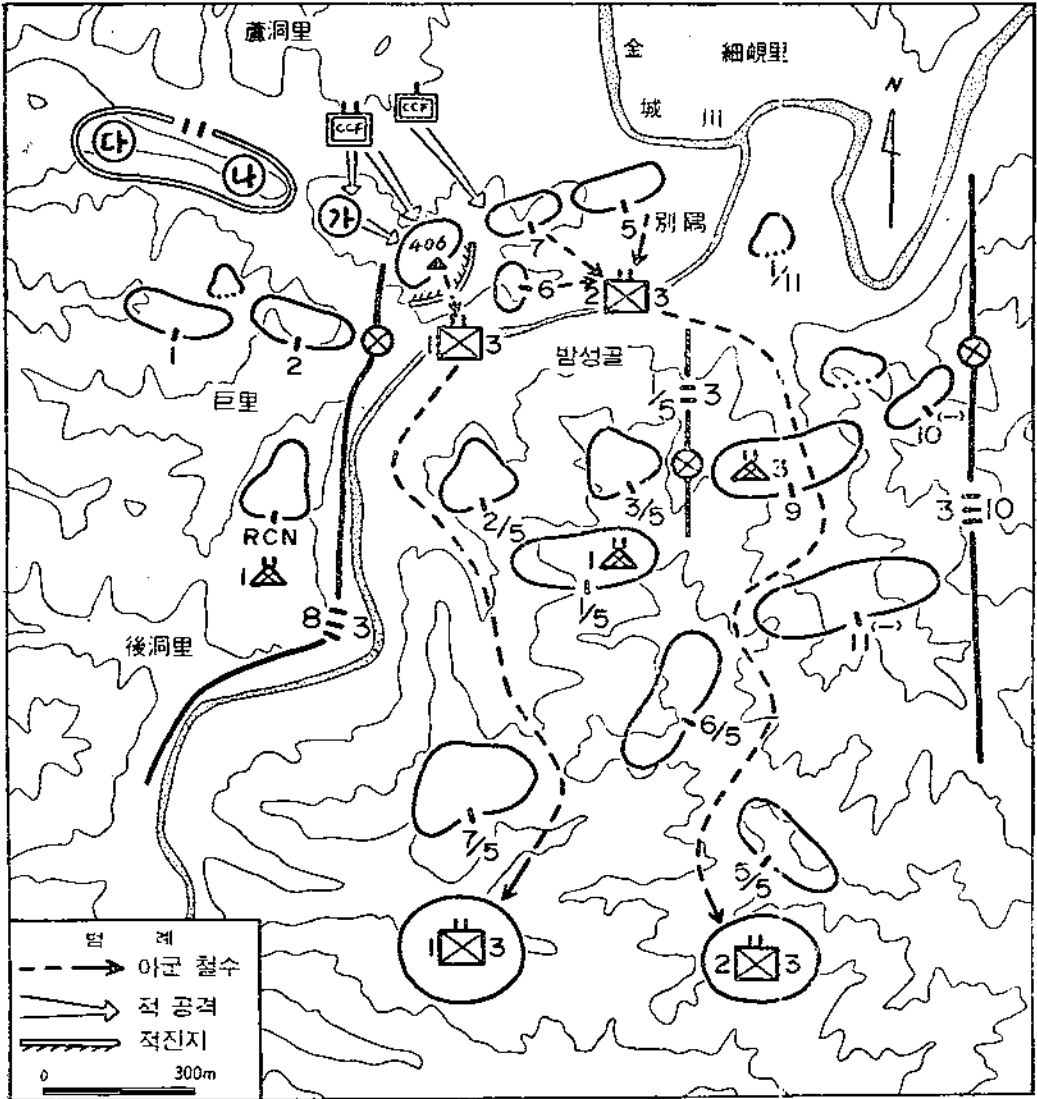
7월 24일 : 前半夜에 △406에서 1개소대를 擊退한 제2대대는 새로운 敵襲에 대비하였는데, 00. 10이 되면서 1개소대 규모가 제5중대 전면에 나타났으므로 계획된 화력으로 이를 40분만에 擊退하고, 再侵에 대한 방어책을 한층더 강화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난 다음 △406에 1개 대대규모가 侵攻을 꾀함으로써 이날 낮까지 同高地에 대한 2차의 爭奪戰끝에 敵手中에 넘기는 바가 되어 전진진지로부터 金城川 南岸으로 撤收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사단은 右一線에 대한 전투력 보강을 위하여 예비연대와외의 임무를 교대하기에 이르렀다.

1. △406의 喪失

이날 03. 10에 蘆洞里쪽으로부터 侵襲한 1개 대대규모가 △406전면에 나타나 同高地 전사면에 散開하려다가 제6중대의 전방경계초가 이를 발견함으로써 중대장은 즉각 火力을 高

◇ 상황도 제89호 406高地 戰鬪(7.24)



地전사면에 集中하는 동시에 60mm 조명탄으로 陣前을 밝히니 이들은 高地下端을 꼭 대운 듯 산개하여 위로 向하여 사격을 집중하면서 斜面을 기어오르기 시작하였다.

이에 제2대리장 張用南 소령은 지금까지 제5중대 전면에 指向하였던 대대 81mm 박격포의 사격방향을 즉각 제6중대 전斜面으로 轉換케 함과 동시에 中央 제7중대 西側方화기를 여기에 增援케 하고 지원포병 관측장교로 하여금 즉시 지원사격을 요청케 하였다.

한편 이러한 상황보고를 接하게 된 연리장 柳重秀 대령은 그들의 挑發이 左一線 제6중대 지역에 加해졌음을 볼 때 이보다 2시간전에 있었던 右一線 제5중대 전면의 敵 1개소대는 전날밤에 이어 我軍의 注意力을 계속 제5중대쪽으로 끌려는 欺瞞策으로 보게 되었다.

즉, 그는 그 規模가 적기는 하지만 陽攻을 피한 것이라 보고 必是 이들의 壓力이 제6중대에 加重될 것에 대비한 前進진지 △406에 대한 역습준비를 서두르게 되었다.

이리하여 역습부대로서 左一線 主진지에 배치된 제1대대 예비인 제2중대를 抽出키로 하여 要旨 다음과 같은 준비 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연대는 현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406의 戰勢가 浮動하는 즉시로 逆습을 敢行하려 함.

② 제1대대

㉑ 즉시로 대대예비중대를 제2대대 후방으로 進出시켜 該대대장의 지휘를 받게 하라.

㉒ 前項외의 1개 중대를 緊急待機케 하여 逆襲을 준비하라.

③ 제2대대

㉑ △406에 대한 敵의 侵入을 최대한 阻止하라.

㉒ △406의 戰勢가 浮動하는 즉시 제1대대 예비중대를 統合指揮하여 逆습을 실시하라

④ 연대수색중대는 제1대대장의 지휘를 받아라.』

이에 따라 제1대대(장, 羅癡日 소령)는 03.40에 예비인 제2중대를 前進진지로 急派하였다. 이와 같이 前進진지에 대하여 연대장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을무렵 △406의 제6중대 상황은 각종 砲火와 직사화력으로 陣前이 화염에 휩싸였는데 이에 이들의 隊伍가 一時 흩어졌으나 數的으로 優勢하였던 탓인지 그 衝勢가 微動도 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이때에 突然 그들의 후방으로부터 새로 투입된듯한 1개 중대규모가 제7중대 左一線 前면에 증강됨으로써 同 중대는 이들의 侵透를 阻止키 위하여 일부 제6중대쪽으로 돌린 火力과 前중대의 화력을 여기에 集中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밀리기라도 한듯 敵은 제6중대 右側 1선 제1소대지역을 뚫은뒤 △406를 直衝하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이무렵 중대 左側 1선 前면의 一群은 高地를 制扼하면서 △406를 잇는 稜線을 따라 陣前에 亂入직전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에 중대는 左一線 第2소대와 △406를 둘러싼 제3소대로서 手榴탄 투척으로 이를 阻止코자 하였으나 끝내 그 衝鋒을 꺾지 못하고 衆寡不敵으로 △406 後斜面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리하여 중대는 04.30에 제7중대의 側方엄호하에 △406로부터 撤收하여 300m 후방에 있는 無名봉우리를 점령하여 제7중대와 같이 대대 西側方을 掩護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된 연대장은 즉각 제2대대장을 有線으로 불러 『제1대대 예비중대가 도착즉시 대대장 지휘하에 逆습을 실시하라.』고 怒號하였다.

이에 제2대대장은 배마침 제5중대 후방에 제1대대 예비인 제2중대가 進出하였으므로 이 를 逆습에 사용하였는데 逆습에 대한 대대장의 腹案은 다음과 같다.

『① 대대는 배속된 제2중대로 하여금 05.00를 기하여 目標 △406를 奪取하여 前進진지를

恢復한다.

- ② LD는 제6중대가 점령중인 金城川邊의 無名봉우리와 제7중대 左一線간의 稜線으로 한다.
- ③ 奇襲공격의 효과를 增大시키기 위하여 공격준비사격을 中止토록 한다.
- ④ 제6 및 제7중대는 제2중대의 초월을 지원하고 공격간 화력으로써 지원한다.』
이러하여 제2대대장지휘하에 제2중대는 즉시 행동을 개시하였다.

2. △406의 恢復

이에 제2중대는 제1소대를 右一線에, 제2소대를 左一線으로한 2개소대의 併進으로 05.00에 一齊히 LD를 橫斷함과 때를 같이하여 제6 및 제7중대의 直射화기가 躍進해나가는 중대의 兩側을 掩護하는 一方 각종 박격포화가 △406에 집중하게 되자 이에 당황한듯한 무리들이 한때 소총사격을 가하기도 하였으나 오래되지 않아 저항을 포기한듯 곧 該高地의 北斜面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이때가 05.30으로 역습 30분만에 △406를 되찾은 것이었다.

그리하여 대대장은 아직도 제6중대의 전투능력이 恢復되지 않았으므로 계속 제2중대으로써 △406의 방어를 담당케 하였다.

한편 연대수색중대는 제1대대장지휘하에 黎明과 더불어 行動을 개시하여 07.50에 제2중대의 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3. △406에 대한 제1대대 增援

그런데 08.40이 지나자 1개 중대규모가 金城川邊에 건 안개를 利用하여 다시 進迫함으로써 交戰이 벌어졌는데, 안개로 인하여 彼我的 識別이 어렵자 『斜面에서 움직이는 者は 敵이다.』라는 사격目標을 指導하다가 固定사격으로 移行하여 混戰을 避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에는 敵이 이미 目前까지 迫到하여 진내에 뛰어 들려는 氣勢가 보였으므로 이를 맞은 제6중대는 一齊히 수류탄 投擲과 함께 陣地를 박차고 나오니 곧 그 일대에서 白兵의 亂戰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와같이 하여 △406의 상황이 危急하게 되자 연대장은 이를 增援함에 있어서는 最少限 2개중대가 必要할 것으로 判斷하였으나 可用兵力의 限定으로 이미 출동준비 지시를 한 바 있는 제1대대에서 1개중대를 急派키로 하고 主진지의 보안을 위하여 사단에 1개대대의 지원을 緊急 要請하였다.

이러하여 08.55에 제1대대에서 差出된 제1중대를 먼저 출동시켰는데, 때마침 09.00부로 사단작전지시 제252호가 하달되어 사단에비인 제5연대 제1대대가 연대지휘하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要旨은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일부 豫備병력을 差出하여 主 저항선의 방어력을 增強시키려 함.

② 제3연대장

㉠ 53. 7. 24. 09. 00부로 제5연대 제1대대를 統合指揮하라.

㉡ 제5연대 제1대대를 前進진지인 △406에 사용할 시는 事前承認을 要한다.

③ 제5연대장

53. 7. 24. 09. 00부로 제1대대를 제3연대에 작전상 配屬하라.』

이에 따라 제3연대장은 제5연대 제1대대(장, 柳洪植 중령)가 도착하는 즉시로 연대의 左一線에 배치키로 하고 제1대대에서 마지막 제3중대를 뽑아 대대장 지휘하에 △406에 즉각 赴援케 하였다.

이에 대대장 羅濬日소령은 대대 主진지인 金城川南岸邊에 앞서 떠난 제1중대를 左제1선, 그리고 제3중대를 右제1선으로 部署한 다음 金城川徒涉地點으로부터 金城川北岸의 17번도로변에 대대를 展開하여 朝霧를 헤치면서 일거에 △406에 直衝하니 이 때가 09. 50로 아직 제2중대는 陣地의 殆半을 잃으면서도 마지막 一角에서 간신히 支撐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대(一)는 쉽게 중대를 도와 一時에 銃劔을 휘둘러 突入하니 血沫은 四方에 뿌려지고 陣野에 濃霧가 깊었다.

이에 敵의 무리들은 到處에 屍山을 이룬채 △406 아래로 支離滅裂되고 말았다.

이때가 10. 00가 조금 지났을때 였는데, 제1대대가 增援된지 不過 10여분만에 戰勢가 有利하게 逆轉된 것이었다.

4. △406로부터 撤收

이리하여 제1대대는 제2중대가 배치되었던 △406에 제1 및 제3중대의 병력으로 진지를 보완시키는 한편 많은 死傷者를 내게된 제2중대의 再편성에 들어갔는데, 안개가 걸히고 2시간이 채못된 11. 50이 되자 突然 각종포화의 집중과 함께 數미상의 敵이 먼저 △406에 밀어닥치는데 이어 1개 대대규모가 그 뒤를 따르듯 同高地의 正面으로부터 掩襲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대는 81mm 박격포를 포함한 可用화력을 同高地의 전사면에 집중시켜 이를 阻止하려고 하였으나 그간 몇차례의 격전으로 온전한 전지가 남지 않은데다가 集中되는 敵砲火의 威力으로 死傷이 續出된 탓인지 끝내 그들의 進내 亂入을 막지 못하고 高地의 南麓으로 밀리는 결과가 되었다.

이와같이 急轉된 제1대대의 상황을 알게된 연대장은 繼續 그들의 壓力이 제6중대가 배치된 金城川邊의 無名봉우리까지 뻗친다면 前進진지 직후방의 17번도로와 金城川의 徒涉地마저 그들이 統制하게 되어 제1대대의 撤收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判斷하여 즉각 제1대대의 撤收를 命命하였다.

또한 △406를 상실함으로써 東側方의 제2대대 後方地域이 敵으로부터 完全히 露出되는 結果가 되어 該대대의 임무수행이 困難하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前進진지로서 價値를 喪失하였다고 보고 이의 철수를 사단에 건의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12.30로 사단으로부터 命令이 下達되었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實聯隊의 前進진지 撤收 建議를 7.24. 12.30부로 承認한다.

② 撤收부대는 主陣地후방에서 整備케 하라.』

그리하여 제1대대에 이어 제2대대가 金城川 北岸의 別隔지역으로부터 逐次的으로 주간 철수하게 되었다.

먼저 제1대대는 제2대대와 지원포병의 掩護사격을 받으면서 巨里室(後洞里 北方 1km) 東側의 金城川 徒涉지점을 거쳐 이날 12.50에 다리洞(楸洞 東方 1km) 부근에 집결하게 되고 제1대대의 撤收에 이어 제2대대가 右一線 제3대대의 掩護를 받아 제5중대 後方에 있는 徒涉지점을 거쳐 15.00에 다리洞 東側 2km 지역에 집결하였다.

한편 이날 09.00부로 제3연대에 배속된 제5연대 제1대대는 楸洞을 떠나 14.30에 제3연대 제1대대가 배치되었던 연대의 左一線 主진지를 점령하였다.

5. 사단장의 措置

사단장 金容階 소장은 앞서 제3연대장으로부터 전진진지의 철수전퇴에 접하자 사단의 全般의인 상황을 檢討한 結果, 그간 敵과 接觸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주진지의 보완공사를 실시한 보람이 있어 이제 공사도 마무리段階에 들어갔고 또한 여기에 金城川의 天然의인 障物을 利用한다면 右一線 연대의 방어력 發揮은 充分할 것이라고 보고 전진진지의 철수를 승인한 바 있으나 철수後 제3연대의 전투력을 綜合 분석한 바로는 戰力의 過多消耗로서 주진지에서 계속 임무수행은 不適合하다고 判斷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그간 사단예비로 있던 제5연대로하여금 제3연대와 주저항선 임무를 교대키로 결심하여 이날 20.20에 要旨 다음과 같은 작전지시 제254호를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현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일부 주저항선 부대의 임무를 교대시키려 함.

② 제3연대

㉠ 7월 24일 21.00부로 사단 右一線의 방어임무를 제5연대에 인계하고 사단예비가 되라.

㉡ 1개대대를 7월 24일 21.00부로 제5연대장의 작전지휘하에 들게하라.

㉢ 제5연대 제1대대를 7월 24일 21.00부로 제5연대장 지휘하에 복귀시키라.

③ 제5연대

㉠ 7월 24일 21.00부로 사단 右一線의 방어임무를 제3연대로부터 인수하라.

㉡ 제3연대의 1개대대를 7월 24일 21.00부로 작전상 통합지휘하라.

㉢ 제1대대를 7월 24일 21.00부로 직접 지휘하라.

- ㉑ 1개 대대를 8월 24일 21.00부로 제8연대장의 작전지휘하에 들게하라.
- ④ 제8연대
 - ㉒ 현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 ㉓ 제5연대의 1개 대대를 7월 24일 21.00부로 작전상 통합지휘하라.
 - ㉔ 제5연대의 1개 대대를 後洞里 부근에 이동시켜 유사시에 대비토록 하라. 但 대대의 戰鬪上 사용은 사단장의 사전 승인을 要한다.』

이에 따라 제3 및 제5연대는 21.00부로 임무교대를 하게 되었는데, 기실 부대는 이미 주진지에 배치된 상태였으므로 다만 현위치에서 지휘권의 인수인계만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날 제2중대진지를 점령한 바 있는 제3연대 수색중대는 이날 子正무렵에 제3연대 CP가 있는 東幕谷과 제5연대 CP가 있는 白岩谷간의 東側 無名高地에 再배치되어 지휘소를 경계하게 되고 또한 楸洞에 있었던 제5연대 제3대대 亦是 子正전에 後洞里에 移動하여 사단 右一線인 제8연대의 後方과 西側方에 대하여 事前對備하게 되었다.

라. 전투후의 개황

사단은 右一線 제3연대의 防禦임무를 예비인 제5연대와 交代시킨 그 이튿날인 25일 15.00에 다시 작전지시 제255호를 下達하여 전날밤 後洞里 부근에 待機케 한 제5연대 제3대대를 이날밤 21.00부로 原隊復歸시켜 연대 右一線에 배치된 제3연대 제3대대와 의 임무를 交代케 하고 이와 同時에 제3연대 제3대대를 原隊指揮下에 楸洞부근에 移動시켜 사단 豫備隊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그리고 이로부터 2일간 敵과의 交綏상태를 계속다가 7월 27일 10.00에 休戰이 調印됨으로써 이날 22.00를 기하여 硝煙이 사라지게 되었으나 統一을 이룩하지 못한 學旅의 恨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이 戰鬪에서의 綜合戰果 및 損失은 다음과 같다.

綜合 戰果 및 損失

1. 戰 果

(第7師團戰鬪詳報에 依據)

區 分 隊 別	射 擊 推 定	死 傷	捕 虜	歸 順	函 獲							
					60mm 迫 擊 砲	機 關 槍	重 砲	機 槍	信 號 用 槍	3.5 吋 砲	時 鐘 砲	多 發 銃
第 3 聯 隊	907		5		2	6	3	2	1	27		
第 8 聯 隊	698		32	1	7	18	3	1	6	64	4	1
計	1,605		37	1	9	24	6	3	7	91	4	1

2. 損 失(將校/士兵)

區 分 隊 別	戰 死	負 傷	失 踪
第 3 聯 隊	6/53	7/207	
第 5 聯 隊	/2	/3	
第 2 聯 隊	/53	3/213	/3
計	6/108	10/423	/83

第 60 章

西部戰線의 戰況

要 旨

1. 해병대의 泗川江부근 奇襲戰
2. 250高地—199高地 戰鬪
(一名, Queen高地 및 朴高地 戰鬪)
3. Betty高地 戰鬪
4. 美해병대의 高浪浦부근 戰鬪
一名, Vegas高地 戰鬪

第60章 西部戰線の 戰況

要 旨

本章에 收錄되는 戰況은 前卷 제54장에 이어 그와 大差없는 戰線에서 例의 爭奪戰으로 一圓되는 바, 이는 期間中에 中部戰線の 激動과는 類를 달리하는 局面이니, 여기서 局地的인 戰鬪樣相만을 보인 것은 아마도 그 正面의 板門店이란 活戰場에 刺戟을 피하기로 한 雙方의 配慮에서 인듯하다.

이 지역을 專擅하고 있는 美 제 1군단(장, Bruce C. Clarke 중장, 4.6에 Paul W. Kendall 중장과 교대) 戰線은 대부분의 主抵抗線이 臨津江의 北岸에 沿한 탓으로 沓水의 陣을 친 셈이라, 당시 제8군 戰線 가운데 防禦態成上 가장 脆弱性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敵이 이 正面에서 攻勢를 취한다면, 臨津江의 南岸으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실제로 이 점을 勘案한 제8군사령관 Taylor 대장도 『이와 같은 狀況이 벌어지면我方은 失地를 아주 拋棄하거나 아니면 奪回를 위하여 莫大한 損失을 무릅쓰고라도 反擊을 시도하든지 兩者擇一의 岐路에 서게 될 것이다.』는 憂慮를 表明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敵側이 이 正面에서의 그와 같은 意表를 찌르지 않고, 다만 몇개의 限定된 高地의 爭奪만을 企圖한 것은 戰略上의 理由에서보다는 政略的인 制限에 따라 不可避한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期間中의 主戰場은 軍단 右翼정면의 驛谷川 接岸의 Porckchop지역과 中央右翼 境界의 臨津江 부근, 그리고 左翼정면의 Nevada지역으로 集約되는데, 1월부터 3월까지는 대체로 冬季間의 自然條件에 따른 小康을 利用하여, —敵은 제65, 제47, 제46군으로써, 그리고 我軍은 美제7, 제1, 英연방, 美해병사단으로써—彼我의 戰列을 整備, 春季作戰에 대비하다가, 解氷으로 말미암아 我軍의 機動路의 障礙를 받게 되는 同월 하

순에 中共 제46군이 美해병사단 正面의 Nevada 지역에 공격신포탄을 올디, 이의 일부를 割取한 뒤로 5월 하순에 —4월 초순에 同지역을 交代인수한—美제25사단과 —다시 한번 爭奪을 反復하여, 中내에 軍단이 이의 확보를 포기함에 따라 그 지역 모두를 敵이 手中에 넣게 된다.

여기서 攻必取의 自信을 얻은 敵은 역시 4월 초순에 그들 제47군과 교대한 제1군을 새로이 戰線에 내세워, 6월 하순에 제1사단(장, 金東斌 중장)의 前進要衝인 杼--Queen고지를 嚙噬코자 血戰을 強要함으로써 여기서 다시 紛亂을 보게 된 끝에 이도 또한 그들에게 넘겨 주게 되는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이른 바 「7.13攻勢」의 前奏로 알려진 敵의 陽攻이 軍단 右翼 美제7사단의 Porckchop 일대에 指向된 결과 同사단은 7월 초순에 이를 拋棄하게 되고 만다.

이와 本卷의 主潮를 이루는 「7.13攻勢」의 一波가 제1사단과 美해병사단에 들어닥쳐 前者는 Betty고지에서, 後者는 Berlin고지 일대에서 激戰을 再開된 바, Betty고지에서 제1사단 將兵이 本卷을 통털어 小規模 防禦戰의 龜鑑的인 戰例를 남게 되기도 하거나 어쨌든 我軍은 主抵抗線에는 變動이 없으며, 敵이 노리는 目標은 모두 喪失된 가운데 7월 27일에 休戰을 맞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당시 軍단장 Clarke 중장의 辦은 이러하다.

『이들 前哨들은 거리와 地形관계로 有事時에도 增援이 容易치 않은 反面, 敵의 공격은 매우 수월하였다. 敵軍이 일단 近接하게 되면 砲擊이나 空襲도 友軍을 다치게 할 餘력이 있기 때문에 별로 쓸모가 없게 된다. 結論的으로 이와 같은 狀況下에서 固守만을 固執한다면, 그 진저보다 훨씬 값비싼 人的損失을 招來할 것이다.』

그렇다면, 敵側은 어찌하여 그 값비싼 損失을 甘受하였던가? 本章에서의 疑問은 여기에 있다.

1. 해병대의 泗川江부근 奇襲戰 (1953년 1월 4일부터 // 4월 29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22 호
상황도 제 90~99 호

- (1) 제3중대의 △39 奇襲(1. 4. 19. 00—5. 02. 10)
- (2) 제55중대의 △30 奇襲(1. 13. 18. 00—14. 00. 25)
- (3) 제11중대의 증서골 1차 奇襲(1 21. 00. 00—06. 30)
- (4) 제52중대의 西場里 奇襲(1. 21. 13. 30—22. 08. 20)
- (5) 제10중대의 △58 奇襲(1. 29. 05. 00—10. 30)
- (6) 제2중대의 △39 奇襲(2. 13. 18. 20—14. 07. 20)
- (7) 제11중대의 증서골 2차 奇襲(2. 15. 19. 00—16. 00. 50)
- (8) 제1중대의 無名高地 奇襲(3. 4. 00. 50—08. 40)
- (9) 제9중대의 西場里 奇襲(3. 9. 19. 00—10. 04. 30)
- (10) 제5중대의 △39 奇襲(4. 23. 02. 00—09. 10)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해병 제1전투단	장	대령	金 聖 恩	제11중대	장	중위	林 炘 燮
제1대대	장	소령	金 鍾 植	제55중대(배속)	장	대위	朴 容 鎮
제1중대	장	중위	嚴 尙 錄	제5대대	장	중령	姜 起 千
제2중대	장	중위	金 東 奎	제52중대	장	중위	林 理 植
제3중대	장	중위	金 昌 燮	砲兵대대	장	소령	鄭 滿 鎮
제2대대	장	소령	徐 廷 南			중령	吳 命 福
제5중대	장	중위	李 性 燾				(3. 20 부터)
제3대대	장	소령	安 昌 寬	右인접			
제9중대	장	중위	金 振 澤	美해병제1사단	장	소장	
제10중대	장	중위	洪 鍾 甲			Edwin A. Pollock	

敵 軍

中共제65군	장	蕭應棠	제195사단	장	趙翕敦
제193사단	장	張雲龍	제584, 제585단	장	基幹
제577, 제578단	장	基幹			

나. 전투전의 개황

해병제1전투단(1952년 10월 1일 增編)은 1952년 3월 21일 이래로 美해병 제1사단에 作戰上 配屬되어 西部戰線의 最西端인 臨津江口에 이르는 10km의 戰線을 방어하게 되었는데 當面의 敵 中共 제65군과 계속 對峙하다가 같은해 10월 初에 시작된 이른바 그들의 秋季攻勢를 泗川江부근 前哨陣地에서 이를 擊破한 것은 이미 제8卷에서 取扱한바와 같거니와 本節에서는 그 以後에 1953년 1월부터 4월末에 이르기까지에 間斷없이 敢行된 기술전 가운데 重要전투만을 取扱기로 한다.

敵軍의 상황 : 1952년 初부터 開城지역을 中心으로 그들 西部戰線에 展開된 中共 제65군은 冬季中에 그 戰力을 補充하기에 血眼이 된듯 變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1953년 1월에 判明된 그들의 配備는 예하 제193, 제194, 제195의 3개사단中 제193, 제195 兩個사단을 제일선에 전개하고, 제194사단을 예비로 控置하여 그 일부로써 江華島와 喬洞島對岸인 海안방어에 당한듯 하였는데, 전투단 正面엔 泗川江 西쪽에는 제193사단 예하의 제577연대의 일부와 제578연대, 그리고 제195사단 제584, 제585 兩개연대가 配備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따라서 전투단 正面에는 3개연대중강이 投入된 勢인데, 增援可能한 예비대까지 包含한다면 그 總勢는 18,000명에 達하고, 이를 支援하는 火力으로는 122mm, 105mm, 76mm 野砲와 120mm, 82mm, 61mm 박격포 그리고 Rocket砲등 422門으로 推算되었다. 그런데 이들의 脆弱點은 連日 계속되는 我軍의 空中爆擊으로 말미암아 補給路가 遮斷되는등 많은 制約을 받고있는데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冬季中에 牛馬車와 人力에 의한 보급품 추진에 血眼이 된듯 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은 開城—板門店間의 中立地帶를 利用하여 恣行되는 것이 여러번 觀測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冬季에 그들 戰力을 備蓄하고 陣地를 強化하자 2月中旬부터 泗川江 東岸인 △58, △36일대와 △87, △39 등에 마련된 陣地를 말판삼아 차츰 挑發을 增加하기 시작하였다.

我軍의 상황 : 泗川江 제4次戰에서 지난해 11월 初에 敵의 攻勢를 剔却한바 있었던 海병 제1전투단은 그 即時로 攻勢방어로 移轉하고 그해 11월—12월 사이 소대에서 중대규모의 기술전을 20여회에 걸쳐 敢行하면서 그들이 次期에 企圖하는 바가 무엇임을 銳意 注視하였다.

이와같은 가운데 1953년을 맞이한 海병 제1전투단은 계속 中대단위의 기술전을 費用하여 그들이 強化하려는 推進陣地를 擊碎하고 敵情을 수집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그 一方으로는 그들의 挑發을 制御하기 위한 위력수색과 경찰 및 잠복활동을 強化하였다.

當時의 전투단은 獸元里(自由門橋 北쪽 5km) 北쪽—下巨路里(臨津江口)間의 首都防衛의 要衝을 방어함에 있어서 예하 4개대대 가운데 2개대대를 前線에 1개대대를 예비로 控置하였으며, 나머지 1개대대는 鎭營 金浦鎭에서 美해병 金浦鎭시연대에 배속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부대 운용으로 말미암아 각대의 임무는 定期的으로 순환交替되었으며, 그때마다 左右제 一선대대는 그날 前哨陣地를 固守하기 위하여 1개중대를 대대 1개월간의 順番交代制로 하여 配備하게 되었다.

따라서 년초의 전투단 부대배치는 제5대대(장, 姜起千 중령)가 右一線을, 제1대대(장, 金鍾植 소령)가 左一線을 담당하고 제2대대(장, 徐延南 소령)가 예비였으며 제3대대(장, 安昌寬 소령)가 美해병 金浦鎭시연대에 배속되고 있었다.

704 西部戰線의 戰況

한편 전투를 지원한 지원부대로는 전투단編制부대인 포병대대 (105mm)(장, 鄭滿鎭 소령)가 孔德골(自由門橋 北쪽 2km)에 放列하고 그의 제1중대가 右一線대대를, 그 제2중대가 左一線대대를 각각 直接支援하였으며 제3중대가 一般支援에 입하였는데 이밖에도 전차중대(장, 吳尙奎 대위), 4.2" 重迫擊砲중대, 工兵중대, 적사포소대가 戰線부대를 직접지원하였다.

또한 전투 기간中에는 美해병 戰爆機와 155mm砲隊 1개중대, 4.5" Rocket포대가 戰況에 따른 수시要請에 의하여 支援하였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제3중대의 △39奇襲(11. 4. 19. 00~5. 02. 10)

(가) 작전계획

지난해 10월初와 11월末에 2次에 걸쳐 中共 제65군의 이른바 秋季공세를 粉碎한 해병 제1전투단은 泗川江 東岸에 있는 그들의 推進진지를 要扼하고 아울러 敵情을 수집하기 위하여 소부대 奇襲戰으로 方針을 바꾸어 陣地를 고수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泗川江부근 전진진지 제3次戰에서 血戰을 거듭한바 있는 제1대대는 그동안 金浦에서 戰力을 회복하고 지난해 12월 18일 作命 제281호에 따라 전투단 左一線 진지를 제2대대로 부터 引受하게 되었다.

당시에 대대는 즉시 전투단 右一線인 제5대대와 連繫하여 제1중대를 右제1선에, 제3중대를 左제1선에 그리고 제2중대를 前哨진지 △50에 각기 配備하게 되었는데, 連日 主抵抗線—泗川江사이 正面에 2~4개조의 분대규모의 주야간 정찰대와 10~20개조의 잠복대를 2개조씩 協同케 하여 出動케 함으로써 경계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전투단장의 작전方針에 따라 敵陣을 奇襲키로 하였다.

대대가 실시한 奇襲戰은 지난 12월中 2회에 달하였는데, 그 하나가 26일 21.30—27일 04.00에 七井洞(自由門橋 西南쪽 7km)의 敵陣을 제3중대가 躡습한 것이며, 다른 하나가 28일 21.00—29일 03.00에 俗稱 지상골(△87東쪽 200~300m)을 제2중대가 躡습한 것이다.

그런데, 이 2次의 躡습전에서는 敵을 요란하는 효과만을 거두었을뿐 별다른 전과를 올리지 못하자 대대장 金鍾植소령은 發奮하여 새해에는 그벽두에 躡습전을 決行하고 포로를 얻고자 다짐하였다.

이에 그는 1월 3일에 기습대로 제3중대를 다시 選定한 다음 △39를 目標로 選擇하여 해병 제1283作計 제2호를 다음과같이 成案하고 그실시를 전투단장 金聖恩대령에게 건의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대대는 1월 4일 19.30—5일 01.00에 △39를 躡습하려 한다. 奇襲目標을 敵陣擾亂과 俘虜獲得에 指向한다.

② 제3중대장은 2개소대로써 기습대를 編成하되 1개소대를 突入隊, 1개소대를 지원대로

조직하라.

③ 突入隊와 지원대의 兵力과 裝備는 다음과 같다.

㉑ 돌입대 : 병력—1개소대

장비— M_2 Car 및 M_1 소총

탄약매인당 2基數

수류탄 매인당 3발

TNT

捕繩줄

㉒ 지원대 : 병력—1개소대(경기 1개반포함)

장비—편성장비

탄약매인당 2基數

수류탄 매인당 2발

Cal30—실탄 每人當 200발

④ 기습대의 진출경로와 지원대 및 지원화기의 점령 위치는 별지투명도(상황도제90호참조)에 의한다.

⑤ 기습대의 돌입시간은 22.00로, 철수시간은 22.40로 예정하고 상황에 따라 조정 하라.

⑥ 행정사항 : 대대구호소는 대대 CP 부근에 있으며 전상자는 즉시 후송하라.

⑦ 지휘 및 통신사항 : 기습간에 중대지휘소는 지원대 점령위치에 설치하고 대대와 중대 통신은 TS-10 전화기를 사용하되 절단시는 SCR-300를 사용하라. 또 중대와 돌입대 및 지원대간 통신 역시 이와 同-하다.

⑧ 信號규정 : 지원사격요청—5星호박색 1발(돌입대에서)

㉑ 지원사격중지—5星綠色 1발(돌입대에서)

㉒ 철수—5星赤色 1발(중대지휘소에서)』

이상과 같은 기습계획에 대하여 전투단장은 이를 즉시 檢討하여 대대장을 激勵한 다음의 실시를 승인하고 要旨 다음과 같이 작명 제288호를 下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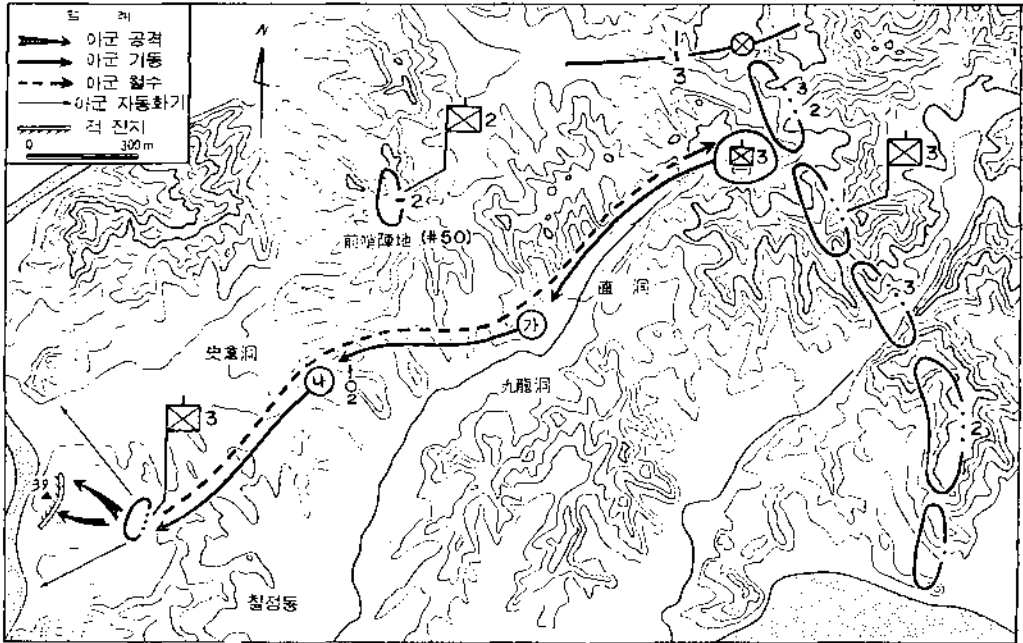
『① 부대는 일부병력으로 敵陣을 급습 하려함.

② 제1대대장은 제1283作計 제2호에 의거 △39를 기습하라.

③ 제2대대장은 4일 15.00까지 소총 3개소대(경기 1개반 SCR 1대포함)를 제1대대에 배속하고 기습대가 귀대시에 복귀케 하라.

④ 부대 지휘소는 변동없이 野村에 위치한다』

◇ 상황도 제90호 제3중대의 39고지 기습계획 및 실시



(나) 작전실시

1월 4일 : 지난해 12월 18일부터 蘆上里—下巨路里間의 주진지와 △50의 전초진지를 담당하여 전투단 左一선에 배치된 제1대대(장, 金鍾植 소령)는 이날도 전과 다름없이 泗川江 東쪽 正面에 대하여 偵察 및 潛伏활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제3중대(—)에 의한 기습전을 執行하였다.

즉, 대대는 전날 18.00에 출동한 분대규모의 2개 偵察隊가 예정지점을 경유 정찰하고 이날 02.20에 귀대한데 이어 15개조의 야간 潛伏隊가 敵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날 04.40에 철수하였으며, 이後에 2개 주간정찰대가 이날 07.10과 13.00에 각각 출동하여 예정시간인 11.30과 16.30에 正面일대를 정찰하고 복귀한 바 있었다.

이런 일일 활동속에서 제3중대로 하여금 △39에 대한 夜間기습을 敢行하기 위하여 대대는 전투단장명제288호에 의거 제2대대(장, 徐廷南 소령)로부터 赴援한 1개 중대에게 제3중대가 堅守하는 主抵抗線을 14.00—15.00에 인수케 하고 同중대에게는 곧 기습전을 준비케 하였다.

제3중대장 金昌燮 중위는 전날에 이미 대대장으로부터 △39기습에 대한 口頭命令을 수령하고 있는 터이었으므로 이번기습이야말로 성공을 거두어 중대의 名譽를 높이리라 다짐하고 이날 아침부터 소대장들과 목표에 대한 圖上研究를 거듭하였으며 가급적 임무부어는 빠를수록 좋다는 판단아래 돌입대장에 제2소대장 金光顯 소위를 준돌입대장에 제3소대장 韓順鎭 소위를 지원대장에 제1소대장 金鎭洙 소위를 각각 任命하고 돌입대와 준돌입대를 자기소대내 古兵 2개 분대로 編成케 하였다.

15.00에 제2대대에서 赴援된 兵力에게 전지의 인계를 끝마치자 중대는 곧 全員 중대본부에 집결하여 부대를 정비하고 일부병력만을 殘置 시킨채 장도에 오르니 이때가 18.00였다.

이날은 月齡 19로 日出이 07.49, 日沒이 17.27이며 西北風이 다소 강하고 때때로 눈발이 내리는 날씨였으나 목표물입사에는 10~20mm 정도는 透視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리하여 집결지에 진입하여 최종점검을 마친 중대(一)는 19.00에 돌입대, 준돌입대, 중대본부, 지원대순으로 기동을 시작하고 지시된 경로를 따라 九龍淵(주진지前方 2km)으로 躍進하여 19.30에는 (가) 지점을 通過하였다. 이로부터 중대(一)는 다시 가갯골—史倉洞을 은밀히 踏破하여 20.10에 (나) 지점을 거칠수가 있었으며 20분後에는 재촉에 따라 同伴한 87mm 2門을 △38(주진지 前方 3km) 후사면에 배치완료하고 지원대세를 갖추게 하였다.

이로부터 각개의 은밀행동으로 소로를 따라 西南쪽으로 前進하여 20.40에 (다) 지점에 進入한 중대(一)는 이곳에 중대 CP를 설치하고 同時에 지원대(장, 金鎮洙 소위)로 하여금 전지를 急編隊하여 공격대(돌입 및 준돌입대)의 進出을 근접 엄호토록 하니 이제 목표는 500m의 至近거리에 놓이게 되었다.

중대장 金昌燮 중위는 곧 내대장에게 『중대는 接敵없이 (다) 지점을 점령하고 LD를 向해 迂迴전진중임』이라고 有線보고 하고 즉시 돌입대장 金光鎮 소위와 준돌입대장 韓順鎬 소위에게 『LD를 21.30에 점령하고 공격하라』 命令하였다.

이에 兩대는 同時에 分進하여 돌입대는 高地 南쪽으로, 준돌입대는 그 東쪽으로 凍土를 포복으로 서서히 전진을 거듭하였는데 이러하기를 40분, 마침내 예정시간에 LD 兩側을 점령하고 一氣呵成으로 敵陣을 습격하기 시작하였다.

기습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일체의 지원사격이 全無한 가운데 실시된 이돌격은 거의 성공적인 것으로 내다보게 되었으나 22.10에 이르러 高地 8부稜線을 登破하던 준돌입대가 이곳에 潛伏하여 경계中이던 敵兵에게 發見되어 집중사격을 받게되었으므로 이돌격의 사이에는 熾烈한 사격전이 전개되어 기습대의 正體가 暴露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韓順鎬 소위는 지체없이 敵들을 直衝키로 決心하고 『돌격 앞으로!』를 호령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사격은 점점 熾盛하여 돌격은 곧 교착되었으며 5분후에는 그들 박격포(600m로 推定)탄이 주위에 집중하여 작열하기 시작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돌입대 역시 俗稱 고잔동(△39 南쪽 600~700m) 방향에서 敵으로부터 소총 및 기관총의 집중사격을 받게되어 전진이 頓挫되었으며 이어서 박격포(60m 추정)탄이 이에 加勢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돌입대는 重輕傷者 4명을 내게되고 30분후에는 또 流彈과 파편으로 13명이 다쳐 전진의 釘着을 免할 길이 없었다.

얼마후 1개 소대규모가 側方에서 돌입대를 向하여 역습코자 하였는데 이에 金光鎮 소위는 이를 발견하자 즉시 信號규정에 따라 5류 호박색신호탄 1발을 夜空에 높이 쏘야 105mm의

지원 사격을 요청하고 그탄착을 유도하여 그들 증원부대를 저지하였다.

돌입대는 이틈을 이용하여 다시 楔入의 好機를 포착키 위해 1시간동안 현위치에서 敵의 동정을 살폈으나 그들의 火力은 이미 增強되었다.

金光鎭 소위는 마침내 중대장에게 『敵의 火網으로 진출이 곤란하다』라고 급보하였다.

중대장 金昌燮중위는 이때가 예정철수 시간보다 1시간 10분이나 지연되고, 상황으로 미루어 손실만 累增할 것이라 판단하여 全員철수를 알리는 5層赤色신호탄 1발을 하늘높이 쏘아올렸는데 이때가 24.00였다.

목표점령을 目前에 두고 철수신호에 接한 兩돌입대는 이에 즉시 부상자 全員을 收容하여 各個分散下山하고 00.30에 (다) 지점으로 철수를 마쳤으며 여기에서 다시 이들은 지원대와 중대본부가 合勢하여 당초 進入경로를 따라 02.10에 歸着하니 제1대대의 累次의 기습전은 번번히 敵陣만을 탐색하는 결과가 되었을뿐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지 못하였다.

(2) 제55중대의 △30奇襲(1. 13. 18. 30—14. 88. 25)

(가) 작전계획

지난해 10월 13일 이후 전투단의 右一線은 제5대대가 담당하였다. 대대는 작명제254호에 따라 당시 제3대대로 부터 진지를 인수하자 즉시 예비대대로 부터 1개 중대를 배속받아 右제1선에 이들을 전개하고 中央에는 예하 제51중대를 그리고 左제1선에는 제53중대를 전개하였으며 전초진지 39, 33, 31세곳에는 제52중대를 각각 配備하였다.

그 後에 예비대인 제3대대의 金浦轉進(52. 11. 21)으로 배속된 1개 중대가 원대로 복귀하게되자 전투단은 이들 담당지역에 제55중대(新編)를 배비하고 제5대대장麾下에 있게 하였다.

이와같은 부대전개로 제5대대는 그해 연말까지 중대단위로 7차의 기습진을 敢行하고 泗川江 東岸에 있는 敵전초진지를 급습하여 敵情을 수집하는 한편 그들 진지의 파괴와 攪亂에 힘써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대의 활동은 새해에도 계속 실시되었는데, 이때의 부대배비는 지난해 12월 8일 전초진지를 담당한 제52중대가 제53중대와 교대하여 주진지에 복귀하였으므로 右로부터 제55, 제51, 제52의 3개 중대 순으로 主抵抗線진지를 堅守하고 3개의 전초진지는 제53중대가 이를 扼守하게 되었다.

대대장 姜起千중령은 1월 8일에 當面の 模糊한 敵情을 살피기에 金요한 포로를 얻고 아울러 그들 진지를 破壞할 목적으로 처음으로 제55중대로 하여금 △30(防藥洞 南쪽)를 기습하게 하였으나 아무런 成果를 거두지 못하자 그는 다시 敵情이 分明한 △58(△30 南쪽 500—600m)를 同時에 기습키로 決心하였다.

따라서 그는 참모들과 협의 끝에 이 기습은 지금까지 기습전에 참가한 回數가 가장 적으며 또한 앞서 기습에서 戰果를 얻지 못해 그 汚辱을 재차의 기습으로 완전 拂拭하고 명예를 恢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어 제55중대에 재차 그 機會를 주기로 決心한다음 1월 9일에 要旨 다음과 같은 제5882작전 계획 제12호를 마련하여 이의 실시를 전투단장에게 具申하였다.

『① 부대는 D일H시를 1월 10일 21.00로 예정하여 △30를 제1목표로, △58를 제2목표로 선정하여 이를 기습한다.

② 제55중대장은 2개소대로 제1, 제2 돌입대와 지원대로 기습대를 편성하고 △30, △58 兩개 목표를 기습하여 敵兵을 殲滅한다. 다만 負傷者는 이를 全員 俘虜로 獲得한다.

③ 제1, 제2돌입대와 지원대는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㉑ 제1, 제2돌입대 : 23명 内外로 구성하되 장비는 M₁소총 및 M₂ Car, BAR, 수류탄, TNT를 主로 한다.

㉒ 지원대 : 54명 内外로 구성하되 중대본부요원 5명, 擔架兵 10명, 위생병 2명, 통신병6명을 포함한다.

④ 기습대의 공격 및 철수경로는 별지 투명도(상황도 제91호 참조)에 의한다.

⑤ 출동시간은 18.00, 제1 목표 LD 점령시간은 20.20, 제2목표 LD 점령은 21.00, 철수시간은 21.30으로 각각 예정하나 상황에 따라 조정한다.

⑥ 지원화기의 사격시기는 돌입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한다.

⑦ 행정사항

㉑ 대대구호소는 軍糧洞(자유문교 北쪽 2km)에 위치한다.

㉒ 戰傷者후송은 擔架兵으로써 대대구호소까지 후송하며 重傷者는 헬리콥터로 후송한다

㉓ 포로는 즉시 대대에 후송하고 1시간내에 전투단으로 후송한다.

㉔ 탄약은 1기수씩 휴대하고 수류탄은 5발씩 휴대한다.

⑧ 지휘 및 통신사항 : 기습間 대대 CP는 △155(자유문교 西北쪽 2.5km)에 위치하며 중대 CP는 지원대점령위치에 설치한다.

대대 CP와 중대 CP간 통신은 有線을 사용하되 단절시는 SCR-300를 사용하며 그 呼出 부호는 다음과 같다.

대대—바다

중대본부—물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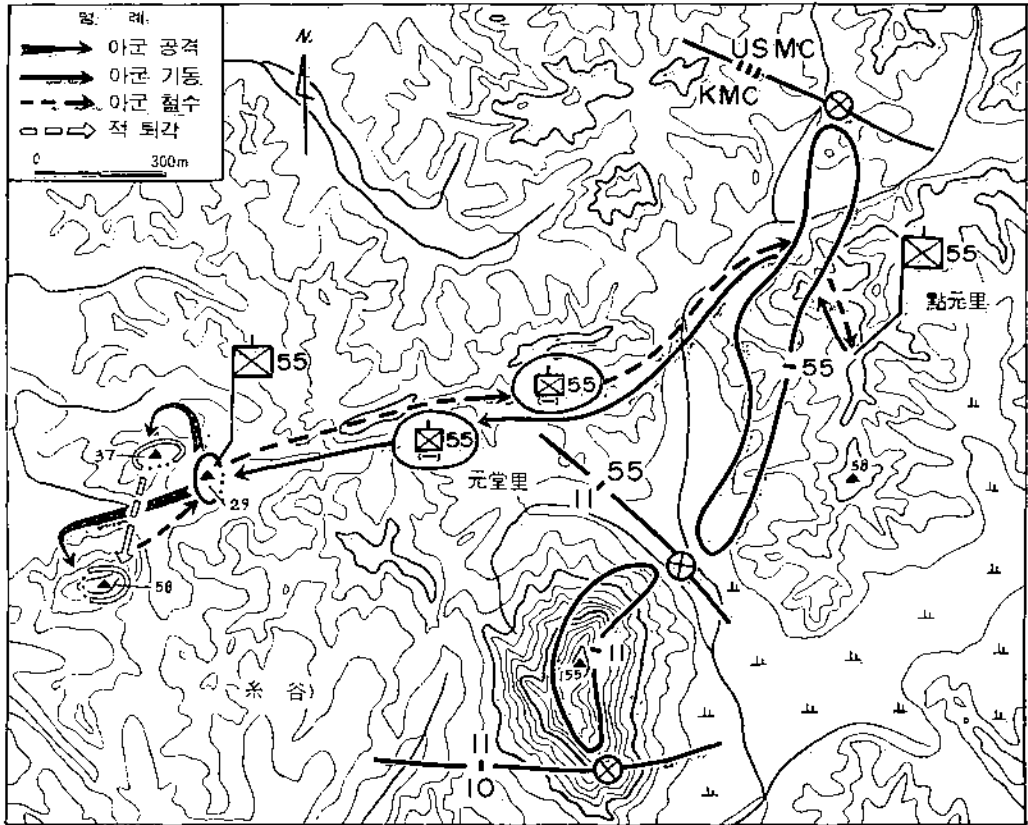
제1돌입대—윤일

제2돌입대—김이

제54중대—란초

周波數 27 (예비 29)

◇ 상황도 제91호 제55중대의 30고지 기습 및 실시



⑨ 신호규정

- 공격개시—赤色 5窟 1발
- 지원사격요청—黃色 5窟 1발
- 지원사격중지—綠色 5窟 1발
- 목표점령—白色 Parachute 1발

그런데, 전투단장 金聖恩 대령은 이계획을 보류하라 指示하게 되었는데, 그 까닭은 이날 작명제2호로 1월 11일 20.30를 期하여 右—線대대인 제5대대와 예비대인 제3대대의 임무 교대를 실시하려던 참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경우 기습부대로 선정된 제55중대는 그 編成목적에 右—線의 廣正面을 1개대대로서는 支撐하기가 곤란하여 부대교대시 마다 每次 예비대에서 1개중대를 이에 배속하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別途로 중대를 增編하여 美 해병 제1사단과 인접한 最右제1선에 固定배치한 만큼 同중대는 따라서 제3대대에 배속되어 대대 지휘를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전투단장은 제5대대가 계획한 기습계획을 부대교대 1일전에 실시한다는 것이 無理라고 判斷하고 제5대대장에게는 同作命으로 『1월 13일 05.00까지 주저항선 방어 임무

를 인계하라』라고 하고同日에 제55중대의 기습실시를 配屬부대장인 제3대대장에게 작명 제3호로써 要旨 다음과 같이 下命하게 되었다.

『① 부대는 일부병력으로 적진을 기습하려함.

② 제3대대장은 제5882作計 제12호에 따라 1월 13일 △30—△58를 기습하라.

③ 제5대대장은 同日 13.00까지 1개소총중대를 주저항선 防守를 위해 제3대대에 배속하고 기습대 철수와 同時에 원대복귀케 하였다.

④ 부대지휘소는 전과 同一하다』

(나) 작전실시

1월 13일 : 제3대대(장, 安昌寬 소령)는 전날 15.00부터 시작된 제5대대와의 임무교대로 이날 07.10까지 △39, △33, △31의 3개의 전초진지에는 제9중대(장, 金振澤 중위)를, 右 제1선에는 제55중대(장, 朴容鎭 대위)를 中央제1선에는 제11중대(장, 林晝燮 중위)를 左 제1선에는 제10중대(장, 洪鍾甲 중위)를 각각 전개하기에 이르자 곧 분대규모의 8개 주간정찰대를 3개의 전초진지와 主진지 前方에 출동케 한데 이어 18.00에는 4개의 야간정찰대를 분대규모로 抽出, 22.30까지 활동케 하는 한편 다시 이에 이어서 23개 潛伏隊를 편성 출동케 하여 각기 相異한 예상敵兵出沒지역에서 다음날 03,40까지 근무케 하였다.

이런 가운데 기습대로서의 임무를 다시 받은 제55중대는 이날 예비대인 제5대대에서 대대에 배속된 제51중대(90명)가 15.00에 중대지역에 진입하자 전투단 작명 제3호에 의거 진지를 인계하고 즉시 △30, △58 兩개 목표 기습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중대장 朴容鎭 대위는 全兵力이 본부에 집결하자 제1돌입대에 제2소대(一) (장, 陸鍾瑞 소위)를 제2돌입대에 제3소대(一) (장, 金聖源 소위)를 그리고 지원대에 제2소대(殘餘)를 각기 部署하여 각소대장이 이를 지휘토록하고 각 30~40명內외의 人員을 선발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준비를 마치고 중대장 이하 126명의 기습대는 18.30에 本陣을 떠나 一路 목표를 向해 躍進하기 시작하였다.

이날 역시 일기는 때때로 흐리고 季節에 따른 北西風이 强하게 불었으며, 月齡 20으로서 日沒은 17.36, 다음날의 日出은 06.34이었다.

기습대는 全員 相互 식별이 가능하도록 철모에 白色포를 둘러 2歩간격으로 縱隊를 이루어 주저항선을 넘은다음 일단 東西로 通하는 小路에 進出하여 西行으로 은밀히 접결지인 전초진지 △39 南麓에 19.30에 進入하였다. 이로부터 기습대는 야음을 이용 제1, 제2돌입대 그리고 지원대 순으로 축차 기동하여 예정보다 30분 늦은 20.30에 △29에 진출할 수가 있었다. 이에 중대장은 곧 제1소대장으로 하여금 진지를 急編케 하는 한편 중대 CP를 高 頂上에 개설하여 대대장에게 有線으로 △29점령을 알렸다.

이로부터 제1돌입대(장, 陸鍾瑞 소위)와 제2돌입대(장, 金聖源 소위)는 合勢로 이곳을 發進하여 匍匐전진끝에 △30 北쪽에 선정 한 LD를 15분후에 점령하고 공격을 알리는 赤色 5 星신호탄 1발을 夜空에 쏘아 올렸는데, 이때가 20.50이 었다.

이를 신호삼아 제1돌입대는 LD 右側에서, 제2돌입대는 그 左側에서 一齊히 喊聲을 지 르며 △30를 直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野地孤峰은 一時에 突風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때 이곳을 防守하던 소대규모의 무리는 一氣에 制壓된듯 하였으나 21.00에 이르자 亂 射를 일삼아 一時 돌입대의 前進를 阻止하다가 드디어 激浪의 防波堤는 되지 못하였음인 지 마침내 周章狼狽의 混肴를 이루면서 △58쪽으로 潰退를 서슴치 않았다.

好機를 看破한 돌입대는 즉시 그들 진내에 楔入하여 白刃을 휘둘러 7명을 殲滅한 다음 숨 어 있는 敵兵을 사로잡기 위해 곧 탐색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교전이 그치지 15분이 지나도 敵兵을 발견하지 못하자 이들은 수개의 洞窟을 TNT를 장치하여 폭파하였는데 21.20에 이르러 △29에서 발사한 綠色 parachute 신호탄이 높이 오르자 곧 △30를 이탈하 여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때 敵의 砲火가 △30에 集中하기 시작하여 鐵片에 陸鍾瑞 소위를 비롯한 11명이 부상하였으므로 同伴한 擔架兵은 그가운데 중상자만을 거두고 나머지는 戰友들이 부축하 면서 △29로 철수하였다.

이리하여 22.00에 기습대는 全員이 합세하여 그들 砲火를 鎮壓하여 줄 것을 대대에 要請 하고 有線을 거두면서 철수 경로를 따라 本陣으로 向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로부터 이들이 철수완료한 것은 다음날 00.25이었으며 이시작은 예정보다 1시간 20분이나 늦은 시간이었다

이날(13일) 左인접 제1대대의 활동을 一瞥하면 주간정찰대는 2개조가 07.10에서 17.00 까지, 잠복대는 14개조가 16.10에서 다음날 04.30까지, 야간정찰대는 18.00에서 다음날 04.50까지 각기 出動하여 敵情을 살핀 다음 귀착하였다.

또 수색소대는 12.00에 8명이 출동하여 주진지 前方일대에서 敵이 遺棄한 것으로 믿어 지는 8.2m 포탄 5발과 傳單약간과 방망이手榴彈 1발을 押收하고 16.00에 귀착하였으며, 중포중대는 21.10—22.50사이 9개 목표에 대하여 78발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포병대대(장, 鄭滿鎭 소령)에서는 이날 06.00—다음날 06.00까지 67개 목표에 대 하여 947발로 보급소 1개소, Bunker 6개, 家屋 4개, 포진지 5개, 76mm 포진지 1개를 각 기 推定과괴하는 戰果를 올렸다.

(3) 제11중대의 증서글 1차奇襲(1. 21. 00. 00—06. 30)

(가) 작전계획

1월 13일 이후 해병 제1전투단 右一線을 제5대대로부터 引受한 제3대대는 △39, △33, △31

전초진지에는 제9중대를 전개하고 제55중대(배속)를 그대로 右一線에 配備하여 右인접 美 해병대와 連繫토록하였으며 △155 東西쪽 中央에는 제11중대를 左側一線에는 제10중대를 각각 전개하고 連日當面の 敵과 對峙하여 잠복 및 정찰활동으로 방어에 따른 경제 조치를 強化 하였다.

대대장 安昌寬 소령은 1월 16일 전초진지 △33 北쪽 1km에 있는 京義線 철도변의 稜線이 항상 敵의 추진 잠복거점으로 이용되어온 점을 감안하여 夜襲으로써 이들을 사로잡으리라 決心하고 제55중대 기습에 이어 제3301작전계획 제1호를 成案하고 이의 실시를 건의하였다.

이에 제3대대의 기습계획을 검토한 전투단장 金聖恩 대령은 다음날인 17일에 作命제4호를 下達, 그 要旨에 이르기를

『①부대는 제3대대의 일부로써 기습을 감행하려함.

② 제3대대장은 제3301 作計 제1호에 따라 敵陣을 기습하라.

③ 제5대대(예비)장은 1월 19일 17.00까지 소총 2개소대를 抽出하여 제3대대에 배속하고 기습대 철수와 同時에 원대에 복귀케 하라.

④ 부대지휘소는 변동없다.』

제3대대장 安昌寬 소령은 전투단장의 命을 수령하자 즉시로 계획한바에 따라 기습을 명령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대대는 일부로써 敵陣을 기습하려 한다.

② 제11중대장은 2개소대로 돌격대와 지원대로 기습대를 편성하여 1월 21일 「중서골」을 기습하여 俘虜를 捕獲하고 진지를 파괴하라.

③ 기습대의 규모와 장비는 다음과 같다.

㉑ 돌격대 : 19명 범위에서 구성하고 主로 M₂ Car 및 수류탄으로 무장하라.

㉒ 지원대 : 55명 범위에서 구성하고 主로 M₁ 소총과 BAR, LMG 수류탄으로 무장하라.

④ 출동시간은 00.00로, 돌입시간은 03.00로, 철수시간은 03.20으로 豫定하고 상황에 따라 조정 실시하라.

⑤ 지원화기운용

㉑ 지원화기 : 105mm, 4.2", 81mm

㉒ 사격시기 : 기습대장요청으로 협조된 화력제획에 의거 실시하라.

⑥ 진출 및 철수경로는 투명도(상황도 제92호)를 참조하라.

⑦ 지휘 및 통신사항

㉑ 대대지휘소 : △155

㉒ 중대지휘소 : △33 西北쪽 400m

㉓ 대대—중대—돌입대간은 有線을 사용하되 단절시는 SCR-300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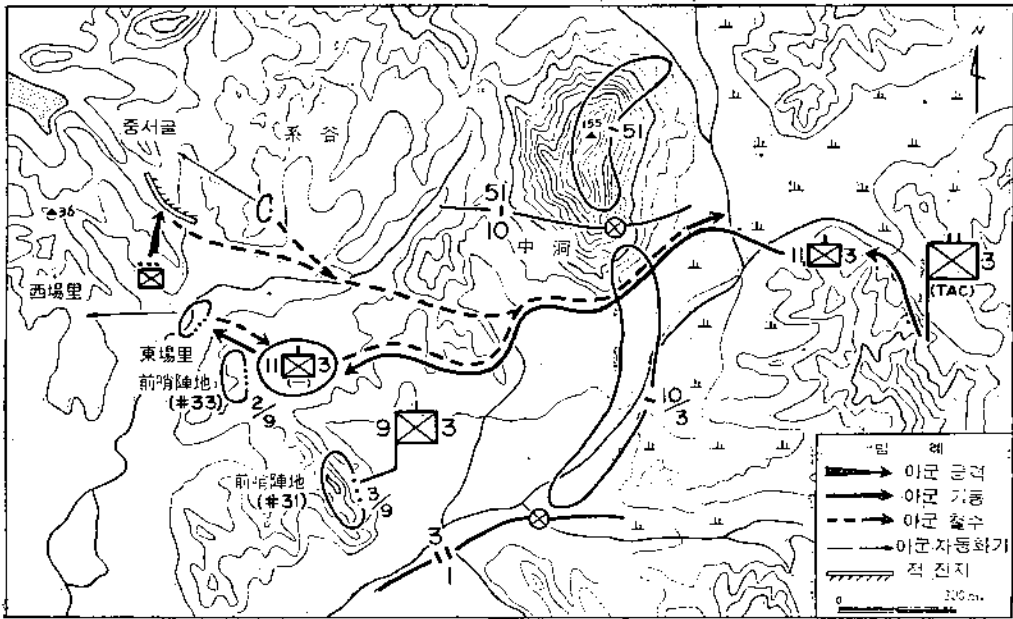
714 西部戰線의 戰況

㉞ 有無線 單據지는 다음신호에 의하라.

㉟ 신호규정

- ㊱ 기습성공 : 白色 신호탄 1발
- ㊲ 철 수 : 黄色 신호탄 1발
- ㊳ 지원사격요청 : 赤色 신호탄 1발
- ㊴ 지원사격중지 : 赤色 신호탄 2발

◇ 상황도 제92호 제11중대의 중서골 1차 기습계획 및 실시



(나) 작전실시

1월 20일 : 전날 24개의 분대규모의 潛伏隊가 2개조씩 협동으로 귀대시간을 이날 03.00 예정으로 18.00에 출동하고, 4개의 야간정찰대가 또 18.20에 本陣을 떠나 은밀히 활동하는 가운데 제11중대(장, 林煥燮 중위)는 이날 18.10에 대대에 임시 배속된 제51중대(장, 金昌均 중위)요원 70명에게 제1, 제2兩소대 진지를 인계한다음 즉시 기습대 편성에 착수하였다.

그는 돌격대에 제1소대장 交洛容 소위 이하 同소대에서 古兵 19명을 선발하코 또 지원대로는 제1, 제2兩소대에서 53명을 엄선하여 그 대장에 제2소대장 李齊夢 소위를 任命한다음

兩개 소대를 지휘하여 대대 CP로 집결하였다.

이곳에서 중대장은 제1, 제2 兩소대의 殘存兵力을 수용하여 선임장교에게 지휘케 하고 성능이 좋은 火器탄을 골라 기습대를 두창케 한다음, 지원화력 계획에 대하여 협조하였는데, 이로써 출동준비를 마친 중대(一)는 夜深한 00.00를 기하여 이들의 기습성과를 받을 새워 지켜보려는 대대장 安昌覽소령이하 각 참모들의 激勵을 받으며, 목표를 向해 전진하였다.

이리하여 중대(一)는 00.30에 △155 左麓(中洞)의 제10중대 主抵抗선을 通過하고 예정된 접근로를 따라 제9중대(장, 金振澤 중위) 제2소대가 堅守하는 전초진지 △33 東쪽 下麓에 집결하였으니 이때가 01.50이었다.

중대장 林昞燮 중위는 곧 △45에 CP를 개설하는 한편, 중대기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히 잠복하는 溪谷(전초진지 △33 北쪽 700m)에 지원대(장, 李春夢 소위)中에서 1개 분대를 發進케 하고 돌격대(장, 文洛容 소위)와 지원대를 東場里(△33전초진지 西쪽일대) 北쪽 稜線으로 急進케 하였다.

月齡6의 暗夜기동으로 전초진지 △33를 발진한 이들 兩隊는 이로부터 45분후인 02.35에 자기 목표에 進入하여 一隊(LMG 1정 포함)는 제10중대 특수잠복대와 連袖하게 되었으며, 돌격대와 지원대는 泗川江지류의 河川 堤防에 진출하여 지원대가 일대를 점령하는 동안 돌격대는 목표突入을 준비하였다.

이윽고 돌격대(장, 文洛容 소위)는 각개 匍匐으로 은밀히 堤防을 넘어 그 前方 300m에 이르러 03.10에 LD를 점령하였는데, 이때 그 左제1선에서 數未詳의 敵이 隱現하였으므로 이를 窺伺한 돌격대장 文洛容 소위는 즉시 중대장에게 상황을 急報하여 兩개 지원대로 하여금 엄호케 하고, 一齊히 목표로 突進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東場場 北麓의 지원대와 제10중대 잠복대와 合勢한 두곳으로부터 불을 吐하는 경기관총의 掩護사격아래 사격을 집중하면서 一進一止을 거듭하였다. 이때 목표 東쪽에 出現하였던 一團의 驕敵은 機先이 制壓된듯 北쪽으로 갑작기 사라졌으며, 목표를 점령하고 있던 소대(一)규모가 唐慌한듯이 胡語奇聲을 연발하고 潰退를 서슴치 않았다.

이와같이 聲東擊西하여 그들 陣勢가 一時에 瓦解된 틈을 이용, 목표에 突貫한 돌격대는 마침내 이를 拒守하려 發惡하는 俘虜를 무찌르는 바 되었으니 이때가 03.20이었다.

이에 돌격대는 기습의 성공을 알리는 白色信號彈 一발을 하늘높이 쏘아올리고 포로를 얻고자 暗中탐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하기를 1시간, 돌격대는 지역내에서 그들이 미처 거두지 못한 屍體 2具를 發見하는 외에 경기1정과 방망이 수류탄 2발을 노획하고 04.30에 이르러 중대장의 철수명령이 下達됨으로써 鐵路를 따라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지원대 역시 중대장의 철수명령으로 04.40에 즉차 철수하였으며, 제10중대 특수잠복대와 合勢하였던 1개 분대는 04.50에 공격대

와 같이, 그리고 李春夢소위가 지휘하는 지원대는 중대CP가 있는 전초진지 △33경유 예정 철수로(진출경로)를 따라 또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중대(-)는 曉夜(日出 07.14)직전인 06.30에 다시 主抵抗線을 통과 △155 南쪽으로 귀착하였는데, 부대를 정비하고 전과를 종합한 결과 前記 전과 외에 4명의 醜虜가 더 射殺되었을 것으로 推算되어 都合 6명으로 公式認定되었으며 손실로는 대원 1명이 流彈에 輕傷을 입었다.

그러므로 중대(-)는 곧 부상자를 대대구호소로 後送조치하고 07.50에 依命 제51중대로부터 대대 中央제1선을 引受하였다.

(4) 제52중대의 西場里奇襲(1. 21. 18. 30~22. 08. 20)

(가) 작전계획

전투단 右一線을 1월 13일에 제3대대에 인계하고 즉시로 예비대가된 제5대대는 同월 19일 전투단장 金聖恩 대령의 內示에 따라 西場里(전초진지 △33 西쪽 1km) 北쪽 綫線 넘어 遮蔽된 곳을 急襲하기 위하여 각대대가 競爽하듯 작제 제13호를 성안하고 이의 실시를 전투단장에게 建議하였던바 그는 즉시 이를 승인하고 같은날 作命제9호로써 大要 다음과 같이 命命하였다.

『① 부대는 제5대대의 일부로써 敵陣을 기습하려한다.

② 제5대대장은 제5082 작제 제13호에 의거 기습전을 감행하라.

③ 부대지휘소는 변동없이 현위치에 계속 위치한다.』

제5대대장 姜起千 중령은 이상의 命命을 수령하자 곧 기습실시를 위한 命命을 이하에 下達하고 이의 실시를 勵督하게 되었는데, 그 命命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대대는 일부로써 西場里的 敵陣을 기습하여 포로를 획득하고 아울러 敵情을 탐색하려 한다.

② 제52중대는 1월 21일 2개소대로써 목표를 기습하여 포로를 획득하고 敵情을 탐색하라.

③ 기습대를 다음과 같이 편성하라.

㉞ 기습대 : 인원—31명내외

장비—主로 M₁, M₂ Car, BAR 수류탄, TNT로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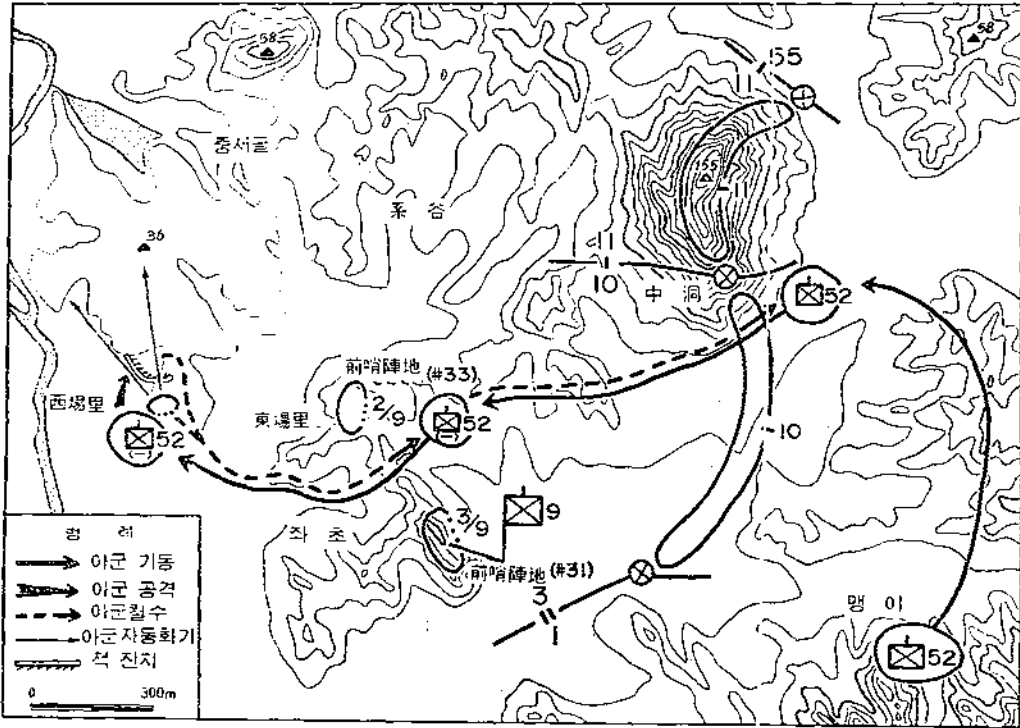
㉞ 지원대 : 인원—39명내외

장비—主로 M₁소총, M₂Car, BAR, TNT, 수류탄으로 하라.

중대본부요원 3명, 擔架兵 8명, 衛生兵 2명, 通信兵 2명을 포함하라.

④ 기습대의 출동은 18.00로, LD점령은 21.00로, 철수는 21.20로 각각 예정하고, 상황

◇ 상황도 제93호 제52중대의 西場里 기습계획 및 실시



에 따라 조정하라.

- ⑤ 기습 및 철수경로는 별지투명도(상황도제93호 참조)에 의하라.
- ⑥ 지원화기는 105mm, 4.2", 81mm. 이며 차격시기는 기습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한다.
- ⑦ 행정 및 통신사항
 - ㉓ 대대구호소는 △155南麓에 설치하라.
 - ㉔ 부상자 및 戰死者는 擔架兵으로 대대구호소까지 후송하며 重傷者는 헬리콥터로 후송하라.
 - ㉕ 포로획득시는 즉시 대대로 후송하며 1시간내에 연대로 후송하라.
 - ㉖ 탄약은 1基数씩 휴대하고 수류탄은 각자 5발씩 휴대하라.
 - ㉗ 대대지휘소와 중대間통신은 有線을 사용하며 절단시는 SCR-300을 이용하라.

또한 그 呼出부호는 다음과 같다.

대대-바다	중대본부-물새
돌입대-사자	제54중대-난초
주파수-17	예비-20

⑧ 대대지휘소는 △155에 추진하며 중대지휘소는 西場壘에 개설하라.

⑨ 신호규정은 다음과 같다.

공격개시	—赤色 5층 신호탄 1발
지원사격중지	—綠色 // // //
목표점령	—白色 Parachute신호탄 1발
敵의 逆襲	—黃色 // // //
포로 획득	—白色 5층 신호탄 1발
철수	—綠色 Parachute 신호탄 1발

(나) 작전실시

1월 21일 : 제52중대(장, 林理植 중위)의 西場壘기습이 敢行된 이날, 右一線을 방어중인 제3대대(장, 安昌寬 소령)는 탐색활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주간에는 분대규모의 8개의 정찰대가 05.30에 출동하여 미리 選定한 지점들을 경유 敵을 發見하지 못하고 08.30에 귀착한 바 있었고 야간에는 4개조의 정찰대가 18.00—22.55에 진전여러곳에서 활동하였으며 또한 23개조의 잠복대가 이날 18.10에 2개조의 協同으로 18.10부터 다음날 04.00까지의 예정으로 활약하였다.

한편 左一線을 堅守하는 제1대대(장, 金鍾植 소령)는 2개의 분대규모의 주간정찰대가 07.40와 12.30에 각각 출동하여 계획된 경로를 따라 陣地正面을 정찰하고 11.30과 17.30에 각기 귀환하였으며, 夜間에는 2개조의 정찰대가 분대규모로 18.00에 진지를 떠나 다음날 03.50에 복귀예정으로 敵情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16개조의 잠복대가 또 16.20에 진지를 떠나 陣前 24개소에서 徹夜활동하였다.

이런 가운데 제5대대는 전투단 예비대로써 主陣地 후방의 Kansas선 및 Wyoming선에 대한 진지공사와 自由門橋에 대한 경비를 전담하고 아울러 主抵抗선부대로부터 依命 主전지를 一時 引受하고 있었다.

전날에 제3, 제1 兩대대 制限點南쪽 俗稱「맹이」부근에서 접결 待機하던 제52중대는 대대로부터 기습命을 수령하자 즉시 출동준비에 착수하였는데, 중대장 林理植 중위는 제1소대장 金成浩 소위를 기습대장에 제2소대장 李永栢 소위를 지원대장에 任命하고 각기 自隊병력에서 기습대는 31명, 지원대는 39명을 선발 편성케 한다음 夜間기습에 따른 속次の 신호규정을 臆得케 하고 기동시에 取할바 개개인의 行動에 대하여 熟達토록 교육을 실시케 하였다.

이와같이한 각대 교육이 끝나자 중대장은 기습에 참가할 總員84명을 몰아 裝具를 검사하고 교육성과를 시험하여 다음날에 敢行할 기습을 豫行하였다.

즉, 그는 어둠이 깔리자 미리 선정한바 있는 목표와 恰似한 부근의 地形을 擇하여 실전

그대로의 신호에 따라 공격을 감행케 한것이다.

이렇듯 전날에 鍛鍊한 중대는 이날 오전中 各支援포병과 협조를 거쳐 18.30에 차량기동으로 제3대대CP경유 △155 後斜面에 進入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중대(-)는 중대장 전두지휘로 기습대, 지원대순으로 계획된 기동로를 따라西進하여 19.20에는 제9중대가 配陣된 △33, △31 兩전초진지사이를 通過하고 그로부터 30분후에는 공격목표로부터 500m 南쪽 稜線에 接敵없이 進出할수가 있었다.

중대장은 곧 기습대를 목표 西南 300m쪽거리로 포복진전케하여 LD를 占領케 한다음 자신은 지원대와 지원병력을 이끌고 그 東北쪽에 있는 봉우리로 急進하였다.

이윽고 지원대가 전지를 愈編하고 기습대를 지원할 모든 준비를 完了하게되자, 會心의 一戰을 遲滯없이 決行하기 위하여 공격신호인 赤色 5屋을 전령으로 하여금 하늘높이 쏘아올리도록 명령하였다.

그런데 傳聲의 손이 방아쇠에 가는 瞬間 기습대 正面에서 돌연 銃聲이 連發하고 무수히 曳光이 夜空에 交叉되었다. 그리고 잠시후 金盛鎬 소위로부터 『물새! 물새! 여기는 사자 여기는 사자, 敵兵 30여명과 교전중임. 사후조치를 바람』이라는 긴급報告가 SCR-300無電 수신기에 쟁쟁하게 울렸다.

중대장 林理植 중위는 즉시 이에 응답하여 『여기는 물새, 여기는 물새, 사자는 현위치에서 敵을 阻止하면서 차후 命命을 待機하라』라고 한다음 곧 「바다」를 呼出하여 接敵보고를 하였는데, 이에 그는 『早期에 接戰케 된것은 그들이 야간경계가 疎도면밀한 것이므로 繼戰은 기습의 意義를 喪失할 따름이다』라고 판단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傳聲으로 하여금 綠色 Parachute 1발을 쏘게 하였으니, 바로 이것이 기습대의 철수를 命命하는 신호였으며, 同時に 대대에 보내는 通報이기도 하였는데, 그 시간은 20.20로 예정시간보다 1시간에 빠른 것이었다.

잠시후 기습대 正面에서는 熾熱한 사격전이 그치고 이어서 △36(魂飛高地)와 기습목표 일대에 기습대의 철수를 掩護하기 위한 105mm, 4.2", 81mm의 지원사격이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LD에서 목표 突入 直前に 敵과 교전케된 기습대(장, 金成浩 소위)는 이때 그들이 陣前に 추진한 것으로 믿어지는 潛伏隊에서 역습을 받아 肉薄戰이 전개되었으나, 紛戰끝에 소대장 金成浩 소위가 陣沒하고 蹶列이 흩어져 苦戰케 되었다. 이에 중대장은 즉시 철수命命을 下達하였는데, 이에 기습대는즉시로 各계分散하여 戰死傷者 5명만을 부축하고 황급히 지원대 접거지점으로 철수하였으며, 이에 중대(-)는 敵의 彈幕사격을 避하기 위하여 20.40에 人원도 제대로 把握채 못한채 제9중대 제2소대가 扼守하는 전초진지 △33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判明된 損失은 소대장 金成浩 소위의 3명의 行方이 不明하고 戰死者 2명, 負傷者 6명으로 밝혀져 一同을 壓然失色케 하였으며, 또한 亡失장비는

BAR 2정, Car 2정, M₁소총 1정, SCR-300 1대 등 都合 6종에 達하였다.

중대장 林理植 중위는 곧 後續조치로서 行方을 알수 없는 金소위의 3명이 戰死한것으로 判斷하고 그 屍體라도 거두기로 決心, 대대장에게 다음과 같이 無戰보고하였다. 『중대는 △33에 待機중임. 金소위의 3명의 屍體를 거두기 위한 기습을 再舉하려함』

그러나 대대장 姜起千 중령은 이를 容認치 않고 『即時 歸隊하라!』 號令하였으므로 중대(-)는 차마 내키지 않은 철수로 俗稱 九鳩촌 경유 예정 경로를 따라 △155 東側下麓 (主抵抗線後方)으로 復歸하였는데, 이때가 22.20이었다.

이곳에서 중대장은 待機하는 대대장에게 전과를 보고하기를 敵兵 13명을 推定 사살하였다고 보고한다음 現地에 遺棄된 것으로 판단되는 4具의 屍體를 되찾기 위한 재습을 허락하여 줄것을 泣訴하였다.

1월 22일 : 이리하여 마침내 허락을 얻은 중대장은 再整備가 끝나는 즉시 精兵 30명을 선발하고 索員 단독무장을 하제한 다음 04.20에 自身이 직접 이를 지휘하여 또다시 出動하였다.

一次의 경로를 따라 전날 기습대의 交戰場所로 急進하게된 이들은 06.50에 進초진지 △33의 南麓에 進출할 수 있었으나 이미 拂曉가 되어 東天이 밝아오기 시작하였으므로 신중한 경계가 必要하여 이때문에 進出속도는 앞서와 같지 못하였는데, 이들이 東場里를 벗어나 西場里로 直衝하려는 무렵 전날 기습대를 追蹤하다가 曙天과 더불어 現地에서 潛伏 하려던 것으로 믿어지는 소대규모의 한패와 맞부딪쳐 또한 목표에 進入하기도 前에 激烈한 사격전이 전개되었다.

이때 敵은 수색대가 그들을 쫓아 出擊한 것으로 誤判하여 唐慌하는것인지, 또는 計巧인 것인지는 헤아릴수 없으나 그들 火線은 마침내 亂調를 이루더니 오로지 雪寒野地에 버려져 있을 戰友의 屍身을 거두어 孤魂이나마 달래고자 果敢히 直衝한 이들 攻波에 물리는듯 슬며시 公무니를 빼려하였다.

好機를 看破한 수색대는 一瞬에 6명을 射殺하고 潰退하는 그들을 追擊코자 하였는데, 그 瞬間 數未詳의 敵이 四周에서 이들을 포위코자 하였다.

이러한 회오리 속에서 중대장의 措置는 자세히는 알수 없으나 수색대는 진지를 급편하여 拒支하려 한듯한데, 어쨌든 상황은 뜻과 같지 못하였고 더구나 날이 센 마당에 700~800m의 敵地를 突貫한다는 것은 無謀하고 携帶한 탄약은 바닥이나 있었으므로 切齒扼腕 타가 後策을 강구키로 하여 隨意 철수한 것으로 헤아릴 수 있는바 이와같이 되어 수색대는 그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接한 대대장 姜起千 중령은 憤痛을 이기지 못하고 즉시 수색대를 가로막았던 敵을 覆滅하기 위한 105mm, 4.2"사격을 要請하여 進초진지 △33 西쪽일대를 불바다로 化하게함으로써 早朝부터 怒한듯 咆哮하는 폭음이 震動하였다.

그런데 09.00에 이르러 戰死者로 보고된 인원 1명이 鮮血이 狼藉한 가운데 所持무기외에 방명이 수류탄 10발을 걸머지고 歸隊하여 傷心에 찬 중대장에게 消息을 傳하였는데, 그가 本隊와 離脫하여 귀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要旨 다음과 같이 陳述하였다.

『나와 金소위, 그리고 통신병은 紛戰中에 四方에서 나타난 8명가량의 敵이 갑자기 우리를 덮치려 하였으므로 柘岡끝에 이들과운데 3명을 銃劍으로 刺殺하기도 하였으나 끝내 그들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를 참지 못한 金소위는 수류탄으로 自爆하여 壯烈히 戰死하였으며 나는 이틈에 그들 監視를 벗어나 九死一生으로 生還할 수 있었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이되어 제5대대가 長湍지역에서 감행한 기습전은 그後에 기회가 부여되지 않음으로써 끝내 雪辱치 못한채 兵仗을 거두게 되고 말았다.

(5) 제10중대의 △58奇襲(1. 29. 05. 00~10. 30)

(가) 작전계획

전투단장 金聖恩 대령은 새해들어 계속 실시된 기습전이 所期의 成果를 거두지 못하자 그 까닭이 각대가 敵의 강화된 對應策에도 不拘하고 이를 輕視하여 充分한 火力지원을 얻지 못한데 基因한다고 分析하고 1월 20일 각대대장이 同席한 참모회의에서 제3대대장 安昌寬 소령에게 『航空 및 戰車를 포함한 各種砲의 支援을 받아 사전에 敵을 制壓하고 그然後에 △58을 기습하는 계획을 세우라』라고 하였다.

夜間공격을 주간공격으로 轉換하여 제3대대장 安昌寬 소령은 이때까지 기습전에 준비사격을 배제하였던것과는 달리 공격에 앞서 『火力으로써 敵을 強打하되 企圖를 감추어야 한다』는 方針을 세우고 이 一戰에서 대대의 戰力을 誇示하리라 決心 한다음 同월 21일 작전계획 제2호를 마련하였는데 그 大要는 이러하였다.

『① 부대는 敵陣을 기습하여 敵을 俘獲한다.

② 제10중대장은 1월 26일 H시를 08.00로 예정하여 △58를 공격한다.

③ 기습대는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㉑ 돌입대 : 4개분대(증강)로 편성하고 主로 M₂Car, 수류탄, TNT로 무장한다.

㉒ 지원대 : 2개분대(증강)로 편성하고 主로 M₁소총, Car, BAR, LMG로 무장한다.

④ 기습대의 출동은 04.20, LD점령은 07.50, 공격은 08.05, 철수는 08.25으로 각각 예정하고 상황에 따라 조정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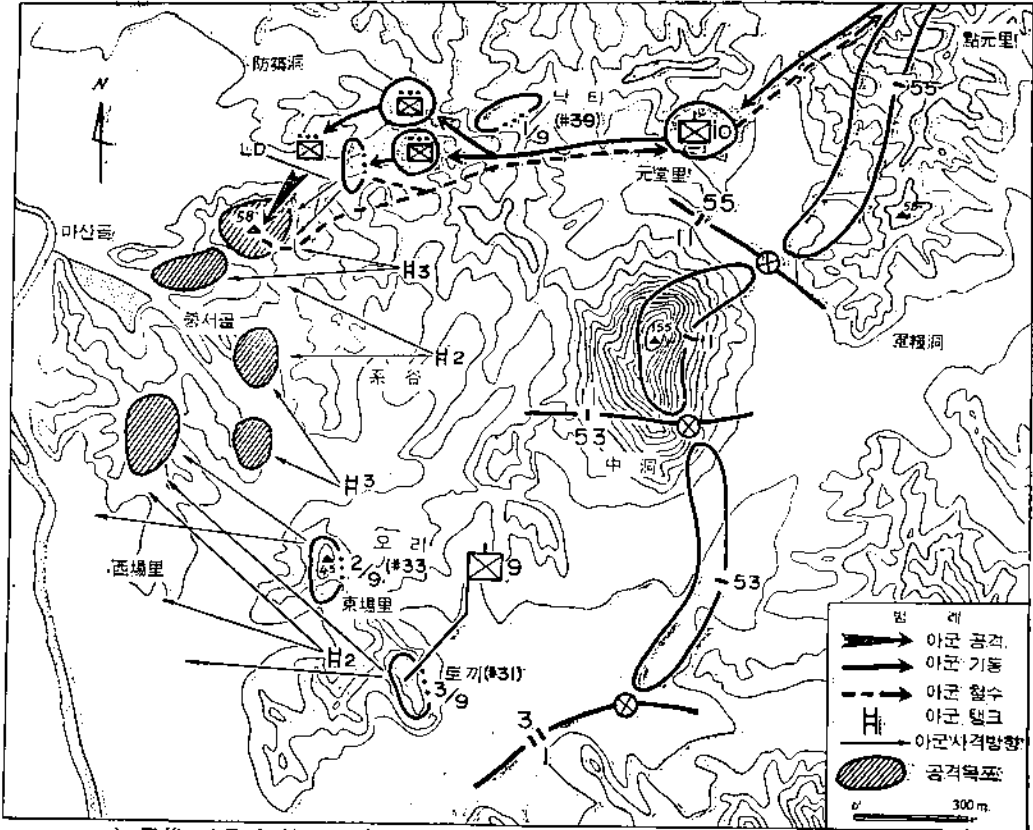
⑤ 지원화기 및 운동

㉑ 지원화기 : 155mm, 105mm, 4.2", 81mm, 전차 3개소대, 항공기 16대

㉒ 지원화기의 運用

(가) 각종로 : 공격9분전에 목표에 사격을 집중한다. 2분간 기만사격, 3분뒤고 3분

◇ 상황도 제94호 제10중대의 $\Delta 58$ 기습계획 및 실시



간 最後 집중사격), 공격間 및 공격延伸사격은 공격부대장의 요청에 의하여 事前에 協助된 사격계획에 의한다.

(L) 항공기 : 07.30—07.55까지 $\Delta 58$ — $\Delta 36$ 飛高地일대 목표에 대하여 공격준비 폭격을 실시한다.

(C) 전차 : 07.00—08.40에 투명도(상황도 제94호)와 같이 배치하며 공격준비 사격, 공격間 延伸사격을 실시하나 단, 이 사격은 공격부대장의 요청과 사전에 협조된 화력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⑥ 공격부대의 진출로 및 철수로는 투명도(상황도 제94호)와 같다.

⑦ 지휘 및 통신

㉔ 대대지휘소는 $\Delta 155$ 에 설치하며 중대지휘소는 $\Delta 29$ 에 설치한다.

㉕ 대대지휘소—중대지휘소間은 有線을 사용하되 斷切時는 SCR—300을 사용한다. 중대지휘소—돌입대間 역시 같으나 LD까지 有線을 사용한다.

㉖ SCR—300의 周波數는 後達한다.

㉗ 신호규정은 다음과 같다.

- 공격—81mm박격포 조명탄 2發
- 지원사격요청—綠色신호탄 1발
- 지원사격中止 및 延伸—赤色신호탄 1發
- 철수—黃色신호탄 1발(대대OP에서 연막탄 2발)
- 목표점령 : 靑色신호탄 2발

㉞ 暗號규정

- 제3대대본부—漢察山
- 제10중대(지원대)—형님
- 돌입대—주인』

이상과 같이 제3대대의 기습계획이 마련되자 전투단장은 團단장 吳命福 중령으로 하여금 美고문단側과 協議케 하여 항공 지원與否를 確認하고 同월 24일에 작명제12호를 要旨 다음과 같이 下達하였다.

『① 美해병대의 항공기 16대가 我부대의 공격을 直接 지원할 것임.

- ② 부대는 제3대대의 일부 병력으로 △58에 기습을 감행하려함.
- ③ 제3대대장은 제3301 作計 제2호에 의거 △58에 대한 기습을 실시하라.
- ④ 제5대대장은 소총 1개 중대를 1월 26일 07.00까지 제3대대에 배속하라.
- ⑤ 부대지휘소는 변동없다.』

이상과 같은 命令을 수령한 제3대대장은 즉시 준비한 계획을 命令化하여 이를 下達하였는데, 當日, 날씨의 不順으로 因한 航空機의 出擊이 如意치 못하였던 관계로 그 지원이 가능한 29일로 연기되어 이에따라 作命제12호 역시 수정되었으므로 대대의 기습은 다만 日字만이 변경된 同월 29일에, 앞서 계획대로 실시케되었다.

(나) 작전실시

1월 29일 : 공격 命令을 수령하자 제12중대장 洪鍾甲 중위는 즉시로 裴鎭明 소위를 돌입 대장에, 成寬植 소위를 지원대장에 각각 任命하고 대대 제1선을 堅守하면서 한편으로는 틈틈히 공격에 따른 技倆을 연마하였는데, 이날 作命제12호(수정)로 제53중대(장, 朴元奎 중위)가 赴援하자 즉시로 子正을 期해 依命 진지를 인계하고 04.10에 △58를 指向하여 出動하였다.

중대장 陣頭지휘下에 총158명으로 編成된 이들 기습대는 俗稱 「울골」부근 기동로上에서 待機하는 車輛에 탑승하여 板門店에 이르는 主보급로를 따라 5km가량 走行하고 默元里부근 交叉路에서 下車한 다음 소부대가 注視하는 가운데 제55중대의 주저항선을 超越하여 은밀히 西進하였는데, 이들이 中間집결지로 선정 한 元堂里(△155北쪽 1km)에 進入한 것은 그로부터 1시간뒤인 05.10이었다.

이곳에서 대대가 선정한 기동로를 따라 2개대로 나누어 分進하였는데, 돌입대는 전초진지를 △39 경유하여 그 西쪽 稜線으로, 그리고 중대본부와 지원대는 전초진지 △39 南麓을 거쳐 △29 東쪽으로 각기 前進하였다.

이즈음 이들의 △58기습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날에 主陣地의 後方으로 推進된 戰車 중대(장, 吳尙奎 대위)는 別命으로 5대의 전차를 松峴里(板門店 南東쪽 2km)로, 3대의 戰車를 △58東쪽 1km인 稜線으로 또 2대의 戰車를 糸谷으로 그리고 5대의 전차를 전초진지 △33 南北에 각기 進入하고 있었다.

이런가운데 중대본부와 지원대는 06.10에 최종접결지에 進出後 다시 躍進하여 △29를 占領하고 중대지휘소를 개설하는 한편 병력을 그 西斜面 일대와 그 南麓에 배치하였으며, 또 돌입대는 06.25에 LD北쪽 공격대기 지점에서 待命하였다.

이와같이 중대는 목표를 目睫에 두고 敵情을 窺視하기를 1시간, 드디어 日出(07.39)9분 가량을 앞두고 出擊한 美해병대의 F4U 단발 전폭기 8대가 1번기를 선두로 △58에 차례로 急降下하여 機銃掃射를 퍼붓고 Napalm탄과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하니, 一瞬에 그 爆音은 天地를 震動하듯 하였으며, 閃光과 黑煙이 일대에 濛濛하였다.

5분이 경과한 07.30에 이르자 이번에는 이미 5개처에 진입하여 待機하고 있던 戰車 15대가 一齊히 砲門을 열어 泗川江 넘어 敵陣을 위압하고 △58를 비롯한 △36등 그들 6개 據點에 대하여 直射砲火를 集注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時刻에 돌입대는 공격대기지점을 각개 發進하여 07.50에 LD를 占領하였다.

이윽고 秒針이 07.53를 알리자 이미 協調된 火力계획에 따라 포병대대(장, 鄭滿鎭 소령)의 105mm 野砲가 △58공격을 기만하기 위하여 特段의 配慮에 따라 계획한 18개 화점점에 대하여 鐵火의 洗禮를 퍼부었으며, 이렇게 하여 잠시 멈추었던 105mm는 08.00에 다시 怒號하듯 俗稱「중서골」高地와 △36를 집중 強打하고 또한 增援된 美해병대의 4.5" Rocket 砲와 중포중대의 4.2"박격포가 이에 合勢하여 각기 선정한 목표를 제압하기 시작하였다.

또 먼저 出擊한 8대의 전폭기가 사라지자 또 다른 8대가 砲擊의 間隙을 매워 △36를 공격하였다.

중대장 洪鍾甲 중위는 이렇듯 我軍의 全火力이 △58와 △36등 일대지역에 炸裂하고 그들을 擾亂하다가 08.05에 △58에만 105mm砲擊을 集中하기에 이르자 돌입대장 裴鎭明 소위에게 有線으로 『공격하라』고 命畀한 다음 裝填한 81mm조명탄 2발을 돌입대 頭上에 하늘 높이 發射하였다.

이 瞬間 돌입대는 裴소위를 先頭로 LD를 박차고 △58를 直衝하였으며, 지원대는 △29로부터 경기와 중기사격을 敵陣에 집중하였다. 또 △31, △33 兩전초진지에서도 이들의 공격을 掩護하여 △36에 계획된 火網을 벌쳤고 화기중대의 81mm박격포는 그들 死角지대에 壯快한 砲擊을 加하였다.

이때 一騎當千의 氣概로 △58를 登破하기 시작한 돌입대는 敵의 輕微한 저항을 물리치고 8부稜線을 突貫하여 지원사격의 延伸要請 신호인 赤色 신호탄 1발을 發射함과 同時에 一氣에 △58頂上으로 突入하여 硝煙이 자욱한 陣內를 縱橫無盡으로 白刃을 휘둘렀는데, 이에 앞서 △58頂上에 집중하던 지원포격은 그 西斜面으로 연신되었으며 4.2"박격포와 81mm박격포, 그리고 전초진지 △31, △33에서의 경기 및 중기사격은 △58를 제외한 그들 거점인 △36등에 계속 집중되었다.

돌입대는 08.20에 △58를 席捲하고 陣內各據를 수색하여 蟄伏中인 敵兵을 사로 잡으려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에 TNT를 그들 土窟에 投入하고 爆破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08.30에 이르러 △29上空에 黃色신호탄 1발이 솟아오름에 應接하여 돌입대는 急遽 爆破作業을 中斷한 채 擔架兵으로 하여금 전사상 者를 후송케 하고 이에 後續하여 俗稱 「마산골」로 철수하기 시작하였으니 이때가 공격한지 40분이 지난 08.45이었다.

이리하여 돌입대는 綿密하게 계획된 戰車와 各種砲의 掩護裡에 △29南麓에서 합세하게 됨으로써 중대는 10.30에 앞서의 기동로를 따라 本陣에 귀착하였는데, 이날 중대가 거둔 전과는 敵屍확인 27구를 비롯하여 Bunker 파괴 35개에 달하고 鹵獲무기는 기관총과 多發銃 각기 1개와 방망이 수류탄 7개였으며, 손실은 戰死 4명, 부상 13명이었다.

그런데 이날 중대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병대대는 △58와 △36등 18개 목표에 대하여 2,000발의 HE彈과 白磷彈을, 4.2"砲는 07.55~09.30간 7개 목표에 대하여 HE彈 32발과 WP탄 46발을, 전차중대는 07.30~11.30간 HE彈 960발을 사격하였는데, 推定된 바에 의하여 전차중대는 敵兵 15명을 사살하고 Bunker 35개를 파괴하였다.

중대가 주저항선에 복귀하여 제53중대로 부터 전지를 인수한것은 이날 11.00였는데, 돌격대장 張鎮明 소위는 중대장과 같이 대대CP로 대대장을 찾아 鬩榻 다음과같이 敵情을 보고하였다.

『△58에는 1개소대규모가 配陣된듯 하나 高地는 土窟로 이루어져 있어 포격으로는 완전制壓하기가 困難하며 중대의 기습이 奏効한것은 포격을 집중하다가 延伸 찰나에 陣內에 突入함으로써 미처 그들이 對應치 못한데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다.

(6) 제2중대의 △39奇襲(2. 13. 18. 20~14. 07. 20)

(가) 작전계획

전투단 左一線을 담당하여 蘆上里—臨津江岸까지 5km의 主抵抗線과 △50전초진지를 방어중인 제1대대(장, 金鍾植 소령)는 前述한 바와 같이 1월 4일에 제3중대(장, 金昌燮 중위)로 하여금 △39(泗川江口)를 기습한바 있거니와 그 後 임무에 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기습공격을 再擧하고 當面의 敵情수집과 그들 前進거점을 擊碎하였다.

즉, 同월 11일 19.00—23.20에 제2중대(장, 金東奎 중위)는 栗谷(△87南쪽 800m)을 공격하여 수류탄 20개를 노획하였으며, 또 同월 16일 18.50—17일 03.30에는 제1중대(장, 嚴尙錄 중위)는 △50(臨津江口)를 공격하고 敵情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同중대는 또한 同월 24일 22.00—25일 06.00에 △30(臨津江口 △50 北쪽 400m)를 공격한 바 있으나 敵情을 얻지 못하고 철수하였다.

그리고 2월 4일 18.20—5일 00.15. 는 제2중대(장, 金東奎 중위)가 俗稱「지상굴」(△87 東南쪽 稜線)를 공격하여 가벼운 接敵끝에 수류탄 5발을 鹵獲하였다.

이와같이 기습전이 계속 감행되는 동안 대대는 1월 17일에 1개월 순환제로 실시하는 전 초진지 부대교대계획에 따라 제3중대(—)(장, 金昌燮 중위)를 새로 전초진지 △50에 配備하고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곳을 지켜온 제2중대(장, 金東奎 중위)를 대신 主진지에 복귀시켜 제3중대가 담당한 前線을 인수케 하고 있었다.

1월과 2월초에 실시한 기습공격에서 성과없이 敵情만을 가라게된 대대는 次回에 실시한 기습목표선정에 腐心케 되었는데, 그 까닭은 萬一에 목표內의 敵情이 過大하여 승산이 희박하여서도 아니되며 또 목표內의 敵情이 없어 緊要한 포로획득이 無望하고 決行한 기습 또한 無爲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대대의 名譽와 矜持가 이를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이에는 當然히 一개소대규모가 활동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39가 次期공격목표로 浮刻되게 되었으며, 이와같이 決心한 대대장 金鍾植 소령은 기습대로 제2중대(장, 金東奎 중위)를 다시 起用키로 決心하고 2월 8일에 要旨 다음과 같이 제 1283작제 32호를 成案하여 이의 실시를 전투단장에게 具申하였다.

『① 105mm 및 4.2" 중박격포는 요청에 의하여 지원할 것이다.

② 대대는 현주저항선을 계속 방어하고 D일 H시에 목표를 공격하여 俘虜를 捕獲하고 아울러 敵情을 파악한다.

③ 제1중대는 현임무를 계속한다.

④ 제2중대는 別命時 별지투명도(상황도 제95호)에 따라 소총 1개소대와 돌입대가 증강된 1개소대로써 △39에 기습을 감행한다.

⑤ 제3중대는 현임무를 계속하고 사격으로 기습대를 지원한다.

⑥ 제4중대(砲火器중대), 현임무를 계속하고 別命時 Cal 50 1개반을 3개중대에 배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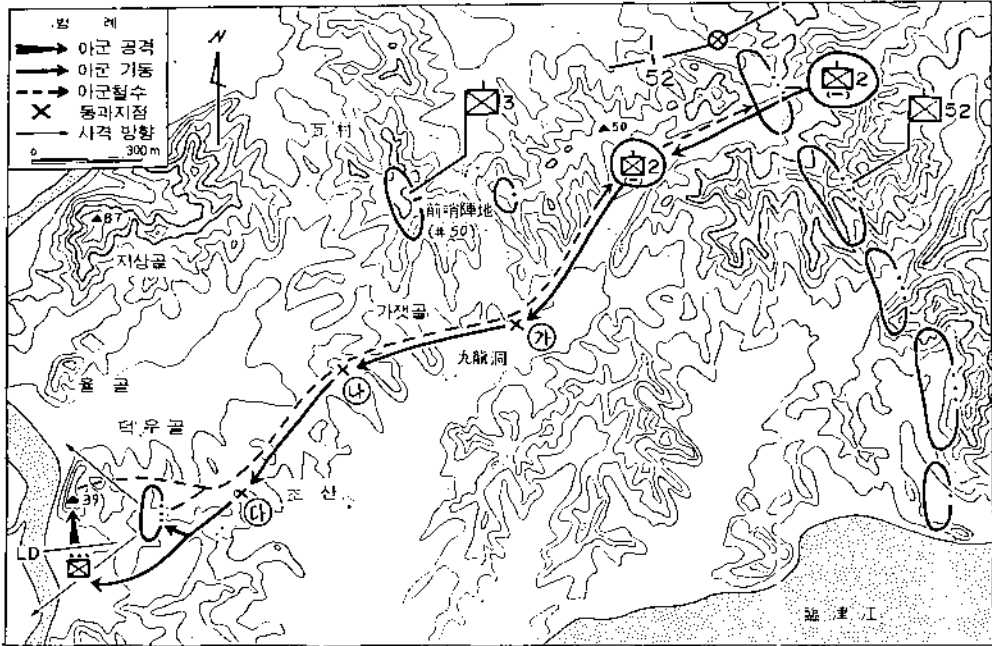
⑦ D일 H시는 별도지시하여 이 계획은 수령한날부터 작전이행에 대한 효력을 가진다.

⑧ 행정사항

㉞ 대대구호소는 「응곡」에 위치한다.

㉟ 전사상자는 즉시 후송한다.

상황도 제95호 제2중대의 39고지 기습계획 및 실시



- ㉑ 매인당 탄약 2基數와 수류탄 3발 TNT, 파괴봉, 捕繩을 주로 휴대한다.
- ㉒ 1식분의 비상식량을 휴대한다.
- ㉓ 돌입대는 철모뒤편에 白色布片을 표시한다.
- ⑨ 통신사항
 - ㉔ 배대와 중대간은 TS-10 경전화기를 사용하며 결단시는 PRC-10(무선)을 사용한다.
 - ㉕ 중대와 돌입간 통신 또한 ㉔항과 同一하다.
- ⑩ 신호규정
 - ㉖ 지원사격요청—5星호박색 1발(돌입대에서)
 - ㉗ 지원사격중지—5星綠色 1발(돌입대에서)
 - ㉘ 철수—5星赤色 1발(중대지휘소에서)』

이와같은 대대 계획에 대하여 전투단장 金聖恩 대령은 즉시 이를 검토하고 同월 11일에 作命제16호을 下達 要點에 이르기를

『① 부대는 제1대대의 일부병력으로 敵진지에 기습을 감행하려 한다.

② 제1대대장은 제1283 작전계획 제32호에 의거 1월 13일 야간기습을 감행하라. 또한 제5대대(예비)에서 배속되는 병력으로 하여금 기습간 주저항선의 임무를 인수케 하고 기습대 귀대와 同時에 복귀케 하라.

③ 제5대대장은 소총 2개소대를 抽出하여 2월 12일 14.00까지 제1대대에 배속하라.

④ 부대지휘소는 변동없다.』

따라서 제1대대장 金鍾植 소령은 제2중대장에게 D일을 14일로 確定하여 기습계획을 命令으로 下達하고 同時에 H시를 01.20으로 豫定하여 실시하라고 하였다.

(나) 작전실시

2월 13일 : 전날 14.10에 要命제16호로 제5대대 이하 제52중대에서 중대장이하 64명이 제2중대 CP에 赴援하자 제1대대장 金鍾植 소령은 즉시로 同중대로부터 一部진지를 인수케 하였는데, 기습부대인 제2중대장 金東奎 중위는 돌입대애, 제1소대(장, 張基郁 소위)를 지원대애, 제2소대(장, 崔容澤 소위)를 각각 部署하고 제52중대에게 兩소대진지를 15.50부로 인계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2중대가 담당하던 主抵抗線의 방어책임은 同중대(-)가 임무를 수행하고 복귀할때까지 제52중대장 林理植 중위가 제3대대장 지휘밑에 배속된 自隊병력 64명과 제2중대의 殘置병력을 統合지휘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진지의 교대는 D일H시가 14일01.20로 確定됨으로써 기습부대로 하여금 여유를 주어 공격준비에 萬全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配慮에서였으므로 기습대인 제2중대(-)는 즉시로 중대장 主管下에 세부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夜間공격에 따른 奇襲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에 더욱 拍車를 加하였다.

最終적으로 105mm와 4.2"砲가 중대의 기습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정된 64개의 火集點과 10개의 火集帶에 대하여 협조를 마치자 중대장이하 70명의 기습대는 주저항선을 박찼으니 이때가 13일 18.15으로 陰曆으로 첫달 그믐날이었으며, 日沒시간은 18.09이어서 薄暮가 계속되고 있는 무렵이었다.

이리하여 기습대는 1시간 10분後인 19.25에 △50南쪽(주저항선 900m)에 설정한 집결지에 進入하고 이어서 지정된 기동로인 小路를 따라 西南쪽으로 전진하여 九龍洞(△50 南西쪽 1km)에 이른다음 계획대로 統制點(가)를 19.30에 通過하였는데, 이무렵에는 흐린날씨 때문에 이미 어둠이 짙어지고 있었다.

이날 대대는 連日 실시하는 偵察 및 潛伏활동으로 주간에는 3개조의 潛伏隊가 03.30—18.00까지, 偵察은 2개분대의 정찰대가 2隊로 나누어 1차는 07.30—12.00까지, 그리고 2차에는 12.05—18.00까지 주진지 正面을 살피고 야간에는 13개조의 潛伏隊와 2개의 분대규모 偵察隊가 이들 기습대가 出動한 다음인 18.30부터 다음날 06.15에 귀대예정으로 활동하였다

이날 (가)지점을 경유 전진한 기습대는 20.20에 다시(나)를 通過하고 계속 接敵없이(다)를 20.40에 進出하였으며, 21.10에는 分進點에 躍出하여 지원대인 제3소대는 중대장과 같이 俗稱「덕우골」로 은밀하게 포복전진하고 공격목표인 △39東쪽 500m에 진지를 急編하여

22. 05에는 지원態勢를 굳혔으며, 分進點에서 지원대와 分離된 돌격대는 LD로 接近하였다.

이와같이하여 제3중대(-)가 防守하는 전진진지 △50에서 敵을 기만하기 위하여 계획된 重機사격을 그들 거점인 △87(△39北쪽 1,800m)를 向해 집중하자 敵도 이에 대비한듯 그 企圖를 알 수 없는 靑色, 黃色, 綠色의 신호탄 각 3발을 기습목표 △33後西斜面에서 발사하고 있었다.

2월 14일 : 돌입대는 그들 신호탄이 소멸하자 一進 又一進하여 이날 00.45에 △39南麓에 進入하고 LD를 점령하여 H시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로부터 35분, 돌입대는 一瞬에 突風을 휘몰아 △39를 直衝하고 지원대는 이때를 맞추어 重機사격을 그들 진지에 集注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로부터 5분後인 01.25에 이르자 △39南麓에서 수를 알수 없는 敵이 胡語奇聲을 연발하면서 목표를 가리지 못하고 亂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돌입대는 곧 소화기사격을 集中하였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曳光彈은 一瞬에 밤하늘을 緋놓았으며 銃聲은 그칠줄을 몰랐다.

이때 그들의 탄막사격인듯한 82mm사격이 돌입대 背後에 또한 집중되었으므로 중대장 金東奎 중위는 돌입대장 張基郁 소위를 有線으로 呼出, 상황을 물었으나 이때는 이미 有線이 斷切되어 있어 不通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PRC-10무전기로 교신을 代替하였던바 『全員の 士氣는 왕성하며 임무는 꼭 完遂하고야 말것이다』라는 보고로 繼戰의 굳은 意志를 굽히지 않았다. 當時에 중대장은 이와같은 早期의 接戰이 戰勢를 흐리게 하는것이라 판단하고 돌입대의 撤收까지 考慮하였던 것인데 아직 상황은 豫測을 不許하였으므로 그는 돌입대의 回報에 힘입어 이미 戰端을 연 이상 이때가 지원사격을 要請할때라 결심하고 계획된 105mm 4.2"사격을 요청하는 긴급신호를 發信하였다.

사격으로 시작된 5분간의 교전이 敵의 잠적으로 그치자 돌입대는 이때를 期하여 △39와 그 일대에 連發하여 炸裂하기 시작한 지지원사격속에 躍進을 거듭하고 01.40에 7부綫까지 登破하였으며 이로써 그 頂上을 咫尺에 두게 되었다.

돌입대는 드디어 約定한 5星綠色신호탄 1발을 夜空에 쏘아 지원사격의 연신을 알리고 一氣에 敵陣을 直衝코자 前進하였는데, 겹겹히 쌓인 鐵條網이 이들의 진격을 더디게 하더니, 01.50에 이르러 한패가 最終發惡인듯 소화기 사격을 공격정면에 집중하고 돌입대사이에는 熾熱한 接戰이 또 전개되었다.

그러나 一步不讓의 衝勢로 銳鋒을 돌아부친 돌입대는 제1분대가 敵陣一角을 마침내 돌파하여 그들 진내에 楔入하기에 이르자 그 右側에서 一止一擊으로 이들을 지원하던 제1분대로써 또 攻波의 突破口를 擴大케 하였으며, 또 제3분대로써 이를 追隨케하였다.

이렇듯 逐次의 驍騎로 敵陣을 破摧하기에 이르니 한때 發惡하던 醜敵의 무리는 이에 壓倒된듯 마침내 8具의 屍體를 遺棄하고 潛跡하기에 이르러 血戰은 03.15에 끝이났으며 高

地는 이로부터 我軍 掌中에 돌아가게 되고, 이 後에 돌입대는 戰果擴大를 위하여 暗中 탐색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한편 지원대와 더불어 戰況을 注視하던 중대장은 △39를 席捲한 03.30 으로부터 5분이 경과하자 『더이상의 遲滯는 위험이 따를 뿐 靚로움이 없다』라고 判斷하고 赤色 5星 신호탄 1발을 쏘아 돌입대의 철수를 命命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원대대는 곧 兵仗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俘虜포획에만 執着한 돌입대는 戰功을 다룬 나머지 철수의 延期를 懇請하고 從橫無盡으로 突貫하여 계속 탐색 활동을 벌이다가 04.30에야 비로소 俘獲을 단념하고 急遽 철수하기 시작함으로써 04.50에 이들은 지원대와 합세케 되었는데, 이리하여 기습대는 돌입대를 先頭로 (다)지점을 05.00에 (나)지점을 05.15에, (가)지점을 05.30에 각각 경유하여 06.00에 本陣에 歸着하고 07.20에 제52중대로부터 진지를 인수하였다.

이 기습에서 제2중대(-)가 거둔 전과는 推定한것을 합쳐 射殺 14명이 있으며 鹵獲品은 수류탄 8발, 박격포 실탄 3발, 그밖에 工事장비 3종에 達하였는데, 損失로는 二等海병 金模柱, 朴龍文 두 대원이 陣歿하고 二等海병 金白洛, 韓判世가 전상을 입어 후송되었다.

(7) 제11중대의 중서골 2차奇襲(2. 15. 19. 00~16. 00. 50)

(가) 작전계획

1월 20일에 제3대대(장, 安昌寬 소령)는 俗稱「중서골」 철도(京義線)沿邊의 稜線上 小丘를 제11중대로써 기습하고 이어 同월 29일에는 제10중대로 하여금 西場里의 敵 거점을 連打한바 있는데, 2월 6일 要命제15호로 3개前哨陣地(△39, △31, △33)를 拒支하는 제9중대(장, 金振澤 중위)와 대대左제1선을 담당하여 主抵抗線을 방어중인 제10중대(장, 洪鍾甲 중위)와의 부대를 교대하였다.

그러므로 以後에 있어서 대대의 配備는 제55중대(배속)-제11중대-제9중대가 되어 右에는 美海병제7연대(장, Loren E. Haffner대령), 左에는 제1대대(장, 金鍾植 소령)와 連繫하여 變動 없이 主抵抗線 방어에 임하면서 兪일 잠복 및 偵察隊로써 探索하고 있었다.

대대장 安昌寬 소령은 이런 가운데 2차의 기습에도 不拘하고 敵情 수집에 緊要한 포로를 얻지못하자 腐心끝에 2월 9일 대대 最強부대로 認定되는 제11중대를 다시 抽出하여 기습을 敢行하고 俘虜를 捕獲하리라 決心하고 제3301作計 제4호를 成案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대대는 일부로써 敵陣을 기습한다.

② 제11중대장은 2개소대로써 돌격대와 지원대로 편성하여 2월 15일 16.30-24.00에「중서」골을 공격한다.

③ 기습대의 규모와 장비는 다음과 같다.

㉓ 돌입대 : 23명内外로 編成하고 主로 全員은 M₂ Car, 수류탄(3발)으로 무장하고 電池와 호각을 준비한다.

㉔ 지원대 : 32명内外로 編成하고 主로 편성장비로 무장한다.

④ 기습대의 출동은 18.30에, 돌격은 20.50에, 철수는 29.10으로 각각 예정한다.

⑤ 지원화기운용

지원화기는 105mm, 4.2", 81mm, LMG로 한다.

사격시기는 화력계획에 의거 대대 및 중대장 요청으로 실시한다.

⑥ 진출 및 철수경로는 별지 투명도(상황도 제96호 참조)에 의한다.

⑦ 대대구호소를 俗稱「방죽골」에 推進하며 포로는 즉시 後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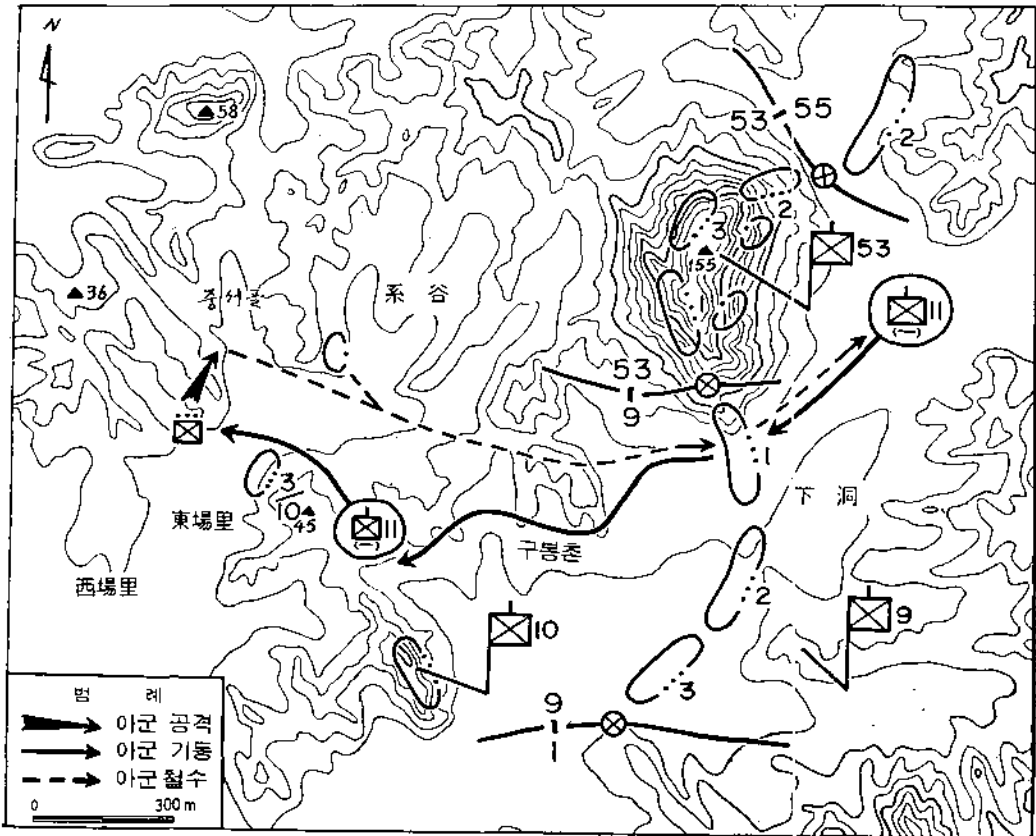
⑧ 지휘 및 통신사항

㉓ 대대지휘소는 △155에 추진한다.

㉔ 중대지휘소는 △45(전초진지△33)에 추진한다.

㉕ 일체의 통신은 有線을 사용하고 단절시는 PRC-10를 사용한다.」

◇ 상황도 제96호 제11중대의 증서골 2차기습 계획 및 실시



한편 이상과 같은 기습계획이 제3대대장으로부터 건의되자 전투단장 金聖恩 대령은 同월 11일에 이에 대한 검토를 마친다음 즉시 作命제17호로써 실시를 命命하였는데, 그 要領은 다음과 같다.

『① 부대는 제3대대의 일부로 敵陣을 기습한다.

② 제3대대장

㉠ 제3301 作計 제4호에 의거 기습을 敢行하고 임무를 완수하라.

㉡ 배속되는 부대로 하여금 기습작전기간 주저항선의 임무를 담당케하고 기습대 귀대와 동시에 원대로 복귀케하라.

③ 제5대대장은 소총 2개소대(중강)를 抽出하여 2월 13일 15.00까지 제3대대장에게 배속하라.

④ 부대지휘소는 변동없다.』

제3대대장 安昌寬 소령은 그가 건의한 계획대로 이의 실시가 命命되기에 이르자 이날야 그는 곧 다음과 같은 要領의 命命을 下達하였다.

『① 대대는 제11중대의 2개소대로 하여금 敵陣을 기습하려 함.

② 제11중대장

㉠ 제3301 作計제4호에 의거 2월 15일에 敵陣인 「중서골」을 기습하고 敵을 殲滅하되 살아남은 者는 이를 捕獲하라. 단, 돌입시간은 20.50으로 豫定하고 상황에 따라 조정하라.

㉡ 현주저항선의 일부를 2월 13일 15.00까지 제5대대 2개소대에 인계하고 잔여 병력을 그 장에게 배속하라.

③ 대대CP는 기습間 △155에 추진한다.』

(나) 작전실시

2월 15일 : 제3대대(장, 安昌寬 소령)은 作命제17호로 전투단 右一線을 引受한다음부터 4次の 기습전을 執行하게 되었거니와 13일 14.00에 제5대대(장, 姜起千 중령)로부터 제53중대장 朴元奎 중위이하 2개소대가 제11중대의 기습전에 대비하여 赴援하자 곧 제11중대가 담당하는 中央제1선을 引受케 하고 同중대를 예비로 控置하여 부대를 정비케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기습부대로 선발된 제11중대는 이날 15.00에 진지를 인계한 즉시로 △155 東南麓(제55중대와 制限點부근)에 집결하고 곧 대대가 준비한 天幕에 收容되었는데 이로부터 중대는 보다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기습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날 출동에 앞서 제11중대(장, 林昞燮 중위)는 제3소대(-)로 돌입대를, 제1소대로 지원대로 하여 精兵 都營 98명으로써 기습대를 편성하였는데, 중대장 林昞燮 중위는 이날 기습에서 지휘가 용이하도록 하기위하여 준비한 白色腕章을 分配하고 소대장과 분대장에

게는 右腕에, 全隊員에게는 左腕에 각각 着用토록 하였다.

이로써 21.00에 중대장 林昞燮 중위의 陣頭지휘로 小路를 따라 下洞을 向해 돌입대 一지원대순으로 기동을 시작한 기습대는 21.30에 指定된 제9중대 제1소대의 전지를 통과하고 계속 九鳳村경유 전초진지 △33東斜面에 진출한 다음 잠시 22.45에 이르러 지원대를 急進토록 하여 △45 北쪽 下麓에 陣地를 점령케 하였으며, 이 時刻에 중대지휘소는 △45에 開設하게 되었다

이때 전초진지 △33는 제10중대 제3소대가 準備되어 있었는데, 전날(14일)16.50—17.00에 敵으로부터 76mm로 믿어지는 20여발의 집중포격을 받아 LMG 擄體擧 1개를 포함한 Bunker 2개와 鐵條網 20m가 切斷되었다. 그러므로 이날 이들은 夜陰을 利用하여 이를 補修하고 있었으나 제11중대의 「중서굴」기습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別府으로 1개분대규모의 특수 잠복대를 溪谷 北쪽 突出稜線에 進出시켜 기습에 따른 통신지휘망에 加入하는등 協同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또 소대와 같이 이곳에 配置된 포병관측장교 역시 本隊로부터 『지원사격에 蹉躓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要旨命을 수령하고 있었다.

이와같이하여 돌입대원 23명으로 하여금 목표 南麓에 設定한 LD를 점령케 하고 一瞬에 목표를 撃つ고자한 기습대는 이무렵에 대대장으로부터 要旨 다음과 같은 口頭 緊急 命을 수령하게 되었다.

『① 전투단으로부터 入手한 정보에 의하면 當面の 敵은 기도 不明의 1개중대규모를 전초진지 △33 西쪽부근에 推進잠복하고 있음이 無電盜聽에서 判明되었다함.

② 대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투단명으로 기습공격을 中止하고 後圖를 策하려 한다.

③ 중대는 즉시 병력을 철수하여 복귀하라.』

따라서 猝地에 이상과 같은 命에 接한 중대장 林昞燮 중위는 이로 말미암아 一氣에 敵陣을 制扼하려던 決意가 그들 寸前에서 霧散되어 切齒扼腕을 금할길이 없었으나 곧 有線으로 돌입대의 철수를 命하였으니, 이때가 23.00였다.

그런데 이로부터 5분이 지났을 무렵 수를 알수 없는 驕敵의 무리가 지원대 南쪽에서 포위코자 하였으므로 이들과의 사이에는 激烈한 사격전이 전개케 되었으니 敵은 2분간의 交戰에서 屍體 2具와 多發銃 2정을 내버린채 西쪽 어느곳으로 潰退하기를 서슴치 않으므로써 전투는 끝이 난것이다.

이로 미루어볼때 대대가 입수한 사단정보는 的中하였다 할것이나, 그들의 기도가 전초진지 △33를 공격하기 위한것인지 또는 기습대를 逆襲하기 위한 것인지는 判明 되지않았는데 어쨌든 중대(一)의 출동은 기습의 中止命으로 敵을 섬멸하고 俘虜를 얻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敵의 侵透를 阻止하는데 공헌한 셈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철수를 단행한 중대(一)는 損失없이 23.30에 전초진지 △33 東쪽에 설정한

집결지에서 돌입대와 지원대가 습격하고 이어 측차로 철수를 斷行하여 24.50에 원대에 복귀하였다.

以後에 있어서 대대는 이날의 敵情을 窺視하여 潛伏 및 정찰활동을 強化하고 진지방어에 注力하였는데, 同월 19일 22.40에 2개소대규모의 敵이 전초진지 △33를 侵攻함으로써 及其也는 陣內戰까지 전개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兵力을 增援하여 마침내 대대는 그들을 撲滅하고야 말았다. 이 전투에서 대대는 敵屍體 12具를 確認하는 외에 수류탄 30발 多發銃 2정을 鹵獲하는 전과를 거두었으나 反面에 전사 9명, 부상 21명의 損失이 있었다.

(8) 제1중대의 無名高地奇襲(3. 4. 00. 50~08. 40)

(가) 작전계획

2월 13일에 △39를 제2중대(-)가 기습한 뒤로 전투단 左一線을 담당 방어중인 제1대대(장, 金鍾植 소령)는 同월 16일에 作命제18호에 의거 지난 1월 17일부터 전초진지 △50를 防守하는 제3중대(-)와 대대右一線진지를 右인접 제3대대 제9중대와 連繫하여 굳게 지키고 있는 제1중대(-)와의 진지교대를 준비하였으나 곧 그 後에 下達된 別命으로 이의 실시를 保留하게 되었다.

前記 命令에 의한 전초진지의 부대교대는 通常 40일의 時限을 두어 실시된 輪番制였기 때문인데, 전투단장 金聖憲대령이 이와같이 진지의 교대를 保留하게 된 까닭은 상세히는 알 수 없으나 이때의 상황으로 미루어 첫째는 2월 15일 제1중대 제3소대의 1개분대규모의 정찰대가 瓦村 西쪽 無名高地에 進入하여 傳單을 撤布하다가 2개분대규모의 敵과 遭遇하여 交戰케 되고, 또 同日에 右인접 제3대대의 기습대가 陣前에 돌연히 出現한 敵情으로 기습에 失敗한 다음부터 潛伏隊와 정찰대가 從前과는 달리 接戰케 되는 등 敵情에 變動이 현저하였기 때문이며, 둘째는 대대가 예비대대와 陣地교대가 臨迫하였기 때문에 그들 공세 徵候에 對處하기 위하여서는 그때까지 그대로의 陣容을 유지하는것이 戰力의 効用上 필요하다고 判斷한 때문이라고 믿어진다.

대대는 이와같은 상황속에 戰線이 점차 激動하기 시작하자 분대규모의 潛伏隊를 야간전투정찰대로 바꾸어 威力수색을 아울러 실시케 하면서 敵의 挑發을 분쇄하기에 注力케 되는데, 이로말미암아 2월중에 기습戰은 앞서의 제2중대외에는 실시를 보지 못하게되었다.

한때 疑懼를 자아 내었던 正面의 敵情도 한계가 있었음인지 스스로 소규모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므로 전투단은 3월에 접어들자 다시 공세방어를 取하기로 方針을 바꾸어 그들 挑發을 牽制함과 동시에 敵情수집을 위한 기습戰을 再興키로 하였다.

그런데 제1대대장 金鍾植 소령은 이와같은 作戰指導와는 달리 이미 2월 21일에 전초진지 △50 西쪽 無名高地를 그들 한때가 점령하고 있다는 確實한 정보에 따라 곧 이를 공격

하기로 決心하고 제1283作計 제10호를 立案한 다음 이의 실사를 전투단장에게 稟申하였다.

한편 제1대대장으로부터 기습계획을 접수한 전투단장 金鍾淵 대령은 이에 앞서 같은날 作命제20호를 下達하여 1월 11일이후 예비대대인 제5대대(장, 姜起千 중령)와, 同월 6일에 金浦로 轉進하여 부대정비를 실시한 제2대대(장, 徐廷南 소령)를 교대하여 보다 新統인 예비대를 控置함으로써 輻轉하는 상황에 對處하고 또한 右一線 제3대대(장, 安昌寬 소령)에 配屬되어 그 右제1선을 담당하는 제55중대(장, 朴容鎭 대위)의 부대 呼稱을 제13중대로 바꾸고 同時에 同대대 隸屬으로 轉換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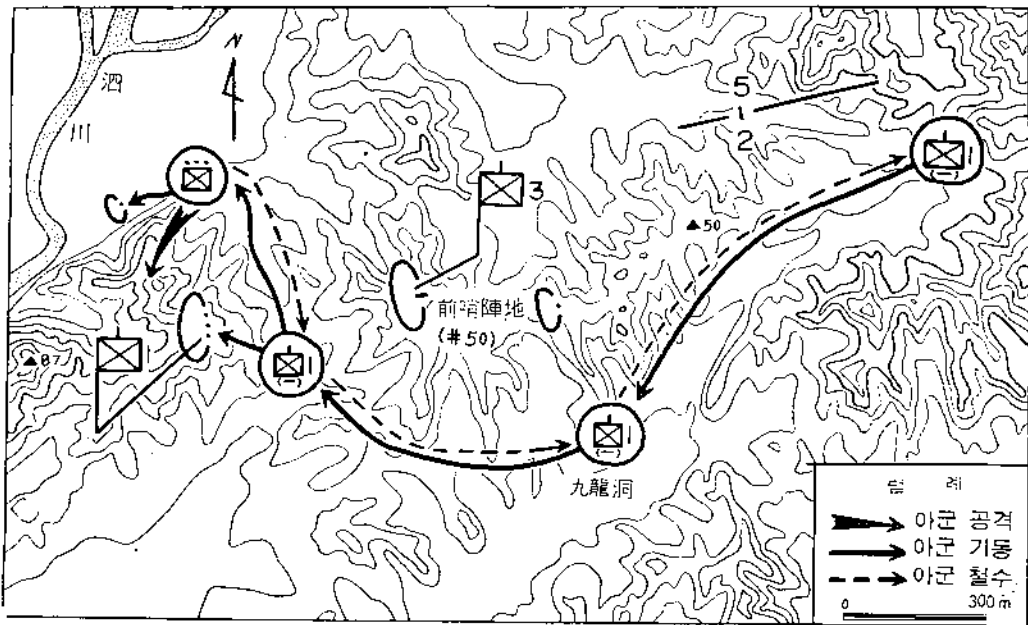
그는 當面の 敵情이 激增하자 前述한바에 의하여 제1대대의 기습계획에 대한 실사를 미루어오다가 3월 2일에 作命제22호로써 이의 決行을 要請 다음과 같이 下命하였다.

- 『① 부대는 제1대대의 일부로써 敵陣을 기습하려함.
- ② 제1대대장은 계획(제1283作計 제10호)에 의거 3월 4일 前半夜에 기습을 감행하라. 또한 제2대대(예비대)에서 배속되는 부대로 하여금 기습부대의 주저항선 방어 임무를 인수케 하고 기습대의 歸隊와 同時에 원대에 복귀케 하라.
- ③ 제2대대장은 소총 2개소대를 차출하여 3월 2일 18.00까지 제1대대장에게 배속하라.
- ④ 부대지휘소는 변동없이 현재지에 위치한다』

이에따라 제1대대장 金鍾淵 소령은 이날 즉시로 제1283作計제10호를 作命化하여 要請 다음과 같이 下達하였다.

- 『① 부대는 현임무를 계속하면서 D일H시에 無名高地를 기습하여 敵을 섬멸하고 俘虜를

◇ 상황도 제97호 제1중대의 無名高地기습계획 및 실시



업고자함.

② 제1중대장

㉑ 현방어 임무를 계속하라.

㉒ D일 H시에 소총 1개소대의 돌입대와 증강된 1개소대의 지원대로써 목표를 기습하라.

㉓ 집결지, 공격 방향, LD지원대위치, 기동로 및 철수로는 별지 투명도(상황도 제97호참조)를 참조하라.

③ 제2중대는 현방어임무를 계속하라.

④ 제3중대는 현방어 임무를 계속하고 사격으로써 기습대를 지원하라.

⑤ 제4중대(重火器중대)는 현임무를 계속하고 別命時 Cal 50 1개반을 제3중대에 배속하라.

⑥ D일은 3월 4일이며 H시는 04.00로 예정한다.

⑦ 행정사항

㉑ 대대구호소는 「응곡」에 위치한다.

㉒ 전사상자는 즉시 後送하라.

㉓ 기습대는 每人當 탄약 2基數와 수류탄 3발 그리고 TNT파괴통과 수류탄, 捕繩을 휴대하라.

⑧ 지휘 및 통신사항

㉑ 대대지휘소는 대대OP에 위치한다.

㉒ 대대지휘소와 중대지휘소間 통신은 TS-10 경전화기를 사용하되 절단시는 PRC-10 부전기를 사용하며, 돌입대와 중대지휘소間 통신 역시 위와 同一하다.

⑨ 신호규정

㉑ 지원사격요청은 5星 호박색신호탄1발(돌입대에서)로 하라.

㉒ 지원사격중지는 5星 綠色신호탄 1발(돌입대에서)로 하라.

㉓ 철수는 5星 赤色신호탄 1발(돌입대에서)로 하라』

(나) 작전실시

제1대대장 金鍾植 소령은 3월 2일에, 作命 제22호에 의거 제2대대로부터 제5중대장 李性穰 중위 이하 110명이 대대의 기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來着하자 곧 제1중대(-)의 진지를 인수케 하였는데, 이로말미암아 제1중대장은 이날 18.00에 제5중대(-)에게 2개소대진지를 引繼하게 되고 이로부터 無名高地 기습을 위한 諸般준비에 着手하게 되었다.

이 기습戰의 실시로 제1중대는 새해에 들어서 세번째로 기습을 決行케 되는 셈인데, 첫번째는 作命제6호로 1월 16일에 △50(臨津江口 俗稱 진촌부근)를 공격한 것이고, 두번째는

作命제9호로 同월21일에 △30(北쪽 700m)를 急襲하였으나 이 2次の 공격은 모두 이를 確認하는 야간정찰활동에 그쳤을뿐 所期의 戰果를 거둘수 없었다.

3월 4일 : 전전날 日沒(18.27)直前に 赴援한 제5중대(-)에게 2개소대진지를 인계하고 기습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한 제1중대(장, 嚴尙錄 중위)는 곧 精兵 105명으로 돌입대와 지원대를 편성하였다.

이날 最終적으로 105mm 및 4.2"등 지원화기에 대한 일련의 화력계획에 대하여 협조하자 중대장은 기습대 索員에게 鐵帽 앞뒤에 白色布를 부착토록 한다음 대대CP에서의 裝具 검사를 마치고 00.10에 목적지로의 進入을 위한 主補給路로 진출하였다.

이곳에서 잠시 發進시간을 待命케된 중대장은 기습대索員에게 다음과 같이 외쳤다.

『중대가 공격하려는 목표에는 △50이며, △30공격때와는 달리 여기에는 敵이 있다! 대대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그敵은 경기관총 1정으로 지원된 1개분대규모라는 것이다! 각자 一騎當千의 精銳임을 自負하여 이敵을 무찌르기 바란다』

00.40에 기습대는 중대장의 出動신호에 따라 돌입대를 先頭로 躍出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부터 1시간만에 中間집결지(九龍洞부근)경유 最終집결지(전초진지 △50 西南쪽600m)에 接敵없이 進入하였다.

이에 다시 중대장은 계획한바에 따라 돌입대를 瓦村을 迂回케하여 은밀히 LD로 分進케 하고 이들이 待機지점 進出과 동시에 1개분대를 LD 北쪽 山麓에 潛伏토록 하였으며, 이와同時에 陣頭指揮하여 지원대를 목표 東쪽 稜線으로 잠입토록 하였는데, 지원대가 예정된 위치에 진지를 急編한 것은 03.35이었고, 돌입대가 LD를 점령한 것은 그로부터 30분이 경과한 04.05이었다.

이와같이 無名高地를 兩面에서 挾擊키 위한 陣勢가 뜻한바대로 進展하자 중대장 嚴尙錄 중위는 대대장에게 『중대는 04.20을 기하여 목표를 공격하려함』이란 要旨의 보고를 한 다음 곧 이어서 돌입대와 지원대에게도 이 시간을 알렸다.

그러나 돌입대로 하여금 목표를 北쪽에서 南쪽으로 直衝하고 이와같은 시간에 지원대로 하여금 南쪽에서 사격으로 敵을 교란하여 一氣에 敵陣을 躑碎하려던 기습대는 04.10에 지원대 正面에서 분대규모의 敵과 交戰케 되었다.

중대장은 이에 지원대로서 敵을 무찌르게 하고 돌입대에게도 別命을 待機토록 하였는데 이突然한 전투에서 지원대는 火力을 집중한끝에 마침내 이들을 撲滅하기에 이르러 교전은 잠시 中斷되었으나 5분後에 한패가 나타났으므로 전투는 다시 續開되었다.

이와같은 상황의 계속으로 중대장은 當初의 목표공격시간을 늦추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나 敵은 04.50에 그들에게 集注된 鐵火의 強攻을 支撐할 수 없었던지 자취를 감추었으므로 이때를 놓칠세라 돌입대에게 『즉시 목표에 돌입하라』라고 命令하였다.

대대가 목표로 선정한 이無名高地는 標高 70m로서 그들 거점인 △87와는 大略 1km의

길을 가진 彎曲된 稜線으로 連結되어 있는 까닭에 敵은 壘間에도 西쪽 8부稜線을 通로로 利用한다면 我軍으로부터 觀測됨이 없이 自由로이 두개의 高地의 連繫가 가능하였다. 따라서 이날 제1중대(-)가 목표를 夜襲함에 있어 지원대로서 그 稜線의 中間 허리에 該當하는 南側東斜面에 進入하여 陣地를 急編케 된것도 그 通로를 威脅하고 그들 增援을 遮斷하려는데 主眼이 있었다.

이때 지원대가 2차의 接敵으로 因한 交戰에도 不拘하고 중대장이 돌입대의 목표突入을 命命한것은 그들 虛隙을 鑿어 一擧에 목표를 佔領하려는 것이었는데, 이와같이하여 돌입대는 敵의 抵抗없이 공격開始 30분만에 高地를 登破하고 발견되는 陣地를 차례로 폭파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미루어 추측컨대 敵은 當時 그들 通路인 南쪽稜線을 공격받는것으로 誤判한듯 그들 退路가 封鎖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北쪽에 대한 警戒을 소홀히 하고 南쪽 配備에만 注力한듯 하였는데, 돌입대가 그들 陣內에 突入하자 비로소 數未詳의 한패로 하여금 이에 對處하려하였으므로 돌입대는 05.40에 發惡하는 이들을 사격과 육박으로 直衝하여 縱橫無盡으로 白刃을 휘몰았으므로 殘黨의 무리는 마침내 四散潰退하고야 말았다.

이로서 돌입대는 鎗袖一觸으로 敵을 擊破하자 06.00에 遲滯없이 약정한 5星 赤色신호탄 1발을 쏘아 철수를 알렸으므로 지원대 역시 돌입대가 목표를 공격하는 동안 계속 急編진지를 扼守하다가 이를 信號삼아 철수를 斷行하였다.

이리하여 기습대는 대대에 지원사격을 要請하고 곧이어 105mm와 4.2"砲가 △87를 強打하는 동안 이에 掩護되어 1명의 戰死者와 7명의 負傷者를 急히 擔架에 收容한다음 兩隊의 合勢로써 08.40에 進入路를 따라 歸省하였는데, 이날 이들이 거둔 戰果는 어둠과 시간의 촉박으로 確認할 수는 없었으나 射殺이 15명, 傷處를 입은자가 20명에 達한것으로 推定되었으며 그밖에도 수류탄 27개를 노획하고 陣地 4개소와 경기관총 2정을 파괴한 것이 確認되었다.

이 기습戰을 끝으로 제1대대는 同월 10일에 전투단作命제24호에 따라 예비대대인 제2대대(장, 徐廷南 소령)과 진지를 交替하여 以後 예비대임무를 수행하다가 4월 12일에 金浦로 轉進하였다.

(9) 제9중대의 西場里奇襲(3. 9. 19. 00~10. 04. 30)

(가) 직전계획

제11중대의 「중서골」 2次奇襲이 敵의 出現으로 挫折된 다음부터 제3대대 正面에도 連日 敵情이 增加되었으므로 이에 對備하기 위하여 攻勢의인 기습전은 실시되지 못하였다.

期間中の 그들의 挑襲은 주로 제10중대가 固守中인 兩개 진로진지(△31, △33)에 集中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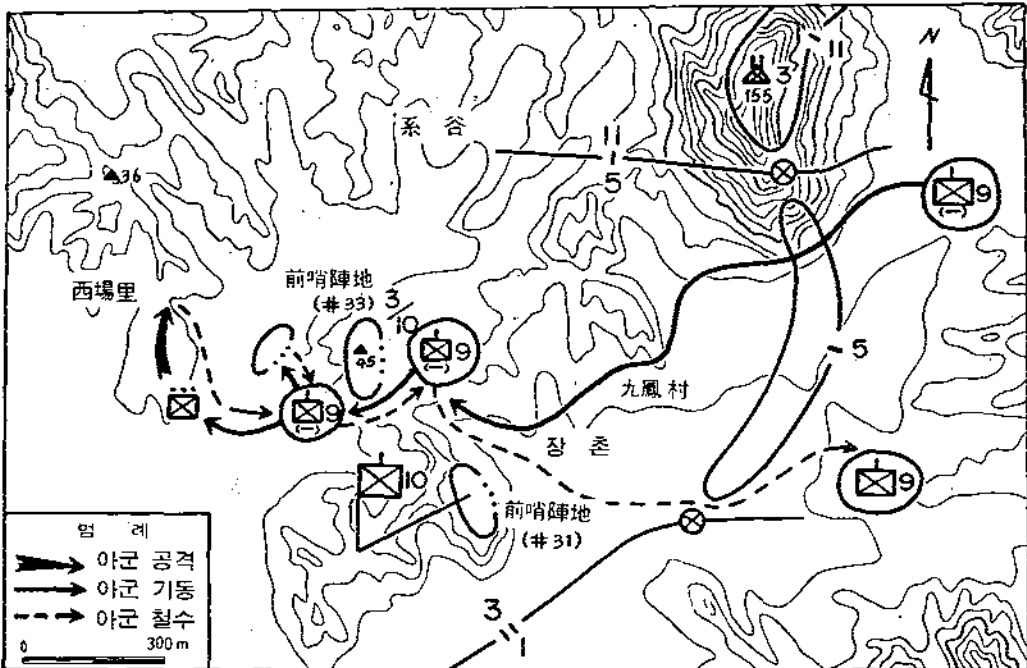
어 同월 19일에 소대규모로 전초진지 △33를 侵襲한것을 비롯하여 이 기습진이 감행되기까지 一日平均 10발~20발에 이르는 61mm, 82mm, 76mm의 포사격을 집중하고 심지어는 主抵抗線인 △155에 122mm砲擊을 실시하게 된것이다.

이와같은 상황에 대하여 전투단장은 그들의 企圖가 要衝인 △155를 侵攻하려는 것으로 내다보고 예비대에서 每日 1개소대를 抽出하여 이곳 防備를 增援하고 아울러 冬季以來로 主진지에 推進케 하였던 戰車와 그리고 105mm砲및 4.2"박격포로써 火網을 더욱 稠密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잠복활동을 위력수색활동으로 바꾸었다.

이런가운데서도 제3대대장 安昌寬 소령은 此際에 敵陣을 기습하여 그들의 挑發을 牽制하는 同時에 冬季以來로 敵情수집을 위해 切實하게 要望된 俘虜를 얻으려는 執念은 버리지 않았는데, 그는 同월 21일에 要旨다음과 같은 계획(제3301작전계획 제8호)을 成案하였다.

- ① 부대는 일부로써 西場里의 敵陣을 기습하여 그들 진지를 擊碎하고 俘虜를 얻으려한다.
- ② 제9중대장은 2개소대로써 돌입대와 지원대를 編成하여 D일 19.00부터 다음날 02.20에 西場里의 敵陣을 공격한다.
- ③ 기습대의 인원 및 장비는 다음과 같다.
- ㉠ 돌입대는 45명內外로 編成하고 全員은 主로 M₂ Car과 수류탄(3발)으로 무장한다.
- ㉡ 지원대 : 50명內外로 編成하고 무장은 편성장비에 의한다.

◇ 상황도 제98호 제9중대의 西場里기습계획 및 실시



④ 기습대의 출동시간은 D일 19.00로, 돌입은 23.00로, 철수는 다음날 00.20으로 大略豫定하나 상황에 따라 조정 실시한다.

⑤ 지원화기운용

지원화기는 105mm, 4.2", 81mm, 경기관총으로 한다.

사격시기는 화력계획에 의거 대대장 및 중대장의 요청으로 실시한다.

⑥ 목표, LD, 진출로 및 철수경로는 대개 투명도(상항도 제98호)와 같이 실시한다.

⑦ 대대구호소는 俗稱「장촌」에 推進하며 포로는 즉시 후송한다.

⑧ 지휘 및 통신사항

㉑ 대대지휘소는 △155에 推進한다.

㉒ 중대지휘소는 전초진지 △33내에 推進한다.

㉓ 일체의 통신은 有線을 사용하고 切斷時에는 PRC-10을 사용한다.

㉔ 신호규정

지원사격요청은 赤色 신호탄 1발로 한다.

지원사격중지는 黃色 신호탄 1발로 한다.

철수는 綠色 신호탄 1발로 한다.

⑧ 부대지휘소는 변동없다.』

當時에 제3대대의 配備를 앞서 言及한대로 右제 1선에 제13중대(제55중대 改稱)를, △155를 포함한 中央 제1선에 제11중대를, 左제 1선에 제9중대를, 그리고 3개의 전초진지(△39(낙타), △31(로끼), △33(오리))에는 제10중대를 각각 전개하고 있었으나 이 계획의 실시가 전투단장의 決心에 따라 보류되고 있는 동안 3월7일에 제11중대(장, 林煥燮 중위)와 제10중대(장, 洪鍾甲 중위)간의 진지 교대가 실시되어 주저항선 中央에는 이로부터 제10중대가 담당 방어하게 되었다.

그런데, 전투단장은 이에 앞서 제1대대가 無名高地를 공격한 다음날인 同월4일에 비로소 대대계획을 承認하여 要旨 다음과 같이 (作命제25호) 命命하였는데 이에 이르기를

『① 부대는 제3대대의 일부로써 敵陣을 기습 하려한다.

② 제3대대장은 제3301作計제8호에 의거 3월9일 敵陣에 기습을 敢行하라. 또한 배속되는 부대로 하여금 기습부대의 현진지를 담당케 하고 귀대와 同時に 원대에 복귀케 하라.

③ 제2대대장은 3월 8일 05.00까지 소총 2개소대를 제3대대에 배속하라.

④ 부대지휘소는 변동없다』라고 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安昌寬 소령은 즉시로 기습계획제8호를 添付하여 제9중대장 金振澤 중위에게 要旨 다음과 같이 命命하였다.

『① 부대는 作命제25호에 의거 제9중대(-)로 하여금 敵陣을 기습하려함

② 제9중대장

- ㉔ 제3301 作計제8호로 西場里의 敵陣을 3월 9일 夜間에 기습하여 敵을 섬멸하고 投降하거나 살아남은 者는 이를 捕獲하라. 단, 돌입시간은 23.00로 예정하고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 실시하라.
- ㉕ 현주저항선 방어 임무를 3월 8일 05.00까지 제2대대에서 지원되는 2개소대에게 일제하고 그들에게 잔여 兵力을 배속하라.』

(나) 작전실시

3월 9일 : 대대 命을 수령한 제9중대장 金振澤 중위는 곧 제2소대 45명을 돌입대로, 제3소대 50명을 지원대로 기습대를 편성하였는데 전날 05.00에 作命제25호에 따라 제5중대(一)(장, 李性穰 중위)가 赴援하자 곧 제2, 제3 兩소대진지를 引受케하고 곧 제2소대를 돌입대로 제3소대를 지원대로 部署하여 기습에 대비하게 되었다.

이날 모든 出動준비를 完了하게 되자 기습대는 15.00에 俗稱「울골」에 있는 대대 後方CP에 接洽하여 계획대로 19.00에 이곳을 떠나 북쪽으로 向하게 되었다.

이날의 일기는 오전中에는 때때로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快晴하고 南西風이 혼 혼하여 포근하였으나 반면에 泥濘이甚하여 부대 기동에 制限을 주었으며 日出시간은 06.51, 日沒시간은 18.34이었고 陰曆으로는 이날이 正月 25일이였다.

따라서 月出은 03.11이고 月沒시간은 12.21이었는데, 기습대는 중대장의 陣頭지휘 밑에 薄暮에 이미 主抵抗線을 超越하여 指定경로인 九鳩村—장촌을 經由 步一步 前進 끝에 21.10에 전초진지인 △33(오리)에 進出하고 곧 △45에 중대지휘소를 開設하였다.

이곳에서 돌입대와 지원대는 兩개소대장의 지휘로 △45 南麓을 逐次 통과하여 東場里에 進入하고 待機하다가 중대장의 指示로 지원대는 23.40에 마을 北쪽稜線을 점령한 다음 곧 돌입대를 지원하기 위한 陣地를 急編하였다.

이로써 돌입대의 支援態勢가 完了되자 報告에 接한 중대장은 다시 돌입대장에게 「LD를 점령하라」 命을 하였는데, 이에 돌입대원 50명은 분대단위의 各個分進으로 은밀히 敵情을 窺視하면서 앞으로 앞으로 前進하였으니 이때가 예정보다 1시간 30분이나 늦은 00.30이였다.

3월 10일 : 그런데 중대가 기습으로 破獲하려는 西場里 北쪽 稜線은 지난 1월 21일 제5대대가 右一線을 담당하였을 때 제52중대가 이곳을 공격하다가 돌입대장 金盛鎭 소위의 5명이 散華한 激戰地였고 그들 據點인 △36과는 500m에 위치하여 稜線으로 直結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곳에는 그들 거점방어를 위하여 야간에는 恒時 警戒兵力이 잠복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되었는데, 대대가 이를 공격목표로 선정할 까닭도 이와같은 점으로 미루어 보다 確實한 敵情을 捕捉하여 俘虜를 얻으려는 대대장 安昌寬 소령의 뜻이 作用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돌입대가 포복으로 前進하여 LD를 占領하고 突擊을 待命할 무렵인 이날 01.30에

그들 거점인 △36의 增援을 위하여 행동中인 것으로 믿어지는 1개 소대 규모가 돌입대와 正面向으로 부딪치게 되었으므로 彼我사이에는 豫期치 않았던 전투가 突發케 되었다.

이에 돌입대는 소대장 命令一下에 全火力을 이에 집중하여 그들을 무찌르니 敵은 교전한지 15분만에 奇聲을 連發하고 어둠속으로 潰散하고 말았는데, 이 一戰에서 敵이 遺棄한 屍體 8具을 확인하는 외에 多發銃 1정과 수류탄 8발을 鹵獲하게 되었다.

이때 △45에서 戰況을 觀望하던 중대장 金振澤 중위는 이와같은 접전이 早期에 기습대의 位置를 露呈하여 이로 말미암아 奇襲의 實効를 거두기에는 至難하리라 判斷하고 02.15에 철수를 命令하였다.

중대(一)는 이날의 기습이 이와같이 되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04.30에 歸陣하여 제5중대(一)로부터 먼저의 진지를 引受하게 되었는데, 이날 대대正面向의 敵情으로는 전초진지△33에 01.50, 122mm로 推定되는 12발의 砲擊이 집중되어 3명의 戰死傷者가 있었다.

이 전투가 있는 뒤에 제3대대는 4월 6일을 期하여 前哨진지의 부대교대를 作命 제28호에 따라 실시하고 제9중대를 새로이 3개의 前哨진지(△39, △31, △33)에 배치하였으며 제11중대로 하여금 제9중대의 진지를 인수케 하였다.

이뒤로 대대는 同월 19일에 作命 제30호에 의거 예비인 제5대대와 右一線방어 임무를 交代되어 同일부로 제11중대를 제5대대에 배속, 제13중대의 진지를 인수케 하고 예비가 되었다.

(10) 제5중대의 △39奇襲(4. 23. 02. 00~09. 10)

(가) 작전계획

제9중대의 기습작전이 있는지 그 다음날인 3월 10일에 전투단장 金聖恩 대령은 예비로 控置한 제2대대(장, 徐廷南 소령)로 하여금 作命제24호(3월 4일부)로써 左一線부대인 제1대대(장, 金鍾植 소령)로부터 그 진지를 引受케 함으로써 即時로 右에 제7중대(장, 尹泰煥 중위)를, 左에 제5중대(+) (장, 李性穰 중위)를 전개하여 主 저항선방어에 임하게 하고 제6중대(一) (장, 鄭二薰 중위)를 전초진지 △50에 配備하여 이를 固守케 한 다음 初動부터 日益 증가추세를 보인 當面의 敵陣과 對峙하면서 어떠한 挑發에도 持久하려는 결의를 確固히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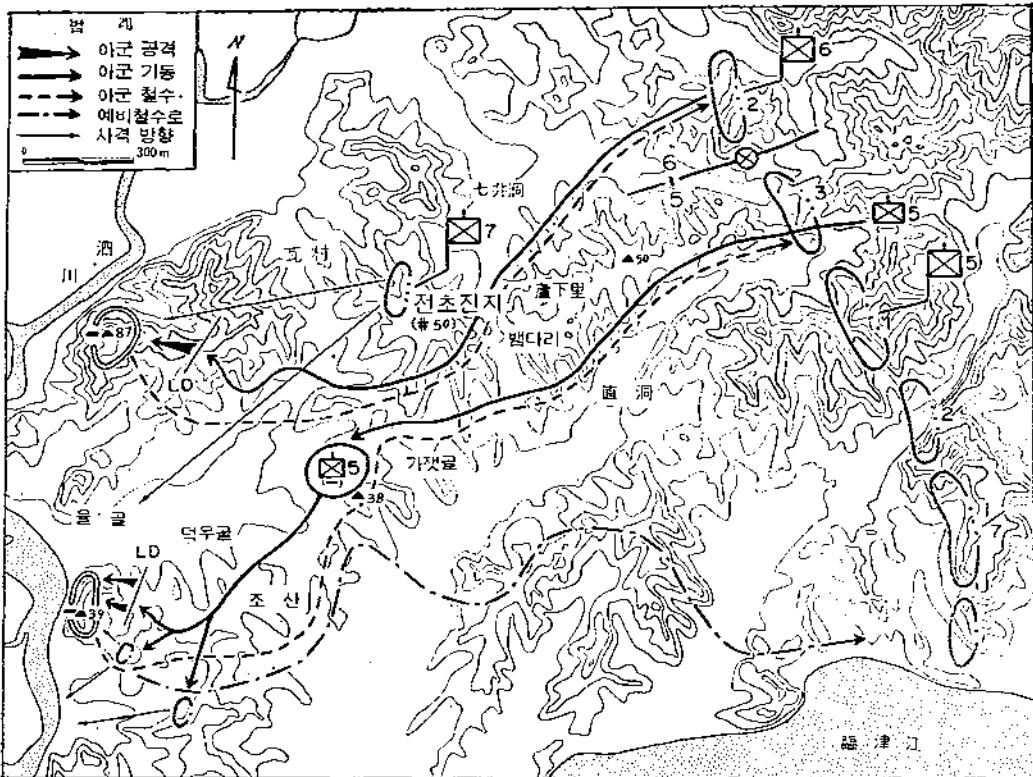
따라서 전투가 있기까지 대대는 連日 正面에 침투하여 虛隙을 窺知하려는 그들 활동에 對應하여 全力으로 이를 要扼키 위한 威力수색과 잠복활동에 徹함으로써 期間中 110名을 殲殺하고 그 醜鋒을 擊碎한 것이다.

이와같이 싸우기를 한달만에 대대는 4월 6일, 그간 전초진지△50를 攻수한 제6중대(一)

를 作命제27호(4월 2일부)에 의거 제7중대와 진지를 교대케 한바 있었는데, 대대장 徐廷南 소령은 敵의 분대—소대규모의 수색대가 陣前에 번번히 侵透하여 暗躍타가 탄색대에 쫓기면 △39로 潰退하곤한 사실을 勘案, 이곳이 分明코 이들의 推進기지로 이용되고 있어 계속 그대로 放置하여둔다면 그들의 蹣跚가 그치지 않을것이라 分析하고 이의 擊破가 현 진지의 방어를 위하여 緊要한 것으로 判斷게되었다.

그는 동월 18일에 전투단장의 內誥를 얻는대로 △39를 拂曉에 기습기로 결심하고 大要 다음과 같이 기습계획 제2348 제79호를 成案하고 전투단장에게 具申하였다.

상황도 제99호 제5중대의 39고지기습계획 및 실시



『① 부대는 4월 23일 夜間에 △39를 強襲한다.

② 제5대대장

- ㉠ 2개 소대병력으로 돌입대와 지원대를 편성하고 D일 H시를 4월 23일 04.20으로 예정하여 △39를 공격하고 敵을 섬멸한다. 단, 죽지 않는 者는 이를 捕獲한다.
- ㉡ 돌입대는 2개 소대(-)로 편성하고 출동시간을 02.00로 예정하여 진출기동로, LD, 철수경로를 대략 별지 투명도(상황도 제99호)와 같이 한다.
- ㉢ 지원대는 1개 분대규모로 편성하고 출동시간을 02.00로 예정한다. 또한 진출기동로 LD, 철수경로는 별지 투명도(상황도 제101호)와 같이 예정한다.

- ③ 제6중대장은 1개소대규모의 위력수색대로 하여금 돌입대가 △39를 공격하기 5분전에 △87를 陽攻한다.
- ④ 제7중대장은 火力으로써 공격부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그 준비를 4월 23일 03.20까지 完了한다.
- ⑤ 제8중대장은 同일 03.20까지 「뱀다리」와 桃花洞에 각각 81mm 2門을 추진하여 공격부대를 지원한다.
- ⑥ 화력지원
 - ㉗ 항공폭격—공격 4일전부터 △39—△87—△36—△58일대를 공중폭격토록 요청한다.
 - ㉘ 포사격—공격開始前에 前線일대에 제압 및 공격준비사격, 그리고 협조된 탄막사격을 요청 실시한다.

⑦ 지휘 및 통신

- ㉗ 대대CP는 전투間 金谷洞에 추진한다.
- ㉘ 중대CP는 전투間 △38에 開設한다.
- ㉙ 대대구조소는 전투間 「뱀다리」에 추진한다.
- ㉚ 대대 및 중대間的 통신은 유선을 사용하나 절단시는 RCP-10을 사용한다.
- ⑧ 有無線 절단시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신호를 규정한다.

공격—赤色 5層 신호탄 1발로 한다.

목표점령—白色 5層 신호탄 1발로 한다.

철수—黃色 5層 신호탄 1발로 한다.』

이와같이 제2대대의 기습계획이 마멸되고 그 실시 여부를 기다리기 위하여 전투단장에 提呈되었을때, 전투단 右一線 대대인 제3대대는 同월 12일에 실시된 부대 교대로 예비대인 제1대대가 또다시 金浦로 轉進하여 美해병 金浦임시연대에 배속되고 그 제3대대는, 대신에 제5대대가 전투단에 復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한바 있었는데, 同월 19일에 作命제30호(4월16일부)에 따라 제5대대에게 진지를 인계하고 예비가 될 예정으로 있었다.

전투단장 金聖恩 대령은 이미 제2대대장에게 △39공격에 대한 실시 與否를 打診한바 있었으므로 19일에 右一線대대의 진지교대가 設定되로 完了되기에 이르자 제2대대의 기습계획을 수정없이 받아들여 美해병제1사단에서 과전된 항공연락장교와 항공지원관계를 협조하고 作命 제31호를 要旨 다음과 같이 下達하였다.

- 『① 부대는 제2대대의 일부로써 蔽陣을 기습하려 한다.
- ② 제2대대장은 作計제2348 제79호에 의거 △39를 기습하라.
- ③ 제3대대장은 4월 20일 18.00까지 소총 1개소대를 제2대대장에게 배속하고 기습대의 진지 歸着과 同時에 4원대에 복귀케 하라.
- ④ 포병대대장은 제2대대장과 협조하여 공격間 105mm화력지원을 담당하라.

- ⑤ 4.2"중박격포 중대장은 제2대장과 협조하여 4.2"사격으로 공격을 지원하라.
- ⑥ 공격일 4일전부터 목표일대에 대하여 충분한 항공폭격이 실시될 것이다.
- ⑦ 부대지휘소는 변동없다.』

(나) 작전실시

4월 28일 : 作命제31호를 수령한 제2대대장 徐延南 소령은 곧 기습계획을 作命으로 예하에 下達하고 이의 실시를 督勵케 되었는데, 이에 따라 △39를 공격하게 된 제5중대(장, 李性穰 중위)와 △87을 陽攻하게 된 제6중대(장, 鄭二薰 중위)는 즉시로 공격대와 지원대를 部署하고 敎育과 訓練을 실시하여 이날의 決行을 待機하게 되었다.

1. 제5중대(-)상황

主攻부대로 選拔된 제5중대는 당시에 俗稱 「바릿골」(自由門橋 匪南쪽 2km)南쪽 500m에 위치하는 獲線南端에서부터 「下巨路里」(臨津江口)에 이르는 主陣地 3km정면에 右인접 제6중대 제2소대와 連繫하여 제3, 제2, 제1 3개소대를, 그리고 또 그 左側에는 前哨진지를 담당한 제7중대에서 배속받은 그 제1소대를 展開하고 있었다.

중대장 李性穰 중위는 대대로부터 중대(-)가 主攻부대로 선발되기에 이르자 속次の 기습이야말로 오래토록 精備한 중대의 전투력을 發揮할 絶好의 기회임을 痛感하고 돌입대를 제1소대(장, 辛在奉 소위), 제2소대(-)(장, 池洪烈 소위)로 編成하고 이를 지원하는 지원대에는 제2소대의 1개분대를 抽出 充當키로 하였다. 따라서 제2소대장은 지원대에 제1분대(장, 李福萬 2조)를 部署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중대는 出動으로 비우게 될 주저항선의 引繼만 끝나면 何時든지 △39를 공격할 수 있는 準備을 마치게 되었다.

4월 20일 19.00에 作命제31호로 제3대대(예비대대)에서 제10중대 제1, 제2소대 83명(경가 1개반 포함)이 대대에 배속되어 중대를 赴援하자 중대장은 그 즉시 이들에게 제1, 제2 兩개소대진지를 引受케 하여 別令에 따라 진지방어를 先任將校 金宇根 중위로 하여금 지휘케 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주진지 방어임무에서 벗어난 제1, 제2 兩소대는 그날부터 중대장 直接지휘밑에 공격에 따른 圖上研究를 실시하였다.

이렇듯 萬般의 準備을 끝낸 제5중대(-)의 기습대는 이날 예정시간인 02.00에 맞추어 全員 鐵帽앞뒤에 白色布片을 粘着하고 顔面에는 木炭灰로 僞裝을 두터이 한다음 대대장에 대한 出動申告가 끝나자 목표를 向해 踴躍하였다.

이날의 氣象과 光明諸元은 陰曆 3월 9일의 快晴한 날씨로 氣溫은 11°C 이고 日沒은 19.14, 月沒시간은 02.44, 다음날의 日出시간은 05.45이었다.

出動과 더불어 指定된 기동로를 따라 제1소대—중대본부—제2소대順으로 逐次로 躍出한 기습대는 月沒直後인 02.50에 집결지(俗稱 「가랫골」 △38北쪽)에 進入하여 잠시 부대를

정비하였는데, 중대장 李性穰 중위는 제1, 제2소대장을 불러 『現在시간 03.00, 指定된 經路를 밟아 04.05까지 LD를 占領하라!』 命令하고 이들의 發進을 확인하여 곧 △38에 중대 지휘소를 開設한 다음 대대장에게 기습대의 順調로운 進出상황을 보고하였다.

이에 중대장과 緊密히 連絡을 維持하여 一進一止로 전진한 돌입대(제1, 제2 兩소대)는 俗稱「덕우골」로 進入하는 小路의 分岐路에 이르러 지원대를 分進케 하여 이들에게 목표 南쪽 500m 陵線에 陣地를 設陣케하고 제1소대와 제2소대(-)는 左右로 兵力을 전개하여 LD를 向하여 一齊히 포복전진하였다.

이때가 03.40으로 마침내 LD를 佔領하는데 성공한 돌입대는 焦心扼腕으로 공격 命令을 待命하였는데, 이윽고 시작된 陽攻隊의 △87공격과 매를 같이하여 105mm 砲가 砲撃 하여 泗川江西岸의 一帶와 △87-△39에 선정된 42개 목표를 強打하였으며, 뒤이어 42"와 81mm 박격포가 이에 협조하여 △87와 △39를 攪亂하기 시작하였으니 爆音은 천지를 震動하는 듯 하였으며 炸裂하는 閃光은 밤하늘을 붉게 수놓았다.

04.20에 제1소대가 LD右側에, 제2소대(-)가 그 左側에 전개되어 突貫명령만을 苦待하던 돌입대는 이때를 期하여 下達된 중대장의 공격 命令으로 一齊히 목표를 急衝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공격 開始 5분만에 목표 前方20m에 肉薄하였을때 돌입대의 공격을 阻止코자 한것으로 믿어지는 2개 분대규모의 醜敵을 發見, 이들과의 사이에는 격렬한 사격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에 이르러 돌입대는 지원대로 하여금 기관총사격을 목표 南쪽과 西쪽에 집중토록하고 교전 15분만에 이들을 분쇄한다음 05.15에 그 敵陣一角에 突入하였다.

그런데, 이때까지 火力에 懼伏되어 그들 土窟陣地에서 繼戰코자 하였던 것으로 믿어진 한패가 또다시 出現하여 비로소 發惡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돌입대는 一瞬에 이들을 유린한다음 05.25에 그들 陣內를 수색하기 시작하여 12具의 屍體를 확인하고 약간의 장구를 幽獲하게 되었는데, 잠시후 俗稱「울골」부근에서 敵의 신호탄과 매를 같이하여 △87로 指向되었던 그들 砲擊이 終止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1소대장 辛在泰 소위는 SCR-536으로 상황을 중대장에 急報하고 05.40에 제2소대(-)와 같이 砲사격에 掩護되어 △39에서 철수한다음 귀로에 지원대를 거두어 09.10에 歸隊하였다.

2. 제6중대상황

한편 이날공격에서 陽攻隊임무를 受命케 된 제6중대장 鄭二薰 중위는 그 즉시 제2소대(장, 高奉頤 소위)를 선발하고 제5중대(-)의 △39공격에 따른 陽攻으로써 『△87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에 임하라』하였는데, 이에 제2소대는 4월 20일 18.00에 대대본부에서 抽出된 1개소대에게 진지를 引繼하고 그 준비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날 제2소대장 高奉頤 소위는 예정대로 제5중대(-)의 出動시간에 맞추어 02.00에 중

대본부를 出發하고 指定된 小路를 따라 蘆下里—俗稱「뱀다리」로 躍進한 다음 다시 俗稱「지상굴」로 接近하여 04.10에 △87 東쪽 500m 陵線에 潛入하게 되었다.

이로써 공격시간만을 鶴首苦待하던 陽攻隊는 04.15를 期하여 시작된 공격준비사격과 더불어 大병력을 假裝하여 全員 喊聲을 드높여 全火力을 △87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胡敵의 부리는 04.20에 그들 소화기를 陽攻隊에 集注하고 동시에 2개 분대 규모를 발진시켜 공격 正面을 拒支하려 하였으므로 이들과의 사이에는 한때 熾烈한 사격전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잠시후 이들은 增援을 얻어 陽攻隊를 포위코자 획책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에 소대는 즉시 철수를 斷行치 못한 탓으로 戰勢가 突變하여 危機가 急迫였다.

소대장 高奉碩 소위는 비로소 黃色 5星신호탄 1발을 쏘아 소대철수를 命命하고 急遽 전사상자를 收容하여 재빠른 歸陣을 奮勵하게 되었으나 이날 공격에서 소대가 거둔 戰果는 確인 射殺 3명, 추정사살 5명이었던 反面에 損失은 戰死 1명 부상 34명, 失蹤 3명, 장비 亡失 M₂ Car 2정, 각종彈倉 50개를 헤아려 陽攻치고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支拂한 셈이 되었다.

라. 전투후의 개황

제5중대의 △39기습전이 있는 뒤의 전투단의 부대배치는 예하 4개대대 가운데 제5대대(중강)가 右一線에, 제2대대가 左一線에 전개되고 제3대대가 예비가 되어 自由門橋와 예비진지인 Kansas 및 Wyoming線의 경비임무를 아울러 수행하고 있었고, 제1대대는 金浦에 控置되어 있었다.

전투단은 이와같은 陣容을 維持하는 가운데, 休戰會談에서의 停戰協商과 관련하여 당면의 中共제 65군예하 제193, 제195 兩사단이 正面에서 탐색 및 포격을 한층 激化하였으므로 이에 對應하기 위하여 기습전을 中斷한채 晝夜間 위역수색과 잠복 그리고 포격활동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戰線은 雙方間에 소대로부터 중대규모에 이르는 탐색전과 위력수색전으로 變貌하여 交綏케 되었다.

그러나 전투단은 同월 28일부로 下達된 師團作命으로 진지를 5월 1일~5일에 美제25사단 재27연대에 인계하고 抱川郡 舍谷 上大田里로 轉進하여 美해병제1사단과 같이 美제1군단의 예비가 되었는데, 이로써 1年여개월 泗川江부근戰線의 방어의 重任을 지고 奮闘를 거듭한 해병들은 비로소 暫時의 休息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부대 移動에도 不拘하고 포병대대와 전자중대는 당시 漣川地區방어에 임하고 있던 제1사단에 配屬되었으며, 金浦에 控置된 제1대대는 現地에 殘置된채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와같이 전투단 主力이 군단예비진지인 「Camp Indian hill」에 집결待機하고 있을 무렵인 6월 26일에 美해병제1사단으로부터 『즉시 제1사단을 赴援하라』는 요지의 緊急 명령을 수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전투단은 同월 27일부로 다시 제1사단(장, 金東斌 준강)에 배속됨과 同時에 同월 28일 零時를 期하여 제11연대(장, 崔周鍾 대령)로부터 담당 戰線을 引受하고 CP를 澄波里(漣川 西쪽5.5km)에 개설하는 한편 즉시로 6월초에, 사단계획에 따라 예비인 제3대대와 임무를 교대하여 전투단장 蔭下에 轉入하였던 제1대대를 右一線에, 제2대대를 左一線에 전개하고 제5대대를 예비대로 保有하였다.

이로써 당면의 中共제1군일부와 對峙하게 되었으며, 전투단은 7월 8일에 作命제35호로 다시 西部戰線으로 復歸할때까지 連日 진지방어를 위한 탐색전을 전개하여 기간중에 醜虜 126명(추정 26명 포

748 西部戰線의 戰況

함)을 殲滅하고 多發銃 8정과 수류탄 8발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린 反面에 25명이 散華하고 38명이 부상하는 손실이 있었다.

이와같은 부대의 轉進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전투단은 7월 8일 作命 제35호로 陣地를 다시 제1사단 제11연대에 引繼하게 되었으며, 同월 12일에는 作命제36호에 依據 西部로 이동하고 美제25사단 제27연대로부터 앞서의 진지를 引受하여 停戰이 成立된 同월 27일 22.00까지 계속 진지를 堅守하면서 27具의 屍體를 確認하는 전과를 追加하게 되었다.

한편, 이 전투가 있는 다음 전투단장 金聖恩 대령은 7월 7일부로 사령부로 轉出하고 그 後任에 高吉勳 대령이 就任하게 되었는데, 지난해 12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전투단이 공식集計한 종합戰果는 다음과 같다.

戰 果 (52. 12. 1~53. 5. 4)

구 분	제 1 대대	제 2 대대	제 3 대대	제 5 대대	포병대대	중포중대	전차중대	수색소대	적 소	사 포 대	계
사 살	45	111	58	65	1,020	184	136	11	45		1,675
추경사살	30	286	141	5	153	22	100	21	8		766
포 로	3	1		2							6
무기노획											
S M G		2	8	3				1			14
小銃				1							1
多發銃	1	3									4
기관총			6								6
수류탄	124	80	175	203							592
전차파괴					1						1

損 失(上同)

전 사	8	46	40	25							119
부 상	72	151	172	124	1	3	4	5	2		534
실 종	1	4	2	1							8

§ 참전자의 證言

◇ 제3중대장 金昌壁 중위

(1965. 4. 17 旅團作戰參謀室에서, 중령)

우리 중대는 1952년 10월에 이른바 敵의 공세를 분쇄한 뒤로 金浦에서 부대를 정비하고 다시 전투단 左一翼을 담당하고나서 기습전을 3회 실시하였다. 한번은 金鎭洙 소위가, 그 다음에는 누군지 모르겠고 세번째는 金光鎭 소위가 돌격 명령을 지휘하였다.

1차기습시에는 我軍의 企圖가 事前에 暴露되어 彼我사격만을 交換하다가 목적을 達成치 못하고 철수하였고 2차에는 完全히 敵陣을 奪取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敵이 陣地를 離脫

하였으므로 다만 그들이 먹다남은 食糧이라던가 농구화, 박격포 實彈, 그리고 裝具같은 것만을 鹵獲하고 復歸하였다.

3차는 나 自身이 直接 陣頭에 나섰는데 이것은 隊員들의 사기를 올리는 데 큰 作用을 하였던 모양으로 敵陣 바로 앞 鐵條網있는데까지 無難히 接近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때 敵에게 發覺되어 사격전이 전개되고 이어서 그들 60mm 탄막사격이 시작되어 30분간 支撐하다가 전과없이 부상자 10명만을 내고 철수하였다.

◇ 제55중대장 朴容鎭 대위

(1966. 1. 28 國防大學院에서, 대령)

제55중대는 1952년 末 전투단의 방어正面이 廣大하였던 판계로 당시 右一線대대인 제5대대의 右側지역, 즉 板門店으로 通하는 道路로 부터 △155에 이르는 2,500m의 주저항선의 防守를 위하여 金浦에서 行政要員을 모아가지고 特別히 編成한부대로서 補助 小銃중대같은 것이었다.

53년 1월 8일 敵陣을 기습함에 있어서 나는 美顧問官으로부터 航空사진을 얻어가지고 공격을 계획하고 직접 목표를 偵察하였다. 이때 작전관계를 맡아보던 尹下士와 樞相鎭소위, 陸鍾瑞 소위가 같이 갔는데, 여기서 우리는 地形研究를 거듭하고 공격方向, 진입로등을 살폈다.

이와같이 1次の 偵察을 마치고 다음은 分隊長을 同伴하고 一週間에 걸쳐 기동로는 여기고 칠수로는 여기고 하는 식으로 중대全員이 地形地物에 익숙케하였다.

그다음으로 나는 중대본부 近處에 목표와 拾似한 地形을 選定하고 豫行演習을 通하여 LD 점령要領, 各隊의 進擊方向, 철수시의 行動등을 周知케 하였다. 이와같이하여 준비를 갖추게된 우리는 全員 必勝을 다짐하고 當日 目標를 공격하게 되었는데, 이날 공격은 運이 없었던지 敵의 抵抗이 없이 所期의 戰果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중대는 1월 13일에 다시 敵陣기습에 나서기 되었지만 敵의 彈幕에 부딪쳐 공격은 膠着되고 及其他 철수를 斷行치 않을수 없었다. 나는 이 공격을 마지막으로 중대를 떠나 전투단본부 軍需參謀室으로 轉補되어 補佐官직을 맡았다.

그後 漣川지구에 가서는 黃泳대대가 江을 건너 配屬되어 있다가 敵으로부터 包圍되어 혼란격이 있었는데, 이때의 軍需활동에 있어서 困難하였던 점은 彈藥과 食糧을 推進하는 일이었다.

◇ 제1대대장 金鍾植 소령

(1965. 6. 15 해병제1상륙사단에서, 대령)

내가 제1대대장에 就任한것은 威德昌이가 공격을 하다가 失敗한다는을 金浦에서 부대를 정비하고 있을 때였다.

그러므로 첫임무가 補充兵(新兵)에 대한 훈련이었다. 1개월만에 汶山지구로 와서는 얼마간 예비대로 있다가 부대의 전투能力을 向上시키기위

해 중대단위의 기습전을 실시하였다.

그다음 左一線인 제2대대와 交代하였는데, 그當時에 入手한 情報로는 △39에 人民軍이 나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기습하게 되었으며 1개소대가 迂回하다가 敵으로부터 不意에 공격을 받았으므로 나는 즉시 撤收하라는 命을 내렸다. 이 기습의 실패로 怒하게된 전투단장은 즉시 대대장을 呼出하기에 갔더니 중대장을 처벌하라는 것이었는데, 이 기습은 중대장이 잘못이 아니고 대대장이 잘못된 것이니까 나를 처벌하여 달라고 했다.

나는 전투단이 漣川으로 移動하기 直前に 黃泳이와 교대하고 後方으로 내려갔지만 當時의 戰鬪은 彼我 탐색전이었기 때문에 우리 偵察隊가 빈번히 그들이 뿌리고간 傳單을 줌거나 人蔘酒같은 것을 가져왔고 우리 또한 많은 傳單을 그들 陣前에 뿌려 歸順을 권고하였다.

이當時 機密維持가 철저히 못하였던 탓으로 기습을 나가지만 하면 敵은 미리 對備하였기 때문에 자주 얻어 맞았다. 後日 이상하다 싶어 전투단장 金聖恩 대령은 이 事實을 사단에 報告하고 조사케 되었는데, 軍事郵便을 다루는 곳에서 敵과 交信하는 現場을 잡아 이를 규명하게된 일이 있었다.

◇ 제52중대 제2소대장 李承梧 소위

(1966. 2. 23 습參情報團에서, 중령)

53년 1월 21일 기습시에 나는 支援隊를 지휘하고 金盛鎬 소위가 돌입대를 맡아 東場里「추하소」라는 곳을 공격하였다.

이 일대는 공격부대를 지원하기가 몹시 어려운 地形이 있어 우리는 11시쯤 進出하자 눈두렁에다 重火器를 配置하였다. 얼마후 銃聲이 울리고 돌입대는 격과 30분간 交戰케 되었으며 이때 金盛鎬 소위와 傅승 2명, 無電兵 3명인가 失蹤되었다. 내가 判斷하기에는 돌입대가 너무나 깊어 들어가서 肉薄戰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이때 대대장은 姜起千 중령인데 상황을 報告하니 즉시 現場에서 물러 나오라는 命이 下達되었으므로 後方정결지에 철수하여 人員을 파악하니 소대장하고 傅승 無電兵 등 4명이 없었다. 當時에 소대장이하 4명이 不方不明이었다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보고를 못하고 조금더 기

다려보자고 그자리에서 중대장이하 全員이 발을 새웠다.

金盛鎬 소위는 이때 不意에 공격을 받아 지휘가 瓦解되고 3개분대가 제각기 分散된 것으로 推斷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제때에 보고하였다 라면 그 즉시 어떤 對策이 마련되었을 것이다.

하여튼 집결지에서 기다리면서 信號彈을 마구 쏘아대었더니 하나 들쭉 나왔으나 소대장은 영영 나오지 않았다.

그후에 소대장이 戰死하였다면 屍體라도 가져와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새벽에 우리 소대와 兩編成을 하여 現場에 다시 들어갔다.

이때가 5시쯤이라고 기억하는데, 現場에 깊이 들어가 살렸더니 그 일대는 땅굴이 허다한데 아무 痕跡이 없어서 그대로 撤收하고 말았다. 이로말미암아 우리중대는 中隊長이하 全員 削髮命을 받아 호되게 처벌을 받았다.

◇ 제3대대장 安昌寬 소령

(1966. 7. 7 孝子洞自宅에서, 예 대령)

나는 처음에 제5대대장으로 가게되었으나 光州高等軍事班(14기)陸軍大學(11기)를 거치는 동안 늦어져 제3대대장으로 發命을 받았는데 이때 南相徽가 제1대대장이고 威德昌이 그 副대대장이었다.

언제가 林晔燮 중위에게 2개소대로써 敵陣을 공격시켰더니 敵兵 1명을 사로 잡고 철수하였는데 이때 士兵 1명의 行方이 不明하였다. 그래서 나는 『전투에서 발생한 戰死者는 모두 거두어가지고 와야하는데 왜 屍體를 못가지고 왔느냐. 우리대대는 敵陣에 屍體를 놓고온 적이 없다. 대대全員이 全滅하는 일이 있어도 屍體는 가져와야 한다. 내가 못가면 내가 간다』라고 하였더니 林중위는 울면서 다시 나가 戰死한 것으로 믿었던 1명의 隊員이 重傷을 입어 신음하는것을 發見하고 이를 부축하고 귀대하였다.

나는 우리 대대에 新兵이 到着하면 2週동안 訓練을 시켰다. 밤에는 陣地에 배치하였다가도 낮에는 새벽부터 끌어다 놓고 훈련을 시키고 午後에는 재워 休息케 하였다. 이런것이 相當히 효과적이었는데, 統率에는 士氣問題가 가장 重要한 것이기때문에 福祉문제에 관하여 많은 신경을

썼다. 그러므로 먹는것, 자는것, 입는것에 관하여 남달리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戰功이 있으면 서슴치 않고 休暇를 보냈다.

전투에 있어서는 이런 것이 先行된 다음에 火力과 兵力運用이 잘 되어야 하고 敵의 戰術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1중대 제1소대장 張基都 소위

(1965. 4. 16 旅團射擊場에서, 소령)

出動하자마자 나는 제1대대 제2중대 제1소대장에 補任되어 전투에 참가하였는데 이때 제2소대장이 崔容澤 소위, 제3소대장이 尹錫九 소위 화기소대장이 成扶容 소위였다.

처음에 제2중대가 前哨진지(△50)를 맡게되어 崔容澤과 같이 △50에 나가있었는데 이곳에서 敵으로부터 기습받은 적은 없고 우리 潛伏隊가 기습받은 일은 더러 있었다.

내가 기습전에 참가한것은 모두 6회정도라고 기억하는데 처음에 기습한 것이 △87에 대한 기습으로서 이때 나는 돌격소대를 지휘하고 지원소대는 崔容澤 소위가 지휘하였다. 막상 목표를 점령해보니 高地에는 이미 敵이 撤收한 다음이라 그들이 남겨둔 수류탄만 鹵獲하고 돌아왔다.

그다음에 나는 △50左側高地를 맡고 있었는데 當時 前方 2km정도에 12개의 잠복초를 운용하였다. 이 잠복초는 번호 제10에서 臨津江까지였으나 이 가운데 제10번 잠복초가 그들 通路에 해당하여 重要하였으므로 陰曆실날에 여기에는 先任下士官을 붙여 기휘케하였다. 그런데 當日5시쯤되었을 무렵 先任下士官으로부터 電話가 있었으므로 받으니 前方에 이상한 것이 있다는 內容이었다. 그래서 나는 즉시 그에게 『내가 갈때까지 그대로 두라』고 이른다음 現場으로 말렸다.

당시에 우리는 每日 잠복이나 경찰하는 곳이 기때문에 돌맹이하나라도 식별할 정도로 地形에 는 自信이 있도록 익숙하였다.

이와같이 되어 달려가보니 先任下士官이 發見한것은 술상자로서, 나는 멀리서 꼬챙이를 가지고 그 뚜껑을 열었다. 그랬더니 그 안에는 人蔘酒가 40병 가까이 꽂차있었으며 또한 그 안에는 毛澤東사진, 수첩같은 것이 들어 있었다. 이날 이것을 주어가지고 돌아와 先任下士官 有

는데다 그대로 保衛하였더니 하나둘씩 없어지고 말았다. 나중에 조사하여보니 대원들이 『죽어도 좋다』라고 조금 먹었던 모양으로 그결과 아무탈이 없었으니 하나 둘씩 달려들어 모두 마시고 말았다는 것이다. 나는 先任下士官에게 관리에 소홀함을 탓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아무사고가 없었으므로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2월 4일이라 기억한다. 나는 기습에 나가기 전에 대원들의 士氣를 올리고 추위를 이기는 方法으로 「白馬위스키」인가 「러키위스키」인가를 사전에 준비하였다가 出動前에 모두가 이를 나누워 먹게 하였으며 소대인원은 당시 通信兵등이 增援되었던 관계로 약 70명 가량이었다.

19.00에 出動한 우리는 側方에 信望이 있는 1개 火力組를 배치한 다음 有線통을 베고 들어갔으나 이때 敵은 우리가 접근하는 것을 알고있는 까닭에 공격방향을 바꾸어 목표를 迂回하였다.

敵은 당시에 우리를 避하기 위하여 旣處에서 撤收하면 모양이었으나 이들과 부닥치게 된 우리는 이를 무찌르고 目標을 直衝하였다. 目標에는 그들 壕가 많았는데 아주깊이 판것이있어 어떤 것은 2m가 넘었고 그안에는 수류탄이 꽂차있었다.

당시 이공격은 시간적으로 여유롭지 못하여 目標을 점령하자마자 暗號로 된 철수命令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즉시 高地에서 下山하고 집결지로 철수하게 되었는데 이때 中間에 배치시킨 火力組를 데리고 오지 못하였다. 여기에서 나는 分隊長만을 인솔하고 다시 敵陣으로 다가가서 이들을 데리고 나왔다.

◇ 제2대대 제5중대 소대장 姜永奎 소위 (1966. 3. 31 해병대 사령부 모병과에서, 소령)

우리는 澮川지구로 이동하자 제1사단 제11연대와 진지를 교대하였으나 지금 그 어느때에 어느중대였던지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중대가 점령한 진지 前方에는 깊은 계곡이 있고 그 앞 高地가 敵陣이었다.

이런 關係로 敵陣이 잘 觀測되었는데 언젠가 그들 陣地에 砲가 掘置된 것이 發見되어 우리는 그 砲를 격파하기로 마음먹고 75mm무반동총을 이에 조준하였다. 이리하여 그들 當番인듯한놈이 交代하는 것을 겨냥하여 사격하여 밧놈을 포

살하기는 하였으나 목표인 砲는 곧 土屈진지로 감추어졌으므로 파괴할수가 없었다.

또 언젠가는 우리 진지에 8군 심리전반인듯한 放送班이 나와 中國말로 『살기를 願하거던 무기를 버리고 投降하라』는 要旨內容의 對敵방송을 실시하였는데, 이럴수록 敵의 砲擊이 집중되어 방송이 中斷되는 일이 있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도 禍를 입게되 旣處으로 가서 방송하라고 하는등 이들의 來着를 기피하게 되었다.

나는 그후에 12期生 尹炳玉 소위에게 임무를 인계하게 되었지만 당시 육군이 만든 진지는 障礙物이 형성하고 壕도 弱하게 構築되어 있던 관계로 그들 砲彈에 命中하면 그대로 주저앉았다. 偵察班들은 敵情을 살피는 本然의 임무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傳單을 그들 陣地에 撒布하는 일이 附加되어 있어서 누가 더 敵陣 가까이 정찰하였는가 곧 判識하였기 때문에 이정찰은 어느부대가 더 敵陣 가까이 接近하는가의 경쟁이나 다툼이 없었다.

◇ 제51중대장 金昌均 중위 (1966. 3. 31 제2훈련단본부, 중령)

나는 申肅중위와 53년·1월 2일에 交代하였는데 在任時의 마지막 기습이 52년 12월 31일에 있었다. 이때 8기생 金義一 소위가 支援소대장, 鄭永信 소위가 돌입대장을 담당하였다. 이날 東場里 獨立 家屋있는데까지 進出하다가 중대는 接敵케 되고 이로말미암아 捕虜는 얻지 못한채 中共軍의 다리(足) 1개를 베고 철수한적이 있다.

◇ 제5대대장 姜起千 중령 (1965. 6. 15 해병대 제1상륙사단장실에서, 소장)

나는 白翎島에서 西海부대근무(1951. 6. 27~52. 1. 19)를 마친다음 전투단으로 轉補되어 잠시 作戰主任장교일을 보다가 白南杓 중령과 交代하여 제5대대장에 就任하였다.

제55중대를 配屬받음으로써 대대는 4개중대를 가지고 주저함을 방어하였는데, 이때부터 捕虜를 獲得키 위한 기습전의 樣相도 바뀌어갔다.

나는 2개소대가 참가하는 기습전에는 중대장은 물론 先任將校를 꼭 달려보냈고 대대장교들

로 作戰狀況室근무를 하게 하였으며, 나 自身은 1개소대가 出動하여라도 必히 高層관을 同伴하여 대대OP근무를 하였다. 이와같은 조치로부대 분위기가 一新되었을뿐, 아니라 기습부대의 士氣가 衝天하여 여러번 성공을 거두었다.

當時에 我軍기습대가 同一한 시간에 공격을 敢行하였으므로 敵은 이에 대한 防備가 철저하였는데, 나는 이를 是正하여 공격시간과 목표까지 自意로 조정하여 每日마다 기습시간을 變更하고 목표 또한 1~3개를 부여하여 하나가 아니면 다음을, 다음것이 아니면 다음것을 擇하여 공격하였다.

한가지 해병대 역사에서 고칠것이 있다면 泗川江전투時에 戰果를 分類하기를, 대대에 배속된 부대의 전과가 따모이 原所屬부대에 合算되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것은 잘못이며 마땅히 그전투를 지휘한 배속대대의 전과로 倣倣되었어야 할것인데 泗川江제3, 제4차전투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 제53중대장 朴元奎 중위

(1965. 10. 20 국방부에서, 중령)

1953년 1월~2월사이 우리중대는 대대 正面의 前哨陣地를 맡고 있었다. 期間中은 대체로 평온상태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심한 전투는 없었으나 敵으로부터 많은 포격을 받은 기억이 있다.

當時에 敵은 달이 밝은날이나 名節같은 날을 擇하여 오기가 일쑤여서 이런 날일수록 진지경계가 더욱 要望되었는데 敵은 陰曆실날인가 陽曆실날인가는 分明치 않지만 하여간 달이 밝은날에 중대가 배치된 전초진지에 많은 砲彈을 퍼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敵은 이난 砲擊만을 집중하였을 따름이지 擧攻은 시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대가 전초진지를 40일동안 拒支하고 있는 동안 偵察대는 자주 敵과 조우하여 交戰이 전개되었다.

우리가 前초진지에 있는 동안 제52중대가 한번 우리중대를 지나 西場里를 기습한적이 있고 搜索소대가 여러번 敵陣을 수색하였는데 이

§ 戰 訓

(1) 敵情과 기습목표 선정

해병제1전투단은 敵情을 수집하기 위한 方途

와같은 기습이 있을때마다 그 다음날에는 우리 敵으로부터 많은 砲彈洗禮를 받았으므로 이 때일수록 이에 對備하여야만 하였다.

중대가 前哨진지에서 빠져자 전투단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Phiblex에 참가하여 德積島앞바다에서 美해병 1개대대와 같이 上陸戰 훈련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 중대가 他중대에 모든것이 뛰어나 遜色없이 해낼것이라는 전투단장의 配慮에서였다고 알고있으며 그 뒤로도 이 훈련은 중대단위로 계속되었다.

그뒤로 우리중대는 漣川에 가기전에 한차례 소대단위의 기습전을 決行하였다. 비가 많이오는날이라 前進하는데 지장이 있었으나 당시 陣頭에서 소대를 지휘한 邊禎周 소위의 덕분으로 마침내 목표에 進入하고 그들이 土窟에 숨자 수류탄을 投擲한다음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날이 밝자 하는수없이 노획한 1대의 電話器와 1점의 多發銃만을 가지고 철수하였다.

漣川에 가서는 英聯邦사단하고 인접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소대단위의 기습전을 4~5회한것으로 기억하지만 별 다른것이 없다.

◇ 전차중대 제1소대장 朴贊榕 소위

(1966. 3. 25 해병대 사령부에서, 소령)

漣川으로 移動하기 直前이라 생각한다. △50에 推進하였던 제2소대장 金振宇 소위는 05.00쯤 夜間에 浸透하였다가 方向을 몰라 우물쭈물하는 敵兵 40명을 發見하고 戰車砲를 쏘기 시작하였다. 當時의 敵의 위치는 평탄한 논밭이었으므로 殺殺을 쫓할길이 없었는데 이 戰功으로 金소위는 金星花郎 훈장을 받았다.

우리소대는 △50에서 晝間에 敵陣을 사격하다가 奇想天外의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것은이 때 11호 전차가 擧정을 열고 사격하다가 潛伏한 敵을 發見하지 못하여 그가 사격한 소총에 맞아 전차수인 李寬濬하사가 쓰러지게 되었다. 이를 알아차린 張銀洙가 즉시 砲塔을 돌려 2명을 사살하고 쓰러진 李하사를 전차에 다시 태워 돌아온적이 있다.

로서 期間中에 기습전을 번번히 계속하고 이를

決行하였다. 이와같은 활동은 泗川江부근 제4次 전투 以後에 澮川地區로 轉進하기까지 敵과 對陣하는 동안 계속되었지만 綜合戰果(12.1~5.4)에서 보는바 포로는 불과 6명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에는 單純히 포로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銳鋒을 품임없이 強打하기 위한 意圖가 勿論 포함되어 있어 두가지 임무를 아울러 수행하게 되었지만 結果는 兵力만을 消耗하고 얻은것이란 대단한 것이 못되었다.

그가됨을 分析할때 첫째로 敵情에 어두어 목표에 대한 研究가 부족하고 둘째로 기습대의 임무가 포로획득, 敵陣 파괴, 敵兵殺傷등 過重하여 그 어느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전투에서 배울바로는 야간기습이란 遂行上의 어려움을 勘案하여 목표는 詳細한 敵情 把握을 土嚮로한 임무별로 區分하고 그하나 하나의 임무를 집중적으로 達成할 수 있는 것으로 選定되어야 할 것이며, 기습대의 規模나 時機역시 單一임무와 목표에 따라 適切하게 編成하고 選定되어야 할 것이었다.

(2) 기습과 強襲의 差異

기습이란 敵이 예상하지 못한 時期場所方法으로 敵을 不時에 攻撃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기습은 첫째로, 敵을 一時에 瓦解시키거나 混亂에 빠지게 하여 戰鬥力의 均衡을 決定的으로 我軍에게 有利하도록 轉換시키는 것이어야 하며, 둘째로 판단되는 損失에 比하여 越等한 成果를 얻을수 있는 이른바 經濟적이고 効率的이며 短時間內에 많은것을 얻을수 있는 것이어야 그 意義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습전의 成功要素에는 속도, 기만, 예상하지 못하는 전투력의 運用, 정보 및 防諜 전술과 作戰의 變化와 武器, 不利한 地形 및 氣象의 逆用, 心理戰등이 例擧될 것이고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劣勢한 兵力으로 優勢한 敵을 격파하여 所期의 성과를 거둘수 있는 것이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해병대가 53년 1월부터 4월末까지 泗川江부근에서 전개한 一連의 기습전은 기습의 성공요소를 모두 欠하였다 할것인데, 그러므로 所期의 성과를 거둘수가 없었다.

敵과 戰力에 있어서 對等하고 企圖를 完全히 秘匿할수 없고, 速度를 가질수 없으며, 同一한

戰術의 反復, 상세한 情報의 活用등에 欠하고 있으면서 기습과 같은 成果를 기대한다는 것은 단지 막연하게 목적만을 추구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와같은 사정에서 敵情을 수집하거나 敵陣을 散摧하거나, 하나의 局限된 포로획득 목적이라 할지라도 敵보다 優勢한 兵力, 火力, 衝擊등으로 兇襲하는 強襲으로 계획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3) 干涉과 越權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대장이 직접 소대나 분대의 임무까지를 命命上 일일히 규제하였다면 그것은 중대장의 권한과 임무를 干涉하는 결과가 될것이고 이와 反面에 萬不得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면 末端 부대까지의 전투行爲에 대하여 그와같이 實行치 못함에 대한 責任을 물어 處罰이 뒤따라야 할것이다.

기습을 계획함에 각대대장은 기습대의 규모나 공격요령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시간까지를 規制하여 중대장의 創議와 隨機應變의 부대지휘를 制動하고 중대장이 상황에 接하여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 스스로 越權을 저지르게 하였다.

그러므로 전투에 敵通性과 速度를 欠하게되어 그 어느것이나 그 結果에 있어서 千遍一律으로 수행되었으며, 名實相符한 기습전이 되지 못하였다.

(4) 機密維持

參戰者인 金鍾植 소령은 그 證言에서 軍事郵便을 取扱하는 部署에서 기습계획에 대한 기밀이 敵에게 打電되어 누설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로 미루어 防禦의 重要性이 새삼 強調되는 바이지만 더구나 기습전에 있어서 그 기밀이 번번히 누설되었다면 아무런 效果를 거둘수 없을 뿐만아니라 더나가서는 可恐한 結果를 초래할것이다. 이런점으로 미루어 防禦에 대하여는 전투원 누구나 銘心하고 設心하여야 할것이다.

研 究

◇ 高地名에 대하여

本戰鬥에 있어서 △155(臨津江 鐵橋 西쪽3km, 는 近間에 발간되는 軍事地圖에 따르면 △167로 表記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準하여 當然히 △167로 記述되어야 하겠지만 當時의 資料나 參戰者들은 모두 △155로 記載되거나 記憶하고 있어서 이와 混同을 避하기 위하여 그대로인 △155로 하였다.

2. 250高地—199高地 戰鬪 (1953년 6월 25일부터 // // 29일까지)

(一名, Queen高地 및 朴高地 戰鬪)

참조 : 별책부도 제 23 호
상 황 도 제 100~104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美제 1군단	장 소장	Bruce C. Clarke	제 3戰車대대 제 2중대
제 1사단	장 준장	金 東 斌	배속부대
제 11연대	장 대령	崔 周 鍾	제 1해병연대전투단 장
제 2대대	장 중령	金 奉 礎	대령 金 聖 恩
제 3대대	장 중령	金 衡 祿	지원부대
제 12연대	장 대령	李 吉 泳	美제 57포병대대 (105mm곡사포)
제 1대대	장 중령	康 永 傑	제 187포병대대 (")
제 2대대	장 중령	韓 國 贊	제 936포병대대 (155mm곡사포)
제 15연대	장 대령	宋 虎 林	제 999포병대대 (")
제 1대대	장 중령	崔 鳳 道	제 204포병대대 (155mm평사포)
제 2대대	장 중령	朴 春 雄	제 17포병대대 (8"곡사포)
제 3대대	장 중령	李 鍾 鼎	제 159포병대대 (240mm곡사포)
사단수색중대	장 대위	張 其 悅	인접부대
사단포병단	장 대령	宋 贊 鎬	右인접 : 美제 7사단 장
제 17포병대대	장 중령	金 韓 柱	소장 Arthur G. Trudeau
제 58포병대대	장 중령	高 在 曄	左인접 : 英제 1연방사단 장
제 59포병대대	장 중령	金 文 植	소장 M. M. A-R-West,
제 91포병대대	장 중령	金 易 壽	C. B., D. S. O.
사단공병대대	장 중령	文 熙 瑛	병력 및 장비 : T/O 및 T/E 充足

敵 軍

中共제 1군	장	劉 轉 連	제 7사단	장	張 開 基
제 1사단	장	游 好 揚	(제 19, 제 20, 제 21연대 基幹)		
(제 1, 제 2, 제 3연대 基幹)					

나. 전투전의 개황

제1사단(장, 金東斌 준장)은 지난 해 10월에 美제3사단(장, Robert L.Dulancy 소장)으로부터 臨津江의 兩岸에 걸친 美제1군단(장, Paul W.Kendall중장)의 中央右翼전선을 인수한 뒤로, 當面の 中共 제39군 및 제47군과 더불어 臨津江 西岸의 Nickie와 Tessie 그리고 Nori와 Betty등의 高地에서 血戰을 치르고(제8권 제54장 제1, 제2절 참조) 交綏상태에서 겨울을 넘기게 되었거니와 이 해 1953년에 들어서서도 이와같은 對峙狀態는 계속되었는데, 6월에 이르러 休戰을 겨냥한 敵의 執拗한 攻襲으로 말미암아 爭奪의 불씨가 臨津江의 東岸으로 옮겨가게 됨으로써 다시 한번 激戰을 벌이게 되는 바, 本節에서 取扱한 Queen高地 및 朴高地 전투가 바로 그것이다.

敵軍의 狀況 : 지난해 10월에 Nickie와 Tessie 고지에 出血을 본 바 있는 中共제39군(장, 鐘偉)의 戰線을 그 해 11월 초순에 交代 인수한 제47군(장, 張天雲)은 이 해 4월5일을 前後하여 이 싸움터에 처음 나서는 제1군(장, 劉轉連)과 다시 교대하고 谷山부근으로 빠져 예비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하여 臨津江 正面的 전선에서 새로이 사단과 對決케 된 同 제1군은 江 東岸에 제7사단(장, 張開基)을, 江 西岸에 제1사단(장, 游好揚)을 展開하여 그들의 左右翼으로 삼고, 제2사단을 예비로 확보중인 것으로 보였는데 6월중 사단의 C-2 情報判官에 따르면 당시 이 제1군의 병력은 제1사단이 10,460명, 제2사단이 11,800명, 그리고 제7사단이 10,510명과 군 본부요원 5,000명으로서 모두 37,770명인 것으로 推算되었다. 이들의 素質은 60%가 新兵이지만 T/E에 의한 完全裝備를 갖춘 것으로 밝혀졌는데, 戰鬪員 매인당 다발총 1정과 실탄 500발 및 수류탄 8발을 휴대하였으며 그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人員은 別個로 破壞筒 1개씩을 지녔다는 것이다.

이들을 지원하는 火力로서는 75~76mm 포병 5개 대대와 122mm포병 1개대대 그리고 85mm 대 전차포 1개대대가 사단정면에, 75~76mm 로병 3개대대와 122mm 포병 1개대대가 美聯邦사단 정면에, 105mm 2개대대와 122mm 2개대대가 美제7사단 정면에 각각 진지를 점령중인 것으로 판단되어, 敵 제1, 제7 兩사단은 이 정면에서 15개 포병대대의 火力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이들 군의 戰力은 어찌까지 戰線에서 我軍과 접촉한 바가 없었으므로 未知數이나 美제8군이 入手한 이들의 부대경력은 대개 이러하였다.

이는 本是 中共人民解放軍 제1야전군(장, 彭德懷) 산하로서 大陸本土가 赤化된 뒤로 河北省 主都인 西寧에 駐留하다가 지난해 12월 하순에 甘肅省의 蘭州를 거쳐 列車便으로 東北으로 移動하여 同월 말에 通化縣城에 도착케 된 바, 그곳에서 步兵장비를 蘇式으로 바꾼 다음 이해 1월하순에 鴨綠江을 건너 陽德으로 潛入하였는데, 德洞에서 2개월 동안에 걸쳐 환경 적응훈련을 끝내고 4월 1일에 徒步로 南進하여 그 5일에 臨津江 兩岸의 제47군과 교대케 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 군은 中日戰爭이 終戰된 뒤인 1947년에 편성되었으므로 抗日전쟁에는 참가하지 못하였으나 國共內戰에서 山西省의 延安과 榆林등지를 舞臺로 國府軍과 對戰한 經歷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당시에는 山岳遊擊戰에 능하였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新參으로서 銳氣가 潑刺할 것을 勘案한다면, 이들이 비록 美軍과의 火力戰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 戰力을 결코 가늠이 불수는 없는 것인데, 어떤든 이제 사단과의 決戰으로 이를 評

價하는 試金石의인 契機가 마련된 셈이었다.

我軍의 狀況: 사단은 지난해 12월 중순에 Nori고지 전투를 치른 뒤로, 제12연대(장, 鄭永洪 대령)를 右一線으로, 제15연대(장, 宋虎林 대령)를 左一線으로, 그리고 제11연대(장, 崔周鍾대령)를 예비로 하는 가운데 主抵抗線에는 변동없이 해를 넘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2월 초에 左一線인 제15연대와 예비인 제11연대를 교대케 하고, 중진에 右一線 연대의 일부가 臨津江 左岸을 담았던 것을 고쳐 左右一線의 전투지경선을 臨津江으로 劃定하였는데, 이로써 戰線이 이 강을 中心으로 左右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右一線 연대는 驛谷川 南岸의 魚嶺山里 부근에서 臨津江 東岸의 中沙里에 이르는 南北의 진지를, 그리고 左一線 연대는 臨津江 西쪽에 接岸한 Nori 고지로부터 高旺山西麓에 이르는 西南의 진지를 맡게 되었는데, 이때 右一線 연대 CP는 赤巨里(澗川 西北쪽 8km)에, 左一線 연대 CP는 澄波里(澗川 西쪽 5.5km)에, 그리고 예비연대의 CP는 艾澗(澄波里 西南쪽 2km)에 각각 位置하였다.

그러다가 3월 26일 04.00부로 右一線인 제12연대와 예비인 제15연대의 임무교대를 예정하였으나, 이때 軍단 左翼인 美제1해병사단의 Nevada 지역에 敵의 攻波가 들이닥쳐 紛亂을 일으키게 되었으므로 이 交代를 猶豫하였다가 4월 4일에 그 실시를 보게 되었다.

따라서 사단은 다시금 제15연대(장, 宋虎林 대령)가 右一線이 되고, 제12연대(장, 鄭永洪 대령)는 同제15연대의 예비진지에 집결하여 사단예비로 전환되는 가운데 陣容을 再整備하여 當面의 敵의 음침임을 지켜보게 되었는데, 이 무렵인 4월 20일에 제12연대장 鄭永洪 대령이 李吉泳 대령과 交代되었으며, 이어 5월 5일에는 사단장 朴林恒 소장, (1월 27일에 진급)이 軍단 副軍단장으로 轉任되고, 제9사단 副사단장인 金東斌 준장이 그 後任으로 사단의 지휘권을 인수하게 되었다.

이때 사단의 支援火力으로서는 1월 20일에 國本一般命令 제23호(53.1.18부)에 따라, 이미 그간에 陸本으로부터 配屬중이던 제5포병단(제58, 제59, 제91포병대대 및 의무대)을 예속받아 사단의 제17포병대대와 함께 사단포병단으로 개편을 봄으로써 105mm 3개대대와 155mm 1개대대의 完全編制의 사단포병을 保有케 되었음은 前卷에서 이미 言及한 바 있거니와 이 밖에 사단지역 일원에 진지를 점령중인 軍단 포병으로서 輕砲인 美제57, 제187포병대대(105mm 曲射砲)와 中砲인 제936, 제999포병대대(155曲射砲) 및 제204포병대대(155mm 平射砲) 그리고 重砲인 제17포병대대(8"曲射砲)와 제159포병대대(240mm 曲射砲)등 7개 포병대대의 지원이 可能하였다.

戰車 지원상황을 보면, 사단은 지난해부터 美제73전차대대 C중대의 지원을 받던 중, 이해 1월 10일에 陸本으로부터 제57전차중대를 배속케 되어, 공병대대로서 主抵抗線에 전차사격진지를 마련하는 가운데 美軍C전차중대로서 右一線 연대를, 제57전차 중대로서 左一線연대를 各各 직접지원토록 按配함으로써 主抵抗線 연대의 戰力을 刷新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3월末에 板門店 정면의 軍단左翼인 美해병사단이 Nevada地域에서 血戰을 치르고, 美제25사단과 交代되어 5월 5일에 軍단 예비로 전환됨에 따라(本卷 제60장 제4절 참조) 同사단에 배속중인 韓國해병 제1전투단의 전차중대가 同日附로 제73전차대대 C중대와 교대하여 새로이 사단을 지원케 되었으며 6월 19일에는 제57전차중대가 제3전차대대(장, 金東觀 소령)(國本 一般命令 제 111호: 53.4.25 부에 의거 光州 機甲學校에서 創設)의 제2중대로 改稱을 보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彼我의 움직임 가운데 爭奪의 초점이 되는 문제의 Queen고지(△250)와 차고지(△199)는 사단의 右一線 정면에서 일련의 前哨線을 이루는, 같은 綫에 南北으로 連한 고지로서 이는 巔峻의 屈曲을 보이며 東에서 西로 臨津江에 流入하는 驛谷川下流와 사단 戰線을 左右로 兩分하면서 西北에서 東南으로 흘러내리는 臨津江의 사이에서, 東北으로부터 西南으로 가로막아 三角形의 底邊을 形成하는 核心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는 당시 사단의 右一線 정면에서 驛谷川 南岸에 背水의 陣을 치게된 敵의 進出路를 가로막는 關門이자 그 1km 東南쪽에서 나란히 複線을 이룬 사단의 主抵抗線을 掩護하는 鐵壁이요, 또 臨津江의 彎曲部로 말미암아 이 진지의 南쪽으로 파고들게된 敵의 主陣地 後方을 睥睨하는 前進堡로서의 要衝이

니, 이런 까닭으로 만약 敵이 사단의 右一線정면에서 공격을 企圖한다면, 必然的으로 여기서의 爭奪에서 먼저 難雜을 決定지어야만 될 것이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4월 4일 : 제15연대(장, 宋虎林 대령)가 새로이 사단의 右一線을 맡게 되었을 당시, 사단의 主抵抗線 방어개념은 대체로 이러하였다.

『① 사단은 2개연대로써 主抵抗線을 東西로 나누어 갈고, 1개연대를 예비로 확보한다.

일선연대의 當面の 前哨진지는 別命이 있을 때까지를 固守한다.

② 右一線연대는 臨津江 東쪽 지역을 맡는다.

사단수색중대를 배속한다.

KSC 3개중대를 배속한다.

重박격포(4.2") 1개 소대를 배속한다.

공병 1개중대로써 직접지원케 한다.

③ 左一線연대는 臨津江 西쪽 지역을 맡는다.

공병 1개중대를 배속한다.

KSC 3개중대를 배속한다.

重박격포(4.2") 2개 소대를 배속한다.

④ 예비연대는 主力을 臨津江 西岸의 江內里—北三里 일대에, 1개대대는 江 東岸의 仙谷洞에 집결, 待機한다.

⑤ 포병단은 輕砲 各 1개대대로써 左右一線연대를 직접지원토록하고, 輕砲 1개대대와 中砲대대는 一般支援에 任하도록 한다.

被지원 연대의 임무교대와 동시 지원포병대대의 임무를 교대한다.

⑥ 제2전차중대는 左一線 연대를 직접 지원한다.

배속 해병전차중대는 右一線 연대를 직접 지원한다.

⑦ 공병대대는 各 1개중대로써 左右一線연대를 직접 지원토록 하고, 殘餘중대로써 후방 진지와 보급로 補修工事에 任하게 한다.

Iceland線(休戰時的 主抵抗線)은 제2주저항선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한다.

Kansas線은 阻止진지로 活用할 수 있도록 한다.

Wyoming線은 反擊에 있어서의 공격개시線으로 活用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같이 右一線연대에 사단수색중대를 補強한 것은 그 正面의 COP확보에 대한 부담을 감안한 조치였는데, 여기에 바로 Queen 고지와 차고지등의 要衝을 포함한 一連의 진지가

있었던 것이다.

즉, 東北쪽 사단의 右接境線부근의 Mike고지(△168)—「갈매기」고지(Mike 西南쪽 1km : 표고 170m 정도)—「황새」고지(갈매기고지 西南쪽 500m : 표고 210m정도)—「尙武」고지(황새고지 北쪽 500m : 표고 150m정도)—Queen고지(△250)(황새고지 西南쪽 500m)—제3고지(△179)(Queen고지 西南쪽 500m)—「朴」고지(△199)(제3고지 南쪽 700m)—제1(하나)고지(朴고지 西南쪽 350m : 표고 170m정도) 등의 여덟곳의 고지가 東北으로 “음지말”에서부터 西南으로 臨津江에 接岸하는 “고작골”계곡까지 一貫되는 4km의 진지線을 形成하고 있었다.

이들 진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Queen고지는 중대규모가, Mike와 제3—朴—제1의 각 고지는 소대규모가, 그리고 「갈매기」와 「尙武」고지에는 각각 분대규모의 병력이 要求되어, 實質적으로 3개중대의 所要가 따르는 셈이었다.

이 正面을 맡게 된 제15연대는 主抵抗線인 Jamestown線에 2개대대를 配置하고 1개대대를 예비로써 Iceland線에 控置하였는데, 그 右—線 대대로 하여금 3km의 主抵抗線과 함께 Queen 고지를 포함하여 Mike—갈매기—尙武—황새의 5진지를 맡도록 하고, 左—線대대로써 2km의 主抵抗線과 제3—朴—제1의 3진지를 아울러 맡도록 한 바 右—線대대는 2개중대, 左—線대대는 1개중대의 병력이 別途로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연대는 右—線대대에 사단수색중대와 예비대대의 1개중대를 배속하여 2개중대를 增強조치하고, 左—線대대에 연대수색중대를 배속하여 이 역시 1개중대를 補強하였다.

이와같은 연대의 措置下에 취하여진 6월 25일 현재의 兵力配備상황을 살펴보면, 右—線인 제2대대(장, 朴春雄 중령)는 제5, 제6 兩중대와 사단수색중대의 3개중대로써 主抵抗線을 담당케 하고, 제7중대로써 Queen고지를 專擔토록 하였는데, 제5중대의 1개소대로써 Mike고지를, 제6중대의 1개소대로써 「갈매기」와 「尙武」고지를, 그리고 사단수색중대의 1개소대로써 「황새」고지를 각각 아울러 맡도록 하였다. 따라서 主抵抗線중대는 實兵力이 각 2개소대에 지나지 않게 되어, 예비인 제1대대(장, 崔鳳道 중령)에서 제1중대를 배속받아 主抵抗線의 後方으로 T字形으로 뻗은 △243—無名高地 ㉔(연대 OP 高地 : △243 東쪽 700m, 표고 290m 정도)에 예비로 待機토록 하였다.

그리고 左—線인 제3대대(장, 李鍾鼎 중령)는 제11, 제9 兩중대로써 主抵抗線을 담당케 하고, 배속된 연대수색중대를 臨津江의 東岸을 沿하여 배치함으로써 사단左—線과의 協調를 유지토록 하는 한편, 제10중대로써 제3—朴—제1의 세곳의 진지를 맡도록 한 바, 同중대는 이 3고지를 각 1개 소대씩으로써 分擔하였다.

따라서 이 대대는 예비를 확보치 못한 상태였으며, 연대예비도 제1대대의 제2, 제3 兩個중대 밖에 보유치 못한 실정이라 병력사용에 큰 制限을 받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情況은 당시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全戰線에서 我軍이 直面한 가장 큰 難題의 하나였다.

그리하여 연대는 合水里(赤巨里 東南쪽 2.5km)에 중대본부를 둔 海兵전차중대를 主抵抗



〈사단의 지휘권 인수인계 : 朴林恒 소장이 金東斌 준장에게 지휘휘장을 인계하고 있다〉

線으로 끌어들여 그 火力으로써 兵力不足을 補填하면서 支援砲兵에 全幅적으로 依存하는 防禦方式을 취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5월 5일에 사단장 金東斌 준장이 赴任 즉시로 이들 COP에 대한 진지강화의 必要性을 강조하고, 군단으로부터 鐵條網 등 장애물設備에 대한 資材를 지원받아 Queen고지와 차고지 陣前에 三重의 철조망을 設置하는 한편 장애물지대를

강화하여, 이의 堅守를 다짐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6월 11일부터, 敵의 포화가 고개를 들기시작하여 간단없는 精密사격으로 이 COP 前方의 장애물을 파괴하려 하였는데, 그 落彈數가 平常時의 10倍로 急増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Queen과 차고지 前斜面의 장애물지대는 사실상 거의 그 機能을 喪失하게 되고, 火器진지와 觀測壕의 骨材가 들어날 정도로 심한 打擊을 받게되었는데, 21일 밤부터는 敵의 偵察隊가 陣前에 出沒하여 철조망을 切斷하고 攻撃壕를 파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攻勢입박의 徵候를 들어내었다.

그리하여 이 공세의 時限爆彈은 마침내 25일밤을 期하여 起爆되고만 것인데, 뒷날 捕虜의 陳述을 종합하여 分析한 바, 이는 反共捕虜석방에 대한 報復과 休戰반대에 대한 壓力, 그리고 休戰後의 北傀와의 軍事力 均衡을 유지케 하기 위한 事前工作 등 多角的인 효과를 노린, 政略的인 次元에서 試圖된 攻勢의 一環인 것으로 示唆되었으며 6월 15일부터 그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니, 그들의 企圖는 어찌되었든 공격준비가 15일 前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2) 작전 경과의 개요

6월 25일 : 開戰 3주년을 맞는 이날, 初夏의 蒼天에는 낮은 구름이 가득하여 血雨將至를 예고하는 듯 하였다.

사단은 前線의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龍田里의 사령부 연병장에서 10.00에 「滅共統一의 날」의 沈黙을 되새긴 다음, 이어 漣川의 사격장에서 부대 대항사격대회를 개최하

여 常勝「前進」의 鬪鬪을 다시금 가다듬었다.

그리하여 一發必中을 다루는 銃聲이 見敵必滅을 다짐하는 咆哮인양 중일토록 車灘川邊에 메아리쳤는데 이 동안에 當面의 敵도 이에 뒤질새라 이른 아침부터 간단없는 砲擊으로써 사단 前線을 擾亂코자 하더니, 해가 西山으로 기우는 것과 더불어 砲聲도 잦아들어 臨津江畔에서는 심상치않은 고요가 감돌아 흘렀다.

이 무렵인 16.00에 航空정찰결과 일단의 敵 徒步부대가 臨津江의 東岸을 따라 △167(朴고지 南北쪽 1km)쪽으로 東南向중인데 그들은 저마다 夜間識別의 標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포병의 TOT사격으로 그들의 예상집결지를 強打하였으나 그 성과를 확인치 못한 가운데 날이 저물고 말았다.

이윽고 20.00가 되어, 山谷에 땅거미가 짙어지자, 薄暮의 幽寂을 깨는 砲聲이 再發하였는데 그들의 포문이 다시 열린 것이었다.

敵砲가 그러는 火線은 사단의 右一線에 있는 Mike고지에서부터 시작하여 Queen고지(△250)—제3고지(△179)—朴고지(△199)—제1고지(표고 170m정도)를 連하여 左一線 정면의 Little Nori 고지로 이어져, 東南으로 흐르는 臨津江과 交叉되었는데 그 熾盛함이란 活火山의 噴火口의 그것과도 같았다.

예기하였던 敵의 攻波가 들이닥치는 순간이었다.

1. 제15연대의 狀況

이와같은 표격에 이어, 제15연대(장, 宋虎林 대령)는 當面의 中共 제7사단(장, 張開基)의 제19, 제20 兩연대의 공격을 받아, Mike高地와 Queen高地 그리고 제3高地와 朴高地 및 제1高地의 5개의 前哨진지에서 血戰으로 날을 밝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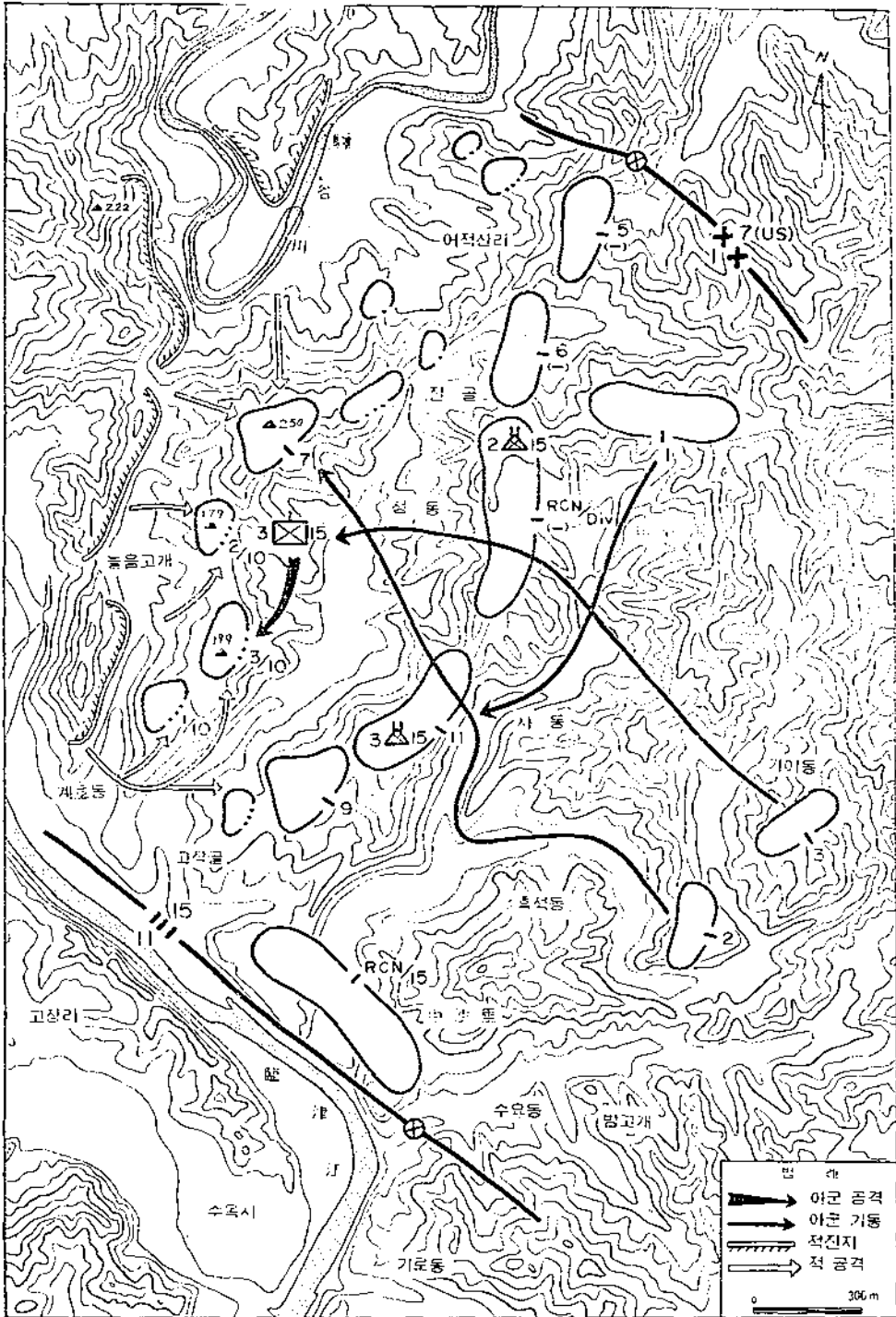
그런데 이들 敵은 1개대대 규모로써 Mike 고지와 Queen고지를, 그리고 1개연대규모로써 제3, 朴, 제1 고지를 각각 목표로 삼아 爭奪코자 하였는 바, 그 衝勢로 미루어 그들의 企圖를 판단컨대 Mike와 Queen고지에 대한 것은 牽制공격인 것으로 보였으며 제3, 朴, 제1고지의 奪取에 主眼을 둔 듯 하였다.

가) 제2대대의 續戰상황

연대의 右一線인 제2대대(장, 朴春雄 중령)의 正面에서는 그 主抵抗線의 右제1선을 맡은 제5중대(장, 朴奉勳 대위)의 1개소대가 확보중인 Mike고지와 제7중대(장, 王日濤 대위)의 Queen고지에 20.00부터 공격준비사격인 듯한 砲火가 집중되더니, 그 20분뒤인 20.20에 Mike고지 정면에 1개중대, Queen고지 정면에 2개중대 규모가 모습을 들어내었다.

그러나 驛谷川을 渡河하여 Mike고지로 들이닥친 敵은 사단의 지원포병이 「FLASH MIKE」 사격으로써 미리 준비한 火力急襲帶를 따라 그곳 전지주위에 半圓形으로 火力遮斷하니, 그

◇ 상황도 제100호 敵의 최초공격 상황(6.25)



들은 陣前에 이르지도 못한채 그 포화력에 懼伏되어 21.45에 驛谷川을 다시 건너 그 北岸으로 潰退하고 말았다.

그리고 제7중대(장, 王日浩 대위)는 △223(Queen고지 西北쪽 1km)로부터 稜線을 타고 東南向한 敵을 激戰 1시간만에 陣前에서 물리쳤는데, 한 시간이 더 지난 22.30에 1개 중대규모가 再次 이를 攻奪코자 하였으나 그곳의 중대원이 추호의 빈틈을 보이지 않고 진지를 堅守하였다.

그리하여 그들도 쉽사리 突破口를 열지 못하여 진지 주위를 徘徊하다가 포화에 屠戮되어 그 殆半을 잃고, 子正이 가까울 무렵 격퇴되고 말았다.

나) 제3대대의 緒戰상황

한편, 연대의 左一線인 제3대대(장, 李鍾鼎 중령) 정면의 제3, 朴, 제1고지를 확보중인 제10중대(장, 吳榮煥 대위)는 1개 연대규모의 強襲을 받아, 제2대대와는 달리 腥風이 소용돌이치는 血戰을 벌이게 되었다.

20.00부터 제1, 제3의 兩高地로 집중되기 시작한 敵의 포격이 20.20에 이르러 朴高地로 射向을 전환하는 가운데 岡고지 兩面の 제1, 제3고지쪽으로 각각 대대규모가 진지를 에워싸게 됨으로써 삼시간에 수류탄의 亂投相을 보게된 것이다.

제3고지(△179)의 喪失 : 중대의 제2소대(장, 李在文 소위)가 담당중인 제3고지에서는 그 西쪽 △167로부터 들이닥친 2개 중대 규모의 醜虜가 그 일부로써 고지의 西北쪽 正面으로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다른 일부로써 南쪽의 朴고지와와의 사이로 파고들어 그 背斜面으로 迂回함으로써 진지의 孤立을 피하면서 側背를 挾擊하려하였다.

그런데 이들 迂回병력은 고지의 東南斜面에 둘러쳐진 철조망과 장애물지대의 突破가 如意치 못하였던지 그곳에서 수류탄만을 어지러이 던지다가 그들의 피리와 電燈불빛의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다시 高地의 前斜面으로 돌아 가, 正面에서의 波高를 증강하였다.

그 동안에 고지 西北쪽의 敵은 소대 陣地의 壘壕를 하나씩 獵食하고, 頂上으로 綫到하였다.

그리하여 소대의 모든 通信이 杜絶된채로, 구름에 가린 十五夜의 朦朧한 月光아래 마지막까지 奮迅하던 소대장 李在文 소위 이하 7~8명의 소대원이 마침내 敵兵의 [방망이·수류탄으로 散華하게 됨으로써 敵侵이 시작된지 1시간만에 진지를 이들 兇手에 넘겨주고 말았다.

제1고지의 喪失 : 이와 때를 같이하여, 朴고지 西南쪽의 제1고지에서는 제1소대(장, 白三澤 소위)가 진지의 前後로 1개 대대 규모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때 敵은 그들의 1개 중대규모로써 △171(제1고지 西쪽 500m)로부터 高地의 西北쪽 정면을 直衝하고, 2개 중대 규모의 다른 일단으로써 고지의 西南쪽 臨津江 東岸을 따라 迂回하여 제9중대의 主抵抗線과 중대 陣地線 사이의 “고작골”계곡으로 깊숙히 파고들어 兩面공격을 試圖하였는데, 이들 迂回兵力은 그 일부로써 대대수색대가 맡고있는 Kim高地를 공격함으로

제 1고지 공격에 대한 注意力을 견제하는 가운데 고지의 南쪽으로부터 綫線을 타고 올라 側面을 挾擊하였다.

이에 朴高地의 중대장이 「FLASH 199」의 사격을 요청함으로써 지원포병이 이 고지의 西南쪽으로부터 △171와의 계곡을 거쳐 朴고지의 東北쪽으로 이어지는 弧狀의 火力帶를 急縮하여 烈火의 障壁을 이루었으나, 21.00가 지나자 敵이 陣內로 突入하기에 이르렀다.

소대장 白三澤 소위는 선임하사관 李殷出 일등중사와 더불어 M2 Car을 亂射하면서 短兵格鬪를 벌인 끝에 衆寡不敵으로 더 이상 支撐치 못하게 되어, 壕속에 들어가 入口를 막고 抵抗을 계속하였는데 그 者들의 破壞筒이 壕의 銃眼으로 날라들어 爆發함으로써 壕가 무너지고 白소위는 그 속에 파묻히는 바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고지 역시 兇敵의 手中에 넘어가고 말았는데, 白소위는 무너진 壕속에서 四晝夜를 견디어낸 끝에 29일 밤에 壕를 헤치고 나와 所持하였던 帶劍으로 敵의 哨兵 2명을 刺殺하는 즉시로 몸을 날려 고지의 東南斜面을 굴러내림으로써, 敵陣을 脫出하여 내대本陣으로 復歸하였다고 한다.

朴高地의 紛戰 : 한편 중대의 主陣地인 朴高地에서는 중대장 吳榮煥 대위가 제3소대와 본 要員을 직접지휘하여 敵의 砲彈이 雨注하는 가운데에서도 1시간동안에 세차베나 反復된 1개 대대규모의 돌격을 막아내었다. 그러나 21.30이 지난 뒤로는 左右의 肩部인 제1, 제3 兩고지가 모두 敵의 掌中에 넘어간듯 攻波의 일부가 南北의 兩面으로 綫線을 타고 들어닥치게 되어 南·西·北의 三面공격을 받게 됨으로써 危急이 頃刻을 다투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대가 渾身의 力鬪으로써 진지를 戩守하는중인 22.00에 느닷없이 일단의 무리가 진지 東南쪽 斜面의 交通호수를 누비면서 手榴탄을 連投하여 背後를 攪亂하였는데 이는 당초 고지의 西南쪽 계곡으로 기어든 그들의 일부로서, 진지후방의 장애물지대 돌파를 搜索하던 차에 때마침 KSC가 탄약을 운반하여 당도함으로써 安全通路를 열게 되자, 그 기회를 타서 KSC와 섞여 철조망안의 交通호로 闖入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제 중대는 前後左右로 포위에 빠져 四面楚歌소리를 듣게 되었는바, 驕敵은 다발 총의 銃口에 휴대용 후렛쉬를 매달아놓고 앞을 밝히면서 닥치는 대로 亂射하였는데 앞선자가 쓰러지면 뒷선자가 그 총을 집어 휘두르는 狂亂을 계속함으로써 곳곳에서 다발총성과 手榴탄 爆焰이 요란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頂上의 觀測壕 주위로 陣形을 遞縮하여 決死固守를 다짐하니, 及其出은 峯측호 부근의 洞窟 하나만이 유일한 複廓陣地로 남게 되었다.

이때 중대의 모든 有線은 무절되고, 다만 PRC—10無電機 1대만이 機能을 유지하여 중대의 命脈을 간신히 이어주었는데, 敵이 정상을 에워싸고 포위망을 좁혀들자 중대장은 선임장교 李羲秀 중위와 함께 중대원을 이끌고 동굴속에 들어가——당시 그 동굴속에는 各種실탄과 手榴탄이 備蓄되어 있었다—— 銃眼만을 내놓고 入口를 막은 다음, 頂上에 올라서는

敵兵을 一見必殺하는 저항을 계속하면서 그들이 정상에 蟻集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동굴속의 병력은 중대장을 포함하여 모두 8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 중대원은 다른 동굴이나 窟속에 들어간 것으로 보였으나, 그들 중대원과는 연락을 취할 方途가 없는 가운데 刻一刻으로 頂上에 대한 포위망이 좁혀져, 이윽고 중대관측호가 敵의 破壞筒에 폭파되는 爆音이 들리는 것이었다.

이에 중대장 吳榮煥 대위는 敵이 頂上에 모여들었다고 판단하고, 곧 PRC-10으로 대대에 요청하기를 『目下 叢叢지에는 1개 대대 규모의 敵이 頂上을 席捲하고 진지를 재편중임. 중대장 이하 일부 중대원은 동굴속에서 저항을 계속하고 있음. VT彈으로 우리의 머리를 때려주기 바람.』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연대를 직접지원하는 제58포병대대(장, 高在曄 중령)가 頂上(火力帶 CJ 1, 2, 3)에 VT彈을 퍼부음으로써 山野가 鳴動하는 곳에 月色이 塵煙에 가리워지는 것이었다.

20분 동안의 陣內射擊이 끝나자, 중대장은 그 射程을 제1, 제3고지로 變換케한 다음, 동굴속의 중대원 2명을 뽑아 頂上부근의 動靜을 살피게 한 바 도처에 敵屍가 累累하고 哭鬼가 嗷嗷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와같이하여 頂上을 다시 회복한 중대장은 대대에 병력보충을 요구하는 한편, 곧 岾山 병호를누며 19명의 중대원을 수습하고 이로써 觀測壕부근에 진지를 急編하였다. 그리고는 제1, 제3 兩고지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傳令 1명씩을 내보내었는데, 그 뒤 5분이 지났을까, 이번에는 敵의 포탄이 頂上에 集注되더니 고지의 西北山腹에서 포병의 怒號를 피하였던 胡虜들이 隊伍를 수습하여 다시 정상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중대원을 이끌고 다시 동굴속으로 들어가, 銃口만 남겨놓고 砂囊으로 入口를 閉鎖하고는 그 兩쪽에 M2 Car을 3挺씩 배치하여 敵이 동굴 入口에 이르면 일제히 熱鐵을 加하도록 하였다.

잠시뒤에 頂上을 다시 차지하게 된 그들 醜虜의 일단이 우리말로 『投降하라!』고 외치면서 동굴과 塹壕를 살살히누며 여기저기에 수류탄을 亂投하였으나, 중대원은 微動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들이 입구에 가까이 이르자 6挺의 M2 Car으로써 일제히 烈火를 吐하여 단숨에 鑿滅하였다.

그러자 중대원이 그곳에 盤據중인 것을 알아차린 듯, 다른 敵兵 3명이 TNT를 안고 銃眼을 향하여 포복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그들 역시 銃眼 가까이에 이르기 전에 중대원의 M2 Car에 모두 射殺되고 말았는데, 이에 그들은 총안에 헛사리 접근할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지 煙幕수류탄을 投擲하는 등 갖은 手段을 다하여 그 동굴과괴를 試圖하였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중대원이 그속에서 限死코 버티니, 銃擊戰만 요란하게 계속되는 가운데 어느 덧 子正을 넘기게 되었다.

다) 연대장의 措置

한편 이와같이 연대의 左右一線에서 同時에 敵의 攻波가 들어닥쳐 紛亂이 惹起되자 赤巨里의 CP에서 參謀陣과 더불어 戰況의 推移를 注視한 연대장 宋虎林 대령은 敵의 企圖가 朴高地일대의 奪取에 있다고 判斷하고, 同대대에 예비기² 없어 그 自力으로서는 진지의 확보가 힘겨울 것이라고 勘案한 결과, 右一線 제1대대가 Mike고지와 Queen고지에서 妖火를 制壓한 21.30에 연대예비인 제1대대(장, 崔鳳道 중령)로 하여금 제1선을 赴援토록 다음과 같이 措置하였다.

『제1대대는 各 1개 중대로써 Queen 고지와 朴고지를 赴援토록 하고, 1개 중대는 제11중대 OP고지로 推進하여 後命을 待機케 하라. 제1중대는 21.30부로 제2대대 配屬을 해제한다.』

이에 同 제1대대는 Iceland線에서 예비진지를 확보중인 大대 主力 제2, 제3 兩중대 가운데 제2중대로써 Queen고지를, 제3중대로써 朴고지를 각각 赴援토록하고, 제2대대에 배속되어 同대대 主抵抗線 후방의 △243(Queen고지 東쪽 2km)부근에 待機중인 제1중대를 제3대대 主抵抗線의 제11중대 OP(朴고지 東쪽 1.3km : 표고 190m 정도 無名高地)로 推進하였다. 그리하여 제2, 제3 兩 중대는 21.45에 集結地를 출발하여 前線으로 급히 달려가게 되었다.

2. 제11연대의 狀況

이 무렵, 사단의 左一線인 臨津江 西岸의 제11연대(장, 崔周鍾 대령) 정면에서도 그 右一線인 제1대대(장, 朴春光 중령)의 제3중대가 확보중인 Little Nori고지(朴고지 南쪽 2.2km)와 Bubble고지(Little Nori고지 南쪽 800m)에 각 1개 중대 규모의 敵이 그들 砲兵지원 아래 同時 併略을 企圖하였다.

이에 同제3중대는 포병의 「FLASH NORI」 사격을 要請하여 제59포병대대(장, 金文植 중령)의 집중포화로써 彈幕을 둘러켰으나, 敵의 그것도 이에 못지않아 彼我의 포탄이 고지정상에 雨注됨으로써 Little Nori고지에서는 通信이 杜絶되는 가운데 21.30부터 敵兵과 수류탄을 서로 주고받는 混戰을 벌이게 되었다.

Bubble 고지에서도 21.50부터 그 右側으로 迂回한 한패와 더불어 이 또한 수류탄으로써 狂亂하는 樣相을 展開케 되었는데, 이런 중에서도 同중대가 兩고지에서 버티어내니 22.10에 靑色신호탄 1발을 신호로 Bubble 고지의 襲波는 불러가고, Little Nori 고지에서단이 子正이 넘도록 爭奪을 계속하게 되었다.

이에 사단장이 Nori고지부근의 敵侵은 我方의 注意力 분산을 企圖한 陽攻이라고 판단한 결과, 사단의 모든 火力을 제15연대 정면에 集中發揮코자 Little Nori고지를 일시 拋棄함으로 여가서의 紛亂을 終熄시키기로 決心함에 따라, 연대장 崔周鍾 대령은 同고지의 제3중대로 하여금 Bubble고지로 철수토록 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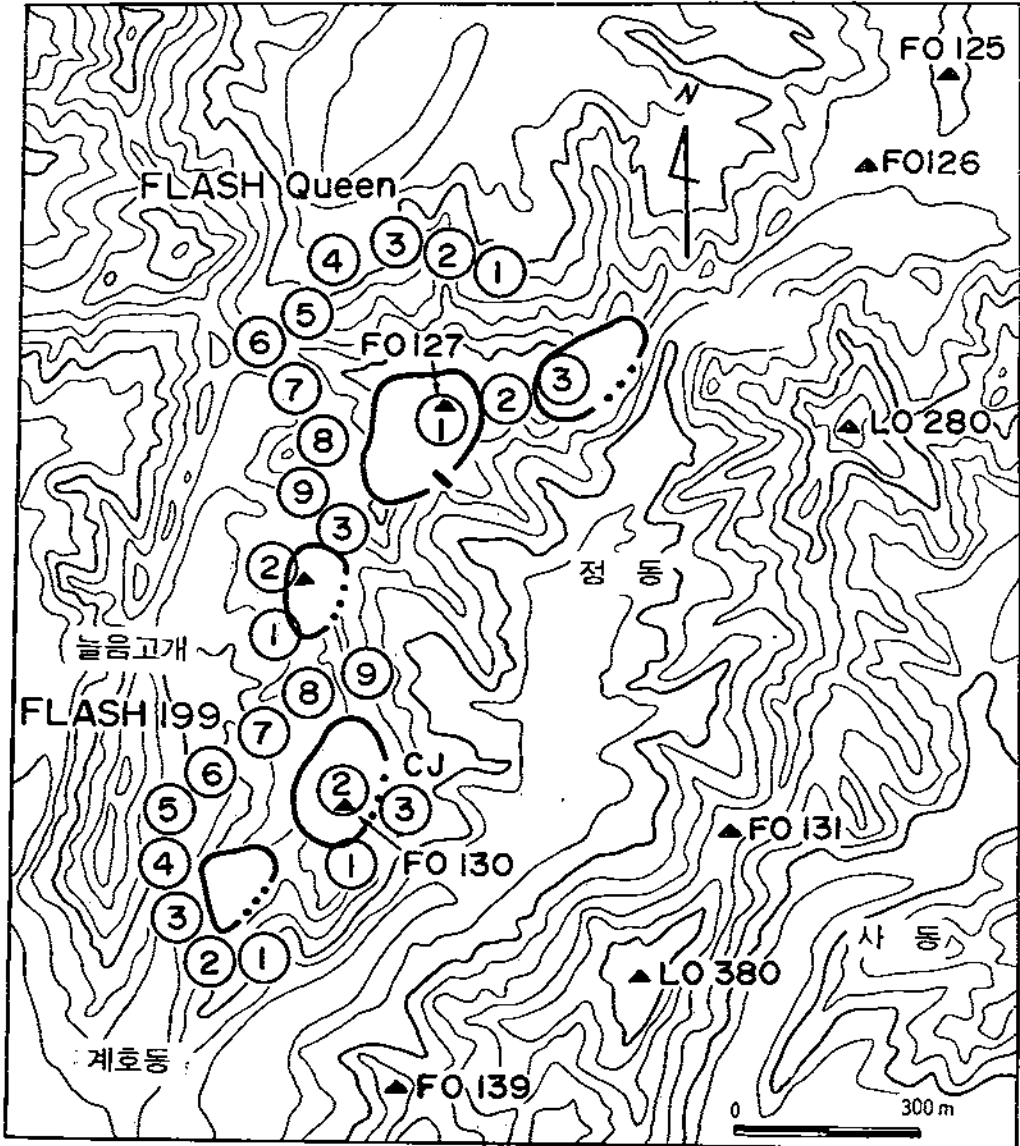
그리하여 그²이튿날인 26일 03.00에 제3중대가 Little Nori 고지에서 隨意철수함으로써 그 곳에서는 잠시 紛戰이 그치게 되었는데, 이 고지의 확보는 날이 밝은 다음 狀況의 進前에 따라 伸縮性 있게 對處키로 한것이니, 이는 敵이 이를 한때 占有한다 하더라도 地形의으로

보아 그들의 侵勢를 거기에서 能히 抑留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았던 까닭이리라.

3. 포병지원 狀況

以上과 같은 敵의 공격이 시작되자 사단포병단(장, 宋贊鎬 대령) FSCC는 敵이 제15연대 정면 차고지 爭奪에 主眼을 두고, 제11연대의 Little Nori고지부근에서 牽制한다는 판단에 따라, 同 제11연대 정면은 그 직접지원의 제59포병대대(장, 金文植 중령)만으로써 露面的 攻波를 制壓토록하는 가운데 火力支援의 優先權을 제15연대 정면에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 상황도 제101호 Queen—朴고지의 砲火網



Queen 교지에는 군단지원포병인 美제57포병대대(105mm 곡사포)와 제936포병대대(155mm 곡사포) 및 사단 重砲중대의 4.2"重박격포 1개 소대로써 지원토록하고, 杓교지와 제3교지에는 직접지원대대인 제58포병대대(장, 高在暉 중령)와 일반지원의 제17포병대대(장, 金韓柱 중령) 및 제91포병대대(장, 金易壽 중령)를 비롯하여 군단포병의 美제999포병대대(155mm 곡사포)와 제17포병대대(8"곡사포) 그리고 제159포병대대(240mm 곡사포)와 제204포병대대(155mm 평사포) 등 7개 포병대대와 사단 重砲중대의 4.2"重박격포 2개 소대로써 制壓토록하여 火力支援을 分擔하였다.

따라서 杓교지에 대한 火力支援의 방식에 있어서는 최초 敵의 공격이 시작된 20.30부터—杓교지에 配置된 FO의 要求에 따라—8분간에 걸쳐 FLASH 199 사격을 실시한 다음, 그 뒤로 要請에 따라 射面을 집중하는 On Call 사격으로 轉換하였는데, 8"곡사포인 美제17포병대대와 155mm 평사포인 제204포병대대 및 240mm 곡사포인 제159포병대대는 對砲兵戰에, 기타 155mm 곡사포는 敵의 집결지 强打와 接近路 차단에 注力토록 強調하였다.

그리하여 사단前線에서는 終夜不斷으로 熱風이 화오리치는 가운데 峰上마다 焰煙이冲天하고 때아닌 雷霆이 臨津江畔을 뒤흔들게 되었다.

4. 사단장의措置

한편, 사단장 金東斌은 사단의 左右一線에 敵의 侵攻이 시작되는 즉시 그들의 支援 火力과 動員병력의 규모로 보아 그 企圖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결과, 제15연대가 Queen 과 杓교지에서 激戰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 예비대를 同연대 정면에 집중 指向키로 하고, 21.00에 作命 제97호를 下達하였는데, 그 要諦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現 MLR 방어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Mike-Queen-「杓」-Nori高地에 侵攻한 敵을 擊滅하려 한다.

② 제15연대는 今夜 21.00부로 제12연대의 1개대대를 統合指揮하고 當面の MLR 및 OPL 을 확보하라. 但, 이 豫備대대의 전투參加는 사단장의 事前承認을 要한다.

③ 제12연대는 今夜 21.00부로 1개대대를 제15연대에 配屬조치하라. 연대主力은 赤巨里 부근에 집결하여 後命을 기다리라.』

이에 제12연대장 李吉泳 대령은 21.00부로 臨津江 南岸의 江內里부근 예비진지에 집결중인 제1대대를 제15연대에 배속조치하고 이와 아울러 연대의 前方지휘소를 제15연대 CP가 위치한 赤巨里로 推進하는 한편 제2, 제3 兩대대를 그 南쪽 1km에 집결토록 하였다.

이에따라 제1대대(장, 康永傑 중령)는 사단에서 긴급지원된 車輛 20대로써 22.50에 現 집결지에서 機動을 시작한 바, 제15연대장의 지휘下에 발길을 재촉하여 그 이튿날 26일 04.00에 제1중대는 그곳 제15연대 제11중대 OP부근에, 그리고 제2, 제3 兩 중대는 同연대 제9중대의 主抵抗線진지 南麓 下端的 “고작골” 제곡에 각각 집결하였다.

그리고 제2대대(장, 韓國贊 중령)는 22.20에 臨津江 東岸의 仙谷里부근 집결지를 떠나 이

역시 26일 01.10에 上梅洞(赤巨里 東南쪽 1.5km) 부근의 舍水里—赤巨里間의 道에 집결하여 장차 제15연대 右一線 정면의 投入을 대비하였으며, 제3대대(장, 全子烈 중령)는 22.40에 臨津江西岸의 北三里에서 출발하여 子正무렵에 上梅洞 西南쪽 1km에 집결하여 同연대 左一線 대대 정면을 지켜보게 되었다

6월 26일 : 이날도 전날에 이어 차고지에서 血戰이 계속되었다.

10.00에 軍단장 Clarke소장이 軍단포병단장과 左隣接인 제1英연방사단장 West 소장을 帶同하고 사단을 訪問하여 軍단火力 및 人접부대 火力의 지원을 協調케 하였는데, 사단장과 함께 제15연대 CP에서 2시간 가까이 現地指導로서 차고지 恢復을 奮勵한 바 있었다.

그리고 13.00에는 때마침 東京을 방문중인 美육군참모총장 Collins대장이 제8군사령관 Taylor대장과 함께 戰線巡訪차 사단을 방문하여, 中共 2개연대규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爭奪이 빚어진 차고지의 戰況에 非常한 關心을 表明하기도 하였다.

1. 제15연대의 狀況

제15연대(장, 宋虎林 대령)는 전날 子正을 넘어서면서 제1, 제3 兩고지를 喪失하였음이 確然히 들어난 가운데 차고지에서는 血戰중에 날을 밝히게 되었다.

가) 제1대대의 進擊

전날밤 연대장의 進격명령에 따라 夜暗속에서 제11중대 OP로 急進한 제1대대(장, 崔鳳道 중령)는 그곳에 대대 OP를 開設하는 한편 중대별로 각기 부여된 목표를 확인하여 VT彈의 火力이 뒤덮고 있는 고지를 奪還코자 睡手興起하였다.

제2중대의 Queen 고지 赴援 : Queen고지의 赴援任務를 맡은 제2중대는 3시간 30분만에 Iceland線의 예비진지에서 4km의 險路를 踏破한 끝에 01.20에 제5고지(Queen고지 南쪽 500m : 표고 150m정도)를 거쳐 Queen 고지에 進出한바, 이때 敵은 그곳 제7중대(장, 王日浩 대위)의 堅守로 두차례의 血戰을 치른 끝에 격퇴된 다음인지라 대대장 崔鳳道 중령에 따라 그곳은 제7중대에 계속 맡겨두고, 그 西南쪽의 제3고지로 銳氣를 몰아나가게 되었다 따라서 중대는 먼저 1개소대를 뽑아 Queen고지에서 西南쪽으로 뻗어 제3고지와 이어진 稜線을 따라 내려, 同고지의 東北側背를 공격케 하였다.

그러나 제10중대 제2소대의 진지를 奪取한 일단의 무리가 頑強한 抵抗을 보여 陣前接近이 수월치 않았으므로 03.40에 중대 主力을 모두 投入하여 攻擊力을 증강하였는데, 그러나 아직도 8부능선의 敵線돌파가 容易치 못하여 Queen고지와 稜線에서 一進一止만을 반복하는 사이에 死傷者만이 늘어났다.

이에 중대는 날이 밝기전에 그 東쪽의 제5고지로 물러났다가 10.00에 제11중대의 OP로 反轉하게 되었다.

제3중대의 차고지 爭奪 : 한편, 차고지를 赴援키로 된 제3중대(장, 洪完基 대위)는, 集結地를 떠난지 2시간이 지난, 전날 子正무렵에 차고지 東北쪽의 제5고지에 進出하여 隊伍를 가

다들은 다음, 이날 00.30에 제1, 제2, 제3의 3개소대를 모두 제1선에 併例하여 西南쪽으로 돌아내렸다가 山腹을 타고 頂上으로 치달아 올랐는데 01.00에 敵前의 突擊線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全 중대원이 일제히 함성을 드높히면서 踴躍하여 敵陣의 罅隙으로 突入함으로써 銃劍이 부딪치는 短兵接戰을 벌인 끝에 01.20에 기어코 정상에 손에 넣게 되었다.

이에 중대는 그곳 동굴속의 제10중대원과 合勢하여 정상部位의 壕溝속으로 숨어든 殘敵을 剔抉하고, 목표탈취의 신호탄을 높이 올렸다.

이리하여 杓高지를 확보하게 되자, 대대장은 Queen고지로 부원된 제2중대의 제3고지 공격에 호응하여, 그 西南쪽의 제1고지마저 手中에 넣도록 하였다.

중대장 洪完基대위는 제1고지 탈취명령에 따라 1개소대를 杓高지 정상에 남겨 제10중대장 指揮下에 同 중대원과 더불어 그곳 진지를 再編토록 하고, 2개소대로써 그 西南쪽 稜線을 따라 목표 제1고지 공격에 나섰는데, 이때인 02.00부터 敵의 砲火가 杓高지頂上에 集注되면서 그 爆焰을 標的으로 삼아 △171쪽에서 대대규모의 敵이 고지의 四方을 에워싸고 攻奪을 再開한 까닭으로 제1고지를 向하던 중대의 銳鋒이 指向한 敵陣에 이르기전에 이를 衝波에 철썩리게 되었다.

따라서 山腹의 夜暗을 헤치던 중대(-)는 진지를 急編할 餘裕를 얻지 못한 탓으로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포병의 掩護를 받으면서 제5고지로 隨意철수케 되었으며, 杓高지 정상의 나머지 중대원과 제10중대원은 다시 동굴속에 들어가 接敵을 피하게 되었다.

제1중대의 杓高지 增援 : 이와같이 杓高지를 奪取한 제3중대가 제1고지로 나아가던 중에 또한 차례의 突風에 부딪드리게 되었다는 報告에 接한 대대장 崔鳳道 중령은 同중대가 杓高지에서의 陣地進入에 시간의 餘裕가 없음을 감안한 결과 이를 제5고지로 뽑아내리는 한편, 杓高지의 敵은 포병의 陣內사격으로써 殲戮키로 하되, 제11중대 OP부근에 대기중인 제1중대를 제5고지로 급히 전진시켜 이로 하여금 杓高지에 VT彈 사격이 끝나는 즉시로 同 고지를 다시 확보토록 하였다.

이 동안, 高地정상 一角의 동굴속에 제10중대장 吳榮煥 대위 以下 제10, 제3 兩 중대원 일부가 전날 밤과 같은 抵抗을 계속하는 가운데 敵이 그들 頭上에 쏟아지는 鐵片을 뒤집어 쓰면서 交通壕속으로 闖入하여 진지를 다시 차지하게 되고 말았다.

한편 제1중대(장, 尹泳鎬 대위)는 02.40에 제11중대 진지에서 躍出하여 제5고지로 나아가 04.30에 同고지에 이르는 즉시로 黎明을 타서, 그곳의 제3중대(-)와 合勢하여 이를 공격 발판으로 삼아 南쪽으로 돌아내렸다가 목표 杓高지 東쪽 稜線下端에 이르러 그 頂上으로 向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중대는 東天의 구름속에서 아침 해가 솟는 05.20에 목표 東쪽의 8부稜線에 肉迫하였는데, 이때까지도 그곳에는 鐵條網등 장애물 지대가 阻絶機能을 그대로 발휘하고 있어, 중대원의 進路개척이 쉽지 않았다. 그리고 그 위에 진지後方 交通壕와 연결되는 通路의

人口에는 그 주위에 當初 我軍이 마련한 몇개의 掩體壕에 中共兵 4명씩 配置되어 3개씩 묶은 방망이 수류탄을 연달아 굴러내리는가하면 다른 散兵壕에서도 2~3명씩 組를짜서 수류탄을 連投하여 中대의 접근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이에 敵은 我方이 設置한 阻絶設備를 오하려 敵이 逆利用하여 效果를 보는 셈이라, 그야말로 氣高萬丈하였는데 어떤者는 壕속에서 怪聲을 지르기도 하고 또 어떤 者는 壕밖에 나와 서서 주먹을 내흔들어, 戰意가 旺盛함을 뽐내는 것이었다.

이에 中대장 尹泳鎬 대위는 이와같은 敵兵의 放恣한 모습에 扼腕奮起하여 中대의 先頭에 나서 수류탄 두발을 던져 交通壕 入口의 철조망을 끊어 突破口를 打開한 다음, 『나를 따르라!』하고 大號하며 敵陣으로 뛰어드니, 이를 본 中대원의 저마다 白刃을 뽑아들고 앞을 다투어 陣內로 突入하였다.

이리하여 中대원의 怒號 한번으로써 敵의 怪聲을 制壓하고, 劍閃一輝로써 휘두르던 그들 주먹을 모조리 베어 넘기자, 그 氣勢에 당치 못한 그들 일부가 진지를 버리고 고지의 西北斜面으로 潰走하므로 背射를 加하여 이를 屠戮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진지 一角을 탈취한 中대는 後續한 제3중대와 더불어 角에서 隅로 突破口를 확대하여 頂上으로 뛰어오르려는 순간, 고지 西北斜面으로부터 增援次 들이닥친 그들 中대 규모와 격돌하게 되어, 頂上을 놓고 30여 분동안 白兵으로 對決케된 결과 입사리 勝負가 가늠되지 않은채로 彼我的 出血만을 본 끝에 敵兵이 陸續增強되었으므로 力不足으로 끝내 정상 다른 쪽의 동굴속에서 赴援을 기다리는 제10중대원과 連繫치 못하고 06.00에 8부능선으로 한걸음 물러서고 말았다.

나) 연대장의 措置

제12연대 제3중대의 出擊 : 한편 이와같이 연대가 예비인 제1대대의 3개 中대를 모두 充當하여 杓고지의 恢復을 圖謀하였으나, 이에 맞선 敵이 40,000발의 포탄과 3개대대 규모를 投入한 것으로 판단되는 物量을 誇示함으로써 彼我的 損失만 累增케 되었을뿐 그 企圖達成이 如意치 못하게되자, 연대장 宋虎林 대령은 전날 21.00부로 배속받아 예비를 확보중인 제12연대 제1대대로써 다시 한번 杓고지의 殲敵과 決戰키로 作定하고, 사단作命 제97호에 따라이의 使用에 대한 承認을 사단장에게 稟申한 바, 사단장이 즉시 다음과 같은 要旨로 그를 內諾하였다. (作命 제97호 追加 1호로 08.00부 書面下達)

『① 제15연대는 本日 09.00를 期하여 既 배속중인 제12연대 1개대대로써 杓고지를 奪取하라.

此 공격間 제1해병연대 전차중대 외에 제3전차대대 제2중대의 1개 소대를 통합지휘하라.

② 제3전차대대 제2중대는 現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本日 09.00부로 1개 소대를 제15연대에 배속조치하라.』

이에 연대장은 08.10에 차고지 東쪽 8부능선에서 鬨를 파면서 頂上의 敵과 對峙중인 제1대대(一)를 主抵抗線으로 反轉케 하는 한편, 지원포병과의 협조를 거쳐 제12연대 제1대대장 康永傑 중령에게 이르기를 『1개 중대로써 09.30을 期하여 차고지를 공격하여 該高地에 있는 제10중대원을 救出하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同대대는 이날 04.00에 主抵抗線의 제9중대진지 南쪽에 집결한 제3중대를 09.00에 同제9중대 진지로 추진하여 이로 하여금 同중대 陣前의 “고작골” 계곡을 LD로 삼아 제10중대장이 위치한 동굴과 가장 가까운 거리인 차고지 南쪽 능선으로 방향을 잡아 공격토록 하였다.

제10중대의 救出 : 이 동안에 차고지 東麓의 제1대대(장, 崔鳳道 중령)(一)는 08.50에 당면의 敵과 접촉을 끊고 물러나 10.00에 제11중대 OP 南쪽에 집결케 되었거니와 새로이 차고지 공격임무를 부여받은 제12연대 제3중대는 09.30에 LD를 躍出하여 목표 차고지의 南쪽으로 쫓아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때 主抵抗線의 제9중대가 火力으로 제1고지의 敵을 견제하였으며 제11연대 수색중대진지인 △264(차고지 南쪽 4.5km)의 現地에서 연대에 배속된 전차 1개소대와 이미 연대를 지원중인 해병전차중대가 이 공격을 重點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매마침 山谷을 적시는 細雨が 霏霏한 가운데 山腹을 기어올라, 敵火를 헤치면서 區間躍進하여 10.40에 8부능선에 이르러 그곳에 火力據點을 마련한 敵과 멀리서는 鐵火를 교환하고, 가까이에서는 수류탄을 주고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돌파구를 열지 못하고, 山腹에 滯留된채로 正午를 넘기게 되었다.

한편, 頂上의 동굴속에서 이와같은 救援연락을 無線으로 接한 제10중대장 吳榮煥대위는 이런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救援의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판단한 결과 全滅을 賭하는 一戰으로 死生을 決斷하기로 作定하고 동굴속의 중대원에게 이르되, 『지금 救援중대가지 동굴 바로 南쪽 斜面에서 紛戰중이다. 敵은 그 我軍을 阻止하기에 안간힘을 다하고있으니만큼, 우리에게 注意를 집중할 餘力이 없을 것이다. 이때에 우리가 救援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自活策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必死則生이니 모두들 決死의 각오로 나를 따르라.』고 한 다음, 앞장 서서 동굴의 入口를 열고 뛰어나갔다.

그리하여 중대장을 跟隨하여 달려나간 제10, 제3 兩 중대원들이 고지의 南斜面쪽으로만 단 눈을 둔 채 수류탄 굴러내리기에 餘念이 없는 敵의 덜미로 달려들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수류탄을 던지면서 M2 Car을 亂射하니, 敵은 느닷없이 동 뒤로부터 不意의 急襲을 받아 磨滅混濁한 나머지 倉卒間에 戰伍가 亂麻와 같이 얽혀들고 말았는데 그들은 火力이 指向할 바 갈피를 잡지 못하여 혹은 銃부리를 급히 돌리다가 결의 僚兵을 쏘기도 하고, 혹은 수류탄을 높이 던져로 前後를 瞻顧하다가 얼떨결에 自爆을 하기도 하였으며, 다만 그 渦中에서 左衝右突하는 중대장과 중대원의 阿修羅와 같은 모습만이 마치 無人之境을 누비 듯 하였을 뿐이었다.

이에, 그 南斜面에서 敵線돌파에 難澁을 거듭하던 제12연대 제3중대가 이 好機를 看破하여 白刃을 높이 쳐누고 劄員突擊을 敢行하니, 잠시 뒤에는 彼我의 포성도 그치고 오직 白兵의 함성만이 온 산에 가득하였다.

이어, 치닫는 중대원의 발길에 悲鳴이 구르고, 劍尖에 碧血이 狼藉하는 醜虜屠戮의 장면이 한동안 展開된 끝에 기어코 중대가 제10중대원의 손을 잡아 고지 정상에 올라서게 되었는데, 이때가 13.00 正刻으로, 一夫의 勇猛이 百人의 危局을 打開한, 참으로 壯快 그것이었다.

이리하여 제10중대장을 비롯한 고지의 驍雄은 前後 17시간에 걸쳐 敵中의 고지 일각을 頑守하면서 이의 奪還에 一役을 기여한 다음, 그곳에서 철수하여 14.30에 제11중대 OP 南斜面에 집결케 되었는데, 여기서 수습된 중대원은 모두 33명이라고 하였으니, 이 血戰一夜중에 중대원의 대부분이 각 고지에서 壯烈하게 散華한 것이다.

殊勳의 중대장 吳榮煥대위는 뒷날 乙支武功勳章을 수여받았는데, 그는 黃海道 碧城사람으로서 그때 27세라 하였다.

디) 제12연대 제1대대의 出擊

한편, 渾身の 力鬪로 차고지를 奪還한 제12연대 제3중대는 그곳에서 미처 진지재편도 하기전에 敵 포화의 集中과 동시 1개대대 규모의 逆襲이 들이 닥쳐 또 한번 紛亂을 보게 되었다.

이에 支援砲兵이 「FLASH 199」로써 그들의 侵攻을 막기는 하였으며, 이때 중대는 이미 頂上에 올라서는 과정에서 입은 損失이 적지않았던 터이라, 南·西·北 三면으로 彈幕을 넘어 기어드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까닭으로 14.00를 前後하여 再次 정상을 敵에게 내어 주고 高地南쪽으로 물러나게 되고 말았다.

이와같이 戰況이 逆流를 타게되자, 연대장 宋虎林 대령은 그들과 對應할만한 戰力이 要求된다고 판단한 결과 중대별의 逐次투입을 止揚하고, 同대대 全力으로써 차고지 恢復공격을 再舉토록 하였다.

그러하여 同 제1대대장 康永傑 중령은 지원부대와 協調를 거쳐 15.00에 要旨 다음과 같은 命을 하달하여 공격재개 준비에 들어갔다.

『① 차고지(△199)는 또한번 兇敵의 掌中에 들어갔다. 대대는 全力으로써 이 고지를 탈취하려 한다.

② 제2중대는 공격右제1선으로써 목표 東쪽을 공격하라.

③ 제1중대는 공격左제1선으로써 목표 南쪽을 공격하라.

④ 제3중대는 現진지에서 제1중대의 공격을 支援하라.

⑤ 각 중대는 공격개시 25분전까지 공격 待機線에서 공격준비를 완료하라.

⑥ 공격개시선은 다음과 같다.

右제1선 : 朴고지 東쪽 능선 下端

左제1선 : 朴고지 南쪽 능선 下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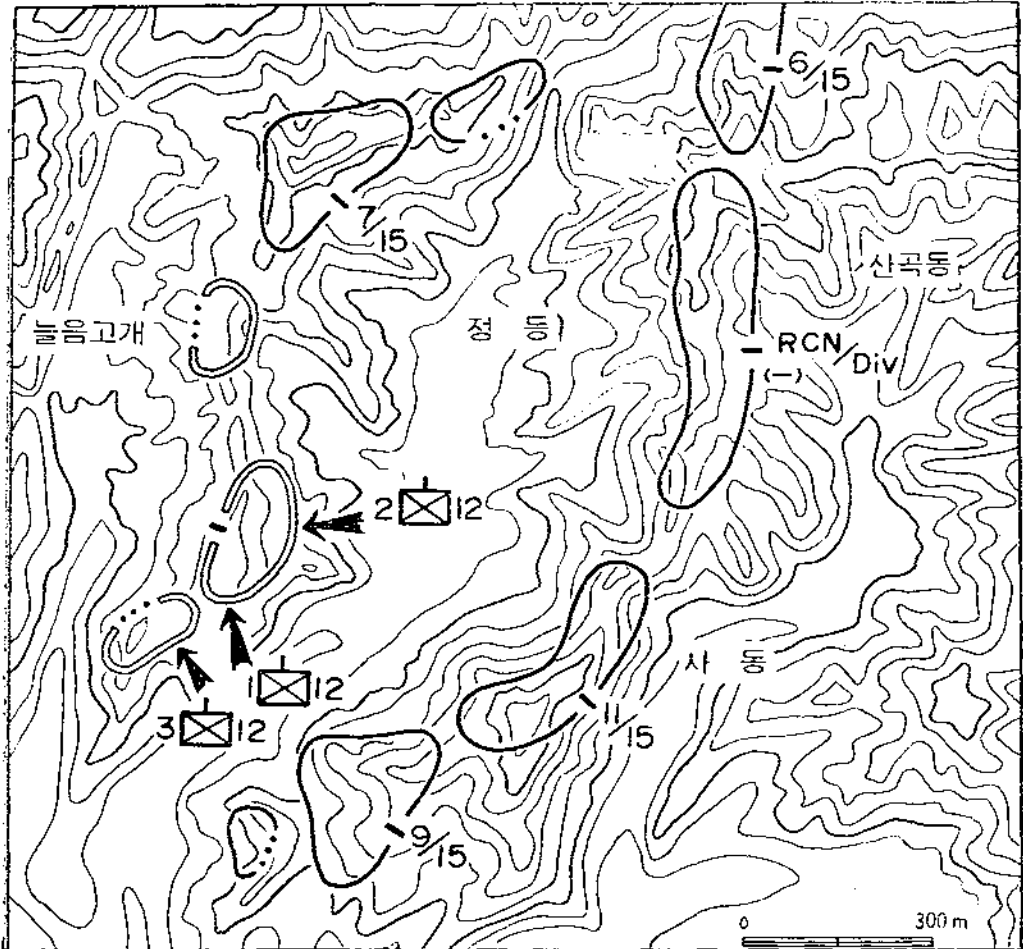
⑦ 공격개시시간은 今曰 15.45이다.

⑧ 공격間 대대지휘소는 △242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공격右제1선을 맡게된 제2중대는 제15연대 제9중대의 主抵抗線 南쪽 集結지를 04.00에 떠나 공격대기線인 제5고지에 15.20까지 진출하였으며, 역시 04.00에 同연대 제11중대 OP부근에 集結한 제1중대는 제3중대 진지—朴고지에서 철수하여 그 南쪽 下端에 急繩 진지를 마련하고 새로운 공격의 발판을 굳히고 있는—그곳으로 躍出하여 이도 또한 15.20을 前後하여 同제3중대와 合勢함으로써 서로 隊伍를 가다듬었다.

그리하여 예정된 15.45에 공격 左右제1선 중대는 LD를 건너뛰어 목표고지의 山腹을 타

◇ 상황도 제102호 제12연대 제1대대의 공격상황(6.26)



기 시작하였는데, 이 동안 Queen고지에서의 監視에 의하면 敵은 계속 제3고지와 차고지에 병력을 증강하여 사단포병의 妨害를 무릅쓰고 계속 진지를 強化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 바 이와같이 敵이 白晝에 爭奪戰을 서슴치 않는 점이라던지 兵力移動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점등은 前例 없던 것으로서 이는 이 고지의 확보에 대한 그들의 執念을 보이는 것이었다.

彼我의 포화가 燄天을 뒤흔드는 가운데 대대는 彈雨를 헤치고 步一步로 고지의 東쪽과 南쪽에서 各各 8부 稜線에 이른 16.30을 前後하여 서로 火力을 교환하다가 그 한 시간 뒤인 17.30부터는 수류탄을 주고받는 白熱戰으로 激化를 보게되었다. 그러나 그곳을 戢守중인 2개대대규모나 되는 頑醜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敵前에 膠着되어 突擊의 好機를 얻지 못한 채로 死傷者만 속출하는 苦戰에 빠져들었는데, 이런 가운데 30여분이 더 지나게 되니 대대의 銳氣가 鈍化되고, 砲煙彈雨속에서 점차 非勞로 불려 凋色이 蒼然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勝算이 서지 않는 싸움에서 出血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단장의 承認을 얻어 18.00에 대대를 主抵抗線으로 철수케 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제1, 제2 兩 중대는 19.30을 前後하여 사단 수색중대 진지 後方에, 그리고 제3 중대는 19.00를 前後하여 제15연대 제9중대진지 後方에 각각 집결하였는데, 이날 연대 정면에서 확인된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損 失	
遺棄屍體	390具	戰 死	280名
殺傷推定	1,200餘名	負 傷	363名
		失 踪	18名

2. 제11연대의 狀況

이날 사단의 左一線인 제11연대(장, 崔閔鍾 대령) 정면에서도 散發的인 銃砲聲이 그치지 않았다.

03.00에 Little Nori 고지에서 철수한 제3중대는 해가 뜬 다음인 05.30에 2개분대를 뽑아 同고지로 올려보내어 敵의 動態를 探知케 한 바, 그 곳에는 소대규모의 敵이 그 主人 行세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07.00에 Bubble 고지에 집결중인 중대의 제1소대로써 이의 奪還을 試圖하여 擊退 끝에 고지를 다시 手中에 넣게 되었다.

그 뒤로 낮 동안 중대는 별다른 接敵없이 고지를 固守하다가 해가 진 19.40에 여기서의 紛戰을 피하기로한 사단장의 措置에 따라 소대원을 Bubble 고지로 隨意철수시켰는데 중대는 이날 Nori고지 일대에서 俘虜 4명과 다발총 4정을 얻고 遺棄시체 100여구를 확인하는 戰果를 거둔 반면 戰死 10명과 負傷 13명의 損失을 보았다.

3. 사단장의 措置

한편, 사단장 金東斌 준장은 右一線인 제15연대가 配屬된 제12연대 제1대대로써 杓高지 遡回에 壯力하고 있는 동안 여기서 보여준 中共의 戰意로 미루어보아, 그들이 반드시 Queen 고지의 要衝도 齧噬코자 할 것이라고 忖度하고 KSC 1개중대를 動員하여 이로 하여금 전날 밤에 破損된 Queen고지의 진지를 改修토록 하였으나 終日토록 熾盛한 포화로 말미암아 그 贊効를 거두지 못하고 날이 저물게 되고 말았다.

이에 또 제15연대(장, 宋虎林 대령)의 杓高지 공격이 遲遲不進을 거듭하는 가운데 日沒이 가까워지자 사단장은 예비인 제12연대(장, 李吉泳 대령)에 이의 奪還임무를 부여하여 同연대장의 責任下에 다음 날의 黎明공격으로써 雌雄을 決하기로 方針을 정하였는데, 이것이 20.00부로 晝面下邊된 作命 제98호인 바,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師團은 兇敵 手中에 있는 一丘一谷이라도 이를 期於코 奪還하러 한다.

② 제12연대는 6.27. 04.00를 期하여 1개대대규모로써 杓高지를 奪還하라.

㉠ 제1대대를 통합지휘하라.

㉡ 공격間 제3전차대대 제2중대의 1개 소대를 배속한다.

㉢ KSC 제27중대의 2개 소대를 배속한다.

㉣ 공병 1개 소대를 배속한다.

㉤ 作戰地域의 제15연대 및 해병전차중대와 긴밀한 協調를 유지하라.

③ 제15연대는 現 위치에서 제12연대의 공격을 火力支援하라.

6.27. 04.00부로 제12연대 제1대대의 배속을 해제한다.

④ 제11연대는 現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⑤ 공병대대는 공격개시 2시간 전까지 공병 1개소대를 제12연대에 배속조치하라.

⑥ 제2전차중대는 공격개시 2시간 전까지 1개소대를 제12연대에 배속조치하라.

⑦ 해병전차중대는 제12연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이에 제12연대장 李吉泳대령은 01.10에 上梅洞에 集結하여 待機중인 제2대대로써 공격일선으로 삼기로 하고, 18.00에 同대대를 공격대기지점으로 추진하는 예비명령을 下達하여, 제15연대에 配속되어 杓高지를 공격 하다가 主抵抗線으로 물러난 제1대대를 당초 同대대의 예비진지로 뽑아 돌리는 한편, 제2대대를 제15연대 제9중대 진지 後方으로 集結케 하였다.

그리하여 제2대대(장, 韓國贊 중령)는 日暮의 山麓을 감도는 烟霧속을 踏破하여 19.20에 △242 南쪽계곡의 集結지에 이르러 輜饋를 서두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1대대(장, 康永傑 중령)는 杓高지 공격임무를 同제2대대에 인계하고 20.50에 現 集結지를 떠나 그 이튿날인 27일 01.30에 江內里 부근의 당초의 離地진지로 復歸하였다.

6월 27일 : 이날도 血戰의 하루였다.

사단장 金秉弼중장이 赤巨리의 제15연대 CP에 開設한 사단 前方지휘소에 10.30에 軍단장 Clarke소장이 空路로 到着하였는데, 專用 helicopter가 着陸하자 마치 이를 기다리고 있거나 한듯 敵砲火가 집중되어 機體의 後翼부분이 直擊彈에 破損을 입고 軍단장이 간신히 危機를 모면하는바 되었으니, 이와같은 敵의 狂亂으로 말미암아 戰況은 헤아릴 수 없는 混迷一路로 치달기만 하였다.

1. 제12연대의 抄고지 攻擊狀況

전날의 사단 作命제98호에 의거, 새로이 抄고지 奪還에 主役을 맡게된 제12연대(장, 李吉泳 대령)는 지금까지의 爭奪경과로 미루어 보아 抄고지만을 恢復하여서는 아의 계속적인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S-3 金完柱소령의 판단에 따라, 목표 抄고지 北쪽의 제3고지와 Queen고지로 연결되는 相互支援태세를 要한다는 결론을 얻고, 今次공격에는 제2대대의 全力으로써 제3고지를 아울러 탈취키로 하였는데, 연대장 李吉泳 대령의 腹案은 이러하였다. 『① 1개 중대로써 제3고지를, 2개 중대로써 抄고지로 同時에 攻略한다.

- ② 공격間 제3대대의 81mm박격포 4문과 제15연대 제3대대의 81mm박격포 4문을 제2대대장 지휘下에 둔다.
- ③ 전차소대는 抄고지 공격을 重點적으로 지원한다.
- ④ 공격개시 30분전에 포병의 공격준비 사격을 실시한다.
- ⑤ 공격間 연대장은 제2대대 OP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제2대대장 韓國贊 중령은 제5중대로써 제3고지를, 그리고 제6, 제7 兩 중대로써 抄고지를 공격케 하되, 抄고지에서는 제7중대를 그 右제1선으로, 제6중대를 左제1선으로 삼았는데 제7중대는 抄고지에서 東쪽으로 나란히 뻗은 2개의 稜線을 각각 나누어 맡게 하였다.

그리고 配屬받은 제3대대의 81mm박격포와 제15연대 제3대대의 그것은 대대 박격포와 함께 △242 南쪽 계곡에 放列케하여 諸元을 修正토록 하는 가운데 01.30에 제5중대를 Queen고지로, 제6, 제7 兩중대를 02.00에 제15연대 제11중대 진지 先端(△242 西北麓)의 공격대 기線으로 각각 추진하고, 03.30에 대대OP를 제15연대 제3대대 OP가 위치한 △242에 開設하였다.

또한 戰車소대는 포병의 공격준비사격시간을 이용하여 목표 抄고지 南쪽의 “교작골” 계곡으로 機動하여 04.00부터 제6, 제7 兩중대를 同時에 지원토록 하였는데, 이때 포병의 30분 동안의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다음에는 사단포병은 요청에 따라 공격중대를 직접 지원하고 軍단지원 포병은 對砲兵사격으로 轉換키로 協調되었다.

제5중대의 제3고지(△179) 攻擊 : 제3고지에 대한 공격임무를 부여받은 제5중대(장, 孫達

用 대위)는 01.30에 Queen고지의 공격대기線으로 출발하여 03.40에 Queen고지 南麓에 진출하였다.

중대는 그곳에서 隊伍를 다시 갖춘 다음 포병의 공격준비 사격으로 목표 고지가 震動하고 炮煙이 低迷하는 것을 신호로, Queen고지의 제15연대 제7중대 左側 소대진지로 나아가, 제1소대를 지원소대로 삼고 제3소대를 右側에, 제2소대를 左側에 展開하였다.

그리하여 예정된 04.00를 期하여 포병의 射程延伸에 膚接하여 LD를 약출하였는데, 西南쪽으로 뻗은 稜線을 한 달음에 달려 10분만에 목표 고지의 敵陣直前に 이르렀다.

그러자 그 동안에 지원포병의 怒號에 屏息하였던 敵이 壕속에서 다시 머리를 들고 抵抗을 시작한 바, 左側의 제2소대 정면을 가로 막은 自動火器 3정이 發惡하듯 熱鐵을 마구 吐함으로써 同 소대가 적지 않는 損失을 입고 頓挫寸前に 빠져들게 되었다.

이에 중대장은 즉시 △242의 대대장에게 그 自動火器제압을 요청한 결과 제15연대 제11중대 진지에 配屬된 無反動銃으로 이를 制壓케 되었다.

이 동안 중대의 右側 제3소대는 소대장 朴明振 소위(지휘아래 제1, 제2 兩분대로써 목표 北쪽기슭으로 迂回케 하고, 제3분대로써 稜線의 正面으로 直衝케 하였는데 소대장이 이끈 제1, 제2 兩분대가 고지의 北斜面으로 돌아오르다가 敵이 굴러내린 수류탄에 兵士 7명이 一時에 부상입게 되었다.

이에 先頭에 선 소대장 朴소위가 가슴에 매단 수류탄 두발을 뽑아 눈앞의 敵壕속으로 投入하고 그 濛濛한 黑煙속으로 劍尖을 겨누어 『突擊 앞으로!』를 외치면서 敵陣에 뛰어들어, 그를 따르는 소대원의 白刃이 拂曉의 蒼空에 腥風을 불려 일으켰다.

이때 중대장 孫達用대위가 지원 제1소대로 하여금 左側의 제2소대를 超越하여 右側 제3소대의 衝力을 도우게 함으로써 이 소대가 또한 뒤이어 血雨를 몰아 달려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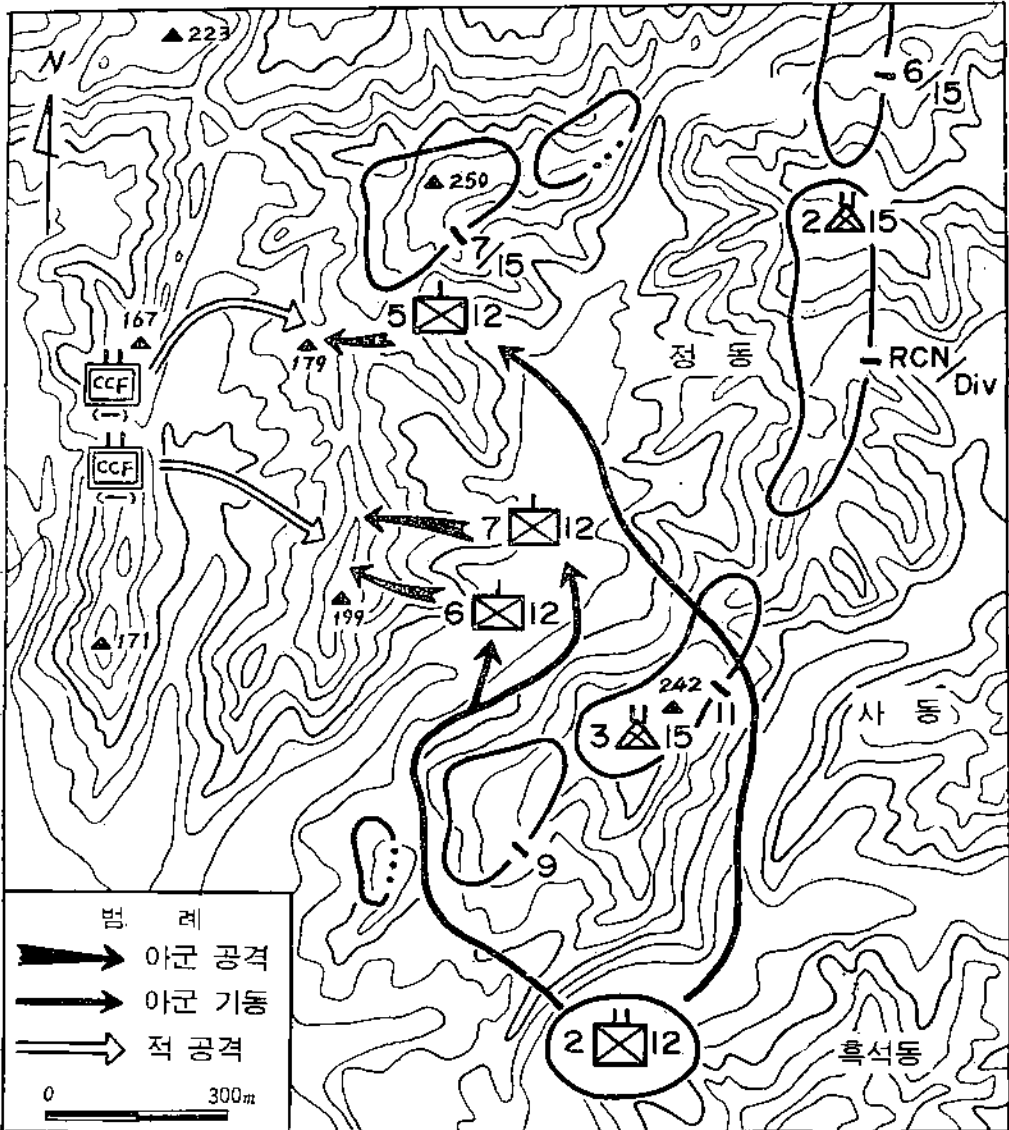
그리하여 兩 소대가 短兵接戰 10여분만에 그 頂上에 올라서게 된바 抵抗하는 敵은 모조리 刺殺하고 나머지 敵은 碧血이 淋漓한 교통호를 따라 고지의 西斜面으로 驅逐함으로써 高地의 主人이 된 것인데 이때가 04.30으로서 曉天은 아직도 霧靄에 뒤덮여 있었다.

이어 04.40에—西斜面으로 밀려난 敵이 그 中腹에서 頂上을 향하여 鐵火를 퍼붓는가운데 중대가 진지를 再編중인—高地 西쪽의 계곡을 건너 △167로부터 2개 중대 규모가 고지를 향하여 달려 나오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 이에 중대는 곧 포병지원을 요청하여 이들의 접근을 막게하는 一方, 진지를 急編하여 다시 一戰을 決할 態세를 갖추었다.

그들은 砲火에 가로막혀 險사리 陣前に 이르지 못하다가 08.10에 南쪽의 차고지로의 그들 증원과 배를 같이하여 1개 중대 규모가 고지의 西北斜面으로 迂回하여 陣前으로 파고들게 됨으로써 交戰을 강요하였는데 이때 다른 1개 중대 규모가 고지의 西南쪽으로 밀어 닥쳐 左右挾擊의 態세로 중대를 壓迫하면서 銃砲火力을 雨下集中하는 것이었다.

이에 중대는 더 이상 支撐치 못하고 08.30에 東北쪽 능선으로 한 걸음 물러나 死傷者를

◇ 상황도 제103호 제12연대 제2대대 공격상황(6.27)



내면서 血戰을 계속하다가 09.10에 Queen고지의 제7중대진지로 滿身瘡痍로 철수하게 되었다.

제6, 제7중대의 차고지 攻撃 : 한편 차고지 공격을 맡은 제6, 제7 兩중대는 지원 전차소대와 더불어 03.50에 LD로 進出하여 東에서 西로 나란히 頂上을 향하여 벌은 두개의 능선 下端部에 南北으로 展開하였는데 兩중대사이의 계곡에 散開한 전차소대가 戰車砲로써 敵의 火力據點을 撲滅하는 가운데 04.00에 各己의 進路인 稜線을 타고 西向으로 줄기차게 벌이 나아갔다.

이때 右제1선인 제7중대가 曉霧속의 山腹을 타고 오르다가 그 中腹에서 분대규모의 敵 경계조와 激突케 된바, 이들이 수류탄을 던지면서 殘惡한 까닭으로 잠시 紛戰끝에 鎧袖一觸으로 제압하고 餘勢를 몰아서, 그 동안에 南쪽의 다른 능선에서 敵의 砲火를 헤친 左제1선 제6중대(장, 趙基哲 대위)와 함께 04.30에 突擊線에 이르렀다.

여기서 30여분에 걸쳐 鐵火와 수류탄을 교환하면서 突擊의 好機를 노리다가 05.10에 제6중대가 먼저 頂上의 敵陣으로 突入하여 劍尖을 그 一角에 꽂으니 그 銳氣에 壓倒된 敵이 진지를 버리고 北쪽 제7중대 正面으로 물러 그들의 진지를 遯縮하였다. 따라서 제7중대는 그 正面에 敵의 防禦力이 집중된 까닭으로 쉽사리 突破口를 열지 못하였는데, 頂上一角을 차지한 제6중대가 銃劍으로 交通線속을 누비면서 중대의 奮迅突破를 재촉하는 05.20과 05.40에 두차례의 돌격을 試圖하여 陣地일부를 깨기는 하였으나, 뒤이어 敵 일단이 제3고지 쪽으로부터 고지 北쪽능선을 타고 들이닥쳐 중대의 右側背를 위협함으로써 頂上에서 다시 물러서게 되었다.

이에 06.00가 지나 또 한번 일제돌격으로 敵陣을 穿貫하여 南쪽의 제6중대와 合勢함으로써 07.00에 마침내 頂上을 모두 탈취하였는데, 이와 같은 波狀의인 衝擊에 견디다못한 敵은 일시 西斜面으로 물러나 撥를 파고 들어 앉아 새로운 增援을 기다리는 듯 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그 한시간 뒤인 08.00에 2개 대대규모가 △171부근에서 驕鋒을 들어내 배를 지어 西斜面으로 치달아 올랐는데, 포병이 「FLASH 199」의 일제사격으로 간단없는 彈幕을 둘러쳤으나 如蛾附火의 형세로 시체를 밟고 또 밟으면서 刻一刻으로 頂上을 에워싸고 덤비니 그 30분이 지난 뒤부터 頂上에서 다시 수류탄이 오고가는 亂鬪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러하여 끝내 數의인 劣勢를 挽回키 못한 제6, 제7 兩중대는 衆寡不敵의 苦戰相으로 빠져들게 됨으로써 수류탄의 폭염속에서 제6중대 선임장교인 朴泳五 중위가 戰死하는 등 死傷者가 急增하게 되었다.

이에 09.00에 사단장의 措置에 따라, 제3고지쪽의 제5중대와 함께 接敵을 끊고 隨意철수하여 出擊 5시간만에 主抵抗線으로 反轉케 되었는데, 제5중대는 10.15에 Queen교지의 南쪽으로, 제6, 제7 兩중대는 10.00에 제15연대 제9중대진지 南쪽에 각각 집결하였다가 11.20에 그곳에서 다시 仙遊洞(仙谷里 東쪽 1km)의 대대 CP부근으로 歸着하였다.

그런데 이 一戰에서의 연대의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遺棄屍體 135具

殺傷推定 1,300名

損 失

戰 死 35名

負 傷 148名

失 踪 22名

2. 사단장의 措置

그러면 사단장 金東斌준장이 取必取의 所信을 끝까지 펴지 못하고 이와같이 血戰중인 제12연대 제2대대를 철수토록 한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대한 記錄이나 證言을 얻지 못하여 詳考할 수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들어 해아려 보면, 이는 군단장의 措置에 따른 것인 듯 하다.

첫째, 25일 밤부터 시작된 사단정면의 杓고지 부근의 爭奪은 비단 이 正面에만 局限된 것이 아니라 제2군단의 北漢江 兩岸전선, 즉 제5사단의 △529와 제3사단의 △650(觀望山)에도 中共 제60군의 集中공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今次공격이 韓國軍에 대한 意圖인 것이 있는 點.

둘째, 當面の 中共제1군이 이 戰爭에 처음參加하는 것인만큼 그 物量과 銳氣를 믿고, 종래 夜間공격만을 能事로 삼는 다른 부대와는 달리, 白晝에도 決戰을 強要하고 兵力增援을 서슴치 않는다는 點. —따라서 군단장 Clarke소장은 判斷하기를 『敵이 意圖하는바는 探索의인 것이 아닌 까닭으로 心理的인 宣傳효과를 얻기위하여서라도 그 노리는 目標은 期必코 掌中에 넣고야 말것이며, 또한 그러한 目的達成을 위하여서는 如何한 出血이라도 사양치 않을 것이니, 그 實相은 이미 지난 二晝夜의 經過를 통하여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이 敵과 對決함에 있어서 我方의 火力만으로 그들을 制壓하기 어려운만큼, 相當한 兵力의 뒷바침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을 期待할수 없는 現在의 實情이다. 그러므로 敵의 先制공세에 말려들어 성급한 出血을 다루기보다는 一步 물러나 事勢의 推移를 靜觀하여 後圖를 策함이 현명한 處事일 것』으로 배다 보았던것으로 믿어지는 바, 이와같은 그의 管見은 다음의 措置로써 能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그는 杓고지 正面에서 제12연대의 戰況이 劣勢에 물리게 되는 09.00에 다음과 같은 要旨의 명령으로써 사단으로 하여금 보다 강력한 예비를 확보하여 우선 當面の 主抵抗線의 강화에 注力하고, 前哨전지의 奪回는 훗날을 期約토록 促求한 것이다.

① 軍단에비인 韓해병제1전투단(-)을 6.28. 01.00부로 제1사단에 배속한다.

② 제1사단은 同 전투단을 활용하여 現主抵抗線을 강화하라.

③ 해병제1전투단(-)은 제1사단지역 進入과 同时 同사단장의 작전지휘를 받으라.』

이에 사단장은 제12연대가 杓고지에서 물러난 10.20부터 17.00까지 7시간餘에 걸쳐 240mm 및 8"의 重砲로써 同고지 일대에 대한 파괴사격을 실시하여 敵의 진지工事を 妨害하여 陣地를 無力化하는 가운데, 제15연대로 하여금 杓고지의 奪還留保에 따라 相對的으로 그 重要性이 倍加된 Queen고지의 확보에 特段의 措置를 강구토록 하는 한편 右翼인 美제7사단(장, Arthur G. Trudeau 소장) 지역 後方의 上大田里(全谷 東南쪽 3km)에 징결중인 海병제1전투단(장, 金聖恩 대령)과 協調한 결과 이를 15.30부터 지휘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사단지역에 生疎한 同전투단으로써 戰線이 비교적 安定된 臨津江 西岸의 左一

線을 맡게 하고, 그곳의 제11연대(강, 崔周鍾 대령)를 새로이 예비로 확보하여 狀況의 進展에 卽應하여 將次 杻고지 奪回를 圖謀키로 하는 作命 제99호를 15.00에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6.28. 01.00부로 배속된 해병제1연대 전투단(缺 제3대대)을 동시부로 제11연대와 전지를 교대하려 한다.

② 제11연대

㉠ 6.28. 01.00부로 現 지역내의 방어임무를 해병제1연대전투단에 인계하고 사단에비 전지에 집결하라.

㉡ 同時刻부로 제59포병대대의 직접지원을 해제한다.

㉢ 同時刻부로 제2전차중대의 직접지원을 해제한다.

㉣ 同時刻부로 KSC 제1, 제8 및 제19중대의 배속을 해제한다.

㉤ 同時刻부로 工兵제3중대의 직접지원을 해제한다.

③ 제12연대

㉠ 2개대대를 Iceland線에 집결케 하라.

㉡ 1개대대는 仙遊洞의 現 예비전지에서 待機케 하라.

④ 제15연대

㉠ 現 임무(사단 右一線)를 계속 수행하라.

㉡ D일 H시부로 해병전차중대의 직접지원을 해제한다.

㉢ D일 H시부로 제2전차중대를 통합지휘하라.

⑤ 해병제1전투단

㉠ 6.28. 01.00까지 제11연대의 방어임무를 引受하라.

㉡ 同時刻부로 전투단 포병대대가 직접지원한다.

(사단을 화력 증원중)

㉢ 同時刻부로 제2전차중대가 직접지원한다. 同중대는 D일 H시부로 제15연대를 지원 중인 해병전차중대와 임무를 교대한다.

㉣ 6.28. 01.00부로 KSC 제1, 제8 및 제19중대를 배속한다.

㉤ 同時刻부로 工兵제3중대가 직접지원한다. 同중대는 D일 H시부로 그 임무를 해제한다.

⑥ 공병대대

㉠ 6.28. 01.00부로 工兵제3중대의 직접지원임무를 제11연대로부터 해제와 동시에 제1해병연대 전투단을 지원케 하라.

㉡ 同 중대의 임무는 D일 H시부로 해제한다.

⑦ 사단포병단

- ㉔ 6.28. 01.00부로 해병포병대대로써 해병제1전투단을 직접지원케 하라.
- ㉕ 제11연대 직접지원 포병대대는 사단일반지원원으로 전환케 하라.
- ㉖ 제2전차중대는 6.28. 01.00부로 해병제1전투단을 지원하되, D일 H시부로 해병전차 중대와 임무를 교대한 다음 右一線연대를 지원하라.
- ㉗ 해병전차중대는 D일 H시부로 제2전차중대와 교대한 다음 제1해병연대 전투단으로 復歸하라.
- ㉘ D일 H시는 後達한다.』

3. 제15연대의 Queen高地 強化

이와같은 사단장의 차고지 奪回留保 조치에 따라, 제15연대(장, 宋虎林 대령)는 지금까지 이 COPL의 核心진지였던 Queen고지가 이제는 그 左肩部로 부각되게 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敵侵위협이 增大될 것으로 내다보고 이 Queen고지에 대한 防禦力 증강을 도모하였다.

그리하여 연대는 예비인 제1대대(장, 崔鳳道 중령)의 제2중대로 하여금 Queen고지의 제7중대와 합세하여 그곳의 防禦密度를 증강토록 조치한 결과, 同제2중대가 13.00에 제11중대 OP부근의 집결지를 출발하여 13.25에 Queen고지로 진출함으로써 그곳 제2중대의 右側진지 일부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연대는 다른 戰線에는 陣容의 변동이 없는 가운데 Queen고지에의 방어력을 2개 중대로 補強한 셈이 되었다.

4. 제11연대의 陣地交代

한편, 사단作命 제99호에 의거, 左一線의 제11연대(장, 崔閔鍾 대령)는 담당정면을 해병 제1전투단(장, 金聖浬 대령)에 인계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同전투단은 15.40에 집결지인 上大田里의 Camp Indian Hill에서 急速 사단전선으로 躍進하였다.

그리하여 연대는 同전투단이 그 CP를 21.00에 澄波里에 있는 연대 CP에 추진 開設함과 동시에 예정된 진지교대를 시작하였는데, 연대의 右一線인 제1대대(장, 朴養光 중령)는 同전투단 제1대대(장, 黃泳 소령)에, 左一線인 제3대대(장, 金衡祿 중령)는 同전투단 제2대대(장, 宋寅明 중령)에, 그리고 예비인 제2대대(장, 金奉權 중령)는 同전투단 제5대대(장, 崔龍男 중령)에 각각 陣地와 임무를 인계하였으며, 臨津江 東岸의 제1대대 後方진지의 연대수색중대는 同전투단의 제13중대(임시중대)와 교체케 된 바, 이로써 사단전선에는 해병이 보병과 같이 燿兵하게 되었다.

6월 28일 : 이날 사단은 戰線을 整頓하여 차고지 탈환에 나서고자 하였으나 이에 앞서 敵이 先制의 利를 노린듯, Queen고지로 먼저 들이닥침으로써 여기서 다시 激動하는 戰勢를 보게 되었다.

1. 防禦組織의 改編

가) 사단장의 決心

이날 새벽, 臨津江 西岸의 사단 左一線 진지를 해병제1전투단에 인계한 제11연대(장, 崔周鍾 대령)는 예정대로 사단예비로 전환되었다.

즉, 澄波里의 연대 CP를 同 전투단에 인계하고 玉溪里(澄波里)東北쪽 3.5km : 臨津江 東岸)로 轉移하는 가운데 右一線인 제1대대는 01.00에 해병제1대대에 진지인계와 동시 병력을 뽑아 06.00에 江內里 부근의 제12연대 제1대대진지에, 예비였던 제2대대는 이보다 앞서인 전날 21.30을 前後하여 해병제5대대에 진지를 인계하고 子正에 臨津江을 건너 上梅洞 부근에 집결하였다. 그리고 左一線이던 제3대대는 해병 제2대대에 00.30에 진지를 인계하고 05.15에 北三里의 당초 제12연대 제3대대진지에, △264부근의 연대수색중대는 06.00에 玉溪里 부근의 연대 CP에 집결하였다.

그러하여 연대의 3개대대가 南北으로 나란히 사단의 예비진지에 모두 집결케 되면서 연대를 직접지원하던 제59포병대대는 現地에서 사단 일반지원으로 전환되었다.

이와같이 하여 左一線의 整理가 午前中으로 끝나자, 사단장 金秉斌 준장은 차고지 喪失에 따른 主抵抗線右側의 위협증대에 對備하여 主抵抗線의 강화에 着手하였다.

즉, 右一線의 陣容을 改編하되 現 제15연대 戰線을 분할하여 제12연대와 나누어 맡게 함으로써 그 防禦力과 縱深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그러하여 正午에 作命 제100호를 하달하였으니,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16.00부 書面 下達)

『① 사단은 本日 15.00까지 現 右一線의 防禦組織을 개편하여 同 지역을 2개연대의 地域으로 분할하려 한다.

戰鬪地境線은 現 제15연대 제3대대와 제1대대의 從前線으로 한다.

② 제11연대는 現임부(사단예비)를 계속 수행하라.

③ 제12연대는 本日 15.00까지 제15연대의 左一線대대 진지를 인수하여 사단의 中央一線으로서 主抵抗線을 강화하라.

④ 제15연대는 現 임부(사단 右一線)를 계속 수행하면서 現左一線대대지역을 本日 15.00까지 제12연대에 인계하라.

⑤ 사단포병단은 本日 15.00부로 제12연대에 輕砲 1개대대로써 직접지원케 하라.』

나) 제15연대의 障地強化

이에 따라 제15연대(장, 宋虎林 대령)는 14.30을 前後하여 左一線인 제3대대(장, 李鍾鼎 중령)의 戰線을 제12연대의 제1, 제3 兩 대대에 인계하고, 17.30에 진지를 물러나서 21.00 前後에 사단수색중대진지 後方 山谷洞(△243 南쪽 500m) 부근에 집결하였으며, 제1대대(장, 崔鳳濶 중령)는 제2중대를 제7중대와 함께 Queen고지에 남겨둔채로 제1, 제3 兩중대를 당초 제1중대의 진지였던 △243부근에 집결함으로써 兩 대대는 각각 예비로 전환되었다.

이리하여 연대는 主抵抗線을 계속 제2대대(장, 朴春雄 중령)(사단수색중대 配屬)로써 담



〈사단포병단 FSCC를 방문한 軍首腦 : 左로부터 태평양함대사령관 Radford대장, 제8군사령관 Taylor대장, 사단수석고문관 Mckee대령, 포병단장 宋贊鎬대령, 사단장 金東斌 준장, 美제1군단장 Clarke소장〉

당케 하는 가운데 2개대대의 예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 제12연대의 陣地引受

한편, 제15연대의 左一線을 분할하여 담당케 됨으로써 새로이 사단의 中央一線이 된 제12연대(장, 李吉泳 대령)는 종래 사단 일반지원의 제17포병대대(장, 金韓柱 중령)의 직접지원을 받는 가운데 14.30을 前後하여 제15연대 제3대대의 전지를 인수케 되었다.

이에 앞서, 연대는 전날의 사단作命 제99호에 따라 臨津江 東岸의 제15연대 지역에 主力을 展開한바 있는데, 26일에 차고지 공격에 參加하였다가 江內里 부근의 예비진지로 復歸한 제1대대(장, 康永傑 중령)는 그 진지를 제11연대 제1대대에 인계하고 無名高地 ㉔(△175 北쪽 1.2km : 표고 230m정도)에 집결하였으며, 제3대대(장, 全子烈 중령)는 北三里的 예비진지를 제11연대 제3대대에 인계하고 △175(△242 東南쪽 2km) 부근에 집결한 것이다. 그리고 艾洞(쑥골)의 연대 CP부근에 있던 수색중대도 제1대대와 함께 推進되었는데, 이때 仙遊洞 부근의 제2대대(장, 韓國贊 중령)는 계속 그곳에 남아 있었다.

그리하여 연대는 主力 2개대대로써 Iceland線을 새로이 점령한 셈인데, 다시 이날의 作命 제100호에 따라 이 제1, 제3兩 대대로써 主抵抗線을 맡게된 것이었다.

연대는 제1대대로써 제15연대 제11중대 진지를, 제3대대로써 同연대 제9중대 진지를 인수토록 하였는데, 臨津江 沿岸 진지를 확보중인 同연대 수색중대는 계속 그 자리에 남아 맡은 임무를 계속하였다.

이리하여 연대는 증진에 제15연대가 2개중대로써 확보하던 主抵抗線에 2개대대로 補強하여 배를 보아 當面의 제3, 1차, 제1의 3개고지에 대하여 그 尊回를 도모키로 하였는데, 이와같이 연대가 15.00를 期하여 戰線整備를 끝내자 사단장이 이르기를 『作命 제99호에 의한 D일 H시는 明日 01.30이다.』는 要旨로써 연대에 차고지 탈환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연대장 李吉泳 대령은 예비인 제2대대(장, 韓國贊 중령)가 전날의 一戰으로 말미암아 損傷된 隊伍가 미처 가다들어지지 않았으므로 無名高地 ④부근에 控置중인 연대수색중대(장, 張正來 대위)로써 차고지의 敵과 對決키로 하고 『수색중대는 明 01.30을 期하여 목표 차고지를 奪取하라.』고 명령하였다.

2. Queen高地的 再血戰

이와같이 하여 제12연대(장, 李吉泳 대령)는 공병대대(장, 文熙瑛 중령)의 1개중대가 연대 主抵抗線의 陣前에 새로이 對人地雷 480여발을 埋設하고 각종장애물을 설치함으로써 진지를 강화하는 가운데 수색중대로써 차고지 공격준비에 착수하였는데, 이 동안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 덮히는 20.30이 되자 제15연대 정면의 Queen고지에 敵 2개대대 규모가 이를 먼저 攻奪코자 덤벼들었다.

敵은 그들의 各種砲火 지원 아래 Queen고지 西北쪽 △223으로부터 제3고지의 측방엄호를 받으며 제2, 제7兩중대 정면으로 기어 올랐다. 이에 同 고지를 東西로 나누어 맡은 兩중대는 지원포병의 「FLASH QUEEN」 사격으로 火力掩護를 받아 一戰을 決하기로 하니, 照明彈이 輝煌한 十八夜에 砲擊이 殷殷하고 銃擊音이 瑟瑟하였다.

21.15부터는 굼주린 豺狼의 무리가 執拗하게 진지 一角으로 파고들게 됨으로써 彼我的 碧血이 淋漓한 가운데 戰傷者로써 고지 前斜面의 교통호를 메우는 紛戰亂鬪중에 밤이 깊어만 갔다.

제15연대 제1중대의 扞援 : 한편 제15연대장 宋虎林 대령은 Queen고지에서의 通信이 杜絶되는 가운데 그곳에서 격전의 苛烈을 보게되자 21.30에 제1대대(장, 崔鳳道 중령)—21.00前後에 △243부근의 예비진지에 집결한 一로 하여금 Queen고지의 제2, 제7兩 중대를 扞援토록 하고, 제3대대(장, 李鍾鼎 중령)로써 제6중대 정면의 前進진지線을 강화도록 조치하였는데 同 제1대대는 제1중대를 먼저 뿔아 Queen고지로 급히 扞援케 하였다.

그리하여 제1중대는 21.45에 △243의 집결지를 출발하여 목표 Queen고지로 달렸으며, 한편 제3대대 역시 山谷洞 부근의 예비진지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제6중대의 主抵抗線진지로

되돌아 나아가게 되었는데, 이 때에는 子正무렵에 제9중대를 「갈매기」고지에서 東北으로 제5중대 진지로 連하는 稜線에, 그간 제11중대 OP부근에서 新兵으로 缺員을 보충하여 再編한 제10중대를 「황새」고지의 사단 수색중대 제1소대 진지에, 그리고 제11중대를 사단수색중대 主抵抗線 前方의 「황새」고지와 사이에 있는 계곡에 各各 詰結케 함으로써 前哨진지線을 強化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동안인 20.30부터 Queen고지 東쪽의 「황새」고지의 사단수색중대 제1소대(장, 李文敎 소위)진지에서도 Queen고지에서와 類似한 敵侵이 있었으나 同 소대가 紛戰끝에 이를 물리쳤는데, 21.50에 다시 Queen고지쪽에서 溢出한 일단의 敵이 稜線을 따라 소대 陣前으로 들이닥쳐 熾烈한 對決을 보게되었다. 그러나 소대가 不退轉의 決意로 진지를 堅守함으로써 22.20에 攻波를 물리치고 끝내 고지를 지켜내고야 말았다.

6월 29일 : 전날 밤 Queen고지에서 再燃된 戰火는 寸前앞을 헤아릴 수 없게하는 暗雲인양 종일토록 黑煙을 아득히 蒼天에 맴돌게 함으로써 사단이 喪失한 고지의 奪回를 期約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1. 제15연대의 Queen高地 喪失

제15연대(장, 宋虎林 대령)의 제2, 제7 兩 중대는 Queen고지에의 敵侵으로 말미암아 紛戰亂鬪중에 전날 子正을 넘겼으나, 이날에 들어서서도 戰勢를 만회치 못하여 苦戰相만으로 連綴되었다.

고지 頂上을 맡았던 제7중대(장, 王日浩 대위)의 제1소대는 前方교통호로 파고든 敵의 襲波에 진지가 侵蝕되어 마침내 頂上에서 孤立되고 말았다.

이에 소대장 金淳道 소위는 본대장인 李五得 일등중사 및 安斗煥 이등중사 등과 더불어 殘餘 수류탄을 소대원에게 再分配하여 波狀으로 뛰어오르는 敵의 頭上에 일제히 投擲케 한 다음 오히려 敵前으로 뛰쳐나가 싸누어 잡은 白刃을 左衝右突로 휘둘러, 戰服이 鮮血로 물들고 鐵帽가 깨어지는 短兵接戰을 벌여 몇 차례나 反復되는 狂波를 막아내었으나, 03.00에 이르러 80여구의 敵屍와 뒤엉켜 陣歿한 30여명의 소대원을 남겨둔채 頂上을 敵의 手에 넘겨주게 되고 말았다.

이때 중대의 右側인 제2중대의 戰況역시 이와같은 混戰亂擊 속에서 非勢로 몰려 급기야는 진지에서 또한 물러나게 되었다. 이리하여 04.30을 前後하여 제2, 제7 兩 중대는 主抵抗線의 제6중대진지로 철수하게 되었다.

赴援의 挫折 : 한편 전날 Queen고지 赴援차 △243부근에서 躍出한 제1중대는 제6중대 진지를 지나, 高地 南斜面으로 나아가 공격발판이 되는 제5고지에 이르러 제3고지쪽에서 그 앞을 가로 막고 나선 일단의 敵과 激突케 되어, 이들과 同 제5고지를 놓고 다투게 되었는데 Queen 고지로의 赴援은 커녕 그곳에서 그들을 制壓하기조차도 힘에 겨운 苦戰을 치르게 된 탓으로 겨우 제5고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날을 밝히게 되고 말았다.

이와같이 하여 Queen 고지에 대한 赴援의 時期를 노치게 되자, 04.00에 연대장은 제3대대로써 이의 再次增援을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제3대대장 李鍾鼎 중령이 「황새」 고지의 제9중대(장, 朴鍾淳·대위)를 뽑아 제1중대의 右側으로 投入함으로써 Queen 고지의 東南쪽 稜線을 따라 새로운 方向으로 나서게 한 바, 이 무렵 高地에서 撤收하는 제2, 제7 兩 중대와 隊伍가 그 능선에서 겹쳐 06.00가 지나서야 中腹을 타고 치달아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 때는 이미 해가 뜬지도 50여분이 지났으므로 頂上으로부터 그 움직임이 낱낱히 捕捉되어 그들 포화의 강력한 遮斷사격을 받게됨으로써 5部능선에서 壕를 파고 敵火를 피하기에 汲汲하게 되고 말았으니, 大抵 成敗의 差는 一葉紙 사이에서 --呼吸之間에 달렸어도 그 미치는 바 影響은 優勝劣敗를 反證함이 이와 같도다. 卽ち 胡敵의 무리라고 輕視할 수 있겠는가.

2. 제12연대의 朴高地 공격失敗

한편, 전날 사단의 杓高지 탈환명령에 따라 01.30을 期하여 이의 공격에 나선 제12연대(장, 李吉泳 대령)의 수색중대는 00.50에 無名高地 ㉠부근의 집결지에서 출발하여 01.30에 예정대로 제3대대의 主抵抗線 정면 “고작골” 계곡을 LD로 삼아 목포 杓高지 南쪽 稜線으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同 수색중대(장, 張正來 대위)가 공격에 나서기 전에 Queen 고지에 敵의 攻波가 먼저 들이닥친 까닭으로 모든 支援火力이 同Queen고지의 固守에 注力케 되었으므로 연대 火力에만 依存하면서 北쪽의 目標 杓高지 너머로 Queen 고지의 정상에서 피어오르는 妖火를 目標로 발길을 재촉하였다.

따라서 充分한 火力支援을 받지 못한 가운데 稜線에 縱深깊게 마련된 敵의 彈幕을 헤치기가 수월치않아 步一步로 교통호를 파면서 나아가는 형편이라, 그 初動부터 遲遲不進을免치 못하게 되어 05.10을 前後하여서야 간신히 敵前에 이르러 수류탄을 주고 받는 進展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도 4시간 가까이나 山腹에 淹滯되어 砲火속을 누비는 동안에 입은 損失이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敵의 抵抗이 세차, 끝내 頂上席捲의 뜻을 이루지 못한채로 05.30에 中腹으로 轉進을 물려서게 되었는데, 뒤이은 사단장의 後續조치에 따라 06.30에 △175에 集결케 되었다.

이로써 중대는 본래의 杓高지 탈환 企圖는 성공을 보지 못하고 Queen 고지에 대한 敵火를 分散케 하는 牽制의 역할로 그치고 만 셈이었다.

3. 제11연대의 進出

사단장의 措置: 이와같이하여, 사단의 右一線인 제15연대의 Queen 고지가 敵手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中央一線인 제12연대에서도 杓高지 탈환企圖가 無爲로 돌아가자, 사단장 金秉

斌 준장은 06.00에 作命 제101호로써, 제15연대의 제1, 제9兩 중대로 하여금 現 진지에서 Queen 교지정상의 敵을 抑留케 하는 가운데 예비인 제11연대에 命을 하되, 『제11연대는 明日 10.00를 期하여 2개대대로써 目標 Queen 교지(△250)—제3교지(△179)—차교지(△199)를 奪回하라.』고 함으로써 失地恢復에 대한 斷乎한 決意를 보였다.

이에 제11연대장 崔周鍾 대령은 上海洞 부근의 제2대대와 北三里의 제3대대로써 目標線의 敵과 對決키로 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下達하였다.

『① 연대는 目標 Queen 교지—제3교지—차교지를 탈취하려 한다.

② 제2대대는 목표 제3교지—차교지를 占領하라.

③ 제3대대는 목표 Queen 교지를 占領하라. 제15연대의 공격중대와 긴밀한 協調를 유지하라.

④ 제1대대는 現 임무(사단예비)를 계속 수행하라.

⑤ 攻擊間 제59포병대대가 연대를 직접 지원할 것이다.

⑥ 공격개시선은 다음과 같다.

Queen 교지 공격—「황새」교지

제3교지 공격—제5교지

차교지 공격—“고작골” 계곡

⑦ 공격개시시간은 明日 10.00이다.

⑧ 攻擊間 지휘소는 無名高地 ㉞로 推進할 예정이다.』

Queen高地 공격狀況 : 이와같이 Queen 교지 奪取임무를 부여받은 제3대대(장, 金衡祿 중령)는 제10, 제11兩 중대로써 目標를 同時 공격키로 하고, 08.00에 대대 OP를 山谷洞 西北쪽의 제15연대 제2대대 OP교지에 開設함과 아울러 北三里에 집결중인 제10, 제11兩 중대를 OP 東南쪽 山谷洞 계곡에 추진한 다음, 제11중대(장, 都澤煥 대위)를 공격 右제1선으로 삼아 사단수색중대의 제1소대가 담당중인 「황새」교지에서 西쪽 稜線을 따라 목표 頂上의 東쪽을 直衝케 하고 제10중대(장, 金麟澤 대위)를 공격 左제1선으로 삼아 제15연대 제1중대가 확보중인 제5교지에서 목표 南쪽을 挾擊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09.00를 前後하여 대대 OP 後方의 山谷洞부근에 集결한 대대는 제9중대를 그곳에 殘置하여 예비로 대기케 하는 가운데 제10, 제11兩 중대로 하여금 그 중앙에 위치한 제15연대 제9중대와 함께 예정된 10.00에 공격을 시작케 하였다.

이에 제11중대는 「황새」교지로, 제10중대는 제5교지로 나아가, Queen 교지의 東南麓에서 待機중인 제15연대 제9중대와 함께 戰鬪展開를 끝내고, 목표 정상에 대한 制壓사격을 하지 않기로 한 포병이 △222—△223—△167—△171 등의 敵의 主陣地에 연막탄을 集中하여 그들 지원火力의 視界를 遮障하는 가운데 各己 LD를 躍出하였다.

이리하여 제11중대와 제15연대의 제9중대 그리고 제10중대가 三路로 稜線을 지쳐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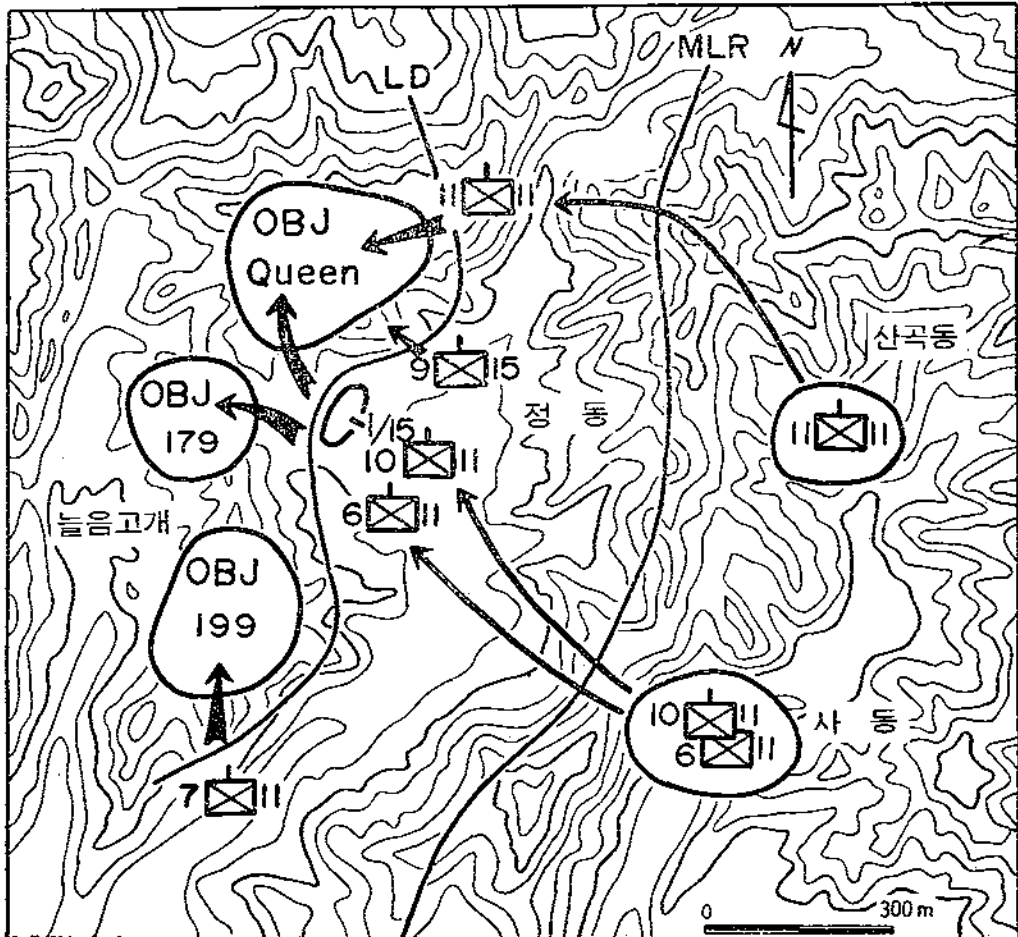
저마다 頂上을 指向하여 劍尖을 겨누고 例의 敵火가 亂舞하는 山腹의 突破를 재촉하여 11.00에 各各의 8부능선에서 敵의 제1선과 交戰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大대규모의 集團이 그 頂上에 防禦의 重點을 둔듯 完강한 저항을 보인 까닭으로 陣前에서 手榴탄만을 어저러이 주고 받았을 뿐, 미처 돌격의 好機를 얻지 못하고 寸步를 다투는 사이에 어느덧 正午를 넘기게 되었다.

제3고지의 攻擊狀況 : 한편 연대의 공격 左一線을 맡은 제2대대(장, 金奉健 중령)는 제6, 제7 兩個중대로써 부여된 목표인 제3고지와 차고지를 各各 공격키로 하였는데 제6중대는 제3고지를, 제7중대는 차고지를 점령토록 目標를 分擔하였다.

그리하여 이 대대 역시 08.00에 OP를 △242로 추진 開設함과 同時에 上洞洞부근의 主力을 △242 東쪽 계곡에 집결시켜 제5중대를 그곳에 예비로 남겨 놓는 가운데 제6, 제7 兩중대를 各己의 LD로 추진하였다.

◇ 상황도 제104호 제11연대 제2, 제3대대의 공격상황(6. 29)



따라서 제6중대는 Queen 고지를 공격예정인 제3대대 제10중대와 함께 제5고지로 추진하여 同 제10중대의 左側에 전개함으로써 同중대와 衝鋒을 나누어 西쪽으로 목표 제3고지를 공격키로 하고, 제7중대는 Kim 고지로 진출한 다음 그곳에서 목표 차고지의 南쪽 능선을 따라 오르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제6중대(장, 鄭大善 대위)는 09.00에 제5고지의 제15연대 제1중대 진지로 나아가 10.00에 同연대 제10중대와 나란히 그 北쪽으로 稜線을 타고 前進하다가 Queen 고지와 제3고지 사이의 鞍部에 이르러 그 西쪽의 목표로 旋廻하여 10.30에 8部능선의 敵前에 肉迫한 다음 수류탄을 交換하는 熱戰을 벌인 끝에 10.50에 陣內에 突入함으로써 白兵格闘 10분만인 11.00에 목표를 손에 넣고야 말았다.

朴高地 공격狀況 : 이때 대대의 공격左제1선으로서 차고지공격임무를 부여받은 제7중대(장 朴泰坤 대위)는 제2소대를 主軸으로 제1, 제3 兩 소대에서 각 1개분대를 抽出하여 同 제2소대에 2개분대를 增強한 55명의 特攻隊를 편성한 다음, 同 소대장 金濟驍소위 지휘下에 목표를 공격토록 한바, 09.00에 Kim 고지를 거쳐 차고지 南쪽 稜線 下端에 진출한 同 특공대가 그곳에서 1시간에 걸쳐 공격준비를 끝내고 예정된 10.00에 LD를 躍出하였다.

그리하여 소대장 金소위가 직접지휘하는 1개분대를 中央基準분대로 삼고 그 左右에 각 2개분대를 併列하여 포복과 躍進을 互用함으로써 10.50에 突擊線에 육박하였는데 目標頂上에는 2개 소대로 추산되는 敵의 부리가 發惡的으로 저항할 뿐만 아니라 臨津江 건너 南쪽의 Little Nori 고지에서 지원되는 敵의 直射火器가 등을 亂打한 까닭으로 소대의 움직임이 如慮치 않아 그 자리에 釘着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金소위는 『敵前에서의 逡巡은 攻者가 大忌하는 바라, 死生을 초월한 果敢한 突擊만이 勝利를 약속할 따름이다.』라고 소대원을 奮勵한다음, 『나를 따라라!』라는 號令과 함께 先頭에서 선임하사 李正安 일등중사와 더불어 Car銃을 亂射하며 敵陣으로 突入하였다. 洞窟속에 掩蔽한 敵이 내던진 수류탄에 휘파르던 소대원이 쓰러지자 金 소위는 兩손에 수류탄을 뽑아들고 동굴에 뛰어들어 그 1발을 깊숙히 投入한 바, 黑煙이 뭉클뭉클하여 나오는 것과 함께 동굴의 入口가 沙汰와도 같이 허물어져 내려 그속에 파묻히기도 하였으나, 곧 흙더미를 헤치고 일어서서 다른 窟窿속에서 熱鐵을 휘두르는 自動火器를 그와같은 방법으로 制壓하는 등 先頭에서 소대원의 血路를 거침없이 打開하였다.

이를 본 소대원이 일제히 돌격하여 頂上으로 뛰어오르게 되었는데, 그 휘두르는 劍閃은 半空의 서릿발이 되고, 부르짖는 喊聲은 구름속의 風雷가 되니, 참으로 「前進」勇士의 眞面目이 躍如한지라, 이 威勢에 壓倒된 어떤 敵兵은 고개를 들지 못한채 壕속에 엎드려 있는가 하면 또 다른 敵兵은 재빨리 고지의 西北斜面의 교통로를 타고 潰走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11.30을 前後하여 잃은지 3일만에 그 頂上을 다시찾게 되었는데, 여기서 소대

가 얻은 戰果로는 대충해야려 遺棄시체 40餘具가 확인되었으며 그에 따른 損失은 戰死 5명과 負傷 13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戰鬪에 있어서 捨身敢鬪로 소대원을 頂上으로 引導함으로써 목표탈환에 拔群의 戰功을 세운 소대장 金濟曄 소위는 黃海道 信川 출신의 當年 24세의 弱冠으로서 그에게는 뒷날 銀星 忠武武功勳章(陸本 一般命令 제302호 : 1953. 12. 23부)이 수여되었다. 吁乎라 一人의 勇夫 威力이 이와 같으며 百人의 懦夫醜狀이 또한 이와 같도다.

4. 군단장의 措置

이렇듯 제11연대(장, 崔周鍾 대령)의 공격에서 一進一止를 보여, 제2대대가 목표인 제3고지(△179)와 杓고지(△199)를 모두 手中에 넣었으나, 제3대대는 Queen 고지(△250)에서 苦戰을 계속중인 正午, 군단장 Clarke소장이 龍田里의 帷幕을 방문하여 當面의 戰況을 聽取한 결과 사단장 金東斌 준장에게 거듭 이르기를 『現在の Queen 고지—제3고지—杓고지에 대한 爭奪을 中止하고, 現主抵抗線의 強化에만 注力하라.』고 함으로써 Queen—杓고지의 要衝을 포기하기로 싱거운 決斷을 내렸으니 그의 참뜻은 그 한사람과 神明以外에는 아무도 能히 해야릴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그의 措置에 따라 사단장은 本意아니게도 곧 제11연대의 공격을 中止시키고, 그 병력을 모두 主抵抗線으로 철수토록 하였다.

이에 13.00를 前後하여 제15연대의 제1, 제9 兩 中대가 먼저 제11연대 제3대대(一)의 掩護下에 철수하여 20.00에 △243 부근의 예비진지에 집결하였으며 同 제3대대의 제10, 제11 兩 中대는 15.30을 前後하여 각각 山腹에서 接敵을 끊고 물러나 21.30에 △242 東쪽 계곡에 집결하였다.

그리고 제3고지와 杓고지의 제11연대 제2대대는 그 제6, 제7 兩 中대를 13.30을 前後하여 각각의 頂上을 비워놓고 22.30에 上梅洞의 집결지로 뿔아 내렸는데 연대가 이날의 攻堅戰에서 거둔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損 失	
遺棄屍體	58具	戰 死	21名
殺傷推算	150名	負 傷	63名

然而나, 이와같은 措置에 대한 군단장 Clarke소장의 胸中은 어땀하였을까?

推斷컨대, 이는 休戰成立을 圍繞한 政勢판단과도 밀접한 函數관계가 있는 것인 듯 하니, 結論으로 27일의 措置에 一貫한 것으로 보여질다.

즉, 첫째로 이날 現在 Queen—杓고지에 이르는 一連의 前進陣地에서의 爭奪결과로 빛어진 雙方의 損失을 對比하면 사단의 그것이 이미 1,000명을 넘었고 相對的으로 敵 또한 5,000

명에 가까운 人命의 出血을 보게된만큼 이로써 同진지는 主抵抗線의 防諱에 대한 牽制抑留라는 本然의 임무를 다한것으로 판단되며, 둘째로 또 現狀況下에서 休戰을 假定하면 이 진지들은 雙方 어느쪽이 확보하더라도 將次 비무장지대에 포함될 地域인만큼 死物인 이것을 차지할려고 더 이상 出血을 不辭한다는 것은 結局에 사단의 戰力만 枯渴을 보아 得不補失의 결과를 自招하게 될 것으로 판단한 所致인 듯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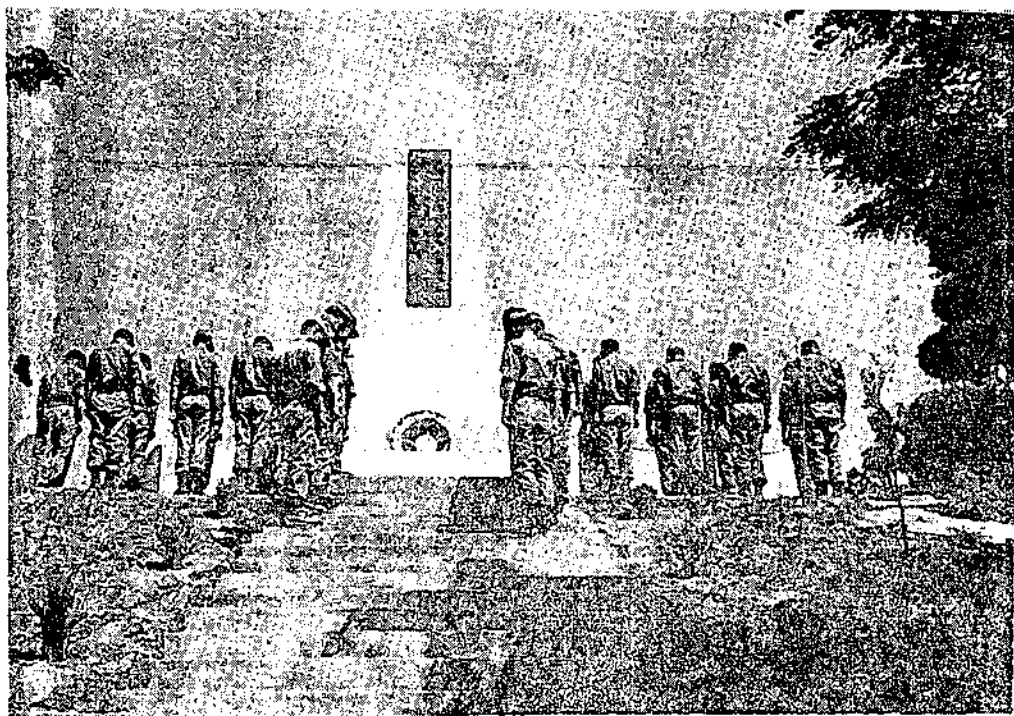
그러나 그렇다면 애당초부터 拋棄할 노릇이지 어찌하여 爭奪戰을 계속하였는가하는 疑訝心은 버릴 道理가 없을것이다. 그리하여, 당시 지난해 10월에 사단이 戰線을 달은 뒤로, 8개월이나 占有하였던 前進要衝을 碧血로 물들인채 이를 뒤에 남겨놓고 期約없는 발길을 돌리게된 「前進」將兵의 感懷는 과연 어떠하였을까!

悲憤慷慨에 사무친 그들은 그 가슴에 맺힌 凝血을 모아 뒷날(1954.5.10) 詩碑 하나를 旺林里(漣川郡 漣南面)에 세우고, 祖國愛에 살다간 戰友의 꽃다운 젊은 넋을 달래었으니, 그 碑銘에 이르기를……

『길손이여, 자유민에게 전해다오.

우리는 겨레의 명령에 복종하여

이곳에 잠들어 있다고.』



<사단이 세운 詩碑 : 길손이여, 자유민에게 전해다오>

라. 전투후의 개황

以上과 같이하여 사단은 連 四晝夜에 걸쳐 血戰을 치른 Queen과 杓고지의 要衝을 敵에게 내어주고, 主抵抗線으로 물러서게 됨으로써 일단 交綏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동안에 여기서 보여준 彼我의 爭奪意志는 動員된 物量과 損失 對比로 능히 가름될 수 있을 것이니 먼저 中共제7사단(장, 張開基)은 그 全力을 投入한 것으로 推斷되었으며 그를 지원한 포병은 15개대 대으로써 기간동안에 臨津江 東쪽의 주지함선에만 15,013발과 西쪽의 Nori고지 일대에 9,729발 및 上梅洞 부근의 집결지에 大口徑彈 250여발, 그리고 분제의 Queen고지에 32,200발, 또한 제3—杓고지일대에 30,759발과 제1고지에 3,926발등 都合 91,627발에 달하는 포탄을 집중한 것으로 落彈보고에서 集計되었는데, 해병제1전투단 정면에 집중되었을 그것을 합친다면 100,000발을 上廻한 것이 확실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사단은 3개연대에서 17개중대가 動員되었으며 11개의 지원포병대대 가운데 사단포병대가 105mm포탄 78,663발과 155mm포탄 14,663발로써 93,326발을 소모하였고, 군단 지원포병은 105mm포탄 45,475발과 155mm포탄 3,427발, 그리고 8" 포탄 1,412발과 240mm포탄 1,412발로써 모두 52,286발을 소모하여 都合 145,612발을 敵陣에 퍼부은 것이었다.

따라서 敵은 1일 평균 3개대대의 병력과 23,000발의 포탄을, 사단은 4개중대 이상의 병력과 36,000발을 넘는 포탄을 각각 사용한 셈이니, 彼我의 그것을 합하면 1일 4개대대를 넘는 병력이 高地의 山脈을 南北으로 오르 내렸고, 60,000여발의 포탄이 山頂을 번갈아 넘나들었던 것이니, 그 熾烈相을 이로써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 戰鬪는 3월末 美해병사단의 Nevada地域 전투——이 해에 들어서 군단정면에서 가장 큰 규모로 評價된——를 浚駕하는 것으로서 이 結果로 여기서 當面の 中共이 병력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我軍이 地域의 확보보다는 병력의 안전圖謀에 優先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確認한 셈이었다.

期間中 사단의 綜合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損	失
遺棄屍體	1,041구	戰 死	4/380명
推定殺傷	3,800여명	負 傷	23/696명
		失 踪	1/20명
		計	28/1,096명

제11연대(장, 崔周鍾 대령)의 공격중대가 Queen—杓고지에서 물러난 29일 16,00부터 7월1일 13.00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항공지원을 要請하여 계속 그곳 敵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가운데 29일 밤중으로 사단의 모든 KSC를 動員하여 Queen 고지와 「황새」고지를 잇는 稜線을 끊어 폭 5m에 깊이 3m의 陷穽을 만든 다음 그 속에 地雷를 埋設하여 敵의 「황새」고지로의 접근을 막는 한편, 杓고지에 장애물 설비를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제15연대(장, 宋虎林 대령)로 하여금 敵을 Queen 고지線에서 抑留케하고 「황새」—「靑」—「갈매기」고지등은 계속 확보토록 하였는데, 30일에는 突제 73전차대대로부터 A중대를 擧撥 받게되어 이를 제15, 제12 兩 연대의 主抵抗線 강화에 充用하였으며, 그 後繼措置로서 예비인 제11연대의 1개대대를 Iceland線에 推進하여 그곳에 縱深陣地를 확보토록 함으로써 主抵抗線의 固守에 대한 決意를 새롭게 하였다.

한편 當面한 中共제7사단은 Queen 고지까지를 手中에 넣은 뒤로는 더 이상의 跳躍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들 역시 그 線에서 부대 整備로 전환한 듯 하였다. 그러나 곧 밝혀지기를 그들은 7월 31일 그들군 예비인 제2사단(제4, 제5, 제6연대)과 交代하여 예비로 빠졌다고 하였는 바 이 交代는 7월 31일 사단이

이 戰線에 나타난지 불과 3개월만의 일이라, 이해보면 이 며칠간의 전투에서 그들이 얼마나 큰 打撃을 입었는가 하는 것을 推斷할 수 있는 일이었다.

따라서 이제 또 사단의 제15, 제12 兩 연대는 새로이 이 戰線에 나선 中共제2사단과 對陣케 되었는데 이와같이 하여 軍단 戰線에서 彼我의 隊伍再編으로 對陣狀態만을 이루게 되자 7월 6일에 軍단右翼인 美제25사단과 예비인 美해병사단을 交代키로 한 軍단장의 方針에 따라 사단에 배속중인 海병제1전투단(장, 金聖恩 대령)이 同 海병사단으로 復歸하여 汶山正面으로 轉進케 되었다.

이에 사단은 6일 19.00부 作命 제102호로써 사단 左一線인 海병전투단지역을 예비인 제11연대로 하여금 다시 인수토록 함으로써 當初의 陣容으로 還元케된 바, 이제는 3개연대로써 主抵抗線을 예비없이 확보케 되었다.

이 동안인 11일에 제15연대 宋虎林 대령이 陸本으로 轉出되고, 그 後任으로 제1補充대대장 高林鉉 중령이 赴任하였는데(陸特(甲)제186호 追加 4호: 53.7.5부) 그 며칠뒤인 13일 밤에 全戰線을 휩쓴 狂風을 따라 當面의 中共제2사단 제4연대가 앞서의 제7사단의 爭奪에서 攻必取의 自信을 얻은 듯, 제15연대의 제7중대가 담당중인 「황새」-尙武-「갈매기」고지를, 그리고 그들 제1사단의 일부가 臨津江西岸의 제11연대 제6중대가 확보중인 Betty 고지로 돌이닥쳐 또 한번 紛亂을 일으켰다.

그러나 「황새」고지 正面에서는 同 제15연대의 제6, 제7 兩 중대가 항공조명지원을 받아 奮戰하여 그 이튿날 14일 새벽에 敵을 격퇴하였는데, 여기서 遺棄屍體 70여구를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Betty 고지에서는 또 15~16兩日사이에 저 有名한 金萬述 上사의 武勇談을 낳게 되거니와 이에 대하여서는 次節에서 取扱키로 한다.



<7.4 戰功者 훈장수여: 金東斌 사단장이 제12연대장 李吉泳대령에 훈장을 달아주고 있다>

어쨌든, 이 한 차례의 攻波를 막지 못하므로 큰 接戰없이 現 주저항선에서 7월 27일에 “고작골”을 軍事分界線으로 그으려는 休戰을 맞게됨으로써 敵은 Queen과 杼고지를 비워놓고 멀리 驛谷川の 北岸으로 물러서게되고 사단 역시 Iceland線의 南쪽에 主抵抗線을 다시 치게 되었으니 무슨 까닭으로 이곳에서 그 토록 다투었던가?

해마다 主人없는 山峰에는 眞紅色인 진달래가 血痕에서 春風을 따라 피어날 것이고, 山谷에는 蕭蕭한 秋月이 冥鬼와 더불어 長照 一吟할 것이야, 이로써 自由의 尊貴함과 胡虜의 名分없는 侵略根性을 永世에 傳할 따름이리라.

§ 參戰者의 證言

제1사단장 金東斌 中將

(1976. 10. 12. 自宅에서, 예 中將)

나는 제1사단에서 제11연대장과 참모장을 歷任한 바 있었기 때문에 5월에 朴林桓 소장의 뒤를 이어 사단장으로 부임하였을 때도 상황파악

은 비교적 쉬웠다.

부임 즉시 제8군의 情報附錄을 보니, Queen 고지와 杼고지 일대에 敵의 공격이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Queen고지까지 나가서 방어태세를 확인한 바 장애물시설이 미약하였다. 나는 곧 軍단에 요청하여 Ston트

럭 40여분의 資材를 지원받아 그 고지 前面에 50m의 폭으로 철조망을 다시 쳤는데 그 공사가 끝나자 敵의 砲擊이 시작되었다.

그날이 6.25이라 사단에서 행사를 가지기도 하였는데, 左右 인접인 英연방사단이나 美제7사단 지역은 조용하고 우리 정면에만 敵의 소 포화가 집중되었다. 나는 제15연대 CP로 지휘소를 추진하고 副사단장인 李相喆 대령을 前연대 前方 OP에 내보내서 정확한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戰鬪상황은 흡사 泥田鬪의 양상이 되풀이되는 듯 하였다.

우리측의 화력지원도 대단하였지만 敵의 砲火도 대단한 위력을 보였다. 戰鬪가 계속되는 중에 한번은 군단장이 Helicopter로 前方지휘소에 飛來하였는데 그 Helicopter가 막 着陸하려는 순간 敵의 포탄 1발이 그 콩무리를 때려 반동강을 내고 말았다. 이어 제2단은 그 근처 제15연대본부 교회의 十字架를 날려보내고 말았으나, 다행히 군단장은 無事하였다. 이런 싸움을 계속하다가 군단장이 고지를 포기하라고 함으로써 전투를 중지하게 되고 말았다.

당시 이 戰鬪에서 내가 느낀 것은 『陣地는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이 파놓으면 손해를 본다. 따라서 전지에는 반드시 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그때 우리가 그 고지 前後의 斜面에 교통호 같은 것을 많이 파놓았으나 그곳을 지킬만한 병력이 없어 대부분의 통로는 비어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들 線가 결국은 敵에게 利用당하는 바 되었던 것이다.

또 한가지 잊을 수 없는 것은 美육군참모총장 Collins 대장이 사단을 방문하였을 때 일인데 포병단 FSCC에서 戰況을 聽取하던 그가 敵의 砲火가 熾盛한 것에 놀라면서 군단포병단장인 「쉬번」 준장을 불러 그 동안 對砲兵戰을 하였는가 하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군단 포병단장은 休戰협상관계로 하여 積極的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말을 듣자 Collins 대장은 「政治는 政治, 戰爭은 戰爭이 아니냐」고 詰問하였다.

참으로 그다운 表現이라고 생각되었다.

◇ 제15연대 제2대대 補給官 吳濟熙 중위
(1965. 4. 29 제39사단 사령부에서 少領)

6월 25일부터 제3대대 正面의 차고지에 戰鬪가 치열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 제2대대는 대대 참모들이 모두 OP에 올라가서 徹夜하였다.

그런데 녀칠었다가 제7중대의 Queen 고지에서 상황이 다시 붙었다. 우리는 그때 「FLASH QUEEN」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이 信號만 있으면 포병이 일제사격을 퍼붓기로 되어 있었다. 敵砲가 떨어지자, 高地에서 M1소총 예광탄신호가 올라갔다. 대대장이 高地에 電話를 하였으나 不通이었으며 無線도 마찬가지였다. 探照燈을 켜고 高地를 觀望하니 벌써 敵이 고지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다. 군단지원포와 사단포가 고지를 때렸다. 포격은 子正가까이까지 계속되었는데, 고지의 상황을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대대 참모들이 고지 밑 계곡으로 나아가 낙오병을 수습하였다.

敵은 공격前에 우리 陣地에다 攻擊壕를 파놓고 그 속에서 待藏하였다가 포격과 동시에 고지위로 뛰어올라 왔다는 것이었다.

고지를 지키던 제7중대장 王日濬 대위가 敵에서 간신히 탈출해 나왔는데, 그는 하마트연 고지를 상실한 책임으로 軍法會議에 회부될 뻔 하였으나, 뒤에 잡힌 捕虜의 진술에서 懼狀이 참작되어 모면되기도 하였다.

◇ 제2전차중대 소대장 金能秀 소위
(1966. 3. 16 陸本 作戰參謀部에서, 少領)

당시 우리 소대는 臨津江 南岸의 제11연대수색중대전지인 △264에 소대 전차 5대를 배치하여 주로 제11연대의 火力지원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陣地變換을 하지 않고서도 제15연대의 Queen고지 인대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였다.

6월 18일부터인가 敵의 포병이 基點사격과 요란사격을 실시하며, 陣前의 철조망 제거에도 무척 신경을 쓰는 듯하였다.

그때 敵의 포격은 散發的인 것이어서, 敵陣의 사격이 중지되는 틈을 타서 우리병력이 철조망을 다시 보수하였는데, 그런 일이 1주일이나 반복되다가 차고지에서 敵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敵砲가 무지무지하였다.

그때 우리 戰車는 4,800yds를 놓고 사격하였

는데 우리 진지열 10m쯤 되는 곳에 美 포병의 FO가 위치 하였다. 그래서 그 OP로 가서 상황을 알아 보았더니, 敵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소대 원에게 전투준비를 갖추도록 하고 대기하였는데 잠시 뒤에 그 FO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제11연대를 지원중인 모든 火力

§ 研 究

◇戰果記錄문제 : 어떤 緣由에서 인지는 모르되 이 戰鬪에 관한 戰鬪詳報가 현재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本文은 제1사단의 部隊歷史 제1집인 「前進歷史」(1966년 2월, 제1사단 사령부刊行 : 한글專用板)에 실려있는 것을 土證로 하여 參戰者의 證言과 個人記錄으로 添削을 加하여 再構成한 것인데, 그런만큼 당시의 部隊戰鬪序列에 대한 追跡에도 未洽한 感이 있고, 또 戰果와 같은 數字의 記錄에 대한 正確性에도 多少 의문이 없지 않다.

例컨대 戰果의 경우, 本文敘述의 기본 資料인 「前進歷史」에는 53.6.25~6.29 사이의 綜合戰果를 다음과 같다고 하였다.

射 殺 : 1,212명
推定射殺 : 3,190명
推定負傷 : 3,872명
捕 虜 : 4명
計 : 8,278명

그러나 1953년도 「部隊歷史報告」에 의하면 各연대별 戰果가 區分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이러하다.

제15연대 :
射 殺 : 818명
推定射殺 : 2,318명
제12연대 :
射 殺 : 165명
推定射殺 : 450명
推定負傷 : 950명
제11연대 :
射 殺 : 58명
推定射殺 : 75명
推定負傷 : 78명

이를 合算하면 확인된 射殺數가 1,041명에 推

은 제15연대 쪽으로 집중하라는 것이었다.

그대서 그날밤 우리 전차는 이미 정해진 射表대로 밤새도록 포탄을 퍼부었는데, 당시 소대가 확보한 포탄 1,600발—트럭으로 다섯대분—을 다 쏘았다.

定殺傷이 모두 3,865으로 된다.

따라서 本文에서는 이 연대별 戰果를 綜合하여 遺棄屍體 확인 1,041具와 推定殺傷 3,800여 명으로 잡아, 이를 取擇하였거니와 이는 대개의 경우 戰果에 誇張性이 많다는 點을 勘案하여서이다. 그러나 損失分에 대하여서는 연대별의 記錄이 分明치 않아 同 「前進歷史」에 실려있는 것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였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中共제1군(장, 劉轉連)은 韓國戰爭에 처음 登場하였으니만큼 이 戰鬪에서 意外의 大損失을 볼 수 있는 素地도 없지않다고 하겠는데, 이는 1951년 4월에 있었던 「春季攻勢」에서 俞心의 서울 攻擊戰을 見 新銳의 제19병단(장, 楊得志)이 數的인 優勢만 믿고 白雲에 大路上을 활개치다가 美軍의 艦砲와 野砲 그리고 空中爆撃의 三者에 의하여 立體的인 공격을 받아 潰滅的인 打擊을 입은 적이 있음을 想起하여 보면(제6권 참조) 이 제1군도 그 前轍을 밟았을 可能性이 있다는 것이다.

더우기 「前進歷史」에서 主張하는 綜合 戰果 8,278명 殺傷이란 數字에 대하여 당시 美軍側의 記錄에서도 이를 肯定하는듯 하다는데에서 더욱 그러한 것이다.

즉, 休戰直後인 53.8.1에 美제1군단장 Clarke 중장(소장에서 進級日字는 未詳이나 7월 초순이 아닌가 推測됨)이 육군총참모장인 白善燁 대장에게 보낸 「Account of Thirty One Days」라는 題下의 한 公翰(이는 당시 副군단장인 朴林恒 소장에게 보낸 寫本으로 確認한 것임)에 의하면 이 戰鬪가 시작된 53.6.25부터 休戰이 된 7.27까지의 31일간의 期間중에 제1사단이 치렀던 전투행동에 대하여 밝힌 바 있는데, 여기에 다음과 같은 記錄을 볼 수가 있다.

『(前略) Comparison of casualties for this

period are :

Killed in action : Enemy—3, 257 counted plus
4, 460 estimated.

Friendly—497

Wounded in action : Enemy—33 counted plus
7, 495 estimated.

Friendly—1, 158

There were 7 friendly missing in action, and
7 prisoners of war taken.

A total of 14, 252 enemy casualties(estimated
and counted) Compared with 1, 662 friendly
casualties. (後略)』

여기서는 期間중 敵이 모두 14, 252명의 損失
을 입은 것으로 推算된다고 한 것인데, 이는 불
론 6. 25~7. 27사이의 것을 包括한 것인만큼
6. 25~6. 29사이의 것을 가려낼 길이 없으나, 이
Queen—참고지 전투뒤에는 7. 13—7. 16 사이의
尙武고지 일원과 Betty 고지 전투의에는 이렇
다할 전투가 없었고, 또 이들 戦闘에서는 실제
로 敵의 殺傷推計가 1, 000~2, 000명을 넘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結論으로 敵의 이 損
失(14, 252명)은 그 대부분이 6. 25~6. 29 사이에
Queen—참고지 일대에서 입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前進歷史」에 실린 8, 278명이
오하러 이에 近似한 數値인 것으로 믿어지기도
하는 것이나, 이를 取擇할 경우 敵의 死傷者가
1일 2, 000여명으로 계산되는 셈이니, 더 연구되
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한다.

◇美軍部隊의 配屬문제 : 美海兵隊戰史인 「U.
S. Marine Operations in Korea」에 보면, 6월
25일에 사단正面に 敵의 攻撃이 있자 軍단장
Clarke소장은 당시 軍단에 막인 同해병사단의 제

7해병연대(장, Glenn C. Funk 대령)으로써 사
단을 지원케 하기로 決心하였던 것이나 26일에
韓國 해병대를 投入키로 變更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까닭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This change was due to the existing policy
of not having a United States unit serving
under operatinal control of a Korean comman-
der. …』

이는 실로 이 戰爭 全 기간을 통하여 韓國軍
사단을 美軍사단에 배속하는 것까지도 茶飯事로
行하면서 韓國軍부대에 美軍부대가 배속되거나
작전지휘를 받은 적이 단 한번도 없었음을 상기
하게 하여주는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다.

과연 이러한 政略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어찌하여 韓國軍 지휘관이 美軍부대를 지휘하여
서는 안되는 것인지 깊이 自省할 문제라고 본다.

◇제12연대 수색중대의 攻撃문제 : 本文中의
29일 새벽에 참고지를 공격한 제12연대 수색중
대의 行動에 대한 자세한 記錄을 볼 수 없어 詳
考치 못하였는데, 「前進歷史」에 의하면 『제12연
대 수색중대는 참고지의 敵을 反擊코자 29일
01. 30에 LD를 통과하였다.』라고만 되어 있어,
이 공격이 고지奪回를 위하여 계획된 것인지,
아니면 敵이 Queen고지를 공격함에 따라 臨機
應變으로 試圖된 總制수단인지가 명확치 못
하다.

따라서 夜間에 地形에도 生疎한 중대를 아무
런 계획없이 敵地에 들어 보낸다는 것은 위험을
自招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本文에서는 이를
事前에 준비된 夜間攻撃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더 細明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3. Betty高地 戰鬪 (1953년 7월 15일부터 // // 16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 105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제 1 사단	장 준장 金 東 斌	사단포병단	장 대령 宋 贊 鏞		
제 11연대	장 대령 崔 周 鍾	사단통신부	장 중령 許 建 功		
제 2 대대	장 중령 金 奉 權	隣接部隊			
제 5 중대	장 대위 鄭 宗 哲	右隣接 제 12연대	장 대령 李 吉 泳		
제 6 중대	장 대위 鄭 大 善	左隣接 제 11연대			
제 7 중대	장 대위 朴 泰 坤	제 3 대대	장 중령 金 衡 祿		
		敵 軍			
中共 제 1 군	장 劉 轉 連	(제 1·2·3연대)			
제 1 사단	장 游 好 揚				

나. 전투전의 개황

사단은 차·Queen高地에서의 激戰이 끝나 戰鬪地境 東半의 狀況이 비교적 靜穩하여지자, 여기에 참가하였던 제 11연대로 하여금 以前의 陣地로 돌아가게 하였다. 즉 6월 28일 以來 사단에 배속되었던 海兵 제 1연대 전투단(장, 金聖恩 대령)은 7.8. 15.00附로 다시 美 海兵 제 1사단으로 配屬이 變更되고 이와 교대하여 제 11연대가 다시 高陽堡—高旺山 부근의 陣地를 引受한 것이다.

그리하여 사단은 右一線 제 15연대(장, 高林鉉 대령), 中央一線 제 12연대(장, 李吉泳 대령), 그리고 左一線 제 11연대(장, 崔周鍾 대령)로서 魚積山里 부근에서 高旺山 東麓의 陣地를 堅持하면서, 前哨陣地 부근에서 分隊 규모의 敵과 交戰하고 있었다.

4月 以來로 中共 제 1군의 제 1·제 7사단이 버티고 있다가, 所謂 6.28攻勢가 끝난 다음인 7月初旬에 그동안 예비로 있던 제 2사단이 左翼인 제 7사단과 交代한 것으로 判明되었으며, 이른바 7.13攻勢가 시작되자 中共 제 1사단은 我軍의 前哨陣地에 대한 공격에 滯手하여 그 제 1연대로서 Betty高地를 侵襲하게 되었다. 이 Betty高地를 中心으로 한 高陽堡 일대는 南流하던 臨津江이 이 일대로부터 澄波里 부근까지 몇 갈래의 支流를 끼고 東西로 蛇行하는데 그 西岸은 馬鞍山(△315)으로부터 東走하는 高地群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이 Betty高地는 臨津江의 支流가 南北으로 흐르는 가운데 我軍의 主陣地와는

南쪽의 支流를 사이에 두고 따로 떨어져 이어진 標高 150~120m 정도의 세 봉우리로 丘陵地로서, 馬糧山 일대의 敵은 그대로 高地까지 接近할 수 있는 反面에, 我軍은 主陣地로부터의 兵力增援과 補給 支援에 있어서 迂回渡河하여야만 되었다. 더구나 7월의 長霖은 어려움을 더하여 주는 情形이었다.

그런데 제 11연대는 이때에 제 2대대(장, 金奉樞 중령)로서 Betty高地와 그 南쪽인 中高樓 東北 일대의 高地를 堅持하고 있었으나, 연대 右제 1선인 2대대는 OP를 △209에 두고 周圍에 제 6, 제 7 및 중화기 중대로 하여금, △209 北쪽 500m인 Betty南越 高地에 제 5중대로 하여금 각각 陣地를 점령케 하였으며 Betty高地는 제 7중대의 각 소총소대가 交代로 固守케 하였던 것이다.

한편 연대 左제 1선인 제 3대대(제 1, 제 2중대 배속)(장, 金衡祿 중령)는 中高樓—高旺山 東麓을, 그리고 제 1대대(-)(장, 朴春光 중령)는 高稜里 부근의 阻止陣地를 각각 점령하고 있었는데, 제 3대대는 戰鬪地境線의 變遷에 따라 7월 13일 01.30附로 高旺山 東北麓의 陣地를 英 제 1연방사단(장, M. M. A-R-west, C. B., D. S. O. 소장) 제 3대대에 引繼함과 아울러 제 1 제 2 兩중대를 原隊復歸시키고 보다 縮少된 戰鬪地境을 맡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3일 23.00를 지나서 敵은 長霖中の 夜暗을 틈타 增強된 소대규모로서 공격을 시작하였다. 제 7중대(장, 朴泰坤 대위)는 Betty警戒소대의 敢鬪와 砲兵의 支援으로 敵을 擊退하였으나 이미 高地의 西峰이 敵手에 있는 터에 다음날 01.50의 第一次을 비롯하여 數次에 걸쳐 부대를 새로이 交替하면서 進行하는 中共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高地의 戰況은 惡化—邊倒로 치닫게 되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Betty高地는 중대규모로 設定된 前哨陣地인데 馬糧山 일대에서 臨津江을 向하여 뻗은 稜線의 東端에 해당되며 我軍으로서의 主陣地와 隔離되어 있고, 또한 그 세 連峰 사이의 거리도 150m 정도에 지나지 않는만큼, 보다 큰 규모의 부대를 投入할 수 있는 地形的인 條件이 못되는 곳이었다. 그러므로 보다 적은 兵員으로서 高地를 維持함이 상대적으로 損失을 줄일 수도 있을 뿐 아니라, 同 高地의 爭奪에 있어서는 砲兵의 支援이 무엇보다도 重要하였다.

이에 사단장 金東斌 준장은, 제 11연대가 다시 高陽堡 일대의 陣地를 引受한 다음, 군단의 指示에 따라 중대규모인 Betty高地의 警戒部隊를 소대규모로 縮小할 것을 연대장에게 명령하였으며, 연대장 崔周鍾 대령은 곧 제 2대대장 金奉樞 중령에게 命令하여 Betty高地의 제 7중대를 1개 소대만 남기고 그 나머지를 모두 撤收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중대의 主力은 대대OP가 있는 △209 南麓으로 集結하고 1개 소대만으로서 7월 13일 밤중부터 敵의 공격을 받게 된 것이다.

한편 砲兵의 支援에 있어서는 이미 사단포병과 배속 戰車砲 및 군단포병에 이르기까지 高地 일대에 대한 火網構成을 完了하고, VT信管彈을 포함한 여러가지 砲彈에 의한 火力 支援의 計劃을 樹立하고 있었다.

더욱 敵의 공격이 臨迫하자, 前述한 바와 같이 戰鬪地境을 縮少하여 일부의 陣地를 英

제1연방사단에 引繼하고(7.12. 16.00附 사단 作戰指示 제246호), 또한 同 사단 포병의 지원까지도 받도록 되었다.

(2) 작전실시

7월 15일 : 이날 02.00부터 敵은 2개 소대규모로서 다시 Betty高地를 目標로 공격의 銳峰을 指向하였는데 我軍은 60餘分동안의 砲擊끝에 03.40까지 이 敵을 擊退하고 말았다. 이로써 그들의 끈질긴 공격은 3번째로 접어들었고 攻擊持續時間이 24시간을 넘어서게 되었으며 同高地를 지키고 있던 제7중대의 1개소대는 死傷이 50%를 헤아리는 바 되었다.

그러나 날이 밝은 다음, 敵은 다시 공격을 시작하여 07.00부터 增強된 분대규모가 高地 西峰으로부터 中央峰을 향하여 접근하였는데 소대는 寡兵으로 거듭 接戰함은 不利한 까닭으로 모두 壕안으로 들어가 砂壘으로 入口를 막고 砲擊을 誘導하니, 敵은 쏟아지는 砲火에 견디지 못하고 西峰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이러한 가운데 10.00가 지나자 소대는 敵情을 살피기 위해 4명의 搜索組를 西峰으로 진출시켰는데, 該 搜索조는 그 東쪽 稜線에서 數名の 敵과 부딪쳐 手榴彈戰을 벌였으나 地形上 如意치 못하므로 일단 물러났다가 東北쪽으로 500m를 迂回하여 다시 敵壕에 手榴彈을 投擲하였다. 그러나 搜索조는 그 以上の 敵影을 찾지 못한채로 後續하는 4명의 搜索조와 合勢하여 잠시 活動을 계속하다가 11.20에 中央峰으로 歸着하였다.

Betty警戒部隊의 交代 : 한편 主陣地를 지키고 있던 대대에서는 제7중대의 소대가 이제 더 以上 버틸 수 있는 餘力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新銳의 精兵으로서 交代시킬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연대장이 隨時로 대대OP에 나오는 등, 연대는 물론 온 사단의 關心속에서 대대장 金奎樞 중령은, 이번에는 제6중대가 나서도록 결정하고 이에 따라 중대장 鄭大善 대위는 제2소대를 選定하여 소대장 金萬述 소위에게 Betty高地進出을 명령하게 되었다.

이때에 소대는 先任下士官인 金又出 상사가 소대장 대리로 지휘하다가 金萬述 소대장을 맞이한지 不過 旬日間이었으니, 金萬述 소위는 특무상사로서 대대 중화기중대 人事係의 職責을 맡고 있다가 7월 6일의 現地任官 試驗에 합격하여 當 소대장으로 任命되었던 것이며, 아직 任官式은 舉行되지 않았으나 이날 15日附로 소위에 任官되었다.

何如間 金소위 指揮下에 34명의 소대원은 12.30에 중대를 떠나 13.00에는 제5중대 陣地의 東端 江邊에 진출하여 交通壕에서 渡河를 待機하였다.

數日間 계속된 비로 강물은 잔뜩 불어 있었으나, 소대는 短艇으로 1개분대씩 渡河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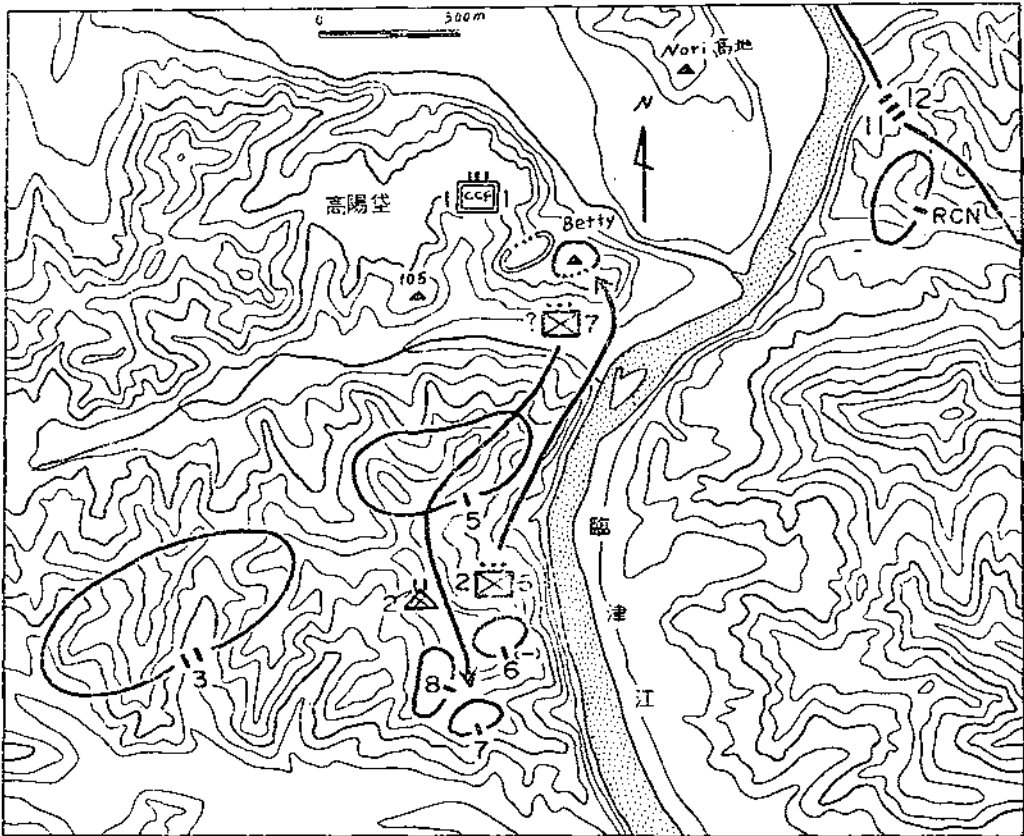
그러자 敵은 이를 알아차렸음인지 그 砲火가 雨注하며 江心에 물기등을 일으켜 短艇은 전복되었다. 그러나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을 거둘 수는 없는 일이므로 소대는 敵火를 무

릅쓰고 渡河를 強行할 수 밖에 없었는데 결국 1명의 兵士가 負傷하였을 뿐으로 마침내 渡河에 成功하고야 말았다.

이렇게 하여 소대는 15.30이 좀 지난 뒤에 Betty高地 中央峰에 진출하여 제7중대의 소대와 合勢하였는데, 뒷날 金少위의 述懐에 따르면 「當時 陣地에는 그 소대장 宋少위와 1개 분대 정도의 兵力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金萬述 소위는 곧 2개 분대를 中央峰에 配置하고 1개 분대는 金又出 상사의 指揮下에 東峰에 두어 正面으로부터의 敵의 공격에 對備하였으며, 그 自身은 中央峰 有蓋壕에서 2개 분대를 직접 指揮하였다.

◇ 상황도 제105호 Betty高地戰鬪(73. 7.15)



제2소대의 奮鬪: 이때 대대장 金奉權 중령은 OP에서 제6중대장 鄭大善 대위와 함께 Betty高地의 狀況을 注視하고 있었는데, 소대로부터 交代完了의 報告에 接하자 곧 『高地 西峰을 공격하라』고 命令하니, 이는 守勢로 있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機會에 先制攻撃으로서 敵의 기세를 꺾어 놓자는 意圖였던 것이다.

이에 소대는 17.30에 소대장에 直接 指揮하는 1개 분대로서 西峰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

였는데 분대는 西峰 東北麓으로 前進하여 抵抗하는 5名の 敵을 擊退한 다음, 頂上을 향하여 올라갔다. 그러나 8부 稜線에서 高地의 敵을 공격하려는 순간, 이미 지나온 아래쪽에서 多發銃聲이 요란하게 퍼졌다. 분대는 高地 中단에서 敵의 陣地를 수색치 않고 일부의 敵단을 쫓아 그대로 지나친 탓으로 이제 腹背受敵의 兩面包圍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분대는 우선 小數兵力이나마 二分하여 兩面으로 對敵할 수 밖에 없었는데 분대가 進退兩難에 빠진 것을 본 中央峰의 소대에서는 일부가 西峰으로 突進하는 등 高地 中간의 敵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분대는 힘을 얻어 中간의 敵陣을 挾攻으로 突破하고 中央峰으로 反轉하니, 그 사이가 不過 10餘分으로 이때가 18.00였다. 소대는 이 공격에서 數名の 敵兵을 射殺키도 하였으나, 戰死 2名の 損失을 보았다.

한편 撤收를 시작한 제7중대의 소대는 19.30에 제5중대 陣地로 歸還하였는데, 한동안 宗용하던 Betty高地에는 다시 敵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Betty의 제6중대 제2소대는 그동안 砂囊을 다시 쌓아 陣地를 補修한 다음, 銳意 警戒中이었던 바, 薄暮의 어둠이 점차 짙어지면서 高地 아래에서 삼소리와 인기척이 들려 敵이 집결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金萬述 소위는 敵이 곧 공격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대OP에 砲擊을 요청하였다.

敵은 과연 中央峰을 휩쓸듯이 공격을 시작하니, 그 규모는 소대의 數倍요, 거의 대대규모로까지도 보였으나 金소위는 沮喪되는 兵士들의 士氣를 소리쳐 북돋우며 잠시 敵과 맞서다가, 支援砲擊이 시작되자 곧 소대원을 이끌고 有蓋壕로 들어 갔다.

敵은 集注하는 我軍의 砲火에 死傷이 續出하는 가운데에서도 계속 交通壕로 迫肉하여 有蓋壕 入口의 소대 경계병과 銃火를 交換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소대장은 先頭에 나선 敵兵을 一擊으로 射殺한 다음, 壕入口로 나가 안에서 집어주는 手榴彈을 실 사이 없이 投擲하니, 결국 敵은 쏟아지는 鐵火에 놀리고 亂亂하는 手榴彈에 막혀 交通壕를 넘어서지 못한 채 敗退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20.00가 지나자 소대는 無線으로 대대OP에 砲擊의 中止를 連絡한 다음, 陣地일대를 搜索하였는데 敵은 모두 물려난 것이 아니라 아직 中央峰 西斜面에 蟻集하고 있는 듯하였다. 따라서 다시 敵의 공격이 있을 것으로 豫測되어 소대는 그 사이에 斷絶되었던 有線을 다시 補修하고, 한차례 敵을 물리침에서 오는 自信感으로 元氣를 되찾은 가운데 경계를 계속하였다.

22.00에 이르러 이번에는 敵이 각각 중대규모로서 左右兩面으로부터 공격하였으니 中央峰 西北과 西南쪽의 兩面合擊인 셈이다. 소대는 곧 砲擊을 要請한 다음 壕속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쏟아지는 砲火속에서도 敵은 交通壕까지 接近하였으며 이미 소대의 有線이 斷線되어 대대OP와의 연락은 無線에만 依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부의 敵이 交通壕를 넘어 소리가 있는 壕入口까지 肉迫하여 手榴彈을 投擲하니, 그 1發이 壕안으로 날아 爆發하였다. 이로 因하여 衛生兵이 戰死하고 無線마저 不通케 되었는데 이때에 거의 反射的으로

뛰어 나선 金소위는 그 기세로 先頭의 擡兵을 銃劍으로 刺殺한 다음, 다시 據로 들어서서 數發의 手榴彈을 投擲하여 數名의 敵兵을 擊殺케 하니 소대의 據로 接近하던 敵은 드디어 潰散하고, 그밖의 무리도 많은 死傷者만을 남겨놓은채 물러나고 말았다.

그러나 有無線이 모두 杜絶된 소대로서는 이제 砲兵의 支援을 제대로 要請할 수도 없게 되고 또한 대대OP에서도 通信의 不通으로 Betty高地의 狀況을 알 수 없었으며, 따라서 상황에 따른 對應策도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그 위에 信號彈의 效果조차 바라기 어려웠으니 VT信管彈이 미리 爆發하여 效果를 거두지 못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適時에 適切한 支援砲擊을 바랄 수 없이 寡兵으로서 高地를 固守하는 道理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대OP에서는 4名の 通信兵으로 하여금 無線通信器를 갖고 Betty高地로 진출토록 하였으며, 한편 金萬述 소위는 通信兵 李康魯 하사에게 現在의 狀況을 설명하여 준 다음, 이를 중대장에게 報告하고 새로운 無線通信器의 支給과 有線의 復舊를 요청하는 任務를 주어 그를 主陣地로 보냈다.

먼저 連絡에 성공한 것은 소대 통신병 李하사였는데 그는 子正前에 제5중대 OP에 到達하여 제6중대장 鄭大善 대위에게 자신의 임무에 대해 보고하니, 이로써 主陣地에서는 白高地의 狀況을 把握할 수 있었다.

7월 16일 : 대대OP로부터의 통신병들이 江을 건넜던 것은 이날 새벽 01.00였는데, 이들은 02.30에야 同高地 東峰에 이를 수 있었으며 이로써 同高地와 대대OP 사이의 통신이 일단 再開된 것이다.

그러나 高地의 東峰과 中央峰 사이의 통신이 아직도 不通이므로, 東峰의 제3분대는 2名の 搜索組를 中央峰으로 보냈는데 이들은 1시간만에 소대를 찾아, 04.00전에 有線도 다시 連絡될 수 있었다. 이제 소대는 모든 通信이 다시 開通됨으로써 活氣를 되찾아 새로운 각오로써 應戰態勢를 갖추었다.

執拗한 敵의 공격과 소대의 固守 : 04.00가 지나면서 敵은 다시 中央峰 西北쪽과 西쪽에서 소대를 目標로 一時에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그들은 각각 소대규모인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소대는 支援砲火가 集中됨과 동시에 據로 들어간 다음, 그 入口에서 手榴彈으로 敵이 交通據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阻止하니, 敵은 我軍의 精確한 砲擊에 견디지 못하고 北쪽으로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05.00가 좀 지나서, 소대는 전투중에 다시 斷線된 有線을 連結하였는데, 高地의 占領을 끝내 斷念하지 못한듯한 敵은 30餘分 뒤에 2개 소대 乃至 중대규모로서 이번에는 中央峰의 北斜面으로부터 또 다시 공격하였다.

이때에 金萬述 소위는 半정도로 줄어든 소대원들과 함께 交通據에서 手榴彈으로 싸우게 되었는데, 2名の 敵兵이 交通據로 뛰어 들었다. 金 소위는 순간적으로 銃을 들자 敵이 뛰

어물면서 넘어져 미쳐 일어서지 못한 者를 銃劍으로 1명을 刺殺하고 막 일어나려는 다른 1名の 眼(眼)을 발로 차 쓰러뜨리고 역시 刺殺한 다음, 그 多發銃을 鹵獲하였다. 이어 手榴彈을 계속 投擲하였으나, 敵이 거의 중대 규모인 것으로 판단되어 勢不利함을 알자 곧 소대원을 이끌어 壕안으로 들어선 다음, 敵에게 砲擊을 集注토록 誘導하였다. 드디어 날이 밝아오면서 敵은 中央峰 北쪽 및 東峰 北쪽으로 물러서고 말았다.

그 사이 또 다시 끊어진 有線을 06.30까지 連結한 소대장은 대대OP에 나온 연대장 崔周鍾 대령과 通話할 수 있었다. 연대장은 現在의 狀況을 묻고 增援兵力을 보내주겠다고 言約하였으나, 兵力을 增援하여도 별다른 狀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實情이었다.

날은 이미 밝았으나 짙게 낀 안개로 視界는 5m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不良하였는데 06.40에 일단 물러섰던 敵은 이 안개를 逆利用하면서 다시 소대에 대한 攻擊의 醜鋒을 겨냥하게 되었다.

소대는 手榴彈의 連投로써 이 무리들을 阻止하다가, 近接한 무리와는 白兵으로 格鬪를 벌이는 등, 이제야말로 生死를 돌보지 않고 온힘을 다 한 激戰을 演出하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점차 안개가 개이니 그들은 戰不利하고 勢窮力盡한 나머지 敗退함으로써 07.30에는 이미 그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소대는 곧 陣地일대를 搜索하여 負傷당한 채 숨어있던 守兵 3名을 捕虜로 하였는데 이 者들은 後送도중인 09.00에 負傷으로 말미암아 결국 死亡하였으며, 그 사이에 主陣地에서는 제6중대 제3소대가 새로운 Betty警戒部隊로 選定되어, 08.00에 交代次 同高地를 향하여 중대를 떠났다.

이제 金萬述 소위의 제2소대는 高地를 끝내 지켜내어 맡은바 任務를 完遂한 것이다. 또 戰果도 올렸지만, 그러나 소대도 滿身瘡痍가 되었으니, 輕傷者를 포함하여 남은 소대의 總員은 12名이었다.

11.15에 제3소대(장, 金基鎭 소위)가 高地에 진출하니, 現地任官 同期인 兩 金소위는 서로를 적려하며 交代케 된 것이다.

라. 전투후의 개황

部隊의 交代가 곧 전투의 終結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7월 16일과 그 以後에도 규모는 작으나 Betty高地에서는 間歇의으로 전투가 계속되었다.

여하튼 제2소대는 午前中에 제5중대 陣地까지 歸着하여 그 OP에서 중대장 鄭大善 대위에게 經過를 報告한 다음, 대대OP로 가서 연대장과 대대장에게 역시 報告하였다.

소대원들이 江물에 들어가 戰塵을 씻을 때, 연대로부터 누가 가장 잘 싸웠는가를 質問받기도 하였으나, 소대의 누구도 대답할 心靄가 아니었다. 그들은 제2소대라는 한 덩어리로 싸웠을 뿐이요, 이제 살아서 돌아온 立場에서는 散華한, 重傷을 입은 戰友들을 생각하는 괴로움이 있을 뿐, 누가 功이 컸

고 누가 勳章을 받느냐는 따위는 心中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저녁에 연대장이 보낸 ration 한 상자로 喰食할 때, 한 잔 燒酒에 悲憤을 달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 치의 땅이라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홀린 괴의 보람도 없이 休戰은 뚫아왔다. 7월 20일부터는 彈藥의 使用이 制限되었고, 戰線은 점차 靜穩하여졌으며, 7월 27일, 드디어 休戰이 成立되었다.

사단은 힘들여 지키던 陣地로부터 물러나야만 하였고, 7월 30일에는 사령부를 全谷으로 옮기게 되었다.

Betty高地도 결국 休戰線 北쪽에 포함되어버리고 말았다.

한편 제2소대는 이 高地 戰鬪의 功勞로 7월 23일에 李康德 하사가 金星忠武勳章을, 金順九 중사가 金星花郎勳章을, 그리고 金洪圭 하사가 銀星花郎勳章을 각각 授與받았으며, 소대장 金萬述 소위는 다음해인 1954년 2월 21일, 서울運動場에서 베풀어진 式典에서 國聯軍總司令官 Maxwell D. Taylor 대장으로부터 살아서, 더욱 外國人으로서는 받기 힘들다는 美國의 最高勳章의 하나인 十字勳章을 授與받았다. 그리고 同年 9月 25日 陸本일만명령 제302호에 依하여 金소위는 다시 韓國의 最高武功勳章인 金星太極勳章을 授與받았으니, 이 모두는 제2소대의 勇戰散鬪를 代表的으로 기리자는 것이라 하겠다.

戰 果		損 失	
殺 射	314名	戰 死	6名
殺傷(推定)	450名	戰 傷	18名
捕 虜	3名		
無電器노획	1대		
手榴彈	155발		
多發銃	1挺		

※ 戰果는 戰鬪詳報에 依據하였으나, 損失은 公式記錄이 아님(證言).

金萬述 소위의 功績書에는 射殺 200, 推定射殺 156으로 記錄되어 있음.

§ 參戰者의 證言

◇ 제11연대 제6중대 제2소대장 金萬述 소위

(1967년 5월 4일 義勇村과 1976년 5월 19일 戰鬪編委에서, 예 대위)

그때는 任官式前으로 重火器중대 人事係로 있었는데, 소대장으로 내보내라 하여 제6중대의 제2소대장이 되었다.

명령을 받고 Betty高地로 갔는데, 途中에 江을 건너기 전에 江邊의 동굴같은데서 점심을 먹었다. 소고기통조림이 나왔는데, 특히 新兵들은 갓다와서 먹겠다는 등 食欲이 없었다. 특히 여기사 자기 부인의 사진이 들은 편지를 받은 한 소대원이 밤에 戰死한 일이 생각나고, 防彈服이 몇개 支給되었는데 너무 모자라 누구는 입고 누구는 안입을 수 있느냐고 대대 작전참모에게 항의한 일이 있다.

그리고 고부보트로 江을 건너는데 敵이 다 觀測한 듯이 敵의 砲彈이 퍼부어 배가 뒤집히고 한병이 負傷당해 後送한 다음, 高地로 올라갔다. 올라갔더니 제7중대 제1소대인가, 宋 상사라고 기억되는데 여하튼 7명이 남아 있었다. 이와 交代해서 내려보내고 西쪽 봉우리를 공격하였다.

Betty高地는 낮으막한 3개의 봉우리로 되어있고 각 봉우리 사이는 不過 150m 정도였는데, 올라가 보니 西쪽 봉우리는 敵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대장 金奎捷 중령의 命命으로 1개 분대를 직접 내가 지휘하여 공격하였는데, 數名의 敵兵이 도망가기에 쫓아 올라갔다. 올라가다가 보니까 뒤에서 巖속에 있던 敵들이 나와 등뒤로 공격하는 것이었다. 네 失手로 당황하였는데 中火線으로부터 소대의 지원을 받으며 간신히

히 撤收하였으나 2명의 犧牲者를 내고 敵射殺도 10여명 되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내가 2개분대를 지휘하여 中央烽의 陣地를 지키고, 先任下士官 金又出 상사가 1개분대를 지휘하여 東쪽 봉우리를 지켰다. 이때 중대장 鄭大善 대위는 대대OP에 대대장과 함께 있어 砲射擊을 要講하는 通信連絡은 대대OP로 했다.

밤이 되어서 敵이 온 것을 알았는데, 삽소리가 나고 인기척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보니 敵이 집결한 것 같았다. 그래서 곧 포격을 요청하였는데 아군의 포격이 시작함과 동시에 敵의 공격도 시작되었다. 우리는 麻袋에 흙을 집어넣은 것으로 막은 壕속에 들어가 接近하는 敵에게는 手榴彈도 던지고 하면서 견디어냈다. 그러다가 밤늦게 敵이 또 공격하여 던진 手榴彈 하나가 우리 소대가 들어있는 壕속으로 날아들어와 폭발하였다. 그 바람에 無電器가 파괴되고 위생병이 전사하였다.

이렇게 通信이 끊어져서 할 수 없이 李康翹 하사—뒤에 중사가 되었는데—를 連絡兵으로 자출해서 중대장에게 보냈다. 한 밤중에 대대통신병이 왔는데, 왔다가 곧 철수하였고, 소대는 다시 敵이 오면 砲擊要講하고 壕속으로 들어가고 하는 식으로 아침까지 버텼다.

날이 밝자 연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몇명 남았느냐? 증원병력 보내줄까?”하기에 증원병력 더 와봐야 소용없다고 하였다. 그러저럭 견디어 내고, 다음날 오전에 우리 중대의 제 3소대가 올라와 교대하였다.

이렇게 끝나자 사단장 金東斌 장군이 忠武勳章도 달아주고, 철수한 저녁에는 연대장이 ration 1상자를 보내 이것을 燒酒와 바꾸어 飮食하였는데 소대원들이 취해서 나에게는 야단을 하고—슬픔이랄까 울분같은 것을 털어 논 일이다.

뒤에 안 일이지만 中共軍 연대장의 通信을 我軍이 들었는는데, 全滅이니 兵力補充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한다.

전투 때는 군단포까지 지원하고 또 英 연방사단의 포병도 지원하여 주었다. 나는 뒤에 美國十字勳章도 받고, 우리 金星太極勳章도 받았는데, 잘 했다고 주니까 받았지만, 우리 소대원들

에게는 미안한 마음이다.

◇ 제11연대 제6중대 제2소대 先任下士 金又出 상사)

(1965년 4월 27일 제118연대장소에서, 대위)

金萬述 상사가 제8중대 人事係로 있다가 우리 중대 제2소대에 오기전에 나는 소대장 대리근무를 하였다.

그때는 7월일인데 우리 제2소대가 처음 제7중대와 交代하여 Betty로 가는 날 비가 많이 와서 臨津江물이 불었다. 正面으로는 가지 못하고 산기슭으로 해서 江을 건너야 되는데, M2短艇으로 건넜다. 이때는 現地任官된 소위들이 소대장으로 왔는데, 高地에 가 보니 제7중대 제2소대 宋 상사가 있었다. 밤새 砲를 맞아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면서 宋 상사가 『되겠느냐?』고 하기에 『너도 했으니 살겠지』하고 交代하였다.

대대장 명령으로 방어보다 濫間攻擊을 한 번 해보자 하였다가 소대원 2명만 희생시킨 다음, 陣地를 지키고 있는데 18.00쯤 되었는지 兵士들이 소대본부로 모여들었다. 뭐냐고 하니 敵이 왔다는 것이었다. 『이놈들아 敵이 오는데 모두 이리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야단쳐서 보냈더니 手榴彈이 터지고 M1銃 쏘고 하여, 부분대장들이 와서 敵을 驅退했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을 대대장에게 보고하고 나서 9시쯤 또 敵이 왔는데, 이번에는 한번 격퇴시켜서 사기도 오르고 한 까닭에 잘 싸워 무난히 격퇴시켰다. 그래서 좀 안심하고 있었는데 23.30쯤 되어서 OP에 퇴음소리가 났다. 그때 어느새 敵이 또 공격해서 뛰어나가고 야단이 났는데, 그중에 무전격이 부서지고 전령도 1名 戰死하였다. 나는 연락병 1명만 데리고 後斜面으로 가 전투를 계속했는데, 我軍 砲兵의 陣內射擊이 떨어지고 야단이었다. 새벽에 밖에서 소대장님을 부르는데 흑北隸軍이 아닌가 보니 대대 통신병이었다. 이로부터 통신이 되어 포격을 요청하며 계속 버티었다.

여하튼 여러번 교대하였는데, 대체로 1개소대가 하루씩, 아침에 교대하였다. 交通壕에는 屍體가 가득 차서, 디디면 쿨렁쿨렁하고 썩은 냄새는 말할 수 없었으나, 우리는 그 속에서 만자

고 그 손으로 주먹밥 먹으며 싸웠다.

그리고 훈장은 대대OP에서 군단장이 시찰하고 세계대전에서도 못본 치열한 전투라 하여 운신토록 한 것으로 안다.

◇ 제11연대 제7중대 前任將校 李相雨 소위
(1965년 8월 10일 제20사단 사령부에서,
소령)

Betty高地는 우리쪽에서 支援해 주려면 臨津江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 困難이 있고 피해도 많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대가 들어가 있던 것을 연대장 崔周鍾 대령의 명령을 받아 중대장에게 보고해서 중대OP자리에 1개소대를 남기고 철수토록 하였다. 그랬더니 하루 저녁 자고 나가니까 뺏겼다.

그 다음에 金萬述의 同期로서 任官試驗만 보고 아직 任官하지 않은 채 소대장 대리근무하던 白상사가 나가 있었는데 하루 밤중에 信號彈이 올라가고는 외마디 소리가 나면서 통신이 寸絶되고 상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나고 埋設한 Napalm彈이 터지고 하여 反擊隊를 뽑아 올려 보냈으나 연대장도 나와 있고 한테 잘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리하

§ 研 究

◇ 記錄保存의 重要性

Betty高地의 전투에는, 그 前後의 部隊交代나 戰鬪狀況에 아직 究明의 餘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戰鬪詳報조차 金萬述 소위의 功勳記錄에 添付된 것 以外에는 없는 형편이므로, 7.13 功勞에서의 軍隊의 對處相, 제6중대 제2소대의

여 중대장의 명령으로 내가 引繼받아 올라가게 되었다. 비가 와서 발이 빠지고 銃도 連發이 되지 않으므로 銃을 놓고 4명만 데리고 올라갔다. 그래서 소대장과 같이 있다가 부상당한 위생병을 만나 이를 後送하고 난 다음, 상황을 파악키 위해 주위를 살폈는데, 연대장에게 보고를 하였더니 공격을 하라고 하였으나 不利한 地形에 수류탄만 들고 하다가 士兵들만 부상당한 일이 있다. 그래서 그만두고 제6중대에 引繼하였는데, 뒤에 안 일이지만 白상사의 경우는 敵이 攀속에 TNT를 집어 넣는 바람에 모두 爆死하고 위생병만 살아남은 것이었다. 또 KSC도 아마 1개 중대정도 희생이 된 모양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休戰後에 들은 이야기인데, 軍事分界線의 中央分界線이 Betty高地로 지나야 되는데 高地가 왜 北쪽으로 들어갔느냐 하는 것이다. 뒤에 TNT로 爆發했지만 우리 봉우리 밑에 밭벌을 자리가 있고 1개 연대 정도가 常住할 수 있을만한 줄이 있었다. 敵이 이것을 들어 "너희는 1개 중대가 있는데 비해 우리는 1개 연대가 있는 일이다"고 그들의 優勢를 주장하여 그리 되었다고 한다. 休戰後 屍體를 거두러 들어가려니까 敵이 못들어가게 하였다.

役割이 갖는 比重은 勿論, 前後로 戰鬪에 參加한 部隊의 活動에 대하여 거의 알 수가 없다.

일부 參戰者를 찾아 證言을 얻은 바 있으나 이로서는 그대로 認定하기 어려운 點도 있고 또 證言마다 엇갈려 이를 確認하기 어려운 實情이다.

이러한 面에서 볼 때 좀 더 記錄에 留意하여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4. 美해병대의 高浪浦 부근 戰鬪 (1953년 3월 26일 부터 // // 30일 까지)

(一名, Vegas高地 戰鬪)

참조 : 별책부도 제24호

상 황 도 제106~110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美제1해병사단장 소장 Edwin A. Pollock	제 4 대대 장 중령 Robert D. Shaffer
제5해병연대장 대령 Lewis W. Walt	제 1 Rocket포 중대 장 대위 Donald G. Frier
제 1 대대 장 중령 Jonas M. Platt	제 1 전차대대 C중대 장 대위 Clyde W. Hunter
C중대 장 대위 Theodore J. Mildner	지원부대
제 2 대대 장 중령 James H. Finch	美육군제623포병대대
D중대 장 대위 John B. Melvin	제 17포병대대 C포대
E중대 장 대위 Herbert M. Lorence	제 424포병대대 C포대
F중대 장 대위 Ralph L. Walz	제 204포병대대 B포대
제 3 대대 장 중령 Robert J. Oddy	제 61포병대대 탐조등 소대
제7해병연대 제2대대 장 중령 Alexander D. Cereghino	제 461중박격포대대 A, B중대
E중대 장 대위 Thomas P. Connolly	美제 1 해병비행단(MAW) 장 소장 Vernon E. Megee
F중대 장 대위 Ralph F. Estey	제 12비행전대(MAG) 장 대령 George S. Bowman, Jr.
제11해병(포병)연대 장 대령 James E. Mills	제 121폭격대대(VMA) 장 중령 John E. Hughes
제 1 대대 장 중령 Olin W. Jones, Jr.	제 212폭격대대 장 중령 Louis R. Smunk
제 2 대대 장 중령 William H. Alkinson	

제323폭격대대 장 중령 William M. Frash	제513야간전투대대(VMF(N)) 장 중령 Robert F. Conley
제33미행진대(MAG) 장 대령 Louis B. Robertshaw	제6 관측대대(VMO) 장 중령 William A. Cloman, Jr.
제115전투대대(VMF) 장 중령 Stoddard G. Cortelyou	인접부대
제311전투대대 장 중령 Francis K. Coss	右隣接: 美제2보병사단 제38보병연대 左隣接: 美제1해병사단 제1해병연대
	敵 軍
中共 제46군 장 蕭全夫	제358, 제359, 제360연대 基幹
제120사단 장 鄭志士	제133사단 제339연대

나. 전투전의 개황

美제 1해병사단(장, Edwin A. Pollock 소장)은 지난 해 8월의 Bunker高地 전투(제8권 참조)에 이어, 이 해에 들어서서 그에 못지않는 血戰을 또 한번 벌이게 되는데, 本節에 收錄되는 Vegas高地 전투가 그것이니, 이는 休戰을 앞둔 時點에 있어 彼我的 物量을 다룬 局地致防戰의 한 樣相으로서 그 籠統的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Vegas高地는 海兵사단戰線의 右一線 正面에서 「Nevada 高地群」이라 불리우는, Vegas(上高浪浦 西北쪽 2.5km : 표고157m 정도)—Reno(Vegas 西北쪽 500m : 표고 150m 정도)—Carson(Reno 西南쪽 500m : 표고 110m 정도)의 弧狀을 이룬 세 高地 중 하나인데, 이 Nevada 高地群은 Bunker 高地와 더불어 사단의 主抵抗線인 Jamestown線에 대한 警報와 觀測 임무를 띠고 있는 前進要衝이다.

따라서 戰線의 固化化에 따른 局地爭奪의 趨勢로 보아서도 이 Nevada 高地群은 敵이 노리는 바 그 目標가 될 것임은 再論의 餘地가 없는 일이라고 하겠거니와 더우기 이들 高地가 사단의 主抵抗線에서는 1km 이상이 離隔된 反面, 敵陣으로부터는 불과 100~200m의 거리에 있어 이와 같은 立地的인 조건만으로도—實際 이 고지들이 지닌 戰術的인 價値與否와는 別個로—心理的인 側面에서의 爭奪을 避할 수 없게 된 곳인 것이다.

敵의 狀況: 지난해 Bunker 高地 전투 당시에 海兵사단 當面の 敵인 中共 제65군(장, 蕭應棠)과 제40군(장, 韓先楚) 가운데 제65군의 제194사단(장, 劉秉彥)은 그 해 11월 초에 제193사단(장, 張雲龍)과, 그리고 제1해병연대(장, Walter F. Layer 대령)와 熾烈을 極하는 激戰을 벌인 바 있는 제40군의 제118사단(장, 鄭岳)은 12월 末에 제120사단(장, 鄭志士)과 각각 交代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해에 들어서면서 高浪浦 주변의 蛇尾川 西岸—板門店의 戰線을 이 제120사단이 새로이 담당하여 海兵사단의 右一線과 對陣중인 것으로 是認되었다.

1월 중순에 이르러 제40군이 제46군(장, 蕭全夫)과, 전선을 교대한 것이 다시 判明된 바, 同 제46군(제133, 제136, 제137사단)은 당시 그들 主抵抗線의 일부를 맡고 있는 제40군의 제120사단을 現地에서 配屬하여 그대로 그들의 右翼으로, 同군의 제133사단을 새로이 左翼으로 部署하고, 제136, 제137兩個사단을 位置未詳의 그들 後方に 예비로 控置中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하여 새로이 西部戰線에 蟠踞하게 된 제46군은 蛇尾川의 西岸에 걸쳐 東으로는 美 제2사단(53. 2. 1에 英 제1연방사단과 交代)의 일부 전선과 西로는 제1해병사단의 일부전선을 아울러 맡게된 善인

때, 臨津江 北岸의 해병사단戰線에는 本來 제40군 소속인 제120사단이 제46군의 작전指揮下에, 제359연대를 예비로 삼고, 제360, 제358의 兩個연대로써 계속 그들 主抵抗線을 확보하되, 이 Nevada 高地群 정면은 그 左一線인 제358연대가 담당중인 것으로 보였다.

이런 과정에서, 寒山野를 휘돌아치는 朔風으로 말미암아 交綏狀態로 겨울을 나고, 3월에 접어들자 山谷의 눈이 녹아내리고 臨津江의 어름이 풀리니, 겨우내 진지 속에 蟄伏하였던 敵이 徐徐히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 下旬부터는 그들의 活動이 漸次로 활기를 띠었는데, 이는 汶山の 鐵道卸下場으로부터 臨津江 건너 海兵사단의 前線에 이르는 補給路가 수렁으로 化한 까닭으로 前線으로의 보급추진이 如意치 못할 것임을 看破한 敵이 이를 奇貨로 攻勢를 준비하는 徵候일 것이라고 풀이되었다.

따라서 사단과 군단의 G-2는 다 같이, 지난 해 Bunker고지 奪取企圖가 좌절된 뒤로 寒波라는 自然의 制約에 따라 일시 小康을 보게 된 敵으로서는 이러한 攻勢가 그들의 此後의 作戰主導權을 장악하는 契機가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可能性이 強力하게 示唆된다고 보았다.

我軍의 狀況: 한편 海兵사단은 Bunker高地 전투가 끝난 뒤인 그 해 8월 29일에 사단장 John T. Selden 소장이 Edwin A. Pollock 소장과 交代된 가운데 제5해병연대(장, Lewis W. Walt 대령: 52. 12. 10)에 Eustace R. Smoak 대령과 交代)를 예비로, 제1, 제7해병연대 및 韓國해병제1연대 전투단의 順으로 蛇尾川 西쪽의 臨津江 北岸의 Jamestown線에서 12월을 넘기게 되었다.

이 해에 들어선 다음, 사단은 2월 1일에 예비인 제5해병연대와 右一線인 제1해병연대와와의 임무를 交代케 함으로써 문제의 Nevada 高地群을 이 제5연대가 담당케 되었다.

이에 연대는 CP를 長坡里 西北쪽의 臨津江 西岸인 下浦里에 두고, 제2대대를 右一線으로, 제3대대를 左一線으로 삼고 제1대대를 연대CP 부근에 예비로 확보하였는데, 이때 연대戰線은 蛇尾川 西岸에서부터 大德山 부근에까지 이르는 8km에 가까운 廣正面이라, 前線대대에서는 예비없이 3개 중대를 모두 제1선에 配置하는 便法을 쓰게 되었다. 그러나 그 主抵抗線의 前方에는 분대 乃至 소대규모의 병력이 所要되는——右一線에서 East Berlin과 Berlin, 左一線에서 Vegas와 Reno 그리고 Carson과 Ava의——모두 6개의 前進陣地를 유지하여야 하는 負擔을 안고 있어, 항상 병력부족현상이 解決되지않는 難題로 남게 되었으며, 이러한 樣相은 모든 사단 戰線이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병력부족은 支援火力으로 補償하는 수 밖에 없었는데, 3월 1일 현재 사단을 지원하는 火力을 살펴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먼저 포병으로서는 사단의 編制포병부대인 제11연대(장, James E. Mills대령: 53. 2. 22)에 Herry N. Shea대령과 交代)의 3개 輕砲(105mm)대대 가운데 제1대대가 右一線 제5연대를, 제3대대가 中央一線 제1연대를 각각 직접 지원하며, 제2대대는 일반지원으로써 제1대대를 火力增援케 되었는데, 이때 左一線인 韓國해병연대전투단에는 75mm直射砲대대가 그 직접지원에 任하였다.

그리고 中砲인 155mm의 제4대대가 4.5" 連發式 Rocket砲인 제1 Rocket砲 중대와 함께 사단전선을 일반지원하였으며, 그 밖에도 美 제1군단(장, Paul W. Kendall중장)의 육군 제623 포병대대(155mm)와 제17, 제204, 제158포병대대의 각 1개포대가 8"의 重砲로써 사단의 要請에 따라 지원케 된 바, 이로써 사단은 輕砲 3개대대와 中砲 2개대대 그리고 重砲 1개대대 등 都合 6개대대의 포병火力을 保有한 셈이었다.

그 다음 戰車는, 사단의 제1전차대대(장, John I. Williamson중령)의 M-46戰車 4개 중대 가운데 C중대로써 제5연대를, D중대로써 제1연대를 직접지원케 하고, B중대로써 前線에비로 삼아 臨津江 北岸에 待機토록 하는 한편 A중대로써 後方에비로 하여 臨津江 南岸에서 整備와 訓練에 任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실제로는 戰車 2개중대의 協力아래 6개대대의 포병이 主抵抗線 방어에 主役이 되다시피 하였으며, 그리고 이와 같은 地上火力 이외에도 空中지원이 敵의 움직임을 制壓하는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浦項의 K-3基地에 본부를 둔 제1해병비행단(MAW-1)(장, Vernon E. Megee 소장: 53. 1. 9)에

Clayton C. Jerome(소장과 交代) 傘下인 平澤(K-6)의 제12비행전대(MAG-12) AD, AU, F4U 등 單發戰爆機 3개대대(VMA-121, -212, -323)와 浦項(K-3)의 제33비행전대(MAG-33) F9F 單發 jet戰鬪機 2개대대(VMF-115, -311) 및 群山(K-8)의 F3D-2 全天候 jet戰鬪機 1개대대[VMF(N)-513]가 美 제5空軍의 作戰統制에서 解除되어, 비행단 단독으로 이 6개 대대로써 海兵사단을 爲主로한 美제1군단 戰線을 晝夜로 支援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제6항공관측대대(VMO-6)가 海병사단의 作戰指揮 아래 OE-1 單發機와 HO₃S-1 및 HTL-4 Helicopter로써 사단 CP(龍池里:汶山 東南쪽 5.5km) 南쪽의 東巨里 A-9 基地에서 이 역시 밤낮으로 敵陣을 넘나들면서 監視하였다.

따라서 主抵抗線부대는 이들 支援부대에 지나치게 期待한다는 傾向을 拂拭치 못할 것이기도 하지만 3월 19일에 제5연대 전선에서 Carson高地 西쪽의 계곡일대에 砲戰協調下의 中대규모의 「Item」이란 수색戰을 한차례 실시하여, 밖으로는 海兵의 銳氣를 誇示하고, 안으로는 겨울 동안의 小販으로 말미암아 沈滯된 士氣를 高揚하면서 다가오는 春季作戰에 對備하기도 하였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2월 1일에 사단의 右一線을 맡게된 제5해병연대(장, Lewis W. Walt 대령)는 제1대대를 예비로 삼고 제 2, 제3 兩대대로써 主抵抗線을 담당케 하되, 各대대의 임무를 1개월마다 순환교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同월 20일에 예비인 제1대대와 左一線인 제3대대를, 이어 3월 23일에는 다시 右一線인 제2대대와 예비인 제3대대를 交代토록 함으로써 陣容을 새로이 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연대戰線을 一瞥하면 이러하였다.

右一線인 제3대대(장, Robert J. Oddy 중령)는 대대 CP를 併程里(下高浪浦 西쪽 1km)에 두고 I.G.H의 3개 중대를 모두 主抵抗線에 配置하였으며, 左一線인 제1대대(장, Jonas M. Platt 중령) 역시 C, B, A의 3개 중대를 前線에 併列하고 CP는 併程里 西쪽 1.5km에 두었다.

따라서 一線대대는 自隊예비가 없어, 예비대의 運用에서는 연대 CP 北쪽 1km에 集結 중인 제2대대(장, James H. Finch 중령)의 支援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었는데, 이 같이 各대대가 예비없이 3개 중대로써 4km의 正面을 담당하는 것도 힘겨운 노릇이지니와 여기에 또 East Berlin—Vegas—Reno—Carson—Ava의 6개소 前進陣地의 확보에 따르는 兵力所要가 加增되어, 그 소요 充足에 特段의 配感가 要求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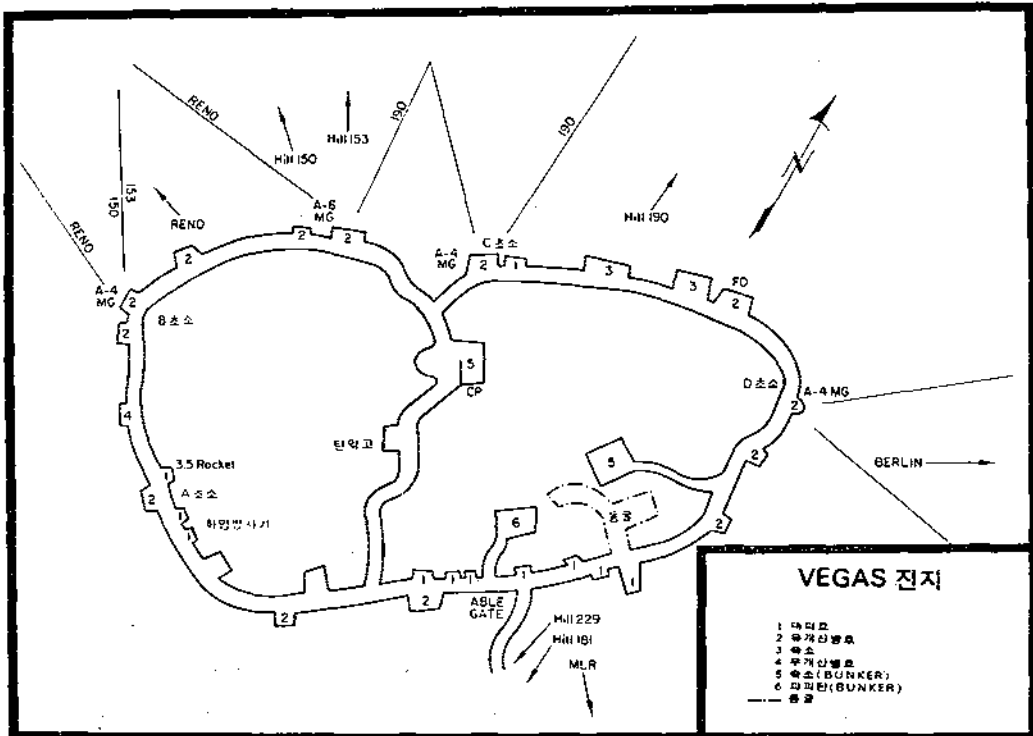
그리하여 이들 前進진지 가운데 East Berlin과 Berlin은 제3대대의 中央제1선인 G 중대 1개 소대로써 아울러 맡기로 하고, Vegas—Reno—Carson은 제1대대의 右제1선인 C 중대 지역에 포함되나, 그 중 Vegas만은 제3대대 左제1선인 H 중대에서 일부가 支援되어 C 중대 책임下에 이를 擔任케 하였다. 이에 따라 Reno와 Carson은 C 중대가, 그리고 Ava는 A 중대가 각각 맡게 된 바, 이때 Nevada 高地群의 各 진지는 狀況圖에서와 같이 各個로 득

립적인 維持를 할 수 있도록 據點化되어 있었는데, 3월 26일 현재 이 전지들의 방어편성은 다음과 같다.

Vegas는 200여m의 交通線과 散兵壕와 火器壕를 연결하여 橢圓形으로 四方을 둘러싼 진지로서, 여기에는 H중대원 40명이 A-4輕기관총 4개組와 81mm 박격포 2개반 그리고 3.5" Rocket포 1문 및 화염방사기 2대를 포함하여 6개組의 戰鬪班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병력은 8~10일마다 交替하였다. 그곳에서 西北으로 이어진 稜線을 따라 500m도 채 못되는 △155에 敵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보급품은 KSC의 지계에 의하여 밤에만 추진되었다.

Reno는 主抵抗線과 1,500m나 떨어져 있는데 비하여 그 北쪽의 敵陣인 25A고지와는 불과 150m의 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東·北·西의 三面으로 敵에 敵制되어 脆弱點을 안고 있어, L字의 交通壕와 地下洞窟만으로 된 진지였다. 이와 같이 여기서는 散兵壕와 대피호는 물론 火器壕도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것은, 대개의 경우 交通壕를 이용하여 警戒 임무를 수행하다가 敵의 攻襲時는 迅速히 洞窟속으로 대피한 다음 포병의 陣內射擊으로써 侵敵을 殲滅한다는 독특한 防禦方式을 취하기로 한 까닭에서였다. 따라서 Reno는 그 自體의 방어력으로써 敵을 격퇴하는 것이 아니라, 東南쪽의 Vegas와 西南쪽의 Carson 그리고 主抵抗線으로부터의 火力支援에 依支하는 셈이었다.

◇ 상황도 제106호 Vegas陣地



여기의 방어는 M1 18정과 BAR 6정 그리고 A-4경기관총 5정과 화염방사기 2대 및 Car 1정을 장비한 C중대의 輕機소대 40명이 이를 담당하였는데, 진지공사를 위하여 따로 이 工兵 1개조(6명)가 固定배치되었으며 이 역시 그 병력을 3~5일마다 週期的으로 交替하였다.

Carson은 그 西쪽 계곡 건너의 敵에 대한 注意力을 집중하기 위하여 西向으로 二重의 交通호를 마련한 四周방어진지로서, 이는 28개의 有蓋로 된 散兵壕와 300m 정도의 交通호로 이어져 있었다.

그 방어는 A-4경기관총 4정과 화염방사기 2대 그리고 3.5"Rocket포 2문과 BAR 9정 및 M1 36정에 Car 2정과 유탄발사기 4정을 장비한 C중대원 38명이 맡았는데, 그 밖에도 중대의 60mm와 대대의 81mm박격포 관측조가 지원되었다.

그러나 이때 중대 주저항선이連하는 稜線의 北麓 下端인 47번고지(Carson 南쪽 500m)에 敵 분대 규모가, △101(47번고지 西北쪽 800m)의 그들 重火器의 掩護아래, 그곳에 壕를 깊이 파고 들어앉아 이 Carson의 背後를 窺視하고 있는 터이라, 後顧의 餘地가 없지 않았다.

대체로 이와 같은 방어태세로써 3월을 맞이한 연대는 각대대 담당正面에 每日 2개 전투정찰대를 보내내어 敵의 動態를 살피게 한 바, 제1대대가 中旬에 2개소대규모로써 Carson 西쪽 계곡 건너 31A고지(Carson 西南쪽 620m) 일대를 수색하였으나, 그들 後方의 활발한 움직임과는 對照的으로, 예상한 것과는 달리 前線에서는 그들의 接敵행동이 소극적이어서 『我軍의 수색대와 正面으로 衝突하는 경우가 아닌 限, 그들의 진지에서 離脫하려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대대는 담당정면에서 敵의 공격목표로 指目되는 Nevada 地域에 대한 그들의 意中을 살피기 위하여, 그로부터 수색활동을 한층 강화하여, 매일 1~2개소대 규모의 수색대와 12개조의 夜間정찰대를 運用함으로써 接敵을 유지토록 한 바, 23일 以後로는 그에 대한 報告마저 入手되지 않아, 殘雪이 덮힌 前線은 景觀 그대로 寥々하기만 하였다.

이에 연대장 Walt 대령은 26일에, 이와 같이 平穩을 假裝하는 敵의 意圖를 기어코 밝혀 내교자 步戰協同의 위력수색을 다시 한번 斷行키로 하고, 예비인 제2대대에 이르기를 『제2대대의 일부로써 27일 06.00를 期하여 戰車 C중대와 協同하여 △101 부근을 威力수색하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午後, 제2대대의 F중대의 1개 소대가 제1대대의 C중대 陣地線으로 推進되었으며, 戰車 C중대의 M-46 戰車 11대가 이에 合勢하여 이 역시 同C중대의 주저항선으로 進入하였다. 그리고 19.00부터는 연대의 직접지원 포병 제11연대 제1대대는 이 위력수색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색지역에 대한 火力支援의 諸元 검토에 들어갔는데, 바로 이 時刻 이와 같은 준비에 한 걸음 먼저 敵의 攻波가 颯風을 휘몰아 들어 닥친 것이다.

(2) 작전실시

3월 26일 : 西部戰線 특유의 丘陵지대로 형성된, 해병사단 前線의 山野에는 아직도 殘雪이 회끗하였으나, 이날 날씨가 유난히 溫和하여 먼 산 눈이 녹아 흘러, 바야흐로 春水 滿 四澤의 하루였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 깔리기 시작하는 19.00, 제5연대(장, Lewis W. Walt 대령) 제1대대 A중대 정면의 $\Delta 104$ (Carson고지 西南쪽 2.2km) 부근의 敵陣으로부터 자동화기가 薄暮의 창공을 찢는 破裂音으로 A, B 兩중대 진지에 鐵火를 쏟았는데, 이것이 신호인 듯 敵의 砲火가 일제히 연대 주저합선을 향하여 眞紅의 拋物線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그 10분 뒤인 19.10에, 2개 대대규모의——뿔날 中共 제120사단 제358연대의 제1, 제3대대로 밝혀 진——敵이 Nevada의 Vegas와 Reno 그리고 Carson의 3개 고지를 同時に 攻奪코자 하였다.

Vegas의 喪失 : 19.00부터 10분 동안에 걸쳐 1초에 1발꼴로 쏟아지는 敵의 60mm와 82mm박격포화가 Vegas진지를 온통 火焰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는 가운데, 1개 중대규모의 敵이 $\Delta 155$ (Vegas 西北쪽 350m)로부터 東南쪽으로 뻗은 稜線을 따라 Vegas를 목표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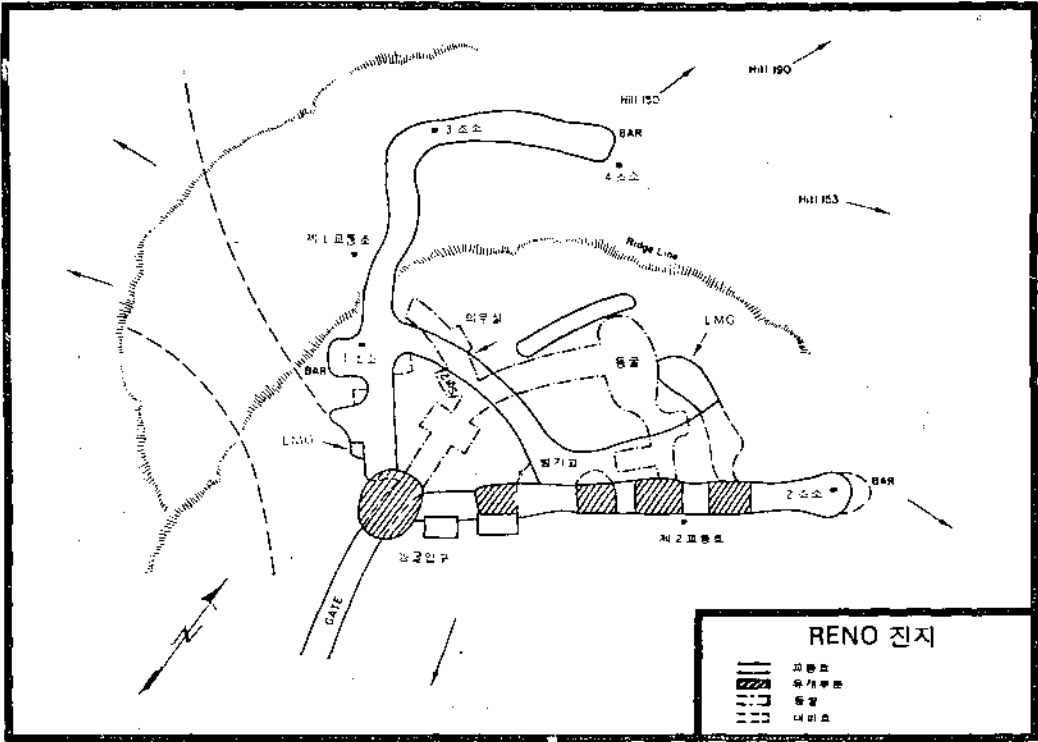
이에 同진지의 방어책임을 맡은 Kenneth E. Taft 중위 이하 40여명의 H중대원은 제1대대(장, Jonas M. Platt 중령)에 박격포의 탄막사격을 요청하고, A-4기관총(LMG)과 3.5" Rocket포 등 자동화력을 집중하여, 敵의 접근로인 진지 西北쪽의 稜線을 차단하였다. 그러나 敵의 포화가 대대와외 主通선을 절단한 탓으로 19.40부터는 Vegas진지와 主抵抗線 사이에 一切의 통신이 杜絶되었는데, 이 동안인 19.50에는 그들 100여명이 고지의 頂上 西北쪽 교통호에까지 육박하여 수류탄을 던지면서 陣地를 에워싸기에 이르렀다.

그곳 Taft 중위의 소대원들은 敵이 陣前에 이르자 그에 맞서 화염방사기와 수류탄으로써 強靱하게 버티었는데, 20.00가 지난 뒤로는 攻波가 한층 더 거세어져서 血戰의 激化를 보게 하였다.

22.00에 포병의 조명지원이 시작되자 照明彈이 Nevada戰場을 대낮과 같이 밝혔으나, Vegas에서는 화염방사기의 焰熱이 半空中에 亂舞하고, 주고 받는 수류탄의 爆聲이 搖亂하였을 뿐, 主抵抗線의 C중대와 대대에서는 그곳의 상황을 알 수 없어, 시간만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윽고, 23.00에 이르러 몇 차례나 試圖한 直接赴援이 여의치 못한 가운데 고지 頂上에서 타고르던 火焰이 차츰 잦아들더니 子正에 못미처 接戰의 총성마저 그치게 되어, Taft 중위 以下 40명의 生死가 杳然한 채, 진지가 敵의 手中에 떨어지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 상황도 제107호 Reno陣地



Reno의 喪失 : Vegas진지에 政波가 들이닥친 바로 그 시각인 19.10에 Reno 西쪽의 계곡 건너 67번 고지(Reno 西쪽 700m : 표고 110m 정도) 東北쪽 250m에 있는 29번고지 부근 으로부터 1개 중대규모가 東南쪽으로 계곡을 건너 Reno의 西北麓에 올라붙었는가 하면, 멀리 $\Delta 190$ (Reno 北쪽 1.1km) 부근에서 南向한 듯한 다른 1개 중대규모는 고지의 西南쪽으로 迂回하여 진지 후방의 出入口를 차단하려 하였으며, 이런 가운데 25A번 고지에서 出發한 1개 중대 규모가 진지의 北쪽 正面으로 압력을 加하였는 바, 이로써 Reno는 北과 西 그리고 南의 3방향에서 도합 1개 대대규모에 달하는 敵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19.30에 벌써 그 敵의 일부가 진지의 北쪽 交通壕 一角으로 파고 들었다.

당초 將校의 교대근무 방침에 따라, 여기의 방어책임을 맡게 된 C중대의 輕機소대장인 Rufus A. Seymour 소위는 40명의 대원들을 지휘하여 渾身の 力鬪로 敵을 拒守하였으나, Vegas에서와 마찬가지로 20.00부터서는 陸續 증강되는 敵이 交通壕를 베우고 殺到하였으므로 소대원으로 하여금 동굴 안으로 들어가 待避토록한 다음, 無線으로 포병의 陣內사격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연대를 직접지원중인 제11연대의 제1대대(장, Olin W. Jones, Jr. 중령)가 Reno 진지에 VT彈 사격을 加하니, 峰上에 鐵片이 爆竹과 같이 散飛하여, 여기 또한 不夜城의

景憫한 장면을 연출케 되었다.

그러자 敵은 그들의 頭上에 쏟아지는 포화를 피하려 하다가 그 일부가 동굴속으로 뛰어 들기도 하였는데, 그들은 Seymour 소위의 海兵과 激突하여 坑道內에서 彼我が 총격전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나 해병들이 동굴 속에서 限死코 버티니, 그들은 동굴을 장악하기가 어렵다고 본 까닭인지 破壞筒과 각종 爆藥으로 동굴의 입구를 모조리 폭파하였다. 그리하여 20.30부터서는 坑內의 해병들은 차츰 공기가 稀薄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Seymour 소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坑內의 공기부족현상이 加增될 것으로 판단하고 중대장 Theodore J. Mildner 대위에게 시급한 救援을 요청하였는데, 이때 이미 중대에서는 赴援도중이었으므로 Reno의 소대를 도울 수 있는 方途란 포병의 VT彈 사격만을 계속하는 길 뿐이었다.

그런 가운데 다시 1시간이 더 지나서인 21.45에 Reno의 해병으로부터 無線으로 중대장에게 보고되기를, 『敵은 方寸 소대원이 地上陣地를 비운 사이에 陣內로 闖入하여 交通호를 이용하여 진지 공사를 하는 一方, 동굴파괴작업을 계속 중이다. 坑內에는 酸蒸부족으로 거의 窒息 상태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해병들은 敵이 동굴을 송두리채 폭파하기 전에 그 속에서 바로 이 出口를 뚫는 중이다』라는 것이었다.

23.00에 Reno로부터의 無線보고가 중대본부에 다시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제 最後의 순간이 왔다.』는 것으로서 알아들을 수조차 없을 정도의 氣盡한 목소리였다. 따라서 坑內의 해병들이 모두 死境을 헤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제 이 보고를 마지막으로 Reno 또한 敵陣으로 化하고 만 셈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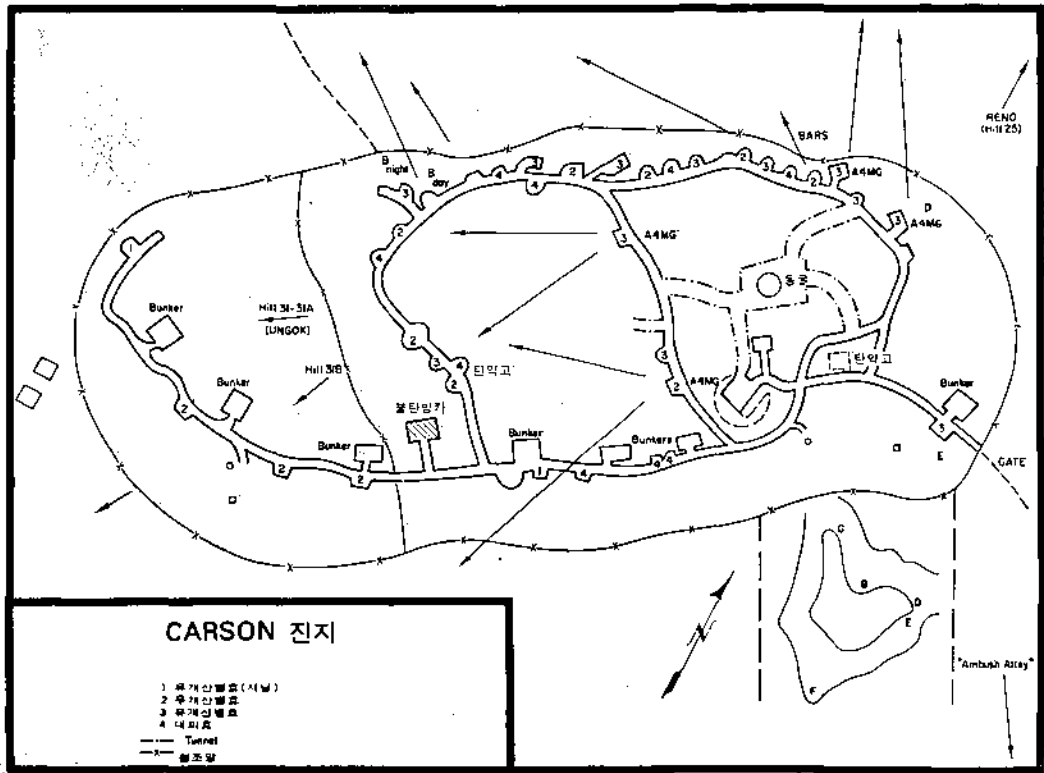
Carson의 拒守 : 이 Carson 역시 19.10을 期하여 △101(Carson 西쪽 550m)부근에서 계곡을 건너 들이 닦친 敵 1개 중대규모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때 敵은 대대 主抵抗線의 C중대와 B중대의 전투지경선 北쪽 稜線의 下端部인 47번 고지(Carson 南쪽 500m)에 盤據중인 그들 일부로 하여금 Carson으로 向하는 길목(MLR-Reno 稜線)을 차단하여 해병의 增援을 방해토록 하는 가운데, 一波는 Carson의 西北麓으로, 다른 一波는 西南麓으로 侵軸을 나누어 일거에 그 頂上을 奪取하려는 기세를 보였다.

이에, 그곳 39명의 해병은 이들을 맞아 全滅을 賭할 一戰을 決하게 되었는데, 19.30에는 物盡의 우세만을 믿고 步一步로 陣前으로 파고든 敵兵의 일부가 진지 西北쪽의 交通호속으로 기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해병들이 不退轉의 鬪魂을 발휘하여 陣前에 접근하는 敵은 화염방사기와 수류탄으로써 覆滅하는 한편 交通호 속의 敵파는 銃劍으로써 對決한 바 嬴사리 勝負가 가름되지 않은 채 血戰만을 거듭케 되었다. 이와 같이 攻波를 拒支하는 중인 20.00에, 主抵抗線의 C중대로부터 2개 분대가——47번 고지의 敵의 妨害를 부릅쓰고——증원되어

◇ 상황도 제108호 Carson 陣地



Carson의 방어력을 增強케 되니, 그들 敵은 마침내 兵仗을 거두어 물러가고 말았는데, 21. 30 뒤로는 그들의 砲火마저 Carson에서 멀어져 가 그곳의 奪取企圖를 단념하는 듯하였다. 따라서 이로 미루어 보면, 그들은 당초부터 Vegas와 Reno의 略取에만 注力키로 한 것으로 推斷할 수 있었다.

대대장의 措置 : Nevada의 3개 진지가 이렇듯 우세한 敵의 同時공격을 받아 惡戰苦鬪를 하고 있는 동안, 主抵抗線의 제1대대장 Platt 중령은 이들 陣地를 支撐키 위한 조치로서 병력 증원을 摸索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대는 自衛의 예비대를 보유치 못하였던지라, 우선 主抵抗線의 C중대 잔여병력 가운데 일부와 다음 날의 수색次 陣地線에 이른 F중대 일부(제3소대)로써 먼저 前進陣地의 보강에 充用키로 하고, 아울러 연대에 병력증원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敵의 攻襲이 있는지 1시간단인 20.00에 대대는 C중대의 2개분대를 뽑아 Carson을 지원토록 하는 한편, F중대 제3소대의 轉用을 承認받아 Reno와의 通路와 無名고지 ㉔(Reno Block 南쪽 250m : Carson 東쪽 370m : 표고 130m 정도)——뒷날 Elco로 命名된 主抵抗線과 Reno능선 사이의 한 連峰——를 확보케 함으로써 47번 고지에 도사리고 있는 敵 일단의 움직임을 牽制토록 하였다.



<Carson 진지의 内部>

이여 대대는 연대로부터 F중대(장, Relph L. Walz 대위)의 主力과 D중대(장, John B. Melvin 대위)의 일부를 배속받게 되었는데 F중대로써 Reno를, D중대로써 Vegas를 각각 赴援토록 하였으나, Vegas쪽으로 나아간 D중대원은 Vegas진지 南쪽 200m 앞에 둘러 친 敵의 탄막을 뚫지 못한 채로 山腹에 據를 파고 砲火를 피하기에 급급하게 되었다.

한편 Reno로 진출한 F중대의 2개 소대는 Reno의 南쪽 100m의 Block에 이르러, 이미 Reno를 휩쓸어 내린 敵일단과 激突케 되어 간신히 Block만을 손에 넣고, 그 以上 나아가지 못한 채로 그곳에서 오히려 敵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안간힘을 쓰게 되었다.

同중대는 子正까지 그곳에서 200여명이 넘는 敵으로부터 세차레나 공격을 받았으나 主抵抗線의 진차C중대(장, Clyde W. Hunter대위)와 포병지원을 받아 이를 모두 격퇴하고 Block를 지탱하였는데, 子正이 지나자 중대는 병력이 1개 소대로 줄어 들었다.

그러자 敵이 더 이상 Block를 공격하려는 氣色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중대는 즉시 잔여 병력을 모아 Reno 탈취에 나서게 된 바, 02.20부터 30분 동안에 걸쳐 北쪽으로 100m도 채 안되는 Reno진지를 向하여 세차레나 돌격을 敢行하였으나, 力不及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다음날 27일 03.00에 가까워지자 중대규모의 敵이 또 한번 陣前出擊으로 나와 Reno로부터 Block를 強襲한 까닭으로 중대에는 Block의 확보마저 힘들게 되어, 포병 제1대대(장, Olin W. Jones, Jr. 중령)의 엄호 아래 주저항선으로 물러나게 되고 말았다.

연대장의 判斷 : 한편 Nevada지역에 敵의 狂波가 들이닥쳤다는 보고를 接한 연대장 Walt

대령은 그 즉시 예비인 제2대대(장, James H. Finch 중령)의 출격태세를 확인하고, 前線 제1대대장 Platt 중령의 요청에 따라 同대대의 일부로써 지원케 한 바, 27일 04.00에 이르러 Vegas와 Reno에 대한 赴援이 如意치 못하게 되자, 이를 中止케 함으로써 그 병력을 모두 主抵抗線으로 反轉토록 하였다.

그리고는 곧 사단장 Pollock 소장에게 보고하기를 『연대의 戰況을 注視컨대, Nevada의 세 곳 陣地 가운데 Carson만을 支撐하고 있을 뿐, Vegas와 Reno는 이미 敵手에 떨어진 것이 分明하다. 그러나 敵의 攻波가 비단 이 Nevada지역에만 局限된 것이 아니라, 연대의 右一線인 제3대대의 Berlin진지일대와 左一線 제1대대의 Ava에 까지 波及되어, —비록 制壓되기는 하였으나— Nevada지역에 대한 예비병력의 집중 사용에 制約을 받고 있다.』고 前提한 다음 『따라서 喪失한 Vegas와 Reno진지를 다시 회복하는 데에는 臨機應變에 의한 夜間攻擊을 止揚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 바, 새로운 병력으로써 空地協同체제 아래 整間攻擊으로 전환하려 한다』는 腹案을 具申하였다.

그런데 연대장이 이와 같이 後圖를 策하기로 方針을 바꾼 까닭을 헤아려 보면 대개 이렇듯 하다.

즉, 당시 연대 S-2인 Murray O. Roe 소령의 情報概要에서 『Nevada 지역에 대한 敵의 공격에 있어서, 可用된 그들의 포화력이 자못 強力하여 27일 04.00 현재로 연대정면에 집중된 포탄수는 야포와 박격포를 합쳐 14,000발에 달하는 것으로 集計되었다. 그리고 敵의 병력 또한 최초의 공격에 증강된 1개 연대규모가 動員되었을 것으로 推算되는데, 敵의 兵力投入이 계속되는 추세로 보아 그들의 企圖가 Reno와 Vegas의 탈취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한 바 있는데, 여기에 또 彼我的 損失을 分析한 결과 勝算없는 싸움에서 出血만 強要당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었던 것이다.

27일 03.00 현재로 종합된 연대의 전과와 손실을 보면, Nevada지역에서 敵 600여명을 殺傷한 것으로 추산된 반면, 左右一線 대대에서 150명의 損失을 본 것으로 밝혀졌으니, 右一線 제3대대에서 Vegas방어병력 40명의 실종에 Berlin일대의 攻防戰에서 전사 1명과 부상 8명을 합산하여 모두 49명의 손실을 보았다고 보고된 것이며, 左一線 제1대대에서는 Reno의 방어병력 39명이 실종되었다고 하였으며 또 Carson과 Reno의 부원도중에 C중대원이 전사 5명과 부상 51명의 손실이 追加되었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비인 제2대대의 지원병력이 입은 손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서, 이 역시 總計에 35%의 死傷者를 본 것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Vegas와 Reno를 手中에 넣은 敵의 기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드높아가기만 하는 가운데 연대는 兵力의 劣勢가 如實히 드러나, 지원화력만으로는 制壓할 수가 없다는 結論을 얻은듯 하였다.

사단장의 措置 : 이와 같이 하여 제5연대장으로부터 새로운 空地협동공격에 따르는 항공

지원과 더불어 병력지원을 요청받은 사단장 Pollock 소장은 즉시 다음과 같은 決斷을 내림으로써 연대장의 建議를 받아들였다.

『① 제5연대는 03.45부로 제7연대의 1개 대대를 통합지휘하여 Vegas진지를 奪回하라.

Reno에 대한 공격은 別命이 있을 때까지 中止하라.

② 攻擊間에 제1해병비행단의 근접항공 지원이 실시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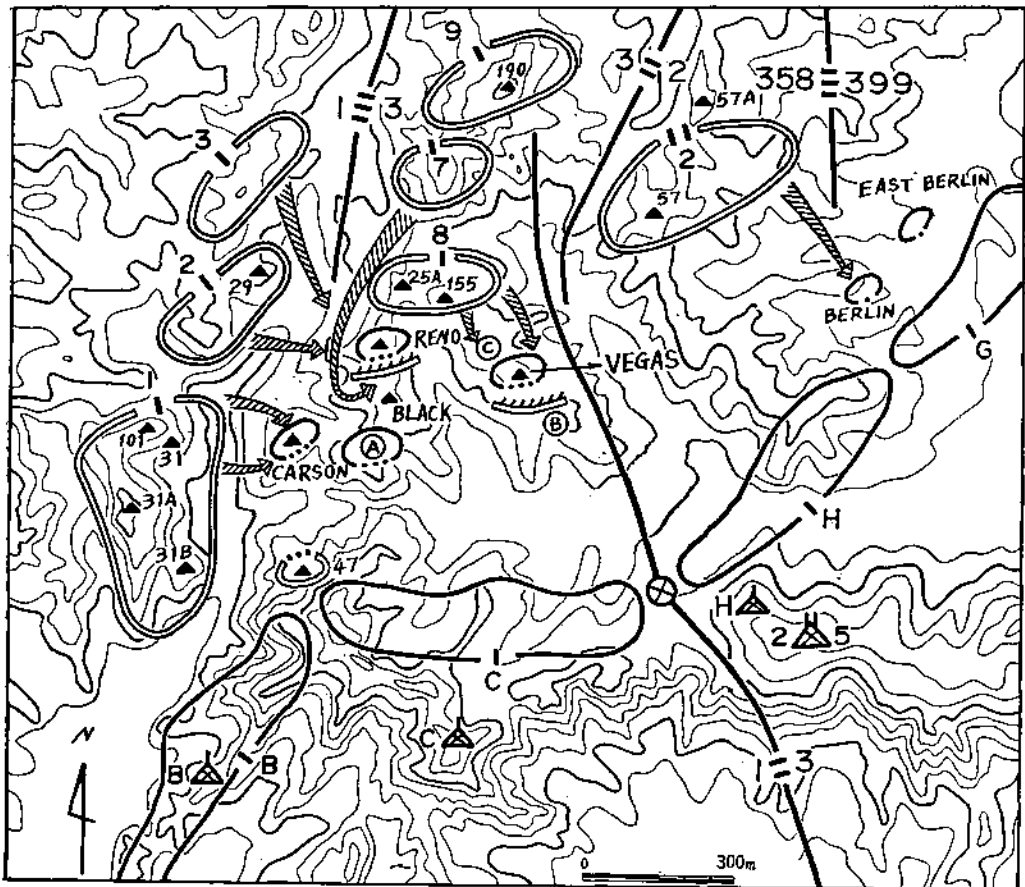
③ 포병의 火力計劃은 변동없으며, 목표에 대한 공격준비사격은 실시하지 않는다.

④ 공격개시 시간은 27일 09.00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사단장이 Reno奪還을 留保하고, Vegas에 포병의 공격준비사격을 실시치 않기로 한 理由는 또 那邊에 있는 것일까?

이는 당시 사단장이 Reno와 Vegas의 두 곳 要衝가운데 Vegas의 확보에 重點을 두기로 한데에 基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첫째 Reno는 그 北쪽의 敵陣인 25A고지와 目擊之間에 있어 爭奪이 잦을 것인 바, 그곳에는 戰鬥壕의 設備가 되어 있지 않은 까닭으로 지금까지와 같이 敵侵時에 동굴속으로 待避하고 VT탄으로 鑿滅하려는 方式으로는 동굴 密

◇ 상황도 제109호 敵의 Nevada 地域 공격 상황



閉라는 脆弱性이 露呈되어 이의 계속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南쪽으로 물러나 Carson과의 路목의 무명고지 ㉠(Elco)에 진지를 강화함으로써 Carson線에서 새로운 前進진지線을 마련하여 이로써 Reno의 역할에 代置키로 하되, Reno진지는 火力으로써 無力化시켜 敵의 使用을 妨害키로 한 것이며, 둘째 Vegas에 대하여서는 地形上으로 보아 主抵抗線과 계곡으로 가로 막혀 있는 까닭에, 이를 잃으면 달리 代替할 진지를 구할 方途가 없는 터이므로 期必코 확보하여야만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차 이를 확보하게 될 경우를 예상하여 陣地가 我軍의 重砲火에 지나치게 破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이에 연대장 Walt 대령은 제1대대로 하여금 Block 南쪽의 無名고지 ㉠(Elco)에 새로운 진지를 急編케 함으로써 主抵抗線에 대한 敵의 侵襲에 대비케 하는 가운데 臨津江을 건너 연대戰線으로 機動中인 제7연대 제2대대(장, Alexander D. Cerehino 중령)의 來訪을 기다려 새로운 공격준비에 들어갔는데, 05.00를 前後하여 Vegas와 Reno의 赴援병력인 F 중대와 D중대원이 모두 제1대대 本陣으로 復歸하였다.

이리하여 Nevada의 전투는 27일 새벽 Vegas와 Reno의 兩고지를 敵의 手中에 남겨놓은 채로 적전 8시간만에 交綏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3월 27일 : 이날 제5해병연대(장, Lewis W. Walt 대령)의 前線에서는 종일토록 銃砲聲이 그치지 않았으나 山腹의 泥濘에 血痕만 짙게하였을 뿐, 진지회복에는 期約할 수 없는 苦戰이 연속되었다.

공격계획의 蹉跌 : 연대는 이날 날이 밝기 전부터 야포와 박격포 및 主抵抗線으로 추진된 戰車 C중대, 그리고 4.5" Rocket砲隊 등의 火力으로써 Vegas와 Reno의 後方접근로를 차단함으로써 그곳으로의 增援을 방해하는 가운데 Vegas 恢復을 위한 隊伍整備에 奔忙하였다.

이 동안에 VMO-6의 觀測機들이 敵線후방에서 敵砲兵陣地에 對한 制壓射向을 유도하였으며 또 멀리 群山의 K-8基地로부터 出擊한 VMF(N)-513 夜間전투대대(장, Robert F. Conley 중령)의 F3D-2(Douglas; Skyknight)機들이 MPQ(Ground Radar-Controlled Bombing)목적으로써 △190일대를 猛打하기도 하였다.

날이 밝아지면서는 VMF-115전투대대(장, Stoddard G. Corteylou 중령)의 F3F-2(Grumman: Panther jet)機들이 그 뒤를 이어 계속 敵의 움직임을 監視하였다.

이와 같은 空中 지원아래, Vegas 奪回를 目途로 하는 연대장 Walt 대령의 공격계획은 大要 이리하였다.

『① 연대는 Vegas진지를 再確保하려 한다.

제 3, 제1 兩대대의 MLR前方 전투지경선을 27일 04.30부로 변경하여, Vegas지역에 대한 방어책임을 제3대대에 포함시킨다.

- ② 제2대대는 09.00를 期하여 Vegas를 奪取하라.
- ③ 제3대대는 공격부대가 목표를 탈취하면 이를 引受 확보하라.
- ④ 제1대대는 現 MLR을 계속 확보하되, ㉠(Elco)—Carson의 전지를 강화하여 Vegas공격부대를 火力支援하라.
- ⑤ 제7연대 제2대대는 연대 예비전지에서 別命을 기다리라.
- ⑥ 공격준비사격은 戰車砲와 박격포에 의한다.』

이리하여 예비인 제2대대(장, James H. Finch중령)로써 예정된 09.00를 期하여 Vegas를 공격키로 하였으나, 전날 밤에 두절된 通信網이 미처 복구되지 않은 탓으로 공격개시시간이 遲延되었다.

이에 다시 VMF-115와 VMF-311전투대대(장, Francis K. Coss 중령)의 F9F戰爆機 4機편대가 제5공군의 F-84(Thunder jet)機들과 合勢하여 6회에 걸친 對地근접지원을 실시함으로써 Vegas와 Reno 부근으로의 보급과 병력지원을 막았는데, 09.30에는 主抵抗線의 戰車 C중대의 M-46戰車들이 Reno에서 Vegas쪽으로 통나무를 운반하는 敵 일단을 捕捉하여, 90mm 戰車砲로써 그들 敵兵과 통나무를 함께 空中曲藝를 演出케 하기도 하였는데 그들은 必是 Vegas에 전지 강화를 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5연대 D중대의 出擊: 한편, 海兵機들이 敵陣上空에 銀翼의 繡를 놓는 동안, Vegas에 대한 공격임무를 맡은 제2대대는 전날밤에 Vegas로의 赴援을 試圖한 바 있는 D중대(장, John B. Melvin 대위)를 그 제1선으로 삼아 이를 主抵抗線의 제3대대(장, Robert J. Oddy 중령)의 左제1선인 H중대의 陣地線으로 추진하여 공격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그리고 대대 OP를 △126(伴程里 西北쪽 1.2km) 西쪽 無名高地(연대 OP ㉡)에 개설하는 한편 대대본부 요원으로 임시중대를 편성하여 이를 Floyd G. Hudson 대위 指揮下에, E중대(장, Herbert M. Lorence대위)와 함께 OP 부근에서 대기토록 하고, Reno공격에서 병력손실을 크게 본 F중대(장, Ralph L. Walz 대위)는 대대 CP로 뽑아내려 再編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D중대는, H중대 정면의 계곡을 건너 西北쪽으로 뻗은 稜線을 따라 공격키로 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通信網이 整備되기만을 기다렸는데, 이윽고 11.00가 되니 제11연대의 포병이 敵의 관측소가 위치한 △190와 57A 고지 일대에 연막탄을 發射함으로써 出擊의 信號를 높이 올렸다.

이어 砲戰空의 세가지 支援화력이 입체적인 威力을 발휘하는 가운데, 11.20에 D중대는 중대장 Melvin 대위를 先頭로 LD를 躍出하였다.

그러자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敵의 砲火가 저침없이 쏟아져, H중대전지 정면에 가로 펼쳐진 폭 200m 정도의 계곡을 爆焰으로 뒤덮어 놓았다.

중대는, 마치 熔岩이 噴出하여 흐르는 듯한 그 속으로 뛰어들어, 제2소대를 右側으로, 제1소대를 左側으로 散開하고, 제3소대를 지원소대로 삼아 얼어붙은 논바닥의 진흙을 파

내어 交通線을 새로이 파면서 계곡을 건너갔다.

正午에 가까워시야 계곡을 돌파하게 된 중대는 西北쪽 Vegas로 뻗어오른 稜線을 타기 시작하였는데, 그 앞을 막아서는 砲火가 더욱 熾盛하였다.

12. 10에 중대는 死傷者가 속출하는 것을 무릅쓰고 200m정도로 稜線을 기어올라, Vegas와의 사이에 있는 한 無名고지(㉔, Vegas 東南쪽 500m; 표고 110m 정도)에 이르러 隊伍를 다시 살펴본 바 左側의 제1소대에서는 병력이 모두 9명뿐이었다.

이에 대대장 Finch 중령은 12. 15에 대대 OP 부근에 대기중인 대대임시중대(장, Floyd G. Hudson 대위)로 하여금 D중대를 追躡케 하여 無名고지 ㉔에 前進據點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이를 避撥케 하였다.

이리하여 D중대는 12. 30이 지나 잔여병력을 수습하여, ㉔에서 西北쪽의 Vegas정상으로 치달아 올랐는데, 이때 Vegas에는 1개 중대규모의 敵이 이를 固守코자 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중대의 공격이 시작된 뒤로, 敵은 Reno와 Vegas에 수차 병력을 증강하는 한편으로 Reno와 Vegas 사이에 交通호를 파는 것이 연대의 主抵抗線에서도 관측되었는데, 이에 따라 主抵抗線의 전차 C중대는 戰車砲로써 △155—Vegas 사이의 稜線을 차단하고, 포병은 敵의 박격포진지에 대한 파괴사격으로써 그들 支援火力을 威壓코자 腐心하였으며, VMA—121폭격대대(장, John E. Hughes 중령)의 AD(Douglas; Skyraider)機와 VMF-115 및 VMF-311전투대대의 F9F(Grumann; Panther jet)機들이 번갈아 가면서 敵의 野砲진지에 대한 폭격을 계속하였으나 그 實効를 보지 못하는 듯, 砲火의 기세는 依然하기만 하였다.

이와 같이 空地兩面의 火力지원 아래 Vegas를 목표로 步步前進한 중대는 13. 00를 前後하여 Vegas의 南쪽 入口인 Able Gate부근의 交通線까지 육박하였는데, 그로부터는 敵이 진지 주위에 강력한 火網을 둘러친데다가 그 진지자체에는 폭격을 加하지 않았던지라, 本營 堅固한 그 四周진지를 이용하여 그들이 수류탄과 자동화기로써 빈틈없이 저항한 까닭으로 더 나아 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進退維谷의 상태에 빠져들고 말았다.

13. 20에 이 難局을 타개코자 4명의 해병이 수류탄을 거머쥐고 정상으로 뛰어올라갔으나 빛발같이 쏟아지는 敵彈——마치 소총의 狙擊과도 같이 정확하게 퍼부어지는 박격포탄——에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모두 戰死하고 말았다.

이에 중대장 Melvin 대위는 대대장 Finch 중령에게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各者가 敵의 포탄에 標的이 되지 않도록 祈禱하는 것 뿐입니다』라고 보고한 뒤, ㉔고지 쪽으로 중대를 철수시켰다.

이리하여 D중대가 혼신의 힘을 다한 4시간의 血戰은 보람없이 끝나고 말았는데, 14. 40에 대대장은 E중대(장, Herbert M. Larence 대위)의 일부를 뺀아 ㉔고지의 임시중대와

교대케 하고 同임시중대으로써 D중대의 부상자를 主抵抗線으로 後送토록 하였으나 그것마저 如意치 못하여 부상자를 수습키는 커녕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損失만 더 累增케 되었다.

제7연대 F중대의 제1차 出擊 : 이와같이 하여 제2대대(장, James H. Finch 중령)의 會心의 一戰이 無爲로 돌아가자, 연대장 Walt 대령은 滿身瘡痍의 D중대를 연대 CP로 뽑아 내리는 한편 예비인 제7연대 제2대대(장, Alexander D. Cereghino 중령)의 1개 중대으로써 同대대를 支撥토록 措置한 바, 곧 Ralph F. Estey 대위 지휘下의 F중대가 詰跡지로부터 前線으로 급히 달려 16.30에 제3대대 H중대 진지線에 進出케 되었다.

이에 同중대를 배속케 된 대대는 이 新銳의 一騎로써 다시 한번 Vegas의 敵과 雄雌을 決하기로 하고, 同중대로 하여금 17.30을 期하여 ㉔고지를 확보중인 E중대의 소대를 통합 지휘하여 Vegas를 공격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F중대는 17.00에 ㉔고지로 蹣跚하여 그곳을 LD로 삼아 1개 소대를 남겨 놓고, 2개 소대와 E중대의 소대를 1선에 併立하여 17.30에 공격을 시작하니, 恒例의 포화가 앞을 가로막고 咆哮하는 것이었다.

이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VMA-323폭격대대(장, William M. Frash 중령)의 F4U (Vought; Corsair)機들이 平澤의 K-6基地로부터 急遽출격하여 △190 일대의 敵 관측소에 연막탄을 投下하면서 砲진지에 Rocket彈을 퍼부었으나, 그들의 砲火力은 그래도 여전히 熾盛하기만 하였으며 戰車 역시 主抵抗線으로부터 한 걸음 더 前進하여 90mm砲로써 Vegas의 敵火力據點을 포격하였으나 그들 自動火力 또한 制壓되지 않은 채 熱鐵을 紛飛케 하는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포복으로 步一步 기어 나아 간 중대는 18.00에 Vegas진지 東南쪽 350m에 까지 前進하여, 그곳에서 壕를 파고 공격발판을 만든 다음 중대의 2개 소대로써 Vegas. 東쪽으로 迂回케 하고 E중대의 소대로써 계속 Able Gate쪽으로 밀고 들어가도록 하였다.

그러자 Vegas를 嚮守중인 敵은 Able Gate부근에 박격포진지까지 마련하여, 그 박격포의 高角사격으로써 진지 주위의 200m 前面에 빈틈없는 彈幕을 둘러쳤다.

중대는 그 탄막을 기어넘고 19.30에 Vegas진지 50m 앞까지 육박하게 되었으나, 夜暗이 짙어지기 시작하였으므로 現진출선에서 방어태세로 전환하여 그곳에 다시 壕를 파면서 밤을 지새우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중대가 敵의 눈앞에 다가서서 徹夜하려는 決意를 보이게 되자, 이를 芟除코자 병력을 증강한 敵의 陣前出擊이 子正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나 反復되었으나, 야간항공 지원 아래 해병들이 強靱하게 버티어 내어 끝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은 채 날을 밝혔는데, 18.30부터 그 이튿날인 28일 01.15사이에 VMF(N)-513야간전투대대(장, Robert F. Conley 중령)의 F3D-2(Skyknight jet)機와 VMA-212 및 323폭격대대의 F4U(Corsair)

機들이 前後 9회에 걸쳐 MPQ폭격을 실시함으로써 24ton에 달하는 폭탄을 Reno부근의 敵陣에 퍼부어 중대의 夜間방어를 聲援하였다.

여기서 特記할 것은 이날 戰鬪가 치열한만큼 死傷者가 또한 많아 위생병의 활약이 눈부신 바 있었다는 것인데, F중대에 배속된 해군 위생병인 William R. Charette 병장은 어떤 부상자를 돌보다가 바로 그의 곁에 敵의 수류탄 1발이 떨어지자 本能的으로 그 부상병의 몸을 덮쳐 안아 그를 救한 反面에 자기는 다리에 破片傷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상처는 돌보지 않고 절독거리면서 다른 부상자를 찾아 포화속을 헤쳤는데 어떤 부상자에게는 자기의 防彈조끼마저 벗어 주기도 하여, 중내에는 철모와 방탄조끼도 없는 맨몸으로 밤새도록 救護에 獻身하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氣盡脈盡하여 昏倒하고 말았다는 바 이로써 그는 後日 이 戰爭期間을 통하여 해병사단의 위생병으로서 自國 최고의 武功勳章인 Medal of Honor를 수여받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3월 28일 이날 연대의 力攻으로 Vegas를 다시 차지하였으나, 激戰은 그치지 않았다.

F중대의 제2차 出擊 : Vegas의 진지와 指呼之間에서 밤을 지새운 제7연대 F중대(장 Ralph F. Estey 대위)는 날이 밝기 전에 一戰을 겨루기로 하고, 03.40에 포병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제11연대(장, James E. Mills 대령)의 포병 제1, 제2 兩대대와 제4대대의 105mm및 155mm곡사포가 즉시 공격준비사격을 지원하여 Vegas 西北쪽의 △155일대에 砲



<부상병을 後送하는 Cable Car>

火力를 집중하였는 데 이 동안 지원박격포는 목표정상에 대한 零點照準射擊을 실시하였다. 포병이 2,326발의 포탄을 敵의 집결지와 포병진지에 집중한 다음인 04.00에, 해병들은 중대장 Estey대위의 先頭지휘아래 피로한 몸을 이끌고 頂上을 向하여 다시 기어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해병들이 撥속을 나서자마자 정상으로부터 鐵火가 쏟아져내려 앞을 가로 막는다면, 그 너머 계곡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박격포탄이 등 뒤에서 炸裂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기승을 부렸다. 이를 무릅쓰고 중대의 선수가 Able Gate 부근의 交通一角을 蹂躪하여 서로 銃劍이 交叉되는 短兵接戰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抵抗이 완강한 탓으로 끝내 정상席捲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여, 06.00에는 ⑩고지로 한 걸음 더 물러서게 되고 말았다.

여기서 중대는 敵兵 1명을 사로 잡은 바 있는데 이를 諷問한 결과, 그는 中共 제120사단(장, 鄭志士) 예하의 제358연대 제3대대 제9중대 소속 擲彈兵으로서 당초에 그들 제1대대가 Reno를, 그리고 그의 대대가 Vegas를 각각 공격하였으며, 그의 중대는 △155와 25 A고지 後斜面에 예비로 대기다가 제8중대의 Vegas공격을 增援하였다는 것이다.

또 그의 陳述에 따르면, 이때 당면한 中共 제120사단을 1개 대대의 방어正面이 通常 1km 정도로서 1개 중대만을 1선에 내세우고, 2개 중대는 그 後方에 배치하여 縱深을 깊게 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그들의 防禦編成——대체로 我軍의 그것과 같은 「二前—後」의 方式——과는 特異한 것인 바, 이는 突貫 공격적인 성격을 띤 그들의 手法을 그대로 反映하는 것이라고 分析하기도 하였다.

F중대의 제3차 出擊: 해가 뜨자 平澤(K-6)으로부터 曉霧속을 出擊한 VMA-212 폭격대대(장, Louis R. Smunk 중령)의 AU機——F4U “Corsair”를 폭격기로 개조한 것——들이 단독으로 △190 부근의 敵陣에 폭탄을 投下하였는데, 그 30분 뒤에는 VMA-323 폭격대대(장, William M. Frash 중령)의 F4U 單發전투기들이 東으로 △57에서 西로 △101에 이르는 敵線에 연막을 遮障하고, 이어 VMA-121폭격대대(장, John E. Hughes 중령)의 AD폭격기가 Reno와 △155 부근에 폭격과 기총掃射로써 對地공격을 실시하여 黑煙으로 敵陣을 휘감아 놓았다.

이와 같이 航空機 편대가 교대로 近接지원을 계속하는 동안, ⑩고지로 물러난 F중대는 또 한번 Vegas를 공격코자 銃劍을 갈았는데 支援부대의 다시 협조된 공격개시시간은 09.20이었다.

중대는 VMA-121와 VMA-323폭격대대의 AD機와 포병, 그리고 戰車와 박격포가 09.00부터 Vegas로의 敵접근로와 그들 지원화력진지를 強打한 다음인 09.20, 중대장 Estey대위 指揮下에 ⑩고지에서 踊出하였는데, 이번에는 Vegas의 西南쪽으로 돌아 山腹을 타고 올랐다.

그리하여 공격을 再開한지 1시간만인 10.15에 중대는 Able Gate 西쪽의 交通호와 15m 거리에 있는 작은 峭壁 하나를 손에 넣고, 그곳에서 火力을 交換하면서 突擊의 好機를 노리게 되었다.

이때 중대의 선두에서 분대원을 이끌고 敵陣으로 육박하던 분대장 Daniel P. Matthews 하사는 앞을 가로막는 敵火가 熾烈하여 잠시 掩蔽할 곳으로 물러나게 되었는데, 그 시각에 분대원 한 사람이 集中사격을 받아 부상을 입고 쓰러지게 되었다. 이에 위생병이 그를 구하려 달려 나가자, 敵은 美軍이 人命을 尊重한다는 것을 알았던지 마치 그 부상병을 人質로 잡은 듯이 기관총을 마구 휘둘러 그에로의 접근을 허락치 않은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를 구하려던 위생병마저 亂射되는 기관총탄에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이를 본 Methews 하사가 扼腕奮起하여 부상병을 抑留中인 敵의 기관총좌를 향하여 阿修羅와 같이 突進하였다. 그가 기관총좌로 달려들자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敵의 기관총은 그에서 집중사격을 加하여 그를 쓰러뜨렸으나 다음 순간, 다시 몸을 일으킨 그는 비틀거리면서 그 銃座로 뛰어들어 M1소총을 進射하여 敵의 射手와 副射手를 모두 사살함으로써 기여코 그 기관총을 沈黙케 하고야 말았다.

이렇듯 그의 捨身敢鬪로 그의 분대원은 부상中에서 救出되었으나, 그 自身은 끝내 그곳에서 兇敵을 겨안은채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 그는 California 출신으로 당년 21세라 하였다. 이에 美議會는 뒷날——그가 戰死한지 만 1년이 되는 1954년 3월 29일——그 한 몸을 던져 戰友를 구함으로써 弱冠의 젊은이로서도 可謂 殺身成仁의 境地를 보인 바 있는 그를 기리기 위하여 그에게 Medal of Honor를 追叙하였다고 한다.

대대장의 建議: 이와 같이 제7연대 F중대원의 奮擊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번째의 力攻도 水泡로 돌아가, 11.00가 지나서자 중대가 다시 ⑩고지로 물러서는 바 되고 말았는데, 이로 미루어 해병의 공격精神과 敵의 必守後己의 意志가 伯仲之勢를 이루어 쉽사리 輸贏을 決할 수 없는 것임을 헤아릴 수 있었다.

이에 대대장 Finch 중령은 다시 대대의 E중대(장, Herbert M. Lorence 대위)의 공격력을 증강케 하는 한편, 지금까지와 같은 功擊方式으로서는 오직 出血만 계속될 뿐으로, 勝算이 서지 않을 것이라는 見解를 연대장 Walt 대령에게 闡陳하였는데, 『Reno의 탈취를 포기하고 Vegas의 攻略에만 注力키로 한 以來 3개 중대병력을 投入한 바 있으나 별다른 進展을 보지 못한 것은 火力의 支援方式에 缺陷이 있기 때문』이라고 分析한 것이니, 그 主張의 要旨는 대개 이러하였다.

『현재 포병과 항공지원의 방식에 있어서, 장차 Vegas진지를 탈환하여 使用한다는 前堤下에 從前과 같은 該 진지의 機能發揮을 기대함으로써, 陣地가 破損되는 것을 避하였던 것인 만큼 敵의 지원화력 撲滅과 병력증원의 妨害에만 置重한 까닭으로 Vegas自體의 敵은 계속 強力한 진지에 依支하여 海兵의 공격을 능히 막아낼 수 있게 한 것으로 본다. . 따라

서 Vegas진지를 原狀대로 확보하는 것에만 執着한 나머지 目標의 奪取와 本末顛倒의 愚를 犯하고 있다고 할 것인 바, Vegas의 機能恢復은 奪還한 뒤에 陣地工事로서 補完키로 하고 우선 該陣地의 占領에 모든 手段을 다하여야 할 것이니, 晩時之歎이 있을지라도 今次 공격에는 모든 火力을 動員하여 Vegas의 敵陣을 먼저 粉碎함으로써 그 防禦力을 剝奪하는 것이 當면한 急先務인 것으로 判斷된다.』

연대장은 이에 共感하고 사단장 Pollock 소장에게 建議하기를『Vegas를 早速히 탈취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대한 항공폭격이 要된다.』라고 力說한 바, 사단장 또한 이를 首肯하였다.

E중대의 Vegas 奪取 : 이렇게 하여, 항공지원계획이 修正되어 제1해병비행단(장, Vernon E. Megee 소장)과 Vegas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이 協調되자, 대대장 Finch 중령은 13.00를 期하여 E중대의 일부로서 공격을 再舉키로 作定하고, 12.00에 同중대의 제1소대장인 Edger R. Franz 소위가 지휘하는 43명의 海兵을 ㉔고지의 제7연대 F중대線으로 推進하였다.

이 동안, 平澤으로부터 出擊한 VMA-121, 213 폭격대대의 戰爆機들이 실새없이 Vegas 上空에서 Reno의 東쪽 斜面과 57A 고지의 敵陣 그리고 △190의 병력集結地 등을 強打하다가 공격개시 30분전에는 지원 포병과 協同으로 28ton에 달하는 폭탄을 Vegas에 投下하여 이를 焦土化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13.00에 포병이 △155와 △190 등으로 射程을 延伸하자, 이에 腐接하여 黑煙이 濛濛한 Vegas頂上을 목표로, E중대 제1소대를 先頭로 F중대의 殘餘병력이 또 한번 공격에 나섰다.

海兵들이 ㉔고지의 掩蔽진지로부터 西北쪽의 稜線으로 기어 오르자, 일시 空地兩面의 打撃力에 제압되었던 敵의 野砲와 박격포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여, 先頭에서 敵포탄의 彈痕을 누비면서 躍一躍으로 나아가던 소대장 Franz 소위가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에 즉시 뒤따르던 소대선임하사관 John J. Williams 중사가 소대장을 代理하여 소대원을 지휘케 된 바, 白刃을 뽑아 들고 앞장서서 奮迅突破를 號令하는 그의 뒤를 따라 소대원이 일제히 山腹을 지쳐 올라, 아직도 硝煙이 자욱한 敵陣의 罅隙으로 突入하여——集中爆撃에 致命打를 입었던지 흠뻑미속에서 산발적인 小火器사격만으로 저항하는 敵을 屠戮하고——10분만에 目標을 탈취하였는데, 이때 Vegas진지는 송두리채 파헤쳐져 한 무덤의 砂丘나 다름 없었다.

소대는 그곳의 무너진 壕속에서 敵兵 1명을 俘獲하여 押送하고는 戰果를 헤아릴 겨를도 없이 F중대원과 함께 敵의 逆襲에 대비케 되었는데, 13.20부터 그들의 포탄이 Vegas진지 위에 다시 빗발치기 시작하였다.

이에 海兵들은 저마다 모래더미를 파서 우선 敵火를 피하게 되니, 실제로 진지를 방어하

는 것은 지원포병과 戰車에 맡기는 수 밖에 없는 形便이 되었다.

敵은 이같은 海兵의 虛實을 看破하고 진지재편의 여유를 주지 않으려는데, 그들 一團으로써 즉각 出驛을 단행하여 △155로부터 稜線을 따라 Vegas로 東南向하였으나, Vegas 주위에 둘러친 빈틈없는 포병의 彈幕과 그들 접근로——Vegas—△155의 稜線——를 겨냥하여 퍼붓는 戰車의 직사포 위력에 擱伏된 나머지 그 稜線上에서 滯留되어 出血만을 自招하던니, 끝내 彈幕을 넘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달았던지 다시 △155의 그들 진지로 遁逸하고 말았다. 이어 그들의 砲火마저 잦아들어 Vegas를 그대로 拋棄하는 氣色을 보였는데, 必是 날이 저물기를 기다리기로 한 듯 하였다.

이리하여 Vegas의 해병들은 곧 진지재편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 Vegas—△155 稜線上의 작은 봉우리(無名高地 ㉔ : Vegas頂上에서 西北쪽 80m : 표고 150m 정도)에 1개 분대규모의 敵이 버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뿐 14.00 현재로 Vegas진지는 모두 해병의 손에 들게 된 것인 바, 잃은지 38시간만에 되찾은 셈이었다.

이에 E중대원은 後續한 F중대원과 함께 ㉔고지의 敵은 당분간 置之度外키로 하고, 당면한 진지재편에만 注力케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E중대원이 얻은 敵의 俘虜를 訊問한 바에 의하면, 그 역시 中共 제358연대 제3대대 소속으로서, 同연대의 原所屬은 제40군(장, 韓先楚)이나 제46군(장, 蕭全夫)의 작전지휘아래 3개월 전부터 Reno와 Vegas 攻路를 준비하였다는 것이며, 이는 오는 春季에 必히 있을 UN軍의 攻勢에 썩기를 박기 위함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가 또 陳述하기를, 당시 그들 제46군의 병력 가운데 거의 65%가 新兵으로 交代되었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2주일전부터 同연대원 全員이 매일 수류탄투척연습을 하였다는 것이니, 이를 分析하면 그들은 UN軍의 春季攻勢를 겨냥한 先制攻勢로서 戰略的인 効驗을 거두기에 앞서 新兵에 대한 實戰훈련을 쌓으면서 戰術的 要地를 손에 넣고자 한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었다.

敵의 逆襲 : 14.00에 Vegas의 E중대원으로부터 진지를 확보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대대장 Finch 중령은 곧 대대 S-3인 Benjamin G. Lee 소령을 指名하여 그로 하여금 Vegas의 방어책임을 맡도록 하고, 전날 대대 CP 부근에 집결하여 新兵으로 缺員을 補充한 대대의 F중대(장, Ralph L. Walz 대위)의 150명으로서 Vegas후방의 交通線 복구작업을 담당토록 조치하였다.

그리하여 Lee소령이 Vegas로 挺身하여 대대의 E중대 일부와 제7연대 F중대 일부를 통합지휘하여, 이에 대한 방어의 重任을 맡게 되었는데 이때 새로 編成된 Vegas防禦隊는 이 兩個 중대원을 합하여 모두 58명에 不過한 것이었다.

이들은 西山으로 해가 기울때까지 各自의 散兵壕와 火器陣地를 새로 마련하여 高地頂上을 중심으로 直徑 50m 정도의 圓形진지를 急編한 다음 이의 固守를 다짐하였는데 이

동안에 K-6(平澤)의 VMA-121, 212와 323의 F4U AD 및 AU機들이 K-3(浦項)의 VMF-115와 311의 F9F機들과 合勢하여 連 33회의 出擊으로 Vegas의 陣地공사를 掩護하였다.

한편 이때 연대에서도 제7연대의 E중대(장, Thomas P. Connolly대위)를 대대에 배속 조치하여, 이날밤에 必至할 것으로 보이는 夜襲에 대비케 한 바, 대대장은 이를 ㉔고지로 推進하여 Vegas에 대한 지원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空中掩護下에 陣地공사를 대강 끝내고 夜間방어태세로 들어가자, 이내 해가 졌다.

이어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19.55이 되니, 豫期한대로의 襲波가 들어 닥쳤다.

1개 대대규모로 추산되는 이 一波가 Reno로부터 稜線을 타고 Vegas의 西北쪽 正面을 指向하였는데, 이번에는 事前에 野砲와 박격포에 의한 공격준비사격을 실시치 않고, Rocket砲 등 直射火器만으로 지원되는 듯 하였다.

이에 Lee소령이 포병지원을 要請한 바, 제11연대(장, James E. Mills 대령)의 제1, 제2兩대대(105mm)와 제4대대 및 육군 제623포병대대(155mm)에서 都合 4,670발의 포탄을 集注하여 Vegas陣地 주위에 탄막을 形成함으로써 敵의 접근을 막아 주었는데, 특히 이들 포병을 增援한 제1 Rocket砲隊(장, Donald G. Frier 대위)의 連發式인 4.5" Rocket포 24門이 波狀的인 集中威力을 발휘하여 그 제1波를 鑿滅하였다.

이렇듯 다만 포병화력으로써 正面의 攻波를 막아내는 동안인 20.30에 陣地 東北쪽으로 迂回潛透한 一團이 陣前으로 육박하게 되어, 이들과 20여분에 걸친 激烈한 火力戰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도 그곳 해병이 小火器와 수류탄을 互用하여 격퇴하고 말았는데, 이와 같이 그들 제1波의 企圖가 모두 좌절되자, 그들의 야포와 박격포로써 Vegas 陣地를 1시간 가까이 亂打하던니, 21.30에는 그 砲門마저 문득 다물어 四圍가 高요에 잠겨 들게 하였다.

이에 Lee소령은 敵이 必是 그 어떤 狡計를 꾸미는 것이라고 判斷하고, 隊員을 독려하여 警戒태세를 한층 강화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긴장속에서 1시간이 더 지나 22.30이 되니, 어느 새 그곳으로 접근하였는지 Vegas 西北쪽의 ㉔고지로부터 그들 一團이 怪聲을 지르면서 猝然인 돌격을 감행하여, 한 달음에 稜線을 뛰어 오르는 것이었다. 이를 기다린 海兵들이 즉각 鐵火를 퍼부어 그들의 陣前接近을 막자, 이어 4.5" Rocket포탄의 熱火가 다시 炸裂하여 ㉔고지 일대를 噴火口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하여 이 역시 陣前에서 모두 殲滅함으로써 그들의 企圖를 또 한번 烏有로 化하게 하였는데, 23.00에 △155로 물러난 그들은 增援을 기다리는 듯 23.30부터 30여분 동안에 걸쳐 그들의 可用한 火力을 모두 動員하여 Vegas에 集中하던니, 이윽고 子正이 되자 Vegas에 대한 攻奪野慾을 다시 들어내었다.



〈高地에 집중되는 砲火〉

즉, 2개 중대 규모가 △155로부터 稜線을 덮어 밀려든 것이다.

그들은 손실을 아랑곳 하지 않는 듯, 연대의 박격포와 제11연대의 野砲가 障壁과 같이 둘러친 火網을 기어 넘고, 陣前으로 육박하였는데 煙霧彈을 진지에 집중하여 海兵의 눈 앞을 가린 다음, 일부로써 Vegas의 東南쪽으로 迂回하여 Vegas와 ㉔고지 사이의 稜線을 차단케 함으로써 海兵의 增援을 막으면서 前後에서 挾擊하여 일거에 고지를 席捲하려는 기세를 보였다.

그리하여 그곳의 海兵들은 夜暗과 煙幕으로 말미암아 左右莫辨의 混迷속에서 200여명의 포위공격을 받는 危機에 逢着하게 되었다.

이에 Lee소령으로부터 無線으로 이와 같은 건박한 상황 보고에 接한 대대장 Finch 중령은 ㉔고지를 확보중인 제7연대 E중대(장, Thomas P. Connolly 대위)로 하여금 그 西北쪽으로 稜線을 밀고 올라 가 Vegas의 Able Gate쪽을 차단중인 敵의 등을 찔러 포위망을 풀게 하는 한편 항공조명지원을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그 이튿날인 29일 00.45에 航空照明이 戰場을 밝히는 가운데 지원포병이 都合 6, 108발의 포탄으로써 Vegas의 圓形진지를 둘러싼 敵의 頭上을 사정없이 내려쳤다.

이 동안 Vegas 진지에서는 그들의 일부가 陣內에 뛰어드는 것을 銳劍을 휘둘러 막아내는 白兵의 亂鬪相을 보게 되었는데 Lee소령 以下 海兵全員이 한 몸이 되어 寸步不讓의 肉薄對決을 벌이니, 劍閃이 亂舞하는 곳에 怒號와 悲鳴이 엇갈리고 爆聲이 搖亂한 곳에 骨片과 肉塊가 紛飛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Vegas를 拒支하는 중인 29일 01.30에 E중대가 진지 東南쪽으로 突風을 몰아 닥쳐 포위망을 깨고 Vegas를 赴援케 되니, 敵은 마침내 더 이상 어찌할 道理가 없었던지 Δ 155로 물러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敵은 이같은 그들의 撤退를 叱咤하는 듯, Reno로부터 自動火器와 無反動銃으로써 그들 자신의 退路를 막는, 無慈悲한 督戰의 本色을 들어내었다.

이리하여 Vegas를 공격하던 敵이 督戰의 銃 부리앞에 퇴로를 잃고 Vegas- Δ 155의 稜線에서 彷徨中이라는 것을 看破한 제11연대의 重砲와 4.5" Rocket포가 이를 놓치지 않고 집중위력을 발휘하여 그들을 殲殺함으로써 모조리 山腹의 凍土를 덮게하고 말았다.

3월 29일 : 이날 새벽에 들어서면서 세 차례에 걸친 敵襲을 모두 격퇴한 뒤로, VMO-6 관측대대(장, William A. Cloman, Jr. 중령)의 관측기들의 徹夜觀測下에 제11연대와 제1 Rocket포대가 4,225발의 포탄을 Reno 부근에 퍼부어 敵의 덜미를 누르는 가운데 날을 밝히게 되었다.

無名高地 ㉔의 剔抉 : Vegas의 Lee소령은 날이 밝기 전에 그 北쪽 ㉔고지에 붙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敵을 剔抉하여 Vegas 일원에 대한 安全을 圖謀키로 作定하고, 진지 後方 交通호를 補修중인 F중대(장, Ralph L. Walz 대위)의 增援을 얻어, 05.00를 期하여 ㉔고지를 急襲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Lee소령은 ㉔고지에서 Vegas로 進出한 F중대장 Walz 대위와 더불어 ㉔고지에 대한 공격 方案을 짜게 되었다. 04.50에 이르러 敵은 이와같은 Vegas의 움직임을 마치 牽制하려는 듯이 120mm重박격포를 집중함으로써 頂上의 지휘소가 硝煙 속에 震動하게 되고 Lee소령과 Walz 대위의 두 사람은 直擊彈으로 盟邦山河를 지키는 守護神이 되고 말았다. 이때 悠悠蒼天에 朝暘이 밝기 시작하니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象徵하는 듯하였다.

이에 같이 있던 포병 제1대대(장, Olin W. Jones, Jr. 중령)의 관측장교 John S. Gray 중위는 즉시 이 박격포 火力을 制壓하기 위하여 敵陣을 관측하여 대대의 火力을 誘導하다가 그도 또한 다른 박격포탄에 重傷을 입고는 끝내 陣歿케 되었는데, 이로써 倉卒間에 Vegas 진지에 있는 장교를 모두 잃는 바 되었다.

따라서 指揮體系에 적지않은 混線을 빚게된 까닭으로, ㉔고지 공격을 일시 中止하여 그 實行을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다.

그런데 Vegas의 지휘관이던 Lee소령은 19년 동안이나 海兵隊에 몸을 담아, Guadalecanal 戰鬪 등 太平洋전쟁에 參戰하여 銀星勳章을 수여받기도 한 42세의 歷戰의 老兵이었다.

이에 곧 연대 제3대대의 부대대장인 Joseph S. Buntin 소령을 Vegas의 지휘관으로 다시 맞아 海兵들은 心機一轉하여 Lee소령의 遺志를 貫徹코자 비오듯 쏟아지는 敵의 포화를 무릅쓰고 ㉔고지의 공격에 나선 결과, 08.30에 박격포만 지원을 받아 踴躍하여 155 Δ 와 ㉔

고지 사이에 교통호를 파고 있던 1개 분대규모의 敵을 鎧袖一觸으로 휩쓸고 기어코 ③고지마저 掌中에 넣고 말았다.

이리하여 Vegas全域을 확보하여 △155의 敵陣과 對峙케 된 海兵은 F중대의 2개 소대를 Vegas防禦隊에 포함시켜 진지제편에 들어 갔는데, 포병이 진지주위에 煙幕을 遮障하여 海兵의 행동을 隱蔽하는 가운데 本來의 진지대로 교통호와 散兵壕를 마련하고 KSC가 지게로 날라다 주는 工兵資材로 自動火器의 銃座를 다시 設置하는 한편 위생병과 무반동총, 박격포 등 重火器를 새로이 추진하여 진지를 強化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또 낮부터는 美 육군의 제461重박격포대대(4.2")의 A, C 兩個중대와 제424야포대대 C포대 및 제17야포대대의 重砲(8")가 새로이 사단의 一般支援에 合勢케 되어 연대지역의 제11연대 火力을 增援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낮 동안 VMO-6에서 前後 19차에 걸쳐 Vegas일원에 관측비행을 실시하여 敵의 보급품과 병력의 集結을 감시 하였으나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午後에 들어서자 진눈개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陣地工事중인 Vegas의 塹壕속은 泥濘로 變하였는데, 이를 무릅쓰고 工事를 강행하여 16.00에 그 作業을 대강 마무리짓게 되었다. 따라서 포병의 연락차장도 中止되고, 觀測機들도 모두 그들의 基地로 귀환하게 되었다.

그런데 海兵이 Vegas를 手中에 넣고 방어태세로 轉換한 전날인 28일 16.00부터 이날 16.00까지에 걸친 24시간 동안에, 연대를 직접지원중인 포병제1대대(장, Olin W. Jones, Jr. 중령)에서는 105mm포탄 11,079발을 이 Vegas일대에 集注하였으며, 제11연대와 육군지원포병의 그것을 합치면 모두 35,809발에 달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8월의 Bunker고지 戰鬪 당시——해병사단이 이 西部戰線으로 轉進한 以來 가장 치열한 激戰의 一晝夜로 평가된——같은 期間인 同월 12일 18.00부터 13일 18.00사이에 제1해병연대(장, Walter F. Layer 대령)를 직접 지원한 포병 제3대대(장, Charles O. Rogers 중령)에서 발사한 10,652발(지원포탄 都合 34,881발)을 凌駕하는 것이니, 이 Vegas의 확보에 寄與한 포병의 役割이 어떠했는가를 이로써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敵의 逆襲再開 : 다시 어둠이 山野를 덮기 시작하는 18.50이 되자, Vegas를 기어코 손에 넣고야 말겠다는 듯이 이에 대한 敵의 공격이 다시 試圖되었다.

3개 중대규모의 그들이 야포와 重박격포의 지원아래 △155와 Reno로부터 稜線을 타고 東南向하다가 세갈래로 衝鋒을 나누어 Vegas의 北쪽과 西北쪽 그리고 西南쪽으로 同時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다.

이에 海兵 역시 곧 조명지원아래 야포와 박격포로 應酬하였는데, 그들의 공격이 시작된 10분 뒤인 19.00에 제11연대의 4개 포병대대가 6,404발의 포탄으로써 Vegas의 진지주위에 하나의 巨大한 鐵籠과 같은 彈幕을 형성하여 陣前접근을 막는 一方, 4.2"重박격포와 4.5"Rocket포들이 Vegas-△155의 稜線을 火力遮斷함으로써 이 醜敵들을 殲殺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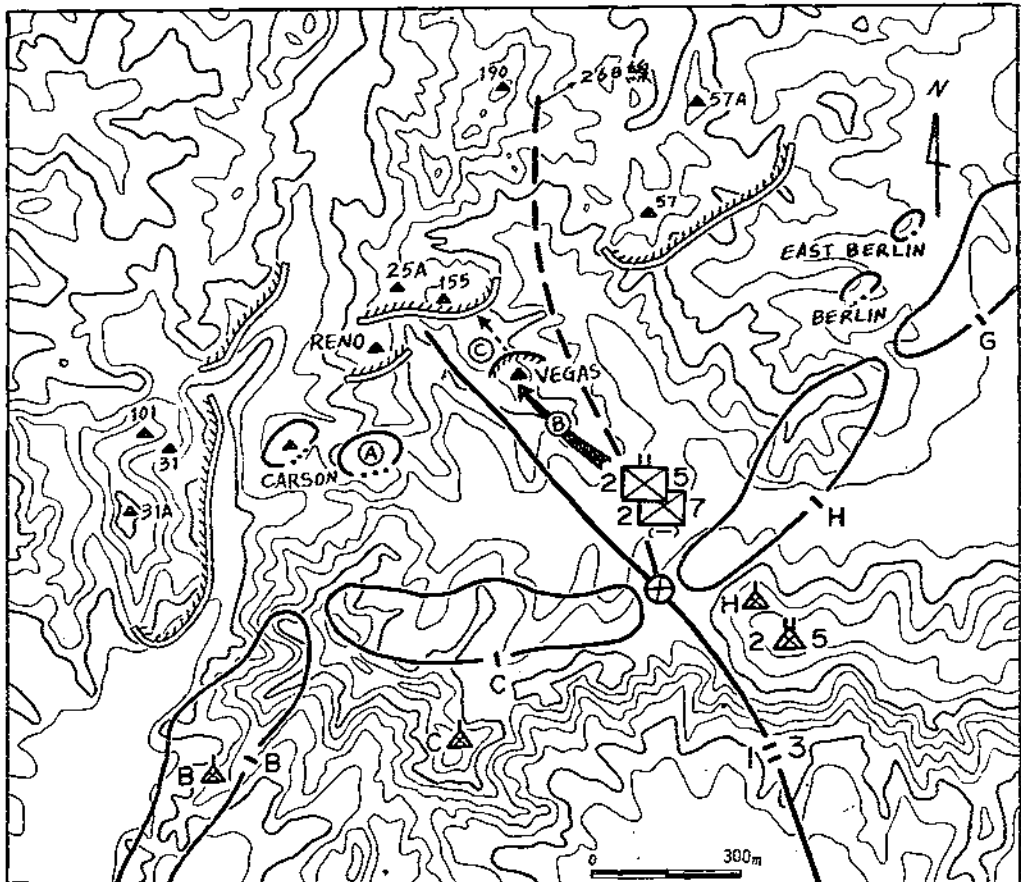
이에 더 견디어내지 못하는 듯 그 철들은 20.40에 △155로 물러가고 말았는데, 이 狂徒들을 포병화력만으로 격퇴한 셈이었다.

子正이 가까울 무렵, 이 一黨들이 또 한차례 움직임을 보여 △155로부터 ㉔고지쪽으로 접근하였는데, 이번에는 그들 지원포병이나 다른 火力을 사용하여 Vegas에 대한 正面挑戰을 하지 않은 채로 한 동안 어둠속에서 徘徊하였다. 이에 또 한번 海兵이 야포와 박격포를 집중하니 그 10여분 뒤에는 그도 △155쪽으로 潰走하고 말았는데, 이는 아마도 그들의 시체와 부상병을 수습하려 한 것인 듯 하였다.

3월 30일 : 전날 子正이 지나자, 2개 대대규모가 다시 Reno와 △155로부터 出擊하여 Vegas에 대한 공격을 再開하였다.

비는 그쳤으나 구름이 짙어 밤 동안 漆黑같은 어둠이 계속되었는데, 이 夜暗을 타서 그들은 삼시간에 Vegas를 에워싸고 달려들었는데, 照明彈으로 夜空을 밝히자 그 光芒下에 들어난 그들 모습은 마치 먹이를 다투는 兇鬼의 一群과도 같았다.

◇ 상황도 제110호 Vegas고지 恢復 공격상황



이에 海兵의 지원포병이 또 한번 咆哮하여 Vegas의 山腹을 뒤흔들어 놓으니, 그들은 혹은 鐵片과 함께 空中으로 치솟기도 하고 혹은 石塊와 함께 계곡으로 굴러 내리기도 하였는데, 이 같은 포병의 怒號를 피하여 가카스로 Vegas陣前으로 다가선 일부의 무리는 또 그곳에서 扼腕待機 중인 海兵의 수류탄을 그 頭上에 뒤집어 쓰면서 기관총과 BAR 彈丸에 胸臆을 꿰뚫리는 바 되니, 白磷의 閃光이 한번 明滅할 때마다 그들 彈丸代用品이 흔적없이 사라지는 것이라 淒慘의 極이 아닐 수 없었다.

이렇듯 步砲協同의 빈틈없는 火網에 걸려든 이 醜惡한 무리들은 02.00에 이르러 병력의 殆半을 잃게 된 나머지 마침내 企圖達成을 단념한 듯이 垂尾一途로 물러가고 말았다.

그런데 이 一戰에서 Vegas의 防禦隊가 照明中에 陣前에서 屠戮한 數조차도 대강 헤아려 80여명에 달하였는데, 그 밖에도 自願하여 포병의 好餌가 된 蠻勇을 合算하면 死傷者가 도합 300여명이 될 것이었다.

防禦編成의 改編: 해가 뜨자, 다시 날씨가 맑아졌다.

VMA-212와 323의 AU戰爆機들이 Vegas너머로 敵陣과 Reno에서 25A 고지에 이르는 敵의 交通호를 強打하여 그들의 새로운 병력 증원을 막는 가운데, 밤사이에 파괴된 Vegas 진지를 다시 복구하였다.

이에, 연대장 Walt 대령은 전날밤으로 敵의 攻奪企圖를 꺾어놓았다고 판단하고, 제2대대장의 Vegas 진지에 대한 作戰指揮를 지역방어 책임을 맡은 제3대대장에게 移讓토록 한바, 아침부터 지원병력과 함께 Vegas 지역의 책임을 제2대대장 Finch 중령으로부터 인수한 제3대대장 Robert J. Oddy 중령은 대대 主抵抗線의 中央 제1선인 G중대를 Vegas로 추진함으로써 이로 하여금 새로이 Vegas 방어임무를 맡게 하는 일방, 그곳의 혼성병력은 모두 主抵抗線으로 뽑아 내렸는데, 그 가운데 제2대대 F중대로써 대대의 中央제1선——G중대 진지——에 充用하였다.

이와 아울러 Vegas 지휘관인 Buntin 소령은 다시 대대 副대대장으로 復歸하고, 그 대신 제7연대 제2대대의 S-3인 George E. Kelly 소령이 새로이 Vegas병력을 지휘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방어編成에 改編을 보게 된 Vegas진지에서는 Kelly 소령이 着任 즉시로 『各者 살아남으려면 壕를 더 깊이 파라』고 명령함으로써 全 隊員이 참호파기에 熱中하였는데, 이때 海兵들의 陣地工事に 임한 태도를 뒷날 그가 述懐하기를 『人間에 그와 같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能力이 賦與되어 있었음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Vegas에서 壕를 改修 중인 11.00에 ◎고지 부근에서 느닷없이 敵兵 5명이 나타나 稜線을 따라 서슴없이 陣前으로 접근하는 것이었다. 一見하여 投降者가 分明하였으나 이 같은 白蠟의 投降이란 前에 없었던 일인지라, 海兵들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 보았는데, 그들이 陣前에 이르러서는 버란간 양손에 들었던 수류탄을 던지면서 지녔

던 다발총을 亂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지켜보던 경제조의 기관총에 의하여 그 중 3명이 射殺되고 2명은 부상을 입고 사로 잡히는 바 되었는데, 이들을 심문한 결과 그들은 前날 終夜도록 Vegas를 공격하였으나 끝내 성공치 못하게 되며 正面對決로는 勝算이 서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같이 投降을 假裝하여 Vegas 陣形을 攪亂코자 奸策을 쓰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었으니 이로써 보전대 이 Vegas 탈취에 대한 그들의 執念이 어떠한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였다.

다시 밤이 되자, 支援砲兵이 敵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그들의 집결지와 보급로에 T.O.T 사격을 실시함으로써 그 怒聲만으로도 能히 敵을 擱伏케 할 수 있었는데, 육군 제61야전포병대대의 照明중대에서 大形 탐조등의 間接 조명으로 戰夜를 照明케 된 가운데 제 1대공포중대의 Cal. 50 4정을 裝備한 M-16, 2대가 Vegas 방어에 增援되어 防禦陣容을 한층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또 한번 敵의 공격을 기다렸으나, 날이 밝은 다음 Vegas에서 대대에 보고되기를 『한 없이 길었던 닷새 밤 중 처음으로 平穩한 밤』이라고 하였다. — 이 狡敵들은 마침내 Vegas 奪取를 斷念한 것으로 보여지니, 美海兵의 渾身奮迅의 事實은 戰史와 함께 길이 빛나리라.

다. 전투후의 개황

이상과 같이 連 5晝夜에 걸친 제5해병연대(장, Lewis W. Walt 대령)와 中共 제358연대의 Nevada 血戰은 해병 연대가 Reno를 잃은 상태에서 일단 終止符를 찍게 되었는데, 이 동안 敵은 그들의 各種 포탄 45,000여발과 그야말로 限定없는 많은 병력을 投入하여 Vegas를 攻陷하였으며 이에 맞선 海兵 역시 제5연대가 기간 중 520명의 新兵을 補充하면서 不退轉의 鬪魂을 발휘하였던 것이니, 이에 3개 輕砲(105mm)와 2개 中砲(155mm)대대 그리고 2개 重砲(8")중대와 1개 Rocket(4.5")砲 중대 및 2개 重박격포(4.2")중대의 火力 都合 104,864발과 戰車砲(90mm) 7,000여발이 지원되었는가 하면 또한 218회의 出擊을 記錄한 제1해병비행단의 6개 비행대대가 모두 210ton에 달하는 폭탄과 Napalm탄으로 지원한 바 있어, 결과적으로 空地로 4,000여명의 海兵이 이 戰鬪에 參加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이 Vegas 확보에 대한 彼我的 執念을 미루어 볼 수 있거나와 期間동안의 海兵의 戰果와 損失을 다음과 같이 헤아려 보면 這間雙方의 鬪魂을 明白히 알 수 있는 것이다.

戰 果	損 失
遺棄屍體確認 536具	戰 死 116名
殺傷推定 1,700餘名	負 傷 801名
捕 虜 4名	失 踪 98名

이렇듯 맹맹히 맞선 彼我的 對決로 海兵은 恒時 Vegas에서 一觸即發의 爆藥을 안게 된 셈이었는데 5월에 이르러 또 한번 敵의 挑戰으로 이것을 起爆케 됨으로써 紛戰이 再開된 결과 이를 끝내 敵의 手에 넘겨주게 되고 만다.

敵의 動向: 이 전투에서 Vegas의 鑿證를 일단 斷念한 中共 제120사단(장, 鄭志士)은 계속 제358연

대를 主軸으로 하여 Nevada 正面에서 海兵사단의 右一線과 對峙하였는데, 東으로는 그들 제133사단의 제399연대와, 西로는 同제120사단의 제360연대와 함께 形成한 一連의 戰線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海兵 제5연대와 出血을 다루었던 제358연대는 Reno를 손에 넣은 代價로 3,000~3,500여명의 損失을 본 것으로 推定되어, 同연대의 戰力이 거의 바닥나는 潰滅的인 打擊을 입은 바 다시는 前線에 나설지 못할 것으로 豫想되었으나 계속 그들 主抵抗線에 남아 새로운 병력으로 부대를 再整備하면서 Vegas에서 失墜된 그들의 「面子」를 세워 보리라 切齒腐心 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Reno만을 그들의 방어에 더 포함시켰을 뿐, 그 陣容에는 큰 變動이 없는 듯 하였다.

다만 特異한 점이 있다면, Vegas戰鬪中에 그들의 捕虜가 暴露한 바와 같은 「一前二後」의 防禦方式에서 脫皮하여, 이 戰鬪以後로는 前線의 兩個대대가 共히 3개 중대를 모두 제1선에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뿐이었다.

5월에 들어서면서 제358연대가 그간의 傷痕이 어느 정도 治癒되었음인지 徐徐히 Nevada地域에 대한 探索活動을 展開하더니 同月 25일——UN軍側이 板門店에서 休戰회담의 難題인 途還不願포로의 처리문제에 대하여 敵側의 主張대로 政治회담으로 移管한다는 決定的인 讓步가 있는 날——부터 砲擊을 始作함으로써 挑發野慾을 들어내다가 그 3일 뒤인 28일 밤에 Vegas와 Carson에 기어코 공격을 재 개하였다.

我軍의 動向: Vegas에서 統轄이 穢게 되자 제5해병연대는 3월 31일 아침에 모든 戰列을 正常化하여 예비는 各己 本陣으로 복귀토록 조치하였는데, Reno의 喪失에 따라 ④고지에 陣地를 強化하여 이를 Elco라 命名하고 Vegas—Elco—Carson으로 Nevada의 前進陣地를 確定하였다.

4월 4일에 사단은 同연대의 損失을 勘案하여 예비인 제7해병연대(장, Glenn C. Funk 대령)와 임무를 交代토록 하였다.

그 한달 뒤인 5월 5일에는 사단의 戰線을, 4월 25일에 美 제2보병사단과 交代하여 美 제9군단에서 美 제1군단으로 轉入한 바 있는, 美 제25보병사단(Turkey여단 배속)에 인계하고, 金浦연대와 제11포병연대 및 제1전차대대를 同사단에 배속한 채 軍단에비로 轉換하여 東豆川 부근에 駐營하게 되었다.

한편 海兵사단의 戰線을 새로이 담당케 된 美 제25사단(장, Samuel T. Williams 소장)은 제14연대를 예비로 확보하는 가운데 배속중인 Turkey여단을 右一線으로, 제35연대를 中央一線으로, 그리고 제27연대를 左一線으로 部署하고 海兵金浦연대는 계속 金浦半島의 警戒임무를 맡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Nevada지역을 제7해병연대로부터 인수하게 된 Turkey여단(장, Sirri Acar 준장)은 제11(포병)연대와 戰車 B, C兩團 중대의 지원아래 右로부터 제3, 제2, 제1대대順으로 主抵抗線에 배치하였다

同月 中旬에 들어서면서 여단 正面에 敵의 병력이동상황이 격증되고 있다는 항공관측보고가 있더니 28일 밤에 Vegas와 Elco 그리고 Carson의 세 陣地에 各種 포탄 65,000발의 지원 아래 연대규모가 들이닥쳐 前後 36시간에 걸친 攻防의 血戰을 벌이게 되었다.

이에 여단도 박격포탄 62,790발과 여단포병의 105mm포탄 11,200발 그리고 海兵제11연대의 포탄 27,170발을 지원받아 渾身の 力鬪 결과 戰死 151명과 負傷 345명의 損失을 보고 敵 3,000여명을 殺傷하는 戰果를 거두면서 Vegas와 Elco는 지켜내었으나, 이번에는 Carson을 敵의 手中에 넘겨주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기서 또 한번 高地와 人命의 兩者擇一의 岐路에 서게 된 軍단장 Bruce C. Clarke 소장(4월 10일에 Paul W. Kendall 중장과 交代)의 指圖에 따라 여단은 30일에 끝내 Vegas와 Elco마저 그 장악을 포기하게 되고 만다.

7월 8일에 海兵사단이 다시 제25사단과 交代하여 同戰線을 인수케 되나, Nevada地域의 회복을 圖謀치 못한 채 現主抵抗線에서 休戰을 맞게 됨으로써 이를 軍事分界線의 北方 非무장지대에 남겨놓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愛惜한 일이었다.

§ 戰 訓

(1) 洞窟陣地の 活弄에 대하여

26일 밤의 Reno진지의 喪失은 洞窟진지의 脆弱性を 露呈한 좋은 본보기라고 할 것이다.

당초 散兵據設備을 하지 않고 洞窟과 交通線만으로 진지를 편성하여 敵의 來襲時 我方은 洞窟속에 掩蔽하고 포병의 VT彈에 의한 陣內射擊으로 殲滅한다는 防禦方式을 取하였던 것인바 여기서 첫째, 포병의 陣內사격만으로는 陣內의 突入한 敵을 남김없이 屠戮할 수는 없다는 점과 둘째 洞窟 위에 騎乘한 敵이 그 동굴을 파괴한 때에는 그 속에서 空息을 쫓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 實證된 것이다.

따라서 火力만으로는 洞窟 속 병력의 安全을 保障치 못하는 것이며, 窮極의 勝負는 步兵의 劍尖에서 가름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戰鬥員 스스로의 自活策을 위하여서도 그들 各者가 陣地에서 最後의 순간을 決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다.

(2) 火力支援에 대하여

27일 09.00부터 시작된 Vegas의 恢復공격에 있어서, 28일 午後까지 이에 대하여 重砲사격과 항공폭격을 실시치 않은 것은 분명히 主客顛倒의 誤謬를 犯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陣地의 原狀恢復만을 추구한 나머지 이의 迅速한 奪取에 逆行하는 結果를 빚은 것이니, 결국은 本文에서와 같이 可能한 手段(火力)으로 該 敵陣을 無力化시킨 다음에야 이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며, 또 占領後의 陣地工事로서 충분히 支撐할 수 있었던 것이다.

目標은 分明하여야 하며, 手段은 언제나 最善이어야 한다.

§ 研 究

(1) 高地의 名稱문제 : 本文中의 ㉠, ㉢, ㉣고지는 叙述 前의상의 記號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밖의 25A, 57A 등은 當時에 慣用되었던 고지명칭인데, Vegas, Reno, Carson은 美本土 Nevada州의 都市名을 딴 것인듯 하나, 1952년 9월까지의 이들 고지를 각각 Clarence, Bruce, Allen으로 불리어 졌다고 하는 바, 이같은 改稱의 時期와 緣由는 알 수 없다.

(2) C중대 主抵抗線 配置병력문제: 美海兵隊戰史인 「U.S. Marine Operation in Korea. Vol.V」에 의하면, Nevada正面은 제1대대 C중대가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Vegas에는 H중대의 일부가, Reno와 Carson에는 C중대원이 배치되었다고만 하였을 뿐, 主抵抗線병력배치에 대하여는 言及한 바 없다.

따라서, Reno와 Carson에 각각 1개 소대규모가 배치되었으니 결론적으로 主抵抗線에는 1개 소대만 남는다고 보겠으나, 海兵隊의 編制上 중

대에 3개 소중소대 外에 輕機소대가 있어 이 소대만으로도 獨自의인 방어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勘察한다면, 당시에는 Reno는 輕機소대가 담당한 것으로 推察할 수 있어, 主抵抗線에는 2개 소대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3) Vegas奪回時의 작전지휘 문제 : 前掲의 海兵戰史에서는 27일 04.30에 제5해병연대의 제3대대와 제1대대의 전투지경선이 250yds 西쪽으로 變更됨과 아울러 Vegas에 대한 책임을 함께 3대대가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나, 同대대장의 Vegas공격중대 지휘에 대한 더 이상의 記錄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狀況으로 미루어 보아 主抵抗線 담당 대대장이 支援 2개 대대(제5연대 제2대대 및 제7연대 제2대대)를 지휘 하여야 할, Vegas탈환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本文에서는 Vegas를 탈취하기까지는 제2대대장이 공격임무를 맡은 것으로 하였다.

第 61 章

海軍의 活動

要 旨

1. 海軍의 活動
2. UN海軍의 活動

第 61 章 海軍의 活動

要 旨

기간중 韓國海軍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UN海軍의 지원 아래 東西 兩海域에서 活動을 계속하였다.

東海에서는 PF級 艦艇이 UN艦隊의 輸送船團에 대하여 日本의 Saseho에서 麗島近海의 美 제 7艦隊에 이르는 航路에 護送作戰을 전개하였으며 PC級 艦艇은 注文津—興南에 이르는 漁撈海域에서 경비 및 漁船團의 保護作戰도 병행하였다.

한편 元山前洋인 永興灣一帶와 東北海岸線을 中心으로 하는 海域에서의 掃海作戰과 경비작전은 惡天候에도 連일 계속되었다.

또 FS級 輸送船은 各島嶼 및 경비함정에 적절 한 兵站線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西海에서는 甌津半島를 중심으로 하는 島嶼作戰이 主流를 이루었는데 延平島近海에서 PC級 艦艇이 旗艦임무를 띠고 경비항해를 계속하면서 PCS, YMS, JMS, LSSL級 艦艇 등을 지휘하여 敵岸에 대한 砲擊과 掃海, 경비, 수송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PT編隊를 利用한 海岸線 奇襲作戰은 艦艇勢力이 보잘 것 없는 그네들의 海上警備를 露出시킨 一戰이었으며 우리 海軍의 勇감부당한 戰鬥力을 과시한 셈이었다.

또한 休戰을 앞두고 적절 한 시기에 分界線 以北의 各島嶼의 住民과 部隊兵力에 대한 撤收作戰도 遂行하였다.

기간중 주요 活動을 살펴 보면 3월 11일에 LSSL-109艇, YMS-507艇, 503艇이 江橋洞에 랍 포사격을 실시하여 火力據點 2個所와 兵舍 5棟

을 격파하였으며 3월 21일에도 YMS-505艇은 西海의 陸島對岸인 牧洞의 敵陣을 포격하여 炎上토록 하였으며 前述한 PT編隊는 1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의 기간에 白翎島—巡威島間의 海域을 수시로 출몰하여 그네들의 陣地를 粉砕하거나 위협하였다.

또 東海에서도 掃海作業과 機雷破 등 連일 海上勢力을 敵에 과시하였다.

또 기간 중 UN海軍은 美 제 7艦隊를 주축으로 하는 極東艦隊가 戰線一帶에서 실시한 地上軍 支援作戰과 元山港封鎖作戰 등을 위시하여 開戰初期부터 확보한 制海權을 행사하여 東西 兩海域에서 敵의 前後力을 막론하고 가차없는 砲擊과 爆擊을 계속하였다.

이해 초부터 地上戰과는 달리 艦載機의 과감한 空襲으로 新義州와 平壤 그리고 元山一帶 및 韓滿國境에 이르기까지 그네들의 産業施設을 強打하여 戰線에 간접적인 지원을 斷行하였다.

이해 6월 그네들이 대공세를 전개하자 UN海軍은 全航空母艦이 驅逐艦, 戰艦, 巡洋艦의 지원 아래 高城近海에서 戰線으로 출격과 艦砲射擊을 계속하여 戰爭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砲火를 퍼부어 그네들의 士氣를 저하시켰다.

결국 UN海軍이 海上의 惡天候와 그네들이 부설한 機雷, 海岸砲等の 장애를 극복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海上勢力이 완전히 劣勢였으며 그 결과 끝까지 UN海軍이 制海權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었고 아울러 끊임 없는 掃海作戰으로 인하여 艦隊가 충분한 機動性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1. 韓國海軍의 活動

참조 : 별책부도 제 25 호
상황도 제111~114호

가. 참가함정 및 주요지휘관

總參謀長	중장 孫元一	YMS-510艇 장 대위 崔起東
	소장 朴沃圭(53. 7. 11부터)	YMS-512艇 장 대위 黃善道
PF-61艦	장 중령 李應燮	YMS-513艇 장 중위 鄭元錫
	중령 尹英遠(53. 7. 17부터)	YMS-514艇 장 중위 韓昌烈
PF-63艦	장 대령 李龍雲	YMS-515艇 장 중위 李應基
	중령 李鍾徹(6. 20부터)	YMS-518艇 장 중위 金容先
PF-65艦	장 중령 崔孝鏞	JMS-301艇 장 대위 河正洙
	중령 張志洙(1. 25부터)	JMS-302艇 장 중위 陸慶鳳
PF-66艦	장 중령 李成浩	JMS-303艇 장 대위 朴贊極
PC-701艦	장 소령 卍亮煥	대위 千坪祚(3. 12부터)
	중령 朴敬哲(6. 14부터)	중위 成大日(4. 7부터)
PC-702艦	장 소령 許德和	대위 李允熙(4. 25부터)
PC-703艦	장 소령 閔賢植	중위 金喆俊(5. 16부터)
PC-705艦	장 소령 韓文植	JMS-304艇 장 대위 朴麟俊
	중령 金榮寬(2. 6부터)	중위 金勇厚(5. 15부터)
PC-706艦	장 소령 金東燮	중위 李澤衍(5. 28부터)
	중령 蔡奎男(5. 15부터)	JMS-307艇 장 대위 林龍雨
YMS-501艇	장 중위 辛相大	JMS-308艇 장 대위 崔炳起
	대위 貝滋學(5. 15부터)	대위 蔡在錫(1. 4부터)
YMS-502艇	장 대위 金禎浩	중위 李澤珩(3. 19부터)
YMS-503艇	장 대위 白麟基	중위 池基洪(5. 28부터)
YMS-504艇	장 대위 徐德均	소위 朴相采(6. 21부터)
YMS-505艇	장 대위 金秉澤	JMS-309艇 장 대위 朴明三
	대위 梁漢杓(5. 15부터)	JMS-310艇 장 대위 林斗成
YMS-506艇	장 중위 金熙年	JMS-313艇 장 중위 柳浩實
YMS-507艇	장 중위 楊濟錫	JMS-315艇 장 대위 柳來赫

PCS-201艇 장 대위 崔英燮	PT-27艇 장 소위 金龍水
PCS-202艇 장 대위 朴基政	LST-801艇 장 소령 金玉卿
PCS-203艇 장 대위 金炯培	소령 崔富英(53. 2. 24부터)
PCS-205艇 장 대위 鄭一燦	LST-802艇 장 대위 朴世忠
LSSL-107艇 장 대위 李完鏞	LST-805艇 장 소령 趙丁佑
대위 鄭樂重(53. 1. 10부터)	LST-806艇 장 소령 金洪柱
LSSL-108艇 장 대위 崔道甲	FS-901艇 장 소령 金淳一
대위 朴武鎬(53. 3. 24부터)	FS-902艇 장 대위 朴兌鉉
LSSL-109艇 장 대위 玄時燕	대위 朴春道(53. 6. 13부터)
LSSL-110艇 장 대위 劉寬植	FS-903艇 장 소령 李熙品
대위 黃榮宣(53. 6. 1부터)	대위 崔炳起(53. 4. 6 부터)
PT-23艇 장 소위 韓明鎬	FS-905艇 장 대위 韓承錫
PT-25艇 장 소위 洪起京	FS-906艇 장 대위 鄭漢哲

나. 제1기의 활동 (1953년 1월 1일부터
" 3월 31일까지)

(1) 東海의 상황

지난해에 이어 53년에 접어들면서 地上戰線은 차츰 小康상태를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東海上에서의 전투의 양상도 彼我的 接戰이 줄어들고 경비를 위한 航海(patrol)만이 계속되었다.

기간 중 主要 活動으로서 PF級艦艇을 旗艦으로 한 漁撈區域의 漁船團에 대한 保護와 永興灣에서의 掃海作業이었는데, 이 활동에 있어서 해군은 그네들의 海岸砲臺로 말미암아 다소 損失을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我掃海繩隊의 활약으로 麗島前洋으로부터 內海로 이르는 水路에서 기뢰를 제거하게 되어 UN艦隊의 各級艦艇은 隨時로 遊戈하면서 敵陣을 장타할 수 있었다.

또 卵島와 麗島를 비롯한 주요 島嶼에 대한 경비는 島嶼部隊의 安全에 寄與하여 이들이 對岸의 情勢를 살펴서 我艦에 有利한 提報를 하기도 하였다.

1. 1月中의 활동

期間中 PC-706艦(장, 金東燮 소령)을 旗艦으로 하여 CTG 95.2(UN 東海艦隊)와 긴밀한 協同作戰을 실시한 東海戰隊는 注文津港을 旗艦의 基地로 하고 興南-麗島間에서 漁船團에 대한 演撈保護 및 경비를 실시하였으며, 庫底前洋에 있는 卵島近海에서는 YMS-518艇이 경비를 담당하면서 海岸線의 封鎖活動에 注力하였다. 또 永興灣에서는 敵의 기뢰를

제거하여 UN艦隊가 艦砲射擊을 실시할 수 있도록 YMS-506艇(장, 金熙年 중위) 및 YMS-510艇(장, 崔基東 대위)의 掃海活動이 계속되었다. 또 한편에서는 PF艦艇의 聯合艦隊 輸送船團의 호송임무와 我艦艇 및 島嶼部隊에 대한 補給作戰이 계속되었으며 이들을 網羅한 1月中의 主要活動은 다음과 같다.

1일 : PC-706艦(장, 金東燮 소령)은 注文津近海에서 漁船團을 호송하면서 경비에 임하고 YMS-518艇(장, 金容先 중위)은 卵島近海에서 海域경비에 임하였다.

3일 : 漁船團을 호송중인 PC-706艦은 이날 16.30에 麗島近海에 進入하였으며, YMS-518艇은 전날에 이어 계속 卵島를 경비하였다.

6일 : PC-706艦은 이날도 계속 漁船團을 호송하여 17.30에 注文津에 入港하고, JMS-309艇(장, 朴明三 대위)은 麗島경비를 위해 永興灣一帶에서 活動하였다.

또 YMS-506艇 및 YMS-510艇은 麗島近海에서 다음 區域을 掃海하였다.

- | | |
|-----------------------------|-----------------------------|
| A. 39°11'10"N, 127°34'20" E | C. 39°11'55"N, 127°39'10" E |
| B. 39°11'10"N, 127°39'10" E | D. 39°11'55"N, 127°34'41" E |

7일 : YMS-506艇 및 YMS-510艇은 이날도 永興灣에서 다음의 區域을 掃海하였다.

- | | |
|-----------------------------|-----------------------------|
| A. 39°12'00"N, 127°32'15" E | D. 39°13'15"N, 127°38'45" E |
| B. 39°12'00"N, 127°39'15" E | E. 39°12'45"N, 127°38'45" E |
| C. 39°13'15"N, 127°39'15" E | F. 39°12'45"N, 127°35'42" E |

8일 : 卵島-麗島間을 경비중인 YMS-518艇은 이날 15KTS 이상의 強風과 3m 이상의 波高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비에 임하다가, 07.45에 卵島 北쪽 海上(39°00'N, 128°05'E)에서 右舷 Anchor가 風波로 切斷되는 損失이 있었다.

9일 : 이날 PC-706艦은 03.00에 注文津港을 떠나 興南近海로 漁船團을 호송하였으며, YMS-504艇(장, 徐德均 대위)은 卵島近海를 경비중인 YMS-518艇과 교대키 위해 이날 06.00에 鎮海를 떠나 卵島로 航進하였다.

10일 : 이날 YMS-504艇은 北上 航海中 通信機 고장으로 墨湖에서 수리를 마친 다음 22.00에 卵島近海에 進入하는 즉시로 YMS-518艇과 임무를 교대하고 卵島-麗島間에서 경비에 임하였다.

또 YMS-506艇 및 YMS-510艇은 이날도 永興灣에서 다음 區域을 掃海하였다.

- | | |
|-----------------------------|-----------------------------|
| A. 39°16'00"N, 127°40'30" E | E. 39°16'30"N, 127°46'50" E |
| B. 39°17'35"N, 127°56'15" E | F. 39°16'15"N, 127°43'47" E |
| C. 39°17'16"N, 127°53'02" E | G. 39°17'36"N, 127°59'30" E |
| D. 39°17'00"N, 127°50'00" E | |

11일 : 어선단의 호송 임무를 수행중인 PC-706艦은 이날 高城近海에서 경비하였으며, YMS-506艇 및 YMS-510艇은 계속하여 永興灣의 麗島近海에서 다음의 區域을 掃海하였다

- | | |
|-----------------------------|-----------------------------|
| A. 39°12'50"N, 127°35'50" E | B. 39°10'20"N, 127°39'50" E |
|-----------------------------|-----------------------------|

C. 39°10'20"N, 127°32'10" E

G. 39°11'20"N, 127°32'10" E

D. 39°10'55"N, 127°33'10" E

H. 39°11'05"N, 127°33'30" E

E. 39°13'25"N, 127°32'45" E

I. 39°13'05"N, 127°35'15" E

F. 39°13'20"N, 127°33'30" E

12일 : PC-706艦은 어선단의 호송 임무를 마치고 이날 10.00에 注文津에 入港하였다가 그 後에 卵島近海에서 失蹤된 「東明號」의 수색차 再出港하여 구조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경비 임무는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13일 : PC-705艦(장, 韓文植 소령)은 이날 16.00에 墨湖에서 PC-706艦의 임무를 交代받아 어선단 호송을 위해 출항하였으며, 또 PC-706艦은 이날 行方不明된 어선 「東明號」를 麗島近海에서 발견하고 10.00에 注文津으로 曳船한 다음 16.00에 PC-705艦과 그 임무를 交代하고 卵島海域의 경비를 위하여 14일 14.30에 現地로 航進하였다.

15일 : 전날 注文津을 出港한 PC-706艦은 이날 卵島近海에 進入하여 곧 경비에 임하였으며 YMS-506艇 및 YMS-505艇은 다음의 海域을 掃海하였다.

A. 39°13'32"N, 127°33'35" E

C. 39°10'50"N, 127°33'25" E

B. 39°10'15"N, 127°32'05" E

D. 39°13'12"N, 127°35'00" E

한편 YMS-512艇(장, 黃善道 대위)은 麗島近海에서 掃海作戰中인 YMS-506艇과 임무를 交代하기 위하여 現地로 航海중 海上상태의 不良으로 東萊에서 대기하였다.

17일 : PC-705艦은 CTG-95.2와 交信을 유지하면서 興南近海에서 어선단을 보호하였으며, LSSL-110艇(장, 劉寬植 대위)은 이날 23.00에 卵島近海에서 PC-706艦의 임무를 交代받아 경비에 임하였다.

한편 YMS-506艇과 임무를 交代한 YMS-512艇(장, 黃善道 대위)은 이날부터 YMS-505艇과 合勢하여 麗島近海에서 掃海作業을 실시하였는데, 이날 15.40까지의 掃海區域은 다음과 같다.

A. 39°13'52"N, 127°36'43" E

E. 39°10'45"N, 127°31'35" E

B. 39°13'25"N, 127°32'44" E

F. 39°10'46"N, 127°34'07" E

C. 39°12'50"N, 127°32'35" E

G. 39°12'45"N, 127°35'40" E

D. 39°11'25"N, 127°31'02" E

18일 : 어선단을 보호중인 PC-705艦은 高城近海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이날 14.30에 敵이 부설한 機雷 1個를 발견하여 이를 爆破하였는데 그 位置는 39°01'N, 128°16' E 海上이었다.

또 YMS-512艇 및 YMS-505艇은 계속하여 이날도 永興灣에서 다음의 海域을 掃海하였다.

A. 39°12'15"N, 127°38'45" E

B. 39°12'15"N, 127°44'50" E

C. 39°13'20"N, 127°43'20"E

D. 39°13'20"N, 127°38'45"E

19일 : 이날 PC-705艦은 호송중인 어선단을 인솔하여 03.00에 注文津에 入港하였다가 22.00부터 다시 漁場으로 向하였으며, LSSL-110艇은 계속 卵島近海에서 경비에 임하였다.

또 永興灣을 경비중인 YMS-512艇 및 YMS-505艇은 이날도 11.30까지 下記海域을 掃海하였다.

A. 39°12'15"N, 127°38'48"E

C. 39°11'31"N, 127°45'15"E

B. 39°12'15"N, 127°44'25"E

D. 39°11'31"N, 127°38'48"E

20일 : 이날 PC-705艦은 11.50에 束草에 入港하였다가 14.00에 出港하여 通川北東쪽 海上에서 어선단을 호송하였으며, 永興灣에서 掃海活動中인 YMS-512艇 및 YMS-505艇은 14.00까지 다음의 海域을 掃海하였다.

A. 39°11'31"N, 127°38'58"E

C. 39°10'30"N, 127°46'20"E

B. 39°12'30"N, 127°45'15"E

D. 39°10'30"N, 127°38'58"E

21일 : PC-705艦은 이날 麗島 東北쪽 海上에 이르러 어선단을 계속 보호하여 작업을 도왔으며, LSSL-110艇은 卵島海域을 경비하였다.

22일 : PC-705艦(장, 韓文植 소령)은 CTG 95.2(UN東海艦隊)와 계속 通信을 유지하면서 우리 漁船團을 호송하여 이날 20.30에 注文津에 入港하였으며, 또 LSSL-110艇(장, 劉寬植 대위)은 계속하여 卵島近海를 담당하여 경비항해를 실시하였다. 한편 永興灣의 掃海作戰에 참가하고 있는 YMS-512艇과 YMS-505艇은 13.00까지 麗島前洋에서 다음의 海域에서 800YDS를 掃海하였다.

A. 39°16'06"N, 127°43'35"E

D. 39°17'15"N, 127°53'00"E

B. 39°16'28"N, 127°52'00"E

E. 39°17'40"N, 127°56'15"E

C. 39°16'52"N, 127°49'30"E

F. 39°13'40"N, 127°59'30"E

그리고 PF-61艦(장, 李應燮 중령) 및 PF-65艦(장, 崔孝鏞 중령)은 이날 各各 高城前洋에서 聯合艦隊의 輸送船團을 各各 호송하여 北上航進하고 FS-903艇(장, 李熙晶 소령)은 東海岸의 諸島嶼에 補給品을 수송하고 있었는데, 이날은 麗島를 떠나 洋島에서 임무를 遂行하였다.

또한 YMS-507艇(장, 楊濟錫 중위)은 妙漢作命 제8호에 의거하여 掃海作戰中인 YMS-505艇과 임무를 交代하기 위하여 이날 20.00 鎭海를 出港하여 任地로 向하였다.

23일 : PC-705艦은 이날 注文津을 떠나 11.45에 墨湖에 入港하여 補給物을 적재하였으며, LSSL-110艇은 경비 임무를 수행하다가 海上氣象의 惡化로 CTU 95.28에 보고한 다음 麗島錨地에 投錨하였다가 17.00부터 氣象이 회복되는 즉시로 卵島로 돌아가 경비에 임하였다.

24일 : 이날 PC-705艦은 補給物의 적재를 마치고 14.30에 注文津에서 다시 漁船團을 호



<操艦中인 PF-65艦長, 崔孝鎭 중령>

송하여 漁場으로 向하였으며, YMS-507艇은 YMS-505艇과 16.00에 임무를 交代하고 YMS-512艇과 合勢하여 永興灣의 掃海作業에 參加하였는데, 이날의 掃海區域은 다음과 같다.

- | | |
|------------------------------|------------------------------|
| A. 39°15'15" N, 127°30'38" E | D. 39°13'32" N, 127°32'54" E |
| B. 39°15'15" N, 127°34'06" E | E. 39°13'32" N, 127°30'39" E |
| C. 39°14'37" N, 127°34'25" E | |

또 FS-903艇은 洋島에서 수송을 마치는 즉시로 이곳을 떠나 麗島로 航進하였다.

25일 : PC-705艦은 이날 漁船團의 호송임무를 遂行 중 荒天으로 인하여 卵島近海에서 避航하고 FS-903艇은 10.30에 麗島에 도착하자마자 荷役作業에 들어 갔다.

한편 FS-902艇(장, 朴兌鉉 대위)은 東海岸 各部隊의 補給을 위해 이날 16.30에 釜山을 떠나 墨湖로 向하였다.

26일 : PC-705艦은 通川 前洋에서 漁船團을 보호하였으며 YMS-512艇 및 YMS-507艇은 이날도 麗島로 進入하는 다음의 海上을 掃海하였다.

- | | |
|------------------------------|------------------------------|
| A. 39°10'07" N, 124°34'03" E | C. 39°10'05" N, 127°40'00" E |
| B. 39°11'07" N, 127°35'07" E | D. 39°11'06" N, 127°40'00" E |

또 FS-902艇은 墨湖에서 軍需品의 荷役을 마치는 즉시로 이날 20.00에 麗島로 向하였으며, FS-903艇은 輸送任務를 모두 마치고 麗島에서 海兵隊用 空드럼 150個 및 포로 8명을

押送하여 23.00에 注文津으로 航進하였다.

한편 YMS-510艇(장, 崔基東 대위)은 永興灣에서 掃海作業中인 YMS-512艇과 임무를 交代하기 위하여 17.15에 鎭海를 出港하였다.

27일 : 永興灣에서 掃海作業中인 YMS-512艇 및 YMS-507艇은 이날 下記區域을 檢索掃海하였다.

- | | |
|----------------------------|----------------------------|
| A. 39°13'45"N, 127°35'45"E | D. 39°15'30"N, 127.37'00"E |
| B. 39°14'40"N, 127°37'00"E | E. 39°14'25"N, 127°35'05"E |
| C. 39°15'55"N, 127°37'00"E | |

FS-903艇은 이날 注文津에서 포로 8명을 下船시킨 다음 11.30에 출항하여 14.25에 墨湖에 入港하였는데 여기에서 軍需品을 積載하기 위해 대기하였다.

28일 : YMS-510艇은 07.00에 麗島에 入港한 다음 17.30부터 YMS-512艇의 任務를 交代받아 YMS-507艇과 合勢하여 다음의 區域을 檢索掃海하였다.

- | | |
|----------------------------|----------------------------|
| A. 39°17'35"N, 127°59'35"E | B. 39°16'00"N, 127°40'30"E |
|----------------------------|----------------------------|

29일 : PC-705艦은 이날 漁船團을 인솔하고 01.25에 注文津에 入港하고 LSSL-110艇은 계속 卵島海域을 경비하였다.

또 YMS-510艇 및 YMS-507艇은 麗島前洋에서 12.00까지 다음 區域을 掃海하였다.

- | | |
|----------------------------|----------------------------|
| A. 39°11'31"N, 127°40'30"E | C. 39°12'42"N, 127°35'43"E |
| B. 39°12'42"N, 127°40'00"E | D. 39°11'31"N, 127°34'50"E |

또 LSSL-109艇(장, 玄時燕 대위)은 卵島를 경비중인 LSSL-110艇과 임무를 交代키 위해 06.00에 鎭海를 出港하였다.

30일 : PC-706艦(장, 金東燮 소령)은 注文津에서 漁航團 호송에 임하고 있는 PC-705艦과 任務를 交代키 위해 06.00에 釜山을 出發하였다.

31일 : PC-706艦은 이날 08.30에 注文津에 入港하여 10.30에 PC-705艦과 임무를 交代하였으며, LSSL-109艇은 05.15에 卵島에서 LSSL-110艇과 임무를 交代하고 경비에 임하였다.

또 FS-902艇은 麗島에서 수송임무를 마치고 洋島로 向하였다.

2. 2월의 활동

前月에 이어 계속된 해군의 활동은 그 임무에 큰 變動이 없었는데 기간中의 주요활동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일 : 이날 PC-706艦은 23.00에 注文津을 出港하여 漁船團의 어로작업보호 임무를 遂行하였으며, LSSL-109艇은 卵島를 경비하였다.

또 YMS-510艇 및 YMS-507艇은 계속 永興灣의 麗島近海에서 掃海作業을 실시하였는데 이날 01.45부터 11.45까지의 소해 區域은 다음과 같다.

- A. 39°13'54"N, 127°36'40"E D. 39°10'20"N, 127°32'20"E
 B. 39°13'32"N, 127°32'04"E E. 39°11'08"N, 127°34'08"E
 C. 39°11'08"N, 127°32'20"E

또 輸送임무를 수행중인 FS-902艇은 01.00에 洋島에 入港하는 즉시로 荷役作業을 시작하였다.

2일 : 漁船團의 호송을 맡은 PC-706艦은 이날 卵島 북쪽海上에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掃海戰에 參加하고 있는 YMS-510艇 및 YMS-507艇은 이날도 다음의 區域을 掃海하였다.

- A. 39°13'30"N, 127°39'10"E C. 39°12'30"N, 127°43'45"E
 B. 39°13'30"N, 127°43'30"E D. 39°12'30"N, 127°40'17"E

또 FS-920艇은 洋島에서 補給物의 荷役作業을 마친 다음 空드럼 100個와 人員(捕虜) 25명을 塔乘시켜 麗島로 向하였다.

3일 : 永興灣을 掃海中인 YMS-510艇 및 YMS-507艇은 이날도 다음의 海域을 掃海하였다.

- A. 39°13'30"N, 127°34'40"E F. 39°14'30"N, 127°38'00"E
 B. 39°14'35"N, 127°34'40"E G. 39°15'32"N, 127°35'15"E
 C. 39°13'30"N, 127°36'03"E H. 39°17'00"N, 127°37'00"E
 D. 39°15'33"N, 127°35'20"E I. 39°15'47"N, 127°36'55"E
 E. 39°15'50"N, 127°38'00"E J. 39°11'05"N, 127°38'00"E

또 FS-902艇은 08.30에 麗島에 入港하였다가 21.30에 모든 輸送任務를 마치고 注文津으로 向發하였다.

4일 : 이날 視界가 흐리고 波高가 높은 海上狀態로 말미암아 各海上에 暴風注意報가 下達되었으나 PC-706艦을 비롯한 各艦은 東海警備임무를 계속하였으며, FS-902艇은 이날 輸送任務를 모두 마치고 08.00에 注文津에 歸港하여 捕虜를 인계한 다음 墨湖로 向發하였다.

5일 : PC-706艦은 漁船團을 이끌고 11.00에 注文津에 入港하고 永興灣에서 活動中인 掃海編隊 YMS-510艇 및 YMS-507艇은 07.45부터 13.45까지 다음 區域의 1,200YDS를 掃海하였다.

- A. 39°15'47"N, 127°40'45"E B. 39°17'36"N, 127°59'30"E

6일 : 永興灣의 掃海編隊 YMS-510艇과 YMS-507艇은 07.45부터 11.45까지 下記區域을 掃海하였는데 敵의 海岸砲射擊으로 인하여 作業이 中斷되었다.

- A. 39°10'30"N, 127°39'30"E C. 39°11'45"N, 127°45'00"E
 B. 39°19'30"N, 127°46'15"E D. 39°11'45"N, 127°39'30"E

한편 YMS-502艇(장, 金禎浩 대위)은 掃海中인 YMS-507艇의 임무를 인수키 위하여

15.00에 鎮海를 出港하였다.

7일 : PC-706艦은 漁船團을 호송하고 이날 22.00에 汶文津을 出港하였으며 YMS-510艇 및 YMS-507艇은 強風注意報가 내린 惡天候에도 불구하고 麗島前洋에서 다음의 區域을 掃海하였다.

- | | |
|----------------------------|----------------------------|
| A. 39°11'30"N, 127°34'50"E | C. 39°12'55"N, 127°43'45"E |
| B. 39°11'30"N, 127°45'00"E | D. 39°12'55"N, 127°35'46"E |

PF-66艦은 竹邊近海에서 聯合艦隊의 輸送船團에 대한 護送任務을 수행하였다.

8일 : PC-706艦은 漁船團을 호송하던 중 이날 16.20에 卵島 동남쪽 海上(38°58'30"N, 128°05'45"E)에서 漂流中인 北傀船舶을 發見하고 곧 檢索 끝에 將校 1명, 下士官 3명, 軍屬 2명 등 도합 6명을 사로 잡았다.

또 YMS-502艇(장, 金禎浩 대위)은 이날 20.00에 麗島近海에서 YMS-507艇과 임무를 交代하고 掃海戰에 參加하였으며, FS-902艇은 墨湖에서 軍輸品을 滿載하고 22.00에 釜山으로 向發하였다.

9일 : 永興灣의 掃海戰에 參加하고 있는 YMS-510艇 및 YMS-502艇의 編隊는 이날 12.00부터 16.00까지 다음의 海域을 掃海하였다.

- | | |
|----------------------------|----------------------------|
| A. 39°13'18"N, 127°43'12"E | D. 39°12'26"N, 127°35'36"E |
| B. 39°13'18"N, 127°38'30"E | E. 39°12'00"N, 127°35'18"E |
| C. 39°12'42"N, 127°31'54"E | F. 39°12'06"N, 127°45'06"E |

이날 YMS-510艇이 修理次 鎮海에 歸港함에 따라 YMS-505艇은 妙漢作命 제 14호에 의거하여 17.00에 鎮海를 떠나 永興灣으로 向하였다.

10일 : 氣象注意報가 내려진 이날 PC-706艦 및 LSSL-109艇은 通川과 卵島近海에서 경비차 함해를 계속하였으며 YMS-510艇 및 YMS-502艇의 編隊는 麗島前洋에서 13.00부터 16.22까지 다음의 海域을 掃海하였다.

- | | |
|----------------------------|----------------------------|
| A. 39°13'33"N, 127°32'50"E | D. 39°10'42"N, 127°32'15"E |
| B. 39°11'10"N, 127°31'20"E | E. 39°10'42"N, 127°33'05"E |
| C. 39°10'25"N, 127°32'20"E | F. 39°12'28"N, 127°36'10"E |

11일 : YMS-502艇은 15.25에 麗島쪽 海上(39°15'40"N, 127°42'00"E)에서 敵의 浮遊機雷 1개를 격침하였는데 이날 YMS-510艇과 合同하여 실시한 掃海區域은 다음과 같다.

- | | |
|----------------------------|----------------------------|
| A. 39°14'55"N, 127°38'00"E | F. 39°13'30"N, 127°36'34"E |
| B. 39°15'50"N, 127°38'55"E | G. 39°14'00"N, 127°36'45"E |
| C. 39°15'30"N, 127°35'40"E | H. 39°15'47"N, 127°36'57"E |
| D. 39°14'35"N, 127°35'35"E | I. 39°17'05"N, 127°38'00"E |
| E. 39°13'30"N, 127°35'40"E | J. 39°17'00"N, 127°37'00"E |

한편 FS-903艇(장, 李熙晶 소령)은 제1海龍作命 제6호에 따라 東海의 各其地 및 島嶼部隊에 보급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이날 10.30에 釜山을 出港하였다.

18일 : PC-705艇(장, 金榮寬 중령)은 妙漢作命 제16호에 의하여 17일 06.00에 鎭海를 떠나 이날 11.00에 注文津에 入港하는 즉시로 PC-706艇으로부터 漁船團의 호송임무를 인계받아 20.30에 漁場으로 向하였다.

또 卵島의 경비를 담당한 LSSL-109艇은 艦整備次 LSSL-110艇(장, 劉寬植 대위)에 임무를 인계하고(妙漢作命 제15호) 鎭海로 向發하였다.

한편 YMS-502艇 및 YMS-505艇은 계속하여 麗島前洋에서 다음의 海域을 掃海하였다.

- | | |
|----------------------------|----------------------------|
| A. 39°15'16"N, 127°37'30"E | C. 39°17'00"N, 128°00'00"E |
| B. 39°15'45"N, 127°37'30"E | D. 39°17'33"N, 128°05'00"E |

FS-903艇은 04.00 墨湖에서 補給物을 荷役하고 24.00에 出港하여 麗島로 向하였다.

19일 : PC-705艇은 漁船團을 호송하고 卵島近海에서 항해중이며, LSSL-110艇은 이날 卵島前洋(38°57'30"N, 128°06'30"E)에서 機關故障으로 표류중인 海兵警備艇 1척을 구조하여 卵島로 曳引하였다.

한편 永興灣의 掃海編隊인 YMS-502艇 및 YMS-505艇은 이날에도 07.00부터 11.10까지 다음 區域을 掃海하였다.

- | | |
|----------------------------|----------------------------|
| A. 39°13'30"N, 127°32'15"E | G. 39°13'30"N, 127°34'00"E |
| B. 39°11'08"N, 127°30'05"E | H. 39°11'03"N, 127°32'25"E |
| C. 39°10'20"N, 127°31'17"E | I. 39°12'05"N, 127°33'07"E |
| D. 39°10'30"N, 127°33'17"E | J. 39°11'08"N, 127°33'04"E |
| E. 39°10'30"N, 127°34'08"E | K. 39°13'32"N, 127°35'27"E |
| F. 39°13'30"N, 127°36'20"E | |

또 FS-903艇은 06.00 麗島에 入港하여 補給物을 荷役하였다.

20일 : YMS-502艇 및 YMS-505艇은 이날 14.40부터 16.30까지 다음의 海域을 掃海하고 麗島近海에서 경비하였다.

- | | |
|----------------------------|----------------------------|
| A. 39°13'30"N, 127°34'14"E | C. 39°11'02"N, 127°31'47"E |
| B. 39°11'00"N, 127°32'36"E | D. 39°13'85"N, 127°40'00"E |

또한 PF-66艇은 麗島 동쪽 16km 海上에서 UN艦隊의 輸送船團을 호송하였다.

21일 : PC-705艇은 전날에 이어 계속 麗島近海에서 漁船團을 호송중에 있으며 LSSL-110艇은 이날 LTG 95.2(UN 東海艦隊)의 命令에 따라 建國86號(海兵警備艇)를 曳船하여 07.45에 卵島를 出港한 다음 16.00에 束草에 入港하는 즉시로 同船을 인계하고 다시 卵島로 돌아가 경비에 임하였다.

또한 YMS-502艇, YMS-505艇의 編隊는 이날에도 08.00부터 11.30까지 下記海域을 掃

海하였다.

- A. $39^{\circ}13'52''N$, $127^{\circ}34'12''E$ D. $39^{\circ}15'00''N$, $127^{\circ}34'05''E$
 B. $39^{\circ}13'52''N$, $127^{\circ}37'55''E$ E. $39^{\circ}14'48''N$, $127^{\circ}34'40''E$
 C. $39^{\circ}15'00''N$, $127^{\circ}37'55''E$

22일 : PC-705艦은 이날 漁船團 護送任務를 遂行하다가 麗島 동쪽해상($39^{\circ}12'05''N$, $128^{\circ}08'00''E$)에서 敵의 浮遊機雷 1개를 爆破하였다.

또 永興灣의 掃海編隊는 이날 08.00부터 13.00까지 다음을 掃海하였다.

- A. $39^{\circ}13'40''N$, $127^{\circ}34'20''E$ D. $39^{\circ}13'30''N$, $127^{\circ}27'35''E$
 B. $39^{\circ}15'15''N$, $127^{\circ}33'45''E$ E. $39^{\circ}13'30''N$, $127^{\circ}34'20''E$
 C. $39^{\circ}15'15''N$, $127^{\circ}27'35''E$

한편 上記 掃海作業이 끝나는 즉시 YMS-502艇은 妙漢作命 제17호에 依據하여 出動한 YMS-502艇(장, 辛相大 중위)에 임무를 인계하고 艦船의 整備次로 母港으로 歸港하던 中에 卵島에서 LSSL-110艇의 出張要員 2명을 塔乘시켜 南下하였다.

23일 : PC-705艦은 이날 貨幣交換에 따른 新貨 및 補給品수송차 11.00에 墨湖에 入港하였으며 YMS-501艇 및 YMS-505艇은 麗島近海에서 다음의 海域을 掃海하였다.

- A. $39^{\circ}19'29''N$, $127^{\circ}38'00''E$ C. $39^{\circ}17'00''N$, $127^{\circ}59'20''E$
 B. $39^{\circ}17'55''N$, $127^{\circ}59'10''E$ D. $39^{\circ}14'48''N$, $127^{\circ}38'00''E$

24일 : PC-705艦은 16.00에 墨湖를 出港하여 18.50에 注文津에 入港한 다음 漁船團의 호송을 위하여 대기하였다.

한편 卵島近海를 경비중인 LSSL-110艇은 이날 夜間에 庫底海岸으로 接近하였는데 同艇이 庫底近海인 $38^{\circ}58'N$, $127^{\circ}52'E$ 海上에 이르렀을 때 敵의 列車로 간주되는 燈火數個가 이동하고 있는 것을 見視兵이 발견하게 되었다.

LSSL-110艇은 즉각 海岸으로 機動하면서 砲擊을 개시하였으며 敵의 海岸砲도 만만치 않은 反擊으로 應酬하였다.

30분간에 걸친 포격전 끝에 敵의 列車 3輛 및 陣地 3個所를 파괴하는 戰果를 견우고 LSSL-110艇은 다시 卵島로 돌아가 경비에 임하였다.

또 PF-66艦은 城津近海에서 聯合艦隊의 輸送船 호송임무를 계속하였다.

25일 : LSSL-110艇은 이날 庫底一帶에 中共軍 1個大隊 규모의 兵力이 集結하고 있다는 情報를 입수하였다.

21.00에 LSSL-110艇은 海岸으로 接近하여 21.30부터 22.35까지 九神端($38^{\circ}55'N$, $127^{\circ}57'10''E$)과 庫底浦($38^{\circ}57'40''N$, $127^{\circ}54'20''E$) 및 庫底($38^{\circ}57'N$, $127^{\circ}53'30''E$) 일대를 砲擊으로 強打하고 여러 곳을 炎上토록 하였다.

또 永興灣을 掃海중인 YMS-501艇과 YMS-505艇은 08.00부터 12.00까지 다음의 海上을

掃海하였다.

- | | |
|-----------------------------|-----------------------------|
| A. 39°13'42"N, 127°36'37" E | E. 39°17'30"N, 127°36'14" E |
| B. 39°15'48"N, 127°37'38" E | F. 39°15'42"N, 122°35'00" E |
| C. 39°15'28"N, 127°36'30" E | G. 39°15'00"N, 127°35'00" E |
| D. 39°17'40"N, 127°37'15" E | H. 39°13'40"N, 127°35'22" E |

26일 : PC-705艦은 03.00에 注文津을 出港하여 麗島 동쪽 海上에서 漁船團의 보호 임무를 遂行하였으며, YMS-501艇 및 YMS-505艇은 07.30부터 11.00까지 麗島前洋에서 다음 區域을 掃海하였다.

- | | |
|-----------------------------|-----------------------------|
| A. 39°12'05"N, 127°44'40" E | D. 39°13'14"N, 127°39'00" E |
| B. 39°12'05"N, 127°35'50" E | E. 39°13'08"N, 127°43'37" E |
| C. 39°12'37"N, 127°39'00" E | |

한편 YMS-510艇(장, 崔基東 대위)은 妙漢作命 제18호에 依據하여 24. 17.00에 鎭海를 떠나 이날 12.10에 麗島에 進入하는 즉시로 YMS-505艇과 交代하여 掃海에 參加하였다.

27일 : YMS-501艇과 YMS-510艇의 編隊는 이날 08.00부터 11.00까지 麗島近海에서 다음 區域을 掃海하였다.

- | | |
|-----------------------------|-----------------------------|
| A. 39°11'30"N, 127°45'14" E | C. 39°12'08"N, 127°35'00" E |
| B. 39°11'30"N, 127°34'30" E | D. 39°12'08"N, 127°44'40" E |

28일 : FS-903艇은 麗島에서 海兵隊員 76명 및 공드림 428개를 塔載하고 이날 02.00에 麗島를 出港하여 墨湖로 向發함으로써 全輸送 日程을 모두 마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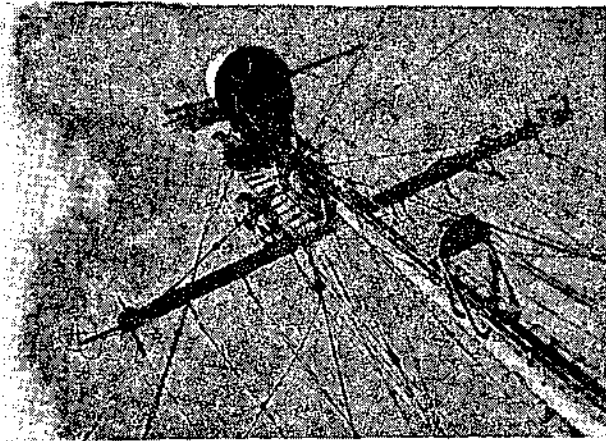
3. 3월중의 활동

旗艦인 PC-705艦(장, 金榮寬 중령)은 墨湖를 基地로 注文津港의 漁船團의 호송임무 및 경비를 담당하였는데 8일 05.00에는 PC-706艦이 뒤를 이어 旗艦任務를 계속하였다.

LSSL-110艇(장, 劉寬植 대위)은 卵島近海를 계속 경비하면서 敵陣을 위협하였는데 10일 07.00에 YMS-514艇과 交代하여 경비를 계속하였다.

또 永興灣의 麗島近海에서는 YMS-501艇과 YMS-510艇이 合同으로 掃海作業을 실시하였으며 8일 15.00에는 YMS-506艇이, 12일 15.00에는 YMS-502艇이 각각 YMS-501艇과 YMS-510艇의 뒤를 이어 敵의 海岸砲를 制壓하면서 掃海作業을 계속하였다.

또 東海의 各島嶼에 補給物資의 수송을 위해 FS-902艇(장, 朴兌鉉 대위)이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JMS-315艇은 UN艦載 航空機의 救出作業을 위하여 麗島近海에서 活動하였는데 그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軍艦의 象徴인 마스트>

1일 : FS-902艇은 17.30에 수송차 釜山을 出港하였으며 PF-63艦(장, 李龍雲 대령)은 機關學校 實習生 40名을 搭乘시켜 PF-66艦의 補給次 20.10에 鎭海를 떠나 Saseho로 航進하였다.

2일 : PC-705艦은 麗島近海에서 作業중인 漁船團을 護送하고 14.00에 注文津에 入港하여 대기하였다.

3일 : 永興灣의 麗島前洋에서

掃海中인 YMS-501艇 및 YMS-510艇의 編隊는 이날 01.30부터 11.30까지 다음의 海域을 掃海하였다.

- | | |
|-----------------------------|-----------------------------|
| A. 39°15'45"N, 127°38'05" E | F. 39°14'40"N, 127°34'30" E |
| B. 39°15'45"N, 127°36'37" E | G. 39°13'35"N, 127°34'30" E |
| C. 39°17'08"N, 127°37'30" E | H. 39°13'45"N, 127°36'40" E |
| D. 39°17'15"N, 127°34'30" E | I. 39°14'28"N, 127°36'45" E |
| E. 39°15'48"N, 127°35'25" E | J. 39°14'45"N, 127°37'16" E |

. 한편 FS-902艇은 09.30 麗島에 進入하여 海兵 90名을 上陸시키고 荷役作業에 임하였다

5일 : YMS-501艇 및 YMS-510艇은 이날에도 07.30부터 10.00까지 麗島近海에서 다음의 區域을 掃海하였다.

- | | |
|-----------------------------|-----------------------------|
| A. 39°12'05"N, 127°44'40" E | C. 39°12'36"N, 127°35'05" E |
| B. 39°12'38"N, 127°44'04" E | D. 39°12'09"N, 127°35'06" E |

6일 : PC-705艦은 漁船團을 이끌고 23.30에 注文津을 떠나 漁場으로 向하였으며, FS-902艇은 麗島에서 수송임무를 모두 마치고 08.00에 洋島에 入港하여 揚陸作業을 실시하였다.

7일 : 30KTS의 強風으로 인하여 이날 15.00에는 東海의 出動艦艇에 氣象注意報가 내려졌음에도 PC-705艦은 通川近海上에서 漁船團의 護送을 계속하였으며 LSSL-110艇은 卯島近海에서 警備에 임하였다.

수송선인 FS-902艇은 洋島에서 수송작업을 마치는 즉시로 이곳을 떠나 麗島로 歸港하였다

8일 : PC-706艦은 妙漢作命 제20호에 依據하여 6일 09.00에 鎭海를 떠나 이날 15.30에 巨津前洋에서 PC-705艦으로부터 임무를 交代받고 巨津에서 대기하였다.

또 YMS-506艇(장, 金熙年 중위)도 妙漢作命 제19호에 따라 6일 17.00에 鎭海를 出港하

여 이날 14.00에 麗島에서 YMS-501艇과 交代하고 掃海에 任하였다.

또 FS-902艇은 수송일정을 모두 마치고 21.00에 麗島를 떠나 注文津으로 航進하였다.

9일 : 이날 PC-706艦은 05.00에 巨津을 出港하여 通川近海上에서 漁船團保護 및 海域 경비에 임하였으며 YMS-514艇은 妙漢作命 제21호에 의거하여 전날 11.00에 鎭海를 떠나 이날 12.00에 墨湖에 入港하고 LSSL-110艇의 임무를 交代받아 卵島로 向하였다.

또한 永興灣의 麗島近海에서 掃海作業을 실시하던 YMS-506艇 및 YMS-510艇은 이날 09.30에 麗島 西南쪽 海上(39°10'05"N, 127°31'03"E)에서 敵의 海岸砲(葛麻半島의 星羅里와 城北里에 位置) 陸地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그들은 兩艇에 推定 75mm砲 3門 重機 3정으로 一時에 사격을 集中하였다.

我掃海編隊는 즉시 掃海作業을 中斷하고 麗島方向으로 피항하였으나 黃土島近海上(39°11'07"N, 127°32'07"E)에서 敵의 命中彈으로 다음과 같은 損失을 보게 되었다.

YMS-506艇 : 掃海장비인 Otter 및 Float切斷, 右舷 SCREW BLADE 1個切斷.

YMS-510艇 : SWEEPING WIRE 兩舷 250 Fathom切斷, OTTER 3個切斷, Depressor Wire 10 Fathom 切斷.

한편 掃海編隊는 그들의 砲擊을 받기까지 다음의 區域을 掃海하였다.

- | | |
|----------------------------|----------------------------|
| A. 39°13'30"N, 127°36'10"E | D. 39°11'06"N, 127°30'21"E |
| B. 39°10'30"N, 127°33'50"E | E. 39°13'34"N, 127°32'45"E |
| C. 39°10'25"N, 127°32'15"E | |

10일 : 전날의 損失로 말미암아 YMS-506艇은 現地에서 修理하기 困難하므로 10.30에 麗島를 떠나 鎭海로 向하였으며 YMS-510艇은 自體修理를 끝낸 다음 掃海作業에 임하였다.

또 YMS-514艇은 06.30에 卵島에 도착하여 경비에 임하였다.

13일 : YMS-502艇(장, 金禎浩 대위)은 妙漢作命 제23호에 依據하여 9일 10.10에 鎭海를 떠나 이날 10.30에 麗島에 入港하는 즉시로 YMS-510艇의 임무를 인계받아 12.00부터 18.00까지 下記區域을 掃海하였다.

- | | |
|----------------------------|----------------------------|
| A. 39°15'00"N, 127°38'30"E | C. 39°16'40"N, 128°00'00"E |
| B. 39°11'15"N, 127°38'30"E | D. 39°17'45"N, 128°00'00"E |

한편 YMS-510艇은 임무교미를 한 다음 自力航海가 困難한 YMS-506艇을 曳船하고 鎭海로 廻航하였다.

14일 : 永興灣의 掃海編隊는 이날도 07.10부터 12.25까지 다음의 區域을 掃海하였다.

- | | |
|----------------------------|----------------------------|
| A. 39°13'28"N, 127°33'38"E | D. 39°15'15"N, 127°33'50"E |
| B. 39°13'30"N, 127°27'35"E | E. 39°14'35"N, 127°34'34"E |
| C. 39°15'15"N, 127°27'40"E | |

또 FS-905艇은 12.00에 麗島에 入港하여 輸送作業에 임하였다.

한편 聯合艦隊의 輸送船團을 호송키 위하여 13일 21.00 釜山을 출발한 PF-66艦(장, 李成浩 중령)은 이날 墨湖近海에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北上하였다.

15일 : YMS-502艇은 이날도 單獨出動하여 麗島前洋에 掃海作業을 계속하였는데 06.00부터 11.00까지의 掃海區域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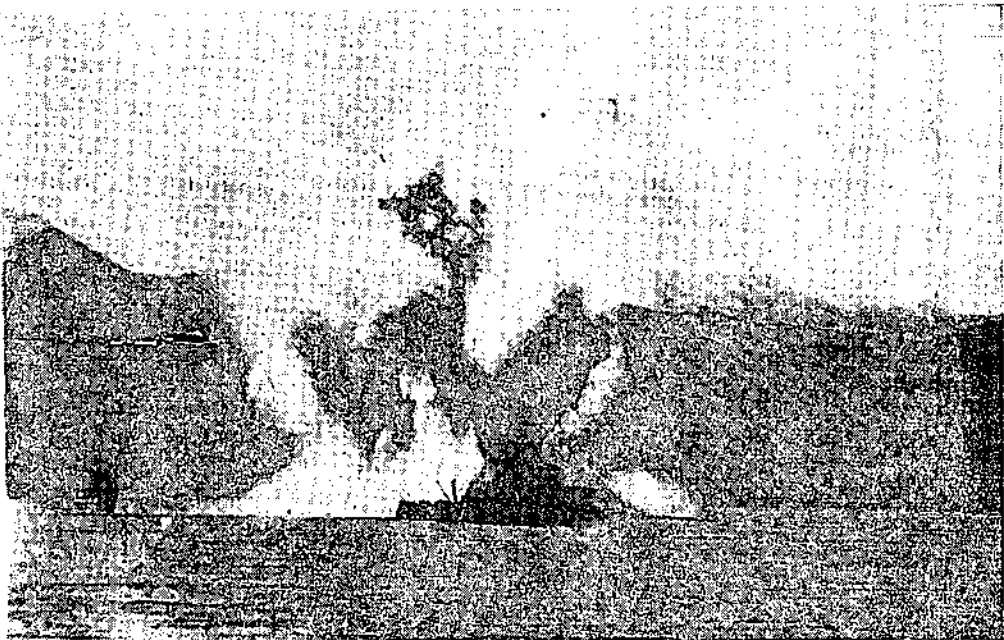
- | | |
|-----------------------------|-----------------------------|
| A. 39°12'47"N, 127°34'30" E | D. 39°11'38"N, 127°46'35" E |
| B. 39°11'30"N, 127°46'48" E | E. 39°11'30"N, 127°41'18" E |
| C. 39°12'47"N, 127°41'16" E | F. 39°11'40"N, 127°34'55" E |

16일 : 전날 21.00에 注文津을 出港한 PC-706艦은 麗島近海에서 漁船團을 호송하였으며 YMS-502艇의 계속된 掃海區域은 다음과 같다.

- | | |
|-----------------------------|-----------------------------|
| A. 39°12'13"N, 127°35'15" E | E. 39°11'00"N, 127°40'20" E |
| B. 39°12'40"N, 127°44'20" E | F. 39°11'00"N, 127°46'50" E |
| C. 39°11'00"N, 127°45'15" E | G. 39°11'10"N, 127°46'35" E |
| D. 39°12'40"N, 127°39'34" E | H. 39°11'10"N, 127°40'50" E |

또 PF-66艦은 麗島近海에서 輸送船團의 호송임무를 수행하였으며, FS-905艇은 18.05 麗島에서 補給을 끝마치는 즉시로 洋島로 떠났다.

17일 : YMS-515艇(장, 李應基 중위)은 전날 13.30에 麗島에 도착하자마자 掃海編隊에 편입되었는데, YMS-502艇과 合勢하여 실시한 이날의 掃海區域은 다음과 같다.



<적의 海岸砲臺를 뚫고 掃海作戰에 임하고 있는 我艦>

- | | |
|----------------------------|----------------------------|
| A. 39°13'30"N, 127°32'18"E | D. 39°10'30"N, 127°33'03"E |
| B. 39°10'20"N, 127°32'17"E | E. 39°10'37"N, 127°34'08"E |
| C. 39°11'06"N, 127°31'05"E | F. 39°13'30"N, 127°39'10"E |

또 輸送船 FS-905艇은 08.40에 洋島에 入港하여 補給物資의 荷役作業을 실시하였다.

19일 : PC-706艦은 漁船群을 호송하여 18.00에 注文津에 入港하였으며 永興灣에서 活動 중인 YMS-502艇 및 YMS-515艇은 다음의 海域을 掃海하였다.

- | | |
|----------------------------|----------------------------|
| A. 39°14'50"N, 127°38'30"E | C. 39°17'00"N, 128°00'00"E |
| B. 39°16'15"N, 128°00'00"E | D. 39°16'25"N, 127°38'30"E |

또 FS-905艇은 各 島嶼의 補給物資 輸送을 모두 끝마치고 21.00에 麗島를 떠나 墨湖로 廻航하였다.

20일 : YMS-502艇 및 YMS-515艇의 掃海編隊는 06.10부터 09.30까지 다음 區域을 掃海하였다.

- | | |
|----------------------------|----------------------------|
| A. 39°10'35"N, 127°34'32"E | E. 39°10'35"N, 127°39'28"E |
| B. 39°10'35"N, 127°39'28"E | F. 39°10'35"N, 127°46'25"E |
| C. 39°11'02"N, 127°39'28"E | G. 39°11'02"N, 127°45'00"E |
| D. 39°11'02"N, 127°34'48"E | |

21일 : PF-61艦(장, 李應燮 中령)은 聯合艦隊의 輸送船團을 호송하기 위해 05.35에 釜山을 出港하여 對馬島近海로 向하였으며, PF-66艦은 通川近海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永興灣에서는 이날에도 YMS-502艇 및 YMS-515艇이 다음의 海域을 掃海하였다.

- | | |
|----------------------------|----------------------------|
| A. 39°13'30"N, 127°34'40"E | H. 39°14'32"N, 127°38'00"E |
| B. 39°14'40"N, 127°34'50"E | I. 39°14'00"N, 127°36'43"E |
| C. 39°15'35"N, 127°35'15"E | J. 39°13'30"N, 127°36'33"E |
| D. 39°17'00"N, 127°36'55"E | K. 39°13'35"N, 127°34'35"E |
| E. 39°17'05"N, 127°38'00"E | L. 39°13'33"N, 127°30'48"E |
| F. 39°15'43"N, 127°36'52"E | M. 39°14'22"N, 127°30'48"E |
| G. 39°15'50"N, 127°28'00"E | N. 39°14'24"N, 127°34'35"E |

24일 : PC-706艦은 19.30에 漁船團을 인솔하여 漁場으로 航海하였으며 永興灣의 掃海編隊는 이날에도 다음의 海域을 掃海하였다.

- | | |
|----------------------------|----------------------------|
| A. 39°13'30"N, 127°34'30"E | F. 39°13'32"N, 127°33'20"E |
| B. 39°15'12"N, 127°30'45"E | G. 39°11'15"N, 127°31'51"E |
| C. 39°14'35"N, 127°34'30"E | H. 39°10'55"N, 127°33'49"E |
| D. 39°13'53"N, 127°31'15"E | I. 39°13'32"N, 127°35'43"E |
| E. 39°14'17"N, 127°34'10"E | |

25일 : PC-706艦은 元山前洋에서 任務를 遂行하다가 風波가 심하여 18.40에 麗島로 피항하였으며 掃海編隊는 이날 YMS-502艇이 단독으로 다음의 區域을 掃海하였다.

- A. 39°13'30"N, 127°30'45"E C. 39°13'30"N, 127°27'40"E
 B. 39°15'15"N, 127°27'40"E D. 39°15'15"N, 127°30'45"E

27일 : 이날 氣상이 回復되자 PC-706艦은 06.30에 麗島를 떠나 漁船團의 호송임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며 掃海編隊의 YMS-502艇은 敵의 海岸砲에 대비하여 沿岸警備를 담당하고 YMS-515艇만이 단독으로 掃海作業에 임하였는데 作業中 蛤津里(39°11'04"N, 127°33'25"E)의 敵砲隊로부터 155mm 直射砲 30여발의 공격을 받고 作業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我艦의 損失은 없었으며 이날의 掃海區域은 다음과 같다.

- A. 39°14'32"N, 127°38'00"E D. 39°15'33"N, 127°35'15"E
 B. 39°15'00"N, 127°36'58"E E. 39°14'32"N, 127°34'40"E
 C. 39°17'00"N, 127°37'00"E F. 39°14'02"N, 127°36'50"E

28일 : 이날 PC-705艦은 海本作命 제54호에 의거하여 26일 17.00에 鎭海를 出港하여 이날 14.00에 注文津에 入港하고 PC-706艦으로부터 漁船群의 호송임무를 인계받았으며 YMS-502艇 및 YMS-515艇은 이날 다음의 區域을 掃海하였다.

- A. 39°15'12"N, 127°38'15"E D. 39°11'30"N, 127°48'45"E
 B. 39°15'50"N, 127°46'30"E E. 39°15'10"N, 127°40'10"E
 C. 39°17'30"N, 127°58'40"E

29일 : PC-705艦은 이날 興南近海에서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다음의 海域을 掃海하였다.

- A. 39°15'48"N, 127°30'17"E C. 39°15'30"N, 127°27'15"E
 B. 39°13'30"N, 127°26'50"E D. 39°15'30"N, 127°30'17"E

한편 LSSL-110艇(장, 劉寬植 대위)은 卵島近海를 경비중인 YMS-514艇과 交代키 위해 海本作命 제57호에 따라 27일 11.00에 鎭海를 떠나 이날 11.30에 卵島에 도착하는 즉시로 交代하고 경비임무를 실시하였다.

PF-66艦은 聯合艦隊의 수송선단에 대한 호송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07.00에 佐世保(Saseho)에 入港하였다.

30일 : PC-705艦은 漁船團을 인솔하여 17.35에 注文津에 入港하였으며, 永興灣의 掃海編隊는 이날도 麗島近海에서 다음 海域을 掃海하였다.

- A. 39°13'32"N, 127°32'40"E D. 39°10'30"N, 127°33'15"E
 B. 39°11'06"N, 127°31'07"E E. 39°10'30"N, 127°47'05"E
 C. 39°10'20"N, 127°32'19"E F. 39°13'32"N, 127°36'18"E

31일 : YMS-510艇(장, 崔起東 대위)은 永興灣에 出動中인 YMS-502艇과 임무를 교대키 위해 海本作命 제62호에 依據하여 28일 17.00에 鎭海를 출항한 바 있거니와 同艇은 이날

06.50에 麗島에서 임무를 交代하고 YMS-515艇과 下記區域을 掃海하였다.

- | | |
|----------------------------|----------------------------|
| A. 39°14'11"N, 127°34'35"E | D. 39°15'10"N, 127°30'48"E |
| B. 39°14'38"N, 127°34'45"E | E. 39°14'12"N, 127°30'48"E |
| C. 39°15'10"N, 127°33'50"E | |

(2) 西海의 상황

西海에 있어서 해군은 島嶼의 確保와 그 周邊에 대한 勢力擴張이 主要한 임무이었으니 我艦隊의 모든 作戰은 이러한 島嶼 특히 甕津半島를 中心으로 전개되었다.

敵은 該半島의 海州灣入口(延坪島 附近)에 120mm 및 75mm 野砲陣地를 구축하였으며 그밖의 海岸에도 砲臺를 築設하기에 용이한 地點에는 陣地를 구축하고 兵力을 集結하여 木船이나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我軍이 確保하고 있는 椒島—席島—白翎島—月乃島—大靑島 麒麟島—昌麟島—巡威島—茂島—喬洞島 等を 奇襲奪取코자 血眼이 된 듯 하였다.

또 그들은 漁船으로 가장한 木船을 이용하여 기뢰부설에도 힘을 쏟았으나 이와 같은 敵의 기도는 번번이 我艦의 艦砲火로 좌절되었는데 各 月別 활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1월중의 활동

1일 : PC-703艦(장, 閔賢植 소령)은 旗艦으로써 주간에는 延坪島近海에서 야간에는 茂島近海를 각각 경비하였으며 PCS-203艇(장, 金炯培 대위)은 喬洞島 海域을, PCS-205艇(장, 鄭一燦 대위)은 延坪島—龍媒島間의 海域에서 各各 敵의 海上勢力과 對峙하였다.

또 LSSL-107艇(장, 李琬鏞 대위)은 椒島—席島間을 경비하였는데 이날 荒天으로 말미암아 椒島 東南쪽 海上(38°29'05"N, 124°52'05"E)으로 대피하다가 Anchor Wire가 切斷되는 損失을 보았다.

또한 YMS-513艇 및 507艇은 椒島—鎮南浦間의 海域을 담당하여 경비하였다.

3일 : PC-702艦(장, 許德和 소령)은 이날 11.00에 延坪島近海上에서 PC-703艦으로부터 旗艦임무를 인계받아 경비에 임하였으며 PCS-202艇(장, 朴基政 대위)은 PCS-203艇과 교대하고 喬洞島近海를 경비하였다.

또 LSSL-107艇은 Anchor Wire의 修理를 위하여 木浦로 歸港하였으며 LSSL-108艇(장 崔道甲 대위)은 계속 椒島近海를 경비하였다.

4일 : PCS-202艇은 UN艦隊의 지시로 美陸軍 高문단원을 塔乘시켜서 18.30에 喬洞島를 떠나 이날 23.00에 延坪島에 入港하였으며 PCS-201艇은 延坪島—龍媒島間을 경비하였는데 기타 海역에서 경비에는 異狀이 없었다.

11일 : 延坪島近海에서 경비중인 旗艦 PC-702艦은 이날 甕津郡 興帽面 一帶의 海岸에 敵이 集結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4.30에 巡威島로 옮겨서 경비하다가 19.05에 延坪島로 귀항하였으며 PCS-201艇과 PCS-202艇을 지휘하여 喬洞島 및 睡鴨島海域을 봉쇄하도

록 지시하였다.

13일 : PC-702艦은 이날 延坪島近海를 경비하다가 05.25에 이곳을 떠나 大靑島로 옮겨서 경비하였으며 19.25에는 補給 및 彈藥積載를 위해 仁川으로 向하였는데 기타 艦艇은 경비 임무를 계속되었다.

14일 : PC-702艦은 이날 仁川에 入港하여 油類 및 彈藥을 적재하고 PCS-202艇은 喬洞島近海에서, 또 PCS-201艇은 延坪島—龍媒島間을 각각 경비하였다.

한편 LSSL-108艇은 椒島—席島間에서, YMS-515艇 및 YMS-502艇은 椒島—鎖南浦間의 海域에서 각기 경비와 海岸砲擊을 실시하였다.

15일 : 이날 PC-702艦은 油類積載를 끝마치고 02.35에 仁川을 떠나 경비해역으로 복귀한 다음 延坪島—腫鴨島間을 봉쇄하고 경비에 임하였으며, PCS-201艇은 CTU 95.1.6의 指示에 依하여 美軍고문단 3名을 搭乘시켜 이들을 白翎島로 수송한 다음 茂島近海를 경비하였다.

17일 : YMS-514艇(장, 韓昌烈 중위)은 이날 13.30에 延坪島近海에서 PC-702艦으로부터 경비임무를 인계받아 延坪島—茂島間을 경비하였으며, PC-702艦은 旗艦의 임무를 PCS-201艇에 인계하고 이날 18.30에 鎖海로 向하였다.

또 PCS-202艇은 CTU 95.1.6의 指示에 따라 流水으로 夜間航海에 위험이 많은 喬洞島 海域을 떠나 延坪島近海에서 경비하였다.

한편 YMS-503艇(장, 白麟基 대위)은 椒島近海에서 YMS-515艇의 임무를 交代받아 YMS-502艇과 合勢하여 椒島近海를 경비하는 일방 다음의 海域을 掃海하였다.

- | | |
|----------------------------|----------------------------|
| A. 38°30'38"N, 124°41'24"E | E. 38°32'18"N, 124°44'43"E |
| B. 38°38'30"N, 124°40'22"E | F. 38°33'18"N, 124°42'45"E |
| C. 38°32'33"N, 124°44'00"E | G. 38°33'38"N, 124°46'18"E |
| D. 38°32'55"N, 124°43'54"E | |

19일 : PCS-202艇은 이날 14.40에 美陸軍將校 負傷者를 후송하기 위하여 延坪島를 떠나 20.00에 仁川에 入港하였으며 기타 艦艇들의 경비는 계속되었다.

20일 : 延坪島—茂島間을 경비중인 YMS-514艇은 이날 18.15에 茂島近海에서 對岸으로 순찰차 항해하였는데, 突然 平陽里(黃海道 甕津郡 鳳鳴面 所在)에서 敵의 75mm砲로 추축되는 海岸砲의 攻撃을 받게 되자 약 20分間 포격전을 전개하다가 延坪島로 귀항하였다.

22일 : 이날 YMS-514艇(장, 韓昌烈 중위)은 CTG 95.12(UN西海封鎖戰隊)의 指示에 따라 延坪島近海에서, PCS-203艇(장, 金炯培 대위)은 延坪島—茂島間에서, 또 PCS-205艇은 喬洞島 海域을 담당하여 各各 경비에 임하였다.

한편 LSSL-107艇(장, 鄭樂重 대위)은 大靑島를 경비하였으며 YMS-501艇(장, 辛相大 중위) 및 YMS-503艇(장, 白麟基 대위)은 역시 大靑島近海에서 掃海作業을 실시하였다.

또 西海岸 輸送作戰에 임하고 있는 LST-802艦(장, 朴世忠 대위)은 仁川에서 揚陸作業을 실시하였다.

23일 : 이날도 전날과 같이 경비는 계속되었으며 LST-802艦은 仁川에서 수송을 마치고 10.30에 이곳을 떠나 20.30에 白翎島에 入港하여 補給物의 揚陸作業을 실시하였다.

24일 : YMS-501艇 및 YMS-503艇은 이날 CTG 95.1의 指示에 의거하여 大靑島에서 白翎島로 이동한 다음 掃海 및 경비항해를 계속하였으며 海域別 경비는 변함이 없었다.

26일 : 大靑島 海域을 경비하던 LSSL-107艇은 PT-27艇(장, 金龍水 소위)이 荒天으로 인하여 自力航海가 困難하다는 報告를 받게 되어 곧 現地로 출동하여 PT-27艇을 曳引한 다음 大靑島로 歸港하였다.

27일 : LSSL-107艇은 大靑島를 떠나 麒麟島近海를 경비하였으며 YMS-506艇은 大靑島—白翎島間을 掃海中인 YMS-503艇과 任務를 交代키 위해 17.00에 鎮海를 出港하였다.

29일 : 이날 경비 상황에는 變動이 없는 가운데 LST-802艦은 白翎島에서 補給을 끝마치고 24.00 椒島에 入港하였다.

한편 PC-703艦(장, 閔賢植 소령)은 金角作命 제11호에 의거하여 延坪島近海를 경비중인 YMS-514艇과 임무를 交代키 위해 15.00에 鎮海를 出發하였다.

30일 : 이날 LSSL-107艇(장, 鄭樂重 대위)은 大靑島—麒麟島間을 경비하였는데 이날 20.00에 麒麟島 북쪽 對岸인 背龍洞(38°54'N, 125°05'E)의 敵集結所를 砲擊하였는데 戰果는 未詳이었다.

또 LST-802艦은 07.30 椒島를 떠나 09.40에 席島에서 補給品의 揚陸作業을 실시한 뒤 22.30에 다시 椒島로 歸港하였다.

31일 : PC-703艦은 16.00에 延坪島近海에서 YMS-514艇으로부터 任務를 交代받아 旗艦으로서 경비에 任하였다.

2. 2월중의 活動

1일 : PC-703艦은 旗艦任務를 맡아 CSG-95.12와 通信을 계속 유지하면서 延坪島近海를 경비하고, PCS-203艇은 延坪島—茂島間에서, PCS-205艇은 喬洞島近海에서 또 LSSL-108艇은 大靑島—麒麟島間에서 各各 경비하면서 旗艦의 指示에 따라 活動하였다.

또 LST-802艦(장, 朴世忠 소령)은 椒島에서 補給物의 輸送을 끝마치고 21.00에 現地를 떠나 白翎島로 向하였다.

2일 : 이날 역시 旗艦을 중심으로 한 海域別 경비는 계속되었는데 LST-802艦은 04.00에 白翎島에 入港하는 즉시 荷役作業을 실시하고 21.40에 延坪島로 向發하였다.

한편 大靑島—白翎島間을 掃海中인 YMS-501艇의 임무를 交代하기 위하여 YMS-515艇(장, 李應基 중위)은 06.00에 木浦를 出港하였다.

3일 : YMS-515艇은 03.20에 白翎島에 入港하여 07.20에 YMS-501艇의 임무를 인계받는

즉시로 YMS-506艇과 合勢하여 大靑島—白翎島間에서 경비 및 掃海作業을 遂行하였으며, 한편 PC-703艇을 주축으로 한 이날의 경비활동은 甕津半島의 海岸線에서 계속되었다.

5일 : YMS-506艇 및 YMS-515艇은 大靑島—白翎島間에서 경비 및 掃海作業을 실시 중 이날 CTG 95.1의 命令을 받아 黃海道 長淵郡 海安面(38°06'20"N, 127°50'00"E)에 있는 敵砲臺에 대하여 19.00부터 20.00까지 艦砲射擊을 실시하였다.

6일 : PCS-201艇은 11.00에 喬洞島近海에 도착하여서 PCS-205艇의 임무를 交代받아 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8일 : 西海戰隊의 旗艦인 PC-703艇을 中心으로 한 경비항해는 各島嶼에 대한 敵의 奇襲에 대비하여 계속되었는데, 旗艦은 延坪島近海에서, PCS-202艇은 延坪島—茂島間에서, PCS-201艇은 喬洞島에서 各 순찰차 항해하였다.

또 LSSL-108艇은 大靑島—麒麟島間에서, YMS-506艇 및 YMS-515艇의 編隊는 白翎島—大靑島間에서 각각 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9일 : 延坪島—茂島間을 경비항해중인 旗艦 PC-703艇은 CTG 95.12와의 通信으로 甕津郡 鳳鳴面 平陽里에 所在한 敵이 夜暗을 이용하여 茂島를 기습공격하리라는 情報를 입수하였다. 이날 20.00에 PC-703艇은 茂島近海에서 敵陣에 對하여 한 시간에 걸친 艦砲射擊으로 그들의 侵攻을 사전에 방지하였는데 戰果는 확인되지 않았다.

11일 : PCS-201艇은 喬洞島近海에서 경비하던 바 流氷이 많아 艦安全에 위협이 되므로 旗艦의 指示에 따라 江華島前洋으로 옮겨 경비항해를 계속하고 他艇도 맡은 임무에 注力하였다.

12일 : 西海岸의 諸島嶼에 수송차 출동한 LST-801艇(장, 金玉卿 소령)은 이날 白翎島에서 荷役作業을 마치는 즉시 24.00에 椒島로 向하였다.

13일 : YMS-512艇(장, 黃善道 대위)은 金角作命 제16호에 의거하여 10일 15.00에 鎮海를 떠나 이날 10.00에 白翎島에 入港하고 YMS-506艇과 임무를 交代하는 즉시 YMS-515艇과 合同으로 大靑島—白翎島間에서 경비 및 掃海作業에 突入하였다. LST-801艇은 07.20에 椒島에 入港하여 補給物의 荷役作業을 계속하였다.

15일 : 西海戰隊의 旗艦 PC-703艇은 CTG 95.1과 계속하여 通信網을 유지하면서 延坪島를 中心으로 한 경비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旗艦은 PCS-201艇은 주간에는 江華島를 야간에는 喬洞島를 노리는 敵에 대하여 경비항해토록 하고 PCS-202艇은 延坪島—茂島間을 순찰 항해토록 指示하였다.

大靑島—麒麟島에는 LSSL-108艇이 담당하였으며 YMS-512艇 및 YMS-515艇의 編隊는 白翎島에서 月乃島로 옮겨서 長山串一帶의 敵岸에 대한 경계태세를 강화하였다.

18일 : PC-702艇(장, 許德和 소령)은 金角作命 제19호에 의거 16일 15.00에 鎮海를 出港하여 이날 20.30에 延坪島에서 PC-703艇으로부터 旗艦의 임무를 인계받아 CTG 95.1과

通信網을 유지하면서 경비에 임하였다.

또 LST-801艦은 延坪島에서 輸送을 끝마치고 15.10 仁川에 入港하였다.

19일 : LSSL-107艇은 金角作命 제18호에 의하여 15일 18.00에 鎮海를 떠났으나 氣象關係로 예정시간보다 하루 늦은 이날 10.00에 大靑島近海에서 LSSL-108艇의 임무를 인수하였다. 여기에서 同艇은 旗艦의 指示대로 주간은 大靑島에서 야간은 麒麟島海域에서 警備航海를 실시하였으며, 기타 各島嶼別 경비도 계속되었다.

20일 : 非常事態에 대비하여 白翎島에서 대기중이던 JMS-309艇은 이날 06.00에 JMS-313艇과 임무를 교대하고 貨幣交換次 各基地에出張한 人員들을 塔乘시키기 위하여 延坪島로 航海하던 바 16.00에 巡威島 東南쪽 海上(37°34'55"N, 125°14'30"E)에서 조난선인 海兵島嶼部隊 徵發船 1척을 발견하는 즉시 船體를 曳引하여 延坪島로 入港함으로써 船員 11명을 救出하였다. 한편 LST-801艦은 西海 各部隊의 輸送任務를 모두 끝마치고 21.00에 仁川을 出發하여 釜山을 向해 南下하였다.

21일 : 旗艦인 PC-702艦은 CTG 95.1과의 協同作戰으로 주간은 延坪島에서 야간은 茂島近海에서 경비를 담당하였으며, PCS-201艇은 江華島-喬洞島間에서 또 PCS-202艇은 延坪島-茂島를 각각 경비하였다.

한편 延坪島에 入港한 JMS-309艇은 各艦艇의 出張者를 塔載하고 09.00에 이곳을 떠나 鎮海로 向하였다.

22일 : 이날 旗艦과의 通信을 긴밀히 유지하면서 大靑島近海를 경비중인 LSSL-107艇은 馬頂里의 敵陣(甓津郡 龍泉面 所在)에 대하여 艦砲射擊을 加하였는데 戰果는 未詳이었다.

또 YMS-512艇 및 YMS-503艇의 編隊는 大靑島-一月乃島間에서 경비항해를 실시하였다.

23일 : LSSL-107艇은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馬頂里의 敵陣을 強打하였으며 戰果는 밝혀진 바 없다.

24일 : PCS-203艇은 이날 09.50에 喬洞島에 入港하여 12.00부터 PCS-201艇과 임무를 交代하고 주간은 江華島, 야간은 喬洞島近海에서 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PCS-205艇은 11.00에 延坪島에 入港하여 11.30 PCS-202艇과 交代한 다음 주간에는 延坪島 야간에는 茂島近海를 담당하여 경비 항해를 실시하였다.

25일 : YMS-507艇(장, 楊濟錫 중위)은 金角作命 제20호에 의거하여 22일 16.00에 鎮海를 떠나 이날 03.30에 白翎島에 入港한다음 07.30에는 YMS-512艇과 임무를 交代하고 YMS-503艇과 合同으로 大靑島-一月乃島間을 경비하였다.

28일 : 이날까지 계속된 西海의 경비구역은 旗艦 PC-702艦이 延坪島-茂島間에서, PCS-203艇이 喬洞島近海에서, PCS-205艇이 延坪島近海에서, 또 LSSL-107艇이 大靑島-麒麟島間에서 각각 경비항해를 遂行하였으며, 또 YMS-507艇 및 YMS-503艇은 大靑島-一月乃島間에서 경비 및 掃海作業을 실시하였다.

3. 3월의 活動

PC-702艦을 旗艦으로 한 이달의 경비작전은 前月에 이어 계속되었다.

이렇다할 接敵狀況은 없었으나 我軍이 駐屯하고 있는 各島嶼部隊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서는 連日 敵의 海岸을 경계하여야만 하였으니 이달 11일에 실시한 江橋洞의 敵陣擊破는 그들의 兇計를 事前에 粉碎한 快舉라 할 것이다.

海域別로 나누어진 경비상황을 살펴보면 PC-702艦은 延坪島를 基點으로 하여 夜間에는 茂島를 경계하는 한편 CTG 95.1과 通信網을 유지하면서 각 艦艇을 지휘하였다.

PCS-203艇은 喬洞島 近海에서, PCS-205艇은 延坪島를 中心으로 Patrol을 실시하였으며, LSSL-107艇은 大靑島—白翎島에서 경비에 임하면서 야간에는 麒麟島에서 敵岸에 대한 砲擊도 並行하였다.

또한 大靑島—一月乃島間에는 YMS-507艇 및 YMS-503艇이 掃海 및 경계함해를 계속하였으며, JMS-313艇은 旗艦의 指示에 따라 非常任務를 수행키 위하여 仁川에서 대기하고 한편 各島嶼 및 艦艇에 대한 補給輸送을 爲하여 LST-805艇(장, 趙丁佑 소령)이 出動하여 海軍장병의 士氣를 드높이기도 하였다.

1일 : PC-702艦은 주간에는 延坪島에서 야간에는 茂島近海에서 경비를 계속하였으며, PCS-203艇은 喬洞島, PCS-205艇은 延坪島近海를 항해하면서 敵岸을 경계하였다.

또 LSSL-107艇은 白翎島—大靑島—麒麟島를 담당 경비하였으며, YMS-507艇 및 YMS-503艇은 大靑島—一月乃島間에서 경비하였는데 我艦艇의 계속되는 경비활동으로 敵의 海岸部隊는 많이 위축된 듯 하였다.

8일 : LSSL-109艇은 金角作命 제34호를 받아 5일 18.00에 鎭海를 出港한바 있었는데 이날 10.00에 大靑島에 入港하는 즉시 LSSL-107艇과 임무를 교대하여 주간에는 大靑島—白翎島間을 야간에는 麒麟島에서 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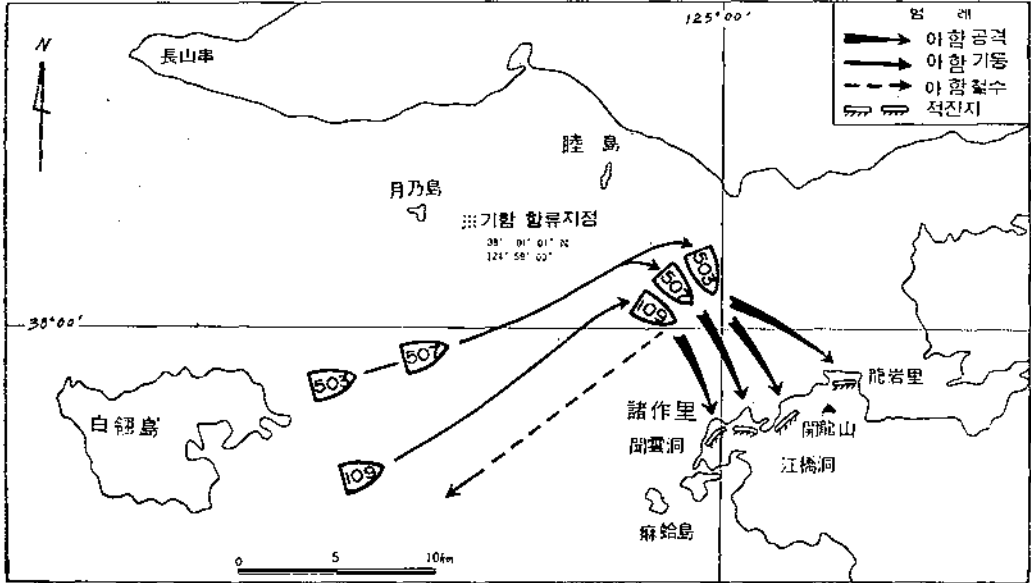
9일 : PC-703艇(장, 閔賢植 소령)은 金角작명 제25호에 따라서 6일 15.00에 鎭海를 떠난다음 이날 01.30에 延坪島에서 PC-702艦으로부터 旗艦임무를 인계받아서 경비에 임하였다.

한편 PCS-205艇은 延坪島前洋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旗艦의 명령을 받고 我遊擊隊의 忠환자 3명을 後送하기 위하여 22.50에 仁川에 入港하였다가 10일 14.20에 延坪島에 歸港하여 경비를 계속하였다.

11일 : LSSL-109艇(장, 玄時燕 대위) 및 YMS-507艇, YMS-503艇은 이날 白翎島—大靑島—麒麟島間에서 각각 경비 중 旗艦인 PC-703艇으로부터 大東灣(38°01'01"N, 124°59'00"E의 海上)에서 兇勢하여 璽津郡 龍泉面에 蹣跚中인 敵陣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 敵들은 江橋洞에 陣地를 마련하고 병력을 집결하여 我軍掌握下의 島嶼를 위협하는

◇ 상황도 제111호 江橋洞 해안진지 破壞(53.3.11)



한편 沿岸의 機雷를 부설하려는 기세가 엿보인다는 遊擊隊의 提報이었다.

이날 06.00에 예정대로 合勢한 공격편대는 LSSL-109艇을 공격주도함으로 하여 06.30부터 江橋洞으로 微速으로 航進하면서 全砲의 집중사격을 실시하였다.

同編隊는 龍泉面의 龍岩里—開龍山—江橋洞—聞雲洞—諸作里等地的의 포대와 兵舍에 대하여 熾烈한 砲擊을 加하였으나 그들의 反擊은 없었다.

계속된 포격은 07.30에 종료되었는 데 그들의 火力據點 2個所와 兵舍5棟을 격파한 공격 편대는 大靑島로 廻航하였다.

YMS-513艇은 金角작명 제27호에 따라 8일 20.00에 鎮海를 떠나 이날 11.00에 白翎島에 入港하여 YMS-503艇과 임무를 交代한다음 경비에 임하였다.

14일 : PCS-202艇(장, 朴基政 대위)은 金角작명 제30호로 10일 10.00에 鎮海를 出港하여 이날 12.00에 靑洞島 前洋에서 PCS-203艇과 임무를 交代하였으며 PCS-201艇(장, 崔英燮 대위)도 金角작명 제29호에 依據하여 12일 10.00에 母港을 떠나 이날 11.00에 延坪島에서 PCS-205艇과 임무를 交代하는 즉시로 경비에 임하였다.

한편 白翎島—大靑島間을 경비중인 YMS-507艇과 交代키 위하여 YMS-505艇(장, 金榮澤 대위)은 金角작명 제28호에 의거하여 10일 17.00에 鎮海를 出港한 다음 이날 16.00에 白翎島 前洋에서 임무를 交代하고 곧 YMS-513艇과 合勢하여 作戰에 임하였다.

21일 : 大靑島—白翎島間을 경비중인 YMS-513艇 및 YMS-505艇의 편대는 이날 海上狀態가 惡化됨에 따라 機關狀態가 좋지못한 YMS-513艇이 피항차 白翎島로 入港하고 YMS-

505艇은 月乃島—陸島間에서 敵岸을 警戒하는 항해를 실시하였다. 同艇은 항해도중 21.00에 陸島對岸인 牧洞의 砲臺(38°05'10"N, 124°58'00"E)로부터 공격을 받는 즉시로 應戰하였다.

同艇은 全速으로 機動하면서 한 시간에 걸친 艦砲射擊을 加한 결과 暗夜로 인하여 戰果는 알 수 없었으나 3個所에서 火光이 쏘는 것을 확인하고 白翎島로 廻航하였다.

또 LSSL-109艇은 이날부터 白翎島에서 檜島—席島間으로 移動하여 경비하였다.

25일 : YMS-501艇(장, 辛相大 중위)은 海本作命 제40호로 22일 14.00에 母港을 떠나 이날 05.10에 白翎島 前洋에서 YMS-505艇과 임무를 交代하고 경비에 임하였다.

28일 : 이날 LSSL-107艇은 海本작명 제49호로 23일 18.00에 母港을 떠나 이날 15.00에 檜島에 入港하고 LSSL-109艇과 임무를 交代한다음 檜島—席島間의 警비를 담당하였다.

(3) PT編隊의 奇襲作戰

- 1 차(1952. 12. 8부터
// 1. 10까지)
- 2 차(1953. 1. 22부터
// 2. 19까지)

1. 참가함정 및 주요지휘관

PT編隊長	대위 黃汀淵	}	PT-27艇 장	소위 金龍水
PT-23艇 장	소위 韓明鎬		FS-901艇 장	소령 金淳一
PT-25艇 장	소위 洪起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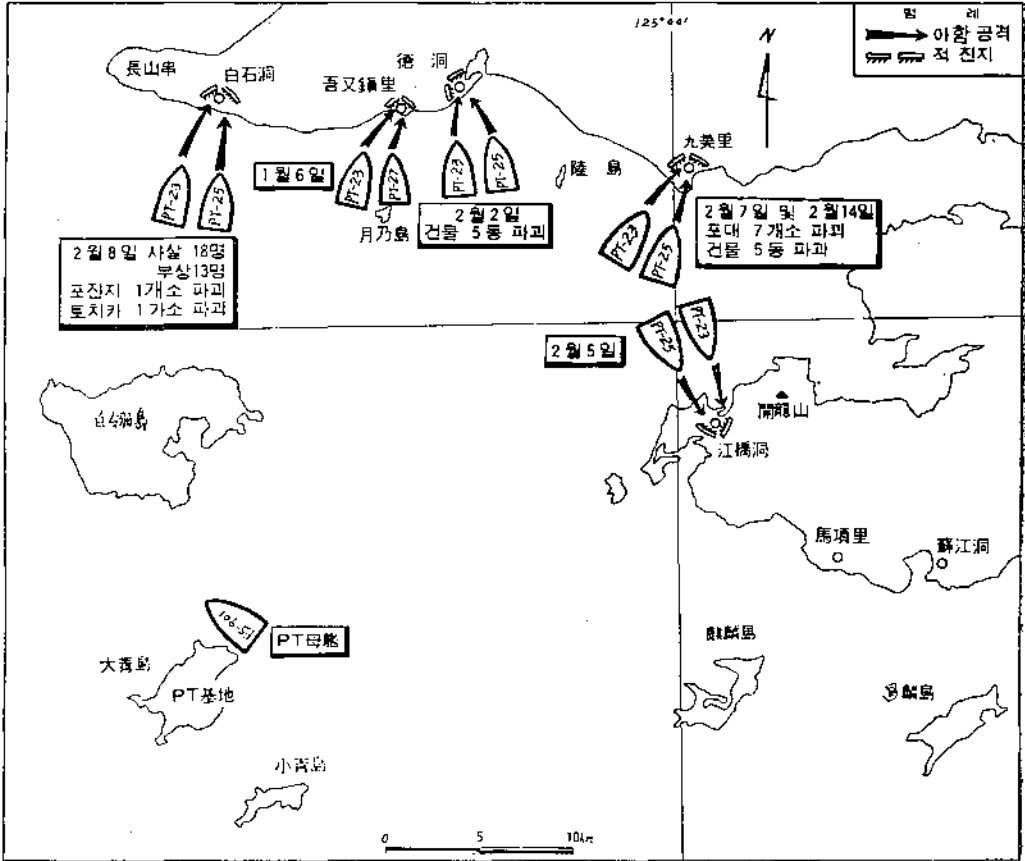
2. 전투전의 개황

이무렵 敵은 西海岸의 甕津半島를 중심으로 하는 白翎島—大靑島—麒麟島—昌麟島—巡威島에 이르는 海岸防禦에 있어서 我軍의 據點이 되는 각 島嶼를 탈취하기 위하여 海岸에 砲陣地를 구축하고 上陸部隊를 集結시키는 등 休戰會談을 구실로 하여 한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속셈으로서 더욱 露骨적으로 기습공격코자 發狂하였다.

이에 해군 PT編隊는 UN艦隊의 指示아래 遊擊部隊인 Donkey部隊 및 白骨部隊의 情報에 의하여 敵陣을 奇襲하여 그들의 企圖를 事前에 粉碎하였는데, 이를 例擧하면 12월 21일 07.15에 白翎島 東北쪽 對岸인 九美浦里(長淵郡 大救面 所在)에 1000YDS까지 接近하여 포격을 감행하였으며, 22일 06.05에 麒麟島와 昌麟島를 위협하는 甕津港의 邑底里를 공격하여 그네들의 重火器陣地를 제압하고 建物 3棟을 소각시켰다.

이어 25일 05.30에는 또다시 邑底里를 포격하여 敵集結所인 듯한 建物 4개소와 그들의 砲陣地를 격파하고, 29일에는 06.30부터 月乃島 對岸인 吾叉嶺里(長淵郡 海岸面 位置)를 艦砲射擊함으로써 그네들의 反擊을 압도하게 되어 PT編隊의 士氣는 드높아만 갔다.

◇ 上 海 道 제112호 PT編隊의 기습 활동(52.1.1~2.19)



3. 전투경과의 개요

가.作戰計劃

本作戰은 海燕作命 제12호 및 제13호(以上 1차)와 白鷗作命 제1호(2차)에 依據하여 遂行되었던 바 그 要旨은 다음과 같다.

海燕作命 제12호(1952년 12월 8일附)

① PT編隊長은 PT-23艇 및 PT-25艇을 인솔하고 12월 12일 07.00 鎭海를 出港하여 12월 13일 大靑島에 入港하고 CTG 95.12의 指示를 받아 경비에 임하라.

② PT編隊長은 水深 5Fathom 以上の 海域에서 임무를 수행하라.

③ FS-901艇은 PT編隊의 母艦으로서 軍需品支援에 萬全을 기하라.

海燕作命 제13호(52.12.22附)

① PT-27艇은 24일 07.00 鎭海를 出港하여 25일 15.00까지 大靑島에 도착하고 PT編隊長의 指示를 받아 PT-25艇과 임무를 交代하라.

② PT-25艇은 PT-27艇과 임무를 交代하고 12월 27일 14.00까지 歸鎭하여 修理에 임

하라.

- ③ PT編隊長은 PT-23艇 및 PT-27艇을 海燕作命 제12호에 따라 지휘하라.
白鷗作命 제1호(53. 1. 22附)

① PT編隊長은 PT-25艇 및 PT-27艇을 지휘하고 1월 24일 [07.00에 鎮海로 出港하여 25일 15.00까지 大靑島에 入港하는 즉시로 CTG 95.12의 指示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라.

② PT編隊의 軍需支援은 FS-901艇이 담당하라.

③ PT編隊 및 FS-901艇은 相互交信과 CTG 95.12와의 통신망을 계속 유지하라.

나. 작전실시

가. 제1차 기습작전

PT編隊長 黃汀淵대위는 PT-23艇 및 PT-25艇, FS-901艇을 인솔하고 作命에 依據 13일 14.00에 大靑島에 入港하여 CTG 95.12의 指示에 따라 長山串-巡威島間에서 경비에 임하면서 璽津半島의 敵海岸에 대한 기습에 대비하여 各種 情報의 수집에 착수하였다.

1월 1일 : 이날 大靑島를 前進基地로 한 FS-901艇이 PT編隊의 兵站支援次 대기하는 가운데 PT-23, 27兩艇은 長山串-巡威島間을 향해(patrol)하면서 경비에 임하였다.

1월 4일 : 이날 PT編隊長은 CTG 95.12로부터 白翎島近海에 出動하라는 命令을 받게 되었는데 同島近海上(38°09' N, 124°52' E)에는 敵이 中隊兵力의 규모로서 島嶼奇襲을 위한 海上訓練中이란 情報를 入手하였다. 이에 곧 PT編隊長은 大靑島近海를 경비항해하던 PT-23, 27艇을 지휘하여 同海域에 이르니 그때가 20.00였다.

PT編隊는 編隊長의 命令에 따라 10여척의 木船을 向해 全砲火의 集中을 30분에 걸쳐 계속하니, 敵船은 모두 火光이 衝天하고 이에 戰意를 상실한 敵船은 敗走하고 말았는데, 半以上은 침몰된 것으로 확인한 PT編隊는 22.00 大靑島로 귀항하였다.

1월 6일 : 이날로 CTG 95.12로부터 出動命令을 받은 PT編隊는 18.00에 大靑島近海를 떠나 月乃島로 向하였는데, 마침 海上狀態는 別다른 지장이 없었다.

PT編隊의 임무는 月乃島 對岸에 位置한 靑又嶺里(長淵郡 海岸面)의 敵集結所를 공격하는 것이었으니 어둠이 짙던 이때를 이용하여 그들을 격파하기 위해 月乃島前洋에 도착한 시간이 18.50이었다. 敵岸을 살핀 編隊長의 射擊命令이 떨어지자 PT-23艇 및 PT-27艇의 40mm砲와 rocket彈이 그들의 陣地를 휘감아 버렸으니 19.00부터 1시간에 걸친 포격이 계속되었다. 이날 20.05 PT編隊는 火焰에 휩싸인 敵陣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發惡의 인 포성을 뒤로 하고 麒麟島로 向하였다. 또 麒麟島의 對岸 馬頂里(璽津郡 龍泉面 位置)에는 麒麟島의 上陸을 企圖하는 敵이 集結하고 있었으니 PT編隊는 이날 22.00부터 다음 날인 07.06.30까지 두 차례에 걸친 포격을 감행하여 그들의 重火器를 제압하고 陣地를 炎 소케 하였다.

8일 : 한달 동안의 島嶼防禦 및 敵陣奇襲의 임무를 수행한 PT編隊는 이날 10.00 모든 作戰을 끝내고 大靑島를 떠나 10.17.00 鎭海에 入港함으로써 제1차의 奇襲戰을 마치게 되었다.

ㄴ. 제2차 기습작전

白鷗作命 제1호가 내려지자 PT編隊長은 이날 24일 07.00에 鎭海를 出港하였다. 25일 木浦에서 油類를 공급받는 즉시 大靑島로 向한 PT編隊는 이날 18.30 PT-25艇이 먼저 大靑島에 入港하였으며 PT-27艇은 機關狀態가 不良하여 自力航海가 困難케 되므로 旗艦은 大靑島近海를 警戒중인 LSSL-107艇(장, 鄭樂重 대위)을 急派하여 PT-27艇을 曳引토록 하였다. 따라서 PT-27艇은 26일 07.00에 大靑島에 進入하였으나 경비임무는 맡지 않고 自體修理를 위하여 待機하였다.

FS-901艇도 25일 13.50 大靑島에 入港하여 PT編隊의 母艦으로써 대기하면서 PT-27艇의 修理에 助力하였다.

이렇게하여 PT編隊는 PT-27艇이 參加하지 못한 채로 PT-25艇만이 27일부터 大靑島近海에서 경비를 실시하였다.

1월 27일 : PT-27艇이 끝내 修理가 困難하게 되자 艦隊에서는 白鷗作命 제2호를 下達하여 PT-27艇을 母港인 鎭海로 廻航토록 하고 PT-23艇(장, 韓明鎬 소위)을 出動하도록 命令하였다.

1월 31일 : PT-27艇은 編隊長의 指示에 따라 LSSL-107艇에 曳引되어 이날 鎭海로 廻航하였으며 PT-23艇은 다음날인 2월 1일 11.20에 大靑島에 入港하여 編隊長으로부터 경비 지시를 받아 PT-25艇과 協同作戰을 시작하였다.

2월 2일 : 비교적 海上狀態가 평온한 이날 PT編隊인 PT-23, 25兩艇은 CTG 95.1의 指示대로 19.00 大靑島를 떠나 長山串으로 航海하였다.

20.15부터 PT編隊는 長淵郡 海岸面 德洞(38°06'30"N, 124°52'30"E)에 있는 敵陣을 砲擊하여 그들 兵舍로 看做되는 建物 3棟을 完破하고 2棟은 燒却하였다.

2월 5일 : 이날 05.00에 PT編隊는 漣津郡 江橋洞(37°57'N, 125°02'E)의 陣地를 奇襲 攻擊하였는데 戰果는 알 수 없었다.

2월 7일 : PT編隊는 이날 長淵郡 海安面 九美里(38°04'50"N, 125°01'50"E)의 敵의 重 火器陣地를 격파하기 위하여 20.00에 大靑島를 떠나 20.30부터 同地點에 대하여 全砲火를 集中하였다. 그런데 敵의 應手砲擊도 甚하였으나 그들의 노력은 결국 無爲로 그쳐 30分 뒤에는 침묵하기에 이르렀으며 PT編隊는 夜暗으로 전과를 확인치 못하고 23.00에 大靑島로 歸港하였다.

2월 8일 : 이날 19.00에 大靑島를 出港한 PT-23, 25兩艇은 編隊長의 指示에 따라 長山串으로 向하였는데 長淵郡 海安面 白石洞에는 敵이 兵力을 集結시켜 놓고 砲臺를 구축하는

한편 我島嶼의 탈취를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判明되었다. 이에 20.00부터 PT 編隊(장, 黃汀淵 대위)는 鐵火를 이곳에 쏟아대니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었는데 이날의 戰果로는 18명을 射殺하고 負傷 13명을 내게 하였으며 82mm 迫擊砲陣地 1個所와 重機 2挺 토치카 2개소를 각기 파괴한 것으로 推定되었다.

2월 11일 : PT 編隊는 이날 19.00에 延坪島近海에서 對岸인 甘水里를 포격하였으며 戰果는 확인되지 않았다.

2월 14일 : 이날 06.00에 大靑島를 떠난 PT 編隊는 九美里(長淵郡 大救面)를 直衝하고 한 시간에 걸친 기습砲擊을 加하였다.

敵은 76mm砲와 重小火器를 亂射하면서 완강한 저항을 하였으나 PT-23, 25 兩艇의 Rocket 砲를 비롯한 砲火力에 屈伏되어 침묵하였으며 그네들의 76mm砲臺 7개소를 擊破하고 兵力이 集結하였던 建物 5棟을 燒却한 것으로 推斷하였다.

2월 16일 : PT 編隊(장, 黃汀淵 대위)의 PT-23, 25 兩艇은 編隊長의 指示에 따라 作命에 指示한 任務를 완수하고 母艦인 FS-901艇과 함께 大靑島를 떠나 18일 木浦를 경유하여 19일 20.00에 鎮海에 歸港함으로써 作戰임무를 모두 마치게 되었다.

4. 전투후의 개황

漣津半島一帶의 도서확보를 위하여 계획된 海燕作戰 및 白鷗作戰은 PT 編隊의 機動과 기습으로써 敵의 海岸進出을 封鎖하였으니 이즈음 休戰會談과 관련하여 그들이 시도한 島嶼 侵攻계획이 水泡로 돌아갔다. 기간중 PT 編隊는 아무런 損失이 없었으며 확인된 종합戰果는 다음과 같다.

敵 射 殺	18명	建物 파괴	10동
負 傷	13명	砲陣地 격파	11개소
木船 격침	5척		

(4) 其他 해상활동

東西 兩海域에서 경비임무를 주로하는 각종 作戰이 수행되고 있을 무렵, 南海에서는 日本, 中國等地로 왕래하는 密船이 빈번히 드나들면서 密輸品의 搬出入으로 戰時의 國內經濟를 교란함과 동시에 軍事機密마저 露出시킬 우려가 많았다.

我海軍은 이를 防止하고 漁撈區域에 대한 擴張과 平和線을 침범하는 第三國船을 검문하여 이를 追放하는 한편 鎮海를 침범하는 外國船舶을 취척하고 海洋主權宣言 등 警備封鎖를 目的으로 한 露梁作戰을 전개하여 南海를 경비토록 하였는데, 이에 參加한 艦艇은 다음과 같다.

JMS-301艇	장, 대위 河 正 洙	JMS-307艇	장, 대위 林 龍 雨
JMS-302艇	장, 중위 陰 慶 鳳	JMS-308艇	장, 대위 崔 炳 起

대위 蔡在錫 (53. 1. 4 부터)

중위 李澤珩 (53. 3. 19 부터)

기간중 上記艦艇은 濟州島—巨濟島—巨文島를 중심으로 경비활동을 계속하였으며 不法으로 漁撈區域을 侵犯한 第三國漁船 4隻을 조사후 追放시켰다.

이러한 露梁作戰은 申泰英 國防長官이 海軍에 指示한 國防軍內發令 제38호에 準하여 수행되었다.

다. 제2期(休戰會談末期)의 活動 (1953. 6. 1 부터) // 7. 26 까지)

(1) 敵의 配置狀況

休戰會談末期에 있어서 敵은 我海軍의 海안경비가 強化됨에 따라 속속 그들 海岸에 兵力을 增援하였다. 西海岸에서는 甕津半島에 보다 많은 兵力을 投入하였는데 이와 같은 조치는 海岸을 방어하여 我海軍의 上陸을 저지하고 나아가 我軍이 占領한 近海島嶼에 奇襲 侵攻을 노린 것이었다.

한편 東海岸에서는 元山前洋인 永興灣에서 그들은 機雷敷設에 熱을 올리고 있었는데 자세한 그네들의 海岸配備狀況은 소상히 把握할 수는 없으나 당시 入手한 情報에 따르면 다음과 같았다.

谷山에 주둔하고 있던 中共 제47軍(장, 張天雲)은 예하의 제500部隊를 碧城郡 代車面 水洞里에 推進하고 있었는데 그 兵力은 450名이고 장비로서는 迫擊砲 3門, 120mm 直射砲 1門, 重機 3挺, Truck 3臺, 馬車 10臺, 軍馬 40匹 등이었으며 個人火器로서는 M-1 및 갈빈소총으로 武裝하고 補給은 大部分이 甕津으로부터 한 달에 두 차례씩 牛車를 利用한다는 것이다.

또 北傀 제3聯隊 제33部隊는 甕津郡 交井面 國峰里에 進駐하여 350名의 兵力이며 그들의 장비로는 迫擊砲와 對戰車砲 各 3門, 直射砲 2門, 重機와 輕機 各 2挺, 無電機 2臺, 有線電話 2臺 등이며 個人火器는 蘇式 多發銃이며 補給은 甕津으로부터 수송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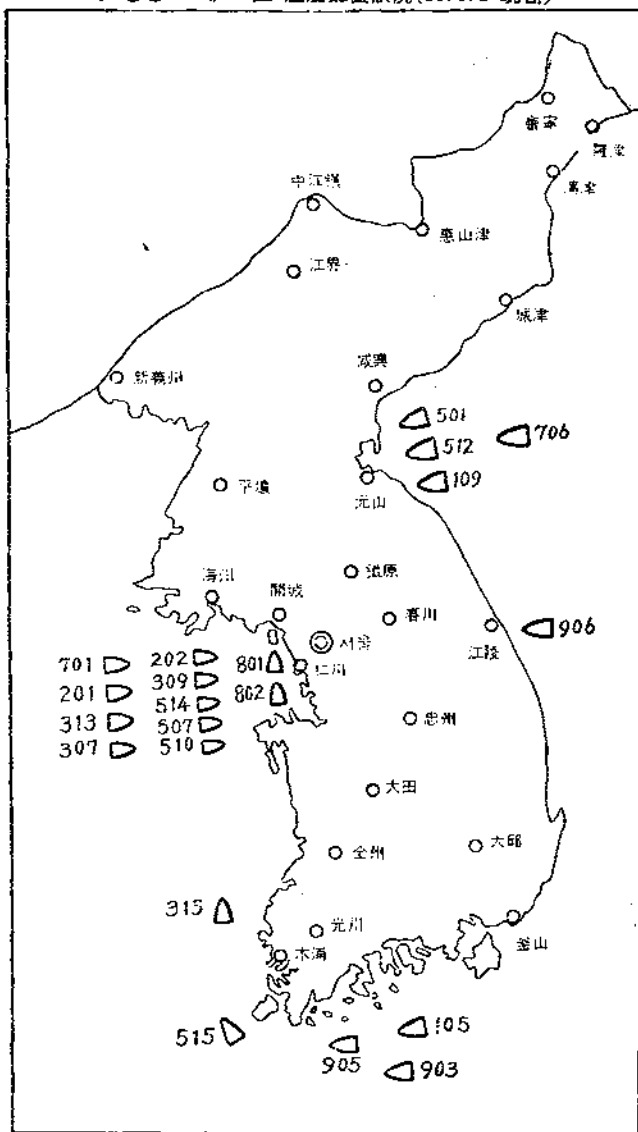
또 長湍郡 海岸面 大村里에는 武裝自衛隊 24名이 조직되어 小銃 6挺으로써 海안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判明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平北 龍川郡 龍岩浦에는 海軍 下士官學校가 설치되어 蘇聯人의 지도로 1,060名이 訓練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이로 미루어 그들은 海軍要員養成에 注力하는 것으로 推斷된다는 것이다.

한편 甕津郡 富民面 배다리(古洞里 西北쪽 1km)에 있는 造船所에서는 小型木船을 建造하고 있었는데 길이 6m 폭 2.4m의 크기로 30隻이 이미 完工되었으며 여기서 進水된 木船은 東南面 長尺里에 주둔하고 있는 北傀 제21旅團 정찰대가 인수한다는데 同 정찰대는 120명의 병력으로써 重機 2挺 輕機 8挺 기타 小銃으로 무장한 다음 龍湖島를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 제21聯隊 黃海警備 第1大隊는 甕津郡 興帽面 松山岬에 集結하였으며 兵力은 300名이고 장비는 82mm와 60mm 迫擊砲 및 45mm 直射砲 各 2門, 重機 4挺, 輕機 8挺이며 이들은 해안경비를 담당하고 同 第2大隊는 同 興帽面 月溪里에 200名이 陣을 치고 45mm 直射砲와 82mm 迫擊砲 各 1門, 60mm 迫擊砲 2門, 重機 3挺, 輕機 8挺 등으로 武裝하여 興帽面一帶의 경비와 島嶼上陸을 企圖하고 있다는 것이다.

(2) 東海의 상황

◇ 上항도 제113호 艦艇配置狀況(53.6.1 現在)



제1期에 이어서 기간 중에도 基本的인 作戰의 方向에는 變함없이 경비를 위주로 하는 封鎖와 捕海 및 輸送活動이 계속되었다.

開戰以後 51年 7월부터 舉論된 휴전회담은 이해 6월 8일 포로교 환협정이 체결됨에 따라서 실질적인 成立을 보았으며 同 18일 우리 측이 반공포로를 석방하자 그들이 7월 攻勢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分界線은 西海의 臨津江口에서 東海의 南江於口에 이르는 線으로 確定되고 있었다.

따라서 기간중 東海岸의 洋島를 비롯한 各島嶼에서는 UN軍의 지원 아래 住民들이 自由를 찾아 南下하였다.

作戰現況은 PF級 艦艇 3隻이 UN艦隊의 수송선단에 대한 護船作戰을 Saseho에서 麗島近海에 있는 UN艦隊에 이르기까지 수행하였으며 PC級 1隻이 고정 배치되어 卵島一興南間을 차단하여 경비에 임하고 卵島一庫底間에는 LSSL級 경비정이 封鎖活動을 전개하였으며 永興灣의 元山水路에는 YMS

級 2隻의 掃海編隊가 연일 敵의 砲火와 海上의 風波를 극복하면서 掃海作業을 실시하였다.

또 各島嶼部隊 및 艦艇에 補給物資를 수송기 위하여 FS級 수송선이 適切한 병참선을 확보하였으니 制海權을 확보한 我海軍은 그들을 능가하는 艦艇勢力으로써 충분한 機動力을 과시하였다.

1. 6月的 活動

1일 : 興南—束草間에서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PC-706艦은 이날 興南의 東南쪽 2mile 海上에서 경비에 임하였다.

또 LSSL-109艇(장, 立時燕 대위)은 卵島—庫底間을 항해하면서 卵島의 경비를 담당하였다.

한편 永興灣에서 掃海作業中인 YMS-501艇(장, 具滋學 대위) 및 YMS-512艇(장, 黃宣道 대위)은 주간에는 掃海活動을 실시하다가 야간에는 麗島를 中心으로 경비에 임하였으며 이날 04.45부터 11.15까지 실시한 掃海區域은 다음과 같다.

- | | |
|----------------------------|----------------------------|
| A. 39°16'06"N, 127°48'35"E | D. 39°17'15"N, 127°53'00"E |
| B. 39°16'28"N, 127°47'10"E | E. 39°17'40"N, 127°56'15"E |
| C. 39°16'52"N, 127°49'30"E | F. 39°13'40"N, 127°59'30"E |

2일 : 이날도 YMS-501, 512 兩艇은 麗島前洋에서 02.30에서 04.45까지 各各 다음의 海域을 掃海하였다.

YMS-501艇

- | | |
|----------------------------|----------------------------|
| A. 39°13'30"N, 127°36'18"E | I. 39°14'36"N, 127°37'19"E |
| B. 39°13'30"N, 127°34'40"E | J. 39°13'42"N, 127°36'12"E |
| C. 39°14'30"N, 127°34'40"E | K. 39°13'42"N, 127°36'52"E |
| D. 39°17'20"N, 127°37'00"E | L. 39°14'30"N, 127°34'52"E |
| E. 39°16'30"N, 127°37'20"E | M. 39°16'15"N, 127°37'00"E |
| F. 39°15'30"N, 127°36'45"E | N. 39°16'29"N, 127°37'22"E |
| G. 39°17'40"N, 127°37'32"E | O. 39°15'33"N, 127°33'26"E |
| H. 39°17'43"N, 127°37'50"E | |

YMS-512°

- | | |
|----------------------------|----------------------------|
| A. 39°13'32"N, 1°7'34'45"E | D. 39°15'12"N, 127°33'51"E |
| B. 39°13'32"N, 127°30'45"E | E. 39°14'33"N, 127°34'45"E |
| C. 39°15'15"N, 127°30'45"E | |

한편 FS-905艇(장, 韓承錫 대위)은 島嶼部隊에 대한 補給品을 수송하기 위하여 17.30

釜山을 떠나 麗島로 航進하였다.

3일 : 계속된 永興灣의 掃海編隊는 이날도 03.30에서 05.05까지 各各 다음의 海域을 掃海하였다.

YMS-501艇

- | | |
|-----------------------------|-----------------------------|
| A. 39°13'41"N, 127°36'12" E | E. 39°13'52"N, 127°36'05" E |
| B. 39°14'28"N, 127°34'54" E | F. 39°14'28"N, 127°35'07" E |
| C. 39°16'45"N, 127°36'58" E | G. 39°15'05"N, 127°37'15" E |
| D. 39°15'20"N, 127°36'40" E | |

YMS-512艇

- | | |
|-----------------------------|-----------------------------|
| A. 39°13'32"N, 127°34'45" E | C. 39°15'15"N, 127°33'51" E |
| B. 39°13'32"N, 127°30'45" E | D. 39°14'33"N, 127°34'45" E |

4일 : PC-706艦은 이날 麗島 東北쪽 10miles 海上에 位置하여 附近 海域일대를 경비하고 LSSL-109艇은 계속 卵島海域을 封鎖하였다.

한편 YMS-506艇은 海本發機密 제566호에 依據하여 지난 2일 17.00에 母港을 떠나 이날 15.30에 麗島前洋에서 YMS-512艇으로부터 掃海임무를 承接받아 YMS-501艇과 合勢하였으며 交代하기 前까지의 YMS-501 및 YMS-512 兩艇이 실시한 掃海區域은 다음과 같다.

YMS-501艇

- | | |
|-----------------------------|-----------------------------|
| A. 39°13'53"N, 127°35'08" E | D. 39°15'15"N, 127°33'51" E |
| B. 39°14'21"N, 127°35'08" E | E. 39°14'33"N, 127°33'51" E |
| C. 39°15'00"N, 127°35'40" E | |

YMS-512艇

- | | |
|-----------------------------|-----------------------------|
| A. 39°13'32"N, 127°34'45" E | D. 39°15'15"N, 127°33'51" E |
| B. 39°13'32"N, 127°30'45" E | E. 39°14'33"N, 127°34'45" E |
| C. 39°15'15"N, 127°30'45" E | |

또 FS-905艇은 11.00 麗島에 入港하는 측서로 補給品の 荷役을 시작하였다.

5일 : PC-706艦은 麗島 東北쪽 10miles 海上에서 경비에 임하다가 이날 11.30 湖島半島에 이르러 巢鷹津里의 敵陣에 대하여 艦砲射擊을 加하였으며 附近의 輸送路에 대하여서도 3mile 주위를 포격하고 14.30에도 再次 砲擊을 실시하였는데 戰果로서는 海岸에 正박중인 그들의 小型船船 5隻을 파괴하였다.

또 麗島近海의 掃海編隊는 이날에도 各各 다음의 海域을 掃海하였다.

YMS-501艇

- | | |
|-----------------------------|-----------------------------|
| A. 39°13'51"N, 127°36'16" E | C. 39°15'15"N, 127°36'10" E |
| B. 39°15'15"N, 127°37'31" E | D. 39°13'51"N, 127°35'06" E |

E. 39°15'15"N, 127°25'20"E

G. 39°13'32"N, 127°36'39"E

F. 39°14'33"N, 127°34'40"E

또 8일 19.00에 洋島를 떠난 FS-905艇은 이날 07.30에 麗島에 入港하는 즉시로 後送物資의 적재를 마치고 22.30에 墨湖로 航進하였다.

11일 : PF-61艇은 이날 再次 UN輸送船團을 호송키 위하여 Saseho를 떠나 北上하였다.

12일 : PC-705艦은 CTU 95.2.8의 指示를 받아 LSSL-109艇의 경비구역인 卵島近海를 同時에 경비하였으며, LSSL-109艇은 PC-705艦에 경비구역을 인계한 다음 이날 15.20에 洋島에 도착하여 住民 89명을 便乘시켜 19.40에 이곳을 出港하고 束草로 向하였다.

14일 : LSSL-109艇은 이날 06.00에 束草에 入港함으로써 洋島로부터 住民撤收作戰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15일 : PF-61艇은 釜山近海上에서 호송임무를 遂行中이며 PF-66艇은 UN輸送船團의 호송을 마치고 Saseho로 向하였다.

또 LSSL-109艇은 洋島로부터 撤收한 住民 및 家財의 揚陸을 마치고 이날 09.00에 束草를 出港하여 16.00에 경비해역인 卵島로 복귀하여 경비를 계속하였다.

한편 永興灣에서 掃海戰에 참가하고 있는 YMS-502, 506 兩艇은 이날에도 04.00에서 09.00까지 다음의 區域을 掃海하였다.

A. 39°16'15"N, 127°37'34"E

C. 39°11'45"N, 128°00'00"E

B. 39°16'45"N, 128°00'00"E

D. 39°15'15"N, 127°37'20"E

FS-902艇(장, 朴春道 대위)은 05.00에 墨湖를 出港하여 18.30에 麗島에 入港함으로써 補給을 시작하였으며 FS-905艇도 14.00에 束草를 떠나 輸送次 洋島로 航進하였다.

16일 : FS-905艇은 05.10에 洋島에 도착하여 補給物資의 下陸作業을 마치고 22.20에 이곳을 떠나 麗島로 向하였다.

또 이날 실시한 YMS- 502, 506 兩艇의 掃海區域은 各各 다음과 같다.

YMS-502艇

A. 39°13'45"N, 127°34'49"E

E. 39°15'31"N, 127°37'18"E

B. 39°14'34"N, 127°34'49"E

F. 39°14'10"N, 127°36'17"E

C. 39°15'12"N, 127°35'27"E

G. 39°16'20"N, 127°36'00"E

D. 39°16'50"N, 127°36'50"E

H. 39°13'45"N, 127°35'08"E

YMS-506艇

A. 39°13'32"N, 127°34'20"E

C. 39°10'48"N, 127°31'31"E

B. 39°13'32"N, 127°33'18"E

D. 39°11'20"N, 127°32'02"E

17일 : LSSL-110艇(장, 黃榮宣 대위)은 海本作命 제188호에 依據하여 15. 11.00에 母港을 떠나 이날 10.30에 卵島近海에 도착하자마자 LSSL-109艇의 임무를 인계받아 경비에 임

하였으며 掃海編隊도 전날 23.00 부터 이날 04.30까지 下記區域을 掃海하였다.

YMS-502艇

- A. 39°13'45"N, 127°35'05" E
- B. 39°15'05"N, 127°35'40" E
- C. 39°16'36"N, 127°36'40" E
- D. 39°15'22"N, 127°37'25" E
- E. 39°16'18"N, 127°36'28" E
- F. 39°14'25"N, 127°35'16" E

YMS-506艇

- A. 39°12'31"N, 127°33'43" E
- B. 39°11'43"N, 127°32'29" E
- C. 39°12'31"N, 127°34'35" E
- D. 39°11'15"N, 127°32'53" E

이날 掃海作業이 끝나자 YMS-515艇은 14.30에 麗島前洋에서 YMS-506艇으로부터 임무를 인계받아 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麗島에서 補給次 정박중이던 FS-902艇은 이날 08.30에 突然 湖島半島의 敵砲臺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다.

同艇은 즉시 닻을 올리고 避航하였으나 105mm砲 4發의 命中彈으로 2명이 負傷하고 40mm砲臺와 操舵室 및 通信室의 一部가 파손되었다.

21일 : PF-63艦(장, 李龍雲 대령)은 이날 08.00에 釜山을 出航하여 UN輸送船團을 호송하여 北上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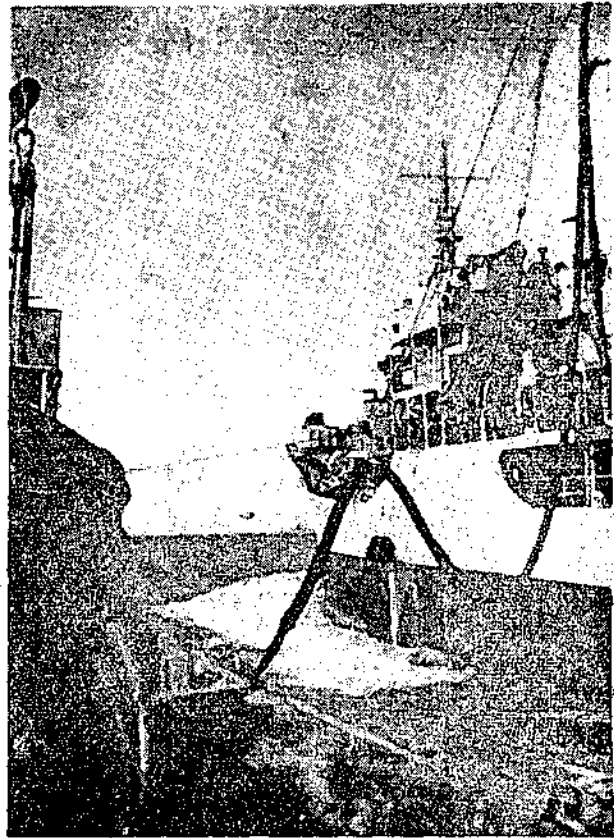
또 YMS-512艇은 海本작명 제193호에 따라 19일 15.00에 母港을 떠나 이날 17.00에 麗島에 도착하는 즉시로 YMS-502艇의 뒤를 이어 掃海活動에 참가하였다.

한편 FS-902艇은 自體修理를 마치고 04.30에 麗島를 出航하여 20.00에 洋島에 入港함으로써 補給을 실시하였으며 FS-905艇도 09.00에 束草에 入港하여 荷役作業을 實施하였다.

22일 : PF-63艦은 UN輸送船團을 호송하여 元山近海에서 임무수행 중이며 PC-705艦은 계속하여 卵島—束草間을 경비하였으며 LSSL-110艇은 卵島—庫底間을 封鎖하였다.

또 YMS-512, 515 兩艇의 編隊가 실시한 이날의 掃海區域은 다음과 같다.

- A. 39°16'06"N, 127°43'35" E
- B. 39°16'28"N, 127°47'10" E



<海上給油中인 我艦>

C. 39°16'52"N, 127°49'30"E

E. 39°17'40"N, 127°56'15"E

D. 39°17'15"N, 127°53'00"E

F. 39°17'40"N, 127°59'30"E

23일 : PF-61艦은 이날 05.30에 Saseho를 出航하여 호송임무를 띠고 麗島近海로 向發하였다.

한편 PC-705艦 및 LSSL-110艇은 海上狀態가 점차 惡化됨에 따라 경비임무를 중단하고 墨湖로 避航하였다.

또 YMS-512, 515 兩艇의 掃海編隊도 掃海作業을 中斷하고 麗島 東北쪽 近海上에서 錨泊하였는데 YMS-515艇은 이때 風浪으로 右舷 Anchor가 紛失되는 損失이 있었다.

또 FS-902艇도 洋島에서 補給을 마치고 16.30에 麗島로 歸港하였다.

24일 : PF-61, 63艦은 各各 卵島近海上에서 호송임무를 수행하였으며 PC-706艦(장, 蔡奎男 중령)은 海本작명 제121호에 依據하여 23일 20.00에 鎭海를 떠나 이날 07.30에 墨湖에 入港하자 곧 避航次 入港待機中인 PC-705艇과 임무를 교대하여 氣象이 회복되자 19.30에 경비해역으로 航進하였으며 LSSL-110艇도 경비구역으로 復歸하였다.

25일 : PF-61艦은 이날도 UN輸送船團을 호송하였던 바 09.40에 卵島 東北쪽 10mile 海上에서 美航空母艦 Oriskani艦의 艦載機 1대가 추락하는 것을 發見하고 즉시 機動하여 조종사 1명을 구출하였으며 PF-61艇은 조종사를 美艦에 인계하고 호송임무를 계속하였다.

또 永興灣에서 掃海編隊가 03.25에서 05.00까지 실시한 掃海區域은 各各 다음과 같다.

YMS-512艇

A. 39°14'00"N, 127°39'58"E

D. 39°13'32"N, 127°36'20"E

B. 39°16'35"N, 127°35'42"E

E. 39°14'40"N, 127°35'50"E

C. 39°15'47"N, 127°35'22"E

F. 39°15'30"N, 127°36'45"E

YMS-515艇

A. 39°13'30"N, 127°33'47"E

C. 39°11'18"N, 127°32'55"E

B. 39°11'42"N, 127°32'35"E

D. 39°13'32"N, 127°34'25"E

28일 : PF-61, 63 兩艦은 各各 卵島 및 甘浦近海에서 호송임무를 수행하였으며 LSSL-110艇은 이날 38°13'30"N, 128°37'00"E 海上에서 機雷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격파하였다.

또 FS-902艇은 補給을 끝마치자 04.00에 後送物資를 싣고 麗島를 出航하여 21.00에 墨湖에 入港하였다.

29일 : 永興灣에서 掃海作業中인 掃海編隊는 이날도 03.15에서 05.15까지 다음의 海域을 掃海하였다.

YMS-512艇

A. 39°14'00"N, 127°36'58"E

C. 39°15'37"N, 127°35'22"E

B. 39°16'34"N, 127°35'45"E

D. 39°13'32"N, 127°36'20"E

E. 39°14'22"N, 127°35'50" E

YMS-515艇

A. 39°12'28"N, 127°35'39" E

C. 36°12'40"N, 127°40'00" E

B. 39°12'32"N, 127°40'08" E

D. 39°13'40"N, 127°35'43" E

30일 : PF-61, 63 兩艦은 이날 麗島 및 蔚珍近海에서 각각 UN輸送船團을 호송한데 이어 PF-66艦도 19.00에 釜山을 出航하여 호송길에 오르게 되었다.

한편 FS-902艇은 17.30에 墨湖를 出航함으로써 全輸送日程을 마치고 釜山으로 航進하였으며 FS-906艇은 09.03에 麗島에 보급품을 수송하기 위하여 墨湖를 出航하였다.

2. 7月の 活動

1일 : PF-61, 63, 66의 세 艦은 新浦, 東草, 高城 近海에서 각각 UN輸送船團을 호송하고 PC-706艦과 LSSL-110艇은 卵島一庫底間에서 경비항해를 실시하였으며 YMS-512, 515 兩艇은 계속 元山水路에서 掃海作業에 임하였는 데 이날 06.00에 YMS-510艇이 鎭海로부터 이곳에 이르러 YMS-515艇과 交代하고 掃海임무를 계속하였다.

2일 : YMS-512, 510 兩艇의 掃海編隊가 실시한 元山水路에서의 掃海區域은 각각 다음과 같다.

YMS-510艇의 區域

A. 39°12'24"N, 127°35'36" E

D. 39°12'20"N, 127°40'17" E

B. 39°12'24"N, 127°35'18" E

E. 39°12'19"N, 127°35'27" E

C. 39°12'34"N, 127°40'15" E

F. 39°12'18"N, 127°40'21" E

YMS-512艇의 區域

A. 39°13'33"N, 127°35'20" E

E. 39°13'33"N, 127°35'28" E

B. 39°11'44"N, 127°33'42" E

F. 39°11'95"N, 127°34'20" E

C. 39°11'46"N, 127°33'56" E

G. 39°11'05"N, 127°15'03" E

D. 39°13'33"N, 127°36'07" E

H. 39°13'33"N, 127°35'30" E

한편 上記 掃海作業을 끝마친 YMS-512艇은 12.00에 麗島前洋에서 海本작명 제210호에 의거하여 出動한 YMS-507艇에 掃海임무를 인계하고 母港을 向하여 南下하였다.

3일 : 麗島에서 補給품을 수송 중인 FS-906艇은 이날 19.00에 洋島에 入港하여 荷役作業을 실시하였으며 YMS-507, 510艇의 掃海編隊는 이날 02.00부터 04.00까지 다음의 海域을 掃海하여 元山水路를 打開하였다.

YMS-510艇의 區域

A. 39°15'31"N, 127°36'47" E

E. 39°14'32"N, 127°34'41" E

B. 39°16'00"N, 127°35'38"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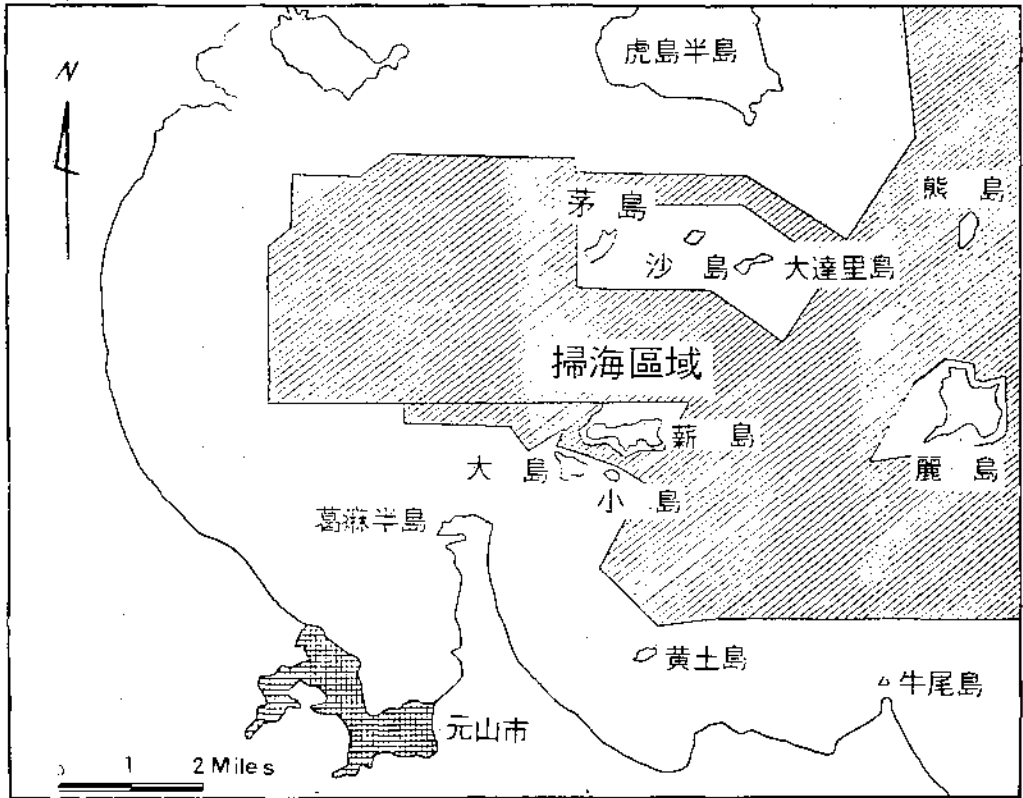
F. 39°14'43"N, 127°37'50" E

C. 39°17'00"N, 127°37'00" E

G. 39°15'35"N, 127°37'35" E

D. 39°15'15"N, 127°35'21" E

◇ 상황도 제114호 掃海區域 및 水路



5일 : PF-61艦은 호송임무를 마치고 이날 母港으로 廻航하였으며 PF-66艦은 長箭 東쪽 10miles 海上에서 호송작전에 임하였다.

또 FS-906艇은 補給을 끝낸 06.00에 洋島를 出航하여 18.30 麗島로 歸港하여 返送品을 적재하였으며 元山水路에서는 YMS-507, 510艇의 編隊가 03.00부터 08.00까지 다음의 海域을 掃海하였다.

- | | |
|------------------------|------------------------|
| A. 39°15' N, 127°38' E | E. 39°17' N, 127°58' E |
| B. 39°15' N, 127°42' E | F. 39°17' N, 127°55' E |
| C. 39°15' N, 127°47' E | G. 39°17' N, 127°51' E |
| D. 39°15' N, 127°53' E | H. 39°17' N, 127°48' E |

6일 : 이날 태풍 Kit호가 北上中이라는 氣象情報가 發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PF-66艦은 通川 前洋에서 호송임무를 수행하였으며 卵島海域을 경비중인 PC-706艦 및 LSSL-110艇은 21.10에 避航次 東草로 向하였다.

또 YMS-507, 510 兩艇의 編隊는 元山水路에서 다음의 海域을 掃海하고 麗島에서 대기하였다.

- | | |
|----------------------------|----------------------------|
| A. 39°11'56"N, 127°35'16"E | B. 39°11'48"N, 127°38'08"E |
|----------------------------|----------------------------|

에 인계하고 次期의 경비를 위하여 鎭海로 向發하였다.

한편 JMS-315艇은 이날 또다시 獨島와 鬱陵島에서 日船出沒關係의 조사를 마치게 되자 22.00에 釜山으로 向하였다.

16일 : PF-61, 63 兩艦은 각각 高城前洋에서 경호임무를 수행하였으며 PC-705艦은 경비 항해를 계속하던 중 卵島에서 발생한 환자를 麗島로 後送하고 19.00부터 경비를 계속하였다.

한편 YMS-515艇은 해본작명 제234호를 받고 出動하여 이날 18.30에 麗島前洋에서 YMS-507艇으로부터 掃海任務를 인계받고 YMS-513艇과 合勢하여 경비에 임하였다.

또 FS-901艇은 13.00에 洋島에 入港한 다음 荷役作業에 임하고 FS-906艇은 이날 수송 임무를 마치고 13.00에 墨湖를 떠나 母港으로 向하였다.

18일 : 元山前洋에서 掃海作業을 끝내고 南下하던 YMS-507艇은 이날 09.00에 釜山近海에서 UN艦隊의 艦載機가 추락하자 즉각 구조작업을 전개하여 조종사 1명을 구출하고 美艦에 인계한 다음 21.45에 釜山에 入港하였으며 FS-901艇은 洋島에서 임무를 마치는 데로 麗島로 歸港하였다.

한편 JMS-315艇은 鬱陵島 및 獨島에서의 日船出沒에 관한 조사임무를 모두 끝내고 12.35에 釜山에 歸港하였다.

19일 : PF-63艦은 이날 高城近海에서 UN 輸送船團에 대한 호송항해를 계속하였으며 永興灣의 元山水路에서는 YMS-513, 515艇이 05.00부터 08.00까지 다음의 海域을 掃海하였다

- | | |
|----------------------------|----------------------------|
| A. 39°15'20"N, 127°39'45"E | C. 39°16'30"N, 127°37'45"E |
| B. 39°16'45"N, 128°00'00"E | D. 39°18'50"N, 127°00'02"E |

를 연결하는 線의 左右 800YDS

또 FS-901艇은 08.30에 麗島에 入港하여 補給物資의 荷役을 實施하였다.

21일 : PC-705艦과 LSSL-109艇은 卵島海域을 경비하였으며 永興灣의 元山水路에서는 YMS-513, 515艇의 編隊가 다음의 海域을 掃海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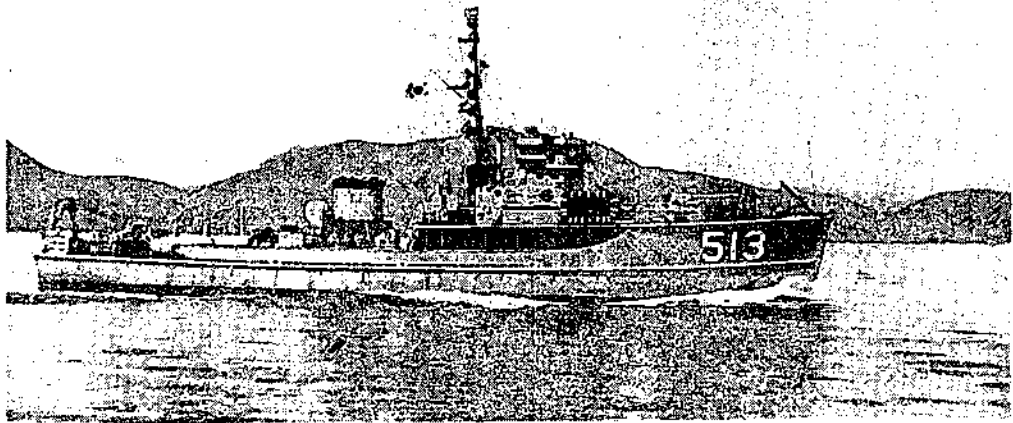
- | | |
|----------------------------|-------------------------------------|
| A. 39°12'26"N, 127°35'00"E | C. 39°11'49"N, 127°35'12"E |
| B. 39°12'26"N, 127°40'12"E | D. 39°11'49"N, 127°40'50"E의 400YDS. |

또 JMS-313艇은 海本작명 제241호를 받고 18일 15.00에 鎭海로부터 出動하여 이날 15.20에 新浦近海에 이르러 馬養島를 중심으로 경비에 임하였다.

22일 : YMS-513, 515艇의 編隊는 이날에도 元山水路에서 下記와 같이 掃海作業을 실시하였다.

YMS-513艇의 구역

- | | |
|----------------------------|--------------------------------------|
| A. 39°13'18"N, 127°35'35"E | C. 39°13'20"N, 127°35'53"E |
| B. 39°16'30"N, 127°36'24"E | D. 39°16'30"N, 127°36'42"E의 폭 400YDS |



<掃海戰에 參加한 YMS-513艇>

YMS 515艇의 區域

- A. 39°13'32"N, 127°35'47"E
- B. 39°11'32"N, 127°34'27"E
- C. 39°11'32"N, 127°41'08"E의 폭 400YDS

23일 : PF-63艦은 이날 12.00에 호송 임무를 遂行하기 위하여 Saseho를 出航하였으며 YMS-513, 515艇은 계속하여 다음의 海域을 掃海하였다.

YMS-513艇의 구역

- A. 39°13'36"N, 127°34'11"E
- B. 39°11'47"N, 127°23'06"E
- C. 39°11'44"N, 127°40'39"E
- D. 39°11'53"N, 127°40'00"E
- E. 39°11'50"N, 127°33'23"E
- F. 39°12'47"N, 127°34'25"E

의 폭 300YDS

YMS-515艇의 區域

- A. 39°11'13"N, 127°34'45"E
- B. 39°11'13"N, 127°41'27"E의 폭 800YDS

25일 : JMS-313艇은 旗艦의 指示에 따라 경비를 中斷하고 東草에 入港하여 兵力 및 軍需品을 積載하고 墨湖로 後送하였다.

26일 : PF-63艦은 麗島近海에서 호송 임무를 수행하고, PC-705艦 및 LSSL-109艇은 卵島를 중심으로 하는 海域경비를 계속하였다.

한편 永興灣의 元山水路에서 활동중인 YMS-513, 515 兩艇의 편대는 이날도 각각 다음과 같이 掃海하였다.

YMS-513艇의 區域

- A. 39°13'32"N, 127°35'08"E
- B. 39°13'32"N, 127°34'34"E
- C. 39°13'12"N, 127°40'42"E의 폭 400YDS

YMS-515艇의 區域

- A. 39°13'32"N, 127°36'00"E C. 39°10'46"N, 127°41'55"E의 폭 400YDS
 B. 39°10'46"N, 127°34'08"E

또 FS-905艇은 이날 麗島에서 수송임무를 수행하였으며 FS-901艇은 補給物資의 수송을 다치고 母港으로 廻航하였다.

(3) 西海의 상황

기간 중에도 西海에서는 我艦隊가 甌津半島를 中心으로 封鎖活動을 전개하였는데 接敵 狀況은 현저히 줄어들고 경비, 掃海, 輸送만이 되풀이되었다. 또 休戰會談이 마무리짓게 되자 各島嶼의 住民들을 安全한 島嶼 또는 後方地域으로 移動시키는 撤收作戰도 수행하였다.

경비 현황을 살펴 보면 旗艦인 PC艇은 延坪島 近海에서 경비하는 各급 함정을 지휘하였는데 喬洞島—椒島—席島間 등을 中心으로 한 甌津半島 全海岸을 10여隻으로 담당하였으며 그 月別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6月の 활동

1일 : PC-701艇(장, 印亮煥 소령)은 PCS-201艇(장, 崔英燮 대위)을 지휘하여 延坪島 近海에서 경비항해 하였으며 YMS-507, 510 兩艇도 同海域에서 掃海活動 및 경비를 계속하였다.

또 YMS-514艇 및 JMS-307, 313 兩艇도 同海域에서 漁船群에 대한 保護作戰을 遂行하였는데 敵勢가 뚜렷한 甌津半島의 一帶海域에서는 연일 我艦艇이 各島嶼를 중심으로 봉쇄 및 경비임무를 遂行하였다.

또 PCS-202艇은 喬洞島 前洋을 담당하고 LSSL-108艇은 椒島—席島間을 경비하면서 對岸인 月沙里에 대하여 포격을 병행하였다.

한편 政府糧穀을 수송하기 위하여 仁川에 入港中인 LST-801艇은 荷役作業을 실시하였으며 LST-806艇은 西海의 各部隊에 補給次 이날 15.10에 釜山을 出航하였고 FS-903艇도 07.00에 釜山을 떠나 政府米를 滿載하고 仁川으로 向發하였다.

2일 : JMS-315艇은 이날 12.30에 延坪島 近海에서 JMS-313艇의 임무를 인계받고 YMS-514, JMS-307 兩艇과 合勢하여 兪선군을 보호하였으며 기타 각 海역에 대한 경비활동을 계속하였다.

3일 : 이날 LST-806艇은 16.00에 白翎島에 FS-903艇은 14.50에 仁川에 각기 入港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

4일 : 延坪島 近海에서 漁船群을 보호 중인 YMS-514艇(장, 韓昌烈 중위)은 이날 임무를 수행 중 巡威島 前洋(37°42'N, 125°17'E)에서 艦艇이 兪선군 興岬面 板里 附近에 있는

海岸砲와 교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각 同海岸으로 기동하면서 全砲門을 집중하였으며 그들의 障地가 炎上되자 다시 延坪島로 廻航하였다.

6일 : PC-702艦(장, 許德和 소령)은 海本작명 제174호에 따라 4일 16.00에 母港을 떠나 이날 10.40에 延坪島近海에 이르러 PC-701艦으로부터 所要任務를 인계받은 다음 경비를 시작하였으며 LST-806艦은 白翎島에서 補給을 마치자 06.05에 出航하여 14.50에 席島에 入港한 다음 荷役作業을 實施하였다.

7일 : LST-806艦은 이날 15.30에 席島를 떠나 17.30에 椒島에 도착하여 수송작업을 계속하였으며 LST-802艦은 수송일정을 모두 끝내고 13.30에 仁川을 떠나 釜山으로 航進하였다.

9일 : 延坪島近海에서 경비중인 YMS-507, 510 兩艇은 이날 下記의 區域을 各各 掃海하였다.

YMS-507艇

- | | |
|----------------------------|----------------------------|
| A. 37°37'01"N, 125°38'00"E | C. 37°40'08"N, 125°39'02"E |
| B. 37°40'00"N, 125°38'00"E | D. 37°37'00"N, 125°39'00"E |

YMS-510艇

- | | |
|----------------------------|----------------------------|
| A. 37°36'30"N, 125°38'54"E | C. 37°38'30"N, 125°44'32"E |
| B. 37°37'25"N, 125°42'30"E | D. 37°41'54"N, 125°46'24"E |

또 LST-801艦은 이날 政府糧穀의 수송을 끝내자 곧 14.30에 仁川을 出航하여 釜山으로 廻航하였으며 LST-806艦은 전날 椒島로부터 白翎島에 이르러 보급을 실시한 다음 이날 12.45에는 延坪島에 入港하여 수송작업에 임하였다.

10일 : YMS-505艦(장, 梁漢杓 대위)은 海本작명 제179호에 依據하여 7일 20.00에 母港을 떠나 이날 14.00에 延坪島 近海에서 YMS-510艇의 뒤를 이어 掃海 및 야간경비에 임하고 FS-903艇은 政府米의 수송을 마치자 이날 20.00에 仁川을 出航하여 釜山으로 向發하였다.

11일 : 延坪島近海에서 掃海活動中인 YMS-507, 505艇이 이날 08.30부터 11.30까지 실시한 掃海區域은 다음과 같다.

- | | |
|----------------------------|----------------------------|
| A. 37°31'00"N, 125°36'48"E | C. 37°40'30"N, 125°37'53"E |
| B. 37°31'37"N, 125°37'53"E | D. 37°40'42"N, 125°36'47"E |

한편 漁船團의 漁撈作業을 보호하던 YMS-514艇 및 JMS-307艇은 旗艦의 命을 받아 各島嶼의 피난민을 後送키 위해 이날 白翎島에 입항하여 대기하였다.

12일 : PC-702艦은 계속 延坪島 近海에서 경비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날 12.00에 敵의 海岸砲(龜津郡 鷓原面 平陽里)로부터 공격을 받는 즉시로 이에 應戰하여 이곳을 目標로 全火力을 集中하였는데 戰果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PCS-203艇은 海本作命 제 183호로, PCS-205艇은 海本作命 제 184호에 따라 10일 14.00에 母港을 떠나 이날 13.00에 延坪島 近海에서 PCS-201艇 및 PCS-202艇의 임무를 각기 인계받아서 경비에 임하였다.

한편 JMS-307艇은 피난민 35명을 麒麟島로부터 白翎島로 수송하였다.

13일 : YMS-505艇은 茂島의 遊擊隊를 支援키 위하여 同島 近海에서 항해중 22.00에 敵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甑津郡 鳳鳴面 東山洞에 위치하였으며 YMS-505艇은 이곳을 향하여 鐵火의 攻擊을 가하였는데 夜暗으로 戰果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YMS-513艇은 海本작명 제 185 호에 의거하여 延坪島 近海의 掃海경비차 11일 13.00에 嶺海를 출발하여 이날 13.00에 同海域에 도착하는대로 YMS-507艇의 임무를 인수받아 경비를 수행하였다.

또 LST-806艦은 전날 白翎島에 入港한데 이어 이날 20.00에 椒島에 入港하여 補給을 계속하였다.

14일 : 지난 11일부터 실시한 各島嶼의 피난민 撤收作戰은 이날 12.00에 終了하였는데 艦艇別 人員輸送은 별표와 같다.

18일 : LSSL-107艇은 海本작명 제 187호에 依據하여 14일 18.00에 母港을 出發한 다음 이날 05.00에 椒島近海에 이르러 LSSL-108艇의 임무를 인계받고 椒島-席島間의 경비에 임하였다.

또 JMS-303艇은 이날 09.00에 延坪島 近海에서 YMS-514艇과 임무를 交代하고 漁船團의 보호작전을 실시하였다.

별표

艦艇	乘船地	人員(名)	撤收地
PC-702 艦	大 睡 鴨 島	124	延 坪 島
PCS-202艇	龍 媒 島	50	"
PCS-205艇	"	230	"
YMS-507艇	"	70	"
JMS-315艇	大 睡 鴨 島	538	"
JMS-307艇	麒 麟 島	53	"
PCS-201艇	龍 媒 島	20	"
PCS-203艇	"	160	"
YMS-505艇	小 睡 鴨 島	280	"
YMS-513艇	龍 媒 島	30	"
YMS-514艇	巡 威 島	170	"
JMS-307艇	昌 麟 島	10	大 南 島

20일 : 延坪島 近海에서 掃海 및 야간경비를 실시하는 YMS-505, 513 兩艇은 이날에도

각각 다음의 海域을 掃海하였다.

YMS-505艇

- | | |
|------------------------------|------------------------------|
| A. 37°36'00" N, 125°37'24" E | D. 37°40'00" N, 125°38'12" E |
| B. 37°40'38" N, 125°37'24" E | E. 37°36'00" N, 125°39'12" E |
| C. 37°41'00" N, 125°40'30" E | |

YMS-513艇

- | | |
|------------------------------|------------------------------|
| A. 37°37'00" N, 125°37'39" E | C. 37°40'40" N, 125°39'00" E |
| B. 37°40'33" N, 125°37'33" E | D. 37°37'40" N, 125°39'00" E |

22일 : YMS-505, 513 兩艇의 掃海編隊는 이날도 다음의 海域을 掃海하였으며 CTU 95.

1.6의 指示에 따라 16.00에는 白翎島近海로 出動하였다.

YMS-505 艇

- | | |
|------------------------------|------------------------------|
| A. 37°41'32" N, 125°39'57" E | G. 37°43'36" N, 125°41'21" E |
| B. 37°41'50" N, 125°40'13" E | H. 37°43'18" N, 125°42'08" E |
| C. 37°44'00" N, 125°40'00" E | I. 37°41'30" N, 125°40'50" E |
| D. 37°45'42" N, 125°42'15" E | J. 37°42'06" N, 125°42'55" E |
| E. 37°45'36" N, 125°44'45" E | K. 37°42'25" N, 125°43'25" E |
| F. 37°45'00" N, 125°45'00" E | |

YMS-513 艇

- | | |
|------------------------------|------------------------------|
| A. 37°42'06" N, 125°42'57" E | E. 37°41'15" N, 125°42'36" E |
| B. 37°42'51" N, 125°41'48" E | F. 37°41'00" N, 125°43'33" E |
| C. 37°43'15" N, 125°42'06" E | G. 37°41'30" N, 125°40'30" E |
| D. 37°42'09" N, 125°43'48" E | |

한편 JMS-301艇은 海本작명 제196호에 의거하여 19일 22.00에 出動한 다음 이날 06.00에 延坪島 近海에 進入하여 곧 JMS-315艇과 임무를 交代한 다음 어선단의 보호작전을 遂行하였다.

24일 : PC-701艦(장, 朴敬哲 중령)은 海本작명 제198호에 따라 22일 19.00에 母港으로부터 出動하여 이날 18.00에 延坪島 近海에 이르러 PC-702艦의 任務를 인계받아 경비에 突入하였으며 YMS-505, 513艇은 계속 白翎島에서 대기하였는데 YMS-505艇은 05.30에 YMS-501艇에 임무를 인계하고 이곳에서 漁船 10隻을 호송하여 安眠島로 向發하였다.

또 LST-802艦은 延坪島로부터 15.30에 白翎島에 入港하여 油類補給을 실시하였다.

25일 : YMS-505艇은 이날 09.00에 安眠島에 入港함으로써 漁船群의 호송을 끝마치게 되었는데 이로부터 同艇은 歸鎮次 계속 航海하였다.

27일 : 白翎島에서 대기중이던 YMS-501, 513 兩艇은 이날 旗艦으로부터 命을 받고

10.00에 이곳을 떠나 油類輸送을 위해 16.30에 椒島에 入港하였다.

28일 : 延坪島近海를 경비 중인 PCS-205艇은 이날 16.00에 靈興島近海로 移動하여 경비하였으며 YMS-501艇은 油類輸送을 마치는 대로 椒島를 떠나 17.00에 白翎島에 歸港하였다.

한편 海本작명 제122호를 따라 25.15.00에 鎮海로부터 出動한 YMS-503艇(장, 白麟基 대위)은 이날 17.00에 白翎島 前洋에 이르러 YMS-513艇으로부터 임무를 인수하였다.

29일 : PCS-205艇은 이날 21.45에 다시 喬洞島近海에서 경비임무를 遂行하였으며 LST-805, 806 兩艦은 白翎島 및 延坪島의 피난민을 수송키 위하여 木浦로 向發하였다.

30일 : PCS-202艇은 海本작명 제207호에 依據하여 28일 18.00에 鎮海를 出航하고 이날 12.00에 延坪島 前洋에서 PCS-203艇으로부터 延坪島近海의 경비임무를 인수하였으며, PCS-201艇은 海本작명 제208호로 역시 28일 18.00에 出航하여 이날 16.00에 PCS-205으로부터 임무를 인수하고 喬洞島近海를 경비하였다.

2. 7月の 활동

1일 : 前月에 이어 이달에도 延坪島를 중심으로 PC-701艦은 PCS-202艇과 合勢하여 경비 항해를 실시하였는데 喬洞島近海는 PCS-201艇이, 椒島—席島間은 LSSL-107艇이, 巡威島近海는 YMS-503艇이 각각 담당하여 海岸線을 봉쇄하고 敵岸에 대한 위협사격도 아울러 並行하였다.

5일 : PC-701艦은 이날 通信機의 고장으로 인하여 경비를 중단하고 05.30에 경비해역을 떠나 09.30 仁川에 入港하여 修理作業에 임하였다.

또 LSSL-108艇은 海本작명 제212호로 出動하여 이날 11.00에 LSSL-107艇과 임무를 交代한 다음 椒島—席島間의 경비에 임하였다.

6일 : 이날 태풍 Kit호가 西海를 通過하리라는 氣象報가 내려지자 全艦艇은 一時경비를 중단하고 避航하였다.

8일 : PC-701艦은 通信機의 수리를 마치는 대로 仁川을 出航하여 21.00에 경비해역으로 복귀하였으며 전날 18.00에 氣象豫報가 해제되자 다른 함정들도 모두 경비에 임하였다.

한편 YMS-506艇은 이날 05.30에 경비해역으로 向航하다가 白翎島 北東쪽 海上(37°58' 10"N, 124°44'30"E)에서 좌초하였는데 人命피해는 없었으나 艦首一部와 兩航 Screw가 파손되어 UN艦隊의 도움으로 救助作業을 실시하였다.

9일 : YMS-506艇은 이날 05.30에 UN艦艇의 助力으로 離礁하여 白翎島에 錨泊하였으며 기타 해역별 경비는 계속되었다.

11일 : PC-702艦은 海本작명 제224호에 依據하여 10일 07.00 母港을 出航한 다음 이날 22.00에 PC-701艦의 임무를 인계받아 곧 延坪島近海의 경비를 遂行하였다.

12일 : 席島—椒島間을 항해하면서 海岸을 경계하고 있는 LSSL-108艇은 이날 22.00에 殷栗郡 眞風面 許沙洞에 위치한 敵砲陣地에 대하여 30分間에 걸친 艦砲射擊을 가하여 이

를 炎上토록 하였으며 LST-802, 805 兩艦은 補給次 계속 白翎島에서 作業에 임하였다.

13일 : 喬洞島近海를 담당하고 있는 PCS-201艇은 이날 05.30에 對岸의 中共軍 據點을 포격하기 위하여 이곳으로 接近하였는데 同艇은 마침 길게 깔린 안개를 이용하여 은밀히 그 배들의 海岸감시병이 눈치채지 않도록 進入하였다.

그들은 延白郡 溫井面 烽火里에 위치한 中共 제188사단 제562연대의 海岸警備隊임이 後에 밝혀졌는데 我艦은 5" Rocket砲를 비롯한 各種砲火를 이곳에 炸裂시켜 火光이 衝天토록 한 다음 喬洞島로 廻航하였다.

14일 : LSSL-108艇(장, 朴武鎬 대위)은 椒島—席島間에서 경비항해를 계속하다가 22.30에 殷栗郡 眞風面 許沙洞의 海岸 780m까지 接近하여 敵陣을 目標로 Rocket砲 및 40mm砲 等 全火力을 집중하여 強打하였다.

23.00까지 계속된 砲擊으로 그네들을 困境에 몰아넣은 LSSL-108艇은 다시 海域警備에 임하였다.

또 YMS-502艇이 延坪島 前洋에서 이날 실시한 掃海區域은 다음과 같다.

- | | |
|----------------------------|----------------------------|
| A. 37°41'45"N, 125°41'18"E | D. 37°42'03"N, 125°43'42"E |
| B. 37°42'11"N, 125°46'24"E | E. 37°41'08"N, 125°41'00"E |
| C. 37°41'52"N, 125°53'00"E | |

한편 LST-802, 805 兩艦은 각각 椒島와 白翎島에서 補給物資의 荷役을 實施하였다.

15일 :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LSSL-108艇은 03.30에 旗艦의 命을 받아 許沙洞에 位置한 敵砲陣地를 強打하였으나 戰果는 未確認이다.

또 YMS-502艇은 이날 13.50에서 17.30까지 延坪島前洋에서 다음의 海域을 掃海하였으며 이날 18.00에 氣象注意報가 下達되자 延坪島 兩쪽 錨地에 投錨하였는데 계속된 風波로 인하여 20.00에 Anchor chain이 切斷되었다.

- | | |
|----------------------------|----------------------------|
| A. 37°41'00"N, 125°40'27"E | C. 37°40'18"N, 125°31'00"E |
| B. 37°42'12"N, 125°31'12"E | D. 37°41'43"N, 125°40'32"E |

또 LST-802艦은 이날 16.30에 席島에서 補給에 임하였다.

16일 : YMS-502艇은 이날도 15.50부터 18.30까지 延坪島近海에서 下記 各點을 잇는 線의 285m를 掃海하였다.

- | | |
|----------------------------|----------------------------|
| A. 37°42'43"N, 125°42'45"E | D. 37°44'00"N, 125°40'34"E |
| B. 37°43'06"N, 125°40'24"E | E. 37°45'40"N, 125°42'18"E |
| C. 37°41'45"N, 125°40'24"E | F. 37°45'30"N, 125°45'00"E |

또 LST-802, 805艦은 각각 延坪島와 白翎島에서 수송작전에 임하였다.

17일 : PC-702艦을 비롯한 PCS-202艇이 계속하여 延坪島 前洋을 航海하면서 海州灣—帶의 海안선을 봉쇄하고 있는 동안 YMS-502艇은 이날도 다음의 海域을 掃海하였다.

- | | |
|----------------------------|----------------------------|
| A. 37°41'05"N, 125°40'24"E | D. 37°43'54"N, 125°40'24"E |
| B. 37°42'48"N, 125°41'48"E | E. 37°42'30"N, 125°40'36"E |
| C. 37°45'30"N, 125°42'24"E | F. 37°41'36"N, 125°40'37"E |

18일 : PCS-205艇은 海本작명 제237호를 받고 喬洞島近海를 경비하기 위하여 이날 16.00에 同海域에 이르러 PCS-201艇과 교대하고 경비에 임하였다.

19일 : PC-702 및 PCS-202 兩艇은 계속하여 延坪島 近海에서 경비에 임하였던 바 이날 07.30에 PCS-202艇은 海本작명 제238호에 따라 出動한 YMS-518艇에 그 임무를 인계하고 歸鎮次 南下하였으며 同海域에서 掃海作業中인 YMS-502艇은 03.00에 海本작명 제236호에 의거 출동한 YMS-512艇과 合勢하여 07.50부터 12.40까지 다음의 區域을 掃海하였다.

- | | |
|----------------------------|----------------------------|
| A. 37°35'34"N, 125°23'40"E | C. 37°32'30"N, 125°12'45"E |
| B. 37°31'30"N, 125°12'45"E | D. 37°36'30"N, 125°23'00"E |

20일 : 各 海역별 경비상황은 變動없이 계속되었으며 輸送作戰에 임하고 있는 LST-802艦은 白翎島로부터 이날 13.30에 仁川에 入港하여 補給을 실시하였으며 LST-802艦은 椒島에서 수송작업 중이고, LST-806艦은 仁川으로부터 피난민의 수송임무를 모두 끝내고 歸港次 南下하였다.

21일 : 延坪島近海에서 敵岸을 포격하기 위하여 艇海作業으로써 水路를 打開하는 YMS-501艇 및 YMS-512艇은 이날 각각 下記海域을 掃海하였다.

YMS-501艇의 區域

- | | |
|----------------------------|----------------------------|
| A. 37°31'27"N, 125°39'10"E | E. 37°41'41"N, 125°46'00"E |
| B. 37°37'14"N, 125°42'10"E | F. 37°38'40"N, 125°44'20"E |
| C. 37°38'20"N, 125°44'42"E | G. 37°37'38"N, 125°42'24"E |
| D. 37°41'39"N, 125°46'34"E | H. 37°36'45"N, 125°39'12"E |

YMS-512艇의 區域

- | | |
|----------------------------|----------------------------|
| A. 37°41'00"N, 125°42'29"E | F. 37°42'12"N, 125°41'54"E |
| B. 37°42'03"N, 125°43'45"E | G. 37°42'07"N, 125°46'32"E |
| C. 37°43'47"N, 125°46'04"E | H. 37°42'32"N, 125°43'38"E |
| D. 37°41'40"N, 125°46'34"E | I. 37°41'44"N, 125°42'17"E |
| E. 37°41'45"N, 125°49'54"E | |

또 YMS-514艇은 海本작명 제239호를 수령하고 18일 12.00에 鎮海를 出航한 다음 이날 12.30에 椒島近海에 이르러 LSSL-108艇으로부터 椒島-一席島間의 경비임무를 인계받아 곧 경비항해에 突入하였다.

23일 : 이날에도 YMS-501, 502 兩艇이 延坪島 近海에서 각각 실시한 掃海區域은 다음과 같다.

YMS-501艇의 區域

- | | |
|----------------------------|----------------------------|
| A. 37°40'46"N, 125°38'16"E | C. 37°40'15"N, 125°31'00"E |
| B. 37°39'39"N, 125°31'00"E | D. 37°41'22"N, 125°38'50"E |

YMS-512艇의 區域

- | | |
|----------------------------|----------------------------|
| A. 37°42'27"N, 125°43'32"E | E. 37°45'38"N, 125°42'18"E |
| B. 37°43'26"N, 125°42'00"E | F. 37°43'56"N, 125°40'00"E |
| C. 37°44'15"N, 125°42'20"E | G. 37°41'52"N, 125°40'20"E |
| D. 37°45'29"N, 125°45'00"E | H. 37°42'00"N, 125°42'42"E |

26일 : PC-702艦은 YMS-518艇을 지휘하여 延坪島艦域을 순찰함해하면서 경비임무를 계속하고 PCS-205艇은 喬洞島에서 YMS-514艇은 椒島—席島間에서 封鎖活動을 遂行하였으며 延坪島近海의 掃海作業은 YMS-501, 512 兩艇에 의하여 延일 계속되었다.

§ 參戰者의 證言

◇ YMS-501艇長 辛相大 대위

(1976. 4. 25 한일합성 총무이사실에서 증언, 예 준장)

당시 우리의 YMS艇은 "0" type의 Mine Sweeping Gear를 장치하여서 거의 Moored Mine(繫留機雷)만을 掃海하였으며 기타의 기뢰는 장비관계상 UN艦隊 즉 美掃海艇隊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我艦의 활동무대는 대부분 永興灣一帶로서 이곳은 가상 上陸戰이나 海岸砲臺의 공격, 艦砲支隊射擊을 많이 하였으므로 UN艦隊의 구축함이나 전함 등이 自由로 出入할 수 있도록 掃海作業을 계속하였으며 掃海도중 그들의 砲火에 의하여 掃海索을 切斷한 채로 彷徨할 때도 많았는데 이때는 UN艦隊의 지원사격을 받고 다시 掃海에 임하였으며 Smoke Screen 등의 회피기동도 실시하였다.

그들의 海岸砲는 虎島半島, 松田半島, 星羅里城北里, 葛麻半島 등에 위치하였다.

또 이곳에는 UN艦隊의 航母 艦載機의 출격이 많아서 간간이 麗島近海上에서 추락하는 경우가

있어 조종사들의 구조작업도 並行하였다.

艇長을 비롯한 全隊員들은 補給이나 기타의 지원이 매우 不足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掃海活動에 방해가 되는 敵의 海岸砲를 격파하기 위해 特攻隊를 組織하여 上陸할 것을 지원하였으나, 旗艦의 命숨이 없어 實行치는 못하였다. 그만큼 將兵들의 士氣는 奮進하였으며 이것이 오늘의 災厄을 가져온 밑거름이라 생각한다.

◇ PF-65艇長 崔孝鎭 중령

(1976. 4. 24 서울 海難심판원실에서 증언, 예 준장)

당시 PF艦은 UN艦隊의 輸送船에 대한 護送作戰이었는데 주로 Tanker, Oiler 등의 補給船이었으며 Saseho를 出航하여 元山近海에서 機動中인 제7艦隊의 航母等에 이르기까지 호송하고 永興灣에서 作戰中인 美艦이 補給次 경비해역을 이탈할 때는 代身 警비를 맡기도 하였다.

海上戰鬪는 그들의 艦艇勢力의 弱少로 말미암아 거의 없었고 특히 輸送作戰에 임한 本艦은 더욱 그러하였으며 海岸警備에서만 敵岸에 艦砲射擊을 실시하였다.

2. UN海軍의 活動(1953년 1월 1일부터
" 7월 27일까지)

참조: 상황도 제118호

(1). 지상군에 대한 지원작전(53. 6. 12~53. 7. 27)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제7함대 사령관	중장 Joseph. J. Clark	}	제1巡洋艦隊 사령관
제95기동부대 사령관			소장 Harry Sanders
소장 C. E. Olsen			

나. 전투전의 개황

1952년 10월과 11월에 熾烈한 전투가 지난 뒤 또 한해가 다가오자 前線에서의 作戰規模는 交綏狀態로 접어들어 小規模의 探索과 部隊交替만이 되풀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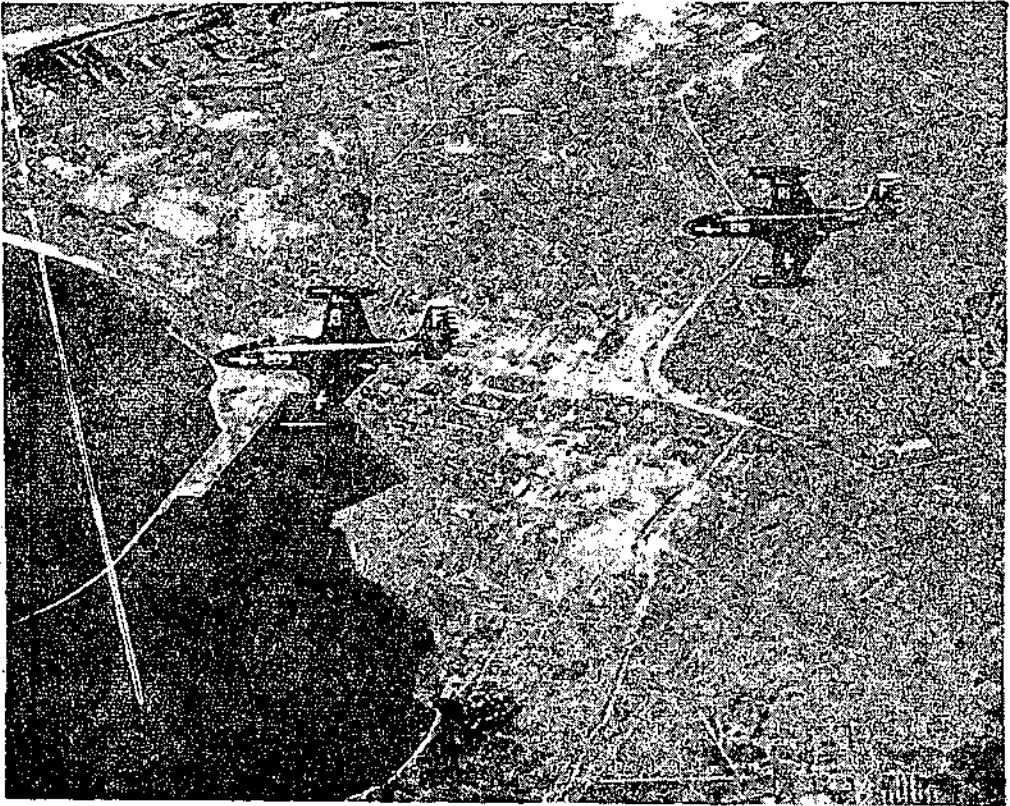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地上戰線과는 달리 UN海軍은 航空母艦의 艦載機를 동원하여 北韓에 있는 모든 산업 시설에 대하여 爆擊을 계속하였으니 즉, 52년 11월에 淸津과 吉州 및 鏡城等地와 기타 海岸에 沿한 鐵道施設과 工場 그리고 鑛山等を 強打한 것을 비롯하여 12월에는 會寧과 茂山 및 惠山鎭과 玄永等に 무려 350여회의 轟격을 敢行하였으며 53년에 들어와서도 年初부터 新義州를 비롯한 平壤과 元山一帶 및 韓滿國境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爆擊을 斷行하여 그들에게 莫大한 피해를 强要하였다.

그런데 敵은 解氷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탐색과 陣前偵察로 前線에 出沒하더니 월말에 접어들면서 休戰의 調印展望이 짙어지자 地上戰은 지난 겨울과는 달리 다시금 지난해의 高地爭奪戰을 彷彿케 하는 새로운 局面을 맞이하였다.

즉 中東部戰線에서 그네들은 美 제9군단 및 韓 제2군단의 地域으로 南下하여 지난해의 激戰場이었던 首都高地와 指形稜線 및 피의 高地 그리고 高城附近에 있는 月比山一帶의 要地인 △351等 주로 韓國軍이 담당하고 있는 地域으로 指向하여 도발을 再開하였다.

이렇게 中東部戰線이 그네들의 發惡의인 攻勢로 말미암아 友軍에 不利하게 되자 美 제8군 사령관 Taylor 大將은 極東艦隊에 艦砲 및 艦載機의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제7함대 사령관 Clark 中將은 6월 6일 제77기동부대와 제95기동부대에 戰線



<艦載機隊가 興南을 空襲키 위해 비행하고 있다>

을 지원토록 명령하였다.

특 제77기동부대의 航空母艦 Boxer號와 Lake Champlain號 그리고 Philippine Sea號 및 Princeton號 等 4隻을 비롯하여 戰艦 New Jersey號를 선두로 巡洋艦, 驅逐艦 等이 高城 前洋에 집결하여 49일동안의 作戰을 전개하였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地上戰에서 寸土를 다투는 激突이 계속되자 그네들의 攻勢를 좌절토록 하기 위하여 UN 海軍의 全航空母艦과 砲艦은 前線에 沿한 東海에 집결하여 休戰이 調印되는 날까지 艦砲 射擊과 空中爆擊을 계속하였다.

제95기동부대의 旗艦인 New Jersey號를 비롯한 巡洋艦 Manchester, Bremerton號, Saint Paul號 等은 거의 매일 16"의 巨砲를 비롯한 各種 砲火로서 高地附近의 △351과 東部戰線을 強打하였다.

6월 14일과 15일에는 △351을 再奪還키 위하여 戰艦 New Jersey號와 巡洋艦 Saint Paul號의 호위 아래 4척의 航空母艦이 각각 300회와 403회의 출격을 戰線에 斷行하였으며 New

Jersey號의 艦砲射擊으로 얻은 戰果만도 塹壕 44個所가 完破되고 20個所가 大破되었으며 2個所의 동굴진지가 폐쇄되고 交通壕 600m가 폭파되었으며, 13個所의 砲陣地가 完破되고 기타 13個所의 目標物이 破損되었다.

또 航空母艦別로 양일간의 활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oxer號

艦長 : Marshall B. Gurney 대령

제1항공전대장 : L. A. Whitney 중령

6월 11일 : 이날 Boxer艦上을 發進한 艦載機隊는 中部戰線에 130회의 出擊을 斷行하였는데 近接航空支援은 매우 우수하였다.

戰果로는 交通壕 450m와 迫擊砲陣地 15個所를 파괴하였으며 기타 12個所의 目標物도 함께 폭파하였다.

6월 14일 : 이날 131회의 出擊을 敢行하였는데 Jet爆擊機隊는 東部戰線의 △351 附近의 補給路를 强打하였으며 AD機隊는 東部戰線과 中部戰線의 主抵抗線上에서 近接支援活動을 전개하였다.

이날의 空襲으로 交通壕 1,480m와 迫擊砲陣地 8개소 및 對空砲陣地 9個所를 파괴시켰다.

6월 15일 : 이날은 지난 주에 喪失한 △351을 再奪還키 위하여 總反擊戰을 벌이고 있는 韓國軍 제1군단(장, 李亨根 소장)에 대하여 제77기동부대는 最大의 空襲을 加하였다.

즉 147회의 출격으로 600m의 交通壕와 3個所의 砲陣地, 7個所의 迫擊砲 陣地 및 73個所의 建物을 炎上토록 하였는데, 이날의 爆擊에 대하여 美제8군 사령관과 제7함대사령관, 그리고 제77기동부대 사령관, 태평양 함대사령관, 극동함대 사령관 등으로부터 致賀의 電文이 있었다.

Lake Champlain號

艦長 : George T. Mundorff 대령

제4航空戰隊長 : John Sweeny 중령

6월 15일 : 이틀전에 太平洋艦隊로부터 東海로 配屬된 Lake Champlain號는 이날 147회의 출격으로써 Cherokee 爆擊地域에 散在한 補給地와 兵舍에 103ton의 爆彈을 投下하였다.

Philippine Sea號

艦長 : Paul H. Ramsey 대령

제9항공전대장 : T. D. Harris 중령

6월 15일 : △351을 奪取하기 위하여 同高地 주위의 目標物을 强打하였는데 이날의 爆擊으로 我地上軍은 14.00에 高地奪還에 成功하였으며 그 주위에는 敵의 遺棄屍體가 山積하여 처참한 光景이 펼쳐졌고 Philippine Sea號의 조종사들은 이곳을 지옥의 계곡이라 칭하였을 만큼 이날의 爆擊은 그 규모가 컸었다.

Princeton 號

艦長 : O.C. Gregg 대령

제15航空戰隊長 : John E. Parks 중령

14일부터 계속된 이틀간의 空襲은 航母의 出擊記錄을 깨뜨리고 172회와 184회에 達하였으며 中東部戰線에서 數 많은 敵陣을 强打하였다.

以上과 같이 6월 14, 15 兩일에 제77기동부대는 각각 300회와 403회의 出격기록을 수립할 정도로 △351에 出動하여 敵陣을 파괴하였으며, 이날 16.00에 韓國軍 제15사단(장, 白仁燁 소장)은 高地頂上을 정복하였다.

이틀간에 걸친 UN艦隊의 艦砲와 艦載機의 爆撃으로 友軍이 高地을 점령하는 데에는 激의 손실이 3,000명의 推算된 데 比하여 韓國軍 제1군단은 200명이 戰死하고 300명이 負傷하는 損失을 보았으며, 제1군단(장, 李亨振 소장)은 UN艦隊의 支援없이는 不可能하였을 것이라고 申訴하였다.

그러나 제15사단의 不充分한 補給과 實戰經驗이 적은 部隊員의 構成으로 인하여 16일밤 △351은 다시 敵의 掌中에 넘겨지게 되었다.

이후 敵은 그네들의 被害로 말미암아 더 이상 侵攻을 계속하지는 못하였다. 이어서 또 다른 中共軍 제60, 67, 68군은 韓國軍 제2군단 지역으로 侵攻하였으며 首都師團이 이들을 맞아 싸우고 있는 동안 제77기동부대의 艦載機隊는 7월 14일까지 이곳에 爆撃을 집중하였다.

航空母艦 Lake Champlain號는 7월 15일 氣象의 惡化에도 불구하고 23회의 出격을 기록하면서 中東部戰線에서 싸우고 있는 美地上軍을 위하여 근접항공지원을 提供하였다.

이날의 空襲으로 그들의 彈藥庫를 비롯한 5個所의 目標物이 完破되는 戰果를 挙우었다.

또 航空母艦 Boxer號를 떠난 艦載機隊는 7월 16일 金化—鐵原 부근에서 作戰中인 美 제9군단(장, Jenkins 중장) 지역에서, Cherokee 爆撃隊는 35個所의 防空據와 20個所의 塹壕 및 360m의 交通線을 파괴하고 砲陣地 1個所를 격파하였으며, 다른 Panther Jet機隊는 트럭 8대를 파괴하고 橋梁 5個所를 切斷하였으며, 補給地域도 함께 爆破하는 등 總計 111회의 出격을 감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休戰이 될 때까지 계속된 UN 海軍의 空襲은 中共軍의 補給路와 橋梁에 대하여 多量의 損害를 與하였으며 出격회수만도 7월 24일에는 598회, 25일에는 608회, 26일에는 649회에 이르고 있으며 休戰前의 마지막 2週日間에 총 出격회수는 7571회에 달하였는데 大部分이 前線에 出격하여 分界線을 일단 고정시키자는 것이었다.

이달 19일, 그네들의 攻勢도 주춤하여졌고 我軍의 反擊도 다소 감소되었다.

休戰이 正式으로 調印되던 27일에도 前線은 如前하였으며 제77기동부대의 艦載機隊는 23個의 列車과 11個所의 鐵橋를 파괴하였으며 Tunnel 1個所와 建物 69棟, 90m의 交通線

및 9個所의 橋梁을 爆破하였으며 鐵路 40여 個所 및 高速道路 3個所도 파괴되었다.

純空母艦 Boxer號는 이날 77회의 출격을 실시하여 정찰, 폭격, 차단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날밤 22.00까지도 F9F機는 咸興 西쪽에 있는 敵의 飛行場을 爆撃하였다.

또 航母 Lake Champlain號도 이날 124회의 출격으로 61ton의 爆彈을 北韓의 飛行場에 投下하였다.

海上에서 순양함 Saint Paul호(함장 C.W. Parker 대령)는 27日 21.59에 最後의 砲擊을 加하였으며 元山灣의 島嶼群에서는 守備軍들이 撤收를 위해 陣地를 파괴하는 등 부산하였다 으며 前線에서도 차츰 정적만이 밤을 휩싸는듯 하였다.

(2) 元山港의 封鎖作戰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제 202 驅逐艦隊 사령관 대령 A.L. Shepherd (1. 10 까지)	제 3 驅逐艦隊 사령관 대령 J.C. Woelfel (4. 21 까지)
제 172 驅逐艦隊 사령관 대령 C.E. Bull (1. 23 까지)	Gurke 艦長 중령 Edward F. Foote (4. 23 까지)
제 9 驅逐艦隊 사령관 중령 R.J. Ovron (2. 23 까지)	Brush 艦長 중령 Donald F. Quigley (5. 15 까지)
제 72 驅逐艦隊 사령관 대령 L.C. Conwell (3. 21 까지)	제 52 驅逐艦長 사령관 중령 A.L. Gebelin (5. 21 까지)
제 282 驅逐艦隊 사령관 대령 Dale Mayberry (4. 3 까지)	제 7 驅逐艦隊 사령관 대령 R.E. Myers (6. 15 까지)
제 92 驅逐艦隊 사령관 대령 H.G. Bowen, Jr. (4. 16 까지)	제 24 驅逐艦隊 사령관 대령 Jack Maginnis (7. 1 까지)
Shelton 艦長 중령 Stephen W. Carpenter (4. 20 까지)	제 7 驅逐艦隊 사령관 대령 R.E. Myers (7. 22 까지)
	제 11 驅逐艦隊 사령관 대령 Carl M. Dalton

나. 전투전의 개황

1951년 2월부터 시작된 元山港의 封鎖作戰은 休戰이 시작되는 이해 7월까지 계속되었다. 數 많은 UN 海軍의 艦砲射擊과 艦載機의 爆擊으로 元山一帶의 砲陣地, 輸送路, 建物, 産業施設이 파괴되었으나 여전히 그들은 復舊作業으로 兵力을 投入하면서 砲陣地를 증설하여 UN 艦艇을 격침시키거나 驅逐키 위해 안간힘을 다하였다.

이러한 元山港의 封鎖作戰은 이곳을 계속 強打하여 그들의 人점부대로부터 孤立시키고 港灣內에 散在한 島嶼群을 확보하여 장차는 地上軍이 北進할 때에 海上의 重要한 兵站線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니 51年 6月에는 이미 麗島를 비롯한 薪島—大島—黃土島—沙島—茅島—熊島等을 友軍이 占領하였다.

元山港은 東北海岸의 戰略的인 要地로서 干滿의 差가 積고 480m에 달하는 넓은 해변이 다름가 大小島嶼로 둘러싸여 自然的인 避航地이며, 또한 不凍港이며 6~8fathom의 水深에다 海底는 鰓로 되어있어서 錨泊에도 適地인 天然의 要塞이다.

또 여기는 鐵路와 陸路의 中心地로서 北韓의 南北을 연결하는 關鍵이 되었으며 産業施設으로는 年間 2,000,000Barrel을 生産하는 精油工場과 列車操車場等이 市內外에 위치한 關係로 이곳은 UN艦隊의 主要한 目標物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곳을 공격하기에는 많은 위험과 장애가 있으니 이곳은 사진분석에 의하면 1,000 個所 以上の 砲台가 설치되어 있고 海域에는 機雷가 부설되어 있는데, 韓·美海軍이 合同으로 連日 掃海作業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들도 계속하여 기뢰를 부설하였으며 島嶼群을 포함한 장애가 많아 造艦하기에 難點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이곳을 공격하기에 어려움도 많았으나 이 作戰을 逐行케 되면 利點도 많았으니 첫째, 이곳을 攻陷하게 되면 그들도 自體防禦를 위해 戰線으로 投入할 수 있는 많은 兵力을 殘留시키게 되므로 間接的으로 我地上軍을 돕게 되며 둘째, 元山洋을 掃海하게 되면 常時로 港內로 出入하여 艦砲射擊을 加할 수 있고 地上軍이 元山 以北으로 進軍할 때에는 海上兵站線을 확보하게 되며 셋째, 이곳이 交通의 要地이므로 여기를 공격하게 되면 敵은 補給輸送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며 기타의 要因으로서는 그들의 重要한 港口가 폐쇄되고 그들의 情報를 탐지할 수 있고 我艦隊와 艦載機의 避航地로서도 利用될 수 있으며, 敵에게 주는 커다란 心理效果로 함께 노린 것이다.

이리하여 51년 2월 12일 제3掃海戰隊의 港灣掃海區域을 通하여 航進한 제112 驅逐艦 封鎖單隊(사령관, B.F. Roeder 대령)의 驅逐艦 Wallace L. Lind號(DD-703장, E. B. Carlson 중령)와 Ozbourn號(DD-846장, C. O. Akers 중령)가 처음으로 元山을 向하여 砲門을 열면서 이 作戰은 開始되었다. 그러나 좁은 掃海完了海域으로 인하여 機動이 自由롭지 못한 砲艦들은 곧잘 그들의 海岸砲火로 被害를 當하기도 하였으므로 우선적으로 島嶼

를 점령하여 敵陣을 砲擊할 수 있는 관측소를 확보키로 한 UN艦隊는 51년 2월 24일 4척의 驅逐艦이 薪島에 艦砲支援을 加함으로써 韓國海兵 210명이 上陸하는 것을 계기로 6월까지 는 기타의 島嶼를 탈취하여 艦砲射擊의 교두보를 구축하였다.

그러자 敵은 海上의 氣象이 惡化될 때마다 Sampan船을 利用하여 機電를 부설하고 對艦 射擊도 증가시켰다.

그러나 UN軍은 51년 中半期부터 제77機動部隊의 艦載機와 제5空軍의 爆擊機 및 美海兵 航空隊等の 空中支援으로 元山一帶를 焦土化시켰으나 그들의 復舊作業 또한 놀랄만큼 신 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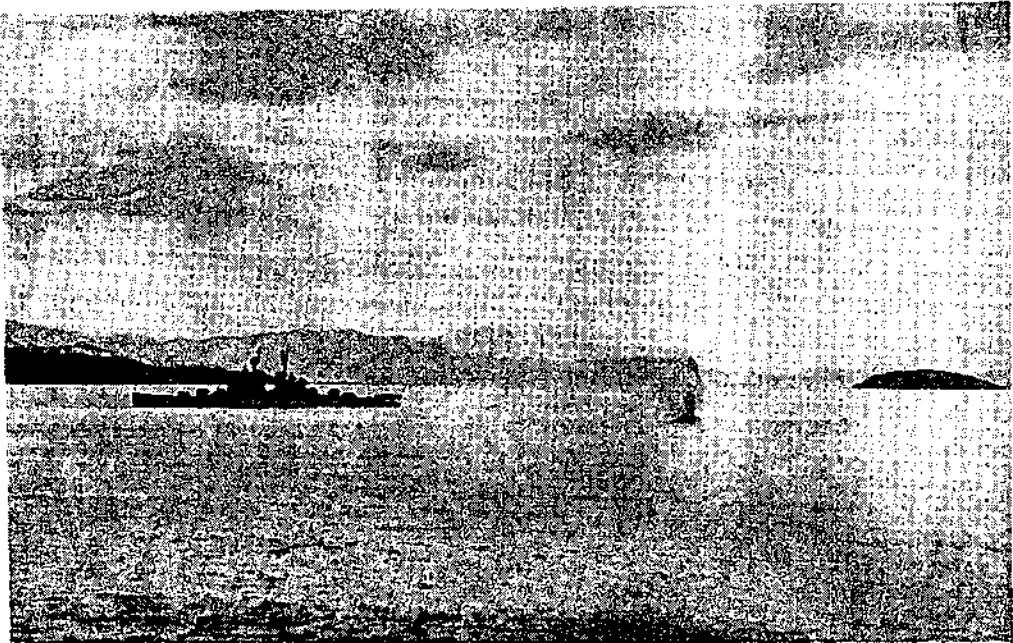
52년에 와서 美掃海戰隊의 활약으로 元山港內의 掃海完了區域이 넓어지게 되자 그만큼 UN封鎖艦隊의 活動도 증가하였다.

이리하여 더욱 더 많은 그들의 兵力이 元山港의 自體防禦를 위해 投入되었으니 일단 地上軍에 대한 間接的인 支援이 실현된 셈이었다.

다. 작전경과의 개요

53년 1월, 元山海域에서는 驅逐艦 De Haven號와 Samuel N. Moore號가 當直艦으로서 활약하였다.

이때부터 休戰이 시작될 때 까지 港內를 둘러싼 UN封鎖艦隊의 砲擊 및 경비 그리고 掃海戰隊의 活動에는 큰 變化가 없었으나 그들은 UN艦隊를 驅逐키 위하여 더욱 많은 兵力



<순양함 Manchester호가 黃土島近海에서 機動하고 있다>

을 投入하고 砲陣地의 구축을 增強하였다.

지난 51년 2月부터의 封鎖作戰으로 말미암아 莫大한 피해를 입은 敵은 이제 단 한척의 艦艇이라도 격침시킴으로써 封鎖作戰에 대하여 보복하려고 血眼이 된 듯하였다.

따라서 休戰이 가까워지게 되자 이제까지 備蓄하였던 彈藥을 封鎖艦隊를 향해 퍼붓기 시작하였다.

즉 2월부터 증가한 그들의 砲擊回數는 이해 4월에는 1,600회, 5월에는 1,300회, 6월에는 1,100회에 달하였으며, 그 半 以上을 封鎖艦隊에 대하여 나머지는 麗島를 비롯한 友軍이 支配하는 島嶼를 目標로 하였다.

특히 簡易滑走路가 설치된 麗島에는 매일 200~300회의 砲擊을 加하는 것이었으나 島嶼 駐屯부대의 활동을 방해하지는 못하였다.

그들의 砲陣地는 虎島半島와 麻葛角 牛尾島對岸의 蛤津里外에도 여러 곳에 구축되어 있었는데 USSR 海軍의 107mm와 90mm砲가 相當數인 것으로 分析되었다.

麗島를 비롯한 各島嶼의 駐屯부대에 대한 補給도 FS-type의 輸送船과 서울에서부터 날아오는 C-47輸送機였으며 그네들의 砲擊으로 FS艦艇이 被擊되기도 하였다. 麗島에서의 가장 큰 損失은 5월에 있었는데 彈藥庫의 作業中에 직격탄이 命中됨으로써 45분간 불타으나 人命의 損失은 없었다.

그들의 射擊術이 점차로 熟達되고 命中率이 다소 向上되었으므로 艦艇들도 더욱 경계를 강화하고 그들의 射程이 미치는 海域에서의 航海를 피하게 되었다.

4월부터 6월까지 매달 5차례씩 封鎖艦隊는 被擊되었는데 4월 2일 巡洋艦 Los Angeles 號가 가벼운 損失을 보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경비중인 驅逐艦이었으며 艦艇의 外部破損만으로서 人命의 損失은 극히 드물었다.

驅逐艦 Maddox號(장, Preston B. Haines, Jr 중령)는 4월 16일에 主甲板에 命中되어 3명의 死傷者를, Keys號(장, R.A. Thacher 중령)는 4월 19일에 9명의 死傷者를 各各 내는 損失을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5월 5일 戰艦 New Jersey號는 巡洋艦 Bremerton號와 驅逐艦 Twining號 및 Colahan號와 合勢하여 115회에 달하는 艦砲射擊을 加하였다.

New Jersey號의 처음의 Salvo彈(自動裝置에 의하여 全砲門이 一濟히 發射되는 艦砲)이 그들의 관측소를 명중시키자 他艦의 16"를 비롯한 砲火가 虎島半島 砲陣地의 콘크리트 彈藥庫를 불태우고 砲臺를 둘러싼 둥굴을 完破하였으므로 虎島半島의 敵은 3주일 동안이나 침묵을 지키게 되었다.

또 7월 11, 12 兩일에 걸쳐 제차로 虎島半島에 164회에 걸친 砲擊을 加하자 砲陣地는 休戰時까지 完全히 再起不能이 되었다.

또한 封鎖艦隊도 5월 15일에 驅逐艦 Brush 號가 9명의 損失을 당하였으며 6월 11에는

Wiltsie艦(장, C.W. Brigham 중령)이 105mm砲에 피격당하고 6월 14일에는 巡洋艦 Bre merton號가 4發의 命中彈의 세례를 받기도 하였다.

6월 15일 Lofberg號(장, R.W. McElrath 중령) 및 John A. Bole號(장, M.H. Buas 중령) 掃海艦 Current號가 그들의 공격을 받았으나 命中彈은 없었다.

6월 17, 18 兩일에도 驅逐艦 Henderson號와 巡洋艦 Saint Paul號가 被彈을 보았으며, 驅逐艦 Irwin號는 主甲板에 명중탄을 받아 5명이 死傷되었으며, 最大의 損失은 驅逐艦 Rowan號(장, A.R. Josephson 중령)였는데 45發中 5發이 命中되어 右舷에 60mm의 구멍을 내고 MK34 Radar가 파괴되었으며 9명이 負傷을 입었는데 그 중 2명은 重傷이었다.

이렇게 줄기찬 그들의 砲擊으로 6월과 7월에는 封鎖艦隊가 약간의 損失을 보았으나 이에 屈하지 않고 공격을 늦추지 않았다.

7월 7일에는 驅逐艦 Wiltsie號와 掃海艦 Symbol號가 艦砲射擊을 감행하였으며, 驅逐艦 Lofberg號(R.W. McElrath 중령) 및 John Y. Thomason號, 그리고 Hamner號도 함께 참가하였는데 모두 가벼운 外部損傷을 입었다.

7월 11일에도 巡洋艦 Saint Paul號는 艦砲射擊을 실시하면서 元山港의 各砲陣地를 強打하다가 敵彈에 의하여 3"50砲臺가 파괴되었으나 人命의 損失은 없었다.

7월 23일에도 全封鎖艦隊의 砲門은 元山을 指向하여 集中되었으며 敵의 發惡的인 反擊은 無爲로 끝나고 말았다.

결국 元山の 敵 砲兵部隊는 UN 海軍의 艦艇을 擊沈시키거나 驅逐하는 데에 모두 失敗하고 만 셈이었다.

7월 27일로, 도합 861일 동안 계속되어 온 港灣封鎖는 끝나고 麗島를 비롯한 島嶼群에서 駐留中이던 友軍은 要塞를 파괴하고 兵力과 장비는 모두 철수하였다.

마지막날까지도 巡洋艦 Bremerton과 驅逐艦 Wiltsie號와 Porter號는 敵岸을 向하여 Salvo 彈을 퍼부었다.

라. 전투후의 개황

元山港의 封鎖作戰은 美海軍의 끈질긴 勇氣와 忍耐를 보여준 표본이었다.

이 作戰의 매듭으로 輸送網과 産業의 본거지로서 人口 100,000을 자랑하던 元山은 半으로 人口가 줄어들고 都市는 廢墟化 되었으니 市街地만 하더라도 성한 建物は 거의 눈에 띄지 않았으며 數 많은 工場群은 地下로 매장되었다.

또 이 작전은 그네들의 海岸砲와 機雷의 방해와 造船하기에 매우 不適한 海上狀態를 극복하고 作戰을 遂行하여 그들 前線의 強化를 막는데 寄與하였음은 오로지 UN海軍의 赫赫한 功勞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對 空 戰

이해 5월에 敵은 蘇製訓練機를 利用하여 戰線以南에 空襲을 加하는 대담한 作戰을 구사하였다.

敵機의 機種은 YAK-18과 PO-2였으며 한 두개의 爆彈을 싣고 짙은 어두움을 利用하여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도록 低空飛行으로 南下하여 前線이나 首都上空에서 爆彈을 投下하는 것이었다.

그네들의 空襲으로 인한 피해는 대단하지 않았으나 心理的으로 我軍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큰 것이었다.

5월 3일, YAK編隊가 美 제10군단과 韓國군 제1군단지역에서 9개의 爆彈을 投下하였으나 損失은 없었다.

5월 26일과 27일 밤에도 PO-2編隊가 金浦(K-14)飛行場을 奇襲하여 100LBS 爆彈 4개와 50LBS 8개를 投下하여 送油管을 爆破하였으며 6월 2일 밤에는 烏山飛行場(K-6) 上空에 出現하였다는 警報에 接하였는데 이것은 K-6에 駐屯하고 있는 戰鬪機에 대한 直接的인 威脅이 되었다.

6월 8일 밤에도 9대가 서울 上空으로 侵入하여 2명이 死亡하고 8명이 負傷당하였다는 紙上報道가 있었으며 그중 하나는 大統領官邸에서 불과 400YDS 떨어진 곳이었다. 이것은 李大統領으로 하여금 伏戰會談을 찬성토록 하자는 敵의 兇計임이 밝혀졌다.

또 6월 16일 밤에는 15대의 敵機가 仁川市 近處에 있는 石油貯藏所를 爆擊하여 52,000 G/L의 石油를 불태웠다.

이렇게 하여 서울에만 도합 5회에 걸친 침입을 보게 된 셈이었다.

이리하여 제5空軍과 美海兵航空隊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論議하였으나 100KTS의 低速인 敵機를 격추시키기에 適當한 速力과 장비를 갖춘 機種이 없었다.

제5공군과 美해병이 보유한 F-94機와 F3D機는 그렇게 낮은 速力을 낼 수가 없었으며 더욱기 훈련기인 T-6機조차도 適合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敵機의 侵入狀況을 보고 받은 제7함대 사령관 J.J. Clark중장은 이번 사건이야말로 海軍의 艦載機가 임무를 完遂할 수 있을 것이라고 判斷을 내린 다음 제1航空母艦隊의 作戰參謀 John P. Conn중령에게 지시하기를 F4U5N Corsair 夜間戰鬪機를 제5空軍에 派遣토록 명령하였다.

航空母艦 Princeton號를 離陸한 4대의 Corsair戰鬪機는 K-8(群山飛行場)로 配屬되어 約3週間に 걸친 地形訓練을 실시하였으며 이어 6월 29일 밤 Guy P. Bordelon 대위의 編隊는 2대의 敵機를 보기 좋게 격추시켰다. 그리고 다음날 밤에도 2대를 격추시키자 제7함대

사령관은 Bordelon 대위에게 Silverstar Medal을 수여하였다. 7월 17 밤에도 艦載機編隊는 1대를 더 격추하였으며 이로써 敵機의 來襲은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4) 其他海上活動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극동함대 사령관 중장 Robert.P. Briscoe
제 7 함대 사령관 중장 Joseph.J. Clark
제 77기동부대 사령관
소장 R.F. Hickey
(53. 1. 1~53. 1. 4, 1. 22~2. 11, 3. 15~3. 29,
4. 11~4. 22)
소장 A. Soucek
(1. 4~1. 22, 2. 11~3. 15, 3. 29~4. 11, 4. 22
~5. 15)
소장 W.D. Johnson
(5. 15~6. 4, 6. 14~6. 27, 7. 14~7. 27)
소장 R.E. Blick
(6. 4~6. 14, 6. 27~7. 14)
제 95기동부대 사령관
소장 J.E. Gingrich
(2. 12까지)
소장 C.E. Olsen

항공모함 Essex함장
대령 W.F. Rodee
Kearsarge 함장
대령 T.E. Clark
Oriskany 함장
대령 Paul H. Ramsey
Valley Forge 함장
대령 T.E. Dixen
Philippine Sea 함장
대령 Paul H. Ramsey
Princeton 함장
대령 W.R. Hollingsworth
(5. 17 까지)
대령 O.C. Gregg
Boxer 함장
대령 M.B. Gurney
Lake Champlain 함장
대령 G.T. Mundorff

나. 전투경과의 개요

해가 바뀌면서 地上軍의 戰線은 彼我が 現戰線을 유지하면서 探索活動만이 거듭되었다. 그러나 UN海軍은 東西 兩海域에서 敵後方을 攪亂키 위해 輸送網을 파괴하고 海岸砲臺地를 粉碎하는 등 분주하게 作戰任務를 遂行하였다.

즉 戰線을 中心으로 하여 近接支援과 Cherokee 地域에서의 爆撃과 元山港을 둘러싼 封鎖活動 및 掃海作戰 그리고 各級輸送活動이 그러하였다.

이해 初부터 3월까지 UN海軍의 艦載機隊는 新義州—平壤—元山等地에 出擊하여 産業施設을 파괴하였으며 4월 下旬부터 咸興附近을 強打하는 것을 선두로 하여 5월 10일에는 水豐댐을 제차 強襲하여 이곳을 폐허로 만들었으며 5월 3일에는 平壤 北쪽 20mile에 있는 戰略目標인 德山貯水池를 잇달아 격파하고 이어 5월 15~16일에는 楚山댐을, 21~22일에

는 舊院里섬을 각각 爆破하여 敵後方을 攪亂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편 이해 4월부터 西海의 海州半島와 椒島—席島를 中心으로 한 海域에서는 英航母 Glory號와, New Castle號를 비롯한 各級艦艇이 海岸을 封鎖하고 對岸에 함포사격을 실시 하였는데 特히 月沙里半島에 있는 敵의 海岸砲臺를 이 무렵의 艦砲射擊으로 完全히 침묵 케하였으며, 5月 下旬에는 기타 海岸砲臺를 격파하기 위하여 東海로부터 戰艦 New Jersey 號가 出動하기도 하였다.

한편 6월부터 戰線一帶에는 東海의 제77기동부대의 艦載機隊가 連日 出擊을 斷行하여 地上軍을 지원하였으나 休戰이 시작되는 7월 27일까지도 砲擊과 空襲이 계속되었다.

戰艦 New Jersey號를 선두로 하여 重巡洋艦 Saint Paul號 및 Bremerton號와 輕巡洋艦 Manchester號 및 12隻의 驅逐艦이 6~7월에 射耗한 砲彈數은 5"砲彈이 13,000발, 8"砲彈이 2,800발, 6"砲彈이 700발, 16"砲彈이 1,774발에 達하였다.

開戰初부터 이미 制海權을 장악한 UN 海軍의 活動은 東西 兩海域에서의 惡天候와 敵의 海岸砲 및 機雷의 敷設로 말미암아 다소의 방해를 받기도 하였으나 始終一貫하여 戰場의 前後方에서 그 威勢를 떨쳤던 것이다.

이래 7월 27일 22.00를 期하여 共產側과 UN側의 休戰會談의 調印이 發効함으로써 37개월 2일간에 걸친 戰禍가 일단 끝나고 西海의 臨津江으로부터 鐵의 三角地帶를 지나 高城에 이르는 休戰線의 出現을 보게 되었고 그 동안의 UN 海軍活動을 主要項目에 따라 曆日順으로 摘記하면 要旨는 다음과 같다.

1월 2일 UN艦隊의 艦砲 및 艦載機隊는 이날 東北海岸에 沿해있는 軍事目標物을 강타하였다.

6일 : 戰艦 Missouri號 및 英巡洋艦 Birmingham號와 英航母 Glory號가 合勢한 艦砲 및 航空作戰은 이날 海州半島의 敵砲陣地를 격파하였다.

25일 : 英航母 Glory號의 艦載機隊는 海州 北쪽의 敵陣을 空襲하여 그들의 指揮所 2個所와 兵舍를 파괴하였다.

또한 東海에서는 美重巡洋艦 Rochester號가 高城 南쪽의 敵補給陣地 및 壘壕에 함포사격을 加하여 21個所를 격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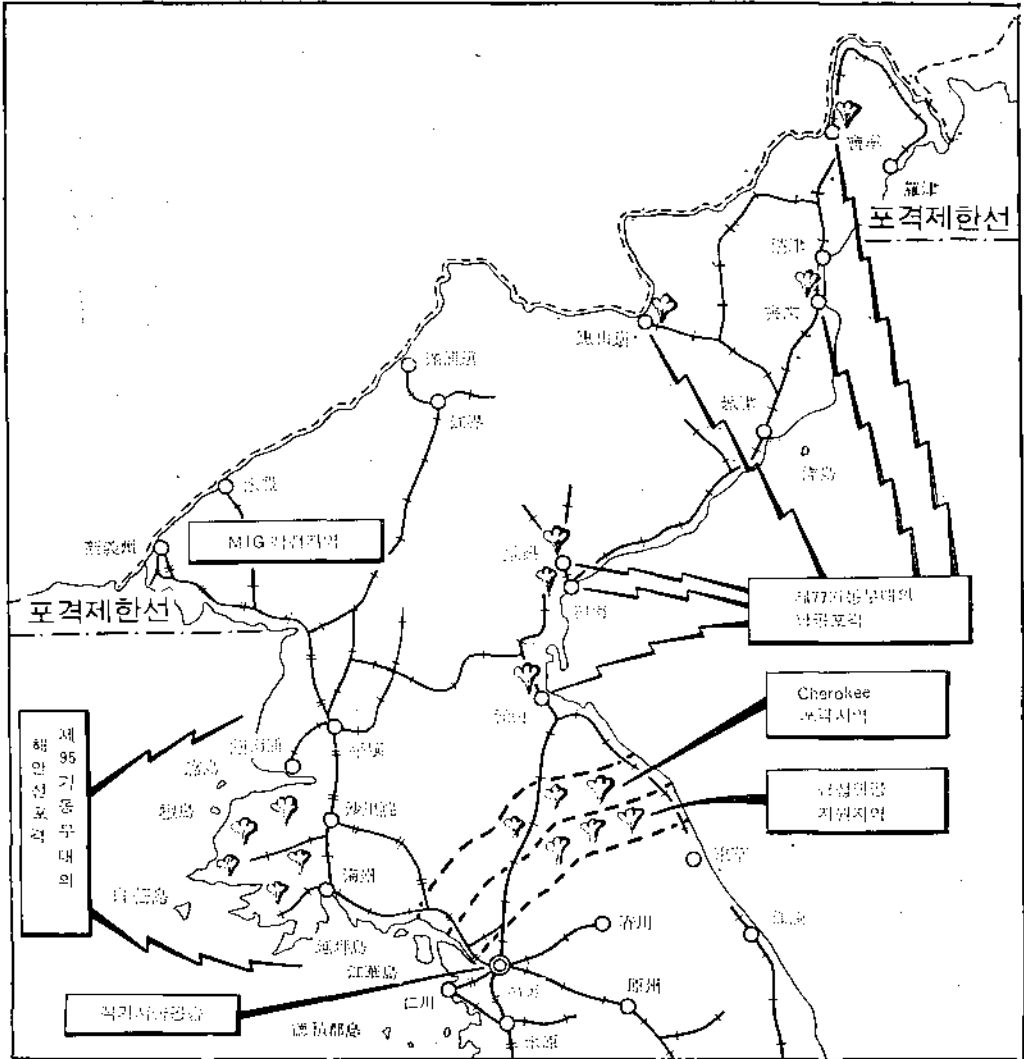
27일 : 美戰艦 Missouri號는 이날 3시간 동안이나 16" 및 5"砲擊을 淸津港에 집중하였다.

2월 3일 : 제77機動部隊의 艦載機隊는 이날 城津—元山—吉州 等地의 海岸에 있는 敵의 補給施設을 強打하였다.

10일 : 제77기동부대의 航空母艦으로부터 發進한 艦載機隊는 이날 會寧地區의 敵補給路 및 施設物과 鐵路를 爆擊하였다.

12일 : 戰艦 Missouri號를 비롯한 제77기동부대는 이날 元山을 目標로 艦砲射擊과

◇ 상황도 제115호 UN海軍의 活動(53.1.1~7.27)



空中爆撃을 加하여 輸送路와 砲陣地等을 强打하였다.

13일 : 이날밤 海上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視界가 不良하여 艦載機가 出擊하기에는 매우 不利한 條件이었으나 Valley Forge號를 떠난 VC-35艦載機(조종사, W.C Griese 소령)는 咸興 南쪽 20mile에 있는 海岸에 沿한 高速道路를 따라 南下하는 車輛群을 발견하자 즉각 爆撃을 加하였다.

이날의 氣象을 逆用하여 敵은 安心하고 油類運送車輛을 출발시킨 것인데 10輛中 7輛은 全破되고 3輛은 破損되었으며 이날밤 내내 이곳은 火염으로 뒤덮였다.

17일 : 제 77기동부대의 航空母艦을 떠난 300臺의 艦載機隊는 元山港을 中心으로 東北海

岸 一帶에서 그네들의 各種 軍事施設을 炎上케 하였다.

21일 : 航空母艦 Valley Forge號를 떠난 VF-54航空隊(장, Henry J. Suerstedt, Jr.)의 AD機 6대는 이날 美 제9軍團(장, Jenkins 중장)의 正面에 위치한 敵陣을 強打하였다.

敵이 계속 깊숙히 은폐하자 地上軍은 砲兵支援을 加하지 못하게 되어 艦載機의 출격을 요청하였는데 이날 1,500LBS의 爆彈을 投下함으로써 16個所의 塹壕가 파괴되고 2個所의 塹壕가 격파되었으며 많은 戰鬪要員을 殺傷하였다.

24일 : 戰艦 Missouri號는 이날에도 元山港의 各種 海岸砲陣地를 目標로 艦砲射擊을 加함으로써 그들에게 침묵을 強要하였다.

25일 : 戰艦 Missouri號 및 驅逐艦隊는 이날 元山을 비롯한 東北海岸線을 強打하여 그들의 시설물 15個所를 파괴하였다.

28일 : 重巡洋艦 Los Angeles號는 이날 元山港의 葛麻角 및 虎島半島에 있는 海岸砲와 後方의 補給施設을 目標로 全砲火力을 집중하여 敵陣을 震駭하는 바 컸었다.

3월 4일 : 巡洋艦 Los Angeles號는 이날에도 元山の 彈藥貯藏所를 砲擊하였다.

5일 : 戰艦 Missouri號는 이날 元山海岸을 砲擊하고 제77機動部隊의 艦載機隊는 長津의 第一發電所를 爆擊하였다.

6일 : 戰艦 Missouri號는 이날도 계속하여 元山港을 目標로 艦砲射擊을 계속하였으며 驅逐艦 Laws號는 興南近海에서 제77機動部隊의 艦載機隊를 지원하면서 海岸線에 沿한 鐵路에 대하여 함포사격을 加하였다.

11일 : 驅逐艦 Trathen號는 이날 遮湖 부근에 있는 鐵路에 포격을 加하여 南行中인 貨車數輛을 파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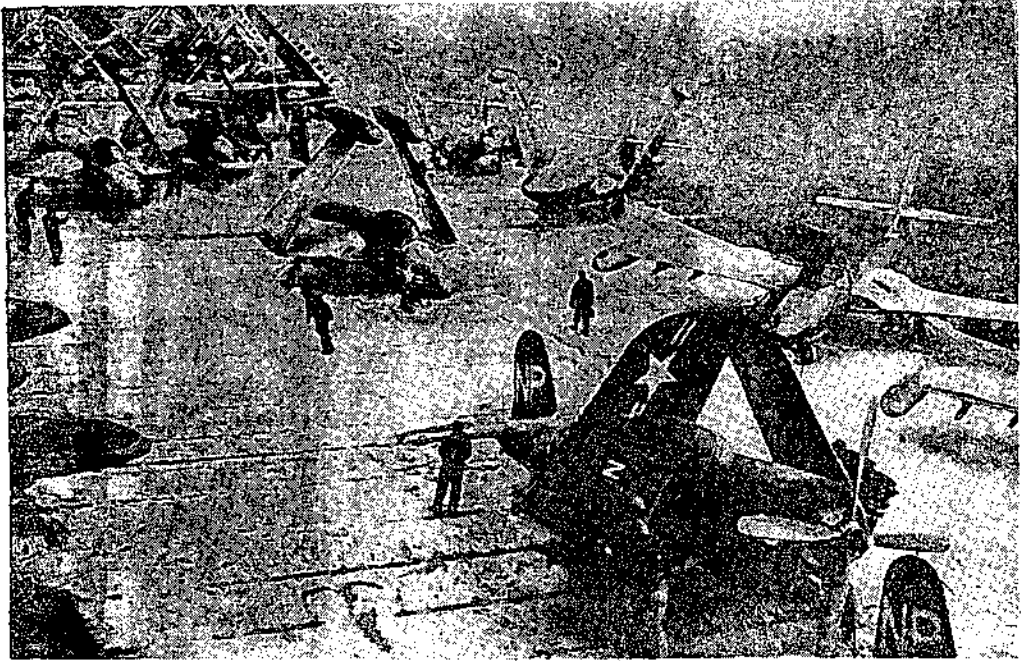
22일 : 戰艦 Missouri號와 巡洋艦 Los Angeles號 그리고 驅逐艦 Halsey Powell號 등은 이날 아침 元山港을 目標로 대대적인 艦砲射擊을 加하였다.

23일 : 英航母 Glory號의 艦載機隊는 이날 海州—松禾를 잇는 補給路에 66회의 출격을 감행하면서 目標物을 爆擊하였다.

27일 : 城津海域에서 활동 중인 航母 Oriskany號에서 發進한 艦載機隊는 完강한 對空砲가 설치된 咸興附近의 國道橋梁을 切斷하는 한편 元山, 城津等地的 發電所 및 軍事基地도 함께 爆擊하였다.

4월 1일~5일 : 驅逐艦 James E. Keys號(함장, R.A. Thacher 중령)는 遮湖近海에서 海岸列車破壞를 위하여 機動中 1일에는 제5空軍의 B-26戰爆機를 유도하여 有蓋貨車 7輛을 파괴하였으며 4일에는 馬養島近海에서 艦砲射擊을 加하였으나 그 戰果는 확인되지 않았다

13일 : 航空母艦 Philippine Sea號와 Oriskany號의 艦載機隊는 이날 淸津港을 目標로 119회의 출격을 감행하면서 輸送網을 비롯한, 鑛山, 工場地帶를 強打하였으며 戰艦 New Jersey號도 2隻의 驅逐艦과 合同으로 이곳에 艦砲射擊을 加함으로써 同港一帶는 이



〈항공모함 Essex號의 甲板에서 대기중인 艦載機〉

날 저참한 불바다로 변하였다.

4월 15일 : 지난 11일 洋島近海에서 沿岸의 鐵路遮斷에 任하고 있던 驅逐艦 Crusader號는 이날 04.00부터 端川南쪽에서 南行하는 軍用列車을 砲擊하였는데 同艦의 4.5" 砲擊이 시작되자 列車은 貨車를 分離시킨체로 기관차만이 터널 속으로 급히 피하였으므로 同艦은 즉시 제 77기동부대의 艦載機의 출격을 要請하였다. 이리하여 艦載機는 12.00부터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여 13.00에는 貨車와 기관차를 모두 격파하였으며 또 다른 列車을 2번이나 포격하여 그 運行이 不能토록 하였다.

19일 : 美驅逐艦 James E. Keys號는 이날 元山港을 向하여 艦砲射擊을 가하던 중 敵의 155mm海岸砲 60여발 中の 1발이 명중되어 9명이 死傷하는 損失이 있었다.

21일 : 航空母艦 Princoton號를 비롯한 Oriskany號를 離陸한 艦載機隊는 이날 223회의 출격을 기록하면서 東北海岸에 沿한 補給路 및 産業施設과 元山-北靑等地를 殲打하였다.

22일 : 驅逐艦 Crusader號는 이날 洋島로부터 戰線海域으로 移動하여 高城附近의 제 1군단지역에 함포지원사격을 실시하였다.

24일 : 驅逐艦 Crusader號는 이날 다시 遮湖近海에 이르러 遮湖에서 興南으로 向하는 軍用列車을 砲擊하여 기관차 1輛과 貨車 2輛을 파괴하였다.

26일 : 西海에서 활약중인 英航空母艦 Glory號는 이날 艦載機隊로써 開城附近의 補給物

集積所와 交通要衝地를 強打하였다.

5월 1일 : 美戰艦 New Jersey號는 이날도 元山港을 目標로 16"의 巨砲의 火力을 集中하였으며 戰果는 확인되지 않았다.

2일 : 이날에도 巡洋艦 Bremerton號를 비롯한 驅逐艦隊는 元山港의 海岸砲陣地를 目標로 함포사격을 加하였는 데 敵은 虎島半島의 砲陣地가 치열한 반격을 가해음으로써 DD-731 Maddox艦과 DD-536 Owen艦이 105mm 海岸砲에 각각 1發이 被彈되어 Maddox艦은 1명이 負傷되고 Owen艦은 다행히 人命損失이 없었다.

3일 : 이날 제77기동부대의 航空母艦 Valley Forge號의 艦載機隊는 楚山の 水力發電所를 爆撃하였다.

이곳은 12個所 以上の 重砲陣地와 37mm砲 30~40門이 對空射擊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날 03.00에 母艦을 떠난 3대의 AD機는 1,000LBS의 一般目的彈과 1,000LBS의 鐵甲彈을 적재하고 目標地로 向하면서 먼저 興南附近의 레이더施設을 強打한 다음 爆彈을 投下하였는 데 그들의 對空砲火에도 아랑곳없이 楚山上空에서 7分間에 걸쳐 爆破하고 損失 없이 歸艦하였다.

5일 : UN艦隊는 이날 惡天候를 무릅쓰고 元山前洋에서 海岸을 向하여 艦砲射擊을 加하고 元山港을 불바다로 만들었다.

이날 함포사격 도중 巡洋艦 Bremerton艦이 그네들의 135mm 海岸砲에 의하여 18發이 被彈되어 약간의 外部損傷과 2명의 死傷者를 내는 損失을 보기도 하였다.

5월 6일 : 戰艦 New Jersey號는 이날도 계속하여 元山港에 대하여 함포사격을 加하였다.

7일 : New Jersey號 및 巡洋艦 Bremerton號는 계속하여 元山港을 砲撃하였다.

8일 : UN艦隊는 이날도 짙은 雲霧를 무릅쓰고 元山港에 接近하여 砲撃을 계속하고 砲臺와 그밖의 군사시설을 파괴하였으며 美驅逐艦 S.N. Moore號가 그들의 70mm 海岸砲 1발의 被撃을 받았으나 人命의 損失은 없었다.

15일 : 元山港의 封鎖임무를 맡고 있던 美驅逐艦 Brush號는 70mm海岸砲 20發 中の 1발이 中甲板에 명중되어 9명이 死傷되었다

17일 : 驅逐艦 James E. Keys號와 Brush號는 庫底附近의 韓國軍과 交戰中인 敵陣을 目標로 함포지원을 실시하여 그들의 砲陣地 2個所를 격파하였으며 海岸의 敵 Sampan 14隻도 격침시켰다.

19일 : 美驅逐艦 Keys號와 Eversole號는 이날 遮湖近海에서 敵의 軍行列車가 運行하는 것을 발견하자 즉시 조명탄 128발을 投下하면서 418회의 5"砲撃을 加하여 이 列車을 完破하였다.

24일 : 巡洋艦 Bremerton號 및 Manchester號는 이날 元山港內의 깊은 海岸地帶로 突入하여 함포사격을 加한 결과 數個所의 砲陣地를 격파하였다.

25일 : 戰艦 New Jersey號는 이날 英船母 Glory號와 合勢하여 大同江附近에 있는 砲兵地帶에 強襲을 加하였다.

29일 : 美掃海艦 Swift號는 이날 洋島近海에서 掃海作戰中 突然 敵의 76mm 海岸砲 30여발 중의 1발이 上甲板에 命中되어 1명이 負傷하는 損失을 보았으나 그밖의 큰 피해는 없었다.

6월 3일 : 重巡洋艦 Saint Paul號 및 輕巡洋艦 Manchester號는 이날에도 元山港의 海岸砲陣地 및 기타 目標物에 대하여 艦砲射擊을 加하였으며 美驅逐艦 Chandler號와 Wiltsie號는 端川附近에서 運行中인 貨物列車을 파괴하였다.

4일 : 美 LSMR-409艦은 이날 西海岸의 月沙里에 있는 敵砲臺와 포격전을 전개하던 중 그들의 76mm砲 30여발이 艦 주위에 集中되어 그 중 2發이 上甲板에 명중하여 兵員 5명이 死傷되는 損失이 있었다.

11일 : 驅逐艦 Wiltsie號는 이날 元山海域에서 艦砲射擊中 그들의 76mm砲 35發中 1發이 上甲板에 命中되었으나 人命損失이 없는 가운데 포격을 계속하였다.

12일 : 輕巡洋艦 Manchester號 및 驅逐艦 Carpenter號는 興南海域에서 敵의 輸送路에 대한 합동사격을 실시하였다.

14일~15일 : 제77함대의 旗艦 New Jersey號를 비롯한 제77기동부대의 空航空母艦은 兩日間に 걸쳐서 高城 兩쪽의 △351을 奪取하기 위하여 激戰中인 韓國군 제1군단을 지원하여 艦砲射擊과 艦載機隊의 最大의 空襲을 加하였다.

6월 17일 : 驅逐艦 Henderson號는 이날 元山 前洋에서 敵海岸砲火로 말미암아 약간의 損失을 보았다.

18일 : 元山海域에서는 이날도 驅逐艦 Irwin號 및 Rowan號가 각각 被擊되어 각각 5명과 9명의 死傷者를 내는 損失이 있었다.

25일 : 驅逐艦 Gurke號는 이날 城津海域에서 機動하면서 海岸砲 및 鐵路에 대하여 艦砲射擊을 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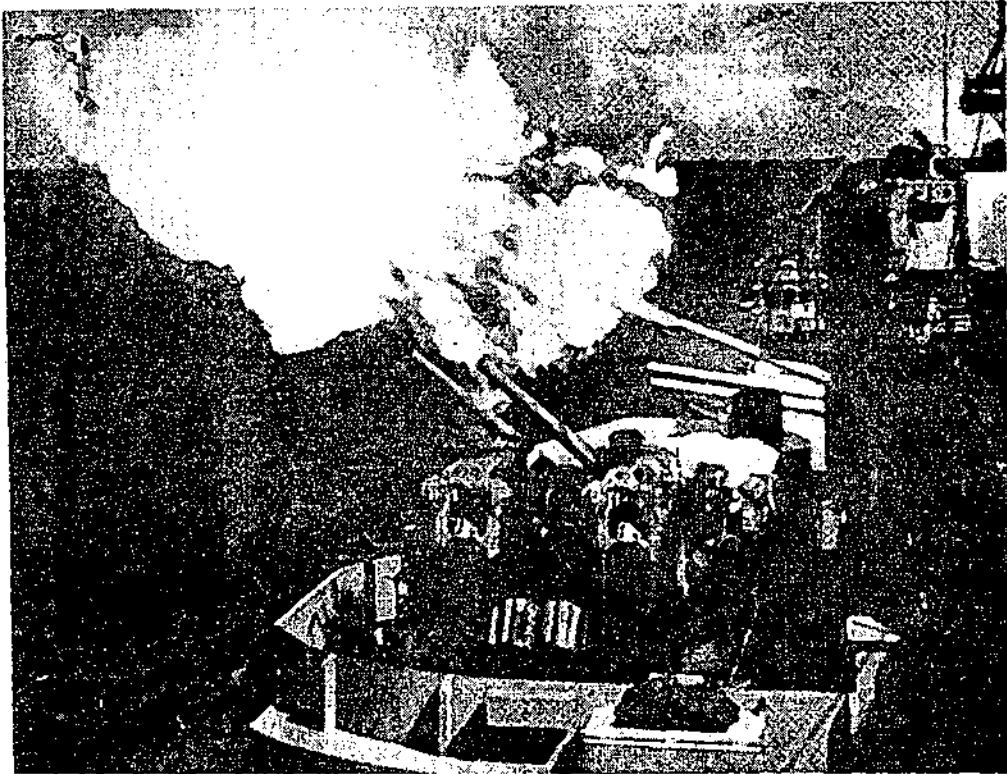
29일~30일 : 驅逐艦 Athabaskan號(장, J.C. Reed 중령)는 端川—城津間에서 海岸鐵路를 砲擊하여 貨物列車 24輛을 파괴하는 成果를 건우었다.

7월 1일 : 巡洋艦 Manchester號는 이날도 元山港을 포격하였으며 同艦 上甲板에 被彈이 있었으나 人命의 損失은 없었다.

3일 : 제77기동부대의 항공모함을 離陸한 艦載機隊은 이날 濃霧와 降雨를 무릅쓰고 中東部戰線의 地上軍에 대한 항공지원을 실시하여 敵의 軍事施設物을 여지없이 強打하였다.

5일 : 戰艦 New Jersey號를 선두로 한 UN驅逐艦隊은 △351을 비롯한 高城一帶의 敵陣을 向하여 熱火같은 艦砲射擊을 加하였다.

7월 7일 : 元山港을 向하여 砲擊中인 美驅逐艦 John W. Thomason號는 이날 虎島半島에 있는 敵砲臺에서의 107mm 150발을 艦 주위에 발아 中甲板에 약간의 손상을 보게 되



<순양함 Saint Paul호가 7월 27일 21.59에 마지막 포격을 가하고 있다>

었다.

8일 : UN艦隊의 驅逐艦隊는 이날 城津 南쪽의 敵陣을 強打하였으며 美驅逐艦 Irwin號 (함장, G.M. Slonim 중령)는 그들의 76mm 海岸砲 80여발이 艦 주위에서 空中爆發한 탓으로 上部甲板에서 兵員 5명의 死傷을 보았다.

12일 : 이날 戰艦 New Jersey號 및 巡洋艦 Saint Paul號가 元山港에 대하여 艦砲射擊을 加하는 동시에 航母 Princeton號 및 Boxer號의 환주로를 떠난 艦載機들도 중일토록 同港 一帶를 爆擊하였다.

27일 :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UN 海軍의 艦砲와 艦載機가 戰線을 누비면서 敵陣을 強打하였으며 巡洋艦 Saint Paul號가 이날 21.59에 마지막으로 뽑어낸 砲擊을 끝으로 休戰을 맞이하게 되었다.

第 62 章

空軍의 活動

要 旨

1. 제 2 차 近接航空지원 作戰과
後方차단 作戰
2. 제 10 戰鬪飛行團의 創設과
近接航空지원 作戰
3. 敵의 補給차단 作戰
4. 敵의 攻勢와 近接航空지원 作戰
5. 一·四半期の UN空軍의 活動
6. 二·四半期の UN空軍의 活動
7. 三·四半期の UN空軍의 活動

第62章 空軍의 活動

要 旨

空軍은 1952년 10월 28일부터 汀波基地(K-18)에서 후방차단 작전과 병행하여 杆城-高城일대의 地上軍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작전을 단행하여 敵陣을 계속 강타하므로써 그들에게 많은 損失을 주었고 아울러 지상군의 사기를 앙양케 하였다.

그러나 敵은 전술적요충지를 확보하여 휴전회담을 유리하게 전개시킬 목적으로 전선의 요지 요부에 대공포진지를 보강하는등 약화된 전력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이에 제1전투비행단의 제10전투비행전대에서는 敵의 補給要線을 폭격함으로써 후방지원을 차단하고 일면으로는 전선正面에 대한 근접지원작전을 전개하여 그들의 企圖를 분쇄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1953년 1월 1일부터는 杆城-高城-縣里일대에서 交戰中인 지상군을 임호하였으며 또 長箭-通川-洗浦里-沙里院-信川일대에 산재한 보급로와 보급품집적소 및 兵力集結所등 그들의 주요군사시설을 강타하였는데 2월 14일까지의 출격은 도합 693회에 달하였다.

그뒤 空軍은 F-51전폭기 40대를 보유하게 되었을 뿐아니라 후방차단작전과 근접항공지원작전을 수행하는 동안에 전투조종사의 戰技가 향상되어 2월 15일에는 그동안 제1전투비행단의 前進基地로서 汀波에서 모든작전을 수행한 제10전투비행전대를 모체로 제10전투비행단을 創設하여 작전분야만 담당케 하고 泗川基地(K-4)에 주둔한 제1전투비행단을 제1훈련비행단으로 개편하여 전투조종사 양성에 주력하였다.

이와같이 전투력이 강화된 空軍은 國軍 제1군

단의 전투지역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작전을 전담하게 되었는데 2월 15일부터는 杆城-高城일대에 대한 근접항공지원 작전에 중점을 두면서 縣里-平康-安城등으로도 출격하여 지상군으로 하여금 유리한 전황을 내게토록 하였는데 4월 30일까지의 출격은 도합 1,089회에 달하였다.

한편 4월 26일부터 휴전회담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자 敵은 中部戰線에 中共軍을, 東部전선에 北韓軍을 대량 투입하고 또 각종보급품을 전선으로 이동하는 등 次期攻勢를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제10전투비행단은 후방차단작전에 중점을 두어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5월 부터는 雨期를 맞아 비행활동에 다소 지장을 보았으나 F-51전폭기 80여대를 보유하게 되므로써 同月 31일까지 도합 547회에 달하는 출격을 기록하면서 高城-沙泉里-長箭-通川-縣里-平康일대의 補給要路와 보급품집적소등을 강타하여 보급품이 전선에 도달되기 前에 이를 粉砕하였다.

그뒤 이해 6월 8일에 휴전회담에서 쌍방의 포로교환협정이 체결되자 敵은 전술적요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韓國軍 戰線全面에 대하여 攻勢를 取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空軍에서는 國軍 제1군단 뿐아니라 제2군단의 正面인 縣里-金城-平康등지역 市邊里-新幕일대까지의 敵軍을 강타하였다. 특히 7월 13일부터 그들이 國軍 제2군단 全面에 取한 次攻勢를 분쇄하기 위하여 근접지원작전을 더욱 활

발히 수행한 끝에 同月 18日에는 開戰以來 최대 출격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주력부대를 강타하여 지상군으로하여금 유리한 전황을 타개토록 하였는데 6월 1일부터 7월 27일사이에는 日氣不順에도 불구하고 도합 756회에 달하는 출격을 기록하였다.

이와같이 空軍은 1953년 1월 1일부터 후방차단작전을 續行하면서 전투지역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작전에 注力한 결과 그 掩護率과 有效率은 90%에 달하여 그들의 전력을 크게 萎縮시켰는데 7월 27일까지의 출격은 도합 3,085회에 달하였다.

한편 UN空軍은 北韓上空에서의 制空權을 장악한 가운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平壤, 順川, 新安州, 泰川, 南市, 義州, 新義州 비행장에 대한 폭격을 敢行하여 그들의 空軍力을 無力化하는 한편 F-86 遊擊機는 滿洲로부터 西北韓의 MIG 回廊상공에 출현하는 MIG機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이를 격추하였다.

또한 UN空軍은 휴전회담을 지연시키려는 敵의 兇謀를 분쇄코자 鴨綠江과 淸川江일대에 산재한 鐵道와 橋梁을 비롯하여 수력발전소와 보급품집적소 및 탄약집적소등을 강타하여 그들의 後方支援을 차단하였을 뿐아니라 全前線에 대한 근접항공지원 작전도 활발히 전개하였는데 특히 敵이 攻勢를 取한 6월과 7월에는 一日 平均 100회

이상의 출격으로 東部—西部전선을 누비면서 그들의 전선요충부를 강타하였다.

그리고 7월부터 UN空軍은 휴전회담의 早期妥結을 위한 強壓手段으로 전선세력을 고립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후방에 대한 폭격에 注力하였다.

그리하여 敵의 후방중심지를 이루고 있는 主要都市와 補給要線을 강타하여 후방지원을 차단하고 한편으로는 新安州, 義州, 新義州비행장을 비롯한 元山, 咸興, 吉州, 會文, 惠山嶺등 北韓의 모든 비행장에 대한 穴穴的인 폭격을 단행하여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이러한 UN空軍의 활동으로 그들은 주로 밤에만 파괴된 비행장과 橋梁등을 복구하고 또 要地要部에 대공포진지를 강화하였는데 B-26 輕轟擊機는 무장정찰과 야간폭격으로 그들의 복구노력을 좌절케 하였다.

이와같이 UN空軍에서는 敵의 前後方に 대한 폭격을 휴전이 發効되는 시각까지 계속하였는데 期間中 對空防禦와 反擊에 도합 27,289회와 후방차단작전(무장정찰포함)에 도합 31,893회 그리고 근접지원작전에 도합 23,352회의 출격으로 폭탄 92,695ton과 Napalm탄 535ton을 投下하여 그들의 前後方戰線을 震動시켰으며 또한 모든作戰의 원활을 期하기 위하여 도합 30,101회에 달하는 空輸支援을 提供하였다.

1. 第2次 近接航空지원作戰과 後方차단作戰

(1953년 1월 1일부터
" 2월 14일까지)

참조 : 상항도 제116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총	참	모	장	중장	崔 用 德	중위	金 重 賓	중위	洪 淳 相	
				(1. 31부터)		중위	尹 子 重	중위	金 遠 輝	
제1전투비행단	장	준장	張 德 昌	중위	金 昌 烈	중위	崔 聖 達	중위	申 寬 植	
제10전투비행전대	장	중령	姜 鎭 倫	중위	李 禧 根	중위	金 萬 鎔	중위	金 直 漢	
		중령	張 志 良	(1. 16부터)	중위	玄 昌 健	중위	趙 恒 植	중위	金 浩 淵
출격조중사				중위	朴 禧 坤	중위	崔 順 善	중위	李 燦 權	
소령	張 星 太	소령	金 錦 成	중위	李 戩 國	중위	金 泌 植	중위	林 炳 斗	
대위	俞 致 坤	중위	李 屬 杓	중위	金 正 德	중위	李 學 善	중위	林 東 濬	
중위	金 永 煥	중위	高 光 壽	중위	李 權 贊	美공군조중사		대위	Shiffel	
중위	丁 海 暎	중위	金 永 敏	대위	Fields	중위	Hauel			
중위	千 永 星	중위	李 忠 甲							
중위	金 洛 奎	중위	任 宅 淳							
중위	馬 鍾 仁	중위	崔 榮 昌							
중위	張 昌 甲	중위	白 萬 吉							
중위	李 寬 模	중위	李 培 善							

나. 전투 전의 개황

지난해 10월 28일부터 空軍에서는 후방차단작전과 아울러 國軍 제1군단에 대한 근접항공 지원작전을 決行함으로써 지상군의 士氣를 양양케 하였을 뿐 아니라 敵의 戰力에도 많은 손상을 주었다.

916 空軍의 活動

그뒤에 그들은 전술적요충지를 확보하여 휴전회담을 유리하게 전개시키고자 여전히 夜間을 이용하여 각종 보급품과 兵力을 전선으로 이동하는 한편 전선의 요지요부에 대공포진지를 보강하는등 전신세력을 강화하였으므로 彼我사이에는 制扼點을 탈취키 위한 一進一退의 攻防戰이 거듭되었다.

그리하여 제10전투비행전대에서는 그들의 전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후방차단작전을 續行하면서 國軍 제1군단의 전투지역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게 되었다.

한편 UN空軍에서는 北韓일대에 있는 비행장과 주요군사시설 및 補給要線에 대한 폭격을 계속하면서 全戰線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작전에 注力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제10전투비행전대에서는 후방차단을 續行하면서 근접항공지원에 중점을 두고 作戰을 전개하였는데, 1월에는 실제출격일수 23일간에 도합 564회의 출격으로 長箭一通川—縣里—洗浦里—沙里院—信川일대에 산재한 보급로와 보급품집적소 및 병력집적소를 大破하였을 뿐아니라 杆城—高城일대에서 交戰中인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敵陣을 강타하여 그들의 전력을 약화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리고 2월 1일부터 제10전투비행단이 창설된 同月 15日사이에는 실제출격일수 8일간에 도합 115회에 달하는 출격으로 杆城—高城—長箭일대를 뒤흔들어 놓았는데 期間中の 日別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月中의 概況

1월 1일 : 이날 오전에는 氣象이 不順한 까닭에 제10전투비행전대에서는 출격을 보류하다가 점차 日氣가 회복되자 13.40에 張星太 소령이 이끄는 4臺의 F-51전폭기편대를 비롯하여 13.50에 金錦成 소령이 지휘하는 4臺, 또 14.40에 玄昌健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臺, 이어 15.10에 朴用萬 중위를 선두로한 4臺는 각각 鑑月里(高城 東南쪽 5km) 상공으로 출격하여 交戰中인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敵陣을 강타한 끝에 Bunker 6개소와 야포진지 2개소를 大破하는등 그 일대를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다.

2일 : 이날 09.05에 黃正德 중위가 이끄는 4臺의 전폭기편대와 이어 09.25에 金錦成 소령이 지휘하는 4臺는 月比山(△459, 高城 南쪽 6km)에서 攻防戰을 거듭하는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敵陣에 기총사격과 폭탄을 加하여 Bunker 3개소와 야포진지 2개소를 파괴하고 12명을 폭살하였다.

또한 09.40에는 金浩淵 중위를 선두로한 4臺가 高城상공에서 機動中인 敵兵을 발견하자 즉시 폭탄투하와 기총사격으로 18명을 살상하였으며 10.15에 다시 高城상공으로 출격한 4臺와 F-51전폭기는 전선으로 向하는 트럭행렬을 포착하자 林炳斗 중위를 선두로 급강

하 하여 이를 폭격한 끝에 7대를 大破하였다.

한편 이날 14.15에 俞致坤 대위를 편대군장으로한 17대는 信川상공에 이르러 작열하는 대공포탄을 헤치면서 鐵道를 강타하여 4개소를 폭파하고 金機 무사히 기지에 귀착하였다.

3일 : 09.40에 黃正德 중위를 선두로 기지(K-18)를 이륙한 4대의 F-51전폭기는 小鵝峰(△680, 高城 南쪽 20km)일대에 있는 Bunker를 파괴하였으며 이어 10.35에 俞致坤 대위가 지휘하는 4대는 城北里(長箭 南쪽 3km)를 目標로 출격중 鑑月里상공에서 敵兵을 싣고 달리는 트럭隊列을 발견하자 즉시 급강하로 기총소사와 폭탄을 퍼부어 2대를 大破하고 10名(추정)을 폭살하였다. 이윽고 이들이 목표상공에 도달하자 대공포화가 亂飛하였으나 이를 헤치면서 그일대에 폭탄을 투하하여 보급품집적소 1개소를 화염으로 휘감아 놓았다.

또 이날 14.20에 이륙한 20대의 F-51전폭기편대는 張聖太 소령의 지휘아래 新院里(海州 北쪽 18km)에 있는 철도에 폭격을 가하여 5개소를 절단하였다.

4일 : 이날 12.55에 崔聖達 중위가 지휘하는 F-51전폭기 4대는 鑑月里상공에서 지상군을 制壓하는 야포진지 3개소를 파괴하였으며, 이어 13.15에 이륙한 4대는 林炳斗 중위의 지휘로 白川橋里(高城 西南쪽 8km)상공에서 목표를 포착하자 즉시 급강하 하면서 기총사격을 가하고 폭탄을 투하하여 야포진지 2개소와 탄약집적소 1개소를 大破하였는데 이때 탄약집적소에서 솟아오르는 화염은 마치 하늘을 가르는듯 하였다.

또한 이날 13.40에 金浩淵 중위가 이끄는 4대는 松灘里(高城 西南쪽 3km)상공에서 교묘하게 偽裝한 보급품집적소를 강타하여 3개소를 불태워 버렸다.

5일 : 이날은 目標상공에 구름이 덮여 있는등 고르지 못한 氣象인 까닭에 제10전투비행전대에서는 출격을 제한하였는데 13.35에 金錦成 소령이 지휘하는 5대가 다시 松灘里에 있는 보급품집적소에 폭탄을 투하하여 5개소를 소각케 하는등 삼시간에 그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6일 : 이날도 오전에는 氣象이 不順한 탓으로 출격을 보류하다가 13.55에 崔順善 중위를 선두로 4대의 F-51전폭기가 이륙하여 外沔里(高城 南쪽 7km)일대에 폭탄과 기총소사를 퍼부어 Bunker 2개소를 파괴하여 9名(추정)을 살상하고 탄약집적소 1개소를 폭파하였다.

이어 14.30에 李晝根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대는 寶湖里(高城 東南쪽 4km)일대에서 교전 중인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敵陣을 강타하여 지상군의 사기를 앙양케 하였으며, 또 15.00에 이륙한 4대는 玄昌健 중위의 지휘로 長島里(高城 北쪽 3km)상공에서 목표를 포착하자 즉시 급강하하여 폭격을 가한 끝에 건물 3棟을 大破하였다.

7,8,9일 : 이 3일간은 목표상공에 짙은 구름이 덮였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등 惡天候가 계속된 까닭에 제10전투비행전대에서는 출격을 중지하고 連日 출격한 F-51전폭기에 대한 정비와 작전교육을 실시하여 다음 출격에 대비하였다.



<목표를 향하여 출격중인 F-51 전폭기 편대>

10일 : 몇일간 계속된 惡天候로 말미암아 空軍의 活動이 뜸하였으므로 敵은 각종보급품을 전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이날 13.20에는 兪致坤 대위를 편대군장으로한 20臺의 F-51전폭기 편대가 楸洞里(縣里 西南쪽 6km)상공에서 亂飛하는 대공포화를 헤치면서 목표를 강타한 끝에 보급품집적소 8개소를 화염으로 휘감아 삼시간에 그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았다.

11일 : 이날 09.20에 占方里(縣里 西南쪽 15km)상공에서 朴用萬 중위가 지휘하는 20臺는 대공포화가 작열하는 가운데 기총공격과 폭탄을 투하하여 보급품집적소 10개소를 燒却하였는데 이 폭격에서 16번기 李喜根 중위의 愛機가 대공포탄으로 엔진교장을 일으켜 麟蹄基地(K-5)에 不時着하였으며 나머지 19臺는 江陵基地(K-18)로 모두 귀착하였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다시 氣象이 惡化된 까닭에 출격을 보류하였다.

12일 : 이날도 전날과 같이 日氣가 고르지 않는 탓으로 제10전투비행전대에서는 출격을 중지하고 전폭기의 기체점검과 출격조종사에게 作戰에 대한 제반교육을 실시하여 다음출격의 萬全을 期하였다.

13일 : 이날 다시 氣象이 회복되자 09.20에 金錦成 소령이 지휘하는 4臺가 出擊하여 新垆里(高城 南쪽 18km)상공에서 그일대에 있는 Bunker를 강타한 끝에 1개소를 파괴하였으며 이어 09.50에 이륙한 4臺는 鷓峰(△1,043, 高城 西南쪽 13km)상공에서 李燦權 중위의 지휘아래 지휘소(C.P)로 관측된 목표를 폭격한 끝에 건물 2棟을 대파하였다.

또한 10. 20에 沙飛里(高城 南쪽 20km)상공에서 목표를 포착한 4臺의 F-51전폭기편대는 兪致坤 대위를 선두로 급강하 하면서 기총사격을 加하고 폭탄을 투하하여 Bunker 1개소를 파괴하고 보급품집적소 1개소를 불태워버렸다.

한편 이날 14. 20에는 張晧太 소령이 이끄는 20臺가 占方里일대에 산재한 보급품집적소를 강타하여 3개소를 화염으로 휘감아 놓았다.

14일 : 이날 09. 30에도 17臺의 F-51전폭기편대가 占方里상공으로 출격하여 兪致坤 대위의 지휘아래 보급품집적소에 폭탄과 기총소사를 퍼부어 삼시간에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또한 12. 40에 崔聖達 중위가 이끄는 4臺와 이어 13. 10에 申寬植 중위가 지휘하는 4臺는 각각 沙飛里일대에서 교전중인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敵陣을 강타하여 Bunker 1개소를 파괴하는등 그들의 전세를 위축케 하였으며, 이어 13. 40에 이륙한 4臺는 張晧太 소령의 지휘로 月比山 일대의 敵陣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이날 14. 30에 台峰里(高城 南쪽 7km)상공에서 金祕楨 중위가 이끄는 4臺는 敵의 전선 요충부를 강타하여 그들의 전력을 弱化시키는등 교전중인 지상군의 사기를 앙양케 하였다.

15일 : 10. 05에 金錦成 소령을 편대장으로한 4臺는 鑑月里상공에서 敵陣에 기총세례와 폭탄을 투하하여 Bunker 3개소와 야포진지 2개소를 大破하였으며 이어 10. 35에 金浩濶 중위가 지휘하는 4臺와 11. 05에 林炳斗 중위가 이끄는 4臺의 F-51전폭기편대는 각각 外沔일대에 있는 적진지를 강타한 끝에 Bunker 4개소와 야포진지 1개소를 파괴하였을 뿐 아니라 7名을 살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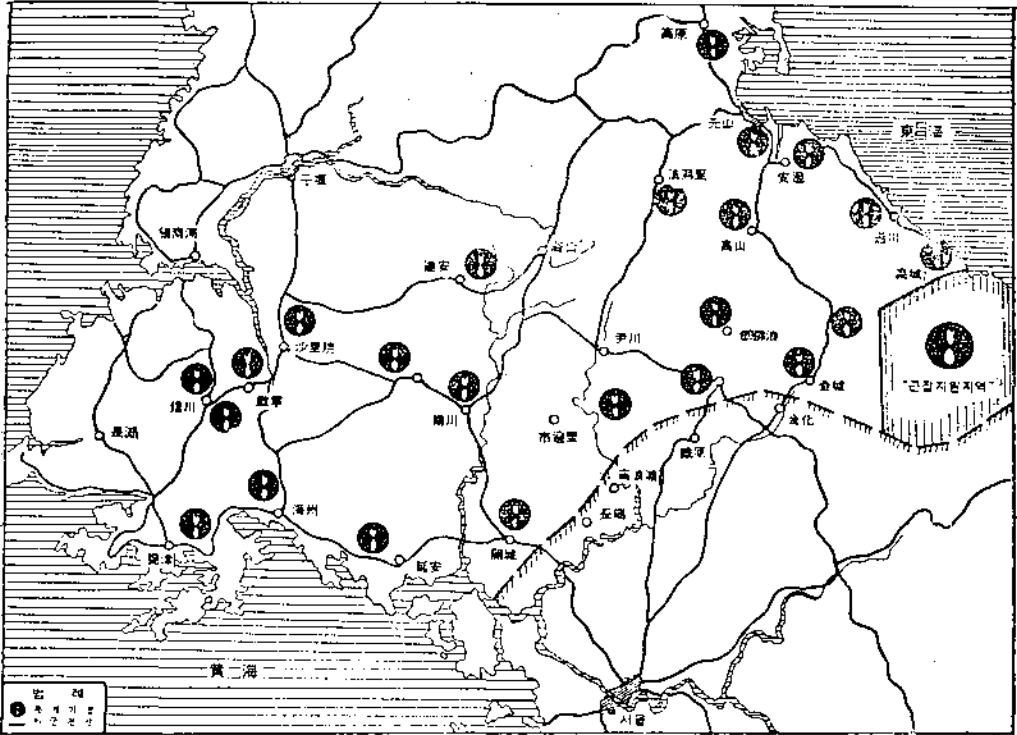
또한 12. 30에 이륙한 4臺는 松灘里상공에서 목표를 포착하자 즉시 張晧太 소령을 선두로 급강하 하여 폭탄을 투하한 끝에 야포진지 1개소를 파괴하였으며 14. 30에는 兪致坤 대위를 편대장으로한 18臺의 F-51전폭기가 占方里상공으로 출격중 2번기 李寬模 중위와 9번기 金萬鎔 중위의 愛機가 엔진고장을 일으켜 도중에서 귀환하고 나머지 16臺는 목표상공에 도달하자 보급품집적소를 강타하니 그일대는 삼시간에 불바다가 되었다.

16일 : 이날 09. 20에 金萬鎔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臺와 이어 10. 10에 金錦成 소령이 지휘하는 4臺는 각각 鶴峰일대에서 交戰중인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敵陣地를 강타하여 야포진지 2개소를 파괴하는등 지상군으로 하여금 유리한 전황을 타개토록 하였다.

또 10. 45에 이륙한 4臺는 新垆里상공에서 林東濬 중위를 선두로 敵陣에 급강하 하여 기총사격을 加하고 폭탄을 투하하여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으며 이어 11. 15에 內沔里상공에서 兪致坤 대위가 이끄는 4臺는 그일대에 폭탄투하와 기총공격으로 Bunker와 야포진지 각 2개소를 大破하였다.

한편 이날 15. 05에는 玄昌健 중위가 지휘하는 8臺의 F-51전폭기편대가 碧山(通川 南쪽

상황도 제116호 제2차近接航空지원作戰과 後方차단作戰



6km)일대에 있는 보급로를 따라 폭탄을 투하한 끝에 5개소를 사용관란케 하고 트럭 1대를 쏘파하였다.

그리고 15.25에 張星太 소령을 선두지휘로한 8대는 南灘里(長箭 西北쪽 8km)일대의 보급로를 감타하여 4개소를 폭파하였다.

17일 : 이날은 氣象이 不順한 까닭에 제10전투비행전대에서는 출격을 제한하였는데 13.25에 黃正德 중위가 이끄는 4대가 高城상공으로 출격하여 보급로 1개소를 절단하였으며 이어 13.45에 月桂里(高城 西北쪽 2km)상공에서 보급품집적소를 포착한 4대는 李載國 중위를 선두로 급강하 하여 폭탄을 투하한 끝에 4개소를 화염으로 휘잡아 놓았다.

18일 : 이날 다시 惡化된 氣象은 19일까지 계속되었는데 제10전투비행전대에서는 출격을 중지하고 연일 출격한 F-51전폭기의 정비와 작전교육을 실시하여 다음 출격에 대비토록 하였다.

20일 : 이날 日氣가 회복되자 09.45에 內砮里(高城 西쪽 3km)상공으로 출격한 4대는 金錦成 소령의 지휘아래 그일대에 폭탄과 기총사격을 加하여 Bunker와 야포진지 각 2개소를 파괴하였으며 이어 10.10에 李燦權 중위가 이끄는 4대가 기지(K-18)를 이륙중 4번기 閔旭東 중위의 愛機가 기관고장을 일으켜 출격을 보류하고 나머지 3대는 다시 內砮里地區에 대한 폭격을 단행한 끝에 Bunker 1개소를 파괴하고 보급품집적소 1개소도 불태워버렸다.

또한 10.50에 이륙한 4號는 內沔里상공에서 黃正德 중위를 선두로 敵陣地를 강타하여 Bunker 1개소와 야포진지 2개소를 大破하므로써 지상군의 사기를 앙양케 하였으며, 이어 16.20에 申寬植 중위가 지휘하는 4號는 內訥里상공에서 보급품 집적소에 폭탄과 기총소사를 퍼부어 7개소를 燒却케 하는등 삼시간에 그일대를 화염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21일 : 09.50에 道樂里(海州 西北쪽 30km)상공에 도달한 17號의 F-51전폭기편대는 목표를 발견하자 즉시 俞致坤 대위를 선두로 급강하 하여 기총사격을 가하고 폭탄을 투하한 끝에 그일대에 있는 건물 14棟을 파괴하여 짐푼은 화염과 함께 破片이 亂飛하는 수락장으로 만들었다.

또한 이날 13.35에 이륙한 4號는 林炳斗 중위의 지휘로 侍郎里(高城 西北쪽 6km)상공에서 보급품집적소를 강타하여 12개소를 화염으로 휘감아 삼시간에 그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었으며 이어 13.50에 趙恒植 중위가 이끄는 4號는 浦項里(高城 北쪽 4km)일대에 폭탄을 투하 하고 기총소사를 퍼부어 Bunker 2개소를 大破하고 보급품집적소 4개소를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14.20에 申寬植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號가 기지(K-18)를 이륙중 4번기 閔旭東 중위의 愛機가 기관고장을 일으켜 출격을 보류하고 나머지 3號는 汀月里(高城南쪽 6km)상공에서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敵陣을 강타하여 Bunker 1개소를 파괴하고 12名을 살상하였다.

이어 13.35에 이륙한 4號는 李載國 중위의 지휘아래 汀月里일대에 폭탄과 기총소사로 박격포진지와 Bunker 각 2개소를 大破하는등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22일 : 10.20에 16號의 F-51전폭기 편대는 俞致坤 대위의 지휘아래 劍拂浪(平康 東北쪽 20km)상공에 이르러 對空砲火가 紛飛하는 가운데 그일대에 있는 철도를 강타한 끝에 6개소를 사용곤란케 하고 全機 무사히 귀착하였다.

또한 14.40에 汀月里상공에서 黃正德 중위가 이끄는 4號는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목표에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사격을 가하여 Bunker 1개소를 파괴하는등 지상군으로 하여금 유리한 전황을 타게토록 하였다.

이어 15.05에 李燦權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號가 다시 汀月里에 있는 탄약집적소를 강타하여 1개소를 大破하였으며, 이날 15.20에는 金泌楨 중위를 선두로한 4號가 雲谷里(高城 西北쪽 6km)상공에서 교묘히 偽裝한 보급품집적소를 발견하자 이에 폭탄을 투하하여 2개소를 화염으로 휘감아 놓았다.

23일 : 09.30에 沙飛里상공에서 金萬鎔 중위가 지휘하는 4號는 지상군을 위협하는 Bunker를 발견하자 즉시 폭탄과 기총소사로 2개소를 파괴하여 지상군의 사기를 앙양케 하였으며 이어 10.00에 이륙한 4號는 金錦成 소령의 지휘아래 姑味城里(高城里 南쪽 23km)에 있는 Bunker를 강타하여 1개소를 大破하였다.

또 10.35에 新岱里상공에 도달한 4臺의 F-51전폭기편대는 權贊植 중위를 선두로 敵陣에 급강하 하면서 기총사격을 加하고 폭탄을 투하 하여 Bunker 3개소를 파괴하는등 그일대를 뒤흔들어 놓았다.

한편 이날 14.10에 俞致坤 대위가 이끄는 16臺는 竹洞(金城 東南쪽 7km)일대에 있는 건물을 강타한 끝에 16棟을 大破하여 삼시간에 그일대를 수라장으로 만들었다.

24일 : 이날 09.40에 金泓植 중위가 지휘하는 20臺의 F-51전폭기 편대는 通川 상공일대에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사격을 加하여 건물 25棟을 파괴하였으며 이어 13.30에 이륙한 4臺는 長亭里(高城 西쪽 4km)상공에서 崔順濬 중위를 선두로 목표에 급강하 하면서 기총소사와 폭탄으로 Bunker 2개소를 大破하였다.

또한 14.10에 松灘里 상공에서 목표를 포착한 4臺는 崔聖達 중위의 지휘로 이를 강타하여 Bunker 2개소를 파괴하였으며 이어 14.25에는 李載國 중위가 이끄는 4臺가 汀月里에 있는 보급품집적소를 강타하여 삼시간에 그일대를 火焰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25일 : 09.15에 崔順善 중위를 선두로한 4臺의 F-51전폭기편대와 어이 09.45에 金錦成 소령이 이끄는 4臺는 다시 汀月里에 있는 보급품집적소에 폭탄을 투하 하고 기총소사를 퍼부어 9개소를 불태워 버렸다.

또한 10.25에 이륙한 4臺는 俞致坤 대위의 지휘로 台峰里(高城 南쪽 9km)상공에서 지상군을 위협하는 Bunker를 강타하여 1개소를 파괴하였다.

이어 10.50에 內帖里상공에서 4臺의 F-51 전폭기는 申寬植 중위의 지휘아래 敵陣地에 폭탄과 기총사격으로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으며, 또 이날 14.15에 이륙한 20臺는 俞致坤 대위의 선두지휘로 縣里상공에 進入, 亂飛하는 대공포화를 헤치면서 목표를 강타하여 보급품집적소 5개소를 燒却케 하고 화물차량 8輛을 大破하는등 그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26일 : 이날 09.00에 田亨一 중위를 선두로 기지불 이륙한 4臺는 內沔里상공에서 交戰中인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목표를 강타하여 Bunker 1개소를 大破하였으며 09.45에 金錦成 소령이 이끄는 5臺는 五里津(長筋 東쪽 5km)상공으로 출격중 台峰里상공에서 지상군을 위협하는 Bunker 1개소를 파괴하고 다시 목표상공에 도달하여 해안에 정박중인 선박 1척을 발견하자 즉시 급강하 하여 폭탄을 투하한 끝에 이를 大破하였다.

또한 이날 09.50에 李學善 중위가 이끄는 4臺는 松灘里상공에서 그일대에 기총소사와 폭탄을 투하하여 Bunker 1개소를 대파하는 등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으며 이어 10.20에 이륙한 4臺는 侍郎里상공에서 목표를 포착하자 즉시 趙恒植 중위를 선두로 기총사격을 加하면서 급강하 하여 폭탄을 투하한 결과 Bunker와 야포진지 각 1개소를 파괴하였다.

한편 이날 14.10에는 長壽峰(△747, 沙里院 南쪽 25km)상공에서 俞致坤 대위가 지휘하는 16臺의 F-51 전폭기편대는 그일대에 있는 건물을 강타하여 12棟을 파괴하는등 수라장으로 만들었다.

27일 : 이날 10.25에도 俞致坤 대위가 이끄는 16 Squadron은 高原(元山 西北쪽 26km) 일대에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소사를 퍼부어 건물 11棟을 大破하였으며 또 13.15에 이륙한 4 Squadron은 沙里院상공에서 탱크행렬을 발견하자 즉시 이를 강타하여 그들의 機動을 저지하였다.

한편 13.40에 金錦成 소령을 선두로한 4 Squadron과 이어 14.05에 權贊植 중위가 이끄는 4 Squadron은 각각 沙里院상공으로 출격하여 機動중인 탱크를 폭격한 끝에 1 Squadron을 大破하였으며 다시 그 일대에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 사격을 가하여 트럭 2輛을 파괴하고 敵兵 5名을 폭살하였을뿐 아니라 Bunker와 탄약집적소 각 1개소를 폭파하는 등 삼시간에 그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또 14.20에 田亨一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 Squadron가 다시 沙里院일대에 기총소사와 폭탄투하로서 탱크 1 Squadron을 大破하고 Bunker 1개소를 覆滅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28일 : 이날은 목표상공에 구름이 덮힌 까닭에 제10전투비행전대에서는 출격을 중지하고 연일 출격한 F-51전폭기의 정비와 작전교육을 실시하여 다음출격에 대비하였다.

29일 : 이날 09.05에 李學善 중위를 선두로한 4 Squadron은 養珍里(高城 西北쪽 10km) 상공에서 교묘하게 숨겨놓은 보급품집적소를 포착하자 즉시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사격을 가한 끝에 3개소를 화염으로 휘감아 놓았으며 이어 09.40에 다시 養珍里상공으로 출격한 4 Squadron은 金錦成 소령을 선두로 機動中인 트럭행렬을 강타하여 2 Squadron을 全破하였다.

또한 10.10에 溫井里(長箭 南쪽 6km) 상공에서 보급품집적소를 포착한 4 Squadron의 F-51전폭기편대는 崔順善 중위의 지휘아래 이를 강타하여 삼시간에 그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었으며 이어 10.30에 出擊한 2 Squadron은 다시 溫井里상공으로 急航中 高城상공에서 機動中인 敵隊列을 발견하자 즉시 기총사격을 가하여 2名을 살상하고 다시 목표상공에서 그 일대에 폭탄을 투하한 끝에 보급품집적소 1개소를 불태워버렸다.

한편 이날 14.00에 俞致坤 대위를 선두로한 16 Squadron은 陰波里(高城 東南쪽 15km)에 있는 군사시설을 강타하여 건물 11棟을 大破하는 등 삼시간에 그 일대를 수락장으로 만들었다.

30일 : 09.00에 城北里(長箭 東南쪽 3km) 상공으로 출격하던 4 Squadron은 月比山부근에서 지상군을 위협하는 야포진지를 발견하자 즉시 俞致坤 대위의 지휘로 기총세례와 폭탄을 투하하여 2개소를 파괴 하였으며 이어 목표상공에서 교묘하게 숨겨진 보급품집적소를 강타한 끝에 2개소를 燒却하였다.

이어 09.30에 이륙한 4 Squadron은 다시 月比山상공에 이르러 林炳斗 중위의 지휘아래 交戰中인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敵의 전신요충부를 강타하여 야포진지 2개소를 大破하는 등 지상군의 사기를 앙양케 하였다.

또 이날 10.00에 趙恒植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 Squadron은 台峰里상공에서 敵陣에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소사를 퍼부어 야포진지 1개소를 파괴하였으며 이어 10.30에 田亨一 중위가 지휘하는 4 Squadron은 鑑月里일대에서 공방전을 거듭하는 지상군과 交戰하면서 Bunker를 폭격한 끝

에 3개소를 폭파하였다.

31일 : 이날 오전에는 바람이 심한 까닭에 출격을 보류하다가 13.30에 4臺의 F-51전폭기편대가 沙飛里상공으로 출격하여 지상군을 향하여 불을뿜는 Bunker를 발견하고 즉시 權贊植 중위를 선두로 급강하 하면서 기총사격을 加하고 폭탄을 투하 하여 3개소를 파괴하였으며 이어 14.00에 이륙한 4臺는 李載國 중위의 지휘로 新垌里에 있는 兵力集結소를 강타한 끝에 10名을 살상하는등 그일대를 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또한 이날 14.25에 沙飛里상공으로 출격한 4臺는 金萬鎔 중위의 지휘로 敵陣에 폭탄과 기총소사를 퍼부어 야포진지 2개소와 Bunker 1개소를 大破하였으며 이어 15.00에 新垌里상공에서 李學善 중위가 이끄는 4臺는 Bunker 2개소를 파괴하였다.

(2) 2月前半期の 概況

2월 1일 : 이날도 오전에는 氣象이 不順한 탓으로 출격을 보류하다가 점차 날씨가 회복되자 13.00에 俞致坤 대위를 선두로한 4臺의 F-51전폭기는 龍溪里(高城 西쪽 8km)상공으로 출격하여 보급품집적소를 목표로 폭탄을 투하한 끝에 4개소를 불태워 버렸다.

이어 13.45에 이륙한 4臺는 松灘里상공에서 金萬鎔 중위의 지휘로 교묘하게 위장된 보급품집적소를 강타하여 2개소를 소각하였으며 다시 전선정면에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사격을 加하여 Bunker 1개소를 대파하는등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그리고 이날 14.00에 李燦權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臺는 다시 龍溪里일대에 폭격을 집중한 결과 보급품집적소 6개소를 화염으로 휘감아놓는등 그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었으며 이어 14.40에 新興里(長箭 東南쪽 5km)상공에 進入한 4臺는 목표를 포착하자 즉시 張星太 소령을 선두로 급강하 하여 이를 강타한 결과 보급품집적소 5개소를 全燒케 하였다.

2일 : 09.30에 林炳斗 중위가 지휘하는 4臺는 月比山상공에서 지상군과 호응하면서 敵의 요충부를 강타한바 Bunker 2개소를 大破하여 지상군으로 하여금 유리한 전황을 타개토록 하였으며 이어 09.45에 鑑月里상공으로 출격한 4臺는 申寬植 중위의 지휘로 그일대에 폭탄과 기총소사를 퍼부어 Bunker 4개소를 폭파하였다.

그리고 이날 14.30에 이륙한 4臺는 養珍里상공에서 李學善 중위를 선두로 兵力集結地를 강타하여 그일대를 수라장으로 만들었으며 이어 14.50에 俞致坤 대위가 이끄는 4臺는 다시 養珍里일대에 폭탄을 투하하여 보급품집적소 12개소를 全燒케 하였을 뿐아니라 탄약집적소 1개소도 폭파하여 그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3일 : 이날 09.50에 申寬植 중위가 지휘하는 4臺의 F-51전폭기편대와 林炳斗 중위가 이끄는 4臺의 제2편대는 서로 合勢하여 姑味城里상공에서 敵陣地에 기총사격을 加하고 폭탄을 투하한 결과 Bunker 5개소와 야포진지 4개소, 그리고 건물 5棟을 大破하였다.

또한 13.50에 이륙한 4臺는 龍溪里상공에서 보급품집적소를 포착하자 즉시 金萬鎔 중위

의 지휘아래 급강하 하여 이를 강타한바 3개소를 화염으로 휘감아 놓았으며 이어 14.30에 新興里상공으로 출격한 4號는 俞致坤 대위의 지휘로 보급품집적소에 폭탄을 투하하여 4개소를 불태워버렸다.

4일 : 이날 바람이 불고 진눈깨비가 날리는등 氣象이 惡化되어 6일까지 계속된 까닭에 제10전투비행전대에서는 전투조종사에 대한 작전교육을 실시하면서 다음출격에 대비하였다.

7일 : 이날 다시 氣象이 회복되자 09.25에 張厓太 소령을 편대장으로한 17號의 F-51 전폭기 편대는 杆城상공으로 출격하여 그일대에 산재한 보급로를 강타하였으며 또 13.10에 申寬植 중위가 지휘하는 4號는 台峯里에 있는 보급품집적소에 폭탄을 투하하여 그일대를 검은 화염에 휩쌓이게 하였다.

이어 13.30에 高峰里(高城 南쪽 2km)상공에서 俞致坤 대위가 이끄는 4號는 목표에 기총사격을 加하고 폭탄을 투하하여 Bunker 1개소를 파괴하였으며 또 14.30에 이륙한 4號는 龍溪里상공에서 보급품집적소를 포착하자 李學善 중위의 지휘로 이를 강타하여 3개소를 全燒케 하는 한편 전선정면에 폭탄과 기총사격을 퍼부어 Bunker 1개소를 대파하는등 그들의 戰勢를 위축케 하였다.

한편 이날 14.40에 金泌嶺 중위가 이끄는 4號의 F-51전폭기는 長沙里에 있는 보급품집적소를 강타하여 3개소를 화염으로 휘감아 놓았다.

8일 : 08.45에 金泌嶺 중위가 지휘하는 4號의 F-51전폭기편대는 寶湖里상공에서 交戰中인 지상군과 호응하면서 목표를 폭격하여 Bunker 1개소를 파괴하였으며 이어 09.15에 月飛山상공으로 출격한 또다른 4號는 李學善 중위의 지휘로 敵의 진지에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사격을 加하여 야포진지 2개소와 Bunker 1개소를 대파하는등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그리고 이날 14.00에 朴用萬 중위를 선두로 出擊한 4號는 沙飛里상공에서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목표를 강타하여 Bunker와 야포진지 각 1개소를 대파하는 한편 그부근에 있는 보급품집적소를 발견하여 즉시 급강하로 폭탄을 투하한 끝에 1개소를 불태워버렸다.

또 14.25에 이륙한 4號는 다시 沙飛里상공으로 출격하여 權贊植 중위를 선두로 敵陣에 급강하 하면서 기총사격을 加하고 폭탄을 투하하여 야포진지 1개소를 파괴하는등 지상군으로 하여금 유리한 전황을 타개토록 하였다.

9일 : 09.45에 黃正德 중위가 이끄는 4號의 F-51전폭기편대는 桂月里상공에서 작열하는 대공포화를 헤치면서 목표를 강타하여 보급품집적소 5개소를 화염으로 휘감아 놓고 全機 무사히 귀착하였다. 이어 10.00에는 俞致坤 대위가 지휘하는 4號가 雲谷里(高城 西北쪽 5km)에 있는 보급품집적소에 폭탄을 투하하여 6개소를 全燒케 하였다.

한편 이날 14.15에 이륙한 4號는 田學一 중위의 지휘로 月比山상공에 이르러 지상군과

호응하면서 敵陣을 강타한 끝에 Bunker 1개소를 파괴하였으며 또한 15.05에 開殘嶺(高城西南쪽 12km)상공에서 탱크행렬을 포착한 4臺의 F-51전폭기편대는 金浩淵 중위의 지휘 아래 급강하 하면서 폭탄과 기총소사를 퍼부어 1臺를 대파하였다.

10일 : 이날 09.30에 李燦權 중위가 이끄는 4臺는 沙飛里일대의 敵陣에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사격을 加하여 Bunker 2개소를 파괴하였으며 이어 10.00에 金萬鎔중위를 편대장으로 한 4臺가 兄弟峰(沙泉里 西北쪽 10km)상공으로 출격중에 新垆里부근에서 지상군을 위협하는 Bunker를 강타하여 1개소를 大破하고 다시 목표상공에 도달하자 그일대에 기총세례와 폭탄으로 Bunker 1개소를 파괴하는등 그들의 전력을 약화시켰다.

또한 이날 10.05에 이륙한 4臺는 舍峰里상공에서 金浩淵 중위의 지휘로 그일대에 폭탄과 기총소사를 퍼부어 Bunker 2개소와 야포진지 1개소를 파괴하였다.

11일 : 이날부터 13일사이에는 目標上空에 짙은 구름이 덮여 있는등 惡天候가 계속된 까닭에 제10전투비행전대에서는 연일 출격한 F-51전폭기의 정비와 작전교육을 실시하여 다음출격에 대비하였다.

14일 : 이날 日氣가 회복되자 10.00에 新垆里상공으로 출격한 4臺는 金泌楨 중위를 선두로 敵陣에 급강하 하여 기총사격을 加하면서 폭탄을 투하한 결과 Bunker 3개소와 야포진지 1개소를 대파하였으며 또 13.50에도 金泌楨 중위가 이끄는 4臺가 雲谷리에 있는 보급품집적소를 강타하여 4개소를 화염으로 휘감아놓았다.

그리고 14.20에 崔順善 중위를 선두로한 4臺의 F-51전폭기편대는 城北里상공에서 교묘하게 숨겨놓은 보급품집적소를 강타한 끝에 4개소를 全燒케 하였다.

다. 전투 후의 개황

期間中 空軍은 長筭—通川—縣里—信川일대에 산재한 보급품집적소와 병력집결소 및 탄약집적소를 강타하여 前線에서의 補給難을 면치못하게 하는 한편 杆城—高城일대의 전투지역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작전에 注力함으로써 지상군의 사기를 양양케 하였을 뿐아니라 敵에게 많은 손상을 주었다.

이와같은 空軍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敵의 보급동맥이 붕괴되고 戰力이 弱化되자 그들은 夜暗을 이용하여 兵力과 각종 보급품을 전선으로 이동하는등 전선세력을 강화하는데에 狂奔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간중 空軍은 F-51전폭기(Mustang)40대를 보유하게 되었을 뿐아니라 전투조종사의 전투기능도 향상되었으므로 泗川에 주둔한 제1전투비행단의 前進基地로서 江陵에서 諸般作戰을 수행한 제10전투비행전대를 제10전투비행단으로 增編하여 작전분야만 전담케 하고 제1전투비행단을 제1훈련비행단으로 改編하여 전투조종사의 양성을 促進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전투력이 강화된 空軍은 國軍 제1군단의 전투지역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작전을 전담하게 되었으며, 期間中 空軍이 수행한 作戰의 종합전과는 다음과 같다.

綜合戰果(損失없음)

구 분	내 용	數
폭과한것	보급품 집적소	151個所
	탄약 집적소	6 "
	건 물	87棟
	철 도	16個所
	트 렉	14臺
	화물차량	8輛
	Bunker	93個所
	야포진지	33 "
	박격포진지	3 "
	탱 크	4臺
	船 隻	1隻
	교통호	1,500 mm
	산병호	28個所
	기관총진지	35個所
	고사포진지	12個所
	교 량	3個所
	철 교	2個所
	牛馬車	25臺
主補給路	5個所	
殺 傷		85 名

2. 第10戰鬪飛行團의 創設과 근접지원 作戰

(1953년 2월 15일부터
// 4월 30일까지)

참조 : 별첨부도 제26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총 참 모 장 중장 崔 用 德
 제10전투비행단 장 대령 金 英 煥
 제10전투비행전대 장 대령 張 志 良
 (3. 1 부터)
 중령 朴 熙 東
 (4. 1 부터)

출거조종사

소령 尹 應 烈 소령 李 康 和
 소령 王 滿 鎬 중위 馬 鍾 仁
 소령 李 基 陝 중위 張 昌 甲
 소령 金 錦 成 중위 李 寬 模
 소령 張 星 太 중위 金 重 寶
 대위 俞 致 坤 중위 尹 子 重
 대위 孫 在 權 중위 李 校 安
 중위 金 永 煥 중위 李 周 杓
 중위 丁 海 暎 중위 李 明 輝
 중위 千 永 星 중위 高 光 壽
 중위 金 洛 奎 중위 金 永 敏
 중위 李 忠 甲 중위 金 賢 千
 중위 任 宅 淳 중위 王 炫 植
 중위 白 鎬 三 중위 白 周 鉉
 중위 崔 榮 昌 중위 金 昌 烈
 중위 李 經 哲 중위 李 容 均

중위 白 萬 吉 중위 李 喜 根
 중위 李 培 善 중위 金 賢 一
 중위 孫 政 序 중위 咸 兩 善
 중위 洪 淳 相 중위 崔 奎 淳
 중위 金 達 輝 중위 白 晶 鉉
 중위 朴 用 萬 중위 李 學 善
 중위 張 景 順 중위 崔 聖 達
 중위 李 豪 英 중위 金 萬 鎔
 중위 宋 在 鳳 중위 金 直 漢
 중위 林 翔 燮 중위 趙 恒 植
 중위 玄 昌 健 중위 金 浩 淵
 중위 崔 順 善 중위 李 燦 權
 중위 李 載 國 중위 田 亨 一
 중위 金 泌 楨 중위 權 贊 植
 중위 黃 正 德 소위 白 南 得
 소위 高 永 一 소위 金 甲 奎
 소위 金 相 光 소위 申 峻 基
 소위 朴 泰 均 소위 李 永 植
 소위 曹 世 煥 美空軍조종사
 소위 李 相 得 대위 Shiffel
 소위 金 容 浩 대위 Garces
 소위 徐 東 奎 중위 Hauer
 소위 孫 永 福 중위 Porter

나. 전투 전의 개황

前線에서는 별다른 변동없이 制禦點에 대한 쟁탈전이 거듭되었다.

이러한 戰局에 있어서 空軍은 후방차단작전을 續行하면서 전투지역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에 활발히 전개하여 敵의 前後方戰力을 크게 약화시켰다.

그러하여 그들은 전선요충부에 대공포전지를 보강하고 또 많은 병력을 전선에 배치하는등 전선세력강화에 광분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韓國空軍은 2월에 이르러 F-51전폭기(Mustang)4대를 보유하게 되어 그동안 제1전투비행단의 前進部隊로서 江陵基地에서 作戰을 遂行한 제10전투비행전대를 基幹으로 江陵基地에 제10전투비행단을 創設하고 또한 조종사양성에 加一層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泗川基地의 제1전투비행단을 비행 훈련에 注力할 수 있는 제1훈련비행단으로 개편하였다.

이와같이 戰力이 강화된 空軍은 氣象이 양호한 가운데 제1군단의 전투지역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후방차단작전을 수행키로 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2월 15일부터 제10전투비행단은 杆城—高城일대의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에 重點을 두기로 하였는데, 同月 28日까지 사이에 1도합 208회에 達하는 출격을 기록하면서 敵陣地를 강타하여 多大한 戰果를 거두었다.

(그리고 3월에는 실제출격일수 20일간에 도합 358회, 4월에는 실제출격일수 23일간에 도합 523회에 達하는 출격으로 高城—縣里—金城—平康—安峽일대에 산재한 보급로와 보급품집적소 및 주요 군사시설에 폭탄을 投下하고 전선정면에도 기총사격을 加하여 그들의 전선 전후방을 뒤흔들어 놓았는데, 그 月日別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2月後半期の 概況

15일 : 09.35에 田亨—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臺의 F-51전폭기편대는 新垆里(高城 南쪽 16km)상공에서 지상군을 향하여 불을 뿜는 야포진지를 발견하자 즉시 급강하로 이를 강타하였으며 이어 10.05에 黃正德 중위가 지휘하는 4臺는 沙飛里(高城 南쪽 17km)일대에 있는 야포진지를 목표로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사격을 加하여 1개소를 覆滅하는등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또한 林翔燮 중위가 이끄는 4臺는 14.20에 沙泉里(高城 南쪽 26km)상공으로 출격하여 Bunker 3개소와 야포진지 1개소를 대파하였다.

16일 : 09.05에 金浩淵 중위가 지휘하는 4臺는 沙飛里상공에서 트럭의 행렬을 포착하자 즉시 이를 강타하여 2臺를 불사르고 다시 그 일대의 전투지역에 기총사격과 폭탄투하로

Bunker 1개소를 파괴하였으며 敵兵 1名도 살상하였다.

또 09.55에 朴用萬 중위가 이끄는 4臺는 安道里일대에 구축된 甄塚(교통線)를 따라 機動中인 敵隊列을 발견하고 즉시 이를 폭격하였으며 그부근에 있는 트럭의 행렬을 강타하여 1臺를 全破하는등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한편 이날 14.20에 崔順善 중위를 선두로한 4臺의 F-51전폭기와 이어서 14.40에 俞致坤 대위가 지휘하는 4臺는 각각 內砮里(高城 西쪽 3km)에 있는 보급품집적소에 폭탄을 集中 투하한 끝에 18개소를 全燒燬하여 삼시간에 그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17일 : 이날 09.20에 田亨一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臺가 沙泉里상공으로 출격하여 交戰中인 지상군과 호응하면서 敵陣을 강타한 끝에 Bunker 2개소를 大破하였으며 이어 09.50에 沙飛里상공에서 林翺燾 중위를 선두로한 4臺는 야포진지 2개와 Bunker 1개소를 覆滅하였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氣象이 不順한 탓으로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출격을 중지하고 F-51 전폭기의 정비와 작전교육으로 다음출격에 대비하였다.

18일 : 氣象이 회복되자 09.30에 朴用萬 중위가 이끄는 4臺와 10.00에 俞致坤 대위를 선두로한 4臺는 각각 柳城里(高城 西南쪽 6km)에 있는 보급품집적소를 폭격하여 18개소를 불태워버렸다.

또 13.45에 출격한 4臺는 寶湖里(高城 東南쪽 4km)상공에서 교묘히 위장한 보급품집적소를 포착하자 즉시 張星太 소령을 선두로 폭탄을 투하한 끝에 2개소를 화염으로 휘감아 놓았다.

이날 14.00에는 田亨一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臺가 月比山(△459, 高城 南쪽 6km)상공으로 출격하여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적진을 강타, 박격포진지 3개소와 Bunker 1개소를 大破하여 지상군으로 하여금 유리한 전황을 타개토록 하였다.

19일 : 09.20에 朴用萬 중위가 지휘하는 4臺의 F-51전폭기편대는 姑味城里(高城 南쪽 23km)상공에서 지상군을 위압하는 박격포진지 3개소를 大破하였으며, 이어 09.40에 俞致坤 대위가 이끄는 4臺는 沙飛里일대에 있는 야포진지 3개소와 박격포진지 2개소를 폭격한 다음 다시 台峰里상공에서 機動中인 트럭의 행렬을 발견하는 즉시로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사격을 加하여 2臺를 全破하였다.

한편 13.50에 新垆里상공에 도달한 4臺는 林翺燾 중위의 지휘로 탄약집적소 1개소를 폭파하고 다시 불을 뿜는 박격포진지를 강타하여 2개소를 파괴하였을 뿐아니라 敵兵 1명도 살상하였다.

14.40에 田亨一 중위를 선두로한 4臺는 沙飛里상공에서 交戰中인 지상군과 호응하면서 목표에 폭탄투하와 기총소사로 박격포진지와 Bunker 각1개소를 대파하고 20명을 살상하였다.

20일 : 09.20 에 출격한 4臺의 F-51전폭기는 李載國 중위의 지휘로 台峰里일대에 있는

야포진지를 강타하였으며 또 10.00에 金錦成 소령이 이끄는 4臺와 14.20에 黃正德 중위를 선두로한 4臺는 각각 西峨里(長箭 東쪽 9km)상공에서 塹壕를 따라 機動中인 敵隊列을 포착하자 즉시 급강하 하면서 그일대에 기총사격을 加하고 폭탄을 투하한 끝에 Bunker 5개소와 야포진지 2개소를 대파하는등 그일대를 破片이 亂飛하는 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또한 14.40에 靈津里(長箭 東쪽 8km)상공으로 출격한 4臺는 田亭一 중위의 지휘로 그일대에 폭탄투하와 기총공격으로 동굴 1개소를 대파하였다.

21일 : 이날 金浩淵 중위가 이끄는 4臺는 09.10에 月比山으로 출격하여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敵의 Bunker를 강타, 2개소를 大破하였으며, 이어 09.50에 출격한 4臺는 林翔燮 중위의 지휘아래 高城에 있는 보급품집적소를 폭격하여 그中 1개소를 불태워버렸다.

또 權贊植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臺의 F-51전폭기편대는 13.35에 雲谷里(高城 西北쪽 5km)상공에서 전선으로 향하는 트럭의 행렬을 강타하여 그 機動을 저지시켰으며 또 朴用萬 중위를 선두로 14.20에 출격한 4臺는 長亭里(高城 西쪽 3km)상공에서 트럭행렬을 포착하자 즉시 기총사격을 加하고 폭탄을 투하하여 1臺를 불사르고 다시 그 부근에 있는 건물 1棟을 파괴하였다.

22일 : 俞致坤 대위를 편대장으로한 4臺는 09.50에 高城일대에 있는 건물에 폭탄을 투하하여 1棟을 大破하였으며 이어 10.35에 內沔里(高城 南쪽 12km)상공에서 5臺의 F-51전폭기는 목표를 포착하자 金錦成 소령의 지휘로 즉시 급강하 하면서 기총소사와 폭탄투하로 박격포진지 4개소와 Bunker 2개소를 파괴하는등 지상군으로 하여금 유리한 전황을 타개토록 하였다.

한편 이날 15.10에 田亭一 중위를 선두로한 4臺와 朴用萬 중위가 지휘하는 4臺는 15.45에 각각 月比山일대에 있는 敵陣地를 강타한 결과 동굴 5개소와 자동화기진지 2개소를 大破하는등 그들의 전세를 약화시켰다.

23일 : 俞致坤대위가 이끄는 4臺는 09.40에 內沔里상공으로 출격하여 폭탄 투하와 기총소사로 박격포진지 3개소와 Bunker 2개소를 파괴하고 敵兵 50名(추정)을 살상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이어 10.00에 田亭一 중위가 지휘하는 4臺의 F-51 전폭기편대는 다시 內沔里일대에 폭탄을 투하하여 삼시간에 그일대를 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또한 權贊植 중위를 선두로한 4臺는 10.25에 또 金錦成소령을 편대장으로한 4臺는 10.40에 沙飛里상공으로 각각 출격하여 지상군과 호응하면서 목표를 강타한 끝에 박격포진지 6개소와 Bunker 4개소를 覆滅하였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바람이 심한 까닭에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출격을 보류하고 작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다음 출격에 萬全을 期하였다.

24일 : 이날 11.20에 鑑月里상공에서 4臺의 F-51전폭기편대는 俞致坤 대위를 선두로 敵

陣에 기총사격을 加하면서 폭탄을 투하하여 자동화기진지 4개소와 박격포진지 1개소를 대파하였다.

이어 李載國 중위가 이끄는 4臺가 11.40에 三日浦(高城 北쪽 2km)상공에서 목표를 강타하여 자동화기진지 3개소와 박격포진지 1개소를 覆滅하였다.

한편 14.10에 權贊植 중위를 선두로한 4臺의 F-51전폭기편대와 14.35에 金錦成 소령이 지휘하는 4臺는 각각 台峰리에 있는 敵陣地를 강타하여 Bunker 5개소와 박격포진지 4개소를 대파하는등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하였다.

25일 : 이날은 목표상공에 구름이 덮였고 바람이 심한 탓으로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출격을 중지하고 連日 출격하던 F-51전폭기의 점검과 작전교육을 실시하였다.

26일 : 다시 날씨가 회복되자 09.30에 金浩淵 중위를 선두로한 4臺의 F-51전폭기는 外沔里(高城 南쪽 10km)상공으로 출격하여 交戰중인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敵陣에 기총소사와 폭탄을 加한 끝에 박격포진지 2개소와 Bunker 1개소를 대파하였으며 이어 張星太 소령이 지휘하는 4臺는 10.00에 月比山상공에서 폭탄투하와 기총공격으로 박격포진지 2개소를 파괴하고 1名(추정)을 살상하였다.

또한 14.05에 출격한 4臺는 鑑月里상공에서 지상군을 向하여 불을 쬐는 敵陣地를 포착하자 즉시 金錦成 소령의 지휘로 급강하 하여 이를 강타한 결과 Bunker 4개소와 박격포진지 2개소를 파괴하는등 지상군의 사기를 양양케 하였으며 이어 14.40에 朴用萬 중위가 이끄는 4臺는 高城에 있는 터널을 목표로 폭탄을 투하한 끝에 3개소를 대파하였다.

27일 : 俞致坤 대위를 편대장으로한 4臺의 F-51전폭기편대는 09.10에 鑑月里상공에서 一進一退의 攻防戰을 거듭하는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목표를 강타한 결과 Bunker 3개소를 覆滅하였다. 또 黃正德 중위를 선두로한 4臺는 09.45에 月比山일대에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사격을 加한 끝에 박격포진지 2개소를 파괴하고 야포진지와 Bunker 각1개소를 대파하는등 敵陣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이날 10.30에 李載國 중위가 이끄는 4臺의 F-51편대는 姑味城里상공에서 폭탄과 기총소사로 Bunker 3개소와 야포진지 1개소를 파괴하였으며 11.00에 기지를 이륙한 4臺는 金浩淵 중위의 지휘로 沙飛리에 있는 Bunker를 강타한 끝에 2개소를 覆滅하였다.

한편 張星太 소령을 편대군장으로한 F-51전폭기 18臺는 14.50에 望月里(伊川 東쪽 18km)상공으로 출격하여 그일대에 산재한 보급품집적소에 폭탄을 투하한 끝에 그일대를 걸북은 火焰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28일 : 田亨一 중위가 이끄는 4臺의 F-51전폭기는 09.35에, 이어 25분후에 金錦成 소령이 지휘하는 4臺가 각각 鑑月里상공으로 출격하여 그일대의 敵陣에 기총사격을 加하고 폭탄을 투하한 결과 자동화기진지 4개소와 등굴 2개소를 대파하는등 그들의 전세를 위축케하였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風雨가 심한 탓으로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출격을 보류하였다.

(2) 3月中의 概況

1일 : 10. 15에 朴用萬 중위를 선두로한 4號의 F-51전폭기와 10. 50에 張星太 소령이 지휘하는 4號는 각각 沙飛里일대의 敵陣地에 폭탄투하와 기총소사로 야포진지 3개소와 박격포진지 2개소 그리고 자동화기진지와 동굴 각 2개소를 파괴하는등 삼시간에 그일대를 수라장으로 만들어 그들의 전세를 위축케하였다.

또한 林翔燮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號는 이날 14. 00에 濟湖里상공에서 교묘하게 위장한 보급품집적소를 강타하여 2개소를 불사르고 다시 그 근처에서 불을 뿜는 Bunker를 발견하자 즉시 기총사격을 加하고 폭탄을 투하한 끝에 2개소를 覆滅하였다.

이어 14. 20에 權贊植 중위가 이끄는 4號는 鑑月里일대에서 분투중인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敵의 박격포진지 3개소를 파괴하고 탄약집적소 1개소를 폭파하였다.

이와같이 空軍은 高城일대의 전투지역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작전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지상군의 사기를 높였을 뿐아니라 敵의 전력을 크게 약화시켰는데, 그들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要地와 要部에 대공포진지를 강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일 : 이날은 氣象이 不順한 까닭에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출격을 중지하고 작전교육을 실시하면서 다음 출격에 대비하였다.

3일 : 이날 오전에도 氣象이 고르지 않아 출격을 보류하다가 점차 날씨가 회복되자 15. 25에 內沔里상공으로 출격한 4號의 전폭기편대는 金浩淵 중위를 선두로 敵陣에 급강하 하면서 기총소사와 폭탄투하로서 Bunker 8개소를 대파하고 박격포진지와 자동화기진지 각 2개소를 파괴하는등 그일대를 뒤흔들어 놓았다.

4일 : 李載國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號는 이날 09. 05에 濟湖里상공으로 출격하여 Bunker 3개소를 폭파하는등 지상군의 사기를 높였으며, 이어 30분후에 內沔里상공으로 출격한 4號의 F-51전폭기편대는 朴用萬 중위의 지휘로 보급품집적소를 강타한 끝에 3개소를 화염으로 휘감아 놓았다.

또 14. 15에 출격한 4號는 朴贊植 중위의 지휘아래 鑑月里일대의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敵의 동굴 1개소를 대파하는등 그일대에 기총사격을 加하여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으며 또 14. 30에 黃正德 중위가 이끄는 4號는 月比山상공에서 폭탄투하와 기총소사로 Bunker와 야포진지 및 박격포진지 각 1개소를 파괴하여 交戰中인 지상군으로 하여금 유리한 전황을 타개토록 하였다.

5일 : 黃正德 중위를 선두로한 4號의 F-51전폭기편대는 09. 10에 기지(K-18)를 이륙하여 鑑月里상공에서 塹壕를 따라 機動中인 敵隊列을 발견하자 즉시 급강하 하면서 그일대에 폭탄과 기총사격을 加하여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으며 또 09. 35에 沙泉里상공에 도달한 4號는 田亨一 중위의 지휘로 敵陣地를 강타하여 박격포진지와 야포진지 각 2개소를 파괴하

였다.

한편 權贊植 중위가 이끄는 4 Squadron은 이날 14.55에 內沔里상공으로 출격하여 동굴 2개소와 Bunker 1개소를 대파하였으며, 이어 15.15에는 新垓里상공에서 金浩淵 중위가 지휘하는 4 Squadron의 F-51전폭기편대가 야포전지 1개소를 覆滅하였다.

6일 : 08.35에 朴用萬 중위의 선두지휘로 月比山에 도달한 4 Squadron은 작열하는 대공포탄을 헤치면서 敵陣地를 강타하여 박격포전지 1개소를 파괴하고 全機 무사히 江陵基地(K-18)에 귀착하였다.

또 李載國 중위는 이날 09.10에 4 Squadron의 F-51전폭기를 이끌고 鑑月里상공으로 출격하여 대공포화가 亂飛하는 가운데 목표에 기총사격을 가하면서 폭탄을 투하하여 Bunker 3개소를 대파하였는데 폭격도중 1번기 李載國 중위의 愛機가 敵의 대공포에 被擊되어 검은연기를 뿜으면서 그부근의 我軍진지에不時着하였는데 비행기는 全破하였으나 조종사는 脫出하였으며 나머지 3 Squadron은 무사히 江陵基地(K-18)에 귀착하였다.

한편 黃正德 중위를 선두로 14.20에 內沔里상공으로 출격한 4 Squadron은 지상군을 向하여 불을 쬐는 Bunker 2개소를 대파하여 지상군의 사기를 앙양케 하였다.

그리고 林翔燮 중위를 편대장으로 한 4 Squadron의 F-51전폭기편대는 이날 14.55에 鑑月里상공에서 대공포화를 헤치면서 敵陣地를 강타한 끝에 박격포전지와 동굴 각 1개소를 파괴하였는데 이 폭격에서 4번기 任宅淳 중위가 敵의 對空砲에 맞아 愛機와 함께 敵陣에 돌입, 장렬히 戰死하였으며 나머지 3 Squadron은 무사히 기지(K-18)에 귀착하였다.

7일 : 이날은 전날에 조종사를 잃은 제10전투비행단의 憂愁와도 같이 짙은 구름이 뒤덮였고 바람이 심한 까닭에 출격을 중지하였는데 8일에도 역시 氣象이 不順하여 작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음 출격에 대비하였다.

9일 : 이날 날씨가 회복되자 09.10에 鑑月里상공으로 출격한 4 Squadron의 F-51전폭기편대는 玉滿鎬 소령의 지휘아래 敵陣地에 급강하 하면서 기총사격을 가하고 폭탄을 투하하여 Bunker 3개소와 박격포전지 2개소를 파괴하였다. 이어서 09.45에 출격한 4 Squadron은 汀月里(高城 南쪽 6km)상공에서 교묘하게 위장한 보급품집적소를 발견하여 즉시 權贊植 중위를 선두로 이를 강타한 결과 4개소를 불태워버렸다.

한편 田亨一 중위가 이끄는 4 Squadron은 이날 14.05에 姑昧城里상공으로 출격하여 박격포전지 2개소와 야포전지 1개소를 覆滅하는 등 지상군으로 하여금 유리한 전황을 타개토록 하였다.

또 金浩淵 중위를 선두로 14.30에 출격한 4 Squadron은 新垓里일대의 敵陣地에 폭탄과 기총사로서 박격포전지 3개소와 야포전지 1개소 그리고 Bunker 2개소를 대파하였다.

10일 : 이날 다시 氣象은 惡化되어 12일까지 계속된 까닭에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F-51 전폭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13일 : 金浩淵 중위를 선두로 한 4 Squadron의 F-51전폭기편대는 이날 09.40에 內沔里상공으로

출격하여 甄鑿를 따라 機動中인 敵隊列을 강타하고 또 그 근처에 있는 동굴을 폭격하여 3개소를 대파하였으며 이어 10.10에 田亨一 중위가 지휘하는 4號는 高城상공에서 Bunker 2개소와 동굴 1개소를 파괴하였다.

한편 俞致坤 대위가 이끄는 4號는 14.10에 기지를 이륙하여 鑑月里일대의 敵陣地를 뒤흔들어 놓았으며 이어 14.30에 출격한 4號는 浦外津里(高城 東南쪽 5km)상공에서 지상군을 制壓하는 Bunker를 발견하자 黃正德 중위를 선두로 급강하 하면서 기총사격을 加하고 폭탄을 투하하여 2개소를 파괴하였다.

14일 : 09.00에 林翔燮 중위를 선두로한 4號의 F-51전폭기편대는 姑味城里일대에서 불을 뿜는 박격포진지를 강타하였으며, 또 權贊植 중위가 이끄는 4號는 이날 09.35에 新岱里상공에서 敵陣地에 기총사격을 加하여 그들의 전세를 위축케 하였다.

한편 13.40에는 高峰里(高城 東南쪽 2km)상공으로 출격한 4號가 金錦成 소령의 지휘로 그일대의 동굴을 폭격하였으며 이어 14.15에 田亨一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號는 鑑月里일대에서 交戰中인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敵陣地에 기총소사와 폭탄투하로 Bunker 2개소를 파괴하는등 지상군의 사기를 앙양케 하였다.

15일 : 崔順善 중위가 지휘하는 4號는 이날 09.25에 汀月里상공으로 출격하여 그 일대에 산재한 동굴을 발견하자 즉시 급강하 하면서 기총사격을 加하고 폭탄을 投下한 끝에 5개소를 대파하였으며 또 趙恒植 중위가 이끄는 4號의 F-51전폭기편대는 09.50에 蘆湖里에 있는 Bunker 1개소를 覆滅하였다.

그리고 이날 俞致坤 대위를 선두로한 4號는 14.20에, 이어 30분후에 黃正德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號는 각각 新岱里상공으로 출격하여 交戰中인 敵陣에 폭탄투하와 기총공격으로서 야포진지 2개소를 대파하고 다시 그 부근에 있는 보급품집적소 1개소를 불태워 버렸다.

16일 : 09.35에 鑑月里상공에서 지상군과 호응하면서 목표를 포착한 4號의 전폭기는 차用萬 중위를 선두로 급강하 하여 이를 강타한 끝에 Bunker와 박격포진지 각 2개소를 파괴하였으며 또 金錦成 소령이 지휘하는 4號는 10.00에 月比山상공에서 동굴과 甄鑿를 목표로 그 일대에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사격을 加하여 동굴 1개소를 대파하는등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한편 14.05에 출격한 4號는 林翔燮 중위의 지휘로 台峰里일대에서 一進一退의 攻防戰을 거듭하는 지상군을 엄호하였으며 이어 30분후에는 崔聖達 중위가 이끄는 4號가 浦外津里일대의 激戰地에 기총소사와 폭탄투하로서 Bunker 2개소를 覆滅하는등 지상군으로 하여금 유리한 전황을 타개토록 하였다.

17일 : 이날은 목표상공에 구름이 다소 덮인 까닭에 출격을 제한하였으나 俞致坤 대위를 편대장으로한 4號의 F-51전폭기는 11.00에 鑑月里상공으로 출격한바 있는데 이들은 낮게 깔린 구름으로 말미암아 목표를 정확하게 폭격할 수가 없었다.

이와같이 不順한 氣象은 오후에도 계속되어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출격을 保留하고 連日 출격한 F-51전폭기의 정비와 작전교육을 실시하는등 다음출격에 대비하였다.

18일 : 날씨가 회복되자 09.30에 尹子重 중위를 선두로한 4臺가 다시 鑑月里상공으로 출격하여 지상군을 향하여 불을 뿜는 자동화기진지를 발견하자 즉시 이를 강타한 끝에 1개소를 파괴하였으며 또 崔聖濂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臺의 F-51전폭기 편대는 이날 10.00에 寶湖里상공에서 기총사격과 폭탄투하로 Bunker 2개소를 대파하였다.

한편 14.30에는 沙飛里상공으로 출격한 4臺가 金永敏 중위의 지휘로 자동화기진지 2개소를 覆滅하였으며 이어 14.50에 李培善 중위가 이끄는 4臺는 新垈里일대에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공격을 가하여 자동화기진지 1개소를 대파하였다.

19일 : 이날 다시 日氣가 惡化되어 20일까지 계속된 탓으로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출격을 保留하고 작전교육을 실시하면서 다음 출격의 萬全을 期하였다.

21일 : 이날도 오전에는 氣象이 快晴치 않았으나 점차 회복되자 14.25에 千永星 중위를 선두로한 4臺는 台峰里상공으로 출격하여 그일대에 있는 동굴을 강타한 끝에 4개소를 대파하였으며 또 金洛奎 중위가 지휘하는 4臺의 F-51전폭기편대는 14.50에 高城상공에서 건물을 목표로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사격을 가하여 2棟을 파괴하였다.

한편 金錦成 소령을 편대군장으로한 9臺는 16.10에 洗浦里일대의 보급로를 강타하여 2개소를 사용곤란케 하였다.

22일 : 이날 08.25에 汀月里상공으로 출격한 4臺는 金永煥 중위의 지휘아래 박격포진지 1개소를 覆滅하였으며 이어 10분후에 玉滿鎬 소령이 이끄는 4臺가 新垈里일대에 폭탄투하와 기총소사로서 敵陣을 뒤흔들어 놓았다.

또한 朴用萬 중위를 선두로 11.15에 출격한 14臺의 F-51전폭기편대는 金城상공에서 전선으로 이어진 철도를 강타한 끝에 1개소를 절단하는등 그일대를 수라장으로 만들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구름이 덮힌 상공을 헤치고 15.40에 李寬模 중위를 선두로 姑味城里상공으로 출격한 5臺가 동굴을 발견하자 즉시 기총사격을 가하고 폭탄을 투하한 끝에 2개소를 대파하였다.

23일 : 이날 오전에는 氣象이 고르지 않은 까닭에 출격을 보류하다가 점차 날씨가 회복되자 15.30에 金錦成 소령이 지휘하는 5臺의 F-51전폭기편대가 台峰里상공으로 출격하여 交戰中인 지상군과 호응하면서 敵陣地에 기총공격을 가하고 폭탄을 투하한 끝에 야포진지 2개소를 파괴하였다.

또 崔榮昌 중위가 이끄는 4臺는 이날 15.45에 寶湖里상공으로 출격하여 塹壕를 따라 機動中인 敵隊列을 발견하는 즉시로 기총사격을 가하였으며 그부근에 있는 보급품집적소를 강타한 결과 2개소를 불태워버렸다. 〓

24일 : 09.10에 內沔里상공에서 지상군을 향하여 불을 뿜는 야포진지를 포착한 4臺의 F

—51전폭기는 李培善 중위를 선두로 이에 폭탄투하와 기총소사로 1개소를 覆滅하는등 지상군의 사기를 양양케 하였으며 이어 09.30에 高光壽 중위를 선두로한 4대는 鑑月里일대에서 交戰中인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Bunker 2개소를 대파하였다.

한편 이날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등 氣象이 惡化되어 25일까지 계속된 까닭에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출격을 保留하고 작전교육을 실시하면서 다음 출격에 대비하였다.

26일 : 이날 鑑月里地區에서의 彼我接戰이 熾烈하게 되자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그 일대에 대한 근접지원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는데, 09.50에 尹應烈 소령을 선두로한 4대의 F-51 전폭기가, 10.20에는 李基陝 소령이 지휘하는 4대가, 그리고 10.40에 玉滿鎬 소령이 이끄는 4대가, 11.15에 金錦成 소령을 편대장으로한 5대가 각각 출격하여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敵陣地를 강타한 끝에 Bunker 10개소와 동굴 1개소를 대파하는등 그들의 전세를 위축케 하였다.

한편 이날 15.30에 定山里(平康 西쪽 20km)상공으로 출격한 16대의 전폭기는 兪致坤 대위를 선두로 대공포화가 작열하는 상공을 헤치면서 그일대에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사격을 가한 끝에 건물 15棟을 대파하였으며 보급로 1개소를 半破하는등 삼시간에 그 일대를 검붉은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27일 : 이날도 09.10에 金重賚 중위가 이끄는 4대와 이어 09.35에 高光壽 중위를 선두로한 4대는 각각 鑑月里에 있는 敵의 陣地를 강타하여 Bunker 4개소와 박격포진지 1개소를 파괴하는등 지상군으로 하여금 유리한 전황을 타개토록 하였다.

또한 金永敏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대의 F-51전폭기는 14.45에 그리고 李憲根 중위가 지휘하는 4대는 15.20에 姑味城里상공으로 각각 출격하여 지상군을 위압하는 야포진지와 박격포진지 각1개소를 대파하고 동굴 3개소를 파괴하였다.

28일 : 玉滿鎬 소령의 선두지휘로 이날 08.45에 기지(K-18)를 이륙한 18대는 望月里(平康 西쪽 15km)상공에서 교묘히 위장한 보급품집적소를 발견하자 즉시 급강하하여 폭탄을 투하한 끝에 6개소를 全燒케 하였다.

한편 이날 오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30일까지 不順한 氣象이 계속된 까닭에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출격을 保留하고 F-51전폭기의 정비와 작전교육을 실시하였다.

31일 : 다시 日氣가 회복되자 高城일대의 전투지역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을 단행하였는데 09.00에 朴用萬 중위를 선두로한 4대와 20분후에 金錦成 소령이 지휘하는 4대의 F-51전폭기는 각각 寶湖里일대에서 交戰中인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Bunker 11개소를 대파하고 또 崔順善 중위가 이끄는 4대는 10.05에 그리고 林翔燮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대는 10.30에 각각 姑味城里상공으로 출격하여 야포진지와 동굴 각 1개소를 파괴하는등 지상군의 사기를 양양케 하였다.

한편 14.50에 출격한 4대는 李基陝 소령의 지휘로 化岩里상공에서 대공포화를 헤치며 목표물을 강타한 끝에 건물 2棟을 覆滅하였다.

(3) 4月中의 概況

1일 : 趙恒植 중위를 선두로한 4臺의 F-51전폭기편대는 09.45에 新垆里상공으로 출격하여 보급품집적소 4개소를 불사르고 또 交戰中인 지상군과 호응하면서 敵陣을 강타하여 야포진지와 동굴 각 1개소를 대파하였다.

그리고 10.15에 俞致坤 대위가 이끄는 4臺와, 13.40에 金重實 중위가 지휘하는 4臺는 다시 新垆里일대에 기총사격을 加하고 폭탄을 投下한 끝에 동굴 7개소와 자동화기진지 2개소를 파괴하였을 뿐아니라 敵兵 40名(추정)을 殺傷하였다.

한편 14.30에 출격한 4臺는 沙飛里상공에서 塹壕를 따라 機動中인 敵隊列을 발견하자 즉시 李培善 중위를 선두로 기총공격을 加하면서 폭탄을 투하한 끝에 20名을 殺傷하였다.

2일 : 11.55에 寶湖里상공으로 출격한 4臺의 F-51전폭기는 林翔燮 중위의 지휘로 교묘히 위장한 보급품집적소를 강타하여 4개소를 불태워버렸다.

이어 12.20에 朴用萬 중위가 이끄는 4臺는 外沔里상공에서 불을 뿜는 야포진지를 발견하고 즉시 폭탄투하와 기총소사로서 4개소를 파괴하였다.

또 李康和 소령을 편대장으로한 4臺는 이날 다시 外沔里상공으로 출격하여 동굴 1개소를 대파하는등 敵陣에 기총공격으로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으며 15.10에는 李罔杓 중위가 지휘하는 4臺의 전폭기가 內沔里에 있는 동굴 3개소를 覆滅하였다.

3일 : 이날은 목표상공에 짙은 구름이 덮였고 바람이 심한 탓으로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출격을 중지하고 F-51전폭기의 점검을 실시하면서 다음출격의 萬全을 期하였다.

4일 : 08.40에 俞致坤 대위를 선두로한 4臺의 F-51전폭기는 高城상공에서 폭탄과 기총소사로 Bunker 5개소와 야포진지 2개소를 파괴하는등 그들의 전세를 위축케 하였으며 또 金泌禎 중위가 이끄는 4臺는 09.30에 新垆里상공으로 출격하여 지상군을 위압하는 Bunker를 발견하자 즉시 급강하 하여 이를 강타한 끝에 2개소를 覆滅하였다.

한편 14.30에 榆昌里(金城 東北쪽 8km)상공으로 출격한 4臺는 林翔燮 중위의 지휘아래 그일대에 산재한 鐵道를 폭격하여 사용곤란케 하였다.

그리고 尹應烈 소령을 편대장으로한 4臺는 14.45에 外沔里상공에서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동굴 1개소를 大破하였으며, 이날 15.20에는 金錦成 소령을 선두로한 10臺의 전폭기가 炭甘里(金城 東北쪽 5km)상공에서 목표를 포착하자 작열하는 대공포탄을 헤치면서 이를 강타한 끝에 건물 2棟과 보급로 2개소를 폭파하였다.

5일 : 이날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日氣不順으로 출격을 중지하고 출격조종사들에게 작전교육을 실시하면서 다음출격에 대비하였다.

6일 : 날씨가 회복되자 08.55에 金錦成 소령을 선두로한 8臺의 F-51전폭기와, 또 09.30

에 朴用萬 중위가 이끄는 8리는 峰巖山(△60, 延安 南쪽 15km)일대에 있는 군사시설을 강타한 끝에 건물 10棟을 파괴하는등 삼시간에 그일대를 검붉은 화염으로 휘감아 놓았다.

또한 高光壽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號의 전폭기는 14.00에 汀月里상공에서 동굴을 폭격하여 3개소를 파괴하였으며 이어 14.25에 다시 汀月里로 출격한 4號는 崔榮昌 중위의 지휘로 동굴 1개소를 파괴하는등 敵陣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14.50에 金重寶 중위가 지휘하는 4號는 新垌里상공에서 동굴을 발견하자 즉시 폭탄을 투하하여 5개소를 파괴하였으며 이어 15.35에 李培善 중위가 이끄는 4號는 다시 新垌里상공으로 출격하여 동굴 2개소를 파괴하고 敵陣에 폭탄투하와 기총사격으로 박격포진지 2개소를 覆滅하는등 交戰中인 지상군의 사기를 크게 높였다.

7일 : 이날 崔榮昌 중위가 이끄는 4號는 08.40에, 또 千永熙 중위가 지휘하는 4號의 F-51전폭기는 09.05에 각각 鑑月里상공으로 출격하여 一進一退의 攻防戰을 거듭하는 지상군과 호응하면서 敵陣地에 기총공격을 가하고 폭탄을 투하한 끝에 Bunker 3개소와 야포진지 2개소 그리고 자동화기 1개소를 파괴하는등 그일대를 뒤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13.40에 李周杓 중위를 선두로한 5號와 이어 14.15에 尹子重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號는 下汀月일대에 있는 자동화기진지를 강타한 끝에 4개소를 覆滅하고 塹壕를 따라 機動중인 敵隊列에 기총사격을 가하여 그 機動을 저지케 하는등 그들의 전세를 위축시켜 놓았다.

8일 : 李培善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號의 F-51전폭기편대는 08.35에 濫津里(長箭 東쪽 8km)상공으로 출격하여 그 일대에 산재한 보급품집적소를 강타한 끝에 2개소를 불태워버렸다.

이어 09.10에는 2개편대가 출격하였는데 金重寶 중위가 이끄는 4號의 제1편대는 下汀月상공에서 자동화기진지 1개소를 파괴하였으며, 峰巖山으로 출격한 8號의 제2편대는 李基陝 소령의 지휘아래 군사시설을 목표로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사격을 가한 끝에 삼시간에 그일대를 수라장으로 만들었다.

한편 15.00에 兪致坤 대위가 지휘하는 4號는 鑑月里상공에서 塹壕를 따라 機動中인 敵隊列을 발견하자 즉시 기총공격을 가하여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으며 이어 15.20에 출격한 4號의 전폭기는 桂月里(高城 西北쪽 3km)에 있는 보급품집적소를 폭격하여 그 일대를 화염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9일 : 이날 다시 氣象이 惡化되어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출격을 중지하고 연일 출격한 F-51전폭기의 정비를 실시하였다.

10일 : 09.00에 4號의 F-51전폭기는 鑑月里상공으로 출격하여 李基陝 소령의 지휘로 交戰中인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Bunker 3개소를 覆滅하는등 敵陣을 뒤흔들어 놓았으며, 또 30분후에 兪致坤 대위가 이끄는 4號와 14.10에 金錦成 소령을 편대장으로한 4號가 鑑月里일

대의 敵陣地에 폭탄투하와 기총소사로서 Bunker 5개소와 동굴 4개소를 大破하여 지상군으로 하여금 유리한 전황을 타개토록 하였다.

그리고 14.30에 柳城里(高城 西南쪽 4km)상공으로 출격한 4臺의 전폭기는 교묘히 위장한 보급품집적소를 포착하자 宋在鳳 중위를 선두로 紛飛하는 대공포화를 헤치면서 이를 강타하여 삼시간에 그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고 全機는 무사히 江陵基地(K-18)에 귀착하였다.

11일 : 玄昌健 중위가 이끄는 4臺의 F-51전폭기는 09.20에 寶湖里상공으로 출격하여 불을 뿜는 야포진지를 발견하자 즉시 급강하 하여 폭탄을 投下한 끝에 2개소를 覆滅하였으며 이어 09.55에 李燦英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臺는 高峰里상공에서 Bunker 3개소를 대파하였다.

또 崔順善 중위를 선두로 이날 13.05에 출격한 4臺는 月比山일대에서 一進一退의 攻防戰을 거듭하는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敵陣地에 폭탄투하와 기총소사로서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으며 이어 13.50에 金浩淵 중위가 지휘하는 4臺는 台峰리에 있는 동굴을 강타하여 1개소를 대파하고 다시 甄榮를 따라 機動中인 敵隊列에 기총공격을 가한 끝에 그들의 전세를 위축케 하였다.

12일 : 이날 10.00에 李學善 중위를 선두로한 4臺의 F-51전폭기 편대와 30분후에 金錦成 소령이 지휘하는 4臺는 姑味城里일대의 敵陣地에 기총사격을 가하고 폭탄을 투하하여 야포진지와 박격포진지 각1개소를 覆滅하였다.

또 李基陝 소령이 이끄는 4臺는 15.00에 寶湖里상공에서 지상군을 위압하는 야포진지를 강타한 끝에 2개소를 파괴하였으며 15.30에 新岱里상공으로 출격한 4臺는 玄昌健 중위의 지휘로 그일대에 散在한 Bunker를 득표로 기총공격을 가하여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13일 : 이날은 日氣가 고르지 않은 탓으로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출격을 一時 중지하고 F-51전폭기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였다.

14일 : 이날도 날씨는 不順하였으나 11.15에 金錦成 소령을 편대군장으로한 18臺의 전폭기는 福溪里(平康 西北쪽 3km)상공에서 대공포화가 熾盛한 가운데 操車場에 기총사격을 가하면서 폭탄을 투하한 끝에 화물차량 3輛과 鐵道 3개소를 폭파하는등 삼시간에 그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고 全機 무사히 귀착하였다.

한편 兪致坤 대위의 선두지휘로 13.45에 內沔里상공으로 출격한 4臺는 지상군을 제압하는 Bunker를 강타하여 3개소를 대파하고 李燦英 중위가 이끄는 4臺는 14.45에 外沔리에 있는 Bunker 3개소를 파괴하는등 그일대에서 交戰中인 지상군으로 하여금 유리한 전황을 타개토록 하였다.

또 14.45에 다시 內沔里상공으로 출격한 4臺는 李基陝 소령의 지휘로 그일대에 폭탄투하와 기총소사로서 Bunker 2개소를 覆滅하였으며 15.10에는 玄昌健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臺

의 F-51전폭기가 岫峰里상공에서 동굴 1개소를 대파하는등 敵陣을 뒤흔들어 놓았다.

15일 : 이날 오전에는 氣象이 不順한 까닭에 출격을 보류하다가 점차 회복되자 崔順善 중위가 지휘하는 4臺는 12.20에, 또 宋在鳳 중위가 이끄는 4臺의 F-51전폭기는 12.55에 그리고 李燾英 중위를 선두로한 4臺는 14.10에 각각 外沔里일대에서 攻防戰을 전개하는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敵陣을 강타한 끝에 Bunker 2개소를 覆滅하는등 그 일대를 수라장으로 만들었다.

16일 : 이날 오전에도 日氣가 고르지 않아 출격을 一時 보류한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14.00에 宋在鳳 중위의 지휘로 4臺의 전폭기가 月比山으로 출격하여 그일대에 폭탄과 기총소사를 퍼부어 Bunker 2개소를 대파하였으며, 30분후에는 鑑月里상공에 출격한 4臺의 전폭기가 林翺燮 중위를 선두로 敵陣에 급강하 하면서 폭탄을 투하한 끝에 동굴 2개소를 파괴하였다.

또 李周杓 중위가 이끄는 4臺는 이날 15.05에 沙飛里상공으로 출격하여 야포진지 2개소를 覆滅하였으며, 15.15에 출격한 4臺는 沙飛里상공에서 불을 뿜는 박격포진지를 발견하여 金永敏 중위의 지휘로 이를 강타한 끝에 2개소를 대파하는등 지상군의 사기를 앙양케 하였다.

17일 : 09.35에 金錦成 소령을 선두로한 4臺는 寶湖里상공에서 교묘히 위장한 보급품집적소를 발견하자 즉시 급강하 하여 폭탄을 投下한 끝에 2개소를 불태워버렸다.

또 林翺燮 중위가 이끄는 4臺의 전폭기는 10.00에 外沔里상공으로 출격하여 그일대에 있는 Bunker를 강타한 끝에 2개소를 覆滅하였다.

그리고 15.00에 鶴峰상공으로 출격한 4臺는 李燾英 중위를 선두로 보급품집적소에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사격을 加하여 2개소를 全燒케 하였으며, 15.30에 俞致坤 대위가 지휘하는 4臺는 新岱里일대에 폭탄투하와 기총소사로서 야포진지 2개소를 대파하는등 그들의 전세를 위축케 하였다.

18일 : 李基陝 소령이 지휘하는 F-51전폭기 4臺는 이날 09.20에 岫峰里일대의 敵陣地를 강타한 끝에 자동화기진지와 박격포진지 각 2개소를 파괴하였으며, 이어 09.50에 玄昌健 중위가 이끄는 4臺는 高城상공에서 보급로를 폭격하여 1개소를 폭파하는 한편 지상군을 위압하는 야포진지를 발견하자 즉시 급강하하여 폭탄을 투하한 끝에 2개소를 覆滅하였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目標상공에 짙은 구름이 뒤덮인 탓으로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출격을 一時 중지하고 전투조종사들에게 작전교육을 실시하면서 다음출격에 대비하였다.

19일 : 09.10에 月比山으로 출격한 4臺의 전폭기는 崔順善 중위의 지휘아래 交戰中인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박격포진지와 자동화기진지 각 2개소를 대파하는등 그들의 전세를 위축케 하였으며, 또 宋在鳳 중위가 이끄는 4臺는 寶湖里상공에서 敵陣에 폭탄투하와 기총소사로 Bunker 4개소를 파괴하고 다시 부근에 있는 보급품집적소를 강타한 끝에 2개소를 火

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그리고 14.50에는 內沔里상공에서 兪致坤 대위를 편대장으로한 4臺가 聖嶽를 따라 機動中인 敵隊列에 기총사격을 加하면서 동굴을 폭격하여 2개소를 대파하였으며 金直漢 중위가 지휘하는 4臺는 鑑月里상공에서 동굴 1개소를 파괴하는등 敵陣에 기총소사로서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20일 : 이날 다시 氣象이 惡化되어 짙은 구름이 덮였고 바람까지 심하게 부는 까닭에 제 10전투비행단에서는 출격을 중지하고 F-51전폭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21일 : 崔順善 중위를 선두로 이날 09.05에 출격한 4臺의 전폭기는 彼我間에 치열한 高地 爭奪戰을 전개하는 鑑月里상공으로 출격하여 Bunker 3개소를 파괴하는등 지상군으로 하여금 유리한 轉황을 타개토록 공중지원하였으며 이어 09.35에 金錦成 소령이 이끄는 4臺는 역시 彼我接戰이 치열한 月比山상공에서 지상군을 제압하는 Bunker를 강타하여 4개소를 覆滅하고 다시 박격포진지에 폭탄을 투하한 끝에 2개소를 파괴하였다.

한편 敵의 후방차단을 목표로 이날 12.45에 龍淵里(平康 西北쪽 20km)상공으로 출격한 18臺의 F-51전폭기는 편대장 李基陝 소령의 지휘로 일대에 산재한 건물에 폭탄을 投下하고 기총사격을 加한 끝에 4棟을 覆滅하는등 삼시간에 일대를 火焰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그리고 15.20에 林翔燮 중위를 선두로한 4臺와 15.45에 宋在鳳 중위가 이끄는 4臺는 沙飛里상공에서 자동화기진지 2개소와 야포진지 1개소를 파괴하고 동굴 1개소도 대파하였다.

22일 : 이날 兪致坤 대위가 이끄는 4臺의 전폭기는 10.30에 城北里(長筋 東南쪽 3km)를 목표로 출격중 黃湖里상공에서 지상군을 向하여 불을뿜는 Bunker를 발견하자 즉시 이를 강타하여 4개소를 大破하는 한편, 목표상공에 이르러 트럭의 행렬을 포착하고 즉시 이에 급강하 하면서 폭탄투하와 기총소사로 2臺를 全破하였다.

이어 11.00에 尹子重 중위가 지휘하는 4臺가 다시 城北里상공에서 트럭의 행렬을 강타한 끝에 3臺를 대파하였다.

한편 12.45에 安峽상공으로 출격한 18臺의 F-51전폭기 편대는 대공포화가 紛飛하는 가운데 급강하 하면서 폭탄을 투하한 끝에 건물 2棟을 覆滅하는등 그일대를 검붉은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그리고 金永煥 중위를 선두로한 4臺는 月比山일대에 폭탄투하와 기총소사로서 Bunker 3개소와 야포진지 1개소를 대파하는등 交戰中인 지상군을 엄호하였으며 이어 15.30에 출격한 4臺는 李周杓 중위의 지휘로 普玄里(高城 西南쪽 5km)일대에 산재한 보급품집적소 5개소를 全燒케 하였다.

23일 : 09.00에 崔聖達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臺의 F-51전폭기와 이어 30분후에 金錦成 소령이 이끄는 4臺는 姑味城里일대에서 치열한 접전을 거듭하는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Bunker 4개소를 파괴하는등 그들의 전세를 위축케 하였다.

그리고 俞致坤 대위를 편대군장으로한 18號의 전폭기는 11.00에 文峽里(安峽 西쪽 8km) 상공으로 출격하여 군사시설을 목표로 폭탄을 투하한 끝에 건물 9棟을 파괴하니 삼시간에 그일대는 火焰과 硝煙에 휩쌓였다.

한편 15.00에 白晶鉞 중위를 선두로한 4號는 月比山상공에서 煙霧를 따라 機動中인 敵隊列을 강타하면서 일대에 기총사격을 加하여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그런데 이날 張昌甲 중위와 徐東奎 소위는 江陵基地(K-18)를 이륙하여 편대를 편성코져 선회하던중 空中충돌로 散華하였다.

24일 : 이날은 氣象이 고르지 않은 탓으로 비행활동이 저조하였는데 11.40에 宋在鳳 중위를 편대군장으로한 18號의 F-51전폭기가 鼎洞里(平康 西北쪽 14km)상공으로 출격하여 그일대에 폭탄투하와 기총공격으로 건물 8棟을 폭파하고 보급품집적소 4개소를 全燒燬 하는 등 그일대를 검붉은 화염으로 휘감아놓았다.

25일 : 이날 07.40에 崔順善 중위를 선두로 출격한 19號의 F-51전폭기는 敵의 후방지원을 차단코자 福溪里일대의 鐵道에 폭탄을 투하한 끝에 2개소를 폭파하였다.

한편 李基陔 소령이 지휘하는 4號는 11.00에 月比山상공으로 출격하여 지상군을 壓호하면서 敵陣을 뒤흔들어 놓았으며 이어 11.35에 鑑月里상공에서 李燾英 중위가 이끄는 4號는 Bunker 2개소를 覆滅하였다.

26일 : 이날도 07.40에 李燾英 중위를 편대군장으로한 18號가 福溪里상공에서 작열하는 대공포화를 해치면서 鐵道 2개소를 절단하고 건물 1棟을 파괴하는등 일대를 화염으로 휘감아 놓았다.

한편 11.00에 朴用萬 중위를 선두로한 4號와 이어 30분후에 金錫成 소령이 지휘하는 4號의 F-51전폭기는 姑味城里에 있는 동굴을 강타하여 3개소를 대파하는등 그일대에 기총사격을 加하여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으며, 15.20에는 宋在鳳 중위가 이끄는 4號가 立石里(高城 東쪽 3km)에 있는 병력집적소에 폭탄투하와 기총소사로서 수라장을 만들어 놓았다.

27일 : 10.25에 朴用萬 중위를 선두로한 18號의 전폭기는 洗浦里(平康 北쪽 25km)상공에서 교묘히 위장한 보급품집적소를 강타하여 8개소를 불사르고 다시 兵力集結所로 관측된 건물 1棟을 파괴하는등 삼시간에 그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한편 이날 오후에 氣象이 惡化되어 비가 내리는등 29일까지 계속된 日氣의 不順으로 제 10전투비행단에서는 출격을 保留하고 작전교육을 실시하였는데 敵은 이틈을 이용하여 각종 보급품을 전선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0일 : 이날도 여전히 日氣가 不順한 탓으로 제 10전투비행단에서는 출격을 제한하였는데 10.10에 金直漢 중위를 편대군장으로한 18號의 F-51전폭기가 福溪里상공에서 대공포화가 紛飛하는 가운데 건물 1棟을 대파하고 全機 무사히 귀착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期間中 空軍은 전투력의 증강과 더불어 杆城—高城일대의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에 중점을 指向한바 交戰中인 지상군으로 하여금 유리한 전황을 타개토록 하는데 크게 공헌하였을 뿐아니라 敵의 전세를 위축시켜 놓았다.

또한 제10전투비행단은 그들의 주요도읍에 있는 각종 군사시설을 비롯하여 전선배후에 산재한 보급로와 보급품집적소등을 폭격함으로써 보급품이 전선에 도달되기 前에 이를 분쇄하였다.

이러한 空軍의 끊임없는 활동으로 발미암아 그들의 전선세력이 萎縮되자 夜暗이나 氣象不順으로 출격치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약화된 전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특히 4월 26일에 다시 휴전회담이 활기를 띄기 시작하자 그들은 각종보급품과 兵力을 전선으로 대량 이동하는등 전술적 요충지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에 광분하고 있었다.

期間中 空軍이 수행한 작전의 종합戰果 및 損失은 다음과 같다.

綜合戰果 및 損失

戰	果	철	도	損	失
Bunker	폭파 165個所	트	트	F-51전폭기	4臺
박격포 진지	" 75 "	탄	탄	조종사	3名
야포 진지	" 49 "	화물차량	"		
자동화기진지	" 35 "	동	굴		
보급로	" 6 "	턴	널		
보급품집적소	" 90 "	兵	力	殺傷	133 名
탄약집적소	" 2 "				
건물	" 59 棟				

마. 제10전투비행단의 창설

1951년 7월 10일에 開城에서 휴전회담이 開始된 以來로 전선은 高城—文登里—金城—臨津江을 連하는 線에서 교착되어 彼我間에는 유리한 高地를 탈취키 위한 쟁탈전이 거듭되었다.

이러한 戰局에 있어서 空軍은 1951년 8월 1일부터 泗川基地에 주둔한 제1전투비행단의 일부를 전선 가까이로 이동하기 위한 노력 끝에 江陵에 새로운 基地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9월 17일부터 이동을 시작하였는데, 10월 1일에 제1전투비행단 부단장겸 제10전투비행전대장인 金英煥대령이 F-51전폭기 10臺를 이끌고 江陵基地로 進出함으로써 제10전투비행전대의 이동은 완료되었다.

이와같이 제1전투비행단의 前進部隊로서 江陵基地에 제10전투비행전대를 설치한 空軍은 10월 11일에는 待望의 단독출격작전을 開始하였다.

그후 空軍은 共匪討伐과 보급로차단을 수행하는 동안에 美 제5공군으로부터 戰鬪能力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공군력확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리하여 空軍은 11월에 후방지원부대의 확장정비에 이어 다시 1952년 5월 25일부터 空軍本部를 비롯한 후방부대를 개편하고 6월 18일에는 전투부대인 제1전투비행단을 개편하였는데, 특히 江陵基地의 제10전투비행전대의 機構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후 空軍은 후방차단작전을 續行하면서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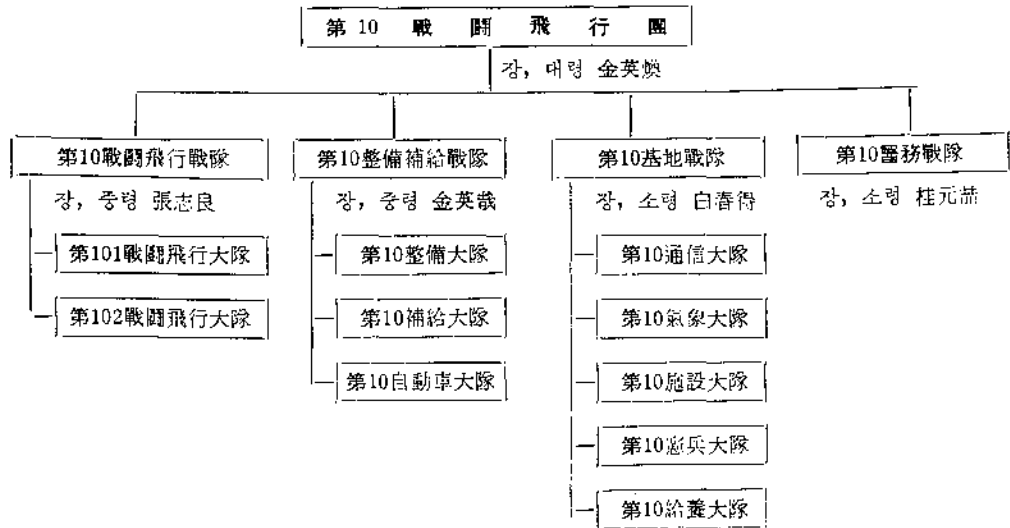
속한바 10월 28일에는 待望의 空地協同作戰을 단행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후방차단작전과 杆城—高城일대의 제1군단에 대한 근접지원을 併行하는 동안에 전투조종사의 전투능력이 향상되고 또 근접지원의 다대단 성과로 점차 지상군에 대한 항공지원요청이 輻輳하게 되었다.

특히 1953년 2월에 이르러 제10전투비행전대는 F-51전폭기 40대를 포함하여 全保有機가 70餘臺로 증강되었으므로 새로이 전투비행단을 증편하기에 이른 것이다.

즉, 1953년 2월 15일에 그동안 제1전투비행단의 前進部隊로서 江陵基地에서 作戰을 수행한 제10전투비행전대를 基幹으로 江陵基地에 제10전투비행단을 創設하여 作戰분야만 전담케 하고 또 空軍戰力の 基本이 될 조종사양성에 加一層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泗川基地의 제1전투비행단을 비행훈련에 注力할 수 있는 제1훈련비행단으로 改編하였다.

이와같이 一面전투, 一面확장의 부단한 노력끝에 名實이 相符하는 空軍力을 保有하게 된 空軍은 5월에 F-51전폭기 80餘臺를 保有하게 되었으며, 6월부터는 東部전선의 제1군단뿐만아니라 中部전선의 제2군단에 대한 근접지원도 단행하는등 휴전성립일까지 空地協同作戰과 後方遮斷作戰에 注力하였는데, 제10전투비행단 發足當時의 機構와 各指揮官은 다음과 같다.



§ 參戰者의 證言

◇제 10전투비행단 출격조종사 崔聖達 중위

(1976. 6. 3 서울시 禾谷洞 自宅에서, 예 대령)

『우리 [1번기 林翊燮 중위, 2번기 李培善 중위, 3번기 崔聖達 중위(本人), 4번기 任宅淳 중위]는 1953년 3월 6일 14.55에 江陵基地를 이륙하였다.

임무는 鑑月里(高城 東南쪽 6km)에 있는 351高地에서 敵과 치열한 쟁탈전을 전개하는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이었다.

그런데 이곳(△351)은 돌산(岩山)이지만 그부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技術적 요충지이기 때

문에 彼我間의 쟁탈전이 치열하였다.

이윽고 목표상공에 도달한 우리편대는 Mosquito(T-6)와 연타하여 목표를 포착하자 敵의 대공포탄이 작열하는 상공을 헤치면서 1번기를 선두로 급강하 하여 기총사격을 加하고 폭탄을 投下하였는데 내가 폭격을 끝마치고 상승하면서 보니까 4번기(任宅淳 중위)가 機首를 낮추어 降下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정도 내려가서 폭탄을 投下하고 다

시 상승하여야 할때에 곧장 敵陣으로 돌입하였다. 즉 任宅淳 중위는 목표를 폭격료자 진입하다가 대공포화의 直撃으로 愛機와 함께 敵陣에 돌입함으로써 조국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장렬히 산화한 것이다.』



〈故 任宅淳 대위의 銅像〉

(소재 : 空軍사관학교)

◇ 제10전투비행단 출격조종사 李載國 중위
(전몰용사의 手記中에서, 1955. 3. 9 순직)

『1953년 3월 6일 나는 99회째의 출격명령을 받았다.

목표는 高城부근의 351高地이다.

이윽고 09.10이 되자 爆音이 우렁차게 基地를 뒤흔들며 나를 先頭로 차례차례 이륙하였다. (2번기 : 李忠甲 중위, 3번기 : 尹子重 중위, 4번기 : 金洛奎 중위)

이제 우리가 목표상공에 이르자 지상군으로부터 목표물을 向하여 신호탄이 발사되었다.

순간, 나는 僚機들에게 말하기를 "目標은 여기다 여기를 때려라"라고 지시한 후 機首를 낮추어 돌입하였다.

이와같이 나는 僚機들과 함께 目標에 一瞥을 加

하고 敵陣상공을 선회하면서 제2차 공격을 시도하려는데 뜻밖에 我軍이라는 신호탄이 올라왔다.

그리하여 나는 僚機들에게 공격을 중지시키는 한편 다시 무전으로 我地上軍의 위치를 확인하였는데 역시 그곳이 敵陣이니까 주저하지 말고 공격을 續行하여 달라라는 것이다.

이때 비로소 나는 敵의 欺瞞임을 알고 再차 공격할 것을 僚機들에게 지시하고 내가 선두로 目標에 돌입하여 기총소사와 폭탄을 加하니 돌연 對空砲火가 각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순간, 나는 공격을 끝내고 操縱桿을 잡아채며 상승하려는데 광하는 폭음과 함께 全砲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이때 나는 「被彈이구나」하는 直感과 함께 조종간을 다시 잡아채며 計器를 보니 틀림없이 左側기관(Engine)에 被彈되어 연료가 흘러나가고 冷却器는 점점 식어가고 있었다.

이윽고 연료는 全無하고, 또 기관은 内部에서 타기 시작하며 더구나 "프로펠라"까지 멎는게 아닌가.

이때의 高度는 400~500ft, 나는 機首를 我軍진지쪽으로 돌리면서 僚機들에게 계속 공격할것을 지시하고, "나는 비행할 수 있는한 南下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滑空을 계속하였다.

高度는 점점 떨어지고 눈앞에 山이 닥친다. 死力을 다하여 조종간을 잡아채어 山을 넘었다.

순간, 左側에 湖水와 모래밭을 발견한 나는 빌듯이 기뻐했다. 그러나 언덕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어 착륙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아슬아슬하게 그 언덕을 넘는 순간 「쿵」하는 소리와 함께 나는 언덕머리로 추락하였다.

「이제 죽었구나」하는 생각과 때를 같이하여 愛機에 불이 붙어 삼시간에 火焰은 全身을 뒤덮는다. 그리하여 나는 정신을 가다듬어 機體에서 뛰쳐나왔다.

얼마쯤 지났는지 空中에서 요란한 폭음이 들려 번쩍 정신을 차려보니 攻擊을 끝낸 僚機들이 나를 찾고 있었다. 나는 全身이 불덩어리가 된 것도 잊고 손을 흔들며 生存을 알렸더니 僚機들은 機體를 흔들며 선회를 몇번 하다가 基地로 向하였다. 全身에 붙은 불이 內衣까지 타들어가자 나는 이를 벗어버리고 그만 의식을 잃었다. 그 후 동료들에 의하여 구출된 나는 6개월의 치료로 상처가 완쾌되어 다시 비행기를 탈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身命을 다하여 滅共鬪爭에 바치는것 뿐이라는 결의를 새로이 하였다.』

3. 敵의 補給路차단 作戰 (1953년 5월 1일부터 // // 31일까지)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총 참 모 장	중장	崔 用 德	중위	玉 炫 植	중위	李 豪 英	
제10전투비행단 장	대령	金 英 煥	중위	白 周 鉉	중위	林 翔 燮	
제10전투비행전대 장	중령	朴 熙 東	중위	金 昌 烈	중위	崔 順 善	
출격조종사			중위	李 容 均	중위	崔 聖 達	
소령	尹 應 烈	소령	金 錦 成	중위	李 喜 根	중위	金 直 漢
소령	玉 滿 鎬	소령	孫 在 權	중위	金 賢 一	중위	閔 旭 東
		(5, 1부터)		중위	咸 鵬 善	중위	林 東 濬
소령	李 基 陝	대위	孫 興 俊	중위	白 晶 鉉	소위	白 南 得
대위	俞 致 坤	중위	金 永 敏	중위	朴 用 萬	소위	高 永 一
중위	千 永 星	중위	李 忠 甲	소위	金 相 光	美空軍 조종사	
중위	金 洛 奎	중위	白 鎔 三	소위	朴 泰 均	대위	Shiffel
중위	馬 鍾 仁	중위	崔 榮 昌	소위	曹 世 煥	대위	Garces
중위	李 寬 模	중위	李 經 哲	소위	李 相 得	중위	Porter
중위	金 重 寶	중위	白 萬 吉	소위	金 容 浩		
중위	尹 子 重	중위	李 培 善	소위	申 俊 基		
중위	李 校 安	중위	孫 政 序	소위	孫 永 福		
중위	李 周 杓	중위	洪 淳 相	소위	李 永 植		
중위	李 明 輝	중위	金 達 輝	소위	金 甲 奎		
중위	金 賢 千	중위	張 景 順				

나. 전투 전의 개황

지난해 10월 8일부터 中斷된 휴전회담은 1953년 4월에 이르러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同月 20日에는 傷病포로교환이 시작되고 또 26일에는 본회담이 再開되었다.

이리하여 敵은 휴전회담을 지연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전술적요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보급품과 兵力을 전선으로 이동하는등 次期攻勢를 取할 준비에 광분하고 있었다.

이에 空軍은 高城일대의 전투지역에 대한 근접지원을 續行하면서 그들의 보급품 수송을 저지하기 위하여 전선배후에 산재한 보급로와 보급품집적소등에 대한 폭격에 注力키로하였다.

또한 UN空軍에서는 휴전회담의 早期타결을 위하여 그들의 전력근원이 되는 팰과 발전소등을 폭파하면서 西北韓일대에 있는 군사시설과 보급로를 강타함으로써 전선세력을 위축시키고자 하였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제10전투비행단은 5월에 이르러 F-51전폭기 80餘臺를 보유하게 되어 日氣不順으로 실제 18日間밖에 출격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합 508회에 達하는 출격을 기록하면서 高城일대에서 交戰中인 지상군을 엄호하였으며, 특히 縣里—金城—平康일대에 있는 보급로와 보급품집적소등을 강타하여 보급품이 전선에 推進되기 前에 이를 灰燼시켰는데, 그 月日別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5月上旬의 概況

1일 : 金錦成 소령을 편대장으로한 5臺의 F-51전폭기편대는 이날 09.05에, 또 崔順善 중위가 이끄는 4臺는 09.45에 각각 柳城里(高城 西南쪽 4km)상공으로 출격하여 교묘히 위장한 보급품집적소를 강타한 끝에 11개소를 全燒케 하는등 삼시간에 그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한편 이날 11.55에는 李基陝 소령을 편대군장으로한 20臺의 전폭기가 文登里(縣里 東南쪽 20km)상공에서 對空砲火가 熾盛한 가운데 보급품집적소 15개소를 화염으로 휘감아 놓았으며 다시 그일대에 대한 폭탄투하와 기총소사로 Bunker 3개소와 동굴 1개소를 대파하고 全機 무사히 기지에 귀착하였다.

그리고 14.40에 朴用萬 중위를 선두로한 4臺와 이어 20분후에 白晶鉉 중위가 지휘하는 4臺의 전폭기는 각각 姑味城里(高城 南쪽 25km)상공으로 출격하여 交戰中인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야포진지 4개소를 覆滅하는등 지상군의 士氣를 앙양케 하였다.

2일 : 09.00에 鑑月里(高城 東南쪽 5km)상공으로 출격한 4臺는 李基陝소령의 선두지휘로 敵陣에 폭탄을 투하하고 機銃射擊을 加하여 Bunker 3개소를 파괴 하였으며 이어 30분후에 金直漢 중위가 이끄는 4臺의 F-51전폭기는 柳城里에 있는 보급품집적소를 강타하여 3개

소를 불태웠다.

한편 白晶鉉 중위를 선두로한 18營의 전폭기편대는 이날 12.30에 烏川里(縣里 西南쪽 7km) 상공에서 교묘히 위장한 보급품집적소를 발견하자 즉시 급강하로 폭탄을 投下한 끝에 11개 소를 全燒케 하는등 삼시간에 그 일대를 火焰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또 15.00에 鑑月里상공에서 金永敏 중위가 지휘하는 4營은 塹壕를 따라 기동중인 敵隊列을 강타하면서 동굴 1개소를 大破하였다.

3일 : 이날은 彼我間의 接觸이 熾烈한 新垵里(高城 南쪽 18km)일대에 대한 근접지원을 수행하였는데, 李濠英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營의 F-51전폭기는 07.50에, 그리고 金錦成 소령이 지휘하는 4營은 10.30에 각각 출격하여 Bunker 3개소를 파괴하는등 敵陣地에 기총공격을 加한 끝에 그들의 전세를 위축케 하였다.

또한 15.00에 崔榮昌 중위가 이끄는 4營과 15.35에 崔順善 중위를 선두로한 4營은 그일대에 폭탄투하와 기총소사로서 야포진지 2개소를 覆滅하고 진물 8棟을 대파하였다.

4일 : 이날 08.00에 金直漢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營의 F-51전폭기편대와 이어 30분후에 俞致坤 대위를 선두로 출격한 4營은 각각 月比山(△459, 高城 南쪽 6km)상공에서 交戰中인 지상군과 호응하면서 敵陣地를 강타한 끝에 Bunker 4개소와 박격포진지 2개소를 파괴하여 지상군으로 하여금 유리한 전황을 타케토록 하였다.

한편 崔順善 중위를 편대군장으로한 18營의 전폭기편대는 12.05에 化泗里(縣里 南쪽 10km)상공으로 출격하여 그일대에 산재한 보급품집적소를 목표로 폭탄을 투하하여 삼시간에 불바다로 만들었는데 확인된바에 의하면 30개소를 全燒케 하였다.

또 15.45에 台峰里(高城 西南쪽 8km)상공에서 보급품집적소를 발견한 14營의 F-51전폭기는 李濠英 중위의 선두지휘로 급강하 하여 이를 강타한 끝에 1개소를 불사르고 이어 16.05에 李基陝 소령이 지휘하는 4營은 內沔里(高城 南쪽 11km)일대에서 지상군을 위압하는 박격포진지 4개소를 대파하였다.

5일 : 이날은 바람이 부는등 日氣가 고르지 못한 까닭에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출격을 一時 중지하고 連日 출격한 F-51전폭기를 정비하면서 敵이 이틈을 이용하여 각종 보급품을 전선가까이로 이동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분쇄키 위한 작전교육을 실시하였다.

6일 : 다시 氣象이 회복되자 07.50에 俞致坤 대위를 편대군장으로한 18營의 전폭기편대는 化泗里상공에서 보급품집적소를 포착하자 즉시 이에 폭탄을 投下하여 그일대를 화염으로 휘감아 놓았다.

또한 崔順善 중위가 이끄는 4營은 外沔里(高城 南쪽 10km)상공에서 불을 뿜는 야포진지를 강타하여 2개소를 覆滅하는등 일대에서 交戰中인 지상군을 엄호하였다.

그리고 12.05에 출격한 4營은 金錦成 소령의 지휘로 高成일대에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사격을 加한 결과 야포진지 1개소와 동굴 4개소를 파괴하였다.

한편 이날 오후부터 氣象이 다시 惡化되어 8일까지 계속된 까닭에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출격을 중지하고 작전교육을 실시하는등 다음 출격에 대비하였다.

9일 : 09.55에 尹應烈 소령이 이끄는 33臺의 F-51전폭기편대는 九鶴山(△930, 金城 東北 쪽20km)일대에 산재한 보급품집적소를 목표로 폭탄투하와 기총소사로서 삼시간에 그일대를 검붉은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는데 戰果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화염은 熾盛하였다

한편 15.00에 俞致坤 대위가 지휘하는 4臺의 제1편대와, 金直漢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臺의 제2편대는 습勢하여 姑味城里일대에서 交戰中인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야포진지와 Bunker 각 2개소를 대파하였다.

이어 15.50에 金重賚 중위를 선두로 이룩한 4臺와 16.20에 崔聖達 중위가 이끄는 4臺의 전폭기는 각각 月比山상공에서 Bunker 5개소와 야포진지 2개소를 파괴하였다.

10일 : 이날부터 12일까지는 바람이 부는등 惡天候가 계속된 까닭에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출격을 중지하고 F-51전폭기를 점검하는등 다음 출격의 萬수를 期하였다.

(2) 5月中旬의 概況

13일 : 俞致坤 대위를 선두로한 14臺의 F-51전폭기는 09.30에 九鶴山상공으로 출격하여 보급품집적소를 폭격한 끝에 4개소를 불태웠으며 이어 09.50에 孫興俊 대위가 지휘하는 15臺의 전폭기편대는 台峰里일대에 산재한 보급품집적소를 강타하여 6개소를 全燒케 하였다.

한편 白晶鉉 중위가 이끄는 4臺는 13.50에 高城상공으로 출격하여 지상군을 향하여 불을 쬐는 박격포진지를 발견하자 즉시 기총사격을 加하면서 급강하 하여 폭탄을 투하한 끝에 2개소를 覆滅하는등 그들의 전세를 위축케 하였으며 또 14.15에는 崔聖達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臺가 高峰里(高城 南쪽 2km)일대의 敵陣地에 폭탄과 기총소사로서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그리고 이날 15.00에 金直漢 중위가 지휘하는 4臺의 F-51전폭기편대는 月比山상공으로 출격중 金直漢 중위의 愛機가 기관고장을 일으켜 大浦里 基地(東草)에 不時着하고 나머지 3臺는 목표상공에서 박격포진지 3개소를 대파하였다.

이어 15.50에 新垌里상공에서 지상군을 위압하는 敵據點을 발견한 4臺는 尹子重 중위를 선두로 이를 강타한 결과 박격포진지 2개소와 자동화기진지 1개소를 파괴하였다.

14일 : 이날 俞致坤 대위를 선두로한 4臺의 F-51전폭기는 09.10에, 또 李周杓 중위가 이끄는 4臺는 09.30에 각각 內沔里상공으로 출격하여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Bunker 4개소, 그리고 박격포진지와 야포진지 각2개소를 대파하는등 敵陣을 뒤흔들어 놓았다.

또한 10.40에 林翔燮 중위가 지휘하는 18臺의 전폭기편대는 內砧里(高城 西쪽 3km)상공에서 건물 2棟을 파괴하였다.

15일 : 08.15에 金洛奎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臺는 內沔里일대에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공

격을 加하여 Bunker 3개소를 覆滅하였으며, 이어 08.40에 下草峴(高城 西南쪽 2km)상공에서 불을뿜는 Bunker를 포착한 4臺의 F-51전폭기편대는 李喜根중위의 지휘로 이를 강타한 끝에 3개소를 파괴하고 다시 그 일대에 폭탄을 투하하여 동굴 1개소를 대파하였다.

또한 崔順善 중위가 이끄는 4臺는 이날 09.15에 鑑月里상공으로 출격하여 塹壕를 따라 機動中인 敵隊列을 강타하는등 敵陣에 기총공격을 加하여 그들의 진세를 위축케 하였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氣象이 不順한 탓으로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출격을 一時 보류하였다.

16일 : 이날 오전에도 日氣가 고르지 못한 까닭에 출격을 보류하다가 13.20에 林翔燮 중위를 선두로한 4臺의 전폭기편대는 松灘里(高城 西南쪽 3km)상공으로 출격하여 자동화기진지 1개소를 覆滅하였으며 이어 白晶鉉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臺는 13.35에 月比山상공에서 지상군을 제압하는 Bunker를 폭격하여 2개소를 파괴하였다.

또 14.05에 鑑月里상공에서 孫興俊 대위가 이끄는 4臺의 F-51전폭기는 敵陣에 폭탄투하와 기총소사로서 야포진지 4개소와 박격포진지 3개소 및 자동화기진지 1개소를 대파하는등 그 일대를 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이어 14.35에 新垆里상공에서 塹壕를 따라 機動中인 敵隊列을 발견한 4臺는 金錦成 소령을 선두로 급강하 하면서 그일대에 기총사격을 加하였다.

한편 16.10에 金直漢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18臺의 F-51전폭기편대는 化泗里상공에서 대공포화가 작열하는 가운데 보급품집적소를 폭격하여 5개소를 불사르고 全機 무사히 기지(K-18)에 귀착하였다.

17일 : 이날 다시 氣象이 惡化되어 18일까지 계속된 까닭에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출격을 중지하고 F-51전폭기의 정비와 작전교육을 실시하였다.

19일 : 이날도 전날과 같이 日氣가 고르지 않은 탓으로 空軍活動이 저조하였는데, 10.40에 玉滿鎬 소령이 지휘하는 19臺의 전폭기편대는 占方里(縣里 東南쪽 15km)상공으로 출격하여 亂飛하는 대공포탄을 헤치면서 보급품집적소를 강타하여 삼시간에 그일대를 화염으로 휘감아 놓았다.

20일 : 이날 다시 氣象이 회복되자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출격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는데 09.00에 魯南里(金城 東北쪽 10km)상공에서 교묘히 위장한 보급품집적소를 발견한 18臺의 F-51전폭기는 兪致坤 대위를 선두로 급강하 하여 폭탄을 투하한 끝에 15개소를 全燒케 하는등 그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그리고 10.15에 崔聖遠 중위가 이끄는 4臺는 沙飛里(高城 南쪽 20km)상공에서 동굴 3개소를 파괴하였다.

한편 10.50에 李培善 중위를 선두로한 4臺의 F-51전폭기편대와 이어 11.30에 玉滿鎬 소령이 지휘하는 4臺, 그리고 11.50에 李寬樸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臺는 각각 沙飛里일대에

서 交戰中인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敵陣地에 기총소사를 加하고 폭탄을 投下한 끝에 Bunker 5개소와 야포진지 3개소 그리고 박격포진지와 자동화기진지 각1개소를 파괴하고 보급로 1개소를 차단하는등 그 일대를 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3) 5月下旬의 概況

23일 : 李基陝소령을 선두로한 18臺의 F-51전폭기는 08.55에 百川橋里(高城 西南쪽8km) 일대에 산재한 보급품집적소를 폭격하여 4개소를 全燒케 하였으며, 또 11.55에 汀月里(高城 南쪽 5km)상공으로 출격한 4臺는 林翔燮 중위의 지휘로 甄據를 따라 機動中인 敵隊列에 기총사격을 加하면서 불을 뿜는 Bunker를 강타하여 2개소를 覆滅하였다.

그리고 12.20에 孫興俊 대위가 이끄는 4臺의 전폭기편대는 月比山상공에서 Bunker 2개소를 파괴하는등 敵陣에 기총소사로서 그들의 진세를 위축케 하였다.

또한 白晶鉉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臺는 竇湖里(高城 東南쪽 4km)상공에서 Bunker 2개소와 박격포진지 1개소를 대파하여 交戰中인 지상군을 엄호하였으며, 15.00에 출격한 4臺는 崔聖達 중위의 지휘아래 小鶴峰(高城 南쪽 22km)일대에 있는 Bunker를 강타한 끝에 4개소를 覆滅하였다.

24일 : 08.30에 新岱里상공으로 출격한 4臺의 F-51전폭기는 馬鍾仁 중위의 지휘로 敵陣에 폭탄을 投下하고 기총공격을 加하여 Bunker 2개소와 박격포진지 1개소를 파괴하고 이어 李豪英 중위가 거느리는 4臺가 09.30에 다시 新岱里상공으로 출격하여 Bunker 2개소를 覆滅하는등 지상군으로 하여금 유리한 전황을 타개토록 하였다.

한편 이날 16.25에 百川橋里상공에 도달한 18臺의 전폭기편대는 孫興俊 대위를 선두로 亂飛하는 대공포화를 헤치면서 보급품집적소를 폭격하여 삼시간에 그일대를 火焰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25일 : 이날은 목표상공에 짙은 구름이 덮인등 氣象이 고르지 않은 탓으로 계10전투비행단에서는 출격을 제한하였는데 10.15에 李培善 중위가 지휘하는 4臺의 F-51전폭기는 沙泉里(高城 南쪽 27km)상공에서 지상군을 위압하는 박격포진지 2개소를 파괴하고 다시 敵陣에 기총공격으로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또 張景順 중위를 선두로한 5臺는 10.50에 姑昧城里일대에 폭탄투하와 기총소사로서 박격포진지 2개소를 대파하였다.

26일 : 林翔燮 중위가 이끄는 4臺의 F-51전폭기편대는 08.40에 下草峴상공에서 지상군을 향하여 불을 뿜는 敵陣地를 강타한 끝에 Bunker 6개소와 박격포진지 2개소를 覆滅하고 이어 09.50에 金錦成 소령이 지휘하는 4臺는 月比山일대에서 交戰中인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敵陣에 폭탄을 投下하여 Bunker 6개소를 파괴하는등 지상군의 사기를 앙양케 하였다.

또한 12.00에 李喜根 중위를 편대군장으로한 19臺의 전폭기편대는 靑松里(縣里 東南쪽

18km)상공에서 대공포화가 紛飛하는 가운데 보급품집적소를 강타하여 그 일대를 화염으로 휘감아 놓았다.

한편 이날 孫興俊 대위가 지휘하는 4臺와 14. 15에 또 白晶欽 중위를 선두로한 4臺의 F-51전폭기는 15. 00에 각각 沙飛里일대에 폭탄을 投下하고 기총사격을 加한 끝에 박격포진지 4개소와 자동화기진지 2개소를 대파하고 동굴 1개소를 파괴하는등 그들의 전세를 위축케 하였다.

27일 : 07. 20에 金錦成 소령을 편대군장으로한 18臺의 F-51전폭기편대는 大井里(縣里 東南쪽 11km)상공에서 군사시설을 목표로 폭격을 加하여 건물 1棟을 대파하였다.

또한 金直漢 중위가 이끄는 4臺는 이날 11. 00에 下汀月(高城 西南쪽 4km)상공으로 출격하여 불을 뿜는 Bunker 5개소를 파괴하고 다시 그 부근에 있는 보급품집적소를 강타한 끝에 1개소를 불태워 버렸다.

이어 12. 05에 月比山상공에서 지상군을 위압하는 Bunker를 발견한 5臺의 전폭기편대는 李蘆根 중위의 지휘로 이에 폭탄을 투하하여 2개소를 覆滅하고 다시 동굴 1개소를 대파하였다.

한편 15. 05에 출격한 4臺는 金達輝 중위의 지휘하에 沙飛里에 있는 Bunker 3개소와 박격포진지 1개소를 파괴하는등 交戰中인 지상군의 사기를 양양케 하였으며 이어 馬鍾仁 중위가 이끄는 4臺는 15. 30에 姑味城里상공에서 Bunker 3개소와 박격포진지 1개소를 대파하였다.

28일 : 이날과 29일 兩日間은 목표상공에 구름이 덮였고 바람이 부는등 惡天候가 계속된 까닭에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출격을 중지하고 작전교육을 실시하면서 다음출격에 대비하였다.

30일 : 이날 오전에도 日氣가 고르지 않아 출격을 보류하다가 16. 00에 俞致坤 대위를 선두로한 4臺의 F-51전폭기편대는 鑑月里상공으로 출격하여 지상군과 호응하면서 敵陣地에 폭탄투하와 기총사격으로 Bunker 4개소를 覆滅하고 이어 17. 45에 李蘆根 중위가 이끄는 18臺의 전폭기편대는 昌道里(金城 北쪽 10km)상공에서 대공포화가 熾盛한 가운데 그일대에 있는 건물을 강타한 끝에 5棟을 대파하고 全機 무사히 기지(K-18)에 귀착하였다.

31일 : 이날 다시 氣象이 惡化된 까닭에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출격을 중지하고 F-51전폭기의 정비와 작전교육으로 다음출격의 萬全을 期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期間中 空軍은 휴전회담을 이용하려는 敵의 企圖를 분쇄하기 위하여 후방차단폭격을 斷行한바 전선배후에 산재한 보급로를 폭파하고 보급품집적소와 탄약집적소를 불태워버렸다.

또한 高城일대의 전투지역에 대한 항공지원으로 敵의 각종 화기진지를 대파함으로써 지상군으로

하여금 유리한 전황을 타개토록 하였다.

그러나 敵은 未久에 取할 攻勢를 위하여 夜暗이나 日氣不順으로 空軍活動이 曇한 틈을 이용하는 등 전선으로의 보급품수송을 끈질기게 계속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期間中の 綜合戰果는 다음과 같다.

綜合戰果

보급품 집적소 폭파	—	106個所
Bunker	"	— 78個所
야포 진지	"	— 22 "
박격포 진지	"	— 33 "
자동화기 진지	"	— 7 "
동 굴	"	— 12 "
건 돌	"	— 16棟
보 급 로	"	— 1個所

§ 參戰者의 證言

◇ 제10전투비행단 출격조종사 金直漢중위

(1976. 10. 11 서울시 兪山洞 自宅에서, 예 대령)

1953년 5월 13일 15.00에 나를 편대장으로 한 4호의 F-51전폭기(1번기: 金直漢 중위(本人), 2번기: 金賢千중위, 3번기: 金洛奎중위, 4번기: 金谷浩소위)는 月比山(高城 南쪽 6km)일대에서 突戰중인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을 위하여 일로 北向하였다.

그런데 前線上空을 지날즈음에 나의 僚機에 이상이 생겼다.

즉 기관고장으로 機體가 떨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僚機를 이끌고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다른 僚機들에게 이 사실을 알림과 함께 2번기 金賢千 중위인지 3번기 金洛奎 중위인지 기억이 확실치는 않지만 임무를 위임하고 나는 機首를 돌려 江陵基地로 向하였다.

그러나 비행을 계속하는 동안에 僚機의 기능은 더욱 약화되어 나는 江陵基地까지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前線 가까이 있는 大浦里基地(東草, K-50)에 不時着할 것을 결

심하였다.

당시 大浦里基地는 풀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폭기는 사용치 못하고 美空軍의 "헬리콥트"로만 사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약간의 위험은 있었지만 마음을 가다듬어 僚機와 함께 무사히 착륙하여 機體를 점검한 뒤에 僚機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잠시후 임무를 끝낸 僚機들이 상공을 지나감에 나는 무전으로 나의 安全과 機體의 故障난 부분을 알렸다.

그리하여 이날 24.00쯤 되니까 江陵基地에서 트럭으로 경비사들이 장비를 가지고 도착하였다.

이후 僚機의 機體는 다시 정상을 되찾아 다음날(5월 14일) 아침에 이륙을 할려고 보니까 이곳 풀밭의 길이가 너무 짧아서 무사히 이륙할 수 있을런지가 의문이었다.

그래서 短距離를 이륙하기 위한 제한준비를 한뒤 그곳을 아무런 이상없이 이륙하여 江陵基地에 돌아오니 많은 戰友들이 나를 반겨주었다.

4. 敵의 攻勢와 近接航空 지원 作戰 (1953년 6월 1일부터 // 7월 27일까지)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총 참 모 장	중장 崔 用 德	중위 崔 聖 達	중위 李 喜 根
제10전투비행단 장	대령 金 英 煥	중위 金 直 漢	중위 金 賢 一
제10전투비행전대장	중령 朴 熙 東	중위 趙 恒 植	중위 成 誦 善
출격조종사		중위 林 東 濬	중위 白 晶 鉉
소령 李 康 和	소령 金 錦 成	중위 權 贊 植	중위 裴 相 昊
소령 王 滿 鎬	소령 張 星 太	중위 閔 旭 東	중위 林 淳 赫
소령 李 基 陝	대위 兪 致 坤	소위 白 南 得	중위 張 景 順
대위 孫 興 俊	중위 高 光 壽	소위 高 永 一	중위 李 蒙 英
중위 金 永 煥	중위 白 鎔 三	소위 金 相 光	소위 朴 泰 均
중위 丁 海 暎	중위 李 經 哲	소위 曹 世 煥	소위 李 相 得
중위 白 萬 吉	중위 馬 鍾 仁	소위 金 容 浩	소위 申 俊 基
중위 李 培 善	중위 李 寬 橫	소위 孫 永 福	소위 李 永 植
중위 孫 政 序	중위 金 重 寶	소위 金 甲 奎	
중위 洪 涼 相	중위 尹 子 重	美空軍조종사	
중위 金 達 輝	중위 李 校 安	대위 Garces	중위 Collombe
중위 金 賢 千	중위 李 明 輝	대위 Neville	
중위 白 周 鉉	중위 金 昌 烈	대위 Shiffel	
중위 林 翔 燮	중위 李 容 均	중위 Porter	

나. 전투 후의 개황

1953년 4월이후 板門店에서의 휴전회담이 활발히 진행되자 敵은 이 회담에서 유리한 制扼點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보급품을 전선으로 이동하는 한편 東部전선에 北傀軍을, 中部전선에 中共軍을 증원하는등 次期攻勢를 取할 준비에 광분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휴전회담은 진전되어 6월 8일에 포로교환 문제가 妥結되자 敵은 同月 10일부터 國軍正面에 대한 大攻勢를 取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空軍에서는 敵의 전진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후방에 대한 차단폭격을 계속하는 한편 彼我間의 接戰이 熾烈한 전투지역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에 重點을 指向키로 하였는데 특히 空軍力의 증강과 더불어 東部전선의 제1軍團 뿐만아니라 中部전선의 제2군단에 대한 근접지원을 단행하게 되었다.

또한 UN空軍에서는 휴전을 조속히 성립시키기 위한 강압수단으로 敵의 비행장과 주요郡區 및 보급요지에 대한 大的인 폭격을 감행하면서 全前線에 대한 급접지원을 전개키로 하였는데 一日 평균 100회이상의 출격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전선요부를 강타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敵이 6월 10일부터 國軍正面에 대한 攻勢를 取하자 空軍은 이를 분쇄하기 위하여 제1군단 뿐만아니라 제2군단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을 수행한바 6월에는 日氣不順으로 12일간에 걸쳐 도합 386회에 達하는 출격을 기록하면서 杆城—高城일대를 비롯하여 金城—平康—安峽—市邊里—新幕일대의 전선 전후방을 뒤흔들어 놓았다.

또한 휴전의 성립末期인 7월에도 空軍은 東部와 中部전선일대의 敵陣을 강타하여 그들의 전세를 위축케 하였는데 특히 同月 13일부터 敵이 제2군단에 대하여 斷末魔的인 大攻勢를 取하자 이 地區에 대한 근접지원을 활발히 전개한바 同月 18日에는 開戰以來 최대 출격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주력부대를 강타하여 지상군으로 하여금 유리한 전황을 타개토록 하였다.

이러한 空軍의 活動은 휴전성립일인 27日까지 계속되었는데 실제출격일수 10일간에 도합 370회의 출격을 기록하였다.

期間中の 月日別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6月中의 概況

1일 : 金錫烈 중위를 선두로한 4臺의 F-51전폭기편대는 10.40에 鑑月里(高城 東南쪽 5km)상공으로 출격하여 지상군을 위압하는 Bunker 3개소와 박격포진지 1개소를 대파하였으며 이어 11.05에 金達輝 중위가 이끄는 4臺는 高峰里(高城 南쪽 2km)일대에서 불을 뿜는 Bunker를 발견하자 즉시 이를 강타한 끝에 4개소를 파괴하여 지상군의 士氣를 양양케 하였다.

또한 15.15에 출격한 4臺의 전폭기는 鑑月里상공에서 尹子重 중위의 지휘로 그 일대의 敵陣地에서 기총사격을 가하면서 폭탄을 투하하여 Bunker와 자동화기진지 각 2개소를 覆滅하는등 그들의 전세를 위축케 하였으며 李喜根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臺는 下草峴(高城 西南쪽 2km)일대에 있는 Bunker 5개소를 파괴하였다.

2일 : 07.35에 金錫成 소령을 선두로한 4臺와, 이어 08.05에 林東濬 중위가 지휘하는 4臺, 그리고 08.30에 孫興俊 대위가 이끄는 4臺의 F-51전폭기는 각각 鑑月里일대에서 交戰中

인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敵陣에 폭탄투하와 기총소사로써 Bunker 7개소와 박격포진지 1개소를 대파하였다.

또한 洪淳相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連의 전폭기편대는 이날 09.05에 寶湖里(高城 東南쪽 3km)상공으로 출격하여 Bunker 3개소를 覆滅하였으며 한편 12.05에 楸洞里(縣里 西南쪽 7km)상공에서 목표를 포착한 18連의 F-51 전폭기는 李豪英 중위의 선두지휘로 그일대에 기총공격을 加하고 폭탄을 투하한 끝에 화물차량 1輛과 건물 1棟을 대파하였다.

3일 : 이날 오전에는 氣象이 不順한 탓으로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출격을 보류하다가 17.05에 李基陝 소령이 지휘하는 14連의 F-51전폭기는 上縣里상공에서 보급품집적소를 강타하여 삼시간에 그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었는데 이 폭격에서 9번기 李喜根 중위의 愛機가 對空砲火로 말미암아 기관고장을 일으켜 楊口基地(K-52)부근에不時着하였으며 나머지 13連는 모두 江陵基地(K-18)에 귀착하였다.

이어 17.40에 林翔燮 중위가 이끄는 14連는 下小坤里(縣里 東南쪽 5km)상공에서 대공포화를 헤치면서 그 일대의 보급품집적소를 폭격하여 2개소를 불태워버렸다.

4일 : 이날도 전날과 같이 氣象이 고르지 않아 오전에는 출격을 보류하다가 17.05에 14連의 F-51전폭기가 伊布里(縣里 東南쪽 13km)상공으로 출격하여 李豪英 중위를 선두로 급강하 하면서 兵力集結所에 폭탄을 投下하여 삼시간에 그일대를 검붉은 화염으로 휘감아 놓았다.

또 白晶鉉 중위를 편대군장으로한 14連는 17.20에 化泗里(縣里 南쪽 10km)일대에 있는 보급품집적소를 강타하니 삼시간에 破片과 함께 검붉은 화염이 그일대를 뒤덮어 戰果를 확인할 수 없었다.

5일 : 전날부터 고르지 못한 氣象은 이날 더욱 惡化되어 비가 내리는등 12일까지 계속된 日氣不順으로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출격을 중지하고 정비반 요원들의 機體(F-51전폭기) 점검과 次期作戰에 대한 교육으로 다음출격에 대비하였다.

13일 : 이날도 오전에는 구름이 덮인 까닭에 출격을 보류하다가 12.05에 崔聖濶 중위가 지휘하는 5連의 F-51전폭기는 鑑月里상공에서 지상군을 위압하는 Bunker 5개소를 파괴하였다.

이어 12.35에 金直漢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連의 전폭기는 다시 鑑月里일대에 폭격을 加하여 Bunker 3개소를 覆滅하는등 그일대를 수라장으로 만들었는데 이폭격에서 4번기 金賢一 중위는 목표를 향하여 진입하다가 그들의 대공포탄에 맞아 愛機와 함께 산화하였다.

한편 이날 李喜根 중위가 이끄는 4連는 14.40에, 또 李培善 중위를 선두로한 5連의 전폭기는 14.55에 각각 高城상공으로 출격하여 대공포화가 紛飛하는 가운데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사격을 加한 끝에 대공포진지 2개소와 박격포진지 1개소를 覆滅하고 보급로 1개소를 파괴하였다.

또한 16.50에 李基陝 소령이 지휘하는 17臺의 F-51전폭기는 昌道里일대에 있는 鐵道를 강타하여 6개소를 절단하였다.

14일 : 白萬吉 중위를 선두로한 4臺의 전폭기는 07.35에 高峰里상공에서 지상군을 向하여 불을 뿜는 야포진지를 발견하는 즉시로 급강하 하여 폭격을 가한 끝에 3개소를 파괴하였다

그리고 이날 08.05에 馬鍾仁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臺와 이어 09.25에 林東濬 중위가 이끄는 4臺, 또 09.30에 趙恒植 중위가 지휘하는 4臺의 F-51전폭기는 각각 柳城里(高城 西南쪽 5km)일대에 대한 폭탄투하와 기총소사로서 박격포진지 4개소와 야포진지 1개소를 대파하고 보급품집적소 5개소를 全燒케 하는등 그일대를 뒤흔들어 놓았다.

한편 이날 12.20에 출격한 4臺는 林東濬 중위의 지휘로 侍郎里(高城 西南쪽 6km)상공에서 Bunker와 자동화기 각 2개소를 覆滅하였으며 이어 12.45에 다시 侍郎里상공으로 출격한 4臺의 전폭기는 馬鍾仁 중위의 지휘로 Bunker 2개소를 대파하였다.

그리고 13.10에 출격한 4臺의 전폭기는 下草峴상공에서 지상군을 위압하는 敵陣地를 발견하자 즉시 李基陝 소령을 선두로 이를 강타한 끝에 Bunker 3개소와 야포진지 1개소를 파괴하였으며, 이어 13.50에 下汀月(高城 西南쪽 5km)상공으로 출격한 4臺는 尹子重 중위의 지휘아래 그일대에 기총공격을 가하고 폭탄을 투하하여 Bunker와 박격포진지 각 2개소를 覆滅하였다.

또한 14.50에 林翺燮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18臺의 F-51전폭기편대는 昌道里상공에서 작열하는 대공포화를 헤치면서 보급로 3개소를 폭파하고 건물 10棟을 대파하는등 삼시간에 그일대를 수라장으로 만들었다.

15일 : 金達輝 중위를 선두로한 4臺의 F-51전폭기는 姑味城里(高城 南쪽 25km)상공에서 塹壕를 따라 機動中인 敵隊列에 기총공격을 가하면서 야포진지 2개소로 파괴하였으며 이어 06.20에 金昌烈 중위가 지휘하는 4臺는 沙飛里(高城 南쪽 21km)일대에 폭탄투하와 기총소사로서 야포진지 2개소를 覆滅하였다.

한편 07.20에 松亭里(昌道里 北쪽 6km)상공으로 출격한 18臺의 전폭기는 金錦成 소령의 지휘로 그일대에 산재한 건물을 폭격하여 5棟을 대파하였다.

16일 : 08.50에 崔聖達 중위가 이끄는 4臺의 F-51전폭기는 普玄里(高城 西南쪽 8km)일대의 敵陣地를 강타하여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으며 또 李培善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臺는 09.15에 內砧里(高城 西쪽 3km)상공에서 동굴과 보급품집적소 각 1개소를 폭파하였다.

한편 09.55에 綿川里(金城 東北쪽 17km)상공으로 출격한 16臺의 전폭기는 李鏊英 중위의 지휘로 대공포화를 헤치면서 보급품집적소를 강타한 끝에 그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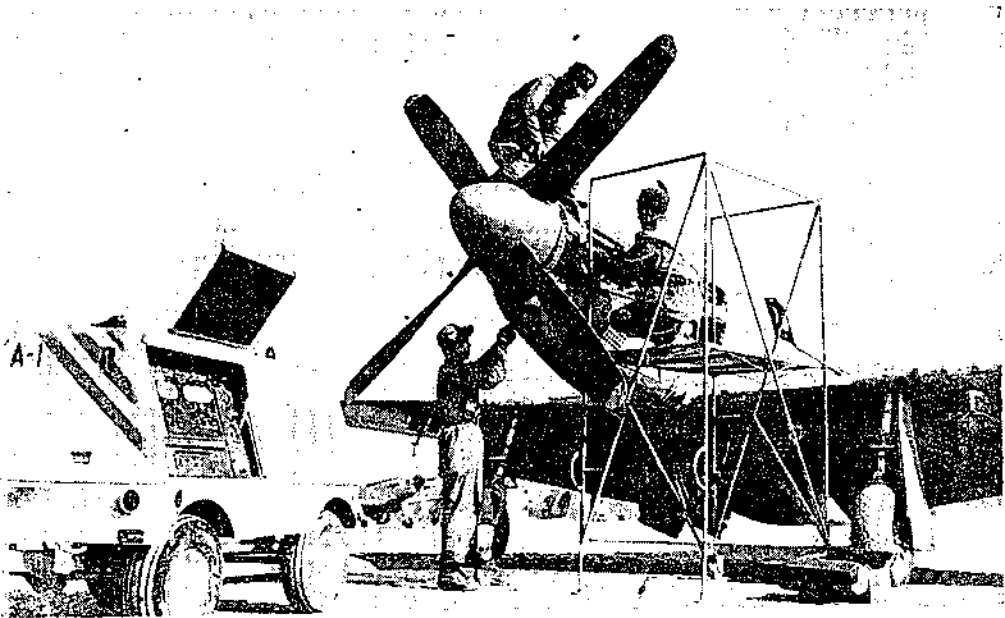
또한 12.40에 孫興俊 대위가 지휘하는 14臺의 F-51전폭기는 玉洞里(平康 西北쪽 10km)상공에서 敵陣에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사격을 가하니 삼시간에 그일대는 破片이 亂飛하는

등 검붉은 화염에 뒤덮였다.

그리고 이날 15.40에 李崑根 중위를 선두로한 4대와 16.00에 白萬吉 중위가 이끄는 4대는 각각 沙飛里에서 지상군을 향하여 불을 뿜는 Bunker 9개소와 박격포진지 2개소를 覆滅하고 동굴 1개소를 대파하는등 그들의 전세를 위축케 하였다.

17일 : 金達輝 중위가 지휘하는 4대의 F-51전폭기는 07.00에 그리고 裨相昊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대는 07.35에 각각 姑味城里상공으로 출격하여 그일대에서 交戰中인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Bunker 7개소와 박격포진지 2개소를 파괴하고 동굴 2개소를 대파하는등 지상군으로 하여금 유리한 전황을 타개토록 하였다.

한편 이날 오후부터 惡化된 氣象은 24일까지 비가 내리는등 惡天候가 계속된 까닭에 제 10전투비행단에서는 출격을 중지하고 F-51전폭기의 정비와 작전교육을 실시하면서 다음 출격을 萬全을 期하였다.



<F-51 전폭기의 정비와 점검>

25일 : 이날 오전에도 날씨가 고르지 않아 출격을 보류하다가 14.15에 출격한 4대의 F-51전폭기는 金達輝 중위의 지휘로 侍郎里상공에서 지상군을 향하여 불을 뿜는 야포진지를 폭격한 끝에 1개소를 覆滅하였으며 이어 14.30에 裨相昊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대는 外沔里(高城南쪽 10km)일대에 있는 Bunker를 강타하여 4개소를 파괴하는등 交戰中인 지상군의 사기를 양양케 하였다.

또한 金昌烈 중위가 이끄는 4대의 전폭기는 15.00에 高峰里상공에서 지상군을 위압하는 Bunker를 포착하자 즉시 급강하로 폭탄을 투하한 끝에 4개소를 대파하였으며 16.05에 鑑月里상공으로 출격한 4대는 尹子重 중위를 선두로 敵陣에 기총사격을 가하면서 폭탄을 투

하 하여 Bunker와 자동화기진지 각 2개소를 覆滅하는등 그들의 전세를 위축케 하였다.

한편 白晶鉉 중위를 편대군장으로한 19臺의 F-51전폭기는 이날 16.30에 鄒儀里(金城 西北쪽 7km)상공으로 출격하여 Bunker 2개소를 파괴하는 등 敵陣에 철사이 없이 기총공격을 加하여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26일 : 08.00에 白晶鉉 중위를 선두로한 4臺의 F-51전폭기편대는 外沔里상공에서 불을 쬐는 박격포진지를 발견하는 즉시로 급강하 하여 폭탄을 投下한 끝에 8개소를 대파하고 다시 그부근에 있는 동굴 1개소를 파괴하였다.

이어 08.35에 출격한 4臺는 洪淳相 중위의 지휘로 寶湖里일대에서 交戰中인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敵陣을 강타하여 Bunker 2개소와 박격포진지 1개소를 覆滅하였다.

한편 裴相昊 중위가 지휘하는 19臺의 전폭기편대는 09.00에 九鶴山(△930, 金城 東北쪽 20km)상공에서 교묘히 위장한 보급품집적소를 발견하자 즉시 폭탄투하와 기총소사로서 10개소를 全燒케 하였다.

한편 이날 오후부터 29일까지는 風雨가 심한 탓으로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출격을 중지하고 다음 作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30일 : 이날 다시 날씨가 회복되자 10.20에 金鎬成 소령을 편대군장으로한 18臺의 F-51 전폭기는 梧桐里(金城 西北쪽 20km)일대에 있는 건물을 강타하여 7棟을 파괴하였으며 또 趙恒植 중위를 선두지휘로한 18臺의 전폭기편대는 12.30에 市邊里상공으로 출격하여 亂飛하는 대공포화를 헤치면서 기총공격을 加하고 폭탄을 投下한 끝에 Bunker 6개소를 覆滅하는등 그일대를 뒤흔들어 놓았다.

한편 金昌烈 중위가 이끄는 4臺는 15.35에, 또 白萬吉중위가 지휘하는 4臺는 16.00에 각각 寶湖里일대의 敵陣地를 강타한 끝에 박격포진지 4개소와 Bunker 1개소를 파괴하고 鐵道 1개소를 절단하는등 그일대에서 交戰中인 지상군의 사기를 앙양케 하였다.

또한 16.20에 白晶鉉 중위를 선두로한 5臺의 F-51전폭기편대는 月比山(△459, 高城 南쪽 6km)일대에 있는 Bunker 4개소를 파괴하고 塹壕를 따라 機動하는 敵隊列에 기총공격을 加하여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으며 이어 17.00에 林翔燮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臺는 台峰里(高城 西南쪽 9km)상공에서 지상군을 위압하는 敵陣에 폭격을 加한 결과 Bunker 3개소와 자동화기진지 2개소를 대파하여 지상군으로 하여금 유리한 전황을 타개토록 하였다.

(2) 7月中의 概況

1일 : 裴相昊 중위를 선두로한 18臺의 F-51전폭기편대는 이날 05.40에 別陽里(金城 西北쪽 4km)상공으로 출격하여 紛飛하는 대공포화를 헤치면서 그일대에 폭탄을 투하한 끝에 건물 5棟을 대파하고 보급로 1개소를 폭파하였다.

또한 09.10에 崔聖達 중위가 이끄는 4대는 台峰里상공에서 塹壕를 따라 機動中인 敵隊列을 발견하자 즉시 급강하 하면서 그일대에 기총사격을 加하고 폭탄을 투하한 결과 Bunker 6개소와 자동화기진지 1개소를 파괴하는등 그들의 전세를 위축케 하였으며 金錦成 소령을 편대장으로한 4대의 전폭기는 09.30에 沙泉里(高城 南쪽 27km)일대에서 交戰中인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敵陣地를 강타하여 Bunker와 자동화기진지 각 3개소를 覆滅하였다.

한편 16.20에 출격한 4대의 F-51전폭기는 高峰里상공에서 李寬模 중위의 지휘로 야포진지와 동굴 각 1개소를 대파하였으며 이어 17.00에는 李培善 중위를 선두로한 4대가 下汀月일대에 폭탄투하와 기총사격으로 박격포진지 3개소를 파괴하였다.

2일 : 05.30에 林翔燮 중위의 선두지휘로 新幕상공에 도달한 F-51전폭기 18대는 그일대에 있는 화물차량을 강타하여 삼시간에 화염으로 휘감아 놓았으며, 이들 편대는 다시 遼安상공으로 출격하여 자동화기진지를 폭격하는등 그일대를 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또한 金錦成 소령이 지휘하는 4대는 09.05에 鑑月里상공에서 지상군을 위압하는 박격포진지 4개소를 대파하여 지상군의 사기를 양양케 하였으며 이어 09.10에 다시 鑑月里상공으로 출격한 4대의 전폭기는 孫興俊 대위를 선두로 敵陣에 기총공격을 加하고 폭탄을 투하하여 박격포진지와 동굴 각 2개소를 파괴하였다.

3일 : 이날은 짙은 구름이 덮였고 비가 내리는등 日氣가 不順한 까닭에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출격을 중지하고 작전교육을 실시하면서 다음 출격의 萬全을 期하였다.

4일 : 이날도 전날과 같이 日氣가 고르지 않아 출격을 보류하다가 14.35에 金錦成 소령을 편대장으로한 5대의 F-51전폭기는 鑑月里상공에서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Bunker 6개소와 박격포진지 2개소를 覆滅하고 동굴 1개소를 파괴하는등 그들의 전세를 위축케 하였다.

또 白晶鉉 중위를 선두로한 4대는 14.55에 月比山상공으로 출격하여 敵陣에 대한 폭탄투하와 기총사격으로 Bunker 8개소와 박격포진지 4개소를 대파하였으며 17.00에 台峰里상공으로 출격한 5대의 전폭기는 지상군을 위압하는 Bunker를 발견하자 즉시 金昌烈 중위를 선두로 급강하 하여 이를 강타한 끝에 5개소를 파괴하였다.

그리고 17.20에 李壽根 중위가 이끄는 4대는 高城상공에서 Bunker 3개소와 자동화기진지 2개소를 대파하였다.

5일 : 이날 다시 氣象은 惡化되어 비가 내리는등 15일까지 계속된 惡天候로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출격을 중지하고 F-51전폭기의 점검과 작전교육의 실시등으로 다음출격에 대비하였다.

16일 : 이날 10.05에 崔聖達 중위가 지휘하는 4대의 F-51전폭기편대는 下汀月일대에서 交戰中인 지상군과 호응하면서 敵陣地를 강타한 끝에 박격포진지 3개소와 자동화기진지 1개소를 覆滅하여 지상군의 士氣를 양양케 하였으며 이어 10.35에 金錦成 소령을 선두로한 4대의 전폭기는 鑑月里상공에서 Bunker 4개소와 박격포진지 2개소를 大破하는등 敵陣을

뒤흔들어 놓았다.

또한 玉滿鎬 소령을 편대군장으로한 19대의 전폭기는 이날 12.10에 南川상공으로 출격하여 그일대에 있는 야포진지, 개인據 등 敵陣地에 기총공격을 加하고 폭탄을 投下하여 삼시간에 검붉은 화염으로 휘감아 놓았다.

한편 13.00에 출격한 4대의 F-51전폭기는 內沔里상공에서 李寬模 중위의 지휘로 敵陣에 폭탄을 투하한 끝에 Bunker 1개소를 파괴하였으며 孫興俊 대위가 이끄는 4대는 13.30에 다시 內沔里상공으로 출격하여 Bunker 3개소를 대파하는 등 交戰中인 지상군의 사기를 앙양케 하였다.

그리고 林淳赫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대는 14.10에 下汀月상공에서 Bunker 3개소와 박격포진지 2개소를 覆滅하였으며 이어 14.40에는 李培善 중위가 지휘하는 4대가 寶湖里일대에서 불을 뿜는 야포진지를 발견하자 즉시 급강하로 이를 강타한 끝에 2개소를 대파하였다.

이날 金錦成 소령의 선두지휘로 15.05에 출격한 4대와 또 15.40에 襄相昊 중위가 이끄는 4대의 F-51 전폭기는 각각 鑑月里 일대에 폭탄투하와 기총소사로서 Bunker 3개소와 박격포진지 1개소를 파괴하고 철도 1개소를 절단하는 등 그들의 전세를 위축케 하였다.

이어 16.10에 台峰里상공으로 출격한 4대는 金達輝 중위의 지휘로 박격포진지 3개소와 Bunker 1개소를 覆滅하였다.

17일 : 전선에서의 彼我接戰이 점점 치열하게 전개되자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어둠이 밀려올때까지 활동을 활발히 하였는데 이날 05.15에 閔旭東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대의 F-51 전폭기는 下汀月일대의 敵陣을 강타하여 자동화기진지 3개소를 대파하였으며 이어 05.50에 洪淳相 중위를 선두로한 4대와 07.30에 金錦成 소령이 지휘하는 4대의 전폭기는 각각 月比山상공으로 출격하여 旣據를 따라 機動中인 敵隊列에 기총사격을 加하면서 그일대에 폭탄을 投下한 끝에 Bunker 3개소와 동굴 2개소를 파괴하는 등 交戰中인 지상군으로 하여금 유리한 전황을 타개토록 하였다.

또한 崔聖達 중위가 이끄는 4대의 전폭기는 07.55에 鑑月里상공에서 지상군을 위압하는 Bunker 5개소를 覆滅하였다.

한편 이날 09.45에 출격한 19대의 F-51전폭기는 金直漢 중위의 선두지휘로 月峇里(安峽 東北 쪽 10km)일대에 있는 건물을 폭격한 끝에 4棟을 대파하였다.

또한 12.15에 下食站里(安峽 東北쪽 12km)상공으로 출격한 17대의 전폭기편대는 孫興俊 대위의 지휘로 그일대에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공격을 加한 결과 건물 20棟을 파괴하는 등 삼시간에 그일대를 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13.30에는 尹子重 중위가 이끄는 4대가 沙泉里상공에서 야포진지 1개소를 覆滅하였으며 金直漢 중위가 지휘하는 4대의 전폭기는 14.05에 沙飛里에서 불을 뿜는 야포진지

3개소를 파괴하였다.

그리고 14.30에 다시 沙泉里상공으로 출격한 4臺의 전폭기편대는 金達輝 중위를 선두로 敵陣에 급강하 하면서 폭탄을 投下한 끝에 야포진지 4개소를 覆滅하였으며 이어 15.10에 趙恒植 중위가 이끄는 4臺는 台峰里상공에서 Bunker 4개소를 대파하였다.

이날 15.30에 金昌烈 중위가 지휘하는 4臺의 F-51 전폭기는 月比山상공에서 敵陣地를 강타하여 Bunker 2개소와 야포진지 1개소를 파괴하는등 그일대에서 交戰中인 지상군을 엄호하였으며 또한 崔聖遠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臺는 10.00에 外沔里상공으로 출격하여 지상군을 위압하는 Bunker 를 발견하자 즉시 급강하로 이를 강타한 끝에 2개소를 覆滅하였다.

18일 : 林東濬 중위를 선두로한 4臺의 F-51 전폭기는 05.10에 養珍里(長箭 南쪽 5km)상공으로 출격하여 폭탄투하와 기총소사로서 건물 3棟을 대파하고 철도 1개소를 폭파하였으며 이어 05.50에 李靈根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臺는 城北里(長箭 南쪽 3km)에 있는 건물 5棟을 파괴하였다.

한편 이후 氣象이 고르지 않아 출격을 보류하다가 13.15에 崔聖遠 중위가 이끄는 18臺의 F-51전폭기는 海霧가 덮힌 기지(K 18)를 이륙하다가 4번기 高光壽 중위가 비행사고를 일으켜 愛機와 함께 東海에 墜落, 산화하고 나머지 17臺는 市邊里상공에서 건물 8棟을 대파하는등 삼시간에 그일대를 화염으로 휘감아 놓았다.

또한 白萬吉 중위가 지휘하는 4臺는 16.30에 月比山상공으로 출격하여 지상군과 호응하면서 敵陣을 뒤흔들어 놓았으며 이어 17.10에 孫興俊 대위를 편대장으로한 4臺의 F-51전폭기와 17.25에 李豪英 중위를 선두로한 4臺는 각각 台峰里일대의 敵陣地에 기총사격을 가하고 폭탄을 投下한 끝에 박격포진지 5개소를 覆滅하고 敵 20名을 殺傷하였다.

그리고 馬鍾仁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臺의 전폭기편대는 18.05에 侍郎里(高城 西南쪽 6km)상공에서 작열하는 대공포화를 헤치면서 그일대의 박격포진지를 강타하여 삼시간에 수라장으로 만들었으며 이어 18.15에 金直漢 중위가 이끄는 8臺의 F-51전폭기편대는 月比山에 있는 Bunker 8개소와 박격포진지 2개소를 대파하여 그일대에서 交戰中인 지상군의 사기를 양양케 하였다.

19일 : 이날부터 22일까지는 목표상공에 짙은 구름이 덮였고 비가 내리는등 惡天候가 계속된 까닭에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출격을 중지하고 다음작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3일 : 이날 08.50에 松灘里(高城 西南쪽 4km)상공에서 지상군을 위압하는 敵陣地를 발견한 4臺의 F-51전폭기편대는 金錦成 소령의 지휘로 급강하 하여 이를 강타한 끝에 Bunker 2개소와 야포진지 1개소를 覆滅하였으며, 丁海暎 중위가 이끄는 4臺는 09.20에 台峰里일대의 敵陣에 폭탄투하와 기총소사로서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또한 10.05에 月比山상공으로 출격한 4臺의 전폭기편대는 불을 뿜는 Bunker를 발견하자 즉시 李培善 중위를 선두로 이를 강타한 끝에 그일대를 수라장으로 만들었으며, 이어

10.25에 林淳赫 중위를 편대장으로 한 4臺는 沙飛里상공에서 야포진지 1개소와 Bunker 2개소를 대파하여 交戰中인 지상군의 사기를 앙양케 하였다.

한편 이날 金錦成 소령을 선두로한 4臺의 F-51전폭기는 12.40에, 또 李靈根 중위가 지휘하는 4臺는 13.05에 각각 鑑月里상공으로 출격하여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Bunker 12개소를 파괴하는등 그들의 전세를 위축케 하였다.

그리고 13.30에 裴相奭 중위가 이끄는 4臺와, 이어 14.00에 李靈英 중위를 편대장으로 한 4臺는 각각 月比山부근에서 지상군을 向하여 불을 뿜는 Bunker를 강타한 끝에 28개소를 대파하니 삼시간에 그일대는 破片이 亂飛하는 수라장이 되었다.

24일 : 이날 오전에는 日氣가 고르지 않아 출격을 보류하다가 14.40에 李培善 중위가 이끄는 4臺의 F-51전폭기는 浪汀里(高城 東北쪽 3km)상공에서 보급품집적소를 폭격한 끝에 2개소를 불태워버렸다.

한편 이날 金錦成 소령을 편대장으로 한 4臺는 17.20에, 그리고 崔聖達 중위를 선두로한 4臺는 17.45에 각각 高城상공으로 출격하여 박격포진지 3개소와 Bunker 2개소를 覆滅하고 보급로 1개소를 폭파하였다.

또한 18.15에 林東濬 중위가 지휘하는 4臺의 F-51전폭기와, 18.30에 白萬吉 중위를 선두지휘로한 4臺는 다시 高城일대에 폭탄투하와 기총소사로서 Bunker 4개소를 파괴하고 철도 3개소를 절단하였다.

25일 : 이날 다시 氣象이 惡化되어 風雨가 심한 까닭에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작전교육을 실시하면서 다음 출격의 萬全을 期하였다.

26일 : 이날 오전에는 전날과 같이 날씨가 고르지 않았으나 오후부터 점차 회복되자 15.10에 金錦成 소령을 편대장으로 한 4臺의 F-51전폭기는 長龍浦里(通川 東南쪽 15km)부근에 있는 철도를 폭격하여 삼시간에 그일대를 걸붉은 화염으로 휘감아 놓았으며 15.30에는 李靈英 중위가 이끄는 4臺가 桂月里(高城 西北쪽 3km)에 있는 철교를 강타한 끝에 1개소를 폭파하고 다시 그부근에서 교묘히 위장한 보급품집적소를 발견하자 즉시 이에 폭탄을 投下하여 1개소를 全燒케 하였다.

27일 : 金錦成 소령을 선두로한 4臺의 F-51전폭기는 이날 08.50에, 또 尹子重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臺는 10.30에, 그리고 閔旭東 중위를 선두지휘로한 4臺는 11.40에, 각각 月比山으로 출격하여 그 일대에서 交戰中인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敵陣에 기총공격을 가하고 폭탄을 投下하여 박격포진지 6개소와 Bunker 5개소를 대파하는등 그들의 전세를 위축케 하였다.

한편 09.10에 林淳赫 중위가 이끄는 4臺는 賓湖里상공에서 Bunker 4개소를 覆滅하였다.

또 이날 09.40에 李靈英 중위가 지휘하는 4臺의 F-51전폭기와 이어 5분후에 林東濬 중위가 이끄는 4臺는 각각 鑑月里상공에서 불을 뿜는 Bunker를 강타하여 9개소를 파괴하

였으며 11.20에 德山里(高城 南쪽 8km)상공으로 출격한 4羣은 孫興俊 대위의 지휘로 Bunker 4개소를 대파하였다.

그리고 이날 13.35에 閔旭東 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羣의 전폭기는 鑑月里일대에 있는 Bunker 9개소와 야포진지 2개소를 覆滅하였으며 또한 李培善 중위가 지휘하는 4羣은 14.50에 下草峴상공에서 敵陣에 급강하로 Bunker 5개소와 야포진지 3개소를 대파하였다.

이날 15.25에 다시 月比山으로 출격한 4羣은 李寬模 중위의 지휘로 Bunker 8개소를 파괴하는 등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한편 15.50에 金昌烈 중위를 선두로한 4羣의 F-51전폭기와 16.20에 林淳赫 중위가 이끄는 4羣, 그리고 17.00에 俞致坤 대위가 지휘하는 4羣은 각각 賓湖里일대에 폭탄을 投下하고 기총공격을 加한 끝에 Bunker 14개소와 동굴 3개소를 대파하였다.

또 17.20에 출격한 4羣의 전폭기는 鑑月里상공에서 金錦成 소령의 지휘로 敵陣地에 폭탄을 투하한 끝에 Bunker 5개소와 야포진지 3개소를 覆滅하는 등 그일대에서 交戰中인 지상군으로 하여금 유리한 전황을 타개토록 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期間中 空軍은 高城일대를 비롯하여 제2군의 전투지역인 平康—安峽—市邊里—新幕일대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을 단행함으로써 지상군의 사기를 앙양케 하였을 뿐아니라 敵의 진새들 크게 위축시켰다.

특히 그들이 제2군단 正面에 취한 7월 13일부터의 大攻勢에 있어 空軍이 수행한 근접지원은 지상군으로 하여금 유리한 전황을 타개토록 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이후 7월 27일에 板門店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모든 전투는 終熄되었는데 기간중 空軍이 수행한 작전의 戰果 및 損失은 다음과 같다.

綜合戰果 및 損失

戰	果	보 급 로	”	3個所
보급품집적소	폭파	철 도	”	6 ”
Bunker	”	화물차량	”	1輛
야포진지	”	철 교	”	1個所
박격포진지	”	兵 力	殺傷	20名
자동화기진지	”	損		失
대공포진지	”	F-51전폭기		3台
동 굴	”	조 종 사		2名
건 물	”			
	68棟			

§ 參戰者의 證言

◇ 제10전투비행단 출격조종사 李喜根 중위
(1976. 6. 8 경기도 水原市 自宅에서, 중장)

1953년 6월 3일 14.00에 진장된 분위기 속에서 敵의 要地攻擊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우리는(1번기:李基陝소령, 2번기:金賢千 중위, 3번기:白萬吉 중위, 9번기:李喜根 중위(本人), 4번기:李豪英중위) 17.05에 江陵基地(K-18)를 이륙하여 일로 北으로 向하였다.

우리편대(F-51전폭기 14台)가 명령받은 곳은 中部진선 鐵의 三角地라고 불리는 昌道里와 洗浦里부근에 있는 敵의 보급품집적소였다.

이곳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깊숙한 계곡에 자리잡고 있을 뿐아니라 무수한 대공포진지가 있어 폭격하기에 대단히 고통을 받는 곳이다.

곧이어 목표상공에 도달하니 예상하였던대로 대공포화가 작열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敵의 악착같은 방어로 미루어 볼때 이 곳이 분명 중요한 陣地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공격목표가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틀림없는 전방보급소와 탄약집적소였다.

그러하여 편대군장 李基陝소령은 공격준비를 명령하고 4습를 1개편대로 다시 편대를 편성하여 제1편대의 제1번기부터 차례로 공격을 加하였는데 불행하게도 폭탄은 목표에 적중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편대군장인 李基陝소령은 마지막 제4편대장인 나(李喜根중위)에게 명령하기를 『나의 편대만이 공격의 힘이 남아 있다.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여 나오』라고 하였다.

그러하여 우리편대는 亂飛하는 대공포화를 헤치면서 강하하여 폭탄을 투하하였다.

내가 제일먼저 공격을 끝내고 급상승하여 敵陣地를 이탈하기前 우리 편대를 모으기 위하여 兩翼을 흔들었다.

순간 나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진동을 느꼈다. 그것은 불행하게도 나의 愛機에 대공포탄이

명중한 것이다.

그러하여 기관 옆 배기관에서 불을 뿜기 시작하였는데 내가 즉시 李基陝소령에게 보고하고 機首를 南으로 向할 때는 벌써 가슴에 상처를 입은 사립처럼 愛機의 속도는 줄어들기 시작한다. 더우기 잠시후에는 기관의 불까지 꺼지고 高度計를 보니 8,500ft이다.

그러나 나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機首를 낮추었다가 수평을 유지하였다가…… 이러한 조작을 반복함으로써 필수 있는한 고도손실을 없애기에 전력하면서 滑空을 계속하였다.

5분쯤 지났을까 약 15마일前方에 楊口(K-52)비행장이 보였다. 나는 필듯이 기뻐지만 이때의 高度가 1,500ft, 도저히 그곳까지 갈수는 없었다.

高度는 점점 떨어져 더이상 활공을 계속할 수 없어 이곳이 我地域임을 확인한 나는 강변沙場에 不時着할 것을 결심하였다.

愛機는 안정을 잃고 마구 흔들렸으나 서서히 降下를 시작하니 강물이 다가오고 땅이 가까와지는가하면 잡초들이 희희 지나간다.

이제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接觸하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까맣게 잊고 무의식상태가 되었다.

얼마를 지났는지 몽롱한 의식속에서 깨었는데 그때 나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체 거꾸로 매달려 체중을 머리와 손에 의지하고 땅에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침착함을 되찾아 조종석안을 살폈다. 별로 성한 것이 없고 강물이 들어오고 있었다.

무전기를 찾았다. 그리고 “ 마이크”의 “버턴”을 눌러 보았다. 아직 작동이 가능하다.

즉시 나는 편대군장 李基陝소령에게 구호의 신호를 보내니 李基陝소령은 속수무책인데도 5분후에 구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10분이 지나고, 20분, 30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나는 머리와 한손으로 모래를 털어 의지한

다음 다른 한손으로 모래를 파기 시작하였다.

과면 메이고 메이면 또 파고 이러한 모래파기를 계속하는 동안 출혈은 더 심하여질 뿐 아니라 겨우로 메달린 까닭에 피가 역류하여 심한 두통을 일으켰다.

이렇게 모래파기를 계속하다가 나는 그만 의식을 잃고 말았는데 내가 의식을 회복하였을 때는 약내음나는 검은 천막속에 누어 있었다. 바로 육군 아전병원에서 응급처리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추락한 곳은 最前線에서 1mile도 못되는 곳이며 육군지원포병대가 지원을 위하여 전진하던중 그장을 건너려고 통나무를 묶어 浮橋를 만들고 있었다.

그래서 포병탱크가 많이 모여 있었으며 기총기를 사용하는 공병대의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때 태극의 표지를 단 F-51전폭기가 降下하는 것을 보았고 조금후에 몇대의 같은 비행기가 그 주위를 번갈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그때 쫓고문관 한사람이 추락한 비행기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달려왔는데 비행기 주위의 모래가 자주 속으로 밀려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속으로 자신의 손을 넣었더니 사람의 손을 만질수 있었고 아직 손에 온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조종사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곧 그는 공병대의 기총기를 이용하여 구조작업을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덕철후 나는 江陵基地로 다시 후송되어 15일 간에 걸쳐 모든 상처를 치료받은 후 다행히 완쾌되어 다시 출격명령을 받고 愛機에 오르니 그때 그 九死一生의 감회가 뇌리에 스친다.

◇ 제10전투비행단 출격조종사 金直漢 중위 ◇
(1976. 10. 11 서울시 禿山洞 自宅에서, 예 매

령)

1953년 6월 13일 12.35에 우리(편대장: 金直漢 중위(本人), 2번번기: 白南得 소위, 3번기: 金達輝 중위, 4번기: 金賢一 중위)는 우령찬 폭음을 내면서 江陵基地를 이륙하였다.

이날은 나의 100회째 출격으로써 목표는 籠月里(高城 東南쪽 5km)부근에 있는 351高地인데 이곳은 돌산(岩山)이지만 그부근을 한눈에 볼수 있는 전술적요충이기 때문에 彼我間에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곳이었다.

목표상공에 도달하니 목화층이 같은 敵의 대공포탄이 여기저기에서 작열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는 휴전이 임박한때인지라 高城일대에는 그들의 대공포진지가 무수히 산재해 있어 우리 전폭기가 상공에 나타나기만 하면 그들은 할사이 없이 대공포화를 발사하였다.

그러나 Mosquito와 연락을 취하여 목표를 확인한 우리편대는 亂飛하는 대공포화를 헤치면서 나를 선두로 폭격을 단행하였는데, 내가 제1차 폭격을 끝내고 상승하여 제2차공격을 취하고자 상공을 선회하면서 僚機들에게 무전연락을 하였으나 잘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4번기인 金賢一 중위의 뒤에 붙어서 제2차 공격을 위해 강하하는데 앞에서 목표를 향하여 진입하는 金賢一 중위의 僚機가 空中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즉 그들의 대공포탄에 정통으로 맞은 것이다. 이것을 목격한 나는 격개심이 북받쳐 모든것을 잊은채 거의 지상가까이로 내려가서 내가 가진 모든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사격을 加하였다.

물론 다른 僚機들도 일제히 강하하여 그일대를 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기지로 돌아오는 나의 마음엔 100회 출격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戰友를 잃은 슬픔과 격개심으로 가득차 있었다.

5. 一·四半期の UN空軍의 活動 (195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27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美 극동공군 사령관	대장 Otto P. Weyland	美 극동공군 폭격사령관	준장 William P. Fisher
美 제 5 공군 사령관	중장 Glenn O. Barcus	美 극동공군 전투불자 공수사령관	소장 Chester E. McCarty

나. 기간중 공군의 활동상황

(1) 對空戰鬪

美 극동공군 사령부와 美 제5공군에서는 敵의 공군활동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계속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西北韓 상공에서의 MIG-15機 활동을 制壓하면서 沙里院, 平壤, 順川, 新安州 그리고 定州, 義州, 新義州 등의 敵 비행장에 대한 폭격을 強化하였다.

이와같이 UN空軍의 對空戰鬪가 활발하여지자 그들은 夜間을 이용하여 비행장 복구공사에 많은 병력을 투입시켜 끈질긴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비행장 주위에 對空砲전지를 強化하고 UN전폭기들에 대한 위협을 加하는가 하면 MIG機들은 MIG回廊(MIG Alley) 상공에서 美 공군의 F-86 Sabre Jet 遊擊機들에게 접근하고 空中戰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美 제 5공군에서는 각 전투 遊擊戰隊에 MIG-15機를 능가하는 신예기인 F-86 F機를 증배시켜 B-26과 B-29 兩戰機를 비롯하여 F-80과 F-84 Jet 兩戰機들이 비행장과 對空砲 전지를 폭격코자 출격할 때에는 항상 이들에 대하여 철저한 엄호를 하면서 MIG機를 捕捉하는 즉시로 熾烈한 空中戰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UN空軍의 활발한 對空戰鬪는 期間中에 F-86機를 비롯하여 F-80과 F-84 兩戰機들이 對空방어에 2,444회 그리고 對空반격에 7,812회 포함 10,256회에 達하는 출격으로 MIG機 190대를 격파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2) 敵의 後方에 대한 遮斷爆撃

美 극동공군 폭격사령부 (사령관 William P. Fisher 준장)에서는 敵의 戰力을 더욱 弱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前線 背後로 B-26과 B-29 兩爆撃機들을 출격시켜 빈틈없는 遮斷 폭격을 斷行하였다.

이와같이 UN空軍에서는 밤낮을 가리지않고 敵의 後方에서 前線으로 이어진 보급로와 機動路를 폭파하는 한편 滿洲로부터의 철도 보급 수송을 遮斷하기 위하여 平壤-新安州-定州-宣川-新義州에 대한 철도를 폭격하고 요소 요소에 있는 철교의 徑間(Span)을 切斷함으로써 그들의 철도 수송을 곤경에 몰아 넣었다.

그러나 敵은 밤을 이용하여 트럭으로 보급품을 前線으로 수송케 되었는데 UN空軍의 B-26輕爆撃機들은 이러한 틈을 주지않고 트럭부대를 捕捉하는 즉시로 폭탄과 Napalm탄을 퍼부어 이를 大破하였다.

이밖에도 UN공군에서는 敵의 戰力근원이 되고있는 水力발전소를 비롯하여 군수품공장에 폭탄을 集中하는 한편 그들의 前線 背後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와 유류저장소 그리고 軍事시설에 대하여 과감한 폭격을 斷行한 결과 戰線에서의 보급난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다.

期間中 UN空軍에서는 敵의 後方遮斷 폭격에 도합 14,836(무장정찰 포함)회의 출격으로 폭탄 26,873 ton과 Napalm탄 39 ton을 集中한 결과 트럭 3,823대와 군용건물 474棟을 파괴 하였으며 貨物車輛 50량과 機關車 36대등을 폭파하는 戰果를 기록하였다.

(3) 近接支援

美 제 5공군에서는 F-51전폭기를 비롯하여 F-80과 F-84 Jet 兩戰爆機들을 前線으로 출격시켜 各 戰線에서 熾烈한 攻防戰을 전개하고 있는 友軍의 地上부대를 엄호하면서 그들의 戰線 正面에 空中火力을 集中하였다.

이러한 UN空軍의 근접지원 출격은 東部戰線에서 血戰을 전개하고 있는 韓國軍 제 1, 제2 兩軍團과 中部와 西部戰線의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대하여 主로 지원하였는데 期間中 도합 3,950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으로 폭탄 5,726ton과 Napalm탄 4ton을 퍼부어 그들의 各 戰線 せ력을 뒤흔들어 놓았다.

이와같이 期間中 UN空軍에서 遂行한 對空戰鬪와 敵의 後方에 대한 遮斷폭격 그리고 근접지원 출격등의 지원에 원활을 期하기 위하여 각종 탄약과 軍裝備 및 군수품 空輸를 도합 12,570회나 기록하였는데 그 作戰狀況을 月日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1月中的 戰況

1일 : 이날 UN空軍의 戰爆機 편대들은 北韓의 各 機動路와 보급로에 대한 폭격을 斷行

하는 한편 이날 夜間에는 敵의 戰線으로 이어지는 보급부대에 폭탄을 集中하고 操車場에 火力을 集中하니 칠흙같은 밤하늘로 솟아 오르는 불기둥은 매마침 세차게 부는 北風에 휘감겨 그 일대를 삼킬듯 하였다.

또 이날 美 제 5공군의 F-51과 F-80 兩戰爆機 편대들도 美 제 10군단에 27회, 그리고 韓國軍 제 2군단에 17회로 도합 44회의 근접지원 출격으로 그들의 前線 要衝部에 폭탄과 機銃 洗禮를 퍼부어 戰列을 뒤흔들어 놓았다.

2일 : 이날 UN空軍의 B-26과 B-29 兩爆擊機 편대들은 平壤 南쪽으로 출격하여 그 일대에있는 보급품 集結地에 高性能 폭탄 100ton을 集中하니 삼시간에 그 일대는 火焰으로 휘감겼으며 하늘을 찌를듯 솟구치는 불기둥이 온종일 그치지 않았다.

또 UN空軍의 F-51과 F-80 兩戰爆機들도 西部戰線으로 출격하여 그들의 戰線 背後에서 激戰地로 向하는 트럭부대를 捕捉하고 이에 폭탄과 Rocket탄 및 機銃을 퍼부어 트럭 1,000臺를 전파하여 이를 燒却시키는 戰果를 거두었다.

한편 이날 美 제 5공군의 各 戰爆機들은 전선으로 출격하여 美 제 1군단에 42회와 제 10군단에 18회, 그리고 韓國軍 제 1, 제 2 兩軍團에 31회로 도합 91회에 達하는 근접지원 출격을 제공하였다.

3일 : 이날 美 제 5공군의 F-86 Sabre Jet 邀擊機 40대는 順川 西南쪽 상공으로 출격하여 MIG-15 Jet機 50대와 熾烈한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6대를 全破하였다.

한편 B-29 重爆擊機들은 順川 東北쪽 5km에 있는 軍事施設에 대하여 최초로 大대의인 폭격을 決行, 72棟에 이르는 건물을 大破하고 또 新安州-新義州 일대에 있는 軍司令部와 기타 軍施設에 폭탄을 퍼부어 150棟을 파괴 하였다.

이밖에도 이날 美제 5공군의 戰爆機편대들은 接戰中인 美 제 1, 제 9, 제 10의 3개군단에 61회 그리고 韓國軍 제 1, 제 2 兩軍團에 34회로 도합 95회에 達하는 근접지원 출격으로 戰線의 要衝部를 強打하여 그들의 戰力을 위축케 하였다.

4일 : 美 공군의 F-80과 F-84 兩戰爆機 편대들은 그들의 前線 背後에서 戰線으로 이어지는 보급로에 폭탄과 Rocket탄을 퍼부어 이를 폭파하는 한편 그 일대에 있는 軍事施設 32棟을 아울러 폭파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또 이날 밤에는 UN空軍의 B-26輕爆擊機들이 敵 後方에서 前線으로 向하는 貨物車輛과 트럭을 捕捉하고 이에 폭탄을 퍼부었는데 이때 火焰에 휘감긴 貨物車輛과 트럭들은 잠시동안 불을 싣고 달리는듯 하더니 곧 불덩이가 溪谷으로 흩어지면서 그 일대를 마치 대낮과 같이 밝혀 놓았다.

한편 이날 美 제 5공군에서는 接戰中인 美 제 1, 제 9, 제 10의 3개군단에 52회, 韓國軍 제 1, 제 2 兩軍團에 24회로 도합 76회의 近接支援을 제공하였다.

5일 : 이날 UN空軍의 F-86 Sabre Jet機편대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機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1대를 격추시켰는데 이것은 이해의 空中戰에서의 첫 戰果였다.

한편 美 극동공군의 B-29重爆機들은 이날 밤에 지금까지 UN空軍이 폭격하지 못한 後方 보급품 집적소들에 폭탄을 集中하여 이들을 모두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또 이날 Australia공군의 전폭기대대는 參戰以來 도합 15,000회에 달하는 출격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날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씨가 계속된 까닭에 美 제 5공군의 전폭기들은 接戰中인 美 제1군단에 8회 그리고 韓國軍 제2군단에 4회로 도합 12회의 근접지원 출격으로 그쳤다.

6일 : 이날 아침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이었으나 차차 구름이 뒤덮히고 심한 바람까지 부는 등 氣象이 고르지 않았으나, 美 제 5공군의 F-80과 F-84의 兩Jet전폭기 100대는 鴨綠江 南쪽 75km에 있는 兵力집결지와 보급품 집적소에 大火的인 폭격을 斷行하여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한편 이날 美 제 5공군의 전폭기들은 地上軍을 엄호하면서 美 제1군단에 28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33회로 도합 61회에 달하는 근접지원 출격으로 그들의 戰線세력을 위축시켰다.

7일 : 이날 UN空軍의 F-86 Sabre Jet機 편대들은 北韓의 西北쪽 MIG回廊에서 MIG機와 2회에 걸친 空中戰 끝에 1대를 격추하고 2대를 半破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또 美 제 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海兵隊의 전폭기와 합세하여 海州—江東—平壤—鎮南浦 일대의 鐵道에 폭탄과 Rocket탄을 集中投下 하였다.

이밖에도 이날 밤 B-29重爆機들은 元山—咸興—高原등에 있는 보급품 中心地와 操車場에 폭탄洗禮를 가한 結果 그 일대를 삼시간에 불바다로 만들었다.

한편 이날 美 제 5공군의 전폭기들은 接戰中인 地上軍을 엄호한 근접지원 출격으로 美 제1, 제9 兩軍團에 26회 그리고 韓國軍 제1군단에는 1회로 모두 27회를 기록하였다.

8일 : 이날 美 제 5공군의 F-51과 F-80 兩戰爆機들은 이른 아침부터 戰線상공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81회와 韓國軍 제2군단에 20회로 도합 101회의 근접지원 출격으로 그들의 戰線 세력을 크게 위축 시켰다.

9일 : 美 제 5공군의 B-26 輕爆機들은 전날 밤부터 이날 아침까지 前線으로 向하는 敵의 貨物車輛을 捕捉하고 이에 폭탄을 集中한 결과 50輛을 全破하였으며 陽德부근에 있는 軍司令部를 強打하여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또 이날 午後에는 B-29 重爆機들이 咸興 비행장에 폭탄을 集中하여 당분간 사용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으며 UN空軍의 戰爆機 300대는 滿洲와 연결된 北韓內의 主要 철도 分岐點을 強打 이를 絶단하였다.

10일 : 이날도 UN空軍의 戰爆機 300대는 전날에 이어 滿洲와 北韓의 철도 交叉路에 폭

격을 斷行하여 당분간 사용할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날 밤에는 B-29 重爆機들이 다시 韓滿의 철도 要部를 強打한 결과 滿洲로 부터의 鐵道 보급품수송이 두절되었을 것이다.

이밖에도 B-29 重爆機 편대들은 이날 밤에 宣川 상공으로 출격하여 그 일대에 있는 操車場에 110ton에 달하는 50개의 폭탄으로 이를 全破 또는 燒却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한편 이날 美 제 5공군의 전폭기들은 戰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군단에 8회와 韓國軍 제1군단에 4회로 모두 12회의 근접지원을 기록하였다.

11일 : 이날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씨로 말미암아 空軍의 활동이 대체로 저조 하였는데 UN空軍의 戰爆機들은 이러한 不順한 天候에도 불구하고 前線에 散在한 敵의 兵力집결지를 強打하는 한편 接戰中인 地上軍을 엄호하면서 美 제1, 제9, 제10의 3개 군단에 23회와 韓國軍 제2군단에 4회로 도합 27회의 근접지원 출격을 기록하였다.

12일 : 이날도 심한 바람이 부는 등 날씨가 고르지 않았으나, 12.00에 B-29重爆機들은 新安州 상공으로 출격하여 그 일대의 鐵道에 폭탄을 集中한 끝에 이를 사용 곤란토록 만들어 놓았으며 한편 美 제 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군단에 7회와 韓國軍 제1군단에 4회로 모두 11회의 근접지원을 기록하였다.

13일 : 이날 UN空軍의 4개 전폭전대의 戰爆機와 美 海兵 제33비행대대의 戰爆機가 합勢한 220대는 美 제 5공군의 F-86 Sabre Jet機의 엄호를 받으면서 新安州 北쪽 상공으로 출격하여 그 일대에 있는 橋梁들에 대한 猛爆을 斷行, 이를 사용불능토록 만들었으며 F-86機들은 귀환중에 MIG-15機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2대를 격추하고 1대를 半破하였다.

한편 이날 美 제 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地上軍을 엄호하면서 美 제9, 제10 兩軍團에 14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72회로 도합 86회에 달하는 근접지원을 제공하였다.

14일 : 이날 아침 B-29 重爆機 편대들은 軍隅里-新安州 일대에 있는 操車場에 110ton에 달하는 폭탄을 投下하여 삼시간에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한편 美 제 5공군의 전폭기들은 戰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제10의 3개 군단에 49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38회로 도합 87회의 근접지원을 기록하였는데 이에 敵의 戰線勢力은 크게 위축되었으며 그 結果 地上軍은 유리한 상황에서 다시 反擊을 決行케 되었다.

15일 : 이날 UN空軍의 F-86 Sabre Jet機들은 鴨綠江 南쪽 상공에서 MIG-15機 38대와 空中戰 끝에 8대를 격추하고 11대를 半破, 火焰에 휩싸여 추락케 하였다.

또 B-29重爆機들은 時速 48km의 강풍을 헤치며 元山 西北쪽 상공으로 출격하여 그 일대에 있는 鐵道 操車場과 보급품 基地로 사용되고 있는 鐵鋼加工所에 폭탄을 集中投下하여 이를 燒却하였다.

한편 美 제 5공군의 전폭기들은 地上軍을 擁護하면서 美 제1, 제 9, 제10의 3개 군단에 50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30회로 도합 80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으로 그들의 戰線을 뒤흔들어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16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機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機와 空中戰 끝에 1대를 격추하고 1대를 半破 하였다.

또 B-29重爆機 48대는 이른 아침에 敵의 中部戰線 일대에 자리잡은 軍用 건물에 폭탄을 集中하여 점들은 火焰으로 휘감아 燒却 시켰다.

한편 이날 美 極東 공군 사령관 Otto P. Weyland 대장이 말하기를 『우리는 지금 美 大統領의 명령만 하달되면 즉시 中共의 本土를 폭격할 수 있는 戰力과 그에 따른 戰術戰技에 만전을 期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17일 : 이날은 심한 눈보라와 진눈개비까지 몰아친 까닭으로 UN空軍의 활동이 저조하였는데 Australia 공군의 Jet戰爆機들은 이를 무릅쓰고 前線으로 출격하여 敵의 後方으로부터 前線으로 向하는 보급 트럭행렬을 捕捉하고 이에 폭탄과 機銃洗禮로 이를 燒却시켰으며 美 제5공군의 B-29重爆機들도 이날 밤에 平壤상공으로 출격하여 그 일대에 高性能폭탄 90ton을 集中, 삼시간에 불바다로 만들어 놓았다.

한편 이날 美 제 5공군의 전폭기들도 地上軍을 擁護하면서 美 제1, 제9, 제10의 3개 군단에 38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17회로 모두 55회의 근접지원을 기록하였다

18일 : 이날 午前에도 눈보라가 계속된 날씨는 午後부터 점차 회복되었는데 UN空軍에서 는 기다렸다는 듯이 各 비행장에서 機首를 北쪽으로 한 힘찬 출격에 拍車를 加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UN空軍의 戰爆機들은 그들의 戰線 背後에 있는 보급품집적소와 機動路를 強打하는 한편 美 공군의 B-26 輕爆機들은 이날 밤에 元山-平壤을 연결하는 보급로에 폭탄洗禮를 加하였다

또 美 제 5공군의 전폭기들은 戰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제10의 3개 군단에 77회, 그리고 韓國軍 제 2군단에 12회로 도합 89회의 근접지원을 실시하여 敵의 戰線 세력을 뒤흔들어 놓았다.

19일 : 이날 UN空軍의 B-29重爆機들은 敵의 中部와 西部前線의 北쪽 背後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에 폭탄투하로 이를 燒却하였으며 이날 밤에는 B-26輕爆機 편대들이 平壤-新安州의 보급로를 強打하였다.

한편 美 제 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戰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10 兩軍團에 39회 韓國軍 제 1군단에 20회, 도합 59회의 근접지원출격을 하였다.

20일 : 이날 美 공군의 F-86 Sabre Jet機들은 水壘岬 근처 상공에서 MIG-15 Jet機와 熾烈한 空中戰을 전개하여 1대를 격추하고 全機 무사히 귀환 하였다.

21일 : 이날도 美 공군의 F-86 機편대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과 鴨綠江 근처 상공에서 MIG-15 Jet機와 2次에 걸친 熾烈한 空中戰 끝에 14대를 격추하고 4대를 半破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또 B-26 輕爆機들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敵 戰線背後에 散在한 보급품 집적소를 強打하여 온종일 點爆은 火焰이 하늘로 솟구치게 하였다.

한편 美 제 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戰線으로 出擊하여 美 제 1, 제 9, 제 10의 3개 군단에 63회와 韓國軍 제 1, 제 2 兩軍團에 30회로 도합 93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을 제공하였다.

22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機 편대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Jet機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5대를 격추하고 6대를 半破하였다.

또 이날 F-84 Jet機들은 韓滿國境 12km까지 출격하여 그 일대에 있는 鐵道網을 強打하였으며 B-29重爆機들은 陽德 근처에 있는 操車場과 龍平里의 敵 參謀本部에 140ton에 達하는 高性能 폭탄을 投下하여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이밖에 이날 Australia 공군의 8개 Jet機편대들도 前線背後에 散在한 보급품집적소에 Rocket탄 200발을 加하여 이를 燒却하였다.

한편 美 제 5공군의 전폭기들도 美 제 1, 제 9, 제 10의 3개 군단에 78회 그리고 韓國軍 제 1, 제 2 兩軍團에 15회로 도합 93회의 근접지원을 提供 하였다.

23일 : 이날 UN空軍의 F-86 Sabre Jet機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Jet機와 熾烈한 空中戰 끝에 4대를 격추하였다.

한편 美 제 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戰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 1군단에 97회를 비롯하여 제 9, 제 10, 兩軍團에 34회 그리고 韓國軍 제 1, 제 2 兩軍團에 23회로 도합 154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을 제공하였다.

24일 : 이날도 UN空軍의 F-86 Sabre Jet機는 MIG回廊 상공에서 MIG機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2대를 격추하고 2대를 半破하였다.

또 B-29重爆機들은 이른 아침에 平壤부근의 보급품집적소와 兵力집결소에 대한 폭탄 투하로 삼시간에 그 일대를 修羅場을 만들어 놓았으며 B-26輕爆機 편대들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戰線 西北쪽의 背後에 散在한 보급품 要衝地를 強打하여 이를 燒却케 하였다.

이밖에도 美 제 5공군의 전폭기편대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友地上軍을 幷護하면서 美 제 1, 제 10 兩軍團에 36회와 韓國軍 제 1군단에 12회로 모두 48회의 근접지원을 기록하였다.

25일 : 美 空軍의 B-29 重爆機들은 이날 이른 아침에 鴨綠江 南쪽 12km의 鐵山 일대에 高性能 폭탄 100ton을 投下하여 그 일대를 뒤흔들어 놓았다.

또 F-51과 F-80등의 戰爆機 편대들은 戰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 1군단에 162회를 비롯하여 제 9, 제 10 兩軍團에 29회 그리고 韓國軍 제 1, 제 2 兩軍團에 24회로 도합 215회에

達하여 근접지원을 하였는데 그 기록으로 보아 이날 戰線에서의 激戰이 얼마나 熾烈하였는지 짐작할수 있었다.

26일 : 이날도 UN空軍에서는 美 공군의 전폭기와 Australia공군의 전폭기들이 合勢하여 沙里院—平壤에 이르는 敵의 보급품집적소를 強打, 이를 불태웠다.

또 다른 전폭기 편대들은 전날에 이어 戰線으로 出擊하여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63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32회로 도합 95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으로 敵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27일 : 이날 UN空軍의 F-86 Sabre Jet機 4대는 水豐南 南쪽 12km상공에서 MIG-15Jet機 20대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2대를 격추하였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101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32회로 도합 133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출격을 기록하였다.

28일 : UN空軍의 B-29重爆機 편대들은 平壤 南쪽 5km에 있는 軍用건물에 高性能폭탄 110ton을 集中하여 삼시간에 그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때 그 불기둥은 하늘을 가를 듯 솟아올랐다.

한편 이날 美 공군의 전폭기들은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 출격을 8회로 그쳤다.

29일 : 이날도 B-29重爆機들은 平壤市와 그 일대에 있는 그들의 보급품집적소에 폭탄을 集中하여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편대들은 美 제1군단에 66회를 비롯하여 제9, 제10 兩軍團에 38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20회로 도합 124회에 達하는 근접지원 출격으로 敵의 戰線을 強打,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30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機 편대들은 鎭南浦 상공에서 蘇聯製 폭격기로 판단되는 경폭격기 1대를 격추하였으며 鴨綠江 南쪽 상공에서는 MIG-15Jet機와 空中戰 끝에 1대를 격추하고 1대를 半破하였다.

또 B-29重爆機들은 平壤 南쪽 2km의 보급품집적소에 高性能폭탄 110ton을 投下하여 이를 全燒케 하였다.

31일 : 이날 밤 B-29重爆機들은 元山 南쪽 4km에 있는 보급품집적소와 兵力집결지에 폭탄을 集中投下하여 삼시간에 그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았다.

한편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地上軍을 幟호하면서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77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39회로 도합 116회의 근접지원을 기록하였다.

이날 美 極東 공군에서 이달의 戰果 및 損失을 발표하기를 『UN空軍은 敵의 MIG機 87대를 격추하였으며 UN空軍의 F-86機 2대와 기타 전폭기 21대를 포함하여 도합 23대의 損失을 보았다』라고 하였다.

(5) 2月中의 戰況

1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機 18대는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機 17대와 2次에 걸친 空中戰 끝에 1대를 격추하였다.

한편 B-29 重爆機들은 載寧에 있는 보급품집적소에 폭탄洗禮를 加하여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一進 一退의 攻防戰을 전개하고 있는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123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40회로 모두 163회에 達하여 근접지원하였다.

2일 : 이날 UN空軍의 F-86 Sabre Jet機 편대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機와 空中戰 끝에 2대를 격추하였다.

또 B-29 重爆機들은 戰線 背後에 散在한 陣地들에 대하여 폭탄을 集中하니 온종일 하늘을 찌를듯 솟아오르는 火焰이 그치지 않았다.

한편 이날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도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123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39회로 도합 162회에 達하여 근접지원 하였다.

3일 : 이날은 대체로 맑은 날씨라고는 하나 심한 바람이 불어 비행활동에 장애가 되었으나 UN空軍에서는 이를 무릅쓰고 北韓의 東北쪽으로 전폭기를 출격시켜 美 제77기동 함재기들과 합세토록하여 元山-城津-吉州를 따라 보급품집적소를 强打하였다.

4일 : 이날은 짙은 구름이 하늘을 낮게 뒤덮은 까닭으로 비행활동에 큰 지장을 주었으나 UN空軍의 B-26 輕爆機들은 13일째 계속하여 各戰線으로 向하는 보급품 수송트럭을 폭격함으로써 그들의 보급을 斷切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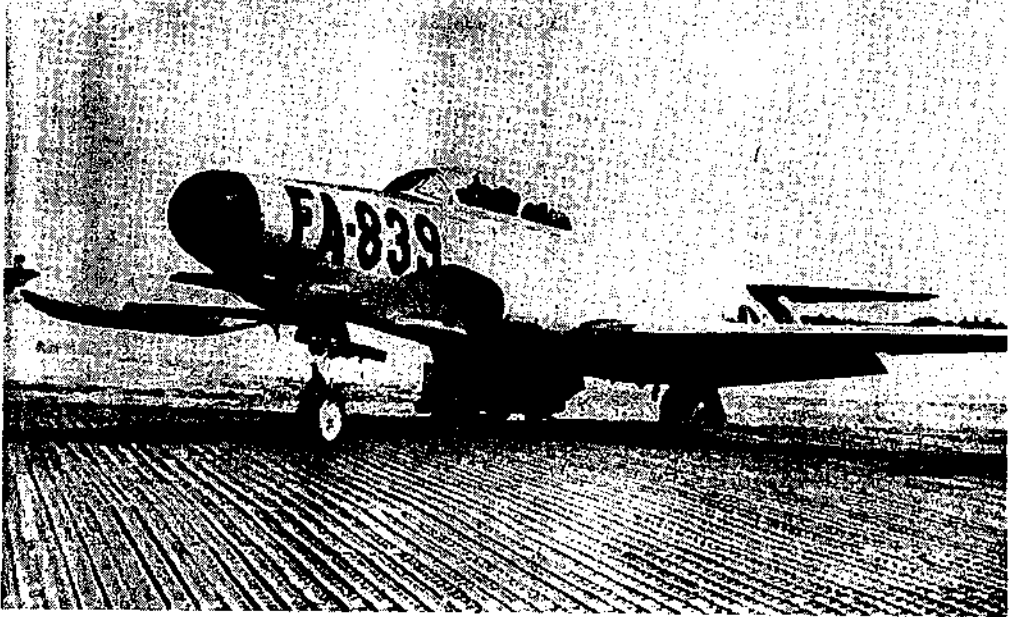
또 美 제5공군에서는 전폭기 편대들을 戰線으로 출격시켜 血戰을 전개하고 있는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106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34회로 모두 140회에 達하여 근접지원하였다.

5일 : UN空軍의 전폭기들은 載寧과 江東에 있는 軍事시설에 폭탄을 集中하여 이를 全燒케 하는 한편 美 제5공군의 F-80 전폭기들은 鎭南浦港에 정박중인 敵의 商船 1隻을 强打하여 이를 擊沈하였다.

한편 다른 전폭기 편대들도 戰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兩軍團에 49회와 韓國軍 제2군단에 4회로 도합 53회에 걸친 근접지원을 提供하였다.

6일 : 이날은 惡天候로 말미암아 UN空軍의 활동이 저조하였는데 美 제5공군에서 발표하기를 『美 공군은 어떠한 天候에도 비행할수 있는 最新 夜間 전투기 F-94 B型機가 지난해 3월부터 韓國戰에 參加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7일 : 이날 UN空軍의 F-86 Sabre Jet機 8대는 MIG 回廊에서 MIG-15機와 熾烈한



〈F-94B 전투기〉

空中戰을 전개하여 2대를 격추하였다.

또 B-29 重爆機들은 平壤 東南쪽에 있는 보급품집적소 2개소와 軍用건물에 폭탄을 投下하여 이를 大破하였으며 다른 전폭기 편대들도 金城一市邊里일대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와 軍用건물 15棟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加하여 이를 全破하였다.

한편 戰線으로 출격한 전폭기편대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126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32회로 道합 158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으로 그들의 全戰線을 뒤흔들어 놓았다.

8일 : 美 공군의 B-29重爆機들은 平壤 西南쪽에 있는 보급품집적소에 폭탄을 集中하여 이를 燒却시켰으며 또 전폭기편대들은 戰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78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23회로 모두 101회에 걸쳐 근접지원하였다

9일 : 이날 UN空軍의 전폭기들은 4회에 걸쳐 兼二浦 公업지구에 대하여 猛爆擊을 斷行하였으며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34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35회로 모두 69회에 걸쳐 근접지원 하였다.

10일 : 이날은 靄雲개비가 내리고 바람까지 심한 기상이었으나 B-29重爆機들은 淸川江北쪽에 있는 보급 中心地에 폭탄을 集中하여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11일 : 이날도 B-29重爆機들은 沙里院 西南쪽과 平壤 東쪽에 있는 보급품집적소에 폭탄을 集中하여 이를 全破했으며 이날 밤에는 B-26輕爆機들이 戰線으로 向하는 特務행렬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13대를 全破하였다.

12일 : 이날도 비바람과 눈보라가 치는등 날씨가 고르지 않은 까닭으로 UN空軍의 활동이

저조하였는데 美 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1, 제10 兩軍團에 8회와 韓國軍 제2군단에 8회로 모두 16회의 근접지원에 그쳤다.

13일 : 이날도 고르지 않은 날씨가 계속된 까닭으로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載寧일대의 鐵道를 폭격하고 美 제1, 제9 兩軍團에 16회의 근접지원을 提供하는 것으로 그쳤다.

14일 : UN空軍의 B-26輕爆들은 이날 밤 各戰線으로 向하는 트럭행렬을 捕捉하고 이에 폭탄을 集中, 100대를 全破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한편 이날 美 제5공군의 전폭기편대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102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66회로 도합 168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을 기록하였다.

15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機 18대는 MIG回廊 상공에서 MIG-15 Jet機와 熾烈한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3대를 격추하고 3대를 半破하였다.

이때에 함께 출격한 UN전폭기들은 載寧 東南쪽의 鐵橋를 폭파하는 한편 新安州의 鐵橋를 强打하고 水豊발전소에 폭탄을 투하 하였다.

한편 美 제5 공군의 전폭기편대들은 戰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77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34회로 도합 111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출격으로 그들의 戰線을 뒤흔들어 놓았다.

16일 : 이날 UN空軍의 F-86 Sabre Jet機 편대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機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1대를 격추하고 2대를 半破하였다.

또 전폭기들은 200대가 兼二浦地區로 출격하여 그 일대의 軍事시설에 대한 猛爆擊을 斷行하였다.

이밖에도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 제9제, 10의 3개군단에 102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33회로 도합 135회에 達하여 근접지원 하였다.

17일 : 이날 UN空軍의 F-86機들은 MIG回廊상공에서 MIG-15Jet機와 2次に 걸친 空中戰 끝에 1대를 격추하였다.

한편 美 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戰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63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32회로 도합 95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으로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18일 : 이날도 UN空軍의 F-86 Sabre Jet機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Jet機와의 空中戰 끝에 5대를 격추하고 2대를 半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한편 美 제5공군의 전폭기편대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52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19회로 모두 71회의 근접지원을 기록하였다.

19일 : 이날 UN空軍의 Jet전폭기들은 元山 南쪽 2km와 平壤 西쪽 5km에있는 보급품 집적소를 强打 하였으며 또 다른 전폭기 200대는 전날에 이어 다시 平壤 일대의 軍事시설에 爆擊을 加하였다.

한편 美 공군의 전폭기편대들은 戰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제10의 3개 군단에 98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39회로 137회에 達하여 근접지원 하였다.

이날 美 제5공군 사령관 Glenn O. Barcus 중장이 說明하기를『속般 우리공군이 敢行한 北韓의 군사목표에 대한 치열한 공중공격은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敵의 戰車와 트럭 그리고 이를 수리하는 공장이 여지없이 파괴되었다』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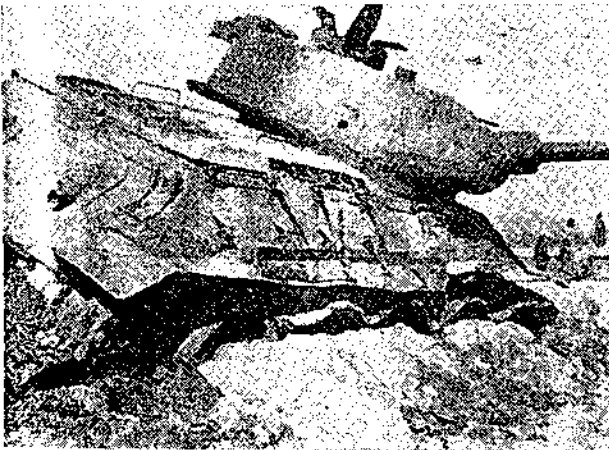
20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機들은 鴨綠江 南쪽 상공에서 MIG-15Jet機와 熾烈한 空中戰 끝에 2대를 격추하고 1대를 半破하였으며 B-29重爆機들은 이와같은 엄호를 받으면서 新義州 西南쪽 8km에 있는 보급품 中心地에 폭탄을 퍼부었다.

한편 이날 美 공군의 전폭기들은 戰線에서 美 제1, 제9, 제10의 3개 군단에 86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48회로 도합 134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으로 그들의 戰線세력을 크게 위축시켰다.

21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機들은 MIG回廊 상공에서 MIG-15Jet機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1대를 격추하고 2대를 半破하였다.

또 B-26輕爆機들은 鎮南浦 北쪽 敵의 集結地를 폭격하는 한편 前線으로 向하는 트럭 행렬을 捕捉하자 곧 이에 폭탄을 퍼부어 123대를 全破하였다.

이밖에 美 공군의 전폭기들은 戰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제10의 3개 군단에 102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35회 도합 137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을 기록하였다.



〈UN전폭기에 의하여 폭파된 敵의 戰車〉

22일 : 이날 UN空軍의 전폭기들은 元山 南쪽의 戰車集結地를 捕捉하자 이에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戰車 7대를 全破하였으며 다른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군단에 93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57회로 도합 150회에 이르는 근접지원으로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하였다.

23일 : 이날 이른 아침에 B-29重爆機들은 敵의 後方으로부터 前線으로 向하는 트럭125대를 폭파하고 機關車 1대를 全破하였으며 또 다른 B-29重爆機들은 咸寧上공으로 출격하여 그들의 貨物車輛 수리공장에 폭탄을 集中 이를 全破하였다.

한편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地上軍을 엄호하며 美 제1, 제9, 제10의 3개 군단에 69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28회로 도합 97회에 達하여 근접지원 하였다.

24일 : 이날은 구름이 目標상공을 낮게 뒤덮고 비까지 내리는 까닭으로 비행활동에 많은

장애가 되었으나 B-29重爆機는 이를 무릅쓰고 元山 南쪽과 高原으로 출격하여 그 일대의 보급품집적소에 폭탄을 集中하였다.

한편 美 공군의 전폭기들도 고르지 않은 날씨로 말미암아 美 제1, 제9 兩軍團에 8회 그리고 韓國軍 제1군단에 24회로 모두 32회의 근접지원에 그쳤다.

25일 : UN空軍의 F-86 Sabre Jet機들은 鴨綠江 南쪽 상공에서 MIG-15Jet機와 空軍戰을 전개한 끝에 4대를 격추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또 B-26輕爆機들은 機關車와 트럭행렬을 捕捉하자 즉시 이에 폭탄을 集中하여 機關車 2대와 트럭 90대를 全破 이를 燒却하고 B-29重爆機들은 沙里院 西쪽 3km에 있는 보급품집적소에 폭탄을 投下하여 全燒却하였다.

한편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地上軍을 幷護하면서 美 제1, 제9 兩軍團에 64회와 韓國軍 제2군단에 19회로 도합 83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으로 敵의 戰線을 뒤흔들어 놓았다.

26일 : 이날 UN空軍의 B-26輕爆機들은 麻田지구에 있는 보급품집적소에 폭격을 단행하였으며 B-29重爆機들도 元山 南쪽에 있는 보급품집적소에 폭탄을 集中하여 이를 全燒却하였다.

이밖에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戰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110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32회로 도합 142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으로 戰線에 火力을 集中하니 그들은 戰列을 이탈하여 溪谷으로 흩어지기에 급급하였다.

27일 : 이날 UN空軍의 F-84 Jet 전폭기들은 楚山에 있는 훈련소를 強打하였으며 B-26輕爆機들은 北靑의 兵舍를 폭격하고 B-29重爆機들도 平壤일대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에 폭탄을 퍼부어 이를 燒却하였다.

한편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戰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84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31회로 도합 135회에 이르는 근접지원을 기록하였다.

28일 : 이날은 짙은 구름이 목표상공을 뒤덮고 비까지 내리는 날씨로 말미암아 비행활동이 저조하였는데 이날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0군단에 8회와 韓國軍 제1군단에 8회로 모두 16회의 근접지원을 제공하는데 그쳤다.

한편 이날 美 제5공군에서 이달의 戰果와 損失에 대하여 발표하기를 『UN空軍은 이달에 MIG-15機 63대를 격추하고 機關車 35대와 트럭 2,823대를 全破하였다. 그러나 UN空軍도 항공기16대를 損失하였다』라고 하였다.

(6) 3月中의 戰況

1일 : 이날 UN空軍의 B-26輕爆機들은 淸津 상공으로 출격하여 그 일대에 폭탄을 集中, 삼시간에 불바다로 만들어 놓았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편대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97회와 韓國軍 제1, 제

2 兩軍團에 36회로 도합 133회에 이르는 근접지원으로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2일 : 이날은 비바람이 부는 날씨로 말미암아 공군활동이 대체로 저조하였는데 B-29 重爆機들은 이를 무릅쓰고 밤을 이용하여 元山港 근처에 있는 보급품집적소에 폭탄을 集中한 결과 삼시간에 그 일대를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다.

한편 美 공군의 전폭기들도 날씨가 고르지 않아 美 제1군단에 22회의 근접지원을 기록하였다.

3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F-86Sabre Jet機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機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6대를 半破하였다.

이밖에도 전폭기들은 美 제1군단에 12회와 韓國軍 제1군단에 4회 도합 16회의 근접지원을 실시하였다.

4일 : 이날도 목표상공에 구름이 낮게 뒤덮고 심한 바람이 부는 등 날씨가 고르지 않아 비행활동에 많은 지장을 보였으나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59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54회 도합 113회에 달하는 근접지원을 제공하였다.

5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淸津 공업지대로 출격하여 그 일대에 폭탄을 集中하였다.

한편 다른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81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52회로 도합 133회에 달하는 근접지원을 수행하였다.

6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戰線으로 출격하여 一進一退를 거듭하는 友地上軍을 엄호하면서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84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40회로 도합 124회에 달하는 근접지원으로 敵의 戰線을 뒤흔들어 놓았다.

7일 : 이날은 짙은 구름이 낮게 뒤덮이고 바람까지 심한 까닭으로 空軍의 活動은 극히 저조하여 각 비행장에서는 機體 정비점검을 하며 다음 출격의 만전을 期하였다.

8일 : 이날 UN空軍의 F-86 Sabre Jet機들은 北韓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機와 空中戰 끝에 5대를 격추하고 2대를 半破하였다.

또 B-29重爆機들은 보급품집적소에 高性能 폭탄 100ton을 投下하여 이를 全燒케 하였으며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9, 제10 兩軍團에 8회 韓國軍 제2군단에 4회로 모두 12회에 그쳤으나 이날 美 極東공군의 총출격회수는 790회에 달하였다.

9일 : 이날도 美 제5공군에서는 전폭기들을 戰線으로 출격시켜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86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40회로 도합 126회에 이르는 근접지원을 기록하였다.

10일 : 美 極東 공군의 B-29重爆機들은 新安州 北쪽 4km에 있는 장교훈련소에 폭탄을 集中하여 이를 全破하였다.

한편 이날 美 공군當局에서 발표하기를 『UN空軍은 韓國戰 이래 敵機를 도합 1,788대

격파하였으며 UN機의 損失은 891대이다¹⁾라고 하였다.

11일 : 이날 아침부터 비가 나리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씨가 계속된 까닭에 UN空軍에서는 출격을 保留하고 機體정비로 다음 출격에 대비하였다.

12일 : 이날도 비가 내리고 구름이 낮게 뒤덮였으나 B-29重爆機 13대는 이를 무릅쓰고 平壤 西南쪽 5km에있는 보급품 中心地에 高性能 폭탄 130ton을 集中하여 삼시간에 그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았다.

13일 : 이날 美 공군의 F-86 Sabre Jet機 편대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Jet機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4대를 격추하였다.

또 B-29重爆機 12대는 新義州 東쪽 10km에 있는 그들의 보급품집적소와 兵力 집결지에 高性能 폭탄 120ton을 投下하여 건물 200棟을 全破 하였다.

이밖에도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군단에 68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35회 드합 103회에 달하는 근접지원으로 敵陣을 뒤흔들어 놓았다.

14일 : 이날도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地上軍을 엄호하면서 美 제1, 제10 兩軍團에 49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20회로 도합 69회에 이르는 근접지원을 제공하였다.

15일 : UN空軍의 F-86機들은 MIG 回廊상공에서 MIG-15機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7대를 격추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또 B-29 폭격기는 元山 外廓지대에 있는 操車場에 폭탄을 퍼부어 삼시간에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한편 美 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군단에 83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40회 도합 123회의 근접지원으로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16일 : 이날도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地上軍을 엄호하면서 美 제1, 제9, 제10의 3개 군단에 59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34회 도합 93회에 달하는 근접지원을 하였다.

17일 : 美 극동공군의 B-29機 40대는 韓滿國境에 있는 군수공장과 軍用건물에 대하여 大대의 폭격을 斷行하였다.

한편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1군단에 65회와 韓國軍 제1군단에 4회 모두 69회의 근접지원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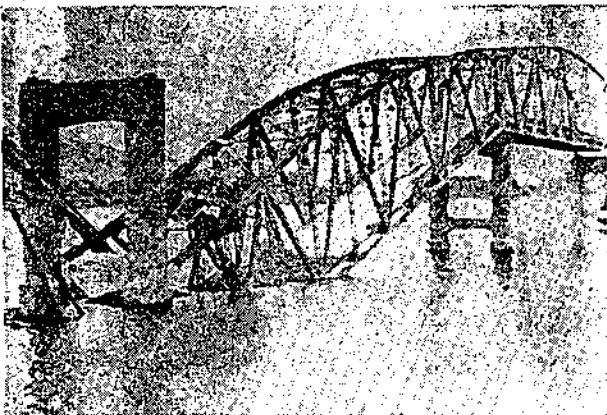
18일 : 이날도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戰線으로 出擊하여 地上軍을 엄호하면서 美 제1, 제9, 제10의 3개 군단에 90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32회 도합 122회에 달하는 근접지원으로 敵의 戰線에 火力을 퍼부어 그들의 戰列을 뒤흔들어 놓았다.

19일 : 이날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까닭으로 前線에 散在한 敵의 陣地에 對하여 局限된 폭격에만 그쳤다.

20일 : 이날도 비바람이 계속되는등 氣象이 고르지 않았으나 美 공군의 F-84Jet전폭기들은 敵의 前線 背後에서 보급품을 수송하는 트럭에 산발적인 공격을 加하였다.

21일 : 이날 UN空軍의 F-86機들은 西北韓상공에서 MIG機와 熾烈한 空中戰 끝에 12대를 격추하였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편대들은 血戰을 전개하고 있는 地上軍을 엄호하면서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55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19회로 도합 74회에 이르는 근접 지원을 기록하였다.



〈B-29 중폭격기에 의하여 폭파된 嶺美 철교〉

22일 : 이날 B-29重爆機 7대는 新安州 北쪽의 嶺美 鐵橋에 폭탄 170ton을 投下하여 상당한 徑間(Span)을 切斷하였다.

한편 美 공군의 전폭기편대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43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29회 도합 77회에 달하는 근접 지원을 하였다.

23일 : 이날도 UN空軍의 전폭기 편대들은 敵의 後方에서 前線으로 이어진 보급로에 폭격을 斷行하는 한편 操車場을 비롯하여 機關車등에 폭탄과 機銃 洗禮를 퍼부어 이를 燒却하였다.

24일 :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9, 제10 兩軍團에 8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12회 모두 20회의 근접 지원을 하였을 뿐 이날 짙은 구름과 심한 바람이 부는 등 날씨 가 고르지 않아 全般的으로 비행 활동이 低調하였다.

25일 : 이날도 目標상공을 짙게 뒤덮은 구름과 심한 바람으로 말미암아 출격이 中止되고 습 비행장에서 철저한 機體정비로 다음 출격의 만전을 期하였다.

26일 : UN空軍의 전폭기들은 不毛高地에 200,000Lbs의 폭탄을 投下하여 삼시간에 그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았다.

한편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戰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제10의 3개군단에 101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18회 도합 119 회에 달하는 근접 지원을 하였다.

27일 : 이날 UN空軍의 F-86機들은 西北韓상공에서 MIG-15機와 熾烈한 空中戰 끝에 4대를 격추하였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전날에 이어 不毛高地에 高性能 폭탄 250,000 Lbs의 폭탄과 Napalm탄 30,000Lbs를 퍼부어 삼시간에 그 일대를 마치 火山이 폭발하는듯 화염에 휩싸이게 하였다.

이 밖에도 이날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1군단에 185회와 韓國軍 제1군단에 16회로 도합 201회에 달하는 근접 지원을 기록하였는데 그 출격으로 미루어 보아도 이날의 激戰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8일 : 이날 밤 B-29重爆機들은 沙里院 일대에 高性能 폭탄 120ton을 集中하여 마치 대낮과 같이 밝혀 놓았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이날 美 제1군단에 도합 167회에 이르는 근접지원으로 敵의 戰線에 폭탄을 투하하여 그들의 세력을 크게 위축케 하였다.

한편 이날 美 제5공군에서 발표하기를 『우리는 이미 原子탄 積載가 가능한 新型 F-86機들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전폭전대에 配置한지 오래 되었다』라고 하였다.

29일 : 이날은 아침부터 짙은 구름이 상공을 뒤덮더니 비바람까지 부는 날씨가 계속되어 이날 출격에 많은 장애를 초래하였으나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군단에 20회의 근접지원을 기록하여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30일 : 이날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등 날씨가 고르지 않았으나 UN空軍의 B-29重爆機들은 不毛高地의 敵 陣地에 폭탄을 投下하여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으며 다른 B-29機 14대도 北韓의 東海岸을 따라 자리잡은 敵의 陣地에 大대의 폭격을 斷行하여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다.

1일 : 이날도 B-29重爆機들은 전날에 이어 不毛高地에 폭탄을 集中하고 敵의 陣地를 强打하여 이를 全破하였다.

한편 美 제5공군의 전폭기편대들은 戰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兩軍團에 59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24회 도합 83회에 達하는 근접지원 출격으로 그들의 戰列을 뒤흔들어 놓았다.

이와같이 UN空軍에서 활발한 출격으로 敵의 戰力을 분쇄한 一.四半期の 綜合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綜合 戰 果 및 損 失

구분 월(月)	戰 果			구분 월(月)	損 失		
	1	2	3		1	2	3
항목				항목			
출격 회 수	18,890회	16,583회	18,041회	B-26(폭격기)	3대	2대	1대
폭탄 투하량	12,188톤	10,836톤	10,548톤	B-29(")	4 "		
Napalm 탄 "	18톤	14톤	76톤	F-51(전폭기)	1 "		
MIG機와의 空中戰	15회	12회	6회	F-80(")	4 "	3대	3대
MIG機 격추	40대	18대	26대	F-84(")	9 "	6대	7대
" 半破	36대	14대	14대	F-86(전투기)	4 "	5대	5대
트럭 全破	1,000대	451대		F-94(")	3 "		
화물차량 全破	50량			RF-80(무장정찰기)	1 "		
기관차 "		3대					
軍用건물 폭파	254棟	15棟	200棟				
船舶 "		1척					
戰車 "		7대					

6. 二·四半期の UN空軍活動 (1953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美 극동공군 사령관 대장
Otto P. Weyland
美 제5공군 사령관 중장
Glenn Barcus
중장 Samuel E. Anderson
(5월 31부터)

美 극동공군 폭격사령관
준장 William P. Fisher
준장 Richard H. Carmichael
(6월 15부터)
美 극동공군 전투물자 공수사령관
소장 Chester E. McCarty

나. 期間中 UN空軍의 活動狀況

(1) 對空戰鬪

期間中 UN空軍의 F-86, F-84 兩戰爆機와 B-26, B-29 兩爆擊機는 平壤, 新安州 泰川, 南市, 義州, 新義州 비행장에 대한 爆擊을 끊임없이 敢行하여 그들의 空中활동을 事前에 阻止하는 한편 西北韓상공에서 MIG機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이를 격추 또는 半破함으로써 그들의 空軍力을 크게 麻痺시켜 놓았다.

이와같은 UN空軍의 활발한 制空活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無氣力을 加速化하게 되자 하는 수 없이 UN空軍의 폭격이 晝間을 이용하여 파괴된 비행장을 서둘러 복구하고 一面으로는 비행장 주위에 高射砲의 陣地를 強化하여 이에 對항코자 하는 事實을 確認하게 되었다.

이에 UN空軍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비행장과 대공銃砲陣地를 強打하여 그들의 空軍力 증강을 분쇄하였는데, 期間中 UN空軍의 戰爆機들은 對空방어에 2,957회 그리고 對空반격에 8,039회 도합 10,996회에 達하는 출격으로 MIG機 143隻을 격추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2) 敵의 後方에 대한 遮斷爆擊

UN空軍에서는 北韓상공에서의 制空權을 掌握한 가운데 敵의 戰線 세력을 弱化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戰線陣地를 強打하는 한편 後方 깊숙히까지 출격하여 元山—新安州間에 散在한 주요 補給路를 폭파하고 軍隅里—龜城과 新安州—滿浦間의 鐵道 및 鐵橋를 절단하여 그들의 보급품 수송을 阻止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UN空軍은 敵의 戰力 근원이 되고있는 水力 발전소와 저수지를 強打하면서 그들의 전선背後에 있는 보급품集積所와 兵力집결소를 비롯하여 주요 軍事施設에 猛爆襲을 加하여 補給難을 免치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UN空軍의 빈틈없는 後方차단 목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밤을 이용하여 트럭으로 各種 보급품을 戰線으로 수송하게 되었는데, 美 극동공군의 B-26輕폭격기는 무장정찰과 夜間출격을 단행하여 그들의 補給品 수송트럭을 폭격함으로써 後方支援에 있어서 困厄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UN空軍에서는 그들의 戰線세력을 弱화시키기 위하여 철저한 後방차단폭격을 단행하였는데, 도합 13,466 (무장정찰포함)회의 출격으로 폭탄 24,932ton과 Napalm탄 62ton을 投下하여 그들의 주요 軍事施設을 大破하였을 뿐만 아니라 補給品 수송트럭 477臺를 全破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3) 近接支援

4월 26일부터 板門店에서의 休戰회담이 再開되자 敵側에서는 有利한 制高點을 奪取코자 兵力을 集中하고 陣地를 補強하는등 將次 執拗한 攻防戰을 展開할 準備萬端에 狂奔하는 것으로 概測되었다.

이리하여 彼我사이에는 一進 一退의 熾烈한 爭奪戰을 거듭하게 되는데 UN空軍에서는 要地要部에 空中威力을 發揮하면서 友軍에 대한 對地근접支援을 더욱 促進하였다.

이와같은 UN空軍의 近接지원은 東部 전선의 韓國軍 제 1, 美 제10 兩軍團을 비롯하여 中部와 西部전선의 韓國軍 제 2, 美 제 1, 제9의 3개軍團등 全戰線에 걸쳐 敢行되었는데, 期間中 도합 13,582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출격으로 폭탄 17,722ton과 Napalm탄 123ton을 集中하여 敵의 戰線세력을 크게 萎縮시켰다.

이와같이 期間中 UN空軍에서는 對空戰鬪와 敵의 後方에 대한 遮斷폭격 그리고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출격등을 단행하는 한편 各種 彈藥과 軍裝備 및 補給品등을 도합 13,911회에 걸쳐서 空輸하여 作戰遂行의 원활을 期하였는데, 그 상황을 月日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4月中의 戰況

1일 : 이날 北韓 상공에 짙은 구름이 뒤덮인 탓으로 飛行활동에 制限이 있었으나 美 제5 공군의 戰爆機는 이를 무릅쓰고 출격하여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64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24회 도합 88회에 달하는 근접지원을 提供하였다.

2일 : 이날 Australia공군의 戰爆機들은 北韓 상공으로 출격하여 鎭南浦에 있는 化學공장을 목표로 폭탄과 Napalm탄을 集中, 삼시간에 그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때 폭음과 함께 솟아오르는 검은 火焰은 하늘을 찌르는 듯 하였다.

한편 이날 美 극동공군에서는 彼我間에 熾烈한 攻防戰을 전개中인 敵陣地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加하면서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에 70회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23회 도합 93회에 달하는 근접지원을 단행하여 지상군의 士氣를 양양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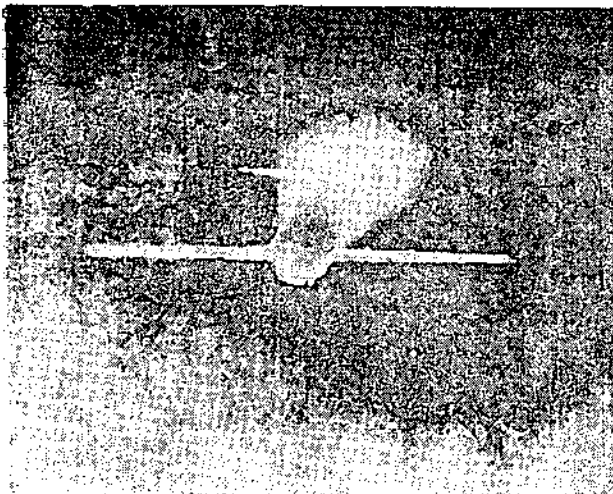
3일 : 이날 北韓 상공에 짙은 구름이 덮였고 바람까지 심한 까닭으로 UN空軍에서는 敵後方에 대한 폭격을 中斷하고 前線을 目標로 출격하여 敵과 血戰하고 있는 美 제1軍團에 31회의 근접지원을 提供하였다.

4일 : 이날도 전날과 같이 氣象이 고르지 않았으나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이를 부릅쓰고 출격하여 敵의 前線正面에 空中威力을 加하는 등 激戰中인 地上軍을 엄호하였는데, 美 제1, 제10 兩軍團에 43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32회 도합 75회에 달하는 근접지원출격으로 그들의 戰線세력을 크게 萎縮케 하였다.

5일 : 이날 美 극동공군의 B-29 폭격기편대는 平壤 일대에 있는 補給品집적소에 100 ton의 高性能폭탄을 投下하여 일대를 검은 火焰으로 휘감아 燒却시켰다.

이밖에도 UN空軍에서는 美 제1, 제9 兩軍團에 12회와 韓國軍 제2軍團에 4회 도합 16회의 근접지원을 제공하였다.

6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戰線으로 출격하여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그들의 戰線전지에 空中威力을 퍼부어 간담을 서늘케 하였는데, 美 제1軍團과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도합 44회의 근접 지원출격을 기록하였다.



〈화염에 휘감겨 추락되는 敵의 MIG機〉

7일 : 이날 美 극동공군의 F-86 遊擊機 편대는 鴨綠江상공에서 MIG機와 熾烈한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1기를 격추하고 2기를 半破하였다.

이밖에도 UN空軍에서는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에 61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66회 도합 127회에 달하는 근접지원출격으로 그들의 戰線세력을 分散케 하였다.

8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戰線으로 출격하여 敵陣地에 空中威力을 發揮하여 그들의 戰線을 分散시키

988 空軍의 活動

는 등으로 地上軍을 엄호하였는데,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에 93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52회 도합 145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을 提供하였다.

9일 : 이날은 北韓상공에 짙은 구름이 뒤덮인 탓으로 UN空戰의 活動이 低調하였는데 東部전선의 美 제1, 제9 兩軍團에 도합 27회의 근접지원출격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쳤다.

10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F-86 遊擊機편대는 西北韓상공으로 출격하여 MIG機와 空中戰을 전개한 결과 2臺를 격추하였으며 다른 전폭기들은 전선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에 76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44회 도합 120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을 提供하였다.

11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機는 MIG 回廊상공에서 MIG機와 熾烈한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3臺를 격추하고 3臺를 半破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한편 이날 UN空軍에서는 戰線으로도 출격하여 지상군을 엄호하면서 敵의 전선正面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그들의 戰線일대를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80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39회 도합 119회에 걸쳐 근접지원을 하였다.

12일 : 이날 UN空軍의 F-86 遊擊機편대는 西北韓의 MIG回廊상공에서 MIG-15Jet機와 空中戰을 전개한 결과 6臺를 격추하고 2臺를 半破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한편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戰線으로 출격하여 敵의 戰線요충부를 強打하면서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52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41회 도합 93회의 근접지원으로 그들의 戰列을 뒤흔들어 놓았다.

13일 : 이날 北韓상공에 짙은 구름이 뒤덮여 있을 뿐만 아니라 바람이 심한 까닭에 UN空軍에서는 출격을 中止하고 連日 출격한 戰爆機를 整備점검하면서 다음의 출격에 대비하였다.

14일 : 이날은 전날의 고르지 않았던 氣象이 회복되어 美 제5공군의 B-29重폭격기는 北韓상공으로 출격하여 平壤일대의 鐵道網에 폭탄을 퍼부어 補給品 수송을 阻止하는 한편 다른 전폭기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83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32회 도합 115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출격을 단행하여 지상군의 士氣를 昂揚하는데 공헌하였다.

15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B-29重폭격기들은 다시 北韓상공으로 출격하여 中部와 西部의 兩戰線배후에 散在한 보급품集積所와 兵力집결소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삼시간에 그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한편 다른 전폭기들도 敵과 接戰중인 全戰線의 지상군에 대하여 도합 76회의 근접지원출격을 감행하였다.



〈B-29폭격기에 의하여 폭파되는 敵의鐵道〉

16일 : 이날 UN空軍의 戰爆機들은 다시 戰線으로 출격하여 敵의 戰線陣地에 空中威力을 퍼부우면서 지상군을 壓迫하였는데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에 93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43회 도합 136회의 근접지원을 提供하였다.

17일 : 이날 北韓상공에 짙은 구름이 뒤덮였고 바람까지 심한 惡天候임에도 불구하고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戰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에 203회 그리고 韓國軍 제1軍團에 16회 도합 219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출격으로 敵의 戰線 일대를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다.

18일 : 이날 UN空軍사령부에서는 『지난 1週 동안에 我空軍은 敵의 MIG機와 空中戰을 전개한 결과 18臺를 격추하고 5臺를 半破하는 戰果를 올렸으며, 反面에 1臺의 F-86 Sabre jet機를 喪失하였다』라고 發表하였다.

한편 이날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전선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兩軍團에 100회 그리고 韓國軍 제1軍團에 8회 도합 108회에 達하여 근접지원 하였다.

19일 : 이날 UN空軍에서는 彼我間의 接戰이 熾烈하게 전개되고 있는 전선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兩軍團에 232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23회 도합 255회의 근접지원을 제공하여 敵의 戰線세력을 크게 萎縮시켜 지상군으로 하여금 有利한 戰況을 打開토록 하였다.

20일 : 이날 비바람이 몰아치는 惡天候로 말미암아 UN空軍에서는 출격을 保留하고 機體에 대한 整備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출격의 萬全을 期하였는데, 全戰線에서 彼我間에 輕微한 接戰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21일 : 이날도 전날과 같이 고르지 않은 氣象이 계속되었으나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이를 부름쓰고 출격하여 敵의 戰線요충부에 空中威力을 加하면서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264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24회 도합 288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을 散行하여 敵의 戰線세력을 分散케 하였다.

22일 : 이날 美 극동공군의 B-29重폭격기는 北韓상공으로 출격하여 沙里院에 있는 보급품集積所에 폭탄과 Napalm탄을 퍼부어 이를 燒却시켰다.

한편 다른 戰爆機들은 전선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을 비롯하여 韓國軍 제1軍團에 도합 284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출격으로 敵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23일 : 이날 UN空軍의 전폭기들은 다시 전선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249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16회 도합 265회의 근접지원을 단행하였다.

24일 : 이날도 UN空軍에서는 彼我間에 地上전투가 熾烈하게 전개되고 있는 戰線으로 출격하여 敵진지를 强打하면서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을 비롯하여 韓國軍 제2 軍團에 도합 239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출격으로 敵의 戰線세력을 萎縮시켜 놓았다.

25일 : 이날 美 극동공군의 B-29重폭격기는 東海岸상공으로 출격하여 海岸을 따라 자리잡은 그들의 操車場과 보급품集積所에 폭탄과 Napalm탄을 投下하여 그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는데, 이때에 불어닥치는 바람으로 검은 火焰이 하늘을 뒤덮을 듯 하였다.

한편 이날 UN空軍의 다른 전폭기들도 北韓상공으로 출격하여 그들의 後方에서 戰線으로 向하는 補給品수송트럭을 捕捉하는 즉시 폭탄과 機銃洗禮를 集中한 결과 트럭들은 그 자리에서 폭파되거나 또는 불을 질고 달리다가 폭파되는 등 도합 37輛을 全破하였다.

이밖에도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戰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228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11회 도합 239회의 근접지원출격을 기록하였다.

26일 : 이날 비가 심하게 내리는 惡天候임에도 불구하고 UN空軍의 F-86, B-29 兩戰爆機는 전선으로 출격하여 敵陣地를 폭파하면서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과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도합 72회에 걸친 근접지원을 斷行하였다.

27일 : 이날 美 극동공군에서는 彼我間에 一進 一退의 熾烈한 攻防戰을 거듭하고 있는 戰線일대의 敵陣地에 空中威力을 加하면서 도합 96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출격으로 지상군을 엄호하여 그들의 士氣를 昂揚하는데 기여하였다.

28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B-29重폭격기는 北韓상공으로 출격하여 開城北쪽에 있는 보급품集積所와 兵力집결소에 폭탄과 Napalm탄 및 機銃洗禮를 集中한 결과 보급품집적소를 火焰으로 휘감아 燒却시켰으며 兵力집결소의 敵軍들은 右往左往하는 등 그일대를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다.

29일 : 이날 이른 아침부터 비바람이 몰아치는 惡天候가 계속되는 까닭에 UN空軍에서는 출격을 保留하고 機體의 整備과 점점으로 다음출격의 萬全을 期하였다.

30일 : 이날, 전날의 고르지 않았던 氣象이 회복되어 美 제5공군의 F—86 遊擊機편대는 MIG回廊 상공에서 MIG—15Jet機와 熾烈한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3대를 격추하고 2대를 半破하는 戰果를 올리는 한편 다른전폭기들은 敵과 接戰中인 美 제1, 제9 兩軍團에 32회의 근접지원을 提供하였다.

(5) 5月中의 戰況

1일 : 이날 UN空軍의 B—29重폭격기편대는 敵戰線의 背後를 目標로 출격하고 보급품 集積所에 폭탄과 Napalm탄을 集中하여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한편 UN空軍의 다른戰爆機들도 戰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에 98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36회 도합 132회의 근접지원으로 敵陣地를 폭파하는등 그들의 戰線세력을 뒤흔들어 놓았다.

2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F—86遊擊機편대 15대는 北韓상공으로 출격하여 敵의 對空砲火가 亂飛하는 가운데 平壤방송국과 軍司令部에 폭탄과 Napalm탄을 投下하여 이를 大破하는 한편 다른 전폭기들은 戰線일대의 敵陣地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우면서 지상군을 엄호하였는데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을 비롯하여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도합 133회의 근접지원출격을 기록하였다.

3일 : 이날 UN空軍의 F—86遊擊機는 北韓상공으로 출격하여 肅川에있는 주요 軍事施設을 목표로 50ton의 高性能폭탄을 投下하여 이를 大破하였는데, 이때 솟아오르는 불기둥은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

한편 美 극동공군의 전폭기들은 戰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에 92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40회 도합 132회에 걸친 근접지원으로 그들의 戰勢를 蒸縮시켜 놓았다.

4일 : 이날 비가 심하게 내리는 惡天候로 말미암아 飛行활동에 많은支障을 보였으나 UN空軍의 전폭기들은 이를 헤치고 戰線으로 출격하여 敵과 激戰中인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을 비롯하여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도합 58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을 敢行하여 지상군의 士氣를 昂揚케 하였다.

5일 : 계속되는 惡天候로 말미암아 UN空軍에서는 모든 출격을 保留하고 機體에 대한 整備정검을 실시하여 다음 출격에 대비하였는데, 全戰線에서도 彼我間에 輕微한 接戰만이 전개될 뿐이었다.

6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F—84 Thunder Jet 機편대는 北韓상공으로 출격하여 西部전선 北쪽의 延安地區에 猛爆擊을 加하는 한편 江界貯水池일대에 폭탄과 Napalm탄을 퍼부어 건물 17棟을 大破하였다.

이밖에도 UN空軍에서는 戰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과 韓國軍 제

1, 제2 兩軍團에 도합 73회의 근접지원을 提供하였다.

7일 : 이날 비바람이 몰아치는 惡天候임에도 불구하고 美 제5공군의 F-86 邀擊機편대는 江界상공으로 출격하여 그들의 보급품集積所를 목표로 폭탄과 Napalm탄을 集中한 결과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8일 : 이날 UN空軍의 F-86 邀擊機편대는 鴨綠江상공에서 MIG機와 熾烈한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3虜를 격추하였다.

한편 다른 전폭기들은 彼我間에 一進一退의 攻防戰을 거듭하고 있는 戰線으로 출격하여 전선요충부에 空中威力을 加하면서 美 제1, 제9 兩軍團에 도합 69회의 근접지원을 斷行하였다.

9일 : 이날 美 극동공군의 F-86 Sabre jet機는 다시 鴨綠江상공으로 출격하여 MIG機와 空中戰을 전개한 결과 2虜를 격추하는 한편 F-84 Thunder Jet機와 合勢하여 鴨綠江邊에 있는 보급품집적소에 폭탄과 Napalm탄을 퍼부어 삼시간에 그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았다.

이밖에도 이날 UN空軍에서는 敵과 激戰中인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에 67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26회 도합 93회의 근접지원을 제공하였다.

10일 : 이날 美 극동공군의 F-84戰爆機는 다시 鴨綠江상공으로 출격하여 水豊발전소를 목표로 猛爆擊을 加하여 그 機能을 마비시키는 한편 B-29重폭격기는 楊市에 있는 補給品집적소와 兵力집결소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前者를 火焰으로 휘감아 燒却시켰으며 後者를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다.

11. 12일 : 兩日間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惡天候가 계속되는 까닭으로 UN空軍에서는 모든 출격을 保留하고 機體에 대한 整備정검을 실시하여 다음 출격의 萬全을 期하였는데 全戰線에서도 彼我間에 熾烈한 接戰없이 대체로 平穩한 상황을 이루었다.

13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機편대는 朔州상공에서 MIG機와 熾烈한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2虜를 격추하고 1虜를 半破하였다.

한편 UN空軍의 전폭기들은 戰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에 46회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52회 도합 98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을 提供하였다.

14일 : 이날 北韓상공에 짙은 구름이 뒤덮고 바람까지 심하게 부는등 고르지 않은 氣象으로 UN空軍에서는 敵의 後方차단폭격을 保留하고 戰線으로 출격하여 敵의 전선正面에 空中威力을 集中發揮하면서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을 비롯하여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도합 96회의 근접 지원을 하였다.

15일 : 이날도 전날과 같이 고르지 않은 氣象임에도 불구하고 UN空軍에서는 다시 戰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과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도합 165회에 達하여 근접지원하였다.

16일 : 이날 비가 내리는 惡天候로 말미암아 UN空軍에서는 모든 출격을 保留하고 機體에 대한 整備정검을 실시하여 다음 출격의 萬全을 期하였는데 이에따라 全戰線도 대체로 平穩한 狀況을 이루었다.

17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F-86Sabre Jet機편대는 西北韓의 MIG回廊상공에서 MIG機와 熾烈한 空中戰을 전개한 결과 4臺를 격추하고 3臺를 半破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한편 UN空軍의 전폭기들은 美 제1, 제9, 10제의 3개軍團에 126회와 韓國軍 제1, 제2兩軍團에 48회 도합174회의 근접지원출격을 기록하였다.

18일 : 이날 美 극동공군의 F-86遊擊機편대는 北韓상공에서 MIG機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12臺를 격추하고 1臺를 半破하는 戰果를 올렸다.

한편 UN空軍의 B-29重폭격기는 沙里院 — 兼二浦일대에 散在한 主要 보급로를 強打하면서 兵力집결소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이밖에도 다른 전폭기들은 敵陣地를 強打하면서 激戰中인 地上軍을 엄호하였는데, 美 제9, 제10의 兩軍團을 비롯하여 韓國軍 제2軍團에 도합 66회에 걸쳐 근접지원하였다.

19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F-86遊擊機는 MIG回廊상공에서 MIG-15 Jet機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4臺를 격추하는 한편 다른 전폭기들은 戰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에 126회와 韓國軍 제2軍團에 20회 도합 146회의 근접지원으로 敵의 戰線세력을 萎縮케 하였다.

20일 : 이날 北韓상공에 짙은 구름이 뒤덮였고 바람까지 심하게 부는 등 고르지 않은 氣象으로 말미암아 UN空軍의 活動이 低調하였는데, 美 제9軍團에 4회에 걸쳐 근접지원하였다.

21일 : 이날도 전날과 같이 구름이 덮인 氣象이 계속되었으나 美 극동공군의 戰爆機들은 이를 무릅쓰고 戰線으로 출격하여 敵의 전선요충부에 空中威力을 加하면서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과 韓國軍 제2軍團에 도합 82회에 達하여 근접지원하였다.

22일 : 이날 비바람이 몰아치는 惡天候임에도 불구하고 美 제5공군의 B-29重폭격기편대는 北韓상공으로 출격하여 平壤北쪽에 있는 貯水池 일대의 주요건물에 폭탄과 Napalm 탄을 퍼부어 이를 大破하였다.

23일 : 이날 美 극동공군 司令部에서 發表하기를 『지난 1週동안에 我空軍의 戰爆機들은 MIG機와 空中戰을 전개한 결과 28臺를 격추하였는데, 이것은 開戰以來 최대의 週間戰果이다』 라고 하였다.

한편 이날 UN空軍의 전폭기들은 전선으로 출격하여 敵의 陣地를 強打하면서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과 韓國軍 제1, 제2兩軍團에 도합 229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출격으로 지상군의 士氣를 높였다.

24일 : 이날 美 극동공군의 B-29폭격기편대 10臺는 平壤상공으로 출격하여 그 東北쪽

에 있는 新倉里일대의 보급품集積所에 폭탄과 Napalm탄을 集中하는 한편 兵力집결소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었다.

이밖에도 이날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전선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에 109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20회 도합 129회에 達하여 근접지원하였다.

25일 : 이날 UN空軍에서는 戰線으로 출격하여 敵陣地를 强打하면서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에 84회 그리고 韓國軍 제1軍團에 8회 도합 92회에 達하여 근접지원하였다.

26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F-86Sabre Jet機편대는 西北韓상공에서 MIG機와 2회에 걸친 空中戰 끝에 12臺를 격추하였다.

한편 다른 전폭기들은 전선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에 126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66회 도합 192회에 達하여 근접지원하였다.

27일 : 이날 美 극동공군의 F-86 遊擊機편대는 西北韓의 MIG回廊상공에서 MIG-15機와 熾烈한 空中戰을 전개한 결과 12臺를 격추하고 1臺를 半破하는 戰果를 올렸다.

또한 이날 B-29중폭격기는 龜津에 있는 操車場을 大破하는 한편 보급품集積所와 兵力집결소에 폭탄 80ton을 投下하여 그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때 솟아오르는 불기둥은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이밖에도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과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도합 182회에 達하여 近接支援 하였다.

28일 : 이날 비바람이 몰아치는 惡天候임에도 불구하고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戰線으로 출격하여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었고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에 100회 그리고 韓國軍 제2軍團에 74회 도합 174회에 達하여 근접지원하였다.

29일 : 이날도 전날에 이어 비바람이 몰아치는 惡天候가 계속되었으나 UN空軍의 전폭기들은 이를 무릅쓰고 西部전선으로 출격하여 美 제1軍團에 49회에 걸쳐 근접지원하였다.

30일 : 이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등 고르지 않은 氣象으로 말미암아 飛行활동에 많은 支障을 보였으나 UN空軍의 전폭기들은 이를 무릅쓰고 戰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軍團과 韓國軍 제1軍團에 도합 28회에 걸쳐 근접지원하였다.

31일 : 이날 美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계속되는 惡天候를 헤치고 전선으로 출격하여 美 제1軍團과 韓國軍 제1軍團에 도합 35회의 근접지원으로 雨中の 敵陣地를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다.

(6) 6月中의 戰況

1일 : 美 극동공군의 F-86遊擊機편대는 北韓상공에서 MIG-15Jet機와 熾烈한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1臺를 격추하고 2臺를 半破하는 한편 B-26輕폭격기는 敵의 後方에서 전선으로 向하는 補給品수송트럭을 捕捉하자 곧 폭탄과 機銃洗禮를 集中한 결과 달리던 트

덕들은 연쇄적으로 폭파하여 117崐를 全破하였다.

이 밖에도 UN空軍의 전폭기들은 전선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에 14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25회 도합39회의 근접지원을 제공하였다.

2일 : 이날 美 극동공군의 B-29重폭격기는 東部전선일대의 敵陣地에 500,000 LBS의 高性能폭탄을 投下하여 戰線일대를 뒤흔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과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도합 255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출격으로 그들의 戰勢를 크게 萎縮케 하였다.

3일 : 이날 UN空軍의 B-29重폭격기는 北韓상공으로 출격하여 鐵의 三角地帶에 散在한 敵陣地를 强打하면서 보급품集積所에 폭탄과 Napalm탄을 投下하여 이를 燒却하는 한편 다른 전폭기들과 合勢하여 戰線일대의 敵陣地에 空中威力을 加하면서 美 제10軍團을 비롯하여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도합 57회의 근접지원출격을 기록하였다.

4일 : 이날 비바람이 몰아치는 惡天候로 말미암아 飛行활동에 많은 障礙를 초래하였으나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이를 헤치고 전선으로 출격하여 美 제9, 제10 兩軍團과 韓國軍 제1軍團에 도합 76회에 達하여 근접지원하였다.

5일 : 이날 美극동공군의 F-86邀擊機는 北韓상공에서 MIG機와 空中戰을 전개한 결과 3회를 격추하는 한편 다른 전폭기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에 120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47회 도합 167회에 걸쳐 근접지원하였다.

6일 : 이날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惡天候로 말미암아 UN空軍의 活動이 매우 어려웠던 까닭으로 敵과 接戰中인 美 제9, 제10 兩軍團에 도합 8회의 근접지원으로 그쳤다.

7일 : 이날도 전날과 같이 비가 심하게 내렸으나 美 극동공군의 F-86邀擊機는 이를 무릅쓰고 北韓상공으로 출격하여 MIG機와 熾烈한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4회를 격추하는 한편 歸還中에 水豊발전소를 爆擊하였다.

8일 : 이날 UN空軍의 B-29重폭격기는 北韓상공으로 출격하여 平壤南쪽 2km에 있는 補給品집적소에 폭탄과 Napalm탄을 퍼부어 삼시간에 일대를 화염으로 휘감아 놓는 한편 다른 전폭기들과 合勢하여 敵陣地를 强打하면서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과 韓國軍 제2軍團에 도합 46회에 達하여 근접지원하였다.

9일 : 이날 北韓상공에 뒤덮여 있는 구름으로 말미암아 飛行활동에 많은 支障을 보였으나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이를 무릅쓰고 전선으로 출격하여 美 제9軍團과 韓國軍 제1軍團에 도합 23회의 근접지원을 敢行하여 지상군의 士氣를 昂揚케 하였다.

10일 : 이날도 전날과 같이 짙은구름이 덮여 있는 까닭에 UN空軍에서는 後方차단 폭격을 一時 保留하고 전선으로 출격하여 敵의 전선요충부를 强打하면서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과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도합 74회의 근접지원을 제공하였다.

11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B-29重폭격기편대는 北韓상공으로 출격하여 그들의 對空砲

화를 해치면서 秦川—南市 兩비행장에 200ton의 高性能폭탄을 投下하여 이를 사용곤란케 하였다. 한편 B-26輕폭격기는 彼我間에 一進一退의 攻防戰이 거듭되고 있는 전선 일대의 敵陣地를 폭파하면서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에 76회와 韓國軍 제2軍團에 36회 도합 112회에 달하여 근접지원하였다.

12일 : 이날 美국동공군의 F-86遊擊機편대는 北韓상공으로 출격하여 그들의 對空砲火가 亂飛하는 가운데 沙里院 西北쪽에 있는 비행장에 폭탄과 Napalm탄을 퍼부어 그들의 空中활동을 阻止하는 한편 B-29重폭격기는 이들 F-86遊擊機편대의 암호를 받으면서 平壤후근에 있는 비행장에 爆擊을 加하였다.

이밖에도 이날 UN空軍의 다른 전폭기들은 전선으로 출격하여 敵과 血戰中인 韓國軍 제2軍團에 4회의 근접지원을 제공하였다.

13일 : 이날 UN空軍의 F-86遊擊機는 西北韓상공에서 MIG機와 熾烈한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3대를 격추하고 1대를 半破하였다.

한편 이날 美 제5공군에서는 敵의 전선요충부에 空中威力을 加하면서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에 30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102회 도합 132회에 달하는 근접지원으로 敵의 전선세력을 萎縮케 하였다.

14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 機는 北韓상공에서 MIG-15Jet 機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2대를 격추하고 3대를 半破하는 한편 B-29重폭격기와 合勢하여 敵의 對空砲火를 해치면서 軍隅里, 新安州 兩비행장에 폭탄과 Napalm탄을 投下하므로써 비행장주위의 對空砲전지를 비롯하여 활주로를 大破하였다.

이밖에도 이날 UN空軍에서는 彼我間에 一進一退의 攻防戰을 전개하고 있는 全戰線에 대하여 도합 1,610회에 달하는 大대의인 근접지원출격을 단행하여 敵의 전선세력을 크게 萎縮시켰다.

15일 : 이날 UN空軍의 B-29重폭격기편대는 미리 計劃된 目標에대한 폭격으로부터 轉換하여 彼我間에 熾烈하게 接戰中인 전선으로 출격하여 敵陣地를 爆擊하면서 지상군을 壓호한 결과 도합 2,115회에 달하는 大대의인 근접지원출격을 단행하여 開戰以來 최고의 1日間출격을 기록하였다.

16일 : 이날 美5공군의 B-26輕폭격기는 敵의 전선背後로 출격하여 主要補給路 55個所를 强打하는 한편 戰線으로 向하는 보급품수송트럭을 捕捉, 이에 폭탄과 Napalm탄 및 機銃洗禮를 集中한 결과 323대를 全破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이밖에도 다른 전폭기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에 277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402회 도합 679회에 달하는 大대의인 근접지원출격으로 敵의 전선세력을 크게 弱화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17일 : 이날 비바람이 몰아치는 惡天候로 말미암아 UN空軍에서는 敵의 後方에 대한 避

斷속격을 保留하고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에 38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39회 도합 77회의 근접지원을 提供하였다.

18일 : 이날도 고르지 않은 氣象이 계속되었으나 美 5제공군의 전폭기들은 이를 무릅쓰고 전선으로 출격하였는데 전선正面에 空中威力을 加하면서 美 제1·제9 兩軍團에 76회의 근접지원을 제공하였다.

19일 : 이날 美 5제공군의 F-86 遊擊機는 西北韓상공에서 MIG機와 空中戰을 전개한 결과 6대를 격추하고 1대를 半破 하였다.

한편 美 제5공군에서는 彼我間에 熾烈한 接戰이 전개되고 있는 전선일대의 敵陣地를 계속 强打하면서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에 266회와 韓國軍 제2軍團에 132회 도합 398회에 達하여 근접지원하였다.

20일 : 이날 비가 심하게 내리는 惡天候임에도 불구하고 UN空軍의 F-86 Sabre Jet機편대는 北韓상공으로 출격하여 MIG機와 熾烈한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2대를 격추하는 한편 B-29重폭격기와 合勢하여 그들의 對空砲火를 헤치면서 平壤부근의 비행장 2個所에 爆擊을 加하여 이를 사용곤란케 하였다.

21일 : 이날도 비가 내리는 氣象이었으나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西北韓 상공으로 출격하여 泰川, 南市 兩비행장에 폭탄을 투하, 이를 대파하였다.

22일 : 이날 美 5제공군의 F-86 遊擊機편대는 西北韓의 MIG回廊 상공에서 MIG機와 熾烈한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6대를 격추하고 2대를 半破하였으며 B-26, B-29兩폭격기는 北韓상공으로 출격하여 平壤, 新安州비행장을 强打하는동시에 西部전선 북쪽에 있는 鐵橋 4個所를 切斷하였다.

이밖에도 UN空軍의 다른 전폭기들은 전선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兩軍團에 도합 64회의 근접지원을 提供하였다.

23일 : 이날과 24일 兩日間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惡天候가 계속됨으로써 UN空軍에서는 모든 출격을 一時 保留하고 機體에 대한 整備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출격에 대비하였는데 全戰線에서도 彼我間에 輕微한 接戰만이 계속되었다.

25일 : 이날 美 5제공군의 B-29重폭격기는 敵의 비행장을 계속 强打하여 그들의 복구공사를 阻止하는 한편 다른 전폭기들은 전선으로 출격하여 敵陣地에 空中威力을 加하면서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에 98회 그리고 韓國軍 제1軍團에 20회 도합 118회에 達하여 근접지원하였다.

26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F-86 遊擊機는 鴨綠江상공에서 MIG機와 熾烈한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2대를 격추하고 1대를 半破하였다.

한편 UN空軍의 B-29重폭격기는 澗川부근의 敵師團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이를 大破하였다.

이밖에도 UN空軍의 다른 전폭기들은 전선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에 327회 그리고 韓國제1, 제2 兩軍團에 136회 도합 463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으로 敵의 戰列을 뒤흔들어 놓았다.

27일 : 이날 비가 심하게 내리는 惡天候임에도 불구하고 美 극동공군에서는 전선으로 출격하여 美 제10軍團과 韓國軍 제2軍團에 도합 177회의 근접지원출격을 敢行하였다.

28일 : 이날 美제5공군의 B-29重폭격기편대는 다시 戰線으로 출격하여 北漢江上流의 韓國軍진지를 위협하는 敵障地를 목표로 110ton의 폭탄과 機銃洗禮를 집중하여 그들의 전선일대를 화염으로 휘감아 그일대를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다.

29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F-86邀擊機편대는 鴨綠江상공에서 MIG機와 熾烈한 空中戰 전개한 결과 6臺를 격추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전폭기들과 合勢하여 美 제1, 제10 兩軍團과 韓國軍 제2軍團에 도합을 55회의 근접지원을 提供하였다.

30일 : 이날 美극동공군의 F-86 Sabre Jet機는 北韓상공에서 MIG-15 Jet機와 熾烈한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15臺를 격추하여 參戰以來 최대의 1日間 戰果를 기록하였다. 期間中 戰果 및 損失을 보면 다음과 같다.

綜合戰果 및 損失

구분 월(月) 항 목	戰 果			구분 월(月) 항 목	損 失		
	4	5	6		4	5	6
출 격 회 수	23,084회	23,264회	23,908회	B-26(폭격기)	3대	2대	
폭 탄 투 하 량	12,554톤	14,563톤	16,720톤	B-29(")			
Napalm탄 "	12톤	56톤	117톤	F-80(전폭기)	1대		
MIG機와의 空中戰	5회	9회	11회	F-84(")	7 "	8대	7대
MIG機 격 추	13대	48대	48대	F-86(전투기)	7 "	11 "	23 "
" 半 破	11대	9대	12대	F-94(")		1 "	2 "
트 러 全 破	57 "		440 "	RF-80(무정찰기)	1대	1 "	
軍用 건물 폭파		17棟		C-46(수송기)	1 "		
橋 梁 "			4個所	C-47(")			1대
Bunker 전지 "			119個所				

7. 三·四半期 UN空軍活動 (1953년 7월 1일부터 // // 27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117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美 극동공군 사령관 대장	}
Otto P. Weyland	
美 제5공군 사령관 중장	}
Samuel E. Anderson	

美 극동공군 폭격사령관 준장	}
Richard H. Carmichael	
美 극동공군 전투물자 공수사령관 소장	}
Chester E. Mc Carty	

나. 期間中 UN空軍의 活動狀況

(1) 對空戰鬪

美 극동공군 사령관은 UN군 방침에 따라 期間中 最終단계에 있는 板門店 協商마당에서의 早期 妥結을 위한 계속적인 強壓 수단으로 敵 비행장에 대한 爆擊을 더욱 強化하였는데 北韓 西北쪽의 平壤, 泰川, 南市, 義州, 新義州를 비롯하여 東쪽의 元山, 進浦, 咸興 그리고 東北쪽 깊숙히 있는 吉州, 會文, 惠山鎮, 淸津, 會寧 등 모든 비행장에 대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爆擊을 敢行하였다.

이와같은 美 극동공군의 熾烈한 폭격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空軍力이 痲痺케 되자 많은 兵力을 投入하고 住民을 強徵하여 파괴된 비행장을 복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美 극동공군의 끊임없는 爆擊은 이를 容納하지 않았다.

한편 UN空軍의 F-86 Sabre Jet機는 西北韓 상공에 散發적으로 出現하는 MIG-15機를 制壓하고 격추함으로써 그들의 空軍力을 더욱 無氣力하게 만들었는데, 期間中 UN空軍 전폭기들의 活動을 一瞥하면 對空방어에 583회 그리고 對空반격에 2,454회로 도합 3,037회에 達하는 출격을 기록하여 MIG機 29機를 격추 또는 半破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2) 敵의 後方에 대한 遮斷爆擊

이 期間에 UN空軍은 彼我間의 熾烈한 接戰이 전개되는 戰線에 대한 後方支援을 遮斷하기 위하여 淸川江을 中心으로 新安州-熙川間에 있는 橋梁과 鐵橋를 폭파하는 한편 주요 補給路와 보급품集積所에 공격을 集中하여 그들의 補給難을 더욱 加速케 하였다. 期間中 UN空軍이 수행한 차단폭격을 綜合하면 도합 3,591(무장정찰포함)회의 출격으로 폭탄 6,679

ton과 Napalm탄 7ton을 投下하여 그들의 軍事시설을 大破하였을 뿐만 아니라 鐵橋 7個를 切斷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3) 近接支援

期間中 적은 休戰이 곧 成立될 狀況에 놓이자 그 이전에 有利한 制高點을 奪取코자 함으로써 이를 固守코자하는 我軍과의 사이에는 熾烈한 攻防戰이 전개됨에 따라 地上軍에 대한 UN空軍의 近接支援 임무도 急增하였다. 그러므로 UN空軍은 적 後方에 대한 遮斷 폭격과 아울러 敵陣地를 強打하면서 적 공세가 집중된 韓國軍 제 2군단 지역을 비롯하여 全戰線의 地上軍에 대하여 목표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이른바 Chorokee공격을 兼行한 결과 도합 5,860회에 달하는 근접지원 출격을 敢行하여 폭탄 8,046ton과 Napalm탄 135ton을 퍼부어 그들의 공세력을 弱化하기에 地上砲擊과 더불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期間中 UN空軍에서는 對空戰鬪와 敵의 後方에 대한 遮斷폭격 그리고 地上軍에 대한 근접지원출격등을 단행하는 한편 各種 탄약과 軍裝備 및 補給品등을 도합 3,620회 空輸하여 作戰遂行의 원활을 期하였는데 그 狀況을 月日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7月中의 戰況

1일 : 美 극동공군의 F-86, B-29 兩전폭기는 이른 아침부터 어둠이 밀려올때까지 도합 1,535회 出擊으로 北韓 상공을 橫行하면서 주요 補給路와 보급품集積所 및 兵力집결소에 폭격을 斷行하였으며, 또 다른 전폭기들은 攻防戰이 치열한 전선 上空에서 지상군에게 도합 401회의 근접항공지원을 제공하였다.

2일 : 이날도 UN空軍의 F-86, F-84 兩전폭기가 合勢하여 北韓 상공으로 출격하였는데, 이들은 鐵原부근에서 30乃至 40臺로 추정되는 戰車群을 捕捉하자 즉시 이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加하여 이를 大破하였다.

한편 B-29 重폭격기는 咸興 西쪽에 있는 峽谷地帶의 보급품집적소를 爆擊하여 이를 燒却케 하였으며 이밖에도 UN空軍은 美 제1, 제10 兩軍團과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도합 48회의 근접지원을 提供하였다.

3일 :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바람까지 심한 까닭에 UN空軍에서는 極少한 活動外에는 출격을 一時 保留하고 機體정비와 점검으로 다음 출격의 萬全을 期하였다.

4일 : 이날 美 극동공군 사령부에서 發表하기를 『지난 1週동안에 我軍은 MIG機와 空中戰을 전개한 결과 3臺를 격추하고 2臺를 半破하였으며 反面에 그들의 對空砲火와 원인 不明으로 6臺를 喪失하였다』 라고 하였다.

이날 美 제5공군의 B-29 重폭격기는 平壤비행장을 目標로 출격하여 그들의 對空砲火

를 해치면서 滑走路에 폭탄 120ton을 集中 投下하여 이를 大破하였다.

이밖에도 UN空軍의 전폭기들은 전선일대를 누벼 美 제9軍團과 韓國軍 제1軍團지역에 도합 23회의 근접항공지원으로 地上軍의 작전을 도와 그들 士氣를 昂揚케 하였다.

5~7일 : 이 3日間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등 不順한 氣象이 계속된 까닭으로 UN空軍에서는 출격을 保留하고 機體 정비와 점검으로 다음 출격에 대비하였는데 敵은 이 시간을 이용하여 파괴된 비행장과 橋梁 및 鐵橋를 복구한 것으로 출격한 정찰기에 의하여 밝혀져 적이 군수物資 수송에 總力을 傾注하고 있음을 쉽사리 알수 있었다.

8일 : 이날도 北韓상공에 구름이 덮여있었으나 美 극동공군의 B-29 重폭격기는 이를 무릅쓰고 西北韓상공으로 출격하여 南市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에 폭탄 160ton을 集中한 결과 그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았으며, 다른 전폭기들은 中部 전선의 美 제10 軍團과 韓國軍 제2軍團에 대하여 도합 62회의 근접지원을 提供하였다.

9일 : 이날도 전날과 같이 구름이 덮여 있었으나 B-29重폭격기는 다시 西北韓상공으로 출격하여 그들의 對空勢威가 熾發하는 가운데 泰川, 南市 비행장에 폭탄과 Napalm탄을 퍼부어 복구공사를 妨害하였다.



〈UN空軍의 B-29폭격기에 의하여 폭파되는 淸川江 鐵橋〉

10일 : UN空軍의 B-29폭격기편대 16臺는 淸川江상공으로 출격하여 그일대에 있는 橋梁을 폭파하였는데 이때 敵의 對空반격이 있었으나 全機 무사히 歸還하였다.

한편 美 극동공군에서는 東部전선의 美 제1, 제9 兩軍團에 도합 146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을 제공하였다.

11일 :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機는 이날 西北韓상공으로 出擊中 MIG-15jet機와 조우하고 熾烈한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2臺를 격추하였다.

한편 전선으로 출격한 UN空軍의 전폭기들도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 지역과 韓國軍 제2軍團에 도합33회에 걸쳐 근접지원을 提供하였다.

12일 : 이날 다시 美 극동공군의 F-86遊擊機는 西北韓상공에서

MIG機와 空中戰을 전개한 결과 8臺를 격추하는 戰果를 거두었으며, 한편 B-29重폭격기는 이날 F-86 遊擊機의 幟호를 받으면서 淸川江일대에 있는 橋梁과 鐵橋에 폭탄 및 Napalm탄을 集中하여 鐵橋 7個所를 大破하였다.

이밖에도 UN空軍에서는 이날 도합 470회에 達하는 근접지원출격을 敢行하였는데 美 제 1, 제9, 제10의 3개軍團과 韓國軍 제2軍團의 지상군을 幟호하면서 敵陣地를 強打하여 進선세력을 萎縮케 하였다.

13일 14일 : 兩日間에 걸쳐 美 극동공군의 B-26輕폭격기대는 B-29重폭격기들과 合勢하여 中東部전선의 敵陣地에 400,000LBS의 高性能폭탄을 퍼부어 地上軍을 掩護하였다.

15일 : 이날 비바람이 몰아 쳤으나 美 극동공군의 B-29重폭격기는 다시 苦戰하는 中東部전선으로 출격하여 적背後에 있는 補給品집적소에 폭탄 120ton을 集中投下하여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16일 : 美 제5공군의 F-86遊擊機는 西北韓상공으로 出擊하여 MIG-15 Jet機와 熾烈한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3臺를 격추하였으며 歸還中에 적 戰車부대를 捕捉하자 즉시 이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加하여 3臺를 大破하였다.

한편 이날 UN空軍의 전폭기들은 도합 1,000臺 以上이 韓國軍 제2군단 지역과 戰況이 急迫한 인접군단지역을 우선으로 全前線에 폭탄1,000,000LBS를 퍼부어 優勢한 空軍力을 驅使 하였다.

17일 : 美 제5공군의 B-29폭격기편대 23臺는 中東部전선陣地에 230ton의 高性能폭탄을 集中하여 그 일대를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UN空軍의 전폭기들도 이른 아침부터 日暮직전까지 도합 1,445臺가 출격하여 그들의 補給路를 폭파하는 한편 전선의 要地要部에 空中威力을 集中發揮하여 進선세력을 萎縮케 하였다.

이밖에도 UN空軍에서는 지상군에 대하여 도합 411회에 걸친 근접지원을 提供하여 有利한 戰況을 전개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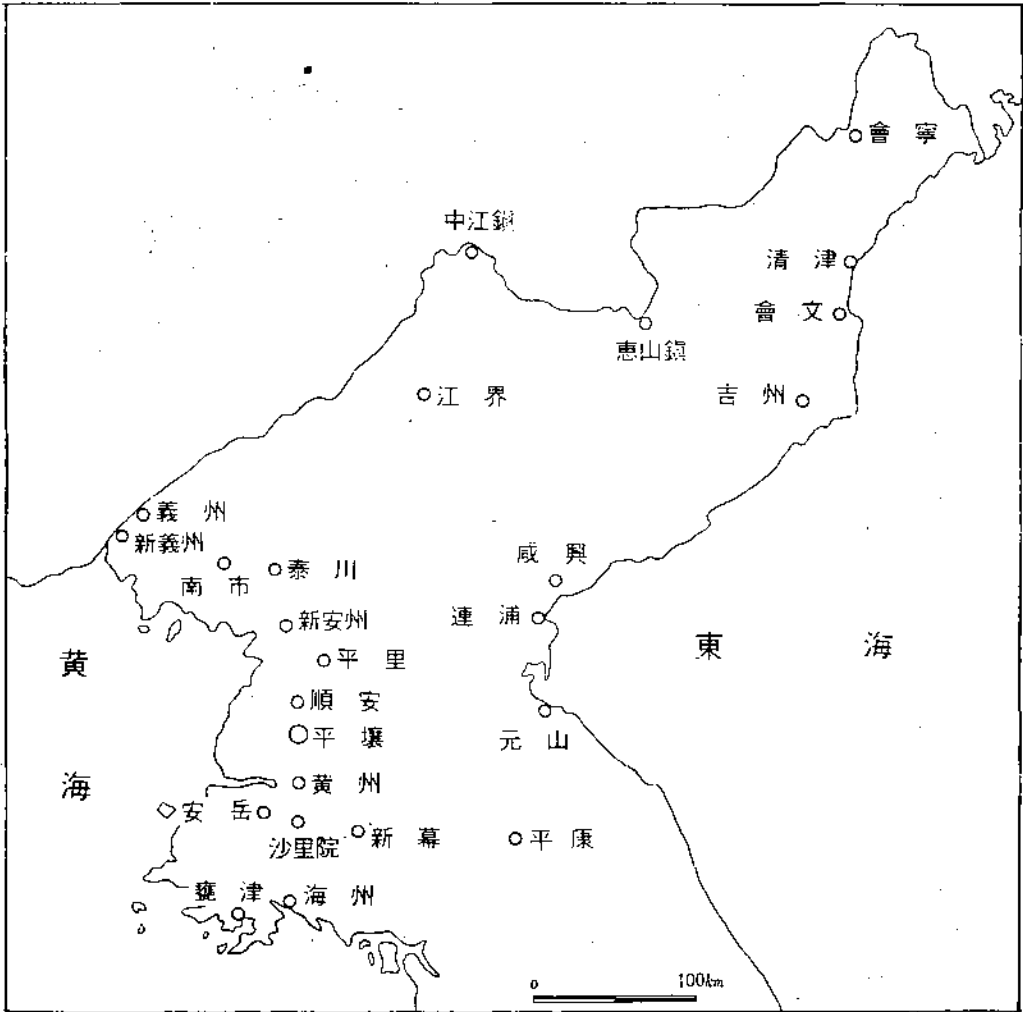
18일 : 이날 美 극동공군의 F-86과 B-29 兩전폭기는 西北韓상공으로 출격하여 그들의 對空炮火를 헤치면서 新義州, 義州비행장에 폭격을 加하는 한편 中東部전선의 지상군에 대하여 도합 375회에 걸친 근접지원을 提供하였다.

19일 : 美 극동공군의 F-86遊擊機는 이날 MIG回廊상공에서 MIG機와 熾烈한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10臺를 격추하고 3臺를 半破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한편 UN空軍에서도 敵의 後方차단폭격을 目標로 도합1,013회에 걸친 출격을 敢行하여 주요補給路를 폭파하면서 中共軍이 集結한 金城地區에 폭격을 集中發揮한 결과 그 일대를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밖에도 UN空軍은 全前線의 지상군에 대하여 도합 315회에 걸쳐 근접지원을 提供하였다.

◇ 상황도 제117호 사용공란케된 北韓의 주요飛行場(1953. 7. 27)



20일 : 美 제5공군의 B-29重폭격기는 F-86遊擊機의 엄호를 받으면서 義州, 新義州비행장에 270ton의 高性能폭탄을 投下하여 이의 사용을 不許하였다.

또 UN空軍의 전폭기 200臺는 敵을 反擊하는 中部 및 그 인접 전선으로 출격하여 敵陣地에 空中威力을 集中發揮하여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으며 全前線의 지상군에 대하여 도합 267회에 걸친 근접지원을 기록하였다.

21일 : 이른 아침에 美 극동공군의 B-29重폭격기는 전날에 이어 新義州비행장을 再폭격 함으로써 복구공사를 妨害하였다.

그러나 이날 오후에는 비가 심하게 내린 까닭에 출격을 保留하였는데, 차차 氣象이 회복되자 B-26輕폭격기는 夜間출격을 敢行하여 黃州에 있는 操車場에 25,000LBS의 高性能폭탄을 集中하여 晝夜같은 밤하늘을 마치 대낮과 같이 밝혀 놓았다.

이밖에도 이날 UN空軍에서는 전선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兩軍團과 韓國軍 제2軍團에 도합 76회의 근접지원을 제공하였다.

22일 : 美 극동공군의 F-86 遊擊機는 鴨綠江상공에서 MIG機와 熾烈한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3臺를 격추하였는데, 이는 韓國전쟁에서 F-86 Sabre Jet機와 MIG-15 Jet機가 전개한 最後의 空中戰이었다.

23일, 24일 : 兩日間은 北韓상공에 짙은 구름이 뒤덮인 까닭으로 UN空軍에서는 後方에 대한 遮斷폭격을 保留하고 전선을 目標로 출격하여 주로 東部전선의 韓國軍 제1軍團에 도합 56회에 걸쳐 근접지원을 제공하였는데, 다른 전선은 輕微한 彼我접전만이 전개된 까닭에 별다른 지원활동이 없었다.

25일, 26일 : 이 兩日間도 전날에 이어 惡天候가 계속된 탓으로 UN空軍은 西部전선의 美 제1軍團에 도합 12회의 근접지원을 提供하는 것으로 그쳤는데, 全前線에서는 休戰이 곧 成立될 것 같은 狀況下에서 彼我間의 輕微한 탐색偵察戰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27일 : 몇일간 계속된 惡天候가 회복되어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이른 아침부터 北韓 깊숙히 출격하여 江界, 中江鎮비행장에 폭격을 加하였는데 10.00에 板門店에서 休戰협정이 調印되자 UN空軍에서는 全폭격기를 北韓으로 출격시켜 休戰이 發効된 21.40까지 모든 비행장에 대한 폭격을 敢行하였다.

한편 이날 MIG機편대 12臺는 鴨綠江상공에 出現하였는데, 그곳을 飛行中인 F-86 遊擊機를 보자마자 滿洲상공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美극동공군의 전폭기(조종사 : Ralph S. Parr 대위)가 中江鎮상공에서 그들의 IL-12수송기 1臺를 격추하였는데 이것이 韓國전쟁에서 UN空軍의 전폭기 敵機를 격추한 最後의 空中戰이 되었다.

이밖에도 UN空軍은 이날 美 제10軍團과 韓國軍 제1軍團에 도합 147회의 근접지원을 提供하고 21.40을 期하여 休戰이 發効됨으로써 모든 空中공격 活動이 終絶되었다.

期間中 戰果 및 損失은 다음과 같다.

綜合 戰果 및 損失

戰	果	損	失
출격 회 수	19,670회	B-26 폭격기	4 대
폭탄 투하량	15,286톤	B-29 "	1 "
Napalm탄	142톤	F-80 폭격기	1 "
MIG機와의 空中戰	5회	F-84 "	10 "
MIG機 격추	29臺	F-86 전투기	10 "
" 半破	3臺	F-94 "	1 "
IL-12 수송기 격추	1 "	RF-80 무장정찰기	1 "
鐵橋 폭파	7個所	C-46 수송기	2 "
戰車 全破	3臺		

第 63 章

國立警察의 活動

1. 一般狀況
2. 共匪擊滅狀況

제63章 國立警察의 活動(1953년 1월 1일부터 // 7월 27일까지)

1. 一般狀況

休戰會談이 妥結段階에 접어들거에 이르자 漸次로 熾烈하여져는 敵의 공세로 國군은 寸土를 다루는 激戰을 벌여 戰略的인 要域을 계속 확보코자 하는 가운데 政局은 極히 緊張하고 있었다.

이때 後方에서 蠢動中인 在산共匪는 天然的인 要塞을 이룬 智異山, 德裕山, 白雲山, 白雉山, 回文山 등의 據點을 중심으로 후방키안을 威脅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前方에서 분전하고 있는 우리 國軍과 UN軍의 작전수행에도 큰 負擔이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李承晚大統領은 이 문제를 根本的으로 다루기 위하여 「前方戰鬪는 國군이, 後方共匪 격멸은 경찰이 하라」는 諡示를 내림으로써 國會와 政府는 銳意協議하여 1953년 4월 6일자로 「西南地區 戰鬪警察隊設置法案」을 정부가 국회에 提出하여 4월 18일 法律 第282號로 이를 公布하였다. 이리하여 全北에서 南原, 任實, 淳昌, 長水郡을 全南에서 順天市, 昇州, 光陽, 谷城, 求禮郡을, 慶南에서 咸陽, 居昌, 山淸郡의 1市 12郡을 西南地區 戰鬪警察隊司令部의 管轄하에 「행정과 전투」를 독립적으로 遂行할 법적근거를 확정함으로써 西南地區 戰鬪警察隊司令部는 同年 5월 1일에 南原에서 發隊式을 舉行하였다. 이때 政府와 國會는 勿論 國軍 및 UN군 首腦가 蔭席한 가운데 盛大한 武典을 갖고 「後方共匪의 完全擊滅」이라는 大命題를 안고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함으로써 智異山地區 平定을 위한 결산기를 맞이하여 所任完遂에 精進하기에 이르렀다.

가. 後方共匪의 活動概要

(1) 李鉉相의 動靜

계속되는 격렬작전으로 殘存하고 있는 共匪는 4월 30일 現在로 完全 武裝共匪 668명과 非武裝共匪 282명으로 算定되었으나 이 共匪는 歷戰을 거듭한 激強共匪와 共匪首腦들로서 樂觀을 不許하는 存在들이었고, 李鉉相은 總司令官으로서 名實共히 共匪들의 神話의 存在로서 그 領導力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共匪集團을 一糸不亂하게 지휘중이었다. 그러나 北愧金日成이가 北韓에 가 있는 南勞黨系의 共產徒黨 李承燁, 朴憲永, 李康國等 大蕭清의 여파는 智異山 共匪들에게도 밀어닥침으로써 李鉉相은 總司令官職으로부터 第5地區黨 委員長으로 강등되어 在산共匪集團의 정치적 內紛에 當면했으나 戰鬪에 關한限 李鉉相은 실권행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 事實은 鐵道奇襲의 名手였던 共匪 文南嶽를 生捕함으로써 확인되었다. 특히 李鉉相은 自身の 秘密아지트는 親衛共匪에게도 알리지 않고 神出鬼沒함으로 그동안 數많은 작전부대는 李鉉相을 捕捉하는데 성공치 못하였다.

(2) 共匪의 出沒狀況

白野戰司令部와의 軍警合同作戰으로 共匪의 수가 激減하기에 이르자 內무부는 太白山地區 및 智異山地區 전투경찰대를 1952년 9월 15일附로 해체하고 各市道警察局에 전투경찰요원을 轉屬케 하여 智異山地區 作戰은 治安局 保安課長 李成雨경우관으로 하여금 통합지휘케 하여 殘匪討伐의 任務를

遂行하였다. 그러나 전투에 未熟한 경찰관과 大降雨等の 기상조건으로 경찰의 擊滅作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서 共匪들은 如前히 我方의 據點 奇襲, 糧穀 掠取, 良民拉致 등과 아울러 地下黨 組織再建作業에 血眼이 되고 있었으며 同時에 國軍을 가장하여 경찰전투 요원을 奇襲拉致虐殺하는 등 主로 軍警離間을 策略하는 행동은 특별한 경계를 要하였고 交通기관 襲擊時에 육군

敵 勢 分 布 狀 況 表

(1953. 6. 30現在 西南地區戰鬪警察隊 G-2)

智異山地區				德裕山地區			
團 隊 號	武 裝	非武裝	計	團 隊 號	武 裝	非武裝	計
第 5 地 區 黨	64	0		德 裕 山 地 區 黨	11	6	
金 智 會 部	70	0		常 勝 隊	18	5	
慶 南 道 黨	28	0		第 2 區 域 黨	12	0	
慶 南 工 作 隊	15	0		居 昌 郡 黨	6	0	
進 擊 隊 必 勝 隊	60	0		咸 陽 郡 黨	3	0	
慶 南 山 委 員 會	10	0		全 北 現 地 道 黨	16	0	
智 異 山 清 郡 黨	10	10		長 水 守 令 部 黨	8	0	
山 河 東 郡 黨	8	0		淸 州 郡 黨	15	0	
第 1 地 域 黨	5	4		鎭 安 郡 黨	14	2	
全 北 道 黨	16	0		茂 朱 郡 黨	9	2	
南 原 郡 黨	32	2					
求 禮 郡 黨	16	21					
計	334	37	371	計	112	15	127
白雲山地區				回文山地區			
全 南 道 黨	39	17		全 北 南 部 指 導 部	8	0	
第 88 部 隊	16	7		護 衛 中 隊	10	0	
7 斗 2 支 隊	88	4		南 部 指 導 部 連 絡 課	12	0	
光 陽 郡 黨	34	11		淳 昌 郡 黨	6	0	
光 陽 郡 各 面 黨	4	16		抗 美 聯 隊	8	0	
順 天 郡 黨	3	21		任 實 郡 黨	4	0	
政 治 訓 練 所	1	27		金 堤 郡 黨	5	1	
鳳 頭 山 小 地 區 黨	4	1		高 敞 郡 黨	5	1	
龍 雲 山 小 地 區 黨	1	4		井 邑 郡 黨	1	1	
				金 炳 德 部 隊	24	4	
				益 光 郡 黨	4	4	
計	208	109	317	計	87	11	98
白雅山地區				曹溪山地區			
白 雅 山 小 地 區 黨	3	4		全 南 西 部 道 黨	6	9	
白 雅 聯 隊	5	5		西 部 道 黨 連 絡 部	1	7	
光 州 市 黨	3	4		母 後 山 地 區 部 隊	6	8	
谷 城 郡 黨	4	8		曹 溪 山 小 地 區 黨	7	6	
				寶 城 郡 黨	0	3	
計	15	21	36	計	20	33	53

헌병을 假裝하는 수법을 쓰고 있어 智異山 지구에서 작전중인 軍自體도 頭痛거리가 아닐 수 없는 상황이 매일 계속되었다. 共匪들은 大膽하게도 農牛를 掠取해 가는 것뿐만 아니라 반공 애국 壯年을 奇襲虐殺하는 등, 敵의 手法은 날이 갈수록 極惡無道하여 가고 있었다.

나. 國立警察의 後方作戰狀況

1953년 2월 初부터 京武廳에서 李承晚大統領 主宰下에 內무부장관을 비롯한 國회 및 여당의 重鎮과 警察首腦部가 합동하며 智異山地區 共匪의 완전격멸을 위한 戰略會談이 거듭되고 作戰上의 문제점을 면밀히 分析討議한 결과 李大統領은 諭示로서

「1. 後方共匪를 1年 이내에 平定할 것.

2. 新設되는 전투경찰은 軍部の 干涉없이 독자적으로 격멸작전을 智異山지구에서 수행할 것.

3. 各 關係도지사는 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전투경찰대 司令官에 행정권을 移管하고 共匪출현이 있을 境遇에는 司令官에게 출동을 요청하면 司令官은 즉각 出動하여 共匪를 격멸할 것」 등을 명령함으로써 경찰은 法律 第282號에 依據, 南原에 西南地區 戰鬪司令部를 設置하여 5월 1일 附로 1市 12郡의 管轄內의 「行政과 戰鬪」任務를 遂行토록 하고 兇地軍부대와는 격멸전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하였다.

(1) 非常警備總司令部의 작전방침

1952년 9월 15일 南原에 設치된 西南地區 前方司令部는 1953년 5월 1일에 西南地區戰鬪警察隊司令部의 設치와 더불어 發展의 체계를 하였는데 이로써 對共戰鬪는 西南地區 戰鬪警察隊가 專擔케 하고 行政警察은,

- ① 五列索出 및 공산당 地下黨紛碎 및 對共活動의 강화
- ② 海岸線경계로서 海上浸透 間諜의 색출
- ③ 後方지역방어 및 軍의 작전상 必要한 대민활동
- ④ 鐵道 및 軍主補給路의 경비
- ⑤ 戰災복구작업 강화 등을 담당케 하였다.

(2) 西南地區戰鬪警察隊의 활동

1953년 4월 20일에 治安局 보안과장 李成雨경무관은 金億淳編成官을 帶同, 南原에서 제1연대와 제2연대를 編成하고 連이어 順天에서 제3연대, 咸陽에서 제5연대를 各各 編成하여 李夏榮初代司令官에 任命하고 金億淳총경은 작전과장으로 赴任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出攻準備로서 103日間에 걸쳐 교육訓練을 強行하여 戰鬪態勢를 完備하였으나 司令官의 更迭으로 金宗元 경무관이 제2대 사령관으로 赴任함을 契機로 8월 6일 05.00를 期하여 第1次 智異山總 공격전을 전개케 하였다.

(3) 義勇警察의 活動

隸下 12個 警察에 배속중인 西南地區 의용경찰은 숨은 愛國者로서 눈부신 功績을 쌓았다. 주간에는 鐵道와 軍主補給路를 경비하고 夜間에는 屈住地방어에, 地域內에 特別한 敵情이 있을 때에는 전투에 參加하는 등 그 활동이 눈부셨다.

특히 山游擊隊長 姜三壽는 共匪의 루트 및 아지트探索에 선천적 판단력의 소유자로서 크지 勲을 세웠다.

(4) 行政警察의 活動

京畿 및 江原道の 警察은 軍作戰地域後方의 경비와 海岸으로 浸透하려는 간첩색출에 주력하였으며 鐵道 및 軍主補給路경비 및 據點방어에 최선을 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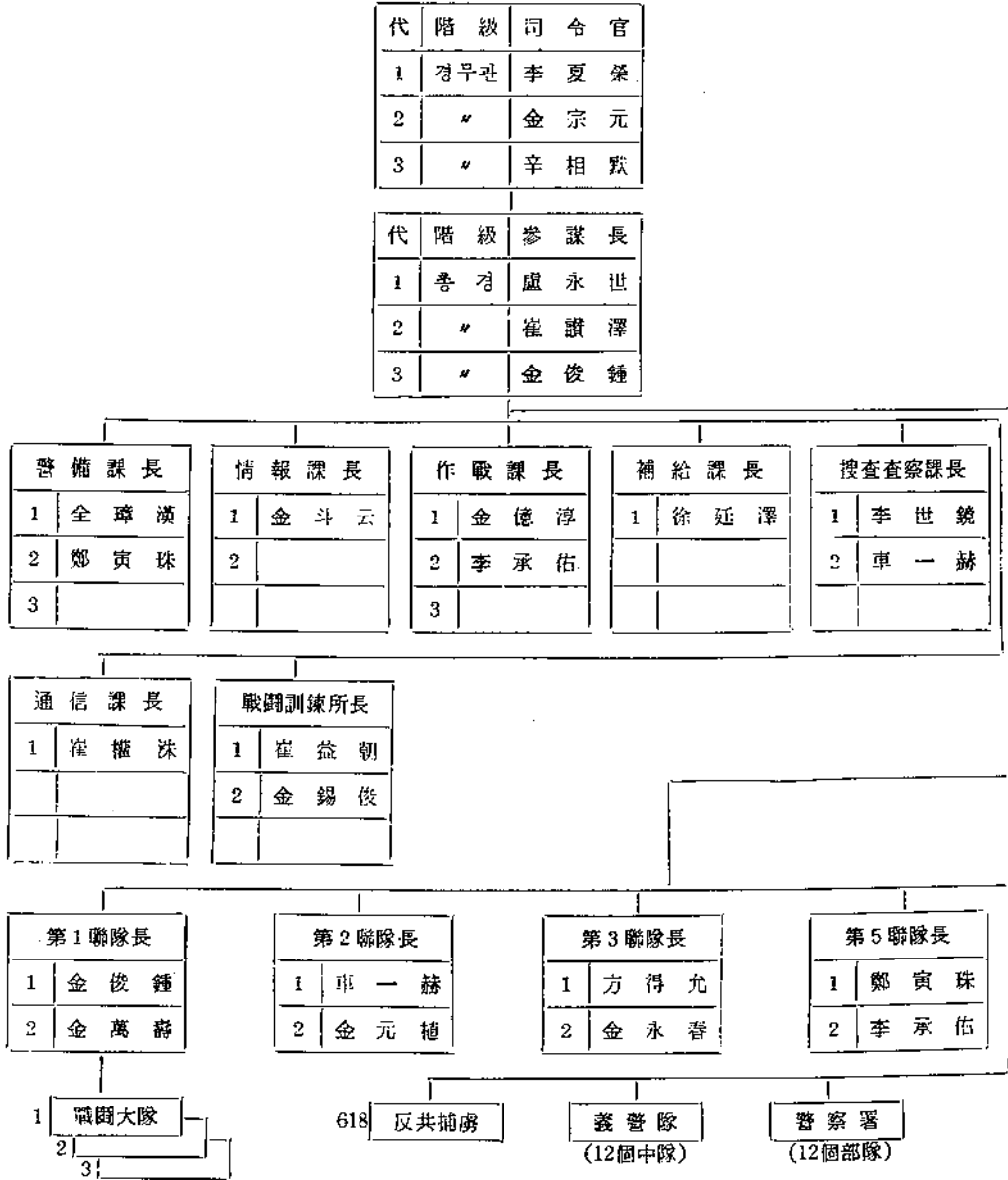
특히 智異山地區 共匪中에는 전투경찰의 猛攻에 못견디 大都市로 潛入함으로써 查察警察은 이의 索出에 法力하였다.

(5) 反共捕虜 出身部隊의 活動

6월 18일에 反共捕虜로 석방된 北傀 제1연대장 姜대좌, 文人으로서 北傀出身인 金昌顯 등을 중심으로 편성된 전투경찰 제618독립대대는 西南地區 전투경찰대에 소속되어 智異山地區, 共匪討伐의 예비대로서 또는 潛伏대로서 훌륭히 그 전투임무를 遂行하였다.

西南地區戰鬪警察隊司令部編成表

(1953. 4. 18 編制根椐)



2. 共匪擊滅狀況

(1) 漢拏山戰鬪 (1월 1일 ~6월 15일)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戰鬪警察第100戰鬪司令部	장	총경	金	源	湧
제 1 대대	장	경감	韓	在	吉
	敵	軍			
漢拏山部隊	장	집	성	규	

나. 전투전의 개황

濟州 4.3事件 이래로 惡質的인 反逆행위를 계속하던 殘存共匪 58명은 漢拏山주변에 出沒하면서 殺人과 掠奪을 계속함으로 1952년 12월 20일에 非常警備 總司令部는 濟州道共匪擊滅을 위하여 濟州道警察自隊 병력 580과 京畿, 忠南, 慶北에서 應援派遣한 各 1個중대씩의 兵力을 統合 指揮케 하여 戰鬪警察 第100戰鬪司令部를 設置하고 對共作戰中에 있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952년 12월 8일 07.00에 南濟州郡 노루목앞 三成高地에서 작전중인 제1대대 正面에 共匪 10명이 下山하는 것을 요격하여 敵 1명을 사살하고 5名을 捕虜로 하였으며 1월 26일 04.00에는 南濟州郡 三成高地에서 敵 30명이 接近함을 發見한 대대는 이를 至近距離로 誘引하여 一齊攻撃끝에 敵 김성규외 20명을 사살하였다.

2월 1일 05.30에 南濟州郡 月坪里에 侵攻中인 敵 25명을 包圍攻撃한 제1대대는 35분간의 熾烈한 전투끝에 敵 20명을 射殺하고 逃走하는 共匪를 계속 漢拏山 方面으로 追擊하였으나 敵을 놓치고 말았다. 그러나 漢拏山殘匪 58명中 51명을 격멸함으로서 濟州道共匪 격멸도 終末을 告하게 되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第100戰鬪司令部는 작전종료와 동시에 해체하고, 京畿, 忠南, 慶北 應援兵力은 원대복귀케 하여 殘餘共匪는 現地 警察署長의 책임아래 완전격멸토록 조치함으로서 濟州島는 平穩을 되찾게 되었다.

§ 參戰者의 證言

◇ 第100戰鬪司令官 金源湧총경

濟州 4.3事件以來 골치아픈게 한 共匪의 主力

을 격멸하는데 성공하였으나, 敵의 戰鬪能力도 과소평가할 수 없었다.

특히 高山峻嶺으로 지형상의 不利와 密林地帶의 특수성을 勘案하여 새로운 병기개발의 필요성을 느꼈다.

(2) 古阜襲擊共匪追擊戰 (2월 19일~3월 4일)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高敞警察署查察遊擊隊	장	경감	金	培	龍
井邑警察署分室工作隊	장	경위	金	正	基
	敵	軍			
高敞郡黨	장		金	容	泰

나. 전투 전의 개황

2월 15일에 정부는 緊急명령 제13호를 公布하고 국가재정위기에 당면하여 通貨에 關한 특별조치를 단행, 流通中인 圓貨 100圓을 新貨인 圓貨 1圓으로 交換하기로 하여 韓銀銀行은, 전국지점과 全國 金融組合을 통하여 新舊貨幣交換을 一齊히 실시중이고 경찰은 경찰관을 파견하여 경비중에 있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2월 19일 23.30 : 全北 井邑郡 古阜금융조합에 高敞郡黨 共匪 6명이 군인과 경찰관 복장으로 위장하고 急襲하여 경비경찰관을 射殺하고 新貨 399,965圓을 強奪逃走하였다.

急報에 接한 井邑高敞查察遊擊隊는 즉각 비상출동하여 敵을 追擊하였다.

이러하여 2월 26일 12.00에는 高敞郡 富安面 雲長里 秘密아지트를 急襲하여 共匪 1명을 捕虜하고 新貨 600圓과 다발총 1정 實彈 70發을 노획하였다.

그런데 生捕共匪의 陳述에 의하면, 高敞郡黨의 副委員長 金容泰가 政工隊長 高光杓에게 2,000圓을 政工隊員 崔俊植에게 各各 1,000圓을 分배하고 殘餘달취 금액은 金容泰가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全北경찰국사찰과 刑事隊의 增員을 받은 高敞查察遊擊隊와 井邑查察分室 공작대는 一糸不亂한 협동작전을 전개하여 3월 4일 08.00에 高敞郡高敞面古洞里後山에 있는 共匪의 비밀아지트를 포위하여 高敞郡黨副委員長 金容泰외 남자共匪 6명과 여자共匪 1명을 捕虜로 하고 新貨 10圓券 72매와 各種小銃 3정, 수류탄 3개 등을 노획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全北警察局은 回收된 新貨를 古阜 金融조합에 還收하여 주고 계속 全北道內 金融기관에 대한 경비를 嚴重히 하면서 殘匪擊滅에 全力하였으나 민심은 共匪들의 만행으로 因하여 漸次 恐怖感이 높아지고 있었다.

§ 參戰者의 證言

◇ 井邑警察署查察分室主任 金正基경위
農夫, 行商, 乞人等を 가장하여, 10餘일 동안

探索作戰끝에 敵의 아지트를 확인 공격함으로 성공하였으나 平常의 民匪分離의 戰術의 措置가對 共作戰에 얼마나 重要하다는 것을 새삼 인식하였다.

(3) 咸陽地區戰鬪 (2월 27일 3월 31일)

가. 참가분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咸陽警察署戰鬪隊 장 경감 崔 德 載
敵 軍

德裕山地區共匪

나. 전투전의 개황

咸陽地區는 共匪들의 集散地로 되고 있으므로, 咸陽署長은 兇猛한 작전계획을 세워 敵을 奇襲코자 그 준비를 완료하고 출동대기중에 있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2월 27일 22.00에 수색진을 전개한 전투대는 咸西面 내산밭끝에서 敵을 捕捉, 공격끝에 9명을 射殺, 2명을 捕虜로 하고 小銃 4정과 실탄 130발을 노획하였으며 뒤이어 23.00에는 실덕部落에서 敵40명과 交戰, 6명을 射殺하고 小銃 1정을 노획하였다.

3월 19일 11.30에 白雲山에서 敵을 또다시 捕捉한 전투대는 一齊사격으로 6명을 射殺한 다음 기관총 1정과 BAR 1정, 그리고 M1 小銃 3정을 노획하였으며 21일 15.00에는 智異山 老將臺에서 또다시 共匪 7명을 射殺하고 小銃 3정을 노획한 다음 17.00에는 白雲峰에서 敵 12명을 射殺하였다. 이에 戰意를 높여 追擊을 계속한 전투대는 다음날에 安義 長水谷戰鬪에서 8명을 또다시 射殺, 1명을 捕虜로 한 다음 小銃 6정을 노획하고 14.30 덕두산에서 敵 7명과 交戰, 射殺 3명, 小銃 2정 노획의 戰果를 거두었다. 작전을 계속한 전투대는 3월 20일 12.00에 馬川 실덕部落에서 敵을 포위하여 一齊사격 끝에 3명을 射殺하고 3월 25일에 老將臺에서 共匪 5명을 射殺한 다음 日本刀 1個를 노획한데 뒤이어 栢田里에서 朴鍾和部隊殘匪와 交戰, 8명을 射殺하였다. 3월 29일 05.30에 白雲山 一帶를 수색한 전투대는 또다시 敵을 發見하여 이를 공격끝에 5명을 射殺하고 小銃 1정을 노획 하였으며 30일 01.00에는 데리에서 敵 1명을 射殺, M1 小銃 1정을 또다시 노획하였다. 追擊을 계속한 전투대는 06.00에 소룡산에서 水東面黨 5명을 攻擊하여 2명 射殺, 小銃 1정을 노획하고 20.20에 방배골과 老將臺에서 敵을 또다시 捕捉하여 5명을 射殺, 小銃 3정을 노획한데 뒤이어 11.30에는 箕白山峯에서와 淸박峙에서 敵을 發見 8명 射殺, 1명 生捕, 小銃 3정을 노획하는 큰 戰果를 거두어 士氣를 높였다.

31일 16.00에는 오봉골에서 敵 100명과 遭遇하여 激戰끝에 7명을 射殺하고 銃器2정을 노획하는 戰果를 올려 作戰의 大尾를 장식하였으나 경찰관 1명이 戰死하고 2명이 負傷하는 損失을 보았다.

라. 전투후의 개황

敵은 德裕山方面과 智異山方面으로 분산도주 하여 追擊부대와와의 接敵이 없었다. 경찰전투대는 探索作戰을 더욱 강화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 參戰者의 證言

◇ 咸陽警察署長 崔德載경감

敵은 항상 유리한 지역에 있고 우리부대는 공격에 불리한 상황속에서도 오직 용전을 거듭함으로써 戰勝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

(4) 雲峰地區戰鬪 (3월 6일~3월 31일)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南原警察署戰鬪隊	장	총경	崔	蘭	洙
	敵	軍			
全北道黨	장		方	俊	杓
共匪 제909부대	장		孟		峯

나. 전투전의 개황

식량부족으로 共匪들의 士氣가 크게 꺾어짐에 따라 全北道黨委員長 方俊杓가 지휘하는 共匪집단들은 雲峰周圍촌락을 크게 威嚇함으로써 南原署 전투대는 이에 對應하는 對敵措置에 徹底를 期하고 있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3월 6일 17.30에 溪龍山에서 敵과 遭遇한 전투대는 이를 포위 공격하여 敵 13명을 射殺 4명을 捕虜로 하고 小銃 10정을 노획한 다음 패주하는 敵을 계속 追擊하였다.

그리하여 3월 20일 06.30에는 下水橋前方高地에서 敵을 捕捉하여 사격을 集中한 끝에 18명을 射殺하고 1명을 捕虜, 小銃 4정과 白米 4斗를 노획하였으며 08.00에는 水鴻里와 忠악산에서 共匪 3명을 生捕하고 小銃1정을 노획한 다음, 繼續 追擊戰을 강행하여 德頭山에서 또다시 共匪 60명을 捕捉, 熾烈한 交戰 끝에 8명을 射殺하였다. 捕虜된 孟峯의 陳述에 依하면 이 전투에서 方俊杓는 腹部에 貫通銃傷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투대는 계속 追擊하였으나 그를 사로잡지 못하고 다만 德頭峯과 「고무골」에서 共匪를 捕捉하여 81mm 迫擊砲 2門과 小銃 7정을 노획하였는데 이 戰鬪에서 我方도 7명이 負傷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全北道黨委員長 方俊杓를 포로로하기 위한 探索戰을 계속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共匪들은 智異山方面으로 撤去하였다.

§ 參戰者의 證言

◇ 南原警察署長 崔蘭洙총경

너무도 雲峰周圍의 情況에 밝은 共匪들이어서 참 어려운 作戰이었다. 長期間의 作戰으로 隊員

들의 노고도 컸지만 죽느냐 사느냐는 血戰이 이 炎烈은 하였으나 方俊杓를 놓친 것이 안타까운 일이었다.

(5) 潭陽戰鬪隊의 追擊戰 (3월 8일~3월 31일)

가. 참가 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潭陽警察署戰鬪隊	장	경감	柳 基 泰
	敵	軍	

回文山地區 共匪

나. 전투 전의 개황

回文山에 據點을 두고 있는 共匪들은 潭陽署管內 山岳지대에 潛入하여 良民에 對한 掠奪을 계속함으로써 潭陽警察署長은 이 共匪를 茂盛期前에 격멸치 않으면 將次의 격멸진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여 對敵措置에 全力을 기울이고 있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3월 8일에 수색을 전개중이던 경찰전투대는 仁岩無等村에서 敵3명을 發見하고 교전끝에 이들을 射殺하였으며 13.00에는 大德面 水陽山 및 501高地에서 敵 13명과 遭遇하여 5명을 射殺하고 小銃 5정을 노획하였다.

3월 9일 07.00에 수색을 계속한 전투대는 圍守峯에서 敵 90명과 격전을 벌여 6명을 射殺하고 追擊戰을 계속하여 다음날 05.00에는 龍面 416.9高地에서 敵의 이지트를 急襲, 4명을 또다시 射殺한 다음 81mm 追擊砲 1門과 小銃 1정을 노획하였다. 이에 士氣衝天한 전투대는 11일 02.30 伏擊配備線에서 4명을 射殺하고 小銃 2정을 노획한데 이어 12일에는 鎗城山의 이지트를 急襲하여 敵 2명을 射殺하고 小銃 1정과 信號拳銃 1정을 노획하였으며 31일 04.00에는 舟坪里後山 伏擊配備線에서 4명 射殺하고 小銃 4정을 노획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共匪들은 回文山方面으로 潛跡하고 士氣가 높아진 戰鬪隊員은 차기 작전을 爲하여 訓練을 시작하였다.

§ 參戰者의 證言

◇ 潭陽警察署長 경감 柳基泰

茂盛期前에 더 많은 共匪를 擊滅하지 않으면 以後의 작전에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여 猛攻을 가했으나 敵의 戰鬪力도 無視할 수 없었다.

(6) 淳昌地區 追擊戰 (3월 10일~3월 31일)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淳昌警察署戰鬪隊	장	경감	李 起 大

敵 軍

回文山地區 共匪

나. 전투 전의 개황

回文山地區 共匪들은 세력확장을 爲한 地下黨조직에 狂奔하여 山間壁地의 良民을 拉致하고 食糧掠奪을 계속함으로써 淳昌警察署長은 管内 治安確保를 爲하여 共匪에 對한 선제공격을 계획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3월 10일 12.00에 淳昌 警察戰鬪隊 主力은 雙置面 김창골에서 敵 아지트를 急襲하여 捕虜 1名 各種小銃 3정, 수류탄 4個, 라디오 1臺를 노획하고, 다른 小隊는 08.40에 敵 아지트를 發見하여 迫擊砲 2門, 99式 小銃 1을 노획한 다음 계속作戰中에 있었다. 그런데 3월 12일 08.00에 龍骨山에서 共匪 6명과 遭遇하여 交戦 끝에 2명 射殺, 2名을 捕虜로하고 小銃 4정을 노획하였으며 3월 13일 11.15에는 雙峙 오라골에서 敵 5명을 捕捉하여 其中의 3명을 射殺하고 小銃 2정을 노획하였다.

3월 27일 02.00에는 가마골의 아지트를 急襲하여 共匪 1명을 射殺, 小銃 1정을 노획하고, 迫擊戰을 벌려 05.00에 秋月山에서 禮興面黨委員長을 捕虜하였으며 19.00에는 龍骨山에서 敵 4명을 發見, 1명을 射殺한 다음 小銃 1정과 白米 5斗를 노획하였다.

3월 30일 06.00에 回文山에서 계 101연대 소속의 共匪 10명을 發見하여 交戦을 벌려 그中 5명을 射殺하고 小銃 3정과 박격포탄 12發, 電話機 1臺, 衣類 28點을 노획하였으며 12.00에는 호룡동後山에서 抵抗을 하고 있는 敵을 攻擊하여 또다시 5명을 射殺하고, 小銃 1정, 수류탄 22발, 地雷 1개를 노획하였다. 31일 03.00에 수색을 계속하던 警察隊는 가마골에서 敵 9명과 接敵하여 5명을 射殺, 4명을 포로로한 다음 60mm迫擊砲 1門과 小銃 2정을 노획하고 04.00에는 將揮峰에서 敵 10명과 交戦을 벌려 3명을 射殺, 小銃 1정을 또다시 노획하였으며, 05.00에는 山內面 龍峯에서 敵 5명을 射殺하고 小銃 1정과 수류탄 10발을 노획하였다.

라. 전투후의 개황

回文山地區에서 竊動中인 共匪들은 淳昌전투대의 공격을 받고, 분산도주함으로써 金北 경찰국장은 철저한 對共작전을 전개토록 명령을 하였다. 그리하여 각 경찰서는 探索작전을 독자적으로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리는 데 성공하였다.

§ 參戰者의 證言

◇ 淳昌警察署 金成浩 순경

가마골은 元來로 天然의인 要塞를 자랑하는 곳

으로서 共匪의 潛伏 活動에 絶대로 有利한 조건이었으나 我軍의 악착같은 探索과 철저한 迫擊戰으로 공격에 성공한 것이다.

(7) 和順戰鬪隊의 迫擊戰 (3월 14일 4월 21일)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和順警察署戰鬥隊 장 김감 李 承 佑
敵 軍

全南民青聯隊

全南總司保衛大隊

全南第15聯隊

全南總司 장 金 美 佑

나. 전투전의 개황

白雅山에 據點을 두고 出沒中인 全南最強의 共匪集團인 全南民青聯隊를 基幹부대로 金善佑가 總지휘중인 白雅山地區 共匪들은 매일 近隣촌락에 대한 掠奪행위를 계속함으로 和順署長은 이 共匪주력을 격파하고자 공격준비에 착수하였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3월 14일 22.50에 梨陽面邑坪里一區 부락에 共匪가 掠奪次 출몰하였다는 정보에 依하여 출동한 경찰전투대는 다음날 02.00에 斗峰山과 兄弟峰溪谷에서 이들을 捕捉하고 공격끝에 敵 36명을 射殺하고 6명은 捕虜, 銃器 11정을 노획하였다. 이에 戰機를 捕捉한 전투대는 계속 追擊戰을 벌려 다음날 02.00에는 兄弟峰溪谷을 포위하여 34명을 또다시 射殺하고 81mm 박격포 1門과 기관총 1정, 그리고 로케탄 1門, 各種 小銃 6정을 노획하였는데 이때 1명이 귀순하였다.

다음날 01.00에 敵은 東北支署를 襲擊하였으나 我軍은 敵을 역포위해서 이를 격퇴하고, 02.00에는 追擊戰을 벌려 05.00에는 峯에서 該敵을 捕捉하여 激戰끝에 또다시 射殺 26명, 捕虜 2명, 小銃 11정, 農牛 5頭, 白米 20駄을 노획하는 戰果를 擧揚하였다.

19일 07.00에는 住岩面龍寺溪谷에서 敵 16명을 發見, 교전끝에 이를 全員 射殺하고, 小銃 4정을 노획하였으며 4월 6일 03.00에는 白雅山 一帶를 搜索中 敵의 주력부대를 急襲하여 46명을 射殺하고 各種 小銃 24정, 실탄 3,500發, 수류탄 13個, 白米 2駄 衣類 20點을 노획하였다. 4월 15일 02.00에는 天台山 溪谷에서 敵 제1연대 副聯隊長을 捕虜로 하고 小銃 1정을 노획하였으며 17.00에는 淸豐面 깃대峰에서 敵 90명과 交戰끝에 全南總司政治部 副委員長, 제1연대 제3대대 작전참모, 제3대대 부대대장 등 37명을 射殺한 다음 BAR 1정을 비롯하여 各種銃器 5정을 노획하였다.

追擊을 계속한 전투대는 4월 21일 11.00에 斗峰山에서 總司參謀長을 비롯한 2명을 生捕하고 小銃 1정과 拳銃 1정을 노획한데 이어 13.00에는 太악山에서 1명을 射殺하고 中峙에서는 敵 三地區司令部 兵器部 아지트를 急襲하여 共匪 4명을 捕虜로한 다음, 小銃 3정을 노획하였다. 期間中 我方은 경찰관 2명과 韓靑員 4명이 戰死하고 경찰관 7명과 韓靑員 2명이 負傷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敵은 큰 손실을보고 潛跡하였으나 경찰은 계속 敵을 索出코지 搜索전에 더욱 拍車를 加하였다.

§ 參戰者의 證言

◇ 和順警察署長 李承佑 경감

너무도 치열한 對共作戰 이었다. 敵도 強하였지만 우리 戰鬪隊의 血戰이 效果있는 結果를 얻어왔다고 본다.

(8) 順天出動車輛被襲事件(9월 30일)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順天警察署戰鬪隊	장	경감 張 得 天
	敵	軍
團隊號不詳共匪		(15名)

나. 전투전의 개황

在山共匪들은 대답하거든 都市 주변까지 浸透하는 사태가 京鄕 各地에서 발생하자 順天署는 夜陰을 利用하여 四周방어에 力點을 두고 있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3월 30일 21.30에 順天市 古攄부락 앞에 도달한 順天署 전투대의 出動車輛은 갑자기 前진방향의 路上에서 손을 드는 軍人 2~3명을 發見하고 車輛을 停止하려는 刹那에 突然히 右側으로부터 一齊히 奇襲을 받아 경찰관 戰死 1명, 負傷 20명, 小銃 27정 被奪, 民間人 負傷 1명의 損失을 보았는데 이 共匪들은 白雲山 方面으로 逃走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急報에 接한 順天署長 韓干株 總경은 즉각 追擊戰을 展開하였으나 接敵치 못하였다. 이 事件으로 非常警備 總司令官은 據點 및 主補給路와 鐵道警備에 萬全을 期하도록 긴급 명령을 下달하였다.

§ 參戰者의 證言

◇ 順天警察署 保安係長 張得天 경감

軍人이 손을 들므로 我軍으로 생각하고 停車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右側 3時方向으로부터 一齊射擊을 받아 큰 損失을 보았다.

(9) 全州戰鬪隊의 搜索戰 (3월 26일~4월 10일)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	---

다. 전투 경과의 개요

민간인의 申告로 大院寺골에 共匪 70명이 集結中임을 안 山淸署전투대는 隣接 제56연대 1개 중대와 協同作戰코자 機動을 개시, 敵集結地點을 탐색 前進中에 있었는데 갑자기 共匪로부터 挾攻을 당하여 전투다운 전투도 못하고 경찰은 戰死 14명, 被拉 12명(歸還 9명)제 56연대는 被拉士兵 26명(歸還 12명)이 發生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큰 損失을 본 現地 軍營은 敵의 挑梁에 發奮하여 擊滅戰에 拒車를 加하였고 현지 주민들도 날로 共匪에 대한 증오심이 高潮되어 좀더 効率的인 共匪討伐을 異口同聲으로 당국에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 參戰者의 證言

◇ 山淸署 朴三植 의경

共匪를 잡고 가다가 奇襲당하였다. 대원들은 共匪가 있어도 少數일것으로 알고 간것과 戰鬥에 未熟한 지휘관때문에 큰 損失을 보았다.

(11) 東萊長安戰鬪(7월 2일)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東萊警察署查察遊擊隊	장	총경	黃	圭	燮
	敵	軍			
第4地區黨殘匪	장		金	鎮	九

나. 전투 전의 개황

東萊경찰서는 大雲山에 據點을 두고 管内에 出沒中인 金鎮九가 지휘하는 第4地區黨 殘匪의 動向에 對하여 銳意 注視하면서 이를 격멸코자 潛伏을 強化하고 있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7월 2일 19.50 第4地區黨殘匪 20명은 總賁 金鎮九指揮下에 東萊郡 長安面 「박치기골」附近에 위치한 鐵橋 폭파를 목적으로 機動中에 있었다. 이때 同橋梁을 경비중이던 查察유격대는 敵을 至近距離까지 접근하기를 기다렸다가 伏擊戰法으로 敵을 奇襲하여 我軍의 被害없이 射殺 3명, 生捕 2명의 戰果를 거두고 追擊戰끝에 7명을 投降케 하였다.

查察유격대는 패주하는 敵을 계속 追擊하였으나 이를 捕捉치 못하고 작전을 終了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이때 사로잡은 捕虜의 陳述에 의하여 共匪들은 「박치기골」鐵橋를 爆破하여 國軍과 UN軍의 前方補給을 妨礙키로 決定하였다고 한다. 이에 警察은 京釜間 鐵道와 軍主補給路豫備에 全力을 기울여기에 이르렀다.

§ 參戰者의 證言

◇ 東萊署查察遊擊隊 鄭康吉 의경

上部的 상황판단이 賢明하였고 또 查察主任지휘아래 유격대원도 잘참고 잘 싸운 관계로 敵을 격파하여 철교가 보존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附 錄

1. 作指・訓令
2. 年 表
3. 戰歿者名單
4. 索 引

1. 作指·訓令

가) 作指

부록 제 1 호

作戰指示 第271號

1953. 1. 3 08. 30

陸本 作戰指示 第269號(1952. 12. 25 10. 00附)의 2項 “가”의 3列 「金泉(DQ2198)」을 蔚洞(CS 3265)으로 訂正한다.

부록 제 2 호

作戰指示 第272號

1953. 1. 4 14. 00

1. 第1202建設工兵團長

가. 1953. 1. 7附로 第201建設工兵大隊本部 및 本部中隊를 鐵道輸送으로서 現 位置로부터 淸涼里(CS 3264)로 移動시키라.

나. 移動에 必要한 鐵道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室)에 提出하라.

다. 部隊가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 3 호

作戰指示 第273號

1953. 1. 7

1. 第229輸送自動車大隊長

가. 1953. 2. 20. 00. 01附로 第800輸送自動車中隊를 統合指揮하라.

부록 제 4 호

作戰指示 第274號

1953. 1. 6 16. 00

1. 第1教育旅團長(暫定)

가. 1953. 1. 12附로 第1教育旅團(暫定) 工兵大隊를 鐵道, 自動車 및 船舶輸送으로서 現 位置로부터 東草(DT 6420) 釜山(EP 0588) 龜祖(EP 0095) 經由 金海(DP 8998)로 移動시키라.

나. 目的地 到着과 同時附로 第1105野戰工兵團에 配屬한다.

다. 移動에 必要한 鐵道, 自動車 및 船舶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室)에 提出하라.

2. 第1105野戰工兵團長

가. 第1教育旅團(暫定) 工兵大隊가 到着하면 統合指揮하라.

3. 第1教育旅團(暫定) 工兵大隊長

가. 目的地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 5 호

作戰指示 第275號

1953. 1. 6 16. 30

1. 第11野戰砲兵團長

가. 1953. 1. 14附로 第11野戰砲兵團本部 및 本部砲隊(服務隊 第71. 72砲兵大隊 예속)는 自隊輸送으로

1024 附 錄

現 位 置 서울(CS 2055)로부터 四方巨里(CT 8329)로 移動하라.

目的地到着과 同時附로 陸本 直轄로부터 第2軍團에 配屬한다.

나. 先發隊의 移動 및 編成에 關하여 協議次 第2軍團과의 直接通信을 承認한다. 先發隊는 1953.1.8

16.00까지 第2軍團(CP)에 到着시켜 軍團長에게 報告하고 그의 指示를 받게 하라.

다.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 6 호

作戰指示 第276號

1953. 1. 19

1. 陸軍本部 作戰教育局心理戰課長

가. 1953. 1. 20附 心理戰將校 12名과 士兵 9명으로서 構成한 心理戰組를 航空輸送으로서 現位置(大邱)로부터 濟州島(BM 437 795)로 移動시키라.

나. 兵力輸送에 必要한 航空輸送申請書를 陸本(G-4)에 提出하라.

다.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2. 第1訓練所長

陸本 心理戰課에서 差出した 心理戰組가 目的地에 到着하면 同時附로 約 45日間 行政 및 軍需支援上 配屬한다.

부록 제 7 호

作戰指示 第277號

1953. 1. 19

1. 第53兵器彈藥中隊長

1953. 1. 19附로 第53兵器彈藥中隊로 現地에서 陸本 直轄로부터 美 第314兵器團에 配屬한다.

2. 第58兵器彈藥中隊長

1953. 1. 19附로 第58兵器彈藥中隊를 現地에서 陸本 直轄로부터 美 第314兵器團에 配屬한다.

부록 제 8 호

作戰指示 第278號

1953. 1. 21

1. 砲兵 第100大隊長

砲兵 第100大隊를 1953. 1. 21. 00. 01附로 現位置 서울(CS 2454)에서 陸本 直轄로부터 美 第1軍團에 配屬한다.

2. 砲兵 第101大隊長

砲兵 第101大隊를 1953. 1. 21 00. 01附로 現位置 서울(CS 2454)에서 陸本直轄로부터 美 第9軍團에 配屬한다.

부록 제 9 호

作戰指示 第279號

1953. 1. 23 12. 00

第50兵器大隊長

1953. 2. 1. 00. 01附로 50兵器大隊(本部 및 本部班 52. 55 彈藥中隊)를 陸本直轄로부터 現位置에서 美 第314兵器彈藥團에 配屬한다.

부록 제10호

作戰指示 第280號

1953. 1. 26 10.00

1. 第225輸送自動車大隊長

1953. 1. 27. 00.01附로 第807輸送自動車中隊를 現位置에서 配屬을 解除하고 第227輸送自動車大隊에 原隊復歸시키라.

부록 제11호

作戰指示 第281號

1953. 1. 28

1. 第1202建設工兵團長

가. 1953. 1. 28附로 第305作業工兵大隊 第2中隊를 鐵道輸送에 依하여 現位置 論山으로부터·묵동(CS 3265)으로 移動시키라.

나. 鐵道 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室)에 提出하라.

다.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토록 하라.

부록 제12호

作戰指示 第282號

1953. 1. 27

1. 第1巡察隊長

가. 1953. 2. 3 附로 現位置 大邱(DQ-6570)로부터 金浦(BS 9866)로 鐵道輸送에 依하여 移動하라.

나. 目的地 到着과 同時附로 陸本直轄로부터 美第4戰鬪飛行團에 配屬한다.

2. 第2巡察隊長

가. 1953. 2. 3附로 現位置 大邱로부터 水原(CS 2528)으로 鐵道 輸送에 依하여 移動하라.

나. 目的地 到着과 同時附로 陸本 直轄로부터 北部地區 警備司令部에 配屬한다.

3. 가. 各 部隊는 移動에 必要한 鐵道輸送 申請書를 陸本(輸送監室)에 提出하라.

나. 各 部隊는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13호

作戰附示 第283號

1953. 1. 28

1. 第202兵器團長

가. 1953. 2. 1附로 第202兵器團(本部 및 本部班)은 自隊輸送으로서 現位置 서울(CS 2055)로부터 春川(CS 8893)으로 移動하라.

나.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14호

作戰指示 第284號

1953. 1. 28

1. 第301鐵道運用大隊長

가. 1953. 2. 1. 00.01附로 現在 韓國後方管區司令部(KCZ)에 配屬중인 第301輸送鐵道運用大隊 第2中隊 車輛修理小隊를 現位置에서 美 第2輸送鐵道運用團에 配屬하며 同時附로 美 第765輸送鐵道勤務大隊에 配屬된다.

부록 제15호

作戰指示 第285號

1953. 2. 2

1. 治安局 非常警備司令官

(1) 1953. 2. 3. 10. 00부터 別命有할 時까지 下記와 如히 各단케볼 中繼所에 警察兵力을 差出하여 警備에 臨하게 하라.

가) 密陽(DQ 7825)에 10名

나) 蔚山(EQ 3431)에 15名

다) 金泉(DQ 2197)에 10名

라. 永同(CR 9004)에 10名

마) 天安(CR 3886)에 5名

計 50名

(2) 差出 兵力이 各中繼所에 到着하면 現地責任者와 警備事項에 關하여 協議토록 하라.

부록 제16호

作戰指示 第286號

1953. 2. 6

第1教育旅團長(暫定)

1953. 2. 6. 00. 01附로 第1教育旅團(缺 工兵大隊)을 現地(襄陽)에서 陸本 直轄로부터 美 第10軍團에 配屬한다.

부록 제17호

作戰指示 第287號

1953. 2. 19

第59彈藥中隊長

가. 1953. 2. 15. 00. 01附로 第59彈藥中隊를 現位置(海雲臺)에서 陸本 直轄로부터 韓國 後方地區司令部에 配屬함과 同時 美 第2兵站基地司令部 第226兵器基地廠 第335兵器彈藥大隊에 配屬한다.

부록 제18호

作戰指示 第288號

1953. 2. 15

1. 教育總監

가. 1953. 2. 22附로 第58戰車中隊를 鐵道 및 自陸 輸送으로서 現位置로부터 春川(CS 875931) 經由 別洞(CT 850426)로 移動시키라.

나. 目的地에 到着과 同時附로 第58戰車中隊를 陸本 直轄로부터 第2軍團에 配屬한다.

다. 將校 1名 士兵 12名으로 編成된 先發隊를 1953. 2. 21. 16. 00까지 第2軍團에 到着시켜 軍團長의 指示를 받게 하라.

라. 移動에 必要한 鐵道 輸送申請書を 陸本(輸送監室)에 提出하라.

2. 第58戰車中隊長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19호

作戰指示 第289號

1953. 2. 15

第20師團長

1953. 2. 9. 00. 01附로 第20師團(工兵隊缺)을 現地에서 陸本 直轄로부터 美10第軍團에 配屬한다.

부록 제20호

作戰指示 第290號 1953. 2. 16

第229輸送自動車大隊長

作戰指示 第273號(1953. 1. 7附)中의 가項 1953. 1. 15. 00. 01附를 1953. 2. 2. 00. 01附로 訂正한다.

第1訓練所長

作戰指示 第273號(1953. 1. 7附)中 2의 가項 1953. 1. 15. 00. 01 附를 1953. 2. 20. 00. 01附로 訂正한다.

부록 제21호

作戰指示 第291號 1953. 2. 23

1. 第12野戰砲兵團長

가. 1953. 3. 1附로 第12野戰砲兵團本部 및 本部砲隊(盟務隊, 第73. 75砲兵大隊 隸屬)는 鐵道 輸送으로서 現位置 光州(CP 1091) 附近으로부터 서울(CS 2055)로 移動하라.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나. 移動에 必要한 鐵道 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室)에 提出하라.

다. 서울 到着과 同時 砲兵監 直接監督下에 編制表 第7號에 依한 裝備를 갖추고 그 結果를 陸本(G-3)에 報告하라.

라. 裝備受領後 別命 有할時 後達하는 目的地에 自隊輸送으로서 移動할 수 있는 準備를 갖추라.

2. 砲兵監

第12野戰砲兵團이 서울 到着後 裝備受領狀況을 監督하고 其 進捗事項을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22호

作戰指示 第292號 1953. 2. 23

1. 第1105野戰工兵團長

가. 1953. 2. 28附로 第20師團野戰工兵大隊를 現位置 金海(DP 9098)로 부터 鐵道 輸送에 依하여 春川(CS 8893) 다음 自動車 輸送에 依하여 林唐里(DT 1728)까지 移動시키라.

目的地에 到着함과 同時附로 原隊復歸함과 同時 陸本 直轄로부터 美 第10軍團에 配屬한다.

나. 移動에 必要한 鐵道 및 自動車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室)에 提出하라.

2. 第20師團野戰工兵大隊長

部隊가 林唐里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23호

作戰指示 第293號 1953. 2. 23

第1201建設工兵團長

가. 1953. 3. 3附로 第203建設工兵大隊 1個中隊를 鐵道 및 海路 輸送에 依하여 現位置 慶州(EQ 7664)로부터 濟州道 琴瑟浦(BM 4680)로 移動시키라. 部隊가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

1028 附 錄

告하라.

나. 移動에 必要한 鐵道 및 海路 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室)에 提出하라.

부록 제24호

作戰指示 第294號

1953. 3. 3

1. 第80兵器大隊長

1953. 3. 5. 00. 01附로 第100兵器大隊를 現地(春川)에서 第80兵器大隊로부터 配屬解除하여 美 第314兵器彈藥團에 配屬한다.

부록 제25호

作戰指示 第295號

1953. 3. 3

1. 第1202建設工兵團長

가. 195. 3. 10로 第305工兵作業大隊 第2中隊를 鐵道輸送으로서 現位置墨洞(CS 3265)으로부터 論山(CQ 2809)으로 移動시키라.

나. 移動에 必要한 鐵道 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室)에 提出하라.

다. 部隊가 論山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26호

作戰指示 第296號

1953. 3. 5

第71. 72化學勤務大隊長

가. 1953. 3. 10附로 第71. 72化學勤務中隊는 現位置 서울(CS. 2838)로부터 鐵道輸送으로서 釜山(EP 0484)으로 移動하라.

目的地 到着하면 美 第92化學勤務中隊로부터 配屬(教育上) 解除하여 美 第95化學勤務中隊에 配屬한다.

나. 移動에 必要한 鐵道 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室)에 提出하라.

다.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27호

作戰指示 第297號

1953. 3. 8

1. 心理戰課長

가. 1953. 3. 16附로 心理戰組를 航空輸送에 依하여 現位置 濟州道(BM 4580)로부터 大邱(DQ 6369)로 移動시키라.

나. 必要한 航空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室)에 提出하라.

다. 目的地 到着時間을 陸本(G-3)에 報告하라.

2. 第1訓練所長

將校 3名 士兵 1名을 別途指示 있을 때까지 第1訓練所에 行政 및 後方 支援上 繼續 配屬한다.

부록 제28호

作戰指示 第298號

1953. 3. 10

第71.72化學勤務中隊長

陸本 作戰指示 第296號(1953. 3. 5) “가”의 4列 및 5列 「目的地 到着하면 美 第92化學勤務中隊로 配屬한다」를 『目的地 到着과 同時附로 部隊는 美 第92化學勤務中隊로부터 配屬(教育上) 解除하여 KCOMZ 基地司令部 美 第95化學勤務中隊에 作戰上 配屬한다』로 修正한다.

부록 제29호

作戰指示 第299號

1953. 3. 12

1. 第12野戰砲兵團長

가. 1953. 3. 20附로 第12野戰砲兵團(醫務隊 第73.75大隊 隸屬)은 自隊輸送으로서 現位置 서울(CS 2055)에서 四方巨里(CT 8329)로 移動하라.

目的地 到着과 同時附로 作戰指揮權을 陸本 直轄로부터 第2軍團長에게 移讓한다.

나. 先發隊의 編成 및 移動에 關하여 協議次 第2軍團長과의 直接通信을 許可한다.

다. 移動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30호

作戰指示 第300號

1953. 3. 20

1. 第15野戰砲兵團長

가. 1953. 3. 29附로 第15野戰砲兵團(醫務隊 第76.77大隊 隸屬)은 鐵道輸送으로서 現位置 光州(CP 1091)로부터 서울(CS 2055)로 移動하라.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나. 서울 到着과 同時 砲兵監 監督下에 編制表 第7號에 依한 裝備를 갖추고 其 結果를 陸本(G-3)에 報告하라.

다. 裝備受領後 後送하는 目的地에 自隊輸送으로 移動할 準備를 하라.

라. 移動에 必要한 鐵道 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室)에 提出하라.

2. 砲兵監

第15野戰砲兵團이 서울에 到着後 裝備受領 狀況을 監督하고 進捗狀況을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31호

作戰指示 第301號

1953. 3. 2

第101兵器彈藥中隊長

1953. 3. 20 00.01附로 第101兵器彈藥中隊는 現地 春川(CS 8892)에서 作戰指揮權이 總參謀長으로부터 美 第314兵器彈藥團에 移讓된다.

부록 제32호

作戰指示 第302號

1953. 3. 19

1. 第33野戰通信運用中隊長

가. 1953. 4. 1附로 現位置 河陽(DQ 8474)으로부터 鐵道 및 自動車 輸送에 依하여 春川 經由 冠岱里

(DT 2207)로 移動하라.

目的地 到着과 同時附로 作戰指揮權은 陸本 直轄로부터 美 第10軍團長에게 移讓된다.

나. 移動에 必要한 鐵道 및 自動車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室)에 提出하라.

다.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33호

作戰指示 第303號

1953. 3. 20

第71通信架設大隊長

가. 1953. 3. 25附로 第1中隊를 自隊輸送에 依하여 現位置 花園(DQ 5913)에서 淸平里(CS 6277)로 移動시키라.

目的地 到着과 同時附로 作戰指揮權은 總參謀長으로부터 美 第26通信架設大隊長에게 移讓된다.

나.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34호

作戰指示 第304號

1953. 3. 22

1. 第82通信倉庫中隊長

가. 1953. 3. 27附로 第82通信倉庫中隊는 鐵道輸送으로서 現位置 大邱(DQ 6169)로부터 大田(CR 5920)으로 移動하라.

나. 鐵道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室)에 提出하라.

다.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35호

1. 教育總監

가. 1953. 4. 5附로 第1戰車大隊本部 本部中隊 및 勤務中隊를 鐵道 및 自動車 輸送으로서 現位置 光州(CP 1091)에서 春川(CS 8793) 經由 四方巨里(CT 8329)로 移動시키라 目的地 到着과 同時附로 第1戰車中隊의 作戰指揮權은 總參謀長으로부터 第2軍團長에게 移讓된다.

나. 鐵道 및 自動車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室)에 提出하라.

2. 第1戰車大隊長

目的地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3. 直接通信을 許可한다.

부록 제36호

作戰指示 第306號

1953. 3. 28

第1106野戰工兵團長

가. 1953. 4. 2附로 第1106野戰工兵團本部 및 本部中隊(第605 輕裝備中隊 및 第115野工大隊 隸屬)는 鐵道 및 車輛으로서 現位置 金海(DP 9098)에서 春川經由 桃村里(DT 1514)로 移動하라.

目的地 到着과 同時附로 作戰指揮權은 總參謀長으로부터 美 第10軍團長에게 移讓된다.

나. 鐵道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에게 提出하라.

다.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37호

作戰指示 第307號

1953. 4. 11

1. 第21師團長

1953. 4. 15. 00. 01附트 第21師團을 現地에서 陸本 直轄로부터 第1軍團에 配屬한다.

부록 제38호

作戰指示 第308號

1953. 4. 16

1. 第73通信架設大隊長

가. 1953. 4. 20附로 第2中隊를 自隊輸送에 依하여 現位置 江陵(DS 9178)에서 冠堡里(DT 2207)로 移動시키라.

目的地 到着과 同時附로 作戰指揮權은 總參謀長으로부터 美 第10軍團長에게 移讓된다.

나. 1953. 5. 1附로 第56通信架設中隊를 自隊輸送에 依하여 現位置 江陵에서 東草(DT 5620)로 移動시키라.

2. 第73通信架設大隊 第2中隊長

目的地에서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3. 第56通信架設中隊長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39호

作戰指示 第309號

1953. 4. 17

가. 1953. 4. 20附로 第15野戰砲兵團(醫務隊 第76. 77大隊 隸屬)은 自隊輸送으로서 現位置 서울(CS 2055)에서 四方巨里(CT 8329)로 移動하라.

目的地 到着과 同時附로 作戰指揮權은 陸本 直轄로부터 第2軍團長에게 移讓된다.

나. 先發隊의 編成 및 移動에 關하여 協議次 第2軍團長과의 直接通信을 許可한다.

다. 移動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40호

作戰指示 第310號

1953. 4. 17

1. 陸軍 砲兵學校長

가. 1953. 4. 25附로 第1軍團砲兵團本部 및 本部砲隊를 鐵道輸送에 依하여 現位置 光州(CP 1091)에서 서울(CS 2055)로 移動시키라.

나. 移動에 必要한 鐵道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에 提出하라.

다. 目的地에 到着하면 第1軍團砲兵團長은 陸本(G-3)에 報告하라.

라. 서울 到着과 同時 砲兵監 監督下에 編制表 20~ROKASU 第7節 5欄(1953. 3. 1附)에 依한 兵站 裝備를 受領케 하라.

다. 裝備 受領後 後送하는 目的地에 移動할 準備를 갖추도록 하라.

2. 砲兵監

第1軍團砲兵團本部 및 本部砲隊가 서울 到着後 裝備受領 狀況을 監督하고 其 進捗事項을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41호

作戰指示 第311號

1953. 4. 18

1. 第2憲兵大隊長

가. 1953. 4. 26附로 第6中隊(一)를 自動車 輸送에 依하여 現位置 安東(DQ 7547)으로부터 江陵(DS 9178)으로 移動시켜 第7中隊 및 第3憲兵小隊의 任務을 交代시키라.

나. 1953. 4. 29附로 第7中隊를 自動車 輸送에 依하여 江陵으로부터 冠堂里(DT 2207)로 移動시키라. 目的地에 到着과 同時附로 作戰指揮權은 美 第10軍團長에게 移讓된다.

다. 必要한 自動車 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에 提出하라.

2. 第3憲兵小隊長

가. 現任務를 第2憲兵小隊長에게 引繼하고 1953. 4. 29附로 第3憲兵小隊는 自動車 輸送에 依하여 現位置 注文津(DS 8594)으로부터 冠堂里로 移動하라.

目的地에 到着과 同時附로 作戰指揮權은 總參謀長으로부터 美 第10軍團長에게 移讓된다.

나. 必要한 自動車 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에 提出하라.

라.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3. 第2憲兵大隊 第7中隊長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42호

作戰指示 第312號

1953. 4. 26

第6調達補給中隊長

가. 1953. 4. 27附로 第6調達補給中隊는 鐵道輸送으로 現位置 釜山(EP 0586)에서 大邱(DQ 6469)로 移動하라.

나. 鐵道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에 提出하라.

다. 移動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43호

作戰指示 第313號

1953. 4. 28

1. 第1憲兵大隊長

第2憲兵大隊長

第5憲兵大隊長

가. 1953. 5. 1. 00. 01附로 第 1. 2. 5憲兵大隊의 管轄區域을 別紙透明圖와 如히 設定한다.

나. 第1憲兵大隊와 第5憲兵大隊間의 區域地境線에 있는 各都邑 및 道路는 第1憲兵大隊長에게 第2憲兵大隊와 第5憲兵大隊間의 區域線에 있는 各都邑 및 道路는 第5憲兵大隊長에게 各各屬한다.

다. 各 大隊長은 別紙透明圖에 依한 區域內에서 一般 憲兵任務를 繼續遂行하라.

부록 제44호

作戰指示 第314號 1953. 5. 2

第805工兵整備中隊長

가. 1953. 5. 7附로 第805工兵整備中隊는 鐵道 및 自動車 輸送에 依하여 現位置 永登浦(CS 1654)에서 春川(CS 8893) 經由 楊口(DT 1117)로 移動하라.

나. 鐵道 및 自動車 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室)에 提出하라.

다. 移動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45호

作戰指示 第315號 1953. 5. 2

陸軍 砲兵學校長

가. 1953. 5. 5附로 第1軍團砲兵團本部 및 本部砲隊를 第2軍團에서 提供하는 自動車로 現位置 서울(CS 2569)로 부터 四幕洞(CT 8737)으로 移動시키라. 目的地에 到着하면 作戰指揮權은 總參謀長으로부터 第2軍團長에게 移讓된다.

나. 移動하면 第1軍團 砲兵團長은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46호

作戰指示 第316號 1953. 5. 4

第3軍團長

1953. 5. 1附로 第3軍團本部 本部中隊 및 醫務隊의 作戰指揮權을 現地 仁亭里(DT 570415)에서 總參謀長으로부터 美 第10軍團長에게 移讓한다.

부록 제47호

作戰指示 第317號 1953. 5. 4

1. 第2憲兵大隊長

作戰指示 第311號(1953. 4. 18) "1"의 "나"의 3. 4行을 取消하고 다음과 같이 訂正한다.

5. 1項 目的地에 到着하면 作戰指揮權은 總參謀長으로부터 第3軍團長에게 移讓된다.

2. 第3憲兵小隊長

作戰指示 第311號(1953. 4. 18) "2"의 "가"의 4. 5行을 取消한다.

부록 제48호

作戰指示 第318號 1953. 5. 4

1. 第78砲兵大隊長

第79砲兵大隊長

가. 1953. 5. 9附로 第78. 79砲兵大隊는 鐵道輸送으로서 現位置 光州(CP 1091)로부터 서울(CS 2569)로 移動하라 移動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나. 서울 到着과 同時 砲兵監 監督下에 編制表 7~ROKA 14欄에 依한 裝備를 갖추고 其 結果를 陸本(G-3)에 報告하라.

1034 附 錄

- 다. 裝備受領後 後進하는 目的地에 自隊輸送으로 移動할 準備를 하라.
라. 鐵道 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에 提出하라.

2. 砲兵監

第78.79砲兵大隊가 서울에 到着後裝備受領 狀況을 監督하고 進歩狀況을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49호

作戰指示 第319號

1953. 5. 4

1. 教育總監

- 가. 1953. 5. 7附로 第60戰車中隊를 鐵道 및 海路輸送에 依하여 現位置 光州(CP 1001)로부터 群山(BQ 9584) 經由 束草(DT 648288)로 移動시키라.
나. 1953. 5. 15附로 第2戰車大隊本部, 本部中隊 및 勸務中隊를 鐵道 및 海路輸送에 依하여 現位置 光州로부터 群山 經由 束草로 移動시키라.
다. 目的地 到着과 同時로 第2戰車大隊 및 第60戰車大隊 의 作戰指揮權은 總參謀長으로부터 第1軍團長에게 移讓된다.
라. 鐵道 및 船舶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에 提出하라.

2. 第2戰車大隊長

第60戰車中隊長

移動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3. 直接 通信을 許可한다.

부록 제50호

作戰指示 第320號

1953. 5. 5

- 가. 1953. 5. 12附로 第1兵站團 및 本部中隊는 鐵道輸送으로서 現位置 서울(CS 2569)로부터 春川(CS 8893)으로 移動하라.
나. 鐵道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에 提出하라.
다. 移動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

부록 제51호

作戰指示 第321號

1953. 5. 5

1. 第1801技術工兵團長

- 가. 1953. 5. 9附로 第1303工兵補給中隊를 鐵道 및 自隊輸送으로서 現位置永登浦(CS 1554)로부터 春川 經由 倉里(DT 1417)로 移動시키라.
나. 鐵道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에 提出하라.
다. 移動하면 陸本(G-3)에 報告 하라.
-

부록 제52호

作戰指示 第322號

1953. 5. 10

第1憲兵大隊長

1953. 5. 13 03.00附로 第1憲兵大隊 第2中隊 1個 小隊의 作戰指揮權을 現位置에서 總參謀長으로부터 美 第1軍團長에게 移讓한다.

부록 제53호

作戰指示 第323號

1953. 5. 8

1. 教育總監

가. 作戰指示 第319號(1953. 5. 4附) "1"의 "나" 2.3行을 取消하고 다음과 같이 訂正한다.

鐵道 및 自動車 輸送에 依하여 現位置 光州로부터 春川 經由 東草로 移動하라.

나. 作戰指示 第319號 "1"의 "라"에 自動車 輸送申請書를 附加한다.

부록 제54호

作戰指示 第324號

1953. 5. 13

1. 第16兵器輕整備中隊長

가. 1953. 1. 5附로 第16兵器輕整備中隊는 鐵道 및 自衛輸送으로서 現位置 光州(CP 1191)에서 慶山(DQ 7763) 經由 孤山(DQ 7367)으로 移動하라.

나. 移動에 必要한 鐵道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室)에 提出하라.

다.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55호

作戰指示 第325號

1953. 5. 14

1. 陸軍砲兵學教長

가. 1953. 5. 18附로 第3軍團砲兵司令部 및 本部砲隊를 鐵道 輸送에 依하여 現位置 光州(CP-1091)에서 서울(CS 2055)로 移動시키라.

나. 移動에 必要한 鐵道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에 提出하라.

다. 目的地 到着하면 第3軍團砲兵司令官이 直接 陸本(G-3)에 報告하도록하라.

라. 서울 到着과 同時 砲兵監 監督下에 編制表 20~ROKASU 第7節 5欄(1953. 3. 1附)에 依한 裝備를 受領케 하라.

2. 砲兵監

가. 第3軍團砲兵司令部 및 本部砲隊가 서울 到着後 裝備受領 狀況을 監督하고 共通事項을 陸本(G-3)에 報告하라.

나. 1953. 5. 25頃에 裝備完了하면 第3軍團砲兵司令部 및 本部砲兵隊를 自隊輸送에 依하여 現位置 서울로부터 임당리(DT 1629)로 移動시키라. 目的地에 到着함과 同時 作戰指揮權은 總參謀長으로부터 第3軍團長에게 移讓한다.

부록 제56호

作戰指示 第326號

1953. 5. 19

第817輸送自動車中隊長

1953. 5. 18. 00. 01附로 第817輸送自動車中隊의 作戰指揮權을 現位置 東草(DT 6529)에서 總參謀長으로부터 KCOMZ의 韓國基地司領官에게 移讓한다.

부록 제57호

作戰指示 第327號

1953. 5. 16

軍은 南營司와 中營司間의 戰鬪地境線을 一部 變更하러함.

1. 南部地區警備司令官

가. 1953. 5. 25. 00. 01附로 透明圖에 依한 地區의 責任을 兩營司領官으로부터 引受하라.

나. 同時附로 同地區內의 警察部隊를 統合指揮하라.

부록 제58호

作戰指示 第328號

1953. 5. 15

第1105野戰工兵團長

가. 1953. 5. 20附로 第101野戰工兵大隊를 鐵道 및 自動車 輸送으로 現位置 金海(DP 9098)에서 春川(CS 8893)經由松村(DT 1616)으로 移動시키라.

나. 必要한 鐵道 및 自動車申請書를 陸本(輸送監)에 提出하라.

다. 移動하면 第101野戰工兵大隊長으로 하여금 陸本(G-3)에 報告케 하라.

부록 제59호

作戰指示 第329號

1953. 5. 19

第233輸送自動車大隊長

1953. 5. 20. 00. 01附로 第233輸送自動車大隊(一317)의 作戰指揮權을 現位置 春川(CS 8392)에서 總務課長으로부터 美 第351 陸路運用團長에게 移讓한다.

부록 제60호

作戰指示 第330號

1953. 5. 20

第90兵器大隊長

가. 1953. 5. 25附로 第36兵器輕車輛整備中隊를 鐵道 및 自隊輸送으로서 現位置 孤山(DQ 7267)에서 春川(CS 8893) 經由 天津里(DT 6134)로 移動시키라. 目的地에 到着하면 第36兵器輕車輛整備中隊長이 陸本(G-3)에 報告케 하라.

나. 1953. 6. 5附로 第90兵器大隊(本部 및 本部班)는 鐵道 및 自隊輸送으로서 現位置 孤山에서 議政府(CS 2878) 經由 永坪里(CT 4308)로 移動하라.

다. 必要한 鐵道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에 提出하라.

라. 移動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61호

作戰指示 第331號

1953. 6. 1

1. 第20野戰砲兵團長

가. 1953 6. 7附로 第20野戰砲兵團(醫務隊 第161 169大隊隸屬)은 鐵道輸送으로서 現位置 光州(CP 1091)로부터 서울(CS 2055)로 移動하라.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나. 서울 到着과 同時 砲兵監 監督下에 編制表 第7號에 依한 裝備를 갖추고 其 結果를 陸本(G-3)에 報告하라.

다, 裝備受領後 後送하는 目的地에 自隊輸送으로 移動한 準備를 하라.

2. 砲兵監

第20野戰砲兵團이 서울에 到着後 裝備受領 狀況을 監督하고 進捗狀況을 陸本에 (G-3) 報告하라.

부록 제62호

作戰指示 第332號

1953. 6. 3

北部地區 警備司令官

1953. 6. 3. 00. 01附로 第2巡察隊의 作戰指揮權을 現地에서 北警司令部에서 KCOMZ의 韓國基地司令部 第21輸送中 港灣司令官에게 移讓된다.

부록 제63호

作戰指示 第333號

1953. 6. 6

1. 砲兵第205大隊長

1953. 6. 5. 00. 01附로 砲兵第205大隊의 作戰指揮權을 現地 서울(CS 2055)에서 總參謀長으로부터 美 第2師團長에게 移讓한다. (作戰上 緊急하여 事前處置함)

2. 砲兵第631大隊長

1953. 5. 00. 01附로 砲兵第631大隊의 作戰指揮權을 現地 서울(CS 2055)에서 總參謀長으로부터 美 第3師團長에게 移讓한다. (作戰上 緊急하여 事前處置함)

부록 제64호

作戰指示 第334號

1953. 6. 6

1. 砲兵第187大隊長

1953. 4. 27. 00. 01附로 第187大隊의 作戰指揮權을 現地 서울(CS 2055)에서 總參謀長으로부터 美 第7師團長에게 移讓한다. (作戰上 緊急하여 事前處置함)

2. 砲兵 第629大隊長

1953. 4. 27. 00. 01附로 第629大隊의 作戰指揮權을 現地 서울(CS 2055)에서 總參謀長으로부터 美 第25師團長에게 移讓한다. (作戰上 緊急하여 事前處置함)

부록 제65호

作戰指示 第335號

1953. 6. 6

1. 教育總監

가. 1953. 6. 10附로 第3戰車大隊本部, 本部 및 勤務中隊를 鐵道 및 自隊輸送으로서 現位置 光州 (OP 1091)에서 新炭里(CT 375 305) 經由 馬山里(CT 7235)로 移動시키라.

目的地에 到着과 同時附로 第3戰車大隊의 作戰指揮權을 總參謀長으로부터 美9第軍團長에게 移讓된다.

나. 鐵道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室)에 提出하라.

2. 第3戰車大隊長

移動하던 陸本(G-3)에 報告하라.

3. 直接 通信을 承認한다.

부록 제66호

作戰指示 第336號

1953. 6. 11

第7鐵路班長

第8鐵路班長

第8水路班長

第9水路班長

1953. 6. 12. 00. 01附로 第7鐵路班은 現地 裡里(CQ 1678)에서 第8鐵路班은 現地 永登浦(CS 1555)에서 第8水路班은 現地 群山(BQ 9385)에서 第9水路班은 現地 注文津(DS 8595)에서 各各 陸本 直轄로부터 行政補給 및 作戰上 第303交通管理團에 配屬한다.

부록 제67호

作戰指示 第337號

1953. 6. 10

1. 第58通信架設中隊長

1953. 6. 18附로 第58通信架設中隊는 鐵道輸送으로 現位置 花僊(DQ 5562)에서 淸平 經由 하가계(CT 528052)로 移動하라.

到着과 同時附로 作戰指揮權은 總參謀長으로부터 美 第9軍團長에게 移讓된다.

2. 第52通信架設中隊長

1953. 6. 23附로 第52通信架設中隊는 鐵道輸送으로 現位置 全州(CQ 3365)에서 議政府(CS 2886)로 行動하라.

到着과 同時附로 作戰指揮權은 總參謀長으로부터 美 第1軍團長에게 移讓된다.

3. 必要한 鐵道輸送申請書를 各各 陸本(輸送監)에 提出하라.

4. 移動하면 各各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68호

作戰指示 第338號

1953. 6. 10

南部地區警備司令官

中部地區警備司令官

1953. 6. 12. 00. 01附로 南警司本部 및 中警司本부의 作戰指揮權을 總參謀長으로부터 KCOMZ에 移讓한다.

부록 제69호

作戰指示 第339號

1953. 6. 12

第78砲兵大隊長

第79砲兵大隊長

1. 가. 1953. 6. 14附로 第78. 79砲兵大隊는 自隊輸送으로서 現地 서울(CS 2569)에서 第78砲兵大隊는 縣里(DT 0729)로 第79砲兵大隊는 坪村(DT 3135)으로 各各 移動하라.

到着과 同時附로 作戰指揮權은 總參謀長으로부터 美 第10軍團長에게 移讓된다.
나. 移動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70호

作戰指示 第340號 1953. 6. 12
第235輸送自動車大隊長

1953. 6. 15. 00. 01附로 第235輸送自動車大隊의 作戰指揮權을 現地 原州(DS 0734)에서 總參謀長으로부터 美 第351陸路輸送團長에게 移讓한다.

부록 제71호

作戰指示 第341號 1953. 6. 16

1. 第91化學煙幕製造中隊長

가. 1953. 6. 20附로 第91化學煙幕製造中隊長은 鐵道輸送으로 現位置 大邱(DQ 6369)에서 釜山(EP 0586)으로 이동하라.

到着과 同時附로 作戰指揮權은 總參謀長으로부터 美 第4化學煙幕製造大隊長에게 移讓된다.

나. 必要한 鐵道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에 提出하라.

다.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72호

作戰指示 第342號 1953. 6. 18

가. 1953. 6. 20附로 第2營備大隊를 自動車 및 鐵道輸送으로 現位置 求禮(CP 596970)로부터 大田 經由 勿禁(DQ 9907)으로 移動시키라 目的地 到着과 同時附로 作戰指揮權을 中部地區司令官에게 移讓하라.

나. 必要한 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室)에 提出하라.

2. 中部地區營備司令官

가. 第2營備大隊가 勿禁(DQ 9907)에 到着과 同時附로 統合指揮하라.

나. 第2營備大隊가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73호

作戰指示 第343號 1953. 6. 25

1. 第55聯隊長

가. 1953. 6. 30附로 聯隊本部 및 第1大隊는 現位置 松汀里(BP 9990) 6. 28附로 第3大隊는 現位置 論山(CR 2808)에서 南原(CQ 5319)으로 6. 26附로 第2大隊는 現位置 釜山(EP 0687)으로부터 晉州(DP 1794)로 各各 鐵道輸送에 依하여 移動하라.

2. 第35. 36捕虜營備大隊長

가. 1953. 6. 27附로 第35捕虜營備大隊는 現位置 釜山(EP 0687)으로부터 勿禁(DQ 9907)으로 6. 26附로 第36捕虜營備大隊(欠第1中隊)는 現位置 馬山(DP 6095) 第1中隊는 富平(BS 9957)에서 永同(CR 9004)으로 各各 鐵道輸送에 依하여 移動하라.

3. 第1憲兵大隊 第1.5中隊長

1953. 6. 26附로 第1憲兵大隊 第1中隊는 現位置 永川(DR 9480)에서 서울(CS 2459)로 6. 28附로 第5中隊는 現位置 論山(CR 2808)으로부터 서울(CS 2459)로 各各 鐵道輸送에 代하여 移動하라.

4. 部隊가 各各 目的地에 到着하면 第55聯隊는 南部地區警備司令官 第35. 36捕虜警備大隊는 中部地區警備司令官 第1憲兵大隊 第1. 5中隊는 憲兵總司令官에게 作戰指揮權을 移讓한다.

5. 南部地區 警備司令官

第55聯隊가 南原 및 晉州에 到着하면 統合指揮하라.

6. 中部地區 警備司令官

第35. 36捕虜警備大隊가 勿蔴 및 永同에 到着하면 統合指揮하라.

7. 各 部隊는 移動에 必要한 鐵道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察)에 提出하라.

8.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74호

作戰指示 第344號

1953. 6. 30

1. 第20野戰砲兵團長

가. 1953. 6. 29附로 第20野戰砲兵團 本部 및 本部砲隊(醫務隊 第161, 169砲兵大隊欠)는 現位置 서울(CS 2459)로부터 自隊輸送으로 瑞雲里(CT 8443)로 移動하라.

目的地 到着과 同時附로 作戰指揮權을 總參謀長으로부터 第2軍團長에게 移讓한다(作戰上 緊急하여 事前處置함)

作戰指示 第345號는 없음.

부록 제75호

作戰指示 第346號

1953. 7. 6

北部地區 警備司令官

가. 1953. 7. 7附로 第12警備大隊 第1中隊는 第2軍團에서 提供하는 車輛으로 現位置 洪川(DS 0271)에서 上大利里(CT 9116)로 移動시키라.

到着과 同時附로 作戰指揮權은 總參謀長으로부터 第2軍團長에 移讓된다.

나. 移動하면 第1中隊長으로 하여금 陸本(G-3)에 報告케 하라.

부록 제76호

作戰指示 第347號

1953. 7. 8

1. 第161砲兵大隊長

1953. 7. 8附로 第161砲兵大隊는 自隊輸送으로 現位置 서울(CS 2459)에서 廣山里(DT 490 470)로 移動하라.(作戰上 緊急하여 事前處置함)

2. 第169砲兵大隊長

1953. 7. 9附로 第169砲兵大隊는 自隊輸送으로 現位置 서울(CS 2459)에서 廣山里(DT 490 470)로 移動하라.

3. 各各 到着하면 作戰指揮權은 總參謀長으로부터 第1軍團長에게 移讓된다.

4. 各各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77호

作戰指示 第348號

1953. 7. 12

1. 南部地區營備司令官

가. 1953. 7. 12附로 第55補充教育聯隊(勤務中隊欠)를 鐵道輸送에 依하여 現位置 南原(CQ 5318)으로부터 春川(CS 8893)으로 移動시키라.

나. 目的地에 到着과 同時附로 第55補充教育聯隊의 作戰指揮權은 總參謀長에게 復歸된다.

다. 鐵道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室)에 提出하라.

라. 勤務中隊를 殘留시켜 軍需局長의 指示에 依據하여 裝備를 處理토록 하라.

2. 第55補充教育聯隊

가. 目的地에 到着하면 人事局長의 指示에 依據 人員을 處理하라.

나. 目的地 到着 時間을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78호

作戰指示 第349號

1953. 7. 13

第21砲兵團長

가. 1953. 7. 19附로 第21野戰砲兵團(醫務隊 第172, 178砲兵大隊 隸屬)은 鐵道輸送으로서 現位置 光州(CP 1091)에서 서울(CS 2455)로 移動하라.

다. 裝備受領後 後送하는 目的地에 自隊輸送으로 移動할 準備를 하라.

라. 移動에 必要한 鐵道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營)에 提出하라.

砲兵監

第21野戰砲兵團이 서울에 到着後 裝備受領 狀況을 監室하고 進捗狀況을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79호

作戰指示 第350號

1953. 7. 13

1. 砲兵 第217大隊長

1953. 7. 12. 00. 01附로 第217大隊의 作戰指揮權은 現地 서울(CS 2055)에서 總參謀長으로부터 美 第40師團長에게 移讓한다.(作戰上 緊急하여 事前處置함)

2. 砲兵 第632大隊長

1953. 7. 12. 00. 01附로 第632大隊의 作戰指揮權은 現地 서울(CS 2055)에서 總參謀長으로부터 美 第40師團長에게 移讓한다.(作戰上 緊急하여 事前處置함)

부록 제80호

作戰指示 第351號

1953. 7. 15

第22師團長

1953. 7. 14 07. 30附로 第22師團의 作戰指揮權은 現地 襄陽(DT 6717)에서 總參謀長으로부터 第1軍團長에게 移讓한다.(作戰上 緊急하여 事前 處置함)

부록 제81호

作戰指示 第352號

1953. 7. 17

1. 中部地區 警備司令官

가. 1953. 7. 18附로 第2警備大隊를 梁山(EQ 0410)에 集結시켜 自動車輸送에 依하여 釜山(EP 0588)으로 移動시키라.

到着과 同時附로 作戰指揮權은 總參謀長에게 復歸됨과 同時附로 KCOMZ司令官에게 移讓된다.

나. 自動車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室)에 提出하라.

2. 第2警備大隊長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82호

作戰指示 第353號

1953. 7. 17

1. 中部地區警備司令官

가. 1953. 7. 16附로 第35捕虜警備大隊를 勿禁(DQ 9907) 密陽(DQ 7727) 및 南省峴(DQ 7450)에 集結시켜 鐵道輸送에 依하여 全谷(CT 3010)으로 移動시키라.

나. 1953. 7. 16附로 第36捕虜警備大隊를 永同(CR 9004) 및 梨院(CR 7713)에 集結시켜 鐵道輸送에 依하여 全谷(CT 3010)으로 移動시키라.

다. 各各 到着과 同時附로 作戰指揮權은 總參謀長에게 復歸됨과 同時附로 美 第8軍司令官에게 移讓된다. (作戰上 緊急하여 事前處置함)

부록 제83호

作戰指示 第354號

1953. 7. 21

第505輸送陸路運用團長

1953. 7. 25. 00. 01附로 第505輸送陸路運用團의 作戰指揮權을 現地 春川(CS 8892)에서 總參謀長으로부터 美 第351輸送陸路運用團長에게 移讓한다.

부록 제84호

作戰指示 第355號

1953. 7. 24

1. 第71化學勤務中隊長

가. 1953. 7. 31. 00. 01附로 第71化學勤務中隊의 作戰指揮權은 現地에서 KCZ의 KBS 美 第95化學勤務中隊로부터 總參謀長에게 復歸된다.

同日附로 第71化學勤務中隊(欠 A派遣隊 O-1/E-6)는 鐵道輸送으로서 現位置 釜山(EP 0484)에서 春川(CS 8892)으로 移動하라.

나. 同日附로 A派遣隊(O-1/E-6)를 鐵道輸送으로 現位置에서 서울(CS 2759)로 移動시키라.

2. 第72化學勤務中隊長

가. 1953. 7. 31. 00. 01附로 第72化學勤務中隊의 作戰指揮權은 現地에서 KCZ의 KBS 美 第95化學勤務中隊로부터 總參謀長에게 復歸된다.

同日附로 第72化學勤務中隊(RAB派遣隊 O-2/E-12)는 鐵道 및 自動車輸送으로서 現位置 釜山(EP 0482)에서 春川(CS 8892) 經由 冠岳里(DT 2307)로 移動하라.

- 나. 同日附로 B派遣隊(O-1/E-6)를 鐵道 및 自動車 輸送으로 現位置에서 春川 經由 東草里(DT 6529)로 移動시키라.
- 다. 同日附로 A派遣隊(O-1/E-6)는 現位置에 殘留시키라.
- 3. 各各 到着과 同時附로 作戰指揮權은 總參謀長으로부터 美 第92化學勤務中隊長에게 移讓된다.
- 4. 必要한 鐵道 및 自動車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室)에 提出하라.
- 5. 到着하면 各各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85호

作戰指示 第356號

1953. 7. 28

1. 中部地區警備司令官

- 가. 1953. 7. 28. 05. 00까지 第6警備大隊 第3中隊를 三浪津(DQ 8585)에 集結시켜 鐵道輸送에 依하여 汶山(CT 0809)으로 移動시켜 人事 第212號(1953. 4. 7)에 依한 任務를 遂行케 하라.
- 나. 1953. 7. 28. 24. 00까지 第6警備大隊(一1)를 安東(DR 7545)에 集結시키라.
- 다. 1953. 7. 29附로 第6警備大隊 1個中隊를 鐵道輸送으로 安東에서 서울(CS 2454)로 移動시켜 第36 陸軍病院에 收容中인 傷病交換歸還者警備任務를 憲兵司令官으로부터 引受하고 人事 第212號에 依하여 後送되는 傷病交換歸還者의 警備任務를 遂行케 하라.
- 라. 1953. 7. 29附로 第6警備大隊(一2)를 鐵道輸送으로 安東에서 仁川(BS 9150)으로 移動시켜 人事 第212號에 依한 任務를 遂行케 하라.
- 마. 行政事項은 行政計劃 第6號(1953. 6. 25)에 依하라.
- 바. 必要한 鐵道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室)에 提出하라.
- 사. 結果를 陸本(G-3)에 報告하라.

2. 憲兵司令官

1953. 5. 15부터 第36陸軍病院에 收容中인 傷病交換歸還者警備任務를 中部地區警備司令官에게 引受하고 第1大隊 第2中隊 2個小隊를 서울에서 汶山으로 移動시키라. 到着과 同時附로, 作戰指揮權은 交換歸還者引受處理本部長에게 移讓하라.

- 3. 警備任務引繼引受는 相互 協議된 時間에 實施하라.
- 4. 交換歸還者引受處理本部長
 - 가. 憲兵 第1大隊 第2中隊 2個小隊가 汶山에 到着하면 統合指揮하라.
 - 나. 結果를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86호

作戰指示 第357號

1953. 7. 31

第2警備大隊長

第2警備大隊의 作戰指揮權은 1953. 8. 2 釜山(EP 0687)에 到着과 同時附로 KCZ로부터 總參謀長에게 復歸될과 同時附로 中部地區警備司令官에게 移讓된다.

中部地區警備司令官

第2警備大隊가 釜山에 到着과 同時附로 統合指揮하라.

부록 제87호

作戰指示 第358號

1953. 8. 2

1. 第9警備大隊 第1中隊長

第9警備大隊 第1中隊의 作戰指揮權은 1953. 8. 3 仁川(BS 9150)에 到着과 同時附로 KCZ로부터 總參謀長에게 復歸됨과 同時附로 憲兵司令官에게 移讓된다.

2. 憲兵司令官

第9警備大隊 第1中隊가 仁川에 到着과 同時附로 統合指揮하여 人事 第212號(53. 4. 7)에 依한 仁川—용초島間의 交換歸還者護送任務를 遂行하라.

부록 제88호

作戰指示 第359號

1953. 8. 3

1. 第9警備大隊長

第9警備大隊(—1)의 作戰指揮權은 1953. 8. 7. 00. 01附로 現位置 용초島(DP 5443)에서 KCZ로부터 陸軍總參謀長에게 復歸됨과 同時附로 憲兵司令官에게 移讓된다.

2. 憲兵司令官

第9警備大隊(—1)를 統合指揮하라.

부록 제89호

作戰指示 第360號

1953. 8. 4

1. 陸軍砲兵學校長

가. 1953. 8. 6附로 第2軍團砲兵團本部 및 本部砲隊를 鐵道 및 第2軍團에서 提供하는 車輛으로 現位置 光州(CP 1091)에서 春川(CS 8892) 經由 下蘆谷(CT 837 232)으로 移動시키라.

나. 目的地에 到着하면 作戰指揮權이 總參謀長으로부터 第2軍團長에게 移讓된다.

다. 必要한 鐵道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室)에 提出하라.

라. 目的地에 到着하면 第2軍團砲兵團長이 陸本(G-3)에 報告케 하라.

부록 제90호

作戰指示 第361號

1953. 8. 5

1. 第5憲兵大隊長

가. 1953. 8. 9. 09. 00附로 第18中隊의 現陸本警備任務를 陸本憲兵中隊에게 引繼하고 同日附로 鐵道輸送으로서 現位置 大邱(DQ 6569)로부터 浦項(EQ 3488)으로 移動시키라.

나. 必要한 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에 提出하라.

다.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케 하라.

2. 陸本憲兵中隊長

1953. 8. 9. 09. 00附로 陸本警備任務를 第5大隊 第18中隊로부터 引受하라.

부록 제91호

作戰指示 第362號

1953. 8. 6

第505兵器彈藥團長

1953. 8. 8. 00. 01附로 第505兵器彈藥團本部 및 本部中隊(第512大隊本部 및 本部中隊 隸屬)의 作戰指揮權은 下記 各 地點에서 總參謀長으로부터 美 第314兵器團長에게 移讓된다.

- a. 第505兵器彈藥團本部 및 本部中隊 서울(CS 2357)
- b. 第512兵器彈藥大隊本部 및 本部中隊 冠岳里(CT 2307)

부록 제92호

作戰指示 第363號 1953. 8. 6

第60通信架設中隊長

1953. 8. 10. 00. 01附로 第60通信架設中隊의 作戰指揮權은 現位置 江陵(DS 9178)에서 總參謀長으로부터 第73通信架設大隊長에게 移讓한다.

부록 제93호

作戰指示 第364號 1953. 8. 10

第86通信修理中隊長

1. 1953. 8. 13附로 第86通信修理中隊는 鐵道輸送으로 現位置 釜山(EP 0590)에서 淸川(CS 8893)으로 移動하라.
2. 必要한 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室)에 提出하라.
3.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94호

作戰指示 第365號 1953. 8. 8

第63通信補給大隊長

가. 1953. 8. 15附로 第81通信倉庫中隊本부를 自隊輸送으로 現位置 大邱(DQ 6369)에서 淸川(CS 8893)으로 移動시키라.

나.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케 하라.

부록 제95호

作戰指示 第366號 1953. 8. 11

第1105野戰工兵團長

가. 1953. 8. 19附로 第116野戰工兵大隊를 自隊 및 船舶輸送에 依韓 現位置 金海(DP 9098)에서 釜山 經由 龍浦里(DT 6131)로 移動시키라.

나. 船舶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室)에 提出하라.

다.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케 하라.

부록 제96호

作戰指示 第367號 1953. 8. 10

第21野戰砲兵團長

가. 1953. 8. 13附로 第21野戰砲兵團(醫務隊 第172 178大隊 隸屬)은 自隊輸送으로서 現位置 서울(CS 2055)에서 鶴浦里(CS 6234)로 移動하라. 到着과 同時附로 作戰指揮權은 總參謀長으로부터 美 第9軍團長에게 移讓된다.

나. 先發隊 編成 및 移動에 關하여 協議次 美 第9軍團長과의 直接 通信을 許可한다.

다. 到着하면 陸本(G-S)에 報告하라.

부록 제97호

作戰指示 第368號

1953. 8. 12

第26師團長

1953. 8. 15附로 第26師團은 RTC #2 論山(CR 2903)으로부터 UTC #2 史倉里(CT 7014)로 移動하라.

부록 제98호

作戰指示 第369號

1953. 8. 11

第25師團長

가. 1953. 8. 16附로 師團野戰工兵大隊를 自隊輸送으로 現位置 襄陽(DT 6814)에서 土橋里(DT 555 286)로 移動시키라. 到着하면 作戰指揮權은 總參謀長으로부터 第1軍團長에게 移讓된다.

나. 移動하면 陸本(G-3)에 報告케 하라.

부록 제99호

作戰指示 第370號

1953. 8. 13

第3補充大隊長

1. 1953. 8. 15附로 第3補充大隊(第3補充中隊 欠)는 現位置 大邱(DQ 6369)로부터 春川(CS 8893)으로 移動하라.

나. 訓 令

부록 제100호

訓令 第240號

1953. 1. 2

題目: 軍事安全保障에 關하여

世界情勢와 戰局이 重大化하여짐에 따라 加一層 防諜 強化가 要請되는 이에 徹底한 防諜實踐 生活의 本分을 忘却하고 一部 無自覺한 將兵이 不知不識間에 軍機를 漏洩하는例 許多하여 作戰遂行上 莫大한 支障을 招來할 憂慮가 있다. 此에 鑑하여 軍事安全保障의 完壁을 期함으로써 國家安全을 保護하기 爲하여 下記와 如히 指示한다.

1. 다음 事項은 業務遂行上 必要한 境遇를 除外하고 公席 또는 私席에서 談話를 禁한다.

가. 現在 進行中인 作戰狀況 또는 將次 遂行될 作戰 計劃에 關한 諸般事項.

나. 我軍의 編制 兵器의 種類 및 性能 兵力 部隊移動 등에 關한 事項

다. 軍事動員 召集에 關한 事項

라. 敵에 利益될 重要한 情報을 內包한 作戰 情報 日日報告에 關한 事項

마. 部隊駐屯地 固有名稱 指揮官의 能力 經歷 性格 등에 關한 事項

- 바. 其他 軍事安全保障上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軍事情報에 關한 事項
- 2. 公用에 必要한 境遇以外에는 軍事秘密上에 屬하는 圖書 物體 携帶를 禁한다.
- 3. 前 各項에 違反할 時は 依法 處罰한다.

訓令 第241號

1953. 1.25

題目: 新編部隊基幹 要員差出에 對하여

軍擴張 計劃에 依據 部隊增編에 따르는 所要 兵力 差出에 對하여 지켜야 할 5個條項을 決定하여 全軍에 布達함.

- 1. 指示된 割當 人員은 如何한 困難이 있어도 반드시 差出하라.
- 2. 基幹要員은 指定된 階級者로서 差出計劃의 職責을 能히 遂行할 수 있는 者를 選出하되 長期 服務者 順으로 差出하라.
- 3. 基幹 要員差出은 반드시 指定된 日字에 到着토록 하라.
- 4. 兵員 差出에 있어 情實의인 人事가 없도록 하라.
- 5. 差出된 人員은 指定된 部隊로 自隊轉屬特命을 發令하고 裝備 및 補給에 있어 行動에 支障이 없도록 措置하라.

부록 제101호

訓令 第242號

1953. 3.18

題目: 解氷期の 築城補強에 關하여

解氷로 말미암아 土壤 및 岩石이 崩壞되어 各種 築城陣地 및 軍用施設에 적지 않은 損傷이 있을 것이 豫想되는 바임. 特히 現 防禦線의 大規模의인 洞窟陣地 및 其他 各種 防禦陣地는 敵의 砲擊으로 因한 破壞와 아울러 解氷期에 있어서는 豫想外에 陣地가 묻혀질 것임.

各級 指揮官은 이에 對하여 未然에 防止策을 講究하여 兵員의 安全을 圖謀하되 充分한 戰鬥能力을 發揮케 하라.

- 1. 解氷期에 있어 築城陣地補強에 留意할 事項을 다음과 같이 指示한다.
 - 가. 木樑과 洞窟間 空隙部의 土壤이 묻혀져 그의 衝擊 및 壓力으로 天井이 崩壞될 憂慮性이 있는 곳은 事前에 補強하여야 한다.
 - 나. 支柱와 支柱間에 急激한 土壓의 增加로 因하여 洞窟이 묻혀질 憂慮性이 있는 곳은 補助支柱를 設置하여야 한다.
 - 다. 各種 陣地에 使用된 木材와 木材 其他 各種 接合部의 離脫 또는 腐敗한 木材는 即時 交替 또는 原狀復舊하여야 한다.
 - 라. 洞窟內 土壤이 脆弱한 岩石 또는 土壤일 때에는 內部補強을 實施치 않고 使用함을 禁한다.
 - 마. 麻袋를 主로하여 構築된 各種 掩體는 麻袋의 下部가 損傷 互解되기 始作하면 據全體가 묻혀지기 쉽다.
 - 바. 麻袋로 쌓아 올린 壁은 解氷期에 原土壁과 分離되기 쉽다.
 - 사. 敵 方向에 構築된 各種 掩體는 構築의 堅固如否를 莫論하고 敵 砲擊에 依한 破壞가 적지 않으므로 特히 補強에 留意하여야 한다.
 - 아. 解氷에 따라 여러 곳에서 물이 나올것임으로 排水에 留意하며 換氣筒이 메이지 않게 하라.
 - 자. 解氷로 因하여 묻혀진 各 交通壕의 再整備
- 2. 築城檢閱 및 補強節次
 - 가. 軍團 및 師團에서는 解氷期에 築城補強에 關한 細部計劃을 樹立하여 前方 地域으로부터 管下 全地域에 걸쳐 檢閱을 實施하라.
 - 나. 此陣地 補強은 全 兵科部隊가 實施할 것이며 特히 一線陣地를 擔當하고 있는 步兵 및 이를 支

授하는 工兵部隊에서 主動的인 役割을 行하라.
다. 築城檢閱은 周到綿密한 檢閱計劃表에 依하여 實施하고 檢閱結果에 나타나는 缺點 및 矯正事項은 急速히 對策을 講究토록 하라.

부록 제102호

訓令 第243號

1953. 4. 3

題目: 病傷交換 歸還者 引受 處理實施에 關하여

1. 人事 第201號(1953. 4. 1附)로 下達된 病傷交換 歸還者 引受處理 計劃에 依하여 1953. 4. 3부터 實施하라.
2. 陸軍本部 陸軍准將 崔 錫은 上記 一項에 依하여 1953. 4. 3附로 病傷交換歸還者引受處理本部 編成을 完了하고 最短期日內에 其本部를 汝山(CS 055918)에 設置 附加된 任務를 遂行하라.

부록 제103호

訓令 第244號

1953. 4. 12

題目: 渡美留學生에 關하여

國家의 盛衰와 民族의 安危를 雙肩에 지고 一命을 鴻毛에 附하여 一身이 國土의 汗중 血으로 化함을 서슴치 아니하는 決意下에 勇戰敢鬪하던 諸官이 選拔되어 渡美留學하는 機會를 가지게 된 것은 國家 및 軍發展上의 曙光이라하지 않을 수 없다.

諸官들에 對한 全 國民의 期待는 至大하고 軍의 代表로서 留學하는 諸官들의 一舉一動은 곧 國家 및 軍의 對外威信에 直接 미치는 바 影響이 많을 것이므로 이에 따르는 諸官들의 責任도 格別한 것으로 믿는다.

그런데 美國內에도 自國의 政治를 嫌惡하고 自國의 領土를 赤魔에게 賣渡하며 하는 一部 不純分子가 있고 同胞韓僑나 日人中에도 이에 加擔하는 者가 許多하니 그들이 諸官들의 誠은 純情과 異國에 있어서의 同胞愛를 惡利用하여 各種 奸巧한 手段과 方法을 弄함은 甚히 憎惡할 바이다.

賢明한 諸官들은 能히 이 兇計를 看破할 것으로 보는 바이다. 不知不識間에 이들에게 利用되어 祖國과 民族을 賣却하는 結果를 招來하는 일이 없도록 特히 다음 事項을 遵守하여 夢寐에서도 國家와 民族의 期待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格別 注意하라.

1. 美國內의 如何한 地域에든지 旅行을 할 때는 반드시 領事官에 通告하라.
2. 在美 韓僑 또는 日人과의 單獨接觸은 一切 이를 禁하니 萬一 接觸을 必要로 할 때에는 領事官의 事前 承認을 얻으라.
3. 領事官의 承認을 얻고 在美 韓僑나 日人과 接觸할 때에도 相對方 人物 其他에 特別히 注意한 것이여 言動을 삼가하라.

부록 제104호

訓令 第243號

1953. 4. 12

題目: 特別命令履行에 關하여

特別命令履行에 關하여서는 數次 指示한 바 있으나 아직 特別命令의 意義에 對한 認識과 그 履行이 徹底하지 않으니 全將兵은 다음 事項을 銘心하여 特別命令의 徹底한 履行에 最善을 다하라.

1. 特別命令은 將兵의 身上을 規定지우는 唯一한 合法的 措置이며 其의 根據가 되는 것이고 絕對性을

保有하는 것임.

2. 特別命令은 반드시 履行되어야 하며 其 履行責任은 常時 그 特別命令을 受領하는 本人에게 있으며 그는 遲滯없이 最善을 다 하여 그 特別命令이 命하는 바를 確實히 履行하여야 함은 勿論 누구든지 그 特別命令 履行을 制止 또는 妨害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에 助力하여야 할 것임.
3. 上級部隊의 特別命令을 隸下部隊 指揮官이 確認한다는 것은 上級部隊의 特別命令에 對한 拒否權限이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그 特別命令을 關係 隸下 將兵에게 確實히 傳達하는 責任을 遂行하는 方法에 不適當한 것임.
4. 따라서 上級部隊의 特別命令을 受領한 隸下部隊의 指揮官은 그 特別命令을 確認함으로써 關係 隸下 將兵에게 迅速한 方法으로 이를 確實히 傳達함과 同時에 그 特別命令 履行에 對한 監督의 責任을 完遂하여야 하며 關係 本人은 그 特別命令의 內容을 最善을 다하여 迅速確實히 履行하여야 함.
5. 上級部隊 特別命令의 履行에 關한 責任限界를 結言하면 다음과 같다.
 - (1) 各級 指揮官은 그가 受領한 上級部隊의 特別命令을 그 隸下 將兵에게 傳達하고 그 履行을 監督하는 責任을 完遂하여야 함.
 - (2) 關係 本人은 特別命令을 迅速 確實히 履行하는 責任을 完遂하여야 함.

부록 제105호

訓令 第246號

1953. 4. 29

題目: 非常警戒 實施에 關하여

1. 軍은 메-터를 前後하여 敵 攻勢企圖의 分碎와 後方 共匪 및 五列의 蠢動을 封鎖하기 爲하여 正非常警戒을 實施한다.
2. 各單位隊長 및 治安局 非常警備總司令官은 此期間中 下記에 依하여 警備에 萬全을 期하라.
 - 가. (1) 各軍團長 및 師團長

加一層 搜索警戒을 徹底히 하며 捕虜獲得等 諸般 手段을 講究하여 敵의 攻勢企圖를 探知 此를 未然에 粉碎하라.

(2) 我軍의 企圖를 秘匿하고 陣地 및 部隊 駐屯地를 徹底히 偽裝하여 漸次 增大하는 敵의 空中攻擊으로부터 保護하라.
 - 나. 憲兵司令官

(1) 檢問所 및 巡察兵力을 增加하여 警備에 徹底를 期하라.

(2) 特務部隊長 및 治安局 非常警備總司令官과 緊密한 協助下에 敵 五列 및 不純分子의 摘發 및 軍風紀團束을 強化하라.
 - 다. 治安局 非常警備總司令官

(1) 隸下 各隊로 하여금 責任地域內의 搜索警戒을 強化시켜 都市·村落 諸般 重要 施設 및 車輛을 共匪의 奇襲으로부터 保護하라.

(2) 通行禁止 時間內의 夜間通行을 徹底히 團束하라.

(3) 憲兵司令官 및 特務部隊長과 緊密한 協調를 取하라.
 - 마. 各地區衛戍司令官

管下衛戍地區內의 各部隊 巡察 및 官公署와 緊密한 連絡下에 警備에 徹底를 期하라
 - 바. 南·中·北部地區警備司令官

(1) 期間中 可一層 搜索을 強化하고 自體警戒을 徹底히 하여 敵의 企圖를 探知 未然에 粉碎하라.

(2) 機動豫備隊를 保有하여 有事時에 對備하라.
 - 사. 陸軍本部 本部司令

陸軍本部 周邊警備를 強化하라.
아. 期間中 全單位隊長은 非常警備計劃書를 作成 此에 依據한 有機的인 警備를 實施하며 特殊事件 發生時는 迅速히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106호

訓令 第247號

1953. 5. 1

題目: 電話架設 規律遵守에 關하여

1. 電話의 架設은 通信準則(SS1-33-2)에 依據한 것이며 絶對 違規 架設하는 例가 없도록 屢次 嚴重 示達한 바 있으므로 全 部隊에서는 充分히 留意하여 實踐에 萬全을 期하고 있는 것으로 意料하였으나 各 部隊의 電話架設狀況을 檢閱한 바에 依하면 個中에는 違規電話架設을 發見할 수 있으며 特히 後方部隊에 있어서 私的인 架設을 保有하고 있는 處事가 많음.
2. 電話架設에 所要되는 器材는 勿論이요 모든 通信器材는 各 部隊의 通信 T/E에 依據 野戰用으로 支給된 것이다. 部隊長은 自隊의 T/E 範圍內에서 保有하고 있는 器材라 할지라도 野戰用 以外의 用途에 使用할 嚴禁할 것이며 特히 通信器材의 軍撥이 不円滑한 오늘에 있어서 如斯한 處事는 通信器材의 單援을 阻攔하는 不美한 結果를 招來하게 된다.
3. 電話架設에 對한 通信準則(SS1) 第33의 2項目에 定한 것은 그 內容이 若干 現實情에 符合되지 않은 部分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改定 布達 措置中에 있으니 于先 本訓令에 包含 公布한다. 全部隊長은 隸下 將兵에 對하여 以後 通信部隊에 對한 規準範圍 以外의 電話架設을 指示 또는 要請하는等 의 處事없도록 措置하라.

부록 제107호

訓令 第248號

1953. 5. 10

題目: 傷病交換 歸還者 引受處理本部 撤收에 關하여

軍은 訓令 第243號에 依據 1953. 4. 3附로 汶山에 設置한 傷病交換歸還者 引受處理本部를 解體撤收 하려 한다.

傷病交換 歸還者 引受處理本部長

가. 1953. 5. 10. 00.01附로 本部機構를 解體함과 同時 憲兵護送中隊(欠 1個小隊) 및 派遣勤務中인 將兵을 各各 原隊에 復歸하라.

나. 後方 支援部隊 및 第5移動外科病院의 行動은 陸本行政指示 第76號에 依據한다.

다. 憲兵護送中隊의 1個小隊는 5. 13. 06.00附로 現位置에서 作戰指揮權이 總參謀長으로부터 美 第1 軍團長에게 移讓될 것이며 別途로 作戰指示를 下達한다.

라. 派遣勤務中이든 將兵의 原隊復歸를 爲한 輸送申請書를 陸本(輸送監)에 提出하라.

부록 제108호

訓令 第249號

1953. 5. 14

題目: 傷病交換歸還者를 繼續 警備하러함.

가. 憲兵司令官

憲兵司令官은 隸下 憲兵3個小隊를 差出하여 1953. 5. 15. 00.01부터 第36陸軍病院에 收容中인 傷病 交換歸還者 警備에 任하라.

부록 제109호

訓令 第250號

1953. 6. 1

題目: 戰時 第2種勤務 實施에 關하여

最近 戰線에 있어서의 敵의 搜索攻擊으로 因하여 熾烈한 戰鬥가 繼續 擴大되고 있음.
後方部隊는 1953. 6. 1. 12.00부터 別命 有한時까지 戰時 第2種勤務를 實施하라.

부록 제110호

訓令 第251號

1953. 6. 6

題目: 戰時 第2種 勤務解除에 關하여

1953.6.6 17.00附로 訓令 第250號에 依據 1953. 6. 1. 12.00부터 實施中인 戰時 第2種勤務를 解除한다.

부록 제111호

訓令 第252號

1953. 6. 7

題目: 非常警戒 實施에 關하여

全後方 部隊는 1953. 6. 7. 12.00부터 別途有한 時까지 準非常警戒에 突入하라.

부록 제112호

訓令 第253號

1953. 6. 10 14.00

題目: 偽裝徹底에 關하여

季節의 變化로 草木이 綠化됨에 따라 陣地는 弱土로서 一見 容易케 되어 敵으로부터 瞰制當하고 있는 前哨 陣地 및 主抵抗戰은 勿論 後方に 位置하고 있는 CP附近까지 敵의 直射 또는 曲射火器 및 空中으로부터의 爆擊目標가 되어 實로 其損害는 日益甚大해 가는 現狀임. 隸下 部隊 指揮官은 偽裝施設 疎忽로 因한 損害를 避하기 위하여 現在 實施中인 偽裝의 再檢討 및 下部條項을 遵守勵行하라.

1. 形式的인 偽裝을 避하고 偽裝의 原則을 適用하라.
2. 各級 指揮官은 隸下 將兵에게 偽裝의 原則 및 實施要領에 併한 實戰的인 敎育을 함으로 偽裝本來의 意義를 納得시키라.

부록 제113호

訓令 第254號

1953. 6. 14

軍은 何時라도 前方作戰指揮 任務를 遂行할 수 있는 事前準備의 第1段階로서 1953年 6月 17日 00.01時附로 陸軍本部 서울 分室을 強化하려함.

1. 任 務

가. 任命된 分室長은 現 陸軍本部 서울 分室의 各局監室將兵을 統合指揮하여 下記任務를 擔當하라.

- A. 總參謀長補佐
- B. 美 第8軍司令部와의 連絡
- C. 所命의 第一線部隊와의 連絡 및 狀況把握

- D. 陸本의 形式과 內容을 갖춘 부리핑實施
 - E. 國防部 서울 分室과의 連絡 및 外賓接待
 - F. 建物維持
 - G. 陸軍本部 前方指揮所 化할 수 있는 事前準備의 完成
- 나. 陸軍本部 各局監室長은
- A. 서울 分室 全人員을 새로히 任命된 陸軍本部 서울分室長指揮下에 入하도록 하라.
 - B. 將校 5名 士兵 5名의 範圍內에서 現機構를 連絡室로 再編하라.
 - C. 各局監室 先任連絡將校는 能히 該局監室의 業務를 把握遂行할 수 있는 領官級將校를 差出任命하라.
 - D. 各局監室 連絡用 車輛은 自體에서 擔當하라.
- 다. 人事局長은 別紙編成表에 依한 人員補充을 急速히 實施하라.
- 라. 軍需局長은 別紙 暫定編成表에 依한 車輛을 連絡用으로 常備케 하라.
- 마. 憲兵司令官은 서울憲兵隊長으로 하여금 陸本 作戰指示 第77號(84. 7. 18)에 依한 該警備任務를 繼續 遂行하도록 하라.
- 바. 工兵監은 서울分室廳舍 및 諸般施設整備에 任하라.
- 사. 恤兵監은 서울分室附近에 將校宿所를 設置運用 및 其他必要한 恤兵業務를 遂行하라.
- 아. 本部司書는 陸軍本部 서울分室에서의 現任務를 繼續 遂行하라.
- 자. 通信監은 陸軍本部 서울分室 運用에 必要한 通信一切의 責任을 擔當하라.
- 차. 陸軍本部作戰指示 第77號(84. 7. 18)에 依한 編成機構는 此訓令發効와 同時附로 通信事項을 除外하고 無効로한다.

부록 제114호

訓令 제255호

1953. 6. 19

捕虜交換引受處理本部 設置에 關하여

1. 軍은 將次實施될 捕虜交換에 對備하여 捕虜交換引受處理本部를 設置하려 함.
2. 陸軍步兵學校長 陸軍少將 崔錫은 1953. 6. 21. 00. 01附로 捕虜交換引受處理本部를 汶山(CS 055 918)에 設置하여 次後 任務를 遂行할 萬般의 準備를 갖추라.

부록 제115호

訓令 第256號

1953. 6. 24

題目: 南營司地區 心理作戰 實施에 關하여

1. 가. 1) 日日情報報告書
 - 2) 月末定期報告書
 - 3) 別紙敵情 및 敵의 弱點
- 나. 1) 極東司令部
- ㄱ) 擔當地域內의 戰略的 및 戰術的 宣傳作戰을 繼續 實施한다.
 - ㄴ) 警備司令部 地域內의 選定된 目標地區의 撤布하기 위한 “自由世界”와 “韓國再建叢報”를 供給한다.
 - ㄷ) 警備司令部 地域內의 對共匪心理戰에 使用하기 위한 擴聲機를 提供한다.
- 2) 大韓民國 放送局

- 7) 對共匪心理戰을 支援하기 위하여 企劃된 放送프로를 放送時間에 插入한다.
 - 8) 通匪(共匪同情者를 包含) 根絶과 教育을 目的으로 計劃된 報導車輛을 支援한다.
- 3) 美國公報院
- 7) 現在의 運營을 繼續 實施한다.
 - 8) 政策에 違反되지 않는 限 報導事業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地區에 移動放送 및 映滿班을 一定한 計劃에 依據하여 巡回시킴으로써 心理戰要員의 業務를 援助한다.
2. 가. 共匪와 通匪의 士氣를 低落시키고 戰鬪意慾을 粉碎하며 特히 不諱과 變節 등 我側을 利롭게 하는 諸行動을 그들 共匪와 通匪間에 誘發시킬 目的으로 그들의 思想과 感情 및 行動에 影響을 주는 報導와 理念을 그들에게 傳播함으로써 南韓의 對共匪武力戰을 支援하기 위하여 陸軍本部는 1953年 7月 1日부터 1953年 10月 31日까지에 亘한 期間中 擔當地域內에서 心理作戰을 實施한다.
- 1) 陸軍本部는 本作戰에 必要한 適當量의 特別傳單을 美後方司令部 經由로 極東司令部 或은 美第 8軍司令部에 申請한다.
 - 2) 陸軍本部는 傳單廣告文 및 포스타 등의 傳單草案을 作成하여 必要한 撒布數量에 依據傳單이 印刷되도록 美後方司令部에 要請한다.
 - 3) 陸軍本部는 本作戰期間中 局部的인 戰術上的 脆弱性을 利用하기 위하여 警備司令部로 부터 要請된 戰術 傳單의 草案을 準備作成하여 相當量의 枚數가 印刷되도록 美後方司令部에 要請하고 印刷完了된 傳單을 警備司令部에 分配하며 또한 陸軍本部에서 準備되는 輕飛行機를 利用하여 目標地點에 空中撒布한다.
 - 4) 陸軍本部는 警備司令部 地域內에서 作戰하는 地上 및 空中 放送組가 使用할 수 있도록 適切한 原稿와 錄音테이프를 準備作成한다.
- 나. 1) 企劃課題 附錄 2
- 傳單撒布計劃 附錄 3
- 新聞撒布計劃 附錄 4
- 心理戰訊問官指針 附錄 5
- 共匪地區오바백이 附錄 6
3. 가. 南部地區 警備司令部
- 1) 陸軍本部에서 準備完了된 戰術傳單과 自由世界等を 配當된 輕飛行機 및 搜索隊를 利用하여 共匪活動地區에 撒布한다.
 - 2) 陸軍本部에서 準備完了된 廣告文, 自由世界 및 韓國再建畫報 그리고 포스타 등을 通匪地區에 配布한다.
 - 3) 該當放送局에 提供할 라디오 프로의 錄音테이프를 準備하되 프로는 目標에 對한 心理戰 運營을 發展시키는 附錄 2에 提示된 諸企劃課題를 支持하게끔 考察되어야 한다.
 - 4) 決定的인 草案을 作成하는데 必要되는 모든 適切한 情報과 寫眞 및 原文起案等を 添付하여 可能的限 가장 迅速하게 局部的인 戰術上的 傳單作成 申請을 陸軍本部앞 心理戰課長 參照로 提出한다.
 - 5) 共匪地區에 對하여 派遣된 放送組를 活用하여 放送을 實施하는 等으로 擔當區域內의 戰術的 宣傳作戰을 實施한다.
 - 6) 軍의 機密에 接觸되지 않는 程度로 南警司의 任務와 作戰計劃의 意義 및 捕虜待遇 指示等を 說明하기 위하여 公衆集會를 開催한다.
 - 7) 第六項에 呼應하여 成功的인 作戰, 共匪殺傷 및 捕虜數等에 關한 報導를 添付하여 擔當地域內에 配布되는 新聞에 提供한다.
 - 8) 撰定된 村落에 移動映畫班을 動員巡回하기 위하여 當地區의 美公報院과 協助한다.

- 9) 1953年 5月 30日附 陸軍人事 第368號 捕虜處處理要領의 條目에 對한 履行을 最高度로 保證하기 위하여 國軍이나 警察에 生捕 또는 歸順하는 捕虜를 取扱하는 制度를 設立한다.
- 10) 國軍이나 警察에 歸順 或은 生捕된 各捕虜에 對한 心理訊問을 附錄 5에 依據 調査하여 그 報告書를 國文 및 英文으로 各一部式 陸軍本部에 提出한다.
- 11) 每週 日曜日 17時까지 陸軍本部에 週間 心理戰 活動狀況을 報告한다.

나. 對敵宣傳隊

- 1) 美8軍의 作戰 監督은 繼續된다.
- 2) 第11放送組 南營司에 派遣됨.

부록 제116호

訓令 第258號

1953. 7. 9

題目: 戰鬪力增強에 關하여

- 1. 複雜微妙한 國內外的 情勢와 重大한 時局의 推移에 따라 軍은 負荷된 任務遂行에 있어 가장 重大한 時局에 놓여 있음은 再言을 要하지 않으며 現防禦線에 對한 重要性이 加一層高潮되는 바이다. 各級指揮官은 長期間 固着된 戰線의 小康狀態로 因한 倦怠心과 休戰會談에 關한 個個人的 憶測等을 一掃하여 負荷된 現任務의 積極遂行과 戰力昂揚에 全力을 다하여야한다.

敵은 休戰會談을 再開하여 계속 戰線을 膠着狀態에 陥入케 하여 두고 傷病捕虜送還이란 美名下에 軍需物資를 戰線으로 輸送集載함으로써 急激한 戰鬪力增強에 成功하여 去 6月에는 休戰會談開始以來 가장 大規模의 一 大攻擊을 加해 왔던 것이며 또한 앞으로도 再侵野의 準備을 하고 있는 것이다.

各級指揮官은 霖雨期와 伏炎을 앞두고 如何한 敵의 術謀에도 對備할 수 있는 有形無形의 戰鬪力 培養에 全力을 傾注할 것이며 國家盛衰와 民族安危를 雙肩에 진 軍本然의 任務을 遂行하기 爲하여 特히 下記事項을 銘心하여 徹底히 履行할 것을 期待한다.

가. 過般敵의 6月 攻勢에 있어서 各級指揮官의 部下掌握 不徹底 한 것과 作戰狀況 急變으로 因한 使用部隊의 建制紊亂을 招來한 것을 嚴히 反省하여 次後作戰에 遺憾없기를 期하라.

나. 固着된 現戰線에 滿足치 말고 積極의 防禦態勢를 갖추기 爲하여 強力한 搜索隊로 하여금 恒常 敵의 動向을 探索시키는 勿論 恒時 徹底한 警戒을 實施하여 如何한 狀況下에서도 能히 現戰線을 確保할 수 있도록 火力計劃 및 逆襲計劃을 恒常 整備하라.

다. 機會를 恒常 捕捉하여 部下將兵에 對한 精神教育 및 技術教育에 努力하여 戰鬪意識을 昂揚하는 同時 貴重한 時間의 虛費를 없애고 全力을 다하라.

부록 제117호

訓令 第259號

1953. 7. 9

題目: 築城用 資材統制에 關하여

- 1. 築城用 資材統制과 濫用防止에 關하여는 屢次 強調하였으나 尙今 그 實效이 徹底치 못함.
- 2. 美 第8軍司令部에서 6月 15日부터 實施한 各部隊 檢閱結果 下記와 같은 講評이 있었음.

全軍團地域을 通하여 各技術兵科에 屬하는 莫大한 補給品이 濫用되고 있고 例컨대 工兵補給品中 鐵條網, 鐵柱, 麻袋等이 路邊에 散在되어 있음. 其中에는 新品도 있었음.

舊宿營地域에 麻袋, 鐵條網, 鐵柱等이 集積되어 廢品化되어 있었고 그中 再拂出하여 使用할 수 있는 資材가 多有하였음. 이들 資材에 對하여 對策을 講究한다면 이들 品目에 對한 不足은 多小間

緩和될 것임.

3. 이들 築城資材가 緊急치 않은 곳에 濫用하거나 放置된 것을 蒐集 및 撤收하여 一處築城에 活用함에 留意하라.
4. 築城資材中 特別히 不足한 麻袋使用範圍를 下記와 같이 統制한다.
 - 가. 主抵抗線, 前哨線 및 豫備陣地の 築城中 機關銃等 重大器備休의 掩蓋交通壕間의 待避所, 主抵抗線上의 觀測所, 指揮所 및 砲臺床에 限하여 使用한다.
 - 나. 雨期關係上 豫備陣地の 麻袋使用은 制限한다.
 - 다. 暴風雨等으로 因한 崩壞, 主補給路의 一時的 緊急補修에 使用하지 可能限 石築으로 使用할 것.
 - 라. 天幕等 周邊에 麻袋로서 築積하여 掩蓋로 한다든지 車庫周邊에 麻袋로서 待避壕等を 構築함을 嚴禁한다.
5. 陸本에서는 此에 對한 檢閱官을 差出 上記事項에 對하여 隨時檢閱을 實施하며 違反部隊에 對하여서는 指揮官에게 問責한다.

부록 제118호

訓令 第260號

1953. 7. 12

1. 近間 一部 各級指揮官中에서는 兵員의 保健에 對한 軍醫官의 正當한 意見上申을 無視하며 또한 入院患者中에서는 軍醫官의 指示에 順從치 않고 있음.

위와 같은 原因은 軍의 莫大한 兵員損失을 招來하고 있음.
2. 軍은 兵員의 行政損失을 防止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嚴히 示達하니 그 實施에 萬全을 期하라.
 - 가. 各級指揮官은 兵員의 保健에 對한 軍醫官의 保健案에 積極 協力하라.
 - 나. 入院患者는 軍醫官의 指示에 絶對 服從하라.

부록 제119호

訓令 第261號

1953. 7. 27

題目: 軍은 休戰協定條項을 遵守할 것임.

1. 美 第8軍 및 KCZ指揮下에 있는 全部隊長은 繼續 美 第8軍司令官 및 KCZ司令官의 指示를 遵守하라.
2. 其他 本官指揮下의 全部隊長은 本 訓令에 依據 休戰協定條項을 遵守하라.
3. 戰鬥任務를 遂行中인 各軍團 및 各師團長은 下記事項을 陸本(G-3)에 報告하라.
 - a) 交戰中止 時間
 - b) 現戰線으로부터 撤收開始時間
 - c) 新陣地 占領完了 時間
 - d) 新陣地에 部隊配置狀況

부록 제120호

訓令 第262號

1953. 8. 3

題目: 軍은 1953年 8月 7日附로 龍草島(DP 5443)에 歸還將兵收容所를 設置한다.

1. 憲兵司令官은 別紙 暫定 編成表에 依한 人員으로서 收容所本部를 設置하여 人事 第212號에 附加된 任務를 遂行하라.

2. 人事局長은 此編成에 所要人員을 1953년 8月 4日까지 憲兵司令部에 集結시키다. (但 警備部隊에 對하여서는 別途 作戰指示에 依據 差出됨)
3. 軍需局長은 收容所 運用에 所要되는 裝備를 憲兵司令官에게 貸與하라.
4. 行政事項은 行政計劃 第6號에 依함.

부록 제121호

訓令 第263號

1953. 8. 4

題目: 軍은 休戰協定에 依據 捕虜交換을 實施한다.

1. 1953. 8. 5. 00.01부터 關係部隊長은 人事 第212號에 依據 歸還將兵 引受處理 任務를 遂行하라.
2. 別命有할 時까지 捕虜交換은 板門店 1個處에서만 實施함.

부록 제122호

訓令 第264號

1953. 7. 31

題目: 軍用地圖 節用に 關하여

1. 軍作戰의 眼目인 軍用地區에 對한 認識이 不足하여 疎忽히 取扱하므로 軍用地圖 消耗가 많음.
從來各軍團 所要地圖는 美地圖補給所로부터 受領하여 管下各部隊에 配布하였으나 1953年 4月 이후 美軍側으로부터의 地圖補給이 中斷됨으로 韓國測地中隊 印刷能力만으로 全韓國軍 地圖補給을 擔當하고 있는 關係上 量的으로 制限을 받고 있으니 各級 指揮官은 地圖에 對한 認識을 強調하는 同時 用途를 限定하여 節用케 할 것.
2. 各部隊長은 다음 事項을 遵守하여 地圖節用に 힘쓰게 하라.
 - 가. 各部隊는 地圖請求時는 地圖番號를 仔細히 記入하여 必要以外 地區의 地圖를 請求하지 않도록 할 것.
 - 나. 軍用地圖上에 直接 "펜", "鉛筆", "땀"으로 線이나 點 部隊位置等을 記入하여 再使用못하게 貳립하는 것을 禁할 것.
 - 다. 使用할 수 있는 軍用地圖를 切斷後 用紙로 使用하는 例가 絶對없도록 한 것.
 - 라. 完全히 廢地圖化하지 않은 地圖는 取扱을 鄭重히 再使用하도록 保管 할 것.
 - 마. 急한 狀況下에도 버리지 말 것이며 不得한 境遇에 亡失했을 時는 6何原則에 依하여 亡失報告를 提出할 것.
 - 바. 不必要한 地圖 및 廢地圖는 自隊에서 燒却 或은 버리는 例가 있으나 此後로는 반듯이 師團隷下 部隊는 그 師團 工兵大隊에, 軍團支援部隊 및 師團工兵大隊는 軍團에, 後方地區에 駐在한 陸軍直轄部隊 및 各軍團은 陸軍本部에 返納할 것.

2. 年 表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1월 1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군砲兵隊 兩番와 같은 夜間 砲擊으로서 新年을 祝賀. ○ 我軍부여 狙擊兵綫과 西部戰線에서 共產軍의 輕微한 探索攻擊은 完全擊退. ○ UN空軍 夜間出擊으로 敵의 補給部隊와 操車場을 燬擊.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軍側連絡將校는 지난 12月 24日, UN空軍機가 板門店中立地帶을 侵犯하였다는 抗議를 調査한 結果 事實無根 이라고 共產軍連絡將校에게 傳達.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李大統領은 南北統一의 聖業完遂를 強調하는 要旨의 年頭辭을 發表. ○ 政府 國會議事堂에서 新年祝賀式을 舉行. ○ 平壤放送 休戰會談 共產軍側 首席連絡將校 張香山大佐의 後任에는 「추인」이 任命 되었다고 放送. ○ 駐中美軍事顧問團長 「체이스」少將 國府軍은 極東情勢에 戰略的인 價値를 가지고 있으며 今年에는 더욱 強化되리라고 說明. ○ 「포오터」美動員局長 「트」大領에게 第4/4分期報告書를 提出 同動員은 全面的인 戰爭이 勃發한 境遇 戰略物資를 大規模的으로 生産하기 爲하여 民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我軍部隊 西部戰線에서 1個中隊의 敵攻擊을 擊退. 其他 戰線에서는 輕微한 探索攻擊. ○ UN海軍艦載機 및 艦砲 北韓海岸線에 沿하여 있는 敵軍目標을 猛爆擊. ○ UN空軍 平壤 南方의 敵補給地域에 高性能爆彈 100屯을 投下. ○ UN軍 戰爆擊機隊 西部戰線에서 共產軍戰車部隊를 攻擊하여 十輛을 擊破. ○ 政府 安蓮生女史를 公報處長署理로 任命. ○ 伊院 深川間 錦江 第2橋梁에서 美軍貨物車 19輛 覆 56名 死傷.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我軍部隊 狙擊兵綫 「핀 포인트」高地에 對한 敵의 攻擊을 擊退 그外에 地上戰鬪 無. ○ 美세이버·젯트機 40臺 順川南方에서 50臺의 MIG 15機를 遊擊하여 6臺를 擊破. ○ B29爆擊機隊 新安州와 新義州間의 「도성」에서 共產軍司令部를 包含한 150棟 이상의 建物を 爆碎하고 順川 東北方-「서상리」의 軍事施設에 最初爆擊을 敢行하여 72棟의 建물이 있는 目標을 粉碎.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 李大統領 美 第1海兵航空團司令官 「제로에」少將에게 太極式功勳章을 授與.</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北京放送 1952년에 UN軍 數10萬名을 殺傷하고 飛行機 數千臺를 擊墜 擊破하였다는 虛偽戰果를 發表.</p> <p>○ 駐日代表部 金容植公使 李大統領은 日本 吉田首相과의 會談을 回避하지는 않는다는 聲明을 發表.</p> <p>○ 印度 「네에루」首相 休戰에 關한 印度案은 韓國戰解決의 基礎가 되리라고 言明.</p>		<p>○ 佛 權威紙 東南아시아의 安全保障을 強化하기 위하여 近間 「싱가폴」에 聯合國合同軍事計劃本部가 設置 되리라고 示唆.</p>
4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西部戰線에서는 終日 戰鬪無 其他戰線에서는 小規模의 探索戰.</p> <p>○ UN空軍 夜間爆擊機隊 敵의 列車와 トラック隊를 攻擊.</p> <p>○ F 80, F 84젯트機隊 敵의 補給路를 強打하고 32棟의 軍用建物을 破壞.</p> <p>○ 政府 大統領이 「클라이크」UN軍司令官과 會談하기 위하여 5日 東京으로 出發한다고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美合同原子力 委員長으로 豫定되어 있는 「로울」下院議院 「아」次期大統領은 韓國에서의 原子兵器使用을 考慮하고 있으며 自己도 이에 同意한다고 言明.</p> <p>○ 美原子力科學者公報 昨年 11月 「에리웨르크」島에서의 爆發實驗은 水素彈에 近似한 爆彈으로 實施된 것이라고 公表.</p>	5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國軍部隊 「제인 릿셀」高地에 夜間 攻擊을 加해은 共產軍을 擊退.</p> <p>○ B 29爆擊機隊 平壤 外廓의 아직껏 UN軍의 攻擊을 받지 않고 있는 共產軍大補給地를 夜間攻擊.</p> <p>○ 세이버·젯트機隊 西北韓上空에서의 空戰에서 今年 最初로 MIG機 1臺를 擊墜.</p> <p>○ 濠洲戰鬪機隊 開戰 以來 1萬5千回出擊으로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UN軍總首席連絡將校 「할스·W·막카시」大領解任 後任에는 「워리아드·B·카아룩즈」大領.</p> <p>○ 처영首相 「아」次期大統領과 2次에 걸쳐 會談內容에 關해서는 一切發表 無.</p>
		6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共產軍 4個小隊 北漢江 東方의 中部戰線에 來攻 我軍熾烈한 戰鬪 끝에 이를 擊退.</p> <p>○ 美戰艦 「미조리」號 英海軍少將 「클리포드」提督指揮와 더불어 西海岸 海州半島의 共產陣地를 攻擊.</p> <p>○ F 84·F 80 美空軍젯트機 100臺 鴨綠江南方 300哩地點에 있는 共產軍兵力 및 補給中心地를 猛攻.</p> <p>○ 巨濟島收容所의 北韓捕虜 1名 隣接</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攻.</p> <p>○ 美第5空軍 B26爆擊機隊 昨日薄暮時로부터 今日 未明까지 敵補給貨物車 50輛을 破壞하고 陽德附近의 敵軍司令部도 猛爆.</p> <p>○ 蔣介石總統 李大統領의 訪日에 言及하여 韓·中·日 3國은 極東에 있어서의 反共產主義의 先鋒이며 3國이 團結하면 共產主義打破는 困難한 일은 아니라고 言明.</p> <p>○ 「쇼오르」次期美下院軍事委員長 言明 「브래트러」合同參謀會議長은 同軍事委員會에서 韓國戰解決策이 없다고 證言.</p>		<p>敵의 補給品 隱蔽所 10個所를 爆破.</p> <p>○ UN空軍 惡天候를 무릅 쓰고 前線의 共產軍陣地를 攻擊.</p> <p>○ UN軍司令部 韓國開戰 以來 美國 其他友邦으로 부터의 韓國救濟額은 599,365,600弗에 達한다고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UN軍側 板門店連絡將校會議에서 去7日의 共產軍側 抗議를 一蹴.</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李大統領 狙擊事件 第3回公判 大邱高等法院에서 開廷.</p> <p>○ 「맥아더」將軍 現任 韓國戰線에서 美軍將兵의 脫走가 甚한 것은 「트」大統領의 抑壓政策에 起因하는 것이라고 非難聲明을 發表.</p>
<p>10일</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 5次의 小規模 共產軍夜間探索攻擊이 있었을 뿐.</p> <p>○ UN軍 戰鬥爆擊機 300臺 滿洲와 北韓 사이의 主要交通要衝인 「오비촌」安州 「대원산」을 攻擊 B29爆擊機隊 同一目標을 夜間爆擊.</p> <p>○ B29爆擊機隊 宣川操車場을 夜間攻擊하여 110屯爆彈 50個를 投下.</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駐日 土耳其大使 「엑셀라」씨 戰線視察次來韓.</p> <p>「미스 코리아」號 太平洋을 橫斷하여 政府導米穀을 滿載하고 釜山에 入港.</p>	<p>12일</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國軍新編12師團 ○盆地地帶東北方의 UN軍陣地에 早晚 大隊兵力으로 攻擊하여은 共產軍을 40分間 交戰後에 擊退.</p> <p>○ 我軍部隊 猛烈的한 野砲 및 迫擊砲의 集中射擊으로 首都高地에 攻擊 하여은 共產軍을 擊退.</p> <p>○ 子正을 前後하여 B29爆擊機隊 新安州周邊의 共產軍鐵道施設을 猛爆.</p> <p>○ 泰國 「다라갈」王子 美第8軍司令部에서 8軍一線將兵에게 泰國勳章을 授與</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下午 3時 釜山市忠武路에서 大火, 250戶 火焰.</p> <p>○ 大統領狙擊事件 第4回公判 釜山地法에서 開廷.</p>
<p>11일</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我軍部隊 高浪浦北方 및 澗川北西方에 攻擊해은 共產軍을 擊退.</p> <p>○ 韓國空軍 東部戰線 盆地帶北方에서</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13일	<p>○ 「벤·프리트」美第8軍司令官 서울 郊外 韓國陸軍士官學校 新築基金으로서 個人財産 500弗을 喜捨.</p> <p>○ 國民政府葉外交部長 東京에서 中國 韓國·日本 3國 間의 反共同盟設置案은 時期尙早라고 聲明.</p> <p>○ 「아」美次期大統領 次期閣僚 및 上院 共和黨幹部의 會議을 열고 國內外的 當面主要問題를 檢討.</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西部戰線의 UN軍 板門店 東方에서 早朝에 共產軍陣地를 強襲코 目的 達成後 歸還.</p> <p>○ 其他 戰線에서는 輕微한 探索戰鬪.</p> <p>○ 「아이젠하워」元帥 敢鬪精神에 感服 하였다는 贊揚메세지를 國軍 第1師團에 傳達.</p> <p>○ UN軍 4個戰爆機隊 및 海兵機 第33 飛行大隊所屬機 220臺 新安州北方의 共產軍橋梁集中地帶를 猛爆, 掩護中에 있던 세이버·젯트機隊 歸隊中에 共產軍 MIG 15機 2臺를 擊墜하고 다른 1臺를 未確認擊墜.</p> <p>○ 駐日土耳其大使 李大統領을 禮訪.</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트」大統領 議會에 對하여 「맥커란」 新移民法의 改訂을 要請.</p>	15일	<p>○ 美第8軍工兵監 「루마지」大領 國軍工兵團을 視察.</p> <p>○ 政府代辦人 李大統領은 日本이 行動으로서 讓意를 表示하지 않는限 韓·日會談을 再開한 意思 없음을 聲明하고 있다는 聲明을 發表.</p> <p>○ 日本으로부터 臺北에 歸還한 葉國府外交部長 韓國戰爭이 擴大化 되는 데로 美國은 國府軍을 使用 할것을 企圖하고 있다고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部隊 板門店近傍에서 小規模攻擊.</p> <p>○ 我軍部隊 「북코포인트」 首都高地에 對한 敵의 探索攻擊.</p> <p>○ B29爆擊機隊 時速 120哩의 強風을 逢고 元山西北方의 大鐵道操車場과 補給基地로 使用되고 있는 鐵網加工所를 爆擊.</p> <p>○ 세이버·젯트機隊 鴨綠江南方空中戰에서 MIG 38臺와 交戰하여 8臺 擊墜 11臺 未確認擊墜.</p> <p>○ 國防部 韓日 兩國間의 平和를 위하여 海洋主權宣言을 尊守할 것을 強調하고 이를 國際法上으로 釋明.</p> <p>○ 陸軍本部 陸軍創立 7週年記念式舉行 李大統領 陸軍本部式典에 參席코 國土統一 北進을 強調 式終了後 「클라이크」·「벤·프리트」將軍과 國軍增強案을 協議.</p> <p>○ 海軍工作隊 昌京號內 屍體 引揚作業을 全的으로 擔當하여 出動.</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14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 中東部戰線의 文登里溪谷에서 小規模의 敵의 攻擊이 있을 뿐.</p> <p>○ B29爆擊機隊 新安州東端의 操車場과 軍偶里操車場에 對한 未明爆擊에서 爆彈 110屯을 投下.</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p>○ 「트」大統領 라디오를 통하여 國民에 對한 談話發表.</p> <p>① 自由世界征服에 對한 蘇聯의 野望은 韓國戰爭으로 말미암아 完全히 失墜 그 結果 3次 大戰의 可能性은 極히 稀薄化 ② 原爆使用은 自由共產兩世界를 共히 破壞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對하여는 慎重한 考慮가 必要.</p>		<p>○ 「트」大統領 「에」國務長官 以下 各長官의 辭表를 受理코 그들의 業績을 讚揚.</p>
16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戰車隊와 砲兵部隊 鐵原金化에서 敵陣을 大砲擊.</p> <p>○ 我軍部隊 狙擊兵技術에 對한 敎의 攻擊을 擊退.</p> <p>○ 세이버·젯트隊 MIG機 1대를 擊墜하고 1발을 擊破.</p> <p>○ B29機 48호 早朝에 中北韓에 出動 共產軍建物を 粉碎.</p> <p>○ 「클라야크」UN軍司令官 來韓 釜山에서 軍首腦部와 會談後 離韓.</p>	18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偵察隊 高浪浦北方에 進出하여 探索.</p> <p>○ 我軍部隊 金化北方에 攻擊해온 共產軍大隊를 擊退하고 砲擊과 空中攻擊으로 戰車 5臺 擊破.</p> <p>○ UN軍戰鬪機隊 共産軍前線陣地를 強打.</p> <p>○ UN軍輕爆擊機隊 元山 平壤間의 補給路를 夜間攻擊.</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華南汕頭 東北 80杼海上에서 美海軍機 PV2型 雙發警戒機 沖繩으로 부터 將兵을 태우고 「마닐라」로 向하든 途中 國籍不明機로부터 攻擊을 받아 墜落 救助로 急行한 「마리아나」水陸兩用機 1臺 遭難機로부터 10名을 收容하였으나 이도 또한 攻擊을 받아 墜落.</p> <p>○ 兩靚의 遭難者中 10名 美軍艦 「아루게에·포엘」에 依하여 「마닐라」로 後送.</p>
17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天氣不順으로 UN空軍出擊不振, 濠州젯트機 敵補給車輛을 攻擊.</p> <p>○ B29爆擊機隊 平壤을 夜間 攻擊하여 高性能爆彈을 投下.</p> <p>○ UN軍捕虜司令部 尙武臺收容所에서 北韓捕虜 1名이 同僚에 依하여 打殺되었다고 發表.</p> <p>○ 李大統領 景武臺에서 韓國通信事業에 많은 功勞를 세운 美第8軍所屬 「엘슨」大領(銀星乙支勳章), 「도널슨」中領(花郎武功勳章) 「브라운」中領(花郎武功勳章)에게 勳章을 授與.</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19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東部戰線東端에서 熾烈한 探索戰展開.</p> <p>○ 西部戰線 偵察隊의 輕微한 接觸이 있었을 뿐 大體로 平險.</p> <p>○ UN軍戰車部隊 鐵原東北方에서 敵陣에 對한 砲擊을 繼續코 中共軍 「병커」 74輛을 破壞.</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20일	<p>○ 我軍部隊 斷腸의 綫에 攻擊에 온 敵을 砲火로 擊退.</p> <p>○ 輕爆擊機隊 平壤 및 新安州北方의 敵補給路를 夜間 攻擊.</p> <p>○ B29爆擊機隊 西北韓의 共產軍補給 目標 2箇所에 110屯의 爆擊을 投下.</p> <p>○ 李大統領 韓·日關係에 關하여 友好 的인 協議에 希望을 가지고 있다고 說明.</p> <p>軍 事</p> <p>○ 我軍 斷腸의 綫에 對한 中共의 來襲을 擊退.</p> <p>○ UN軍戰車部隊 鐵의 三角地帶· 鐵原에서 金化 까지의 敵陣에 對하여 連 5日째 繼續砲擊.</p> <p>○ UN軍偵察部隊 未明에 文登里로부터 東海岸에 이르는 前線에서 敵陣을 強襲하여 多數의 北韓傀儡軍을 殺傷.</p> <p>○ 共產軍 2箇分隊 板門店 南方의 我軍 陣地에 來襲 하였으나 擊退.</p> <p>○ 韓國空軍 「무스탕」戰爆機隊 東部戰線의 敵을 強打.</p> <p>○ 美 세이버·젯트機隊 水豐峯 近方上 空에서의 空中戰에서 MIG 15 젯트機 1臺를 擊墜.</p> <p>政 治</p> <p>○ 日本 政府 警官 450名을 動員하여 東京部東區內의 韓國人部落을 襲擊.</p> <p>○ 駐日代表部 金韓國公使 韓·日 交涉은 再開되지 않으리라는 風聞에 關하여 聲明을 發表 韓國政府는 會談을 再開 할 用意가 있으며 日本의 態度를 待機中.</p>	21일	<p>軍 事</p> <p>○ 杆城西北方과 文登里東北方에서 我 偵察隊 小隊兵力의 敵과 交戰敵多數를 殺傷.</p> <p>○ 中部戰線에서 我軍戰車隊 砲擊을 斷續.</p> <p>○ 高浪浦西北方에서 進出한 我軍偵察 隊敵小隊兵力과 交戰後 撤收.</p> <p>○ 板門店 南方에서 UN軍偵察隊 敵陣을 強襲.</p> <p>○ UN軍輕爆擊機隊 晝夜로 北韓內의 補給基地를 攻擊.</p> <p>○ 세이버·젯트機隊 空中戰에서 MIG 젯트機 7臺 擊墜 3臺를 擊破.</p> <p>○ 세이버·젯트機隊 鳴綠江上空 空中 戰에서 MIG젯트機 7臺를 擊墜 1臺 擊破.</p> <p>政 治</p> <p>○ 蘇聯에 監禁 되었다가 釋放된 日人 漁夫들 昨年 10月 日本北部海上에서 失蹤한 B29機 1臺를 蘇聯戰機와 地上砲火가 擊墜하는 것을 目擊 하였다고 說明.</p> <p>22일</p> <p>軍 事</p> <p>○ 東部戰線에 來襲한 共產軍 60名의 屍體를 남기고 退却.</p> <p>○ F84 선더 젯트機隊 韓滿國境 40哩 地點까지 出動하여 共產軍輸送路을 猛爆.</p> <p>○ UN세이버·젯트機隊 MIG 젯트機와 의 空中戰에서 5臺擊墜 6臺擊破.</p> <p>○ B29爆擊機隊 陽德補給地域의 操車 場과 龍平里에 있는 共產軍 參謀本部</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에 140톤의 고성능폭탄을 投下.</p> <p>○ 韓國軍空軍 前線敵陣을 猛攻하여 數個所의 共產軍彈藥集積所를 破壞.</p> <p>○ 極東空軍司令部 共產軍이 擊墜한 B 29型爆擊機 1臺는 滿洲上空을 飛行한 것이라는 北京放送 非難을 否認, 同機는 鳴綠江의 南方 20軒 乃至 24軒 地點의 上空에서 危險信號를 發信하여 왔다고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北京放送 中共空軍部隊가 去12日 21時 15분에 滿洲에 侵入한 美空軍 B29機 1臺를 安東의 西北 15軒地點의 五龍背驛上空에서 擊墜하고 落下傘으로 降下한 11名을 捕虜로 하였다고 發表 同時에 周恩來外相이 美政府에 嚴重抗議하였다고 放送.</p> <p>○ 美國務省代辯人 去般 B29機 1臺가 滿洲領空에서 擊墜 당하였다는 周中共 首相의 聲明을 反駁.</p>		<p>○ 我軍戰車部隊 中部戰線에서 終日 猛砲擊.</p> <p>○ 我軍部隊 昨夜半부터 今朝에 걸쳐 4個所에서 探索攻擊을 해온 共產軍을 擊退.</p> <p>○ UN軍爆擊機隊 晝夜間에 西北韓의 補給基地要衝을 猛爆擊.</p> <p>○ 세이버·갯트機隊 MIG갯트機 2臺擊墜 2臺 擊破.</p> <p>○ B29爆擊機隊 아침에 平壤近方의 共產軍補給物資集結所와 兵力集結處를 爆擊.</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平壤放送 23日밤 平壤을 爆擊한 B29爆擊機中 5臺를 擊墜하였다고 報道.</p> <p>○ 「아」大統領 新任美第8軍司令官 「테일러」將軍과 韓國軍事情勢에 관하여 要談.</p>
23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我軍 中東部戰線에서의 共產軍地上部隊의 偵察攻擊을 擊退.</p> <p>○ 國軍 西部戰線에서 UN空軍 및 重砲의 支援下에 「노리」高地를 攻擊코 共產軍 85名을 射殺.</p> <p>○ 세이버·갯트機隊 北韓上空에서의 空中戰에서 MIG機 4臺를 擊墜.</p> <p>○ 美陸軍省 在韓 美제8軍司令官 「벤·프리트」大將의 3月 31日宇 豫備役 編入을 發表 後任은 現作戰參謀副長 「테일러」中將.</p>	25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步兵隊 40臺의 飛行機와 數10臺의 戰車의 支援下에 鐵原西方 「T.본」高地 麓端에 있는 「감자」高地를 4時間에 걸쳐 攻擊.</p> <p>○ 黃海에서 作戰中인 英國航空母艦의 艦載機隊 海洲北方의 敵前方指揮所 2個와 營舍地域을 粉碎.</p> <p>○ 美重巡洋艦 「로체스터」號 高城南方의 敵補給地域 「방커」陣地를 砲擊하여 「방커」陣地 21個를 擊破.</p> <p>○ B29爆擊機隊 早朝에 鳴綠江南方 30哩地點의 鐵山에 100톤의 高性能爆彈을 投下.</p> <p>○ 8軍司令官 「벤·프리트」大將 모든</p>
24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外國軍이 撤退한다면 韓國軍과 北韓 傀儡軍을 충분히 격퇴할수 있다고 記者會見席上에서 說明.</p> <p>休戰會談</p> <p>○ 共產軍側連絡將校會談에서 去 23日 20時 40分頃 板門店會談場所 近處에 UN軍 砲彈이 投下되었고 24日 8時 20分과 24分에 2회에 걸쳐 美軍機가 會談地區上空을 侵犯하였다고 抗議.</p> <p>軍 事</p> <p>○ UN軍戰車部隊 中部戰線에서는 敵陣地에 對하여 猛砲擊.</p> <p>○ UN軍 鐵原西方 「T」型高地와 不毛高地에 對하여 奇襲攻擊을 敢行.</p> <p>○ 其他 戰線에서는 探索戰程度.</p> <p>○ 東海岸에서 作戰中인 航空母艦으로부터 出擊한 艦載機隊 元山地區의 敵砲臺를 強打하고 他方 北靑近方에 있는 敵의 交通要地를 爆擊.</p> <p>○ UN軍戰爆擊機隊 및 濠洲空軍機隊 平壤으로부터 沙里院 南川에 이르는 共產軍補給地帶를 猛攻.</p> <p>○ 韓國軍空軍部隊 美海兵編隊機와 더불어 前線地區의 敵陣地를 強打.</p> <p>政 治</p> <p>○ 新華社報道 23日 11時 45分에 美 F 86戰鬪機 4臺가 美州로부터 滿洲遼東省寬甸縣上空에 侵入 其中 1臺를 中共空軍이 擊墜.</p> <p>○ 「타일러」新美第8軍司令官 韓國向發.</p>		<p>○ 地上戰鬪는 大體로 散發的 數個所에서 小規模의 探索戰과 偵察戰이 展開되었을 辨.</p> <p>○ 美戰艦 「미조리」號 16吋砲와 5吋砲로 3時間에 걸쳐 清津港을 砲擊.</p> <p>○ 4臺의 세이버 · 잭트機隊 20臺의 MIG 15機와 水豐岬 南方 30哩地點에서 交戰하여 2臺를 擊破.</p> <p>政 治</p> <p>○ 駐日金裕植韓國公使 日本側要請으로 日本外相과 日本外務省에서 韓日會談 再開問題에 關하여 會談 日本外相 會談再開를 提議.</p> <p>○ 「텔레스」美國務長官 外交問題에 關하여 公開演說.</p> <p>① 蘇聯이 韓國戰爭을 延長시키고 있는 것은 戰爭에 依한 利益을 바라고 있기 때문 ② 蘇聯은 中東에서 反美, 英感情鼓吹에 奔走 ③ 美國의 對西域 政策은 根本的으로 再檢討가 必要 ④ 今後의 外交政策은 올바른 知識에 依하여 保障된 自國第一主義에 依據.</p>
27일	<p>軍 事</p> <p>○ UN軍戰車部隊 中部戰線에서 敵陣地를 繼續砲擊.</p>	28일	<p>軍 事</p> <p>○ 地上戰鬪 極히 散慢.</p> <p>○ UN軍 戰鬪機와 爆擊機隊 北韓西海岸에 沿하여 鐵道 50箇所를 切斷.</p> <p>○ B 29爆擊機隊 平壤南方 12哩 地點에 있는 敵兵舍群에 對하여 高性能爆彈 110顆을 投下.</p> <p>○ UN軍司令部 巨濟島 및 濟州道 및 名地의 捕虜爆動事件의 主謀者는 休戰會談共產軍側代表 南日과 李尙朝次席代表이며 多數의 死傷者를 낸 이들</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29일	<p>事件의 責任은 이 兩人이 져야 한다 는 콤유케를 發表.</p> <p>政 治</p> <p>○ 「아폴린스」 美陸軍參謀總長 尙武臺 를 視察.</p> <p>○ 「콜린스」 將軍 陸軍本部를 訪問코 國 軍의 成長을 絶讚.</p> <p>軍 事</p> <p>○ 全戰線에 걸쳐 共產軍 單只 60名 內 의 兵力을 投入 하였을 뿐 戰線 閑 散.</p> <p>○ B29 爆擊機隊 平壤과 그 附近의 補 給地區를 猛爆.</p> <p>政 治</p> <p>○ 日本空航에 到着한 「콜린스」 將軍 韓 國軍은 岩石과 같이 堅固하다고 極 讚.</p>		<p>○ UN海空軍 終日 元山港을 猛攻 戰艦 「미조리」號도 參加.</p> <p>○ B29 爆擊機隊 元山南方 10哩地點에 있는 「피산」에 對하여 開戰以來 처음 으로 夜間攻擊.</p> <p>○ 韓國軍空軍 「무스랑」機隊 前線一帶 를 攻擊하여 敵 토오치가 15個所를 粉碎.</p> <p>○ 美極東空軍 月間戰果一敵 MIG15젯 트機墜 40臺 未確認墜 7臺 破損 40臺 我方喪失은 세이버·젯트機 2臺 를 包含한 21臺.</p> <p>政 治</p> <p>○ 國立서울大學校 國會議事堂에서 「벤 ·프리트」 將軍에게 名譽法學博士學 位를 授與 「벤」 將軍 同式場에서 韓國 은 自力統一이 可能하다고 力說.</p> <p>○ 白善燁 陸軍參謀總長 大將으로 昇進 金貞烈 崔用德 空軍少將 中長으로 昇進.</p>
30일	<p>軍 事</p> <p>○ 地上戰鬪 數個地點에서 輕微한 探索 部隊의 衝突이 있었을 뿐 空中에서 蘇聯制 푸르페라 推進式爆擊機 1臺를 擊破.</p> <p>○ B29 爆擊機隊 平壤東南方 6哩地點의 重要共產軍補給中心地에 110噸의 高 性能爆彈을 投下.</p> <p>○ UN軍捕虜收容所司令部 巨濟島의 捕 虜收容所에서 美兵 1名이 捕虜 3名에 倣하여 撲殺當 하였다고 發表.</p> <p>政 治</p> <p>○ 釜山國際市場一帶 7時間에 걸친 大 火로 3千餘戶全燒.</p>		
31일	<p>軍 事</p> <p>○ 地上戰鬪 輕微</p>	2월 1일	<p>軍 事</p> <p>○ 地上戰鬪 小康狀態.</p> <p>○ 金化北方 UN軍前哨陣地에 對한 中 共軍 2個小隊의 攻擊을 擊退.</p> <p>○ 共產軍 偵察隊 平壤南方 UN軍 陣地 에 對하여 2次에 걸쳐 小規模 攻擊.</p> <p>○ 中共軍 2個小隊 不毛高地近邊 1個 UN軍外廓陣地를 夜半에 攻擊.</p> <p>○ UN軍戰爆機隊 一線地區 共產軍 施 設을 攻擊.</p> <p>○ UN軍 F86 세이버·젯트機隊 18臺 敵 MIG15 젯트機 17臺와의 2次에 걸 친 空中戰에서 敵機 1臺를 擊墜.</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海兵隊所屬機隊 西部戰線背後 南川共産軍 陣地를 破壞. ○ B29爆撃機隊 北韓咸寧 共産軍 補給中心地를 爆撃.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르티라」美海軍作戰部長 太平洋艦隊는 不日發表 될 臺灣中立化 解除 命令을 即時로 實行한 準備가 되어 있다고 言明.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全戰線에 걸쳐 輕微한 接戰 繼續. ○ UN軍部隊 不毛高地近邊 外廓陣地로부터 一時 撤收한後 友軍의 掩護砲撃 下에 다시 이를 奪還. ○ 板門店 東方에서 短時間에 걸쳐 熾烈한 交戰. ○ UN戰車隊 16日째 共産軍 병커에 對한 攻撃을 繼續. ○ B29爆撃機隊 前線共産軍陣地를 猛打. ○ UN軍 F86세이버·젯트機隊 北韓 上空에서 敵 MIG젯트機 2호를 擊墜.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大統領議會에서 一般敎書發表 臺灣中立化解除를 宣稱하고 積極的 外交에 依한 冷戰主導權의 掌握·「알타」秘密協定의 廢棄·韓國軍의 急速한 增強을 強調.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받은 步兵部隊 高浪浦西方 共産軍陣地를 高壓로 中共軍 約 400名을 射殺. ○ 美 第77機動艦隊所屬艦載機隊 城津·元山·吉州 地區 敵補給所設을 攻撃.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러」中將 韓國軍의 強化는 美極東政策의 重要한 部分을 占有하고 있으며 本人은 「팬」將軍의 韓國軍強化 計劃을 그대로 繼續한 作定이라고 記者會見에서 言明. ○ 國會議長室에서 國會·政府連席會議을 開회하여 一線將兵慰問에 對한 國民運動展開問題를 討議. ○ 「이든」英外相 下院에서 證明 美國의 臺灣中立化解除 決定은 政治的 反撥을 招來할 뿐 軍事的 利點은 全無.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上戰鬪輕微한 探索戰에 局限. ○ 濃雲으로 말미아마 UN空軍機의 活動制限. ○ UN軍 B26爆撃機隊 13日째 繼續出擊코 共産軍 補給車輛을 攻撃.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京放送 報道 中共의 最高政策機關인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第一回 全國委員會 第4次 會議을 開催.
2일		4일	
3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部戰線 盆地帶東方에서 韓國軍部隊 約 1個大隊 兵力으로서 敢行된 共産軍攻撃을 早朝에 擊退. ○ UN軍步兵部隊 및 航空隊의 掩護를 	5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上戰鬪 平穩. ○ 中共軍 前夜부터 今朝에 이르는 사이에 6次에 걸쳐 UN軍陣地에 對한 小規模探索戰을 敢行. ○ UN軍步兵部隊 UN軍 前哨陣地에 對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한 7회에 걸친 中共軍의 輕微한 夜間 探索攻擊을 擊退.</p> <p>○ UN軍戰爆機隊 平壤 北方 載寧近傍 南川店 東南方에서 共產軍 軍事施設을 攻擊.</p> <p>○ 美第5空軍所屬 슈팅 · 스타機 鎮南 浦港에 淀泊중인 共產軍 汽船 1隻을 擊破.</p> <p>○ 레이더 裝置를 갖춘 美海兵隊所屬 夜間戰鬪機 F30스카이라이트機隊 敵機 1臺을 擊墜.</p> <p>○ 孫海軍參謀總長 第7艦隊旗艦 「미조리」號를 訪問.</p> <p>○ 「클라이코」中將과 會談코 作戰 狀況을 視察.</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平壤放送 昨年 12月 27日부터 最近까지 西部戰線의 中共軍內에 美軍飛行機로 投下된 韓國人과 中國人 間諜 24名을 捕虜로 하였다고 發表.</p> <p>○ 「이든」英外相 下院에서 報告——① 「릴레스」美國務長官과의 會談에서 美 · 英 協力の 鞏固性을 再確認 ② 臺灣에 對한 美國措置는 侵略的 意圖全無 ③ 周中共首相의 韓國休戰 新提案은 全的으로 非建設的.</p>		<p>行할 수 있는 最新夜間戰鬪機 F 94 B 型機가 昨年 3月 以來 韓國戰에 參加하고 있다고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UN軍側首席連絡將校 「아록크」大領板門店에서 開催된 連絡將校會議에서 去 4日 UN軍機가 會談場 上空을 飛行하였다는 共產軍側 抗議를 拒否.</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中共新華社電—過去 2年間의 爆擊과 艦砲射擊에 依하여 荒廢된 北韓의 工業都市 興南을 地下에 再建.</p> <p>○ 「아」大統領 全賃金 統制와 大部分의 消費物資價格 統制를 撤廢할 것을 命令.</p>
6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全戰線 平穩.</p> <p>○ UN軍步兵部隊 鐵原 西方에서 共產軍 2個 小隊와 交戰코 敵 15名을 殺傷.</p> <p>○ 惡天候로 UN空軍 活動制約.</p> <p>○ 美 第5空軍 어떠한 天候下에서도 飛</p>	7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新陽의 綫線 東西 UN軍主抵抗線 및 「제인 · 랫셀」高地 南方 UN軍 前哨陣地에 對한 共產軍의 5個 探索 攻擊을 擊退.</p> <p>○ UN軍攻擊部隊 中部戰線 白馬山近方의 敵高地를 攻擊하여 中共軍 17名을 殺傷.</p> <p>○ UN軍 戰爆機隊 市邊里 및 金城地區에서 共產軍補給品 集積所 및 軍事建物 15個處를 破壞.</p> <p>○ UN軍 F86 세이버 · 잭트機 8臺, 共產軍 MIG잭트機 14臺와 MIG 通路에서 熾烈한 空中戰을 展開하여 敵機 2臺을 擊墜.</p> <p>○ B29爆擊機隊 平壤東南方 2個共產軍 補給 및 營舍目標을 爆擊.</p> <p>○ 國防部報道課 發表, 中部地區營備司</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司令部 1月中 共匪討伐 戰果—共匪射殺 17名, 生捕 17名, 鹵獲各種小火器 24挺 重火器 1挺, 無電機 1臺.</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UN本部發 AFP報道—UN 美代表團은 來24日 再開豫定인 總會에서의 韓國問題 討議時 同代表團이 取할 方針에 關해서 檢討開始.</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東部戰線 盆地帶 및 「샌드·백」高地間의 UN軍主戰線에 對한 北韓共產軍 1個中隊의 夜間攻擊을 擊退.</p> <p>○ B29爆擊機 平壤西南方 敵 補給物資 集積所를 爆擊.</p> <p>○ 「벤·프리트」大將 및 「테일러」中將 中部戰線 狙擊線地區를 視察.</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카록크」UN軍側 連絡將校 去1월에 UN軍機가 共產軍側休戰代表團車輛을 攻擊하였다는 共產軍側 非難에 對하여 더 明確한 證據의 提示를 要求.</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北韓傀儡軍創設 第5周年記念式 平壤에서 舉行. 金日成傀儡軍 最高司令官 同 式典演說에서 美國은 韓國과 極東에서 戰亂을 擴大하려고 企圖하고 있다고 非難.</p> <p>○ 日本 海上保安廳當局 去 4日 日本漁船 2隻이 濟州島西方海上에서 韓國官憲에 拿捕되었다고 發表.</p>		<p>○ 連川西北方에서 UN軍部隊 共產軍小部隊의 攻擊을 받아 前哨陣地로 부터 撤收.</p> <p>○ UN軍戰車隊 中部戰線에서 共產軍방커 및 壘壕를 夜間에 攻擊.</p> <p>○ 海兵隊所屬機隊 平壤 北方 敵兵力集結處 및 補給物資補給所를 攻擊.</p> <p>○ UN軍 戰爆機隊 兼二浦工業地區를 4회에 걸쳐 波狀攻擊.</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美極東海軍當局 發表—韓國水域에서 作戰하고 있는 美 第7艦隊에 不遠 無線誘導發射艦艇 4隻을 配屬.</p> <p>○ 「태프트」美上院議員 「아」 大統領과 會談 後 記者團에게 言明—美國이 韓國戰爭 解決策으로서 全戰線總攻擊과 滿州基地爆擊을 實施한 意圖는 殆無.</p> <p>○ 蘇 「프라우다」紙 처음으로 臺灣中立 化解除問題에 論及—美國의 臺灣中立 化解除는 韓國戰爭을 遲延시키고 極東의 戰亂을 擴大시키기 目的.</p>
8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戰線數個所에서 未明에 輕微한 探索戰 展開.</p>	9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平穩.</p> <p>○ 美 第77機動艦隊 所屬機隊 會寧地區 共產軍補給 및 鐵道施設을 爆擊.</p> <p>○ B29爆擊機隊 清川江北方 共產軍 補給中心地를 爆擊.</p> <p>○ UN軍捕虜收容所司令部 昨 9日 巨濟島收容所에서 發生한 捕虜騷擾襲壓에서 共產軍 捕虜 1名이 射殺되고 38名이 負傷을 입었다고 發表.</p> <p>○ 孫海軍總參謀長 美第7艦隊의 臺灣封鎖解除는 對共產主義戰爭에 必要하고</p>
9일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도 有益한 政策이었으며 第7艦隊는 機動性 있는 自由 活動을 取할 수 있게 되었다고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덜레스」美國務長官 上院外交委에서 證言—中共沿岸 封鎖·瀋州爆擊 韓國에서의 原煤使用 등의 計劃, 自己로서는 全히 모르는 事實.</p>		<p>○ 蘇聯 政府 發表—「테라비브」의 蘇聯 大使館에 對한 投彈事件의 結果로 이 스라엘」政府와의 外交關係를 斷絶.</p>
11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戰線 小康狀態 維持</p> <p>○ UN軍戰車部隊 中西部戰線 共產軍陣地를 攻擊.</p> <p>○ 戰線氣溫上昇 夜間戰鬪는 殆無.</p> <p>○ B29 爆擊機隊 北韓道路上에서 夜間에 敵트럭 13臺를 擊破.</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프라사,」印大統領 印政府는 韓國 戰亂을 擴大할 念慮가 있는 最近事態의 進展에 重大한 關心을 가지고 있다고 議會에서 聲明.</p>	13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韓國軍部隊東海岸鎊型 高地에 對한 北韓共產軍 2個小隊의 攻擊을 擊退. 敵 73名을 射殺.</p> <p>○ 中共軍 北漢江 東方 3個 UN軍陣地에 對하여 各各 2個小隊兵力으로 攻擊.</p> <p>○ 西部戰線 「벙커」高地 및 「켈리」高地 近方 UN軍에 對한 中共軍 攻擊을 擊退.</p> <p>○ 第5空軍所屬 戰爆機隊 敵寧近傍鐵路를 攻擊.</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日本外務相 去 4日 濟州島西方 海上에서 發生한 韓國官憲에 依한 日本漁夫射殺 事件에 對한 真相調查를 駐日 韓國代表部에 要請.</p> <p>○ 前大統領候補 「스티븐슨」氏, 民主黨 全國 委員會에서 發表—來 3月—市民의 資格으로 韓國을 訪問할 豫定.</p>
12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部隊 東部戰線 鎊型高地近傍 北韓共產軍高地에 대하여 小規模 攻擊.</p> <p>○ UN軍探索隊 文登里溪谷近傍에서 敵 1個小隊와 40分間 交戰.</p> <p>○ 其他戰線에서는 輕微한 探索戰 繼續</p> <p>○ UN海軍 및 艦載機隊 元山港을 攻擊</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防部政訓局主催로 國軍幹部候補生 志願 啓蒙宣傳講演會 釜山에서 開催.</p> <p>○ 「이든」 英外相 下院에서 發表—埃及 政府는 「스오단」問題에 關한 協定에 調印.</p>	14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部隊 平壤西南方 前哨陣地에 對한 中共軍의 小規模攻擊을 擊退.</p> <p>○ UN軍砲兵部隊 中西部戰線 不毛高地 附近溪谷을 南下중이던 中共軍 1個中隊를 擊退.</p> <p>○ UN海軍驅逐艦 元山港 附近島嶼에 UN軍地上部隊에 對한 共產軍砲擊을 粉碎.</p> <p>○ B26輕爆擊機隊 北韓 補給路에 對한 夜間攻擊에서 敵트럭 約百臺를 擊破.</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15일	<p>○ 中國會議長 前線將兵의 士氣는 極히 旺盛하며 國軍과 UN軍과의 聯合作戰도 잘 되어가고 있음을 確認하였다고 一線觀察歸任談.</p> <p>軍 事</p> <p>○ UN軍偵察隊 東部 戰線西方 및 北方에서 敵 小部隊과 交戰.</p> <p>○ 北漢江 東方 韓國軍前哨陣地에 對한 共產軍小部隊의 攻擊을 擊退.</p> <p>○ UN軍戰車部隊 中西部戰線 共產軍目標物을 砲擊.</p> <p>○ UN空軍戰爆擊機隊 水豐發電所와 新安州 近傍 및 截擊東南方鐵橋 爆擊</p> <p>○ F86세이버·젯트기 18臺 約 40臺의 共產軍 MIG젯트機와 MIG通路에서空 中戰을 展開코 敵機 2臺를 擊墜 1臺를 未確認擊墜 3臺를 擊破.</p> <p>○ 「테일러」新任 美 第8軍司令官, 前線 및 後方의 觀察을 마치고 司令部에서 記者會見—UN軍 및 韓國軍은 威力을 갖었으며 強力한 統率下에 士氣가 昂揚되고 있다고 聲明.</p> <p>政 治</p> <p>○ 政府 上午 6時를 期하여 大統領緊急 命令 第13號로 通貨에 대한 緊急措置를 公布施行.</p> <p>○ 李大統領 緊急通貨措置에 關하여 特別談話를 發表.</p>	17일	<p>○ UN軍 F86 세이버·젯트機隊·西北韓 上空에서 敵 MIG機 1臺를 未確認 擊墜하고 2臺를 擊破.</p> <p>政 治</p> <p>○ UN印度首席代表 「핀 닷트」女史 下院에서 過般 UN에 提出되었던 印度의 韓國 平亂案이 美·英 兩國의 操縱에 依하여 作成되었다는 共產主義者들의 非難을 否認</p> <p>軍 事</p> <p>○ 東部戰線에서 韓國軍 夜半부터 早朝에 이르는 사이에 北韓 共產軍과 9次에 걸쳐 小規模 交戰.</p> <p>○ UN軍部隊 中部戰線 「제인·릿셀」高地 近方에서 2回 中共軍部隊의 攻擊을 擊退.</p> <p>○ 西部戰線 「켈리」高地 西南方 2個前哨陣地에 對한 中共軍 2個 分隊의 攻擊을 未明에 擊退.</p> <p>○ UN軍 艦載機隊延 300臺, 元山港을 비롯한 東海岸 共產軍施設을 猛打.</p> <p>○ UN軍세이버·젯트機隊, MIG通路에서 展開된 2次에 걸쳐 空中戰에서 敵機 1臺를 擊墜.</p> <p>○ 美海兵隊所屬 펜서·젯트機隊, 截擊 共產軍集結所를 攻擊.</p> <p>政 治</p> <p>○ 新華社 瀋陽電—去15日 美戰鬪機 48臺가 前後 7回에 걸쳐 滿洲 上空으로 侵入 中共軍 및 高射砲隊는 그 中 F84 젯트機 3臺 및 F85 젯트機 2臺를 擊墜.</p> <p>○ 「아」大統領 初度 記者 會見席上에서</p>
16일	<p>○ 地上戰鬪 散發的인 小規模戰鬪 繼續</p> <p>○ 高浪浦北方 및 鐵原西北方에서 敵·隊兵力의 探索企圖을 擊退.</p> <p>○ UN空軍戰爆擊機 延 2百臺 兼二浦地區 共產軍施設을 猛爆.</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18일	<p>言明—①中國海岸 封鎖問題는 아직도 研究段階에 不過, ②秘密條約의 全的 破棄는 不可, 但 他 國民의 奴隸化에 是 反對 ③蘇聯의 原子兵器保有는 確實한 事實.</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極히 散漫, 共產軍의 小規模 探索戰 程度.</p> <p>○ UN軍戰爆機 延379臺 平壤近傍 共產軍步兵學校와 戰車 및 其他 車輛修理工場 等 軍事目標을 猛爆.</p> <p>○ F 86세이버·젯트機隊 西北韓上空 空中戰에서 敵 MIG 15 젯트機 5臺를 擊墜하고 2臺를 擊破.</p> <p>○ 美第5空軍代辯人 滿洲上空에서 美機5臺가 擊墜되었다는 報道를 否定.</p> <p>○ UN軍捕虜收容所司令部 去16日夜 巨濟島第8收容所構內에서 中共捕虜 1名이 絞首體가 發見되었다고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府代辯人 國府軍은 中國本土의 港口로 入港하려는 船隻은 國籍 如何를 不問코 阻止를 繼續할 意向이라고 言明.</p>	19일	<p>○ UN軍 偵察隊 東部戰線南江近方에서 展開된 戰鬪에서 敵 15名을 射殺.</p> <p>○ UN軍偵察隊 文登里溪谷西方에서 共產軍과 交戰.</p> <p>○ UN軍 戰車隊와 砲兵隊 中部戰線에서 共產軍병커陣地에 對한 砲擊을 繼續.</p> <p>○ F 86세이버·젯트機隊 鴨綠江南方 5</p>
19일	<p>哩地點 共產軍補給中心地를 早朝에 爆擊.</p> <p>○ UN空軍戰爆機隊 延200臺 出擊코 前日에 繼續하여 平壤地區 共產軍 軍事施設을 爆擊.</p> <p>○ 白財務部長官 國會 本會議에서 緊急 通貨措置의 根本的 必要性을 說明</p> <p>○ 財務部 代辯人 UN軍은 不遠 韓國政府에 8千 7百萬弗을 支拂함으로써 開戰以來의 UN軍貸與金 1億 5千百萬弗의 返還을 完了한 것이라고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 戰車隊 中西部戰線 병커에 對한 砲擊을 繼續.</p> <p>○ UN軍部隊 「병커」高地近方 前哨陣地에 對한 中共軍 攻擊을 擊退.</p> <p>○ UN軍 F 86세이버·젯트機隊 鴨綠江南方 上空에서 展開된 空中戰에서 敵 MIG젯트機 2臺를 擊墜하고 1臺를 擊破.</p> <p>○ B 29爆擊機隊 新義州西南方 20哩 地點에 있는 共產軍補給輕輸送中心地를 強打.</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F 86세이버·젯트機隊 北韓上空MIG 通路에서 敵 젯트機 1臺를 未確認 擊墜하고 2臺를 擊破.</p> <p>○ B 26輕爆機隊 鎮南浦北方 共產軍 集結所를 爆擊하고, 前線으로 南下中이던 共產軍車輛 123臺를 破壞.</p> <p>○ 空軍當局 去 16日 趙恒植中尉以下 6 勇士가 同時에 百回出擊記錄을 樹立, 이로서 百回出擊 勇士를 33名에 達하</p>	20일	21일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22일	<p>였다고 發表.</p> <p>政 治</p> <p>○ 「피어슨」總會議長 라디오會見에서 言明—今後 韓國問題 審議時는 去 12月 可決한 印度案을 出發點으로 함이 妥當.</p> <p>○ UN軍部隊 中部戰線 漢灘江 東方과 狙擊隊線에서 中共軍 小部隊의 探索攻擊을 擊退.</p> <p>○ 高浪浦 西方에서 UN軍 探索隊 中共軍을 攻擊코 18名을 射殺.</p> <p>○ 板門店 東方에서 探索戰이 發端이 되어 8時間에 걸쳐 熾烈한 戰鬥展開.</p> <p>○ UN軍戰爆擊機隊 元山南方 共產軍戰車集結處를 攻擊코 戰車 7臺를 擊破.</p> <p>休戰會談</p> <p>○ 「블라야크」UN軍 司令官 李大統領과 會談.</p> <p>政 治</p> <p>○ 北京放送 美軍은 昨年 10月 1萬 1千名의 共產軍 捕虜를 韓國政府에 引渡하였다고 非難.</p>	24일	<p>125臺와 機關車 1臺를 未明前에 破壞</p> <p>○ B29 爆擊機隊 載寧地區 共產軍 修理工場을 爆擊.</p> <p>○ 「주양」元帥 戰線視察 및 韓國訓練所 訪問等 在韓旅程을 마치고 離韓.</p> <p>政 治</p> <p>○ 韓國戰 參加次 來韓한 比大統領令 息 「키리노」中尉 및 同女孀 「곤살레스」少尉 景武臺로 李大統領을 禮訪.</p> <p>○ 大韓勞總檢收員 勞動組合 去 21日 釜山第2埠頭 救護物資 荷役 檢收作業中 發生한 檢收員 被殺事件에 關하여 美第7港灣司令官에 抗議.</p> <p>軍 事</p> <p>○ 地上戰鬥 全 戰線에 걸쳐 輕微한 探索戰 繼續.</p> <p>○ UN軍 部隊 西部戰線 外廓陣地에 對한 共產軍 攻擊을 5時間에 걸친 戰鬥後 擊退.</p> <p>○ 美戰艦 「미즈리」號 元山 共產軍 基地를 砲擊.</p> <p>○ B29 爆擊機隊 元山南方 및 高城近傍 共產軍 補給中心地를 爆擊.</p> <p>政 治</p> <p>○ 「케이지」濠外相 極東問題에 關하여 下院에서 發言—濠政府는 韓國戰亂의 擴大를 阻止한 政策을 取하고 있으며 中國本土 反攻에 美國의 慎重한 態度를 要望.</p> <p>○ 第7回 UN後期總會 開幕—「아」美大統領의 렛세지紹介가 있었을 뿐 本格의 討議는 明日부터 開始.</p>
23일	<p>軍 事</p> <p>○ 韓國軍 部隊 東部戰線 錨型高地 近方에서 共產軍 部隊를 奇襲하여 96名을 射殺.</p> <p>○ UN軍 部隊 中部戰線 北漢江 西方 指型稜線에 對한 共產軍 小部隊의 攻擊을 擊退.</p> <p>○ UN軍 戰車部隊 中西部戰線 및 東部戰線 一部에서 共產軍 前線 「방커」陣地를 攻擊.</p> <p>○ B29 輕爆擊機隊 共產軍 補給自動車</p>	25일	<p>軍 事</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 金化西北方에서 UN軍陣地에 對한中共軍 175名의 攻擊을 擊退.</p> <p>○ UN軍部隊 鐵原 西北方 戰鬪에서 共產軍 約50名을 殺傷.</p> <p>○ UN軍偵察隊 板門店東南方 共產軍陣地를 早朝에 2회에 걸쳐 攻擊.</p> <p>○ 「미조리」號를 비롯한 UN軍艦艇, 東海岸 共產軍施設 15個所를 破壞.</p> <p>○ B26輕爆擊機隊, 共產軍 機關車 2輛과 補給車 90臺를 破壞.</p> <p>○ B29 爆擊機隊 沙里院 西方 7哩地點 共產軍補給中心地를 爆擊.</p> <p>○ UN軍 F86젯트機隊 鴨綠江南方上空에서 MIG젯트機 4臺를 擊墜破.</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白財務部長官 緊急金融 措置에 依하여 造成된 約 30億圓의 産業復興基金은 相當히 長期的인 安定性을 保持할 만한 資源이 될것이라고 國會서 提案 說明.</p> <p>○ 「콜라이크」司令官 財務部를 通하여 發表—美國政府는 1953年 2月 7日 以前 UN軍貸與金未清算額 8,580萬弗을 大韓民國政府에 支拂하는바 同意.</p> <p>○ 在日 韓國代表部 李大統領指示에 依하여 大邦九事件에 對한 聲明을 發表—日本漁船이 韓國水域出漁는 兩國間의 關係를, 以前과 같은 敵對的인 것으로 하려는 것을 表示.</p>		<p>探索攻擊을 短時間 交戰끝에 擊退.</p> <p>○ B26輕爆擊機隊 麻田地區 共產軍 補給中心地를 爆擊.</p> <p>○ UN軍 捕虜收容所司令部 發表—24日 巨濟島 捕虜收容所에서 收容所視察中인 美將校를 襲擊한 共產軍 捕虜中 1名이 射殺, 2名 負傷.</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政治委員會 韓國問題討論을 開始.</p> <p>「스탠더」派代表, 蘇代表는 從來의 宣傳演說을 버리고 實際的인 建設的 意見을 披瀝하여야 할 것이라고 非難.</p> <p>○ 政治委員會, 韓國問題에 關한 次後 討論는 來 3月2日까지 延期하기로 決定.</p>
26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中部戰線에서 我軍 戰車部隊 共產軍 「병커」陣地를 攻擊.</p> <p>○ 「병커」高地東北方에서 敵 2個分隊의</p>	27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韓國軍 部隊 東部戰線에서 約 2百名의 北韓 共產軍의 攻擊을 擊退.</p> <p>○ 分隊兵力의 UN軍部隊, 西部戰線에서 數的으로 4倍乃至 5倍 優勢한 中共軍을 奇襲하고 45名을 射殺.</p> <p>○ UN軍部隊 漣川西方 「케리」高地에 對한 共產軍 150名의 攻擊을 擊退.</p> <p>○ UN軍 선더·젯트機隊 楚山 共產軍 訓練所를 爆擊.</p> <p>○ B26輕爆擊機隊 北青 共產軍兵營를 爆擊.</p> <p>○ B29爆擊機隊 平壤 近方 共產軍 3個 目標物을 爆擊.</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政府 緊急金融措置法을 公布施行.</p> <p>○ NATO軍最高司令部 發表—「릿」司令官은 歐洲 各國 空軍司令部를 統一하</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28일	<p>는 計劃을 NATO代理理事會에 提出.</p>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軍步兵部隊 6日에 걸친 小規模의 人 戰鬪에서 共產軍 約百名을 射殺. ○ UN軍戰車隊 共產軍戰線陣地에 對한 砲擊을 繼續. ○ 美 重巡洋艦 「로스안젤스」號 元山港에 突入하여 共產軍砲陣地 및 物資貯藏所를 猛砲擊. ○ UN空軍 曇天으로 活動을 制限. ○ 巨濟島捕虜收容所 第7監棟에서 北韓 捕虜 1名 同僚捕虜 1名을 棍棒으로 打 殺. <p>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會本會議 3月2日부터 14日까지 休會하고 緊急金融 措置로 말미아마 中斷되었던 國政監督를 繼續實施하기로 決定. ○ 政府主催 三一節 記念式典에 參席하기 위하여 全國務委員上京. ○ 埃及外務省權威制 埃及政府는 그 中立政策을 堅持하기 爲하여 西歐側의 中東防衛 機構에 參加치 않을 것이라고 示唆. 	2일	<p>機 擊墜 25臺 未確認, 擊墜 8臺 擊破 30臺, 敵 機關車 35臺 擊破, 敵 車輛 2,823臺 破壞, UN軍航空機 喪失16臺</p> <p>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라스」美國務長官, 美國 UN協會에서 演說—UN에서의 蘇聯의 拒否權行使 戰術로 보아 地域의 防衛協定을 締結하는 것이 國際的 安全保障을 確保하는 가장 實際的인 手段.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首都高地를 掌握하고 있는 韓國軍, 中共軍 1個中隊의 攻擊을 擊退하고 31名을 射殺. ○ B29爆擊機隊 夜間에 元山港 附近을 爆擊. ○ 「테일러」美 第8軍司令官 共產軍이 攻勢를 取한다면 破滅을 自招할 뿐이라고 記者會見談. <p>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自由黨監察部長 辛泰嶽氏, 「新縱會」의 領導者 張澤相氏의 入黨을 拒否한 다고 談話發表. ○ 葉國府 外交部長 美英의 對韓政策을 非難하고 中共에 對한 壓力을 加하는 것이 韓國戰爭解決의 길이라고 談. ○ 安保理事會에서 韓國問題討論再開—「미시스키」蘇代表 韓國問題處理를 위한, 國際委員會를 設置하자는 昨年來의 提案을 固執.
3월 1일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我軍部隊 首都高地附近의 UN軍前哨陣地에 湧고들어온 中共軍 1個中隊를 45分間의 交戰後 擊退. ○ 我軍部隊 「케리」高地 西方에 攻擊해 온 共產軍 1個 小隊를 15分間의 接戰後 擊退. ○ B26爆擊機隊 淸津을 猛爆. ○ 第5空軍 2月中戰果—敵 MIG15 7트 	3일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我軍部隊 金城 西北方 我前哨陣地로 探索해온 敵小隊兵力과 約 25分間 交戰後 이를 擊退.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 國軍部隊 狙擊殺線 및 炭石峰에서 敵 2個分隊와 交戰後 이를 擊退.</p> <p>○ 美第5空軍司令部發表—F 86세이버·젯트機隊 北韓上空에서 MIG1회를 未 確認擊墜, 5회를 擊破.</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府側報道—中共軍 第4野戰軍은 去 2月 21日부터 大野外作戰演習을 實施 中, 蘇聯으로부터 供給받는 最新式武器도 使用中.</p> <p>○ 安保理事會, 韓國問題를 繼續討議, 和蘭, 「페루」兩代表 韓國戰亂의 責任은 共產側에 있다고 非難演說.</p> <p>○ 「프레더스」美上員議員, UN美國協會에서 UN軍은 韓國問題를 解決하기위 하여 韓滿 國境에 中立地帶를 設置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提議.</p>		<p>國問題에 關하여 長時間會談.</p> <p>○ 蘇聯政府特別 發表—「스탈린」首相腦 溢血로 危篤狀態.</p> <p style="text-align: center;">5일 軍 事</p> <p>○ UN軍, 早晚에 金城北方地區의 中共 據點을 攻擊하여 占領.</p> <p>○ 美戰艦 「미조리」號 元山港 海岸地帶를 砲擊.</p> <p>○ 第5空軍發表—UN戰爆機隊의 爆擊으로 清津工業地帶가 大炎上.</p> <p>○ UN海軍艦載機隊, 長津 第1發砲所를 擊破.</p> <p>○ 「클라이크」將軍, 「베일러」將軍 및 東部戰線野戰軍司令官 李享根과 戰線에서 秘密會談.</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濼洲軍 2個大隊 韓國向發.</p> <p>○ 「스탈린」蘇首相 死亡.</p>
4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中部戰線 「물」高地에 正面攻擊을 散行한 共產軍 1個大隊 一時占領했으나 同日 下午 韓國軍部隊에 依해서 이를 被擄 同作戰에서 國軍部隊 中共軍180名을 殺傷.</p> <p>○ 「스탈린」黨態의 報道로 共產軍 士氣 低下.</p> <p>○ 美 海軍巡洋艦 「로스안젤스」號 兩度 元山港에 突入하여 敵 彈藥 貯藏所를 強打.</p> <p>○ 美第8軍公報將校發表—2月中의 共產軍損害는 7,500名, 韓國戰 開始 以來 最少의 數字.</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UN亞洲·阿弗利加 15個國 代表, 韓</p>	6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我軍 中部戰線 金化北方의 「복키 포인트」高地에서 共產軍과 24時間 交戰코 共產軍 85名을 射殺, 55名을 負傷</p> <p>○ 我軍部隊 金城 北方地區의 一據點을 敵에게 奪還當했다가 다시 奪還.</p> <p>○ 美 戰艦 「미조리」號, 繼續해서 元山港을 艦砲射擊, 白陸軍參謀總長 이를 觀戰.</p> <p>○ 蜂岩島 捕虜收容所에서 300名의 民間人 抑留者 騷擾惹起, 捕虜 2名이 重傷.</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李大統領 「스」蘇首相의 死亡에 對하여 談話를 發表—성실한 일이며 後繼</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7일	<p>者들이 侵略主義를 버리고 우리의 協調하기를 希望.</p> <p>○ 蘇聯新首腦部 決定一首相에 「말렌코프」, 副首相에 「모로토프」外相 「베리아」內相, 「볼가아닌」陸相 및 「가가노비치」, 最高會議 幹部會議長에는 「워로시르프」元帥.</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韓國軍, 「케리」高地에 來襲한 中共軍 2個中隊를 擊退.</p> <p>○ UN軍 探索隊, 不毛高地 鐵原西方의 1個高地에서 共產軍과 30分間 交戰 끝에 이를 擊退.</p> <p>○ UN軍 金化東方에서 공격해온 中共軍을 2時間의 戰鬪 끝에 70名을 死傷시키고 擊退.</p> <p>○ 巨濟島 捕虜收容所 騷動—捕虜 23名이 死亡, 42名이 負傷.</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3日間에 걸친 兵役忌避者特別調查班의 活動으로 慶南道內에서 忌避者600名을 摘發.</p> <p>○ 「레프트」美共和黨上院 院內總務 韓國戰爭 全般에 關한 上院의 調査를 要求.</p>	9일	<p>召集코 秘密連席會의 開催</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李大統領, 選都問題에 關하여 準備는 進行中이나 公布할때까지 待期하라고 談話發表.</p> <p>○ 佛前首相 「레이노오」氏, 戰線과 在韓佛軍을 視察하기위하여 서울到着, 即時로 李大統領과 會談.</p> <p>○ 「노오랜드」美上院議員, 國會에 依한 韓國戰爭 遂行狀態의 全般的 調査를 要求한 「라프트」議員의 提案에 反論—國會는 戰爭을 直接指揮하거나 戰略, 戰術을 決定할수 없으므로 調査對象을 局限시키기 妥當.</p> <p>○ 美「보오잉」航空機會社, 國防省의 承認下에 B-29의 生産을 마치고 今後로는 B-52, B-47等 젯트 엔진 爆擊 機반을 生産케 되었다고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國防部隊 杆城西北方 我4個前哨陣地에 攻擊해온 敵2個小隊를 1時間餘의 交戰 끝에 擊退.</p> <p>○ 鐵原西北方에서 我搜索隊, 敵小隊兵력과 短時間交戰 끝에 36명을 殺傷.</p> <p>○ UN軍部隊, 漣川西北方의 我2個前哨에 攻擊해온 敵과 交戰 끝에 砲火로 擊退.</p> <p>○ UN軍野砲隊前線後方에 있는 共產軍 施設에 對해서 砲擊, 共產軍 約100名을 射殺.</p>
8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B29爆擊機隊 北韓總城地區에 100餘屯의 高性能爆彈 投下.</p> <p>○ UN空軍세이머·젯트機隊, 敵MIG戰鬥機를 3台 擊墜, 2台 擊破, 2台破損</p> <p>○ 極東空軍出擊回數 790回.</p> <p>○ 6—7兩日間에 걸쳐 東部戰線 視察을 마친 「베일리」將軍, 麾下 各軍團長을</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西部戰線海兵隊를 視察하고 歸釜한 孫海軍參謀總長, 海兵隊의 士氣는 衝</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天하고있다고談.</p> <p>○ 國防部科學技術研究所, 同所에서 試造한 國軍兵食의 試食會를 國防部長官 參席下에 開催.</p> <p>○ UNCURK 政府에 對해서 38以北奪還地區의 歸農擴大를 認定하여 行政權의 移讓은 研究中이라는 9日附의 回翰을 傳達.</p> <p>○ 安保理事會, 韓國再建問題를 討議코 韓國統一復興委員會(UNCURK)의 解體를 要求한 蘇聯決議案을 否決코 韓國에 對한 經濟 및 其他援助를 供與하자는 美, 英, 佛 等 7個國의 決議案을 可決.</p> <p>○ 美議會消息通의 報導-「벤프리트」將軍은 上院外交委員會證言에서 韓國戰線에서의 原子彈使用을 主張.</p> <p>○ 「달렌코프」新蘇首相, 「스타린」首相葬禮 式場에서의 追悼演說에서 民主, 共產兩主義間의 共存을 強調.</p>		<p>는 共產軍將校訓練所를 爆擊.</p> <p>○ 美空軍當局發表一戰亂發生以來 共產空軍에 加한 損失은 合計 1,788機 이 에 對하여 UN軍側損害는 891機.</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서울에서 國務會議開催, 李大統領, 經濟安全과 產業復興을 強調.</p> <p>○ 政府 西南地區戰鬪警察隊 設置法案을 國會에 回付.</p> <p>○ 孫海軍參謀總長, 韓國海軍은 水域防衛任務를 繼續擔當해 나감에 變함이 없다고 記者會見談.</p>
10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白馬山北方의 敵前哨地點으로 進出한 我奇襲隊, 敵2個小隊兵力과 約25分間 交戰後 敵61名을 殺傷.</p> <p>○ 中部戰線 金化西北方 狙擊兵移線「덕키」高地의 韓國軍에 對해서 中共軍, 5回에 걸쳐 小規模攻擊.</p> <p>○ 西部戰線 臨津江西方의 UN軍前哨高地에 對해서 300名 程度의 中共軍이 攻擊, 中共軍의 損害는 射殺15名, 負傷30名.</p> <p>○ B-29爆擊機編隊, 沖繩을 出發하여 北韓西海岸의 新安州北方 10哩에 있</p>	11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國軍部隊 狙擊兵線東北方의 我 2個前哨陣地를 探索하러던 敵小隊兵力과 交戰코 敵 8名을 殺傷.</p> <p>○ 文登里西北方으로 進出한 我搜索隊, 敵 2個分隊兵力과 交戰끝에 14名을 殺傷.</p> <p>○ 國軍 掃海艦艇, 西海岸의 九味浦一帶中共로오치카를 猛烈히 艦砲擊.</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UN總會, 前般安保理事會를 通過한 韓國再建支持決議案을 54對5로 否決.</p>
		12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東部戰線은 진눈개비, 中部戰線은 終日降雨.</p> <p>○ 中部戰線 平康南方에서 UN軍 搜索隊 50-80名의 中共軍에 遭遇, UN軍, 同搜索隊救出에 成功하고 中共軍을 擊退.</p> <p>○ B-29機 13臺 熾烈한 敵地上砲火를 부숩쓰고 平壤西南方 12哩地點의 「보봉리」에 있는 共產軍補給中心地에 130</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順의 高性能爆彈을 投下.</p> <p>○ 泰軍事代表團, 美軍事施設視察後 歸國途中 在韓泰國軍部隊를 訪問.</p> <p>○ 英聯邦師團, 지난 1月末 豫備軍으로 後方に 配置.</p> <p>○ 「테일러」美第8軍司令部官, 必要한 彈藥量은 保有하고있다고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美上院軍事委員會, 韓國에서의 彈藥不足問題에 關하여 議會의 調査를 要求하는 決議案을 可決.</p>	<p>15일</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鬥, 雨霪로 因하여 거의 停止狀態.</p> <p>○ B-29編隊 元山外廓地帶의 操車場을 攻撃.</p> <p>○ UN空軍ジェット機隊, 空中戰에서 MIGジェット機 7臺를 擊墜.</p> <p>○ 東萊警察署長以下 50名, 鐵馬山一帶를 搜索하고 至12月 22日 機張驛을 襲撃한 共匪4名을 射殺코 武器多數를 鹵獲.</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軍步兵將校 150名의 渡美歡送會, 釜山驛前에서 舉行.</p> <p>○ 北京放送報導—UN軍은 多量의 彈藥 및 補給物資를 北韓東西海岸의 各島嶼에 輸送하고 不斷한 上陸作戰演習을 實施하고 있으며 戰線一帶에는 增援部隊와 新補給品의 蓄積.</p> <p>○ 僑懸할만한 巴里消息通의 報導—昨年11월 「아」大統領訪韓時에 蘇機大編隊가 東海의 美海軍艦隊에 接近 이를 遊擊한 美機 其中 3臺를 擊墜.</p>	
<p>13일</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地上部隊 戰線各地에서 攻撃해 온 共產軍을 擊退, 中部戰線에서 가장 熾烈.</p> <p>○ B-29爆擊機12臺 新義州東方25哩地點의 共產軍補給中心地 및 敵集結部隊에 120餘噸의 高性能彈을 投下하여 200餘棟의 建物を 粉碎.</p> <p>○ UN空軍ジェット機隊 西北韓上空에서 MIGジェット機4臺를 擊墜.</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電力事情 若干好轉 今日現在 9萬키로 發電에 到達.</p> <p>○ 日本製造業者, 美陸軍의 注文에 따라 不遠 「마주우카」砲를 生産.</p>	<p>14일</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駐日韓國代表部, 外務部に 報告—中南美「도미니카」共和國, 同國駐日代使를 通하여 韓國派兵意思를 傳達.</p> <p>○ 「맥아더」元帥, 美陸士創設記念式에 臨하여 오직 UN軍의 勝利만이 韓國戰亂의 唯一한 解決策이라고 強調.</p>	<p>16일</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中共軍 「지브랄탄」高地的 UN軍에 對해서 熾烈한 攻擊을 展開 UN軍 白兵戰으로 이를 擊退.</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스티븐슨」氏 李大統領과 會談, 李大統領 對日問題에 關한 強更態度를 表明.</p> <p>○ 英政府, 韓國問題에 關하여 議會에 白書提出—① 現在로서는 休戰可能</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17일	<p>損은 全無. ② 共產軍이 現在兵力은 100萬以上, 그中 75萬이 中共軍.</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40臺의 B-29機編隊, 韓滿國境의 共產軍陸軍工場과 兵舍를 大規模爆擊.</p> <p>○ 「스티븐슨」氏 美第8軍司令官, 白陸軍參謀總長을 帶同하고 戰線의 韓國軍第5826部隊를 視察, 「스」氏, 視察後 韓國軍을 激讚.</p> <p>○ 英聯邦師團 溱洲聯隊 第2大隊, 釜山 地頭에 到着 即時 戰線으로 向發.</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共產軍側 首席代表, 南日, 連絡將校를 통해서 UN軍側 首席代表 「헤리슨」中將에게 諒翰을 傳達—UN航空隊가 3月 13日 開城을 爆擊하였다고 非難하고 또 UN軍側이 捕虜問題에 關한 印度案의 採擇을 UN 第7次 總會에 對해서 強要했다고 非難.</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會, 戰歿軍醫遺家族 및 傷殘軍人에 對한 年金增額案을 審議하여 從來의 6千圓으로부터 1萬2千圓으로 決定.</p> <p>○ 國防部, 幹部候補生 合同密查會議를 開催 大學生과 高校生은 一律로 待遇키로 決定.</p> <p>○ 「크라야크」UN軍 總司令官, 「마나라」到着.</p>	19일	<p>擊하여은 敵小隊兵力과 交戰後一時 撤收하였다가 再奪還. 敵 15名을 殺傷.</p> <p>○ 我軍 未明에 漣川西北方의 我前哨陣地를 攻擊해은 小隊兵力의 敵과 短時間交戰後 이를 擊退.</p> <p>○ 我探索隊 夜間에 漣川西北方과 高浪浦西北方으로 進出하여 敵小數와 短時間 交戰後, 敵兵을 殺傷.</p> <p>○ 美國防省, 在韓UN軍 損害는 現在 131,244名이라고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中國會議長, 國軍將兵의 給食을 UN軍의 그것과 同等하게해야 한다고 強調하는 聲明을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我探索隊, 東部戰線一帶에서 어제밤 부터 今未明에 이르기까지 16次에 걸쳐 敵前哨地點으로 進出 敵 47名을 殺傷.</p> <p>○ 共產軍 2個小隊 「빙커」高地北東方의 UN軍前哨陣地를 攻擊, UN軍, 76分間交戰後 이를 擊退.</p> <p>○ 美海兵隊 高浪浦西方의 共產軍陣地 및 「빙커」陣地를 早期에 攻擊하여 10分間의 肉迫戰을 展開하고 原陣地로 撤收.</p> <p>○ UN輕爆擊機隊 雨天으로 말미암아 出擊을 敵陣地攻擊에 局限.</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陳內務部長官 記者會見談—正式還都는 戰線北進에 따를것이며 全南 白雉山에서 16日 共匪48名을 射殺. 15名</p>
18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我軍杆城西北方에서 敵2個分隊兵力의 探索企圖를 砲火로 擊退.</p> <p>○ 我軍 金化西北方의 我前哨地點을 攻</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20일	<p>을 生捕. 全北 長水에서는 17日 26名을 射殺 1名을 生捕.</p> <p>軍 事</p> <p>○ 我 探 索 隊 東 部 戰 線 一 帶 에 서 昨 夜 부 터 今 未 明 에 7 次 에 걸 쳐 敵 前 哨 地 點 으 로 進 出, 敵 14 名 을 殺 傷.</p> <p>○ 我 探 索 隊 北 漢 江 西 北 方 으 로 進 出 하 여 敵 小 隊 兵 力 과 交 戰 後 敵 3 名 을 殺 傷.</p> <p>○ 軍 用 砲 兵 部 隊 西 部 戰 線 小 老 里 高 地 에 對 한 2 次 의 中 共 軍 攻 擊 을 擊 退.</p> <p>○ 美 F 84 선 더 젓 트 機 隊 共 產 軍 補 給 輸 送 隊 을 擊 砲 繼 續 되 는 降 雨 로 爾 餘 航 空 隊 은 出 擊 不 能.</p> <p>○ 前 駐 韓 美 1 第 軍 團 長 이 며 現 布 哇 地 上 軍 司 令 官 인 「오 다 니 엘」 中 將 論 山 第 2 訓 練 所 와 尙 武 臺 陸 軍 步 兵 學 校 를 視 察.</p> <p>政 治</p> <p>○ 前 美 太 平 洋 艦 隊 司 令 官 「브 랜 디」 提 督 海 軍 士 官 學 校 同 窓 生 에 보 내 書 翰 에 서 中 國 海 岸 封 鎖, 滿 洲 爆 擊, 原 子 彈 使 用 등 韓 國 戰 亂 解 決 을 위 한 全 面 的 行 動 을 要 求.</p> <p>○ 倫 敦 發 Reuter 報 導 「말 렌 크 프」 首 相 은 黨 書 記 의 地 位 로 부 터 辭 任 後 任 에 는 「프 르 시 쇼 프」.</p>	<p>MIG 젓 트 機 12 臺 를 擊 墜 乃 至 擊 破.</p> <p>○ 美 第 8 軍 代 辯 人 言 明 一 布 哇 美 地 上 軍 司 令 官 「오 다 니 엘」 中 將 이 昨 日 18 日 韓 國 到 着 同 將 軍 이 「테 일 러」 中 將 의 後 任 이 된 다 는 것 은 全 然 浪 說.</p> <p>政 治</p> <p>○ UN 一 政 治 委 員 會, 蘇 聯 의 反 對 를 무 릎 스 고 軍 縮 問 題 를 繼 續 討 議 하 기 로 決 定.</p> <p>○ 「말 렌 크 프」 美 國 務 長 官, 美 政 府 는 「말 렌 크 프」 의 最 近 演 說 內 容 을 仔 細 히 檢 討 하 였 으 나 아 무 릎 安 堵 感 도 얻 지 못 하 였 다 고 記 者 會 見 談.</p>	<p>22일</p> <p>軍 事</p> <p>○ 美 海 兵 隊 「빙 커」 高 地 에 對 한 中 共 軍 800 名 의 攻 擊 을 10 時 間 의 戰 鬪 끝 에 擊 退 하 고 中 共 軍 112 名 을 射 殺.</p> <p>○ 美 戰 艦 「미 조 리」 號 아 침 에 元 山 港 을 砲 擊.</p> <p>○ B 29 機 7 臺, 新 安 州 北 方 의 嶺 美 鐵 橋 에 170 顆 爆 彈 을 投 下.</p> <p>○ UN 서 論 報 導 一 開 戰 이 來 3 月 20 日 가 지 의 第 5 空 軍 의 戰 果 는 敵 飛 行 機 擊 墜 610 臺, 未 確 認 擊 墜 109 臺, 擊 破 784 臺.</p> <p>政 治</p> <p>○ 政 府 代 辯 人, 英 女 王 戴 冠 式 에 는 韓 國 代 表 로 申 國 會 議 長, 白 國 務 總 理 署 理 등 5 氏 가 出 席 할 것 이 라 고 發 表.</p> <p>○ 「오 다 니 엘」 中 將, 5 日 間 에 걸 쳐 韓 國 軍 後 方 施 設 을 視 察 하 고 東 京 向 發.</p> <p>○ 「크 라 아 크」 UN 軍 總 司 令 官, 印 度 支 那 戰 線 各 地 를 視 察.</p>
21일	<p>軍 事</p> <p>○ 38 線 이 北 西 海 岸 의 陸 島 附 近 은 警 備 中 이 던 韓 國 海 兵 隊 猛 砲 擊 을 加 해 온 敵 海 岸 砲 臺 에 應 戰 하 여 敵 陣 地 3 個 소 를 破 壞.</p> <p>○ 美 세 이 버 젓 트 機 隊 空 中 戰 에 서 敵</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23일	<p>○ 前駐韓 및 駐日本 英聯邦軍司令官 「취어트」中將, 韓國은 暴力과 奴隸主義에 對抗하여 自由人的 威信을 守護하기 위한 戰場이며 UN軍을 더 派遣해야한다고 「멜보른」에서 放送.</p> <p>○ 美上院軍事委員會發表 「엔프리트」大將은 昨 5.6.10日의 3日間에 걸친 證言에서 在韓美軍의 彈藥不足때문에 共產軍의 火力이 優位를 차지하고 있다고 確言.</p> <p>○ 東部戰線의 韓國軍探索隊 國軍으로서 처음으로 네이팜彈을 使用하여 敵 2個小隊를 擊退.</p> <p>○ 中部戰線의 漣川, 鐵原間 幹線道路를 瞰制하는 豚肉高地, 不毛高地等에 對해서 3千名以上の 中共軍이 저녁에 攻擊敵行.</p> <p>○ 英 航空母艦 「글로리」號로부터 出擊한 艦載機 海州로부터 松采에 걸친 目標物을 攻擊. 出擊回數 66回.</p> <p>○ UN輕爆擊機隊 北韓各地의 敵補給路 駐車場 機關車等을 猛攻.</p> <p>○ 在韓 加奈陀軍의 增援部隊 釜山에 到着.</p>	24일	<p>○ 否를 徹底히 調査하기위한 小委員會를 任命.</p> <p>○ 「콜린스」美陸軍參謀總長 上院에서 證言—在韓 UN軍의 彈藥 및 其他 軍需品은 作戰遂行에 充足.</p> <p>○ 我軍 未明에 白馬高地로 攻擊해온 中隊兵力의 敵을 2時間의 交戰끝에 砲火로 擊退.</p> <p>○ 不毛高地等戰鬪에 美·中共兩軍 增援部隊를 投入.</p> <p>○ 「콜롬비아」軍을 包含한 美第7師團, 重砲와 탱크의 支援下에 反擊戰을 展開.</p> <p>○ 我軍, 漣川西北方에서 敵中隊兵力과 交戰끝에 敵22名을 殺傷.</p> <p>○ 所屬不明의 飛行機 UN軍基地에 4個의 爆彈을 投下.(美第8軍發表)</p> <p>○ 昨日과 수일에 걸쳐 幹岩島의 捕虜 騷擾件發生, 巨濟島收容所에서는 捕虜의 反抗으로 韓國警備兵이 發砲하여 捕虜 3名이 負傷.</p> <p>○ 美第8軍司令官 「테일러」將軍 鎮海陸軍士官學校를 視察.</p>
	<p>政 治</p> <p>○ 敵側—平壤放送, 美軍機가 昨 17日 江原道平康郡에 毒瓦斯彈을 投下하였다고 報導.</p> <p>○ 「클라이크」UN軍總司令官, 印度支那 越南軍에 追加援助를 할것을 美政府에 要請하였다고 香港에서 言明.</p> <p>○ 美上院 韓國戰線에서의 彈藥不足與</p>	25일	<p>政 治</p> <p>○ 政府 憲兵總司令官에 元容德 少將을 任命.</p> <p>○ 我搜索隊, 未明에 沙汰里北方과 杆城西北方으로 進出하여 敵2個分隊 및 小隊兵力과 短時間의 交戰끝에 敵16名을 殺傷.</p> <p>○ 我軍, 指形稜線을 攻擊해온 共產軍</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을 擊退.</p> <p>○ 美軍部隊 敵의 熾烈한 一齊砲擊에 遭遇하여 不毛高地에 對한 10時間의 反擊을 中止.</p> <p>○ 「테일러」將軍 不毛高地 戰鬥을 直接 觀測하기 爲해서 戰線에 飛行.</p> <p>○ 李大統領, 西部戰線의 美海兵隊를 訪問코 感謝狀을 授與.</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金駐日韓國公使, 奧村日本外務次官과 韓日會談再開等 問題에 關하여 會談.</p> <p>○ 「클라이크」將軍, 臺灣到着, 國府軍 首腦部와 正式軍事會談을 開催.</p> <p>○ 美下院, 韓國戰을 遂行하기 爲하여 大統領에게 附與한 特別法案(破壞行 動에 對한 嚴罰 및 防衛에 必要한 工 事, 人事의 優先의 決定)을 延長시킬 것을 可決.</p>		<p>○ 「클라이크」UN軍總司令官, 極東의 모든 反共軍은 對共共同戰爭에서 緊密히 調整되고 統一되어야 한다고 臺北에서 記者會見談.</p> <p>○ 「클라이크」將軍 東京向 臺灣發.</p> <p>○ 太平洋地區美地上軍司令官 「오다니엘」中將 臺北到着.</p> <p>○ 香港에서 前駐美新西蘭大使 「칼버트렌센」氏 韓國에 派出되지 않은 UN諸國을 非難하고 韓國에 軍隊를 보내라고 強調해서 演說.</p> <p>○ 「아」大統領 記者會見席上에서 言明, 美軍이 韓國戰線에서 不毛高地를 喪失한 것은 決코 彈藥不足과는 無關係.</p>
<p>26일</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我軍部隊, 未明에 沙汰里北方 및 北漢江 東方에서 分隊兵力의 敵探索隊를 擊退.</p> <p>○ 美步兵部隊, UN軍戰爆擊機隊로 하여금 大學空中攻擊을 可能케 하기 爲하여 不毛高地를 撤收, 中共軍 여기 에다 兵力千餘名을 投入.</p> <p>○ UN軍戰爆擊機隊 不毛高地에 20萬封 度の 爆彈을 投下.</p> <p>○ 不毛高地西方에서 白兵戰 展開.</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政府, 軍事援護法의 大幅強化改正案을 國會에 提出.</p>	<p>27일</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美 海兵隊 砲臺의 掩護下에 不毛高地中 1個前哨陣地를 再奪還.</p> <p>○ 中共軍 3千餘名, 西部戰線東北方 「빙커」高地에 있는 前哨陣地를 7회에 걸쳐 波狀으로 攻擊, UN軍 이를 肉迫戰으로 擊退.</p> <p>○ 第5空軍所屬機 不毛高地上의 敵軍地 上에 25萬封度の 高性能彈 및 3萬封 度の 네이팜彈을 投下.</p> <p>○ 第5空軍, 空中戰에서 敵 MIG젯트機 2臺를 未確認擊墜 2臺를 破壞.</p> <p>○ 昨日과 今夜에 걸쳐 巨濟島捕虜收容 所에서 送亡하러던 捕虜2名이 被殺.</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務會議, 民兵隊令을 通過.</p>	<p>28일</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美海兵隊 「베가스」高地의 山頂을 奪</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回.</p> <p>○ B29爆撃機隊, 夜間에 沙里院地方에 120噸의 高性能爆彈을 投下.</p> <p>○ 美第5空軍當局, 在韓美戰團爆撃機隊에는 原子爆彈의 積貯가 可能다고 볼 수 있는 F86改良機가 配置되어 있다 고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共產軍側, 連絡將校會議 開催를 요구하여 여기에서 金日成, 彭德懷 兩司令官의 「클라아크」UN軍司令官에게 보내는 密翰을 手交一去 2月 22日의 「클라아크」UN軍司令官의 重傷病 捕虜의 優先交換提案에 受諾하여 休戰會談의 再開를 提案.</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美太平洋地區 海兵隊司令官 「플랭클린·하아트」中將 來韓.</p> <p>○ 美佛首腦部, 會談을 마치고 共同聲明發表—① 萬一 韓國休戰이 成立된 後에도 中共이 極東의 他地域에서 侵略戰爭을 繼續한다면 이는 韓國休戰의 基礎가 되는 協定과 全的으로 矛盾되는 것으로 看做. ② 兩國은 極東地域에서의 모든 共產主義者의 侵略은 同一한 計劃에 나온것으로 認定.</p> <p>○ 美국무성당국, 共產側이 중상병 捕虜의 交換에 관한 「클라아크」將軍의 제안을 수락한것은 正式代表에 의한 休戰會談再開와는 別개 문제라고 聲明 발표.</p> <p>○ 「스티븐슨」美陸軍長官 한국전선의 彈藥狀況을 觀察하기 위하여 極東향</p>	<p>발.</p> <p>○ 美의무성, 共產側의 한국휴전회담제 개에 관한 제안을 신중히 檢討하겠다고 발표.</p> <p>○ 佛의무성발표—「몰로토프」소련外相은 北韓에 있는 佛人억류자의 送還을 周旋해 주겠다고 約束.</p> <p style="text-align: center;">29일 軍 事</p> <p>○ 美海兵隊 「베가스」高地上的 中共軍을 驅逐 中共軍 457名의 屍體를 遺棄.</p> <p>○ 比律賓제14戰團大隊 釜山에 도착, 즉시로 戰線으로 向發.</p> <p>○ 「테일러」美제8군사령관, 昨週의 中共軍의 攻勢는 中共軍에 有利한 것이 아니었으며, 第8軍은 기동력을 더 強化할 것이라고 記者會見談.</p> <p>○ UN軍司令部 발표—「윌리엄·카아묵」大領을 수반으로하는 UN軍側 연락장교단 重病포로의 交換과 휴전회담 再開를 위하여 汶山에서 待機中.</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北韓傀儡政府, 內閣을 更迭.</p> <p>○ 「쇼오트」美下院軍事委員長, 공산측의 한국휴전회담 再開제안에 對하여 큰 期待는 가질수 없다고 見解를 표명.</p> <p style="text-align: center;">30일 軍 事</p> <p>○ 中東部戰線, 積雪로 말미암아 작전 停頓狀態.</p> <p>○ 1,500名以上の 中共軍, 西部戰線의 「베가스」高地에 對하여 8時間에 걸쳐 3차의 공격을 敢行, UN軍 이를 擊</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退.</p> <p>○ UN空軍 重爆擊機, 不毛高地近處의 敵陣地를 猛打.</p> <p>○ B29機14台, 北韓東海岸敵陣地에 大規模空襲.</p> <p>○ 國籍不明의 飛行機 東部戰線 UN軍陣地에 11個의 爆彈을 投下.</p> <p>○ 「데일리」제8군司令部, 美第7師團이 掌握하고 있는 不毛高地地區 및 中東部戰線의 韓國軍 제2군단을 訪問.</p> <p>○ 加奈陀부대의 一部兵力 離韓.</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UN軍司令部, 抑留捕虜數를 시정發表—傷兵捕虜는 2,619名 捕虜의 全數는 132,304名.</p> <p>○ UN軍司令部 代변인 발표—「클라아크」將軍은 休戰會談제개를 要請한 共產軍側제외에 관하여 華府의 指命을 待機中.</p> <p>○ 周恩來 中共首相, 北京放送을 통하여 聲明을 발표—送還希望의 전捕虜를 歸還시키며 送還不願全捕虜는 中立國으로 移送.</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會에서 申議長 報告—李大統領은 國家的 重大事件에 對한 憲法改定은 국민투표에 依하여야 한다고 強調.</p> <p>○ 臺北發 中央社報導—中共은 4월에는 常備軍을 1,200萬으로 增強시킬 것을 計劃中.</p> <p>○ 美 국무부當局, 포로송환에 關한 周恩來의 新提案은 自由世界의 均衡을 破壞하려는 또하나의 兇計에 不過하</p>		<p>다고 非難聲明.</p> <p>○ 英外務相, 共產側의 韓國傷病포로 교환안 受諾을 환영하고 휴전회담의 再開를 希望한다고 公式見解를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國軍 東部戰線 「크리스마스」高地에 攻擊해온 中共軍을 2時間半의 戰鬪 끝에 擊退 中共軍 100名以上을 殺傷.</p> <p>○ 美海兵隊「베가스」高지를 再奪還하려는 中共軍의 攻擊을 擊退.</p> <p>○ B29機隊 不毛高地近方의 敵陣地를 猛打.</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UN, 共產兩軍側 連絡장교, 중상병 捕虜의 交換問題를 調節코자 板門店에서 會合.</p> <p>○ 「클라아크」UN군사령관, 共產側에 게 먼저 重傷病포로의 交換을 마친後 休戰交渉을 再開하자는 覺悟를 手交.</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李大統領 顧問官, 李大統領이 最初부터 主張하여온 休戰成立 5個條件 要求에는 變함이 없다聲明.</p> <p>○ 「로버트·스티븐슨」美陸軍長官, 및 「클라아크」將軍 來韓, 李大統領과 會談.</p> <p>○ UN軍사령부 當局者, 同사령부는 周恩來 聲明을 慎重檢討중이라고 聲明.</p> <p>○ 美 국무부, 議會에 對하여 最近의 共產軍側의 韓國平和제안을 慎重히 檢討할 것이나 共產側의 誠意를 決定視함은 時機尙早라고 言明.</p> <p>○ 韓國休戰成立의 氣色으로 鐵網을 위</p>
		31일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시한 紐育株式이 暴落.</p> <p>○ 「뉴우옥·타임즈」紙 華府來電이라하여 美정부는 韓國이 最狹部를 境界線으로 休戰受諾의 用意이 있으며 臺灣의 UN 信託統治의 可能性을 考慮中이라고 보도.</p> <p>○ 英外務省 當局者 言明—韓國捕虜를 引渡할 中立國은 蘇聯의 衛星國이라던 不可, 印度가 最速.</p>		<p>○ 英 外務省 代辯人. 中共제안을 支持한 「몰로토프」 聲明을 환영한다고 表明.</p> <p>○ 「몰로토프」 蘇外相. 莫府방송을 通하여 聲明—① 蘇聯은 韓國의 傷病포로 교환에 關한 中共提案을 全面的으로 支持. ② 그 實現을 위한 援助의 用意이 有. ③ 中共의 UN加入을 요청한다.</p>
4월 1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兩側연락장교會談, 共產軍의 포로수용소 所在地에 關해서 UN側이 質問.</p> <p>○ 「블라야크」將軍 제8군사령부에서 記者 會見談—「다니엘」海軍少將을 首班으로 하는 연락장교단이 汶山에서 待機中. 建設的인 提案이 期待되는 會談再開에 대해서는 樂觀도 悲觀도 禁物이며 傷病포로의 交換은 會談再開前에 實現되어야 한다고 強調.</p> <p>○ 美제8군當局은. 昨10月の 휴전회담 중단으로 서울驛에 와있던 記者列車을 汶山으로 歸送</p>	2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韓國軍, 中共軍 1個대대 約 750명과 金城南方에서 交戰. 其中 287名을 殺傷.</p> <p>○ 首都사단 機甲연대, 중부전선 金化西方에서 約 200名의 中共軍攻擊을 맞이하어 53名을 射殺. 最少限 50名을 負傷.</p> <p>○ 韓國海兵隊, 板門店南方의 無人地帶에서 中共軍 40名과 交戰. 그중 10名을 射殺.</p> <p>○ 漆洲 「미이티어」 잭트機隊. 嶺南浦 近方의 化學工場을 攻擊하여 大量의 로켓탄彈 投下.</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美國무성 대변인 「화이트」氏 휴전에 대한 中共제안 및 이를 支持한 「몰로토프」 聲明에 關하여 이는 數年來의 美國의 主張을 承認한에 不遇한 것이 며 中共, 北韓의 UN加入요구는 考慮치 않는다고 聲明.</p> <p>○ 「처칠」英 首相. 下院에서 周 中共총리의 제안은 韓國휴전 再開의 기초가 된다고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共產軍側연락장교, 「블라야크」 司令官에게 對한 金日成, 彭德懷의 메시지를 傳達—4月 6日 連絡장교 會議를 열고 여기에서 傷病포로 交換의 基礎的 事項 및 休戰會談再開에 關해서 會議.</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會本會議, 5個原則 保障없는 休戰에는 反對한다고 周恩來 聲明을 強硬</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히 反對하는 決議文을 採擇.</p> <p>○ 美陸軍長官 「스티븐슨」氏 大邱 陸軍本部를 訪問.</p> <p>○ 金日成 北傀首相, 「피어슨」UN總會議長에 對해서 電報로 「休戰에 關한 北韓政府의 3月 31日의 聲明」을 送達하여 全加盟國에 對한 配付를 요청.</p> <p>○ 「클라야크」將軍 및 「스티븐슨」美陸軍長官, 3日간의 韓國戰線 및 捕虜收容所 視察後 東京歸還.</p>		<p>○ 「달레스」國務長官 記者會見談—蘇聯의 平和攻勢는 自由世界에 對한 威脅을 減少시키는 것이 아니며 共產側이 誠意있으면 韓國休戰은 可能.</p>
3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4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美군부대, 中部戰線의 一前哨陣地를 大砲 및 迫擊砲의 掩護下에 攻擊해온 175名의 中共軍과 白兵戰을 展開하고 2시간 20분만에 同敵을 擊退.</p> <p>○ 美제8군사령관 「테일러」中將, 昨週 中共軍에게 不毛高地를 喪失한 것은 彈藥問題에 關聯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聲明.</p>		<p>○ 北漢江東方의 我軍部隊, 前哨陣地를 攻擊해온 敵分隊 및 小隊兵力과 交戰後 이를 擊退.</p> <p>○ 「크리스마스」高地附近의 我軍部隊 砲火支援下에 2個前哨地點을 夜間攻擊해온 敵中隊兵力과 1時間 15分間の 熾烈한 交戰끝에 이를 砲火로 擊退코 敵 23名을 殺傷.</p> <p>○ 夜間에 鍾川西北方의 我軍부대, 前哨陣地를 探索하려던 敵 分隊兵力과 短時間의 交戰끝에 5名을 殺傷.</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UN軍側연락장교, 휴전회담再開日字 決議權을 「클라야크」軍司令官으로부터 受領.</p> <p>○ 傷病捕虜交換協定任務를 맡은 「다니엘」少將 共產軍側이 이번에는 眞正한 마음으로 會談에 臨하기를 바란다고 談.</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클라야크」UN軍司令官, 彼我兩側연락장교의 6日會談에 正式同意.</p> <p>○ 「다니엘」海軍少將, 6日 會談에 出席할 代表團員으로 「카아류크」大領, 李壽榮 大領, 「딘」大領, 「슈」中領의 4名을 任命하였다고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葛公報處長, 板門店會談再開를 앞두고 大韓民國側의 休戰 5個原則을 再次強調.</p> <p>○ 金日成北傀首相, 「피어슨」總會議長에게 電報. 中共의 和平提案을 支持하고 UN이 이를 採擇한 것을 呼訴.</p>	5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未明에 高城西北方의 我 2個前哨地點을 探索하려던 敵分隊兵力과 短時間의 交戰끝에 이를 擊退.</p> <p>○ 國軍部隊, 中東戰線 「크리스마스」高地에 對한 中共軍 200名의 攻擊을 격퇴.</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 國軍部隊, 文登里溪谷西方에서의 短時間 戰鬥에서 敵 最少 14名을 射殺.</p> <p>○ 共產軍, 中部戰線「네사스」高地를 攻擊占領.</p> <p>○ 國軍第 2 軍團創立一週年紀念式, 李 大統領 參席下에 同군단사령부에서 盛大히 舉行.</p> <p>○ B29 爆擊機隊, 沖繩基地를 出發하여 平壤 및 中部, 西部전선의 共產補給 陣地에 百噸의 高性能爆彈을 投下.</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UN軍司令部, 「클라아크」UN軍사령관의 請願을 共產軍側에 手交—傷病捕虜교환에 관한 共產軍側 提案에 同意하고 6日 午後 10時 雙方연락장교 會合을 提議, 共產軍側 이에 同意.</p> <p>○ 美第 8 군사령관 「테일러」中將, 汶山을 訪問.</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平壤放送 報道—北韓女子가 對空砲 火隊를 操作하여 最近 UN軍機 2臺를 擊墜.</p> <p>○ 中共政府機關紙 報道—北韓傀儡操縱士가 MIG機를 操縱코 2月 15日, 空中戰에서 UN軍機 F86機 2臺를 擊墜.</p>		<p>서 釜山出港.</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UN軍側연락장교, 傷病포로교환에 關한 9個項目的 原則을 提示—協定調印 後 7日만에 板門店에서 交換하여 UN軍側은 每日 500名式을 送還.</p> <p>○ UN軍側, 汶山 自由村에서 醫師, 헬리콥터 等を 動員하여 傷病포로 引受 實績을 實施.</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會, 西南地區 戰鬥警察隊 設置案을 修正通過.</p> <p>○ 휴전 5 個요구조건 貫徹 서울市民 發起大會, 서울 中央廳 廣場에서 開催.</p> <p>○ 蘇聯代表, 細菌戰術實施에 關한 北韓의 所謂 證據文書を UN安保에 회부하라고 요구.</p>
6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美海兵隊 探索隊, 板門店近方에서 中共軍 200名과 交戰 1時間半의 熾烈한 戰鬥끝에 中共軍 63名을 殺傷.</p> <p>○ 國軍海軍○○艦, 烽火里에서 砲臺를 構築中인 中共軍을 砲擊. 構築中인 砲隊를 全破코 敵 70名을 射殺.</p> <p>○ 比律賓 제19戰團大隊, 本國을 向해</p>	7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國軍步兵部隊, 中部전선 「크리스마스」 高地와 首都高地 사이의 2,000' 高地를 4次의 反擊끝에 再奪還. 그러나 그 後의 中共軍反擊이 成功.</p> <p>○ 中共軍, 板門店으로부터 700m 地點 전선에서 UN軍 預傷포로 1名을 擄聲 器宣傳放送과 함께 釋放.</p> <p>○ 美 F86세이버, 잭트機隊, 鴨綠江近邊 上空에서 敵 MIG機 1臺를 擊墜. 2臺 損害.</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UN, 共產軍 兩側장교회담. 5個條項에 意見一致. UN軍側, 6日 共產軍側이 「제네바」協定 第109,110條에 依해서 傷病捕虜의 廣範한 交換을 하자는</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8일	<p>要請을 受諾.</p> <p>○ UN軍側 連絡將校단장 「다니엘」少將 어떤 捕虜도 自由意思에 反해서 送還되지 않는다는 條件으로 輕傷포로도 交換하는 것을 受諾한다고 연락장교 회의석상에서 強調. 共產軍側, 1,2日 內에 送還捕虜數를 通知하기로 約束.</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中共軍 西部戰線의 「방커」 高地의 UN軍陣地를 攻擊.</p> <p>○ 美國방성 발표—先週 韓國戰線의 전사, 부상, 行方不明의 美軍損失은 前週 발표보다 1,039名 增加, 數個月中의 最大數. 戰亂開始以來의 美軍損害는 合計 13萬 2,967명.</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연락장교회담後, 「다니엘」少將, 共產軍側은 傷病捕虜로서 600名 送還을 通告해 왔는바, 이는 疑訝를 자아내는 意外의 少數이며 UN軍側은 5,800名을 送還한다고 傳達하였다고 記者會 見談.</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政府. 改正憲法에 依한 參議院의 早速設置를 위한 國會議員選舉法 改正法律案을 國會에 提出.</p> <p>○ UN總會本會議, 西歐側支持의 軍縮決議案을 採擇.</p> <p>○ 政治委員會, 韓國의 細菌戰에 關한 共產側 非難을 調査할 中立的 國際委員會 設置案을 採擇.</p>	8일	<p>100名의 傷病捕虜를 送還하여 500名 式을 받아드릴 것을 提案.</p> <p>○ UN軍側 「다니엘」少將, 傷病포로도 환 협정이 10日에 調印될 것은 極히 可能하다고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平壤放送 報道—北傀外務省은 抑留中이던 前 駐韓英公使等 7名을 蘇政府의 要請에 따라 釋放하여 安東에서 9日 蘇代表에게 引渡.</p> <p>○ 韓日會談에 出席할 洪雞基. 池鐵根 兩代表 東京到着.</p> <p>○ UN—張勉代表, 美國이 韓國半島腰 部に 休戰境界線을 設置한다는 問題에 關하여 韓國은 이것을 願치않는다고 言明, 平和樹立前提로서 韓國政府側의 5個條要求를 提示.</p>
9일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제4회 연락장교회의—共產側, 每日</p>	10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西部戰線 板門店近方에서 中共軍, 美海兵隊陣地를 向해서 戰爭은 終結되었다고 宣傳放送.</p> <p>○ 美세이버, 잭트機隊, 共產軍 MIG機 2臺를 擊破.</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연락장교회의—共產軍側 포로교환에 關한 具體的計劃을 UN軍側에 提示. 共產側 연락장교단장 李尙朝, 「해리슨」 UN側 首席代表에 보내는 南日 共產側 首席代表의 答翰을 UN側에 手交코 休戰會談의 再開를 提案.</p> <p>○ 「클라이크」將軍, UN—共產軍側間에 合意되어서 傳達된 傷病포로교환 協定 草案을 承認.</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 共產軍側 休戰會談代表 李尙朝, 北韓에 抑留된 UN軍側 상병포로의 名簿를 手交. 美軍 120名, 英軍 20名, 其他 15名.</p> <p>○ UN軍側 「다니엘」少將, 來 11日에는 如何한 일이 있어도 상병포로교환 協定을 調印하도록 하겠다고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會本會議, 상병포로교환에 對해서 UN軍포로의 數를 國際赤十字社로 하여금 正確히 把握케할 것, 國會議員을 包含한 民間人도 返還케할 것 等, 原則을 決定하고 國會側態度를 外務, 國防兩委員會에 一任키로 決定.</p> <p>○ 國會 外務, 國防兩委員會, 共產軍側 포로수용소에 國際赤十字가 들어가서 調査하여 國會議員을 包含하는 拉致 民間人을 全員歸還케 하기를 要求하는 決議文을 決定.</p> <p>○ 釜山忠武路 廣場에서 「統一없는 休戰反對 國民總發起大會」를 開催.</p> <p>○ 北京放送, 共產軍側은 休戰協商 UN軍側 首席代表 「해리슨」中將에게 雙方은 現在 韓國休戰實現에 對한 唯一의 障礙가 되어 있는 送返問題의 解決을 確實하게 하기 위하여 戰鬪行爲를 금지한 後, ① 送還을 主張하는 全捕虜를 即時送還하고 ② 殘餘포로를 中立國으로 移送할 것을 示唆한 齟齬를 傳達하였다고 發表.</p> <p>○ 業 國府外務部長官, 앞서 報道된 美國의 對共和計劃 即 臺灣에 信託統治를 實施하고 韓國을 分斷하려는 政</p>	<p>11일</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美 세이버·젯트機隊, MIG機 3대를 擊墜, 3臺 擊破.</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UN·共產兩軍側 연락장교, 傷病포로 交換協定에 正式調印.</p> <p>○ 美제8군, 重傷病포로를 汝山으로 부터 後方病院으로 移送하기 위하여 救急自動車 60臺가 待期하고 있다고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李大統領, 「로이타」通信記者의 書面 質問에 回答해서 韓國軍 單獨으로라도 北進을 하겠다고 聲明.</p> <p>○ 「클라아크」UN軍司令官, 休戰交渉으로 因해서 軍事作戰은 制限한다는 說은 無根이라고 聲明.</p> <p>○ 美政府當局者 言明—「아」大統領의 韓國經濟問題 特別代表 「헨리·타스</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12일	<p>카]氏 一行은 韓國經濟狀況 調査次 華府를 出發.</p> <p>○ 英外務省代辯人, 板門店에서 調印된 상병포로 送還協定에 英政府는 滿足 하다고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高城南方과 文登里溪谷의 前哨地點 으로 進出한 我探索隊, 高城南方에서 敵 28名을 文登里溪谷에서 敵 11名을 殺傷.</p> <p>○ 韓國軍第3사단, 증부전선의 「택사 스」 高地를 제5차째 奪還.</p> <p>○ 我軍部隊, 高浪浦 西北方에서 敵100 名에 砲火를 加하여 28名을 殺傷.</p> <p>○ 美제이버·젯트機隊, 共産軍 MIG機 를 6臺 擊墜, 1臺 未確認擊墜, 1臺 擊破.</p> <p>○ 「테일러」美제8군사령관, 8軍本部에 서 麾下各軍團長을 召集하여 高位비 밀군사회의를 開催.</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연락장교회의, 20日부터 상병포로의 送還을 開始할 것에 合意. 共産軍側 首席連絡장교 李민일, UN軍側 首席 連絡장교 「카록크」大領에게 共産軍側 포로수송중대 車輛 20臺가 蔡川 및 价川을 經由하여 16日 下午 開城에 到着할 것이라고 通告.</p> <p>○ 事務連絡次 東京訪問後 入京한 美極 東총사령부 崔德新 少將, 휴전이 成 立된다 할지라도 戰爭은 앞으로 繼續 되어 美國의 軍事援助도 더욱 活發해 질 것으로 期待한다고 言明.</p>	13일	<p>○ 北京放送, 北平人民日報의 社說을 引 用하여, 美國이 北韓과 滿洲에서 細 齒戰을 敢行하고 있다는 共産側 非難 을 公正하게 調査하자는 UN政治委員 會의 決議案을 不法의이라고 詬謗.</p> <p>○ 美國防省, 北韓 및 中共軍은 美國捕 虜를 共産主義者로 轉向시키는데 注 力하고 있으므로 美國은 이에 對하여 歸還兵을 再教育할 計劃을 準備中이 라고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國軍부대, 沙太里東北方 및 杆城北 方에서 敵探索隊를 擊退.</p> <p>○ 小數의 敵 金化東北에서 我前哨地點 을 探索하려고 企圖, 我軍, 短時間 交戰끝에 이를 擊退.</p> <p>○ 金城西北方의 前哨地點으로 進出한 我기습대, 敵 2個小隊兵力과 20분간 의 交戰끝에 敵 11名을 殺傷.</p> <p>○ 美戰艦 「뉴우저지」號, 驅逐艦 2 隻 海軍機隊, 淸津에 對하여 猛烈히 砲, 爆擊.</p> <p>○ 中國國防部長官, 戰線視察次 來韓한 比空軍總參謀長에게 金星乙支勳章을 授與.</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UN·共産兩軍側參謀將校會議, 상병 포로 교환의 行政上의 細目에 完全合 意, 共産軍側, 同席上에서 韓美·英 國軍포로 以外 15名의 各軍捕虜의 簡 籍을 明示.</p> <p>○ 韓國陸軍當局, 歸還 國軍포로를 심 사하기 위하여 數名의 장교 및 文官</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p>으로 構成된 審査班이 汝山으로 向發하였음을 非公式 確認.</p> <p>○ UN軍 및 醫務隊員들 傷病捕虜 교환 및 後方輸送의 演習을 施行. 「테일러」將軍 參觀裡에 헬리콥터도 動員.</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下 外務部長官, 今番調印된 상병포로 교환 協定은 自由송환원칙 貫徹與 否가 分明치 않으며 北韓포로 심사에 있어서 中華民國代表의 參席이 없은은 重大한 主權侵害라고 聲明 발표.</p> <p>○ 平壤放送報道—3月 17日 美機가 咸南新興郡上空에 來襲하여 爆撃을 加한 後, 各種 傳染病媒介虫을 投下.</p> <p>○ 「노오랜드」 美上院議員, 記者團에 言明—蘇聯의 善意를 試驗하기 위하여 UN은 韓國의 統一選舉를 提議함이 必要</p> <p>○ 倫敦에서 「판딧드」 印度 UN代表, 韓國休戰의 成立에 對해서 樂觀的 見解를 發表.</p> <p>○ 瑞典國防當局 言明—韓國休戰이 成立되면 要請에 依하여 監視委를 急派.</p>		<p>轟의 輸送隊를 보호하기 위하여 北韓 上空을 警戒.</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共產軍側 발표—UN軍 상병포로를 실은 20臺의 車輛이 西北韓으로 부터 南方으로 進行中.</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會本會議, 下 外務部長官을 出席케 하여 傷病포로교환 협정을 契機로 한 當面外交政策에 關하여 質疑戰을 展開코 韓國의 主權侵害라고 強硬한 態度를 表明.</p> <p>○ UN軍司令部官邊側, 共產軍은 鴨綠江 對岸에 高度로 現代化한 「마지노」 防衛線의 建設을 完成하였다고 言明.</p> <p>○ UN—「브라질」代表, 政治委員會에 對하여 韓國休戰交涉이 板門店에 限定되고 그 妥結이 促進되기를 希望한 決議案을 提出.</p>
14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我軍 早朝에 盆地地帶正北方의 3個 UN軍前哨陣地를 攻擊해 온 北韓傀儡軍中隊兵力을 即時擊退.</p> <p>○ 我軍, 板門店南方 前哨線에서 共產軍과 3次에 걸쳐 交戰.</p> <p>○ B29爆撃機隊, 平壤을 中心으로 共產軍鐵道網을 猛打.</p> <p>○ 美 슈팅·스타, 잭트機隊, 北韓의 天摩프로수용소를 떠나 開城으로오는 20</p>	15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150名 乃至 200名의 北韓共產軍, 斷腸의 稜線西方의 UN軍陣地를 攻擊. 45分間의 同戰鬪에서 美軍, 敵 30名을 射殺, 25名을 射傷.</p> <p>○ 美제8군사령부발표—10週日間의 訓練을 마친 英聯邦사단소속부대는 西部戰線에 再出動하여 共產軍에게 猛攻을 再開.</p> <p>○ 美제5공군발표—UN軍側, 제5공군전 폭격기대, 北部 및 中部韓國의 共產軍補給基地와 軍隊集結所를 爆撃.</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參謀將校會議—UN軍側, 제1일에 送</p>

원 일	주 요 사 항	원 일	주 요 사 항
	<p>還된 傷病捕虜 國籍이 大略 同 比率로 되기를 共産側에 요청.</p> <p>○ UN軍海軍當局發表—상병포로 로서 交換될 770名의 共産軍포로가 最初로 濟州島로부터 釜山에 도착.</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申國會議長, 「클라이크」UN軍사령 관으로 부터 回翰을 受領—拉致國會議員의 送還은 次後交涉.</p> <p>○ 北京放送, 新華社記者의 報道라하여 放送—休戰會談 再開의 期日은 美側 意思如何에 左右,</p> <p>○ 韓日會談, 日本外務省에서 再開.</p>		<p>것을 共産側에 通告하라고 UN軍側 휴전대표 「해리슨」 首席대표에게 命 令.</p> <p>○ 連絡장교회의—UN軍側, 休戰會談의 全面的 再開를 討議하기 위하여 UN 軍연락장교단은 可及의 早速히 共産 側 연락장교단과 會談할 用意가 있다 고 通告.</p> <p>○ 共産軍側, UN軍에 對하여 19日에 連絡將校회의를 開催하라고 通告.</p> <p>○ 共産軍의 上병포로를 搭乘시킨 共産 軍수송차량 1대, 야간에 開城에 도착.</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타스카」使節團一行, 水窟空港에 到 着, 「타스카」氏 自己는 「아」美大統領 의 要請을 받아 韓國의 經濟事情을 課査코자 來韓한 것이라고 記者會見 談.</p> <p>○ 瑞西政府대변인 言明—同政府는 UN 軍側이 共産軍側에 대하여 行한 送還 不願포로를 瑞西의 管理下에 둔다는 提案에 關한 報告를 受領.</p>
16일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UN軍사령부, 休戰會談再開에 關한 「해리슨」UN軍側首席代表의 南日共 産軍側首席代表에 對한 簡簡을 手交 하기 위하여 17日 板門店에서 會晤하 기를 요청.</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會, 상병포로교환상황시찰단을 板 門店에 派遣하기로 決定.</p> <p>○ 臺北聯合通信 報道—前在韓 美제 24 사단장 「뎀」少將은 平壤附近 포로수 용소로 부터 北京으로 移送.</p> <p>○ 「아」大統領, 同演說에서 韓國休戰에 關하여 即時 敵對行爲를 停止하고 統 一된 韓國에서 自由選舉를 行하기 위 한 政治的 討議를 開始하는 것이 緊 要하다고 言明.</p>	18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부대, 昨夜 喪失한 西部전선 「포오크 촌」高地를 激戰끝에 奪還.</p> <p>○ UN軍 공군사령부발표—昨週 공군은 敵 MIG젯트機 18臺를 擊墜하고 5臺 를 擊破. 我軍損害로는 空中戰에서 세이버·젯트機 1臺와 敵의 地上砲火 로 因하여 선더·젯트機 1臺 및 其他 2臺를 損失하고 또한 其他 原因으로 7臺를 喪失.</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17일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클라이크」UN軍司令官, 휴전 本會 談을 討議하기 위하여 18日에 會晤할</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 雙方參謀장교회의—來 20日 施行될 傷病포로교환의 引繼時間 등을 討議.</p> <p>○ 國防部兵務當局, 國家公務員에 對하여 兵役忌避 및 年齡欺瞞事實有無를 嚴格慎重히 監査한 것이여 이번 監査 中에 摘發된 徵集該當者는 無條件 入隊시킬 것이라고 言明.</p> <p>○ UN總會本會議, 韓國問題에 관한「브라질」案을 全會一致로 可決.</p> <p>○ 「딜레스」美國務長官, 新聞編輯長會에서 美外交政策에 關하여 演說—① 西歐防衛確立을 위한 新方針을 計劃中 ② 現在는 極東問題를 優先的으로 考慮해야 할 時期.</p>	<p>20일</p>	<p>議案을 在韓 UN軍사령관에 送付토록 「롯데」美代表에게 手交.</p> <p>軍 事</p> <p>○ 中部戰線의 白耳護部隊, 約 1個大隊의 兵力으로 攻擊하여 은 共產軍 100餘名을 殺傷코 이를 擊退.</p> <p>○ 美海軍當局發表—美驅逐艦「제임스·키이스」號는 昨 19日 元山方面에서 敵海岸砲의 砲擊을 받아 主甲板上에 3"의 구멍이 뚫이고 人命損傷은 尙今 未詳.</p>
<p>19일</p>	<p>軍 事</p> <p>○ 共產軍, 休戰은 6月 20日에 成立할 것이라고 西部戰線 最前線에서 宣傳 放送.</p> <p>○ UN軍사령부, 「클라아크」UN軍사령관은 「타일러」8軍司官에게 韓國軍 2個師團의 增設을 指示했다고 發表.</p> <p>休戰會談</p> <p>○ 연락장교회의—共產軍側, 25日부터 休戰本會談 開催를 提案 UN軍側 이를 受諾.</p> <p>○ 「클라아크」UN軍사령관 汶山到着. 休戰可能性은 前보다 훨씬 짙어졌다고 記者會見談.</p> <p>○ 平壤放送報道—北韓傀儡, 前駐韓佛公使 및 一般市民等 14名을 4月 14日 滿洲의 安東에서 蘇聯代表에 引渡.</p> <p>○ UN—「피어슨」總會議長, 總會에서 採擇된 韓國問題에 關한 「브라질」決</p>		<p>休戰會談</p> <p>○ UN·共產兩軍 傷病포로 교환 開始 UN軍側 韓國人 50名, 其外 50名 計 100名의 捕虜를 受領하는 한편 北韓 포로 400名, 中共捕虜 100名을 送還.</p> <p>政 治</p> <p>○ 李大統領, 國軍 2個師團增設에 言及하여 增設된 2個師團이 그 職責을 다 하고, 나아가서는 美國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談話.</p> <p>○ 下外務部長官, 內務, 國防, 法務部 代表로 構成된 심사단을 巨濟島에 派遣査査케한 結果 2名의 強送不願상병 포로를 送還에서 除外케 하였다고 言明.</p> <p>○ 比律賓 공군사령부발표—比律賓政府는 空軍 2個中隊를 韓國에 派遣키로 決定.</p> <p>○ 「딜레스」美국무장관 記者회견담— ① 韓國問題에 關한 政治會談은 休戰 課印後에 行할 것이여, 韓國最狹部 境界線問題는 軍事的으로만 重視, ②</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21일	<p>美國은 統一韓國의 實現을 위한 UN 決議를 尊重, ③ 23日부터 開催될 北大西洋條約理事會는 加盟國이 新防衛計劃을 採擇하게 될 重要な 會談.</p> <p>○ 「차철」 英首相, 下院에서 「아」大統領의 演說을 再次 支持하고 現狀態가 巨頭會談으로 發展하여 優先的으로 韓國의 休戰을 確立시키기를 希望한다고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傷病포로 제2차교환—UN軍側, 美軍 35名, 英軍 12名, 土耳其軍 3名, 韓國軍 50名 計 100名을 引受</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會本會議, 國會는 北進統一運動의 最先鋒이 되자는 尹致暎 議員의 緊急 動議를 採擇.</p> <p>○ 「타스카」特使, 「콜라아크」UN軍司令官 및 「브릭코스」美大使와 同途 李大統領을 禮訪코 「아」美大統領의 親참을 傳達.</p> <p>○ 北京放送, 20日 UN軍側으로 부터 共産軍側에 引渡된 共産軍상병포로는 제2次大戰時 「나치스」 獨逸에 抑留되었던 犧牲者와도 같은 模樣이었고 포로들은 全部 榮養不足에 걸려있다고 主張.</p> <p>○ 北韓에서 釋放된 英人 6名, 英軍機로 莫府出發 向伯林.</p>	23일	<p>○ UN空軍戰爆機隊, 沙里院地區의 共産軍 補給集結地를 폭격.</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상병포로 제 3차교환—UN軍側 韓國軍포로 100名을 引受코 北韓포로 250名과 最終 中共포로 150名을 共産軍側에 引渡.</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會本會議, 北進統一國民運動을 展開하기 위하여 來 23, 5, 6, 7日의 4日 間 本會議를 休會하자는 國會各派代表者會議의 提案을 採擇.</p> <p>○ 「타스카」使節團, 政府와의 第2次會議을 開催—白國務總理署理以下 國防部 및 財務部代表者의 參席裡에 國防物動計劃을 中心으로 討議.</p> <p>○ 學徒護國團中央本部, 同團創立 제4週年紀念日을 맞아 北進統一學徒護國團總躍起大會를 釜山忠武路廣場에서 舉行.</p>
22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韓國軍海兵隊, 板門店近方에 來襲한 中共軍 攻擊部隊와 4時間에 걸친 激戰끝에 이를 擊退.</p>	23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韓國軍奇襲部隊, 板門店南方 共産軍의 壘壕에 奇襲攻擊을 敢行하여 敵軍 20餘名을 殺傷.</p> <p>○ 「콜라아크」UN軍總司令官, 共産軍側이 全 UN軍 傷病포로의 送還에 同意한데 對하여 滿足의 뜻을 表明.</p> <p>○ UN軍當局, 北韓에 抑留되었던 UN軍포로들의 悲慘한 生活에 關한 詳細한 報道를 禁止.</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4次傷病捕虜交換—UN軍側, 韓國軍75名을 包含한 100名의 UN軍포로</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p>를 引受코 北韓포로 500名을 共產軍 側에 引渡.</p> <p>○ 連絡將校會藏終了後 「다니엘」少將, 共產軍側은 全상병포로를 送還하기를 約束하였다고 談.</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務總理의 指名을 받은 白總理署理 記者團과 會見코 우리들이 當面하고 있는 가장 緊要한 課業은 北進統一이며 이 課業遂行을 위한 國民運動은 可能하고 具體的인 目標下에서 實施 되어야 한다고 力說.</p> <p>○ 北進統一國民總躍起大會, 國土兩斷의 休戰을 反對코 北進을 絶叫하는 數萬群衆의 參集裡에 釜山忠武路廣場에서 盛大히 開催.</p> <p>○ 北京放送, 韓日會談은 美國의 使僚下에 日本을 中心으로한 太平洋戰력을 形成하기 위해서 開催한 會議라고 非難.</p> <p>○ UN總會—韓國에서의 細菌戰에 關한 共產側非難을 調査할 國際委員會의 設置를 贊成 51, 反對 5, 棄權 4票로 可決.</p> <p>○ 「아」大統領 記者會見談—① 韓國休戰을 成立시키기 위하여 何處에서라도 共產側과 會談할 用意가 있으나 現在로선 韓國事態의 進展을 待期.</p> <p>② 「트」前大統領時代에 編成된 1953—54年度 國防豫算의 削減은 確實.</p>		<p>土耳其軍 4名, 和蘭軍 1名, 加奈陀軍 1名, 韓國軍 50名 計 100名의 상병포로를 引受.</p> <p>○ 연락장교회의석상에서 UN軍側 「다니엘」少將, 23日 共產軍側이 言明한 措置에 對應해서 UN軍側도 共產軍상병포로의 送還數를 加增시키겠다고 約束.</p> <p>○ 共產軍側 李尙朝 少將 25日 再閉한 休戰會談의 1日延期를 요청.</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會의 認准을 獲得한 白總理 國會에 出席하여 國政의 重要한 當面課題로서 北進統一과 經濟安定에 全力을 다할것이라고 就任所感을 披瀝.</p> <p>○ 「타스카」使節 會談제 4일—韓國의 金藏事情을 卮上에 놓고 直轄한 討議.</p>
24일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상병포로교환제 5일—UN軍側, 共產軍側으로부터 美軍 40名, 英軍 4名,</p>	25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部隊, 中部전선에서 공격을 개시해온 共產軍 170名을 殺傷코 이를 擊退.</p> <p>○ B—26爆擊機隊 東海岸의 敵軍 操車場 1個所와 補給所 1個所를 猛打.</p> <p>○ UN軍 爆擊機隊, 敵補給車輛 37臺를 擊破.</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傷病捕虜交換 제 6일—UN軍側, 美軍 17名, 英軍 4名, 土耳其軍 4名, 韓國軍 75名, 計 100名의 UN軍상병포로를 引受.</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타스카」會談 제 5일—鐵工, 水産業의 隘路를 打開하고 生産復興을 企圖</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26일	<p>하기 위해서 補給器機 및 原料의 導入問題에 關하여 討議.</p> <p>○ 軍報道課 發表—去3月 22일부터 4月 22일까지의 1個月間에 慶南兵事區司令部에 自進入隊를 志願한 壯丁이 84名에 到達.</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平穩</p> <p>○ 英海軍艦隊機隊 開城附近의 敵補給物資 集結地와 交通要衝을 強打.</p> <p>○ UN軍 포로 경비사령부 발표—濟州島의 1中共捕虜 수용소에서 15名의 捕虜들이 同僚捕虜들에 依하여 被打重傷. 이 중 3名은 入院加療中에 死亡.</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休戰會談 6個月만에 처음으로 開催. 南日 共產軍側 首席代表—UN軍側의 捕虜管理 中立國으로 瑞西를 指名한 데 反對.</p> <p>○ 포로교환 제7일—UN軍側. 500名의 北韓軍포로를 送還. 共產軍側, 韓國軍포로 71名, 美軍포로 13名을 送還.</p> <p>○ 共產軍側 연락장교, UN軍側에 引渡할 상병포로 全員の 送還을 完了하였다고 UN軍側에 通報.</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防部兵務當局, 今後 政府各部處및 重要機關에 從事하는 滿25세 未滿者 (昨年 9月 1日現在)를 全員 徵召集키로 決定.</p> <p>○ 軍報道課 發表—지난 4月 1일부터 7日간의 自首期間에 慶南道內의 自首者數는 205名.</p>	27일	<p>○ 「브리저스」美上院 議出委員長 說明 韓國休戰交渉이 失敗되면 3段階의 方策을 쓸이 可. 即 中共海上封鎖, 滿洲爆擊, 原子兵器使用.</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클라야크」UN軍사령관, MIG 15제트 戰鬪機를 美國側에 引渡하는 最初의 共產軍探縱士에게 10萬弗의 賞金을 授與하고 避難處를 提供할 것이라고 提議.</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休戰本會談—「해리슨」UN軍側 首席代表, 포로문제에 關해서 共產軍側이 26日에 提出한 6項目의 提案은 合理的도 아니고 建設的도 아니라고 反論 瑞西를 反對하는 共產軍側의 理論을 痛駁.</p> <p>○ 상병포로교환 제8일—UN軍側, 北韓 共產軍포로 500名을 送還하므로써 UN軍側 4,000名의 傷病포로의 送還을 完了.</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防, 內務兩當局, 兵役忌避者 團束 期間을 6月末日까지 延期기로 決定.</p> <p>○ 軍報道課 發表—各軍에 配當된 學徒 幹部候補生 人員數는 陸軍 5,564名, 海軍 149名, 空軍 252名.</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韓國軍奇襲部隊, 東部戰線 鎰形高地 近方의 共產軍陣地2個所를 奇襲攻擊하여 敵兵 15名을 射殺.</p> <p>○ UN軍重爆擊機隊 開城北方 共產軍補給中心地 및 兵營集結地를 猛爆.</p>
		28일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29일	<p>○ 「펜폴」美極東軍副司令官, 駐韓美軍後方兵站施設을 視察코자 來韓.</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해리슨」UN軍側代表, 萬若 共產軍側이 建設的인 提案을 하지않으면 UN軍側은 休戰會談을 休會할 것이라 고 休戰本會談에서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美極東軍司令官 「클라아크」大將 「머어피」 前駐日美大使를 休戰交渉에 關한 UN軍司令部의 外交顧問으로 任命하였다고 代辯人을 通해서 발표.</p> <p>○ 美國務省代辯人 「맥다못트」氏 「모보토프」蘇外相의 5大國平和協定締結支持의 聲明을 論評—① 5大國平和協定案은 UN憲章에 비추어 不必要 ② 蘇聯의 平和에 對한 正式行動을 期待.</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 2個奇襲分隊 東部戰線에서 南江을 渡江하여 敵集結所를 探索코 約 1個部隊의 敵과 激戰끝에 이를 擊退.</p> <p>○ UN軍部隊 北漢江西部の UN軍 陣地에 來襲하여온 中共軍을 完全 擊退.</p> <p>○ UN軍司令部, 포로교환문제에 關한 公式 「컴유니케」를 發表. 強送不願捕虜의 國外移送은 國外追放을 意味.</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UN軍側, 공산군 상병포로 500名을 共產軍에 引渡.</p> <p>○ 休戰本會談—南日 共產軍側首師代表 UN軍側이 瑞西를 中立國으로 指名한 데 對한 代案으로서 亞細亞의 一國을 中立國으로 指明할 意味를 表明.</p>	30일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李大統領, 記者會見席上에서 韓國平和는 오직 中共軍의 完全 擊退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強調.</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 세이버·갯트機隊, 北韓上空에서 敵 MIG機와 空中戰을 展開하고 3臺擊墜, 2臺擊破.</p> <p>○ 韓國軍空軍本部 發表—企劃參謀副長에 金貞烈 中將, 行政參謀副長에 張德昌 少將, 空軍士官學校長에 金昌圭 准將을 各各任命.</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休戰本會談—「해리슨」UN軍側代表. 포로管理中立國으로서는 아시아의 國家는 不贊이라고 言明코 捕虜管理中立國을 共產軍側이 指令키를 要求.</p> <p>○ UN軍側, 17名의 民間抑留人과 13名의 將校를 包含한 500名의 共產軍 상병포로를 引渡.</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美國務省 代辯人, 休戰會談에 關하여 聲明—「해리슨」代表는 亞細亞의 中立國을 管理國으로 選定하는 計劃의 困難을 指摘했을뿐 이를 拒否한것 이 아니라고.</p> <p>○ 巴厘消息通 言明—佛政府는 目下 美政府와의 會談에서 印度支那戰亂의 國際問題下에 關하여 協議中.</p> <p>○ 「아」大統領, 議會에 갯세지—美國의 새로운 積極의 外交政策을 遂行하기위하여 大統領의 權限으로 國防省을 2個月內에 再編成키로 決定.</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5월 1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上戰鬪 大體로 平穩. ○ 美戰艦「뉴우저시」號, 16'砲로서 元山の 共產軍海岸砲臺를 砲擊. ○ UN空軍 전투, 제트機隊, 西部戰線의 西端으로부터 5哩內에 있는 共產軍 集結地를 爆擊.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軍 및 共產軍側休戰 代表 本會議에서 送還不願포로를 圍繞코 거듭 論爭. ○ 「헤리슨」UN軍側 首席代表, 從前에 中立國으로 指名한 瑞西를 撤回하고 새로 瑞典을 指名. ○ 南日 共產軍側 首席代表 亞細亞에서 選出된 中立國만이 適當하고 實用的 이라고 主張.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慶南地區兵事區司令部, 第1次陸軍學徒幹部候補生 召集을 同司令部 廣場에서 實施. ○ 平壤放送, 北韓當局은 北韓에 抑留 中인 美國市民 7名을 釋放하였다고 發表. ○ 國府聯合通信, 蘇聯은 去3月末 中共에 15隻의 潛水艦을 供與하였다고 報道. ○ 「노울랜드」美上院議員, 上院에서 歸國不願 北韓捕虜의 收容國으로서 印度를 指名하는것을 反對한다고 聲明.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軍陣地를 大隊兵力으로 夜間攻擊. ○ 中共軍 文登里西方에 있는 韓國軍陣地를 攻擊 ○ UN軍部隊 汶山西方에서 反擊을 開始하여 一旦 喪失하였던 陣地를 再奪還. ○ 中共軍, 西部戰線 高浪浦東北方의 UN軍主抵抗線을 夜半 3時間에 걸쳐 攻擊. ○ 15臺의 新型 세이버·제트機隊 平壤 放送局 및 軍事司令部를 強打.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日 共產軍側 首席代表 亞細亞의 印度, 「파키스탄」「버마」「인도네시아」를 中立國으로 勘考하나 UN軍側이 強送不願포로의 中立國의 強制移送에 同意할때까지는 이들中 어느 한나라를 指名하지는 않겠다고 聲明. ○ UN軍총사령부, 休戰會談의 第7次 全體會議閉會後 커뮤니케를 發表하여 送還不願포로의 管理는 韓國內에서 行해질것이지 合意된 中立國이 領土內에서 行해질것이지 아니라는 UN軍側 論點을 再強調.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第1次學徒幹部候補生 出征歡送式. 國防部主權로 釜山忠武路廣場에서 舉行. ○ 平壤放送, 中共軍 海岸砲部隊가 東海岸永興灣에 侵入한 美驅逐艦 2隻을 擊沈하였다고 報道. ○ 「딜」長官, 上院外交委員會 極東分科委員會에서 歸國不願共產軍포로는 休戰後 韓國에서 中立國의 管理에 委任
2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共軍, 全北東方 3哩地點에 있는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3일	<p>하자는 見解를 示唆.</p>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共軍, 중대병력으로서 板門店近方과 東部戰線 文登里溪谷의 UN軍陣地를 攻撃. ○ 中共軍, 西部戰線 高浪浦近方에서 布陣한 英海軍부대를 공격. ○ UN軍 세이버·젯트機隊, 蕭川에 있는 敵 軍事目標에 對하여 50屯의 高性能爆彈을 投下. ○ B-29 爆擊機隊, 海州近處島嶼上的 廣範한 地域을 爆擊. ○ 美第8軍司令部, 4月中 戰果 발표—敵兵 5,930名 射殺, 4,630名負傷, 81名 生捕. <p>休戰會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軍側, 6,670名の 共產軍側 傷病 포로를 板門店에서 引渡完了—이 期間에 中共軍側으로부터 歸還된 UN軍側 傷病포로의 數는 韓國軍 471名을 包含한 684名. <p>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오트」美下院軍事委員長 데메비 放送 ① 美國은 蘇聯에 對하여 東南亞 및 中東에서 손을 떼도록 最後通牒을 送致함이 必要. ② 韓國戰은 統一의 主張을 貫徹함이 必要. ○ 「소트론스로드」美上院軍事委員, 데메비 放送—① 東南亞에 美軍派兵은 可. ② 武器援助의 強化가 最上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軍側 首席代表 「해리슨」中將, 送還不願포로를 管理할 中立國으로서 「파키스탄」國을 指名. ○ 「해리슨」首席代表, 共產軍側에 對하여 建設的인 態度로 나오지 않는 限 今次會談은 中止하여야 될 것이라고 再次警告. <p>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防部 各局長會議에서 3軍將校의 階級章을 統一키로 決定. ○ 平壤放送, 韓國西海岸의 中共軍沿岸 砲部隊는 麒麟島附近을 移動中인 UN軍 驅逐艦 428號 1隻과 發動船 4隻, 木造船 5隻을 擊沈하였다고 發表. ○ 「저칠」英首相 下院에서 答辯—英政府는 歸國不願의 捕虜를 管理할 中立國으로서 印度나 「파키스탄」 指名에 贊成한다고 美政府에 言明. ○ 英國防省官邊側 言明—美軍事豫算의 大幅削減에 따라 明會計年度中 約 20萬名の 兵力削減을 計劃中 韓國戰終結이면 다시 15萬名 削減될터.
4일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全戰線 平穩. <p>休戰會談</p>	5일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全戰線 至極히 平穩 ○ 美海兵機動艦隊, 東海岸 元山港의 敵軍事目標을 猛打. <p>休戰會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日 共產軍側 首席代表 送還不願포로를 中立國에 移送하는데 對한 UN軍側의 同意與否를 알고 싶다고 言明 ○ 「해리슨」UN軍側首席代表, 共產軍側은 煙幕을 치고 있으므로 그들이 眞情으로 休戰을 希望하고 있는지 疑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p>問親된다고 會談後 記者會見에서 言明.</p> <p>○ 「해리슨」 UN軍側 首席代表, 多數의 送還不願捕虜를 海外로 移送한다는 것은 非現實的이며 더욱이 이 포로들은 힘으로서가 아니면 移送할 수 없기 때문에 中立國移送을 反對한다고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防部兵務當局, 去1日入隊한 學徒 幹部候補生中 通信 및 交通雜等의 不得已한 事由로 因하여 不參戰者가 있음에 비추어 來10日까지 追加入隊시키도록 各兵事區司令部에 示達.</p> <p>○ 美 「타스카」 經濟特使, 中央廳을 訪問코 約2時間에 걸쳐 白總理와 會談.</p> <p>○ 北京放送, 「해리슨」 UN軍側 休戰代表가 9日間이나 中立國指名을 固執함으로써 具體的인 問題의 討議를 沮喪시켰고 共產側이 中立國任務에 關해서 合意를 본다음에야 指名할 수 있다고 指摘하였음에도 不拘하고 「파키스탄」을 指名하였다고 非難.</p> <p>○ 北京放送, 去2日에 교환된 共產軍 상병포로들이 교환되는 現場에서 騷亂을 일으킨데 對하여 이를 美軍當局的 풀지 못한 待遇에 起因하는 것이라고 非難.</p>		<p>擊하여 貯水池의 建物 最少 17棟을 爆破.</p> <p>○ 美第5空軍, 西部戰線北方의 延安을 猛爆擊.</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해리슨」 UN軍側 首席代表 中立國 問題에 對하여 共產軍側에 強硬한 態度로 對決을 強要.</p> <p>○ 「해리슨」 UN軍側 首席代表, 休戰成立과 함께 모든 韓國人포로를 韓國에서 即時 釋放하여 民間人으로 불러보낼것을 提案.</p> <p>○ 兩日 共產軍側 首席代表, 午後會議에서 UN軍側 提案을 斷乎히 拒否.</p> <p>○ 國會各分科委員長一行, 國務總理室에서 「타스카」特使와 會會코 現在의 美側援助가 彌縫의인 程度를 넘지 못하고 있음으로 恒久的이고 또 計劃的인 援助로서 國內産業建設等에 注力해줄것을 요청.</p> <p>○ 國防部兵務當局, 中領級以上の 軍人 및 文官으로서 兵務監查班을 編成코 兵事業務擔當機關을 常時檢閱監査키로 制定.</p> <p>○ 今次 動亂中에 拉致當한 民間人들의 家族으로 構成된 拉致家族會, 拉致人事 釋放問題解決을위한 呼訴文을 「아」美國大統領에 傳達.</p> <p>○ 中共新華社通信—韓國 國籍을 가진 모든 捕虜들을 釋放하여 民間人으로 歸還시키자는 「해리슨」將軍의 提案이 再開된 休戰會談의 基底를 顯覆시키려는 企圖라고 UN軍側을 辛辣히</p>
6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全戰線, 小康狀態에 陷入.</p> <p>○ 美戰艦 「뉴어저시」號, 元山港을 前日에 이어 繼續強打.</p> <p>○ 美센더 · 잭트機隊, 江界貯水池를 爆</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7일	<p>非難.</p> <p>○ 駐日美大使「머어커」氏 現在開催中에 있는 韓國休戰協議의 UN軍側代表團을 強化할 것을 華府當局에 要請.</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全戰線의 地上戰鬪 繼續靜穩.</p> <p>○ 美戰艦「뉴어저시」號 및 巡洋艦「브레이크·톤」號, 元山港內에 突入하여 敵 海岸砲臺를 集中攻擊.</p> <p>○ 美세이버·젯트機隊, 江界地區의 共產軍 補給要衝을 強打.</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共產軍側, 休戰회담본회의에서 所謂 8項目을 提案코 귀국불원포로를 韓國內에 滯留시키자는 UN軍側提案에 同意.</p> <p>○ 共產軍側, 共產軍의 新提案을 檢討하기 위하여 本會議를 9日까지 延期하자는 UN軍側提議에 同意.</p> <p>○ UN軍司令部, 共產軍側이 포로송환에 關한 新提案은 송환不願포로들의 運命을 政治會談에서 決定하고자한 規定以外에는 大體로 滿足스러운 것 이라고 示唆.</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會本會議, 公務員, 學生 등을 除外한 滿17세 以上 40세 未滿 男子의 動員을 規定한 戰時勤勞動員 法案을 採擇.</p> <p>○ 葛弘基公報處長, 韓國政府는 共產側이 포로를 관리하는 5個中立國 속에 波脫과「책교」를 包含시킨 提案은 反對한다고 言明.</p>	8일	<p>○ 共產軍側이 7日提示한 休戰에 關한 8項目의 新提案에 對해서 美上院議員들, 第2項의 포로송환 위원회構成에 不滿을 表示.</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繼續平穩</p> <p>○ UN軍 海軍艦艇, 電波探知機를 利用하여 쌍안 元山港에 肉迫하여 敵의 砲臺施設과 其他 敵軍事施設을 砲擊.</p> <p>○ UN軍 세이버·젯트機隊, 8日탄에 처음으로 共產軍 MIG機와 鴨綠江近方에서 空中戰을 展開코 共產軍 MIG 젯트機 3臺를 擊破.</p> <p>○ 孫海軍參謀總長, 韓國海軍은 그 任務遂行에 있어서 現在軍艦으로서는 不足하며 不遠한 將來에 좀더 充分한 援助가 있어야 할것이라고 強調.</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陳內務部長官, 休戰成立後에 올 緩衝地帶問題에 言及하여 鴨綠江以南 韓國領土內의 緩衝地帶에 反對意思를 表明.</p> <p>○ 平壤放送 7日 板門店에서 行한 共產軍側의 8項目의 新提案을 휴전회담개시 以來 처음으로 英語로 放送코 이어 同 提案은 共產軍側이 休戰을 成立시키기 위해서 行한 重要하고도 建設的인 조치라고 報道.</p> <p>○ 北京放送, UN軍側이 7日의 共產軍側 8項目의 修正案을 受諾한다면 韓國休戰은 成立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揚言.</p> <p>○ 英外務省代辨人 言明—英本國은 포</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9일	<p>로문제에 關한 共產軍側 新提案을 期待性있는 것으로 歡迎.</p>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共軍 2個分隊 8日 夜半에 三角高地의 韓國軍外廓陣地를 攻擊. ○ UN軍 세이버·젯트機隊, 鴨綠江邊의 共產軍集居部落을 猛打. ○ UN軍 세이버·젯트機隊, 鴨綠江邊에서 共產軍 MIG젯트機 2架를 擊墜. <p>休戰會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리슨」 UN軍側首席代表, UN軍側은 共產軍側 8項目 제안을 協商의 기조적 계획으로서는 受諾할 用意가 있음을 示唆. ○ UN軍司令部, 共產軍側이 7日 제안한 8項目 제안에 대한 代案을 提出코 強制送還不願포로의 處理를 政治會談에 回付해야 할 必要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고 說明. <p>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 共產軍側 8項目의 新提案을 強硬히 反對코 「척코」 波瀾 등을 中立國送還委員國으로 決定한다는 것은 不公正한 處事이며 送還不願포로들을 說得하기 위한 期間으로 4個月間으로 定한다는 것은 포로들에 대한 拷問이며 이것은 一種의 強制送還이라고 闡明. ○ 北進統一 北韓同胞總躍起大會, 釜山 忠武路廣場에서 舉行. ○ 北京放送, 捕虜교환문제에 關해서 UN軍側 「해리슨」 代表가 共產軍側에 質問만 하는것은 포로교환協定の 成 	10일	<p>立을 妨害하는 것이라고 非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딜리스」 美國務長官 休例會談에 關한 共產側의 8項目 提案에 關하여 UN側의 態度를 記者會見에서 言明— 韓國派兵諸國家과의 見解打診後 一部 條項에 對하여 修正함이 必要. ○ 「紐育타임스」紙, 社說에서 포로문제에 關한 韓國政府의 態度를 論評— 歸國을 不願하는 포로의 管理國으로서 波瀾, 「척코」를 든 共產軍側 제안을 韓國政府가 反對함은 當然.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上戰鬪 平穩 ○ UN軍 세이버·젯트機隊, 鴨綠江南岸에 있는 水豊發電所를 爆擊. ○ B-29 空中要塞機隊, 平北 楊市의 共產兵力 및 補給物資集結所를 猛打. <p>休戰會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日 共產軍側代表, UN軍側이 扣留하고 있는 48,500名의 所謂 送還不願 포로는 休戰後 共產軍側 代表의 說得을 받은 다음에는 모두 本國에 돌아가기를 願하게 될것이라고 主張코 이어 8項目 제안을 說明. ○ 「해리슨」 UN軍代表, 中立國送還委員國에 捕虜를 引繼한 後 그들을 說服시키면 歸國하지 않은 포로는 없을 것이라는 共產軍側의 見解는 全然의 寸시된다고 說明. <p>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陸軍顧問廳長 「라이언」少將, 歸國에 앞서 記者團과 會見코 22個月前의 自己就任當時보다 韓國軍은 量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에 있어 倍以上으로 增加되고 質的으로 量의 增加比例보다 越等優秀하다고 韓國軍을 激讚.</p> <p>○ 「피가슨」美上院軍事歲出分科委員長 韓國의 休戰會談은 進行中이나 美政府는 來年度의 戰費를 依然 準備中이라고 放送.</p> <p>○ 英外務省發表—英政府는 捕虜問題에 關한 共產軍側의 8項目의 提案을 檢討하고 美國·英聯邦諸國 및 UN의 關係諸國과 協議中.</p>		<p>討議에 앞서 韓國問題에 關하여 演說—當面의 目的은 韓國休戰의 成立이며 共產軍側의 7日字 제안은 신중검토가 必要.</p>
11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12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極甚한 暴비로 地上戰鬪 및 空中活動 平穩.</p> <p>○ UN軍當局, 新型탱크와 204mm砲 및 輕車用 150mm 無反動砲等을 包含한 新型兵器가 韓國戰線에 出現하였다고 發表.</p>		<p>○ 中共軍, 週餘에 걸친 小康狀態를 깨트리고 中東部戰線의 「테사스」高地와 그 近邊의 韓國軍外廓陣地 3個所를 攻擊.</p> <p>○ 韓國軍部隊, 反擊을 개시하여 中共軍의 來襲으로 一時撤收한 「테사스」高地등 8個陣地를 奪還.</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해리슨」UN軍側 首席代表, 送還不願포로의 最終的인 處理가 政治會談에서 解決되지 못할 境遇에 對備할 또다른 제안을 제시하라고 共產軍側에 要求.</p> <p>○ 南日 共產軍側首席代表, 強制送還不願포로의 最終的處理問題는 政治會談이 決定해야 한다고 再次強調.</p> <p>○ 「해리슨」代表, 송환불원포로에 대하여 說得을 주기 위한 中立國委員團의 管理期間을 4個月로 定하자는 共產軍側 要求에 異議를 提示.</p>		<p>○ 「해리슨」首席代表, 共產軍側이 그들의 8項目 제안에 關한 UN軍側 質問에 對하여 適切한 對答을 하지 않는 限 合意에 到達하기는 不可能할 것이라고 共產軍側의 誠意를 催促.</p> <p>○ UN軍司令部, 共產軍側 8項目 提案에 關하여 公式컴뮤니케를 發表.</p> <p>○ 「클라야크」UN軍司令部, 共產軍側 8項目 提案에 對한 UN軍側의 新代案을 携帶코 汶山到着.</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처칠」英首相, 下院에서 外交問題</p>		<p>○ 「李大統領, 「클라야크」UN軍司令部과 더불어 景武臺에서 極秘裡에 約 1 時間동안 會談.</p> <p>○ 서울에 滯在中인 「클라야크」將軍, UN軍側의 新代案은 포로의 自意送還 原則을 堅持하고 있다고 強調.</p> <p>○ 中共 周恩來首相 5月 10日과, 11日 兩日間에 25臺에 遠한 美爆擊機 및 戰鬪機가 滿洲領空에 侵犯하여 250名</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13일	<p>의 民間을 殺傷시키고, 2,000戶 以上の 家屋을 燬碎시켰다고 主張하고 如斯한 領空侵犯은 休戰會談 決裂行爲로 看做한다고 揚言.</p> <p>○ 「함마셀트」 事務總長 UN韓國再建團의 代表로서 「존·콜터」 美陸軍 中將 (退役)을 任命. 任期는 來16日부터 2年間.</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韓國軍部隊, 中東部戰線의 「텍사스」 高地에 來襲하여은 約 1,000名의 中共軍과 10餘時間에 걸쳐 熾烈한 白兵戰을 展開끝에 이를 擊退.</p> <p>○ UN軍 세이버·젯트機隊, 朔州近方 上空에서 敵 MIG機隊와 交戰끝에 MIG機 2隻 격추, 1隻 격파.</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UN軍側, 강송불원포로를 管理委員會에 引渡한 後 60日이 經過후에도 송환을 거부할 시는 이를 民間人으로서 釋放하고 管理委員會를 解散한다는 등의 代案을 提示.</p> <p>○ 共產軍側, UN軍側의 捕虜交換에 관한 代案을 即時拒否.</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北京放送, 板門店으로부터의 報道라 하여 共產軍側 유건대표가 共產軍側 8項目 提案에 대한 UN軍側의 代案을 斷呼히 一蹴하였다고 報道.</p> <p>○ 美國務省代辯人 「맥더못」氏, 「치칠」英首相의 外交演說에 對하여 美政府 最初의 公式聲明을 發表—① 共產側에 誠意있으면 首腦會談도 可望.</p>	14일	<p>② 同首相의 提唱은 永續的인 平和達成을 위한 自由諸國의 熱望의 表示.</p> <p>○ 「벤·프리트」 前在韓第8軍司令官 「라이프」誌에 論文을 寄稿—侵略的인 中共政權은 亞細亞의 自由를 위하여 消滅시킴이 必要.</p> <p>○ 佛國民議會外交委員會, 佛의 參加를 條件으로 世界問題를 檢討키 위한 大國會議開議를 承認.</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韓國軍部隊 中東部戰線 金化北方에 來襲하여은 中隊兵力中的 共軍과 激戰끝에 이를 擊退.</p> <p>○ 韓國陸軍顧問團長 「라이언」 少將의 後任으로 同副團長이던 「로저스」 准將이 被任.</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해리슨」 UN軍側首席代表 共產軍이 韓國軍捕虜의 一部를 共產軍에 編入 또는 共產軍을 援助하는 勞動등에 從事케 하였다고 非難.</p> <p>○ 「해리슨」 UN軍側首席代表 共產軍側에 對해서 共產軍側이 戰線에서 釋放하였다는 韓國軍捕虜는 現在數字의 으로 不足하다는 것을 指摘코 休戰効力이 發生한 後 強送不願 共產軍捕虜를 韓國에서 釋放해야 한다는 UN軍側主張을 拒否할 아무런 根據도 없다고 強調.</p> <p>○ 南日共產軍側首席代表 UN軍側代案을 全面的으로 拒否하고 同提案은 現在 雙方交渉의 基礎를 破壞하는 것이라고 거듭 揚言.</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韓國地區通信司令官 「테넨」少將, 韓國의 電力復舊事業이 韓國政府와 UN 韓國再建團 및 UN軍司令部間의 合意에 依하여 不遲着手될 것이라고 發表.</p> <p>○ 國府立法院 韓國休戰成立後에 政治會議에서 提起될 諸般問題를 討議.</p> <p>○ 業國府外交部長 臺北駐在 「링킹」美國大使에게 UN軍側이 共產軍側의 5 個國中立送還委員會案을 受諾한데 對한 國府側의 反對意見을 傳達</p> <p>○ 「맥카시」美上院議員 上院에서 演說 —「애브리」英勞動黨首 12日字 演說 中 韓國休戰에 關한 言及은 美國에 對한 侮辱이며 美國의 希望은 韓國에서 名譽로운 平和의 實現</p>		<p>시키려고 企圖하고 있다고 論難.</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平壤放送 UN空軍이 13.14兩日間 順安附水池의 堤防을 破壞하였고 또한 過去 2個月間 美空軍에 依하여 5,000 名의 住民이 殺害되었다고 UN軍側을 激烈히 非難.</p> <p>○ 美國務省 韓國休戰問題에 關하여 聲明發表—UN軍에 抑留中인 送還을 拒否하는 4萬8千5百名의 中共軍과 北韓軍捕虜에 自由選擇을 許與하는 問題는 自由世界의 基本的인 人道主義原則을 表示하는 것이며 이에 對한 我方의 立場은 確固.</p>
15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中共軍部隊 板門店地區에 있는 土耳其部隊의 3個外廓陣地를 攻擊.</p> <p>○ 中東部戰線의 UN軍部隊 「텍사스」 및 首都高地地區에서 中共軍과 連 4 日째 激戰을 展開</p> <p>○ 美驅逐艦 「브랏슈」號, 北韓 元山海上에서 共產軍의 沿岸砲擊을 맞아 9 名이 負傷.</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해리슨」 UN軍側代表 共產軍側이 捕虜交換을 위한 UN軍側 最新提案을 誤解하고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故意로 曲解하고 있다고 言明.</p> <p>○ 南日共產軍側首席代表 UN軍側最新提案은 自家撞着인 것이라고 非難코 UN軍側이 捕虜들을 強制的으로 抑留</p>	16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共產軍 中部戰線을 爲主로 各戰線에 걸쳐 UN軍陣地를 猛攻擊.</p> <p>○ 中部戰線의 韓國軍部隊 1個聯隊兵力으로 來襲한 中共軍과 熾烈한 激戰 끝에 이를 擊退.</p> <p>○ 白陸軍總參謀長 記者團과 會談코 韓國에 있는 共產軍은 優勢하며 韓國軍이 單獨으로 韓半島를 防衛할 수 있 가까지는 오랜 時日이 必要하다고 言明.</p> <p>○ 駐韓 英聯邦軍總司令官 英聯邦軍將兵은 戰爭이 繼續되는 限 韓國에서의 役割을 繼續하여 遂行할 것임을 確信한다고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해리슨」 UN軍側首席代表 共產軍側은 UN軍側提案을 誤解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歪曲解釋하고 있다고</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거들 말하고 이어 5月 20日 午前 11時까지 休會하자고 提案.</p> <p>○ 共産軍側 UN軍側 休會提案에 同意.</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中共新華社通信 13日提出한 UN軍側 提案의 目的은 捕虜送還을 強制的으로 阻止하려는 것이라고 報道.</p> <p>○ 「브릿저스」美上院歲出委員長 記者會見에서 聲明發表一極東地區各國의 軍事援助必要性을 實地調査키 爲하여 近間 2名의 歲出委員을 派遣기로 決定.</p> <p>○ 「튀닝」美空軍參謀總長 「킬위커」에서 說明一原爆을 韓國에서 使用하는 데 關하여 檢討中.</p>		<p>資本主義와 協力하고 있다고 非難.</p> <p>○ 「아」美大統領 18日 「인」에서 開催되는 國際商業會議所總會에 賓시지—自由諸國民의 互益을 認定하는 通貨 및 商業政策의 採擇이 時急.</p>
17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韓國軍步兵部隊 中東部戰線의 數個 韓國軍前哨陣地를 占領하고 있는 中共軍에 對하여 頑強히 反擊戰을 展開.</p> <p>○ UN軍세이버·젯트機隊 共産軍 MIG機 4臺를 擊墜하고 3臺를 擊破.</p> <p>○ 美 第8軍司令部 發表—5月 14日까지의 1週日 동안의 共産軍의 死傷者數는 戰死 1,111名, 負傷者 16名, 捕虜 17名.</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해리슨」UN軍側首席代表 「클라이크」UN軍司令官과 休戰問題를 協議次 東京으로 向發.</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日本左派社會黨首, 吉田首相은 韓國休戰成立을 遲延시키기 爲하여 美國</p>	18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韓國軍部隊 東部戰線 斷腸의 綫線에서 4回에 걸친 共産軍의 攻擊을 擊退</p> <p>○ 美세이버·젯트機隊 北韓上空에서 展開된 空中戰에서 共産軍 MIG機 12臺를 擊墜하고 1臺를 未確認擊墜.</p> <p>○ B29空中要塞機隊 兼二浦와 沙里院間의 共産軍部隊集結地와 補給施設을 爆擊.</p> <p>○ 美太平洋地區海兵隊副司令官 「가슈먼」少將 申韓國海兵隊司令官을 來訪코 約 1時間동안 要談</p> <p>○ 政府代辦人 特別聲明을 發表하고 韓國人 捕虜는 全部 休戰協定成立과 함께 釋放할 것을 要求한 「해리슨」UN軍側休戰代表의 13日提案은 正當한 것이며 修正을 要할 何等의 理由도 없다고 力說.</p> <p>○ 中國會議長 「엘리자베스」 英女王戴冠式에 參席코자 官民多數歡送裡에 水營空港出發, 韓國出兵各國을 歷訪豫定.</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北京放送 韓國休戰에 關한 美國務省 15日의 聲明을 非難하고 共産軍側 8項目提案의 妥當性을 主長.</p> <p>○ 「처칠」英首相 下院에서 韓國問題에 關하여 英勞動黨員이 UN軍側의 共産</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19일	<p>軍側提案拒否는 英國의 韓國戰支援을 困難케 한다는 말에 答하여 言明—英國은 休戰會談에 關하여 美國과 恒常 意見을 交換.</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韓國軍部隊 中東部戰線의 狙擊被線 및 「크리마스」高地를 攻擊하여은 各 各 1個大隊兵力의 中共軍을 擊退.</p> <p>○ UN軍 세이버·깃트機隊 北韓 MIG 通路上에서 共產軍 MIG機 4臺를 擊墜.</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明 20日 再開될 豫定이던 休戰會談 오는 25日까지 延期키로 雙方이 合意.</p> <p>○ 孫海軍總參謀長 訪英에 앞서 記者團과 會見코 英國海軍을 視察하는 한便 渡美하여 美政府當局과 韓國海軍增強 問題에 關하여 眞摯한 協議를 할 것 이라고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北京放送 25日 再開되는 休戰會談은 華府當局的 韓國休戰成立 願不願을 보여주게 되리라고 報道.</p> <p>○ 韓日會談韓國代表團 同會談의 財產 權分科委員會議에서 日本에 對한 財產 請求權의 目錄을 提出.</p> <p>○ 「아」美大統領 全國에 라디오 放送 美國은 非常事態에 臨하던 蘇聯側誘發에 對抗하여 勝利可能 現在로서는 自由世界는 防衛力構築에 繼續努力함이 必要</p>	21일	<p>前方의 UN軍前哨陣地를 攻擊.</p> <p>○ 申國防部長官 이이 實施中에있는 滿 20才 以上 25歲未滿의 壯丁 全員召集 에 言及하여 各職場에서는 全的으로 傷殘軍人으로 補充服務케 하라는 要旨의 談話를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印支佛軍當局 胡志明軍이 「라오스」 王都 「프랑프랑방」 北方 140杼에 있는 「므몽크야」를 占領하였다고 發表.</p> <p>○ 「아」美大統領 國務次官 및 心理戰略 局長等을 白堊館에 召集하여 秘密會 議.</p> <p>○ 波蘭의 MIG15젯트機 1臺 丁抹 「보 존호름」島에 亡命着陸.</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韓國軍部隊 東部戰線의 거리 300야 아드의 被線을 사이에 두고 12時間에 걸친 熾烈한 激戰끝에 UN軍前哨陣地 로부터 中共軍을 擊退.</p> <p>○ 李大統領 駐韓英聯邦軍部隊를 訪問 하여 英國軍의 功勳을 讚揚하고 師團 長 「웨스트」少將에게 太極旗를 贈呈.</p> <p>○ 李大統領 共產軍 MIG 16臺 및 14臺 擊墜의 赫赫한 記錄을 樹立한 美젯트 機空中勇士 2名에게 韓國政府의 乙支 武功勳章을 授與.</p> <p>○ 韓國軍事學校를 視察코저 來韓한 加 奈陀 「밀보턴」准將 陸軍本部를 禮 訪.</p> <p>○ 印度를 訪問中인 「덜레스」美國務長 官 「네에루」印首相과 2時間에 亘하 여 韓國問題 및 其他世界問題에 關하</p>
20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中共軍小部隊 西部戰線 「혹크」高地</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22일	<p>여 회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白堊館代辯人發表—「아」大統領 「치칠」英首相「에이에」佛首相은 6月中旬頃「버뮤다」島에서 會談豫定. ○ 「치칠」英首相 下院에서 韓國休戰會談에 관하여 그 實現을 위한 新提案이 可能하다고 言明.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全戰線에 降雨. ○ UN軍地上部隊 中西部戰線에서 來襲한 中共軍과 3時間餘에 걸친 激戰끝에 이를 擊退. ○ B29爆擊機隊 平壤南方 貯水池를 爆擊 ○ 申海兵隊司令官 韓國海兵人事行政에 功績을 남기고 今般 歸國하게 된 「권봉」美中領에게 無星乙支武功勳章을 授與.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休戰會談 UN軍側首席代表「해리슨」中將 被拉人士: 送還을 위하여 最善을 다하고 있다고 言明. ○ 朴國防部兵務局長 最近 滿 32歲까지의 壯丁 身體檢査에 言及하여 壯丁의 正確한 數를 把握하기 위한 것이라며 召集年令이 延長된 것이 아니라며 闡明.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本海上保安廳 去 5月 15日부터 20日까지에 7隻의 日本漁船이 蘇聯巡邏艦艇에 拿捕되어 그中 3隻이 釋放되었다고 發表. ○ 「아리」 「파키스탄」首相 「파키스탄」 	23일	<p>은 中東의 安全을 促進하는 UN에 의한 集團安全保障의 原則을 支持한다고 記者團에 言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일리」美上院外交委員長 記者會見에서 言明—「아」大統領은 3巨頭會談에 共和, 民主兩黨代表의 參席을 提案. ○ 「카이로」 消息通言明—埃及政府는 2,3日中으로 共和國制를 宣言할터.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全戰線降雨로 말미암아 大體로 平穩 ○ 美軍部隊 鐵原溪谷에서 中共軍 1個中隊와 3時間 동안 交戰 ○ 美極東空軍司令部發表—지난 週日 동안에 28臺의 共產軍 MIG機를 擊墜, 開戰 以來 週間共產軍젯트機擊墜數로는 最高.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休戰會談韓國代表陣 強化—首席代表에 崔德新 少將(現在) 代表에 李 皓准將(陸軍) 金一秉 准將(海軍) 金昌圭 准將(空軍). ○ 「타스카」特使 光州에서 開催된 市民大會에 參席하여 韓國은 豐富한 資源을 保有하고 있음으로 開發如何로 工業國으로 發展이 可能한 것이라고 言明.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壤放送 UN軍側이 참된 韓國休戰을 願한다면 共產軍側의 8項目 提案을 受諾하라고 放送. ○ 華府消息通報道—佛政府는 最近美國으로부터 空母「복스·카아」號로 印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24일	<p>度支邦方面에 派遣받았는데 前週末 다시 2萬噸級의 空母의 派遣를 要請.</p> <p>軍 事</p> <p>○ 韓國軍部隊 5회에 걸쳐 「크리스마스」 近邊高地를 攻擊.</p> <p>○ 中共軍部隊 重砲의 支援下에 金化 金成間的 道路終結附近에 있는 韓國軍 2個陣地에 突入.</p> <p>○ 美巡洋艦 「브레모턴」號 및 「만체스터」號 元山港에 突入하여 數個所의 共產軍海岸砲臺를 猛打.</p> <p>○ 美極東空軍司令部發表—B29 爆擊機 10臺가 暴雨와 積雲을 뚫고 平壤東北方의 新信里等의 共產軍補給 및 軍隊 集結地를 爆擊</p> <p>○ 下外務部長官 韓國의 分斷을 그대로 放置하며 中共軍의 韓國內駐屯을 容認하는 如何한 休戰에도 斷乎反對한 다는 要旨의 聲明를 發表</p> <p>政 治</p> <p>○ 平壤放送 UN軍이 「제네바」協定을 違反하고 北韓의 民間給水路를 爆擊 하였으며 또한 如斯한 爆擊은 韓國에서 休戰이 成立될 수 있을뻔하던 바로 그때부터 始作하였다고 非難.</p> <p>○ 華府消息通 報道—美政府는 蘇聯「푸라우다」紙의 本日字論評에 관하여 公式 批評은 未發表나 이는 「버뮤다」會談을 앞두고 西歐·美國間의 意見不一致를 劃策하는 것으로 觀測</p>	26일	<p>附近의 敵海岸砲臺陣을 強打</p> <p>○ 美海兵隊戰爆機隊 新幕에 있는 敵軍隊集結地域에 對한 3次에 걸친 波狀 攻擊에서 高性能爆彈 6萬5千파운드以上을 投下.</p> <p>○ 美第8軍公報將校發表—①現在韓國戰線에 投入되고 있는 共產軍兵力은 中共軍 7個軍과 北韓軍 2個軍團(中共軍 1個軍兵力은 29,000名 北韓軍 1個軍團 兵力은 30,000名) ② UN軍과 直接對峙하고 있는 兵力은 263,000名이며 約 75萬의 豫備兵力을 戰線後方에 確保.</p> <p>休戰會談</p> <p>○ 休戰會談本會議 UN軍則最新提案을 討議하기 爲하여 秘密會議를 開議.</p> <p>○ 下午會議에서 5月 31日까지 休會기로 決定</p> <p>○ 崔德新韓國代表 25日 會談을 보이 코트.</p> <p>政 治</p> <p>○ 「나이루」印度首相 印度는 韓國動亂 終結을 위하여 提出된 中共 및 北韓의 休戰案을 支持한다고 이를 再強調.</p> <p>○ 白堊館發表—「페코테라」美海軍作戰部長을 「카아네」大將과 交替하여 北大西洋軍 南部司令部에 任命.</p>
25일	<p>軍 事</p> <p>○ 美戰艦 「뉴어저스」號 韓國西海岸地域의 英海軍艦隊와 合勢코 大同江口</p>	26일	<p>軍 事</p> <p>○ 美第5空軍司令部發表—세이버·젯트 機操從士들은 26日 아침에 敵 MIG機 5臺를 擊墜하고 午後에 다시 7臺를 擊墜.</p> <p>○ 韓國政府消息通 言明—25日秘密會談</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에서 提出된 UN軍刷新提案의 骨子는 反共捕虜에 對한 最終的決定을 總會에 移管할 것과 反共北韓捕虜들은 休戰後 南韓에서 釋放한다는 從來의 主張을 撤回한 것이며 韓國으로서는 到底히 受託不能.</p> <p>○ 國會 滯京中인 李大統領과 더불어 休戰問題와 食糧問題를 協議하고자 國會代表團을 派遣키로 決定.</p> <p>○ 葛公報處長, 26日閉議에서는 休戰會談請情勢가 討議되지 않았다고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平壤放送「시로키」「체코」首相으로부터 1953. 4兩年度에 걸쳐 北韓學生 400名 및 孤兒 700名 都合 1,100名을 「체코」國에 招請할 것이라는 公告가 있을 것이라고 報道.</p> <p>○ 「네에루」印度首相 25日 板門店에서 UN軍側이 提出한 새로운 休戰提案은 昨年 12月 UN總會에서 採擇된 印度決議案에 恰似한 것으로서 나는 이提案을 支持하며 不遑 板門店에서는 休戰協定이 成立될는지 모른다고 言明.</p> <p>○ 「아」大統領 休戰問題에 聲明을 發表—UN軍의 主張은 從來의 原則을 不變, 捕虜는 強制送還치 않을 것이며 이러한 原則에 관한 UN軍側見解는 完全 一致.</p> <p>○ 「테프트」美上院議員, 全美基督教, 猶太人大會席上 演說에서—美國은 極東에 관한 限 UN存在를 介意치 말고 獨自의 政策을 推進시켜야 한다고 言明.</p>	<p>27일</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戰爆機隊 北韓 MIG通路上에서 12臺의 敵 MIG機를 擊墜하고 다른 1臺를 擊破.</p> <p>○ B 29爆擊機隊 襄津近方의 共產軍集結地와 補給地點 및 操車場에 約80噸의 爆彈을 投下.</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雙方連絡將校 共產軍側要求로 會議은 開催코 韓國軍兵士 2名이 北韓傀儡軍制服을 着用하고 中立地帶에 侵入하였다는 共產軍側抗議를 討議.</p> <p>○ 駐韓比 第14戰車大隊 韓比兩軍의 親善을 圖謀코져 比製 麥酒 200打를 國防部·陸軍本部 및 空軍本부를 各各寄贈.</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알렌」駐印美大使 記者會見에서 美國의 中共承認도 韓國問題를 解決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言明.</p> <p>○ 「스파이크먼」美上院議員, 「테프트」上院議員의 「신시나티」에서의 演說은 韓國休戰의 機會를 妨害하는 것이라고 非難.</p> <p>○ 英歲出委員會 萬若 中共이 安保理事會의 理事國이된다면 美國은 來會計年度에 UN에서의 分擔金支出을 禁止할 것을 可決.</p> <p>○ 「아」大統領 「코란츠」大將을 陸軍參謀總長 辭任後 NATO 軍事委員會 및 常設軍事小委員會의 美代表에 任命할 것을 發表</p> <p>28일</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p>○ 韓國軍部隊 中東部戰線 10個前哨據點을 攻擊하여온 聯隊兵力의 敵을 熾烈한 戰鬪 끝에 擊退</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休戰會談 韓國代表 崔德新小將 「해리슨」 UN軍側首席代表에게 休戰會談에 對한 韓國側見解를 表明한 重要電翰을 傳達</p> <p>○ 雙方連絡將校 UN軍側提議을 會議을 開催코 行政의인 問題를 協議</p> <p>○ 國會代表團 「해리슨」 UN軍側休戰代表와 會見코 UN軍側新提議의 即時公關를 要求</p> <p>○ 下外務長官 UN軍側新提議의 重要部分을 公開하여 이는 主權國家로서 우리는 受諾할 수 없는 것이라고 言明.</p> <p>○ 北進統一鬪爭委員會, 屈辱的인 UN側新提議은 韓國民을 共產侵略앞에 無條件 犧牲시키려는 自由世界의 敗北를 意味하는 것이라고 談話를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해리슨」 新駐日美大使 約 30分間에 걸쳐 日本吉田首相과 懇談.</p> <p>○ 「아」 大統領 記者會見에서 去 26日 「태프트」 上院議員의 演說에 言及코 自由諸國은 孤立的인 單獨行動이 不能하다고 言明.</p> <p>○ 「아」 大統領 言明—萬若 中共이 UN에 加入하드라도 美國의 UN에 對한 財政援助停止는 困難.</p>		<p>로 攻擊.</p> <p>○ 葛公報處長 韓國政府가 板門店에서 「해리슨」 UN軍側首席代表에게 建議書를 提出하였다는 新聞報道를 否定코 우리가 아는限 어떠한 建議 또는 提案도 公式的으로 提出된일은 없다고 聲明.</p> <p>○ 서울 汶山을 訪問했던 國會代表一行 國會本會議에서 歸還報告—李大統領 및 「해리슨」 UN軍側首席代表와 會見코 休戰에 關한 國會의 從來主張을 傳達.</p> <p>○ 下外務部長官, 萬一韓國政府의 支持를 받지 못하는 休戰은 戰鬪를 繼續할 것이라고 國會에서 言明.</p> <p>○ 新任 UN KPA團長 「폴터」中將 下外務部長官을 비롯하여 駐韓各國 外交使臣等의 迎接裡에 水營空港에 到着.</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日本外務省 大邦九事件을 一層더 調査하자는 要請을 第3次로 韓國政府에 提出하였다고 言明.</p> <p>○ 日本吉田首相, 日本政府는 中共의 UN加入에 反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어 韓國에 있어서의 休戰이 日本經濟에 甚大한 打擊을 주지 않으리라고 믿는다고 言明.</p> <p>○ 美國의 「뉴우욕·타임즈」·「뉴우욕·헤랄드·브리튼」兩紙 「아」大統領이 「태프트」 上院議員의 韓國에 關한 聲明을 拒否한데 對하여 白雲館의 優越한 地位를 再確認한 것이라고 論評.</p>
29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中共軍, 板門店近方의 英國軍 및 土耳其軍重要陣地를 5,000名이 兵力으</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30일	<p>○ 華府消息通言明—「아」大統領은 韓國休戰을 實現키 爲하여 韓國政府가 UN軍의 新提案에 同意하도록 李大統領에 囑翰을 傳達視.</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西部戰線의 UN軍部隊 熾烈한 彈幕을 霑고 波狀攻擊으로 肉迫해 온 共產軍과 白兵戰을 展開하여 이를 擊退.</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北京放送, 日本政府는 在日韓國人의 中國本土送還을 故意로 遲延시키고 있다고 非難.</p> <p>○ 日本外務省代辯人 言明—日本은 韓國戰이 終熄되는대로 韓日間의 友好關係를 促進시키기 爲하여 韓國에 公館을 開設할 計劃을 樹立中.</p> <p>○ 「아」美大統領 「덜레스」國務長官 · 「윌슨」國防長官 및 「콜린스」陸軍總參謀長을 召集하고 韓國問題에 關하여 協議.</p> <p>○ 華府消息通言明—「아」美大統領은 韓國政府와 UN軍諸國과의 重大危機를 解決하기 爲하여 李大統領에게 第2次의 囑翰을 送達.</p>		<p>席上에서 韓國은 國土統一을 規定하지 않는 如何한 國際協定에도 斷乎反對할 것이라고 거듭 強調.</p> <p>○ 休戰會談 韓國軍代表 崔德新少將 서울에서 記者團과 會見코 UN軍側이 5月 25日字의 新提案을 撤回하거나 修正하지 않는限 繼續하여 會談를 포이콧트 하겠다고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클라아크」UN軍司令官, 韓美合同經濟委員會 美國側代表에 「타스카」特使를 任命.</p> <p>○ 美國防省當局者 言明—國防省은 一般의 軍事豫算削減에 不拘코 戰鬪用航空機生産을 強化할 計劃.</p> <p>○ 中東觀察로부터 歸國한 「스밋센」美相互安全保障本部長官 全國에 放送—</p> <p>① 「아」大統領이 議會에 要請한 58億弗의 對外援助費支出은 美國自體의 安全保障에 有益 ② 蘇聯國에 對한 禁輸는 오직 戰略物資에 制限.</p> <p>○ 梁駐美韓國大使, 萬一休戰成立後 韓國統一을 實現치 못하고 UN軍이 撤退한다면 韓國軍은 統一을 爲한 戰鬪를 繼續한 것이라고 텔레비 放送</p> <p>○ 1941—45年間 韓國亡命政府의 美軍事顧問으로 活躍한 「크롬웰」氏 「피라델피아」에서 言明—萬一 韓國이 UN의 休戰案을 拒否할 境遇에는 美國은 對韓援助를 中止함이 妥當</p>
31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中共軍大隊兵力으로 金化北方에 있는 UN軍前哨高地를 攻擊.</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共產軍側 連絡將校會議를 通하여 6月 1日 再開豫定이던 本會議를 來 6月 4日 上午 11時까지 延期할 것을 要求. UN軍側, 이에 同意.</p> <p>○ 李大統領 鎮海 海軍士官學校 卒業式</p>	6월 1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東部戰線에서 激戰展開 聯隊兵力의 北韓共產軍 鎭形高地近方 UN軍陣地</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를 夜間攻擊.</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我軍部隊, 中部戰線 狙擊綫에 對한 敵 1個小隊을 攻擊을 擊退. ○ UN軍探索隊, 西部戰線 「빅·노리」 高地近傍에서 中共軍 1個小隊와 交戰. ○ UN空軍爆擊機隊 中部戰線 共產軍陣地를 爆擊. ○ UN軍 F 86세이버 잭트機隊, 北韓上空에서 敵 MIG잭트機를 1臺擊墜, 2臺擊破 ○ B 26輕爆擊機隊 共產軍補給車輛 117臺를 破壞. ○ UN軍捕虜收容所當局 發表—去 5月 27日 巨濟島收容所에서 北韓共產軍捕虜 1名이 脫走다가 警備兵이 發射한 銃彈에 맞아 重傷. ○ 美軍財務當尻, 1日부터의 美軍支拂에 1弗 對 60 韓國圓며신에 1弗對180圓의 新交換比率를 使用.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休戰會談 韓國代表 崔德新少將 前方司令部에 「헤리슨」 首席代表를 訪問코 協議. 會見後 現在와 같은 狀況下에서는 4日 再開될 會談에도 出席하지 않는다고 言明. ○ 鎮海大統領臨時官邸에서 全閣僚參席下에 非常國務會議 開催 ○ 韓國播感側 言明—李大統領은 「부릭스」 駐韓美大使를 通하여 「아」大統領에게 美國의 軍事의 安全保障 및 長期 經濟援助計劃을 條件으로한 妥協案을 手交.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京發 新華社電, 中共의 對外英文宣傳雜誌「人民中國」의 日本語版發刊을 報道. ○ 「아」大統領 議會에 넷세지를 傳達코 一切의 對外情報活動을 國務省所管下에 두고 相互安全保障本部를 廢止하는 行政機構改革案을 發表 ○ 華府發 Reuter報道—李承晚大統領은 「아」大統領에 對하여 萬一 美國이 休戰成立前에 韓國과의 相互防衛條約을 締結한다면 韓國은 捕虜問題를 둘러싼 現 休戰條件에 對한 反對를 撤回하겠다고 提案. ○ 「노올랜드」美上院共和黨政策委員長, UN側의 韓國休戰提案을 名譽로운 休戰을 가져올 性質의 것은 못된다고 聲明을 發表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軍部隊, 鎢形高地近方 11個陣地에 對한 共產軍大部隊의 攻擊을 擊退 ○ 東部戰線 「류우크·카아슬」 高地에서는 熾烈한 戰鬥繼續 ○ 韓國軍部隊 金化西北方 前哨陣地 및 首都高地에 對한 共產軍攻擊을 強打. ○ 中共軍部隊 西部戰線 T型高地 및 「포오크·홈」 高地近傍에 來襲 ○ UN空軍部隊 東部戰線 共產軍陣地에 對하여 50萬封度の 高性能爆彈을 投下. ○ 英聯邦師團의 戴冠祝賀式에 參席하기 위하여 서울에 歸還한 李大統領 記者團에 對하여 「아」大統領으로부터
		2일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p>3項目的 메시지를 받았다고 發表하면서 申明—常識과 知慧는 우리가 如何한 代價를 支拂하고서라도 美國과 協調할 것을 要求.</p> <p>○ 下外務部長官 「부릭스」美大使에 對하여 韓國政府는 1日의 閣議에서 休戰에 對한 韓國態度에 關하여 李大統領의 決意에 完全한 同意를 賦與하였다고 通告.</p> <p>○ 中國防部長官, 内外記者團과의 會見에서 現戰線에서의 停戰이 韓國에 極히 不利한 點을 指摘하고 韓國은 中共軍이 無條件으로 完全히 撤收한 確證없이는 休戰을 應諾할 수 없다고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新華社通信—周恩來中共首魁은 「저」英首魁에 對하여 戴冠式 祝賀 메시지를 發送</p> <p>○ 「아」大統領 UN美職員의 忠誠을 審査하기 위하여 特別忠誠審査委員會를 設置할 것을 命命.</p> <p>○ 「아」大統領 共和黨議會指導者들과 會議를 開催코 中共의 UN加入을 阻止하기 위하여 積極의 行動을 展開코 意見一致—同會議는 特別 韓國休戰에 關聯하여 英國側이 中共加入을 強力히 支持한 徵候가 보이기 때문에 이에 對한 對策樹立次 開催하였다고 聲明.</p> <p>○ 「스티븐슨」美陸軍長官, 上院歲出分科委員會에서 申明—① 現在까지 韓國戰爭에 消費된 費用은 150億弗에 到</p>	<p>3일</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韓國軍部隊 猛烈한 反擊戰을 展開코 「류우크·카아슬」高地로부터 共產軍을 擊退</p> <p>○ UN海軍驅逐艦 「만체스터」 및 「센터 포오르」號, 元山港에 突入하여 共產軍海岸砲陣地를 猛砲擊.</p> <p>○ B29爆擊機隊 鐵의 三角地帶의 共產軍陣地 및 軍需品集積所를 5時間에 걸쳐 爆擊.</p> <p>○ UN海軍當局 韓國水域英國艦隊 旗艦 「레이다·바야드」號의 離韓을 發表.</p> <p>○ 美國防省發表 韓國戰線 美軍犧牲者 總數 135,362名—作週發表에 比하여 199名의 增加.</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共產軍側連絡將校 共產軍側要請으로 開催된 連絡將校會議에서 休戰協商에 關한 文書를 UN軍側에 傳達.</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北京新華社電 「알타사이한」 「몽골」 人民共和國 駐中國特命全權大使 解任 歸國을 報道.</p> <p>○ 「아」大統領 美國은 共產陣營에 對한 政策을 決코 緩和시키지 않는 한편 戰爭의 危險을 招來할 行動도 삼가하고 있다고 全國에 放送.</p> <p>○ 「딜레스」國務長官 最近의 中東 및 南亞視察旅行의 結果에 關하여 上院</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p>外交委員會에 報告—「네이루」印度首相은 最初에는 韓國捕虜強制送還에 對한 美國의 強硬한 態度를 誤解하는 傾向이 있었으나 現在에 와서는 韓國 休戰會談에 있어서의 美國의 誠意를 確信하기에 到達.</p> <p>○ 美上院 中共의 UN加入을 積極 反對할 것을 滿場一致로 可決.</p> <p>○ 梁裕燦駐美韓國大使, 韓國은 國土統一과 平和達成에 있어 全적으로 美國에 依存한다고 言明.</p> <p>○ 華府權威側, 同言明은 韓國政府가 休戰後에도 單獨으로 戰鬪하겠다는 意向을 拋棄한 것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表明.</p>		<p>午前 11時까지 休會하기로 決定.</p> <p>○ 崔德新代表 會談에 繼續 不參席. 韓國側으로는 連絡將校 李壽榮大領단 出席.</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會本會議 休戰對策特別委員會를 構成할 것을 決議.</p> <p>○ 葛 公報處長, 聲明書를 發表하여 UN軍側 休戰提案의 拒否를 強調하는 한편 中共軍의 韓國撤退를 規定하지 않는 如何한 休戰도 이를 受諾할 수 없다고 非難.</p> <p>○ 韓國派兵 16個國代表, 美國務省에서 休戰에 關한 秘密會議을 開催.</p> <p>○ 「태그트」美上院議員 言明—UN軍側 最後提案에 依據하여 韓國休戰이 成立되어도 滿足할만한 結果는 가지오지 못할 것을 確信.</p> <p>○ 英聯邦首相會議, UN軍側은 韓國休戰條件에 關한 共產側의 主張을 受諾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는 點에 意見 合致.</p>
4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韓國軍 4個師團으로부터 出動한 步兵部隊 中部 및 東部戰線에서 去 27日 喪失한 7個前哨陣地를 奪還하기 위하여 攻擊을 開始.</p> <p>○ 韓國軍 第12師團 및 第15師團所屬部隊 東部戰線 錨形高地 및 「류우·카아슬」高地에서 激戰 繼續코 南半部를 各各 確保.</p> <p>○ 韓國軍部隊, 中東部戰線 「피의 綫」上的 前哨陣地를 奪還하였으나 共產軍增援部隊의 攻擊을 받고 다시 後退.</p> <p>○ 指形綫上的 前哨陣地에서도 激戰 展開.</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本會談 午前 11시에 再開. 秘密裡에 1時間13分 討議後 UN軍側要求로 6日</p>	5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顯著히 減少.</p> <p>○ 東部戰線 錨形高地에서 戰鬪繼續.</p> <p>○ UN軍 「세이버·젯트」機隊 北韓上空 空中戰에서 敵 MIG젯트機 3架를 擊墜.</p> <p>○ 中部戰線에서 共產軍 擴聲機를 通하여 休戰協定은 不遠成立할 것이라고 또 선전방송.</p> <p>○ UN軍 포로수용소 당국 발표—4日 早朝 馬山收容所에서 北韓反共포로</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2,000명이 休戰會議의 UN軍側提案을 反對하여 데모를 展開.</p> <p>休戰會議</p> <p>○ 「해리슨」UN首席代表를 비롯한 UN軍側休戰會議代表를 汶山 UN軍側休戰會議本部에서 會談. 崔德新韓國代表는 不出席.</p> <p>○ UN軍代表側近者, 4日本會談에서 共產軍側은 정식으로 反對제안을 하였으며 同 제안은 5月 25日 UN軍側제안을 사실상 受諾한 것이라고 說明.</p> <p>政 治</p> <p>○ 「클라아크」UN軍司令官, 空路 서울 到着. 李大統領 및 UN軍側休戰會議代表 軍首腦部들과 重要회담 後 東京으로 귀환.</p> <p>○ 李大統領, 美國NBC방송국 특파원에게 說明—韓國은 현재의 提案에 立脚한 휴전에 調印할 것이나 그것은 美國의 強要로 調印.</p> <p>○ 李大統領, UP通信社의 질문에 回答文을 보내어 統一없는 休戰의 結果는 韓國을 第二의 中國으로 할 것이라고 強調.</p> <p>○ 西南地區戰鬪警察隊 發足式. 全北 南原에서 舉行.</p> <p>○ 華府權威側 說明—昨日 韓國휴전회담 共產軍代表는 휴전 4개월 후에도 귀국을 희망치 않는 全捕虜를 中立國에서 釋放시킬 것을 제안.</p> <p>○ 英「런던·스타아」紙 報道—「차」首相 및 其他 英聯邦 各首相은 「아」大統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韓國休戰에</p>	<p>6일</p> <p>軍 事</p> <p>○ 東部戰線에서 계속 공격중인 北韓共產軍部隊 「류우크·카아슬」高地 東方에서 UN軍진지에 침투.</p> <p>○ 國軍部隊 「류우크·카아슬」高地 東方에서 敵의 猛烈한 抵抗을 排除하여 失地の 半以上을 奪還.</p> <p>○ 韓國軍部隊 同上 突破地點東方 3哩地點에 對한 共產軍 150 乃至 200名 兵力의 攻擊을 1時間交戰끝에 擊退.</p> <p>○ UN·共產兩軍部隊 中東部戰線 「피의 稜線」에서 早朝에 熾烈한 戰鬪를 전개.</p> <p>○ 美 제3補團所屬 希臘軍部隊探索隊 中西部戰線 「작슨」高地 東方 無人地帶에서 約 200名の 中共軍과 遭遇하여 2時間45分間에 걸쳐 激戰展開.</p> <p>休戰會議</p> <p>○ 本會談, 共產軍側要求로 開會 19分만에 散會. 韓國代表는 不出席.</p> <p>○ 政府 去2日 李大統領이 「아」大統領에게 手交한 UN軍休戰提案에 內容에 發表. ① 共產·UN兩軍의 韓國으로 부터의 同時撤退 ② 撤退에 앞서 韓·美兩國相互防衛第條의 締結.</p> <p>政 治</p> <p>○ 「태도포드」美海軍大將 臺北으로부터 空路 東北 羽田 到着.</p> <p>○ 印度官邊側 韓國休戰問題에 關하여 萬岩 關係國家全部가 同意한다면 印度는 그 任務를 遂行할 用意가 있다</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고 言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大統領 軍事首腦部 및 政治關係顧問과 韓國新事態에 關하여 討議. ○ 「아」大統領 來7日부터 1週日間は 「韓國援助週間」으로 決定하고 美民間 救濟團體의 韓國에 對한 積極的인 援助를 要望하는 聲明書를 發表. ○ 「아」大統領 韓國側의 休戰反對를 阻止하기 爲하여 李大統領에게 諫翰을 發送. ○ 「태프트」美上院議員, 韓國에서 恒久的 平和가 確立될 때까지는 駐韓美軍이 繼續 駐屯이 必要하다고 言明. ○ 梁裕燦駐美韓國大使, 李大統領은 韓國을 兩斷하고 中共軍의 駐留를 承認하는 休戰協定에는 次로 調印하지 않을 것이라고 聲明書를 發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및 共產兩軍參謀將校 午後 2時부터 秘密會議을 開催하여 捕虜交換에 關한 細目을 討議. ○ 休戰會談 韓國側을 서어버, UN軍側 休戰會談代表團으로부터 撤去. ○ 李大統領, 「크」司令官을 通하여 傳達된 「아」大統領의 諫簡內容은 發表. ○ 李大統領, 談話를 發表하여 休戰에 對한 韓國의 確固不動한 態度를 闡明—休戰會談韓國代表는 公式的으로 韓國政府를 代表한 것이 아니며 韓國案 拒否면 單獨北進. ○ 政府, 現在 渡美中에 있는 陸軍參謀總長 白善燁大將以下 全將兵의 即時 召還을 命命하는 同時에 渡美豫定이던 將星에 對하여서도 出發中止를 命命.
7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軍部隊, 東部戰線 「류우크·카아슬」高地近傍의 共產軍占領下 數個陣地들에 對한 奪還戰에 失敗. ○ UN軍 F86세이버·젯트機隊 水豊發電所를 攻擊. ○ UN軍세이버·젯트機隊 西北韓 上空에서 敵MIG15젯트機 4臺를 擊墜. ○ UN軍捕虜收容所當屋, 7月末明 汶山收容所에서 逃走를 企圖한 北韓捕虜 1名이 射殺되고 다른 1名이 重傷을 입었다고 發表.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白亞館當局, 6日 「아」大統領이 李大統領에게 보낸 諫翰의 內容을 發表— ① 美國은 모든 平和의 手段을 다하여 韓國의 統一을 實現하는데 努力할 것이며 休戰後에 오는 政治會談에는 韓國側의 全面的 參加를 期待 ② 美國은 休戰成立後 韓國과의 相互防衛條約締結에 關하여 李大統領과 交涉할 意思를 保有.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本會談 午前 11時開會, 共產軍側 要請으로 2次에 걸쳐 休會한 後 午後第 時24分 散會. 	8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軍 第12師團部隊, 「류우크·카아슬」高地에 對한 反擊戰을 開始하고 1個陣地를 奪還. ○ UN軍 B29爆擊機隊 平壤南方 5哩地點의 共產軍補給中心地를 爆擊.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 共產軍機 2臺 夜間에 서울地區를 空襲코 爆彈 11個를 市內 6箇所에 投下 死者 2名 負傷者 15名</p> <p>○ 「테일러」美第8軍司令官, 美「콜럼비아」放送記者의 質問에 對한 回答에서 聲明—韓國軍은 獨力으로 大規模攻擊을 할 수 없으나 北韓共產軍의 如何한 攻擊에 對하여서도 國土를 防衛할 수 있을 것이며 UN軍은 韓國問題의 政治的 解決時까지 繼續駐屯.</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本會談—UN·共產兩軍代表, 捕虜交換에 關한 協定에 調印.</p> <p>○ 兩軍參謀將校會議, 2次에 걸쳐 秘密會議를 開催하여 捕虜交換問題에 關한 細目을 討議.</p> <p>○ 李大統領 聲明을 發表하여 戰鬪繼續 決議를 再闡明—萬若 UN軍이 戰爭完遂意圖를 拋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目的을 達成할 때까지 單獨으로 戰鬪를 繼續.</p> <p>○ 吳武臺서 國會休戰對策委參謀席下에 特別國務會議를 開催.</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日本 岡崎外相 韓國捕虜交換協定安結 및 日本의 이에 對한 態度에 關하여 談話를 發表하여 韓國復興에 對한 協力을 聲明.</p> <p>○ 印度外務省代辦人, 韓國捕虜協定 成立에 關하여 談話를 發表하여 印度는 同國에 負荷된 責任을 完遂할 것이라고 聲明.</p> <p>○ 「스미스」美國務次官, 華府 「제퍼슨」</p>		<p>大學에서 演說—韓國休戰成立後에도 警戒心을 弛緩시켜서는 안되며 美國民은 恒常 蘇聯의 平和攻勢를 注視함이 必要.</p> <p>○ 「롯지」美UN首席代表, 美國은 韓國休戰成立後의 中共의 UN加入運動을 阻止하기 위하여 拒否權行使를 비롯한 모든 必要한 手段을 取할 것이라고 聲明.</p> <p>○ 梁裕燦駐美韓國大使, 萬一 現狀態로 休戰이 成立된다면 韓國軍은 限死코 戰鬪를 繼續한 것이라고 記者團에게 決意를 表明.</p>
		9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曇天으로 UN空軍活動 低調.</p> <p>○ 本會議 閉會 12分만에 共產軍側要求로 散會.</p> <p>○ UN·共產兩軍參謀將校會議 繼續 開催하여 休戰協定의 細目을 討議.</p> <p>○ 休戰會談 韓國代表 崔德新少將, 「해리슨」首席代表에게 勸翰을 送付하여 休戰前에 中共軍을 韓國으로부터 撤退시킬 規定을 協定에 插入할 것을 要請.</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北京放送 板門店休戰協商 雙方代表團間에 捕虜交換問題에 關한 完全하고 最終的인 合意가 成立되었다고 報道.</p> <p>○ 北京放送, 韓·美兩國間에 相互安全 保障條約이 締結된다면 이는 韓國問題解決에 重大한 障礙가 될 것이라고 非難.</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 「아」大統領, 國家安全保障會議을 召集코 韓國問題의 最新進展에 관하여 討議.</p> <p>○ 「롯데」美UN首席代表, 韓國休戰後의 政治會談에서는 中共UN加入問題를 取扱치 않고 韓國問題에 關해서만 討議하여야 한다고 言明.</p> <p>○ 英聯邦首相會議 終幕에 際하여 콤뮈니케를 發表—① 板門店에서의 捕虜 交換協定成立을 歡迎하는 同時에 韓國休戰後의 諸問題에 關해서 意見을 交換 ② 西方諸國은 東西兩世界의 緊張을 緩和시킬 수 있는 모든 機會를 捕捉하도록 努力하는 한편 自由와 權利를 確保하기에 充分한 武力을 維持함이 必要.</p>		<p>韓國休戰은 韓國問題를 解決 못할 것이므로 UN은 休戰會談에서 失敗한 것이라고 論評.</p> <p>○ 林炳稷 UN韓國代表, 板門店休戰會談의 進展은 西方諸國에 對한 韓國의 信賴心을 破壞시켰다고 聲明을 發表.</p> <p>○ 美政府當局, 韓國이 休戰에 同意치 않는限 捕虜送還委員會에 參加치 않겠다는 態度를 表明한 瑞西政府에 對하여 再考慮할 것을 要請.</p> <p>○ 梁駐美大使, 韓國休戰은 美國에 對하여 더욱 큰 戰爭의 前奏曲이 되는 것이라고 비레비 放送.</p> <p>○ 諾威를 訪問한 申國會議長, 萬一 UN軍側이 分割休戰에 調印한다면 韓國은 統一을 위한 戰鬪을 繼續하겠다는 李大統領의 聲明을 全적으로 妥當한 것이라고 記者會見談.</p>
10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11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北韓共產軍, 中東部戰線 「크리스마스」 高地에 對한 壓力을 增加.</p> <p>○ 約 7千名의 中共軍·中東部戰線에서 夜間에 攻撃을 開始.</p> <p>○ 中共軍, 鐵原西北方 「캐리」 高地에 對하여서도 攻撃.</p>		<p>○ UN軍部隊 「크리스마스」 高地에서 共產軍에게 喪失된 陣地를 再奪還.</p> <p>○ 中東部戰線 「렉사스」 高地 附近에서 激戰展開 中共軍 韓國軍師團의 3個 重要高地 抵抗線을 突破.</p> <p>○ 共產軍, 中東部戰線에서 10日夜부터 11日에 걸쳐 約 4萬4千發의 大砲彈과 迫擊砲彈을 發射.</p> <p>○ 美 第3師團部隊 鐵原西北方 「해리」 高地에 對한 中共軍 約 1千名이 數次에 걸친 攻撃을 擊退.</p> <p>○ UN空軍戰爆機 및 輕爆機隊 地上友軍을 掩護하여 一線共產軍陣地를 猛打.</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本會談 23分間 會台. 參謀將校會議에서 行政上의 細目討議가 끝날 때까지 休會하기로 合意.</p> <p>○ 葛處長, AP記者會見에서 言明—休戰에 對한 UN 및 共產兩軍間의 完全合意는 時間問題. 그러나 韓國의 同意와 協調없이는 實證不可能.</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府中央日報, 現在 進行되고 있는</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 B 29爆撃機隊 共產軍飛行場에 對한 再次的 攻擊에서 南市 및 泰川飛行場에 200屯의 高性能爆彈을 投下.</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UN·共產兩軍參謀將校會議 緘開 休戰協定細目の 早速한 處理를 위하여 同會議를 2班으로 區分해서 討議하기로 決定.</p> <p>○ 國會本會議, 美政府等에 보내는 休戰反對提議를 可次一休戰에 對한 5個原則과 李大統領이 「아」大統領에게 提示한 代案 3個條의 應諾없이는 斷乎休戰을 反對.</p> <p>○ 李大統領 聲明을 發表一現在の 條件에 依한 休戰은 우리에게 부담을 意味하며 聯合國은 우리의 願意를 理解하기를 希望.</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平壤放送, 韓國政府의 休戰反對運動 및 韓·美相互防衛條約을 非難.</p> <p>○ 蔣介石總統, 金弘一駐中韓國大使를 拒請코 30分間에 걸쳐 會談.</p> <p>○ 「노을랜드」美上院委員, 美國은 韓國의 平和와 統一이 實現될 때까지는 蘇聯을 包含한 4大國會議參加를 拒否함이 마땅하다고 說明.</p>		<p>退.</p> <p>○ 美第3師團 第15聯隊 鐵原西北方「카리」高地에 對한 中共軍 1,500名의 攻擊을 早朝에 擊退.</p> <p>○ UN軍 세이버·젯트機隊 沙里院西北方 飛行場 및 鐵南浦西北方을 強打.</p> <p>○ B 29爆撃機隊 平壤近傍 2個飛行場을 爆撃.</p> <p>○ 美第8軍司令部 去10日 中東部戰線에서 UN空軍機 1臺가 友軍陣地를 誤爆하였다고 發表.</p> <p>○ 「데일리」美第8軍司令官 共產軍의 最近攻勢는 軍事增界線劃定과 休戰成立後開催된 政治會議에 있어서 有利한 立場을 確保하는 것이 目的이라고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UN·共產兩軍參謀將校會議 2班으로 잘라져 討議를 繼續.</p> <p>○ 國會 外務·國防·運營, 休戰對委連席會議를 非公開裡에 開催.</p> <p>○ 李大統領 瑞典新紙記者의 質問에 對한 回答에서 美國은 休戰協定에 依하여 惹起된 韓國民의 不安을 除去하기 위하여 相互防衛條約을 即時 締結하여 할 것이라고 說明.</p>
12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中東部戰線의 高地攻防戰 더욱 激化 UN軍主抵抗線에 있는 3個高地를 占領한 共產軍 繼續하여 向高地를 固守.</p> <p>○ UN軍部隊 金化西北方 狙擊機隊에 對한 共產軍 600名兵力의 攻擊을 擊</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平壤放送 參謀將校會議에서 解決을 보아야 할 問題는 軍事增界線의 劃定과 休戰協定全條文의 最終的 檢討라고 報道.</p> <p>○ 北京放送 中共政府는 「체코」·波蘭·瑞典·瑞西·印度 5個國에 對하여 中</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立國捕虜送還委員會에 參加하도록 招請狀을 發送하였다고 報道.</p> <p>○ 國府官邊側, 國府는 韓國休戰成立後의 政治會談에 中共을 參加시키는데 對하여 強硬히 反對할 것이라고 言明</p> <p>○ 「야」大統領, 倫敦에 있는 「네에루」首相에게 諄翰을 傳達하고 板門店에서 調印된 捕虜交換協定은 韓國에서의 正當한 休戰과 平和를 早速히 가져오게 할 것이며 世界의 緊張狀態도 緩和될 것이라고 見解를 表明.</p> <p>○ 「뉴욕우·헤럴드·트리뷴」紙 報道—「야」大統領은 「클라아크」UN軍司令官에 對하여 韓國의 休戰妨害를 阻止하기에 必要한 모든 措置를 取할 것을 指命.</p> <p>○ 「유엔」發 AP報道—「척코」에서는 同國의 急激한 通貨改革에 反對하는 大規模의 勞動者罷業이 爆發.</p>		<p>午 6時까지의 12時間에 걸쳐 UN軍陣地에 對하여 11萬8千發의 砲彈을 發射 開戰以來의 最高記錄.</p> <p>○ UN軍세이버·젯트機隊 共產軍MIG 젯트機를 2臺擊墜, 1臺未確認 擊墜하고, 또 다른 1臺를 擊破.</p> <p>○ 서울市에 再次 空襲警報 發令, 5號乃至 7號의 共產空軍機, 金浦飛行場과 仁川에 照明彈을 投下.</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UN共產兩軍參謀將校들, 軍事境界線劃定 및 休戰協定 細目の 最終檢証을 위하여 繼續 2班으로 갈려져 會合.</p> <p>○ 李大統領, 休戰反對 傷殘軍人委員會에 對한 갯시지에서 休戰反對를 再強調하는 한편 聯合國軍隊에 對한 不法한 行動을 삼가할 것을 注意.</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北京放送, UN·共產兩各參謀將校는 休戰協定 草案 63項目의 全部에 對하여 各項마다 逐條再檢討 하고 있다고 報道.</p> <p>○ 美 官邊側, 韓國軍은 單獨으로 戰鬥을 繼續할 能力이 없으므로 李大統領의 休戰反對運動을 結局 成功치 못할 것이라고 見解를 表明.</p> <p>○ 在美 韓國問題研究協會, 李大統領에 對하여 韓國의 休戰反對 運動은 韓美兩國民間의 惡感情을 造成시키고 있다고 警告.</p>
13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共產軍, 約 1萬5千名의 兵力을 投入하여 12日夜부터 13日朝에 걸쳐 中部戰線 50哩에 亘한 UN陣地數 10個所를 攻擊코 數個所에 浸透.</p> <p>○ UN軍部隊 熾烈한 白兵戰을 展開하고 中共軍攻擊部隊의 大部分을 擊退.</p> <p>○ 共產軍, 猛烈한 掩護砲火下에 國軍 第8師團이 擔當하고 있는 首都高地를 包圍攻擊.</p> <p>○ 美第3師團部隊, 繼續 「캐러」高地를 堅持하여 聯隊兵力의 共產軍攻擊을 擊退.</p> <p>○ 共產軍, 12日 下午 6時부터 13日 上</p>		<p data-bbox="712 1575 759 1603">14일</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共產軍, 中東部 및 東部戰線에서 夜間에 大規模攻擊을 開始.</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15일	<p>○ 美戰艦「뉴우저어지」號 東海岸 錨形高地에 UN地上軍을 支援하여 敵의 強力한 據點에 艦砲射擊을 集中.</p> <p>○ 美極東空軍 1,610回의 記錄의 出擊을 敢行하고 地上部隊를 掩護.</p> <p>○ B29爆擊機隊 新安州 및 軍隅里飛行場을 爆擊.</p> <p>○ UN軍 세이버·젯트機隊 共産軍MIG 15機를 2臺 擊墜, 3臺 擊破.</p> <p>○ UN軍捕虜收容所當局 發表一去 13日 光州第5捕虜收容所에서 共産捕虜 1名이 反共 捕虜들에게 毆打當하여 死亡하고 7名이 負傷.</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兩側 參謀將校會議 連日 秘密會議을 續行.</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北京新華社電—印度, 「체코」, 波蘭, 瑞典, 瑞西 5個國은 中立國 送還委員會에 參加 受諾을 中共政府 外交部에 正式 回箇.</p> <p>○ 北京放送—郭沫若中共副主席은 15日 부터 開催될 世界平和 評議會에 出席하기 위하여 14日 中共代表一行 16名과 함께 「브라페스트」到着.</p> <p>○ 「와일리」美上院外交委員長, 美國은 休戰成立 後에도 韓國統一을 위해 政治的 努力을 傾注할 것이라고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共産軍, 東部 및 中部戰線에서 約 3萬의 兵力을 投入하여, UN軍 陣地를 猛攻擊.</p> <p>○ 共産軍, 東部戰線 文登里溪谷의 UN</p>		<p>軍陣地를 攻擊.</p> <p>○ 「크리스마스」高地近傍에서 激戰展開</p> <p>○ 共産軍 北漢江上流 金城 東南方地區에 激烈한 攻擊을 集中코 國軍主抵抗線을 突破.</p> <p>○ 國軍部隊, 金化週邊 「텍사스」高地에서 敵의 猛烈한 攻擊을 받고 若干 後退.</p> <p>○ 鐵原溪谷에서 美 第3師團, 戰車의 支援을 받은 中共軍 約 7千의 攻擊으로 若干 後退하였으나 敵의 前進를 阻止</p> <p>○ UN海軍, 地上友軍을 緊密히 掩護하여 共産軍海岸目標을 強打. 艦載機隊는 一線共産軍部隊를 攻擊.</p> <p>○ UN 空軍機隊, 地上友軍을 掩護하여 共産軍 前線陣地를 猛攻擊, 總出擊數 2,115回의 最高記錄을 樹立.</p> <p>○ UN軍 B29 爆擊機隊 計劃되어 있던 目標物에서 攻擊을 戰線陣地를 轉換.</p> <p>○ 2臺乃至 4臺의 舊式小型共産軍機 漢江河口方面으로하는 서울上空에 侵入코 漢江橋梁에 爆彈을 投下.</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參謀將校會議 續開, 「머레이」大將을 UN軍側首席參謀로하는 班은 4회에 걸쳐 會合.</p> <p>○ 連絡將校會議, 午前 9時30分부터 秘密會議 開催.</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北京放送, 板門店參謀將校會議의 進展에 관하여 報道하고 休戰協定은 不遠 調印될 것이라고 秀唆.</p> <p>○ 「딜레스」國務長官, 記者會見席上에</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p>16일</p>	<p>서 言 明—① 最近 韓國戰線에서의 共產軍 攻勢로 말미암아 休戰成立의 可能性이 稀薄化된다고는 不信. ② 美政府는 休戰後 政治會談에서 오직 韓國의 問題란은 取扱할 것인가에 관하여서는 아직 그 方針을 未決定. ③ 美國이 梁駐美 韓國大使의 召喚을 要求하였다는 最近新聞은 共히 虛偽. ④ 「버뮤다」 3國會談은 더욱 延期될 可能性이 濃厚.</p>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共產軍, 東海岸 鎗形高地에서 UN軍 陣地를 探索. ○ 中共軍 2個聯隊, 指形稜線상의 國軍 部隊를 突破하여 北漢江 上流 地域의 突破口를 強化. ○ 韓國軍第5 및 第3師團 指形稜線東方 北漢江 上流 地域에 新防衛線을 展開. ○ UN空軍機隊, 友軍 地上部隊에 對한 掩護出擊을 繼續, B29爆擊機도 一線 共產軍陣地를 爆擊. ○ 美 第5空軍所屬 夜間爆擊機隊, 道路 55個所를 切斷하고 빙커陣地및 119個 所를 爆破코 車輛 323輛을 破壞. ○ 李大統領, 「테일러」 美 第8軍司令官을 同伴코 中部戰線 韓國軍第2師團을 視察. <p>休戰會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個의 參謀將校會議 繼續, 秘密裡에 會議을 續行. 「머레이」大領班은 11時間의 長時間討議. ○ UN軍 司令部 發表—UN軍側 要請에 	<p>17일</p>	<p>依하여 17일 午前 11時부터 休戰本會議을 再開.</p> <p>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本吉田首相, 議會에서 施政方針을 演說—韓國休戰은 亞細亞에 있어서의 平和回復의 第一步, 政府의 防衛問題에 對한 態度는 一貫하여 不變. ○ 訪歐中이던 白斗鎭國務總理, 韓國政府의 休戰反對 運動에 관해서 美當局者와 會談키 위하여 華府에 到着. ○ 「엘슨」美國防長官, 韓國休戰調印 後 6個月 內에 在韓美軍을 撤退시키는것은 安全치 못한 措置라고 記者會見談 ○ 瑞西를 訪問한 「네에루」印度首相, 「에델」大統領과 韓國休戰에 있어서의 兩國의 立場에 관해서 協議.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共軍 1個 大隊, 「크라스마스」高地 近方 1個高地에서 韓國軍部隊의 反擊을 阻止. ○ 韓國軍部隊, 指形機線에 對한 共產軍의 攻勢를 阻止하고 一部를 奪還. 그러나 同高地頂上은 中共軍이 確保. ○ 國隊兵力의 中共軍, 暴雨를 利用하여 午後에 指形稜線東方 韓國軍 陣地를 猛烈히 攻擊. ○ UN軍 野砲隊, 指形稜線 東南方에서 後退하는 友軍 步兵部隊에 對한 中共軍의 攻擊을 阻止. ○ UN空軍活動, 惡天候로 出擊回數150 회로 低下. <p>休戰會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本會談再開, 20分間 會合한後 UN軍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p>側 要 講 으로 再 次 休 會, 韓 國 側 代 表 崔 德 新 少 將 은 依 然 會 議 에 不 參.</p> <p>○ 參 謀 將 校 會 議 本 會 談 終 了 後 續 開.</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北 京 放 送, 軍 事 境 界 線 劃 定 作 業 의 終 了 를 示 唆.</p> <p>○ 北 京 放 送, 16 日 夜 會 合 한 UN · 共 產 軍 連 絡 將 校 團 은 協 定 正 式 調 印 을 할 場 所 를 視 察 하 였 だ 고 報 道.</p> <p>○ 「아」大 統 領, 李 大 統 領 에 對 次 書 翰 을 傳 達 하 여 美 國 은 UN 의 目 的 이 어 國 難 休 戰 을 受 諾 치 않 을 것 을 約 束 하 였 だ 고 記 者 會 見 談.</p> <p>○ 東 伯 林 에 서 勞 動 者 의 反 政 府 暴 動 發 生 - 蘇 聯 占 領 軍 當 局, 暴 動 鎮 壓 에 戰 車 를 動 員 하 는 同 時 에 戒 嚴 令 을 宣 布</p>		<p>고 繼 續 하 여 兩 側 譯 官 會 議 를 開 催</p> <p>○ UN 軍 司 令 部, 連 絡 將 校 를 通 하 여 北 韓 共 產 軍 捕 虜 2 萬 5 千 名 이 南 韓 各 地 의 捕 虜 收 容 所 로 부 터 脫 走 하 였 だ 고 文 官 報 로 正 式 通 告.</p> <p>○ 李 大 統 領 UN 軍 捕 虜 收 容 所 에 收 容 中 인 北 韓 反 共 捕 虜 의 釋 放 을 命 令.</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클라야크」UN 軍 司 令 官, 韓 國 의 捕 虜 釋 放 에 對 한 對 策 을 討 議 하 기 위 하 여 「해리슨」UN 軍 首 席 代 表 를 急 速 召 還.</p> <p>○ 「아」大 統 領, 國 家 安 全 保 障 會 議 에 서 韓 國 政 府 의 反 共 捕 虜 釋 放 으 로 말 미 야 아 非 常 事 態 를 檢 討 하 는 同 時 에 李 大 統 領 에 關 한 書 簡 을 傳 達.</p> <p>○ 「나기브」埃 及 首 相, 埃 及 政 府 를 共 和 制 로 改 稱 하 고 自 己 自 身 이 初 代 大 統 領 에 就 任 한 だ 고 宣 布.</p>
18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中 東 部 戰 線 だ 시 靜 穩 化.</p> <p>○ UN 軍 部 隊, 鐵 原 西 北 方 「캐리」高 地 에 對 한 中 共 軍 1 個 大 隊 의 攻 擊 을 熾 烈 한 戰 鬪 끝 에 擊 退.</p> <p>○ UN 軍 司 令 部 發 表 - 17 日 夜 半 으 로 부 터 18 日 未 明 사 間 에 約 2 萬 5 千 名 의 反 共 北 韓 捕 虜 가 釜 山, 馬 山, 論 山 尙 武 臺 의 各 捕 虜 收 容 所 로 부 터 脫 走, 18 日 午 後 2 時 半 現 在 971 名 을 再 收 容 하 였 으 며, 捕 虜 9 名 이 死 亡 하 고 16 名 이 負 傷.</p> <p>○ UN 軍 捕 虜 收 容 所 司 令 部, 反 共 捕 虜 의 監 視 를 위 하 여 美 軍 增 援 部 隊 를 急 派.</p> <p style="text-align: center;">休 戰 會 談</p> <p>○ 參 謀 將 校 會 議, 午 前 11 時 부 터 1 時 間 半 에 걸 쳐 會 合 한 後 無 期 休 會 들 어 가</p>	19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共 產 軍, 中 東 部 戰 線 金 城 東 南 方 突 破 口 에 서 弱 한 防 衛 地 點 을 探 索 하 면 서 國 軍 이 守 備 하 는 數 個 高 地 를 攻 擊.</p> <p>○ 其 他 戰 線 에 서 의 戰 鬪 은 輕 微.</p> <p>○ UN 空 軍 機 隊, 北 漢 江 上 流 金 城 南 方 戰 線 에 서 夜 間 에 開 戰 이 來 最 大 의 照 明 作 戰 을 展 開.</p> <p>○ UN 軍 세 이 버 · 잭 트 機 隊, 西 北 韓 上 空 空 中 戰 에 서 共 產 軍 MIG 機 6 臺 를 擊 墜 하 고 1 臺 를 擊 破.</p> <p style="text-align: center;">休 戰 會 談</p> <p>○ 午 前 10 時 부 터 開 催 豫 定 이 던 兩 軍 譯 官 會 議, 共 產 軍 側 要 求 로 延 期.</p>

원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 共產軍側 下午에 開催된 連絡將校會議을 通하여 明 20日 午前 11時에 本會議을 再開할 것을 要求.</p> <p>○ 共產軍側 2日前부터 着手하고 있던 板門店休戰協定 調印式場의 建設作業을 中止.</p> <p>○ UN軍當局, 西海岸戰線 以北 龍煤·睡鳴·巡威·昌麟·麒麟島等 5個島嶼 住民 約 10萬名에 對하여 徵收를 命令</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北京放送, 新華社開城特派員의 報道로서 反共北韓捕虜釋放事件을 처음으로 報道—韓國의 捕虜 釋放은 武力과 特務工作을 利用하여 強制的으로 釋放한 것이며 韓國軍編入이 그 目的이라고 非難하는 한편 美軍의 責任을 強調.</p> <p>○ 「덜레스」國務長官, 議會指導者들과 會合코 韓國政府의 反共捕虜釋放에 對한 對策을 說明.</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本會談, 午後 11時부터 再開, 25分 間에 걸쳐 公開會合한 後 共產軍側要求로 散會.</p> <p>○ 南日 共產軍側 首席代表, 捕虜釋放事件에 關하여 金日成 彭德懷 兩共產軍 司令官으로부터 「클라아크」UN軍司令官에게 보낸 抗議書簡을 UN軍側代表에 手交.</p> <p>○ 元容德 憲兵總司令官, 韓國憲兵隊는 如何한 代價를 支拂하고라도 모든 韓國人 反共捕虜를 釋放한 것이라고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UN軍司令部, 反共捕虜 釋放에 關하여 18日 「클라아크」司令官이 李大統領에게 보낸 抗議書簡의 內容을 發表—UN軍司令官은 韓國 陸軍 海空軍에 對한 完全한 指揮權을 保有, 反共 捕虜의 釋放을 命令한 行動은 本官에 對한 條約을 違反한 것이며 이르말미암아 생겨질 最終的結果는 豫測不可能.</p> <p>○ 「아」大統領, 韓國政府의 反共捕虜釋放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特使로서 로버어트슨」極東問題擔當 國務次官補를 派韓키로 決定.</p>
20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韓國軍部隊, 19日 夜부터 20日 朝에 걸쳐 東部戰線 「크리스마스」高地에 對한 中共軍 2個 中隊의 4次에 걸친 攻擊을 擊退.</p> <p>○ 中共軍部隊, 中東部戰線에서 또다시 探索作戰을 展開.</p> <p>○ 中東部 戰線 指形坡線地區에서 小規模 戰鬪.</p> <p>○ UN軍세이버 잭트機隊, 共產軍 MIG 잭트機隊 2台를 擊破.</p> <p>○ B29爆擊機隊, 平壤地區 共產軍 2個 飛行場을 爆擊.</p>	21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韓國軍部隊, 東部戰線 「크리스마스」高地前哨 陣地에 對한 中共軍中隊 兵力의 攻擊을 擊退.</p> <p>○ 中東部戰線, 夜間에 指形坡線地區의 韓國軍陣地를 攻擊.</p> <p>○ B29 爆擊機隊, 泰川 및 南市 共產軍</p>

일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飛行場을 爆擊.</p> <p>○ 休戰會談을 中心으로 한 事態發展에 依하여 急遽歸任한 白國務總理, 空中 狀態로 因하여 서울에 着陸하지 못하고 水營飛行場에 着陸.</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平壤放送, 北韓各界의 言論機關은 韓國이 釋放한 捕虜의 全部를 再收容한 것을 強調하고 있다고 報道.</p> <p>○ 「클라아크」 UN軍 司令官, 李大統領의 反共捕虜收容에 對하여 聲明을 發表하고 全責任은 韓國側에 있다고 強調.</p> <p>○ 「스렛센」美相互安全保障本部長官, NATO 軍의 軍事力은 今秋까지에는 今年 1月보다 30% 増強될 것이라고 聲明.</p>		<p>殺되고 아직 50名이 韓國警察에 抑留되고 있다고 聲明.</p> <p>○ 「클라아크」 UN軍 司令官, 政治顧問 「머과」大使와 同途 서울到着. 李大統領과 1時間半에 걸쳐 要談.</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北京放送, 捕虜釋放 事件에 관한 21日의 「클라아크」將軍聲明을 非難하고 美軍當局은 同事件에 對한 重大한 責任을 絕對回避할 수 없다고 聲明.</p> <p>○ 華府 消息通, 美國이 韓國에 對해서 約束한 相互防衛 條約의 締結은 休戰成立을 先決 條件으로 하는 것이라고 聲明.</p> <p>○ 「처」英首相, 英國은 韓國政府에 對하여 UN軍이 鴨綠江國境까지 進擊하여 全國土를 李大統領의 權限下에 둘 것을 言約한 일은 없다고 下院에서 聲明.</p>
22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線, 北漢江東方의 UN軍 陣地에 對한 中隊兵力의 敵攻擊을 除外하고는 全戰線에 걸쳐 比較的 輕微.</p> <p>○ UN海軍驅逐艦, 元山港 共產軍海岸砲臺를 砲擊.</p> <p>○ B29爆擊機隊, 新安州 및 平壤 共產軍飛行場을 爆擊.</p> <p>○ UN軍세이버·갯트機隊, 北韓上空 空中戰에서 共產軍 MIG機 6臺를 擊墜하고 2臺를 擊破.</p> <p>○ UN空軍戰爆機 및 B26爆擊機隊, 西部戰線南方 鐵橋 4個所를 擊破.</p> <p>○ UN軍 捕虜司令部代辦人, 21日 中共軍捕虜 107名이 脫走하여 韓國警察에 逮捕되었으며 그중 57名이 UN軍에引</p>	23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中共軍, 中部戰線金化附近 UN軍陣地에 夜間에 攻擊.</p> <p>○ 美第8軍司令部, 共產軍은 去21日까지에 2週日間に 敵2個師團의 兵力에 該當하는 1萬9千2百名의 死傷者를 냈다고 發表.</p> <p>○ UN軍捕虜司令部, 22日 釜山近方收容所에서 反共中共捕虜의 絞殺屍體가 發見되었다고 發表.</p> <p>○ 駐韓泰國軍司令部, 泰軍戰死者22名에 對한 火葬을 釜山市長에게 依頼.</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休戰成立後 改定實施의 最高機關이</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되는 軍事休戰委員會의 UN軍代表團, 汶山에 本部를 設置.</p> <p>○李大統領, UP通信에 對하여 休戰後 豫定되고 있는 政治會議를 3個月간의 期限付로 한다면 休戰을 承認할 것이 라고 回答.</p> <p>○李大統領, UP通信의 質問에 對한 回答에서 休戰에 贊成할 境遇의 3個條件을 發表—① 中共軍의 撤退, 이것이 不可能한 境遇에는 中共軍 및 UN軍의 韓國同時撤退. ② 撤退에 앞선 韓·美相互防衛條約의 調印. ③ 休戰後의 政治會談을 3個月간의 期限付로 하며 會議에서 平和達成에 失敗한 境遇에는 戰鬪을 繼續.</p>		<p>通告한다는 諒解는 아직도 有効</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平壤放送, 北韓共產軍司令部發表의 戰亂發生以來 3年간의 綜合戰果를 發表—UN軍의 殺傷 및 捕虜總數 989,391名(美軍 380,773名, 韓國軍 580,644名, 其他 29,974名)</p> <p>○「아」大統領, 白雲館에서 議會指導者들과 韓國情勢에 關하여 會談—同會談에 參席한 「노올랜드」上院議員 討議內容에 關한 記者團質問에 對하여 應答를 拒絶.</p> <p>○美國防省, 韓國戰亂3年간의 實相을 發表—① UN軍은 共產軍의 1/10의 犧牲으로서 6회에 걸친 大攻勢를 擊退 ②戰亂에 消費된 金額은 美國만으로도 150億弗 ③ 共產軍의 戰死傷者는 134萬 7千을 超過</p>
24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共產軍, 金化周邊10杼에 걸친 戰線에서 約 2個聯隊의 兵力으로 UN軍陣地 5個地點을 攻擊.</p> <p>○美第3師團 및 韓國軍部隊, 金化東北方 및 西北方에 對한 共產軍攻擊의 大部分을 擊退. 狙擊隊線과 「제인·러셀」前哨陣地를 除外하고는 戰鬪終熄.</p> <p>○南部地區警備司令官 李龍文准將, 作戰指揮中 飛行機事故로 戰死.</p> <p>○政府 國防政策을 審議하기 위하여 大統領으로 國防委員會를 置設.</p> <p>○李大統領, 「콜라아크」司令官에게 보낸 20日字書翰의 內容을 發表— 現在의 休戰協定을 그대로 調印한다면 韓國은 UN軍司令部로부터 韓國軍을 離脫시킨 것이며 그런 境遇에는 事전에</p>	25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共產軍, 金化西北方 狙擊隊線에서 攻擊을 繼續</p> <p>○中共軍 約 1個師團, 漣川西北方戰線에서 約7行幅에 걸쳐 UN軍陣地 8個處를 攻擊</p> <p>○韓國軍 第1師團, 漣川西北方에서 中共軍 約9千名의 攻擊을 받고 終夜도록 交戰</p> <p>○UN軍 B29爆撃機隊, 北韓共產軍飛行場에 對한 連5日제의 爆撃에 出擊</p> <p>○李大統領, 6.25事變3周年記念式席上 演說에서 統一에 對한 決議를 再闡明하고 休戰을 受諾할 수 있는 境遇의 條件을 再次明示— ① 韓國으로부터</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UN軍과 中共軍의 同時撤兵, ② 韓美 相互安全保障協定の 締結, ③ 休戰後 開催될 政治會談을 3個月間으로 限定 하고 同會談에서 統一에 失敗할 境遇 에는 戰鬥을 繼續.</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北京放送, 韓國戰亂3周年을 맞이하 여 彭中共軍司令官이 金日成北韓共產 軍司令官한테 傳達한 메시지를 報道 美國政府가 撥給하는 韓國의 停戰阻 止陰謀는 究竟失敗.</p> <p>○ 北京放送— 中共機關紙 北京人民日 報, 韓國戰亂3周年紀念日에 際하여 社 說에서 韓國問題의 平和의 解決을 強 調</p> <p>○ 中國國民政府立法院議員들 韓國에 抑 留中에 있는 反中共捕虜들의 釋放을 要請한 請願을 「아」美大統領과 李大 統領 및 UN軍司令官에게 傳達</p> <p>○ 「네에루」印度首相, 「피어는」 UN總 會議長에게 電報를 보내어 韓國問題 討議次 緊急特別總會를 召集할 것을 要請</p>		<p>○ UN軍세이버·젯트機隊, 鴨綠江附近 上空에서 展開된 空中戰에서 敵MIG 機2臺 擊墜하고 1臺을 擊破</p> <p>○ 「로버어트슨」美國務次官補, 景武臺 로 李大統領을 訪問코 2時間45分에 걸쳐 會談, 「덜레스」國務長定の 親鸞 를 李大統領에게 手交.</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北京放送, 李大統領이 休戰에 앞서 모든 外國軍의 撤收를 主張함은 戰爭 을 繼續하기 위한 것이라고 非難</p> <p>○ 「해리슨」休戰會談, UN軍首席代表, 「클라아크」UN軍司令官과 會談하기 위하여 汶山으로부터 東京到着.</p> <p>○ 佛國民議會, 信任投票에서 「라거엘」 氏의 首相就任을 承認</p>
26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韓國軍部隊, 中東部戰線 首部高地地 域에서 共產軍의 攻擊을 받고 若干後 退</p> <p>○ 韓國軍隊, 中部戰線狙擊隊에 對한 3次의 敵攻擊을 擊退</p> <p>○ 西部戰線漣川西北方에서 熾烈한 戰 鬪 展開</p> <p>○ UN軍戰爆擊機隊, 漣川地區中共軍師 團을 猛打.</p>	27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中共軍, 北漢江東方「크리스마스」高 地西方의 韓國軍2個陣地를 攻擊</p> <p>○ 國軍第3師團部隊, 中東部戰線 首部 高地南方「북아우트」山峰을 再奪還</p> <p>○ 中部戰線狙擊隊에서 戰鬥繼續</p> <p>○ 共產軍, 西部戰線에서 休戰協定은 米 7月3日에 調印될 것이라고 宣傳放送</p> <p>○ 「로버어트슨」美國務次官補, 午前에 白國務總理와 會談. 會談後 本人은 今 後의 事態를 樂觀하고 있다고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北京放送, 來 7月1일부터 北京, 莫 府間에 直通列車가 開通된다고 報道</p> <p>○ 「네에루」印度首相歸國. 印度는 中國 捕虜送還委員會의 機能을 平和롭게 遂行할 수 있는 條件이 具備되면 韓</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28일	<p>國에 軍隊를 派遣할 것이라고 記者團에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東部戰線 首都高地南方 觀望山에서 韓國軍部隊, 中共軍의 數次에 걸친 攻擊을 받고 夜間에 後退 ○ 韓國軍部隊, 中共軍의 攻擊을 받고 西部戰線 小「노리」高地地區의 個前哨陣地로부터 後退 ○ 韓國軍部隊, 西部戰線, 「백」高地的 中共軍을 攻擊코 白兵戰을 展開 ○ 韓國軍部隊, 澮川西方의 「퀸」前哨陣地에서 中共軍 約3千의 攻擊을 받고 夜間에 撤收. ○ B29爆擊機隊, 北漢江上流地區 韓國軍陣地에 壓力을 加하고 있는 共產軍部隊에 110噸의 爆彈을 投下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壤放送, 李大統領과 美國에 있는 그의 支援者들은 韓, 美相互防衛條約을 締結함으로써 政治會談을 妨害하려고 企圖하고 있다고 非難. ○ 韓國休戰監視委員國으로 選出된 瑞典의 代表團先遣隊 23名, 桑港으로부터 東京羽田 空路 到着 		<p>를 展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共軍2個聯隊, 澮川西方 「백」 및 「퀸」兩前哨陣地에 對한 韓國軍部隊의 反擊을 挫折. ○ 韓國軍部隊, 澮川西方 「퀸」 「백」 「베트리」 및 모하나의 無名高地를 包含한 4個高地로부터 撤收 ○ UN軍세이버, 잳트機隊, 鴨綠江南方 10哩 上空에서 敵MIG機 6대를 擊墜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板門板店에서 開罷된 兩軍連絡將校會議에서 UN軍側連絡將校, 釋放反共捕虜의 再收容을 要求한 共產軍側 諒翰에 對한 「클라아크」司士官의 回答을 手交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린스」美陸軍參謀總長 및 「클라아크」, UN軍司士官, 韓國으로부터 同途하여 東京歸還 ○ 「데 가스페리」伊首相, 「에이나우디」大統領에 對하여 閣僚全員の 辭表를 提出.
29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軍第3師團部隊, 約5時間에 걸친 激戰끝에 首都高地南方 觀望山을 또 다시 奪還. ○ 韓國軍部隊, 澮川西方의 重要前哨陣地를 再奪還하기 위하여 猛烈한 反擊戰을 開始. 中共軍部隊와 「퀸」 및 「백」 兩前哨陣地를 圍繞하여 熾烈한 戰鬪 	30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部戰線 北漢江과 「크리스마스」高地사이에서 있는 「버저리아」高地에서 激戰展開. ○ UN軍세이버, 잳트機隊, 北韓上空空 中戰에서 共產軍MIG 잳트機 15대를 擊墜— 戰亂發生以來最大의 日間戰果 ○ B29爆擊機隊, 中部戰線의 共產軍集結地에 120噸의 爆彈을 投下. ○ 平壤放送, 29日附 「클라아크」 UN軍 司士官의 共產軍에 對한 回答을 美國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7월 1일	<p>側의 休戰에 對한 無談意를 表示한것 이라고 非難.</p> <p>○ 「아」大統領, 韓戰戰爭始로부터 美軍에 參加한 美國居住外國人에 對하여 歸化權을 賦與하는 法律에 署名</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韓國軍部隊, 北漢江東方「버지리아」高地를 奪還하였으나 中共軍反擊을 받고 다시 同高地를 拋棄.</p> <p>○ 中東部戰線 首嶺高地南方 觀望山中서 白兵戰展開.</p> <p>韓國軍部隊 早朝에 同山頂으로부터 撤收.</p> <p>○ UN軍戰跡機 및 戰區煤擊機, 延1535 回出擊코 共產軍部隊 및 補給目標을 攻擊.</p> <p>○ 美海軍當反, 美海軍巡洋艦 「반체스터」號는 去29日 元山灣攻擊에서 共產軍海岸砲의 榴散彈에 依하여 被彈을 입었다고 發表.</p> <p>○ 下外務部長官, 李大統領은 現在 同大統領이 直面하고 있는 立場을 概述한 새로운 諒解을 「로버어트슨」美特使에 手交하였으며 그 回答속에서 UN의 韓國平和統一에 對한 要請을 拒否하였다고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平壤放送, 板門店으로부터의 中共通信社特派員報道를 引用하여 韓·美防衛協定을 非難하고 6月29日宇 「클라아크」司令官의 同같은 美國好戰分의 凶策을 一層 露骨하게 露顯하고 있다고 聲明.</p>	2일	<p>○ 「클라아크」UN軍司令官, 東京의 UN軍司令部에서 「클린스」美陸軍參謀總長席下에 陸, 海 空軍首腦會議를 開催.</p> <p>○ 美上院, 「아」大統領이 提出한 53億 弗의 1954年度 對外援助費支出을 認定하는 法案을 承認</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共產軍, 過去 37日間에 걸쳐 韓國軍에 對하여 繼續하여은 攻擊을 突然中止. 1日부터 2日朝에 걸쳐 全戰線에서 發見된 共產軍探索隊는 9箇探索隊에 不遲.</p> <p>○ B 29煤擊機隊, 咸興西方峽谷地帶에 있는 共產軍重要補給基地를 強打</p> <p>○ UN軍 F 84선더·젯트機隊, 宣川地區를 爆擊.</p> <p>○ UN軍세이버·젯트機隊, 鐵原西方戰線으로부터 北方 150哩以內地點內에서 共產軍戰車30乃至 40臺를 捕捉攻擊.</p> <p>○ 下外務長官, 記者會見에서 聲明一大韓民國은 平和的으로 韓國統一을 達成하였다는 「아」大統領의 約束을 拒絕하지는 않으며 다만 如斯한 約束에 對한 時間的制關을 돌것을 主張.</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府當局, 印度支那에 抑留中이던 2萬4千名의 國府軍은 國府와 佛蘭西間의 協定成立에 依하여 臺灣으로 歸國하였다고 公式發表.</p> <p>○ 華府發 UP報道— 美國務省은 駐美西歐側外交官들에 對하여 「로버어트</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3일	<p>슨]特使의李大統領說服努力은 아직 도絶望的인 것이 아니라고 通告.</p>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軍部隊, 中東部戰線 觀望山頂을 早曉에 再奪還. ○ UN 轟炸機隊, 降雨와 雲密을 무릎쓰고 前線共産軍陣地를 攻擊. ○ 高位消息通 言明—「로버트슨」特使는李大統領에게 對하여 美國은 韓國이 90日間의 政治會談에서 滿足할만한 結果를 얻지못한 境遇 自動的으로 戰鬪를 再開한다는에 對하여 絶對同意할 수 없다고 通報. <p>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壤放送, 「콜라아크」司令官의 29日 字 回答을 再次 非難하고 萬若美國이 休戰의 早期成立을 希望한다면李大統領의 休戰阻害行爲를 徹底的으로 糾彈하여야 할 것이라고 言明. 	5일	<p>領은 休戰後의 政治會談이 90日以內에 韓國統一을 解決하지 못할 境遇戰鬪를 再開하는데 對한 美國의 保障을 要求하는 그 態度를 不拋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白陸軍總參謀長, 記者會見에서 韓國軍은 現在李大統領의 命令에 服從하여 그 任務를 遂行하고 있다고 言明.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日夜부터 5日朝에 걸친 地上戰鬪는 比較的 平穩. ○ 空軍活動 惡天候로 말미암아 制限. ○ 「테일러」第8軍司令官, 萬若, 韓國軍이 單獨으로 戰鬪를 繼續할 것을 決定한다면 UN軍은 韓國軍과 交代로 後方勤務시키는데 關하여, 韓國軍側과 交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記者會見談. <p>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李大統領, 現在 「로」特使와의 會談에서 相互間의 誤解를 除去하도록 努力하고 있으나 會談의 成功與否는 豫測할 수 없다고 言明.
4일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軍部隊, 金化面北方 狙擊兵稜線에서 早朝에 150名의 中共軍과 交戰하여 130名을 殺傷. ○ B29 轟炸機隊, 平壤飛行場滑走路에 120屯의 高性能爆彈을 投下. ○ 美極東空軍週間 發表— 共産軍 MIG 젯트機를 2臺擊墜, 1臺未確認擊墜, 2臺擊破. UN軍側喪失機數는 敵地上 破火 및 原因不明에 依한 6臺. ○ 「테일러」美第8軍司令官, 第8軍司令部를 正式으로 龍山에 移轉. ○ 外務部長官, 李, 「로」會談前에 開催된 國務會議을 마치고 言明—李大統 	6일	<p>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北京放送, 新華社 開城電을 報道하여李大統領은 새로운 手段으로 韓國休戰의 成立을 더욱 破壞하려고 企圖하고 있다고 非難. ○ 印度國民議會派, 韓國休戰의 危機를 討議하기 위한 UN總會의 早速한 召集을 要求하는 決議案을 採擇.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全戰線에 걸쳐 暴雨. ○ 中共軍, 鐵原西方 100哩地點의 「포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오크츨]高地에 對한 攻擊을 開始.</p> <p>○ 中共軍, 「포오크츨」高地西北方의 矢頭高地에 對하여서도 攻擊.</p> <p>○ 韓國「유네스코」委員會設置令, 大統領令으로 公布.</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北京放送, 泰國政府는 同國居住의 親共的 印度支那人多數를 逮捕迫害하고 있다고 非難.</p> <p>○ 蘇聯政府 駐佛大使를 更迭, 後任에는 土耳其駐在大使였던 「미노그라도프」를 任命.</p> <p style="text-align: center;">7일 軍 事</p> <p>○ 泥濘의 西部戰線에서 中共軍, 鐵原西方의 「포오크츨」高地 및 矢頭高地에 對한 攻擊을 繼續.</p> <p>○ 高浪浦北方 伯林 및 東部伯林高地에 對해서도 戰鬪展開.</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네에우」印度首相, 國民會議派大會席上에서 聲明—韓國에서 萬若 새로운 混亂이 惹起된다면 그것은 韓國戰爭의 繼續만이 아니라 其他地域에 의 戰爭波及을 招來.</p> <p>○ 白亞館當局, 「닉슨」副統領이 今秋極東地方을 訪問한다고 發表.</p>		<p>東部伯林高地에 對한 中共軍攻擊을 擊退.</p> <p>○ UN海軍驅逐艦隊, 城津港을 砲擊.</p> <p>○ B29爆擊機隊, 西北韓 南市 共產軍 補給物資集結地에 160屯의 爆彈을 投下.</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共產軍側要請으로 開催된 連絡將校會議에서 共產軍側連絡將校, 「클라아크」UN軍司令官의 6月29日字書翰에 對한 共產軍司令官의 7月7日字 回答을 UN軍連絡將校에게 手交.</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아」大統領, 美政府는 休戰에 反對하는 李大統領의 抱負를 理解하여 韓國의 南北統一을 爲하 努力하겠다고 定例 記者會見談.</p> <p style="text-align: center;">9일 軍 事</p> <p>○ 東部戰線 金日成高地에 對한 共產軍 攻擊을 擊退.</p> <p>○ 崔空軍參謀總長, 空軍首席顧問官 「베에그」大領의 離任에 際하여 同大領에게 銀星乙支武功勳章을 授與.</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UN軍側要請으로 開催된 連絡將校會議 10日午前 11時부터 本會談을 再開할 것을 決定.</p> <p>○ 「로버트슨」特使와 「클라아크」司令官, 「머어피」政治顧問 및 「부타스」大使, 李大統領을 訪問코 30分間에 걸쳐 會談.</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北京放送, 新華社特派員報道를 引用</p>
8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美第7師團 및 韓國軍步兵部隊, 鐵原西方 「포오크츨」 및 矢頭高地에 對한 中共軍2個師團의 攻擊을 擊退.</p> <p>○ 中共軍, 夜間에 다시 大隊兵力으로 矢頭高지를 攻擊.</p> <p>○ 我軍部隊, 高浪浦北方 伯林高地 및</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하여 萬若美團側이李大統領에 對하여 放任態度를 繼續한다면李大統領이 休戰을 破壞한다는 것은 可能할것이라고 報道.</p> <p>○ 「클라아크」司務官, 「머어피」顧問과 함께 서울로부터 空路東京到着, UN軍側은 積極的으로 休戰交渉을 進行시킬 작경이라고 記者團에게 說明.</p> <p>○ 蘇聯共產黨中央委員會, 「베리아」副首相兼內相을 「人民의 敵」으로 規定하고 政府 및 黨으로부터 追放한다고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淸川江橋를 燬擊한 我 B29爆擊機隊 敵夜間戰鬥機와 對空砲火의 遊擊을 받았으나 全機 無事히 歸還.</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6月20日以來20日만에 再開된 本會議 秘密會議로 29分間 會合한 後 散會.</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華府에서 美, 英, 佛 3國外相會議開幕— 同會議席上에서 「덜리스」美國務長官, 「베리아」의 追放은 全體主義國家의 根本的인 缺陷을 暴露한 것이라고 指摘하고 全般會議는 蘇聯內部的 劇的變化에 관한 相互間的 意見を 調整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目的을 闡明.</p>		<p>트橫 2臺를 墜陸.</p> <p>○李大統領의 美第8軍에 대한 部隊表彰狀授與式, 第8軍司令部廣場에서 舉行.</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本會議, 繼續 秘密會로 討議.</p> <p>○ 「로버어트슨」美國務次官補,李大統領과 20分間 會談코 6月26日以來14回에 걸쳐 開催하여온 韓·美會談을 終了</p> <p>○李大統領, 「로버어트슨」特使와의 會見은 友好的인 諒解에 到達하였으나 언제 完全한 意見一致를 보기에 이르게 될런지 모르겠다고 說明.</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印度「네에루」首相, 韓國休戰問題의 討議를 위한 UN總會의 開催에 關하여 「피어슨」議長으로부터 回答을 接受.</p> <p>○ 美合同參謀會議議長으로 就任한 「래드포드」美太平洋艦隊司令官, 眞珠灣에서 열린 雜任式場에서 演說— 韓國休戰이 成立된 後에도 美國은 共產側이 休戰條件을 違反하지 않도록 監視함이 必要.</p>
<p>10일</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11일</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韓國軍部隊, 中東部戰線에서 約 4千名의 中共軍攻擊을 擊退.</p> <p>○ 美第7師團部隊, 鐵原西方 「포오크츨」高地로부터 撤收.</p> <p>○ UN軍세이버·젯트機隊, 敵MIG15젯</p>	<p>12일</p> <p style="text-align: center;">事 事</p>	<p>○ 韓國軍 第6師團은 金城東南方主要前哨陣地에 浸透한 中共軍 約 1千名을 擊退.</p> <p>○ 美戰艦「뉴우저어저」號, 巡洋艦「센트폴」號 및 航空母艦「프린스톤」과 복서號에서 出擊한 「랜서」젯트艦載機隊終日도록 元山港을 爆擊.</p> <p>○ UN軍세이버, 젯트機隊, 共產軍 MI</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G機 7대를 擊墜하고 1대를 擊破.</p> <p>○ UN軍戰爆機隊, 清川江地域에서 橋梁과 鐵橋 7個所를 爆破.</p> <p>○ 共產軍, 西部戰線에서 美軍에 對하여 數日內로 平和가 到來할 것이라고 宣傳放送.</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午前 11時부터 開催된 本會議, 開會 3分만에 休會하고 午後 1時半부터 再 次 47分間討議.</p> <p>○ 李大統領 및 「로버어트슨」美國務次官, 補, 韓美會談에 관한 共同聲明을 發表— ①韓, 美兩國政府는 相互防衛條約締結에 同意하였으며 締結을 위한 折衝은 日下 進捗中 ②韓國은 앞서 調印된 捕虜交換協定에 同意, ③ 政治經濟 및 防衛에 관한 韓美協力에 關하여 廣範圍한 意見一致에 到達.</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北京放送, 新華社通信을 引用하여 李·「로」會談의 結果는 李大統領이 休戰遵守를 確約하지 않았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다고 非難.</p> <p>○ 「피어슨」UN總會議長, 韓國休戰이 成立되는 直後總會를 召集할 豫定이라고 記者會見談.</p> <p>○ 華府發 AP 報道—美國官廳側은 「베리아」가 6月 27日 逮捕되었을 것으로 推斷.</p> <p>○ 華府發 AP 報道—「노올랜드」美上院議員은 韓國休戰後의 政治會談에 派兵 國家의 代表만을 參加시킬 것을 「아」 大統領에게 要求.</p>	<p>13일</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共產軍, 約4萬의 兵力으로 中東部戰線 金化와 北漢江사이의 18哩戰線에 걸쳐 午後 10時를 期해 一大攻擧을 敢行.</p> <p>○ UN軍戰爆機 및 輕爆機隊, 一線共產軍陣地를 強打.</p> <p>○ 美第 8 軍司令部心理作戰處長 「홀」大領, 韓國 第615部隊 韓豪永大尉以下 9勇士에 美飛行勳章을 授與.</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本會議, 午前11時부터 12分間會合한 後 一旦休會 하여 다시 30分間 開催.</p> <p>○ 共產軍側, 同會議에서 去10日朝 UN 軍機가 北韓捕虜收容所를 燬擊하여 死者 5名과 負傷者 15名을 내었다고 抗議.</p> <p>○ 李大統領, 公報處를 通하여 韓·美 會談과 그結果에 對하여 聲明書를 發表—統一目標는 不變 李·「로」會談未 解決點은 高位會談에서 檢討.</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日本外務省, 12日 剷島에서 發生한 韓國官憲의 日本海上警備巡視船 射擊 事件에 關하여 駐日 韓國代表部에 抗議覺書를 手交.</p> <p>14일</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韓國軍 首都, 第3, 第6 및 第8師團의 4個師團, 中東部戰線에서 中共軍約 7 萬의 強力한 人海攻擧을 받고 熾烈한 戰鬥을 展開.</p> <p>○ 狙擊隊線東方에 布陣하고 있던 韓國軍約 3個師團, 金城川南岸으로 撤</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退.</p> <p>○ UN軍戰爆機隊 中東部戰線突出部の 共產軍에 對하여 40萬封度以上の 爆彈을 投下.</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本會談, 午前11時부터 秘密會議로 39分間 會合.</p> <p>○ 共產軍側連絡將校, 去 12日 美軍陣地로부터 會談場地域內에 砲彈 1發이 落下하였다고 UN北側에 抗議文을 手交.</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平壤放送, 北韓中央通信社特派員의 板門店으로부터의 報道를 引用하여 釋放反共捕虜의 再收容을 主張.</p> <p>○ 華府美·英·佛 3國外相會談, 終幕에 際하여 콤뮤니케 發表—① 獨逸問題를 圓滿히 解決하고 對蘇平和條約締結을 準備하기 위하여 今秋初에 美·英·佛 4蘇國會議를 開能한 것을 希望, ② 韓國休戰協定의 早速한 締結을 促進시키는 同時에 平和的인 統一을 위하여 努力, ③ 萬一 韓國休戰後 中共이 새로운 侵略行動을 再開하면 平和를 回復하기 위한 措置를 講究.</p>		<p>친 韓國軍 新防衛線의 西部를 攻擊코 金城南方에서 防衛線 2個所를 突破.</p> <p>○ B29爆擊機隊, 惡天候를 무릅쓰고 中東部戰線 共產軍前線補給地點에 高性能爆彈 120噸을 投下.</p> <p>○ 美第8軍, 中東部戰線의 戰況에 對한 報道를 管制.</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本會談, 21分間에 結된 討議後 散會.</p> <p>○ 白國務總理 發表—「라스카」美大統領 特使는 이미 美國政府에 對하여 總額 8億8千3百萬弗에 達하는 韓國經濟援助 3個年計劃을 勸告.</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北京放送, 15日의 休戰會談에서 UN軍側代表는 一方的으로 休戰을 宣言하여 退場하였다고 報道.</p> <p>○ 「로버어트슨」美大統領特使 華府에 歸還코 即時「아」大統領을 訪問하여 李大統領의 新書를 傳達.</p>
15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共產軍 2個大隊, 拂曉에 文登里西方 美軍陣地를 攻擊코 同高地를 占領.</p> <p>○ 中共軍, 霪雨를 利用하여 中東部戰線의 突出部에 增援部隊를 投入코 攻擊을 繼續.</p> <p>○ 中共軍, 中東部戰線의 約 30軒에 堅</p>	16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韓國軍師團, 戰車 및 砲兵의 支援下에 中東部戰線에서 今朝에 猛烈한 反擊을 開始하여 約 1哩進出.</p> <p>○ 共產軍, 中東部戰線의 突出部에서 過去 2年來 最大의 UN軍의 攻擊을 阻止시키기 위하여 蘇聯製 T34型戰車 16臺를 投入.</p> <p>○ UN空軍, 延千機以上 出戰코 共產軍 前線陣地에 百萬封度以上の 爆彈을 投下.</p> <p>○ UN空軍機隊, 共產軍 MIG15젯트機</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를 擊墜하고 또 地上에 있는 敵飛行機 3隻과 戰車 3隻을 破壞.</p> <p>○ 北滿江 西方戰線에서 捕虜된 中共兵 蘇聯軍事顧問들이 中共軍師團에 配置되었다고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本會議, 會中 25분만에 散會.</p> <p>○ 共產軍側代表, 同上會談에서 1日間の 休會를 要求.</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北京放送, 美國은 李大統領의 捕虜 釋放과 休戰協定의 破壞計劃은 放任하고 있다고 非難을 繼續.</p> <p>○ 韓國에서 돌아온 「로버트슨」特使, 上院外交委員會證言에서 不日間 韓國 休戰이 成立될 것이라고 所信을 披瀝.</p>		<p>○ 「클라아크」UN軍司令官, 汶山에서 UN軍側代表와 3時間에 걸쳐 協議.</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北京放送 報道——中共, 洪牙利兩政府 郵電部代表는 16日 北京에서 郵便 協定에 調印.</p> <p>○ 美上院外交委員會, 美國과 伊·西 獨, 丁抹·芬蘭·日本·「이스라엘」· 「에치오피아」各國과의 友好通商航海 條約을 承認.</p>
17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北韓傀儡軍, 約3千名의 兵力으로 東部戰線 鑰型高地를 夜間에 攻擊.</p> <p>○ 北韓共產軍, 東部戰線 「류우크·카이슬」高地 西方과 東方에서 UN軍陣地에 浸透.</p> <p>○ 韓國軍部隊 中東部戰線에서 反擊을 繼續코 同戰線 東半部에서 徐徐히 進出.</p> <p>○ 韓國軍戰車 및 步兵部隊, 中東部戰線에서 UN軍左翼의 進擊을 阻止하고 있던 共產軍重要高地陣地를 奪取.</p> <p>○ 韓國軍部隊, 金化地區에 對한 16日 夜부터 17日 朝에 걸친 中共軍 1萬7千名의 새로운 攻擊을 阻止.</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18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中東部戰線에서 徐徐히 進擊하는 韓國軍, 앞서 喪失한 地域中 約 5哩半을 奪還하였으나 漸次 共產軍의 頑強한 抵抗에 逢着.</p> <p>○ 韓國軍部隊, 夜間에 金城江南方 重要高地 5個所를 再奪還.</p> <p>○ UN軍戰機隊 下午 4時까지 375回 出擊코 地上軍을 密接히 掩護.</p> <p>○ B 29 爆擊機隊, 레이더를 使用코 中東部戰線을 爆擊.</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共產軍側員求로 開催된 連絡將校會議에서 共產軍側連絡將校, 18日 開催될 豫定이던 本會議를 또 다시 1日間 休會할것을 要請.</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府軍情報部 發表——國府寄襲部隊는 去16日 汕頭와 廈門의 中間에 位置한 東山島를 攻戰.</p>
		19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韓國軍部隊, 空軍掩護下에 猛烈한 攻擊을 加하여 東部戰線 「산·현」高</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地를奪還.</p> <p>○ UN軍砲兵隊, 夜陰을 利用하여 金城江을 渡河하려는 中共軍 1個大隊를 捕捉攻擊.</p> <p>○ 中共軍, 夜半에 西部戰線의 2個 UN軍前哨陣地를 攻擊.</p> <p>○ UN空軍세이버·젯트機隊, 共產軍 MIG15젯트機10臺를 擊墜하고 3臺를 擊敗.</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本會談, 午後 2時부터 再開. 2時52分부터 休會하여 午後 3時半 討論을 再開, 다시 4時22分부터 20分間 休會한 後 5時47分 散會.</p> <p>○ 開城發新華社電, 同上休戰會談에서의 南日共產軍側首席代表의 聲明全文을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平壤放送, 19日의 休戰本會議에서 南日共產軍側首席代表의 聲明全文을 發表.</p> <p>○ 美官邊側, 共產側이 韓國休戰 調印에 同意한 것은 休戰會談이 不日間終結될 徵兆라고 言明.</p>		<p>下.</p> <p>○ 兩軍參謀將校會議, 2班으로 갈려져 午前 10時부터 開催.</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北京放送, 韓國休戰中立國監視委 波蘭 및 「체코」代表의 北京到着을 報道.</p> <p>○ 倫敦外交消息通 言明——英國政府는 韓國休戰後 開催될 政治會談에 蘇聯을 參加시킬 것을 主張.</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比較的으로 平穩.</p> <p>○ 韓國軍部隊, 中東部戰線에서 20日夜부터 21日朝에 걸쳐 5個高地에 對한 中共軍中隊乃至 大隊兵力의 攻擊을 擊退.</p> <p>○ 中共軍, 金城江西方 韓國軍陣地를 夜間에 攻擊.</p> <p>○ UN軍세이버·젯트機隊, 早朝에 新義州共產軍飛行場을 再次 爆擊.</p> <p>○ B26夜間爆擊機隊, 黃州 敵操車場에 2萬5千封度の 高性能爆彈을 投下.</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UN 및 共產兩軍參謀將校團, 繼續 2班으로 갈려 午前 10時부터 板門店에서 會合.</p> <p>○ 兩軍連絡將校會議, 午後 1時5分부터 秘密會議을 開催.</p> <p>○ 下外務部長官, 19日의 共產軍側聲明中에 보이는 「헤리슨」 UN軍側代表의 保證은 李「로」會談에서 韓美兩國間에 到達된 諒解와 相違된다고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20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中東部戰線 地上戰鬪 漸次 緩和.</p> <p>○ 中共軍 金城江周邊에서 我軍前哨陣地 11所에 對하여 中隊乃至 大隊兵力으로 早朝에 攻擊.</p> <p>○ 韓國軍部隊, 金城地區 「삼·현」高地로부터 後退.</p> <p>○ B29爆擊機隊, 新義州 및 義州共產軍飛行場에 270噸의 高性能爆彈을 投</p>	21일	<p>○ 地上戰鬪, 比較的으로 平穩.</p> <p>○ 韓國軍部隊, 中東部戰線에서 20日夜부터 21日朝에 걸쳐 5個高地에 對한 中共軍中隊乃至 大隊兵力의 攻擊을 擊退.</p> <p>○ 中共軍, 金城江西方 韓國軍陣地를 夜間에 攻擊.</p> <p>○ UN軍세이버·젯트機隊, 早朝에 新義州共產軍飛行場을 再次 爆擊.</p> <p>○ B26夜間爆擊機隊, 黃州 敵操車場에 2萬5千封度の 高性能爆彈을 投下.</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UN 및 共產兩軍參謀將校團, 繼續 2班으로 갈려 午前 10時부터 板門店에서 會合.</p> <p>○ 兩軍連絡將校會議, 午後 1時5分부터 秘密會議을 開催.</p> <p>○ 下外務部長官, 19日의 共產軍側聲明中에 보이는 「헤리슨」 UN軍側代表의 保證은 李「로」會談에서 韓美兩國間에 到達된 諒解와 相違된다고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 北京放送, 新華社特派員의 報道를 引用코 李承晚大統領은 南日代表의 19日聲明後도 依然 休戰協定不遵守를 主張하고 있으며 萬若 美國側이 繼續 放任한다면 休戰은 破壞될 것이라고 非難.</p> <p>○ 北京放送, 人民日報의 社說을 引用하여 韓國政府가 休戰을 破壞할 念慮가 있다고 非難하는 同時에 印度軍隊의 入韓問題는 調印前에 解決되어야 한다고 主張.</p> <p>○ 「달레스」美國務長官 및 「로버트슨」國務次官補, 突然 白雲館을 訪問코 「아」大統領과 要談.</p> <p>○ 「달레스」美國務長官, 美國은 韓國休戰後에 開催될 政治會談에서 中共의 UN加入問題를 討議치 않겠다고 記者會見談.</p>		<p>것으로 推測되는 「대레이」大領을 首席으로하는 UN軍參謀將校와 共產軍參謀將校들 午前10時부터 繼續하여 會議을 開催코 23日午前 1時45分까지 續行.</p> <p>○ 李大統領, 外國新聞記者로부터 提出된 3個質問에 對하여 當面에 의한 回答形式으로 聲明書를 發表—UN軍側이 90日期間의 政治會談에서 中共軍의 撤退를 說得하는 동안 우리의 努力을 延期할 것을 同意하였으며 不如意時 우리行動路線은 自由.</p>
22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北韓共產軍, 東部戰線 「유우크」 및 「쿠우크」兩陣地에 對하여 輕微한 探索攻擊.</p> <p>○ 中共軍, 21日夜부터 約一千의 力兵으로 中東部戰線 金城江西方 約 1哩戰線에서 韓國軍陣地를 5次에 걸쳐 攻擊.</p> <p>○ 鐵原東北方에서 UN軍 前哨陣地에 對한 兵力不明의 共產軍攻擊을 擊退.</p> <p>○ UN軍 세이버·젯트機隊, 鳴綠江 近方上空에서 共產軍 MIG젯트機 3臺擊墜.</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平壤放送, 共產軍은 去13日부터 18日까지의 사이에 中東部戰線 金城南方에서 UN軍陣地 160平方軒를 占領하였다고 報告.</p> <p>○ 「달레스」美國務長官, 公式聲明書를 發表—① 李大統領은 「아」大統領에 對하여 休戰을 妨害치 않을것을 保證. ② 自己는 休戰調印後 政治會談에 관한 事項을 協議하기 위하여 李大統領과 會見할 豫定.</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軍事境界線의 劃定을 擔當하고 있는</p>	23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中東部戰線 「삼·현」高地戰熾烈, 韓國軍部隊, 友軍砲兵隊의 掩護下에 上午10時 同高地를 再奪還하였으나 2時間後에 또다시 後退.</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UN·共產 兩軍 特別參謀將校會議 午前11時부터 2時間42分에 걸쳐 開催.</p> <p>○ 兩軍高級連絡將校 午後3時부터 板門</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24일	<p>店에서 會談.</p> <p>○ 政府, 23日字로 大統領令 第813號로써 民兵隊令을 公布.</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平壤放送, 休戰協定調印準備는 거의 完了된 것으로 보인다고 報道.</p> <p>○ 「아」大統領, 國家安全訓練委員會에 對하여 公正한 徵召集業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一般軍事訓練計劃을 再檢討할 것을 命命.</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韓國軍攻擊部隊, 中東部戰線, 金城地區에서 未明에 反擊을 開始하고 1個高地를 奪還.</p> <p>○ UN軍 및 共產軍, 金城突出部地區에서 北進高地를 圍襲하고 終日토록 一進一退의 戰鬪를 展開.</p> <p>○ 韓國軍部隊, 金化西北方 5哩의 UN軍 主抵抗線에 對한 中共軍 3個中隊의 拂曉反擊을 擊退.</p> <p>○ 中共軍約 3千, 西部戰線 伯林高地地區의 3個 UN軍前哨陣地를 夜間에 攻擊.</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UN·共產兩軍特別參謀將校會議 午前 11時부터 開催.</p> <p>○ 共產軍側, 板門店休戰協定調印式場의 建設作業을 完了.</p> <p>○ 李大統領, 聲明을 發表하여 韓國의 休戰態度를 再闡明하고 本人은 依然美國이 政治會談에 時間的 制限을 賦與하는데 同意한 것으로 諒解하고 있다고 言明.</p>	25일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北京放送, 新華社板門店報道로서 「딜레스」美國務長官의 22日聲明에 論評을 加하여 「딜레스」長官은 李大統領의 休戰破壞를 激勵하고 있다고 非難.</p> <p>○ 「아」大統領, 共和黨議員首腦部와의 會談에서 韓國休戰後의 第1回 對韓復興基金으로서 2億弗을 提供하도록 議會에 要請키로 決定.</p> <p>○ 「아」大統領, 「클라야크」UN軍司令官에 對하여 韓國休戰協定에 調印하는 最終的權限을 賦與.</p> <p>○ 美政府當局者, 韓國休戰協定은 特別한 事態가 展開되지 않는限. 韓國時間으로 27日午前에 締結될 것이라고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中共軍 約3千, 中東部戰線 金城突出部에서 夜間에 美軍 및 韓國軍部隊를 攻擊.</p> <p>○ 美第1海兵師團, 西部戰線 伯林高地地區에 對한 中共軍攻擊을 擊退.</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兩軍連絡將校會議, 5회에 걸쳐 秘密會議을 開催.</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아」大統領, 國防關係官首腦者와의 會談에서 「아메나워」西獨首相에게 보낸 書翰內容을 發表——① 全獨自由選舉에 依한 統一政府樹立이 가장 緊要한 課題. ② 昨日의 東獨暴動은 共產主義의 壓迫이 招來한 自然發生的</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26일	<p>인 現象.</p> <p>○ 「와일리」美上院外交委員長, 韓國休戰은 極히 不安定한 것으로서 이는 戰鬪再開時까지의 些少한 休息期間에 不過한 것이라고 聲明書を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全戰線 小康狀態.</p> <p>○ 美第8軍司令部, 不必要한 損失을 避하기 위하여 前線美各師團에 攻撃作戰의 緩和를 指令.</p> <p style="text-align: center;">會休戰談</p> <p>○ UN·共產兩軍特別參謀將校會議, 午後 2時부터 2時間에 걸쳐 會合.</p> <p>○ 「클라아크」UN軍司令部, 午後4時 東京에서 聲明을 發表一兩軍最高司令官은 雙方首席代表에 對하여 27日 午前 10時 板門店에서 休戰協定에 調印할 權限을 賦與할 것을 同意.</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午後 5時의 平壤放送, 板門店으로부터의 特電으로서 休戰調印이 27日 午前 10前 時板門店에서 舉行된다는 公報를 發表.</p> <p>○ 北部佛印 佛地上軍司令官 「코그리」少將, 韓國休戰後 中共의 「베트린」軍援助가 增強되면 重大한 國際問題가 惹起할 것이라고 言明.</p>		<p>이 아니며 敵對行爲의 停止에 不過.</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休戰協定調印—「해리슨」UN軍 首席代表 및 南日共產軍首席代表 午前 10時 板門店에서 韓國語, 中國語, 英語 國語로서 作成된 休戰協定에 各各 署名.</p> <p>○ 「클라아크」UN軍司令部 午後 1時 汶山の UN軍前進司令部에서 崔德新韓國代表 및 UN參戰 16個國代表參席下에 休戰協定에 署名.</p> <p>○ 金日成北韓共產軍最高司令官, 午後 10時 平壤에서 休戰協定全文에 正式 署名.</p> <p>○ 李大統領, 休戰調印에 聲明을 發表하여 統一目標은 期於코 成就되고야 말 것이라고 強調.</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아」大統領 韓國休戰成立에 관하여 全美國民에게 放送(美國時間 26日夜) —韓國休戰의 結果는 오직 勇氣와 犧牲만이 自由를 守護할 수 있음을 立證.</p> <p>○ 韓國休戰成立에 際하여 「덜레스」美國務長官, 在韓美軍兵力은 特別한 事情이 없는限 縮少시키지 않겠다고 放送.</p>
27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全戰線, 午後 10時를 期하여 戰鬪中 止.</p> <p>○ 「클라아크」UN軍司令部, 午後 2時 全NU軍將兵에 對하여 休戰 메시지를 發表. 一休戰調印은 平和를 意味하는 것</p>		<p>○ 「아」大統領, 韓國救濟基金 第1回分으로서 2億弗을 支出할 것을 議會에 要請.</p> <p>○ 「저」英首相, 美國으로부터 돌아온 「이든」外相과 會談코 韓國休戰의 世界情勢에 미치는 影響에 對해서 協議</p>

3. 戰 歿 者 名 單

<陸 軍>

수도사단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 1 기갑연대	대 령	10584	陸 根 洙	53. 7. 14	금 화 지 구	전 사
"	중 령	16771	李 俊 和	53. 7. 14	"	"
"	중 위	18190	姜 得 聖			실 증
"	"	18304	嚴 昌 薰	53. 7. 24		전 사
"	"	22445	金 成 麟	53. 6. 12		"
"	"	22246	金 鍾 燮	53. 2. 3		"
"	"	22857	鄭 東 煥	53. 7. 4		"
"	"	23003	崔 利 準	53. 7. 15		"
"	"	23010	李 元 道	53. 7. 14		"
"	"	23033	金 洪 翼	53. 1. 29		"
"	"	23135	吳 世 英	53. 7. 14		"
"	"	23331	李 鍾 元	53. 5. 16		"
"	"	23345	孫 基 浩	53. 7. 14		"
"	"	23370	金 七 星	53. 7. 14		"
"	"	23378	金 鉉 彬	57. 5. 14		"
"	"	25665	李 源 杓	53. 4. 15		"
제 1 연대	대 위	18345	金 睿 煥	53. 7. 15	금 화 지 구	"
"	"	18638	趙 成 圭	53. 7. 16	"	"
"	"	19854	朴 基 成	53. 7. 14	"	"
"	"	19896	金 哲 浩	53. 7. 14	금 화 원 남	"
"	중 위	20634	申 生 均	53. 7. 15	금 화 지 구	"
"	"	21611	李 相 燦	53. 7. 15	"	"
"	"	21767	金 禱 夏	53. 7. 14	"	"
"	대 위	20244	李 基 應	53. 6. 12	금 화 근 동	"
"	중 위	22230	姜 大 冠	53. 6. 12	"	"
"	"	22969	金 仁 栢	53. 7. 14	금 화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 1 연대	중 위	23006	韓 相 浩	53. 7. 14	금 화	전 사
"	"	23013	金 在 淑	53. 3. 28	"	"
"	"	23017	崔 鍾 午	53. 7. 14	"	"
"	"	23041	吳 允 濟	53. 6. 28	"	"
"	"	23045	宋 貞 浩	53. 7. 14	"	"
"	"	23053	李 相 珀	53. 7. 14	"	"
"	"	23055	金 濟 烈	53. 7. 14	"	"
"	"	23072	秋 泰 鎬	53. 7. 14	"	"
"	"	23086	宋 昌 奎	53. 7. 14	"	"
"	"	23129	林 殷 圭	53. 7. 14	"	"
"	"	23367	高 在 勉	53. 7. 14	"	"
"	"	23535	徐 宗 柱		"	"
"	"	23645	王 然 旭	53. 7. 14	"	"
"	"	24676	鄭 淳 明	53. 7. 15	"	"
"	"	24830	李 憲 南	53. 7. 16	"	"
"	"	25687	卞 一 燮	53. 5. 23	"	"
"	"	26926	金 昭 律	53. 7. 14	"	"
"	소 령	200021	南 炳 岳	53. 7. 15	"	"
"	"	200424	全 明 烈	53. 6. 22	"	"
"	"	202207	趙 柄 奎	53. 7. 15	"	"
"	대 위	208170	賈 際 駿	53. 6. 3	"	"
"	"	208870	金 利 龍	53. 7. 14	"	"
"	"	210050	金 鍾 潤	53. 7. 14	"	"
"	"	210933	李 完 熙	53. 7. 14	"	"
"	"	211459	金 榮 洙	53. 7. 16	"	"
"	"	212014	金 錫 英	53. 7. 14	"	"
"	"	212519	張 春 成	53. 7. 14	"	"
"	"	212526	韓 和 錫	53. 1. 4	"	"
"	"	212757	尹 畢 孝	53. 7. 5	"	"
"	"	214720	金 萬 基	53. 7. 14	"	"
"	"	214764	崔 鳳 祚	53. 7. 14	"	"
"	"	215050	鄭 泰 奎	53. 7. 14	"	"
"	"	221387	李 鍾 成	53. 7. 14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 1 연대	소 위	223632	裴 璽 稷	53. 1. 2	금 화	전 사
"	준 위	302812	金 鍾 烈	53. 7. 16	"	"
"	"	302813	金 德 洙	53. 7. 16	"	"
"	"	302816	朴 三 國	53. 7. 14	"	"
"	"	302817	鄭 東 植	53. 7. 16	"	"
"	"	302825	李 永 平	53. 7. 16	"	"
"	"	302826	安 洙 鴻	53. 7. 16	"	"
"	"	302828	李 鍾 述	53. 7. 14	"	"
"	"	302830	白 允 基	53. 7. 14	"	"
"	"	302814	崔 三 洙	53. 7. 14	"	"
"	"	302831	金 孝 洙	53. 7. 14	"	"
"	"	302833	金 周 煥	53. 7. 14	"	"
제 26 연대	대 령	11811	林 完 植	53. 3. 23		자 망
"	대 위	18184	朴 再 鎭	53. 7. 14	금 화	전 사
"	"	18197	鄭 泰 泳	53. 7. 14	"	"
"	"	18295	柳 周 煥	53. 7. 16	"	"
"	중 위	21765	黃 信 周	53. 7. 14	"	"
"	"	22517	全 用 權	53. 6. 12	"	"
"	"	23596	鄭 佑 燮	53. 5. 15	"	"
"	"	23291	金 性 洙	53. 7. 14	"	"
"	"	23401	吳 正 喆	53. 7. 24	"	"
"	"	23647	楊 春 滿	53. 7. 13	"	"
"	"	223651	車 英 基	53. 3. 29	"	"
"	소 령	200817	李 得 魯	53. 7. 14	"	"
"	대 위	202357	金 永 燮	53. 11. 14	"	"
"	"	208676	金 東 潤	53. 7. 14	"	"
"	"	209746	潘 世 均	53. 7. 14	"	전 사
"	준 위	302832	洪 淳 長	53. 7. 16	"	"
수도사단	중 위	20569	陸 聖 吉	53. 4. 26	"	"
"	"	21521	金 龍 海	53. 7. 17	"	"
"	"	21578	金 鍾 植	53. 7. 14	"	"
"	"	21629	林 根 植	53. 7. 16	"	"
"	"	22610	申 鍾 泰	53. 7. 14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수도사단	중 위	22662	李 寬 榮	53. 7. 14	금 화	전 사
"	"	23917	趙 泰 廷	53. 7. 14	"	"
"	"	23969	李 昌 鳳	53. 5. 1	"	"
"	"	23989	尹 元 植	53. 7. 19	"	"
"	"	24006	貝 一 翫	53. 7. 14	"	"
"	"	24604	元 順 甲	53. 7. 14	"	"
"	대 위	62170	金 基 煥	53. 7. 14	"	"
"	"	61862	吳 斗 錫	53. 7. 15	"	"
"	중 위	61867	尹 一 炳	53. 2. 4	"	"
"	대 위	62037	金 英 吉	53. 7. 15	"	"
"	"	18220	尹 溍 赫		"	"
"	소 령	203349	曹 漢 吉	53. 7. 13	"	"
"	"	209198	金 秉 浩	53. 7. 14	"	"
"	대 위	215652	金 龍 熙	53. 7. 14	"	"
"	중 위	221064	李 鍾 泰	53. 7. 26	"	"
"	준 위	302810	李 在 充	53. 7. 16	"	"
"	중 위	217017	金 玉 奎	53. 7. 14	"	"
"	소 령	18979	崔 泰 鎮	53. 7. 1	"	"
"	중 위	23933	李 鍾 聲	53. 7. 14	"	"
"	"	25055	李 鎬 植	53. 7. 17	"	"

제 1 사단

제 11 연대	중 령	13707	李 德 榮	53. 7. 16		전 사
"	중 위	21033	金 炳 八	53. 5. 27	연 천 왕 등	"
"	소 위	21178	徐 周 源	53. 1. 17	18 육 군 병원	사 망
"	중 위	24184	朴 鍾 七	53. 7. 30	연 천	전 사
"	"	24192	李 致 熙	53. 2. 26	"	"
"	"	24572	李 東 超	53. 5. 1	"	"
"	소 위	24666	李 章 寅	53. 10. 12	"	"
"	중 위	211976	金 允 星	53. 5. 6	서 울 청 과	사 망
"	"	221117	宋 萬 根	53. 7. 25	연 천	전 사
"	"	24104	金 鐸 榮	53. 4. 18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 12연대	중 위	22528	李 相 七	53. 2. 5	연 천	전 사
"	"	222623	姜 孝 炫	53. 1. 17	"	"
"	"	24165	徐 敏 植	53. 3. 18	"	"
"	"	24205	梁 云 容	53. 2. 18	"	"
"	"	24638	安 斗 旭	53. 1. 30	"	"
"	대 위	209087	白 鶴 星	53. 7. 1	"	"
"	"	214829	朴 泳 五	53. 6. 27	"	"
제 15연대	소 령	13521	李 相 圭	53. 2. 20	"	"
"	"	17672	崔 錫 圭	53. 6. 27	연 천	"
"	중 위	20909	李 在 文	53. 6. 28	"	"
"	"	22785	宋 基 燮	53. 5. 13	노르웨이 병원	"
"	"	24169	李 喆 浩	53. 7. 14	"	"
"	"	24169	李 源 台	53. 7. 14	연 천	"
"	"	24590	金 翊 勳	53. 7. 6	"	"
"	대 위	209774	李 東 秀	53. 7. 3	"	"
"	"	214261	片 永 鎮	53. 6. 29	43 야전 병원	"
제 1사단	준 위	302823	梁 福 早	53. 6. 27	연 천	"
"	소 위	25616	李 元 基	53. 6. 30	"	"
"	대 위	202871	趙 興 九	53. 4. 30	"	"
"	중 위	211579	樞 錫 洪	53. 2. 26	미8055 야전병원	순 직
"	소 위	223547	朴 基 煥	53. 2. 7	고 성	전 사
"	대 위	213216	陸 基 八	53. 7. 3	연 천	"

제 2 사단

제 17연대	대 위	201055	李 斗 元	53. 6. 22	포 천	순 직
"	"	210524	李 泰 一	53. 2. 12	칠 원	전 사
"	"	211750	李 永 熙	53. 7. 1	"	"
"	중 위	215478	崔 鍾 基	53. 7. 7	"	"
"	"	215515	朴 明 淳	53. 1. 17	"	"
제 31연대	"	21196	金 洙 翊	53. 7. 10	"	"
"	"	23729	張 在 華	53. 7. 10	"	"
"	"	27700	趙 鳳 秀	53. 7. 1	"	"

3. 戰歿者 名單 1147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32연대	대 위	20367	張 玄 煥	53. 3. 10	철 원	전 사
"	중 위	23598	池 泰 君	53. 7. 8	"	"
"	"	23274	朴 聖	53. 7. 11	"	"
"	"	23356	李 鍾 元	53. 7. 9	철 원	"
"	"	23751	李 俞 載 和	53. 5. 20	"	"
"	"	23755	金 七 鳳	53. 3. 10	"	"
"	"	23797	馬 完 台	53. 6. 7	"	"
"	"	24075	姜 成 止	53. 2. 20	철 원	"
"	소 위	25733	河 原 鎬	53. 7. 19	"	"
"	"	25894	李 容 漢	53. 3. 28	"	사 망
제 2 사 단	중 령	14193	張 在 俊	53. 5. 8	"	전 사
"	대 위	18227	崔 斗 燮	53. 7. 9	철 원	"
"	중 위	215633	金 明 天	53. 2. 16	양 평	"
"	"	22097	趙 聖 讚	53. 5. 13	철 원	"
"	"	22138	李 廷 昂	53. 4. 13	"	"
"	"	25009	李 瑞 漢	53. 4. 10	제 77 육군 병원	사 당
"	대 위	200748	李 錫 萬	53. 6. 6	화 천	순 적
"	중 위	300626	權 孝 烈	53. 2. 25	"	사 망

제 3 사 단

제 18 연 대	소 령	14322	朴 勝 文		금 화	전 사
"	대 위	19051	金 東 赫	53. 7. 14	"	"
"	"	19177	姜 奉 進	53. 4. 11	금 화	"
"	"	20271	尹 一 栢	53. 7. 1	금 연 천	"
"	"	20811	劉 辰 圭	53. 7. 13	금 화	"
"	중 위	23561	陳 正 燮	53. 7. 15	"	"
"	"	23665	李 三 植	53. 4. 10	"	"
"	"	25464	權 錫 潤	53. 4. 10	"	"
"	"	25485	權 澤 柱	53. 6. 17	"	"
"	소 령	200200	崔 敬 大	57. 4. 3	"	"
"	대 위	202547	李 永 斗	53. 7. 14	"	"
"	소 령	204553	金 基 泰	53. 7. 19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18연대	소 령	206534	金 炳 德	53. 4. 3	금 화	전 사
"	"	208950	李 永 基	53. 4. 3	"	"
"	대 위	208954	韓 判 仲	53. 7. 19	"	"
"	소 령	208966	張 斗 植	53. 4. 3	"	"
"	대 위	213182	權 熙 逢	53. 7. 15	"	"
"	준 위	302834	李 康 熙	53. 4. 3	"	"
"	"	302829	具 本 哲	53. 4. 7	"	"
제22연대	중 령	14295	權 亨 讚	53. 6. 15	"	"
"	대 위	18049	金 知 澤	53. 6. 22	"	"
"	"	18060	朴 春 彦	53. 6. 15	"	"
"	"	18298	元 孝 喜	53. 7. 19	"	"
"	"	19086	金 錫 泰	53. 6. 15	"	"
"	"	20571	申 東 翊	53. 4. 2	"	"
"	중 위	22276	李 上 永	53. 6. 12	"	"
"	"	22811	成 尙 永	53. 6. 12	"	"
"	"	22829	吳 在 興	53. 7. 16	"	"
"	"	22854	朴 洙 連	53. 6. 19	제36 육군 병원	"
"	"	23597	許 煥 煥	53. 6. 27	금 화	"
"	"	23311	徐 正 英	53. 7. 18	"	"
"	"	23624	康 基 默	53. 1. 6	"	"
"	"	23655	裒 孝 錫	53. 1. 6	"	"
"	"	25428	元 圖 圭	53. 6. 12	"	"
"	"	25705	鄭 星 箕	53. 6. 14	"	"
"	"	25958	李 康 伯	53. 6. 15	"	"
"	소 령	205879	李 成 模	53. 5. 25	"	"
"	"	208988	朴 鍾 旭	53. 5. 18	"	"
제23연대	대 위	18088	李 孝 植	53. 7. 1	"	"
"	"	18383	金 采 仁	53. 6. 30	"	"
"	"	19105	金 文 湖	53. 7. 5	"	"
"	"	21827	河 永 會	53. 6. 29	"	"
"	"	23386	金 文 球	53. 2. 19	"	"
"	"	24720	李 禧 範	53. 6. 29	"	"
"	소 령	204625	方 斗 欽	53. 6. 27	"	"

3. 戰歿者 名單 1149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23연대	대 위	207909	康 興 潤	53. 6. 26	금 화	전 사
"	"	213173	張 昌 煥	53. 7. 4	"	"
"	중 위	302819	尹 滋 德	53. 7. 12	"	"
"	"	302815	車 挺 徹	53. 6. 21	"	"
제 3 사 단	대 위	18978	李 東 植	53. 7. 10	"	"
"	중 위	21805	朴 昌 禹	53. 7. 13	"	"
"	"	23929	劉 鍾 永	53. 4. 14	"	"
"	"	24002	趙 秉 善	53. 4. 13	"	"
"	대 위	62063	鄭 千 根	53. 7. 10	"	"
"	"	201493	金 鴻 培	53. 4. 9	"	사 당
"	"	214309	金 能 煥	53. 7. 13	"	전 사
"	"	18258	李 鳳 浩	53. 7. 14	"	"
"	중 위	25580	金 成 玉	53. 6. 13	"	"
"	"	25601	姜 泰 林	53. 6. 16	"	"
"	"	25614	李 延 泰	53. 5. 28	"	"
"	"	221370	韓 龍 洙	53. 7. 15	"	"

제5사단

제27연대	대 위	18939	鄭 春 壽	53. 7. 20	금 화	전 사
"	"	20069	金 永 哲	53. 6. 14	"	"
"	중 위	20913	金 東 源	53. 6. 15	"	"
"	"	21710	朴 敬 淳	53. 5. 25	"	"
"	"	21954	盧 在 銀	53. 6. 15	"	"
"	"	21983	金 天 秀	53. 1. 10	"	"
"	"	22027	李 仲 永	53. 6. 6	"	"
"	"	22451	權 赫 宗	53. 6. 15	"	"
"	"	22539	康 順 哲	53. 6. 15	"	"
"	"	22758	權 寧 甲	53. 6. 14	"	"
"	"	23290	崔 境	53. 6. 15	"	"
"	"	23377	宋 昌 欽	53. 6. 15	"	"
"	"	24105	張 泰 協	53. 6. 14	"	"
"	"	24616	李 鍾 元	53. 6. 14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27연대	중 위	25141	金 千 碩	53. 6. 15	금 화	전 사
"	"	25398	鄭 大 鉉	53. 6. 25	"	"
"	"	25433	鄭 台 善	53. 5. 12	"	"
"	"	25511	李 根 炯	53. 5. 17	"	"
"	"	26978	李 隣 圭	53. 7. 18	화 천	"
"	대 위	214973	朴 源 春	53. 5. 15	금 화	"
"	준 위	302820	朴 泳 振	53. 6. 12	"	"
제35연대	대 위	18581	林 成 根	53. 7. 20	"	"
"	"	20334	黃 仁 在	53. 6. 15	"	"
"	중 위	21639	金 日 慶	53. 5. 31	"	"
"	"	21961	李 孝 基	53. 6. 14	"	"
"	"	21965	劉 在 委	53. 5. 30	"	"
"	"	21968	林 永 德	53. 6. 16	"	"
"	"	22518	朴 東 星	53. 6. 2	"	"
"	"	22791	趙 龍 洙	53. 6. 15	"	"
"	"	25492	宋 宗 煥	53. 6. 15	"	"
"	"	26838	崔 福 洙	53. 6. 13	"	"
"	"	26984	李 三 潤	53. 7. 18	"	"
"	소 령	204663	金 源 良	53. 6. 15	"	"
"	대 위	213957	許 珍 賢	53. 7. 17	"	"
"	"	214408	金 龍 賢	53. 7. 18	"	"
"	"	214939	朴 俊 用	53. 6. 14	"	"
제36연대	중 령	12070	朴 龍 鶴	53. 6. 15	"	"
"	대 위	17790	朱 宰 林	53. 5. 30	"	"
"	"	17970	李 鎬 武	53. 6. 14	"	"
"	"	18009	南 基 哲	53. 7. 1	"	"
"	"	18015	盧 小 容	53. 4. 28	"	"
"	"	19013	芮 泰 元	53. 5. 28	"	"
"	"	19835	李 冒 熙	53. 6. 15	"	"
"	"	20361	姜 熙 柱	53. 5. 29	"	"
"	"	20371	張 基 包	53. 6. 14	"	"
"	중 위	21766	崔 東 善	53. 5. 30	"	"
"	"	21773	朴 貴 浩	53. 5. 31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36연대	중 위	21787	朴 俊 圭	53. 5. 28	금 화	전 사
"	"	22026	趙 宅 基		"	"
"	"	22038	孫 昌 起	53. 5. 30	금 화	"
"	"	27044	李 七 洙	53. 7. 2	"	"
"	소 령	203917	李 右 率	53. 7. 17	"	"
"	대 위	210607	盧 雨 萬	53. 5. 29	"	"
"	준 위	300746	李 昌 萬	53. 5. 13	"	"
제27연대	중 위	260201	吳 炯 淳	53. 1. 14	서 울 락 원 동	파 살
제35연대	"	26981	張 甲 植	53. 7. 17	화 천	전 사
제 5 사 단	소 위	20396	林 聖 化	53. 1. 24		순 직
"	"	24245	李 承 載	53. 4. 14		전 사
"	중 위	24598	崔 凌 植	53. 10. 5		순 직
"	소위	24624	金 龍 德	53. 1. 24		전 사
"	"	24650	沈 剛 植	53. 1. 24		순 직
"	"	24663	金 慶 德	53. 1. 24		"
"	"	24718	辛 世 基	53. 1. 24		"
"	"	24741	金 世 基	53. 1. 24		"
"	중 위	26170	朴 元 泰	53. 6. 14	화 천	전 사
"	소위	20192	金 寅 鶴	53. 2. 2		순 직
"	중 위	217534	李 炳 泰	53. 6. 7		전 사
"	준 위	301699	鄭 國 鍾	53. 5. 26		"
"	대 위	210823	金 宗 鎬	53. 7. 4	금 화	"

제6사단

제 2 연대	중 위	21211	金 七 成	53. 7. 14	금 화	전 사
"	"	21258	李 谷 七	53. 7. 14	"	"
"	"	23063	黃 義 用	53. 7. 14	"	"
"	"	23071	孫 昌 熙	53. 6. 23	"	"
"	"	23415	金 浩 仁	53. 7. 14	"	"
"	"	24144	朴 承 祿	53. 7. 14	"	"
"	"	25343	孔 技 述	53. 7. 14	"	"
"	소 령	206311	劉 七 福	53. 7. 2	양 구 북 면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 2 연대	중 위	220962	白 基 鉉	53. 7. 15	양 구 북 면	전 사
"	"	220966	宋 瑞 根	53. 7. 26	화 천	"
"	대 위	214398	金 敬 洙	53. 7. 14	금 화	"
"	중 위	21870	李 鍾 祿	53. 7. 6	"	"
제 7 연대	"	19685	金 熙 澤	53. 8. 26	"	"
"	대 위	20362	朴 在 敦	53. 7. 1	화 천	전 사
"	중 위	23365	辛 哲 敎	53. 4. 18	금 화	"
"	"	23379	金 壽 榮	53. 7. 19	화 천	"
"	"	24167	朴 成 宗	53. 6. 26	금 화	"
"	"	260796	徐 道 源	53. 7. 15	"	"
"	중 위	215495	安 榮 熙	53. 7. 20	화 천 백 암 산	"
제 19 연대	대 위	18097	崔 鏞 淳	53. 7. 14	"	"
"	중 위	18418	崔 圭 恒	53. 5. 13	"	순 직
"	"	20283	李 相 一	53. 7. 16	"	실 증
"	대 위	20303	朴 相 珏	53. 7. 16	"	전 사
"	"	20696	朴 炳 讓	53. 7. 16	금 화	"
"	"	21181	徐 德 基	53. 7. 16	"	"
"	"	21601	韓 基 烈	53. 7. 16	"	"
"	"	21724	金 宗 默	53. 7. 12	금 화	"
"	"	21784	趙 泰 運	53. 7. 16	"	"
"	"	22262	金 容 煥	53. 2. 21	"	"
"	"	22996	金 亨 奭	53. 7. 16	"	"
"	"	23323	黃 國 鉉	53. 7. 16	"	"
"	"	24584	崔 虎 烈	53. 7. 16	금 화	"
"	"	24731	高 殷 相	53. 7. 16	"	"
"	"	25325	李 錫 漢	53. 7. 10	"	"
"	소 위	26331	吳 奉 春	53. 7. 16	"	실 증
"	중 위	26918	裴 康 雲	53. 7. 16	금 화 교 암 산	전 사
"	소 령	209085	文 明 勳	53. 7. 17	"	"
"	대 위	209534	咸 鎭 五	53. 7. 16	금 화	"
"	"	210081	莊 鶴 雲	53. 7. 16	"	사 망
"	"	221078	崔 德 明	53. 7. 16	금 성	전 사
"	소 위	221100	金 逢 九	53. 7. 16	"	실 증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19연대	중 위	221130	金 晟 鉉	53. 7. 15		전 사
"	소 위	12429	金 生 振	53. 3. 25		실 증
제 6 사단	중 령	12429	姜 昌 鎬	53. 4. 16		자 살
"	중 위	18229	李 在 華	53. 7. 14		사 망
"	"	21513	禹 仁 植	53. 3. 15		전 사
"	"	21254	金 昌 壽	53. 3. 29	제36 육군병원	전 사
"	"	22894	金 龍 三	53. 3. 1	금 화	"
"	"	17924	朴 喜 奎		"	"
"	대 위	203950	金 顯 培	53. 1. 20	이 동 의 과 병원	"

제7사단

제 3연대	대 위	17942	金 彰 基	53. 7. 25	양 구	전 사
"	중 위	19125	金 天 鳳	53. 1. 19	"	"
"	"	20665	洪 哲 羲	53. 2. 6	"	"
"	"	2160	金 仁 源	53. 2. 20	"	"
"	"	23007	朴 三 洙	53. 2. 15	"	"
"	"	23030	金 英 昌	53. 1. 25	"	"
"	"	23097	張 璠 采	53. 1. 6	"	"
"	"	25422	朴 昌 用	53. 7. 25	"	"
"	"	25664	朴 正 鉉	53. 6. 25	양 구	"
"	"	25685	李 榮 德	53. 6. 30	"	"
"	"	25730	梁 在 連	53. 7. 1	"	"
"	소 령	202145	康 基 植	53. 7. 14	"	"
"	"	204515	李 撥 羊	53. 7. 25	"	"
"	대 위	209261	金 寅 聖	53. 6. 30	"	"
"	"	209762	趙 東 元	53. 7. 22	"	"
"	"	21502	趙 春 實	53. 7. 5	"	"
제 5연대	중 위	24185	李 海 吉	53. 4. 4	"	"
"	"	25670	金 貞 鎬	53. 5. 5	"	"
"	"	25671	權 泰 珞	53. 6. 17	"	"
"	"	215051	金 贊 壽	53. 7. 30	화 천	사 망
"	준 위	303267	崔 永 順	53. 7. 14	양 구	전 사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 8연대	대 위	17908	河 成 培	53. 6. 30	양	"
"	중 위	24175	白 聖 基	53. 6. 28	"	"
"	"	25135	白 善 三		"	"
"	"	25736	韓 仲 熙	53. 6. 22	"	"
"	"	25896	安 松 欽	53. 7. 2	"	"
"	대 위	210587	魯 明 玉	53. 7. 22	"	"
제 7사단	중 위	17993	白 大 允	53. 1. 3	"	"
"	"	19241	李 東 珪	53. 11. 16	"	"
"	대 위	19632	吉 相 欽	53. 6. 29	"	전 사
"	"	20189	鄭 哲 均	53. 6. 27	"	"
"	중 위	21532	金 富 泰	53. 4. 31	"	"
"	"	20493	羅 奎 興	53. 1. 20	"	"
"	"	22058	金 常 祿	53. 2. 15	"	순 지
"	"	24333	李 善 默	53. 2. 29	"	전 사
"	소 위	26211	金 俊 容	53. 6. 29	"	"
"	대 위	200814	韓 一 壽	53. 4. 21	"	사 망
"	"	207161	吳 憲 永	53. 7. 25	청 평 지 방	순 직
"	"	211688	鄭 童 圭	53. 7. 25	화 천	전 사
"	중 위	215472	趙 源 榮	53. 7. 12	"	"
"	준 위	302811	李 在 九	53. 7. 23	제 3이동의과병원	"
"	중 위	25601	姜 泰 林	53. 6. 16	금 화	"
"	"	25614	李 延 泰	53. 5. 28	"	"

제8사단

제 10연대	대 위	17688	羅 載 奎	53. 1. 4	금 화	전 사
"	"	19177	李 承 敏	53. 5. 30	"	"
"	"	19442	盧 台 永	53. 5. 15	"	"
"	"	19480	金 基 善	53. 5. 29	"	"
"	"	19510	崔 志 亨	53. 6. 17	"	"
"	"	19517	權 泰 源	53. 5. 18	"	"
"	"	20045	朴 洪 植	53. 7. 1	"	"
"	중 위	21614	李 俊 永	53. 5. 17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10연대	대 위	215160	崔 炳 鳳	53. 7. 1	금 화	전 사
"	"	215547	鄭 順 護	53. 5. 31	"	"
"	준 위	302818	李 達 善	53. 6. 24	"	"
"	중 위	25780	李 鍾 浩	53. 5. 15	"	"
"	"	26823	南 九 薰	53. 6. 16	"	"
"	"	26833	李 斗 杓	53. 6. 16	"	"
"	"	26967	李 勝 化	53. 7. 16	"	"
"	"	29990	李 在 鴻	53. 7. 1	제2 이동외과병원	"
"	"	27046	嚴 柱 相	53. 7. 16	금 화	"
"	대 위	207872	洪 淳 元	53. 6. 16	"	"
"	중 위	207936	朴 昌 宣	53. 7. 14	금 화	"
"	"	22490	崔 龍 洙	53. 5. 18	"	"
"	"	22764	張 基 奭	53. 7. 16	"	"
"	"	22768	沈 亨 變	53. 5. 18	"	"
"	"	22773	李 宅 洙	53. 5. 18	"	"
"	"	23195	宋 天 變	53. 5. 28	"	"
"	"	23279	李 根 根	53. 2. 23	"	"
"	"	24711	閔 玉 鳳	53. 5. 18	금 화	"
"	"	25431	李 世 鎬	53. 4. 2	"	사 망
제16연대	대 위	20641	蔡 萬 善	53. 6. 17	금 화	전 사
"	중 위	21249	金 玉 柱	53. 5. 30	울 곡	"
"	"	21269	金 思 決	53. 5. 28	금 화	"
"	"	21277	趙 祥 潤	53. 2. 16	"	"
"	"	21303	李 奎 永	53. 7. 15	"	"
"	"	21637	柳 東 燮	53. 6. 19	"	"
"	대 위	215171	安 孝 福	53. 5. 29	금 화	"
"	"	208823	沈 在 斗	53. 6. 15	"	"
"	중 위	21736	鄭 旦 植	53. 3. 26	"	전 사
"	"	22281	千 榮 植	53. 6. 16	금 화	"
"	"	23742	趙 德 遠	53. 7. 17	"	"
"	"	24149	李 圭 復	53. 7. 26	"	"
"	"	24630	朴 樂 楹	53. 5. 28	"	"
"	"	24668	吳 昌 煥	53. 7. 17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16연대	소 위	24759	洪 允 祚	53. 7. 13	금 화	전 사
"	중 위	25704	金 澤 吾	53. 5. 28	"	"
"	"	25726	崔 仁 浩	53. 7. 15	"	"
제21연대	중 령	13626	金 燦 聲	53. 7. 19	"	"
"	대 위	19106	李 基 燮	53. 5. 19	"	"
"	"	19438	金 淇 燮	53. 6. 15	"	"
"	"	20787	朴 元 決	53. 7. 16	"	"
"	"	20793	吳 在 浩	53. 6. 15	"	"
"	중 위	21567	金 鍾 香	53. 6. 18	"	"
"	"	21666	安 圭 元	53. 5. 16	"	"
"	소 령	208988	朴 鍾 旭	53. 5. 18	"	"
"	중 위	211274	李 秀 連	53. 6. 15	"	"
"	대 위	211561	柳 仁 成	53. 6. 15	"	"
"	"	211561	金 用 山	53. 6. 12	"	"
"	"	215115	辛 學 善	53. 3. 19	"	"
"	"	215123	車 根 成	53. 6. 14	"	"
"	준 위	301700	金 顯 根	53. 6. 12	"	"
"	중 위	202024	白 文 午	53. 7. 16	"	"
"	대 위	208854	宋 基 龍	53. 7. 17	"	"
"	중 위	21679	吳 鳳 岳	53. 6. 15	"	"
"	"	21732	林 榮 鎬	53. 6. 16	"	"
"	"	21755	河 東 培	53. 7. 15	"	"
"	"	21796	韓 忠 吉	53. 6. 16	"	"
"	"	25682	申 沈 澈	53. 7. 5	"	"
"	"	25713	金 英 烈	53. 6. 27	"	"
제 8 사단	"	24657	韓 厚 國	53. 6. 15	"	"
"	"	25050	張 錫 洙	53. 5. 28	"	"
"	"	25087	李 建 秀	53. 5. 29	"	"
"	"	26621	高 炳 善	53. 7. 16	"	"
"	"	27088	曹 秉 午	53. 7. 20	고 양	"
"	"	27298	崔 應 壽	53. 7. 18	금 화	사 망
"	"	200508	崔 基 萬	53. 2. 12	"	순 직
"	대 위	204304	朴 奎 奎	53. 5. 28	금 화	전 사

3. 戰歿者 名單 1157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 8 사단	대 위	208831	康 來 均	53. 4. 19	금 화	전 사
"	"	214505	朴 興 植	53. 7. 16	"	"
"	"	215616	李 永 圭	53. 7. 18	"	"
"	준 위	301701	朴 國 川	53. 6. 22	"	"

제 9 사단

제18연대	대 위	18582	延 允 福	53. 5. 16	금 화	전 사
"	중 위	24034	白 奉 憲	53. 4. 28		"
"	"	24076	河 仁 鎭	53. 6. 26	금 화	"
"	"	24100	張 大 澤	53. 6. 13	"	"
"	"	24140	林 應 伊	53. 4. 12	금 화	"
"	"	24221	金 東 鈺	53. 6. 15	"	"
"	"	24457	金 三 珍	53. 4. 4	"	"
"	"	24679	南 相 台	53. 7. 9	"	"
"	"	24695	金 煥 明	53. 6. 15	"	"
"	대 위	209286	金 時 中	53. 7. 14	"	"
제29연대	중 위	23753	宋 在 瑜	53. 1. 13	"	"
"	"	23788	朴 潤 雄	53. 6. 29	"	"
"	"	24493	姜 昌 熙	53. 3. 16	"	"
"	"	25803	張 鉉 淳	53. 6. 24	"	"
"	"	25860	梁 點 劍	53. 6. 26	"	"
"	대 위	207917	徐 慶 喜	53. 6. 27	"	"
"	중 위	215195	孫 周 泰	53. 1. 14	"	"
"	소 위	223623	韓 春 植	53. . 3	철 원	"
"	중 위	19252	李 相 鶴	53. 4. 28		사 망
"	준 위	302822	金 普 榮	53. 6. 21	금 화	전 사
"	중 위	22175	韓 容 根	53. 7. 15	"	"
제30연대	대 위	1857	金 光 洙	543.6. 30	"	"
"	중 위	19529	朱 光 淵	53. 3. 24	"	"
"	"	21722	洪 光 相	53. 7, 13	"	"
"	"	23710	趙 宗 鎬	53. 6. 13	"	"
"	"	23731	金 光 鍾	53. 5. 25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30연대	중 위	23741	金 鎮 元	53. 2.11	금 화	전 사
"	"	24082	朴 東 洵	53. 6. 2	"	"
"	"	24500	張 錫 春	51. 8.71	"	"
"	"	25728	金 文 吉	53. 0. 85	"	"
"	소 령	25881	李 海 舟	53.60.12	"	"
"	대 위	208449	韓 濟 仁	53. 3. 5	"	"
제 9 사단	중	23967	朴 守 俊	53. 4. 9	"	"
"	"	25621	鄭 相 勉		"	"
"	"	221227	金 南 燾	52.39.15	"	"
"	소 위	221452	崔 永 順		"	"
"	준 위	301696	李 鳳 壽	53.5.3.5	"	"
"	중 위	19971	金 載 聲	53. 4.26	"	사 망

제11사단

제 9 연대	소 령	16703	姜 重 默	53. 7.15	고 성	전 사
"	중 위	20039	朴 正 玉	53. 6. 7	"	"
"	"	21792	金 暎 東	53. 5.12	"	"
"	"	22362	金 炯 弼	53. 5.15	"	"
"	"	22837	金 昇 濬	53. 2.15	"	"
"	"	26343	具 周 君	53. 7.15	"	"
"	소 령	204494	李 益 華	53. 5.15	"	"
"	대 위	216383	李 海 春	53. 7.15	"	"
제13연대	중 령	12803	吳 新 春	53. 7.24	"	"
"	대 위	20135	金 上 向	53. 7.24	"	"
"	중 위	21039	吳 時 泉	53. 7.18	"	"
"	"	21217	崔 東 萬	53. 7.18	"	"
"	"	23280	金 崐 龍	53. 2. 7	"	"
"	"	25783	安 鍾 泰	53. 7.15	"	"
"	"	25821	林 順 澤	53. 7.23	"	"
"	대 위	204288	林 中 根	53. 3.13	"	순 직
"	소 령	205616	鄭 遇 祥	53. 7.17	"	"
"	대 위	214400	李 瑛 洙	53. 7.24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20연대	대 위	18997	李 淳 澤	53. 7. 20		
"	중 위	19182	李 範 烈	53. 2. 22		"
"	"	22788	李 相 洛	53. 7. 20		"
"	"	22799	嚴 厚 燮	53. 7. 21	제 1 의 부 중대	"
"	"	24577	梁 益 鎭	53. 5. 31	고 성	"
"	"	215518	邊 仁 鎬	53. 3. 31		"
제11사단	"	21481	金 世 鉉	5E. 1. 9	"	"
"	"	210694	金 來 明	53. 1. 9	"	"
"	"	221081	金 麟 鍾	53. 7. 17	"	"
"	소 위	223628	李 炳 俊	53. 1. 7	"	"
"	"	24878	朴 鍾 瓚	53. 3. 1	"	"

제12사단

제37연대	대 위	17969	李 正 元	53. 6. 5	인 제	전 사
"	중 위	225144	金 永 轍	53. 6. 6	"	"
"	"	23281	玄 海 一	53. 6. 4	"	"
"	대 위	203266	安 在 德	53. 4. 22	휴 가 귀 대 중	사 망
"	"	209613	尹 吉 炳	53. 6. 9	인 제	전 사
"	"	211652	朴 春 確	53. 6. 3	"	"
"	중 위	214953	金 炳 國	53. 1. 27	"	"
"	준 위	301695	金 淳 永	53. 4. 26	"	"
"	"	302824	崔 基 福	53. 6. 7	"	"
"	"	302827	金 在 根	53. 6. 30	"	"
"	중 위	20339	金 在 東	53. 1. 24	"	"
제51연대	소 위	20963	鄭 錫 礎	53. 7. 7	"	순 직
"	대 위	203770	李 康 雄	53. 1. 1	"	전 사
"	"	210709	宋 基 昌	53. 1. 1	"	"
"	"	212693	劉 泳 吉	53. 1. 18	"	"
"	중 위	24523	柳 平 烈	53. 4. 23	"	"
제52연대	대 위	19895	金 時 榮	53. 7. 4	"	"
"	중 위	20929	金 長 頭	53. 6. 9	"	"
"	"	22031	趙 南 湖	53. 7. 17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52연대	소 위	27043	李 金 都	53. 7. 19	인 계	전 사
"	대 위	213149	白 南 斗	53. 6. 14	"	"
"	"	214969	姜 萬 遠	53. 6. 9	"	"
"	소 위	220989	李 安 熙	53. 7. 20	신 경 마 비	사 망
제12사단	대 위	18196	李 尙 一	53. 6. 3	인 계	전 사
"	중 위	18860	李 繼 魯	53. 5. 29	"	사 망
"	"	20331	丁 圭 春	53. 6. 3	"	전 사
"	"	20843	金 殷 永	53. 1. 19	"	"
"	"	25583	金 永 秀	53. 6. 8	"	"
"	대 위	208307	姜 鎬 彦	53. 1. 9	"	"
"	"	214826	朴 東 植	53. 7. 19	"	"
"	준 위	301697	洪 淳 泰	53. 4. 24	"	"

제15사단

제38연대	중 위	23327	朴 致 遠	53. 6. 4	고 성	전 사
"	"	23387	黃 相 德	53. 6. 3	"	"
"	"	26840	趙 源 碩	53. 7. 9	"	"
"	"	26853	朴 永 鎬	53. 7. 17	"	"
"	소 령	202034	金 在 學	53. 5. 19	"	"
"	"	204228	李 哲	53. 6. 15	"	"
"	대 위	214813	崔 東 善	53. 6. 10	"	"
"	"	214885	劉 榮 福	53. 7. 17	"	"
"	"	214911	金 順 福	53. 6. 5	"	"
"	중 령	11848	黃 炳 宇	53. 6. 15	"	"
제39연대	대 위	18867	吳 二 澤	53. 5. 14	"	"
"	소 위	21095	尹 玄 九	53. 6. 9	"	자 살
"	중 위	22229	金 錫 權	53. 6. 15	"	전 사
"	"	23328	柳 英 烈	53. 6. 15	"	"
제50연대	대 위	16862	李 江 錫	53. 7. 26	"	사 망
"	"	19067	邊 學 植	53. 7. 17	"	전 사
"	"	20308	李 虎 林	53. 7. 7	"	"
"	"	20772	金 洪 得	53. 4. 19	"	"

3. 戰歿者 名單 1161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50연대	중 위	22010	李 相 禹	53. 6. 7	고 성	
"	중 위	22034	史 鍾 璉	53. 3. 22	"	전 사
"	"	27008	朴 明 玉	53. 7. 25	"	"
"	대 위	20069	梁 昌 煥	53. 5. 19	"	자 살
"	준 위	301702	金 秉 武	53. 4. 13	"	전 사
제15사단	대 위	19205	金 在 柱	53. 2. 16	"	"
"	중 위	20942	李 鍾 浩	53. 7. 21	"	"
"	"	22550	金 東 來	53. 7. 19	"	"
"	"	22639	金 勇 基	53. 5. 5	"	"
"	소 위	26050	河 炳 喆	53. 5. 8	"	"
"	중 위	26729	趙 鑣 祿	53. 7. 18	"	"
"	"	27053	黃 喜 性	53. 7. 13	"	"
"	"	60788	李 榮 錫	53. 7. 18	"	"
"	소 명	206404	鄭 寅 俊	53. 7. 17	"	"
"	대 위	210543	崔 恒 喆	53. 6. 19	"	"
"	"	213096	文 炳 吉	53. 6. 12	"	"

제20사단

제60연대	중 위	24468	李 敬 根	53. 5. 21	양 구	전 사
"	"	24568	成 樂 球	53. 5. 22	"	"
"	소 위	24597	朴 仲 哲	53. 3. 25	"	"
"	중 위	25238	朴 濟 鳳	53. 5. 17	"	전 사
제61연대	대 위	17989	趙 南 七	53. 6. 19	"	"
"	중 위	22458	俞 和 泰	53. 4. 15	"	"
"	"	25288	姜 齊 錫	53. 3. 29	"	"
제62연대	"	20780	李 炳 基	53. 6. 5	제27 육군병원	순 직
"	"	25248	成 雲 鑄	53. 6. 20	양 구	전 사
"	대 위	214491	李 玄 鐸	53. 3. 29	"	"
"	중 위	215507	方 柄 璿	53. 5. 17	"	"

제21사단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63연대	중 위	21593	李 善 權	53. 6. 17	고 성	전 사
"	"	22197	金 得 浬	53. 6. 30	"	"
"	소 위	26549	張 碩 萬	53. 3. 10	"	사 망
제65연대	중 위	25510	朴 相 珍	53. 7. 9	"	전 사
"	"	25821	林 昌 培	53. 6. 28	"	"
제66연대	중 위	25281	石 文 承	53. 6. 25	"	"
"	"	25502	金 仁 基	53. 7. 4	"	"

제26사

제26사단	중 위	24455	金 炯 七	53. 7. 13		전 사
"	소 위	25202	金 仁 坤	53. 11. 16		사 망

기타부대

제101사단	중 위	220916	李 正 洙	53. 6. 29		전 사
"	소 위	220926	沈 允 澤	53. 7. 1		"
제103사단	중 위	220941	金 銀 洙	53. 7. 13		"
"	소 령	14156	尹 泰 球	53. 7. 2	양 구	사 망
제105사단	소 위	220942	朱 忠 烈	53. 7. 5		전 사
"	"	220903	河 大 源	53. 7. 15		실 종
제10전투	중 령	14487	姜 允 錫	53. 7. 2	양 구	전 사
공제공제1101병	소 위	20846	李 世 勇	53. 1. 2	차 량 사 고	순 직
공제공제1106병	중 위	26198	梁 判 權	53. 7. 12	양 구	전 사
공제공제1107병	소 위	26676	金 順 泰	53. 7. 13	"	사 망
공제공제1103병	중 위	213592	李 相 昊	53. 3. 10		순 직
공제공제1105병	"	213829	韓 基 一	53. 4. 29		순 직
공제공제1106병	"	214605	洪 炫 基	53. 6. 1		전 사
공제공제1201병	"	214360	徐 羅 寅	53. 2. 20	서 울 용 산	순 직
공제공제1106병	"	302821	申 基 瓚	53. 6. 25	양 구	전 사
공제공제1106병	대 위	14329	朴 鍾 烈	53. 1. 18		사 망
南備司令部	중 위	204082	金 振 洪	53. 4. 18		사 망
"	소 장	12290	李 龍 文	53. 6. 24	전 북 남 원	전 사
서울지부	준 장	10343	高 時 福	53. 5. 8	서 울	순 직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육군본부	중 령	10995	朴 榮 植	53. 3. 4		자 살
"	"	11603	朴 瑞 權	53. 1. 14	병 원 입 원 중	순 직
"	소 위	212541	趙 光 漢	53. 1. 11	제 5 육 군 병 원	순 직
국 방 부	대 령	13146	金 範 三	53. 5. 25		순 직
제 2군단	소 령	11813	李 鵬 植	53. 3. 23		사 망
제 2여단	중 령	12975	李 承 鎬	53. 7. 15		병 사
제 1훈련소	"	10743	洪 瑞 勳	53. 5. 23	제 주 도	사 망
"	중 위	214316	林 來 仟	53. 4. 28	"	사 망
"	소 위	215222	崔 甲 龍	53. 7. 19	"	"
육군대학교	중 위	60461	徐 昌 錫	53. 5. 25	제 77 육 군 병 원	"
제 2훈련소	소 위	17684	金 漢 祚	53. 1. 3	충 남 논 산	순 직
"	중 위	214763	李 完 燮	53. 5. 26	"	"
육군보병학교	대 위	205906	李 英 雨	53. 1. 2		전 사
"	중 위	209355	金 振 光	53. 4. 5	光 山	사 망
"	"	214058	黃 瑞 然	53. 1. 30	"	순 직
정보국원	대 위	61346	延 圭 煥	53. 7. 14	계 암 산	전 사
첩보부대	소 령	201811	金 寧 洙	53. 4. 24	창 해 도	전 사
제 2교육 지구대	중 령	10868	崔 英 秀	53. 3. 14		사 망
제 10병기대대	대 위	17519	方 相 基	53. 2. 6	금 화	순 직
제 202병기단	중 위	205672	任 龍 淳	53. 7. 13	양 양	"
제 18육군병원	대 위	20247	吳 濟 雄	53. 3. 31		전 사
이동외과병원	중 위	3408	尹 泰 燮	53. 5. 14		"
제 2정양병원	대 위	207769	金 成 浩	53. 5. 9		사 망
제 5지구 경리대	중 위	213471	李 殷 英	53. 1. 11	부 산	순 직
제 7지구 경리대	"	213531	鄭 三 道	53. 6. 23		사 망
기갑학교	중 위	21928	朴 承 一	53. 5. 17		전 사
제 2전차중대	중 위	22010	鄭 基 赫	53. 6. 102	고 성	"
제 1전차중대	대 위	206069	康 圭 正	53. 7. 17	금 화	"
"	소 령	208179	具 福 晔	53. 7. 15	제 2 의 무 중 대	"
제 2경비대대	중 위	22337	柳 根 植	53. 2. 27		사 망
제 5경비대대	"	211601	朴 順 禎	53. 6. 26		"
제 11경비대대	소 령	203903	朴 許 正	53. 3. 3	전 남 광 양	전 사
제 15경비대대	중 위	22369	白 智 來	53. 6. 22	고 성	사 망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 1교육여단	중 위	22800	張 月 坤	53. 6. 21	양 구	전 사
"	"	24530	金 秉 煥	53. 4. 14		"
"	"	24553	崔 萬 洙	53. 6. 19		"
"	"	24567	李 龍 松	53. 5. 21		"
"	"	24570	尹 求 弼	53. 6. 24		"
"	"	24575	玄 海 云	53. 5. 10		"
"	"	24631	安 炫 源	53. 4. 1		"
"	"	24678	沈 正 玉	53. 6. 19		"
"	"	24685	劉 委 弘	53. 6. 20		"
"	"	24689	鄭 均 泳	53. 5. 17		"
"	"	24715	金 世 煥	53. 5. 24		"
"	"	24730	崔 在 孝	53. 9. 4	제36 육군병원	"
"	"	24736	元 慶 喜	53. 5. 30		"
통신학교	"	205446	朴 英 鎬	53. 6. 11	제77 육군병원	"
제63통신 보급대대	"	210161	李 炳 史	53. 1. 7	진 주	"
포병학교	중 령	11418	金 千 稷	53. 7. 14	금 화	전 사
"	중 위	18873	柳 榮 壽	53. 1. 29		"
"	소 위	24401	朱 老 伍	53. 7. 16	근 성	"
포병학교	중 위	24424	朴 老 吉	53. 5. 25		전 사
"	"	24433	玄 宅 祿	53. 6. 9	금 성	"
"	"	24435	裴 完 英	53. 7. 18	금 화	"
"	대 위	214605	趙 泰 孝	53. 6. 24	남 원	"
"	중 위	214670	李 泰 雨	53. 5. 9	전 남	"
제60포병대대	대 위	20510	金 明 律	53. 7. 14		"
제 2포병단	소 위	21794	崔 明 振	53. 3. 10		순 직
제 8포병단	"	22629	金 明 洽	53. 1. 20		"
"	중 위	25031	吳 正 世	53. 6. 3	강 원	사 망
"	"	26638	徐 聖 滋	53. 6. 17	금 화	전 사
제11포병단	"	23502	朴 燦 芝	53. 7. 15		"
"	"	24001	金 鎭 坤	53. 6. 13		"
"	"	24009	裴 寅 升	53. 6. 27	금 성	"
"	"	26274	柳 在 恒	53. 7. 13		"
제12포병단	"	23912	李 斗 鎭	53. 5. 17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12포병단	중 위	23977	鄭 源 興	53. 6.13	수 도 고 지	전 사
"	"	27272	卓 循 孝	53. 7.18	금 화	"
"	대 위	214698	李 奎 福	53. 7.18	"	"
제15포병단	중 위	25043	文 昌 基	53. 7.10	금 성	사 망
제98포병대대	소 위	23560	柳 根 未	53. 1.14	금 화	순 직
제79포병대대	중 위	23896	金 祥 燁	53. 2.22	고 성	전 사
제15포병단	중 위	24389	朱 仁 洙	53. 7.15	금 성	"
제10포병대대	"	25040	張 澤 淳	53. 6. 12		사 망
제10포병대대	"	25055	李 鎬 植	53. 7.17		전 사
제88포병대대	"	25082	金 貞 基	53. 6.20		사 망
제629포병대대	"	62152	鄭 遇 碩	53. 7.19	임 진 강	사 망
제60포병대대	"	26723	鄭 樂 善	53. 7. 7	금 화	전 사
제50포병대대	"	26632	金 寬 洙	53. 7.17	"	"
미제45사단	"	62154	崔 東 圭	53. 4.16		"
제53연대	소 위	24033	朴 昌 壽	53. 4.16		
제55연대	대 위	212593	權 秉 銖	53. 7.23	금 화	전 사
제56연대	소 령	200905	尹 貞 萬	53. 6. 9		"
"	대 위	204883	洪 泳 基	53. 3. 5		순 직
"	중 위	23769	河 相 起	53. 2.22		전 사
"	"	24031	奉 夏 錫	53. 6. 9		"
"	"	24083	鄭 海 駿	53. 2.22		"
제58연대	중 위	24462	安 大 洙	53. 4.17		"
"	소 위	221624	裒 慶 穆	53. 1.12		"
"	"	221626	李 鍾 錫	53. 3.14		"
"	"	221627	具 本 哲	53. 4. 7		"
"	"	221632	李 康 熙	53. 4. 3		"
"	"	227139	柳 東 根	53. 4.20		"
"	"	205372	文 明 勳	53. 7.16		"
"	준 위	300746	李 昌 萬	53. 5.13		"
"	"	300724	李 春 興	53. 5.13		"

〈해 군〉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진해공창	중 위	82191	宋 榮 奎	53. 4. 3	진 해 공 창	순 직

〈공 군〉

제10전투비행단	중 위	50832	任 宅 淳	53. 3. 6	고 성 상 공	전 사
"	"	50816	張 昌 甲	53. 4. 23	강 능 "	"
"	소 위	51334	徐 東 奎	53. 4. 23	"	"
"	중 위	50861	金 賢 一	53. 6. 13	고 성 "	"
"	중 위	5.28	高 光 壽	53. 7. 18	강 능 "	"

〈해 병 대〉

제1전투단	소 위	60479	金 成 浩	53. 1. 9	경 기 장 단	전 사
"	중 위	60532	趙 昌 求	53. 8. 4	"	"

4. 索引

人名索引

(一)

- | | | | |
|-----|--------------------|-----|------------------------|
| 姜官龍 | 127, 157, 176 | 高炳善 | 71 |
| 姜起千 | 703, 708, 716, 751 | 高炳星 | 283, 291, 295 |
| 康大鳳 | 522 | 高奉碩 | 746 |
| 姜文奉 | 276 | 高順鳳 | 534 |
| 姜文壽 | 84, 88 | 高永一 | 928, 955 |
| 姜鳳嬌 | 40 | 高永哲 | 252 |
| 姜三壽 | 1009 | 高林鉉 | 794 |
| 姜上贊 | 559 | 高日燮 | 340, 359 |
| 姜相彥 | 469 | 高在勉 | 547 |
| 姜信讚 | 487 | 高在暉 | 764 |
| 姜永傑 | 767, 784 | 公祥彥 | 298 |
| 姜永奎 | 751 | 孔載鵬 | 71, 44, 49 |
| 姜龍雲 | 44, 48, 73 | 孔行根 | 176, 677, 685 |
| 姜允植 | 440 | 郭永敦 | 501, 507, 511 |
| 姜翼模 | 187, 684 | 郭仁培 | 618 |
| 姜政鎮 | 354 | 郭孝斌 | 618 |
| 姜濟憲 | 491 | 具南書 | 555 |
| 姜泰敏 | 288, 604, 613 | 具然哲 | 302 |
| 姜泰元 | 666, 672 | 具玉緒 | 488, 511 |
| 姜鎬倫 | 915 | 權貴成 | 486 |
| 姜弘模 | 340, 353, 362 | 權東錄 | 385, 405 |
| 姜興中 | 228, 313, 329, 473 | 權保衡 | 44 |
| 姜熙東 | 502 | 權相鎮 | 749 |
| 姜福錫 | 214, 241 | 權寧極 | 460 |
| 高景晚 | 440 | 權寧俊 | 44 |
| 高光道 | 242, 262, 270, 413 | 權寧讚 | 257, 260, 265 |
| 高光壽 | 928, 955 | 權寧翰 | 364 |
| 高光杓 | 1012 | 權五圭 | 67 |
| 高根榮 | 325, 326, 463 | 權五明 | 604 |
| 高基煥 | 113 | 權益檢 | 321, 327, 463, 469 |
| 高吉勳 | 748 | 權支煥 | 639 |
| 高白圭 | 369, 386, 401, 481 | 權贊植 | 922, 933, 955 |
| | | 權天植 | 322, 319 |
| | | 吉鳳郁 | 21, 263, 265, 315, 320 |
| | | 古逢春 | 572, 586 |

- | | | | |
|-----|-------------------------|-----|-----------------------------|
| 金甲奎 | 955 | 金明益 | 644 |
| 金甲元 | 102 | 金明浩 | 612 |
| 金敬模 | 79, 113 | 金明煥 | 534 |
| 金璟植 | 340, 353 | 金文植 | 766 |
| 金景沃 | 284, 608 | 金文鎬 | 298 |
| 金慶仁 | 600 | 金白洛 | 730 |
| 金慶哲 | 321, 325, 330, 461, 471 | 金白泳 | 81, 89, 92, 106 |
| 金葵植 | 298 | 金炳國 | 297 |
| 金高明 | 551 | 金炳東 | 354 |
| 金光洙 | 294 | 金炳善 | 44 |
| 金光麟 | 540 | 金炳德 | 1008 |
| 金光鎮 | 708, 748 | 金炳翼 | 340 |
| 金致洙 | 384, 387, 397 | 金奉健 | 805 |
| 金國錄 | 565 | 金鳳起 | 457 |
| 金根培 | 981 | 金鳳接 | 481 |
| 金錦成 | 915, 919, 931, 955 | 金相光 | 928, 955 |
| 金金守 | 555, 581 | 金祥斗 | 487 |
| 金基福 | 479 | 金相鳳 | 353 |
| 金基鍊 | 385, 405 | 金相義 | 340, 360 |
| 金基泰 | 13, 228, 464 | 金常振 | 612 |
| 金古常 | 661 | 金錫具 | 287, 300 |
| 金古允 | 179 | 金錫潤 | 361 |
| 金魯鎮 | 484, 502 | 金錫俊 | 1016 |
| 金達六 | 497 | 金錫銀 | 260 |
| 金達輝 | 953 | 金善庚 | 234, 235 |
| 金德淳 | 514 | 金 聖 | 21, 251, 257, 264, 473, 910 |
| 金東奎 | 702, 726 | 金聖淳 | 628 |
| 金東根 | 62 | 金聖恩 | 710, 721, 742, 748, 78 |
| 金東馥 | 756 | 金成出 | 497 |
| 金東鳳 | 747, 755, 776, 780, 805 | 金成浩 | 719, 741, 749 |
| 金東燮 | 843 | 金聖煥 | 542, 552 |
| 金東洙 | 477, 435, 451 | 金世敏 | 369, 388 |
| 金同玉 | 644, 671, 676 | 金守明 | 549, 587 |
| 金東元 | 624 | 金守模 | 286 |
| 金東潤 | 538 | 金秀厥 | 233, 611 |
| 金斗植 | 392 | 金水山 | 417, 430, 451, 521 |
| 金斗云 | 1010 | 金壽完 | 609 |
| 金斗逸 | 369, 379, 386, 413 | 金壽元 | 546 |
| 金萬基 | 531, 546 | 金壽夏 | 546 |
| 金萬壽 | 1010 | 金順九 | 804 |
| 金萬述 | 794, 800, 807 | 金淳園 | 40 |
| 金萬鎔 | 919, 925 | 金頤濤 | 286 |

- | | | | |
|-----|---------------------------------------|-----|--------------------|
| 金順萬 | 328 | 金允基 | 666 |
| 金承弼 | 637 | 金潤生 | 393, 443 |
| 金時中 | 305 | 金潤文 | 677 |
| 金安民 | 114 | 金潤煜 | 369 |
| 金安一 | 81 | 金潤鎬 | 542 |
| 金億淳 | 1009 | 金允煥 | 157, 165, 168 |
| 金麗林 | 282, 289, 604 | 金義一 | 751 |
| 金榮寬 | 852, 876 | 金銀童 | 39, 43 |
| 金榮國 | 618 | 金應烈 | 264 |
| 金榮吉 | 521, 543, 547, 577, 588 | 金利均 | 644 |
| 金永敦 | 657, 664, 676 | 金二洙 | 481, 486 |
| 金榮福 | 283 | 金益洙 | 241 |
| 金永三 | 521 | 金益烈 | 214, 370 |
| 金永先 | 604, 618 | 金仁杰 | 464 |
| 金永燮 | 555 | 金仁奎 | 249, 250, 268 |
| 金榮珣 | 381 | 金仁培 | 360 |
| 金榮徹 | 507 | 金仁玉 | 295 |
| 金永春 | 1010 | 金仁哲 | 127, 130, 157, 644 |
| 金永泰 | 391, 407 | 金仁泰 | 452 |
| 金永夏 | 19, 369, 386, 408, 662 | 金麟澤 | 788 |
| 金英煥 | 928, 955 | 金仁華 | 604 |
| 金玉培 | 522, 541 | 金一斗 | 105 |
| 金完柱 | 21, 776 | 金日永 | 555, 600 |
| 金 勇 | 44 | 金長春 | 294 |
| 金容求 | 540 | 金點坤 | 277, 369 |
| 金容今 | 242, 310, 417 | 金正甲 | 219 |
| 金容培 | 21, 176, 192, 270, 413, 517, 668, 677 | 金正九 | 575, 586 |
| 金龍周 | 370 | 金正基 | 1012 |
| 金容讚 | 500 | 金品植 | 637 |
| 金容泰 | 1012 | 金正浩 | 440 |
| 金龍賢 | 267, 424 | 金禎浩 | 850 |
| 金用環 | 79, 116, 120 | 金載龍 | 363, 331, 335, 458 |
| 金容煥 | 184 | 金在命 | 93, 113, 120 |
| 金守根 | 745, 752 | 金濟擘 | 790 |
| 金禎植 | 458 | 金在澤 | 127, 157, 176 |
| 金又出 | 800, 805 | 金在學 | 73 |
| 金雄深 | 340, 353, 583, 597 | 金鍾甲 | 19, 245, 386, 417 |
| 金元基 | 417 | 金鍾九 | 38, 44, 54 |
| 金元植 | 1010 | 金鍾珪 | 383, 414 |
| 金源湧 | 1011 | 金鍾洛 | 64 |
| 金元贊 | 550, 578 | 金鍾敏 | 13, 19, 475 |
| | | 金鍾植 | 702, 742, 753 |

1170 附 錄

金宗元 1009, 1010
 金鐘潤 531, 566
 金鐘仁 242
 金鍾吳 89
 金俊教 426, 437
 金俊鍾 1010
 金中煥 263
 金重寶 955
 金重善 540
 金直漢 954, 967
 金鎮洙 706, 748
 金振翼 46
 金振澤 702, 711, 740
 金彰顯 186
 金亨皓 354
 金燦聲 481, 501
 金燦辰 266
 金昌建 39
 金昌傑 391, 407
 金昌均 491, 751
 金昌燮 702, 706, 725, 748
 金昌浩 290, 639
 金昌順 1010
 金昌烈 38, 64, 66, 75, 955
 金千根 521, 540
 金清會 361
 金春植 62
 金忠男 289
 金忠實 586
 金泰圭 526, 573
 金泰烈 491
 金澤龍 319, 408, 471
 金弼相 340, 365
 金弼秀 160
 金學甫 340
 金漢龍 81, 84, 85, 123, 231, 232, 236, 214
 金漢柱 369, 378, 402, 412, 483, 784
 金漢俊 682, 687
 金海晚 42
 金海方 44
 金憲 84, 113, 123

金顯杓 545
 金炫國 515
 金賈德 536, 553
 金賈千 950
 金衡祿 782, 788
 金炯旭 535, 552
 金 虎 79
 金昊俊 287
 金洪圭 804
 金浩淵 919, 926
 金熙年 844
 金禧明 305
 金熙濬 81

(L)

羅霖日 176
 羅奎興 1154
 南基哲 1150
 南白奉 408, 417
 盧明奎 554
 魯明玉 1154
 盧在銀 1149
 盧台永 1154

(C)

段鍾鐵 127
 鄧澤煥 788
 滕海清 270

(K)

馬 龍 177, 369, 449, 479, 522, 665
 馬鍾仁 955
 馬周一 367
 馬 輝 484
 文洛容 715
 文南昊 1007
 文武出 291
 文五三 38, 51
 汶元植 218, 241, 392

文仁澤 656
 文重燮 282, 289, 604, 611, 630
 文昌鐸 618
 文泰舜 553
 文弘國 291
 文會相 355
 文熙燦 785
 閔機植 39
 閔邦彥 369, 391, 417, 448
 閔龍基 573
 閔旭東 920, 955, 965
 閔應植 340, 356, 361

(日)

朴敬遠 13, 15, 19, 214, 224, 226, 311,
 324, 473
 朴際遠 677
 朴敬哲 888
 朴寬珣 407
 朴官永 325, 326
 朴寬哲 448
 朴九鉉 165
 朴圭華 96, 106, 176, 205, 677
 朴基淳 559, 577, 587, 594
 朴魯吾 79
 朴斗成 484, 515
 朴武籍 890
 朴明九 581
 朴明振 777
 朴炳權 176, 450
 朴秉柱 340, 358
 朴鳳規 576
 朴奉書 760
 朴鳳煥 79, 114, 120
 朴壽鳳 549
 朴三突 610
 朴勝文 214, 220
 朴勝熙 79, 111, 117, 122
 朴英植 371, 417, 425
 朴永來 214
 朴永奉 44, 49, 54, 71

朴泳五 779
 朴榮徵 305, 604, 610
 朴榮濟 367, 380, 382, 644
 朴用萬 925
 朴龍文 730
 朴容嶺 702, 711, 735, 748
 朴龍鶴 242, 262, 264
 朴允八 260, 263, 317
 朴仁勇 38, 44
 朴一 176, 677, 680
 朴應奎 505, 644, 660, 664, 674, 679
 朴完植 86, 89, 96, 98, 124, 588
 朴元奎 723, 752
 朴元寬 282, 285, 604, 621
 朴元燦 294, 638
 朴林恒 756
 朴長年 501, 511
 朴長元 50
 朴正端 542
 朴正秀 501
 朴定仁 81, 88, 91, 95, 125
 朴再善 214, 223, 228
 朴在善 464
 朴丙鎰 548
 朴在玉 354
 朴濟宣 44, 61
 朴宗相 487, 515
 朴鍾和 1013
 朴鍾煥 51
 朴柱興 39
 朴俊用 258, 267
 朴志明 283, 285, 611
 朴贊裕 752
 朴贊競 521, 548, 578, 587
 朴贊植 933
 朴昌根 155
 朴昌遂 554
 朴昌源 242, 244, 252, 254, 258, 417, 513
 朴徽 310, 321, 324, 331, 426, 435, 455,
 473
 朴哲遠 81
 朴春光 799

1172 附 錄

朴春道 877
 朴春植 525
 朴春雄 758, 783
 朴泰坤 798
 朴泰均 955
 朴泰峰 514
 朴泰松 242, 262, 264, 417
 朴夏榮 40
 朴海寬 248, 447
 朴海昌 47
 朴憲圭 609, 610
 朴憲永 1007
 朴洪基 609
 朴弘燮 303
 朴弘成 340
 朴孝俊 58
 朴喜敬 640
 朴熙東 928, 955
 朴熙鍾 487
 方斗欽 315
 方得允 1010
 方俊杓 1014
 方庸源 127, 176
 裴鳳雲 628
 裴相泰 295, 302, 625
 裴相吳 955
 裴錫明 723
 白景奭 644, 660
 白南得 955
 白南杓 751
 白萬吉 955
 白文善 540
 白文午 501, 507
 白三澤 762
 白善燁 65, 313
 白成基 302
 白鎔三 955
 白雲龍 192
 白仁燁 21, 38, 62, 69, 214, 450
 白晶鉉 948, 951
 白泰夏 657, 677
 白虎乙 446

邊洙瑠 604
 邊日賢 366
 邊弼周 752
 夫久亨 127, 157
 夫永玉 87, 90, 96, 106

(人)

徐慶善 289, 300, 622
 徐秉道 364
 徐德均 844
 徐武松 425, 438
 徐成三 559
 徐成讚 559
 徐廷南 702, 703, 742
 徐楨巖 242
 徐鎮碩 551
 鮮于容 176
 薛俊喆 13, 310
 成光洙 13, 214
 成正模 242, 444, 481, 507, 518
 成寬植 723
 蘇炳烈 369, 407, 448
 蘇日錫 514
 孫介同 242, 252
 孫基勳 491
 孫達用 776
 孫東睦 654
 孫柄用 242
 孫相鎬 514
 孫錫根 435
 孫榮鎮 214
 孫在權 928
 孫鍾奎 586
 孫鍾洙 461
 孫鎮坤 417, 424, 439
 孫晉述 16
 孫昌奎 176, 417, 677
 孫孝辰 638
 孫興俊 951
 宋甲成 711
 宋奇善 383, 402

宋奇出 537, 588, 589
 宋德萬 39
 宋錫基 393, 407
 宋錫夏 127, 176, 178
 宋錫煥 540
 宋善有 360
 宋澤根 340, 345
 宋堯讚 244, 276, 310, 338, 517, 520
 宋龍成 86, 979
 宋寅吉 288
 宋寅明 782
 宋載慶 541
 宋在燦 941
 宋濟根 507
 宋贊鎬 766
 宋虎林 716, 765, 782
 蕭應棠 809
 蕭全夫 809
 申寬植 919, 925
 辛武出 284
 申福伊 115
 申相棋 382
 辛相大 853, 892
 辛相默 1010
 申 肅 751
 申榮坤 322, 330, 331
 申榮祚 79, 112, 327
 申容華 514
 申長燮 659
 辛在奉 745, 746
 慎昌源 285
 申鶴進 521, 540
 申鉉慶 305, 610, 624
 申興雨 214
 沈宣勉 64

(O)

安斗煥 786
 安秉健 481, 509, 518
 安福順 497
 安三炫 497

安龍成 101
 安翼燮 340
 安濟微 65
 安峻榮 296
 安昌寬 702, 711, 741, 750
 安視範 644
 安昌振 383, 387
 安清護 88, 92, 106
 安泰鎬 609
 安宅煥 70
 安學烈 624
 楊棟樑 243, 423
 楊得志 796
 楊成武 479
 梁默釗 253, 270
 梁炳煥 382, 369
 梁聖煥 369, 382, 499
 梁在沅 19, 662
 梁宗益 369, 644
 梁贊鉉 479
 梁昌熙 886
 梁漢杓 886
 嚴今世 79, 114
 嚴斗永 71
 嚴尚錄 702, 726, 737
 延化春 550
 吳德俊 69, 76
 吳命福 702, 723
 吳尚奎 704, 724
 吳相仁 659
 吳成龍 242, 269
 吳德昌 242, 310, 471
 吳誠洪 176
 吳順九 521, 591
 吳新春 951, 675
 吳榮煥 763, 769
 吳允石 44, 67
 吳政植 382
 吳清敏 294
 吳濟熙 795
 吳嶺宇 39
 吳昌植 627

1174 附 錄

- | | | | |
|-----|-------------------------|-----|-------------------------|
| 吳衡根 | 486, 497 | 尹炳玉 | 751 |
| 玉滿鎬 | 928, 934 | 尹鳳元 | 515 |
| 玉昌鎬 | 44 | 尹錫九 | 750 |
| 王南洙 | 484, 511 | 尹錫憲 | 497 |
| 王誠漢 | 243, 444, 480 | 尹成龍 | 551 |
| 王然旭 | 545 | 尹永收 | 522, 548 |
| 王日浩 | 760 | 尹應烈 | 928 |
| 王 虎 | 260 | 尹子重 | 936 |
| 禹台命 | 255, 258, 426 | 尹在夏 | 487 |
| 禹相沃 | 160, 163 | 尹柱善 | 248 |
| 禹榮賢 | 376 | 尹昌憲 | 553 |
| 禹泰華 | 644 | 尹昌和 | 537, 580, 588 |
| 元商鎬 | 521, 577 | 尹春根 | 96, 103, 117, 123 |
| 元容穆 | 573 | 尹泰皓 | 529, 604, 608 |
| 元容五 | 369, 644, 652 | 尹泰煥 | 742 |
| 元彩珪 | 484 | 尹泌鏞 | 267, 419 |
| 韋 杰 | 176, 265, 418, 480, 596 | 尹畢孝 | 546 |
| 韋統泰 | 522, 645 | 尹夏榮 | 102, 107, 111 |
| 劉庚泰 | 589 | 尹興顏 | 521, 560, 599 |
| 柳啓榮 | 630 | 殷頌杓 | 552, 579, 588, 606 |
| 劉寬植 | 852 | 殷胤基 | 340, 361 |
| 柳基泰 | 1015 | 陸慶鳳 | 871 |
| 劉東烈 | 657, 669, 674 | 李甲淳 | 73 |
| 柳範烈 | 79, 117, 122 | 李甲榮 | 177, 176 |
| 劉福振 | 263 | 李康國 | 1007 |
| 柳承源 | 369, 374, 395 | 李康魯 | 805 |
| 柳湧圭 | 545 | 李康煥 | 71, 80, 96 |
| 柳原植 | 616, 666, 671 | 李揆翼 | 50 |
| 劉載成 | 38, 70, 72 | 李啓亨 | 484, 504 |
| 劉載興 | 522 | 李經哲 | 955 |
| 劉轉連 | 755 | 李寬模 | 951 |
| 柳重秀 | 97, 176, 677, 693 | 李寬植 | 399, 481, 486, 492, 504 |
| 柳致坤 | 917, 925, 951 | 李寬浩 | 752 |
| 游好揚 | 755 | 李光雨 | 303, 306 |
| 柳洪植 | 176, 696 | 李光質 | 300, 623 |
| 陸根洙 | 521, 542, 577 | 李光魯 | 359 |
| 陸璋均 | 369, 391, 405 | 李校安 | 955 |
| 陸鍾瑞 | 711, 749 | 李龜榮 | 307 |
| 尹珥燮 | 28, 285, 623 | 李圭植 | 176 |
| 尹權衡 | 96, 106 | 李銀學 | 315 |
| 尹吉炳 | 86, 98 | 李奇健 | 65, 69 |
| 尹大榮 | 268, 451 | 李超大 | 1015 |

李基榮 123, 157, 176
 李鎮鍊 521, 539
 李基煥 352, 928
 李吉永 756
 李南圭 364
 李南周 249
 李大哲 282
 李大岳 504, 611
 李大煥 611, 638
 李德基 127, 157, 176, 180
 李德永 534, 547
 李德弼 382
 李德和 546
 李東善 653
 李東晉 145, 148, 151
 李東和 43
 李得魯 553
 李萬浩 547
 李明根 242
 李武幸 290
 李文夏 49
 李敏綉 283, 623
 李芳秀 255
 李白雨 502
 李培善 936, 951
 李秉奎 614
 李炳基 58
 李炳轍 242, 257, 260
 李秉澤 295, 639
 李秉衡 176, 677, 678
 李福萬 745
 李恩植 458
 李相均 300, 611, 623
 李相徹 624
 李尙熙 499
 李石峰 44, 71
 李成斗 481
 李成雨 1007, 1009
 李性宰 310
 李成浩 876
 李性穰 702, 741, 745
 李世鏡 1010

李世遠 354
 李世彥 188
 李水明 345
 李水清 479, 480
 李秀春 481, 515
 李承院 596, 1007, 1009
 李承燁 1007
 李承佑 1010
 李勝兆 514
 李良雨 641
 李永基 214
 李英模 919
 李永栢 749
 李永梭 540
 李永烈 87, 96, 106
 李永朝 305, 610
 李榮浩 39
 李永護 43
 李永煥 631
 李五得 786
 李完宰 288
 李龍 40
 李龍伯 284
 李龍雲 878
 李龍祚 283, 285, 611, 623
 李用鎮 592, 583
 李禹善 541
 李源福 369
 李元秀 604
 李元濟 288, 300
 李允範 484, 502
 李恩植 214, 220
 李殷出 763
 李應燮 876
 李應龍 295, 532, 545, 617
 李貳錫 84
 李仁洙 644, 664
 李仁孝 500
 李日來 392
 李長永 447
 李載國 920, 946
 李再起 153

1176 附 錄

- | | | | |
|-----|---|-----|---|
| 李在斗 | 358 | 李鉉鎬 | 300 |
| 李在文 | 283, 762 | 李亨根 | 60, 68 |
| 李在信 | 260, 265, 310, 321, 323, 328,
239, 475 | 李亨吉 | 639 |
| 李在燁 | 391, 403 | 李豪英 | 955 |
| 李在田 | 242, 262, 417 | 李吳鍾 | 13, 238, 214 |
| 李 靜 | 369, 479, 480, 645 | 李弘根 | 44, 50, 66 |
| 李貞錫 | 39, 43, 62 | 李化民 | 449, 522, 543, 677 |
| 李正安 | 390 | 李孝成 | 129, 157 |
| 李正榮 | 651, 652 | 李喜權 | 79, 93, 113 |
| 李鍾甲 | 521, 536, 544, 578 | 李喜根 | 951 |
| 李鍾國 | 67, 76, 283, 611 | 李熙周 | 500 |
| 李鍾德 | 628 | 印堯煥 | 885 |
| 李鍾綠 | 521, 544, 577 | 印玉清 | 645 |
| 李鍾永 | 628 | 林甲錫 | 617 |
| 李鍾潤 | 81 | 林炅燮 | 732, 740, 750, 711, 702 |
| 李鍾鼎 | 758 | 林光鉉 | 545 |
| 李鍾浩 | 295 | 林東燮 | 176, 677 |
| 李柱學 | 545 | 林東鎰 | 919, 956 |
| 李俊和 | 521, 547, 577 | 林炳斗 | 916, 921 |
| 李駿鎬 | 541 | 林炳品 | 565 |
| 李鎮根 | 579 | 林富澤 | 21, 430, 449, 662, 664, 668, 675
677, 644, 600 |
| 李晉永 | 379 | 林翔燮 | 929, 955 |
| 李燦權 | 920, 924 | 林相朝 | 79, 113 |
| 李昌基 | 540 | 林錫淳 | 382 |
| 李昌舜 | 640 | 林善河 | 13, 214, 217, 243, 236, 253, 310
312, 314, 17, 321, 322, 324, 327
467, 479, 480 |
| 李昌禎 | 652 | 林成奎 | 559 |
| 李 哲 | 44, 68 | 林世奎 | 513 |
| 李春景 | 369, 644, 662, 669 | 林順洙 | 115, 120, 79 |
| 李春安 | 423, 436 | 林淳赫 | 955, 964 |
| 李春夢 | 714 | 林完植 | 521, 537 |
| 李春培 | 369, 408, 644, 652 | 林龍雨 | 871 |
| 李春植 | 29, 644, 672 | 林理植 | 702, 718, 728 |
| 李澤珩 | 872 | 林益淳 | 552 |
| 李夏榮 | 1009, 1010 | 林鍾得 | 555 |
| 李學善 | 922, 925 | 林鍾澤 | 497 |
| 李翰林 | 275, 283, 293, 306, 604, 626,
634 | 林志澤 | 441, 452 |
| 李海石 | 479, 480, 486 | 林忠植 | 177 |
| 李海舟 | 295 | 林七鉉 | 600 |
| 李憲洙 | 644, 665, 656 | 林判吉 | 21, 310, 314, 317, 323, 46, 463 |
| 李鉉相 | 1007 | | |

林風清 430, 453
林虎成 536, 554, 580, 590

(天)

張開基 755, 793
張景順 928
張奎線 374
張基爽 515
張基郁 728, 750
張都暎 412, 417
張斗京 425
張斗煥 548, 587
張炳清 86, 95, 101, 121
張師福 289
張錫椿 290
張星太 919, 930, 955
張用南 176, 184, 677, 693
張雲龍 809
張翹梓 70
張正來 787
張貞培 618
張志良 915, 928
張鎮洙 752
張昌甲 943
張天雲 872
張虎崗 79, 96, 106, 112, 123
張好珍 310, 327
張和鎮 273
全炳烈 240
全富一 81
全昇彬 98, 101, 121
全安民 79, 89
全璋漢 1010
全鍾培 51
全珠植 641
全春煥 533, 547
全平昌 285
全澄洙 486
田亨一 923, 929
鄭珪源 514

丁圭台 355
鄭大善 790, 800, 804
鄭東萬 362
鄭樂重 870
鄭滿鎮 702, 724
丁武 645
鄭範 79
鄭鳳梧 58
鄭鳳旭 82
鄭相英 660, 661
鄭順基 79, 96, 106, 112, 117
鄭榮謀 302
鄭永信 751
鄭永洪 756
鄭永煥 286
鄭炳岳 62
鄭選祥 653, 659
鄭雲福 501
鄭二薰 742, 745
鄭仁淳 242, 252, 255, 417 426
鄭寅珠 1010
丁一權 242, 259, 269, 310, 369, 386,
417, 488, 644, 667, 677
鄭一洙 587
鄭在甲 369, 377, 402
鄭在基 552
鄭在鶴 614
鄭宗哲 798
鄭志士 809, 836
鄭昌鎭 249
鄭春泰 305, 604, 609
鄭泰春 530
鄭海榮 273
齊武 369, 453, 645
趙基哲 779
趙德濟 415
趙柄奎 546
趙炳基 384
趙炳潤 587
趙成寬 302
趙成來 340, 361
趙誠七 417, 423

趙誠學 19
 趙誠華 468, 668
 曹世煥 955
 趙淵表 282, 291, 604, 633
 曹永哲 79
 曹榮煥 88, 93, 95
 曹玉清 522, 582
 趙容直 248
 趙源英 41, 44, 50
 趙益賢 455
 趙在美 365
 趙在俊 127, 143, 151, 155
 趙宗鎬 291, 300
 趙智鎬 628
 趙七星 644
 趙學權 295, 306
 曹漢吉 521, 536
 趙恒植 921, 938, 955
 趙弘濟 390, 404
 朱慶魯 300, 612
 朱秀雄 266, 423
 池珉九 497
 池洪烈 745
 陳基範 267
 陳景俊 624
 陳坊仁 522, 543, 582, 645
 陳正湘 418
 陳燦吳 360

(天)

車圭憲 242, 243, 253, 261, 267, 417
 車東一 264
 車文錫 430
 車鳳竹 377, 390, 403
 車炳甲 254
 車一赫 1010
 車容性 294
 車正煥 510
 蔡奎男 879
 蔡命新 143

蔡成律 513
 蔡在錫 872
 千寧弼 547
 崔光林 67
 崔權洙 1010
 崔圭善 102, 107
 崔奎憲 247, 256, 261, 268, 271, 272, 447
 崔圭欽 369
 崔圭憲 644
 崔起東 844
 崔基善 93
 崔德明 377, 390, 402, 415
 崔德載 1013
 崔敦壽 497
 崔東洙 40
 崔斗洵 171
 崔得健 263, 315
 崔蘭洙 1014
 崔炳起 871
 崔炳淳 257, 260, 321, 325, 326, 327, 338
 崔炳勳 589
 崔福今 44
 崔鳳道 758, 765, 782
 崔鳳東 67, 77
 崔相重 408
 崔錫崇 617, 629
 崔碩弼 552
 崔聖達 919, 945, 951
 崔世寅 521, 530, 533, 543, 552, 568, 577, 584
 崔壽根 528
 崔淑煥 670
 崔順善 922
 崔英圭 157, 242, 256, 261, 264, 267, 417, 430, 505
 崔榮喜 38, 69, 71
 崔用德 915, 928, 955
 崔勇男 782
 崔容澤 728, 750
 崔龍翰 492
 崔鎮植 122, 157
 崔周鍾 747, 756, 774, 793

崔周鳳 527, 579
 崔俊植 1012
 崔重午 546
 崔鉉皓 623
 崔哲 450
 崔讚澤 1010
 崔昌彥 369, 386, 521, 530, 542, 582, 613
 崔昌龍 295, 301, 604, 625
 崔昌昱 127, 144
 崔泰德 609
 崔泰守 481, 504
 崔澤元 13, 17, 23, 475
 崔鶴麟 340
 崔憲熙 522, 565
 崔孝鏞 846
 崔泓熙 242, 246, 251, 259, 264, 269,
 310, 311, 370
 崔熙大 153, 157, 160, 162, 173, 174

(己)

河吉龍 618
 河東培 510
 河相道 367
 河成培 202
 河榮德 628
 河正洙 871
 河昌均 262, 263
 韓官興 369, 417, 433, 447, 453, 503,
 528, 530
 韓珽洙 330, 456
 韓光楚 809
 韓國賢 767, 775
 韓錦昌 521, 538, 553, 579, 594
 韓萬鎮 87
 韓萬炯 153
 韓明鎬 870
 韓武協 192
 韓文植 845
 韓敏錫 521, 536, 553, 568, 594, 599
 韓炳燮 283, 291, 637
 韓相浩 547

韓昇源 79, 114
 韓順簡 707
 韓順華 61
 韓承錫 874
 韓信 264, 271, 419, 427, 450
 韓魚洙 369, 644
 韓永雨 302
 韓完洙 81, 93, 101, 107, 112
 韓二京 296
 韓在吉 1011
 韓昌鳳 501, 507
 韓昌烈 885
 韓判世 730
 韓判中 234
 韓弘植 306
 咸德昌 749
 咸履烈 55, 57
 許德和 886
 許信卓 264
 許瑛 551
 許忠 71
 許判石 554
 許亨淳 370
 玄時燕 874
 玄昌健 916, 919, 940
 洪淳龍 127, 165, 173, 242, 251, 265
 洪淳相 955
 洪完基 768
 洪在應 381
 洪載翊 157, 173
 洪鍾甲 702, 711, 740
 洪鍾哲 214
 洪昌杓 650
 洪合祚 491
 黃圭鎮 511
 黃龍植 612
 黃龍澤 655, 660, 662
 黃麟圭 623
 黃明根 521, 553, 590
 黃武勳 13
 黃炳宇 44, 68
 黃碩奎 604, 616, 625

黃善道 845
 黃宣道 874
 黃信周 554
 黃 泳 749
 黃榮宣 877
 黃榮濟 514

黃永喆 115, 119
 黃元燮 369, 401
 黃正德 916, 921, 935
 黃汀淵 869, 871
 黃昌淳 380

(A)

Akers Jr, Rusell F. : 593
 Alkinson, William H. : 808
 Anderson, Samuel E. : 985, 999

(B)

Barcus, Glenn G. : 968
 Barriger Double E. : 340
 Blick, R.E. : 903
 Bowen Jr, H.G. : 897
 Bowman, George S. : 808
 Brigham, C.W. : 901
 Briscoe, Robert P. : 903
 Bull, C.E. : 897
 Buntin, Joseph S. : 832

(C)

Carmichael, Richard H. : 985, 999
 Carpenter, Stephen W. : 832
 Cerehino, Alexander D. : 808, 821
 Charette, William R. : 825
 Clack, T.E. : 903
 Clarke, Bruce C. : 837
 Clark, Joseph J. : 68, 903

Cloman, William A. : 809, 832
 Conley, Robert F. : 809
 Connolly, Thomas P. : 808, 830
 Conwell, L.C. : 832
 Cortelyon, Stoddard G. : 809
 Coss, Francis R. : 809

(D)

Dixen, T.E. : 903
 Dulaeney, Robert L. : 755

(E)

Estey, Ralph F. : 808

(F)

Finch, James H. : 811, 819
 Fisher, William P. : 968, 985
 Frash, William M. : 809 826
 Frier, Donald G. : 808
 Funk, Glenn C. : 837

(G)

Gobelin, A.L. : 897
 Gnder, Philip D. : 127
 Gingrick, J.E. : 903

Gregg, O.C. : 896, 903
Gurney, Marshall B. : 895

(H)

Haffner, Loren E. : 730
Harris, T.D. : 895
Hickey, R.F. : 903
Hudson, Floyd G. : 822
Hughes, John E. : 808, 823
Hunter, Clyde W. : 800, 818

(J)

Jinkins, Reuben E. : 340, 418, 521, 607
Jerome, Clayton C. : 811
Johnson, W.D. : 903
Jones Jr, Olin W. : 808
Josephson, A.R. : 901

(K)

Kelly, George E. : 835
Kendall, Paul W. : 755, 837
Koumanakos, Georgios. : 580, 596.

(L)

Lorence, Herbert M. : 808, 822

(M)

Mayberry, Dale, : 897
Maginnis Jack. : 897
Macarty, Chester E. : 985, 999
Megee, Vernon E. : 810
Melvin, John B. : 808
Mildner, Theodore J. : 808
Mills, James E. : 808, 825
Moore, Dennis M. : 602
Mundroff, G.T. : 903
Myers, R.E. : 897

(O)

Oddy, Robert J. : 811, 822, 835
Olsen, C.E. : 903
Ouron, R.J. : 897

(P)

Parr, Ralph S. : 1004
Platt, Jonas M. : 811
Pollock, Edwin A. : 809

(Q)

Quigley, Donald F. : 897

(R)

Riddings, Eugene W. : 604
Robertshaw, Louis B. : 809
Rodee, W.F. : 903
Roe, Murray O. : 819
Rogers, M.B. : 65
Ruffner, David L. : 980

(S)

Selden, John T. : 810
Seymour, Rugus A. : 815
Shagger, Robert D. : 808
Shea, Herry N. : 810
Shropshire, L.W. : 593
Singloub, J.K. : 593
Slonin, G.M. : 910
Smoak, Eustace R. : 810
Smunk, Louis R. : 808
Smythe, George W. : 276, 593, 650
Soule, Robert H. : 602

(T)

Tagt, Kenneth E. : 814

Taylor, Maxwell D. : 259, 270, 567, 586
 Trudeau, Arthur G. : 340, 780

(W)

Walt, Lewis W. : 821, 836
 Walz Ralph L. : 808

Westmorland, William C. : 607
 Weyland, Otto P. : 968, 999
 White, Isaac D. : 79, 177, 270
 Whitney, L.A. : 895
 Williams, Samuel T. : 177, 276, 837
 Williamson, John I. : 810

地 名 索 引

(一)

加羅峙 270, 418
 加莫洞 383, 414
 加田里 106
 住峴里 539, 550, 569, 578
 看霧峰 80
 杆 城 39, 913, 956
 間棒峴 523, 542, 578, 593
 間楓洞 540, 563
 葛谷里 289, 609, 613, 631
 葛麻角 906
 甘鳳里 607, 611, 631
 甘水里 871
 甘雨里 268, 271, 425
 鑑月里 919
 江 界 992, 1004
 江橋洞 870
 江 東 971
 江 陵 913
 開 城 990
 巨里室 657
 居室里 515
 巨 濟 39
 巨律面 39
 居 昇 1007
 乾鳳嶺 645
 乾鳳山 650
 劍佛浪 921
 劍井里 74

兼二浦 978, 993
 灘 湖 43
 鷄 岩 383
 溪龍山 1014
 鷄雄山 608, 624, 635
 古 洞 1012
 高屯谷 429, 433
 高屯里 473
 姑味城里 921, 952
 古方里 918
 高峰里 956
 高峰里 57
 高 城 380, 841, 956
 高城郡 39
 高陽堡 799
 高浪浦 808
 高旺山 798
 高 原 922
 庫 底 873, 748
 古 舌 450
 谷 山 872
 谷 城 1007
 橋 洞 483, 502, 511
 橋洞島 885
 橋岩山 371, 378, 401, 415, 523, 605, 646
 橋田里 550, 554, 569, 597
 科湖洞 455
 冠堡里 69
 觀望山 310, 454, 780
 冠岩洞 593
 廣大谷 312, 426, 449, 456, 484, 490, 513

廣洞 266, 269, 428
 光三里 569, 610, 630
 廣石橋 257, 262, 264, 267, 357
 光陽 1007
 舊堡 253, 270, 419
 舊堡里 482, 511
 求禮 1007
 九美里 870, 871
 九鳳村 733
 龜城 986
 九龍洞 728, 737
 九龍里 522, 531
 九鳩村 741
 九鳩山 950
 國峰里 872
 軍隅里 972, 986, 996
 軍糧洞 709
 近南面 296
 近北面 299, 302, 306
 金剛川 243
 金谷洞 744
 金谷里 279
 金城 370, 929, 956, 1002
 金城山 1015
 金城川 111, 266, 270, 321, 324, 329, 385,
 449, 467, 482, 489, 494, 496, 504
 今西 1013
 麒麟島 869
 箕白山 1013
 金堤 1008
 金浦 744
 金化 278, 306, 455, 611
 吉州 976, 914, 999

(L)

卵島 853, 873
 南江 43, 873
 南大川 535, 555, 565, 579, 596, 632
 南市 914, 985, 996, 1001
 南涯里 920
 南原 1007, 1009

浪汀里 964
 內谷里 635
 內城洞里 426
 內沔里 921
 內砧里 920
 蘆田坪 123
 蘆洞里 381, 401, 579, 582, 678, 680,
 687, 689, 692
 蘆上里 706, 725
 魯以雄 591
 老將臺 1013
 蘆下里 747

(C)

多木里 572
 潭陽 1015
 堂巨里 421, 449
 大康里 51
 大堡里 39
 大德 1015
 大馬里 353
 大成山 180
 大井里 953
 大青島 869
 大村里 872
 德洞 870
 獨島 882
 德山里 965
 德祐山 1007, 1013
 德積島 752
 德川洞 535
 道樂里 921
 都皮壽 183
 桃花洞 744
 東巨里 811
 東幕洞 17, 468, 688
 東場里 715, 741, 749
 斗京峰 244
 杜木 411
 杜木洞 674, 675, 678
 豆園洞 678

斗石洞 398, 406
登大谷 449
登大里 321
澄波里 747

(口)

馬鞍山 798
馬養島 883
馬 川 1013
滿 洲 971, 1004
麻次律里 71
馬頂里 869
滿浦鎮 986
名勝洞 450
明波里 41, 923
木 浦 870
無 等 1015
茂 山 893
茂 朱 1008
默元里 703, 723
默 湖 877
文登里 128, 455
汶 山 749
母後山 1008

(巳)

伴程里 811
芳 洞 401, 523, 542, 571, 597, 618, 630
芳山里 153, 173, 206
坊城洞 844, 514
梨船洞 678, 680
栢德里 301
白翎島 869, 885
白馬高地 126, 308
白馬谷 502, 508
白石洞 870
白石山 128, 193, 178, 645
白雅山 1007
白岩谷 698
白岩山 272, 417, 427, 438, 441, 456,

473, 481, 502, 630, 663, 675
白雲山 1007, 1013
栢 田 1013
百川橋里 952
碧 山 919
邊岩洞 264
別 隅 426, 449, 479, 481, 496, 505,
508, 520, 678, 688, 960
寶 城 1008
普玄里 958
寶湖里 53, 917, 952, 957
伏至洞 257, 262, 269
鳳堂德里 562
鳳頭山 1008
鳳尾里 611, 631
峰臺山 939
烽火洞 675
富 安 1012
富岩里 635
北三里 768, 784
北遼稜線 291, 298, 305, 309, 604
釜 山 877
不毛高地 983
北亭嶺 573
碑石高地 199, 202
北漢江 204, 259, 269, 273, 311, 419, 998

(人)

寺 洞 428
沙里院 922, 980, 984, 990, 993, 996
四方巨里 473, 502
沙飛里 919, 958
史倉里 280
泗 ‘記 702, 703, 752, 913
沙泉里 933
朔 州 992
三角高地 261, 265, 295, 621
三南里 549
上甘嶺 290, 300, 611
象牙峰 536
上真明洞 365

上大田里 747
 三巨里 618
 山陽里 429
 山頂里 39
 山 清 1007, 1009
 三千峰 568
 三峙嶺 84
 三 峴 413, 664, 665, 673, 674, 675, 678
 桑谷里 480
 上梅里 768
 南山里 391, 406, 484, 499
 上所里 609
 雙龍高地 86, 111, 120, 123, 126
 西蒂洞 668, 673
 瑞雲里 396, 406, 481
 西峴里 931
 西場里 716, 739
 瑞和里 96
 西希里 123
 席 島 889
 石葬洞 249, 251
 石川里 215
 仙谷里 767
 鮮干高地 176
 仙遊洞 779
 仙後臺 191
 宣 川 972
 城內洞 95
 城內川 111, 125
 城北里 917
 城桂峙 606
 城 津 910, 976
 細雲里 515
 細行堡 246, 270, 421, 431
 浩浦里 913, 943
 細峴里 467, 481, 496, 500, 678
 小高飛雲里 429, 433
 小城橋 467
 小白岩山 444
 昭陽江 80, 100, 117, 126
 束 草 69, 874, 880
 松 洞 459, 569

松山里 873
 松亭里 958
 松實里 481
 松蘆坪 123
 松灘里 919, 951
 松峴里 41, 724
 水串地 266, 269, 426
 首都高地 4, 8, 481
 水洞里 259, 262, 268, 272, 429, 1013
 水 嶺 41
 水上里 422, 436
 水 陽 1015
 水 豐 992, 995
 水 鴻 1014
 椒 島 889
 肅 川 991
 淳 昌 1007, 1016
 順 川 970, 1009
 巡威島 869
 承岩洞 570, 593
 昇 州 1007
 侍郎里 921, 958
 新 溪 449
 新岱里 919, 951
 新安州 903, 981, 999
 新義州 985, 999, 1002
 新木洞 540, 618, 630
 信 川 926
 新 村 620
 新興里 924
 新浦里 153
 新木洞 540, 618, 630
 新倉里 994
 新 浦 880
 (○)
 牙沈里 535
 安眠島 888
 安 義 1013
 安 峽 913, 929, 956

安湖里 57
 岩 洞 178
 鴨綠江 972, 979, 999
 野 材 705
 楊 谷 579
 楊 口 173, 128, 206, 677
 洋 島 873
 襄 陽 39, 79
 陽地村 425, 456, 610, 624
 養珍里 923, 963
 於斗隱洞 19, 422
 魚隱山 128, 157, 178, 243, 418
 漁雲里 480
 魚積山里 756
 汝乃谷 412, 423
 麗 島 853, 874
 汝文里 312, 454, 465, 481, 497, 512
 驛谷山 756
 淵巨里 402
 延 安 991
 漣 川 747, 760
 延坪島 885
 靈 光 1008
 嶺 美 983
 靈津里 931
 永 興 853
 靈興島 889
 永興灣 872, 873
 五聖山 277, 295, 605
 梧里洞 371
 五里津 922
 玉溪里 783
 溫井里 40, 45, 923
 靈津半島 869, 871, 994
 瓦 村 734
 外城洞里 443
 龍溪里 924
 龍骨山 1016
 龍雲山 1008
 龍池里 811
 龍坪里 974
 龍湖島 872

龍湖洞 423, 449, 463, 747
 龍岩浦 872
 祐長洞 422
 雲谷里 921
 雲 峰 1014
 雲 長 1012
 鬱陵島 882
 圍守峯 1015
 蔚 珍 880
 元 山 128, 872, 903, 972, 999
 院堂里 632, 723
 月溪里 873
 月乃島 869
 月峰山 411, 525, 572
 月峰里 546, 562
 月比山 40, 916, 940
 月 坪 1011
 楡岾寺 40
 楡井里 365
 栗 谷 726, 746
 栗木洞 429, 433
 栗 洞 429, 525
 叢 州 985, 999, 1002
 外沔里 917, 919
 外面縣 41
 利川洞 527, 561, 572
 伊布里 957
 仁 岩 1015
 任 實 1007
 立石洞 541
 臨津江 703, 873, 745

(六)

長鼓峰 396, 401, 650
 長谷里 279
 長山串 869
 長壽峰 922
 長處里 917
 長淵里 480
 長松洞 343
 長 水 1007, 1013

長淵里 371
 長龍浦里 964
 長 箭 40, 913
 長亨里 922
 長財洞 178, 244, 312, 420, 438, 451
 長 津 906
 長尺里 872
 長坡里 810
 狙擊發線 300, 611
 赤巨里 767
 赤根山 370, 406, 418, 482, 644, 650, 674
 全 谷 747
 轉 石 269, 431, 448
 全連里 449
 前津里 39, 127
 占方里 919
 定山里 937
 汀月里 921
 井 邑 1012
 齊官洞 523, 570, 578, 592
 誠 寧 978
 曹溪山 1008
 壓首洞 460
 注文津 63
 佐佩里 418
 朱子洞 570
 注坡嶺 370, 401, 456, 502, 510, 646, 650
 注坡里 21, 473, 644, 675, 676
 舟 坪 1015
 竹 邊 882, 850
 竹垆里 408, 540
 竹 洞 490, 513, 922
 中江里 343, 1004
 中芳坪 377
 中沙里 756
 中上洞 343
 中細里 349, 353
 智巽山 1007
 直木洞 547, 577
 鎮南浦 971, 987
 鎮 海 670, 882
 樺峴里 449

執室里 464, 484, 496, 513
 鎮 安 1008

(元)

車灘川 760
 昌道里 953
 天尾里 206
 千佛山 613, 624, 630
 鐵 原 418, 1000, 1009
 青松里 952
 清 津 999
 清川江 999, 1001
 楚 山 903
 楸 洞 21, 406, 471, 512, 656, 697
 秋月山 1016
 忠顯山 536

(乙)

塔谷里 301, 306
 太白山 1007
 臺峰里 919, 960
 泰 川 913, 985, 999, 1000
 通先谷 243, 251, 272, 418
 通 川 926

(丙)

板門店 955, 986, 999, 1004
 平 康 913, 956
 平 壤 893, 971, 903, 929, 987, 1000
 浦 項 921
 抱 川 747
 豐谷里 281, 306, 606, 620
 必勝峰 261

(丁)

下甘嶺 611, 620
 下差路里 703, 706, 745
 河占介 411

1188 附 錄

下蘆谷	21, 677	會 寧	893, 999
河 東	1008	縣 里	129, 157, 277, 913, 926, 948
下馬山洞	504	玄 安	153
下芳山	177	湖 南	39
下所里	537	虎 島	906
下汀里	953	化湫里	949
下榛峴	406	和 順	1016
下草峴	951	華 川	21, 310, 418, 449, 482, 645, 677
漢拿山	1011	鶴島里	207
咸 興	971, 999, 1000	黃柄洞	215, 259, 267, 271
合水里	758	黃 州	1003
杏 嶺	439	回文山	1007, 1016
杏 亭	550	後 洞	266, 269, 419, 448, 657, 698
許沙洞	890	黑雲吐嶺	430, 441, 448, 511, 660, 665
兄弟峰	926	興 南	874
海 州	971	興嶺面	873
還財谷	266	熙 川	999
惠山嶺	893, 999		

合同審議會議芳名錄

1976. 10. 20

部 署	職 責	階 級	姓 名	署 名
陸 軍	諮 門 委 員	前 參 謀 總 長 陸 軍 大 將	白 善 燁	백선엽
海 軍	"	前 參 謀 總 長 海 軍 大 將	張 志 洙	장지수
空 軍	"	前 參 謀 總 長 空 軍 中 將	金 貞 烈	김정렬
慶熙大學校	"	教 授 文 學 博 士	金 成 植	김성식
서울大學校	"	大 學 院 長 文 學 博 士	韓 洵 勛	한우근
外國語大學	校 閱 委 員	教 授	車 榮 倍	차영배
國 防 部	政 訓 局 長	少 將	金 景 秀	김경수
合 參	作 戰 局 長	"	姜 榮 植	강영식
"	情 報 局 次 長	准 將	權 淳 垠	권순은
陸 本	軍 史 研 究 室 長	"	鄭 元 赫	정원혁
空 本	作 戰 次 長	"	金 鎮 山	김진산
海 本	編 制 處 長	大 領	禹 永 濟	우영제
海 本	海 兵 企 劃 處 長	"	石 重 鳳	석중봉
國 防 部	情 報 補 佐 官 室	中 領	孫 泳 來	손영래
中央情報部		3 甲	申 杏 植	신영식

執筆陣

室長
編纂委員

//

//

//

//

//

//

//

專門委員

資料擔當
製圖

陸軍大領

陸軍中領

海軍大尉

空軍中尉

李鍾富
朴景錫
金源寬
甘成海
李昌錄
姜磬湖
安龍鉉
張洪泰
崔春影
鄭泰民
黃在文
鄭浩永
全周錫
安英五

韓國戰爭史 <第9卷>

1976年 12月 10日 印刷

1976年 12月 20日 發行

戰史編纂委員會編纂

發 行 國 防 部

印 刷 書 林 文 社

(不許無斷複製)